上 東草市史

上

東草市史

東草市史
編纂委員會

표지 : 1960년대 영랑동 전경

東草市史編纂委員會

束草市史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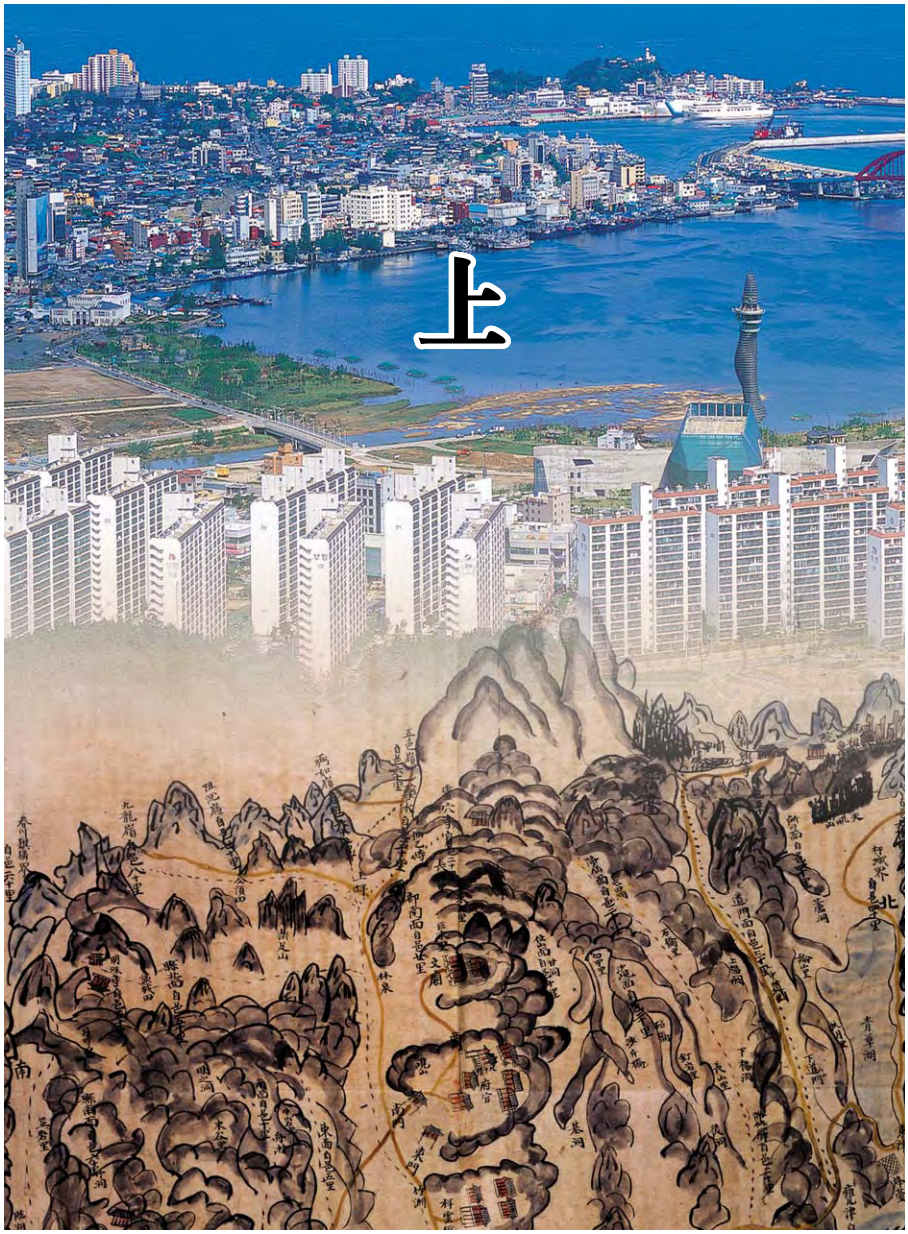
上 束草市史

束草市史
編纂委員會

표지 : 1960년대 영랑동 전경

束草市史 編纂委員會

東草市史



발간사

노 광 복

속초시사편찬위원회위원장

청초호와 영랑호, 동해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며 속초지역에 청동기문화를 형성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三千餘年에 가까운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束草市史』가 발간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束草市史』가 발간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주신 속초시사 편찬위원회, 집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향토역사의 연구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문성 속초시장님을 비롯한 속초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거 우리고장 속초는 향토의 역사가 오래지 않은 관계로 향토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토사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여 鄕土史料의 발굴 · 수집 · 보존 · 전승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束草市誌』의 발간, 1993년 속초의 最古 문화유적인 조양동선사유적의 발굴, 그리고 속초의 역사는 물론 산촌 · 어촌 · 실향민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5년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의 개관은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 이 모든 것을 망라하여 정리한 『束草市史』의 발간은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교육과 같은 속초의 사회전반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 一大事件이라 할 수 있습니다.

『束草市史』는 조양동선사유적으로 대표되는 先史時代로부터 신라화랑 永郎의 전설과 향성사지3층석탑을 조성한 古代,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며 설악산에 권금성을 쌓은 中世, 속초라는 지명이 最初로 수록된 『世宗實錄地理誌』와 신흥사가 重創되는 近世, 일제의 침탈과 한국전쟁 그리고 수복으로 이어진 近 · 現代는 물론, 1963년 속초시 승격, 1999년 강원국제관광박람회 개최로 우리나라 제일의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는 現在 속초의 역사를 투철한 歷史觀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료의 검증과 연구를 통해 집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束草市史』가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속에 널리 소개되고, 속초를 연구하는 모든 분들께 학술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鄕土歷史書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束草市史』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간사

동 문 성

속초시장

21세기 지식 ·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봇물처럼 쏟아지는 문물의 홍수속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의 진솔한 삶이 담긴 역사와 전통문화는 그 국가 또는 지방의 주민을 응집시키고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 지난날 우리 고장에서 지역민들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와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집대성한 『속초시사』가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시는 수복도시로서 고향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겠다는 일념으로 모여든 이북 5도의 실향민과 1963년 시 승격 전후에 전국에서 꿈과 희망을 안고 온 사람들로 한 가족을 이루는 등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생활사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속초시사는 1991년 관주도로 『속초시지』가 첫 발행된 이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4년 동안의 시대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문화원에서 그동안 축적한 역사자료를 활용하여 변화된 자료를 수정하고 착오 누락된 부분을 중점 정리하여 향토역사를 집대성한 것으로 선조들의 지혜와 교훈을 얻고 우리 고장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 · 하권 2,5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내용을 8편으로 나누어 편집하였고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웹 기반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향토사자료를 흔쾌히 제공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대한 자료수집과 집필, 편집 그리고 발간에 진력을 다해 주신 노광복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편집, 집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2월

축간사

김 정 한
속초시의회 의장

우리시의 역사와 변화발전상을 집대성한 「속초시사」발간을 온 속초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농어촌의 문화와 실향민이 정착하여 빚어 낸 이북 5도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다른 지역과는 색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독특한 문화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발간될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정성을 기울이신 동문성 시장님과 노광복 문화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인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물결에 떠밀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뿌리와 옛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시의 그간의 발자취를 집대성하여 「속초시사」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뜻 깊은 일로 우리시의 문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속초시사」는 소중한 그 자료로 빛을 발할 것 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수집하여 「속초시사」를 발간하는데 수고가 많으셨던 문화원 임직원과 집필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축간사

정 문 헌
국회의원

속초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집대성함으로써 고향의 정신과 혼을 담아낸 '束草市史'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속초 고유의 전통문화와 얼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며, 건전한 지역문화활동을 선도하는 가운데, 오늘의 역사적 작업을 이끌어 내신 노광복 속초문화원장님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속초시사의 발간은 우리 고장이 처한 시대적 관점에서 뜻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설악과 강원의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핵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내실을 튼튼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기에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 작업은 고향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큰 걸음일 것입니다.

속초시사는 고장의 역사,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방대한 분야와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담긴 모든 내용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속초인에게 또는 고향에서 살아 숨 쉬었던 모든 이들에게 잊어서는 안 될 정신적 지표이며, 후세에 전해야 할 우리의 얼 인 것입니다.

서산대사는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곧 후인의 길이 되리니(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라며, 눈길을 걸을 때마저도 하나하나 조심해서 걸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후일에는 역사와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처신에 있어 신중을 기하라는 소중한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속초 역사의 정리작업은 훗날 우리 고향의 후손에게는 중요한 교훈과 역사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작업들은 속초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바로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속초시사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속초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東草市史

上

시 정 목 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도시 속초"

시정방침

- 활력있는 지역경제
- 살기좋은 도시개발
- 품격높은 문화관광
- 함께사는 복지사회
- 시민중심 열린시정

시의 상징

SOKCHO
FRESH SOKCHO

심볼마크

속초의 다양한 청정 관광자원을 상징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따뜻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아늑하고 즐거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설악산, 일출, 속초의 청정한 바다, 자연 그대로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상징화하여 다채로운 관광소재를 구상하였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뚜렷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릭터/해오미

속초시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머리, 이어지는 시선 끝에 일출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을 담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때묻지 않은 동심이 묻어나는 속초캐릭터의 얼굴에서 우리는 속초시의 푸른자연, 그 영속성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시화 / 국화

국화는 번식률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우리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희구하는 시민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시목 / 은행나무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을, 넓게 퍼지는 가지는 지역발전을 의미하고, 시가 오래도록 보존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시조 /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단결을 의미한다.

시민헌장

동해의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려한 기상을 안고 옛부터 미풍양속을 지녀온 우리 속초시민은 동족 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번영된 속초시를 이룩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위업을 거울삼아 우리는 스스로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열성을 바친다.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누구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시민 다수에 의한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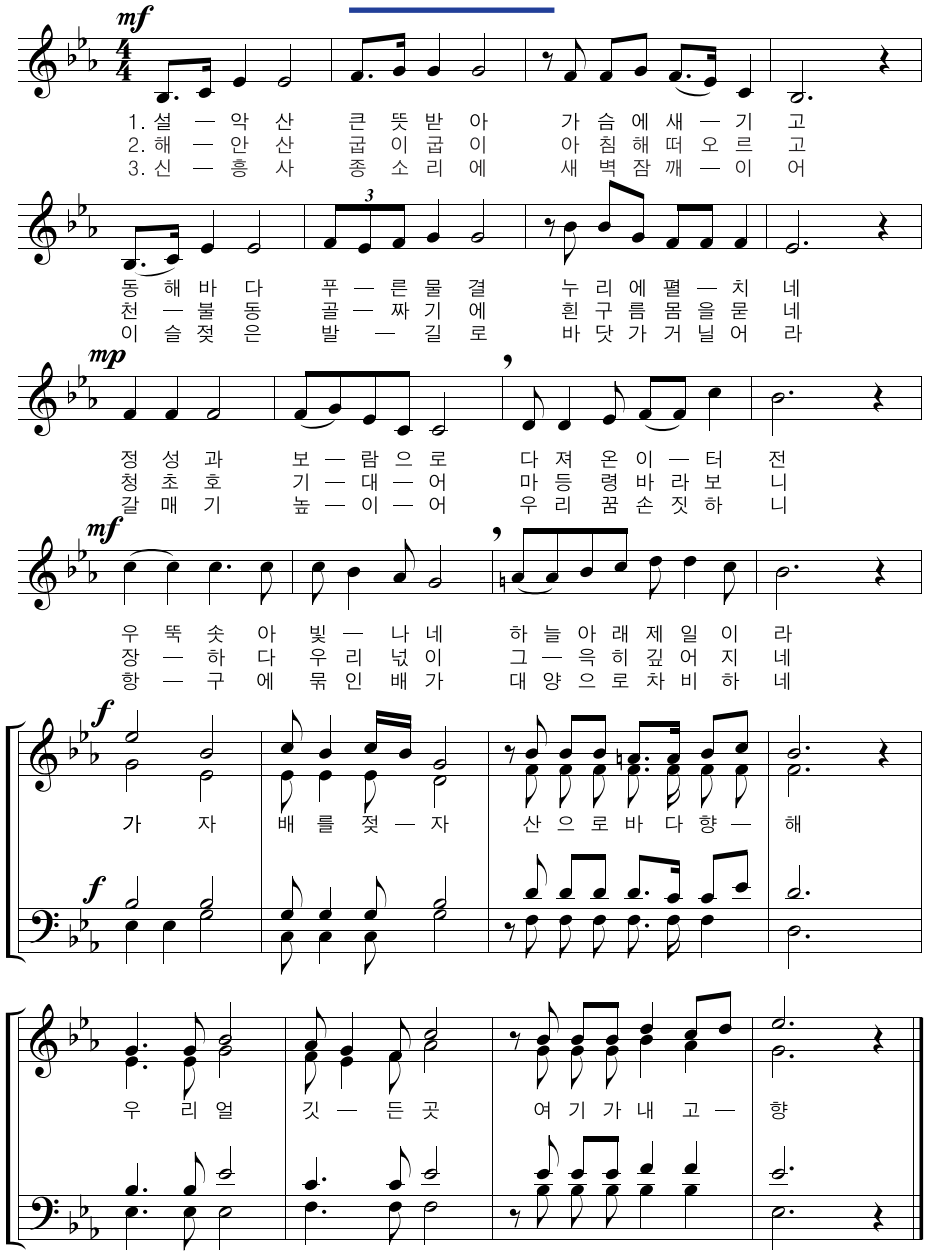
체육보건 복지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배양하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의 육성 없이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우리 모두 선진도시 문화창조의 역군이 되자.

1990년 10월 11일

속초시민일동

속초시가


mf
1. 설 — 악 산 큰 뜻 받 아 가 슴 에 새 — 기 고
2. 해 — 안 산 굽 이 굽 이 아 침 해 떠 오 르 고
3. 신 — 흥 사 종 소 리 에 새 벽 잠 깨 — 이 어
3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 리 에 펼 — 치 네
천 — 불 동 골 — 짜 기 에 흰 구 름 몸 을 묻 네
이 슬 젖 은 발 — 길 로 바 닷 가 거 닐 어 라
mp
정 성 과 보 — 람 으 로 다 져 온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 대 — 어 마 등 령 바 라 보 니
갈 매 기 높 — 이 — 어 우 리 꿈 손 짓 하 니
mf
우 뚝 솟 아 빛 — 나 네 하 늘 아 래 제 일 이 라
장 — 하 다 우 리 넋 이 그 — 윽 히 깊 어 지 네
항 — 구 에 묶 인 배 가 대 양 으 로 차 비 하 네
f
가 자 배 를 젖 — 자 산 으 로 바 다 향 — 해
f
우 리 얼 깃 — 든 곳 여 기 가 내 고 — 향

영랑동
금호동
동명동
교동
노학동
청호동
조양동
대포동
고 성 군
토 성 면
용 촌 리
임 랑 호
노 학 동
조 양 동
대 포 동
양 양 군
강 현 면
설 악 산 국 립 공 원

■ 속초 연혁(沿革)

속초라는 명칭에 대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단종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속초포(束草浦)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라는 기록이다.

이후 조선 영조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조선시대부터 면 · 리제가 실시되었는데 지금의 속초지역은 양양도호부 소천면과 도문면의 2개의 면지역으로 소천면에 4개리, 도문면에 6개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제하인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로 지방제도에 대한 일대개혁을 단행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 도천면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로 이루었으며, 이중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1937년 7월 1일 면사무소를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이전하여 속초면이라 개칭하고, 그로부터 5년후인 1942년 10월 1일 부령 제104호로 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눠지고, 노리에서 도리원, 이목,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리가 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1945년 8월 24일 소련군의 진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6 · 25동란으로 2차례의 탈환을 거듭하면서 1951년 8월 18일부터 수복지구로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읍으로 복귀하였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하고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로 속초시로 승격되어 16개 법정리에 11개 연합리사무소를 두었다.

1966년 1월 1일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가 승인되어 12개동으로 개편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편입, 장사동으로 개칭 13개동이 되었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설악동으로 편입되어 법정동 14개동 행정동 13개동으로 확정되었다가 1990년 4월 1일 시조례 제1293호로 법정동 사진동과 장천동이 장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13개동으로 되었고 1998년 10월 17일 시조례 제1657호로 행정동 중 영랑동과 장사동이 영랑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청학동과 교동일부가 교동으로 교동일부와 노학동이 노학동으로 대포동 · 도문동 · 설악동이 대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8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시동간 거리표(km)

구간 \ 동별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 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시청에서	1.0	0.5	0.4	1.0	1.4	4.4	1.8	12.7

부영
309
310
311
312
313

옛 문헌 속의
속초지역

『해동지도(海東地圖)』
제작시기 : 1750년대 초. 규격 : 47.0×30.5㎝. 구성 : 8책
1750년대 초에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도집. 이 지도집에는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뿐만 아니라 세계지도(〈천하도〉), 외국지도(〈중국도〉, 〈황성도〉, 〈북경궁궐도〉, 〈왜국지도〉, 〈유구지도〉), 관방지도(〈요계관방도〉)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집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활용된 관찬 군현지도집이다.
군현지도의 여백에는 호구, 전결, 곡물, 군병, 건치연혁, 산천, 군명, 고적, 역원, 서원, 불우, 토산 등의 항목과, 방위를 표시하는 방면주기가 들어 있다.
총 8책 중 강원도는 3책에 구성되어 있다.

『해동지도』 양양부
1397년(태조 6)에 府로 승격되었으며 1416년(태종 16)에 양양으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강원도 양양군 일대와 속초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양양읍 군향리가 그 중심지가 된다. 지도 위쪽의 所川面과 道門面이 현재의 속초시에 해당하며 지도 아래쪽의 洞山縣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양양에 포함된 땅으로 양양군 현북면 지역이다.
백두대간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쌍천과 남대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 靑草湖, 雙湖 등의 瀉湖가 발달한 지역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왼쪽위는 설악산 일대이며 五色峯, 朴達峯, 阻枕峯, 九龍峯, 등의 고개는 양구, 인제, 춘천과 통하는 통로가 된다. 東海廟(東海神祠, 양양읍 조산리)는 나라에서 봄가을에 香과 祝을 내리어 東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洛山寺(강현면 전진리)를 비롯하여 神興寺, 靈穴寺, 開雲寺, 明珠庵 등의 사찰이 있었다.

襄陽府東 城郭周回二千三百八十尺 頹圮

元戶二千二十五戶

田三百二十三結五十二卜六束

畓四百七十六結二卜七束

穀物總數 倉二庫

會付及常賑廳大小米一百七十六十三斗三升一合五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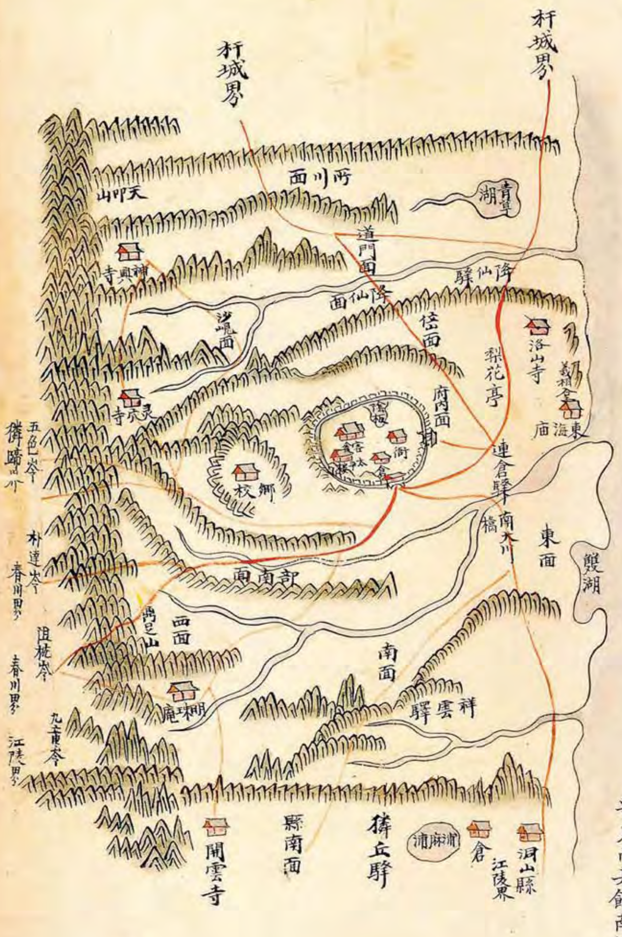
太七百十五石三斗

皮雜穀一萬五百九十九石五斗

軍兵總數

東伍軍三百八十二名

監營軍六十四名



東距大海十里

西距楸桃嶺 麟蹄界六十里 距縣一百四十里

南距江陵界六十里 距府一百二十里

北距杆城界三十五里 距郡九十里

府南面 初境官門外 終境八里

內面 初境□□一里 終境二十里

位山面 初境八里 終境十三里

西面 初境五里 終境一百里

東面 初境五里 終境十五里

南面 初境十里 終境二十里

沙峴面 初境十三里 終境十七里

降仙面 初境十七里 終境二十二里

道門面 初境二十二里 終境三十里

所川面 初境二十五里 終境三十五里

縣北面 初境二十五里 終境五十里

縣南面 初境四十里 終境七十里

五色嶺朴達嶺阻桃嶺九龍嶺此四路或大或中或小俱絕險通江陵之嶺西及春川麟蹄等界而其餘南北大路則平坦

『관동지』
관동지의 편찬 시기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동읍지』(1871)의 「선생안」에 군수의 도이임(到離任) 년월이 기록된 읍지가 14개나 있다.
이를 토대로 비교해 보면 각 읍지를 종합하여 성책(成册)한 것은 1829년에서 1831년 사이로 추정된다.
관동지는 총1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3권에 양양과 간성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雪岳
彌矢嶺
杆城界
五色嶺
春川祺麟界
阻沉嶺
石橋
陰山面
文廟
西門
東海廟
連昌
祥雲館
東門
南門
倉
刑吏廳
作廳
水山津
南面
東面
洞山倉
河趙臺

『청구도』

1834년(순조 34)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조선 지도책. 2책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4책으로 된 본도였으며, 전국을 남북 29층, 동서 22판으로 나눈 방안지도(方眼地圖)로서, 방안의 실제거리는 남북이 100리, 동서가 70리이다. 지도의 방안은 세로 25㎝, 가로 17.5㎝이므로 지도의 축척은 약 1/160,000이 된다. 지도의 내용으로 읍치·산천·군현경계·도로·면(面)·창고·서원·향교·누정·역·고개·교량·봉수·도서·진·시장 등이 그려져 있고, 여백을 이용해 군현의 호구, 전결, 서울로부터의 거리, 고적 등을 기록해놓아 지지적인 내용이 결합된 지도이다. 책끝에 '군국총목표(軍國總目標)라 하여 행정구역별로 경지면적·인구·군정수(軍丁數)·면수(面數) 등을 기록한 부록적인 성격의 표가 들어 있는 본도이다. 청구도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현대식 대축적지도처럼 일정한 크기의 지역도로 나뉘어 있어 지역을 연결시켜 보기에 편리하다. 〈대동여지도〉 제작의 바탕이 된 지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襄陽
十五層
八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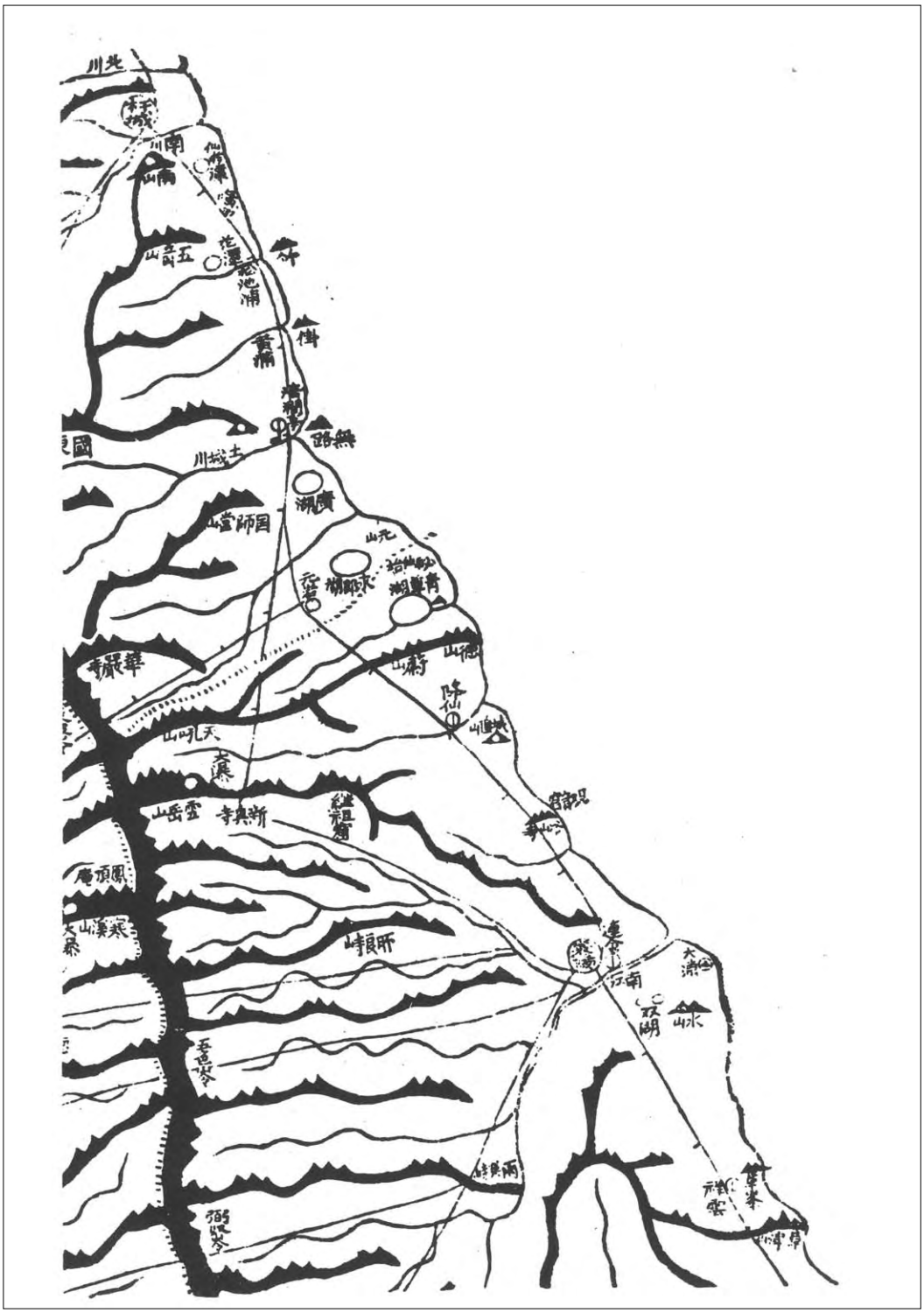
『대동여지도』

고산자 김정호(金正浩)가 1861년(철종 12)에 제작한 우리나라의 대축적 지도.

대동여지도는 1834년(순조 34)에 김정호 자신이 제작한 〈청구도 靑邱圖〉를 27년후에 증보 수정한 대축적 지도로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 지도첩이다. 우리나라의 남북을 120리 간격으로 22층으로 구분하고, 동서를 80리 간격으로 끊어 19판으로 구분했다. 동서방향은 구획된 판을 접어서 연결시켜 1첩으로 만들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남북은 동서의 방향을 연결시킨 각첩을 펼쳐서 순서대로 이어 대면 연속된 남북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지도첩의 형식은 넓은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는 동시에 22층을 펼쳐서 전부 이어 붙이면 우리나라 전도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제1층 첫머리에 그려져 있는 지도 방안(方眼)에 매방십리(每方十里)라고 되어 있어서 간접적으로 축척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좌표에 해당하는 이 방안은 지도를 동서로 접은 1면을 남북 12방안, 동서 8방안으로 구분하고 있고, 남북이 120리, 동서는 80리로 되어 있다. 그리고 1면의 실제 길이는 남북이 약 30㎝, 동서가 약 20㎝이 다. 그러므로 동서 20㎝가 80리(32㎞)에 해당되는 축척이므로 〈대동여지도〉의 축척은 〈청구도〉와 같이 약 1/160,000이 된다. 〈대동여지도〉를 표구하여 괘도를 만든다면 길이가 약 7m, 폭이 약 3m가 되는 대형지도가 된다. 〈대동여지도〉는 산계(山系)와 수계(水系)를 가장 성공적으로 나타낸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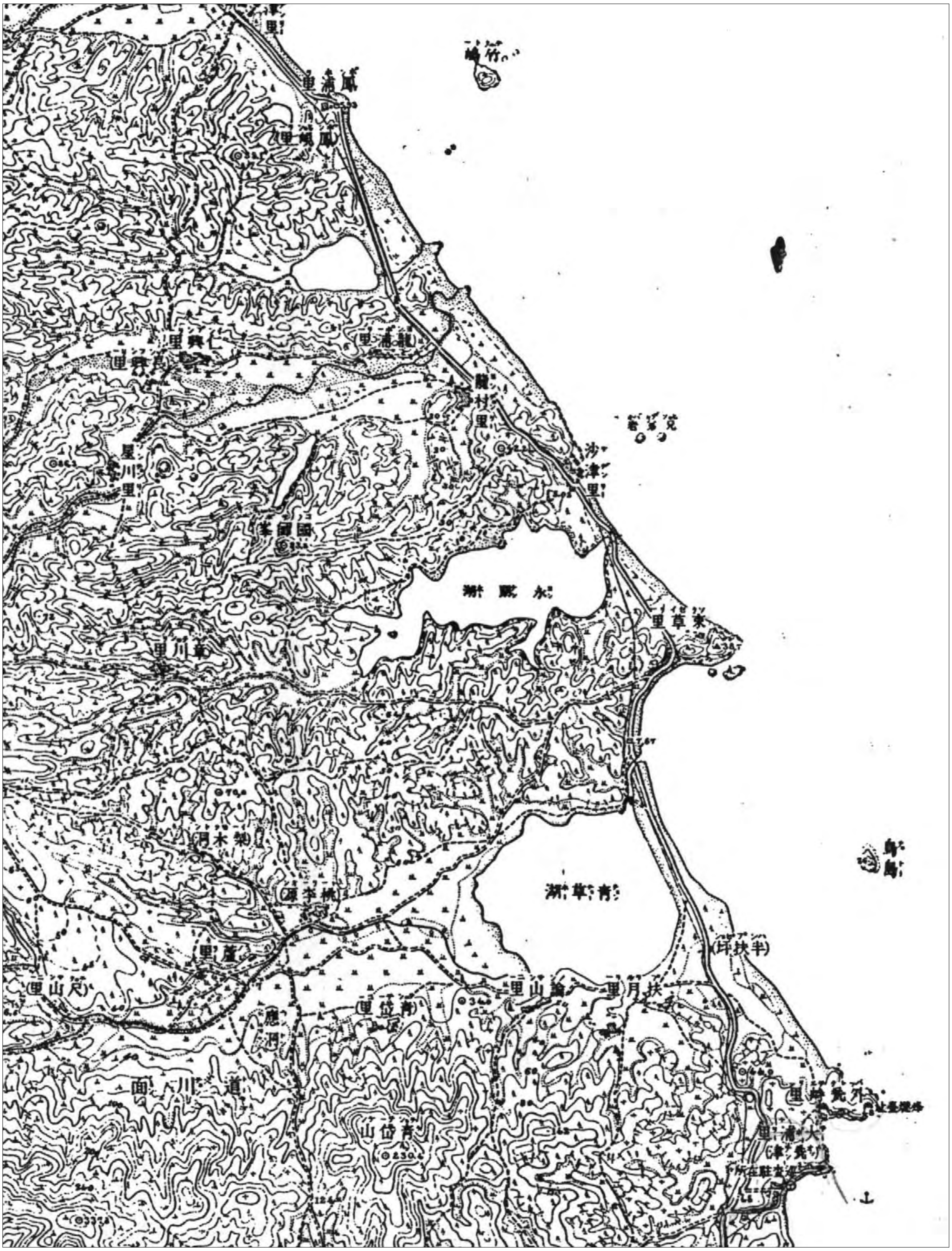
〈청구도〉에서는 지도 안에 호구 · 전결 · 군정과 같은 지지적(地誌的)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동여지도는 지지적인 내용은 따로 제작한 〈대동지지 大東地志〉에 미루고 순수한 지도로 남게 했다. 따라서 기술적인 내용은 가능한 한 부호로 처리했다. 이 부호를 설명한 범례(凡例)를 〈대동여지도〉에서는 지도표(地圖標)라고 부르고 있다. 지도표는 14개 항목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22개로 세분하였다.



조선후기 지방지도 『양양읍지도』
고종9년(1872) 작자미상, 채색도 35.1㎝×25.3㎝
현존하는 고지도(古地圖)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1872년의 지방지도(총461매)는 고종대(高宗代) 병인(丙寅) · 신미(辛未) 두 차례의 양요(洋擾)를 겪은 후, 국방을 강화하고 사회 · 경제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었다.
군비를 확충하고 방어 태세를 정비하기 위해 지방의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1871년 전국적 차원의 읍지 제작에 뒤이어 이듬해 전국 군현의 지도를 제작 · 수합하게 된 것이다.
읍치(邑治)의 관청 건물과 각면의 소속 동리와 같은 행정적 요소, 倉庫, 場市, 驛院, 道路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 祭壇, 樓亭, 書院, 古蹟과 같은 문화적 요소 등이 망라되어 지방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襄陽邑地圖
西
雪岳山
北
南
文廟
東海廟
洛山寺
觀音窟
義相臺
東滄海

『속초지역지도』
1918년(대정7년), 조선총독부
1910년 3월 조선토지조사국 관제를 공포하여 수개월간 시행하다가 1910년 10월 한일합방으로 일제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관제를 공포하고 1918년 11월까지 9년동안 3차 계획변경 끝에 지적도 812,093매, 토지조사부 28,357권, 분쟁지심사서 1,385권, 토지대장 109,998권, 지세명기대장 21,050권, 각종 지형도 925매를 완성하였다. 종사직원은 총독부, 도, 부, 군, 면을 통하여 7,113명으로 이중 한국인은 5,660명으로 약 8할을 차지하였으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1918년 11월 이 조사내용을 집대성한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를 간행(800페이지 분량)하였다.



永郎湖
青草湖
青垈山
道川面

『1980년대 행정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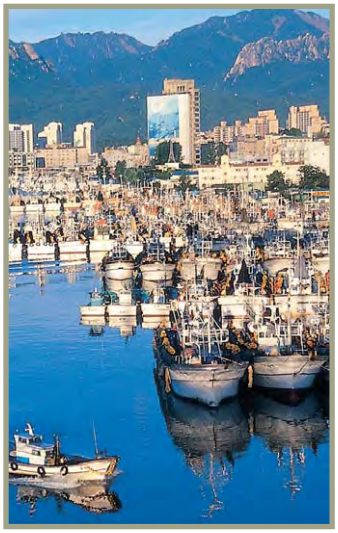
高
城
郡
東
草
市
雪
嶽
山
國
立
公
園

『2000년대 행정지도』

속초시중심부
고성군
토성면
영랑동
장사동
금호동
동명동
중앙동
교동
노학동
청호동
조양동
대포동
범례
축척 = 1 : 8,500

자연이 선사한

속 초



설악산

대청봉

영랑호

청초호

영금정

설악해맞이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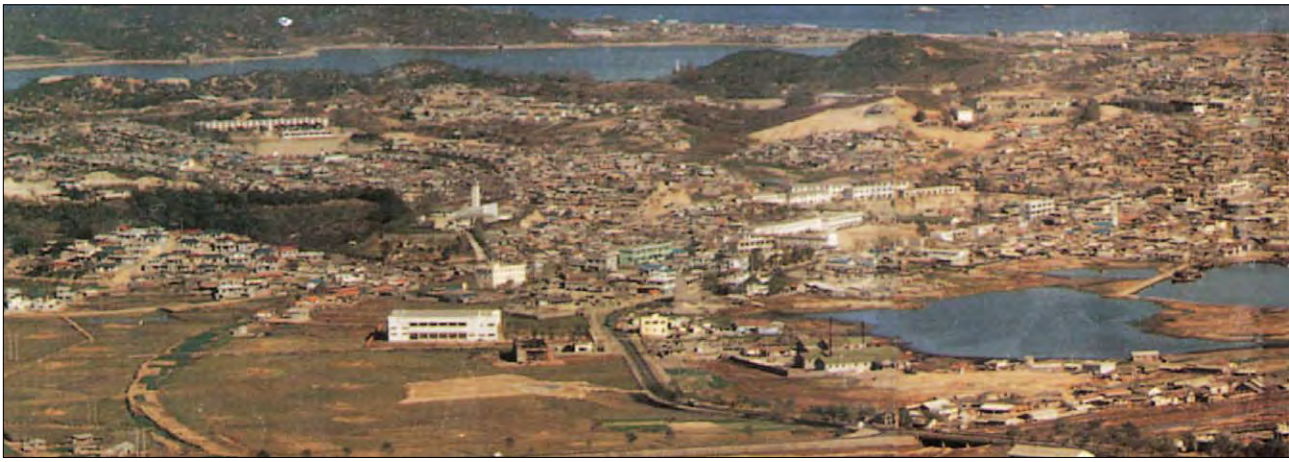
속초해수욕장

울산바위

사진으로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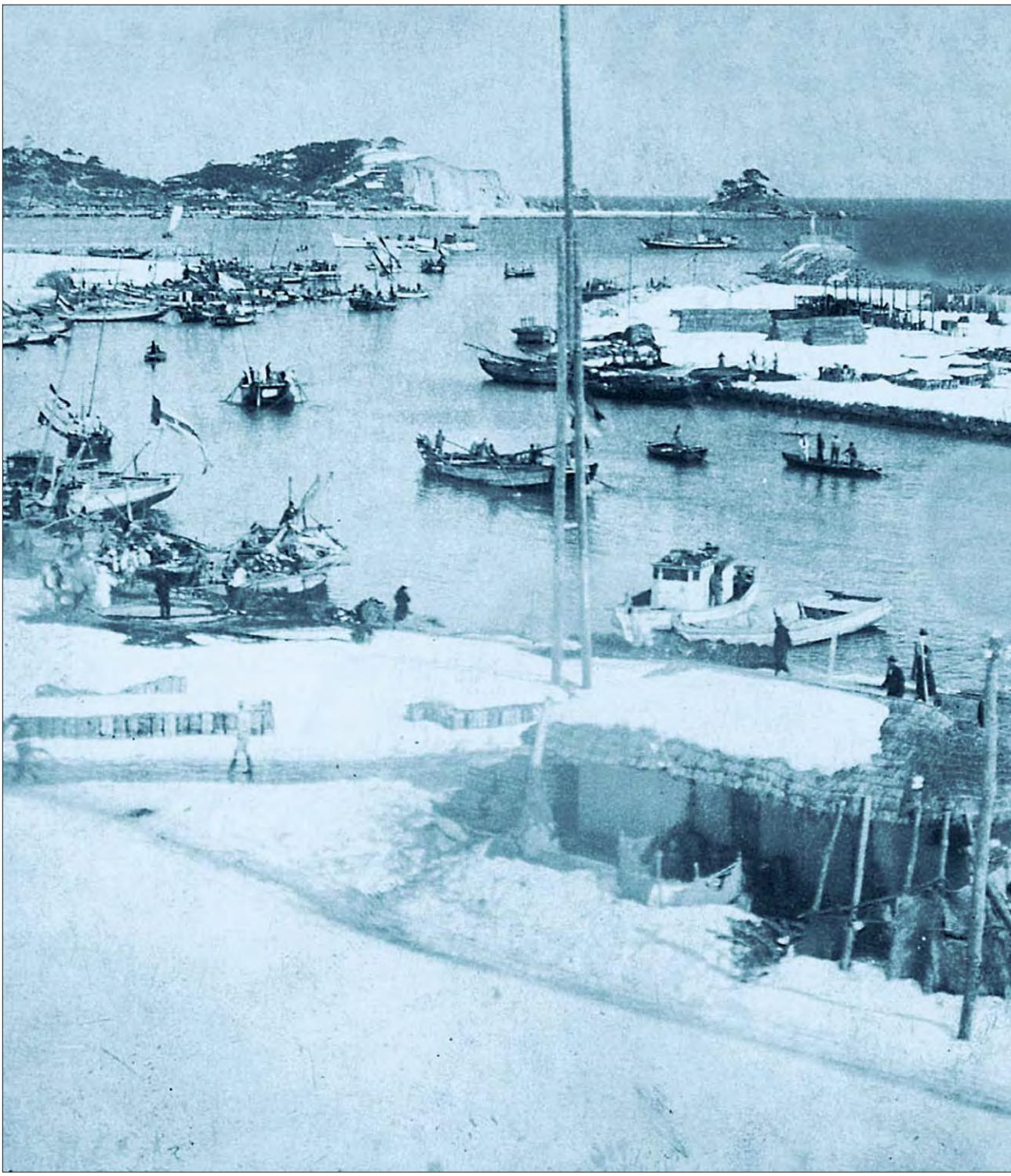
속초발자취

속초시 시대별 변천



1930년대 후반 동명항 인근전경

돛을 내린 어선과 바쁜 일손을 놀리는 어민들.
레일은 속초항 방파제 축조(築造)를 위해 영금정에서 채취한 암반(岩盤)을 운반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해방전 갯배나루의 겨울

중앙동과 청호동 지역의 한적한 모습과
출어하는 어선들

1940년대 영금정

영금정에서 속초항 방파제 축조를 위해 암반을 채취하는 모습과 이를 운반하기 위해 설치한 레일

1956년도 영금정

영금정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꼭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다하여 영금정이라 이름지어졌으며, 선녀가 내려와 놀던 신비한 곳이라 하여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비선대로 기록되어 있다. 바다와 접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바위산이었으나 일제시대 속초항의 방파제를 축조하기 위해 바위산을 파괴하여 옛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는 동해의 싱싱한 생선회를 즐길 수 있는 횟집들이 즐비한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유원지로 개발되었다.
아래 사진에는 홀로 남은 바위산과 고기잡이 하는 돛단배 그리고 멀리 조도와 외옹치가 보인다.

1950년대 속초읍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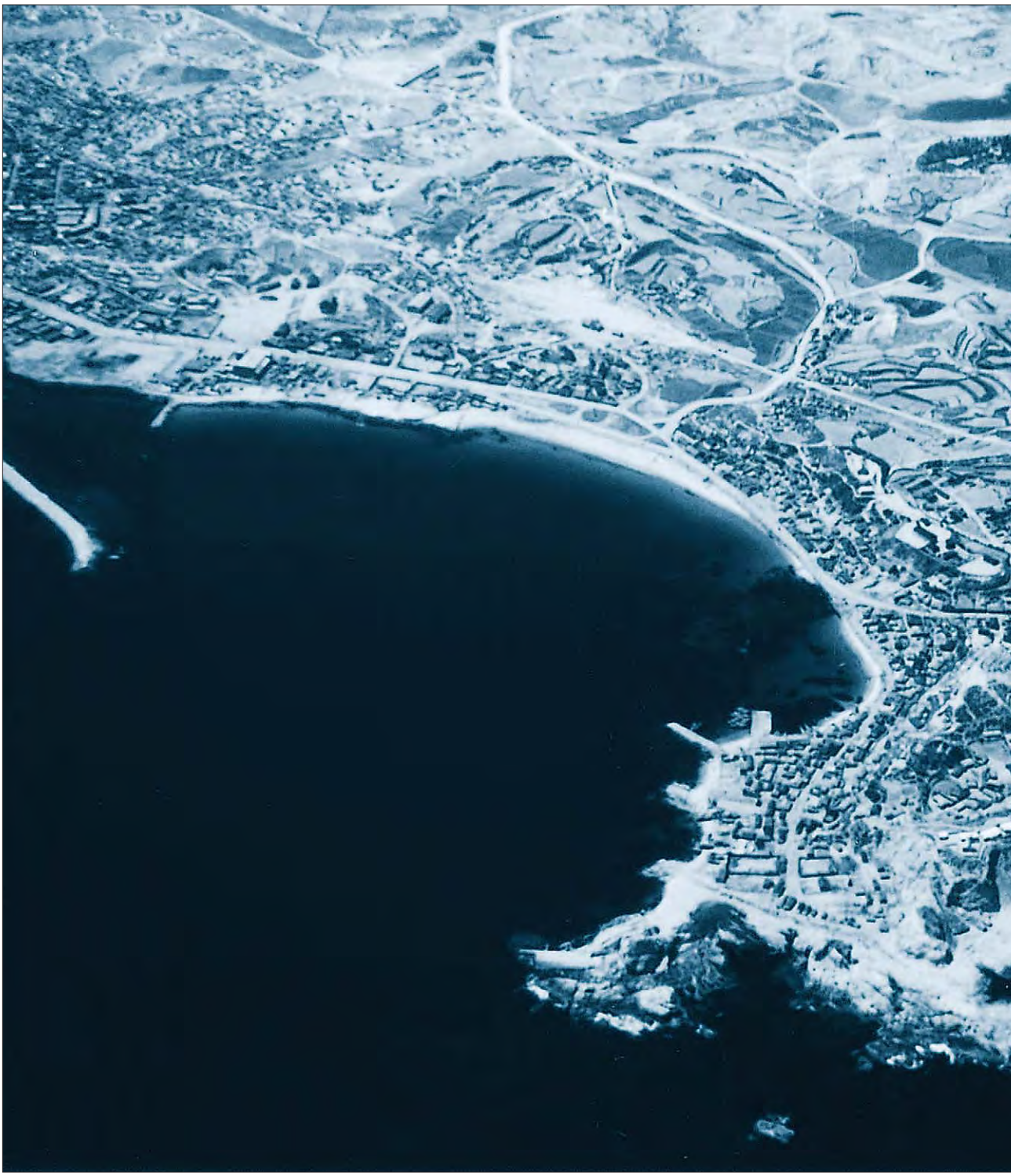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된 이후 건립된 읍사무소는 당시 속초에서 가장 크고 높은 건물이었으며, 읍사무소앞 광장은 시승격 기념행사 등 각종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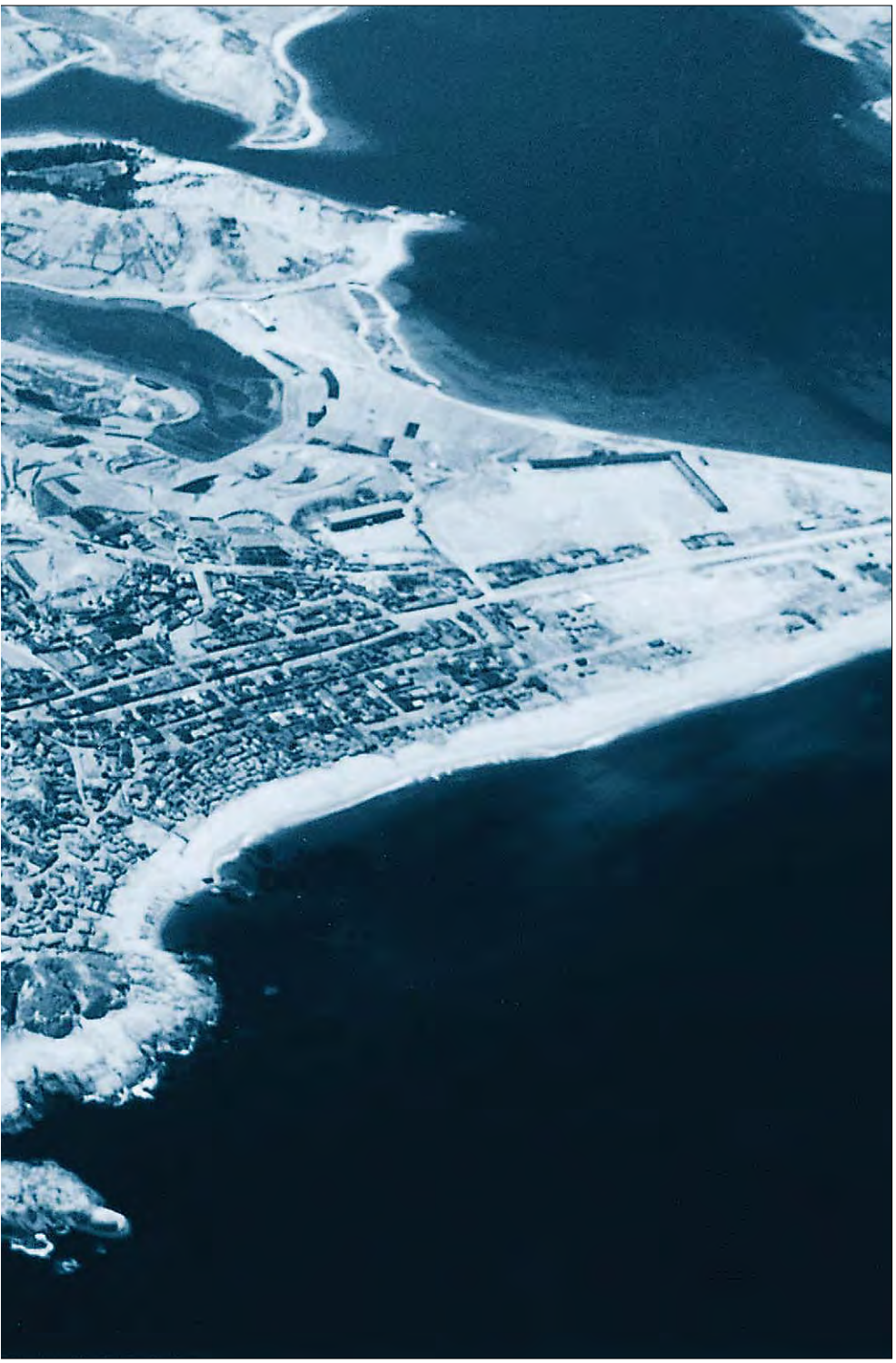
1960년대 속초 전경

청초호를 중심으로 한 시내 중심가와 청호동, 조양동, 노학동 전경

1960년대 속초 전경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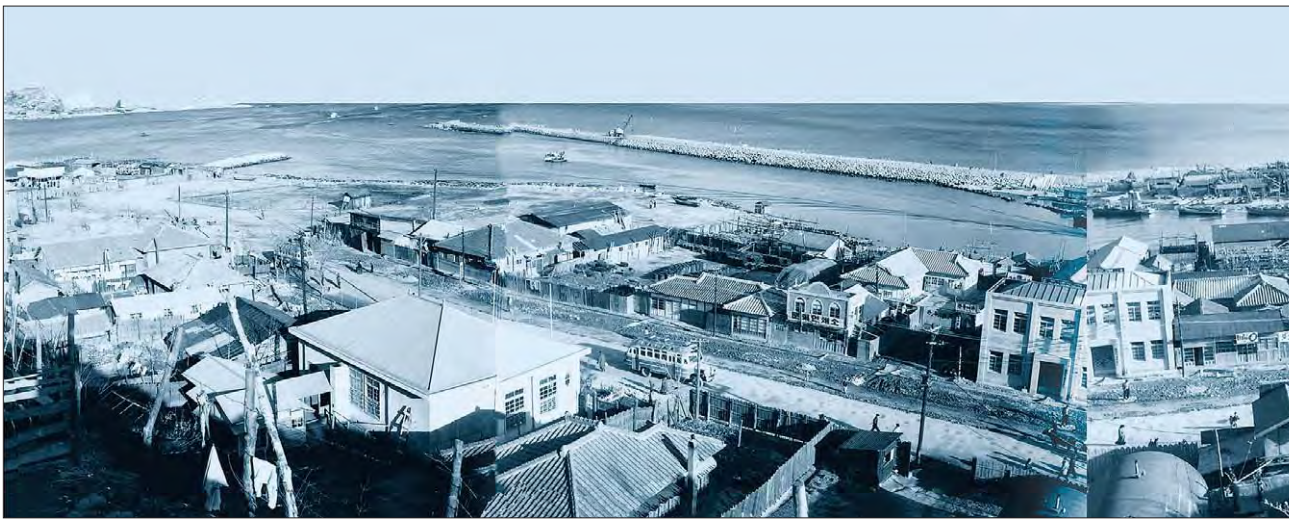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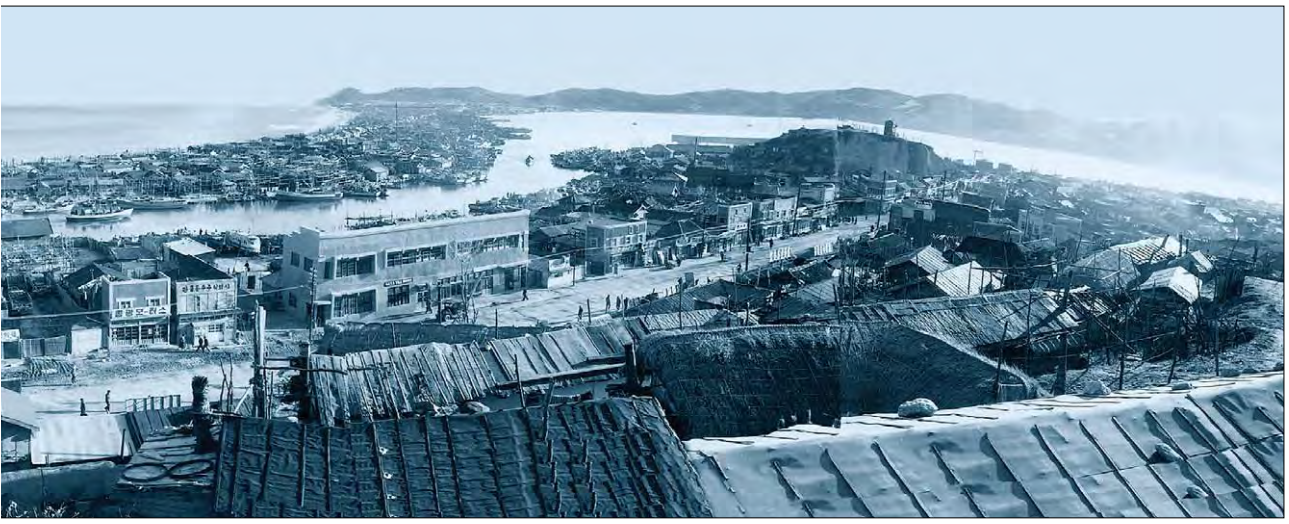
1960년대 속초 전경

영금정을 중심으로 한 동명동,
영랑동과 영랑호 전경

1960년대 외옹치지역과 청대산 전경

1960년대 속초해수욕장과 속초의 해안선 전경





1950년대 속초항 및 중앙동 거리 전경

속초항과 7번 국도를 중심으로 가옥이 밀집되어 있으며, 청호동과 이어진 방파제와 빽빽하게 정박한 어선들과 덕장을 볼 수 있다.

1950년대 금호동 전경

7번 국도를 경계로 좌측에는 덕장들이 우측으로 가옥과 상가가 있으며, 멀리 낮은 구름사이로 청대산과 설악산이 보인다.

1965년 갯배나루 주변 전경

1966년 속초항과 동명동 · 중앙동 전경

동명항에 정박한 어선과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옛 마을을 볼 수 있다.

1966년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왼쪽으로 속초역사(驛舍)가 보이고 낮은 구릉지대에 경작을 위한 논과 밭을 볼 수 있다.

1966년 교동주택지

낮은 구릉지역에 개간한 논과 밭 뿐이나 현재는 속초 인구중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이다.

속초의 변천

영랑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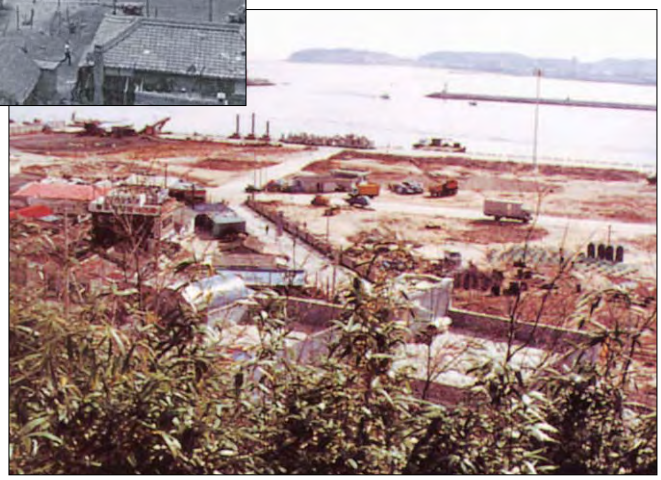
60년대 영랑동 전경

90년대 영랑동

현재 영랑동

동명항 전경

66년 동명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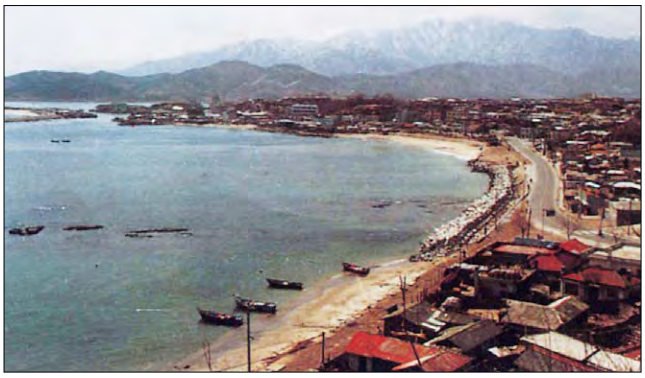
90년대 동명항

현재 동명항

시내전경

60년대 동명동 등대 옆에서 본 속초시내 전경

8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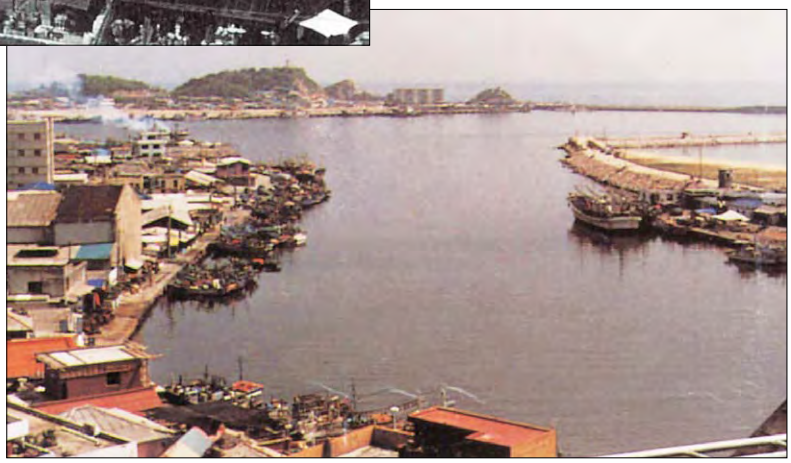


90년대

현재

속초내항 전경

속초내항 전경
(63년 시승격 이전)



90년대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66. 3)

90년대

현재의 전경

시 청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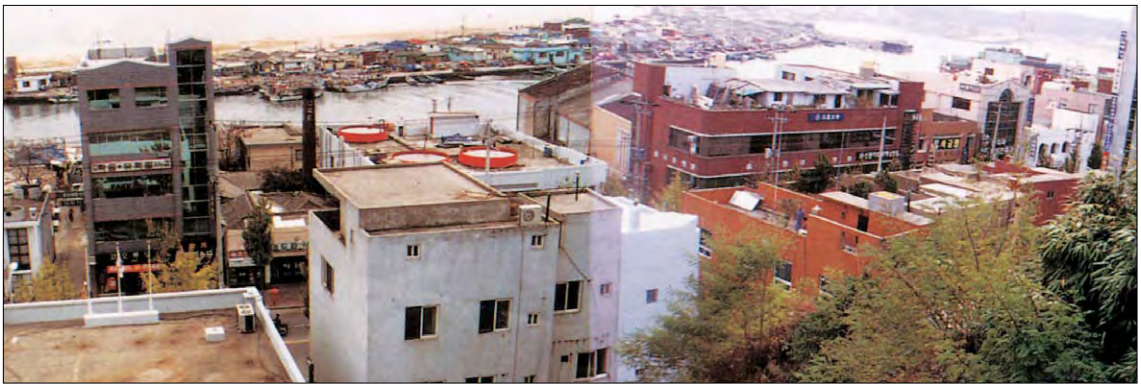
시청앞 광장 (64년)

90년대

현재

속초항 수로

중앙동거리 및 속초항 수로(시승격 이전)



90년대

현재의 전경

금호동 전경

금호동 전경(시승격 이전)

78년

90년대

현재의 전경

교동 만천지구

80년대 교동 만천지구

90년대

현재의 전경

시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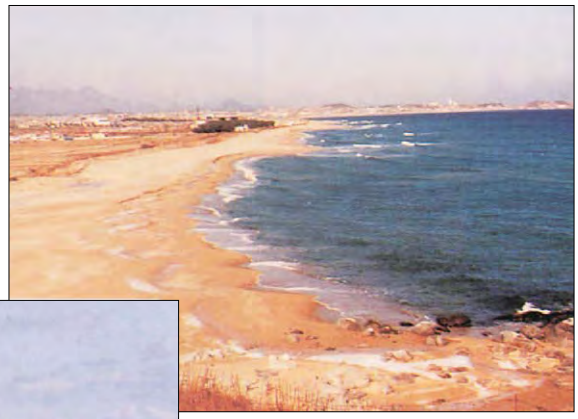
청대산 밑에서 본 시내전경(74년경)

79년

90년

현재의 전경

속초해수욕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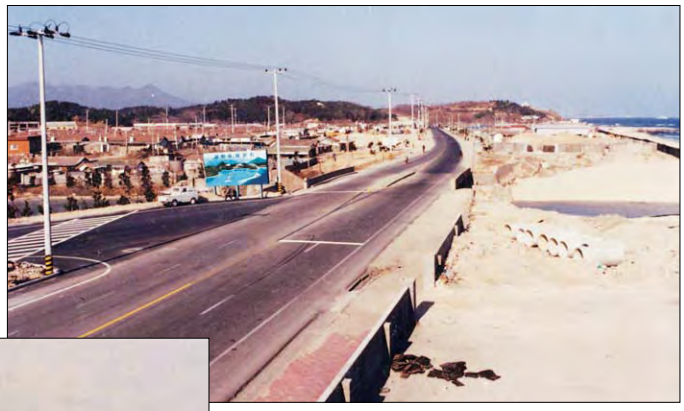
속초해수욕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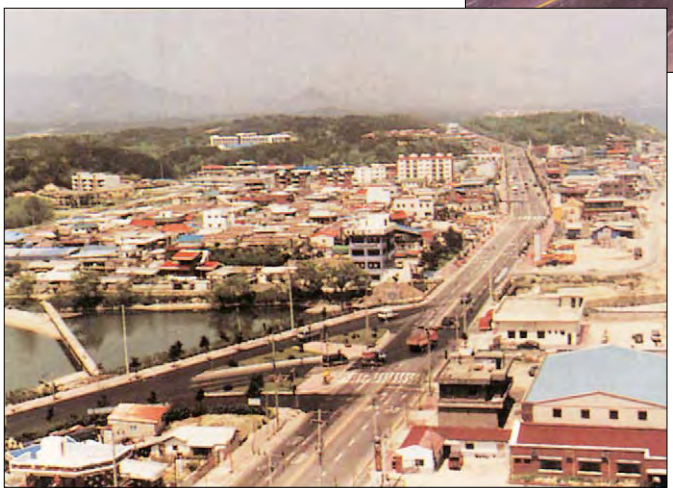
90년대

현재의 전경

장사동 전경

장사동 전경(81)





90년대

현재의 전경

7번 국도

영랑동 국도 (75. 2)

81. 3

현재의 전경

시청앞 국도(72년)

81. 3

90년대

현재의 전경

중앙동 사거리 국도(68년경)

81. 3

90년대

현재의 전경

중앙 · 금호동간 국도(68년경)

81. 5

90년대

현재의 전경

금호동 국도(73년)

81년

90년대

현재의 전경

청학동 국도(80년대)

90년대

현재의 전경

교동 구 속초중앞 국도(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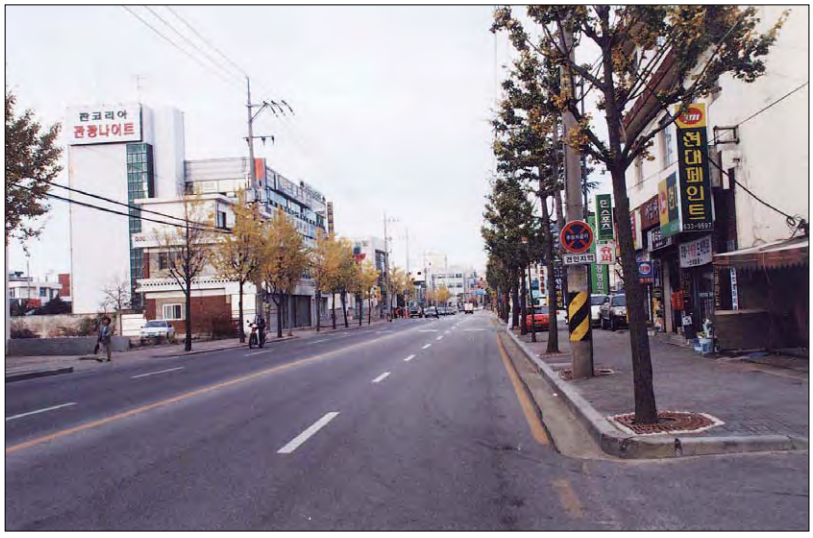
90년대

현재의 전경

교동 구 보건소앞 국도(81.3)

90년대

현재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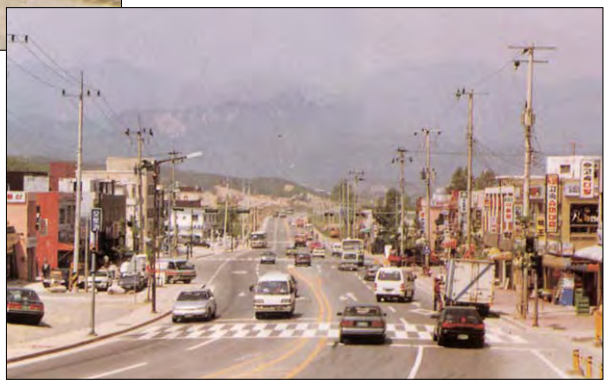
교동 소방서앞 국도

90년대

현재의 전경

조양동 고속터미널 국도(70년경)

8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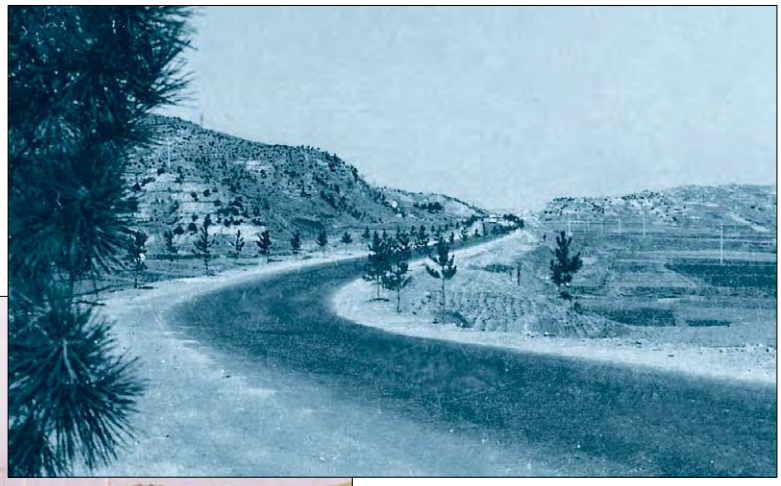
90년대

현재의 전경

조양동 새마을앞 국도(84)

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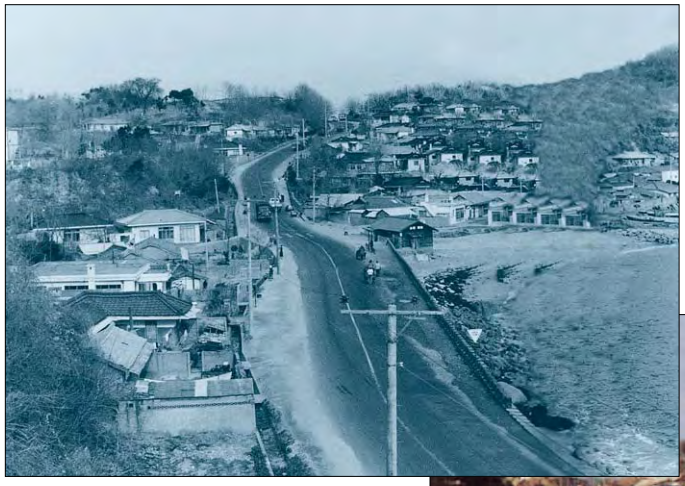
현재의 전경



조양~대포간 국도 (70년경)

90년대

현재의 전경



대포동 국도(81. 3)

90년대

현재의 전경

대포동 내물치(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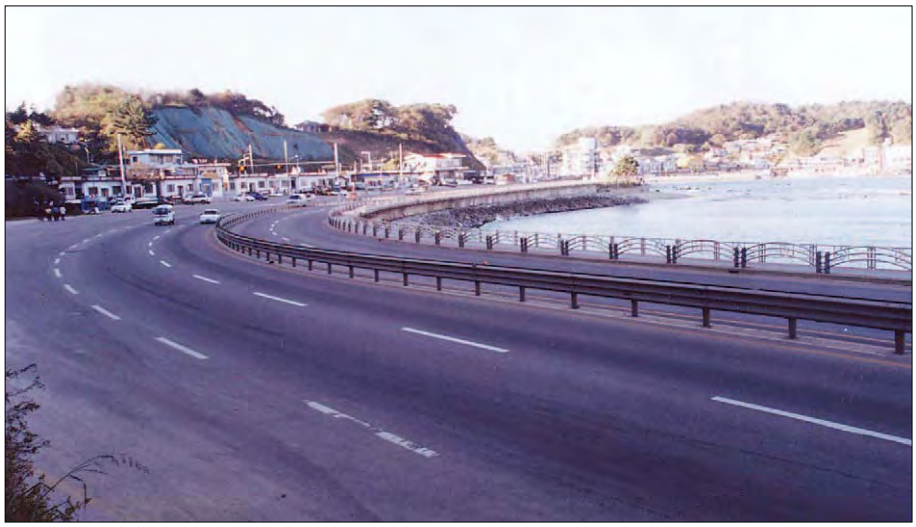
90년대

현재의 전경

대포동 산뒤꾸미 노선 국도(79)

81. 3

현재의 전경



설악산 진입로

하도문리

현재

상도문리

90년대

현재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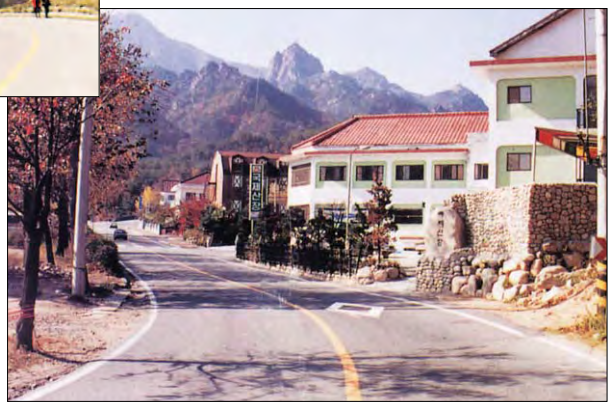
설악산 C지구 설악교 앞
(63. 9. 7 준공된 포장공사 이전)

72년경

현재

설악동 B지구 앞(76.6)

81. 4



90년대

현재

영랑초등학교 뒤(77. 3)

81. 4

90년대

현재

문화회관 옆 로터리(79)

82년

현재

가원주택 설악타워 맨션 앞(79.8)

82년

90년대

현재

공설운동장 옆(80년경)

90년대

현재

공설운동장 앞 로터리(79)

90년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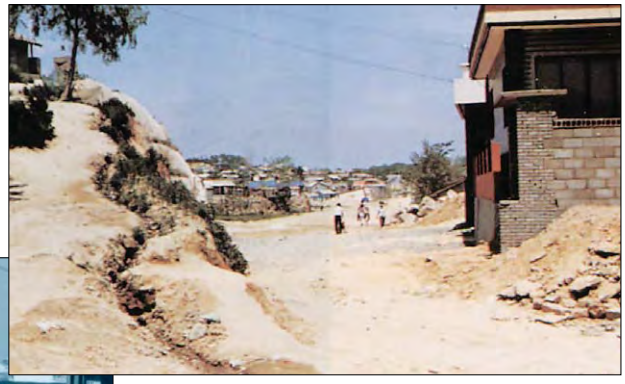
속초여중 앞(78. 4)

82년

90년대

현재

속초초등학교 뒤 (79)



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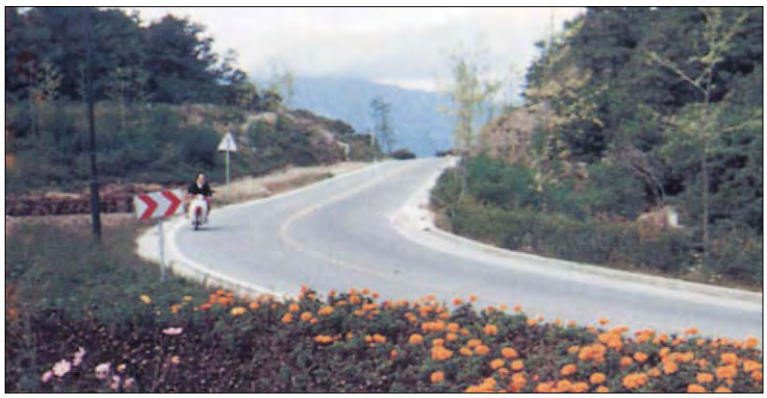
90년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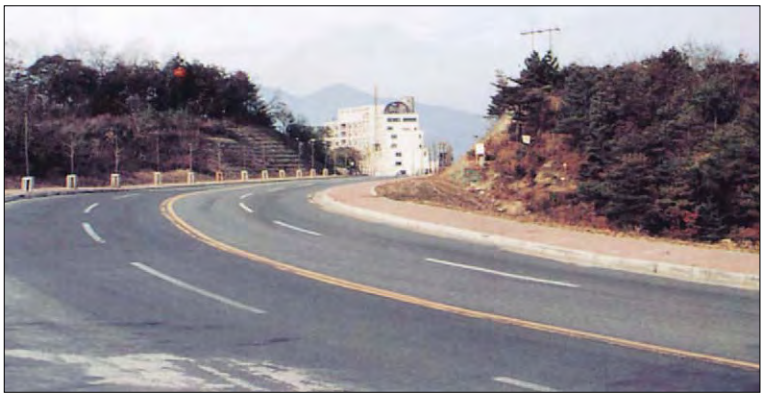
교동가로 입구(91.10)

90년대

현재



속초중 뒤(91. 10)



90년대

현재

속초중 뒤(91. 10)

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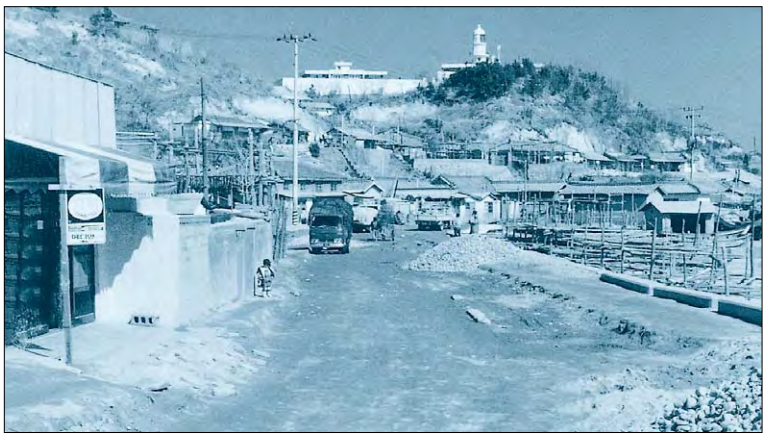
현재

교동택지 진입로 입구(91. 10)

90년대

현재

기타 간선도로



영금정 진입로 i

90년대

현재

영금정 진입로 ii

90년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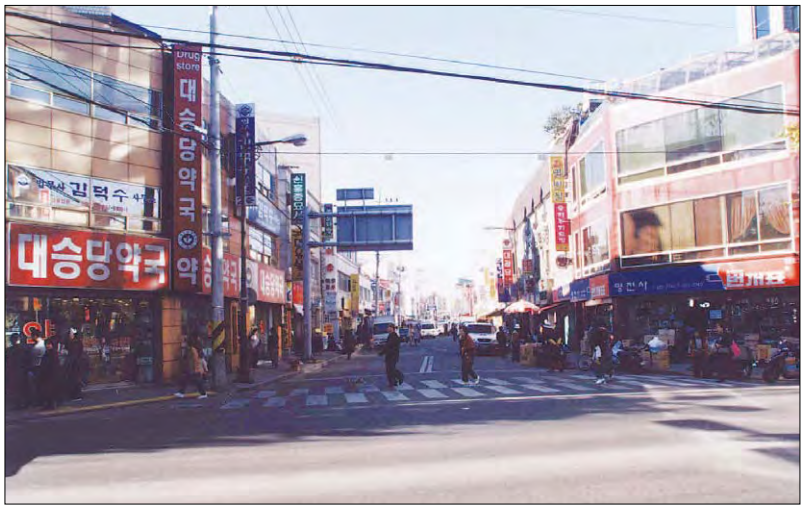
중앙가로 상단(81. 5)

90년대

현재

중앙가로 하단(81. 5)

90년대



현재

수협 진입로(79)

90년대

현재

수복로

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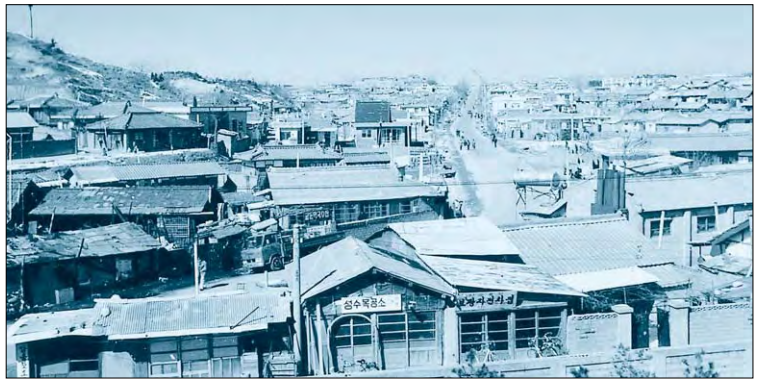
현재

교동가로 i (81)

90년대

현재

교동가로 ii(81)



90년대

현재

교동택지 진입로(8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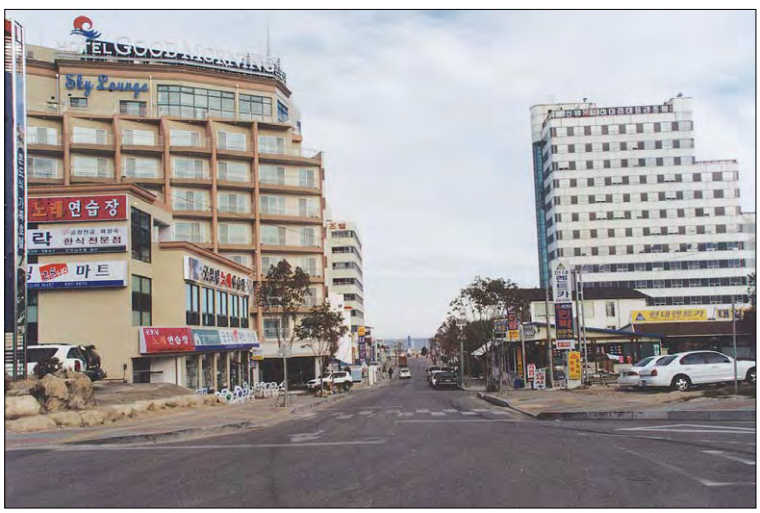
85. 12

90년대

현재

속초해수욕장 진입로(83. 7)

90년대



현재

속초해수욕장 진입로(83. 7)

90년대

현재

목우재 진입로(76. 12)

목우재 도로(75년 이전)

현재

항공촬영

목우재 도로(75년 이전)

도로 포장후

외옹치 순환도로(76)

81. 4

90년대

현재

항공사진

60년경 읍(邑)당시

67년

73년경 시가지 전경

73년경 영랑동 일대

73년경 영랑호, 장사동

73년경 시내 중심부

73년경 보광사 일대

73년경 조양동 일대

74년경 시내 중심부

77년경 청초호 일대

79년경 시내 중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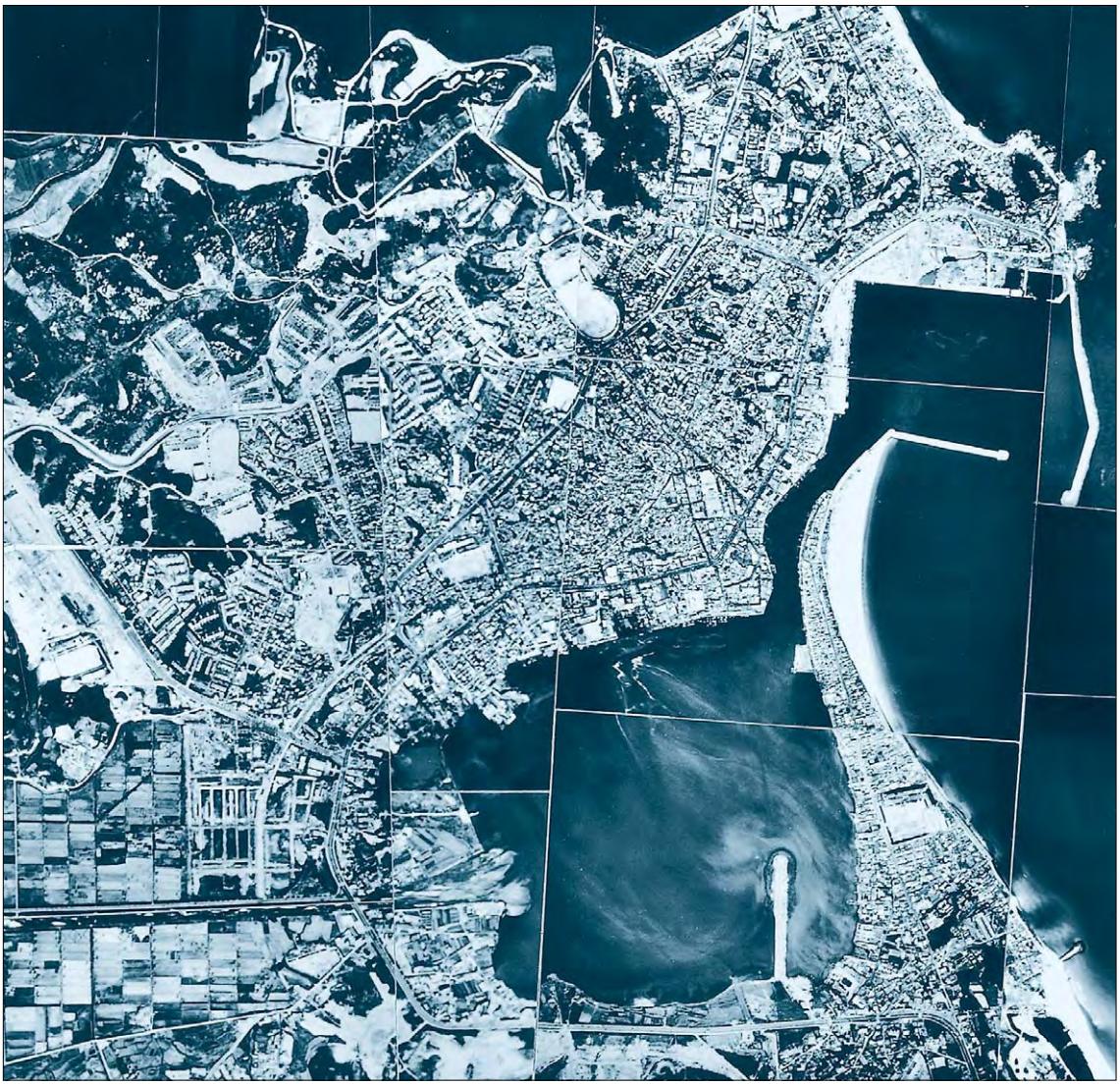
연대별 시가지 전경 대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속초시 전경 항공사진
(92. 11. 13 정밀촬영)



《 일러두기 》

본 서는 자료 조사와 고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속초시의 변천상과 사회상을 올바르게 기록하여 향토 발전의 길잡이로 삼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본서는 집필 개시년인 2005년 5월 현재까지의 행정구역상 강원도 속초시 지역을 서술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부 통계자료는 최근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 속초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일반 국가사나 전국적인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최소한의 언급에 그치도록 하였습니다.

□□ 문장화된 설명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서술하며, 표나 통계 자료 등을 단순히 나열, 제시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료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필자 자신이 새롭게 밝힌 내용이나 해석이 적절히 드러나도록 기술하였습니다.

□□ 각 분야마다 내용 전개가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내용이 충실히 채워질 수 없는 분야는 장과 절을 통폐합하였습니다.

□□ 연대 표기는 서기(西紀)를 사용하되 묘호(廟號)를 쓰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서기를 부기하였습니다.

□□ 참고 · 인용 문헌은 책자의 경우 『 』, 신문 · 잡지 · 논문 · 법령은 「 」, 인용문은 “ ”, 강조나 재인용은 ‘ ’로 표시하였습니다.

CONTENTS (上권)

발간사 / 노광복 3
축간사 / 동문성 4
축간사 / 김정한 5
축간사 / 정문헌 6

시정목표 · 8
시의상징 · 10
시민헌장 · 12
속초시가 · 13
행정구역 · 14
옛 문헌속의 속초지역 · 19
자연이 선사한 속초 · 37
사진으로 보는 속초 발자취 · 43
속초의 변천 · 67
일러두기 · 130
목차 · 131~137

제1편 자연환경 / 홍문표 · 139

제1장 지리환경 · 141
제1절 속초의 위치 · 141
제2절 지형과 지질 · 142
1. 설악산의 지형 · 142
2. 설악산의 지질 · 148
3. 속초의 해안지형 · 158
제3절 속초지방의 기후 · 160
1. 속초지방 기후의 특성 · 160
2. 기온 · 161
3. 강수량 · 163
4. 습도 · 165
5. 바람 · 166
6. 계절관측 · 167
제2장 속초의 식물 · 169
1. 설악산의 식물 · 169
2. 속초의 해안식물 · 234
3. 속초의 습원식물 · 237
제3장 속초의 동물 · 240
1. 담수어류 · 240
2. 양서류 · 244
3. 파충류 · 245
4. 조류 · 247
5. 포유류 · 258

제2편 역사 / 김정환, 한정규 · 265

제1장 속초지역의 이해 · 267
제1절 지형적 여건 · 267
제2절 사회 · 경제적 여건 · 268
제3절 촌락의 형성과정 · 269
1. 전통안정축 · 269
2. 전통불안정축 · 270
3. 농업발전축 · 270
4. 항구발전축 · 271
제2장 선사시대 · 272
제1절 석기시대 · 272
제2절 청동기시대 · 273
제3절 동예 · 275
제3장 삼국시대 · 276
제1절 연혁 · 276
제2절 고대의 사상과 문화 · 277
1. 화랑도의 순례 · 277
2. 불교문화 · 278
3. 산천제사 · 279
제4장 고려시대 · 280
제1절 연혁 · 280
제2절 이민족의 침입 · 281
1. 거란의 침입과 항전 · 281
2. 여진과 몽고의 침입 · 282
3. 왜구의 침입 · 283
제5장 조선시대 · 284
제1절 정치 · 284
1. 연혁 · 284
2. 통치체제의 정비 · 285
3. 개화기의 정세 · 287
4. 민족운동의 전개 · 288
제2절 경제 · 289
1. 농업 · 289
2. 수산업 · 290
3. 특산물 · 291
제3절 인구 및 사회 · 292
제4절 문화 · 294
1. 불교사상 · 294
2. 유학 · 교육 · 294
3. 민요와 민속 · 295

4. 문학 · 296
제6장 일제강점기 · 298
제1절 정치 · 298
1. 행정구역의 변화 · 298
2. 일제의 식민통치 · 300
3. 3 · 1운동 · 300
4.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사회운동 · 304
제2절 경제 · 307
1. 일제시대의 경제적 상황 · 307
2. 산업 · 311
제3절 사회 · 317
1. 인구의 변동 · 317
2. 우편소의 설치 · 319
3. 교통 · 320
4. 종교 및 사회단체 · 320
제4절 문화 · 321
1. 학교의 설립 · 321
2. 민속 · 322
3. 문학 · 323
제7장 현대 · 324
제1절 공산치하 · 324
1. 8 · 15광복과 분단 · 324
2. 북한정권의 수립 · 324
3. 반공투쟁 · 326
제2절 한국전쟁과 속초의 수복 · 330
1. 한국전쟁의 발발 · 330
2. 행정권 이양과 수복 · 336
제3절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 339
1. 자유당정권과 4 · 19혁명 · 339
2. 시의 승격과 민주주의의 시련 · 341
3. 이념의 대립 · 348
제4절 민주회복과 통일정책 · 353
1. 제6공화국 · 353
2. 민주주의의 확산 · 354
3. 남북관계의 진전 · 355
제5절 경제구조의 변화 · 357
1. 전쟁이후 속초의 성격 · 357
2. 피난민의 이주 · 358
3. 산업구조와 경제활동 · 359
제6절 현대의 사회 · 368
1. 한국전쟁과 사회변동 · 368
2. 북한 주민의 월남 · 369
3. 도시로의 전환 · 375
4. 인구의 변동 · 376
5. 사건사고 · 377
6. 교육 · 379
제7절 문화의 다양화와 발전 · 381
1. 속초 문화의 양상 · 381
2. 언론활동 · 382
3. 문학을 통한 현대사 조명 · 382

제3편 정치행정 / 사득환 · 385

제1장 행정구역 변천 및 지명 · 389
제1절 고조선 및 통일신라시대 · 389
제2절 고려시대 · 389
제3절 조선시대 · 390
제4절 일제시대 · 392
제5절 대한민국시대 · 394
제2장 정치 · 397
제1절 지방자치의 시행과 속초의 상황 · 397
1. 지방자치법 제정시기의 상황 · 397
2. 1950년대의 상황 · 397
3. 1960년대의 상황 · 398
4. 70~80년대의 상황 399
5. 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 401
제2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402
1. 지방의회 의원 선거 · 402
2. 민선 단체장 선거 · 411
제3절 국회의원 선거 · 417
1. 제헌, 2대, 3대 국회의원 선거 · 417
2.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418
3.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419
4.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420
5.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421
6.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422
7.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424
8.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 425
9.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 427
10.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 429
11.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430
12.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431
13.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433
14.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435
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437
제3장 행정 · 439
제1절 속초시 행정기구 · 439
1. 속초시 구역 · 440

2. 행정기구 · 443
3. 동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 446
제2절 공무원 · 447
제3절 역대시장 및 부시장 · 448
1. 역대시장 · 448
2. 역대부시장 · 449
제4절 시정목표 및 방침 · 450
제5절 2005년도 시정 주요시책 · 451
1. 주요 시정시책 · 451
2. 우수시책 추진실적 · 459
제6절 예산 및 재정규모 · 460
1. 예산운영 · 460
2. 재정 및 회계 관리 · 463
3. 재산관리 · 467
제4장 사법 · 469
제1절 개관 · 469
제2절 법원 · 476
1. 연혁 및 기구 · 476
2. 관할구역 및 임무 · 476
3. 사건취급현황 · 477
제3절 검찰 · 477
1. 연혁 및 기구편제 · 477
2. 관할구역 및 업무 · 478
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의 역대 지청장 · 478
4. 검사의 직무권한 · 479
제5장 치안 · 480
제1절 개관 · 480
제2절 속초경찰서의 연혁 · 482
제3절 속초경찰서의 기구 · 483
제4절 각종 범죄 발생현황 · 485
1. 유형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 485
2.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발생 및 검거현황 · 488
3.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발생유형 · 490
4. 기소중지자 발생 및 검거 · 92
제6장 소방 · 493
제1절 개관 · 493
제2절 속초소방서 연혁 · 494
제3절 속초소방서의 기구 및 인원 · 495
제4절 일반현황 · 496
1. 관할구역 및 의용소방대 · 496
2. 소방 용수시설 및 차량 · 497
제5절 화재발생 현황 · 498
1. 일반적 현황 · 498
2. 화재발생 원인 및 장소 · 499
제6절 소방서 역대 서장 · 501
제7장 교통 · 502
제1절 도로 · 502
제2절 교통 · 503
1. 도시교통계획 수립 · 504
2. 지능형 교통체계의 도입 · 504
3. 교통시설 · 504
제8장 정보통신 · 509
제1절 행정자산화 추진 · 509
1. 행정 전산망 구축 · 509
2. One-stop 민원서비스 실시 · 509
제2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509
제3절 시민 PC방 운영 · 510
제4절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 · 510

제4편 교육사회 / 조진관 · 511

제1장 인구와 가족제도 · 517
제1절 인구추이 · 517
1. 시승격 이전의 인구추이 · 517
2. 시승격 이후의 인구추이 · 522
제2절 인구동태 · 527
제3절 인구이동 · 528
제4절 주요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 · 529
제2장 교육 · 531
제1절 일반현황 · 531
1. 속초교육의 연혁 · 531
2. 교육기본통계 · 534
3. 속초교육청 · 540
4. 속초평생교육정보관 · 547
5. 속초도서관 · 553
제2절 각급 학교현황 · 556
1. 초등학교별 현황 · 556
2. 중학교별 현황 · 579
3. 고등학교별 현황 · 586
4. 고등교육기관 · 591
제3장 사회복지 · 596
제1절 연혁 · 596
1. 사회복지의 개념 · 596
2.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 597
제2절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 605
1.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 605
2. 의료보험 · 609
3. 노인복지 · 612

4. 아동복지 · 621
5. 여성복지 · 626
6. 장애인복지 · 635
7. 국가 보훈자를 위한 복지 · 637
제4장 여가생활 · 641
제1절 여가의 개념과 여가활동 · 641
1. 여가의 개념 · 641
2. 여가의 활동 · 641
제2절 여가활동의 실태 · 642
1. 주요계층별 생활시간 활용상태 · 643
2. 가구유형별 여가생활시간 실태 · 649
3. 휴무실태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 · 650
4. 주요 활동별 여가시간 실태 · 651
제3절 속초시의 여가시설 현황 · 658
1. 문화공간 · 658
2. 공공도서관 · 659
3. 체육시설 · 659
4. 청소년수련관 · 660
5. 공원 · 661
제5장 보건 · 662
제1절 보건관련업무 개요 · 662
1. 위생관리 · 662
2. 속초시 보건소 운영 · 664
3. 건강생활여건 조성사업 · 666
4.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 668
5.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 670
제2절 지방공사 강원도 속초의료원 · 674
1. 연혁 · 674
2. 일반현황 · 675
3. 주요사업 및 의업실적 · 679
제6장 종교 · 681
제1절 종교전래과정 · 681
1. 개요 · 681
2. 종교별전래과정 · 681
제2절 종교단체 · 688
1. 일반현황 · 688
2. 종교단체별 교세현황 · 689
3. 종교별 상세현황 · 690
제7장 언론 · 695
제1절 지역 언론의 현황 · 695
1. 일반현황 · 695
2. 언론기관별 현황 · 697
제2절 시정홍보 · 703
1. 시정홍보 현황 · 703
2. 역대 시청 출입기자 명단 · 703
제8장 체육 · 707
제1절 연혁 · 707
1. 우리나라의 체육 · 707
2. 속초의 체육 · 709
3. 역대 도민체전 성과 · 712
제2절 체육진흥시책 · 713
1. 개요 · 713
2. 체육시설의 확충 · 714
3. 시청 실업팀 창단 및 해체 · 718
제3절 체육단체 현황 · 718
1. 속초시체육회 · 718
2.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 · 719

제5편 산업경제 / 조성진 · 721

제1장 속초시의 경제개관 · 725
제1절 속초시 도약기의 농업 · 728
1. 1960년대 · 736
2. 1970년대 · 736
3. 1980년대 · 737
4. 1990년대 · 737
5. 2000년대 · 737
제2절 향토 지적재산 육성 시책사업 추진 · 741
1. 장천골 옛날 장 명품화 서업 · 742
2. 현미재배 상황버섯 명품화 사업 · 742
제3절 속초시 성장기의 산업경제 · 743
1. 1982~1985년 · 743
2. 1986~1990년 · 749
3. 1991~1995년 · 751
4. 1996~2000년 · 752
5. 2001년 이후 · 753
제2장 소비생활의 변화와 대형할인점 등장 · 755
제1절 시작하며 · 755
제2절 대형할인점의 개관 · 756
1. 대형할인점의 정의 · 757
제3절 속초시 제현황 변화 및 대형할인점 등장에 따른 경쟁구조 변화 · 758
1. 속초시 인구 및 세대수의 변화 · 758
2. 속초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759
3. 속초시 거주 주택현황 · 760
4. 수산물 어획고 현황 · 760
5. 대형할인점 등장에 따른 경쟁구조의 변화 · 761
제4절 조사 설계와 분석 · 765

1. 조사 설계 · 765
2. 자료 분석 · 766
제5절 결론 · 782
제3장 속초지역 주민의 TV홈쇼핑 이용실태 · 786
제1절 서론 · 786
제2절 TV홈쇼핑 개념 및 특징 · 787
1. TV홈쇼핑 · 787
2. 우리나라 TV홈쇼핑의 현황 · 790
제3절 조사 설계와 분석 · 796
1. 모집단 및 자료의 수집 · 796
2. 설문지 구성과 특징 · 796
3. 자료의 분석 방법 · 796
4. 자료 분석 · 797
제4절 결론 · 811
제4장 설악동 종합개발사업 · 814
제1절 설악동 종합개발의 추진경위 · 814
1. 사업추진 배경 및 추진경위 · 814
2. 사업총괄 · 817
3.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의 성과 · 822
제5장 금융 · 828
제1절 금융기관의 소개 · 829
1. 금융기관의 연혁 및 소개 · 829
제6장 공영개발 사업과 경제관련단체 · 839
제1절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 839
1.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 839
2.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 840
3.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 841
제2절 속초시 경제관련 단체 · 842
1. 속초시번영회 · 842
2. 속초향토기업 주식회사 · 845
3. 속초경실련 · 847
4. (사)한국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속초지회 · 855

제6-1편 관광 / 이재선 · 859

제1장 속초시 관광의 개관 · 861
제2장 속초시 관광현황 · 863
제1절 관광객 현황 · 863
제2절 관광개발 계획 · 864
1. 지역특성 · 864
2. 추진경위 · 864
3. 관광지개발 전망 · 864
제3절 설악산국립공원 현황 · 865
1. 공원구역 · 865
2. 국립공원 연혁 · 865
3. 국립공원 관리 · 866
4. 설악관광특구지정 · 866
제3장 속초시의 관광자원 · 868
제1절 자연관광자원 · 868
1. 설악산지구 · 868
2. 영랑호지구 · 893
3. 대포 · 물치지구 · 897
4. 청초호, 기타지구 · 899
5. 연중행사, 민속, 신앙 · 906
제4장 속초시의 관광시설 현황 · 922
제1절 숙박시설 · 922
1. 관광호텔 · 922
2. 휴양콘도미니엄 · 924
3. 가족호텔 · 928
제2절 종합휴양업 · 928
제3절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 929
제4절 관광식당업 · 929
제5절 유원시설업 · 930
제6절 삭 · 궤도업 · 930
제7절 카지노업 · 931
제8절 체육시설업 · 931
제9절 여행업체 · 932
제5장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 935
제1절 엑스포의 정의와 기원 · 935
1. 엑스포의 정의 · 935
2. 엑스포의 기원 · 935
3. 엑스포의 사회 · 경제적 기능 · 936
제2절 엑스포 개최 배경 · 937
1. 취지와 배경 · 937
2. 추진경위 · 937
3. 개요 · 939
제3절 엑스포 운영결산 · 940
1. 운영개관 · 940
2. 엑스포운영 예산 · 결산 · 941
3. 속초시의 관련 예산 확보운용 · 943
제4절 개최지의 행정지원 · 944
1. EXPO지원체계 구축운영 · 944
2. 완벽한 엑스포장 기반조성 · 947
3. 근접도로망의 확충 · 951
4. 원활한 교통 소통대책 추진 · 955
5. 범시민적 엑스포 참여 붐 조성 · 959
6. 공격적 홍보활동 전개 · 965
7. 관광유원지의 정비 확충 · 970

8. 체류 체험형 관광여건 조성 · 972
9. 국제관광지다운 도시경관 개선 · 978
10. 성숙된 손님맞이 운동 전개 · 984
11. 엑스포의 체계적 운영지원 · 984
제5절 종합평가 · 989
1. 총평 · 989
2. 주요성과와 반성 · 990
3. 앞으로의 과제 · 994
제6장 백두산 항로 개설 · 997
제1절 개요 · 997
제2절 추진 및 제반사항 · 997
1. 백두산 항로 추진과정 · 997
2. 백두산항로 거리와 운항항로 그리고 비용 문제 · 999
3. 운항사업자 및 선박제원 · 999
제3절 항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 · 1000
1. 북방항로 관련업체 초청 · 1000
2. 소무역인 육성을 위한 직원연수 · 1000
3. 소규모 무역상 육성 · 1000
제4절 효과 및 과제 · 1001
1. 한국 · 중국 · 러시아 등 동북아 3개국에 미치는 향후 경제와 관광효과 · 1001
2. 강원도와 속초시가 해야 할 과제 · 1001
제5절 백두산 항로 이용현황 · 1002
제7장 금강산 관광선 취항 · 1007
제1절 개요 · 1007
1. 선박제원 · 1007
2. 금강산 관광 여객전용 터미널 현황 · 1007
제2절 추진개요 · 1008
1. 현대상선의 금강산 관광선 취항 발단 · 1008
2. 우리시의 금강산 관광선 취항 유치노력 · 1010
3. 금강산 관광선 속초항 취항 일시 · 1011
제3절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이용 현황 · 1016

제6-2편 수산 / 윤영호 · 1019

제1장 속초의 수산업 · 1023
1. 속초항 · 1024
2. 관내 주요어항별 시설현황 · 1031
3. 어선 및 장비현황 · 1033
제2장 속초지방의 중요어법 및 어구 · 1036
1. 맨손어법 · 1036
2. 잠수기 어법 · 1038
3. 살상어구 · 1039
4. 낚기 어구류 · 1044
5. 주낙류 · 1047
6. 봉낚시류 · 1050
7. 오징어 낚시류 · 1052
8. 함정어구류 · 1056
9. 통발류 · 1059
10. 끌어구류 · 1066
11. 걸어구류 · 1074
12. 홑얽애그물류 · 1086
13. 삼중얽애그물류 · 1087
제3장 어업권 현황 · 1090
1. 면허어법 · 1090
제4장 수산업 현황 · 1094
1. 수산업 현황 · 1094
2. 수산진흥사업 · 1097
제5장 수산물 · 1110
1. 어류 · 1110
2. 연체동물 · 1125
제6장 속초시의 석호 · 1130
1. 영랑호 유역의 자연현황 · 1130
2. 영랑호의 관리 및 개발현황 · 1133
3. 영랑호 유역의 현황 · 1133
4. 영랑호 유역의 오염 부하량과 수질현황 · 1134
5. 영랑호 유역의 현황 분석도 · 1137
6. 영랑호 유역의 문제점 · 1137
7. 청초호 유역의 자연환경 · 1138
8. 청초호의 관리 및 개발현황 · 1141
9. 청초호 유역의 현황 · 1141
10. 청초호 유역의 오염 부하량과 수질현황 · 1143
11. 청초호 유역의 현황 분석도 · 1145
12. 청초호의 준설사업 · 1145
13. 청초호 유역의 문제점 · 1153
제7장 해안침식 · 1154
1. 해안침식이란? · 1154
2. 해안침식 현황 · 1154
3. 해안침식의 발생원인 · 1159
4. 해안침식 방지대책 · 1163
5. 해안침식 방지대책 수립시 주의사항 · 1165

CONTENTS (下권)

화보
축제 · 문화 · 체육 그리고 희망 · 1173~1226
목차 · 1227~1233

제7편 문화예술 · 1235
제1장 속초 문화의 특성 · 1241
제1절 다양한 성격의 문화 공존 · 1241
제2절 문화 단절 현상 · 1242
제3절 이질적 문화의 혼합 현상 · 1242
제4절 피난민 문화 창출
제2장 한문학 속의 속초 / 양언석 · 1245~1269
제3장 구비문학 / 양언석 · 1270~1364
제4장 속초의 지명 / 손병섭 · 1365
제1절 지명의 유래 · 1365
1. 속초 땅이름 어원의 유래 · 1365
2. 연혁 · 1366
제2절 행정동 지명 · 1367
1. 영랑동 · 1367
2. 동명동 · 1371
3. 금호동 · 1373
4. 청호동 · 1375
5. 교동 · 1376
6. 노학동 · 1377
7. 조양동 · 1383
8. 대포동 · 1386
제5장 문화재와 명승고적 / 손병섭 · 1398
제1절 문화재의 분류 · 1398
1. 문화재의 개념 · 1398
2. 문화재의 분류 · 1398
3. 속초시 문화재 현황 · 1400
제2절 국가 및 시 · 도지정 문화재 · 1401
1. 국가지정 문화재 · 1401
2. 시 · 도지정 문화재 · 1403
제3절 미지정 문화재 · 1412
1. 불교문화 · 1412
2. 호수 및 정자 · 1413
3. 금석문 및 비석 · 기념탑 · 1417
4. 관방 유적 · 1433
제4절 천연기념물과 사적지 · 1435
1. 천연기념물 · 1435
2. 조양동 선사유적지 · 1438
제5절 명승 및 속초팔경 · 1440
1. 명승 · 1440
2. 속초팔경 · 1442
제6장 예술활동 / 박명선 · 1446
제1절 예술활동 · 1446
제2절 문학활동 · 1468
1. 개황 · 1468
2. 문학단체 · 1479
제3절 미술활동 · 1496
1. 개황 · 1496
2. 미술단체 · 1509
3. 서예 활동 · 1513
제4절 연극 활동 · 1518
1. 개황 · 1518
2. 연극단체 · 1524
제5절 음악 활동 · 1530
1. 개황 · 1530
2. 음악단체 · 1539
제6절 연예 활동 · 1542
1. 개황 · 1542
2. 연예단체 · 1547
제7절 국악 활동 · 1549
1. 개황 · 1549
2. 국악단체 · 1550
제8절 사진 활동 · 1551
1. 개황 · 1551
2. 사진단체 · 1554
제9절 문화예술 활동 단체 · 1556
1. 속초문화원 · 1556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속초지부 · 1561
3.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속초지부 · 1563
제10절 문화시설 · 1566
1. 속초문화회관 · 1566
제11절 속초시 문화상 · 1568
제12절 속초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 · 1570
제7장 문화행사 / 박명선 · 1571
제1절 문화 축제 · 1571
1. 설악문화제 · 1571
2. 설악눈꽃축제 · 1578
3. 대한민국음악축제 · 1581
4. 화랑영랑축제 · 1583
5. 해맞이 축제 · 1583
6. 해양페스티벌 · 1584
7. 한 여름밤의 문화축제 · 1584
8.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 1585
9. 학사평순두부축제 · 1585
10. 설악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 1586
11. 설악하프마라톤대회 · 1587

제8편 생활관습 1589
제1장 식생활 / 송주은 · 1593
제1절 강원도의 식생활 · 1593
제2절 속초의 식생활 · 1596
1. 옛 문헌 속의 속초의 산물 · 1596
2. 속초 원주민의 음식 · 1597

3. 속초 실향민의 식문화 · 1653
4. 속초 실향민의 식생활 · 1667
제2장 의생활 / 최혜정 · 1689
제1절 옛 문헌속의 속초 · 1689
1. 옛 문헌에 나타난 의생활 · 1689
2. 의복재료 · 1690
3. 토착적인 의복형태 · 1690
4. 의복 관리 · 1692
5. 통과의례복 · 1693
6. 피난민 의복 · 1696
7. 전통 민속복 · 1698
제3장 속초의 민속 / 장정룡 · 1703
제1절 구전민요 · 1703
1. 농업노동요 · 1703
2. 수산노용요 · 1710
3. 유희요 · 1714
4. 도문 메나리민요의 유래와 구성 · 1716
제2절 속초의 세시풍속 · 1724
1. 정월달 새배와 뱃고사 · 1724
2. 정월 첫째 뱀날풍속 · 1725
3. 까치보름과 달점치기 · 1725
4. 연날리기와 횃불싸움 · 1725
5. 엄나무와 체바퀴달기 · 1726
6. 봉수이밥 싸기와 탈놀이 · 1726
7. 귀신날 · 1726
8. 바람님날 · 1727
9. 좀생이보기 · 1727
10. 무먹기 · 1728
11. 한식날 · 1728
12. 삼짇날 · 1728
13. 곡우물먹기 · 1728
14. 초파일날 · 1729
15. 갈꺽기 · 1729
16. 질어울리기 · 1729
17. 단오맞이와 약쑥캐기 · 1729
18. 유두날과 쓰레씻이 · 1730
19. 복날 · 1730
20. 질먹기 · 1730
21. 한가윗날과 백로 · 1730
22. 배나무골 풍년놀이와 만천광대놀이 · 1731
23. 성주단지갈기와 문바르기 · 1731
24. 중양절 단풍놀이 · 1731
25. 상달 고사 · 1732
26. 설악문화제 · 1732
27. 송개틀기 · 1732
28. 김장하기 · 1732
29. 동짓날과 팥죽 · 1733
30. 용갈이 · 1733
31. 윤달 · 1733
제3절 속초의 민간신앙 · 1749
1. 집안신앙 · 1749
2. 마을신앙 · 1752
3. 무속신앙 · 1754
제4절 속초의 통과의례 · 1757
1. 임신과 출산 · 1757
2. 백일, 첫돌 · 1762
3. 회갑 · 1763
4. 상장례 · 1763
제5절 속초의 민속유희 · 1765
1. 민속극 · 1765
2. 민속놀이 · 1768
제4장 속초의 방언 / 김무림 · 1773
제1절 속초 방언의 위상 · 1773
제2절 속초의 방언 어휘와 언어적 특성 · 1775
1. 속초의 방언 어휘 · 1775
2. 속초 방언의 언어적 특징 · 1780
제3절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 특징 · 1785
1. 음운적 특징 · 1785
2. 문법적 특징 · 1787
3. 청호동의 방언 어휘 · 1787
제4절 맺음말 · 1797
제5장 속초의 주거 생활 / 김학철 · 1799
제1절 속초의 고 건축 · 1799
1. 주거의 변천 과정 · 1799
2. 조양동 선사유적의 움집 · 1800
3. 신흥사 극락보전 · 1801
4. 보제루 · 1802
5. 학무정 · 1803
6. 김종우 가옥 · 1803
7. 김근수 가옥 · 1805
8. 김석주 가옥 · 1806
9. 최원규 가옥 · 1807
10. 김종순 가옥 · 1809
11. 오수현 가옥 · 1810
12. 박의균 가옥 · 1811
13. 김근우 가옥 · 1812
14. 영랑동 시장 · 1813
15. 김동석 가옥 · 1814
16. 영랑상회 · 1815
17. 강덕준 주택 · 1816
18. 동명동 성당 · 1817
제2절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주거 환경 / 속초문화원 · 1818
1. 인문환경 · 1819
2. 자연적 조건 · 1821
3. 피난민 가옥의 구조 · 1823

부록 1833
1. 인명 · 1835~1853
2. 연표 · 1855~2018
3. 옛 문헌자료 · 2019~2141

찾아보기 · 2143~

上

第一編 자연환경

표 목차

1-1-1 속초시의 지리적 위치
1-1-2 설악산 동서사면을 흐르는 계류의 기울기
1-1-3 설악산의 지질시대와 암석층
1-1-4 설악산의 주요 군락의 토양 입도
1-1-5 조사 지역의 식물군락별 토양 환경
1-1-6 속초와 인근 지방의 기후 비교
1-1-7 속초 지방의 월별 기온
1-1-8 일평균 기온 최고값
1-1-9 일평균 기온 최저값
1-1-10 최고기온 최고값
1-1-11 최저기온 최저값
1-1-12 속초 지방의 월별 강수량
1-1-13 일 최다 강수량
1-1-14 최심적설
1-1-15 속초 지방의 월별 습도
1-1-16 최소 습도 최저값
1-1-17 속초 지방의 최소습도 20%미만 일수
1-1-18 속초 지방의 월별 풍속
1-1-19 최대 순간 풍속
1-1-20 서리 내리는 시기
1-1-21 눈오는 시기
1-1-22 얼음 어는 시기
1-1-23 적설 시기

그림 목차

1-1-1 속초 지역도

사진 목차

1-2-1 설악눈주목
1-2-2 분비나무
1-2-3 눈잣나무
1-2-4 한계령풀
1-2-5 설악조팝나무
1-2-6 설악대극
1-2-7 금강제비꽃
1-2-8 홍월귤
1-2-9 금강봄맞이
1-2-10 만리화
1-2-11 만주송이풀
1-2-12 금강초롱꽃

제1편 자연환경

제1장 지리 환경

제1절 속초의 위치

속초시는 한반도의 등줄기인 태백산맥의 북쪽 금강산과 오대산 사이에 솟아있는 설악산의 동측, 동경 128°25′~ 37′, 북위 38°07′~ 13′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고성군, 서쪽으로는 설악산맥을 경계로 인제군, 남쪽으로는 양양군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와 접하고 있다.

속초시는 동서간 19km, 남북간 9km의 연장거리를 갖으며, 면적은 105.25㎢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0.6%에 해당하며, 속초시 면적의 53.2%인 55.80㎢는 국립공원 설악산에 포함되어 있다.

〈 표 1-1-1 〉 속초시의 지리적 위치

구 분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 거리
	지 번	극 점	지 명	
동 단	속초시 청호동 1340	동경 128° 37'	조도	동서간
서 단	속초시 설악동 산41	동경 128° 25'	저항령 남쪽	19km
남 단	속초시 설악동 산41	북위 38° 07'	대청봉	남북간
북 단	속초시 장사동 478	북위 38° 13'	장사동 북쪽해안	9km

〈 그림 1-1-1 〉 속초지역도

속초시는 7번 일반국도에 의해 북쪽의 고성군, 남쪽의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로 연결되고, 56번 지방도에 의해 인제군, 서울과 연결되며, 설악산과는 462번 지방도에 의해 연결된다. 수도인 서울과는 248km,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는 174.6km, 휴전선과는 62km의 거리에 위치한다.

제2절 지형과 지질

1. 설악산의 지형

가. 산 계

설악산맥은 태백산맥의 일부로서 그 북부에 위치하며 설악산 북북서방 약 70m되는 곳에 금강산(해발 1,638m)이 있고, 남남동방 약 40㎞되는 곳에 황병산(해발 1,407m)이 있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해발 1,708m)은 태백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금강산보다 70m가 더 높다. 다만 그 주위에 산악이 광범하지 못함이 금강산보다 떨어지나 경관에 있어서는 남한에서 최고이다.

설악산맥을 포함한 태백산맥은 대체로 남북으로 뻗으며 한반도의 동해안쪽으로 치우쳐있다. 설악산맥의 지리적 위치는 서해안에서 약 200㎞이고, 동해안에서 약 15㎞로 이 두 거리의 비는 약 13 : 1이며 따라서 설악산의 서측 산지는 저 각도로 완만하게 기울어졌고 동측 산지는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설악산맥의 능선을 경계로 하여 그 서측을 내설악, 동측을 외설악이라고 호칭되는데 외설악 중 오색리 계곡 즉 한계령에서 대청봉을 거쳐 관모봉(해발 874m)에 이르는 능선의 남쪽을 남설악이라 호칭되기도 한다.

설악산의 주요 능선으로는 대청봉을 기점으로 하여 북방 1.7㎞지점의 무너미고개(해발 1,060m), 여기에서 북서방 1.5㎞지점의 1,275m봉, 여기에서 다시 북서방 2㎞지점의 마등령(해발 1,326.7m), 여기에서 북서로 2.5㎞지점의 저항령(해발 1,110m), 저항령에서 북방 1㎞지점의 황철봉(해발 1,381m), 여기에서 북동 1㎞지점의 1,318.8m고지, 다시 북쪽으로 2.5㎞지점의 미시령(해발 760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청봉에서 마등령까지의 능선은 날카로운 기암괴석과 절벽이 연속되는데 이를 공룡능선이라 한다.

대청봉의 남쪽으로는 설악산맥이 서남서로 연장되어 2.5㎞지점의 1,459m봉을 지나 2.5㎞ 서방의 1,365m고지로 이어지고 여기서 방향을 북서로 바꾸어 1.5㎞ 지점의 대승령(해발 1,190m), 대승령 서북서방 2㎞ 지점의 안산(해발 1,430m)에 이르는 능선을 이루는데 이를 서북주능이라 한다.

대청봉에서 북동방으로 3㎞에 화채봉(해발 1,325m)에 이르고 화채봉에서 동방으로 4㎞ 지점의 송암산(해발 761m)까지 연장된 능선이 있는데 이를 화채능선이라 하며, 화채봉에서 북북동방으로는 칠성봉(해발 1,077m)을, 그리고 집선봉, 권금성을 지나 설악동에 이르는 능선이 있다.

대청봉에서 동방으로 연장된 능선은 약 5㎞ 지점의 관모봉(해발 890m)을 지나 9㎞에서 동해에 이른다.

황철봉과 미시령사이의 1,092m봉에서 동방으로 약 2㎞지점에 울산바위(해발 873m)가 있고, 여기에서 동남방 3㎞지점의 달마봉(해발 635m)으로 이어지며 목우재를 지나 주봉산, 청대산을 거쳐 대포동으로 이어지는 낮은 능선이 있다.

설악산맥의 서측에 융기준평원의 특징을 나타내는 곳이 관찰되는데, 한계령에서 서방으로 장수대에 이르는 곡면은 해발 500~700m의 평탄한 곡면을 보여주며, 한계령 바로 서측에는 해발 800~900m의 평탄면, 다시 그 서측에는 해발 600~800m의 평탄면이 있다. 더 높은 평탄면으로는 설악산 서측의 서북능선, 북측의 준평탄면으로서 해발 1,200~1,400m의 면이며, 이 면은 귀떼기청봉 주변까지 연장된다. 같은 면은 안산의 동쪽과 북동쪽에 더 현저하게 잔존한다. 또 같은 높이의 평탄면은 황철봉 부근에서도 발견된다. 이들의 평탄면은 현재 작은 면적으로 몇 군데에서 발견되는데 불과하나 이들 면은 오래 전의 설악산 지역의 침식면으로서 모든 하천은 이들 수준에서 선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나. 수 계

설악산 수계에는 황해로 흐르는 한강의 상지류들과 동해로 흐르는 여러 개의 소하천이 있다.

설악산맥을 분수령으로 하여 서측은 한강의 상류인 소양강에서 북지류인 북천이 원통부근에서 갈라지고, 북천은 한계리에서 한계천이 갈라지며, 용대리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지류가 백담사를 지나 소청봉(해발 1,666m)에 이르는데 이 계류는 하류에서 상류로 백담사계, 수렴동계 및 구곡담계라 부른다. 한계천은 한계령에서 서북서류하여 장수대를 지나 한계리에서 북천과

합류한다. 또한 북천은 용대 3리에서 동쪽으로 뻗은 창암계가 갈라져 미시령에 이른다.

설악산맥의 동사면은 북에서 남으로 청초천, 쌍천, 물치천 그리고 양양 남대천의 상지류가 흐르고 있다.

내설악을 가르는 주요 수계는 백담사계와 그 상류(수렴동계와 구곡담계)이다. 구곡담계는 대청봉의 북사면에서 시작되어 설악산맥 능선에 거의 근접하여 북쪽으로 흐르다가 무너미고개에서 북서류하여 수렴동계에 이른다. 구곡담이란 명칭은 이 하천이 여러 번 굴곡 함을 의미하며, 구곡담계곡은 비교적 넓은 곡면(해발 500~600m)을 보여주며 그 주변에 고하안단구인 평탄면을 나타낸다. 무너미고개 부근에는 해발 1,200~1,300m의 평탄면이 잔존하는데 이 평탄면은 구곡담계곡이 수십 만년 전에 하각한 지면의 잔존물이며 해발 600~700m의 평탄면은 수만년 전부터 구곡담계가 곡류하며 만든 하안단구성 평탄면이다. 백담사계는 곡류가 심한 계류로서 계곡은 좁고 양측의 산사면 구배는 대단히 급하다. 이러한 지형은 백담사계가 해발 1,200~1,300m 평탄면 위를 곡류하여 흐르던 것이 이 지역의 융기에 따라 유로를 바꾸지 않은 채 급속히 하각작용을 일으켜 좁고 깊은 곡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함입곡류의 좋은 예이다. 다만 백담사계의 곡류는 규모가 작아서 곡률반경은 100~200m인데 이는 평상시의 유슈량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백담사계-구곡담계의 기울기는 매우 완만한 편으로 용대리에서 수렴동까지의 연장이 10km이상의 거리인데 그 고도 차는 200m정도에 불과하다.

한계령에서 장수대까지의 한계천은 비교적 넓은 곡면을 보여준다. 계류 양측 특히 북측에 극히 완만한 사면을 보이고 한계령 부근에는 해발 800~900m의 평탄면이 있는데 이는 한계의 단구면으로 보인다. 이 계곡을 흐르는 계류가 거의 곡류하지 않은 것은 계곡의 성인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계곡은 단층곡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계곡류는 침식에 약한 단층을 따라 생겨난 것으로 계류의 곡류가 제한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한계령의 서측과 동측의 계곡은 대체로 서북서-동남동의 직선 방향을 취하며, 지형도 단층 특유의 침식지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 단층을 한계단층이라고 한다. 단 계류의 수류는 반드시 단층선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에 접근하여 흐르는 한계단층은 계류의 북측 200~500m되는 곳을 흐르고 있다. 한계천의 기울기도 완만하여 한계천 입구에서 10km 상류까지는 약 300m의 고도 차가 있을 뿐이다. 한계천 북측에는 서북능이 2km 정도 한계천과 거의 평행한 능선을 형성하였는데 이 능선에서 한계천에 거의 직각으로 약

500m 내외의 간격으로 소지류가 남류하여 한계천으로 유입된다.

설악산 북쪽 외설악의 수계는 쌍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쌍천은 동해안의 물치리 부근에서 신흥사에 이르는 하천으로 신흥사 부근에서 3개의 지류로 갈라진다. 첫째는 내원암을 지나 내원골에 이르고 황철봉 북동쪽 능선에 도달하는 북지류이고, 둘째는 저항령에 이르는 거의 직선적인 서지류이고, 셋째는 비선대를 지나 대청봉에 이르는 남지류이다. 남지류에는 여러 개의 작은 지류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들 서지류와 공룡능선사이의 산지에는 융기에 따른 급격한 계류의 하각작용으로 깊은 골짜기와 절벽 그리고 곳곳에 폭포를 만들어 설악산 지역에서 가장 험준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소공원 부근에서 남쪽으로 토왕골을 지나 화채봉에 이르는 남지류가 있어 토왕성폭포와 비룡폭포를 만들고 있다.

청초천은 달마봉에서 발원하는 여러 개의 상지류가 노학동에서 합류하여 청초호에 이르는 계류로 그 규모가 매우 작다.

물치천은 그 상지류가 대청봉의 동측사면을 가르고 있으나 길이가 짧고 규모가 아주 작다.

양양 남대천의 상지류는 설악산 남사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남대천의 상지류인 오색천에서 북쪽으로 한계령에서 대청봉을 지나 관모봉에 이르는 능선을 향하여 갈라진 작은 지류가 여러개 있으며, 오색과 한계령사이의 계류은 한계단층으로 된 것으로서 성국사 부근에서는 단층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700m 치우쳐 흐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계령에서 서쪽으로 장수대까지의 상황과 비슷하다.

태백산맥은 동해안 15km내외로 근접하여 있으므로 태백산맥 서측의 준평원은 하천의 상지류들에 의해 심한 두부침식을 받아 능선의 위치가 급속히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설악산맥에서도 동측 계곡의 기울기는 대단히 급하나 산맥 서측 계곡의 기울기는 완만하기 때문에 설악산맥의 동측 산지는 험준하게 개척되어가고 있다.

설악산맥 동측의 계곡은 해발 400m 지점에 도달하는 거리가 2,000~4,000m인데 방하여 산맥 서측의 계곡은 해발 400m 지점에 도달하는 거리가 3,800~15,000m에 달하고 기울기는 산맥 동측이 8°~18°30′이고 18°30′의 기울기가 대부분이다. 산맥 서측은 5°정도이다. 이는 동측 사면에서 하계의 두부침식이 심함을 나타낸다. 대청봉에서 서쪽으로 폭 500~1,000m로 잔존하는 준평원이 남대천의 상지류에 의하여 급격히 침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너미고개에서는 아주 완만한 계류의 상단부가 설악산맥에서 100m 미만의 거리로 접근하나 그 동측 사면이 급경사 함을 볼

수 있다. 무너미고개 부근의 계류는 산맥 동쪽으로 연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동쪽이 급속한 두부침식으로 그 부분이 끊겼을 가능성이 크다. 즉 무너미고개는 풍곡(wind gap)일 가능성이 크며 풍곡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설악산맥 능선부에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저항령도 풍곡일 가능성이 크다.

〈 표 1-1-2 〉 설악산 동서사면을 흐르는 계류의 기울기

계 곡		능선의 고도(m)	능선에서 해발 400m 까지의 수평거리(m)	평균 경사
동측	**쌍천의** 북지류	1,030	3,000	19°
	쌍천의 서지류(능선-저항령)	1,110	2,750	15°
	와선대 서지류	1,225	2,500	18° 30'
	쌍천의 남지류(대청봉-와선대)	1,708	4,000	18° 30'
	물치천의 상류(대청봉-둔전리)	1,708	3,900	18° 30'
	오가리의 북측 계곡	1,708	3,850	18° 30'
	한계령의 동측 계곡	930	3,900	8°
서측	저항령-백담사 계곡	1,110	8,050	5°
	대청봉-백담사 계곡	1,708	15,000	5°
	대승령-백담사 계곡	1,195	8,250	5° 20'
	한계령 서측 계곡	930	9,000	3° 20'

(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다. 경 관

설악산은 대청봉 부근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여러 종류의 화강암(花崗巖)으로 되어 있다.

한반도에는 화강암의 분포가 적지 않은데 그 관입 시대는 크게 3분할 수 있다. 화강암 중 시대적으로 오랜 것을 트라이아스기의 것인데 이 시대의 것은 평안북도에 알려져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오랜 것은 쥬라기의 화강암으로서 그 분포 면적이 가장 크다. 서울에서 원산으로 뻗은 줄기, 충남 서산에서 원주를 지나 강릉에 이르는 폭 넓은 줄기, 전남 영광에서 대전, 충북 청주를 지나 영주에 이르는 단속되는 화강암 지대 및 이 밖의 화강암 분포지 중에는 쥬라기의 화강암은 대보화강암이라고도 한다. 대보화강암이 관입한 시대는 대체로 2억년 전에서 1억5천만년 전 사이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화강암은 백악기의 화강암인데 불국사화강암이라고도 한다. 이 화강암은 강원도의 간성, 속초, 인제, 홍천을 연결한 지대에 분포하여 설악산의 주체를 형성하였고 같은 불국사화강암은 금강산과 그 주위에 분포하여 금강산의 주체를 이루었다. 이밖에 광주, 금성, 해남을 연결하는 지대, 속리산과 문경, 제천 사이에 단속적으로 분포한다. 그러나 가장 표준이 되는

곳은 경북의 경주 부근이고 여기에서 불국사화강암이라는 명칭이 유래되고 같은 화강암은 경남에서도 점점으로 분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악산과 금강산이 모두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화강암은 보통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 특징은 저지대를 형성하는 특징이다. 서울은 대보화강암 저지로 변해 있는 가장 좋은 보기이다. 이밖에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는데 모두 화강암이 풍화작용에 약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둘째 특징이 화강암이 고지대를 이룬다는 상반적 특징이다. 이는 대규모인 경우에는 반대로 높이 솟는 것이 화강암의 속성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북동-남서로 달리는 큰 산맥으로 광주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화강암이 주체를 이룬다. 설악산은 차령산맥의 북쪽 가지에, 금강산은 광주산맥의 북동쪽 끝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설악산과 금강산을 구성한 암석의 대부분이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이고 차령산맥과 광주산맥은 쥬라기의 대보화강암인 것이 다르다.

설악산의 경관을 만든 원인의 하나는 설악산, 금강산 및 태백산맥을 높이 들어올린 힘이다. 화강암은 지하 수 ㎞이상 되는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에서 굳어져 만들어 졌거나 다른 암석이 녹아서 화강암으로 굳어진 암석이다. 그러므로 화강암이 지표에 나온 것은 지각이 지표에서 깎이고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악산맥이 해발 1,708m까지 솟은 것은 지각 또는 지면이 높이 솟아오른 일이 있거나 아직도 솟아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백산맥은 제3기에 일어난 융기작용(隆起作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설악산은 이 때에 태백산맥의 일부로 높은 산지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태백산맥의 융기와 반대로 동해 쪽은 함락 내지 침강하여 태백산맥의 원형은 동해 쪽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침식(侵蝕)되어 들어갔는데, 이 빠른 침식작용이 설악산의 깊은 골짜기와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들을 형성케 하였는데 이 때에 화강암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이 신기한 산형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 구조적 특징이 절리(節理)인데 화강암에는 주로 3방향의 절리가 발달하는데 수직절리가 발달하면 설악산의 절경을 이루는 높이 솟은 암산을 형성한다.

설악산의 경관의 특징은 백악기에 관입한 화강암의 존재, 이것이 오랜 침식 삭박작용(削剝作用)과 융기로 지표에 노출된 역사, 한반도의 태백산맥 형성으로 태백산 정상부에 높이 솟아오르게 된 일, 동해의 함락으로 동사면이 급격히 침식되고 화강암이 가진 절리의 특정으로 기암절벽을 형성하게된 일들이 오랜 기간동안 합작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2. 설악산의 지질

가. 구성 암석

내설악 지역은 거의가 백악기에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화강암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 작은 면적의 중생층이 분포하며 대청봉 정상 부근과 그 동부, 서부 및 남부 즉, 외설악의 남부는 시대미상의 변성암(變成岩)류인 화강암질편마암(花崗巖質片麻岩)과 반상변정편마암(斑狀變晶片麻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봉 정상부의 외설악 남부는 경기기저변성암복합체로 되어 있고 내설악의 대부분과 외설악의 북부는 백악기의 화강암인 불국사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경기기저변성암복합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화강암질편마암과 반상변정편마암에 해당하는 것이다. 1981년의 대한지질도에는 경기기저변성암복합체의 시대를 선캠브리아기로 하였고 그것도 고기로 간주하였다.

화강편마암(花崗片麻岩)

편마암은 설악산 남동부의 대청봉 북측 200m지점에서 북으로 약 1㎞의 폭을 가지며 동서방향으로는 대청봉의 서 및 동쪽으로 각각 3㎞여씩 전 연장 6㎞이상에 달하는 분포를 가진다. 본 지역 중북부에서는 마등령 서쪽 2㎞ 부근에서 약 3㎞의 폭을 가지고 북쪽으로 연장되다가 본 지역 밖에서 그 분포의 폭이 넓어지는 분포지가 있다.

대청봉 부근의 화강편마암은 북측에서 설악산화강암의 관입을 받았고 남측에서는 주로 반상변정편마암과 접한다. 아마도 후자가 화강편마암에 관입한 것으로 보인다. 중북부의 분포지는 그 동측에서 화강반암과 접하며 후자에 의하여 관입되었으며 분포의 서측에서는 각섬석화강암에 관입된 후 흑운모화강암의 관입을 받았고 용대2교 부근에서는 홍색화강암의 관입을 받았다.

반상변정편마암(斑狀變晶片麻岩)

대청봉의 200m 북방에서 남쪽으로 약 3㎞의 폭으로 동서 방향으로 연장 분포된 암체로서 서쪽으로는 한계령 북동방 2.5㎞ 지점에까지 도달하고 동쪽으로는 오가리 북쪽의 이 지역 경계선을 넘어 더 동쪽으로 연장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동북동 방향으로 분포된 반상변정편마암체와는 6㎞의 간격을 두고 서쪽의 가리봉에서 북쪽으로 2㎞까지 분포한 편마암이 있는데 이는 원래 대청봉 부근의 반상변정편마암체와 같은 덩어리이었던 것이 중간에 관입한 여러 화강암에 의하여 분리된 것으로 보이며 모든 편마암이 선캠브리아기로부터 한국의 기반암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청봉 부근의 반상변정편마암은 북측의 화강편마암과 접하며 둘 사이는 관계가 불명하다. 다만 화강편마암이 오랜 것으로 생각되므로 관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반상변정편마암이 후에 있어난 화강암화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양자간의 관계는 점이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분포지의 남측은 설악산화강암에 의하여 서측은 흑운모화강암에 의하여 관입되어 있다. 가리봉 부근의 반상변정편마암은 북측에서 한계천변의 홍색화강암의 관입을 받았고 또 각섬석화강암에 의하여 소규모의 관입도 받았다. 반상변정편마암 중에는 화강편마암의 작은 렌즈가 개재하기도 한다.

우백질편마암(優白質片麻岩)

내설악 중앙부의 염동천 남안쪽에 동서 방향의 연장 약 2㎞, 폭 약 0.5㎞인 작은 분포지를 차지한다. 이는 분포지의 북측에서 각섬석화강암의 관입을 받았고 분포지의 남측에서는 중생대층인 설악산층과 단층 접촉의 관계에 있으나 설악산층에 의하여 부정합으로 덮여 있는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부정합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설악산층(중생대층)

종래 중생대층으로 부르던 퇴적암층이 1984년 그 일부의 층서가 밝혀졌고 구성 암석과 연대도 알게 되어 설악산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지층은 육성층이며 시대는 중생대로 알려져 있으나 1984년 조사에서 암회색 세일에서 식물화석(*Equisetites* sp.)의 파편이 발견되어 설악산층은 중생대의 백악기에 퇴적된 지층임이 확실해졌고 화산활동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백악기 하부에 대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설악산층은 내설악 중앙부에 분포되어 있으며 수렴동계곡 남안의 지계에서 발견되는 지층이다. 작은감투봉(해발 972m)에서 대승령 북서쪽에 이르며 동서 방향으로 연장 분포되고 그 폭은 약 2㎞가 된다. 설악산층은 분포지대의 북측에서 우백질편마암과 단층(백담사단층)으로 접하나 편마암은 시대가 설악산층보다 훨씬 오랜 것이므로 원래는 설악산층이 편마암을 부정함으로 덮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아직 부정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북서측에서는 흑운모화강암과 단층접촉으로 접하여 있다. 백담계곡에서는 흑운모화강암이 설악산층의 셰일(암회색)이 접하여 있는 전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흑운모화강암이 설악산층에 관입한 좋은 증거이나 설악산층 분포의 남측에서는 그 서부에서 설악산화강암과 단층접촉의 관계에 있고 동부에서는 역시 흑운모화강암과 단층접촉이다.

각섬석화강암(角閃石花崗岩)

각섬석화강암은 본 구역의 복서변의 용대리와 가평리의 동남동방 약 1.5㎞ 지점에 있는 용대2교 남방 수 100m지점에서 시작하여 백담사계곡 또는 염동천을 거슬러 올라가 백담사 남방 1㎞되는 곳까지의 곡저와 곡양안에서 관찰된다. 이 하천에 따른 선의 서방으로는 약 4㎞까지, 동방으로는 약 1.5㎞까지 평균 폭 1.5~2㎞로 연속되어 있다. 이밖에 가리봉(해발 1,518.5m) 북동방 약 1㎞지점에 작은 분포지가 있다.

설악산화강암(雪嶽山花崗岩)

이 암석은 본 구역에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여주며 전지역의 약 40%의 면적을 차지한다. 설악산화강암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의 담홍색 암석으로 홍색화강암에 비하면 색이 연하다. 이 암석은 각섬석화강암 다음으로 오래된 화강암으로 북북 및 남부의 2개 분포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북부의 분포지는 대청봉 북방 1㎞지점에서 마등령 가까이 까지 약 3.5㎞ 사이의 능선에서 잘 관찰되며 서쪽으로는 약 4㎞의 폭을 가지고 한계령 북동 2㎞지점과 그 북쪽 약 2.5㎞ 있는 1,578m고지를 연결한 선까지 분포한다. 대청봉과 마등령 사이의 설악산맥 능선 동사면은 쌍천 상류의 남지계의 개척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험준한 지형을 보인다. 마등령 신흥사계곡의 남안에 약 2.5㎞ 폭으로 분포한다.

남부의 분포지는 이 지역 서단의 안산에서 오가리를 지나 이 지역 밖으로 연장 분포되어 있으며 폭을 약 0.5㎞에서 약 2㎞까지 팽축하며 연속된다. 북부의 설악산화강암체와 남부의 그것은 원래 1,578m고지 부근에서 연결되었던 것이나 후에 관입한 흑운모화강암에 의하여 그것은 절단되었다. 그러나 한계령 북동방에는 소편의 설악산화강암이 포획함으로 2개편이 흑운모화강암중에 잔존하고 1개편은 방상변정편마암에 관입한 것이 남아 있다. 이들 설악산화강암은 지하에서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화강암의 북부의 분포지는 남부의 화강편마암과 접하며 후자는 전자의 관입을 받았다. 오가리의 남부화강암은 그 산쪽의 반상변정편마암을 관입 접촉하였고 내설악 서부에 분포된 중생대층 즉, 설악산층과는 관입 접촉 및 단층 접촉의 관계에 있다. 설악산화강암은 마등령 화채봉 능선 북쪽에서 화강반암 및 흑운모화강암의 관입을 당하였으며 안산, 오색리선 남쪽에서는 홍색화강암에 의하여 관입되어 있다.

흑운모화강암(黑雲母花崗岩)

이 화강암은 오가리 북방 1㎞에서 폭 0.5~1㎞로 북부서 방향으로 연장되

어 한계령 북측, 귀떼기청봉과 그 남측, 1,408m고지에서 북동으로 영시암 부근에 이르나 여기서 작은 폭으로 서쪽으로 굴곡하여 수렴동계곡 변을 따라 백담사에 이르고 폭이 1~2㎞로 커지며 1,097m 및 1,208m고지를 지나서 은수동계곡(음지골) 좌우안을 덮으며 북천 가에 도달한다.

이 화강암은 북서~남동 방향의 분포를 보여주며 북서쪽에서는 그 북측의 각섬석화강암에 관입하였고 선캠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에도 관입하였으며 중생대층인 설악산층과는 단층으로 접하거나 관입 관계에 있다. 1,208m고지 남방에서는 설악산화강암을 관입하였다. 귀떼기청봉 부근에서는 설악산화강암을 관입하여 원래 큰 덩어리였던 북부의 설악산화강암과 남부의 그것을 분리시켰다. 흑운모화강암 분포의 남동쪽 끝 부근에서는 북측의 화강편마암과 반상변정편마암을 관입하였다. 남측도 역시 남부의 설악산화강암에 관입하였다. 가리봉 부근에서는 그 북방 약 2㎞까지 흑움모화강암이 분포하며 각섬석화강암의 큰 포획암을 함유한다. 백담사 부근과 가리봉 부근에서 양 화강암은 관입 접촉관계에 있으나 경계가 차츰 변하는 경우가 많다.

소청봉에서 오가리 북부 부근에 이르는 분포지에서는 흑운모화강암이 조립의 반사변정편마암과 화강편마암을 관입하였다. 그리고 설악산화강암도 흑운모화강암에 의하여 관입되었고 전자의 암편이 후자 속에 포획암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점봉산화강암(點鳳山花崗岩)

이 화강암은 본 지역 남중부 밖의 망대암산에서 본 지역 남단부의 오색 부근에 이르는 분포를 나타낸다. 점봉산화강암은 설악산화강암, 망대암산 부근의 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하였고 홍색화강암에 의하여 관입 당하였다.

홍색화강암(紅色花崗巖)

홍색화강암은 몇 개의 작은 분포지로 이 지역 주변부에 분산 분포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이 지역 북서부 경계선 밖에 있는 백담계곡 하류의 용대2교 부근에 분포한 홍색화강암은 동서 2.5㎞의 길이로 관입하였으며 그 남측에 분포된 각섬석화강암과 접하고 있다. 이 지역 최서단 외곽에서 한계령에 거의 근접 분포한 홍색화강암은 한계천을 따라 약 2㎞의 폭으로 분포하며 한계령의 서북서방 2㎞지점에 도달한다. 이는 분포지의 동 및 북측에서 각각 흑운모 화강암 및 설악산화강암을 관입하였다. 한계령 남쪽과 동남쪽 1㎞지점에서는 설악산화강암을 관입하였다. 백담계곡의 상류인 수렴동계곡과 귀떼기청봉 사이에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연장 약 3㎞인 렌즈상의 분포지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하였고 섬록암의 관입을 받았

다. 이 지역 북동방의 쌍천 중류에서 신흥사를 지나 내원암의 북서 2㎞지점까지 연장된 홍색화강암의 분포지가 있으며, 남측의 설악산화강암을 관입하였고 서측의 화강반암에 의하여 관입 당하였다.

울산화강암(蔚山花崗岩)

설악산의 북동 경계선에 걸쳐 북서~남동으로 뻗은 능선이 있다. 이 능선 중 높은 부분은 600~700m로서 주위의 산보다 높은 울산바위를 이루었다. 울산바위의 남서 및 북동측에서는 종래 속초화강암이라 부르던 것이 있는데 울산화강암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이를 묶어서 울산화강암이라 부른다. 이 암석은 남서측에서 홍색화강암과 접하는데 후자는 울산화강암의 관입을 받았다.

섬록암(閃綠岩)

내설악 중부의 영시동 남남서방 2㎞ 내외인 곳에 연장 약 1.5㎞, 폭 300m로 분포된 담록색의 암석이다. 이는 중성암맥이라고 하여도 좋을 정도로 작은 분포를 보이는 섬록암이다.

마산암(馬山岩)

여기서 마산암이라 부르는 것은 석영입자와 장석 입자의 반정을 포함한 담록색의 암석으로서 반정들 사이의 석기(石基)는 세립 내지 중립의 석영과 각섬석을 산재시킨 것이며 종래의 화강반암과 정고리화강암을 합한 것이다.

마산암은 설악산맥의 마등령과 저항령간의 능선 서쪽 약 500m, 동측으로 약 3.5㎞ 합계 약 4㎞의 폭을 가지고 남북으로 약 6㎞의 연장을 가진 비교적 큰 암체이다. 이 암석은 이 지역 내에서는 설악산맥의 능선 바로 동측의 급사면을 형성하며 쌍천의 최상 지류의 서지계와 북지계에 까지 분포한다. 그리하여 마산암은 이 지역에서 대청봉과 마등령 사이의 능선 동쪽 급사면 다음으로 험준한 급사면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저항령과 1,318m고지 북측에서는 험준의 정도가 낮은 지역을 이루었다.

이 암석은 서 및 남측에서는 각각 화강편마암 설악산화강암을 관입하였고, 동쪽에서는 홍색화강암을 관입하였다.

마산암이 능선 동측에서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을 이루는 것은 동해쪽에서 서쪽으로 급속도로 개척이 일어난 결과이며 이 때문에 산지의 저하가 계곡의 하각보다 늦어져서 험준한 산지가 형성된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마산암의 암질이 견고함인데 여기서 절리가 발달되어 절경을 이루게 된 것이다.

반암(班岩)

신흥사 부근에 소편으로 분할 분포되어 있으며 화강암 속에 암맥상으로 관입하였다. 반상조직을 보여주며 백색세립질이다. 반정으로는 장석과 석영이 있으며 1mm내외의 크기이다.

암맥(岩脈)

암맥으로는 거정화강암, 석영반암이 있다. 거정화강암은 각섬석화강암 중에 다수 관입하여 있으며 폭 수 ㎝에서 1m 내외인 것까지 있다. 이는 장석과 석영의 문상조직을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백색이다.

석영반암(石英班岩)

석영의 입자를 뚜렷이 보여주는 담황색 암석으로 백담계 하류에서 여러 곳 발견된다. 두께 수 m로 동서방향의 연장을 가진 것이 많다.

제4기

홍적층(洪積層) : 한계천 연안에는 완만한 지면으로 대표되는 암석쇄설물층이 발달된 곳이 있다. 또한 하안단구로 보이는 한 단 높은 지면이 있다. 이들은 일 만년 이상 된 지층일 것이므로 홍적층으로 본다.

충적층(沖積層) : 하계천의 바닥, 하계 연안의 낮은 평지로 홍수 때마다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지대는 충적층으로 보이며 이는 모래, 자갈, 점토로 되어 있다.

〈 표 1-1-3 〉 설악산의 地質時代와 岩石層

地質時代			地層 • 岩石	상호관계
新生代	第 4 期		沖積世	不整合
			洪積世	不整合
中生代	百惡期	末期	閃綠岩, 班岩, 脈岩	貫入
			蔚山花崗巖	貫入
			馬山岩	貫入
			紅色花崗巖	貫入
			點鳳理花崗巖	貫入
		中期	黑雲母花崗巖	貫入
			雪嶽山花崗巖	貫入
			角閃石花崗巖	貫入
		初期	雪嶽山層	不整合 • 斷層
선캄브리아기			班狀變晶片麻岩	關係不明
			花崗巖質片麻岩	漸移的 ?
			優白質片麻岩	

나. 지질 구조

설악산맥은 남북방향이 대단층으로 잘린 지괴가 그 동변이 상승하고 서변이 침강한 지괴운동에 의해 생성된 능선으로 생각된다. 다만 설악산맥 또는 태백산맥 능선 동사면은 단층절벽이 아니고 단층선절벽으로서 단층은 동해 속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악산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한계단층과 백담사단층이다. 앞의 것은 한계령의 서쪽 및 동쪽으로 연장되는 단층으로서 한계천과 남대천 상류는 이 단층을 따라 쉽게 개척된 계천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단층의 위치가 계류의 약 500m 북측을 지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단층의 위치는 한계천과 남대천 상류 상안의 지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계천으로 뻗어 나온 작은 능선에는 능선이 말안장처럼 오목한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런 곳을 연결하면 한계단층이 그어진다. 한계단층은 홍색 화강암과 일부 설악산화강암에 형성되고 있고 이 단층으로 인하여 가장 낮은 고개와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백담사단층이 내설악 중앙부에서 거의 동서로 달리고 있고 여기에서 흑운모화강암과 설악산층이 접하고 있다. 이 단층은 수직단층이다. 설악산층이 90°내외까지 경사하고 또한 역전하는 곳이 있어 중생대 백악기에 큰 지각변동이 있었던 것을 추측케 한다. 한반도에는 백악기에 그러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작은 지괴의 급경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있다. 즉, 편마암류를 부정합으로 덮은 백악기의 설악산층은 한때 약간의 변동은 받았으나 20°~30° 이상의 경사를 가지지 않았다. 백악기 중기 내지 말기에 나타낸 채 굳어진 화강암 속에 남아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지표에 노출하게 된 것이다.

설악산 지역에서는 절리의 발달이 지형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화강암류가 융기에 의해 지표로 상승하게 되면 암석들이 풍화 침식에 의해 삭박(削剝)되고, 냉각, 프와송 효과(Poisson effect) 및 막효과(membrane effect)에 의해 응력 분포가 변하게되고 고각도의 경사를 가지는 인장절리(extension joint)가 형성된다. 또한 지표 근처에서는 삭박된 암석의 무게에 의한 수직응력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수평응력이 증가하게되고 지표면에 거의 평행한 판상절리(sheeting joint)가 형성된다. 또한 마그마로부터 심성암이 형성될 때 주변 기반암과의 열에 대한 성질의 차이로 형성된 잔류응력은 심성암체의 표면에 직각으로 작용하여 인장응력의 가지며, 심성암체가 지표로 상승하게되면 이 잔류응력에 의해 판상절리 또

는 박리절리(exfoliation joint)가 지표면에 평행하게 형성하게 된다. 설악산의 능선이나 독립바위는 모두 절리의 방향과 관계 있는 지형을 나타낸다.

다. 설악산의 토양

설악산 지역의 토양은 대부분 화강암의 풍화로 형성된 토양이며, 지형이 험준하고 경사가 비교적 강하여 형성된 토양의 유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암반의 노출이 많고, 토양층이 얕아 척박한 편이다.

1) 토양 입도

설악산의 삼림식생에서 저산지에 분포하는 6종(신갈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소나무, 황철나무)의 군락 25개 지점의 토양을 입경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입경 2㎜이상의 자갈 함량이 37.99%, 입경 2㎜이하의 토양이 62.01%로 나타났다. 자갈에서는 2.00~4.75㎜급에서 18.55%로 가장 높았고, 토양에서는 0.075~0.60㎜급에서 2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경 2㎜이상의 자갈 함량이 가장 높은 군락은 사면 및 능선에 분포하는 소나무군락이 53.26%로 가장 높았고, 서어나무군락이 47.03%, 굴참나무군락이 40.4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갈의 입경은 모든 군락에서 2.00~4.75㎜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하천변 퇴적지에 형성된 소나무군락은 입경 2㎜이하의 토양이 90.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졸참나무군락이 65.89%, 63.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양 입경은 토양의 함수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면 · 능선형 소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과 황철나무군락은 비교적 토양 입경이 커 배수가 잘되는 건조한 토양입지를 나타내고, 졸참나무군락과 신갈나무군락은 비교적 토양 입경이 작아 비교적 습한 토양 입지를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표 1-1-4 〉 설악산의 주요 군락의 토양 입도

토양입도 / 군락명	시료수	19.1㎜ 이상	9.50-19.10㎜	4.75-9.50㎜	2.00-4.75㎜	1.00-2.00㎜	0.60-1.00㎜	0.075-0.60㎜	0.075㎜ 이하
신갈나무군락	6	9.11	4.42	4.70	18.46	20.77	11.39	28.69	2.46
졸참나무군락	4	3.95	2.70	4.77	22.78	25.40	12.50	25.33	2.57
굴참나무군락	4	9.86	6.42	7.56	16.63	17.56	10.13	27.69	4.15
시어나무군락	3	9.38	8.17	9.09	20.39	18.82	10.04	20.64	3.47
황철나무군락	2	6.00	8.59	7.47	16.20	23.59	17.97	18.99	1.19
소나무군락	6	1.69	6.13	6.67	16.83	15.60	12.64	37.01	3.43
(하천변퇴적지형)	(3)	0.43	1.33	1.95	5.68	11.92	16.39	58.31	3.99
(능선.사면형)	(3)	2.94	10.93	11.40	27.99	19.28	8.88	15.71	2.87
평균	25	6.66	6.07	6.71	18.55	20.29	12.45	26.39	2.88

2) 토양의 비옥도

설악산의 토양 pH는 평균 4.99로서 전반적으로 산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설악산지역 토양의 모암이 대부분 화강암으로 비교적 산성의 토양을 생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적 저산지에 형성된 군락에서 pH가 높았고, 고산지에 군락에서 비교적 pH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기물함량은 평균 10.73%이며, 주목군락에서 34.67%로 가장 높았고, 소나무군락에서 4.53%, 황철나무군락에서 4.92%로 가장 낮았다. 유기물함량은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저산지에 형성된 군락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고산지에 형성된 군락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산지에서 고산지까지 가장 넓은 분포역을 갖는 신갈나무군락에서 고도별 유기물함량을 비교한 결과 해발 500m이하에서 8.09%, 500~1,000m에서 10.60%, 1,000m이상에서 12.67%로 고도가 높아지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고도가 증가하면서 유기물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져 토양온도가 낮아지므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이며, 또한 유기산이 생성되어 축적되기 때문에 토양은 강한 산성을 띠게된다.

토양 최대용수량은 평균 78.55%이으며, 주목군락에서 210.51%로 가장 높고, 황철나무군락에서 32.76%, 소나무군락에서 46.75%로 매우 낮았다. 이는 황철나무와 소나무가 비교적 유기물 함량과 최대 용수량이 적은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 군락을 형성함을 나타낸다. 저산지 군락으로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적은 황철나무군락과 소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에서 최대 용수량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고산지의 군락으로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은 주목군락, 사스래나무군락, 눈잣나무군락, 털진달래군락, 분비나무군락, 잣나무군락에서 최대 용수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토양의 최대용수량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질소량은 평균 0.33%로 주목군락에서 1.41%로 가장 높았으며, 황철나무군락에서 0.08%, 소나무군락에서 0.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기물함량이 많은 주목군락, 사스래나무군락, 눈잣나무군락, 털진달래군락, 분비나무군락, 잣나무군락에서 총질소량이 높게 나타나고, 유기물함량이 적은 소나무군락, 황철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가래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에서 총질소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유기물함량과 질소함량이 밀접히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삼림토양의 질소원은 강우와 낙엽지로부터 공급받는다.

〈 표 1-1-5 〉 조사 지역의 식물 군락별 토양 환경

군락	시료수	pH (1:5)	유기물 (%)	최대용수량 (%)	총질소 (%)	유효인산 (㎎/㎏)	치환성 양이온(cmol+/kg)			전기전도도 (dS/m)
							K	Ca	Mg	
1	88	4.94	10.81	81.86	0.34	12.43	0.26	1.36	0.36	0.06
2	15	4.25	8.14	61.28	0.23	10.53	0.20	1.13	0.39	0.05
3	11	4.94	8.23	68.36	0.28	12.64	0.25	1.12	0.35	0.09
4	5	5.78	4.92	32.76	0.08	10.60	0.12	2.87	0.41	0.04
5	3	5.63	8.43	54.44	0.25	11.33	0.47	6.18	0.99	0.06
6	5	4.52	21.66	135.18	0.52	28.60	0.39	3.65	0.83	0.15
7	2	5.25	11.95	85.97	0.40	8.50	0.22	1.65	0.31	0.05
8	2	4.85	11.45	71.76	0.31	13.00	0.18	1.15	0.37	0.04
9	10	5.02	9.47	67.23	0.24	8.60	0.22	1.20	0.32	0.05
10	5	4.96	13.78	94.44	0.55	10.00	0.40	3.96	1.37	0.07
11	2	6.05	12.85	81.32	0.44	6.50	0.61	15.58	1.53	0.09
12	5	4.78	20.10	118.46	0.76	24.20	0.32	2.70	0.92	0.07
13	4	5.33	10.60	77.96	0.44	96.00	0.38	4.58	0.87	0.06
14	40	5.10	4.53	46.75	0.13	13.38	0.15	0.98	0.23	0.20
15	3	4.20	34.67	210.51	1.41	50.00	0.72	8.89	1.66	0.26
16	6	4.72	16.87	99.98	0.43	13.67	0.26	1.16	0.80	0.06
17	7	4.66	21.70	131.42	0.53	13.43	0.48	2.57	0.71	0.08
18	3	4.93	17.27	106.74	0.54	17.00	0.27	3.17	0.85	0.07
19	7	5.29	9.64	75.23	0.36	7.29	0.27	5.91	0.86	0.07
평균	223	4.99	10.73	78.55	0.33	14.84	0.26	2.00	0.48	0.09

* 군작 범례

1. 신갈나무군락 2. 졸참나무군락 3. 굴참나무군락 4. 황철나무군락
5. 가래나무군락 6. 사스래나무군락 7. 거제수나무군락 8. 박달나무군락
9. 서어나무군락 10. 피나무군락 11. 염주나무군락 12. 털진달래군락
13. 물푸레나무군락 14. 소나무군락 15. 주목군락 16. 잣나무군락
17. 눈잣나무군락 18. 분비나무군락 19. 전나무군락

유효인산량은 평균 14.84mg/kg로 물푸레나무군락에서 96.00mg/kg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목군락에서 50.00mg/kg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염주나무군락에서 6.50mg/kg, 전나무군락에서 7.29mg/kg, 거제수나무군락에서 8.50mg/kg, 서어나무군락에서 8.60 mg/kg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치환성 양이온 중에서 칼륨은 전체 평균 0.26cmol+/kg이며 주목군락에서 0.78 cmol+/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황철나무군락과 소나무 전형하위군락에서 0.12 cmol+/kg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칼슘은 평균 2.00 cmol+/kg이며 염주나무군락에서 15.58cmol+/kg로 가장 높았으며, 주목군락에서 8.89 cmol+/kg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소나무군락에서 0.98cmol+/kg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마그네슘은 평균 0.48cmol+/kg이며 주목군락에서 1.66cmol+/kg로 가장 높았고, 소나무군락에서 0.23cmol+/kg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속초의 해안 지형

가. 해안지형의 발달

동해안은 융기해안의 특성으로서 해안선이 매우 단조롭다. 동해안의 해안선이 단조로운 것은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이 해안 쪽으로 치우쳐 해안선과 평행하게 위치하기 때문이고, 그 외에 오랜 지질시대를 통하여 아주 완만하게 융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빙기의 해면 상승으로 동해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하곡을 침수시켜 마치 톱니모양의 해안선을 형성시켰으나, 그후 해수면이 안정됨에 따라 하곡에 생긴 만(灣)은 하천의 운반물질로 메워지고 곶(串)은 파도에 깎여 현재와 같은 단조로운 해안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강원도 동해안은 대체로 강릉을 경계로 하여 북부와 남부가 지질구조와 지형상 많은 차이가 있다. 화강편마암과 고생층으로 된 남부는 암석해안이 많고, 화강암이 발달한 북부는 비교적 사빈해안(沙濱海岸)이 많다. 특히 강원도 남부의 강릉 · 삼척해안은 융기로 말미암아 해안단구(海岸丹丘)가 발달하여 있으며, 해식(海蝕)작용으로 단애(斷崖)를 이룬 곳이 많다.

강릉 이북은 남부에 비하여 융기량이 적은 것 같으며, 강릉 원산 사이에는 곳곳에 배후지의 화강암산지에서 침식 운반되는 백사가 퇴적하여 연안조류와 파랑작용으로 사주(沙州, barrier island), 사취(砂嘴, spit), 석호(潟湖, lagoon)가 발달하여 있는 것이 특색이다.

석호는 북으로부터 광포(함남 정평 13.3㎢), 소동정호(강원 통천, 4.9㎢), 천아호(통천, 2.9㎢), 강동포(통천, 2.8㎢), 감호(고성, 0.3㎢), 화진포(고성, 2.3㎢), 송지호(고성, 0.6㎢), 영랑호(속초, 1.19㎢), 청초호(속초, 1.4㎢), 경포(강릉, 1.7㎢)등이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나란히 발달하여 있다. 물론 북부에도 암석해안이 있으나 대체로 보아 석호 · 사빈(砂濱海岸)이 발달한 해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빈(sandy beach)은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해빈(海濱, beach)이며, 해빈은 해안선을 따라서 파랑과 연안조류가 모래나 자갈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지형이다. 암석해안에서 해식애(海蝕崖)밑에 발달하는 엷은 해빈은 일반적으로 소량의 모래와 다량의 자갈 또는 암괴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빈은 해수욕장으로 많이 이용되므로 우리에게 낯익은 지형으로 사빈의 배후에는 해안사구(海岸砂丘, cosatal dune)가 발달되어 있다.

사빈해안을 구성하는 모래는 대부분 제4기 또는 제3기의 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암층(砂巖層)에서 공급되는 경우와 해안으로 유입하는 큰 하천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동해안에 사빈이 넓게 나타나는 곳은 주로 큰 하천의 하구 부근의 해안이다.

속초지역 해안은 외옹치를 경계로 하여 북쪽 해안은 사빈이 발달되어 있고 외옹치 남쪽 해안은 암석해안으로 되어 있으며, 쌍천 하구 부근의 해안은 쌍천에서 운반되어온 비교적 큰 암괴와 자갈이 많은 해빈이 발달하고 있다. 속초지역 해안에 발달한 사빈의 모래 주공급원은 고성군 토성면의 용촌천과 양양의 남대천으로 생각된다.

해안사구에는 농경지를 해풍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곰솔(일명 해송)을 심어 송림(松林)이 발달되어 있거나, 취락(聚落)이 발달한 경우가 많다.

석호의 생성은 후빙기의 해면이 상승함에 따라 해안에 침수현상이 일어나 골짜기나 기타 낮은 지대가 만입(灣入)으로 변하였고 그 입구가 사취 또는 사주로 가로 막혀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해안의 석호는 작은 하천의 하곡에 발달하였는데, 작은 하천의 경우는 토사 운반량이 적기 때문에 석호가 빨리 매립되지 않고 오래 유지되고 있다. 큰 하천의 하류에는 토사의 운반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석호가 생길 수 없었다. 따라서 동해안의 석호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국 매립되어 충적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동해안의 석호는 대부분 사주에 의하여 바다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여름철 우기에는 석호의 수위가 높게 유지되며 좁은 수로를 통하여 바다로 유출된다. 그러나 갈수기(渴水期)에는 사빈의 확장으로 수로의 입구가 막혀버리며 석호의 수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에만 주기적으로 수로가 열린다. 또한 파랑이 거세어지면 모래의 대량 운반으로 석호의 수로가 막히게 되고 바닷물이 대량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동해안 석호의 대부분은 염분농도가 담수호(淡水湖)에 비하여 높고 해수(海水)보다는 낮은 기수호(汽水湖)이다.

속초시에 소재하는 석호는 영랑호와 청초호가 있다. 영랑호와 청초호는 관광 개발과 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매립, 준설, 호안 공사 등으로 원래의 자연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과거 자료(속초시, 1991)와 비교하면 영랑호는 준설작업과 호안 공사를 하여 그 면적은 1,190,000㎡에서 1,024,000㎡로 호수 둘레는 약 8km에서 7.7km로 줄었으며, 청초호는 매립이 이루어져 그 면적은 1,362,000㎡에서 879,863㎡로, 둘레는 약 7km에서 4.276km로 줄었다.

나. 속초 지방의 석호

1)영랑호

- ㅇ 위치 : 동경 128°35′, 북위 38°13′
- ㅇ 면적 : 1,024,000㎡
- ㅇ 평균수심 : 4m
- ㅇ 둘레 : 7.7㎞
- ㅇ 유입하천 : 장천천
- ㅇ 염분 농도 : 3~5‰
- ㅇ 담수량 : 4,000천㎥

2) 청초호

- ㅇ 위치(속초항 기준) : 동경 128°35′48″, 북위 38°12′16″
- ㅇ 면적 : 879,863㎡
- ㅇ 평균수심 : 4m
- ㅇ 둘레(청초호 해안선) : 4.276km
- ㅇ 유입하천 : 청초천
- ㅇ 최고 만조위 : 39.0cm
- ㅇ 최저 간조위 : 0cm
- ㅇ 염분 농도 : 약 32.5‰(속초항 일대)

제3절 속초 지방의 기후

1. 속초 지방 기후의 특성

속초 지방은 한반도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중위도지대에 속하여 편서풍(偏西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이 구별되는 온대성기후의 특성을 갖고 있다.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북서계절풍이 탁월하고 한랭건조(寒冷乾燥)한 기후가 나타난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高溫多濕)한 기후가 나타난다. 특히 속초지방은 해발 1,708m의 대청봉을 포함한 설악산맥이 서쪽에 위치하고, 동쪽에는 동해(東海)와 연접하여 사계절에 걸쳐 변화 많은 기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폭풍(暴風), 대설(大雪), 호우(豪雨), 가뭄 등 갖가지 악기

상(惡氣象)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속초 지방의 기후는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서지방(인제)과 판이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해안형인 속초의 연평균 기온은 12.1℃로 내륙형인 인제의 연평균 기온 9.9℃비해 보다 온난하고, 연간 강수량이 속초 1,342.4mm, 인제 1,114.1mm로 속초 지역이 220mm이상 강수량이 많고, 연평균 풍속은 속초가 3.1m/s로 인제의 1.9m/s보다 바람이 강한 특성이 있다. 또한 강릉보다도 해양성 기후의 영향이 뚜렷함을 나타내고 있다.

〈 표 1-1-6 〉 속초와 인근 지방의 기후 비교

지 역	기온(C°)			연간 강수량 (mm)	연간 증발량 (mm)	연평균 풍속 (m/sec)	연평균 상대습도 (%)	일조율 (%)
	연평균	일최고 연평균	일최저 연평균					
속초	12.1	15.8	8.5	1,342.4	1,243.9	3.1	67.1	49
인제	9.9	16.3	4.4	1,114.1	1,114.0	1.9	71.0	51
강릉	12.9	17.4	8.9	1,401.9	1,239.7	2.6	63.4	48

(한국기후표, 1971~2000)

2. 기온

가. 평균기온

속초의 연평균기온은 12.1℃로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1971년이래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79년 13.2℃이고 가장 낮았던 해는 1986년 10.5℃로서 기온의 연 변화는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교차를 보여주고 있다. 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로서 23.7℃이고 가장 낮은 달은 1월로서 -0.2℃이다.

최한월인 1월의 평균기온과 평균일최저기온은 속초가 -0.2℃와 -3.8℃로 인제의 -5.2℃와 -11.0℃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최난월인 8월의 평균기온과 평균일최고기온은 속초가 23.7℃와 26.7℃로 인제의 23.1℃와 28.6℃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나 속초는 해양성 기후, 인제는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혹한이 두드러진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 표 1-1-7 〉 속초 지방의 월별 기온(℃)

구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2.1	-0.2	0.9	5.2	11.3	15.9	19.0	22.8	23.7	19.7	14.9	8.6	2.9
최고	9.9	3.7	4.7	9.0	11.6	20.1	22.2	25.6	26.7	23.2	19.0	12.6	6.9
최저	12.9	-3.8	-2.6	1.4	7.1	11.9	16.0	20.1	20.9	16.3	10.7	4.6	-1.0

(한국기후표, 1971~2000)

속초 지방에서 일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004년 7월 23일로 32.7

℃이었고, 일 평균기온이 가장 낮았던 날은 2004년 1월 21일과 1986년 1월 5일 두 차례 있었으며 −11.9℃이었다.

〈 표 1−1−8 〉 일평균 기온 최고값(℃)

순위 \ 지역		속 초	인 제	강 릉
1	값	32.7	37.3	32.7
	년.월.일	2004. 7. 23	1988. 8. 1	1994. 8. 7
2	값	31.9	36.5	32.7
	년.월.일	2002. 7. 31	1988. 8. 2	1994. 8. 6
3	값	31.5	36.3	32.6
	년.월.일	1968. 7. 23	1994. 7. 22	1983. 8. 4
4	값	31.4	36.3	32.4
	년.월.일	2004. 7. 24	1972. 7. 29	1992. 7. 29
5	값	31.3	36.2	32.4
	년.월.일	1997. 8. 31	1978. 7. 27	1983. 8. 3

〈 표 1−1−9 〉 일평균 기온 최저값(℃)

순위 \ 지역		속 초	인 제	강 릉
1	값	−11.9	−18.2	−16.1
	년.월.일	2004. 1. 21	1981. 1. 5	1931. 1. 10
2	값	−11.9	−18.1	−15.7
	년.월.일	1986. 1. 5	1981. 1. 4	1915. 1. 13
3	값	−11.8	−17.6	−12.9
	년.월.일	2001. 1. 15	2001. 1. 15	1963. 1. 23
4	값	−11.2	−17.3	−12.8
	년.월.일	1981. 2. 26	2001. 1. 16	1927. 1. 22
5	값	−11.0	−17.3	−12.8
	년.월.일	1977. 2. 16	1986. 1. 5	1915. 1. 14

나. 최고기온

〈 표 1−1−10 〉 최고기온 최고값(℃)

순위 \ 지역		속 초	인 제	강 릉
1	값	37.1	37.3	39.4
	년.월.일	2004. 7. 23	1988. 8. 1	1942. 7. 25
2	값	36.6	36.5	39.3
	년.월.일	2002. 7. 31	1988. 8. 2	1994. 7. 13
3	값	35.9	36.3	38.9
	년.월.일	2004. 7. 24	1994. 7. 22	1994. 8. 6
4	값	35.9	36.3	38.5
	년.월.일	1997. 8. 23	1972. 7. 29	1939. 7. 20
5	값	35.8	36.2	38.0
	년.월.일	1997. 8. 31	1978. 7. 27	1939. 7. 19

속초 지방의 최고기온의 연평균 값은 15.8℃이며, 이는 인제의 16.3℃보다 낮은 값이다.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의 26.7℃이며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3.7℃이었다.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004년 7월 23일로 37.1℃이었다.

다. 최저기온

속초 지방의 최저기온의 연평균 값은 8.5℃이며, 이는 4.4℃보다 높은 값이다. 최저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의 20.9℃이며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3.8℃이었다. 최저기온이 가장 낮았던 날은 1981년 2월 26일로 −16.2℃이었다. 인제와 강릉의 최저기온 최저값 −25.9℃와 −20.2℃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고 있다. 이는 겨울철 동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표 1−1−11 〉 최저기온 최저값(℃)

순위 \ 지역		속 초	인 제	강 릉
1	값	−16.2	−25.9	−20.2
	년.월.일	1981. 2. 26	1981. 1. 6	1945. 1. 13
2	값	−15.6	−25.5	−19.1
	년.월.일	2004. 1. 22	1981. 1. 4	1931. 1. 11
3	값	−15.6	−24.8	−18.2
	년.월.일	1970. 1. 5	1981. 1. 5	1931. 1. 10
4	값	−14.8	−24.8	−17.8
	년.월.일	2003. 1. 29	2001. 1. 6	1915. 1. 14
5	값	−14.7	−24.5	−17.0
	년.월.일	1977. 2. 16	1984. 2. 3	1917. 1. 8

3. 강수량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1,100~1,500mm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계절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속초지방의 연간 강수량은 1,342.4mm로 비교적 많은 양이다. 8월의 강수량이 293.7mm로 가장 많은 비가 오며 특히 여름철인 6, 7, 8월의 강수량이 속초 618.0mm, 인제 655.3mm로서 연평균강수량의 46.0%와 58.8%를 차지하는 하계다우형의 강수 집중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타지방의 60%보다는 낮은 편이며, 초가을인 9월에 강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 표 1−1−12 〉 속초 지방의 월별 강수량(mm)

연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42.4	53.1	56.4	56.2	71.0	87.9	122.9	201.4	293.7	205.4	81.5	71.6	41.3

(한국기후표, 1971~2000)

하루동안 비가 가장 많이 온 날은 1984년 9월 2일로 314.2mm이었고 다음이 1984년 9월 1일로 303.6mm이었다. 태풍 루사가 속초 지방을 지나가던 2002년 8월 31일은 295.5mm의 일 강수량으로 세 번째로 비가 많이 온 날이다.

〈 표 1-1-13 〉 일 최다 강수량(mm)

순위 \ 지역		속 초	인 제	강 릉
1	값	314.2	275.8	870.5
	년.월.일	1984. 9. 2	1984. 9. 1	2002. 8. 31
2	값	303.6	232.0	305.1
	년.월.일	1984. 9. 1	1990. 9. 11	1921. 9. 24
3	값	295.5	216.5	297.7
	년.월.일	2002. 8. 31	1999. 8. 2	1936. 9. 27
4	값	241.0	200.0	297.5
	년.월.일	2004. 7. 4	1991. 7. 25	1990. 9. 11
5	값	240.8	186.5	289.1
	년.월.일	1990. 9. 11	1999. 8. 1	1984. 8. 5

속초 지방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눈이 가장 많이 쌓였던 날은 1969년 2월 21일로 123.8cm이었고, 그 다음이 모두 2월에 눈이 가장 많이 내렸다. 이와 같이 속초 지방에 눈이 많이 오며 특히 2월에 가장 많이 오는 이유는 평균고도가 해발 900m이상이 되는 태백산맥이 한반도의 동측에 치우쳐 있어 영동 지방 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동해와 접해있는 지형적 특성과 만주 동쪽이나 오호츠크해 부근에서 고기압이 발달하는 기압 배치 때문이다. 대륙성고기압의 세력이 시베리아의 동부까지 확장하거나,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발달하여 북고남저형 기압배치가 되면 북동풍이 영동지방으로 불어오게 된다. 동해쪽에서 불어오는 차고 습한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상승할 때 엄청난 눈구름을 형성하게 되어 폭설이 내리게 된다.

〈 표 1-1-14 〉 최심적설(cm)

순위 \ 지역		속 초	인 제	강 릉
1	값	123.8	35.6	138.1
	년.월.일	1969. 2. 21	1987. 2. 3	1990. 2. 1
2	값	113.8	35.0	130.2
	년.월.일	1969. 2. 20	1987. 2. 4	1923. 1. 27
3	값	102.0	34.1	118.0
	년.월.일	1969. 2. 22	1987. 2. 5	1990. 2. 2
4	값	88.6	32.0	113.7
	년.월.일	1972. 2. 11	1987. 2. 6	1990. 1. 31
5	값	87.0	31.9	109.7
	년.월.일	1996. 2. 18	1997. 1. 7	1996. 2. 21

4. 습도

습도는 복사냉각(輻射冷却)으로 수증기 응결현상(凝結現象)이 나타나는 이른 아침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정오를 지나면서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습도는 내륙지방보다 해안지방이 높은 것이 특성이지만 지형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속초 지방은 월 평균습도는 51.8~83.2%의 분포로 겨울철에 낮고, 여름철에 높다. 월 평균습도가 가장 높은 달은 장마기간으로 잦은 비와 흐린날이 많은 7월로 83.2%이며, 가장 낮은 달은 12월로 51.8%이다.

〈 표 1-1-15 〉 속초 지방의 월별 습도(%)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7.1	53.0	57.7	63.3	63.3	68.5	80.1	83.2	83.0	77.4	66.1	58.2	51.8

(한국기후표, 1971~2000)

속초 지방에서 최소 습도의 최저값은 2004년 3월 31일의 5%이다. 속초 지방에서 최소 습도는 주로 봄철에 나타나는데, 이는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높새바람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봄철의 낮은 습도는 강한 바람과 함께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최소습도가 20% 미만이 되는 날은 연간 14.8일이며 4월에 2.8일로 가장 많으며, 최소습도 10% 미만의 날 역시 4월에만 0.1일로 가장 건조한 달임을 나타낸다. 특히 2004년도 봄에는 유난히도 습도가 낮은 날이 많아 청대산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 표 1-1-16 〉 최소 습도 최저값

순위 \ 지역		속 초	인 제	강 릉
1	값	3	3	5
	년.월.일	2004. 3. 31	1989. 4. 2	1994. 1. 24
2	값	7	4	5
	년.월.일	2005. 5. 3	1977. 5. 3	2004. 3. 28
3	값	7	5	5
	년.월.일	2004. 4. 30	1991. 4. 20	2005. 5. 7
4	값	7	5	5
	년.월.일	2004. 4. 28	1978. 4. 23	2005. 1. 6
5	값	7	5	5
	년.월.일	2004. 2. 19	1976. 10. 29	2004. 4. 18

(속초기상대 제공)

〈 표 1-1-17 〉 속초 지방의 최소습도 20% 미만 일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일수	2.3	1.3	2.2	2.8	1.5	0.2	–	–	0.0	0.7	1.6	2.2	14.8

(한국기후표, 1971~2000)

5. 바람

바람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륙보다 해안지방에서 강하게 분다. 속초 지방의 연평균 풍속은 3.1m/s로 인제의 1.9m/s보다 월등히 강하며, 강릉의 2.6m/s보다도 강하여 예로부터 양간지풍(襄杆之風)이라 할 정도로 바람이 강한 지역이다.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달은 12월로 월 평균 풍속이 4.5m/s이고, 가장 약하게 바람이 부는 달은 7, 8월로 월 평균 풍속이 2.4m/s이다. 특히 상대습도가 낮은 11월부터 5월까지의 강풍 때문에 산화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표 1-1-18 〉 속초 지방의 월별 풍속(m/s)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1	3.7	3.5	3.4	3.7	3.3	2.7	2.4	2.4	2.6	2.9	3.4	4.5

(한국기후표, 1971~2000)

속초 지방에서 순간최대풍속이 가장 강했던 날은 1974년 4월 22일과 1980년 4월 19일 두 차례 있었으며 순간최대풍속이 46.0m/s로 강원도의 최고 기록이다.

〈 표 1-1-19 〉 최대 순간 풍속(m/s)

순위 \ 지역		속 초	인 제	강 릉
1	값	46.0	26.6	41.6
	풍향	SSW	E	SSW
	년. 월. 일	1980. 4. 19	2002. 3. 21	1983. 4. 27
2	값	46.0	23.8	38.0
	풍향	SSW	NNE	SSW
	년. 월. 일	1974. 4. 22	1992. 7. 2	1974. 6. 12
3	값	43.6	22.4	36.2
	풍향	NW	SSW	SW
	년. 월. 일	1980. 1. 26	1997. 1. 1	1987. 4. 21
4	값	43.0	22.1	36.0
	풍향	SW	SSW	SW
	년. 월. 일	1983. 4. 27	1997. 4. 12	1968. 11. 9
5	값	41.0	21.2	33.0
	풍향	SW	SSW	WSW
	년. 월. 일	1973. 4. 18	2004. 3. 10	1982. 5. 4

6. 계절관측

가. 서리

속초 지방의 첫서리가 가장 빨랐던 해는 1983년 10월 24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해는 1981년 2월 5일이었다. 마지막 서리가 가장 빨랐던 해는 1989년 2월 14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해는 1984년 4월 8일이었다.

〈 표 1-1-20 〉 서리 내리는 시기

구분 / 지역	첫 서리		마지막 서리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속초	1981. 10. 24	1981. 02. 05	1989. 02. 14	1984. 04. 08
인제	1982. 09. 26	2000. 11. 01	1972. 04. 02	1976. 05. 14
강릉	1969. 10. 10	1980. 01. 24	1966. 02. 14	1947. 05. 10

(속초기상대 제공)

나. 눈

속초 지방의 예년 첫눈은 11월 30일이며, 가장 빨랐던 첫눈은 1980년 10월 25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첫눈은 1994년 12월 31일이었다. 예년의 마지막 눈은 3월 25일이며, 가장 빨랐던 마지막 눈은 2000년 2월 27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마지막 눈은 1992년 4월 15일이었다.

〈 표 1-1-21 〉 눈오는 시기

구분 / 지역	첫 눈			마지막 눈		
	평 년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평 년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속초	11. 30	80. 10. 25	94. 12. 31	3.25	00. 2. 27	92. 4. 15
인제	11. 18	81. 10. 3	75. 12. 21	3.30	98. 2. 28	74. 4. 22
강릉	12. 01	76. 10. 30	65. 12. 30	3.27	00. 2. 28	17. 4. 28

다. 얼음

속초 지방의 예년 첫 얼음은 11월 8일이며, 첫 얼음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89년 10월 17일이었고, 첫 얼음이 가장 늦었던 날은 1971년 11월 28일이었다. 예년 마지막 얼음은 4월 1일이며, 마지막 얼음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59년 3월 9일이었고, 마지막 얼음이 가장 늦었던 날은 1984년 4월 20일이었다.

〈 표 1-1-22 〉 얼음 어는 시기

구분 / 지역	첫 눈			마지막 눈		
	평 년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평 년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속초	11. 8	89. 10. 17	71. 11. 28	4.1	59. 3. 9	84. 4. 20
인제	10.17	87. 9. 27	94. 10. 30	4.20	81. 4. 3	76. 5. 14
강릉	11. 9	99. 10. 17	54. 12 .2	4.3	89. 3. 18	47. 5. 9

라. 적설

속초 지방의 예년 첫 적설(積雪)은 12월 17일이며, 첫 적설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81년 11월 17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날은 1968년 2월 10일이었다. 예년 마지막 적설은 3월 20일이며, 마지막 적설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94년 2월 18일이었고, 마지막 적설이 가장 늦었던 날은 1992년 4월 16일이었다. 적설이 가장 오래 지속된 기간은 1972년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50일간이었다. 인제 지방에 비해 적설량은 많으나 적설 기간이 짧은 것은 겨울철 평균기온이 해양성 기후의 속초 지방이 내륙성 기후의 인제 지방보다 높기 때문이다.

〈 표 1-1-23 〉 적설 시기

구분 / 지역	첫 적설			마지막 적설			가장 오래 계속된 적설기간		
	평년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평년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시작	끝	일수
속초	12. 17	81. 11. 17	68. 2. 10	3.20	94. 2. 1 8	92. 4. 16	72. 1. 23	72. 3. 12	50
인제	11.26	78. 10. 29	94. 12. 30	3.22	98. 2. 15	88. 4. 19	80. 12. 22	81. 2. 13	54
강릉	12.14	81. 11. 17	54. 2. 14	3.19	38. 2. 14	47. 4. 21	69. 1. 28	69. 3. 22	54

제2장 속초의 식물

1. 설악산의 식물

가. 설악산의 식물상

설악산은 남한 지역에서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높이 또한 남한에서 한라산(해발 1,950m), 지리산(해발 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태백산맥 중에서는 최고봉으로 대청봉의 고도가 해발 1,708m이다. 따라서 고도 변화에 따른 기온 감율(0.55℃/100m) 때문에 저지대와 산 정상과의 기온 차가 10℃정도가 된다. 따라서 설악산에는 극지 고산식물(arctic-alpine plant), 고산식물(alpine plant), 북방계식물(boreal plant), 온대성 상록침엽수와 낙엽활엽수, 그리고 난온대성(warm temperate) 식물까지 다양한 식물종이 분포하고 있다. 설악산의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은 고산과 아고산대의 식물이 자라는데, 눈잣나무(*Pinus pumila*), 설악눈주목(*Taxus caespitosa*), 눈향나무(*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털개불알꽃(*Cypripedium guttatum* var. *koreanum*), 홍월귤(*Arctous ruber*), 월귤(*Vaccinium vitis-idaea*), 들쭉나무(*Vaccinium uliginosum*) 등 남한에서는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 많이 분포하며, 눈측백(*Thuja koraiensis*), 흰장구채(*Silene oliganthella*), 바람꽃(*Anemone narcissiflora*), 만주송이풀(*Pedicularis manshurica*), 등대시호(*Bupleurum euphorbioides*), 바람꽃(*Anemone narcissiflora*), 흰인가목(*Rosa koreana*), 붉은인가목(*Rosa marretii*), 기생꽃(*Trientalis europaea*), 솔나리(*Lilium cernuum*), 난쟁이붓꽃(*Iris uniflora* var. *carina*) 등의 북방계 식물이 산 정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설악산 고지대에 북방계식물이 많이 자라는 것은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과거 지질시대에 한온(寒溫)의 기후변천에 따라 식물이 남쪽 또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기후가 한랭해지면 식물의 분포지역이 남쪽으로 이동하게되고 반면 기후가 온난해지면 그 분포지역이 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일부 식물은 기온이 낮은 고지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설악과 외설악의 식물상은 고지대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내설악이 내륙의 산악 지대와 접해 있고, 외설악이 동해와 접해 있어 내설악의 저지대에는 북방계 식물이 많은 편이며, 외설악의 저지대에는 남방계 식물(예,

Styrax japonica 때죽나무, *Sapium japonicum* 사람주나무 등)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고도별 수직분포에 차이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조사된 설악산에 분포하는 식물은 모두 112과 486속 1,300분류군(1,043종, 214변종, 34품종, 1아종, 8교잡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식물 중 한국고유식물은 고유속(모데미풀속, 금강초롱속) 2종, 53 고유종, 31 고유변종, 9 고유품종, 1 교잡종으로 모두 94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고유식물은 생물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오랜 기간동안 유전적 분리작용이 생겨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 다른 지역에서는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식물 종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유식물은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 설악산에 한국 고유식물이 많이 분포하는 이유는 설악산의 중심 축인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뻗어 있어 과거 여러 차례 반복된 빙하기와 간빙기에 산맥을 따라 북방계 식물의 남하와 남방계 식물의 북상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여 북방계 요소와 남방계 요소의 식물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고,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의 상승으로 고산으로 이동한 북방계 식물의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설악산의 고유식물 94종류는 인근 향로봉산맥에 위치한 칠절봉과 매봉산(홍, 2000)의 21종류와 치악산 지역(김, 1999)의 28종류보다 많으나 지리산의 107종류(국립공원관리공단, 2003)보다는 적은 것이다.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감소추세에 있고 개체수가 아주 희소하여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높은 희귀 및 멸종위기의 식물로서 환경부에서 자연보전법 시행령으로 2005년 2월 10일에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Ⅰ급 8종과 Ⅱ급 56종 중 Ⅰ급 식물은 분포하지 않으며, Ⅱ급 식물 9종이 설악산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림청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에서 1997년 12월에 선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217종과 후보종 42종 중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69종과 후보종 3종으로 72종류가 설악산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악산에 분포하는 귀화식물은 13과 41속 46종류가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 문헌에 기록된 종을 포함하면 모두 16과 43속 50종이 된다. 이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64종보다는 적고, 서울 남산의 49종, 광릉 숲의 41종보다는 많다(박, 2000). 인간 간섭에 의한 자연 파괴의 정도를 나타내는 도시화지수($\frac{\text{일정지역의 귀화식물종수}}{\text{한국의 귀화식물종수}} \times 100$)는 '귀화생물에 의한 생태계 영향 조사(Ⅱ)'(국립환경연구원, 2004)에서 조사된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귀화식물 287종에 대하여 17.42%이다. 설악산 지역에 출현하는 전 식물의 종 수

1,300분류군에 대한 귀화식물 50종류의 백분율인 귀화율은 3.85%이다. 이는 우리나라 산악지역의 평균 귀화율 16.7%(국립환경연구원, 1996)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설악산이 인간의 간섭을 비교적 적게 받았으며, 식생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설악산의 귀화식물을 과별, 생활형별로 구분하면, 국화과가 전체 귀화식물 50종류의 36.0%인 18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1, 2년생 초본이 전체 54.0%인 27종으로 나타났다. 1, 2년생 초본 비율은 우리나라의 68.5%(박, 1996)에 비해 적은 편인데 이는 설악산 지역에 1, 2년생 초본이 침입하여 생육할 수 있는 나대지가 적기 때문이며, 공사 시행 등으로 훼손된 지역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식물상 조사에서 나타난 귀화식물의 종 수와 비교해보면, 최근에 귀화식물의 종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설악산이 관광지로서 본격 개발된 것이 1970년대 말부터이며, 그 후 관광객의 증가와 각종 시설물 공사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자재 도입 등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는 본 조사에서 발견된 귀화식물의 대부분이 설악산 소공원, 야영장, 도로변, 상가, 주택단지, 사찰 주변 등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과 훼손지역 복원공사지 주변, 사찰 복원 및 증축 공사 지역과 위험 등산로 계단 공사지 등으로 각종 건축 자재 반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발견되며, 탐방로 이외의 등산로에서는 드물게 발견되고 숲 속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사진 1-2-1〉 **설악눈주목**
설악산 중청봉 일대에 자라는 우리 나라 특산식물로 주목에 비해 줄기가 옆으로 자라며 줄기 곳곳에서 뿌리를 내린다.

〈사진 1-2-2〉 **분비나무**
강원도와 경기도 이북의 고산에서 자라며, 한라산과 지리산에 자라는 구상나무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며, 구과(毬果)의 실편(實片) 끝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사진 1-2-3〉 **눈잣나무**
남한에서는 설악산에만 자라며 잣나무와 같이 잎은 5개씩 달리지만 가지가 옆으로 기어 자란다. 설악산 대청봉일대 해발 1,500m이상 지역에서 자란다.

〈사진 1-2-4〉 **한계령풀**
설악산과 점봉산 일대에 자라는 다년초로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Ⅱ급의 야생식물이다. 이른봄꽃 식물로 6월이 되면 모습을 감춘다.

〈사진 1-2-5〉 **설악조팝나무**
설악산과 화악산에 자라며, 모종(母種)인 아구장나무에 비해 잎이 약간 넓고 열매 뒷면에 오랫동안 긴 털이 남아 있는다.

〈사진 1-2-6〉 **설악대극**
설악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이름이 붙여졌으며, 모종(母種)인 민대극에 비해 줄기와 잎이 훨씬 더 크다.

〈 사진 1-2-7〉 **금강제비꽃**
우리 나라 고산지대에 자라는 특산식물이다.
원줄기가 없으며, 잎은 심장형으로 고깔제비꽃에 비해 배정도 크다.

〈 사진 1-2-8〉 **홍월귤**
백두산지역에서 자라는 고산식물로 설악산의 고산지대 바위틈에 드물게 자라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Ⅱ급의 야생식물이다.

〈 사진 1-2-9〉 **금강봄맞이**
설악산과 금강산의 응달 암벽에 자라는 다년초로서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나라 특산식물이다.

〈 사진 1-2-10〉 **만리화**
설악산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우리 나라 특산식물이다. 개나리에 비해 잎이 짧고 넓으며 털이 전혀 없다.

〈 사진 1-2-11〉 **만주송이풀**
설악산 중턱 이상에서 자라는 다년초.

〈 사진 1-2-12〉 **금강초롱꽃**
우리 나라에만 자라는 특산속 식물로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설악산의 관속식물 목록

〈 양치식물 〉

석송과 Lycopodiaceae

개석송	*Lycopodium annotinum* L.
다람쥐꼬리	*L. chinense* H. Christ.
석송	*L. clavatum var. nipponicum* Nakai
비늘석송	*L. complanatum* L.
왕다람쥐꼬리	*L. cryptomerinum* Maxim.
만년석송	*L. obscurum* L.
좀다람쥐꼬리	*L. selago* L.
뱀톱	*L. serratum* Thunb.

부처손과 Selaginellaceae

구실사리	*Selaginella rossii* (Bak.) Warb.
부처손	*S. tamariscina* (Beauv.) Spring

속새과 Equisetaceae

쇠뜨기	*Equisetum arvense* L.
속새	*E. hyemale* L.
물쇠뜨기	*E. pratense* Ehrh.

고사리삼과 Ophioglossaceae

고사리삼	*Botrychium ternatum* (Thunb.) Sw.
늦고사리삼	*B. virginianum* (L.) Sw.

고비과 Osmundaceae

꿩고비	*Osmunda cinnamomea* var. *fokiensis* Copel
음양고비	*O. claytoniana* L.
고비	*O. japonicia* Thunb.

처녀이끼과 Hymenophyllaceae

부채괴불이끼	*Gonocormus minutus* (Bl.) Bosch

고사리과 Pteridaceae

공작고사리	*Adiantum pedatum* L.
고비고사리	*Coniogramme intermedia* Hieron
잔고사리	*Dennstaedtia hirsuta* (Sw.) Mett.
황고사리	*D. wilfordii* (Moore) H. Christ.
좀고사리	*Pleurosoriopsis makinoi* (Maxim.) Fomin
고사리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erw.

넉줄고사리과 Davalliaceae

넉줄고사리	*Davallia mariesii* Moore

면마과 Aspidiaceae

참새발고사리	*Athyrium brevifrons* Nakai
좀진고사리	*A. conilii* (Fr. et Sav.) Tagawa
두메고사리	*A. crenatum* (Summerf.) Rupr.
곱새고사리	*A. henryi* (Bak.) Diels
개고사리	*A. niponicum* (Mett.) Hance
왕고사리	*A. pterorachis* H. Christ
털고사리	*A. pycnosorum* H. Christ
뱀고사리	*A. yokoscense* (Fr. et Sav.) H. Christ
족제비고사리	*Dryopteris bissetiana* (Bak.) C. Christ.
퍼진고사리	*D. austriaca* (Jacq.) Woynar
가는잎족제비고사리	*D. chinensis* (Bak.) Koidz.
관중	*D. crassirhizoma* Nakai
비늘고사리	*D. lacera* (Thunb.) O. Kuntze
느리미고사리	*D. tokyoensis* C. Christ.
처녀고사리	*Lastrea thelypteris* (L.) Bory
큰처녀고사리	*L. quelpaertensis* (Christ.) Copeland
개면마	*Matteuccia orientalis* (Hooker) Trev.
청나래고사리	*M. struthiopteris* (L.) Todaro
야산고비	*Onoclea sensibilis* var. *interrupta* Maxim.
설설고사리	*Phegopteris decursive-pinnata* (Van Hall) Fee
가래고사리	*P. polypodioides* Fee

십자고사리	*Polystichum tripteron* (Kunze) Presl	
큰십자고사리	*P. tripteron for. subtripinnatum* H. Ito	
왁살고사리	*Rumohra miqueliana* (Maxim.) Ching	
일색고사리	*R. stanbdishii* Ching	
만주우드풀	*Woodsia manchuriensis* Hooker	
우드풀	*W. polystichoides* Eaton	
왜우드풀	*W. polystichoides* var. *nudiuscula* Hooker	
산우드풀	*W. subcordata* Turcz.	

꼬리고사리과 Aspleniaceae

꼬리고사리	*Asplenium incisum* Thunb.	
거미고사리	*Camptosorus sibiricus* Rupr.	

고란초과 Polypodiaceae

애기일엽초	*Lepisorus onoei* (Fr. et Sav.) Ching	
일엽초	*L. thunbergianus* (Kaulf.) Ching	
산일엽초	*L. ussuriensis* (Regel et Maack) Ching	
좀미역고사리	*Polypodium virginianum* L.	
미역고사리	*P. vulgare* L.	
우단일엽	*Pyrrosia linearifolia* (Hooker) Ching	

겉씨식물

주목과 Taxaceae

설악눈주목	*Taxus caespitosa* Nakai	고유식물
주목	*T. cuspidata* S. et Z.	

소나무과 Pinaceae

전나무	*Abies holophylla* Maxim.	
분비나무	*A. nephrolepis* Maxim.	
일본잎갈나무	*Larix leptolepis* (S. et Z.) Gordon	외래식물
소나무	*Pinus densiflora* S. et Z.	
금강소나무	*P. densiflora* for. *erecta* Uyeki	
반송	*P. densiflora* for. *multicaulis* Uyeki	
잣나무	*P. koraiensis* S. et Z.	

리기다소나무	*P. rigida* Mill.	외래식물
눈잣나무	*P. pumila* Regal	
곰솔	*P. thunbergii* Parl.	

측백나무과 Cupressaceae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노간주나무	*J. rigida* S. et Z.
눈측백	*Thuja koraiensis* Nakai

속씨식물

홀아비꽃대과 Chloranthaceae

홀아비꽃대	*Chloranthus japonicus* Sieb.

버드나무과 Salicaceae

새양버들	*Chosenia arbutifolia* (Pallas) Skvort.	
사시나무	*Populus davidiana* Dode	
물황철나무	*P. koreana* Rehder	
황철나무	*P. maximowiczii* Henry	
은사시나무	*P.* × *tomentiglandulosa* T. Lee	
호랑버들	*Salix caprea* Linn.	
좀호랑버들	*S. caprea* var. *elongata* Kitagawa	
산버들	*S. floderusii* var. *glabra* Nakai	
눈갯버들	*S. graciliglans* Nakai	
갯버들	*S. gracilistyla* Miq.	
떡버들	*S. hallaisanensis* Lév.	고유식물
긴잎떡버들	*S. hallaisanensis* var. *longifolia* Nakai	고유식물
버드나무	*S. koeensis* Ander.	
키버들	*S. koriyanagi* Kimura	고유식물
쪽버들	*S. maximowiczii* Kom.	
능수버들	*S. pseudo-lasiogyne* Lév.	
분버들	*S. rorida* Lachschewitz	
참오굴잎버들	*S. siuzevii* Seem.	
여우버들	*S. xerophila* Floderus	

가래나무과 Juglandaceae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	

자작나무과 Betulaceae

덤불오리	*Alnus fruticosa* var. *mandshurica* Call.	
물오리나무	*A. hirsuta* (Spach) Rupr.	
물갬나무	*A. hirsuta* var. *sibirica* (Fisch.) Schneid.	
오리나무	*A. japonica* Steud.	
털오리나무	*A. japonica* var. *rufa* Nakai	
두메오리나무	*A. maximowiczii* Call.	
개박달나무	*Betula chinensis* Maxim.	
거제수나무	*B. costata* Trautv.	
물박달나무	*B. davurica* Pall.	
사스래나무	*B. ermanii* Chem.	
고채목	*B. ermanii* var. *subcordata* (Regel) Koidz.	
좀고채목	*B. ermanii* var. *saitoana* Hatus.	고유식물
자작나무	*B. platyphylla* var. *japonica*	
박달나무	*B. schmidtii* Regel	
까치박달	*Carpinus cordata* Bl.	
소사나무	*C. coreana* Nakai	고유식물
서어나무	*C. laxiflora* Bl.	
개서나무	*C. tschonoskii* Maxim.	
병개암나무	*Corylus hallaisanensis* Nakai	고유식물
난티잎개암나무	*C. heterophylla* Fisch.	
개암나무	*C. heterophylla* var. *thunbergii* Bl.	
참개암나무	*C. sieboldiana* Bl.	
물개암나무	*C. sieboldiana* var. *mandshurica* (Maxim.) C.K. Schneid.	

참나무과 Fagaceae

밤나무	*Castanea crenata* S. et Z.	
산밤나무	*C. crenata* var. *kusakuri* (Bl.) Nakai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갈참나무	*Q. aliena* Bl.	
졸갈참나무	*Q. aliena* var. *acuteserrata* Maxim.	

떡갈나무	*Q. dentata* Thunb.	
떡신갈나무	*Q.* × *dentata*–*mongolica* Nakai	고유식물
물참나무	*Q.* × grosseserrata Bl.	
떡갈참나무	*Q.* × *mccornickii* Carruth.	
신갈나무	*Q. mongolica* Fisch.	
깃옷신갈	*Q. mongolica* var. *laciniata* Nakai	
봉동참나무	*Q.* × *pontugensis* Uyeki.	
졸참나무	*Q. serrata* Thunb.	
속소리나무	*Q. serrata* for. *donarium* (Nakai) Kitamura	
갈졸참나무	*Q.* × *urticaefolia* Bl.	
굴참나무	*Q. variabilis* Bl.	

느릅나무과 Ulmaceae

풍게나무	*Celtis jessoensis* Koidz
팽나무	*C. sinensis* Pers.
시무나무	*Hemiptelea davidii* Planch.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Nakai
혹느릅나무	*U. davidiana* for. *suberosa* Nakai
난티나무	*U. laciniata* (Trautv.) Mayr.

뽕나무과 Moraceae

닥나무	*Broussonetia kazinoki* Sieb.
산뽕나무	*Morus bombycis* Koidz.
가새뽕	*M. bombycis* for. *kase* Uyeki

삼과 Cannabinaceae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S. et Z.

쐐기풀과 Urtiaceae

좀깨잎나무	*Boehmeria spicata* Thunb.
개모시풀	*B. platanifolia* Fr. et Sav.
거북꼬리	*B. tricuspis* Makino
풀거북꼬리	*B. tricuspis* var. *unicuspis* Mak.
혹쐐기풀	*Laporteae bulbifera* Weddell

모시물통이	*Pilea mongolica* Weddell	
물통이	*P. peploides* Hooker et Arnott	
가는잎쐐기풀	*Urtica angustifolia* Fisch.	
애기쐐기풀	*U. laetevirens* Maxim.	
쐐기풀	*U. thunbergiana* S. et Z.	

단향과 Santalaceae

제비꿀	*Thesium chinense* Turcz.	

겨우살이과 Loranthaceae

꼬리겨우살이	*Loranthus tanakae* Fr. et Sav.	
겨우살이	*Viscum album* var. *coloratum* (Kom.) Ohwi	

쥐방울덩굴과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Bunge	
등칡	*A. manshuriensis* Kom.	
족도리	*Asarum sieboldii* Miq.	
개족도리	*A. manculatum* Nakai	고유식물

마디풀과 Polygonaceae

왜개싱아	*Aconogonum divaricatum* (L.) Nakai	
개싱아	*A. micraanthum* Nakai ex Mori	고유식물
싱아	*A. polymorphum* (Ledeb.) T. Lee	
큰닭의덩굴	*Bilderdykia dentato-alata* Nakai	
닭의덩굴	*B. dumetora* (L.) Dum.	귀화식물
범꼬리	*Bistorta manshuriensis* Kom.	
털여뀌	*Persicaria cochinchinensis* Kitagawa	귀화식물
가시여뀌	*P. disitiflora* (Hemsl.) H. Gross	
이삭여뀌	*P. filiforme* Nakai	
여뀌	*P. hydropiper* (L.) Spach	
흰여뀌	*P. lapathifolium* S.F. Gray	
개여뀌	*P. longiseta* (De Bruyn) Kitag.	
산여뀌	*P. nepalensis* Miyabe et Kudo	
큰개여뀌	*P. nodosa* Opiz	

며느리배꼽	*P. perfoliata* H. Gross	
바보여뀌	*P. pubescens* Hara	
며느리밑씻개	*P. senticosa* H. Gross	
미꾸리낚시	*P. sieboldi* Ohki	
민미꾸리낚시	*P. sieboldi* var. *aestiva* Ohki	
고마리	*P. thunbergii* H. Gross	
끈끈이여뀌	*P. viscofera* (Mak.) H. Gross	
큰끈끈이여뀌	*P. viscofera* var. *robusta* Maxim.	
장대여뀌	*P. posumbu* var. *laxiflora* (Meisn.) Hara	
나도하수오	*Pleuropterus cilinervis* Nakai	
마디풀	*Polygonum aviculare* L.	
호장근	*Reynoutria elliptica* (Koidz.) Migo	
애기수영	*Rumex acetocella* L.	귀화식물
수영	*R. acetosa* L.	
소리쟁이	*R. crispus* L.	귀화식물
개대황	*R. longifolius* DC.	
가는잎소리쟁이	*R. stenophyllus* Ledeb.	

명아주과 Chenopodiaceae

애기명아주	*Chenopodium acuminatum* var. *ovatum* Fenzl.	
명아주	*C.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좀명아주	*C. ficifolium* Smith	귀화식물
취명아주	*C. glaucum* L.	귀화식물
참명아주	*C. koraiense* Nakai	
버들명아주	*C. virgatum* Thunb.	
솔장다리	*Salsola collina* Pall.	

비름과 Amarantaceae

쇠무릎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개비름	*Amaranthus lividusl* L.	귀화식물
비름	*A. mangostanus* L.	
가는털비름	*A. patulus* Bertoloni	귀화식물

자리공과 Phytolaceae

자리공	*Phytolacca esculenta* V. Houtte	귀화식물

석류풀과 Aizoaceae

석류풀	*Mollugo pentaphylla* L.	

쇠비름과 Portulaceae

쇠비름	*Portulaca oleracea* L.	

석죽과 Caryophyllaceae

벼룩이자리	*Arenaria serpyllifolia* L.	
점나도나물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isanense* Mizushina	
덩굴별꽃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패랭이꽃	*Dianthus chinensis* L.	
술패랭이꽃	*D. superbus* var. *longicalycinus* (Maxim.) Williams	
흰술패랭이	*D. superbus* var. *longicalycinus* for. *abal* Y. Lee	
대나물	*Gypsophila oldhamiana* Miq.	
동자꽃	*Lychnis cognata* Maxim.	
털동자꽃	*L. fulgens* Fisch.	
장구채	*Melandryum firmum* (S. et Z.) Rohr.	
털장구채	*M. firmum* for. *pubescens* Ohwi	
개벼룩	*Moehringia lateriflora* Fenzl.	
덩굴개별꽃	*Pseudostellaria davidii* (Fr.) Pax.	
개별꽃	*P. heterophylla* (Miq.) Pax.	
큰개별꽃	*P. palibiniana* (Takeda) Ohwi	
숲개별꽃	*P. sylvatica* Pax.	
개미자리	*Sagina japonica* Ohwi	
큰개미자리	*S. maxima* A. Gray	
끈끈이대나물	*Silene armeria* L.	귀화식물
한라장구채	*S. fasciculata* Nakai	고유식물
가는다리장구채	*S. jenisseensis* Willd.	
끈끈이장구채	*S. koreana* Kom.	
흰장구채	*S. oliganthella* Nakai	
유럽개미자리	*Spergularia rubra* (L.) J. et C. Presl.	귀화식물
벼룩나물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Ohwi	

쇠별꽃	*S. aquatica* Scop.	
별꽃	*S. media* Villars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

놋젓가락나물	*Aconitum ciliare* DC.	
투구꽃	*A. jaluense* Kom.	
백부자	*A. koreanum* R. Raymond	
흰진범	*A. longecassidatum* Nakai	
한라돌쩌귀	*A. napiforme* Lv. et Van.	
참줄바꽃	*A. neotortuosum* Nakai	
진범	*A.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고유식물
이삭바꽃	*A. pulcherirmum* Nakai	
가는줄돌쩌귀	*A. volubile* Koelle	
노루삼	*Actaea aciatica* Hara	
복수초	*Adonis amurensis* Regel et Radde	
들바람꽃	*Anemone amurensis* Kom.	
바이칼바람꽃	*A. glabrata* (Maxim.) Juzepc.	
홀아비바람꽃	*A. koraiensis* Nakai	고유식물
바람꽃	*A. narcissiflora* L.	
꿩의바람꽃	*A. raddeana* Regel	
회리바람꽃	*A. reflexa* Steph. et Willd.	
쌍둥이바람꽃	*A. rossii* S. Moore	
매발톱꽃	*Aquilegia buergeriana* var. *axysepala* (Traut. et Meyer) Kitamura	
동의나물	*Calta palustris* var. *membranacea* Turcz.	
눈빛승마	*Cimicifuga davurica* Maxim.	
황새승마	*C. foetida* L.	
승마	*C. heracleifolia* Kom.	
왜승마	*C. japonica* Spreng.	
대승마	*C. simplex* Wormsk.	
사위질빵	*Clematis apiifolia* A.P. DC.	
외대으아리	*C. brachyura* Maxim.	
누른종덩굴	*C. chiisanensis* Nakai	고유식물
검종덩굴	*C. fusca* Turcz.	

요강나물	*C. fusca* var. *coreana* Nakai	고유식물
종덩굴	*C. fusca* var. *violacea* Maxim.	
병조희풀	*C. heracleaefolia* DC.	
자주조희풀	*C. heracleaefolia* var. *davidiana* Hemsl.	
세잎종덩굴	*C. koreana* Kom.	
왕세잎종덩굴	*C. koreana* var. *biternata* Nakai	고유식물
으아리	*C. mandshurica* Rupr.	
산종덩굴	*C. nobilis* Nakai	고유식물
자주종덩굴	*C. ochotensis* (Pall.) Poir	
큰꽃으아리	*C. patens* Morr. et Decne.	
개버무리	*C. serratifolia* Rehder	
할미밀망	*C. trichotoma* Nakai	고유식물
큰제비꼬깔	*Delphinium maackianum* Regel	
변산바람꽃	*Eranthis pinnatifida* Maxim.	
너도바람꽃	*E. stellata* Maxim.	
노루귀	*Hepatica asiatica* Nakai	
모데미풀	*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고유식물
나도바람꽃	*Isopyrum raddeanum* (Regel) Maxim.	
백작약	*Paeonia japonica* Miyabe et Takeda	
산작약	*P. obovata* Maxim.	멸종위기 Ⅱ급
할미꽃	*Pulsatilla koreana* Nakai	
산할미꽃	*P. nivalis* Nakai	고유식물
애기미나리아재비	*Ranunculus acris* L.	
털개구리미나리	*R. cantoniensis* DC.	
젓가락나물	*R. chinensis* Bunge	
미나리아재비	*R. japonicus* Thunb.	
개구리자리	*R. sceleratus* L.	
개구리미나리	*R. tachiroei* Fr. et Sav.	
개구리갓	*R. ternatus* Thunb.	
은꿩의다리	*Thalictrum actaefolium* S. et Z.	고유식물
꿩의다리	*T. aquilegifolium* L.	
연잎꿩의다리	*T. coreanum* Lév.	고유식물, 멸종위기 Ⅱ급
돈잎꿩의다리	*T. coreanum* var. *minus* Nakai	고유식물
큰산꿩의다리	*T. filamentosum* Maxim.	

산꿩의다리	*T. filamentosum* var. *tenerum* (H. Boiss.) Ohwi	
금꿩의다리	*T. rochebrunianum* Fr. et Sav.	고유식물
좀꿩의다리	*T. minus* var. *hypoleucum* (S. et Z.) Miq.	
자주꿩의다리	*T. uchiyamai* Nakai	고유식물

으름과 Lardizabaceae

으름	*Akebia quinata* Dence.	

매자나무과 Berberidaceae

매발톱나무	*Berberis amurensis* Rupr.	
왕매발톱나무	*B. amurensis* var. *latifolia* Nakai	고유식물
매자나무	*B. koreana* Palibin	고유식물
꿩의다리아재비	*Caulophyllum robustum* Maxim.	
한계령풀	*Leontice microrhyncha* S. Moore	멸종위기 Ⅱ급

방기과 Menisoermaceae

댕댕이덩굴	*Cocculus trilobus* DC.	
새모래덩굴	*Menispermum dauricum* DC.	
털새모래덩굴	*M. dauricum* var. *pilosum* Schnei.	
함박이	*Stephania japonica* Miers	

목련과 Magnoliaceae

함박꽃나무	*Magnolia sieboldii* K .Koch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Baill	

녹나무과 Lauraceae

생강나무	*Lindera obtusiloba* Bl.	

양귀비과 Papaveraceae

애기똥풀	*Chelidonium majus* var. *siaticum* (Hara) Ohwi	
피나물	*Hylomecon vernale* Maxim.	

현호색과 Fumariaceae

왜현호색	*Corydalis ambigua* Cham. et Schlechtend.	

흰왜현호색	*C. ambigua for. lacticolora* Y. Lee	
염주괴불주머니	*C. heterocarpa* S. et Z.	
점현호색	*C. maculata* B. Oh et Y. Kim	고유식물
눈괴불주머니	*C. ochotensis* Turcz.	
괴불주머니	*C. pallida* (Thunb.) Pers.	
산괴불주머니	*C. speciosa* Maxim.	
들현호색	*C. ternata* Nakai	
현호색	*C. turtschaninovii* Bess.	
애기현호색	*C. turtschaninovii* var. *fumariaefolia* (Maxim.) T. Lee	
댓잎현호색	*C. turtschaninovii* var. *linearis* (Regel) Nakai	
빗살현호색	*C. turtschaninovii* var. *pectinata* (Maxim.) Nakai	
금낭화	*Dicentra spectabilis* (L.) Lem.	

십자화과 Cruciferae

참장대나물	*Arabis columnalis* Nakai	고유식물
큰산장대	*A. gemmifera* (Matsum.) Makino	
장대나물	*A. glabra* (L.) Bernh.	
털장대	*A. nipponica* De Boiss.	
느러진장대	*A. pendula* L.	
나도냉이	*Barbarea orthoceras* Ledeb.	
장대냉이	*Berteroella maximowiczii* (Palibin) O.E. Schulz	
냉이	*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us	
꽃황새냉이	*Cardamine amareformis* Nakai	
황새냉이	*C. flexuosa* With.	
싸리냉이	*C. impatiens* L.	
는쟁이냉이	*C. komarovi* Nakai	
미나리냉이	*C. leucantha* O. E. Schulz	
논냉이	*C. lyrata* Bunge	
큰황새냉이	*C. scutata* Thunb.	
왜갓냉이	*C. yezoensis* Maxim.	
가는장대	*Dontostemon dentatus* (Bunge) Ledeb.	
꽃다지	*Draba nemorosa* var. *hebecarpa* Ledeb	
다닥냉이	*Lepidium opetalum* Willd.	귀화식물

개갓냉이	*Rorippa indica* (L.) Hiern	
속속이풀	*R. islandica* (Oed.) Borb.	
노랑장대	*Sisymbrium luteum* (Maxim.) O.E. Schulz	
말냉이	*Thlaspi arvense* L.	귀화식물

돌나물과 Crassulaceae

애기바위솔	*Orostachys filifera* (Nakai) Nakai	고유식물
바위솔	*O. japonicus* A. Berger	
난장이바위솔	*O. sikokianus* Ohwi	
낙지다리	*Penthorum chinense* Pursh	
가는기린초	*Sedum aizoon* L.	
큰기린초	*S. aizoon* var. *latifolium* Maxim.	
말똥비름	*S. bulbiferum* Mkino	
꿩의비름	*S. erythrostichum* Miq.	
기린초	*S. kamtschaticum* Fisch.	
애기기린초	*S. middendorffianum* Maxim.	
땅채송화	*S. oryzifolium* Makino	
바위채송화	*S. polystichoides* Hemsl.	
돌나물	*S. sarmentosum* Bunge	
섬기린초	*S. takesimense* Nakai	
자주꿩의비름	*S. telephium* var. *purpureum* L.	
세잎꿩의비름	*S. verticillatum* L.	
새끼꿩의비름	*S. viviparum* Maxim.	

범의귀과 Saxifragaceae

돌단풍	*Aceriphyllum rossii* Engl.	
큰돌단풍	*A. rossii* var. *multiloba* Nakai	고유식물
노루오줌	*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Fr.	
숙은노루오줌	*A. koreana* Nakai	
흰털괭이눈	*Chrysosplenium barbatum* Nakai	고유식물
애기괭이눈	*C. flagelliferum* Fr. Schn.	
괭이눈	*C. grayanum* Maxim.	
선괭이눈	*C. trachyspernum* Maxim.	
물참대	*Deutzia glabrata* Kom.	

바위말발도리	*D. hamata* Koehner	
말발도리	*D. parviflora* Bunge	
털말발도리	*D. parviflora* var. *pilosa* Nakai	고유식물
매화말발도리	*D. uniflora* Shirai.	
지리말발도리	*D. uniflora* var. *triadiata* (Hatus.) T. Lee	
물매화	*Parnassia palustris* L.	
고광나무	*Philadelphus schrenckii* Rupr.	
얇은잎고광나무	*P. tenuifolius* Rupr. et Maxim.	
까마귀밥나무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Maxim.	
꼬리까치밥나무	*R. komarovii* A. Pojark.	
까치밥나무	*R. mandshuricum* Kom.	
개앵도나무	*R. mandshuricum* var. *subglabrum* Kom.	
명자순	*R. maximowiczianum* Kom.	
도깨비부채	*Rodgersia podophylla* A. Gray	
바위떡풀	*Saxifraga fortunei* var. *incisolobata* Nakai	
참바위취	*S. oblongifolia* Nakai	
구실바위취	*S. octopetala* Nakai	고유식물
톱바위취	*S. punctata* L.	

장미과 Rosaceae

산짚신나물	*Agrimonia coreana* Nakai	
짚신나물	*A. pilosa* Ledeb.	
눈개승마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Hara	
이노리나무	*Crataegus komarovii* Sarg.	
산사	*C. pinnatifida* Bunge	
뱀딸기	*Duchesnea chrysantha* (Zoll. et Morr.) Miq.	
터리풀	*Filipendula palmata* var. *glabra* Ledeb.	고유식물
큰뱀무	*Geum aleppicum* Jacq.	
야광나무	*Malus baccata* Borkh.	
털야광나무	*M. baccata* var. *mandshurica* Schneid.	
개야광나무	*M. baccata* var. *minor* T. Lee	
아그배나무	*M. sieboldii* (Regel) Rehder	
딱지꽃	*Potentilla chinensis* Ser.	
털딱지꽃	*P. chinensis* var. *concolor* Fr.	

물양지꽃	*P. cryptotaeniae* Maxim.	
돌양지꽃	*P. dickinsii* Fr. et Sav.	
참양지꽃	*P. dickinsii* var. *breviseta* Nakai	고유식물
섬양지꽃	*P. dickinsii* var. *glabrata* Nakai	고유식물
양지꽃	*P.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세잎양지꽃	*P. freyniana* Bornm.	
좀양지꽃	*P. matsumurae* Wolf.	
개소시랑개비	*P. supina* Linn.	귀화식물
윤노리나무	*Pourthiaea villosa* Decne.	
이스라지	*Prunus japonica* var. *nakaii* (Lv.) Rehder	
개벚나무	*P. leveilleana* Koehne	
개벚지나무	*P. maackii* Rupr.	
개살구	*P. mandshurica* var. *glabra* Nakai	
산개벚지나무	*P. maximowiczii* Rupr.	
귀룽나무	*P. padus* L.	
흰털귀룽	*P. padus* var. *pubescens* Regel et Tiling	
흰귀룽	*P. padus* var. *glauca* Nakai	
서울귀룽나무	*P. padus* var. *seoulensis* Nakai	고유식물
올벚나무	*P. pendula* for. *ascendes* (Mak.) Ohwi	
복사나무	*P. persica* (L.) Batsch	
산벚나무	*P. sargentii* Rehder	
시베리아살구	*P. sibirica* L.	
콩배나무	*Pyrus calleryana* var. *fauriei* (Schneid.) Reheder	
돌배나무	*P. pyrifolia* (Burm.) Nakai	
산돌배	*P. ussuriensis* Maxim.	
금강산돌배	*P. ussuriensis* var. *diamantica* Uyeki	
백운배나무	*P. ussuriensis* var. *hakunensis* (Nak.) T. Lee	
민둥인가목	*Rosa acicularis* Lindl.	
생열귀나무	*R. davurica* Pall.	
긴생열귀나무	*R. davurica* var. *ellipsoidea* Nakai	고유식물
흰인가목	*R. koreana* Kom.	
붉은인가목	*R. marretii* Lév.	
용가시나무	*R. maximowicziana* Regel	
돌가시나무	*R. wichuraiana* Crep.	

찔레꽃	*R. multiflora* Thunb.
해당화	*R. rugosa* Thunb.
둥근인가목	*R. spinosissima* var. *pimpinellifolia* Hooker
복분자딸기	*Rubus coreanus* Miq.
산딸기	*R. crataegifolius* Bunge
나무딸기	*R. idaeus* var. *concolor* Nakai
멍덕딸기	*R. idaeus* var. *microphyllus* Turcz.
줄딸기	*R. oldhami* Miq.
멍석딸기	*R. parvifolius* L.
곰딸기	*R. phoenicolasius* Maxim.
산오이풀	*Sanguisorba hakusanensis* var. *koreana* Hera 고유식물
오이풀	*S. officinalis* L.
구슬오이풀	*S. officinalis* var. *globularis* (Nakai) W. Lee
큰오이풀	*S. stipulata* Rafin.
가는오이풀	*S. tenuifolia* var. *alba* Trautv. et Meyer
자주가는오이풀	*S. tenuifolia* var. *purpurea* Trautv. et Meyer
쉬땅나무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im.
점쉬땅나무	*S. sorbifolia* for. *glandulosa* T. Lee 고유식물
청쉬땅나무	*S. sorbifolia* for. *incerta* Kitagawa
팥배나무	*Sorbus alnifolia* (S. et Z.) K. Koch
벌배나무	*S. alnifolia* var. *lobulata* T. Lee
당마가목	*S. amurensis* Koehne
마가목	*S. commixta* Hedl.
산조팝나무	*Spiraea blumei* G. Don.
인가목조팝나무	*S. chamaedryfolia* var. *ulmifolia* (Scop.) Maxim.
당조팝나무	*S. chinensis* Maxim.
참조팝나무	*S. fritschiana* Schneid.
좀조팝나무	*S. microgyna* Nakai
덤불조팝나무	*S. miyabei* Koidz.
조팝나무	*S. prunifolia* var. *simpliciflora* Nakai
아구장나무	*S. pubescens* Turcz.
설악아구장나무	*S. pubescens* var. *lasiocarpa* Nakai
꼬리조팝나무	*S. salicifolia* L.
국수나무	*Stephanandra incisa* Zabel

나도양지꽃 *Waldsteinia ternata* (Stephan.) Fritsch

콩과 Laguminosae

자귀풀	*Aeschynomene indica* L.	
족제비싸리	*Amorpha fruticosa* L.	귀화식물
새콩	*Amphicarpaea edgeworthii* var. *trisperma* Ohwi	
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차풀	*Cassia nomame* (Sieb.) Honda	
활나물	*Crotalaria sessiliflora* L.	
큰도둑놈의갈고리	*Desmodium oldhami* Oliver	
도둑놈의갈고리	*D. oxyphyllum* DC.	
주엽나무	*Gleditisia japonica* var. *koraiensis* (Nak.) Nakai	
돌콩	*Glycine soja* S. et Z.	
땅비싸리	*Indigofera kirilowi* Maxim.	
낭아초	*I. pseudo-tinctoria* Matsumura	
둥근매듭풀	*Kummerowia stipulaceae* (Maxim.) Makino	
매듭풀	*K. striata* (Thunb.) Schindl.	
활량나물	*Lathyrus davidii* Hance	
갯완두	*L. japonicus* Willd.	
선연리초	*L. komarovi* Ohwi	
싸리	*Lespedeza bicolor* Trucz.	
흰싸리	*L. bicolor* for. *alba* Owhi	
털싸리	*L. bicolor* var. *sericea* Nakai	고유식물
비수리	*L. cuneata* G. Don	
참싸리	*L. cyrtobotrya* Miq.	
선녀싸리	*L. cyrtobotrya* for. *alba* T. Lee	
풀싸리	*L. thunbergii* var. *intermedia* T. Lee	
조록싸리	*L. maximowiczii* Schneid.	
괭이싸리	*L. pilosa* (Thunb.) Sieb. et Zucc.	
잡싸리	*L.* × *schindleri* T. Lee	
털조록싸리	*L.* × *tomentella* Nakai	고유식물
개싸리	*L. tomentosa* S.	
벌노랑이	*Lotus corniculatus* var. *japonicus* Regel	
다릅나무	*Macckia amurensis* Rupr. et Maxim.	

칡	*Pueraria thunbergiana* Benth.	
새팥	*Phaseolus nipponensis* Ohwi	
여우콩	*Rhynchosia volubilis* Lour.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L.	귀화식물
고	*Sophora flavescens* Ait.	
붉은토끼풀	*Trifolium pratense* L.	귀화식물
토끼풀	*T. repens* L.	귀화식물
갈퀴나물	*Vicia amoena* Fisch.	
벌완두	*V. amurensis* Oettingen	
들완두	*V. bungei* Owhi	
넓은잎갈퀴	*V. japonica* A. Gray	
네잎갈퀴나물	*V. nipponica* Matsumura	고유식물
큰등갈퀴	*V. pseudo-orobus* Fisch. et Meyer	
선등갈퀴	*V. heptajuga* Nakai	
나비나물	*V. unijuga* A. Br.	
흰꽃나비나물	*V. unijuga* var. *albiflora* Nakai	
큰나비나물	*V. unijuga* var. *ouensanesis* Lév.	
큰네잎갈퀴	*V. venosa* var. *albiflora*	
광릉갈퀴	*V. venosa* var. *cuspidata* Maxim.	
노랑갈퀴	*V.venosissima* Nakai	고유식물

쥐손이풀과 Geraniaceae

국화쥐손이	*Erodium stephanianum* Willd.
산쥐손이	*Geranium davuricum* DC.
꽃쥐손이	*G. eriostemon* var. *megalanthum* Nakai
털쥐손이	*G. eriostemon* Fischer
둥근이질풀	*G. koreanum* Kom.
분홍쥐손이	*G. maximowiczii* Regel
쥐손이풀	*G. sibiricum* L.
이질풀	*G. thunbergii* S. et Z.
세잎쥐손이	*G. wilfordii* Maxim.

괭이밥과 Oxalidaceae

애기괭이밥	*Oxalis acetosella* L.

괭이밥	*O. corniculata* L.	
큰괭이밥	*O. obtriangulata* Maxim.	
선괭이밥	*O. stricta* L.	

운향과 Rutaceae

백선	*Dictamnus dasycarpus* Turcz.	
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	
털황벽나무	*P. molle* Nakai	
넓은잎황벽나무	*P. sachlinensis* Sarg.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A. P. DC.	
산초나무	*Z. schinifolium* S. et Z.	
민산초나무	*Z. schinifolium* var. *inermis* T. Lee	고유식물

소태나무과 Simaroubaceae

소태나무	*Picrasma quassioides* (D. Don) Benn.	

원지과 Polygalaceae

애기풀	*Polygala japonica* Houtt.	

대극과 Euphorbiaceae

깨풀	*Acalypha australis* L.	
설악대극	*Euphorbia ebracteolata* for. *magna* Y. Lee	고유식물
땅빈대	*E. humifusa* Willd	
애기땅빈대	*E. supina* Rafin.	귀화식물
개감수	*E. sieboldiana* Morr. et Decne	
여우주머니	*Phyllanthus ussuriensis* Rupr. et Maxim.	
사람주나무	*Sapium japonicum* Pax. et Hoffm.	
광대싸리	*Securinega suffruticosa* Rehder	

옻나무과 Anacardiaceae

붉나무	*Rhus chinensis* Mill.	
산검양옻나무	*R. sylvestris* Sieb. et Zucc.	
개옻나무	*R. trichocarpa* Miq.	

노박덩굴과 Celastraceae

푼지나무	*Celastrus flagellaris* Rupr.
노박덩굴	*C. orbiculatus* Thunb.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
당회잎나무	*E. alatus* for. *apterus* Rehder
회잎나무	*E. alatus* for. *ciliato-dentatus* Hiyama
털화살나무	*E. alatus* for. *pilosus* Ohwi
나래회나무	*E. macroptera* Rupr.
참회나무	*E. oxyphyllus* Miq.
회목나무	*E. pauciflorus* Maxim.
회나무	*E. sachalinensis* (Fr. Schm.) Maxim.
참빗살나무	*E. sieboldiana* Blume
미역줄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et Takeda

고추나무과 Staphyleaceae

고추나무	*Staphylea bumalda* DC.

단풍나무과 Aceraceae

청시닥나무	*Acer barbinerve* Maxim.
신나무	*A. ginnala* Maxim.
복장나무	*A. mandshuricum* Maxim.
고로쇠나무	*A. mono* Maxim.
털고로쇠나무	*A. mono* var. *ambiguum* Rehder
왕고로쇠	*A. mono* var. *savatieri* Nakai
털단풍	*A. palmatum* var. *pilosum* Nakai
당단풍	*A. pseudo-sieboldianum* (Pax.) Kom.
좁은단풍	*A. pseudo-sieboldianum* var. *koreanum* Nakai
왕단풍나무	*A. pseudo-sieboldianum* var. *macrocarpum* Nakai
서울단풍나무	*A. pseudo-sieboldianum* var. *nudicarpum* Nakai
산겨릅나무	*A. tegmentosum* Maxim.
복자기	*A. triflorum* Kom.
만주고로쇠	*A. truncatum* Bunge
시닥나무	*A. tschonoskii* var. *rubripes* Kom.
부게꽃나무	*A. ukurunduense* Trautv. et Meyer

봉선화과 Balsaminaceae

노랑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물봉선	*I. textori* Miq.
흰물봉선	*I. textori* for. *pallescens* Hara

갈매나무과 Rhamnaceae

헛개나무	*Hovenia dulcis* Thunb.
갈매나무	*Rhamnus davurica* Pall
털갈매나무	*R. koraiensis* Schneid.
돌갈매나무	*R. parvifolia* Bunge
짝자래나무	*R. yoshinoi* Makino

포도과 Vitaceae

개머루	*Ampelopsis brevipedunculata* var. *heterophylla* (Thunb.) Hara
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Planch
왕머루	*Vitis amurensis* Rupr.
머루	*V. coignetinae* Pulliat
새머루	*V. flexuosa* Thunb.

피나무과 Tiliaceae

장구밥나무	*Grewia biloba* var. *parviflora* (Bunge) Hand-Maz.	
피나무	*Tilia amurensis* Rupr.	
연밥피나무	*T. koreana* Nakai	고유식물
찰피나무	*T. mandshurica* Rupr. et Maxim.	
염주나무	*T. megaphylla* Nakai	
털피나무	*T. rufa* Nakai	
뽕잎피나무	*T. taquetii* Schneid.	

벽오동과 Sterculiaceae

까치깨	*Corchoropsis psilocarpa* Harms et Loesn.
수까치깨	*C. tomentosa* (Thunb.) Makino

다래나무과 Actinidiaceae

다래	*Actinidia arguta* Planch.	
쥐다래	*A. kolomikta* (Maxim. et Rupr.) Maxim.	
개다래	*A. polygama* (S. et Z.) Maxim.	

물레나물과 Hyoericaceae

물레나물	*Hypericum ascyron* L.	
큰물레나물	*H. ascyron* var. *longistylum* Maxim.	
고추나물	*H. erectum* Thunb.	
좀고추나물	*H. laxum* (Bl.) Koidz.	
물고추나물	*Triadenum japonocum* (Bl.) Makino	

제비꽃과 Violaceae

졸방제비꽃	*Viola acuminata* Ledeb.	
태백제비꽃	*V. albida* Palibin	
남산제비꽃	*V. dissecta* var. *chaerophylloides* (Regel) Makino	
단풍제비꽃	*V. dissecta* var. *takahashii* (Mak.) T. Lee	
둥근털제비꽃	*V. collina* Bess.	
금강제비꽃	*V. diamantiaca* Nakai	고유식물
낚시제비꽃	*V. grypocera* A. Gray	
이시도야제비꽃	*V. ishidoyanas* Nakai	
왜제비꽃	*V. japonica* Langsd.	
잔털제비꽃	*V. keiskei* Miq.	
제비꽃	*V. mandshurica* W. Becker	
노랑제비꽃	*V. orientalis* W. Becker	
미색노랑제비꽃	*V. orientallis* for. *pallida*	
털제비꽃	*V. phalacrocarpa* Maxim.	
흰제비꽃	*V. patrinii* DC.	
고깔제비꽃	*V. rossii* Hems.	
뫼제비꽃	*V. selkirkii* Pursh	
알록제비꽃	*V. variegata* Fisch.	
자주알록제비꽃	*V. variegata* var. *chinensis* Bunge	
콩제비꽃	*V. verecunda* A. Gray	
애기금강제비꽃	*V. yazawana* Makino	

박과 Cucurbitaceae

산외	*Schizopepon bryoniaefolia* Maxim.	

보리수나무과 Elaeagnaceae

보리수나무	*Elaeagnus umbellata* Thunb.	

부처꽃과 Lythraceae

부처꽃	*Lythrum anceps* (Koehne) Makino	

바늘꽃과 Onagraceae

쥐털이슬	*Circaea alpina* L.	
쇠털이슬	*C. cordata* Royle	
털이슬	*C. mollis* S. et Z.	
말털이슬	*C. quadrisulcata* (Maxim.) Fr. et Sav.	
분홍바늘꽃	*Epilobium angustifolium* L.	
회령바늘꽃	*E. fastigiato-ramosum* Nakai	
바늘꽃	*E. pyrricholophum* Fr. et Sav.	
큰달맞이꽃	*Oenothera lamarckiana* Ser.	귀화식물
달맞이꽃	*O. odorata* Jacquin	귀화식물

박쥐나무과 Alangiaceae

박쥐나무	*Alangium platanifolium* var. *macrophyllum* (S. et Z.) Wang.	

두릅나무과 Araliaceae

지리산오갈피	*Acanthopanax chiisanensis* Nakai	고유식물
가시오갈피	*A. senticosus* (Rupr. et Maxim.) Harms	멸종위기 Ⅱ급
오갈피	*A. sessiliflorus* (Rupr. et Maxim.) Seem.	
독활	*Aralia continentalis* Kitagawa	
두릅나무	*A. elata* Seem.	
음나무	*Kalopanax pictus* (Thunb.) Nakai	
땃두릅나무	*Oplopanax elatus* Nakai	
인삼	*Panax schinseng* Nees	

산형과 Umbelliferae

개구릿대	*Angelica anomala* Lallemant
처녀바디	*A. cartilagino-marginata* (Mak. et Yabe) Nakai
잔잎바디	*A. czernevia* (Fisch. et Meyer) Kitagawa
구릿대	*A. dahurica* (Fisch.) Benth. et Hooker f.
바디나물	*A. decursiva* (Miq.) Fr. et Sav.
참당귀	*A. gigas* Nakai
궁궁이	*A. polymorpha* Maxim.
고본	*A. tenuissima* Nakai
등대시호	*Bupleurum euphorbioides* Nakai
시호	*B. falcatum* L.
개시호	*B. longiradiatum* Turcz.
갯사상자	*Cnidium japonicum* Miq.
개회향	*C. tachiroei* (Fr. et Sav.) Makino
파드득나물	*Cryptotaenia japonica* Hassk.
어수리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
미나리	*Oenanthe javanica* (Bl.) Prodr.
긴사상자	*Osmorhiza aristata* (Thunb.) Makino et Yabe
신감채	*Ostericum grosseserrata* (Maxim.) Kitagawa
강활	*O. koreanum* (Maxim.) Kitagawa
큰참나물	*O. melanotilingia* (H. D. Boiss) Kitagawa
묏미나리	*O. sieboldii* (Miq.) Nakai
기름나물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산기름나물	*P. terebinthaceum* var. *deltoideum* Makino
참나물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노루참나물	*P. komarovii* (Kitagawa) T. Lee
가는참나물	*P. koreana* Nakai
누룩치	*Pleurospermum camtschaticum* Hoffm.
참반디	*Sanicula chinensis* Bunge
붉은참반디	*S. rubriflora* Fr. Schm.
개발나물	*Sium suave* Walter
사상자	*Torilis japonica* (Houtt.) DC.

층층나무과 Cornaceae

층층나무	*Cornus controversa* Hemsl.	
곰의말채	*C. macrophylla* Wall.	
말채나무	*C. walteri* Wanger.	

노루발과 Pyrolaceae

매화노루발	*Chimaphila japonica* Miq.	
수정란풀	*Monotropastrum globosum* H. Andres	
노루발	*Pyrola japonica* Klenze	

진달래과 Ericaceae

홍월귤	*Arctous ruber* (Rehder et Wils.) Nakai	멸종위기 Ⅱ급
노랑만병초	*Rhododendron aureum* Georgi	멸종위기 Ⅱ급
만병초	*R. brachycarpum* D. Don	
홍만병초	*R. brachycarpum* var. *roseum* Koidz.	
진달래	*R. mucronulatum* Turcz.	
털진달래	*R. mucromulatum* var. *ciliatum* Nakai	
철쭉	*R. schlippenbachii* Maxim.	
흰철쭉	*R. schlippenbachii* for. *albiflorum* T. Lee	고유식물
산철쭉	*R. yedoense* var. *poukhanense* (Lév.) Nakai	
산앵도나무	*Vaccinium koreanum* Nakai	
들쭉나무	*V. uliginosum* L.	
월귤	*V. vitis-idaea* L.	

앵초과 Primulaceae

금강봄맞이	*Androsace cortusaefolia* Nakai	고유식물
봄맞이	*A. umbellata* (Lour.) Merr.	
까치수영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큰까치수영	*L. clethroides* Duby	
좁쌀풀	*L.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 Kunth	
큰앵초	*Primula jesoana* Miq.	
앵초	*P. sieboldii* E. Morr.	

기생꽃	*Trientalis europaea* L.	멸종위기 Ⅱ급

감나무과 Ebenaceae

고욤나무	*Diospyros lotus* L.	

노린재나무과 Symplocaceae

노린재나무	*Symplocos chinensis* var. *leuococarpa* for. *pilosa* (Nak.) Owhi	

때죽나무과 Styracaceae

때죽나무	*Styrax japonica* S. et Z.	
쪽동백나무	*S. obassia* S. et Z.	

물푸레나무과 Oleaceae

만리화	*Forsythia ovata* Nakai	고유식물
들메나무	*Fraxinus mandshurica* Rupr.	
물푸레나무	*F. rhynchophylla* Hance	
쇠물푸레	*F. sieboldiana* Bl.	
버들개회나무	*Syringa fauriei* Lév.	고유식물
정향나무	*S. velutina* var. *kamibayashii* T. Lee	고유식물
흰정향나무	*S. velutina* var. *lactea* T. Lee	고유식물
개회나무	*S. reticulata* var. *mandshurica* (Maxim.) Hara	
꽃개회나무	*S. wolfi* Schneid.	

용담과 Gentianaceae

용담	*Gentiana scabra* var. *buergeri* (Miq.) Maxim.	
구슬붕이	*G. squarrosa* Ledeb.	
좀구슬붕이	*G. squarrosa* var. *microphylla* Nakai	고유식물
봄구슬붕이	*G. thunbergii* (G. Don) Griseb.	
과남풀	*G. triflora* Pall.	
큰용담	*G. triflora* var. *japonica* Hara	
칼잎용담	*G. uchiyamai* Nakai	
흰칼잎용담	*G. uchiyamai* for. *albiflora*	
큰구슬붕이	*G. zollingeri* Fawc.	

닻꽃 *Halenia corniculata* (L.) Cornaz
자주쓴풀 *Swertia pseudo-chinensis* (Bunge) Hara
네귀쓴풀 *S. tetrapetala* Pall.
덩굴용담 *Tripterospermum japonicum* (S. et Z.) Maxim.

박주과리과 Asclepiadaceae

솜아마존 *Cynanchum amplexicaule* (S. et Z.) Hemsl.
민백미꽃 *C. ascyrifolium* (Fr. et Sav.) Matsumura
백미꽃 *C. atratum* Bunge
선백미꽃 *C. inamoenum* (Maxim.) Loes.
덩굴박주가리 *C. nipponicum* Matsumura
산해박 *C. paniculatum* Kitagawa
큰조롱 *C. wilfordii* (Maxim.) Hemsl.
박주가리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왜박주가리 *Tylophora floribunda* Miq.

메꽃과 Convolvulaceae

메꽃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갯메꽃 *C. soldanella* Roem. et Schult.
실새삼 *Cuscuta australis* R. Br.
새삼 *C. japonica* Chois.

지치과 Boraginaceae

당개지치 *Brachybotrys paridiformis* Maxim.
지치 *Lithospermum erythrorhizon* S. et Z.
컴프리 *Symphytum officinale* L. 귀화식물
덩굴꽃마리 *Trigonotis icumae* (Maxim.) Makino
꽃마리 *T. pedunucularis* Benth.
참꽃마리 *T. radicans* var. *sericea* (Maxim.) Hara

마편초과 Verbenaceae

작살나무 *Callicarpa japonica* Thunb.
누린내풀 *Caryopteris diviricata* (S. et Z.) Maxim.

누리장나무 *Clerodendron trichotomum* Thunb.

꿀풀과 Labiatae

배초향 *Agastache rugosa* (Fisch. et Meyer) O. Kuntze
조개나물 *Ajuga multiflora* Bunge
개차즈기 *Amethystea caerulea* L.
층층이꽃 *Clinopodium chinense* var. *parviflorum* (Kudo) Hara
산층층이 *C. chinensis* var. *shibetchense* Koidz.
용머리 *Dracocephalum argunense* Fisch.
향유 *Elsholtzia ciliata* (Thunb.) Hylander
꽃향유 *E. splendens* Nakai
흰꽃향유 *E. splendens* for. *albiflora* Y. Lee
오리방풀 *Isodon excisus* (Maxim.) Kudo
흰오리방풀 *I. excisus* for. *albiflorus* Hara
산박하 *I. inflexus* (Thunb.) Kudo
방아풀 *I. japonicus* (Burm.) Hara
광대수염 *Lamium album* var. *barbatum* (S. et Z.) Fr. et Sav.
광대나물 *L. amplexicaule* L.
송장풀 *Leonurus macranthus* Maxim.
익모초 *L. sibiricus* L.
애기쉽싸리 *Lycopus maackianus* Makino
쉽싸리 *L. ramosissimus* var. *japonicus* Kitamura
벌깨덩굴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붉은벌깨덩굴 *M. urticifolia* for. *rubra* T. Lee 고유식물
들깨풀 *Mosla punctulata* (Gmel.) Nakai
개박하 *Nepeta cataria* L.
속단 *Phlomis umbrosa* Turcz.
꿀풀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두메꿀풀 *P. vulgaris* var. *aleutica* Fern.
참배암차즈기 *Salvia chanroenica* Nakai 고유식물
애기골무꽃 *Scutellaria dependens* Maxim.
그늘골무꽃 *S. fauriei* Lév. et Vnt.
골무꽃 *S. indica* L.
떡잎골무꽃 *S. indica* var. *tsusimensis* Ohwi

호골무꽃	*S. pekinensis* var. *ussuriensis* Hand.-Mazz.	
참골무꽃	*S. strigillosa* Hemsl.	
털석잠풀	*Stachys riederi* var. *hispidula* Hara	
석잠풀	*S. riederi* var. *japonica* Miq.	

가지과 Solanaceae

흰독말풀	*Datura stramonium* L.	귀화식물
꽈리	*Physalis alkekengi* var. *francheti* (Masters) Hort.	
미치광이풀	*Scopolia japonica* Maxim.	
좁은잎배풍등	*Solanum japonense* Nakai	
까마중	*S. nigrum* L.	

현삼과 Scrophulariaceae

앉은좁쌀풀	*Euphrasia maximowiczii* Wettst.	
해란초	*Linaria japonica* Miq.	
밭뚝외풀	*Lindernia procumbens* Borbs	
주름잎	*Mazus pumilus* (Burm. f.) Van Steens	
꽃며느리밥풀	*Melampyrum roseum* Maxim.	
흰며느리밥풀	*M. roseum* var. *albiflorum* Nakai	고유식물
애기며느리밥풀	*M. setaceum* (Maxim.) Nakai	
새며느리밥풀	*M. setaceum* var. *nakaianum* Yamazaki	
물꽈리아재비	*Mimulus nepalensis* var. *japonica* Miq.	
애기물꽈리아재비	*M. tenellus* Bunge	
오동	*Paulownia coreana* Uyeki	고유식물
참오동	*P. tomentosa* (Thunb.) Steud.	
만주송이풀	*Pedicularis manshurica* Maxim.	
큰산송이풀	*P. apodochila* Maxim.	
송이풀	*P. resupinata* L.	
수송이풀	*P. resupinata* var. *gigantea* Nakai	
마주송이풀	*P. resupinata* var. *oppositifolia* Miq.	
그늘송이풀	*P. resupinata* var. *umbrosa* Kom.	고유식물
구름송이풀	*P. verticillata* L.	
나도송이풀	*Phtheirospermum japonicum* (Thunb.) Kanitz	
봉래꼬리풀	*Pseudolysimachion. kiusiana*	

	var. *diamantica* (Nak.) Yamazaki	고유식물
꼬리풀	*P. linariaefolia* Pall	
큰산꼬리풀	*P. rotundum* var. *coreanum* (Nak.) Yamazaki	
산꼬리풀	*P. rotundum* var. *subintegrum* (Nak.) Yamazaki	
토현삼	*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절국대	*Siphonostegia chinensis* Benth	
선개불알풀	*Veronica. arvensis* L.	귀화식물
냉초	*Veronicastrum sibiricum* (L.) Pennel.	

파리풀과 Phrymaceae

파리풀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ara	

질경이과 Plantaginaceae

질경이	*Platago asiatica* L.	
털질경이	*P. depressa* Willd.	
왕질경이	*P. major* var. *japonica* (Fr. et Sav.) Miyabe	

꼭두선이과 Rubiaceae

갈퀴아재비	*Asperula lasiantha* Nakai	
선갈퀴	*A. odorata* L.	
백령풀	*Diodia teres* Walter	귀화식물
큰잎갈퀴	*Galium dahuricum* Turcz.	
큰네잎갈퀴	*G. dahuricum* var. *leiocarpum* Nakai	
둥근갈퀴	*G. Kamtshaticum* for. *intermedia* Takeda	
민둥갈퀴	*G. kinuta* Nakai et Hara	
두메갈퀴	*G. paradoxum* Maxim.	
산갈퀴	*G. pogonanthum* Fr. et Sav.	
민산갈퀴	*G. pogonanthum* for. *nudiflorum* Ohwi	
갈퀴덩굴	*G. spurium* L.	
네잎갈퀴	*G. trachyspermum* A. Gray	
가는네잎갈퀴	*G. trfidum* L.	
솔나물	*G. verum* var. *asiaticum* Nakai	
털솔나물	*G. verum* var. *trachycarpum* DC.	
꼭두서니	*Rubia akane* Nakai	

큰곡두서니	*R. chinensis* var. *glabrescens* Kitagawa	
갈퀴꼭두서니	*R.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덤불꼭두서니	*R. cordifolia* var. *sylvatica* Maxim.	

인동과 Caprifoliaceae

각시괴불나무	*Lonicera chrysantha* Turcz.	
댕댕이나무	*L. coerulea* var. *edulis* Regel	
개들쭉	*L. coerulea* var. *emphyllocalyx* Nakai	
넓은잎댕댕이나무	*L. coerulea* var. *longibracteata* for. *ovata* Hara	
둥근잎댕댕이나무	*L. caerulea* var. *venulosa* Rehder	
숫명다래나무	*L. coreana* Nakai	
길마가지나무	*L. harai* Makino	
인동	*L. japonica* Thunb.	
괴불나무	*L. maackii* (Rupr.) Maxim.	
암괴불나무	*L. nigra* L.	
흰등괴불나무	*L. okamotoana* Ohwi	고유식물
올괴불나무	*L. praeflorens* Batal.	
물앵도나무	*L. ruprechtiana* Regel	
홍괴불나무	*L. sachalinensis* Nakai	
털괴불나무	*L. subhispida* Nakai	
청괴불나무	*L. subsessilis* Rehder	고유식물
넓은잎딱총나무	*Sambucus latipinna* Nakai	
지렁쿠나무	*S. sieboldiana* var. *miquelii* (Nak.) Hara	
딱총나무	*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산분꽃나무	*Viburnum burejaeticum* Regel	
분꽃나무	*V. carlesii* Hemsl.	
가막살나무	*V. dilatatum* Thunb.	
덜꿩나무	*V. erosum* Thunb.	
분단나무	*V. furcatum* Bl.	
배암나무	*V. koreanum* Nakai	
백당나무	*V. sargentii* Koehne	
민백당나무	*V. sargentii* for. *calvescens* Rehder	
산가막살나무	*V. wrightii* Miq.	
붉은병꽃나무	*Weigela florida* (Bunge) A. DC.	

소영도리나무	*W. praecox* L. H. Bailey	
병꽃나무	*W. subsessilis* L. H. Bailey	고유식물

연복초과 Adoxaceae

연복초	*Adoxa moschatellina* (Tourn.) L.	

마타리과 Valerianaceae

돌마타리	*Patrinia rupestris* Juss.	
금마타리	*P. saniculaefolia* Hemsl.	
고유식물마타리	*P. scabiosaefolia* Fisch.	
뚝깔	*P. villosa* (Thunb.) Juss.	
쥐오줌풀	*Valeriana fauriei* Briq.	

산토끼꽃과 Dipsacaceae

산토끼꽃	*Dipsacus japonicus* Miq.	
솔체꽃	*Scabiosa tschiliensis* Grnning	
체꽃	*S. tschiliensis* for. *pinnata* Nakai	고유식물

초롱꽃과 Campanulaceae

톱잔대	*Adenophora curvidens* Nakai	
넓은잔대	*A. divaricata* var. *manshurica* Kitagawa	
도라지모시대	*A. grandiflora* Nakai	
흰도라지모시대	*A. grandiflora* for. *alba* T. Lee	고유식물
두메잔대	*A. lamarckii* Fisch.	
흰두메잔대	*A. lamarckii* for. *albiflora* T. Lee	
나리잔대	*A. liliifolia* Ledeb.	고유식물
층층잔대	*A. radiatifolia* Nakai	
가는층층잔대	*A. radiatifolia* var. *angustifolia* Nakai	
모시대	*A. remotiflora* (S. et Z.) Miq.	
당잔대	*A. stricta* Miq.	
잔대	*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왕잔대	*A. tyosenensis* Nakai	
자주꽃방망이	*Campanula glomerata* var. *dahurica* Fisch.	
초롱꽃	*C. punctata* Lam.	

더덕	*Codonopsis lanceolata* (S. et Z.) Trautv.	
만삼	*C. pilosula* (Fr.) Nannf.	
소경불알	*C. ussuriensis* (Ruor. et Maxim.) Hemsl.	
금강초롱꽃	*Hanabusaya asiatica* Nakai	고유식물
흰금강초롱	*H. asiatica* for. *alba.* T. Lee	고유식물
영아자	*Phyteuma japonicum* Miq.	
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 DC.	

숫잔대과 Lobeliaceae

수염가래꽃	*Lobelia chinensis* Lour.	

국화과 Compositae

큰톱풀	*Achillea ptarmica* var. *acuminata* Heim	
톱풀	*A. sibirica* Ledeb.	
멸가치	*Adenocaulon himalaicum* Edgew.	
단풍취	*Ainsliae acerifolia* Sch.-Bip.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var. *elatior* Descourtils	귀화식물
다북떡쑥	*Anaphalis sinica* Hance	
쑥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Pampan.) Hara	
사철쑥	*A. capillaris* Thunb.	
뺑쑥	*A. feddei* Lév. et Van.	
더위지기	*A. iwayomogi* Kitamura	
제비쑥	*A. japonica* Thunb.	
맑은대쑥	*A. keiskeana* Miq.	
참쑥	*A. lavandulaefolia* DC.	
산쑥	*A. montana* Pampan.	
덤불쑥	*A. rubripes* Nakai	
물쑥	*A. selengensis* Turcz.	
넓은잎외잎쑥	*A. stolonifera* (Maxim.) Kom.	
그늘쑥	*A. sylvatica* Maxim.	
외잎쑥	*A. viridissima* (Kom.) Pampan.	
우엉	*Articum lappa* L.	귀화식물
까실쑥부쟁이	*Aster ageratoides* Turcz.	

개쑥부쟁이	*A. ciliosus* Kitamura	
갯쑥부쟁이	*A. hispidus* Thunb.	
벌개미취	*A. koraiensis* Nakai	
좀개미취	*A. maackii* Regel	
가새쑥부쟁이	*A. incisus* Fisch.	
가는쑥부쟁이	*A. pekinensis* (Hance) Chen	
미국쑥부쟁이	*A. pilosus* Willd.	귀화식물
참취	*A. scaber* Thunb.	
개미취	*A. tataricus* L.	
쑥부쟁이	*A. yomena* Makino	
삽주	*Atractylodes japonica* Koidz.	
도깨비바늘	*Bidens bipinnata* L.	
미국가막사리	*B. frondosa* L.	귀화식물
까치발	*B. parviflora* Willd.	
구와가막사리	*B. radiata* var. *pinnatifida* (Turcz.) Kitamura	
가막사리	*B. tripartita* L.	
귀박쥐나물	*Cacalia auriculata* DC.	
박쥐나물	*C. auriculata* var. *matsumurana* Nakai	
민박쥐나물	*C. hastata* var. *orientalis* (Kitamura) Ohwi	
병풍쌈	*C. firma* Kom.	
담배풀	*Carpesium abrotanoides* L.	
긴담배풀	*C. divaricatum* S. et Z.	
두메담배풀	*C. triste* var. *manshuricum* Kitamura	
중대가리풀	*Centipeda minima* (L.) A. Br. et Aschers.	
산국	*Chrysanthemum boreale* Makino	
제충국	*C. cineraiifolium* (Trev.) Vis.	귀화식물
감국	*C. indicum* L.	
산구절초	*C. zawadskii* Herbich	
바위구절초	*C. zawadskii* var. *alpinum* Kitamura	
구절초	*C.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정영엉겅퀴	*Cirsium chanroenicum* Nakai	고유식물
지느러미엉겅퀴	*C. crispus* L.	귀화식물
엉겅퀴	*C. japonicum* var. *ussuriensis* Kitamura	
큰엉겅퀴	*C. pendulum* Fisch.	

고려엉겅퀴	*C. setidens* Nakai	고유식물
큰금계국	*Coreopsis lanceolata* L.	귀화식물
붉은서나물	*Erechtites hieracifolia* Raf.	귀화식물
개망초	*Erigeron annuus* (L.) Pers.	귀화식물
망초	*E. canadensis* L.	귀화식물
등골나물	*Eupatorium chinense* var. *simplicifolium* Kitamura	
털별꽃아재비	*Galinsoga ciliata* (Raf.) Blake	귀화식물
떡쑥	*Gnaphalium affine* D. Don.	
금떡쑥	*G. hypoleucum* DC.	
뚱딴지	*Helianthus tuberosus* L.	귀화식물
지칭개	*Hemistepta lyrata* Bunge	
조밥나물	*Hieracium umbellatum* L.	
께묵	*Hololeion maximowiczii* Kitamura	
금불초	*Inula britannica* var. *chinensis* Regel	
선씀바귀	*Ixeris chinensis* var. *strigosa* (Lév. et Vnt.) Ohwi	
씀바귀	*I. dentata* (Thunb.) Nakai	
벌씀바귀	*I. polycephala* Cass.	
좀씀바귀	*I. stolonifera* A. Gray	
왕고들빼기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O. Kuntze) Hara	
가는잎왕고들빼기	*L. indica* for. *indivisa* Hara	
산씀바귀	*L. raddeana* Maxim.	
두메고들빼기	*L. triangulata* Maxim.	
솜나물	*Leibnitzia anandria* (L.) Nakai	
왜솜다리	*Leontopoioides japonicum* Miq.	
산솜다리	*L. leiolepis* Nakai	
들떡쑥	*L. leontopoioides* (Willd.) Beauv.	
곰취	*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족제비쑥	*Matricaria mtricarioides* (Less.) Porter	귀화식물
머위	*Petasites japonicus* (S. et Z.) Maxim.	
쇠서나물	*Picris hieracioides* var. *glabrrescens* Ohwi	
왕씀배	*Prenanthes ochroleuca* (Maxim.) Hemsl.	
뻐꾹채	*Rhapontica uniflora* DC.	
원추천인국	*Rudbeckia bicolor* Nutt.	귀화식물
겹삼엽국화	*R. laciniata* var. *hortensis* Bailey	귀화식물

사창분취	*Saussurea calcicola* Nakai	
금강분취	*S. diamantiaca* Nakai	고유식물
긴잎금강분취	*S. diamantiaca* var. *longifolia* Nak.	고유식물
솜분취	*S. eriophylla* Nakai	고유식물
은분취	*S. gracilis* Maxim.	
서덜취	*S. grandifolia* Maxim.	
각시서덜취	*S. macrolepis* (Nak.) Kitamura	고유식물
버들분취	*S. maximowiczii* Herd.	
당분취	*S. nutans* Nakai	
가야산은분취	*S. pseudo-gracilis* Kitamura	고유식물
각시취	*S. pulchella* Fisch.	
흰각시취	*S. pulchella* for. *albiflora* Kitam.	
분취	*S. seoulensis* Nakai	고유식물
두메취	*S. triangulata* Trautv. et Meyer	
덤불취	*S. triangulata* subsp. *manshurica* (Kom.) Kitamura	
쑥방망이	*Senecio argunensis* Turcz.	
바위솜나물	*S. aurantiaca* var. *leiocarpus* Boiss.	
솜방망이	*S. integrifolius* var. *spathulatus* (Miq.) Hara	
국화방방이	*S. koreanus* Kom.	고유식물
개쑥갓	*S. vulgaris* L.	귀화식물
산비장이	*Serratula coronata* var. *insularis* Kitamura	
진득찰	*Siegesbeckia glabrescens* Makino	
미역취	*Solidago virga-aurea* var. *asiatica* Nakai	
나래미역취	*S. virga-aurea* var. *coreana* Nakai	
큰방가지똥	*Sonchus asper* (L.) Hill	귀화식물
방가지똥	*S. oleraceus* L.	
우산나물	*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s	
수리취	*Synurus deltoides* (Ait.) Nakai	
흰민들레	*Taraxacum coreanum* Nakai	
서양민들레	*T. officinale* Weber	귀화식물
민들레	*T. mongolicum* H. Mazz.	
산민들레	*T. ohwianum* Kitamura	
까치고들빼기	*Youngia chelidoniifolia* Kitamura	
이고들빼기	*Y. denticulata* Kitamura	

보리뺑이 *Y. japonica* (L.) DC.
고들빼기 *Y. sonchifolia* Maxim.

부들과 Typhaceae

애기부들 *Typha angustata* Bory et Chaub
부들 *T. orientalis* Presl

가래과 Potamogetonaceae

가래 *Potamogeton distinctus* A. Benn.

택사과 Alismataceae

보풀 *Sagittaria aginashi* Makino

자라풀과 Hydrocharitaceae

물질경이 *Ottelia alismoides* (L.) Pers.

벼과 Gramineae

속털개밀 *Agropyron ciliae* (Trin.) Franch.
개밀 *A.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자주개밀 *A. yesoense* Honda
겨이삭 *Agrostis clavata* var. *nukabo* Ohwi
검정겨이삭 *A. flaccida* var. *trinii* Turcz.
긴겨이삭 *A. scabra* Willd..
뚝새풀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Kom.) Ohwi
털뚝새풀 *A. japonica* Steud.
귀화식물쇠풀 *Andropogon brevifolius* Sw.
바랭이새 *A. ischaemum* L.
조개풀 *Arthraxon hispidus* (Thunb.) Makino
새 *Arundinella hirta* var. *ciliata* (Thunb.) Koidz.
개피 *Beckmannia syzigachne* (Steud.) Fern.
참새귀리 *Bromus japonicus* Thunb.
꼬리새 *B. remotiflorus* (Steud.) Ohwi
털빕새귀리 *B. tectorum* L.
실새풀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산조풀	*C. epigeios* (L.) Roth	
들새풀	*C. heterogluma* (Nakai) Honda	
산새풀	*C. langsdorffii* (Link.) Trin.	
대새풀	*Cleistogenes hackelii* (Honda) Honda	
개솔새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Steud.) Hand.-Mazz.	
오리새	*Dactylis glomerata* L.	귀화식물
용수염	*Diarrhrna japonica* Fr. et Sav.	
좀바랭이	*Digitaria chinensis* Hornem.	
바랭이	*D. sanguinalis* (L.) Scop.	
민바랭이	*D. violascens* Link.	
돌피	*Echinnochloa crus-galli* (L.) Beauv.	
왕바랭이	*Eleusine indica* (L.) Gaertner	
갯그령	*Elymus mollis* Trin.	
구주개밀	*E. repens* (L.) Gould.	귀화식물
그령	*Erageotis ferruginea* (Thunb.) P. Beauv.	
나도개피	*Eriochloa villosa* (Thunb.) Kunth	
큰김의털	*Festuca arundinacea* Schreb. 귀화식물	
김의털	*F. ovina* L.	
두메김의털	*F. ovita* var. *koreanoalpina* Ohwi	고유식물
김의털아재비	*F. parvigluma* Steud.	
왕김의털	*F. rubra* L.	
육절보리풀	*Glycerial acutiflora* Torr.	
왕미꾸리꽝이	*G. leptolepis* Ohwi	
쇠치기풀	*Hemarthria sibirica* (Gandog) Ohwi	
향모	*Hierochloe odorata* (L.) Beauv.	
띠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Retz.) Durand et Schinz	
기장대풀	*Isachne globosa* (Thunb.) O. Kuntze	
도랭이피	*Koeleria cristata* (L.) Pers	
나도겨풀	*Leersia japonica* Makino	
왕쌀새	*Melica nutans* L.	
쌀새	*M. onoei* Fr. et Sav.	
참쌀새	*M. scabrosa* Trin.	

나도바랭이새	*Microstegium vimineum* A. Camus	
나도겨이삭	*Milium effusum* L.	
참억새	*Miscanthus sinensis* Anderss.	
억새	*M.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진퍼리새	*Molinia japonica* Hack.	
쥐꼬리새	*Muhlenbergia japonica* Steud.	
큰쥐꼬리새	*M. longistolon* Ohwi	
주름조개풀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Roem. et Schult.	
참주름조개풀	*O. undelatifolius* for. *elongatus* Y. Lee	고유식물
미국개기장	*Panicum dichotomiflorum* Michx.	귀화식물
수크령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갈대	*Phragmites communis* Trin.	
달뿌리풀	*P. japonica* Steud.	
실포아풀	*Poa acroleuca* Steud.	
선포아풀	*P. nemoralis* L.	
왕포아풀	*P. pratensis* L.	귀화식물
포아풀	*P. sphondylodes* Trin.	
이대	*Pseudosasa japonica* Makino	
조릿대	*Sasa borealis* (Hack.) Makino	
금강아지풀	*Setaria glauca* (L.) Beauv.	
강아지풀	*S. viridis* (L.) Beauv.	
수강아지풀	*S. viridis* var. *gigantea* Matsumura	
기름새	*Spodiopogon cotulifer* (Thunb.) Hack.	
큰기름새	*S. sibiricus* Trin.	
쥐꼬리새풀	*Sporobolus elongatus* R. Br.	
나래새	*Stipa sibirica* (L.) Lambert	
솔새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Makino	
잠자리피	*Trisetum biridum* (Thunb.) Ohwi	
줄	*Zizania latifolia* Turcz.	
잔디	*Zoysia japonica* Steud.	

사초과 Cyperaceae

꽃하늘지기	*Bulbostylis densa* Hand.-Mazz.	
골사초	*Carex aphanolepis* Fr. et Sav.	

감둥사초	*C. atrata* L.	
솔잎사초	*C. biwensis* Fr.	
길뚝사초	*C. bostrychostigma* Maxim.	
청사초	*C. breviculmis* R. Br.	
산사초	*C. canescens* L.	
잔솔잎사초	*C. capillacea* Boott	
털대사초	*C. ciliato-marginata* Nakai	
도깨비사초	*C. dickinsii* Fr. et Sav.	
삿갓사초	*C. dispalata* Boott	
흰사초	*C. doniana* Spreng.	
실사초	*C. fernaldiana* Lév. et Vnt.	
낚시사초	*C. filipes* var. *oligostachys* Kkenth	
애기감둥사초	*C. fusanensis* Ohwi	고유식물
곱슬사초	*C. glabrescens* Ohwi	
산거울	*C. humilis* Leyss.	
참삿갓사초	*C. jaluensis* Kom.	
개찌버리사초	*C. japonica* Thunb.	
애괭이사초	*C. laevissima* Nakai	
그늘사초	*C. lanceolata* A. Gray	
난사초	*C. lasiolepis* Fr.	고유식물
산괭이사초	*C. leiorhyncha* C.A. Meyer	
타래사초	*C. maackii* Maxim.	
왕비늘사초	*C. maximowiczii* Miq.	
애기흰사초	*C. mollicula* Boott	
괭이사초	*C. neurocarpa* Maxim.	
지리대사초	*C. okamotoi* Ohwi	고유식물
바늘사초	*C. onoei* Fr. et Sav.	
층실사초	*C. remotiuscula* Wahl.	
산꼬리사초	*C. shimidzuensis* Fr.	
대사초	*C. siderosticta* Hance	
개바늘사초	*C. uda* Maxim.	
방동사니	*Cyperus amuricus* Maxim.	
알방동사니	*C. difformis* L.	
금방동사니	*C. microiria* Steud.	

쇠방동사니 *C. orthostachys* Fr. et Sav.
쇠털골 *Eleocharis acicularis*
for. *longiseta* (Svenson) T. Koyama
올방개 *E. kuroguwai* Ohwi
물고챙이골 *E. mamillata* var. *cyclocarpa* Kitagawa
작은황새풀 *Eriophorum gracile* K. Koch
큰황새풀 *E. latifolium* Hoppe
꼴하늘지기 *Fimbristylis subbispicata* Nees et Meyev
파대가리 *Kyllinga brevifolia* var. *leiolepis* Hara
매자기 *Scirpus fluviatilis* (Torr.) A. Gray.
애기황새풀 *S. hudsonianus* (Michx.) Fern.
올챙이고랭이 *S. juncoides* Roxb.
솔방울고랭이 *S. karuizawensis* Makino
황새고랭이 *S. maximowiczii* C. B. Clarke
큰고랭이 *S. tabernaemontani* Gmel.
송이고랭이 *S. triangulatus* Roxb.
세모고랭이 *S. triqueter* L.
방울고랭이 *S. wichurae* Bcklr.

천남성과 Araceae

천남성 *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 Nakai
점박이천남성 *A. angustatum* var. *peninsulae* Nakai
큰천남성 *A. ringens* Schott
넓은잎천남성 *A. robustum* (Engl.) Nakai
자주천남성 *A. robustum* var. *purpureum* Nakai
반하 *Pinellia terata* (Thunb.) Breit.
애기앉은부채 *Symplocarpus nipponicus* Makino

개구리밥과 Lemnaceae

좀개구리밥 *Lema paucicostata* Hegel.
개구리밥 *Spirodela polyrhiza* (L.) Schleid.

닭의장풀과 Commelinaceae

사마귀풀	*Aneilema keisak* Hassak.
닭의장풀	*Commelina communis* L.
좀닭의장풀	*C. coreana* Lév.
덩굴닭의장풀	*Streptolirion cordifolium* (Griff.) O. Kuntze

물옥잠과 Pontedericeae

물닭개비	*Monochoria vaginalis* var. *plantaginea* (Roxb.) Solm.-Laub.

골풀과 Juncaeae

골풀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
참비녀골풀	*J. leschenaultii* Gay
청비녀골풀	*J. papillosus* Fr. et Sav.
꿩의밥	*Luzula capitata* (Miq.) Miq.
구름꿩의밥	*L. oligantha* G. Samuels

백합과 Liliaceae

여우꼬리풀	*Aletris fauriei* Lév.
산달래	*Allium grayi* Regel
달래	*A. monanthum* Maxim.
참산부추	*A. sacculiferum* Maxim.
두메부추	*A. senescens* L.
산부추	*A. thunbergii* G. Don
산마늘	*A.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Makino
방울비짜루	*Asparagus oligoclomus* Maxim.
비짜루	*A. schoberioides* Kunth
나도옥잠화	*Clintomia udensis* Trautv. et Meyer
은방울꽃	*Convallaria keiskei* Miq.
진부애기나리	*Disporum ovale* Ohwi
윤판나물	*D. sessile* D. Don
애기나리	*D. smilacinum* A. Gray
큰애기나리	*D. viridescens* (Maxim.) Nakai
얼레지	*Erythronium japonicum* Dence

애기중의무릇 *Gagea japonica* Pascher
처녀치마 *Heloniopsis orientalis* (Thunb.) C. Tanaka
원추리 *Hemerocallis fulva* L.
큰원추리 *H. middendorfii* Trautv. et Meyer
애기원추리 *H. minor* Mill
일월비비추 *Hosta capitata* Nakai
참비비추 *H. clausa* Nakai
주걱비비추 *H. clausa* var. *normalis* F. Maekawa
산옥잠화 *H. lancifolia* Engl.
비비추 *H.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털중나리 *Lilium amabile* Palibin
땅나리 *L. callosum* S. et Z.
솔나리 *L. cernum* Kom.
하늘나리 *L. concolor* var. *partheneion* Bak.
말나리 *L. distichum* Nakai
참나리 *L. lancifolium* Thunb.
중나리 *L. leichdtlinii* var. *tigrinum* Nichols.
하늘말나리 *L. tsingtauense* Gilg
맥문동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개맥문동 *L. spicata* Lour.
나도개감채 *Lloydia triflora* Bak.
두루미꽃 *Majanthemum bifolium* (L.) F. W. Schm.
큰두루미꽃 *M. dilatatum* (Wood) Nels. et Macbr.
삿갓나물 *Paris verticillata* Bieb.
각시둥굴레 *Polygonatum humile* Fisch.
퉁둥굴레 *P. inflatum* Kom.
용둥굴레 *P. involucratum* Maxim.
둥굴레 *P. odoratum* var. *pluriflorum* Ohwi
왕둥굴레 *P. robustum* Nakai
무릇 *Scilla scilloides* (Lind.) Druce
자주솜대 *Smilacina bicolor* Nakai 고유식물, 멸종위기 Ⅱ급
민솜대 *S. davurica* Turcz.
풀솜대 *S. japonica* A. Gray
왕솜대 *S. japonica* var. *mandshurica* Maxim.

청미래덩굴 *Smilax china* L.
선밀나물 *S. nipponica* Miq.
밀나물 *S. riparia* var. *ussuriensis* Hara et T. Koyama
청가시덩굴 *S. sieboldii* Miq.
죽대아재비 *Streptopus amplexifolius* var. *papillatus* Ohqi
왕죽대아재비 *S. koreanus* (Kom.) Ohwi
연영초 *Trillium kamtschaticum* Pall.
산자고 *Tulipa edulis* Bak.
긴잎여로 *Veratrum maackii* Regel
여로 *V. maackii* var. *japonicum* T. Shimizu
파란여로 *V. maackii* var. *parviflorum* Hara et Mizushima
참여로 *V. nigrum* var. *ussuriense* Loes. fil.
박새 *V. patulum* Loes. fil.

마과 Dioscoreaceae

참마 *Dioscorea japonica* Thunb.
부채마 *D. nipponica* Makino
단풍마 *D. quinqueloba* Thunb.
국화마 *D. septemloba* Thunb.
도꼬로마 *D. tokoro* Makino

붓꽃과 Iridaceae

꽃창포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 Nakai
노랑붓꽃 *I. koreana* Nakai
금붓꽃 *I. minutiaurea* Makino
각시붓꽃 *I. rossii* Baker
붓꽃 *I. sanguinea* Horn.
난장이붓꽃 *I. uniflora* var. *carinata* Kitagawa

난과 Orchidaceae

병아리난초 *Amitostigma gracilis* (Bl.) Schlecht
흰병아리난초 *A. gracilis* for. *manshuricum*
은난초 *Cephalanthera erecta* (Thunb.) Bl.

은대난초	*C. longibracteata* Bl.
털개불알꽃	*Cypripedium guttatum* var. *koreanum* Nakai 고유식물, 멸종위기 Ⅱ급
개불알꽃	*C. macranthum* Sw.
천마	*Gastrodia elata* Bl.
애기사철난	*Goodyera repens* (L.) R.Br.
손바닥난초	*Gyjmnadenia conopsea* R.Br.
잠자리난초	*Habenaria linearifolia* Maxim.
키다리난초	*Liparis japonica* Maxim.
나나벌이난초	*L. krameri* Fr. et Sav.
이삭단엽란	*Microstylis monophyllos* (L.) Lindl.
나도제비난	*Orchis cyclochila* Maxim.
감자난	*Oreorchis patens* Lindl.
산제비난	*Platanthera mandarinorum* Reichb.fil.
제비난	*P. metabifolia* F. Maekawa
큰방울새난	*Pogonia japonica* Reichb. fil.
타래난초	*Spiranthes sinensis* (Pers.) Ames

나. 설악산의 식생

설악산은 식물구계지리학상 중일식물구계—온대아구계—한국구—중부아구에 속하고, 식물군계수준으로는 냉온대중부에 속하여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원시림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설악산의 전체적인 식생은 신갈나무가 저산지에서 고산지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우점하며, 다음으로 저산지와 암반이 많이 노출된 산봉우리와 능선부에 소나무가 우점하는 식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설악산을 이루는 태백산맥이 한반도의 동쪽으로 치우쳐 남북으로 뻗어있어 설악 주능선에서 황해와 동해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13 : 1에 달해 외설악 지역은 내설악 지역에 비하여 경사가 매우 강하고 따라서 침식의 속도가 빨라 많은 기암 절벽과 폭포를 만들며, 표토의 깊이가 얕아 쉽게 건조하는 토양 입지가 많으며, 내설악 지역은 외설악 지역에 비하여 경사가 완만하고 표토가 깊고 수분 조건이 적당한 토양 입지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외설악 지역에서는 건조에 비교적 강한 소나무군락의 발달을 많이 볼 수 있고, 굴참나무군락도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내설악 지역에서 서북능선 남쪽은 경사가 심하고 암반의 노출이 많

고 한계천으로 향하는 작은 계곡이 발달한다. 따라서 서북능선에서 남쪽으로 뻗는 능선부에는 소나무가 우점하고 계곡부에는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신갈-소나무 혼효림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고도가 높아지면서 잣나무, 분비나무의 출현빈도가 높아진다. 서북능선 북쪽은 암반의 노출이 많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갈나무를 우점종으로 하는 낙엽활엽수의 극상림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저산지 남사면에 굴참나무, 계곡부에 졸참나무와 서어나무가 부분적으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설악산은 남한에서 비교적 북쪽에 위치하고, 해발고도가 높으며, 암반이 많이 노출된 지형적 특성 때문에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타 지역의 산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잣나무, 분비나무, 눈측백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작은 규모의 순군락이 형성되기도 한다.

설악산에서 해발 1,500m이상의 대청봉, 중청봉과 소청봉 일대의 지역은 아고산대(subalpine belt)의 식생을 나타내고 있다. 아고산대는 용재한계선(timber line)에서 교목한계선(tree line)사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교목한계선부터는 키가 큰 나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수목은 이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연속적으로 키가 낮아지며, 강한 바람에 의해 기형으로 변하여 편형수가 나타난다. 환경조건이 가혹해지면서 고산의 환경에 적응하여 지면에 붙어 자라거나, 기형적으로 자라는 왜성변형수(krummholz)와 나무가 연속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드문드문 모여 자라는데 남한에서는 한라산과 설악산의 산정에서 관찰된다.

설악산의 아고산대에는 눈잣나무와 털진달래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사면과 남사면에 관목상 군락을 형성하고 부분적으로 개들쭉이 소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바람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북사면과 동사면에 사스래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이외에 신갈나무와 분비나무가 아교목상의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설악눈주목, 눈측백, 덤불오리나무, 땃두릅, 기생꽃, 홍월귤, 월귤 노랑만병초 등의 북방계식물이 이들 군락에 함께 생육하고 있다.

설악산에서 관목림대는 기온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청봉의 경우 수광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으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서사면은 관목림이 형성되나 수광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으며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 북동사면은 아교목림을 형성하고 있으며, 능선의 방향이 동서로 뻗은 서북능선의 경우 산 정상부의 서사면을 제외하고는 관목림이 형성되지 않았고, 남북으로 중청에서 미시령으로 이어지는 설악주능의 서사면에는 해발 700m이상부터 바람의 영향 정도에 따라 관목림이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설악산의 삼림식생을 식물사회학적인 방법으로 분류한 결과 자연림 군락은 아고산대 풍층관목림으로 눈잣나무군락, 눈측백군락, 털진달래군락, 아고산대 낙엽활엽수림으로 사스래나무군락, 거제수나무군락, 아고산대 침엽수림으로 분비나무군락, 주목군락, 산지대 낙엽활엽수림으로 신갈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함박꽃나무군락, 피나무군락, 물푸레나무군락, 산지대 침엽수림으로 소나무군락, 잣나무군락, 전나무군락, 산지 계곡림으로 황철나무군락, 가래나무군락, 박달나무군락, 염주나무군락의 21개의 군락으로 구분되었다.

[아고산대 풍층관목림(subalpine wind-swept shrub)]

A. 눈잣나무군락(*Pinus pumila* community)

눈잣나무군락의 우점종은 눈잣나무, 털진달래이며, 평균 수고는 1.00m이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관목층에서 눈잣나무, 털진달래, 초본층에서 눈잣나무, 털진달래, 눈측백 순으로 나타났다.

눈잣나무는 전형적인 북방계식물로서 동북아시아의 아한대(subarctic zone)과 아고산대(subalpine belt)에 자라고 있다. 눈잣나무는 현재 동북아시아에 자라는데, 동으로는 베링해에 인접한 러시아의 축치반도와 캄챠카로부터 서로는 몽골의 서쪽까지, 남으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까지, 북으로는 북극해에 시베리아에까지 분포하며, 수직분포는 일부 지역에서는 바다 근처에까지 자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발고도 3,200m까지 자라 매우 큰 폭의 분포역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 평남북, 함남북의 높은 산정에 나며, 설악산은 남방한계선이 된다고 한다.

설악산에서 눈잣나무는 해발 1,500m이상의 지역에서만 분포한다. 눈잣나무군락은 중청봉과 대청봉 사이의 능선 남서사면의 대부분이 눈잣나무군락이다. 대청봉 주변의 능선부와 남서사면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혹한기에는 눈잣나무를 덮을 정도로 쌓인 눈이 강한 바람과 눈에서 반사되는 강한 자외선 그리고 저온에 의한 동해로부터 식물체를 보호하고, 혹한기가 지나면 강한 일사량으로 눈이 빨리 녹게되어 광합성 기간이 짧은 아고산대 지역에서 눈잣나무의 광합성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상록성인 눈잣나무의 군락이 형성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바람이 더 강한 대청봉 산정 부근과 사면의 돌출 지형에는 눈이 적게 쌓여 눈잣나무를 바람, 자외선과 혹한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눈잣나무군락이 형성되지 않고 낙엽성인 털진달래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바람이 약한 북동사면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이고 일사량이 부족하여 5월말까지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눈잣나무의

생장이 어려워 쌓인 눈보다 키가 큰 사스래나무가 군락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눈잣나무의 분포는 적설량 그리고 적설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 눈측백군락(*Thuja koraiensis* community)

눈측백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아교목층이 2.46m, 관목층이 1.56m, 초본층이 0.26m이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분비나무, 아교목층에서 눈측백, 관목층에서 눈측백, 털진달래, 초본층에서 눈측백, 털진달래 순으로 나타났다.

눈측백은 북위 35°이북의 해발 700~1,800m 산지 숲 속에서 자라는 상록침엽 소교목으로 경북, 경기, 강원, 평남북, 함남도에 분포하며, 지리적으로는 만주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눈측백은 대청봉에서 귀떼기청봉에 이르는 서북능선과 공룡능선을 거쳐 황철봉 미시령을 지나 신선봉에 이르는 설악주능의 능선부와 북사면을 따라 형성된 암괴원(block field) 또는 암괴류(block stream)의 가장자리와 북사면 암벽에 주로 분포하며, 암반이 많이 노출된 계곡의 숲 가장자리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눈측백은 해발 625m부터 1,650m까지 출현하고 있으며 주로 해발 1,000m이상에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눈측백은 주로 기온이 낮은 아한대성 기후에 잘 자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눈측백은 해발 고도가 높아 기온이 낮으며, 햇빛이 잘 들면서도 건조하여 다른 수종이 잘 자라지 않는 서식 환경이면서도 어느 정도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잘 자란다. 따라서 눈측백의 최적 서식지는 북사면에 발달한 암괴원의 가장자리이다. 또한 일사량이 많고 쉽게 건조되는 암봉의 남사면과 남사면에 형성된 암괴원 또는 암괴류에는 북사면과 달리 거의 자라지 않으며, 암괴원 아래쪽 숲 가장자리에 좁은 폭으로 분포한다.

C. 털진달래군락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community)

털진달래군락의 평균 수고는 0.92m이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관목층에서 털진달래, 초본층에서 실새풀, 털진달래, 사스래나무, 산거울 순으로 나타났다.

정(1957)은 털진달래가 산지의 양지에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국적으로 해발 150~2,300m 지역에 분포하고 지리적으로 일본에 분포한다고 하였으며, 환경부(1997)는 햇빛이 잘 들고 배수성이 좋은 사질 토양이나 바위틈에서 자란다고 하였다.

설악산에서 털진달래군락은 대청봉에서 중청봉, 소청봉 능선 서사면 1,580~1,685m 지역에서 조사되었는데, 이 외에도 안산 일대의 능선부 남서사면, 귀떼기청봉과 끝청의 정상부 서사면, 그리고 공룡능선의 능선부 서사면 같이 해발 고도가 높아 기온이 낮으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사면의 관목대와 암반 주변에 소규모의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대청봉의 서사면에서 털진달래군락은 눈잣나무군락 다음으로 분포 영역이 넓은 군락으로 지형적으로 눈잣나무군락보다 바람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아 눈이 적게 쌓이는 입지에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아고산대 낙엽활엽수림(subalpine deciduous forest)]

D. 사스래나무군락(*Betula ermanii* community)

사스래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아교목층이 5.14m, 관목층이 1.67m, 초본층이 0.56m이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분비나무, 아교목층에서 사스래나무, 관목층에서 미역줄나무, 철쭉꽃, 털진달래, 초본층에서 실새풀, 가는잎족제비고사리, 서덜취, 미역취, 미역줄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사스래나무는 지리적으로 러시아 동북부, 캄챠카, 사할린, 아무르, 중국 동북부, 일본 등지에 자라며, 남한에서는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백록담 부근, 소백산, 태백산 등 비교적 높은 산에 주로 분포하며 수고는 보통 7~8m에 달하는 고산성 낙엽소교목이다.

설악산에서 사스래나무군락은 해발 1,000~1,700m내외외 지역에서 조사되었는데 1,500m이상의 지역이 주 분포지이다. 사스래나무군락은 대부분 교목층이 없이 5m내외의 수관층을 형성하며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서는 눈잣나무군락, 털진달래군락과 함께 가장 중요한 아고산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사스래나무군락은 대청봉에서 끝청에 이르는 능선의 북사면 상부와 중청봉에서 소청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동사면으로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아 적설량이 많으며 5월말까지 눈이 녹지 않는 곳에 우점하여 분포하고 있다.

E. 거제수나무군락(*Betula costata* community)

거제수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3.20m, 아교목층이 6.20m, 관목층이 1.82m, 초본층이 0.68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거제수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시닥나무, 관목층에서 철쭉꽃, 눈측백, 초본층에서 시닥나무, 눈측백, 참조팝나무,

미역취, 송이풀, 단풍취 순으로 나타났다.

거제수나무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600~2,100m의 산지 숲 속에서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이북에 분포하며, 지리적으로는 만주, 아무르, 우수리, 러시아 동부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거제수나무는 해발 800~1500m 범위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며, 주로 설악주능을 따라 해발 1,000~1,250m 사이의 사면 중·상부지역으로 암괴가 많이 모여든 얕은 골을 따라서 소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사면의 경사는 10~35°로 평균 23°이었으며 비교적 경사의 영향은 적은 편이다.

[아고산대 침엽수림(subalpine coniferous forest)]

F. 주목군락(*Taxus cuspidata* community)

주목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1.33m, 아교목층이 5.33m, 관목층이 1.43m, 초본층이 0.63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주목, 다래, 아교목층에서 시닥나무, 함박꽃나무, 주목, 관목층에서 참회나무, 주목, 진달래, 눈측백, 참조팝나무, 초본층에서 관중, 오리방풀, 십자고사리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은 지리적으로 러시아 동북부, 우수리 일대, 중국 동북부 등지에 자라며, 수직적으로 700~2,500m, 수평적으로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황해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주목은 저항령을 중심으로 동서로 저항령계곡과 길골계곡의 해발 950m이상의 상부에 100여 그루의 교목상 주목이 자라고 있으며, 소규모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서북능선의 한계령능선이 갈라지는 곳을 중심으로 북사면 상부에 DBH가 최고 71cm에 이르는 교목상 주목 30여 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대승령에서 안산에 이르는 능선 북사면 상부에 20여 그루의 교목상 주목이 자라고 있다. 이와 같이 주목은 해발 1,000m내외의 북사면 상부와 계곡 상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주로 숲이 형성된 암괴원의 가장자리 지역에서 암괴 사이에 퇴적물이 쌓여 유기물 함량이 많아지고 비교적 보수력이 향상되어 토양 조건이 향상된 지역에 소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G. 분비나무군락(*Abies nephrolepis* community)

분비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1.17m, 아교목층이 6.60m, 관목층이 1.78m, 초본층이 0.62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

점종은 교목층에서 분비나무, 잣나무, 전나무, 아교목층에서 분비나무, 당단풍, 신갈나무, 관목층에서 털진달래, 철쭉꽃, 홍괴불나무, 정향나무, 초본층에서 실새풀, 대사초, 참조팝나무, 산거울, 눈측백 순으로 나타났다.

분비나무는 심산의 고원 및 고산 지대에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덕유산(N 38°50′)에서부터 함북 차유산(車踰山, N 42°20′)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고산에 분포하며, 수직분포는 덕유산에서 해발 1,000~1,500m, 중부의 설악산에서 해발 700~1,500m, 북부의 평남 묘향산에서 해발 700~1,900m, 평북 비래봉에서 해발 700~1,400m 함북 장백산에서 해발 500~2,300m까지 분포한다고 한다. 따라서 하한계선은 북부에서 해발 500m, 중부에서는 해발 700m, 남부에서는 해발 1,000m이며, 상한계선은 장백산에서는 2,300m까지 분포하고 남한에서는 비교할 고산이 없으나 1,500m까지 분포하고 있고. 분포 중심지는 해발 1,200m이다.

설악산에서 분비나무는 서북능선을 축으로 남사면에서는 해발 1,000m부터, 북사면에서는 해발 800m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1,200m부터 출현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며 산정까지 나타나는데 주로 신갈나무림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암괴원 가장자리 지역으로 암괴 사이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생육 조건이 조금 향상된 곳으로 다른 수종이 잘 자라지 않는 곳에 분비나무의 출현 빈도가 높으며 소규모의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암괴원을 중심으로 가장자리에는 눈측백군락이, 그 바깥쪽으로 가면서 분비나무군락과 신갈나무군락이 형성되고 있었다.

[산지대 낙엽활엽수림(montane coniferous forest)]

H. 신갈나무군락(*Quercus mongolica* community)

신갈나무군락의 평균 계층별 수고는 교목층이 12.27m, 아교목층이 6.68m, 관목층이 1.76m, 초본층이 0.55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신갈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신갈나무, 관목층에서 철쭉꽃, 생강나무, 초본층에서 단풍취, 대사초, 조릿대, 산거울, 쌀새, 조록싸리, 미역줄나무, 새며느리밥풀, 오리방풀 순으로 나타났다.

신갈나무는 한반도 중부지역의 냉온대 낙엽활엽수림대와 산악 정상부근의 표징종으로서 해발 100m부터 1,800m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해발 700m 내외의 지역이 분포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설악산에서 신갈나무는 산지 능선부와 정상부 암반 주변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군락이다. 설악산의 신갈나무군락은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관목층에서 철쭉꽃의 식피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

리나라 신갈나무군락의 대부분이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 당단풍이 비교적 높은 피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각 지역의 공통점이다. 일반적으로 신갈나무 군락이 발달할수록 신갈나무와 당단풍이 강하게 결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조사지역의 신갈나무군락은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I. 졸참나무군락(*Quercus serrata* community)

졸참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4.87m, 아교목층이 7.87m, 관목층이 1.63m, 초본층이 0.69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졸참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쪽동백나무, 졸참나무, 만주고로쇠, 관목층에서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당단풍, 초본층에서 조릿대, 생강나무, 조록싸리, 단풍취, 우산나물 순으로 나타났다. 졸참나무는 우리나라 각처 산지의 산중턱 및 산기슭의 계곡부 토심이 양호한 곳에 주로 분포하며, 해발 300~400m 지역이 분포의 중심지이다.
설악산에서 졸참나무군락은 해발 260~560m사이에서 조사되었으며, 주로 계곡부와 사면하부에서 다른 참나무류와 섞여서 자라고 있으며 작은 규모로 졸참나무 순림이 분포하였다. 본 군락은 교목층에서 졸참나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우점종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 계곡부에 국지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J. 굴참나무군락(*Quercus variabilis* community)

굴참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5.09m, 아교목층이 6.55m, 관목층이 1.86m, 초본층이 0.54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굴참나무, 아교목층에서 쪽동백나무, 굴참나무, 당단풍, 신갈나무, 때죽나무, 생강나무, 졸참나무, 물푸레나무, 관목층에서 산거울, 생강나무, 초본층에서 산거울, 조록싸리, 큰기름새, 맑은대쑥 순으로 나타났다.

굴참나무는 산중턱 양지에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완도군(북위 34° 30′)으로부터 평남 묘향산(북위 40°)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며, 해발 50m부터 1,200m까지 분포하고 있으나 해발 500m 지역이 분포의 중심지이다.
설악산에서 굴참나무군락은 서에서 동으로 뻗은 능선인 달마봉 능선의 남사면, 황철봉에서 신흥사로 뻗은 능선의 남사면, 서북능선의 남사면, 둔전골 남사면과 같이 주로 동서로 뻗은 능선의 남사면 해발 190~550m 사이의 지역에 형성하고 있는데, 해발 300~400m 지역이 분포의 중심이다. 굴참나무는 일사량이 많고, 경사가 비교적 급하며 건조한 사면 지역에서 굴참나무 순림으로 분포하고, 능선부와 사면 상부에서는 소나무와 계곡쪽으로는 신갈나무

와 혼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군락의 아교목층에서 신갈나무의 우점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향후 신갈나무림으로의 천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토심이 얕으며 건조한 토양으로 경사가 비교적 급한 곳에는 굴참나무군락으로 잔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K. 서어나무군락(*Carpinus laxiflora* community)

서어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3.40m, 아교목층이 6.50m, 관목층이 1.62m, 초본층이 0.58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서어나무, 신갈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서어나무, 관목층에서 생강나무, 당단풍, 진달래, 철쭉꽃, 사람주나무, 초본층에서 조릿대, 생강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서어나무는 제주도 한라산(N 33°20′)에서부터 강원도 금강산(N 38°30′)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심산에 자라며, 수직적으로는 해발 100m부터 1,300m까지 분포하나, 해발 500m 내외의 지역이 분포 중심지이다. 또한 한반도 내륙의 냉온삼림대 중부에 분포하는 대표적 수종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설악산에서 서어나무는 점봉산 지역의 주전골과 가는고래골, 외설악 지역의 천불동계곡, 토왕골, 내설악 지역의 십이선녀탕계곡 등 계곡을 따라 해발 200~700m 사이의 계곡 부근의 사면 중·하부로서 노암이 많아 토양의 양이 적고 다소 척박한 토양 환경에 소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L. 함박꽃나무군락(*Magnolia sieboldii* community)

함박꽃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와 식피율은 교목층이 12.33m, 아교목층이 5.92m, 관목층이 1.50m, 초본층이 0.62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분비나무, 잣나무, 아교목층에서 함박꽃나무, 관목층에서 귀룽나무, 함박꽃나무, 생강나무, 초본층에서 오리방풀, 관중, 십자고사리, 금강분취 순으로 나타났다.

함박꽃나무는 심산 골짜기에서 자라는 낙엽활엽 소교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함북을 제외한 전도의 해발 50~1,400m에서 자라며, 지리적으로는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함박꽃나무는 해발 170~1,500m사이의 저지대에서 대청봉 부근까지 광범위하고 산발적으로 다른 군락의 하위층에 높은 출현빈도로 분포하고 있으며, 암석이 많은 지역의 사면부에 형성된 얕은 골짜기에 암괴가 많이 모여들어 암괴가 많고 토양의 양이 적어 보수력이 작아서 갈수기에는 쉽게 건조해져 다른 수종이 잘 자라지 못하는 열악한 입지에 소규모 순군락

을 형성하고 있었다.

설악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함박꽃나무는 다른 군락 내에 산발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로 분포하지만 순 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설악산에서 소규모이지만 함박꽃나무군락이 많이 형성되는 이유는 암반 지형이 많고 암괴가 모여드는 얕은 골이 많이 형성되는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M. 피나무군락(*Tilia amurensis* community)

피나무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5.00m, 아교목층이 6.30m, 관목층이 1.96m, 초본층이 0.76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피나무, 신갈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시닥나무, 피나무, 관목층에서 철쭉꽃, 시닥나무, 초본층에서 단풍취, 대사초, 큰개별꽃, 오리방풀, 병조희풀, 금강분취 순으로 나타났다.

피나무는 우리나라 지리산 이북 숲 속에 자라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지리산 이북에 분포하며, 지리적으로는 만주, 아무르, 우수리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피나무는 해발 200m부터 1,400m까지 산발적으로 분포하며 해발 800~1,400m사이가 주 분포지역으로 1,200m내외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중요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발 900~1,400m 지역에서 소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N. 물푸레나무군락(*Fraxinus rhynchophylla* community)

물푸레나무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1.50m, 아교목층이 7.00m, 관목층이 1.85m, 초본층이 0.83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물푸레나무, 아교목층에서 물푸레나무, 만주고로쇠, 노린재나무, 산뽕나무, 관목층에서 고추나무, 조릿대, 노간주나무, 광대싸리, 조록씨리, 초본층에서 오리방풀, 쌀새, 뫼제비꽃, 줄딸기, 산딸기, 오미자, 물푸레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물푸레나무는 산기슭이나 골짜기 그리고 개울가에 자라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전국적으로 해발 100~1,600m에 자란다. 물푸레나무는 일본에서 는 빈약하게 나타나지만 한국이나 만주 등에서는 흔하게 나타나는 종으로 군집보다는 군단 이상의 표징종 요소가 더 강하다.

설악산에서 물푸레나무는 해발 170~1,420m사이에서 타 군락에 섞여 자라며 피도는 낮지만 25개의 다른 군락군 중 18개의 군락군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해발 390~920m 지역의 백담계곡의 계곡부, 수렴동계곡 주변의 사면하부, 그리고 미시령 동쪽 사면과 한계령에서 점봉산에 이

르는 능선의 사면 상부에 소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산지대 침엽수림(montane coniferous forest)]

O. 소나무군락(*Pinus densiflora* community)

소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4.50m, 아교목층이 5.90m, 관목층이 1.71m, 초본층이 0.55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소나무, 신갈나무, 아교목층에서 소나무,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산벚나무, 관목층에서 진달래, 생강나무, 조록싸리, 신갈나무, 철쭉꽃, 당단풍, 소나무, 국수나무, 참싸리, 초본층에서 산거울, 큰기름새, 진달래, 물푸레나무, 생강나무, 산구절초, 참싸리, 맑은대쑥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나무는 양수로서 수분요인에 폭 넓은 적응성을 가지고 있으나 조건이 좋은 생리적 적지에서는 다른 수종과 경쟁에 약함으로 능선과 같은 건조한 척박지나 습원, 하안과 같은 과습지인 생태적 적지에 군집을 이루거나 산사태 등으로 군집이 파괴된 곳에 형성되는 이차천이의 도중상인 이차림으로 존재한다. 소나무군락은 한국, 만주,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에 분포하는 대표적 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로부터 함경북도 은성군에 이르기까지 해발 10m부터 2,000m의 범위에 분포하나 해발 500m 내외의 지역이 분포의 중심이며, 특히 온대인 중부지방이 분포의 중심이다. 소나무군락의 분포범위는 지역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설악산에서는 해발 50~900m범위에 분포하는데 500m이내가 주 분포의 중심이다.

소나무군락은 일반적으로 교목층에서 소나무가, 아교목층에서 신갈나무가 각각 높은 우점도를 나타내며 중부 이북 산지 사면 상부와 능선부에 주로 분포하는 입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설악산의 소나무군락에서도 신갈나무 출현빈도가 높으며, 피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인간의 간섭이 장기간 배제된다면 소나무림이 신갈나무림으로 천이가 진행되어 소나무군락의 분포 영역이 줄어들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설악산의 소나무군락에서 해발고도가 낮을수록 졸참나무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신갈나무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소나무림에서 참나무류는 중부아구에서는 신갈나무가 우점종군에 들어가며, 남으로 갈수록 신갈나무는 줄어들고 졸참나무와 굴참나무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위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기후 특성을 나타내므로 이를 고도별 변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나무는 수광량이 풍부하고, 최대용수량이 매우 적어 건조하며, 유기물량,

총질소량, 유효인산량, 치환성 양이온이 적은 척박한 입지에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설악산에는 이러한 토양 입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소나무군락이 분포하는 입지에 따라 능선형, 사면형, 암벽형, 계곡형, 하천변형, 저산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능선형은 산지 능선을 따라 토양적 극상을 이루고 있으나 낙엽 낙지에 의한 낙엽부식층에 의해 토양 조건이 점차 양호해지면 다른 수종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는 능선형 소나무군락의 아래쪽에 주로 신갈나무군락이 분포하고 군락 내에도 신갈나무의 피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능선형 소나무군락에는 높은 고도에서 분포하는 종이 많이 출현한다. 일부군락은 척박한 토양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의 입지 조건으로 생장속도가 느려 교목층이 없는 3층 구조이다.

사면형은 비교적 경사가 급하거나 노암이 많은 지역으로 마사토와 같은 입자가 굵어 배수가 잘되어 보수력이 떨어지는 토양으로 이루어진 사면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암벽형은 바위틈에 형성된 적은 양의 풍화토와 낮은 보수력으로 갈수기에 다른 식물의 생육이 어려울 정도로 건조해지는 토양 입지에 수분요인에 대한 적응범위가 넓은 소나무의 군락이 형성된 것으로 설악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암벽지에 자라는 소나무는 주변에 식생의 발달이 빈약하여 일사량이 풍부하여 자절현상(self cutting)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가 많은 수형을 나타낸다. 또한 척박한 입지 조건 때문에 생장속도가 느려 수고가 8m이내이며 교목층과 초본층으로 구성된 2층 구조 또는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 구성된 3층 구조이다. 설악산의 암벽 지형에서 남사면의 암벽에서는 해발 800~900m까지 분포하고, 북사면에서는 해발 500~600m까지 분포하며 그 이상으로 고도가 높아지면 수종이 잣나무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천변형은 하천의 유로 변경으로 자갈과 굵은 모래가 퇴적된 나지로서 수분 공급은 원활하나 배수가 잘되어 보수력이 매우 낮으며 일사량이 풍부한 입지적 조건으로 소나무가 선구종으로 침입하여 군락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일어나는 하천의 범람으로 하상에 가는 모래가 덮이게 되어 경쟁 수종을 제거하여 소나무군락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하천의 유로에서 멀어진 곳은 군락이 발달하면서 하상의 일사량 감소와 낙엽 낙지에 의한 낙엽부식층의 발달로 토양 조건이 양호해지면서 점차 졸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와 같은 참나무류의 군락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군락이다.

계곡형은 경사가 강하며 암반이 분포하는 계곡 주변의 사면 하부에 형성된

군락으로, 곡류에 의한 침식으로 암반위의 표토가 얇게 있어 일사량이 풍부하고 갈수기에 쉽게 건조되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다른 수종에 비해 건조에 강한 소나무가 군락을 형성하게 된다.

P. 잣나무군락(*Pinus koraiensis* community)

잣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1.50m%, 아교목층이 6.71m, 관목층이 1.79m, 초본층이 0.44m로 각각 나타났다.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잣나무, 신갈나무, 아교목층에서 신갈나무, 잣나무, 당단풍, 분비나무, 관목층에서 철쭉꽃, 진달래, 초본층에서 실새풀, 대사초 순으로 나타났다.

잣나무는 음성으로 생장이 비교적 빠르고 특히 북향의 산중턱 사면 및 계곡부의 토심비옥한 곳에 잘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N 35°10′)에서부터 함북 무산군 차유산(N 42°20′)에 이르기까지 심산에 분포하고 있으나 중부 N 38°~39°의 지역이 분포의 중심이며, 수직적으로는 금강산에서는 해발 100m부터, 지리산에서는 해발 1,900m가지 분포되어 있으나 하한계선을 해발 600m, 상한계선을 해발 1,200m로 보며 해발 900m 내외의 지역이 분포 중심이다.

설악산에서 잣나무는 해발 240m부터 1,600m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주로 소나무의 입지조건과 비슷한 능선부와 경사가 강하고 암반이 많은 곳으로 소나무보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따라서 남사면의 경우 해발 800m부터 소나무보다 출현빈도가 높아지면서 1,000m이상 지역에서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사면의 경우 500m부터 소나무보다 출현빈도가 높아지면서 700m이상에서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해발 1,200m이상부터는 점차 분비나무로 바뀌고 있었다. 따라서 설악산에서의 잣나무의 최대 분포지는 해발 1,000m 내외의 지역이다.

Q. 전나무군락(*Abies holophylla* community)

전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24.57m, 아교목층이 7.71m, 관목층이 1.70m, 초본층이 0.53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전나무, 까치박달,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까치박달, 쪽동백나무, 만주고로쇠, 함박꽃나무, 관목층에서 전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초본층에서 관중, 십자고사리, 승마, 오리방풀, 단풍취, 오미자, 마주송이풀, 병조희풀 순으로 나타났다.

전나무는 심산의 산중턱 이상의 습윤지에서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의 무등산(N35°)에서 함북 송진산(N 43°)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분포

하며 중부 및 북부가 분포의 중심지이고 남부에서는 매우 희소하다. 수직적으로는 경기도 용문산 및 소래봉에서 해발 100m부터, 강원도 화악산 및 함북 만탑산에서 해발 1,400m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나 해발 700~800m가 분포 중심지이다.

설악산에서 전나무는 해발 200~1,400m 범위에 산발적으로 분포하지만 해발 500~800m 지역의 경사가 강한 사면중부, 암괴가 많이 모인 사면 하부와 계곡부에 소규모의 순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설악산에서의 전나무군락은 전나무의 수고가 매우 높고 단위면적당 개체수가 1.89 개체/a로 밀도가 적은 관계로 하상까지 수광량이 풍부하여 교목층이 2개 층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방형구당 출현종 수가 많다. 전나무군락의 교목층은 20~30m의 전나무를 상위층으로 하고 8~10m의 까치박달이 아래층을 우점하고 있었다. 특히 영시암에서 오세암 사이의 계곡부 주변에는 흉고직경(DBH)이 최고 1.43m의 개체를 비롯하여 DBH가 1m이상되는 전나무가 10여 개체가 조사되었다.

[산지 계곡림(riparian forest of montane)]

R. 황철나무군락(*Populus maximowiczii* community)

황철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4.50m, 아교목층이 6.33m, 관목층이 1.75m, 초본층이 0.62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황철나무, 소나무, 아교목층에서 생강나무, 서어나무, 쪽동백나무, 물푸레나무, 때죽나무, 관목층에서 생강나무, 조록싸리, 초본층에서 등칡, 담쟁이덩굴, 주름조개풀, 오리방풀 순으로 나타났다.

황철나무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해발 100~1,400m의 산지 물가나 골짜기에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 평남북, 함남북에 분포하며, 지리적으로는 일본, 만주, 아무르, 우수리, 사할린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황철나무는 해발 550m이하의 저항령계곡과 쌍천변에 많이 분포하며, 십이선녀탕계곡과 인제 북천변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는데, 계곡의 폭이 좁은 하천으로 범람이 자주 일어나 암괴와 굵은 모래가 퇴적되어 유기물 함량이 적고, 최대용수량이 가장 적은 하천변 퇴적지에 주로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황철나무군락은 하천의 빈번한 범람으로 자갈과 모래가 임상을 덮으므로 식생의 변화가 심하였다.

황철나무군락의 입지는 계류의 경사에 따른 토양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사가 강한 계곡은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크며, 수광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황철나무군락이 발달하고, 경사가

완만한 계곡은 폭이 넓고 유속이 느리므로 하천에서 멀어질수록 입자가 작은 모래가 퇴적되며, 하천의 범람 회수도 감소되어 유기물함량과 최대용수량이 점차 많아져 토양 환경이 양호하다. 따라서 수광량이 풍부한 하천변은 계류에 가까운 곳은 역암지역으로 토양 환경 열악하여 황철나무가 우점하고 하천에서 멀어지면서 토양 환경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소나무의 출현빈도가 높아져 하천변형 소나무군락이 형성되고 있다.

S. 가래나무군락(*Juglans mandshurica* community)

가래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5.33m, 아교목층이 7.33m, 관목층이 1.83m, 초본층이 0.77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가래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물푸레나무, 산뽕나무, 느릅나무, 쪽동백나무, 소태나무, 참개암나무, 관목층에서 고추나무, 참싸리, 생강나무, 초본층에서 오리방풀, 병조희풀, 사위질빵, 조릿대, 큰개별꽃, 주름조개풀, 오미자, 산딸기, 쌀새 순으로 나타났다.

가래나무는 산기슭 및 계곡의 숲 속에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태백산(N 37°50′)에서부터 함북 온성군 종산(N 42°50′)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심산에 분포하고, 수직분포는 강원도 금강산에서는 해발 500m부터 함남 정평군 사수산에서는 해발 1,500m까지 분포하나 해발 500m 내외의 지역이 분포중심지이다.

설악산에서 가래나무는 해발 300~600m 사이의 계곡부와 사면하부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며, 계곡 주변의 사면하부에 경사가 32~45°로 비교적 강하여 낙엽과 낙지의 유실량이 많아 다소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 입지에서 아주 작은 규모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T. 박달나무군락(*Betula schmidtii* community)

박달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4.75m, 아교목층이 8.00m, 관목층이 1.80m, 초본층이 0.58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박달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만주고로쇠, 쪽동백나무, 관목층에서 생강나무, 함박꽃나무, 초본층에서 생강나무, 등칡, 조릿대, 대사초, 미역줄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박달나무는 산중턱이하의 숲 속 또는 바위틈에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N 35°)에서부터 함북 송진산(N 42°30′)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심산에 분포한다. 수직분포는 강원도 치악산(N 37°20′)에서는 해발 180m부터 평북 낭림산(N 40°40′)에서는 2,000m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하한계선을 400m, 상한계선을 1,000m로 보며 해발 700m 내외가 분포의 중심지이다.

설악산에서 박달나무는 해발 400~900m사이의 비교적 건조한 곳에 형성된 신갈나무, 소나무, 잣나무, 황철나무군락 내에 산발적으로 섞여 분포하며, 사면 중 · 하부에 형성된 얕은 골에 암괴가 모여들어 노암이 많고 토양의 양이 적어 보수력이 떨어져서 쉽게 건조해지는 토양 입지에 소규모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U. 염주나무군락(*Tilia megaphylla* community)

염주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와 식피율은 교목층이 15.67m, 아교목층이 8.00m, 관목층이 1.67m, 초본층이 0.63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염주나무, 등칡, 아교목층에서 염주나무, 함박꽃나무, 관목층에서 생강나무, 왕머루, 박쥐나무, 오미자, 고추나무, 초본층에서 등칡, 큰개별꽃, 홀아비꽃대, 생강나무, 박쥐나무, 오미자, 다래, 우산나물, 승마 순으로 나타났다.

염주나무는 산지의 숲 속에서 자라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강원도 북부에 분포하며, 지리적으로는 만주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염주나무는 한계령에서 한계리에 이르는 지역, 백담계곡, 그리고 십이선탕계곡 등 내설악 지역의 해발 200~820m사이의 사면 중 · 하부에 산발적으로 자라며, 십이선녀탕계곡, 백담계곡, 오세암으로 가는 계곡의 사면 하부에 소규모의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염주나무군락은 종의 분포 특성상 남한의 다른 지역에서는 조사된 바 없으며 설악산에서 처음 기록되는 군락으로 생각된다.

2. 속초의 해안식물

가. 해안환경

해안(海岸)은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모래해안과 바닷가의 절벽아래에 좁게 발달하며 많은 양의 자갈 또는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암석해안으로 구분되며, 모래해안의 뒤쪽으로 해안사구(海岸砂丘)가 발달되어 있다. 속초시의 해안은 태백산맥이 해안 가까이 까지 뻗어있기 때문에 암석해안이 발달되어 있고, 주변에는 육지에서 풍화 침식으로 생성되는 모래를 운반 공급하는 양양 남대천, 쌍천, 용촌천 등의 하천이 있어 모래해안이 부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모래해안과 암석해안 모두 보수성이 약하고 유기물의 함량이 부족하며,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 모래가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등 식물이 자라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모래해안에서 파도의 영향을 늘 받고 있는 곳

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으며, 그 바깥쪽의 불안정 지역에는 땅속줄기가 발달한 식물, 기는줄기가 발달한 식물, 뿌리가 깊은 방석형 식물 등이 잘 자라며, 암석해안의 바위틈에는 방석형 식물과 잎이 두터운 식물, 털이 있는 식물 등이 잘 자란다.

속초 지방의 해안은 모래해안과 암석해안이 잘 발달되어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모래 해안에 발달한 해안 사구는 해풍을 막아주며, 사구 안쪽으로 담수의 지하수를 만들어 주며, 해안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해수욕장 개발과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해안사구가 사라지고 있는 등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다.

나. 속초시의 해안식물

해안은 모래해안과 암석해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래해안과 암석해안 모두 보수성이 부족하여 쉽게 건조되며,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고 염분을 많이 함유한 토양 환경을 갖는다. 또한 염분을 함유한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모래가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등 식물이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식물을 염생식물(鹽生植物)이라 하는데 우리는 보통 해안식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 식물은 부족한 수분과 무기염류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잎과 줄기에 비해 뿌리가 매우 발달하는 특징이 있어 뿌리의 양이 잎과 줄기의 양보다 2배 이상 많으며 보수력이 보다 나은 내륙으로 갈수록 잎과 줄기의 양의 비기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식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잎이 두텁고 좁으며, 털이 많은 특징이 있다.

속초 지방의 기후는 남한에서 최북단에 위치하지만 난류의 영향을 받아 영서 내륙 지방에 비하여 여름철 최고 온도는 낮으며, 겨울철에는 최저 온도가 높은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므로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섬현삼은 지금까지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Ⅱ급 야생식물로서 필자에 의해 처음으로 육지(속초)에서 분포가 밝혀진 해안식물이다(2004, 국립환경연구원).

속초시의 해안에 자라고 있는 해안 식물 중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물은 다음과 같다.

속초의 해안식물 목록

돌나물과 Crassulaceae

둥근바위솔	*Orostachys agregeatus* Hara	
땅채송화	*Sedum oryziflolium* Mak.	

장미과 Rosaceae

해당화	*Rosa rugosa* Thun.	

콩과 Laguminosae

갯완두	*Sathyrus maritimus* Big.	

산형과 Umbelliferae

갯방풍	*Phellopterus littoralis* Bent.	

메꽃과 Convolvulaceae

갯메꽃	*Calystegia japonica* Chois.	

꿀풀과 Labiatae

참골무꽃	*Scurtellaria strigillosa* Hems	

질경이과 Plantaginaceae

털질경이	*Plantago depressa* Willd.	

지치과 Boraginaceae

모래지치	*Messershmidia sibirica* L.	

현삼과 Scrophulariaceae

해란초	*Linaria japonica* Miq.	
섬현삼	*Scrophularia takesimensis* Nakai	멸종위기Ⅱ급

국화과 Compositae

해국	*Aster spathulifolius* Max.	
갯씀바귀	*Ixeris repens* A. Gray	

벼과 Gramineae

왕잔디풀 *Zoysia macrostachya* Fa. et Sav.

사초과 Cyperaceae

밀사초 *Carex boottiana* Hooker et Arnott
보리사초 *Carex kobomugi* Ohwi
좀보리사초 *Carex pumila* Steud.

3. 속초시의 습원식물

석호(潟湖)인 영랑호와 청초호 그리고 농업용수용 저수지와 웅덩이 등에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쌍천과 청초천 등의 소하천과 농수로 주변에는 하천식물이 자라고 있다. 이와 같이 속초시에는 습원식물을 관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초는 수생식물을 총칭하는 말이며, 수생식물은 생활 장소나 생활형에 따라 정수식물, 부엽식물, 침수식물 및 부유식물로 대별할 수 있다.

수초 전문가의 말을 빌면 "물속 또는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체의 전부 또는 그 일부분이 수중에 있는 고등식물"을 수초로 본다.

그러므로 수초와 습지식물 또는 습지식물과 수변식물의 한계가 불분명할 경우가 생긴다.

속초시에 소재 하는 호수, 하천, 관개용 저수지와 수로 등의 습지에 자라는 수생식물을 생활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침수식물에 실말, 줄말, 물질경이 등이 있고, 부엽식물에 가래, 애기가래, 수련, 개연꽃 등이 있고, 부생식물에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등이 있으며, 정수식물에 갈대, 줄, 부들, 애기부들, 물옥잠, 물달개비, 골풀, 송이고랭이 등이 있으며, 기타 습지식물로는 알방동사니, 사마귀풀, 비녀골풀, 부처꽃 등이 있다.

속초의 습원식물 목록

수련과 Nymphaeaceae

개연꽃 *Nuphar japonica* DC.
수련 *Nymphaea tetragona* var. *angusfa* Casp.

부처꽃과 Lythraceae

부처꽃	*Lythrum anceps* (Koehne) Makino

부들과 Typhaceae

부들	*Typha orientalis* Presl.
애기부들	*Typha angustata* Bory et Chaub

가래과 Potamogetonaceae

가래	*Potamogeton distinctus* A. Benn.
애기가래	*Potamogeton octandrus* Poir.
실말	*Potamogeton berchtoldii* Fieber
줄말	*Ruppina rostellata* Koch

택사과 Alismataceae

보풀	*Sagittaria aginashi* Makino

자라풀과 Hydrocharitaceae

물질경이	*Ottelia alismoides* (L.) Pers.

사초과 Cyperaceae

송이고랭이	*Scirpus triangulatus* Roxb.
방울고랭이	*Scirpus wichurae* Bcklr.
올챙이고랭이	*Scirpus junocoides* Roxb.
알방동사니	*Cagina crassicaulis* S. Wats.

개구리밥과 Lemnaceae

개구리밥	*Spirrodela polyrhiza* (L.) Schleid.
좀개구리밥	*Lemnar pauciostata* Hegeim.

닭의장풀과 Commelinaceae

사마귀풀 *Aneilema keisak* Hassk.

물옥잠과 Pontedericeae

물옥잠 *Monochoria korsakowi* Regel. et Maack.

물달개비 *Monochoria vaginalis* var. *plantaginea* (Roxb.) Solm.-Laub.

골풀과 Juncaeae

골풀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

비녀골풀 *Juncus krameri* Fr. et Sab.

제3장 속초의 동물

동물상은『설악산 학술조사 보고서』(강원도 1984),『강원의 자연-조류편, 담수어편』(강원도교육위원회)와『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1)를 기초로 기술하였다.

1. 담수어류

전상린의「설악산의 계류동물-Ⅰ.담수어류」(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370-411)에 의하면 태백산맥의 일부인 설악산맥을 분수령으로 내설악과 외설악에서 뚜렷한 담수어류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된 담수어는 원구류를 포함하여 총 61종류이다. 설악산에서 관찰된 담수어 61종에『강원의 자연-담수어편』(1986 강원도교육위원회)에 기록된 속초지역의 담수어를 검토하여 추가하면 원구류를 포함하여 21과 50속 65종이다. 이 중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Ⅱ급이 8종이며, 천연기념물은 어름치 1종이다. 또한 한국고유어종은 16종이다. 종의 배열 순서는『한국동식물도감-담수어류편』(1997 김익수, 교육부)을 따랐다.

속초 지방의 어류 목록

〈 원구류 Cyclostomata 〉

〈 칠성장어목 Order Petromyzontiformes 〉

칠성장어과 Family Petromyzonidae

칠성장어	*Lampetra japonica* (Martens)	외설악/멸종위기 Ⅱ급
다묵장어	*Lampetra reissneri* (Dybowski)	내설악/멸종위기 Ⅱ급

〈 경골어류 Osteichthyes 〉

〈 뱀장어목 Order Anguilliformes 〉

뱀장어과 Family Anguillidae

뱀장어	*Anguilla japonica* Temminck & Schlegel	내, 외설악

〈 청어목 Order Clupeiformes 〉

전어과 Family Dorosommatidae

전어	*Conosinus punctatus* (Temminck & Schlegel)	외설악

〈 잉어목 Order Cypriniformes〉

〈 잉어과 Family Cyprinidae 〉

잉어아과 Subfamily Cyprininae

잉어	*Cyprinus carpio* Linnaeus	외설악
붕어	*Carassius auratus* (Linnaeus)	내, 외설악

납줄개아과 Subfamily Rhodeinae

묵납자루	*Acheilognathus signifer* Berg	내설악, 고유종 멸종위기 Ⅱ급

모래무지아과 Subfamily Gobioninae

붕어	*Pseudorasbora parva* (Temminck & Schlegel)	영랑호
돌고기	*Pungtungia herzi* Herzenstein	내설악
가는돌고기	*Pseudopungtungia tenuicorpus* Jeon et Choi	내설악, 고유종 멸종위기 Ⅱ급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Mori	내설악,고유종
새미	*Ladislavia taczanowskii* Dybowski	내설악
누치	*Hemibarbus labeo* (Pallas)	내설악
참마자	*Hemibarbus longirostris* (Regan)	내설악
어름치	*Hemibarbus mylodon* (Berg)	내설악, 고유종
모래무지	*Pseudogobio esocinus* (Temminck & Schlegel)	내설악
돌상어	*Gobiobotia brevibarba* Mori	내설악, 고유종 멸종위기 Ⅱ급
돌마자	*Microphysogobia yaluensis* Mori	내설악, 고유종
배가사리	*Microphysogobia longidrosalis* Mori	내설악, 고유종

황어아과 Subfamily Leuciscinae

황어	*Tribolodon hakonensis* (Gnther)	외설악
대황어	*Tribolodon brandii* (Dybowski)	외설악
버들개	*Rhynchocypris lagowskii* (Dybowski)	외설악
버들치	*Rhynchocypris oxycephalus* (Bleeker)	내설악
금강모치	*Rhynchocypris kumganggensis* Kim	내설악, 고유종

피라미아과 Subfamily Danioninae

피라미	*Zacco platypus* (Temminck & Schlegel)	내설악, 남대천에 도입
갈겨니	*Zacco temmincki* (Temminck & Schlegel)	내설악
끄리	*Opsariichthys bidens* Günther	내설악

미꾸리과 Family Cobitidae

종개	*Orthrias nudus* (Bleeker)	내, 외설악
쌀미꾸리	*Lefua costata* (Kessler)	외설악
미꾸리	*Misgurnus anguillicaudatus* (Cantor)	내, 외설악
참종개	*Iksookimia koreensis* (Kim)	내설악, 고유종
새코미꾸리	*Iksookimia rotundicaudata* (Wakiya et Mori)	내설악, 고유종
북방종개	*Cobitis melanolecua* Nichols	외설악

〈 메기목 Oder Siluriformes 〉

메기과 Family Siluridae

메기	*Silurus asotus* (Linnaeus)	내설악
미유기	*Silurus microdorsalis* Mori	내설악, 고유종 남대천에 도입

동자개과 Family Bagridae

동자개	*Petteobagrus fulvidraco* (Richrdson)	내설악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Uchida)	내설악, 고유종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 (Dybowski)	내설악

퉁가리과 Family Amblycipitidae

퉁가리	*Liobagrus andersoni* Regan	내설악, 고유종

〈 바다빙어목 Order Osmeriformes 〉

바다빙어과 Family Osmeridae

빙어	*Hypomesus olidus* (Pallas)	외설악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Temminck & Schlegel)	외설악

뱅어과 Family Salangidae

뱅어	Salangichthys microdin Bleeker	외설악

〈 연어목 Order Salmoniformes 〉

연어과 Family Salmonidae

열목어	*Brachymystax lenok* Pallas	내설악
연어	*Oncorhynchus keta* (Walbaum)	외설악
산천어	*Oncorhynchus masou masou* (Brevoort)	외설악

〈 숭어목 Order Mugiliformes 〉

숭어과 Family Mugilidae

숭어	*Mugil cephalus* Linnaeus	외설악

〈 동갈치목 Order Beloniformes 〉

송사리과 Family Cyprinodontidae

송사리	*Oryzias latipes* (Temminck & Schlegel)	내, 외설악

학공치과 Family hemiramphidae

학꽁치	*Hemirhamphus sajori* (Temminck & Schlegel)	외설악

〈 큰가시고기목 Order Gasterosteiformes 〉

큰가시고기과 Family Gasterosteidae

큰가시고기	*Gasterosteus aculealus* Linnaeus	외설악
가시고기	*Pungitius sinensis* (Guichenot)	외설악,멸종위기 Ⅱ급

〈 횟대목 Order Scorpaeniformes 〉

둑중개과 Family Cottidae

둑중개	*Cottus poecilopterus* Heckel	내설악,멸종위기 Ⅱ급
한둑중개	*Cottus hangiongensis* Mori	외설악,멸종위기 Ⅱ급

〈 농어목 Order Perciformes 〉

농어과 Family Serranidae

꺽지	Coreoperca herzi Herzenstein	내설악, 고유종 남대천에 도입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Steindachner)	내설악

동사리과 Family Odontobutidae

동사리	*Odontobutis platycephala* (Temminck & Schlegel)	내설악 고유종
얼룩동사리	*Odontobutis interrupta* Iwata et Jeon	내설악, 고유종

망둥어과 Family Gobiidae

꾹저구	*Chaenogobius urotaneus* (Gobiidae)	외설악
갈문망둑	*Rhinogobius giurinus* (Rutter)	영랑호
밀어	*Rhinogobius brunneus* (Temminck & Schlegel)	내, 외설악
검정망둑	*Tridentiger obscurus* (Temminck & Schlegel)	외설악
두줄망둑	*Tridentiger trigonocephalus* (Gill)	영랑호
날개망둑	*Favonigobius gymnauchen* (Bleeker)	영랑호
미끈망둑	*Luciogobius guttatus* (Gill)	외설악

가물치과 Family Channidae

가물치	*Channa argus* Cantor	쌍천, 영랑호

〈 복어목 Order Tetraodonitiformes 〉

참복과 Family Tetraodontidae

복섬	*Takifugu niphobles* (Jordan et Snyder)	외설악

2. 양서류

백남극과 심재한의 「설악산의 양서류상」(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285-292)에 의하면 설악산에서 조사된 양서류는 2목 5과 6속 10종이며,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1)에서 한국미기록종 1종을 추가하여 2목 5과 6속 11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악산의 양서류 목록

〈 도롱뇽목 Oder Caudata 〉

도롱뇽과 Family Hynobiidae

도롱뇽	*Hynobius leechii* Boulenger	
꼬리치레도롱뇽	*Onychodactylus fischeri* Boulenger	

〈 개구리목 Oder Salientia 〉

두꺼비과 Family Buforidae

두꺼비	*Bufo bufo gargarizans* Cantor	
물두꺼비	*Bufo stejnegeri* Schmidt	

무당개구리과 Family Discoglossidae

무당개구리	*Bombina orientalis* Boulenger	

청개구리과 Family Hylidae

청개구리	*Hyla arborea japonica* Gnther	

개구리과 Family Ranidae

참개구리	*Rana nigromaculata* Hallowell	
산개구리	*Rana dybowskii* Gnther	
아무르산개구리	*Rana amurensis coreana* Okada	
옴개구리	*Rana rugosa* Schlegel	
계곡산개구리	*Rana huanrenensis* Fei, Ye and Huang	한국미기록종

3. 파충류

백남극, 박상률과 심재한의〈설악산의 파충류상〉(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293- 302)에 의하면 설악산에서 조사된 파충류는 1목 2아목 3과 13종이며,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1)에서는 설악산 경계 밖 저지대에서 발견한 7종를 포함하여 모두 2목 6과 16종을 보고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구렁이(Ⅰ급) 1종이다.

설악산의 파충류 목록

〈 거북목 Oder Testudinata 〉

남생이과 Family Testudinidae

남생이	*Geoclemys reevesii* (Gray)	설악산경계 밖

자라과 Family Trionychidae

자라	*Amyda sinensis* Wiegmann	설악산경계 밖

〈 유인목 Oder Squamata 〉

〈 도마뱀아목 Suboder Lacertilia 〉

도마뱀과 Family Scincidae

도마뱀	*Scincella laterale laterale* Say	내, 외설악

장지뱀과 Family Lacetridae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 Fischer	내설악
장지뱀	*Takydromus aurarlis* Doi	가리산
아무르장지뱀	*Takydromus amurensis* Peters	내, 외설악

〈 뱀아목 Suboder Serpentes 〉

뱀과 Family Colubridae

대륙유혈목이	*Natrix vibakari ruthveni* Van Dembuger	외설악
유혈목이	*Rhabdophis tigrina tigrina* (Boie)	내, 외설악
구렁이	*Elaphe schrenckii* Strauch	내, 외설악/멸종위기 Ⅰ급
누룩뱀	*Elaphe dione* (Pallas)	내, 외설악
능구렁이	*Dionodon rufozonatum rufozonatum* (Cantor)	내, 외설악
실뱀	*Zamenis spinalis* (Pepers)	외설악
무자치	*Enhydris rufodorsata* (Cantor)	내, 외설악

살모사과 Family Viperidae

살모사	*Agkistrodon blomhoffii brevicaudus* Stejneg	내, 외설악
까치살모사	*Agkistrodon saxatilis* Emelianov	내, 외설악
쇠살모사	*Agkistrodon caliginosus* Gloyo	내, 외설악

4. 조류

원병오와 구태회의 「설악산의 조류의 분포와 임상과의 관계」(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277-284)』에 의하면 설악산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 62종이며,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2001)에서는 109종을 기록하고 있다. 설악산에서 관찰된 109종에 『강원의 자연-조류편』(1988, 강원도교육위원회)에 기록된 설악산 지역 외의 속초 지역에서 관찰된 종류를 추가하면 속초 지역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총 46과 121속 227종이 된다. 그 중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조류는 Ⅰ급이 7종, Ⅱ급이 20종이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는 23종이 있다.

속초 지방의 조류 목록

〈 아비목 Oder Gaviiformes 〉

아비과 Family Gaviidae

아비	*Gavia stellata stellata* (Pontoppidan)	
회색머리아비	*Gavia pacifica* (Lawrence)	

〈 논병아리목 Order Podicipediformes 〉

병아리과 Family Podicipedidae

귀뿔논병아리	*Podiceps auritus auritus* (Linnaeus)	
뿔논병아리	*Podiceps cristatus cristatus* (Linnaeus)	
큰논병아리	*Podiceps grisegena holbolli* Reinhardt	
검은목논병아리	*Podiceps nigricollis nigricollis* C. L. Brehm	
논병아리	*Podiceps ruficllis poggei* (Reinhardt)	

〈 사다새목 Order Pelecaniformes 〉

가마우지과 Family Phalacrocoracidae

가마우지	*Phalacrocorax filamentosus* (Temminck & Schlegel)	

〈 황새목 Order Ciconiiformes 〉

백로과 Family Ardediae

왜가리	*Ardea cinerea jouyi* Clark	설악산

황로	*Bubulcus ibis coromandus* (Boddaert)	설악산
검은댕기해오라기	*Butorides striatus amurensis* (Schrenck)	설악산
중대백로	*Egretta alba alba* (Linnaeus)	설악산
쇠백로	*Egretta garzetta garzetta* (Linnaeus)	설악산

〈 기러기목 Order Anseriformes 〉

오리과 Family Anatidae

원앙이	*Aix galericulata* (Linnaeus)	설악산, 천연기념물
고방오리	*Anas acuta acuta* Linnaeus	
아메리카홍머리오리	*Anas americana* Gmelin	
넓적부리	*Anas clypeata* Linnaeus	
쇠오리	*Anas crecca crecca* Linnaeus	
청머리오리	*Anas falcata* Georgi	
가창오리	*Anas formosa* Georgi	멸종위기 Ⅱ급
홍머리오리	*Anas penelope* Linnaeus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platyrhynchos* Linnaeus	설악산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nyncha zonorhyncha* Swinhoe	설악산
알락오리	*Anas streptera streptera* Linnaeus	
흰쭉지	*Aythya ferina* (Linnaeus)	
댕기흰쭉지	*Aythya fuligula* (Linnaeus)	
검은머리흰쭉지	*Aythya marila mariloides* (Vigors)	
흰뺨오리	*Bucephala clangula clangula* (Linnaeus)	
고니	*Cygnus columbianus jankowskii* Alpheraky	멸종위기 Ⅱ급, 천연기념물
큰고니	*Cygnus cygnus* (Linnaeus)	멸종위기 Ⅱ급, 천연기념물
혹고니	*Cygnus olor* (Gmelin)	멸종위기 Ⅰ급, 천연기념물
흰줄박이오리	*Histrionicus histrionicus* (Linnaeus)	
검둥오리사촌	*Melanitta fusca stejnegeri* (Ridgway)	
검둥오리	*Melanitta nigra americana* (Swainson)	
비오리	*Mergus merganser merganser* Linnaeus	
흰비오리	*Mergus albellus* Linnaeus	
바다비오리	*Mergus serrator* Linnaeus	

〈 매목 Order Falconiformes 〉

수리과 Family Accipitridae

참매	*Accipiter gentilis schvedowi* (Menzbier)	설악산, 천연기념물,멸종위기 Ⅱ급
조롱이	*Accipiter gularis gularis* (Temminck & Schlegel)	멸종위기 Ⅱ급
새매	*Accipiter nisus nisosimilis* (Tickell)	설악산, 천연기념물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Horsfield)	설악산, 천연기념물
검독수리	*Aquila chrysaetos japonica* Severtzov	멸종위기 Ⅰ급 천연기념물
왕새매	*Butastur indicus* (Gmelin)	
말똥가리	*Buteo buteo* (Temminck & Schegel)	설악산, 멸종위기 Ⅱ급
털말똥가리	*Buteo lagopus menzbieri* Dementiev	
잿빛개구리매	*Cricus cyaneus cyaneus* (Linnaeus)	설악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Ⅱ급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Linnaeus)	멸종위기Ⅰ급, 천연기념물
참수리	*Haliaeetus pelagicus pelagicus* (Pallas)	멸종위기Ⅰ급 천연기념물
솔개	*Milvus migrans lineatus* (J. E. Gray)	멸종위기Ⅱ급
물수리	*Pandion haliaetus haliaetus* (Linnaeus)	멸종위기Ⅱ급

매과 Family Falconidae

쇠황조롱이	*Falco columbarius insignis* (Clark)	설악산, 멸종위기Ⅱ급
매	*Falco peregrinus japonensis* Gmelin	멸종위기Ⅰ급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interstinctus* Horsfield	설악산 천연기념물

〈 닭목 Order Galliformes 〉

들꿩과 Family Tetraonidae

들꿩	*Tetrastes bonasia vicinitas* Riley	설악산

꿩과 Family Phasianidae

메추라기	*Coturnix coturnix japonica* Temminck & Schegel	설악산
꿩	*Phasianus colchicus karpowi* Buturin	설악산

〈 두루미목 Order Gruiformes 〉

뜸부기과 Family Rallidae

물닭	*Fulica atra atra* Linnaeus	
뜸부기	*Gallicrex cinerea cinerea* (Gmelin)	멸종위기Ⅱ급
쇠물닭	*Gallinula chloropus indica* Blyth	
쇠뜸부기사촌	*Porzana fusca erythrothorax* (Temminck & Schegel)	

〈 도요목 Order Charadriiformes 〉

검은머리물떼새과 Family Haematopodiae

흰물떼새	*Charadrius alexandrinus alexandrinus* Linnaeus	
꼬마물떼새	*Charadrius dubius curonicus* Gmelin	
왕눈물떼새	*Charadrius mongolus stegmanni* Portenko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J. E. & G. R. Gray	멸종위기Ⅱ급
검은머리물떼새	*Haematopus ostralegus osculans* Swinhoe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Ⅱ급
개꿩	*Plavialis squatarola* (Linnaeus)	
검은가슴물떼새	*Pluvialis dominica* (Gmelin)	
댕기물떼새	*Vanellus vanellus* (Linnaeus)	

도요과 Family Scolopacidae

꼬가도요	*Arenaria interpres interpres* (Linnaeus)	
민물도요	*Calidris alpina sakhlina* (Vieillot)	
붉은갯도요	*Calidris ferruginea* (Pontoppidan)	
종달도요	*Calidris minutilla subminuta* (Middendroff)	
좀도요	*Calidris ruficollis* (Pallas)	
흰꼬리좀도요	*Calidris temminckii* (Leisler)	
붉은어깨도요	*Calidris tenuirostris* (Horsfield)	
세가락도요	*Crocethia alba* (Pallas)	
넓적부리도요	*Eurynorhynchus pygmeus* (Linnaeus)	멸종위기Ⅰ급

꺅도요	*Gallinago gallinago gallinaga* (Linneaus)	
송곳부리도요	*Limicola falcinellus sibirica* Dresser	
큰부리도요	*Limosa lapponica baueri* Naumann	
흑꼬리도요	*Limosa limosa melanuroidrs* Gould	
마도요	*Numenius arquata orientalis* Brehm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Linnaeus)	멸종위기Ⅱ급
중부리도요	*Numenius phaeopus variegatus* (Scopoli)	
멧도요	*Scolopax rusticola* Linnaeus	
노랑발도요	*Tringa brevipes* (Viellot)	
학도요	*Tringa eryghropus* (Pallas)	
깜작도요	*Tringa hypoleucos* Linnaeus	설악산
청다리도요	*Tringa nebularia* (Gunnerus)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Linneaus	
붉은발도요	*Tringa totanus eurhinus* (Oberholser)	
뒷부리도요	*Xenus cinereus* (Gdenstdt)	

지느러미발도요과 Family Phalaropodidae

지느러미발도요	*Phalaropus lobatus* (Linnaeus)	

갈매기과 Family Laridae

재갈매기	*Larus argentatus vegae* Palmen	
갈매기	*Larus canus kamtschatshensis* (Bonaparte)	
괭이갈매기	*Larus crassirostriss* Vieillot	
설악산붉은부리갈매기	*Larus ridibundus sibiricus* Buturlin	
검은머리갈매기	*Larus saundersi* (Swinhoe)	멸종위기Ⅱ급
큰재갈매기	*Larus schistisagus* Stejneger	
세가락갈매기	*Larus tridactylus pollicaris* (Ridgway)	
쇠제비갈매기	*Sterna albifrons sinensis* Gmelin	
제비갈매기	*Sterna hirunda longipennis* Nordmann	

바다오리과 Family Alcidae

바다쇠오리	*Synthliboramphus antiquus* (Gmelin)	
바다오리	*Uria aalge inornata* Salomonsen	

〈 비둘기목 Order Cojumbiformes 〉

비둘기과 Family Columbidae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orientalis* (Latham)	설악산

〈 두견이목 Order Cuculiformes 〉

두견이과 Family Cuculidae

뻐꾸기	*Cuculus canorus telephonus* Heine	설악산
매사촌	*Cuculus fugax hyperythrus* Gould	설악산
검은등뻐꾸기	*Cuculus micropterus micropterus* Gould	설악산
두견이	*Cuculus poliocephalus poliocephalus* Latham	
벙어리뻐꾸기	*Cuculus saturatus horsfieldi* Moore	설악산

〈 올빼미목 Order Strigiformes 〉

올빼미과 Family Strigidae

쇠부엉이	*Asio flammeus flammeus* (Pontoppidan)	천연기념물
칡부엉이	*Asio otus otus* (Linnaeus)	천연기념물
금눈쇠올빼미	*Athene noctua plumipes* Swinhoe	
수리부엉이	*Bubo bubo kiautscensis* Reichenow	멸종위기Ⅱ급 천연기념물
솔부엉이	*Ninox scutulata* (Raffles)	천연기념물
큰소쩍새	*Otus bakkamoena ussuriensis*′ (Buturlin)	천연기념물
소쩍새	*Otus scops stictonotus* (Sharpe)	설악산, 천연기념물
올빼미	*Strix aluco ma* (Clark)	설악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Ⅱ급
긴점박이	*Strix uralensis nikolskii* (Buturlin)	설악산 올빼미, 멸종위기Ⅱ급

〈 쏙독새목 Order Caprimulgidae 〉

쏙독새과 Family Caprimukgidae

쏙독새	*Caprimulgus indicus jodaka* Temminck & Schlegel	설악산

〈 칼새목 Order Apodiformes 〉

칼새과 Family Apodidae

칼새	*Apus pacificus pacificus* (Latham)	설악산

바늘꼬리칼새	*Chaetura caudacuta caudacuta* (Latham)	설악산

〈 파랑새목 Order Coraciiformes 〉

물총새과 Family Alcedinidae

물총새	*Alcedo atthis bengalensis* Gmelin	설악산
호반새	*Halcyon coromanda major* (Temminck & Schlegel)	설악산
청호반새	*Halcyon pileata* (Boddaert)	설악산

파랑새과 Family Coraciidae

파랑새	*Eurystomus drientalis calonyx* Sharpe	

후투티과 Family Upupidae

후투티	*Upupa epops saturata* Lonnberg	설악산

〈 딱따구리목 Order Piciformes 〉

딱다구리과 Family Picidae

아물쇠딱다구리	*Dendrocopus canicapillus doerridsi* (Hargitt)	
쇠딱다구리	*Dendrocopus kizuki ijimae* (Taka-Tsukasa)	설악산
큰오색딱다구리	*Dendrocopus leucotos leucotos* Bechstein	설악산
오색딱다구리	*Dendrocopus major hondoensis* (Kuroda)	설악산
크낙새	*Dryocopus javensis richardsi* Tristram	멸종위기 I 급 천연기념물
까막딱다구리	*Dryocopus martius* (Linnaeus)	설악산, 멸종위기 II급, 천연기념물
청딱따구리	*Picus canus griseoviridis* (Clark)	설악산

〈 참새목 Order Passeriformes 〉

종다리과 Family Alaudidae

종다리	*Alauda arvensis* Linnaeus	

제비과 Family Hirumdindae

귀제비	*Hirundo daurica japonica* Temminck & Schlegel	설악산

제비	*Hirundo rustica gutturalis* Scopoli	설악산
갈색제비	*Riparia riparia ijimae* (Lönnberg)	

할미새과 Family Motacillidae

힝둥새	*Anthus hodgsoni hodgsoni* Richmind	
밭종다리	*Anthus spinoletta japonicus* Temminck & Schlegel	
물레새	*Dendronanthus indicus* (Gmelin)	
알락할미새	*Motacilla alba leucopsis* Gould	설악산
백할미새	*Motacilla alba lugens* Gloger	설악산
검은턱할미새	*Motacilla alba oculaeis* Swinhoe	
노랑할미새	*Motacilla cinerea robusta* (Brehm)	설악산
긴발톱할미새	*Motacilla flava taivana* (Swinhoe)	
검은등할미새	*Motacilla grandis* Sharpe	설악산

할미새사촌과 Family Canpephagidae

할미새사촌	*Pericrocotus divaricatas divaricatas* (Raffles)	설악산

직박구리과 Family Pycnonotidae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hensoni* Stejneger	설악산

때까치과 Family Laniidae

때까치	*Lanius bucephalus bucephalu* Temminck & Schlegel	설악산
노랑때까치	*Lanius cristatus lucionensis* Linnaeus	설악산
큰재개구마리	*Lanius excubitor bianchii* Hartert	
물때까치	*Lanius sphenocercus* Cabanis	
칡때까치	*Lanius tigrinus* Drapiez	

여새과 Family Bombycillidae

황여새	*Bombycilla garrulus centralasiae* Poliakov	
홍여새	*Bombycilla japonica* Siebold	

물까마귀과 Family Cinclidae

물까마귀	*Cinclus pallasii pallasii* Temminck	설악산

굴뚝새	*Troglodytes troglodytes dauricus* Dybowski & Taczanowski	설악산

바위종다리과 Family Prunellidae

바위종다리	*Prunella collaris erythropygia* (Swinhoe)	
멧종다리	*Prunella mintanella badia* Portenko	

딱새과 Family Muscicapidae

진홍가슴	*Erithacus calliope* (Pallas)	설악산
쇠유리새	*Erithacus cyane* (Pallas)	설악산
바다직박구리	*Monticola solitarius philippehsis* (Mller)	
딱새	*Phoenicurus auroreus auroreus* (Pallas)	설악산
검은딱새	*Saxicola torquata stejnegeri* (Parrot)	설악산
호랑지빠귀	*Turdus dauma aureus* Holandre	설악산
되지빠귀	*Turdus hortulorum* Sclater	설악산
개똥지빠귀	*Turdus naumanni eunomus* Temminck	설악산
노랑지빠귀	*Turdus naumanni naumanni* Temminck	설악산
흰배지빠귀	*Turdus pallidus* Gmelin	설악산
흰눈섭지빠귀	*Turdus sibiricus davisoni* (Hume)	설악산

붉은머리오목눈이과 Family Panuridae

붉은머리오목눈이	*Paradoxornis webbiana fuhicauda* (Campbell)	설악산

휘파람새과 Family Sylviidae

개개비	*Acrocepphalus arundinaceus orientalis* (Temminck & Schlegel)	설악산
휘파람새	*Cettia diphone borealis* Campbell	설악산
숲새	*Cettia squaneiceps* (Swinhoe)	설악산
노랑딱새	*Ficedula mugimaki* (Temminck)	
제비딱새	*Muscicapa griseisticta* (Swinhoe)	
쇠솔새	*Phylloscopus borealis xanthodryas* (Swinhoe)	설악산
솔새사촌	*Phylloscopus fuscatus*	설악산
노랑눈썹솔새	*Phylloscopus inornatus inornatus* (Blyth)	설악산
산솔새	*Phylloscopus occipitalis coronatus*	

	Temminck & Schlege	설악산
노랑허리솔새	*Phylloscopus proregulus proregulus* (Pallas)	설악산
긴다리솔새사촌	*Phylloscopus schwarzi* (Radde)	설악산
되솔새	*Phylloscopus tenellipes* Swinhoe	설악산
상모솔새	*Regulus regulus japonensis* Blakiston	설악산
유리딱새	*Tarsiger cyanurus cyanurus* (Pallas)	설악산
큰유리새	*Cyanoptila cyanomelana cyanomelana* (Temminck)	설악산
흰눈썹황금새	*Ficedula zanthopygia* (Hay)	설악산
삼광조	*Terpsiphone atrocaudata atrocaudata* (Eyton)	설악산, 멸종위기Ⅱ급

오목눈이과 Family Aegithachidae

오목눈이	*Aegithalos caudatus magnus* (Clark)	설악산
진박새	*Parus ater amurensis* (Buturin)	설악산
박새	*Parus major minor* Temminck & Schlegel	설악산
쇠박새	*Parus palustris* (Bianchi)	설악산
곤줄박이	*Parus varius varius* Temminck & Schlegel	설악산

동고비과 Family Sittidae

동고비	*Sitta europaea amurensis* Swinhoe	설악산

나무발발이과 Family Certhiidae

나무발발이	*Certhia familiaris orientalis* Domaniewski	설악산

동박새과 Family Zosteropidae

동박새	*Zosterops japonica japonica* Temminck & Schlegel	설악산

멧새과 Family Emberizidae

검은머리촉새	*Emberiza aureola ornata* Shulpin	
멧새	*Emberiza cioides castaneiceps* Moore	설악산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elegans* Temminck	설악산
붉은뺨멧새	*Emberiza fucata fucata* Pallas	설악산

쇠붉은뺨멧새	*Emberiza pusilla* Pallas	
쑥새	*Emberiza rustica latifascia* Portenko	설악산
꼬까참새	*Emberiza rutila* Pallas	설악산
검은머리쑥새	*Emberiza spodocephala pyrrhulina* (Swinhoe)	
촉새	*Emberiza spodocephala spodocephala* Temminck	설악산
흰배멧새	*Emberiza tristrami* Swinhoe	설악산

되새과 Family Fringillidae

양진이	*Carduelis rosea* (Pallas)	설악산
방울새	*Carduelis sinica ussuriensis* (Hartert)	설악산
검은머리방울새	*Carduelis spinus* (Linnaeus)	설악산
콩새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Linnaeus)	설악산
밀화부리	*Eophona migratoria migratoria* Hartert	설악산
되새	*Fringilla montifringilla* Linnaeus	설악산
솔잣새	*Loxia curvirostra japonica* Ridgway	설악산
멋쟁이새	*Pyrrhula pyrrhula rosacea* Seebohm	
긴꼬리홍양진이	*Uragus sibiricus ussuriensis* Buturlin	설악산

참새과 Family Ploceidae

참새	*Passer montanus dybowskii* Domanniewski	설악산

찌르레기과 Family Sturnidae

찌르레기	*Sturnus cineraceus* Temminck	

꾀꼬리과 Family Oriolidae

꾀꼬리	*Oriolus chinensis diffusus* Sharpe	설악산

까마귀과 Family Corvidae

까마귀	*Corvus corone orientalis* Eversmann	설악산
떼까마귀	*Corvus frugilegus pastinator* Gould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mandshuricus* Buturlin	설악산
갈까마귀	*Corvus monedula dauuricus* Pallas	

물까치	*Cyanopica cyanus koreensis* Yamashina	설악산
어치	*Garrulus glandarius brandtii* Eversmann	설악산
잣까마귀	*Nucifraga caryocatactes macrohynchos* Brehm	설악산
까치	*Pica pica sericea* Gould	설악산

5. 포유류

우한정과 김상욱의 「설악산 포유동물의 빈도와 분포」(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264-276)에 의하면 설악산에서 보고된 과거 문헌과 동물의 흔적(발자국, 배설물 등)과 관찰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총 6목 15과 39종을 기술하였고,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1)에서 6목 16과 37속 45종을 기록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설악산에 과거에 서식하였거나 현재에 서식하고 있는 종은 모두 6목 16과 39속 48종이다. 이들 종 중에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한 것은 Ⅰ급이 6종, Ⅱ급이 4종으로 Ⅰ급이 6종은 수달을 제외하고는 현재 설악산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사향노루, 산양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이다.

기록된 중에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의 변화로 개체수가 변하고 있는 종을 다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절종되었다고 보는 종류

과거에 설악산에 서식하였으나, 설악산은 물론 남한에서는 절종되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으로 호랑이, 사슴이다.

2) 사라져 가는 종류

환경부에서 멸종위기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동물로서 과거에는 설악산에 서식하였으나 개체수가 줄어들어 주민들의 목격담과 생활흔적으로 서식을 추정할 뿐 확인되지 않고 있는 종으로, 일부 종은 최근에 전혀 목격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종으로 늑대, 여우, 곰(반달가슴곰), 표범, 사향노루 등이다.

3) 환경변화로 감소되어 가는 종류

과다한 등산객과 연중 무휴의 입산 등 인간의 간섭으로 이들의 서식 환경에

변화를 주어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종류로서 고슴도치, 너구리, 수달, 오소리, 담비, 노루, 산양, 등이다.

4) 환경변화로 증식되는 종류

인간 간섭에 의한 임상의 변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적은 천적인 포식동물의 감소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두더지, 멧돼지, 고라니, 다람쥐, 멧토끼, 청설모, 들쥐(땃쥐, 작은땃쥐, 뒤쥐, 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대륙밭쥐, 멧밭쥐, 갈밭쥐 등) 등이다.

5) 가축 또는 애완동물이 야생화 된 종

가축 또는 애완용으로 기르던 것이 야생화 한 종으로 고양이와 염소가 있으며, 특히 고양이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생태계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6)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

청문 조사만으로 기재되었거나 잘못된 동정 등으로 기재된 종 중에서 설악산에 분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종으로, 갯첨서는 주민들에 목격되었다고 하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고, 날다람쥐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으로 하늘다람쥐를 잘못 동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와 현재 설악산에서 기록된 포유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설악산의 포유류 목록

〈 식충목 Order Insectivora 〉

고슴도치과 Family Erinaceidae

고슴도치 *Erinaceus amurensis* Schrenk

두더지과 Family Talpidae

두더지 *Mogera wogura* Temminck

뒤쥐과 Family Soricidae

땃쥐 *Crocidura lasiura* Dobson

작은땃쥐 *Crocidura suaveolens* (Pallas)

갯첨서 *Neomys fodiens* Pennant
뒤쥐 *Sorex caecutiens* Laxmann
꼬마뒤쥐 *Sorex minutissmus* Zimmermann
큰첨서 *Sorex mirabilis* Ognev

〈 박쥐목 Order Chiroptera 〉

관박쥐과 Family Vespertilionidae

관박쥐 *Rhinolophus ferrumequinum* (Schreber)

애기박쥐과 Family Vespertilionidae

물윗수염박쥐 *Myotis daubentonii* (Kuhi) (우수리박쥐)
멧박쥐 *Nyctalus aviator* (Thomas)
집박쥐 *Pipistrellus javanicus* (Temminck)

〈 토끼목 Order Lagomorpha 〉

토끼과 Family Leporidae

멧토끼 *Lepus coreanus* Thomas
북방토끼 *Lepus mandchuricus* Radde

〈 설치목 Order Rodentia 〉

청설모과 Family Sciuridae

청설모 *Sciurus vulgaris* Linnaeus
다람쥐 *Tamias sibiricus* Linnaeus
날다람쥐 *Petaurista leucogeny* 서식 ?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Linnaeus 천연기념물, 멸종위기Ⅱ급

쥐과 Family Muridae

등줄쥐 *Apodemus agrarius* Pallas
흰넓적다리붉은쥐 *Apodemus peninsulae* Thomas
대륙밭쥐 *Clethrionomys rufocanus* Sundevall
비단털들쥐 *Eothennomys regulus*
멧밭쥐 *Micromys minutus*
갈밭쥐 *Microtus fortis Buchner*
생쥐 *Mus musculus* Linnaeus

집쥐	*Rattus norvegicus* Berkenhout	
애급쥐	*Rattus rattus* Linnaeus	
비단털쥐	*Tscherskia triton* Winton	

〈 식육목 Order Carnivora 〉

개과 Family Canidae

늑대	*Canis lupus* Linnaeus	멸종위기 I 급
너구리	*Nycteroites procyoides* (Gray)	
여우	*Vulpes vulpus* Linnaeus	멸종위기 I 급

고양이과 Family Felidae

삵	*Felis bengalensis* Kerr	멸종위기Ⅱ급
고양이	*Felis catus*	
표범	*Panthera pardus* Linnaeus	멸종위기 I 급
호랑이	*Panthera tigris* (Linnaeus)	멸종위기 I 급

곰과 Family Ursidae

반달가슴곰	*Selanarctos thibetanus* G. Cubier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I 급

족제비과 Family Mustelidae

수달	*Lutra lutra* (Linnaeus)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I 급
담비	*Martes flavigula* (Boddaert)	멸종위기Ⅱ급
오소리	*Meles meles* (Linnaeus)	
무산쇠족제비	*Mustela nivalis* Linnaeus	멸종위기Ⅱ급
족제비	*Mustela sibirica* Pallas	

〈 소목 Order Artiodactyla 〉

멧돼지과 Family Suidae

멧돼지	*Sus scorfa* Linnaeus	

사향노루과 Family Moschidae

사향노루	*Moschus moshiferus* Linnaeus	천연기념물

사슴과 Family Cervidae

노루	*Capreolus pygargus* (Pallas)	
대륙사슴	*Cervus nippon* Temminck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Swinhoe	

소과 Family Bovidae

산양	*Naemorhedus goral* (Hardwicke)	천연기념물
염소	*Capra hircus*	

집필자 : 홍 문 표 <이학박사 · 식물생태학, 동광농공고 교사>

– 참고 문헌 –

강원도. 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p.457
기상청. 2001. 한국기후표(1971~2000). p.632
강원도교육청. 1986. 강원의 자연(담수어편). 강원도교육청. p.389
강원도교육청. 1988. 강원의 자연(조류편). 강원도교육청. p.354
국립환경연구원. 1996. 귀화생물에 의한 생태계 영향 조사(Ⅱ). p.230
국립환경연구원. 2004. 외래식물의 영향 및 관리 방안 연구(Ⅴ). p.211
국립환경연구원. 2004. 생태 ·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의 보전전략 연구(Ⅳ). p.91
김익수. 1997. 한국동식물도감(담수어류). 교육부. p.629
박수현. 1999. 한국귀화식물원색도감. 일조각. p.371
박수현. 2000. 수목원 선진화를 위한 워크샵(한국귀화식물의 현황과 광릉 숲의 귀화식 물). 국립수목원. pp.42~54
백원기. 1994. 한국특산식물의 실체와 분포 조사. 한국자연보존협회 연구보고서 제13편.
속초시. 1991. 속초시지. p.1344
윤무부 · 서민환 · 이유미. 1999. 한국의 천연기념물. p.693
이우철. 1996. 한국식물명고. 아카데미서적. p.1688
이창복. 2003. 원색대한식물도감. 향문사.
홍문표. 2000. 매봉산과 칠절봉의 삼림식생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72
홍문표. 2004. 설악산 삼림식생의 생태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69
국립공원관리공단. 2001. 설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p.487
국립공원관리공단. 2004. 지리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
환경부. 2005.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조(관련 환경부 고시)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上

第二編 역사

표 목차

2-3-1 속초 · 양양 · 고성 연혁표
2-5-1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강원도 수산물
2-5-2 조선시대의 특산물
2-5-3 1871년 마을별 인구현황
2-5-4 조선후기 인구의 변화
2-6-1 도천면 직업별 인구 현황
2-6-2 일제시대 도천면의 외국인수
2-6-3 1925년 도천면의 일본인 직업별 인구
2-6-4 1920년대 도천면의 저축 현황
2-6-5 면세통계개람표(1925년)
2-6-6 1925년의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2-6-7 1925년 개량농작물 생산 현황
2-6-8 1925년 채소류 수확 현황
2-6-9 1925년 축산업 현황
2-6-10 1925년 양잠업 현황
2-6-11 1925년 양봉 현황
2-6-12 1925년 과수작황 현황
2-6-13 1925년 어업 상황
2-6-14 1925년의 마을별 인구
2-6-15 일제시대 속초의 인구변화
2-6-16 1930년 도천면민 출생지별 인구
2-6-17 일제후기 속초지역 초등교육기관
2-7-1 속초시제실시 추진위원회 활동
2-7-2 속초읍내 구역의 농어민 분포(1955년)
2-7-3 속초읍내 구역의 농민 분포(1955년)
2-7-4 농가수 및 경지면적
2-7-5 식량 생산 현황
2-7-6 속초시 수산업 변천 현황
2-7-7 주요 기업체 현황
2-7-8 1967년도 속초 시장의 상황
2-7-9 속초의 인구 변화 추세
2-7-10 속초의 동별 직업별 인구(1963)

그림 목차

2-1-1 속초지역의 지리적 특성
2-6-1 1912년 지도 재구성
2-6-2 1942년 이후 지도의 재구성

사진 목차

2-2-1 조양동유적과 청동제 부채꼴 주머니 도끼
2-6-1 1938년 대포소학교 근로보급대 작업광경
2-7-1 속초시 승격을 축하하기 위한 거리행렬
2-7-2 KAL기 납북 미수 사건
2-7-3 논산리와 만천동을 잇는 철둑길을 따라 농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2-7-4 소형어선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어선들(1950년대)
2-7-5 속초조선소(1960년대)
2-7-6 수복기념탑
2-7-7 청호동 아바이마을(1960년대)
2-7-8 속초고등학교(1955년 영랑동에 개교)

제2편 역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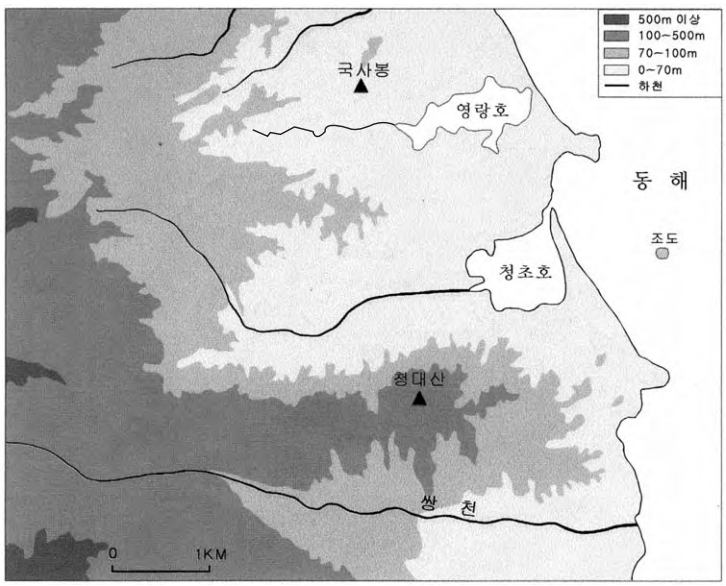
제1장 속초 지역의 이해

제1절 지형적 여건

속초는 행정구역상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태백산맥의 주요한 산인 설악산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흐르는 세 하천에 의해 3분된다.

가장 북쪽에 있는 장천천이 영랑호로, 그 중간에 청초천이 청초호로, 제일 남쪽에 있는 쌍천이 동해로 유입된다. 이들 동서방향의 하천은 각각 작은 유역 분지를 이루게 되고 산지에서 많은 흙과 모래를 운반하여 하구에 퇴적시키고, 흙과 모래의 일부가 동해의 연안류를 따라 흘러가다가 하구 입구를 메워 영랑호와 청초호 등의 자연 호수를 이루었다.

동서로 발달한 이들 하천은 동서방향의 인구 이동에는 유리하지만 남북간의 이동에는 별로 유리하지 않았다. 남북간의 이동은 육로로 이들 유역분지를 넘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해안의 연안류에 의하여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였다. 따라서 속초지역은 농업 지역의 확대와 함께 동서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인다.



〈 그림2-1-1 〉 속초지역의 지리적 특성

또한 하천의 근원지인 설악산은 태백산맥 줄기 중 최고봉인 대청봉(1,708m)이 남서 경계에 위치하고, 마등령 · 화채봉 · 칠성봉 등 높이 1,000m 이상의 높은 봉우리들이 서부와 남부의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설악산은 웅장한 산세와 기암괴석, 계곡의 맑은 물과 수많은 폭포 및 숲, 그리고 신흥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 등이 조화를 이루어 사철 경관이 뛰어나다.

이러한 지형적 여건은 지역의 중요한 문화기반이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속초 문화를 규정짓는데 있어 지형적 여건은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은 농경문화와 어촌문화, 산촌문화를 생산해 내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제2절 사회 · 경제적 여건

조선 후기에 속초는 양양군의 일개 마을로 도로도 없을 뿐더러 주교리를 통하는 길조차도 물을 건너야 했다. 고지도를 살펴보면 조선시대까지의 양양과 간성간의 주도로는 상운, 연창, 강현, 원암, 청간을 잇는 것이었다. 이는 속초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한 작은 지역임을 말해 준다.

실제로 18세기 중반 제작된『여지도서』의 인구 조사표에 의하면 당시 속초는 1,26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 기술의 발전과 인구 변동에 의하여 20세기 초에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20년경 속초는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대포리, 내물치리, 노리,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외옹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이전의 마을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몇 개 마을이 통합, 분화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즉 장항리 · 토왕성리 · 정고리가 합해져 장항리가 되고, 도문리에서 중도문리가, 물치리에서 내물치리가 분화되고, 옹진리는 외옹치리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이러한 마을 이름의 변화는 농업 지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즉, 설악산을 배경으로 살고 있던 화전민 수가 줄어들고, 중도문리나 내물치리 등의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인구가 늘어난 결과이다. 또한 청초호 유역 일대의 노리는 18세기 이후 새로 나타난 취락으로서 산간 개척의 전진기지였음을 보여준다.

속초리가 커지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속초항이 일제 시대에 들어와 정기 기선의 기항지가 되었다는 점이다. 일제 시대 당시

대포항과 속초항은 항구로서의 조건이 비슷하여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항에 정기 기선의 기항지가 들어서게 된 것은 대포항은 어선의 포구로서, 속초항은 항구로서의 기능이 각각 분화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속초항은 양양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고 나아가 양양읍치소(襄陽邑治所)와 경쟁을 하게 되었다.

1937년 7월 1일에 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는 속초리 · 속진리가 실질적인 지역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속초의 환경변화에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북한주민의 월남이라고 할 수 있다. 속초의 피난민들은 처음부터 속초로 피난 온 것이 아니라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고향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속초의 구성원으로서 속초의 피난민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1980년 통계를 보면 피난민 1, 2세대들은 속초 인구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한다. 월남이주민의 정착은 언어가 섞이고 음식이 다양화 되었으며 북청사자놀음과 같은 함경도의 문화가 새로이 등장하면서 지역의 토착문화화 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다.

제3절 촌락의 형성과정

일제 강점기 초의 마을 이름을 기초로 하여 취락 발달을 살펴보면, 속초는 4개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달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1] 즉 내물치리-하도문리-중도문리-상도문리를 잇는 선, 부월리-논산리-노리를 잇는 선, 장항리-토왕성리-정고리를 잇는 선, 속진-속초를 잇는 선이 그것이다. 내물치리축은 쌍천을, 부월리축은 청초천을, 속초축은 청초호를, 장항리축은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다. 속초리와 속진리는 다른 생활환경을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청초호로 연결된 해안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1. 전통 안정축(내물치리-하도문리-중도문리-상도문리)

일제강점기에는 쌍천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쌍천은 조선시대까지 도문천으로 불려졌는데 풍부한 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도문버덩을 기름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예로부터 상도문리와 하도문리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1) 4개축의 분류는 농업으로 인하여 이른 시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전통축이라고 했고, 이주에 의해 농업으로 마을이 형성된 축을 농업발달축, 항구를 접하여 마을이 형성된 축을 항구발전축이라고 했다.

그런데 1914년 지방제도의 개혁 내용을 보면 중도문리, 노리, 장항리가 새로 신설되었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중도문리에 인구가 유입되어 새로운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전통축이 확대된 것으로 기존 마을에서 증가된 인구가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생활권을 확대시켜 나감을 의미한다.

도문면의 인구는 기록을 볼 때 중도문리 생성을 빼고는 거의 변동이 없다. 이는 도문면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문면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농지와 땔감, 용수도 풍부한 곳으로 속초 이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었다. 쌍천 축은 인구 증가로 인해 물치항이 지역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물자와 정보의 유통이 이루어졌다.

2. 전통불안정축(장항리-토왕성리-정고리)

장항리-토왕성리-정고리를 잇는 축은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다. 정고리는 신흥사 사찰 마을이었는데 지금도 절 주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 듯이 옛날에도 그러했다. 또한 산천유람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마등령으로 넘어 다니는 사람들의 쉼터 역할을 했으며 기본적으로 화전도 했을 것이다.

토왕성리는 전통적인 화전민촌이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화전이나 심마니 생활 외에는 다른 수입원을 찾기가 어렵다. 1914년 장항리가 신설되는데 이는 화전민촌의 확대라기보다는 상도문리 위쪽 남아있는 토지의 개간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보면 장항리의 신설은 전통안정축의 확대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산간 지방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화전민의 생활은 한계성이 있게 마련이다. 1920년대에는 도문면 장항리 · 토왕성리 · 정고리가 합해져 장항리가 된다. 이것은 화전민촌의 축소이며,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토왕성리, 정고리에서 좀 더 농사짓기가 편한 동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축은 발전 한계성을 가졌다.

3. 농업 발전축(부월리-논산리-노리)

부월리축은 전통 안정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미 개발된 곳이 많아 인구의 유입요소가 없어 인구 유입이 미미하였다. 하지만 노리 쪽은 달랐다. 노리는 현재 노학동 지역으로 과거에 습지대였던 곳이 개발됨에 따라 평야지대로 변하였다. 노리는 산악지대 개척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고 유입된 인구는 이곳을 시작으로 농토를 만들어가면서 취락이 농토를 따라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제시대 후기에는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었다. 이는 산악개발의 전진기지였던 노리를 시작으로 점차 서쪽으로 농토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마을인 부월리는 인구 증가는 더디지만 자체에서 늘어나는 인구와 외부로부터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새로운 터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청초호를 막아주는 긴 사주가 새로운 주거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곳은 일제시대 주도로가 나있는 상황이었지만 일제의 군사적 목적에 의하여 개발이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취락의 형성이 늦었는데 1945년 이후의 월남민과 한국전쟁 중 남하한 피난민은 귀향하기에 쉬운 사주일대에 피난민촌을 건설하여 오늘날 속초시 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4. 항구 발전축

속초리와 속진리는 전통적으로 반농반어 마을이었다. 속초리는 속진리와 연이은 갯배나루 왼쪽에 자리잡고 있었고 속진리는 영금정에서 수복탑에 이르는 항구로서 작은 어촌이었다. 속초리는 청초호를 기반으로 삼았고 속진리는 청초호의 입구를 배경으로 삶을 이어갔다.

이들 지역은 반농반어의 생활을 영위하였다고는 하나 농업으로는 그리 주목받지 못하였다. 시내 한가운데까지 낮은 산지였기 때문에 개발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였다. 하지만 산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자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산림지역이 농토로 변해갔다.

이런 가운데 1930년대에 들어와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되면서 1937년 면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농업 인구뿐만 아니라 어입 인구도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유입된 인구로 인해 1942년 속초읍의 승격을 가져오고 속초리는 1구에서 4구로 나눠질 정도로 확대되어 오늘날 속초의 모태가 되었다.

제2장 선사시대(先史時代)

제1절 석기시대

우리나라에서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이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뼈 도구와 뗀석기를 가지고 고기잡이와 사냥,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 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신석기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농경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농경생활로 인해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였다. 정착생활은 농경문화의 틀을 만들어 민족문화의 뿌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동 북부지역에서 사람이 살았다고 확인된 시기는 구석기 시대이다. 인근 지역인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어 이미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도 사람이 살았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현재까지 속초 지역에서 조사, 보고된 구석기 또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없다. 하지만 손양면 도화리 구석기 유적지 외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와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견되었고, 조양동에서도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속초지역에서도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동해안의 선사시대 유적지 분포를 보면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가 위치한 해안의 호숫가 주변 충적지대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신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유적지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 양양 오산리와 고성 문암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대가 앞서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임이 밝혀졌다.[2]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나왔는데, 이것의 원산지는 백두산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흑요석은 당시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속초는 원시 시대 사람들의 이동 경로였으며,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서 생활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유적지의 발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2) 양양 오산리 유적은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B.C. 5000~6000년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신석기유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1998년 고성군 문암리에서 오산리 유적보다 앞선 시기의 주거지와 무문양(無文樣)토기 등이 출토되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제2절 청동기시대

신석기 시대에 이어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에 만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는 기원전 15~13세기경에 청동기 시대가 전개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전문적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유 재산과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속초가 있다.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92년 발굴된 조양동 유적은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양동 유적은 조양동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관계로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무늬토기, 구멍무늬토기(孔列土器), 골입술구멍무늬토기, 숫돌 조각이 지표 채집되었으며, 일부 탐색조사 갱내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구로 추정되는 문화층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발굴을 실시한 결과 유적에서는 집자리 7기와 고인돌 2기가 조사되었다. 집자리는 해발 25~30m 사이의 구릉 정상부에 등고선의 방향과 평행하게 동서열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면 형태는 직사각형과 네모반듯한 형태로 풍화암반층을 파고 만든 움집이다. 움집의 크기는 길이 6.2~12.8m, 폭 3.6~6.75m로 작은 것은 약 8.5평에서 큰 것은 23평까지 된다.

움집의 바닥은 대개 점토, 마사토를 섞어 다짐하였으며 내부시설로는 화덕자리, 기둥구멍, 저장구덩이, 제습용(除濕用) 홈, 작업대 등이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은 집자리의 4벽면을 따라 나있으며 장축의 중심선에서 4개의 기둥자리가 확인된 것도 있어 지붕은 맞배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기둥구멍 사이를 연결한 홈으로 옥외로 연결한 배수구시설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집자리의 형태나 구조 및 내부 시설들은 청동기시대 집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에 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장용 구덩이가 많이 사용된 점이라던가 이러한 구덩이 속에 저장용 토기 등을 묻어 두는 것 등은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집자리의 특성에 속하는 것이며, 제습용 홈과 같은 내부시설은 지역적 특성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인돌은 2기가 조사되었는데, 1호 고인돌은 묘실에 별도의 덮개돌이 없이 묘곽의 바로 위에 뚜껑돌을 올려놓은 것으로 묘곽의 바닥에는 납작한 할석을 깔았다. 그리고 네 벽을 큼직한 할석을 쌓아서 만든 전형적인 석곽형의 개석식(蓋石式) 고인돌이다.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것에 비해 유물의 출토량은 적은 편이나 1호 고

인돌에서는 청동제 부채꼴 주머니도끼 1점과 화살촉 9점이 완형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중국 요령 지방의 요령식 동검문화 유적에서 유행한 형식으로 실물로는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속초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 내세울만하다.

토기로는 홑구연과 이중구연에 구멍무늬, 골무늬, 단사선문이 결합된 것이 많으며, 두형(豆形)굽다리잔과 목항아리 등의 붉은간토기가 대부분의 집자리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굽다리잔은 청동기시대 초기의 것으로 함경도 동북지방과 연결되는 토기로 강원 영동지방의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 문화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석기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집자리에서 흔히 나오는 것들이 골고루 출토되었는데, 돌도끼, 돌대패, 돌살촉, 반달돌칼, 돌창이 있으며 그 밖에 석제, 토제의 가락바퀴와 그물추가 있다. 조양동유적은 토기의 성격 등으로 살펴볼 때 남한지역의 초기 민무늬토기 문화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서북 및 동북지방의 민무늬토기 문화를 수용하여 이를 혼합한 중요한 지역으로 한강유역뿐만 아니라 강원 영동지방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인된 중요한 유적이다. 또한 집자리의 저장구덩이, 화덕자리 등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행되는 전환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청동기 시대 집자리 구조와 가옥 발달사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집자리로 평가된다. 조양동 유적은 이런 이유로 사적 제 376호로 지정되었다.

〈 사진2-2-1 〉 조양동유적과 청동제 부채꼴 주머니 도끼

속초 장사동 지역(현 속초고등학교 앞산)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간돌검 1점과 돌화살촉 6점이 1980년 12월에 발견되었다. 간돌검은 자루가 있는 돌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이며, 화살촉은 버들잎 모양이 5점이고 슴베(자루 속에 박히는 뾰족한 부분) 달린 화살촉이 1점이다. 간돌검과 돌화살촉 이외에 철기 1점과 토기편 3점이 같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은 현재 강원도 향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제3절 동예(東濊)

청동기시대 이후 지배 · 피지배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발전하여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 즉 군장이 지배하는 군장국가(족장국가)가 형성되었다.[3)]

그 초기 국가의 하나로 강원도 동해안 북부에 동예(東濊)라는 나라가 있었다. 동예의 영역은 영흥, 덕원, 안변 등 영흥만 일대였으나 뒤에는 고구려에게 쫓겨 더 남쪽의 강릉, 영덕 등지로 옮겨갔다. 이러한 점은 속초가 동예의 영역이었음을 말해준다.

동예의 크기는 총 2만호 정도로 지리적인 여건상 선진문화(금속문화)의 수용이 늦었다. 따라서 정치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여 군장국가의 단계에 머물다 고구려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중국문물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분화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은 위만조선과 한(漢) 군현 및 고구려 등 주변의 강대한 세력들에 의한 잇따른 지배와 수탈이 그 주요 원인의 하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동예는 2세기 이후 고구려의 지배아래 있었는데, 245년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동예의 주요읍락들이 위(魏)군에 유린되거나 그에 투항하였다. 이후 동예는 당분간 낙랑군의 영향 아래 귀속되었다. 그러나 4세기 초 진(晉)나라의 쇠퇴와 함께 고구려가 낙랑군을 병합함에 따라 동예지역에 다시 고구려의 세력이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예의 일부는 여전히 고구려의 지배 밖에 있었는데, 5세기 초 광개토왕 대에 동예에 대한 정벌전이 감행되어 많은 촌락이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생활은 고기잡이, 사냥, 농경으로 넉넉했고 특히 산누에를 길러 명주를 짜고 삼베도 짰다. 동예의 읍락은 산과 내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함부로 남의 구역을 침범하면 책화(責禍)라 하여 노예 · 소 · 말 따위로 보상하게 했고,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써 죄를 갚게 했다. 또한 같은 성끼리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꺼리는 것이 많아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으로 죽으면 살던 집을 버리고 새집으로 옮겨가는 풍속도 있었다. 이는 가옥구조가 비교적 간편하며 사회발전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풍속이기도 하다.

3) 국가의 발전단계는 보통 군장국가-연맹왕국-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였다고 보는데, 고구려, 부여, 삼한은 연맹왕국 단계의 국가이며 옥저나 동예는 시대적 상황은 연맹왕국단계이지만 정치적 발전 단계는 군장국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삼국시대(三國時代)

철기 문화의 보급과 이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를 토대로 성장한 여러 소국들은 그 중 우세한 족장을 왕으로 하는 연맹왕국을 이루었다. 왕은 자기 집단 내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을 활발하게 정복하여 영역을 확대하였고, 율령 반포, 불교의 수용 등을 통하여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를 형성하였다. 우리 역사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고대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가야는 삼국의 각축 속에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지 못한 채 연맹이 해체되어 신라와 백제에 흡수되었다.

속초가 1963년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양양에 속해 있었고, 현재의 장사동은 간성군에 속해있었다. 이곳은 고구려와 신라의 영향권 하에 있던 지역으로 두 나라의 정복전쟁과 함께 이름이 변하기도 하였다.

제1절 연혁

속초 지역이 삼국 중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된 것은 5세기 초 광개토왕대로 추정된다. 당시 고구려는 동예에 대한 정벌전을 감행하여 많은 촌락을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고구려에 복속된 양양의 명칭은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었다. 간성의 고구려 때 이름은 슈성군(迶城郡), 일명 가라홀(加羅忽)이었다.

그 후 속초·양양 지역은 신라의 북상에 따라 고구려에서 신라에 속하게 되는데, 그 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국사기』에 신라 진흥왕 12년(551)에 고구려의 10군을 취한다는 기사와 진흥왕 17년(556)에 함경남도 안변(安邊)에 비렬홀주(比列忽州)를 설치한다는 기사로 미루어 그 시기는 진흥왕 때라고 추정된다.

신라 때 양양은 익현(翼縣)에서 익령(翼嶺)으로 고쳐졌고, 9주 중 명주(溟洲)에 속하였다. 명주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강릉이었고, 명주의 영역은 오늘날의 영동지역과 거의 일치했다. 통일 후 신라는 문무왕 때부터 시작하여 신문왕 7년(687)까지 지방 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 9주5소경(九州五小京)으로 완성하였다. 그 후 경덕왕 16년(757)에는 주·군·현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개명하였다.

당시 속초 부근 군·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현(翼嶺縣)은 오늘날의 간성인 수성군의 영현이었다. 수성군은 익령현과 오늘날의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에 치소가 있었던 동산현(童山縣)을 영현으로 거느렸다. 동산현의 고구려때 이름은 승산현(僧山縣), 일명 소물달(所勿達)이었고, 고려 때부터는 열산현(烈山縣), 일명 봉산(鳳山)으로 되어서 간성에 속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고성군 현내면(縣內面)과 거진읍(巨津邑)이 그 지역이었다.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에는 익령현과는 별도로 동산현(洞山縣)이 있었는데, 명주의 직할 영현이었다. 동산현의 고구려 때 이름은 혈산현(血山縣)이었고, 고려 때부터는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현에 예속되었다. 오늘날 양양군 현남면과 현북면이 그 지역이었다.

〈 표2-3-1 〉 속초·양양·고성 연혁표

<table>
<tr><th>현재명</th><th>고구려</th><th colspan="2">신 라</th><th colspan="2">고 려</th><th>조 선</th></tr>
<tr><td rowspan="2">고성군
(高城郡)</td><td>승산현(僧山縣)
일명 소물달
(所勿達)</td><td rowspan="4">수성군
(守城郡)</td><td>동산현
(童山縣)</td><td rowspan="2">간성현
(杆城縣)
후에
간성군
(杆城郡)</td><td>열산현
(烈山縣)일명
봉산(鳳山)</td><td rowspan="2">간성군
(杆城郡)</td></tr>
<tr><td rowspan="2">슈성군
(逆城郡)</td><td rowspan="2">수성군
(守城郡)</td><td>간성현
(杆城縣)후에
간성군
(杆城郡)</td></tr>
<tr><td rowspan="2">속초시
(束草市)</td><td rowspan="2">익현현(翼峴縣)
일명 이문현
(伊文縣)</td><td rowspan="2">익령현
(翼嶺縣)후에
양주(襄洲)</td><td rowspan="2">익령현
(翼嶺縣)
후에
양주(襄州)</td><td>익령현
(翼嶺縣)후에
양주(襄州)</td><td rowspan="2">양양도후부
(襄陽都護府)</td></tr>
<tr><td rowspan="2">양양군
(襄陽郡)</td><td rowspan="2">혈산현
(血山縣)</td><td rowspan="2">명주
(溟州)</td><td rowspan="2">동산현
(洞山縣)</td><td>동산현
(洞山縣)</td></tr>
</table>

제2절 고대의 사상과 문화

1. 화랑도(花郎徒)의 순례

영랑호는 신라 화랑 영랑(永郎)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영랑호에 관련된 전설에 의하면 사선(四仙-영랑·술랑·안상·남석행)이 금강산 금란(金蘭)에서 수련하고 무술대회에 나가기 위하여 고성 삼일포에서 3일 동안 쉬다가 금성으로 향하던 중 영랑호에 오게 되었다. 이 호수는 물빛이 맑고 투명하여 영랑이 그 풍취에 도취되어 무술대회에 나가는 것조차 잊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호수의 이름을 영랑호라 하였다고 한다. 이는 사선 중 영랑이 이곳 풍광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뱃놀이를 즐기고 고기를 낚으며 풍류의 멋을 다하였다는 것으로, 당시의 화랑들이 추구하던 정신세계와 영랑

호의 맑고 투명한 물빛이 그 성격상 같았다고 하는 것이다.

영랑은 문헌의 기록과 금석문으로 인하여 실제의 인물임이 확인되고 있다. 우선 문헌의 기록은『삼국유사』백율사(栢栗寺)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세상에서는 안상(安常)을 준영랑(俊永郎)의 무리라고 했으나 이일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영랑의 무리에는 오직 진재(眞才) · 번완(繁完) 등만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이들도 역시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위 기사에 보이는 준영랑은 곧 영랑을 지칭하는 것이다. 사선 중에서도 영랑이 대표적인 화랑이었음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 울산군 두동면 천전리 서석(書石) 명문에도 영랑에 관한 기록이 있다.

"戊年六月二日永郎成業"

이것은 내용으로 보아, 영랑이 화랑으로서의 수련기간을 마친 것을 기념하여 여기에 각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이 영랑이 바로 효소왕 때의 영랑일 것이라 짐작되고 있다.

한편 영랑호에 대한 명칭을 최초로 기록한 것은 이곡의『동유기(東遊記)』이다. 고려 충정왕 1년(1349)에 쓰여진『동유기』에 사선이 영랑호를 순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이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사선에 대한 흠모가 대단하여 화랑과 화랑정신의 표상이라 하였으며, 이 이후 그 정신이 계승되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 고려 태조 왕건은 국풍, 즉 화랑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여 팔관회(八關會)의 행사에 선랑(仙郎)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사선을 추모하는 의미이며, 이러한 현상은 화랑과 화랑정신에 대해 후세의 추앙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신증동국여지승람』간성군조에 의하면 "영랑호는 고을 남쪽 50리에 있다. 주위가 30여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터가 있다. 여기가 영랑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라고 하여 그 유적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 불교문화

만해 한용운이 편찬해 놓은『건봉사본말사적』중 신흥사 사적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 자장 율사가 설악산 동쪽에 향성사를 창건한 것이 신

흥사의 시초라 한다. 향성사 터는 현재 켄싱턴 호텔 자리라고 하는데 당시에 세워진 탑이라고 전해지는 향성사지 3층 석탑(보물 443호)이 호텔 정문 앞 길 건너 개울가에 남아 있다.

향성사 외에도 이 지역에서는 법흥왕 7년(520)에 아도화상에 의해 건봉사의 전신인 원각사가, 문무왕 11년(671)에는 의상대사에 의해 낙산사, 신문왕 8년(688)에는 원효대사에 의해 영혈사, 혜공왕 5년(769)에는 진표율사에 의해 화암사가 개창되었다. 선종의 대사찰 진전사, 선림원도 이때 세워진 사찰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이 고장에서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3. 산천제사(山川祭祀－小祀)

『삼국사기』 권32 잡지 제사조에는 신라의 국가제사 전반에 걸친 체계화 규범, 즉 제전이 실려있다. 이것은 중국 제전의 체제를 본받아 규범화할 것이지만, 신라 나름의 형편을 고려한 독특한 것이었다. 원래 사전(祀典)이란 『예기』에 입각하여 천지 · 종묘 · 사직 등 왕권을 상징하는 중대한 제사를 대사에 편제하고, 그보다 덜 중요한 제사를 중 · 소사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신라의 사전은 그 체제상 대 · 중 · 소사에 산천제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사에는 강원도 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강산 · 설악산 · 화악산이 그것이다. 화악산은 경기도와 연접해 있다. 위 소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설악산에는 속칭 천제단이라 하여 석단을 쌓아 놓고 선불적 신위명(仙佛的 神位銘)을 새겨 놓은 제단이 있다.

제4장 고려시대(高麗時代)

제1절 연혁

고려는 신라 말에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 연합하여 건설한 국가였다. 태조는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고, 개국 공신과 지방의 호족들을 관리로 등용했다.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 갔고, 지방의 중소 호족들에게는 향촌사회에서의 지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 2년(983) 전국 주요지점에 12목(牧)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고려사(高麗史)』백관지(百官志) 외직조(外職條)에 의하면 처음으로 전국에 12목을 설치하는 한편 금유 · 조장의 직제를 폐지하였다고 하였다. 이때의 12목은 양주(서울) · 광주 · 충주 · 청주 · 공주 · 진주 · 상주 · 전주 · 나주 · 승주 · 해주 · 황주였다.

성종은 12목의 설치를 기점으로 삼아 지방 세력의 통제를 강화시켜 갔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통일신라시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중요시되던 곳으로는 상주 · 양주(양산) · 강주(진주) · 한주(광주) · 삭주(춘천) · 명주(강릉) · 웅주(공주) · 전주 · 무주(광주)와 중원경(충주) · 북원경(원주) · 금관경(김해) · 서원경(청주) · 남원경(남원) 등 9주 5소경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12목의 중심지가 되지못한 곳은 양주 · 삭주 · 명주 · 무주 · 북원경 · 금관경 · 남원경이었으며 더욱이 양주 · 삭주 · 명주 는 12목제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이는 고려의 서북계를 군사지역화한 것과 마찬가지고 동북지역도 군사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원도 지방은 동북면병마사가 다스렸다. 동북면병마사는 강원도와 함남 남부를 맡고 있었으며, 서북면병마사는 평안도 지방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후 목종 8년(1105)의 제도 정비를 거쳐 현종 9년(1018)에 전국을 도(道)와 계(界)로 나누면서 행정구역을 정비하였다. 현종 9년에 4도호(都護) 8목(牧)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縣令)이 설치되면서,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일단락되었다. 이후에도 다소 변동이 있지만, 골격에는 큰 변동이 없다.

따라서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 · 4도호부 · 8목을 비롯하여 군 · 현 · 진 등을 설치하였다. 5도는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로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 구역으로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였고, 양계는 국경 지대에 설치된 군

사행정구역으로 북계와 동계가 그것이었다.

『고려사』지리지,『동국여지승람』 등에 의하면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현(翼嶺縣)은 오늘날 양양 현남면 동산리에 있었던 동산현(洞山縣)을 속현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또 신라의 수성군(守城郡)이었던 간성에도 고려시대에 간성현(杆城縣)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현령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간성현은 오늘날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에 있었던 열산현(烈山縣)을 속현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그 후 익령현은 고종 4년(1217)에 몽고에 쫓긴 거란의 침입을 격퇴시킨 공으로 고종 8년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고을 이름은 양주이고 지방관은 방어사 임)로 승격되었다. 고종 40년(1253)에는 몽고에게 항복하였으므로, 고종 41년(1254) 현으로 강등되었다가(이 기사는『고려사』에만 나옴), 다시 고종 44년(1257) 덕녕감무(德寧監務-고을이름은 덕녕, 감무는 수령 중 최하급으로 조선시대에는 현감으로 그 명칭이 바뀜)로 강등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종 1년(1260) 지양주사(知襄州事-고을이름은 양주이고 수령은 지사임)로 회복되었다. 고려시대의 양양은 대체로 전기에는 익령현, 후기에는 양주(襄州)였다.

속초를 비롯한 영동지방은 동계에 속하여 동북면병마사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는 도의 명칭, 소관 구역의 변동이 극심하였다. 명종 8년(1178) 연해명주도(沿海溟州道), 원종 4년(1263) 강릉도, 충렬왕 16년(1290) 강릉삭방도(江陵朔方道), 우왕14년(1388)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 등이라 했는데 이를 통해 추정해보면 영동지역도 계속 동계에 속한 것은 아니다. 국경선의 북상에 따라 동계 지역은 함경도 지역으로 북상하고, 영동지역은 명주도 혹은 강릉도로 불려지다가, 강릉도가 우왕 14년(1388)에 영서의 교주도와 합쳐져 교주강릉도가 되어 오늘날 강원도의 토대가 되었다.

『고려사』지리지,『동국여지승람』등에 의하면,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은 현령이 파견된 지역이었다.

제2절 이민족의 침입

1. 거란의 침입과 항전

몽골군이 거란을 공격하자 거란의 후예인 금산(金山)과 금시(金始)라는 두 왕자가 수만 명의 군사로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서북면 요새를 쳐들어 온 것

은 1216년 8월경이다. 이 해 12월까지는 거란군이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고려군과 교전했다. 11월에 금나라에서 타타르(달단)군사, 즉 몽골군사가 곧 고려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잘 대비하라는 첩보가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고종 4년(1217)에 거란군의 세력은 황해도와 경기도까지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에는 양수척의 내응과 최우(崔瑀)가 정권의 안보를 위해 관군 가운데서 정병을 빼어가는 따위로 국방에 소홀했던 데도 그 주요 원인이 있었다.

5월 4일에는 마침내 철원을 함락시키면서 강원도로 들어오게 되고, 이어서 횡성, 춘천, 원주 등이 점령당하였다. 7월 5일이 되어서야 고려의 중군(中軍)과 전군(前軍)이 거란군을 충주와 원주사이에 있는 법천사(法泉寺)로 추격하고, 이어서 제천까지 진격하면서 거란군을 쳤다. 고려군이 이처럼 김취려 장군의 지휘 하에 전승을 거듭하게 되자 거란군은 쫓겨 대관령을 넘어 명주(강릉)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해 7월 거란군이 쳐들어 온 이래로 명주의 주민들이 당한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격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거란군의 일부는 인제 쪽으로 도망하여 회양을 거쳐, 함주(함남 함흥)를 통해 여진 땅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서북면의 거란군과 합세해 강동성으로 들어갔다. 거란군의 다른 한 갈래는 바닷가를 따라 양양으로 들어갔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전에 크게 낭패해 통천(金壤)을 거쳐 함경도 쪽으로 북상해 여진의 땅으로 돌아갔다. 양양은 이때 주민들이 항전한 공을 기리어 현(縣)에서 주(州)로 승격하지만 가족까지 동반한 거란군의 퇴각로 연변의 주민들이 인명과 재산상에서 크게 피해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2. 여진과 몽고의 침입

발해 멸망 이후 만주 지방의 여진족은 현종 2년(1011)부터 숙종 2년(1097)까지 약 80여 년 동안 동해안에 출몰하여 노략질한 것이 20여 회나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몽고가 고종 18년(1231) 고려에 침입해 왔다. 1231년부터 1234년까지는 주로 서북면이 주요한 전장으로 되지만, 금나라가 정복된 1235년 이후는 동북면까지 전장이 확대되었다. 강원지방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휘말려 들게 된 것은 1253년에 들어서이다.

고종 40년(1253) 당시 몽케칸의 동생인 술지우트(松主)가 거느린 부대는 동북면에서부터 남하하여 9월에 등주(登州, 안변도호부)를 포위 공격하고,

10월엔 금양성 곧 통천방면 동해안을 따라 내려왔다. 이들은 10월 21일 양주(양양)를 점령하였다. 낙산사 승 익장이 쓴『낙산사기』에 의하면 "계축년(癸丑年, 1253)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 왔는데,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수어(守禦)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설악산에 쌓았다는 성이『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말하고 있는 권금성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최근의 조사에서 권금성이 고려시대에 쌓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왜구의 침입

고려 후기에 오면 왜구가 전국의 해안은 물론 내륙에까지 침입하여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하였다. 왜구의 침입은 무려 471회나 기록되어있다.

우왕 5년(1379) 왜구는 경상도 내륙지방을 침범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격을 해왔다. 울산과 계림일대에서 승리한 왜구의 일부는 6월에 강릉도를 향하므로, 조정은 조인벽(趙仁璧)을 강릉도원수로 삼아 이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왜구와 전투를 벌인 장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강릉도원수를 역임한 조인벽이 말년에 지금 낙산 해수욕장 부근인 양양 조산리에 은거했으며, 그 후 그를 모시는 동명서원이 그곳에 세워진 것을 보면 그가 이 부근에서 왜구를 격파했으리라 생각된다.

우왕 9년(1383)에 왜구가 동산현에 침입하였다. 왜구는 강화나 예성강으로 올라와 개경을 위협하던 종래의 방식과는 달리 강원도 내륙지방을 통해 개경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왜구에 의해 홍천현과 춘주마저 한때 함락되기도 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은 조준(趙浚)을 강릉교주도도검찰사(江陵交州道道檢察使)로 임명하여 이 일대의 왜구 토벌에 나서게 하였다. 원수 이을진과 부원수 권현룡 등이 동산현(양양)에서 왜구 20명을 죽이고 말 72필을 노획하는 승리를 거두자 왜구는 고성포로 퇴각하였다. 그 뒤 고성포에 정박한 왜구는 11월에도 빈번한 야간 기습작전으로 고려군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1383년에 왜구들은 소규모 병력을 동원한 국지전을 전개하면서 내륙지역으로의 침투를 기도하였으나 고려군의 적극적인 토벌작전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뒤 왜구는 1385년 4월에 양양에 다시 침입하였으나 모두 고려군에 의해 패하였다.

제5장 조선시대(朝鮮時代)

제1절 정치

1. 연혁

조선시대의 속초는 강원도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으로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행정구역 조정, 개편이 진행되어 태종 13년(1413)에 8도제가 완성되었다. 강원도(江原道)라는 이름은 태조 4년(1395)에 충청도 소속이던 원주를 이곳으로 옮겨 감영 소재지로 하고, 종전 명칭인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를 강원도로 개칭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후 일시적으로 현종 7년(1660)부터 원양도(原襄道), 숙종 9년(1683)부터 28년(1702)까지 강양도(江襄道), 영조 11년(1735)부터 14년(1738)까지 강춘도(江春道), 정조 6년(1782)부터 15년(1791)까지 원춘도(原春道)로 개칭되었던 적이 있었을 뿐 그 외에는 계속 강원도로 불려졌다.

양양도호부는 태종 16년(1416)부터의 이름이다. 양양의 이전 이름은 고려 고종 8년(1221)이래 양주(襄州)였고, 수령의 직위는 원종 원년(1260) 이래 지사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태조 6년(1397) 임금님의 외가고을이라는 이유로 부(府)로 승격되었다.[4] 태종 13년(1413)에는 도호부가 되었다. 이어 태종 16년(1416)에는 양주에서 양양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일시적으로 광해군 10년(1618)부터 인조 원년(1623)까지, 숙종 14년(1688)부터 숙종 23년(1697)까지, 정조 7년(1783)부터 16년(1792)까지 현으로 강등되었을 뿐 계속 양양도호부로 존속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 근대화의 분수령을 이룬 갑오개혁 때 지방의 군현제도가 폐지되고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개편하였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의 실시 방안에 따라 종래의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실시되었으며, 강원도에서 강릉부에 속하게 되고 종래의 부·목·군·현이 군으로 통합됨에 따라 양양군으로 고쳐졌다.

갑오·을미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벌어지고 이에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전국적인 의병 운동의 와중에서 친러파는 일본의 감시 하에 있던 국왕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켰다. 이에 친러내각이 수립되자 갑오개혁 때 시행된 시책의 일부가 바뀌어졌는데, 그때인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23부는 한성부와 13도로 되고, 13도 밑에는 7부 1목

4) 임금은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인 穆祖 이안사(李安社)라고 『관동읍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331군으로 고쳐졌다. 이에 따라 다시 강원도 양양군이 되었다.

조선시대부터 면리제가 실시되었다. 종전의 촌(村)이 리(里 또는 洞)로 개편되었고, 몇 개의 리를 묶어 면(面, 또는 社도나 坊)이라 하였다. 양양도호부는 부내면, 동면, 부남면, 서면, 남면, 현북면, 현남면, 위산면, 사현면, 강선면, 도문면, 소천면의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늘날 속초에 해당되는 도문면(道門面)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 신흥사가 속했고 소천면(所川面)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2. 통치체제의 정비

가. 군사와 국방

조선 초기의 군사 조직은 세조 때 중앙에는 5위(五衛)를 두었고, 지방에는 영진군 등이 주둔하고 있어 수령의 지휘를 받았다. 세조 때 진관체제라는 지역단위의 방위 체제가 전국적으로 완성되었는데, 이는 여러 고을을 하나의 진관으로 묶어 그 중 한 사람의 수령이 지휘하게 한 것이었다.

세조(世祖)이전에는 각 도에 절도사가 주재하는 주진(主鎭)을 두고 변경 · 해안 등 요충지에 진(鎭)을 두어 방비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해안 방어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기사가 보인다.

…太祖六年丁丑始置鎭二鎭無留防軍有事則以侍衛牌充之 兵馬都節制使置司江陵府都觀察使無之水軍萬戶守禦處六越松浦在平海東舡一艘軍七十束草浦在襄陽北舡三艘軍二百單十…

태조 6년 정축에 비로소 진(鎭) 둘을 두었으나, 진에 유방군(留防軍)이 없어, 일이 있으면 시위패로 충당한다.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영을 강릉에 두고, 도관찰사(都觀察使)가 겸한다. 수군 만호 수어처(水軍萬戶守禦處)가 6이니 월송포가 평해(平海) 동쪽에 있고, 배가 1척 군사가 70명이다.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진보조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속초'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록에 의해 확인된 최초의 것이다. 아울러 이미 세종 때 수군만호처가 존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도는 원주, 강릉, 회양 중심의 진관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양양은 강

릉대도호부사가 지휘하는 강릉진관에 편성되어 있었다. 수군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삼척에 전진기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대장인 삼척포첨사가 동해안 각지의 수군을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만기요람』과 『증보문헌비고』에는 육군경비전투기지 격인 관방(關防)과 해군경비기지 격인 해방(海防)이 기록되어 있다. 양양의 관방으로는 양양읍성, 권금성, 토왕성, 대포진성(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고, 해방으로는 쌍성호(청초호), 대포(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속초는 전쟁으로 인한 큰 피해는 겪지 않았다. 다만 임진왜란(1592~1597) 때 제 4진으로 상륙한 모리 요시나리 군이 안변에서 영동지역으로 남하하였다. 이에 사명대사가 고성 건봉사에서 승병들을 모아 전투에 참가한 기록이 있다. 또한 양양 『향토지』에 부사 김수연이 9월에 부임하여 방어하지 못해 10월에 면직 당하고, 임시 수령 정은신이 11월에 부임하였다가 12월에 해임되고, 12월에 부사 황규가 부임하는 등 그 피해가 5개월에 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 교통 · 통신

교통제도를 대표하는 것은 역마제다. 역은 주요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마다 말과 역정(役丁)을 갖추어 공문을 전달하고, 공무 여행자에게 말을 제공하고 숙식을 알선하였다. 그밖에 진상하는 관물의 수송까지도 담당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전국에 500여 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양양에는 상운, 연창, 인구, 강선, 오색 등에 역이 있었다.

봉수는 변경의 긴급한 사태를 중앙에 알리는 군사상의 이유로 설치되었다. 대략 수십 리의 일정한 거리마다 서로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봉화대를 마련해 놓고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 신호하였다. 조선시대의 봉수로는 대체로 주로선 5개가 있고 여기에 간선이 연결되었다. 강원도 지방은 16세기 초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준으로 할 때 함경도 경흥으로 연결되는 본선과 동해안 지대에 간선이 있었으나, 조선후기에 와서는 경흥으로 이어지는 본선에 속한 평강 · 회양 · 철원 · 금성의 봉수대만 존속하고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간선망은 모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초기에는 왜구가 동해안에 출몰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에서 유지되었던 것이나, 임진왜란과 정묘 · 병자호란을 겪은 후 국방 정책의 관심이 수도와 남북변경지역에 집중되고, 동해안에서의 왜구의 출몰이라든가 기타의 사변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속초 대포동 외옹치에도 덕산봉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남으로는 수산, 북으로는 죽왕면 삼포리의 죽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3. 개화기의 정세

19세기 중엽 조선의 전통 사회는 커다란 변화와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의 폐단이 극에 달하여 무능한 양반 지배 체제에 저항하는 민중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일본과 서양 열강의 침략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부산, 원산, 인천 등 세 항구의 개항과 함께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개항 이후 청과 일본이 조선에 대한 침략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조선 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화파 인물을 등용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세력도 만만치가 않았다. 조선의 전통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인 유생들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여 반외세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격동의 역사 속에서 속초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 사정상 근대 사상의 유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추진되었다. 따라서 보수적 유림들이 향교를 중심으로 사회 주도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동학농민운동 시기에 영월, 정선 지방의 동학군이 영동으로 몰려왔을 때 이 지역에서는 반동학군을 조직하여 진압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 강원도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는 반동학군의 대표적인 인물은 중도문리의 이국범과 이석범[5]이었다. 이렇게 반동학군이 조직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은 속초사회에 거주한 유학자들의 영향력이었다.

이것은 속초지역이 새로운 정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이며, 경제적인 여건상 외지로의 유학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용하던 양양과 속초도 1906년 남궁 억이 양양군 도호부에 부임하여 현산학교(峴山學校)를 설립하고 신교육을 실시하면서 개화 자강 운동이 소수의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이후 신사상 교육은 양양감리교회를 비롯한 교회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양양지역에서 시작된 신교육은 이후 전개된 3 · 1운동과 사회운동을 주도할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5) 원래 양양은 유학의 고장이다. 당시 이석범은 양양의 가장 대표적인 門中 중의 하나인 임천리 함평 이씨로서 도천면 중도문리에 살며 그곳에서 쌍천학교를 설립하였다. 대중적인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3 · 1운동 직전까지 도천면의 면장을 역임했으며 후에 신간회 양양지회의 회장으로 피선된 인물이다.

4. 민족운동의 전개

가. 동학농민운동

동학은 철종 12년(1860) 경주 사람 최제우(崔濟愚)에 의해 창시된 민족종교다. 동학이 강원도에 포교되기 시작한 것은 제2대 교조인 최시형(崔時亨)이 포교에 정력을 쏟고 조직에 정성을 쏟던 동학포교 10년째인 1869년이다. 이돈화가 지은 『천도교 창건사』에는 구체적으로 동학의 포교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포덕 10년(1869) 기사 2월에 신사(神師)가 영양 일월산에 은거할 때 양양사람 최혜근(崔惠根) · 김경서(金慶瑞)가 와서 신사(최시형 교조)를 뵙고, 생 등이 입도한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도(道) 닦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찾아 왔나이다하거늘, 신사가 그 연원을 물을 때, 공생(孔生)이라 칭하는 사람이 입도를 권하는 말에 의하야 도에 참여한 이래 삼칠자(三七字)를 외울 뿐이요, 절차를 알지 못하나이다. 신사가 그 정상을 가상히 여기시고, 도의를 순순히 설명한 즉, 두 사람이 신사께 향하야 양양 포덕을 역설하고, 기어이 배왕(陪往)하기를 고청하거늘 신사 또한 그 방면에 유의한 지 오랜지라, 박춘서(朴春瑞)를 데리고 양양을 향하여 30여 호의 포덕을 얻고, 그 이듬해인 경오년에 이르기까지 양양 산중에 은거하사 지성(至誠)과 송주(誦呪)로 일을 삼더니, 10월에 들은 즉, 공생이라는 자가 상주 동관암(東關岩)에 이르러 대신사의 가족을 달래어 영월 소밀원(蘇密院)으로 옮기게 하였다 하는지라 신사 홀로 근심하시되, 세정(世貞)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험난한 이때 사람의 말을 함부로 좇으니 반드시 장래가 좋지 못하리라 염려하였으나, 이과지사(已過之事)라 아주 후일을 기다리기로 하시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최시형은 양양에서 2년간 체류하면서 정력적으로 포교했으며, 강원도의 초기 동학교도는 최혜근, 김경서였으며 포교지역은 양양이었다. 그러나 양양지역에서 동학이 큰 세력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양양은 보수적인 곳이었고 당시 유림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영동보다 영서에 동학이 크게 퍼졌고, 아울러 영서지역에서 동학군이 봉기하였다. 영월, 평창, 정선 등지에서 봉기한 동학군은 대관령을 넘어 한때 강릉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단행하나, 곧 강릉읍민에게 패퇴하여 평창 등지에 주둔하였다.

홍천에서는 강릉, 양양, 원주, 횡성, 홍천 5읍 도접주였던 차기석이 동학군을 이끌고 홍천 동창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기린, 양양, 간성 등지에 비밀리에 통문을 발하여 동지를 모으고 영동으로 진격할 기세였다. 이에 강릉을 비롯한 영동에서는 유림 등이 중심이 되어 반동학군을 조직하고 각 영에 배치하여, 동학군의 공격에 대비함과 동시에 영서의 동학군을 공격하였다. 이때

양양에서는 도문면 출신 이석범 · 이국범이 민병을 조직하여 홍천 내면 방면의 동학군을 공격하였다.

나. 의병항전(義兵抗戰)

의병항쟁은 1895년 을미사변(명성황후를 일본인들이 시해한 사건)과 단발령에 대한 항거에서 시작되었다. 각지의 의병들은 친일적인 지방 수령을 숙청하고 일본인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국왕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9개월 정도 후에는 활동이 종식된다.

영동지역의 의병장으로는 민용호가 대표적이다. 그는 경기도 여주 사람으로 원주에서 의병을 모아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진격하여, 1896년 1월 30일 강릉에서 그곳 의병들과 합류하여 관동 9군 창의소를 설치했다. 양양 『향토지』에 의하면 양양에도 창의소가 설치되었다. 그는 의병들을 이끌고 원산까지 공격하나, 안변 · 선평에서 관군에게 패퇴하여 강릉으로 후퇴한다. 원산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의병과 관군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양양읍에서 임천리까지 전투장이 되었고, 민가 30여 호가 불에 탔다. 독립신문(1896. 6. 20일자)에 보면 당시 군수가 의병에게 처형당했다는 기사가 있다.

제2절 경제

1. 농업

전통적으로 농업 사회였던 조선 후기의 속초지역은 주로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는데 농업에서도 중심이 된 것은 벼농사였다. 고종 8년(1871)에 성책된 『관동읍지』를 보면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 신흥사가 있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논산리, 부월리 등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며, 대포리, 옹진리, 속초리, 속진리 등은 반농반어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다. 조선시대 마을의 분포가 도문천(지금의 쌍천), 온정천, 노동천(지금의 청초천) 주위에 형성되어 있음은 논농사를 기반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속초가 속한 양양지역은 강원도 내에서 화전민의 수가 많은 곳 중

에 하나이다. 양양지역에서도 특히 산간 지방의 경우는 주민의 80%가 화전을 하며 살았다. 화전민의 대부분은 양양 서쪽 갈천, 미천, 서림, 오색 등에 거주하였지만 설악산에도 화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재 시내를 구성하고 있는 속초리도 화전지대는 아니지만 미개척지로 남아 있어 산림이 무성하였다. 하도문리에 있는 나무고개라는 고개의 이름이 속초리로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 넘었다는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속초리 쪽에는 상당히 울창한 산림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속초지역은 대체로 해안과 하천을 따라 좁은 평야지대가 발달하여 있어 한 · 수전 농업이 행해졌다.

조선전기 지역에서는 26종류의 농산물이 재배되었다. 생산물의 종류는 오곡(기장 · 피 · 콩 · 보리 · 벼) · 뽕나무 · 섬 · 왕골 · 감 · 배 · 밤 · 닥나무 · 칠 · 꿀 · 밀 · 잣 · 호도 · 북나무충영 · 지초 · 석이 · 인삼 · 오미자 · 승검초뿌리 · 복령 · 북나무진 · 쥐꼬리망초뿌리 · 궁궁이 · 다린송진 · 대왕풀 · 모란뿌리껍질 등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조선시대의 농업상을 일부 가늠해 볼 수 있다.

2. 수산업

조선시대의 수산물은 어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어류 가운데에는 주로 산란을 목적으로 하천을 거슬러 돌아오는 어류 또는 하구에 내유(來游)하는 어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어업은 내수면어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육지와 근접된 연안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전기 강원도지방에서 사용한 어구는 주목망(柱木網)을 비롯하여 중선망(中船網), 파선망(破船網) 등의 어망구가 사용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강원도 고성군 항목의 기록에 의하면 "삼을 심어 실을 뽑지 아니하고 꼬아서 그물을 만들어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 지인망(地引網)에 속하는 휘리망(揮罹網, 후릿그물) 어업이 성행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조선초기부터 이러한 그물로 각종 어류를 어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산지』를 비롯한 기록에 소금에 대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소금은 정치 · 경제 · 사회 · 산업 · 군사 등 여러 부문에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 조선 초기 소금생산지는 모든 해안에 걸쳐 분포되었다. 그 중 강원도는 320여 개소의 염분(鹽盆)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 양양부는 40개소의 염분이 있었다.

이 지역의 제염법은 다른 지역과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제염하였다. 즉 해

면보다 높은 지면에 염전을 축조하면서 점질토로서 지반하층을 구축하고 그 위에 사질토를 상당한 두께로 펴서 지반을 만들고, 여기에다 도랑을 통하게 하고 다시 바닷물에 이르기까지 점질토로서 도항을 만든 다음 맛파(바닷물을 염정 등에 퍼 올리는데 사용하는 기구)를 가지고 바닷물을 퍼올려 염전의 도랑을 꽉 채웠다. 그리고 염전지반과 그 위의 살사(撒砂)를 축이고 다시 건조시키는 작업을 되풀이해서 소금을 얻게 되며, 염정(鹽井)은 염전 도랑 옆에다 2, 3척(尺) 높게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마다 그 지역의 자연적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소금을 제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염전은 양양부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속초지방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정 7년(1918)에 발간된 『최신조선지리』에는 속진(束津)에서 소금을 생산한다고 기록되어있다.

〈 표2-5-1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강원도 수산물

종류 / 자료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수산동물	가공품 및 기타
세종실록지리지	45	12	19	13	24
신증동국여지승람	50	15	13	14	4

3. 특산물(特産物)

대동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각 군현별로 공납이라고 하여 특산물을 상납하고 있었다. 공납은 고려처럼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하여 중앙 관청에서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면, 각 군현은 각 가호에게 다시 할당하여 거두었다. 특산물은 전곡과는 달리 수확량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농촌 경제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 표2-5-2 〉 조선시대의 특산물

종류	신증동국여지승람	현산지
동물가죽		호랑이가죽, 곰가죽, 노루가족, 담비가죽, 담비털, 돼지털, 너구리가죽, 산돼지가죽
동물	백화사(뱀종류)	해달, 수달, 해양, 해돈
수산물	김, 전복, 홍합, 문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해삼, 송어	게, 홍합, 해삼, 생전복, 대구어, 방어, 광어, 가어(加魚), 문어, 사어(沙魚), 홍어, 송어, 연어, 황어, 도루묵, 농어, 잉어, 미역, 소금

종류	신증동국여지승람	현산지
농작물 및 약초	모시, 해송자, 오미자, 자초(화상, 동상 등에 바르던 약초), 인삼, 지황(한방약재), 복령(버섯종류, 한약재), 꿀, 콩	차, 닥나무, 대나무, 순채, 배, 밤, 감, 살구, 복숭아, 은행, 복숭아, 호도, 목과, 개암나무, 대추, 연밥, 잣, 오미자, 오가피, 지초, 홍화(잇꽃), 마, 송이버섯, 만이, 석이
기 타	철, 죽간(竹簡, 글씨를 쓰던 대조각)	

제3절 인구 및 사회

속초의 인구는 1871년 편찬된『관동읍지』를 보면 도문면에 538명, 소천면에 668명으로 총1,206명이었다. 속초의 전통사회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 중 대부분은 강가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하여 거주하였다.

당시 도문면에는 상도문리를 비롯하여 6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는 풍부한 수원을 바탕으로 논농사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개발된 상태이고 양반지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요인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관동읍지』보다 약 100년 전에 편찬된『여지도서』에 기록된 635명보다도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소천면은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 등 4개의 촌락이 있었다. 소천면의 논산리, 부월리 등은 잘 발달된 평야지대를 끼고 있었다. 평야지대는 한정된 농토를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안정된 지역이었고, 속초리 쪽의 대부분은 미개척지였으며, 속진리는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므로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전통사회에서 인구의 증가는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대포리가 속초의 중심지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주의 요인이 발생한 사람들은 중심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주지를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말기에 오면 중심지가 점차 속초리 쪽으로 이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도문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천면은 인구의 증가라고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29명이 증가하였다. 100여 년 동안 29명의 증가는 전통사회 속에서 소천면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당 인구수는 속초리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이 2.5~3.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2-5-3 〉 1871년 마을별 인구현황

면	리	편호	인구(명)		소계	호당 인구(명)	계(명)
			남	여			
도문면	상도문리	61	95	145	150	2.5	538
	하도문리	24	33	58	91	3.8	
	물치리	21	25	41	66	3.1	
	대포리	23	24	42	66	2.9	
	옹진리	35	53	74	127	3.6	
	신흥사	21	38		38		
소천면	논산리	38	51	54	105	2.8	668
	부월리	52	72	105	177	3.4	
	속초리	47	99	111	210	4.5	
	속진리	51	70	106	176	3.5	

자료 : 『관동읍지』, 1871

〈 표2-5-4 〉 조선후기 인구의 변화

면	년도	편호	인구	증감
도문면	영조41(1765) 여지도서	205	635	▼97
	고종8(1871) 관동읍지	185	538	
소천면	영조41(1765) 여지도서	182	630	▲38
	고종8(1871) 관동읍지	188	668	

자료 : 『여지도서』, 1765. 『관동읍지』, 1871

속초는 동학농민운동 때 반동학군이 조직될 정도로 보수적인 고장이며, 유학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었다. 당시 양양읍내에 향교가 있었고 도문리를 중심으로 유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특히 속초의 유학 지도자 이석범은 중도문리에 쌍천학교를 설립하여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조선 후기에 가면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신분제가 타파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석범이 3 · 1운동과 신간회의 지도자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속초는 양반 지도층의 지도력에 변함이 없었다.

『현산지』를 비롯한 많은 문헌을 보면 이 지역은 학문을 숭상했으며, 예의를 귀히 여겼다고 적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그렇듯 속초지역도 장례시 온 마을 사람들이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잔치를 열어 놀기를 좋아했으며,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다른 곳보다 많은 무속신앙이 발달하였다.

제4절 문화

1. 불교사상

강원지방의 불교는 산수가 수려한 자연경관에 걸맞게 타도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찰이 산재하여 있다는 것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함경도 관찰사를 지냈던 조돈(趙暾)의 글로 인조 22년(1644)에 세워진 설악산 신흥사사적비에 의하면, 불교와 유교의 교섭이 필요하다는 전제와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즉 조선초기부터 배불정책을 펼쳐왔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인심을 일으켜 모으고 나아가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불교를 과감하게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흥사 사적비의 내용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사회의 결속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사적비의 끝부분에 첨부되어 있는 시 한수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 설악에 선기(禪氣)있어 산정에 흰눈
> 산정뿐 아니라 마음 또한 흰눈 같고
> 눈 아래 동으로 흐르는 물결도 흰 눈일세
> 천하를 더럽힌 이수치 흰눈으로 씻어 보려
> 세 글자 편액 보니 그 뜻도 흰눈 같네.
> 모든 것 한색이니 어느 것만 눈이랴
> 돌 닦아 명(銘) 새김도 눈같이 흰 뜻일레.

이 시의 내용에 나오는 흰눈(雪)은 흰눈과 같은 순수함을 본질로 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한 덩어리로 어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또한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을 암시해 주고 있다.

2. 유학 · 교육(儒學 · 敎育)

당시 지방 교육기관으로 향교를 들 수 있다. 향교는 관립학교로서 모든 고을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었다. 속초가 속하였던 양양 · 간성에 모두 향교가 있었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또 사립학교로는 양양읍 조산리에 고려말의 무장 조인벽(趙仁璧)을 모시는 동명서원이 있었으며, 속초 대포동 내물치에 남아있는 유물재비(兪勿齋碑)에 의하면 그 자리에 물재 유회일(兪晦一)을

추모하고 제사지내던 향현사라는 향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서당은 1911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에 1,405개가 있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속초에도 많은 서당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3. 민요와 민속

속초는 어업과 농업이 생활 수단이 된 지역이므로 농업 노동요와 어업 노동요가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요 중 대표적인 것으로 농업 노동요인 '도문메나리'와 어업 노동요인 '배내리는 소리', '노젓는 노래'가 있다.

'도문 메나리' 농요는 도문동 상도문리에서 아직까지 전승되어 온다. 도문면은 속초에서 사람들이 가장 빠른 시기에 정착한 곳 중 하나이며, 마을 형성시기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으나 오래 전부터 노동요로 불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문메나리'는 농민들이 3, 4명씩 짝을 지어 논김을 매면서 고달픔을 달래기 위해 부르던 농요로 고유의 멋을 간직하고 있다.

속초에 전승되는 어업요는 노를 저으면서 제창하는 '지어소리', 그물 당기면서 제창하는 '다리어소리', 고기를 베끼는 '베끼노래', 고기를 퍼담으면서 부르는 '가래소리' 등이 있다.

산대나 가래로 고기를 푸면서 부르는 소리를 '산자소리'라고도 하고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는 '심에소리'라고도 한다. 주로 앞소리와 뒷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뒷소리가 끝나기 전에 앞소리를 메기는 선후창으로 불리기도 한다.

베끼노래는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베낄 때 부르는 소리로 가장 경쾌하고 사설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고 어부들도 가장 신명나는 소리다.

그 외에 배를 만들어 진수하면서 부르는 '든대질소리' 일명 '배내리는소리'도 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져 전승된 민속놀이로는 도리원 농악, 용갈이,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도문 봇물 싸움놀이,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 대포동 뱃소리 등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도리원 농악은 다른 지역의 그 것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도리원 농악은 초기에는 대체로 영동 지역 여타 농악과 비슷하였지만, 전승과정에서 경기 웃다리 농악이 가미된 '속초 도리원 연희 농악'으로 변하게 된 특

이한 모습을 띠고 있다.

용갈이는 한자어로 용경(龍耕)이라 한다. 청호동 주민들은 청초호가 얼면 그것을 보고 한 해의 풍흉을 점친다. 청초호는 바다와 연결되어 호수 밑에 사는 용이 논두렁처럼 얼음을 갈아 놓은 것을 보고, 물의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용이 얼음을 남쪽으로 갈아 놓거나 복판만 갈면 이듬해 풍년이고, 북으로 엇갈거나 옆을 갈면 흉년, 좌우로 마구 갈아놓으면 평년작이라고 점을 친다. 청초호와 영랑호에는 숫룡과 암룡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용선놀이도 전하고 있다.

4. 문학

조선시대의 문학 작품은 대부분이 설악산과 영랑호를 노래한 것이다. 설악산은 신라시대부터 산천유람장소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비선대 암반 위나 계조암 쪽에는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 상당수는 관직에 있던 사람들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설악산 관련 문학 작품은 그리 많지가 않다. 그 이유는 금강산과 가까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대부분이 개인문집에 남겨놓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설악산에 관련된 시는 최익현이 이항로 선생을 모시고 설악산을 유람하면서 쓴 '이선생을 모시고 설악산을 유람하다', 김창흡의 '상미시령(上彌矢嶺, 미시령에 올라)', '설악산 비선대(雪嶽山 飛仙臺)', 이세구의 '금강산 가는 길', 이수관의 '신흥사', 동국여지지에 전해오는 허목의 '설악산', 정축년(인조15년, 1637)에 쓴 작자미상의 '강릉 도중에서 설악산을 바라보며 감회를 쓰다' 등이 있으며, 영랑호에 관한 시는 안축의 '영랑호' 4수, 이곡 2수, 구사맹의 작품이 전한다. 가사문학으로는 정철의 관동별곡에 영랑호에 관한 언급이 있으며, 드물게 조명이라는 시인이 쓴 한글로 된 시 한 수가 있다.

설악산(雪嶽山) 가는 길히
설악산(雪嶽山) 가는 길히 개골산(開骨山) 즁을 맛나
즁더러 뭇는 말이 네 절 풍엽(楓葉) 엇더터니
이ᄉᆞ이 셔치쳐시니 ᄉᆞᄃᆞ 마즌가 ᄒᆞ노라

〈 조명이 〉

대부분의 문학작품이 자연을 노래한 것이지만, 시대상을 반영한 것도 있다. 한말인 1906년 양양군수로 부임하여 현산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던 남궁 억이 자유사회를 희구하는 시조를 발표하였다.

설악산 돌을 날라 독립기초 다저 놓고
청초호 자유수를 영넘어로 실어 넘겨
민주의 자유강산 이뤄놓고 보리라

이 시조는 정치적 자유, 민족적 독립, 민주적 강산을 만들어 보겠다는 소망을 시조로 형상화한 것이다. 현대시조의 모습을 띤 것이었으므로 신체시와 또 다른 신시조의 초기작품이 되었다. 남궁 억은 시조작가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시조의 내용으로 담은 혁신을 가져왔다.

제6장 일제강점기

제1절 정치

1. 행정구역의 변화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지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입법 · 사법 · 행정 및 군대 통수권 등을 가진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일제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1914년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 · 군 · 도(島)를 두었으며 전국의 군을 220개로 정리하였다.

이 때 양양군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도천면(道川面)으로 합쳐져 오늘날 속초시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1926년에 발간된 도천면『면세일반』에 의하면 면장은 1907년부터 설치되었고 1913년에는 소천 · 도문 연합면으로 되었다가, 1914년 도천면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1년에 발간된『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를 보면 도천면은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외옹치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의 11개리로 되어 있었다.

1921년『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와 1912년경으로 추정되는『조선지지자료』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1920년대에는 설악산 쪽의 마을들이 장항리로 통합되었으며 외옹진이 외옹치로 이름이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시대 초기 도천면의 소재지였던 대포리는 근대화에 따라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한 상당히 큰 항구였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후기에 와서 청초호가 정기기선의 기항지로 개발되면서 청초호 북쪽에 인접한 속초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37년 7월 1일에는 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 때부터 속초는 면 이름이자 동리 이름이 된 것이다. 이어서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은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속초읍은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눠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지만, 행정상으로는 17개 리로 편성되었다.

〈 지도 2-6-1 〉 1912년 지도 재구성

〈 지도 2-6-2 〉 1942년 이후 지도의 재구성

2. 일제의 식민통치

춘천헌병대본부 발행『강원도상황경계』에 의하면 1913년 당시 강원도에는 춘천헌병대, 즉 강원도경무부 산하에 경찰서 7개, 헌병분대 10개가 있었고 경찰서 밑에 순사주재소, 헌병분대 밑에는 분견소, 파견소, 출장소가 있었다. 양양에는 헌병분대가 없고 경찰서가 있어서 군내면, 위산면, 동면, 남면, 사현면은 경찰서에서 직접 관할하였고, 그 밑에 북분리 주재소에서는 현남면, 현북면을, 옹진 주재소에서 도문면, 소천면 강선면을 약수 주재소에서 부남면, 서면을 관할하였다. 이것을 보면 순사주재소가 처음에는 대포가 아닌 옹진(甕津) 즉 외옹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약수 주재소의 약수는 현재 오색이며, 그곳에 순사주재소가 있어 산간 지방을 배경으로 활동한 의병을 색출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 지역에는 경찰서 대신 헌병대가 있었다. 고성분대 밑에 간성분견소가 있었고, 그 밑에 아야진파견소, 마차진출장소, 오리진출장소가 있었다. 따라서 간성군이었던 현 장사동 지역은 아야진파견소에서 관할했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헌병경찰제도는 3·1운동으로 폐지되고 대신 보통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헌병대는 경찰서로 대체되었고 일반 행정구역에 따라 설치되었다. 1926년에 작성된『면세일반』에는 주재소에 순사부장 1명, 순사 3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3·1운동

속초가 속한 양양군의 3·1운동(1919)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었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중운동이었다. 당시 양양지역의 만세운동은 4월 4일부터 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전개되었다. 일제측 기록만 보더라도 7개면 132동리 중 6개면 82동리에서 4,600여명(실제 6,000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의 만세시위운동이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참가 인원 대부분이 농민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못자리 설치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군 단위 규모의 만세시위운동으로서는 전국 어느 지방의 운동보다도 대규모이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만세운동 거사 계획은 보수적인 유학계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유학계의 거사 계획은 현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 출신의 이석범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석범은 보수 유학계의 지도자로 당시 중도문리에 쌍천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이석범은 고종 황제의 인산에 참례하고 돌아오면서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동생 이국범, 아들 이능렬(李能烈)과

함께 도천면 김영경, 강현면 장세환 등 쌍천학교 졸업생들을 시켜서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하였다.

또 한편의 계획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개성 호수돈 여학교를 다니던 조영순 전도사의 딸 조화벽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와 양양 감리교회 청년지도자 김필선, 김주호 등에게 인계하여 거사 준비를 하던 중 유림 세력과 연결되어 추진하였다.

4월 4일

이석범의 지휘와 양양 감리교회의 계획이 합쳐져서 4월 4일 장날에 양양면 · 서면 · 손양면민 등 4천 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손양면 가평리의 함홍기는 경찰서장에게 항의하다가 피살되고 경찰의 야간 사격으로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과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가 피살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5일

이 날의 시위는 도천면과 강현면, 그리고 손양면의 군중이 담당하였다. 4월 5일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 장터에 모였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 주재소가 있는 대포리에 모였다. 중도문리의 김영경(金英經), 부월리의 이종순(李種純), 대포리의 박사집(朴士集) 등은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대포리 경찰주재소로 몰려갔다.

도천면민은 오전부터 대포에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 오후에는 강현면 사무소와 물치 장터에 모여 시위하던 강현면민이 이곳에 와서 합세하였다. 이에 일제는 경찰 이외의 일본인을 새벽부터 배를 띄워 바다에 머물게 하는 등 두려움에 떨었다. 당시 강원도장관의 4월 6일자 전신보고를 보면 물치 장터에 모인 군중은 5백 명인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했고, 오후 대포리에 모였을 때를 8백 명이라 했는데 1천 명은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대포 주재소 수석은 石田三郎이었는데, 이미 그들의 가족과 경찰이 아닌 일본인은 모두 배에 태워 바다에 피신시켰다. 시위대는 날이 저물자 "일본 경찰은 물러가겠다."는 회유 설명을 듣고 다음 날은 양양면으로 가서 만세를 부를 것을 약속하고 해산하였다.

4월 6일

이 날의 만세운동은 세군데서 발생하였다. 하나는 도천면과 강현면의 군중이 양양면에서 시위한 것이고, 양양보통학교 4학년 학생 30명이 현산에서 만세를 불렀고, 또 하나는 김학구의 장례식을 계기로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도천면과 강현면의 시위 군중은 장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벌였는데 우선 그 때의 일을 강원도장관이 4월 7일 보고한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양군 대포리를 습(襲)하려 한 팔백 명의 군중 작육일(昨六日)에 지(至)하여 천이삼백 명에 달하여 읍내를 습하였으나 병력을 공(恐)하여 폭행을 불위(不爲) 주모자 칠 명을 인치(引致)함에 차(此)에 인치건(引致件)을 경찰서장에게 청원하였음으로 간유 퇴산(懇諭 退散)케 한다. 당 동군 현북 현남의 양면민심 동요 불온(不穩)의 조있음"

위의 보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천면과 강현면 시위 군중은 전날 물치시장과 대포 항구에서 만세 시위를 하였는데, 이 날도 역시 전날의 주동자가 앞장서서 양양읍으로 몰려갔다. 삼베 주머니에 도시락을 넣어서 어떤 이는 독립을 위하여, 어떤 이는 독립이 된 줄 알고, 양양읍에 가서 일본 사람을 자기 나라로 쫓기 위하여 몰려갔다. 전날에 대포 주재소로 시위 군중이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미 배를 타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세는 더욱 올라 있었다. 경찰들은 만세 군중들에게 "우리는 돌아갈테니 조용히 만세만 불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일반 대중은 일본인의 말과 태도를 보고 독립을 눈앞에 둔 것 같은 흥겨운 기세로 양양읍까지 행진하였다.

그런데 양양읍의 사정은 달라져 있었다. 4월 5일 일본군의 6개 대대가 3·1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본 본국에서 증파되어 양양읍에도 주둔하였던 것이다. 도천면과 강현면의 시위 군중 특히 김원식(金元植) 등이 이끄는 강현면 군중이 양양읍 입구 연창(連昌)에 다다랐을 때, 수비대의 군인들은 새끼줄로 길을 가로막고 일반인의 통과를 막고 있었다. 그러나 시위 군중들은 그 곳에서 한참 대치하다가, 수비대의 포진에도 불구하고 새끼줄을 끊어버리고 양양읍으로 들어갔다. 양양읍에 들어간 시위대는 경찰서 주변으로 몰려가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이능렬과 김원식은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군중의 대표로서 서장과 군수를 '양양에서 떠나라'고 요구했고, 밖에서는 만세 군중이 특히 이동혁 군수를 욕하며 소리쳤다. 이날 일본 경찰은 군중의 대표와 군중에 대하여 자기들 일본 사람은 돌아 갈테니 군중도 돌아가라고 회유하였다. 이리하여 만세 군중은 오후 늦게 3, 40리 떨어진 도천면과 강현면으로 돌아왔다.

4월 7일

이 날은 현북면의 서당 생도가 중심이 된 만세운동과 서면 면사무소 습격 사건이 있었으며, 양양면에서는 천도교도들에 의한 만세운동이 있었다.

4월 8일

도천면 논산리에서 약간의 시위가 있었다. 4월 4일부터 계속 만세 시위가 일어나 논산리에서도 시위에 대한 대의명분론(大義名分論)이 일어났다. 원래 이 마을에는 중심인물이 될만한 김주혁(金周赫)이 당시에 강원도청 주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시는 없었지만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온 천지가 만세 시위에 참가하는 형편이어서 당시의 구장 김주철(金周哲, 김주혁의 종형)은 고광화(高光華), 황명찬(黃明燦), 박명원(朴明元), 고을주(高乙柱) 등과 함께 주동하여 집집이 한 사람씩 동원하여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있던 대포리를 목적하여 큰 길로 나아갔다. 큰길인 부월리를 거쳐 대포리로 가기 위해 부월리에 이르렀을 때 이미 도천면 사무소 회계서기 김우규(金宇圭)가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김우규의 강력한 만류로 대포리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만세를 부르고 모두 해산하였다. 이 만세시위로 김주철, 고광화, 황명찬, 박명원, 고을주 등은 검거되어 양양경찰서에서 고초를 겪은 후 함흥 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김주철을 제외한 4명이 90대의 태형을 겪었다.[6] 태형을 겪은 4명은 이틀 동안을 가마에 엎드려 돌아왔고 집에서는 그 해 연중 구더기를 파내며 치료하였다고 한다.

6) 김주철은 당시 구장이었기에 다른 예로 보아 징역을 살터인데 다른 4명이 김주철은 관계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강릉지청에서 태형도 받지 않고 석방되어 이 마을의 미담으로 전해오고 있다.

4월 9일

양양 만세 운동의 마지막 날로서 가장 심한 참상인 소위 기사문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이 날 현북면의 군중은 장날을 이용하여 양양읍내로 가려고 하였지만 양양읍에 수비대가 주둔하여 인명피해가 많을 것을 예상한 김익제의 만류로 기사문리 경찰 주재소를 공격하기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하광정리에서 기사문리로 올라가는 길에 일본 군경은 시위 군중을 향하여 총격을 가했다. 이날 총격으로 9명이 피살되고 20여명이 부상하였다. 현북 면민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던 고개는 오늘날 만세고개로 불리어 온다.

양양지역의 만세운동은 4월 4일부터 연 6일간에 걸쳐 주민 6,000명이 참가한 전군민적인 만세운동으로 전국에서도 그 예가 드물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장기간 전개되었다. 4월 5일과 6일의 시위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감옥에서 고생하게 된 사람도 많았지만 잡혀가서 태형을 받은 이가 특히 많았

다. 시위 후에 도망하였다고 해도 경찰이 그들의 가족을 괴롭혔고 농사철인 관계로 할 수 없이 자수하여 태형을 받은 이도 적지 않았다. 중도문리 이종인, 이정렬(李貞烈), 이재환(李載煥)등은 자수하여 60대(2개월 자유형 몫)의 태형을 받았으며 당초부터 잡혀가 태형을 받은 이는 손꼽을 수 없다.

5일과 6일의 시위의 주동급으로 감옥살이를 한사람 중 도천면 사람은 다음과 같은데 이들은 모두 원산감옥에서 지냈다.

도천면
이능렬(李能烈, 도문리) 이종국(李鍾國, 도문리) 이춘재(李春在, 도문리)
김영경(金英經, 도문리) 김정식(金鼎式, 도문리) 이동렬(李東烈, 도문리)
이종순(李鍾純, 부월리) 박사집(朴士集, 대포리)

양양의 3·1운동이 타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초기의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제 군경의 무차별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무력 시위운동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후 항일 독립운동으로 계속 연결되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4.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사회 운동

가. 청년운동

3·1 운동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후 양양 지역의 사회운동은 점점 쇠퇴하여 갔다. 이러한 가운데 1923년 오룡영, 김대봉 등에 의해 물치 노농동맹이 조직되었다. 물치 노농동맹은 양양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것으로 당시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운동사에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운동에 큰 변화를 주었다. 즉 지식인 및 소부르주아지 중심의 민족운동이 피지배층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전면에는 청년층이 있었는데 양양에서도 농민운동의 시작과 함께 청년운동이 시작되었다. 청년운동은 오룡영이 주도하여 1925년 1월 11일 양양신청년동맹을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양양신청년동맹은 창립 이후 지역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양양의 다른 청년 조직인 호산청년회, 양양신청년회, 일혁청년회 등과 연합하였다. 새로이 조직된 양양청년동맹은 1927

넌 조선청년총동맹에 가입하여 전국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나. 농민조합운동

양양 지역의 농민운동은 1923년 물치노농동맹이 조직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합법 활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양 지역은 지주 경영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급자족적인 영세 소농 경영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대지주 투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야학의 설립과 외지 유학생들에 의한 신문화 유입, 원산과 가까운 지리적 요인 등은 농민운동에 점차 활기를 불어넣었다. 따라서 각 리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분회적 농민조합을 1927년 12월 군농조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의장으로 도천면 출신의 김병환, 부의장으로 오일영을 선출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1920년대 후반부터 허울 좋은 문화정치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노농운동 집회를 금지하고 운동가들을 구속하는 등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에 양양 농민조합은 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위하여 1931년 비합법적인 조직인 '혁명적 농조'로 전환하였다.

일제는 사회단체들을 엄중히 감시하면서 해산 구실을 찾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32년 3월경 야학생 격문 사건이 일어나자[7] 도내의 21개 경찰서에서 무장 경관대를 차출하여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쳤다. 그리하여 36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짧은 시간 안에 검거되었는데, 이 중 공판에 회부된 인원은 김병환 등 36명으로 이들은 4년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농민조합운동이 1931년 이후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민조합에 참여한 것은 현실생활의 타개, 토지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민조합운동은 일제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에서 전개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7) 야학생 격문이 면사무소, 농조 본부와 지부에 게시된 사건

다. 신간회

신간회는 민족통일전선의 일환으로 1927년 2월에 조직된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우파의 연합단체이다. 신간회의 설립 목적은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으로서 양양지역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될 정도로 군민의 기대가 컸다.

설립 후 신간회는 계몽운동의 전개와 생활 · 생존권 수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반일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8월 29일을 국치일로 정하고 이 날의 치욕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밥을 먹지 않고 죽을 먹기로 하는 등의 형태로 반일 감정을 확연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일제는 신간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사건이 대포공진소년회 회욕사건(大浦共進少年會悔辱事件)이다. 대포공진소년회 회욕사건이란 대포공립보통학교의 교장 田中이 1928년 1월 9일 공진소년회에 입회한 자신의 학교 학생 24명에게 "일한합방은 두 민족이 더 잘살기 위하여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여러 가지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대포에는 공진소년회라는 것이 있어 너희 24명이 입회하여 있은 즉, 오늘 전부 탈퇴하되 만약 탈퇴하지 않으면 주재소에 넘겨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이에 공진소년회에서는 모교사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양양청년동맹 소년부에 보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양양 청년동맹과 신간회 양양지회가 관여하게 되어 양양 지역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대립은 결국 일제의 방해를 심화시켰고 신간회의 활동도 비공식적인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1927년 말에서 1928년 초에 드러난 신간회의 조직상 결함으로 인해 창립 1주년이 되는 시기에도 구체적 활동 방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자연히 신간회의 활동 역시 이전의 사회단체들이 전개하여 왔던 것과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29년에 이르면 조직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에 의심이 들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신간회는 중앙에서부터 합법적 단체 성격의 한계와 여러 차례 주요 간부가 검거되면서 존립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양양에서는 1930년 4월 25일 제4회 정기대회를 열고 신간회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나 1931년 해소될 때까지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농민조합으로 넘기게 된다.

신간회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밑으로부터 성장해 온 민중운동을 규합하여 조직하고, 민족단일 전선을 이루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라. 어민운동

속초는 어업이 중요한 산업의 하나였다. 일제시대 속초의 항구는 대포리, 청초호 인근 속초리, 지명에서 없어진 속진리 지역, 외옹치(옹진) 등이 있었

으나 중심지는 대포항이었다. 대포항은 당시 일본인들이 거주하였으며, 일본, 원산 등 타 지역으로 운행하는 배의 기항지였기 때문에 차부조합도 조직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이 지역에서 어민운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1928년 1월 19일 조합원 34명으로 대포어민조합이 창립되었다. 어민운동 역시 사회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어민의 의식을 고취하는데 주력하였다. 1931년 6월 23일부터 온유박(鰮油粕) 가격 문제로 대포리와 물치리의 어선 70여 척과 100여 명이 파업을 감행하였다. 이들 중 40여 명은 경찰서에 몰려가 검속된 두 명의 검속 이유와 멸치 가격 협의회의 금지 이유, 조합문서를 압수한 이유 등 세 가지 문제를 질문하기도 하였다.

제2절 경제

1. 일제시대의 경제적 상황

가. 토지의 약탈

일제의 경제 침략 기본 정책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농토를 약탈하는 것이었다. 한국을 저희들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서 양곡만을 약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도 빼앗아 갔다. 토지조사사업은 1918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국토의 상당한 부분이 일본인의 손에 넘어갔으며 일본인 대지주를 양산시켰다.

총독부의 경우 광대한 국유지의 지주로서 군림하였는데 1930년의 통계에 의하면 소유한 토지와 임야의 면적이 880만 정보로 전국토의 40%에 해당하였다. 여기에 1920년대에 시작된 산미증식계획은 농촌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제시대 속초 지역민의 생활도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5%나 되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층이 상당히 많았다.

나. 도천면의 직업 분포

일제시대 도천면의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유입요인을 수산업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당시 농업 인구는 1925년 유업자의 67%, 1930년의 경우 유업자의 62%를 차지한다.

조선후기 읍지(邑誌)에는 현재의 노학동 지역에는 마을이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행정구역상 논산리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시대에 들어와 행정구역상 노리가 신설되어 습지대의 개발과 버덩의 개척으로 인해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되어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될 때 노리는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의 4동리로 나뉘어질 정도로 커졌다. 이것은 노리 쪽의 불모지가 농토로 개발되어짐을 의미하며, 인구가 유입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20년대 말 수산업 종사 인구는 유업자의 11~14%, 공업인구는 4%, 상업인구는 7~8%로 수산업인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농업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시대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 외지에서 이주한 농민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큰 항구였던 대포보다는 속초를 이주지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 표 2-6-1 〉 도천면 직업별 인구 현황

년도	총계	유업자		농업		수산업		공업		상업		교통업		공무, 자유업		가사 사용인		기타		무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①1925	5,862	5,845		3,941		1,112				434				107				251		17	
②1930	7,264	2,126	508	1,346	293	270	44	88	24	145	89	23	1	59	9	24	22	171	26	1,676	2,954

자료 : ①은『面勢一班』, ②는『조선국세조사보고』

다. 일본인의 직업분포

도천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상당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제시대 초기에는 양양군 관내에서도 가장 번화가였던 양양면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일제시대 후기로 올수록 속초 쪽을 거주지로 선호하게 된다.

1935년의 통계를 보면 도천면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양양군 전체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6-2 〉 일제시대 도천면의 외국인수

년도	일본인	중국인	기타
①1925	100		6
②1930	124(387)	27(98)	0(1)
②1935	244(557)	4(36)	

( )안은 양양군 전체 인원
자료 : ①은『面勢一班』, ②는『조선국세조사보고』

일본인들의 도천면 거주는 인구의 증가와 비례해서 1930~1935년의 5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속초가 양양군보다는 재산 형성에 유리한 요건을 갖췄고, 대포항과 더불어 일제 말기에 이루어진 속초항 개발이 일본과의 교통편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시대 초기에 속초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였다. 1925년 도천면에 거주한 일본인 20호 가운데 공무원 · 자유업은 4호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인 14가구가 상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와 자국 내에서의 물건수송이 편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 표 2-6-3 〉 1925년 도천면의 일본인 직업별 인구

직업 \ 호구	일 본 인	
	호 수	인 구
농업	2	8
어업, 제염업, 광공업	4	15
공무원, 자유업		
상업	14	55
계	20	78

자료 :『면세일반』

당시 신문 기사에서 “외국인의 상점 외에는 볼만한 것이 극히 희소”하다고 한 것을 보면 양양군 내에 거주하는 소수 일본인은 상당한 경제력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에 일본인 이주자의 농업 이민은 없었지만, 상업 등을 통하여 축적된 일본인의 자본은 토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일본인 지주를 양산해 내는 요인이 되었다.

라. 상업

1920년대 중반 속초에서 생산되던 물품은 삼베, 명주, 한지, 도자기, 기와, 어유, 깨기름, 농기구, 돗자리, 가마니, 누룩 등이었다. 하지만 생산력은 가내

수공업 수준이었다. 인구 또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시대 초기에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시장은 대포와 이웃하고 있는 물치시장이 근방의 상업 중심지로 상당히 번성하였다. 그러다가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속초항의 개발과 인구의 증가로 속초장이 속초면(현 영랑동)에 생겨 3일과 7일에 시장을 열었다. 주로 거래되는 물품은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이었고, 어물로는 문어, 심퉁이, 삼식이, 점복, 해삼 등이었는데, 주로 댐마라는 종선을 타고 작살로 잡은 고기가 주종이었다.

부족한 물품은 외지에서 들여오기도 하였다. 좁쌀은 만주와 북간도에서, 밀가루, 맥주, 과일, 간장, 성냥, 철물, 물감, 석유는 일본에서 수입하였고, 면포, 청주는 부산과 원산에서, 소금은 부산에서 메밀은 인제에서 들어왔다. 지역생산품이 다른 곳으로 팔리는 것도 있었다. 누에고치는 양양읍으로, 어비는 부산, 원산으로 해조류는 인제로, 생선, 목재는 포항, 원산으로, 절인 생선, 한지, 우피는 원산으로, 소는 홍천으로 팔려 나갔다.

점차 시장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가도 형성되었다. 상가의 위치는 전 동명동사무소가 자리한 곳부터 서남쪽으로 조성되었는데, 당시 유명한 상점으로는 徐慕賢(잡화상회), 요로쓰야(일본인, 전 동명동사무소자리 철물점), 찌가모도(일본인잡화상), 호리우찌(수복탑 건너편 자리, 일본인 잡화상회), 안와야(동명동336번지, 일본인 요정업) 등이 있었다.

마. 금융

상업 활동으로 축적된 자본은 금융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축수단으로 계를 선호하였다. 『면세일반』에는 창동산업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계원수는 84명이었고 자금은 1,500원이었다. 모아진 자금은 계원들에게 보증 대부를 하고 있는데 창동산업계의 경우 1,280원이 대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개인끼리의 금전 거래는 일본인이나 조선인 모두 동족끼리는 이자가 최고 5부, 최저 2부 5리, 보통 3부로 거래되었고,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거래는 최고 6부, 최저 2부 5리, 보통 4부로 거래되었다.

인구의 증가와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1927년 경 대포에 금융기관이 처음으로 들어섰다. 오늘날 농협의 전신인 금융조합이 생겼고 비슷한 시기에 어업조합도 생겼다. 1937년 도천면이 속초면으로 바뀔 때에는 속초면에 새로이 금융조합이 생기고 어업조합은 수산조합으로 명칭을 바꿔 옮겨왔다.

속초면의 금융기관으로는 수산조합속초지부, 속초어업조합, 농촌진흥회부인회, 대포금융조합이 있었다.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의 부의 정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일본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조선총독부의 지원 하에 짧은 시간에 대자본을 형성하여 갔다. 그들은 초기에는 상업을 통하여 재산을 형성하다가, 재산의 축적이 이루어진 후에는 대토지를 소유한 개인지주로 변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농업과 상업에서 조선인을 압도하였으며, 이런 모습은 저축액의 급격한 증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표 2-6-4 〉 1920년대 도천면의 저축 현황

구분	① 1925년(도천면)		② 1927년			
저축형태	우편저금		대포금융조합		양양금융조합	
국적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불입액	5,090원36전	912원50전	26,677원	15,510원	38,938원	102,817원

자료 : ①은 『면세일반』, ②는 동아일보, 1927. 9. 4일자.

1925년에서 1927년까지 3년간의 금융현황을 보면 조선인의 저축액은 5배정도 증가한데 반해, 일본인의 불입액은 무려 17배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기관이 다른 곳이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일본인들은 이주 초기보다 경제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산업

가. 농업

일제시대 산업현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흔하지 않다. 대정 15년(1926)에 발간된 도천면 『면세일반』은 1920년대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면세일반』에는 일본인들의 농업 이민에 대한 기록이 없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상업으로 축적된 자본은 1930년대 들어와 토지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소작관행』에는 양양지역 전체 일본인 개인 지주는 135명이고 일본인 회사가 경영하던 농장이 1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1920년대에 진행된 산미증식계획과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1930년대에는 일본인이 상당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가 증가하면서 소작쟁의가 빈번히 나타났고, 결국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큰 형태의 농민조합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되기도 한다.

1) 농업 현황

〈 표 2-6-5 〉 면세통계개람표(1925년)

종류 \ 단위 \ 동리	단위	장항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내물치	대포	외옹치	부월	논산	노리	속초	계
논	묘	58	4,832	7,338	1,605	583	3,211	1,331	4,270	9,431	13,225	8,213	54,097
밭	묘	2,368	7,716	11,407	3,456	522	2,465	840	4,044	4,494	5,547	2,966	32,050 (45,825)
쌀	두	34	3,851	6,372	1,278	421	931	2,555	3,656	7,612	10,383	9,465	46,558
조	두	410.0	587.0	798.2	285.5	98.5	425.7	139.9	658.5	684.4	1,046.4	542.6	5,676.7
보리	두	25.7	547.1	58.7	322.7	187.8	515.8	296.8	708.7	730.2	528.2	528.7	4,979.3 (4,450.4)
밀	두	7.5	144.7	136.0	91.0	43.2	114.0	92.4	149.0	251.0	172.1	182.0	1,382.9
콩	두	907	1,021	1,130	705	151	620	255	1,310	1,500	1,420	1,045	10,064
팥	두	101	135	101	80	30	59	39	136	95	159	72	1,007
누에고치	두	73	1,535	452	90	3	18		113	253	205	7	9,607 (2,749)
소	두	19	124	97	36	15	28	21	87	113	170		776
베	관		18	25					20	15	6,618		96
제지	원		420	596						450			1,466
수산	원					14,657	11,758	5,170				11,116	42,700 (42,701)

※ 동리별 합계가 맞지 않은 것이 있었으나 그대로 표기했고 실제 숫자를 ( ) 속에 표기했다.

당시 농업인구는 640호 3,941명이었다. 농업인구 중 일본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일본인의 농업이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5년 당시 조선인의 생활정도는 농업인구 1세대 당 소유 토지를 파악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당시 농가호수는 640호였는데, 호당 평균 소유 토지를 계산해보면 논 84.52묘(2,535평 정도), 밭은 71.60묘(2,148평 정도)였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한 세대당 약 73두 정도였다.

그렇다면 소유농토에 비해 생산량이 적다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의 생산력이나 품종을 미루어 볼 때 자료를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당시 농민들의 생활은 풍족한 편이 아니었을 것이다. 절대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더욱이 소량의 자작과 소작을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컸으리라 생각된다.

2) 주요 농산물

농업은 상업 작물의 재배라기보다는 자급자족적인 쌀, 콩 등 기초농산물의 재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주요농작물은 벼, 콩, 조 등으로 재배면적도 가장 많았다.

재배작물로는 논에서 벼, 찰벼가 재배되었고 밭에서는 보리, 밀, 콩, 팥, 조, 기장, 수수, 옥수수, 메밀, 감자를 재배하였다. 고구마는 <표2-6-6>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배되지 않았거나 아주 소량이었을 것 같다.

< 표 2-6-6 > 1925년의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종류	단위	벼	찰벼	보리	밀	콩	팥	녹두	조	기장	수수	옥수수	메밀
경작면적	묘	52,972	1,125	386	147	10.064	1,007	55	12,560	19	233	13	1,563
수확고	두	45,859	699	4,979.3	1,382.9	22,791	1,813	103	5,676.7	617	477	124	7,944
1반보 수확고	흡	768	568	1,578	371	219	175	188	443	320	399	375	508

자료 :『면세일반』

1925년은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쌀의 증산을 독려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쌀은 생산력 증가에 가장 힘쓰는 품목이었는데 이런 모습이 『면세일반』에도 보인다.

『면세일반』 자료에는 개량농작물이라고 해서 따로 기록된 부분이 있다. 개량농작물의 생산량은 재래종보다 수확량이 많았다. 따라서 농민들은 히노데라는 품종을 집중적으로 재배하였는데, 이런 현상은 일제가 얼마나 쌀수탈에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일제의 미곡 수탈은 국내의 식량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밀, 콩, 감자 등도 개량농산물을 보급하였다.

< 표 2-6-7 > 1925년 개량농작물 생산 현황

종류	단위	벼				밀	콩	감자
		히노데	오카야마	이세찡코	계	카리테루니야	금강태	금강산
경작면적	묘	22,800	2,395	3,085	28,280	4,048	285	91
수확고	두(斗)	24,899	2,045	3,617	30,561	19,508	176	3,266

자료:『면세일반』

3) 채소류

감자가 소채란에 기록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채소로는 무, 배추, 오이가 재배되었다. 개량농작물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벼, 밀, 콩, 감

자는 개량종이 권장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표 2-6-8 〉 1925년 채소류 수확 현황

종 류	단 위	감 자	무	배 추	오 이
경작면적	묘	6,431	5,186	1,401	246
수확고	관	48,900	577,333	172,049	9,487
1반보(反步)수확고	관	619.0	1,073.7	198.4	4,570

자료 : 『면세일반』

4) 축산

축산은 단연 소가 중심이었다. 소는 776마리로 농가 호수 640호보다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산술적 계산으로 한 집당 1마리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열악한 생산력과 소농이 대부분인 농촌상황을 고려해보면 한 집에 소 한 마리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인 농장이나 개인지주들 다수가 어떤 형태로든 축산업을 겸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외 닭과 돼지가 있었고 말, 노새, 나귀를 합쳐 7마리가 있어 짐을 운반하는데 사용되었다.

〈 표 2-6-9 〉 1925년 축산업 현황

종류	황소	암소	계	말	노새	나귀	돼지	닭
사육수	200	576	776	1	3	3	119	756

종모우	보 호 종 모 우		기 타 종 모 우		합 계	
鍾牡牛	두수	교배암소수	두수	교배암소수	두수	교배암소수
교배수	6	241			6	241

자료 : 『면세일반』

소는 보호 종모우가 6마리 있어 그것과 교배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배한 암소가 241마리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1년에 그 정도의 송아지가 태어난 셈이다. 당시 소는 홍천으로 이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속초에도 현 중앙동 서독약국 뒤편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쇠고기 통조림 공장이 세워져 외지에서 소를 사들였다고 한다. 이 공장은 해방 때까지 가동되었다.

5) 양잠업

양잠은 춘잠을 주로 했고 재래종보다 교배종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개람표에서 보면 양잠은 상도문, 중도문에서 많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 표 2-6-10 〉 1925년 양잠업 현황

상 전		구 별	사육수	잠종매수			산 잠 수		
종 류	면 적			재래종	교배종	계	재래종	교배종	계
재상전	1,587	춘 잠	152		195	195		780	780
산 전	1,685	하 잠	43	3	5	8	12	20	32
소 계	3,272	추 잠	4	2		2	8		8
합 계			199	5	200	205	20	800	820
잠종제조자		원잠종매수	잠종제조매수						
1		봄5, 가을4	2,000						

자료 :『면세일반』

6)양봉

양봉은 사육농가 2가구에 벌통이 3개였다는 것으로 보아 시작 단계인 것으로 생각된다.

〈 표 2-6-11 〉 1925년 양봉 현황

내용	사육호수	벌통수	꿀 생산액		밀납생산액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생산량	2	3	5	10.00	3	4.50

자료 :『면세일반』

7) 과수

과수로는 감, 포도, 복숭아, 사과, 밤, 배가 재배되고 있었다.

〈 표 2-6-12 〉 1925년 과수작황 현황

내 용	나 무 수						수 확 고					
품 명	감	포도	복숭아	사과	밤	배	감	포도	복숭아	사과	밤	배
수확고	78	70	1,120	672	12,780	12,670	150	4	567	2,784	5,609	300

자료 :『면세일반』

나. 어업

일찍부터 일본은 한국 해안을 침범하여 우리보다 5배의 어획고를 올렸다. 일제는 1910년 이후 일본 어민을 이주시켜 많은 자본과 총독부의 후원 하에 황금 어장을 독점하였다. 그리하여 빼앗긴 어업권의 회복과 수호를 위한 어업 분쟁이 전국 어장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1920~30년대의 전체 유업자 중에서 수산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14%였다. 그러나 『면세일반』에 기록된 어업상황에 의하면 어업 호수는 전업 호수만 323호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직업별 호구표에서 언급한 219호와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직업별 호구표의 계산으로 본다면 전체 호수 중 19%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어업 상황에 관한 기록의 323호를 계산해 보면 28%가 어업에 종사한 것이 된다. 하지만 어업 인구 총수로 볼 때 전체 호수의 19%가 어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획고에서 가장 많은 것은 명태와 볼락(목장어)이었다.

〈 표 2-6-13 〉 1925년 어업 상황

호 수		어선수	어획고	주 요 어 획 고(圓)							
전업	겸업			정어리	청어	명태	어화(魚花)	미역	어양(魚養)	어속(魚束)	목장어(目張魚)
323	23	100	58,746	1,485	2,115	29,389	150	2,128	70	12,325	29,689

자료 : 『면세일반』

1931년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켰을 때부터 정어리와 청어가 많이 잡혀 해안 곳곳에 정어리가 산더미같이 쌓였고 정어리기름 짜는 공장도 생겼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끝나갈 무렵부터는 정어리가 줄어들어 일본인 자신들도 일본이 패전할 징조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37년부터는 청초호 안에서 굴양식도 하였는데 8 · 15 해방 때까지 계속하다가 인공 때 없어졌다고 한다. 또 말기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수산물 통조림 공장도 있었다.

다케나가(竹中) 통조림 공장

1944년경 장전에 있던 다케나가(竹中)라는 일본인이 부월리에 있던 나가시마(中島) 공장을 사서 현재 시내 군부대가 있는 장소로 옮긴 것인데 꽁치, 고등어 등 어물 통조림을 생산하여 군수품으로 일선에 보내졌다. 해방이 되자 모든 시설물들이 어디론가 실려 갔다.

무라다(村田)공장

부월리에 있었는데 꽁치를 말려 케스리 부시(削節)를 만들어 부식품으로 군납했다.

하마다(濱田)공장

주로 어비(魚肥)와 어유(魚油)를 생산했다.

제3절 사회

1. 인구의 변동

인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대정 14년(1926)에 발간한『면세일반』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인『조선국세조사보고』가 있다. 이 두 자료를 보면 1925년 이후 20년 동안 속초의 인구는 배로 증가하였다.

『면세일반』에 기록되어 있는 1925년의 마을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6-14 〉 1925년의 마을별 인구[8)]

동리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남	여	총수
장항리	50	214					50	132	82	214
상도문리	129	741					129	380	361	741
중도문리	92	541					92	274	267	541
하도문리	27	174					27	95	79	174
내물치리	86	468					86	241	227	468
대포리	131	681	23	93	1	3	155	411	266	777
외옹치리	93	463					93	238	225	463
부월리	84	476					84	247	229	476
논산리	95	572					95	296	276	572
노리	119	735					119	378	357	735
속초리	187	1,051	2	7	1	3	189	548	510	1,058
계	1,093	6,116	25	100	2	6	1,119	3,240	2,979	6.219

자료 :『면세일반』

8) 속초리의 외국인 3명은 합계에서 제외되었다.

1925년 자료인『면세일반』에 의하면 호수는 1,120호(외국인 1호가 빠짐)이고 인구는 6,222명이었다. 당시 가장 큰 동리는 속초리였는데 속초리는 지역도 넓을 뿐만 아니라 속진리도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았다. 그 이외에 큰 마을은 상도문리, 대포리, 노리 등이다. 상도문리는 전통적으로 안정된 마을로 쌍천(도문천)을 끼고 있는 관계로 농업이 발달하였고, 대포리는 속초의 중심지였으며, 노리는 점차 외부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개발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면세일반』이 면에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지만, 또 하나의 자료인『조선국세조사보고』는 세금징수를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확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1925년 조사된 두 자료가 인구 총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사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9)]

〈 표 2-6-15 〉 일제시대 속초의 인구변화

단 위		세대수	인구총수	남	여	인구증감	1세대당 평균인원	성 비
①	1925	1,120	6,222				5.55	
②	1925	1,263	6,979	3,765	3,214		5.5	117.1
	1930	1,365	7,264	3,802	3,462	▲285	5.32	109.8
	1935	1,750	8,967	4,584	4,383	▲1,703	5.11	104.6
	1945	2,440	12,450	6,214	6,236	▲3,483	5.1	99.7

자료 : ①은『면세일반』, 1926. ②는『조선국세조사보고』

9)『조선국세조사보고』에서는 일시부재자를 빼고 일시현재자를 현재인구로 통계를 잡았으나.『면세일반』은 일시현재자와 일시부재자를 제외한 것 같다.

①의 자료는 현재까지 속초시의 귀중한 인구 자료로 활용되었고, ②의 자료는 세금을 징수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어 왔다. 비교가 가능한 ②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20년 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45년이 되면 20년 전보다 인구가 배가 되며 특히 1930년 이후 인구의 유입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

둘째, 세대당 평균 가족수가 줄어들고 있다.

셋째,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인 성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징병, 징용, 학도병 징집에 의한 결과이다.

넷째, 속초의 인구가 10,000명을 통과하는 선은 1943년이다.

『조선국세조사자료』를 보면 1926년에서 1930년의 5년간 285명이 증가하고 있고, 1931년부터 1945년까지는 매년 340~350명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1930년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5년 동안 285명이 증가한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속초리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인데, 정확히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제말 속초항이 개발되었다는 점과 양양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속초에 개발되지 않은 농토가 많음으로 인해 외부의 유입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해 일본인들이 대지주로 등장하는 시기에 양양군내의 소작농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척지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 표 2-6-16 〉 1930년 도천면민 출생지별 인구

인구총수	도 내 생		타도생	외국에서 출생
	도천면생	타면생		
7,264	4,345	2,253	559	107

자료 :『조선국세조사보고』

이러한 이유로 유입된 인구는 1930년의 총인구 7,264명 중에서 2,919명이나 되었다. 이는 당시 인구의 40%가 유입되었음을 보여주며, 이주민이 자연증가보다도 훨씬 많았음을 말해준다.

1940년대 초반까지 유입인구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하였다. 수산업에 종사한 인구는 1925년에 전체호수의 19%, 1930년의 경우 직업이 있는 인구의 16%에 해당된다. 이러한 통계치는 수산업이 인구의 유입원인이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인구의 유입 원인은 농업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으로의 이동이었다. 이에 따라 유입인구에 의해 노리의 습지가 개발되고, 그 뒤쪽에 있는 산악지대도 차차 개발되어 마을을 형성하였다.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양양 관내에서의 수평이동으로 전체 이주민의 약 77%를 차지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온 식구가 이주한 것보다는 가족의 일부가 옮겨온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인구와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1세대당 가족수는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토착민의 가족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주민이 이주할 때부터 적은 가족수를 유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931년 이후 1945년까지의 인구 유입은 매년 340~350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수를 계산해보면 1943년 드디어 속초의 10,000명 시대를 맞이한다. 10,000명은 도시로서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숫자인데, 만일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징병, 징용, 학도병 징집이 없었다면 더 일찍 10,000명 선을 돌파했을 것이다.

2. 우편소의 설치

『강원도지』에 보면 속초지역의 우편소는 대포우편소와 물치우편소가 도천면에 있었다. 우편의 전달시간은 서울과 양양간 2일내지 3일이었다. 우편소는 체신국의 허가를 받아 군청소재지에 설치하였고 이어 주요 면에까지 설치되어 우편 · 전신 · 전화 · 송금 · 저금 · 보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면세일반』에 우편저금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일제강점기 초기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교통

도로로는 원산 · 양양선과 인제 · 대포선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도로는 1등에서 4등까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원산 · 양양선은 2등 도로, 인제 · 대포선은 3등 도로였다. 2등, 3등 도로라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었다. 당시 교통수단으로 짐수레 8대, 소달구지 11대, 자전거 56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후기에는 동해안을 따라 버스가 통행되었다. 원산 · 양양선은 청호동의 갯배 도선장을 통과했다. 현 도로인 청초호 서편 우회도로는 1939년 착공하여 1940년 준공되었다. 인제 · 대포선은 미시령을 통과했고 당시는 현재와는 달리 부월리에서 원산 · 양양선과 연결되었다.

철도인 동해북부선은 1937년 12월 1일 안변에서 양양까지 개통되어 운행되었다. 기차역은 부월리와 동명동에 있었다.

해운에 있어서는 일본 큐슈(九州) 모지항에서 출발하여 함경북도 웅기까지 가는 우편 선박이 매달 대포를 거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종교 및 사회단체

『면세일반』에는 당시 종교로 불교, 천주교, 감리교가 기록되어 있다. 불교는 사찰 4개소에 남자승 34명, 여승 6명, 합계 40명이며 천주교는 포교소 1개소에 신도 145명, 기독교는 1925년 당시는 감리교회만 4곳에 신도 14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회개량단체로는 흥봉회(興鳳會), 산업장려회, 단주회(斷酒會), 영농계, 양림계(養林契), 보상계, 번영회 등이 있었다.

보건 위생으로는 의사 1명, 약종상 1명, 적십자사 정사원 10명, 애국부인회 통상회원 1명, 공동변소 1곳, 공동묘지 8곳이 기록되어 있다.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함께 192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1930년 신문에는 양양군청년동맹도천면지부, 신간회양양지회도천면분회, 양양군소년연맹도천면소년회, 대포노동조합, 대포어민조합이 있어 10월 30일 5개 단체 합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토의 내용을 보면 1920년대 후반부터 농조에 대한 탄압의 강화와 관련되어 각 단체의 해산구실을 찾고 있을 때이므로 각 단체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된다.

제4절 문화

1. 학교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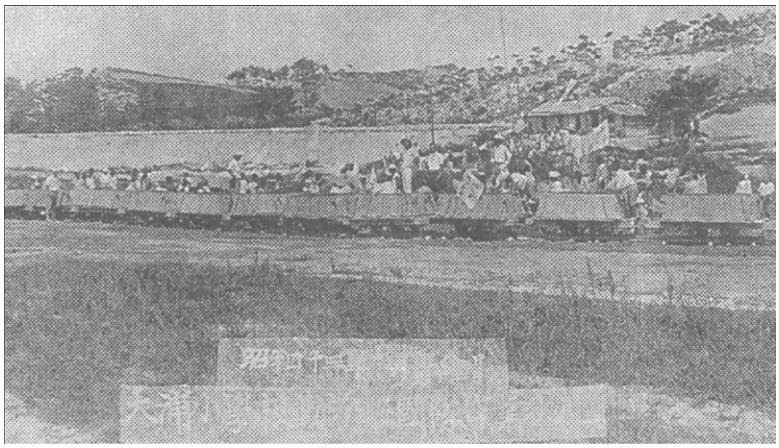
속초에서의 최초 공교육기관은 일제시대 1면 1교정책에 의해 1919년 설립된 대포공립학교가 그 효시이다.[10] 근대 교육기관으로 최초인 이 학교는 개교당시 4년제 2학급과 강습소 1학급으로 편성되었으며 1923년 6년제로 승격되었고 1936년 대포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3년 후인 1939년 국민학교령에 의해 대포국민학교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한편 도천면 소재지가 속초리로 옮겨지고 속초면으로 승격되는 등 속초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 되자 1937년 영랑공립심상소학교가 두 번째로 설립되었다.

〈 표 2-6-17 〉 일제후기 속초지역 초등교육기관

학교명	수업연한	학급수	학생수	재학생국적
대포국민학교	6년	8	약 580명	한국인
영랑심상소학교	6년	7	약 500명	한국인
설악심상소학교	6년	3	50~60명	일본인
주봉학교 (대포국민학교 부설 야간학교)	2년	1	약 60명	한국인

10) 총독부는 한국인 회유 정책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1919년 3면1교 정책을 추진하였고, 1929년에는 1면1교 정책, 다시 1면 3교 정책을 추진하여 초등교육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일제후기에 오면 전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군수물자와 각종 물자의 생산에 학생들을 동원하였다. 학교는 '근로즉교육(勤勞卽敎育)'이라는 표어 아래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외시한 채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한국의 각급 학교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일에 동원되었으며 학교는 병영화되어 갔다.



〈 사진 2-6-1 〉 1938년 대포소학교 근로보급대 작업광경

공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전에는 양양군 지역의 교육 기관을 이용하거나 서당 등 개인 교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인구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면 학령 아동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별도의 교육 기관 설립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규보통교육기관인 대포공립학교가 세워진 후에도 한동안 서당 교육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속초에서의 최초 개량서숙은 청대리에 장성헌(張聖軒)이 설립한 청대서숙(靑垈書塾)으로 설립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서숙은 대포 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도 4~4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였을 정도의 규모였으며, 학생들은 기혼자에서부터 7~8세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연령 격차가 심했다고 한다. 청대 서숙은 대포 학교의 영향으로 학생이 줄어 경영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들의 집으로 전전하면서 명맥을 유지하였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시대의 변천에 따라 폐쇄되었는데 이때 서숙의 명칭은 청호서숙(靑湖書塾)이었다.

해방 이전 이 고장의 서당 훈장들은 도리원 이교민(李敎民), 상도문리 오윤환(吳潤煥), 오각환(吳珏煥), 온정리 진동규(陳東奎), 장천리 엄내영(嚴乃泳), 엄주익(嚴柱益), 척산리 차명균(車明均), 논산리 장원섭(張元燮) 등이다.

서당은 조선교육령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가 엄금하고 있던 조선역사, 조선지리를 비롯해 청소년들에게 항일민족교육을 교수한 곳도 있었다. 서당이 민족교육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자, 일제는 1918년 서당규칙을 발표하여 서당에서 교수하던 『동몽선습』을 제외시켜 조선역사 교육을 금지하고 서당을 탄압하였다.

서당에도 갈 수 없는 서민들은 야학을 찾아갔다. 선구적 지식인 · 노동단체들이 운영한 야학에서도 노동자, 농민, 상인 등 기층민과 그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우리 역사, 지리 등을 가르쳤다.

2. 민속

일제시대의 도내에서 전통적인 민속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마을의 전형이 외옹치이다. 외옹치나 내옹진이었던 대포나 모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대포 서낭제, 외옹치 서낭제, 외옹치 장승제 등의 동제가 행해졌다.

3. 문학

일제시대에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문학 작품이 많지 않다. 다만 1916년 당시의 유학자 정송리(鄭松里)가 관동지방 경학 강연차 왔다가 이곳 유림들과 같이 설악에서 놀고 그때 동행했던 양양 지방 유림들이 비선대에서 지은 글을 모아 『설악아집(雪嶽雅集)』이란 책을 펴내었는데 그 책에 실린 몇 수의 시조가 있다. 또한 오윤환 선생의 문집과 그가 1934년에 건립한 상도문의 학무정에 시 몇 수가 있으며 일부가 번역 되었다.

제7장 현대(現代)

제1절 공산(共産)치하

1. 8 · 15 광복과 분단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의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자주 독립 국가의 재건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 통치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하였으므로, 해방된 민족을 조직하고 영도할 만한 핵심체가 없었다. 따라서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되어 혼란만을 가져왔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미(美) · 소(蘇) 양군이 남북으로 각각 진주하였다. 미 · 소 양군은 북위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하였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속초 지역은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 · 소 양군은 점령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군정 하에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조만식(曺晩植) 등 민족주의자를 축출하여 공산독재정치를 실시하였다.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동안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 하에 공산 정권이 만들어졌다. 1947년 2월에 조직된 이른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그 것이다. 이들은 토지개혁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정책을 감행하였다.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2. 북한 정권의 수립

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련군정의 대행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북조선 임시 위원회는 사실상 정부 구실을 하였으며, 공산주의 방식으로 사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른바 '민주개혁'을 수행하였다.

1) 토지개혁

북한 당국이 수행한 '민주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토지 개혁이었다. 해방 직전에 북한의 토지는 일본인과 소수의 지주들이 주로 차지하였고, 전체 농가의 3/4에 이르는 농민들이 소작농이거나 자작 · 소작 겸업농이었다. 북한 당국은 무상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넓은 대중적지지 기반을 구축하였다.

1945년 3월 5일 공포한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일본인 소유 토지 및 대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권을 농민에게 돌려준다.
제2조 몰수되어 농민 소유로 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가, 일본인 단체 및 일본인 소유의 토지
나. 민족 반역자, 일제에 협력한 자의 토지
다. 3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의 토지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여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가. 3정보 이상을 소유하여 자경하였더라도 3정보를 초과하는 분은 몰수한다.
나. 자경하지 않고 소작을 준 토지는 몰수한다.
다. 3정보 이상을 소유한 성당, 승원 및 기타 종교단체 소유 토지
제4조 제2, 3조에 의거 몰수한 토지는 전부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한다.

1946년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행된 토지개혁은 북한 지역을 경제 · 사회적으로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들은 거주지에서 군 경계를 벗어난 40㎞밖의 다른 지방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토지를 몰수당하고 강제 이주되어 생활터전을 빼앗긴 지주들 대부분은 월남하였다.

속초에서는 공산당 면세포 위원장이 주관하여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김철규(김원진 부친), 박영식 등 지주들이 토지를 몰수당하고 추방되기도 하였다.

2) 산업 국유화

1946년 8월 10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산업국유화법을 제정하여 일본인 소유의 산업시설과 주요 산업 시설의 90%에 해당하는 1,032개를 국유화하였다.

속초에는 한국인 소유의 산업체는 없고 일본인이 운영하던 해산물가공공장과 일본인 소유의 군수공장인 쇠고기 통조림 공장이 있었는데 이들도 당연히 국유화되었다.

기업체를 몰수당한 기업인들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던 악덕 자본가로,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는 농민의 피와 땀을 먹는 흡혈기생지주라고 매도당하였다.

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1947년 2월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에서는 1947년 12월 1일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내용은 당시 유통되고 있던 조선은행권을 인민화폐로 교환하는 것으로 1인당 700만원씩만 교환하여 주고 나머지는 추후에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은행에 예치시켰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조선은행권이 남한에서는 계속 통용되고 있었으므로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익단체 공작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8년 남한에서 5 · 10 총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자,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국최)를 구성하였다. 이와함께 남한과 북한에 각각 별도의 정부가 수립됨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 통일 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채 이후 남북의 이념 대립을 가져왔다.

3. 반공투쟁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한 미 · 소 양군은 점령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소련군의 점령 하에 들어간 속초지역은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토지개혁을 위시한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반공인사들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반공 계몽활동이 시작되었다. 반공투쟁의 지하조직이 결성되고, 공산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무장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날로 심해져 가는 열성 공산당원들의 감시와 탄압 아래 때로는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남으로 탈출하기도 하여 반공투쟁을 계속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과 90인 사건,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 전투이다.

가.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束草 愛國 同志會 事件)

속초 애국 동지회는 속초에 거주하던 고재덕(高在德)을 중심으로 김종한(金琮漢), 김근진(金近鎭), 김흥종(金興宗), 김종호(金鍾昊), 김태영(金兌泳), 김갑수(金甲壽), 이종석(李鍾奭), 장현중(張鉉重), 박지석(朴智石) 등

10명이 조직한 반공 애국단체였다.

이들은 소련 점령군의 약탈과 북한 공산당의 횡포에 못이겨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자는 각오로 지하조직망을 통하여 동지를 규합하였다. 이들은 1946년 2월 18일 거사를 모의하다가 비밀이 누설되어, 다음날인 2월 19일 모두 체포되었다. 처음에는 양양내무서(지금의 경찰서)로 끌려가 취조를 받다가 곧 소련 점령군 콘드라지비쿠(政治保衛部)로 넘겨졌다. 증언에 의하면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고, 송곳으로 몸을 찔러 잠을 못 자게하고, 자루를 대로 만든 망치로 쳐서 정신을 잃게 하는 고문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의 성격을 두고 소련 점령군과 인공(人共)의 관할권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이 반소(反蘇)사건이라면 소련군이 취급하여야 하고, 반공이라면 인공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문제를 놓고 한 달 동안이나 끌다가 결국은 반공으로 낙착되어 소련군이 손을 떼고 인공으로 넘겨졌다. 그리하여 김종호, 김태영, 이종석, 장현중 등은 양양 내무서에 이감되고, 고재덕, 김근진, 김홍종, 김종한 등은 주동자라고 하여 1946년 3월 15일 원산보안서로 송치되었다가 4월 5일 다시 원산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10인 중 가담 정도가 약한 김갑수, 박지석은 수감 10일 만에 풀려났다.

고재덕은 주모자라 하여 사형 언도자들만 있던 독방에 있게 하였다. 그런데 마침 고재덕의 매형되는 노재용이 강원도 검찰소장으로 있어서 백방으로 힘써 준 덕택으로 1946년 6월 19일 기각으로 풀려났다.

나. 90인 사건

90인 사건은 해방 후 일본인이 물러간 뒤 그들이 살던 적산(敵産)가옥 처리에 있어서 공산당 요인들만 차지한데서 사건이 기인되었다고 한다. 김환기(金奐基), 박상희(朴祥喜), 강래병(姜來秉), 김용기(金鎔基), 김문수(金紋洙), 김인용(金麟龍) 등 9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하룻밤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하룻밤만 고초를 겪고 풀려났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다고 한다. 주동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어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다.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 전투

호림(虎林)부대 사건으로 불려진 이 사건은 국군과 서북청년단이 유격대를 조직한 다음 1949년 6월 29일에 설악산 및 금강산 줄기를 타고 들어가

원산 남방 안변 지구까지 침투한 일이었다. 대부분 월남한 반공 청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8 · 15 해방 이후부터 주문진을 중심으로 동해안 38선 접경에서 대북 첩보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1949년 육군 정보국 소속 하에 육군 호림 부대로 통합되어 120명의 특수 요원으로 편성되었다. 호림 부대의 작전 임무는 38선 이북 지역에 침투하여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함으로써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것이었다.

호림부대의 구체적 임무를 보면

1. 호림유격대 제5, 6대대는 북한의 남침 계획을 사전에 분쇄할 목적으로 38선 이북에 침투하여 전반적인 유격전을 전개한다.
2. 북한지역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애국 지하조직을 정비 확장하는 동시에 산발적인 인민 봉기를 일으킨다.
3. 소련에서 북한에 수송될 군사장비 수송의 요충지인 양덕(陽德)~고원(高原) 간의 터널 20여개소를 파괴하고, 중요 수송로인 평원선(평양~원산)일대를 장악하며 이를 마비시킨다.
4. 38선에서 39선에 배치된 북한군을 유격전으로 분산 소모시킨다.
5. 제 5대대는 설악산과 향로봉을 따라 북상하고, 제6대대는 그 왼쪽방향 서화리 계곡을 따라 북상하여 7월 말경 양덕에서 합류하고, 이어서 맹산(孟山)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행동한다.

호림 부대는 1949년 6월 29일 38선을 돌파하여 멸공유격전을 개시하였다. 그 중 호림 5대대가 7월 1일 봉정암에서 철수하여 대청봉에서 화채봉까지를 본거지로 삼고 양양 지구의 반공청년들과 연락을 취하며 유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식량 등의 군수 물자 보급은 현지 반공 청년들의 지원을 받았다. 7월 8일 강현면 상복리에 진입하여 반공 청년 김종모(金鍾模)와 김정배(金正培)의 집에 4일 간씩 머물면서 작전을 구상하던 중, 김정배의 조카딸이 열성 공산주의자였던 남편 이종구에게 밀고함으로써 발각되었다.

호림 부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민군과 상복리 핏골(현재의 설악동 C지구)에서 정면으로 교전하였다.

호림부대는 이 전투에서 북한 보안대원 6명과 열성당원 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많은 청년대원들이 전사하였다.

이 전투로 상복리, 중복리, 하복리의 양민의 피해도 자못 컸다. 마을 사람들은 식량을 제공하고 정보를 탐지하면서 호림 부대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들 반공청년들은 기밀연락, 식량제공 운반 등의 반동죄로 체포, 투옥되었다가,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진격할 때 후퇴하던 인민군에 의하여 총살당하였다.

호림 5대대는 핏골전투를 마치고 계속 북상하여, 9일에는 신선봉(神仙峰)

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추격해오던 적 1개 소대를 맞아 6명을 사살하고 퇴각시켰다. 12일에는 마산(馬山)으로 이동하여 재추격하던 적 1개 소대를 맞아 8명을 사살하였다. 13일에는 진부령으로 향하던 중 인제~간성 도로상에서 인민군 트럭 1대를 공격하여 6~7명의 폭사시켰으며, 15일에는 삼치령(三峙嶺)에 이르러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적진을 기습하여 48명을 사살하고 장총 38정, 다발총 6정, 경기관총 2정, 슈류탄 수십발, 실탄 수천발, 기타 식량 등을 노획하였다.

그 후 호림 5대대는 삼치령에서 금강산의 산맥 지류를 따라 계속 북상하여, 밧무재 고개를 거쳐 내금강 국토봉의 삼각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인민군 정규 사단의 포위 공격을 받아 백(白)대장을 포함한 많은 대원이 전사하였다. 100여 명의 전사자를 뒤로 한 채 20여 명의 대원은 1개월 동안 이북 화전민들의 도움을 받아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탈출하여 생환하였다.

한편 호림 제6대대는 7월 1일 봉정암에서 제5대대와 작별한 후 내설악 외가평(外加平)으로 진격하여, 4일에는 백담사에 거주하던 20여 명의 공산당원을 체포하였고, 용대리 내무분주소를 습격하여 내무서원 3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민군은 2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인제 일대를 공격하여 왔다. 7월 7일 호림 제6대대는 가마골에서 적의 포위 공격을 받아 대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전사자를 냈다.

낙오한 부상병은 적이 가마골로 몰려 들어오자 죽어가면서까지 TNT를 폭발시켜 수백 명의 적을 폭사시켰으며, 생존자들은 2~3명씩 분산되어 계속 각처에 출몰하면서 적을 교란시켰다. 제6대대 대원들은 겨우 7~8명만이 그해 9월 말경 생환하였고, 나머지 대원들은 이북 지역의 산악지대에 아지트를 마련하여 전쟁 당시까지 유격전을 감행하였다.

한편 유격전을 펼치다가 생포된 40여 명의 호림부대 대원은 평양 최고재판소에서 북한 고위 간부급 및 각처 지도 계층이 동원되어 참관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았는데, 호림부대 강모 중위는 의연히 북한 재판부에 대항하여 일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후 강중위를 비롯한 6명의 호림부대 간부급은 모란봉에서 김일성이 참관한 가운데 총살형을 당하였다. 호림부대가 북한에 침투함으로써 공산당은 막대한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

인민군은 1949년 6월 호림부대와 교전함으로써 후방이 크게 교란되었다. 이와 같이 험준한 산악을 따라 38선을 넘어 적 후방에 침투하여 유격전을 전개한 호림유격대의 활동은 다른 지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반공투쟁이었다.

제2절 한국전쟁과 속초의 수복

1. 한국전쟁의 발발

가. 북한 정권의 남침 준비

남북한 군대의 무력충돌은 1949년 가을 이후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는 북한이 전면남침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몰두했기 때문이었다. 1949년 9월부터 38선 이북 강원도 인민위원회 주도로 남침을 위한 각종 도로와 교량의 신설 및 수리 작업이 착착 진행되었다. 또한 6월 14일에는 북한 인민군 제3사단이 철원에 도착하였고, 함흥에 주둔하던 제2사단 또한 춘천의 바로 코앞인 화천에 6월 17일까지 도착하여 전투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38선 이북 지역의 강원도 토박이 주민들은 대거 소개(疏開)되었다. 이렇듯 강원도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 훨씬 이전부터 사실상의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나. 개전 초기의 속초

전쟁 준비를 끝마친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38도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7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수개의 특수 독립연대로 구성된 총병력 11만 1천명과 1,610문의 각종 포, 그리고 280여대의 전차 및 자주포를 앞세워 쳐들어 왔다.

그 중 제5사단으로 하여금 동해안의 국군 전선을 돌파하게 하고, 유격부대인 제766부대 및 육전대인 제549부대로 하여금 후방에 상륙하여 해안선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속초는 동해안의 국군 전선 돌파를 명령받은 인민군 제5사단의 진격코스가 되었고, 개전 초기에는 접전지역이 아닌 인민군의 후방 보급 루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공군 출신 한국인으로 편성된 제5사단을 6월 22일 기차편으로 함경북도 나남을 출발하여 원산, 속초를 거쳐 양양으로 이동하여 동해안 일대에 배치되었다. 육전대인 제549부대는 속초에 대기하고 있다가 명주군 강동면 정동진과 삼척군 원덕면 임원진으로 상륙하였다.

6월 8일을 기해 북한 전역의 철도는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특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여행이 금지되었다. 6월 8일부터는 38선을 향하여 남하하는 열차가 줄을 이었고, 열차에는 군인, 전차, 포, 차량, 마차 등이 실려 있었다. 도로도 자동차 부대로 메워졌다.

전쟁이 시작되자 병력과 장비가 모자라는 국군은 부득이 낙동강을 저항선으로 하는 지점까지 후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원조할 것을 결정하였다. 유엔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미국 등 16개국의 군대가 참전하여 유엔의 깃발 아래 국군과 협동작전을 시작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뒤이어 9월 28일에는 서울이 탈환되었다. 10월 1일에는 38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계속하였으며, 동해안으로는 청진까지, 중부에서는 초산 및 혜산진의 압록강까지, 서부에서는 선천까지 도달하였다.

38선을 넘은 국군과 유엔군에 의하여 북한 지역이 점차 수복되어갔다. 이에 속초를 비롯한 이북 지역의 주민들은 두 번째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 인민군 입대를 피하여 땅굴을 파고 숨어 지내던 사람, 천장위에 숨었던 젊은이, 산 속 깊숙이 숨어들어가 지내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덥수룩한 수염에 창백한 얼굴의 젊은이들은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고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

수복후 행정의 공백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은 치안대를 조직하여 마을의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의 정상화에 노력하였다.

다. 1 · 4 후퇴 – 500만 피난민의 대이동

1950년 10월에 접어들면서 중공군 참전설이 나돌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주민들의 실망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전투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린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였다.

그해 11월 26일 중공군의 제 2차 공세가 시작되었을 때 네드 아먼드 장군이 지휘하는 미 제10군단은 한국의 동북부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었다. 당시 동해안을 따라 진격하던 한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과 3사단도 한 · 만 국경인 회령(會寧)과 무산(茂山)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11월 26일 중공군은 서부전선에서 맹공을 가해 워커장군의 미 제8군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에 맥아더 원수는 10군단 막하의 미 제1해병사단에 서북방으로의 진격을 명령하여 8군에 대한 적의 중압을 덜어 보려고 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12개 사단을 가지고 27일에는 동 · 북부의 제10군단에 대해서도 맹공을 가해왔다. 특히 미 해병 사단에 대해서는 6개 사단의 중공군이 포위공격을 가해 옴으로써 미 해병 사단은 8군을 지원하기는 고사하고 해병대 자신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부득이 맥아더 원수는 11월 30일 8군과 함께 10군단에 대해서도 총 후퇴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8군은

육로로 후퇴할 수 있지만 10군단의 10만 5천 병력은 지형 상으로 해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1950년 12월 하순에 단행된 흥남 철수 작전에는 국군이 군수송선 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 선박까지 동원하여 전투 병력뿐 아니라 전투 병력의 수에 버금가는 피난민 약 10만 명도 수송하였다. 12개 사단의 중공군의 가중된 압력을 받으면서 많은 병력과 장비를 큰 피해 없이 적전에서 무사히 철수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때 청진으로부터 1만 4천 명, 흥남으로부터 10만여 명의 피난민이 군 수송선이나 동원된 민간선박을 타고 월남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후퇴로 1951년 1월 4일 서울은 다시 북한군의 수중에 넘어갔다. 이때 서울 시민들도 대거 남쪽으로 피난하였다. 이들 피난민 행렬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평택 · 오산 지방까지 후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총공세를 단행하여 70여 일 만에 수도 서울을 재수복하고, 3월 말에는 38도선 부근에 이르렀다.

라. 설악산지구 전투

38선을 넘어 북진을 계속한 국군과 유엔군은 동해안에서는 청진까지, 중부에서는 압록강 연안 도시인 초산과 혜산진까지, 그리고 서부전선에서는 선천까지 북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11월에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다. 1950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걸쳐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다시 넘어 평택~안성~삼척 선까지 후퇴했다. 전열을 가다듬은 국군과 유엔군은 3월에는 38선 이남을 다시 탈환하고, 4월초 38선 이북의 캔사스~와이오밍 선까지 진출한 뒤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공산군은 교착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1951년과 4월과 5월에 걸쳐 대공세를 취해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 120만 명이 맞붙은 대결전이 있었다. 이것을 공산군의 춘계대공세라고 한다.

공산군은 되도록 접전을 피하면서 대병력을 집결시켜 특정 지역을 집중 공격하였다. 1차 공세는 4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7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킨 중공군은 아직 수적으로 우세했다. 중공군의 대공세는 대략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중부 전선에서의 공방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철원을 10마일 앞둔 임진강 연안에서 서울을 빼앗느냐 빼앗기느냐를 가름하는 싸움이었다. 두 곳에서 모두 적은 막대한 피해만 입고 퇴

각하고 말았다. 1951년 5월 16일에서 22일에 걸치는 중공군의 제2차 공세는 춘천, 홍천, 인제의 세 지역을 관류하는 소양강을 사이에 두고 벌어졌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소양강 전투라고도 부른다. 중공군은 2개 군단 병력을 집중 투입하여 대공세를 취했고, 우리 측은 결사적으로 이에 대항하여 적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 결국 공산군은 무력으로는 더 이상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6월 23일 말리크 유엔 주재 소련대사를 통해 휴전을 제의하게 되었다.

국군 수도사단은 중공군의 제2차 공세 때, 설악산지구 전투와 대관령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수도사단은 1951년 5월 설악산지구 전투에서 북한 대남 유격대 총사령관 길원팔 등 북한 고급간부 13명을 생포하고 적 1,700여명을 사살하였다. 1951년 5월 대관령지구 전투에서도 강릉 탈취를 목표로 평창으로부터 공격해 온 중공군과 인민군에 대항하여 혈전을 감행하여 적 1,357명을 사살함으로써 이른바 '대관령의 대승'을 기록하였다.

공산군의 춘계대공세 이후 양측은 휴전회담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전선은 현재의 휴전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휴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휴전선에 인접한 고성군 지역에서는 향로봉전투, 건봉산전투, 월비산전투, 제351전투, 현내지구전투 등이 벌어졌다.

마. 5용사의 활약

1951년 7월부터 개성과 판문점에서는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전선에서는 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전선에서의 전투와 동시에, 후방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비들이 잔악한 살상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산속에 근거를 둔 공비들의 활동은 1950년 말에서 1951년 봄에 걸친 강력한 토벌로 그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에 북한은 금강정치학원을 설치하여 공비를 양성하여 1952년부터 수백 명의 공비를 남파시켰다. 속초지역에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비들이 밤이면 마을까지 내려와 양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1952년 10월 영랑호 부근에서 5용사가 공비들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5용사는 이북에서 인민군에 의해 부모형제가 살해되고 재산을 수탈당한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공비를 격멸하기 위하여 영랑호 근처에 이르러 공비들과 접전하여 20여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납치됐던 양민들을 구하였다.

곧 이어 포위 공격해 오는 대부대의 공비들을 맞아 혈전을 감행하여 40여명의 공비를 사살하는 전과와 함께 그들도 영랑호반에 잠들었다. 5용사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김덕범(함경북도) 지창하(함경북도) 이기구(함경남도),
김병선(평안북도) 김화수(평안남도)

속초 주민들은 5용사의 무덤을 영랑호 동남쪽, 보광사 남쪽 언덕에 만들었다. 그 후 이를 기리기 위해 1961년 8월 15일 순국 5용사 추모비를 세웠다. 비문에는 '1952년 10월 22일 영랑호반에서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반공 전선에 목숨을 바친 다섯 용사가 여기에 잠들었으니, 그 충의야말로 천추에 빛나리'라고 적혀있다. 속초시민들은 매년 10월에 5용사의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반공정신을 추모하였고 벌초는 속초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당했었다. 1981년 4월 5일 유골을 화장하여 보광사에 봉안하였다.

바. 동해안의 유격전

1951년 여름부터 1953년 7월 휴전 때까지 속초를 중심으로 유격대가 조직되어 활동하여 정규군 못지않은 훌륭한 전과를 올렸다. 유격부대들은 적의 해안도서나 후방 깊숙이 기습 상륙하여 보급로를 끊는 활약으로 적으로 하여금 전방 병력을 해안경비에 빼돌리게 함으로 정규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뿐 아니라 전선이 교착되면서 부터는 설악산지구에서 암약하는 공비토벌에도 참가하여 치안질서를 바로잡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안 각지에서 활약한 유격부대는 '아벤리부대'(부대장 황호, 본명 전원강) '스톰부대'(부대장 박진효), '커크랜드 부대'(부대장 전덕상)의 세 부대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미국 극동사령부 심리작전처에서 직접 관장하게 되면서 통합되어 현지 사령부를 서울 운현궁에 두고 활동하였다. 주요 작전은 적의 후방 연안 섬인 송도(松島), 난도, 양도, 여도나 통천 금란 지구, 고성 남강 지구등 후방에 기습 상륙하여 보급로를 끊고 막대한 피해를 준 것과 설악산 공비 토벌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고도의 기동성을 십분 발휘하여 주로 기습 상륙 작전을 벌여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세 부대 중에서 제일 먼저 창설된 것이 커크랜드 부대이다. 1951년 2월 4일 창설된 이 부대는 처음은 한국군의 지원으로 무장해 오대산, 대관령 등 후방 지역에서 공비토벌에 나서 큰 전과를 올렸다. 그 중 일부는 당시 적 후방인 간성, 고성까지 침투해 교통망을 끊고 보급차량급습, 야간 기습작전을 수행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그 후 1951년 6월초 유엔군 소속 커크랜드 기동부대로 배속되면서 난도 작전, 금란지구 작전, 송도 작전 등 본격적인 기

습상륙과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첫 유격전인 금란지구 상륙작전은 1951년 7월 4일 새벽 짙은 안개를 뚫고 적지 후방인 금란 지구에 전 부대원이 무사히 상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들은 적의 보급 차량행렬을 기습하여 식량 및 무기를 노획하고 12명을 생포해 첫 개가를 올리는 한편 우선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증원된 중공군의 대병력에 눌려 약 1주일 만에 송도로 철수했다가 난도로 다시 철수했다. 우리 측은 이 작전에 1개 대대 병력이 동원됐지만, 적은 2개 연대 규모 이상을 투입한 점으로도 작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난도 작전은 커크랜드 부대가 무인도인 이 섬을 근거지로 하여 바로 건너다보이는 적의 후방인 금란 송전지구에 기습 상륙하여 후방을 교란시킨 일련의 작전을 말한다. 이들은 전 지역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급로를 위협하고 기습공격을 가해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한편, 숨어 있는 반공청년들과도 접선하여 이들을 구해 오기도 했다. 그중 1951년 8월과 9월 초에 있은 금란지구 전투와 송도 작전은 특히 유명하다. 금란지구 전투는 밤을 이용하여 몰래 상륙하여 우리 측은 희생자 없이 공산군 2개 중대를 완전 섬멸한 기습전이었다. 이 전투에서 유격대는 다수의 포로와 식량 · 탄약 등을 노획하고 무사히 기지로 돌아왔다. 또 9월 초에는 바로 적의 턱 밑에 자리 잡은 송도에 결사대를 투입하여 탈환하고 지리적인 불리함과 갖은 고난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전략적인 이 섬을 사수했다.

아벤리 부대는 1951년 10월 18일 창설되어 설악산 공비토벌작전을 비롯하여 통천 기습 작전 등을 통해 크게 활약한 부대이다. 이들은 미국 극동사령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창설되어 일반 전투훈련은 물론 낙하산훈련, 폭발물교육, 통신교육 등을 골고루 받아 언제 어느 곳에라도 투입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공산군의 병력 집결을 막고 특히 심리전면에 크게 이바지한 부대이다.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부터 설악산 공비토벌에도 참가했고, 1953년 3월 초순에는 통천지구에 기습 상륙하여 후방을 교란시키기도 하였다. 또 1953년 5월 중순에는 청진에서 멀지 않은 양도(洋島)를 기습하여 공산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스톰부대는 1952년 1월 11일 창설되어 만 2년간 공비소탕과 해상기습작전 등을 통해 이름 그대로 폭풍 같은 위세를 떨친 부대이다. 1952년 12월부터 1953년 4월까지는 설악산에서 소동을 일으킨 공비들을 추격하여 약 300명을 소탕하고 무기 다수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어서 1953년 5월 12일에는 고성 남강(南江)을 거쳐 후방에 침투하여 공산군 2개 중대의 전초기지를 완전 점령 섬멸하고 총기, 문서 등을 노획하였다. 또 얼마 후

인 1953년 6월 초에는 난도를 근거지로 통천에 기습 상륙하여 보안서 파괴, 교량 폭파 등으로 후방을 교란시켰다.

신출귀몰한 유격부대들의 활동은 유엔군 측으로 하여금 휴전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게 해 공산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큰 구실을 하였다. 그 후 1953년 7월 휴전을 앞두고 유격부대는 일단 국군 제8250부대(부대장 金完龍 준장)로 개편되었다. 고령자와 연소자 학생들은 희망에 따라 귀가시켰고, 나머지 대원들은 전부 유격부대의 직위에 상응하는 계급을 부여받아 정규군으로 편입되어 각 부대에 재배치되었다.

2. 행정권 이양과 수복

가. 수복

한국전쟁으로 공산 치하에 있었던 속초지역이 수복되었다. 속초의 수복은 한국군 제1군단의 진격에 의해 이루어졌다. 38선 진격이 결의되자 제1군단장은 1950년 9월 30일을 기하여 '제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선 이북 진출을 용이하게 하라'는 작전 명령 제109호를 발하였다. 30일 현재 제3사단 제22연대는 강릉을 탈환하였고, 제3사단 제26연대는 삼척에서 LST로 출항하여 주문진에 집결 중이었다. 38선 돌파를 앞둔 이날 제 3사단이 북진 준비를 완료하였을 때, 수도사단 제18연대는 38선 남쪽 2km 지점 서림리로 진출하여 서림~양양가도를 따라 양양의 서측방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10월 1일 5시경 제3사단은 제23연대를 선봉으로 역사적인 38선 이북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양양 38선 지역에서 인민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그날 10시경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것이었다. 38선을 넘는 순간 주민들은 구겨진 태극기를 펴들고 감격의 눈물을 지으며 북진하는 국군에 환호했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하여 1956년에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였다.

이에 양양군민은 1950년 10월 2일을 기하여 양양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에는 읍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안확보를 위하여 군 치안대와 각 읍면 치안대를 설치하였다. 당시 치안대장으로는 김영제가 추대되고, 11월 22일에는 김민하로 교체되었다. 치안대는 국군과 합동으로 패주하는 인민군을 논산리 앞뜰에서 격파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군 제1군단 전면의 인민군 제5, 12, 15사단은 그 주력을 원산으로 북상시키면서, 엄호부대로 하여금 아군의 전진을 지연케 하였다. 동시에 인

민군은 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악산과 향로봉 일대의 산악지대로 일부 병력을 잠입시켜 기습을 노리고 있었다. 이에 국군 제1군단 사령부는 이들을 섬멸할 목적으로 군단 직할 하에 제3, 5유격대를 편성하여 패잔병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나. 행정권 이양

한국전쟁으로 속초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이 수복되었지만 당분간 군정이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휴전 후 약 1년이 지난 1954년 11월 17일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권이 이양되어 일반 행정구역이 되었다.

3년여에 걸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으로 막을 내렸다. 협정 조인 12시간 만인 27일 밤 10시를 기해 155마일 전선에서는 일제히 포화가 멎고 불안한 정적이 찾아 들었다. 이로써 한반도를 두동강 냈던 38선은 지도상에서 없어졌지만 군사분계선이 새로이 남북을 갈라놓았다. 38선이 일직선인 경계선이었던데 비해 휴전선은 동쪽으로 높고 서쪽은 낮은 굴곡선이다. 동해안에서는 38선을 넘어 북으로 밀고 올라가 양양 · 속초 · 간성 · 거진 · 대진 등 실지를 회복했으나, 서쪽에서는 38선 이남에 있던 개성 등을 잃고 말았다. 특히 강원도는 휴전 성립으로 철원 · 김화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 양양 등 7개 군을 수복하여 판도를 넓히게 되었다. 이 지역을 수복지구라고 한다. 수복지구 7개 군 중 양양군만이 완전 수복되고 나머지 군은 일부만이 수복되었다.

이들 지역은 재수복된 1951년 봄에서 휴전 때까지 남북한 어느 쪽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유엔군사령부 관할 하에 있는 특수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 그중 완전 수복된 양양지구와 대부분이 수복된 화천 · 양구 · 인제지구는 주둔 군부의 민정이 다스리는 군정 하에 있었으며, 철원 · 김화 · 고성지구는 전투지구라고 하여 완전 진공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수복지구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중 전 지역이 완전 수복된 양양지구는 1951년 봄 유엔군의 북진으로 재수복된 후 1951년 4월부터 군자치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고 민정관에 박종승(朴鍾勝), 치안대장에 김민하(金敏河)가 임명되어 7월 4일부터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런 상태는 휴전 훨씬 후인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전투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거의 사정이 비슷했다.

정부는 휴전 성립으로 현 상태가 고정되자,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 교섭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대외적인 정치 문제를 고

려해서인지 교섭에 선뜻 응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수복지구 7개 군은 휴전이 성립된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는 수복 3년 반 만인 1954년 11월에야 역사적인 행정권 이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국군과 유엔군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찾은 것이 북위 38선 이북의 미수복지구(행정권 이양 전에는 그렇게 불렀음)라는 견지에서 행정권 이양을 촉구해 왔다. 당시 기록에는 휴전 직후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이미 세 차례의 절충을 벌였고, 그해 11월 4일에는 국회 내에 미수복지구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권을 점진적으로 인수받도록 하되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인수하느냐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제1차로 전 지역이 수복된 양양군을 대상으로 삼고 유엔측과 교섭을 벌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953년 11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이 속초를 시찰하여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대통령의 속초 시찰은 미수복지구 행정권 인수를 전제로 한 시찰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이대통령은 백한성(白漢成) 내무장관을 대동하고, 11월 8일 상오 9시 30분 경비행기 편으로 속초에 도착하여 약 6시간 동안 이 지구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속초 · 양양 지방의 실정을 살피고 서울로 돌아갔다. 이대통령의 속초 시찰은 일선 시찰을 겸한 것이었는데 미군 8군사령관, 손원일 국방장관, 백한성 내무장관, 백선엽 육군참모총장, 이형근 제1군단장, 최규각 강원도지사, 홍병시 강원도경찰국장 등이 수행했다. 이대통령은 속초 주민을 격려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했다.

"이와같은 많은 애국동포들이 환영하여 줌에 대하여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 동포들이 전란 중에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가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군정 하에서 학교도 세우고 하여 여러 방면으로 건설되고 있음을 또한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백만의 중공군이 아직도 우리 강토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다. 전 국민은 단결하여 하루 속히 그들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곳도 장차 강원도와 경찰에서 다스리게 될 것인바 주민 여러분은 군 · 민 서로 상부상조하여 주기 바라며 벌거숭이가 된 야산에 나무를 심어 옛날의 관동 8경의 모습을 다시 살려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이룩하여 주기 바란다."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은 유엔군의 유보적인 태도로 인하여 휴전 조인 후 1년이 지난 1954년 8월에야 이루어졌다. 8월 12일 유엔 한국위원회는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 이양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는 8월 28일 수복지구 행정인수위원회를 조직했다. 이어 10월 3일에는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 사이에 수복지구 행정권을 인수하는 협정에 서명하여

모든 인수 절차를 끝냈다. 국회는 이에 발맞추어 1954년 9월 29일 제51차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동 법은 정부에 이송되어 10월 21일자로 공포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954년 11월 14일 수복지구 행정권인수식을 거쳐, 11월 15일에는 철원·김화, 11월 17일에는 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등에 대한 행정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일반 행정 및 교육행정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수복지구는 공산치하에 있었고, 전란으로 황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전쟁 이재민으로서 구호대상자라는 점을 감안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은 ① 읍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 일체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② 정상적인 상황에 이를 때까지 군수가 교육감이나 세무서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세무행정 등을 관장하게 하여 일원화를 기했다.

강원도는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 이양 즉시 군수를 임명하여 행정체계를 갖추는 한편, 중점적인 지원 시책을 서둘렀다. 속초가 속한 양양군 초대 군수에는 김주혁(金周赫)이 임명되었다. 김군수는 군정 때인 1953년 11월부터 이미 양양군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1953년 11월부터 군민정관을 군수로, 읍면민정관을 읍·면장으로 개칭하였다.) 김군수는 수복지구행정에 역점을 두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행정 재건과 주민계도에 힘을 쏟았다. 특히 군부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 학교 공공건물 등을 복구하고 행정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다.

제3절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1. 자유당 정권과 4·19 혁명

가. 제3대 대통령 선거

제3대 대통령 선거는 수복지구인 속초에서 실시된 최초의 선거였다. 자유당은 4사 5입 개헌이라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면서까지 이승만 대통령에게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에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1956년 5월 15일 실시되었다. 속초가 속한 양양군의 투표율은 99.8%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전쟁

때 수복되었지만 수복지구인 사정으로 1952년 지방선거(4월 25일의 시·읍·면의원선거와 5월 10일의 도의원선거),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선거,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에도 수복지구는 1956년과 1960년의 지방선거에서는 제외되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만 실시됨.)

1956년 5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때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의 신익희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정권 교체의 바람을 일으켰으나 선거 운동 도중에 갑자기 사망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이에 추모 투표로 간주되는 무효표가 전국적으로 185만여 표나 쏟아졌으며, 이른바 여촌야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속초가 속한 양양군에서 이승만은 33,876표, 조봉암은 358표를 얻어, 이승만은 99.0%라는 놀라운 득표율을 기록했다.

나.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제4대 국회의원선거는 1958년 5월 2일 실시되었다. 수복지구 속초의 경우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로는 처음 실시되는 선거였다. 당시는 하나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서 한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되었다. 속초가 속한 양양군이 하나의 선거구였고, 강원도에는 20개 선거구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233개 선거구였다.

양양군에서는 모두 9명이 입후보하여 강원도에서는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선거 결과 자유당의 이동근(李東根)이 10,366표(득표율 29.7%)를 얻어 차점인 민주당의 함종빈의 7,796표(득표율 22.3%)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다. 3·15 부정선거

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부정 선거를 획책하였다. 전체 투표의 85%를 확보하기 위해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사전투표에서 먼저 40%를 확보하고, 정식투표에서도 3인조, 9인조 투표를 조장의 감시 아래 감행하게 함으로써 다시 40%를 확보하도록 각 행정기관에 비밀 지령했고, 이 계획이 실패할 경우 투표소 안에서의 환표(換票) 및 투표함의 교환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의 결과 이승만은 민주당 후보 조병옥(趙炳玉)의 죽음

으로 독주하여 88.7%의 표를 얻음으로써 제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 이기붕도 79.2%의 표를 얻어 민주당의 장면을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속초가 속한 양양군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후보는 95.0%의 표를 얻었고, 이기붕 부통령 후보는 92.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라. 4 · 19혁명과 제2공화국의 탄생

3 · 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마산에서부터 시작되어 4월 19일에는 서울의 주요 대학과 고등학생들이 대거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여기에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였으며, 경찰로 하여금 무차별 사격으로 진압하게 하였다.

경찰의 발포로 서울에서만 100여 명이 사망하고, 부산 · 광주 등지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대규모의 유혈사태로 국민의 분노는 절정에 이르렀고 마침내 4월 26일 이승만은 대통령 직에서 하야하였다.

허정(許政) 과도정부 하에서 국회는 민주당의 주도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마련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1960년 7월29일 허정 과도정부 관리 하에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실시되었다.

참의원 선거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를 선거구역으로 하고, 유권자는 자기가 사는 시 · 도의 원정수의 1/2이하만을 골라 투표하게 되었다. 또 임기도 이 선거에 한해 4년제와 2년제로 나누어, 4년마다 의원 정수의 1/2씩을 개선하도록 했다.

강원도 의원 정수는 4명이었고, 12명이 경쟁 끝에 1부의원(4년제)에 민주당의 정순응(鄭順膺), 무소속의 김대식(金大植), 2부의원(2년제)에 민주당의 김병로(金秉魯), 민주당의 김진구(金振九)가 당선되었다.

민의원 선거는 제4대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 · 군이 하나의 선거구였다. 속초가 포함된 양양군에는 무려 12명이 입후보하여, 제4대 때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는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개표 결과 민주당 공천을 받은 함종빈이 12,480표(득표율 29.94%)를 얻어, 5,871표(득표율 14.09%)를 얻은 또다른 민주당 후보 신효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 시의 승격과 민주주의의 시련

가. 속초시의 승격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로 속초읍은 속초시로 승격되어 16개 법정리에 11개 연합리로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1966년 1월 1일 속초시의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12개동으로 개편되었다. 속초리 1구는 영랑동,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 5구는 청호동, 6구는 청학동과 교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부월리, 온정리, 논산리, 청대리는 합쳐져서 조양동으로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는 합해져서 노학동으로,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는 합쳐져서 대포동으로,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는 합쳐져서 도문동으로, 장항리는 설악동으로 바뀌었다.

속초가 시로 승격하기까지는 인구 및 가구수 증가에 의한 행정구역의 확대와 당시 읍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읍민들의 대표적인 노력은 '속초시제실시추진위원회'의 활동이었다. 1961년 김치룡 읍장이 취임하면서 속초읍번영회가 '속초시제실시추진위원회'로 발전하여 시 승격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시제추진위는 그 해 8월 16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틀 간격으로 강원도지사와 내무부 장관을 만나 속초시 승격을 당부하였다. 그 결과 1962년 11월 21일 '시 설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6호)'이 공포되고 이듬해에 속초시로 승격되었다. 당시 행정 구역은 면적 66㎢로서 16개 리에 312개 마을로 구성되었고, 가구는 10,864 세대에 인구는 55,619명이었다.

〈 표 2-7-1 〉 속초시제실시추진위원회 활동

날 짜	활 동 내 용
1962. 1. 4	이주일 부의장 속초 방문시 시승격 건의
1962. 7. 24	시제 실시 추진위 구성
1962. 7. 27	박성주 위원 협조를 얻기 위해 양양군수, 양양경찰서장 방문
1962. 8. 14	청원서 제작
1962. 8. 16	청원서 제출
1962. 8. 18	내무부 장관 방문하였으나 여건 미비로 난색 표명
1962. 8. 19	한태연 교수 방문 적극 협조 표명
1962. 9. 5	내무부 지방국 행정주무관과 강원도 지방관 김운기 방문
1962. 9. 24	박하영, 박성주 중앙인사 방문
1962. 10. 11	속초시 승격 차관회의에서 통과
1962. 11. 12	속초시 승격 각료회의 통과
1962. 11. 21	시설치에 관한 법령(법률 제1176호)공포
1963. 1. 1	시승격

〈 사진 2-7-1 〉 속초시 승격을 축하하기 위한 거리행렬(1963. 1. 7)

나. 제 3공화국의 성립

장면 민주당 내각이 4 · 19 혁명 이후에 나타난 사회 혼란과 무질서 상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군사 정변의 주체들은 군사 혁명 위원회를 조직한 후 이를 국가 재건 최고회의로 개칭하였다. 이 기구는 초헌법적인 최고 통치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박정희가 실권을 장악하였다. 최고회의는 민정이양에 이르기까지 2년 7개월 간 권력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면서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재자 처리 등 혁명과업을 수행했다.

혁명정부는 민정이양에 앞서 대통령중심제로의 개헌을 추진하여,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붙여 총수의 78.7%의 찬성을 얻어 확정시켰다. 강원도에서는 81.1%의 찬성을 얻었고, 속초가 속한 양양군에서는 88.2%라는 높은 찬성을 얻었다.

새 헌법에 따라 민정이양을 위한 제 5대 대통령 선거가 1963년 10월 15일 실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민정당의 윤보선(尹潽善) 등 7명이 입후보하였다. 선거전은 처음부터 공화 · 민정 양당 간의 대결로 압축되었고, 사상논쟁까지 불러일으키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개표 결과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15만 6,000여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눌러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공화당의 제3공화국이 탄생되게 되었다. 속초에서도 다른 강원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를 앞섰다.

제5대 대통령선거가 있은 지 42일 만인 1963년 11월 27일 제6대 국회의

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곧 탄생하게 될 제3공화국의 정치 판도를 결정짓는다는데서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지녔다. 선거구는 종전의 시 · 군 단위와는 달리 2~3개 시 · 군이 합쳐서 1개의 선거구로 개편되었고, 처음으로 비례대표인 전국구 후보제가 도입되었다.

속초시는 인근의 양양군 · 고성군과 합쳐져, 강원도 제7지역 선거구로 되었다. 제7지역 선거구에는 6명이 입후보하여 6대 1의 경쟁을 보였다. 개표 결과, 민주공화당의 김종호 후보가 23,684표를 얻어, 차점자인 최정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한편 공화당은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경제정책의 중점을 종전의 안정 우선 정책으로부터 성장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4년 간의 정책 평가는 제6대 대통령 선거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제6대 대통령선거는 1967년 5월 3일 현직 대통령인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가 196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결한 선거이다. 공화당은 4년 동안 다져온 조직과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정책대결에 임했고, 신민당은 현 정부의 부정부패상을 폭로하고 헌정질서 확립을 호소하는 선전전에 주력했다. 선거전의 쟁점은 ①공명선거 ②경제개발 ③월남파병 ④한 · 일관계 등에 집중되었다. 즉 야당 측은 정보정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을 들어 공명선거 실시가 의문시되며, 경제 정책면에서는 부익부빈익빈의 시정을 강조했다. 개표 결과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신민당 윤보선 후보를 116만여 표차로 여유 있게 이겨 재선되었다. 속초는 다른 강원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약간 앞서 이전 선거 때의 패배를 설욕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가운데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지역인 강원도 제7지역 선거구에는 현 의원인 민주공화당의 김종호 후보 등 5명이 입후보하였다.

공화당은 박대통령이 더욱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원내 안정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고, 신민당은 독재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견제 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선거전이 가열함에 따라, 각지에서 유권자 매수에 관한 추문으로 금권선거의 인상을 짙게 했다. 각종 지역사업 공약에 지나치게 열을 올려, 마치 지방의원 선거전 같은 인상을 주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음식물 제공, 흑색선전, 호별 방문 등이 선행해 타락 풍조를 드러내고 말았다. 개표 결과 민주공화당의 김종호 후보가 31,047표를 얻어, 차점인 신민당의 함종빈 후보의 30,382표 보다 1,025표를 더 얻어 어렵게 당선되었다.

그러나 6 · 8선거는 사상유례없는 타락선거로 낙인찍혀졌고, 곳곳에서 선

거소송 사태가 일어났다. 신민당을 비롯한 재야측은 전면 무효화투쟁을 선언했고, 당선자의 등록거부로 약 6개월 동안 국회의 공백상태를 빚었다. 속초에서도 6월 13일 신민당 강원도 제7지구당 부위원장 김종철 등이 6 · 8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를 했다. 이들은 속초경찰서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어 차점으로 낙선한 함종빈이 6월 20일 대법원에 당선 및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7월 12일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재검표를 실시하였으나 표 차만 1,025표에서 885표로 줄어들었고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민당 측은 잔여투표용지 3,000매가 분실된 점을 들어, 이것이 대리투표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불복했었다.

다. 3선 개헌과 박정희 정부의 장기집권

공화당은 1971년 총선거를 앞두고 3선 개헌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3선 개헌을 확정하였다. 3선 개헌으로 1971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여당 후보로 박정희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제7대 대통령선거는 1971년 4월 27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대결한 일대 접전이었다.

4 · 27선거전은 우리나라 선거사상 유례없는 열띤 유세전으로 전개되었다.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야당바람을 일으켰다. 이에 다급하였던 공화당은 4월 12일 예정에 없던 김종필 부총재가 헬리콥터로 속초까지 와서 청학 시장에서 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는 관권과 금권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전 끝에 힘겹게 승리하였다. 개표 결과 전국적으로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야당인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94만 6천여표 차로 이겨 세번째로 당선되었다.

속초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13,577표를 얻어, 13,358표를 얻은 김대중 후보를 겨우 219표 앞섰다. 이것은 박후보가 강원도 19개 시 · 군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이다.

박대통령의 3선이 확정된 지 한달 후인 1971년 5월 25일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공화당 · 신민당 외에 4개 정당이 더 참가하였으나 (1967년 선거부터 무소속은 출마 금지됨) 이번 역시 공화 · 신민 양당의 대결이었다.

속초 · 양양 · 고성이 하나의 선거구인 강원도 제7지구에는 5명이 입후보하였으며, 개표 결과 공화당의 한병기 후보가 38,957표를 얻어 30,509표를 얻은 신민당 함종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라. 10월유신과 제4공화국의 탄생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외 상황의 변화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강압적 독재로 치달았다. 국내에서는 야당 세력의 성장으로 앞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 연장이 어렵게 되었고, 밖으로는 닉슨 독트린에 의한 미국의 월남전 개입 축소,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으로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남북 대화를 제의하여 국제적 데땅트에 적응하는 한편, 1971년 12월에는 점증하는 소요 사태와 학생 운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 후 중앙정보부장을 비밀리에 북한에 보내 비밀접촉을 통해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영구 집권과 독재 권력 강화를 위한 체제 개혁을 준비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치 활동 금지 등을 단행하였다. 이리하여 10월 유신이 선포되었고, 비상국무 회의가 입법부의 역할까지 맡았다.

비상 국무 회의에서 제정한 유신 헌법은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찬성률 91.5%로 확정되었다. 속초는 94.0%의 찬성률을 보였는데, 교동이 제1투표구 87.7%, 제2투표구 85.3%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였고, 조양동이 98.4%로 가장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강원도는 95.8%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1972년 12월 15일에는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속초시는 단일선거구로 4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총18명이 입후보하였다. 선거결과 김원진, 박세각, 최준규, 이관희가 득표순에 따라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유신 제2기에 해당하는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는 1978년 12월 12일 실시되었다.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으로 구성된 강원도 제4지구에는 총 6명이

출마하였다. 민주공화당의 정일권 후보의 당선은 기정사실화되었고 나머지 1석을 놓고 5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양상이었다. 개표 결과 민주공화당의 정일권 후보와 무소속의 함종빈 후보가 당선되었다. 정일권 후보는 정치계의 거물답게 제9대 때와 마찬가지로 60.3%라는 높은 득표율로 전국 4위를 기록하였다. 함종빈 후보는 11,779표를 얻어 차점으로 당선되었다.

마. 제5공화국 시대

1979년 10월 26일 10 · 26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박정희 정권은 무너졌다. 정부는 10월 27일 새벽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최총리 중심의 과도정부가 출범했다. 이어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재적 대의원 2,560명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2월 21일 제10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였다.

그러나 과도정부 출범후 12 · 12사태를 거치면서 신군부 세력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1980년 8월에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였고, 8월 25일 소집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개헌작업을 본격화하여,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와 선거인단 선거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였다. 개헌안은 10월 22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95.5%, 찬성률 91.5%로 확정되었다. 속초는 투표율 98.7%, 찬성률 95.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서 1981년 2월 25일 소집된 대통령선거인 회의에서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후보를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제5공화국이 시작되었다. 당시 투 · 개표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한 곳에 모여 실시하였는데, 속초 · 인제 · 고성 · 양양으로 구성된 강원도 제4선거구는 대통령선거인 39명 전원이 전두환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제5공화국의 정치 판도를 가늠할 국회의원 선거가 1981년 3월 25일 실시되었다. 1구 2인제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선거구가 77개에서 92개로 늘었고 강원도 선거구가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속초와 같은 선거구였던 양양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 양구가 편입되어 속초시는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과 함께 강원도 제5선거구가 되었다.

제5선거구에는 5명이 입후보하였는데 민정당의 정재철 후보와 민한당의 허경구 후보가 당선되었다. 특히 정후보는 54,767표를 57.2%로 전국 3위를 기록하였고, 허후보는 19,597표를 얻어 적은 득표수로 당선되었다.

제5공화국 출범후 두 번째인 12대 국회의원 선거가 1985년 2월 12일 실시되었다. 속초 · 양구 · 인제 · 고성으로 구성된 강원도 제5선거구에는 민주정의당의 정재철 후보, 민주한국당의 허경구 후보, 신한민주당의 최정식 후보 등 3명이 입후보하였다. 선거전은 민정당의 정재철 후보의 당선은 기정사실화되고 나머지 한 석을 놓고 신민당의 최정식 후보가 현역의원이던 민한당의 허경구 후보를 얼마나 추격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개표 결과, 민정당의 정재철 후보와 민한당의 허경구 후보가 당선되었다. 정재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제11대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득표수 62,030표에 득표율 59.9%로 득표율 전국 3위를 기록했다.

3. 이념의 대립

가. 정낙현(鄭洛賢) 북한 공군 소위 귀순

1960년 8월 3일 12시 36분 북한공군소위 정낙현(鄭洛賢)이 MIG15제트기를 몰고 속초비행장(육군 제5비행장으로 당시에는 대포비행장이라고도 했음)에 착륙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해 왔다. 정낙현 소위는 북한공군 제2사단 제26연대(36875군부대) 제1중대 책임비행사로, 당시 나이는 24세였으며 평북 영변 출신이었다. 정씨는 부모를 고향에 두고 있으며 노동당원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염증을 느끼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연마하기 위하여 평소부터 탈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3일 상오 4대의 MIG제트기에 편승한 동료 조종사들과 함께 훈련 중 기회를 잡아 남하하여 속초비행장을 통해 귀순하였다.

나. 어로보호 중이던 해군 56함 피격 침몰사건

동해 휴전선 근해에서 명태잡이 어선을 보호 중이던 해군 한국함대 동해경비분대 소속 PCE56함(唐浦號, 650排水톤, 함장 金承排 中領, 승무원 79명)이 북한 육상포대로부터 약 20여 분에 걸쳐 200여 발의 집중 포격을 받으면서 교전하다가, 1967년 1월 19일 오후 2시 34분에 피격 침몰되었다. 이 교전에서 실종자를 포함하여 전사자 39명, 중상자 14명, 경상자 16명이 발생하였는데 무사한 장병은 10명뿐이었다.

이날 갑자기 풀린 날씨 탓인지 오전부터 속초, 거진, 대진 등 전국 각지에서 200여 척의 어선이 몰려들어 어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56함은 53함, 65함, 기함(함대의 사령관이 탑승한 군함)인 71함과 함께 ABCD순으로 휴전선을 경비했고, 육지에서 제일 가까운 구역인 A구역을 맡은 56함은 휴전선을 넘어 수원단(水源端) 앞까지 올라가는 50여 척의 어선을 저지시키고 있었다.

오후 1시 30분 때마침 북한의 장전항에서 구축함인 PBL 스캉구 2척이 빠져나와 시속 20노트의 속력으로 우리 어선단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휴전선에 대기하던 56함도 어선들의 납북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속력을 내어 어선들을 바싹 따라가며 5발의 위협신호를 울려 어선단이 남하할 것을 경고하였다.

56함이 북한해안인 수원단 동남쪽 4~5마일에 이르렀을 때, 북한해안 동굴기지 육상포대로부터 집중 포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1시 57분 첫 포탄이 조타실에 명중되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동요하면서 남하하는 중, 적의 집중 포격으로 후부기관실(B-12 기관실)이 명중되어 56함은 전구 기관(B-11 기관)만으로 전속력으로 남하하다가 90도 각도로 좌회전하여 적의 육상포대로부터 멀리하려 했으나, 이때 적의 포격으로 전부 기관(B-11 기관)마저 파괴되어 완전히 기동력을 상실하고 배도 기울기 시작했다.

56함도 3인치와 40미리포로 10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으나 이것마저 파괴되어 함체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때가 2시 25분이었다. 기함인 71함의 함장 박대령은 53함으로 하여금 56함은 예인하도록 명령하고 공중지원을 요청했다.

적의 파편에 맞아 부상한 함장이 대원에 끌려 브리지에 내려지고, 부함장인 황(黃)소령이 56함을 계속 지휘하며 2시 31분 전원 퇴함 명령을 내렸다. 라이프 보트와 라이프 자켓으로 해상에 내려진 부상병은 53함, 65함에 옮겨 탔고, 2시 34분 56함(唐浦號)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1분 후 기함 71함이 현장에 도착하여 떠있는 인명구조에 나섰고, 3시 15분 공군F5A기 2대가 공중에서 포효하고, 지상엔 탱크가 대기하고 있었다. 71함에 18명, 53함에 33명, 65함에 1명이 구조되었고, 프로트 3개, 라이프린 3개가 인양되었다. 4시 22분에는 56함과 최후를 같이한 28명 전우의 진혼제를 간단히 마치고, 5시 32분 71함과 65함은 현장을 철수했다.

이 전투에서 56함 승무원 79명 중 51명이 구조되었으나, 구조 후 11명이 사망하여 실종자 28명과 합쳐 도합 39명의 아까운 해군 장병들이 56함과 함께 장렬한 전사를 했다.

한편 이같은 북한의 만행에 대해 당시 김영관 해군 참모총장은 21일 즉각 기자 회견을 갖고 "앞으로도 어떠한 북괴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동해를 비롯한 해군 전함정에 비상전투태세가 명령되어 적의 도발이 있으면 언제라도 즉각 반격하여 보복할 만전의 태세를 갖추어 있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또한 이날 오전 11시 판문점에서는 제239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UN군측 치콜렐라 소장은 19일 북한의 경고 없는 공격으로 우리 56함이 침몰된 점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공산 측의 야만적이고 악랄한 휴전협정 위반을 규탄했다. 그러나 북측의 답변은 오히려 우리 56함이 침범했으며 격침은 자위적인 행위라고 상투적 수법을 내세웠으며, 덧붙여 56함 침몰 뒤 71 · 65 · 53함이 자기네 영해를 침범했다고 이의 처벌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이같은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전국민은 격분한 나머지 북한만행 규탄대회를 벌이기를 했다.

56함 피격이 동해안 어민에게 가져다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피격사건 이듬해인 1968년에 어로저지선보다 남쪽인 북위 38도 30분에 어로한계선이 그어져 그 남쪽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방이후 활발하던 동해안의 명태잡이는 주춤해지고 있다.

한편 고성군, 거진읍 거진 10리 뒷산에는 56함 전몰장병 충혼탑이 세워져 56함 장병 39명의 영령을 달래주고 있다. 전사자와 중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사자(39명)

이승무(중위, 작전관)	박태만(중위, 포술관)	조덕수(위생중사)
이상호(장포상사)	윤인선(내연하사)	김길언(음탐하사)
박정남(측량하사)	이부현(병장)	장인덕(병장)
김동선(이병)	이희승(상병)	장태식(갑판상상)
박영호(음탐하사)	홍수권(조투중사)	김경도(내연중사)
주재진(중사)	김종구(보수중사)	최갑식(갑판하사)
이수만(전기하사)	김창성(내연하사)	성병수(장포하사)
손두성(전탐하사)	전영일(갑판하사)	이광연(보수하사)
김성태(병장)	박효삼(하사)	임성철(병장)
문용준(부전병장)	박홍걸(내연상병)	송봉수(장포상병)
배윤상(갑판상병)	최정태(내연상병)	방현규(일병)
심용섭(일병)	노영수(이병)	김종광(사수병)
배정남(무전하사)		

중상자(14명)

김승배(중령, 함장)	윤신원(상사)	주실근(병장)
최정민(이병)	김원태(무전중사)	김정태(갑판중사)
신동원(내연중사)	이진원(주계중사)	김홍태(갑판병장)
강영배(기관병장)	심양무(기상하사)	박영옥(추적하사)
박우석(기관하사)	김진수(갑판하사)	

다. 어선 10척 피납사건

1967년 11월 3일 오전 9시경, 동해 어로저지선 근해 상에서 명태잡이하던 어선 200여척에 대해 북한은 대형 함정 2척과 쾌속정 7척을 풀어 약 40분간에 걸쳐 기관포와 다발총을 난사하였으며 해양호(14t, 선장 김성재)등 어선 10척과 어부 60명을 납북해 갔다. 또 북한의 무차별 총격에 어제호(7t) 선장 장상봉(36세)이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동해상에서 일어난 어부 피랍 사건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어선들은 3일 새벽부터 속초 · 거진 · 대진에서 출항하여 어로저지선 근해에서 조업을 시작하려던 시기에 장전에서 출항한 북한 함정 9척이 어선 60여척을 포위하여 총격을 가해 왔다. 북한은 붉은 기를 휘두르면서 “선수를 북으로 돌리라”고 확성기로 외쳐댔다. 피격 당시 해군 함정은 부근 해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낚시도 거두지 못한 채 탈출했으며 뒤늦은 10척은 북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어부들에 의하면 이날 우리 해군 함정과 어로 지도선은 한척도 눈에 띠지 않았으며 만일 해군 함정이 가까이 있었더라면 이처럼 대량으로 납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납북어선과 어부는 다음과 같다.

해양호, 주문진항 소속, 14t, 선장 김성재, 5명
용명호, 거진항 소속, 7t, 선장 이형준, 5명
거성호, 거진항 소속, 14t, 선장 함창식, 6명
경인호, 주문진항 소속, 14t, 선장 이승정, 6명
금윤호, 거진항 소속, 12t, 선장 김자준, 6명
금창호, 거진항 소속, 9t, 선장 장학순, 6명
홍미호, 주문진항 소속, 5t, 선장 홍현성, 6명
순광호, 거진항 소속, 10t, 선장 장덕필, 8명
정성호, 속초항 소속, 8t, 선장 이기환, 6명
영명호, 속초항 소속, 10t, 선장 허명춘, 6명

라. KAL기 납북 미수사건

1971년 1월 23일 오후 1시 7분, 승객 55명(65명)과 승무원 5명 등 60명을 태우고 속초 비행장을 떠나 서울로 가던 대한한공(KAL)소속 F27기(기번 HL 제841편)가 폭발물을 들고 납북을 강요하던 범인의 위협을 물리치고 2시 18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에 동체 착륙하여 납북을 모면했다.

비행기가 이륙한지 27분이 지난 1시 34분경, 오른쪽 앞자리 두 번째 창가에 앉아있던 범인 김상태(22세, 무직,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거진읍 거진3리)가 갑자기 선반에서 기름종이에 싼 폭발물을 꺼내 던지며 월북을 강요했다. 범인이 던진 폭발물로 조종실 칸막이가 부서졌고, 비행기 복도 앞부분 밑바닥에 직경 40㎝ 가량의 구멍이 뚫렸다. 이때 기장 이강흔은 재빨리 납북당하고 있다는 것을 무전으로 알렸다. 기장은 기수를 강릉으로 돌려 위장 착륙하려고 했으나, 범인의 재차 위협으로 북으로 기수를 돌렸다.

2시 3분경, 폭발물을 들고 승객과 승무원을 위협하던 범인이 잠깐 창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최천일 보안관이 재빨리 총을 뽑아 범인을 향해 발사했다. 범인은 어깨와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비틀거렸고 범인의 거동을 주시하던 김명세 수습조종사가 조종석에서 점프하며 범인을 덮쳤다. 이 때 범인이 손에 들고 있던 수류탄이 터져 기체 앞쪽은 벌집처럼 구멍이 났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김씨는 양팔을 잃었으며 근처 승객 10여명이 함께 쓰러졌다.

기체는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해안 바닷가에 동체 착륙을 감행한 것이다. 수습조종사 김명세는 기체가 착륙하자, 즉시 육군 외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헬리콥터로 급히 서울로 향했으나 이송도중 숨을 거두었다.

KAL기가 납북을 모면한데는 우리 공군기의 활약도 컸다. 범인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 마침 공군기 ○대가 근처 상공을 초계 비행 중이었으며, 이 공군기들이 KAL기로부터 에에 · 투 · 에어 · 보이스로 포착한 것과 지상 레이더 사이드와 관제탑이 캐치하여 공군기를 긴급 출동시킨 것이 거의 같은 시간인 오후 1시 43분경이었다. 출동한 공군기들은 KAL기 좌우로 다가서서 KAL기의 기수를 남서로, 다시 동남으로 돌리게 유도했으며, 기관포로 전면을 향해 위협사격을 하면서 엄호했던 것이다.

〈 사진 2-7-2 〉 KAL기 납북 미수 사건

제4절 민주 회복과 통일 정책

1. 제6공화국

1987년 6월 29일 정부는 6월 민주 항쟁으로 나타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기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을 계기로 1987년 10월 직선제 개헌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되었다. 국민투표 결과 투표율은 78.2%로 낮았으나, 93.1%라는 높은 찬성률로 새 개헌안은 확정되었다. 속초의 경우 투표율 80.1%, 찬성율 93.3%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새 헌법에 따라 16년 만에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역사적인 제13대 대통령선거가 1987년 12월 16일 실시되었다.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동서고속전철 착공과 청초호 및 화진포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민주당의 김영삼 후보는 12월 11일 속초에서 유세를 갖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숨가빴던 선거전이 끝나고 12월 16일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하여 선거사상 처음으로 국민운동공정선거 감시인단에서 파견한 대학생, 재야, 야당 당원의 철저한 감시 속에 투·개표가 실시되었다.

속초에서는 부재자 투표함 봉인 문제로 야당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개표가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충돌없이 개표가 진행되었다. 개표 결과,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유효 투표의 36.6%인 828만 2,738

표를 얻어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속초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20,466표를 얻어 54.9%라는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김영삼 후보는 10,276표, 김대중 후보는 3,583표, 김종필 후보는 2,849표를 각각 얻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제6공화국이 출범한지 두달후인 4월 26일 실시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직선제와 마찬가지로 16년 만에 소선거구제로 환원됨으로써 1구 1인제로 바뀌었다. 속초시는 고성군과 합쳐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고 강원도 14개 선거구, 전국적으로는 224개 지역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속초 · 고성 지역에는 현역의원인 민정당의 정재철 후보와 민주당의 최정식 후보 등 2명만이 입후보하였다. 민정당은 정재철 후보의 당선은 틀림없고, 얼마의 득표율로 당선되는가가 문제라고 하며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어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민주당은 집권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견제 논리로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최정식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에 4번이나 출마하여 떨어졌으니, 이번만은 당선시켜 달라고 동정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종반전에는 부동표를 잡기 위하여 양진영이 서로 흑색 선전물을 제작하여 유포하기도 하였고, 이것 때문에 속초에서는 선거 전날 양후보 진영간에 집단 패싸움이 벌어져 이 과정에서 민주당원 1명이 숨지는 불상사를 빚었다.

개표 결과,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최정식 후보가 31,395표를 얻어, 27,297표를 얻은 민정당의 정재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 민주주의의 확산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문민정치의 개막이라는 정치변혁의 기대 속에 치러졌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사상 처음으로 TV와 라디오를 통해 선거방송광고가 허용되었으며, 군의 영외투표로 부재자 투표의 부정시비를 없앴고 현직 대통령이 당적을 갖지 않은 채 중립내각을 구성하여 공명선거 의지를 나타냈다.

대선결과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전국 득표율 42.0%인 997만여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가 지역 연고를 표방하며 이북5도민 등 실향민의 많은 지지를 예상했으나, 3 · 24 총선 때보다 부진한 득표율을 보였다. 속초에서도 역시 민주자유당의 압승으로 개표결과 집계되었으며, 도문동에서만 민자, 국민 양당의 경합세였고, 기타 12개동 전체에서 민자당이 우세하였다. 특히 실향민 집단거주지인 청호동에서도 민자당 김영삼

후보 1,154표, 국민당 정주영 후보 502표로 평균득표율을 상회하는 예상외의 결과를 얻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5·16 군사 정변 이후 군 출신 대통령이 30여 년 동안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치루어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속초·고성·양양·인제 4개 시군이 통합되어 후보자 6명이 출마한 가운데 1996년 4월 11일 실시하였다. 신한국당 송훈석 후보가 29,544표(34.1%)를 얻어 당선되었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의 3파전으로 전개되었다. 대선결과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전국 득표율 40.3%인 1,032여 만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속초에서는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개표결과 집계되었으며, 새정치국민회의는 국민신당에도 1.9% 뒤지는 등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2000년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57.9%라는 속초 지역의 투표율이 보여주었듯이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여준 선거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반영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법 논란을 빚었던 공천, 낙선운동을 주도한 총선시민연대가 유권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명분아래 활발한 활동을 한 선거이기도 했다. 새천년민주당의 송훈석 후보가 35,576표(42.2%)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각종 언론 및 방송을 통한 미디어 선거가 정착되는 등 종전의 엄청난 자금과 조직을 통한 군중동원으로 거리에서 세몰이 하던 구시대의 선거운동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선거문화 비젼을 제시한 선거였다. 특히 시민단체의 불법 선거 감시운동도 큰 몫을 차지했다. 대선결과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1,201만여 표(48.9%)를 획득하여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속초에서는 부재자투표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앞섰고,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54.8%의 표를 획득하여 노 당선자를 14.1%차로 앞서는 예상외의 결과를 나타냈다.

3. 남북 관계의 진전

1990년 북한은 전격적으로 남측의 남북 교류 제의를 수용하였다. 1990년 9월부터 남북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급 인사들이 만난 것이다. 이후 남북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

전되어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국민의 정부는 햇볕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포용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정책의 채택으로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1999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금강산 관광의 시작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분단 50년 동안 고향을 지척에 두고 방문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향민들에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가짐으로 인해 속초는 행사를 지원하는 배후도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남북 평화통일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 완화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점은 북방교역의 활성화로 나타나고 인접지역간에 경제협력과 경제교류가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냉전의 바다', '긴장의 바다'로서 항상 전운이 감돌았던 동해가 '희망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약속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 계기는 2000년 4월 28일 속초항에서 러시아(자루비노항)을 경유하여 중국(훈춘)으로 항해하는 카페리 직항로 개설이다. 그로 인해 속초는 북방관광 · 교역의 전진기지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속초(한국)-자루비노(러시아)-훈춘(중국)을 연결하는 해상항로가 개통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소무역상들이 속초로 몰려 항로 개설에 의한 특수를 반영하는 듯 했다. 그러나 한 · 중 통상마찰로 한 · 중간 교역 운송화물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속초-훈춘간 소무역상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량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속초-훈춘간의 운송화물은 북방항로가 개항된 이후 1회 출항당 20톤 규모의 컨테이너(출항화물 4.3개, 입항화물은 3.8개)가 3~4개에 불과하며, 러시아지역으로의 운송화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방항로 개항 이래 90여 회의 운항중 소무역상은 약 13,000명이 이용하였다.

제5절 경제 구조의 변화

1. 전쟁 이후 속초의 성격

속초는 한국전쟁이 만들어준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민의 구성이나 문화면에서 이주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북한에서 남하한 이주민의 특성은 속초의 성격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 점이다. 첫번째는 산업 구성 면에서 농업 중심에서 어업 중심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강원도 출신보다 함경도 및 이북출신이 많은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원주민의 생활방식과 이주민의 생활방식이 혼재되어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전쟁 이후의 경제구조 역시 이주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어업 위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직업별 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표 2-7-2 〉 속초읍내 구역의 농어민 분포(1955년) (단위: 호, 명)

농/어업별 \ 속초행정구역		속초1구 (영랑동)	속초2구 (동명동)	속초3구 (중앙동)	속초4구 (금호동)	속초5구 (청호동)	기타 지역	속초 전체
호수 및 인구	호수	911	357	1,103	1,316	454	1,209	5,350
	남자	1,840	794	2,380	2,783	1,046	3,059	11,902
	여자	1,890	789	2,363	2,703	930	3,117	11,792
	계	3,730	1,579	4,743	5,486	1,976	6,176	23,699
농업	농가수	28	23	29	25	·	790	895
	농업인구수	97	91	186	101	·	4,426	4,901
어업	어가 호수	72	106	296	169	201	302	1,146
	어민수	126	292	653	644	529	519	2,763
	어민가구원	288	530	1,480	845	1,005	1,518	5,666
	발동선	2	5	50	68	30	1	156
	범선	10	27	42	34	33	120	211
	종선	16	29	52	68	106	85	356

자료: 속초읍, 『읍세일람』, 1955.

1955년 직업별 인구를 보면 속초 전체 인구 2만3천699명 가운데 농업인구가 4,901명(20.7%), 어업인구는 5,666명(23.9%)이었다. 이는 일제시대에 비해 어업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속초 시내에 해당하는 1~5구 지역은 전반적으로 어업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현재의 청호동에 해당하는 5구는 농업인구는 전혀 없는 어업 중심 지역이다. 반면 1~5구를 제외한 기타 지역인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부월리, 하도문리, 중도문리, 상도문리 등은 대다수가 여전히 농업을 업으로 하였다.

당시의 속초 지역과 직업분포로 볼 때, 월남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간에는 느슨하나마 지역과 직업 분포 상의 경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월남인들은 대개 속초에 들어온 후 주로 어업에 종사한 반면, 원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했다. 또한 이주민들은 주로 1~5구에 거주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이 바다에 가까워 어업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0] 반면 원주민들은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농촌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 함경도 출신 1세대 이주민과 그 후세들의 도시로 비춰질 만큼 함경도 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함북도민회, 함남 영북지구 도민회, 함흥시민회, 원산시민회, 흥남시민회, 함주군민회, 정평군민회, 영흥군민회, 고원군민회, 문천군민회, 안변군민회, 흥원군민회, 북청군민회, 이원군민회, 단천군민회, 신흥군민회, 갑산군민회 등의 도 · 군민회가 속초시내에 모여 있다. 또한 함경도민회 소속 읍 · 면민회도 적잖이 있고 서울의 이북 5도청에는 없는 리민회가 있기도 하다.

1986년 조사에 의하면 월남 이주민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동은 교동(60.0%), 금호동(59.98%), 동명동(60.0%), 영랑동(59.97%), 조양동(54.97%), 중앙동(59.96%), 청학동(59.99%), 청호동(65.30%)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통계만 보아도 속초는 이주민의 도시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속초에는 함경도 월남 이주민 외에도 이북 출신이 적지 않다.[11] 청호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출신은 북강원도(휴전선 이북 강원도) 출신이다. 1996년 11월 현재 청호동 인구조사에서 북강원도 출신은 대략 15~26%정도이다. 그 외 황해도, 평안도 등의 월남 이주민도 소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속초는 원주민보다 월남 이주민(후세대를 포함)의 인구구성 비율이 더 높은 이주민의 도시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0) 군정 당시 미군 부대나 군부대 관련 용역회사들도 대개 청초호를 끼고 동명동이나 중앙동에 있었다. 군부대에서 일한 노무자의 절대 다수가 월남인이었던 사정도 이주 초기부터 월남인들을 시내에 주로 모여 살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월남인 가운데는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역시 1~5구에 주로 거주했다.

11) 현재 평안도민회, 황해도민회, 북고성군민회 등이 조직되어 있다.

2. 피난민의 이주

해방시기 월남 피난민 가운데는 경제난에 의해 남하하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1947년 당시 이북주민들의 주된 월남 동기 가운데 하나는 경제난이었다. 경제난의 주요한 이유로는 분단으로 인해 38선 이남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식량물량이 제한되어 북한의 식량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으며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의 물자가 제대로 분배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일본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기계시설을 파괴하였고 해방군으로 들어온 소련군이 주요 공업시설물들을 전리품으로 취급하여 본국으로 빼돌려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져 실업자들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곧 이어진 전쟁으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식량난과 구직난이 심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난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월남하였으므로 그들의 생활은 상당히 어려웠다. 속초의 경우 1952년 경만 해도 어업보다는 농업우위의 지역이었으나 어업기술을 갖고 있는 월남인들이 유입되면서 농업보다 어업의 비중이 더 커졌다. 1950년대 후반 속초지역은 어업호황으로 타 지역 거주 난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오면서 난민촌은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실향민들은 월남 후 최초 정착지를 속초로 정했다기보다는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해안지역에 정착했다가 '내일이면 집에 간다'는 생각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향에 가까운 속초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1953년부터 1년간은 피난민집단들이 무작정 북상하였으며 이때부터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55년 이후에는 피난민 집단거주지라는 귀속심리와 어업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청호동에 머물게 되었고 그들의 대부분은 생계를 어업에 의지하며 살았다.

3. 산업구조와 경제활동

가. 농업

속초지역은 해안에 접해 있는 구릉지와 저지대가 형성되어 농업에 적합한 지형을 구비하고 있다. 기후조건 상으로도 적당한 강수량과 일조량, 온화한 해양성 기후 등은 농업 입지 여건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속초의 농지분포는 설악산 계곡에서 동해로 흐르는 쌍천 주위의 도문동 일대와 달마봉에서 시작하여 노학동 평야지대를 지나는 청초천 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속초의 농업은 전통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도 주로 원주민들에 의해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다.

〈 표 2-7-3 〉 속초읍내 구역의 농민 분포(1955년) (단위 : 호, 명)

구 분	1구 (영랑동)	2구 (동명동)	3구 (중앙동)	4구 (금호동)	5구 (청호동)	기타 지역	속초 전체
농가수	28	23	29	25	–	790	895
농업인구	97	91	186	101	–	4,426	4,901

자료 : 『읍세일람』, 1955

위 <표 2-7-3>에서 볼 수 있듯이 속초리 1~4구의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피난민이 모여들었지만 극소수였던 것으로 보이며, 농토가 없던 5구, 즉 청호동에는 대부분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다. 속초 인구 23,699명 가운데 농업인구는 4,901명이며 이중 속초의 1~5구의 농업 인구는 9.7%였고, 5구에 농업인구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난민들은 이주 초기부터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미개척지도 빠른 속도로 농지로 전환되었다. 재산의 축적과 함께 일부 피난민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결국 속초의 지역 확대는 농토의 개척과 함께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속초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지는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농토를 따라 집을 지었고, 하나 둘 지어진 집들로 인해 새로운 마을들이 형성되었다.

〈 사진 2-7-3 〉
논산리와 만천동을 잇는 철둑길을 따라 농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와 산업발전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므로 정부는 1973년에 주곡자급에 필요한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보전시책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이 안정되어 속초에도 농업인구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1,000명 정도 늘어났으며, 경지면적도 89㏊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속초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주거환경 및 도로의 개설 등이 요구되었고 농업인구와 경지면적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경지면적을 늘이기 위하여 1980년 이후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허용(헌법개정)하거나, 2002년에는 농지취득절차 간소화 및 농업보호구역내 건축행위제한을 강화(농지법개정)하는 한편 농지전용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여

농지소유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듯하다.

농지면적의 감소는 농가수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농가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62년도 10,464세대 중 1,167호로 11%, 1982년도에는 15,117세대 중 1,040호로 6%, 2002년도에는 33,258세대 중 744농가로 불과 2%에 해당할 정도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는 도시화가 낳은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날로 악화되는 채산성으로 인해 농업보다 관광이나 서비스업으로 직업을 바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가수의 감소는 농업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농업인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1962년도 5,404명으로 인구의 10%였으나, 2002년도는 2,615명으로 인구의 2%만이 농업인구로 분류될 정도로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 표 2-7-4 〉 농가수 및 경지면적

구분 / 연도	농가호수(호)	농가인구(명)	경지면적(ha)			비 고
			계	답	전	
1962	1,167	5,404	1,061	775	286	
1972	1,086	6,389	1,150	672	478	
1982	1,040	5,590	1,160	696	464	
1992	992	4,308	754	472	282	
2002	744	2,615	820	565	255	

자료 : 『속초시정 40년사』, 2003.

미곡생산은 1962년 929톤, 1972년도 1,401톤, 1982년도 2,084톤, 1992년도 2,583톤, 2001년도는 2,430톤으로 1962년 대비 262%가 증가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태풍피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농업기술의 발전과 우량종자의 보급 등 영농여건의 향상에 기인한 때문이었다.

맥류는 1962년도 34톤, 1972년도 73톤을 생산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맥류 재배면적이 전혀 없다. 그러나 2000년 2ha, 2002년 3.7ha로 재배면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웰빙 문화의 형성으로 소비자가 증가한 결과이다.

두류는 1962년도 133톤, 72년도 81톤, 82년도 105톤, 92년도 42톤, 2002년도 44톤이었다.

서류는 72년도 283톤, 82년도 410톤, 92년도 500톤, 2002년도 522톤으로 해마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 표 2-7-5 〉 식량 생산 현황

구분 / 연도	미 곡	맥 류	두 류	서 류	비 고
1962	929톤	34	133	–	
1972	1,401톤	73	81	238	
1982	2,084톤	–	105	410	
1992	2,583톤	–	42	500	
2002	1,594톤	7.4	44	522	

자료 :『속초시정 40년사』

나. 어업

속초시의 산업별 인구현황은 1961년 농업의 비중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수산업이 11.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 농지면적이 줄어들어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수산업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수산업 비중의 증가와 수산업의 활성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976년에는 속초시 인구가 72,04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수산업은 속초항이 개항된 이래 지역 내 총생산의 44.8%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산업 활동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후 수산물 생산이 1982년 37,773톤에서 1992년 26,981톤으로 29% 감소하면서 어업종사자들의 이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수산물의 어획량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1962년 4월 27일 속초항이 지정항이 되고나서 30년 후인 1992년과 비교해 보면, 어가는 52% 감소한 반면 수산물은 1992년에 26,981톤을 생산해 1962년 보다 5.9배 증가하였다. 또한 어선보유 척수는 1962년 811척에서 1992년 623척으로 23% 감소했으나, 어선의 척당 평균 톤수는 0.97톤에서 40.1톤으로 41.3배, 마력수는 척당 9마력에서 174마력으로 33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어획을 위한 첨단기술장비, 고깃배 규모의 거대화 등에 의한 원양어업의 활성화로 수산물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시 승격 이전의 어업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어업이 이루어져 전근대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6년에 어업근대화 계획에 의하여 5대양 6대주로 진출하는 원양어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연근해 어업도 대형동력어선, 합성수지어선을 도입하였다. 한편 어로 장비를 개선하고 냉동, 가공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수산제품의 품질개선으로 어민소득증대는 물론 일본, 미국 등지에 수출하게 되었다.

어가와 어민수는 1972년을 고비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시

승격 때보다 어가는 약 4배, 어민수는 약 2,700여명 감소한 상태이다. 한편 수산물 생산량도 감소하여 자원고갈 현상을 보이며 어선의 숫자도 1962년에 비해 200여척 감소했으나 톤수와 마력수는 증가하여 선박이 대형화, 고기능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표 2-7-6 〉 속초시 수산업 변천 현황

연도별	어가 · 어민수		수산물생산		어선보유		
	어가(호)	어민(명)	수량(톤)	금액(천원)	척수	톤수	마력수
1962	3,831	5,873	3,873	15,895	811(325)	784(0.97)	2.967
1972	6,179	32,224	29,479	1,456,413	851(426)	6,032(7.09)	13.950
1982	3,098	15,383	37,773	15,176,422	765(669)	10,884(14.22)	–
1992	1,854	7,369	269,814	37,037,232	623(561)	24,980(40.1)	98.144
2002	930	3,115	21,210	42,121,298	588(573)	10,613(18.0)	153.663

자료 :『속초시정 40년사』

속초항은 원래 근해의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인해 어항으로 발전했으나 양양철광이 개발되어 철광석의 선적량이 늘어나면서부터 철광석을 운반하는 항으로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 특히 1974년부터 철광석, 석탄, 시멘트, 유류, 선어, 양곡, 기타 해상화물량이 증가하여 활기를 띠게 되었다.

속초항은 속초시 수산업의 중심지로 1962년 4월 27일에 수산물 운송 지정항으로 되면서부터 동해안에서 중요 어항으로 손꼽히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총 702척이 조업하고 있고 중요 수산물로서는 오징어, 명태, 꽁치, 멸치, 노가리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요 어종이 시기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으며 더욱 최근에는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로 이직이 늘어가는 실정이다.

1) 어선의 종류

수복 이후 어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배는 피난민들이 피난 당시 타고 월남한 범선인 창이배와 강원도, 경상도 지방의 주된 범선인 오마리배가 주종이였으며 기계선(동력선)은 몇 척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어업인구의 증가와 전문적인 직업화는 어선과 어구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중반에 들면서 범선이 동력선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주로 10 15톤급(소구엔진 10~12마력)의 소형 동력선이 만들어지고 1960년대 들어오면서 20톤급으로 늘어났다.

〈 사진 2-7-4 〉 소형어선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어선들(1950년대)

2) 주어종과 조업실태

주어종은 명태, 오징어, 꽁치, 양미리 등으로 명태잡이가 10~2월, 오징어와 꽁치잡이가 5~9월, 양미리잡이가 10~12월에 이루어졌다. 기타 잡어로 가자미, 우러기, 이면수, 열갱이 등을 어획하였다.

가장 많은 어획량을 보인 어종은 명태였다. 동력선의 등장으로 조업이 편리해졌고 어획량도 훨씬 많아져 1962년도의 경우 무려 30,000톤에 이르렀다. 이는 범선 조업이 대부분이었던 1955년의 7배나 되는 것이다. 잡은 명태는 수협에서 위판이 되어 그날 밤으로 트럭에 실려 서울의 동대문 등 어시장에서 전국에 팔려나갔고 나머지는 덕장(勢場)에서 말려져 건태(乾太)로 만들어졌다. 속초 변두리는 물론 거의 집집마다 덕장이 있었고 멀리는 진부령이나 대관령에서 황태(黃太)를 만들었다. 명태의 다량어획은 속초항을 북방어업전진기지로 만든 큰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속초항은 겨울 명태잡이가 끝난 어한기에는 소위 '남발이'라고 했던 서해 조기잡이를 떠났다. 서해 조기잡이에서 돌아온 어민들은 꽁치잡이를 하고 이어 오징어잡이를 하였다. 꽁치는 생물 아니면 염장으로 처리되었다. 오징어잡이는 재래식인 한 가닥 조업이었으며 집어등(集魚燈)은 카바이트 가스불을 쓰다가 동력선으로 바뀌면서 자체 발전한 전기등을 사용하여 어획이 몇 배로 늘어났다. 잡은 오징어는 건조가 위주였으나 장마철을 맞으면 건조가 어려워 염장법이 시작되었고 구공탄이 생기면서 연탄불 건조가 생겨났다. 꽁치와 오징어잡이가 끝나면서 양미리와 함께 명태잡이가 시작된다. 그 때의 양미리잡이 방법은 지금 같은 코걸이가 아닌 후리방식이였다. 두 척의 주선(主船)이 고기떼를 보고 그물을 빙 둘러친 후 종선(終船) 몇 척이 돌을 던지면서 고기떼를 후리 안에 몰아넣어 잡는 것이다. 잡은 양미리는 한두름

(20마리)씩 볏집으로 엮어서 덕장과 집마당의 빨래줄 같은데서 말렸고 상당량은 염장을 하여 명태낚시 미끼로 사용하였다.

다. 공업

속초지역의 공업은 어업의 호황으로 어선의 수요가 증가하여 조선소가 생기면서 활성화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범선이 동력선으로 바뀌면서 선체(船體)와 기계의 제작 그리고 수리를 하는 공장이 생겨났으며, 원자재인 나무판의 공급을 위한 목재소도 같이 생겨났다. 이때의 조선소는 영동, 원산, 제일, 삼화, 칠성, 공영, 함경, 원풍 등이며 기계 및 철물공장은 동방, 이성, 원일, 동아, 중석, 단천 등이 성업하였다. 목재소는 삼화, 함흥, 무림, 인제, 대성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계공장들은 1960년대 들어 소구엔진이 디젤엔진으로 발전되면서 사양을 맞았다.

〈 사진 2-7-5 〉 속초조선소(1960년대)

속초의 기업체 현황을 보면 1969년도부터 최근까지 매년 기업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속초의 기업체가 꾸준하게 성장하지 못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이고 둘째, 업종자체가 원료나 환경조건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 많기 때문이며 셋째, 접적지역이라 심리적 투자기피현상과 군사작전지역상 지나친 제약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업종을 보면 시멘트 가공업이 가장 많고 다음이 식품가공업, 제재업, 조선업, 기계제작업 순이다. 하지만 제재업이나 조선업은 목선제조의 사양화와 산림자원의 고갈로 인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가장 발달한 제조업은 수산물 가공업이었다. 1930년대 속초항의 개발 이후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정어리떼를 따라 견작선이 몰려들어 속초항은 발동선으로 메워졌는데 외항도 내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속초항은 정어리

어항으로 유명하였고 정어리 가공공장도 설립되었다.

1961년도 통계자료엔 연탄공장이 10곳, 도정업이 15곳, 조선소가 6곳, 어간유공장이 5곳, 주류공장이 5곳이었다. 1968년도엔 선박과 관련된 조선공장이 21곳 있었고, 연탄공장 10곳, 도정업, 제재소가 11곳, 어간유 공장이 7곳을 유지하고 있었다. 1972년도 통계를 보면 부럭 기와 공장이 8개로 제일 많았고, 어선을 제작 수리하는 조선공장이 7곳, 어간유 공장이 6곳, 연탄공장이 2곳이었다.

〈 표 2-7-7 〉 주요 기업체 현황

구분 / 업종별	공장수	생산품목
1969	121	-
1970	84	-
1971	67	-
1972	51	-
시멘트가공	8	부럭기와
조선공장	7	어선신조수리
어간유공장	6	어간유
연탄공장	2	연탄제조
기계제작업	6	선박기계수리
공예품제조공장	2	목각인형절구
제재업	3	목재
인쇄업	2	각종인쇄
제과업	3	과자

자료 : 『속초시통계연보』, 1973

라. 상업

우리나라 상업은 전통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속초는 수복당시 영랑동이 중심생활권이었기 때문에 영랑동에 5일장이 서게 되었다. 피난민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국군과 미군부대가 계속 주둔하게 되자 상업경기가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일상경제 생활의 수요를 5일장으로는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영랑동 5일 장터는 상설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초창기의 영랑동 시장은 말이 상설시장이지 반듯한 점포 하나 없는 초라한 시장이었다. 피난민들 중에는 장사에 뜻을 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노점상을 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상인들은 길모퉁이의 판자집이나 초가집 추녀 밑에 좌판을 설치하고 주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PX물품(양담배, 양주, 껌, 과자류 등)들을 진열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

나 귀향민과 피난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수요가 급증하여 좌판이 20~30개로 늘고 쌀, 부식 등 생필품 거래도 시작되었다. 미곡상, 잡화상, 의류상, 부식품가게 등이 속속 들어서 시장은 점점 번창해 갔다.

그러나 1953년 휴전에 이어 다음해 국군(1군단)과 미군부대가 이동하면서 영랑동 시장의 상경기는 빛을 잃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수협 위판장이 있는 중앙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1956년도에는 중앙시장이 건립되었다.

이어 청학, 청호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중앙시장은 1990년도 구 상가건물을 정비하여 500여 개의 점포를 가진 현대식 건물로 변모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 표 2-7-8 〉 1967년도 속초 시장의 상황

구분 / 시장	소재지	시청과 거리	정기별	년간거래액	점포수	중요거래상품명
제일시장	영랑동	1.0㎞	상설	150,000,000	55	직물, 피복,
중앙시장	중앙동	0.5㎞	상설	1,150,000,000	272	고무신, 곡류,
대포시장	대포동	6.9㎞	정기	50,000,000	37	주류, 식품

자료 : 『속초시 통계년보』

마. 관광

동해의 광활한 바다와 설악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속초시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경제개발로 인한 소득 증가와 주 5일제 시행은 속초를 주목받는 도시로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현재까지의 관광산업의 형태는 설악산과 동해바다 등 자연자원을 이용한 숙박업소의 확충과 근접도로망의 개설 등 소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해마다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2002년 4월 양양국제공항 개항, 중앙고속도로 개통,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개설은 향후 관광사업의 청신호로 기대된다.

속초시의 관광이벤트 행사 중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엑스포)는 19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일원(124,000평)에서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Man, Nature and Life of the Future)'란 주제 아래 펼쳐진 행사로 세계 60개국 78개 지방정부와 국내 34개 지방자치단체, 80여 개 기업체가 참가한 대규모의 행사로서 속초시의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12] 이러한 대규모의 행사를 치뤄낼 수 있었던

12) 세계 60개국이 전시에 참가했고 24개국이 공연행사에 참가했으며 해외의 주요 인사들이 엑스포장을 방문하여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단위에서 광범위한 국제관광협력의 장이 이루어졌다. 주제관에서는 대형 영상 영화를 하루 15회씩 상영해 약 36만 명의 관람실적을 올렸고, 높이 73.4m 규모의 상징탑은 약 1백50만 명이 이용하였다.

것은 그동안 꾸준히 관광인프라를 구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바. 서비스업

1) 판매업

1987년도 판매업 업소수를 업종별로 보면 상업은 외지 관광객의 유입, 레저 관광시설의 점차적 증가로 활기를 찾게 되었으며, 1999년 현재 도소매업 2,458업체에 종업원수가 무려 5,409명에 이른다.

속초시의 총판매업소 974개중 식, 음료품 판매업소는 2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농산물 판매업소로 17.9%, 의류 및 장식품 판매업소가 13.8%이다.

2) 음식, 숙박업

음식, 숙박업소의 증가 추세를 보면 속초시가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자취들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도소매업에 못지않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8년 현재 2,203업체에 종사자수 6,030명에 이르고 있다.

제6절 현대의 사회

1. 한국전쟁과 사회변동

오늘날의 속초는 한국전쟁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초가 전쟁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1950년 10월, 전세가 역전되어 북진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전쟁에 의해 수복되었다. 하지만 1951년 초 1·4후퇴에 의해 다시 북한의 통치지역으로 넘어갔고, 2월 11일에 재탈환되어 오늘날까지 휴전 체제 하에서 남한체제의 일부로 존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속초의 운명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동안 속초는 한국전쟁을 매우 특이하게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태학적 성격마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는데, 그 첫째는 속초에 대해 약 3년 가까이 국지적 미군정이 실시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38선 이북 출신 실향민들에 의해 속초가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인구성장과 도시발전을 체험했다는 사실이다.

1951년 8월부터 1954년 5월까지 속초지역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실시한 세 번째의 군정이었다.[13] 한국전쟁에 의해 수

13) 첫째는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고, 둘째는 1950년 가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역에 실시된 미군정이다.

복된 속초에는 한동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했고, 그 기간은 1953년 7월에 있었던 휴전협정 조인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미국이 속초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남북대치 하의 군사 · 전략적 거점으로서 속초는 많은 인구를 필요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군사적 질서와 통제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둘째,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지역으로부터 적성(敵性)을 제거하고 순화하기 위한 일종의 특수 기획이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어쨌든 속초는 과거 이북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에 의해 남한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무려 3년 가까이 외국 군대의 군정을 경험했던 매우 이례적인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과거 역사는 오랫동안 잊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경험이었다.

그런데 군정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던 속초지역은 미군정기를 보내면서 인구의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속초를 비롯한 38선 이북의 영동 북부 여러 지역이 월남한 피난민들의 집합적 거주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속초 전체를 볼 때 피난민이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청호동의 경우에는 70% 정도가 월남민 1세대와 그 후 세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1 · 4 후퇴 때 피난민으로 월남하였다가 휴전선이 고착화되면서 고향이 가까운 길목으로 모여들었는데, 특히 함경도 출신 주민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950년 12월 소위 흥남철수 때 유엔군을 따라 부산까지 피난 내려갔다가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올라오면서 고향 가까운 곳에 주저앉은 곳이 바로 속초였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속초읍에 유입된 월남민은 48,72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실제로 청호동에 거주하는 피난민을 출신지별 구분해 볼 때 92.9%가 함경남도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호동 일대가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향민 집단거주 지역으로서 흔히 '아바이 마을'로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 신흥 정착민들은 현지 원주민과 경쟁하고 정부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적극 수용하는 동안 과거 북한주민으로서도 아니고 전통적인 강원도민으로서도 아닌 새로운 정체성과 독특한 하위문화를 만들어 갔다.

2. 북한 주민의 월남

가. 해방 및 전쟁 시기 월남

국토의 분단은 북에서 남으로 민족 대이동을 가져왔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겪어본 일이 없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것이었다. 1946년에서 1 ·

4후퇴까지의 기간 중 북한지역에서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온 월남민은 자그마치 5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1/6을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도저히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용감히 사경을 탈출한 자유민들이다.

월남민의 수는 북한 지역에서 압박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정비례했다. 월남민들은 크게는 1946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미군정 기간 중에 나온 사람과 한국전쟁 후 1 · 4후퇴 때 나온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 주류를 이룬다. 미군정 때 넘어온 사람은 1946년 3월의 토지몰수와 공산주의자들의 압박을 피해온 사람들이다. 이들 중 청년층은 국방경비대에 들어가 국군의 기간이 된 이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서북청년단으로 뭉쳐 남한 각지에서 날뛰던 남로당 세력을 타도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1 · 4후퇴 때 남하한 사람들은 이와는 양상이 전혀 달랐다. 특히 속초를 비롯한 동해안 각지에 많은 함경도 사람들은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때 미군 LST로 부산에 상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에 밀려 인민군이 후퇴를 시작한 1950년 10월에 접어들어 자행한 공산당의 만행을 목격한 자들이었다. 당시 정치보위부와 내무서는 요시찰인물들을 예비 검속하여 구금하였다가 후퇴하기 전날 밤에 모두 살해하였다. 이렇게 살해된 자가 각 군마다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참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피난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유엔군의 후퇴는 전략적인 것이어서 멀지 않아 반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더군다나 2차대전 때 맥아더 장군이 일본군에 밀려 필리핀을 떠나면서 "나는 돌아올 것이다"(I shall return)라고 말했던 그가 약속한 대로 돌아와서 "나는 돌아왔다"(I have returned)라고 한 말을 상기하며 그는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피난민들은 넉넉잡고 석 달이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미군수송선, 발동선, 범선, 군용트럭 등을 어렵게 얻어 타고 월남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중공군이 격퇴되자 국군의 북진과 더불어 한 발자국이라도 고향 가까운 곳에 가려고 따라 올라오다가 주저앉게 된 사람들이다. 월남민들은 7 · 27휴전으로 고향길이 아득해지자 악착같이 돈을 벌어 속초는 물론 각 항구의 상권을 잡았다. 그뿐 아니라 굳센 단결력과 강인한 생활력, 진취적인 활동력으로 각 분야에서 역경을 이기고 일어나 눈부신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시에서는 실향민들의 염원이 담긴 수복기념탑을 세워 망향의 한을 달래고 있다. 1954년 5월 10일 제막된 이 탑은 당시 속초읍장이던 김근식과

제1군단장 이형근 장군, 속초에 사는 실향민들의 노력의 결정체인데, 탑 꼭대기에는 남루한 치마저고리의 여인이 오른손에는 피난보따리를 들고 왼손은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북녘을 향해 걷는 모자상이 서 있다. 비록 온몸은 지칠대로 지쳐 보이지만 고향이 있는 북녘을 응시하는 눈길은 아마 500만 월남민의 공통된 염원의 상징일 것이다.

흥남철수 그날밤[14)]

"그저 한국말로 빨리 빨리라는 말만 외쳐댔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안간힘을 썼죠."

러니는 1950년 12월 22일 함경남도 흥남철수의 긴박한 순간을 회고한다. 당시 23세의 나이로 미국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일등선원이었던 로버트 러니(79, 변호사). 그는 14,000명을 구조해 기적의 배로 기네스북에 오른 빅토리호 신화의 주역이었다.

"피난민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노인들, 목발을 짚고 있는 불구자들,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아이들, 들 것에 실려 온 부상자들... 영하20도의 눈보라 속에서 승선하는데만 16시간이 걸렸죠."

그 밤의 흥남부두는 아비규환이었다. 중공군이 저 멀리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었고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피난민들은 육지의 끝인 부두까지 몰려왔다.

"갑판 위에는 더 이상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뒤늦게 승선한 어린아이는 갑판에 자리가 없어 치마끈을 이어 묶은 줄에 매달려 화물칸으로 내려졌습니다."

당시 7,600t급 빅토리호의 화물칸은 끝없이 밀려드는 피난민으로 채워졌다. 14,000명이 탔다.

"피난민들 중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운이 좋았죠. 화물칸에는 신선한 공기는커녕 움직일 틈조차 없었으니까!" 라고 회고했다. 당시 배에는 마실 물도 화장실도 없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머니들은 아기를, 아버지들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빅토리호는 기뢰 밭을 뚫고 3일간의 항해 끝에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거제도에 도착했다. 단 한명의 사상자도 없었고, 배위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 가위조차 없어 이로 탯줄을 끊었다.

러니는 흥남 철수에서 본 한국인을 이렇게 평가했다.

"가는 곳마다 죽음과 파괴가 나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감으로 그저 전쟁이 지겹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전혀 동요되지 않고 함께 고통을 감수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용기에 한 없이 감동 하였습니다."

이 미국의 은인에게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56년만에 보은했다. 재향군인회는 23일 이국땅에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인명을 구조한 빅토리호 선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로버트 러니에게 향군 대휘장을 수여하였다.

14) 1950년 12월 22일 흥남철수작전에 참가한 미국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일등선원이었던 로버트 러니(79, 변호사)의 신문기자와의 대담에서 토로한 회고담으로 자료보존 차원에서 수록하였다.

〈 사진 2-7-6 〉 수복기념탑

나. 전쟁 후의 인구 유입

속초에 상당수의 월남인들이 이주해오는 시기는 대개 1951년 수복 이후부터 1960년대 초쯤이 된다. 특히 청호동에 정착한 월남인의 경우 과반수는 속초가 수복되어 군정이 실시되던 시기에 이주하였다.

〈 표 2-7-9 〉 속초의 인구 변화 추세 (단위:명)

년도별	세대수	인구	세대당 평균인수
①1925	1,263	6,979	5.5
②1949	2,321	11,406	4.91
③1953	3,661	16,213	4.43
②1954	4,841	20,599	4.26
④1955	5,350	23,699	4.43
1966	12,785	67,079	5.2
1976	14,801	72,042	4.9
1986	17,584	71,211	4.5
1995	25,792	80,709	3.13
1998	29,729	87,070	2.9

자료: ①『조선국세조사보고』②『군세일반』③『수복년감』④『읍세일람』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인 사회주의 북한 치하의 속초 인구는 약 1만 1천여 명이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 속초 원주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는 1954년 양양군청이 펴낸『군세일반』이다. 군정 하에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지만 그 자료를 보면 원주 인구가 9,337명으로서 약 3년 사이에 2~3천여 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철수민'으로 명명되어 있는 피난 월남인이 11,256명으로서 군정 당시 상당수가 속초 지역에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6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월남인들이 이주해 들어왔다.

이에 정부는 속초에 피난민 정착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던듯 하다. 하지만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속초에는 지속적으로 피난 월남인들이 이주해 들어왔다. 이주의 형태는 대개 개별적이지만 전혀 연고 없는 이동이기보다는 아는 사람을 찾아오는 연쇄 이동이 많았다. 개별 이동에서도 개인 단독 이동보다는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동반 이동이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연쇄이동에 의해 속초에는 이북 출신 중 함경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쇄이동의 형태에 의해 형성된 대표적인 지역이 청호동으로서 이곳을 '아바이마을'로 오랫동안 불려져왔다. 청호동 내에는 동향 출신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신포마을', '짜꼬치마을', '영흥마을' 등도 있었다.

속초 이주민들은 한 발자국이라도 고향에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으로 속초에 모여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사하면 이주의 시기에 따라 이주 동기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1950년대 민정 이양 후 속초는 어업경기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1962년경에는 어업인구(32.1%)가 농업인구(16.4%)를 능가하게 된다. 그러한 산업구조는 과거 어업에 종사하였던 월남인들로서는 강력한 유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1955년 이후 청호동으로 오는 월남인에게는 같은 고향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과 숙련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점, 땅 값이 거의 필요 없고 집값이 싸다는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크게 보아 대다수 월남인의 공통된 이동 동기는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착촌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수의 월남 이주민들이 개인적으로는 귀향의 열망을 안고 속초에 모여들었지만 현실적으로 1950년대 중반까지는 군 계통의 일과 관련되어 이주하였고 1960년대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했다. 또한 이주 형태와 관련되어 무연고 이주보다는 먼저 정착한 친인척이나 동향인들을 통해 속초가 '먹고 살기가 좋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이주한 것이다.

다. 이주민 마을의 형성

일제시대에 청초호 유역 일대의 충적지 즉 부월리 축은 개간이 상당히 진행되어 더 이상 인구를 수용할 만한 터가 없었다. 따라서 늘어나는 인구와 외부로부터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는 새로운 터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때 청초호를 막아주는 긴 사주가 새로운 주거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곳에 서서히 취락이 형성되던 중 1945년 이후의 월남민과 1·4 후퇴 당시 남하한 피난민은 귀향하기에 쉬운 사주일대에 피난민촌을 건설하여 오늘날 속초시 발전의 원동력을 이루어 내었다.

일제시대에 반부평으로 불리던 이곳은 수복 이후 피난민들의 거주지로서 청호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청호동에는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아바이마을'이라고도 한다.

〈 사진 2-7-7 〉 청호동 아바이마을(1960년대)

한국전쟁 때 청호동에는 정어리 기름공장만이 두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후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움막형태의 집들이 들어서 신포마을, 앵고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홍원마을, 단천마을, 영흥마을, 이원마을 등의 집단촌이 형성되었다. 이중에서 단천마을과 신포마을이 중심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로 행정권이 이양되기 전까지 이곳은 군정 당국의 관할이었는데 군정은 이 지역에 피난민 정착촌 형성을 위해 주택 건설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다. 그래서 초기에 이곳에 유입된 피난민들은 현재의 청호동 1, 2, 3통 지역을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 움집이나 소규모 가건물, 판잣집 등을 불규칙하게 짓고 살았다. 재료의 대부분은 미 군용선에서 버린 것을 모아 사용했고 청호동 앞바다에 떠다니던 군용 목재나 목재소에서 나오는 죽더끼(피죽), 드럼통, 박스 등을 주워 재료로 활용하여 집을 짓기도 했다. 군정 당시 청호동에는 식수원이 없어서 청초호 건너 중앙동에 있는 공동 우물을 이용해야만 했다. 군정 철수 후 정착민들이 4통 쪽으로 뻗어나갔던 이유는 더 넓은 터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 때문이기도 했지만 군단이 위치했던 근처에 군단이 개발한 지하 펌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난민들은 청호동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다가 대부분 속초항 부근으로

이주하였다. 청호동 일대는 초기 개척촌으로서는 유리하였지만 이들 인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생업의 기반이 취약하였다. 부근에 함경조선소, 부산조선소, 군 간이 비행장, 명태덕장 등이 있었지만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피난민들을 수용하기는 산업이 빈곤하였다.

피난민들의 새 이주지로 주목받은 속초항 부근의 좁은 해안평야와 그 뒤쪽의 낮은 구릉지는 이후의 도시 개척지로 적당하였다. 피난민들이 내륙 산간지역의 농지를 개간하여 자신의 터전을 개척하기에는 경작지가 너무나 협소하였고 가파른 산지지형은 화전의 개간이 어려웠으며, 낮은 충적지는 이미 선주민이 점령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난민들은 속초항과 대포항을 중심으로 한 낮은 구릉지에 기대어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동명동 등대밑(삼호마을), 감리교회 밑(단천마을), 시내를 가로지른 구 철도부지와 동명, 중앙, 금호동의 산(언덕) 비탈에 피난민촌이 형성되었으며, 1군단 공병단의 지원으로 웅덩이를 메워 중앙시장과 청학, 교동택지가 마련되어 피난민들을 수용한 것이다.

3. 도시로의 전환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된 후 속초읍은 6구로 나뉘어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모두 14개 리가 되었다.

속초읍이 6구로 분화된 것은 속초항과 청호동의 비중을 보여준다. 1961년에 그 일단을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속초 1구에서 6구까지의 인구가 평균 5천명 이상이 되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당시 속초읍의 인구가 총 50,703명인데 도리원 부근 2,531명, 청대 부근 2,095명, 대포 부근 2,450명, 중도문 부근 1,854명이 거주하여 속초항 부근 이외는 마을 당 2천여 명에 불과하였다.

속초리 이외의 지역은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곳이었다. 따라서 인구수용에 한계가 있어, 피난민들의 이주는 농업과는 덜 관련된 속초리와 청호동 쪽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어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63년 동별 직업별 인구조사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인구조사에서 어업인구는 전체직업별 인구 23,579명중 7,197명으로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업인구 대부분이 속초5구, 6구, 부월리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표 2-7-10 〉 속초의 동별 직업별 인구(1963) (단위:명)

구분 / 리별	총수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공익사업	상업	운수업	서비스업	기타
속초1구	2,320	58	292	2	76	91	33	394	28	121	1,225
속초2구	1,799	70	647	1	62	84	35	340	141	135	284
속초3구	2,035	9	524	11	73	268	15	778	33	239	85
속초4구	2,515	30	996	9	89	83	15	626	188	333	146
속초5구	4,272	91	1,347	38	130	167	26	925	48	339	1,161
속초6구	2,385	130	1,098	8	151	30	27	193	56	163	529
도리원	1,387	1,231	2			32	7	10		39	66
청대	1,244	801	208		4	3	3	55	8	66	96
부월	3,102		1,449		5	7		369	2	125	1,145
대포	1,388	358	634	2	5		1	71		39	278
중도문	1,132	882		1	54	25	1	55	3	26	82
계	23,579	3,660	7,197	72	649	790	163	3,816	510	1,625	5,097

자료 :『속초통계연보』, 1963.

이러한 인구 분포와 직업별 분포는 2000년 8월 1일부터 2개월간 속초시에서 조사된 호적부상 피난민 1세대들의 분포와 일치하게 된다. 조사결과 세대수는 호적부상 전체 1,654세대였고 직업별 분포는 총 617세대였다. 그 중 어업세대수는 영랑동 8세대, 동명동 12세대, 금호동 16세대, 교동 32세대, 노학동 25세대, 조양동 2세대, 청호동 123세대, 대포동 6세대 등 총 224세대로 36.4%를 차지하였다.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청호동, 교동 등은 속초 1~6구에 해당되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피난민들이 이 지역에 자리잡으면서 속초시 개척의 선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청호동 일대에 정착한 1세대 피난민들은 청호동과 속초항이 갖는 항구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어업 및 항구도시로서 속초시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4. 인구의 변동

가. 시의 인구변화

속초가 시로 승격되기 전 해인 1962년은 10,464세대수에 인구는 50,073명이었는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에 의해 시로 승격되면서 10,864세대 55,619명으로 약 10%정도의 증가를 보인다. 그 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 1973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75,000명 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970년대 전국적으로 실시된 경제개발 정책과 어업호황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974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인구가 감소하였다. 전통적으로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던 지역경제가 해양오염과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어획고가 급격히 떨어졌고,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의한 이농현상이 겹쳐진 결과였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까지 계속되어 약 6년 만에 10,000여 명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1980년을 기점으로 다시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95년에 최초로 80,000명을 넘어서게 되고, 2000년에 90,543명으로 드디어 90,000명대를 넘어서게 된다. 이는 시 차원에서 벌인 적극적이 인구유입 홍보와 관광 진흥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가구당 인원수는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듯이 해가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핵가족에 의한 소인 가구가 증가하고 출산의 기피로 신생아의 출생이 줄어들었으며 관광지의 특성상 독신가구가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사건 사고

가. 한국산악회 해외원정등반훈련대 10명 조난사고

1969년 2월 14일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해외원정등반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던 한국산악회(韓國山岳會, 회장 이은상) 대원 10명이 계곡을 덮은 거대한 눈사태로 사고를 당한, 우리나라 등반사상 최대의 조난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산악회는 1970년도에 본격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원정등반을 하기로 계획하고, 2월 6일부터 설악산에서 훈련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2월 6일 신흥사 보제루에서 대원 18명은 한국산악회장 이은상, 설악산악회장 이기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갖고, 1조 3명씩 A. B. C. D조로 나누고 나머지 6명은 본부조(E조)로 편성하여 훈련에 임하였다.

비선대를 거쳐 천불동계곡으로 들어간 훈련대는 12일에 A조(한덕정, 정현식, 이인정), D조(구인모, 오동석, 강신영), E조(전담, 이재인) 8명과 그 외 촬영차 동행한 국립영화제작소 박태규 등 9명은 주봉인 대청봉 정상에 캠프를 설치하였고, B조(박은명, 변명수, 박명수), C조(오준보, 이만수, 김종찬), E조(대장 이희성, 부대장 김동기, 부대장 남궁기, 임경식)10명은 죽음의 계곡에 8인용 본부천막과 3인용 천막 2개를 쳐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였다.

죽음의 계곡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한 B조, C조, E조는 13일 빙폭 훈련을 마치고 잠을 자던 중 14일 새벽 계곡을 덮은 거대한 눈사태에 묻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 이들의 훈련 광경을 촬영하기 위해 일행과 같이

산에 올랐던 국립영화제작소 박태규가 A, D조가 있던 대청봉에서 하산하면서 13일 오전 10시 이곳에 이르렀을 때만 해도, B, C조 대원들은 빙폭 등반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4일 정상에 있던 A, D조 대원들이 훈련교대와 식량보급을 받기 위해 베이스캠프가 있는 죽음의 계곡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어야 할 대원들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높이 약 20m 가량의 눈이 계곡을 덮고 있었다. 베이스캠프도 눈사태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폭포엔 얼어붙은 로프와 붉은 자일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대청봉에서 내려온 A, D조 대원들은 B, C조 대원들이 혹시 양폭산장에 대피 중이 아닌가 생각하고 내려가 보았으나 이곳에서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식량 보급을 받을 길이 없어진 대원들은 비상식량을 꺼내 먹으면서 15, 16일 양일 동안 일대를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허사였고 계속 내리는 폭설로 천불동계곡마저 눈사태로 묻혀 죽음의 계곡 베이스캠프에는 갈 길마저 막혀 버렸다. 할 수 없이 8명의 대원들은 구조를 요청하고자 17일 오전 8시 양폭산장을 출발하여 오후 3시10분 신흥사에 도착하여 설악산악회장 이기섭에게 사태를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준수 속초경찰서장 지휘하에 경찰 구조대를 편성하여 밤에 설악동에 도착했다. 18일에는 한국산악회 구조대(대장 변완철)와 육군 1619부대 구조대(대장 마숙도 중위)가 도착했다. 구조대는 19일 와선대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20일 귀면암까지 전진했으나, 계속된 폭설로 구조를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22일 다시 구조 활동을 재개하고, 23일에는 미군 헬리콥터로 대청봉과 중청봉 중간 지점에 착륙하여 죽음의 계곡으로 접근하려고 했으나 눈사태의 위험으로 그냥 돌아오기도 했다. 계속되는 폭설과 강풍으로 구조 활동은 계속 지연되었다. 25일에는 천종근 강원도 경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군 · 경 · 민 합동 지휘본부가 새로 설치되어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재개되었다. 26일에는 드디어 죽음의 계곡 현장에 도착하였고 발굴 작업을 시작하였다. 27일에는 그들의 유품이 발견되기 시작하였고 3월 1일 시체가 발견되기 시작하여 3월 3일까지 10구의 시체가 모두 발굴되었다.

시체는 대원들이 결단식을 했던 신흥사 보제루로 옮겨져 3월 5일 합동장례식이 거행되었고 시신은 설악산 입구 노루목 묘지에 안장 되었다. 대장 이회성은 현역 군인인 관계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부대장 김동기 교수도 선영에 안장되었다. 그러므로 노루목 묘지 2개의 봉분에는 시신없이 유품만 매장되어 있다.

조난자 명단
이희성, 43세, 대장, 육사교수(중령)
김동기, 39세, 부대장, 서울대 공대 교수
남궁기, 40세, 부대장, 한국전력
변명수, 24세, 서울대 문리대
이만수, 22세, 에코클럽
오준보, 24세, 연세대
임경식, 29세, 아카데미사진연구소
박은명, 23세, 육군본부
김종철, 21세, 연세대 수학과 2년
박명수, 21세, 서울대 문리대 4년

나. 대화퇴(大和堆) 해난사고

1976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초속 14~16m의 파도가 휘몰아치는 폭풍으로 인해, 동해 울릉도 근해 대화퇴 어장으로 고기잡이 나갔던 속초항 소속 금성호(20t) 등 48척이 침몰 또는 미귀항 함으로서, 64명이 익사하고 344명의 어부들이 실종된 국내 사상 최대의 해상사고가 일어났다. 사고지점은 울릉도 동북방 250마일 떨어진 대화퇴(북위 39도 30분~40도 30분, 동경 134도~135도)로 오징어잡이를 나갔다가 408명이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은 안전 조업 규정을 무시한 소형 선박의 무리한 원해조업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20t급 이하의 소형어선으로 원해조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사고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 사고로 30t급 미만의 소형어선의 원해조업을 규제하는 선박안전조업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어선의 대형화와 근대화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다.

6. 교육

속초의 초등교육은 1919년 설립된 대포공립보통학교가 개교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37년에는 영랑공립심상소학교가 개교하여 1950년 속초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속초국민학교는 전쟁 중 소실되어 1951년 10월 재건축되었다. 현재의 영랑초등학교의 전신인 영랑국민학교는 1955년 11월 개

교하였다.

중등학교는 해방 후 북한정부에 의해 속초인민중학교가 청호동에 세워졌다가 전쟁 중에 소실되고 우리 정부에 의해 1951년에 설립된 속초중학교가 최초이다. 속초중학교는 개교 당시 3학급 남녀공학으로 운영하였고, 1952년 첫 졸업생 34명을 배출하였다.

고등학교는 1952년 6월에 속초고등학교가 개교하여 62명(남 57명, 여 5명)이 처음으로 입학하게 된다.

〈 사진 2-7-8 〉 속초고등학교(1955년 영랑동에 개교)

한편, 속초에서의 최초 여성 교육기관은 1955년 5월 개교한 속초여자중학교로서 남녀공학이던 속초중학교에서 분리 설립되었고 1963년 속초고등학교에서 여학교가 분리되어 속초여자고등학교가 설립되었는데 3학급 규모로 속초여자중학교와 병설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1981년 3월 속초경상전문대학이 개교되어 영북지방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양교육을 비롯 사회교육에도 참여하고 있고, 1983년 9월 16일 동우전문대학으로, 1998년 5월 1일 동우대학으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타 불우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로 명신고등공민학교, 대포재건중학교 등이 있었으나 1981년 이후 전부 폐교되었다.

교육장학 기관인 속초교육청은 속초시청 교육과에서 1964년 교육자치제의 부활로 속초시교육청으로 발족되었으며, 1973년 양양군교육청이 속초시에 통합되어 현재까지 속초시와 양양군 교육행정을 관장해 오고 있다. 속초교육청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원도 속초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7절 문화의 다양화와 발전

1. 속초 문화의 양상

속초는 원주민과 피난민의 문화가 공존하는 특이한 문화형태를 보이고 있다. 원주민들에 의해서는 주로 농경문화가 발달하였고, 피난민들에 의해서는 주로 어촌문화가 발달하였다. 농경문화가 발달한 지역은 주로 토착화된 양양의 사투리를 사용하며 조선시대부터 전승되어온 농경문화의 틀을 유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청호동을 중심으로 해안가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함경도의 억센 사투리를 사용하며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면서 원주민과 일정한 경계를 긋고 살아갔다.

이러한 이주민의 특성, 즉 어민 출신이 많고 함경도 출신이 많다는 사실은 이들이 속초에 이주한 후 속초의 성격을 바꾸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피난민들이 집단화되고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 원주민과 일정한 민속 문화적 교류를 가졌다. 그러한 예로 북청도청을 만들어 사자놀음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정서적 갈등을 해결했다는 점이다.

속초 피난민들은 자신을 '실향민'으로 인식하지만 속초 사람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 이주민 2세대는 부모의 인식과 희망에 긍정을 보내지만 자신은 남한 사람이며 속초 사람이라는 인식을 더 널리 갖고 있다. 이는 50년 가까이 월남 이주민과 원주민, 기타 지역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가운데 속초는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은 농촌 지역인 '면'단위 속초를 어업 기지의 '시'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고, 특히 청호동 이주민의 경우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창조하였다. 또한 이주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가운데 언어와 음식, 놀이 문화 등의 각종 문화에 있어서 강원도의 것과 함경도의 것이 혼합되어 새로운 문화로 빚어졌다.

이런 관계로 속초의 문화는 피난민 정착과 삶이라는 남북분단사 내지 난민사와 일정한 연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피난 1세대가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복합적 민속 문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2. 언론활동

1952년부터 1957년까지 수복지구 속초에 동해일보(東海日報)가 일간으로 발행되었다. 동해일보사(東海日報社)는 1952년 4월 15일 국민회(國民會) 속초지부 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4월 17일 창간호를 발행했다. 당시 강원도에는 원주에서 강원일보, 강릉에서 강릉일보, 속초의 동해일보 등 3개의 신문이 간행되고 있었다.

동해일보는 처음에는 등사판으로 1년 정도 발간하였다. 활자로 인쇄된 신문은 1953년 6월 18일부터이며, 1953년 8월 5일에는 주식회사로 되었다. 동해일보는 행정수복(1954년 11월 17일) 후까지 계속 발행되었으나 1955년 3월 공보처의 발행 허가를 받지 못해 폐간되었다.

이보다 앞서 강릉의 강릉일보가 재정난으로 발행이 중단되어 있었다. 이에 박태송 사장 등 동해일보 경영진은 판권만 가진 채 휴간 중인 강릉일보를 인수하여 1955년 7월 15일 속간하였으나 강릉일보 역시 계속된 재정난으로 겨우 2년을 운영하다가 1957년 자진 폐간하였다.

3. 문학을 통한 현대사 조명

속초는 한국 전쟁 이후 전쟁 유민에 의해 재구성된 도시로 피난민들의 정착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쟁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실향의 아픔을 안고 아바이 마을이라는 새로운 정착촌을 형성하게 되고, 전쟁 직후의 황폐한 사회적 분위기와 어울려 수복지구 속초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환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은 문학적으로 매력 있는 소재가 되었고 몇몇 문인들이 여기에 주목하여 실향민의 애환, 처절한 삶의 현장, 분단의 아픔, 통일의 염원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

특히 시인 이상국과 김춘만, 극작가 이반은 속초 실향민의 삶과 의식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상당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속초를 대표하는 시인으로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한 황금찬이다. 그는 '설악의 아침' 등 고향을 그리는 시를 썼다. 그 외 1969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설악문우회가 발간하는 문학동인지인 '갈뫼'를 통해 지역의 많은 문학가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보이고 있다.

소설면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은자의 단편소설 '만선'이다. 이 작품은 조업부진이나 해난 사고로 인한 어민 가족들의 비참한 생활상, 하역작업이나 할

복작업과정을 통한 어판장 풍경, 청호동 아이들의 성장 과정, 월선 조업에 대한 불만, 실향민의 한 등이 그려져 있다. 문영남의 '분노의 왕국'은 제1회 MBC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1960~70년대 청호동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속초의 생활상을 소재로 한다. 강호삼의 '북녘나그네'는 속초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들이고 이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임을 제시한다.

극작가 이반은 '그날 그날에'와 '아버지 바다'에서 실향민들의 삶의 애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을 그려내고 있다.

김정환(국사편찬 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향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독립기념관 자료수집위원)

한정규(국사편찬 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향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감수위원 : 오윤근(속초문화원 부원장)

上

第三編 정치행정

표 목차

3-1-1 조선시대 속초의 호수와 인구

3-1-2 일제시대 속초의 인구규모

3-1-3 일제시대 초기와 달라진 땅이름

3-1-4 속초시 승격이후의 변화

3-2-1 초대 속초시의회 의원선거 투표현황

3-2-2 제2대 속초시의회 의원선거 투표현황

3-2-3 제3대 속초시의회 의원선거 투표현황

3-2-4 제4대 시의회 의원선거 투표현황

3-2-5 제3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원 입후보자 현황

3-2-6 제3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회 당선자

3-2-7 제4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원 입후보자 현황

3-2-8 제4대 도의원 당선자 현황

3-2-9 제5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원 입후보자 현황

3-2-10 제5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원 당선자 현황

3-2-11 제6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원 입후보자 현황

3-2-12 제6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원 당선자 현황

3-2-13 제1대 민선시장 입후보자 현황

3-2-14 제1대 민선시장 후보자별 득표현황

3-2-15 제2대 민선시장 입후보자 현황

3-2-16 제2대 민선시장 후보자별 득표현황

3-2-17 제3대 민선시장 입후보자 현황

3-2-18 제3대 민선시장 후보자별 득표현황

3-2-19 초대 민선도지사 투표현황

3-2-20 제2대 민선도지사 투표현황

3-2-21 제3대 민선도지사 투표현황

3-2-22 제4대 민선도지사 투표현황

3-2-23 제4대 국회의원선거 강원 제17선거구 (양양) 후보자 및 득표상황

3-2-24 제5대 국회의원선거 강원 제17선거구 후보자 및 득표상황

3-2-25 제6대 국회의원 강원도 당선자

3-2-26 제6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7선거구 (속초 · 양양 · 고성)후보자 등록 및 득표상황

3-2-27 제7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7선거구 (속초 · 양양 · 고성)후보자 등록 및 득표상황

3-2-28 제8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7지역구 (속초 · 양양 · 고성)후보자 등록 및 득표상황

3-2-29 제9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4선거구 (속초·양양 · 고성)후보자 등록 및 득표상황

3-2-30 제9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4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3-2-31 제10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4선거구 후보자 등록 및 득표상황

3-2-32 제10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4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3-2-33 제11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5지역구 후보자 등록 및 득표상황

3-2-34 제11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5지역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3-2-35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선거구 후보자등록 및 득표상황

3-2-36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3-2-37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선거구 후보자등록 및 득표상황

3-2-38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3-2-39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선거구 후보자등록 및 득표상황

3-2-40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3-2-41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선거구 후보자등록 및 득표상황

3-2-42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3-2-43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선거구 후보자등록 및 득표상황

3-2-44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3-2-4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선거구
후보자등록 및 득표상황
3-2-46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3-3-1 속초시의 지리적 위치
3-3-2 행정구역 개편 현황
3-3-3 행정구역 통폐합 현황
3-3-4 용도별 주거지역 현황
3-3-5 속초시 인구추이
3-3-6 동별 인구현황
3-3-7 주택보급 현황
3-3-8 속초시 행정동 및 면적
3-3-9 공무원 현황
3-3-10 역대 시장 현황
3-3-11 역대 부시장 현황
3-3-12 년도별 예산규모
3-3-13 2005년도 속초시 예산안
3-3-14 2005년도 특별회계 규모
3-3-15 지방세 중 도세와 시세 비율
3-3-16 지방세 징수현황
3-3-17 1인당 지방세 부담액
3-3-18 공유재산 현황
3-4-1 주요업무 분장사항
3-4-2 역대 지청장 명단
3-5-1 역대 경찰서장 명단
3-5-2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3-5-3 절도(시간대별) 발생 현황
3-5-4 절도(요일별) 발생 현황
3-5-5 절도(장소별) 발생 현황
3-5-6 절도(수법별) 발생 현황
3-5-7 폭력(시간대별) 발생 현황
3-5-8 폭력(요일별) 발생 현황
3-5-9 폭력(장소별) 발생 현황
3-5-10 사이버 범죄발생 현황
3-5-11 유형별 검거 현황
3-5-12 연령별 검거 현황
3-5-13 직업별 검거 현황
3-5-14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현황
3-5-15 음주 수치별 현황
3-5-16 음주운전 남녀별 성별 현황
3-5-17 연령별 음주운전 현황
3-5-18 시간대별 음주운전 현황
3-6-1 관할구역
3-6-2 의용소방대
3-6-3 소방용수시설
3-6-4 차량 현황
3-6-5 소방대상물
3-6-6 위험물 제조소 등
3-6-7 화재발생 현황
3-6-8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3-6-9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3-6-10 역대 소방서방 명단
3-7-1 도로현황
3-7-2 교량현황
3-7-3 도로현황

그림 목차

3-3-1 속초시 행정구역
3-3-2 속초시 행정기구표
3-3-3 시정목표 및 시정방침
3-3-4 2005년도 일반회계 현황
3-4-1 속초지원 기구표
3-5-1 속초경찰서 기구표
3-6-1 속초소방서 기구표

사진 목차

3-1-1 속초시의 어제와 오늘
3-2-1 속초시의회 전경
3-3-1 속초시의 전경
3-3-2 영랑주민자치센터
3-3-3 주민자치운영프로그램
3-5-1 속초경찰서 전경
3-6-1 속초소방서 전경

제3편 정치행정

제1장 행정구역 변천 및 지명

제1절 고조선 및 통일신라시대

속초지역의 최초 국가로는 고조선이 하나의 부족국가적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 예국(濊國) 또는 맥국(貊國)이라는 나라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당시 영동지방은 예국으로, 영서지방은 맥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예(濊)의 수도는 지금의 강릉이고, 맥(貊)의 수도는 춘천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속초지역은 위치적으로 예국에 속했다고 보나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 후 한무제(漢武帝)의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우리 국토는 소위 한사군(漢四郡)으로 분할하게 되었다. 그 때 강원도의 서부는 낙랑군, 북부는 임둔군으로 양분되어 고구려가 남하할 때까지 400년간 통치를 받게 되었다.

B · C 37년에 고구려가 주몽에 의해 건국되어 그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강원도 북부가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속초지역도 이에 포함되었다. 그 후 속초지방은 신라의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할 때 처음으로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다음 지방행정을 9주 5소경(九州 五小京)으로 나누어 다스렸는 데 당시 속초를 촉제현이라고 불렀으나 고려시대에 편찬된『삼국사기』에서는 촉제현의 위치가 미상으로 되어 있어서 속초의 전신을 촉제현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1)]

1) 속초시,『속초시지』, 1991, p.44 p.415

제2절 고려시대

8세기경 신라의 세력이 쇠퇴하고 후삼국 시절 궁예가 도읍지를 철원으로 정하면서 강원도는 한때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고려 태조가 나라를 다시 통일하고 도읍지를 개경(開京)[2)]으로 옮기면서 강원도는 고려의 한 지방으로 다시 전락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지방호족들의 세력이 강해 중앙관리를 파견하여 지방을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다만 금유(今有) 또

2) 고려 태조가 송악 남쪽에 도읍을 정한 다음 개성군(현재의 개풍군)을 합병하여 개주라고 하였으며, 935년 신라를 복속한 후 국도가 되었다. 960년(광종 11)에 개경으로 개칭되었으며, 995년(성종 14)에는 개성부로 고치기도 하였다.

는 조장(租藏)이라는 징수관을 수시로 파견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게 하였다. 그 후 성종 14년(995)에는 당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지방행정구역을 개편 · 정비하여 확고한 지방행정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영동지방은 동계(東界)라 하여 주로 강릉을 중심으로 안찰사를 두어 영동지방을 관장케 하였다. 군사조직으로는 영서지방에 주현군이, 영동지방에는 주현보다 보강된 군대가 주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속초지역에는 척(尺)을 설치하여 수군만호(水軍萬戶)를 두어 방비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고려시대에는 속초지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으며, 속초 · 고성 · 양양지역에 남아있는 성씨 분포로 보아 당시 강릉의 관할을 받지 않았나 추정된다.

제3절 조선시대

강원도 지방이 행정구역상 「강원도」란 이름을 사용한 것은 태조 4년인 1395년 때이다. 원주에 감영을 두고 도(道) 장관으로 관찰사와 수군병마절도사를 파견하였다. 감영 밑에 춘천에는 좌영, 구성(構城)에는 중영, 삼척에는 우영을 두고 순찰사가 순회하면서 공무를 처리하였다.

특히 영동지방에는 강릉에 대도호부사(정3품)를 두고 삼척과 양양에 도호부사, 고성 · 간성 · 통천 · 평해에 군수, 울진에 현령을 두어 행정업무를 관장하였다. 그 후 고종 32년(1895)에는 8도제를 폐지하고 강원도는 2부(府) 22군(郡)이 되었다. 강릉부에는 고성, 간성, 강릉, 울진, 평해, 삼척, 통천, 양양의 8군을 두었고, 영서지방에는 춘천부 이하 13군을 두었다. 다음해인 1896년에는 13도제로 개편되면서 도(道) 밑에는 군, 군(郡) 밑에는 면, 면(面) 밑에는 리(里), 촌(村), 동(洞)으로 통일하였다. 속초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진관의 전초기지로 계속 수군만호(水軍萬戶)를 두어 방비에 힘썼으며, 행정적으로는 양양의 일부분에 소속되어 있었다.

속초라는 명칭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속초는 외적의 침범이 심한 동해안에 위치한 까닭에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3]이 설치되었고, 조선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속초포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조선시대의 속초는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의 2면에 속해 있었다.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

3) 조선시대 무관직의 하나. 만호 · 천호 · 백호 등은 본래 그 관령(管領)하는 민호(民戶)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차차 민호의 수와는 상관없이 진장(鎭將)의 품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육군보다는 수군에 이 명칭이 남아 있으며, 조선 초기에도 만호 · 부만호 · 천호 · 백호 등이 있다가 점차 정리되었다.

리, 옹진리, 신흥사가 속해 있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속초라는 명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이어 영조 41년(1765)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로 언급되고 있다.

"속초리는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 거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호수는 86호이고, 인구는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다.(束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八十六男九十口女一百八十二口)"

『여지도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도 속초리는 인구 272명인 아주 작은 동네였다. 지금의 속초시 지역은 당시의 속초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은 지역으로 발전하였는데,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에 맞추어 보면 양양도호부 산하의 도문면과 소천면에 걸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3-1-1〉 조선시대 속초의 호수와 인구

면	문헌 / 기록사항 / 동리	1760년 여지도서					1870년경 추정 관동읍지				
		양양으로부터의 거리(리수)	호(戶)수	인구			양양으로부터의 거리(리수)	호(戶)수	인구		
				남	여	계			남	여	계
도문면	상도문리	30	20	33	33	66	30	61	95	145	240
	하도문리	25	35	44	82	126	25	24	33	58	91
	물치리	20	18	19	33	52	20	21	25	41	66
	대포리	25	34	35	69	104	25	23	24	42	66
	옹진리	25	78	107	131	238	25	35	53	74	127
	신흥사	40	20	僧49		僧49	50	21	僧38		38
	계		205	287	348	635		185	268	360	628
소천면	논산리	30	20	39	58	97	30	38	51	54	105
	부월리	30	18	48	38	86	35	52	72	105	177
	속초리	35	86	90	182	272	35	47	99	111	210
	속진리	35	58	79	96	175	35	51	70	106	176
	계		182	256	374	630		188	292	376	668

면	동리	양양으로부터의 거리(리수)	1887년경 추정 양양읍지 호(戶)수	1887년경 추정 양양읍지 인구 남	1887년경 추정 양양읍지 인구 여	1887년경 추정 양양읍지 인구 계	1899년 양양군 읍지 호(戶)수	1910년경 추정 현산지 호(戶)수	1910년경 추정 현산지 인구 남	1910년경 추정 현산지 인구 여	1910년경 추정 현산지 인구 계
도문면	상도문리	25	57	112	111	223					
	하도문리	20	24	28	41	70					
	물치리	20	41	69	92	161					
	대포리										
	옹진리	25	29	49	37	86					
	신흥사	50	22	僧48		48					
	계		173	306	282	588	155	185	237	347	584
소천면	논산리	30	16	22	57	79					
	부월리	35	51	71	88	159					
	속초리	35	77	103	153	256					
	속진리	35	35	40	57	97					
	계		179	236	355	591	201	182	265	374	639

자료: 『속초시지』, 1991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속초지역이었던 도문면과 소천면에는 대체로 360여호에 1,200여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제4절 일제시대

속초지역은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커다른 변화를 겪게 되며, 일제는 합병후 지방관제를 종래 군(郡)과 리(里)간의 중간기구에 불과하던 면(面)을 말단 행정단위로 삼고 그 기능을 대폭 개편하였다. 각 군의 행정기구는 군수아래 내무과장(內務課長)과 권업과장(勸業果長)을 두고, 각 면의 행정기구는 면장 · 부면장 밑에 서무계주임과 권업계주임을 두었다. 속초지역은 일제하에도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양양군에 소속되어 도문면과 소천면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때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합쳐져 오늘날 속초시의 토대가 되었다.

1926년에 발간된 도천면 『면세일반』에 따르면 면장은 1907년부터 설치되었고, 1913년에는 소천 · 도문 연합면으로 되었다가 1914년 도천면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4] 1925년경 도천면은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

4) 1914년 3월 1일 일제는 부령(府令) 제111호로 지방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때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이라 개칭하고 면사무소를 대포리에 두었다. 그리고 속진리(束津里)가 속초리(束草里)에 합쳐졌으며, 논산리에서 노리(盧里)가 분리되었고, 상도문리와 하도문리에서 중도문리가 독립되었다. 또한 신흥사가 위치한 지역은 장항리가 되었으며, 옹진리는 외옹치리로, 물치리는 내물치리로 명칭이 바뀌었다. 노리는 현재 노학동지역으로 과거에 습지대였던 곳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가 늘면서 분리되었다. 장항리는 노루목 고개에서 온 지명으로 현재의 설악동 B지구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해당된다.

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외옹치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의 11개 리로 되어 있었다. 당시 대포리는 도천면의 소재지였고, 근대화에 따라 외지와의 교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고장의 문호역할을 담당한 상당히 큰 항구였다. 당시 속초지역의 전체 인구는 약 6,000~7,00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3-1-2〉 일제시대 속초의 인구규모

년 도		세대수	인구총수	남	여	인구증감	1세대당 평균인원	성비
①	1925	1,120	6,222				5.55	
②	1925	1,263	6,979	3,765	3,214		5.5	117.1
	1930	1,365	7,264	3,802	3,462	△ 285	5.32	109.8
	1935	1,750	8,967	4,584	4,383	△ 1,703	5.11	104.6
	1945	2,440	12,450	6,214	6,236	△ 3,483	5.1	99.7

자료: ①『면세일반』, 1926; ②『조선국세조사보고』

한편 일제시대 후기에 와서 청초호가 정기기선의 기항지로 개발되면서 청초호 북쪽에 인접한 속초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37년 7월 1일에는 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 때부터 속초는 면이름이자 동리이름이 되었다.

1938년에 도·부·읍면에 부분적인 자치제가 도입되어 도와 읍면 평의원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민선제로 선출하였고, 평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읍면세 5원 이상 납부한 25세 이상의 남자로 국한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법인격인 군현제(郡縣制)가 폐기되고 군은 말단 행정기관이 되었다. 그 후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은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속초읍은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눠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지만, 행정상으로는 17개 리로 편성되었다.

한편 일제시대 때 사용되던 지명들은 오래전에 사용하던 것들도 있지만 행정구역이 통합되거나 분리되면서 바뀐 부분들도 많았다.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지배를 위해 일제는 1910년 이전부터 지명과 지도작업을 벌였으며, 속초는 양양에 속한 지역이므로 1914년 도천면이 탄생하기 전 조사된 자료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일부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5)]

5)『조선지지자료』(양양군편 참조).

〈 표 3-1-3〉 일제시대 초기와 달라진 땅이름

일제시대 지명	현재지명	위치	설명
옹진 → 외옹치	외옹치	외옹치	
속진	동명항	동명항	영금정과 수복탑 일대
갈골내(노동천)	청초천	청초천	일제시대 최초의 기록임
비선대(秘仙臺)	영금정	솔산	솔산 일대로 모두 비선대라고 함
솔산	–	영금정 방파제 옆산	지금은 바위만 남아있음
반부득(반부평)	–	청호동	부월리 앞의 뜰
도문천 → 쌍천	쌍천		일제시대부터 쌍천이라함
소천면	–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
소야(所也→所野)	소야		부월리, 논산리 앞의 뜰
토왕성 (土王城→土旺城)	토왕성	1926년 이후	일제가 땅이름을 '王'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
쇠평골(철평)	회평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배다리(주교)	청호동	청호동 갯배나루	주도로가 청호동을 관통함. 지금 갯배 통로는 배로 건넘.
나무고개	나무고개	대포동	속초자동차학원에서 농공단지 뒷길
바깥독재	외옹치	대포동	
안독재	대포	대포동	

자료: 속초문화원, 『속초의 근 · 현대사』, 2004.

위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사라진 땅 이름이 많다. 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 작은 골짜기나 마을 이름도 개발과 함께 사라지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을 발견할 수 있다.

제5절 대한민국시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한반도는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속초지역은 반도의 허리에 위치한 관계로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남다른 경험을 겪게 된다. 생각지 않은 남북분단과 함께 1945년 8월 24일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속초지역은 공산통치를 받게 된다.

6 · 25 전쟁 중 수복될 때까지 5년여의 공산통치로 인하여 속초지역을 '수복지구' 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후 개발에서 소외되는 등 몇몇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다.[6] 당시 속초는 양양군에 속해 있었으며,[7] 완전수복된 양양군은

6) 사득환,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 행정의 역할", 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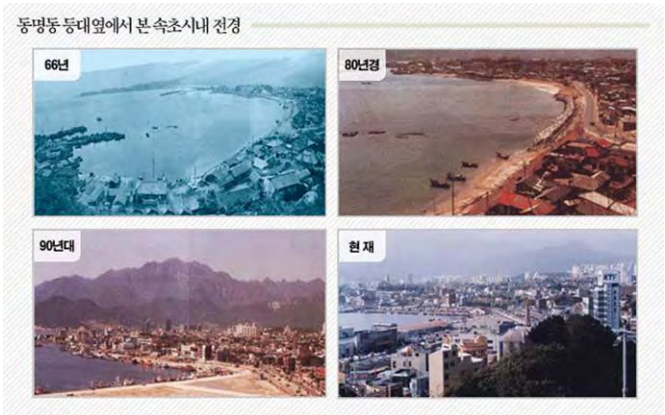
7) 당시 공산통치를 받던 속초지역은 6.25전쟁이 벌어지면서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북진하면서 탈환되었고, 1951년 1월 4일 다시 남으로 후퇴하였으나 1951년 2월 11일 재탈환하여 마침내 1951년 8월 18일에는 수복지구로서 군정이 실시되면서 피난민들이 증가하여 읍으로 복귀하였다.
사득환,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 행정의 역할", 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1951년 봄 UN군의 북진으로 재수복된 후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로 속초읍은 속초시로 승격되어 16개 법정리에 11개 연합리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1966년 1월 1일 속초시의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가 자치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2개 동으로 개편되었다. 이 때 속초리 1구는 영랑동,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 5구는 청호동, 6구는 청학동과 교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부월리, 논산리, 청대리는 합쳐져서 조양동으로,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는 합쳐져서 노학동으로,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는 합쳐져서 대포동으로,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는 합쳐져서 도문동으로, 장항리는 설악동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편입되면서 13개동으로 되었다. 다시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장재터)가 설악동으로 편입됨으로써 법정동 14개동, 행정동 13개동이 되었으며, 1990년 4월 1일에는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원조례' 제1293호에 의거 법정동 사진동과 장사동이 장사동으로 통합하여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13개동이 되었다.

이후 1998년 10월 17일에는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원조례' 제1657호에 따라 동 통·폐합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영랑동과 장사동을 영랑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을 금호동으로, 청학동과 교동 일부를 교동으로, 노학동과 교동 일부를 노학동으로, 청호동과 조양동 일부를 청호동으로, 대포동과 도문동, 설악동을 합쳐 대포동으로 하는 등 기존의 13개 동에서 8개동으로 조정하여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8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3-1-1〉 속초시의 어제와 오늘

〈표 3-1-4〉 속초시 승격이후의 변화

구 분	1962년	1994년 (지방자치 이전)	2002년	2004년
인구	50,703명	78,622명	90,029명	87,933명
가구	10,464가구	24,414가구	33,258가구	34,012가구
예산규모	0.25억원	675억원	1,467억원	1,659억원
주택보급	–	19,561동	31,460동	31,907동
자동차	92대	13,132대	26,848대	27,552대
도로연장	47.1㎞	91.13㎞	115.4㎞	225.6㎞
상수도	2T/D	41T/D	49T/D	49천T/D
교육시설	12개소	36개소	34개소	33개소
어린이집	–	14개소	74개소	66개소
의료기관	19개소	54개소	92개소	97개소
숙박시설	44개소	231개소	249개소	228개소

자료: http://www.sokcho.gangwon.kr

제2장 정 치

제1절 지방자치의 시행과 속초의 상황

1. 지방자치법 제정 시기의 상황

1948년 구성된 제헌 국회는 개원 초부터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정을 서둘렀지만 국회와 행정부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에 가서야 법률 제32호로 제정 · 공포 되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 도 및 시 · 읍 · 면의 2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도는 단층제, 시는 2층제, 읍 · 면의 2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도는 단층제, 시는 2층제, 읍 · 면은 3층제로 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시키는 기관대립형(機關對立)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은 독임제로 하며 ③ 시 · 읍 · 면장은 당해 시 · 읍 · 면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 · 읍 · 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 · 도지사는 국가 공무원으로 하였다. ④ 지방의회는 4년간 임기의 명예직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⑤ 지방의회의 의결권에는 제한주의를 채택하고 시 · 읍 · 면에 있어서는 의회의 시 · 읍 · 면장의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1949년 12월 15일 법 제정 당시의 법 논리상 모순점과 현실적인 불합리성, 그리고 필수규정의 미비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지방의회의 구성이 오래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권한 대행과 시 · 읍 · 면장의 선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②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 · 읍 ·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③ 시장은 대통령이, 읍 · 면장은 도지사가 각각 임명하도록 한 것 등이다.

2. 1950년대의 상황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제1차 개정 이후에도 지방선거는 바로 실시되지 않았고 약 2년후인 1952년 피난 수도 부산에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 정부는 제2대 정 ·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

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야당세가 강한 국회에 의해 부결된 직후로서 이승만은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는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가망이 없어지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정부측 입장을 지지해 줄 전국적인 세력기반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 선거에 적용되었던 지방자치법중의 선거관계조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는 임명에 의하고, 시 · 읍 · 면장은 지방의회에서의 간접선거에 의하며, 주민의 직접선거는 서울특별시 도의회 및 시 · 읍 · 면의회 의원뿐이었다. 시 · 읍 · 면의회 의원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시 · 도의 회의원선거는 동년 5월 10일에 실시하였는바, 이 선거는 6 · 25로 인하여 전선에 접한 서울, 경기, 강원지방 및 계엄령이 선포된 일부지방은 실시하지 못하였고 특히 속초읍은 당시 제3군단의 군정하에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1955년 자유당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종전대로 임명제로 하되 시 · 읍 · 면장과 동 · 리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둘째 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제도를 폐지한다. 셋째 지방의회의원과 시 · 읍 · 면장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56년 8월 8일 시 · 읍 · 면의회 의원선거 및 시 · 읍 · 면장의 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3일에는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1958년 12월 2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시 · 읍 · 면장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제는 2년 반만에 폐지되었다.

3. 1960년대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1958년 12월 26일 법 제501호로 공포되었으나 4 · 19 학생의거 이후 헌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0년 11월 1일 개정된 제6차 지방자치법은 ① 서울특별시장 · 도지사, 시 · 읍 · 면장, 그리고 동 · 리장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 전체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②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의 선거에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는 반면, 시 · 읍 · 면장 선거에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며, ③ 부재자투표가 인정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는 후보자 이름을 적은 기명투표제도를 채택하고, ④ 각급 지방의회의원정수는 종래의 인구비례제로부터 민의원 의원선거구 기준으로 개정하며, ⑤ 선거권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고, 피선거권은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만 30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

과 도지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25세로 하는 것 등이다.

1960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56년의 경우와 달리 시 · 읍 · 면장 선거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선거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4 · 19혁명 후 정치적인 참여분위기가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11월 1일 공포된 법 제563호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는 민주당 정권의 제2공화국 시대로서 먼저 서울특별시 · 도의회 의원선거를 1960년 12월 2일에, 시 · 읍 · 면 의회의원선거를 동년 12월 19일에, 시 · 읍 · 면장 선거를 동년 12월 26일에,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를 동년 12월 29일에 각각 실시하였는바 속초는 당시 행정권은 수복되었으나 38이북지역은 선거를 유보하여 도지사선거에 참여는 못하였다.

한편 제1공화국에 이어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 하에서 크게 발전할 뻔 했던 지방자치는 1961년 박정희를 앞세운 5 · 16군사혁명에 의하여 그 막을 내렸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지방자치는 바로 중단되었으며, 곧이어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말살되고 말았다. 즉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읍 · 면을 일반 지방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 일반 지방행정 기관이었던 군(郡)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였다. 선출직이던 읍 · 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중단하는 내용으로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와 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시와 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4. 70~80년대의 상황

새로운 헌법에 의해 공식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개발논리와 함께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계획경제의 틀을 확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 관료조직을 동원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부국강병의 논리로 민주주의의 논리를 밀어내고, 경제성장을 통해 집권과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1972년 10월 유신과 함께 제4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대통령직선제가 폐지되고, 국회의원의 1/3이 유정회 의원이란 이름으로 지명되는 체계가 유지되었으며, 지방자치 역시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시기였다. 유신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

다.' 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실시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정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60~70년대의 암흑기를 지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면서 간접선거를 통해 들어선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에서는 지방자치를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상황논리를 들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그 부칙에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서 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사실상 부정하였다.

1987년 6월의 시민항쟁과 6 · 29선언에 이어 탄생한 10월 27일의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시 · 군 · 자치구 의회를 우선 구성하고, 그 다음 시 · 도 의회를 구성하되 실시 시기는 잠정적으로 결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에따라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인 1988년 4월 6일 오랫동안 사문화되었던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5 · 16이후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고 지방자치법으로 일원화 되었다. 즉, 6 · 29선언 이후 1987년 헌법개정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유보조항이 폐지되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재개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기본틀이 된 제8차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서울특별시(特別市)와 직할시(直轄市) 및 도(道)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시(市)와 군(郡), 특별시와 직할시내의 자치구(自治區)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모두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기관분리형(機關分離型)을 채택했고, 사무배분과 관련해서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했다. 1989년 12월 19일 제9차 개정 지방자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시 · 도의 부시장 · 부지사는 당해 시 · 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중앙정부가 임명하도록 하되, 최초로 선출된 시 · 도지사의 임기만료까지는 종전의 임명제로 하며, ② 지방의회에 행정사무 감사권을 부여하고, ③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④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임 · 직원을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기형적 지방자치법이 되고 말았다.

5. 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지방자치법은 1990년 12월에 제10차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각각 실시하는 것 등이었다. 지방자치법의 제9차 · 10차 개정을 통하여 연기되어 오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難題)들을 겪으면서 시 · 군 ·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에, 그리고 시 · 도의회 의원 선거는 같은해 6월 20일에 실시되었다. 5 · 16 군사혁명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만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와 복잡한 정치일정 등으로 연기되었다.

1994년 3월 지방자치법은 제11차 개정을 하였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1995년 8월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통일하였다. 지방자치법은 1994년 12월 12차 개정에 이어 1995년 1월 제13차 개정이 있었는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 모두에 정당의 후보 추천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 추천 문제는 1995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한해 정당추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정 되었다.

지방자치법은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여덟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개정은 1999년 8월의 제18차 개정 지방자치법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① 20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주민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결산 일정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④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을 지방의회의 위원회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때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이 권한대행하도록 한 것 등이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2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 지방의회 의원선거

가. 속초시 의회 의원 선거

1) 초대 속초시 의회 의원선거

1961년 5 · 16 군사혁명으로 유보되었던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1987년 6 · 29 선언 이후 1988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가 기초 자치단체로 전환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시의회 의원 선거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선거였다.

〈그림 3-2-1〉 속초시의회 전경

속초시 초대 시의회 의원 선거는 13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하였는데 총 41명이 입후보하여 3.2 :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표 3-2-1〉 초대 속초시의회 의원선거 투표 현황

선 거 구	입 후 보 자	당 선 자		
		성 명	득표수	득표율
영랑동	이용우, 조승남, 정정섭	조승남	1,029	38.7
동명동	황학구, 박성룡, 윤종구	윤종구	1,317	38.3
중앙동	장헌영, 백영철, 김창배, 김종욱, 권정운	장헌영	778	31.2
금호동	김종수, 안국준	안국준	1,603	48.6
청학동	정영태, 장태응	정영태	1,513	68.2
교 동	장동희, 이정길	장동희	2,589	49.0
노학동	봉인구, 박동언, 임호성, 이용문, 이용우	임호성	527	37.0
조양동	이희재, 김태영, 최창영	최창영	1,516	41.4
청호동	박일준, 여석창, 서정선	여석창	945	40.4
대포동	이태근, 김강수	이태근	627	51.2
도문동	박용권, 김광수, 김종우	박용권	637	59.3
설악동	엄응섭, 박종효, 전상익, 최봉수	전상익	403	34.8
장사동	이동진, 임명식, 한영환, 김성용	한영환	605	42.2

자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구 · 시 · 군의회 의원 선거총람』(1991. 3. 26)

2) 제2대 시의회 의원 선거

1995년 6월 27일 통합 선거법에 의하여 4개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속초시는 13개 선거구에서 14명(교동2명)을 선출하였는데 전체 41명이 입후보하여 2.9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표 3-2-2〉 제2대 속초시의회 의원선거 투표 현황

선 거 구	입 후 보 자	선 거 구		
		성 명	득표수	득표율
영랑동	신 철, 선우영, 강정길, 조승남, 송세현	신 철	1,026	35.5
동명동	윤종구, 박학성, 박성룡, 김대기	박학성	1,343	41.9
중앙동	박명수, 백영철	백영철	1,207	56.1
금호동	김종수, 김섭홍, 김주진	김종수	1,944	53.0
청학동	정영태	정영태	무투표당선	
교 동	고학재, 허성렬, 장동희, 서동석, 이정길, 김정배	이정길	2,361	20.1
		김정배	2,639	22.5

선 거 구	입 후 보 자	선 거 구		
		성 명	득표수	득표율
노학동	임호성, 김종백, 박동언, 이필우	임호성	608	43.1
조양동	홍우길, 최창영, 이명우, 원성일	최창영	1,685	44.0
청호동	여석창, 김진국, 박일준	박일준	1,059	50.6
대포동	정연우, 이태근, 김강수	김강수	644	48.8
도문동	김민식, 오진택	김민식	533	56.5
설악동	박종효, 전상익	전상익	692	56.2
장사동	한영환, 김성룡	한영환	853	56.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명부』(1995. 6. 27)

3) 제3대 시의회 의원선거

1998년 6월 4일에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두 번째 통합선거가 실시되었다.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 약 10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된 선거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선거에서는 속초시의 일부 선거구가 합쳐짐으로 인해 의원정수는 14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전체 26명이 출마하여 3.25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표 3-2-3〉 제3대 속초시의회 의원선거 투표 현황

선거구	입 후 보 자	당 선 자		
		성 명	득표수	득표율
영 랑 동	조승남, 신 철	신철	1,297	59.6
동 명 동	박학성, 김대기	박학성	1,333	55.0
중 앙 동 청 호 동	천부태, 박일준, 여석창, 박명수, 백영철	백영철	961	28.6
금 호 동 청 학 동	김종수, 정영태	김종수	2,181	51.8
교 동	이춘복, 강정길, 고학재, 임호성 김중덕, 허성열	고학재	3,314	33.1
노 학 동 장 사 동	최준집, 조용남	최준집	1,447	54.6
조 양 동	최창영, 홍우길	최창영	3,071	53.8
대 포 동 도 문 동 설 악 동	정연우, 이무전, 조경식, 오갑석, 김강수	조경식	826	27.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총람』(1998. 6. 4)

4) 제4대 시의회 의원 선거

2002년 6월 13일에 시행된 3번째 통합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 이반으로 비교적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었다. 지역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후보자 난립 현상도 줄어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선택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2-4〉 제4대 시의회 의원 선거 투표 현황

선거구	입후보자	당선자		
		성 명	득표수	득표율
영랑동 동명동	최준집, 박학성, 조승남, 신 철, 김대기, 이동기	최준집	1,266	23.2
금호동	김종수, 백영철, 박명수	박명수	1,660	43.1
교 동	김성근, 이춘복, 김창구	김성근	3,064	55.9
노학동	김정한, 임호성, 고학재	김정한	3,302	40.4
		고학재	2,827	34.6
조양동	홍우길, 장근호, 최창영	홍우길	3,395	45.5
청호동 대포동	조경식, 김진국, 김강수	김진국	1,931	38.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인 명부』(2002. 6. 13)

나. 강원도 도의회 의원 선거

1) 3대 도의회 의원선거

강원도의 초대 도의회 의원 선거는 1956년 8월 13일 실시되었으나 미수복 지역에 포함된 속초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1960년 12월에 시행된 제 2대 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속초는 당시 행정권은 회복되었으나 38 이북지역은 선거가 유보되어 도지사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한편 제 3대 강원도 의회 의원 선거는 제2대 선거이후 약 30년만에 이루어졌다. 5 · 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는 계속되는 군사정권의 통치속에 유보되어 오다가 제5공화국 헌법 10조 부칙에 그 가능성이 열리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6 · 29선언 등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친후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8차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1991년 3월 26일 시, 군 구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6월 20일에 제 3대 도 의원 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었다.

속초시에서는 제1선거구에 3명, 제2선거구에 6명, 제3선거구에 3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경합을 벌인 결과 제1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이관희 후보가, 제2선거구에서는 민자당의 윤중국 후보가, 제3선거구에서는 민자당의 전상기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 3-2-5〉 제3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원 입후보자 현황

선거구	후보자명	소속정당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득표율)
1선거구	함영형	민자당	운수업	대학원중퇴	민자당지구당 부위원장 민자당도지부 부위원장	4,686
	김준길	신민당	금융업	동광농고졸	민주화추진 협의회회장 신민당4지구당 선전부장	1,644
	이관희	무소속	약사	성균관대 약대졸	초대대의원 민주정의당 사무국장	6,755
2선거구	윤중국	민자당	양식업	단국대문리대 3년중퇴	마을금고연합 속초시 회장 속초지역개발 연구소장	2,957
	김관희	신민당	무직	서울중동고졸	신민당4지구당 위원장	728
	한광정	민주당	무직	평양외국어대 노어과졸	통일민주당 중앙상무위원 한국민주당 지구당부위원장	202
	김효덕	무소속	수산업	동국대 경제학과졸	현대전자 기획실근무 속초신문사 창간위원	2,419
	서동석	무소속	노조위원장	고성고졸	통대대의원 평통자문위원	1,181
	차진환	무소속	수산업	경희대 상과졸	속초고동창회장 시정자문위원	2,471
3선거구	전상기	민자당	건설업	속초고졸	시정자문위원 민자당지구당 부위원장	4,015
	이명걸	민주당	운수업	경희대 법대졸	국제라이온스클럽 강원도지부부총재 새마을운동 속초시협회장	1,478
	하영현	무소속	사진업	우석대 3년중퇴	미기재	3,393

자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총람』(1991. 6. 20)

〈표 3-2-6〉 제3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회 당선자

선거구	후보자성명	소속정당	직업	학력 및 경력	득표수
속초시 제1선거구	이관희	무소속	약사	성균관대 약대졸 통대대의원 민주정의당사무국장	6,755 (51.6%)
속초시 제2선거구	윤중국	민자당	양식업	단국대문리대3년중퇴 마을금고연합 속초지회장 속초지역개발연구소장	2,957 (29.7%)
속초시 제3선거구	전상기	민자당	건설업	속초고졸 시정자문위원 민자당지구당부위원장	4,015 (45.2%)

자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총람』(1991. 6. 20)

2) 제4대 도의회 의원선거

1995년 6월 27일 시행된 제4대 도의회 의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7조에 의거하여 지방4대 선거를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기초 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 그리고 광역 자치 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선거를 나누어 실시하던 것을 선거 부정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동시에 실시키로 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와의 시차를 2년으로 하기 위해 당선자의 임기를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하였다. 정당 공천이 허용된 광역의회와 단체장의 경우는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명확히 들어나 민자당은 부산, 경남, 경북지역에서, 민주당은 서울,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서, 자민련은 대전, 충청남북도, 강원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속초시에서는 제1선거구에 3명, 제2선거구에 2명, 제3선거구에 3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경선을 벌였다.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제1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유왕재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제2선거구에서는 민자당에 윤중국 후보가 당선되었고, 제3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김길정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 3-2-7〉 제4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원 입후보자 현황

선거구	후보자성명	소속정당	직업	학력 및 경력	득표수
속초시 제 1선거구	함영현	민자당	회사원	강릉상고졸 민자당도지부 부위원장	4,880
	유왕재	무소속	약사	성균관대졸 시약사회부회장	5,016
	임명식	무소속	공인중개사	속초고등학교졸 속초고동창회 총무이사	3,444

선거구	후보자성명	소속정당	직업	학력 및 경력	득표수
속초시 제 2선거구	윤중국	민자당	양식업	단국대 퇴 강원도의회의원	9,866
	김중덕	자민련	건설업	국학대졸 자민련속초고성지구당부위원장	5,197
속초시 제 3선거구	김계진	민자당	정당인	광주대퇴 민자당 속초, 고성조직부장	2,744
	김길정	무소속	농업	속초고졸 농협조합장	3,590
	하영현	무소속	상업	우석대퇴 설악산소공원 주차장 대표	3,00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명부』(1995. 6. 27)

〈 표 3-2-8〉 제4대 도의원 당선자 현황

선거구	호보자성명	소속정당	직업	학력 및 경력	득표수
속초시 제1선거구	유왕재	무소속	약사	성균관대졸 시약사회부회장	5,016 (37.6%)
속초시 제2선거구	윤중국	민자당	양식업	단국대퇴 강원도의회의원	9,866 (65.5%)
속초시 제3선거구	김길정	무소속	농업	속초고졸 농협조합장	3,590 (38.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명부』(1995. 6. 27)

3) 제5대 도의원 선거

1998년 6월 4일에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제2회 통합선거가 실시되었다.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후 약 10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된 선거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제2회 통합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정수가 축소되었으며 또한 선거운동에 있어서 각종단체의 선거운동은 계속 금지시켰으나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속초시에서는 제1선거구에 3명, 제2선거구에 3명의 후보가 입후보 하였고 선거결과 제1선거구에서는 자민련에 김길정 후보가 당선되어 재선되었으며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장동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 표 3-2-9〉 제5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원 입후보자 현황

선거구	후보자성명	소속정당	직업	학력 및 경력	득표수
속초시 제 1선거구	안동섭 (安東燮)	한나라당	정당인	중앙대 철학과 중퇴 속초시청 기획감사실장(전) 강원도 민방위 소양강사	4,891
	김성룡 (金聖龍)	국민회의	수산업	설악중 졸업 전국어업인후계자 중앙회장(전) 새시대새정치연합 청년회 속초지구회장(현)	6,249
	김길정 (金吉貞)	자민련	강원도 의회의원	속초고 졸업 강원도 의회의원(현) 제10대 속초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6,400
속초시 제 2선거구	장동희 (張東希)	한나라당	상업	속초고 졸업 속초중학교 총동창회장(현) 속초고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현)	6,569
	서동석 (徐東石)	국민회의	노조위원장	고성고 중퇴 전국 항운노련 속초항운노조위원장(현) 새정치국민회의 속초 지구당(현)	4,857
	한영환 (韓永煥)	무소속	상업	성덕초교 졸업 속초시의회 제2대의원(전) 성결교회 강원도지방 남선교회회장(현)	4,35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총람』(1998. 6. 4)

〈 표 3-2-10〉 제5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원 당선자 현황

선거구	후보자성명	소속정당	직업	학력 및 경력	득표수
속초시 제 1선거구	김길정 (金吉貞)	자민련	강원도 의회의원	속초고 졸업 강원도의회의원(현) 제10대 속초고등학교 총동문회장	6,400 (36.5%)
속초시 제 2선거구	장동희 (張東希)	한나라당	상업	속초고 졸업 속초중학교 총동창회장(현) 속초고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현)	6,569 (41.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총람』(1998. 6. 4)

4) 제6대 도의원선거

전국적으로 집권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의 열세속에 실시된 제3대 통합 지방선거는 속초시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나라당의 우세로 나타났다. 속초시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병선, 민주당의 김성룡 후보, 무소속의

천부태 후보가 등록하여 경합을 벌였고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김길정 후보, 민주당의 강정길 후보, 무소속의 김시환 후보가 등록하며 경합을 벌였다. 선거결과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병선 후보가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에서는 역시 한나라당의 김길정 후보가 당선되어 4, 5대에 이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표 3-2-11〉 제6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원 입후보자 현황

선거구	후보자성명	소속정당	직 업	학력 및 경력	득표수
속초시 제1선거구	이병선 (李秉宣)	한나라당	정당인	동국대 교육대학원 2년졸업 국회입법비서관 경동대학교비서실장	10,078
	김성룡 (金聖龍)	민주당	수산업	속초상고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전국어업인후계자 중앙회장 새천년 민주당 속초, 고성, 양양, 인제지구당 부위원장	6.066
	천부태 (千富太)	무소속	상업	강진농업고등학교 2년 중퇴 제2회 동시지방선거 속초시 의원선거 출마	1,118
속초시 제2선거구	김길정 (金吉貞)	한나라당	농업	속초고등학교 졸업 강원도 4, 5대 의원	10,127
	강정길 (康正吉)	민주당	제조업 경영	경희대 관광대학원 석사과정 5학기 재학중 속초시 카누연맹 회장 대포농공단지협의회장	5,610
	김시환 (金時煥)	무소속	(주)보고건설 사장	강원대 축산학과3년 중퇴 지방공무원 13년 함종빈국회의원비서관	2,38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2002. 6. 13)

〈표 3-2-12〉 제6대 속초시 선거구 도의원 당선자 현황

선거구	후보자성명	소속정당	직업	학력및 경력	득표수
속초시 제 1선거구	이병선 (李秉宣)	한나라당	정당인	동국대 교육대학원 2년 졸업 국회입법비서관 경동대학교비서실장	10,078 (58.4%)
속초시 제 2선거구	김길정 (金吉貞)	한나라당	농업	속초고등학교 졸업 강원도 4, 5대 의원	10,127 (55.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2002. 6. 13)

2. 민선 단체장 선거

가. 민선시장 선거

1) 초대 민선시장 선거

1995년 제2기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4대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민선시대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되었다. 초대 민선시장 선거에는 7명의 입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민자당의 이관희, 민주당의 동문성, 무소속의 김용현, 김충호, 김효덕, 백광호, 전상기 등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개표결과 민주당의 동문성후보가 9,094표를 얻어 차점자인 무소속의 김용현 후보를 1,532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당시 전국에서는 시장과 군수당선자 가운데 총 203명중 민자당이 71명, 민주당이 83명, 자민련이 23명, 무소속으로 5명이 각각 당선되어 여소야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 표 3-2-13〉 제1대 민선시장 입후보자 현황

후보자성명	소속정당	직 업	학력 및 경력	특표수
이관희	민자당	약 사	성균관대졸업 민정당사회국장 도의회의원	6,886(18%)
동문성	민주당	상 업	중앙대대학원졸업 조선일보기자 시재향군인회장	9,094(24%)
김용현	무소속	회사원	연세대졸업 속초중동문회장 연우컴퓨터대표	7,562(20%)
김충호	무소속	약 사	경희대졸업 라이온스지구총재 속초시약사 회장	3,946(10%)
김효덕	무소속	회사원	동국대졸업 영북신문사사장 속초YMCA 이사	3,493(9%)
백광호	무소속	교육자	서울대대학원졸업 속초시지집필위원 설악신문논설위원	825(2%)
전상기	무소속	농 업	속초고졸업 시행정동우회장 강원도의회 의원	6,465(17%)

자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총람』

〈표 3-2-14〉 제1대 민선시장 후보자별 득표현황

투표구명	투표구수	투표수	득표수							유효투표계
			이관희	동문성	김용현	김충호	김효덕	백광호	전상기	
부재자투표	–	1,378	282	264	215	137	206	45	161	1,310
영랑동	2	2,853	649	792	560	212	175	58	350	2,796
동명동	2	3,196	542	1,022	591	332	141	53	455	3,136
중앙동	2	2,173	532	595	383	163	107	63	275	2,118
금호동	2	3,676	704	915	697	507	204	76	483	3,586
청학동	2	2,038	467	395	327	195	307	47	229	1,967
교 동	7	11,539	1,755	2,591	2,230	1,336	1,543	275	1,617	11,347
노학동	1	1,414	172	276	327	107	227	23	243	1,375
조양동	3	3,807	441	705	877	357	225	65	1,042	3,712
청호동	1	2,108	343	586	504	149	97	27	346	2,052
대포동	1	1,339	213	204	140	39	52	17	651	1,316
도문동	1	959	173	136	243	114	53	23	176	918
설악동	1	1,221	162	289	199	185	93	26	240	1,194
장사동	1	1,477	451	324	269	113	63	27	197	1,444
소계	26	39,178	6,886	9,094	7,562	3,946	3,493	825	6,465	38,271

자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총람』

2) 제2대 민선시장 선거

제2회 전국동시 통합지방선거는 1998년 6월 4일 실시되었는데 속초시 민선시장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다. 한나라당 후보로는 현직시장인 동문성 후보가 나왔고, 국민회의에서는 황돈태 전속초시 부시장이 출마하였으며,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 처장출신의 김용현 후보는 자민련으로 출마하였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로는 전(前)강원도 의회의원을 역임한 전상기 후보가 출마하였다. 4명의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치룬 결과 한나라당 소속의 동문성 후보가 전체 유효득표의 41%를 얻어 여유있게 재선되었다.

〈표 3-2-15〉 제2대 민선시장 입후보자 현황

후보자성명	소속정당	직 업	학력 및 경력	득표수
동문성	한나라당	공무원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졸업 조선일보기자(전) 속초재향군인회장(전)	13,962(41%)
황돈태	국민회의	무 직	속초고 졸업 복지장학회 상임고문(현) 속초시 부시장(전)	9,046(27%)
김용현	자민련	기업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인사기획처장(전) 청구문화장학재단 상임고문(현)	7,656(23%)
전상기	무소속	상 업	속초고 졸업 행정공무원(전) 제3대 강원도의회의원(전)	3,273(10%)

자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총람』

〈표 3-2-16〉 제2대 민선시장 후보자별 득표현황

투표구명	투표구수	투표수	득 표 수				유효투표계
			동문성	황돈태	김용현	전상기	
부재자투표	–	1,416	599	376	162	196	1,333
영랑동	2	2,143	995	506	454	164	2,119
동명동	2	2,372	1,097	559	506	183	2,345
중앙동	1	1,673	744	429	316	166	1,655
금호동	2	2,615	1,205	612	553	196	2,566
청학동	1	1,559	708	370	299	152	1,529
교 동	7	9,788	3,843	2,903	2,300	669	9,715
노학동	1	1,298	490	316	373	112	1,291
조양동	4	5,609	1,994	1,460	1,337	762	5,553
청호동	1	1,656	822	318	351	142	1,633
대포동	1	1,163	422	199	229	290	1,140
도문동	1	872	307	193	286	69	855
설악동	1	954	353	353	161	73	940
장사동	1	1,278	382	451	329	99	1,261
잘못투입된 투표지	–	2	1	1	–	–	2
소계	25	34,398	13,962	9,046	7,656	3,273	33,93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3) 제3대 민선시장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전국동시 통합지방선거에서 속초시장선거에는 정당후보로 3명, 무소속으로 1명이 출마 하였다. 한나라당 후보로는 동문성 속초시장이 다시 나왔고, 전 속초부시장 황돈태 후보는 민주당으로 그리고 민정당 상임 국책연구위원을 역임한 조영두 후보는 자민련으로 나왔으며, 속초번영회장을 맡고 있던 최무일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왔다. 선거결과 동문성 후보가 모든 투표구에서 고른 득표를 하여 무난히 3선에 성공하였다.

〈 표 3-2-17〉 제3대 민선시장 입후보자 현황

후보자성명	소속정당	직 업	학력 및 경력	득표수
동문성	한나라	공무원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졸업 조선일보기자(전) 속초재향군인회장(전)	13,241(37%)
황돈태	민주당	정당인	속초고 졸업 복지장학회 상임고문(현) 속초시 부시장(전)	10,095(28%)
조영두	자민련	정당인	연세대 행정대학원 1년 수료 민정당 상임국책연구위원(2급) 14대, 15대 국회의원 출마	6,714(19%)
최무일	무소속	약사	관동대 대학원 경제학과 2년졸업 속초시 번영회장, 속초지역개발연구소장	5,948(17%)

자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총람』

〈 표 3-2-18〉 제3대 민선시장 후보자별 득표현황

투표구명	투표구수	투표수	득 표 수				유효투표계
			동문성	황돈태	조영두	최무일	
부재자투표	–	1,283	642	303	152	139	1,236
영랑동	2	3,107	1,036	916	606	510	3,068
동명동	2	2,284	846	562	383	474	2,265
금호동	3	3,808	1,423	970	725	650	3,768
교 동	4	5,460	2,010	1,423	1,062	908	5,403
노학동	6	8,104	2,932	2,492	1,421	1,193	8,038
조양동	4	7,335	2,539	2,187	1,392	1,145	7,263
청호동	2	2,590	1,039	470	489	536	2,534
대포동	2	2,465	773	771	484	393	2,421
잘못투입된 투표지	–	2	1	1	–	–	2
소계	25	36,438	13,241	10,095	6,714	5,948	35,99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나. 민선 도지사 선거

1) 초대 민선 도지사 선거

1960년 11월 1일 공포된 법 제563호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실시된 민선지사 선거는 1960년 12월 29일에 제3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거의 동시에 시행되었다. 민선도지사 선거에는 당초 7명의 후보가 등록하였으나 강릉출신 김진백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6명이 경합을 벌였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후보로는 민주당 원주시 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영록 후보가, 신민당에서는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안상한 후보가, 나머지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투표결과 원주출신 박영록 후보가 총62,147표를 얻어 평창출신의 무소속 황호현 후보를 710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초대 강원도지사 선거의 선거구는 삼팔선 이남으로 하였는바, 속초는 당시 행정권은 회복되었으나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초대 민선도지사선거의 강원도 투표율은 47.8%로 전국평균 투표율 39.8%보다는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표 3-2-19〉 초대 민선도지사 투표현황

후보자성명	본 적	직업	소속정당	학력 및 주요경력	총득표수
박영록	강원도 원주시	무직	민주당	춘천농졸 원주시의회의원 민주당 원주시 위원장	62,147
황호현	강원도 평창군	농업	무소속	보통문관시험합격 제헌국회의원	61,437
최운철	강원도 명주군	무직	무소속	경성제대 법과졸 경찰청장	40,762
이창근	강원도 춘천시	무직	무소속	춘천고보졸 강원도지사	38,325
정봉교	강원도 명주군	자영	무소속	사범학교졸 초등학교장 영월군수	11,872
안상한	강원도 춘천시	무직	무소속	일본북해도제대전문부졸 제2대 국회의원	56,436

자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상황록』

2) 제2대 민선 도지사 선거

제2대 민선도지사 선거는 1995년 제2기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4대

지방선거를 함께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되었다. 도민이 직접 선거하는 제2대 민선도지사선거는 무려 34년만에 부활한 것이어서 감회를 새롭게 한 바 있다.

제2대 강원도민선도지사 입후보자는 2명으로 압축되었는데 집권당인 민자당의 공천을 받은 전직 강원도지사 출신의 이상룡 후보와 전직 경제기획원장관 출신인 자민련의 최각규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선거결과는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63.8%라는 거의 배에 가까운 득표차이로 최각규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다.

〈표 3-2-20〉 제2대 민선도지사 투표현황

후보자성명	소속정당	직 업	학력 및 경력	총득표수	속초시득표수
이상룡	민자당	무	고려대졸 강원도지사	260,004 (33.1)	15,817
최각규	자민련	무	서울대졸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500,894 (63.8)	22,384

자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총람』

3) 제3대 민선도지사 선거

1995년 6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후 3년만인 1998년 6월 4일 제2회로 통합지방 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 및 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선거시기 조정문제로 한시적으로 3년만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민선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는 야당이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는 강원도 부지사 출신의 김진선 후보가, 공동정부의 한 축인 자유민주당연합에서는 농업중앙회장 출신의 한호선 후보가,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바꾸어 출마한 전 강원도지사 출신의 이상룡 후보가 제2대 민선지사 선거에 이어 다시 출마하였다. 3파전으로 치루어진 선거에서는 당초 집권당의 한 축인 한호선 자민련 후보가 유력하다는 예측도 있었으나 개표결과 한나라당의 김진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속초시에서 득표한 득표수는 김진선 후보가 12,719표를, 한호선 후보가 10,827표를, 그리고 이상룡 후보가 10,050표를 얻었는데 후보자들 간에 표차가 크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21〉 제3대 민선도지사 투표현황

후보자명	소속정당	직 업	학력 및 경력	총득표수	속초시득표수
김진선	한나라당	공무원	동국대행정학과졸업 강원도지사	268,559 (39.3)	12,719
한호선	자민련	정당인	서울대행정대학원졸업 강원도부지사	231,376 (33.8)	10,827
이상룡	무소속	관동대 객원교수	고려대경제학과졸업 강원도지사	183,775 (26.9)	10,050

자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총람』

4) 제4대 민선도지사 선거

2002년 6월 13일에 시행된 통합지방선거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부재와 대통령측근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이반으로 야당인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10, 민주당 3, 자민련 1석으로 한나라당의 절대적우세로 끝났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 도지지사인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가 72.3%로 민주당 후보인 남동우 전 강원도 부지사가 획득한 득표수 27.7%의 약 2.5배 이상의 격차로 낙승하였다. 김후보의 압승은 상대후보의 준비부족, 민주당의 지지율 급락, 민선 2기 도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표 3-2-22〉 제4대 민선도지사 투표현황

후보자명	소속정당	직업	학력 및 경력	총득표수	속초시득표수
김진선	한나라당	공무원	동국대행정학과졸 강원도지사	468,987 (69.8%)	26,621
남동우	새천년민주당	정당인	서울대행정대학원졸 강원도부지사	190,451 (28.3%)	9,17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제3절 국회의원 선거

1. 제헌, 2대, 3대 국회의원 선거

1948년 1월 10일 시행된 제헌국회 의원 선거는 미군정 당국이 선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동선거에 적용된 국회의원 선거법은 잠정법인 군정법령으

로 실시되었는데 당시의 속초는 38선 이북에 속해 있었으므로 선거시행이 불가피하였다. 1950년 5월 30일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어 1954년 5월 20일 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속초는 미수복 지역으로 역시 선거시행이 불가하였다.

2.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8년 5월 2일에 시행되었다. 속초는 양양군 선거구인 17선거구에 속하였다.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에서 속초가 속한 17선거구는 표에서 보듯이 국민회의 이준택 후보, 민주당의 함종빈 후보, 자유당의 이동근 후보 등 9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다.

〈 표 3-2-23〉 제4대 국회의원선거 강원 제17선거구(양양) 후보자 및 득표상황

후보자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소 속	득표수	비 고
최 정	남	45	수산업	은진중 4년 졸 양양경찰서장	무소속	4,113	
이준택	남	43	농업	일본대 법학과 졸 경북 김해군 내무과장	국민회	2,676	
함종빈	남	35	무직	고려대 정치학과 졸 인천대 의숙정치학 강사	민주당	7,796	
진승국	남	43	무직	임교대학군 철학과 졸 대한중국산업주식회사 취체역 회장	무소속	3,633	
최기선	남	35	무직	국학대학전문부졸 미문중고 교사	무소속	1,133	
이동근	남	53	회사중역	동경 법정대학 경제과 졸 운수부 해사국장	자유당	10,366	당 선
전덕민	남	49	농업	수원농고 졸 농사원 교도국장	무소속	1,001	
김 구	남	60	회사원	일조대 법과 2년 수료 부산화역협회 이사	무소속	590	
김창열	남	53	회사중역	경성법전 졸 부산공업회사 취체역	무소속	3,64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투표결과 총 유효투표 34,950표 가운데 이동근 후보가 10,366표, 함종빈 후보가 7,796표, 최정 후보가 4,113표, 김창열 후보가 3,642표 등 자유당의 이동근 후보가 제4대 민의원으로 당선되었다.

3.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제5대 국회의원 선거는 1960년 7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제5대 민의원 선거에서 속초가 속한 강원 제17선거구에서는 무려 12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경쟁하였다. 투표결과 총 유효투표 41,684표 가운데 민주당의 함종빈 후보가 12,480표, 민주당의 신효순 후보가 5,871표, 무소속의 최정 후보가 5,531표, 무소속의 이홍영 후보가 4,198표의 순으로 득표함으로서 함종빈 후보가 제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표 3-2-24〉 제5대 국회의원선거 강원 제17선거구 후보자 및 득표 상황

후보자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최기선	남	37	무직	국학대학 졸 한국청년당 중앙위원	기타단체	2,468	
신효순	남	36	언론인	국민대학 정치과졸 언론인 10년	민주당	5,871	
강즉모	남	43	무직	일본대학졸 신문논평사 논설 위원	무소속	573	
함종빈	남	37	언론인	고려대 정치학과졸 민주당 중앙당 사회부 차장	민주당	12,480	당선
박희선	남	41	무직	일본 동북대졸 성주공대 교수	무소속	2,312	
박태송	남	51	양조업	북간도 동흥중학 2년 중퇴 명륜중학 이사	무소속	2,202	
서남용	남	50	회사원	연전상과졸 대한 모방직 협회 이사장	무소속	683	
이홍영	남	39	은행원	서울 문리대졸 한일은행 영업부 차장	무소속	4,198	
최 정	남	47	수리업	은진중학 4년졸 경찰서장	무소속	5,531	
김중덕	남	31	상업	경희대 대학원 수료 관북 동지회 부회장	무소속	1,012	
이재춘	남	51	무직	미기재	사회대중당	638	
이동근	남	55	회사원	일본 동경법전 경제학부졸 제4대 민의원	자유당	3,71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4.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1963년 11월 26일 시행되었다. 이에 앞서 5. 16 군사정부는 구 국회의원 선거법을 폐지하고 1963년 8월 6일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선거법에 의하여 국회의원 선거구의 개편이 있었다. 속초는 기존의 17선거구 이었으나 이 선거법에 의해 속초, 고성, 양양을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7선거구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명의 국회의원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시까지 선출하게 되었다. 강원도의 각 지역구와 지역구별 당선자는 아래 <표 3-2-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2-25〉 제6대 국회의원 강원도 당선자

지역구명	관할구역	정당명	당선자 성명	성별	연령	본적	직업	학력 및 경력	득표수	비고
1	춘천시 춘성군	민주공화당	신욱철	남	55	강원	언론	전문교 중퇴 강원일보사장	21,125	초선
2	원주시 원성군	민주당	박영록	남	41	강원	무직	고졸, 도지사	20,107	초선
3	강릉시 명주군	자유민주당	김 삼	남	45	강원	무직	소졸, 도의원	19,848	초선
4	홍천군 인제군	민주공화당	이승춘	남	46	강원	농업	고졸, 재건촉진회장	20,070	초선
5	영월군 정선군	민주공화당	엄정주	남	43	강원	상업	대졸, 영월경찰서장	23,313	초선
6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민주공화당	김재순	남	39	서울	무직	대졸, 민주공화당중앙당 상임위원	20,880	2선 (5,6대)
7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민주공화당	김종호	남	44	강원	의대 임원	대학중퇴, 수도의대상무이사	23,684	초선
8	횡성군 평창군	민주공화당	황호현	남	52	강원	정치	독학, 4대민의원	19,438	3선 (1,4,6대)
9	삼척군	민주공화당	김진만	남	45	강원	무직	고졸, 4대민의원	26,494	3선 (3,4,6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표에서 보듯이 6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투표결과 총 유효투표 56,636표 가운데 민주공화당의 김종호 후보가 23,684표,

민주당의 최정식 후보가 17,315표, 보수당의 신효순 후보가 6,883표를 득표함으로써 민주공화당의 김종호 후보가 제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표 3-2-26〉 제6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7선거구(속초, 양양, 고성) 후보자 등록 및 득표상황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3	자유민주당	최순원	남	49	무직	대졸	대한농민회 최고위원	732	
6	국민의당	함종빈	남	40	무직	대졸	민의원	3,738	
7	보수당	신효순	남	40	회사원	대졸	지구당 위원장	6,883	
8	민주당	최정식	남	34	회사원	대학원졸	대한반공정비주식회사사장	17,315	
9	민정당	김두열	남	39	상업	대졸	예비역대령	4,284	
12	민주공화당	김종호	남	44	수도의대 상무이사	대중퇴	수도의대 상무이사	23,684	당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5.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제6대 국회개원이후 기존의 선거법 개정론이 계속 대두되었다. 따라서 국회는 정당법과 선거관계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하기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법의 개정안이 1966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12월 14일 공포되었다. 새로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제도를 신설하고,
- 선거운동에 있어서 선거사무원수와 연설회 교지벽보매수, 선거공보의 발행매수 및 후보자 성명의 게시 등 선거운동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 투표 통지표를 변경하였고,
- 타 법령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한 지역구 구역표를 정리하였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1967년 6월 8일 시행하였다. 동 선거에서 강원 제7선거구는 표에서 보듯이 김응조, 양환석, 오태성, 함종빈, 김종호 등 다섯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투표결과 총 유효투표 66,679표 가운데 민주공화당의 김종호 후보 31,409표, 신민당의 함종빈 후보 30,382표, 자유당의 김응

조 후보 2,766표등의 순으로 민주공화당의 김종호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 표 3-2-27〉 제7대 국회의원 강원도 제 7선거구(속초, 고성, 양양) 후보자 등록 및 득표 상황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2	자유당	김응조	남	57	무직	육군대학졸	사단장 5대민의원	2,766	
3	민중당	양환석	남	50	기업	대졸	기업사장	334	
5	대중당	오태성	남	25	무직	성균관대 법학과졸	동남아친선 방문학생 대표단	1,788	
6	신민당	함종빈	남	44	농업	고대 정치학과졸	육사교수 5대민의원	30,382	
7	민주 공화당	김종호	남	48	국회의원	만주 건국대학 3년중퇴	수도사대 사무처장 국회의원(6대)	31,409	당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6.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제8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71년 5월 25일에 시행되었다 이 선거에 적용된 선거법은 1969년 1월 23일 공표된 이른바 보장입법에 의한 선거법 개정법과 1970년 12월 22일 공포된 협상선거법등 2회의 개정을 거친 선거법이다. 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선거인명부에 있어 작성기간을 단축하였으며 1투표구의 선거인이 3,000명을 넘을 때에는 2개로 분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하여 당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하였다.
- 선거운동에 있어 선거사무원의 증원, 연설회, 고지벽보수의 증가. 선거공보 게 재문을 2,000자에서 4,000자로 늘렸고, 야간 연설시간, 공공시설이용 등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다.
-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의 순위를 원내 제1당과 제2당의 의석수 순위에 의하고, 기타 정당은 정당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1,2,3)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 투표용지 교부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가 없이는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무효표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 선거소송은 제소 후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인구의 기준은 종래 인구조사방업에 의하던 것을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조사한 인구수에 의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의 방법 및 제한을 확대하였다.
· 투표통지표 교부시 정당 및 후보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게 하였으며 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였다.
· 선거소송에 있어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소송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 국회의원선거구를 증설하였다. 따라서 국회의 의석수가 203석으로 증가되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 제7지역구는 표에서 보듯이 한병기, 함종빈, 이성일, 이참수, 김응삼 등 다섯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이 선거는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의 한병기 후보와 제1야당인 신민당의 함종빈 후보 양자간의 대결로 나타났다. 투표결과 총 유효투표 70,409표 가운데 민주공화당의 한병기 후보가 38,957표, 신민당의 함종빈 후보가 30,509표를 득표함으로써 한병기 후보가 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표 3-2-28〉제8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 7지역구(속초,고성,양양) 후보자 등록 및 득표 상황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1	민주공화당	한병기	남	32	회사 사장	미국헤어업힌수 대학원 수료	주미뉴욕 총영사관 영사	38,957	당선
2	신민당	함종빈	남	48	농업	고려대 정외과 졸	육사정치과 주임교수 5대민의원	30,509	
3	국민당	이성일	남	35	영화인	함남문천 농업전문 학교졸업	국민당중앙 상임위원 국민당강원 제7 지구당 위원장	137	
4	대중당	이참수	남	36	농업	건국대 상학과 졸	고교교사	457	
6	통일사회당	김응삼	남	34	정당인	춘천대학 정경학과 졸	강원도체육이사 통일사회당 7지구당 위원장	34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7.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제9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 제정된 유신헌법의 부칙 제3조 국회의원 선거를 헌법시행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1973년 2월 27일 시행되었다. 이 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법은 1972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철저한 공영제선거운동을 근간으로 하였다.
-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인 지역구의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하였고, 무소속출마를 허용하고 후보자등록요건으로 기탁금제도를 두었으며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실효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 선거인명부는 수시 선거인 명부제를 택하고 선거운동은 공영제로 하였으며 정당원과 선거운동 관계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벌칙조항을 대폭강화 하였다. 선거비용에 있어서는 회계책임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사무장이 담당하게 하였으며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200일까지로 규정하였다.
- 당선인결정에 있어 무투표당선을 인정하였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다.
-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에서 선출한 의원전원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였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에서 146석, 대통령이 지명하는 유정회의석 73석 등 219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법에 의하여 국회의원 선거구의 개편이 있었다. 속초시는 고성, 양양, 인제군과 함께 제4선거구로 개편되었고 2인의 국회의원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시까지 선출하였다.

〈표 3-2-29〉 제9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4선거구(속초,고성,양양,인제) 후보자 등록 및 득표 상황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1	민주공화당	정일권	남	58	민주공화당 의장서리	대졸	국무총리 8대국회의원	57,994	당선
2	신민당	김종호	남	54	무	대중퇴	6, 7대 국회의원	14,086	
3	무소속	김인기	남	51	변호사	대졸	서울 지법부장 판사	18,491	당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 제4선거구는 표에서 보듯이 민주공화당 정일권 후보. 신민당의 김종호 후보, 무소속 김인기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투표결과 총 유효투표수 90,571표 가운데 민주공화당의 정일권 후보 57,994표, 무소속 김인기 후보 18,491표, 신민당 김종호 후보 14,086표의 순으로 득표함으로써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의 정일권 후보와 무소속인 김인기 후보가 제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 표3-2-30〉 제9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 4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민주공화당	신민당	무소속
			정일권	김종호	김인기
속초시	31,684	27,711	16,850	3,858	6,315
고성군	28,144	24,254	15,670	3,077	5,050
양양군	22,640	18,935	11,014	2,810	4,810
인제군	26,461	21,117	14,460	4,341	2,316
합계	108,929	92,017	57,994	14,086	18,49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8.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제10대 국회의원선거는 1978년 12월 12일 시행되었다. 이 선거에는 1973년 3월 12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역표의 개정과 1977년 12월 31일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협상끝에 의결 · 공포한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되었다. 이 때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구를 4개 증설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의석은 지역구 154석, 유정회 77석으로 모두 231석으로 증가하였다.
- 선거구 및 구, 시, 군 위원회와 투표구위원회에 회의참관인제도를 신설하였다.
- 후보자 등록신청시 납입하는 기탁금액을 인상하였으며 합동연설회 회수의 증가. 현수막 게시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을 신설하였다.
- 투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토록 하였고 개표참관인의 선정대상범위를 일부 제한하였다.

〈표 3-2-31〉 제10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4선거구 후보자 등록 및 득표 상황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1	민주공화당	정일권	남	61	국회의원	영국옥스포드대 수학	육군참모총장 국무총리	58,251	당선
2	신민당	허경구	남	36	정치인	하와이대 정치학과졸	고대조교수	10,258	
3	무소속	김기환	남	57	농업	동경중앙대 경제과졸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장	1,551	
4	무소속	박경원	남	57	회사임원	건국대 경제학과졸	경북, 강원도지사	10,789	
5	무소속	이참수	남	39	농업	건국대 경영대학원졸	영동여상교사	3,991	
6	무소속	함종빈	남	55	회사원	고대정치학과졸	5,9대국회의원, 대한페인트(주) 대표	11,779	당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제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원 제4선거구는 표에서 보듯이 민주공화당에 정일권 후보, 신민당의 허경구 후보, 무소속의 김기환, 박경원, 이참수, 함종빈 후보 등 6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투표결과 민주공화당의 정일권 후보가 58,251표, 무소속의 함종빈 후보가 11,779표, 신민당 허경구 후보가 10,258표의 순으로 득표함으로서 민주공화당의 정일권 후보와 무소속의 함종빈 후보가 제1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지역별 후보자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32〉 제10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4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민주공화당	신민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정일권	허경구	김기환	박경원	이참수	함종빈
속초시	34,045	31,340	19,651	3,091	322	3,161	1,017	3,761
고성군	26,482	23,590	14,249	2,057	302	4,172	743	1,768
양양군	23,654	20,541	9,436	1,467	551	1,693	1,690	5,474
인제군	25,461	22,306	14,915	3,643	376	1,763	541	776
합계	109,642	97,777	58,251	10,258	1,551	10,789	3,991	11,77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9.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는 1981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 동 선거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1981년 1월 29일 새로 제정 · 공포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새로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의 정수는 276석으로 하였고, 지역구의원(의원정수의 3분의 2)과 전국구의원(의원정수의 3분의 1)으로 구성하였다. 지역구는 1구 2인 선출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고, 전국구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전국구의석의 배분은 제1당에 무조건 3분의 2를 배분하고 제2당부터는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했는데 이같은 의석배분은 제12대 국회까지 존속하였다.
- 전국구후보자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지역구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을 무소속 1,500만원, 정당추천자는 7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선거운동기구는 전국구가 서울에 1개소의 선거사무소와 지역구마다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시 · 군 · 구마다 1개소의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선거운동관계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책임자. 선거사무원과 정당으로 하였으며, 선거운동방법은 선거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현수막, 후보자 성명게시의 방법으로 제한하였으며, 선전벽보첨부는 도시인구 · 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에 1매로 축소하였다.
- 투개표참관인수당을 전액 국고부담으로 하였으며 투표용지에 게재한 기호는 지역구위원회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참여하에 추첨하되 기호는 정당추천후보에게 우선 부여하고 그 다음 무소속 후보자에 부여하도록 하였다.
- 참관인수는 투개표참관인을 8인으로 하여 4인씩 교대하여 참관하도록 하였으며, 참관인의 추천은 투표참관인은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2인, 무소속은 1인을 추천토록 하였고, 개표참관인의 추천은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 선거법에 의하여 국회의원 선거구의 개편이 있었다. 속초시는 고성, 인제, 양구군과 함께 한 선거구로 하여 강원도 5선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인의 국회의원을 12대 국회의원 선거시까지 선출하였다.

〈표 3-2-33〉 제11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5지역구 후보자 등록 및 득표 상황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1	민권당	김응조	남	72	정치인	육군대학졸	5대 국회의원	8,888	
2	민주한국당	허경구	남	39	무	하와이 주립대학교졸	고대 조교수	19,597	당선
3	한국국민당	김준교	남	55	상업	춘천대학졸	중앙정보부강원지부장 현대조선소 총무이사	4,808	
4	민주정의당	정재철	남	53	정치인	동국대학교졸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한일은행장	54,767	당선
5	민주사회당	김응삼	남	46	광업	춘천대학졸	전국기독교학생회장	7,68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 제5선거구는 표에서 보듯이 김응조, 허경구, 김준교, 정재철, 김응삼씨 등 5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투표결과 총투표수 96,636표 가운데 정재철 후보 54,767표, 허경구 후보 19,597표, 김응조 후보 8,888표의 순으로 득표함으로써 집권당인 민정당 정재철 후보와 민한당 허경구 후보가 제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각 지역별 후보자 득표 상황은 <표 3-2-34>와 같다.

〈표 3-2-34〉 제11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제5지역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민권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민주정의당	민주사회당
			김응조	허경구	김준교	정재철	김응삼
속초시	35,755	35,055	3,951	6,551	2,407	17,572	4,227
고성군	26,508	23,517	2,143	3,795	865	15,129	1,365
양구군	25,356	21,994	1,613	6,506	1,044	11,482	1,154
인제군	17,841	16,070	1,181	2,745	492	10,584	938
합계	105,460	96,636	8,888	19,597	4,808	54,767	7,68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10.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85년 2월 12일 시행되었다. 동 선거는 여야협상으로 1984년 7월 25일 개정·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선거법에서 몇 개 부분만 보완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선전벽보 첨부매수를 구·시는 인구 300인에 1매, 군은 인구 100인에 2매로 함으로써 구·시는 인구를 늘렸고, 군은 매수를 늘려 책정하였다. 합동연설회 횟수를 늘렸으며 합동연설회 고지벽보를 연설회당 200매로 늘렸다. 투표와 개표참관인은 12인으로 증가시켰으며 수시교체토록 하였다.
- 전국구 후보자 등록시 700만원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하였다.

〈표 3-2-35〉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 후보자등록 및 득표상황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1	민한당	허경구	남	43	정치인	미국하와이대 정치학과졸	고려대 조교수	23,226	당선
2	민정당	정재철	남	57	국회의원	동국대 정치학과졸	한일은행 은행장	62,030	당선
3	신민당	최정식	남	56	운수업	연세대 철학과 3년중퇴	동보운수 주식회사 사장	18,26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원 제5선거구는 표에서 보듯이 허경구, 정재철, 최정식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105,391표 가운데 민정당 정재철 후보 62,030표, 민한당 허경구 후보 23,226표, 신민당 최정식 후보 18,266표를 얻어 민정당 정재철 후보와 민한당 허경구 후보가 제1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제5선거구의 지역별 후보자 득표상황은 <표 3-2-36>과 같다.

〈표 3-2-36〉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민한당	민정당	신민당
			허경구	정채철	최정식
속초시	41,618	39,817	6,785	22,323	10,022
양구군	18,806	16,688	3,869	10,672	1,881
인제군	26,139	23,401	7,185	13,330	2,351
고성군	28,965	25,485	5,387	15,705	4,012
합 계	115,528	105,391	23,226	62,030	18,26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11.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1988년 4월 26일 시행되었다. 동 선거는 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로 전문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이 적용되었다. 이 선거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후보자의 선거운동원수를 선거사무소에 40인, 선거연락소에 20인, 투표구에 3인씩을 두도록 하였다.
-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의 기호 · 성명 · 사진 · 경력 · 정견 등을 표시한 소형인쇄물을 제작 · 배포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금지 시켰다.
- 부재자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용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 종전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총 224개 지역구에서 224인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표 3-2-37〉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선거구 후보자등록 및 득표상황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1	민정당	정재철	남	60	국회의원	동국대 졸업	11, 12대 국회의원 정무제1장관	27,297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2	민주당	최정식	남	59	정치인	연세대 문과대 철학과 수학	김영삼후보 고성군선거 대책위원장	31,395	당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이 법에 의해 국회의원선거구가 중선거구제의 강원 5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의 속초 · 고성선거구로 변경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속초 · 고성선거구는 표에서 보듯이 민정당 정재철 후보, 민주당 최정식 후보 등 2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투표결과 총투표수 59,553표 가운데 민정당 정재철 후보가 27,297표, 민주당 최정식 후보가 31,395표로 최정식 후보가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지역별 후보자 득표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3-2-38〉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민정당	민주당
			정재철	최정식
속초시	44,452	35,208	14,966	19,768
고성군	30,223	24,325	12,331	11,627
합 계	74,675	59,533	27,297	31,395

12.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1992년 3월 24일 시행되었다. 동 선거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2호로 일부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이 적용되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원의 정수를 현행의 지역구 및 전국구의원정수를 합한 299인으로 정수화함으로써 전국구 의원정수를 지역구 의원정수의 증감에 비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구 · 시 · 읍 · 면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선거인명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 · 시 · 읍 · 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후보자의 등록기간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 지역구후보자의 기탁금을 종전에는 정당추천후보자는 1천만원, 무소속 후보자는 2천만원으로 하던 것을 균등하게 1천만원으로 하였으며, 기탁금의 국고귀속사유를 후보자의 득표수가 종전에는 당해 선거구의 유효투표종수의 3분의 1을,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때로 완화하였다.

·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하였다.

·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내용에 따라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연설회를 선거구당 1회(2회이상의 구 · 시 · 군의 경우에는 구 · 시 · 군마다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형인쇄물은 후보자 4종, 정당 2종으로 하고 그 내용제한을 완화하여 후보자와 정당의 알릴 기회를 확대하였다. 소형인쇄물의 배포방법에 호별투입에 의한 배포(호별방문은 금지)를 허용하였다.

·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된 때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이상을 득표한 때에는 선전벽보의 작성 · 첨부 · 철거비용,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및 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였다.

〈 표 3-2-39〉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선거구 후보자등록 및 득표상황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1	민자당	정재철	남	64	정치인	대졸	전 국회의원	27,598	당선
2	민주당	함종빈	남	68	무	고려대 정치학과 졸	5,9,10대 국회의원	2,862	
3	국민당	김용현	남	47	회사원	연세대졸	연우컴퓨터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7,422	
4	무소속	조영두	남	39	영북지역 발전 연구소 이사장	연세대 행정대학원 수료	영북지역 발전연구소 이사장	5,626	
5	무소속	최정식	남	63	국회 의원	연세대 대학원 수료	13대 국회의원 국회 내무위원	7,64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속초고성군 선거구는 표에서 보듯이 정재철, 함종빈, 김용현, 조영두, 최정식 등 5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61,897표 중 민자당 정재철 후보가 27,598표, 국민당 김용현 후보가 17,422표, 무소속 최정식 후보가 7,644표의 순으로 득표함으로서 민자당 정재철 후보가 제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지역별 후보자 득표상황은 <표 3-2-40>과 같다.

<표 3-2-40>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선거구 후보자별,지역별 득표상황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	무소속	무소속
			정재철	함종빈	김용현	조영두	최정식
속초시	48,378	38,294	15,038	1,850	12,493	4,249	4,205
고성군	28,063	23,603	12,560	1,012	4,929	1,377	3,439
합 계	76,441	61,897	27,598	2,862	17,422	5,626	7,64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13.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1996년 4월 11일 시행되었다. 1994년 3월 16일 국회는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모아 하나의 단일법전으로 통합하여 법률 제4739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하도록 하되, 선거일이 공휴일이거나 선거일전일 또는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각각 그 다음주의 목요일로 하도록 하였다.
- 공무원 등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선거운동의 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벽보 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등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이 법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996년 2월 6일 일부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취지에 맞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였다.
· 종전에는 선거구 밖에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기부행위금지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원등이 이 법의 개정으로 조정된 선거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직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 표 3-2-41〉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선거구 후보자등록 및 득표상황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신한국당	송훈석	남	45	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졸업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장 설악권개발연구소 이사장	29,554	당선
2	국민회의	최정식	남	67	정치인	서강대 경영대학원 수료	제13대국회의원 국민회의 당무위원	9,519	
3	민주당	조영두	남	43	정치인	국제 대학교 법학과 졸업	강원 미래연구소 상임위원 영북지역발전연구소이사장	7,709	
4	자민련	한병기	남	64	정치인	페리어디킨슨 대학원 졸업	외무부정책자문위원 강원도장기발전기획 위원회위원	22,880	
5	무소속	정광벽	남	40	자유업	강원대학교 농학과 졸업	설악민주사랑회 회장 지역문제연구소 소장	6,667	
6	무소속	황돈태	남	56	미래정치연구소	속초 고교 졸업	속초시부시장 강원도 지방과장	10,24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표에서 보듯이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선거구에 6명의 후보가 난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실시 되는 선거로서 정치참여의 증대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한 후보는 신한국당의 송훈석, 국민회의의 최정식, 민주당의 조영두, 자민련의 한병기, 무소속의 정광벽, 무소속의 황돈태 후보 등이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89,076표 중 신한국당 송훈석 후보 29,544표, 자민련 한병기 후보 22,880표, 무소속 황돈태 후보 10,248표의 순으로 득표함으로써 신한국당의 송훈석 후보가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각 지역별 후보자 득표상황은 <표 3-2-42>와 같다.

<표 3-2-42>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신한국당	국민의회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무소숙
			송훈석	최정식	조영두	한병기	정광벽	황돈태
속초시	55,279	35,841	10,994	4,078	3,070	10,725	320	5,969
고성군	27,731	20,048	9,632	2,727	1,307	4,803	202	727
양양군	22,242	16,068	4,155	966	2,524	4,489	312	3,055
인제군	24,088	17,119	4,763	1,748	808	2,863	5,833	497
합계	129,340	89,076	29,544	9,519	7,709	22,880	6,667	10,24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14.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0년 4월 13일 시행되었다. 동 선거는 2000년 2월 16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었다. 그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문 기타 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30일후까지 운영하도록 하였다.
-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였다.
-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보자정보공개대상에 현행 재산

사항 외에도 병역사항과 최근 3년간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 ·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시 · 군 · 구의 장 선거의 기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후보자를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였다.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인구 9만미만인 행정구역은 선거구를 통합하고, 인구 35만이상인 행정구역은 2개의 선거구로 분할함으로써 26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감축하였다.

〈 표 3-2-43〉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선거구 후보자등록 및 득표상황

기호	정명당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한나라당	정재철	남	72	정치인	동국대 정치학과 4년졸업	정무장관 11대, 12대, 14대 국회의원	32,212	
2	민주당	송훈석	남	49	국회의원	고려대 법대행정과 4년졸업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5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원내부총무	35,576	당선
3	자민련	이참수	남	60	강릉대 회계학과 교수	세종대 대학원 졸업 경영학박사	강릉대 직선초대총장 자유민주연합 중앙당부총재	12,581	
4	무소속	허경구	남	57	국제정치 연구소 이사장	하와이주립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고려대학교 교수 11대, 12대 국회의원	3,88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표에서 보듯이 정재철, 송훈석, 이참수, 허경구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85,730표 중 민주당의 송훈석 후보가 35,576표, 한나라당 정재철 후보 32,212표, 자민련에 이참수 후보 12,581표의 순으로 득표함으로써 민주당의 송훈석 후보가 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다. 각 지역별 후보자 득표상황은 다음 <표 3-2-44>와 같다.

〈표 3-2-44〉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정재철	송훈석	이참수	허경구
속초시	61,832	35,838	14,117	15,555	4,282	1,414
고성군	26,825	17,868	6,878	7,955	1,944	745
양양군	23,044	15,823	4,328	5,636	4,877	647
인제군	24,055	16,201	6,889	6,430	1,478	1,083
합 계	135,756	85,730	32,212	35,576	12,581	3,88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4년 4월 15일에 시행되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속초, 고성, 양양군 선거구는 표에서 보듯이 한나라당 정문헌 후보, 민주당 송훈석 후보, 열린우리당 이동기 후보, 무소속 장종수 후보, 무소속 함범희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표 3-2-4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선거구 후보자등록 및 득표상황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1	한나라당	정문헌	남	37	동국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연구교수 유암문화재단 이사장	23,369	당선
2	민주당	송훈석	남	53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	제15대, 제16대 국회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14,087	
3	우리당	이동기	남	29	정당인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졸업	열린우리당 속초, 고성, 양양 창당추진위원장	17,147	
4	무소속	장종수	남	58	정치인	연세대학교 법학과졸업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	5,763	
5	무소속	함범희	남	46	대학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박사)	강원대 AMP 지도교수 중국북경 경무대학 학자	4,93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투표결과 한나라당 정문헌 후보가 23,369표, 열린우리당 이동기 후보가 17,147표, 민주당 송훈석 후보가 14,087표의 순으로 득표함으로서 한나라당의 정문헌 후보가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지역별 후보자 득표상황은 <표 3-2-46>과 같다.

〈표 3-2-46〉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선거구 후보자별, 지역별 득표상황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무소속	무소속
			정문헌	송훈석	이동기	장종수	함범희
속초시	64,113	35,737	12,879	7,828	9,563	3,300	1,687
고성군	25,487	15,804	5,737	4,084	3,907	1,250	584
양양군	23,101	14,795	4,753	2,175	3,677	1,213	2,660
합계	112,701	66,336	23,369	14,087	17,147	5,763	4,93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인터넷사이트

제3장 행정

제1절 속초시 행정기구

현대 행정의 특징은 소극국가와 야경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적극국가이자 복지국가의 영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전의 중앙집권주의에 입각한 관치행정에서 지방분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자치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속초시도 1991년 3월 26일에 임기 4년의 시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7월 1일에는 동문성 시장이 민선시장으로 선출·취임하여 완전한 자치행정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사진 3-3-1〉 속초시의 전경

속초시의 위치는 동경128° 25′~37′, 북위 38° 7′~13′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강원도의 동북간에 위치하여 전국 제1의 명산인 설악산을 중심으로 수도인 서울과는 248㎞,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는 174.6㎞, 휴전선과는 62㎞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산, 바다, 호수(청초호, 영랑호), 온천, 해수욕장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표 3-3-1〉 속초시의 지리적 위치

소재지	방위	경도와 위도의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속초시 중앙동 469-6 동경 128° 25' ~ 37' 북위 38° 7' ~ 13'	동단	속초시 청호동 1340	동경 128° 37'	동서간 19㎞
	서단	속초시 설악동 산41	동경128° 25'	
	남단	속초시 설악동 산41	북위 38° 07'	남북간 9㎞
	북단	속초시 장사동 478	북위 38° 13'	

자료: 속초시 홈페이지

1. 속초시 구역

속초시는 196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은 면적 66㎢로서 16개 리[8]에 312개 반으로 출발하였고, 가구는 10,864세대에 인구는 55,619명이었다. 이후 1966년 1월 1일에는 '속초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조례 제95호) 공포로 리를 동으로 변경하여 동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16개 리에서 12개 동으로 개편하였다.

8) 16개 리로는 속초리,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부월리, 외옹치리, 대포리, 내물치리, 하도문리, 중도문리, 상도문리, 장항리 등이다.

〈표 3-3-2〉 행정구역 개편 현황

시제 행정구역(1963. 1. 1)		동제 행정구역(1966. 1. 1)
속초리	1구, 2구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3구. 4구	금호동
	5구	청호동
	6구	청학동, 교동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노학동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조양동
부월리	1구	
	2구	청호동
외옹치리, 대포리, 내물치리,		대포동
하도문리, 중도문리, 상도문리, 장항리		설악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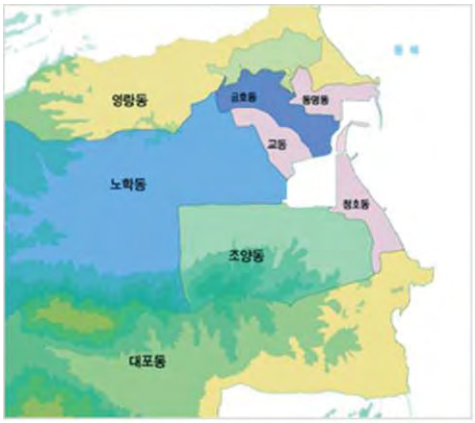
자료: 속초문화원, 『속초의 근 · 현대사』, 2004, p.145

이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던 행정구역은 인구증가와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1973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편입 및 통합이 이루어졌는 데, 이 때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장사동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설악동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표 3-3-3〉 행정구역 통폐합 현황

날 짜	기존구역	통폐합(동)	관계법령
1973. 1. 1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 사진리	장사동	대통령령 제6542호
1983. 2. 15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	설악동	대통령령 제11027호
1990. 4. 1	사진동, 장천동	장사동	시 조례 제1293호
1998. 10. 17	영랑동, 장사동	영랑동	시 조례 제1657호
	중앙동, 금호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일부	교동	
	교동 일부, 노학동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대포동	

현재 속초시 총면적은 105.25㎢로서 강원도 전체 면적 16,848.20㎢의 0.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설악산이 55.80㎢인 53.2%를 차지하고 있다. 동별로는 영랑동이 7.58㎢(7.2%), 동명동이 0.78㎢(0.7%), 금호동이 1.43㎢(1.4%), 교동이 0.75㎢(0.7%), 노학동이 22.30㎢(21.2%), 조양동이 5.61㎢(5.3%), 청호동이 0.93㎢(0.9%), 대포동이 65.87㎢(62.6%)이다.



〈그림 3-3-1〉 속초시 행정구역

용도별로는 녹지지역이 57.5%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거지역(16.3%), 상업지역(6.1%), 공업지역(2.2%)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속초시의 72.211㎢(65.1%)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표 3-3-4〉 용도별 주거지역 현황

구 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제1종	제2종	제3종	준주거		일반공업	준공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면적(㎢)	1.54	2.26	0.97	0.32	1.88	0.66	0.05	1.06	22.68	-	5.64
비율(%)	16.3				6.1	2.2		57.5			17.9

1962년 10,464세대에 50,703명이었던 속초시는 1963년 시로 승격하면서 10,864세대 55,619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농업과 어업이 융성하던 1973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73년을 기점으로 속초의 인구는 서서히 감소하였고, 1980년에 들어오면서 시차원에서 벌인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과 관광진흥정책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5

년에는 80,000명을 넘었고, 2000년에는 90,000명을 돌파하였다가 최근에는 소폭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 표 3-3-5〉 속초시 인구추이 (단위: 명/세대)

구 분	세 대	인구수(명)			가구당 인원	증감 (%)
		계	남	여		
1962	10,464	50,703	25,586	25,117	4.8	–
1963	10,864	55,619	28,149	27,470	5.1	9.7
1964	11,286	58,508	29,680	28,828	5.2	5.2
1965	11,354	60,316	30,357	29,959	5.3	3.1
1966	12,264	63,100	31,849	31,351	5.2	4.6
1967	12,785	67,079	33,704	33,375	5.2	6.3
1968	13,185	71,033	35,741	35,292	5.4	5.9
1969	13,895	73,023	36,911	36,112	5.3	2.8
1970	14,527	73,096	37,097	35,999	5.0	0.1
1971	14,304	72,694	36,845	35,849	5.1	△0.5
1972	14,366	74,485	37,631	36,854	5.2	2.5
1973	14,620	75,968	38,450	37,518	5.2	2.0
1974	14,588	75,492	38,146	37,346	5.2	△0.6
1975	14,653	71,475	36,489	34,986	4.9	△5.3
1976	14,801	72,042	36,493	35,549	4.9	0.8
1977	14,819	72,771	36,628	36,143	4.9	1.0
1978	14,595	71,737	36,209	35,528	4.9	△1.4
1979	14,786	71,940	36,117	35,823	4.9	0.3
1980	14,452	65,798	33,230	32,568	4.6	△8.5
1981	14,839	68,523	34,597	33,926	4.6	4.1
1982	15,117	69,248	34,845	34,403	4.6	1.1
1983	16,287	72,324	36,279	36,045	4.4	4.4
1984	16,650	73,002	36,685	36,317	4.4	0.9
1985	17,486	69,595	34,737	34,858	4.0	△4.7
1986	17,584	71,211	35,451	35,760	4.1	2.3
1987	17,888	71,913	35,537	36,376	4.0	1.0
1988	18,409	72,006	35,795	36,211	3.9	0.1
1989	19,355	73,424	36,612	36,812	3.8	2.0
1990	19,812	73,805	36,849	36,956	3.7	0.5
1991	21,012	74,905	37,095	37,810	3.5	2.2
1992	21,785	74,798	37,231	37,567	3.4	△0.1
1993	23,133	76,646	38,140	38,506	3.3	2.5
1994	24,414	78,622	39,107	39,515	3.2	2.6
1995	25,792	80,709	40,076	40,633	3.1	2.7
1996	27,022	82,568	40,845	41,723	3.1	2.3
1997	28,575	85,427	42,338	43,089	3.0	3.4
1998	29,729	87,070	43,234	43,836	2.9	2.1
1999	30,891	88,914	44,160	44,754	2.9	2.0
2000	32,019	90,201	44,717	45,484	2.8	1.4
2001	32,782	90,543	44,786	45,757	2.7	0.3
2002	33,258	90,447	44,765	45,682	2.7	△0.5
2003	33,848	89,458	44,242	45,216	2.6	△1.1
2004	34,012	87,933	43,413	44,520	2.6	△1.7

세부적으로 동별 인구를 살펴보면, 1965년 동제를 실시하면서 당시 인구 60,316명 중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지역에 50% 이상인 30,892명이 거주하였다. 특히 이들지역에는 중앙시장과 청호동 피난민촌이 형성되어 있어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살았던 반면에 노학동과 조양동 지역은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낮은 인구밀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척되면서 과거의 인구밀집 지역은 쇠퇴하고 노학동과 조양동 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노학동은 1980년 동우대학이 설립되면서 외지의 젊은 층이 대량 유입되었고, 조양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택지개발에 따른 신시가지가 형성된 데 기인한다.

〈 표 3-3-6〉 동별 인구 현황(외국인제외) (단위: 명/세대)

동 별	세 대	인구 수(명)		
		계	남	여
계	34,012	87,933	43,413	44,520
영랑동	2,727	6,854	3,432	3,422
동명동	2,043	4,882	2,468	2,414
금호동	3,257	7,915	3,910	4,005
교 동	5,387	14,131	6,935	7,196
노학동	8,768	23,098	11,367	11,731
조양동	7,830	21,372	10,428	10,944
청호동	2,185	5,161	2,588	2,573
대포동	1,815	4,520	2,285	2,235

자료: 속초시, 『통계연보』, 2005.

한편, 2004년 말 속초지역의 주택은 31,907호로서 보급률은 93.8%이다. 특히 2005년도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속속 추진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주택보급율은 1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3-3-7〉 주택보급 현황

구분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주택수(천호)	28.3	31.1	31.2	31.3	30.4	31.9
보급률(%)	92.6	97.2	95.2	94.2	90.9	93.8

자료: 속초시 홈페이지

2. 행정기구

오늘날 행정수요는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 심화를 요구하고 있다. 종래에 있어서 행정의 중심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었다면 오늘날의

행정은 지역발전과 복지를 능동적으로 창도해 가는 적극행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기구의 합리성, 적정성, 대응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해방 이후 수차례에 걸쳐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과 지방실정에 맞는 기구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속초시는 1963년 시로 승격할 당시 행정기구는 1실 5과 2사무소 16리에 연합사무소 11개로 출발하였다.[9] 1966년에는 16개리 11개 연합사무소를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의 12개 동으로 구역과 명칭을 개편하여 동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1969년 5월 25일에는 부시장 직제가 신설되고 감사실과 민원실이 신설되어 민원행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70년도에 들어오면서 근대화의 기수인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1973년 새마을과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녹지과와 민방위과가 신설되어 산림녹지사업과 민방위업무를 보기 시작하였다.[10]

1973년 7월 1일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와 장천리가 속초시로 편입되었다. 그 동안 속초는 시로 승격되었지만 사용할 만한 토지의 한계로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장사동의 신설은 시가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동수도 13개 동으로 늘어나 현재의 속초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였다. 1978년과 1979년에는 회계과, 도시과, 수도과를 신설하여 인구증가 및 주거지역 확대에 대비케 하였다. 또한 건설과에 관리계가 신설되어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관광과가 설치되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속초가 문화적인 도시로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84년도에 공보실 내에 문화계를 신설하면서부터이다. 문화계의 신설로 문화발전에 가속도가 가해지고, 1988년도에는 속초시 문화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문화행사의 장으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각종 공연과 학교축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1991년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이를 지원하는 시의회 사무과가 만들어졌고, 1995년도에는 민선시장 시대가 본격 출범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 29일에는 국제관광엑스포 기획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관광엑스포 준비에 돌입하였으며, 19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여 관광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98년에는 국가적으로 IMF위기를 겪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으며, 전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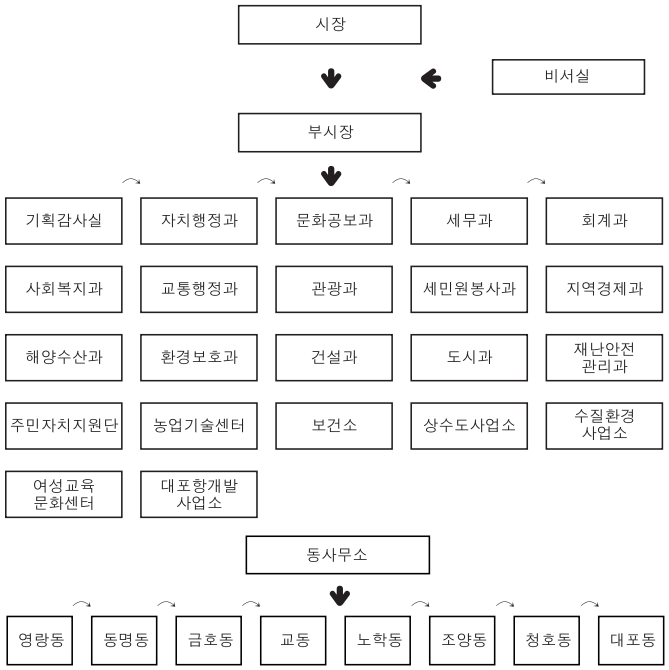
9) 1실로는 공보실, 5과는 총무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건설과 등이며, 2사무소는 농촌지도소와 보건소이고, 16리로는 속초리,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부월리, 외옹치리, 대포리, 내물치리, 하도문리, 중도문리, 상도문리, 장항리였다.

10) 속초문화원, 『속초의 근 · 현대사』, 2004.

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은 공공조직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많은 과와 계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었으며, 공무원 숫자도 628명에서 562명으로 대폭 줄게 되었다. 본청에서는 4개 과(가정복지과, 지적과, 녹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1개 계(세무과 체납정리계)가 폐지되었고, 동사무소도 13개 동에서 8개 동(중앙동, 청학동, 도문동, 설악동, 장사동 폐지)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확대 · 팽창에 대비한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계와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보강한 북방교류사업소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는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나 주민자치센터와 동을 지원하는 주민자치지원단, 산불 · 수해 등 대형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재난안전관리과, 그리고 자치행정과내의 인사계, 노사협력계 등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2005년 현재 속초시 행정조직은 시장밑에 부시장, 그리고 그 산하에 1실 14과 2직속기관, 4사업소, 8동을 두고 있는 바 구체적인 기구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3-3-2〉 속초시 행정기구표

3. 동(洞)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가. 동(洞)의 변화

동(洞)은 시 행정의 제반시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말단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행정단위(行政單位)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동(洞) 기능은 한낱 중간 연락기관으로 시민의 여론을 시본청에 중개하는 역할에 한정되었고, 지역의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였다. 점차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시(市)가 발전함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8년 10월 17일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원조례' 제1657호에 의거 8개 행정동으로 통·폐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3-3-8〉 속초시 행정동 및 면적

구 분	면 적		동		통	반
	(㎢)	구성비(%)	행정	법정		
합 계	105.25	100	8	13	202	1044
영랑동	7.58	7.2	1	2	13	67
동명동	0.78	0.7	1	1	15	78
금호동	1.42	1.4	1	2	27	134
교 동	0.75	0.7	1	3	37	201
노학동	22.30	21.2	1		44	241
조양동	5.61	5.3	1	1	35	195
청호동	0.93	0.9	1	1	16	65
대포동	65.87	62.6	1	3	15	63

자료: 속초통계연보, 2004

나. 주민자치센터

그 동안 읍, 면, 동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을 신규로 증대되는 주민복지, 문화관련 기능을 보완하여 동사무소의 업무 중 민원위주의 업무만 동에서 처리하고 청소, 환경, 가로등, 선거업무, 각종 단속업무 등을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인원도 감축됨에 따라 생기는 여유공간을 주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사진 3-3-2〉 영랑주민자치센

1) 추진현황
   · 동 기능 전환대상: 8개동
   · 주민자치센터 운영: 8개동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181명
3)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직장인, 주부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단련장, 인터넷검색, 스포츠댄스, 민요교실, 꽃꽂이강좌 등이 공통적인 프로그램이고, 특히 동명동과 금호동의 푸드뱅크, 청호동의 침술방 등은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평가 되고 있다.

〈 사진 3-3-3〉 주민자치운영프로그

제2절 공무원

상술한 구역이라는 여건과 기구라는 조직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기구의 확대에 따라 자연 증가하게 되는 데 여기에는 파킨슨의 법칙이 적용되게 마련이다. 즉, 담당업무의 증가에는 관계없이 공무원 수를 늘리려는 공무원들의 경향을 말한다.

2004년 말 현재 속초시 공무원 수는 541명으로 1인당 162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본청공무원 333명 61.5%, 의회사무과 공무원 11명 2%, 직속기관공무원 47명 8.7%, 사업소공무원 76명 14.1%, 동공무원 74명 13.7%로 이외에 소방공무원 25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3-3-9〉 공무원 현황(정원)

구분	합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1997	628	1	30	433	2	37	94	142	117	29	–	–	1	11	157	7
1998	562	1	22	404	2	31	85	138	110	28	–	1	1	8	131	4
1999	522	1	9	382	2	28	86	137	106	14	–	1	1	7	127	3
2000	519	1	7	385	2	28	89	137	106	14	–	1	1	7	123	3
2001	521	1	5	389	2	29	89	138	106	16	–	1	1	7	123	3
2002	525	1	4	396	2	29	90	140	106	20	–	1	1	7	121	3
2003	525	1	4	397	2	29	91	140	106	20	–	1	1	7	120	–
2004	541	1	4	411	2	29	96	141	112	22		1	1	7	125	–
본청	333	1	4	258	2	14	68	88	76	10	–	–	–	–	70	–
의회	11	–	–	6	–	2	1	3	–	–	–	–	–	–	5	–
직속	47	–	–	41	–	1	7	12	13	–	–	–	1	7	6	–
사업소	76	–	–	40	–	4	12	15	7	1	–	1	–	–	36	–
동	74	–	–	66	–	8	8	23	6	11	–	–	–	–	8	–

자료: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1990년대 이후 줄곧 600여명 수준을 유지하던 시 공무원 수가 1997년 628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사실 시 공무원 수는 수원시(공무원 1인당 308명의 시민 담당) 등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숫자로 공무원의 감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게다가 2007년 총액임금제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의 과다는 또다른 문제거리를 잉태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수의 증원보다는 엘리트 공무원의 육성과 적재적소 배치 및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3절 역대시장 및 부시장

1. 역대시장

1963년 속초시로 승격된 후의 역대시장은 24대인 데 그 중 민선은 22, 23, 24대인 동문성 시장 1명 뿐 모두 임명제였다. 최장수 재임시장은 동문성 시장으로 199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1월 현재까지 10년 5개월의 재임을 기록하고 있다. 임명직 중에서는 제7대 엄대현 시장으로 3년 2개월을 재임하였으며, 가장 짧은 임기를 마친 시장으로는 제15대 배계섭 시장으로 6개월이 조금 못미치는 기간이었다.

〈표 3-3-10〉 역대 시장 현황

구 분	성 명	본 적	임용별	재직기간	비 고
제1대	이동진(李東晋)	서 울	임명	1963. 2.25 – 1963.10.28	8개월
제2대	김동석(金東石)	함북 명천	임명	1963.10.29 – 1964. 8.26	10개월
제3대	박건주(朴建周)	강원 춘천	임명	1964. 8.27 – 1966. 9.30	2년 1개월
제4대	최규연(崔奎然)	강원 춘천	임명	1966.10. 1 – 1967.11.21	1년 1개월
제5대	이건웅(李建雄)	강원 춘천	임명	1967.11.22 – 1969.10.12	1년 11개월
제6대	김경산(金景山)	강원 명주군	임명	1969.10.13 – 1971. 7.21	1년 9개월
제7대	엄대현(嚴大鉉)	강원 영월군	임명	1971. 7.22 – 1974. 9. 3	3년 2개월
제8대	김명한(金明漢)	강원 춘천	임명	1974. 9. 4 – 1977. 6. 3	2년 9개월
제9대	전영호(全英浩)	서 울	임명	1977. 6. 4 – 1979. 7.27	2년 1개월
제10대	조성운(趙誠雲)	경북 상주군	임명	1979. 7.28 – 1981. 6.30	1년 11개월
제11대	정준시(鄭俊時)	강원 횡성군	임명	1981. 7. 1 – 1983. 4.10	2년 9개월
제12대	김광용(金光容)	강원 춘천	임명	1983. 4.11 – 1983.12.26	8개월
제13대	양종석(梁鍾釋)	경북 대구	임명	1983.12.27 – 1987. 1.14	3년 1개월

구 분	성 명	본 적	임용별	재직기간	비 고
제14대	윤태경(尹泰景)	서 울	임명	1987. 1.15 – 1988. 6.10	1년 5개월
제15대	배계섭(裵桂燮)	강원 춘천	임명	1988. 6.11 – 1988.12.31	6개월
제16대	박환주(朴桓周)	강원 춘천	임명	1989. 1. 1 – 1989.12.26	1년
제17대	홍순호(洪淳鎬)	강원 춘천	임명	1989.12.27 – 1991.11.30	1년 11개월
제18대	김승래(金昇來)	강원 강릉	임명	1991.12. 1 – 1993. 1.17	2년2개월
제19대	김광용(金光容)	강원 춘천	임명	1993. 1.18 – 1993.12.30	1년
제20대	한상철(韓尙澈)	강원 횡성	임명	1993.12.31 – 1994.12.31	1년
제21대	이돈섭(李燉燮)	강원 춘천	임명	1995. 1. 1 – 1995. 6.30	6개월
제22대	동문성(董文星)	강원 속초	민선	1995. 7. 1 – 1998. 6.30	3년
제23대	동문성(董文星)	강원 속초	민선	1998. 7. 1 – 2002. 6.30	4년
제24대	동문성(董文星)	강원 속초	민선	2002. 7. 1 – 현 재	

2. 역대 부시장

역대 부시장의 재임기록을 보면 제11대 공명택 부시장이 4년 11개월의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부시장제가 1961년 6월 21일 폐지되었다가 1966년 8월 1일에 다시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표 3-3-11〉 역대 부시장 현황

구 분	성 명	본 적	임용별	재직기간	비 고
제1대	천재덕(千在德)	강원 평창군	임명	1969. 5.25 ~ 1970. 3.31	10개월
제2대	홍재형(洪在衡)	강원 춘성군	임명	1970. 4. 1 ~ 1970.11.30	8개월
제3대	이강준(李康濬)	강원 춘성군	임명	1970.12. 1 ~ 1971. 8.22	8개월
제4대	최계명(崔桂明)	강원 강릉	임명	1971. 9.10 ~ 1973. 8. 3	1년 11개월
제5대	김형기(金亨基)	강원 원자	임명	1973. 8. 4 ~ 1975. 9.14	2년 1개월
제6대	조성운(趙誠雲)	경북 상주	임명	1975. 9.15 ~ 1979. 4. 4	3년 7개월
제7대	최승호(崔乘虎)	강원 강릉	임명	1979. 4. 5 ~ 1980. 6.22	1년 3개월
제8대	이종남(李鍾南)	강원 삼척	임명	1980. 6.23 ~ 1981. 5.11	11개월
제9대	안구순(安球淳)	강원 춘천	임명	1981. 5.12 ~ 1982. 8.16	1년 3개월
제10대	정호돈(鄭鎬敦)	강원 강릉	임명	1982. 8.17 ~ 1984. 4.20	1년 8개월
제11대	공명택(孔明澤)	강원 강릉	임명	1984. 4.21 ~ 1989. 3. 7	4년 11개월
제12대	김준영(金俊泳)	강원 양양군	임명	1989. 3. 8 ~ 1991. 1.31	1년 10개월
제13대	정국환(鄭國煥)	강원 양양군	임명	1991. 2. 1 ~ 1992. 1.10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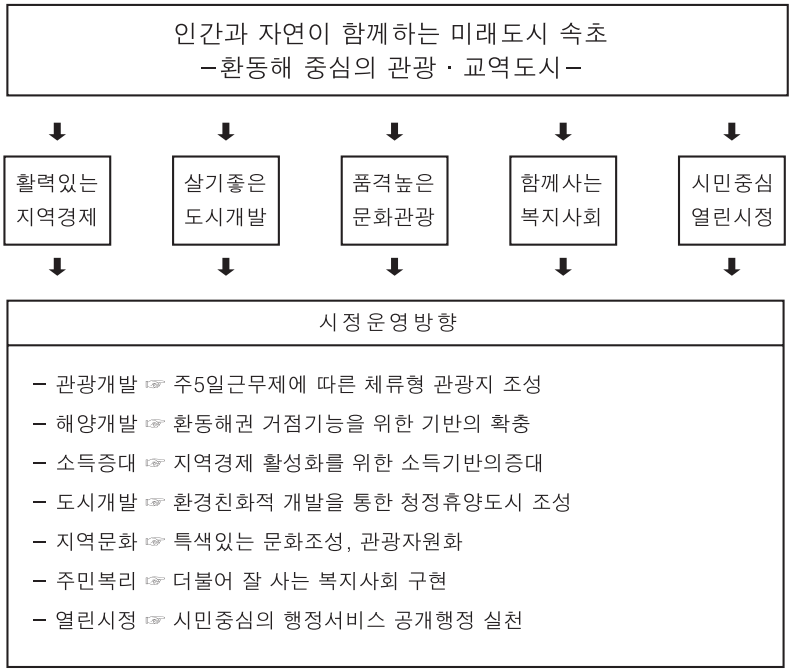
구 분	성 명	본 적	임용별	재직기간	비 고
제14대	황돈태(黃燉泰)	강원 양양군	임명	1992. 1.11 ~ 1995. 7.28	3년 6개월
제15대	곽상옥(郭琩玉)	강원 춘천	임명	1995. 7.20 ~ 1998. 6.30	3년
제16 대	채용생(蔡龍生)	강원 속초	임명	1998. 8. 5 ~ 2001. 1.17	2년 5개월
제17대	김진국(金鎭國)	강원 인제군	임명	2001. 1.18 ~ 2001.10.14	9개월
제18대	최상규(崔相奎)	강원 삼척	임명	2001.10.15 ~ 2004. 2.22	2년 4개월
제19대	정현래(鄭賢來)	강원 속초	임명	2004. 2.23 ~ 2005. 1. 2	10개월
제20대	김복천(金福千)	강원 동해	임명	2005. 1. 3 ~ 현 재	-

제4절 시정목표 및 방침

시정목표 및 방침은 시정을 이끌고 있는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행정감각과 태도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민선시대의 시장은 중앙에서 임명되어 6개월~3년 지내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임명시장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구역 내에서 가지는 지배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장이 내세우는 시정방침은 그의 임기 중에 펼쳐지는 시정의 기본방향인 동시에 시정상의 의지가 담긴 목표인 까닭에 시민들에게 주는 이미지와 함께 시의 비전제시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특히 임명시장의 경우 민선과 달라 중앙정부의 시책방향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시장의 시정방침은 곧 집권자의 국정의지의 축소판이거나 구체적인 반영인 경우가 많아서 자치권과는 거리가 있게 된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도시 속초」를 케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속초시는 환동해 중심의 관광 · 교역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① 활력있는 지역경제, ② 살기좋은 도시개발, ③ 품격높은 문화관광, ④ 함께사는 복지사회, ⑤ 시민중심 열린행정을 추진하는 데 시정방침을 두고, 관광개발(주5일 근무제에 따른 체류형 관광지 조성), 해양개발(환동해권 거점기능을 위한 기반의 확충), 소득증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기반의 증대), 도시개발(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한 청정휴양도시 조성), 지역문화(특색있는 문화조성, 관광자원화), 주민복리(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 열린시정(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 공개행정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다.



〈 그림 3-3-3〉 시정목표 및 시정방침

제5절 2005년도 시정 주요시책

1. 주요 시정시책

2005년도 시정 주요시책을 세계지향의 인프라 구축, 사계절 관광인프라 확충,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 함께사는 복지사회 정착, 품격높은 지역문화 창달, 시민만족 · 열린시정 추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세계지향의 인프라 구축

1) 속초항의 세계화 기반 구축

- 환동해 거점항으로서의 속초항 확장
  -동서고속도로 신설과 연계, 항만 물동량 분담흡수(방파제 확장 150m, 20억원)
- 구수로 교량건설로 유통체계 개선, 도심 교통난 해소
  -교량 530m, 도로 600m(2008년까지 335억원 투입)
- 지역경제와 연계된 북방 해운항로 지원체계 강화

–동해세관 속초출장소 신축으로 국제물류 유통체계 마련

2) 국제교류로 세계적 인지도 확보

•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지도 확보
–제11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참가(실질적 협력 전개)
–자매결연(그레샴시 · 요나고시) 국제도시 연계 강화
–대만대동현, 중국 동북3성,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초청을 통한 경제활성화
–조선족 위안 훈춘시 가요제 지원

3) 미래비전을 구체화하는 장단기 계획수립

• 미래비전 구체화를 위한 중기개발계획 수립(목표년도 2010년)
•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계획 수립(목표년도 2011년)
–친환경 생태보전도시로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목표년도 2025년)과 도시관리계획(2015년)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체계 및 친환경적 종합발전계획 수립

4) 국내외 물류 유통망 확충

• 2시간대 수도권 동서접근 교통망 조기 구축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및 44번 국도 확포장(2001–2006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춘천~양양), 춘천~속초간 철도부설 건의
•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간선 교통망 본격 추진
–동해북부선 철도망 복원(강릉~고성)
–동해고속도로 북부노선(주문진~속초)
•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시내 연결도로망 확충
–조양~교동간 도로 개설
–목우재터널 관통도로 개설
–수복로 개설

나. 사계절 관광인프라 확충

1) 신뢰받는 관광객 환대서비스 창출

• 전국 제1의 정보화 관광도시 기반구축
–계절형 테마관광코스 가상체험시스템, 메일링서비스 구축
–편리한 여행정보 제공을 위한 관광홈페이지 컨텐츠 강화
–관광지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 미소와 친절의 전시민 관광요원화운동 지속 전개
  –친절・질서・청결・신용 실천운동 지속전개
  –인터넷 및 방문 설문조사 실시, 관광객 환대서비스 전개

2)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조성

• 매력적인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백사장연장(550→700m), 해변테마 산책로 조성
  –주차장 확충, 오토캠핑장 조성
  –해변 추억의 상징물 조성(의자, 쉼터, 조형물)
• 친환경적인 테마 관광자원 개발
  –드라마촬영지 관광자원화: 종합안내판, 조형물, 기념촬영장 조성
  –청초호 철새도래지 탐조대 설치
  –독특한 온천 테마휴양지 조성을 위한 민자투자 촉진
• 항만시설의 관광자원화
  –속초항 방파제 가로등 보수
  –속초등대 종합정비사업 추진: 해상교통 서비스 증대, 해양관광시설화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 특색있는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부
  –국제적 감각에 맞는 관광홍보 책자 제작
  –홍보물 국외배부 루트개척: 책자, 안내지도, 홍보CD 제작
• 공격적 국내・외 홍보마케팅 전개
  –방송드라마 작가 초청 관광설명회 개최,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관광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수도권 위주 관광홍보 광고 전국 확대: 와이드칼라, 동영상 전광판 광고
• 외국인 편의 위주의 관광안내체계 정비・확충
  –광광안내소 기능보강, 국제적 감각을 갖춘 통역안내원 배치
  –외국어 표기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정비

4)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관광축제

• 시민 문화의 저변 확대, 관광객 참여 축제 개발

다.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1) 생태・친자연형 도시기반 조성

• 해양환경 및 호수정화 등 청정산업 관리 및 보전
  –영랑호정화사업: 친자연형 수변조성 등
  –호소・하천 오염도 측정관리 5개소,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 쓰레기 수용한계 극복을 위한 설비 적기확보
  –폐기물소각시설(80톤/일): 최종후보지 결정・고시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90천㎡): 입지선정, 설계추진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운영

2) 시민 참여 도시환경 선진화 추진

• 속초해오미 21추진협의회, 환경감시대 운영 활성화
  –친환경・생태도시로 발전 협의체 운영 체계화
  –도시환경, 생태환경 보호를 통한 선진 환경문화 조성
  –음식물쓰레기처리 홍보강화, 각종 사업장 환경순찰 강화

3) 단계별 도시환경 개선

• 도심 저개발지구 주거환경 개선
• 도로개설 26개 사업, 도문교 교량보강
• 완벽한 재난대비 예방대책 수립, 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민방위 대피시설 원상복구
  –소하천 정비 및 하상준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위험도로 개량사업

4) 균형과 조화를 이룬 도시환경 조성

• 편안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농어촌 주택개량(3동)
  –도로유지관리・아스콘 포장
• 시민 애향의 도심속 휴식공간 정비
  –꽃으로 덮힌 강원도 조성,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시공원 관리

5) 교통 시스템 및 시민의식 선진화

• 교통관리 최적화를 통한 교통 서비스 개선
  –버스 도착 정보시스템 운용, 운수업체 친절교육
  –승강장 정비, 신호등・무인감시 카메라 증설 및 보수
•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법규위반 지도단속 강화

라.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

1) 교류와 지원 등 다양한 지역경기 부양

-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 실천
  -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지원(연간 이자보전 3 ~ 5%)
  - 해외수출 정보제공 및 시장조사단 파견, 창업보육센터 운영
  - 지역특산품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특허 장려사업, 디자인개발, 판로지원
- 재래시장 특성화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 등
- 국내·외 행사유치 및 교류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
  - 연변대학생·북방교역 경제대표단 초청
  - 통일대기 종별 여자축구선수권 대회 등 전국·도단위 행사유치

2) 안정적 경제수급 및 고용촉진

- 상거래 질서확립 및 고용촉진으로 지역경제 안정기반 구축
  - 가격표시제 정착, 물가지도,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
  - 공공근로사업, 공공기관인턴제 활용
- 에너지 안정적 수급관리 지원체계 구축
  - 유류·가스 안전관리, LP가스 체적거래제 정비
  - 태양열 Green Village 조성, 지열이용 냉난방시스템 설치

3)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

- 경쟁력있는 고품질 친환경 농업 정착
  - 쌀산업 육성, 계약 지배 정착
  - 포장재 개발(2종), 벼 건조기 보급(3대), 정미소 개보수
  - 쌀생산조정제 보조금(22명) , 논농업직불제(494ha)
- 지역특화 작목 개발과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 품질보증 및 브랜드화, 포장디자인 개선
  -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 과정별 농민교육
-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통한 농업의 국제화 추진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마을 리모델링기본 계획 수립
  - 우수마을 자립기반조성
  -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촌지도자 해외선진영농 벤치마킹

4) 관광과 연계한 자립형 어업육성

-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어촌 정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외옹치 마을 정비, 시설물 정비용역
–수산물 소비・유통・체험관광이 이루어지는 어항개발: 사진항, 내물치항
• 지속생산 가능한 청정해양환경, 수산자원 조성 관리
–해양쓰레기 수거, 양식어장 정화, 불가사리 수매
–해면어류 방류, 종묘매입
• 안전조업 및 경쟁력 제고의 어업 현대화
–어선, 어구 현대화 지원: 5개사업(기관대체, 어선・어구 개량)
–유류절감기 시범보급

마. 함께사는 복지사회 정착

1)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 구현
• 기초생활보장으로 함께사는 사회기반 조성
–생계비, 교육비, 의료보호 진료비 등 지급
–집수리 지원사업, 월동용 김장지원
•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실버복지 기반 조성
–경로연금, 노인취로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 노인보람농장 운영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실비용양시설 장비보강
•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여건 확대
–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확대
–장애인단체 자활시설 지원 강화

2) 자립을 위한 사회환경・문화 시스템 구축
• 자활・자립 추진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실시
–자활서비스 체계적 제공: 자활공공근로사업, 취로농장 운영
• 위스타트 마을 조성: 1개소
–시민사회 모든 구성원 참여(We): 공정한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제공
•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제공
–사회복지대학 운영, 장애인 건전여가교실
–장애인 하계캠프・체육대회・해외교류 지원, 장애인 문화의 날 운영

3) 의료서비스 활성화로 시민 건강 증진
• 찾아가는 보건・의료 행정체계 구축

- 취약계층 방문진료팀, 농・어촌 이동보건소 확대 운영
-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센터운영: 속초시의사회 협력

• 의료보건 서비스의 확대
- 암 등 무료검진 서비스,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확산
- 전염병예방 관리체제 구축(정기검사, 예방접종, 방역소독)

4)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 건전한 사회인 육성의 청소년 보호사업 전개
- 전용공간 이용(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활동 참가 지원
- 유해환경 지도단속 강화: 고용, 주류판매, 통행금지구역 출입 등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문화・역사탐방, 해양수련, 자연체험 활동

•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육서비스 지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보호, 결식아동 급식지원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영아전담시설 지원, 아동별 지원

5)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기반 조성

• 지역사회 핵심적 사회복지 자원 육성
- 사회복지아카데미 운영(50명 연수), 자활 근로사업 위탁운영, 자활 후견기관 운영
- 수화 통역센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점자교실,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 선진국형 후생복지시설의 지속 확충
- 장애인재활센터 정비(상수도, 헬스, 운동기구 보강)

바. 품격 높은 지역문화 창달

1) 다양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

• 수준높은 체험형 문화상품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확충
- 실향민관광문화촌, 속초시립민속박물관 완공
  ※ 화랑도체험관광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 문화자원 정비・확충으로 탐방자원화
-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 매곡 오윤환 생가 정비
- 범바위 정자 복원건립

2) 시민 문화향수의 기회확대

• 시민과 관광객이 공유하는 체험행사 적극 개발

- 대한민국음악축제, 설악문화제, 시민종합예술제,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등

• 전통문화의 발굴 및 마을별 특색 문화행사의 개발
- 북청 사자놀음 전수, 학사평 콩꽃마을 순두부축제, 어촌해양축제 등

3) 시민 생활체육 증진 기반시설 확충

• 체육기반시설 확충: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등
• 체육활동 참여 계기 마련을 위한 동호인 조직기반 확충
- 엘리트체육 운영: 도민・소년체전 지원, 학교체육 육성
- 국민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 적극 육성

4) 여성 능력 전문화로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및 자립 확대
- 전문교육: 46개 과목 연간 2,700명
- 자격취득자 취・창업 연계: 간병인, 소자본 가능업종 전문화
• 품격높은 여성문화・창작활동 지원
- 여성 문예창작 활동지원: 행・재정적 지원, 전시공간 제공
- 특활・향토문호 탐방교실 운영: 초・중・고생 400명
- 수강생 작품전시・발표회 개최: 과목별 작품발표, 바자회 등

사. 시민만족 · 열린시정 추진

1)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

• 공개행정으로 시정의 투명성 제고
- 행정정보 공개, 시민참여 위원회 활성화
-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확대(전부서): 불만족 보상제 실시
• 시민의견 수렴 창구의 다양화
- 각계 각층의 시민 · 사회단체 등과의 대화 추진: 연중
- 살림살이보고회, 참여예산제 등 시민 의견수렴: 수시

2) 시민 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주민편의,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
-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사이버 민원모니터제, 민원서류 예약발급
-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 조사용역, 제적부 전산화 작업
• 소외계층 우선배려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 민원도움벨, 시각장애인 민원처리 길잡이 비치

-장애인 민원택배제 시행

3) 정보화시대의 전자시정 구현

• 시민 중심의 정보화사업 추진
-하도문 쌈락마을 정보화 마을 선정 육성
-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추진: 21개 업무전산화 및 정보 연계
-시 홈페이지 포탈서비스시스템 구축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자시정 구축
-행정자료실 설치, 보존문서 관리체계 개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 우수시책 추진실적

속초시는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한 결과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우수시책 표창 등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가. 2004년도 추진실적

• 공공근로사업 최우수기관: 행정자치부
• 연안정비추진 최우수기관: 해양수산부
•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우수기관: 강원도
•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우수기관: 강원도
•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선정: 강원도
• 농촌관광 체험마을 선정: 강원도
• 정보화 마을 선정: 행정자치부
•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장려상 및 연기상: 속초도리원농악
• 제7회 루마니아(이아타) 국제연극제 최우수상: 극단 굴렁쇠

나. 2003년도 추진실적

• 지방채무운영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 여성정책 추진 우수기관: 강원도
• 새농어촌건설 우수기관: 강원도
•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우수기관: 강원도

- 해양수산시책 우수기관: 강원도
- 지적업무추진 우수기관: 강원도
- 민원행정추진상황 종합평가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 도문메나리농요: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종합최우수상),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금상)
- 한국 중고축구 연맹: 한국 중・고 축구 기여도시 감사패 수상

제6절 예산 및 재정규모

1. 예산운영

지방자치시대의 본격 돌입으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다양하고 고급화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재정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예산이란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낸 것이다. 예산의 편성・운용은 시의회에서 승인・확정됨으로써 자치재정을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절감운용, 경영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및 기준의 보완 등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재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재원이 주민복리 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우선순위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고, 경상비와 경직성 경비지출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대하였다.

2005년도 속초시 총재정규모는 191,043,723천원이며, 일반회계 150,094,534천원, 특별회계 40,949,189천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22,590,885천원의 10.6% 감소하였다. 회계별 예산규모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79%, 특별회계가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12〉 년도별 예산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1992	49,975,682	36,503,435	13,472,247	
1993	58,252,300	39,342,861	18,909,439	
1994	66,575,928	47,504,226	19,071,702	
1995	72,326,505	51,646,398	20,680,107	
1996	91,369,097	63,782,098	27,586,999	
1997	115,395,060	91,042,625	24,352,435	
1998	140,633,923	104,242,438	36,391,485	
1999	131,083,133	100,520,469	30,562,664	
2000	133,096,791	91,115,030	41,981,761	
2001	135,130,512	106,547,760	28,582,752	
2002	151,177,197	111,775,958	39,401,239	
2003	243,046,728	193,241,382	49,805,346	
2004	213,634,608	165,213,340	48,421,268	39.62
2005	191,043,723	150,094,534	40,949,189	31.26

자료: 각 년도 속초통계연보; 속초시 홈페이지

〈그림 3-3-4〉 2005년도 일반회계 현황

가. 일반회계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0%가 감소한 1,343억원이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은 전년 예산대비 120억원이 감소한 40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규모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31.2%이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23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67억원이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전년 예산대비 78억원이 증가한 93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규모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642억원, 재정보전금 42억원, 보조금 254억원이다.

세출분야는 도로개설, 항만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경제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60% 규모인 854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현안 사업추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등에 3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표 3-3-13〉 2005년도 속초시 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04 본예산 (A)	'04 추경 (B)	'05 예산안 (C)	증감율	
				C/A	C/B
일반회계(A)	1,385.0	1,652.0	1,343.0	△ 3.0	△ 18.7
- 자체수입	525	654	405	△ 22.9	△ 38.1
- 의존수입	860	998	938	9.1	△ 6.0
특별회계(B)	355	484	329	△ 7.3	△ 32.0
총계(A+B)	1,740.0	2,136.0	1,672.0	△ 3.9	△ 21.7

자료: 속초시 기획감사실

나. 특별회계

속초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총예산 규모는 32,932,877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3,025,868천원으로 6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907,009천원으로 30.1%로 편성되었다.

〈표 3-3-14〉 2005년도 특별회계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비 고
합 계			167,253,771	4,916,000	
일반회계			134,320,894	4,029,000	
특별회계			32,932,877	887,000	
세부사항	소 계		23,025,868	690,000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9,239,588	277,000	
		하수도사업	6,874,434	206,000	
		공영개발사업	6,911,846	207,000	
	소 계		9,907,009	197,000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235,836	7,000	
		의료보호기금	740,200	22,000	
		농공지구 조성사업	260,000	7,000	
		주차장설치	1,407,200	42,000	
		시설관리공단	3,477,655	103,000	
		대포항개발사업	544,118	16,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272,000	98,000	

자료: 속초시 기획감사실

2. 재정 및 회계관리

가. 지방세

지방세는 17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세(7종)와 시세(10종)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고,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다.

도세와 시세간의 비율은 2001년도까지 시세가 많았으나 2002년도부터는 도세가 보다 많이 징수되고 있다. 또한 시세의 구성비율을 보면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목(稅目)이 아니기에 시 재정의 안정과 재정자립도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3-3-15〉 지방세 중 도세와 시세 비율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계	도세	시세
1997	36,947,444	-	-
1998	33,367,438	13,602,089	19,765,349
1999	29,446,452	11,019,455	18,426,997
2000	31,934,054	11,673,250	20,260,804
2001	41,820,637	19,164,687	22,655,950
2002	48,115,781	25,165,247	22,950,534
2003	49,641,666	25,942,870	23,698,796
2004	49,416,104	25,084,133	24,331,971

자료: 속초통계연보, 2005

한편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1999년을 기점으로 최저선을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의 경우 1인당 년간 지방세 부담액이 561,973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과세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저항 및 불복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를 이해 설득하기 위해 과세전에 과세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표 3-3-16〉 지방세 징수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보통세								
	도 세				시 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종토세
1997	8,078,287	8,040,716	302,922	-	2,921,974	1,528,823	3,673,671	-	3,343,944
1998	6,074,290	6,158,831	342,758	-	3,020,381	1,609,291	4,141,487	-	3,186,566
1999	4,027,358	5,560,370	337,653	-	2,327,444	1,536,160	3,576,764	-	3,314,488
2000	4,260,297	5,701,895	343,855	-	2,637,058	1,661,039	3,658,900	484,400	3,598,475
2001	4,833,394	6,725,013	99,714	-	3,392,530	1,659,416	3,423,895	1,084,475	4,211,746
2002	7,332,298	9,897,366	106,871	-	3,340,487	1,763,187	3,083,350	1,930,407	3,772,509
2003	7,899,793	9,730,758	111,536	-	3,911,065	1,826,728	2,931,361	2,257,733	4,247,052
2004	7,298,513	9,360,008	121,722	-	3,484,824	1,863,688	2,891,089	2,304,607	4,634,334

구 분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시세			도세			시세			
	농업 소득세	담배 소득세	도축세	지역 개발세	공동 시설세	지방 교육세	사업 소세	도시 계획세	도세	시세
1997	-	5,882,912	-	30,198	582,740	-	358,856	1,302,996	-	-
1998	-	5,605,476	-	41,968	707,335	-	292,351	1,408,169	276,907	501,628
1999	-	5,219,763	-	46,983	703,814	-	305,315	1,471,058	343,277	676,005
2000	-	5,573,945	-	114,645	866,392	-	296,092	1,531,631	386,136	819,264
2001	-	5,901,111	-	139,214	851,642	5,934,229	327,439	1,607,689	581,481	1,047,649
2002	-	6,014,295	-	148,651	878,433	6,229,610	406,294	1,656,694	572,018	983,311
2003	-	5,579,431	-	142,444	925,124	6,345,390	333,929	1,761,085	787,825	850,412
2004	-	6,006,169	-	130,499	1,002,471	6,613,279	347,708	1,889,989	557,641	909,563

자료: 속초통계연보, 2004

〈표 3-3-17〉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인당 부담액(원)	433,335	383,873	331,734	354,697	463,484	534,448	557,477	561,973

나. 회계관리

회계관리는 행정수요와 조직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데 따른 경제활동에 관한 경리절차를 수행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행정수요를 최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의 모든 계수를 결산한다. 즉, 당해연도의 예산수납 및 지출을 총체적으로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의 예산편성 및 심의와 중기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속초시의 재정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산결산 총괄1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 입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1997	159,724,731	125,361,891	34,362,840	162,019,751	127,589,497	34,430,254
1998	183,265,215	135,565,894	47,699,321	178,931,707	136,023,676	42,908,031
1999	159,174,053	114,359,006	44,815,047	158,099,594	113,645,214	44,454,380
2000	176,576,162	122,990,595	53,585,567	177,713,667	123,825,082	53,888,585
2001	197,079,272	153,858,952	43,220,320	201,178,339	155,371,042	45,807,297
2002	342,104,448	276,451,833	65,652,615	339,397,264	269,068,133	70,329,131
2003	393,745,481	312,083,098	81,662,383	390,576,979	311,221,039	79,355,940
2004	314,404,782	251,685,847	62,718,935	318,169,536	252,681,050	65,488,486

자료: 속초통계연보, 2004 및 2005

2) 예산결산 총괄2 (단위: 천원)

구 분	세 출			잉 여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1997	115,395,060	91,042,625	24,352,435	46,624,691	36,546,872	19,077,819
1998	140,633,923	104,242,438	36,391,485	38,297,784	31,781,238	6,516,546
1999	131,083,133	100,520,469	30,562,664	27,016,461	13,124,745	13,891,716
2000	133,096,791	91,115,030	41,981,761	44,616,876	32,710,052	11,906,824
2001	135,130,512	106,547,760	28,582,752	66,047,827	48,823,282	17,224,545
2002	151,177,197	111,775,958	39,401,239	188,220,066	157,292,175	30,927,891
2003	243,046,728	193,241,382	49,805,346	146,407,872	117,664,541	28,743,331
2004	251,323,993	198,382,506	52,941,487	66,845,541	54,298,543	12,546,998

자료: 속초통계연보, 2004 및 2005

3)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예산대 결산비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7	125,361,891	100.0	127,589,497	100.0	101.8
1998	135,565,894	100.0	136,023,676	100.0	100.3
1999	114,359,006	100.0	113,645,214	100.0	99.4
2000	122,990,594	100.0	123,825,082	100.0	100.7
2001	153,858,952	100.0	155,371,042	100.0	100.9
2002	275,028,191	100.0	268,085,777	100.0	97.5
2003	312,083,098	100.0	310,905,923	100.0	99.6
2004	251,685,847	100.0	252,688,668	100.0	100.4
1. 지방세	23,523,000	9.3	24,331,969	9.6	103.4
2. 세외수입	128,399,463	51.0	127,969,357	50.6	99.7
재산임대수입	607,589	0.2	606,684	0.2	99.9
사용료수입	243,145	0.1	186,466	0.1	76.7
수수료수입	3,021,306	1.2	2,802,938	1.1	92.8
징수교부금	631,429	0.3	685,983	0.3	108.6
이 자 수 입	2,820,000	1.1	3,180,848	1.3	112.8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예산대 결산비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재산매각수입	1,287,081	0.5	1,327,412	0.5	103.1
순세계잉여금	27,243,771	10.8	26,112,434	10.3	95.8
이 월 금	91,148,873	36.2	91,552,107	36.2	100.4
전 입 금	500,000	0.2	–	–	0.0
부 담 금	95,315	0.04	2,794	0.001	2.9
잡 수 입	567,739	0.2	1,111,593	0.4	195.8
과년도수입	233,215	0.1	400,098	0.2	171.6
3. 지방교부세	56,883,000	22.6	55,722,000	22.1	98.0
4. 지방양여금	5,980,975	2.4	7,683,451	3.0	128.5
5. 재정보조금	4,476,584	1.8	4,533,198	1.8	101.3
6. 보 조 금	32,422,825	12.9	32,448,693	12.8	100.1
7. 지 방 채	–	–	–	–	–

자료: 속초통계연보, 2004 및 2005

4)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비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7	125,361,891	100	91,042,625	100	72.6
1998	135,565,894	100	104,242,438	100	76.9
1999	114,359,006	100	100,520,469	100	87.9
2000	122,990,594	100	91,115,030	100	74.1
2001	153,858,952	100	106,547,760	100	69.3
2002	276,451,833	100	111,775,957	100	40.4
2003	312,083,098	100	193,240,814	100	61.9
2004	251,685,847	100	198,382,506	100	78.8
1.일반행정비	37,289,133	13.5	34,598,808	31.0	92.8
입법 및 선거관계	798,755	0.3	766,208	0.7	95.9
일반행정비	36,490,378	13.2	33,382,600	30.3	91.5
2.사회개발비	83,089,837	30.1	56,467,071	50.5	68.0
교육 및 문화비	15,824,357	5.7	6,512,559	5.8	41.2
보건 및 생활환경	26,970,069	9.8	17,530,606	15.7	65.0
사회보장비	20,621,666	7.5	17,626,680	15.8	85.5
주택 및 지역개발	19,673,745	7.1	14,797,226	13.2	75.2
3. 경제개발비	122,419,175	44.3	101,916,018	91.2	83.3
농수산개발비	18,869,485	6.8	16,915,879	15.1	89.6
지역경제개발비	20,089,188	7.3	17,455,970	15.6	86.9
국토자원개발비	80,545,555	29.1	64,673,652	57.9	80.3
교통관리비	2,914,947	1.1	2,870,517	2.6	98.5
4. 민방위비	349,269	0.1	265,272	0.2	76.0
민방위관리비	349,269	0.1	265,272	0.2	76.0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비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5. 지원 및 기타경비	8,538,433	3.1	5,135,334	4.6	60.1
지방채상환	405,380	0.1	398,869	0.4	98.4
제지출금	4,849,599	1.8	4,736,465	4.2	97.7
예비비	3,283,454	1.2	–	–	–

자료: 속초통계연보, 2004 및 2005

5) 특별회계 예산결산 (단위: 천원)

구 분	회계수	예 산	세 입	세 출
1999	8	41,176,954	44,454,800	30,562,663
2000	9	42,720,981	53,888,584	41,981,761
2001	9	37,119,275	45,807,297	28,582,752
2002	8	57,544,672	70,329,131	39,401,240
2003	9	81,662,383	78,549,774	49,805,342
2004	9	62,718,935	65,488,486	52,941,487
하수도 사업	1	9,510,440	1,0897,930	8,206,182
주택 사업	1	692,337	580,369	27,788
의료 보호 기금	1	673,520	675,436	652,196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전기금	–	–	–	–
농공지구 조성	1	327,046	327,300	54,095
주차장설치 사업	1	1,661,671	1,636,639	343,512
시설 관리 공단	1	2,799,391	3,290,944	2,166,526
대포항개발 사업	1	3,104,729	3,106,343	2,634,059
상수도 사업	1	28,218,052	28,445,732	24,424,897
공영 개발 사업	1	15,731,749	16,527,793	14,432,232

자료: 속초통계연보, 2004 및 2005

3. 재산관리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현금, 기타 권리의 전부를 뜻하나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공유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의 일부, 특히 토지와 건축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양식 및 의식변화에 따라 개별화, 다양화된 행정수요가 급증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도가 높은 적정 규모의 시유지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며, 국 · 공유지 관리는 회계연도별로 계획수립, 재산의 매각, 취득, 교환, 점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과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국 · 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힘쓰고 있다.

1976년 12월 31일 국유재산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현황과 1988년 5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

산을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분류하였는 바, 속초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5년 현재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18〉 공유재산 현황 (단위: 천㎡, 백만원)

구 분	총평가액	토지		건물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1997	351,719 (569)	4,567 (0.7)	343,013 (5)	50 (2.6)	8,706 (564)
1998	401,078 (532)	4,446	392,123 (226)	50.8 (1)	8,955 (306)
1999	317,478 (62)	4,090 (1)	311,528 (62)	53 (–)	5,950 (–)
2000	330,716 (66)	4,308 (1)	321,797 (66)	57 (–)	8,919 (–)
2001	450,428 (251)	4,711 (1)	441,034 (251)	58 (–)	9,394 (–)
2002	465,351 (251)	4,726 (1)	454,474 (251)	61 (–)	10,877 (–)
2003	464,799 (252)	4,867 (1)	450,977 (252)	78 (–)	13,822 (–)
2004	451,623 (252)	5,304 (1)	430,440 (252)	90 (–)	21,183 (–)

자료: 속초통계연보, 2005

주: ( )는 고성, 양양지역 면적이며, 합계는 ( )내역 포함.

제4장 사법(법원 · 검찰)

제1절 개관

일제(日制)의 무조건 항복으로 8 · 15광복의 날을 맞이한 지 약 3년만인 1948년에 한국헌정사상 최초의 '5 · 1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단독선거 · 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아래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上海臨時政府系)의 김구(金九) · 김규식(金奎植) 등 민족진영의 일부 인사들에 의하여 거부되고, 또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여기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들로 제헌국회(制憲國會)가 구성되었다.[11)]

제헌국회는 그 조직구성[12)]이 끝나자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되는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여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建國憲法)이 공포 · 발효되고, 동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헌법이 제정된 지 40여년 만에 전후 12차례에 걸쳐 개헌안이 제출되고, 9차에 걸친 잦은 개헌이 단행되었는데, 역대 헌법들은 예외없이 권력분립제(權力分立制)를 채택하였다.[13)]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司法權)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法院)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관한 권한은 원칙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라고 하는 '법원사법(法院司法)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헌법 제40조 및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首班)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하는 제66조 제4항과 더불어 현대 헌법에 있어서 권력분립(權力分立)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한 규정이기도 하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행 헌법도 제101조 제1항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법원을 독립[기관의 독립]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02조 제3항에서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법률에 의한 법원조직]라고 하고, 또 제108조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법원의 자율권]라고 하여 법원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11) 『國會十年誌』(國會事務處,1958, 1~3p)에 의하면, 총유권자 8,132,517명 중 96.4%가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전 등록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그 중 96.3%에 해당하는 투표가 유효투표였다. 그리고 총 입후보자 942명 중 198명이 당선되었다. 소속 정당별 당선자로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53명, 大韓民主黨 29명, 大同靑年團 14명, 民族靑年團 6명, 기타 단체 11명, 그리고 무소속 85명이 있다.

12) 1948년 5월 31일 정식으로 국회가 소집되어 의장에 李承晩, 부의장에 申翼熙와 金東元을 선출하였다.

13) 그러나 권력분립의 정도와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나서, 건국 헌법은 비교적 행정부 우위의 권력분립제를, 1960년 헌법은 비교적 균형이 유지된 권력분립제를, 1962년에는 다시 행정부우위,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은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분립제를 규정하였다.
(權寧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1988, pp.605~606

그리고 헌법 제103조에서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입법・행정부의 외부기관은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상급법원이나 소속 법원장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고[외부작용으로부터의 독립]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만[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의 구속]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직무상・재판상・실질적[물적]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 제105조에서는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連任制)를, 제101조 제3항에서는 법률에 의한 법관의 자격을,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각각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관의 신분상[인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속초시의 사법의 역사를 보려면, 먼저 사법제도 전반의 변천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중세 이후의 전제군주국가(專制君主國家)에서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권력이 군주 일 개인의 수중에 집중되어, 공정・타당하여야 할 재판까지도 오히려 왕권의 일부로 간주됨으로써 군주의 관방(官房)에 의한 관방사법(官房司法: Kabinettsjustiz)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관방사법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을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얼마만큼 위협을 받았는가는 각국의 재판사(裁判史)가 입증하여 보여주고 있다.

한말 고종 31년(1894)은 우리나라에서 개화와 변혁이 일어난 해로 당시 법무대신 서광범(徐光範)이 고종에게 사법제도의 근대화 작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근대적으로 제도화된 사법제도가 나타난 것은 고종 32년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이 공포된 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갑오경장(甲午更張: 1894년) 이전의 법제(法制)는 봉건적 절대군주국가로서의 중국 법제를 모방한 것이었다.

이 시대의 사법제도, 즉 민사상의 분쟁해결 및 형벌의 결정이라는 사법작용은 그것이 행정 내지 정치과정의 일부로써 시행되었다. 법관은 행정・입법 및 사법의 통괄자인 군주의 사용인 내지 보조자로서 일하는 체제였으며 권력분립이나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법도 행정의 편의에 이용된 실정이었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도 재판은 정확하고 공정・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근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끊이지 않았다.

삼국시대 이전의 상고시대(上古時代) 부족국가들도 천신(天神)에게 제사한 다음 죄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고 백성의 원통한 일을 판결하며 그 밖에 부족민들의 분쟁의 해결을 부족수장(部族首長)의 전결로써 해결하였으며, 민족 최초국가인 고조선시대에는 범금팔조법(犯禁八條法) 등 범죄와 형벌

제도가 있었다.

그 내용은 ① 살인자는 즉시 죽이고, ②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곡물로 배상케 하고, ③ 도둑은 그 재물을 몰수하고 그 집의 노예가 되고 여자는 노비가 되게 하고, ④ 소도(蘇塗)를 훼손한 자는 금고(禁錮)에 처하며, ⑤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케 하고, ⑥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부역을 시키며, ⑦ 삿된 음행을 하는 자는 볼기로 다스리고, ⑧ 사기자(詐欺者)는 훈계하여 방면하나 스스로 속죄하면 공표를 면해줘도 민속으로 결혼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백성들은 끝내 도둑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었고, 부인은 정신(貞信)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밭 · 들 · 도읍을 막론하고 음식을 바쳐 제사 올리니, 어질고 겸양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단군 11세 도해단군(道奚檀君)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고구려시대에는 민간 분쟁의 해결과 형벌의 결정은 친국[親鞫: 국왕이 스스로 궁성 내에서 법정을 개정하고 재판하는 것]으로 하거나 중앙 또는 지방관리의 재량에 맡겨졌다. 대무신왕(大武神王) 및 소수림왕(小獸林王)[14]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조직을 제도화한 기록이 있고, 통일신라 때에는 좌우이방부(左右理方部)라는 사법기관(司法機關)을 설치하여 재판사무를 전담케 한 기록이 있으나 그 실상은 다른 행정관도 사법권을 겸장하고 있었다.

14) 고구려가 고대 국가로서의 관료조직을 갖추게 된 것은 대체로 율령정치가 시작된 소수림왕 때였고 평양천도 이후 더욱 정비되었다.
고준환,
『하나되는 한국사』,
범우사,
1992,
p.200

고려시대에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중앙에 형부(刑部)를 설치하여 그 장관인 형부상서(刑部尙書)의 책임 하에 사법사무를 전담케 하고, 지방에 있어서는 도행정관(道行政官)인 감사(監司)와 하급 지방관인 지군사(知郡事: 지금의 군수에 해당한다) · 감무(監務) 등이 있어 군인이나 병역의무자에 대하여서는 병마(兵馬) 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재판사무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지방관이 처리하던 사법사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안렴사(按廉使)를 두어 지방을 순찰케 하였으며, 또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감찰 · 규탄하는 기관으로 중앙에 어사대(御史臺)를 두었다가 후에 금오대(金吾臺) · 감찰부(監察部) · 사헌부(司憲府)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삼복(三覆)이라 하여 오늘날의 삼심제(三審制)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상급관청에 대한 항소를 허락하였고 예종 원년(1106)에는 고문금지의 준칙이 발표되는 등 사법제도의 현저한 발달을 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아직 근대적 권력분립 사상이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사법권의 독립원칙은 서 있지 않았으며 사법기관은 전제군주의 보좌기관 내지 간쟁기관(諫爭機關)이라는 체제하에서 움직였다. 1심(審) 겸 최고심

을 국왕이 관장하고 국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궁중에 수시로 친국청(親鞫廳)을 설치하여 국왕 스스로 대신들을 거느리고 재판하였다. 이 때의 중앙사법기관으로는 의금부·형조·한성부가 있었는데, 이를 삼법사(三法司)라고 하였다. 또한 관리의 비위를 감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사헌부가 있었다.

조선초기에 설치된 사헌부는 관헌(官憲)의 기강감찰을 담당하는 외에 그릇된 풍속을 교정하며 억울한 백성의 사정을 밝히고 외람된 행위를 금지케 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장관은 종이품으로 대사헌(大司憲)이라고 불렀고 그 밑에 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감찰(監察) 등의 관원을 두었다. 의금부는 국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었던 특수범죄를 처리하는 기관이며,[15] 그 우두머리는 판의금부사(判義禁府使)라고 불렀으며, 그의 직위는 종일품이었다. 그 밑에는 지의금부사(知義禁府使)·동지의부사(同知義府使)·의금부도사(義禁府都使) 등이 있었는데, 주로 왕족이나 관리의 범죄 및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를 재판하였다. 의금부는 뒤에 의금사(義禁司)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법무아문(法務衙門) 권설재판소(權設裁判所)로 변경되었고 그후 고등재판소, 평리원(平理院) 등의 전신이 되었다. 중앙 6조 중의 하나인 형조는 지금의 법무행정과 일부 재판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후에 법무아문으로 바뀌었다가 법부(法部)로 변경되었다. 형조의 장관은 형조판서라고 불렀고 그 예하에 상복사(詳覆司: 중죄에 대한 覆審擔當)·고율사(考律司: 법령조사담당)·장금사(掌禁司: 감옥과 범죄수사담당)·장예사(掌隷司: 노예와 포로에 관한 사항 담당)의 4사를 두었고 그 밖에 율학청(律學廳)·전옥서(典獄署)·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 후에 병조 소속)을 관장하였다.

한성부는 수도행정 및 사법을 담당하여 전국의 전택(田宅)에 관한 소송업무 등을 관장하였으며, 장관은 한성판윤(漢城判尹)이라고 불렀다. 한성부의 예하에는 5부를 두어 경미한 사건의 재판사무도 관장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 하여 인신구금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던 관부(官府)로서 병조(兵曹)·승정원(承政院)·종부사(宗簿司)·비변사(備邊司)·포도청(捕盜廳) 등에서도 경미한 사건에 대한 처벌의 권한도 가졌다.

지방사법기관으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을 들 수 있다. 관찰사는 전국을 8도로 나누어 각 도의 행정·사법을 통할하고 유배형 이하의 형사사건을 초심으로 직접 재판하고 민사사건에서 관하 수령의 재판에 대한 복심을 행하였다. 관찰사 관하 부윤·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목사(牧使)·도호부사(都護府使)·유수(留守)·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을

15) 왕족의 범죄, 관원으로서 관기를 문란하게 한 자, 국사범, 모역죄 및 반역죄의 대옥사건, 사헌부가 탄핵한 사건, 綱常(三綱五倫)에 관한 범죄사건 등을 관장하였고, 후일에는 양반의 자손까지도 治罪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地方檢察廳史』, 서울지방검찰청, 1985, p.16

통털어 수령이라 하는데, 이는 일반행정 이외에 태형(笞刑) 이하의 형사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의 초심을 행하였다. 암행어사는 국왕이 임시 파견하는 비밀사신으로 수령의 재판을 재심하는 부정기 순회재판관의 역할도 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일어나자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겠다는 미명하에 당시 일본 공사 오도리(大鳥圭介)로 하여금 한국의 개화당을 움직여 대원군을 받들고 민씨(閔氏)일파의 사대당을 몰아낸 뒤 김홍집(金弘集)을 수반으로 하는 개신내각(改新內閣)을 조직하여 제반제도를 개혁하였다. 이것을 바로 고종 31년(1894)에 일어난 갑오경장이라 한다. 이때에 김홍집 내각은 장기간 적폐되었던 서정(庶政)을 혁신한다는 명목 하에 관제를 개정함에 있어 형조를 법부(法部)로 개칭하고 법부 관장 하에 선진국의 사법제도를 모방하여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을 제정·공포하여 법부 산하에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 등 5종의 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직원으로는 판사·검사·서기·정리를 두도록 하고 고등재판소와 특별법원에는 따로 재판장을 두고, 판사·검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임명하기로 하였다.

지방재판소와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는 일반 형사사건을 재판함을 원칙으로 하되 2인 이상의 판사를 두는 경우에는 단석(單席) 또는 합석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합석의 경우에는 수반판사(首班判事)가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었다.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는 일반 형사사건 외에도 외국인으로서 본 국민에 대하여 범한 형사사건까지 처리하게 하였다. 순회재판소는 법무대신(法務大臣)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년 3~9월까지의 기간 중 그 지역 안의 지방재판소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건을 단독판사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였다. 고등재판소는 법부에서 임시 개정하여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사건을 합의재판하며, 특별법원은 왕족의 범죄에 관한 사건을 심판하는 제도였다. 법문(法文)으로는 이처럼 많은 재판소가 설치되었으나, 실제로 개설된 것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와 고등재판소뿐이었고 지방재판소는 각 도의 감영(監營) 등에, 개항장재판소는 감리서(監理署)에 합설(合設)되었으며 관찰사·목사·감리(監理) 등이 업무를 겸임하였다.

광무 9년(1905) 11월 17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에 체결된 소위 '을사보호조약' 제3조에 의하여 경성에 통감부(統監府)를, 인천·부산·진남포·목포·마산·기타 필요한 지역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고 이 협약에 의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여 오다가 1906년 6월 법률 제56호 '한국에 있

어서의 재판사무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통감부에 법무원(法務院)을 설치하고 법무원 및 이사청으로 하여금 한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사청은 원래 공리(公吏)가 행하던 직무를 취급하고 있었는데, 그 관할구역 안에 있어서의 소송사건의 시심(始審: 제1심) 및 비송사건(非訟事件)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이 단독으로 재판하고 그 청(廳)의 검찰사무에 대한 검사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였다.

법무원에는 사법사무에 관하여 이사관을 지휘·감독하는 원장과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평정관(評定官), 법무원장의 명을 받아 검찰 및 감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검찰관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사청의 재판에 대한 상소사건을 중심으로 취급하는데, 평정관 3인으로 조직된 부(部)에서 심문·재판하고 평정관 중 상석의 자를 재판장으로 하였다.

1907년 12월 27일에는 '재판소구성법' (법률 제8호), 동법 시행령(법률 제9호), '재판소설치법'(법률 제10호)이 공포되었다. 이것은 대체로 일본을 모방하여 종래의 2심제로 하는 한편, 대심원(京城), 공소원(京城·平壤·大邱), 각 지방재판소를 설치하여 이를 법부의 소관으로 하고 종래의 각 재판소를 폐지하였으며, 각급 재판소에는 검사국(檢事局)도 같이 두었다.

1909년 7월 12일에는 한·일 양 정부의 각서(사법 및 감옥사무의 위탁에 관한 건)에 의하여 한국의 사법권이 일본 정부에 완전히 이양되고, 종래의 법관양성소를 법학교로 개칭하여 한국인 법관을 양성하였다. 그 후 한일 양국 정부간의 각서에 의하여 한국정부의 법부(法府)와 통감부, 법무장관제(法務長官制)를 각각 폐지하는 동시에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理事廳官制)를 개정하여 마침내 사법제도의 일원화를 기하게 되었다.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통감부재판소령(統監府裁判所令)에 의하면 통감부재판소는 통감(統監)에 직속하며 구재판소(區裁判所)·지방재판소·공소원(控訴院) 및 고등법원으로 구분하고 검사국을 병설하였다.

융희 4년(1910) 8월 29일 일본의 강점으로 인하여 동년 10월 1일 총독정치가 시작됨에 따라 총독부재판소령을 조선총독부재판소령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다.

1912년 3월 18일 재판소령(裁判所令)을 개정하여 지방법원·복심법원(覆審法院) 및 고등법원의 3급 3심제를 채택하고(종전의 區裁判所는 폐지), 지방법원 사문의 일부를 취급하게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법원은 민사·형사에 관한 제1심 재판에 비송사건에 대한 사무를, 복심법원은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공소 및 항고사건을 각각 처리하고, 고등법원은 복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고 및 항소사건을 중심으로 재

판하고, 당시 일본 재판소 구성법에 정한 대심원(對審院)의 특별 권한에 속한 직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1948년 5월 4일 과도정부는 과도정부령 제192호로 법원조직법(法源組織法)을 제정 · 공포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군정청(軍政廳) 사법부에서 관장하던 법원업무를 대법원으로 이관하였다. 각급 법원의 관할에 있어서 현재와 비슷하나 특이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合議部)에서 지방법원 및 동지원 단독판사의 판결과 간이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소사건을 취급하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간이법원은 제1심 하급법원으로 경찰서 소재지단위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대신에 치안관(治安官)제도가 창설되었다. 이 치안관제도는 1956년 12월 26일 법률 제49호로 주재판사(駐在判事)제도가 폐지되고 판사로 하여금 지역을 순회케 하는 순회판사(巡廻判事)제도가 새로이 설치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폐지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이념을 실현하는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지 100주년이 된 1995년은 뜻 깊은 해로 몇 가지 변모가 있었다. 동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순회심판소가 없어지고 대신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 · 군법원)이 새로 생겼다. 종래 순회심판소 체제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한 달에 한 두번 순회심판소에 잠시 와서 재판만하고 돌아감으로써 재판의 지연문제가 있었으나 시 · 군법원이 생김으로써 전담판사가 지정되어 상주하면서 주1회 재판을 열고 소액사건과 가압류사건도 처리한다. 종래 소액 · 화해 · 독촉 · 조정사건 등의 순회심판소 관할사건에 관하여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도 관할권이 있어서 당사자의 선택으로 제소할 수 있었으나 시 · 군법원의 설치로 이에 배타적 토지관할권이 부여되었으며, 종래에 인정되지 않았던 협의이혼의사 확인사건을 처리 할 권한도 관할지원 등과 중첩적 관할권이 부여되었다.

현재 법원의 종류로 대법원 · 고등법원 · 특허법원(1998년 3월 1일 시행) ·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1998년 3월 1일 시행) 및 간이법원으로 구분하여 민사 · 형사 및 산업재산권소송 · 선거소송 기타 일체의 법률적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비송사건 및 기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 사건을 관장키로 하였다. 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소년부지원(少年部支院), 시 · 군법원(시 · 군법원; 종전의 순회심판소를 1995년 9월 1일부터 개편) 및 등기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法源組織法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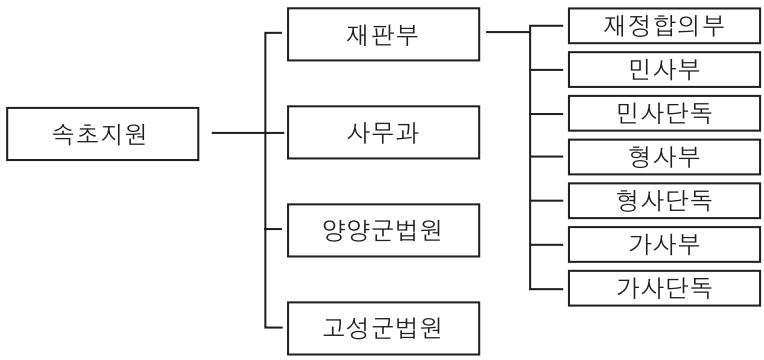
제2절 법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 연혁 및 기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22호에 의하여 동년 6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88호에 의하여 1994년 3월 1일 합의 자원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속초지원의 기구 및 편제는 재판부와 사무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할 시·군 법원으로 양양군 법원과 고성군 법원이 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기구편제는 <그림 3-4-1>과 같다.



<그림 3-4-1> 속초지원 기구표

2. 관할구역 및 임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관할 구역으로서 재판 관할구역은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이 해당된다. 속초지원 산하에는 판사 비상주 법원으로서 직할법원인 양양군 법원과 고성군 법원이 있고, 등기소 또한 각각의 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속초지원의 등기 관할구역과 즉결 관할구역은 속초시만 해당된다.

속초지원의 직할 법원인 양양군 법원과 고서군 법원의 업무는 소액 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합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과 공탁사건으로 변제공탁(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화해, 조정, 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과 재판상 보증공탁(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사건취급 현황

연별	합 계				행정소송				민사소송			
	계	승소	패소	계류	계	승소	패소	계류	계	승소	패소	계류
1998	36	13	4	19	8	4	–	4	28	9	4	15
1999	53	27	4	22	8	3	–	5	45	24	4	17
2000	10	3	1	6	4	1	1	2	6	2	–	4
2001	26	1	5	20	7	–	3	4	19	1	2	16
2002	56	18	7	31	11	4	3	4	45	14	4	27
2003	46	18	2	26	12	2	1	9	34	16	1	17
2004	51	21	4	26	18	5	1	12	33	16	3	14

자료: 속초시 통계연보,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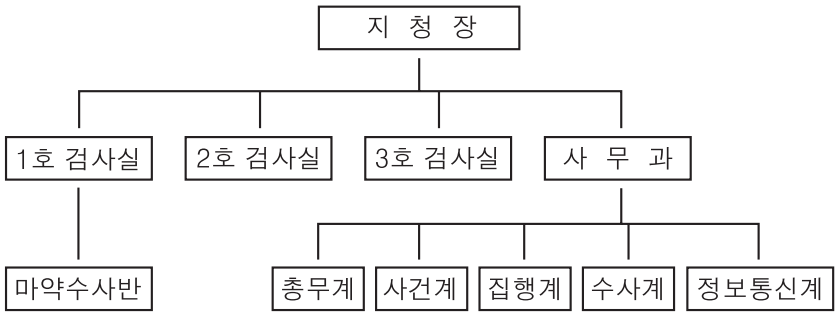
제3절 검찰(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 연혁 및 기구편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967년 3월 30일 개청되었으며, 1970년 11월 26일 독립청사를 준공하였고, 1994년 3월 1일에 합의지청으로 승격되었다.

속초지청의 기구 및 편제를 보면 지청장 산하에 1호 검사실, 2호 검사실, 3호 검사실이 있으며 지청의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과가 있다.

속초지청의 기구 및 편제는 <그림 3-4-2>과 같다.



〈 그림 3-4-2〉 속초지청 기구표

2. 관할구역 및 업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의 관할 행정구역으로는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이 있으며 관할경찰서로는 속초경찰서, 고성경찰서, 속초해양경찰서가 있다.

관할구역 내에서 속초 검찰지청의 주요업무 분장사항은 <표 3-4-1>과 같다.

<표 3-4-1> 주요업무 분장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지 청 장		지청 업무 총괄, 소속공무원 지휘 · 감독
검사실	1호 검사	일반형사사건, 공안, 마약, 감찰, 소년 등의 업무
	마약수사반	마약관련수사, 마약밀매 신고 · 접수 담당
	2호 검사	일반형사사건, 특수, 강력, 경제, 건축 등의 업무전담
	3호 검사	일반형사사건, 공판, 기획, 교통, 보건, 행협, 병무 등의 업무
사무과	총무계	인사, 문서, 교육, 물품, 예산운영, 검찰국유재산관리
	사건계	사건접수 및 처리, 진정 및 내사, 고소 · 고발의 접수 및 처리, 압수물 처리 · 보관
	집행계	형의 집행, 항소, 영장건의 수형보존, 민원, 벌과금 납부 및 환급업무
	수사계	일반 형사사건의 인지 수사담당
	정보통신계	검찰 LAN운영, 전산, 정보통신 및 장비운영

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의 역대 지청장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역대 지청장은 다음과 같다.

<표 3-4-2> 역대 지청장 명단

역대순	성 명	재임기간
1	백문규	1967.06.01 ~ 1967.12.31
2	최복규	1968.01.01 ~ 1970.08.31
3	박 준	1970.09.01 ~ 1971.08.23
4	이갑열	1971.08.24 ~ 1973.04.05
5	서재웅	1973.04.06 ~ 1974.08.31
6	김형기	1974.09.01 ~ 1975.09.30
7	정영호	1975.10.01 ~ 1977.02.20
8	진재섭	1977.02.21 ~ 1978.02.10
9	박노현	1978.02.11 ~ 1979.03.01
10	정병섭	1979.03.02 ~ 1980.06.11
11	김수연	1980.06.12 ~ 1981.04.29
12	김성남	1981.04.30 ~ 1982.08.15
13	손제복	1982.08.16 ~ 1983.08.16
14	최병국	1983.08.17 ~ 1985.03.11
15	유명건	1985.03.12 ~ 1986.05.05

역대순	성 명	재임기간
16	이근우	1986.05.06 ~ 1987.03.15
17	공창희	1987.03.16 ~ 1988.08.31
18	윤종남	1988.09.01 ~ 1989.08.31
19	장창호	1989.09.01 ~ 1990.11.04
20	송훈석	1990.11.05 ~ 1991.08.01
21	임채진	1991.08.02 ~ 1992.08.05
22	안종택	1992.08.06 ~ 1993.03.22
23	박상옥	1993.03.23 ~ 1993.09.23
24	김종인	1993.09.24 ~ 1995.10.01
25	박한철	1995.10.02 ~ 1996.07.31
26	허익범	1996.08.01 ~ 1997.02.28
27	서우정	1997.03.01 ~ 1998.03.30
28	한희원	1998.03.31 ~ 1999.02.28
29	최교일	1999.03.01 ~ 2000.02.20
30	김현웅	2000.02.21 ~ 2001.06.15
31	이광형	2001.06.16 ~ 2001.08.04
32	한견표	2001.08.05 ~ 2002.08.25
33	임수빈	2002.08.26 ~ 2004.06.13
34	황인정	2004.06.14 ~ 2005.04.17
35	최해종	2005.04.18 ~ 현 재

자료: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홈페이지

4. 검사의 직무권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수사권 ·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수사의 주체이며, 공소를 제기 · 수행하는 공소권의 주체이다. 그리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지휘 · 감독권,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권을 가진다. 또 재판집행을 지휘 · 감독하고 국가를 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 · 감독하는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검찰청법 제4조).

제5장 치 안

제1절 개 관

국가는 그 존립목적을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외적을 방어하고, 대내적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으로 개인에게 명령・강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권력작용 중의 하나가 경찰이 담당하는 치안행정이다. 경찰은 범죄의 예방을 기본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으로 그 조직과 기능은 예부터 국가의 기능과 성격을 달리함에 따라 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라틴어의 Politia에서 연유된 '경찰'(警察: Police)이라는 말은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국가・국헌(國憲)・국가활동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5・6세기에 와서는 다소 축소되어 교회행정을 제외한 세속적 사회질서유지에 관한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하였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활동의 확대와 그에 따르는 국가작용의 분화・전문화는 그 개념을 내무행정(內務行政)에 국한하여 양적으로는 감소되었으나, 질적으로는 오히려 강화되었으니, 경찰은 단순히 소극적인 치안유지를 위한 작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작용까지를 포함하게 되어, 이른바 경찰국가시대(警察國家時代)가 실현되었다. 18세기 이후 법치국가가 성립함에 따라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질서유지(治安)에 국한되고 적극적인 복리행정을 배제함으로써 근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확립되었다.[16)]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법률적・사실적 행정작용에 관하여 학자마다 견해가 구구하나, 한편 질서행정・복리행정 및 재무행정・군사행정 등으로 분류하여(이명구, 『行政法原論』, 대명출판사, 1984, 500p), 질서행정을 경찰행정・규제행정 등으로 불리나 여기서는 치안행정이라고 한다.

경찰활동의 기원은 본질적으로 원시사회에서의 자위적 활동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진보되고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자위제도에 갈음하여 전문적・직업적 야경원(夜警員)을 채용하여 그에게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관한 임무를 맡기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 기초를 둔 영미법상(英美法上) 경찰개념은 경찰조직도 지방분권적인 자치체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륙법계(大陸法系) 국가에서는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까지를 광범하게 포함하여 주로 국가경찰로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조 20년(1744)에 『속대전(續大典)』의 편찬과 더불어 포도청이 설치됨으로써 경찰기관이 정비되어 독립적 형태로 존재하기까지는 다른 부문에 경찰사무를 혼합하여 시행하였다. 한국 최초의 독립경찰기

관이라 할 수 있는 포도청은 좌·우포청으로 구성되어 그 장을 좌·우포청이라 했으며 그 수반은 포도대장(捕盜大將)이었다. 이것은 각 감영(監營: 道廳)과 군위(郡衛: 郡廳)에도 설치되었으나 그 직무는 포도(捕盜)와 야순(夜巡)에 국한되어,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을 계기로 근대적 경찰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1894년 7월 30일의 새로운 관제 실시에 따라 포도청이 폐지되고, 내무아문 소속 아래 서울에 경무청(警務廳)을 설치하고 경무대신(警務大臣)을 두었다. 이후 광무 5년(1903)에는 경무대신을 없애고 경찰권을 내무대신에게 이관하면서 경무청에 경무사(警務使)·경찰국장(警察局長)·경무관(警務官)·총순(總巡)·권임(權任)·순찰(巡察) 등의 계급을 두어 운영하다가, 순종 4년(1910) 8월 29일 일제강점이 시작되면서 일제경찰이 주도하는 탄압경찰제로 전환되고 말았다.

일제 통감부는 한국 경찰의 현대화를 구실로 관찰부(觀察部)가 있는 각 도마다 경무고문부(警務顧問部) 지부를 설치하고 상주 보좌관을 임명, 경무를 감독케 하였다. 또다시 일본 경무관을 불러들여 각 도 지부 산하에 분서(分署)를 두고 그 밑에 파출소를 두었는데 1907년경에는 각 군위(郡衛) 소재지까지 확대되어 300개소에 달하였다.

광복 후 미군정이 설치되고,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이 탄생하면서 중앙에는 경무부 지방에는 경찰부를 신설하고, 1946년 4월에 안정된 조직편성을 위해 관급개편을 단행하여 경무부장·경무부차장·각 도 경찰부장·경찰부차장·총경·감찰관·경감·경위·경사·순경 등으로 제정하였다. 1953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기본 법규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이 공포되어 경찰임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12년 일제 조선총독부가 항일의병·민족독립운동자를 색출하고 필요에 따라 한인을 죄인으로 다루기 위해 제정한 전 82종의 경찰범처벌규칙을 1954년 4월에 전 45종의 '경범죄처벌법'으로 축소시켰다. 그 외에도 한국경찰은 수많은 개편과 개혁을 통하여 오늘날의 경찰로 변신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은 대륙법계 국가(특히 독일) 경찰제도의 영향을 받아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로 일관되어 소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의 행정조직으로 일원화[17]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치체경찰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좁은 의미의 공안경찰(公安警察)의 제활동을 우리나라에서는 치안이란 개념으로도 부른다. 그리하여 이를 관장하는 기관을 '치안본부'라는 이름으로 내무부 산하에 둔다. 이 명칭은 1974년 12월부터 사용하게 된 것인데, 그

17)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16-117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로 보아 경찰사무를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본 일이 있으나(大判 1966년 7월 19일·66다973; 大判 1967년 10월 4일·67다1825), "경찰사무는 국가로부터의 委任事務"라는 것을 밝혀(大判 1972년 2월 22일·71다2535) 경찰사무가 國家事務에 속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전에는 치안국이라 하였다. 내무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치안본부는 1991년 8월 1일 경찰청으로 바뀌고 지방경찰국도 지방경찰청으로 개칭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찰의 조직에 관한 법률로 정부조직법과 내무부직제규정에서 규정하였다가 1991년 5월 31일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경찰법(警察法: 법률 제4369호)을 제정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특별법규로 '경찰공무원법'이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1981. 4. 13, 법률 제3427全改)'이 있다. 이 법 제2조에서는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속초경찰서의 연혁

- 1954. 11. 17- 행정권 이양과 동시에 속초읍에다 양양경찰서를 설치하여 죽왕, 토성, 강현, 서면, 손양, 현북 등 7개 지서를 관할하였음.
- 1954. 11. 21- 군청소재지인 양양면 군행리로 경찰서 이전
- 1963. 1. 1-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 및 동(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양양군 죽왕면, 토성면이 고성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죽왕 토성 지서의 관할을 고성경찰서에 이양하고 명주군 현남면이 양양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강릉경찰서에서 인구지서를 인수하였음.
- 1963. 10. 26- 각령(閣令)1603호에 의거하여 속초시 동명동459-2번지로 이전과 동시에 속초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1971. 4. 21- 현재 12개 지파출소(지서6, 파출소6) 운영
- 1990. 10. 5- 현재 13개 지파출소(지서7, 파출소6) 운영(낙산지서 신설)
- 1995. 1. 27- 경찰직제 개정에 따라 지서명칭을 모두 파출소로 개칭(현재 12개 파출소)
- 1996. 4. 6- 속초시 노학동 3-6번지에 경찰서 신축 이전(대지 5,800평 건평 1,820평)

〈사진 3-5-1〉 속초경찰서 전경

- 2000. 6. 1- 손양파출소 폐지 및 양양파출소 손양분소 설치 (현재 11개 파출소, 1개 분소)
- 2001. 3. 15- 근무방법 변경 (파출소 3교대 실시)
- 2003. 4. 2- 경찰서 민원봉사실 준공
- 2003. 8. 1-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변경 : 북부, 중부, 남부등 3개 지구대 운영

※ 현남은 특수파출소로 운영

- 2004. 6. 7- 순찰지구대 명칭 변경(북부: 영랑, 중부: 청초, 남부: 양양으로 변경)

제3절 속초경찰서의 기구

속초경찰서의 기구와 역대 경찰서장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1〉 속초경찰서 기구표

〈표 3-5-1〉 역대 경찰서장 명단

소속	역대순	계급	성명	재임기간	비고
양양경찰서	1	경감	이현규	1954.10.02 ~ 1956.03.16	1년 5월
양양경찰서	2	경감	최 정	1956.03.16 ~ 1957.07.27	1년 4월
양양경찰서	3	경감	이홍식	1957.07.27 ~ 1960.05.10	2년 5월
양양경찰서	4	경감	이동휘	1960.05.10 ~ 1960.06.09	1월
양양경찰서	5	경감	이근화	1960.06.09 ~ 1960.09.26	3월
양양경찰서	6	경감	강신범	1960.09.26 ~ 1960.12.09	3월
양양경찰서	7	경감	이창우	1960.12.09 ~ 1961.06.21	6월
양양경찰서	8	경감	이병주	1961.07.20 ~ 1962.10.04	1년 3월
양양경찰서	9	경감	최영주	1962.10.04 ~ 1963.04.22	6월
속초경찰서	10	경감	김진수	1963.04.22 ~ 1964.04.25	1년
속초경찰서	11	경감	이상덕	1964.04.05 ~ 1965.07.03	1년 3월
속초경찰서	12	경감	신태범	1965.07.03 ~ 1967.06.15	1년 11월
속초경찰서	13	총경	김진수	1967.06.15 ~ 1969.08.12	2년 2월
속초경찰서	14	총경	이수방	1969.08.12 ~ 1971.01.23	1년 5월
속초경찰서	15	총경	원남영	1971.01.23 ~ 1971.06.23	5월
속초경찰서	16	총경	홍종승	1971.08.18 ~ 1973.06.27	2년 10월
속초경찰서	17	총경	윤창원	1973.06.27 ~ 1974.12.13	1년 6월
속초경찰서	18	총경	최영주	1974.12.13 ~ 1976.04.10	1년 4월
속초경찰서	19	총경	안영섭	1976.04.10 ~ 1979.02.20	2년 10월
속초경찰서	20	총경	민준기	1979.02.20 ~ 1980.07.16	1년 5월
속초경찰서	21	총경	황만근	1980.07.22 ~ 1981.11.26	1년 4월
속초경찰서	22	총경	이제천	1981.11.26 ~ 1982.12.27	1년 1월
속초경찰서	23	총경	강철진	1982.12.27 ~ 1985.03.04	2년 3월
속초경찰서	24	총경	김일권	1985.03.04 ~ 1987.01.15	1년 10월
속초경찰서	25	총경	이병옥	1987.01.15 ~ 1988.06.03	1년 5월
속초경찰서	26	총경	백운호	1988.06.03 ~ 1989.03.01	9월
속초경찰서	27	총경	이극종	1989.03.01 ~ 1990.09.04	1년 6월
속초경찰서	28	총경	김홍권	1990.09.04 ~ 1992.07.29	1년 10월
속초경찰서	29	총경	류광석	1992.07.29 ~ 1993.11.08	1년 4월
속초경찰서	30	총경	권영일	1993.11.08 ~ 1994.06.03	7월
속초경찰서	31	총경	최인섭	1994.06.03 ~ 1995.01.25	7월
속초경찰서	32	총경	염국현	1995.01.25 ~ 1996.07.07	1년 6월
속초경찰서	33	총경	박순원	1996.07.08 ~ 1997.07.03	1년
속초경찰서	34	총경	김윤철	1997.07.04 ~ 1998.07.02	1년
속초경찰서	35	총경	이종우	1998.07.03 ~ 1999.07.17	1년
속초경찰서	36	총경	박종환	1999.07.17 ~ 2000.07.17	1년
속초경찰서	37	총경	원종호	2000.07.07 ~ 2001.07.02	1년
속초경찰서	38	경무관	김인영	2001.07.02 ~ 2001.12.31	6월
속초경찰서	39	총경	김영석	2001.12.27 ~ 2003.04.08	1년 3월
속초경찰서	40	총경	조한진	2003.04.08 ~ 2004.07.09	1년 3월
속초경찰서	41	총경	안기성	2004.07.11 ~ 2005.07.15	1년
속초경찰서	42	총경	한기옥	2005.07.16 ~ 현 재	

제4절 각종 범죄발생 현황

1. 유형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현대사회는 복잡성과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발전 속도가 빠른 반면 한편으로는 실업, 빈곤, 퇴폐, 향락 등 사회병리(社會病理) 및 부조리(不條理)의 정도가 그 심각성을 더 해가고 있어 그와 공생하는 범죄행위도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속초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속초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범죄는 2001년을 기점으로 다소 둔화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범죄유형 중에서 속초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도와 폭력범죄이다.

범인의 검거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검거율이 90%정도 되고 있지만, 절도범의 경우 60%에 불과한 형편이다.

〈 표 3-5-2〉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약취	마약	도 박	방 화
2000	2126/1390	3/3	12/10	27/18	617/161	1420/1154		11/10	35/26	3/6
2001	2137/1304	5/6	9/12	33/25	590/185	1469/1034	1/0	7/7	21/30	2/5
2002	1496/1287	4/4	6/11	20/21	170/182	1241/1021	1/1	13/12	39/33	2/2
2003	1546/1249	1/3	6/6	11/15	160/171	1324/1011	3/3	13/13	17/21	5/6
2004	1488/1395	6/6	11/9	29/24	396/239	1008/1083	3/1	4/1	27/28	4/4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가. 절도범죄의 발생형태

1) 시간 및 요일

시간대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2003년에는 심야(24~4시), 오전(7시~12시), 오후(12시~18시), 밤(20시~24시) 등 여러 시간대에 걸쳐 주로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심야(24시~4시)시간대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요일별로 보면 어느 특정 요일에 국한하지 않고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

〈 표 3-5-3〉 절도(시간대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 도	시간 / 계	심야 (00~04)	새벽 (04~07)	오전 (07~12)	오후 (12~18)	초저녁 (18~20)	밤 (20~24)
2000	617	120	45	136	125	51	140
2001	590	105	63	143	114	54	111
2002	170	43	8	47	36	10	26
2003	166	37	6	33	45	9	36
2004	396	113	31	56	84	37	75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 표 3-5-4〉 절도(요일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요일 /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00	617	89	90	82	85	80	85	106
2001	590	81	80	85	83	99	85	77
2002	170	22	21	23	18	28	32	26
2003	166	35	18	27	25	16	22	23
2004	396	50	61	41	74	48	65	57

자료 :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2) 장소와 수법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아파트보다는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며, 숙박업소나 상가 등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수법별로는 빈집이나 상점, 숙박업소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들치기나 차량을 이용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 표 3-5-5〉 절도(장소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장소 / 계	아파트	주택	노상	숙박업소	상가	사무실	휴흥접객업소	기타
2000	617	44	92	97	59	48	18	13	264
2001	590	43	88	103	59	65	22	16	194
2002	170	15	21	15	12	44	3	3	57
2003	166	17	16	31	15	23	4	6	54
2004	396	21	49	95	37	37	16	10	131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 표 3-5-6〉 절도(수법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 도	수법 / 계	침입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	속임수	기타
		빈집	사무실	공장	상점	숙박업소	기타						
2000	617	136	18	18	48	59	336		1		1		
2001	590	131	22	22	65	59	287		2	1	1		
2002	170	36	3	3	44	12	64				5		
2003	166	33	4	4	23	15	40		4	11	2		30
2004	396	30	12	1	22	22	79	6	5	18	13	7	181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나. 폭력범죄의 발생형태

1) 시간 및 요일

시간대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심야(24~4시)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야간 음주로 인한 폭력이 많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오후(12시~18시)시간대에 주로 발생이 되었으며, 요일별로는 특정요일에 관계없이 고루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표 3-5-7〉 폭력(시간대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 도	시간 / 계	심야 (00~04)	새벽 (04~07)	오전 (07~12)	오후 (12~18)	초저녁 (18~20)	밤 (20~24)
2000	1420	404	124	193	191	99	409
2001	1469	411	122	192	197	113	434
2002	1241	345	107	159	170	80	380
2003	1324	377	89	182	169	117	390
2004	1008	329	73	77	128	79	322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 표 3-5-8〉 폭력(요일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요일 /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00	1420	211	175	204	184	223	220	203
2001	1469	218	188	205	227	203	201	227
2002	1241	192	184	162	180	169	195	159

연도	요일 /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03	1324	183	179	192	201	179	187	203
2004	1008	156	140	139	146	131	142	154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2) 장소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유흥 접객업소, 주택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표 3-5-9〉 폭력(장소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장소 / 계	아파트	주택	노상	숙박업소	상가	사무실	유흥 접객업소	기타
2000	1420	44	122	295	59	38	18	218	626
2001	1469	99	160	389	62	76	15	239	429
2002	1241	75	105	341	48	44	24	177	427
2003	1324	104	142	414	57	63	31	151	362
2004	1008	73	124	319	46	37	28	140	241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2.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발생 및 검거현황

가. 구분

1) 사이버테러형범죄

사이버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범죄유형으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등 관련 범죄

2) 일반사이버범죄 : 경찰서 수사, 형사, 조사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사기, 명예훼손, 스토킹 등의 관련 범죄

나. 현황

1) 범죄발생 현황

2000년에는 14건으로 극히 미비하던 범죄가 2001년에 접어들면서 143

건으로 무려 1년사이에 10배가 넘게 발생했으며, 2004년에는 359건으로 매우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요인도 있겠지만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일부 네티즌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3-5-10〉 사이버 범죄발생 현황

구분	구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 범죄			조치결과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구속	불구속	내사종결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00	14	14	14	2	2	2	12	12	12	1	9	4
2001	143	91	91	103	55	55	40	36	36	15	57	19
2002	295	186	186	99	53	53	196	133	133	27	108	51
2003	314	210	210	83	48	48	231	162	162	20	154	36
2004	359	101	207	83	10	54	228	91	153	4	75	163

자료 :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2) 검거현황

발생율도 급증하면서 검거하는 건수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통신이나 게임사기범의 검거율이 상당히 높다. 연령별 검거율은 10대가 가장 많지만 20대나 30대도 많이 검거되고 있으며,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숫자가 월등히 높아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중 ·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11〉 유형별 검거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용자 도용	통신사기 게임사기	음란물 불법복제	불법 사이트 운영	명예 훼손	개인 정보 침해	기타
2000	14	3	5		1	2	1	2
2001	91	22	47	2	2		7	11
2002	186	38	83	1	5	11	17	31
2003	210	39	85	5	8	24	21	28
2004	207	42	110	8	2	7	2	36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 표 3-5-12〉 연령별 검거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000	14	2	9	2	1	
2001	91	23	45	19	4	
2002	186	62	88	36		
2003	210	85	110	10	5	
2004	207	92	64	43	8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 표 3-5-13〉 직업별 검거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학생	회사원	IT전문	자영업	무직	기타
2000	14	2	3			7	2
2001	91	20	36		3	21	11
2002	186	32	48		10	74	22
2003	210	65	73		20	27	25
2004	207	118	25		18	34	12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3.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발생유형

가.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비슷하다가 2005년에 접어들면서 많이 감소하였으며, 발생시기는 1년 중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여름 피서객들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표 3-5-14〉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2	2088	203	108	112	144	159	166	230	254	145	222	156	190
2003	2160	177	125	130	172	204	210	221	300	182	249	190	156
2004	1931	154	167	155	135	166	149	187	251	152	158	124	133
2005	1268	116	123	158	118	139	167	196	251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나. 음주운전 유형

1) 수치 및 성별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를 수치별로 살펴보면 벌금형(0.099%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면허취소(0.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숫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음주 운전자를 성별로 보면 9:1의 비율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5〉 음주 수치별 현황

구 분	계	0.05~0.099 (%)	0.10~0.15 (%)	0.15~0.20 (%)	0.20(%) 이상	측정거부
2004년	1204	487	364	210	103	40
분포비율	100%	40%	30%	18%	9%	3%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표 3-5-16〉 음주운전 남녀별 성별 현황

구 분	계	남	여
2004년	1204	1088	116
분포비율	100%	90%	10%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2) 연령 및 시간대

음주운전자의 연령은 30~40대가 많으며, 시간별로 보면 밤9시부터 12시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밤12시부터 새벽3시에 음주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7〉 연령별 음주운전 현황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04년	1204	7	240	386	408	127	36
분포비율	100%	1%	20%	32%	34%	10%	3%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표 3-5-18〉 시간대별 음주운전 현황

구 분	계	09~12	12~15	15~18	18~21	21~24	24~03	03~06	06~09
2004년	1204	26	32	41	211	453	304	96	41
분포비율	100%	2%	3%	3%	18%	38%	25%	8%	3%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4. 기소중지자 발생 및 검거

(단위: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발생	490	482	419	550	575
점거	460	361	2722	2271	3473

자료: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제6장 소방

제1절 개관

고대에는 주로 촌락단위로 자치적인 소방활동을 하였고 삼국시대에도 행정기구나 군대가 소화활동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도 각 관서나 개인의 책임에 소방에 임했으며 방화나 실화자를 엄중히 처벌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소방의 법제와 기구, 소방활동은 확립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로는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갑오경장 후의 소방업무는 일반 경찰업무와 함께 내무아문(內務衙門) 또는 내부(內部) 산하소속의 경무청의 소관업무였고, 우선 궁궐 안에 60명의 소방졸(消防卒)과 소방펌프 4대 등의 기구를 갖춘 궁정소방대를 두었다. 1908년 서울에 상수도가 설치되자 반드시 소화전(消火栓)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소방조직으로서 소방조(消防組)가 결성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소방행정은 새롭게 정비되었다. 소방담당기구는 조선총독부의 경찰조직 보안과에 소속되었다가 이후 방호과 또는 경비과에서 관장하였다.

공적 소방조직으로 소방조 제도가 실시되어 소방업무를 담당했는데 소방조는 전국적으로 1910년에 68개조, 1938년에는 1,398개조였는데, 1939년 경방단(警防團)으로 개편되었다.

서울에서는 경성소방조에서 상비대(常備隊)를 설치하였다가 1922년 경성소방소로 개편되고 소방서가 소방서로 바뀌면서 전국 주요도시에 소방서가 설치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 아래에서 소방업무는 토목부(土木部) 또는 토목국 소관이 됨으로써 경찰로부터 분리되었고, 자치적인 소방행정기구로서 중앙소방위원회와 지방의 소방위원회를 두어 소방행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방서를 증설하였다.

정부수립 후 소방행정은 다시 경찰행정체제 속에 포함되었다. 즉 내무부 치안국의 소방과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종래 소방의 주된 활동은 화재의 진압이었던 것을 단순한 소방이 아니라 화재의 위험요소를 개선 또는 제거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게 된 점이다.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을 제정, 시행하게 됨으로써 소방행정의 전문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서 화재·풍수재(風水災)

또는 설해(雪害)를 예방, 경계, 진압, 방어하는 것까지 규정하였던 것이 1975년「소방법」전면개정으로 다시 본래의 화재의 소방업무로 복귀하였다.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소방은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내무행정에 속한다.

소방을 규율하는 법령으로「소방법」·「소방법시행령」·「소방법시행규칙」·「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서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법칙」·「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소방규정」등이 있다.

화재의 예방작용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예방조처를 위한 명령소방대상물(산림·선박·차량·건축물 등)의 검사 및 개수명령,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 및 구조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확인,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소방정감(消防正監)·소방감·소방정·소방령(消防領)·소방경(消防警)·소방위(消防尉)·소방장(消防長)·소방교(消防校)·소방사(消防士)의 9개의 계급이 있고 같은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이 있다.

속초지역에 독립된 소방대가 생긴 것은 1954「강원도 양양군 속초읍 의용소방대」란 이름으로 발족하면서 부터였다. 속초가 도시로 변하면서 출발당시와 비교해 보면 장족의 발전을 본 셈이지만 경사지가 많은 시가지 일대의 지형이나 소방도로의 미비 등 도시계획의 차질과 도시형성과정의 졸속으로 인한 운영상의 애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속초소방서는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짜임새를 갖추고 화재예방 및 그로 인한 재난방지 소방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의 자세한 연혁과 현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제2절 속초소방서 연혁

- 1954. 6 – 군정이양과 동시 속초의용소방대 발족
- 1962. 10 – 청사신축 이전(중앙동 시청 옆)
- 1977. 11. 21– 속초소방서 설치 승인
- 1977. 12. 28– 속초소방서 개서 및 중앙소방관파출소 개소
- 1978. 05. 10– 설악소방관 파출소 개소
- 1980. 11. 25– 청사신축 이전 (교동 현위치)

〈사진 3-6-1〉 속초소방서 전경

- 1981. 12. 11- 중앙소방관파출소를 교동파출소로 명칭 개정
- 1982. 04. 30- 소방서 관할구역 확대조정(양양군 강현면 일원)
- 1989. 02. 04- 영랑소방관파출소 개소
- 1992. 01. 01- 관할구역 확대조정
  [양양군 양양읍, 고성군 토성면, 죽왕면일원]
- 1992. 12. 31- 관할구역 확대조정[고성군 간성읍 일원]
- 1993. 02. 09- 간성파출소 개소
- 1994. 06. 01- 양양파출소 개소
- 1994. 12. 26- 관할구역 확대조정[고성군 거진읍 현내면 일원]
- 1995. 02. 13- 거진파출소 개소
- 1995. 03. 15- 관할구역 확대조정[고성군/양양군]
- 1996. 11. 09- 119구조대 발대
- 2005. 08. 26- 예방과 설치

제3절 속초소방서의 기구 및 인원

- 현원: 166명

구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기능직
정원	173	1	3	8	9	27	53	71	1
현원	166	1	3	8	9	48	59	37	1
대비	-7	-	-	-	-	21	6	-34	-

자료: 속초소방서 홈페이지

〈 그림 3-6-1〉 속초소방서 기구표

제4절 일반현황

관내의 구역 및 의용소방대의 숫자, 소방용수시설 및 차량대수,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할구역 및 의용소방대

〈 표 3-6-1〉 관할구역(1시,2군,3읍,8면)

구 분	면적(㎢)	인구	읍·면·동	세대수
계	1,398.14	151,347	3읍·8면·8동	57,404
속초시	105.24	89,047	8동	33,848
고성군	664.19	32,820	2읍·3면	12,314
양양군	628.71	29,480	1읍·5면	11,242

자료: 속초소방서 홈페이지

〈 표 3-6-2〉 의용소방대

구 분	대 수				대 수			
	계	본대	지대	여성대	계	본대	지대	여성대
계	22	12	6	4	800	480	120	200
속초시	5	1	3	1	170	60	60	50
고성군	8	5	1	2	330	210	20	100
양양군	9	6	2	1	300	210	40	50

자료: 속초소방서 홈페이지

2. 소방용수시설 및 차량

〈 표 3-6-3〉 소방용수시설

구 분	총 계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계	지상식	지하식		
계	364	357	357		1	6
속초시	201	194	194		1	6
고성군	106	106	106			
양양군	57	57	57			

자료: 속초소방서 홈페이지

〈 표 3-6-4〉 차량 현황

고가차	굴절차	일반구조차	산악구조차	순찰차	지휘차	화물차	진단차분
1	3	1	1	1	1	1	4
행정차	구급차	무선중계차	물탱크차	수난장비차	화재조사차	배연차	펌프차
2	10	1	1	1	1	1	22

자료: 속초소방서 홈페이지

〈 표 3-6-5〉 소방대상물

구 분	계	근린시설	숙박시설	공 장	아파트	업무시설	교육시설	복합건물	기 타
계	2,390	1,071	331	91	77	146	98	186	380
속초시	1,255	599	191	30	57	53	32	125	168
고성군	593	288	37	36	5	47	35	24	121
양양군	532	184	10	25	15	46	31	37	91

자료: 속초소방서 홈페이지

〈 표 3-6-6〉 위험물 제조소 등

구 분	계	주요 취급소	일반 취급소	판매 취급소	저장 취급소	비고 (이동탱크)
계	547	91	399	40	17	-221
속초시	295	37	237	17	4	-82
고성군	111	27	60	12	12	-57
양양군	141	27	102	11	1	-82

자료: 속초소방서 홈페이지

제5절 화재발생 현황

도시의 연료가 목재, 연탄으로부터 가스 및 유류 등 다양화함에 따라 화재발생이 점차 빈번해지고 그 피해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속초시의 경우 50년대에는 연평균 3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증가되기 시작하여 특히 2000년에는 7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민들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다. 최근 5~6여년간의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현황

화재발생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실화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이로인한 피해액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화재의 발생원인과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6-7〉 화재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연별 및 동별	발 생				소 실		
	계	실 화	방 화	기 타	동 수	이재가구수	면적(㎡)
1998	42	33	5	4	23	4	1,120.0
1999	54	45	6	3	32	2	1,815.0
2000	71	65	4	2	40	8	3,072.3
2001	60	46	5	9	44	6	2,375.3
2002	60	46	1	13	42	7	2,217.7
2003	65	42	4	19	43	-	1,714.8
영랑동	6	4	-	2	4	-	77.6
동명동	6	5	1	-	3	-	156.8
금호동	4	2	1	1	2	-	13.2
교 동	26	16	1	9	15	-	686.4
노학동	4	1	-	3	3	-	161.7
조양동	10	7	1	2	8	-	384.8
청호동	3	3	-	-	2	-	16.5
대포동	6	4	-	2	6	-	217.8

자료: 속초소방서 홈페이지

(단위: 건, 천원, 명)

연별 및 동별	피해액			인명피해			이재민수	구조인원
	계	부동산	동산	계	사망	화상		
1998	160,256	95,910	64,346	7	1	6	12	–
1999	250,343	166,161	84,182	11	2	9	5	6
2000	312,993	91,265	221,728	6	2	4	19	2
2001	337,929	228,756	109,173	5	1	4	19	–
2002	411,262	225,627	185,635	8	1	7	9	2
2003	118,413	77,711	40,702	6	2	4	–	23
영랑동	10,141	7,526	2,615	1	1	–	–	–
동명동	7,674	3,529	4,145	2	–	2	–	–
금호동	1,991	1,100	891	–	–	–	–	–
교 동	54,888	35,156	19,732	1	–	1	–	–
노학동	15,090	9,048	6,042	–	–	–	–	–
조양동	14,616	12,138	2,478	1	1	–	–	–
청호동	1,620	1,001	619	–	–	–	–	–
대포동	12,393	8,213	4,180	1	–	1	–	23

2. 화재발생원인 및 장소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전기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담배로 인한 부주의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주택이나 점포, 음식점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표 3-6-8〉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연별 및 동별	계	전기	유류	가스	화공약품	난로	아궁이	담배	성냥 양초	불티	불장난	방화	기타
1997	42	16	1	1	–	–	–	1	2	1	1	2	17
1998	42	13	2	2	–	–	1	2	–	2	4	5	11
1999	54	23	–	2	–	4	–	6	–	3	3	6	7
2000	71	34	3	1	–	–	–	6	1	3	6	5	12
2001	60	13	2	–	–	–	–	8	1	2	6	5	23
2002	67	21	–	–	–	2	–	8	1	4	4	4	23

연별 및 동별	계	전기	유류	가스	화공약품	난로	아궁이	담배	성냥 양초	불티	불장난	방화	기타
영랑동	6	3	–	–	–	–	–	1	–	–	–	–	2
동명동	6	1	–	–	–	–	–	–	–	–	–	1	4
금호동	4	2	–	–	–	–	–	–	–	–	–	1	1
교동	26	5	–	–	–	–	–	5	1	2	3	1	9
노학동	4	2	–	–	–	–	–	1	–	–	–	–	1
조양동	10	3	–	–	–	1	–	1	–	1	1	1	2
청호동	3	1	–	–	–	–	–	–	–	–	–	–	2
대포동	8	4	–	–	–	1	–	–	–	1	–	–	2

〈 표 3-6-9〉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연별 및 동 별	계	주택	사업장	점포	학교	공장	창고	병원	시장	아파트	호텔 여관	음식점	차량	기타
1998	42	13	6	6	–	–	–	–	–	3	–	–	4	10
1999	54	8	5	8	–	–	1	–	–	5	2	10	8	7
2000	71	11	1	6	–	1	3	1	–	8	4	6	8	22
2001	60	15	2	9	–	1	5	–	–	5	–	3	7	13
2002	60	12	3	11	1	–	–	–	–	3	3	3	17	7
2003	67	10	–	10	1	–	2	–	–	8	5	11	6	14
영랑동	6	2	–	1	–	–	1	–	–	–	–	–	1	1
동명동	6	–	–	2	–	–	–	–	–	1	–	–	2	1
금호동	4	–	–	2	–	–	–	–	–	–	1	1	–	–
교 동	26	2	–	3	1	–	1	–	–	5	1	6	3	4
노학동	4	2	–	–	–	–	–	–	–	–	–	1	–	1
조양동	10	2	–	1	–	–	–	–	–	2	–	2	–	3
청호동	3	1	–	–	–	–	–	–	–	–	–	1	–	1
대포동	8	1	–	1	–	–	–	–	–	–	3	–	–	3

자료: 속초소방서 홈페이지

제6절 소방서 역대 서장

속초소방서의 서장은 개서(開署)이래 15대에 걸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표 3-6-10〉 역대 소방서장 명단

역대순	성 명	재 임 기 간
1	정인규	1977. 11. 22 ~ 1979. 03. 14
2	유상록	1979. 03. 15 ~ 1980. 11. 27
3	정구현	1980. 11. 28 ~ 1984. 11. 28
4	김성환	1984. 11. 29 ~ 1986. 12. 26
5	조금복	1987. 01. 01 ~ 1988. 07. 01
6	신주영	1988. 07. 02 ~ 1989. 09. 27
7	이석준	1989. 09. 28 ~ 1992. 04. 30
8	이영철	1992. 05. 01 ~ 1993. 10. 04
9	강현호	1993. 10. 05 ~ 1994. 10. 26
10	박길영	1994. 10. 27 ~ 1996. 05. 21
11	구창회	1996. 05. 22 ~ 1998. 10. 11
12	맹영관	1998. 10. 12 ~ 1999. 12. 31
13	원찬희	2000. 01. 05 ~ 2001. 06. 30
14	왕재섭	2001. 07. 01 ~ 2003. 07. 29
15	김국현	2003. 07. 30 ~ 현 재

자료: 속초소방서 홈페이지

제7장 교통

제1절 도로

속초시는 격오지에 우리 나라 변방에 위치한 관계로 도로와 교통의 발달은 여타 지역에 비해 좀 늦은 편이다. 조선시대에는 역마제(驛馬制)라 하여 주요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마다 역(驛)을 설치하여 말과 역정(役丁)을 갖추고 공문을 전달하거나 공무 여행자에게 말을 제공하고, 숙식을 알선하였다. 특히 역(驛)에는 역장(驛長)과 역리(驛吏), 역졸이 있어서 역의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속초 인근에는 양양에 상운, 연창, 인구(현재의 손양면 인구리), 강선, 오색역이 있었고, 간성에 원암, 청간, 죽포, 운근, 명파역이 있었다. 그 중 오색역과 원암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은 현재와 같이 동해안을 따라 연결된 교통로에 위치하였다.

〈표 3-7-1〉 도로현황 (단위: m, ㎡, %)

구 분	합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계	포장	포장율		계	포장	포장율
1997	98,448	74,873	76.1	-	10,830	10,930	100
1998	101,082	77,952	77.1	-	10,830	10,830	100
1999	112,872	85,907	76.1	-	10,830	10,830	100
2000	224,577	114,370	50.9	-	9,192	9,192	100
2001	224,577	114,370	50.9	-	9,192	9,192	100
2002	241,766	115,821	47.9	-	9,150	9,150	100
2003	241,766	115,821	47.9	-	9,150	9,150	100
2004	241,766	115,821	47.9	-	9,150	9,150	100

구 분	지방도			시군도		
	계	포장	포장율	계	포장	포장율
1997	8,800	8,800	100	78,818	55,243	70
1998	8,800	8,800	100	81,452	58,322	72
1999	8,800	8,800	100	93,242	66,277	71
2000	2,957	2,957	100	212,428	102,221	48
2001	2,957	2,957	100	212,428	102,221	48
2002	8,800	8,800	100	223,816	97,871	44
2003	8,800	8,800	100	223,816	97,871	44
2004	8,800	8,800	100	223.816	97,871	44

그러나 오늘날 도로 및 교통의 발달은 전국을 1일 생활권대로 묶어 놓았고, 1990년대 이후 자동차 수의 급속한 증가는 영동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강릉~속초간 4차선 개설, 양양국제공항 개항, 속초~금강산 해로 및 육로

개통, 속초~훈춘~블라디보스톡 해로개설 등 교통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속초시내 연결도로망도 끊임없이 확충되어 왔는 바, 특히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를 전후하여 도로망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조양~교동간 도로 개설, 목우재터널 관통도로, 수복로 개설 등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6년에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향후 동서고속도로(춘천~양양), 동해북부선 철도망 복원(강릉~고성), 동해고속도로 북부노선(주문진~속초) 등이 2009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있어서 전국 어느 도시 못지않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여건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표 3-7-2〉 교량현황

구 분	합 계				일반국도				시군도			
	계		가설		계		가설		계		가설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연장	개소	연장	개소
1997	12	645	12	645	2	86	2	86	10	559	10	559
1998	12	645	12	645	2	86	2	86	10	559	10	559
1999	13	685	13	685	2	76	2	76	11	609	11	609
2000	15	891	15	891	2	112	2	112	13	779	13	779
2001	15	891	15	891	2	112	2	112	13	779	13	779
2002	15	855	15	855	2	76	2	76	13	779	13	779
2003	13	750	13	750	2	76	2	76	11	674	11	674
2004	17	1,062	17	1,062	2	76	2	76	15	986	15	986

제2절 교통

속초시는 지리적으로 설악~금강산 연계개발의 중심지이자 중국 · 러시아 · 일본 등 환동해권의 물류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속초시의 가로망은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하여 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와 조양동 방향의 신시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시가지의 경우 대부분 노폭이 협소하고 교차로가 불량한 곳이 많아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어려운 곳이 많고, 특히 조양동과 대포동 지역은 급격한 개발로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도시의 성장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수요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1. 도시교통계획 수립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도로망 및 문제구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도로교통의 기본틀을 재구성하여 도시구조의 순환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잇다. 현재 속초시의 도시구조는 2핵 구조를 띄고 있으나 향후 노학동, 대포동 등의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다핵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7번 국도 중심의 교통망은 향후 도시구조의 공간적 변화와 연계성 및 순환성 확보에 어려움을 던져줄 수 있다. 따라서 도시교통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할 것이다.

2. 지능형 교통체계의 도입

교통시설의 확충에는 도시교통의 한계점에 도달되고 있어 기존 도로의 효율을 증진하는 방안의 차원에서 지능형 교통체계가 도입되고 있다. 정부는 3개 첨단교통모델 도시사업을 통해 대전, 전주, 제주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2차적인 확대 모델도시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속초시 역시 좁은 공간구조의 특성상 지능형 교통체계의 도입이 바람직하며, 교통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3. 교통시설

가. 도로망

2004년도 현재 국도, 지방도, 시군도를 포함한 속초시 도로 총 연장은 225.6km이다.

〈 표 3-7-3〉 도로현황(도로연장)

구 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장(㎞)	2,957	2,622	235.9	236	241.8	225.6

나. 버스터미널

속초시의 버스 터미널은 2개소가 있으나 서울, 춘천, 강릉 등 수많은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관광도시에 걸맞게 편리성을 더해 주고 있다.

다. 수송현황

1) 항공수송

구 분	국내선								
	계			도 착			출 발		
	여객	화물	우편	여객	화물	우편	여객	화물	우편
2000	134,185	488	–	65,374	223	–	68,811	265	–
2001	69,904	238	–	32,896	102	–	37,008	136	–
2002	220,969	872	–	111,094	512	–	109,875	360	–
2003	176,578	719	–	88,787	433	–	87,791	286	–
2004	109,327	397	–	55,422	217	–	53,899	180	–

구 분	국제선					
	계		도 착		출 발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여객	화물
2000	–	–	–	–	–	–
2001	–	–	–	–	–	–
2002	5,685	83	3,074	62	2,611	21
2003	13,821	150	6,979	67	6,842	83
2004	5,021	50	3,039	27	1,982	22

2) 여객선 수송

구 분	합 계		연안 여객선		외 항 선	
	여 객	화 물	여 객	화 물	여 객	화 물
1998	1,400	–	1,400	–	–	–
1999	2,468	–	2,468	–	–	–
2000	38,332	20.4	1,609	–	36,723	20.4
2001	86,074	15,857	34,052	2,184.0	52,022	13,673.0
2002	243,792	89,644	190,739	6,716	53,053	82,928
2003	123,418	115,981	76,294	9,571	47,124	106,410
2004	55,232	–	1,316	–	35,916	136,612

3) 해운화물 수송

구 분	합 계	외항어물	연안어물	주요 화물별 수송량				
				양곡	유류	방직용	음주류	시멘트
2001	73,564	49,773	23,791	1,313	21,530	–	–	159
2002	217,546	83,062	134,484	70,466	–	–	–	413
2003	171,304	108,876	62,428	1,921	17,077	52,234	3,888	1,167
2004	181,511	162,243	19,168	1,679	17,178	–	–	–

구 분	주요 화물별 수송량								
	무연탄	어패류	목 재	피혁류	철 강	차량부품	기계류	철 재	기 타
2001	–	–	2,002	–	–	–	1,911	82	44,140
2002	–	–	5,729	–	–	–	3,480	14,956	122,600
2003	–	6,723	5,553	19,549	1,047	41,418	3,212	–	18,146
2004	–	8,886	3,580	20,343	1,247	31,438	1,867	–	4,206

라. 자동차 등록현황

속초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0년 5,112대였던 것이 1999년에는 21,440대, 2002년에는 26,848대, 2004년에는 27,552대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영업용이 1,457대(5.3%), 자가용이 25,884대(93.9%), 관용차량이 211대(0.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7-4〉 자동차 등록 현황

구 분	연 도 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대수	21,440	23,165	25,113	26,848	30,195	27,552

〈표 3-7-5〉 용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구 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영업용	953	162	328	14
자가용	18,347	2,226	5,273	38
관 용	67	55	77	12

자료: 속초시청 홈페이지

마. 주차장 확보

속초시의 차량 등록 대수는 2004년 말 현재 27,552대이나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613면, 노외 주차장 3,212면, 부설 주차장 14,348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66%이고 부족율은 34%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표 3-7-6〉 주차장 현황

구 분	합 계						노 상					
	계		공 영		민 영		계		공 영		민 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997	387	11,538	31	3,047	356	8,491	11	648	11	648	–	–
1998	573	13,548	43	3,102	530	10,446	10	613	10	613	–	–
1999	624	13,790	42	3,214	582	10,576	10	613	10	613	–	–
2000	678	14,184	42	3,214	636	10,970	10	613	10	613	–	–
2001	782	14,389	41	3,141	741	11,248	10	613	10	613	–	–
2002	941	15,219	41	3,141	900	12,078	10	613	10	613	–	–
2003	1,064	16,224	42	3,160	1,022	13,084	10	613	10	613	–	–
2004	1,272	18,173	46	3,303	1,226	14,870	10	613	10	613	–	–

구 분	노 외						건축물 부설					
	계		공 영		민 영		계		공 영		민 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997	35	4,238	14	2,011	21	2,227	314	6,652	6	388	335	6.24
1998	30	2,612	14	1,871	16	741	533	10,323	19	618	514	9.705
1999	30	2,742	14	2,001	16	741	584	10,435	18	600	566	9.835
2000	33	2,991	14	2,001	19	990	635	10,580	18	600	617	9.980
2001	32	2,918	13	1,928	19	990	740	10,858	18	600	722	10,258
2002	32	2,983	13	1,928	19	1,055	899	11,623	18	600	881	11,023
2003	32	2,983	13	1,982	19	1,055	1,022	12,648	19	619	1,003	12,029
2004	36	3,212	14	1,988	22	1,224	1,226	14,348	22	702	1,204	13,646

자료: 속초통계연보, 2005

1) 공영주차장 확충

1990년대 이후 속초시는 관광객 수의 획기적 증가, 인근지역 인구의 유입 및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하여, 교통소통문제뿐만 아니라 주차, 교통안전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사거리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주차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주차 공간의 부족은 이웃간의 다툼을 야기하고,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 주차로 인한 긴급 자동차의 접근불능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2) 아파트 주차공간 확충

특히 아파트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장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속초시에서는 근린주차장 건설, 주택가내 시유지

주차장 건설 등을 계획 중에 있다.

바. 불법 주정차 단속

1) 단속지역

가)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터널, 다리 위
나) 건널목,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다) 소방용 기계기구 설치 5m이내
라) 화재경보기 3m이내
마) 도로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
바)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지정한 상습 취약지역

2) 단속활동

이면도로, 상습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 장애구역 등 주민불편 취약지를 대상으로 공익요원을 투입,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주 · 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증빙자료의 확보 등 단속업무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처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제8장 정보통신

제1절 행정전산화 추진

1. 행정전산망(LAN) 구축

2000년 5월 공무원 1인 1단말기 기준으로 행정전산망(LAN)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 구현의 기반을 조성하여 본청↔사업소↔동간의 초고속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해커들로부터 행정전산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속초시 전 행정기관의 단말기를 대상으로 보안시스템을 적용 · 운용 중이다.

2. One-stop 민원서비스 실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해 온 시 · 군 · 구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10대 업무가 2000년 10월 정상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24시간 ONE-STOP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청한 민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안방에서 처리 진행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대만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공개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요구와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http://sokcho.gangwon.kr/) 시정현황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으며, 최신의 자료게재로 다양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사용자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속초시 홈페이지는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구축되어 있으며, 시의회, 전자민원, 시정정보, 통계자료, 예산 · 재정, 과별 홈페이지 등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고 속초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민원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여론수렴을 통한 민원해결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홈페이지에 양질의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3절 시민무료 PC방 운영

시민 누구나 관공서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자료 검색, 청소년 학습, 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및 8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 멀티미디어 PC를 설치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PC방을 운영하고 있다.

제4절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

지식정보화 시대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아발견의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시정에 인터넷을 통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부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1. 교육대상: 속초시민(저소득층 및 여성)
2. 교육과목: 한글97, 윈도우98, 정보검색, 엑셀, 홈페이지 제작, 파워포인트, 포토샵, 플래시, 엑세스 등
3. 교육신청 방법: 본인 신청
4. 교육기관: 여성문화회관, 동사무소 등 다수

사득환(동우대학 복지행정학부 교수)
정연홍(동우대학 복지행정학부 교수)
이봉림(동우대학 복지행정학부 교수)

감수위원 : 어재석(속초문화원 이사)

上

第四編　교육사회

표 목차

4-1-1 조선말기 속초인구의 변화
4-1-2 1871년 속초의 인구현황
4-1-3 일제시대 속초의 인구변화
4-1-4 1930년 도천면민 출생지별 인구
4-1-5 속초의 인구변화 추세
4-1-6 속초시 인구추이
4-1-7 동별 세대 및 인구수
4-1-8 성별 및 연령별 인구추이
4-1-9 속초의 인구동태
4-1-10 속초의 월별 인구이동
4-1-11 속초의 동별 인구이동
4-1-12 주요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
4-2-1 일반현황
4-2-2 학교 총개황
4-2-3 유치원현황
4-2-4 초등학교 현황
4-2-5 중학교 현황
4-2-6 일반계고등학교 현황
4-2-7 실업계고등학교 현황
4-2-8 대학 현황
4-2-9 기타학교 현황
4-2-10 사설학원 현황
4-2-11 공공도서관 현황
4-2-12 정 · 현원 현황
4-2-13 역대 교육장 명단
4-2-14 직원현황
4-2-15 도서현황
4-2-16 비도서현황
4-2-17 건물 및 대지
4-2-18 자료실 현황
4-2-19 열람실 현황
4-2-20 부대시설 현황
4-2-21 역대관장명단
4-2-22 일반인 강좌
4-2-23 일반인 강좌
4-2-24 어린이 · 청소년 강좌
4-2-25 가족강좌
4-2-26 토요 · 휴업일 체험학습 프로그램
4-2-27 주말 체험학습 프로그램
4-2-28 독서회 운영
4-2-29 정원 및 현원
4-2-30 부지 및 건물
4-2-31 열람실 현황
4-2-32 도서현황
4-2-33 비도서현황
4-2-34 역대 관장 명단
4-2-35 평생학습 강좌 현황
4-2-36 교직원 현황(대포초)
4-2-37 학생현황
4-2-38 시설현황
4-2-39 역대교장 명단
4-2-40 교직원 현황(영랑초)
4-2-41 학생현황
4-2-42 부지현황
4-2-43 건물현황
4-2-44 역대교장 명단
4-2-45 교직원 현황(속초초)
4-2-46 학생현황
4-2-47 부지현황
4-2-48 건물현황
4-2-49 역대교장 명단
4-2-50 교직원현황(청호초)
4-2-51 학생현황
4-2-52 건물 및 교지현황
4-2-53 역대교장 명단
4-2-54 교직원 현황(중앙초)

4-2-55 학생현황
4-2-56 역대 교장 명단
4-2-57 교직원 현황(온정초)
4-2-58 학생현황
4-2-59 건물 및 교지현황
4-2-60 역대 교장 명단
4-2-61 교직원 현황(교동초)
4-2-62 학생현황
4-2-63 부지현황
4-2-64 건물현황
4-2-65 역대 교장 명단
4-2-66 교직원 현황(조양초)
4-2-67 학생현황
4-2-68 시설현황
4-2-69 역대 교장 명단
4-2-70 교직원 현황(설악초)
4-2-71 학생현황
4-2-72 교지현황
4-2-73 건물현황
4-2-74 역대 교장 명단
4-2-75 교직원 현황(청대초)
4-2-76 학생현황
4-2-77 시설현황
4-2-78 역대 교장 명단
4-2-79 교직원 현황(소야초)
4-2-80 학생현황
4-2-81 교지현황
4-2-82 건물현황
4-2-83 역대 교장 명단
4-2-84 교직원 현황(속초중)
4-2-85 학생현황
4-2-86 부지현황
4-2-87 역대 교장 명단
4-2-88 교직원 현황(설악중)
4-2-89 학생현황
4-2-90 부지현황
4-2-91 건물현황
4-2-92 역대 교장 명단
4-2-93 교직원 현황(속초여중)
4-2-94 학생현황
4-2-95 시설현황
4-2-96 역대 교장 현황
4-2-97 교직원 현황(설악여중)
4-2-98 학생현황
4-2-99 시설현황
4-2-100 역대 교장 명단
4-2-101 교직원 현황(속초고)
4-2-102 학생현황
4-2-103 시설현황
4-2-104 역대 교장 명단
4-2-105 교직원 현황(속초여고)
4-2-106 학생현황
4-2-107 역대 교장 명단
4-2-108 교직원 현황(속초상고)
4-2-109 학생현황
4-2-110 시설현황
4-2-111역대 교장 명단
4-2-112 개설학과 및 입학정원
4-2-113 역대 학장 명단
4-2-114 졸업생 현황
4-3-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개황
4-3-2 관련 복지제도 개황
4-3-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4-3-4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실적
4-3-5 지사개요(국민건강 속초지사)
4-3-6 직원현황
4-3-7 건강보험 적용현황
4-3-8 관내요양기관 현황

4-3-9 2005년 8월 주요 경영지표
4-3-10 보험료 부과 · 징수현황
4-3-11 급여관리 총괄 현황
4-3-12 노인인구 현황
4-3-13 연도별 경로당 현황
4-3-14 경로당 등록현황
4-3-15 시설 이용현황
4-3-16 대지 및 건물현황
4-3-17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4-3-18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실적
4-3-19 노인건강진단 결과 분석표
4-3-20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
4-3-21 보육제도의 연혁
4-3-22 영 · 유아보육법 제정 후 변천
4-3-23 속초시 보육시설현황
4-3-24 속초시 아동인구 현황
4-3-25 모 · 부자가정 현황
4-3-26 외국인 주부 현황
4-3-27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4-3-28 시설배치 현황
4-3-29 직원현황
4-3-30 역대 소장 현황
4-3-31 여성대학 운영 현황
4-3-32 장애인 등록현황
4-3-33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4-3-34 장애인 단체 현황
4-3-35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4-3-36 국가보훈대상자 취업현황
4-3-37 국가보훈대상자 취학현황
4-3-38 국가보훈자 단체현황
4-4-1 전 국민의 행동별 · 성별 하루평균시간 사용량(10세 이상)
4-4-2 전 국민의 행동별 · 성별 요일평균시간 사용량(10세 이상)
4-4-3 전 국민의 행동별 · 성별 하루평균시간 사용량(20세 이상)
4-4-4 전 국민의 행동별 · 성별 요일평균시간 사용량(20세 이상)
4-4-5 학생의 행동별 · 재학정도별 하루평균시간 사용량
4-4-6 학생의 행동별 · 요일별 · 재학정도별 하루 평균시간 사용량
4-4-7 노인의 행동별 · 성별 하루 평균시간 사용량
4-4-8 노인의 행동별 · 요일별 · 성별 평균시간 사용량
4-4-9 맞벌이 및 비맞벌이 가구의 활동별 · 성별 여가생활시간
4-4-10 양부모 및 편부모가구의 활동별 · 성별 하루평균 여가활동시간
4-4-11 휴무 실태에 따른 활동별 · 성별 여가활동시간
4-4-12 TV시청한 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4-4-13 성별 · 시간대별 TV시청한 요일평균 행위자 비율
4-4-14 기혼여자의 요일별 TV시청한 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4-4-15 학생의 요일별 TV시청한 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4-4-16 컴퓨터 이용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4-4-17 학생의 컴퓨터 이용 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4-4-18 요일별 관람 및 취미활동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4-4-19 요일별 성인의 관람 및 취미활동 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4-4-20 요일별 교제 활동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4-4-21 요일별 성인의 교제 활동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4-4-22 요일별 교제관련 전화통화 시간 및 행위자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4-4-23 요일별 독서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4-4-24 요일별 걷기 · 산책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4-4-25 요일별 신문 읽은 시간 및 해위자 비율 · 행위자 평균시간
4-4-26 성인 남자의 취업여부별 신문 읽는 시간 및 행위자 비율 · 행위자 평균시간
4-4-27 속초시 문화공간 현황
4-4-28 속초시 공공도서관 현황
4-4-29 속초시 체육시설 현황
4-4-30 속초시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4-4-31 속초시 공원현황
4-5-1 식품접객업소
4-5-2 식품제조 · 가공관련업소
4-5-3 공중위생관련업소 현황
4-5-4 연도별 추진현황(구강보건)
4-5-5 연도별 추진현황(정신보건)
4-5-6 연도별 추진현황(청소년 흡연 예방)
4-5-7 연도별 추진현황(임산부 · 영 · 유아 건강)
4-5-8 연도별 추진현황(고혈압 · 당뇨관리)
4-5-9 연도별 추진현황(암 및 골다공증검진)
4-5-10 연도별 추진현황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5-11 연도별 추진현황(방문보건)
4-5-12 성병환자발생 현황
4-5-13 연도별 AIDS환자 색출검사 현황
4-5-14 결핵환자 현황
4-5-15 BCG접종현황
4-5-16 연도별 전염병환자발생 및 사망자 현황
4-5-17 방역장비 현황
4-5-18 예방접종현황
4-5-19 의료인 분포현황
4-5-20 의료기관 현황
4-5-21 의약품 등 판매업소
4-5-22 역대 원장 현황(속초의료원)
4-5-23 직원현황
4-5-24 부지현황
4-5-25 건물현황
4-5-26 장비보유현황
4-5-27 연도별 환자 진료실적
4-5-28 지역별 환자점유현황
4-5-29 환자유형별 현황
4-5-30 과별 진료현황
4-6-1 조계종의 사찰과 교세
4-6-2 종교단체 일반현황
4-6-3 천주교 교세현황
4-6-4 기독교 교세현황
4-6-5 불교 교세현황
4-6-6 기도원 및 기타종교 교세현황
4-6-7 천주교 상세현황
4-6-8 기독교 상세현황
4-6-9 불교 상세현황
4-6-10 기도원 및 기타종교 상세현황
4-7-1 언론기관 현황
4-7-2 기타 홍보매체 현황
4-7-3 신문보급 현황
4-7-4 TV보급 현황
4-7-5 시설개요
4-7-6 역대 방송국장 명단
4-7-7 역대 기관장 명단
4-7-8 역대 대표자 명단
4-7-9 1960년대 시청 출입기자 명단
4-7-10 1970년대 시청 출입기자 명단
4-7-11 1980년대 시청 출입기자 명단
4-7-12 1990년대 시청 출입기자 명단
4-7-13 2003년 시청 출입기자 명단

4-7-14 2005년 시청 출입기자 명단
4-8-1 개화기의 체육단체 현황
4-8-2 역대 도민체전 성과
4-8-3 동네 체육시설 현황
4-8-4 속초시체육회 임원명단
4-8-5 속초시체육회 경기단체 회장 및 전무이사 명단
4-8-6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명단
4-8-7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 경기단체 회장 및 전무이사 명단

사진 목차

4-2-1 1953년 교동 657번지에 위치한 속초중학교
4-2-2 1955년 준공된 속초고등학교
4-2-3 1955년 개교한 속초여자중학교
4-2-4 구 교육청
4-2-5 현 교육청
4-2-6 속초평생교육정보관
4-2-7 속초도서관
4-2-8 대포초등학교
4-2-9 영랑초등학교
4-2-10 속초초등학교
4-2-11 청호초등학교
4-2-12 중앙초등학교
4-2-13 온정초등학교
4-2-14 교동초등학교
4-2-15 조양초등학교
4-2-16 설악초등학교
4-2-17 청대초등학교
4-2-18 소야초등학교
4-2-19 속초중학교
4-2-20 설악중학교
4-2-21 속초여자중학교
4-2-22 설악여자중학교
4-2-23 속초고등학교
4-2-24 속초여자고등학교
4-2-25 속초상업고등학교
4-2-26 동우대학
4-3-1 속초종합사회복지관
4-3-2 노인건강관리센터
4-3-3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4-4-1 석봉도자기 미술관
4-4-2 속초시문화회관 별관
4-4-3 속초시 문화회관
4-4-4 실내체육관
4-5-1 교동 70-3 소재 구 보건소 청사
4-5-2 교동 980 소재 현 청사
4-5-3 지방공사 강원도 속초의료원
4-5-4 재활요양병동
4-6-1 속초감리교회, 중앙장로교회
4-6-2 성광감리교회, 속초성결교회, 조양감리교회
4-6-3 제일감리교회, 만천장로교회
4-6-4 신흥사
4-6-5 동명동 성당
4-6-6 교동 성당
4-7-1 시청 옆에 위치한 최초의 청사
4-7-2 1968년 동명동으로 이전 신축된 청사
4-7-3 현재의 신축청사
4-7-4 영동극동 FM 방송국
4-8-1 속초종합운동장
4-8-2 속초시 테니스장
4-8-3 카누경기장
4-8-4 노인게이트볼장
4-8-5 화랑도체험관

제4편 교육사회

제1장 인구와 가족제도

제1절 인구추이

1. 시승격 이전의 인구추이

가. 일제시대 이전[1)]

속초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시기는 기원전 8~9세기 경인 청동기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선사유적지[2)]이다. 그러나 인근 양양이나 고성에서 석기시대 선사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더구나 속초 지역은 당시 사람들의 이동로였기 때문에 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삼국시대 이전에 속초는 동예(東濊)에 속하였으며,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고구려의 영토로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 하였고, 신라의 지배 하에서는 익령(翼嶺)이라 불리었다. 고려시대에는 양양에 현령이 파견되면서 전기에는 익령현, 후기에는 양주(襄州)에 속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려시대까지 속초에 대한 기록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속초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조선시대 단종 2년(1454)에 편찬된『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이다. 이『세종실록지리지』에는 "속초포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조선시대의 속초는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으로 되어 있었다.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 신흥사가 속해 있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현재 지명인 '속초'는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라는 작은 동네였던 것이다. 영조 41년(1765)에 편찬된『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속초리는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 거리에 있다. 호수는 86호이고, 인구는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속초리는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와서도 인구 272명인 아주 작은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1)『속초의 근·현대사』(속초문화원, 2004, 열린마당.)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재편집 한 것임.

2) 속초시 조양동 산 142번지에 위치. 전형적인 청동기 시대(B.C. 8~9세기경) 집터. 1992년 10월6일 사적 제376호로 지정됨.

〈 표 4-1-1 〉 조선말기 속초인구의 변화 (단위: 명)

면	연 도	편 호	인 구	증 감
도문면	영조41(1765) 여지도서	205	635	▼97
	고종8(1871)관동읍지	185	538	
소천면	영조41(1765) 여지도서	182	630	▲38
	고종8(1871)관동읍지	188	668	

자료: 『여지도서』, 1765. 『관동읍지』, 1871.

고종 8년(1871)에 편찬된 『관동읍지』에 의하면, 당시 속초의 인구는 도문면에 538명, 소천면에 668명으로 총 1,206명이었다. 이들은 속초의 전통사회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가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하였다.

당시 도문면은 6개의 마을이 있었고 그 중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는 풍부한 수원을 바탕으로 논농사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된 상태이고 양반 지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요소가 거의 없었다. 위의 <표 4-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문면의 인구는 1765년 『여지도서』에 기록된 인구와 1871년 『관동읍지』에 기록된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97명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소천면은 4개의 마을이 있었으며, 논산리와 부월리는 잘 발달된 평야지대를 끼고 있었던 것에 비해 속초리 부근은 대부분 미개척지였고, 속진리는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므로 인구의 증가는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대포리가 속초의 중심지였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말기에 들어오면서 중심지가 점차 속초리 인근으로 이동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표 4-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문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천면의 인구는 38명이 증가하였다. 물론 100여 년 동안 38명의 증가란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도 있을지라도 그 수치는 그만큼 전통사회 속에서 소천면이 안정된 모습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표 4-1-2 〉 1871년 속초의 인구현황 (단위: 명)

면	리	편호	인구		소계	호당인구	계
			남	여			
도문면	상도문리	61	95	145	240	2.5	538
	하도문리	24	33	58	91	3.8	
	물치리	21	25	41	66	3.1	
	대포리	23	24	42	66	2.9	
	옹진리	35	53	74	127	3.6	
	신흥사	21	38		38		
소천면	논산리	38	51	54	105	2.8	668
	부월리	52	72	105	177	3.4	
	속초리	47	99	111	210	4.5	
	속진리	51	70	106	176	3.5	

자료: 『관동읍지』, 1871.

위의 <표 4-1-2>에서 알 수 있듯이, 호당 인구수는 속초리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이 2.5~3.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였던 시대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나.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삼한시대부터 시작되어 삼국시대, 고려 및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호구(戶口)조사라는 명칭으로 조사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인구조사인 인구총조사는 일제시대인 1925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후 매 5년 간격으로 그간 16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문헌을 통해 일제시대의 인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대정 14년(1926)에 발간된 『면세일반』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조선국세조사보고』가 있다. 이 두 자료를 보면 1925년 이후 20년 동안 속초의 인구는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표 4-1-3>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 총수에 있어서 두 자료사이에는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사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3)]

3) 『조선국세조사보고』에서는 일시부재자를 빼고 일시현재자를 현재 인구로 통계를 잡았으나, 『면세일반』은 일시현재자와 일시부재자를 제외한 것 같음.

< 표 4-1-3 > 일제시대 속초의 인구변화 (단위: 명, %)

연도		세대수	인구총수	남	여	인구증감	세대당 평균인원	성 비
①	1925	1,120	6,222				5.55	
②	1925	1,263	6,979	3,765	3,214		5.5	117.1
	1930	1,365	7,264	3,802	3,462	▲285	5.32	109.8
	1935	1,750	8,967	4,584	4,383	▲1,703	5.11	104.6
	1945	2,440	12,450	6,214	6,236	▲3,483	5.1	99.7

자료: ① 『면세일반』, 1926. ② 『조선국세조사보고』.

위의 <표 4-1-3>에서 『면세일반』의 자료는 현재까지 속초시의 귀중한 인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선국세조사보고』의 자료는 세금을 징수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어 왔다. 비교가 가능한 『조선국세조사보고』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20년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45년의 인구는 20년 전보다 배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930년 이후 인구의 유입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세대당 평균 가족수가 줄어들고 있다.

셋째,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인 성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징병, 징용, 학도병 징집에 의한 결과이다.

넷째, 속초의 인구가 10,000명을 통과한 해는 1943년으로 추정된다.

위의 <표 4-1-3>에서 알 수 있듯이, 1931년부터 1945년까지는 매년 340~350명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구가 증가한 요인은 기록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제말 속초항이 개발되었다는 점과 더욱 결정적인 요인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농토가 많음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아진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해 일본인들이 대지주로 등장하는 시기에 양양군내의 소작농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척지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유입된 인구는 <표 4-1-4>에서 알 수 있듯이, 1930년 총인구 7,264명중에서 2,919명이나 되었다. 이는 그 당시 인구의 40%에 해당되며, 이주민이 자연증가 인구보다도 훨씬 많았음을 말해준다.

< 표 4-1-4 > 1930년 도천면민 출생지별 인구 (단위: 명)

인구총수	도내생		타도생	외국에서 출생
	도천면생	타면생		
7,264	4,345	2,253	559	107

자료: 『조선국세조사보고』.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로 지방 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로 구성하여 면사무소를 대포리에 두었다. 그 후 1937년 7월 1일 속초리로 면사무소를 이동함과 동시에 도천면을 속초면으로 개칭하였으며, 1942년 10월 1일 부령 제 104호로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속초읍은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눠지며, 노리(蘆里)에서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가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지만, 행정상으로는 17개 리로 편성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940년대 초반까지 유입인구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하였다. 왜냐하면 수산업에 종사한 인구는 1925년에는 전체인구의 19%, 1930년의 경우에는 직업이 있는 인구의 16%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러한 통계치는 수산업이 인구의 유입 요인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농사를 짓기 위해 유입된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양양 관내에서의 수평이동으로 전체 이주민의 약 77%를 차지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온 식구가 이주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가 이주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인구와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당 가족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는 면이 입증하여 준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인구 증가는 연평균 340~350명으로 집계되

는데 이와 같은 추세로 추정한다면 속초인구는 1943년에 드디어 인구 10,000명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판단된다. 인구 10,000명은 도시로서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숫자인데, 만일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징병, 징용 그리고 학도병 징집이 없었다면 보다 일찍 그 선을 돌파했을 것이다.

다. 해방 및 피난민 정착기

해방을 맞이한 1945년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속초의 인구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한국전쟁이후 피난민들이 이주해오는 시기인 1951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전쟁 이후 속초읍에 유입된 피난민은 48,72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실제로 청호동에 거주하는 피난민을 출신지별로 구분해 볼 때 92.9%가 함경남도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4] 속초시 청호동 일대가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향민 집단 거주 지역으로 소위 '아바이 마을'로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피난민들은 특히 과반수가 속초가 수복되고 난 후 군정이 실시된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 사이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54년 11월 17일 군정이 민정으로 이양되고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지역으로 소속되고 나서 1963년 1월 1일 당시 속초읍이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다양한 이주 동기[5]로 인하여 거의 모두가 유입되었다.

이러한 점은 <표 4-1-5>의 속초의 인구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4) 장정룡, 『실향민의 생활과 문화』, 1999, p.217

5) 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pp.79~81 참조

〈 표 4-1-5 〉 속초의 인구변화 추세 (단위: 세대, 명)

연 도 별	세 대 수	인 구	세대당 평균인원
1949①	2,321	11,406	4.91
1953②	3,661	16,213	4.43
1954①	4,841	20,599	4.26
1955③	5,350	23,699	4.43
1958④	7,029	31,435	4.47
1961⑤	8,883	42,258	4.76

자료: ① 양양군청, 『군세일반』, 1954.
② 양양군, 『수복년감』, 1954.
③ 속초읍, 『읍세일람』, 1955.
④ 속초읍, 『읍세일람』, 1959.
⑤ 양양군, 『통계연보』, 1962.

2. 시승격 이후의 인구추이

가. 일반현황

속초시는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에 의하여 속초읍에서 속초시로 승격되어 10,464세대 50,703명이었던 것이 동제(洞制)를 실시하기 전인 1965년까지 무려 19%의 놀라운 인구성장을 보이면서, 불과 5년 후인 1968년에 비로소 인구 7만(71,033명)을 넘기게 된다. 그 이후 꾸준한 인구증가로 1973년에는 인구 75,968명으로 시 승격이후 최고의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으로 말미암아 농수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속초시 전체 인구도 적은 폭의 감소를 보여 1980년에는 65,798명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이 후 환동해안 시대의 관광중심도시, 아파트의 증가, 경제기반 확충, 동우대학 개교 등의 요인으로 꾸준한 인구증가를 보였다. 2000년에 실시된 16회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상으로는 32,019세대에 90,032명으로 속초시 승격이래로 처음으로 인구 90,000명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는 1963년 시승격 당시보다 무려 40,000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장족의 발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표 4-1-6 〉 속초시 인구추이 (단위: 세대, %, 명)

구분 / 연도별	세 대 수	인 구 수			증감	세대당 인원
		계	남	여		
1962	10,464	50,703	25,586	25,117	–	4.8
1963	10,864	55,619	28,149	27,470	9.7	5.1
1964	11,286	58,508	29,680	28,828	5.2	5.2
1965	11,354	60,316	30,357	29,959	3.1	5.3
1966	12,264	63,100	31,849	31,351	4.6	5.2
1967	12,785	67,079	33,704	33,375	6.3	5.2
1968	13,185	71,033	35,741	35,292	5.9	5.4
1969	13,895	73,023	36,911	36,112	2.8	5.3
1970	14,527	73,096	37,097	35,999	0.1	5.0
1971	14,304	72,694	36,845	35,849	▽0.5	5.1
1972	14,366	74,485	37,631	36,854	2.5	5.2
1973	14,620	75,968	38,450	37,518	2.0	5.2
1974	14,588	75,492	38,146	37,346	▽0.3	5.2
1975	14,653	71,475	36,489	34,986	▽5.3	4.9
1976	14,801	72,042	36,493	35,549	0.8	4.9
1977	14,819	72,771	36,628	36,143	1.0	4.9
1978	14,595	71,737	36,209	35,528	▽1.4	4.9
1979	14,786	71,940	36,117	35,823	0.3	4.9
1980	14,452	65,798	33,230	32,568	▽8.5	4.6
1981	14,839	68,523	34,597	33,926	4.1	4.6
1982	15,117	69,248	34,845	34,403	1.1	4.6
1983	16,287	72,324	36,279	36,045	4.4	4.4
1984	16,650	73,002	36,685	36,317	0.9	4.4
1985	17,486	69,595	34,737	34,858	▽4.7	4.0
1986	17,584	71,211	35,451	34,760	2.3	4.1
1987	17,888	71,913	35,537	36,376	1.0	4.0
1988	18,409	72,006	35,795	36,211	0.1	3.9

구분 / 연도별	세 대 수	인 구 수			증감	세대당 인원
		계	남	여		
1989	19,355	73,424	36,612	36,812	2.0	3.8
1990	19,812	73,805	36,849	36,956	0.5	3.7
1991	20,587	72,208	35,889	36,319	1.5	3.5
1992	21,785	74,798	37,231	37,567	▽0.1	3.4
1993	23,133	76,646	38,140	38,506	2.5	3.3
1994	24,414	78,622	39,107	39,515	2.6	3.2
1995	25,792	80,709	40,076	40,633	2.7	3.1
1996	27,022	82,568	40,845	41,723	2.3	3.1
1997	28,575	85,427	42,338	43,089	3.4	3.0
1998	29,729	87,070	43,234	43,836	2.1	2.9
1999	30,891	88,914	44,160	44,754	2.0	2.9
2000	32,019	90,201	44,717	45,484	1.4	2.8
2001	32,782	90,543	44,786	45,757	0.3	2.7
2002	33,258	90,447	44,765	45,682	▽0.5	2.7
2003	33,848	89,458	44,242	45,216	▽1.1	2.6
2004①	34,012	88,386	43,664	44,722	▽1.7	2.6
2005①	34,402	87,306	43,086	44,220	▽0.7	2.5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속초시, 2005, pp.59~60.
① http://sokcho.gangwon.kr, 2005.

위의 <표 4-1-6>에서 알 수 있듯이, 세대당 평균인원도 1963년 시승격 당시 5.1명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8월 현재는 세대당 2.5명이라는 핵가족 중심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총 34,012세대 중 1인이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는 11,047세대이며, 2인인 경우는 6,201세대, 3인의 경우는 6,587세대, 4인의 경우는 7,136세대이며, 5인의 경우는 2,207세대이며, 6인 이상의 경우는 831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6], 핵가족화로의 가족제도의 변화는 대세로 굳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6) http://sokcho.gangwon.kr 참조.

나. 동별 세대 및 인구

동제를 실시한 1965년도와 현재를 비교한 <표 4-1-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때 당시 인구 60,316명중 상가를 형성하고 있던 영랑, 동명, 중앙, 금호동 일대와 어촌을 형성한 청호, 대포일대에 속초시 인구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던 것에 반해, 현재는 속초시의 관광자원 개발과 생활의 안정, 주거소득 향상으로 인한 서비스업 분야의 발달로 농어촌지역인 청호, 대포동의 계속적인 인구감소, 동명, 금호동의 재개발로 인한 인구이동, 아파트의 계속적인 건립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노학동, 조양동의 인구증가 등, 노학동, 조양동 신시가지 형성에 따른 지역단위 인구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8. 10. 17 행정동 중 영랑동과 장사동이 영랑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청학동과 교동일부가 교동으로, 교동일부와 노학동이 노학동으로 대포동 · 도문동 · 설악동이 대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 13개동, 행

정동 8개동으로 속초시의 2004년 말 인구를 동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23,155명의 노학동으로 속초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동은 4,575명의 대포동으로 5배 이상의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또 속초시의 인구밀도는 1㎢당(當), 840명으로 강원도내에서 높은 편에 속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동은 교동으로 0.75㎢에 19,33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2004년과 비교하여 2005년 8월 31일 현재 영랑동 인구는 주택청약문제와 취학문제로 인해 세대수와 인구수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동명동과 교동은 수복로 개설 등 주택철거로 인하여 인구가 3.8% 감소하였으며, 금호동은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내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고, 중앙시장 관통도로 개통 및 불경기로 인한 중앙시장 상가 내의 자영업자들의 전출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4%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또한 청호동도 12, 13, 14통 도로의 보상으로 전출세대가 증가하여 2.7%의 인구가 감소하였다.[8]

7)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p.59~62

8) http://sokcho.gangwon.kr 참조.

〈 표 4-1-7 〉 동별 세대 및 인구수 (단위: 세대, 명)

구 분	1965년 12월 31일 현재①				2005년 8월 31일 현재②				세대당 인 구	비 고
	세대수	인 구 수			세대수	인 구 수				
		계	남	여		계	남	여		
속초시	11,354	60,316	30,357	29,959	34,012	88,386	43,664	44,722	2.6	※ 1998.10.17 동 통합
영랑동	1,029	5,463	2,745	2,718	2,727	6,878	3,440	3,438	2.5	
동명동	1,365	7,069	3,622	3,447	2,043	4,962	2,525	2,437	2.4	영랑+장사 ⇒ 영랑동
중앙동	1,542	7,906	3,827	4,079						
금호동	1,497	7,709	3,807	3,895	3,257	7,949	3,927	4,022	2.4	중앙+금호 ⇒ 금호동
청학동	1,461	8,208	4,152	4,056						
교 동	1,286	6,757	3,467	3,281	5,387	14,213	6,971	7,242	2.6	청학+교동일부 ⇒ 교동
노학동	502	2,669	1,369	1,300	8,768	23,155	11,390	11,765	2.6	
조양동	519	2,883	1,424	1,399	7,830	21,442	10,457	10,985	2.7	교동일부+노학 ⇒ 노학동
청호동	1,284	6,931	3,477	3,454	2,185	5,212	2,628	2,584	2.4	
대포동	502	2,610	1,359	1,251	1,815	4,575	2,326	2,249	2.5	
도문동	376	2,178	1,099	1,079						대포+도문 +설악 ⇒ 대포동
설악동	-	-	-	-						
장사동	-	-	-	-						

자료: ①『시정40년사』, 속초시, 2003
② http://sokcho.gangwon.kr.

다. 성별 및 연령별 인구

<표 4-1-8>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 말 현재 남녀의 성비는 49.66:50.34이었던 것이 2003년 말 현재 49.46:50.5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2005년 8월말 현재[9]에는 49.35:50.65의 비율로 미세하나마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하여 총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볼 때, 고령화 될수록 남녀의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는 추세를 보인다. <표 4-1-8>에서 75세 이상의 연령에서 여성의 인구가 남성에 비해 약 2배에 이른다. 이는 평균수명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 인구의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속초시 인구의 주축을 이루는 연령층은 전체인구의 35.53%를 구성하고 있는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0~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연령층의 인구는 1999년 말 현재 속초인구의 7.07%를 차지하였던 반면 2004년에는 5.46%로 급격하게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9년 말 현재 7.0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04년 말 현재 9.14%를 차지하는 급격한 증가를 하였다. 따라서 속초시의 연령별 인구추이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추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http://sokcho.gangwon.kr

< 표 4-1-8 > 성별 및 연령별 인구추이 (단위: 명, %)

성별 및 5세계급별	1999		2000		2001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합계	88,764	100.00	90,032	100.00	90,231	100.00
남자	44,103	49.69	44,647	49.59	44,630	49.46
여자	44,661	50.31	45,385	50.41	45,601	50.54
0~4세	6,362	7.07	6,369	7.07	6,071	6.73
남자	3,362	3.73	3,320	3.69	3,158	3.50
여자	3,000	3.33	3,049	3.39	2,913	3.23
5~9세	6,891	7.65	7,018	7.80	6,983	7.74
남자	3,691	4.10	3,738	4.15	3,699	4.10
여자	3,200	3.55	3,280	3.64	3,284	3.64
10~14세	6,105	6.78	6,163	6.85	6,353	7.04
남자	3,171	3.52	3,210	3.57	3,374	3.74
여자	2,934	3.26	2,953	3.28	2,979	3.30
15~19세	7,142	7.93	6,797	7.55	6,338	7.02
남자	3,676	4.08	3,463	3.85	3,200	3.55
여자	3,466	3.85	3,334	3.70	3,138	3.48
20~24세	6,420	7.13	6,490	7.21	6,611	7.33
남자	3,276	3.64	3,375	3.75	3,459	3.83
여자	3,144	3.49	3,115	3.46	3,152	3.49
25~29세	7,451	8.28	7,117	7.90	6,592	7.31
남자	3,666	4.07	3,498	3.89	3,265	3.62
여자	3,785	4.20	3,619	4.02	3,327	3.69
30~34세	8,455	9.39	8,545	9.49	8,692	9.63
남자	4,260	4.73	4,292	4.77	4,238	4.70
여자	4,195	4.66	4,253	4.72	4,454	4.94
35~39세	9,089	10.10	8,810	9.79	8,497	9.42
남자	4,533	5.03	4,437	4.93	4,302	4.77
여자	4,556	5.06	4,373	4.86	4,195	4.65
40~44세	8,082	8.98	8,607	9.56	8,972	9.94
남자	4,263	4.73	4,431	4.92	4,559	5.12
여자	3,819	4.24	4,176	4.64	4,413	4.96

성별 및 5세계급별	1999		2000		2001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45~49세	4,920	5.46	5,646	6.27	6,293	6.97
남자	2,471	2.74	2,870	3.19	3,265	3.62
여자	2,449	2.72	2,776	3.08	3,028	3.36
50~54세	4,069	4.52	4,099	4.55	4,010	4.44
남자	2,000	2.22	2,021	2.24	1,940	2.15
여자	2,069	2.30	2,078	2.31	2,070	2.29
55~59세	3,983	4.42	4,040	4.49	4,042	4.48
남자	1,891	2.10	1,900	2.11	1,875	2.08
여자	2,092	2.32	2,140	2.38	2,167	2.40
60~64세	3,452	3.83	3,580	3.98	3,722	4.12
남자	1,519	1.69	1,615	1.79	1,698	1.88
여자	1,933	2.15	1,965	2.18	2,024	2.24
65~69세	2,137	2.37	2,360	2.62	2,581	2.86
남자	788	0.88	900	1.00	1,039	1.15
여자	1,349	1.50	1,460	1.62	1,542	1.71
70~74세	1,937	2.15	1,985	2.20	1,941	2.15
남자	607	0.67	639	0.71	602	0.67
여자	1,330	1.48	1,346	1.50	1,339	1.48
75세 이상	2,269	2.52	2,406	2.67	2,533	2.81
남자	929	1.03	938	1.04	957	1.06
여자	1,340	1.49	1,468	1.63	1,576	1.75

성별 및 5세계급별	2002		2003		2004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합계	90,029	100.00	89,047	100.00	87,933	100.00
남자	44,561	49.50	44,040	49.46	43,413	49.37
여자	45,468	50.50	45,007	50.54	44,520	50.63
0~4세	5,673	6.30	5,188	5.83	4,805	5.46
남자	2,946	3.03	2,693	3.02	2,455	2.79
여자	2,727	7.79	2,495	2.80	2,350	2.67
5~9세	7,017	7.79	6,824	7.66	6,531	7.43
남자	3,688	4.10	3,553	3.99	3,379	3.84
여자	3,329	3.70	3,271	3.67	3,152	3.58
10~14세	6,541	7.27	6,606	7.42	6,696	7.61
남자	3,473	3.86	3,465	3.89	3,502	3.98
여자	3,068	3.41	3,141	3.53	3,194	3.63
15~19세	5,934	6.59	5,763	6.47	5,577	6.34
남자	3,038	3.37	3,015	3.39	2,922	3.32
여자	2,896	3.22	2,748	3.09	2,655	3.02
20~24세	6,691	7.43	6,556	7.36	6,234	7.09
남자	3,512	3.90	3,443	3.87	3,321	3.78
여자	3,179	3.53	3,113	3.50	2,913	3.31
25~29세	6,110	6.79	5,650	6.34	5,390	6.13
남자	2,999	3.33	2,804	3.15	2,683	3.05
여자	3,111	3.46	2,846	3.20	2,707	3.08
30~34세	8,443	9.38	7,926	8.90	7,472	8.50
남자	4,152	4.61	3,904	4.38	3,620	4.12
여자	4,291	4.77	4,022	4.52	3,852	4.38
35~39세	8,259	9.17	8,331	9.36	8,261	9.39
남자	4,160	4.62	4,170	4.68	4,173	4.75
여자	4,099	4.55	4,161	4.67	4,088	4.65
40~44세	9,036	10.04	8,935	10.03	8,599	9.78
남자	4,521	5.02	4,429	4.97	4,301	4.89
여자	4,515	5.02	4,506	5.06	4,298	4.89
45~49세	6,807	7.56	7,302	8.20	7,704	8.76
남자	3,591	3.99	3,852	4.33	3,981	4.53
여자	3,216	3.57	3,450	3.87	3,723	4.23
50~54세	4,166	4.63	4,350	4.89	4,744	5.40
남자	2,061	2.29	2,182	2.45	2,372	2.70
여자	2,105	2.34	2,168	2.43	2,372	2.70

성별 및 5세계급별	2002		2003		2004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55~59세	3,999	4.44	3,994	4.49	4,027	4.58
남자	1,863	2.07	1,860	2.09	1,906	2.17
여자	2,136	2.37	2,134	2.40	2,121	2.41
60~64세	3,940	4.38	3,947	4.43	3,849	4.38
남자	1,783	1.98	1,813	2.04	1,779	2.02
여자	2,157	2.40	2,134	2.40	2,070	2.35
65~69세	2,831	3.14	3,027	3.40	3,219	3.66
남자	1,184	1.32	1,267	1.42	1,384	1.57
여자	1,647	1.83	1,760	1.98	1,835	2.09
70~74세	1,923	2.14	1,881	2.11	1,886	2.14
남자	618	0.69	627	0.70	653	0.74
여자	1,305	1.45	1,254	1.41	1,233	1.40
75세 이상	2,659	2.95	2,767	3.11	2,939	3.34
남자	972	1.08	963	1.08	982	1.12
여자	1,687	1.87	1,804	2.03	1,957	2.23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속초시, 2005, p.61.

제2절 인구동태

10) 2005년도 통계수치는 http//:sokcho.gangwon.kr 를 참조.

<표 4-1-9>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속초에서 하루 평균 출생자수는 1998년 말 현재 3.3명에서 불과 5년 뒤인 2003년 말 현재 2.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현재 2.3명[10]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998년 말 현재 1.6명이었던 수치가 물론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2005년 8월 현재 변함없이 1.6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말 현재 1.5쌍이 혼인을 하였는데, 2003년에는 1.3쌍으로 감소하고, 또다시 2005년 8월 현재에는 1.2쌍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런 감소 추세는 연도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었다. 이에 반해 하루평균 이혼하는 쌍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1998년에는 하루평균 0.7쌍이 이혼을 하였는데, 2003에는 1.2쌍이 이혼을 하였다. 이는 <표 4-1-6>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대별 평균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원인 중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1-9 > 속초의 인구동태 (단위: 명, 쌍)

연별 및 동별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1998	1,215(12)	589(44)	539(539)	242(242)
1999	1,133(21)	528(45)	585(585)	304(304)
2000	1,216(33)	497(38)	576(576)	328(328)
2001	1,039(13)	513(28)	581(581)	338(338)
2002	897(50)	468(38)	481(481)	333(333)
2003	808(69)	509(65)	487(487)	426(426)
2004	813(88)	568(74)	444(444)	314(314)

연별 및 동별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영랑동	26	55	-	-
동명동	29	36	-	-
금호동	36	64	-	-
교 동	81	75	-	-
노학동	179	131	-	-
조양동	333	61	-	-
청호동	19	42	-	-
대포동	22	30	-	-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80.

제3절 인구이동

2005년 8월 말 현재 속초의 하루평균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총 89명의 인구이동이 있었는데, 전입이 43명이고, 전출은 46명으로 미세하나마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다. 이는 2001년을 정점으로 2002년부터 속초시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입증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예는 다음의 <표 4-1-10>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부터 속초시 인구의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말 현재 순이동의 측면에서 속초시의 인구이동을 월별로 분석하여 보면, 6월과 9월에는 약간의 이동이 있었으나 순이동률의 측면에서는 0으로 나타났으며, 2월과 3월 그리고 5월에 순이동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10 > 속초의 월별 인구이동 (단위: 명, %)

연별 및 월별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계	이동률	계	이동률	계	이동률	계	이동률	계	이동률	계	이동률	계	이동률
2000	19,526	21.7	19,045	21.2	14,007	15.6	13,273	14.7	5,519	6.1	5,772	6.4	481	0.5
2001	18,737	20.8	19,042	21.1	13,194	14.6	13,249	14.7	5,543	6.1	5,793	6.4	-305	-0.3
2002	18,293	20.3	18,947	21	13,285	14.7	12,880	14.3	5,008	5.6	6,067	6.7	-654	-0.7
2003	17,641	19.8	18,757	21	12,997	14.5	12,951	14.5	4,501	5.2	5,622	6.6	-1,190	-1.4
2004	15,563	17.7	16,753	19.1	11,062	13	11,131	12.8	4,501	5.2	5,622	6.6	-1,190	-1.4
1월	1,343	1.5	1,397	1.6	979	1.1	925	1.1	364	0.4	472	0.6	-54	-0.1
2월	1,758	2.0	1,942	2.2	1,147	1.3	1,153	1.3	611	0.7	789	0.9	-184	-0.2
3월	1,815	2.1	2,119	2.4	1,329	1.5	1,459	1.7	486	0.6	660	0.8	-304	-0.3
4월	1,238	1.4	1,334	1.5	868	1.0	903	1.0	370	0.4	431	0.5	-96	-0.1
5월	1,129	1.3	1,300	1.5	804	0.9	852	1.0	325	0.4	448	0.5	-171	-0.2
6월	1,226	1.4	1,232	1.4	888	1.0	870	1.0	338	0.4	362	0.4	-6	0.0
7월	1,062	1.2	1,127	1.3	753	0.9	746	0.8	309	0.4	381	0.4	-65	-0.1
8월	1,130	1.3	1,181	1.3	768	0.9	764	0.9	362	0.4	417	0.5	-51	-0.1
9월	1,085	1.2	1,094	1.2	747	0.8	760	0.9	338	0.4	334	0.4	-9	0.0
10월	1,219	1.4	1,285	1.5	912	1.0	861	1.0	307	0.3	424	0.5	-66	-0.1
11월	1,133	1.3	1,256	1.4	820	0.9	849	1.0	313	0.4	407	0.5	-123	-0.1
12월	1,425	1.6	1,486	1.7	1,047	1.2	989	1.1	378	0.4	497	0.6	-61	-0.1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p.81~82.

그리고 2004년 말 현재 순이동률의 측면에서 속초시의 인구이동을 동별로 분석하여 보면, 영랑동과 동명동이 순이동이 가장 적은 동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동과 조양동은 순이동이 가장 높은 동으로 나타났음을 다음의 <표 4-1-11>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표 4-1-11 〉 속초의 동별 인구이동 (단위: 명, %)

연별 및 동별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계	이동률	계	이동률	계	이동률	계	이동률	계	이동률	계	이동률	계	이동률
2000	19,526	21.7	19,045	21.2	14,007	15.6	13,273	15	5,519	6.2	5,772	6.5	481	0.5
2001	18,737	20.8	19,042	21.2	13,194	14.6	13,249	15	5,543	6.1	5,793	6.4	-305	-0.3
2002	18,293	20.8	18,947	21.0	13,285	14.7	12,880	14	5,008	5.6	6,067	6.7	-654	-0.7
2003	17,641	19.8	18,757	21.0	12,997	14.5	12,951	14.5	4,505	5.2	5,664	6.5	-1,116	-1.3
2004	15,581	19.8	16,840	21.0	11,076	14.5	11,176	14.5	4,505	5.2	5,664	6.5	-1,116	-1.3
영랑동	1,352	1.5	1,328	1.4	957	1.0	883	1.0	395	0.4	445	0.4	2	0.0
동명동	904	1.3	1,068	1.2	702	0.9	739	0.9	202	0.3	329	0.3	-34	0.0
금호동	1,219	1.6	1,455	1.7	902	1.2	1,088	1.3	317	0.4	367	0.4	-109	-0.1
교 동	2,646	3.2	2,963	3.7	1,946	2.5	2,076	2.6	700	0.8	887	1.1	-446	-0.5
노학동	4,350	5.5	4,425	5.5	3,115	3.9	2,790	3.7	1,235	1.5	1,635	1.8	-102	-0.2
조양동	3,719	4.9	4,085	5.5	2,491	3.6	2,606	3.7	1,228	1.3	1,479	1.7	-404	-0.5
청호동	769	1.1	925	1.0	566	1.0	622	0.6	203	0.3	303	0.4	75	0.1
대포동	622	0.7	591	1.0	397	0.4	372	0.7	225	0.2	219	0.4	-98	-0.1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p.83~84.

제4절 주요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

일제시대에 편찬된 『조선국세조사보고』에 따르면, 1930년에 속초시(당시, 도천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일본인 124명, 중국인 27명 합계 151명이었다. 시승격 이후 속초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처음으로 파악한 해는 1995년으로 그 당시 외국인은 남자 43명, 여자 41명으로 합계 84명에 불과했다.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다음의 <표 4-1-12>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에는 남자 251명, 여자 202명 합계 453명으로 증가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2000년에 합계 169명이었던 외국인이 2001년에는 전년도 대비 143명이 증가한 합계 312명으로 갑자기 증가를 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속초-자루비노 간의 해로를 통한 북방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중국인이 일시에 유입되었던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00년에 속초에 거주한 중국인은 27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85명이 증가한 112명이 거주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증가한 외국인 수의 59.4%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2005년 8월 말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24개국으로 다양해

졌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기타 등의 순으로, 남자 251명, 여자 202명 합계 453명이다.[11] 이와 같은 사실은 이제 속초시가 환동해안 시대의 관광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했음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 표 4-1-12 〉 주요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 (단위: 명)

연별 및 동별	총 계			일 본			미 국			대 만			중 국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150	57	93	34	8	26	14	9	5	48	23	25	14	5	9
2000	169	70	99	30	4	26	25	18	7	33	18	15	27	10	17
2001	312	156	156	32	5	27	22	12	10	44	24	20	112	75	37
2002	418	204	214	40	6	34	40	23	17	44	22	22	151	92	59
2003	411	202	209	39	6	33	24	14	10	47	24	23	187	94	93
2004	453	251	202	33	3	30	25	14	11	42	23	19	264	159	105
영랑동	24	8	16	–	–	–	–	–	–	6	2	4	3	1	2
동명동	80	57	23	1	–	1	–	–	–	5	3	2	15	12	3
금호동	34	17	17	4	–	4	3	3	–	3	2	1	9	8	1
교동	82	36	46	11	1	10	4	1	3	14	9	5	12	10	2
노학동	57	23	34	7	2	5	7	3	4	3	1	2	5	4	1
조양동	70	29	41	6	–	6	11	7	4	7	4	3	6	2	4
청호동	51	40	11	2	–	2	–	–	–	2	1	1	30	29	1
대포동	55	41	14	2	–	2	–	–	–	2	1	1	14	13	1

연별 및 동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캐나다			기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3	–	3	8	2	6	3	–	3	13	7	6	13	3	10
2000	11	–	11	8	3	5	3	–	3	14	7	7	18	10	8
2001	35	14	21	5	2	3	3	–	3	25	15	10	34	9	25
2002	62	33	29	6	3	3	3	–	3	30	15	15	42	10	32
2003	40	17	23	15	13	2	3	–	3	22	11	11	34	23	11
2004	17	1	16	10	9	1	11	8	3	20	12	8	31	22	9
영랑동	–	–	–	1	–	1	1	–	1	1	1	–	12	4	8
동명동	1	–	1	8	8	–	–	–	–	–	–	–	52	34	16
금호동	6	–	6	–	–	–	–	–	–	–	–	–	9	4	5
교동	2	–	2	–	–	–	1	–	1	12	4	8	26	11	15
노학동	3	–	3	–	–	–	–	–	–	5	5	–	27	8	19
조양동	2	–	2	–	–	–	–	–	–	2	2	–	36	14	22
청호동	1	–	1	1	1	–	8	8	–	–	–	–	7	1	6
대포동	2	1	1	–	–	–	1	–	1	–	–	–	34	26	8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85~86.

11) http//:sokcho.gangwon.kr

제2장 교육

제1절 일반현황

1. 속초교육의 연혁

속초시가 속해 있던 양양에는 고려 숙종 때 이미 향교(鄕校)가 창건되었고, 조선 인조 때는 사학(私學)으로 동명서원이 들어서 지방 교육을 담당하였으며[12], 일본에 강제 점령당하기 직전인 1906년엔 남궁 억[13] 선생이 양양군수로 부임하여 유림(儒林)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문(新學問)을 가르치는 현산학교(峴山學校)를 세워 개화자강운동(開化自彊運動)을 벌였다. 이 후 신사상(新思想) 교육은 양양 감리교회를 비롯한 감리교회가 주축이 되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양양지역에서 시작된 신교육은 이 후 전개된 3 · 1운동과 사회운동을 주도할 지도자[14]들을 양성, 배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15]

속초 최초의 개량서숙(改良書塾)[16]은 청대리(현 조양동 16통 일대)에 장성헌(張聖軒)이 설립한 '청대서숙(靑垈書塾)'으로 설립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포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40~50명의 학생들을 수용했을 정도로 번성했었다. '청대서숙'의 학생들은 기혼자에서 7~8세의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연령 격차가 심했다. 대포공립보통학교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줄자, 경영난으로 서당의 운영도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 이후 몇몇 유지들의 집으로 전전해하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폐쇄되었는데 이 무렵의 이름은 '청호서숙(靑湖書塾)'이었다.

해방 이전까지 속초 관내에서는 여러 서당이 있었으며, 대표적인 서당의 훈장들은 도리원리 이교민(李敎民), 상도문리 오윤환(吳潤煥), 오각환(吳珏煥), 온정리 진동규(陣東奎), 장천리 엄내영(嚴乃泳), 엄주익(嚴柱益), 척산리 차명균(車明均), 논산리 장원섭(張元燮) 등이었다.

속초에서의 최초 공교육기관은 일제시대 1면(面) 1교(校) 정책에 의해 1919년 설립된 '대포공립보통학교'가 그 효시이다.

근대 교육기관으로 최초인 이 학교는 개교당시 4년제 2학급과 강습소 1학급으로 편성되었으며, 1923년 6년제로 승격하였고 1936년 대포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3년후인 1939년 조선총독부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교육령에 의해 '대포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12) 『속초시지』, 속초시, 1991, p.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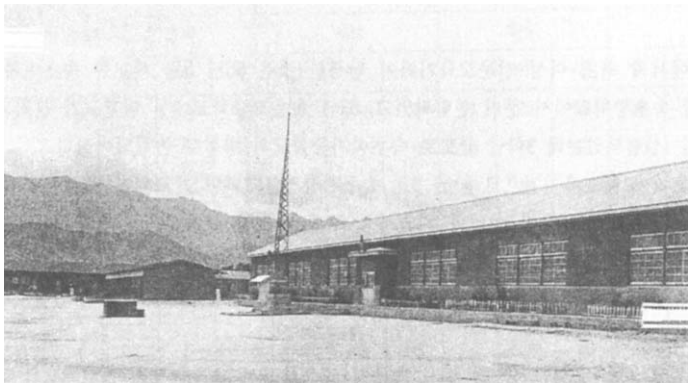
13) 한서(翰西) 남궁 억(南宮檍/1863~1939)선생은 독립운동가 · 교육자 · 언론인이다. 1898년 독립협회 관계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와 황성신문 사장과 성주목사 및 양양군수를 역임하다 현산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10~1919년 배화학당 교사로 재직하였고 1933년 무궁화와 한국역사 사건으로 복역하기도 하였다. 1977년에는 생전의 업적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음.

14) 3 · 1운동과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지도자 배출에는 보수적인 유학계도 일조를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석범(1859~1932)을 들 수 있다. 그는 도천면 중도문리(현 속초시 도문동) 태생으로 한일합방이후 낙향하여 쌍천학교(雙川學校)를 설립하여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음.

15) 『속초의 근 · 현대사』, 속초문화원, 2004, p.28

16) '개량서숙'은 전통적 서당 교육에서 상당히 진보된 형태로, 한문뿐만 아니라 산술, 체육, 일본어 등의 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었으며, 교과별로 각기 별도의 교사가 배정되어 있었음.

한편, 도천면 소재지가 속초리로 옮겨지고 속초면으로 승격되는 등 속초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자 1937년에 '영랑공립심상소학교'가 두 번째로 설립되었고 해방후 이 두 학교는 북한의 통치하에 운영되다가 6 · 25동란중인 1950년 영랑학교는 '속초국민학교'로 개칭됐으나 1 · 4후퇴시 소실되고 다시 수복된 후 1951년 10월 '속초국민학교'를 설립하여 현재 개교기념일로 삼고 있으며, '영랑국민학교'는 1955년 11월 새로 개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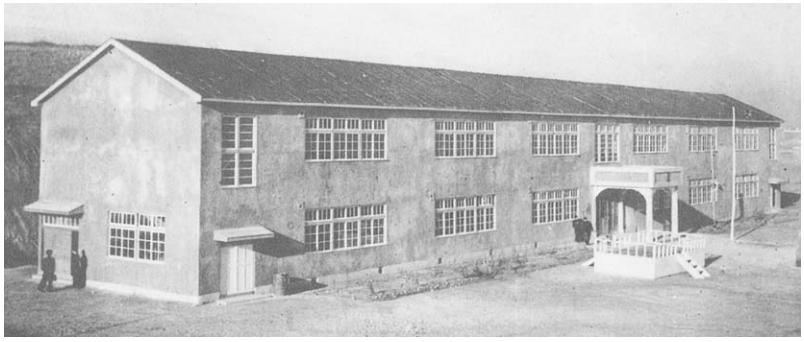
〈 사진 4-2-1 〉 1953년 교동 657번지에 위치한 속초중학교

중등학교가 최초로 세워진 것은 해방 후 북한정부에 의해 속초인민중학교를 청호동 구(舊) 동창실업자리에 세워졌으나 전쟁 중 소실되고 복원되지 않아 사라졌다. 수복 후 우리 정부에 의해 세워진 중학교로 1951년에 설립된 속초중학교가 최초이며, 개교당시 조양동 논산리에 목조초가 빈집을 이용하여 3학급 남녀공학으로 운영하였고, 1952년 첫 졸업생 34명을 배출하였다.

이 학교는 53년 5월 교동 657번지로 옮겨져 이 자리에서 35년간 중등교육의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오다 1988년 교동 776-1번지(구 속초고등학교)로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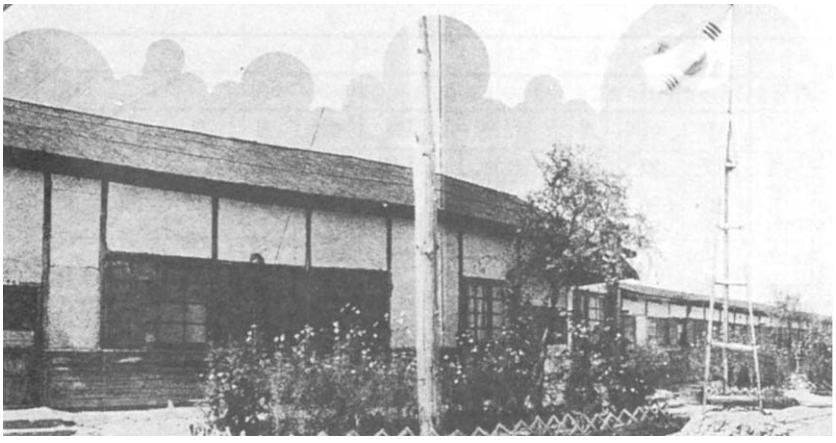
속초고등학교가 설립된 것도 역시 전쟁 중이던 1952년 6월 개교하였는데 현 속초국민학교 서편에 교무실과 교실 한 칸씩을 1주일 만에 만들어 초대 서창하 교장과 몇몇 교사진을 확보하여 50명 정원의 입학생을 모집한 결과 정원을 넘어 62명(남 57명, 여 5명)이 첫 입학했다.

그 후 1955년 국제연합 한국부흥위원회에서 공급받은 자재로 25사단 공병대가 시공하여 영랑동에 목조 2층 12개 교실을 완성 입주하였다가 현재까지 총 5차례의 교사이전을 거듭하였다.



〈 사진 4-2-2 〉 1955년 준공된 속초고등학교(영랑동 위치)

한편, 속초에서의 최초 여성 전문교육기관이 탄생한 것은 1955년 5월 개교한 속초여자중학교로서 남녀공학이던 속초중학교에서 분리 설립되었고, 1963년 속초고등학교에서 여학교가 분리되어 속초여자고등학교가 설립되었는데 3학급 규모로 속초여자중학교와 병설로 존립되어졌다.



〈 사진 4-2-3 〉 1955년 개교한 속초여자중학교

그리고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1981년 3월 속초경상전문대학이 개교되어 영북지방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양교육을 비롯 사회교육에도 참여하였고 1983년 9월 16일 동우전문대학으로, 1998년 5월 1일 동우대학으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타 불우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로 명신고등공민학교, 대포재건중학교 등이 있었으나 1981년 이후 전부 폐교되었다.

그리고 속초교육청은 1963년 시승격 당시 속초시 교육과에서 교육행정을 관할해오다 1964년 교육자치제의 부활로 속초시 교육청으로 발족됐으며, 1973년 교육법 개정으로 양양군교육청이 속초교육청에 통합되어 현재까지

속초시와 양양군 교육행정을 관장해 오고 있으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원도 속초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4년 현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청사를 준공 이전하였으며, 1997년 3월에는 청대초등학교를 2002년 9월에는 소야초등학교를 각각 개교시켜 기초교육 기반조성으로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2. 교육기본통계

가. 일반현황

〈 표 4-2-1 〉 일반현황 (단위: 개, 명)

구분 / 연도별	학교수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계	공립	사립	인가	편성		계	남	여	계	남	여
1963	12	12	–	…	180	…	11,912	6,505	5,407	216	167	49
1964	12	12	–	…	206	…	13,277	7,191	6,086	239	173	66
1965	12	11	1	…	227	…	14,150	7,710	6,440	257	170	87
1966	12	11	1	…	244	…	14,163	7,259	6,907	288	197	81
1967	14	13	1	…	292	…	16,329	8,745	7,584	305	211	94
1968	14	13	1	…	273	…	17,343	9,246	8,097	322	228	94
1969	15	14	1	…	279	…	17,022	9,497	7,525	…	…	…
1970	16	15	1	…	288	…	18,343	9,930	8,503	…	…	…
1971	18	17	1	…	327	…	18,978	…	…	…	…	…
1972	18	17	1	…	312	…	18,623	…	…	…	…	…
1973	18	17	1	…	318	…	18,574	…	…	…	…	…
1974	18	17	1	…	316	…	18,473	…	…	…	…	…
1975	18	17	1	…	326	332	18,956	10,309	8,647	…	…	…
1976	18	17	1	…	321	381	18,268	9,793	8,475	…	…	…
1977	18	17	1	…	336	386	18,293	9,806	8,487	346	239	107
1978	17	17	–	…	336	398	18,464	9,753	8,711	349	248	101
1979	16	16	–	…	340	433	18,588	9,754	8,834	352	259	93
1980	17	16	1	…	333	463	19,983	10,557	9,426	380	279	101
1981	17	16	1	…	341	490	20,242	10,742	9,500	403	293	110
1982	17	16	1	…	357	486	20,391	10,505	9,886	492	352	140
1983	17	16	1	…	346	507	19,876	10,247	9,629	496	334	162
1984	17	16	1	193	365	504	19,955	9,981	9,974	507	337	177
1985	17	16	1	524	396	426	19,377	9,432	9,945	519	299	220
1986	17	16	1	411	401	474	19,411	9,469	9,972	533	304	229
1987	17	16	1	420	405	478	19,479	9,503	9,976	567	320	247
1988	17	16	1	423	408	517	19,740	9,592	10,148	591	325	266
1989	17	16	1	427	407	546	19,076	9,173	9,903	685	396	289
1990	17	16	1	436	418	537	18,616	8,916	9,700	660	359	301
1991	17	16	1	358	360	495	20,540	10,626	9,914	703	387	316
1992	17	16	1	465	432	547	21,077	11,032	10,045	771	433	338
1993	16	16	–	364	364	364	15,420	7,538	7,882	641	333	308
1994	16	16	–	365	365	365	15,295	8,198	7,097	634	327	307
1995	35	26	9	402	402	526	22,906	12,001	10,905	731	357	374
1996	36	28	8	416	416	482	21,104	10,244	10,860	797	378	419
1997	35	28	7	418	418	543	22,847	11,775	11,072	747	349	398
1998	33	29	4	434	434	414	22,879	12,039	10,840	735	327	408
1999	33	29	4	439	439	419	21,885	10,496	10,789	742	297	445
2000	33	29	4	446	446	424	22,873	12,061	10,812	727	296	431
2001	33	29	4	456	456	444	22,771	12,073	10,698	733	294	439
2002	35	31	4	480	480	478	19,372	9,459	9,913	816	310	506
2003	35	31	4	491	491	485	19,006	9,218	9,788	830	309	521
2004	34	31	3	493	493	490	18,810	9,205	9,605	813	310	506

나. 학교 총개황

〈 표 4-2-2 〉 학교 총개황 (단위: 개, 명)

연별 및 학교별	학교 수	학급(과)수	보통교실수	학생수			교직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계	남	여	계	교원			사무직원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33	439	419	21,285	10,496	10,789	882	742	297	445	140	92	48	28.7
2000	33	446	424	22,873	12,061	10,812	866	727	296	431	139	88	51	31.5
2001	33	456	444	22,771	12,073	10,698	869	733	294	439	136	86	50	31.1
2002	35	480	478	19,372	9,459	9,913	954	816	310	506	141	79	62	23.7
2003	35	491	485	19,006	9,218	9,788	961	830	309	521	131	78	53	22.9
2004	34	493	490	18,810	9,205	9,605	954	813	310	506	141	79	62	23.1
유치원(공립)	11	16	17	326	153	173	18	18	–	18	–	–	–	18.1
유치원(사립)	3	8	9	241	97	144	12	12	–	15	–	–	–	20.1
초등학교(공립)	11	241	260	8,024	4,172	3,852	342	287	75	212	55	28	27	28.0
중학교(공립)	4	115	115	4,089	2,144	1,945	226	206	70	136	20	14	6	19.8
중학교(사립)	–	–	–	–	–	–	–	–	–	–	–	–	–	–
일반계고등학교(공립)	2	60	60	2,052	1,030	1,022	157	133	81	52	24	10	14	15.4
일반계고등학교(사립)	–	–	–	–	–	–	–	–	–	–	–	–	–	–
실업계고등학교(공립)	1	29	29	971	495	476	72	63	34	29	9	4	5	15.4
실업계고등학교(사립)	–	–	–	–	–	–	–	–	–	–	–	–	–	–
대학	1	18	–	2,969	1,055	1,914	116	88	46	42	28	20	8	33.7
교육대학	–	–	–	–	–	–	–	–	–	–	–	–	–	–
대학교	–	–	–	–	–	–	–	–	–	–	–	–	–	–
대학원	–	–	–	–	–	–	–	–	–	–	–	–	–	–
기타학교	1	6	–	138	59	79	11	6	4	2	5	3	2	23.0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p.261~262.

다. 유치원 현황

〈 표 4-2-3 〉 유치원현황 (단위: 개, 명)

연별 및 유치원별	원 수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14	26	654	351	303	33	–	33	7	2	5
2000	14	26	666	353	313	30	–	30	12	2	10
2001	14	25	652	319	333	30	–	30	12	2	10
2002	15	24	598	290	308	29	–	29	7	–	7
2003	15	25	562	287	275	33	–	33	–	–	–
2004	14	24	567	250	317	30	–	30	–	–	–
속 초	1	2	39	19	20	2	–	2	–	–	–
영 랑	1	2	28	12	16	2	–	2	–	–	–
중 앙	1	2	40	17	23	2	–	2	–	–	–
청 호	1	1	19	11	8	1	–	1	–	–	–
교 동	1	1	28	14	14	1	–	1	–	–	–
대 포	1	1	13	2	11	1	–	1	–	–	–
온 정	1	1	13	5	8	1	–	1	–	–	–
조 양	1	1	28	12	16	1	–	1	–	–	–
설 악	1	1	18	6	12	2	–	2	–	–	–
청 대	1	3	79	40	39	4	–	4	–	–	–
소 야	1	1	21	15	6	1	–	1	–	–	–
리 라	1	3	121	36	85	5	–	5	–	–	–
동우대부속	1	3	92	46	46	5	–	5	–	–	–
새 싹	1	1	28	15	13	2	–	2	–	–	–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p.263~264.

〈 표 4-2-3(속) 〉 유치원현황 (단위: 개, 명)

연 별 및 유치원별	재취원자수			수료자수			교실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보통교실	유희실	공작실
1999	186	104	82	497	256	241	29	26	3	-
2000	179	98	81	437	245	192	29	26	3	-
2001	203	103	100	508	262	246	32	27	5	-
2002	170	80	90	526	259	267	27	25	2	-
2003	165	84	81	429	225	204	31	28	3	-
2004	183	105	78	377	191	186	29	26	3	-
속 초	8	4	4	8	4	4	2	2	-	-
영 랑	6	2	4	40	15	25	2	2	-	-
중 앙	14	7	7	43	23	20	3	3	-	-
청 호	6	4	2	19	8	11	1	1	-	-
교 동	-	-	-	30	10	20	1	1	-	-
대 포	4	3	1	7	5	2	1	1	-	-
온 정	2	-	2	12	2	10	1	1	-	-
조 양	1	-	1	29	16	13	1	1	-	-
설 악	-	-	-	10	4	6	1	1	-	-
청 대	22	9	13	25	11	14	3	3	-	-
소 야	-	-	-	27	16	11	1	1	-	-
리 라	60	40	20	42	24	18	4	3	1	-
동우대부속	43	26	17	75	47	28	4	3	1	-
새싹	17	10	7	10	6	4	4	3	1	-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p.263~264.

라. 초등학교 현황

〈 표 4-2-4 〉 초등학교현황 (단위: 개, 명, 천㎡)

연별 및 학교별	학 교 수		학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사무직원수		
	본교	분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10	-	218	8,022	4,273	3,749	273	91	182	45	27	18
2000	10	-	220	8,120	4,297	3,823	268	93	175	45	28	17
2001	10	-	221	8,369	4,439	3,930	265	82	183	45	29	16
2002	11	-	238	8,336	4,387	3,949	287	87	200	50	32	18
2003	11	-	244	8,185	4,259	3,926	294	70	224	50	30	20
2004	11	-	241	8,024	4,172	3,852	287	75	212	55	28	27
속 초	1	-	30	952	508	444	35	8	27	6	3	3
영 랑	1	-	20	691	341	350	25	6	19	5	3	2
중 앙	1	-	18	565	292	273	23	5	18	5	3	2
청 호	1	-	7	166	87	79	11	4	7	4	2	2
교 동	1	-	51	1,872	939	933	54	12	42	5	3	2
대 포	1	-	6	123	66	57	9	4	5	4	3	1
온 정	1	-	7	140	73	67	11	4	7	4	2	2
조 양	1	-	28	1,040	562	478	34	10	24	5	1	4
설 악	1	-	6	98	52	46	10	5	5	4	2	2
청 대	1	-	41	1,557	831	726	44	8	36	7	4	3
소 야	1	-	26	820	421	399	31	9	22	5	1	4

연별 및 학교별	졸업자현황		교지면적	건물면적	보통교실		특별교실
	졸업자수	진학자수			교실수	면 적	
1999	1,245	1,245	209,186	46,551	218	20.9	-
2000	1,261	1,261	210,382	50,428	220	17.9	41.5
2001	1,217	1,216	210,382	51,432	221	17.4	-
2002	1,272	1,272	235,892	61,009	258	19.3	69.0
2003	1,336	1,336	237,419	60,857	255	26.7	7.0
2004	1,351	1,351	227,559	63,796	260	26.7	6.1

연별 및 학교별	졸업자현황		교지면적	건물면적	보통교실		특별교실
	졸업자수	진학자수			교실수	면 적	
속 초	203	203	24,997	7,721	34	3.6	0.6
영 랑	115	115	30,763	9,221	27	2.8	0.5
중 앙	125	125	26,736	5,428	20	2.1	0.8
청 호	27	27	23,703	2,096	8	0.8	0.3
교 동	344	344	24,817	7,752	51	5.4	0.6
대 포	25	25	19,006	2,153	7	0.7	0.3
온 정	28	28	14,661	2,048	7	0.7	0.2
조 양	144	144	17,270	5,781	30	3.2	0.6
설 악	23	23	15,386	1,941	7	0.7	0.3
청 대	225	225	18,127	11,494	42	4.4	1.3
소 야	92	92	15,093	8,161	27	2.8	0.6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p.265~266.

마. 중학교 현황

〈 표 4-2-5 〉 중학교 현황 (단위: 개, 명, 천㎡)

연 별 및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 생 수			교 원 수			사무직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4	100	3,842	1,968	1,874	186	68	118	23	20	3
2000	4	102	3,838	2,012	1,826	190	65	125	20	17	3
2001	4	104	3,859	2,071	1,788	189	64	125	19	11	8
2002	4	107	3,868	2,057	1,811	191	77	114	20	14	6
2003	4	110	3,956	2,086	1,870	199	75	124	20	14	6
2004	4	115	4,089	2,144	1,945	206	70	136	20	15	5
속초중	1	29	1,048	1,048	–	51	18	33	5	4	1
설악중	1	31	1,096	1,096	–	55	21	34	5	4	1
속초여중	1	28	988	–	988	50	17	33	5	3	2
설악여중	1	27	957	–	957	50	14	36	5	4	1

연별 및 학교별	졸업자현황		입학자현황		교 지 면 적	건 물 면 적	보통교실		특 별 교 실
	졸업자수	진학자수	입학정원	입학자수			교실수	면 적	
1999	1,255	1,255	1,326	1,300	99,860	26,327	100	9.1	…
2000	1,265	1,265	1,330	1,314	99,860	27,650	102	7.2	30
2001	1,207	1,205	1,267	1,243	98,323	27,650	104	7.3	…
2002	1,240	1,237	1,332	1,329	107,867	29,650	107	7.1	35
2003	1,228	1,226	1,421	1,451	107,423	32,505	110	11.4	4
2004	1,198	1,198	1,446	1,446	107,375	33,337	114	12.0	4
속초중	325	325	369	369	39,174	10,153	29	3.1	0.9
설악중	293	293	384	384	31,069	8,691	31	3.3	1.1
속초여중	287	287	333	333	17,759	7,188	27	2.8	1.1
설악여중	293	293	360	360	19,373	7,305	27	2.8	0.9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67.

바. 일반계고등학교 현황

〈 표 4-2-6 〉 일반계고등학교현황 (단위: 개, 명, 천㎡)

연 별 및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 생 수			교 원 수			사무직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2	48	2,212	1,082	1,130	110	65	45	17	11	6
2000	2	48	2,024	1,016	1,008	107	64	43	18	11	7
2001	2	54	2,024	1,016	1,008	119	74	45	16	10	6
2002	2	60	2,039	1,013	1,026	133	75	58	16	11	5
2003	2	60	2,057	1,024	1,033	133	74	59	21	9	12
2004	2	60	2,052	1,030	1,022	133	81	52	24	10	14
속초고	1	30	1,030	1,030	–	68	46	22	11	5	6
속초여고	1	30	1,022	–	1,022	65	35	30	13	5	8

연별 및 학교별	졸업자현황		입학자현황		교 지 면 적	건 물 면 적	보통교실		특 별 교 실
	졸업자수	진학자수	입학정원	입학자수			교실수	면 적	
1999	771	712	688	688	58,727	11,798	48	3.56	–
2000	770	740	656	658	62,167	11,798	48	3.60	–
2001	738	733	678	681	62,136	17,398	54	4.01	–
2002	645	635	700	698	63,698	18,094	60	4.01	152
2003	654	652	700	698	63,730	20,362	60	6.79	1.21
2004	666	664	700	701	64,143	19,098	60	3.96	2.104
속초고	329	327	350	351	35,729	9,825	30	1.98	0.85
속초여고	337	337	350	350	28,414	9,273	30	1.98	1.254

자료:『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68.

사. 실업계고등학교 현황

〈 표 4-2-7 〉 실업계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 명, 천㎡)

연별 및 학교별	학 교 수			학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사무직원수		
	계	주간	야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1	1	–	27	1,187	435	752	65	31	34	10	8	2
2000	1	1	–	28	1,154	513	641	65	34	31	12	8	4
2001	1	1	–	28	1,079	498	581	65	34	31	12	6	6
2002	1	1	–	28	1,032	529	503	65	36	29	9	5	4
2003	1	1	–	29	970	474	496	64	35	29	9	4	5
2004	1	1	–	29	971	495	476	63	34	29	9	4	5
속초상업 고등학교	1	1	–	29	971	495	476	63	34	29	9	4	5

연별 및 학교별	졸업자현황		입학자현황		교지면적	건물면적	보통교실	
	졸업자수	진학자수	입학정원	입학자수			교실수	면적(천㎡)
2000	419	208	369	373	55,809	7,816	27	1.82
2001	396	197	369	373	55,809	8,023	28	1.84
2002	363	245	315	316	55,809	9,308	28	1.97
2003	378	285	315	318	55,809	9,270	29	1.99
2004	318	239	315	321	55,809	9,270	29	1.99
속초 상업 고등학교	318	239	315	321	55,809	9,270	29	1.99

자료:『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69.

아. 대학 현황

〈 표 4-2-8 〉 대학 현황 (단위: 개, 명, 천㎡)

연 별 및 학교별	학교수	학과수	학 생 수			교 원 수			사무직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1	14	5,200	2,272	2,928	67	36	31	34	21	13
2000	1	16	6,915	3,771	3,144	60	34	26	28	19	9
2001	1	16	6,656	3,662	2,994	60	35	25	27	20	7
2002	1	17	3,347	1,111	2,236	111	58	53	27	19	8
2003	1	19	3,138	1,029	2,109	101	51	50	26	18	8
2004	1	18	2,969	1,055	1,914	88	46	42	28	20	8
동우대학	1	18	2,969	1,055	1,914	88	46	42	28	20	8

연별 및 학교별	졸업자현황				입학자현황		교지면적	건물면적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입대자수	입학지원자수	입학자수		
1999	1,724	129	1,328	122	5,600	2,291	287,674	45,625
2000	1,850	163	1,427	114	6,000	2,306	287,674	45,625
2001	1,733	80	1,396	44	5,608	2,156	287,674	45,625
2002	1,698	128	1,455	32	3,172	1,322	298,611	49,404
2003	1,471	80	1,275	31	4,323	1,179	297,296	49,404
2004	1,339	49	1,183	34	3,400	1,179	297,296	49,404

연별 및 학교별	졸업자현황				입학자현황		교지면적	건물면적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입대자수	입학지원자수	입학자수		
동우대학	1,339	49	1,183	34	3,400	1,179	297,296	49,404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70.

자. 기타학교 현황

〈 표 4-2-9 〉 기타학교 현황 (단위: 개, 명, 천㎡)

연별 및 학교별	학 교 수			학급수	학 생 수			교 원 수			사무직원수		
	계	주간	야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1	1	–	6	168	115	53	8	6	2	4	3	1
2000	1	1	–	6	156	99	57	7	6	1	4	3	1
2001	1	1	–	6	152	78	74	6	5	1	5	3	2
2002	1	1	–	6	152	72	80	6	5	1	5	3	2
2003	1	1	–	6	138	59	79	6	4	2	5	3	2
2004	1	1	–	6	138	59	79	6	4	2	5	3	2
방송통신고등학교	1	1	–	6	138	59	79	6	4	2	5	3	2

연별 및 학교별	졸업자현황		입학자현황		교지면적	건물면적	보통교실	
	졸업자수	진학자수	입학정원	입학자수			교실수	면적(천㎡)
1999	48	16	82	59	–	–	–	–
2000	50	14	82	48	–	–	–	–
2001	49	11	70	35	–	–	–	–
2002	48	6	70	50	–	–	–	–
2003	52	7	70	50	–	–	–	–
2004	38	6	70	48	–	–	–	–
방송통신 고등학교	38	6	70	48	–	–	–	–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71.

차. 사설학원 현황

〈 표 4-2-10 〉 사설학원 현황 (단위: 개, 명)

연 별	학 원 수					수강자수	
	계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경영실무	계	여
1999	139	24	16	50	49	9,223	4,836
2000	148	38	15	48	47	7,896	4,092
2001	152	58	14	52	28	8,624	4,636
2002	152	58	14	61	19	8,493	4,634
2003	148	51	12	61	24	8,380	4,456
2004	154	61	10	62	21	8,660	4,674

연 별	이수자수		강 사 수		직 원 수		강의실수	실험 실습실 수	사무실
	계	여	계	여	계	여			
1999	10,709	5,520	207	132	88	42	215	325	141
2000	9,183	4,640	287	201	113	60	464	73	108
2001	9,769	5,065	328	214	125	58	511	104	120
2002	9,721	5,024	347	235	123	57	513	106	121
2003	11,919	6,357	384	256	63	43	509	121	118
2004	12,193	6,453	387	258	106	43	518	121	129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73.

카. 공공도서관 현황

〈 표 4-2-11 〉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개, 명, 권, 천원)

연 별	도서관수	직원수	좌석수	자료수		연간 이용자수	연간 이용책수	예산
				도 서	비도서			
1999	1	30	1,064	119,878	–	358,566	440,223	809,095
2000	1	27	1,064	134,731	–	297,712	429,618	948,995
2001	2	28	1,064	141,288	–	345,297	532,360	1,012,797
2002	2	28	1,524	155,202	–	269,739	424,448	786,673
2003	2	28	1,524	161,431	7,844	325,273	508,614	544,508
2004	2	28	1,524	170,043	9,147	360,487	569,229	627,911
속초도서관	1	6	462	60,895	2,171	66,348	94,770	276,253
속초평생교육정보관	1	22	1,062	109,148	6,976	294,139	474,459	351,658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74.

3. 속초교육청

가. 연혁

1) 1950. 12. 2 수복과 동시 양양군 자치위원회에서 교육행정을 관장
2) 1954. 11. 17 교육감을 양양군수가 겸임, 학무과 서무과를 둠
3) 1957. 7. 1 양양군 교육청사 준공
4) 1962. 1. 1 법률 제1176호 제1178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5) 1963. 1. 1 속초읍이 시로 승격 분리
6) 1966. 5. 6 속초읍이 시로 승격 분리, 구 속초읍사무소(현 시청)자리로 이전
7) 1967. 10. 7 속초국민학교 B동 2층으로 이전
8) 1968. 4. 13 속초시교육청 준공(속초시 교동 665-7)
9) 1973. 1. 1 교육법 개정으로 양양군교육청이 속초시교육청에 통합. 2과 6계를 둠. 중학교 사무감독권 이양(일부). 사회교육계가 학무과 사회체육과로 개편
10) 1991. 3.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47호 제정, 강원도속초교육청으로 명칭 변경
11) 1993. 12. 6 강원도속초교육청청사 이전 기공식
12) 1994. 12. 24 강원도 속초교육청 신축공사 준공 이전(지하1층, 지상3층, 창고2층, 연건평 3,694.6m 철근 콘크리트라멘조)
13) 2005. 9. 1 제20대 박갑수 교육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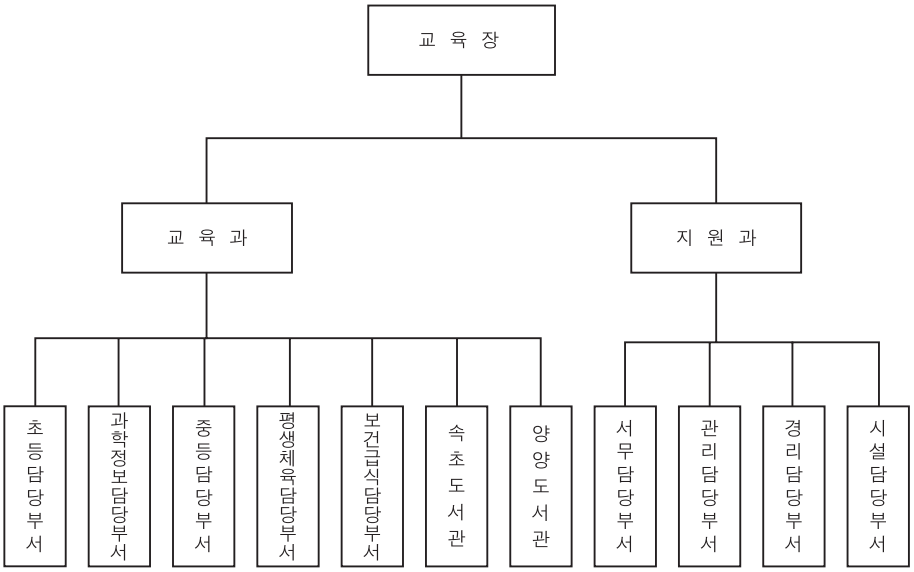
〈 사진 4-2-4 〉 구 교육청

〈 사진 4-2-5 〉 현 교육청

17) 인용한 표는 http://kwsced.go.kr, 2005 참조

나. 일반현황[17)]

1) 소재지 : 속초시 교동 776-1번지
2) 관할구역 : 속초시, 양양군
3) 기구 및 조직 : 2과(교육과, 지원과), 9담당부서, 2개도서관



4) 정 · 현원 현황

〈 표 4-2-12 〉 정 · 현원 현황 (단위: 명, 개)

구 분	교육전문직			일반직						도서관	합계	비고
	장학관	장학사	계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계			
정 원	2	9	11	1	5	9	6	13	34	12	57	
현 원	2	9	11	1	5	8	6	13	33	11	56	

다. 역대 교육장 명단

〈 표 4-2-13 〉 역대 교육장 명단

역 대	성 명	재 직 기 간	비 고
초 대	김 석 년	1964. 1. 1 ~ 1964. 3. 19	
2 대	고 연 재	1964. 3. 20 ~ 1969. 5. 15	
3 대	박 병 도	1969. 5. 16 ~ 1972. 3. 1	
4 대	백 운 화	1972. 3. 2 ~ 1973. 1. 4	
5 대	윤 동 삼	1973. 1. 5 ~ 1974. 8. 31	
6 대	이 규 택	1974. 9. 1 ~ 1976. 2. 28	
7 대	유 부 열	1976. 3. 1 ~ 1978. 8. 31	
8 대	정 의 곤	1978. 9. 1 ~ 1980. 8 .31	
9 대	이 승 근	1980. 9. 1 ~ 1982. 8. 31	
10 대	김 영 수	1982. 9. 1 ~ 1985. 8. 31	
11 대	노 재 춘	1985. 9. 1 ~ 1988. 8. 31	
12 대	김 근 용	1988. 9. 1 ~ 1991. 2. 28	
13 대	이 인 섭	1991. 3. 1 ~ 1992. 8. 31	
14 대	김 성 기	1992. 9. 1 ~ 1994. 8. 31	
15 대	최 염 규	1994. 9. 1 ~ 1996. 8. 31	
16 대	민 태 식	1996. 9. 1 ~ 1999. 8. 31	
17 대	김 진 덕	1999. 9. 1 ~ 2001. 2. 28	
18 대	김 영 채	2001. 3. 1 ~ 2002. 2. 28	
19 대	김 남 욱	2002. 3. 1 ~ 2005. 8. 31	
20 대	박 갑 수	2005. 9. 1 ~ 현 재	

라. 교육목표 및 실적

1) 2004년도 교육실적[18)]

가) 올바른 가치판단을 위한 인성교육

(1) 학교 급별 특성에 맞는 학생 생활규범 제정 운영: 3월

(2) 학교 · 가정 · 사회와 연계한 통합교육 실천

(3) 칭찬 · 감사 활동 전개: 칭찬인증제 운영 19교

(4) 생활지도 담당자 회의: 10회

(5) 상담자원봉사자 연수: 3회

(6) 금연교실 운영: 202명

(7) 다양한 축제 마당 운영: 72교

(8) 건전한 학생 문화활동 활성화: 35교

(9) 다양한 체험학습 전개: 35교

18) 『속초교육』, 강원도속초교육청, 2005.

2) 속초 교육의 기본방향

나)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기초 · 기본교육

(1)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책임 지도체제 구축

(가) 단위학교(급) 책임지도제 실시: 35교

(나) 학습부진학생 지도 대책반 구성 운영: 35교

(다) 휴가 중 기초 학력 다지기 프로그램 운영: 19교

(라) 연구(시범)학교 운영: 회룡초, 양양중

(마)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 특색화: 35교

(바) 학력 향상 유공교원 우대: 강원수업상 2, 우수학습지도 논문 6, 유공교원표창 12, 격려통신문 발송 137

(사) 기초 · 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6회 126명

(아) 교수학습도움센터 시범교육청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중앙초

(자) 교실수업개선 워크숍: 2회 283명

(차) 교수학습도움센터 활용 워크숍: 3회 120명

(카) 장학자료 발간 · 활용: 13종

(2) 유아 · 특수교육

(가) 유아교육

① 다양한 종일반 및 연장제 운영: 종일반 2, 연장제 26

② HAPPY 아이(兒) 프로젝트 운영: 30

③ 두레유치원 운영: 4두레

④ 교육과정 운영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연수: 5회

⑤ 안전교육 연수: 4회

⑥ 장학자료 제작 · 활용: 3종

⑦ 시 지정 연구(시범)유치원 운영: 속초초병설유치원

⑧ 교육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회: 30

(나) 특수교육

① 중증 · 중복 장애아동을 위한 재택 순회 교육: 2명

②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속초초, 중앙초, 양양초

③ 사랑의 징검다리 운영: 더불어 한길 통합 캠프

㉮ 기간: 2004. 9. 11~12(1박 2일)

㉯ 장소: 한화콘도, 설악수련원

㉰ 참여인원: 특수학급아동 50명, 일반학급아동 27명, 계 77명

④ 장애 체험의 날 운영: 13교, 1,524명

⑤ 시 지정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인구초(함께하는 사랑의 마당)

⑥ 장학자료 제작 · 활용: 2종

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교육

(1) 으뜸 능력을 키우는 특기 · 적성 교육

(가) 특기 · 적성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나) 종합글쓰기대회: 1~6학년 8개 영역 648명 참가

(다) 책 축제: 독서퀴즈대회 외 22 프로그램

(라) 신문 · 문집전시회: 39교 107명 참가

(마) 종합발표회 · 작품전시회: 학교별, 지구별

(바) 강원도소년체육대회 4위, 전국소년체전 금4, 은5, 동6

(2) 과학 · 영재교육

(가) 기초과학 탐구교실: 5회 120명, 자연탐사 교실 운영: 9회 240명

(나) 여름 해양캠프 운영: 2박 3일 130명

(다) 과학동아리반 운영: 2개반 40명

(라) 과학교실 운영: 3개 교실

(마) 수학 · 과학 경시대회: 도대회 11명 입상

(바)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도대회 29명 입상, 전국대회 5명 입상

라)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학교풍토 조성

(1) 전통 있는 학교 가꾸기 운동 전개: 35교

(2) 학교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강화

(3) 교실수업 개선을 돕는 연수: 11회, 799명

(4) 초임교사(25명) 환영 및 연수: 2회

(5) 퇴임교원 송공 간담회: 45명

(6) 초임교사 첫걸음을 위한 도우미 장학 전개: 14교

(7)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근무여건 조성: 35교

(8) 협력하는 현장연구 활성화

(9) 유공교원 표창: 38명

(10) 교육장 격려통신문 발송 및 격려 기념품 증정: 초 92명, 중 45명

(11) 여교원 보직교사 임용 확대: 36.3%

(12) 현장 지원 중심 장학활동: 유치원 14원, 초 26교, 중 9교, 계 49

(13) 학교 규칙 제정 · 운영 정착: 35교

(14)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3회

(15) 학교 중 · 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실천: 35교

(16) 학교 공개의 날 운영: 35교

마) 다양화 · 자율성을 제고하는 지원행정

(1)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활동 전개

(가) 주요업무 계획 수립 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

(나) 학교시설사업 사전협의: 10회

(다) 시설사업 시행예고제 운영

(2) 디지털 교육행정 체제 구축

(가) 사용자교육: 2회, 자료시스템 구축: 215,000천원, 전자결재 활성화: 97%

(나) 전자입찰제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사이버 시스템 운영

(3) 친절하고 깨끗한 교육행정환경 조성

(가)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및 홍보 · 교육: 7회

(나) 친절공무원 발굴 · 포상: 4회 4명

(다) 우리청 홈페이지 좋은 글 올리기 포상: 4명

(4)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가) 외부재원 유치: 속초중 급식소 외 7건(881,896천원)

(나) 유휴재산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 대부-3,613천원, 사용허가-556천원

(다) 폐지학교 재산의 다각적 활용: 5교

(5) 조직 및 인사관리의 효율화

(가)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6건

(나) 실무중심의 일반(기능)직 연찬회: 3회 275명

(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교육: 3 ~ 12월, 128명

(6)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창의적 학습환경 조성

(가) 학교신설사업 추진: 초 1교, 단설유치원 1원

(나) 급식소 및 다목적실 증축: 6교

(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냉난방 시설 외 15교

바) 특색교육

(1) 설악벌 사랑교육

(가) 설악벌 가꾸기 1교 1운동 전개

(나) 설악벌 탐구 · 탐사 활동: 7 프로그램 1,6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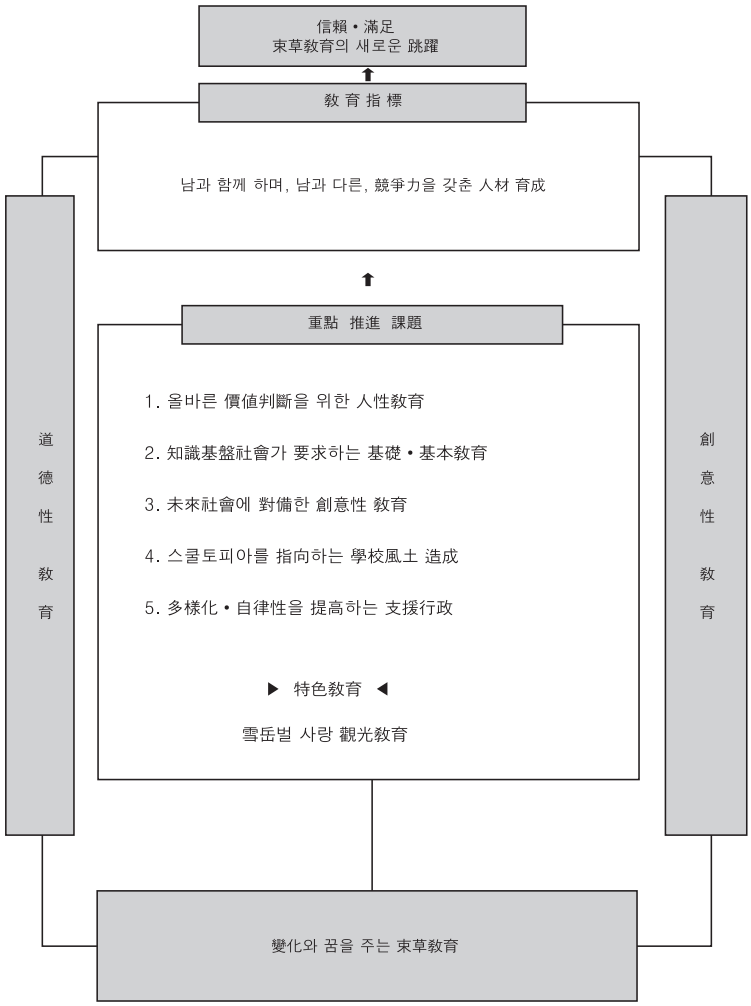
(다) 단위 학교별 관광 교육의 날 운영: 35교

(라) 관광 자원의 교재화: 설악이야기 외 8종

(마) 설악벌 관광안내 경연대회: 24팀

(바) 관광 · 환경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남애초, 현남중
(사) 내 고장 테마 체험학습: 11 프로그램
(아) 향토 문화 · 축제 체험: 현산문화제 외 6
(자) 향토문화 유적지 탐방 체험: 35교

(2) 전인적 성장을 돕는 성취인증제
(가) 기본방향 제시 및 제도적 지원: 3월
(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35교
(다)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학교의 특색을 고려한 내용 선정: 35교
(라) 단위학교 졸업인증제 운영 계획 홈페이지 탑재로 정보공유: 35교
(마)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명칭 선저: 35교
(바) 졸업인증제 운영 안내 및 홍보: 3회
(사) 인성교육과 연계한 칭찬 · 감사 인증제 운영: 19교



4. 속초평생교육정보관

가. 연 혁

〈 사진 4-2-6 〉 속초평생교육정보관

1) 1985. 1. 25 속초시 공공도서관설치조례 공포
2) 1986. 5. 17 속초시 공공도서관 개관
3) 1987. 5. 10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 공포
속초도서관 설치 및 속초시 공공도서관을 속초도서관 교동분관으로 소속 및 명칭변경
4) 1987. 11. 30 속초도서관 개축
5) 1987. 12. 4 속초도서관 본관 개관
6) 1989. 6. 4 본관 휴게실 준공
7) 1992. 11. 1 문화학교 개설(문화체육부 지정)
8) 1995. 5. 30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도서관 선정(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9) 1996. 12. 3 문화학교 우수기관 표창(문화체육부장관)
10) 1997. 2. 12 전자정보자료실 개실
11) 1997. 6. 30 서고 증축
12) 2001. 2. 20 지역평생학습관 지정
13) 2001. 6. 16 속초평생교육정보관으로 명칭변경
14) 2003. 4. 15 디지털자료실 개실

나. 일반현황[19)]

1) 기구 및 직원 현황

가) 기구 및 업무

19) 인용한 표는 http://www.library.or.kr : 8080, 2005 참조

나) 직원현황

〈 표 4-2-14 〉 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일반직							기능직				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7급	9급	10급	소계	
정원	1	3	3	3	2	1	13	1	1	7	9	22
현원	1	3	3	3	2	1	13	1	1	7	9	22

2) 장서현황

가) 도서현황

〈 표 4-2-15 〉 도서현황 (단위: 권)

분류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계
일반도서	6,421	4,335	2,794	19,638	3,351	9,306	7,119	2,506	28,609	6,214	90,293
아동도서	460	323	469	2,479	2,298	403	416	345	11,252	2,040	20,485
소계	6,881	4,658	3,263	22,117	5,649	9,709	7,535	2,851	39,861	8,254	110,778

나) 비도서 현황

〈 표 4-2-16 〉 비도서현황 (단위: 점)

분류	CT	VT	AC	CD-ROM	DVD	LD	LP	SR	지도	합계
비도서	287	1,356	473	1,949	1,588	32	147	1,059	232	7,123

3) 시설현황

가) 건물 및 대지

〈 표 4-2-17 〉 건물 및 대지 (단위 :㎡, 평, 석)

건물	대지	열람석
2,578.08(780)	7,710(2,332)	600

나) 자료실 현황

〈 표 4-2-18 〉 자료실 현황 (단위: 개)

실 명	좌석수	위치(층)	비 고
종합자료실	33	1	중고생 및 성인을 위한 도서 비치
모자열람실	74	1	어린이를 위한 도서 비치
정보화교육실	20	1	컴퓨터교육
디지털자료실	43	2	인터넷, 어학, DVD, VIDEO, 웹문검색, 자료편집

다) 열람실 현황

〈 표 4-2-19 〉 열람실 현황 (단위: 개)

실명	좌석수	위치(층)	비고
일반학습실	160	3	일반
평생교육실1	40	3	문화강좌실
평생교육실2	40	3	서예실
시청각실	80	3	영화관람

라) 부대시설 현황

〈 표 4-2-20 〉 부대시설 현황 (단위: 개)

실명	좌석수	위치(층)	비고
휴게실	36	별관(정문입구)	

4) 역대관장명단

〈 표 4-2-21 〉 역대관장명단

구 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	지방교육행정기관	박 증 엽	87. 8. 10 ~ 89. 7. 31	
2대	지방교육행정기관	김 종 덕	89. 8. 18 ~ 91. 12. 31	
3대	지방교육행정기관	김 경 해	92. 1. 10 ~ 94. 8. 12	
4대	지방 사서 서기관	이 영 찬	94. 9. 13 ~ 98. 12. 31	
5대	지방 사서 서기관	김 정 달	01. 7. 13 ~ 02. 6. 30	
6대	지방 사서 서기관	전 현 구	02. 7. 1 ~ 02.1 2. 31	
7대	지방 사서 서기관	황 혁 주	03. 1. 1 ~ 03. 12. 31	
8대	지방 사서 서기관	김 윤 종	04. 1. 1 ~ 현 재	

5) 2005년 주요사업

평생학습사회에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진흥, 발전 및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조성.

가) 평생교육강좌 운영

(1) 일반인 강좌(3월~5월)

〈 표 4-2-22 〉 일반인 강좌

강 좌	강사명	강의일시	강의내용	장 소
난과분재	최용완	화요일 14:00-16:00	화초의 재배와 이용	평생1실
구연동화	이명숙	화요일 10:00-12:00	구연동화 지도	평생2실
컴퓨터	강수희	화,목 10:00-12:00	원도우, 기초, 인터넷, e-mail활용	정보화교육실
비즈공예	박경란	금요일 10:00-12:00	구슬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	평생1실
한지공예	이진향	화,금 10:00-12:00	한지성질이해, 소품만들기	회의실

(2) 일반인 강좌(3월~11월)

〈 표 4-2-23 〉 일반인 강좌

강 좌	강사명	강의일시	강의내용	장 소
일본어	고또도시에	화,목요일 14:00-16:00	일본어 기초	회의실
수채화	이선미	토요일 10:00-12:00	수채화지도	회의실
문예창작	이상국	수요일 10:00-12:00	시, 수필지도	평생1실
압화공예	변인미	화요일 10:00-12:00	꽃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평생1실
한국화	백종숙	금요일 10:00-12:00	한국화 지도	평생2실
한문서예	함연호	토요일 09:30-12:30	해서체 기초	평생2실
한글서예	김광희	수요일 10:00-13:00	궁서체 정자 기초	평생2실
자녀의 올바른 독서지도	오성란	수요일 10:00-12:00	독서지도	회의실
수채화(동아리)		일요일 10:00-13:00	격주 야외수업	

(3) 어린이 · 청소년 강좌

〈 표 4-2-24 〉 어린이 · 청소년 강좌

강 좌	운영기간	대상	강의내용
청소년논술	3-11개월(9개월)	청소년	논술, 인성표현능력
저학년 글쓰기	상반기(3-5개월)	초등학생(1-3)	생활일기, 독서일기, 생활문등
고학년 글쓰기	상반기(3-5개월)	초등학생(4-6)	기행문, 독후감, 기사문 등

(4) 가족강좌

〈 표 4-2-25 〉 가족강좌

강 좌	운영기간	대상	강의내용
자녀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3~5월(3개월)	일반인, 유아,청소년	종이접기지도

(5) 토요 · 휴업일 체험학습 프로그램

〈 표 4-2-26 〉 토요 · 휴업일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 좌	운영기간	요일	시간	대상	내 용
신비한 미술세계	6-12(7개월)	매월4째주 토요일	09:30~ 11:30	부모, 초등학생	마술의 원리 이해 및 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풍선아트	6-12(7개월)	매월4째주 토요일	12:30~ 14:30	부모, 초등학생	풍선으로 모형 만들기

(6) 주말 체험학습 프로그램

〈 표 4-2-27 〉 주말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 좌	운영기간	요일	시간	대상	내 용
자녀와 함께하는 미술교실	6-8(3개월)	매주 일요일	10:00 ~ 13:00	부모, 초등학생	미술의 이해, 다양한그림그리기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교실	6-8(3개월)	매주 일요일	10:00 ~ 13:00	부모, 초등학생	한지공예, 수공품만들기
자녀와 함께하는 명심보감	6-8(3개월)	매주 일요일	10:00 ~ 13:00	부모, 초등학생	명심보감 한자 익히기
자녀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토요반	6-8(3개월)	매주 일요일	14:30 ~ 17:30	부모, 초등학생	종이로 여러가지 수공품 만들기
자녀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일요반	6-8(3개월)	매주 일요일	13:30 ~ 16:30	부모, 초등학생	종이로 여러가지 수공품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학습지도	6-8(3개월)	매주 일요일	16:00 ~ 19:00	고등학생	독서지도, 학습지도, 논술

나)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1) 시기: 3~12월

(2) 인원: 6명

(3) 내용: 독서지도, 책읽어주기, 교육상담, 학생고충상담 및 진로상담, 공부방운영, 대안교실 운영 등

다) 교양강좌

(1) 시기: 9월중

(2) 장소: 회의실(3층)

(3) 인원: 지역주민 100명

(4) 내용: 전문분야 강사 초빙, 교양증진 강의

라) 수강생 문화탐방

(1) 시기: 9월중

(2) 장소: 문화유적지

(3) 인원: 수강생 45명

(4) 내용: 문화유적지 탐방

마) 가족과 함께하는 풍선아트

(1) 시기: 9월중

(2) 장소: 평생교육2실

(3) 인원: 수강생 30명

(4) 내용: 풍선으로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바) 도서관 주간

(1) 기간: 4. 12~4. 18(7일간)

(2) 내용: 어린이 시화전(1회), 일일현장학습(3개교, 200명), 권장도서목록 및 도서관 이용안내문 배포(16,000부), 독서퀴즈응모(초등학생 대상, 1회)

사) 영화상영

(1) 대상: 어린이, 청소년 · 일반

(2) 일시: 매주 토요일 14:30(청소년 · 일반), 15:00(어린이)

(3) 장소: 3층 회의실

아) 독서 관련 행사

(1) 독서의 달 행사

(가) 기간: 9. 1~9. 30(1개월)

(나) 내용: 모범이용자 및 우수가족 표창

① 책 읽는 가족선정: 1회, 1가족

② 어린이 백일장: 초등학생 대상 12명 시상

③ 시낭송회: 1회, 어린이 · 주부 독서회원 대상

④ 어린이 시화전: 1회, 어린이 독서회원 대상

⑤ 초청강연회: 1회, 100명

⑥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강좌: 1회, 60명

⑦ 문화유적지 탐방: 1회, 45명(문화학교 수강생 대상)

⑧ 독서기행: 1회, 15명(주부독서회 회원)

⑨ 권장도서목록 및 행사 안내문 배포: 16,000부

(2) 독서회 운영

〈 표 4-2-28 〉 독서회 운영

구 분	솔바람독서회	청소년독서회	어린이 책읽는 어른 모임
모임일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매월 셋째주 토요일 15:00	격주 토요일 15:00
대 상	일반인	중학생	일반인
내 용	독서토론, 독서기행 생활정보교환	독서토론 각종 독서활동	우수도서선정, 회보발간, 독후활동 개발, 각종 독서행사 개최
문 의	모자열람실	종합자료실	문헌정보과

(3) 독서교실 운영

① 기간: 매년 방학 중 1주일

② 내용: 초등 4학년생 90명(겨울 45명, 여름 45명)

③ 지도내용: 정보관 이용법, 바른 독서방법, 독서 감상문 쓰는 법, NIE, 책광고 만들기, 동화구연 등 독후활동 지도, 학생 작품 전시(독서 감상문, 독서 감상화, 종이접기 등)

(4) 일일 독서교실(현장실습)

① 대상: 유치원(7개원), 초등학교 3학년생(11개교)

② 계획인원: 1,700명

③ 내용: 정보관이용법, 도서선택법, 전자자료 활용법등 지도

(5) 학교도서관 지원팀 운영

① 대상: 초 · 중 · 고(12개교)

② 지원내용: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장서확충방법

㉮ 학교도서관 전산화, 도서분류 및 정리방법

㉯ 학교도서관 운영실무자 교육, 연1회

㉰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교육, 연1회
㉱ 학교도서관 기본 도서목록 제작 및 배부, 연1회

(6) 학교도서관 지원팀 운영
① 기간: 4월~12월
② 대상: 중 · 고등학교 독서반(6개교)
③ 지원내용: 정보관 이용법, 자료검색 방법, 독서자료 선택법, 전자자료 활용법, 각종서지의 이용방법, 신문 분석 등을 지도, 강사초빙 특강(단편문학 감상, 토론 및 논술)

(7) 학교문고 운영
① 대상: 속초, 고성, 양양지역 초등학교
② 설치 문고수: 7개교(속초 2, 고성 3, 양양 2)
③ 운영방법: 매주 수 · 토요일마다 순회하여 1개교 당 월1회 30~100권씩 자료 교체

(8) 권장도서목록 배포
① 대상: 초 · 중 · 고등학교(18개교)
② 시기: 방학전(7월, 12월)
③ 부수: 32,000부(1회, 16,000부)

(9) 작은 학교 독서교실 운영
① 대상: 고성, 양양 오지초등학교(10개교)
② 시기: 4월~12월
③ 계획인원: 2,500명
④ 방법: 사서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의 및 독서활동 지도
⑤ 내용: 정보관이용법, 바른 독서방법, 독서감상문 작성법, 각종 독서활동 등

5. 속초도서관

가. 연 혁

1) 1985. 1. 15 속초시공공도서관설치조례 공포
2) 1986. 5. 17 속초시공공도서관 개관(속초시 교동 636-69)
3) 1987. 4. 29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 공포.
속초도서관 설치 및 속초시공공도서관을 속초도서관 교동분관으로 소속 및 명칭변경
4) 2001. 6. 16 속초도서관으로 명칭변경

5) 2003. 8. 4 디지털자료실 개실

6) 2003. 11. 10 전자책 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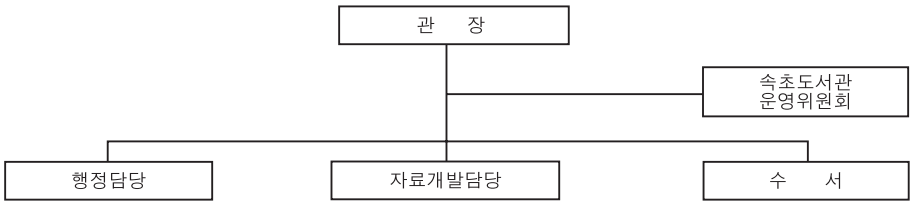
〈 사진 4-2-7 〉 속초도서관

20) 인용한 표는 http://www.sokcholib.or.kr, 2005 참조

나. 일반현황[20)]

1) 기구 및 인원

가) 기구



나) 정원 및 현원

〈 표 4-2-29 〉 정원 및 현원

구 분	합 계	일 반 직					기 능 직				
		6급	7급	8급	9급	소 계	7급	8급	9급	10급	소 계
정 원	6	1	1	1	–	3	–	1	2	–	3
현 원	6	1	1	1	–	3	–	1	2	–	3

다. 시설현황

1) 부지 및 건물

〈 표 4-2-30 〉 부지 및 건물 (단위 : ㎡)

부 지	건 물	행 정 자료실	종 합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정보화 자료실	평 생 학습실	일 반 열람실	서 고	문 서 보관실	기 타
2,733	1,514	64	256	160	96	160	96	64	32	586

2) 열람실 현황

〈 표 4-2-31 〉 열람실 현황 (단위: 개)

구 분	계		일반열람실		종합자료실	
	실 수	좌석실	실 수	좌석실	실 수	좌석실
계	2	462	1	402	1	60

라. 장서현황

1) 도서현황

〈 표 4-2-32 〉 도서현황 (단위: 권/점)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계
일반서	963	2,117	952	3,490	698	1,756	1,753	750	23,730	1,674	37,883
아동서	965	364	471	4,400	2,393	371	530	463	14,353	2,479	26,762
소계	1,928	2,481	1,423	7,890	3,091	2,127	2,283	1,186	36,324	4,153	64,645

2) 비도서현황

〈 표 4-2-33 〉 비도서현황 (단위: 권/점)

구분	CT	VT	AC	CD	DVD	LD	LP	SR	계
비도서				180	2,664				2,844

마. 역대 관장 명단

〈 표 4-2-34 〉 역대 관장 명단

구 분	직 급	성명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6 급	차 건 덕	2001.6.16 ~ 2005.6.30	
제 2 대	6 급	최 월 순	2005.7. 1 ~ 현 재	

바. 2005 주요업무

1) 평생학습강좌 운영

가) 모집기간: 8. 17(수)~8. 30(화)

나) 운영기간: 9월~11월

다) 모집방법: 선착순 방문 접수

라) 신청장소: 속초도서관 1층 행정지원실

마) 수강료: 무료(재료비, 교재비 본인 부담)

바) 강좌내용

〈 표 4-2-35 〉 평생학습 강좌 현황 (단위: 명)

강 좌 명	인원	대 상	운 영 시 간	비 고
어린이 한문교실	20	초등학생. 3~6학년	매주 일요일 9~10시	명언, 명구
어미니 한문교실	20	일반인	매주 목요일 11~12시	한자능력시험반
동화로 읽는 역사교실	20	초등학생. 5~6학년	매주 일요일 14~16시	한 국 역 사

2) 청소년상담실 운영

가) 운영기간: 2005년 4월~11월(8개월)

나) 개실일: 2005년 4월 18일(월) 14:00

다) 운영일: 매주 월요일~목요일, 14:00~17:00 (3시간)

라) 운영대상: 청소년

마) 상담내용: 생활상담, 진로지도, 독서상담 등

바) 장소: 2층 '청소년상담실'

사) 상담자: 교육전문가(자원봉사 상담원)

3) 문화강좌 운영

가) 강좌명: 유화교실

나) 강좌장소: 평생학습실

다) 강좌기간: 2005년 3월10일~2005년 11월30일

라) 강의일정 및 내용: 매주 화요일 10:00~12:00 - 초급,
13:00~15:00 - 중급

마) 강좌목적: 미술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이고, 소묘와 유화 작법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가생활을 선용하며, 문화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함.

바) 과정 및 수강인원: 초급, 중급 각 20명

사) 신청기간: 2005. 2. 1(화)~2.28(월)

3) 어린이 독서회 운영

가) 강의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15명

나)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15:00~16:00

다) 강의방법: 2005년 9월 1일부터 격주

라) 내　용: 독서 후 독서감상문 작성 및 토론

제2절 각급학교 현황

1. 초등학교별 현황[21)]

가. 대포초등학교

21) 학교순서는 설립연도 순임.

〈 사진 4-2-8 〉 대포초등학교

1) 연 혁

가) 1919. 4. 1 대포공립보통학교 개교
나) 1923. 4. 1 조선총독부령에 6년제 승격
다) 1945. 8. 15 일본국 패전으로 북한 역치교육령에 의하여 대포인민학교로 개칭
라) 1945. 9. 1 주봉간이학교로 개칭
마) 1950. 10. 10 아군진주로 제1군단 처치령에 의하여 대포국민학교로 개칭
바) 1951. 1. 6 · 25전쟁으로 4교실 소각, 원교실(5교실) 대파
사) 1952. 10. 13 UN구호물자로 4교실 신축동시 원교사 수리
아) 1954. 10. 17 행정이양으로 대한민국 교육령에 의하여 일체 개편
자) 2004. 3. 1 제34대 교장 김헌수 부임
차) 2005. 2. 19 제79회 졸업
카) 2005. 9. 1 제35대 교장 정효남 부임

2) 일반현황[22)]

가)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350번지
나) 교직원현황

〈 표 4-2-36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 성별	교원						행정과 직원			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보건교사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남	1	1	2	0	0	4	0	3	4	7
여	0	0	0	6	1	7	2	0	7	9
계	1	1	2	6	1	11	2	3	11	16

다) 학생현황

22) 인용한 표는 http://school.edumoa.com/@sdp, 2005 참조

〈 표 4-2-37 〉 학생현황 (단위: 명)

성별 \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3
학생수	남	10	7	9	6	11	14	24
	여	14	13	9	11	11	10	35
	계	24	20	18	17	22	24	125

라) 시설현황

〈 표 4-2-38 〉 시설현황 (단위: 실, 동)

구분	정규교실	특별실						관리실		계	관리실			
		과학실	행정실	급식소	정보실	식당	탁구실	교장실	교무실		숙직실	창고	화장실	관사
실수	6		0.5	1		1	2	0.5		15			1	1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훈: 바른 생각 키워 꿈을 현실로

나) 교육목표

(1) 도덕적 인간: 기초질서 교육, 정직성 교육, 의사존중 교육

(2) 건강한 인간: 줄넘기 급수제, 체육시수 이행, 운동장 달리기

(3) 창조적 인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토론수업 확대, 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4) 개성적 인간: 칭찬 위주의 교육, 특기 · 적성교육의 활성화, 독서교육 강화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39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직 기 간	비 고
초대	김마장평	(1919. 4. 1)	일제시대
초대	오 영 대	(1945. 8.15)	광복 후 대포인민학교시기
초대	이 시 행	(1950.10.10)	수복 후 1군단 처치령
초대(연14대)	김 진 익	1954.12.30 ~ 1958. 3.30	대한민국 교육령
2대 (연15대)	김 태 식	1958. 3.31 ~ 1961. 9.29	
3대 (연16대)	최 중 현	1961. 9.30 ~ 1963. 2.27	
4대 (연17대)	정 달 인	1963. 2.28 ~ 1968. 3.20	
5대 (연18대)	홍 무 표	1968. 3.21 ~ 1971. 8.31	
6대 (연19대)	송 해 석	1971. 9. 1 ~ 1972. 8.31	
7대 (연20대)	이 건 오	1972. 9. 1 ~ 1974. 9. 4	
8대 (연21대)	김 인 영	1974. 9. 5 ~ 1975. 8.31	
9대 (연22대)	김 준 영	1975. 9. 1 ~ 1976. 8.31	
10대(연23대)	이 강 국	1976. 9. 1 ~ 1978. 8.31	
11대(연24대)	전 석 규	1978. 9. 1 ~ 1982. 2.28	
12대(연25대)	정 준 교	1982. 3. 1 ~ 1984. 3.19	
13대(연26대)	김 순 경	1984. 3.20 ~ 1989. 8.31	
14대(연27대)	정 달 인	1989. 9. 1 ~ 1991. 8.31	
15대(연28대)	신 평 승	1991. 9. 1 ~ 1993. 8.31	
16대(연29대)	전 영 순	1993. 9. 1 ~ 1994.10. 3	
17대(연30대)	김 현 기	1994.10. 4 ~ 1997. 9. 1	

구 분	성 명	재 직 기 간	비 고
18대(연31대)	김 명 기	1997. 9. 2 ~ 1999. 8. 31	
19대(연32대)	함 형 원	1999. 9. 1 ~ 2000. 8. 31	
20대(연33대)	김 시 건	2000. 9. 1 ~ 2004. 2. 28	
21대(연34대)	김 헌 수	2004. 3. 1 ~ 2005. 8. 31	
22대(연35대)	정 효 남	2005. 9. 1 ~ 현 재	

나. 영랑초등학교

1) 연 혁

가) 1938. 4. 1 영랑 공립 심상소학교로 개교
나) 1941. 4. 1 영랑 공립 국민학교로 개정
다) 1945. 8. 30 8 · 15 해방 후 인민학교로 개교(12학급 편성)
6 · 25사변까지 9회 졸업식(765명)-학적부 소실
라) 1955. 12. 1 수복후 속초국민학교에서 23학급 편입, 영랑국민학교로 개교
마) 1956. 12. 1 수복후 1회 졸업식
바) 1964. 11. 1 야구부 창단
사) 1996. 3. 1 영랑초등학교로 개칭
아) 1999. 7. 14 현대화 시범학교 건물로 입주
자) 1999. 12. 1 준공식 거행, 수복이전 졸업생 졸업인증서 수여
차) 2002. 3. 1 제15대 교장 홍흥표 부임
카) 2004. 3. 26 실내야구연습장 <영랑야구관> 준공식 거행(106평)

23) 인용한 표는 http://www.yr.es.kr, 2005 참조.

〈 사진 4-2-9 〉 영랑초등학교

2) 일반현황[23)]

가) 위치 : 속초시 영랑동 163-1
나) 교직원현황

〈 표 4-2-40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 인원	교원						행정과 직원			총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보건교사	계	일반직	기능직	계	
남	1	1	1	2	0	5	1	2	3	8
여	0	0	5	13	1	19	1	0	1	20
계	1	1	6	15	1	24	2	2	4	28

다) 학생현황

〈 표 4-2-41 〉 학생현황 (단위: 명)

구분 /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3(0)	3(0)	4(0)	3(0)	3(0)	4(1)	20(1)
학생수	남	43(1)*	56(0)	80(0)	64(0)	44(0)	58(1)	345(2)
	여	57(0)	59(1)	61(0)	55(0)	56(1)	55(0)	343(2)
	계	100(1)	115(1)	141(0)	119(0)	100(1)	113(1)	688(4)

* ( ) 특수학급 학생수 및 학급

라) 시설현황

(1) 부지현황

〈 표 4-2-42 〉 부지현황 (단위 : ㎡)

구분 / 교지	총면적	건물부지	운동장
보유	28,428	8,769	7,500

(2) 건물현황

〈 표 4-2-43 〉 건물현황 (단위 : 실, 동)

구분	교실	관리실				특별교실													부속건물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다목적실	실험실습실	미술실	음악실	도서실	컴퓨터실	어학실	야구부생활실	교사휴게실	예절실	해바라기교실	강당	식당	관사	콘테이너	창고	숙직실	화장실	체육관
수	29	0.5	0.5	1	0.5	1	1	2	1	1	2	1	0.5	8	1	0.5	1	1	1	2	2	0.5	14	1

3) 교육의 기본 방향

가) 교훈: 바르게(덕육), 슬기롭게(지육), 튼튼하게(체육)

나) 학교 교육목표

(1) 21세기 지식 · 정보화 사회에 기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

(가) 건강인 : 건강한 심신을 가진 어린이

(나) 자주인 :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어린이
(다) 창조인 :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어린이
(라) 도덕인 :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린이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44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고 연 재	1955.11.15~1960. 5.30	
2 대	선 복 룡	1960. 5.31~1961. 3.30	
3 대	김 성 기	1961. 3.31~1962. 8. 3	
4 대	김 석 년	1962. 8. 4~1963. 5. 7	
5 대	김 인 영	1963. 5. 8~1968. 2.28	
6 대	최 달 규	1968. 3. 1~1971. 8.31	
7 대	김 중 영	1971. 9. 1~1976. 8.31	
8 대	조 이 현	1976. 9. 1~1978. 8.31	
9 대	이 석 기	1978. 9. 1~1983. 8.31	
10 대	윤 동 만	1983. 9. 1~1988. 8.31	
11 대	김 중 영	1988. 9. 1~1990. 8.31	
12 대	심 상 규	1990. 9. 1~1993. 8.31	
13 대	신 편 승	1993. 9. 1~1999. 8.31	
14 대	김 남 욱	1999. 9. 1~2002. 2.28	
15 대	홍 흥 표	2002. 3. 1~현 재	

다. 속초초등학교

1) 연 혁

가) 1951. 10. 8 속초국민학교 개교
나) 1952. 5. 23 제1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35명)
다) 1955. 3. 3 1955~1969 학교분할 (영랑초, 청호초, 중앙초, 교동초)
라) 1981. 3. 10 병설유치원 개원
마) 1996. 3. 1 속초초등학교로 개칭
바) 1997. 7. 2 전국 시 · 도 교육평가 (정보과교육 대상교)
사) 1999. 9. 1 제18대 교장 김명기 부임
아) 2001. 11. 13 도지정 체육교육연구(시범)학교 공개
자) 2004. 2. 24 제53회 졸업식 거행(총 졸업생 18,734명)
차) 2004. 9. 1 제19대 교장 윤중학 부임
카) 2005. 2. 20 제54회 졸업식 거행(총 졸업생 18,937명)

〈 사진 4-2-10 〉 속초초등학교

2) 일반현황[24)]

가)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38번지

나) 교직원현황

24) 인용한 표는 http://www.sokcho.es.kr, 2005 참조

〈 표 4-2-45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 성별	교원							직원				직원계	총계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계	행정실	기능직	과학보조	전산보조		
남	1	1	4	1	0	0	7	0	3	0	1	4	11
여	0	0	2	22	2	1	27	3	0	1	0	4	31
계	1	1	6	23	2	1	34	3	3	1	1	8	42

다) 학생현황

〈 표 4-2-46 〉 학생현황 (단위: 명)

학년		1	2	3	4	5	6	유치원	계
학급수		4	5	4	5	5	6	2	29
학생수	남	88	85	87	97	110	122	24	589
	여	79	68	80	81	98	85	18	491
	계	167	153	167	178	208	207	42	1,080

라) 시설현황

(1) 부지현황

〈 표 4-2-47 〉 부지현황 (단위: ㎡)

강좌	교지	교지	총연면적
6-12(7개월)	24,997	7,532	32,529

(2) 건물현황

〈 표 4-2-48 〉 건물현황 (단위: 실)

구분	교실		관리실			특별실 및 부속실											
	교실	유치원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음악실	어린이회의실	특기적성실	미술실	예절실	국악실	방송실	연구실	보건실
보유량	4	2	1	2	1	1.5	2	1.5	1.5	1	1	1	1	1	0.5	1.5	0.5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훈: 지 · 덕 · 체를 고루 갖춘 미래를 열어가는 속초 어린이 육성

나) 학교 교육목표

(1) 참된 마음(도덕적 사회인)

(가) 애국애족심 기르기

(나) 함께하는 생활태도 기르기

(다) 남의 나라 이해하기

(2) 튼튼한 몸(건강한 실천인)

(가) 기초체력 갖추기

(나) 강건한 의지력 기르기

(다) 위생적인 생활하기

(3) 글기로운 지혜(주체적 창조인)

(가) 기초, 기본학력 갖추기

(나) 스스로 학습하기

(다) 탐구심 기르기

4) 역대 학교장 명단

〈 표 4-2-49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 춘 하	1955. 1. 1 ~ 1956. 3.31	
2 대	김 영 수	1956. 4. 1 ~ 1958. 4.30	
3 대	장 인 상	1958. 5. 1 ~ 1961. 2.28	
4 대	김 진 익	1961. 3. 1 ~ 1962. 2.28	
5 대	박 익 훈	1962. 3. 1 ~ 1964. 2.28	
6 대	박 병 도	1964. 3. 1 ~ 1968. 5.31	
7 대	이 봉 수	1968. 6. 1 ~ 1971. 8.31	
8 대	최 태 근	1971. 9. 1 ~ 1973. 8.31	
9 대	이 석 기	1973. 9. 1 ~ 1976. 2.28	
10 대	최 돈 선	1976. 3. 1 ~ 1980. 8.31	
11 대	김 승 남	1980. 9. 1 ~ 1981. 8.31	
12 대	김 창 남	1981. 9. 1 ~ 1985. 8.31	
13 대	이 강 국	1985. 9. 1 ~ 1989. 2.28	
14 대	최 오 규	1989. 3. 1 ~ 1990. 2.28	
15 대	신 익 순	1990. 3. 1 ~ 1993. 1.31	
16 대	박 기 형	1993. 2. 1 ~ 1997. 2.28	
17 대	김 진 범	1997. 3. 1 ~ 1999. 8.31	
18 대	김 명 기	1999. 9. 1 ~ 2004. 8.31	
19 대	윤 중 학	2004. 9. 1 ~ 현 재	

라. 청호초등학교

1) 연 혁

가) 1958. 4. 13 개교

나) 1971. 4. 6 조양국민학교 분리(446명 전출)

다) 1979. 3. 29 청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2학급)

라) 1986. 3. 1 특수학급 개설(1학급)

마) 2005. 2. 17 제47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9,996명)

바) 2005. 3. 1 제20대 전영창 교장 부임

〈 사진 4-2-11 〉 청호초등학교

25) 인용한 표는 http://www.cheongho.es.kr, 2005 참조

2) 일반현황[25)]

가) 소재지 : 속초시 청호동 432-38

나) 교직원현황

〈 표 4-2-50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 인원	교원						행정과 직원			총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보건교사	계	일반직	기능직	계	
남	1	1	1	1	0	4	0	2	2	6
여	0	0	1	6	0	8	3	0	3	11
계	1	1	2	7	1	12	3	2	5	17

다) 학생현황

〈 표 4-2-51 〉 학생현황 (단위: 명)

성별 / 학년		1	2	3	4	5	6	도움반	계
학급수		1	1	1	1	1	1	1	7
학생수	남	12	20	14	20	8	15		89
	여	14	9	14	13	13	16		79
	계	26	29	28	33	21	31		168

라) 건물 및 교지현황

〈 표 4-2-52 〉 건물 및 교지현황 (단위: 실, 동, ㎡)

구분	일반교실			부속실				교직		
	교실	특별실	관리실	급식소	창고	숙직실	화장실	운동장	대지	계
수량	8	6	2.5	2	4	–	2	26,903	1,153	28,056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훈: 바르고 튼튼하며 슬기로운 어린이

나) 교육목표

(1) 예절바르고 서로 도우며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를 기른다.

(2) 스스로 공부하고 계획하며 실력을 갖춘 어린이를 기른다.

(3)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어린이를 기른다.

(4)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체력이 튼튼한 어린이를 기른다.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53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 진 익	1958. 3. ~ 1961. 1.	
2 대	김 인 영	1961. 1. ~ 1962. 5.	
3 대	함 기 윤	1963. 5. ~ 1963. 12.	
4 대	박 병 도	1963. 12. ~ 1965. 3.	
5 대	박 익 훈	1965. 3. ~ 1968. 3.	
6 대	정 종 훈	1968. 3. ~ 1971. 3.	
7 대	김 진 무	1971. 3. ~ 1973. 9.	
8 대	조 이 현	1973. 3. ~ 1976. 9.	
9 대	함 종 환	1976. 9. ~ 1978. 9.	
10 대	이 강 국	1978. 9. ~ 1981. 9.	
11 대	김 태 환	1981. 9. ~ 1985. 9.	
12 대	오 세 하	1985. 9. ~ 1989. 9.	
13 대	임 만 근	1989. 9. ~ 1991. 3.	
14 대	이 종 운	1991. 3. ~ 1992. 7.	
15 대	정 의 범	1992. 7. ~ 1994. 12.	
16 대	김 진 범	1994. 12. ~ 1997. 2.	
17 대	장 욱	1997. 3. ~ 1999. 8.	
18 대	홍 흥 표	1999. 9. ~ 2002. 2.	
19 대	이 진 완	2002. 3. ~ 2005. 2.	
20 대	전 영 창	2005. 3. ~ 현 재	

마. 중앙초등학교

1) 연 혁

가) 1962. 9. 5 학교설립 인가

나) 1963. 4. 1 개교식 거행

다) 1995. 7.13 학교 급식 실시

라) 2000.11. 6 강원도 속초교육청 지정 제7차 교육과정 운영보고

마) 2002. 3. 1 제14대 엄남섭 교장 부임

바) 2003. 2.19 제40회 졸업식(총 11,346명)

사) 2003. 3. 1 도교육청 지정 교수-학습 도움센터 운영 시범학교

아) 2004. 2.19 제41회 졸업식(총 11,466명)

자) 2004. 3. 1 20학급 편성

차) 2004. 11. 5 도 지정 연구학교 공개보고

카) 2005. 2. 18 제42회 졸업식(총 11,591명)

타) 2005. 2. 19 2004학년도 수료식

파) 2005. 3. 1 18학급 편성

〈 사진 4-2-12 〉 중앙초등학교

26) 인용한 표는 http://www.sjungang.es.kr, 2005 참조

2) 일반현황[26)]

가) 소재지 : 속초시 중앙동 509-3

나) 교직원현황

〈 표 4-2-54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 성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행정사무실	영양사	기능직	전산보조	과학조교	기타	교직원
남	1	1	5	2			1		2				12
여			1	14	1	2		1		1	1	3	24
계	1	1	6	16	1	2	1	1	2	1	1	3	36

다) 학생현황

〈 표 4-2-55 〉 학생현황 (단위: 명)

구분 /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3	3	3(1)*	3	4	3	20
인 원	94	111	105	100	131	125	666

* ( ) 특수학급 학생수 및 학급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육목표 및 구현

(1)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중앙교육구현

(가) 도덕인 : 착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

(나) 자주인 : 공부하고 탐구하는 어린인

(다) 건강인 :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어린이

(라) 민주인 :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어린이

나)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상

(1) 어린이상 : 새로운 생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건강한 어린이

(2) 학 교 상 : 꿈을 키우며 새롭게 발전하는 학교

(3) 교 사 상 : 연구하며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56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 택 룡	1963. 2.18~1963.12. 4	
2 대	최 두 성	1963.12. 5~1966. 2.28	
3 대	최 달 규	1966. 3. 1~1968. 2.28	
4 대	박 익 훈	1968. 3. 1~1972. 8.31	
5 대	방 준 배	1972. 9. 1~1975. 8.31	
6 대	박 익 훈	1975. 9. 1~1981. 8.31	
7 대	김 석 년	1981. 9. 1~1986. 8.31	
8 대	최 오 규	1986. 9. 1~1989. 2.28	
9 대	신 익 순	1989. 3. 1~1990. 2.28	
10 대	허 필 성	1990. 3. 1~1992. 2.28	
11 대	진 익 균	1992. 3. 1~1997. 2.28	
12 대	박 경 원	1997. 3. 1~1999. 8.31	
13 대	이 공 록	1999. 9. 1~2002. 2.28	
14 대	엄 남 섭	2002. 3. 1~현 재	

바. 온정초등학교

〈 사진 4-2-13 〉 온정초등학교

1) 연 혁

가) 1951. 9.19 속초국민학교 노리분교로 인가

나) 1953. 7. 1 설악국민학교로 인가

다) 1965.11.15 온정국민학교로 개명

라) 1995. 3. 1 급식학교로 지정

마) 1996. 3. 1 온정초등학교로 개칭

바) 2002. 11. 28 시 지정 연구학교 운영발표(학습부진아)

사) 2003. 9. 1 제23대 김윤보 교장 선생님 부임

아) 2005. 2. 17 제51회 졸업(총 3,100명)

2) 일반현황[27)]

가) 소재지 : 속초시 노학동 온천로 276번지

나) 교직원현황

〈 표 4-2-57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 직급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유치원	보건교사	영양사	행정실장	과학조교	기능직	계
남	1	1		1				1		1	5
여			2	5	1	1	1	0	1	1	12
계	1	1	2	6	1	1	1	1	1	2	17

27) 인용한 표는 http://onjeong.net, 2005 참조

다) 학생현황

〈 표 4-2-58 〉 학생현황 (단위: 명)

성별 \ 학년		1	2	3	4	5	6	유치원	계
학급수		1	1	1	2(1)*	1	1	1	7(1)
학생수	남	10	10	8	16	11	22	3	74
	여	9	8	14	14	9	9	9	66
	계	19	18	22	30	20	31	12	140

라) 건물 및 교지현황

〈 표 4-2-59 〉 건물 및 교지현황 (단위: 실, 동, ㎡)

교지		교실		관리실				특별교실				부속교설			
총면적	운동장	교실	유치원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다목적실	과학실	급식소	특수학급	화장실	숙직실	창고	관사
15,017	13,408	6	1	1/2	1	1/2	1/2	1	1	2	1/2	1	1	4	2

* ( ) 특수학급 학생수 및 학급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육목표

(1) 남과 함께하는 개성적인 어린이

(2) 기초 · 기본교육을 토대로 하는 창의적인 어린이

(3) 폭넓은 생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어린이

(4) 향토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어린이

(5) 기본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

나) 학교장의 교육 소신

(1)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맞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

한 특기 · 적성 교육과 기초 · 기본 교육에 충실하며

(2) 기본예절생활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성 교육에 힘쓴다.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60〉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장 태 갑	1955. 1. 31 ~ 1955. 2. 14	
2 대	고 연 재	1955. 2. 15 ~ 1956. 12. 30	
3 대	김 교 진	1956. 12. 31 ~ 1957. 3. 30	
4 대	김 백 수	1957. 3. 31 ~ 1959. 3. 30	
5 대	차 홍 성	1959. 3. 31 ~ 1961. 3. 30	
6 대	김 계 석	1961. 3. 31 ~ 1963. 2. 27	
7 대	신 현 국	1963. 2. 28 ~ 1965. 8. 20	
8 대	방 준 배	1965. 8. 21 ~ 1966. 9. 30	
9 대	선 복 룡	1966. 10. 1 ~ 1968. 8. 31	
10 대	김 진 무	1968. 9. 1 ~ 1971. 2. 28	
11 대	이 건 오	1971. 3. 1 ~ 1972. 8. 31	
12 대	김 영 순	1972. 9. 1 ~ 1975. 8. 31	
13 대	허 필 성	1975. 9. 1 ~ 1978. 8. 31	
14 대	정 종 훈	1978. 9. 1 ~ 1981. 8. 31	
15 대	최 오 규	1981. 9. 1 ~ 1984. 8. 31	
16 대	오 제 정	1984. 9. 1 ~ 1987. 2. 28	
17 대	전 병 선	1987. 3. 1 ~ 1990. 2. 28	
18 대	진 의 균	1990. 3. 1 ~ 1992. 2. 28	
19 대	한 정 교	1992. 3. 1 ~ 1996. 2. 28	
20 대	최 규 화	1996. 3. 1 ~ 1997. 8. 31	
21 대	원 창 석	1997. 9. 1 ~ 1999. 8. 31	
22 대	김 진 웅	1999. 9. 1 ~ 2003. 8. 31	
23 대	김 윤 보	2003. 9. 1 ~ 현 재	

사. 교동초등학교

〈 사진 4-2-14 〉 교동초등학교

1) 연 혁

가) 1969. 10. 2 교동국민학교 개교

나) 1994. 9. 16 강원도교육청 지정 과학교육 시범학교 공개

다) 1996. 3. 1 교동초등학교 개칭

라) 1998. 10. 29 강원도교육청 지정 학급담임 배정 시범학교 공개

마) 2003. 9. 1 제12대 장태익 교장 취임

바) 2003. 11. 18 속초교육청 지정 교실 수업개선 모델학교 공개

사) 2004. 2. 18 제35회 졸업식(8,199명)

아) 2004. 12. 31 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 유공학교 표창 수상

자) 2005. 2. 18 제36회 졸업식(8,543명)

차) 2005. 3. 1 제13대 김진웅 교장 취임

2) 일반현황[28)]

가) 소재지 : 속초시 교동 779-16

나) 교직원 현황

〈 표 4-2-61 〉 교직원현황 (단위: 명)

직위 / 성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교과전담교사	강사	행정실장	행정9급	영양사	기능직	과학조교	전산보조	계
남	1	2	4	2				3	1	1		2			13
여			8	37	1	1		2			1	1	1	1	57
계	1	2	12	39	1	1		5	1	1	1	3	1	1	70

28) 인용한 표는 http://gyodong.or.kr, 2005 참조

다) 학생현황

〈 표 4-2-62 〉 학생현황 (단위: 명)

학년		1	2	3	4	5	6	계	유치원
학급수		8	8	8	9	9	9	51	1
학생수	남	135	142	160	172	170	170	945	14
	여	148	161	155	162	159	162	949	14
	계	283	303	315	334	329	332	1,894	28

라) 시설현황

(1) 부지현황

〈 표 4-2-63 〉 부지현황 (단위: ㎡)

구분	총면적	교지	운동장
면적	24,233	2,191	22,042

(2) 건물현황

〈 표 4-2-64 〉 건물현황 (단위: 실, 동)

시설	관리실			교실	특별실								부속건물		
구분	교장실	교무실	숙직실	생활실	과학실	컴퓨터실	보건실	급식소	인쇄실	행정실	휴게실	방송실	창고	화장실	관사
보유량	0.75	1	1	54	2	2	0.5	2.5	0.25	0.5	1	0.5	2	14개소	1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훈 : 스스로 배우고 튼튼히 자라서 바르게 행하자

나) 교육목표

(1) 도덕인 : 착한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

(2) 자주인 :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서 스스로 배우는 어린이

(3) 건강인 :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강인한 의지를 갖춘 어린이

(4) 창조인 : 소질과 적성을 키워가는 능력있는 어린이

(5) 협동인 : 소질과 적성을 키워가는 능력있는 어린이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65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백 운 화	1969. 3. 1 ~ 1972. 2.28	
2 대	김 준 영	1972. 3. 1 ~ 1973. 8.31	
3 대	최 태 근	1973. 9. 1 ~ 1976. 8.31	
4 대	오 세 하	1976. 9. 1 ~ 1981. 8.31	
5 대	송 윤 학	1981. 9. 1 ~ 1984. 2.28	
6 대	최 문 철	1984. 3. 1 ~ 1987. 2.28	
7 대	오 세 정	1987. 3. 1 ~ 1991. 2.28	
8 대	임 만 근	1991. 3. 1 ~ 1996. 2.28	
9 대	한 정 교	1996. 3. 1 ~ 1998. 8.31	
10 대	조 규 황	1998. 9. 1 ~ 1999. 8.31	
11 대	원 창 석	1999. 9. 1 ~ 2003. 8.31	
12 대	장 태 익	2003. 9. 1 ~ 2005. 2.28	
13 대	김 진 웅	2005. 3. 1 ~ 현 재	

아. 조양초등학교

〈 사진 4-2-15 〉 조양초등학교

1) 연 혁

가) 1970. 12. 31 조양국민학교 설립인가(12학급)

나) 1971. 4. 3 조양국민학교 개교

다) 1996. 3. 1 조양초등학교로 개칭

라) 2005. 2. 18 제33회 졸업식(154명, 총계 3,798명)

마) 2005. 3. 1 28학급 편성, 병설유치원 1학급 편성제

바) 2005. 3. 1 13대 교장 임영록 부임

2) 일반현황[29)]

가) 소재지 : 속초시 조양동 1396

나) 교직원 현황

〈 표 4-2-66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 분	구 분					소계				총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보건교사		일반직	기능직	소계	
남	1	1	5	0	7	7	0	2	2	9
여	0	0	1	22	24	24	3	1	4	28
계	1	1	6	22	31	31	3	3	6	37

29) 인용한 표는 http://www.joyangschool.es.kr, 2005 참조

다) 학생현황

〈 표 4-2-67 〉 학생현황 (단위: 명)

성별 \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5	5	5	5	4	4	28
학생수	남	102	105	106	84	94	79	570
	여	91	88	79	74	62	79	473
	계	193	193	185	158	156	158	1,043

라) 시설현황

〈 표 4-2-68 〉 시설현황 (단위: ㎡, 동, 실)

구분	교 지		교실		관리실				특별실						부속시설			
	대지	운동장	교실	유치원	교장실	교무실	보건실	행정실	강당	방송실	민속체험실	컴퓨터실	조리실	과학실	화장실	창고	숙직실	사택
	1,240	15,338	1,807	66	67	67	30	67	198	30	66	198	135	164	12	3	1	1

3) 교육목표

가) 교훈 : 참된 마음과 튼튼한 몸, 슬기로운 지혜로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성실한 어린이가 되자.

나) 교육목표

(1) 건강한 어린이 : 튼튼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며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사고를 가진 어린이로 기른다(건강교육).

(2) 경쟁력을 갖춘 어린이 :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출할 능력을 지니

며 탐구정신이 강한 어린이로 기른다(탐구지향교육).

(3)님과 함께 하는 어린이 : 인간을 존중할 줄 알고 공익을 우선하며 시민정신이 강한 어린이로 기른다(민주시민 교육).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69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석 기	1971. 3. 1 ~ 1973. 8 31	
2 대	최 낙 보	1973. 9. 1 ~ 1976. 8 31	
3 대	조 돈 환	1976. 9. 1 ~ 1978. 8 31	
4 대	이 영 익	1978. 9. 1 ~ 1982. 8 31	
5 대	김 영 순	1982. 9. 1 ~ 1987. 8 31	
6 대	신 익 순	1987. 9. 1 ~ 1989. 2 28	
7 대	이 강 국	1989. 3. 1 ~ 1993. 8 14	
8 대	윤 동 민	1993. 9. 1 ~ 1997. 2 28	
9 대	박 기 형	1997. 9. 1 ~ 1999. 2 28	
10 대	최 세 철	1999. 3. 1 ~ 2000. 8 31	
11 대	장 태 익	2000. 9. 1 ~ 2003. 8 31	
12 대	김 진 용	2003. 9. 1 ~ 2005. 8 31	
13 대	임 영 록	2005. 9. 1 ~ 현 재	

자. 설악초등학교

1) 연 혁

가) 1940. 4. 1 대포국민학교 주봉간이학교 설립인가

나) 1954. 2. 10 주봉국민학교로 승격

다) 1965. 11. 9 외설악국민학교 설악분교장 설립

라) 1974. 3. 1 설악국민학교로 승격

마) 1979. 9. 1 외설악과 설악국민학교 통합

바) 1996. 3. 1 설악초등학교로 개칭

아) 2002. 3. 1 제23대 이공록 교장 부임

자) 2004. 2. 20 제50회 졸업식 거행(졸업생수 2,149명)

〈 사진 4-2-16 〉 설악초등학교

2) 시설현황[30)]

가) 소재지 : 속초시 설악동 385

나) 교직원 현황

〈 표 4-2-70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 직위	교직원						행정과 직원			합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보건교사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남	1	1	2	1	0	5	1	2	3	8
여	0	0	0	4	1	5	1	0	1	6
계	1	1	2	5	1	10	2	2	4	14

다) 학생현황

〈 표 4-2-71 〉 학생현황 (단위: 명)

성별 \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남	6	17	3	9	9	7	51
	여	4	6	10	9	8	15	52
	계	10	23	13	18	17	22	103

30) 인용한 표는 http://www.sorak.es.kr, 2005 참조

라) 시설현황

(1) 교지현황

〈 표 4-2-72 〉 교지현황 (단위: ㎡)

총면적(㎡)	교사지대	운동장		실습지	정원	비고
		면적	학생일인평균			
13,511	5,100	8,410	34.5	253	1,092	

(2) 건물현황

〈 표 4-2-73 〉 건물현황 (단위: 동, 실)

구분	교실	특별실								업무실		기타			
	학습실	과학실	교육행정실	다목적실	컴퓨터실	보건실	어린이회의실	학습자료실	유치원실	교무실	교장실	숙직실	창고	변소	관사
실수	6	1	0.5	2	1	0.5	0.5	0.5	1	1	0.5	1	2	2	1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훈: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하며 예절바른 어린이

나) 교육목표

(1) 학교상: 어린이는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는 보내고 싶은 학교, 교사는 가르치고 싶은 학교

(2) 교사상: 열과 성을 다하는 교사, 전문성을 지닌 교사, 존경받는 교사

(3) 학생상:

(가) 예절이 바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어린이

(나) 기본학력을 확보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
(다)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력있는 어린이
(라) 기초체력 연마로 심신이 건전한 어린이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74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 남 섭	1954. 12. 31	
2 대	최 상	1960. 5. 31	
3 대	김 수 석	1962. 1. 29	
4 대	김 동 식	1926. 12. 13	
5 대	최 두 성	1963. 2. 28	
6 대	홍 규 용	1963. 12. 5	
7 대	정 종 훈	1965. 3. 1	
8 대	정 달 인	1968. 3. 21	
9 대	조 복 현	1970. 3. 1	
10 대	이 강 국	1972. 3. 1	
11 대	최 문 철	1974. 3. 1	
12 대	장 관 영	1974. 9. 1	
13 대	김 영 순	1975. 9. 1	
14 대	윤 동 만	1977. 9. 1	
15 대	김 남 제	1982. 9. 1	
16 대	조 수 형	1983. 5. 28	
17 대	김 중 영	1986. 9. 1	
18 대	심 상 규	1988. 9. 1	
19 대	차 중 철	1993. 3. 1	
20 대	박 기 형	1996. 9. 1	
21 대	김 창 기	1998. 9. 1	
22 대	조 규 백	1999. 9. 1	
23 대	이 공 록	2002. 3. 1	

차. 청대초등학교

〈 사진 4-2-17 〉 청대초등학교

1) 연 혁

가) 1995. 7. 12 청대초등학교 설립인가(18학급)
나) 1997. 3. 1 청대초등학교 개교
다) 1998. 10. 15 교육부 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 공개발표

라) 1999. 1. 13 '98 학교평가 강원도교육청 최우수학교 선정

마) 1999. 10. 26 강원도교육청 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 공개발표

바) 1999. 12. 31 '99 학교평가 강원도교육청 최우수학교 선정

사) 2002. 3. 1 제3대 김남재 교장 부임(38학급 편성)

아) 2002. 12. 31 새학교 문화창조 최우수학교 선정

자) 2003. 10. 30 강원도교육청 지정 교육방송 연구학교 공개발표

차) 2003. 12. 24 공교육 내실화 최우수학교 선정

카) 2004. 11. 9 소방우수교 표창(행정자치부장관상)

타) 2005. 2. 18 제8회 졸업식 거행(225명, 졸업생수 1,249명)

파) 2005. 3. 1 42학급 편성

2) 일반현황[31)]

31) 인용한 표는 http://www.cheongdae.es.kr, 2005 참조

가) 소재지 : 속초시 조양동 551-1번지

나) 교직원 현황

〈 표 4-2-75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 직위	교원						교원계	직원				직원계	계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행정실	기능직	과학보조	전산보조		
남	1	1	2	3	0	0	7	1	3	0	0	4	13
여	0	1	11	27	1	3	43	1	1	1	1	4	54
계	1	2	13	30	1	3	50	2	4	1	1	8	67

다) 학생현황

〈 표 4-2-76 〉 학생현황 (단위: 명)

성별 \ 학년		1	2	3	4	5	6	계	유치원
학급수		7	7	7	7	7	7	7	7
학생수	남	146	140	130	141	144	117	818	40
	여	134	147	120	115	118	119	753	39
	계	280	287	250	256	262	236	1,571	79

라) 시설현황

〈 표 4-2-77 〉 시설현황 (단위: 동, 실)

구분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교실	보건실	컴퓨터실(I)	방송실	컴퓨터실(II)	과학실	다목적실	자표실	풍물실	발간실	부속시설			계
														체육관	숙직실	급식소	
실수	1	1.5	1	40	0.5	1.5	0.5	1.5	3	2	0.5	0.5	0.5	1	1	1	57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훈 : 마음은 넓게, 생각은 깊게, 행동은 바르게 하는 청대 어린이

나) 교육목표

(1) 도덕적인 사람 : 기본생활 습관이 정착된 예절바른 어린이를 기른다.
(2) 건강한 사람 : 기초체력과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를 기른다.
(3) 자주적인 사람 : 자신의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어린이를 기른다.
(4) 창의적인 사람 : 새로운 것에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어린이를 기른다.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78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부임일자	비 고
초대	김영채	1997. 3. 1	
2 대	김남돈	1999. 3. 1	
3 대	김남재	2002. 3. 1	

카. 소야초등학교

1) 연 혁

가) 1999. 10. 20 신설학교 설립 확정
나) 2001. 7. 3 학교 건립공사 착공(가칭 금강초등학교)
다) 2002. 3. 1 1년차 공사 준공 및 2년차 완공
라) 2002. 4. 30 학교 명칭 확정(소야초등학교)
마) 2002. 8. 1 설립사무 취급자 발령
바) 2002. 9. 1 초대 송원섭 교장 부임
사) 2002. 10. 4 개교기념식
아) 2004. 2. 19 제1회 졸업식(82명 졸업)
자) 2004. 3. 15 24학급 편성
차) 2005. 2. 18 제2회 졸업식(92명 졸업, 누계 174명)
카) 2005. 3. 2 27학급 편성(유치원1, 특수학급1 포함)

〈 사진 4-2-18 〉 소야초등학교

2) 일반현황[32)]

가) 소재지 : 속초시 조양동 551-1번지

나) 교직원 현황

〈 표 4-2-79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 성별	교직원						행정과 직원			합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보건교사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남	1	1	3	3	0	8	1	1	2	10
여	0	0	3	20	1	24	1	1	2	26
계	1	1	6	23	1	32	2	2	4	36

다) 학생현황

〈 표 4-2-80 〉 학생현황 (단위: 명)

성별 \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5	5	5(1)*	4	3	4	26(1)
학생수	남	89	99	66	51	49	56	410
	여	69	61	46	65	61	64	396
	계	158	160	142	116	110	120	806

* ( )는 특수학급 수

32) 인용한 표는 http://www.soya.es.kr, 2005 참조

라) 시설현황

(1) 교 지

〈 표 4-2-81 〉 교지현황 (단위: ㎡)

구 분	총 대 지	운 동 장	건 평
면 적	15,093	4,050	8,162

(2) 건 물

〈 표 4-2-82 〉 건물현황 (단위: 동, 실)

구분	정규교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회의실	과학실	도서실	음악실	미술실	영어실	방송실	컴퓨터실	동아리실	교사연구실	인쇄실	화장실	유치원	체육관	급식소	인조잔디장
실수	24	0.5	1	1	1	0.5	1	2	1	1	1	1	1	2	8	1	20	1	1	1	1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훈: 다르게 생각하고, 함께 활동하며, 더불어 생활하는 학교

나) 교육목표

(1) 기본 생활습관이 바로 된 착한 어린이

(2) 창의력과 특기를 가진 똑똑한 어린이

(3)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씩씩하게 생활하는 어린이

(4) 우리 문화의 계승 · 발전 · 가치를 창조하는 어린이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83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부임일자	비 고
초 대	송 원 섭	2002. 9. 1	

2. 중학교별 현황[33]

가. 속초중학교

1) 연 혁

가) 1951. 10. 16 속초중학교 설립인가(3학급)
나) 1952. 5. 10 제1회 졸업식 거행(34명)
다) 1961. 9. 8 학급 증설인가(24학급)
라) 1994. 6. 1 신축교사 이전
마) 2003. 3. 1 학급 증설인가(29학급)
바) 2004. 2. 13 제53회 졸업식(359명, 총 17,956명)
사) 2004. 3. 1 제22대 김영복 교장선생님 부임
아) 2005. 2. 15 제54회 졸업식(325명, 총 18,281명)

33) 학교순서는 남 · 여자 중학교, 설립연도 순임.

34) 인용한 표는 http://www.sokcho.ms.kr, 2005 참조

〈 사진 4-2-19 〉 속초중학교

2) 일반현황[34]

가) 소재지 : 속초시 교동 209-5번지
나) 교직원 현황

〈 표 4-2-84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 분	교원					행정과 직원						총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소계	일반직	기능직	회계직	교무보조	전산보조	소계	
인 원	1	1	12	37	51	2	3	2	1	1	9	60

다) 학생현황

〈 표 4-2-85 〉 학생현황 (단위: 명)

학 년 별	1	2	3	계
학 급 수	10	10	9	29
학 생 수	370	373	311	1,054

라) 시설현황

(1) 부지현황

〈 표 4-2-86 〉 부지현황 (단위: ㎡)

구 분	교사부지	운 동 장	계
면 적	1,510.62	33,795.38	35,306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육목표 : 21세기를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1)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2) 자율능력과 창의성을 함양하며

(3)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4) 심신이 조화로운 생활인을 기른다

나) 교육역점

(1)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도덕적 품성을 기른다.

(2) 기초학력 신장과 창의성 계발로 자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3)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고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애향인을 기른다.

(4)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는 건강인을 기른다.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87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철 우	1951. 10. 16 ~ 1955. 3. 6	
2 대	김 창 섭	1955. 3. 7 ~ 1955. 4. 9	
3 대	정 상 순	1955. 4. 10 ~ 1956. 5. 31	
4 대	노 응 도	1956. 6. 1 ~ 1958. 3. 30	
5 대	홍 기 표	1958. 3. 31 ~ 1959. 10. 26	
6 대	김 정 순	1959. 10. 27 ~ 1961. 5. 14	
7 대	유 형 설	1961. 5. 15 ~ 1962. 4. 16	
8 대	김 석 래	1962. 4. 17 ~ 1970. 3. 9	
9 대	이 우 종	1970. 3. 10 ~ 1972. 8. 31	
10 대	강 천 희	1972. 9. 1 ~ 1975. 8. 31	
11 대	강 희 복	1975. 9. 1 ~ 1977. 2. 28	
12 대	정 명 시	1977. 3. 1 ~ 1980. 2. 28	
13 대	이 택 규	1980. 3. 1 ~ 1985. 8. 31	
14 대	최 종 득	1985. 9. 1 ~ 1988. 2. 28	
15 대	권 덕 명	1988. 9. 1 ~ 1989. 8. 31	
16 대	이 인 섭	1989. 9. 1 ~ 1991. 2. 28	
17 대	정 두 교	1991. 3. 1 ~ 1995. 2. 28	
18 대	권 응 찬	1995. 3. 1 ~ 1996. 8. 31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9 대	이 재 균	1996. 9. 1 ~ 1999. 8. 31	
20 대	박 경 훈	1999. 9. 1 ~ 2003. 2. 28	
21 대	김 상 귀	2003. 3. 1 ~ 2004. 2. 28	
22 대	김 영 복	2004. 3. 1 ~ 현 재	

나. 설악중학교

1) 연 혁

가) 1966. 12. 23 설악중학교 설립 인가(9학급)

나) 1967. 6. 5 개교

다) 1971. 9. 1 속초고등학교와 병설 분리

라) 2005. 2. 15 제36회 졸업식(292명, 누계 11,664명)

마) 2005. 3. 2 제15대 김영래 교장 부임

바) 2005. 3. 2 제39회 입학식(371명)

35) 인용한 표는 http://sorak.ms.kr, 2005 참조

〈 사진 4-2-20 〉 설악중학교

2) 일반현황[35]

가) 소재지 : 속초시 교동 780-5

나) 교직원 현황

〈 표 4-2-88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 분	교 원					일반직					총 계
	교장	교감	주임교사	교 사	소 계	6급	7급	기능직	육성회직	소계	
인원	1	1	12	39	53	1	1	3	3	8	61

다) 학생현황

〈 표 4-2-89 〉 학생현황 (단위: 명)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수	10	10	10(1)*	30(1)
학생수	371	373	346	1,090

* ( )는 특수학급 수

라) 시설현황

(1) 부지현황

〈 표 4-2-90 〉 부지현황 (단위: ㎡)

구 분	교사부지	운 동 장	계
면 적	본동 4,154.10 아래 1,095.12	11,627	16,876.13

(2) 건물현황

〈 표 4-2-91 〉 건물현황 (단위: 실, 동)

구 분	교 실	관리실	특별교실	급식소	화장실
교실수	29.5	6	11	1	8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훈: 인성과 학력이 조화를 이룬 창의적인 인재 육성

나) 교육목표

(1)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의 도덕인

(2)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주인

(3)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인

(4)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정서를 지닌 건강인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92〉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정 치 규	1967. 3. 8 ~ 1968. 2. 28	
2 대	유 형 설	1968. 3. 1 ~ 1970. 2. 24	
3 대	권 혁 춘	1970. 2. 25 ~ 1971. 8. 6	
4 대	이 원 복	1971. 8. 7 ~ 1971. 8. 31	
5 대	이 호 순	1971. 9. 1 ~ 1973. 2. 28	
6 대	백 운 화	1973. 3. 1 ~ 1978. 8. 31	
7 대	이 택 규	1978. 9. 1 ~ 1980. 2. 28	
8 대	김 진 방	1980. 3. 1 ~ 1985. 2. 28	
9 대	전 제 현	1985. 3. 1 ~ 1989. 8. 31	
10 대	신 동 걸	1989. 9. 1 ~ 1993. 2. 28	
11 대	최 상 덕	1993. 3. 1 ~ 1996. 8. 31	
12 대	권 철	1996. 9. 1 ~ 1999. 8. 31	
13 대	이 상 하	1999. 9. 1 ~ 2002. 2. 28	
14 대	김 동 광	2002. 3. 1 ~ 2005. 3. 1	
15 대	김 영 래	2005. 3. 2 ~ 현 재	

다. 속초여자중학교

1) 연 혁

가) 1955. 3. 27 속초여자중학교 설립인가(3학급)

나) 1955. 5. 24 개교
다) 1970. 3. 10 속초여자고등학교와 분리
라) 2004. 3. 1 제16대 권순영 교장 부임
마) 2005. 2. 15 제50회 졸업식 거행(287명, 누계 14,723명)
바) 2005. 3. 1 28학급 편제(특수학급 포함)
사) 2005. 3. 2 입학식 325명

〈 사진 4-2-21 〉 속초여자중학교

2) 일반현황[36]

가) 소재지 : 속초시 금호동 625-37

나) 교직원 현황

〈 표 4-2-93 〉 교직원현황 (단위: 명)

직위 / 구분	교장	교감	교사			계	일반직						계	총계
			부장	교사	양호		6급	8급	기능직 8급	기능직 9급	학교회계직	일용직		
정원	1	1	12	34	1	49	1	1	1	2	2	3	10	59
현원	1	1	12	34	1	49	1	1	1	2	2	3	10	59

다) 학생현황

〈 표 4-2-94 〉 학생현황 (단위: 명)

원 장	1	2	3	계
학급수	9	9	9	27(1)
학생수	324	331	326	981

라) 시설현황

〈 표 4-2-95 〉 시설현황 (단위: 실, 동)

구 분	보통교실	관 리 실			특별실	창 고	계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실 수	26	1	4.5	1	15.5	(3)	48(3)

36) 인용한 표는 http://www.sokchogm.co.kr, 2005 참조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육목표 :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조화로운 인격과 슬기로운 지혜를 갖춘 인재를 기른다.

(1) 바르고 조화도룬 도덕인 육성

(2) 밝고 슬기로운 생활인 육성

(3) 세계화에 부응하는 창조인 육성

(4) 강건 · 정결한 경간인 육성

(5) 과학 · 기술을 내실화 한 과학인 육성

나) 경영목표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족하는 즐거운 학교 경영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96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유 장 렬	1955. 4. 20 ~ 1961. 1 .31	
2 대	이 한 상	1960. 2. 1 ~ 1961. 5. 14	
3 대	김 갑	1961. 5. 15 ~ 1965. 3. 31	
4 대	서 창 하	1965. 4. 24 ~ 1970. 3. 9	
5 대	박 한 서	1970. 3. 10 ~ 1972. 8. 31	
6 대	원 충 희	1972. 9. 1 ~ 1977. 8. 31	
7 대	황 세 로	1977. 9. 1 ~ 1981. 2. 28	
8 대	전 성 문	1981. 3. 1 ~ 1984. 8. 31	
9 대	신 원 균	1984. 9. 1 ~ 1989. 8. 31	
10 대	김 동 기	1989. 9. 1 ~ 1994. 2. 28	
11 대	김 봉 길	1994. 3. 1 ~ 1995. 2. 28	
12 대	이 유 수	1996. 3. 1 ~ 1999. 2. 28	
13 대	양 원 명	1999. 3. 1 ~ 2000. 8. 31	
14 대	이 현 숙	2000. 9. 1 ~ 2002. 8. 31	
15 대	최 종 호	2002. 9. 1 ~ 2004. 8. 31	
16 대	권 순 영	2004. 9. 1 ~ 현 재	

라. 설악여자중학교

〈 사진 4-2-22 〉 설악여자중학교

1) 연 혁

가) 1971. 1. 16 설악여자중학교 설립 인가(9학급)

나) 1974. 1. 11 제1회 졸업식(110명)

다) 1995. 12. 28 신축교사로 이전

라) 2000. 10. 14 급식소 준공

마) 2003. 9. 1 제11대 신원하 교장 부임

바) 2005. 2. 17 제32회 졸업식(239명, 누계 9,930명)

사) 2005. 3. 1 제12대 이용익 교장 부임

2) 일반현황[37]

가) 소재지 : 속초시 노학동 산 7-1번지

나) 교직원 현황

< 표 4-2-97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 인원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소계	교육행정실					총계
						행정주사	서기	기능직	잡급직	소계	
정원	1	1	12	34	48	1	1	3	2	7	55
현원	1	1	12	34	48	1	1	3	2	7	55

37) 인용한 표는 http://www.sgm.ms.kr, 2005 참조

다) 학생현황

< 표 4-2-98 > 학생현황 (단위: 명)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수	10	9	8	27
학생수	360	328	272	960

라) 시설현황

< 표 4-2-99 > 시설현황 (단위: ㎡)

구 분	교사부지	건물연면적
면 적	19,373	6,141.1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100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비 고
초 대	강 천 희	1971. 3. 20 ~ 1972. 8. 31	
2 대	신 창 선	1972. 9. 1 ~ 1975. 8. 31	
3 대	최 용 선	1975. 9. 1 ~ 1977. 8. 31	
4 대	이 군 열	1977. 9. 1 ~ 1980. 8. 31	
5 대	김 운 천	1980. 9. 1 ~ 1985. 8. 31	
6 대	백 운 화	1985. 9. 1 ~ 1989. 8. 31	
7 대	김 윤 일	1989. 9. 1 ~ 1993. 8. 31	
8 대	이 용 선	1993. 9. 1 ~ 1999. 8. 31	
9 대	최 선 정	1999. 9. 1 ~ 2000. 8. 31	
10 대	김 택 준	2000. 9. 1 ~ 2003. 8. 31	
11 대	신 원 하	2003. 9. 1 ~ 2005. 2. 28	
12 대	이 용 익	2005. 3. 1 ~ 현 재	

3. 고등학교별 현황[38)]

가. 속초고등학교

1) 연 혁

가) 1952. 5. 25 속초고등학교 설립인가
나) 1952. 6. 22 개교(1학급 50명), 초대교장 서창하 부임
다) 1954. 10. 16 이승만대통령 학도사열
라) 1954. 12. 31 인문계 고등학교 인가(9학급)
마) 1955. 6. 7 신축 교사로 이전(영랑동: 2층, 12교실)
마) 1956. 2. 28 12학급 증설 인가
바) 1965. 12. 29 속초시 교동 신축교사로 이전
사) 1973. 12. 24 15학급 증설 인가
아) 1981. 11. 14 24학급 증설 인가
자) 1988. 11. 14 속초시 장사동 현 신축교사 이전
차) 1997. 11. 30 우정학숙(기숙사) 준공
카) 2000. 9. 1 제16대 김세영 교장 부임
파) 2005. 2. 15 제51회 졸업식 거행(총 졸업생수 14,011명)
하) 2005. 9. 1. 제17대 이명수 교장 부임

〈 사진 4-2-23 〉 속초고등학교

2) 일반현황[39)]

가) 소재지 : 속초시 장사동 460번지
나) 교직원 현황

〈 표 4-2-101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 분	교 원						일 반 직						총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보건교사	계	5급	7급	8급	기능직	잡급직	계	
남	1	1	11	33	0	46	1	1	0	3	0	5	51
여	0	0	1	17	1	19	0	0	1	0	3	4	23
계	1	1	12	50	1	65	1	1	1	3	3	9	74

38) 학교순서는 설립연도 순임.

39) 인용한 표는 http://sokchogo.homeip.net, 2005 참조

다) 학생현황

〈 표 4-2-102 〉 학생현황 (단위: 명)

학 년 별	1	2		3		계
		인문사회	자 연	인문사회	자 연	
학 급 별	10	4	6	4	6	30
학 생 별	352	141	191	140	187	1,011

라) 시설현황

〈 표 4-2-103 〉 시설현황 (단위: 실, 동)

교실명	보통교실	관리실	특별실	휴게실	숙직실	화장실	체육관	창고	기숙사	합숙소	계
수	30	12	11	2	1	7	1	수	3	1	69

※학교부지 : 총 33,045.947㎡(약 10,014평)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훈: 성실, 화협, 강건

나) 교육목표: 이웃을 배려하며, 남과 다른 소질과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1)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2) 경쟁력을 갖춘 실력인 육성

(3) 창의력을 갖춘 능력인 육성

(4) 남을 배려하는 애향인 육성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104 〉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서 창 하	1952. 6. 2 ~ 1961. 9. 4	
2 대	김 창 성	1961. 9. 4 ~ 1961. 11. 17	
3 대	정 치 규	1961. 11. 17 ~ 1968. 3. 1	
4 대	유 형 설	1968. 3. 1 ~ 1970. 2. 25	
5 대	권 혁 준	1970. 2. 25 ~ 1971. 8. 7	
6 대	이 원 복	1971. 8. 7 ~ 1973. 5. 30	
7 대	유 병 섭	1973. 5. 30 ~ 1979. 3. 1	
8 대	김 원 걸	1979. 3. 1 ~ 1982. 9. 1	
9 대	이 승 근	1982. 9. 1 ~ 1985. 8. 31	
10 대	최 지 곤	1985. 9. 1 ~ 1990. 2. 28	
11 대	김 덕 경	1990. 3. 1 ~ 1994. 2. 28	
12 대	김 철 홍	1994. 3. 1 ~ 1995. 8. 31	
13 대	남 규 호	1995. 9. 1 ~ 1998. 2. 28	
14 대	김 택 인	1998. 3. 1 ~ 1999. 8. 31	
15 대	김 택 춘	1999. 9. 1 ~ 2000. 8. 31	
16 대	김 세 영	2000. 9. 1 ~ 2005. 8. 31	
17 대	이 명 수	2005. 9. 1 ~ 현 재	

나. 속초여자고등학교

1) 연 혁

가) 1963. 2. 22 속초여자고등학교 설립인가(속초여중 병설 3학급)
나) 1963. 3. 20 속초여자고등학교 개교
다) 1972. 1. 4 교명변경 승인(속초여자종합고등학교)
라) 1973. 9. 17 속초여자고등학교로 교명변경
마) 1979. 1. 10 학급증설 인가(24학급)
바) 1984. 12. 15 현 신축교사 준공(32개 교실) 교사이전
사) 1989. 2. 28 교지『석류』창간호 발행
아) 1997. 10. 15 강원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발표(자기주도적 학습)
자) 1998. 5. 13 다목적실 신축(석류관)
차) 1999. 10. 21 급식소 신축
카) 2001. 10. 20 학급증설인가(30학급 편성)
타) 2001. 12. 25 교실증축(본동 2, 별동 4)
파) 1963. 2. 22 속초여자고등학교 3학교 인가
하) 2005. 2. 15 제40회 졸업식 거행(총 졸업생수 12,724명)

40) 인용한 표는 http://sokcho-gh.hs.kr, 2005 참조

〈 사진4-2-24 〉 속초여자고등학교

2) 일반현황[40]

가) 소재지 : 속초시 교동 802-1
나) 교직원 현황

〈 표 4-2-105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 인원	교원						일반직						총계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	보건	소계	행정직	기능직	보조	기간제	기타	소계	
남	1	1	5	22	0	29	2	3	0	1	0	6	35
여	0	0	7	28	1	36	1	0	2	0	1	4	40
계	1	1	12	50	1	65	3	3	2	1	1	10	75

다) 학생현황

〈 표 4-2-106 〉 학생현황 (단위: 명)

학 년	1	2			3			합 계
과 정	공 통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소 계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소 계	
학급수	10	6	4	10	7	3	10	30
학생수	349	216	133	349	222	106	328	1,026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훈 : 근면, 성실

나) 교육목표

(1) 남과 함께하는 바른 인성 교육의 실현으로 민주시민 의식함양(민주인)

(2) 기초 · 기본 교육의 충실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배양(자주인)

(3) 남과 다른 창의성 교육의 강화로 경쟁력 있는 지식인 육성(지식인)

(4) 자율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생활인 육성(생활인)

4) 역대 교장 명단

〈 표 4-2-107 〉 역대교장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 갑	1963. 3. 20 ~ 1965. 5. 4	
2 대	서 창 하	1965. 5. 5 ~ 1970. 3. 9	
3 대	김 명 섭	1970. 3. 10 ~ 1972. 8. 31	
4 대	이 영 우	1972. 9. 1 ~ 1977. 8. 31	
5 대	박 태 근	1977. 9. 1 ~ 1982. 2. 28	
6 대	이 배 은	1982. 3. 1 ~ 1989. 2. 28	
7 대	김 운 천	1989. 3. 1 ~ 1993. 2. 28	
8 대	김 택 인	1993. 3. 1 ~ 1998. 8. 31	
9 대	이 인 섭	1998. 9. 1 ~ 1999. 8. 31	
10대	박 무 화	1999. 9. 1 ~ 2000. 8. 31	
11대	조 창 섭	2001. 9. 1 ~ 2003. 8. 31	
12대	황 연 근	2003. 9. 1 ~ 현 재	

다. 속초상업고등학교

〈 사진 4-2-25 〉 속초상업고등학교

1) 연 혁

가) 1969. 11. 22 속초실업고등학교 설립인가

나) 1976. 3. 1 속초상업고등학교 개칭

다) 1980. 10. 20 4학급 증설인가

라) 1986. 12. 30 속초상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설립인가(6학급)

마) 1987. 10. 9 27학급 증설인가

바) 1994. 9. 15 학칙변경인가(상업과 5학급, 정보처리과 4학급)

사) 2000. 10. 9 경영정보과, 정보처리과, 사이버정보통신과 3개 학과로 개편

아) 2004. 3. 1 29학급 증설인가(특수학급 1학급 증설인가)

자) 2004. 12. 23 3학급 보통과 인가

차) 2005. 2. 16 제33회 졸업식(총 졸업생수 10,825명)

카) 2005. 9. 1 제13대 지금식 교장 취임

41) 인용한 표는 http://sokcho-ch.hs.kr, 2005 참조

2) 일반현황[41)]

가)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589-7번지

나) 교직원현황

〈 표 4-2-108 〉 교직원현황 (단위: 명)

구 분	교 원				일 반 직					총 계
	교 장	교 감	교 사	소 계	5급	9급	기능직	회계직	소 계	
현 원	1	1	63	65	1	3	4	2	9	74

다) 학생현황

〈 표 4-2-109 〉 학생현황 (단위: 명)

학 년	경영정보과		정보처리과		사이버정보통신과		합 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1	3	106(3)	3	110	3	107	9	323(3)
2	3	108(4)	3	109(3)	3	112(1)	9	329(8)
3	3	126(2)	3	126(1)	3	128	9	380(3)
계	9	340(9)	9	345(4)	9	347(1)	27	1,032(14)

※ ()은 특수학급학생수로 전체수에 포함

라) 시설현황

〈 표 4-2-110 〉 시설현황 (단위: ㎡)

구 분	운동장	건물부지	학교림	계
면 적	55,809	6,495.62	139,835	202,139

3) 교육의 기본방향

가) 교육목표: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전문인 육성

나) 교육의 구현방안

(1) 존경받는 교사
(가) 열정적인 교사
(나) 연구하는 교사
(다) 화합하는 교사
(2) 실력있는 학생
(가) 효도하는 학생
(나) 면학하는 학생
(다) 도전하는 학생

4) 역대교장 명단

〈표 4-2-111〉 역대 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호 순	1970. 3. 1 ~ 1971. 8. 31	
2 대	김 운 천	1971. 9. 1 ~ 1976. 8. 31	
3 대	이 호 순	1976. 9. 1 ~ 1981. 8. 31	
4 대	김 형 갑	1981. 9. 1 ~ 1982. 8. 31	
5 대	최 용 선	1982. 9. 1 ~ 1986. 8. 31	
6 대	김 덕 경	1986. 9. 1 ~ 1989. 8. 31	
7 대	김 술 갑	1989. 9. 1 ~ 1994. 8. 31	
8 대	이 재 훈	1994. 9. 1 ~ 1995. 8. 31	
9 대	이 인 섭	1995. 9. 1 ~ 1998. 2. 28	
10 대	김 경 석	1998. 9. 1 ~ 1999. 8. 31	
11 대	이 기 태	1999. 9. 1 ~ 2003. 8. 31	
12 대	이 기 정	2003. 9. 1 ~ 2005. 8. 31	
13 대	지 금 석	2005. 9. 1 ~ 현 재	

4. 고등교육기관(동우대학)

동우대학은 1981년 속초시 노학동 산244번지에 개교했다. 2 · 3년제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 인문사회계열을 비롯한 8개 계열과 컴퓨터학부를 비롯한 2개 학부 등 총 20개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5,000여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는 청사관, 청초관, 영북관, 노학관, 유아교육관 및 동우아트홀 및 4동의 기숙사,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부속시설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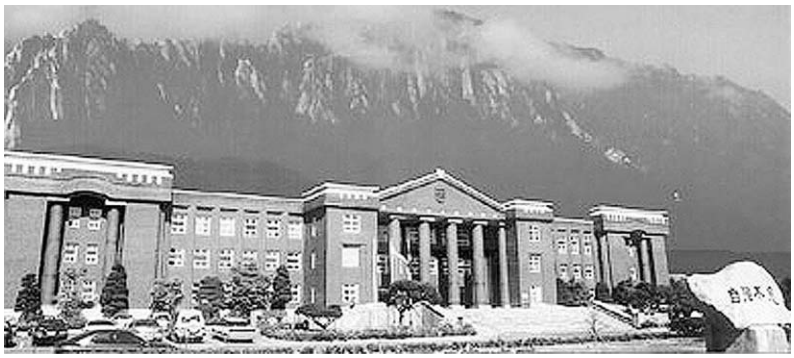
가. 설 립

동우대학의 설립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올바른 인격(人格)과 민주공민(民主公民)으로서의 자질을 구유(具有)하고, 민족문화 창달(暢達)과 인류공영 실현(實現)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人材)를 육성한다."이다. 학훈(學訓)은 "진성(眞誠)"이며, 동우정신은 "충(忠), 효(孝), 인(仁), 경(敬)의 민족적 품성과 자강불식(自彊不息)의 실천적 태도를 바탕으로 창

조와 봉사에 앞장선다."이다.

이와 같은 설립이념 아래 동우대학의 교육목표는 "세계화를 향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참되고 의로운 새 한국인상을 기르며, 견인불발, 진리탐구의 정신과 합리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며 창의적인 활동력을 발휘하게 하며, 성실, 근면, 협동정신으로 인격을 도야하며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배양한다."이다.

이는 국가적 교육 이념의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며, 학교 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에도 참여하고 나아가 산 · 학 협동체제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기도 하다.



〈 사진 4-2-26 〉 동우대학

나. 연 혁

동우대학은 1980년 1월 법인 설립 총회를 갖고, 같은 해 2월 교육부에 설립허가서를 제출하여 1월에 법인설립과 전문대학 개교 본인가를 받게 되었다. 그 이듬해인 1981년 3월에 속초경상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다가 1998년 5월에 현재와 같은 동우대학으로 개명한 것이다. 자세한 연표는 다음과 같다.

1980. 1. 11. 학교법인 동성학원 창립총회 개최
11. 3. 학교법인 동성학원 설립인가 및 속초경상전문대학 예비인가 (초대 이사장 설립자 우당 전재욱 박사 취임)
11. 8. 전 국회의장 정일권 박사 명예 이사장 추대
12. 11. 속초경상전문대학 설립 인가(경영과외 6개학과 1,000명)
1981. 2. 1. 초대학장 한상갑 박사 취임
3. 25. 교사 영북관(3,344 ㎡) 준공
3. 28. 개교식 및 제 1회 1981학년도 입학식(1,138명)
10. 16. 속초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12. 30. 校舍 노학관(5,500 ㎡) 준공

1983. 9. 16. 동우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9. 28. 학교법인 동우학원으로 법인명 변경
1985. 3. 1. 제2대 학장 이상직 교수 취임
8. 26. 기숙사 양덕원 준공(272명)
1989. 2. 15. 제2대 김종환 이사장 취임
16. 제3대 학장 전재욱 박사 취임
5. 30. 제3대 전재욱 학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6. 13. 교사 청사관(5,516 ㎡) 준공
1991. 3. 30. 개교 10주년 기념으로 "동우학원 십년사" 간행
1992. 11. 10. 제3대 고희재 이사장 취임
1993. 6. 30. 교사 청초관(7,500 ㎡) 완공
1994. 1. 5. 제4대 학장 김상호 박사 취임
12. 23. 기숙사 예지원 본관 준공(576명)
12. 26. 학교법인 경동대학교로 법인명 변경
1996. 12. 23. 기숙사 예지원 신관 준공(576명)
1997. 3. 1. 제5대 학장 이원재 박사 취임
3. 17. 제5대 이사장 조병두 박사 취임
1998. 5. 1. 동우대학으로 교명 변경
1999. 5. 24. 교육부《'99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
8. 18. 교사 유아교육관(3,268 ㎡) 준공
12. 31. 기숙사 젠틀맨하우스 준공(576명)
2000. 3. 17. 제6대 이사장에 남상우 교수 취임
2002. 10. 1. 개교 20주년 기념으로 "동우대학 20년사" 간행
31. 강당 "Dong-U Art Hall" 준공
2002. 1. 13. 제7대 고희재 이사장 취임
2005. 2. 18. 제23회 학위수여식(31,536명)
28. 제25회 2005학년도 입학식

다. 개설학과 및 입학정원

〈 표 4-2-112 〉 개설학과 및 입학정원 (단위: 명)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비 고
인문사회계열	복지행정과	복지전공	160	
		행정전공		
	경호경찰과		80	
	부사관과	(남)	48	
		(여)	12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비 고
관광계열	관광과		120	
	호텔경영과		80	
조리제빵계열	호텔조리과		180	
	호텔제과제빵과		80	
사범계열	유아교육과★ ※		128	
IT계열	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전공	120	
		인터넷컨텐츠전공		
		그래픽디자인전공		
예체능계열	영상예술학부	패션광고사진전공	80	
		영상미디어전공		
		방송연예전공		
	레저스포츠과		80	
보건계열	피부미용과		180	
	보건행정과		80	
	치기공과 ※		80	
	치위생과 ※		160	
간호계열	간호과 ※		200	
계			2,208	

자료: www.duc.ac.kr, (2005. 9. 현재)
★ 는 여학생만 모집, ※ 3년제

라. 역대 학장 명단

〈 표 4-2-113 〉 역대 학장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제1대	학 장	한 상 갑	1981. 3. 1 ~ 1985. 2. 28	
제2대	학 장	이 상 직	1985. 3. 1 ~ 1989. 2. 28	
제3대	학 장	전 재 욱	1989. 3. 1 ~ 1994. 2. 28	
제4대	학 장	김 상 호	1994. 3. 1 ~ 1997. 2. 28	
제5대	학 장	이 원 재	1997. 3. 1 ~ 현 재	

마. 졸업생현황

〈 표 4-2-114 〉 졸업생현황 (단위: 명)

학과 \ 연도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소계
경 영 과	122	62	74	72	100	123	115	113	89	105	129	157	164	1,425
세무회계과	125	51	43	51	51	42	76	94	86	80	83	90	108	980
행 정 과	87	58	44	56	70	68	62	101	98	118	120	139	159	1,180
복지행정과	–	–	–	–	–	–	–	–	–	–	–	–	–	–
관 광 과	94	79	107	127	121	144	138	159	140	142	162	166	233	1,812
식품영양과	102	33	58	60	59	68	68	57	59	77	111	87	101	940
유아교육과	160	131	160	151	162	167	175	155	154	160	155	158	156	2,044
여성교양과	–	–	–	–	–	–	–	69	107	115	119	113	117	640
생활보육과	–	–	–	–	–	–	–	–	–	–	–	–	–	–
보 육 과	–	–	–	–	–	–	–	–	–	–	–	–	–	–
전자계산과	–	–	–	44	54	101	111	102	103	116	132	212	202	1,177
컴퓨터정보과	–	–	–	–	–	–	–	–	–	–	–	–	–	–
전자계산기과	–	–	–	–	–	–	–	–	–	–	–	–	41	41
사무자동화과	–	–	–	–	–	–	–	–	–	–	–	–	–	–
인터넷통신과	–	–	–	–	–	–	–	–	–	–	–	–	–	–
인터넷정보과	–	–	–	–	–	–	–	–	–	–	–	–	–	–
컴퓨터그래픽과	–	–	–	–	–	–	–	–	–	–	–	–	–	–
사 진 과	–	–	–	–	–	–	–	–	20	55	52	51	86	264
디지털광고사진과	–	–	–	–	–	–	–	–	–	–	–	–	–	–
양 식 과	–	–	–	–	–	–	35	21	24	35	30	34	–	179
수산개발과	–	–	–	–	–	–	–	–	–	–	–	–	55	55
해양정보과	–	–	–	–	–	–	–	–	–	–	–	–	–	–
치기공과	–	–	–	59	64	74	76	64	67	72	69	84	79	708

학과 \ 연도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소계
치위생과	–	–	–	–	78	80	89	80	78	81	115	118	120	839
간 호 과	–	–	–	–	83	167	171	169	151	149	155	157	155	1,357
피부미용과	–	–	–	–	–	–	–	–	–	–	–	–	–	–
호텔조리(외식사업)과	–	–	–	–	–	–	–	–	–	–	–	–	–	–
제과제빵과	–	–	–	–	–	–	–	–	–	–	–	–	–	–
호텔제과제빵과	–	–	–	–	–	–	–	–	–	–	–	–	–	–
관광레저과	–	–	–	–	–	–	–	–	–	–	–	–	–	–
일 어 과			27											27
법률사무과		18												18
무 역 과	107	28	21	56										212
의 상 과		32	29	24	29									114
소 계	797	492	563	644	871	1,034	1,116	1,184	1,176	1,305	1,432	1,566	1,776	13,956
총 계	797	1,289	1,852	2,496	3,367	4,401	5,517	6,701	7,877	9,182	10,614	12,180	13,956	

〈 표 4-2-114(속) 〉 졸업생현황 (단위: 명)

학과 \ 연도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계
경 영 과	190	187	181	160	218	154	101	100	70	28	2,814
세무회계과	124	136	107	98	–	–	–	–	–	–	1,445
행 정 과	187	194	193	164	145	167	127	114	120	–	2,591
복지행정과	–	–	–	–	–	–	–	–	–	121	121
관 광 과	282	253	247	213	203	194	162	177	147	126	3,816
식품영양과	99	130	122	105	84	90	107	89	65	24	1,855
유아교육과	155	154	154	145	153	157	159	161	3	132	3,417
여성교양과	120	110	116	108	103	–	–	–	–	–	1,197
생활보육과	–	–	–	–	–	100	94	77	52	–	323
보 육 과	–	–	–	–	–	–	–	–	–	15	15
전자계산과	234	223	233	201	212	215	219	–	–	–	2,714
컴퓨터정보과	–	–	–	–	–	–	–	186	184	104	474
전자계산기과	53	–	–	–	–	–	–	–	–	–	94
사무자동화과	–	103	111	111	100	125	115	–	–	–	665
인터넷통신과	–	–	–	–	–	–	–	104	79	–	183
인터넷정보과	–	–	–	–	–	–	–	–	–	48	48
컴퓨터그래픽과	–	–	–	–	–	–	–	–	–	7	7
사 진 과	121	90	109	90	83	97	72	64	43	–	1,033
디지털광고사진과	–	–	–	–	–	–	–	–	–	32	32
양 식 과	–	–	–	–	–	–	–	–	–	–	179
수산개발과	47	51	66	68	58	–	–	–	–	–	345
해양정보과	–	–	–	–	–	53	44	–	–	–	97
치기공과	22	56	40	43	76	72	60	66	68	86	1,297
치위생과	–	152	146	144	147	148	132	149	164	160	2,181
간 호 과	159	150	149	187	184	188	193	205	194	198	3,164
피부미용과	–	–	–	–	–	116	156	153	175	111	711
호텔조리(외식사업)과	–	–	–	–	–	–	42	57	70	82	251
제과제빵과	–	–	–	–	–	–	–	34	33	–	67
호텔제과제빵과	–	–	–	–	–	–	–	–	–	35	35
관광레저과	–	–	–	–	–	–	–	–	30	20	50
일 어 과											27
법률사무과											18
무 역 과											156
의 상 과											114
소 계	1,793	1,989	1,974	1,837	1,766	1,876	1,783	1,736	1,497	1,329	31,536
총 계	15,749	17,738	19,712	21,549	23,315	25,191	26,974	28,710	30,207	31,536	

자료: 동우대학, 2005.

제3장 사회복지

제1절 연혁

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란 영어의 'social welfare'를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이란 의미는 물질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이며, 이타적 속성의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지'란 '건강하고 안락한 인간생활의 이상적 형태', 즉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42]. 다시 말해서, 어떠한 형태든 고통이 없는 만족스런 생활방식 일체가 곧 복지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사회학자 월터 프레들랜더 (Walter A. Friedlander)는 사회복지를 '개인이나 집단이 생활이나 건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조직적 체계이다'라고 정의 한다[43].

또한 로마니신(John M. Romanyshyn)은 '사회복지는 개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 한다' [44]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복지란 '사회의 전 구성원에대한 복지로써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개성을 발전 · 실현시키는 동시에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충분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뜻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로 좁게 규정되어 있다. 물론 넓은 의미로써 사회복지를 규정한다면 사회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나 사회사업은 공히 사회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그 서비스의 수혜대상자로 한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에는 사회보장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를 정의하면 '개인이 자신과 가족을 자신의 능력과 예비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현대생활에 있어서 불의의 사고,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및 불구, 폐

42) 남세진, 조흥식, 『한국사회 복지론』, 나남출판, 1995, p.20

43) Walter A. Friedlande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2, p.4

44) John M. Romanyshyn, 『Social Welfare』, N.Y.: Random House, p.3,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대영출판사, 1993, p.51에서 재인용.

질 등에 대하여 사회가 제공하는 보호의 체계가 사회보장이다'라고 할 수 있다[45].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제2조에서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시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 [46]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의미가 확대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가.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영위해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 또는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였다.

고조선 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띄고 있었는데, 그 예로 '8조 법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고대 삼국시대

삼국시대에는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과 중국에서 유입된 유교를 비롯한 불교와 도교가 구제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토착사상에 유 · 불 · 선 3교를 융합한 화랑도 정신이 민간구제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구휼기록으로는『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라 제2대 남해왕(南解王)이 서기 18년에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림에 국고를 열어 이를 구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시대의 국가들은 농사가 국가재정의 전부이자 백성의 후구방편이므로 곡식의 생산량에 따라 국력이 좌우되었다. 흉년이 들거나 재해를 입거나 질병,

45) 성남시사편찬위원회,『성남 20년사』, 1993, p.1402

46) 장덕제,『사회보장 정책론』, 2000, 대경출판사, p.5

전란 등으로 실농(失農)을 하여 유랑민이 생기면 이들을 귀농케 하기 위하여 비축해 두었던 국가곡식을 풀어서 종자와 양곡을 살포하였다. 삼국시대의 구휼사업은 한해를 비롯하여, 기근, 서리, 홍수, 폭풍우, 우박, 화재, 흉작, 역병, 지진, 폭설 등의 천재지변 시에 시행하였는데, 특히 고구려에서는 기록상 남아 있는 최초의 항구적 구빈제도라 할 수 있는 진대법(賑貸法)을 실시하였다. 고구려 제9대 고국천왕(故國川王) 16년(194)에 실시한 진대법은 춘궁기인 3월부터 7월 사이에 관곡을 빈민들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가 추수기인 10월에 상환케 한 제도이다. 관곡을 대여할 경우 가구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을 두어 대여했다. 진대법은 춘궁기 백성 구제, 농민들의 이농방지, 농민의 생활안정, 신 · 구 관곡의 교환 및 적절한 이용 등 여러 이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구제 및 구휼사업은 삼국에 있어 다같이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였다[47].

47) 유광호, 「한국 사회정책의 역사와 그 성격」, 『한국현대사의 주요 쟁점 재조명』, 1994.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5집, p.60

다. 고려시대

고려를 창건한 왕건(王建)은 건국과 동시에 인재등용과 민심수습에 특히 중점을 두어 국가의 초석을 공고히 하였다. 따라서 토지제도와 세공법을 바로잡아 제세안민(濟世安民)의 터전을 튼튼히 마련하고 또한 흑창(黑倉)제도를 창시하여 한 · 당대에 중국에서 실시한 구황법인 의창(義倉), 상평창(常平倉)의 제도를 모방하여 궁민진대사업을 추진하였다. 성종(成宗) 5년(897)에는 그 동안 시행이 여의치 않던 흑창을 의창으로 개명하고 각 주의 인구호수에 따라 의창을 두어 궁민구제기관으로 활용하였다. 성종 7년(988)에는 재면법을 제정하여 홍수, 한해, 서리, 충해로 인해 전답 피해가 4분 이상 손실되면 조를 면하고, 6분 이상이면 조포를 면하고, 7분 이상이면 조포역을 모두 면제하여 주었다. 이후 성종(成宗) 12년(994)에는 왕명으로 상평창을 양경(兩京)과 12목(牧)에 설치하여 곡가의 등락을 조정하고 흉년에 방비케 하였다. 고려조의 구제제도로는 정인지가 『高麗史』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은면지제(恩免之制), 재면지제(災免之制), 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 수한역려진대지제(水旱疫癘賑貸之制), 납속보관지제(納粟補官之制) 등의 5영역으로 분류 ·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빈민구제사업과 이재민구호사업을 통괄하는 구제기관으로 제위보(濟危寶)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7품 이상의 책임자를 두어 구휼사무를 관장케 하였다. 고려조에는 이 제위보 이외에 사업종별에 따라 학보(學寶), 광학보(廣學寶), 경보(輕寶), 팔관보(八關寶) 등이 있었다. 예종(睿宗) 4년

(1109)에는 중앙에 구제도감(救濟都監)을 설치하여 구휼행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충목왕(忠穆王) 4년(1348)에는 진제도감(賑濟都監)을 설치하였으며 우왕 7년(1391)에는 진제색(賑濟色)을 두어 구휼행정을 강화하였다. 고려조의 의료구제사업으로는 제11대 문종(文宗)때 개경(開京)에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란 의료구제기관을 설치하였고 제16대 예종(睿宗) 7년(1112)에는 혜민국(惠民局)을 설치하여 빈민 환자를 돌보았다[48].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의 재해대책이 대개 임시조치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구빈정책, 구빈기관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라.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장려하게 됨에 따라 구빈사업도 유교의 왕도주의(王道主義)에 입각하여 왕들이 재해 및 빈민구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49].

조선시대의 민생구휼제도는 성종 16년(1485)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교시에 따라 시행되었다. 경국대전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이전(吏典)의 의료구제기관인 혜민서(惠民署)·활인서(活人署)에 관한 규정과 노인직조에 대한 규정, 호전(戶典)의 상평창(常平倉)을 통한 백성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규정, 비황조(備荒條)의 흉년과 재해에 대비한 소금과 해초의 비축 명시와 지방관의 궁민진휼제도 책임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성종 23년에 간행한 『대전속록(大典續錄)』과 『이전구임조(吏典久任條)』에는 혜민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승진규정이 있고 영조 때 간행한 『속대전(續大典)』에는 선혜청(宣惠廳)의 신설과 경로, 양로 등의 규정이 있다.

이상의 대전에 규정된 민생구휼기관으로는 구황청(救荒廳: 후에 진휼청(賑恤廳)으로 개칭) 혜민국(惠民局), 활인서(活人署), 제생원(濟生院), 기로소(耆老所), 장예원(掌隷院), 빙고(氷庫), 평시서(平市署) 등이 있었다. 구황청은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구제를 맡아보는 국가기관으로 세종 때 설치되어 인정, 애민과 기민구휼(饑民救恤)의 전래제도를 관장하게 하였다. 혜민국은 태조 때 태평방(太平坊)에 설치된 기관으로 빈민을 치료하고 여의사를 교습하였다. 활인서는 서부의 아현동(阿峴洞)과 동부의 돈암동(敦岩洞)에 설치된 한양(漢陽)의 빈민 환자를 구황하던 기관이다. 제생원은 태조 6년(1397)에 고려의 제위보를 모방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의방의 조사 및 수집, 의학서적 간행(『향약제생집성방』 30권을 편집), 약초의 조사 및 채집, 의녀 양성 등에 주력했다. 기로소는 태조 3년(1394) 경성 중부(현 세종로

48) 구자헌, 『한국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49)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89.

(世宗路) 부근에 설치된 경로당으로 70세 이상의 전직고관 및 학자를 입소시켜 잔치를 열고 노후를 즐기게 하는 일을 담당했다. 장례원은 노비문서를 보관하고 노비문제의 쟁송, 판결 등을 맡아보는 기관으로 적선방(積善坊) 공조(工曹)의 남쪽과 광화문(光化門) 근방에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구제제도로는 의창(義倉), 사창(社倉), 상평창(常平倉)의 삼창제도와 교제창(交濟倉), 제민창(濟民倉) 등이 조선 구제의 중심을 이루었다. 의창은 원래 빈민구제기관으로서 평상시에는 곡물을 적치하여 흉년 등 재해에 대비하게 한 제도였다. 사창은 의창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되 의창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일종의 민영의창(民營義倉)제도였다. 상평창은 물가조절의 기능을 맡은 기관으로서 기본곡, 곡물 이외에 포목 등도 적치하여 물가를 조절하였다. 교제창은 제민창과 더불어 각도의 환곡의 상호교류를 위한 시설로써 숙종 때와 영조에 이를 설치되었다.

조선조의 아동복지제도로는 정조 7년(1783)에 '자휼전칙(字恤前則)'이라고 부르는 유기 및 부랑걸식아동보호법령이 공포되어 기근이 심하여 유기된 어린이와 문전걸식하는 아동을 관아에 유양 또는 민가에 수양토록 허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의료구제제도로는 태조 1년(1392) 궁내 의약공급과 구료기관으로서 전의감(典醫監)과 서울에 혜민서 및 동서대비원(태종 때 활인서로 개칭)을 두고 빈자시료를 행하였다. 또한 월령의(月令醫)라는 일종의 구료공의제도가 있어 의금부(義禁府)와 전옥서(典獄署)에 각 1명을 배치하여 죄수의 질병을 치료하였다. 기부모집제도 중에는 권분(勸分)이라고 하는 벼슬을 파는 제도가 있었다.

조선시대의 인보상조 제도로는 계, 두레, 오가작통(五家作統), 향약(鄕約) 등이 있어 민간사회복지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계는 혼(婚), 상(喪)시의 상호부조, 공제구조의 민간조직이며, 두레는 부락단위의 친목계이었으며, 오가작통은 인보공제(隣保共濟)의 말단 자치단위였다. 향약역시 지역적 자치규약으로서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4대 강목을 주 정신으로 만든 향촌의 인보제도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제도 등이 조선 초에는 그 실시가 철저하여 민심수습과 유랑민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 등의 삼정이 문란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895년의 갑오경장으로 인해 모든 사회복지사업의 구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라. 일제(日帝) 및 군정시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한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는 '직접통치' 라는 통치방식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와 같은 사회입법을 적용하지 않았다.[50] 조선에서는 다만 유사시에 은전을 베풀어 '생업부조' 또는 '현물급여' 등의 구호를 하였는데, 이는 극히 한정된 요구호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916년 폐질, 중병자나 무의무탁한 노유 병약자들을 식량급여만으로 구조하게 한다는 내용의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을 발령 · 시행하였다. 또한 1914년 '은사이재구조기금 관리규칙'을 정비하여 1938년 8월 30일에 '조선이재구조기금령'을 공포하였으며, 1917년에 '행려병인구호자금관리규칙'과 1940년에 '직업소개법' 그리고 1944년에 '조선구호령'등을 각각 발령 ·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일제시대의 구호정책은 '조선구호령'이었다.

민간차원에서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효시로는 구한말 고종 25년(1888) 3월에 프랑스교단에 의하여 서울의 명동천주교성당에 개설된 고아원을 손꼽을 수 있다. 이후 고종 32년(1895) 3월 인천천주교성당부속고아원이 설립되었고 광무(光武) 10년(1906)에는 독지가 이심화(李芯和)가 경성고아원을 설립하는 등 서구열강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고아양육사업이 활발해져 갔다[51]. 1877년부터 1907년까지 빈자와 행려병자, 고아들을 구휼하기 위한 16개 사회복지시설이 한국인과 외국인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서울, 부산, 인천, 목포, 진남포 등에 설립 · 운영되었다[52]. 이후 일제는 1934년까지 경기도(8), 충남(3), 전북(1), 전남(3), 경북(3), 평남(1), 평북(1), 함남(1) 등 모두 21개의 육아시설을 설치하였다. 1934년까지 전국에 설립된 사회사업시설 및 규모는 매우 미약하고 차별적 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함에 따라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광복 직후 한민족에 의한 자주 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채, 과도적 미군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 구호는 일제시대 때 사용되었던 사회사업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그때그때 미군정이 발령한 '후생국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46년 법령 제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공포 · 시행하였으며, 1947년 5월 16일 '미성년자노동보호법(법령 제4호)'을 공포 · 시행하였다.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은 미성년자를 위해 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매우 진보된 아동보호입법이었다. 1953년 8월 9일 근로기준법이 재정 · 실시될 때까지 독립 초기 아동복지를 위해 큰

50) 류진석, 「일제시대의 빈곤정책」,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98, p.327

51)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 20년사』, 1993, p.1411

52) 정길홍, 『사회복지개론』, 홍익재, 1998, p.84

공헌을 했다[53].

미군정기의 복지행정은 보건후생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45년 9월 24일 미군정법령 1호에 의해 경무국 산하 위생과를 위생국으로 독립시켰고, 10월 27일자로 법령 18호를 발하여 보건후생국으로 승격시켰다. 이어 1946년 3월 29일 법령 64호에 의해 부로 승격하여, 당시 남조선 과도정부 부서 중 산하에 16개국을 거느린 최대의 부서가 되었다[54].

미군정 당시의 구호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시설, 공공, 응급, 이재구호 사업과 같은 일반구호 사업과 실업구제, 수용 및 주택구호 사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구호 사업과 실업구호 사업은 전 재민과 토착민들에게 해당되었던 반면, 수용구호와 주택구호 사업의 주 대상자는 전재민과 피난민이었다.

53)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4

54) 이영환, 「미군정기의 구호정책」,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98, p.55

마.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된 것은 바로 1950년대에서 비롯된다. 특히 6·25동란으로 수많은 전쟁고아와 미망인 등 요보호대상자가 생기게 됨에 따라 주로 미국을 위주로 한 외국 사회사업기관의 후원 하에 이들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사업기관이 여러 곳에 생기면서 초기의 구호적 성격을 벗어나 몇몇 외원기관에는 전문사회사업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파견되어 전문사회사업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사회사업교육을 받은 인력을 고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사업 전문성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반부터 각종 사회복지사업 법제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는데, 공무원연금법(1961), 아동복리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재해구호법(1961),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등의 제정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와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험법(1977)이 제정되고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고(1981), 노인복지법(1981, 1989), 장애인복지법(1981, 1989) 등이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국민연금 실시(1988), 최저임금제 도입(1998), 의료보험의 전국민 확대(1989), 모자복지법 제정(1989)등 일련의 입법조치와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도에 들어서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단

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되어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에 관한 대학과정의 전문교육은 1947년 9월에 이화여대에 사회사업학과가 생긴 이래 198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증가되어 전문대학에서도 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전문화와 국민의 사회복지 의식고취에 공헌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연금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2000, 10. 1일부터 시행) 등), 사회복지 서비스(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부녀자 대상), 그리고 관련 제도(교육, 주택, 환경보존, 보건, 고용대책 및 공동소비이용 시설확충)의 네 가지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표 4-3-1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개황

구 분		근 거	적 용 대 상	급 여 대 상	관 장 기 관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1986.12.31) ※당초법률: 국민복지연금법 (1973.12.24)	국내거주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 (타연금제도 적용자 제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법 (1960.1.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군인과 선거에 의한 공무원 제외)	• 장기급여(퇴직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 단기급여(공무상의 요양비)	총무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교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3.12.30)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임시직, 조건부임용자, 무보수 근무자 제외)	상동	교육부 사립학교교육원연금 관리공단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1963.1.28)	장기복무하사관 및 장교	•퇴직연금.상이연금 •유족급여.재해보상금	국방부
	의료보험	의료보험법(1976.12.22) ※당초법률:의료보험법 (1963.12.26) 〈폐지〉	사업장 근로자	•진찰,수술,치료 및 약제의 지급 •입원 간호, 이송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연합회 직장의료보험조합
		산재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농어민·자영자	상동	보건복지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	모든국민	• 치료비보장,질병치료 • 건강진단, 제활 및 예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관리공단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3.11.5)	사업장 근로자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199.312.27)	사업장 근로자	•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노동부
공적부조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생활보호법(1982.12.31) 당초법률:생활보호법 (1961.12.30)	생계대책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저소득자 등	• 생계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자활보호 • 장제보호	보건복지부, 시.군.구
	의료보호	의료보호법 (1977.13.31)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시설수용자, 재해이재민,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인간문화재와 그 가족, 귀순 복한동포와 그 가족	• 의료보호1종 • 의료보호2종 ※보호의 내용은 〈의료보험〉의 급여와 같음	보건복지부, 시.군.구
	재해구호	재해구호법 (1962.2.20)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 생필품지급 • 시설수용, 주택수리 • 생업지원 • 의료및 조산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도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1981.6.5)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진단. •경로우대 •노령수당, •생업지원 •시설보호 등	보건복지부, 시·도, 시·도·구

구 분		근 거	적용대상	급여내용	관장기관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1981.6.5)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진단. •경로우대 •노령수당, •생업지원 •시설보호 등	보건복지부, 시·도, 시·도·구
	아동복지	아동복지 (1981.4.3) ※당초법률:아동복리법 1962.13.30	18세 미만의 아동 및임산부	•일반아동(상담지도, 보육) •요보호아동 및 임산부(생계보호, 의료보호,시설보호등)	보건복지부, 시·도, 시·도·구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1989.12.30) ※당초법률:심신장애자 복지법(1981.6.5)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검진.상담 •재활시설보호 •생업지원 •의료비지원 •보장구교부 등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시·도 시·도·구
	여성복지	모자복지법(1989.4.1)	남편이 없거나 있더라도 노동능력을 상실한 가구의 모와 18세 미만의 자녀	•생계비 지급 •아동양육,교육비지급 •직업훈련소및위업알선 •시설보호등	보건복지부, 시·도, 시·도·구

자료: 인경석,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2000, pp.92~97.

〈 표 4-3-2 〉 관련 복지제도 개황

분야		근 거	제도 및 시책의 내용	관장기관
관련복지제도	보건	• 전염병예방법(1954.2.22)	•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소독조치, 전염병 환자의 격리 · 치료	보건복지부
		주거	• 검역전염병 환자의 격리치료, 선박 · 항공기 등의 소독, 전염매체동물의 수입제한	〃
		교육	• 건강진단, 예방접종, 환자치료(보건소등록 또는 격리), 환자의 취업제한	〃
		• 기생충질환예방법(1966.4.24)	• 기생충질환의 검사 및 치료의무, 분뇨 사용의 제한	〃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87.11.28)	• 국제항해선원 등 감염우려자 검진, 감염자 격리보호 · 치료	〃
		• 공중위생법(1986.5.10)	• 위생 접객업허가 · 규제, 공중 위생관리	〃
		• 국민건강증진법(1995.1.5)	•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건강사업, 검진	〃
	주거	• 주택건설촉진법(1977.12.31)	•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의 건설 · 공급, 고용주의 직장조합 주택건설자금 지원	건설교통부, 한국주택공사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1987.5.30)	• 재형저축자금의 주택자금으로의 활용, 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동주택 구입시의 취득세 등의 감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사업주의 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과세	건설교통부, 주택은행
		• 임대주택법(1993.12.27)	• 임대주택건설에 장기 ·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우선사용 •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택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 임대주택의 분양제한 및 전대금지	건설교통부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1989.4.1)	• 도시영세민 집단촌의 공공시설 정비, 주택개량에 대한 장기 · 저리 융자지원,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건축밥상의 각종 규제 완화	내무부, 서울시
	교육	• 교육법(1949.12.31)	• 교육의 기회균등, 초.중고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	교육부
		• 특수교육진흥법(19977.12.3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기관 설치 의무, 무상교육 및 장학금지급, 점자도서 등 교재지급, 특수교육전단교원 양성 배치	〃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1967.1.16)	• 도서·벽지 교육시설의 우선설치, 교과서 무상공급, 교원에 대한 주택제공 및 도서·벽지 수당지급	〃
		• 산업체의 근로총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1977.2.28)	• 특수학급 및 부설 중·고등학교 설치, 수업료 등의 면제	〃
	고용	• 근로기준법(1953.5.10)	• 근로조건개선, 재해보상,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부
		환경	• 동일사업장, 도일노도에 대한 동일임금, 고용·교육·승진의 기회균등	〃
		• 최저임금법(1986.12.31)	• 최저임금 보장	〃
		• 직업안정법(1994.1.7)	• 직업적성검사, 직업소개, 지업지도 등	〃
		• 직업훈련기본법(1981.12.31)	• 기술자격검정, 직업훈련실시 및 경비지원, 훈련수당지급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1.1.12) ※ 당초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19901.13)	• 직업훈련, 적성검사, 의무고용, 고용부담금	〃

분야		근 거	제도 및 시책의 내용	관장기관
관련복지제도		• 산업안전보건법(1990.1.13)	• 건강진단, 유해위험예방조치, 질병자 근로금지	"
		•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4.13.31)	• 건강검진, 진폐위로금 지급(직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	"
	환경	• 대기환경보전법(1990.8.1)	•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환경부
		• 수질환경보전법(1990.8.1)	• 폐수의 배출규제, 공공수역·호소의 수질보전	"
		• 토양환경보전법(1995.1.5)	• 토양오염의 규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 해양오염방지법(1991.3.1)	•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 액체 물질 배출 규제, 해양 오염 장제	해양수산부
		• 소음.진동규제법(1990.8.1)	• 공장, 건설공장사장, 도로, 철도, 항공기 등으로부터의 소음 및 진동규제	환경부
		• 자연환경보전법(1991.12.31)	• 자연생태계보전, 생물다양성의 보전	"

자료: 인경석,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2000, pp.92~97.

제2절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1.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생활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에 기초를 두고 주로 빈곤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조장을 목표로 실시되어 오다 2000년 10월1일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조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제도이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현황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조사기준에 의하여 매년 9월에 정기조사를 통해 그 해의 경제성장률, 물가 및 가계비 지출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선정기준(소득·재산)에 의하여 대상자를 책정하였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연간조사계획에 의거 연중 조사를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시달된 소득·재산기준에 의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선정한 속초시의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4-3-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합계		1종수급자(거택보호자)		2종수급자(자활보호자)		시설수급자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시설	인원
1962	…	…	…	…	…	…		
1963	…	…	…	…	…	…		
1964	…	…	…	…	…	…		
1965	…	…	…	…	…	…		
1966	…	…	…	…	…	…		

구분 / 연도별	합계		1종수급자(거택보호자)		2종수급자(자활보호자)		시설수급자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시설	인원
1967	…	…	…	…	…	…		
1968	…	…	…	…	…	…		
1969	1,696	7,988	322	754	1,374	7,234		
1970	1,087	4,527	292	491	795	4,036		
1971	936	3,664	295	491	641	3,173		
1972	1,050	4,181	330	566	720	3,615		
1973	1,007	4,145	354	784	653	3,361		
1974	1,311	5,106	369	680	942	4,426		
1975	2,635	11,845	339	679	2,296	11,166		
1976	3,124	14,090	397	770	2,727	13,320		
1977	3,317	14,311	445	849	2,872	13,462		
1978	3,228	13,863	355	644	2,873	13,219		
1979	2,490	10,149	365	618	2,125	9,531		
1980	2,490	10,149	365	618	2,215	9,531		
1981	2,867	11,903	365	582	2,502	11,321		
1982	2,404	9,624	403	651	2,001	8,973		
1983	1,388	5,082	295	455	1,093	4,627		
1984	1,654	6,041	348	512	1,306	5,529		
1985	1,578	5,569	356	527	1,222	5,042		
1986	1,637	5,571	357	529	1,280	5,042		
1987	1,563	5,577	351	516	1,212	5,061		
1988	1,702	5,938	400	581	1,302	5,357		
1989	1,507	4,734	405	586	1,102	4,148		
1990	1,446	4,430	443	631	1,003	3,799		
1991	1,638	5,111	473	673	1,165	4,438		
1992	2,385	7,765	506	744	1,879	7,021		
1993	1,847	5,883	517	739	1,330	5,144		
1994	1,595	4,130	463	627	1,132	3,503		
1995	1,488	3,635	479	648	1,009	2,987		
1996	1,380	3,064	481	641	899	2,423		
1997	1,298	2,666	500	692	798	1,974		
1998	1,287	2,653	521	743	766	1,912	1	13
1999	1,932	4,015	908	1,442	1,023	2,541	1	32
2000	2,004	3,895	1,976	3,808	630	1,804	1	50
2001	1,972	3,687	1,941	3,593	556	1,573	1	50
2002	1,899	3,384	1,873	3,299	508	1,389	1	50
2003	1,948	3,459	1,896	3,294	507	1,367	1	78
2004	2,013	3,423	1,957	3,341	483	1,296	2	99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속초시, 2005, p.239.

나. 생계(주거)급여

기존 생계보호는 노령, 불구, 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케 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수준은 정부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매년 향상시켜 오고 있는 바, 75년도에는 1인당 1일기준 소맥분 350g만을 지급하였으나 78년도부터 백미·정맥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81년도부터 소맥분 지급을 폐지하는 대신 백미 지급량을 101g에서 288g으로 늘리는 동시에 부식비와 연료비를 신규로 지급하기 시작하여 매년 지급기준액을 향상시켜 오고 있다.

또한 84년부터 양곡지급기준이 1인당 1일 백미 288g, 정맥 85g을 91년부터 1인당 월 백미 10kg, 2.5kg으로 단순화하였고 93년도부터는 부식비

지급기준을 종전의 가구주와 가구원 차등지급제에서 동일금액(1인당 1일 700원)으로 일원화하여 지급되었다.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되던 생계보호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수급자 전원에게 생계(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되었고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부족분만 지급하는 차등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시의 연도별 생계급여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70년도에 353천원에 불과하였으나 78년도에는 28,618천원으로 70년도에 비해 81배로 증가되었고 백미 지급량을 늘리고 부식비와 연료비를 신규로 지급하는 등 81년도에는 83,651천원으로 3년 전에 비해 2.9배가 증가하였다. 86년도에는 133,933천원, 92년도에는 384,365천원, 98년도에는 1,952,091천원, 2000년도에는 3,408,628천원, 2002년도에는 4,382,000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코자 중학교 및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여 주는 시책이다.

이 시책이 처음 시작한 82년도에는 중학생만 지원하였으나 87년도부터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였고 89년부터는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에게도 중학생의 경우 전 학년, 실업계고등학생인 경우는 1,2학년에게 확대 지원하였다.

90년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의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인문고 진학률이 높아져 인문계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해 주었다. 2002년도에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1학년은 교육급여가 지원되지 않았고 2003년도에는 1,2학년이 지원되지 않으며, 2004년도에는 중학생 전원에게 교육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

우리시 연도별 교육급여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86년도에는 660명에 대하여 115,220천원을 지원하였고 87년도에는 722명에게 140,666천원, 89년도에는 1,172명에게 260,280천원, 90년도에는 1,194명에게 310,562천원, 92년도에는 1,021명에게 304,020천원, 1998년도에는 628명에게 216,340천원, 2000년도에는 545명에게 297,156천원, 2002년도에는 283,750천원을 지원해 주었다.

라.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 제정, 1977년 12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79년 1월 의료보호가 실시되었고, 2001년 5월 의료급여법으로 제명변경 등 전면 개정되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말하며, 의료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1종, 2종, 의료특례)와 국가유공자, 5 · 18관련자, 북한 이탈주민,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행려자, 시설보호자 등이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과 사회계에서 의료보호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89년 7월부터 의료보장계에서 1997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계에서 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진료비는 2종대상인 경우만 80% 지원하며, 그 외 대상자는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2002년 말 현재 의료급여대상자는 총 3,610명으로 1종대상자가 2,222명, 2종대상자가 1,388명으로 매년 생활능력의 향상으로 감소 추세이며, 년도별 의료급여 진료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4-3-4〉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 연도별	대 상 자	계	외 래	입 원
		집 행 액	집 행 액	집 행 액
1979	14,277	47,630	20,431	27,199
1989	12,488	452,779	105,580	344,193
1999	4,507	2,740,360	2,182,288	558,072
2000	4,202	1,192,550	1,192,550	3,022,810
2001	3,936	5,660,468	2,370,562	3,289,900
2002	3,610	578,148	462,520	115,628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마. 속초종합사회복지관

1) 소 재 지: 강원도 속초시 교동 961-1번지
2) 대 표 자: 이현호
3) 개 관 일: 1994. 2. 23
4)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

5) 시설규모: 1,446.72㎡
가) 지하: 속셈교실, 피아노교실, 기계실
나) 1 층: 장수식당, 어린이집, 강당, 주공관리사무소
다) 2 층: 원장실, 사무실, 상담실, 법인사무국, 컴퓨터교실, 화가교실, PC방
6) 직 원 수: 10명
7) 이용자수: 연25,000명

〈 그림 4-3-1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55) 자료는 2005년 8월31일 기준임.

8) 주요사업내용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2.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인 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제도, 생활보호제도)와 의료보장제도(의료보험제도, 의료보호제도)중 의료보장제도에 속하는 제도로서 생활능력 또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질병, 보상, 분만, 사망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상호부조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는 제도로서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이 보류되었다가 1977년 1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을 1979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이 시행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주민 1989년 7월 1일부터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되었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구 속초시 의료보험조합)

(1) 일반현황[55]

(가) 연혁

① 1988. 10. 04 도시지역의료보험 확대실시 계획 시달(보사부)
② 1989. 04. 14 속초시 의료보험조합 설립인가(보사부)－1과2계, 33명
③ 1989. 05. 01 초대 대표이사 취임(박승우) 및 현판
④ 1989. 05. 13 법인설립 등기
⑤ 1989. 07. 01 전 국민 의료보험급여 실시
⑥ 1989. 10. 01 약국의료보험급여 실시
⑦ 1992. 01. 27 직제, 정원 조정 (1부3과, 32명)
⑧ 1994. 12. 19 현 조합사무실로 이전(조양동 축협3층)
⑨ 1995. 08. 20 직제, 정원 조정 (1부3과: 정원 32명, 현원31명)
⑩ 1996. 04. 01 제4대 대표이사 연임(박상복)
⑪ 1998. 04. 01 지소직원 철수
⑫ 1998. 10. 0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속초지사 출범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 지사개소 및 현판식
⑬ 1998. 10. 01 초대 지사장 박상복 임용
⑭ 2000. 07. 01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출범
⑮ 2002. 05. 01 조직개편 직장, 지역 업무일원화 (1부/3팀, 정원19/현원22명)
⑯ 2004. 08. 04 조직개편(1부/4팀, 정원21/현원21명)

(나) 역대지사장

① 1989. 05. 01 초대 대표이사 박승우 취임
(명칭: 속초시의료보험조합)
② 1989. 10. 20 제2대 대표이사 김택성 취임
③ 1993. 04. 01 제3대 대표이사 박상복 취임
④ 1996. 04. 01 제4대 대표이사 박상복 연임
⑤ 1998. 10. 01 초 대 지사장 박상복 임용
(명칭: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속초지사)
⑥ 1999. 04. 01 제2대 지사장 김정기 취임
⑦ 2000. 01. 24 제3대 지사장 최준각 취임
⑧ 2000. 10. 23 제4대 지사장 권일섭 취임
(명칭: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⑨ 2004. 01. 01 제5대 지사장 오철환 취임

⑩ 2004. 08. 04 제6대 지사장 최영식 취임

(다) 지사개요

〈 표 4-3-5 〉 지사개요 (단위: 명)

지사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지사기호	0405
소재지	속초시 조양동 1411-152 (축협 3층)	전화	631-6281~5 631-2381~2 637-4321~3
설립일	1998. 9. 23	지사장	최영식
직체	4팀	직원수(정원/현원)	21/2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라) 직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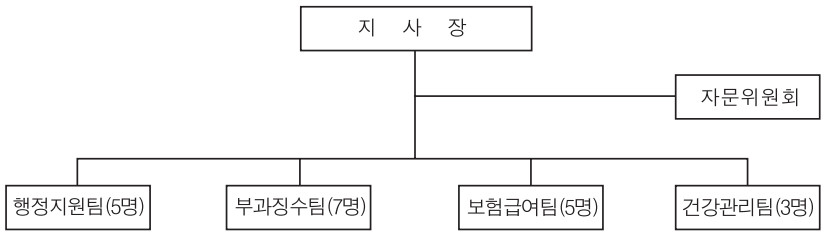
〈 표 4-3-6 〉 직원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산직
현 원	21	1	4	6	10	-	-
정 원	21	1	4	8	5	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56) 자료는 2005년 8월31일 기준임.

(마) 조직현황



(바) 건강보험 적용현황

〈 표 4-3-7 〉 건강보험 적용현황 (단위: 세대, 명)

총 인 구		적 용 인 구					
		직 역		직 장		의료보호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34,016	88,386	19,742	45,721	8,893	29,931	1,936	3,84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사) 관내요양기관 현황

〈 표 4-3-8 〉 관내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소)

계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조산소	보건소	약국
148	1	2	51	26	18	1	1	4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2) 주요 통계현황[56]

(가) 2005년 8월 주요 경영지표

〈 표 4-3-9 〉 2005년 8월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적용인구변동율	속 초	65.1	-	22.5	-
	강 원	62.1	70.1	21.1	24.4
월평균 보험료	속 초	42,150	-	44,417	-
	강 원	39,334	56,900	42,155	63,210
자동이체신청율	속 초	40.09	-	39.73	-
	강 원	45.18	41.95	45.51	42.55
보험료대비급여비		100 : 115.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나) 보험료 부과 · 징수현황

〈 표 4-3-10 〉 보험료 부과 · 징수현황 (단위: 건, 천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년 누계	235,518	10,316,449	221,129	9,113,859	93.9	88.3
2005년 4월	19,305	861,456	17,442	766,906	90.3	89.0
2005년 5월	19,268	854,956	17,552	761,196	91.1	89.0
2005년 6월	19,229	863,587	16,912	739,823	88.0	85.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2005년 7월 10일 현재.

(다) 급여관리 총괄현황

〈 표 4-3-11 〉 급여관리 총괄현황 (단위: 건, 천원 ,%)

구 분	기타징수금			급여사후관리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건수계	정당건수	부당건수	부당비율
2005.8.31 현재	85,376	80,597	94.4	417	204	213	51.1

진료내역통보			구체적진료			건강검진			인터넷회원신청자	
통보건수	신고건수	부당확인건수	통보건수	신고건수	부당확인건수	대상자	검진자	수검률	개인회원	요양기관
5,805	201	63	608	104	2	5,016	1,320	26.3	2,867	14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3. 노인복지

가. 개요

현대사회에 있어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이 날로 퇴보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성장으로 GNP향상과 더불어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3년 1,759명으로 전체인구의 3.5%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9,132명으로 10.5%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11,622명으로 전체인구의 13.%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노인인구 현황

〈 표 4-3-12 〉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

연도별	전체인구	60세이상노인인구	노인인구 구성비	비고
1963	50,703	1,759	3.5	
1980	65,798	4,026	6.1	
1993	76,646	7,095	9.3	
1998	87,070	9,132	10.5	
1999	88,914	9,795	11.0	
2000	90,201	10,331	11.3	
2001	90,543	10,777	11.9	
2002	90,447	11,353	12.6	
2003	89,458	11,622	13.0	
2004	88,386	11,894	13.5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수준 향상과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의 확충 및 운영지원으로 노인들의 취미 · 여가생활로 인한 건강증진도모 등 노인후생복지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1) 경로당

가) 연도별 경로당 현황

〈 표 4-3-13 〉 연도별 경로당 현황 (단위: 개소, 명, 원)

연도별	등 록 경로당수	이 용 노인수	경로당 운영비지원내역(개소당)	
			운영비	난방비
1991	11	1,580	매월	-
1995	20	2,363	매월	-
2000	44	3,523	매월 44,000	연 350,000
2002	48	3,630	매월 44,000	연 660,000
2003	48	3,630	매월 60,000	연 200,000
2004	52	3,812	매월 60,000	연 200,000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나) 경로당 등록현황

〈 표 4-3-14 〉 경로당 등록현황 (단위: 명)

동 별	명 칭	회 장	회원수	소 재 지	등록일자
총 계	1지회, 52경로당		3,812		
소 계	1개소		50		
교 동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이기찬	50	교 664-242	'95.8.3
소 계	52개소		3,812		

동 별	명 칭	회 장	회원수	소 재 지	등록일자
영랑동	영랑동경로당	황화윤	180	영랑 131-219	'94.02.17
〃	양우아파트경로당	주종칠	27	영랑 157	'92.08.20
〃	장사동경로당	정창모	132	장사 565	'89.12.00
〃	장천마을경로당	김재현	29	장사 232	'99.03.16
동명동	동명동경로당	박영철	161	영랑 240-4	'89.00.00
금호동	중앙동경로당	장헌영	80	중앙 496-39	'89.12.00
〃	금호동경로당	함영태	150	금호 492-26	'92.8.18
〃	서울대명2차@경로당	이성섭	25	금호 622-66	'00.12.00
〃	속초대명2차@경로당	김시근	26	금호 625	'04.02.14
교동	청학동경로당	최석윤	250	청학 487-108	'92.11.18
〃	주공2차@경로당	이응식	96	교동 898-903	'95.12.07
〃	설악현대@경로당	장남순	24	교동 619-33	'92.11.14
〃	현대2차@경로당	김순측	30	교동 781-6	'96.12.31
〃	럭키설악2차@경로당	박필백	30	교동 620-13	'96.02.19
〃	동부@경로당	김정욱	47	교동 781-1	'99.01.18
노학동	교동경로당	황필권	275	교동 972	'89.00.00
〃	도리원경로당	최종학	51	노학 110	'03.04.04
〃	럭키설악1차@경로당	권영자	38	교동 767-224	'98.09.30
〃	청초@경로당	김철수	50	교동 961-1	'94.04.06
〃	청초대우@경로당	박진옥	34	교동 961-1	'99.01.13
〃	삼환@경로당	윤동만	30	교동 923	'96.04.04
〃	현대1차@경로당	최운집	30	교동 618-10	'93.11.08
〃	노학동경로당	남상협	120	노학 365-3	'92.03.09
〃	신흥1리경로당	최정순	50	노학 1006-92	'96.02.27
〃	현대3차@경로당	방임순	21	교동 781-23	'00.11.17
〃	척산마을경로당	박순걸	21	노학 880-4	'04.03.20
〃	대명늘푸픈@경로당	김은기	31	교동 783-3	'02.07.06
〃	이목리경로당	정철화	40	노학 216-4	'04.04.07
조양동	부월리경로당	이종욱	105	조양 1536	'89.00.00
〃	갯마을경로당	강종순	35	조양 558-18	'93.12.20
〃	조양동경로당	최재우	143	조양 1511-1	'95.04.24
〃	논산리경로당	김종규	25	조양 972-980	'98.07.01
〃	동명@경로당	오기택	50	조양 1292-1	'95.09.11
〃	조양주공1단지경로당	박복순	58	조양 1217-1	'98.12.16
〃	조양주공2단지경로당	이난식	33	조양 1215-1	'04.06.15
〃	부영@1단지경로당	이건수	23	조양 1540	'01.08.04
〃	부영@3단지경로당	고석준	98	조양 1499	'97.10.6
〃	부영@5단지경로당	이운모	82	조양 1501	'96.11.15
〃	부영@6단지경로당	송판성	70	조양 1502	'96.11.15
〃	부영@9단지경로당	김정규	45	조양 1505	'96.11.15
〃	설악빌리지경로당	장두모	27	조양 590-1	'98.09.04
〃	청대리경로당	김훈옥	24	조양 455-1	'99.01.04
〃	6.25참전전우회속초지회경로당	김한배	138	조양	'00.12.26
〃	성호@경로당	계순대	31	조양 1294-23	'02.04.23
청호동	청호동경로당	백성호	194	청호 459-465	'89.11.00
〃	새마을경로당	천석진	116	조양 1480-190	'89.00.00
대포동	대포동경로당	박성봉	123	대포 342-1	'89.00.00
〃	도문동경로당	김훈기	84	도문 199	'89.06.01
〃	하도문경로당	신상길	31	도문 1569-22	'97.06.03
〃	중도문2리경로당	이기성	27	도문 896	'99.01.04
〃	설악동경로당	황옥녀	150	설악 342-44	'92.03.04
〃	장재터마을경로당	윤금중	22	설악 578-1	'01.06.14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2) 노인건강관리센터

〈 사진 4-3-2 〉 노인건강관리센터

노인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 · 클리닉 진료를 겸한 양질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들의 사회 · 심리적 고립과 와해, 건강악화, 역할상실, 긴 여가시간 등 점차 증가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센터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

가) 준공: 1998. 10. 9

나) 위치: 속초시 교동 979번지

다) 규모: 부지 6,326㎡ 연건평 1,448㎡ (지하1층, 지상2층)

라) 주요시설

① 지하: 국악실, 노래교실, 찜질방, 기계실

② 지상1층: 한방의료원, 식당, 기능회복실, 이 · 미용실, 사무실

③ 지상2층: 강의실, 국어 · 일어 · 한문 · 서예 · 종이교실, 체력단련실, 취미실, 휴면실

④ 옥상 : 노인게이트볼장

마) 등록회원수: 992명 (2003. 6월 현재)

바) 시설 이용현황(1일평균 시설이용자수: 65명)

〈 표 4-3-15 〉 시설 이용현황 (단위: 명)

프로그램	계	국 악	일 어	국 어	스포츠댄스	종이공방	한문서예	노래교실	기타
이용자	4,141	2,102	204	579	453	223	201	337	42

프로그램	계	찜질방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수지침	미 용	이 용	이동보건진료
이용자	15,473	627	6,777	5,602	1,766	114	481	106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2003.

3) 노인의료복지시설

가) 시설명: 반야전문노인요양원

나) 위치: 속초시 노학동 455-9번지

다)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신흥사복지원

라) 대지 및 건물현황

〈 표 4-3-16〉 대지 및 건물현황 (단위: ㎡, 명)

대 지 면 적			건 축 연 면 적		
'98년 신축당시	'02년 증축후	'04년 신축	'98년 신축당시	'02년 증축후	'04년 신축
3,448	3,448	2,915	1,054	2,488	1,880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마)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 표 4-3-17 〉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입 소 정 원			건 축 연 면 적		
증축전	증축후	전문요양원	증축전	증축후	신축후
50	120	70	19	32	36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바) 주요시설

① 지하1층: 보일러실, 발전기실 등

② 지상1층: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등

③ 지상2층: 중환자실, 격리보호실, 생활실 등

④ 전문요양원

㉮ 지상1층: 사무실, 보일러실

㉯ 지상2~4층: 생활실, 중환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가) 주간보호시설

① 소재지: 속초시 노학동 455-16번지(반야노인요양원 내)

② 시설설치일: 2001.11.21

③ 이용정원: 20명

④ 이용 연인원: 1,803명(2002년)

⑤ 종사자수: 3명

⑥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원

⑦ 사업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 등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① 소재지: 속초시 노학동 961-1번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내)

② 시설설치일: 1995. 2.16

③ 이용정원: 100명

④ 이용연인원: 11,268명(2002년)
⑤ 종사자수: 3명
⑥ 가정봉사원수: 52명(유급4, 무급48)
⑦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
⑧ 사업내용: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라. 노인일거리지원 사업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거리 확보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활용 및 소일거리 제공 등 삶의 보람을 주고자 관내 휴경지를 활용한 농작물을 재배나 노인취로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1) 노인보람농장

가)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단체
나) 지원내용: 휴경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농경지 평탄작업 및 밭갈이를 하여 개인 및 단체별로 분배하고,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의 재료비 지원
다) 농장조성 면적: 2,526평

2) 노인특별취로사업

가) 대상: 65세 이상 취로사업 희망 노인 535명 (2002년 대비 15% 증가)
나) 취로일수: 1인 10일 (2002년 1인 10일)
다) 예산액: 151,483천원
라) 취로단가: 일반 20,000원, 안전관리원 25,000원
마) 내용: 제초작업, 어린이놀이터 · 해변 환경정비 등

3)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

가) 대상: 일정면적 이상을 경작하는 경로당 11개소
나) 지원내용: 행정지원 및 전작위주의 집단농장 조성 지원
다) 사업비: 11,000천원

마. 노인복지증진사업

1) 어버이날 · 노인의 날 및 경로행사

1973년과 1997년에 각각 제정된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위안잔치, 체육행사 등을 베풀어 줌으로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위로하고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가) 기념행사

① 어버이날 기념행사: 매년 5월 8일과 10월 2일 전후

② 행사내용: 기념식 및 효행자 포상

나) 경로잔치

①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각 동 및 부락별 자율적 실시

② 노인의날 기념 경로잔치: 시 전체 연합행사로 추진

2)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

자신의 노후비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여, 경로우대와 노인의 활동기회 제공으로 계속된 실내생활로 발생하기 쉬운 가족간의 갈등과 소외감 완화 및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하고 있다.

〈 표 4-3-18 〉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실적 (단위: 명, 천원)

구 분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비고
	인 원	지급액	인 원	지급액	
2000년	21,370	774,696	68,493	534,248	
2001년	21,497	779,276	83,291	649,677	
2002년	21,312	851,341	86,340	678,054	
2004년	21,290	877,143	31,587	847,890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3)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무료급식 실시하고 있다.

가) 무료급식소 운영

① 운영기간: 연중(월~토)

② 운영주체: 속초종합사회복지관

③ 대상노인: 65세 이상 결식우려 영세노인 100명

④ 사업비 지원: 45,752천원

⑤ 자원봉사자: 지역 내 주부 및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나)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① 운영기간: 연중 (월~토)

② 운영주체: 속초종합사회복지관
③ 대상노인: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없는 65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 35명
④ 사업비 지원: 32,660천원

4) 노인건강진단 실시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예방과 질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표 4-3-19 〉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 (단위: 명)

구분	진단인원	진단결과 질환자수	질병내역										
			병명 / 계	결핵	당뇨병	빈혈증	순환기계질환		간질환	신질환	백내장	안질환	기타
							고혈압성질환	고지혈증					
2000	71	27	27		7	6	2	7		1			4
2001	109	75	88	3	21	4	14	2	2	10			32
2002	70	61	89		16	24	14	4	12	6			13
2004	93	65	92		17	24	14	3	14	7			13

※ 중복 질환자가 있어 질환자수와 질병내역 수치가 상이함.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 표 4-3-20 〉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 (단위: 명)

구 분	질환자수	조치내역			
		치료조치	보건소 지도조치	미조치	기 타
2000	27	17	10		
2001	75	44	31		
2002	75	13	61		
2004	65	15	50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5) 대한노인회 속초시 지회 지원

가) 소재지: 속초시 교동 664-242번지
나) 규모: 대지 182평, 건물 98평
다) 운영비지원: 11,000천원
라) 운영내용: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교실 운영,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운영 등

6) 기타 복지사업 추진

가) 노인복지기금 지원: 2개소 12,600천원
나) 우수경로당 시상: 5개소 1,700천원

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2개소 2,000천원
라) 노인쉼터 조성: 5개소 10,000천원

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속초시 지회

1) 연혁
가) 1965년 5월 속초시 노인회로 발족
나) 1975년 8월 25일 대한노인회 정관 제정으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부로 조직

2) 일반현황
가) 기반시설 : 회관 – 1동 2층 건물 연건평 273평 철근콘크리트조
나) 조직 및 기구
① 지회: 1
② 부설기구: 노인대학 – 1, 노인취업 인력센터 – 1
③ 일선조직(경로당): 48
④ 정회원: 3,737명

3) 주요업무
가) 조직운영강화사업
나) 사회봉사활동사업
다) 노인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사업

4) 역대회장
가) 초대 회장: 김 영 일(金榮一) 1965년~1967년 사망
나) 2 대 회장: 전 춘 근(全春根) 1967년~1968년 사망
다) 3 대 회장: 이 병 일(李秉一) 1968년~1969년 사망
라) 4 대 회장: 선 복 영(宣福龍) 1969년~1971년 사망
마) 5~9대 회장: 전 세 일(全世一) 1971년~1981년 사망
바) 10~12대 회장: 김 용 기(金鎔基) 1981년~1988년 사망
사) 13~14대 회장: 윤 덕 훈(尹德勳) 1988년~1994년 사망
아) 15대 회장: 이 기 찬(李基瓚) 1994년~1997년 생존
자) 16~17대 회장: 김 태 영(金兌泳) 1997년~2003년 사망
차) 18대 회장: 이 기 찬(李基瓚) 2003년~현재

4. 아동복지

가. 보육사업의 변천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45년부터 1960년까지는 사회구호적 차원의 아동복지가 전개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 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사업적 성격에서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 · 발전되어 왔다.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 통합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은 미흡하고 보육시설 또한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 · 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 · 운영됨에 따라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 · 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 · 유아보육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1991년 1월 '영 · 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영 · 유아보육법령에는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 ·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례의 법령개정을 하였고,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표 4-3-21 〉 보육제도의 연혁(영 · 유아 보육법 제정 전)

시 행 일	내 용	관 련 근 거	비고
1962~1981	복지부 주관으로 탁아사업 실시 (어린이집 691개소 설치 · 운영)	아동복리법	
1981.4.13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3438호

시 행 일	내 용	관 련 근 거	비고
1982. 이후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유치원으로 흡수 · 운영 : 법제정 · 장학지도 : 교육부 시설운영 · 행정지도 : 내무부 보건의료 : 보건사회부	유아교육진흥법	
1987. 12. 4	직장탁아제도입	남녀고용평등법	
1989. 9. 19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아동복지법시행령	
1990. 1. 15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탁아시설의 설치 · 운영규정	
1991. 1. 14	영 · 유아보육법제정 · 공포(법률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종전 단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 확대	영유아보육법	
1991. 8. 1	영 · 유아보육법시행령제정 · 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91. 8. 8	영 · 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 · 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	
1991. 8. 26	탁아시설의 설치 · 운영규정 폐지	탁아시설의 설치 · 운영규정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 표 4-3-22 〉 영 · 유아보육법 제정 후 변천

개정일	변 경 전	변 경 후
'97. 8. 22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9조 제4항 :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인가제	신고제로 완화(시행 : '97. 7. 1)
'97. 12. 24	〈신설〉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 실시 근거 마련
'99. 2. 8	제 11조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 휴지 · 폐지 시승인제 제24조 보육료 한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시 · 군 · 구에서 승인	신고제 시 ·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속초에서는 1993년 1월 1일 현재 9개소의 보육시설에서 2005년 8월말을 기준으로 공립 보육시설 3개소, 법인보육시설 7개소, 민간개인보육시설 37개소, 가정보육시설(놀이방) 19개소 등 모두 66개소 2,418명을 보육하면서 엄청난 양의 시설확충을 이룩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시설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보육욕구에 대응하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24시간 열린어린이집(삼환꿈나무어린이집), 민간영아전담시설어린이집(늘푸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엄마사랑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능의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표 4-3-23 〉 속초시 보육시설현황 (단위: 명)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장	보육정원	시설종별	비 고
	66개소		66명	2,418		
1	조양 어린이집	조양동 1490-318	이 순 희	150	공 립	
2	장사 〃	장사동 632-78	박 미 녀	63	〃	
3	도문 〃	도문동 205-7	문 진 숙	64	〃	
4	연꽃 〃	교동 961-1	이 명 숙	69	법 인	
5	착한 〃	청학동 487-17	이 리 자	99	〃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장	보육정원	시설종별	비 고
6	구세군 〃	교동 767-11	오 경 희	76	〃	
7	삼육 〃	중앙동 468-174	허 미 선	87	〃	
8	반야 〃	영랑동 588	이 명 우	280	〃	
9	삼환꿈나무 〃	교동 939	김 현 주	77	〃	
10	은강 〃	금호동 621-69	한 기 욱	117	〃	
11	예찬 〃	노학동 409-1	김 계 옥	37	민간시설	
12	엄마사랑 〃	노학동 124-4	김 희 자	39	〃	
13	거북이 〃	교동 664-242	허 혜 린	67	〃	
14	밤비니 〃	교동 923 삼환@단지 내	전 은 주	100	〃	
15	예사랑 몬테소리 〃	교동 946-3	김 영 화	39	〃	
16	고은 〃	조양동 1215 주공4차@ 2단지 주민복지관(1층)	조 우 훈	38	〃	
17	피터팬 〃	교동 675-12	김 선 화	54	〃	
18	서머힐 〃	동명동 512-93	김 해 경	36	〃	
19	조광 〃	조양동 1376-35	박 재 용	77	〃	
20	해울 〃	조양동 989-2	김 미 량	50	〃	
21	꿈돌이 〃	교동 928-7	한 미 순	36	〃	
22	조은 〃	조양동 1215-1 주공4차@ 2단지 주민복지관(1층)	이 복 녀	28	〃	
23	한슬 〃	조양동 1501-1 부영@단지 내	정 인 순	127	〃	
24	삐아제 나라 〃	교동 945-3	손 미 희	47	〃	
25	대우이솝 〃	교동 961 관리동 내	김 혜 숙	25	〃	
26	꼬마천사 몬테소리 〃	조양동 1170-1	김 승 실	41	〃	
27	동우대학부속 〃	노학동 635-1	박 홍 자	79	〃	
28	예일 〃	조양동 1419-32	이 춘 애	28	〃	
29	주니보니 〃	처호동 1347-4	이 경 희	30	〃	
30	한샘몬테소리 〃	교동 966-7	박 희 란	131	〃	
31	늘푸른 〃	교동 783-4(대명@ 내)	이 남 숙	43	영아전담	
32	속초 〃	영랑동 229-27	박 금 옥	39	민간시설	
33	오렌지 어린이집	교동 800-50	최 상 희	33	민간시설	
34	영재 〃	영랑동 157-14	김 희 자	39	〃	
35	이화 〃	교동 799-8	추 교 신	31	〃	
36	동그라미 〃	조양동 1508-1	고 은 순	22	〃	
37	샛별 〃	금호동 625-55	고 은 이	38	〃	
38	우리들의 〃	금호동 625-52	이 근 숙	39	〃	
39	바다 〃	장사동 635-20	강 미 자	99	〃	
40	키즈 〃	조양동 1536-1	심 경 선	99	〃	
41	아이세상 〃	청호동 1354-1	이 귀 남	39	〃	
42	금호자연 〃	금호동 488-78	안 현 숙	33	〃	
43	리라 〃	조양동 1310-7	전 명 화	45	〃	
44	햇살마루 〃	노학동 151-4	서 윤 정	39	〃	
45	행복한아이들 〃	교동 782-9	전 경 희	39	〃	
46	친구사이 〃	영랑동 147-37	김 순 옥	39	〃	
47	튼튼이 〃	교동 907-5	안 승 숙	32	〃	
48	천사 〃	금호동 621-135	김 선 희	20	가정보육	
49	부영프리스쿨 〃	조양동 부영@ 304-104	김 봉 실	20	〃	
50	한솔 〃	교동 966-12 43/1	김 순 덕	20	〃	
51	새들 〃	조양동 부영@ 503-202	김 경 희	15	〃	
52	참사랑 〃	교동 동부@ 105-104	황 옥 봉	20	〃	
53	한국몬테소리 〃	조양동 부영@ 308-104	곽 옥 선	20	〃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장	보육정원	시설종별	비 고
54	꿈나무 〃	교동 동부@ 102-101	정 태 준	20	〃	
55	프뢰벨 〃	조양동 1514-6	김 태 영	20	〃	
56	아카데미 〃	교동 936	이 은 숙	20	〃	
57	해맑은 〃	조양동 1520-14	김 진 희	20	〃	
58	참좋은 〃	조양동 614-40	김 은 미	9	〃	
59	예사랑부설 〃	교동 946	김 효 진	20	〃	
60	중앙키즈스쿨 〃	조양동 부영@ 304-101	김 봉 심	20	〃	
61	리틀 〃	조양동 1520-7	김 상 순	20	〃	
62	꿈나무프뢰벨 〃	교동 937-8외 1필지	정 재 원	20	〃	
63	사랑해요 〃	교동 942-11	정 정 화	20	〃	
64	선재아동스쿨 〃	교동 627-50	이 민 녀	20	〃	
65	우리아이 〃	교동 대우@ 103-101	송 근 정	20	〃	
66	예쁜들 아가나라 〃	조양동 부영@ 501-106	조 미 연	14	〃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나.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사업이 초기에는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부모로부터 유기 또는 가정으로부터 일탈된 자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요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다분히 구호적인 성격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9년 제네바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되면서 생존권(Survival Right), 보호권(protection Right), 발달권(Development Right), 참여권(participation Right) 등 4개의 기본권리를 규정하여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를 명문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정부는 1990년 9월 2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을 기탁하기에 이르렀고 1994년 11월 8일 협약 제44조 규정에 따라 1차 국가보고서를 2차보고서는 2000년 5월에 국제연합에 제출하므로 이행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용시설은 실질적인 고아의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가정위탁사업, 아동그룹홈 사업, 국내입양활성화 등으로 소단위 아동보호로 정책 방향이 진행되고 있으며, 속초시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추이와 같이 1971년 12월말현재 4개소의 대단위 아동수용시설 있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2002년 말 현재 1개의 아동그룹 홈(2001.06.17 개원)과 88명의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 표 4-3-24 〉 속초시 아동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 연도별	총인구 (한국인)	연령별					아동인구 비율
		계	0~4세	5~9세	10~14세	15~17세	
1998	86,923	23,577	6,466	6,657	6,108	4,346	27.1
1999	88,764	23,401	6,362	6,891	6,105	4,043	26.4
2000	90,032	23,281	6,369	7,018	6,163	3,731	25.8

구분 / 연도별	총인구 (한국인)	연령별					아동인구 비율
		계	0~4세	5~9세	10~14세	15~17세	
2001	90,231	22,974	6,071	6,983	6,353	3,567	25.5
2002	90,029	22,700	5,673	7,017	6,541	3,469	25.2
2003	89,047	22,067	5,188	6,824	6,606	3,449	24.8
2004	87,933	21,412	4,805	6,531	6,696	3,380	24.6

자료: 『제 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다. 주요 추진업무

1) 보육사업

속초시의 보육사업은 '95~'97년 보육시설의 확충 3개년 계획에 의거 양적 확충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며 그 후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대상자를 늘리고 '03. 3월부터 장애아동 무상보육과 만 5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보육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보육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 1,059,937천원(2002년 대비 56% 증가)
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 645,188천원(2002년 대비 70%증가)
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38,711천원(2002년 대비 71%증가)
라)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지원 : 106,517천원(2002년 대비 동일)
마) 열린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10,000천원(2002년 대비 50%감소)
바) 장애아통합보육 시범운영 : 12,500천원(신규사업)

2) 아동복지사업

과거 아동수용시설에서 다수의 아동을 보호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용시설은 최소화하고 가정위탁보호(대리보호, 친인척 위탁보호 포함) 및 소규모 아동 그룹 홈을 이용 아동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아동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 시 훈련 장려금 또는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997년 IMF사태로 인한 저소득층 및 실직가정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중식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IMF사태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사업이며, 아동복지 사업 또한 보육사업 못지않게 다양화하고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아동그룹 홈 지원 : 16,033천원
나) 결식아동 지원 : 83,358천원
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 66,300천원
라)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 1,500천원
마)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 2,640천원
바)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 : 6,000천원

5. 여성복지

가. 여성복지의 개요

1980년 이전까지 종래의 여성복지의 관심과 문제의 범위는 주로 요보호 여성이라고 지칭하는 계층이나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국한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여성운동을 계기로 여성복지(정책)가 해결하고 예방해야 하는 여성문제의 영역이 사회전반에 걸친 여성 성 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고용관행은 물론 여성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 가치관 등 문화적인 요인에 까지 이르렀다. 즉, 1980년을 전후로 하여 선별주의적, 잔여주의적 복지에서 보편주의적, 제도주의적 복지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19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정상회의와 같은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복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행동강령 및 실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2001 여성부의 신설을 계기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복지의 양적 · 질적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 서구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급속한 사회변동은 여성복지의 욕구의 다양화와 증대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광의의 여성복지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행정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주요추진업무

1) 여성정책의 추진기반 확충

가) 각종위원회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능력개발을 통한 유능한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으로 각종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여성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 말 현재 37%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03말까지 40% 여성위원 참여율의 목표설정으로 노력하고 있다.

나)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단체의 여성 관련사업 지원을 위한 여성 발전기금 설치운용조례가 2000년 12월 제정되어 2003년 3억원의 기금을 조성 · 완료하였으며, 현재 5억을 목표로 추가확대 조성계획 중에 있다.

다) 양성 평등문화의 확산 및 정착

가정과 직장 등 사회전반에 남 · 여 차별제도 및 관행개선으로 양성이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 운영지도하고 있으며, 부부문패달기운동 전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실시, 주부 명함 갖기 운동 추진, 주부 자기 책상 갖기 운동 추진, 여성명예동장제 등의 실시로 생활 속에 남 · 여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여성 능력개발과 경쟁력 제고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여성지도자 위탁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원, 여성수련원, 신사임당교육원, 강원도 여성회관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경동대학교 평생교육과정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을 개설토록 지원하여 3회 150명의 여성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또한 2001년부터 화상공간을 이용한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하여 2003년까지 90여명이 수료한 상태이다.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정 ·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거나 상담에 응함으로써 긴급보호 및 심리적 안정지원으로 정상적인 가정 · 사회생활을 유지토록 도와주는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도 2000년도에 속초YWCA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소장 김경하)와 속초성폭력상담소(소장 유혜정)가 설립되어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긴급구호조치의 일환으로 여성 긴급전화가 1366으로 통

합되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또한 2003년 7월 가정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인 '햇살의 집'이 개소되어 폭력피해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4)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가)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배우자의 사망, 이혼, 생사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18세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모 · 부자로 구성된 가정으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전가정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녀학비 및 양육비,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도록 돕고 있다.

〈 표 4-3-25 〉 모 · 부자가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대 상	수혜대상자녀현황			
		계	6세미만	중학교	고등학교
계	167세대 / 442	44	7	13	24
모자가정	131세대 / 349	36	5	13	18
부자가정	36세대 / 93	8	2	-	6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2003년 현재.

나) 합동결혼식 거행

합동결혼식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에게 예식절차를 거행해 줌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건전가정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현재까지 160여 쌍에 이르며, 2003년에는 장애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의의가 컸다.

다) 외국인 주부 생활안정지원

상이한 생활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역의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통음식 만들기, 한글교실 운영, 우리고장 문화탐방, 여성단체와의 양모결연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생활상담을 병행하여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정주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 표 4-3-26 〉 외국인 주부 현황 (단위: 명)

계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몽골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81	35	24	14	4	1	1	1	1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2005. 8. 31. 현재.

라) 1377 푸드뱅크 운영

생산유통과정의 잉여식품을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 연결하여 공동체 의식고취와 식품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9년 1월부터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1377 푸드뱅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꾸준히 지원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 여성단체 지도육성 및 운영 활성화

여성의 자질향상, 여권신장 및 지위향상 등 여성문제의 당면한 사업을 위해 1975년 7월에 조직된 속초시 여성단체는 전몰군경미망인회를 시작으로 1986년 12월 한국여자 기독청년회를 구성하는데 이르러 2005년 8월 현재 25개 단체 소속의 회원이 여성지위 향상 및 건전 가정육성과 여성의 올바른 삶의 의식, 취미와 소년소녀가정지원, 무의탁노인지원, 각종 결의대회 및 캠페인전개 등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표 4-3-27〉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단위: 명)

연번	단 체 명	대표자	회원수	사무실주소	비 고 (여협가입여부)
계	25개 단체				
1	새마을부녀회	김숙자	1,150	영랑동 1/1	가입
2	적십자설악봉사회	장옥희	50	조양 부영@ 311-905	〃
3	보훈미망인회	최정애	55	대포동 1/5	〃
4	한국부인회	이선자	35	교동 럭키2차@ 103-901	〃
5	주부교실	김덕순	30	노학동 2/4	〃
6	YWCA	오명예	300	노학동 2/6(청대회관)	〃
7	예림회	김명자	50	교동 5/1(낙천장)	〃
8	청초라이온스	전상아	58	대포동 470-39	〃
9	여성의용소방대	배봉희	50	금호동 1/2(베니스)	〃
10	의사부인회	박금자	37	동명동 8/2(인심의원)	〃
11	고부회	신덕순	30	교동 삼환@ 108-504	〃
12	어린이육영회	최숙희	25	부영@ 308-702	〃
13	미용협회	전영자	150	청학동 482-240(헤어뉴스)	〃
14	참사랑회	공병현	48	중앙동 1/3(현대약국)	〃
15	자원봉사회	김순늠	30	교동 11/2	〃
16	고향주부모임	이상숙	60	교동 799-104	〃
17	생활개선회	이부자	40	조양동 428 16/4	〃
18	재향군인회 여성회	이옥자	35	노학동 273-59(이모순두부)	〃
19	환경보호회	김선진	30	대포동 247-13(필하우스)	〃
20	로타리클럽부인회	정미숙	35	교동 럭키2차@ 101-1208	〃
21	석류회	김종희	400	교동 삼환@ 108-1102	〃
22	여성센터봉사회	박증옥	-	-	〃
23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서옥순	-	-	〃
24	두두리회	한명옥	-	-	〃
25	명예회원(늘푸른회)	염명옥	-	-	〃
※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박금자		중앙동 469-6 속초시청 내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2005. 8. 31현재.

다.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1) 설립배경

날로 늘어가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 증대에 다른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기능교육의 필요성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지적·문화적 욕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여성 평생사회교육과 전문 기능인 양성을 위한 전용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뜻있는 여성들의 주장으로 1989년 6월 여성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2년 12월 29일 완공되었다.

2) 일반현황

가) 연 혁

① 1992. 6. 1 착공
② 1992. 12. 29 준공
③ 1993. 3. 20 속초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
④ 1993. 3. 22 개관
⑤ 1993. 5. 12 제1기 여성대학 수강생 모집
⑥ 1993. 8. 12 제1기 여성대학 수료
⑦ 1998. 2. 28 3층 437.93㎡(132평) 증축
⑧ 1999. 11. 24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로 직제 개편
⑨ 2001. 4. 3 경동대학교와 사회교육기관간 협력조인
⑩ 2004. 5. 26 청사 리모델링.

〈 사진 4-3-3 〉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나) 시설개요

① 위치: 속초시 교동 979번지
② 대지: 4,175㎡(1,263평)

③ 연건평: 1,502㎡(455평)

④ 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조(지하1층, 지상3층)

다) 시설배치 현황

〈 표 4-3-28 〉 시설배치 현황 (단위: 평)

층 별	면적	시설내용	비 고
지하	52	창고, 보일러실, 강의실(2)	
1층	135	직원사무실, 소장실, 대강당, 놀이방, 화장실	
2층	135	강의실(2), 재봉실, 전산교육장(2), 알뜰매장, 휴게실, 화장실	
3층	135	강의실(1), 소강당, 요리실습실, 건전생활실, 열린글방, 화장실	

자료: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2005. 8. 31. 현재.

라) 직원현황

〈 표 4-3-29 〉 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계	행정직				사회복지직			기능직		
		5급	6급	7급	8급	6급	7급	8급	8급	9급	10급
정원	9	1	2	1	-	-	1	-	1	-	3
현원	9	1	2	1	-	-	1	-	2	2	-

※정원외 인력: 2명 근무(청사 청소요원 1명, 유아보육 교사 1명)
자료: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2005. 8. 31. 현재.

마) 역대 소장 현황

〈 표 4-3-30 〉 역대 소장 현황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제1대	신 성 옥	1993. 03. 20 ~ 1997. 06. 30	
제2대	김 영 숙	1997. 07. 01 ~ 2002. 06. 23	
제3대	강 영 희	2002. 06. 24 ~ 2005. 06. 30	
제4대	김 영 숙	2005. 07. 01 ~ 현 재	

자료: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2005. 8. 31. 현재.

3) 주요 업무추진

가) 지식기반사회의 여성의 능력개발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의식 변화를 위해 여성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비한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교육 실시

(1) 여성대학 운영

연3회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여성대학은 기술과목인 한식자격증반 등 13개 과목과 취미교육인 노래교실반 등 19개 과목, 특별반인 수화 등 1개 과목, 야간반인 생활요리 등 8개 과목을 운영 2003년 2,065명, 2004년도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2기만 운영하여 1,67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중 한식자격증 20명, 제빵자격증 6명, 제과자격증 1명, 양식자격증 1명, 컴퓨터워드자격 15명, 컴퓨터활용능력 1명, 수지침 1명, 한자자격 2명 등 총47명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 표 4-3-31 〉 여성대학 운영 현황 (단위: 기, 과목, 명)

연도별	기 수	과목수	수강생	비 고
계	35		22,851	
1993	1,2	16	754	1993. 08. 12 제 1기 수료
1994	3,4,5	26	1,668	
1995	6,7,8	27	1,772	
1996	9,10,11	26	1,850	
1997	12,13	29	1,393	3층 증축
1998	14,15,16	30	1,763	
1999	17,18,19	31	1,844	
2000	20,21,22	32	1,922	
2001	23,24,25	30	1,650	
2002	26,27,28	28	1,771	26기 : 593명, 27기 : 598명, 28기 : 580명
2003	29,30,31	35	2,096	29기 : 661명, 30기 : 669명, 31기 : 766명
2004	32,33	46	1,677	32기 : 759명, 33기 : 918명
2005	34,35,36	48	2,691	34기 : 840명, 35기 : 923명, 36기 : 928명

자료: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2005. 9. 27. 현재.

(2) 여성사회 교육 운영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여성능력 개발 향상과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열린 강좌를 통한 강사 및 교육생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강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외국인을 초빙 무료 영어 교육가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교육,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 운영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시

(3) 열린글방 운영

여성의 내재된 문학세계의 관심도를 높여 정서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도서 1,785권을 비치하여 여성교육문화센터 수강생들에게 연중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494명의 수강생이 897권의 도서를 이용하였다.

나) 문화활동의 지원

(1) 여름모자문화 학교 운영

방학기간동안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즐거운 모자문화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가정 ·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어 건전한 가족문화조성 및 어린이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2003~2004년 초등학교 1학년~3학년 모자 60쌍에게 모자특강, 풍선아트, 자녀교육특강, 도예체험 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피자 만들기, 어린이 방학생활지도, 야외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개 되었다.

(2) 졸업반 고교생 사회적응교육

졸업을 앞둔 고교생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에 기본이 되는 예절과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대학 강사를 초빙하여 사회진출에 앞선 메이크업 기법과 예절교육,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댄스, 문화교육을 한 바 있다(2004년 속초여고 340명, 속초상고 150명 계490명 교육).

(3) 찾아가는 이동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반야요양원 및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 등 사회의 소외계층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을 찾아 수강생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단전호흡과 노래교실, 향기주머니 만들기 등 맞춤식 이동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여 2003년도 4화 180명, 2004년도 8회 1,82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4) 향토문화 유적지 탐방교실 운영

중 · 고교생들이 하계 방학기간동안 속초시 문화유적인 속초8경을 비롯한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우리고장 바로알기, 속초시민으로서의 자긍심함양 및 관광 속초를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5) 장애인 및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의 빵 만들기 체험 행사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외부교육의 기회로부터 차단된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정아동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스스로 빵과 케익을 만들어 보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성취감을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 실시로 2004년 3회 76명이 참가하였다.

(6) 수강생 작품 발표 · 전시회 개최

여성대학을 교육한 수강생들이 작품 발표 · 전시의 기회를 통한 수강생들의 참여와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으며, 2003년도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수강생과 강사들의 작품 310점을 전시하여 배우고 익힌 솜씨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생에게는 성취감을 관람객에게는 홍보의 장으로 불우이웃에겐 나눔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와 센터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교육장소의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교육기간 단축으로 전시회 기회는 없었다.

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 조성

(1) 여성 사회참여 기반 조성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 및 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확산시키고자 구인 · 구직센터운영, 기술 · 자격증 반 확대 운영 및 자격증 취득자, 취 · 창업자에 대한 관리로 교육과 취업을 연계로 교육에 대한 수혜를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으로 봉사정신의 고취와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의 자질함양과 사기를 진작시키므로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의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도한 여성자원봉사 활동단체는 34개팀 1,129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주이며 주요 활동처는 사회복지시설, 병원 장애인시설 등으로 전문 기능인에 의한 이동 자원봉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수혜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직접 운영 ·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상설알뜰매장, 제과 · 제빵팀, 이 · 미용봉사단이 있으며, 알뜰상설매장 수익금 5,530천원을 결손 불우가정 및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제과 · 제빵 봉사단에서는 매월3회 정기적으로 결식아동 및 시설생활자들에게 사랑의 제빵을 전달, 이 · 미용봉사단은 불우노인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매월3회 속초의료원, 반야노인요양원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라) 특수시책

(1) 생활법률 무료상담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소연 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법률무료상담을 통하여 해결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매월 첫째주 월요일 14:00부터 시 고문변호사가 상담하여 주고 2003년~2004년 12월 현재 15회에 걸쳐 30명을 상담하였으며, 상담유형별로는 재산소유권관계 7건, 채권 · 채무관계 3건, 전세권설정 5건, 이혼소송 및 가정 · 자녀문제 7건, 손해배상청구 3건 체불노임 2건, 기타 3건이며 법에 문외한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 전 수강생 시 홍보용 편지쓰기

여성대학 수강생들을 이용하여 '속초를 알리기' 위한 편지쓰기 사업을 추진(2004. 06. 18~07.19)한 바, 전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로 관광속초를 전국에 알리고, 교육효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각종 시 단위 행사 및 제1회 대한민국음악축제 등의 성공개최를 위한 대내 · 외적인 홍보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3) 여학생 자원봉사예약제 실시

2004년 4월부터 실시한 여학생 자원봉사예약제는 관내 여자 중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원봉사 활동을 예약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수혜처와 사전에 연결하여 줌으로써 실적 취득을 위한 형식적인 자원봉사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학생자원봉사 인력수집 관리로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을 학생시절부터 함양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었으며 7개교 100여명이 신청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사회복지시설 봉사, 관공서 행정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마) 기타

(1) 청사 리모델링 사업 실시

개관 10년 이후 수강생 급증 및 건물노후로 인한 교육생 전원 수용불가 및 편익 시설 부족에 따른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강의실 효용도 증가 및 대강당 확보를 위한 개보수가 불가피하여 2003년 여성정책평가 사업비 3억 및 시비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1층 대강당 · 사무실 전면 개조, 바닥 · 벽 · 천정 마감재 교체, 전기 · 통신시설 보완, 노후 화장실 현대식으로 개조, 각종 교육기자재 확충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기관의 이미지 제고로 여성 수강생의 교육 참여도가 증가하였다.

6. 장애인 복지

가. 개요

장애인이란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음성장애자, 언어기능장애자, 정신박약자 등으로 장시간에 걸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제정하여 사업장에서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제공한 것과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제도를 시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6 · 25사변 등으로 장애를 입은 아동들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데 불과하였다. 1981년에는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오늘 날 장애인복지 제도의 기초가 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1984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1987년부터 장애인등록사업을 실시하고, 1988년 대통령직속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체계화를 시도하

였다. 또한 1988년에 개최된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1991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였다. 1996년에는 '장애인 먼저운동'을 선포하였으며, 1997년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7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이 심의 확정되었다. 1998년에는 장애인 인권헌장이 제정되고,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의 범주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제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다.

나. 일반현황

1) 장애인 등록현황(장애등급별)

〈 표 4-3-32 〉 장애인 등록현황(장애등급별)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	기타
합계	계	3,235	1,839	329	291	35	175	320	15	87	86	15	14	15	1	8	5	0
	남	2,091	1,249	206	164	20	101	191	11	57	43	11	13	14	1	6	4	0
	여	1,144	590	123	127	15	74	129	4	30	43	4	1	1	0	2	1	0
1급	계	305	75	61	4	1	52	82	8	9	3	1	6	3	0	0	0	0
	남	192	57	33	3	0	30	47	6	4	3	1	5	3	0	0	0	0
	여	113	18	28	1	1	22	35	2	5	0	0	1	0	0	0	0	0
2급	계	641	179	16	103	8	90	101	4	53	75	5	2	4	0	0	1	0
	남	385	114	9	54	7	55	58	4	38	37	4	2	3	0	0	0	0
	여	256	65	7	49	1	35	43	0	15	38	1	0	1	0	0	1	0
3급	계	585	356	18	46	13	33	72	3	25	0	9	6	3	0	0	1	0
	남	398	262	6	24	9	16	49	1	15	0	6	6	3	0	0	1	0
	여	187	94	12	22	4	17	23	2	10	0	3	0	0	0	0	0	0
4급	계	531	406	21	54	13	0	30	0	0	0	0	0	0	1	3	3	0
	남	329	262	11	35	4	0	11	0	0	0	0	0	0	1	2	3	0
	여	202	144	10	19	9	0	19	0	0	0	0	0	0	0	1	0	0
5급	계	581	471	27	43	0	0	22	0	0	8	0	0	5	0	5	0	0
	남	369	296	22	22	0	0	17	0	0	3	0	0	5	0	4	0	0
	여	212	175	5	21	0	0	5	0	0	5	0	0	0	0	1	0	0
6급	계	592	352	186	41	0	0	13	0	0	0	0	0	0	0	0	0	0
	남	418	258	125	26	0	0	9	0	0	0	0	0	0	0	0	0	0
	여	174	94	61	15	0	0	4	0	0	0	0	0	0	0	0	0	0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2005. 8. 31. 현재.

2)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 표 4-3-33 〉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명)

명 칭	소재지	대표	설립일자	인원
속초시 해오미 작업장	노학 1073-64	배성운	01. 08. 18	22
금강 장애인 주간 보호소	노학 1073-64	조미자	01. 03. 02	30
수화통역센터	교동 942-1	박대환	02. 02. 27	52
속초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교동 670-23	김용환	02. 08. 14	78
장애인 민원봉사실	노학 1073-63	정민철	02. 12. 01	150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2005. 8. 31. 현재.

3) 장애인 단체 현황

〈 표 4-3-34 〉 장애인 단체 현황 (단위: 명)

단체명	소재지	단체장	회원수	설립일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속초시지회	노학동 1073-64	이춘식	650	90.03.12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강원도지부속초시지회	교동 650-7	지준표	271	01.09.25
사)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속초시지부	교동 942-1	박대환	53	96.05.04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강원도지부속초시지부	교동 664-63	김용한	64	02.03.19
사)강원도정신지체애호협회속초시지부	설악동 248-2	최흥식	120	03.02.18
사)강원도장애인복지회속초시지회	노학동 1073-63	정민철	650	03.11.00

자료: 속초시 사회복지과, 2005. 8. 31. 현재.

다. 장애인복지 사업

1) 편의시설 설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확보 등 기존시설물에 편의시설이 확대 설치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2) 저소득 장애인 보호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및 생활자립 자금대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300인 이상 고용사업체는 정원의 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되어있다.

4) 일반 복지서비스

등록된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소득세 · 상속세, 인적공제, 자동차세, 승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승용차 LPG 사용 허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 국내선 항공료,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교통요금의 50% 할인, 통신요금 중 시내 · 외 전화, 무선호출기, 이동전화의 기본요금 할인, 시각 ·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고궁 · 공원의 무료입장의 혜택을 주고 있다.

7. 국가보훈자를 위한 복지

가. 개요

국가보훈자를 위해 정부는 보상금과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지원, 기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자들은 단체를 조직하여 보훈가

족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일반현황

1)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 표 4-3-35 〉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단위: 명)

연별	합계	국가유공자							
		계	애국지사	정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제일학도의용군인	4.19부상자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1999	371	235	1	89	141	–	–	4	–
2000	389	243	1	117	119	1	–	5	–
2001	445	257	–	131	121	–	–	5	–
2002	494	284	–	155	124	–	–	5	–
2003	507	288	–	158	125	–	–	5	–
2004	521	296	–	169	121	1	–	5	–

연별	유족										기타대상자		
	계	순국·애국지사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반공귀순상이	지원대상자	광주민주유공자
			미망인	자녀	부모								
1999	135	6	51	27	35	–	–	–	16	–	1	…	…
2000	145	8	54	17	52	–	–	–	14	–	1	…	…
2001	187	8	55	36	30	40	1	–	17	–	1	…	…
2002	207	5	58	45	27	50	1	–	21	–	1	–	2
2003	219	6	63	44	26	55	1	–	20	–	1	1	2
2004	221	5	68	46	23	60	–	–	19	–	1	1	2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35.

2) 국가보훈대상자 취업현황

〈 표 4-3-36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현황 (단위: 명)

연별	합계			국가유공자			유족			기타대상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94	61	33	2	2	–	88	55	33	4	4	–
2000	87	57	30	2	2	–	81	51	30	4	4	–
2001	94	61	33	4	4	–	85	52	33	5	5	–
2002	62	41	21	8	8	–	50	29	21	4	4	–
2003	52	31	21	7	7	–	45	24	21	–	–	–
2004	46	26	20	27	16	11	15	7	8	4	3	1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36.

3) 국가보훈대상자 취학현황

〈 표 4-3-37 〉 국가보훈대상자 취학현황 (단위: 명)

연별	합계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녀			
	계	중	고	대	계	중	고	대	계	중	고	대	계	중	고	대
1999	3	–	–	3	3	–	–	3	–	–	–	–	–	–	–	–

연별	합계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녀			
	계	중	고	대	계	중	고	대	계	중	고	대	계	중	고	대
2000	2	–	–	2	2	–	–	2	–	–	–	–	–	–	–	–
2001	2	–	–	2	2	–	–	2	–	–	–	–	–	–	–	–
2002	95	12	19	64	4	–	–	4	–	–	–	–	91	12	19	60
2003	62	12	24	26	3	–	–	3	–	–	–	–	59	12	24	23
2004	61	12	12	37	3	–	–	3	–	–	–	–	58	12	12	34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36.

다. 국가보훈자 단체현황

단 체 명	사무실주소	연 락 처	비 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속초시지회	교동 913	633-4312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속초지회	교동 913	635-6745	

자료: http://sokcho.gangwon.kr, 2005.

라. 국가보훈대상자 수혜사항

1) 보상금

가) 기본연금과 대상구분에 따른 부가연금 및 수당지급

나) 연금지급비 대상: 무공 · 보국수훈자, 순직 · 공상 공무원

2) 교육보호

가) 본인 및 자녀에게 중 · 고 · 대학 공납금 면제

나) 중 · 고 · 대학 재학 본인 및 중 · 고 재학 자녀에게 학자금 지급

다) 특수학교(유치원 · 초 · 중 · 고) 재학자녀 공납금 면제 및 학자금 지급

3) 취업보호

가) 본인, 처, 자녀3인(자녀는 35세까지)에 대하여 직장알선(명령취업)

나)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등 각종 공개채용 시험시 10% 가점(가점취업)

4) 의료보호

가) 보훈병원 진료시 무료 또는 감면

(1) 독립유공자, 전 · 공상 군경 등 본인은 무료

(2) 무공 보국수훈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60% 감면

나) 전 · 공상 군경 등 상이자는 상이처별 신체기능 보완용 보철구 지급 및 승용차 구입시 국세(특별소비세), 지방세(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감면

5) 대부지원

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신축, 아파트 분양, 임차(전세) 대부와 불량주택 소유자에 주택개량 대부를,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대부를, 기타 수시 생활안정 대부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주고 있다.

6) 기타지원

가) 독립유공자, 전 · 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나) 철도, 선박, 국내항공, 시내 · 외 버스 이용시 무임 또는 할인 혜택 등

제4장 여가생활

제1절 여가의 개념과 여가활동

1. 여가의 개념

여가(leisure)라는 개념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변화를 통해 정착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여가란 그리스어의 스콜레(schole), 라틴어(Latin)의 스콜라(schola), 오티움(otium), 리케레(licere) 등의 용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그리스어의 스콜레와 라틴어의 스콜라는 '여가' 혹은 '토론장', '학습이 열리는 장소' 등을 의미하던 것이 변화하여 오늘날의 학교 또는 철학 등의 의미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오티움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를 의미하였으며, 리케레는 '허락되어지다' 혹은 '자유로워지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오늘 날은 자유와 면허의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한편 웹스터(Webster) 사전에 의하면 여가를 '한가로움', '안일', '직업생활로부터 벗어난 자유(freedom from necessary occupation)', '한가한 시간(spare time)', '휴양, 기분전환(recreation)'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가란 단순한 '남는 시간' 또는 '쉬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 문화, 학습, 자유, 예술 등의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매우 폭넓은 의미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57].

57) http://www.happycampus.com 참조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감에 따라 개인과 가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날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근로자들은 월차나 휴가를 반납하고 근무시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조직사회에 헌신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더 많은 임금 획득의 기회를 가지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런 경향이 다소 변화되어, 주어지는 휴가와 휴무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여가에 대한 가치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주 5일 근무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여가활동

과거 우리 민족의 여가생활에는 팽이치기, 자치기, 고싸움, 바둑, 장기, 시

짓기, 연날리기, 널뛰기, 공기놀이, 수놓기, 각시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고무줄놀이, 강강수월래 등이 있었다.

이에 반해 오늘 날 행할 수 있는 여가생활은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 먼저, 여가생활을 대상에 따라 나누어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음악 감상, 독서, 컴퓨터, 각종 취미 생활 등),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게임 및 놀이, 스포츠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들놀이, 여행, 문화행사 참가 등),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각종 집회 및 친교 활동, 사회봉사활동 등)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서는 피로회복을 위한 여가활동(음악 감상, 여행 등), 기분전환을 위한 여가활동(노래교실, 게임, 운동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 등), 소질 계발을 위한 여가활동(미술, 음악, 과학 관련 취미 활동 등), 사회봉사를 위한 여가활동(노인정 또는 양로원 방문, 고아원 위문 공연 등), 친목과 친교를 위한 여가활동(야유회, 소풍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가활동 등으로 분류 된다[58].

58) http://kr.ks.yahoo.com 참조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일반인의 학습, 종교 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활동 및 그 외 여가활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동을 여가생활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여가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가생활을 통하여, 창의적인 활동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정의 화목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며, 시간적 ·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해야 한다. 또한 여가생활을 통하여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을 하는 데 활력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웃과의 친목을 도모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절 여가활동의 실태

2004년 통계청에서 전국의 약 12,750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0세 이상의 인구 31,634명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1. 주요 계층별 생활시간 활용 실태

가. 10세 이상 전국민의 시간 활용

우리나라 10세 이상 국민은 하루 24시간 중 10시간 34분(44%) 동안 잠자고, 식사하고, 씻는 등 개인의 필수적인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1999년 조사 결과보다 16분 증가하였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잠자는 시간은 7시간 49분을, 식사 및 간식시간은 1시간 37분을, 개인유지(개인위생, 외모관리, 건강관리 등)를 위한 시간은 1시간 8분을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하여 보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은 8분 적게 사용하는 반면, 수면에 5분, 식사 및 간식 시간으로 4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수입노동), 가사노동, 학습, 출·퇴근 등 의무적인 활동에는 하루 중 8시간 13분(34%)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년 전에 비해 29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남자 32분, 여자 3시간 11분으로 나타났는데, 5년 전에 비해서 남자는 4분 늘고 여자는 10분 감소하여 남자의 가사노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여가시간은 하루 5시간 13분(22%)으로 나타나, 5년 전보다 1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컴퓨터 게임(12분 증가), 인터넷 정보검색(7분 증가), 걷기·산책(4분 증가) 등의 활동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미디어 이용에 2시간 19분, 취미 및 그 외 여가생활에 59분, 교제활동에 52분, 기타 여가 생활을 하는데 1시간 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9) 개인위생, 외모관리, 건강관리, 이미용 및 의료서비스 받기 등 포함.

60)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포함.

61) 일반인의 학습,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등 포함.

〈 표 4-4-1 〉 전 국민의 행동별·성별 하루평균시간 사용량(10세 이상) (단위 :시간:)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2004	1999	증 감	2004	1999	증 감	2004	1999	증 감
필수생활시간	10:34	10:18	0:16	10:35	10:18	10:17	10:34	10:18	0:16
수면	7:49	7:47	0:02	7:52	7:51	0:01	7:47	7:44	0:03
시사 및 간식	1:37	1:33	0:04	1:39	1:34	0:05	1:35	1:32	0:03
기타[59]	1:08	0:58	0:10	1:04	0:53	0:11	1:12	1:01	0:11
의무생활시간	8:13	8:41	−0:29	8:01	8:27	−0:26	8:24	8:55	−0:31
일(수입노동)	3:26	3:43	−0:17	4:20	4:39	−0:19	2:34	2:47	−0:13
가사노동[60]	1:85	1:56	−0:04	0:32	0:28	0:04	3:11	3:21	−0:10
학습	1:14	1:28	−0:14	1:19	1:34	−0:15	1:09	1:22	−0:13
이동	1:40	1:35	0:05	1:51	1:46	0:05	1:30	1:24	0:06
여가생활시간	5:13	2:01	0:12	5:24	5:14	0:10	5:03	4:47	0:15
미디어이용	2:19	2:23	−0:04	2:22	2:29	−0:07	2:16	2:18	−0:02
교제	0:52	0:53	−0:01	0:49	0:48	−0:01	0:56	0:57	−0:01
취미및 그 외 여가[61]	0:59	0:52	0:07	1:14	1:04	0:10	0:45	0:40	0:05
기 타	1:03	0:52	0:11	1:01	0:54	0:07	1:06	0:52	0:14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요일별 시간활용 실태를 보면, 평일보다는 주말에 수면, 미디어 이용, 취미생활,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하는 시간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평일보다 일요일에 남자는 1시간 9분을, 여자는 1시간 2분을 더 자고, 여가생활시간도 남자는 2시간 36분을, 여자는 1시간 27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2 〉 전 국민의 행동별 · 성별 요일평균시간 사용량(10세 이상) (단위 :시간:분)

구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필수생활시간	10:21	10:22	10:21	10:42	10:42	10:42	11:31	11:35	11:28
수면	7:37	7:39	7:36	7:56	7:57	7:55	8:43	8:48	8:38
식사및 간식	1:36	1:39	1:33	1:38	1:40	1:36	1:41	1:42	1:39
기타	1:08	1:04	1:13	1:08	1:05	1:12	1:08	1:05	1:10
의무생활시간	8:51	8:47	8:55	7:30	7:13	4:74	5:40	4:58	6:21
일(수입노동)	3:54	4:56	2:54	2:54	3:42	2:08	1:39	2:00	1:18
가사노동	1:49	0:27	3:08	1:58	0:37	3:16	2:02	0:49	3:14
학습	4:28	1:34	1:22	0:55	0:59	0:51	0:24	0:26	0:23
이동	1:41	1:52	1:30	1:43	1:55	1:32	1:35	1:43	1:27
여가 생활시간	4:47	4:51	4:44	5:48	6:05	5:30	6:48	7:27	6:11
미디어이용	2:05	2:05	2:05	2:38	2:42	2:34	3:10	3:25	2:55
교제	0:49	0:43	0:55	0:58	0:53	1:04	1:00	1:02	0:59
취미 및 여가	0:54	1:07	0:42	1:09	1:27	0:51	1:13	1:35	0:51
기타	0:59	0:56	1:02	1:02	1:03	1:02	1:26	1:25	1:26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나. 20세 이상 성인의 시간 활용(20세 이상)[62)]

20세 이상 성인의 하루 중 필수적인 활동에 10시간 34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5년 전 대비 16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면 7시간 46분, 식사 및 간식 1시간 39분, 개인유지(개인위생, 외모관리, 건강관리 등)로 1시간 8분을 사용하며, 특히 개인유지 시간은 5년 전에 비해 10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하루 중 7시간 48분을 자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보다 3분 많이 자고, 남자의 식사 및 간식시간은 여자보다 6분 더 많은 1시간 42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세 이상 성인의 의무적인 활동에 사용한 시간(수입노동, 가사노동, 학습, 출퇴근 등)은 8시간 5분이며, 여자의 의무생활시간은 8시간 16분으로 7시간 52분을 사용하는 남자에 비해 24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한 시간은 4시간 2분으로 5년 전 4시간 28분에 비

62) 민법상 성인의 나이는 19세이나 시계열 유지 및 국제자료 비교 등을 위해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

해 26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는 33분, 여자는 20분 각각 감소하였다.

가사노동 시간은 2시간 10분으로 남자는 36분, 여자는 3시간 40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남자에 비해 여자의 가사노동량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5년 전에 비해 남자가 4분 증가한 반면, 여자는 18분 감소하여 그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의 여가시간은 5시간 22분으로 5시간 33분을 사용하고 있는 남자가 5시간 11분을 사용하는 여자보다 22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컴퓨터 게임(19분), 인터넷 정보검색(13분), 유흥(11분), 신문(10분), 담배피우기(5분) 등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교제 활동(58분)과 종교 활동(17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 표 4-4-3 >전 국민의 행동별 · 성별 하루평균시간 사용량(20세 이상) (단위 :시간:분)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2004	1999	증감	2004	1999	증감	2004	1999	증감
필수생활시간	10:34	10:18	0:16	10:35	10:19	0:16	10:33	10:17	0:16
수면	7:46	7:45	0:01	7:48	7:48	-	7:45	7:42	0:33
식사및 간식	1:39	1:35	0:04	1:42	1:37	0:05	1:36	1:33	0:03
기타	1:08	0:58	0:10	1:04	0:55	0:09	1:12	1:02	0:10
의무생활시간	8:05	8:34	-0:29	7:52	8:19	-0:27	8:16	8:48	-0:31
일(수입노동)	4:02	4:28	-0:26	2:09	5:42	-0:33	2:58	3:18	-0:20
가사노동	2:10	2:18	-0:08	0:36	0:32	0:04	3:40	3:58	-0:18
학습	0:10	0:12	-0:02	0:12	0:14	-0:02	0:09	0:10	-0:01
이동	1:42	1:36	0:06	1:56	1:50	0:06	1:30	1:22	0:08
여가 생활시간	5:22	5:08	0:13	5:33	5:22	0:11	5:11	4:55	0:16
미디어이용	2:26	2:27	-0:01	2:31	2:35	-0:04	2:21	2:20	0:01
교제	0:54	0:56	-0:02	0:50	0:52	-0:02	0:58	1:00	-0:02
취미 및 그 외 여가	0:53	0:48	0:05	1:06	0:59	0:07	0:40	0:38	0:02
기타	1:09	0:58	0:11	1:06	0:55	0:11	1:12	0:58	0:14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20세 이상 성인의 요일별 생활시간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는 의무적인 활동이 상당히 줄어들고 여유시간을 여가활동이나 수면 등에 활용하는 반면, 의무적인 활동 중 가사노동 시간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13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여자의 경우 요일에 상관없이 유사한 정도의 가사노동을 하며 남자는 평일보다는 일요일에 가사노동을 많이 함.

〈 표 4-4-4 〉전 국민의 행동별 · 성별 요일평균시간 사용량(20세 이상) (단위 :시간:분)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필수생활시간	10:22	10:22	10:22	10:44	10:45	10:42	11:25	11:30	11:19
수면	7:35	7:36	7:34	7:54	7:56	7:52	8:34	8:40	2:82
식사및 간식	1:38	1:41	1:35	1:61	1:43	1:38	1:42	1:44	1:40
기타	1:09	1:04	1:13	1:09	1:06	1:13	1:08	1:06	1:11
의무생활시간	8:37	8:33	8:41	7:30	7:11	7:47	5:57	5:11	6:41
일(수입노동)	4:35	5:52	3:22	3:24	4:24	2:28	1:55	2:22	1:29
가사노동	2:07	0:31	3:39	2:16	0:42	3:45	2:20	0:55	3:39
학습	0:12	0:14	0:10	0:06	0:07	0:05	0:04	0:05	0:03
이동	1:43	1:56	1:30	1:44	1:58	1:30	1:39	1:50	1:29
여가 생활시간	5:01	5:05	4:57	5:46	6:04	5:30	6:38	7:19	6:00
미디어이용	2:15	2:16	2:13	2:42	2:49	2:35	3:08	3:29	2:49
교제	0:51	0:45	0:56	1:00	0:55	1:05	1:04	1:07	1:00
취미그외여가	0:51	1:03	0:39	0:58	1:13	0:44	0:58	1:15	0:41
기타	1:04	1:01	1:09	1:07	1:07	1:05	1:28	1:28	1:3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다. 학생의 시간 활용

학생의 하루 중 필수적인 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10시간 34분으로, 초등학생이 11시간 19분으로 가장 많으며, 고등학생이 9시간 48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인 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8시간 46분으로, 그 중 학습시간이 6시간 23분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학습시간은 5년 전에 비해 32분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학생의 학습시간이 1시간 14분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하루의 43%인 10시간 24분을 학습과 통학에 사용하고, 순수 학습 시간은 8시간 52분으로 대학생에 비해서는 5시간 38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여가시간은 4시간 39분으로 미디어 이용(1시간 43분)이나 취미활동 (1시간 28분)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전에 비해 컴퓨터 이용관련 여가의 증가(컴퓨터게임 23분 증가, 인터넷 검색 9분 증가) 등으로 전체 여가시간은 10분 늘었으나, 미디어 이용시간은 19분 감소하였다.

〈 표 4-4-5 〉학생의 행동별 · 재학정도별 하루평균시간 사용량 (단위 : 시간:분)

구 분	연도별			재학정도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4]		
	2004	1999	증감	2004	1999	증감	2004	1999	증감	2004	1999	증감	2004	1999	증감
필수생활시간	10:34	10:34	0:22	11:19	11:16	0:03	10:39	10:27	0:13	9:48	9:26	0:23	10:34	10:01	0:33
수면	8:01	8:01	0:09	8:50	8:58	-0:08	8:11	8:11	-	7:16	7:07	0:09	7:51	7:31	0:20
식사및간식	1:28	1:28	0:03	1:29	1:28	0:01	1:25	1:22	0:03	1:26	1:23	0:03	1:31	1:30	0:01
기타	1:05	1:05	0:10	1:00	0:50	0:10	1:04	0:54	0:10	1:07	0:56	0:11	1:11	1:01	0:10

구 분	연도별			재학정도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4]			
	2004	1999	증감	2004	1999	증감	2004	1999	증감	2004	1999	증감	2004	1999	증감
의무생활시간	8:46	8:46	−0:32	7:45	7:37	0:08	8:55	0:97	−0:12	10:42	10:58	−0:16	7:61	8:49	−1:09
일(수입노동)	0:25	0:25	−0:01	−	0:01	−0:01	0:00	0:02	−0:02	0:08	0:18	−0:10	1:29	1:23	0:06
가사노동	0:18	0:18	−0:01	0:12	0:14	−0:02	0:12	0:14	−0:02	0:10	0:12	−0:02	0:36	0:34	0:02
학습	6:23	6:23	−0:32	6:14	6:11	0:03	7:19	7:29	−0:10	8:52	8:51	0:01	3:14	4:28	−1:14
이동	1:40	1:40	0:01	1:19	1:11	0:08	1:24	1:21	0:02	1:32	1:38	−0:06	2:23	2:24	−0:01
여가생활시간	4:39	4:39	0:10	4:56	5:07	−0:12	4:25	4:26	−0:01	3:30	3:36	−0:07	5:45	5:09	0:36
미디어이용	1:43	1:43	−0:19	1:48	2:14	−0:26	1:41	2:14	−0:33	1:16	1:43	−0:27	0:28	2:04	0:04
교제	0:46	0:46	0:03	0:30	0:33	−0:03	0:42	0:36	0:06	0:45	0:41	0:04	1:04	1:02	0:02
취미및여가	1:28	1:28	0:22	2:02	1:41	0:21	1:32	1:05	0:27	1:01	0:45	0:16	1:19	1:02	0:17
기타	0:43	0:43	0:04	0:35	0:39	−0:04	0:31	0:30	0:01	0:28	0:28		1:13	1:02	0:1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학생들은 일요일에 하루 절반 이상인 12시간 3분을 필수적인 활동 시간으로 사용하며, 평일(10시간 16분)과 토요일(10시간 38분)에 비해 많이 사용하며, 평일에는 7시간 43분 수면을 취하는데 비해, 일요일에는 9시간 24분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평일의 수면시간이 6시간 52분인데 비해 일요일에는 9시간 19분으로 부족한 잠을 주말에 보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의 학습시간은 평일에 비해 5시간 31분이 적은 2시간 4분을 사용하는데, 고등학생은 일요일에도 3시간 44분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보면, 평일에는 대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다음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며, 일요일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여가시간 중 특히 컴퓨터게임(49분 증가), 종교 집회 및 모임참가(26분 증가) 등의 시간이 일요일에 많이 늘어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평일에 비해 주말에 여가생활시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특히 미디어 이용시간(TV시청, 인터넷 정보검색 등)이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2시간 6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6 〉학생의 행동별 · 요일별 · 재학정도별 하루 평균시간 사용량 (단위 : 시간: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초등	중	고등	대[4]	평균	초등	중	고등	대[4]	평균	초등	중	고등	대[4]
필수생활시간	10:16	11:07	10:21	10:21	10:14	10:38	11:13	10:35	9:39	11:09	12:03	12:25	12:14	11:55	11:40
수면	7:43	8:40	7:53	7:53	7:31	8:07	8:44	8:10	7:10	8:28	9:24	9:45	9:40	9:19	8:55
식사및간식	1:27	1:27	1:24	1:24	1:31	1:26	1:28	1:22	1:22	1:31	1:33	1:39	1:33	3:00	1:32
기타	1:06	0:59	1:05	1:05	1:11	1:05	1:00	1:03	1:08	1:10	1:06	1:02	1:02	1:06	1:14
의무생활시간	10:00	8:58	10:17	10:17	8:44	7:13	6:18	7:19	9:33	5:39	4:12	3:08	3:46	5:23	4:26
일(수입노동)	0:28	−	0:00	0:00	1:37	0:22	−	0:00	0:06	1:20	0:16	−	0:01	0:07	0:55
가사노동	0:14	0:08	0:06	0:06	0:31	0:23	0:16	0:15	0:18	0:44	0:36	0:31	0:35	0:26	0:51
학습	7:35	7:33	8:45	8:45	4:00	4:40	4:36	5:26	7:09	1:29	2:04	1:19	2:03	3:44	1:05
이동	1:44	1:17	1:25	1:25	2:36	1:48	1:26	1:38	2:00	2:06	1:16	1:17	1:07	1:06	1:35
여가생활시간	3:45	3:55	3:22	3:22	5:02	6:09	6:30	6:06	4:47	7:13	7:45	8:27	8:00	6:43	7:53
미디어이용	1:14	1:20	1:09	1:09	1:46	2:23	2:28	2:27	1:54	2:42	3:20	3:24	3:37	2:54	3:24
교제	0:44	0:28	0:41	0:41	1:01	0:53	0:41	0:48	0:47	1:17	0:47	0:33	0:39	0:48	1:09
취미및여가	1:10	1:39	1:10	1:10	1:11	2:00	2:39	2:12	1:30	1:40	2:23	3:17	2:39	2:01	1:36
기타	0:34	0:28	0:22	0:22	1:04	0:53	0:42	0:39	0:36	1:35	1:15	1:13	1:05	0:59	1:45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라. 65세 이상의 노인의 시간 활용

65세 이상 노인은 하루 24시간 중 47%인 11시간 16분을 잠자고 먹고 씻는 등 필수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자는 시간은 8시간 19분, 식사 시간은 1시간 38분, 개인유지(개인위생, 외모관리, 건강관리 등)를 위한 시간은 1시간 19분을 사용하며, 건강관리시간은 25분으로 10세 이상 전 국민의 건강관리 시간(6분)에 비해 19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인 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5시간 23분이며, 남자노인(4시간 46분)에 비해 여자노인(5시간 47분)이 1시간 1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상 전 국민의 의무적인 활동시간(8시간 13분)보다 2시간 50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은 필수시간과 여가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시간은 7시간 21분으로 하루 24시간 중 31%를 차지하며, 남자(7시간 58분)가 여자(6시간 58분)보다 1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가생활 중 TV시청(3시간 28분)이 가장 많고, 휴식(41분), 걷기 · 산책(29분), 놀이(17분) 등의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은 TV시청(3시간 48분), 사람들과의 교제(1시간 2분), 걷기 · 산책(37분), 놀이(22분), 신문읽기(14분) 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자노인은 TV시청(3시간 14분), 사람들과의 교제(1시간 13분), 휴식(43분), 종교 활동(29분), 걷기 및 산책(24분) 등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7 〉 노인의 행동별 · 성별 하루 평균시간 사용량 (단위 : 시간:분)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2004	1999	증감	2004	1999	증감	2004	1999	증감
필수생활시간	11:16	11:19	-0:03	11:16	11:20	-0:04	11:15	11:18	-0:03
수면	8:19	8:31	-0:12	8:14	8:26	-0:12	8:22	8:34	-0:12
식사및 간식	1:38	1:34	0:04	1:42	1:38	0:04	1:35	1:32	0:03
기타	1:19	1:15	0:04	1:19	1:16	0:03	1:19	1:13	0:06
의무생활시간	5:23	5:24	-0:01	4:46	4:47	-0:01	5:47	5:48	-0:01
일(수입노동)	1:53	2:08	-0:15	2:25	2:37	-0:12	1:32	1:48	-0:16
가사노동	2:19	2:12	0:07	0:59	0:54	0:05	3:12	3:06	0:06
학습	-	-	-	-	-	-	-	-	-
이동	1:11	1:03	0:08	1:22	1:16	0:06	1:03	0:55	0:08
여가 생활시간	7:21	7:18	0:04	7:58	7:53	0:05	6:58	6:54	0:04
미디어이용	3:40	3:33	0:07	4:13	4:04	0:09	3:18	3:12	0:06
교제	1:08	1:13	-0:05	1:02	1:09	-0:07	1:13	1:16	-0:03
취미 및 여가	1:09	1:22	-0:13	1:18	1:29	-0:11	1:03	1:17	-0:14
기타	1:25	1:10	1:15	1:24	1:11	0:13	1:24	1:09	0:15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65세 이상 노인의 요일별 생활시간 활용 실태를 비교해 보면, 다른 연령층과 달리 평일과 일요일의 시간 활용 실태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 필수시간은 평일보다 2분 더 많이 사용하고, 여가시간도 35분 늘었으나, 오히려 취미 생활을 위한 시간은 6분 감소한 반면, 반면, 일요일에 가족과의 식사 시간(5분 증가)과 가족과의 교제 시간(10분 증가)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 표 4-4-8 〉노인의 행동별 · 요일별 · 성별 평균시간 사용량 (단위 :시간:분)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필수생활시간	11:15	11:17	11:15	11:15	11:12	11:18	11:17	11:17	11:17
수면	8:17	8:13	8:19	8:20	8:12	8:25	8:26	8:21	8:30
식사및 간식	1:37	1:42	1:34	1:37	1:40	1:35	1:41	1:46	1:37
기타	1:21	1:22	1:21	1:19	1:20	1:17	1:10	1:10	1:10
의무생활시간	5:30	4:52	5:55	5:15	4:46	5:35	4:54	4:19	5:18
일(수입노동)	1:57	2:28	1:36	1:56	2:32	1:31	1:33	2:04	1:11
가사노동	2:23	0:59	3:15	2:12	0:57	3:06	2:10	0:57	2:59
학습	-	-	-	-	-	-	-	-	-
이동	1:11	1:24	1:03	1:06	1:16	0:58	1:12	1:18	1:08
여가 생활시간	1:74	7:51	6:50	7:30	8:02	7:07	7:49	8:25	7:25
미디어이용	3:35	4:08	3:13	3:51	4:20	3:30	3:56	4:28	3:35
교제	1:06	1:00	1:10	1:10	0:59	1:19	1:16	1:12	1:19
취미 및 여가	1:09	1:17	1:04	1:11	1:24	1:03	1:03	1:13	0:56
기타	1:24	1:26	1:24	1:18	1:19	1:15	1:35	1:31	1:35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2. 가구유형별 여가생활시간 실태

가. 맞벌이/비맞벌이 가구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 중 맞벌이가구(남편, 주부 모두 취업)의 남편과 비맞벌이가구(남편만 취업)의 남편의 여가활동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맞벌이 가구의 주부의 여가활동시간이 5시간 51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맞벌이가구의 주부(3시간 37분)에 비해 2시간 14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5년 전에 비해서 맞벌이 주부 22분, 비맞벌이 주부 7분, 맞벌이 남편 10분, 비맞벌이 남편 12분 등으로 각각 증가하여, 맞벌이 가구 주부의 여가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표 4-4-9 >맞벌이 및 비맞벌이 가구의 활동별 · 성별 여가생활시간 (단위 : 시간:분)

여가활동별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주부		남편		주부		남편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여가 생활시간	3:37	3:15	4:28	4:18	5:51	5:44	4:24	4:12
미디어이용	1:40	1:36	2:10	2:10	2:42	2:50	2:03	2:04
교제	0:44	0:43	0:45	0:45	1:05	1:13	0:46	0:45
취미 및 여가	0:26	0:22	0:48	0:46	0:37	0:34	0:48	0:41
기타	0:47	0:34	0:46	0:37	1:28	1:07	0:47	0:4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나. 양부모/편부모 가구

편부모가구(편부모가구란 한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와 양(兩)부모가구(양부모가구란 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여가시간은 편부모가구가 양부모가구보다 11분 더 많은 4시간 38분을 사용하며, 편모의 경우, 양부모가구의 모(母)보다 자격증 및 취업 관련 학습 시간이 5분 더 많아 취업에 대한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편부의 경우, 양부모가구 부(父)보다 미디어 이용시간이 18분 많은 2시간 21분을, 취미활동은 20분 많은 1시간 10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10 > 양부모 및 편부모가구의 활동별 · 성별 하루평균 여가활동시간 (단위: 시간:분)

여가활동별	양(兩)부모가구			편부모가구		
	평균	부	모	평균	편부	편모
여가 생활시간	4:27	4:28	4:26	4:38	5:06	4:31
미디어 이용	2:02	2:03	2:00	1:58	2:21	1:52
교제	0:49	0:46	0:54	0:53	0:50	0:54
취미 및 여가	0:41	0:50	0:30	0:42	1:10	0:34
기타	0:55	0:49	1:02	1:05	0:44	1:1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3. 휴무실태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

주 5일 근무 취업자의 시간활용을 살펴보면, 토요일에 일(수입노동)과 출퇴근을 하지 않아 생기는 여유시간(3시간 48분)을 수면(53분), 가사노동(51분), 교제 및 여가활동(1시간 53분)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주 1일 휴무자에 비해 토요일에 수면 보충 46분, 교제 및 여가활동에 1시간 57분, 가사노동에 47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에도 11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주 1일 휴무자에 비해 토요일에 수면 보충 1시간 2분, 교제 및 여가활동 1시간 57분, 가사노동에 36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11 〉 휴무 실태에 따른 활동별 · 성별 여가활동시간 (단위:시간:분)

교제 및 여가활동별	주 1일 휴무						주 2일 휴무(주5일근무)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교제 및 여가활동	3:20	3:34	2:57	4:11	4:27	3:43	3:28	3:38	3:16	6:04	6:24	5:40
교제 활동	0:40	0:39	0:41	0:51	0:51	0:52	0:42	0:39	0:45	0:59	0:51	1:09
일반인의 학습	0:04	0:04	0:05	0:03	0:03	0:03	0:07	0:07	0:09	0:12	0:14	0:09
미디어 이용	1:35	1:43	1:22	1:59	2:08	1:45	1:33	1:39	1:27	2:51	3:07	2:31
종교 활동	0:04	0:03	0:06	0:05	0:05	0:05	0:05	0:02	0:08	0:07	0:03	0:13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0:01	0:01	0:01	0:04	0:03	0:05	0:01	0:01	0:01	0:11	0:09	0:14
스포츠 및 집밖레저	0:16	0:17	0:13	0:17	0:20	0:13	0:18	0:21	0:14	0:34	0:46	0:21
취미 및 그 외 여가	0:39	0:47	0:28	0:49	0:57	0:37	0:40	0:49	0:30	1:03	1:12	0:53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4. 주요 활동별 여가시간 실태

가. TV 시청

10세 이상 국민은 평균적으로 평일 2시간 6분, 토요일 2시간 38분, 일요일 3시간 14분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평일과 토요일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각각 15분, 9분 더 많이 TV를 시청하나, 일요일에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보다 14분 더 많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시청 시간은 5년 전에 비해 평일에 17분, 토요일에는 15분, 일요일에는 20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TV 시청한 시간은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합친 시간임.

64) 행위자란 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임.

65) 행위자 비율이란 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들의 비율임.

66) 행위자 평균시간이란 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들만의 평균 시간임.

〈 표 4- 4-12 〉 TV 시청한 시간[63] 및 행위자[64] 비율[65], 행위자 평균시간[66](10세 이상) (단위: 시간:분)

성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전체	2:06	2:23	88.3	89.7	2:22	2:39	2:38	2:53	91.5	91.9	2:53	3:08	3:14	3:34	93.8	94.3	3:27	3:47
남자	1:58	2:15	86.2	88.6	2:17	2:32	2:34	2:42	90.4	90.6	2:50	2:59	3:21	3:37	93.1	94.0	3:36	3:50
여자	2:13	2:31	90.2	90.8	2:27	2:47	2:43	3:03	92.7	93.1	2:56	3:17	3:07	3:31	94.5	94.7	3:18	3:43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성별로 아침 시간대의 TV 시청 비율을 살펴보면, 오전 8시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그 이후는 여자가 남자보다 TV 시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TV 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는 남자가 밤 9시부터 9시 30분까지(31.6%), 여자가 밤 8시 30분부터 9시까지(30.4%)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4-13 〉 성별 · 시간대별 TV 시청한 요일평균 행위자 비율(10세 이상) (단위:%)

성별		6:00	6:30	7:00	7:30	8:00	8:30	9:00	9:30	10:00	10:30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21:30	22:00	22:30
남자	2004	3.2	4.6	6.1	6.5	6.8	8.0	7.7	7.5	6.0	6.1	10.5	12.1	13.5	17.6	22.9	27.2	31.6	29.7	23.0	20.6
	1999	3.7	4.9	6.5	7.1	7.4	8.3	7.8	7.8	6.2	6.2	13.1	15.3	15.4	20.9	26.0	31.2	37.2	36.2	26.0	23.2

성별		6:00	6:30	7:00	7:30	8:00	8:30	9:00	9:30	10:00	10:30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21:30	22:00	22:30
여자	2004	2.2	3.2	4.4	5.2	8.6	10.9	11.7	9.2	7.4	7.3	9.1	10.3	11.3	14.9	23.0	30.4	29.6	27.9	25.2	22.6
	1999	1.9	2.8	4.2	5.2	8.5	11.5	12.0	10.1	7.9	7.5	10.3	11.5	12.7	17.5	25.5	32.2	35.3	34.5	27.5	24.8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20세 이상 기혼여자 중 전업주부가 평일에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3시간 15분으로 취업주부에 비해 1시간 23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전업주부의 연령대별 TV 시청시간을 살펴보면, 20~30대가 3시간 32분, 40~50대가 3시간 54분, 60세 이상이 3시간 55분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TV 시청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14 〉 기혼여자의 요일별 TV 시청한 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20세 이상) (단위: 시간:분, %)

행위자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취업주부	1:52	2:11	91.4	91.9	2:02	2:22	2:16	2:23	92.0	90.3	2:28	2:38	2:39	2:53	93.7	93.2	2:50	3:05
전업주부	3:15	3:35	97.5	97.0	3:20	3:42	3:31	3:56	96.2	97.1	3:39	4:03	3:38	3:57	96.3	96.0	3:46	4:07
20~30대	3:32	3:43	97.8	96.8	3:36	3:51	3:48	4:04	96.5	97.4	3:56	4:10	3:54	4:05	96.6	95.8	4:02	4:15
40~50대	3:54	3:57	98.1	95.9	3:59	4:08	4:15	4:20	97.1	97.3	4:23	4:28	4:12	4:24	97.3	96.4	4:19	4:34
60세 이상	3:55	3:57	98.1	95.7	4:00	4:08	4:14	4:17	97.2	97.2	4:22	4:24	4:13	4:22	97.5	96.5	4:20	4:32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67) 대학원생포함.

학생별 TV 시청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에는 초등학생 1시간 28분, 대학생 1시간 16분, 중학생 1시간 8분, 고등학생 43분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일요일에는 초등학생 3시간 37분, 중학생 3시간 35분, 대학생 2시간 47분, 고등학생 2시간 41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평일에 하루 10분 이상 TV를 시청하는 학생은 59.7%에 불과하나, 일요일에는 88.8%가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요일의 여가활동으로 TV를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서는 모든 학생층이 전 요일에 걸쳐서 TV를 시청하는 평균시간, 시청하는 비율, TV 시청 학생 행위자들의 평균시간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 표 4-4-15 〉 학생의 요일별 TV 시청한 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시간:분, %)

재학정도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학생전체	1:08	1:30	76.5	81.5	1:29	1:50	2:11	2:41	88.8	90.3	2:28	2:58	3:10	3:55	93.6	95.9	3:23	4:05
초등학생	1:28	1:57	90.6	93.5	1:37	2:06	2:35	2:58	93.7	96.3	2:45	3:04	3:37	4:26	97.6	98.4	3:42	4:30
중 학 생	1:08	1:39	80.4	87.3	1:25	1:53	2:24	3:12	94.5	96.3	2:32	3:20	3:35	4:31	96.6	98.5	3:42	4:35
고등학생	0:43	1:08	59.7	70.9	1:12	1:35	1:42	2:16	83.6	86.3	2:03	2:38	2:41	3:37	88.8	95.1	3:01	3:48
대학생[67]	1:16	1:25	76.5	78.4	1:39	1:49	2:05	2:26	83.4	84.0	2:30	2:54	2:47	3:08	91.6	91.7	3:03	3:25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나. 컴퓨터 이용

10세 이상 국민 중 컴퓨터를 이용한 여가활동시간은 평일 28분, 토요일 39분, 일요일 44분이며,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5년 전에 비해서는 평일에는 20분, 토요일에는 27분, 일요일에는 28분이 늘어난 것으로 컴퓨터 관련 여가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이용한 여가활동의 시간을 보면 평일의 28분 중 15분은 컴퓨터 게임하고 나머지는 정보검색이나 이메일, 채팅 등 컴퓨터를 이용한 교제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요일별로 살펴보면, 정보검색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교제는 요일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컴퓨터 게임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10분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평일에는 30.7%, 토요일에는 32.9%, 일요일에는 33.1%로 나타나 10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를 이용한 여가활동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평일에는 21.3%, 토요일에는 21.5%, 일요일에는 20.5%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10~20대로 평일에 남자는 63.2%가 1시간 51분을, 여자는 50.3%가 1시간 22분을 여가활동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 남자의 경우, 토요일에는 73.3%가 2시간 30분을, 일요일에는 78.0%가 2시간 47분을 여가활동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8) 컴퓨터를 이용한 교제는 2004년 추가된 행동분류임.

〈 표 4-4-16 〉 컴퓨터 이용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10세 이상) (단위: 시간:분, %)

행위자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전 체	0:28	0:08	30.7	9.4	1:30	1:26	0:39	0:12	32.9	11.4	1:57	1:48	0:44	0:16	33.1	12.6	2:13	2:06
남 자	0:36	0:13	36.4	13.8	1:39	1:33	0:53	0:20	39.6	16.9	2:14	1:59	1:02	0:26	41.6	18.5	2:28	2:19
10~20대	1:10	0:30	63.2	30.9	1:51	1:37	1:50	0:50	73.3	39.6	2:30	2:06	2:10	1:03	78.0	43.4	2:47	2:26
여 자	0:20	0:03	25.2	5.1	1:19	1:07	0:25	0:05	26.4	6.0	1:34	1:17	0:27	0:06	24.8	6.8	1:48	1:30
10~20대	0:41	0:08	50.3	12.2	1:22	1:07	0:58	0:12	56.7	15.2	1:42	1:21	1:05	1:16	56.0	17.3	1:56	1:31
정보검색	0:10	0:03	15.7	3.8	1:06	1:22	0:12	0:03	15.5	3.6	1:16	1:34	0:12	0:04	15.3	4.1	1:20	1:43
컴퓨터게임	0:15	0:05	16.6	6.1	1:33	1:21	0:24	0:09	20.6	8.6	1:58	1:44	0:29	0:12	22.1	9.6	2:11	2:01
교제[68]	0:02	–	4.9	–	0:42	–	0:03	–	4.7	–	0:55	–	0:03	–	4.9	–	0:56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학생이 여가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53분, 토요일 1시간 37분, 일요일 1시간 54분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0분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평일 59.6%, 토요일 74.5%, 일요일 76.6%로 나타나 5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일요일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여가활동은 평균 1시간 54분으로 그 중 1시간 24분(73.7%)을 컴퓨터 게임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게임 활동은 5년 전에 비해 평균시간이 38분이나 늘었고, 행위자비율도 36.0%에서 60.5%로 2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17 〉 학생의 컴퓨터 이용 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시간:분, %)

학생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학생 전체	0:53	0:23	59.6	28.0	1:29	1:22	1:37	0:46	74.5	40.5	2:11	1:53	1:54	1:00	76.6	44.5	2:28	2:14
초등학생	0:47	0:22	61.0	30.4	1:17	1:12	1:29	0:45	76.3	45.0	1:57	1:41	1:45	1:06	78.1	50.0	2:14	2:12
중·고등학생	0:46	0:21	55.6	25.6	1:23	1:20	1:40	0:46	75.9	40.7	2:11	1:52	2:04	1:01	78.1	44.8	2:39	2:16
대학생	1:11	0:28	66.0	28.9	1:48	1:35	1:40	0:42	69.8	31.8	2:24	2:13	1:40	0:45	72.0	33.7	2:19	2:13
정보검색	0:14	0:06	20.7	7.9	1:08	1:18	0:19	0:09	23.9	9.3	1:21	1:41	0:22	0:12	25.9	10.7	1:24	1:49
컴퓨터게임	0:35	0:16	41.4	21.1	1:24	1:17	1:11	0:35	57.3	32.8	2:03	1:48	1:24	0:46	60.5	36.0	2:19	2:09
교제	0:04	–	8.9	–	0:47	–	0:07	–	11.6	–	1:01	–	0:08	–	13.1	–	1:01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69) 관람 및 취미활동에는 걷기(산책), 컴퓨터 게임, 독서, 영화 · 연극 등 관람, 스포츠, 유흥, 아무것도 안 하고 쉼 등이 포함됨.

다. 관람 및 취미활동[69)]

10세 이상 국민 중 관람 및 취미활동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에는 1시간 19분, 토요일에는 1시간 38분, 일요일에는 1시간 4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5년 전에 비해 평일에는 12분, 토요일에는 18분, 일요일에는 18분씩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관람 및 취미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일에는 1시간 34분, 일요일에는 2시간 19분을 사용하여 여자보다 각각 30분, 1시간 2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18 〉 요일별 관람 및 취미활동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10세 이상) (단위: 시간:분, %)

성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전체	1:19	1:07	74.7	69.5	1:45	1:37	1:38	1:20	76.7	70.5	2:08	1:53	1:48	1:30	76.2	70.4	2:22	2:08
남자	1:34	1:22	81.4	78.1	1:55	1:45	2:02	1:41	83.5	79.9	2:26	2:07	2:19	1:59	84.2	80.1	2:45	2:28
여자	1:04	0:53	68.2	61.0	1:34	1:27	1:16	0:59	70.1	61.3	1:48	1:36	1:17	1:02	68.4	60.7	1:53	1:42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20세 이상 성인 중에서는 기혼자 보다는 미혼자가 관람 및 취미 활동을 위

한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평일에는 22분 많은 1시간 35분, 토요일에는 47분 많은 2시간 7분, 일요일에는 55분 더 많은 2시간 19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19 〉 요일별 성인의 관람 및 취미활동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20세 이상) (단위: 시간:분, %)

결혼 유·무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전체	1:17	1:07	73.2	68.1	1:46	1:38	1:29	1:14	74.5	68.7	2:00	1:47	1:35	1:19	73.5	67.8	2:09	1:57
미혼	1:35	1:13	74.8	70.6	2:07	1:44	2:07	1:36	82.4	73.0	2:34	2:11	2:19	1:41	82.3	73.4	2:49	2:18
기혼	1:13	1:06	72.8	67.6	1:40	1:37	1:20	1:09	72.5	67.7	1:50	1:42	1:24	1:14	71.3	66.6	1:58	1:52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10세 이상 국민의 교제활동[70] 시간은 평일 49분, 토요일 58분, 일요일 1시간이며, 평일과 토요일에는 여자가, 일요일에는 남자가 교제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교제활동에는 전화통화, 가족과의 교제,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가 포함됨.

〈 표 4-4-20 〉 요일별 교제 활동 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10세 이상) (단위: 시간:분, %)

성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전체	0:49	0:49	73.1	67.1	1:07	1:13	0:58	0:57	74.1	68.9	1:19	1:23	1:00	1:06	70.6	67.3	1:26	1:38
남자	0:43	0:43	69.6	63.5	1:02	1:08	0:53	0:53	70.8	66.7	1:14	1:20	1:02	1:09	69.4	66.0	1:29	1:45
여자	0:55	0:55	76.4	70.7	1:11	1:18	1:04	1:01	77.4	71.1	1:22	1:26	0:59	1:03	71.7	68.6	1:22	1:3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평일은 미혼자와 기혼자의 교제활동 시간이 51분으로 같은 수준이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의 교제활동 시간이 각각 4분, 3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21 〉 요일별 성인의 교제 활동 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20세 이상) (단위: 시간:분, %)

성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성인	0:51	0:52	71.5	65.3	1:11	1:19	1:00	1:00	73.1	67.7	1:22	1:29	1:04	1:10	71.8	68.3	1:29	1:42
미혼	0:51	0:48	75.4	68.2	1:07	1:11	1:03	1:02	77.8	72.3	1:21	1:25	1:06	1:12	76.7	75.3	1:26	1:36
기혼	0:51	0:53	70.6	64.7	1:12	1:21	0:59	0:60	71.9	66.7	1:23	1:30	1:03	1:09	70.6	66.8	1:29	1:44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10세 이상 국민의 교제를 위한 전화통화시간은 평일에는 9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해 1분, 2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22 〉 요일별 교제관련 전화통화 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10세 이상) (단위: 시간:분, %)

연령대별 및 성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전 체	0:09	0:07	32.2	24.2	0:27	0:28	0:08	0:07	31.7	25.3	0:26	0:27	0:07	0:07	28.4	24.8	0:26	0:28
남자	0:06	0:05	26.8	19.2	0:24	0:24	0:06	0:05	27.3	20.7	0:23	0:24	0:06	0:05	26.2	21.8	0:24	0:25
여자	0:11	0:09	37.4	29.1	0:29	0:30	0:10	0:09	35.9	29.8	0:28	0:29	0:08	0:08	30.5	27.8	0:28	0:30
10~20대	0:09	0:09	33.3	28.4	0:27	0:32	0:09	0:10	32.2	32.4	0:28	0:30	0:10	0:11	34.4	34.7	0:29	0:32
30~40대	0:14	0:11	44.3	35.1	0:31	0:31	0:12	0:10	42.5	33.9	0:29	0:30	0:08	0:07	30.0	26.2	0:27	0:28
50대이상	0:10	0:06	32.7	21.8	0:29	0:28	0:08	0:06	31.1	21.2	0:27	0:27	0:07	0:06	26.8	20.9	0:27	0:27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10세 이상 국민 중에서 평일 하루 1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은 12.7%(행위자 평균 1시간 4분)이며, 일요일에는 1.9% 높은 14.6%(행위자 평균 1시간 19분)가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20대가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일에는 5명 중 1명(20.4%), 일요일에는 4명 중 1명(25.9%)이 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23 〉 요일별 독서 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10세 이상) (단위: 시간:분, %)

연령대별 및 성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전 체	0:08	0:09	12.7	12.8	1:04	1:11	0:10	0:10	13.7	13.1	1:12	1:17	0:12	0:13	14.6	15.0	1:19	1:27
10~20대	0:12	0:14	20.4	21.4	0:59	1:04	0:16	0:17	23.4	23.2	1:08	1:15	0:20	0:24	25.9	27.9	1:18	1:28
30~40대	0:07	0:08	11.0	9.8	1:07	1:20	0:09	0:07	11.4	9.2	1:15	1:18	0:09	0:08	11.6	9.4	1:15	1:24
50대이상	0:04	0:05	5.7	5.3	1:19	1:27	0:04	0:05	5.3	5.5	1:24	1:33	0:05	0:05	5.4	5.5	1:33	1:33
남 자	0:08	0:09	11.4	12.0	1:08	1:15	0:10	0:11	13.3	12.8	1:16	1:23	0:12	0:14	15.2	15.9	1:20	1:30
여 자	0:09	0:09	13.9	13.6	1:02	1:07	0:10	0:10	14.2	13.4	1:09	1:13	0:11	0:12	14.2	14.1	1:18	1:24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10세 이상 국민은 건강관리를 위해 걷기 · 산책을 많이 하여 평일 평균 11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걷기 · 산책으로 평일에 24분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한 편이며, 5년 전에 비해서도 9분 증가하였다.

평일에 10분 이상 걷기 · 산책을 한 사람은 5년 전에 비해 5.4% 증가한 14.8%이고, 이들의 평균시간은 1시간 11분으로 5년 전보다는 6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24 〉 요일별 걷기 · 산책시간 및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10세 이상) (단위: 시간:분, %)

연령대별 및 성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전 체	0:11	0:06	14.8	9.4	1:11	1:05	0:11	0:07	15.3	10.7	1:12	1:05	0:12	0:07	16.5	11.4	1:11	1:01
10~20대	0:03	0:02	6.2	3.8	0:53	0:49	0:04	0:03	7.4	5.1	0:57	0:53	0:05	0:03	7.9	6.1	1:00	0:53
30~40대	0:08	0:04	12.1	7.3	1:05	0:58	0:09	0:05	12.8	8.8	1:08	1:01	0:09	0:05	13.9	9.7	1:07	0:56
50대이상	0:24	0:15	29.5	20.7	1:20	1:12	0:23	0:15	28.6	21.0	1:19	1:12	0:24	0:15	30.9	21.6	1:17	1:08
남 자	0:10	0:07	13.7	10.6	1:14	1:08	0:12	0:08	16.1	12.0	1:13	1:07	0:13	0:09	17.7	14.0	1:13	1:04
여 자	0:11	0:05	15.8	8.3	1:09	1:00	0:10	0:06	14.5	9.4	1:10	1:04	0:10	0:05	15.4	8.8	1:08	0:58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라. 신문[71]읽기

10세 이상 국민이 평일에 신문을 읽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6분으로 남자가 8분, 여자는 3분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연령별 신문 읽는 사람의 비율은 평일에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읽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문을 읽는 사람의 평균시간 또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상 국민 중 하루 10분 이상 신문을 읽는 사람은 평일에는 16.5%, 토요일에는 15.1%, 일요일에는 9.0%로 평일에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나, 5년 전에 비해서는 평일에 3.9%, 토요일에 5.4%, 일요일에 5.8%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1) 신문은 활자 신문임.

〈 표 4-4-25 〉 요일별 신문 읽은 시간 및 행위자 비율 · 행위자 평균시간(10세 이상) (단위: 시간:분, %)

연령대별 및 성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전 체	0:06	0:08	16.5	20.4	0:35	0:38	0:06	0:08	15.1	20.5	0:38	0:37	0:03	0:06	9.0	14.8	0:37	0:40
여 자	0:03	0:04	10.2	12.7	0:33	0:34	0:03	0:04	9.3	12.4	0:34	0:34	0:01	0:02	3.6	7.1	0:33	0:35
남 자	0:08	0:11	23.1	28.3	0:37	0:39	0:08	0:11	21.0	28.6	0:40	0:38	0:06	0:09	14.6	22.7	0:38	0:41
10~20대	0:02	0:04	7.5	13.6	0:30	0:31	0:02	0:05	6.7	14.7	0:29	0:33	0:02	0:04	5.4	11.7	0:34	0:34
30~40대	0:10	0:14	30.0	38.3	0:34	0:37	0:09	0:14	26.5	37.8	0:36	0:36	0:06	0:12	16.5	29.3	0:35	0:40
50대이상	0:14	0:16	32.9	33.7	0:43	0:48	0:15	0:15	30.9	33.5	0:50	0:46	0:10	0:13	23.3	28.1	0:43	0:47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가운데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신문을 더 오래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26 〉 성인 남자의 취업여부별 신문 읽은 시간 및 행위자 비율 · 행위자 평균시간(20세 이상) (단위: 시간:분, %)

취업여부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성인남자	0:10	0:14	27.1	34.0	0:37	0:40	0:10	0:13	24.6	33.7	0:41	0:39	0:07	0:11	17.1	26.7	0:38	0:41
미취업	0:12	0:17	25.9	34.8	0:47	0:50	0:12	0:17	23.4	35.4	0:49	0:49	0:09	0:13	19.4	26.7	0:47	0:47
취 업	0:09	0:13	27.4	33.7	0:35	0:38	0:10	0:12	24.9	33.3	0:38	0:36	0:06	0:11	16.6	26.7	0:36	0:4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2004.

제3절 속초시의 여가시설 현황

속초시는 천혜의 설악산과 동해바다, 영랑호와 청초호 등의 자연 석호, 온천 등으로 인하여, 등산, 낚시, 스킨스쿠버, 행글라이딩 등 집 밖의 여가활동을 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타 시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여가시설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시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1. 문화 공간

『제43회 속초통계연보』에 따르면, 속초시의 여가시설 중 문화 공간으로는 종합공연장이 2개소가 있으며, 소공연장 1개소, 영화관 3개소, 미술관, 복지회관, 문화원이 각각 1개소씩 있으나 다른 도시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 표 4-4-27 〉 속초시 문화 공간 현황 (단위: 개소)

연별	공연시설				전시시설		복지회관	문화원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1998	1	–	–	1	–	–	1	1
1999	–	1	–	1	–	–	1	1
2000	–	1	–	1	–	–	1	1
2001	–	1	1	1	–	–	–	1
2002	–	1	1	1	–	–	1	1
2003	2	1	1	1	1	1	1	1
2004	2	–	1	3	1	–	1	1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77.

〈 사진 4-4-1 〉 석봉도자기 미술관

〈 사진 4-4-2 〉 속초시문화회관 별관

〈 사진 4-4-3 〉 속초시 문화회관

2. 공공도서관

속초시의 공공도서관은 속초평생교육정보관과 속초도서관 2개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장 교육 편을 참고하고, 여기서는 연간 이용자수, 연간 이용책수 및 예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 표 4-4-28 〉 속초시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명, 권, 천원)

연별 및 도서관별	연간 이용자수	연간 이용책수	예산
1999	358,566	440,223	809,095
2000	297,712	429,618	948,995
2001	345,297	532,360	1,012,797
2002	269,739	424,448	786,673
2003	325,273	508,614	544,508
2004	360,487	569,229	627,911
속초도서관	66,348	94,770	276,253
속초평생교육정보관	294,139	474,459	351,658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속초시, 2005, p.274.

3. 체육시설

체육시설로는 실내체육관 3개소와 종합경기장,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게

이트볼장이 각각 1개소씩 있으며, 등록체육시설로는 골프장이 2개소, 신고체육시설로는 수영장 3개소, 체육도장 16개소, 볼링장이 8개소, 골프연습장이 7개소, 체력단련장이 7개소, 에어로빅장이 3개소, 당구장이 74개소, 무도학원이 3개소가 있다.

〈 표 4-4-29 〉 속초시 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m^2)

	경기장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998	5	8,871	1	27,660	1	25,493	1	3,060	–	–
1999	3	7,462	1	27,660	1	25,493	1	3,060	–	–
2000	3	7,462	1	27,660	1	25,493	1	3,060	–	–
2001	3	7,462	1	27,660	1	25,493	1	3,060	–	–
2002	3	7,462	1	27,660	1	25,493	1	3,060	–	–
2003	3	7,462	1	27,660	1	25,493	1	3,060	1	1,260
2004	3	7,462	1	27,660	1	25,493	1	3,060	1	1,260

연별	신고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무도학원	골프장
1998	4	14	9	6	4	6	68	–	2
1999	4	14	10	7	6	5	70	–	2
2000	4	12	10	6	7	4	68	1	2
2001	4	14	10	7	7	2	66	3	2
2002	4	14	7	9	8	2	66	4	2
2003	3	15	7	8	7	2	75	3	2
2004	3	16	6	7	7	3	74	3	2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78.

〈 사진 4-4-4 〉 실내체육관

4. 청소년수련시설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이 각각 1개소씩 합계 4개소가 있으며, 총 면적은 178,184m2에 이른다.

〈 표 4-4-30 〉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개소, m^2)

연별	합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000	3	177,024	1	6,855	–	–	1	166	1	4,169
2001	4	177,623	1	6,855	1	0.599	1	166	1	4,169
2002	4	178,184	1	7,416	1	0.599	1	166	1	4,169
2003	4	178,184	1	7,416	1	0.599	1	166	1	4,169
2004	4	178,184	1	7,416	1	0.599	1	166	1	4,169

자료: 『제43회 속초통계연보』, 2005, p.279.

5. 공원

속초시에 조성되거나 조성중인 공원은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유원지 1개소 합계 13개소에 총면적 438,395㎡에 이른다.

〈 표 4-4-31 〉 속초시 공원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결정고시		조성(조성중 포함)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공원	근린공원	8	638,291	3	83,048	5	555,243
	어린이공원	22	36,228	9	15,567	13	20,661
	도시자연공원	2	176,000	-	-	2	176,000
유원지		4	1,457,369	1	339,780	3	1,117,589

자료: http://sokcho.gangwon.kr, 2005.

제5장 보건

제1절 보건관련업무 개요

1. 위생관리

위생이란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옷을 입고」「식품이나 음식물을 먹고」「잠을 자는」의 · 식 · 주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제공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식주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으로부터의 예방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일이 위생사업의 총체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생관리 사업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에 따라서 지역주민 또는 이용자의 수명연장과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의 성취가 좌우된다고 하겠다.

그만큼, 위생이란 다양성 · 복잡성 · 신속성 ·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장위주의 업무이며 그 관리대상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행 위생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단위를 대별하면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업무로 구분 할 수 있다.

식품위생은 그 목적을「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은「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 ·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을 말하며, 각 업종별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위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 식품위생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도 제조?가공식품의 유통확산 수입식품의 범람, 생활환경의 오염증가, 농약 등 오염식품의 불법 유통 등 식품의 저해요인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 식품의 안정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에 부응하여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위생 접객 및 조리시설의 개선과 영업주의 의식

개선을 위한 위생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에 있어서는 식품을 조리판매 하는 법정관리업소인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구입하여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슈퍼, 구멍가게 심지어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까지 무한적인 범위가 된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유통식품의 농약사용여부, 첨가물의 허용치 초과사용 및 중금속 검출여부, 미생물 감염여부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코자 년간 150여건 이상의 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제품에 대한 폐기조치와 해당 제조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회사, 대형음식점 등은 식중독 등으로부터 대형 위해사고를 예방코자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리대상이 되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현황은 별표와 같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개선을 위하여 음식업계를 중심으로 낭비 없는 식생활문화의 변화를 도모코자 83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천혜의 관광지인 우리시가 접객업소의 친절서비스 향상과 바가지요금 등의 근절을 위한『위생업소 실명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광지로서의 접객업소 선진화에 큰 변화가 일 것이다.

나. 공중위생

공중위생업소는 1999. 2. 8(법률 제5839)로 제정된 공중위생 관리 법률에 의하여 유지관리 되고 있으며, 제정취지는 업소 간 자율경쟁으로 이용객들을 위한 친절 및 각종 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미성년자 혼숙, 윤락, 음란행위 등으로 사회문제화로 대두되고 있어 의무사항 위반신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할 시에만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의 틈을 이용하여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업주들의 준법영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 위생 감시

법질서확립 및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위생 감시는 자체단속은 물론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합동단속으로 2002년도 한 해 동안 138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

하여는 행위별로 영업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72개소 등을 처분한바 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식품을 150건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폐기조치와 4개 제조회사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를 시행한 바 있다.

〈 표 4-5-1 〉 식품접객업소 (단위: 개소)

연도별	총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
1998	2,635	74	87	1,980	249	245
1999	2,749	74	102	2,040	273	260
2000	2,900	79	117	2,120	301	283
2001	3,009	84	133	2,180	321	291
2002	3,124	88	154	2,240	340	302
2003	2,641	92	159	1,855	184	351
2004	2,706	101	159	1,865	160	421
2005	2,626	99	155	1,863	104	405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 표 4-5-2 〉 식품제조 · 가공관련업소 (단위: 개소)

연 도 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186	200	218	230	239	272	275	256
식품제조. 가공업	80	83	89	90	94	102	103	104
즉석식품제조, 가공업	106	117	129	140	145	170	172	152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 표 4-5-3 〉 공중위생관련업소 현황 (단위: 개소)

연도별	총 계	숙박업				목욕장	이 · 미용		기 타
		호텔	콘도	여관	여인숙		이용	미용	
1998	600	8	13	182	44	27	55	138	133
1999	603	8	13	186	46	29	60	169	92
2000	589	8	13	186	42	31	64	158	92
2001	588	8	13	187	42	30	64	158	91
2002	593	8	13	190	42	24	64	160	92
2003	554	8	13	174	42	27	49	155	86
2004	553	8	13	198	18	27	49	154	86
2005	552	9	13	189	18	27	49	158	89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2. 속초시 보건소 운영

가. 보건소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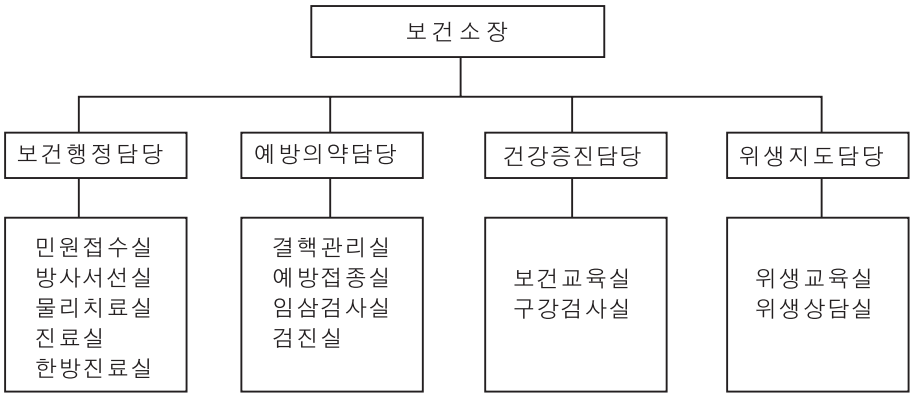
1) 1963. 1. 1 속초시보건소 개소 (속초시 중앙동 소재)
2) 1966. 4. 1 보건소 신축이전 (속초시 교동 664-210)
보건소 직제개편 (보건행정계, 방역계)

3) 1972. 11. 24 보건소 신축이전 (속초시 교동 670-3)
4) 1973. 11. 1 보건소 직제개편 (보건행정계, 방역계, 위생계)
5) 1976. 7. 1 보건소 직제개편 (위생계 시본청 사회과로 이전)
6) 1979. 1. 1 보건소 직제개편 (보건행정계, 방역계, 가족보건계)
7) 1980. 6. 1 공중보건의사 최초 배치
8) 1985. 1. 1 보건소 직제개편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
9) 1987. 12. 14 보건소 신축이전 (속초시 교동 980)
10) 1998. 10. 17 보건소 직제개편 (보건행정계, 건강증진계)
11) 1998. 11. 30 보건소 청사 증축 (1,148㎡) ⇒ 속초시 교동 980번지 지상3층 지하1층
12) 1999. 12. 25 보건소 직제개편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건강증진계)
13) 2003. 1. 1 보건소 직제개편 (4개담당 :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위생지도담당) ⇒ 총정원 31명

〈 사진 4-5-1 〉 교동 70-3 소재 구 보건소청사

〈 사진 4-5-2 〉 교동 980 소재 현 청사

나. 기구



다. 담당별 주요업무

1) 보건행정담당: 보건행정관련 종합기획 조정, 일반서무, 회계 및 청사관리, 환자진료(내과, 한방, 물리치료실), 이동보건소 운영
2) 예방의약담당: 방역대책, 전염병예방관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약사 및 대마에 관한사항, 검사실 및 예방접종실 운영
3) 건강증진담당: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4) 위생지도담당: 공중 · 식품위생접객업소지도관리, 식중독 예방 관리, 부정 · 불량식품 단속

3. 건강생활여건 조성사업

가. 건강증진사업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암, 순환기계 질환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여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질병은 지속성, 난치성 등으로 시민의 진료비 증가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의식을 고취하고, 주민 스스로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및 홍보와 건강생활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나. 구강보건사업

구강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 교육 및 홍보강화로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유도

하고 의료보호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치료사업 확대 실시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 표 4-5-4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명, 개, 개교, 악, 회)

구 분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보건교육/홍보
1998	-	9개교/2,357명	-	7회/963명
1999	-	10개교/3,680명	-	12회/1,051명
2000	15명/35개	10개교/3,867명	-	17회/990명
2001	92명/치아162개	10개교/3,934명	-	3회/5,006명
2002	446명/치아1,185개	10개교/4,021명	12명/22악	11회/968명
2003	901명/2,526개	11개교/3,246명	15명/26악	14회/1,083명
2004	1,020명/3,163개	11개교/2,868명	25명/44악	27회/16,307명
2005	397명/1,191개	10개교/2,819명	13명/22악	18회/15,017명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다. 정신보건

홍보 및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 질환자를 파악,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신보건사업의 기반을 구축.

〈 표 4-5-5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명)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추정질환자수	1,915	1,956	1,984	1,991	1,940	1,950	1,960	1,970
파악질한자수	-	2	6	15	61	44	21	32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라.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청소년기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 교육 실시로 경각심을 고취, 다양한 금연홍보물을 보급 전파하고 금연규제 대상시설에 대한 금연관련법 이행을 지도하여 쾌적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표 4-5-6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개소)

구분 / 연도별	국민건강증진법령 대상시설 금연관현 이행실태 지도점검					비 고
	금연 · 흡연 구역지정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행위	담배자동 판매기설치	제조담배광고	주류광고행위	
1998	78	-	16	-	1	
1999	94	484	12	-	1	
2000	102	-	5	-	-	
2001	146	240	21	-	-	
2002	360	-	15	-	-	
2003	485	-	11	-	-	
2004	326	-	11	-	-	
2005	307	-	11	-	-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4.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지역주민이 평생 동안 최고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잠재능력과 질병의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에 해로운 생활양식이나 습관 등을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 및 습관으로 바꾸도록 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단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고 치료 후에도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는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전개하고 있다.

가. 임산부 · 영 · 유아 건강관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294명에게 산전 · 산후관리를 연계 실시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등록된 영 · 유아 746명에 대하여 성장단계별 적기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엄마 젖먹이기 권장으로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 추진을 도모코자 모 · 자동실제 운영을 분기별로 적극 지도하였고, 모유수유 캠페인 실시로 모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영 · 유아에게 민간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기본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기초건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표 4-5-7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명)

세부사업명 \ 년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영유아등록관리	0세~6세	3,645	3,047	3,123	2,971	3,429	4,460	1,955	1,397
예방접종	BGG	1,339	1,041	834	998	935	239	216	112
	DPT.폴리오	4,511	4,608	4,156	4,512	3,313	4,133	4,477	2,077
	MMR	2,270	1,050	1,082	1,667	1,174	1,370	1,484	919
	일본뇌염	2,426	1,942	2,745	2,280	1,457	1,513	1,715	1,928
	B형간염	1,279	990	959	945	710	770	717	381
신천성대사이상검사		601	802	1,005	848	955	827	777	446
영유아 건강검진		24	22	42	39	35	39	94	27
취학전아동조기시력검진		–	–	624	624	514	1,279	1,274	1,427
임산부	임산부	80	98	75	75	136	153	235	124
	건강진단	22	23	41	41	33	12	53	40
	피임보급	27	27	221	40	5	–	–	–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나. 학생보건관리

성문제는 어린이, 여성, 청소년은 물론 전 시민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 전반에 성 건강과 관련된 많은 문제, 인공유산, 미혼모, 성폭력 등의 증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초 · 중 · 고등학교 양호교사와 연계실시로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교육관련 자료를 대여하였고, 성상담 9명, 성교육 555명 실시하였다.

다. 성인건강관리

1) 고혈압 · 당뇨관리사업

주민의 고혈압 · 당뇨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환자 발견 및 추구관리와 함께 지속적 관리로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하였다.

〈 표 4-5-8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명)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등록관리	고혈압	22	56	30	106	35
	당뇨	36	43	10	41	20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2) 암 및 골다공증검진 사업

시민의 보건의식향상과 건강생활 실천 유도로 암치료율 제고, 암사망률 감소 및 시민 건강수명의 연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 표 4-5-9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명)

사업명 \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계		1,080	1,097	2,230	1,855	2,151	2,919	3,892	3,288
국가암검진	위암	150	50	100	100	206	843	1,054	590
	유방암	480	67	–	55	289	595	633	372
	자궁경부암	150	–	1,200	1,000	448	–	–	–
	간암	–	–	–	–	–	135	93	87
	대장암	–	–	–	–	–	–	606	374
저소득층 암검진	위암	–	180	130	100	506	218	269	215
	유방암	–	500	500	300	312	206	130	142
	자궁경부암	–	–	–	–	–	83	202	25
	간암	–	–	–	–	–	191	141	113
	대장암	–	–	–	–	–	–	116	138
의료수급자	골다공증검사	300	300	300	300	390	324	324	616
	갑상선	–	–	–	–	–	324	324	616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3)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 희귀 · 난치성질환자에게 건강보험급여액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중 식대와 지정 진료료를 지원, 예후가 불량하고 만성화되며 간호를 필요로 하는 질병을 지속적 치료관리와 방문간호로 정신적 · 신체적 · 사회적 · 경제적 안위를 도모하고자 한다.

〈 표 4-5-10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명)

질 환 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등록 총인원	-	15	20	25	32	42
만성신부전	-	13	18	20	27	33
근육병	-	-	-	-	-	-
혈우병	-	2	2	2	-	3
고셔병	-	-	-	-	-	-
베체트병	-	-	-	-	-	-
모야모야	-	-	-	-	-	1
혈소판 감소증	-	-	-	-	-	1
진신성흥반성루프스	-	-	-	-	-	1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4) 방문보건사업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욕구해결 및 건강수준향상 도모하여 환자조기발견 및 조기사망감소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

〈 표 4-5-11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명)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대상자동등록관리	806	905	759	123	81	145	152	120
영양제및파스보급	-	1,929	863	744	786	265	536	304
재가환자간호	100	39	120	81	100	28	7	8
재활의료기구대여	-	30	31	73	93	18	17	11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5.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가. 성병환자 관리

성병환자 발생과 성병환자 치료사업을 강화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표 4-5-12 〉 성병환자발생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계	임질	매독	염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기타
1998	251	32	1	-	219	-
1999	347	47	1	-	300	-

구분 / 연도별	계	임질	매독	염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기타
2000	188	10	0	–	178	–
2001	79	26	1	–	52	–
2002	445	75	0	–	370	–
2003	266	25	0	–	156	85
2004	209	26	0	–	92	91
2005	48	3	0	–	8	37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인구의 증가와 환경의 변화 교통의 발달과 빈번한 국제교류와 이에 따라 성생활이 문란해지는 등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신종 AIDS환자가 국제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에도 점차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전파와 감염자를 사전 예방키 위하여 AIDS색출검사에 주력하고 있다.

〈 표 4-5-13 〉 연도별AIDS환자 색출검사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검사건수	검사결과	검사대상
1999	1,552	음성(이상없음)	특수업태부, 유흥접객, 일반시민, 해외여행자
2000	1,241	음성(이상없음)	특수업태부, 유흥접객, 일반시민, 해외여행자
2001	1,462	음성(이상없음)	특수업태부, 유흥접객, 일반시민, 해외여행자
2002	1,283	음성(이상없음)	특수업태부, 유흥접객, 일반시민, 해외여행자
2003	642	음성(이상없음)	유흥접객, 일반시만, 해외여행자
2004	606	음성(이상없음)	유흥접객, 일반시만, 해외여행자
2005	496	음성(이상없음)	유흥접객, 일반시만, 해외여행자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다. 결핵관리

결핵예방 사업 강화로 매년 환자발생 감소추세이며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 표 4-5-14 〉 결핵환자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계	양성자	음성자	요관찰자
1998	103	48	55	47
1999	87	53	34	44
2000	76	41	35	30
2001	67	48	19	41
2002	49	28	21	30
2003	34	11	23	24
2004	39	8	31	32
2005	25	4	21	20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 표 4-5-15〉 BCG 접종현황 (단위: 명)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339	1,041	834	998	935	531	620	417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라. 방역사업현황

전염병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하여 급성전염병의 예방 접종사업과 취약지역의 소독 해 하수검사 등 방역사업의 강화 등으로 과거에는 수인성 전염병의 취약지였던 우리가 전염병의 감소와 아울러 현재는 한건의 전염병도 발생치 않고 있다.

〈 표 4-5-16〉 연도별 전염병환자발생 및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총수		제1군 전염병						제2군 전염병				3군 전염병			
			장티프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선홍열		신중후군 출혈열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1998	–	–	–	–	–	–	–	–	–	–	–	–	–	–	–	–
1999	–	–	–	–	–	–	–	–	–	–	–	–	–	–	–	–
2000	17	–	1	–	1	–	–	–	16	–	–	–	–	–	–	–
2001	8	–	–	–	–	–	–	–	8	–	–	–	–	–	–	–
2002	–	–	–	–	–	–	–	–	–	–	–	–	–	–	–	–
2003	4	–	–	–	–	–	–	–	–	–	4	–	–	–	–	–
2004	3	–	–	–	1	–	–	–	–	–	–	–	1	–	1	–
2005	1	–	–	–	–	–	1	–	–	–	–	–	–	–	–	–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 표 4-5-17〉 방역장비 현황 (단위: 대)

초미립자분무기 (ULV)	분제살포기	차량용연막기		휴대용연막기	수동분무기	방역소독차량 (타이탄/톤)
		쌍발형	단발형			
1	0	2	0	1	2	2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 표 4-5-18〉 예방접종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장티푸스	일본뇌염	간염	신중후군 출혈열
1998	4,104	4,674	1,205	170
1999	4,934	5,236	961	159
2000	536	1,416	1,059	191
2001	241	1,597	1,146	203
2002	1,275	2,548	619	363
2003	375	3,436	1,392	81
2004	1,293	4,115	1,403	263
2005	1,113	3,135	1,249	118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 표 4-5-19 〉 의료인 분포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총계	의사	한지의사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의사	한지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1962	32	11	–	1	–	3	–	5	4	8
1963	39	12	–	1	–	4	–	5	8	9
1964	46	11	–	1	–	4	–	5	11	14
1965	51	11	–	1	–	8	–	6	9	16
1966	64	12	–	1	–	8	–	5	19	19
1967	57	12	–	2	–	8	–	5	11	19
1968	52	13	–	2	–	8	–	4	7	18
1669	54	13	–	2	–	7	–	7	5	20
1970	58	14	–	2	–	5	–	7	9	21
1971	59	16	–	2	–	5	–	7	9	20
1972	53	13	–	2	–	3	–	6	9	20
1973	54	9	–	2	–	4	–	5	16	18
1974	46	7	–	2	–	4	–	6	9	18
1975	44	7	–	1	–	4	–	3	10	19
1976	55	10	–	2	–	3	–	4	14	22
1977	57	11	–	3	–	3	–	3	17	20
1978	52	10	–	3	–	3	–	3	15	18
1979	59	11	–	3	–	3	–	4	17	21
1980	60	11	–	3	–	3	–	4	18	21
1981	67	13	–	4	–	3	–	4	22	21
1982	72	11	–	6	–	3	–	4	22	26
1983	78	21	–	4	–	3	–	4	22	24
1984	80	21	–	5	–	4	–	8	18	24
1985	80	21	–	7		4		4	19	25
1986	94	18	–	6	–	7	–	4	33	26
1987	98	25	–	7	–	6	–	2	30	28
1988	119	28	–	7	–	7	–	2	46	29
1989	111	29	–	6	–	7	–	4	35	30
1990	141	30	–	8	–	7	–	6	57	33
1991	155	35	–	8	–	10	–	2	65	35
1992	161	35	–	8	–	10	–	2	72	34
1993	244	53	11	10	–	11	–	3	154	2
1994	274	48	7	12	–	10	–	3	163	1
1995	324	50	39	16	–	12	–	3	201	3
1996	402	61	43	18	–	13	–	2	262	3
1997	386	55	42	24	–	13	–	2	246	4
1998	414	63	41	23	–	13	–	2	269	3
1999	360	66	37	23	–	15	–	2	215	2
2001	381	72	48	24	–	19	–	1	216	1
2002	348	70	36	25	–	19	–	3	194	1
2003	401	73	–	23	–	18	–	1	199	46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 표 4-5-20 〉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

연도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사	한의원	조산소
1998	77	1	1	38	22	13	2
1999	85	1	1	46	21	14	2
2000	82	1	1	46	19	14	1
2001	89	1	–	50	21	16	1
2002	98	1	–	51	22	17	1
2003	95	1	2	51	23	17	1
2004	98	1	2	53	23	18	1
2005	99	1	2	51	26	18	1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 표 4-5-21 〉 의약품 등 판매업소 (단위: 개소)

연도별	계	약국	도매상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의료용구
1998	59	42	1	2	3	3	8
1999	64	44	1	1	3	3	12
2000	66	41	2	1	3	3	16
2001	70	39	2	1	3	3	22
2002	74	43	–	1	3	3	24
2003	77	43	–	–	2	3	29
2004	83	46	–	–	2	3	32
2005	85	48	–	–	2	3	32

자료: 속초시 보건소, 2005.

제2절 지방공사강원도속초의료원

1. 연혁

가. 1956. 12. 31 강원도립속초병원 설립(속초시 영랑동 193-3)
나. 1983. 7. 1 지방공사 강원도 속초의료원 설립(속초시 영랑동 591-10)
다. 1987. 8. 1 의료원 신축개원(본관 1,542평, 120병상, 14개 진료과)
라. 1990. 9. 25 간호기숙사 신축(182평, 25명 수용, 4인실 6개소, 1인실 1개소)
마. 1991. 8. 1 본관건물 증축(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27평)
바. 1991. 12. 31 의사숙소 증축
(4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03평, 25평형 8세대)
사. 1993. 06. 30 본관건물 증축(4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82평)
아. 1994. 11. 17 장의예식장 증축(지상 2층, 철근슬라브 100평)
자. 1996. 10. 11 세탁실 및 변전실 신축(지상 1층 철골조 69평)
차. 2000. 11. 22 장의예식장 신당신축(지상 1층 철골조 69평)
본관건물 증축(5층 철골조 98평)
카. 2003. 7. 장의예식장 리모델링(2층 특실 3개소, 1층 일반실 5개소)
타. 2005. 5. 재활요양병동 개원

〈 사진 4-5-3 〉 지방공사강원도속초의료원

〈 사진 4-5-4 〉 재활요양병동

2. 일반현황

가. 개요

영북지구인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주민의 진료와 질병에 따른 임상연구 및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56년 12월31일 강원도립 속초병원으로 설립하여 1965년 8월 20일 속초시 영랑동 197-3번지에 병원 본관 건물을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스라브조 371평을 신축 47병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1966년4월21일 동 부지 내에 부속사(57평)와 1972년 6월21일 제2병동 및 숙소(연면적:101평)를 신축 병원의 기능과 병실의 보완으로 속초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과 보건진료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 위생과 공중보건에 전담하여 왔다.

1983년 7월1일자로 지방공사로 전환 병원 명을 '지방공사 강원도 속초의료원'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 1985년도 정부의 지방공사 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영랑호반인 속초시 영랑동 591-10번지(부지면적:3,358평)에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연면적:1,542평)의 80병상의 현대식 건물을 1987년 8월1일자로 준공 이전 개원하였으며, 의료장비는 OECD차관으로 병실 장비 및 생화학분석기외 46종 1,367점(구입가액:439백만원)이 1987년 12월31일까지 도입 완료되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 보강과 진료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최선을 다하여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병원진료체계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자 1988년 7월1일자로 전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를 도입 활용함으로써 종합병원의 면모를 쇄신하였고, 1990년 6월11일자로 최첨단 의료장비인 전산화 전신단층촬영기(C-T)를 도입환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료시해 확대와 수용을 위하여 1991년 7월1일 동 부지 내에 병실을 증축(지상3층, 연면적226평)하여 기존 8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만성질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재활·요양병동 신축계획이 2003~2004년도 2차년도 공사로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진료서비스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고 있다.

병원의 운영편제는 이사회의, 원장, 진료부, 관리부로 편성, 진료부에 외래 및 입원진료를 담당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방사선과, 피부과, 비뇨기과, 마취과, 임상병리가, 이비인후과, 치과, 건강관리과 등 14개과와 보조과로는 약제과, 간호과를 개설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진료과장은 전원 전문의로 배치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료보조를 위하여 응급실(응급의료지정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불임크리닉실, 중앙공급실, C-T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을 설치 가동 중에 있고, 관리부에는 총무과, 원무과를 두어 병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의료원 직원의 직종은 의사, 약사, 간호사, 사무직, 보건직,(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영양사), 기능직(환경기사, 난방기사, 전기기사, 운전기사, 사회복지기사, 간호조무사, 교환원, 의료보조원, 약무보조원), 고용직(경비, 세탁, 취사, 청소)으로 구성 총 정원115명의 필수요원이 종합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능과 임무를 다함으로써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 속초의료원은 1991년 6월25일 강원도의 응급의료지정병원으로 지정받아 유사시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위한 구급차의 무선시설 및 응급 정보망 확충을 위한 전산 정보망 구축, 응급구조사의 확보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 인한 환자구조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

고 있다.

앞으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연차적으로 보강 확대하여 영북지역의 주민 보건향상과 발전하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 임 · 직원이 헌신 노력하고 있다.

나. 역대 원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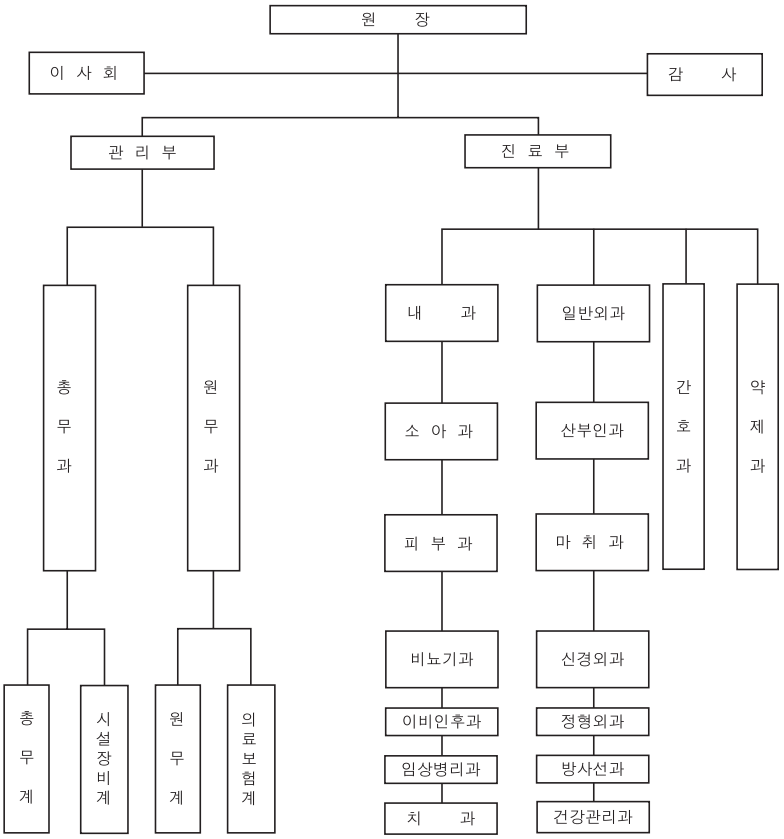
〈 표 4-5-22 〉 역대 원장 현황

구 분	직 위	진료 과목	성 명	재직 기간
초 대	대표이사 원장	일반외과	노 성 익	1983.7.1~1986.6.30
2	대표이사 원장	일반외과	노 성 익	1986.7.1~1989.6.30
3	대표이사 원장	일반외과	노 성 익	1989.7.1~1992.6.30
4	대표이사 원장	일반외과	노 성 익	1992.7.1~1995.6.30
5	대표이사 원장	일반외과	노 성 익	1995.7.1~1998.6.30
6	대표이사 원장	마 취 과	민 윤 기	1998.7.1~2001.6.30
7	대표이사 원장	일반외과	김 창 헌	2001.7.1~2004.6.30
8	대표이사 원장	정형외과	연 건	2004.7.1~현 재

자료: 속초의료원, 2005.

다. 기구 및 직원현황

1) 기구표



2) 직원현황

〈 표 4-5-23 〉 직원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원 장	관 리 이 사	진 료 부			관 리 부		
				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정규직	비정규직
	142	1	1	106	78	28	36	21	15

자료: 속초의료원, 2004.

라. 시설 및 장비현황

1) 시설현황

가) 부지현황

〈 표 4-5-24 〉 부지현황 (단위: ㎡, 평, 천원)

구분 / 종류	소 재 지	필수	면 적	가 액	용 도
계		4	11,102 (6,001)	3,363,906	
부지	영랑동 591-10	1	11,102 (3,358)	3,363,906	

자료: 속초의료원, 2004.

나) 건물현황

〈 표 4-5-25 〉 건물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종 류	소재지	필수	면 적	가 액	용 도	
본 관 건 물	영랑동 591-10	1	6,850.59	1,316,454	지하	부검실, 위생및 약국재료 창고, 보일러실
					1층	원무과, 초음파실,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응급실, 주사실, 약체과,C-T실, 간촬실, 진료외래과, 건강관리과
					2층	수술공급실, 신생분만실, 물리치료실, 진료외래과, 중환자실, 체외충격파쇄석실
					3층	입원실, 모자병실, 좌욕실, 탈의실
					4층	입원실, 식당, 전산실, 노조사무실
					5층	원장실, 관리부장실, 간호과장실, 총무과, 시설장비과, 회의실, 옥탑
간 호 기숙사	영랑동 591-10	1	604.26	81,575	1층	창고
					2층	간호사기숙사
의사숙소	영랑동 591-10	1	673.20	120,132	지상4층(8세대)	
장례식장	영랑동 591-10	1	613.26	65,081	1층	분향실
					2층	분향실
세탁실 및 변 전 실	영랑동 591-10	1	227	86	세탁실, 변전 실	
장의예식장 식 당	영랑동 591-10	1	281	212	영안실 식당	

자료: 속초의료원, 2004.

2) 장비보유현황

〈 표 4-5-26 〉 장비보유현황 (단위: 종, 대, 백만원)

구 분	품 종	수 량	가 액	비 고
계	575	8,082	3,438	
의료장비	334	5,290	2,840	
행정장비	241	2,792	598	

자료: 속초의료원, 2004.

3. 주요사업 및 의업실적

가. 연도별 환자 진료실적

〈 표 4-5-27 〉 연도별 환자 진료실적 (단위: 명)

연 도 별	외래환자	입원환자	계	연도별증가비율
1998	80,344	40,102	120,446	94%
1999	83,072	41,576	124,648	103%
2000	105,858	42,661	148,246	118%
2001	72,022	37,295	109,137	73%
2002	76,405	30,357	106,762	97%
2003	60,130	26,551	86,861	81%

자료: 속초의료원, 2004.

나. 지역별 환자점유현황

〈 표 4-5-28 〉 지역별 환자점유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기 타	비 고
환자수	106,762	64,872	19,944	7,536	14,410	
점비율(%)	100	61	19	7	13	

자료: 속초의료원, 2003.

다. 환자유형별 현황

〈 표 4-5-29 〉 환자유형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일반환자	보험환자	보호환자	자보환자	산재	기타
환자수	106,762	2,553	66,258	15,433	1,779	322	20,417
비율(%)	100	2	62	14	2	1	19

자료: 속초의료원, 2003.

라. 과별 진료현황

〈 표 4-5-30 〉 과별 진료현황 (단위: 명, 천원, %)

구분 / 과별	진료환자수	의업수입	비율	비 고
계	106,762	4,936,438	100	
내과	35,599	2,004,742	40.6	
외과	4,024	256,210	5.2	
신경외과	6,974	425,651	8.6	
산부인과	1,105	52,133	1.1	
소아과	10,273	451,827	9.2	
정형외과	6,524	376,554	7.6	
피부비뇨기관	3,114	124,554	2.5	
이비인후과	3,114	104,678	2.1	
마취과	280	12,974	0.3	
응급실	19,838	541,646	10.9	
기타의업수입	15,917	585,469	11.9	

자료: 속초의료원, 2003.

제6장 종교

제1절 종교전래과정

1. 개요

속초시는 6·25전쟁 이후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과 생계를 찾는 유민들로 인구가 급증했고 1960년대 초에는 정부의 미개척지 개간정책에 따라 많은 타 도민들이 이주해옴으로써 속초는 다양한 지방색과 종교적 혼재(混在)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었다.

속초는 어촌의 촌락에서부터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해안지방 특유의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위에 설악의 명산에 깃들인 대사찰(신흥사, 낙산사, 건봉사)등의 영향으로 불교세가 타 지역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도시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타 지역 주민들의 유입과 더불어 기독교,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종교가 전파되어 나름대로의 뿌리를 내려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별 전래과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종교별 전래과정

가. 기독교(개신교)

속초에 개신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1927년 일제치하에서였다. 미국 감리교의 쿠퍼 선교사의 전도로 이영학 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의 연보와 쿠퍼선교사의 도움으로 1927년 5월 17일 초가 8간을 매입하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지역 최초의 교회인 속초 감리교회가 창립되었던 것이다. 이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1939년에는 당시의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 1구(현 속초시 동명동)에 24평의 교회를 신축하고 교인 40여명이 신앙생활을 하였다.

(초대임원: 신태대, 박순종, 최재오, 김복득, 허성실 외 독립애국단원 장성만과 그의 처 반주자 김수향)

1940년 12월에는 일제의 종교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예배당을 빼앗기고 많은 신도들이 구금, 구타, 가택수사 등을 당하면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압류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박성여 외 교인 17명이 당시의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 1구에 초가 6간을 매입해 신앙생활을 계속하였다.

(임원: 강용운, 최태호, 최준호, 김상철, 김유복, 박만달, 지양익)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빼앗겼던 예배당을 다시 찾고 교인 6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던 중 당시 공산당 치하의 속초지역 교회는 강대상등 비품을 압수당하는 등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1951년 8월 수복으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자 북한에서 피난하였다가 북진하는 전선을 따라 북상하다 정착한 함경도 교인들이 가세하면서 교세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1952년에는 속초감리교회에 함께 소속돼 있던 북한출신 장로교인들이 새로이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방태형, 신병삼 등 10여명의 장로교인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동년 12월 11일에 속초리 4구(현 청학동 석산철물점 자리)에 기와집 35평을 구입하고 중앙장로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한편 이즈음에 감리교단에서는 논산교회(현 성광교회)를 개척했고, 1954년경에는 미군이 운영했던 구호병원(현 교동천주교회 부지 내)내의 창고에 김신우 목사가 동광교회라는 장로교회를 창립하였다. 1960년부터 14년간 속초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야학 형태의 초·중등부를 운영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1960년에 성결교단이 전도를 시작하여 같은 해에 두 개의 성결교회가 창립되었고, 1969년 9월에 조양감리교회, 1974년 4월에 제일감리교회, 1984년 1월 중앙장로교회가 만천교회를 개척, 그 이후 많은 교회가 창립되어 2005년 현재 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된 기독교는 53개 교회가 되었다.

〈 사진 4-6-1 〉 속초감리교회(좌), 중앙장로교회(우)

〈 사진 4-6-2 〉 성광감리교회(좌), 속초성결교회(중), 조양감리교회(우)

〈 사진 4-6-3 〉 제일감리교회(좌), 만천장로교회(우)

나. 불교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전래된 후 우리민족의 전통신앙으로 자리 잡혀 왔기에 속초에서의 불교 전래과정을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종단별 교세 확장을 통해 속초지방에서의 불교 전래과정을 밝혀 보고자 한다.

1) 대한불교 조계종

속초에서 이 종단이 자리 잡은 것은 고찰 신흥사의 연원으로 봐서 아주 오래된 것으로 간주된다.

신흥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3교구의 본사로서 서기 625년 신라 진덕여왕 6년에 창건된 향성사가 전신이 되며 그후 선정사라는 개명을 사용하여 오다 다시 화재로 소실되고 조선 인조 20년(1642)에 절을 중건하고 신흥사라 하게 되었다.

〈 사진 4-6-4 〉 신흥사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서 4개사, 2암이 있는 바 그 사찰 및 교세는 다음과 같다.

〈 표 4-6-1 〉 조계종의 사찰과 교세

사 찰 명	주 소	창 립 년 도	비 고
신흥사	설악동 170	진덕여왕 6년 625년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청룡암	도문동 2/4 산 153	1932년	
관음사	교동 767-40	1948년	
연풍사	금호동 16/1 625-9	1952년	
보광사	동명동 16/6	1930년	
원각사	영랑동 590-2	1982년	반야유치원, 반야미술학원
구복암	노학동 산320-2	1956년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4.

2) 대한불교 천태종

고려 숙종(肅宗) 2년(1097)에 대각국사가 한국 천태종을 개종하였으며 속초에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사찰이 하나 있는 바, 따로 사찰의 이름을 두지 아니하고 대한불교 천태종 속초지회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대한불교 총화종

반야경(般若經)을 소의경전(所衣經典)으로 하고 대승행원(大乘行願)과 육화정신(六和精神)으로 중생을 계도하여 안심입명, 광도중생, 보국안민을 지향하는 총화정은 1969년에 창립된 현대 불교이다.

속초에는 1970년 비구니에 의해 총화종단의 백운암이 건립되었다가 1984년에 수해로 재건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한국일연종불교회

석가모니가 인간의 절대적 행복은 각자의 생명 속에 있는 불생을 여는 일이라 하였는데 그 여는 방법은 13세기 일본의 일연대성인에 의해 열렸다고 주장하는 일연종정은 남묘호란게쿄(南無妙法蓮華經)를 봉창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이 종주국인 이 일연종정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그 전체적인 신앙의 원류와 신조들이 불교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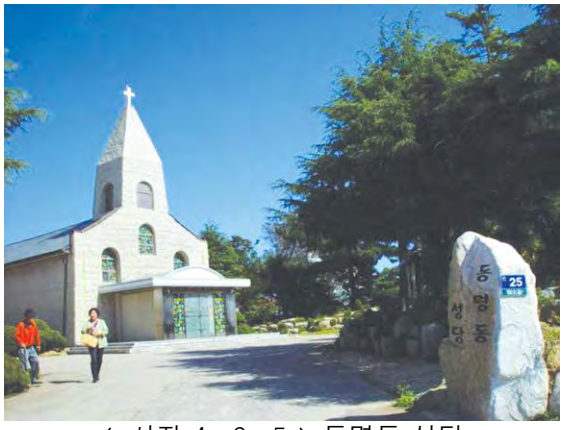
일연종정이 한국에 전래된 것은 1960년 초였으며 속초에는 1971년 4월에 전파되었다.

다. 천주교

천주교는 엄격한 교구제도와 관할구역의 획정위에 전개되는 바, 속초지역은 로마 교황청 산하의 서울교구 춘천교구에 속해 있다. 속초에는 1953년에 처음으로 천주교회가 창립되었는데 현재의 속초천주교회(동명동 천주교회)가 그것이다.

속초시의 규모가 발전하고 신도 수가 증가하게 되자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1967년에 교동 천주교회를 건립하게 되었다.

한편 설악동을 중심으로 한 신도들과 관광여행중인 천주교인들을 위하여 1981년에 설악동 천주교회가 창립되었고 1985년에는 청호동 교인들이 따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청호동경당"을 건립하였다. 그 후 1991년 "청호동 경당"이 정식 천주교회로 승격되어 현재 속초시에는 4개의 천주교회가 세워져 있다.



〈 사진 4-6-5 〉 동명동 성당

〈 사진 4-6-6 〉 교동성당

라. 속초의 무속신앙

속초시는 어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근대 이후로 무속(巫俗)이 흥행했던 지역의 하나이다. 특히 어업종사자들은 수많은 해난사고의 위험 앞에서 용신을 달래고 기복하는 신앙행위가 수많은 무당을 이곳 속초지역에 불러 모으기도 하고 자생하기도 하게 하였다.

1970년 무속인과 그 관련인들이 사단법인 대한승공경신연합회를 발족하여 전국에 약 10만의 회원을 조직화했을 때에 속초지역에서도 즉각적으로 그 지회가 결성되어 활동했던 것을 보면 속초지역의 무속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대한승공경신연합회의 최남욱 연합회장의 권고로 속초지회를 결성하고 지회장직을 맡아온 이는 최순천(여, 1925년생)이었다. 최씨가 경신연합회 속초지회를 결성할 당시의 회원수는 100인 정도였으며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는 150인까지 회원수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한편 1971년에는 서울출신의 주용호(1985년에 사망)가 정도회(正道會)를 조직하여 일단의 무인들을 규합하다가 1976년경 한국불교반공연합 속초지회로 개칭하면서 그 조직이 확대되었는데 한때 회원이 200인에 달하였다.

1985년에 주씨가 사망하자 그 처인 권영숙(1935년생)이가 지회장직을 승계하였고 이후 내부갈등과 불화 등의 이유로 회원수가 격감하였고 1989년말 이후에는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이 40~50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회원무속인의 수가 격감한 배경에는 대립관계에 있는 경신연합회가 재건된데에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89년말부터 하의호를 중심으로 대한불교경신연합회 강원도지부의 권고를 받아 그 속초지회를 재건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다수의 한국불교반공연합회 속초지회 회원들이 이탈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신연합회 속초지회의 회원수는 1990년 7월, 45인(남 3, 여 42)이며 정식으로 재발족한 시기는 1990년 1월중이었다. 따라서 1990년 7월 속초시관내에는 약칭 <경신연합회> 와 <불교반공연합회> 의 지회형태로 무속인들이 조직화되어 있으며 이 두 조직에 가입된 무속인은 약 100인에 가깝다.

무속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0년대 속초시내에서 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200인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경신회의 하의호, 불교만문사의 윤석동의 주장 – 이중 양대 조직에 가입되어 있었던 무당이 103인 내외이고 미가입자가 70인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속인 1인당 단골을 평균 30인 정도로 추산할 때 속초시내의 무속신앙자

는 약 6,000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무교(無敎)로 자신을 일체화(identification) 시키는 사람 중의 많은 이들이 무속 신앙자인 점과 많은 불교도들이 또한 무속신앙을 통해 자신의 경신 · 기복행위를 유지해 나간다고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추산으로 간주된다.

라. 기타 종교

1)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

일명 여호와의 증인으로 일컬어지는 이 종교단체는 삼위일체의 신상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기독교(개신교)와 다르다.

또 몸(육신)이 영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으며 세상과는 엄격한 분리주의를 견지한다.

교회형태는 회중교회(會衆敎會)이고 전임사역자가 없이 중의 한 사람이 주임감독자가 되는데 신도들은 영적부활의 영광을 받는 144,000명에 들기 위하여 헌신으로 전도하는 것이 특징하다.

속초에는 소수의 신도들이 모임을 시작하여오다 1963년 7월에 정식으로 회중이 설립되었고 1980년경에 조양회중이 생겨 현재 2개의 교회가 운영중이다.

2)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적인 교리들은 개신교와 공유하지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 까지를 안식일로 정한 성경의 규정을 신약의 성도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는 교단이다.

이 종교단체는 기독교의 범주에 넣을 수 있으나 개신교 일반과는 교통함이 없어서 따로 분리하여 수록하였다.

한국에는 1904년에 전래되었고 속초지역에는 1952년에 첫 가정집회가 시작되었고 1959년에 목조단층 33평의 교회당을 준공하게 되었다.

3)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의 교회

1820년 소년 조셉 · 스미스가 계시를 받고 1830년에 뉴욕에서 창립한 이 교회는 약칭 몰몬교라고도 부른다.

이 종교단체는 신 · 구약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경전과 조셉 · 스미스가

발표한 13개 조항을 신조로 삼는다. 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함으로 죄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의 교회가 1951년에 전래되었고 속초에는 1985년에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미국인 몰몬교 선교사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다.

4)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1954년 교주 문선명에 의해 창시된 약칭 "통일교"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로 믿고 구·신약성경을 계진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가 한국에 재림할 것으로 믿으며 인류세계는 재림하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의 대가족사회로 통일될 것 등을 믿는 종교단체이다.

속초에는 1975년에 이 교회가 전파되어 현재 '속초통일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절 종교단체

1. 일반현황

〈 표 4-6-2 〉 종교단체 일반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		기타종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1962	9	20	1	1	1	18	1	5	–	1	1	3
1963	9	16	2	2	1	17	1	5	–	–	–	–
1964	8	8	1	2	1	21	1	2	–	–	–	–
1965	9	13	2	3	1	13	1	5	–	–	–	–
1966	9	10	2	2	1	43	1	5	–	–	–	–
1967	9	13	2	3	1	43	1	5	–	–	–	–
1968	7	15	2	4	1	8	1	6	–	–	–	–
1969	7	9	1	4	1	8	1	6	–	–	–	–
1970	12	18	3	5	2	3	1	3	–	–	–	–
1971	14	20	2	7	1	15	1	1	–	–	1	–
1972	14	26	1	1	6	31	1	1	–	–	–	–
1973	14	26	2	6	6	27	1	3	–	–	–	–
1974	15	14	2	6	2	46	1	2	–	–	–	–
1975	15	16	2	6	5	34	1	2	–	–	–	–
1976	15	16	2	6	5	44	1	2	–	–	–	–
1977	18	18	3	7	7	7	–	–	–	–	1	1
1978	20	20	3	9	5	46	–	–	–	–	–	–
1979	20	38	3	9	4	51	1	1	–	–	–	–
1980	20	22	3	7	5	29	1	1	–	–	–	–
1981	21	23	3	7	5	26	1	1	–	–	–	–
1982	21	25	2	6	4	12	1	1	–	–	–	–
1983	23	28	3	7	8	33	1	1	1	1	–	–
1984	23	28	3	7	8	33	1	1	1	1	–	–
1985	23	28	3	7	8	31	1	1	1	1	–	–
1986	27	73	4	11	4	21	–	–	1	2	1	3

구분 / 연도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		기타종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1987	29	43	3	8	10	27	–	–	1	2	2	8
1988	31	46	4	10	10	25	–	–	1	1	2	2
1989	33	46	4	10	10	25	–	–	1	1	1	1
1990	30	496	4	7	10	31	–	–	1	1	8	16
1991	39	55	4	8	10	32	–	–	1	1	–	–
1992	36	53	4	14	16	40	1	3	1	1	1	1
1993	41	62	4	16	14	38	–	–	1	1	1	1
1994	49	70	4	15	14	39	3	3	1	1	1	1
1995	45	62	4	12	14	40	1	3	1	1	1	3
1996	50	70	4	13	13	30	1	3	1	1	2	36
1997	56	82	4	13	13	31	1	3	1	1	2	52
1998	66	97	4	13	15	36	1	3	1	1	2	52
1999	67	96	4	13	15	34	1	3	1	1	2	37
2000	64	87	4	13	15	38	1	3	1	1	2	43
2001	…	…	…	…	…	…	…	…	…	…	…	…
2002	64	101	4	14	15	36	1	3	1	1	2	5

자료: http://sokcho.gangwon.kr. 2005.

2. 종교단체별 교세현황

가. 천주교

〈 표 4-6-3 〉 천주교 교세현황 (단위: 명)

교 단 별	성당수	교 역 자 수					신 도 수		
		계	교규장	신부	수녀	외국 선교사	계	남	여
계	4	14	–	6	8	–	5,575	2,314	3,261
동명동 천주교회	1	4	–	2	2	–	1,364	559	805
교 동 천주교회	1	4	–	2	2	–	2,523	1,027	1,496
청호동 천주교회	1	3	–	1	2	–	1,092	471	621
설악동 천주교회	1	3	–	1	2	–	596	257	339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4.

나. 기독교

〈 표 4-6-4 〉 기독교 교세현황 (단위: 명)

교 단 별	교회수	교 역 자 수(명)				신 도 수		
		계	목사	전도사	외국 선교사	계	남	여
계	64	105	81	14	10	9,070	3,336	5,734
장로교	25	45	27	8	10	3,729	1,323	2,406
감리교	14	22	18	4	–	3,318	1,219	2,099
성결교	1	5	5	–	–	621	250	371
구세군	2	2	2	–	–	90	35	55
안식교	1	2	2	–	–	175	65	110
전도관	1	1	1	–	–			
통일교	4	1	1	–	–	100	45	55
순복음교	2	5	4	1	–	550	217	333
여호와증인	5	11	11	–	–	82	25	57
침례교	1	5	5	–	–	185	85	100
만일성도 예수그리스도교	1	1	1	–	–	20	8	12
성경신학원	1	1	1	–	–			
속초교회	1	1	1	–	–	20	10	10
양문교회	1	1	1	–	–	30	9	21
추찬양교회	1	2	1	1	–	150	45	105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4.

다. 불교

〈 표 4-6-5 〉 불교 교세현황 (단위: 명)

구 분	종 단 별	사 찰 수	승려수(명)	신 도 수(명)		
				계	남	여
계	5	15	34	7,703	3,022	4,681
	조계종	11	30	7,428	2,932	4,496
	범화종	1	1	신 도 없 음		
	총화종	1	1	20	–	20
	천태종	1	1	200	80	120
	SGI한국불교회	1	1	55	10	45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4.

라. 기도원 및 기타종교

〈 표 4-6-6 〉 기도원 및 기타종교 교세현황 (단위: 명)

교단별	교회수	교 역 자 수				신 도 수		
		계	목 사	전도사	기 타	계	남	여
계	4	9	1	–	8	405	162	423
원불교	1	1	–	–	1	200	80	120
천도교	1	3	–	–	3	85	34	51
대순진리회	1	2	1(선감)	–	1(선사)	75	30	45
증산교	1	3	–	–	3	45	18	27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4.

3. 종교별 상세현황

가. 천주교

〈 표 4-6-7 〉 천주교 상세현황 (단위: 명)

성당명	소재지 (전 화)	교 역 자 수(명)					신 도 수(명)		
		계	교구장	신 부	수 녀	기 타	계	남	여
계		15	3	6	8	–	5,575	2,314	3,261
동명동 천주교회	동명동 92-3 (633-2051)	4	1	2	2	–	1,364	559	805
교 동 천주교회	교동 741번지 (633-2086)	5	1	2	2	–	2,523	1,027	1,496
청호동 천주교회	청호동 10/4 (636-4220)	3	1	1	2	–	1,092	471	621
설악동 천주교회	설악동 338-2 (636-7625)	3	–	1	2	–	596	257	339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4.

나. 기독교

〈 표 4-6-8 〉 기독교 상세현황 (단위: 명)

교단명	교 회 명	소 재 지 (전 화)	교 역 자 수 (명)				신 도 수 (명)		
			계	목사	전도사	외국 선교사	계	남	여
합계	64		105	80	14	10	9,070	3,336	5,734
소계	25		45	27	8	10	3,729	1,323	2,406

교단명	교 회 명	소 재 지 (전 화)	교 역 자 수 (명)				신 도 수 (명)		
			계	목사	전도사	외국 선교사	계	남	여
장로교	영성교회	영랑동 148-5 (633-6154)	5	1	1	3	53	26	27
〃	대한예수교속초교회	동명동 8/4 (632-7567)	1	1	-	-	730	300	430
〃	대한예수온누리교회	동명동 8/4 (636-2070)	1	1	-	-	60	20	40
〃	속초중부교회	금호동 482-190 (635-3711)	1	1	-	-	93	33	60
〃	신생교회	금호동 625-15 (635-0338)	1	1	-	-	70	35	35
〃	평강교회	금호동 614-44 (633-6703)	1	1	-	-	60	24	36
〃	속초중앙교회	청학동 638-4 (633-0441)	7	2	5	-	900	297	603
〃	속초소망교회	교동 780-40 (632-0191)	1	1	-	-	70	28	42
〃	효성교회	교동 826-9 (633-3602)	1	1	-	-	140	56	84
〃	속초장로교회	교동 768-9 (632-9322)	1	1	-	-	45	18	27
〃	만천교회	교동 804-99 (631-2422)	10	1	2	7	500	150	350
〃	속초영화교회	교동 924 28/2 (633-1675)	1	1	-	-	50	18	32
〃	온누리교회	교동 930-3 (635-0742)	1	1	-	-	10	2	8
〃	하나로교회	교동 967-7 (636-5811)	1	1	-	-	100	38	62
〃	도리원교회	노학동 165-4 (631-9353)	2	2	-	-	60	20	40
〃	신흥교회	노학동 1006-19 (635-5831)	1	1	-	-	70	30	40
〃	은혜교회	노학동 산288-6 (636-2546)	1	1	-	-	65	20	45
"	조양제일교회	조양동 984 (635-4815)	1	1	-	-	50	15	35
"	조양중앙교회	조양동1518-6 (636-3222)	1	1	-	-	110	26	84
"	조양동교회	조양동 1377-10 (633-3222)	1	1	-	-	35	15	20
"	성암교회	조양동 1435-4 (633-4045)	1	1	-	-	230	70	160
"	속초농아인교회	조양동 1448 (633-5668)	1	1	-	-	50	20	30
"	대포교회	대포동 1/2 (635-2842)	1	1	-	-	30	10	20
"	설악산교회	설악동 5/1 (636-7560)	1	1	-	-	50	20	30
"	설악산교회	설악동 4/6 (636-7526)	1	1	-	-	97	32	66
소계	14		21	193	2	-	3,318	1,219	2,099
감리교	속초교회	동명동 338 3/4 (635-5114)	3	1	-	-	1,305	525	780
	속초제일교회	금호동 488-75 (633-4392)	1	1	-	-	200	50	150
"	중앙교회	금호동625-59 (635-3206)	1	1	-	-	98	35	63
"	은혜교회	교동 619-36 (635-5107)	1	1	-	-	72	25	47
"	아름다운교회	교동 767 (631-6349)	1	1	-	-	100	42	58
"	하늘땅교회	교동 933 (633-9677)	3	1	2	-	314	126	188
"	노학교회	노학 671-1 (635-6689)	1	1	-	-	30	10	20

교단명	교 회 명	소 재 지 (전 화)	교역자수 (명)				신도수 (명)		
			계	목사	전도사	외국 선교사	계	남	여
감리교	젊은교회	노학동 754-15 (635-3061)	1	1	-	-	4	2	2
〃	영광교회	교동 780-23 (636-7881)	1	3	-	-	14	5	9
〃	성광교회	조양동 636-43 (631-3762)	3	1	-	-	200	70	130
〃	영동제일교회	조양동 590-1 (638-3213	1	2	-	-	19	5	14
〃	조양교회	조양동 1480-113 (633-5471)	2	1	-	-	900	300	600
〃	설악제일교회	조양동 536-7 (635-1488)	1	1	-	-	60	24	36
〃	향기있는교회	교동 774-23 (638-1009)	1		-	-	2	-	2
소 계	4		5	5	-	-	621	250	371
성결교	속초교회	동명동 5/3 (632-0872)	2	2	-	-	341	159	182
〃	제일교회	교동 627-21 (631-5267)	1	1	-	-	60	25	35
〃	속초중앙성결교회	교동 904-4 (631-8200)	1	1	-	-	100	30	70
〃	참좋은교회	조양동 454-1 (631-3540)	1	1	-	-	120	36	84
소 계	1		2	2	-	-	90	35	55
구세군	구세군속초영문	교동 767-11 (632-5558)	2 (사관)	2 (사관)	-	-	90	35	55
소 계	2		2	2	-	-	175	65	110
안식교	속초중앙교회	중앙동 468-174 (633-3873)	1	1	-	-	100	35	65
〃	속초남부교회	교동 771-4 (631-2422)	1	1	-	-	75	30	45
소 계	1		1	1	-	-	신 도 없 음		
전도관	한국어린전도협회	교동 664-3 (633-0111)	1	1	-	-	신 도 없 음		
소 계	1		1	1	-	-	100	45	55
통일교	속초통일교회	금호동 488-257 (633-3508)	1	1	-	-	100	45	55
소 계	4		5	4	1	-	550	217	333
순복음교	순복음교교회	영랑동 148-3 (631-3420)	1	1	-	-	100	33	67
〃	순복음제일교회	동명동 16/2 (633-8873)	2	1	1	-	250	100	150
〃	순복음중앙교회	동명동 6/1	1	1	-	-	140	60	80
〃	성문교회	조양동 1484-9 (635-8135)	1	1	-	-	60	24	36
소 계	2		11	11	-	-	82	25	57
여호와의 증언	왕국회관	동명동 14/3 (635-3955)	7 (장로)	7 (장로)	-	-	42	10	32
〃	왕국회관	조양동 1490-161 (633-1706)	4 (장로)	4 (장로)	-	-	40	15	25
소 계	5		5	5	-	-	185	85	100
침례교	대광교회	장사동 635 (632-7523)	1	1	-	-	40	26	14
〃	속초침례교회	중앙동 503-70 (632-2922)	1	1	-	-	45	18	27
〃	속초제일교회	교동 627-13 (631-5267)	1	1	-	-	50	20	30

교단명	교 회 명	소 재 지 (전 화)	교 역 자 수 (명)				신 도 수 (명)		
			계	목사	전도사	외국 선교사	계	남	여
침례교	설악교회	교동 974 (633-0617)	1	1	-	-	30	14	16
〃	에바다교회		1	1	-	-	20	7	13
소 계	1		1	1	-	-	20	8	12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교	말일성도예수 그리스도교	동명동 15/2 (632-7507)	1	1	-	-	20	8	12
소 계	4		5	4	1	-	200	64	136
기 타	성경신학원	교동 655-44 (635-1254)	1	1	-	-	신 도 없 음		
〃	속초교회	교동 804-90 (631-1334)	1	1	-	-	20	10	10
〃	주찬양교회	교동 925-7 (632-9204)	2	1	1	-	150	45	105
〃	양문교회	노학동 253-89 (633-0873)	1	1	-	-	30	9	21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4.

다. 불 교

〈 표 4-6-9 〉 불교 상세현황 (단위: 명)

종단명	사찰명	소재지(전화)	승려수	신도수(명)		
				계	남	여
합 계	15		34	7,703	3,022	4,681
소 계	11		30	7,428	2,932	4,496
조계종	원각사	영랑동 590-2 (635-0106)	1	50	10	40
〃	보광사	동명동 16/6 (633-2920)	2	1,065	407	658
〃	연풍사	금호동 625-9 (633-3895)	1	15	-	15
〃	관음사	교동 767-40 (636-6268)	1	2,800	1,120	1,680
〃	월해사	노학동 산302-2 (635-6522)	3	93	40	53
〃	신흥사	설악동 산170 (636-7044)	10	3,000	1,200	1,800
〃	안양암	설악동 산170 (636-7276)	4	45	5	40
〃	계조암	설악동 산170 (636-7188)	2	30	6	24
〃	내원암	설악동 산170 (636-7754)	1	신 도 없 음		
〃	안락암	설악동 산41 (636-8345)	3	60	16	44
〃	청룡암	도문동 산153 (636-7977)	2	70	28	42
〃	설악불교 법륜회	영랑동 591 (637-5108)	-	200	100	100
소 계	1		1	-	-	-
법화종	천지암	동명동 453-12 (632-7189)	1	신 도 없 음		
소 계	1		1	20	-	20
총화종	백운암	동명동 16/2	1	20	-	20
소 계	1		1	200	80	120

종단명	사찰명	소재지(전화)	승려수	신도수(명)		
				계	남	여
천태종	동광사	조양동 산375 (635-5002)	1	200	80	120
소 계	1		1	55	10	45
SGI 한국불교회	SGI 한국불교회	동명동 16/2	1	55	10	45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4.

라. 기도원 및 기타종교

〈 표 4-6-10 〉 기도원 및 기타종교 상세현황 (단위: 명)

교단명	교 회 명	소 재 지(전 화)	비 고
계	4		
기 타	증 산 교	조양동 1444-41	
〃	대순진리회(서울방면속초회실)	조양동 1484	
〃	원 불 교	동명동 8/1(635-9787)	
〃	천 도 교	동명동 12/1(632-0469)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4.

제7장 언론

제1절 지역 언론의 현황

1. 일반현황

가. 연혁

1) 1956. 8. 1 KBS속초이동방송국 개국
2) 1961. 12. 31 KBS속초방송국으로 승격
3) 1962. 3. 2 강원일보 속초지사 설립
4) 1988. 7. 22 강릉 MBC 속초사무소 개소
5) 1990. 5. 28 속초신문(주간) 창간
6) 1990. 3. 31 영북신문사(주간) 설립
7) 1992. 8. 8 강릉 MBC 속초지사로 승격
8) 1992. 11. 2 속초신문이 설악신문으로 제호변경
9) 1992. 11. 26 강원도민일보 속초지사 설립
10) 1997. 6. 1 전국매일 속초지사 설립
11) 2001. 4. 1 시대일보 속초지사 설립
12) 2002. 8. 1 강원민방(GTB) 속초지사 설립
13) 2004. 11. 1 KBS 속초방송국 강릉방송국에 통합 흡수

나. 언론기관 현황

〈 표 4-7-1 〉 언론기관 현황 (단위: 명)

구 분	명 칭	대 표 자	직 원 수	소 재 지
신 문	강원일보 속초지사	박 기 용	4	동명동 458-9
	강원도민일보 영북본부	안 준 헌	6	청학동 640-13
	설악신문사(주간)	박 명 종	10	청학동 482-263
	전국매일 속초지사	전 금 종	3	영랑동 165
	시대일보 속초지사	유 수 이	3	교동 482-287
방 송	KBS속초방송문화센터	최 영 민	20	동명동 306-2
	강릉 MBC속초지사	김 동 찬	5	영랑동 231-2 동진오피스텔
	강원민방(GTB)속초지사	조 현 식	3	교동 737-7 아남프라자
	영동극동방송	강 흥 식		장사동 500-1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5. 9. 1 현재.

〈 표 4-7-2 〉 기타 홍보매체 현황

구 분	명 칭	대표자	가입자수(객석수)	소재지
유선방송	YBS 영동방송사	김 태 관	32,572대	강릉시 포남동
극장	중앙극장	이 연 태	164석	금호동 472-83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5. 9. 1 현재.

다. 신문보급 현황

〈 표 4-7-3 〉 신문보급 현황 (단위: 부)

구 분	신문명	소재지	대표자	보급부수	전화번호
합 계	20개지사(지국)				
소 계	3개				
지 방 지	강원일보	교동 760-17	김태규	2,500	633-4882
	도민일보	금호동 652-216	오세일	2,500	631-2626
	설악신문	교동 911-6	박명종	3,000	636-2222
소 계	17개				
중 앙 지	대한매일	교동 760-7	박일환	1,000	635-6112
	동아일보	교동 760-17	박일환	5,000	635-6112
	한겨레	금호동 625-216	오세일	1,500	
	경향신문	금호동 625-216	오세일	6,000	631-2626
	세계일보	금호동 625-216	오세일		631-2626
	매일경제	교동 911-10	김혁진	1,500	635-6113
	중앙일보	교동 911-10	김혁진	5,000	635-6113
	한국일보	영랑동	김은숙	2,000	633-5194
	일간스포츠	영랑동	김은숙	500	633-5194
	한국경제	교동 630-9	강연봉	1,500	633-2448
	조선일보	교동 630-9	강연봉	5,500	633-2448
	국민일보	교 동 645	오세호	1,500	631-1244
	전국매일	동명동 466-70	이경우	1,000	637-5302
	문화일보	영랑동 150-1	이정일	1,500	632-9127
	스포츠투데이	영랑동150-1	이정일	1,000	633-0575
	시대일보	교동 932-2	김영중	500	631-0028
	서울경제	영랑동	김은숙	500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5. 9. 1 현재.

라. TV보급 현황

〈 표 4-7-4 〉 TV보급 현황 (단위: 대)

구분 / 연도별	TV		
	계	칼 라	흑 백
1970	536	-	536
1971	913	-	913
1972	1,038	-	1,038
1973	1,193	-	1,193
1974	1,193	-	1,193
1975	3,881	-	3,881
1976	4,004	-	4,004
1977	6,987	-	6,978
1978	10,469	-	10,469
1979	12,759	-	12,759
1980	11,809	-	11,809
1981	15,054	-	15,054
1982	17,625	4,992	12,633
1983	19,177	7,049	12,128
1984	21,630	9,534	12,096
1985	21,696	11,022	10,674
1986	15,236	15,236	-
1987	16,036	16,036	-
1988	18,280	18,280	-
1989	19,703	19,703	-
1990	21,469	21,469	-
1991	24,860	24,860	-
1992	25,144	25,1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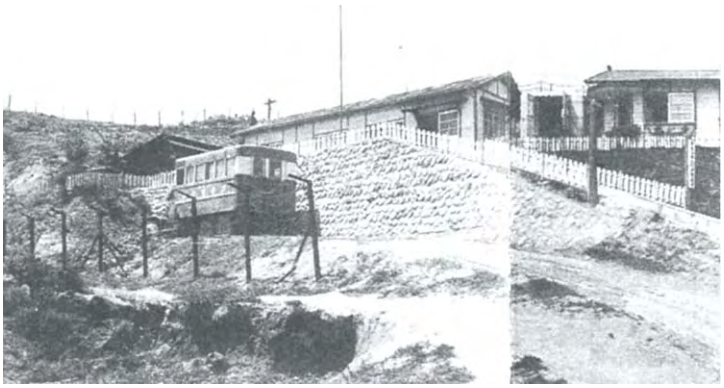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4.

2. 언론기관별 현황

가. KBS 속초방송문화센터

1) 연혁

가) 1956. 8. 1 속초이동방송국으로 개국(호출부호 HLCS (주파수 : 1000KHZ, 출력 : 300W)
나) 1961. 12. 31 속초방송국으로 승격(1KW)
다) 1968. 12. 23 청사신축 이전(속초시 동명동 306-2)
라) 1971. 5. 11 양양송신소 개소 및 출력 증강 (주파수: 1,170KHZ 출력: 50KW)
마) 1973. 3. 1 한국방송공사 속초방송국으로 개편 발족
바) 1979. 8. 3 주파수 1,008KHZ로 변경, 1981. 2. 제1방송에서 제3방송으로 개편
사) 1981. 9. 7 제3방송에서 제2라디오로 변경
아) 1984. 12. 1 양양송신소,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위탁관리
자) 1988. 6. 1 양양송신소, 한국방송공사로 이관, 1991. 9. 청학동 상공회의소 빌딩으로 이전
차) 1993. 8. 20 신청사 준공(속초시 동명동 306-2)
카) 1994. 12. 24 TV장비 설치공사 완료
타) 1995. 2. 23 TV개국 기념식
파) 1996. 11. 25 양양송신소 중파송신기 교체 및 자동화 시설 완료, 예비송신기 교체(국산)
하) 2004. 11. 1 KBS 강릉방송국에 흡수 통합



〈 사진 4-7-1 〉 시청 옆에 위치한 최초의 청사

〈 사진 4-7-2 〉 1968년 동명동으로 이전 신축된 청사

〈 사진 4-7-3 〉 현재의 신축청사

2) 일반현황

가) 주소지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06-2

나) 인원: 총 20명(기자 1명, 촬영기자 2명, 사무직 4명, 기타 13명)

다) 기관규모

(1) 대　지 : 2,161.96평(7,147평방미터)

(2) 건축면적 :　513.25평(1,697평방미터)

(3) 연 면 적 : 1,316.30평(4,351.4평방미터)

(4)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5) 최고높이 : 29.85미터

라) 시설 개요

〈 표 4-7-5 〉　　시설 개요

구 분	층 별	면적		비고
		평	㎡	
본동	지 하 층	271.1	892.89	
	1 층	436.6	1,443.30	
	2 층	271.0	895.76	
	3 층	251.9	832.75	
	4 층	30.9	102.13	물탱크실
	관망탑층	17.84	58.97	

구 분	층 별	면적		비고
		평	㎡	
부속동	수 위 실	7.2	23.90	
	중계차고	30.8	101.70	
계		1,316.34	4,351.40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4.

3) 2004년도 주요사업

가) 2004. 1. 신년특집 '2004년,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 2004. 3. KBS 교양강좌
다) 2004. 4. 라디오특집 '17대 총선후보자 토론회'
라) 2004. 5. 인형극 공연
마) 2004. 6. KBS 교양강좌
바) 2004. 7. 라디오특집 다큐 '미래산업보고 심층수'
사) 2004. 8. 개국48주년 특집쇼 '한여름밤 해변음악회'
아) 2004. 9. KBS 교양강좌
자) 2004. 10. 제3회 설악사랑 대상 실시
차) 2004. 12. 송년기획 가곡의 밤

4) 역대 방송국장 명단

〈 표 4-7-6 〉 역대 방송국장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1 대	국장	신경석	1956. 8. 1 ~ 1968. 12. 31	
2 대	"	황병찬	1962. 12. 31 ~ 1962. 6. 20	
3 대	"	허종성	1966. 6. 20 ~ 1968. 11 4	
4 대	"	김광형	1968. 11. 4 ~ 1969. 12. 1	
5 대	"	김헌수	1969. 12. 1 ~ 1973. 3. 1	
6 대	"	김덕수	1973. 3. 1 ~ 1974. 3. 1	
7 대	"	윤헌영	1974. 3. 1 ~ 1977. 6. 30	
8 대	"	김근호	1977. 6. 30 ~ 1980. 7. 5	
9 대	"	오길응	1980. 7. 5 ~ 1981. 6. 20	
10 대	"	정만철	1981. 6. 20 ~ 19784. 7. 20	
11 대	"	이종훈	1984. 7. 20 ~ 1986. 4. 12	
12 대	"	김세일	1986. 4. 12 ~ 1987.1 0. 15	
13 대	"	최 선	1987. 10. 15 ~ 1989. 7. 13	
14 대	"	장만복	1989. 7. 13 ~ 1993. 4. 24	
15 대	"	유동수	1993. 4. 24 ~ 1996. 1. 30	
16 대	"	박광희	1996. 1. 30 ~ 1998. 4. 21	
17 대	"	홍수완	1998. 4. 21 ~ 2000. 6. 20	
18 대	"	최상호	2000. 6. 20 ~ 2001. 1. 1	
19 대	"	이상필	2001. 1. 1 ~ 2003. 1. 1	
20 대	"	전현찬	2003. 1. 1 ~ 2004. 11. 1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4.

나. 영동극동FM방송국

1) 연혁

가) 1999. 8. 17 정보통신부 방송국 허가(주파수 : 90.1MHZ, 출력 : 3㎾, 호출부호 : HLDY)

나) 1999. 12. 1 시험방송 개시(※ KBS 속초방송국의 요청으로 송출 중단)

다) 2000. 10. 20 방송위원회로부터 극동속초FM방송국 변경허가 추천통보

라) 2001. 3. 20 운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 회원가입 170명

마) 2001. 4. 11 강원 원주체신청에 송신소 이전에 따른 서류 접수
송신점 변경 (오봉산 → 강릉 괘방산)
안테나 변경 (4Bay → 6Bay)
명칭변경 (속초극동방송 → 영동극동방송)

바) 2001. 8. 16 영동극동방송 운영위원회 강릉지회 창립총회 : 회원가입 110명 지회장 : 정영환 장로 등 12명

사) 2001. 8. 27 영동극동방송 개국 축하행사 및 송출식

아) 2002. 10. 22 속초 목우재중계소 방송위원회 허가추천

자) 2003. 2. 27 강릉스튜디오 OpEN 감사예배

차) 2003. 4. 7 방송국 개설 허가
방송국명: 영동극동방송 속초FM중계소
주파수: 102.9MHZ
설치장소: 속초시 설악동 산 321(목우재)

〈 사진 4-7-4 〉 영동극동 FM방송국

2) 시설현황

가) 주소: 속초시 장사동 500-1
나) 송신소: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 19-1
다) 중계소: 속초시 설악동 산 321 (목우재)
라) 강릉스튜디오: 강릉시 내곡동 522 행정 연구동

3) 주요사업 및 업무실적(2002년도)

가) 2002. 3. 30 영동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창단
고문목사 : 이상천 목사
지 휘 자 : 민종홍 교수, 반주 : 김한나
나) 2002. 4. 2 동해운영위원회 창립총회 (위원장 : 남우 장로)
다) 2002. 5. 2 제1회 영동지역 목회자 족구대회 (속초시 실내체육관)
라) 2002. 5. 13 속초중계소 설치를 위한 연합성회 (속초중앙교회)
마) 2002. 8. 24 개국 1주년 기념 축하대잔치 (속초시 실내체육관)
바) 2002. 8. 27 개국 1주년 윤형주 장로 초청 만찬 축하의 밤
사) 2002. 10. 4 수재민 위로 콜로라도 남성 4중창단 음악회 (강릉 장로교회)
아) 2002. 11. 18 제2회 영동지역 목회자 테니스대회 (관동대학교)
자) 2002. 11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11.21 속초운영위원회 (신임 : 장구봉 위원장)
11.25 동해운영위원회 (신임 : 남우 위원장)
11.28 강릉운영위원회 (신임 : 정영환 위원장)
차) 2002. 12. 20 성탄감사 LOVE 찬양 대잔치 (강릉시청 대강당)

4) 역대 기관장 명단

〈 표 4-7-7 〉 역대 기관장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	본부장	김 수 찬	1999. 6. 28 ~ 2000. 12. 31	
2대	지사장	권 영 범	2001. 1. 1 ~ 2002. 12.31	2001.08.27 지사 승격
3대	지사장	강 흥 식	2003. 1. 1 ~ 현 재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5.

다. 설악신문사

1) 연혁

가) 1990. 5. 28 격주간 속초신문 창간(타블로이드판 16면)
나) 1990. 10. 29 주간 설악신문으로 제호변경(타블로이드판 8면, 11호 발행)
다) 1991. 3. 4 주간 속초신문으로 제호변경(타블로이드배판 8면, 19호 발행)
라) 1991. 7. 시민주 발행 주식회사로 전환
마) 1992. 11. 2 설악신문으로 제호변경(80호 발행)

2) 일반현황

가) 소 재 지 : 속초시 교동 911-6번지
나) 관할구역 :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다) 기구 및 조직
(1) 기구
주주총회, 대표이사(이사회), 편집국(취재부, 편집부), 기획관리국(기획부, 관리부)
(2) 직원현황(총10명)
대표이사(1), 전무이사(1), 취재 · 편집기자(5), 기획부(2), 관리부(1)

3) 역대 대표자 명단

〈 표 4-7-8 〉 역대 대표자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비고
초대	발행인 겸직	박 종 헌	1990. 5. 28 ~ 1990. 10. 29	
2대	발행인 겸직	박 명 종	1991. 3. 4 ~ 1992. 5. 16	
3대	대표이사	최 상 길	1992. 5. 17 ~ 1993. 1. 31	
4대	대표이사	박 명 종	1993. 2. 1 ~ 1998. 9. 30	
5대	대표이사	이 상 국	1998. 10. 1 ~ 2003. 1. 24	
6대	대표이사	박 명 종	2003. 2. 24 ~ 현 재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5.

제2절 시정홍보

1. 시정홍보 현황

가. 홍보방향

1)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밝은 면 홍보에 주력하여 행정의 신뢰감 조성

2) 홍보매체에 시의성 있는 자료를 치밀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요시책을 시기적으로 특집 보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나. 2002 홍보실적

1) 시정보도 총괄

3,893건

시정보도(자료제공)	기자취재보도
1,272건 (33%)	2,621건 (67%)

2) 언론매체별 보도현황

가) TV, 라디오 보도(1,794건)

강릉MBC-TV(1,161건), 속초KBS-TV(417건), KBS속초라디오(216건)

나) 신문 보도(1,043건)

중앙지(14개 신문: 87건), 지방지(2개사: 716건), 주간지(설악 · 영북신문: 240건)

※ 행정예고, 각종연감, 설악의 메아리 등 게재: 47회

2. 역대시청 출입기자 명단

가. 1960년대

〈 표 4-7-9 〉 1960년대 시청 출입 기자 명단

신 문	직 위	성 명	비 고
동아일보	기 자	강희권	
중앙일보	기 자	양정희	
	기 자	장창영	
조선일보	기 자	이 순	
	기 자	동문성	
서울신문	기 자	최용문	
한국일보	기 자	마일연	
	기 자	윤창동	
대한일보	기 자	김호응	
현대경제	기 자	김시준	
강원일보	기 자	채근양	
KBS	기 자	김인규	
	기 자	진동열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5.

나. 1970년대

〈 표 4-7-10 〉 1970년대 시청 출입 기자 명단

신 문	직 위	성 명	비 고
동아일보	기 자	사 상 길	
중앙일보	기 자	장 창 영	
조선일보	기 자	동 문 성	
서울신문	기 자	최 용 문	
	기 자	지 일 권	
한국일보	기 자	전 인 식	
경향신문	기 자	장 인 만	
신아일보	기 자	김 호 응	
강원일보	기 자	진 동 열	
KBS	기 자	박 상 용	
	기 자	이 승 만	
MBC	기 자	박 명 근	
	기 자	채 근 양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5.

다. 1980년~1992년대

〈 표 4-7-11 〉 1980년대 시청 출입 기자 명단

신 문	직 위	성 명	비 고
연합통신	특 파 원	장 창 영	
강원일보	기 자	김 성 기	
	기 자	방 명 균	
	기 자	김 동 섭	
	기 자	경 인 수	
	취재부장	안 준 헌	
	기 자	권 병 창	
	기 자	전 제 훈	
강원도민일보	취재부장	안 준 헌	
	기 자	경 인 수	
	기 자	강 병 로	
KBS	기 자	김 인 석	
	기 자	서 기 상	
	기 자	한 기 해	
	기 자	박 상 용	
	ca 기 자	이 준 하	
MBC	기 자	문 창 경	
	기 자	김 주 태	
	기 자	이 재 석	
	기 자	신 형 순	
	ca 기 자	양 만 호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5.

라. 1993년~2002년말

〈 표 4-7-12 〉 1990년대 시청 출입 기자 명단

신 문	직 위	성 명	비 고
연합뉴스	지방부장	장 창 영	
	지방부장	김 영 인	
	기 자	이 종 건	
	기 자	임 보 연	
KBS 속초방송국	방송부장	김 인 석	
	부 장	박 상 용	
	기 장	김 민 성	
	부 장	김 진 업	
	기 자	남 범 수	
	기 자	이 경 희	
	기 자	이 재 경	

신 문	직 위	성 명	비 고
KBS 속초방송국	Ca 기 자	유 혁 근	
	Ca 기 자	권 혁 헌	
	Ca 기 자	이 상 원	
	Ca 기 자	김 영 선	
	Ca 기 자	이 준 하	
MBC 속초방송국	차 장	문 창 경	
	기 자	김 동 윤	
	기 자	정 영 식	
	기 자	김 동 찬	
	차 장	김 근 배	
	부 장	정 영 식	
	차 장	황 병 춘	
	기 자	이 일 주	
	Ca 기 자	최 승 건	
	Ca 기 자	김 진 형	
	Ca 기 자	양 만 호	
	Ca 기 자	손 천 호	
강원일보사	기 자	조 환 구	
	기 자	박 상 용	
	기 자	고 달 순	
	기 자	김 용 재	
	부 장	양 창 근	부국장
	부 장	김 진 용	
	차 장	김 광 희	
	차 장	박 기 용	
강원도민일보사	영북본부장	안 준 헌	
	기 자	김 동 섭	
	기 자	권 재 혁	
	기 자	전 제 훈	
	부 장	김 상 수	
	기 자	전 인 수	
	차 장	남 궁 연	
강원민방(GTB)	기 자	이 상 준	
	Ca 기 자	김 중 용	
전국매일	기 자	이 호	
	기 자	김 동 주	
	기 자	윤 택 훈	
시대일보	기 자	정 관 신	
	지 사 장	사 상 길	
설악신문	기 자	엄 경 선	
	기 자	이 수 영	
	기 자	최 광 호	
	기 자	김 주 현	
	기 자	고 명 진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5.

마. 2003년

〈 표 4-7-13 〉 2003년 시청 출입 기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연합뉴스	기 자	이종건	
KBS 속초방송문화센터	기 자	이경희	사무실 639-7411
	기 자	심수련	
	Ca 기자	김영선	
MBC 속초지사	취재부장	김동찬	사무실 633-3531
	기 자	이일주	
	Ca 기자	김종윤	
GTB 속초지국	기 자	조현식	사무실 637-0095
	기 자	이재민	
	Ca 기자	유세진	
강원일보	기 자	박기용	사무실 63-4881
	기 자	고명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강원도민일보	기 자	남궁연	사무실 635-9988
	기 자	전인수	
전국매일	기 자	윤택훈	사무실 637-5300
시대일보	취재국장	사상길	사무실 631-0028
설악신문(주간)	기 자	최광호	사무실 636-2222
	기 자	전제현	
속초양양고성신문(주간)	발 행 인	정관신	사무실 638-1003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5.

바. 2005년

〈 표 4-7-14 〉 2005년 시청 출입 기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연합뉴스	기자	이종건	
KBS 속초방송국	기자	최현서	사무실 639-4711
	Ca기자	김영선	
MBC 속초지사	기자	김동찬	사무실 633-3531
	Ca 기자	양만호	
GTB 속초지국	기자	조현식	사무실 637-0095
	Ca 기자	이영석	
강원일보	부장	박기용	사무실 638-4881
강원도민일보	부장	남궁연	사무실 635-9988
전국매일	본부장	사상길	사무실 637-5300
시대일보	기자	정관신	사무실 631-0028
설악신문(주간)	기자	라희진	사무실 636-2222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5.

제8장 체육

제1절 연혁

1. 우리나라의 체육[72]

원시시대의 체육활동은 사냥과 채집 등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맹수 또는 다른 종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시시대의 체육은 의도적인 교육활동이 아니라 생존으로서의 수단이 곧 목적인 활동이었다.

부족국가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인간은 농경생활을 하며 부족을 형성하여 정착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자신과 가족 나아가 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쏘기, 창 다루기 등의 무예를 익히는 체육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었으며, 농사를 위해 제례의식을 갖추게 되어 노래와 춤, 그리고 민속놀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72) http://aloh.x-y.net, 「우리나라 체육사」 참조.

73) 『속초시지』, 1991, p.933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세력 다툼으로 인하여 무술을 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신라에서는 근랑(近廊)이란 사무소를 설치하여 화랑을 양성하였다. 화랑들은 명산대천(名山大川)을 관람하며, 가무와 무예를 익히며, 학문에도 정진하여, 지(知), 덕(德), 체(體)를 겸비한 화랑도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다. 이 시대의 귀족들은 훌륭한 무사가 됨을 강요받았으며, 일반 국민들도 군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으로 인하여 유술(柔術), 궁술(弓術), 검술(劍術), 경마(競馬), 축구(蹴球)와 같은 체육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씨름, 수영, 줄다리기, 석전(石戰), 썰매타기, 연날리기, 그네뛰기, 널뛰기, 쌍육(주사위 놀이), 투호와 같은 민속놀이가 성행하였다[73].

신라의 화랑도 정신이 삼국통일의 기초가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기반이 되었으나 통일신라시대에 접어들면서, 불교가 전래되고 학문과 예술이 발달하게 됨으로써 무예활동이 쇠퇴하여 유희나 오락적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북방민족과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무예를 중히 여기게 되었으나, 중기에 접어들면서, '숭문정책(崇文政策)'으로 무술활동이 쇠퇴함에 따라 모든 신체적 활동에 유희와 경기적 요소를 가미한 삼국시대의 민속놀이인 격구, 수희, 수박 등이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들 사이에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계층에 따른 체육 활동이 분화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무예가 쇠퇴하고 군사훈련을 과목으로 실시하였으며, '문존무비(文尊武卑)' 사상으로 무예는 천민이 담당하는

것으로 전락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등장인물들의 옷차림 대부분이 서민들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서민층을 중심으로 널뛰기, 그네, 줄다리기, 차전놀이 등의 민속놀이가 성행하였다. 이에 반해, 양반층에서는 격구, 추호, 쌍륙 등이 행해졌으며, 퇴계 이황의『활인심방』에 나와 있듯이 실내에서 '의료체조' 행위가 성행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개화기인 1880년에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가 레크리에이션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체육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국인 선교사 허치슨(Huchison)에 의해 최초의 운동회인 '화류회'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주로 'YMCA'를 통하여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의 서양스포츠의 도입가 도입되어 체육 보급에 기여하였다. 1906년에는 '보통학교령'이 제정되어 체조를 정규과목으로 선정하여 매주 체조 수업시간을 갖게 되어 신체의 균등 발달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의 개성과 취미를 고려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후 '대한체육구락부'와 같은 각종 체육 단체가 출현하여 민중 체육활동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4-8-1 〉 개화기의 체육단체 현황

결성시기	체육단체명	발기인
1906. 3	대한체육구락부	현양운, 신봉휴, 한상우 등
1906. 4	횡성기독청년회	미상
1907. 10	대한국민체육대회	노백린
1908. 8	대동체육부	권승연, 조상호, 이기환등
1908. 9	무도기계체조부	이희두, 윤치호 등
1909. 1	대한흥학회운동부	변희준, 유동수 외 동경유학생
1909. 8	사궁회	이상핑, 이용문 등
1909. 8	소년광장체육회	조원희, 이기동, 김성집 등
1910. 2	청강체육부	최승희, 신완식, 성희 등

자료: http://aloha.x-y.net.

일제시대에는 외형적으로 그 양이 증대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군사적 훈련으로 전개되었다. 1920년 온 국민들의 여망과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지지로 '조선체육회'가 창설되어, 그 해 11월에 배재고보(培材高普) 운동장에서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를 거행하게 되었다. '조선체육회' 출발초기에는 오늘 날과 같은 종합대회의 형태를 갖추기 보다는 단일 종목별 경기대회를 형편 닿는 대로 개최하며 체육활동의 폭을 넓혀나갔다. 1925년 경성운동장(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조선신궁경기대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경기대회이다. 그러나 민족의 종합체육대회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34년 조선체육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전조선 종합경기대회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거행된 종목은 축구, 야구, 정구, 농구, 육상 등 5종목이

었다. 그 이듬해에는 유도, 씨름, 검도, 역기가 추가되고, 1936년에는 빙상, 격투, 탁구가, 1937년에는 배구가 추가되는 등 대회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경기대회를 통해 스포츠 본래의 가치에서 벗어나 민족운동과 연계되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일장기 말소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냈는데 동아일보에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내보내 그 결과 동아일보는 폐간이 되었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두려워 한 일본은 체육활동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38년에는 일제의 탄압과 강압에 따라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국민정신총력연맹조선지부에 통합되어 체육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후 조선체육협회로 개칭된 조선체육회는 또다시 조선체육진흥회로 개칭되어 전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투운동 외에는 일체의 체육활동이 금지되었다.

광복이후 '조선체육회'는 '대한체육회(KOC)'라 개칭되었으며, 1947년 이원순 대표가 IOC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드디어 1948년 14회 런던올림픽에 최초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7종목 67명의 선수단이 출전하게 되었다. 6.25 전쟁 중에도 군의 협조로 광주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 그레꼬로망 종목에서 첫 금메달 따내는 쾌거를 이뤘으며,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여, 금 14개를 따내 종합전적 세계 4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는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따는 등 스포츠 강국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1997년에는 부산에서 제2회 동아시아경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2년에는 부산아시아경기 개최하였고,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4강에 오르는 등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2. 속초의 체육

수복 후 시 승격 이전인 속초읍 당시 속초1구(영랑동) 시장 옆에 임시 공설운동장을 설치하여 8 · 15경축체육대회, 속초읍민 종합 체육대회 등 지역 체육행사를 가지며 지방체육의 부흥을 다져왔고 특히 이 당시에는 속초중학교가 배구 명문고로 부상하여 62년까지 매년 전국대회 4강 이내에 입상하는 전통을 세웠다.

현 페루 여자배구 국가대표 감독인 박만복씨가 이때 활약하였으며, 한편

속초 사이클의 대부 이섭봉씨가 속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제5회 강원문화상 체육부분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63년 속초시로 승격과 더불어 경축행사의 하나로 제3회 강원도시군대항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대회 전날까지의 철야작업 끝에 현 중앙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을 조성하였는데, 이 운동장은 현재까지 30년 동안 속초 체육의 도장으로 존속되어 오고 있다.

66년에 이르러 강원도체육회에서 지역순회 종목별 체육대회를 지양하고 전국체전 출전선수 선발을 위해 27개 전 종목 종합대회로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당시 도내 19개 시 · 군중 속초는 인구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1회 대회 이후 수년간 5위 이내에 입상하는 저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 77년에 제6회 강원도 학도체전에서 속초시 선수단이 종합우승하는 등 학생체육은 많은 성적을 과시했으나 역대 도민체전 성적에서 보듯이 시세의 열세를 극복치 못한 일반부 체육의 침체는 8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90년대에 들어 체육계의 각성과 왕년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속초체육 부흥의 열망이 재집결되면서 선수발굴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등위 부상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속초체육의 역대 종목별 경기전적을 보면, 축구와 배구, 사이클 등 3개 종목에서 특히 강세를 보여 왔는데, 동호인 클럽에서부터 출발된 축구는 60년대초 · 중교 축구팀이 창설되어 선수저변이 확대되었고, 청호국교, 속초국교, 중앙국교, 영랑국교에서 속초중학교로 이어진 우수 선수들이 전국 각지의 스카웃 대상이 되어 배출되었으며, 중앙국교 축구부의 김주성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등 국내축구 인재의 산실역할을 담당 해 왔다.

속초중학교 축구는 전국대회 우승과 4강권 진입 등 입상을 여러 차례 했으며, 확보된 축구 저변인구는 도내 일반부에서 매년 수위를 차지해 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속초 중 · 고배구의 50년대 전통은 75년 전국 중 · 고 배구대회에서 속초중 우승으로 전국제패의 영광을 재현하고, 76년 학생체육관 준공으로 다시 활력을 찾아 79년 속초고 배구팀의 부활과 함께 80년 전국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재기하였으며, 현재에도 옛 영광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도내 사이클의 원조로 자부하여 많은 실적을 낸 속초 사이클은 50년대부터 고가장비 구입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발굴과 육성을 꾸준히 해왔다.

70년대 속초상고의 사이클부의 창단과 더불어 학생부와 일반부를 통틀어 도내대회를 석권해 온 전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도내 각 경기단체

연맹이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본부를 두고 있으나 80년대 이후 2차례 도연맹 본부를 속초에 유치할 정도로 자타가 인정하는 속초의 특기종목이 되었으며, 그동안 82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장윤호 선수 등 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해 냈고, 전국대회에서 제패한 경험이 있는 강원 사이클의 본고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었으며, 91년 실업팀인 속초시청 사이클팀을 창단하여 전국대회에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그 전통의 맥을 이어 갔으나 현재는 성적부진과 선수확보 등 제반여건의 어려움 속에 침체일로에 있다.

기타 경기종목으로 68년까지 10년 연속 개최된 관동팔경 탑승 역전경주대회에 해마다 출전, 수차례의 입상 경력이 있는 속초육상은 세계적 마라톤 선수 김봉래, 중거리 김영룡, 단거리 최화숙 등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였고, 민속경기에 연고된 씨름에서는 제38회 전국체전부터 제57회까지 근 20년간 도대표로 출전한 김봉만씨가 장수 출전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 79년 도학도체전 초 · 중 · 고등부 종합우승 했던 태권도는 89년도 중반 설악케이블카에서 한때 일반실업팀을 창단하여 도대표 선수를 양성하기도 했으며, 50년대 막강한 전력을 과시했던 유도는 65년과 66년 도체전 고등부 연패의 기록이후 도장의 철거와 선수저변의 확보가 어려워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복싱부문 역시 60년대 초반까지 전국체전 출전선수를 많이 배출했으나 현재까지 침체기를 맞고 있으며 다시 재기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60년대에 들어 국민학교별 야구부 창단으로 불모지에 보급된 야구는 66년 제2회 도내국교대항대회에서 영랑국교가 우승하고 속초국교, 중앙국교도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설악중학교에서 특별 육성을 위해 국민학교 대항 야구대회를 마련하여 주관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7년도에 창단된 속초상고 야구부는 2002년 전국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며 속초야구의 부흥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70년대초 법원지원, 검찰지청에 정식 테니스코트가 개장되면서 확대 보급되기 시작하여 74년 정일권 국회의장기 쟁탈 전국대회를 설악제 기념으로 개최하는 등 붐 조성과 함께 육성시도 되었으나 사회체육 개념의 보급외의 선수발굴에는 큰 실적이 없으며, 현재 도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코트시설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빙상역시 53년에 영랑호 특설링크를 설치하여 전국 빙상대회를 유치, 당시의 국가대표 선수의 기량이 지역에 선보이기도 하였으나 그 후 공설운동장과 교동 소방서 옆 등 가설 링크를 만들어 지역대회를 간신히 했을 뿐

이며 결빙기가 짧은 지역기후 조건으로 야회 링크조성의 어려움과 실내링크가 없는 지역여건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 외에 옛 화랑의 훈련지였던 영랑호변에 국궁 궁도장이 있어 '73년 제8회 설악제' 기념으로 제1회 전국남여궁도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현재에는 종합운동장 옆 부지에 새로이 궁도장을 조성하여 부흥을 꾀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 다시 활성화 분위기를 찾기 시작한 속초체육은 인구가 적고 시설이 미비한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지원에 힘입어 '94년 강원도민체전과 '97년 9월에는 "제7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겸 제1회 아시아주니어카누선수권대회"(1997.9.4~9.7)를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속초영랑호 카누경기장에서 개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0년 6월에 "제35회 강원도민체전"을, 2001년 3월에는 "제37회 춘계한국중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단위 및 도단위의 각종대회를 유치 · 개최하여 속초체육 부흥과 발전을 가일층 도모하고 있다.

3. 역대 도민체전 성과

〈 표 4-8-2 〉 역대 도민체전 성과 (단위: 위)

회별 / 시군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7회	18회	19회	24회
춘천시	1	1	1	1	2	1	1	1	1	171	1	1	2	1	1	1	2	1
원주시	2	2	3	3	1	2	2	3	4	3	3	4	3	4	3	3	3	3
강릉시	7	6	5	6	6	7	3	2	2	2	2	3	5	3	2	2	1	2
동해시	–	–	–	–	–	–	–	–	–	–	–	–	–	–	5	5	4	6
태백시	–	–	–	–	–	–	–	–	–	–	–	–	–	–	9	9	10	8
속초시	4	4	6	5	5	9	9	9	6	6	8	9	9	15	10	7	9	9
삼척시	–	–	–	–	–	–	–	–	–	–	–	–	–	–	–	–	–	10
홍천군	6	5	4	5	4	4	4	8	7	8	7	6	4	–	7	10	8	5
철원군	13	12	17	19	17	16	19	12	13	14	1	18	19	16	3	2	2	6
명주군	7	8	13	16	7	3	7	7	5	5	5	5	8	6	7 (2부)	8 (2부)	3	7
삼척군	3	3	2	2	3	6	6	4	3	4	6	2	1	2	4	4		11
춘천군	9	9	11	9	15	9	5	5	10	11	11	7	6	5	1	1	1	3
횡성군	10	17	13	15	9	15	15	13	15	12	15	14	13	13	5	3	6	7
원주군	12	15	10	7	11	11	16	16	19	10	12	8	14	18	4	4	4	1
영월군	5	7	8	13	8	10	8	6	9	7	4	10	7	7	6 (2부)	8 (2부)	7 (2부)	2
평창군	18	11	15	8	19	17	13	15	11	8	16	11	12	11	9	7	5	5
정성권	15	17	19	17	14	13	12	11	14	17	9	13	11	8	8	6	6	4
화천군	11	14	7	10	12	8	10	10	12	15	13	12	10	10	2	6	8	8
양구군	8	10	9	18	16	14	11	14	8	13	14	16	16	12	6	5	7	4
인제군	17	19	18	11	10	12	17	17	16	19	10	17	15	14	10	11	9	11
고성군	14	15	16	14	18	19	14	18	18	18	19	19	17	19	8	10	11	9
양양군	16	13	12	12	12	18	18	19	17	16	17	15	18	17	11	9	10	10

〈 표 4-8-2(속)〉 역대 도민체전 성과 (단위: 위)

회별 / 시군별	25회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35회	36회	37회	38회	39회	40회
춘천시	2	1	1	1	1	1	1	1	1	1	1	1	–	1	2	1
원주시	1	3	3	3	4	2	3	3	2	3	2	2	–	3	3	4
강릉시	3	2	2	2	2	3	2	2	3	2	3	3	–	2	1	2
동해시	5	4	7	5	6	8	5	5	5	4	6	8	–	4	6	5
태백시	12	8	9	9	7	5	8	8	7	8	7	6	–	6	4	6
속초시	14	9	5	4	3	4	4	4	4	6	4	4	–	8	7	7
삼척시	21	11	6	8	11	7	7	7	9	9	9	7	–	7	9	9
홍천군	11	5	4	6	5	6	6	6	6	5	5	5	–	5	5	3
철원군	18	6	5	6	11	3	2	2	2	2	1	9	–	9	8	8
명주군	19	7	10	7	8	–	–	–	–	–	–	–	–	–	–	–
삼척군	20	10	11	11	9	–	–	–	–	–	–	–	–	–	–	–
춘천군	7	1	1	1	1	–	–	–	–	–	–	–	–	–	–	–
횡성군 (2부)	9	2	3	4	8	4	5	7	6	8	4	2	–	2	1	1
원주군	4	4	4	5	5	–	–	–	–	–	–	–	–	–	–	–
영월군	8	3	2	3	3	2	3	3	3	4	5	6	–	9	4	7
평창군	6	7	7	7	10	7	8	8	8	5	6	4	–	7	9	6
정선군	15	6	8	10	10	9	9	9	8	7	8	9	–	6	6	8
화천군	17	8	9	11	9	9	7	6	4	3	3	3	–	3	3	2
양구군	10	5	6	2	2	1	1	1	1	1	2	1	–	1	2	3
인제군	13	11	8	9	6	6	9	9	9	9	9	5	–	8	5	4
고성군	16	10	11	10	4	5	6	5	7	6	8	7	–	4	8	5
양양군	22	9	10	8	7	8	4	4	5	7	7	8	–	5	7	9

※ 제37회는 태풍 “루사” 피해로 무산
자료: 속초시 문화공보과, 2005. 9. 1 현재.

제2절 체육진흥 시책

1. 개요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체육 ·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평생체육의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선보이게 됨에 따라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조건에 맞는 운동에 참여하여 이제는「보는 체육」에서「참여하고 즐기는 체육」으로 확대 개방되는 국면으로 돌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체육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시의 중점 체육진흥시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① 동네체육시설의 확충
② 각종 체육시설의 무료개방
③ 생활체육대회 개최
④ 체육단체 육성
⑤ 시청 실업팀 운영

2. 체육시설의 확충

정부의 1시군 1운동장 확보계획과 동네체육시설 보급계획에 따라 시는 연차사업으로 속초종합운동장을 건설하였으며 '90년 이후 관내 체육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는바 현재까지 조성된 시설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속초종합운동장 조성

1) 위치: 속초시 노학동 산 332번지 일원

2) 주요 시설 개요
가) 총 부지면적: 237,500㎡(71,844평)
나) 경기장 면적: 27,660㎡(8,357평)
다) 관중석: 25,000석(21단)
라) 주차장시설(임시주차장 포함): 37,000㎡(1,000대 주차)
마) 진입도로 확장(4차선): L=135m, B=20m

3) 사업비: 14,980백만원

〈 사진 4-8-1 〉 속초종합운동장

나. 궁도장 조성

1) 위치: 속초시 노학동 978-20번지

2) 착공: 2000. 11. 30
3) 준공: 2001. 6. 7
4) 부지면적: 6,020㎡
5) 건축면적: 287.13㎡
6) 경기장 면적: 5,737.87㎡
7) 과녁: 4개소
8) 사업비: 415백만원(도비 47, 시비 68)

다. 속초시 테니스장 조성

1) 위치: 속초시 영랑동 570-2번지
2) 착공 및 준공: 1993년
3) 부지면적: 7,364㎡
4) 건축면적: 95㎡
5) 사업비: 60백만원(국비 20, 도비 20, 시비 20)

〈 사진 4-8-2 〉 속초시 테니스장

라. 카누경기장 조성

1) 위치: 속초시 장사동 647-20번지
2) 착공: 1995. 11. 8
3) 준공: 1997. 9. 1
4) 부지면적: 4,191㎡
5) 건축면적: 685㎡
6) 사업비: 244백만원(도비 122, 시비 122)

〈 사진 4-8-3 〉 카누경기장

마. 속초시 노인게이트볼장 조성

1) 위치: 속초시 교동 782-11번지외 7필지
2) 착공: 2003. 7. 10
3) 준공: 2003. 12. 25
4) 부지면적: 2,478㎡
5) 건축면적: 1,260㎡
6) 경기장: 2명
7) 사업비: 480백만원(도비 100, 시비 380)

〈 사진 4-8-4 〉 노인게이트볼장

바. 화랑도체험관 조성

1) 위치: 속초시 장사동 415외 5필지
2) 착공: 2002. 10. 14
3) 준공: 2004. 1. 10

4) 부지면적: 12,059㎡

5) 건축면적: 515.79㎡

6) 사업비: 2,057백만원(국 · 도비600, 시비 1,457)

〈 사진 4-8-5 〉 화랑도 체험관

사. 동네 체육시설 현황

〈 표 4-8-3 〉 동네 체육시설 현황 (단위: ㎡)

시설위치	설치장소	조성면적	규 모
장사 647-20	카누경기장	300	체력단련시설 6종 7점, 부대편의시설 1종 2점
동명 512-637	이화예식장 옆	761	간이운동시설 1종 1면, 체력단련시설 5종 6점 부대편의시설 1종 2점
금호 600-6	영랑호 변	200	간이운동 시설 1종 1면 체력단련시설 7종 8점
중앙 506	공설운동장 내	500	체력다련시설 12종 13점, 부대편의시설 2종 2점
교동 904-8	개나리아파트옆	448.2	간이운동시설 1종 1면, 체력단련시설 4종 5점 부대편의시설 3종 5점
교동 798-26	거산빌라 옆	1,507	간이운동시설 1종 1점, 체력단련시설 10종 10점 부대편의시설 3종 11점
교동 800-34	럭키아파트 옆	1,512	간이운동시설 2종 1면, 체력단련시설 6종 6점 부대편의시설 4종 5점
조양 148-42,43	왕국회관 옆	268	체력단련시설 9종 9점, 부대편의시설 2종 3점
대포 산 29-1	구 동사무소 뒷편	8,231	체력단련시설 10종 18점, 부대편의시설 2종 4점
도문 245-1	학무정 옆	7,661	간이운동시설 4종 3점, 체력단련시설 16종 16점 부대편의시설 종 7점
조양 1544-2	엑스포 공원 내	555	체력단련시설 3종 3점
노학동 924-1	척산마을 내	760	간이운동시설 3종 1면, 체력단련시설 8종 9점 부대편의시설 7종 14점
속초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주변		체력단련시설 2종 4점
교동 782-11	속초해수욕장 게이트볼장 내		간이운동시설 1종 1면, 체력단련시설 2종 3점, 부대편의시설 1종 2점
청대산	청대산 등산로		
장사동 418-16	영랑호 장천 입구		

자료: 속초시청 문화공보과, 2005. 9. 1 현재.

3. 시청 실업(사이클 부)팀 창단 및 해체

시는 낙후된 지역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강원체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91년 1월 17일 시청 사이클부를 창단하여 초기에는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에서 단체종합우승을 거두는 등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나 최근에는 선수 스카우트의 어려움과 예산부족, 경기성적 부진 등 전반적인 침체속에서 지역정서와 연관한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코자 2003년말 해체를 아픔을 겪었다.

제3절 체육단체 현황

1. 속초시체육회

체육회의 발족은 수복 후 읍 당시인 1954년 축구 단일종목의 체육단체를 시발로 각 종목별 경기단체가 창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총괄하는 체육회 발족의 필요성 대두로 그해 가을 백유봉씨를 회장으로 하는 체육회가 태동하였으며, 63년 시 승격과 더불어 '속초시체육회'라는 명칭과 함께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교육장 등 당연직 부회장 및 상임부회장, 각 경기단체장을 이사로 구성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시 체육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표 4-8-4 〉 속초시체육회 임원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고 문	김 정 문	대명기업 대표	
고 문	김 여 수	경향공업사 대표	
회 장	동 문 성	속초시장	
부회장	김 복 천	속초부시장	
부회장	박 갑 수	속초시교육장	
부회장	주 낙 규		
부회장	조 동 룡	변호사	
이 사	박 흥 식	고바우식품 대표	
이 사	신 증 무	설악동물병원	
이 사	이 정 일		

자료: 속초시청 문화공보과, 2005. 9. 1 현재.

〈 표 4-8-5 〉 속초시체육회 경기단체 회장 및 전무이사 명단

종 목	회 장	전 무 이 사	비 고
육 상	김 재 기	김 형 성	
수 영	김 일 환	한 종 구	
축 구	장 석 훈	최 성 철	
야 구	장 근 호	-	
테 니 스	이 재 윤	이 성 주	
정 구	-	한 병 중	

종 목	회 장	전 무 이 사	비 고
농 구	황 성	임 영 남	
배 구	최 돈 일	양 승 원	
탁 구	조 승 남	백 명 철	
사 이 클	최 용 석	-	
복 싱	정 진 용	진 장 수	
레 슬 링	-	김 성 익	
씨 름	김 봉 만	이 용	
유 도	이 춘 복	심 종 률	
검 도	김 영 훈	김 윤 수	
궁 도	윤 해 균	최 동 수	
배드민턴	김 영 복	정 재 훈	
태 권 도	권 창 오	류 장 훈	
볼 링	김 성 근	김 명 준	
요 트	김 규 영	박 기 홍	
카 누	최 대 식	정 성 태	
골 프	최 평 규	김 동 순	
보디빌딩	김 진 기	조 광 열	
수상스키	김 철	김 기 현	
럭 비	채 상 국	오 재 용	
트라이애슬론	문 진 수	문 상 선	

자료: 속초시청 문화공보과, 2005. 9. 1 현재.

2.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체력증진으로 풍요로운 여가생활 보장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동호인 활동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91년 7월 초대 김완찬씨를 회장으로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해 현재 23명의 임원과 21개 종목 181개 클럽에 4,698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각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그 활동영역이 점차 넓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 표 4-8-6 〉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회 장	홍 우 길	속초시의회 의원	
부회장	이 건 화	제일화재 상담소장	
부회장	김 영 복		
부회장	김 성 근	속초시의회 의원	
감 사	조 명 수		
감 사	이 재 윤		
이 사	박 경 순		
이 사	이 우 영	굿타임 여행사	
이 사	고 학 재	속초시의회 의원	
이 사	최 준 호	제이아이엠	
이 사	김 영 륜		
이 사	김 흥 래	노학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 사	최 준 집	속초시의회 의원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이 사	이 계 흥	금호콘도 본부장	
이 사	김 진 국	속초시의회 의원	

자료: 속초시청 문화공보과, 2005. 9. 1 현재.

〈 표 4-8-7 〉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 경기단체 회장 및 전무이사 명단

종 목	연 합 회 장	사 무 장	비 고
축 구	장 석 훈	최 성 철	
게이트볼	최 운 집	신 인 식	
자 전 거	이 태 선	배 철 주	
탁 구	이 건 화	함 길 호	
테 니 스	이 재 윤	이 성 주	
배 구	최 돈 일	양 승 원	
볼 링	김 성 근	김 명 준	
보디빌딩	김 진 기	조 광 열	
궁 도	윤 해 균	최 동 수	
농 구	황 성	임 영 남	
검 도	김 영 훈	김 윤 수	
족 구	권 경 식	-	
배드민턴	홍 순 호	정 재 훈	
야 구	장 근 호	추 정 호	
당 구	임 종 화		
단학기공	서 병 각	전 영 식	
패러글라이딩	서 철 민	양 종 모	
합 기 도	손 용 욱	전 재 덕	
원드서핑	김 규 영	박 기 홍	
수상스키	김 철	김 혜 량	
태 권 도	강 희 용	류 장 훈	

자료: 속초시청 문화공보과, 2005. 9. 1 현재.

조진관(경동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감수위원 : 함영세(속초 · 양양교육청 교육과장)

上

第五編 산업경제

표 목차

5-1-1 속초시 농가호수 및 인구변화

5-1-2 농지전용 허가 · 협의 · 신고 현황

5-1-3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

5-2-1 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시내상가와 대형할인점 비교

5-2-2 기존 경쟁기업들간의 경쟁 정도 비교

5-2-3 대체제 압력에 따른 비교

5-2-4 공급자 교섭력에 따른 비교

5-2-5 구매자 교섭력에 따른 비교

5-2-6 응답자의 일반현황

5-2-7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이용시 교통편

5-2-8 방문소요시간

5-2-9 이용시 평균 구매액

5-2-10 월평균 이용회수

5-2-11 제품구입 순위

5-2-12 순위별 제품구입

5-2-13 이용시 만족도

5-2-14 성별에 따른 구입품목 순위

5-2-15 이용 속성별 만족도

5-2-16 이용이유

5-2-17 관광객 응답자의 일반현황

5-2-18 시내상가 이용시 불편사항

5-2-19 대형할인점 이용이유

5-2-20 지역주민 만족도 차이분석

5-2-21 관광객 만족도 차이분석

5-2-22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T-test분석 결과표

5-3-1 국내 홈쇼핑 시장의 변화

5-3-2 CATV와 위성TV 홈쇼핑 시장규모 예측

5-3-3 한국 케이블 TV영동방송 연혁

5-3-4 영동방송 서비스 세부현황

5-3-5 주거형태별 가입자 현황

5-3-6 채널 운영현황

5-3-7 영동방송 손익계산서

5-3-8 응답자의 일반사항

5-3-9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

5-3-10 제품 구매 동기

5-3-11 제품 만족도

5-3-12 재구매 의도

5-3-13 채널위치의 문제점

5-3-14 채널위치와 지역상권과의 관계

5-4-1 설악산 관광개발계획 주요경위

5-4-2 설악동 종합개발사업 협조사항

5-4-3 설악동 종합개발 사업별 재원별 총괄

5-4-4 신집단시설지구 건설사업

5-4-5 소공원 조성 사업

5-4-6 관련 지원 사업

5-4-7 설악동 종합개발이후 변화

5-5-1 년도별 금융신장세

5-5-2 새마을금고 운영현황

5-5-3 년도별 자산신장 현황

5-5-4 연도별 회원수 및 자산증가 현황

5-5-5 속초남부새마을금고 회원 및 자산현황

5-5-6 속초새마을금고 회원수 및 자산증가 현황

5-5-7 청호새마을금고 회원수 및 자산증가 현황

5-6-1 만천지구 택지공급계획 및 분양실적

5-6-2 속초시번영회 종합개발 촉진 건의 총괄표

그림 목차

5-1-1 속초시 농가수 변화추이

5-1-2 속초시 농가인구 변화추이

5-1-3 농지취득자 발급현황

5-1-4 속초시 식량작물 총생산현황

5-1-5 속초시 미곡 생산현황
5-1-6 속초시 맥류 생산현황
5-1-7 속초시 두류 생산현황
5-1-8 속초시 서류 생산현황
5-2-1 속초시 인구변화
5-2-2 속초시 세대수 변화
5-2-3 속초시 가구 구분별 차이분석
5-2-4 속초시 집단별 인구차이분석
5-2-5 속초시 자동차 등록대수
5-2-6 속초시 거주 주택 현황
5-2-7 수산물 어획고 현황
5-2-8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이용시 교통편
5-2-9 이용시 평균 구매액
5-2-10 월평균 이용회수
5-2-11 제품구입 순위
5-2-12 성별에 따른 구입 품목 순위
5-2-13 이용 속성별 만족도
5-2-14 이용이유
5-2-15 시내상가 이용시 불편사항
5-2-16 대형할인점 이용이유
5-3-1 TV홈쇼핑 시장규모
5-3-2 CATV대상가구수
5-3-3 CATV시장규모 예측
5-3-4 응답자의 성별
5-3-5 응답자의 연령
5-3-6 응답자의 교육정도
5-3-7 월평균 소득
5-3-8 응답자의 거주지역
5-3-9 응답자의 직업
5-3-10 TV홈쇼핑 시청여부
5-3-11 TV홍쇼핑 남녀간 차이
5-3-12 TV홈쇼핑 시청 시간대
5-3-13 TV홈쇼핑 시청 시간대 남녀차이 분석
5-3-14 TV홈쇼핑 시청 이유
5-3-15 남녀간 차이 분석
5-3-16 연령별 차이 분석
5-3-17 시청 홈쇼핑 채널
5-3-18 제품 구매 경험
5-3-19 구매경험 남녀차이 분석
5-3-20 1년간 제품구매 경험
5-3-21 1년간 제품구매 남녀차이 분석
5-3-22 제품구매 연령별 차이 분석
5-3-23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
5-3-24 제품 구매 동기
5-3-25 구입 제품 가격대
5-3-26 결제 방법
5-3-27 결제방법 남녀간 차이 분석
5-3-28 구입 제품 만족도
5-3-29 제품 구입 만족도 남녀차이 분석
5-3-30 재구매 의사
5-3-31 재구매 의사 남녀차이 분석
5-3-32 채널위치의 문제점
5-3-33 채널위치의 남녀간 차이
5-3-34 채널위치의 연령별 차이
5-3-35 TV홈쇼핑이 지역상권위축에 주는 영향
5-3-36 지역상권위축 영향의 남녀차이 분석
5-3-37 지역상권위축 영향의 연령별 차이 분석
5-4-1 설악동 종합개발 호텔수 변화
5-4-2 설악동 종합개발 여관수 변화
5-4-3 설악동 종합개발 상가수 변화
5-4-4 설악동 종합개발 식당 변화
5-4-5 설악동 종합개발 주택 변화
5-5-1 속초신용협동조합 변천
5-5-2 연도별 회원수 및 자산증가 현황

제5편 산업경제

제1장 속초시의 경제개관

생존경쟁의 역사는 약 5억3천만년전인 캄브리아기(Cambrian period)때 아노말로카리스(Anomalocaris)라는 학명을 가진 강력한 어류가 나타나 자기보다 약한 어류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먹느냐 먹히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경쟁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어류들은 정보습득의 강점을 가진 5개의 눈을 가진 오파비니아(Opabinia), 방어위주의 전략을 선택한 삼엽충(Trilobites), 방어와 동시에 공격도 할 수 있도록 몸을 가시로 둘러싸는 공수양면 전략을 써왔던 할루시제니아(Hallucigenia),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써왔던 척색근(Notochord)과 같은 4가지 유형이였다.[1] 4가지 유형중 가장 생존율이 높았던 종은 적이 오면 피하고, 먹이는 생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척색근이였다. 이렇듯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이를 활용한 생존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 윤석철, 『경영학의 진리체계』, 2001, p.9-10

이러한 변화를 어류이든 인간이든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유일한 생존전략은 변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 속초산업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 잠들지 않는 속초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장이 되고자 한다.

농업은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시작한 원시산업으로 여러 산업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예로부터 농업은 인류의 발달과 직·간접으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속초산업 역사 중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농업 부문이다. 속초에서 농업이 시작된 것은 청동기시대부터이며, 속초시 조양동 선사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민무늬토기를 비롯한 토기류와 반달돌칼, 돌도끼, 숫돌조각 등이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서는 농업이 현저히 발달하여 고구려에서는 1세기 초에 원예 및 식량작물이 재배되었고 짐승으로 쟁기를 끄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여러 곳의 제방과 보를 수축 및 개축하여 관개농업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세제 혜택을 주어 토지개간사업을 실시하는 등 토지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공전제를 원칙으로 토지경제의 합리화를 위한 권농정책을 펴서 농사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집권 봉권주의 시대를 이루었다. 토마토, 담배, 고구마, 감자 등도 도입 재배하게 되었고, 농작물의 품종분화도 점차로 이루어졌으며 토양개량이나 시비법 등 농업기술과 맥류와 두류의 돌려짓기, 벼와 보리의 1년 2작 등도 보편화되었다.

일제 강점기 도천면의 1925년도『면세일반』을 보면 도천면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011호 총 6,222명이었다. 이 중 640호 인구 3,941명이 종업에 종사하였다. 이는 호수로 63.3%, 경제활동 인구의 67.2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포구를 끼고 있는 도천면에 70%정도의 농업인구가 있었다면 속초 사람들은 농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속초지역 농민들은 자작농 25%, 자작겸 소작농 54%, 순소작농 22%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더 많았다.

2) 속초시,『속초시 통계연보』, 2005

8 · 15광복 이후에는 농업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농업정책, 즉 1949년 토지개혁법에 의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고 농촌 및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농촌진흥법, 축산협동조합법 등이 차례로 수립 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실시하여 농촌 도로 정비, 농촌 가옥 개량, 쌀 수확량 증대 등의 노력으로 서서히 자급자족, 식량난 해결의 시대로 들어섰다.

1962년 11월 21일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1176호가 공포됨에 따라 이듬해인 1963년 1월 1일 속초시로 승격되었다. 당시의 행정구역은 관할면적 66㎢로서 16개 법정리에 22개 부락과 312개의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는 10,864가구에 55,619명이었으며, 2004년 12월 현재 34,012가구에 88,386명에 이르는 규모에 이르고 있다[2].

현재 속초시 산업경제인구는 기존 속초시에 거주하던 주민과 6 · 25전쟁이후 월남민, 경제적 이유로 이주한 이주민들로 구분될 수 있다.

속초시 산업경제는 1960년 이후 경공업 중심의 산업체계 변화와 더불어 속초시의 농어촌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시작으로 모두가 잘살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면서 급격한 변모를 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공업중심의 산업에 치중한 나머지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경시현상이 심화되고 수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속초시 산업경제 주기를 살펴보면 속초시의 태동을 도입기로 살펴볼 수 있다. 1962년 11월 21일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1176호가 공포됨에 따라 이듬해인 196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어 새롭게 태어났으며, 기존의 양양군 속초리에서 거주하던 주민과 6 · 25전쟁으로 이주한 월남민,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이유로 이주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를 속초시 수명주기의 도입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시기는 낮은 속초시 인지도 때문에 어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시기의 생계유지를 하는 정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속초시 수명주기에서의 성장기로서 속초시의 성장은 1975년 10월 영동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1976년 10월 2일 설악동종합개발사업이 조달청 일괄발주로 진흥기업주식회사와 계약 체결되어 기존의 어업과 농업도시로 알려졌던 속초시를 관광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속초시의 성숙기는 1980년 6월 15일 한국콘도미니엄이 삼도종합건설에 의해 시공하여, 1982년 4월 10일 개관했으며, 1981년 국립공원 설악산을 끼고 동양 최대의 종합 관광휴양지를 명성그룹에 의해 속초시 장사동 52만평의 부지에 7월에 본관 768실을 개장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함으로써 관광도시건설과 지역경기 부양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속초시는 설악동종합개발사업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의 성장으로 속초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독점적 우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시작된 해외여행자유화를 통해 해외관광환경이 조성되면서 상당수 국민관광객이 국내관광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되게 되었다. 또한 설악동의 경우는 획일적인 공간 구조 및 시설 노후화로 관광 이미지 및 매력성이 퇴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강원도 대표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핵심역량이 미약한 실정이다. 설악권은 국내 대표 국립공원 관광지로서 효율적 활용모델을 제시가 필요하나 현행 국립공원 이용관리체계의 한계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불가한 실정이다.

1976년은 설악산 국립공원개발의 본격착수와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통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흥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기 시작한 밝은 한해였으며, 그 해 10월 29일 해난사고는 사상 유래없는 재난을 가져와 속초시민전체를 비극적인 분위기로 몰아넣은 계기가 되었다.

한국콘도미니엄이 설악동 60-5번지 1,398평 부지, 지하 1, 지상 3층, 연 446평 규모로 착공하여 휴양콘도미니엄 건립의 효시가 되었고, 81년은 한계령 도로의 포장 개통과 명성종합레저타운의 건설착수 등 설악산과 연계된 관광개발의 대단위 시설투자가 이루어 현재에 이르렀다.

속초시는 강원도 관광경쟁력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과 환동해안시대의 관광중심도시, 아파트의 증가, 경제기반 확충 등으로 1963년 시승격 당시보다 장족의 발전을 보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1999년 9월 국제관광

EXPO를 청초호유원지에서 개최, 해상 및 육로를 금강산 관광, 중국의 훈춘 등 국외무역 북방항로 항로 개설 등을 위한 조직개편, 한시기구 등으로 현안사항을 추진하여 국제무역·관광 도시로서 위상과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악동의 침체와 장기발전의 대책 부진과 타도시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인한 차별적인 관광자원 특성의 부재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설악산지역의 급격한 쇠퇴는 속초시의 현안사항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악·금강산 연계개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전담조직 및 인원 구성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속초시는 농업으로 10년, 수산업으로 10년, 관광산업으로 20년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속초시의 산업경제는 무엇으로 30년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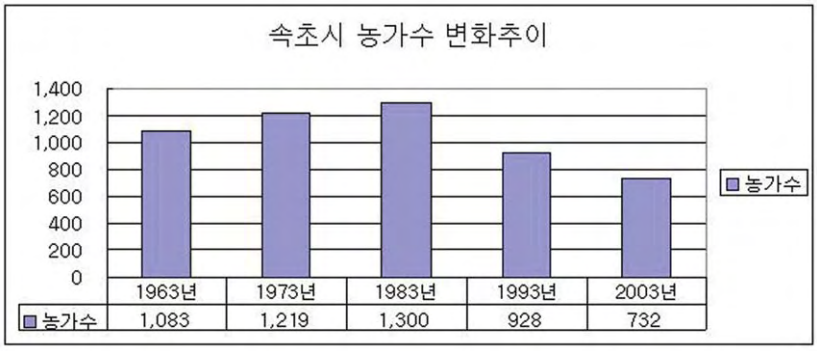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으로 그동안의 속초시 산업경제 40년을 고찰하고 향후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상에도 공업화,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3차산업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서비스화와 함께 3차산업의 발전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속초시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속초시는 자연자원과 소프트웨어가 함께 어울어진 속초시 가치를 향상시켜 이를 통한 핵심역량을 가진 시로 준비해야 한다.

제1절 속초시 도약기의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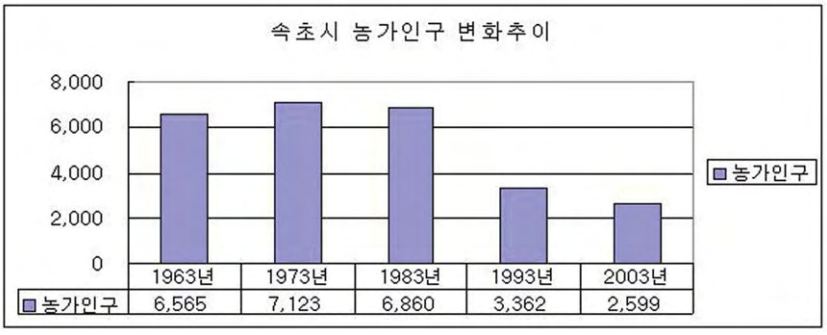
해방 후 1949년까지 만해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2를 차지했다.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했지만, 해방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 농업 생산량이 따라주지 못해 식량 부족은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속초시 농가수의 <그림 5-1-1>과 같이 변화추이를 살펴보면1963년 1,083호, 1973년 1,219호, 1983년 1,300호 1993년 928호, 2003년 732호로 년 평균 5%정도 감소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공업화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관광사업,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전업한 결과로 분석된다.



〈 그림 5-1-1 〉 속초시 농가수 변화추이

농가인구의 변화추이를 <그림 5-1-2>에서 살펴보면 1963년 6,565명, 1973년 7,123명, 1983년 6,860명, 1993년 3,362명, 2003년 2,599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1960년대 초 공업화 우선정책 이후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며, 도시화의 진행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그림 5-1-2 〉 속초시 농가인구 변화추이

〈 표5-1-1 〉 속초시 농가호수 및 인구의 변화

구분 / 연도별	농업	
	농가수	농가인구
1962	1,162	5,404
1963	1,083	6,565
1964	1,110	6,569
1965	1,121	6,572
1966	1,118	6,539
1967	1,125	6,329
1968	1,087	6,330
1969	1,054	6,109
1970	1,080	6,258
1971	1,104	6,475
1972	1,086	6,388
1973	1,219	7,123
1974	1,217	7,321

구분 / 연도별	농업	
	농가수	농가인구
1975	1,340	7,638
1976	1,368	7,729
1977	1,273	7,129
1978	1,434	7,959
1979	1,159	6,375
1980	1,351	7,363
1981	1,351	7,295
1982	1,040	5,590
1983	1,300	6,860
1984	1,180	6,220
1985	1,129	4,511
1986	…	…
1987	…	…
1988	…	…
1989	…	…
1990	995	4,318
1991	993	4,308
1992	849	3,445
1993	828	3,362
1994	775	2,996
1995	768	3,031
1996	766	2,987
1997	770	2,996
1998	765	2,943
1999	770	2,957
2000	744	2,622
2001	744	2,621
2002	744	2,615
2003	732	2,599
2004	738	2,550

자료 : 속초시정 40년사와 속초시 통계연보 참고

1963년 속초시의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1,077,150원을 투자, 단위생산고의 증대를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잡곡에 있어서는 맥류, 감자 종자를 갱신하는 노력을 하여 고구마, 조,옥수수 등 우량종자를 보급함으로서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노력을 보여왔다. 이때부터 퇴비생산과 특용장물 및 동계농가부업을 장려하였다.

임업부문에 있어서도 148,330원의 예산과 연인원 275,975명의 노동력 동원으로 100정보의 사방사업을 실시하였고, 조림사업으로는 황폐한 임야에 오리나무, 해송, 밤나무 식재 43정보 특수림 61정보, 그리고 개량 포프라 4정보, 자력조림 20정보, 도급조정 214정보의 산림지원을 조성하였다.

축산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전환을 위한 싸이로 30개소의 설치와 양잠을 적극 권장하여 천수답 24정보를 상전화하고, 일반상전 198.7정보 도급 222.7정보의 상전을 조성하였다.

1964년 속초시의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미곡 8,524석을 수확, 년초계획대비 109%를 증산하였고, 잡곡은 3,356석을 수확하여 년초 계획대비 113%를 증산하였다. 퇴비증산운동을 전개하여 계획 7,879톤보다 107%인 3,096톤을 생산하였고 잠업을 적극 장려하여 82,000주의 뽕나무를 식재하였으며 누에고치는 4,412kg을 생산하였다.

황무지의 단기복구계획으로는 춘계에 종자파종 1,267kg, 202정보, 묘목식재 1,222,800본, 238정보에 18,728명을 동원하였고, 추계에는 PL양곡 136,018kg을 투자 연인원 37,782명을 동원 기초공사 147정보를 실시하였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는 28정보에 경제림을 조성하였고 60정보에 339,500본의 연료림 묘목을 식재하였다.

축산진흥을 위하여는 가축품질개량에 중점을 두고 중돈거세 426두, 한우인공수정 48두를 실시하였고 자급사료는 1,451톤을 증산하였다.

1965년 속초시의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식량증산 7개년계획의 1차년도가 되는 해로서 종자갱신, 심경다비, 객토, 적기정밀작업, 병충해방제, 시비개선, 수도조기조식재배에 농정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농민의 의식이 이에 따르지 못해 많은 애로를 겪기도 하였다. 65년도 식량생산량은 미곡 1,097톤, 잡곡 2,874톤이었고, 퇴비증산은 5,970톤 계획에 6,435톤의 실적이 있었으며 뽕나무는 79,620주를 식재하였고 잠업농가수입은 1,310,839원이었다.

조림사업으로는 화전정리지구에 낙엽송을 5정보 1,500분을 식재하였고, 식수사방 897ha에 20,492명을 동원 1,155,000본을 식재하였으며 화전민 이주대책사업으로 이주주택은 5동중 3동을 완공하였고 대토는 8.3ha중 3.3ha를 하였다.

1966년은 속초시 80년래 처음 겪는 냉습해로 수도작에 72%의 감수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계속된 장마로 오징어 값이 한때 폭락되어 1급에 10원까지 하락하는 등 농수산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관민의 인내와 협조로 난관을 극복한 한해였다.

1967년 속초시의 농촌진흥사업은 지붕개량 60동, 수도작개량 전시포 설치 26개소, 전작개량 전시포 16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경제작물 장려시책으로 노학동에 양송이 재배를 위한 전시포 2개소, 일반포 2,270평을 목표로 307,200원을 투자하였고, 중도문에 딸기재배 전시포 3개소를 설치 운영

하였으며, 노학동에 과수단지 양성을 위한 시범포 10정보, 일반포 90정보를 만들었다.

축산진흥을 위하여 풍부한 초자원을 이용한 초식가축 장려시책으로 앙고라 종토 100수를 20만원으로 구입, 영랑동과 금호동에 각각 50수씩 대여하였다. 앙고라 양축은 농촌의 고소득사업으로 한때 각광을 받아 입식이 크게 늘었으나 판로의 확보를 하지 못하고 급격히 사양길에 접어들어 69~70년을 고비로 71년이후에는 입식농가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앙고라=망고라라는 유행어를 낳는 뼈아픈 교훈을 겪기도 하였다.

조림사업으로는 연료림조성 200ha, 방풍림조성 14ha에 아카시아 15만본 리키다 423천보, 산오리나무 283천본을 식재하였고, 식수사방사업엔 5,836명이 취로 1인당 36kg의 양곡을 지급하였고, 개간, 치수, 토지개량 사방사업장에 13,626명의 영세민이 취로하였다.

1969년 속초시의 농수·축산부문에서는 방풍점 15,000본 식재와 사방사업을 통하여 영세민 4,527명을 구호 하였고 67년도에 초식가축장려시책으로 추진한 앙고라 양축은 69년도에 크게 성행하여 578천원의 예산으로 4,500마리 증식과, 면사 15동, 면모 900kg 생산을 계획하여 67년 7월 20일 기준 관내 앙고라의 수는 총 5,678마리로서 농촌 특화사업으로 기대되었으나 면모의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또한 면모판로확보에 대한 행정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양축농가가 도산하는 등 정부시책에 대한 믿음에 큰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이러한 정부시책의 불신이 그 후에 추진한 통일벼품종 보급시 많은 애로를 겪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역경제에서 특기할 만한 일은 2월의 예년에 없던 폭설이후 닥친 극심한 흉어로 불경기가 계속되어 절량·절식가구가 다수 발생하였고, 물가 역시 국내시장경제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였는데 특히 고무신종류와 콩·세탁비누가 30%에서 40%까지 올랐다. 고무신은 100원에서 140원까지 올랐는데 국제시장가의 상승에 기인되었고 콩은 반입부족에 원인이 있었으며 세탁비누 역시 국제시장가격 상승에 원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도시영세민 3,833명, 영세농어민 1,500명, 생활보호자 384명, 수용자 222명과 극빈파월가족 269명 등 6,208명을 구호대상자로 확정 생계구호를 실시하였다.

1970년 속초시의 농업진흥을 위하여는 수리불안전답의 밭 전환을 장려하여 밭 전환 후 옥수수 재배시에는 전환농가보상제를 실시하여 반당 평년수확기준에 미달될 경우 쌀 1kg에 13원91전씩 보상하였는바, 노학동 2ha, 조양동 2ha, 도문동 2ha, 대포동 1ha의 실적을 거두었고, 농번기에는 도문, 노

학동 등 농촌동 10개소에 탁아소를 운영함으로써 농촌 일손을 덜어주는 데 힘썼으며, 30개 유축농가 3개 농촌동 산업담당직원이 참여한 엔시레이지 충진시범 연시회 개최, 수공예품 전시회개최 등 농가소득증대에 힘썼다.

1971년 속초시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는 노학, 조양 교동일대 노소야평야 106ha의 경지정리사업을 70년말 착공, 이 해에 준공을 보았는 바 국비 1천만원, 지방비 6백만원, 주민부담 4백만원 합계 2천만원을 투자한 이 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모내기전 완공목표로 추진한 동 사업이 부진하자 5월 29일 현지에 이동시청을 설치하고 사업을 독려할 정도였다.

특히 60년대말 농가부업으로 적극 장려한 앙고라 양토사업은 70년 6월 30일 987마리를 고비로 71년 6월 30일 328마리, 71년말 70마리로 급격히 감소되어 실패한 농정시책이 되었다.

1949년 경자유전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60년대 산업발전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타 용도로 전용되기 시작하여, 이에 '73년 농지전용은 규제와 보존을 도모하여 이용도를 높여 생산성을 증진키 위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였다. 그 후, 개방화, 국제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WTO출범에 대처한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지제도 전반을 새롭게 정비한 농지법을 제정 '96.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년도별 농지법제36조 및 동법37조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 협의 ·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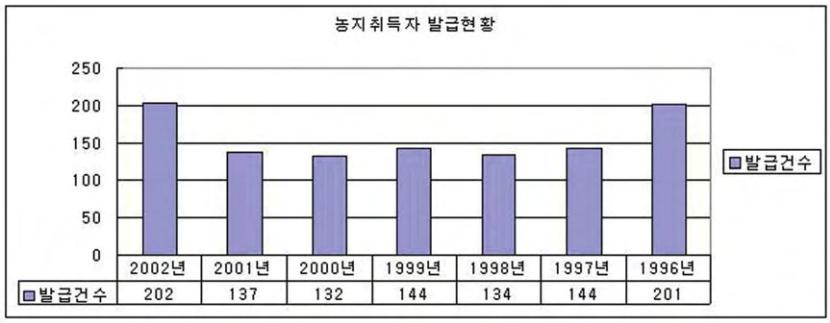
〈 표 5-1-2 〉 농지전용 허가 · 협의 · 신고 현황 (단위 : ㎡)

년도별	건 수	계	전	답	비 고
합 계	456	522,975	275,877	247,098	
2004	42	67,695	37,877	29,818	
2003	47	40,605	33,680	6,925	
2002	46	36,353	13,111	23,242	
2001	45	47,020	12,437	34,583	
2000	27	29,622	13,642	15,980	
1999	39	30,844	15,802	15,042	
1998	26	35,942	19,201	16,741	
1997	51	48,927	26786	22,141	
1996	57	65,825	42,678	23,147	
1995	41	45757	18,991	26,766	
1994	35	74,385	41,672	32,713	

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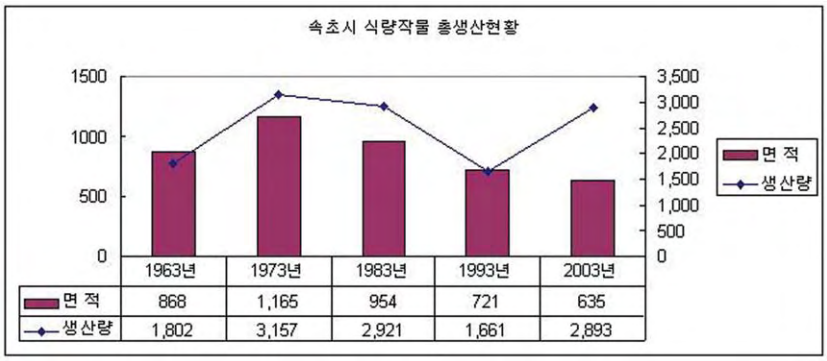
〈 표 5-1-3 〉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

년도별	발급건수	면 적(㎡)			비 고
		계	전	답	
합 계	1,809	3,030,398	1,332,964	1,697,434	
2004	409	636,240	268,380	367,860	
2003	306	474,122	184,917	289,205	
2002	202	382,658	160,636	222,022	
2001	137	234,885	133,464	101,421	
2000	132	150,608	47,557	103,051	
1999	144	183,765	76,392	107,373	
1998	134	272,144	108,939	163,205	
1997	144	270,566	189,429	81,137	
1996	201	425,410	163,250	262,160	



〈 그림 5-1-3 〉 농지취득자 발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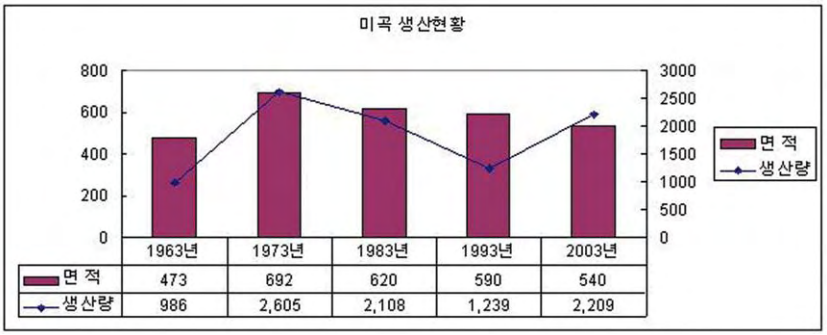
속초시 경지면적 현황을 보면 1962년도 논 775ha, 밭 286ha, 1972년도 논 672ha, 밭 478ha, 1982년도 논 696ha, 밭 464ha, 1992년도 논 472ha, 밭 282ha로서 62년도 대비 논이 303ha 감소하였으며 밭은 31ha 증가하였다.



〈 그림 5-1-4 〉 속초시 식량작물 총생산현황

식량생산을 주요 곡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미곡생산은 1963년 986톤, 1973년도 2,605톤, 1983년도 2,108톤, 1993년도 1,239톤, 2003년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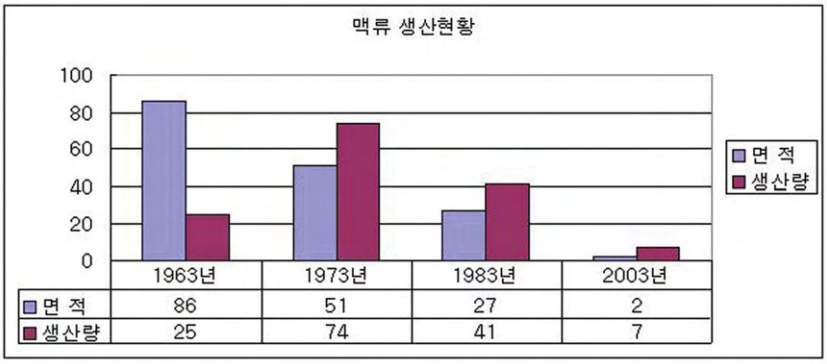
2,209톤이었다.



〈 그림 5-1-5 〉 속초시 미곡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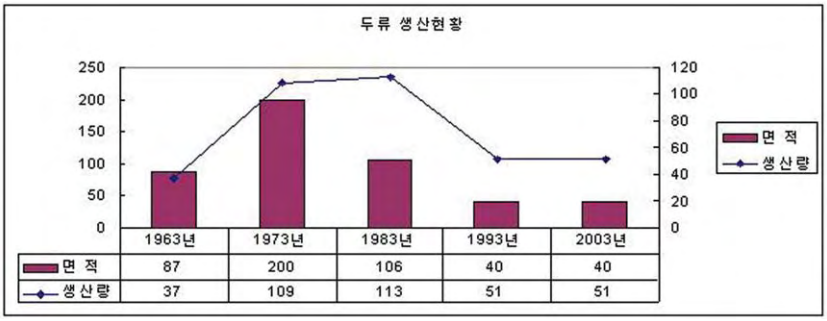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는 농업기술의 발전과 우량종자의 보급 등 영농여건의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맥류 생산현황을 보면 63년도 25톤, 73년도 74톤, 83년도 41톤을 생산하였으나 후반부터 맥류 재배면적이 없었으나 2003년 7톤을 생산하였다. 2000년 2ha, 2002년 3.7ha로 재배면적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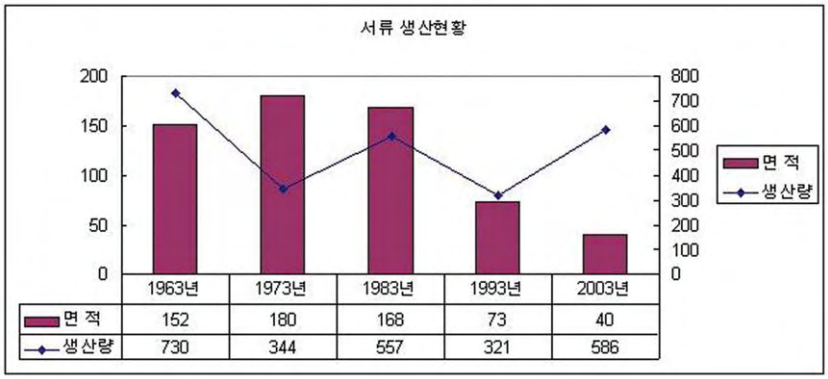
〈 그림 5-1-6 〉 속초시 맥류 생산현황

두류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63년도 37톤, 73년도 109톤, 83년도 113톤, 93년도 51톤, 2003년도 51톤이었다.



〈 그림 5-1-7 〉 속초시 두류 생산현황

서류 생산량을 보면 72년도 283톤, 82년도 410톤, 92년도 500톤, 2002년도 522톤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1963년	1973년	1983년	1993년	2003년
면 적	152	180	168	73	40
생산량	730	344	557	321	586

〈 그림 5-1-8 〉 속초시 서류 생산현황

채소 · 과수는 60년대까지만 하여도 농가에서 소규모로 자급이나 반자급 형태로 재배하여, 경작규모는 매우 미미한 편이었다. 90년대에 들어와 국가경제발전과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한 수요 폭증에 기인하여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 향상 등 원예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1. 1960년대

채소재배 지도가 본격 시작된 시기로서 토마토, 가지, 오이 등 과채류를 중점 지도하였고 냉상, 양열온상, 상토조제, 육묘기술, 병해충방제 기술을 보급하고 이 시기의 주요재배 품종으로 무는 청수궁중, 미농조생, 배추는 경도3호, 서울배추 원예 1 · 2호 품종을 위주로 재배하였다.

시설채소는 65년도부터 도문동 하도문에서 고추, 가지를 자가채종하여 육묘정식하기 시작했으며 독농가 중심으로 작목이 선택되고 비닐하우스 재배가 시작되었는데 하우스 골재는 주로 죽재를 이용하였다.

2. 1970년대

채소재배 기술의 표준화에 착수하여 우량품종보급, 작부체계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오이류에 대한 접목재배를 지도하여 만할병방제에 힘썼으며, 75~76년에는 감자, 고추, 마늘을 중점지도작목으로 설정하고 답이작 비닐멀칭 감자재배와 고추비닐멀칭 재배를 비롯한 육묘이식재배 등 새 기술을 중점 보급한 시기였다.

시설채소는 하우스 내 양열온상이 집중 보급되었으며, 오이(성호원) 토마

토(복수) 호박(쥬키니)이 재배되었으며, 70년대말부터 지역의 시설형태가 유사하게 발전하였으며, 무 배추의 하우스 도입재배와 시설재배 기술경쟁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단순한 보온형태로 발전하였다. 70년대 전반기가 녹색혁명을 이루었다면 70년대 후반을 지도사의 노력으로 4계절 신선채소를 공급하는 계기가 되어 백색혁명을 이룬 시기라 하겠다.

3. 1980년대

80년대부터 주생산 채소는 고추, 마늘, 양파, 감자, 무, 배추로 정하고 비닐을 이용한 멀칭재배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고추비닐멀칭 육묘 이식은 89년에 90%에 달하였으며 투명비닐에서 평지는 흑색비닐 50%이상 사용하여 잡초방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재배기술도 중요하지만 저장, 가공 단경기 출하를 목적으로 건조 저장사업에 대한 기술지도가 이루어졌고 시설채소는 80년대 표준하우스 재배기술의 등장 등 농가에서는 반영구 시설자재에 대한 기호가 높아진 시기이며, 단동하우스의 대형화와 재배기술의 전문화, 공동육묘, 엽채, 과채류의 전문재배농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양열온상육묘에서 전열온상육묘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연탄난로에서 시작하여 열풍기가 도입된 시기였다.

4. 1990년대

90년을 맞으면서 UR협상타결 전망 및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농업 추진과 신선 과채류의 생산을 위해 급속한 시설확대가 이루어져 시설내에 메론, 토마토, 오이, 딸기 재배가 이루어짐으로써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통한 정서함양을 위해 유실수 재배와 자생수종분재 소재생산 등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가는 농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노학동 이석권 농민후계자는 하우스에 딸기를 재배하여 92년 12월부터 출하함으로써 3,500천원의 소득을 올렸고 과학영농의 첨단을 달려가고 있다.

5. 2000년대

1990년대부터 늘기 시작한 시설하우스 면적이 2000년도에 들어 5ha로 확대되면서 시설원예 재배기술이 크게 향상되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 장점을 살려 신선 채소류의 연중 생산공급 체계 확립으로 고소득 작목으로 성장하였다.

연도별 주요시범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가. 1991~1995년

주요 사업명	규 모	사업비(천원)	성 과
관광농업시범마을 육성	1마을 24농가	2,000	• 총 소 득 : 65,645천원 • 호당소득 : 2,735천원(농업소득의 27%)
과채류 비가림 시설재배	0.3ha	14,000	• 소득 : 6,372천원/10a
유실수분 재배 시범	1,000주	2,000	• 관광 소득 작목으로 개발
현대화 하우스 보급	0.3ha	24,325	• 내풍내설형하우스 보급 안전 영농 생산
저온저장고 설치	1동 10평	14,700	• 농산물저온저장 단경기 출하
양역재배 시범	2동 300평	20,000	•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
수막하우스 설치	5동 500평	21,000	• 수부를 이용한 에너지절감 및 연중 생산 체계확립

나.1996~2000년

주요사업명	규 모	사업비(천원)	성 과
임해관광시설채소단지조성	0.4ha	69,472	• 지역특성을 살린 신선채소 연중 생산 공급
내풍내설형비가림하우스 보급	0.4ha	28,495	• 시설원예면적확대 안전농산물생산기반조성
수막하우스 확대보급	0.1ha	14,208	• 신선채소 생산 시설 확대 보급
환경친화형그린음악 설치시범	0.1ha	6,000	•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1동 15평	15,000	• 과일 저온저장 단경기 출하
고추건조기 보급	3대	3,900	• 적기건조로 우량 건고추생산 및 노동력절감
다목적 비닐하우스 보급	38동	13,506	• 다목적 소형 하우스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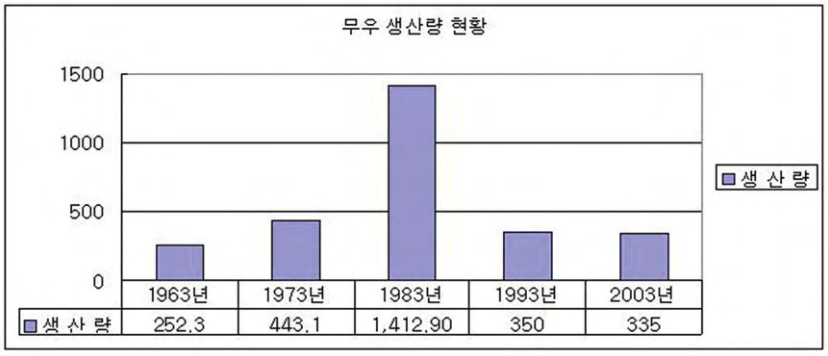
다. 2001~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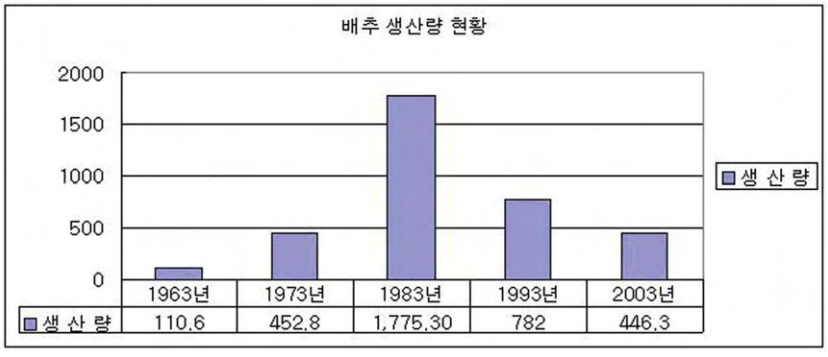
주요사업명	규 모	사업비(천원)	성 과
한해대책 소형관정개발	3개소	6,500	• 한해대비 간접영농 기반조성
밭작물 집단급수 시설설치	1개소	10,000	• 노지채소 안전영농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
고추건조기 확대보급	6대	7,800	• 고추건조기 확대 보급으로 노동력절감 및 우량 건고추 생산
동계 무가온무재배시범	1동300평	1,500	• 동계 유휴시설이용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
과원토양수분감응자동관수시설	2개소2ha	7,000	• 관수 노동력절감 및 고품질과일 생산
채소기계화촉진 생력재배시범	1개소6대	20,000	• 채소재배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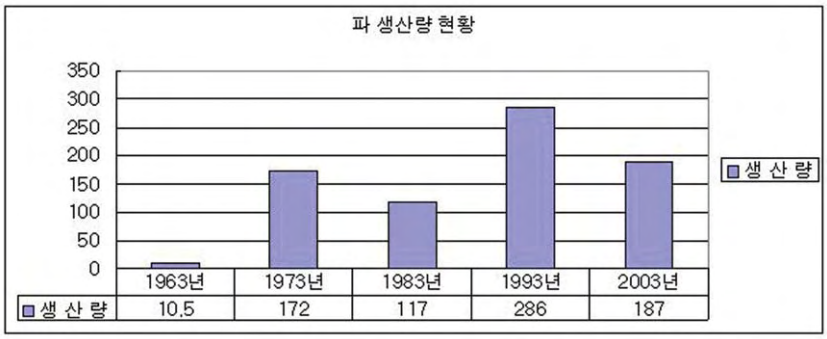
라. 연도별 채소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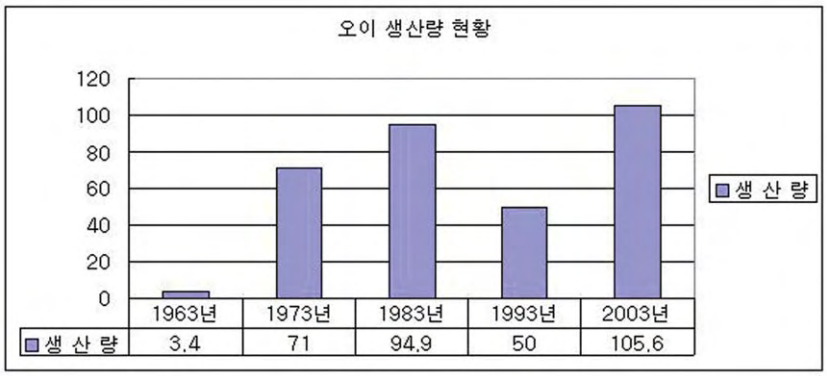
작 목	구 분	1963	1973	1983	1993	2002	2004
무	면 적	20.0	45.0	33.2	8	10	10.3
	단 수	1,262	984	4,256	4,375	3,360	8,032
	생산량	252.3	443.1	1,412.9	350	336	827.3
배추	면 적	6.4	50.0	45.8	14	12.5	13
	단 수	1,728	905	4,876	5,586	3,570	5,286
	생산량	110.6	452.8	1,775.3	782	446.3	687.2
파	면 적	1.75	15	4.7	13	8.5	8.4
	단 수	982	1,143	2,489	2,200	2,152	2,204
	생산량	10.5	172	117	286	182.9	185.1

작 목	구 분	1963	1973	1983	1993	2002	2004
오이	면 적 단 수 생산량	0.5 675 3.4	7.0 1,011 71.0	4.8 1,977 94.9	2 2,510 50	3 3,500 105	2.8 3,821 107
호박	면 적 단 수 생산량		5.0 1,120 56.0	1.7 1,564 26.6	7 1,760 123	4 3,060 122.4	3.8 3,130 118.9
고추	면 적 단 수 생산량		10.0 129 13.0	44.3 121 53.5	30 176 53	20 182 36.4	21 184 38.6
마늘	면 적 단 수 생산량		3.0 50.0 15	5.9 539 31.8	2.4 525 13	1.3 650 8.5	1 914 9.1
상추	면 적 단 수 생산량			1.1 1,800 19.8	1 1,980 19.8	5 2,270 113.5	
참외	면 적 단 수 생산량			1.4 1,193 16.7	1 1,550 16	– – –	– – –
수박	면 적 단 수 생산량			1.5 1,866 28	2 1,950 39	– – –	– – –
시금치	면 적 단 수 생산량			15 1,074 161.1	4 1,300 52	1 1,320 13.2	1 1,420 14.2









다음으로 과수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살구, 밤, 대추, 잣나무 등을 농사개량구락부, 4-H구락부를 통해 비배관리, 병해충방제, 정지전정법 등을 지도하기 시작, 1968년부터 실시된 농민소득증대사업에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을 지정하여 중점육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과수원의 개원, 정지전정 기술보급과 과수나무의 영양진단 및 기상재해대책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1970년대부터는 조기결실과 양질단위 수량제고를 위해 왜성사과를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고 73년에는 유휴야산의 개발 촉진을 위해 산지과원조성을 권장하기도 했다.

1980년대 국민소득향상에 따라 고급과실의 생산이 본격 시작된 시기였으므로 품질이 낮은 국광, 홍옥 등의 가격이 떨어져 품종갱신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87년부터는 맛과 색깔이 뛰어난 고급과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2중 특수 봉지 재배를 통한 우량상품생산을 위해 착색봉지 씌우기 기술이 도입되어 착색증진과 병해예방의 효과를 거양하고 수입개방화 시대에 들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만들게 되었다.

1990년대 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한 착색봉지씌우기, 점적과수시설과 과원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지적품종 식재

를 위한 묘목구입알선과 단위면적당 수량증대와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 93년도에 배나무 Y자수형을 노학동 척산에 1ha, 과수점적관수 시범포를 노학동 응골에 0.3ha 조성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하고 현장판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를 높이며 가뭄의 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0년대 새로운 품종도입으로 관광철 과일 출하로 농가소득을 높였으며, 저온저장고 설치로 홍수출하방지 및 단경기 출하로 부가가치는 높였다. 앞으로 과일시장 개방에 대비해 신품종 적극 도입 및 고품질 과일생산으로 수입개방에 대비 해야한다.

〈 연도별과수생산량 〉

작 목	구 분	1963	1973	1983	1993	2003
사과	면 적	7.8	15.0	4.3	3.6	2.5
	단 수	3,150	664	605	1,444	1,929
	생산량	245.7	99.6	26	52.0	46.3
배	면 적	9.8	26.0	14.5	13	4.2
	단 수	2,855	672	425	1,550	1,605
	생산량	279.8	107.6	61.7	202	67.4
복숭아	면 적	7.1	32.0	20.4	20	18.7
	단 수	3,077	754	554	995	1,298
	생산량	218.4	24.4	113	199	242.7
포도	면 적	–	2.0	0.7	2.2	–
	단 수	–	740	425	940	–
	생산량	–	14.8	3.0	21	–

제2절 향토지적재산 육성 시책사업 추진

21세기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국제농업환경에 대처하고 넓게는 선진농업국과 좁게는 지방자치 단체간, 농가간의 무한경쟁을 해야하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유·무형 재화로써 잠재적 가치가 큰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품개발로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2년도에 향토지적재산 육성시책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투자하여 장천골옛날장 명품화 사업과 현미재배 상황버섯 상품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장천골옛날장과 척산상황버섯은 각각 2000년 12월, 2001년 12월에 특허

청에 속초시 향토지적재산으로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앞으로 10년간 총매출액의 5%를 향토지적재산권 사용료로 속초시세입 조치한다.

1. 장천골 옛날장 명품화사업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장 담그기를 꺼려하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영양있는 장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장천골옛날장은 우리농산물을 100% 재료로 한 쾌적한 환경에서 전통재래식 방법으로 솜씨있는 농촌주부가 담근 장이다.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 우리의 전통기술 보유, 향토지적재산의 가치 증대는 물론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야 될 것이다.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사업장소 : 속초시 장사동 76-1번지
- 사업규모 : 2개동 60평(정류생산시설 40평, 장독대20)
- 사업내용 : 장류생산시설설치 및 기능성장류개발
- 사 업 비 : 금일억오천만원 (보조:1억원, 자부담:오천만원)
- 생산제품 : 고추장,간장,된장,막장 및 상황버섯을 이용한 기능성장류.
- 년간매출액 : 20,000천원/년간

2. 현미재배 상황버섯 명품화사업

암 발생시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고혈압에 대한 혈압강화 작용이 탁월하며, 암 수술후 재발방지에 효과가 좋은 상황버섯의 대량생산을 유도하여 농산물의 사회 시너지효과 및 농가소득에 기폭제가 될 것이며, 관광속초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개발하여 1차 상품의 판매를 지양하고 시장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천연 항암성분의 추출 및 2차 가공식품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케 되었으며, 지속적인 상품개발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정지도와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사업장소 : 속초시 대포동 하도문 1536번지
- 사업규모 : 1개동 70평(가공공장 및 건조실, 보관실)
- 사업내용 : 상황버섯 가공시설 설치 및 신제품 개발
- 사 업 비 : 금일억오천만원 (보조:1억원, 자부담:오천만원)
- 생산제품 : 상황차, 상황버섯 진탕액, 상황버섯 자실체, 노루궁뎅이 버섯.
- 년간매출액 : 200,000천원/년간

제3절 속초시 성장기의 산업경제

1976년은 설악산 국립공원개발의 본격착수와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통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흥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기 시작한 밝은 한해였으며, 속초시의 정책 또한 농업정책에서 관광정책으로 전환되는 해이기도 하였다.

설악동 B지구에 위치한 한국콘도미니엄이 26평의 객실 49개를 완공하여 전국에서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황인성 국회교체위원장, 김윤환 등 국회의원과, 하대교 국제 관광공사 사장 등 각계인사가 참석했다.

1. 1982~1985년

1982년 4월 10일 한국콘도미니엄(사장=장영기)이 80년 6월 15일 30억원을 들여 삼도종합건설(김재덕)에의해 시공했는데, 이 콘도는 1,394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의 연건평 1,245평의 천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25.94평형 객실 49개와 식당, 매점, 주차장 등을 갖추고 개관했다.

1982년 즉 이 해의 지방세입목표는 10억2천316만원이었으나 명성콘도, 영랑호레저타운 건설 등에 힘입어 15억9천25만3천원의 지방세 수입이 있었다.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명성콘도, 동방원양의 영랑호레저타운 건설 등 지역관광개발에 힘입어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면서 1월 30일 속초시번영회 발기총회가 127명의 각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청회의실에서 열러 최재길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1981년 국립공원 설악산을 끼고 동양 최대의 종합 관광휴양지를 건설하는 메머드 계획이 명성그룹(회장 김철호)에 의해 추진되어 착수되게 되었는데, 속초시 장사동 52만평의 부지에 지상 7~13층의 대형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어린이 위락시설, 컨트리클럽 등 종합레저타운 시설을 5월 23일 기공하였으며, 1차로 국내 최대규모인 200실의 콘도미니엄을 12월 준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함으로써 관광도시건설과 지역경기 부양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장사동 50만평 부지에 동양 최대의 지상 7-14층의 대형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휴양시설의 기공식이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과 조성운 시장 등 각급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총공사비 367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이 공사는, 콘도미니엄 1,008실과, 129실의 관광호텔,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연내 완공하고 82년까지 수영장, 승마장, 양궁장, 잔디운동장, 식물원, 동물원, 야구장, 회전목마 등의 휴양시설을 갖추며, 이밖에 유료 양로원, 인공호수 등도 개발하기로 계획되었다. 명성그룹은 속초 종합휴양지뿐 아니라, 지리산, 한라산과 서해안 만리포, 남해안의 한려수도, 제주도 등지에도 종합레저시설을 투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설악산을 배경으로 관광도시의 면모를 쇄신시키기 위한 도시 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이 전개되었는 바,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의 총 건설사업 121건중 68%에 해당하는 63건에 4억3천여만원의 사업을 1월 일제히 기공하였다.

1982년 관광개발사업으로는 속초시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설악산에 모노레일 설치를 81년에 이어 강력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설악산이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국제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자연보존에 막혀 모노레일 설치는 추진되지 못하였다.

국제생물권 보존지역지정은 설악산이 생태계의 중요한 생물군계를 이루고 있고 설악조팝나무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희귀식물이 서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80년부터 지리산과 광릉, 한라산, 설악산 등 4개 지역을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설정을 위한 교섭을 벌여왔고 관계 학자를 초빙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 끝에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설악산만이 지정되게 되었다. 이로써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존대책이 마련됨은 물론 생태학 연구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된 것으로 관련분야에서는 평가하였으나 지역의 관광개발 차원에서 막대한 제약이 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영랑호 호반 레저타운이 동방호산개발(주)에 의해 1982년 7월 20일 기공되어 설악권역에 또 하나의 다목적 관광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삼환시업에 의해 시공되는 이 호화 방갈로는 1급 호텔시설의 건평 25평짜리 단돈 A형 방갈로 12채, 20평짜리 B형 20채, 연립 8채(14세대분) 15평짜리 낚시터 방갈로 15채 등 모두 60채이다.

영랑호 레저타운은 85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낚시터, 방가로 60채, 어린이놀이터(3만평), 골프장, 해수풀장 등 30개의 시설을 36만평의 영랑호 주변 35만평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동방호산은 74년부터 8년동안 내수면개발을 위한 물고기 양식과 18만 그루의 유실수와 정원수를 식

수하는 등 기반을 다져오다 종합레저타운의 본격 건설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또 설악산과 연계된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게될 척산온천지구에 온천종합센타 건설이 기공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출자금 2억원으로 설립된 속초여객이 인가를 받아 설악권 4개 시·군의 순환관광코스를 정기운행 개시하기도 하였으나, 후에 운영상의 문제로 84년 매각 처분하였다. 그리고 설악권 4개 시·군의 행정협의회 운영과 관광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협의회 세미나 등 많은 노력이 전개되었다.

1983년 8월 17일에는 이른바 명성사건으로 일컫는 명성그룹 회장 김철호와 관련자가 구속되었다. 명성그룹의 급성장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의 세무사찰을 받아오다 탈세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8월 29일 교통부장관 관련자 16명이 추가되었다.

명성그룹에서는 속초시 노학동에 콘도미니엄 등 어린이 위락시설(놀이기구 18종)과 킹덤호텔 건설사업으로 어한기의 어민 취로 등 지역 경기회복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고, 앞으로 속초 앞바다 조도에 해상관광호텔 건설 등 지역관광개발에 획기적인 대단위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지역발전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물거품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1984년 명성사건이후 건설공사가 중단된 명성 종합레저타운이 법정관리로 전환되면서, 95%의 공정에 있던 스타월드와 컨트리클럽이 공사중단 7개월 만인 3월 20일 공사 재개되어 5월 5일 스타월드가 개장되고 7월 27일 컨트리클럽이 준공 개장되었다.

스타월드는 바이킹, 회전열차, 목마, 환상의 집 등 어린이 놀이시설 19종과 토속음식점, 기념품 판매소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개장 첫날 4만5천여명이 대거 몰리는 등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고, 컨트리클럽은 총 30억원이 투자되어 69만3천㎡의 부지에 18홀코스의 국제규모의 시설로 갖추어졌다.

그러나 그 외의 콘도, 호텔 등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어한기 어민취로 등의 지역 불경기 해소책이 막히고 법정 관리하에서 건설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공급자재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벽돌공장, 콘크리트, 목재상, 주유소 등 시중 업체들이 도산 위기를 맞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해 설악레저타운의 어린이놀이터 스타월드가 완공돼 어린이날인 5월 5일 개장되었다. 장사동 9만9천㎡에 들어선 이 스타월드는 명성이 83년 4월 30억원을 들여 착공했다가 그해 8월 금융부정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다. 이를 법정관리인(신동운,박정희)측에 의해 공사가 3월부터 재개되어 이 날 개장을 본 것이다. 회전열차를 비롯 19종의 놀이시설과 토속음식점, 기념품, 판매소 등 부대시설을 고루 갖추었다.

7월 27일 명성그룹이 82년 2월부터 조성한 설악레저타운 69만3천㎡(약 21만평)의 부지 위에 30억원을 들여 18홀 7천60야드와, 티하우스 1동 등 국제규격의 시설을 갖추고 개장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규격의 골프장 시설을 갖추었고, 이로써 콘도영업과 스타월드에 이어 세 번째로 사업을 재개한 셈이 되었다.

1984년 동방호산의 영랑호 유원지개발사업 진척으로 방갈로형 콘도와 해수풀장이 조성되어 6월 20일 영동 6개 시 · 군에서 분산 개최된 제9회 도민체전의 수영대회를 개최했다.

1985년 설악산과 금강산 공동개발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91세계잼버리대회 유치가 확정된 해로서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이 기대되는 획기적인 희소식으로 개발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불러 일으켰으며,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와 전국토공원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해였다.

설악산과 금강산 공동개발 용의를 이세기 통일원장관이 발표하여 대북정책과 관련한 설악권관광 개발안이 많은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7월 19일 서독 뮌헨에서 열린 제30차 스카웃세계총회에서 '91잼버리대회 후보지인 신평리가 동해와 설악산을 낀 이상적인 야영지로 받아들여져 3개국이 유치경합을 벌인 투표결과 한국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이어 한국의 수려한 자연을 세계에 소개하는 호기로서 각 분야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각종 건설사업에 박차가 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83년 8월 명성그룹의 탈세 사실이 밝혀지며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신생 재벌로 급성장한 명성그룹 배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면서 정부당국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은 부도를 내고 쫓겨 다니던 79년에 일약 68억원 규모의 오성골프장을 인수하며, 속초 등지에 콘도미니엄을 짓는 등 레저 산업의 대부로 등장했다.

83년 6월 현재로 김철호 회장은 21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성장과정의 의혹들이 꼬리를 물게 되며, 현 정부와의 결탁 소문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국세청에서는 6월 15일부터 내사에 들어가 자금조성

경위, 탈세 등 위법 사실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7월 5일부터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7월말 김철호회장은 물의를 빚은데 대한 사과와 자신의 기업중 부실한 업체를 통·폐합 하겠다는 등의 성명을 내었다.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국세청은 즉각 세무사찰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응했고, 안무혁 국세청장은 명성그룹의 탈세 사실 등이 적발되었다며 김철호 회장의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이에 정부는 명성그룹이 그동안 해온 각종 사업에서 행정특혜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8월 2일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이 사건이 확대되자 관련 상임위원회가 소집되기도 했다.

8월 17일 김철호 회장은 대검중앙수사부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와 함께 김회장에게 사채자금을 모아준 상업은행 서울 혜화동지점 예금담당 대리 김동겸(39)도 업무상 횡령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이 밝힌 명성그룹의 급성장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명성의 초기생성과정은 78년 서울 홍지동에서 '예그린' 이라는 이름의 서민용 아파트 26가구분을 건축하다 부도로 실패. 당시 김철호는 5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두 유명무실했음. 5개 법인 자본금 총액은 8,200만원. 외형총액은 3,800만원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오성 골프장이 자금난으로 도산하자 김철호가 총 11억4천5백만원으로 인수하였으며, 오성골프장 인수를 계기로 급속하게 사세 확장. 21개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나 해마다 결손 신고. 82년말현재 자본금 59억3500만원중 21억1200만원을 잠식한 상태이다.

명성그룹의 실제 자산총액은 1,170~1,37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은행부채는 22억에 불과. 나머지는 사채를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의 김동겸 대리를 동원, 김대리는 4년 3개월동안 상업은행 혜화동 지점에서 예금업무를 다루면서 사채업자들의 돈을 예금으로 가장, 은행에 비치되는 원장에는 기재하지 않고, 일종의 사제 통장을 만들어 예금액을 사취, 김씨에게 기업 자금으로 공급해 주었다.

콘도미니엄 판매에서 얻은 수입의 일부를 수입금액이 아닌 입회금으로 처리하여 회원에 대한 부채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하였다. 명성 19개 계열기업의 탈세 총액은 112억1,300만원이였다.

당시 윤자중 교통부장관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명성사업의 행정적 지원세력으로 행세했고, 박창권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은 국토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편법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김동겸 대리

는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설악산 기슭에 레저 천국 건설의 굉음을 하루아침에 멈추게 했던 이 사건은 교통부장관 등 관련 공무원 18명이 수뢰혐의 등으로 무더기 구속되는 등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금융사건으로 남았고, 수기통장에 의해 1,066억원의 사채가 은행창구를 통해 불법 인출된 것으로 밝혀져 세인을 놀라게 했으며, 각종 건설사업의 중단으로 지역개발의 정체현상은 물론 그 충격과 파문은 많은 후유증을 동반했다.

특히, 속초에서는 이 사건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장사동과 노학동일대의 설악산 기슭에 부지 52만평을 확보하고 1천1백1억원을 투입 공사를 벌이던 명성콘도는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였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사건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81년 5월 착공한 콘도1단지는 770가구 모두가 완공돼 사용중이고, 3월에 착공된 2단지도 이미 335가구가 완공되었다. 콘도외에 18홀의 골프장과 인공호수 등도 완공되었으나 킹덤호텔과 민속문화촌, 어린이 놀이터 등은 김회장의 구속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명성은 79년 엄모씨 소유의 장사동 임야 30만평을 싼값에 매입한 후, 장모씨, 이모씨 등 대규모 임야 소유주들로부터 차례로 땅을 사들였다. 사유지를 확보한 명성은 장사동 중심부에 콘도 1단지를 건설하면서 81년과 82년에 걸쳐 주변의 시유지 분배지를 현지의 토지중개인을 통해 매입했다. 이곳은 농토가 척박해 농사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다.

특히 부지 중에는 62년 논산에서 대토를 받아 이주해 온 35가구가 가구당 8백평씩 분배받은 땅도 포함되어 있는데 82년까지 등기가 돼있지 않아 권리금조로 평당 5백원씩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분배지를 매각한 주민들은 명성이 취직을 약속했기 때문에 땅을 팔았다고 밝히기도 했고, 또 시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살던 12가구는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이주시켜 주겠다는 명성측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어 그후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속초시는 사건이 터진 후 명성콘도에서 취로했던 주민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들에게 양곡을 지급하는 등 긴급 구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했고, 시는 명성 소유 부동산을 상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은 특별융자금으로 8월 14일 근로자 1,388명의 체불노임 7억2천500만원을 지급해 주기도 했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경기부양과 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왔던 명성이 몰락함에 따라, 지역개발이 지체되고 지역경제

에 불이익을 남기게 되어, 이 사태의 진행과정을 달갑지 않은 눈으로 관망해 왔다. 이 사건 이후 속초시중의 경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 매달 2천명분의 노임으로 10억원이 시중으로 풀리던 것이 끊겨버린 뒤로 다방과 술집 식당은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고, 운수업계에서도 30%의 손님이 줄었다고 푸념을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명성이 강원지역 개발과 체육진흥, 지역경기 부양 등 그동안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이 레저타운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2. 1986~1990년

75년 영동고속도로의 개통과 설악동 재개발사업 등을 시발로 제1도약기를 마친 속초지구관광지를 정아, 동방 등 2개 레저타운과 척산온천개발사업 등 그동안 다져온 관광시설을 기반으로 앞으로 다가올 국제화에 대처하고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91잼버리대회를 새로운 전기로 삼아 제2의 도약기로 맞이하고자 하는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준비과정으로 좁게는 척산, 정아, 동방을 연결하는 연계관광지 조성과 넓게는 고성, 설악, 양양을 잇는 광역 관광연계화 방안이 모색되었고, 구체적인 관광개발계획으로 척산온천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었는데 국민휴양지로서 스포츠레저타운 시설이 포함된 이 계획은 척산지구 일대 73만5천여㎡(22만2천여평)를 숙박지구, 상업시설지구, 스포츠위락시설지구, 조경지구로 나눠 개발되면서 총 47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이중 체육단지인 스포츠레저타운은 총 1만9천여㎡(6천평) 규모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다목적 잔디광장, 주차장 등이 마련되는 것으로 앞으로 시민체육진흥은 물론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졌다.

또 이를 계기로 하여 시내를 중심으로 순환관광루트를 마련해 설악권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으며, 종합운동장은 1만5천명 수용규모의 24단 스탠드와 축구장, 400m트랙을 갖춘 국제규격의 1종 경기장으로 12월 22일 착공되었다.

한편 속초해수욕장 개발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이 계획은 해수욕장 면적 2만9천평을 4만평으로 확장하고 인근 외옹치일대 5만7천평을 유원지구로 연계 개발하는 것으로 호텔, 콘도, 여관 등 관광수용시설을 유치하게 되어 관광개발의 일익을 더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민의 기대를 부풀게 했다.

그리고 설악산에는 6억8천여만원을 들여 간이화장실, 의자대 설치 등 15건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설악동 신단지내 야영장시설부지 일부는 부재지주의 보상불응으로 사업추진에 고초를 겪는 등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가 설악산개발 등 공익사업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설악산과 동해안 관광지를 연결하는 강릉~속초간 도로가 이미 포화상태로 교통체증을 빚었으며, 잼버리대회를 대비하여 4차선 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 강원도는 건설부에 조기 착공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강릉~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더불어 수차례 건의만 되고 시행이 되지 못한 시안으로 시민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87년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이 확정된 바, 그 규모는 연건평 4,565평(지하2층, 지상2층), 점포 200개로 총사업비 46억원(장기융자 5억, 주민부담 41억)이 연차적으로 투입되어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상가이전을 위한 가설점포(3개소, 72동)를 신축하여 착공 준비되었다.

그리고 연간 4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설악권에 대한 국민관광 진흥과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서울~설악산과 고속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방침을 발표하여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3개의 노선안을 놓고 도내 각 지역별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등 당초 목적지인 설악권에 대한 소외 위기를 낳게 되자 속초시번영회를 중심으로 고속전철유지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에 임하기도 하였다.

1988년 3월 1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68개 권역별 관광매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속초권이 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1987년 7월 교통개발연구원이 대도시 5,100가구를 대상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관광 매력도와 여행목적에 따른 매력도, 승용 및 소형차량을 이용한 관광여행매력, 단체여행매력, 숙박관광지의 매력 등으로 구분 분석하였는데 전 부문에서 속초권이 전국 1위의 순위를 차지하였다.

3월 28일에는 동서고속전철의 종착역을 설악권에 유치하기 위한 속초, 양양, 고성 주민결의대회가 열려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동안 고속전철 노선이 미확정 상태에서 각 지역간 유치경쟁의 심화로 당초 서울~설악산간 설치의도가 변경될 위기를 느껴왔었다.

7월 25일 설악프라자 콘도 신관 개관식이 있었다. 설악프라자 리조텔은 7월 25일 677실 규모의 콘도신관 개관식을 갖고 피서객을 맞았다. 콘도신관은 82년 12월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한 지하1층, 지상7층 건물(연면적 66,887㎡)로 83년 8월 명성 금융부정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88년 들어 공사가 재개되었었다.

1989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대포동 95번지일대로 결정 착수되었다. 노동집약형 가공업체(13개업체)의 유치목적으로 착수된 이 사업은 총면적 30,300평에 총사업비 2,879백만원(국비보조 829, 국비융자 625, 지방비보조 115, 지방비융자 1,310)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9년 1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북한방문으로 금강산 공동개발의 합의 등 정부의 북방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남북한 경제교류와 관광특구 개발 등 영동지역의 개발 기대가 높아졌고, 이에 부응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 토지거래허가 민원이 쇄도하는 현상을 보였다.

속초, 고성, 양양지역의 부동산 관련사건이 예년의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였다.

한편 동해안시대의 관광개발 희망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호텔, 콘도, 오피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신축 붐이 조성되었는데, 설악프라자 신관, 설악리조트, 현대훼밀리, 삼성콘도, 설악동해콘도, 설악웰컴 등 콘도신축은 물론 도내 최초의 오피스텔을 태양레저산업이 교동에 15층 규모로 건축 신청한 것을 필두로 동진, 동방 등 오피스텔 8개가 한꺼번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12월 12일 대포동 외옹치 사유지 22,362평이 관광유원지 개발을 위한 매각 공개경쟁입찰 결과 롯데건설측에 200억2천5백만원에 낙찰되었다. 이는 도내 시군유지 입찰사상 최대가격이며, 1년 시예산과 맞먹는 액수였고, 잠정내정가격이 89억5천만원에 비해 획기적인 것이었다. 입찰당시 100억원이상 신청서를 낸 업체가 3개업체로 밝혀지기도 했으며, 평당가격 895,500원인 이 입찰 이후 인근 조양동 등 이 일대의 지가가 급상승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12월 26일까지 18일간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시에서 실시한 결과 급속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1조건으로 동서고속전철 건설(46%), 풍부한 관광자원(26%), 세계잼버리대회(15%) 순이었고, 지역발전을 위해 중점 투자해야할 산업분야는 관광사업(69%), 수산업(19%), 상공업(7%)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속초지역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의 89%가 긍정적이었으며 6~1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지금까지 어업이 부진하면 지역전체가 경기침체를 겪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지역개발 붐과 관광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져 대다수 시민이 긍정적인 면에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1991~1995년

1992년 3월 12일 속초향토기업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시민 출자로 자본금을 형성 운영할 속초향토기업주식회사 창립총회가 속초관광호텔에서 열렸다. 발행주식은 8억원으로 하고 관광개발과 휴게소 시설, 비영리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해에는 국립공원 설악산과 속초권을 다녀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9.9%가 늘어난 502만여명으로 나타났다.

1993년 4월 21일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속초향토기업이 시청상황실에서 외국 기술진으로부터 모노레일 설치에 따른 상품설명회를 가졌다.

1994년 5월 3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양양군민의 반대로(속초시민 95.7% 찬성, 양양군민 84.1% 반대) 도내 통합대상지역 중 유일하게 속초·양양지역은 통합이 무산됐다.

또한 동명동 수복탑 뒤편에 여객터미널을 마련하고 (주)대아해운의 대원카타마란호(273t)를 매주 3회 울릉도를 취항하게 됨으로써 동남해안 연안도시를 뱃길로 오가는 해상교통의 첫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속초시 전역과 고성군 토성면 일부, 양양군 낙산지역을 포함한 설악권 관광특구가 9월 1일자로 지정 고시되었다. 이로써 특구내 관광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고, 관광사업 투자업체는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1996~2000년

1996년 1월 20일 문화재관리국은 속초시에 전달한 공문에서『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주변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설악산의 한계수용능력을 초과하게 돼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따라서 속초시의 계획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1997년 7월 18일 설악권 최대 규모의 종합온천 휴양시설인「설악 워터피아」가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1만9천74㎡ 규모로 20여종의 실내·외 온천욕장과 풀장을 갖추고 개장했다.

1999년 "개성이 있는 관광도시, 경영을 살린 재정자립, 미래가 있는 지역개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정서가 깃든 문화창달"의 시정방침의 재선정으로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적 동참과 발전기틀을 마련하였고 변화되고 있는 시정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정립하는 한해이기도 했다.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하고, 균형있고 합리적인 지역개발 촉진, 경제난 극복에 지방적 총력태세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제관광엑스포 개최 계기로 관광속초의 확실한 이미지를 각인하였고 시민들의 친절한 손님맞이 등이 막연한 거리감, 불쾌감을 완전 해소하였고, 우리시의 따뜻하고 정중한 손님맞이가 교류 도시간 한차원 높은 우의증진의 계기로 제공하였고 속초시민의 저력과 자신감, 성숙함과 가능성을 재삼 확인시켜줌으로써 위상이 제고되었다.

백두산항로 등 북방교류도 가시화 되었다. 중국 훈춘 ~ 러시아 포시에트간 백두산항로개설 확정으로 소액무역상(보따리상) 및 백두산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자리가 매김되고 인구 및 고용증가 등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의 증대가 예상되었다. 또한 1박 2일 ~ 8박 9일 등 다양한 일정의 금강산관광 최적지로 각광을 받았다.

이러한 여러 기반시설의 확보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었고, 한국관광에서 세계관광의 1번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새로운 도약과 희망찬 비전을 보여준 한 해였음을 보여 주었다.

2000년 10여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00년 4월 28일 역사적인 백두산항로가 개설되었다. 백두산항로는 우리시가 환동해권 거점도시와의 본격적인 관광 · 무역의 장을 열고 환동해경제권의 중심거점도시로서 무한한 발전을 가져다줄 발판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속초 지역이 관광 · 수산도시에만 머무르지 않고「환동해 물류도시」로 새롭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관광성수기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전천후의 안정적인 수도권 교통접근망을 확보하게 되는「미시령 동서관통도로」사업추진으로 수십년만의 지역숙원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5. 2001년 이후

신동해시대의 관광 · 교역 중심도시로 힘찬 도약을 위하여 힘써 왔다. 특히, 현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 영랑동 해안침식방지사업, 설악산국립공원 일부제척, 청초호오염퇴적물 준설, 영랑호 정화사업에 있어 진척이 있었다. 시정주요시책으로「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지속 확충, 신동해 중심권을 지향하는 해양개발 확대, 국제관광지에 걸맞는 도시기반 확충, 몸으로 체감하고 감동하는 복리행정 구현, 안정적 시민생활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98년 전시민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었던 금강산관광선

이 새해 1월 6일부터 속초항에서 취항하게 되었다. 「설악 · 금강 연계계발」을 실현할 「금강산 쾌속관광선 취항」은 우리시가 남북교류의 주도적 역할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또한 자연탐방의 단순한 관광패턴에서 참여하고, 체험하고, 함께 즐기는 다양한 관광이용시설을 확충하였다. 설악동집단시설지구 관광활성화 연구용역, 시립민속박물관 실시설계 착수, 대포항관광어항 환경영향평가, 영랑호 화랑동체험관광지 조성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전략으로 관광전용 홈페이지 구축, 방송드라마작가초청 관광설명회 개최, 수도권와이드칼라 조명광고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계절별 관광이벤트를 개최하였고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여 90억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거양하였다.

2002년 4월 13일 속초항이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 무역선의 자유로운 입 · 출항이 가능해지고 수수료 납부도 면제돼 많은 외국 무역선과 무역업체들이 속초항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제2장 소비생활의 변화와 대형할인점 등장[3)]

– 대형할인점 등장과 속초지역 상권변화에 따른 속초시민 실태

제1절 시작하며

1993년부터 유통시장의 국제적인 개방에 따른 외국선진유통업체들의 국내진입과 이에 대응하는 국내 유통업체들의 대형화 추세,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등 무점포 거래의 확산은 기존 상업활동을 담당하던 도심지의 쇠퇴와 더불어 신상업지의 등장, 소비사장의 광역화 등 도시상권 및 도시공간에 대하여 급속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대형할인점의 등장은 IMF라는 경제위기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소비자의 저가 지향적 소비행태로의 변화는 물론 대규모 점포설립, 영업관련 규제의 개혁 및 저가부지공급의 확대에 따른 도시외곽지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정부의 활성화정책으로 인해 매우 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수도권에 집중되어왔던 이러한 대형할인점들이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여 대형할인점의 지방으로의 신규진출 및 규모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통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시작된 대형할인점의 점포수의 증가는 우리에게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어느 한쪽에선 지역 상권과의 상당한 갈등을 겪기도 하며, 또 어떤 측면에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과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경쟁 기반이 점차 지식 창출과 공유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커졌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우위에 대한 논의, 토론, 논문 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우위를 속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이론이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경쟁력"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정의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는 분명하지만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의미는 분명치 않다.

대형할인점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매점들이 도시주변에 급증하게 되면서 소매활동의 중심이었던 상가지역의 소매점, 재래시장은 점차 세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유통업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상품의 구색과 상점의 규모 면에서 기존의 소매점과는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보다 더 많은 충격을 받고 있다. 소규모 유통업체들은 국가나 지방정부에 대규모 유통업체의 진입을 억제시켜주기를 요구하고 있지

3) 본 조사결과는 2004년 속초경실련에서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사업 "대형할인점 등장과 속초 지역상권 변화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경쟁력 제고와 경쟁우위 확보 방안"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만 정부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순수한 시장경제 논리를 따를 경우에는 중소 상인들을 지원한 명분을 잃게 되고 정치적인 이유로 대기업형 신업태의 활동을 규제할 경우에 소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할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렇듯 대형할인점의 입지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 못 할 정도가 되었으며 또 지역사회와의 갈등관계도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실증분석을 통해 대형할인점의 경쟁력의 원천을 살펴보고 시내상가에서의 경쟁력 우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에서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2절 대형할인점의 개관

2차세계대전 후, 세계 소매업계에는 중요한 변혁이 일기 시작했다. 상품을 다른 점포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시 판매하는 Discount Store의 등장이 그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염가에 초점을 맞춘 판매방식을 채용한 점포가 있었지만 대량구매에 의한 마진의 축소, Cash & Carry, 셀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채택하여 가격 인하의 폭이 확대된 것은 이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출현하면서부터 이다. 이 업태의 기원은 1948년 미국 뉴욕에서 개점한 'E.J. Korvette'였으며 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가정용품, 전기용품, 여행용품과 가구 등을 기준 가격보다 20~50% 정도 싸게 판매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Korvette는 급성장하여, 미국 소매업계에 소위 할인혁명을 일으켰다. 이는197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경제가 저 성장기에 접어들어, 절약구매와 가격파괴 현상이 미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할인점은 더욱 성장하여 소매업태의 주도권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신세계가 창동에 E-Mart를 출점하면서 본격적인 할인점 시대가 열렸으며,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할인점의 신규출점이 봇물 터지듯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기가 침체하면서, 가격파괴 현상과 할인점 출점이 급증하고 있다. 7년 남짓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할인점은 아직까지 업태 개념도 혼란스럽고, 출점에 있어서도 각 점포 간 과다한 경쟁 상태에 있지만 매우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 대형할인점의 정의

대형할인점의 일반적 정의는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개념의 소매업으로 정가 이하의 가격으로 주로 내구 소비재 상품을 소비자에게 항시 판매하는 소매점을 지칭하며 특정기간, 특정상품에 한정되는 바겐세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할인점의 판매 방식은 "모든 상품의, 모든 소비자에 대한, 항시적인 할인판매"라고 말할 수 있다. 주로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취급하며, 상품라인이나 구성은 백화점과 유사하지만 저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지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건물이나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을 낮게 운영하며, 상품 회전율을 높이고, 광범위한 셀프서비스로 운영한다는 데서 백화점과는 다르다. 할인점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슈퍼마켓이 식료품의 저가 판매를 추고하고 있는 반면, 할인점은 비식품의 저가 판매를 통해 성장해 왔다. 미국에 있어서 할인점이란, 첫째, 가정용품, 의류 등 식품 이외의 상품을 포함하여 항시 저가로 판매하며 둘째, 주로 유명상표 상품을 취급하는 업태이다. 셋째, 저마진 이며 상품의 고 회전율을 실현하고 넷째, 셀프서비스 판매방식을 통한 대량판매를 하며 다섯째, 저 코스트 경영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산지개발, 채널개발, 상품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상품공급과 유통 주도권의 확보에 도전하고 있는 업태를 지칭한다.

대형할인점에 대한 법적 규정은 유통산업 발전법, 건축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유통산업 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4월 10일에 법률 제5327호로 공포하여 1997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에서 '대규모 점포'에 대해 '동일한 건물 안에 설치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항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업태를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로 분류하고 있다. 대형할인점은 이중 대형점에 속한다.

또한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하는 대규모 점포는 통상산업부 장관에 의해 저가 지향형 점포로 지정될 수 있고, 해당 점포는 부지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며 대형할인점이란 '합리적 유통전략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마진률을 낮추어 타 점포보다 항시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소매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제3절 속초시 제현황 변화 및 대형할인점 등장에 따른 경쟁구조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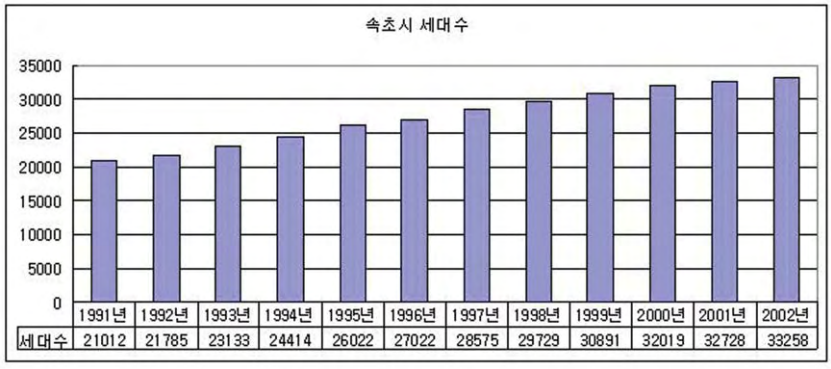
1. 속초시 인구 및 세대수의 변화

속초라는 명칭에 대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단종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속초포가 양양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이후 기록으로 조선 영조 41년(1765)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속초는 조선시대에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한 동리였다[4].

4) 『속초의 옛 땅 이름』, 속초문화원, 2002.
『속초의 근현대사』, 속초문화원, 2004.

〈 그림 5-2-1 〉 속초시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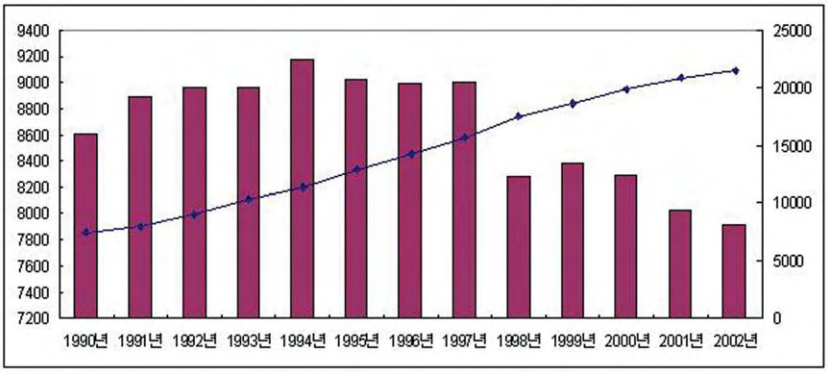
세대수는 1991년 2만1천여가구에서 2002년 현재 3만3천여 가구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5-2-2 〉 속초시 세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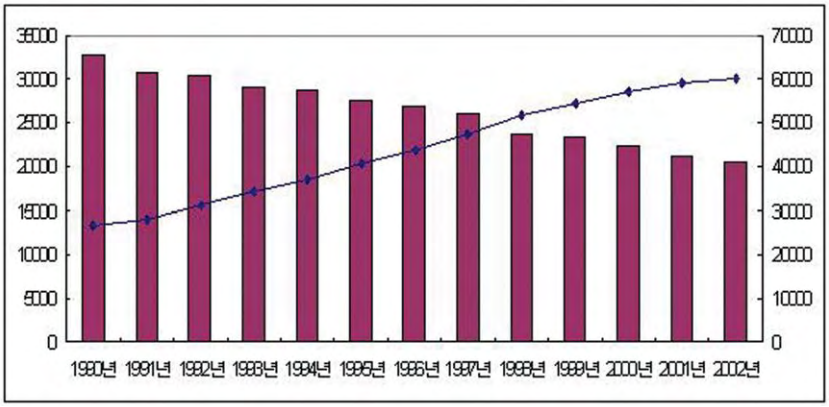
속초시의 가구 중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을 A집단으로 교동, 노학동, 조양동을 B집단으로 구분하여 가구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그림 5-2-3>과 같이 나타났다. 시내상가 접근 이용이 용이한 A집단의 가구

수와 대형할인점 접근 이용이 용이한 B집단의 가구수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A집단은 하향곡선을 B집단은 상향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5-2-3 〉 속초시 가구 구분별 차이분석

속초시의 인구중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을 A집단으로 교동, 노학동, 조양동을 B집단으로 구분하여 인구추이를 살펴본 결과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시내상가 접근 이용이 용이한 A집단의 인구수와 대형할인점 접근 이용이 용이한 B집단의 인구수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A집단은 하향곡선을 B집단은 상향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5-2-4 〉 속초시 집단별 인구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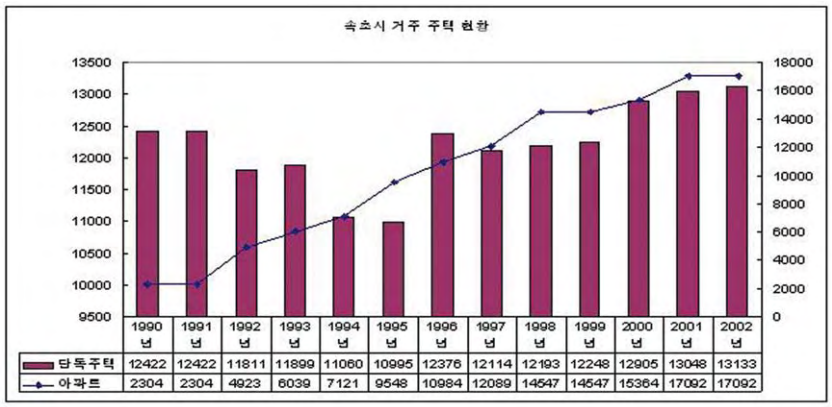
2. 속초시 자동차등록 대수 현황

속초시 자동차등록대수를 알아본 결과 1990년 5,112대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 26,848대로 5배가량 증가하였다.
13년동안 5배 증가에 대비한 시내상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자기개발과 혁신적인 자세를 가졌는가를 한번 반문하게 된다.

〈 그림 5-2-5 〉 속초시 자동차 등록대수

3. 속초시 거주 주택현황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변화보다는 아파트의 증가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도에는 2,304세대에서 2002년 17,092세대로 증가하였다. 주거형태의 변화는 새로운 구매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행태를 예지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몸짓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5-2-6 〉 속초시 거주 주택 현황

4. 수산물 어획고 현황

속초는 수산물이 많이 나면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어획고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현 추세를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경기의 주도를 하던 수산물에 대한 의존 방식에서 새로운 고객들의 흐름을 찾아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수산물어획고	23549	25433	26907	24283	24819	20132	24387	33578	27559	27100	24152	23053	22295

〈 그림 5-2-7 〉 수산물 어획고 현황

5. 대형할인점 등장에 따른 경쟁구조의 변화

가. 산업구조의 변화

대형할인점이 본 산업 내 경쟁에 뛰어들기 직전까지의 산업 내·기업 간 경쟁에서의 경쟁우위 확보전략은 다수의 안정적 제품 확보와 가격경쟁이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었다. 잠재적 진입자의 손쉬운 진출입을 도와주는 낮은 진입장벽, 쉽게 찾을 수 없었던 대체재·공급자, 안정적인 구매자의 증가는 산업 내·기업 간의 낮은 경쟁강도와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었다.

대형할인점의 진입에 따라 경쟁의 구도는 산업 내 기업 간 경쟁이 촉발되기 시작하였고, 고정적인 구매자에 대해 판매자의 수는 증가하게 되어 산업 내 경쟁의 강도는 증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형할인점은 체인형태의 구조를 지니며 자금력 덕분에 공급자로부터의 교섭력에서 우위를 지니게 되었고, 대체재와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 구매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구매자의 구매행태를 파악함으로써 질 좋은 제품을 싸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결국 기존의 산업내의 경쟁의 구도는 새로운 구심점 즉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형국을 보이며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나. 산업경쟁구조분석

1) 새로운 진출기업의 위협

산업내에 다른 유통업체의 진출(잠재적 진입자의 진입위협)부분에 대한 시내상가와 대형할인점을 비교해본 결과이다. 현 시장 내에 새로운 기회 즉 이윤이 발생한다는 징후가 포착되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던 기업은

즉각 그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것은 시장에 존재하는 초과이윤 즉,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윤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초과이윤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순간까지 거듭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된 진입장벽(entrance barrier)의 정도에 따라 산업내의 경쟁의 정도는 달라지게 되는데 진입장벽의 높이가 높을수록 산업 내 경쟁의 강도는 낮아지게 된다.

시내상가와 대형할인점을 명목적(nominal)으로 진입장벽의 속성들과 비교해 본 결과 시내상가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의 높이가 낮아 잠재적인 이윤이 발생시 잠재적 기업의 쉬운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대형할인점의 경우 규모의 경제, 소요자본 등 적정이상의 투자가 수반되어야하는 투자상의 곤란함을 주요 진입장벽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표 5-2-1 〉 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시내상가와 대형할인점 비교

진입장벽	속초시내상가	대형할인점
규모의 경제	하	상
제품차별화	중	중
소요자본	하	상
교체비용	중	중
유통경로상의 접근	하	상
비용상의 불리함	하	상

2) 기존 경쟁기업들 간의 경쟁

산업내의 경쟁자들간의 경쟁정도를 살펴보면, 우선 경쟁우위 확보전술을 바탕으로 경쟁정도를 파악해볼 수 있는데 이는 가격경쟁, 광고경쟁, 대 고객서비스, 제품보증 등이다.

이들 각각에 대하여 시내상가는 대형할인점에 비하여 광고, 대 고객서비스, 제품보증의 면에서 모든 것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 후 경쟁에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된다.

〈 표 5-2-2 〉 기존 경쟁기업들간의 경쟁 정도 비교

경쟁우위 확보전술	속초시내상가	대형할인점
가격경쟁	중	상
광고경쟁	하	상
대 고객서비스	하	상
제품보증	하	중상

3) 대체제의 압력

산업의 경쟁정도 중 대체재의 압력에 대해 대체재의 밀도를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동일한 제품의 점포 수와 비슷한 유형의 업태 수를 파악해 본 결과 시내상가의 경우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수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슷한 유형의 업태, 즉 유통형태가 비슷한 업체의 수가 또한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재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대형할인점의 경우는 두 가지 속성 모두 속초에서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재의 압력으로부터 시내상가에 비해 자유로워 경쟁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2-3 〉 대체제 압력에 따른 비교

대체재의 밀도	속초시내상가	대형할인점
동일한 제품의 점포 수	많음	유일
비슷한 유형의 업태 수	다수	유일

4)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에서 서로의 교섭력이 산업내에서의 경쟁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교섭력의 정도에 따라 시장의 경쟁지위도 달라진다.

공급자의 교섭력 정도는 공급자의 수, 공급자가 제공하는 공급제품이 차별화된 제품인가와 대체품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공급자가 판매자의 역할까지 아우르는 전방통합의 의지가 있는가와 공급품을 판매하는 피공급자의 경쟁력 등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첫째 공급자의 수의 면에서는 시내상가와 대형할인점 모두 다수의 공급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대형할인점을 체인의 범주에서 볼 때 시내상가보다는 다수의 공급자를 거느리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급자의 공급제품의 차별화 정도의 경우 시내상가의 재품 중 농수산물의 경우 공급제품의 차별화 정도가 나주 높은 반면, 대형할인점의 경우와 시내상가의 일반공산품과 생필품, 일반소비재의 경우 비교적 균등하다.

셋째, 공급품의 대체재는 독특성이 가미된 제품 즉 수공 예제품과 농수산품의 경우 적고, 일반 공산품의 경우 아주 많기 때문에 이부분은 경우 시내상가의 경우 대체품이 적은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공급자와의 교섭력이 아주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공급자의 전방통합의 의지는 시내상가의 영세한 점포들의 경우 공급

자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보이는 반면, 대형할인점의 경우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서 공급자가 쉽게 전방통합 즉, 생산자가 유통업체를 인수하여 영역을 확장하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공급자의 교섭력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피공급자의 경쟁력은 대형할인점이 시내상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공급자와의 교섭력에 있어서도 자연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표 5-2-4 〉 공급자 교섭력에 따른 비교

공급자의 교섭력	속초시내상가	대형할인점
공급자의 수	다수	다수
공급자의 공급제품의 차별화 정도	차별화	비교적 균등
공급품의 대체제의 유무	적음	다수
공급자의 전방통합 의지	강함	적음
피공급자의 경쟁력	약함	적음

5) 구매자의 교섭력

산업의 경쟁강도를 판별하는 요소로 구매자의 교섭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의 요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구매자의 수는 시내상가의 경우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하므로 구매자의 수는 다양하며 많지만, 대형할인점의 경우 단일한 규모의 매장과 업장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구매자의 수면에서 시내상가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화의 경우 시내상가 중 제품의 속성이 고객 스스로의 욕구가 반영되는 그런 제품이 취급되고 있는 까닭, 그리고 농수산물의 경우 전반적인 비표준화의 경향을 보이므로 시내상가와 대형할인점의 비교는 대형할인점이 시내상가에 비해 표준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의 할 사항은 제품에 따라 표준화와 비표준화의 중요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일반 생필품의 경우 표준화를 선호하는 반면, 디자인적 속성의 제품의 경우 비표준화가 더 유리한 위치를 가진다.

셋째, 구매자가 구매한 제품을 가지고 재생산하는 경우 구매자가 구입한 제품의 가격이, 즉 재생산하는 제품에서 원료로서의 제품의 비중이 클 경우 구매자의 교섭력은 감소한다. 그리고 구매자는 후방통합, 즉 원활한 원료의 공급을 위해 후방의 공급자를 아우르고자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이는

조립생산을 하는 자동차 산업 및 장치산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형할인점 보다는 시내상가가 상대적으로 재공품의 원료공급처로서의 공급자의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구매자의 경제생활 능력은 시내상가 중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구매자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구매자 간에 특별히 경제생활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점은 발견되지 않지만 쇼핑에 있어 차량을 주로이용하고, 맞벌이 부부를 주요 고객으로 설정한 대형할인점의 전략에서 보여 지듯이 중산층이 주 대상으로 되어진 대형할인점의 고객층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시내상가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에 지지를 보낸다. 따라서 대형할인점이 교섭력에서는 소비자에게 뒤지는 점이 있다.

다섯째, 구매자의 후방통합 의지는 대형할인점의 경우 최종소비자 만을 그 주 고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의 후방통합의 지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내상가의 경우 재공품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업태들의 경우 완성품 판매자에게 후방통합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여 구매자에 의한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2-5 〉 구매자 교섭력에 따른 비교

경쟁우위 확보전술	속초시내상가	대형할인점
구매자의 수	다수	대다수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구매자 생산제품의 가격비중	매우적음	매우적음
구매자의 경제생활 능력	낮음	중간
구매자의 후방통합의지	매우약함	매우약함

제4절 조사설계와 분석

1. 조사설계

가. 모집단 및 자료의 수집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행태를 파악하려는 본 연구는 대형할인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을 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형할인 매장을 이용하는 속초거주민으로부터 수집하였다.

1차 설문은 속초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기간은 2004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동안 실시하였다. 총 350매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320매였으며 이중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312매를 유효표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차 설문은 속초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기간은 2004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실시하였다. 총 180매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160부였으며 이중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152매를 유효표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설문지 구성과 특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질문으로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이용시 교통편, 방문 소요시간, 1회 평균 구매액, 월평균 이용횟수 8문항,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에서 구입하는 품목 순위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형할인점과 시내상가 이용 만족도 16문항, 인구통계적 문항 및 사회경제적 특성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로서 질문형태는 다지선다형의 질문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측정척도는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질문하였다(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그렇다”).

다.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실증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1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T-검증(T-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자료분석

가. 지역주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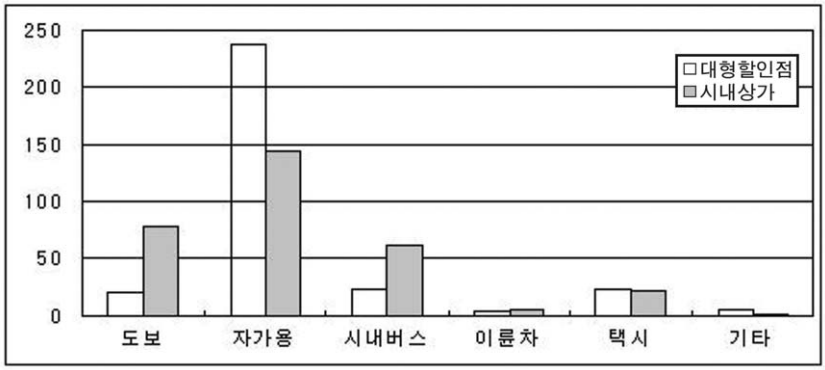
1) 응답자의 일반현황

〈 표 5-2-6 〉 응답자의 일반현황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연령	20대	46	14.7	거주형태	본인소유	153	49.0
	30대	154	49.4		전세	133	42.6
	40대	88	28.2		월세	26	8.3
	50대	18	5.8				
	60대이상	6	1.9	집의형태	아파트	183	58.7
					빌라	26	8.3
성별	남	131	42.0		일반주택	103	33.0
	여	181	58.0				
				집의평수	20평미만	63	20.2
학력	고졸이하	173	55.4		20~29평	174	55.8
	대학재학	14	4.5		30~39평	54	17.3
	대졸	119	38.1		40평이상	21	6.7
	대학원졸	6	1.9				
				자가용의 배기량	1000cc미만	32	10.3
가족수	1명	15	4.8		1000~1499cc	74	23.7
	2명	30	9.6		1500~1999cc	81	26.0
	3명	53	17.0		2000cc이상	51	16.3
	4명	146	46.8		차량무소유	74	23.7
	5명	50	16.0				
	6명	11	3.5	거주지역	영랑동	41	13.1
	7명이상	7	2.2		동명동	20	6.4
					금호동	36	11.5
가족의 평균 월수입	100만원미만	40	12.8		교동	75	24.0
	100~199만원	110	35.3		노학동	40	12.8
	201~299만원	95	30.4		조양동	73	23.4
	301~399만원	36	11.5		청호동	17	5.4
	400만원이상	31	9.9		대포동	10	3.2

2)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이용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은?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를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의 조사결과 응답자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 자가용 238명(76.3%)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내상가를 이용 할 경우 자가용 144명(46.2%), 도보 78명(25%), 시내버스 62명(19.9%)으로 조사되어 대형할인점을 이용할 경우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그림 5-2-8 〉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이용시 교통편

〈 표 5-2-7 〉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이용시 교통편

구 분	대형할인점	속초시내상가
도보	21(6.7%)	78(25.0%)
자가용	238(76.3%)	144(46.2%)
시내버스	23(7.4%)	62(19.9%)
이륜차	3(1.0%)	5(1.6%)
택시	23(7.4%)	22(7.1%)
기타	4(1.3%)	1(0.3%)

이는 응답자가 근거리에 있는 시내상가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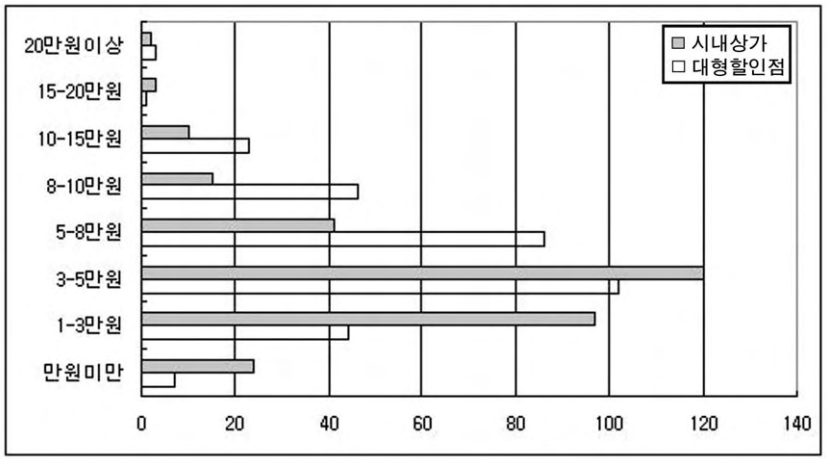
3)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이용시 방문 소요시간은?

〈 표 5-2-8 〉 방문소요시간

구 분	대형할인점	속초시내상가
10분미만	35(11.2%)	34(10.9%)
10~30분	91(29.2%)	115(36.9%)
30~1시간	96(30.8%)	88(28.2%)
1시간이상	90(28.8%)	75(24.0%)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이용시 해당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질문한 항목의 분석결과 응답자의 고른 답변정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10~30분, 30분~1시간, 1시간 이상이 각각 30%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0분미만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이 거의 비슷하게 11%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4)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이용시 1회 평균 구매액?



〈 그림 5-2-9 〉 이용시 평균 구매액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이용시 1회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구매금액을 조사한 결과 대형할인점을 이용 할 경우 3~5만원이 102명(32.7%), 5~8만원이 86명(27.6%)로 합계 188명(60.3%)으로 대부분 3만원에서 8만원정도를 한 번에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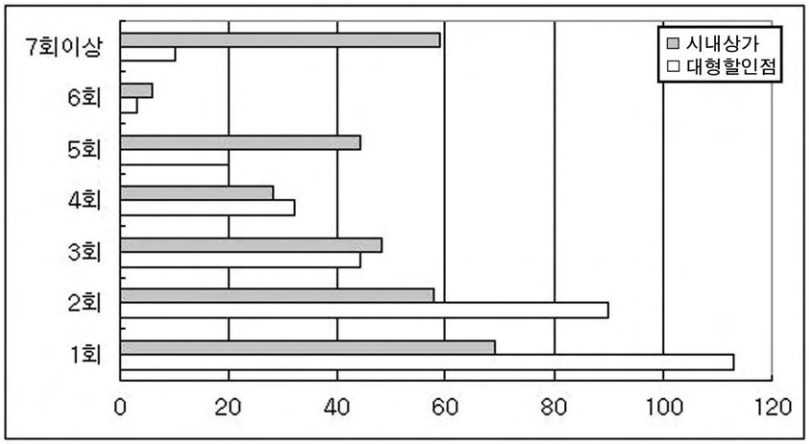
응답자가 시내상가를 이용할 경우 1~3만원 97명(31.1%), 3~5만원 120명(38.5%)로 합계 217명(69.6%)로 대부분 1만원에서 5만원정도를 한 번에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응답자가 시내상가를 이용할 경우보다 대형할인점을 이용 할 경우 위의 표에서 보여 지듯이 1만원에서 3만원정도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5-2-9 〉 이용시 평균 구매액

구 분	대형할인점	속초시내상가
만원미만	7(2.2%)	24(7.7%)
1~3만원	44(14.1%)	97(31.1%)
3~5만원	102(32.7%)	120(38.5%)
5~8만원	86(27.6%)	41(13.1%)
8~10만원	46(14.7%)	15(4.8%)
10~15만원	23(7.4%)	10(3.2%)
15~20만원	1(0.3%)	3(1.0%)
20만원이상	3(1.0%)	2(0.6%)

5)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월평균 이용회수는?



〈 그림 5-2-10 〉 월평균 이용회수

응답자에게 대형할인점과 시내상가의 월평균 이용회수를 질문한 결과 대형할인점의 경우 113명(36.2%)이 월 1회, 90명(28.8%)이 월 2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상가의 경우 월 1, 2회가 각각 69명(22.1%), 58명(18.6%)로 조사되었으며, 5회에서 7회 이상이 109명(34.9%)으로 조사되어 빈번한 대형할인점보다 시내상가가 빈번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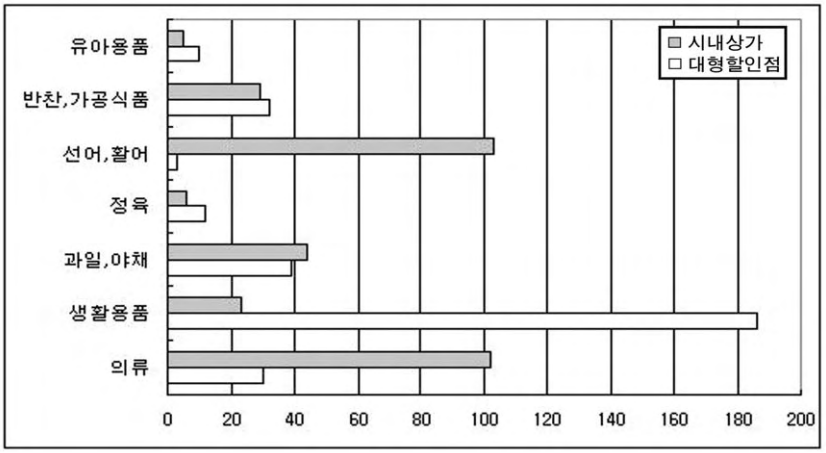
〈 표 5-2-10 〉 월평균 이용회수

구 분	대형할인점	속초시내상가
1회	113(36.2%)	69(22.1%)
2회	90(28.8%)	58(18.6%)
3회	44(14.1%)	48(15.4%)
4회	32(10.3%)	28(9.0%)
5회	20(6.4%)	44(14.1%)
6회	3(1.0%)	6(1.9%)
7회이상	10(3.2%)	59(18.9%)

6)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에서 제품구입의 순위는?

응답자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할 경우 제품구입의 순서는 생활용품 186명(59.6%), 과일 및 야채 39명(12.5%), 반찬 및 가공식품 32명(10.3%)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 시내상가를 이용 할 경우 선어 및 활어 103명(33%), 의류 102명(32.7%), 과일 및 야채 44명(14.1%)로 조사되었다.



〈 그림 5-2-11 〉 제품구입 순위

〈 표 5-2-11 〉 제품구입 순위

구 분	대형할인점		속초시내상가	
의류	30	9.6%	102	32.7%
생활용품	186	59.6%	23	7.4%
과일,야채	39	12.5%	44	14.1%
정육	12	3.8%	6	1.9%
선어,활어	3	1.0%	103	33.0%
반찬,가공식품	32	10.3%	29	9.3%
유아용품	10	3.2%	5	1.6%

따라서 응답자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할 경우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동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내상가를 이용할 경우 의류 및 선어, 활어를 구매하기 위한 동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품 중 과일과 야채의 경우 대형할인점과 시내상가가 비슷한 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5-2-12 〉 순위별 제품구입

구 분		의류	생활용품	과일, 야채	정육	선어, 활어	반찬, 가공식품	유아용품
대형할인점	1순위	31 (9.9%)	183 (58.7%)	40 (12.8%)	13 (4.2%)	3 (1.0%)	32 (10.3%)	10 (3.2%)
	2순위	41 (13.1%)	67 (21.5%)	80 (25.6%)	19 (6.1%)	16 (5.1%)	51 (16.3%)	14 (4.5%)
	3순위	35 (11.2%)	19 (6.1%)	71 (22.8%)	42 (13.5%)	18 (5.8%)	50 (16.0%)	21 (6.7%)

구 분		의류	생활용품	과일, 야채	정육	선어, 활어	반찬, 가공식품	유아용품
대형할인점	4순위	28 (9.0%)	9 (2.9%)	42 (13.5%)	53 (17.0%)	32 (10.3%)	51 (16.3%)	14 (4.5%)
	5순위	26 (8.3%)	17 (5.4%)	15 (4.8%)	57 (18.3%)	58 (18.6%)	31 (9.9%)	11 (3.5%)
	6순위	44 (14.1%)	5 (1.6%)	5 (1.6%)	35 (11.2%)	65 (20.8%)	36 (11.5%)	19 (6.1%)
	7순위	26 (8.3%)	1 (0.3%)	3 (1.0%)	9 (2.9%)	28 (9.0%)	3 (1.0%)	138 (44.2%)
	무응답	81 (26.0%)	11 (3.5%)	56 (17.9%)	84 (26.9%)	92 (29.5%)	58 (18.6%)	85 (27.2%)
속초시내상가	1순위	102 (32.7%)	23 (7.4%)	44 (14.1%)	6 (1.9%)	103 (33.0%)	29 (9.3%)	5 (1.6%)
	2순위	27 (8.7%)	47 (15.1%)	86 (27.6%)	44 (14.1%)	49 (15.7%)	33 (10.6%)	7 (2.2%)
	3순위	29 (9.3%)	45 (14.4%)	78 (25.0%)	39 (12.5%)	37 (11.9%)	39 (12.5%)	1 (0.3%)
	4순위	29 (9.3%)	24 (7.7%)	38 (12.2%)	44 (14.1%)	29 (9.3%)	61 (19.6%)	11 (3.5%)
	5순위	22 (7.1%)	48 (15.4%)	17 (5.4%)	46 (14.7%)	25 (8.0%)	33 (10.6%)	24 (7.7%)
	6순위	45 (14.4%)	33 (10.6%)	7 (2.2%)	46 (14.7%)	24 (7.7%)	40 (12.8%)	13 (4.2%)
	7순위	13 (4.2%)	7 (2.2%)	3 (1.0%)	16 (5.1%)	12 (3.8%)	3 (1.0%)	152 (48.7%)
	무응답	45 (14.4%)	85 (27.2%)	39 (12.5%)	71 (22.8%)	33 (10.6%)	74 (23.7%)	99 (31.7%)

7)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이용시 만족도?

응답자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할 경우의 만족도를 가격, 품질, 다양성, 신뢰성, 쇼핑의 편리성, 주차의 편리성, 신용카드의 편리성, 서비스의 질 등 8개의 항목을 측정 한 결과 쇼핑의 편리성과 주차의 편리성이 약간만족, 매우만족 등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다양성, 신뢰성, 신용카드의 편리성, 서비스의 질 등은 보통, 약간만족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은 보통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가 시내상가를 이용할 경우의 만족도를 가격, 품질, 다양성, 신뢰성, 쇼핑의 편리성, 주차의 편리성, 신용카드의 편리성, 서비스의 질 등 8개의 항목을 측정 한 결과 다양성 부분은 약간 만족, 보통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 품질, 신뢰성, 쇼핑의 편리성, 서비스의 질 등은 보통의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의 편리성과 신용카드의 편리성 부분은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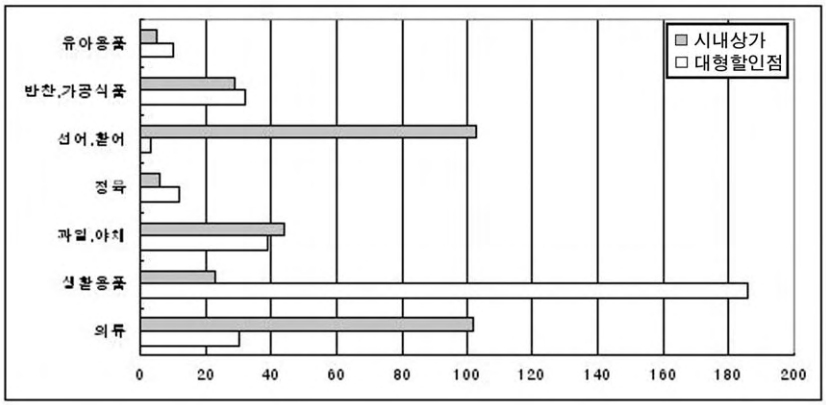
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등 만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5-2-13 〉 이용시 만족도

구 분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대형할인점	가격	7 (2.2%)	24 (7.7%)	212 (67.9%)	50 (16.0%)	19 (6.1%)
	품질	7 (2.2%)	29 (9.3%)	197 (63.1%)	65 (20.8%)	14 (4.5%)
	다양성	14 (4.5%)	16 (5.1%)	84 (26.9%)	133 (42.6%)	65 (20.8%)
	신뢰성	4 (1.3%)	19 (6.1%)	154 (49.4%)	97 (31.1%)	38 (12.2%)
	쇼핑의 편리성	7 (2.2%)	9 (2.9%)	62 (19.9%)	103 (33.0%)	131 (42.0%)
	주차의 편리성	4 (1.3%)	11 (3.5%)	37 (11.9%)	97 (31.1%)	163 (52.2%)
	신용카드의 편리성	29 (9.3%)	19 (6.1%)	86 (27.6%)	97 (31.1%)	81 (26.0%)
	서비스의 질	5 (1.6%)	22 (7.1%)	102 (32.7%)	114 (36.5%)	69 (22.1%)
속초시내상가	가격	6 (1.9%)	42 (13.5%)	219 (70.2%)	33 (10.6%)	12 (3.8%)
	품질	4 (1.3%)	31 (9.9%)	203 (65.1%)	63 (20.2%)	11 (3.5%)
	다양성	9 (2.9%)	41 (13.1%)	142 (45.5%)	93 (29.8%)	27 (8.7%)
	신뢰성	9 (2.9%)	43 (13.8%)	188 (60.3%)	61 (19.6%)	11 (3.5%)
	쇼핑의 편리성	41 (13.1%)	83 (26.6%)	136 (43.6%)	38 (12.2%)	14 (4.5%)
	주차의 편리성	115 (36.9%)	96 (30.8%)	69 (22.1%)	17 (5.4%)	15 (4.8%)
	신용카드의 편리성	100 (32.1%)	57 (18.3%)	87 (27.9%)	48 (15.4%)	20 (6.4%)
	서비스의 질	25 (8.0%)	62 (19.9%)	171 (54.8%)	41 (13.1%)	13 (4.2%)

결론적으로 응답자가 대형할인점 이용시 쇼핑과 주차의 편리성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내상가를 이용 할 경우 주차와 신용카드의 편리성에 가장 불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격, 품질, 다양성, 신뢰성 측면에서는 대형할인점과 시내상가가 비슷한 만족의 정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에서 성별에 따라 주로 구입하는 품목의 순위는?



〈 그림 5-2-12 〉 성별에 따른 구입 품목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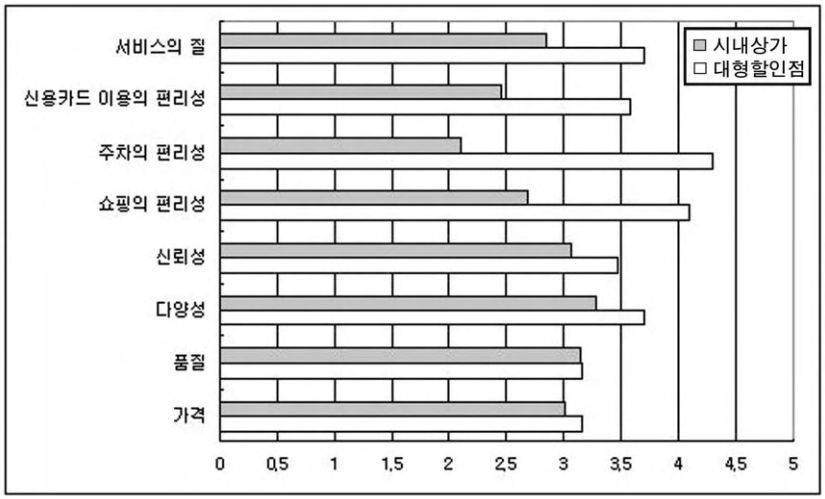
응답자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경우 성별에 따른 품목의 차이는 생활용품의 경우 여성이 116명(64%)으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으로 조사되었고, 남성의 경우 생활용품 70명(53%), 과일, 야채 22명(17%), 의류 17명(13%)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 과일, 야채, 의류 등도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가 시내상가를 이용하는 경우 성별에 따른 구매 품목의 차이는 의류와 선어, 활어가 주로 구입하는 품목으로 남, 녀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5-2-14 〉 성별에 따른 구입품목 순위

구 분		남	여	합
대형할인점	의류	17(13%)	13(7%)	30(10%)
	생활용품	70(53%)	116(64%)	186(60%)
	과일, 야채	22(17%)	17(9%)	39(13%)
	정육	5(4%)	7(4%)	12(4%)
	선어, 활어	3(2%)	0(0%)	3(1%)
	반찬, 가공식품	11(8%)	21(12%)	32(10%)
	유아용품	3(2%)	7(4%)	10(3%)
속초시내상가	의류	45(34%)	57(31%)	102(33%)
	생활용품	13(10%)	10(6%)	23(7%)
	과일, 야채	16(12%)	28(15%)	44(14%)
	정육	2(2%)	4(2%)	6(2%)
	선어, 활어	38(29%)	65(36%)	103(33%)
	반찬, 가공식품	14(11%)	15(8%)	29(9%)
	유아용품	3(2%)	2(1%)	5(2%)

9)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 이용시 각 속성별 만족도는?



〈 그림 5-2-13 〉 이용 속성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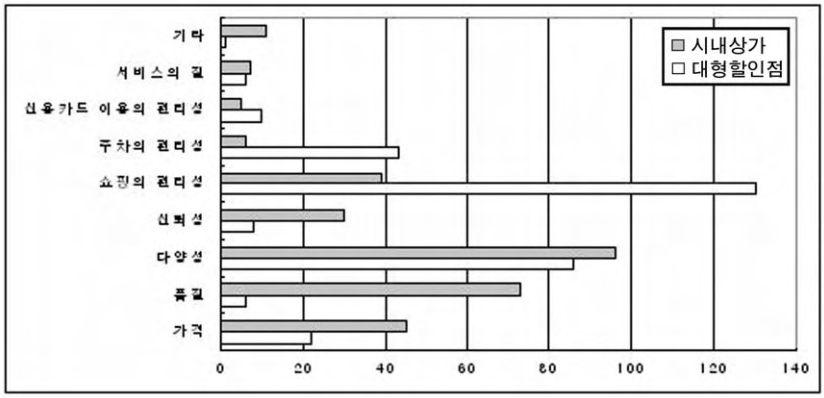
응답자에게 대형할인점과 시내상가를 이용할 경우 각 속성별 만족도를 물어보고 이들간의 만족도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제품의 가격, 품질, 다양성, 신뢰성 항목은 대형할인점과 시내상가 간의 만족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통의 만족정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쇼핑의 편리성, 주차의 편리성의 두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쇼핑과 주차의 편리성은 대형할인점이 약간만족하는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시내상가를 이용할 경우 양간불만족하는 만족의 정도를 보이고 있어, 응답자들이 선택의 측면에서 이 두 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극명한 선택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 표 5-2-15 〉 이용 속성별 만족도

구 분	대형할인점	속초시내상가
상품의 가격?	3.160256	3.009615
상품의 품질?	3.160256	3.147436
상품의 다양성?	3.701923	3.282051
상품의 신뢰성?	3.467949	3.070513
쇼핑의 편리성?	4.096154	2.682692
주차의 편리성?	4.294872	2.105769
신용카드 이용의 편리성?	3.583333	2.458333
서비스의 질?	3.705128	2.855769

10) 대형할인점 및 시내상가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 그림 5-2-14 〉 이용이유

응답자에게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상품의 가격, 품질, 다양성, 신뢰성, 쇼핑의 편리성, 주차의 편리성, 신용카드 이용의 편리성, 서비스의 질 등 8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쇼핑의 편리성 130명(41.7%), 상품의 다양성 86명(27.6%), 주차의 편리성 43명(13.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게 시내상가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상품의 가격, 품질, 다양성, 신뢰성, 쇼핑의 편리성, 주차의 편리성, 신용카드 이용의 편리성, 서비스의 질 등 8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상품의 다양성 96명(30.8%), 상품의 품질 73명(23.4%)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형할인점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쇼핑과 주차의 편리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속성이며, 시내상가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상품의 다양성 및 품질 때문인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대형할인점의 경우 가격과 품질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종래의 인식이 시내상가와 비교했을 경우 유의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 점이 특이 한 점으로 나탔으며, 대형할인점의 경쟁력은 쇼핑과 주차의 편리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형할인점의 상황을 SWOT 분석을 통해 보면,

장점으로는 전국에 다점포망을 구축하고 있어 국내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할인점=이마트”라는 고객의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른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롯데나 해외유통업체 등에 대비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으며, 조직확대에 따른 상황대처 순발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또

한가지 고객지향 시스템이 미흡하여 고객의 Needs의 파악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한편 외부적 환경을 보면, 할인점의 고급화에 따른 업태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경쟁할인점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가격우위에 있어서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진할인점의 급속한 국내 진출과 확산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쟁점들의 무분별한 행사로 인해 고객 신뢰감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도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 표 5-2-16 〉 이용이유

구 분	대형할인점		속초시내상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상품의 가격	22	7.1%	45	14.4%
상품의 품질	6	1.9%	73	23.4%
상품의 다양성	86	27.6%	96	30.8%
상품의 신뢰성	8	2.6%	30	9.6%
쇼핑의 편리성	130	41.7%	39	12.5%
주차의 편리성	43	13.8%	6	1.9%
신용카드이용의 편리성	10	3.2%	5	1.6%
서비스의 질	6	1.9%	7	2.2%
기타	1	0.3%	11	3.5%
합계	312	100.0%	312	100.0%

나. 관광객 설문조사

1) 관광객 응답자의 일반현황

〈 표 5-2-17 〉 관광객 응답자의 일반현황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연령	10대	1	1	방문횟수	처음	30	20
	20대	108	71		2번	34	22
	30대	21	14		3번	33	22
	40대	12	7		4번	9	6
	50대	8	5		5번이상	26	17
	60대이상	2	2		매년마다	20	13
성별	남	93	61	거주지	강원도	13	9
	여	59	39		광주광역시	2	1
					경기도	46	30
학력	고졸이하	20	13		경상도	10	7
	대학재학	61	40		대구광역시	4	3
	대졸	69	45		대전광역시	4	3
	대학원졸	2	1		부산광역시	2	1
					서울시	62	41
수입	100만원미만	20	13		인천광역시	8	5
	100~199만원	50	33		충청도	1	1
	201~299만원	49	32				

구 분		빈도	비율
수입	301~399만원	24	16
	400만원이상	9	6
동반자	친구	43	28
	가족/친지	46	30
	연인	34	22
	직장동료	16	11
	단체관광	10	7
	혼자	3	2
동반 가족수	1명	17	11
	2명	31	20
	3명	32	21
	4명	36	24
	5명	16	11
	6명	12	8
	7명이상	8	5
정보 습득의 원천	신문	1	1
	잡지	6	4
	친구	38	25
	직장동료	14	9
	인터넷	30	20
	과거의 경험	58	38
	현지인	2	1
	기타	3	2

구 분		빈도	비율
여행시 가장 필요한 정보	지도	8	5
	숙박	57	38
	음식	15	10
	관광지	34	22
	관광상품	15	10
	교통	20	13
	기타	3	2
여행물품 구입장소	시내상가	27	18
	대형할인점	6	41
	수퍼마켓	43	28
	기타	19	13
본 장소 방문 결정자	본인	69	45
	부부공동	15	10
	부부/자녀	9	6
	자녀	2	1
	친구/직장동료	44	29
	집안어른	7	5
	기타	6	4
교통수단	자가용	73	48
	시외/고속버스	43	28
	관광버스	16	11
	렌트카	20	13

2) 관광객 시내상가 이용시 불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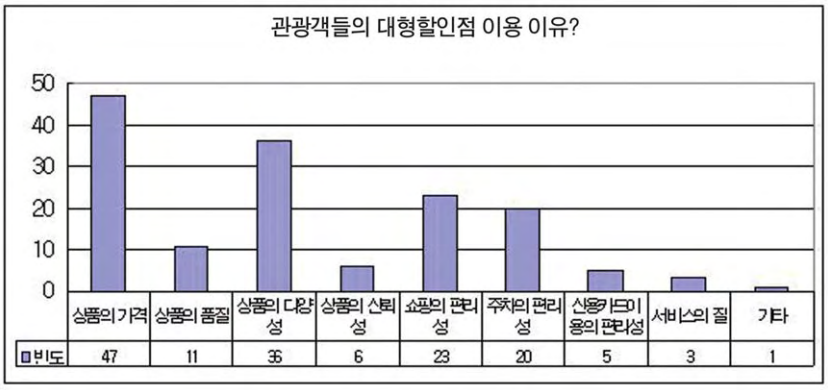
〈 그림 5-2-15 〉 시내상가 이용시 불편사항

관광객들이 시내상가를 이용시에 가장 불편사항에 대한 응답에는 주차공간 부족이 가장 많은 22명(14.5%), 교통혼잡 18명(11.8%), 물가가 비싸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7명(11.2%)순으로 나타났다. 관광객들이 시내상가를 이용함에 있어서 주차공간에 대한 안내방안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2-18 〉 시내상가 이용시 불편사항

구 분	빈도	퍼센트
물가가 비싸다	17	11.2
상품이 부족하다	5	3.3
주차공간부족	22	14.5
이정표	10	6.6
교통혼잡	18	11.8
필요한 물건이 없다	3	2
음식점 한정	1	0.7
서비스불만족	9	5.9
무응답	66	43.4
호객행위	1	1.7
합계	152	100.7

3) 관광객들의 대형할인점 이용이유?



〈 그림 5-2-16 〉 대형할인점 이용이유

관광객들이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상품의 가격 47명(30.9%), 상품의 다양성 36명(23.7%), 쇼핑의 편리성 23명(15.1%), 주차의 편리성 20명(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광객들은 관광지 물가에 대한 비싸다는 인식과 할인점이라는 저가격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주민과 달리 지리적인 특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2-19 〉 대형할인점 이용이유

구 분	빈도	퍼센트
상품의 가격	47	30.9
상품의 품질	11	7.2

구 분	빈도	퍼센트
상품의 다양성	36	23.7
상품의 신뢰성	6	3.9
쇼핑의 편리성	23	15.1
주차의 편리성	20	13.2
신용카드이용의 편리성	5	3.3
서비스의 질	3	2
기타	1	0.7

다. 속초시 지역주민과 관광객 차이분석(T-test)

1) 지역주민의 대형할인점과 시내상가 만족도 차이분석

지역주민의 E-mart와 시내상가의 지각된 만족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의 가격, 상품의 다양성, 상품의 신뢰성, 쇼핑의 편리성, 주차의 편리성, 신용카드 이용의 편리성, 서비스의 질이 유의수준(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품의 품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2-20 〉 지역주민 만족도 차이분석

구 분		평균	N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대응 1	11.대형할인점 이용시 상품의 가격?	3.1603	312	0.7393	2.701	0.007
	19.시내상가 이용시 상품의 가격?	3.0096	312	0.6874		
대응 2	12.대형할인점 이용시 상품의 품질?	3.1603	312	0.7393	0.247	0.805
	20.시내상가 이용시 상품의 품질?	3.1474	312	0.688		
대응 3	13.대형할인점 이용시 상품의 다양성?	3.7019	312	1.0004	5.450	0.000
	21.시내상가 이용시 상품의 다양성?	3.2821	312	0.9023		
대응 4	14.대형할인점 이용시 상품의 신뢰성?	3.4679	312	0.8328	6.050	0.000
	22.시내상가 이용시 상품의 신뢰성?	3.0705	312	0.7659		
대응 5	15.대형할인점 이용시 쇼핑의 편리성?	4.0962	312	0.9642	16.322	0.000
	23.시내상가 이용시 쇼핑의 편리성?	2.6827	312	0.9977		
대응 6	16.대형할인점 이용시 주차의 편리성?	4.2949	312	0.9017	23.758	0.000
	24.시내상가 이용시 주차의 편리성?	2.1058	312	1.1105		
대응 7	17.대형할인점 신용카드 이용의 편리성?	3.5833	312	1.2027	10.783	0.000
	25.시내상가 신용카드 이용의 편리성?	2.4583	312	1.2596		

구 분		평균	N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대응 8	18.대형할인점 이용시 서비스의 질?	3.7051	312	0.9435	11.472	0.000
	26.시내상가 이용시 서비스의 질?	2.8558	312	0.8939		

2) 관광객의 대형할인점과 시내상가 만족도 차이분석

관광객의 대형할인점과 시내상가의 지각된 만족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의 가격, 상품의 품질, 상품의 다양성, 상품의 신뢰성, 쇼핑의 편리성, 주차의 편리성, 신용카드 이용의 편리성, 서비스의 질이 유의수준(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2-21 〉 관광객 만족도 차이분석

구 분		평균	N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대응 1	9.대형할인점 이용시 상품의 가격?	3.5724	152	0.9738	6.626	0.000
	17.시내상가 이용시 상품의 가격?	3.0066	152	0.9594		
대응 2	10.대형할인점 이용시 상품의 품질?	3.5987	152	0.9783	5.521	0.000
	18.시내상가 이용시 상품의 품질?	3.0658	152	0.9255		
대응 3	11.대형할인점 이용시 상품의 다양성?	3.8618	152	0.9563	9.051	0.000
	19.시내상가 이용시 상품의 다양성?	3.0526	152	0.9545		
대응 4	12.대형할인점 이용시 상품의 신뢰성?	3.6316	152	1.0012	6.323	0.000
	20.시내상가 이용시 상품의 신뢰성?	3.0263	152	1.0226		
대응 5	13.대형할인점 이용시 쇼핑의 편리성?	3.7895	152	0.9942	8.679	0.000
	21.시내상가 이용시 쇼핑의 편리성?	2.8618	152	1.0232		
대응 6	14.대형할인점 이용시 주차의 편리성?	3.8158	152	1.0511	9.793	0.000
	22.시내상가 이용시 주차의 편리성?	2.5724	152	1.046		
대응 7	15.대형할인점 신용카드 이용의 편리성?	3.6908	152	1.0373	7.148	0.000
	23.시내상가 신용카드 이용의 편리성?	2.8947	152	1.1167		
대응 8	16.대형할인점 이용시 서비스의 질?	3.4539	152	0.9822	6.026	0.000
	24.시내상가 이용시 서비스의 질?	2.8553	152	1.0821		

3)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T-test 검증

지역주민과 관광객들간의 지각된 만족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할인점의 상품의 가격, 상품의 품질, 쇼핑의 편리성, 주차의 편리성, 서비스의 질에서는 유의수준(P<0.05)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2-22 〉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T-test 분석 결과표

항목	구분	평균	N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11.대형할인점 이용시 상품의 가격?	지역주민	312	3.1603	0.7393	-5.060	0.000
	관광객	152	3.5724	0.9738		
12.대형할인점 이용시 상품의 품질?	지역주민	312	3.1603	0.7393	-5.372	0.000
	관광객	152	3.5987	0.9783		
15.대형할인점 이용시 쇼핑의 편리성?	지역주민	312	4.0962	0.9642	3.183	0.002
	관광객	152	3.7895	0.9942		
16.대형할인점 이용시 주차의 편리성?	지역주민	312	4.2949	0.9017	5.082	0.000
	관광객	152	3.8158	1.0511		
18.대형할인점 이용시 서비스의 질?	지역주민	312	3.7051	0.9435	2.655	0.008
	관광객	152	3.4539	0.9822		
21.시내상가 이용시 상품의 다양성?	지역주민	312	3.2821	0.9023	2.522	0.012
	관광객	152	3.0526	0.9545		
24.시내상가 이용시 주차의 편리성?	지역주민	312	2.1058	1.1105	-4.328	0.000
	관광객	152	2.5724	1.046		
25.시내상가 신용카드 이용의 편리성?	지역주민	312	2.4583	1.2596	-3.632	0.000
	관광객	152	2.8947	1.1167		

제5절 결론

유통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시작된 대형할인점의 점포수의 증가는 어느 한쪽에선 지역 상권과의 상당한 갈등을 겪기도 하며, 또 어떤 측면에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과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렇듯 대형할인점의 입지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못할 정도가 되었으며 지역사회와의 공동화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측되

어지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할인점과 시내상가의 만족도 차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상인들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형 할인점과 지역상인과의 공생의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제품의 구입순서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경우 생활용품, 과일 및 야채, 반찬, 가공식품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내상가의 경우 선어 및 활어, 의류, 과일 야채순으로 나타났다. 대형할인점은 일반소비재, 시내상가는 수산물과 의류에서 강점을 보인다.

둘째, 접근성으로 소요되는 시간에는 유의한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상가가 넓은 영역에 걸쳐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면에서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차 등의 어려움으로 도보 및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대형할인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셋째, 이용이유는 대형할인점의 경우 주차의 편리성, 쇼핑의 편리성, 상품의 다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시내상가의 경우 상품의 다양성, 상품의 품질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변화된 소비자의 구매패턴이라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하는 자기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만족도측면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되어져 왔던 것 보다는 쇼핑의 편리성과, 주차의 편리성, 서비스 질에서 지역주민들은 시내상가보다 대형할인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쇼핑 및 주차의 편리성 등 제품 구매에 편리성 면에서 시내상가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의 구매패턴의 변화에 대한 지역상인들의 경쟁우위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시내상가에서의 전략대안을 제안하면 첫째, 쇼핑의 편리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해결방안으로서는 물건 구입에 따른 주차공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것은 주차공간을 확장하는 문제에서 보다 더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차할인권 제공 및 개발을 위한 주차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즉, 주차유도 더 나아가 Valet Parking(대리주차), 공용카트이용 등이 용이한 주차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상인들 스스로 주차규약을 지키기 위한 모습과 주차고통 감수가 필요하다. 이

러한 의식개혁이 경쟁력 갖추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더불어 시내상가 지도 마련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쇼핑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상인들은 광고라고 생각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정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내상가 지도 마련시에는 시내상가 관광동선(動線)을 파악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품목별 집적 유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 고객 서비스 의식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전환과 서비스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환 및 피해보상 창구의 마련하여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 환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서비스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감동적 사례를 개발하여 PR(Public Relation)하는 적극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상품의 확보이다. 근거리에 집적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확보하고 좀 더 경쟁심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거대한 쇼핑타운으로서 비전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속초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경우 속초 재래시장에서의 수산물 경매 재현 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에게 신기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이다. 지역의 공동화가 지역주민의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균형적인 속초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발전의 토대도 중요하지만 소외되어지는 곳이 없이 전반적인 상향운동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되고자 하는 의식에 대한 호소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강화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만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일련의 정책을 동원하여 전략산업이나 목표산업이 경쟁성과를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후원자로 파악하고 있다. 또 다른 부류는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소위 "자유시장경제"견해를 취한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관점 모두 옳지 않다. 어느 쪽의 논리를 취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끊임없이 부식되고 말 것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지원을 옹호하는 부류는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해를 끼치고 정부 지원책을 자주 요구한다.

반면 정부 개입 축소론자들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들의 경쟁우위 획득을 자극하는 환경 조성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합법적인 역할까지도 무시한다.

속초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역할은 조정자와 협력자이다. 즉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불쾌감이나 고통을 줄지라도 기업들이 높은 이상을 갖고 경쟁에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또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분적인 역할만을 한다. 이러한 간접적으로 경쟁우위를 얻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제3장 속초지역 주민의 TV 홈쇼핑 이용실태[5)]

제1절 서론

케이블 TV는 1995년 도입이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2005년 6월 기준 13,135,262 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유료 다채널 방송서비스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채널 시대의 도래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양해진 방송서비스들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최근 속초지역경제는 면세유 가격상승과 오징어의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민들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기존의 소비패턴과 다른 소비자들이 대량생산 대량판매에 근거한 매스마케팅이, 다양화 세분화된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고객 차별화를 통한 속초지역경제 대응 능력 제고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유통을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소비자들은 매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고를 필요가 없으며, 집에서 TV를 보면서 물건을 주문하고 실시간으로 배송 받을 수 있는 현실에 도래했다. 이러한 TV 홈쇼핑은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방송광고는 뉴스, 오락, 스포츠에 국한 돼 있는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광고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형식이지였지만, TV 홈쇼핑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제품 광고자체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24시간 TV 홈쇼핑 시대가 도래함으로서 일대 혁명을 몰고 왔다. 이러한 변화는 속초지역경제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한 대응방안 모색이 현재까지 부재인 상태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이 편리성과 신속함을 중시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TV 홈쇼핑 시장을 발달시킨 요인이 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편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홈쇼핑은 중간유통을 배재한 직거래로 오프라인에 비해 20~30%의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30일 이내 교환, 반품정책으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쇼핑시간을 절약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홈쇼핑 이용과 반복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본 조사결과는 2005년 속초경실련에서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속초지역 주민의 TV 홈쇼핑 이용실태 파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모색”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홈쇼핑의 시장규모는 2005년 5조 5천억원, 2006년에는 6조 3천억원, 2007년에는 7조 2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KEDMA 추정) 풍부한 인적 자본과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각광받아 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경쟁력과 자금력에서 취약한 속초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쟁 양상이 전개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이러한 경쟁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속초지역 소상공인들은 도산하거나 흡수 합병되는 구조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속초지역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소상공인은 물론 제조업까지 그 폐해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방안모색과 체계적인 접근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홈쇼핑 관련 매체 중에서도 가장 강한 파급력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TV 홈쇼핑 구매자의 실태파악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제2절 TV 홈쇼핑 개념 및 특징

1. TV 홈쇼핑

가. TV 홈쇼핑 개념

오늘날의 소비자들의 욕구는 점점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비자 시장 또한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조업자로부터 도 ·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로 도달하는 전통적인 유통채널에 의한 소비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편리한 곳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며, 기업은 그러한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홈쇼핑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신 유통업태 중의 하나이다.

홈쇼핑(Home shopping)이란 "집에서(at home, in home)쇼핑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비자가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활동으로 직접마케팅 또는 통신판매라는 개념과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홈쇼핑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홈쇼핑이란 "소비자가 쇼핑을 위하여 점포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문, 잡지, 라디오, TV, 카탈로그, 팜플렛 등의 제반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한 상품이나 용역의 광고에 대하여 전화나 우편, 기타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주문하고 판매자가 소포나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배달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판매방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가 이동하지 않는 쇼핑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적극적인 쇼핑의지를 갖고 정보, 통신을 이용하는 쇼핑형태를 말한다. 홈쇼핑과 관련된 개념들로는 무점포 판매, 다이렉트 마케팅, 텔레마케팅, 통신판매, 우편주문판매, 카탈로그판매, 케이블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이 있다.

홈쇼핑에 대한 수요는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사회의 정착과 정보화 사회의 출현, 소비 생활 및 교육수준의 향상 등 홈쇼핑 시장의 성숙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홈쇼핑은 위성통신, 케이블 TV, PC 등 매체 혁명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상품판매와 구매수단의 상행위를 넘어서 시공을 초월한 정보화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홈쇼핑을 이용할 수 있는 매체로는 우편(카탈로그), 전화, 신문, 케이블 TV, PC통신, 인터넷 등이 있으며, <표 5-3-1>은 국내 홈쇼핑 시장의 변화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표 5-3-1 〉 국내 홈쇼핑 시장의 변화

년 도	내 용
'80년대 중반	전문통산판매 카달로크 등장
'80년대 후반 ~ '90년대 초	카달로 통신판매 급성장
'92 ~ '93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등장 전문홈쇼핑사 탄생
'94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등장
'95	해외 유슈의 카달로크 국내시장 진출 8월 1일 케이블 TV 홈쇼핑 시작
'96	Ingormereial 시대 개막 대기업의 홈쇼핑 시장 진출 인턴세 쇼핑몰 개설

출처: 박영봉 · 박성규,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논총, 1997, p.33

홈쇼핑 개념은 직접 마케팅 또는 통신 판매라는 개념과 통용되어지고 있다. 미국의 DMA(Direct Marketing Association)은 직접 마케팅을 "하나 이상의 미디어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반응과 거래를 유도하는 상호교감적인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직접 마케팅은 목표계층에 도달하는 매개 도구로 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의 인쇄매체와

TV, 라디오, 컴퓨터 네트워크, 전화 등의 전자매체, 그리고 CD롬과 같은 멀티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며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원래 홈쇼핑이란 말 그대로 "집안에서 편하게 즐기는 쇼핑"을 뜻하지만 80년 대 중반 미국 최초의 CATV 홈쇼핑회사 HOME SHOPPING NETWORK가 설립된 이후 홈쇼핑은 CATV 홈 쇼핑을 대신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홈쇼핑이라는 용어는 1995년 CATV 홈쇼핑의 출현과 함께 CATV홈쇼핑을 상징하는 단어로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통신판매란 구매자가 직접 시장에 나가서 제품을 고르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판매자가 인쇄매체나 방송광고매체의 광고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면 구매자는 그 정보만으로 구매 결정을 한후 전화, 팩스, 엽서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주문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그 제품을 배달하는 판매 시스템을 말한다. 홈쇼핑이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물건을 고르고 선택하여 구매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통신판매는 홈쇼핑이 될 수 있다.

나. TV 홈쇼핑의 특징

TV 홈쇼핑은 오락과 정보라는 TV의 두가지 기능에 생활 경제라는 새로운 분야가 접합됨으로써 TV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일반적인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홈쇼핑은 가정에서 편리하게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백화점이나 시장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으므로 쇼핑에 드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인쇄매체와는 달리 화면을 통해서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다. 쇼 호스트라고 불리우는 진행자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설득적 소구를 가진 매체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기존의 통신판매에서 느꼈던 암묵적인 불신감을 없애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TV홈쇼핑은 소비자 지향적이며 상호적이다. 홈쇼핑을 시청하는 동안 소비자들은 전화를 통해서 프로그램 진행자, 판매원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따라서 TV 홈쇼핑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는 일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제품에 대해서 질문하고 가정에서 직접주문 함으로써 양방향식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TV홈쇼핑은 대단히 경제적이다. 시중가보다 20-30% 싼 가격에 물건을

공급한다. 도매상, 소매상 등의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방송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중간단계의 비용을 절약하여 가격파괴를 한다. 또한 매장이 필요없고 따로 광고를 제작하지 않는다는 점도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땅한 유통경로를 찾지 못해 애태우던 중소업체들에게 홈쇼핑은 최고의 시장이 될 수 있다.

TV 홈쇼핑은 다른 인쇄매체들을 통한 통신판매와는 달리 '방송'이라는 공신력 있는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방송사는 일반 판매사와는 달리 자사의 방송국 이미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 서비스면에서 심혈을 기울이므로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홈쇼핑에서 권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 홈쇼핑 이용자 특성

앞에서 살펴본 TV 홈쇼핑의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TV홈쇼핑은 기존의 판매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방식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초기 상태인 TV홈쇼핑의 이용 여부에는 소비자의 개별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Gillet(1970)의 홈쇼핑 이용자들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홈쇼핑 이용자들은 인구통계적으로 볼 때 교육구준, 사회 계층, 직업의 종류에 의해서 중류 이상의 사회 경제적 수준을 가진 계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홈쇼핑 논문들에서 보면 인구통계적 특성 이외에 구매자와 비구매자간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소비자 특성들로 충동구매, 특정한 자신감, 의견선도자 등을 밝히고 있다.

2. 우리나라 TV 홈쇼핑의 현황

가. TV 홈쇼핑 사업자

우리나라 TV 홈쇼핑은 1995년 케이블 TV의 출범과 함께 등장했는데, GS홈쇼핑의 전신인 한국홈쇼핑과 CJ홈쇼핑의 전신인 HSTV가 8월 1일 시험방송을 송출하면서부터 개시되었다.

이 두 개사의 TV홈쇼핑 본 방송은 그 해 10월부터 시작되었고, 이 때를 전후하여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을 통해 홈쇼핑 사업을 하는 일반 홈쇼핑 사업자 수백 업체가 난립하면서 본격적인 TV 홈쇼핑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 후 2001년, 방송위원회가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3개

사를 전문홈쇼핑 채널로 추가 선정함으로써 기존의 CJ홈쇼핑 및 LG홈쇼핑과 함께 5대 전문홈쇼핑채널 체제가 형성되어 TV홈쇼핑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 5대 업체가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의해서 방송위원회로부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라면 이들 이외에도 소비자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구성내용이 비슷한 TV홈쇼핑 광고 사업을 하는 업체가 바로 인포머셜(informercial) 사업자와 유사 · 불법 TV홈쇼핑 사업자다.

인포머셜사업자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로 승인받지 않은 일반 홈쇼핑 사업자로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채널의 일정시간대를 할당받아 홈쇼핑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정확하게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200개 내지 30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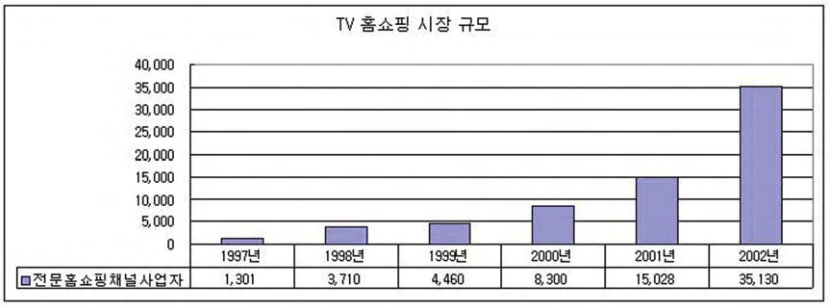
그리고 기타 유사 · 불법 홈쇼핑 사업자는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의 상품판매 프로그램 등을 모방한 홈쇼핑 방송광고를 사전 광고심의도 받지 않은 채 중계유선방송이나 아파트 공청시설 등을 통해서 방영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방송법 제70조 제5항[6]에 의하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방송은 송출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방송법 제70조 제5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 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 · 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나. TV 홈쇼핑의 시장규모

TV 홈쇼핑의 초창기인 1996년도에는 선발업체인 CJ홈쇼핑과 GS홈쇼핑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5천~6천만원, 전체 이용객도 10만명 정도였으나, 2년이 지난 1998년 7월에는 전체 이용객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매출액 또한 10배 가까이 성장했다(정미경, 1999)는 사실은 시장 초기의 급성장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한국통신판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TV홈쇼핑 시장규모가 매년 증가 추 세인데, 특히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넘게 증가해 4조 1천 460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도의 전체 시장규모인 2조 480억중 73%인 1조 5천28억을 5대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가 차지했고 2002년도 역시 전체 시장규모인 4조 1천 460억중 85%인 3조 5천 130억원을 5대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가 차지한 사실을 보아, TV홈쇼핑 시장을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림 5-3-1〉 TV홈쇼핑 시장규모
출처 : 한국통신판매협회 자료, 2002.2

TV홈쇼핑 시장의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는 1999년 현재 약 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1995년 8월 TV홈쇼핑 시장이 탄생한 이후 매년 비약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CATV 가시청가구수의 급격한 증가가 TV홈쇼핑 시장의 성장세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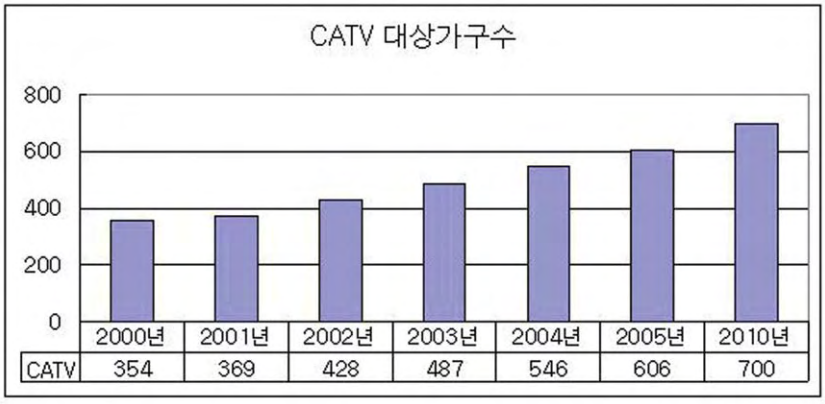
비공식적인 중계유선가입자의 CATV 시청가구수를 포함한 실제 TV홈쇼핑채널 시청가구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략 1998년말 150만 가구에서 1999년말에는 250만 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0).

CA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한 TV홈쇼핑의 시장규모는 2005년 6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2010년에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TV홈쇼핑의 대상가구수는 2005년969만 가구로 예상할 수 있으며 2010년에는 1,4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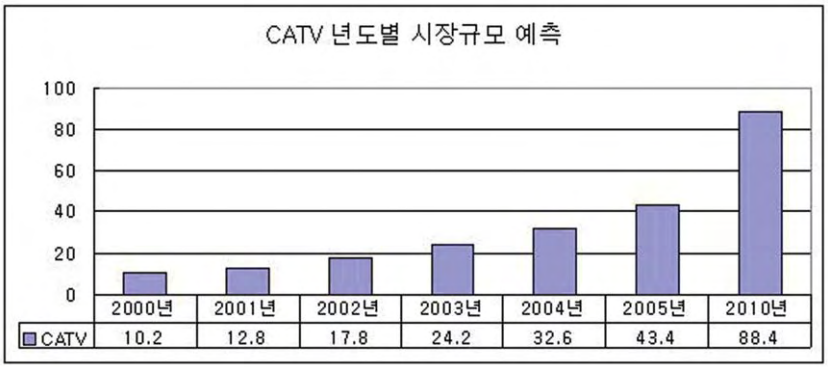
2010년 CATV와 위성TV 홈쇼핑 시장규모를 예측해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 표 5-3-2 〉 CATV와 위성TV 홈쇼핑 시장규모 예측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10년
대상 가구수 (만가구)	CVTV	354	369	428	487	546	60	700
	위성			73	159	254	363	700
	합계	354	369	501	646	800	969	1400
가구당 지출단가 (만원)	CATV 위성 동일	28.8	34.6	41.5	49.8	59.7	71.7	126.3
시장규모 (천웍원)	CVTV	10.2	12.8	17.8	24.2	32.6	43.4	88.4
	위성			3	7.9	15.2	26	88.4
	합계	10.2	12.8	20.8	32.1	47.8	69.4	176.8



〈 그림 5-3-2〉 CATV 대상가구수



〈 그림 5-3-3〉 CATV 시장규모 예측수

다. 한국케이블TV 영동방송 가입자 세부 현황

1) 한국케이블 TV 영동방송 연혁

한국 케이블 TV 영동방송의 연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5-3-3 〉 한국 케이블 TV 영동방송 연혁

연 도	한국케이블TV 영동방송회사 연역
1997.05.27	영동지역SO(Sustem Operator) 사업자로 선정
1997.08.12	법인 설립 (자본금 60억원)
1997.10.20	종합유선방송국 허가
1997.11.23	강릉유선방송사 인수
1997.11.30	방속시스템 및 커버터 신정, 계약
1998.04.04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완료
1998.05.28	대림아파트 시험방송 송출
1998.12.01	중계유선방소사업 부문 매각

연 도	한국케이블TV 영동방송회사 연역
1999.02.11	영동케이블네트워크와 전송망계약 체결
1999.04.02	영동케이블테트워크와 전송망계약 체결
1999.06.15	YBS 지역체널(CH7) 개국
1999.09.01	강릉지역 유료방송 개시
1999.12.31	유상증자(자본금 53억원) / 강릉네트워크 인수
2000.01.28	대주주 변경 / (주)아이팩
2000.02.01	동해지역 시험방송 송출
2000.04.17	유상증자(자본금 95.55억원) / 제일제당(주) 지분 참여
2000.06.28	유상증자(자본금 169.15악으ㅏㄴ)/금강케이블네트워크 및 7개중계유선인수
2000.10.19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완료
2001.02.01	삼척지역 심험방송 송출
2001.03.01	인터넷 상용서비스 실시
2001.09.01	대주주 변경 / (주)온미디어
2002.03.06	강릉동부유선지역 전송망 및 가입자 인수
2003.04.01	태백 도계지역 협업 개시
2003.08.01	고싱지역 현업 개시

현재 한국케이블 TV 영동방송 서비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표 5-3-4 〉 영동방송 서비스 세부현황

사업자명	채널상품명		상품금액	가입대수	유료시청총계	무료시청총계	총시청	유료채널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의무형	단수	4,000	11,146	186,840	752	187,592	5,464
		복수	2,000	2,393				
	국민형	단수	5,000	57,299				
		복수	2,500	21,580				
	경제형	단수	9,800	82,098				
		복수	4,900	10,914				
	기본형	단수	15,000	1,937				
		복수	7,500	225				

속초시의 경우 총가입대수는 20,619대수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별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 표 5-3-5 〉 주거형태별 가입자 현황

사업체명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비거주)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107,178	66,486	13,928

또한 한국케이블 TV 영동방송 채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표 5-3-6 〉 채널 운영현황

사업체명	가용채널	운영채널	여유채널	기타채널	장애채널
한국케이블 TV영동방송	77	76	0	1	0

한국케이블 TV 영동방송 매출부문 손익계산서을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총 매출액 12, 855,570,000원이였으나, 2004년에는 16,974,639,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익이 2003년 1,320,000,000원에서 1,978,467,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3-7 〉 영동방송 손익계산서

과 목	2003년	2004년
매출액	12,855,570	16,974,639
방손수신료수익	7,857,858	11,950,156
광고수익	1,885,634	604,136
현찬수익	0	0
홈쇼핑송출수수료 수익	1,320,000	1,978,467
기타 매출	1,792,078	2,441,880

제3절 조사설계와 분석

1. 모집단 및 자료의 수집

속초시에 거주하는 속초시민들 중 TV홈쇼핑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태를 파악하려는 본 연구는 속초시민을 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속초거주민으로부터 수집하였다.

1차 설문은 속초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기간은 2005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다. 총 320매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310매였으며 이중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301매를 유효표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과 특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질문으로 TV홈쇼핑의 시청여부, TV 홈쇼핑의 시청 시간대, TV홈쇼핑 채널 시청이유, 주로 시청하는 TV홈쇼핑 등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TV 홈쇼핑을 통한 구매 경험과 구매 경험횟수, 구매상품, 구매동기, 구매시 제품 가격대, 구매시 결제방법등 6문항과 만족도, 재구매의도 등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는 홈쇼핑 채널이 지상파 사이에 있어서 시청시간과의 관계와 TV홈쇼핑과 지역상권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2문항과 인구통계적 문항 및 사회경제적 특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로서 질문형태는 다지선다형의 질문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측정척도는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질문하였다(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그렇다”).

3. 자료의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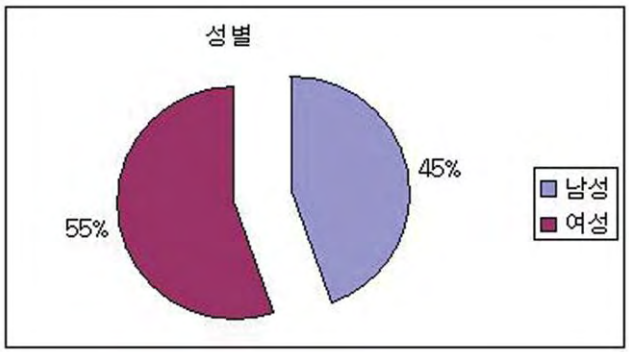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실증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1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T-검증(T-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가. TV 홈쇼핑에 대한 속초지역주민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현황

1) 응답자의 성별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134명(44.5%), 여자가 167명(55.5%)로 나타났다. 이는 TV 홈쇼핑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용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여성 비율의 응답자를 남자보다 많게 하였다.



〈 그림 5-3-4〉 응답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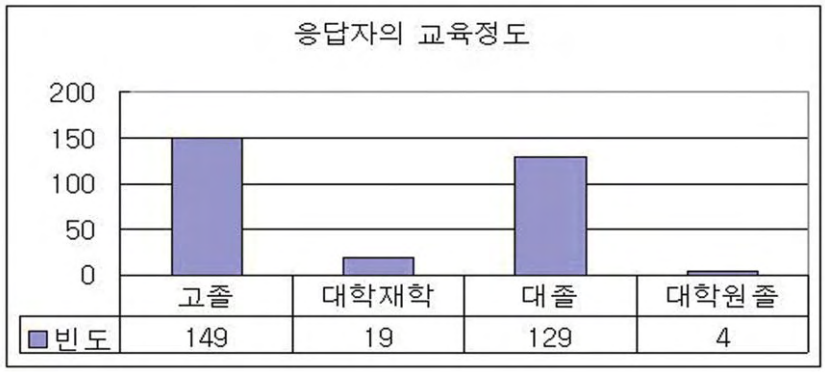
2)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은 157명(52.2%), 다음은 40대가 77명(25.6%), 20대가 49명(16.3%), 50대이상이 18명(6%)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5-3-5〉 응답자의 연령

3) 응답자의 교육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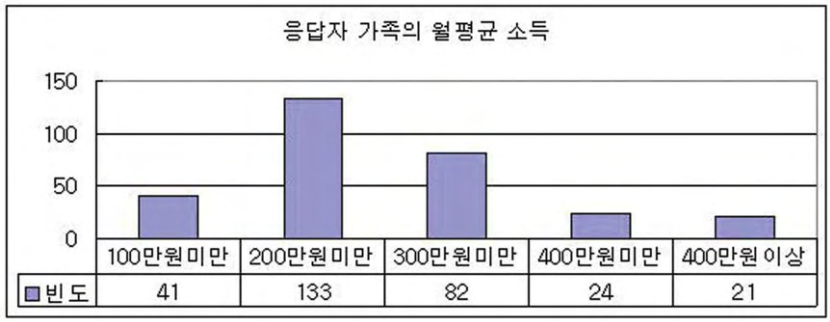
응답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가장 많은 149명(49.5%), 다음으로는 대졸이 129명(42.9%), 대학재학 19명(6.3%), 대학원졸 4명(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3-6〉 응답자의 교육정도

4) 응답자 가족의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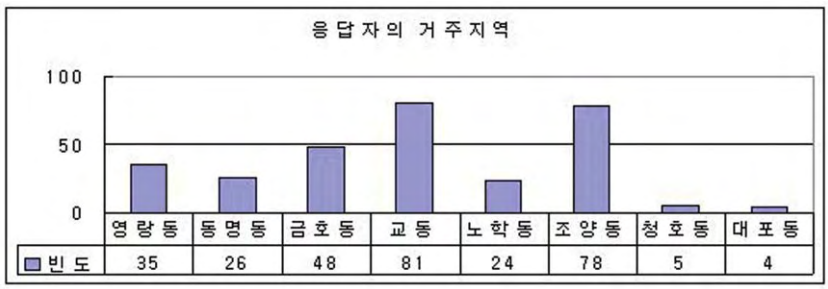
응답자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200만원미만이 가장 많은 133명(44.2%), 다음으로는 300만원미만 82명(27.2%), 100만원 미만이 41명(13.6%), 400만원미만 24명(8%), 400만원이상 21명(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3-7〉 월평균 소득

5) 응답자의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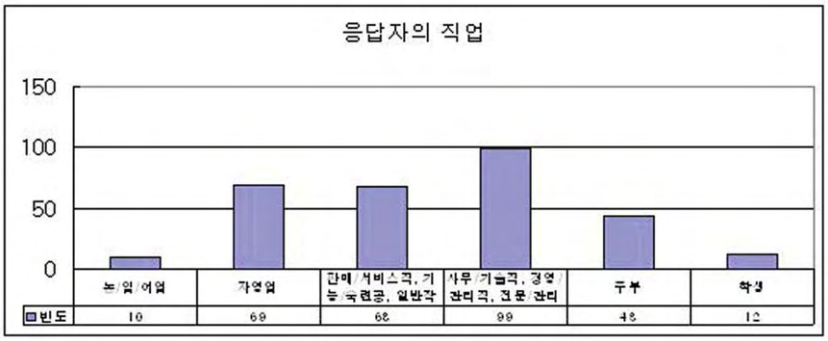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교동이 가장 많은 81명(26.9%), 다음은 조양동 78명(25.9%), 영랑동 35명(11.6%), 동명동 26명(8.6%), 노학동 24명(8%), 청호동 5명(1.7%), 대포동 4명(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3-8〉 응답자의 거주지역

6) 응답자의 직업

응답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관리직이 가장 많은 99명, 다음은 자영업이 68명과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이 68명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5-3-9〉 응답자의 직업

응답자의 일반적인 인구통계적 사항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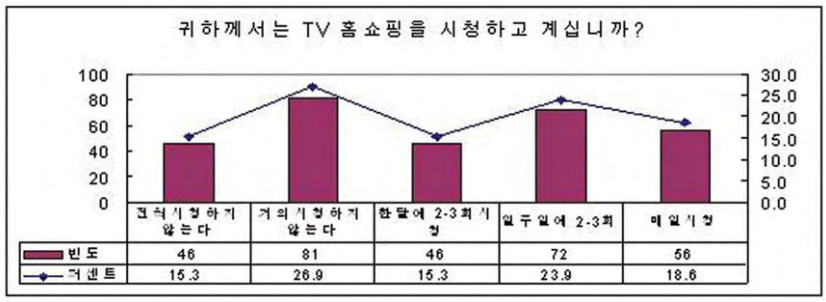
〈 표 5-3-8 〉 응답자의 일반사항

구 분		빈도	퍼센트	구 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34	44.5	거주지역	영랑동	35	11.6
	여성	167	55.5		동명동	26	8.6
연령	20대	49	16.3		금호동	48	15.9
	30대	157	52.2		교동	81	26.9
	40대	77	25.6		노학동	24	8
	50대이상	18	6		조양동	78	25.9
교육정도	고졸이하	149	49.5		청호동	5	1.7
	대학재학	19	6.3		대포동	4	1.3
	대졸	129	42.9	직업	농/임/어업	10	3.3
	대학원졸	4	1.3		자영업	69	22.9
소득	100만원미만	41	13.6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68	22.6
	200만원미만	1,333	44.2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관리직	99	32.9
	300만원미만	82	27.2		주부	43	14.3
	400만원미만	24	8		학생	12	4
	400만원이상	21	7				

나. TV 홈쇼핑에 대한 속초지역주민 설문조사 응답자의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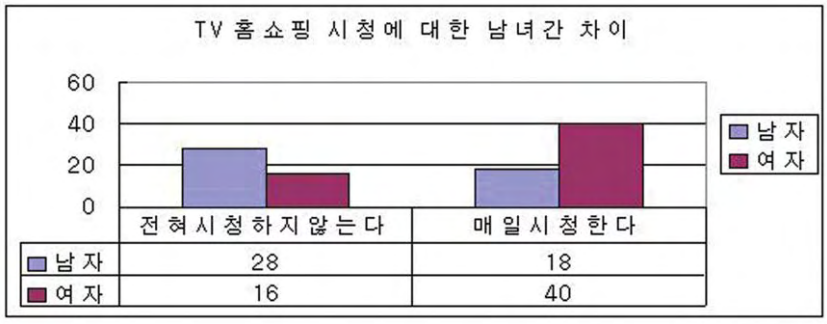
1) TV 홈쇼핑 시청여부

TV 홈쇼핑을 시청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가 81명(26.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2-3회 시청이 가장 많은 72명(23.9%), 다음으로 한달에 2-3회 시청과 전혀시청하지 않는다가 46명(15.3%)으로 나타났다. 매일 시청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56명(18.6%)이나 되었다.



〈 그림 5-3-10 〉 TV홈쇼핑 시청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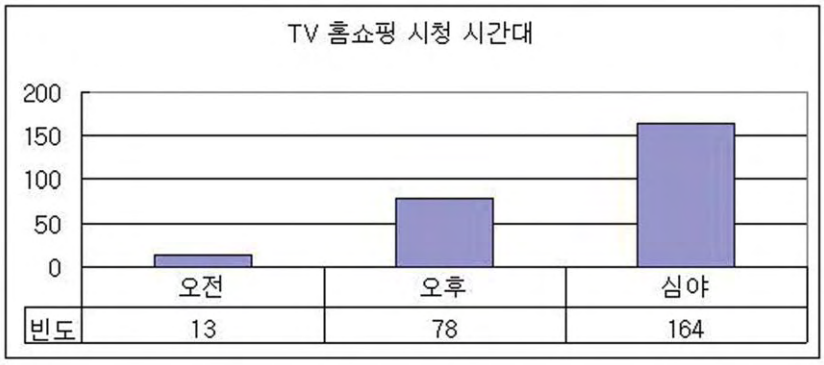
교차분석을 통해 남녀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혀시청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전체 46명 중 남성은 28명(60.9%), 여성은 18명(39.1%)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매일시청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56명 중 남성은 16명(28.6%), 여성은 40명(71.4%)으로 나타나 TV 홈쇼핑 시청에 대해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5-3-11 〉 TV홈쇼핑 남녀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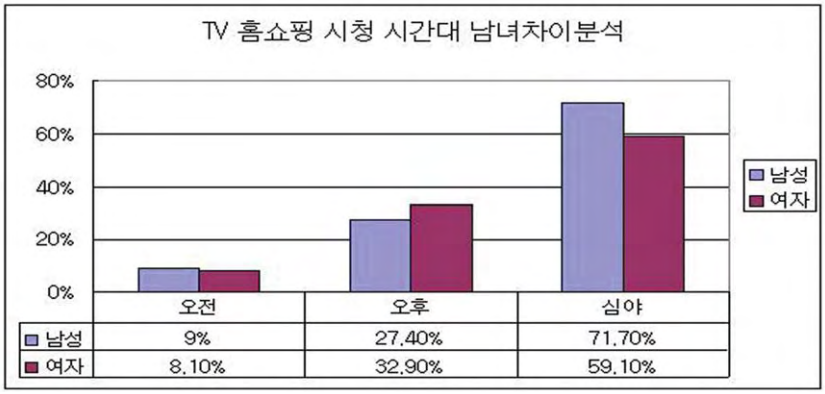
2) TV 홈쇼핑 시청 시간대

TV 홈쇼핑 시청 시간대는 심야가 가장 많은 164명(64.3%), 오후 78명(30.6%), 오전 13명(5.1%)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5-3-12 〉 TV홈쇼핑 시청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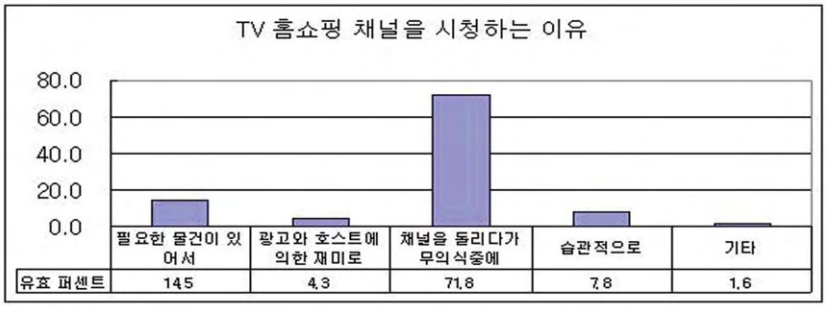
TV 홈쇼핑 시청 시간대를 교차분석한 결과 오후에는 여자가, 심야에는 남자가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5-3-13 〉 TV홈쇼핑 시청 시간대 남녀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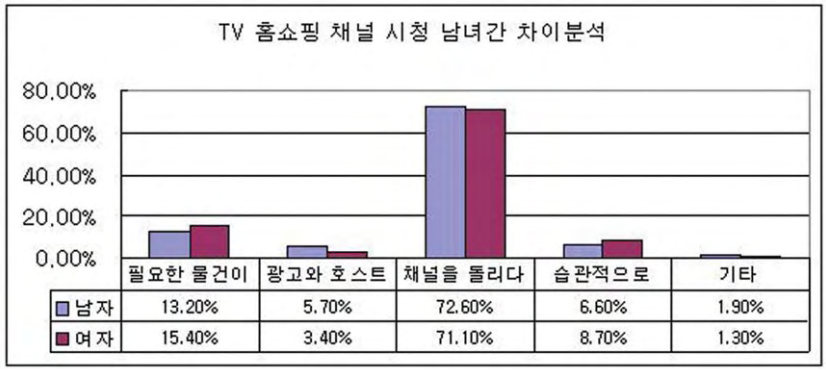
3) TV 홈쇼핑 채널 시청 이유

TV 홈쇼핑 채널 시청이유에 대해서는 채널을 돌리다가 무의식중에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183명(71.8%),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37명(14.5%), 습관적으로 20명(7.8%)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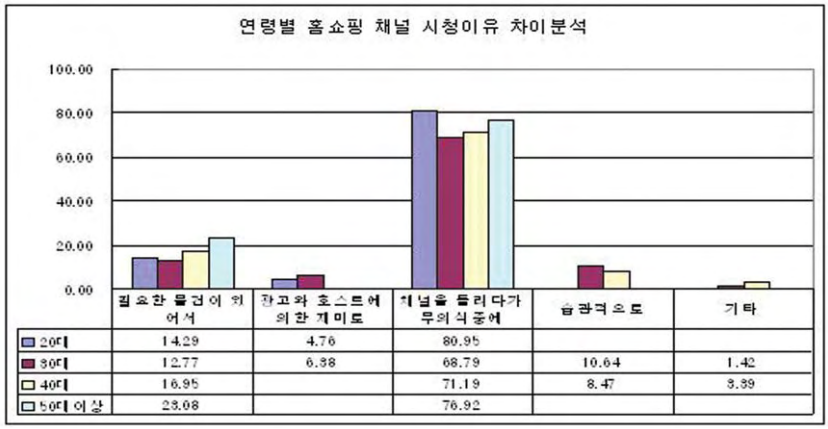
〈 그림 5-3-14 〉 TV홈쇼핑 시청 이유

TV 홈쇼핑 채널 시청 이유에 대해 남녀간 교차분석 결과 남자와 여자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물건이	광고와 호스트	채널을 돌리다	습관적으로	기타
남자	13.20%	5.70%	72.60%	6.60%	1.90%
여자	15.40%	3.40%	71.10%	8.70%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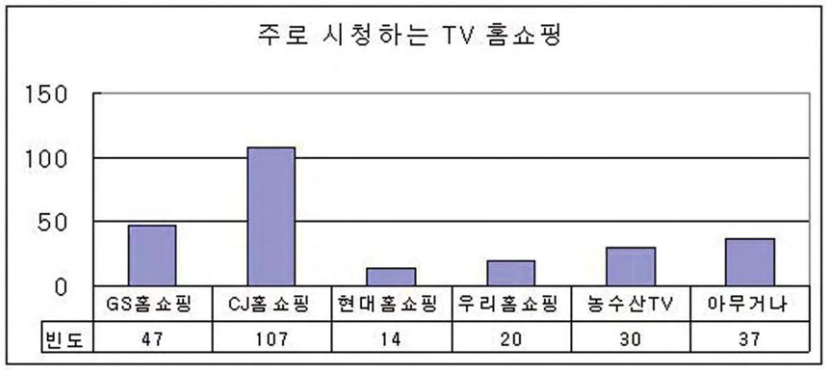
〈 그림 5-3-15 〉 남녀간 차이 분석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광고와 호스트에 의한 기대로	채널을 돌리다가 무의식중에	습관적으로	기타
20대	14.29	4.76	80.95		
30대	12.77	6.38	68.79	10.64	1.42
40대	16.95		71.19	8.47	3.39
50대 이상	23.08		76.92		

〈 그림 5-3-16 〉 연령별 차이 분석

4) 주로 시청하는 TV 홈쇼핑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TV	아무거나
빈도	47	107	14	20	3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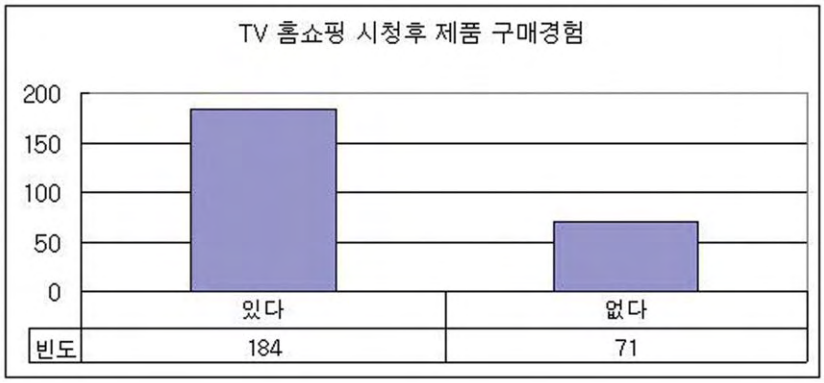
〈 그림 5-3-17 〉 시청 홈쇼핑 채널

주로 시청하는 TV 홈쇼핑은 CJ가 가장 많은 응답자 107명(42%)을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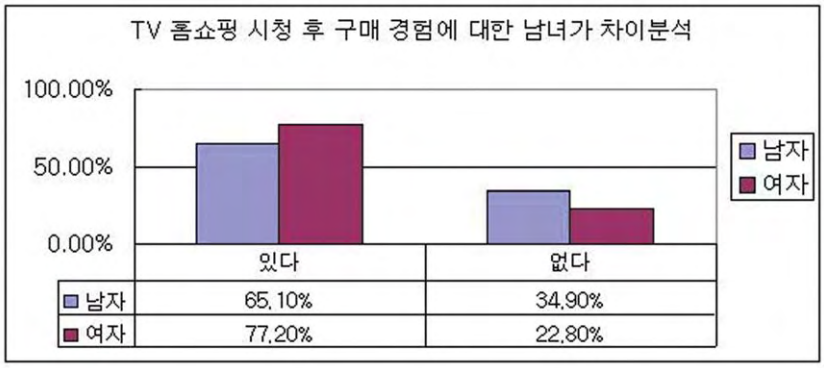
냈으며, 다음으로는 GS홈쇼핑47명(18.4%), 농수산TV 홈쇼핑 30명(11.8%), 우리홈쇼핑 20(7.8%), 현대홈쇼핑 14명(5.5%), 아무거나 37명(12.3%)순으로 나타났다.

5) TV 홈쇼핑 시청후 제품 구매경험

TV 홈쇼핑 시청 후 제품 구매경험에 대해서는 제품 구매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4명(72.2%),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1명(27.8%)로 구매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제품구매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그림 5-3-18 〉 제품 구매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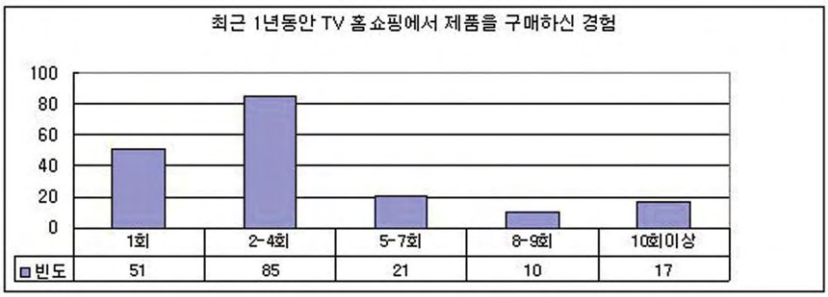


〈 그림 5-3-19 〉 구매경험 남녀차이 분석

6) 최근 1년 동안 TV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하신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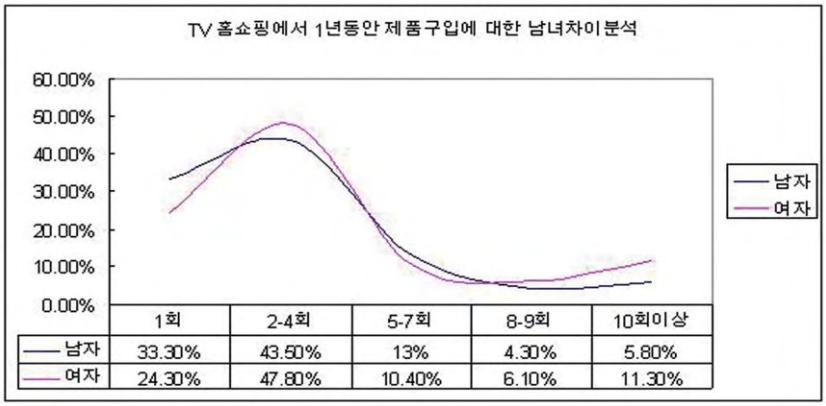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TV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하신 경험은 총 응답자 301명 중 184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2회~4회가 가장 많은 85명(46.2%)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회 51명(27.7%), 5회~7회가

21명(11.4%)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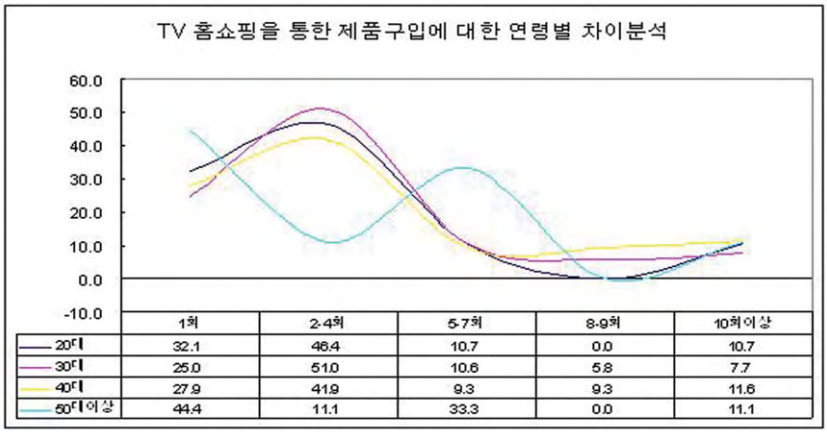
〈 그림 5-3-20 〉 1년간 제품구매 경험

남녀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구매경험이 많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5-3-21 〉 1년간 제품구매 남녀차이 분석

1년동안 TV 홈쇼핑을 통한 제품구입에 대한 연령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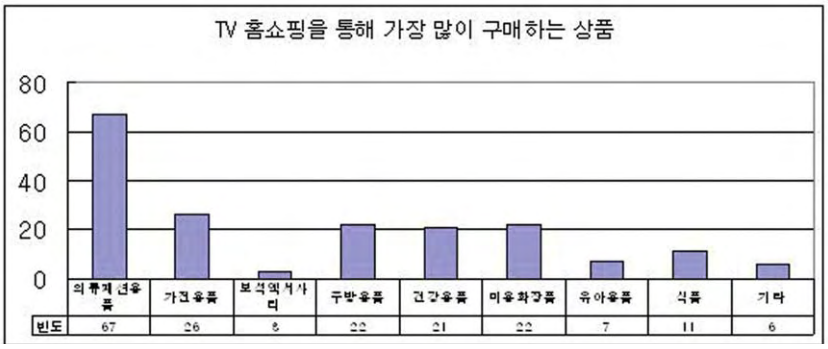
〈 그림 5-3-22 〉 제품구매 연령별 차이 분석

7) TV 홈쇼핑을 통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상품

TV 홈쇼핑을 통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상품은 의류패션용품이 가장 많은 응답자 67명(36.2%), 다음으로는 가전용품26명(14.1%), 주방용품과 미용화장품 22명(11.9%), 건강용품 21명(11.4%)순으로 나타났다.

〈 표 5-3-9 〉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

품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의류패션용품	67	36.2
가전용품	26	14.1
보석엑서사리	3	1.6
주방요품	22	11.9
건가용품	21	11.4
미용화장품	22	11.9
유아용품	7	3.8
식품	11	5.9
기타	6	3.2



〈 그림 5-3-23 〉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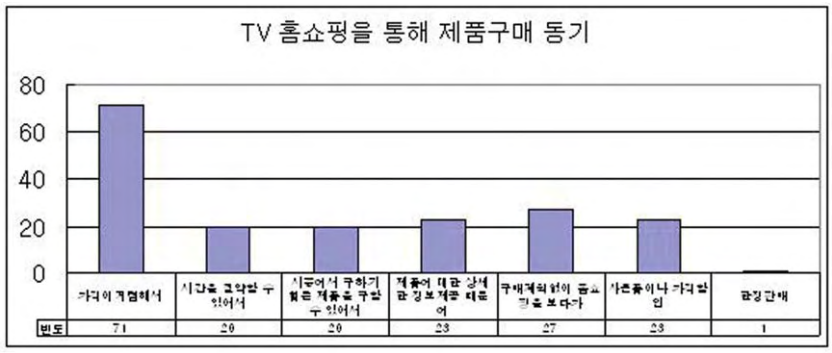
8) TV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동기

TV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동기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하였으며 72명(38.4%), 다음으로는 구매계획없이 홈쇼핑을 보다가 27명(14.6%),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때문에와 사은품이나 가격할인 때문에 23명(12.4%),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20명씩(10.8%), 순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가격은 유통혁명을 통한 당연한 결과이지만 구매계획없이 홈쇼핑을 보다가 구입하게 되는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표 5-3-10 〉 제품 구매 동기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가격이 저렴해서	71	38.4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20	10.8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20	10.8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때문에	23	12.4
구매계획없이 홈쇼핑을 보다가	27	14.6
사은품이나 가격할인	23	12.4
한정판매	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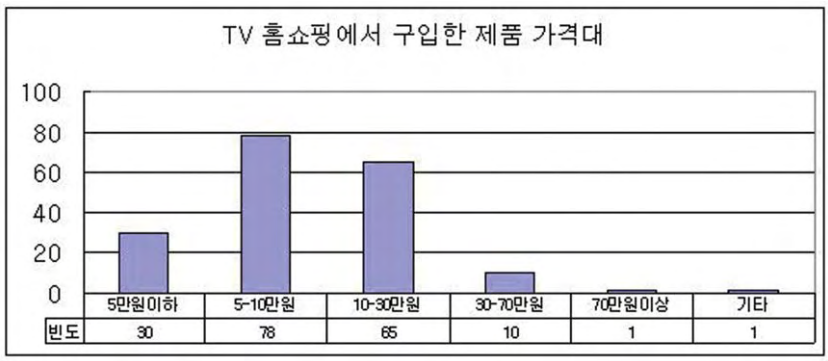


〈 그림 5-3-24 〉 제품 구매 동기

9) TV 홈쇼핑에서 구입 제품의 가격대

TV 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의 가격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5만원~10만원사이로 나타났으며 78명(42.2%), 다음으로는 10만원~30만원이 65명(35.1%), 5만원이하 30명(16.2%), 30만원-70만원이 10명(5.4%), 70만원이상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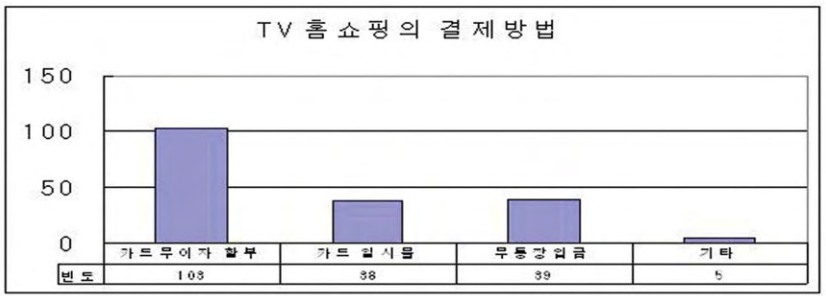
여성은 10만원~30만원대가 남성보다 많았으며, 남성은 70만원이상이 여성보다 많은 응답자가 나왔다.



〈 그림 5-3-25 〉 구입 제품 가격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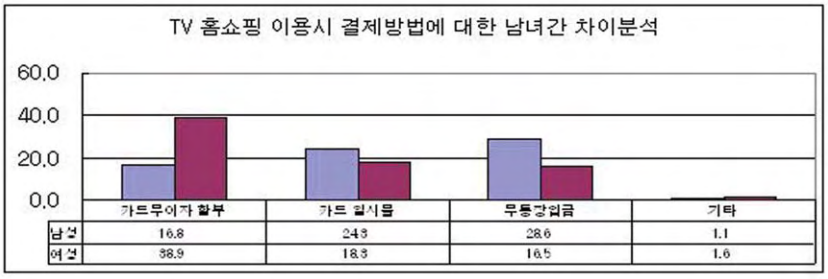
10) TV 홈쇼핑 제품구입시 결제 방법

TV 홈쇼핑 제품 구입시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카드 무이자 할부를 103명(55.7%), 다음으로는 무통장 입금 39명(21.1%), 카드 일시불 38명(20.5%) 순으로 결제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5-3-26 〉 결제 방법

TV 홈쇼핑 결제방법에 있어서도 남자의 경우는 카드 일시불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카드 무이자 할부가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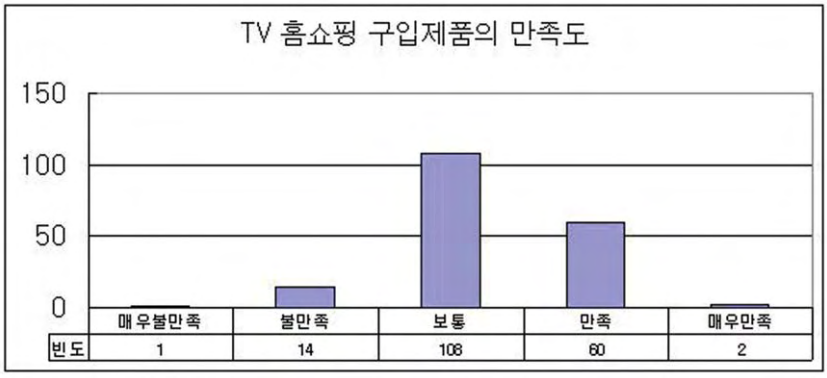
〈 그림 5-3-27 〉 결제방법 남녀간 차이 분석

11) TV 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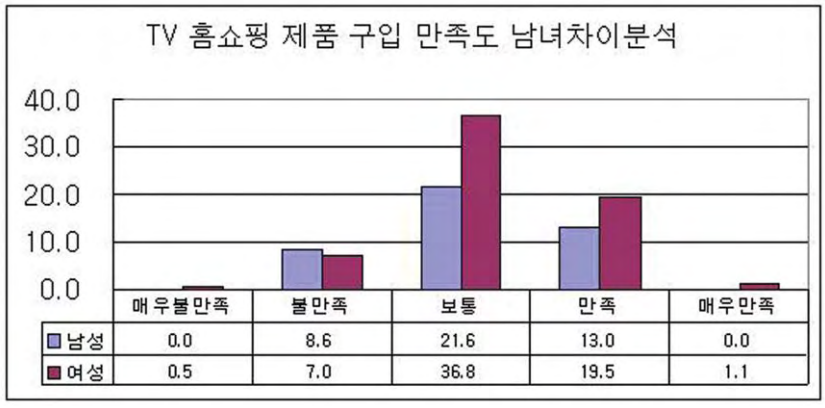
TV 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의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가 불만족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3-11 〉 제품 만족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불만족	1	0.5
불만족	14	7.6
보통	108	58.4
만족	60	32.4
매우만족	2	1.1



〈 그림 5-3-28 〉 구입 제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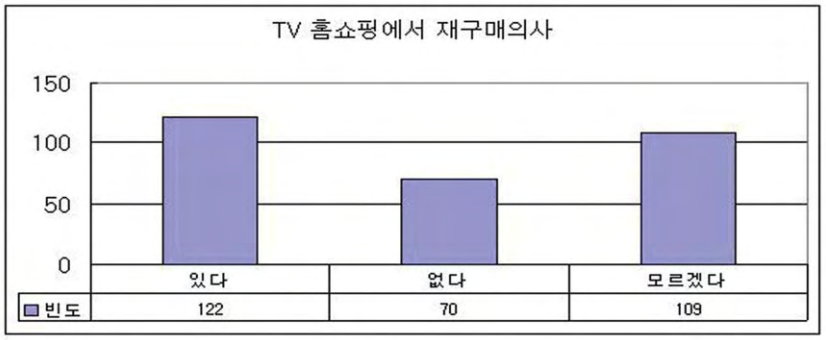
〈 그림 5-3-29 〉 제품 구입 만족도 남녀차이 분석

12) 향후 TV 홈쇼핑에서 제품을 재구매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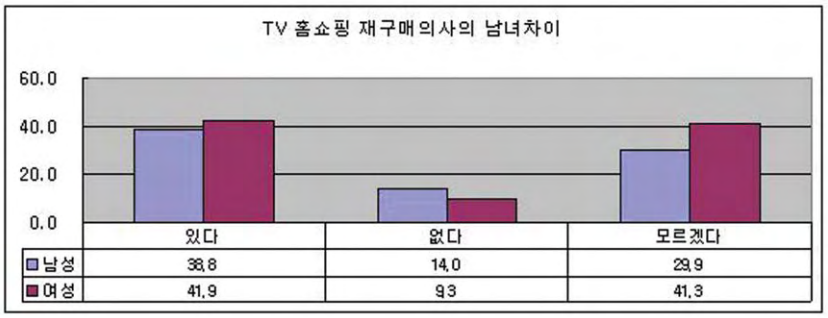
향후 TV 홈쇼핑에서 제품을 재구매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22명(40.5%),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0명(23.3%),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09명(36.2%) 순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3-12 〉 재구매 의도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122	40.5
없다	70	23.3
모르겠다	109	36.2
합계	301	100.0



〈 그림 5-3-30 〉 재구매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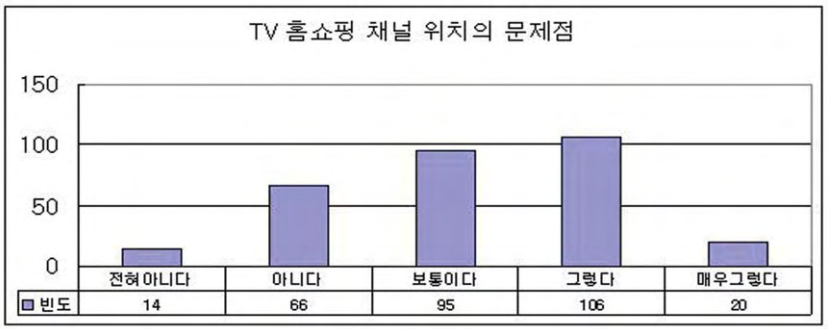


〈 그림 5-3-31 〉 재구매 의사 남녀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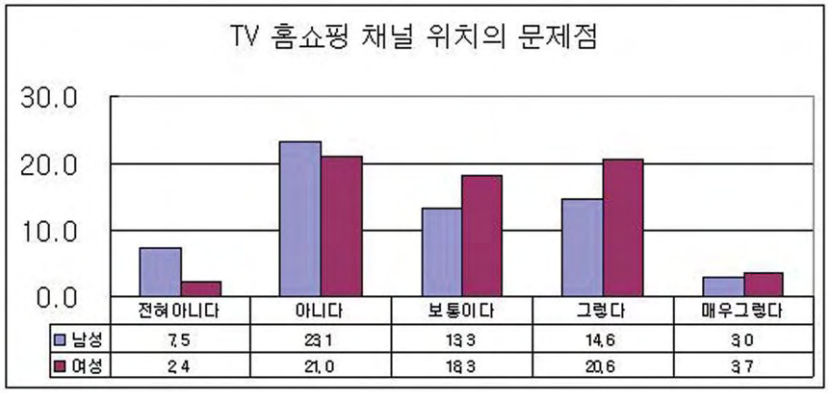
13) TV 홈쇼핑 채널이 지상파사이에 있어서 홈쇼핑 시청을 더 많이 하게 되는가?

〈 표 5-3-13 〉 채널위치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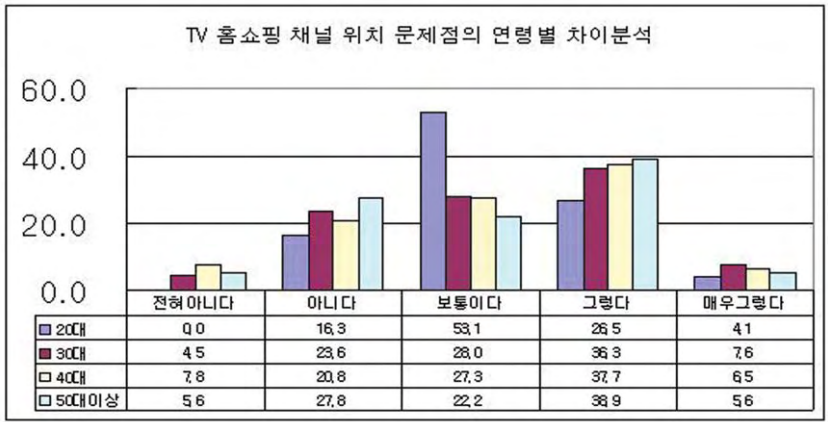
구 분	빈도	퍼센트
전혀아니다	14	4.7
아니다	66	21.9
보통이다	95	31.6
그렇다	106	35.2
매우그렇다	20	6.6
합계	301	100



〈 그림 5-3-32 〉 채널위치의 문제점



〈 그림 5-3-33 〉 채널위치의 남녀간 차이



〈 그림 5-3-34 〉 채널위치의 연령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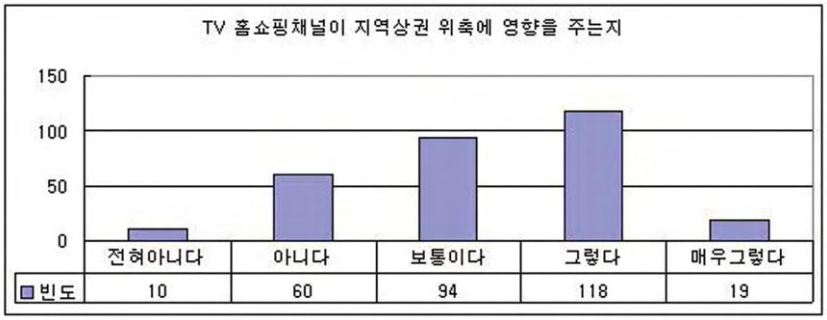
14) 현재 TV 홈쇼핑 채널이 지역상권 위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TV 홈쇼핑 채널이 지역상권 위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아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60명(19.9%)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 118명(39.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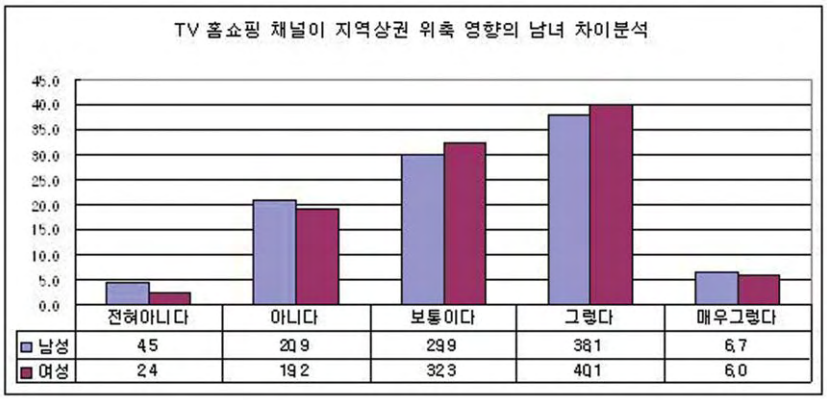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는 지역상권 위축에 영향을 준다는 부정적인 응답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 표 5-3-14 〉 채널위치와 지역상권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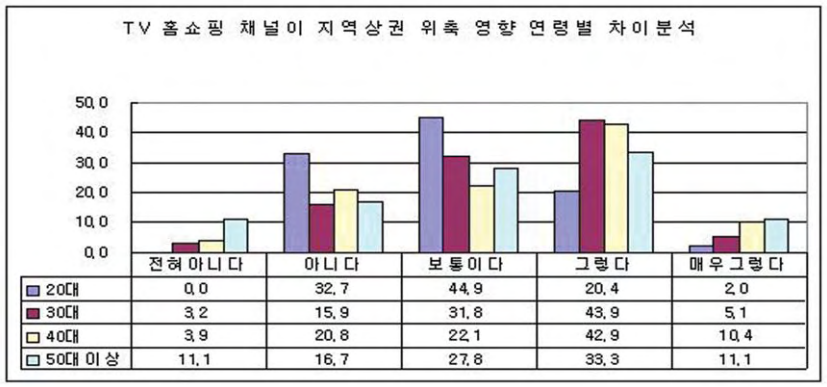
구 분	빈도	퍼센트
전혀아니다	10	3.3
아니다	60	19.9
보통이다	94	31.2
그렇다	118	39.2
매우그렇다	19	6.3
합계	301	100



〈 그림 5-3-35 〉 TV 홈쇼핑이 지역상권위축에 주는 영향



〈 그림 5-3-36 〉 지역상권위축 영향의 남녀차이 분석



〈 그림 5-3-37 〉 지역상권위축 영향의 연령별 차이 분석

제4절 결론

매일 아침 속초에서는 지역상인이 눈을 뜬다. 지역상인은 홈쇼핑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매일 아침 TV 홈쇼핑 또한 눈을 뜬다. TV 홈쇼핑은 가장 느리게 달리는 지역상인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당신이 지역상인이건 TV 홈쇼핑이건 상관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질주해야 한다.

현재까지 TV 홈쇼핑에 관한 논문들은 많지만, 지역 소상인들의 입장에서 TV 홈쇼핑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속초지역 소상인들의 생존과 대응능력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기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은 TV 홈쇼핑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V 홈쇼핑 채널 시청 이유에 대해서는 “채널을 돌리다가 무의식중에”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183명(71.8%),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37명(14.5%), 습관적으로 20명(7.8%)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TV 홈쇼핑 채널이 지역상권 위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아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60명(19.9%)보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118명(39.2%)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는 지역상권 위축에 영향을 준다는 부정적인 응답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2005년 1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승인 기준점수를 상회한 ㈜GS홈쇼핑, ㈜CJ홈쇼핑 2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재승인키로 의결하였다. 2개 방송사업자는 오는 2006년 3월 12일자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방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승인 심사[7]를 진행해왔었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지난 2005년 9월 12일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해당 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의결한 것이였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준비 또한 이 시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각의 속도만큼이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속초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속초 역시 빠른 외부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속초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응방안으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7) 방송법 제17조(재허가등)

는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지속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고객만족, 서비스개선 등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한 노력, BLUE OCEAN을 향한 파괴적 혁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속초지역 주민들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우위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적극적인 불평을 제공해야 할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지역상인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제공에 한 층 더 애를 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TV 측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케이블 TV 라는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4장 설악동 종합개발사업

제1절 설악동 종합개발의 추진경위

1. 사업추진 배경 및 추진경위

기존 설악동은 부지 약3만평에 221세대의 20~30년래 생성된 무질서하고 불량한 대소건물 984동(건평 8,784평)이 도로좌우변, 하천변 또는 숲속에 운집하여 있었는데, 시설성격별로는 주택 93세대 227동, 점포 64세대 268동, 여관 4-세대 357동, 기타 24세대 82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은 '73년 2월 16일 대통령각하께 제주관광개발계획을 보고하면서 아울러 설악산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작업보고를 함으로써 태동되었다.

작업보고 즉후 설악산광개발계획단을 구성하고 자료수집 및 현지답사결과를 정리하여 '74년 5월 각하재가를 득한 시안에다 '75년 4월 교통부가 제시한 보잉 보고서의 한국관광진흥장기계획을 참고, 보완하여 「설악권관광종합개발계획」이 성안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75년 4월 건설부가 설악산국립공원내 설악동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공고하였고, 동년 10월 영동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이에 대비한 설악동 종합개발을 위한 일련의 추진이 이뤄졌다.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예상대로 관광객이 급증하자 본 설악동종합 개발계획을 서두는 한편 강원도 종합관광개발을 위한 「영동 · 동해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이 이미 성안되었던 설악권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74년 4월 정부계획으로 공고됨으로써 설악 종합개발사업의 막이 올려졌다.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의 모태가 되었던 설악산광개발계획단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은 단장 정소영(청와대 경제 제1수석비서관), 간사 윤근환(청와대 농림 · 건설담당비서관) 단원으로는 강원도지사 정석모, 기획원 예산국장 최동규, 내무부 지방국장 김수학, 농림부 농지국장 남욱,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이문용, 건설원 도로국장 김용석, 교통부 관광국장 이용걸,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장 김임용, 문공부 국립박물관장 황수영, 산림부 조림국장 김갑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업추진 경위는 '73년 2월 16일 대통령각하께 설악산관광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작업계획보고이후 '76년 10월 2일 설악동종합개발사업이 조달청 발주로 착공된 날까지의 주요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5-4-1 〉 설악산 관광개발계획 주요경위

일 시	주 요 경 위
1973년 2월 16일	대통령에게 작업계획 보고
1973년 3월 12일	설악산관광개발계획단 및 업무작업반 구성함.
1973년 6월 10일	설악산관광개발계획 1차 시안 작성함.
1973년 8월 30일	설악산관광개발계획 2차 시안 작성하여 양윤세 경제 제3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
1974년 5월 10일	교통부에서 한국관광진흥장기계획을 미국 보잉 회사에 의뢰하여 수립 완료함.
1975년 2월 13일	보잉 보고서를 토대로 설악산관광개발계획 2차시안을 보완함.
1975년 4월 14일	건설부에서 설악산관광개발계획 2차시안보완안에 의거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을 공고함
1975년 4월 21일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관계관회의를 개최함. · 주 최 : 청와대 오휘영 관광 · 조경담당비서관 · 회의내용 –동사업에 국제관광공사 참여방안협의 –철거보환비 426백만원 확보방안검토 –동사업시 관광집단개발추진법 적용여부
1975년 5월 23일	5월 8일 개최한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실무자회의에 의거 강원도에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청와대 관광 · 조경비서관실에 제출 사업계획안 –기존지구정비는 강원도주관사업으로 추진하되 철거보상비 국고지원요망 –신단지건설사업은 국제관광공사에서 강원도의 기탁사업으로 추진
1975년 9월 3일	대통령 설악동 순시(설악산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함)
1975년 11월 4일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관계회의를 청와대 관광 · 조경비서관실에서 개최함.
1975년 12월 20일	강원도에서 건설부에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원사업집행승인을 신청함.
1976년 2월 7일	설악동 신단지내 토지매수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를 개시함.
1976년 2월 25일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관계관회의를 구 국민대학에서 개최함.
1976년 3월 30일	76.2.25 관계관회의결과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설악동개발사업중일부 사업을 국제관광공사에 대행토록 의뢰함.
1976년 5월 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원도에서 재결신청한 설악동 개발사업내 토지 수용을 재결함.
1976년 7월 29일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설악동 신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및 기본 설계 · 실시설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함.
1976년 9월 13일	기존지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지구 모든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함.
1976년 10월 2일	설악동 개발사업이 조달청 일괄발주로 진흥기업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함.

자료 : 『속초시정 30년사』 중 저자 요약 정리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 방법은 '75년 11월 28일 청와대 경제 제일관광담당비서관실에서 개최된 「설악동 신집단시설지구개발을 위한 관계관회의」에서 그 골격이 세워졌으며 사업추진과정에 일부 조정 · 보완 또는 변경되었으나 기본은 유지되었다.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은 강원도가 주관하고, 동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에서 적극 지원토록 했다. 특히 건설부는 신단지내 주도로 및 교량건설사업비를 지원하며,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에 따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종합·조정하였다. 국제관광공사는 강원도로부터 대행의뢰를 받아 신단지설계·부지조성사업 및 상가·공공시설사업을 담당하였다.

사업시행 원칙으로는 신단지를 조성하여 시설물을 건립한 연후에 기존시설지구에 정비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적용방법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지양하고 공원법 및 토지수용법을 적용 시행하였다.

사업시행 방안으로 강원도는 신단지조성에 소유되는 토지매입과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으며, 단,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강원도 자체자금 또는 기채에 의하여 조달하고 동자금은 조성되는 부지를 매각하여 충당토록 하였다. 강원도는 국제관광공사에게 신단지의 설계 및 기반조성사업·상가시설·공공시설사업을 대행의뢰하며, 이를 위해서 사업비는 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반영 조치하였다. 강원도는 기반조성이 완료된 신단지 중에서 기존시설지구 이전에 소요되는 부지를 계정하여 이전대상자에게 일차적으로 분양하고 잔여부지는 시설투자 실수요자에게 일반 공매하되 신단지내 원 지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강원도는 부지매각대금을 국제관광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기채원리금의 상환, 기존시설지구에 대한 보상 철거 및 조경비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공보부와 강원도는 신흥사와 협의하여 기존시설지구내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주변 과수원부지를 국제관광공사에 매도토록 하며, 국제관광공사는 매입한 동부지에 설악동지구 관광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수준급의 호텔건설에 한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현재 켄싱턴호텔과 설악파크호텔은 이러한 취지에서 건설된 호텔이다.

강원도는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흥사측의 수입감소분에 대한 대책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강원도 주관사업인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에 있어 관계기관의 많은 협조사항이 있었다. 우선 내무부, 건설부, 교통부, 문교부, 체신부, 한국전력, 관광공사 등의 협조가 이루어졌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4-2〉 설악동 종합개발사업 협조사항

기 관 명	협 조 사 항	관계기관	비고
내무부	· 행정구역 조정 속초시와 양양군	강원도	
	· 신단지내 토지매입을 위한 기채승인	강원도	

기 관 명	협 조 사 항	관계기관	비고
건설부	· 설악동 지구개발사업을 위한 공원사업계획 및 집행승인 · 신단지내 토지매수를 위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 국제관광호텔 후보지의 용도지정 및 공고 · 신단지내 주도로 및 교량 사업비 국고지원 · 기존지구 철거민수용을 위한 주택단지조성계획승인 · 기존지구의 소공원사업승인 · 국민주택자금지원	강원도 강원도 관광공사 강원도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교통부	· 국제관광공사의 설악동지구개발사업참여승인 · 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계획검토	관광공사 강원도	
문교부	· 기존지구의 설악 국민학교분교 이전계획수립, 추진	강원도	
체신부	· 통신 및 체신업무를 위한 시설 자동전화가설	강원도	
속초시	· 상수도시설 · 기존지구 철거, 보상업무 · 주택단지조성 · 진입로확장 보상업무 · 목우재 도로개설	강원도 강원도 건설부 강원도 강원도	
양양군	· 신단지내 토지매수업무지원	강원도	
한국전력	· 신단지까지의 송전 및 신단지내 지하배선	건설부	
관광공사	· 신단지의 설계 및 기반조성사업, 상가시설, 공공시설건축 · 국제수준급 호텔건립	교통부 교통부	

2. 사업총괄

가.사업별, 재원별 총괄(민자시설사업 제외)

〈 표 5-4-3 〉 설악동 종합개발 사업별 재원별 총괄

사업명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시행청
		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A+B+C)		7,377,642,827	2,799,066,686	4,350,576,141	228,000,000		
A.신집단시설 지구건설사업		2,095,388,276	685,528,989	1,289,287	120,000,000		
1. 토목	· 일반부지정지 – 68,860평 · 단지내아스팔트 포장도로 2,816m (폭 6~10m)	410,216,033		410,216,033		'76. 10. 2 ~ '77. 5. 30	국제 관광공사 (강원도대행)
2. 주도로 및 교량	· 도로총연장 1,660m (폭 15~20m) · 교량3개소 210m · 기타구조물 4종	435,000,000	435,000,000			'76. 10. 2 ~ '77. 12. 30	강원도
3. 상수도	· 일일최대생산량 2000MTD · 원수관로 686m외 3종	195,000,000		75,000,000	120,000,000	'76. 10. 1 ~ '77. 11. 20	속초시
4. 건축	· 상업시설-9개동 · 공공시설-2개동	572,387,000		572,387,000		'77. 4. 13 ~ '77. 12. 15	국제 관광공사 (강원도대행)
5. 전기	· 지중선로 1,851m · 가공선로 1,550m · 가로등 105동 외 4종	75,545,254		75,545,254		'76. 10. 2 ~ '78. 9. 28	국제 관광공사 (강원도대행)
6. 통신	· 자동전화 400회선 · 관로 5,494 · 케이블 16,321	124,581,654	124,581,654			'76. 8. 30 ~ '79. 2. 27	강원 전신전화 건설국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청
		계	국비	지방비	기타		
7. 조경, 옥외시설	· 조경식재지역 13,492평 · 잣나무외 24종 25,158주 · 벤치 65개소외 4종	61,711,000		61,711,000		'76. 11. 2 ~ '77. 6. 30	국제관광공사 (강원도대행)
8. 토지보상 · 설계용역 외 기타	· 토지 126필지 94,831평 · 지상물-건물등 158건 · 1식	95,000,000 125,947,335	 125,947,335	95,000,000	'76. 1. 5 ~ '76. 7. 31		
B. 소공원 조성사업		1,160,595,385	46,787,385	1,113,808,000			
1. 토목	· 성토 및 절토 38,546㎡ 6종	194,724,000		194,724,000		'78. 6. 23 ~ '79. 4. 10	강원도
2. 전기	· 전주 이전 설치 8본 외 3종	43,885,000		43,885,000		'78. 6. 21 ~ '78. 10. 23	강원도 (가로등)
3. 통신	· 케이블 매설 2,530m외 5종	9,442,385	9,442,385			'78. 5. 5 ~ '78. 10. 14	강원전신 전화건설국
4. 건축	· 공중화장실2동 (47평) · 관리소1동(20.5평)	54,337,000		54,387,000		'78. 6. 23 ~ '78. 9. 30	강원도
5. 조경, 옥외시설	· 대상면적 88,145㎡ · 수목식재 8,394주 외 11종	130,982,000		130,982,000		'78. 6. 28 ~ '78. 12. 16	강원도
5. 기존지구 정비철거 및 보상비 · 기타사업	· 221세대 984동 (건평 8,785평) · 자연보호헌장비 1개소 · 전적기념비 1개소 산책로 조성 1,300m (폭1.2m)	663,000,000 64,195,000	 37,365,000	663,000,000 26,830,000		'77.12.20 ~ '78.6.30 '78.6.30 ~ '79.6.20	강원도 강원도 국제관광공사 (전적기념비)
C. 관련지원사업		4,121,659,166	2,066,750,312	1,946,908,854	108,000,000		
1. 진입도로	· 포장 총연장 10.5km (포장폭 6.7~10.2m) · 조경잔디 16,786㎡	1,460,016,235	1,435,000,000	25,016,235		'77. 12. 30 ~ '78. 12. 29	강원도
2. 주택단지 조성	· 대지 3,750평 · 단지조성 36,000㎡ · 산벚나무 765주	687,314,000		579,314,000	108,000,000	'77. 11. 28 ~ '78. 9. 20	속초시
3. 설악 국민학교 신축 이전	· 대지면적 13,510.50㎡ · 본건물 1,654㎡ (2층철근콘크리트) · 부속건물 - 숙직실 외 6종	146,539,931	61,017,312	85,522,619		'78. 3. 25 ~ '79. 10. 16	속초시 교육청
4. 예비 주차장 조성	· 구역면적 7,000평 · 포장면적 6,700평 외 3종	58,000,000		58,000,000		'78. 6. 27 ~ '78. 9. 20	강원도
5. 목우재 도로개설	· 도로개설포장 4.2km도로 · 교량 1개소 외 3종 · 잔디 16,710㎡ 외 2종 조경	823,398,000	498,500,000	324,898,000		'76. 7. 1 ~ '79. 8. 25	속초시(도로) 강원도(조경)
6. 주요 등산로 정비	· 총연장 4.5km	45,000,000		45,000,000		'78. 7. 28 ~ '89. 9. 27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7. 오수관 매설	· 총연장 6,899km (P=200m/m ~600m/m)	227,200,000		227,200,000		'78. 12. 15 ~ '79. 5. 15	강원도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청
		계	국비	지방비	기타		
8. 공무원 아파트 건립	· 대지 – 3,091평 · 철근콘크리트조 5층 – 750평	369,500,000		369,500,000		'79. 6. 15 ~ '80. 4. 1	대행 주택공사 (강원도대행)
9. 관리사무소 보건지소 건립	· 대지면적 1,500평 · 건축 – 2동 269평	163,378,000	23,233,000	140,145,000		'79. 9. 18 ~ '80. 4. 1	강원도
10. 기타사업	· 사격장 – 39,000평 · 공중화장실 2동 (38평) · 거목식재 1,315평	14,313,000	49,000,000	92,313,000		'78. 6. 23 ~ '79. 7. 18	

나. 신집단시설지구 건설사업

신집단시설지구 건설사업은 설악산 초입의 노루목 및 피골 일대 368천평의 설계지구 중 우선 시설가능지인 B(달마촌)지구, C(화채촌)지구의 황량했던 임야와 하천부지를 일구어 새로운 단지를 조성한 사업으로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의 주사업이요 첫 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76.10.2 착공되어 '77.12.31 마무리되었는데 첫째, 1,245백만원을 들여 국제관광공사가 강원도를 대행하여 추진한 단지조성 80,500평과 상가 및 공공건물 건설사업과 둘째, 국고 435,백만원을 지원받아 강원도가 직접 시행한 단지내 주도로와 설악교, 와선교, 청봉교등 교량 3개소 건설사업과 셋째, 속초시가 시행한 2,000MTD규모의 상수도 건설사업과 체신부에서 시행한 통신시설사업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신단지건설 중에 이루어진 사업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 표 5-4-4 〉 신집단시설지구 건설사업

(단위:원)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청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신집단시설지구건설사업		2,095,388,276	685,528,989	1,289,859,287	120,000,000		
1. 토목	· 일반부지정지 68,860평 · 단지내아스팔트 포장도로 2.186m (폭6~10m) · 콘크리트 포장 주차장 11,005평 외 8종	410,216,000		410,216,000		'76. 10. 2 ~ '77. 5. 30	국제 관광공사 (강원도대행)
2. 주도로 및 교량	· 도로총연장 1,660m (폭15~20m) · 교량 3개소 210m · 기타구조물 4종	435,000,000	435,000,000			'76. 10. 2 ~ '77. 12. 3	강원도
3. 상수도	· 일일최대생산량 2000MTD · 원수관로 686m외 3종	195,000,000		75,000,000	120,000,000	'76. 10. 1 ~ '77. 11. 20	속초시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청
		계	국비	지방비	기타		
4. 건축	· 상업시설-9개동 · 공공시설-2개동			572,387,000		'76. 10. 1 ~ '77. 11. 20	국제 관광공사 (강원도대행)
5. 통신	· 자동전화 400회선 · 관로 5,494m · 케이블 16,321m	124,581,654	124,581,654			'76. 8. 30 ~ '79. 9. 27	강원 전신전화 건설국
6. 조경, 옥외시설	· 조경식재지역 13,492평 · 잣나무 외 24종 25,158주 · 벤치 65개소 외 4종	61,711,000		61,711,000		'76. 11. 2 ~ '77. 6. 30	국제 관광공사 (강원도대행)
7. 토지보상	· 토지 126필지 94,831평 · 지상물-건물등 158건	95,000,000		95,000,000		'76. 1. 15 ~ '76. 7. 30	
8. 설계용역 외 기타	· 1식	125,947,335	125,947,335				

다. 소공원 조성사업

소공원 조성사업은 철거된 기존지구 약 3만평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신단지 건설사업이 완공되어 기존지구가 이주 철거를 시작한 '78.6월부터 '78.9월에 이르기까지 조성이 완료되었다.

본 사업은 350백만원의 각하특별지원금이 계기가 되어 추진되었는 바 설악산 등산기점으로서의 휴식공간인 공원조성이 목적이 되어 지구의 새로운 정지와 조경 · 실외시설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부지는 신흥사로부터 무료임대를 받았고 특히 본소공원은 KAP공법에 의한 마사토로 포장된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소공원 조성사업의 내용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 표 5-4-5 〉 소공원 조성 사업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청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공원 조성사업							
1. 토목	· 성토 및 절토 38,546㎡외 6종	378,000,000 194,724,000		378,000,000 194,724,000		'78. 6. 23 ~ '79. 4. 10	강원도
2. 전기	· 전주이전설치 8본 외 3종	43,885,000		43,885,000		'78. 6. 21 ~ '78. 10. 23	한국전력 강원도 (가로등)
3. 통신	· 케이블매설 2,530m외 5종	9,422,385	9,422,385			'78. 5. 5 ~ '78. 10. 14	강원 전신전화 건설국
4. 건축	· 공중화장실 2동 (417평) · 관리소 1동 (20.5평)	54,387,000		54,387,000		'78. 6. 23 ~ '78. 9. 23	강원도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청
		계	국비	지방비	기타		
5. 조경, 옥외시설	· 대상면적 88,145㎡ · 수목식재 8,394주외 11종	130,982,000		130,982,000		'78. 6. 28 ~ '78. 12. 16	강원도
6. 기본지구 정비철거 및 보상	· 221세대 984종 (건평 8,785평)	663,000,000		663,000,000		'77. 12. 20 ~ '78. 6. 30	강원도
7. 기타사업	· 자연보호헌장비 1개소 · 전적기념비 1개소 · 산책로 조성 1,300m (폭1.2m)	64,195,000		26,830,000		'78. 9. 6 ~ '79. 6. 20	강원도 국제 관광공사 (전적기념비)

라. 관련지원사업

본 사업은 설악동개발의 계획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진입도로 확정포장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설악국민학교 신축이전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본 사업은 '77.10월 연휴시 몰려든 관광객 인파에 대한 보도와 '78.11월 설악동을 직접 내방한 후에 대통령각하의 특별지시와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진입도로확장포장사업이 그렇고 예비주차장, 목우재 도로 개설, 오수관로 공사, 공무원아파트 건립, 보건진료소건립 등이 또한 그렇다.

본 사업의 내용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 표 5-4-6 〉 관련 지원 사업

(단위:원)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청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관련 지원사업		4,121,659,166	2,066,750,312	1,946,908,854	108,000,000		
진입도로	· 포장총연장 10km (포장폭 6.7~10.2m) · 조경잔디 16.786㎡	1,460,016,235	1,435,000,000	25,016,235		'77. 12. 30 ~ '78. 12. 29	강원도
주택단지 조성	· 대지 3.750평 · 단지조성 36,000㎡ · 산벚나무 765주	687,314,000		579,314,000	108,000,000	'77. 11. 28 ~ '78. 9. 20	속초시
설악 국민학교 신축이전	· 대지 13,510.50㎡ · 본건물 1,654㎡ (2층철근콘크리트) · 부석건물 -숙직실외 6종	146,539,931	61,017,312	85,522,619		'78. 3. 25 ~ '79. 10. 16	속초시 교육청
예비 주차장 조성	· 구역면적 9,307평 · 포장면적 6,700평 외 3종	58,000,000		58,000,000		'78. 6. 27 ~ '78. 9. 20	강원도
목우재 도로개설	· 도로개설포장 4.2km도로 · 교량1개소외 3종 · 잔디 외 2종-조경	823,398,000	498,500,000	324,898,000		'76. 6. 1 ~ '79. 8. 25	속초시 (도로) 강원도 (조경)

사업명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시행청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주요등산로 정비	· 총연장 4.5km	45,000,000		45,000,000		'78. 7. 27 ~ '78. 9. 27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오수관 매설	· 총연장 6.899m (P=200m/m~ 600m/m)	227,200,000		227,200,000		'78. 12. 15 ~ '79. 5. 15	강원도
공무원 아파트 건립	· 대지 3,091평 · 철근콘크리트 5층 750평	369,500,000		369,500,000			대한주택 공사 (강원도)
관리사무소, 보건지소 건립	· 대지면적 1,500평 · 건축 2동 269평	163,378,000	23,233,000	140,145,000		'79. 9. 18 ~ '80. 4. 1	강원도
기타사업	· 사격장 39,000원 · 공중화장실2동(38평) · 거목식재	141,313,000	49,000,000	92,313,000		'78. 6. 23 ~ '79. 7. 18	

마. 민자유치 사업

설악동 개발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한 기반시설 사업과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공공건물, C지구 상가 등 몇가지 시설물 사업외 민자시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명실공히 사업의 마무리를 이룰 수 있었다.

이하에서 민자사업계획과 기간중 유치된 민자시설사업의 실적을 간략히 기술하면,

첫째, 신단지에 연 2,350평 규모의 호텔 2동 240객실과

둘째, 부지 34,474평, 연건평 18,211.5평 규모에 여관 99동 2,126객실이다. 기본계획은 95동이었으나 대지분할 분양시 99필지로 조정되었다.

셋째, 부지 1,530평, 연건평 621평 규모에 상가 6동 21점포이며,이 수치는 정부에서 건축한 도상반분양한 상가는 제외한 수치이다.

넷째,휴게소 11동,

다섯째, 부지 772평, 연건평 390평 규모의 종합터미널 1동이다.

3.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의 성과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후 이곳을 방문한 '과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발하는 탄성이 「천지개벽」이라는 말이다.

실로 설악동 개발사업은 종합개발사업으로서는 결코 그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성과는 만가지 미사여구와 계수적 실증보다도 뭇사람들이 이르는 이 한마디 말 외에 그 적절한 평가와 분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의 성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첫째, 무릇 개발이라는 것을 자연자원과 관련지워 볼 때, 자연은 개발의 목

표가 되기도 하고 개발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거나 훼손하기도 함으로써 개발은 자연에서 필연적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는 바, 이런 함수관계로 볼 때 개발과 자연은 다소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은 지각 없는 과욕으로 인한 대량파괴를 지양하고 자연의 질서와 조화와 미에 적응 · 몰입시킴으로써 자연보호와 개발을 훌륭하게 공존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본 사업의 시도 자체가 전인미답의 일정지역을 발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설악산 국립공원보호구역의 자연보존과 급증하는 이용증대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공원 환경을 저해하는 난립상태의 기존집단시설지구를 철거정비함과 동시에 신집단시설지구를 이상적으로 조성하는데……"에서 출발하였고, 또 그래도 이룬 것이다.

구설악동과 주요등산로변을 말끔히 철거정비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경관지역에서 벗어난 황량한 하천부지를 선정 시설지구를 건설한 그것이고, 모든 시설물을 질서있게 배치 유도하고 자연에 조화되는 형태로 계획 · 시설한 것이 그것이라 하겠다.

둘째, 일반적으로 관광성립의 4대요소를 관광객, 관광자원, 관광지원시설, 체계조직이라고 한다면, 설악동 종합정비 개발사업은 이중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충족시켜 주는 국내관광지개발로서는 최초로 성공한 모범사례가 되었으며, 강원도로서는 관광개발의 신기원을 이룬 첫 사업인 동시에 여타 관련관광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사업이 되었다.

국내 어느 관광단지도 설악동 개발사업만큼 적은 투자비로로 민자시설까지 합쳐 단기간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예를 볼 수 없었으며, 또한 충분한 수용능력과 현대적인 이용편의시설은 외국관광객에도 전혀 불편 없으며, 관광단지 자체가 관광대상물이 되어 관광객 급증의 일요소가 됨은 물론 어느 외국선진관광지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본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의 남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보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연경관(sight)은 새삼스레 논할 필요도 없이 자연이 그 지형적, 식생적, 현상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적 요소들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 기능과 조화의 미를 무리없이 참조하며 변화시켜 놓은 것으로, 산과 바다, 호수, 산림, 초원 등 다양한 유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생활과 관련해 볼 때, 사람이 「찾아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우리 인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산자수려한 자연을 보고 심미감에 만족하게 함으로써 인간정신을 순화시

켜 줌은 전자의 예이며, 우거진 숲, 맑은 산수가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음료수의 원천이 되는 것은 후자의 한 예인 것이다.

자연보호적 측면에서는 실질적 면과 계몽적인 면이 있겠는데, 실질적 면으로는 우선 기존설악동지구의 철거와 소공원조성, 그리고 등산로 환경정비가 되겠다.

기존 설악동은 부지 약 3만평에 221세대의 20~30년래 생성된 무질서하고 불량한 대소건물 984동(건평 8,784평)이 도로좌우변, 하천변 또는 숲속에 운집하여 있었는데, 시설성격별로는 주택 93세대 227동, 점포 64세대 268동, 여관 4-세대 357동, 기타 24세대 82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시설들이 상하수도 없이 무규제상태에서 영세하고 불량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케이블카와 호텔을 제외하고는 전시설물이 철거되고 이 지역이 소공원화 되었다. 특히 이 소공원은 전기, 통신 등을 모두 지하화하고 관광객편의에 불가결한 몇 가지 시설물들만 새로 조성하고 6,278주의 식재사업까지 보완하여 자연 속에 조화 자연휴식공간을 만들었다.

등산로변은 주등산코스인 비선대. 비룡폭포 그리고 울산암코스에 32개의 기념품 센터 또는 일반매점이 산재하여 현지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과 상행위에 편리한 대로 지형을 조작, 무질서하기 이를 데 없었고, 설악산 경관훼손의 독소가 되어 왔으나, 전시설물을 철거하여 7개의 현대식이면서 자연미 넘치는 휴게소를 종합신축 운영토록 하고, 등산로도 자연상태에서 최대한 편리하도록 새로 정비하고 자연보호시설물을 대량으로 설치하였다.

특히 과거의 시멘트 구조물 잔재를 세심하게 정리하고 모두 자연상태로 복구함과 동시 기존지구의 새로 조성된 전시설물은 정화조를 설치하고 수세식 화장실화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신단지의 건설도 자연의 파괴가 아니라 자연의 조화스런 이용이라는 감각에서 합리적으로 계획시설하였으며, 모든 시설의 현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오염적 요소도 완전히 불식하였으며, 모든 시설물들의 형태와 색감 등도 자연경관, 특히 설악산 경관에 조화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위에서 든 사실들로서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은 자연보호의 실천사업이 되었고 설악동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자연훼손행위를 스스로 자제하여 하지 못하게 하는 엄숙하고도 깨끗한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시범지역이요, 지도계몽단지가 되었다는 실로 본 개발사업의 커다란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개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국토이용이라는 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측면에서는 16,086.05㎢의 면적중 그 80.5%인 12,949,84㎢가 산림지로 되어 있고 10% 정도가 농경지, 그리고 나머지가 공업지, 주거지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산림지 대부분이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특히 자연경관면에서는 한마디로 산자수명한 경관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반면 생활측면 유통측면에서는 댐 · 발전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다른 면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강원도의 풍요한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면에서 관광자원+관광개발=소득증대+국민휴양이라는 도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강원관광의 종착지인 설악동의 종합개발사업이 강원도 관광지개발의 첫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의의와 성과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본 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강원도 관광개발의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작게는 본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설악동 토왕성촌과 야영장, 골프장, 척산온천 등 오락 스포츠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2단계개발사업의 기틀이 되었으며, 크게는 경포, 낙산, 오색, 월정사, 소금강, 기타 도내전역의 관광루트와 지구가 연이어 개발이 착수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설악동 종합개발은 대소 20여개의 사업에 순 중앙지원 2,799백만원과 지방비부담 4,350백만원의 소액으로 약 25,000백만원의 투자사업으로 단기간내 확대유도하여 마무리지었고, 지방비부담부분도 설악동 단지개발 효과에서 얻은 자체수익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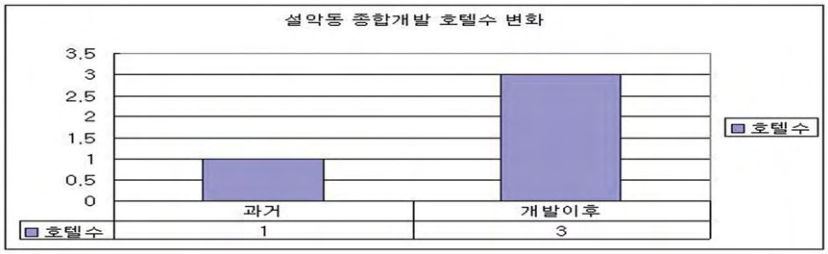
이제 개발효과를 협의로 보아 주로 눈에 보이는 시설의 수용능력면과 이용편의면으로 규정할수 있다면, 설악동의 경우 철거와 비교한 개발성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외에도 고용의 효과, 관광수입의 증대,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여러 측면의 성과도 대단하다고 하겠다.

개발성과를 대비해 보면, 첫째, 기존지구의 30,000평규모에서 신단지 계획면적 36,800평과 시설단지 면적 80,500평을 조성하였으며, 소공원을 조성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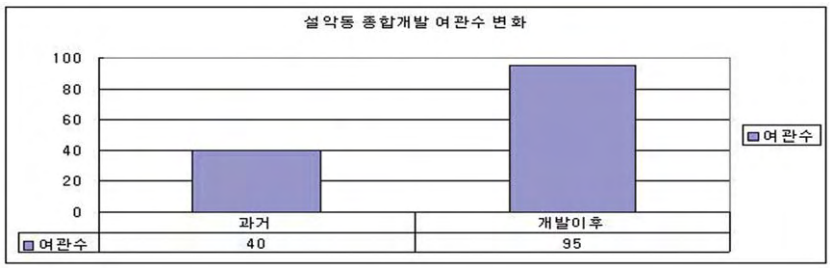
둘째, 호텔이 1동 60실 기준으로 120명을 수용하는 설악동 관광호텔 1곳에서, 뉴설악호텔 120실, 24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설악파크호텔 121실, 242명 수용가능한 두 곳이 추가되었다.

셋째, 여관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40동 1,210실 기준 6,300인 최대 10,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서 개발 이후에는 여관 95동 3,500객실 기

준 17,500명 최대 3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발전하였다.



〈 그림 5-4-1 〉 설악동 종합개발 호텔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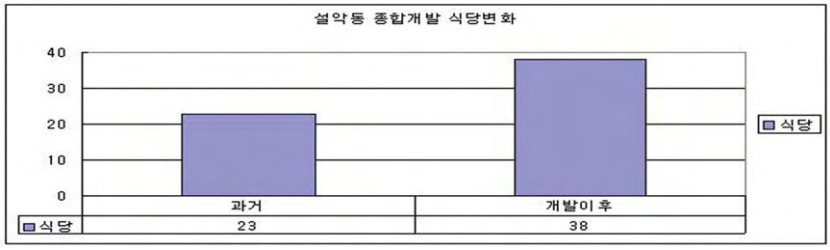


〈 그림 5-4-2 〉 설악동 종합개발 여관수 변화

넷째, 상가의 경우 1,958평 규모의 145점포에서 248점포, 4,624평 규모의 연립 종합상가로 변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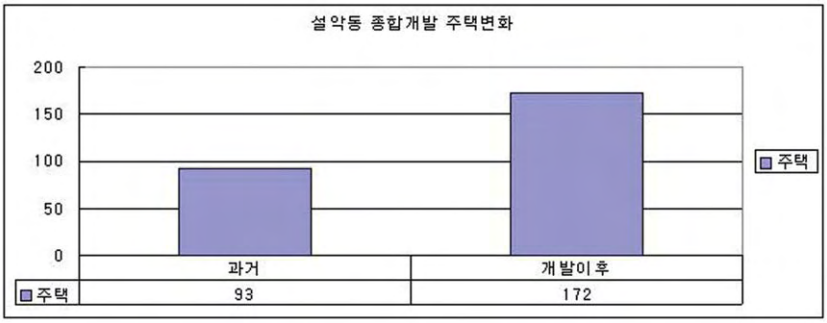
〈 그림 5-4-3 〉 설악동 종합개발 상가수 변화

다섯째, 식당의 경우도 23개소 690명 수용에서 38개소 1,900인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변화하였다.



〈 그림 5-4-4 〉 설악동 종합개발 식당 변화

여섯째, 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의 겸용하는 형태로서 93세대에서 개발이후에는 172세대로 변화하였다. 개발이후에는 세대당 15평에 해당한다.



〈 그림 5-4-5 〉 설악동 종합개발 주택 변화

일곱째, 주차장의 경우, 과거에는 1개소 1,000평 80대 주차가능하였으나 개발이후에는 소공원내 2,000평 150대, B지구 2,816평 210대, C지구 6,744평 510대로서 총 4개소 18,260평 1,38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주유소의 경우 새롭게 1곳이 설치되었다.

이 외에 개발이후 변화를 표로 설명하였다.

〈 표 5-4-7 〉 설악동 종합개발이후 변화

구 분	과 거	현 재
◦ 공공기관	◦ 5개기관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소방서, 농협	◦ 7개기관 – 2개동통합 ◦ A동 :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한전 ◦ B동 : 우체국, 농협, 보건소
◦ 휴게소	◦ 등산로변센터 : 18개 (동당 1.5평) 동점포 32개	◦ 등산로휴게소 : 7동(동당 평균 90평) ◦ 소공원내 : 4동(동당 평균 90평) ◦ B지구 : 1동(대지 448평)
◦ 전화	◦ 자석식 : 12회선 166대	◦ 자동식 : 400회선 지하관로
◦ 상수도	–	2,000MTD
◦ 하수도	–	2,000MTD오수관로 10.26km, 쌍천하류 유하
◦ 진입도로	◦ 물치 – 소공원간 연장 : 12km 전로폭 : 6m 포장폭 : 5m	◦ 물치 – 소공원간(진입도로) 연장 : 10.52km 전로폭 : 12m 포장폭 : 10m ※시간당 1차 선당 3,000대 소통가능 ◦ 척산 – 설악동간(목우재 도로) 연장 : 4.2km 전로폭 : 9.2m 포장폭 : 6.7m
◦ 설악국민학교	◦ 3실 : 75평 – 216명 수용	◦ 8실 : 200평 – 400명 수용

제5장 금융

금융기관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필요불가결한 보조기관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융은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믿거름내지는 지렛대 역할을 하며서 지역경제규모와 비례하여 상승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속초의 금융기관은 묜당시인 56년 농업은행 양양지점 속초출장소가 처음 개설되어 금융업무를 개시하였고, 61년도에 농협중앙회 양양군조합 속초지소로 승격하여 속초지역 금융기관의 효시가 되었으며 점차 국민은행, 상업은행, 강원은행이 개점되어 속초경제의 발전을 예고하였으며, 한일은행 개점과 91년 7월에는 조흥은행이 개점되어 속초지역경제의 성장규모와 발전가능성을 예고하였다.

속초시로 승격된 해인 63년 2월 1일 국민은행 속초지점이 설립됨으로써 2개은행으로 늘어났고, 시승격과 더불어 예금고의 급속 신장으로 농협속초지소의 경우 전년도 예금고 32백만원에서 63년말에는 1억6천여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국민은행은 2천3백여만원의 예금고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66년 상업은행 개점을 비롯하여 속초수협의 신용업무 취급, 강원은행 지점개설 등으로 금융기관이 확충되어 왔고, 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마을금고의 설립이 개시되면서 비통화금융기관도 대폭 증가하였다.

88년 국민주 등 주식투자의 붐조성으로 증권회사가 개설되는 등, 92년 주택은행 지점까지 통화금융기관(일반은행, 특수은행)이 8개, 비통화금융기관(마을금고, 신용금고, 증권회사 등)이 20여개에 달하며 금융시장의 황금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IMF라는 세태의 흐름속에 금융가도 구조조정과 통폐합의 진통을 겪으며, 2004년말 현재 17개소의 금융기관과 6,587억원의 예금고를 이루고 있다.

년도별 금융신장세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5-5-1 〉 년도별 금융신장세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금융기관	예 금 액	대 출 액	비 고
1963	2	185	10	
1976	5	1,906	1,556	
1988	17	89,955	52,053	저축기관 11포함
1991	27	231,239	132,462	저축기관 20포함
2002	17	658,732	677,506	
2003				
2004				

※ 참고자료 : 속초통계연보

제1절 금융기관의 소개

1. 금융기관의 연혁 및 소개

가.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의 연혁은, 1956년 4월 1일 농업은행 양양지점 속초출장소로 업무개시하여, 1961년 8월 15일 농협중앙회 양양군조합 속초지소로 승격, 1972년 8월 25일 현위치에 2층 건물로 신축 1982년 2월 10일 온라인 업무개시, 1984년 8월 15일 농협중앙회 속초지점으로 명칭 변경, 1987년 12월 31일 사무실 개축, 1992년 1월 1일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로 승격, 1992년 3월 21일 속초시청 출장소 개설, 1996년 7월 2일사무실 3층 증축, 1998년 2월 20일 속초부영지점 개설, 2003년 5월 19일 시청 민원실 출장소 이전하였다.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의 경영이념은 첫째, 「농업이의 삶의 질」향상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둘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로 환경・소비자・지역사회와의 상생으로 하고 있다.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2000년 11월 총수신 1,000억을 달성하였으며, 2003년 1월 총수신 2,000억 달성, 2003년 4월 총수신 2,500억을 달성하고 있다.

나. 신한은행

1) 신한은행 속초지점

신한은행 속초지점은 1974년 9월 10일 현지점의 건너편 건물에 강원은행 속초지점을 개설하였으며, 1989년 11월 14일 현지점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 1991년 7월 8일 을류 외국환 업무 취급을 개시하였으며, 1999년 9월 13일 강원은행 속초지점과 조흥은행 속초지점이 합병하였다. 2000년 6월 26일 구 고성지점을 폐쇄하여 업무를 통합하였으며, 2004년 2월 1일 구 교동지점을 폐쇄하여 업무를 통합하였다. 2004년 11월 1일 DCRB점포 업무취급 개시 및 개점 30주년 행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 4월 3일 신한은행 속초지점으로 점명을 변경하였다.

금강산관광의 활성화와 설악산 관광경기의 쇠퇴, 수산자원의 고갈 등으로

침체경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상권의 급속한 신흥개발지역인 조양동 등으로 이전이 가속화되어 부실여신 및 부실예상여신의 과다 보유로 업적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5년 총조달액은 71,623백만원, 총여신액 99,16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2) 신한은행 속초설악지점

신한은행 속초설악지점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4년 12월 12일 동화은행 주문진지점을 개점하였으며, 1995년 11월 20일 동화은행 속초지점으로 이전 개점하였다. 1998년 6월 29일 신한은행으로 합명되었으며, 1998년 8월 3일 신한은행 속초지점으로 개점하였다. 2006년 3월 13일 신한은행 속초설악지점으로 점명을 변경하였다.

신한은행 속초설악지점은 속초시 중앙동 479-18 중앙시장내 중앙극장 맞은편에 위치하여 있으며 1대 지점장으로는 정병목, 2대 김시현지점장, 3대 이철재지점장, 4대 김희석 지점장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다. 국민은행 속초지점

국민은행 속초지점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2년 12월 11일 속초시 영랑동 148-9 설악비치리조텔 내 개점하였던 구 주택은행과 2002년 11월 21일 통합하여 속초시 중앙동 468-75번지에 위치하였다.

주요업무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12월 31일 총수신 42,991백만원, 총여신 94,492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12월 31일 기준 총수신액 1280억, 총여신액 1303억으로 나타났다.

라. 우리은행 속초지점

우리은행 속초지점의 연혁을 살펴보면 1966년 9월 26일 구 상업은행으로 개점하였으며, 1992년 3월 2일 구 한일은행으로 개점, 1999년 12월 31일 구 상업은행과 구 한일은행이 합병하여 현재 우리은행 속초지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속초시 중앙동 468-40에 위치한 우리은행 속초지점은 2005년 12월 31일 총수신액 950억, 총여신액 760억으로 나타났다.

마. 증권회사

속초에 있는 증권회사는 하나증권 속초지점, 동양종합금융증권 속초지점, 대우증권 속초지점 3곳이 있다.

하나증권 속초지점의 연혁은 1988년 2월 26일 동남증권 속초지점으로 개점하여 1992년 7월 1일 보람증권 속초지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5년 1월 9일 현 위치인 교동 아남프라자 7층으로 이전하였으며, 1999년 5월 15일 하나증권 속초지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다. 주요 업무 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말 예탁자산 300억, 금융상품 100억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속초지점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3년 3월 21일 속초시 교동 658-65번지 이화빌딩 2층에 개점하여 현시점까지 영업하고 있다. 주요업무 실적을 살펴보면 금융상품(채권, CMA, 발행어음, 신탁 등) 및 주식 예탁자산을 25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총인원은 지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타증권사와 다르게 주식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기업금융, IB업무 등을 통해 증시 상황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보유한 회사로 작년 수익 1,600억 달성, 금융예탁자산 20조(2006.4.2)를 돌파하였으며 여기에 부응하여 작년 외국인 지분율 16%대로 증가 국내외에서 그 성과를 인정 받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선두주자로 자리하고 있다.

대우증권 속초지점은 1996년 7월 8일 개점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바. 새마을금고 운영

민족 전래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인보협동, 근검저축을 통한 자금의 조성과 활용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주민들의 건설한 금고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새마을금고는 70년대초 마을단위 자생계 등에서 발전하여 2002년말 현재 6개금고에 38,749여 회원에 2,027억원의 자산을 조성하였다.

새마을금고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5-5-2 〉 새마을금고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금고별	자산액	예금액	대출액	회원수(명)
계	202,767	178,732	115,506	38,749
영랑동	13,224	11,291	8,574	4,268
동명동	24,550	21,832	12,199	2,810
속초	76,800	66,708	51,597	8,860
속초남부	58,691	54,419	28,247	18,637
청호동	19,473	16,425	10,520	2,869
장사동	10,029	8,057	4,369	1,305

1) 속초신용협동조합

속초신용협동조합의 연혁을 살펴보면,

- 1972. 10. 22 교동천주교회 신자를 중심으로 발기
- 1972. 11. 5 창립총회 대표 이경식 선출
- 1973. 3. 9 재무부인가 4-13호
- 1973. 3.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신협등기 제 5호 등기필
- 1973. 4. 28 제1차 정기총회에서 초대 이사장 이경식 취임
- 1974. 7. 16 연합회 회원조합으로 가입
- 1976. 8. 30 이경식 이사장사망으로 사임 (3년4개월 재임)
- 1976. 9. 1 이사장 직무대행 (부이사장 최진철)
- 1976. 12. 13 연합회 신용사업부 가입
- 1977. 1. 23 제5차 정기총회 (이사장 최진철 취임) (영업자 납세번호 227-82-00159)
- 1977. 8. 2 속초시 중앙동 478-34번지로 사무실 이전
- 1980. 12. 3 자체회관 매입 (교동 664-210 80평)
- 1981. 1. 30 제9차 정기총회 (이사장 최진철유임)
- 1981. 4. 19 최진철 이사장사임 (5년3개월 재임)
- 1981. 4. 20 이사장 직무대행 (부이사장 최양일)
- 1983. 2. 3 제11차 정기총회 (이사장 최동환 취임)
- 1984. 2. 10 제12차 정기총회 (부이사장 최종봉 직무대행)
- 1984. 5. 31 안전기금 가입
- 1984. 9. 27 자체건물 매각 (교동 664-210 80평)
- 1984. 10. 1 교동 664-210번지에서 중앙동 473-25번지로 사무실 이전
- 1985. 2. 15 제13차 정기총회 (이사장 최종봉 취임)
- 1987. 12. 1 연합회 장학공제 및 저축생명공제 계약체결
- 1988. 8. 14 중앙동 473-25번지에서 중앙동 468-29번지로 사무실 이전
- 1989. 2. 16 제17차 정기총회 (이사장 김준길 취임)
- 1989. 7. 1 업무전산화 개시
- 1990. 9. 22 중앙동 468-216 대지매입 331㎡
- 1991. 9. 24 자체회관 부지 추가매입 64㎡
- 1992. 1. 3 신축공사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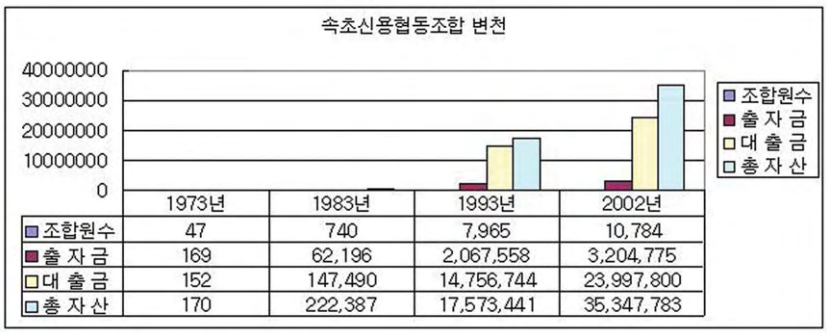
- 1992. 2.18 자산 100억 돌파
- 1992. 2.19 제20차 정기총회 (이사장 최무일 취임)
- 1992.12. 8 조양분소 개점
- 1993. 2.13 속초신협 신축회관 이전 (대지 395㎡, 건물 1,372.41㎡)
- 1993. 3.15 속초신협 자체회관 준공식 (지하1층, 지상4층)
- 1993. 7. 3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 김경식)
- 1994. 6.17 자산 200억 돌파
- 1994.12.20 교동분소 개점
- 1995. 2.18 제23차 정기총회 (이사장 김경식 취임)
- 1995. 3.30 주차장부지 매입 (중앙동 468-225 대지 199㎡)
- 1996. 2.15 제24차 정기총회
- 1996. 5. 3 자산 300억 돌파
- 1997. 2.20 제25차 정기총회
- 1998. 2.25 제26차 정기총회 (이사장 김경식 취임)
- 1998. 6.16 98년 임시총회(정관변경승인)
- 2001. 2.21 제29차 정기총회
- 2002. 2.25 제30차 정기총회 (이사장 김경식 취임)
- 2002.11. 5 창립30주년 기념식 및 365자동화코너 개소식

년도별 자산신장 현황을 살펴보면,아래 표와 같다.

〈 표 5-5-3 〉 년도별 자산신장 현황 (단위 : 명, 천원)

년도별	조합원수	출자금	대출금	총자산	순증감
1973	47	169	152	170	
1974	80	648	648	726	556
1975	91	967	798	1,147	421
1976	251	4,494	7,199	7,893	6,746
1977	396	9,715	17,262	19,648	11,755
1978	517	12,237	32,188	41,260	21,612
1979	686	18,118	72,992	94,586	53,326
1980	871	33,578	127,689	187,231	92,645
1981	1,123	46,838	159,142	205,981	18,750
1982	1,206	43,713	149,983	212,718	6,737
1983	740	62,196	147,490	222,387	9,669
1984	879	74,815	182,872	231,985	9,598
1985	1,242	95,054	291,840	320,889	88,904
1986	1,570	122,991	395,038	442,996	122,107
1987	1,776	211,931	764,494	851,712	408,716
1988	2,247	328,009	1,273,364	1,475,870	624,158
1989	3,220	579,465	2,974,093	3,426,234	1,950,364
1990	3,967	761,909	4,504,000	5,812,583	2,386,349
1991	5,016	1,091,329	7,332,791	9,317,292	3,504,709
1992	6,176	1,477,151	10,640,473	13,065,759	3,748,467
1993	7,965	2,067,558	14,756,744	17,573,441	4,507,682
1994	9,143	2,696,682	17,574,841	22,183,768	4,610,327

년도별	조합원수	출자금	대출금	총자산	순증감
1995	10,684	3,355,248	21,774,078	27,474,468	5,290,700
1996	11,710	3,828,834	23,970,625	34,081,382	6,606,914
1997	12,882	4,383,927	29,369,242	38,398,070	4,316,688
1998	13,019	4,109,471	29,771,138	37,951,795	△446,275
1999	11,348	4,008,699	24,553,679	36,078,190	△1,864,605
2000	11,480	3,831,941	23,607,780	32,231,209	△3,855,981
2001	11,649	3,416,222	19,442,127	36,165,866	3,934,657
2002	10,784	3,204,775	23,997,800	35,347,783	△818,083



	1973년	1983년	1993년	2002년
조합원수	47	740	7,965	10,784
출자금	169	62,196	2,067,558	3,204,775
대출금	152	147,490	14,756,744	23,997,800
총자산	170	222,387	17,573,441	35,347,783

〈 그림 5-5-1 〉 속초신용협동조합 변천

2) 영랑동새마을금고

영랑동새마을금고의 연혁을 살펴보면,

- 1977. 7. 5 마을금고 창립회원 47명, 출자금 63,700천원
- 1977. 7. 20 마을금고 연합회 등록
- 1978. 10. 21 일천만원 돌파 기념대회
- 1979. 5. 30 창립총회
- 1981. 4. 26 임시총회에서 마을금고 명칭개정 (영칠마을금고→영랑동마을금고)
- 1983. 6. 30 인가(정관변경), 인가번호(인가 제6-3호), 명칭(영랑동새마을금고)
- 1988. 4. 30 금고자체회관 매입 (대지 446㎡, 건물 1층 121㎡, 2층 128㎡)
- 1988. 12. 9 금고회관 증축 (건물 1층 200.65㎡, 2층 206.835㎡, 지하 21㎡)
- 1991. 2. 20 금고업무전산화
- 1993. 2. 18 제15차 정기총회 (자산 4,349백만원, 회원 1,750명)
- 1994. 11. 17 펌뱅킹업무실시(송금업무)
- 1998. 8. 10 전국 온라인 전산망 개통 실시
- 1998. 11. 5 신축회관 준공식(회관준공 및 자산 200억 조기달성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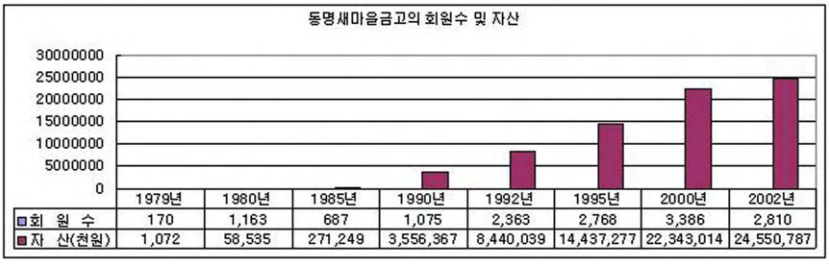
대회)

- 2003. 2. 6 제25차 정기총회(자산 13,244백만원, 회원 2,565명)

3) 동명새마을금고

동명새마을금고의 연혁을 살펴보면,

- 1978. 3. 10 일심회 새마을부녀회주축 자연설립
- 1979. 6. 20 회원 355명, 자본 6백만원으로 창립총회, 초대이사장 최무일 취임
- 1979. 10. 19 동명동사무소에서 450-105번지로 이전
- 1980. 6. 1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구판사업 실시
- 1983. 9. 17 연합회 안전기금 가입(제06-0074호)
- 1987. 12. 31 '87 우수 새마을금고 표창
- 1993. 5. 29 자산 100억 달성
- 1998. 10. 27 자체회관 준공식 및 자산 300억 조기달성 기념대회 개최
- 1999. 4. 1 자산 230억 달성
- 2000. 5. 25 김현달 이사장 새마을훈장 노력장 수상
- 2002. 12. 9 자산 250억 달성



〈 그림 5-5-2 〉 연도별 회원수 및 자산증가 현황

〈 표 5-5-4 〉 연도별 회원수 및 자산증가 현황

연도별	회원수	자산(천원)	비 고
1979	170	1,072	
1980	1,163	58,535	
1985	687	271,249	
1990	1,075	3,556,367	
1992	2,363	8,440,039	
1995	2,768	14,437,277	
2000	3,386	22,343,014	
2002	2,810	24,550,787	

4) 속초남부새마을금고

속초남부새마을금고 연혁을 살펴보면,

- 1999. 5. 27 교동새마을금고와 청학새마을금고간 합병으로 속초남부새마을금고로 신규 설립
- 1999. 6. 3 인가번호 제1호로 속초남부새마을금고 설립(신설, 합병) 인가 및 등기
- 2000. 10. 20 생명공제 유효계약고 300억 달성
- 2000. 12. 30 공제사업부문 단체 준우수상 수상
- 2001. 6. 20 생명공제 유효계약고 500억 달성
- 2001. 11. 10 생명공제 유효계약고 700억 달성
- 2001. 12. 31 공제사업부문 우수상
- 2002. 10. 27 생명공제 유효계약고 800억 달성
- 2002. 12. 20 강원도지부 하반기 공제신계약실적 1위
- 2003. 3. 26 생명공제 유효계약고 1000억 달성

회원 및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5-5-5 〉 속초남부새마을금고 회원 및 자산 현황

회 원 수			총자산	비 고
출자거래	일반거래자	계		
7,019	12,235	19,254	58,714,466	

5) 속초새마을금고

속초새마을금고의 연혁을 살펴보면

- 2000. 7. 18 속초중앙금고와 금호금고 합병의결
- 2000. 8. 14 합병계약서 체결
- 2000. 9. 4 합병설립위원회 구성
- 2000. 9. 26 합병계약서, 설립위원구성 추인, 금고해산 의결(제1차 임시총회)
- 2000. 9. 28 합병공고
- 2000. 11. 22 설립위원회 개최(명칭 : 속초새마을금고)
- 2000. 11. 30 속초새마을금고 설립인가(속초시장)
- 2000. 12. 2 속초새마을금고 설립등기,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원 가입
- 2000. 12. 4 법인사업자 등록
- 2000. 12. 15 속초새마을금고 초대 류창영 이사장 취임

- 2001. 12. 11 VAN사업 개시
- 2001. 12. 19 자산 700억 돌파
- 2002. 1. 23 속초새마을금고 1대 대의원 선출(125인)
- 2002. 4. 30 신용카드체크기 가맹점 1,000개 돌파
- 2002. 5. 6 부영지점 개점
- 2002. 8. 23 생명공제 유효계약고 500억 달성 기념대회
- 2002. 9. 5 VAN사업부 사무실 별도 업무 개시
- 2002. 9. 24 제2차 임시총회 개최(임원 보궐선거 실시)
- 2002. 9. 30 백영철 이사장 취임
- 2002. 10. 31 신용카드체크기 가맹점 3,400개 돌파
- 2003. 3. 28 생명공제 유효계약고 1,000억 달성 기념대회
- 2003. 5. 13 경영우수금고 선정(전국 새마을 금고)

연도별 회원수 및 자산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5-5-6 〉 속초새마을금고 회원수 및 자산증가 현황

구 분	회원수(명)			자산조정액(천원)	증감비율(%)	비 고
	출자거래자	일반거래자	계			
2000	8,890	5,672	14,562	67,543,640	-	
2001	8,455	6,523	14,978	70,558,003	5.40	
2002	8,860	10,256	19,116	76,800,149	8.80	

6) 청호새마을금고

청호새마을금고의 연혁을 살펴보면

- 1974. 12 .24 청호새마을금고 자연설립(초대 이사장 전수남)
- 1980. 1. 31 법인설립인가
- 1983. 7. 19 법인등기(제14호)
- 1992. 12. 30 신용사업우수상 금고 선정
- 1993. 12. 5 자산 70억 돌파
- 1995. 7. 6 분사무소 설치인가
- 1997. 8. 7 자산 170억 달성
- 1997. 11. 4 자체회관준공식 및 자산 300억 조기달성 다짐대회
- 1998. 1. 13 신용사업부분 우수상 금고선정
- 2000. 2. 12 제12대 김옥재 이사장 취임
- 2000. 12. 8 생명공제 100억 달성
- 2002. 5. 2 좋은이웃 365 자동화기코너 설치 운영
- 2002. 8. 20 자산 190억 돌파

- 2003. 1. 10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최우수금고선정 표창장 수여
- 2002. 5. 6 부영지점 개점

회원수 및 자산증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5-5-7 〉 청호새마을금고 회원수 및 자산증가 현황

구 분	회 원 수(명)			총 자 산 (천원)	비 고
	출자거래자	일반거래자	계		
2002	2,633	218	2,851	19,750,280	

제6장 공영개발 사업과 경제관련 단체

제1절 속초시 공영개발 사업

1.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속초시 교동(906-1번지일원)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추진당시 정부의 200만호 서민 주택건설 정책 및 주택의 효율적인 개발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와 시 자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당초 속초시 대포동 455번지 일원 1,193㎡에 추정사업비 4,123백만원을 투자계획으로 대포지구 주택개발사업 지구승인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으나 인근지역에 분뇨처리장이 위치하고 있고 일부 녹지지역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 교동 만천지구로 조정하여 '89.6.30. 면적 5,300㎡, 추정사업비 8,935백만원으로 주택개발 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여 '89.12.29.(건설부 고시 제821호) 예정지구승인을 받았다.

공영개발사업의 자금 재원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발주 시비 3,513백만원을 동지구내의 이원명외 2인 소유토지 11필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도시과 도시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편입용지 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90.7.4자 조직개편에 의해 공영개발계가 신설되어 계장외 3명의 직원으로 정식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91.5.16. 주택공급승인 신청에 이어 '91. 5.30.(강원도)로 단독주택 100세대 공동주택 458세대분의 11,745평으로 택지공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택지개발의 활발한 추진이 전개되었다.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보상비(7,701백만원) 공사비(1,258백만원)등 총공사비 (8,960백만원)을 투자하여 '92. 9.20부터 실수요자, 이주자, 협의양도인 등에게 선수분양함으로써 실질적인 택지분양공고와 함께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원 확충의 본격적인 업무가 추진되었으며 '91.12.31.이 사업의 준공으로 인해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 표 5-6-1 〉 만천지구 택지공급계획 및 분양실적

구 분	택지 공급 계획		택지 분양 실적			비 고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	
합계	40,602.3	111	39,155.3	109	96	
단독주택지	20,777.2	100	20,777.2	100	100	
공동주택지	18,050.8	6	16,603.8	4	92	
종교시설용지	600	1	600	1	100	
인근생활용지	1,174.3	4	1,174.3	4	100	

2.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87년 대통령 공략사항으로 추진한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은 각종 오·폐수로 인해 오염된 청초호를 되살림과 동시에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관광명소의 정착이라는 포부아래 착공하여 '93.12.30부터 2001.12.31까지 8여년에 걸쳐 완공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8,776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유수면 208,878㎡와 육지부 125,385㎡를 포함하여 총 334,263㎡를 조성하여 56%에 해당하는 156필지, 187,077㎡중 153필지 149,581.3㎡를 분양하였다.

분양 초창기 IMF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한때 분양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국내경기의 호조와 지역여건의 향상 등으로 강원도에서 매입할 환동해교류센터부지와 시민활용공간으로 사용할 야구장과 축구장 등 3필지 37,495.7㎡를 제외한 실질적인 분양을 2002년 12월말 완료하게 되었다.

본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간 상환할 예정으로 총 119,787백만원(원금 81,738백만원, 이자 38,049백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지금까지 80,799백만원(원금 57,938백만원, 이자 22,861백만원)을 상환하고 2003. 5. 1 현재 39,008백만원(원금 23,800백만원, 이자 15,188백만원)이 남아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채 조기상환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 완료하게 되면 11,278백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추세로 2007년까지 분할납부계약에 의한 분양금이 모두 상환될 경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정감정평가액이 201억원인 청초호유원지내 공공용지로 활용될 자연녹지와 공원, 도로, 주차장, 매점 등을 제외하고도 약 55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본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지난 2002년 12월에 완료됨으로서 유원지내에 호텔과 모텔을 비롯한 각종 편익·휴양시설들이 자리잡게 되면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발달과 주변 여건의 향상(양양국제공항 개항,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정공사, 대북교류 거점도시 등), 주5일제근무 실시에 따라 우리시는 관광레져 휴양시설을 고루 갖춘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명실상부한 영동지역의 거점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3.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말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변화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IMF의 시련을 맞게되었다.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지역간 성장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강원도는 개발이 보류되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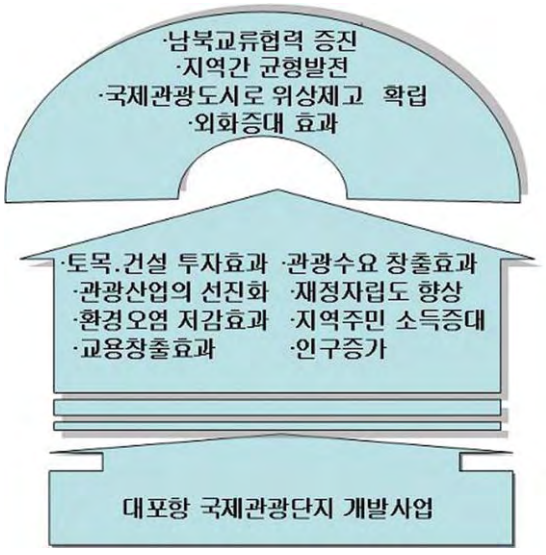
얼마 전부터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속초시는 환동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의 발전과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룩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다.

속초시의 현재 경제상황과 미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유효한 방안의 하나가 현재 소규모 어항인 대포항을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대포항은 정부의 방파제 확장 지원사업이 결정되어, 속초시의 재정부담 완화로 개발이 용이하게 되었고 또한 관광단지로서 적합한 지리적 조건과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속초시는 과거의 수산물 풍년이나 수동적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시대변화에 적절한 환경친화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대포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대포항 개발효과 〉



우리시의 관문이자 설악산 입구에 위치한 대포항을 기존의 관광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체류하면서 체험 · 휴양하는 친환경적인 다기능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관광어업을 활성화하여 대포주민의 소득증대와 우리지

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의 추진 및 전담부서(1소장, 2담당, 10명)를 설치하고 2002. 3. 21. 14:00 개소식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절 속초시 경제관련 단체

1. 속초시번영회

양양군 양양읍에서 속초시로 승격 당시에 속초시 개발위원회가 생겼다. 전 속초읍장을 지내신 고 전성우 회장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개발이나 번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1963년 10월 26일 속초경찰서 유치부터 한국전력유치,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시제에 필요한 각급기관 유치에 공이 현저하였다. 우리 지역에 민간주도 세력으로서 사회단체 기능역 정착기였다.

1964년 2월 17일 속초시 지역유지들이 모임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번영회를 조직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에 신성철, 부회장 박하영, 이달영, 김용기가 선출되었다. 1966년초에 제2대 개발위원장에 초대시장 서리를 지낸 김치룡이 피선되었으며, 이 무렵 1966년 10월 1일 우리 강원도에서는 제일 먼저 문화행사인 설악제가 탄생하고, 민간주도로 제9회까지 등산대회를 위주로 하여 매년 단풍철에 그 명맥을 이어간다.

정치권에 유신이 도래하자 양양군수를 역임하던 고 박하영이 제3대 개발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당시 김명한 시장으로 하여금 설악동과 노학동간의 연결도로인 목우재를 지방도로로 개설하는데 공헌하였으며, 1975년경 제4대 개발위원장에 고 방효근이 피선된다.

문화행사인 설악제가 등반대회에서 확대 축제가 되고 일복문화회관, 속초학생체육관, 동우전문대학유치 등 사회간접 투자시설유치에 공헌한 바 있고, 고 박정희대통령 현지답사에(1978년경) 의해 속초시 전구간의 도로가 재포장 되는 등 관광지 면모가 일신하였다.

유신정치의 종말과 더불어 개발위원회가 침체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2년 1월 30일 속초시번영회라 칭하고 발기인 대표자인 고 최재길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89년 12월 15일 지역의 화합이란 명분으로 4대 번영회장에 양양군수를 지낸 김원진을 추대하였다. 강원도 각 시군 번영회회장단 협의회를 결성하면서 고속전철 조기착공, 춘천~속초간 4차선도로확장개설 등 요로에 진정하나 당초의 목적과 달리 번영회는 민주계와 민정동우회의 알력과 당분으

로 더욱 심한 수난기에 접어든다. 재임기간 2년 중 1년만에 김원진회장은 신병 등으로 사임 1990년 12월 24일 회장단을 개편 5대 번영회장에 백영일이 피선된다.

지역의 화합과 젊은이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번영회 부회장에 재속 강원대동문, 속초고동문, 속초상고동문, 여성대표, 산업대표에서 1인씩 추천받는다. 1991년 12월 30일 제6대 번영회장에 재임하면서 부회장을 각 사회단체장으로 모신다. 이시기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시의원이 탄생한다.(번영회이사 중 7명이 당선된다.) 지방자치화에 대비하여 백영일 번영회장은 미약한 속초시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진국의 시의회 견학차 일본 고오베, 오사까, 아다미 등 견학한다. 특기할 것은 백영일 회장단과 윤중국 도의원, 김형동사장 등 1여년간 연구 검토 끝에 속초지역 주민이 이지역 경제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지방자치제의 자립도가 120%이상 확립할 처방으로 순수한 속초시민의 자금을 주식화한 속초향토기업주식회사(대표이사 김형동)를 만들었다. 설악산 교통지옥을 완화시키며 속초시민의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노레일 사업을 일차로 추진 한 바 있었다.

한편 기존 번영회 조직에 반발한 구 민정계 인사들이 새로운 번영회를 결성해 3당통합 후 드러나기 시작한 세력싸움이 본격화되었다.

민정동우회 핵심인사들은 시청회의실에서 번영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번영회장에 박성룡, 부회장에 이관희, 신영철, 이규철, 동문성, 서동석과 상임고문 8명, 감사 2명 등을 선출하여 기존 번영회를 인정치 않고 독자적으로 번영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원진이 이끄는 기존 번영회는 18일 시청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번영회에 대한 대응책을 토의하기도 했다.

번영회가 2개로 분열된 것은 5명의 부회장과 50~80명의 이사 자리를 놓고 서로 세력다툼을 벌임으로써 비롯되었는데, 12월 14일 임기가 만료된 김종록 번영회장의 후임으로 구 민정계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김원진이 민정계 인사 8명으로 부회장단을 구성하자 전임 회장단이 민정계 일색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김원진은 5월 1일 새로운 부회장단 5명을 선임했는데, 이번엔 민정계에서 회장 임의대로 부회장을 경질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새로운 번영회를 소집한 것이다.

속초시 번영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1961년 3월 속초시 개발위원회로 발족, 1964년 3월 18일 제1차 회칙개정 1968년 3월 25일 제2차 회칙개정, 1973년 4월 10일 3차 회칙개정, 1975년 4월 23일 제4차 회칙개정, 1977

년 4월 27일 제5차 획칙개정, 1982년 1월 30일 속초시 번영회로 재창립, 1987년 11월 제2차 회칙개정, 1991년 12월 30일3차 회칙이 개정되었다.

속초시번영회의 목적은 속초시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교육, 문화, 체육 등 제분야에 발전을 추진하여 속초시 번영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속초시번영회의 사업은 첫째, 지역개발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립과 공표 및 관계당국에 청원과 건의, 둘째,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강연회 및 학술연구 세미나 등 개최, 셋째, 일반사회 병폐의 개선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넷째, 관계당국으로부터 협조 위탁받는 사업, 다섯째, 기타 이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들수 있다.

속초시번영회에서 속초시 종합개발 촉진 건의 총괄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5-6-2 〉 속초시번영회 종합개발 촉진 건의 총괄표

분야별	현 황	문 제 점	개발의 필요성	사 업 구 분	소요사업비
(도시형성) 관광거점 도 시	1.강릉권에 속한 도시 2.전국도시 중 제일 가난한 도시	1.균형개발의저해 2.설악산개발투자가 시민소득에 직결되지 못함	1.속초시를 국제 관광지로 지정 2.설악산과 일치되는 관광도시의 면모를 형성	속초, 양양, 고성, 인제(설악권) 활주로	
(교 통) 속 초 공 항	활주로 1,120m×25m	긴급을 요하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음	국제공항시설	3,200m×45m 청사 2,000㎡ 주차장 5,000㎡	
동해북부 고속도로	기준국도 거리 75km 폭 7m	1.교통량적제 2.사고의 불안요소 내재 평상1일교통량 3,000~5,000대 관광계절 1일량 15,000~25,000대	동해안 관광권내 종단도로 확장	거리 75km 폭 32m	1,500억원 (83년도)
미 시 령 도로포장	지방도로로 격하되어 미포장 상태	유일의 관광도로가 폐도위기	북설악횡단 관광도로	거리 21km 폭 9m(현재는 4차선 요구됨)	52억원 (83년도)
새 우회도로 신 설	시내단일로임	1.교통량수용불능 2.사고빈번	1.교통원활 2.사고예방 3.시가균형발전	거리 3,000m 폭 20m	26억 5,000만원 도로 16억 9,400만원 포장 9억 5,600만원 (83년도)
속초항 개 발	어 항	1.영세성을 면치못함 2.선박노후소형	1.관광유치를 위한 카페리호순항 2.북방전진기지로 개발	1.방파제 1050m 2.물양장 713m 3.안벽 130m 4.호안 254m	
해안도로 개 설		1.해안관광기능상실 2.관광자원사장	해안 및 호변 순환 관광	거리 4,110m 폭 12m	51억 6,000만원 (83년도)
관광개발	청초호오염 심각 영랑호오염	국내 유일의 바다호수	1. 설악산 · 금강산 연계, 자유관광 지화대북제의 대비 2. 86 · 88올림픽 대비, 쾌적한 해변공원 조성	1.기반조성 (정부에서) 2.위락시설(민자로) 3.조성면적 178.400㎡	

2. 속초향토기업주식회사

1991년 12월 19일 외지기업의 지역 경제 잠식을 막고 지역자본화 하기 위해 제3섹타 방식의 기업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해 자본을 확보한 후 설악산 진입로 모노레일 설치와 주차장, 휴게소, 수족관 시설 등 각종사업을 벌여 지역자본을 축척하고 주민 공익사업을 펼치기로 결의하였으며, 가칭 속초향토기업(주) 발기인대회를 속초관광호텔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사회장에 윤중국(전 도의원), 대표이사에 김형동(전 상공회의소장)을 선임했고, 발행주식 8억원으로 하고 관광개발과 휴게소 시설, 비영리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혁을 살펴보면, 1991년 10월 10일 발기준비위원회 구성회의 속초시 번영회 사무실(중앙가스 충전소)에서 준비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영일 번영회장이 향토기업 설립취지설명이 있은 후 전원의 동의로 향토기업 발기준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장으로 번영회장인 백영일이 선임되고 위원을 선임. 1991년 12월 19일 제1차(가칭)속초향토기업(주)발기인대회 개최, 1992년 1월 8일 제1차(가칭)속초향토기업(주)발기대표단회의개최, 1992년 1월 16일 제2차(가칭)속초향토기업(주)발기인대회 개최, 1992년 1월 29일 제2차 속초향토기업(주)발기대표단회의 개최,1992년 1월 19일 속초향토기업(주)주식인수자간담회 개최, 1992년 2월 19일 발기대표단 재구성, 1992년 3월 3일 제3차 속초향토기업(주)발기대표단회의를 개최하였다.1992년 3월 12일 창립총회예비회의 개최, 1992년 3월 29일 정관확정, 1992년 4월 1일 회사창립하였다.

속초향토기업(주) 설립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는 동해의 푸른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마치 병풍처럼 설악산이 펼쳐져 있는 우리고장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천혜의 명승지이다. 이 천혜의 맑고 푸른 강산에서 우리는 대자연을 만끽하고 함께 호흡하며 살아왔다. 그렇지만 지금은 온갖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의 훼손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다.

오래전부터 고장의 유지 인사들이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자본 부족으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막대한 외지의 자본이 무차별 침투하여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 지역의 대형관광 서비스업체 중에 지역민이 경영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수는 극히 미미하기 그지없으며, 외지에서 온 대형기업들은 엄청난 경영수익을 단 하루도 넘기지 않고 본사로 은행송금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그들에게 고용되어

잡다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현상을 좌시할 수가 없어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힘을 뭉쳐 본 향토기업을 설립하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고장을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과 조화있게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직접 시민에게 균등배분 되도록 하며, 이에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시민자신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지역문화를 창달하자는 것이 근복 목적이다. 우리지역은 설악산을 비롯하여 바다와 쌍호수, 온천 등 천혜의 부존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이의 특성있는 개발과 보존에는 소홀했음은 우리 시민의 무력함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이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중앙정부의 보호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랍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제3섹타" 방식 즉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법인이 함께 경영의 주체가 되어 지방경제를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향토기업은 지방자치 기업의 선두주자로서 여타 시 · 도의 모범이 되고자 용트림 하고 있으며, 향토기업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의 기업임을 거듭 강조한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국위부상으로 여가의 욕구가 팽배해진 현실 속에서 국립공원 설악산을 찾는 내 ·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오너드라이브로 인한 차량의 증가율은 관광객의 증가율을 훨씬 앞질러 설악산 국립공원의 수용능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주말과 휴일에는 B, C지구에서 차량이 통제되어 방문객이 4㎞를 걸어서 공원을 찾고 있으며, 하루 약 2,000대의 자가운전 차량 관광객이 소공원 입장도 못한 채 되돌아 가는 실정이다. 이른 아침에 자가용차량이 소공원에 진입하여 교통마비로 인하여 노변이나 화단 등 무단방치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며, 이것은 교통체증 해소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자연훼손까지 되고 있다.

설악산 주변에 난립되어 있는 콘도, 오피스텔, 골프장 및 각각기관 · 단체의 연수원 등은 관광객 증가의 큰 요인이며, 이와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설악산을 비수기와 성수기의 구별없는 전천후 관광지로 변모케 하였다. 현재의 관광객 증가요인을 고려해 볼 때 연간 50만명씩 증가추세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는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사에서는 소공원 진입로인 A, B, C지구에 궤도(모노레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미 개발된 기존 도로변 및 인도를 따라 설치함으로써 자연경관의 훼손을 극소화 할 수 있고, 관광객의 대량수송을 가능케 해준다.

모노레일 시설물은 국제적 규모의 관광이용 시설물로써 국제적 관광단지

조성 및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개발 차원에서도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 시설물이 등장함으로써 관광설악의 청량제가 될 것이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3. 속초경실련

가. 개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명칭대로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를 실천하고자는 취지와 반드시평화적 시민운동을 통해 그 정의를 실현하고자 나아가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그렇듯 경제정의가 이루어져야 가정과 기업이 건실해지고 시정과 의회도 제 기능을 다 할 것이며 지역문화, 지역교육, 지역환경이 발전할 수 있는 올바른 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속초경실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삶과 관계되는 문제 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시적 제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과 함께 속초경실련은 또 한가지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정신세계를 건전하게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내가 변할 때 세상은 바뀝니다'라는 경실련의 표어대로 속초경실련의 구성원은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안에서 반성과 변화를 통하여, 내가 정의로울 때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른 세상이 실현됨을 명심하여 자기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라는 큰 배를 타고 항해 중입니다. 이 배위에는 아름다운 설악권도 실려 있고 청정의 동해도 실려있으며, 속초. 고성. 양양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 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를 몰 키잡이입니다. 누가 이 큰 배의 키를 잡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함께 탄 시민 모두가 키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속초경실련은 시민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탄탄한 조직과 구성으로 안전운항을 하는데 동반자이며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나. 연혁 및 주요활동

▶ 1995년

5.26 속초경실련발기준비모임 구성

11.10 속초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발기대회 개최

11.22 속초경실련창립준비모임 구성

11.30 설악산 세계자연유산등록을 바라는 성명서 발표

▶ 1996년

2.13 고성군 원전건설계획 반대운동

2.15 설악산 세계자연유산등록을 바라는 공동기자회견
(속초경실련, 속초환경연, 살악배달녹색회, 환경교사모임, 고성녹색사랑회)

3.25 속초시 반핵대책위원회(준) 대표자 회의(38개 단체 참가)

4. 8 속초시 반핵대책위원회 발대식

10. 2 강원도사무국협의회(원주)

10.13 동해안호수생태조사참가(영랑호,봉포호)

▶ 1997년

1. 9 시민영화제 준비회의 및 습지보전대책회의

1.10 강원도사무국협의회(속초)

1.14 속초경실련 창립준비소위원회구성

1.17 노동법 · 안기부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속초지역시민단채들의 공동성명 (속초경실련, 속초민예총, 속초환경련, 전교조속초지회)

2. 1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대회

3.20 통일염원 및 대만핵쓰레기 한반도반입저지 시민대회

4.19 북한동포돕기 영북사업운동본부 준비모임회의

5. 3 통일시민대회 개최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속초지역에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확산>

6.14 북한동포함께돕기 가두모금 발대식

6.18 1차모금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로송금 총 9,531,530

6.23 도로교통시민캠페인 조사 <언론공고의 시민제보를 근거로 추진>

6.2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조사
<노학동 산 83에 설치하려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의 타당성 여부 도출건>

8. 경실련소속 변호사들의 무료법률 상담<정책위원장 황윤구>
다음해 2월까지

10. 속초지역 편의시설 실태조사 <1개월 조사 자료집발간>

10.29 북한동포함께돕기 2차 가두모금 송금

11. 4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확보를위한 시민켐페인

<편의 시설확보의 필요성과 의무홍보>

▶ 1998년

3.16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속초지역시민운동협의회 1차회의
(속초경실련, 속초YMCA, 속초YWCA, 속초환경련)

4. 6 . 4 지방선거 활동(사무국: 경실련)

4.11 편의증진법 시행일에 맞춰 캠페인개최
<법률시행사실과 편의시설설치의 필요성홍보>

5. 5 속초 어린이 큰 잔치 한마당전개
(속초경실련, 속초환경련, 송초민예총, 전교조속초지회, 속초경실련: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전개)

7. 금강산개방에따른 경제토론회주최
–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두 관광권의 연계가능성에 대해 전망

10. 동해안호수살리기 범시민한마당개최
(속초경실련, 강릉경실련, 속초환경련, 속초 YMCA, 속초 YWCA, 고성녹색사랑회)

11. 1 영랑호호수살리기 마라톤대회 및 걷기대회
(오염된 호수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위한 취지)

▶ 1999년

3.12 속초경실련 2주년기념식 및 제2차정기총회

4. 우리집에너지절약운동전개 「알뜰살뜰」근검절약캠페인용 홍보책자발간<공동체의 올바른 의식함양과 경제위기의 일조함양>

9. 관광엑스포 기간동안 세계등불전시관운영

12. 새천년 통일등불축제. 시와 공동개최

▶ 2000년

2월 총선연대 발족 및 기자회견
속초항 여객터미널 물류센타 건립 계획 철회 활동

3월 공선협 재개식

3월 총선연대 – 지은희, 김혜정 중앙총선연대 간부와 좌담회

4월 공선협 총선연대 설악신문사 공동 주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8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입법예고안 검토 결과 통보

9월 정보공개운동시민연대 결성(속초경실련, 속초 · 고성 · 양양환경

운동연합, 전교조, 속초 YWCA, 속초 · 고성 · 양양 반부패 국민연대) 금강산쾌속선 속초 취항 촉구

11월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 허울좋은 빚잔치!' 성명서 발표

12월 속초시 · 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이의신청 제기

국회의원 42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안' 발의에 대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 성명서 발표

▶ 2001년

1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분석결과 발표

청초호유원지문제해결을위한시민대책위 창립식

시민의 소리 재발간

3월 제9회 물의날 기념 심포지움

속초경실련 제4차 정기총회 및 창립5주년기념식

4월 속초시의회 참관운동 시작

6월 6 · 10항쟁 기념 시민 · 노동단체 토론회

내고장 특산물 팔아주기 거리캠페인

2001 시민안전의식 설문조사

'속초지역 자활후견기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지방자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7월 시민사회단체 지방선거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8월 속초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회 방문 간담회(속초시 파행행정에 대한 시의회 대처 촉구)

2001민족공동행사 속초 추진본부 발족(민예총)

6 · 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속초시민 선언 행사

청초호유원지사업 관련, 속초시 밑빠진 독상 시상(함께하는시민행동)

9월 지방자치대학 개강식(동우대 오후 7시)

10월 청초호유원지사업 주민감사청구 서명작업 착수

도정감시연대 '강원도정평가 공무원 설문조사'(속초시 130명)

11월 속초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정안 및 주민감사청구 주민연명수 하향 조례개정안 청원서 시의회에 접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정보공개시민연대)

지방자치대학 제 10강 및 종강식(동우대)
지방선거 및 대선 관련 시민 · 사회단체 간담회(속초선관위)
12월 속초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분석결과 발표(정보공개시민연대)
시민단체 · 속초시직장협의회 간담회
속초선관위 공명선거 거리캠페인
청초호유원지시민대책위 시의회 방문 간담회(공원화 공개 토론 요청)

▶ 2002년
1월 교복공동구매추진위 회의
동계올림픽 공동개최 궐기대회 보조금 지원 관련 속초시 답변에 대한 의견서 제출
2월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보조 방침 재고 촉구 성명 발표
소각장 입지선정 공정성 촉구
청초호유원지 문제 해결 관련 공개토론 개최 촉구
홍천군 수해복구 공무원 비리사건 관련 '청렴계약제' 도입 요구
3월 물의 날 기념 심포지움 개최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속초경실련 · 설악신문사 공동기획 지방선거 정책캠페인 연재
4월 바른일꾼 뽑기 유권자 운동본부 발족
5월 유권자운동본부 · 속초선관위 · 바선모 공동주최 공명선거 캠페인
유권자운동본부, 설악신문사와 공동 시장후보 초청토론회 개최
6월 정책과제 홍보 거리 캠페인
7월 소회의실 방청 요구 시의회의장 면담(항의 서한문 전달)
도시가스 문제 관련 강원도 관계자, 아파트 관리소장, 동아도시가스 간담회 참석
8월 영동방송 유선료 인상 관련 영동방송 관계자 통화 면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선정 공개모집 속초시에 제안
민선 3기,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속초문화회관 소강당)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속초의정지기단 발족
9월 속초경실련 홈페이지 개통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간담회

10월 수해복구 벼베기 자원봉사 활동
소각장 입지 선정에 따른 대포동 주민 대책회의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속초권 순회보고회 개최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대책위 회장 등 면담
지방자치 주민참여 전국 모범사례 발표회
11월 지방분권 강원본부 발족
의정지기단 예산 관련 교육, 공명선거 거리캠페인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 관련 거리 홍보
12월「시의원에 대한 협박성 전화와 관련 의정지기단 입장」발표
행정사무감사 방청 결과 총평 정리 발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고 관련 주권 회복대회 개최
2003년도 속초시 당초예산안 주요 내용(업무추진비, 총액경비, 계도용신문 예산) 분석 결과 시의회에 전달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 촛불시위

▶ 2003년
3월 시의회 해외연수 관련 의견서 제출
제 11회 물의날 기념 심포지움(KBS 방송국, 오후 3시)
4월 속초지역 전쟁반대,평화연대 발족식 및 집회
5월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워크샵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주공강원지사에 주공임대아파트 건립 취소에 따른 의견서 발송
의정지기단 단원 교육-지방자치에 대해
경실련 예산 관련 위크샵
6월 지방정부 예산 이해를 위한 두꺼비 예산학교
7월 의정지기단 의정활동 1년 평가 발표
속초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분석자료 발표
8월 주민자치센터 현장조사 및설문조사
속초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분석발표
중도문천 및 청초천 수해복구공사 관련 자료 질의 · 의견서 제출
10월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한 의견서 제출
11월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위크샵 및 모범사례 발표회
정치개혁과 공명선거를 위한 유권자 워크숍 개최

12월 의정지기단 예산교육(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국장)
속초시의회 방문 2004년 시 예산안 분석 자료 전달
해오미 속초의제21 임시총회-청정환경보전방안 공모작 우수상 수상

▶ 2004년

1월 고교 평준화 실현 및 고입선발고사 반대 도민결의대회 참가
고교 평준화 실현 및 고입선발고사 반대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택시 전액관리제 관련 질의서 발송

2월 대림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성명서 발표

3월 바른일꾼 뽑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주공4차 2단지 아파트 임대기간 연장 건의
대통령 탄핵무효 ·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속초지역시민사회단체 거리홍보
친환경적 중앙분리대 설치 제안서 속초시에 전달
제12회 물의날 기념 심포지엄
돈선거 추방 캠페인

4월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결과 발표
주공4차 2단지 관련 주공 측에 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촉구
청대산 산불관련 현장 조사 및한전 강릉지점 항의 방문

5월 자동차보험 지역차등요율제에 대한 성명서 발표
북한룡천돕기 성금전달
대한민국음악축제관련 의정지기단 의견서제출
쌍천유역협의회 발족

6월 대한민국음악축제관련 성명서 발표
속초 · 고성 · 양양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연대회의 발족
속초시주민투표조례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발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족
시의회 방문(시의원해외여행 결과 인터넷 공개요청, 속초시주민투표법조례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전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KBS속초방송국 폐지반대 서명운동

7월 대한민국 음악축제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8월 대한민국 음악축제 모니터링 및 대한민국 음악축제 관련 지역주

민 설문조사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에 대한 의견서 제출
노리교 관련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 음악축제 평가서 발표
9월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학교 개강
10월 E-mart(대형할인점)관련 설문조사
국회의원 모니터단
국정감사에 노리교와 해양박물관 철저 감사를 촉구
노리교 진상규명을 위한 공대위 결성식 및 기자회견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학교
11월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학교 종강식
12월 대형할인점 등장에 따른 속초지역 상권변화와 경쟁력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5년 예산 분석결과 발표
동우대학 문막이전과 학교 부지 용도변경 반대 범시민대책위 발대식

▶ 2005년
2월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 성명서 발표
3월 시장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 관련한 성명서 발표
아파트 대규모 분양전환 관련 의견
물의날 기념 심포지움
4월 속초시의원개별평가서 발표
5월 공무원노조의 속초시장 고발건 관련한 속초지역 노동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6월 속초지역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결과발표
차없는 거리 캠페인
동우대 온천개발 관련 자료 요구 행정심판 제기
7월 의정지기단 방청불허 규탄 성명서 발표, 의정지기단 1인시위
의정지기단 결산교육
해양박물관 의혹 관련 성명서 발표
8월 의정지기단 방청불허 관령 천인서명운동 전개
9월 '속초시부실행정진실규명 공투위' 출범식 및 거리선전전
속초시장 규탄결의 대회

속초시보육조례제정운동본부 출범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
부영5단지 임차인대표회의 출범

10월 TV홈쇼핑실태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속초시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거리서명 및 홍보
공무원징계양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방청불허 철회를 위한 1인시위, 유선방송통한 공개에 필요한 예산요구
사회복지아카데미 수료

11월 속초시 부실행정 공투위 기자회견을 통해 박물관과 프랑스 우리꽃전시회, 정보공개 결정 과정 심의 절차 무시등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강원도 예산안 분석

12월 2006년 속초시예산분석
TV홈쇼핑 이용실태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4. (사) 한국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 속초지회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를 말하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모여 설립된 단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를 말한다.

가. 연혁

- 1997. 3. 11. 전국소기업 연합회 창립대회 및 발족 (서울 중소기업회관)
- 2000. 1. 7. 가칭 “한국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로 명칭변경 발기인 대회 (서울 63빌딩)
- 2001. 1. 7. 사단법인 설립허가 (중소기업청)
- 2001. 9. 13. 속초지회 창립합의 (박인복 중앙회장, 김태진 도지부장 참석)

- 2001. 9. 25. 발기인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24명) (준비위원장 : 윤광훈선출)
- 2001. 10. 6. 원주지회 창립총회 참석 (윤광훈 위원장외 4명)
- 2001. 10. 11. 제2차 준비위원회 개최
- 2001. 11. 4. 제1차 발기인대회 준비위원회 개최
- 2001. 11. 6. 강릉지회 창립대회 참석 (윤광훈 위원장외 6명)
- 2001. 12. 2. 제2차 발기인대회 준비위원회 개최
- 2001. 12. 13. 발기인대회개최(천일가든 42명 참석)
  윤광훈 발기인준비위원장을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선출
- 2002. 1. 11. 창립대회 개최 (아남프라자 19층, 136명참석)
- 2002. 2. 7. 자문위원 (6인) 위촉패 전달식
- 2002. 3. 6. "지방선거와 지역경제위축 해소"를 위한 토론회개최
- 2002. 4. 7.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개최
- 2002. 5. 6. 공명선거 가두 캠페인 개최
- 2002. 6. 13. 제1차 전진대회 및 회원단합대회 개최
- 2002. 6. 28. 자연보호 캠페인 및 쓰레기 수거작업 (1차)
- 2002. 8. 21. "지역축제와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실시 및 토론회 개최
- 2002. 9. 11. "태풍루사" 피해돕기 동참 호소문 발송
- 2002. 9. 24. "태풍루사" 피해돕기 금융 및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개최
- 2002. 10. 1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및 보증여건 완화 건의문 발송
- 2002. 12. 17. 소외된 이웃돕기 바자회 행사개최
- 2002. 12. 26. 속초 이마트 입점 저지 투쟁위원회 조직
- 2003. 1. 11.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신년인사회
- 2003. 1. 14. 이마트 입점 반대 1차 항의집회
- 2003. 2. 16. 이마트 건축 허가에 따른 의문 및 문제점 공개 질의 (강원도청, 속초시청)
- 2003. 3. 8. 이마트 입점 반대 2차 항의집회 및 관계기관 호소문 발송 (국회, 재정경제부, 언론기관 외)
- 2003. 4. 11. 속초 이마트 임점저지 연대투쟁전개 (강릉, 동해, 삼척)
- 2003. 5. 18.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실질적 소득증대방안을 위한 토론회

- 2003. 6. 8. 신용보증기금 속초출장소 개소식
- 2003. 8. 21. 속초지회 제2차 전진대회 및 회원단합대회
- 2003. 9. 2. “알뜰하고 검소한 추석보내기” 캠페인 전개
- 2003. 10. 16. 자연보호 캠페인 및 쓰레기 수거 작업 (2차)
- 2003. 11. 15. 2기 정책위원 및 편집위원 위촉패 전달식
- 2003. 12. 22. 소외가정 돕기 행사 (3가족)
- 2004. 1. 11. 창립 2주년 기념 행사 (우수 업체 및 모범회원표창)
- 2004. 2. 16. 관광객 친절히 모시기 및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전개
- 2004. 3. 5. 장학금 전달식 (고교 1명 1년분)
- 2004. 5. 26.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 2004. 7. 13 태풍루사 대출금 상환연기 및 금리보전 호소문 발송
- 2004. 7. 19. 인천시지부 창립총회 참석 (윤광훈 회장외 4인)
- 2004. 7. 29. 강릉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속초출장소 개설 유치팀 구성)
- 2004. 8. 8. KBS속초방송국 폐지 반대 결산회의
- 2004. 8. 21. 제3차 회원단합 및 전진대회 (도문동)
- 2004. 9. 1. 한국산업경제 창간 (중앙회 발간)
- 2004. 9. 4. “대한민국 음악축제와 지역경제” 설문조사 및 토론회
- 2004. 9. 15. 자연보호 캠페인 및 쓰레기 수거작업 (3차)
- 2004. 11. 26.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 현실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건의문 채택
- 2004. 12. 6. 경실련주최 대형할인점 등장에 따른 속초상권변화에 대한 토론회 참가 (토론자 : 윤광훈 회장)
- 2005. 1. 11. 창립 4주년 기념 행사
- 2005. 1. 19.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유치 및 지원책 건의 (정문헌 국회의원)
- 2005. 2. 26. 박인복 중앙회장 속초방문 (아남프라자) 현안논의
- 2005. 2. 27. 속초지회 정기총회 (회장: 윤광훈, 감사 : 최서호, 이호석 선임)
- 2005. 3. 2. 장학금 전달식 (고교 1명 1년분)
- 2005. 3. 2. (사)한국 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 박인복 회장 취임식
- 2005. 3. 7. 제2대 윤광훈 회장 취임
- 2005. 3. 23. 소기업 소상공인 경제대토론회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참가

- 2005. 5. 12. 제 34차 중앙회정기이사회 참가
- 2005. 5. 18. 회원소식지 "영금정" 창간 (32P 5000부 발행)
- 2005. 5. 24. 정부혁신 세계포럼 (코엑스 신관3층) 참가
- 2005. 6. 17-18. 한국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연찬회 (한화프라자)
- 2005. 7. 22.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유치 건의 (김진선 강원도 지사)
- 2005. 8. 26. 제4차 회원 단합 대회
- 2005. 9. 1. 한국산업경제신문 1주년기념식 (서울대 동창회관)
- 2005. 9. 23. 소상공인 소식지 "영금정" 2호 발간
- 2005. 10. 8. 회원 내실화 운동전개 및 위원회 재정비의 달 행사
- 2005. 10. 23. "송년 및 신년행사 검소하고 조촐하게 치르기" 운동 전개
- 2005. 11. 23. 속초 "애향봉사대" 발족식 및 운영위원회 개최
- 2005. 12. 5. 세계소기업 소상공인대회(WASME) 조직위원회 개소식(가양테크노타운)
- 2005. 12. 30. 소상공인 소식지 "영금정" 3호 발간예정

조성진(강원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속초과정 주임교수)

감수위원 : 어재석(속초문화원 이사)

上

第六-一編 관광

표 목차

6)1-2-1 관광객 현황

6)1-2-2 설악산 국립공원 연혁

6)1-3-1 해맞이축제 개최 현황

6)1-3-2 설악눈꽃축제 개최 현황

6)1-3-3 해양페스티벌 개최 현황

6)1-5-1 분과위별 업무기능

6)1-5-2 시 주차장 조성

6)1-5-3 재원별 환경정비사업비 현황

6)1-5-4 분야별 사업 현황

그림 목차

6)1-2-1 년도별 관광객 수

6)1-5-1 재원별 환경정비사업비 현황

제6-1편 관 광

제1장 속초시 관광의 개관

속초는 예로부터 항 포구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 도시로 어업이 주종산업을 이루어 왔으며 주민들의 대부분이 어업과 관계되는 일을 하여 왔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바다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수산업이 퇴조를 보이고, 때를 맞추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득증대 및 여가증대, 노동제1주의에서 생을 즐기려는 생활제1주의로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관광에의 참여 폭이 넓어지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속초지방이 점차 관광도시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설악동에 대규모의 국제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관광개발이 착수됨에 따라 관광산업이 오히려 속초의 주종산업으로 탈바꿈하자 어촌도시로서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관광도시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산악, 호수, 해안, 온천 등이 빚어 놓은 완벽한 자연의 조화, 주변에 연계되어 있는 안보관광지로서의 통일전망대, 종교관광지로서의 신흥사와 6·25때 전소되어 버린 조계종 제3교구 총본사였던 대사찰 건봉사와의 균형,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키장과 온천장 등의 레저 스포츠시설 이러한 것들이 속초를 전국 제1의 관광지로 바꾸어 놓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관광도시로 변모되어진 속초지방의 관광약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54. 5.10 수복기념탑 건립
1983. 4.27 강풍으로 붕괴
1983.11.11 시민성금으로 복원
▷ 1960. 1. 1 설악산관광호텔 개관
▷ 1963. 1. 1 설악산관광호텔을 국제관광공사(현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수
▷ 1965.11.26 설악산관광호텔 민영화
▷ 1966.10. 1 제1회「설악제」개최
▷ 1969.12.15 한병기 외 6명이「설악관광주식회사」설립
1971. 7.31 해발 670m, 길이 1,200m, 평균경사 26°인 설악산케이블카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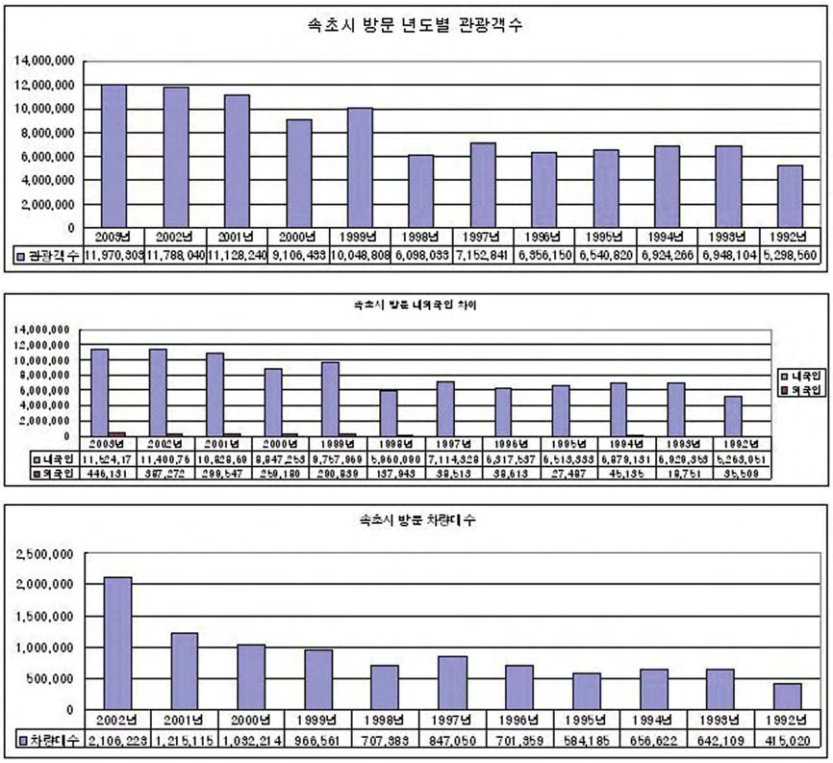
1971. 8. 1 부터 영업개시
▷ 1970. 3. 24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1965. 11 천연보호구역 171호 지정
1973. 12 공원보호구역 고시
1982. 8 유네스코에 의해「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선정
1994. 8 설악산관광특구지정
▷ 1976~1978 설악산 구단지내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여 소공원으로 만들고 그들의 시설물을 신단지 A, B, C지구에 배치하여 신흥관광단지를 새로이 조성
▷ 1978. 4. 9 뉴설악관광호텔 개관
▷ 1978. 5. 12 (주)동방원양개발공사(회장 윤기원)의 자회사인 동방호산개발(주) 발족, 호수공원인 영랑호 개발
▷ 1980. 4. 20 설악파크호텔 개관
▷ 1981. 4. 8 한국콘도미니엄 개관
▷ 1982. 2. 1 명성콘도미니엄 설립
▷ 1982. 3. 19 교원공제회(현 교직원공제회) 설악유스호스텔 개관
▷ 1984. 8. 31 명성콘도미니엄이 정아콘도미니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운영권 인계
▷ 1985. 4. 19 척산온천휴양촌 준공
1985. 5. 5 영업개시
▷ 1989. 7. 1 한국국토개발(주)인 설악프라자 패밀리타운에서 정아콘도미니엄 인수
▷ 1990. 7. 20 코레스코콘도미니엄 개관
▷ 1990. 9. 15 속초관광호텔 개관
▷ 1990. 10. 20 설악현대패밀리타운 1차 개관
▷ 1991. 7. 29 삼성물산(주)설악삼성콘도미니엄 개관
▷ 1991. 9. 10 사조마을 설악콘도미니엄 개관
▷ 1995. 3. 2 설악웰컴콘도미니엄 개관
▷ 1996. 7. 27 영랑호리조트 개관
▷ 1996. 5. 29 동해콘도미니엄 개관
▷ 1997. 5. 7 금호설악콘도미니엄 개관
▷ 1997. 12. 17 연호콘도미니엄 개관
▷ 2001. 12. 29 블루마린관광호텔 개관

제2장 속초시 관광현황

제1절 관광객 현황

〈 표 6)1-2-1 〉 관광객 현황 (단위 : 명/대)

구분 / 연도별	관 광 객 (명)			차 량 (대)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대형	소형
2004	12,005,243	11,497,426	507,817	2,440,453	111,925	2,328,528
2003	11,970,303	11,524,172	446,131	2,300,004	107,230	2,192,774
2002	11,788,040	11,400,768	387,272	2,106,223	98,572	2,007,651
2001	11,135,565	10,836,124	299,441	1,215,115	96,919	118,196
2000	9,106,433	8,847,253	259,180	1,032,214	84,869	947,345
1999	10,048,808	9,757,969	290,839	966,561	847,519	119,042
1998	5,985,487	5,847,915	137,572	707,383	672,325	54,058
1997	7,152,841	7,114,328	38,513	847,050	65,946	781,104
1996	6,356,150	6,317,537	38,613	701,359	57,133	644,266
1995	6,540,820	6,513,333	27,487	584,185	68,448	515,737
1994	6,924,266	6,879,131	45,135	656,622	61,324	595,298
1993	6,948,104	6,929,353	18,751	642,109	115,118	526,991
1992	5,298,560	5,263,051	35,509	415,020	38,579	276,441



〈 그림 6)1-2-1 〉 년도별 관광객수

제2절 관광개발 계획

1. 지역특성

설악산을 비롯하여 온천, 호수, 바다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사계절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제1의 해양관광도시로서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외옹치 해안 일대에 위치한 속초해수욕장관광지는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임

2. 추진경위

▷ '84. 7. 6 : 속초해수욕장관광지 지정
▷ '85. 5. 24 : 속초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 '86. 5. 22 : 환경영향평가 협의
▷ '87. 2. 22 : 도시계획시설구역 결정(대포 유원지)
▷ '89. 7. 1 : 속초해수욕장관광지 지정
(교통부 고시 제89-16호)
▷ '89. 7. 10 : 속초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강원도 고시 제89-87호)
▷ '92. 1. 29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승인
(강원도 고시 제92-11호)
▷ '02. 10. 10 : 속초해수욕장관광지 지정면적 변경
(강원도지사)

3. 관광지 개발전망

1989년 7월 10일 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된 이래 민자 및 공공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나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2002년 4월 양양국제공항 개항, 중앙고속도로 개통,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및 주 5일 근무제시행 등의 새로운 관광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해수욕장의 기능을 재편하여 관광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되어 2001년 12월 26일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2년 10월 10일 관광지 지정 면적중 불필요한 일반주거지역 및 공유수면 일부를 제척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수립으로 민간부문 투자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화 도모를 위해 2003년 5월~2004년 1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관련 제반영향(환경, 교육)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승인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음.

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에 의한 민자 및 공공부문 투자촉진으로 속초해수욕장의 계절적 취약성를 탈피하여 4계절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제3절 설악산 국립공원현황

1. 공원구역

▷ 면　적 : 398.539 ㎢
- 속초시 : 66.747 ㎢ (20%)
- 인제군 : 234.522 ㎢ (59%)
- 고성군 : 21.580 ㎢ (5.4%)
- 양양군 : 75.690 ㎢ (18%)

▷ 행정구역 : 1시 3군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

▷ 용도지구별
- 자연보전 : 313.832 ㎢ (78.7%)
- 자연환경 : 81.344 ㎢ (20.5%)
- 취락지역 : 0.973 ㎢ (0.2%)
- 집단시설 : 2.390 ㎢ (0.6%)

2. 국립공원연혁

설악산은 한반도의 태백산맥 북쪽에 위치하여 동쪽은 동해에 임하고 서쪽은 산악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북위 38°5′25″ 동경 128°34′43″ 에 입지하고 있어 행정구역상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및 고성군에 걸쳐 있다.

설악산의 서쪽을 내설악, 우리 속초시가 해당되는 동쪽을 외설악, 그리고 남쪽을 남설악으로 부르고 있으나 설악산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장이 있다.

『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산천조에서는 “한가위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이다" 라고 하였고『호동서락기』에서는 "산봉우리가 줄을 지어 솟았고 암석의 색깔이 모두 눈같이 하얗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며 한국학자 이은상 선생은 "설악의 설은 고어 'ㅅ뫼'의 음역자에 불과하며 'ㅅ'이란 것은 엄숙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지명 혹은 산천명으로 쓰인 곳은 신성한 영역임을 표시한 경우이다. 즉 설악은 'ㅅ'의 음역으로서 신산 성역임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설악이라는 이름은 이곳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명칭유래의 설악산은 남한에서 한라산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며 산세가 웅장하고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식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따라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제17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2년에는 UNESCO의 인간과 생활권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유일의 생물권 보존지구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 표 6)1-2-2 〉 설악산 국립공원 연혁

지정 년월일	지 정 내 용	비 고
1965. 11. 5	천연보호구역 지정(163.4㎢, 천연기념물 제171호)	문교부고시 제228호
1969. 1. 21	관광지 지정	교통부고시 제2336호
1970. 3. 24	국립공원 지정(174㎢)	
1971. 9. 18	설악산관리사무소 개소	강원도조례 제163호
1973. 12. 12	공원계획 결정	건설부고시 제120호
1982. 8. 12	생물권보전지역(유네스코) 지정(163.7㎢)	유네스코 MAB
1984. 12. 27	공원면적 확장 및 공원설계 재조정(373㎢)	건설부고시 제557호
1991. 4. 23	국립공원관리업무 이관(건설부 ⇒ 내무부)	
1998. 2. 28	국립공원관리업무 이관(내무부 ⇒ 환경부)	
2001. 10. 8	공원계획 변경 결정	환경부고시 제129호
2003. 8. 30	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398.5㎢)	환경부고시 제139호

3. 국립공원 관리

설악산 국립공원의 관리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4. 설악관광특구지정

관광특구는 1993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접객시설, 쇼핑·상가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관강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어야 하며,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와국인관광객이 10만명 이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설악산 관광특구는 1994. 8. 31 속초시 전지역(104.88㎢), 고성군 토성면 6개리(신평리, 인흥리, 성천리, 원암리, 용촌리, 봉포리전지역)일원(30.465㎢), 양양군 강현면(강현면의 7번국도 동쪽지역)·양양읍(양양읍 조산리 7번국도 동쪽지역, 서면 오색리, 손양면 오산포, 현남면 하조대지역) 일원(2.756㎢)으로 지정되었다.[2)]

1) 정희천, 『최신관광법규론』, 2005, 대왕사, p.298

2) 강원도, 『관광기본현황자료 (2005.1.1 현재)』, 강원도, 2005, p.17

제3장 속초시의 관광자원

제1절 자연관광자원

1. 설악산지구

가. 산, 산봉, 계곡

1) 설 악 산

설악산은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남한에서 세 번째, 그리고 태백산맥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강원도 동북부의 금강산과 동남단의 오대산 사이에 있는 명산이다. 철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경치와 수려한 산세로 남한 제일의 산악미를 자랑하는 설악은 6·25전에는 38도선 이북에 있었으나 휴전 직전에 수복한 것이라 더욱 값지고 소중한 산이다. 설악산은 속초시(29.6㎢), 인제군(221.0㎢), 고성군(9.0㎢), 양양군(95.0㎢)등 4개 시·군에 걸쳐 총면적 354.6㎢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방전만 해도 금강산에 가려 교통이 불편했던 탓으로 별로 빛을 못보고 있다가 휴전이후 서서히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제171호로 지정되었고 1969년에는 관광지에 이어 1970년에는 국립공원(174㎢)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71년 9월에는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이듬해 공원구역이 344㎢로 확장되었고 그 후 1977년, '78년에 걸쳐 354.6㎢로 다시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설악이란 이름에 대하여『삼국사기』에 "설산(雪山)" "설화산(雪華山)"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양양군지』에는 "한계산(寒溪山)"『동국여지승람』과『증보문헌비고』에는 "···極高峻 仲秋始雪 至夏而消 故各焉"(극히 높고 험한 산으로 한가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듬해 여름에 이르러야 비로서 없어진다.)는 뜻이라 했고 유명한 여류시인 금원여사(錦園女史)가 쓴『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에 "石白如雪 故名雪嶽"(설악산 돌이 눈과 같이 희므로 설악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라 했는가 하면 노산 이은상 선생은 설악산은 본래 "솔뫼"였는데 한자로 쓰다보니 설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솔뫼"의 "솔"은 "설"의 음역으로 신성, 숭고, 결백, 생명을 뜻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설악은 흔히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최고봉인 대청봉을 중심으로 북쪽의 미시령과 남쪽의 점봉산을 잇는 설악산맥이자 태백산맥이기

도 한 주능선을 경계로 하여 동쪽(동해쪽)을 외설악, 서쪽(내륙쪽)을 내설악이라 부르고 있다. 외설악은 천불동계곡을 끼고 양쪽에 창검같이 솟은 기암절벽으로 남성적인데 비해, 내설악은 백담, 수렴, 가야, 백운, 12선녀탕골 등의 계곡미로 경관이 우아하고 여성적이다. 설악산의 빼어난 경치는 지질기반인 화강암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 화강암의 관입으로 인한 암질의 차와 여기서 비롯된 오랜 세월에 걸친 차별침식으로 웅장하고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설악에는 하식작용(下蝕作用)으로 구혈, 담소, 폭포등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으며 편마암의 부정합도 측이한 경관을 이룩하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설악산은 수림이 울창하며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동물이 서식, 천혜의 생물보고로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 세계본부는 이처럼 다양하고 희귀한 설악의 동·식물상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 8월 12일 설악산을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의 하나로 지정했으며 현재 설악동 소공원에는 1983년 4월에 건립한 세계 생물권 보존비가 세워져 있다.

설악산의 권금성과 울산암, 천화대능선등은 암벽훈련장으로, 토왕성폭포등은 겨울철 빙벽훈련장으로 그리고 북주능, 서북능, 공룡능, 용아능, 백운능, 길골, 건폭골, 잦은바위골, 용소골, 설악골등은 국내 각 산악단체 및 훈련대의 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강원도는 설악산을 국내 제일의 국립공원으로 개발할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76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입, 설악산의 기존 여관촌을 철거, 소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숙박 및 상가중심의 B, C지구를 완성한데 이어 위락중심의 신단지를 새로이 건설하였는데 신단지 시설지구 건설사업은 설악산 초입의 노루목 및 피골 일대 368,000평의 계획지구중 우선 시설가능지인 B(달마봉)지구, C(화채촌)지구의 황량했던 임야와 하천부지를 일구어 새로운 단지를 조성한 사업으로 설악동종합개발사업의 주사업이요 첫 사업이었다.

본사업은 1976년 10월 2일 착공되어 1977년 12월 31일 마무리 되었는데,

첫째, 12억4천5백만원을 들여 국제관광공사(현 한국관광공사)가 강원도를 대행하여 추진한 단지조성 8만 5백평과 상가 및 공공건물 건설사업과

둘째, 국고 4억3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강원도가 직접 시행한 단지내 주도로와 설악교, 와선교, 청봉교 등 교량 3개소 건설사업과

셋째, 속초시가 시행한 2,000MTD규모의 상수도건설사업과 체신부에서 시행한 통신시설사업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설악산은 산 자체의 관광적 매력 이외에도 동해의 드넓은 푸른바다와 속초

시와 강릉시의 인접으로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일급 관광지가 되어 있다.

2) 달 마 봉

달마봉은 신흥사 앞의 세심천 건너 동편에 솟아있는 봉우리로 해발 635m의 바위산이다. 산봉우리의 둥글기가 흡사 달마와 같다하여 달마봉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달마라는 뜻은 달마대사의 준말이며 선종의 시조이며 남인도 향지국왕(香至國王)의 셋째 아들이다. 둥글둥글한 달마대사의 모습처럼 달마봉도 둥근 것이 특징이며, 달마봉에 오르면 오른쪽에 보이는 영랑호(永郎湖)의 잔잔한 물결에 달마봉의 모습이 비친다고 한다. 또한 영랑호와 청초호의 잔잔한 물결, 동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며, 봄의 진달래가 필 무렵과 가을의 단풍이 물들 때 만산홍(萬山紅)으로 변하여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고 한다.

3) 대 청 봉

옛날에는 봉황대라고 부르기도 했다.『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서는 멀리서 보면 푸른 옥색으로 보인다 하여 청봉이라 하였다고 한다.

설악산에서 가장 높은 봉(1,708m)인 대청봉은 외설악의 분기점을 이루며, 고산지대는 희귀식물이 50여종 가까이 서식하고 있다. 그중 대청, 중청, 소청부근에는 에델바이스(솜다리), 금강초롱, 제비꽃, 바람꽃들과 눈향나무, 찜빵나무, 눈잣나무 등 희귀 식생이 군락을 이룬다. 넓은 어깨의 둔중한 서북주능과 화채능 사이로 현란하고 힘차 보이는 공룡능선과의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곳이 대청이다.

4) 마 등 령

마등령은 높이가 1,327m의 준봉으로서 1982년 속초시가 발간한『설악의 뿌리』에서는 산이 험준하여 손으로 기어 올라가야 한다고 마등령(摩登嶺)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는 말등처럼 생겼다고 하여 마등령(馬登嶺)으로 표기하고 있다.

지금은 등산객들만이 넘어 다니나 예전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에는 속초지역 행상인, 민간인들이 동서를 넘어 다닐 때 이용한 옛길 중의 하나이다. 이 영의 정상에서 사방을 살피면 동으로 동해가 보이고, 서로는 내설악의 일부가 보인다. 남으로는 외설악의 기암괴석과 절경을 바로 눈앞인 듯이 내려다 볼 수 있고, 북으로는 세존봉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설악동소공원, 와선대, 비선대, 금강굴, 진대봉, 금강문을 차례로 거쳐 오르면 된다. 설악동에서 금강문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다.

5) 천 불 동 계 곡

비선대에서 대청봉으로 오르는 이 계곡은 봉의 모양이 천만개의 불상을 연상케 한다는데서 천불동이라 이름 지었다 한다.

설악의 경관을 대표하는 와선대, 비선대, 문주담, 귀면암, 오련폭포, 양폭, 천당폭포 등 유수한 절경이 모두 이 천불동에 있으며 길이 험난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대청봉으로 이르는 대표적인 등산로이다. 가파르게 솟아오른 귀면암과 맞은편 칠성봉을 지나 한 시간쯤 걸으면 화채봉 줄기와 이어지는 칠성골 갈림길에 이르고 천불동 비경으로 꼽히는 오련폭, 양폭, 음폭, 천당폭 등 철계단을 비껴 폭음과 함께 토해내는 각양각색의 물줄기와 탕이 비선대부터 대청봉까지 등산객에게 아찔한 감동을 선사할 만큼 빼어난 경관이 12㎞의 천불동을 만들어 낸다.

계곡 중간의 양폭과 소청 밑의 희운각 산장은 훌륭한 휴식처이자 조난사고를 대비한 산악인들의 대피소 구실을 한다.

6) 핏 골

설악산 신단지 C지구에 있는 설악우체국 앞을 지나가면 남서쪽으로 조그마한 계곡이 있는데 이 골짜기를 속칭 핏골이라 한다.

이 골짜기는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경치가 아름답다. 입구에는 송림이 우거지고 송림사이로 허물어진 돌담과 여기 저기 서있는 괴목들이 지난날 누군가가 살던 옛터임을 알려준다.

또한 이곳은 1949년 7월 7, 8일 이틀에 걸쳐 유격대인 호림부대와 인민군 보안대원 공산당원과의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져 보안대원 6명과 공산당원 3명이 사살되었다. 특공대원으로 활약하던 김종림, 김종우 두 형제는 유격대를 도와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형 종림은 처형되고 동생 종우는 17년 형을 받는 등 많은 희생자가 났다는 애환이 서린 곳이다.

상복리에 살던 주민들은 공산치하에 살면서도 밤이면 남몰래 호림부대에 음식을 날라 주기도 했다 한다.

이곳을 지나 1㎞쯤 더 들어가면 녹수청산(綠水靑山), 맑은 공기, 넓은 반석,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계곡에 이른다. 길은 비록 우거진 숲 사이로 지나가는 오솔길 이지만 그리 험하지도 높지도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으로 숨은 명승지라 할 수 있다.

나. 기암 · 굴

1) 흔 들 바 위

계조암 문전에는 쌍룡암(두 어린이가 길의 양쪽에 서 있는 모습이어서 쌍동암이라 불리기도 한다)이 수문의 의(儀)를 이루고 문밖의 좌우에는 와우석, 용암석이 있어 청룡백호를 이루었으며 배상에는 백여명의 승려가 앉아서 공양을 할 수 있는 반석이 있다.

그 두상에 우각석이 있으니 일명 흔들바위라 하는데 한사람이 한손가락으로도 움직이나 완력으로서는 힘들다. 이 우각석은 고래로 쌍립하던 것을 중고(中古)에 이르러 미신상 풍수지리를 공부하였다는 자가 불가의 영기가 많음을 심히 걱정하여 1개석을 굴러 떨어뜨리게 하였다 한다.

용암석은 용수가 완연하고 바위아래에 여의주석이 있고 영천이 용출하여 그 맛이 매우 감미로와 이름을 감로약천이라 하며 세인이 한번 마시면 심신이 상쾌하고 청량산을 복용한 것 이상으로 정신을 맑게 한다.

이곳은 세계의 진기한 구역이요 천하의 아름다운 장소로서 만고의 불후를 자랑하는 현세 극락정토라고도 할 수 있는 신비경이다.

2) 울 산 바 위

울산바위는 외설악의 북쪽에 위치하는 바위산으로 일명 천후산 또는 천효산이라고도 한다. 울산바위의 높이는 해발 875m로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발붙일 곳이 별로 없는 곳으로 둘레가 약 4㎞이며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관(奇觀)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암벽이 험난하므로 암벽등반가 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울산바위 명칭에 있어 3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울타리 같이 생겼다 하여 "이산(籬山)"이라는 설과 "울산(蔚山)"이라는 경남에 있는 地名을 딴 전설적인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울산(鬱山)" 즉 우는 산이라는 뜻의 우리말을 한자화한 것이다.

"蔚山"에 대한 명칭에 있어서는『신증동국여지승람』권 44 양양도호부 산천조에 "이산(籬山), 在府北六十三里 雙成湖西卽大嶺東支也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이라 기록되어 있다.(이산, 양양부 북쪽 63리, 쌍성호 서쪽에 있는 곧 대관령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구불구불하여 마치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이름하였다. 항간에는 蔚山이라고도 한다.) 울산바위는 암벽이 험난하여 보통사람들은 등반하기 어려웠지만 근년에 도문리 오수영이 사재를 들여 갖은 고생끝에 쇠다리를 가설하였으므로 지금은

누구나 다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여름이면 하루 몇 번이고 천후지동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암이며 더욱 울산바위에 구름이 허리를 감아 걸쳤을 때는 그 경치가 흡사 구름꽃송이가 피는 것 같아 외설악의 8기(八奇)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 울산바위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져 있다.

「울산바위는 퍽 지조가 있는 바위 떼 들이었다. 아득한 옛날 태고 때의 일이다. 산신령께서 천하절경의 명산(金剛山)을 만들고자 전국의 기암괴석을 모집하였다. 각 지방에서 그 자태를 자랑하던 명산기암들이 부름에 응하여 금강으로 모여들었다. 당시 울산지방에 있던 이 바위도 금강산의 일부분으로 동참코자 열심히 길을 걷고 있던 중, 워낙 덩치가 큰 기암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지금의 터에서 쉬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산신령의 비보(飛報)가 들렸다.

"오신(五神)이 만들고자 한 금강산은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바위가 필요 없노라"고

그래서 이 바위는 울산으로 되돌아 갈 수도 없는 처지여서 그냥 머물게 된 것이다. 당시의 자신의 걸음이 느려 금강의 일부가 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눈물을 수 없이 흘렸는데 지금은 감로가 되어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수가 되고 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 울산바위가 신흥사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됨은 무슨 연고인가?

이 전설을 알게 된 울산원님이 울산바위 앉은 터가 신흥사 소유임을 알고 신흥사를 골탕먹일 계책을 세운 다음 신흥사를 찾았다. 주지스님을 불러 놓고

"저 울산바위는 원래 울산지방의 소유로 그 지역의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신흥사에 소속되어 울산지방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마땅히 알고 지금부터 그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이니라"

하고 호령을 하였다.

며칠 후 울산원님은 곡식 실을 많은 우마차를 대동하고 산문안을 들어섰다. 이 때 동자가 다가가서 배알하고

"원님께서 울산바위세를 받으러 오셨사옵니까?"

하니 원님은

"그렇다"

고 대답한다.

"죄송하지만 울산바위세는 낼 수가 없습니다."

하니

"나는 이곳 주지와 약속을 하였는데 네 놈이 왜 나서서 세를 줄 수 있니, 없니, 하느냐?"

고 호령하자.

"아니옵니다. 원님, 저 울산바위가 저 곳에 머무르기 전에 저곳은 농토였는데 그 큰놈의 바위가 앉고 부터는 그 곳을 농토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이곳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오니 저 울산바위를 도로 울산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논리정연한 행자의 말에 울산원님은 할말이 궁해졌다.

"좋다. 내가 저 울산바위를 울산으로 옮겨 갈 터인 즉 네 놈들은 저 바위를 가져가기 쉽게 새끼를 태운 재로서 칭칭 묶어 두어야 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원님."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스님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그냥 새끼줄도 아닌 새끼를 태운 재로서 저 큰 바위를 감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그 명을 어겼다가는 더 많은 세금은 물론 수모 또한 겪게 되는게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행자는

"열흘간의 영유를 주시면 꼭 새끼태운 재로서 묶어둘 것이오니 열흘 후에 가져가시기 바라옵니다."

하자 원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러겠노라 하고는 물러간다. 행자는 걱정하는 스님들에게 비책이 있으니 심려 놓으라고 말한 뒤 그날부터 행자는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새끼줄을 수 없이 꼬게 한 뒤 수 천발의 새끼줄을 전부 바닷물에다 3일동안 담가 두었다가 다시 바짝 말린 다음 들기름을 부어서 울산바위를 감기 시작한다.

다 동여맨 다음 불을 붙이니 소금에 절여진 속은 타지 않았지만 기름이 묻은 끝은 타버려 까맣게 재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설마 제 놈들이 하면서 의기양양 산문에 들어선 원님은 할 말을 잃고 되돌아 갔다하며 그 기지를 발휘한 행자는 신흥사 지장보살의 화현이라고도 전해진다.」

3) 와 선 대

와선대는 신흥사 서쪽 4㎞지점에 있으며 소나무가 울창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천연의 암반대석으로 옛날 신선이 놀던 곳이다. 신선이란 것은 급한 여울(湍)의 이름이다. 이 와선대의 반석은 높이가 약3척 그 폭이 약10여간이 되므로 여기서 7, 80명의 사람들이 앉아 놀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이 바위위에 손톱이 긴 늙은 선녀인 마고선(麻姑仙)이 신선들과 함께 석대위에서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서 동천(洞天)의 아름다움을 구가하며 즐겼다고 하여 와선대(臥仙臺)라고 불리워지며 천불동계곡을 찾아드는 입구에 위치한다.

4) 비 선 대

와선대에서 계류를 따라 약 300m 올라가면 비선대에 이른다. 비선대는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비가 많이 내리면 비선대 반석 위로 물이 흘러 몇 번이나 꺽이는 폭포를 이루며, 연속된 바위에 폭포를 이루는 경관은 흡사 우의(羽衣)자락이 펄럭인 것과 같으며 마고선녀가 이곳에서 승천하였다는 설이 전해져 비선대라 하였다 한다. 마고선녀가 비천한 반석위에는 수 많은 시인 묵객들과 나그네들이 이곳을 찾았던 흔적을 바위 위에 수 없는 이름으로 새

겨 놓았다.

봄이 오면 산꽃의 냄새가 골짜기를 메우고, 여름이면 녹음방초(綠陰芳草)에 신선미를 느끼며, 가을이 오면 단풍에 물들이고, 겨울이면 설화가 골짜기를 장식하니 과히 절경이며 개화설경은 유달이 빼어나 금강산의 만경동을 무색케 하는 설악산의 대표적 명승지이다.

5) 귀 면 암

천불동계곡 중턱에 위치한 귀면암은 건문당이라 부르며 예술작품처럼 우아한 자태를 하고 있다. 그 안쪽에 들어가면 좌우로 우뚝 솟은 바위들이 마치 귀신의 얼굴이 정좌하고 있는 형태라 귀면암(鬼面岩)이라 불리어지고 있으며 대사찰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 같기도하여 사천왕 앞에 선 것처럼 숙연한 감을 준다.

6) 집 선 봉

권금성 뒤쪽 남향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봉들의 모습을 이름한 것이다. 집선봉의 바위색은 모두 희어 마치 선녀들이 모여서 무엇을 속삭이는 듯하다. 사람들의 눈에 선녀같이 보인다는 것은 여간 수려하지 않으면 좀처럼 이름을 얻기 어려운데, 집선봉이라 함은 이름에서 화려함 그 자체를 나타낸 것이리라 생각된다.

해발 920m나 되는 높은 봉이므로 외설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으로 권금성, 북으로 신흥사, 계조암, 울산바위, 서남으로 마등령, 천불동을 한눈에 볼 수 있다.

7) 천 화 대

이 천화대는 공룡능선에서 동북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외설악의 기암준령이다. 설악골과 바위골 사이의 범봉능선에서 천불동으로 빠지는 산능을 전부 가리켜 부른다. 천화대에서 멀리는 화채봉과 동해가 바라보이며 마치 꽃밭에 잇는 것 같다하여 천화대(天花臺) 또는 연화대(蓮花臺)라고 부른다. 천화대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수 많은 돌봉우리로 그 경치가 매우 기관(奇觀)이다.

8) 금 강 굴

천화대 앞에 높이 우뚝 솟아 있는 3각 모양의 돌 봉우리를 미륵봉 이라 하

며 미륵봉 중간 허리에 있는 석굴을 금강굴이라 한다.

깍아지른 듯한 큰 돌산허리에 굴을 팔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금강굴을 자연굴이라 하겠다. 굴안 넓이는 24㎡나 되고 그 안에는 자비스러운 관세음보살상이 봉안되었고 믿음이 돈독한 불자들에게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기도도장이기도 하다. 오르기 힘든 바위 비탈길과 쇠구름다리를 간신히 오르면 지극히 아담하고 빛나는 경관이 전개된다.

멀리 동해의 창파가 보이고 겹겹이 쌓인 석벽처럼 보이는 천불동의 아름다운 경관이 향기롭고 거룩하게 보이며 그 옛날 신라때부터 고승대덕들의 발자취, 원효, 의상대사의 수행처였던 이곳이야 말로 신산성역임을 더욱 깨닫게 한다. 이 자파(姿婆)의 모든 번뇌를 굴속으로 미치는 석양에 띄워 보내고 조용히 일심으로 합장기원하면 각기 기원이 성취된다는 곳이며 수억겁동안 풍우에 씻기고 깍여도 봉우리는 장엄하고 청수함이 옛 그대로이니 숭고한 느낌은 불교신앙처럼 샘솟는다. 이 금강굴 역시 그 형성이 신기함으로 설악 8기 중의 하나이다.

다. 폭포 · 소

1) 육 담 폭 포

토왕성계곡을 들어서면 험준하기 이를데 없는 곳이나 그래도 널찍한 골짜기란 것을 느끼게 한다. 올라가면 갈수록 좁은 골짜기다. 오래 전에는 굽이치는 골자기를 건널 수 있는 높이 8m, 넓이 1.3m, 길이 42m에 달하는 조교가 가설되어 설악의 풍경미를 더 한층 북돋워 주었지만 지금은 폐허되어 이용치 않으며 철제계단 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곳에서 좀더 계곡을 오르면 담소물이 깊이 괸곳과 늪으로 된 육담폭포가 있다. 이 폭포의 수량은 매우 빈약하나 폭포를 형성한 원인이 퍽 흥미롭다. 골짜기에서 내려 쏟아지는 물줄기가 서서히 흘러내리면서 암반의 형태에 따라 하나씩 물이 괴어 5단의 굴곡을 이루면서 폭포의 요소를 형성시키고 있다. 암벽의 신비로움이 마치 불단의 무념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한아(閑雅)한 곳이다.

2) 토 왕 성 폭 포

토왕성폭포는 일명 신광폭포라고도 부르며 신흥사에서 동편을 쳐다보면 기석괴봉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무슨 성벽처럼 보인다. 비룡폭포 위에서 2단으로 이루어서 연결되어 있는 이 폭포는 일종의 연폭이기도 하다. 토왕성폭포가 다른 폭포보다 빼어나게 보이는 까닭은 큰 봉우리가 폭포의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기(土氣)가 왕성하지 않으면 기암괴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5행설에서 폭포이름이 연유된 것 같다. 석가봉, 문수봉, 보현봉, 익적봉, 노적봉, 문필봉 등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으니 토왕성폭포(土王城瀑布)라고 이름지을만 하다.

이 폭포는 외설악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폭포이며 성벽처럼 깍아진 곳으로 비류직하(飛流直下)하는 그야말로 기관(奇觀)이다. 멀리서 보면 심심산협 암회색 바위에 하늘의 직녀가 한 필의 명주천을 늘어뜨린 것 같다. 물줄기가 떨어지는 곳에서 밀려내리는 흰 계류는 청량의 세계를 열고, 떨어지는 물소리는 영원히 그치지 않는 무휴지묘(無休止妙)의 음률같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천만음 염불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며 더욱 장하고 보람있다.

3) 비 룡 폭 포

위에서 밑으로 밑으로만 내리 쏟아지는 거센 물줄기가 폭포를 이루었다. 물이 흐르는 근원에서부터 아무런 장식도 수식도 없이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여울물이 한곳에 모여 신묘한 음곡을 내면서 낙하하는 그 경관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연을 신봉하지 않을 수 없고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좁고 험한 골짜기에서 한가닥의 물줄기가 150여척이나 되어 흐르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용이 물줄기를 타고 오르는 듯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 폭포를 비룡폭포(飛龍瀑布)라 한다. 이것은 외설악의 계류를 대표하는 험준한 암벽에 은하를 누비는 듯 일대백수대(一大白水帶)를 이루어 낙하하니 장관이 아닐 수 없다. 비룡폭포는 비룡승천이라는 풍경으로 설악산 8경중 하나이다.

4) 양폭 · 음폭

천불동계곡 상부에 자리잡고 있는 오련폭포에서 암반벼랑을 끼고 약 800m쯤 가면 계곡이 좌우로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좌측에서 흘러 양폭포가 되고 우측에서 흘러 음폭포가 되니 음양이 서로 합쳐 천불동계곡을 이루고 있다. 양폭을 가기 바로 전에 양폭산장이 있어 등산객들의 휴식처 뿐만 아니라 설악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 천 당 폭 포

양폭산장에서 위쪽으로 약 200m를 거슬러 올라가면 천불동계곡의 마지막

아름다운 폭포가 있다. 옛날에는 이곳이 아주 험준하여 일반관광객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관광로 개설과 함께 15m의 조교와 여러개의 철제다리를 설치하여 쉽게 오를 수 있다. 속(俗)에서 모든 고난을 겪다가 이곳에 오르면 마치 천당에 온 것 같다하여 이곳을 천당폭포라 한다.

6) 문 주 담

비선대에서 천불동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 약 1,000m지점에 맑은 옥수가 고인 곳이 있는데 이곳을 문주담 또는 문수담이라고 한다. 문수는 문주의 같은 뜻이며 별칭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아득한 옛날 문수봉을 형성할 때 석가여래의 좌보처(左補處)로서 지혜를 맡은 보살인 문수보살이 이 맑은 물에 목욕을 하였다하여 문수담이라 하였다 하고 또는 세종대왕때 문수보살이 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여 연유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 담의 형상이 둥글고 모나게 보이면서 아담하기 이를 데 없다.

라. 설악 8기 8경

최근에 민속학자 황호근(黃互根)이 당시 속초 관광협회장이었던 양권일(楊權一)과 함께 설악산의 경관을 답사하고 옛 선인들의 싯귀와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등을 참고하여 8가지 기이한 자연현상인 8기(奇)와 8가지 좋은 자연경관인 8경(景)을제정 했다.

1) 설악의 8기

• 천후지동(天吼地動) :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릴 때면, 으레 천둥이 치고 번갯불이 번쩍거려서, 온통 하늘이 찢어지는 듯이 울부짖고, 땅이 갈라지는 듯이 지축이 흔들린다.

• 거암동석(巨岩動石) : 흔들바위와 같은 큰 바위가 한 사람의 힘으로도 쉽게 흔들린다.

• 전석동혈(轉石洞穴) : 계조굴(繼祖窟)같이 바위가 바위와 서로 맞대어 하나의 자연동굴을 이루고 있는 신비로움

• 백두구혈(百斗毆穴) : 내설악(內雪嶽) 외가평(外加坪)에서 백담사(百潭寺)로 가는 도중에 있는 구혈(遼穴)은 콩 백말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다. 옛

날에 학이 날아간 자국이라고도 하는 구혈의 기이함.

• 수직절리(垂直節理) : 천불동(千佛洞) 골짜기의 뾰족한 바위 봉우리가 모두 수직으로 갈라져 있는 신비롭고 다양한 천태만상의 형상

• 유다탕폭(有多湯瀑) : 내설악의 12선녀탕과 같이 쏟아지는 물에 반석이 패여 큰 바위획이된 탕(湯)의 기이함.

• 금강유혈(金剛有穴) : 미륵봉(彌勒峰)의 금강굴같이 큰 석산에 큰 구멍이 뚫린 신기롭고 기이함.

• 동계지설(冬季遲雪) :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면 쌓이고 쌓여 11월부터 3월까지 백설이 만연하다.

2) 설악의 8경

• 용비승천(龍飛昇天) : 설악산에는 폭포가 많은데 그 폭포 물줄기를 바라보면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이 황홀하며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올라가는 듯한 선경이 장관이다.

• 운악무해(雲嶽霧海) : 산봉우리마다 구름에 덮이고 안개에 쌓여 구름 위에 솟아있는 대청봉의 풍경은 참으로 장관이며 또한 안개 속에 잠겨있는 설악의 골짜기는 무해로 변하니 산봉우리에 앉으면 구름의 흐름이 선경을 방불케해 그 조화는 8경중 제일이다.

• 칠색유홍(七色有紅) : 폭포수에 햇살이 반사되어 생기는 비말(飛沫, 날아 흩어지는 물방울)에 아침이면 영롱한 7색의 무지개가 발생하고 또한 바람이 불면 하늘거리며 이동하는 모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관이다.

• 개화설경(開花雪景) : 겨울철이 오면 온산이 흰색으로 물드는데 나무나 기암절벽에 눈이 쌓이면 온갖 형태의 눈꽃이 피어 절경을 이룬다.

• 홍해황엽(紅海黃葉) : 가을이 되면 온 산천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나뭇잎은 누렇게 변해 골짜기마다 마치 수놓은 병풍을 펼쳐 놓은 것 같은 광경이 벌어진다.

• 춘만척촉(春滿擲蜀) : 대청봉 남측에 발달한 진달래와 철쭉군락을 비롯하여 백화가 온 산을 덮어서 4월에서 7월이면 꽃들이 만발하여 가득하니 상

상할 수 없는 진경이며 비길데 없는 풍경이고 행인의 눈을 어리게 한다.

• 월야선봉(月夜仙峰) : 가을 밤하늘에 밝을 때 둥근달이 중천에 뜨면 기암괴석의 모습이 난무하는 선녀같이 보이는 절경은 설악팔경에 빼놓을 수 없는 야경이다.

• 만산향훈(滿山香薰) : 춘삼월부터 산천초목이 소생하면 그윽한 향기가 산에 충만하며 바람이 불면 향긋한 냄새가 가슴 속 깊이 스며들며 코를 찌르는데 특히 대청봉, 화채봉, 오색계곡에 발생하는 눈향나무 숲을 지나면 눈으로 보는 풍경도 좋고 여흥을 돋구어 준다.

마. 속초8경

1) 선정취지

우리지역은 설악산을 비롯한 바다 · 호수 · 온천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연간 1,000여 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사계절 국제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설악산 외 관광명소가 잘 알려지지 않아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단순히 설악산 관광에 치우치고 있어 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내 관광명소 8개소를 속초8경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추진경위

• 속초8경 결정은 99. 1. 8부터 1. 31까지 시민, 기관, 단체 등의 공모를 받아 추진하였으며 속초시정조정위원회 의결 후 결정하였다.

• 선정대상

— 설악산 국립공원내 명소를 제외한 시내관광지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 된 지역
— 기타 다수인이 공감하는 지역

3) 속초8경 현황

• 영랑호 범바위

영랑호는 둘레 7.7km, 면적은 1,024,000㎡의 거대한 자연호수이다. 영랑호의 범바위는 호숫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범의 형상으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범바위가 영랑호에 물그림자를 드리울 때면 영랑호와 함께 속초

의 비경으로 꼽힌다. 영랑호는『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화랑이였던 영랑이 동료 술랑, 안상, 남석행 등과 금강산에서 수련후 귀향길에 명경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붉게 물든 저녁노을, 웅대하게 부각된 설악산 울산바위, 웅크리고 앉은 범의 형상을 한 바위가 물 속에 잠겨있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하여 그 후부터 영랑호가 화랑의 순례도장이 되었고 호수의 명칭을 영랑호라고 부르게 되었다

• 영금정의 등대전망대

정자와 파도가 어우러진 동명항 영금정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등대전망대.

고기잡이배의 바닷길을 인도해주던 추억의 등대가 산책로를 만들면서 좋은 여행지로 변모했다. 등대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풍경이 일품이다. 속초시 영랑동에 위치한 속초등대는 “영금정 속초등대전망대”라고 많이 알려져있고, 영금정은 돌로된 산으로 파도가 쳐서 부딪치면 신묘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곡이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일제시대 속초항개발을 위해 이곳 돌산을 깨서 축항을 조성함으로써 지금의 넓은 암반으로 변했다고 한다. 주변 “영금정 해맞이정자”에서 보는 일출과 등대전망대에서 보는 설악산 경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멀리 금강산자락까지 조망할 수 있는 자연경관은 등대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움을 더해 준다. 속초등대는 그야말로 볼 것 많은 자연으로 둘러싸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이다. 특히, 전망대에서 보는 설악산이 눈앞에 모든 것을 펼쳐 보이는데 이런 광경을 보여주는 전망대는 속초에서 등대 한 곳 뿐이고,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 청초호

청초호는 둘레가 4.276km로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양양의 낙산사 대신 청초호가 관동 8경의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이며, 국제관광 엑스포를 상징하는 73.4m의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다.

• 청대리의 청대산

청대산은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 푸르름으로 인해 청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청대산 정상은 속초 시가지와 동해 일출, 대청봉, 달마봉, 울산바위 등 설악을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천연 전망대이다. 청대산은 해발 230m로 주변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 푸르름으로 인해 청대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소야8경(所野八景)에는 우뚝솟은 산이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병풍을 둘러친 것과 같다하여 ‘청대화병(靑垈畵屛)’이라 하였다. 또한 정상에서 보는

속초시가지와 동해일출뿐만 아니라 대청봉, 달마봉, 울산바위 등 설악을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천연전망대이다.

• 속초해수욕장의 조도

새들이 많이 찾는 섬이라 하여 붙여진 조도와 백사장이 어우러져 주변 경관의 조화로움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 일대 일출의 아름다움은 유명하다. 뛰어난 경관과 연계하여 이곳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 뿐 만 아니라 바다 낚시, 백사장 산책로로 각광을 받고 있다. 새들이 많이 찾는 섬이라하여 붙여진 조도와 백사장이 어우러져 주변 경관의 조화로움을 더해주고 있으며 특히 소야8경(所野八景)에 '논산조양(論山朝陽)'이라 하여 이 일대 일출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뛰어난 경관과 연계하여 속초해수욕장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뿐만 아니라 해돋이전망, 바다낚시, 백사장 산책로로 각광을 받고있다.

• 대포의 외옹치

외옹치는 장독처럼 생긴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밧독재라 불리는 해안가 언덕. 정상에서 본 시가지, 등대, 조도 그리고 백사장에 밀려드는 파도의 경관이 어우러져 아름답다. 설악산 기슭의 청정 바닷가에 자리잡은 대포항에 위치한 외옹치는 속초에서 유일하게 장승을 볼 수 있는 곳이며 마을 입구에 3년에 한번씩 장승을 새롭게 깍아서 세우며 남녀 장승 한쌍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정상에서 본 시가지와 이어지는 등대 및 조도 그리고 백사장에 밀려드는 파도의 경관이 아름답다. 특히, 외옹치는 장독처럼 생긴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밧독재라 불리우며 정상에서 본 시가지와 이어지는 등대 및 조도(鳥島), 그리고 백사장에 밀려드는 파도의 경관이 아름답다

• 내물치의 설악 해맞이 공원

속초시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분수대, 조각공원 및 관광안내소가 있다.

해안가에 자리잡아 해돋이 광경이 일품이다. 해안변의 자갈, 부서지는 파도와 조화를 이룬 조각공원은 설악산을 찾는 이들의 쉼터로 인기가 좋다. 설악산 입구. 내물치(內勿淄)라 불린 곳. 새롭게 단장해 설악해맞이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대포 외옹치바다가 숨어있는 바다라면, 이곳 설악해맞이공원의 바다는 열린 바다. 7번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대포항과 양양, 설악산으로 길이 갈리는 교통의 요지. 쉽게 일출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 상도문의 학무정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되어 흐르는 쌍천변의 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 학무정.

정자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흔히 육모정이라 부르며 울창한 송림 속의 고즈넉함과 주변 전통 한옥마을이 풍치를 더해준다.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한 쌍천(雙川) 옆 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로 조선 고종 9년(1872)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학문연구와 인재육성에만 전념하신 매곡처사(梅谷處士) 오윤환(吳潤煥) 선생이 1934년에 건립하였다.

정자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서 흔히 육모정이라고 부른다. 6면중 4면에 정자 이름을 적은 현판이 걸려 있는데 남쪽에는 '학무정(鶴舞亭)', 북쪽에는 '영모재(永慕齋)', 북동쪽에는 '인지당(仁智堂)', 남서쪽에는 '경의재(敬義齋)'라고 되어 있다. 정자 안쪽으로는 한시를 적은 현판이 13개나 걸려있고,천장 중앙에는 '용(龍)'자가 적혀 있다. 또 6면 모두에 분합문을 단 흔적이 남아 있으나 현재 문은 없어졌다.

오윤환은 조선 고종 9년(1872) 현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1리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한학을 전공하였으며, 율곡 선생을 가장 숭배하였다. 성리학을 깊이 궁리하여 학문이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나 벼슬하기를 꺼려하고 향리에 묻혀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만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학문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여 날마다 아침이면 문안을 드리고 저녁이면 잠자리를 보살펴 드렸다. 첫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침상에서 일어나 목욕을 한 뒤 의관을 단정히 하고 조상님들의 위패 앞에 나아가 인사를 드린 후 하루 종일 공부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한평생을 두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다.

3·1운동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본 경찰에게 검거되어 무수한 매를 맞았다. 일제의 삭발령과 창씨개명에도 절대적으로 반대하였다.

상도문리 쌍천가 푸른 송림속에 친척들과 제자들의 협조를 얻어 학무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많은 선비들과 함께 시를 읊고 글을 지었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도장으로 삼기도 하였다. 지금도 여름철이 되면 많은 피서객, 관광객이 모여들어 선생의 유덕을 사모하고 있다.

바로 옆에는 1971년에 세운 학무정기념비와 1955년에 세운 충효강릉박공휘지의지비(忠孝江陵朴公諱志誼之碑)가 위치하고 있다.

바. 사찰 · 암자

1) 신 흥 사

신흥사는 1912년부터 본산 건봉사(현재 38선 이북 군작전기구내에 위치하여 있음)의 말사 였으나 1971년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종무를 관장(말사 25개 사찰 · 암자) 본사로 승격되었으며 외설악의 주찰로 가장 역사가 깊은 사찰이다.

사찰입구에 들어서면 일주문 앞에 이르게 되는데 화려한 단청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쳐다보면 두공(斗栱)도 특출하며 천정 밑으로 두 마리의 용두가 안팎으로 내밀고 있는 기관(奇觀)을 볼 수 있다.

문안으로 들어서면 오른편에 조선후기의 것인 사적비를 비롯하여 용암(龍岩), 대원(大圓), 벽파(碧坡) 큰스님들의 비석이 있고 이름모를 20여기의 부도가 나란히 서있다.

신흥사는 처음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처음에는 향성사(香城寺)라 불렀으며 앞뜰에 9층석탑을 세우고 석가세존의 사리를 봉안했다. 그러나 이 향성사는 효소왕 10년(701)에 수천간의 대사찰이 하루아침에 소실되고 앞뜰에 세워진 9층석탑도 화재로 파손되어 현재 3층탑만이 남아 있다.

그 후 고승 의상조사가 지금의 신흥사에서 북방 약 1,500m 지점인 현 내원암자리에 선정사(禪定寺)를 중건하였다. 그러나 선정사도 조선 인조 20년(1642) 다시 화마로 소실되었다. 2년 후인 인조 22년(1644), 영서(靈瑞), 연옥(蓮玉), 혜원(惠元)등 세 승려가 수백년 내려온 유서깊은 절이 허무하게 폐허가 된 것을 가슴아프게 여겨 재건을 염원해 오던 어느날, 세 승려가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향성사 옛터 뒤의 소림암으로부터 백발선인이 나타나 현 신흥사터를 점지하며 “이곳은 수만대 3재가 미치지 않는 신역이니라”고 말하고 사라지니 심신(心神)을 황홀하게 하는 꿈을 세 승려가 똑같이 꾸었음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절을 중건하고 신몽으로 중건된절이라 하여 절 이름을 신흥사라 부르게 되었다.

〈 신흥사내의 주요 관광자원 〉

• 극락보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

신흥사 중창시에 같이 건립된 법당으로 조선시대의 건축물 가운데 특이한 것으로 공포의 아름다움과 단청의 다양한 문양은 다른 건물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며, 특히 보전 내부의 천정은 조선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이 아니고 이 역시 특별한 배려로 짜여진 천정이다.

• 목조아미타삼존불상좌상 및 복장 유물(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신흥사 본전각인 극락보전 안에는 앙련으로 된 목조팔각대좌에 결가부좌한 삼존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세음보살상,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상을 협시불로 안치하여 극락세계의 광경을 나타낸 것이다.

중앙의 본존불인 아미타불의 가사(袈裟)는 양어깨를 다 덮는 통견의(通肩衣)이고, 인상(印相)은 아미타여래의 수인(手印)인 미타정인을 하고 있다.

좌협시불인 관음보살상 또한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을 들어 올린 미타정인을 하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 가운데에는 화불(化佛)이 안치되어 있다. 우협시불은 대세지보살상으로 좌협시불과 반대되는 인상을 취한 미타정인으로, 머리 중앙에 보주가 장식된 보관을 쓰고 있다.

삼존불상은 근간에 새로이 개금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잘 보존되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불상의 복장물은 소실되어 조성 연대는 알 수 없고, 불상의 밑바닥에 쓰여있는 가로, 세로의 묵서명과 좌협시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에서 삼존불의 조성에 관한 축원문과 기문이 남아 있다.

이 기록에 아미타삼존불좌상은 '묘향산 보현사' 불상을 조성한 다음 1651년(순치8) 화원, 무연 스님이 만들어 그 해 8월 19일 복장물을 안치했으며 69년이 지난 1720년 5월 10일(강희 59) 또 다시 복장물을 안장했음을 알 수 있다. 좌협시불상에서도 祝願文(1651년)과 記문(1720년)을 비롯하여 각종 씨앗, 후령통, 嘉靖三十六年(157년) 金剛山 表訓寺開板銘 목활자본 불서(佛書) 등이 발견되었다.

• 명부전

조선 영조 13년(1737)에 고승 뇌운(雷運) 뇌상(雷尙)이 창건하여 조선 정조 21년(1797) 고승 창호(暢怙) 거관(巨觀) 등이 중수하고 서기 1975년 성준(聲準)이 중창하고 단청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 보제루(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호)

조선 영조 46년(1770)에 고승 홍징(弘徵), 홍운(弘運) 등이 창건하고 1971년 성준(聲俊)이 중수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 삼성각

조선 고종 29년(1892)에 고승 선악(仙岳)이 중건하였는데 이 건물 안에는 산왕대신(山王大神), 치성광여래불(熾盛光如來佛), 천대산상(天台山上),

독수선정(獨修禪定), 나반존자(那般尊者)를 모시고 있다.

• 일주문

조선 순조 13년(1813)에 고승 주운(周雲), 철수(喆修), 윤찬(潤贊) 등이 창건하여 그후 병화로 인하여 소실된 것을 서기 1972년 승려 성준(聲俊)이 중수하였다.

• 사천왕문

조선 순조 11년(1811)에 고승 주운, 철수, 윤찬 등이 창건하여 그후 병화로 소실된 것을 1972년 성준이 일주문과 같이 복원중창하였으며 이 건물안에는 욕계육천(欲界六天) 제1인 사왕천의 주로서 수미(須彌)의 4주(四洲)를 수호하는 신인 ①지국천왕(持國天王) ②증장천왕(增長天王) ③광목천왕(廣目天王) ④다문천왕(多聞天王)상을 모시고 있다.

• 지장보살상

조선 영조 13년(1737)에 고승 뇌운(雷雲), 뇌응(雷應) 등이 조성하였고 그 후 1971년 승려 성준이 개명불사 하였다. 이 지장보살은 지지(持地)·묘(妙)·무변심(無邊心)이라고도 하며 이천(利天)에서 석가여래의 부촉(咐囑)을 받고 매일 아침 선정에 들어 중생의 근기를 관찰, 석존이 입적한 뒤부터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몸을 육도(六道)에 나타내어 천상에서 지옥까지의 일체중생을 교화하는 대자대비한 보살이라 하는데 명부전에 모시었다.

• 경판(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

경판을 조선 현종 원년(1660)에 고승 호엽(昊葉)이 당시에 해장전에 보존하여 오던 것을 명부전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으며 총 277배로 되어 있다.

• 극락보전 석조계단

5계단 화강암 석조물로 조선 영조 37년(1761)에 고승 홍징(弘徵) 홍운(弘運) 선사(禪師)때 완성된 것으로 양쪽에 늘어진 용두와 옆면에 조각선 무늬가 지금도 선명하여 그 정교함이 미술적인 위치를 더해주고 있다.

• 범종

현재 신흥사 경내 보제루에 걸려있다. 향성사 창건 당시인 652년에 주조한 것으로 향성사가 불타버릴 때 깨어졌던 것을 영조 24년(1748)에 원각이 개주 하였으나 충분치 못하여 10년 후인 영조 34년에 홍한선사가 다시 개주하였다.

금 · 은 · 동 · 철을 혼합하여 주조된 이 종의 무게는 1,000근(600㎏)으로 한국전쟁 때 총상을 입은 후 1963년에 수리하여 보존중이다.

• 청동시루

조선 순조 원년(1801)에 대왕께서 하사하신 것으로 벽파선사가 용선전을 건립하고 영개 조선왕조의 위패를 봉안하고 봉제 때 사용토록 하사한 것이라 한다. 일설에 의하면 이상한 징조가 있을 때에는 신비스러운 소리를 내므로 신비한 시루로도 알려지고 있다.

2) 선 정 사

신라 문무왕 13년(673) 의상대사가 울진군 천립산으로부터 설악산에 와서 세운 것이 선정사다. 그 유래에 의하면 신라 무열왕 원년(654)에 중국종남산 지상사 지엄대덕소(中國終南山 至相寺 智嚴大德所)에서 화염교관을 배우고 문무왕 10년(670) 귀국, 왕명으로 여러곳에 사찰을 건립했다.

우선 소백산 부석사를 초창으로 가야산의 해인사, 원주의 바라마사, 비금산의 옥천사, 금정산의 범어사, 남악산(지리산)의 화엄사, 설악산의 선정사 등을 건립했다.

의상대사가 천립산에서 불영사를 건립하고 원효대사와 더불어 오대산 비로봉에서 자장율사가 세운 적멸보궁에 예배하고 낙산 보강굴에 이르러 7일 기도만에 관음보살의 현신을 동해에서 보고 동해용왕이 바치는 용궁보물인 수정염주를 갖고와서 석탑에 모시고 설악을 향해 올때 노인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길을 물은즉 설악을 가리키고 사라졌다.

선인의 가르침으로 알고 계속 전진하여 속초시 도문동 방향을 찾았는데 우연히 노주가 나타나 길을 인도받아 천봉이 용립한 가운데 암자가 있고 이 암자에 동산, 지각, 범정 등 세 조사와 의상, 원효 두 대사와 만나 선정을 같이 했다고 해서 선정사(禪定寺)로 되었다. 그 후 960년이 지난 조선 인조 22년(1644)에 재난을 만나 전소되어 빈터만 남아있다.

3) 계 조 암

계조암은 신흥사로부터 북방 2.3㎞ 지점에 있는 세칭 천후산이라 불리우는 산아래의 석굴안에 위치한 암자로 향성사 창립시(신라 진덕여왕 6년:562) 같이 건립한 암자이다.

옛날 동산, 지각, 봉정 세 조사가 상주하면서 정진수도하던 처소요 의상, 원효 두 조사가 상계 하여 수도하던 도장이라하여 계조암(繼祖庵)이라 명명되

었다 한다.

이 암자에 봉안된 불상은 아미타불 이외에 독성나반(獨聖那畔)존자를 모셨는데 응감이 심영하여 일체도속(一切道俗)이 성심으로 기도하면 소원성취한다 하여 지방인사, 불자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4) 내 원 암

내원암은 신흥사에서 북방으로 약 1.5㎞지점에 있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가 향성사와 같이 지금의 내원암터에 능인암을 세웠고 옛 향성사의 산내암자로서 효소왕 10년(701)에 향성사와 능인암이 화재로 소실되고 인조 22년에 신흥사를 건립케 되자 선정사의 오랜 빈터의 공허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여 동년 가을에 암자 4동을 세우니 그것이 내원암의 창건이다.

그 후(1914) 갑인 중추(仲秋)에 금강산 신계사에 수도중인 비구니 김수영이 내원암이 고조사(古祖寺)의 선정하던 성지임을 자각하고 믿음의 뜻으로 자기토지 답50석분을 내원암에 헌납하여 선원을 개설하니 활구(活句)를 공부하는 납자(納子)들이 운집하였다.

선원(禪院)의 명성이 동방에 널리 알려지었고 추사 김정희선생이 성지순례길에 남긴 내원암 현판이 아직도 생생히 정문에 걸려 있으며 내원암의 터가 풍수지리설에 매우 알맞은 좋은 터에 아미타불을 봉안하여 이곳을 찾아 기도를 모시는 이로 하여금 영험이 있다하여 예부터 많은 선남선녀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5) 안 양 암

안양암은 신흥사에서 동북방으로 500m 지점에 있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가 향성사 창건과 동시 안양암터에 해운암을 세웠고, 옛 향성사의 산내암자이다. 그 후 조선 선조 17년(1816)에 화마로 소실되자 백운동의 백운암을 전경선사(悛鏡禪師)가 이터에 옮겨 지으며 혜원법사의 백련결사(白蓮結社)에 동참하여 안양국에 원생하는 자만이 이 암자에 상주케 하고 안양암이라 명명하였다.

1949년 이대석스님이 중창하였으며 다시 1969년 임법지스님이 보수하여 설악산 염불당으로 면모를 다하고 있다.

사. 탑 · 산성

1) 향성사지 3층석탑(보물 제443호)

향성사 옛터에 남아 있는 이 탑은 2중기단의 석탑으로서 화강암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 탑은 향성사 건립당시인 서기 65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신라탑의 형식을 갖춘 것이다. 탑신의 옥석받침이 매우 정연하여 보기에 퍽 아름다움을 느낀다.

1966년 12월 16일부터 30일에 해체 · 보수하였는데 3층옥신 상면에서 7㎝×5.5㎝×9㎝의 방형 사리공이 발견되었고 그 위에 길이 12㎝, 폭9㎝ 크기의 동판이 덮혀 있었는데 내용물은 없어진 뒤였다고 한다.

또한, 석탑 주위의 지반침하로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석탑 정밀 실측 해체 및 보호를 실시 하였다.

2) 권 금 성

설악동에서 신흥사로 들어가는 일주문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굉장한 산봉이 권금성이 있는 봉우리다. 이 성은 산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해발 860m의 험준한 곳에 산성을 쌓은 것은 집요하게 달려드는 외적을 막기 위해서였다.

권금성에 대한 여러 이설들이 많은데『신증동국여지승람』권44 양양도호부조에 "在雪岳頂石築周衛一千一百十二尺高四尺今年頹落俗傳昔有權金二家避亂干此故名落山寺記所云天兵闖入我彊是州於雪岳山築城守禦疑卽此"(설악산 꼭대기에 석축이 있으매 둘레는 1,112척이고 높이는 4척이었는데 지금은 반쯤 무너졌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예전에 권씨 김씨 두 집이 여기에 피난한 까닭으로 이름하였다 한다. 낙산사 기문에 원나라 군사가 우리강토에 마구 들어왔는데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다고 한곳이 여기인가 의심스럽다)하였고 같은책『불우 낙산사』(佛宇 落山寺)조에 의하면 "· · · 水精念珠及如意珠 藏於是寺 傳寶之 癸日歲天兵亂入戒彊是州於雪嶽山 築城守禦 城陷 寺奴 取水精念珠 及如意珠 埋於地而亡走 上告于朝 兵退 遣人取之 藏於內殿 · · ·"(수정염주와 여의주는 이절에 보관하여 보물로 전해 오다가 계측년에 몽고병이 우리 강토에 쳐들어 왔으므로 이 고을 설악산에 성을 쌓아 방어하였다. 성이 함락하자 절에 있는 종이 두 구슬을 땅에 묻고 도망쳐 조정에 고하였다. 침입군이 물러간 뒤에 사람을 보내어 구슬을 가져다가 내전에 간수하였다)는 것이다.

천병(天兵)은 호병(胡兵) 즉 몽고병을 뜻하며 계일년은 고려 고종 40년 즉 1253년이다.

문헌상으로 보아 이 성은 이 때 즉 몽고병이 전주 충주, 춘주(춘천)등지까지 공격하여 남하할 때 나라에서는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어 산성이나 해도에 백성들을 피난케 하였는데 이 권금성도 이 때 급히 쌓은 것으로 보이며 권씨 김씨 두 장군이 백성들을 이 성에 피난시켜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하여 그 후부터 권금성이라 전해지고 있다.

외설악에 들어서서 권금성에 오르지 않고서는 설악을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전망이 좋아 연중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이곳을 설악의 선경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아. 기 념 비

1)설악산지구 전적비

설악산 지구에서 혈전이 있었던 것은 1951년 5월이었다. 태백의 준령을 따라 북진한 국군수도사단(맹호부대)이 백담사와 대승폭포 부근에 도사린 인민군 제6사단, 제12사단과 대결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악전고투 끝에 공격개시 5일 만에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때 인제에서 하진부로 침습한 중공군이 대관령을 위협하므로 수도사단은 그곳으로 달려가 적을 반격하고 6월초에 향로봉을 점령하였으며 이어 건봉산을 장악함으로써 오늘의 휴전선인 남강기슭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때 이 산천에 선혈을 뿌린 맹호의 이름은 일일이 밝혀 적지 못하거니와 나라와 겨레를 위해 한 몸 바친 젊은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설악동 소공원에「설악산지구 전적비」를 세웠다. 이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추도문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 청봉 높은 봉우리 돌 하나 옮겨 세우니, 이는 천만년을 이어 갈 역사의 표말이다. 바람, 꽃, 아름다운 저 능선을 적구가 짓밟을 때 맹호의 노호로 이 봉우리 지켰으니, 설악이 여기에 없었더라면 어찌 향로와 건봉이 저기 있으리. 오월 초목 단심으로 물들인 충혼, 이 돌과 더불어 길이 남으리라."

〈 설악산지구 전사문 〉

여기 관동의 영산, 단풍과 그윽한 곳에서 혈전이 있었던 것은 1951년 5월이다. 그 해 2월에 삼척부근에서 태백의 준령을 따라 북진한 국군, 수도사단(맹호부대)이 4월에 관모봉 한계령선에 이르러 백담사와 대승폭포 부근에 도사린 북괴 제6, 제12 사단과 대결하게 된 것이다.우리의 맹호들이 청봉을 단숨에 뛰어넘고 노호를 터뜨리며 적군을 향해 공격해 갔으니, 그날이 5월 7일 적의 저항도 완강하였지만 더욱이 높은 봉, 깊은 골이 첩첩

하여 식량과 탄약이 미처 뒤따르지 못하매 악전고투가 계속되었다. 이에 공군 수송기의 공중보급을 받아 가며 난관을 극복하고, 공격개시 5일만인 12일에 목표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 인제에서 하진부로 침습한 중공군이 대관령을 위협하므로, 수도사단은 그 곳으로 달려가 그 적을 막아 낸 다음, 반격을 재개하여 5월 말에 일사천리로 이 곳을 다시 지나 6월 초에 향로봉을 점령하고, 이어 건봉산을 장악함으로써 오늘의 휴전선인 남강 기슭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 때 이 산천에 선혈을 뿌린 맹호의 이름은 일일이 밝혀 적지 못하거니와 나라와 겨레를 위해 한 몸 바친 젊은이의 넋이 여기 서려 있으니, 이제 청봉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먼저 이 돌 앞에 고개 숙일 일이다.

2)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지금은 자유의 땅, 여기 님들이 고이 쉬는 설악에 영광의 탑은 높이 섰나니, 아 아 붉은 원수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던날, 조국의 이름으로 최후까지 싸우다가 꽃잎처럼 흩어진 수 많은 영들, 호국의 신이여, 님들의 이름도 계급도 군번도 누구하나 아는이 없어도 그 불멸의 충혼은 겨레의 가슴깊이 새겨져 길이 빛나리라. 천추에 부를 님들의 만세여 언제나 푸른 동해물처럼 영영 무궁할 지어다."

1965년 10월 30일. 이 비문에서와 같이 북한군과 맞서 싸워 나라를 구하고 숨져간 수많은 이름도 군번도 모르는 병사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설악산 소공원과 비선대의 중간지점에 이 비를 세웠다.

꽃다운 나이에 숨져간 젊은 넋들. 지나는 이들로 하여금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며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자. 야 화

1) 목 우 재

목우재는 과거에만 하더라도 사람과 말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좁은 도로였지만 새 도로가 개통되고 부터는 속초와 설악산 신단지를 잇는 교통요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상에서 바라보면 아득히 보이는 동해의 수평선, 넓은 정원안에 아담하게 만들어진 연못처럼 보이는 영랑호와 청초호,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에 높고 낮은 건물들이 짜임새 있게 보이는 속초시가, 그야말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다.

옛날 신흥사가 한창 번창할 때, 지금 척산, 도리원리, 노리 등 일대의 소야평야 토지가 전부 신흥사 소유인 탓에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이 고장 농민들이 소작료를 소에 실어 이 고개를 넘어가다 우마에다 풀을 뜯기고 휴식을 취했

던 고개라 하여 “목우재(牧牛재)” 또는 “모기재”라고도 부른다.

현재 이 도로는 1976년 노임취로사업을 시작으로 비포장도로로 개선되었으며, 그 후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원사업으로 2차선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여 이용되다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과 행락철 관광객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연장 980m에 노폭 9.5m의 도로로 목우재 터널이 2005년 12월 개통되었다.

2) 노루목고개

설악산 신단지 C지구를 지나 소공원쪽으로 가다 보면 나지막한 언덕에 수백년 묵어 보이는 노송이 있는데 이 나무는 이곳 주민들이 성황신으로 모시는 신수(神樹)이다. 북쪽 산기슭에 상가와 여관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 신단지 B지구이며 이 고개 막바지에 설악파크호텔에 서 있으며 남쪽 조그마한 산록에 신구식이 겹쳐져 있는 듯한 이색적인 건물이 바로 국립공원 설악산 관리사무소 이다.

이 두 건물사이에 있는 긴 고개가 이른바 노루목고개인 것이다.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인마가 지나다닐 정도의 협로였는데 1961년 큰 길을 닦기 시작하여 1962년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이 고개를 넘게 되었다.

이 고개를 속칭 노루목고개라 하는 것은 ‘모양이 마치 노루목 같이 생겼다 하여 노루목고개라 한다’ 하기도 하고, 일설에는 ‘수도선인이 이곳을 지니다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데 난데없이 흰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몸짓으로 방향을 가르켜주어 설악산으로 가게 되었다 하여 이 고개를 노루목고개라 한다’ 하기도 한다.

이 노루목고개 북쪽 야산에는 “해외원정 십인동지묘(海外遠征十人同志墓)”가 있다.

1969년 2월에 큰눈이 내렸을 때 서울서 해외원정등반대원 10여명이 설악산에 와서 등반훈련을 하다가 「죽음의 계곡」에서 눈사태에 묻히어 10명이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10인 대원 중에는 서울대학교 교수 김동기와 육군소령 이화승도 끼어 있었고 결혼도 하지 못한 젊은 청년이 8명이나 있었다. 묘비만은 열사람 모두가 각 개인별로 세워져 있으며 해마다 가족들이 이곳을 찾아 그들의 영령앞에 제사를 지내고 설악을 찾는 등산객들은 이 10인 동지묘소에 들어 분향을 하고 가기도 한다.

속초시가 되기 전에는 이 마을 이름을 한문으로 장항리(獐項里)라 했는데 “장항”은 “노루목”이란 뜻이다.

2. 영랑호지구

가. 호 수

1) 영 랑 호

영랑호는 속초시 서북쪽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에 둘러싸인 둘레에 7.7㎞, 면적은 1,024,000㎡의 거대한 자연호수이다.

이 호수를 영랑호라 이름붙이게 된 것은『삼국유사』의 기록에 근거한다.

신라의 화랑 영랑이 같은 화랑친구인 술랑, 남석행, 안상등과 함께 금강산에서의 수련을 끝마치고 명승지 삼일포에서 3일동안 유람한 후 각각 헤어져 영랑은 동해안을 따라 호수에 빨간 저녁 노을로 한결 웅대하게 부각된 설악산 울산바위와, 웅크리고 앉은 범바위가 그대로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그 아름다움에 매료당한다. 영랑은 서라벌로 돌아가는 것도 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호수를 영랑호라 부르게 되었고 이때 놀던 내금강의 회양군 한 봉우리를 영랑봉 이라고 칭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부터 영랑호가 화랑의 순례도장이 된 것이다.

〈 동해안 신라 화랑의 도장 〉

신라의 진흥왕은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일으켜야 된다고 하여 다시 영을 내리고 가문이 좋은 남자중에서 덕행이 뛰어난 자를 뽑아서 화랑이라 칭하였다.

처음에 설월랑을 받들어 국선을 삼으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이다. 이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고쳐 선에 옮기게 하고, 어른을 공경하게 하고 아랫사람에게 순하게 하니 5상(五常), 6예(六藝), 3사(三師), 태사, 태부 등이 널리 이 시대에 행해졌다.

진흥왕 37년(507)이후의 일이었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한다.

화랑들은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배우고 대자연의 정기 속에 몸과 마음을 닦아 젊은시절에 갖추어야 할 인격과 용맹성, 애국심과 충성심, 용기와 우정을 함께 익혔던 것이다. 이러한 화랑도의 기상은 국토순례를 통하여 그 정신을 더욱 닦아 신라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곳 영랑호는 동해안 순례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기　암

1) 범 바 위

영랑호 중간지점 서남쪽에 잠겨있는 큰 바위로서 위엄이 당당하며 마치 범 형상으로 생겼다하여 범바위라 불리운다. 불과 20~30년전만 해도 범이 출몰했다고 할 정도로 삼림이 울창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나 지금은 옛적 주위 원형은 사라지고 "영랑호리조트"의 골프장이 인접해있어 소풍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바위는 속초 일부 서민들에게 성스러운 바위로 알려져 무당들의 가무가 빈번히 행하여지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찾아드는 사람들 또한 줄을 잇기도 하는 곳이다.

2) 관 음 암

설악정에서 약100m 가량 남쪽에 있는 정상에 오르면 커다란 바위가 여러 개 모여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관음암이다.

정상에서 동쪽으로 수십보 내려가면 큰 암벽 하나가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永郎□□
材□大□
觀　音
西曆一九五二年 六月□日

李 亨 根 題
崔 泓 穀 書

처음 두 줄의 네 글자는 풍우한서에 마멸되어 알아볼 수 없으나 글의 내용은 화랑 영랑이 이곳에 와서 수도할 때 관음보살이 나타났다는 뜻인 것 같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오랜 옛날 이곳에 수목이 우거지고 인적이 적적할 때 어느 도사가 이곳에 수도를 하였는데 관음보살이 나타나 득도를 도왔다 하여 이 바위 이름을 관음암 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다. 사 찰

1) 보 광 사

영랑호 동남방, 푸른 송림으로 우거진 조그마한 골짜기에 흡사 민중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광사"다.

이 사찰은 1937년 정화담이란 승려가 세운 절로서 이름을 보광사라고 한 것은 부처의 제자 53불 중에 수제자인 보광불존(普光佛尊)을 이 절에 모셨다하여 보광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라 한다.

절 입구 큰 바위에

보광사 창건(普光寺 創建)
대법사(大法師)
정화담(鄭華潭)

이란 글씨가 음각되어 있어 이 절을 창건한 승려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였으며 절 주위에 남아 있는 노송림은 이 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애써 보호해 온 승려의 덕이라 한다.

이곳은 영랑호변중에서도 가장 경관이 아름다운 산자수명한 곳으로 춘하추동 4계절을 통해 탐승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라. 탑 · 비

1) 통천군민의 순국동지충혼탑

속초시 장사동 313의 1에 있는 이 탑은 자유 · 평화 · 정의의 깃발을 들고 싸우다 산화한 반공전사자 및 한국전쟁때 전몰한 용사들중 통천군민출신인 배연주외 113명의 불멸의 충혼을 새겨 반공을 다짐하고 통일을 맹세코자 영북지구 통천군민회 신세묵 회장 외 5명이 발기하여 전국에 있는 통천군민의 성원으로 정주영, 박용학, 강서룡 등 150여명으로부터 120만원의 희사금을 받아 1969년 10월 15일 통천군민의 이름으로 건립하였다.

충혼탑의 규모는 비기단높이 1.1m, 비신높이 6.25m, 둘레 5m이다.

비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해돋는 동방의 나라 아름다운 내조국.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북한의 공산도당과 생명을 걸고 싸우다 피흘린 동지들의 불멸의 충혼을 비석에 깊이 새겨 고향바다 흐르는 이곳에 모시고 반고을 다짐하고 통일을 맹세하오니 충혼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2) 해양경찰충혼탑

속초시 장사동 나지막한 야산기슭, 바다를 무대로 저마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 거룩한 사명을 다하고 숨져간 경정 안정일외 71명의 해경인들의 넋을 달래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후세에 널리 전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30일 이 탑이 건립되었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찾는 이로 하여금 가슴 뭉클함을 느끼게 하며 해경인들의 호국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다.

"이나라의 동서남해에서
조국과 겨레의 방파제가 되어 겨레의 방파제가 되어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호국영령들이
여기 태백산 북쪽 기슭에 고이 잠드시도다
꽃다운 젊음을 바다 지키시다
숭고한 희생을 영원하시다
세월이 흘러가도 해경인의 가슴마다
빛나는 별들이 되어 계시리로다.
저마다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다하시고
민족청사에 충혼들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 분들을 잊을 길 없어
뜻과 정성을 모아
여기 해양경찰대 충혼탑을 세워
이들 충령을 한자리에 모시어
호국불멸의 꽃으로 영원히 기억하며
해경역사에 귀감을 삼고자 하노라."

3) 이형근장군 덕정비

속초시 장사동 산 313-1번지 통천군민의 순국동지 충혼탑 바로 앞 뚝적바이 옆에 있으며 비 기단 높이가 23㎝ 둘레 196㎝이다.

본래 이 지역은 38도선 이북으로 8 · 15 후 공산치하에 있다가 1961년 육군 제1군단장 이형근(李亨根)장군이 수복하고 군정을 실시하여 이 지역 재건에 큰 공이 있었으므로 6만 시민이 크게 감격하여 1952년 8월 15일에 제1군단 전투지구 민중대표 박종승 외 13명의 발기로 비석을 세워 그 공적을 기념하고 있다.

3. 대포 · 물치지구

대포는 속초시의 관문이며 영북지구 제1의 어업전진기지이다. 총면적 371 ha(약12만평)에 600여가구, 약 3,000여명의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마을로 외옹치, 내물치, 대포의 3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대포라는 지명은 이 인근에서 가장 큰 포구이고 큰 고기가 많이 잡혀 그렇게 불리워졌으리라는 설이 있다. 이곳에는 대포성지 · 봉수대가 있어 옛부터 군항으로 군사적 요새지의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대포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이 군항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며 구한말인 1908년 행정개편때 청대산을 중심으로 이남은 도문면 이북은 소천면으로 나뉘었으며 한일합방후 1914년에는 이 두면이 도천면으로 통합되면서 그 면사무소를 대포리에 둘 정도로 이 인근 지역의 중심지였다.

가. 대 포 항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한계령, 구룡령을 이용하여 설악산입구(해맞이공원)를 지나 속초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대포동이며, 또한 설악산 관광객의 대부분의 여정속에 대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구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생선회집에서 미각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수려한 자연자원을 두루갖춘 천혜의 관광지로 속초가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설악산이 국내 제1일의 관광지로 바뀜에 따라 설악산 기슭의 깨끗한 바닷가에 위치한 대포항은 고급생선의 집산지로 유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속초가 개항하기 이전에도 설악산이 있었던 것처럼 속초가 알려지기 전에 이미 대포항은 널리 소개되었던 곳이다. 일제 때는 물론이고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 시기에 발행된 우리나라 지도에 속초는 나와있지 않지만 동해안쪽을 보면 부산항, 포항, 묵호항, 대포항, 장전항, 원산항의 순서로 드문드문 항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37년 7월 1일자로 양양군 도천면 대포리에 있던 면사무소가 속초리로 옮겨갔고 이어 청초호 주변을 다듬어 속초항이 태어나면서는 대부분의 화물선과 어선들이 여기에 정박함에 따라 1942년 10월 1일자로부터 속초읍이 탄생하였으니 대초항은 한낱 어선 몇척이 드나드는 한적한 포구로 전락해 버렸다.

최근에 와서는 어항으로서의 대포보다는 관광지로서의 대포로 더욱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명산 설악과 척산온천, 동해바다, 청초호와 영랑호의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에 대포항이 위치해 있으며 정치

망에 걸려드는 광어, 넙치, 방어 등의 고급생선들이 반드시 대포항을 통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생선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대포동의 횟집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 벼락바위

물치에서 학무정(속칭 육모정)을 향해 가다가 중도문 막바지 도로 왼편에 벼락바위라는 별난 이름을 가진 암석이 있다.

이는 커다란 암석의 한 중간이 벼락을 맞아 갈라진 것과 같이 반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들 불리우고 있다.

이 벼락바위는 쌍천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맑은 냇물과 작은 소가 함께 하고 있어 은어철이 되면 태공들의 낚시로 붐비었으나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은어낚시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개울 건너편에는 푸른 숲이 산재해 있어 나무그늘이나 천막 밑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피서객들로 하여금 한층 각광을 받고 있다.

상복리의 산촌풍경, 티없이 맑은 냇물, 시원한 바람, 편리한 교통, 이 모든 것이 이곳을 실속있는 피서지로 애용하게끔 하는 요소들인 것이다.

다. 충 혼 탑

도문동에 위치해 있는 충혼탑은 속초출신 전몰군경장병 대위 한 호외 59명의 충의를 추모하고자 1964년 5월에 속초시 동명동 현 등대 뒷산에 건립하였던 것을 1969년 5월에 동명동 산62-1 영랑호로 이설하여 1969년 6월 6일 현충사 행사와 겸하여 제막식을 가졌으나 다시 1987년 12월 15일 윤태경 속초시장 재임시 도문동으로 옮겨 추모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황금찬 시인에 의하여 지어진 글귀가 다음과 같이 비문에 새겨져 있다.

"한줌 구름을 고향 하늘에 띄어두고
여기 깊이 잠들었는가
길손이 묻거든 대답하라
우리는 조국의 명령에 따라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꽃봉오린 채 이곳에 안식 한다고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는가
지금 그대들이 누리고 있음이여
식지 않는 땅 열렬한 지평위에

찬란한 역사와 함께 살아 있노라
젊은 목숨들이 받친 보석바구니
겨레의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나네
이 빛나는 자유조국의 하늘 아래
호국의 영령들이여 길이 광명하라"

라. 대포성지와 봉수대

대포에서 북쪽으로 높은 산이 융기하고 있어 이를 장성대(봉수대)라고 한다. 100여명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석누각이 있고 이것은 신라때 봉화대의 감독이 살던 건물로 보인다.

여기서 동으로 외옹치해안에 돌출한 봉화대는 신라시대에 설치한 것으로 위로는 간성의 죽도, 아래로는 양양의 조산에 응했다 하며 그 후 폐지되어 이제는 송림이 우거진 그늘 밑에 석축의 유적만 남아 고사를 이야기해 주는 듯 고대의 흥망성쇠를 말없이 보여준다.

4. 청초호, 기타지구

가. 청 초 호

쌍성호, 진성호라 부르기도 하는 청초호는 둘레가 약 4.276㎞나 되는 큰 호수로 그 모양이 술단지 같이 생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어귀쪽은 바다에 연해 있어 조선조때는 수군만호영을 두고 병선을 정박시켰다고 전하며 쌍성호의 아름다움이 영랑호보다 훌륭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양양의 낙산사 대신 이 일대를 관동8경의 하나로 들고 있음에 그 절경의 빼어남을 알 수 있을뿐더러 한겨울 얼음이 얼을 경우 평평하지 않고 논밭을 갈아 놓은 두렁같이 골이져 '용갈이'(龍耕)라 하며 얼은 얼음의 형태를 보고 새해농사를 점쳐왔다는 유래가 있다.

쌍성호(雙成湖)라 한 것은 한 지역내에 영랑호와 청초호가 쌍둥이처럼 나란히 있다는 뜻이며 왜정 때만 하더라도 지금 갯배가 다니는 곳으로 자동차가 다녔고 사람들도 물이 적을 때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건너 다녔는데 박상희 읍장이 이 갯목을 파서 배가 다니게 하였다.

과거에 양양군에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사또 환영연을 이 호수위에서 베풀었는데 밤에 나무판자위에 숯불을 피워 물위에 띄워놓고 배에는 술과 안주를 실은 뒤 기생과 지방유지들이 함께 타고 풍악을 울리며 춤과 노래로 사또

를 즐겁게 하기 위해 호수주위를 돌아다니는 불꽃놀이를 하였는데 이를 "논뫼호 불꽃놀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논뫼호"란 논산앞 호수란 뜻으로 지금의 청초호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 놀이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다 한말에 와서 최종락군수때 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생겨 중지되었으나 이 불꽃놀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멀리 양양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 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나. 수복기념탑

모자상으로 되어 잇는 수복기념탑은 속초시의 상징이며 이 탑에 얽힌 사연은 이산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대변해 준다.

이 탑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월남 실향민들의 희망과 한을 달래는 것과 민족통일의 염원을 기리는 뜻에서 휴전후인 1954년 5월 10일 건립되었다.

당시 속초읍과 제1군단의 지원으로 함경도에서 피난온 많은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이형찬이 설계, 박칠성의 제작으로 수복지구에선 유일한 반공전적기념탑으로 주민들에게 한국전쟁의 처절했던 참상과 분단의 설움을 영원토록 아로새기기 위하여 속초항 복판에 북녘을 향해 세워졌다.

30년동안 동해의 모진 풍파를 끈질기게 버텨 오면서 주민들에게 고향잃은 설움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던 이 모자상이 1983년 4월 27일 새벽, 동해안에 불어 닥친 강풍으로 인하여 철저히 파괴되어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실로 이변이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모자상이 자취를 감추자 실향민들의 슬픔은 더욱 컸으며, 어부들 또한 귀향길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는 화제가 꼬리를 물자 모자상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격적으로 번져 1983년 5월초 범시민적인 수복기념복원건립위원회(위원장:김종록 문화원장)가 발족 기금 확보에 나섰다.

이러한 취지에 시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아 여름철 시중 불황에도 불구하고 성금모금 6개월만에 시민성금 4천여만원과 김광용 시장이 시비 1천여만원의 지원으로 수복기념탑복원사업에 들어갔다.

그해 9월 2일 원래 이 모자상을 조각했던 박칠성으로 하여금 모자동상과 동상좌대고 전체를 복원, 재현케 하여 11월 17일 상오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제막식을 엄수하였다.

복원된 이 탑은 화강암 좌대폭 4m, 좌대고 7m, 모자동상높이 2.55m, 총

탑높이 9.55m로 원형보다 2m 가량 높게 제작되었다.

「수복기념탑」휘호도 당시 1군단 민사처소속 서예가 김향철 소령이 쓴 원형을 오석에 옮겨 조각했으며 뒷면 탑신엔 당시 동우전문대학장이던 우봉 한상갑박사의 「민족통일」이란 휘호가 크게 부각되어 시선을 끌고 있다.

더욱이 이 탑의 자랑거리는 전쟁유적비탑으로서는 상례처럼 되어 있는 「군경조각동상」이 아닌 순수 민간인 「모자조각상」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필수적인 관광코스로 손꼽히고 있다.

이 탑에 서려있는 이산가족의 애절한 사연은 장호강시인(예비역장군, 한국참전시인협회장)의 모자상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첩첩 높이 솟은 산봉우리 앞을 가리고 굽이굽이 험한 길 아득히 멀어도 어머니와 어린 알들은 오순도순 망향의 이야기 나누며 북녘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길위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치고 어느 짖궂은 길손이 그 앞길 가로 막는다 한들 두 생명 다하도록 낮도 반도 없이 가야만 하느니.

도대체 그 누가 날린 저주의 화살일까.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어느날 땅과 바다와 하늘이 둘로 갈리고 동족산장의 처절한 피바다의 싸움으로 그 아름다운 강산 두고온 옛집이 잿더미로 변했다손 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피땀흘려 일군 밭과 논 그 정든 삶터를 찾아 마냥 가야만 하느니.

뼈에 저리도록 허구한 고된 날이 본시 살결고운 북녘 아낙네 예쁜 얼굴에 주름끼 고이기로서니 삼단 검은 머리에 흰 카락 불어나기로서니 항시 머리 위에는 넓고 푸른 하늘이 열려 있기에 모진 풍파 욕된 세월에도 손과 손 굳게 붙잡고 통일의 새 날을 겨누어 줄곧 앞으로 가야만 하느니.

북으로 오직 북으로 고향길 더듬는 네 다리는 비록 갸날프지만 성난 해일 거센 폭풍에 깊이 쌓이는 모래밭 헤쳐가면 걸음 걸음 내디디는 찬된 보람에 줄어든 보따리 옆에 소중히 끼고 오늘도 동해 갈매기 노래를 엿듣노라면 불현듯 아롱진 향수가 담뿍 어리는 그 길을 쉬지 않고 가야만 하느니.」

다. 청호동 나룻배(갯배)

청호동과 중앙동을 이어 주고 있는 도선 갯배는 일제말기에 속초항이 개발되면서부터 그 세월을 함께 하고 있다.

예전에 반부령(청호동)으로 불리던 이 곳은 속초 부월리 2구(청호동)와 속진(영랑동과 중앙동의 일부)이 맞닿아 있던 것을 준설, 외항과 내항(청호동)이 통수되고 폭 92m의 수로가 형성되자 속초읍에서 갯배 1척을 만들어 도선에 이용하게 되었는데 크기는 트럭 한 대와 우마차 한 두 대를 같이 실

은 크기였다.

한국전쟁이 발발되면서 폐선 되었다가 수복이 되면서 거룻배(종선)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때 소위 조막손 영감(김영학)이라고 불려진 이가 주업으로 하였으나 자기 소유의 거룻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 곳 청호동은 한국전쟁 전에는 정어리 기름공장이 두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 후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움막형태의 집들이 들어서 신포마을, 앵고치마을, 짜고치마을 등의 자기 고장 마을의 이름을 딴 집단촌을 형성하게 되었고,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아바이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거룻배를 이용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 여간 아니였고, 특히 자전거나 손수레의 이용은 더 어려웠다. 한국전쟁 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1955년초 속초읍에서 지금 모양의 갯배 1척을 만들어 5구에 관리를 맡기게 되었고, 1961년도에 1척을 더 만들어 정식 도선업 허가를 받아 재향군인회 속초지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게 하였다.

속초시는 1988년에 다시 청호동 개발위원회에 위탁 운영,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의 갯배는 1998년에 4천만원을 들여 35인승 FRP선으로 개조한 것이다. 갯배의 운항 시간은 오전 4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청호동인들에게는 처음부터 무료 혜택을 주고 있다. 한 해 동안의 유료 이용객수는 약 15만~20만명이며 무료로 이용하는 청호동민의 이용도 연간 20만이 넘으면서 갯배는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소중한 기억으로 또한 속초시민과 동고동락하는 삶의 현장으로 그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라. 영 금 정

속초시 동명동 속초등대 밑의 바닷가에 크고 넓은 바위들이 많이 깔려 있는 곳이 영금정이다. 도심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경치가 빼어나 사시사철 속초시민들이 몰려와 휴양지, 피서지 또는 낚시터로 널리 애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관광도시개발의 일환으로 도와 시당국의 지원하에 해변유원지로 개발되어 활어생선횟집 및 민박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곳을 영금정이라 부르게 된 것은 정각이나 정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옛날 이곳에 사방이 절벽을 이룬 석산이 있었는데 이 석산절벽 위에는 괴석들이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정자 모양으로 둘러서 있었는데 석산꼭대기에는 큰 노송이 두 그루 서 있었다.

이 노송의 크기가 어른 세 사람이 팔을 뻗어야 겨우 맞닿을 정도의 큰 노송이었다. 이 석산은 세면은 바다에 잇닿아서 좁은 길이 있었으므로 어렵게 석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석산 꼭대기에 오르면 암반이 평평해서 몇 사람이 앉아서 놀 수가 있었고 꼭대기 바위바닥에는 장사가 천마를 타고 달린 말자국이 있었으며 말 죽통같은 괴석도 있었다.

특히 '징'바위가 있었는데 이 괴석을 발길로 툭 파면 '징'소리 같은 괴음이 나므로 '징'바위라 하였는데 그 '징'소리가 한 사람 힘으로나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차거나 울리는 정도와 소리가 같았다.

또 괴이한 것은 차도가 석산벽에 부딪치면 신묘한 음곡이 들여 왔으므로 이것은 신령한 '거문고'소리와 같다고 해서 영금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밤이면 선녀들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신묘한 음조곡을 즐기면서 놀던 곳이라 하여 '비선대'라는 이름도 붙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석산은 볼 수 없고 석산의 자리만 남아 있는데 이는 일제시 속초항만의 축항공사의 석재로 쓰기 위하여 영금정 석산을 깨어 사용했다 한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전설이 사라지고 영금정의 신묘한 음곡은 들을 수 없지만 이것이 속초개발의 계기가 되어 현대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마. 척산온천

척산온천은 속초시청으로부터 서남쪽 4㎞ 지점인 속초시 노학동에 위치하고 해안평야가 동쪽으로 전개되어 있는 지역으로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온천이다.

국내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공원 설악산의 후광을 받고 날이 갈수록 온천의 이용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30년대에 땅속에서 저절로 뜨거운 물이 솟아 올라 온천임이 알려진 뒤로 피부병환자가 몰려들었다는 말이 전해진 후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의 하나로 국립지질연구소에서 전국토를 지질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 온천부존 가능성을 확인하고 1965년부터 시굴하여 1969년 12월 30일 지하 250m 지점에서 44.8℃의 알칼리성 온천수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1973년 12월에 지하 360m 지점에서 47℃의 온천수를 분출시켰고 이어서 1975년 5월 온천확장공사시 또다시 452m에서 수온 53℃의 온천수를 분출시켰다.

또 정부는 1976년 4월에 척산지구를 특정지역 관광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어서 1977년 12월에 3개소의 시공에 성공하여 현재 6개 온천공이 소재하고 있으며 1978년 10월 설악산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시켜 소공원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요성분은 과학기술처 산하 국립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단위 100PPM을 기준으로 나트륨 51.90, 염소 12.10, 알카리 8.40, 불소 6.94, 칼륨 4.15, 칼슘 3.41, 리듐 0.08, 원소 0.18, 기타 4.80등이 함유된 온천으로 피부병, 눈병, 위장병, 신경통, 류마치스, 원자병등에 특효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귀한 온천이다.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개발됨에 따라 남쪽의 조봉산산록 목우재에 도로를 신설하고 포장하여 속초시와 연결지움으로 교통이 대단히 편리하게 되었다.

척산온천지역을 A · B · C지구로 구분하여 각 지구마다 호텔 1동을 비롯하여 여관을 건축하고 온천실내풀장을 만들며 기타 레크레이션 시설을 건축할 계획하에 있다.

바. 속초해수욕장

속초시 조양동 · 대포동에 위치한 속초해수욕장 일원 145,150㎡가 1984년 7월 6일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1989년 7월 1일 그 면적을 348,900㎡로 확대하였으며, 2002년 10월 10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37,950㎡가 관광지로 재지정되었다.

1984년 7월 6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1985년 5월 24일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설물 입지가 미미하여 1989년 7월 1일 관광지면적을 확대 지정하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였으며, 그 이후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개발하고자 1992년 1월 29일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한 후 실정에 맞게 2004년 3월 3일 관광지 조성계획을 최종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간 1,300여 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명실상부한 관광1번지 속초시는 먼저 매력적인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해수욕장 공간기능을 재편 중에 있으며, 2004년 해변산책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목재산책로 개설, 각종 조형물 설치, 진입광장 정비, 관광형 휀스 설치 등을 시행하였고, 2005년에는 산책로 연장사업, 주차장 확충, 테마광장, 전망대 설치 등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모하고 있다.

1) 일반현황

- 위치 : 속초시 조양동 1464-1번지 일원
- 수용능력 : 1일 동시 수용인원 12,000명
- 운영범위 : 백사장 550m(면적 55,000㎡)

2) 시설물 현황

관리 · 운영 시설물			경 영 시 설 물		
시 설 명	규 모	비 고	시 설 명	규 모	비 고
	11종			7종	
관리사무소	1 동	철근콘크리트조 309.60㎡	주 차 장	2개소	15,914㎡
관광전시실	1개소	관리사무소내 105㎡	야 영 장	1개소	3,658㎡
안 내 소	1개소		오토캠프장	1개소	9,099㎡
화 장 실	4개소		영 구 상 가	1동	3층 9개소
급 수 대	3개소	수세식	임 시 상 가	1동	조립식 철골조 6
지 압 보 도	1개소		샤워 · 탈의장	2개소	165㎡
망 루 대	6개소		L형텐트 대여	2개소	300개
배 구 장	2	고정식 2, 이동식 4			
미니축구장	1				
축 구 장	1				
야 외 무 대	1				

3) 운영

2003년도에는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해수욕장을 운영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최적의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하여 관광기반 ·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총 14개 사업 2,150백만원을 투자하여 신규시설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완벽한 수상안전관리와 맑고 깨끗한 해수욕장 조성에 주력하여 전년대비 17% 증가한 612,336명이 입장하였다. 2004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해수욕장을 운영하였으며, 관광형태 변화에 부응한 도심속 깨끗하고 쾌적한 최적의 해양문화관광지 및 친환경적인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총 22개 사업 1,085백만원을 투자하여 노력한 결과 659,877명이 속초해수욕장을 찾아 매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4년 하반기에는 4계절 즐겨찾는 매력적인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해변산책로 조성사업에 10억을 투자하여 목재 산책로 개설 350m, 돌고래 · 어류 등 각종 조형물 설치 15종, 진입광장 정비, 야간조명열주 16본, 송

림보호 구역내 및 백사장에 벤치 20개 설치, 망원경과 관광형휀스 설치 500m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5. 연중행사, 민속, 신앙

가. 연중행사

우리지역은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고루 갖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우리시의 주 소득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의 추세가 단순 보는 관광에서 보고, 즐기고, 먹고, 체험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어 자연관광 자원만으로는 관광도시의 이미지 재고와 관광진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고자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통적, 지역적 특색있는 이벤트 발굴은 물론 환경여건 부적합으로 발전에 한계가 있는 과다한 이벤트행사를 폐지 및 축소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행사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 봄 : 화랑영랑축제, 설악하프마라톤대회
- 여 름 : 속초해양페스티벌,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Iron-Man 코리아 트라이애슬론대회, 대한민국음악축제
- 가 을 : 설악문화제,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 겨 울 : 신년 해맞이 축제, 설악눈꽃축제

1) 신년 해맞이 축제

신년 해오름을 맞아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과 새 희망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 마련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 속초의 미래 비전을 형상화하는 축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 아침에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신년맞이행사는 해돋이를 보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속초해수욕장과 설악해맞이공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음악, 무용, 레이져쇼,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일출을 감상하고 가족과 함께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신년 소원을 기원하는 색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 행사일시 : 매년 1월 1일
- 행사장소 : 속초해수욕장, 설악해맞이공원
- 행사주최 : 속초시

〈 주요행사 〉

- 여명을 알리는 울림
- 전통무용공연
- 어선 선상퍼레이드 : 힘찬 뱃고동과 환희의 집어등
- 공감음악회
- 테마가 있는 불꽃놀이
- 함께하는 세상
- 희망 촛불나무 만들기
- 해오름과 함께 출발
- 촛불기도
- 해오름함성
- 지역 특산물 무료시식회

〈 표 6)1-3-1 〉 해맞이축제 개최현황

구 분	행 사 장	일 시	내 용	참가인원(명)
제1회	청초호유원지 속초해수욕장 설악해맞이공원	1999.12.31 ~2000.1.1	속초 밀레니엄 포크콘서트(iTV 생방송) 치어리더 공연, 어린이 태권도 시범 댄스 시연, 불꽃놀이, 사물놀이, 성악, 한국무용, 소망 풍선날리기	40,000
제2회	속초해수욕장 설악해맞이공원	2001.1.1 06:00~09:00	사물놀이, 북춤, 국악관현악단 공연, 힙합 댄스, 레이져 쇼, 불꽃놀이, 전통무용단공연 희망날리기, 해오름 함성, 그룹사운드 공연	120,000
제3회	"	2002.1.1 06:00~08:00	레이져 쇼, 대북공연, 전통무용, 시 낭송 선상퍼포몬스, 불꽃놀이, 오케스트라, 가수초청공연, 오색풍선날리기, 종이비둘기날리기, 촛불 소원빌기, 설장구	90,000
제4회	"	2003.1.1 06:00~08:00	사물놀이, 설장구, 현대창작무용, 시 낭송 가수 초청공연, 신년 메시지, 불꽃놀이 오케스트라 및 성악공연, 오색풍선날리기 촛불 소원빌기, 어선집어등 밝히기 떡국 무료시식회	120,000
제5회	"	2004.1.1 06:00~08:00	창작현대무용, 관현악(고구려예술단), 대북공연(갯마당), 불꽃놀이, 초청가수공연, 촛불소원빌기, 떡국·김치·꿀차 무료시식회, 어선집어등 밝히기	125,000
제6회	"	2005.1.1 06:00~08:00	대북공연, 전통무용, 어선집어등 밝히기, 공감음악회, 불꽃놀이, 희망촛불나무 만들기, 닭띠가족 가훈써주기, 한해운수풀이, 지역특산물 무료시식회	150,000

2) 정월대보름행사

우리민족 최대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각종 민속놀이 등을 통해

우리 민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문화 보존 · 전승을 위한 계기를 마련토자 매년 음력 1월 15일 청초호 유원지 일대에서 행사가 이루어진다.

- 행사일시 : 매년 음력 1월 15일
- 장　　소 : 속초시 청초호 유원지
- 주　　최 : 속초시, 속초문화원
- 주　　관 :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속초수협, 속초신협, 새마을금고 연합회, 속초양양축협,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한화리조트, 갯마당

〈 주요행사 〉

- 떡메치기경연
- 액짚태우기
- 연날리기
- 제기차기
- 널뛰기
- 윷놀이
- 투호
- 지신밟기 등

3) 설악눈꽃축제

1996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해마다 1월 말 강원도 속초시에서 개최하는 겨울 관광축제로 설악산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주요 행사는 빙벽등반대회, 하얀 산길 걷기,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 등반대회 등이며, 그밖에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눈조각경연대회, 눈썰매 릴레이경기, 빙상농구대회, 인간컬링대회, 북청사자놀음, 전동 외줄타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겨울철 비수기 국내 · 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매년 설악눈꽃축제를 개최주민 및 관광객에게 신선한 감동을 일으키면서 지역특성에 걸 맞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96년 처음 동명항에서 시작한 설악눈꽃축제는 그 이듬해 노학동 종합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7회까지 개최를 하였으나 축제의 명칭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와 기후여건으로 8회부터는 장소를 설악산일원으로 하여 내용도 예전의 먹고 즐기는 형식의 내용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여 다같이 즐기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하여 개최하고 있다.

- 행사일시 : 매년 1월 중순경
- 행사장소 : 설악산 일원
- 행사주관 : 설악눈꽃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 눈조각 · 얼음조각 체험장(설악산 일원)
- 얼음놀이마당(설악산 및 인근지역)
- 빙벽등반대회(토왕성폭포)
- 설악산 최고봉 등반대회(대청봉)
- 하얀 살길 걷기(신선봉)
- 사진 전시회 등

〈 표 6)1-3-2 〉 설악눈꽃축제 개최현황

구 분	행 사 장	일 시	내 용	참가인원(명)
제1회	동 명 항	1996. 1.30 ~ 2.3	얼음조각전, 거리퀴즈, 풍물패, 락-페스티발 박광수영화제, 청기백기, 판도마임 가족노래자랑, 통기타와함께, 전통민속놀이	18,000
제2회	종합운동장	1997. 1.30 ~ 2.2	얼음조각전, 빙벽등반대회, 음식전. 기획 상품전, 설악산사잔전, 참가축전, 통일기원 만향제	26,000
제3회	"	1998. 2.5 ~ 2.8	눈조각전, 빙벽등반대회, 하얀산길걷기 예쁜눈사람만들기, 눈싸움, 팔씨름, 팽이치기, 큐빅퍼즐게임, 설악산사진전, 인형극 갈설이타령, 맥주시음회, 길거리 농구 황태더덕불구이	35,000
제4회	"	1999. 2.4 ~ 2.7	눈조각전, 빙벽오르기대회, 하얀산길걷기 눈썰매타기, 팔씨름, 팽이치기, 맥주마시기 눈싸움, 산토끼붙잡기, 큐빅퍼즐게임 설악산사진전, 각설이타령, 인형극공 황태더덕불구이, 기인열전, 관광기념품전시 지역특산품전, 거리축전	38,000
제5회	"	2000. 1.27 ~ 1.30	눈조각전, 빙벽오르기대회, 하얀산길걷기 눈썰매타기, 팔씨름, 팽이치기, 눈싸움 산토끼, 돼지붙잡기, 예쁜눈사람만들기 거리축전, 설악산사진전, 인형극공연 황태더덕불구이 시식회	40,000
제6회	"	2001. 1.18 ~ 1.21	눈·얼음조각전, 빙벽등반대회, 하얀산길걷기 예쁜눈사람만들기, 설원에서야생을잡아라 인간컬링대회, 추억의눈썰매경주 어린이세발자전거경주, 백기서바이벌게임 전통외줄타기, 시민노래자랑, 북청사자놀이 널뛰기, 팽이치기,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50,000
제7회	종합운동장 설악산 일원	2002. 1.25 ~ 1.26	빙벽등반대회, 하얀산길걷기 설악산최고봉등반대회 눈·얼음조각 거리조성	1,300
제8회	"	2003. 1.26 ~ 1.27	빙벽등반대회, 하얀산길걷기 설악산최고봉등반대회 사진전시회	2,130

구 분	행 사 장	일 시	내 용	참가인원(명)
제9회	"	2004. 2.7 ~ 2.8	빙벽등반대회, 하얀산길걷기 설악산최고봉등반대회, 사진전시회 하얀눈길위 자전거여행, 얼음놀이마당	24,831
제10회	설악산 일원	2005. 1.22 ~ 1.23	빙벽등반대회, 하얀산길걷기, 얼음 · 눈조각전 설악산최고봉등반대회, 사진전시회 하얀눈길위 자전거여행, 얼음놀이마당	21,000

4) 설악하프마라톤대회

산 · 바다 · 호수 · 온처이 어우러진 최고의 휴양 관공도시인 속초시에서는 전국의 달리미들을 초대하여 해마다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설악 벚꽃길 하프마라톤대회

우리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벚꽃을 관광상품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마라톤 동호인들을 매개로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02년도에 4월 14일 처음 개최한 벚꽃축제는 노학동 종합경기장을 출발하여 주변도로를 순환하는 코스로 동호인 개인의 능력에 알맞게 하프(21km), 미니(10km), 건강코스(5km)로 나누어 개최를 하였으며 처음 개최한 행사였지만 지역세에 힘입어 선수만 1,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 입 상 내 역 —

종 목 별	성 명	시 상 내 역			비 고
		1 위	2 위	3 위	
하 프	남 자	필 동 만	최 지 훈	강 주 원	상장, 상금, 트로피 지급
	여 자	김 부 용	박 정 자	신 죽 선	
10㎞	남 자	이 명 근	조 한 복	이 창 선	
	여 자	정 점 미	김 숙 경	홍 미 옥	
5㎞	남 자	박 명 준	이 정 덕	최 주 선	
	여 자	전 추 월	한 미 영	황 재 홍	
특별상	최고령자	–	–	–	속초마라톤, 주수진(77세)
	최연소자	–	–	–	토개공 영동사업단, 신윤섭(6세)
	요나고시	–	–	–	고노카츠지, 고토오사무

※ 단체참가팀 : 15개팀(트로피, 관광기념 액자, 열쇠고리 지급)

— 최근 2년간 기록 —

부문별	등 위	2001년	기 록	2002년	기 록
엘리트 남자	1	Reed, Shane	1 : 45 : 57	Mile Stewart	1 : 45 : 18
	2	horman, Nicholas	1 : 46 : 19	Levi Maxwell	1 : 46 : 22
	3	Metters, Jason	1 : 47 : 10	Marc Lees	1 : 46 : 39
엘리트 여자	1	Tsuchiya, Mar	2 : 06 : 48	Meilssa Ashton	2 : 03 : 31
	2	Shimomuram, N	2 : 07 : 02	Nicole Rayson	2 : 09 : 39
	3	Miyazaki, Yasu	2 : 08 : 53	Jennifre Erskine	2 : 10 : 18

부문별	등 위	2001년	기 록	2002년	기 록
일반부 남자	1	성탁호	1 : 59 : 36	이정휘	2 : 09 : 23
	2	Ka Chow How	2 : 00 : 43	박준규	2 : 16 : 32
	3	홍현기	2 : 02 : 45	이충근	2 : 16 : 49
일반부 여자	1	Bailey, Christin	2 : 14 : 00	김정숙	2 : 27 : 22
	2	이정민	2 : 15 : 43	고정자	2 : 45 : 18
	3	Chi Lau Cheul	2 : 17 : 30	Louise West	2 : 533 : 5

- 행사일시 : 매년 5월
- 행사장소 : 영랑호 범바위 잔디구장
- 코 스
  · 하프(21㎞) : 장천마을 경유 영랑호변 2바퀴
  · 건강(7 ㎞) : 영랑호변 1바퀴
- 참여대상 : 남 녀
- 주 최 : 속초시
- 기 타 : 하프코스는 제한시간 3시간
  건강코스는 제한시간 1시간 30분
- 시 상

【하프】 (단위:천원)

종 목 별	성 별	시 상 내 역	1위	2위	3위	4~6위	7~10위
하 프	남 / 여	트로피, 시상금	300	200	150	100	50

【건강】 (단위:천원)

종 목 별	성 별	시 상 내 역	1위	2위	3위	4~6위
건 강	남 / 여	트로피, 시상금	300	200	150	100

5) 화랑영랑축제

봄 향기가 물씬 풍기기 시작하는 4월이면 영랑호반 일대에는 벚꽃이 만발하기 시작하면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들과 봄 햇살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곤 한다.

영랑호는 신라 화랑인 영랑이 호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풍유를 즐긴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이맘때쯤 펼쳐지는 화랑 영랑 축제는 겨울동안 움츠렸던 심신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즐거움의 장이 되고 있다.

- 행사일시 : 매년 4월경
- 행사장소 : 영랑호반 (화랑도체험관광지, 범바위잔디광장 등)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민예총, 세종예술음악협회, 속초생활체육협의회 등
- 행사내용
  · 체육행사 : 단축마라톤대회, 인라인마라톤대회, 화랑기사대회
  · 문화행사 : 모자(아동)사생대회 및 백일장, 신춘 음악회
  · 체험행사 : 라디엔티어링, 화랑도 체험행사, 전통놀이문화체험, 참여예술 창작한마당, 인라인티어링 강좌, 이벤트행사 등

6) 설악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주니어부와 일반부 · 엘리트부로 나누어 치러지는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는 철인 3종이라 불리는 수영, 싸이클, 마라톤까지 모두 완주하여야 하는 힘든 경기이다.

속초시가 갖추고있는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자연조건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매니아들의 훌륭한 경기장이 되기에 충분하다.

해마다 많은 내 · 외국인의 참여속에 성황리 개최되고 있는 설악 국제 트라이애슬론대회는 수영 1.5㎞, 사이클 40㎞, 마라톤 10㎞를 완주하는 올림픽코스로 극도의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스포츠다.

- 행사일시 : 매년 6월 중순 ~ 7월초
- 행사장소 : 청호동 신수로교 및 청초호 유원지 일원
- 주　　최 : 속초시, (사)대한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
- 승　　인 : ITU & ASTC
- 후　　원 :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

· 스프린트코스(주니어부)
  - 수영 0.75㎞(1바퀴), 사이클 20㎞(3바퀴), 달리기 5㎞(1바퀴)
· 올림픽코스(일반부, 엘리트부)
  - 수영 1.5㎞(2바퀴), 사이클 40㎞(5바퀴), 달리기 10㎞(2바퀴)

○ Iron-Man 코리아트라이애슬론대회

『2002 아이언맨코리아트라이애슬론대회』는 속초시 유사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로 세계 18개국에서 764명의 국내 · 외 선수와 1,000여명의 선수가족이 참가한 대회로 기간중 자원봉사자만도 34개 기관 · 단체에서 1,600여명 참가하였고, 대회 운영요원도 200여명이 참가하는 등 본 대회를 계기로 국내 · 외에 『속초 알리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리시와 시민전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원숙한 시민의식을 보

여주었다.

본 대회는 철인 3종경기라고 하는 트라이애슬론과 경기종목 및 방식은 같지만 거리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초인적 한계를 극복하는 경기라 할 수 있다.

수영(3.8km), 싸이클(180.2km),마라톤(42.195km)로 되어 있으며, 18개국에서 8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의 입상자에게는 하와이에서 개최하는 세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주는 대회로 매우 인기가 높은 대회다.

— 경기 결과 —

부분별	등위	입상선수명	국가별	기록	부문별	입장선수명	국가별	기 록
남 자	1	Raynard Tissink	RSA	05:20:06	여 자	Belinda Granger	AUS	09:43:56
	2	Matt Stephens	AUS	08:53:04		Belinda Hallorn	AUS	09:45:39
	3	Bradiey White	AUS	08:56:07		Andrea Fidher	SUA	09:47:15
	4	Grant Webster	AUS	08:58:29		Susan Peter	AUS	10:00:36
	5	Hideya Miyazyka	JPN	09:00:06		Lynley allison	AUS	10:05:42
	6	Takuya Shibata	JPN	09:05:29		Marissa Robbins	AUS	10:13:35
	7	Makoto Imaeda	JPN	09:13:07		Martna Lang	GER	10:14:53
	8	Petr Vabrousek	CZE	09:16:29		Noriko Yamakura	HPN	11:08:20
	9	Sascha Crutcke	GER	09:17:24		Yvette Vlements	AUS	11:16:59
	10	Justin Granger	AUS	09:21:56		Judit Spirgl	HUN	12:15:11

7) 대한민국음악축제

2004년부터 MBC 10대 기획행사로, 문화방송과 속초시 공동주최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음악축제를 개최 및 공중파 방송을 실시하므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속초시 설악산 일원에서 대규모 음악축제를 매년 개최하므로써 서울 중심 문화행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행사일시 : 매년 7월 중순 ~ 8월 초순
- 행사장소 : 속초시 일원 (청초호 엑스포광장, 영랑호잔디광장, 설악공원 C지구, 속초종합운동장)
- 주　　최 : 속초시, MBC 문화방송
- 후　　원 : 문화관광부, 강원도

8) 해양페스티벌

속초시 최고의 여름 휴양지로 대표되는 속초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속초해양페스티벌은 7~8월의 뜨거운 여름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원한 젊음의 축제로 대중음악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라이브 콘서트 록 페스티벌과 젊은이들의 분출하는 열기를 더해줄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 속초해양페스티벌

양양공항개항, 주5일 근무제 시행, 중앙고속도로 개통, 금강산 육로관광실시 등 여건변화와 접근망 개선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한 사계절 관광인프라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7월말경 4일간의 일정으로 청초호 유원지와 해수욕장, 장사항에서 해변축전, 해양레포츠축전, 해변문화축전, 해양체험축전 등으로 펼쳐지며, 무더운 여름밤 피서객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이벤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기간중에 장사항 횟집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징어맨손잡기는 적당한 바다 수심과 주위경관이 전국에 널리 알려져 전국제일 오징어맨손잡기 행사로 정착되어 있으며 더불어 부대행사로 치루어지는 물속줄다리기가 행사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 행사일시 : 7월 중순~8월초(속초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 행사장소 : 속초해수욕장
- 주　　최 : 속초시
- 후　　원 :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KBS속초방송국, 강릉MBC, GTB강원민방, YBS 영동방송,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설악신문, 시대일보

〈 표 6)1-3-3 〉　　해양페스티벌 개최현황

구 분	행 사 장	일　　시	내　　용	참가인원(명)
제1회	청초호유원지 속초해수욕장 중앙시장 장사항	2001. 7. 23 ~ 7. 26	개 · 폐막식, 축하공연, 정읍사국악단 공연, KBS 특집 해변음악회, 국립국악원 공연, 스포츠탠싱 시범 및 경연, 전국대학생 락 경연대회, KBS 전국노래자랑, 조개파기대회, 전국용카누대회, 바다카약, 이색미니올림픽, 상설칵테일 쇼, 오징어맨손잡기, 물속줄다리기, 이북사투리경연대회, 맥주빨리 마시기, 거리패션쇼 등	100,000
제2회	청초호유원지 속초해수욕장 장사항	2002. 7. 22 ~ 7. 25	개 · 폐막식, SBS 특집 공개방송, 대북공연, 자매도시민속예술공연, 불꽃놀이, 스포츠댄싱 시범 및 경연, 대학생 치어리더 공연, 청소년 힙합댄스 경연, 해변영화제, 비치발리볼 시범 및 대회, 신나는 해저탐험, 해돋이 관광유람선운영, 오징어맨손잡기, 조개파기, 모래조각전, 물속줄다리기, 흙으로 빚는 미래체험	60,000

구 분	행 사 장	일 시	내 용	참가인원(명)
제3회	청초호유원지 속초해수욕장 장사항	2003. 7. 22 ~ 7. 31	개 · 폐막식, KBS 개국기념 공개방송, 정읍시 민속예술공연, 대학생치어리더, 매직쇼, 난타 및 쇼태권, 세계민속춤공연, 스포츠댄싱, 청소년어울림한마당, 한여름밤 해변영화제, 고성방가 도전100곡, 모래조각전, 조개파기, 오징어맨손잡기	130,000
제4회	속초해수욕장 장사항	2004. 7. 27 ~ 8. 2	개 · 폐막식, 퓨전콘서트, 대학생치어리더, 전자현악기, 마술쇼, 스포츠댄싱 경연, 고구려예술단 공연, Rock 공연, 군악대연주, 해변영화제, 수영복 림보게임, 모래조각전, 머드게임, 지압보도 건강걷기대회	160,000
제5회	속초해수욕장	2005. 8. 9 ~ 8. 15	개 · 폐막식, 이미테이션 공연, 인디밴드 공연, 도전 해변가요제, 사랑! Jazz 콘서트, 해변영화제, 타투, 황토체험장, 해양서핑대회	100,000

9)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시원한 동해바다와 설악을 찾는 관광객과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야외로 나온 시민을 위해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지역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여름밤의 문화행사로 힙합댄스, 사물놀이, 품바공연, 색소폰연주 및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및 주민의 많은 관심속에 문화관광의 도시 속초의 야간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행사일시 : 매년 7~8월
- 행사장소 : 청초호 엑스포 상징탑 광장 특설무대
- 주 관 : 속초문화원, 예총속초지부, 민예총속초지부, 갯마당
- 주요내용
  - · 전통국악 상설공연
  - ·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
  - · 퓨전째즈와 함께
  - · 힙합댄스
  - · 군악대와 함께하는 여름밤의 교향곡
  - · 무용인들의 아름다운 몸짓
  - ·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한마당
  - · 한여름밤의 어린이 합창의 향연
  - · 영화상영 등

10) 오징어맨손잡기

속초의 명물, 살아 꿈틀거리는 오징어의 싱싱함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

피서 절정기에 속초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해양페스티벌과 함께 여름축제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오징어맨손잡기는 장사동 사진항 바닷가에서 피서도 즐기며 살아있는 오징어를 직접 삽아 싱싱한 회로 맛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 행사일시 : 7월 중순~8월 초 (속초해양페스티벌 기간중 3~4일간)
- 행사장소 : 장사동 장사항 해변
- 주　　관 : 장사동 청년회 (횟집상가번영회)
- 주요내요
  · 개 · 폐막행사
  · 맨손 오징어 잡기(오징어 시식회)
  · 물속 줄다리기
  · 해변 노래자랑
  · 관광 배낚시 체험
  · 수박씨 멀리뱉기
  · 지역특산물 판매전

11) 설악문화제

설악문화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산악제례의식을 변화 발전시킨 향토 축제로, 고대의 제천행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김부식의『삼국사기』에는 설악산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三山五岳 已不名山川 分僞大中小 · · · 小祀 · · · 雪岳淫城郡 · · ·

신라시대 때는 삼산오악(三山五岳)이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그 규모로 나누어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를 지냈는데, 그 중 설악산이 소사를 지냈다.

『三國史記』卷 32 雜誌 第1祭祀條

이 기록은 강원도내에서 문헌상 드러난 가장 오래된 제례행사이며, 삼국통일 기원의지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설악문화제는 1966년 속초예총이 주축이 되어 산신제와 등반행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현재의 문화축제로 되살아난 향토축제이다. 설악제 행사는 처음 예술행사로 기획되었다. 이를 처음 개최한 사람은 예총 속초지부의 최구현

지부장이었다.

최구현은 사진 작가로 설악산 관광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설악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1회 설악제를 개최하게 된다. 강원예술제를 겸한 제1회 설악제는 1966년 10월 1일과 2일 이틀간 설악동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이 행사에 참석하여 등반길에 나섰던 한국산악회원(인솔자 이기섭) 262명은 2일밤 설악산 대청봉을 등반한 후 3일 새벽 하산하다 폭우를 만나 대피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이들은 하산 도중 계곡물이 불어 160여명은 내설악 안전지대로 대피했으나, 나머지 102명은 비선대 부근에서 물이 불어 하루를 지샌 뒤 4일 새벽 날이 밝자 하산하기 시작해 오전 10시 신흥사에 전원 무사히 도착했다. 이런 행사의 성격은 3회까지 그대로 이어지다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산악인들에 의해 개최되었고 제17회 설악제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되었다. 이후 24회부터 민간주도로 집행되고 있으며, 1996년도에 설악제에서 설악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순수 문화 축제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현재 40회에 이른다.

설악문화제의 개최의의는 향토문화 축제의 성격을 강화하여 순수문화축제로 정착시키고, 축제분위기를 쇄신, 정통성 확보와 주민일체감을 조성하며 고유문화(산악, 해양, 실향민문화)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있다. 또한 민족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 예술과 향토문화의 특성을 부각하여 차별화 및 특성화된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설악문화제의 주요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 악 제 례 : 통일대제, 산신제, 용왕제, 제등행렬 및 삼신합동제, 제례굿 · 민속굿, 조전제, 송신제

나) 설악산악제전 : 산악인추모제, 단풍축제등산대회 및 한마음큰잔치

다) 해양문화제전 : 범선경기, 로프던지기, 든대질놀이, 오징어할복경기, 어선승선체험, 오징어불고기 시식

라) 통일염원제전 : 통일염원의 밤, 갯배끌기대회, 통일풍선 나눠주기, 이북음식 전시 및 시식

마) 청소년문화축전 : 전국청소년 풍물겨루기한마당, 강원도청소년댄싱경연대회,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바) 설악예술축전 : 거리시화전, 설악아동화 거리축제, 설악서예백일장, 속초사진협회전시회, 설악가요제, 도자기체험교실, 분재전시회, 꽃꽂이전시회, 우리꽃전시회, 야생꽃누르미전시회

사) 향토민속축전 : 도문메나리농요시연, 마상무예 · 조선세법시연,
도리원농악시연, 씨름대회, 그네타기대회, 궁도대회
동대항 떡매치기, 자통놀이, 시민강좌발표회

〈 설악문화제 개최의 의의 〉

- 향토문화 축제의 성격강화, 순수문화축제로 정착
- 축제분위기 쇄신, 정통성 확보와 주민일체감 조성
- 고유문화(산악, 해양, 실향민문화)이미지 부각
- 민족통일 분위기 조성 : 통일을 주제로 한 행사의 개최
- 전통문화 예술의 특성 부각 : 축제의 전통성, 역사성 확보
- 향토문화의 특성부각 : 차별화 및 특성화된 축제로 승화
- 축제의 문화상품화 : 체험 및 교육형 축제로의 전환

12) 학사평 순두부 축제

미시령을 넘어 속초의 관문인 학사평 순두부 마을에서 순두부 축제를 개최한다.

인체에 이로운 콩의 효능을 알리고, 다양한 두부요리를 통해 그 맛과 영양을 뽐내는 시연과 동시에 다채로운 민속 문화체험행사와 민속공연 행사를 선보임으로 학사평 순두부을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

- 행사일시 : 매년 10월경
- 행사장소 : 강원도 속초시 학사평 순두부촌 일대
- 주　　관 : 학사평 순두부축제 운영위원회
- 주요내용
  · 공식행사 : 식전행사, 개막식, 폐막식
  · 공연행사 : 농악대, 사물놀이, 축하공연, 락공연, 학사평장기자랑, 매직쇼
  · 체험행사
    * 순두부 · 모두부 무료시식회, 순두부 OX퀴즈, 두부콩 갈기대회,
      두부요리 경연대회
    * 두부버거 요리대회, 두부 빨리먹기대회, 두유 빨리마시기,
      멧돌장사 선발대회
    * 모두부 높이쌓기대회, 풋콩 구워먹기, 키질하기,
      삶은콩 절구로 빨리 찧기
    * 메주 예쁘게 만들기, 찰떡 절구로 찧어 만들기 등

13) 설악의 미니콘서트

여름성수기철 속초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속초시민과 하나되어 즐겁고 유익한 휴가가 되게 하기 위해 속초해수욕장과 시내권에 인접해 있는 청초호유원지 내 엑스포상징탑광장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 행사일시 : 매년 7월~8월경
- 행사장소 : 엑스포 상징탑 광장
- 주　　최 : 속초시

14)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설악산 일대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야초 등을 이용하여 지역소득화 사업과 연계해 나가기 위한 전시회가 가을철 이벤트로 매년 설악문화제 기간중 청초호 유원지에서 동시 개최되고 있다.
전시회를 통해 청소년과 도심의 일반인에게 설악 자생화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특히 700여명이 참가하는 초등학교 사생대회는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 민속 · 신앙

1) 북청사자놀음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의 고유민속놀이(토성관놀이, 오매벌달놀이, 횃불싸움, 북청사자놀음)중 독특하고 희귀한 민속이다.

이것은 남한에서 속초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지며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받았다. 속초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유는 속초의 지역적 특성때문이다. 1957년 정월대보름날 북청을 떠난 실향민들에 의해 처음 악귀를 쫓는 놀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시내 유지들이 약간의 기금을 모으게 되었고 이듬해인 1958년 그당시 속초읍장인 전성우로부터 현 중앙동 소재의 읍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근 1년간 이정기(李貞基)를 비롯한 서른 여섯명의 북청인들이 갖은 고생끝에 산허리를 깍아내어 북청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북청군청을 세우게 되었다.

이곳에서 김수석(金壽石)을 중심으로 몇 몇의 북청사람들이 향수를 달래며 사자놀음을 놀기 시작하자 이북 5도청에서 1960년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발족시키고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수시키기가 시작하게 됨에 따라

남한에서는 속초지방이 북청사자놀음의 시발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청사자놀음은 외세에 대한 항거와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로 인해 지배층으로부터 버림받아 온 수난의 민속이나 지금은 마귀를 쫓아내고 1년 중의 화평과 행복을 맞아들이는 행사로 매년 정월 대보름을 기하여 음악에 맞춰 춤과 노래를 즐기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행하는 향토민속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놀이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북청인들의 애달픈 몸부림을 찾아볼 수 있다.

2) 속초산대놀이

속초지방은 예로부터 생활터전이 바다이므로 어업에 대한 민속이 많이 전하여지는 곳이다.

그중 엄격한 규율과 금기사항, 힘든 조업과 오랜 선상생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어소리(노젓는 소리), 다리어 소리(그물 당기는 소리), 산대소리(가래푸는 소리), 베끼소리(고기벗기는 소리) 등 많은 노래를 불러왔다. 사공(선장)과 허리도리(선소리꾼)를 주임으로 어부들이 호흡을 맞춰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신명이 절로 나게 되는데 산대소리는 그 구성이 크고 웅장하며 베끼소리는 4/4박자의 경쾌한 음조로 뱃소리의 극치를 이룬다.

지방마다 뱃소리는 잡담(사설)이 풍부하고 강직한 것이 특징이다. 속초지방은 강원도 지역이면서도 함경도의 풍속들이 교차되는 지역으로 뱃소리 또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뱃소리의 구성은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뱃소리는 없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조, 고사(故事), 판소리, 패설 등을 사설로 삽입된 것이며 정형없이 늘 부르던 사설을 그때그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거시 판소리나 기타 농요에 비하여 다른 것이 특징이다. 사설내용은 어부들의 희비애락을 노래한 것이 거의 전부이다.

3) 대포성황제

대포는 영북지역 최고의 어업 전진기지인 대포항을 중심으로 내물치와 대포, 외옹치리 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중 극소수의 농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며 주민 대다수가 이 고장에서 출생한 주민들로서 가업인 어업을 천직으로 알고 소득증대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이 지역 주민들은 예로부터 출어시의 무사한 조업과 풍어,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부락마다 산천이 수려한 곳에 성황당을 짓고 해마다 부락별로 성황제를 올리는 풍습이 오늘날까지 전하여 오고 있다.

대포지역의 성황제는 마을주민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대소사를 협의하며 지난 한해의 애환을 돌이키고 명년의 풍어와 풍년을 기약하며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왔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장 속초시의 관광시설 현황

먼저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의 개념을 정리하고 관광시설현황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관광자원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의 관광욕구와 관광동기의 대상이며, 관광행동의 목표물인 자연적 · 인위적, 유형 · 무형의 모든 관광대상을 가리켜 말한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학문적인 용어로 관광객체라고 부른다면, 관광객체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관광객 즉, 관광주체라고 한다. 여기에서 관광시설이라 함은 광의의 관광자원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광시설은 다시 관광대상지역의 모든 시설을 지원하는 상수, 하수, 배수, 도로, 통신, 전기, 연료, 위생, 보건, 직업교육, 종사원 주거, 경찰서, 소방서, 공원 및 위락시설, 주차, 쓰레기 처리 등의 각종 하부시설(Ifrastructure)과 관광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숙박, 식음료, 각종 소매상 등의 상부시설(Superstructure)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상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만을 관광시설로 표현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관광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로서 교통시설, 숙박시설, 휴식시설, 식사시설, 안내와 접대시설 등이 있고 부대시설로서 매점시설, 레크레이션시설, 경기시설, 관람시설, 환경위생시설, 보건요양시설, 문화교양관계시설 및 산업경제관계시설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상의 제반 관광시설은 영업적으로서 기업이 경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관광사업의 주체가 되고 있으니 개개의 입지조건 등을 검토하여 가장 유효한 방향으로 충분히 조정,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적서비스 문제도 관광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관광법규(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속초시의 주요 관광시설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숙박시설

1. 관광호텔

가. 설악산 관광호텔

1) 위　　치 : 속초시 설악동 170

2) 객 실 수 : 44실
3) 부대시설 : 커피숍, 식당, 칵테일 라운지, 쇼핑센타
4) 등록일자 : 1975년 1월 29일
5) 건축면적 : 3,020㎡
6) 등　　급 : 2등급
7) 연 락 처 : 033) 636-710

나. 켄싱턴호텔

1) 위　　치 : 속초시 설악동 74-3
2) 객 실 수 : 108실
3) 부대시설 : 연회장3실, 한 · 일식당, 커피숍, 양식당, 나이트크럽, 스카이라운지, 성인오락실
4) 등록일자 : 1979년 5월 22일
5) 건축면적 : 11,170㎡
6) 등　　급 : 특2등급
7) 연 락 처 : 033) 635-4001

다. 설악파크호텔

1) 위　　치 : 속초시 설악동 74-3
2) 객 실 수 : 121실
3) 부대시설 : 한 · 일식당, 양시당, 연회장6실, 칵테일 바, 커피숍, 카지노, 토산품점, 이 · 미용실, 성인오락실, 바베큐장
4) 등록일자 : 1980년 5월 9일
5) 건축면적 : 16,326㎡
6) 등　　급 : 특2등급
7) 연 락 처 : 033) 636-7711

라. 속초비치호텔

1) 위　　치 : 속초시 중앙동 478-19
2) 객 실 수 : 70실
3) 부대시설 : 양 · 한식당, 커피숍, 제과점, 미장원, 청소년오락실, 나이트클럽, 성인오락실

4) 등록일자 : 1990년 11월 21일
5) 건축면적 : 4,907㎡
6) 등　　급 : 1등급
7) 연 락 처 : 033) 631-8700

마. 블루마린관광호텔

1) 위　　치 : 속초시 금호동
2) 객 실 수 : 60실
3) 부대시설 : 커피숍, 나이트클럽, 성인오락실
4) 등록일자 : 2001년 12월 29일
5) 건축면적 : 5,383㎡
6) 등　　급 : 미결정
7) 연 락 처 : 033) 638-9900

2. 휴양콘도미니엄

가. 현대훼미리타운

1)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산 252-29
2) 규　　모 : 지하1층, 지상10층
3) 객 실 수 : 477실
4) 부대시설 : 볼링장, 실내수영장, 눈썰매장, 식당, 세미나실, 스카이라운지, 테니스장, 탁구장
5) 등록일자 : 1993년 6월 2일
6) 연 락 처 : 033) 635-9070

나. 한국콘도미니엄

1) 위　　치 : 속초시 설악동 59-1
2)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3) 객 실 수 : 52실
4) 부대시설 : 수퍼마켓, 토산품점
5) 등록일자 : 1983년 7월 21일
6) 연 락 처 : 033) 636-7661

다. 설악한화 본관

1) 위　　치 : 속초시 장사동 24-1
2) 규　　모 : 190만㎡(약 58만평) 지하1층, 지상 5층
3) 객 실 수 : 768실
4) 부대시설 : 그릴, 커피숍, 수퍼마켓, 토산품점, 이용실, 미용실, 당구장, 탁구장, 전자오락실, 관광안내소, 어린이놀이터, 롤러스케이트장, 운동장
5) 등록일자 : 1985년 4월 15일
6) 연 락 처 : 033) 635-7711

라. 설악한화별관

1) 위　　치 : 속초시 장사동 24-1
2) 객 실 수 : 796실
3) 부대시설 : 수퍼마켓 등
4) 등록일자 : 1989년 7월 24일
5) 건축면적 : 63,681㎡
6) 연 락 처 : 033) 636-7711

마.설악리조트 레저타운(주. 코레스코)

1) 위　　치 : 속초시 놀학동 산252-29번지
2) 객 실 수 : 152실
3) 부대시설 : 커피숍, 양식당, 스넥코너, 한식당, 수퍼마켓, 남·여사우나, 오락실, 연회장, 수영장
4) 등록일자 : 1991년 2월 1일
5) 건축면적 : 13,976㎡
6) 연 락 처 : 033) 636-8040

바. 설악 파인리조트(주. 파인리조트)

1)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산252-32
2) 객 실 수 : 141실
3) 부대시설 : 커피숍, 수퍼마켓, 실내수영장, 야외온천, 사우나, 노래방, 오락실, 한식당, 연회장, 토산품점
4) 등록일자 : 1991년 7월 29일

5) 건축면적 : 18,363㎡
6) 연 락 처 : 033) 635-5800

사. 사조마을 설악

1)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456-2번지
2) 객 실 수 : 219실
3) 부대시설 : 커피숍, 노래방, 오락실, 연회장, 한식당, 양식당, 볼링장
4) 등록일자 : 1991년 9월 10일
5) 건축면적 : 20,903㎡
6) 연 락 처 : 033) 631-9631

아. 설악웰컴콘도미니엄

1) 위　　치 : 속초시 조양동 1401
2) 객 실 수 : 114실
3) 부대시설 : 사우나, 연회장, 한식당, 커피숍, 볼링장, 나이트클럽,
이 · 미용실
4) 등록일자 : 1995년 3월 2일
5) 건축면적 : 16,185㎡
6) 연 락 처 : 033) 631-8711

자. 영랑호리조트

1) 위　　치 : 속초시 금호동 600-7번지
2) 객 실 수 : 200실
3) 부대시설 : 해수사우나, 한식당, 토산품점, 골프장, 테니스코트,
오락실, 당구장, 수퍼마켓
4) 등록일자 : 1996년 7월 27일
5) 건축면적 : 16,416㎡
6) 연 락 처 : 033) 633-0001

차. 레익스빌 영랑호

1) 위　　치 : 속초시 금호동 600-7

2) 객 실 수 : 60실
3) 부대시설 : 식당, 매점, 수영장, 골프장, 테니스코트, 오락실, 당구장
4) 등록일자 : 1984년 8월 3일
5) 건축면적 : 4,607㎡
6) 연 락 처 : 033) 633-0001

카. 동해콘도미니엄

1) 위　　치 : 속초시 대포동 산 73-2번지
2) 객 실 수 : 62실
3) 부대시설 : 식당, 오락실, 매점
4) 등록일자 : 1996년 5월 29일
5) 건축면적 : 6,921㎡
6) 연 락 처 : 033) 635-9631

타. 연호콘도미니엄

1)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416-1
2) 객 실 수 : 119실
3) 부대시설 : 수퍼마켓, 커피숍, 스넥코너, 볼링장, 오락실, 당구장,
노래방, 비디오숍, 토산품점, 나이트클럽
4) 등록일자 : 1997년 12월 17일
5) 건축면적 : 14,153㎡
6) 연 락 처 : 033) 635-7118

파. 금호설악콘도미니엄

1)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795-1
2) 객 실 수 : 247실
3) 부대시설 : 식당, 오락실, 토산품점, 볼링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세미나실
4) 등록일자 : 1997년 5월 7일
5) 건축면적 : 28,409㎡
6) 연 락 처 : 033) 636-6000

3. 가족호텔

가. 설악교육문화회관

1) 위　　치 : 속초시 도문동 155번지
2) 객 실 수 : 74실
3) 부대시설 : 일반식당, 단체식당, 체육실, 오락실, 탁구장, 매점, 회의실
4) 등록일자 : 1996년 2월 1일
5) 건축면적 : 8,508㎡
6) 연 락 처 : 033) 639-8100

나. 호텔 굿모닝

1) 위　　치 : 속초시 조양동 1432-1번지
2) 객 실 수 : 88실
3) 부대시설 : 비즈니스클럽, 한시당, 가라오케, 마트, 노래방
4) 등록일자 : 2003년 7월 21일
5) 건축면적 : 4,987㎡
6) 연 락 처 : 033) 637-9900

제2절 종합휴양업

1. 설악워터피아

가. 등록일자 : 1997년 7월 16일
나. 부지면적 : 0.199㎢
다. 주요시설 : 유기장, 온천장
라. 연 락 처 : 033) 635-7711

제3절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1. 한국관광공사 속초항 면세점

가. 등록일자 : 2002년 1월 26일
나. 대 표 자 : 한국관광공사 조홍규
다. 부지면적 : 57.98㎡
라. 주요시설 : 주류, 인삼류, 연초류, 기념품, 칠기류, 화장품, 피혁류, 액세서리, 기타
마. 연 락 처 : 033) 633-6179

제4절 관광식당업

1. 그배호텔스카이라운지

가. 위　　치 : 속초시 대포동 790-14
나. 대 표 자 : 한 옥 분
다. 전문음식 : 미국식(양식)
라. 면　　적 : 208㎡
마. 지 정 일 : 1998년 2월 16일
바. 연 락 처 : 033) 635-6644

2. 설악프라자컨트리클럽

가. 위　　치 : 속초시 장사동 11
나. 대 표 자 : 김 관 수
다. 전문음식 : 미국식(양식)
라. 면　　적 : 886㎡
마. 지 정 일 : 1999년 12월 7일
바. 연 락 처 : 033) 635-7711

제5절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가. 프라자랜드

1) 위　　치 : 속초시 장사동 24-1번지
2) 대 표 자 : 김 관 수
3) 시설내역 : 럭비카 등 32기종
4) 허 가 일 : 1985년 5월 4일
5) 연 락 처 : 033) 635-7711

2. 일반유원시설업

가. 속초엑스포월드

1) 위　　치 : 속초시 조양동 1555-1
2) 대 표 자 : 김 희 석
3) 시설내역 : 바이킹 등 10기종
4) 허 가 일 : 1999년 9월 22일
5) 연 락 처 : 033) 636-7771

제6절 삭 · 궤도업

1. 설악산 케이블카

가. 면 허 일 : 1970년 10월 12일
나. 시설내역 : 수 량 1기 / 거 리 1,127m / 정 원 70명
다. 연 락 처 : 033) 636-7632

제7절 카지노업

1. 설악파크호텔카지노

가. 대 표 자 : 제원산업관광개발 박 영 희
나. 호텔등급 : 특2등급
다. 소 재 지 : 속초시 설악동 74-3
라. 시설면적 : 448㎡
마. 시설내역 : 룰겟등 5종(12점)
바. 연 락 처 : 033) 636-1236

제8절 체육시설업

1. 골프장

가. 설악프라자컨트리클럽

1) 등록일자 : 1984년 7월 26일
2) 부지면적 : 0.698㎢
3) 홀　　수 : 18홀
4) 연 락 처 : 033) 635-7711

나. 레익스빌 골프클럽

1) 등록일자 : 1996년 10월 22일
2) 부지면적 : 0.085㎢
3) 홀　　수 : 9홀
4) 연 락 처 : 033) 633-0001

제9절 여행업체

1. 국외여행업

가. (주)온누리여행사

1) 대 표 자 : 석 기 동
2) 소 재 지 : 속초시 동명동 466-30
3) 등 록 일 : 1995년 8월 26일
4) 연 락 처 : 033) 631-5001

나. (주)설악항공여행사

1) 대 표 자 : 황 정 옥
2) 소 재 지 : 속초시 동명동 257-4
3) 등 록 일 : 1996년 12월 16일
4) 연 락 처 : 033) 636-2271

다. (주)설악산여행사

1) 대 표 자 : 김 택 광
2) 소 재 지 : 속초시 동명동 257-4
3) 등 록 일 : 1997년 11월 21일
4) 연 락 처 : 033) 637-5861

라. 상우관광(주)

1) 대 표 자 : 유 충 수
2) 소 재 지 : 속초시 조양동 1420-35
3) 등 록 일 : 1999년 7월 27일
4) 연 락 처 : 033) 631-5600

마. (합)뉴통일관광

1) 대 표 자 : 이 성 영
2) 소 재 지 : 속초시 교동 620-32

3) 등 록 일 : 2000년 9월 5일
4) 연 락 처 : 033) 637-3001

바. (주)파고다여행사

1) 대 표 자 : 정 연 성
2) 소 재 지 : 속초시 조양동 1412-1
3) 등 록 일 : 2001년 4월 1일
4) 연 락 처 : 033) 638-0011

사. 굿타임여행사

1) 대 표 자 : 어 우 영
2) 소 재 지 : 속초시 중앙동 479-3 장안갤러리 4층
3) 등 록 일 : 2001년 8월 28일
4) 연 락 처 : 033) 637-7600

아. 설악신협여행사

1) 대 표 자 : 장 기 봉
2) 소 재 지 : 속초시 동명동 466-57
3) 등 록 일 : 1993년 7월 1일
4) 연 락 처 : 033) 631-8181

자. 아시아항공여행사

1) 대 표 자 : 김 은 경
2) 소 재 지 : 속초시 교동 664-222
3) 등 록 일 : 2002년 5월 18일
4) 연 락 처 : 033) 638-0113

2. 국내여행업

가. 통일여행사

1) 대 표 자 : 이 영 철

2) 소 재 지 : 속초시 교동 620-32 현대쇼핑프라자 B-4
3) 등 록 일 : 1998년 8월 31일
4) 연 락 처 : 033)636-8269

나. (주)글로리랜트여행사

1) 대 표 자 : 장 윤 환
2) 소 재 지 : 속초시 조양동 1411-146
3) 등 록 일 : 2001년 4월 1일
4) 연 락 처 : 033) 635-3700

제5장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

제1절 엑스포의 정의와 기원

1. 엑스포의 정의

엑스포는 엑스포지션(Exposition)의 앞부분에서 따온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박람회로 부르고 있다. 박람회의 사전적 의미는 『농 · 공 · 상업 등에 관한 온갖 물품을 많은 사람에게 관람시켜 생산물의 개량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대회』라고 정의돼있다. 그리고 1928년 체결된 국제박람회 조약에 의하면 박람회란 명칭이 무엇이든지 일반대중의 교육과 계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류의 노력에 의하여 성취된 발전성과를 전시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의돼 있고 새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박람회는 단순한 상거래(Market) 차원의 상품전시와 판매가 아니고 인류문명이 오랜 옛날부터 현재까지 이룩한 모든 분야의 발전모습과 기술 · 양식 등을 한곳에서 전시함으로써 한 시대가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발전 가능한 인류의 미래상을 조망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세계문화와 정보 교류 그리고 인류 상호간의 이해증진은 물론 인류공여의 기틀을 다지는 화합 · 번영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왔다.

박람회의 종류에는 개최규모와 성격, 주제와 취지, 참여규모 등에 따라 지방박람회, 국제박람회, 산업박람회, 무역박람회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나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인류가 이룩한 성과물 중에서 '관광'이라는 단일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전문박람회(Special Exposition)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 엑스포의 기원

서양의 경우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의 「富의 전시」가 효시로서 인도에까지 영역을 넓힌 페르시아 왕국의 아파스페로스 왕이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던 각국의 귀족과 방백들을 불러모아 80일간에 걸쳐 잔치를 베풀고 온갖 상품을 전시하였다고 문헌에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양의 경우에는 서기 610년경 중국 수나라 양제가 수도 장안에서 각국의 사절단을 초청하여 각종 연주회, 공연,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는 문헌이 전

해져 이를 엑스포의 효시로 보고 있다.

근대의 엑스포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유럽에서 태동되었다. 최초의 엑스포는 1756년 영국 왕립 예술협회가 주최한 「산업박람회」로, 그 이후 약 140여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1928년 프랑스를 주축으로 박람회국제사무국(BIE)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박람회에 참가한 기록을 보면 1883년 미국 보스턴엑스포가 최초였다고 하나 확실치 않고, 고종 26년인 1889년의 파리만국박람회에 갓, 모시, 돗자리, 가마 등을 출품한 것이 최초라고 전해지고 있다. 4년후인 1893년 외교선교사의 주선으로 시카고엑스포에도 참가하였으나 본격적으로 현대적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무역진흥기관인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설립된 1962년 이후의 일이다.

1993년에 개최된 대전엑스포는 우리나라 최초의 BIE 승인박람회인 전문박람회였다. 전통기술과 첨단기술을 전시하여 인류의 현재와 미래상을 조명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최로 '95 광주비엔날레, '97고양세계꽃박람회, '98제주섬문화축제,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린 바 있다.

3. 엑스포의 사회 · 경제적 기능

19세기 국제박람회는 전시물에 의한 각국의 생산력과 문화의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시장개척이 기본목표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무역시장이 확대되자 국제견본시가 성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박람회의 견본시적 성격은 점차 사라지고, 그대신 각국의 문화와 발달된 기술 전시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최근의 엑스포는 전세계적인 경제 · 과학 · 기술제전으로 세계적인 협력과 화합, 번영의 장인 동시에 세계 각국의 경제력 · 과학기술력의 경연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엑스포 개최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새로운 문물을 접촉함으로써 국민의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이를 계기로 국가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

제2절 엑스포 개최배경

1. 취지와 배경

강원도는 우리나라 관광의 1번지로 연중 관광객이 4천만명이나 되지만 이중 외국관광객은 불과 1~2%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강원관광이 국제화 시스템으로 우선 전환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수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전략의 재구축과 관광관련 업체를 비롯해 전 도민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대전환, 즉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가 선결과제였다.

또한 관광1번지의 위상을 다지기 위해 기존의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의 개발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급선무였다. 강원도의 지역경제 중 관광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 총생산의 26.6%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보이고 있었으며 고용면에서도 그 비중이 20.6%를 차지해 취업인구 5인당 1명이 관광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강원도 지역경제 발전의 선두에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선도산업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육성돼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강원도는 강원관광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전세계에 강원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를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전 도민이 결집된 발전 역량을 확인하는 기회와 지역발전에 새로운 승수효과를 일으키는 정책을 구성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라는 프로젝트였다.

이에 속초시도 설악산, 영랑호, 청초호, 동해바다 등 천혜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시설, 청초호 유원지의 입지적 조건을 내세워 '99강원국제관광 엑스포 유치와 개최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설악권의 「한국관광의 1번지」일뿐 아니라 「세계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는 결론하에 강원도는 속초시의 강력한 국제행사 유치의지를 재확인하고 결국 관광엑스포의 개최지를 속초 청초호유원지 일대로 결정 추진하게 됐다.

2. 추진경위

1995년 12월 엑스포 개최입안 당시에는 『강원국제관광박람회를 98년 9월 고성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연다』는 추진계획 시안으로 수립되었고, 본격

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정부가 착안하고 추진하는 지방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1996년 1월 26일 청와대 세계화추진위원회 보고회에서 환동해권 카르텔 전략과 함께 개최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표하면서 시작됐다.

관광엑스포 개최를 위한 자체 기본계획이 1996년 4월 완성되었는데,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시기가 당초 1998년 9월 예정이었던 것을 이 해에 프랑스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이 열리게 됨에 따라 행사 집중도가 떨어져 성공의 확신이 없었고, 준비기간 또한 너무 촉박해 당초보다 1년 연기한 1999년 9월 11일부터 50일간 속초 청초호일대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기본구상(안)을 민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

또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한국관광공사 등 중앙과 강원도가 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중앙 관계부처의 지원 ·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1999년 속초에서 개최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선포식이 1997년 4월 16일 오후 2시 국내외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엑스포 경과보고와 엑스포 심벌소개, 관광엑스포를 소개하는 멀티큐브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관광엑스포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1997년 6월 24일 오전 11시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개최됐고 이날 회의에서 조직위원들은 조직위원회 정관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997년 8월 9일 엑스포지원육성조례를 강원도조례로 제정 공포했으며 1997년 8월 2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어 9월 18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재단법인 등기를 받았다.

1997년 10월 25일 엑스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가 담긴 마스터플랜을 완료했으며 1997년 10월 강원도종합행정지원본부(12개부 24개반)와 도내 62개 유관기관 · 단체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엑스포 지원조직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1997년 11월 7일 엑스포 조직위의 10개 규정과 9개 규칙을 제정했으며 1998년 4월 13일 문화예술, 디자인 · 연출, 홍보, 법률분과 등 4개 분과 21명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엑스포를 대비해 개최지인 속초시도 1997년 12월 5일 10부 38개반으로 속초시 종합행정지원본부를 발족시키고 운영체제에 들어갔다.

이어서 속초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속초시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이 1998년 4월 6일 2과(지원과, 운영과) 6계(기획관리계, 행사지원계, 홍보

계, 운영지원계, 기반조성계, 시설장비계) 24명으로 발족되었고, 행사장 인근 舊경향공업사 건물을 사무실로 마련하여 1998년 4월 13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998년 6월 10일엔 관내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 단체 지원협의회가 구성됐으며, 1998년 11월 14일 순수 민간차원의 후원조직인 속초시시민후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각종사업과 후원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회장내의 영구시설인 주제관과 상징탑은 각각 1998년 6월과 10월에 성대한 기공식을 가지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갔고, 대회장부지조성 및 접근도로망 확충 등 관련사업을 계획된 기간내에 알뜰히 마무리함으로써 99년 9월 11일 대망의 관광엑스포 개막을 하게 되었다.

3. 개요

가. 주관 : 강원도
- 주최 :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
- 후원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한국관광공사, KBS,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PATA)

나. 주제 :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 (Man, Nature and Life of the Future)

다. 부제 : 만남과 대화 그리고 새로운 발견 (Seeing Communication and Exploration)

라. 기간 : '99. 9. 11(토) ~ 10. 30(토), 50일간

마. 장소 :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일원(124,000평)

바. 참가 : 국내외 지방정부 및 민간 관광기업체 (60개국 78개 지방정부)

사. 관광상품 전시 · 교역 및 관광관련 이벤트
- 전시회 : 참가업체 관광상품 전시연출
- 교역전 : travel trade, 관광용품 교역 등
- 관광행사 : 네셔널위크, 거리축제, 문예행사 등

제3절 엑스포 운영결산

1. 운영개관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세계60개국 78개 지방정부와 국내 34개 지방자치단체, 80여개 기업체가 참가해 대전엑스포 이래 국내 최대의 국제행사를 지방의 주관하에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다.

세계 60개국이 전시에 참가했고 24개국이 공연행사에 참가했다. 또한 해외의 주요 인사들이 엑스포장을 방문했으며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단위에서 광범위한 국제관광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대회장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이 확보돼 전국 지자체의 견학장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치밀한 준비와 운영으로 지방단위 행사의 표준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운영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우선 지하1층 · 지상 4층 규모의 주제관에서는 대형 영상 영화를 대회기간 중 하루 15회씩 상영해 약 36만명의 관람실적을 올렸고, 또한 높이 73.4m 규모의 상징탑은 대회기간 중 약 1백50만명의 전망타워 이용승객 실적을 기록했다.

엑스포 기간동안 총 18개의 전시관이 운영됐다. 주제관, 한국관, 강원도관 등 자치단체 전시관이 3개며 환동해권, 국제1 · 2 · 3관 등 국제관이 4개, 기업독립관 · 기업공동관 등 기업관이 5개, 세계등불전시관 · 문예전시관 · 레고 체험관 · 문화체험관 · 참소리 에디슨 박물관 · 환경관 등 기획전시관이 6개였다. 특히 국제관은 각국의 지방정부별 주요 관광지와 풍물 소개와 우수한 관광상품이나 문화생활상을 소개했다.

기업독립관은 현대 금강산과, 삼성 디지틀 존, 두산 초록생명관을, 기업전시관은 국내 관광레저 장비관련 51개업체가 참가한 관광레저 장비 전시관과 국내 관광관련 18개업체가 참가한 관광정보관을 운영했다.

엑스포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는데 개막제 등 공식행사 3종, 엑스포 마당놀이, 거리퍼레이드, 청초호 멀티미디어 쇼 등 테마행사 3종, 러시아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캐릭터 쇼, 거리축제, 발로 피아노 치기, 거리의 화가, 투데이 페스티발 등 상설축제 행사 11종, 난타 '99, 호주 스트렌지푸르트, 몽골의 아크로바틱 공연 등 특별축제 행사 3종과 엑스포 가수왕 선발대회, '99창무예술제, 전국 대학 응원단 축제, 서울 바로크 합주단 연주 등 특별 초청행사 15종 등 총 35종이 열렸다.

또한 내셔널데이 공연이 22개국 29개 단체가 참가해 열렸고 16개 시 · 도

의 날, 강원도내 18개 시 · 군의 날 행사도 개최됐다.

대회 막바지 무렵인 1999년 9월 28일 엑스포 광장에서 제26회 관광진흥촉진대회가 열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들이 대회장을 찾기도 했다.

엑스포 대회장은 매일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8시에 폐장했다. 개장시간은 관람대기 인원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대회장 북측, 동측 게이트 17개소에 안내요원 69명을 배치해 출입구를 관리했으며 특히 외국인과 무료입장자를 위한 전용게이트를 운영했다.

대회 입장객은 내국인 2,208천명(97.6%)과 외국인 53천명(2.4%) 등 총 2,261천명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45천명이 입장한 셈이다.

안내센터를 운영해 관람객에게 서비스했으며 미아보호센터, 장애인 및 노약자 센터, 분실물 센터를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고, 진료소와 은행, 우체국, 세관, 경찰서 등 공공서비스 시설도 설치 운영했다.

안내 · 통합관리요원 228명, 전문도우미 98명, 운영요원(자원봉사)163명, 지원 · 파견 122명, 용역대행 210명 등 대회운영을 위해 하루 총 821명의 인력을 운영 관리했다. 또한 대회 안전관리를 위해 129명의 전문경비요원을 배치했으며 임시소방서, 재난대비 상황실, 안전통제실 등을 운영했다. 임시 약국과 후송병원 지정 운용, 공식 보험사로 국제화재를 선정해 운용하기도 했다.

대회장의 청결관리를 위해 용역사로 하여금 청소전담반을 배치해 운영했으며 특히 대회장 순회 청소반을 자원봉사자로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대회장 방역도 주2회 이상 실시했고 식품위생 점검반을 2개조 5명으로 편성해 상주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의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대회중 엑스포를 방문한 국내인사 236명(일행포함 6,275명)과 외국인사 56명(일행포함 753명)의 의전 업무를 수행했다.

2. 엑스포 운영 예산결산

가. 엑스포 재정운용

1) 재원조성

엑스포조직위 주관의 대회운영 재원은 48,790백만원으로 국비 8,961백만원, 특별교부세 6,500백만원, 도비 14,435백만원, 자체수입 18,894백만원이었다.

○ 중앙정부 지원

국비지원은 주로 주제관건립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총 8,961백만원이 지원되었고('97년도 2,000백만원, '98년도 2,961백만원, '99년도 4,000백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총 6,500백만원이 지원되었다.('97년도 2,000백만원, '98년도 2,000백만원, '99년도 2,500백만원) 따라서, 엑스포 개최를 위해 조직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은 총 15,461백만원으로 조직위 전체 소요예산액의 32%에 해당된다.

○ 강원도 지원

강원도에서는 조직위지원육성조례에 의거 총 14,435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연도별로 는 '97년도에 691백만원, '98년도에 4,184백만원, '99년도에 9,560백만원을 지원하여 조 직위 전체 소요예산의 30%를 차지하였다.

○ 자체수입

다양한 자체 수입원 발굴에 진력하여 총 18,894백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바, 사업외 수익으로 이자 및 잡수입 1,581백만원, 그리고 사업수익은 17,313백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입장권수입 12,497백만원, 주차장 운영수입 520백만원, 휘장사업수입 3,080백만원, 광고수입 200백만원, 시설물 임대수입 1,016백만원이었다. 이것은 조직위 총 소요예산의 38%를 차지하여 엑스포 흑자운영의 기틀이 되었다.

2) 재원투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대회장 시설연출과 참가 유치사업, 회장운영관리 등 직접 투자한 사업은 총 44,985백만원이다.

주제관 건립 및 전시연출 사업에 16,479백만원으로서 주제관건축공사 11,114백만원, 내부전시연출 1,355백만원, 대형영상영화제작 4,010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징탑건립에 2,744백만원을 투자하였는데 당초 민자유치로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민자사업자가 중도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조직위원회가 직접 인수하여 준공하였다.

또한, 회장조성 및 시설연출에 11,252백만원, 홍보 · 관람유치에 2,623백만원, 국내 전시유치사업은 기획테마관유치 운영 등에 550백만원, 해외전시참가사업으로 2,137백만원, 행사유치관리에 3,93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회장운영관리에 2,839백만원, 의전관리 · 운영에 400백만원을, 그리고 조직위원회 운영에 2,031백만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조직위원회 발족 이전, 도에서 직접 투자한 엑스포 관련예산은 엑스포 「Easter Plan」용역수행비 914백만원, 실시설계비 307백만원이 투자되었다.

나. 재정결산

조직위원회에서는 사업별 투자비가 당초보다 증가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 관리하여 '경제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밀한 재정분석을 통한 투자재원의 적절한 배분 및 실행예산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또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자체 수익사업을 한 결과 3,805백만원의 흑자를 거뒀다.

3. 속초시의 관련예산 확보운용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정비, 교통안내시설, 행사 붐조성 등 행사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엑스포 관련예산 확보에 주력하였고, 분야별행사 준비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다각적인 지원 건의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엑스포와 연계한 필수적인 사업에 역점을 두어 최소 경비로 최대 효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모범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정부예산 긴축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성예산을 지양하고 실효성이 적은 사업에 대해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절약에 최대한 노력하였다.

엑스포와 관련한 투자사업은 연초에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고,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집중 투자로 지역개발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다.

엑스포 준비기간인 '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 속초시 추진 투자사업비가 858억 5천만원이며, 국비지원으로 도주관 시행한 미시로 확포장 사업비 224억6천만원을 합하면 1,083억1천만원이 투자된 셈이다.

제4절 개최지의 행정지원

1. EXPO지원체계 구축운영

엑스포 준비에 따른 소관기능별 행정 · 재정사항을 지원하고 각 지원부서와 관련 기관단체간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갖춰 효율적인 준비를 강구해 나가고자 속초시지원단과 종합행정지원본부, 유관기관단체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보고회 또는 설명회를 통하여 각 소관부서 및 소관기관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지원 업무를 검토, 협의해 문제점 등을 해결해 엑스포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특히, 엑스포 치안, 도로, 교통, 전기, 통신, 도로, 우편, 의료, 소방 등 각분야의 소관별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은 종합행정지원본부 뿐만 아니라 엑스포 시지원단, 유관기관단체지원협의회의 운영의 결과였다.

가. 「속초시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

시는 완벽한 대회준비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종의 Task force Team과 유사한 형태의 한시적인 별도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강원도와 실무접촉을 하였다.

속초시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 구성전까지는 우선 직원 3명(7급 2명, 9급 1명)을 '97. 11. 22 관광과로 기동배치해 관광과장의 지휘아래 늘어나는 엑스포 지원업무를 임시 담당하도록 하였다.

엑스포지원단 조직안은 '98. 1. 1~'99. 12. 31까지 운영하는 한시기구로서 1단장(4급) 2과 6계 총28명(한시 순증 인원 12명, 자체 조정 인원 16명)을 정원으로 하는 기구(안)으로 마련하여 '97. 11. 13 강원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였고, 강원도지사는 내무부(이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속초시의 당초 요구와는 한시 순증 정원 1명(4급) 이 줄어든 11명 증원으로 '97. 12. 29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98. 2. 13 속초시 지방공무원 직원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22명의 1단장 2과 6계이며 '99. 12. 31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하는 속초시국제관광엑스포 지원단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98. 4. 6 속초시 인사발령에 의해 인원을 배치 운영하게 되었다.

나.「속초시종합행정지원본부」구성운영

속초시 산하의 실과소별 EXPO 준비와 관련하여 소관업무 기능별 행정·재정사항의 지원, 지원부서별 자체 지원계획의 추진과 업무와 관련된 산하단체에 대해 역할부여와 이를 시행해 나가기 위해「속초시종합행정지원본부」를 '97. 12. 8일 구성하였다.

처음에는 14부 16개실과소 32개반으로 구성하였으나 '98년 10월 속초시 기구개편과 지원업무의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지원본부의 조직을 보완하여 10부 19개실과소 38개반으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다.「속초시유관기관단체지원협의회」운영

관내 기관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능별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 통합할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단위 25개 기관단체로 구성된「속초시유관기관단체지원협의회」를 '99. 6. 3일 구성하고, 곧이어 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EXPO 개요를 설명하고 기관단체별 지원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속초시유관기관단체지원협의회」의 구성 운영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 성 : 시단위 25개 기관단체
  - 시단위 유관기관 : 8개 기관
  - 정부투자, 재정지원, 금융 등 : 10개 기관
  - 직능사회단체 : 7개 단체
- 운 영
  - 본 회 의 : 기관단체장으로 구성
  - 실무회의 : 업무소관 과장급으로 구성
- 주요기능
  - 기관 단체별 업무기능에 따른 지원사업 협조

라.「속초시민후원회」구성운영

엑스포의 성공은 민간의 자율적, 능동적 참여로 가능하다는 전제아래 범시민적 붐조성, 각종 손님맞이운동, 봉사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속초시민후원회가 순수 민간조직으로 구성됐다.

속초시민후원회는 그동안 각종 행사를 주관 또는 후원해 엑스포 붐 조성에 이바지 했다. 특히 각 직능단체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자체사업을 통해

손님맞이 운동, 문화홍보, 봉사활동 등 시민 자율운동을 펼쳐 엑스포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일반회원들의 자율적 협찬모금이 어려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회장단의 협찬 모금활동과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필요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속초생선회축제 운영 난항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타지역에서 개최된 유사 박람회의 경우 개최지 시단위에서 후원회를 조직 운영한 예가 없었으며, 속초시민후원회가 최초의 사례로서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을 전개한 본보기로 남게 되었다.

1) 구성운영 경위

가) 속초시민후원회 창립총회 개최

속초시민후원회 창립총회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임원진 선출의 의견합치를 위해 '99. 11. 12일 지역의 주요단체장 13명(시 1, 도의원 2, 시의원 2, 사회단체장 8)을 초청하여 사전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후 '98. 11. 14 문화회관소강당에서 138명의 속초시민후원회원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후원회장에 임창기(당시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부회장 2명, 감사 1명을 선출하고 기타 임원진은 회장단에 일임하였다.

창립총회가 끝난 뒤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D-300일 기념행사에 합류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기념연극 '호적등본'을 관람하였다.

나) 속초시민후원회 총회개최

창립총회 이후 수차례의 임원회의를 가지며 사업계획안, 정관안 등을 마련한 후 '99. 2. 25일에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156명의 속초시민후원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회정관, 사업계획, 운영예산, 고문추대를 의결하였다.

총회에는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사무처장(최명희)이 참석하여 엑스포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에서는 오곡밥세트 300개(1,650천원 상당)를 회원들에게 선물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회장단회의, 임원회의를 가지며 사업추진 협의와 회원영입, 임원추가 위촉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렇게 구성운영하게 된 후원회 운영계획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구성운영 개요 〉

- 운영기간 : '98. 11. 14 ~ '99. 11. 30
- 인　　원 : 339명(고문 40, 임원 14, 회원 285명)

- 고 문 : 지역원로, 국회 · 지방의회의원, 관계기관장 등
- 임 원 : 회장 1, 부회장 4, 감사 1, 총무 1,
  분과위원장 6, 간사 1
- 회 원 : 6개분과위로 편성

〈 표 6)1-5-1 〉 분과위별 업무기능

분과위원회	구성단체	주 요 업 무	비 고
의식 개혁 분과위원회	안보 • 보훈단체 보건위생단체 기타 동장추천자	- 손님맞이운동 등 의식개혁운동 전개 - 시민자율실천운동 전개 - EXPO의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교 통 분과위원회	운수교통분야단체 기타 동장추천자	- 차량 10부제운동 전개 - 교통질서지키기 운동 전개 - 운수종사자 친절운동 전개	
재 정 분과위원회	금융기관단체 경제분야 단체	- 후원회 운영기금의 조성 및 배분 - 박람회와 주민소득 연계방안 강구 - 운수종사자 친절운동 전개	
봉 사 분과위원회	여성단체 국민운동분야 사회복자 청소년 봉사단체 농어업, 학교대표 기타 동장추천자	-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전개 - 자연보호활동 전개 - 관광객 안내 - 엑스포참가자 및 운여요원 위문 - 미아안내 및 보호	
홍보 예술 분과위원회	언론매체 대표 관광사업체 대표 문화예술단체 기타 동장추천자	-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 EXPO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 - EXPO참가 국내외 지방정부 및 단체자매결연 지연 - 전시민의 관광홍보 요원화 유도	
출향 인사 분과위원회	속초지역 출신의 출향인사	- 거주지역에서의 홍보활동 전개 - 엑스포 및 관광관련 지역안내 편의재공	

2. 완벽한 엑스포장 기반조성

가.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속초시 주관으로 시민휴식공간 확보와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1990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 1993년 12월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었으나 1996년 4월 관광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부지기반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청초호안을 매립하여 12만4천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호수변 유원지개발과 관광 위락시설 유치를 위한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청초호유원지는 EXPO 이전에 기반조성하여 대회장으로 활용하고 EXPO 이후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유원지조성 마무리하기로 결정 추진하게 되었다.

청초호 매립공사와 기반조성사업이 EXPO장 시설이전에 완료하기에는 공기가 촉박하고 소요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시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엑스포 개막전까지 부지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관광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우리지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회기간중 엑스포장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청초호변을 노니는 다수다종의 철새와 대회장을 둘러싼 산·바다·호수 등 청초호 주변의 빼어난 경관에 감탄하는 등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엑스포를 계기로 주제관과 상징탑 등 특색관광시설이 영구시설로 남게 되었고, 앞으로 녹지공간·휴식공간·쇼핑·레져·위락공간들이 어우러진 국제적 규모와 시설을 갖춘 복합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시전역에 산재된 천혜의 관광자원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는 관광명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1) 대회장 기반조성사업 추진

• 부지 기반조성 : 411천㎡ (124천평)
  - 호안공사 (1,968㎡)　　- 매립공사 (1,473㎡)
  - 도로 (5,851m)　　- 교 량 (2기)
  - 연약지반처리 (142천㎡)
  - 상하수도 공사 (상수도 5,255m, 하수도 11,919m)
  - 전기통신공사 (통신관로 4.8㎞, 전기관로 43.8㎞)
  ※ '99. 3월 기반조성완료,
  7월 도로포장 및 가로등 시설 완료

• 총사업비 : 96,950백만원

계	보 상 비	공 사 비	감 리 비	부 대 비	기　타
96,950	34,703	56,380	1,916	3,951	

• 사업기간 : '93. 12. 30 ~ 2000. 12. 31(8개)
  - EXPO 행사장 부지조성 : '99. 8. 30
  - 조경시설 및 유원지 조성 마무리 공사 : 2000. 12. 31 완료계획

2) 의의 및 성과

청초호유원지 개발을 엑스포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중앙 및 도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여 국·도비 등 우회재원의 추가확보를 통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였고 조성부지에 대한 메리트 및 활용가치가 커져 유상공급계획 용지에 대한 부지분양률이 높아졌다.

주제관·상징탑 부지 7,063평 17,548백만원을 도에 매각함으로써 부지분양률 제고 및 당면한 재정난을 완화시킬 수 있었고, 특히, 이 사업을 통하여 도로·주차장 등 공공시설용 부지가 확보되고 녹지공간과 공원 등 막대한 면적의 시민 휴식공간이 조성된 것은 엑스포 행사 개최에 따른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엑스포 행사장인 청초호 유원지구의 사업시행 초기 자연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로부터 개발반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우리지역 사상 최대규모의 행사인 '99관광엑스포 개최배경과 필요성 등 수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냄으로써 행사장 부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나. 청초호 수질개선 사업

엑스포 대회장인 청초호의 수질개선을 통해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정한 관광 속초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청초호 오염의 주원인인 생활하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 건설 가동시키고 생활오수줄이기운동과 오폐수배출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수질정화 효과를 가져오는 수생식물인 부레옥잠을 식재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닷고기가 회유하는 등 맑고 깨끗한 청초호 이미지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1) 하수종말처리장 조기건설 가동

청초호는 속초시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해역수질등급 3등급 수준으로 수질이 악화돼 있었다.

EXPO를 관광하는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청정한 관광지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청초호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기 추진중이던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가동을 통하여 행사 시작전에 청초호 유입 생활하수를 전량 차집하여 처리하므로서 쾌적한 환경관리 조성에 힘써왔다.

EXPO 개최전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98. 10. 17일자로 기존의 위생환경 사업소 직원을 포함하여 총 27명으로 분뇨 및 하수처리를 전담하기 위한 수질환경사업소를 발족하여 사전에 하수처리에 필요한 인력배치를 완료하였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사업소장외 토목직 2명, 기계직 2명, 환경직 2명, 전기직 1명으로 '99. 2월부터 7월까지 하수처리장 인수팀을 구성하여 시공업체로부터 향후 하수처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등의 인수를 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인수후 보다 효율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주력할 수 있었다.

하수처리장을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사 인력의 기술능력 배양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시군의 하수처리시설에 분야별 4개조 22명을 파견하여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시운전 기간내 시공업체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하수처리 이론 및 실무(운전 · 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9회 184명에 대하여 자체 직무교육 실시, 기계, 전기, 환경등 전문분야별 타시군 위탁 교육 등을 통하여 종사직원의 하수처리 기술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시설용량 1일 4만6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와 해양방류관거, 중계펌프장 등 81%의 공정을 완료한 후 '99. 7. 15일부터 임시가동 시켜 생활하수의 청초호 유입을 차단시켰고 엑스포 기간중에는 청초호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2) 청초호 오염방지대책 추진

- 생활오수 줄이기 실천
  - 환경달력 제작 배포 : 32,000부
  - 캠페인 전개 및 안내문 제작 배포 : 1회 1,650매
- 오 · 폐수 배출업소 단속강화
  - 총 점검업소 : 317개소(오수 141, 폐수 176)
  - 위반업소수 : 폐수배출업소 2개소(경고 1, 고발 1)
- 수질오염사고 비상체계 확립
  -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비상연락망 구축
  - 환경오염사고 방지장비 확보 : 오일휀스 외 19종

3) 청초호 부레옥잠 수상화단 설치

엑스포 제1교, 제2교를 관통하는 6등급의 오염된 청초호 하류에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부레옥잠을 수상식재 하여 청초천의 수질정화 기능을 개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엑스포 기간중 지속적인 개화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부레옥잠 수상화단을 조성함에 따라 관광객에게 물고기 회유장면을 보여주는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3. 근접도로망의 확충

가. 도로망 확충

'99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소통이 최대관건이었다. 따라서 대규모 관광객의 대회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확보를 위해 진입도로망 확충사업과 행사장주변을 중심으로한 주 진입로변의 기존도로와 시설을 일제 정비했다.

〈 추진방향 〉

가로망 패턴은 지형조건을 고려해 순환성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성격을 통과교통, 진입교통, 우회교통으로 구분해 상호마찰이 없도록 하고 도로구조 개선 작업을 통해 이용자가 통행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했다.

새로 개설하는 도로시설(가로등시설 등)은 시설물 자체에 행사장로고와 마스코트를 넣어 행사장분위기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종전 획일적인 도색에서 벗어나 노면에 행사장 관련 안내표지를 관광객 유입지점에서부터 행사장까지 표기해 외래관광객이 행사장에 접근하기 쉽게 차선도색을 개선했다.

특히 보도시설은 범정부적시책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맞춰 자전거도로와 인도시설을 보도블럭의 색채로 구분해 시설했다. 더욱이 보도바닥에 행사로고와 마스코트를 도안, 형상화시켜 행사분위기 고조는 물론 도로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또한 청정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획일적인 적색, 회색의 조화기법을 벗어나 녹색과 노랑색을 특별히 주문제작해 모자이크한 도안으로 시공한 결과, 시민은 물론 외래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1) 온천로와 미시로확 · 포장공사

온천로와 미시로는 국립공원 설악산과 시가지, 그리고 행사장을 잇는 근거리도로이며 수도권 관광객들의 교통량을 대부분 수용해야 할 도로다. 도시계획상 온천로는 4차선, 미시로는 6차선으로 돼있으나 예산확보가 되지않아 확장되지 못했다. 때문에 관광성수기때마다 교통체증이 발생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엑스포개최시 교통량폭증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해 접근도로망 확충이 시급했으나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었다.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시비로 확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도와 건교부에 수차례 방문과 건의를 통해 미시로설계와 사업비지원은 건교부가, 사업시행은 강원도가, 보상등 업무추진은 속초시가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엑스포 행사전에 도로 기초포장공정까지 완료해 차량을 통행키로 했으며 온천로의 사업비는 행정자치부의 시의 국도사업비(양여금)로 하되 연차별로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일부를 지원받고 부족액은 도비와 시비로 확보해 추진키로 결정, 온천로와 미시로 확포장 공사의 기공식이 지난 1999년 2월 26일 대회 6개월여전에 열렸다. 과연『양 도로공사가 행사전에 개통될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공사를 위해 편입용지 보상을 선행돼야 하고 완벽한 설계와 시공계획이 수립돼야 하지만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동절기를 포함한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사실 보도사업계획이 확정됐고 보상협의는 물론 공사추진의 순공정상 최소 2년차 사업계획수립이 요구돼 행사전 공사준공이나 개통은 불가능했던게 사실이다.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공무원들조차 공기내 개통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행사전에 반드시 완공해야 한다』는 지휘부의 확고한 결단과 그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확장공사 편입용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동절기에 보상협의 완료)가 어우러져 행사전 공사준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상당한 위험부담과 무리가 따르지만 확포장 공사의 추진은 행사개최일을 기준으로 순공정이 아닌 역공정으로 사업추진공정을 수립해 진행했다.

이때 가장 우려됐던 사항은 공사기간중 하절기 집중 호우기간의 강우강도와 강우지속기간 등이었다. 천우신조였는지 예년에 비해 강우빈도도 적었고 기간도 짧아 온천로 및 미시로 확포장 공사가 행사전에 공사를 마치고 개통할 수 있었다.

2)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교동 신라예식장~조양동(청초호 일원)까지 연장 3.4㎞(폭 20m)에 총 1백81억2천5백만원(양여금 61억8천1백만원, 시비 1백19억4천4백만원)을 투자해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했다.

도심지 관통 주도로와 연결된 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대회장 부지로 조성된 청초호 해안변 남북축을 동시에 연결, 대회장 내의 교통순환을 꾀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한 몫을 했다.

향후 엑스포 행사장 부지인 청초호 유원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천년대 이후엔 이 도로가 부지내에 개설된 15m도로와 함께 청초호 일원을 7번국도에 연결하고 단지내 교통순환기능을 갖춘 주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조양동 새마을에서 교동 만천교회간의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3.6㎞) 구간중 EXPO를 대비하여 '99년도에 교동 만천교회~청초호간 0.6㎞의 구간을 폭35m(6차선) 도로로 확장하고자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초 착공하였고 8월 완공함으로써 EXPO 기간중 활용되도록 하였다.

4) 엑스포장 진입로 개설공사

노학동 삼정여관~엑스포장간 1백40m(폭10m)도로 개설공사가 7억9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준공됐다. 행사장 진입로 개설은 도시계획도로 외각도로의 이동선을 원활히 하기위해 꼭 착수하여야 했다. 진입로 개설은 행사장 관람객들에게 커다란 교통 편익을 줬으며 행사장 외곽도로의 진입로 역할을 했다.

5) 국도 7호선 확 · 포장 공사

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부근에 대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조양동 구간 국도7호선 확 · 포장사업이 추진됐다. 이 공사는 지난 1999년 3월 31일 착공해 8월27일 완공됐다. 삼천리 주유소 웰컴콘도 건너편 앞까지 구간에 총 사업비 15억9천9백15만원을 투자해도로 연장 6백80m, 폭 3~10m로 확포장했다.

나. 도로구조 개선

1) 목우재 도로 구조변경공사

목우재 도로는 많은 설악산 관광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위험이 상존, 교통사고가 빈번해 도로의 구조개선이 시급했다.

따라서 개선계획을 세워 우선 사고위험이 가장 많은 3개소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구조개선공사를 실시했다. 서울대 산장앞 등 2개소 260m를 대상으로 2억3천만원을 들여 1999년 5월 착공하여 8월초 완공하였다.

2) 대포동 도로구조 개선사업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대포항 입구 구간의 도로구조 개선을 통해 주차장 진입차선과 U-턴차선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였다.

대포고개에서 산뒤꾸미간 7번국도 555m의 굴곡구간 구조를 개선하여 폭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늘렸으며 사업비 3억6천8백만원을 들여 '99년 4월 착공하여 8월초 완공하였다.

3) 국도 7호선 인도시설 사업

축협 속초지점~청초교 구간 1.7㎞(폭3m)에 5억4천8백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인도를 확충정비했고 아스콘 포장과 가로수(은행나무)를 식재했다.

이 구간의 협소한 인도가 확충되자 도로폭도 넓어져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됐고 시민과 관람객들의 보행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다. 도로 시설정비

1) 대포동 해안 철조망 철거공사

대포동 해안은 시의 관문이고 아름다운 조망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들의 선호대상이다. 그러나 군사작전상 도로변에 철조망이 설치돼 관광객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관광항구의 이미지를 저해해 왔다.

따라서 철조망 철거를 바라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국가안보상 불가하다는 국방부의 확고한 의견 때문에 철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엑스포개최를 계기로 철거방침을 정한 시는 관련부대장과 수차례 면담을 했고 실무진 또한 상호 요구사항을 타진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국 도로변

에서 조망에 장애되지 않는 철조망을 고안해 용벽밑에 설치하고 기존 철조망을 제거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2) 시내 보도블럭 정비공사

시가지의 환경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는 노후 보도블럭 교체와 인도시설 정비를 위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시내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가능한 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업대책과 노임살포에 의한 저소득 생계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초기 기술인력과 경험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업종료땐 공공근로사업 참여인력들의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 인도시설 정비 : 6개노선 3,410m 완료
  - 조양동 축협~신촌식당 : L = 494m
  - 조양동 대덕카~속초카센타 : L = 520m
  - 교동 세계수족관~교동삼거리 : L = 866m
  - 교동 세진정보통신~소망교회간 : L = 522m
  - 설악산 입구, 대포고개 : L = 601m
  - 금호동 첨단카센타~장군족발 : L = 407m
- 경계석 교체 : 4개소 4,137m
  - 동명동 문화회관~영랑교 : L = 691m
  - 동명동 동진오피스텔~영랑교 : L = 666m
  - 교동 국민은행연수원~서울대명2차 : L = 1,533m
  - 교동 삼환아파트 사거리~장군족발 : L = 1,247m
- 공사기간 : '99. 3 ~ '99. 8
- 사 업 비 : 696,961천원

4.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추진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시내 중심지에서 열리게 되어 교통대책추진이 무엇보다 긴요했다. 엑스포의 성공은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는 각오 아래 접근도로망 분산, 교통체계 획기적 개선, 관람객 차량의 원활한 유도, 주차공간 최대한 확보, 주정차 단속강화, 전시민의 자가용승용차 운행안하기운동 전개 등 교통소통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30만명의 관람객의 교통수요를 지정체없이 완벽하게 소통시켰고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성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제관광엑스포에 걸맞는 개최도시로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편익 및 안전시설 확충, 버스승강장 환경쇄신, 터미널 편의시설 확충과 품격있는 화장실 청결유지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고, 대중교통수단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량 최소화에 힘썼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전 시민의 자가용승용차 운행안하기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안하기 등 10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만큼,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적극 추진했고, 교통소통시책에 대한 10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시민참여 정신이 곧 엑스포 성공개최기반 조성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사업추진 총괄 〉

엑스포 교통대책은 대중교통수단 확충, 교통소통대책 추진, 주차장시설 확충 및 정비, 교통편익시설 환경정비, 시내버스승강장 및 터미널 환경정비, 교통홍보 및 안내, 운수업체 친절서비스 향상 등 7대 중점사업을 선정, 총 45개 단위사업에 1,53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총45개 사업중 40개 사업에 1,150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시내버스 고급화 대체 및 도색,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설치, 버스터미널 환경정비 사업 등 5개사업은 381백만원의 예산을 업체 자율로 추진하는 등 민관이 혼연일체로 엑스포 교통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가. 대중교통수단 확충

고속, 시외, 시내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증회 운행하여 엑스포 관람기회를 극대화 했다. 대중 교통수단 확충이 자가용승용차 이용자제로 이어지고 결국 전 시민들이 자가용 승용차 운행안하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대회기간중 교통량을 최소화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했다. 관내 운수업체들도 교통시책에 적극 참여해 수송체계를 확립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나. 교통소통대책 추진

접근도로망 분산, 교통체계개선, 자가용승용차 운행안하기운동 전개, 도로변 주 · 정차 단속강화 등 회장주변 교통소통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 · 정체없이 원활한 교통소통이 유지돼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엑스포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교통혼잡 · 취약지역에 교통요원을 집중배치해 정체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다.「자가용승용차 운행안하기 운동」전개

엑스포기간중 1일 평균 12,000여대의 외지차량과 관내 영업용 차량 6,800대, 강릉 · 양양 · 고성지역 유입 교통량 3,000여대 등 총1일 22,000여대의 교통량 발생이 예측되며, 관내 자가용 승용차 13,596대가 동시에 운행될시 35,600대의 교통량이 발생, 속초 전역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량 최소화를 통한 특단의 교통소통대책 추진이 엑스포 성공개최의 최대 관건이었다.

자가용승용차 이용 최소화를 위해 당초에는 자가용승용차 2부제운행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최지가 4차선으로 시내 중심지에서 개최되고, 시내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출 · 퇴근 시간과 주말, 연휴에 심한 교통 지 · 정체 현상을 유발하고있는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원활한 교통소통 방안은 속초 시민의 자가용승용차 운행안하기운동 전개라고 판단했다.

이 방법만이 교통량 최소화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확신하고 적극 추진했다.

자가용승용차 운행안하기 시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강제 시행방안을 다각 검토하였다. 그러나 개최지 시민의 자긍심 유발과 자율동참 시민정신을 고취시키는 자율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엑스포기간중 전 시민의 자가용승용차 운행안하기 실천을 범시민 자율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전 시민 대부분이 자가용승용차 운행안하기에 적극 동참하여 지 · 정체 없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여 엑스포 성공개최에 크게 기여하였다.

라. 주차장시설 확충 및 정비

3백만명이상의 엑스포관람객 방문에 대비해 주차편의와 서비스제고를 위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했다. 태풍, 주말 일기불순 등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 때문에 주차장 수입이 당초 기대치보다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9~10만명이상의 관람객 주차수요를 완벽하게 수용하는 등 주차장 확보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1) 임시 주차장 확충

【교통대책 용역결과】

1일 교통량 예측 – 11,907대

1일 최대누적 주차수요 – 6,792대

• 주차장조성 : 9,486면(강원도 4,056, 속초시 5,430)

– 주차장 임시조성 : 10개소 7,836면
(도 4,056, 시 3,780)

– 기존시설 : 2개소 1,650면(해수욕장, 종합운동장)

• 시 주차장조성 사업비 : 442,143천원

〈 표 6)1-5-2 〉 시주차장 조성

주차장 명칭	주차면수	사 업 비 (천원)		
		순공사비	재료비	인건비
구.속중부지 주차장	520 면	32,020	23,858	111,756
보건소앞 "	350면	28,376		
터미널부지 "	520 면	46,748		
부영아파트앞 "	680 면	41,303		
영동병원 뒤 "	630 면	90,033		
조양동사무소 "	500 면	68,049		
주공4차아파트 "	580 면			

※ 부지조성사업 및 주차장운영에 공공근로인력 투입

• 주차장 유도 및 안내표지판 설치 : 228개 ⇒ 주차불편 해소

마. 교통편익시설 환경정비

엑스포 관람차량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신호등과 교통 안전시설물을 대폭 개선 확충했다. 그 결과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유지됐고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됐다.

1) 교통편익 및 안전시설물 확충 — 17개사업. 220,123천원

2) 교통편익시설 정비 — 3개사업. 9,892천원

바. 승강장 · 시내버스터미널 환경정비

버스승강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시설물을 확충, 개선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했다.

대중 교통시설개선 및 버스터미널 환경정비에 버스업체가 자율적으로 솔선 참여하였고, 특히 버스터미널 화장실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꽃, 액자, 음악이 있는 품격있는 화장실로 정비 관리하여 이용객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국제관광도시 면모 유지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1) 승강장, 시내버스 환경정비 — 7개사업. 492,370천원

2) 터미널 환경정비 — 2개업체. 99,076천원 : 자율

사. 교통대책 안내 및 홍보추진

엑스포성공개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었던 만큼 전시민의 적극 참여가 교통대책 성공추진의 관건이었다.

전시민의 공감대 조성과 이해증진을 위해 언론 및 홍보매체, 교육 및 간담회 홍보등 홍보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홍보를 강화한 결과, 엑스포기간중 자가용승용차 운행안하기 및 도로변 주 · 정차 안하기에 전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대회기간중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엑스포 성공개최에 크게 기여하였다.

5. 범시민적 엑스포 참여 붐 조성

가. 시민의식개혁 추진

엑스포의 붐 조성을 위해 시민실천 다짐대회와 시민의식 개혁교육이 학생층 뿐아니라 운수, 관광, 접객업소 종사자, 자원봉사자,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질서 · 친절 · 청결 등 범시민 실천운동은 결국 대회기간동안 방문한 관광객이 훈훈한 속초인심을 실제 체감하는 호평을 받았다. 엑스포 성공개최의 보이지 않는 수훈갑이었던 셈이다. 특히 시민후원회 주관으로 "문화시민 에티켓선집" 등 교육교재와 홍보부채를 제작 배부하면서 이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엑스포 준비 영상소개자료(파워포인트)

와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각 직능단체와 학교 등을 순회하며 LCD 프로젝트 영상을 이용한 EXPO 소개와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나. 엑스포 개최기념 특별이벤트 추진

엑스포 성공개최의 붐 조성을 위해 지난 98년 11월 4일 발족한 속초시민후원회와 함께 엑스포 유치기념 특별이벤트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국제행사 개최지로써 대회준비기간 동안 전 시가지를 축제분위기로 만들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엑스포가 예상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또한 단시일내에 스포츠와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를 선보임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의식을 가일층 높일 수 있었던 점 또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1) D-1년 기념행사

속초시민 걷기대회가 지난 98년 10월 25일 각급 기관 단체장, 시민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1년 기념행사로 동명항에서 엑스포현장까지 약 4Km구간에서 개최됐다.

도착지인 엑스포현장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참가시민이 참석, 엑스포 상징탑 기공식을 가지며, 엑스포에 대한 전 강원도민과 10만 속초시민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2) D-300일 기념행사

시민 후원회원 위촉 및 연극공연이 지난 98년 11월 14일 오후 7시부터 속초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엑스포 성공개최 붐 조성을 위한 특별이벤트로 치른 이날 행사는 시민 8백여명이 참여했고 이 자리에서 엑스포 시민후원회원 위촉장 수여와 대회준비 상황보고회를 연극공연에 앞서 열었다.

연극협회 속초지부에서 준비한 기념공연「호적등본」이 무대에 올려져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 행사를 위해 노학동 소재 한송정가든(대표 백창남)이 대회 홍보용 팸프릿 200매(1,000천원 상당)를 협찬했고 롯데건설(주)도 참가시민 배부용 선물세트 700점(2,100천원 상당)을 협찬했다.

3) D-200일 기념행사

정월대보름 맞이 축제행사가 지난 99년 3월 2일 엑스포 조성공사 현장에서 속초시민 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엑스포 개최년도의 정월대보름날을 맞아 전 시민과 함께 대회 성공개최를 소망하고 시민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

초봄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엑스포 D-200일을 기념하면서 성공 엑스포를 예감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는 1부 의식행사와 민속경연대회, 2부 엑스포 성공기원 축제행사로 진행됐으며 특히 2부 행사에서는 동대항 시민노래자랑, 시민안녕과 엑스포 성공기원 다리밟기, 시민안녕 엑스포 성공기원 아치 점화를 했으며 시민 개개인의 소원을 담은 달집태우기 의식이 행사를 절정에 이르게 했다.

행사를 위해 설악한화리조트가 장치연화를, 보광사 신도회(회장 석문)가 달집 태우기 소품(달집 4개, 소지 1,500매, 양초 800개)을 지원했으며 각계로부터 16종 171점의 경품이 답지했다. 시는 99년 3월 5일 행사지원과 경품협찬자, 시민후원회원 전원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4) D-150일 기념행사

D-150일을 기념하여 1999년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민 바둑 큰잔치와 강릉 MBC라디엔티어링, 99년도 미스강원 선발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들은 내용과 구성면에서 독특하게 진행돼 참여한 초청인사와 시민들로부터 엑스포 성공개최의 사전 붐 조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강원도민 바둑큰잔치에 조훈현 9단 등 국내 유명 프로기사 17명과 심재엽 정무부지사 등 도내 각계각층의 바둑애호가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강릉MBC-FM 라디엔티어링엔 휴일을 맞아 행정부지사 등 2,0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가해 가족, 친지, 친구와 함께 라디오를 생방송으로 들으면서 걸었다.

집결지에선 시민실천 다짐대회가 열려 엑스포 성공개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35회 미스강원 선발대회가 속초시청소년수련관에서 도내 20명의 향토미인후보들이 참가, 미의 제전을 벌였다. 미스관광엑스포 선발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미스강원에 선발된 미인들은 관광엑스포의 홍보사절로써 활동하게돼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오색그린야드 호텔이 강릉MBC-FM라디엔티어링 행사 참가자에게 간식 1,500개(3,000천원 상당)를 협찬했고 삼성물산 청초호유원지 건설부문(소

장 김진성)이 행사 참가자에게 모자 1,500개(5,000천원 상당)를 협찬했다. 속초시는 행사종료후 이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5) D-100일 기념행사

D-100일 기념 엑스포성공기원과 이웃돕기 범도민걷기대회가 지난 1999년 5월 29일 오전 10시~오후5시까지 동명항, 엑스포장에서 열렸다.

속초시,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예총지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기념행사는 학생, 청소년층에서부터 장년층까지 전 계층의 시민이 참여해 엑스포 성공개최의 분위기를 고조 시켰다.

관내 초 · 중 · 고교생 및 주부 등 3,000여명이 참가한 백일장 및 미술실기대회를 시작으로 성공기원 및 이웃돕기 범도민 걷기대회에도 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3부 행사인 청소년 건전가요제까지 연인원 6,000여명이 기념행사에 참가, 성공개최의 뜨거운 열기를 시민모두가 함께 확인하는 화합과 결의의 장이 됐다.

특히 행사장에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하여 송훈석 국회의원 및 각급기관 · 단체장과 김도후 신흥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지역의 종교계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가 참여 하여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현장에서 개최지의 엑스포 성공개최 "붐" 확산을 위해 5개 판매대행 기관이 입장권 예매 캠페인을 실시, 성공대회의 열기를 재확인했다.

이 기념행사를 위해 각급 업체와 단체가 기념품2종 3천점(3백88만8천원 상당)과 경품 28종 575점(5백95만원 상당)을 협찬했다. 시는 행사종료후 협찬자 모두에게 감사 서한문을 보냈다.

6) D-50일 기념 전국노래자랑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엑스포 "붐" 확산을 위해 공영방송사인 KBS와 협조하여 엑스포 유치 및 D-50일 기념행사로 KBS인기프로인 전국노래자랑이 지난 99년 7월 28일 속초해수욕장에서 열렸다.

피서철 해수욕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흥겹게 즐겼고, 노래자랑 참가자에게 엑스포 마스코트『쿠구』인형을 기념으로 증정해 엑스포 홍보효과를 높였다. 특히 전국노래자랑 속초편이 전국에 방영돼 엑스포홍보에 큰 역할을 했다.

7) 기타 붐조성 이벤트 개최

가) 엑스포 가수왕 선발대회

KBS속초방송국과 공동으로 영북지역인을 대상으로 한 엑스포가수왕 선발대회가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KBS속초방송국 공개홀에서 매월 1회 열렸다. 지역 라디오 방송프로인 엑스포가수왕 선발대회는 엑스포 참여와 홍보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

월대회 입상자들이 참가한 결선대회는 엑스포 기간중인 '99. 10. 10 오후 2시5분부터 3시55분까지 엑스포장내 설악마당에서 개최됐다.

유명사회자 이호섭, 임수민과 초대가수 주병진, 김연숙, 팀(TEAM)등이 출연해 흥을 더했다. 엑스포 가수왕은 이혜경(동우대학1년), 최우수상엔 이혜미, 우수상 신순애, 김광운, 인기상은 이주현(동우대학3년)에게 각각 돌아갔다.

나) 성공기원 프로축구경기 유치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전 국민적인 관심촉구를 위한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우리국민의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아 큰 인기를 끌고있는 '99바이코리아컵K리그 프로축구를 위해 대우 로얄즈와 대전 시티즌의 경기가 1999년 6월 23일 속초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

때이른 장마비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는 시종일관 긴박감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여 1만여 관중과 TV생중계를 통한 전국의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축구장 곳곳에 설치된 엑스포 홍보물이 TV생중계를 통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각인돼 엑스포 전국홍보의 알찬 기회가 됐다.

다) 유명연예인 초청 시민위안공연

개최지 주민들의 엑스포준비노력을 위로하고 엑스포 D-30일을 기념해 입장권 예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명연예인 초청 시민위안공연이 지난 1999년 8월 4일 오후 7시 체육청소년관리소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쟈니리, 안다성, 임주리, 최진희 등 국내 유명가수와 남철, 남성남, 한무 등 코미디언, 탤런트, 무용단 등 세계연예인선교회 소속 회원 1백여명이 참여했다. 3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엔 2천5백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한여름밤의 낭만을 만끽했다. 특히 공연에 앞서 입장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장권판매를 실시하여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엑스포의 성공개최 기대를 한껏 드높이는 행사가 됐다.

이 행사를 위해 각계에서 4종 2백60여점의 경품이 답지, 관람객들에게 나

눠주기도 했다.

라) 유명인사 팬사인회 및 해군군악대 초청공연

막바지 엑스포 붐 조성을 위해 유명인사 초청 팬사인회를 열었다.

프로축구 대우로얄즈구단 안정환선수가 '99년 8월 31일 저녁 5시부터 문화회관 광장에서 인기가수 「비쥬」와 함께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안정환선수에게 엑스포 홍보사절 자격부여와 함께 속초시 제1호 명예시민증서를 전달했다.

곧이어 해군 제1함대 소속 해군군악대 초청공연이 저녁 6시부터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클래식, 재즈, 팝, 트로트 등 다양한 음악을 재미있게 편곡 · 연주하여 1천여 관람객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다. 붐조성 문화예술 체육행사

엑스포의 사전 붐조성과 EXPO 기간중의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속초시 유사이래 가장 많은 문화 · 예술 · 체육행사가 열렸다.

범시민적 엑스포 참여의 붐조성과 엑스포 장외에서의 또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1999년 한해동안 총 30여종의 각종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붐조성 이벤트 등을 유치하여 개최함으로써 시정사상 유래없이 다양한 행사를 치르어 냈다.

라. 여성참여 및 연계이벤트 추진

여성을 주축으로 한 가족단위 관람유도와 홍보활동을 통해 엑스포 성공에 여성층이 적극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지역여성이 엑스포 자원봉사 요원으로 적극 참여 활동함으로써 엑스포개최지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우리도 해낼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마. 청소년수련생 유치홍보 추진

엑스포개최에 맞춰 대회기간중 종합경기장과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시설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홍보에 주력했으며 더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전국의 경기단체들을 현지 방문해 엑스포홍보는 물론 시설물 이용 홍보와 대회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대회기간중 종합경기장 191건 1만5천2백82명, 실내체육관 200건 1만1천820명, 청소년수련관 85건 1만1천602명 등 총 4백76건 3만8천

704명의 경기단체 및 수련생을 유치했다.

6. 공격적 홍보활동 전개

관광을 매개로 한 국내최대의 국제행사라는 인식하에 행사준비단계부터 관광의 개념을 새롭게 부각시키는데 홍보의 주안점을 두었다.

속초시 살림살이 보고회 등 각종모임의 기회와 시청홍보 매체를 이용한 엑스포 소개는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홍보를 실시했다. 우선, 개최지 시민들의 엑스포 이해증진을 위해 지역여론층, 공무원,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엑스포 추진 상황 설명회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외 교류도시 참가홍보는 물론 지역별 문화축제 참가홍보, 엑스포 상설전시관 홍보, 언론매체는 물론 지하철, 항공, 고속도로 톨게이트 홍보를 실시했고 시내주요 도로변에 관광객과 시민들에 대한 사전 붐 조성을 위해 플래카드, 현수막, 가로기, 배너기, 선전탑 등 다양한 홍보시설물을 설치해 개최지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외에도 방송작가 초청 관광설명회, 관광교역전 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여행사 팸투어단 접견, 수학여행단 유치활동, 외국인 명예홍보요원 활용,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홍보,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소 확대운영, 각 이벤트 홍보들이 펼쳐졌다.

사회단체, 동호회의 엑스포 홍보활동도 괄목할만 했다. 속초J.C, 아마추어 햄동호회 등이 엑스포 홍보에 큰 기여를 했다.

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홍보 추진

'99년도 시정운영의 초점을 엑스포에 맞추고 시정홍보 유인물 제작배포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엑스포 홍보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사전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와 시민단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엑스포 현장 설명을 위한 상설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각종 언론과 전국 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찾아 다니는 현장홍보 활동 전개

엑스포의 성패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각오아래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관광객집결지, 지역축제 행사현장을 찾아 다니며 관람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99강원엑스포에 대한 관

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다. 다양한 홍보시설물 설치

엑스포 성공개최와 사전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비롯해 선전탑, 아치, 배너기 등 다양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여 국내 · 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

라. 각종 홍보물제작 활용

리후렛, 스티커, 뺏지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 활용함으로써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주제와 엠블렘 등에 대한 친근감 도모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엑스포의 대한 빠른 이해와 기대감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관람을 유도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마. 국내 · 외 교류도시 참가 및 홍보

속초시와 자매결연 또는 교류협약 체결하여 상호 밀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는 국내 2개시, 해외 9개시가 있다.
국내도시로는 서울 중구와 전라북도 정읍시이고, 국외도시로는 미주지역의 그레샴시, 중국의 연길시, 훈춘시, 도문시, 그리고 일본의 요나고시, 사카이미나토시, 뉴젠정, 대만 대동현, 러시아 핫산스키라이온 등이다.

속초시에서는 국내 · 외적으로 각 외국 도시의 엑스포 참가를 위하여 지난 2월부터 홍보물 및 참가신청서를 각 도시별로 발송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행사기간 중 많은 시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하였으며, 특히 1998년 9월 1일~24일 까지 중국 훈춘시에서 개최되었던 제5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에 참가한 9개 도시 관계자들에게 집중 홍보하여 참가를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미, 일, 중국 등 국제교류도시와의 지속적인 상호 협의속에서 미국 그레샴시 및 일본 요나고시의 전시부스 출품과 문화예술단 공연 등을 실시,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활용했고, 또한 국제교류 도시의 주요인사 방문 및 활발한 민간교류 활동으로 속초시 및 교류 도시간의 우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교두보인 서울 중구 및 전북 정읍시에서는 EXPO개최홍보를 위하여 LED전광판 및 각종 소식지 게재 홍보 협조뿐 아

니라 두 지역의 많은 지역민들의 엑스포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바. 관광홍보대책 연계추진

1) 국내 · 외 관광홍보

가) 방송작가 초청 관광설명회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와 병행하여 지역의 관광명소를 방송드라마의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의우 이사장외 19명의 작가를 초청해 시의원, 관광사업체 대표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1999년 9월 16일 19:00 켄싱턴호텔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송작가 초청 관광설명회에서는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현황설명 및 행사장 관람, 설악산과 속초8경, 해상유람선을 통한 관광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거리를 소개하였고 특히 설악눈꽃축제,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 여름해변축제, 설악문화제 등 4계절 이벤트행사와 순두부, 생선회, 오징어순대, 송이전골등 다양한 토산음식과 어선을 통한 배낚시, 영랑호의 용카누, 스쿠버다이빙, 온천 등 색다른 체험거리를 보여주었다.

나) 관광교역전 참가

국내 · 외 400여 여행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관광교역전인 제12회 한국축제 관광전(1999년 6월 17일~20일 COEX)에 참여하여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전개 하였다.

홍보관 설치는 강원도와 함께 참여하였고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홍보물 비치 및 배부, VTR상영, 향수설악 등을 전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관내 업체로는 설악 파크호텔, 켄싱턴호텔이 함께 참여하여 관광안내 및 관광객 유치 상담 등을 추진하였다.

※ 안내실적 : 3,100명(내국인 2,900 외국인 200)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여행사 팸투어단 8차례 220여명을 접견하여 지역관광명소 소개 및 관광업체 관광설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다) 관광객유치 현지홍보 활동

관광엑스포를 계기로 1999년을 친절원년으로 추진했다. 그 실천사업으로 친절의 필요성 체득을 위해 직능 · 단체별 참여를 확대하고 시 산하직원이

현장체험과 경쟁력 제고를 할수 있도록 관광과 경영을 마인드화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홍보활동을 폈는데 총11회 136명(공무원, 시의원, 관광업체 등)이 참여해 전국 7개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를 대상으로 홍보 전단배부(4종 14만부), 가두캠페인 전개, 관광사진 전시 등으로 엑스포 붐을 조성했다.

라) 수학여행단 유치활동

중 · 고교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하여 '99관광엑스포 및 설악산 관광안내와 정보를 제공해 현장학습장으로 이용토록 하였고 전국 시 · 도 및 시군구 교육청 176개소에 시장 서한문과 EXPO 및 지역관광 홍보물을 송부하였다.

마) 외국인 명예홍보요원 활용

외국인 방문객 중 본인의 희망에 의해 위촉된 명예 홍보요원 26개국 188명에게 연말연시를 맞아 연하장 및 관광VTR테이프, 엽서 등 자료를 송부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긍심과 홍보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바)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홍보

외래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 공항,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의 비치대, 안내데스크, VTR을 통하여 지역관광 상품 및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시설물 관리업체에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송부하였고 안내데스크를 통한 안내기능 강화를 위해 고속터미널, 속초공항, 관광안내소 3개소에 공공근로자 5명을 배치 했다.

사) 관광홍보물 제작

대외 홍보 및 내방객을 위한 관광홍보물은 설악산화보 3,000부를 제작하여 1권당 12,000원씩 유가판매 및 내방객들의 기념품으로 활용하였으며 또한『설악은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홍보영상물 VTR 및 CD를 언어권별(국 · 영 · 일 중국어) 각 1,000개씩 제작하였고 그밖에도 입체지도 70,000부, 리플렛 4종 320,000부를 제작했다.

특히 호텔설악파크, 켄싱턴호텔, 설악산관광호텔, 설악한화콘도, 금호설악콘도, 척산 온천휴양촌 등이 참여해 만든 업체홍보물 3종 18만부였다.

2) 관광안내소 확대운영

EXPO를 대비하여 급증하는 국내 · 외 관광객들에게 기존 관광홍보 및 안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 민원실, 파출소 등 공공시설 14개소에 자체 안내요원을 확보하여 안내기능을 보강하였고 엑스포 행사기간 중 임시 8개소

에 관광안내소를 설치, 공무원 · 자원봉사자 · 도 관광협회가 참여하여 관광자료 제공, 주요 관광지안내, City Tour를 유도하는 등 내방객들의 편익을 도모했다.

속초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EXPO홍보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42일동안(1999년 7월 10일~8월 20일) 엑스포 홍보카드 100,000매를 제작,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배포했다.

3) 기존이벤트의 엑스포 특집화 추진

설악눈꽃축제 등 기존 이벤트행사를 엑스포 특집화 하여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엑스포 붐조성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가) 제4회 설악눈꽃축제 개최

- 기 간 : '99. 2. 4.~2. 7 (4일간)
- 장 소 : 종합경기운동장 일원
- 관 람 : 연 50,000명

나) 프랑스 설악의 우리꽃전시 개최

- 기 간 : '99. 4. 24~6. 23 (60일간)
- 장 소 : 프랑스 국립산업과학관
- 전 시 : 설악의 우리꽃 150여종
- 관 람
  - 국립과학관 : 500~600명/1일
  - 자연사박물관 : 37,000명
  - 낭트꽃박람회 : 1,170,000명

다) 제8회 아시아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및
제4회 설악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 기 간 : '99. 7. 10~7. 11 (2일간)
- 장 소 : 속초해수욕장 일원
- 종 목 : 51.5㎞(수영 1.5㎞, 사이클 40㎞, 마라톤 10㎞)
- 참가국가 및 선수 : 13개국 495명

사. 홍보도우미 선발운영

엑스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속초시에서는 관내 3개 관광업체의 도움을 받아 관광홍보도우미를 선발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속초시에서 도우미를 선발하여 EXPO 기간까지 활동케 하고 EXPO 종료후 관광업체별로 취업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선발된 홍보도우미 3명은 수도권 주요도시를 방문, 관광객 유치와 엑스포 홍보에 주력했으며, 이와 함께 유선방송을 이용한 엑스포 추진상황 소개, 엑스포장 전시시설물 소개 등 리포터로 활약했다.

아. 엑스포 입장권 예매 판촉

EXPO 개최지로서 도내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예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판촉방법을 실행해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뤘다. EXPO 입장권 예매기간('99. 5. 1~9. 10)동안 공무원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하에 '99. 5. 20 입장권 2차판매기관인 강원도민일보의 주관으로 『시산하 공무원 합동 예매행사』가 시청광장에서 가졌다.

이후 시공무원과 통장에 대한 할당판촉, 인터넷 판매, 전화판매, 이동판매소 설치 판매, 2차 판매기관의 확대, 각급 기관단체와 군부대에 대한 판촉 등 다양한 판매방법을 동원해 속초시 인구대비 1백17%인 10만3천7백30매가 판매됐다.

입장권 할당판촉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과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목표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은 시공무원과 통반장, 사회단체장 등의 헌신적인 노력과 다양한 판매방법의 개발, 지역주민의 남다른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폭적인 도움 때문이었다.

7. 관광유원지의 정비확충

엑스포를 계기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여행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설악산과 속초해수욕장 뿐 아니라 엑스포장과 연계된 지역의 관광명소를 대대적으로 정비 또는 확충했다.

특히 등대전망대 설치, 설악해맞이 공원 조성, 속초8경 선정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명소를 특화해 관광속초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의 관광안내 표지판 중에서 신규도로, EXPO장, 관광지표시, 영 · 한자 병기가 필요한 17개소(시10, 국립공원7)의 관광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지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손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초호 5개, 영랑

호 3개, 속초항 3개 등 총 11개소의 방향유도 표지판을 주요 도로변에 설치했다.

가. 속초등대전망대 설치

속초항과 시가지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속초등대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선호도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운항만청의 협조를 얻어 진입로 개설과 전망휴게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설악해맞이공원 조성

엑스포 주요진입로변에 위치한 대포동 설악산 입구 소공원지역 유휴지를 활용하여 가로변 쉼터 조성과 경관도로 조성을 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특색있는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건전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특히, 조각공원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자연조건이 어우러진 속초로서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99국제관광박람회 개최지역 및 금강산, 설악산 연계 관광개발과 북방전초 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자연환경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필요,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한 속초에서 시민이 취할수 있는 독특하고 상징성 있는 시설물 조성, 타지역과 차별화 특성화 추구하는 공간조성, 문화 · 관광 · 해양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 및 문화 상품화 할 수 있는 작품 확보 등의 차원에서 준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원내의 적절한 조각품 배치로 공원의 위상을 높이고 미적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을 조성코자 하였으며, 속초의 관광, 문화유적지 및 '99국제관광박람회를 연계 관광문화 벨트를 조성, 관광수지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환경과 자연, 인간과 밀접한 작품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고취 및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문화예술의 체험과 교육을 위한 공공장소로 제공하고 자연과 조각의 조화를 통한 창 의적이고 새로운 미래지향적 장소로 창출코자 노력하였다.

다. 기타 관광유원지 정비

설악산 국립공원은 진입로변 보도블럭 교체, 공중화장실 보수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속초해수욕장 주변환경정비, 도시소공원 정비, 각종 기념물 주변정비 등 환경개선으로 도시전반의 각종시설을 국제관광지 다운 면모로 쇄신시켜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관광안내표지판의 영문 · 한자 병기표기와 방향유도 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관람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 추진하였다.

8. 체류 체험형 관광여건 조성

엑스포를 계기로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의 소득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 · 먹거리 · 즐길거리를 갖춰 관광객을 맞이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엑스포 관람객을 도심으로 유치하여 또다른 체험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패키지여행상품을 개발 보급하고 엑스포장 외에서의 특색 먹거리 축제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유치 개최하는 한편, 영랑호 낚시터 개방과 관광명소 개발확충, 산책로 개설 등으로 체류여건을 조성하고 지역내의 숙박과 음식점 이용 등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안내센타를 설치 운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각 업소마다 관광객 환영 프래카드를 내걸며 친절한 손님맞이와 바가지없는 관광지의 이미지를 살려 나가는 일에도 만전을 기했으며, 도심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질서있는 도시분위기 조성에는 전시민이 참여 실천하는 성의와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유감없는 발휘로 엑스포 기간중 내방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많은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치하고 연계된 관광명소와 축제장으로 유인하는데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축제와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이 날씨와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쳐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개발한 체험관광코스에 인기몰이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IMF 이후 소비절약과 여행경비를 줄이는 알뜰관광의 풍조 또한 이에 한몫하였다는 것이 사후 평이다.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거울삼아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실질적인 체험관광을 즐길수 있는 여건을 다양하게 갖추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가. 패키지상품 개발보급

엑스포 기간중 내방객들에게 지역명소를 다양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이색적인 체험관광 등 정보제공을 통해 체류관광을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고자 테마별 순환관광코스를 선정하여 관내 여행업체와 연계한 보급추진을 하였다.

1) 관광코스 보급

주요 관광코스는 설악산과 속초8경, 그리고 인접지역 관광지 등이며 특히 엑스포장과 연계해 관광할 수 있도록 코스를 유도했다.

테마, 체험, 보양, 레포츠 등 계층별로 다양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유형별 관광코스를 개발해 홍보물로 만들어 보급했다.

홍보물에는 유형별 관광코스는 물론 체험, 레저, 속초8경, 시가지 안내도 등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였고 체험관광, 4계절 관광리후렛 2종에 120,000매를 제작하여 터미널, 휴게소, 공항, 호텔, 콘도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내방객에게 배부했다.

• 운영실적

EXPO 기간중 관광상품 보급을 위해 48,630명(내국인 46,224명, 외국인 2,406명)을 안내하였고 리후렛 2종 112,000매(체험관광 52,000매, 4계절 60,000), 관광지도 21,000매, 홍보책자 560권(국문400, 영문160), 강원도홍보물 3종 165,000매를 배부했다.

특히 설악권의 생명력 있고 변화무상한 신비의 4계절 사진 140여점을 담은 화보집을 제작하였으며 설악산화보를 1권당 12,000원에 판매, 대회기간중 154권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2) 임시안내소 설치운영

EXPO 기간중 내방객들 주변 관광안내를 불편없이 받도록 하기 위해 총 8개소의 임시안내소를 설치하여 안내요원 35명(공무원 7, 자원봉사자 21, 여행사 5, 관광협회 2)을 배치했다.

안내요원들의 주요활동은 도내 주요관광지 안내 및 City Tour유도, 지역특산품 구입안내 등이다. 아울러 내방객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해 다양한 관광정보를 주기도 했다.

나. 영랑호 낚시터 개방

동해안의 대표적 자연석호인 영랑호는 오염방지를 위해 지난 9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공유수면관리법과 호수수질관리법에 의해 낚시가 완전히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최근 수질이 눈에 띄게 나아진데다 만 5년동안 낚시가 금지되면서 소위 "물반 고기반" 의 호수로 생태계가 회복하게 되었고 수질정화를 위해 일부어족을 줄여야 할 필요까지 대두되었다.

시는 시민 환경단체와의 3차례 간담회를 통해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낚시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자연생태 보존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환경낚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엑스포 개최에 따른 특색 관광명소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엑스포 기간중 낚시터를 개방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오염방지대책도 강구 추진하게 되었다.

1) 영랑호의 환경친화적 낚시터운영 추진

영랑호의 수질상태는 1996년 11월 수질검사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2.2㎎/ℓ, 부유물 24㎎/ℓ, 질소인산농도 0.121㎎/ℓ 등 공업용수로 조차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이 심했지만 수생식물인 부레옥잠을 식재하고 영랑호의 하구를 터 바닷물과 수시로 교류하여 '99년 5월 수질조사결과 2급수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물속에서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가 노니는 장면이 관측될 정도로 수질개선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시는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간제한, 낚시방법(대수, 먹이제한, 릴 · 줄낚시금지, 마리수 및 크기제한 등)을 설정하고, 쓰레기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낚시 뒤 쓰레기 봉투 반납등 규정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환경낚시터 조성에 힘썼다.

2) 낚시터 운영결과

• 운영개요
- 기 간 : '99. 9. 9~10. 30 (52일간)
  ※ 악천우 관계로 4일은 미실시
- 시 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사용료 : 1인 20,000원

• 잘된 점

오랫동안 출입을 통제하고 낚시를 못하게 철조망을 설치하였으며, 그 동안 영랑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호소수질관리에 역점을 두어온 결과 호소수질도 물고기 뿐 아니라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해졌다. 이로 인해 관광박람회를 통하여 이벤트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환경 낚시터가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로부터 예상외로 호평을 받았고 국내 최초의 환경낚시터로 우리고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미흡한 점

낚시구간이 좁고 낮 시간대 운영으로 어획이 부진했다. 특히 민물낚시는 밤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하구가 막힘으로써 강우기 때 일부 지역이 침수돼 호수의 물을 퇴수해야 하므로 낚시인들에게 방해가 된 사례도 있었다.

• 향후 발전방안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 중 도류제 설치가 완료되면 낚시개방이 추가 검토돼야 할 것이며, 낚시구간도 확대되고 야간 낚시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영랑호 보트놀이 부활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2천년엔 낚시금지 지지선을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다. 「속초 생선회 축제」개최

산과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관광도시 속초는 자연관광 위주의 관광패턴을 탈피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4계절 관광이벤트로 설악눈꽃제, 트라이애슬론, 여름해변축제, 설악문화제 등 각종 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나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먹거리축제는 개발되지 못하였다.

동명항, 대포항 등 항구를 가진 해양수산도시로서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생선회를 속초의 상징적 먹거리문화로 새롭게 창출시켜 특화발전시킴으로써 먹거리 관광의 새로운 테마를 확보하는 한편, 관광객을 우리지역으로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자는 취지로「속초 생선회축제」를 기획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엑스포를 계기로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싱싱하고 다양한 회 요리의 진수를 선보여「생선회」하면 속초를 연상시키며 생선회의 본고장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엑스포기간중 생선회 축제를 대대적으로

열고, '99년 행사를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 매년 관광비수기(생선어획량은 많으나 관광객이 적은 시기인 4월)에 개최되는 연례적인 축제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특색 먹거리 명물축제로서 새로운 관광자원화 시키자는 것이다.

축제의 원년인 '99년 행사의 추진방향은 바다의 도시 속초의 새로운 발견과 알림을 형상화 시키고, 생선회를 비롯하여 바다에 관련된 다양한 소재의 이벤트를 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한편, 살아 움직이는 "축제의 장" 조성으로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축제에 필요한 막대한 시설과 소요예산의 확보 문제해결을 위해 축제를 추진 하는 이벤트사를 영입하여 대회장 조성과 부스분양, 행사운영을 전담토록 하였다.

그러나 축제의 시작단계부터 지역 횟집업주들의 한시적 손님감소를 염려한 집단반발이 야기됐고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축소 조정돼 생선회 축제가 운영되었다. 축제기간중에도 주관사의 내부갈등과 운영부진으로 개막이 연기되는 등 행사운영상 불협화음이 계속됐다.

또한 태풍과 잦은 비 등 일기불순(비온 날 14일, 추운 날 3일)으로 각종 공연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등 파행운영이 지속되면서 행사장내 입점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이들이 주관사와 속초시를 상대로 집단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렇듯 생선회축제의 행사운영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당초 목적한 관광객유치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행사를 교훈 삼아 향후 속초시 생선회 축제는 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저렴한 가격으로 부스를 분양해 다수의 속초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속초」하면 생선회를 떠올리는 연상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광 비수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속초의 생선회를 먹을 수 있는 관광객 대상의 홍보방안 수립도 시급한 과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이번 행사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인 행사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라. 아바이마을 향토음식축제장 운영

아바이마을 고향음식 축제는 엑스포장과 연접해 있는 청호동의 이미지를 살려 관람객들에게 실향민들의 함경도 전통음식을 제공하여, 관광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 축제는 실향민 집단거주지역인 청호동민들에게 소득원 개발 뿐만 아니

라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기획 실행하게 되었으며, 청호동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청호동 1355-1번지에 총 15개 코너(12개 개인 및 단체)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실시했다. 다양한 홍보활동과 판촉활동, 메뉴개발로 아바이마을 고향음식 축제가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주민소득원 개발 효과도 거두었다.

한편, 행사 개최기간중 음식축제장 맞은편 박람회 동측게이트 주차장의 상거래 질서가 혼탁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음식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일부 코너 입주자들의 불평도 있었다.

동민들의 행사경비 자부담으로 처음 운영된 이번 축제 결과 동민화합과 경영 노하우 축적이 무엇보다 큰 성과와 보람으로 남게 되었다.

마. 관광안내 기능 확대

엑스포기간 중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에게 우리지역의 관광명소와 먹거리 · 볼거리 · 즐길 거리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음식 · 숙박안내 및 통역 · 불편처리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청 상황실에 종합안내센터를 개설 운영했다.

주로 대표전화번호(639-2200)를 이용하여 전화 안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고 대회장과 터미널 등 임시안내소와 각 협회 · 관광업체 · 접객업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안내 하였다. 아울러, 대회장 북측게이트 앞에서는 단체입장 모임의 장소와 미아보호 · 노약자 안내 · 일행찾기 안내를 위한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종합안내센터와 임시안내소 · 만남의 광장에는 공무원 1일 25명, 통역자원봉사자 1일 15명이 배치되어 활동하였고 엑스포기간 중 총 3만5천여건의 안내실적을 남겼다. 특히, 통역자원봉사자는 영어 · 일어 · 중국어 등 언어권별 조정 배치하였고, 외국인 안내 뿐만 아니라 미아보호 · 관광안내 등 일반 자원봉사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관광안내를 위하여 속초관광종합안내서를 제작하여 전국 2천여개의 관광여행사에 우편 송부하고 각급 기관단체와 업소, 각 안내소 등에 비치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 책자에는 다양한 관광정보와 함께 관내 업체와 업소 특산품소개, 주요 관광지, 숙박, 음식점명부, 교통정보 등을 총망라하여 수록하였고, 속초관광의 안내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별히 속초시민후원회에서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9. 국제관광지다운 도시경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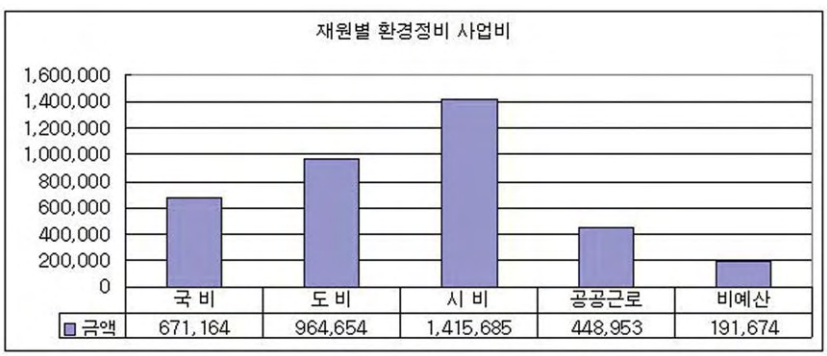
가. 쾌적한 가로환경정비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대비하여 대회장 주변 및 접근도로변 등 시가지 전반에 걸친 환경 정비사업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도시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은 물론 깨끗하고 품위 있는 도시경관을 국 · 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도시의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선 1998년 4월 정비대상 시설물 1차 실태를 조사하여 기본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1998년 9월에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개최되는 같은 기간에 대한 실제적인 시가지 실태를 분석하므로써 효율적이고 완벽한 정비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대회장 주변과 대회장에 이르는 56번 국가지원지방도, 양양군계에서 고성군계까지의 7번 국도변과 시가지 주요 도로변의 정비대상 시설물을 총 망라하였다.

1999년 2월 13일 1,417건의 환경정비대상 시설물을 1차 확정 후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과 1차 정비대상에서의 누락 또는 추가 정비대상 등을 보완하여 1999년 7월 6일 78개사업2,518건을 2차 환경정비 대상으로 확정하고 엑스포 개최일까지 지속적인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102개 단위사업에 3,542건을 정비하였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비를 위해 6회에 걸친 담당주사, 동장 회의를 가졌고 엑스포지원단 운영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1999년 6월 1일~7월 31일까지는 주1회, 1999년 8월 1일~10월 30일까지는 1일 1회 시가지 환경설비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종합적인 환경정비 사업추진형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6)1-5-1 〉 재원별 환경정비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 표 6)1-5-3 > 재원별 환경정비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공공근로	비예산
3,692,130	671,164	964,654	1,415,685	448,953	191,674

< 표 6)1-5-4 > 분야별 사업현황 (단위 : 건, 천원)

분 야 별	단위사업량	정비건수	사 업 비
계	102개 사업	3,542	3,692,130
시가지 경관향상사업	41개 사업	1,104	851,576
공원 및 꽃길조성	17개 사업	754	1,818,923
교통편익시설정비	11개 사업	1,206	386,248
관광지 정비	5개 사업	5	112,287
항포구, 해안변정비	11개 사업	37	143,641
도로시설 정비	8개 사업	22	307,893
기 타	9개 사업	37	71,562

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1) 사전정비

도시환경 저해의 큰 요인인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 D-200일전부터 7번국도, 미시로, 관광로, 수복로 등 속초시 주요도로 5개노선에 대한 노점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정비가 시급한 48개 노점상에 대해 계고 및 자진철거 안내문 등을 배포 정비하였다.

또한 중앙시장 및 속초해수욕장 등 다중집합장소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159개소에 대하여 소유자확인 등의 단계를 거쳐 1999년 7월10일~8월10일(1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 78개소, 노상적치물 12종 345건을 정비 및 폐기처분 하여 엑스포 행사를 대비 깨끗하고 밝은 도시미관을 조성하였다.

이를 위해 중점단속 담당노선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편성 5개반 27명의 인원으로 1일 2회 정기순찰 및 야간정비 등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설과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불법사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러한 정비 및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엑스포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자율적 정비 및 자진철거 등이 가속됐으며 이를 계기로 D-60일을 기하여 그간의 단속 계고와 동시에 불응자에 대한 강제철거를 단행하였다.

가시화된 도로에서의 지속적 단속을 피해 골목길 및 공터 등에서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노점이 늘어나 이에대한 중점단속을 위해 부시장을 반장으로한 단속반을 편성 D-10일까지 매일2회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동안 무질서하게 난립되어온 노점행위가 눈에 뛰게 줄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대형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의 차량이용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행사를 앞두고 무질서하던 도시미관이 선진관광도시로 탈바꿈 하게 되었다.

노점상 정비와 함께 17회 5,800여장의 안내문을 주요도로변 상가에 집중 배포하여 엑스포행사에 대비한 깨끗한 도시미관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2) 엑스포기간중 정비

행사 2백일전부터 시작한 노점상정비가 1차적 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행사중 외지 노점상유입을 예상, 행사개막식 2일전부터 노점상유입에 대한 대처방안을 속초경찰서와 협의, 전경 3개중대 4백70명과 합동으로 24시간 2교대 근무체계로 행사장 주변에 대한 정비와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사전예방활동으로 유입노점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행정력 한계로 인해 행사기간인 50일동안 효과적인 단속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돼 진입도로 4개소 및 인도이용진입로 2개소에 대하여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 행사요원외 차량통행을 제한하였으며 이와 병행 속초시 해병전우회와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해병전우회를 행사장 북측주차장에 배치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8명을 3교대로 배치 1일 24시간 3교대 근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노점의 행사장진입을 차단, 질서있는 행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엑스포상황실과의 신속한 연락과 협조체계를 위해 속초시엑스포지원단 (구 경향공업사) 1층에 건설과 노점상 상황실을 설치,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속초경찰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어 체계적 단속에 임해 엑스포 기간중 1건의 사고없이 원만한 행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2백20만 관람객이 찾은 행사도중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사례가 거의 없어 시민과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다. 옥외광고물 정비

7번 국도변을 비롯하여 EXPO장 주변의 옥외광고물과 공공시설이용 광고

물을 일제 정비 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갔다.

-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 10개소, 갈바씌우기 · 도색 및 이전설치
- 보행자 종합안내표시판 정비 : 8개소, 행사장 위치 표시 및 도색
- 방향유도안내판 정비 : 4개소, 전량 철거
- 지정게시판 정비 : 20개소, 철거후 신설
- 각종 불법 · 불량광고물 정비 : 169건, 철거 및 보수

라. 노후빈집 정비

도시미관을 저해하면서 청소년의 탈선장소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노후 빈집을 철거 등 정비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내 불량환경을 쇄신시키고자 추진하였다.

- 빈집 전수조사 실시 : '99. 1. 12 ~ 1. 30 ⇒ 조사결과 : 19동

계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대포동
19	8	2	2	5	2

- 자진정비 및 철거실시 : '99. 3. 1 ~ 5. 31
  - · 소유주 자진정비(보수, 활용) : 9동
  - · 철거동의서 징수후 철거완료 : 10동

- 정비방향
  - ·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불량환경정비사업과 연계추진하여 국도 및 중요도로변 가시권내의 빈집을 중심으로 정비추진
  - · 공공근로인력(15명) 및 철거장비를 지원받아 철거완료

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공사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미관조치를 위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대부분 공사중단된 사유가 IMF로 인한 자금부족, 건축주 부도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따라서 개인들에게 가설울타리와 가설망을 설치하라는 요구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문제를 초래해 지속적인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재개로 공사가 마무리된 것도 있지만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미관조치를 하기도 했다.

바. 가로화단 조성

행사장 주변 및 주요도로변 공한지를 꽃으로 단장하고 가로변에 화분을 설치하여 화사한 도시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대회장 주변의 넓은 공한지와 전 시가지를 대상으로한 만큼 많은 꽃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시직영 꽃묘장을 이용한 꽃묘 직영생산 적기공급과 식재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속초시 유사이래 가장 많은 꽃을 시내일원에 식재한 해가 되었다. 주로 국화, 메리골드 등 가을꽃 위주로 하여 엑스포 개막시기에 맞춰 개화되도록 하였으며 엑스포를 계기로한 관광객에게 좋은 도시이미지를 보여주는데 한 몫을 하였다.

사. 도로변 공한지 녹지공간 조성

도로변 불량환경으로 방치된 공한지 등 미관저해 요소에 각종 초화류와 채소류를 재배함으로써 깔끔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 버스정류장 부근 원두막 설치와 수세미 호박 등 결실된 과채류를 따가기도 하고 희귀 과채류 종자를 얻어 가기도 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아. 해안지역 환경정비

- 해안가 노후 불량 간판 철거 및 정비
- 횟집, 활어판매장 해수유수용 펌프 및 호스 정비
- 내물치 해안 하수구 정비
- 청호동 신물양장 어망 보관장 설치
- 중앙동 호안 어구보관장 설치
- 설악해맞이 조각공원 주변 불량시설 철거
- 동명동 위판장 옥개시설 미화사업
- 항포구 및 국도변에서의 정치망 그물 건조금지 조치
- 수협청사 및 위판장 옥개시설 도색 협조
- 해안쓰레기 수거 집중실시
- 항내 침적 및 방치 오폐물 집중 수거처리
- 마을어장 정화사업

자. 항포구 정화사업 추진

각 항포구의 방치된 어망, 어구등 어업 폐자재와 생활 및 피서 쓰레기가 관

광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엑스포개최를 대비하여 항 · 포구를 일제히 청소했다.

차. 청초호 침적물 수거작업

EXPO 행사장 전면수면(청초호)이 부유물 및 침적물로 인하여 항내 오염을 가중 시키고 특히 상징탑에서 내려다 보는 경관을 크게 해쳐 수상작업반(2개반)과 육상작업반(1개반)을 편성하여 특별 수거작업을 실시하였다.

카. 시가지 청소관리

관광엑스포의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다는 자긍심이 참여의식으로 승화되어 「친절 · 질서 · 청결」의 슬로건 아래 이를 준비하고 치르어 냈으며,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가꾸어야 한다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역대 어느 행사보다 시가지 및 행사장이 깨끗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특히, 우리 속초시로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타. 공중 · 개방화장실 관리

엑스포를 대비한 시가지청결대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의 청결정비와 개방 화장실의 확대운영이 필요했다.

1998년 11월부터 공중화장실 청결대책을 준비했으며 1999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작업을 벌였다. 불결했던 기존 공중화장실 기본개념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공중 화장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대폭적인 이미지 쇄신을 추진했다.

파. 공공근로사업 활용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활안정 근로능력 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계기로 시가지 주변 불량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EXPO의 성공적 개최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등 공공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EXPO특색사업비 20억원을 전액국비로 지원받아 대회장 주변정비 등 마무리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였다.

IMF이후 엑스포 준비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공공근로사업의 대폭적 지원으로 엑스포대비 환경정비사업을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으며, 우리 지역내의 노임살포 효과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었다.

10. 성숙된 손님맞이운동 전개

속초시 유사이래 유례없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기 위해서는 개최지 시민의 성숙된 시민정신발휘와 따뜻한 손님맞이 자세가 무엇보다 긴요했다. 시민의「질서 · 친절 · 청결」운동을 생활화 실천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국민운동단체와 연대해 기초질서 지키기와 친절운동,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접객업소는 업소환경과 복장등을 개선하고 친절서비스로 관광객을 맞이할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었고, 관광숙박업체와 운수업체에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대규모 이벤트 행사에서 볼 수 있는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심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식개혁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러한 노력과 개최지 시민의 긍지가 충분히 발휘되면서 엑스포 기간중 관광객 환영 분위기가 시 전역에 걸쳐 무르익었고, 방문객들로부터 도시환경과 질서, 손님맞이 자세 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반응을 얻게 되었다.

11. 엑스포의 체계적 운영지원

가. 행정인력 지원

엑스포의 효율적 준비와 지원을 위해 속초시엑스포지원단을 1998년 4월 6일「1단 2과 6팀」으로 발족하여 가동시켰다.

엑스포 행사중엔 행정인력을 현장운영체제로 가동해 6개부문 214명(속초시 현 인원의 39% 차지)을 파견 또는 근무편성 지원했다. 엑스포와 관련한 행정인력 수요가 대폭 늘어났으나 현장근무체제하의 근무부서별 구체적 인력계상으로 낭비적 행정인력을 배제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공식행사 등 의전지원

엑스포 개·폐회식과 각종 행사의 초청인사 의전은 강원도조직위와 속초시엑스포 지원단, 시 자치행정과 상호 연계추진 했으며, 초청인사 선정은 물론 내·외 귀빈들에게 정중한 예우를 갖춰 국제행사에 걸맞는 의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전지원에 만전을 기했다.

다. 정보관리 지원

인터넷을 이용한 속초의 관광정보를 널리 소개하는 한편, 박람회장내 각종 전산장비 운용지원에 만전을 기했다. 다만 영문으로 번역된 속초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하지 못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속초의 각종 관광정보를 효과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웠다.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속초시로서는 미래의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영문 홈페이지 제작 등으로 전세계 네티즌들의 관광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장비를 확충하여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정보통신 지원

박람회장 내·외에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양질의 통신시설 확보 및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EXPO조직위와 유기적인 협조로 교환회선(통신)망 운영에 차질없도록 성공적인 행정통신 지원에 기여하였다.

마. 행정장비와 물자지원

엑스포 대회장 운영 등에 소요되는 각종 행정장비와 차량 등을 사전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회운영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물자지원면에서는 총 17종 257점을, 차량지원면에서는 총 10대의 차량으로 38회 102일간 지원하고, 환경 정비면에서는 총 115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사 내·외부 환경을 정비하였다.

세부적 내용을 살피면, 물자는 당초 계획수량인 총 12종 70점보다 많은 물량인 총 17종 257점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사무소 및 각 실과에서 물품을 지원 받아 엑스포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차량은 기동력확보를 위해 3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차량 배차계획에따라 의전용 3대, 물자수송용 9대, 운영차량 9대 등 총21대의 차량을 확보하였고, 9인승 스타렉스는 '99. 5. 14~11. 30까지 지원단에 파견시키고, 행사장 주변 노점상단속과 수질환경 일일점검

및 시정 홍보용 비디오촬영 업무 등 화물차 2대, 승합차 1대를 행사장에 지원하고 남은 차량 총 17대중 10대를 엑스포 행사에 지원하였으며 운전기사 부족으로 해당 실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배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EXPO 행사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청사내부 및 부설주차장 정비, 민원실 편의용 벤치설치, 화단정비, 청사도색 등 총 12건 115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사 환경정비에 힘씀으로써 산뜻하고 깔끔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이바지 하였다.

바. 의료지원

엑스포 진료소를 행사장 북측게이트에 설치하여 엑스포 관람도중 발생하는 응급환자는 물론 일반진료까지 전담토록 했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 등 총 4명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엑스포 진료소는 혈압계, 산소탱크, 인공호흡기 등 응급장비와 소화제, 지사제, 진정제 등 30여종의 약품을 구비한 가운데 영북지역 공중보건의들이 교대로 근무하였고, 하루평균 50~60명이 이용하여 행사기간중 응급환자를 포함해 총 1천8백36명의 일반환자를 진료했다.

또한, 기동의료반 편성 운영과 의료지원 본부의 24시간 운영으로 화재나,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집단 식중독 등 각종 대형사고에 따른 대량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체계를 사전점검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사. 방역대책수립 운영

엑스포가 개최되기 전에 하절기 특별 방역활동을 벌였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등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음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균검사를 하는 등 엑스포에 대비한 사전 방역활동을 활발히 추진했다.

아. 급수대책 추진

엑스포 기간 중 1일 최대 관람객이 60,000명일 때 6,000천톤의 용수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관람객 및 시민에 대한 최적의 급수공급을 위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우선 상수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시내 노후관 및 불량 수도전을 일제 정비하고 각 가정의 출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숙박시설 511개소 및 고지대에 대한 집중적인 수압측정을 병행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엑스포장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많은 물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상황에 맞도록 엑스포장에 기매설된 관로를 대상으로 퇴수를 실시해 고지대 및 관말지역에 대한 수압 및 급수상태를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출수불량지역이 460세대 정도 발생되어 시내급수와 관계없는 주공4차앞 관말에서 D250m/m 관로를 매설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또한, 엑스포 기간중 인위적인 수도관파열 또는 취·정수시설의 돌발적인 고장 및 수질 오염등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협력업체를 지정하는 등 기동 태세를 철저히 완비하여 운영하였다.

다만, 속초시의 지형적 특성상 엑스포기간 동안 갈수기가 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단계별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엑스포를 앞두고 135mm 정도의 비가 때마침 내려 근본적인 물부족 현상이 해소했다.

지난 1995년 가뭄으로 인해 연말 제한급수를 단행한 적도 있었지만 지난 1998년 쌍천 지하 차수벽 공사 준공으로 정상급수가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엑스포기간에 단 한차례의 급수중단사태도 없었다.

자. 대회장 내외 청소지원

엑스포 행사기간중 청소인력을 행사장에 상주시켜 수시 즉각적인 청소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청결한 국제엑스포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관광객에게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국민운동단체와 자원봉사자, 군장병, 주말학생봉사활동 등 대회장 청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회장 청결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차.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빛나게 한 것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과 원활한 교통소통, 친절한 안내, 질서와 청결,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50일동안 음지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며, 매일 200여명이 참여한 쓰레기수거, 꽃밭가꾸기, 질서계도, 교통질서, 엑스포장 안내, 장애인 관람돕기 등의 봉사활동은 우리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최적의 관람분위기를 제공케

하여 성공엑스포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부 통역자원봉사자의 경우 당초 의도한 통역역할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한 관광안내 등에 비중이 높아지자 흥미를 잃고 이탈하는 사례가 있어 다소 아쉬웠으며,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활동에 비해 사기진작이 될만한 처우를 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카.「속초시의 날」공연참가

EXPO 기간중 설악마당에서 시도 · 시군의 날을 지정하여 지역별 특색 풍물공연을 통해 저마다 향토색 있는 자랑거리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속초시의 날』행사 공연은 음악 · 미술 · 연극이 혼합된 총체극으로 준비하였으며, '폐허, 정착, 재건 그리고 약속' 이라는 4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한국전과 실향민의 정착, 도시의 형성으로 이어진 반세기 동안 속초의 역사를 소개하였다.

통일과 귀향의 염원을 모아 건립한 수복기념탑에 등장하는 여인과 아이를 비롯, 어부와 군인, 실향민과 양공주 등 속초시의 형성과정을 대변하는 인물과 갯배, 울산바위, 북청사자놀이 등 속초의 상징물이 등장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보기드문 장르인 연극, 음악, 미술이 함께하는 '총체극' 으로 속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시사한 기획의도가 돋보였으나, 실내가 아닌 엑스포장의 야외무대에서 공연돼 공연내용을 정확하게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데 미흡했다는 평이다.

당초엔 중국훈춘가무단을 초청, 함께 공연하려 했으나 중국 공산당 창립 50주년 기념식 관계로 취소돼 총체극만을 공연함으로써 대중성 확보와 관람객의 흥미유발에 다소 부족했고, 연극의 특성상 내용을 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공연 내용을 관람해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나 시간에 쫓기는 EXPO 관람객을 장시간 머무르게 하기에는 적절치 못했다는 사후 평가도 있었다.

타. 속초시 전시관 운영

엑스포장내 강원도관에는 도내 18개 시군이 저마다의 향토문화와 자랑거리를 가지고 전시 참가하였다. 속초시와 춘천시는 각 30평, 기타 시군은 10평 규모로 신청하여 엑스포 기간중 시설운영 하였다.

속초시관은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산, 바다, 호수 등 천혜의 자연조건 그

리고 독특한 볼거리와 함께 미래의 비젼을 연출하였고, 타지역과의 관광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으로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많은 찬사와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선사유물과 오징어공예품 등의 전시는 우리시의 역사성 제고와 함께 관광 볼거리 등을 한단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제5절 종합평가

1. 총 평

지난 19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동안 속초 청초호변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지구촌 관광가족의 환호와 열기로 뜨겁게 달구었던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우리지역 사상초유의 대규모 국제행사이면서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지구촌 대축제 였다.

전 도민의 명예를 걸고 야심찬 의욕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번 엑스포는 그 규모와 내용, 흥행, 유 · 무형의 성과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60개국 7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엑스포는 '93대전엑스포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치러졌고 지방정부가 주관한 국제행사로는 가장 성공한 대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강원관광의 세계화 실현과 주도권 확보는 물론,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국제관광의 노하우 집적과 자신감 배양, 지역주민들의 관광마인드 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엑스포의 성공요인은 치밀한 사전준비와 최적의 대회장소, 성숙한 시민정신 구현, 전 도민의 알뜰정성이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미비점과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항공편 등 수도권과 의 접근성이 취약해 해외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드러냈고 관광객의 도심유치와 연계관광 알선이 미흡하여 엑스포 기간중 기대했던 만큼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했다.

매머드급 대이벤트였던 만큼 기대와 아쉬움도 크지만 전체적으로 성공대회를 이끈 보람과 긍지는 더욱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분명 엑스포를 통해 속초를 비롯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세계에 알려 국제적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고, 미래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엑스포의 성공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국제관광지의 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회장을 세계관광 정보교류의 메카로 육성하고,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새천년맞이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그리고 각종 국제적인 매머드급 행사와 효율적으로 연계해 나감으로써 21세기 유무형의 관광 부가가치를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일이 남았다.

2. 주요성과와 반성

가. 주요성과

관광엑스포 성공개최로 인해 얻어진 성과는 직접적으로 가시화된 부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간접적 무형적 성과가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간접자본 등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돼 지역발전을 앞당겼다는 평가다.

국제적 행사개최가 아니었으면 십 수년 이상 걸릴지도 모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불과 4년만에 이뤄져 가시화된 것이다. 온천로와 미시로 확·포장 등 접근 도로망을 크게 확충했으며 특히 생업현장이기도 한 관광유원지 등 시가지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기반 위에서 신세기를 맞게 됐다.

엑스포 주제관과 상징탑이 그대로 남아 이를 중심으로 한 종합관광여건이 조성됐다는 의미는 남다르게 크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로 시민 휴식 공간이 자연스레 조성됐고 주변환경 또한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보았다. 청초호유원지내의 주제관·상징탑 등 특색있는 관광명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단체관광을 도심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성과는 지대하다.

엑스포를 계기로 강원도내에 직·간접적 자금유입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약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큰 기대만큼의 경기부양은 아니더라도 엑스포로 인하여 타도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켜가는 등 지역경제적 도움의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관광엑스포를 통해서 우리지역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소개하였다.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사전홍보와 엑스포 기간중의 주제전시를 통해서 청정강원의 이미지와 수려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렸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5만여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비롯한 220만 관람객은 우리지역의 잠재적 고객으로 남게 되었고, 엑스포 개최지로서의 명예와 함께 한국관광의 1번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향후 국내외 관광객을 폭넓게 유치할 수 있

는 기반을 확실히 닦았다는 평이다.

엑스포 개최의 또다른 성과는 개최지 시민들의 관광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의 향상이다. 엑스포 준비기간 뿐 아니라 대회기간 내내 자가용운행안하기 운동의 자발적 참여등 국제관광지 시민다운 손님맞이 체제를 구축해 향후「국제관광의 메카」로 도약하는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환동해권 등 여러 국가와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 해운, 항공, 관광, 수산, 무역 등 교류의 물꼬가 트였고, 앞으로 지역발전의 모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미국 KWR사 등 해외투자 회사들이 엑스포장 주변에 관심을 보이며 레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의향을 표명하는 등 지역관광개발에 해외투자가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결국 속초가 한국관광의 요람이 되기 위한 관건은 국제해운, 항공, 철도, 고속도로 등 접근망의 개선과 다양한 관광인프라의 확충이다. 이번 관광엑스포 성공이 이런 대단위 현안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었다.

나. 성공요인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요인은 대략 일곱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최적의 대회장소를 선정하여 완벽한 기반조성을 한 점이다. 대회장소인 청초호 유원지는 설악산과 청초호, 동해바다, 시가지 전경 등을 함께 조감할 수 있는 곳이며, 더욱이 철새도래지이고 자연석호인 청초호와 연접해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7백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설악산 등 주변 관광지를 갖춘 지리적 여건상 관람객 확보가 유리하였고 대형 관광숙박시설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관광객 수용이 용이하였다.

둘째, 엑스포와 관련한 많은 사업을 알차게 추진했다. 접근 도로망과 주차장을 확충해 대회기간 중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했고 가로환경 정비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 깨끗한 엑스포 개최환경을 조성했으며 관광유원지와 설악산 소공원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완벽하게 정비해 쾌적한 쉼터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엑스포의 붐 조성을 활발히 추진했고 관광안내 체계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셋째, 지방 주체의 엑스포로는 최대인 60개국 78개 지방정부를 엑스포에 참가시켰고, 입장권 1백40만매를 예매해 결과적으로 관람객 유치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기반이 되는 등 엑스포 참가자 유치와 홍보활동에 성공을 거뒀다.

넷째, 이번 엑스포가 전체적으로 짜임새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는 평이다. 대회장 시설과 규모상 과감한 투자가 이뤄졌고 행사장 여건에 어울리는 사설행사장 배치 또한 돋보였다. 세계 22개국의「내셔널 데이」등 수준높은 공연이 일정별로 다양하게 열렸고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갖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벤트사에 의존하지 않고 공무원 위주의 소수 정예인력으로 엑스포를 운영하는 신기원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큰 도움을 준 것은 개최지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유감없이 발휘한 점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회기간 내내 자가용 운행을 자제했고 교통질서지키기에 솔선수범 했으며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친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대회기간중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가 일체 없었던 것처럼 관광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화단가꾸기, 거리청소, 거리질서, 통역, 관광안내 등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섯째, 범도민적인 엑스포참여와 지원체계 구축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관광의 중요성을 도민 모두 인식해 전 도민이 엑스포 기간중 관광요원으로 동참해 활동하였고, 범도민적인 화합 분위기속에 엑스포 관람하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엑스포 기간중 강원도내에서 70만명이 엑스포를 관람했으며 통역, 관광안내 등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홍천과 양구의 경우 인구의 10%가 대회기간중 엑스포장을 찾아 6 · 25이후 가장 많은 주민이 한꺼번에 이동한 기록을 남겼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IMF의 구제금융 등 경제적 어려운 여건하에서 소요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각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게 된 점이다.

주제관과 상징탑 건립, 청초호유원지 기반조성, 도로망 확충 등 사업비 확보의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으나 슬기롭게 극복했고,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는 천우신조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국고를 최대한 지원받아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큰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 아쉬운 점

엑스포를 치르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엄정하게 점검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 앞으로 개선해나갈 교훈으로 삼아 향후의 유사한 각종 국내 · 외 행사나 관광진흥사업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항공편을 이용한 수도권과 의 접근성 취약과 외국인의 쇼핑 여건 불비, 외국인 수용시설 절대 부족 등이 주요원인이었다. 해외 관광객 알선업체의 경우 항공편 운항의 부족으로 많은 인원이용에 제약을 받았고 특히 육로로 개최지를 찾으려면 수시간이 걸려 해외관광객 유치가 여의치 않았다. 더욱이 일본과 중국관광객이 선호하는 쇼핑관광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특급 내지 1급호텔의 객실수가 설악권을 통틀어 4백20실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이번 엑스포 기간에 찾아온 5만3천명의 외국인 관광객수가 결코 적지도 않았다고 위안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초 속초시는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엑스포의 성공과 동시에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엑스포 관람객을 도심으로 유치하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좀더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외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였고, 관광유원지 개발과 테마여행 상품보급, 체계적인 관광숙박 음식 안내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 추진하였다.

속초생선회축제와 설악문화제 등 의욕적으로 준비한 장외행사가 연이은 기상악화 등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차질을 빚어 관광객의 시중 유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영랑호 개방과 관내 여행사를 규합한 관내 관광 패키지상품 개발보급을 추진했으나 대규모 관광객을 유입하는 인기몰이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엑스포 특수를 기대해 평소보다 음식접객업소 수가 10%정도 신설 증가했으나 엑스포 대회장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만 호황을 누렸고 시내 중심가에는 관광객 공동화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원인은 IMF이후 알뜰관광 추세의 영향으로 여행경비를 줄이며 엑스포장 위주로 관광일정을 잡는 관광패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엑스포 대회장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우선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국제전시관의 경우 세계관광과 해외특산품 쇼핑의 묘미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기념품 판매를 5개 품목으로 제한하여 판매 허용했으나 그 중 일부가 판매 위주로 과열 운영되면서 비승인품목이 유입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되기도 했다.

또한 도내 향토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향토음식점의 일부 사업자가 코너를 전대하는 등 향토음식점 본래의 의도를 살리지 못하였고, 실제 분양가가 높아짐에 따라 음식요금도 비싸져 관람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했다.

대회장 주차장 운영을 맡은 대행사는 자기들 영업이익에만 급급하고 엑스

포 관람객에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엑스포 전문 안내요원으로 선발된 통역자원 봉사자들중 일부는 통역활동보다 이와 다른 일반 봉사활동에 비중이 높아지자 흥미를 잃고 이탈하는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시 · 도의 날」,「시 · 군의 날」행사 대부분이 사물놀이 등 전통음악에 치우쳤고, 특히 마당놀이 형식의 메인 공연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 관람시간에 쫓기는 관광객에게는 적당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끝으로 주제관과 상징탑의 관람수용 능력이 한정돼 있어 입장객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사전에 예견했고 시설규모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입장객이 줄을서서 기다리는 대기장소의 불편사항은 적절한 개선방안이 아쉬웠다.

3. 앞으로의 과제

가. 엑스포 대회장의 효율적 활용 대책

우선 대회장이었던 청초호 유원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면서 엑스포를 기념하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호수변 쪽은 자연생태계 보존 차원의 녹지와 생태관광지, 그리고 다목적 시민광장으로 나눠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자연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엑스포 성공개최를 기념하는 시민식수공원으로서 시민의 자발적 헌수에 의해 조경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제관과 상징탑을 연계한「창조된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엑스포 기념관 등 관광관련 전시와 홍보센터를 보강설치해 운영하고 이와함께 상설 이벤트 공연시설을 갖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특히, 설악산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정례 답사코스로 관리해 도심의 관광객 유치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ASEM대회, APEC관광장관 회의,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연계해 소규모의 관광엑스포를 정례화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야 한다. 관광 엑스포의 정례화에 맞춰 관광기념품 교역전, 민속페스티발 등 변형된 형태의 이벤트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청초호 유원지 분양대상지를 활용한 외국인 전용시설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북방교역의 중심지가 예상되는 속초에 민간자본으로 대단위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원활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규모 외국인 관광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전용 면세용 관광쇼핑센터(250평)와 외국인전용 카지노시설을 국제규모로 건립해 이곳에서 강원 특산물 전시 판매와 관광홍보 기능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 설악권 접근성 제고

많은 관광객이 왕래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해·공으로 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이 최대관건이다.

우선, 3~5만톤 규모의 관광유람선이 입·출항할 수 있게 속초항의 항만시설을 크게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향후 북방항로를 비롯한 환동해권 관광·교역항로 개설에 대비하여 항만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속초시는 2011년까지 2만톤급 1선식, 3만톤급 2선식 규모의 접안시설을 담은 「속초항 관광선 부두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99년 8월 발주하기도 했다.

수도권에서 설악권 으로 접근하는데 가장 큰 애로는 관광성수기의 교통체증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체증 없이 2시간대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미시령 동서관통 터널(6.68㎞, 1,854억원)과 4차선 확·포장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하다. 강원도의 민자유치나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의 조기 가시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육로 확충 뿐 아니라 항공노선 확충도 중요하다. 엑스포 기간 중 항공노선의 부족으로 외국인 유치에 제약이 따랐다. 따라서 양양국제공항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유체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이와 함께 동서고속도로 건설(서울~양양 간 158.6㎞)이 조기에 실현돼야 하고 동해 북부선 철도의 복원(강릉~고성 간 96.0㎞)과 춘천~속초 간 철도부설(108㎞)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강구

21세기의 관광패턴은 자연생태관광 뿐만 아니라 인문관광과 교육, 레저, 오락이 겸해지는 종합관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산과 바다 호수의 생태관광 뿐 아니라 지역문화자원을 창출하고 청호동의 아바이 마을 등 우리 지역의 생활사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문자원을 발굴·보존·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주는 특색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상설이벤트 공연장을 설치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외

지 관광 알선 영업형태를 외지에서 관광객을 모집해 직접 설악권에 알선할 수 있는 지역여행업체를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경쟁력이 높은 특산품 등 특화업종의 개발과 투자로 시장개척에 힘써야 하며, 중산층을 겨냥한 알뜰하고 보람있는 여행상품의 개발로 관광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관광추세에 부응해 나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 관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속초 해안변을 스킨스쿠버, 해저탐험, 윈드서핑, 요트, 바다체험장 등「해양관광 단지」로 중점 육성하고 스키장 조성, 모노레일 등 육상 운송 시스템을 구축해 설악산 4계절 관광휴양지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문화자산 발굴과 생태공원 조성, 해양첨단산업단지 조성 등「문화 · 환경」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광문화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설악권의 고유한 이미지와 브랜드를 정착시켜 특성화 함으로써 타지역과 차별화된 매력을 갖는 관광지로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마. 설악~금강산 연계관광 개발

북한 장전항과 해상관광호텔을 연계한 다양한 일정의 쾌속선이 취항하고「일본 하카다~속초~북한 장전」간 항로개설도 추진해 금강산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설악~금강산간 연계관광의 관건도 두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S.O.C시설의 확충이다. 금강산은「보는 관광」, 설악산은「체류 · 휴양관광」으로 차별화하여 이에 걸맞는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설악산 숙박단지나 콘도촌 등 휴양시설을 경쟁력 있는 시설기능으로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악산 종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관광개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 자르비노와 중국 훈춘을 통한 백두산항로 개설을 기점으로 국제 교역의 활성화를 기하고 남북이 공동어장을 운영하는 방안 등 수산업 교류 확대를 추진하면서 남북의 인적, 물적 교류수용 시설을 확충하는 등 북방교류 사업이 확대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제6장 백두산항로개설 (속초~자루비노~훈춘~백두산)

제1절 개 요

민족의 영산 백두산과 최단거리(944㎞), 동북아 골든 트라이앵글(3각지대)로 불리는 백두산항로(속초-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가 4월 28일 오후 3시 역사적인 첫 출항을 하였다.

과거 동해바다는 냉전의 바다, 긴장의 바다로서 항상 전운이 감돌았으나 21세기를 맞아 이제는 희망과 화해의 바다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백두산항로에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비유될 만큼 새로운 거대시장의 발견으로 해석되고 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진출하는데 있어 안정적이고, 저렴한 물류비용과 승선비용 등 새로운 수송(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동해권 인적 · 물적 교류증진을 위한 무역항로겸 설악권과 백두권을 연계한 관광항로가 개설됨으로서 우리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40여만원대(4박5일 일정)의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속초~자루비노~훈춘간 해 · 륙교통로가 개설됨으로써 중국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을 포함한 러시아 연해주 등 인접지역과 이국간의 인적 · 물적교류를 촉진하게 되어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의 경제지대중 핵심지역인 자루비노 및 훈춘시를 연결하는 수송로 확보로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동해권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최초의 카페리항로로서 환동해 경제권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제2절 추진 및 제반사항

1. 백두산항로 추진과정

백두산항로는 동춘항운(사장 文俸洙)이 지난 91년 속초-라진-훈춘간 항로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93년 3월 한 · 중 정부로부터 카훼리

운항사업자로 지정, 중국 훈춘과 연길지역 진출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다.

1999년4월 한 · 러해운회담시 포시에트항 통과관련 사항에 합의, 그해 11월 러시자루비노항장과 항만 및 항만시설 사용계약서를 체결했다.

1999년 12월에는 포시에트항 기항관련 외항정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지난 1월 자루비노항을 중계항으로 운항항로 변경신고수리를 마친 후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속초국제터미널 부지 신축허가를 받아 2000년 2월 10일부터 공사를 착공했다.

백두산항로 출항지가 될 속초항내 국제터미널은 건축면적 1천573평중 여객터미널시설 1천81평 여객편의시설 451평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 동해세관 등 10여개 유관기관들이 통관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0년 4월 28일 속초시 동명항에서 첫 취항에 들어간 이후 여행자수는 2004년 12월 현재 232,036명으로 나타났다.

- 1991. 5. 속초~라진~훈춘간 해 · 륙교통로 개설추진
- 1992. 9. 훈춘시 인민정부와 항로개설을 위한 합의서 서명, 교환
- 1993. 2. 한 · 중 해운 당국자간 속초~훈춘간 해 · 륙 교통로 개설합의
- 1993. 4. 해양수산부(전 해운항만청) 속초~훈춘간 항로 운항사업자 선정
- 1994. 5. 포시에트항 정기 CAR-FERRY 입출항 동의 및 항만시설 사용계약 체결
- 1995. 4. 속초~라진~훈춘 CAR-FERRY 항로 개설 협정서 체결 (훈춘시장/나진시장)
- 1999. 4. 한 · 러 해운회담시 포시에트항 통과 관련 사항 협의 및 합의

- 1999. 6. 한 · 중 합작법인(동춘항운주식회사)설립을 위한 투자계약서 체결
- 1999.10. 동춘항운주식회사 신규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취득
- 1999.11. 러시아 자루비노항장과 〈항만 및 항만시설 사용계약서〉 체결
- 1999.12. 포시에트항 기항관련 「외항정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취득
- 2000. 1 자루비노항을 중계항으로 운항항로 변경 신고수리 (해양수산부)
- 2000. 3. 자루비노 항만관련 제계약 체결완료
- 2000. 4.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준공
- 2000. 4.28 속초 자루비노 훈춘간 국제정기CAR-FERRY 개설 및 「동춘호」 첫 취항
- 2003. 11. 「동춘호」 블라디보스톡 연장운항

2. 백두산항로 거리와 운항항로 그리고 비용문제

백두산항로는 속초항에서 동해바다 영해를 거쳐 카훼리로 러시아 자루비노까지 해상을 이용한 후 중국 훈춘을 거쳐 백두산까지 육로를 이용하는 총 길이 944㎞를 25시간 걸리는 코스이다.

이는 기존의 인천-단둥-연길-백두산으로 이어지는 1,848㎞와 48시간소요에 비해 절반수준이다. 운항계획은 주3회 왕복으로 속초에서 월 · 수 · 금요일 출항하며 수 · 금 · 일요일 입항하는 정기항이며, 운송선 이름은 '동춘호'로 총톤수는 1만2천3t급으로 총 승선인원 519명(여객정원 467명, 승무원 52명)과 20피트규모 컨테이너 136개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 백두산항로는 연간 총 8만명, 5천여개를 수송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은 4박5일(단체실 이용) 45만원선으로 항공편으로 백두산 가는 비용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3. 운항사업자 및 선박제원

- 운항사업자 : 동춘항운주식회사
- 선박제원
  - 선 명 : '동춘호' (M/V Dong Chun)

- 선　　종 : 카훼리선
- 건조년도 : 1982년
- 총 톤 수 : 12,023 G/T (International Tonnage)
- 적재능력 : 여객정원 467명(승무원 52명 제외),
  컨테이너(20Feet, 136TEU)
- 최대속력 : 22.79Knot (항해속력 : 21.30Knot, 85% MCR)
- 선박길이 : 146Meters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 선박국적 : 대한민국(Korea Flag)

제3절 항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

1. 북방항로 관련업체 초청

• 북방항로를 이용하는 관광객 모집 국내외여행사와 무역관련 업체 대표를 초청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여 행 사 : 관내 주요관광지를 소개하여 금강산 · 백두산, 러시아 관광상품에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산업을 활성화
- 무역업체 : 주요관광지와 대포농공단지, 농수산물 가공공장 등을 시찰시켜 지역연고상품 판로개척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2. 소무역인 육성을 위한 직원연수

• 「백두산 항로」개설이후 중국 ·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역으로 인한 물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 근시일내 속초항이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고 러시아, 일본 과의 직항로가 개설될 경우 외항선의 입 · 출항이 자유로워져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이러한 호기를 지역업체와 연계한 활성화가 필요하나 무역에 관한 전문가가 없어 실질적 대응에 문제점 예상되므로
⇒ 무역전문가 양성차원에서 교육실시

3. 소규모 무역상 육성

• 중국세관 당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의 변경으로 소무역상의

휴대품을 25kg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는 정상무역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나

- 관내 소무역상은 현지 상거래 실정과 정상무역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하여 소무역상 양성차원에서 창업, 실무교육(중 · 러 현장교육포함)을 실시
- 소무역을 통한 백두산항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제4절 효과 및 과제

1. 한국 · 중국 · 러시아 등 동북아 3개국에 미치는 향후 경제와 관광효과

중국의 길림성 등 동북3성의 인구가 1억명이며 러시아의 극동지역인구가 780만명이다. 이때문에 한-러-중을 잇는 3개국 교역 해륙항로인 백두산항로가 '동해바다의 新실크로드로 명명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두산항로개설로 중국 연길지역 주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00여개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며 동대문의류상인들도 훈춘에 도매시장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진흥공사도 중고차 수출항로로 활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어낸 만큼 북한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지구의 개방유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21세기 동북아 물류기지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백두산관광특구를 기대할 수 있다. 내국인의 백두산관광은 기존의 관광루트와 비교할 때 시간과 비용면에서 우의에 있어 당분간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동해안을 이용하는 무역거래는 약 40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강원도와 속초시가 해야 할 과제

백두산항로로 인해 강원도와 속초시는 중국 러시아를 오가는 보따리상인들과 관광객들의 인적교류와 생활필수품의 물적교류의 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국제도시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속적인 수입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강원도와 속초시는 부산, 인천과는 달리 기존의 항만시설 유통자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거대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종속화, 통관 무역도소매 등의 부가가치를 외부조달로 거쳐가는 도시로 전락될 가능성도 높아 지역주민이 개방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 미시령터널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야하며 외국인들이 편안한 관광 및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5절 백두산 항로 이용현황

이 용 객 현 황 (단위 : 명)

구분 / 월별	2000년				
	항 차	계	관 광 객	소 무 역 상	기타(외국인)
계	170	36,723	16,118	19,379	1,266 (463)
1 월	–	–	–	–	–
2 월	–	–	–	–	–
3 월	–	–	–	–	–
4 월	2	250	–	–	205
5 월	15	1,189	–	822	367
6 월	26	3,598	2,161	1,422	15 (2)
7 월	24	6,767	5,026	1,682	59 (13)
8 월	27	10,056	7,614	2,372	70 (47)
9 월	19	2,867	969	1,801	97 (95)
10 월	24	3,028	125	2,874	29 (26)
11 월	16	3,856	71	3,728	57 (42)
12 월	17	5,157	152	4,678	327 (238)

구분 / 월별	2001년					증 감 (전년대비,%)
	항 차	계	관 광 객	소무역상	기타(외국인)	
계	214	52,122	7,445	40,503	4,174 (3,419)	420
1 월	13	3,321	71	3,087	163 (78)	
2 월	14	3,689	22	3,450	217 (193)	
3 월	16	3,610	18	3,504	88 (88)	
4 월	11	2,330	13	2,164	153 (145)	
5 월	25	4,351	163	3,388	800 (705)	
6 월	21	4,331	387	3,297	650 (283)	20.4
7 월	25	6,025	1,394	4,228	403 (389)	△ 11.0

구분 / 월별	2001년					증감 (전년대비,%)
	항차	계	관광객	소무역상	기타(외국인)	
8 월	28	6,506	1,768	4,298	440 (402)	△ 35.3
9 월	25	6,229	1,738	4,222	269 (213)	117.3
10 월	23	3,854	635	2,985	234 (233)	27.3
11 월	22	3,739	495	2,976	268 (222)	△ 3.0
12 월	18	4,137	741	2,907	489 (468)	△ 19.7.0

구분 / 월별	2002년					증감 (전년대비,%)
	항차	계	관광객	소무역상	기타(외국인)	
계	236	51,452	12,406	27,478	11,568 (7,909)	△ 1.3
1 월	8	1,562	173	941	448 (279)	△ 53.0
2 월	12	2,151	210	1,467	474 (201)	△ 41.7
3 월	23	3,523	215	2,754	554 (307)	△ 2.5
4 월	7	1,437	67	942	428 (322)	△ 38.4
5 월	28	5,925	1,112	3,967	846 (564)	136.1
6 월	23	5,351	1,320	2,939	1,092 (803)	123.5
7 월	25	7,348	3,277	2,795	1,276 (912)	121.9
8 월	26	7,774	4,251	2,074	1,449 (972)	119.4
9 월	22	4,520	1,209	2,196	1,115 (831)	△ 27.5
10 월	24	4,209	278	2,740	1,191 (817)	109.2
11 월	20	3,823	54	2,480	1,289 (860)	△ 102.3
12 월	18	3,829	240	2,183	1,406 (1,041)	△ 7.5

구분 / 월별	2003년					증감 (전년대비,%)
	항차	계	관광객	소무역상	기타(외국인)	
계		47,124	9,962	17,493	19,669	
1 월		2,903	497	1,460	946	
2 월		2,201	290	1,040	871	
3 월		3,460	758	1,476	1,226	
4 월		2,941	200	1,306	1,435	
5 월		3,038	137	1,377	1,524	
6 월		3,398	388	1,252	1,758	
7 월		4,421	1,272	1,324	1,825	
8 월		7,670	3,773	1,942	1,955	
9 월		4,096	708	1,489	1,899	
10 월		4,262	510	1,739	2,013	
11 월		4,520	678	1,533	2,309	
12 월		4,214	751	1,555	1,908	

구분 / 월별	2004년 항차	계	관광객	소무역상	기타(외국인)	증감 (전년대비,%)
계		53,916	14,601	16,463	22,852	
1 월		2,815	624	935	1,256	
2 월		3,699	925	1,063	1,711	
3 월		3,489	798	1,077	1,614	
4 월		4,700	623	1,436	2,641	
5 월		4,492	746	1,551	2,195	
6 월		5,249	1,736	1,496	2,017	
7 월		5,778	1,932	1,628	2,218	
8 월		8,174	4,042	1,797	2,335	
9 월		4,031	1,135	1,255	1,641	
10 월		3,622	640	1,300	1,682	
11 월		3,214	571	1,280	1,363	
12 월		4,653	829	1,645	2,179	

구분 / 월별	2005년 항차	계	관광객	소무역상	기타(외국인)	증감 (전년대비,%)
계	110	55,547	18,304	17,339	19,904	
1 월	9	5,496	1,788	1,697	2,011	
2 월	4	1,151	210	410	531	
3 월	9	3,738	663	1,483	1,592	
4 월	8	3,898	536	1,430	1,932	
5 월	9	4,206	1,133	1,464	1,609	
6 월	11	5,258	1,325	1,897	2,036	
7 월	13	7,288	3,215	2,161	1,912	
8 월	13	9,678	6,205	1,750	1,723	
9 월	8	3,654	1,148	978	1,528	
10 월	9	4,202	953	1,496	1,753	
11 월	8	3,563	542	1,398	1,623	
12 월	9	3,415	586	1,175	1,654	

화 물 현 황

(단위 : TEU)

구분 / 월별	2000년 항차	계	수화물	정기화물	특송	비고
계	170	1,190	411	779	–	
1 월	–	–	–	–	–	
2 월	–	–	–	–	–	

구분 / 월별	2000년					비고
	항차	계	수화물	정기화물	특송	
3 월	–	–	–	–	–	
4 월	2	1	–	1	–	
5 월	15	44	20	24	–	
6 월	26	105	53	52	–	
7 월	24	139	70	69	–	
8 월	27	188	70	118	–	
9 월	19	202	71	131	–	
10 월	24	213	44	169	–	
11 월	16	154	42	112	–	
12 월	17	144	41	103	–	

구분 / 월별	2001년					비고
	항차	계	수화물	정기화물	특송	
계	241	2,805	400	2,358	47	
1 월	13	99	27	27	–	
2 월	14	123	23	100	–	
3 월	16	121	24	97	–	
4 월	11	100	15	85	–	
5 월	25	140	30	110	–	
6 월	21	210	26	184	–	
7 월	25	294	38	256	–	
8 월	28	232	34	281	8	
9 월	25	371	50	312	9	
10 월	23	349	47	294	8	
11 월	22	354	43	298	13	
12 월	18	321	43	269	9	

구분 / 월별	2002년					비고
	항차	계	수화물	정기화물	특송	
계	236	4,564	388	4,067	109	
1 월	12	164	16	142	6	
2 월	23	262	23	235	4	
3 월	7	384	35	342	7	
4 월	28	204	12	188	4	
5 월	23	433	44	375	14	
6 월	25	396	35	351	10	
7 월	26	447	47	387	13	

구분 / 월별	2002년					비고
	항차	계	수화물	정기화물	특송	
8 월	22	478	48	415	15	
9 월	24	544	32	503	9	
10 월	20	492	32	452	8	
11 월	18	354	31	313	10	
12 월		406	33	364	9	

백두산 항로 화물운송 실적(2003~2005) (단위 : TEU)

		2003년			2004년			2005년		
		입항	출항	계	입항	출항	계	입항	출항	계
컨테이너	20TEU							1,022	533	1,555
	40TEU							858	850	1,708
	계	3,246	2,336	5,582	2,796	2,227	5,023	1,880	1,383	3,263
수하물					107	141	248	99	244	343
차량	일반								2,132	2,132
	중장비								127	127
	계		51	51		1,361	1,361	11	2,259	2,270
기타		14	33	47		19	19	1	40	41
합계		3,260	2,420	5,680	2,903	3,748	6,651	1,991	3,926	5,917

제7장 금강산 관광선 취항(속초~장전(고성)항)

제1절 개 요

금강산 관광선은 1998년 11월 18일 현대금강호와 현대 봉래호가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장전항까지 취항을 시작으로 현대풍악호가 2000년 3월 9일 부산항에서 취항 개시하였으며 2001년 1월 6일(토) 속초시 동명동 속초항내 금강산 관광선 접안부두에서 유관기관 단체 임원 및 시민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관광선(현대 설봉호) 취항식을 가졌다.

1. 선박제원

- 선 박 명 : 트레저 아일랜드(Treasure Island) ⇒ 현대 설봉호로 변경
- 건조년도 : 1998년
- 총 톤 수 : 8,923톤
- 길　　이 : 114.50m / 폭 20.0m
- 흘　　수 : 5.10m
- 선　　속 : 18Knots
- 승객정원 : 788명
  [객실수 92실(관광객) + 22실(승무원)+324명(좌석)]
- 승 무 원 : 52명
- 국　　적 : 파나마

2. 금강산 관광 여객전용 터미널 현황

- 개　요 : 금강산 관광객의 입 · 출국 수속 및 대기 등을 위한 여객전용 터미널 건립
- 건립규모
  - 위 치 : 강원 속초시 동명동 53-3번지 속초항 內
  - 규 모 : 대지면적 : 3,795.00㎡ (약 1,150평)
  - 연 면 적 : 2,150.85㎡(약 650평)
- 공사기간 : 2000. 12. 1~2000. 12. 22
- 주요시설 : X-ray 검사대 2대, 문형탐지기 2대, 출입 심사부수 8조, 세관검사대 2조

제2절 추진개요

1. 현대상선의 금강산 관광선 취항 발단

- 1989. 1. : 금강산개발의정서 체결
  ⇒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 북한 방문시 체결
- 1998. 2. 14 : 금강산 개발 협의
  ⇒ 정몽헌 현대그룹회장 북한측과 첫 협의
- 1998. 6. 16 : 정주영 명예회장 북한 방문(판문점 통과)
  ⇒ 소 501마리 전달
- 1998. 6. 22 :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합의
  ⇒ 현대&북한(아태평화위원회)간 합의 계약서 체결

〈 합의내용 〉

· 1단계 : 유람선 사업(계약서 교환)

· 2단계 : 금강산 개발사업(의정서 교환)

※ 98. 6. 23, 정주영 명예회장 방북결과 발표

- 1998. 8. 7 : 현대, 동해항 취항지 결정(문화관광부 협의시)
  ⇒ 첫 출항지는 동해항으로 하되 부두 문제 해결시 속초항으로 변경 시사
- 1998. 8. 11 : 현대, 여객터미널건설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승인 : '98. 8. 27)
- 1998. 9. 7 : 현대,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승인(통일부)
- 1998.10. 27-11. 02 :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체결
  - 금강산지역(원산-해금강)에 대한 30년간 독점적 관광사업권, 토지 및 시설 이용권 보장
  - 세금면제, 통신 · 통행보장, 간편한 출입절차 등 국제적 수준의 특혜 보장
- 1998.11. 3 : 현대, 관광유람선업 등록 승인(동해시)
- 1998.11.18 : 금강산 유람선 동해항 취항
- 1999. 2. 5 : (주) 현대아산 설립
- 1999. 2. 5 : 김정일 국방위원장 금강산 방문
  - 현지시설 참관
  -「국제관광특구 금강산에서」친필 서명

- 2001. 6. 8 :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방문, 관광활성화 방안 합의
  - 관광대가는 6월분부터 관광이 활성화 될 때까지 현대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불(관광객 수에 따라 지불하되, 총액은 불변)
  - 7월중 당국간 협의를 거쳐 도로를 이용한 육로관광실시
  - 가능한 2개월 이내에 경제특구법을 제정, 공포
- 2001. 6. 20 : 현대 관광공사와 금강산사업 공동수행 합의서 체결
- 2001. 10. 3 - 5 : 육로관광 및 금강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개최(금강산)
- 2001. 11. 8 - 14 : 제6차 남북80장관급 회담 개최(금강산)
- 2002. 3. 21 : 금강산관광 경비 정부지원 지침 발표
- 2002. 4. 3 - 6 : 특사방북, 남북공동보도문 주요 합의 내용
  - 동해선, 서울-신의주-문산-개성 철도 및 도로 조속히 연결
  -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4. 28 금강산)
  -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의(5. 7-10 서울)
  - 제2차 육로관광 및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 (6. 11 금강산)
  - 북측은 경제시찰단을 남측에 파견(5월중)
  -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장소 및 시기 미정)
  -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합의
- 2002. 4. 28 - 5. 3 : 제4차 남북이산가족 교환 상봉(금강산)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후 최초로 남북가족이 함께하는 참관상봉(구룡연, 삼일포)실시
- 2002. 8. 12 - 8. 14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서울)
  - 제2차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합의
- 2002. 8. 27 - 8. 30 :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서울)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9월 18일 착공 합의
  - 동해선 임시도로 금년 11월말까지 연결합의
- 2002. 9. 4 - 9. 6 : 제4차 남북적십자 회담(금강산)
  -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 운영합의 (우선 금강산, 추후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후 추가)
- 2002. 9. 10 - 9. 12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간 회담(금강산)
  - 동해선 임시도로 완공시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및 특구지정에 대해 원칙 합의

• 2002. 9. 13 – 9. 15 : 남북 철도 · 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1차회의
(금강산)
–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문제합의
– 남북 자재 · 장비 제공관련 합의
• 2002. 9. 13 – 9. 16 : 제5차 남북이산가족 교환 상봉(금강산)
• 2002. 9. 18 : 남북 경의선 ·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 금강산 청년역, 북측의 초청으로 김윤규 사장 참석
• 2002. 10. 12 – 13 : 남북 철도 · 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2차회의(금강산)
– 북측구간 철도 · 도로 연결공사를 위해 지원될 자재 장비 1차 제공분의 품목과 수량 및 인도 인수절차 합의
• 2002. 10. 19 : 북측구간 철도 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자재 장비 출항
(경의선–인천항, 동해선–속초항)
• 2002. 10. 19 – 22 :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평양)
–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 · 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 · 도로를 금강산지역에 연결키로 합의
• 2002. 11. 18 : 금강산관광 4주년
– 관광객 50만명 돌파(11. 13)
• 2002. 11. 23 : 금강산관광 지구법 발표
– 강원도 고성군의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 일부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지역 특구지정
– 비과세 및 법인, 개인, 기타 등 경제단체들의 자유투자 보장, 투자 재산 법적 보장
– 2002년부터 2052년까지 50년간 토지이용증 확보
– 2001. 12 : NGO신문 “한국시민기업상” 남북교류부분 수상

2. 우리시의 금강산 관광선 취항 유치 노력

• 1998. 6. : 현대, 금강산 첫 출항지 결정 난항
⇒ 도내 3개항(속초 · 동해 · 옥계항)저울질
• 1998. 7. : 금강산쾌속선속초항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결성
⇒ 157개 민간단체 연합체 결성
※ 공동위원장 : 속초상공회의소장 · 속초시번영회장
• 1998. 7. : 금강산쾌속선속초항유치범시민결의대회
⇒참석인원 : 12,000명, 장 소 : 동명항

- 1998. 8. 13 : 금강산국제그룹 속초출항쾌속선운항계획발표
  ⇒ 속초 ↔장전간 1일 금강산 관광선 취항계획 발표
- 1998. 8. 13 : 금강산쾌속선운항 행정지원단 구성, 운영
  ⇒ 5개반(총괄기획반, 행정지원반, 항만시설반,
  도시정비반, 관광지원반) 22명
- 1998. 8. 16 ~ 17 : 금강산국제그룹 박보회회장 市 방문
  ⇒ 동명항 답사, 시정현황 청취 등
- 1998. 8. 18 : 금강산쾌속선운항 행정지원단 실무추진팀 구성운영
  ⇒ 행정5급 1, 수산6급 1, 행정7급 2, 토목7급 1,
  행정7급 1
- 1998. 8. 21 : 금강산국제그룹,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승인 신청
- 1998. 9. 25 : 속초시의회, 금강산쾌속선 조기 운항에 따른 협조
  건의문을 청와대 등 관계요로 발송
- 1998. 9. 29 : 통일부, 금강산국제그룹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자승인
  유보 발표(처리기한 20일 연장 결정)
  ⇒ 현대와의 과열경쟁으로 북한 반대이익 우려 사유
- 1998. 10. 2 : 속초시의회 · 금강산쾌속선속초항유치범시민위원회,
  통일부의 승인보류에 따른 촉구서한문을 청와대등
  관계요로에 발송
- 1998. 10. 13 : 금강산 국제그룹 박보희회장, 금강산 1일관광 기자회견
  (한국프레스센터)
  ⇒ 금강산 1일 관광 사업계획 발표

3. 금강산 관광선 속초항 취항 일지

- 1999. 9. 21 : 현대상선, 속초항여객터미널 건립의 건 문서요청
  (현대상선 →시)
  ⇒ 속초/장전항간 운항 관광객수송선 사업계획 송부
  (사업목적, 운항개요, 해상호텔개요, 여객터미널시설
  사용계획등)
- 1999. 10. 1 : 속초항 여객터미널 건립의 건 회신 (시 → 현대상선)
  ⇒ 속초항 관광선부두건설 공사계획 및 간이여객터미널
  시설 중앙부처 요청사항 등 적극적인 협조 동의
- 2000. 6. : 금강산 관광선 속초항 취항 발표(현대상선)

• 2000. 7. 25 : 여객터미널사용료 · 사무실사용 협의 (현대상선↔동춘항운)
⇒ 사용료 제시 : 현대 1,100원 / 동춘항운 11,000원
(관광객 1인 왕복기준)
• 2000. 7. 26 : 여객터미널 사용료 재협의 ⇒ 협의 무산
• 2000. 8. 8 : 속초/장전간 금강산 관광선 운항 대북사업 승인신청
(현대 → 통일부)
• 2000. 8. 10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 (현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운항구간 : 속초 ↔ 장전항
(거리:51마일, 소요시간:3시간)
– 운항선박 : 트레져 아일랜드
(8,923톤, 정원 788명, 18노트)
– 운항일정 :
1박 2일 (출항 : 오전 8시, 입항 : 오후 7시 30분)
2박 3일 (출항 : 오전 12시, 입항 : 오후 6시)
• 2000. 8. 14 : 여객터미널 사용료 및 사무실 사용 재협의 (현대↔동춘)
– 동춘항운(주)측 입장
· 건립 및 운영비용 보전을 감안 사용료 11,000원(1인 왕복)과
사무실임대료 평당 7백만원 요구
– 현대상선(주)측 입장
· 사용료 11,000원을 주장하면 현대상선(주)는 별도의 터미널을
건립할 수밖에 없음
· 사무실임대료 평당 7백만원은 주변 시세와 큰 차이로 재조정 요구
• 2000. 8. 16 ~ 8. 21 : 현대 →동춘측에 협의 재요구 공문 발송
• 2000. 8. 22 : 사용료 조정이 없으면 별도의 여객터미널을 건립하겠다
는 입장통보(현대 → 동춘)
• 2000. 8. 28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관련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현대 · 동춘간 사용료 문제 협의 중재(동해청)
– 출항(오전 8시), 입항(오후 7시 30분)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조정
: 현대에서 북측과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 조정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
– 출입국 관련기관 모두가 장비 · 인력 추가 소요를 감안할 때 기존
터미널 이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사용료에 대해 현대 · 동춘간 협의토록 유도하였으나 실패
• 2000. 8. 30 ~ 8. 31 : 출 · 입국 관련 기관장회의 개최 의견 수렴(동해청)
– 장비 · 인력 추가 확보가 곤란하므로 기존 터미널 사용 하여야 한다

는 의견 제시

- 2000. 9. 4 : 현대상선 사장외 4인이 동해청장 방문
  - 현대에서 별도 터미널 건립을 요청하였으나, 동해청장은 별도 터미널 신축은 안된다는 입장 표명
- 2000. 9. 4 : 현대상선 사장외 4인이 속초시장 방문
  - 현대에서 '98년도 금강산 유람선 동해항 출항에 대한 사과 표명 및 별도 터미널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동해항 출항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통보
  - 속초시에서는 속초항 출항을 환영, 현대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터미널 신축시 어민들의 위판장 시설 축소에 따른 반발 예상된다는 의견 제시
- 2000. 9. 6 : 관광객 전용터미널 신축을 위한 부지 사용신청 (현대 →동해청)
  - 기존 터미널 서측(유료주차장부지), 건축면적 650평, 가설건축물 1동(1층)
- 2000. 9. 15 : 강원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출 · 입국 관련 기관장 및 현대 · 동춘사장 연석회의 개최
  - 현대에서는 별도 터미널 건립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 2박3일 코스로 동해항에서 출항하겠음을 표명
  - 동해청에서는 1개월간 기존 터미널을 사용해 본 후 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기관 협의후 신축 검토하겠다는 의견 제시
  - 속초수협장은 속초항 출항은 환영하지만 터미널 공동사용 및 대체 어항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청

  ※ 속초시에서는 반드시 속초 출항이 되어야 하므로 터미널 신축문제를 신축성 있게 대처할 것을 동해청에 요청
- 2000. 9. 16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승인 통보하면서 조건부 승인 (동해청 →현대)
  - 기존 터미널 사용, 단 1개월간 사용후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후 기존터미널 사용이 부적합 판단시 터미널 신축여부 별도 협의
  - 터미널사용료는 동춘과 협의 결정하거나, 불가능시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실시하여 그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청
- 2000. 9. 18 : 속초시와 어민 대표간의 간담회 개최

– 백두산항로개설시 어민대표 요구사항에 대한 속초시 추진상황 설명
– 금강산 관광선 취항에 따른 속초시 입장을 설명
※ 속초항 항만개발 계획에 반영토록 해양수산부에 건의, 대체어항에 대한 용역 발주토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음을 설명

• 2000. 9. 19 :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현대 →동해청)
– 터미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속초항에서 동해항으로 변경 출항 (2박 3일 상품)

• 9. 19 : 속초시 입장에 대한 건의문 발송
– 시장의 건의문을 통일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발송
– 속초 취항을 환영, 터미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관광선이 속초항에서 계획대로 출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9. 21 : 동해청장이 속초시청 기자실 방문, 향후 추진계획 설명
– 터미널은 기존 터미널을 우선 사용해 본 후 추후 신축문제를 별도 검토
– 현대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반려하여 속초항에서 출항토록 하겠음을 표명

• 9. 21 :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반려 (동해청 →현대)
–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불분명하고
– 속초항의 접안시설과 터미널 등 항만시설은 선박 취항에 특별한 미비사항이 없어 속초항 기항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항로 변경의 타당성이 없음

• 9. 23 : 해상여객사업계획 변경 재신청 (현대 →동해청)

• 9. 25 ~ 9. 26 : 동춘 문봉수사장이 시청 출입기자에게 터미널 사용에 대한 입장 표명
– 현대의 관광선 속초 출항을 위하여 사용료는 현대가 제시하는 대로 받겠다는 공식 입장 표명
– 속초항 취항을 바라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터미널 무료사용도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 9. 26 : 동해청장이 터미널 건립등 현안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 보고
– 터미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해항에서 취항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

• 9. 26 : 현대 부사장외 2인이 강원도 정무부지사 방문, 입장 설명
– 별도 터미널 확보시까지 10월 한달간 동해항에서 한시적 취항

• 9. 26 : 현대 부사장과 속초시(부시장)간 입장 교환
– 현대에서는 10월 한달간 동해항에서 한시적 출항하고 11월이후

부터는 속초항 출항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제시

- 속초시에서는 터미널 문제는 신축을 포함해서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간다 하더라도, 첫 출항은 반드시 속초항에서 출항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

※ 10월 한달간이 관광 성수기이고, 시민들이 속초항 출항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속초항 출항을 요청

- 2000. 9. 27 : 현대 부사장외 4인이 속초지역 기관, 단체방문 입장 설명
  - 속발연, 시의회, 속초수협등 방문 설명
  - 현대에서는 별도 터미널 확보는 필수적이며, 안될시 사업 포기
  - 속발연에서는 10.1 동해항 출항을 강력히 반대하고, 속초항 출항을 촉구
  - 속초수협에서는 기존 터미널 공동 사용토록 요청
- 2000. 9. 28(16:00) : 동해청에서 현대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 수리
  - 1개월(10. 1 ~ 10. 31)간 동해항에서 출항토록 현대에 변경 통보

※ 터미널 문제는 추후 신중히 재검토하여 결정하겠음을 속초시에 구두 통보

- 2000. 9. 29(15:00) : 속초~장전항 금강산 쾌속선 운항 속초시민설명회 (230명, 문화회관대강당)
  - 금강산 관광선 취항관련 추진상황보고, 질의 답변등
- 2000. 9. 30(16:00) : 금강산 관광선 취항관련 시민단체회의 (시청상황실, 20명)
  - 어업인대표 여객터미널 신축 반대하지 않음을 시사
- 2000. 10. 1 : 「금강산 관광선 속초항 조기 취항을 바라는 속초시민의 입장」 건의 서명(1204명 서명)
- 2000. 10. 2 : 속초시장, 「금강산 관광선 속초항 조기 취항을 바라는 속초시민의 입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에 전달
- 2000. 10. 13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승인 3차 신청 (현대상선 → 동해청)
  - 2~3단계(매일 1회 및 매일 2회 입출항) 계획 명시
- 2000. 10. 23(14:00) : 현대의 제3차 신청에 따른 관련기관 회의
  - 터미널 : 1층 1동 2,151.32㎡(650.8평), 19억 6천만원 소요
- 2000. 11. 20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수리 (동해청 → 현대)
  - 공사명 : 속초항금강산관광여객터미널신축공사 (1층 1동 · 2,151.32㎡)

- 2000. 11. 25 :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 (현대 → 동해청)
- 2000. 11. 30(14:00) : 속초항 항만보완대책 실무위원회 (시의회 4층)
- 2000. 12. 1 : 속초항 여객터미널 가설건축물 허가
  - 대지면적 3,795.0㎡, 건축면적 2,180.9㎡, 지상 1층, 철골조
  - 존치기간 : 2000.12.1~2003.11.30,
  - 용 도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터미널
- 2000. 12. 27 : 관광사업자(관광 유람선업) 신청/등록 (2001.1.5)
  - 현대 설봉호(8923톤), 114.5m, 탑승인원 730명, 속력 17노트
- 2001. 1. 6 : 금강산 쾌속관광선 속초 취항식
  - 속초↔장전(고성)간 첫 출항 : 435명 (2박 3일)

제3절 금강산 관광선「설봉호」이용현황

구 분	2001년				비 고
	항 차	총 계(명)	내 국 인	외 국 인	
계	213	58,833	58,222	611	
1 월	35	6,472	6,434	38	
2 월	30	7,349	7,316	33	
3 월	42	10,433	10,378	55	
4 월	28	5,859	5,767	92	
5 월	13	5,458	5,364	94	
6 월	12	3,992	3,911	81	
7 월	7	2,588	2,574	14	
8 월	11	4,212	4,141	71	
9 월	9	2,662	2,623	39	
10 월	10	4,090	4,060	30	
11 월	10	3,565	3,527	38	
12 월	6	2,153	2,127	26	

구 분	2002년				비 고
	항 차	총 계(명)	내 국 인	외 국 인	
계	195	87,414	86,923	691	
1 월	4	1,463	1,462	1	
2 월	4	1,379	1,368	11	
3 월	8	3,002	2,966	36	
4 월	10	4,812	4,770	42	

구 분	2002년				비 고
	항 차	총 계(명)	내 국 인	외 국 인	
5 월	12	6,579	6,510	69	
6 월	20	7,659	7,606	53	
7 월	20	11,201	11,155	46	
8 월	20	12,101	12,036	38	
9 월	13	4,908	4,895	13	
10 월	23	13,075	12,912	163	
11 월	20	11,023	11,015	8	
12 월	21	10,212	10,210	11	

월 별	항 차	계	내국인			외 국 인(근로자)					
			소계	근로자	기타	소계	미국	일본	우즈백	호주	영국
계	52	6,501	5,285	5,285	–	1,217	33	48	1,120	4	12
1 월	5	352	347	347	–	5	2	3	–	–	–
2 월	4	450	444	444	–	6	4	2	–	–	–
3 월	4	880	276	276	–	604	1	2	601	–	–
4 월	4	790	440	440	–	350	–	1	349	–	–
5 월	5	462	451	451	–	11	2	3	2	–	4
6 월	4	455	430	430	–	25	5	7	8	2	3
7 월	5	506	487	487	–	19	6	6	7	–	–
8 월	4	542	527	527	–	15	–	7	8	–	–
9 월	4	522	387	387	–	135	3	1	131	–	–
10 월	4	563	541	541	–	22	6	8	2	1	5
11 월	4	517	503	503	–	15	–	5	9	1	–
12 월	4	462	452	452	–	10	4	3	3	–	–

이재선(송호대학 관광리조트계열 호텔서비스학과 교수)
감수위원 : 김수산(속초시 문화공보과장)

上

第六－二編　수　산

표 목차

6)2-1-1 속초시 해안선 및 도서
6)2-1-2 속초시 어업인구
6)2-1-3 속초시의 극한 값
6)2-1-4 속초시의 기상개황
6)2-1-5 속초시의 강수량
6)2-1-6 속초항과 주요항과의 거리
6)2-1-7 속초항 접안시설
6)2-1-8 선박입출항
6)2-1-9 화물입출항
6)2-1-10 화물종류별수송
6)2-1-11 항만시설현황
6)2-1-12 속초항의 일반현황
6)2-1-13 속초항의 연차별 투자계획
6)2-1-14 연도별 어항시설의 현황
6)2-1-15 대포항의 기본시설 현황
6)2-1-16 사진항, 내물치항의 개발계획
6)2-1-17 톤별 어선의 보유현황
6)2-1-18 연도별 어선세력
6)2-1-19 근해어업별 조업현황
6)2-1-20 연안어업별 허가건수 및 조업현황
6)2-3-1 연도별 어업권현황
6)2-3-2 어업권 현황
6)2-3-3 정치성구획(종묘생산)어업현황
6)2-4-1 속초시 인구현황
6)2-4-2 어업가구 및 인구
6)2-4-3 연도별 시군별 어선세력의 변화
6)2-4-4 연도별 수산물 어획고
6)2-4-5 수산물가공품 생산고
6)2-4-6 연도별 양식 생산실적
6)2-4-7 1991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8 1992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9 1993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10 1994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11 1995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12 1996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13 1997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14 1998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15 1999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16 2000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17 2001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18 2002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19 2003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20 2004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6)2-4-21 어항별 선박등록 현황
6)2-4-22 신고어업 처분상황
6)2-4-23 연안어업 허가처분 상황보고
6)2-4-24 구획어업 허가처분 상황보고
6)2-4-25 냉동냉장업체 현황
6)2-4-26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업체
6)2-4-27 수산업협동조합 현황
6)2-4-28 속초 수산업협동조합 역대 조합장 현황
6)2-4-29 대포 수산업협동조합 역대 조합장 현황
6)2-4-30 속초지역 주요 호수 · 하천 및 연안 오염도 현황
6)2-6-1 영랑호 개요

6)2-6-2 영랑호 표고분석
6)2-6-3 영랑호 경사분석
6)2-6-4 영랑호 향분석
6)2-6-5 영랑호의 정책현황
6)2-6-6 영랑호 유역내 세대수와 인구
6)2-6-7 영랑호 유역내 가축현황
6)2-6-8 영랑호 유역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6)2-6-9 영알호의 일일 오염물질 유입부하량
6)2-6-10 영랑호의 수질현황
6)2-6-11 영랑호의 플랑크톤 우점종
6)2-6-12 청초호의 개요
6)2-6-13 청초호 표고분석
6)2-6-14 청초호의 경사분석
6)2-6-15 청초호 향분석
6)2-6-16 청초호의 정책현황
6)2-6-17 청초호 유역내의 세대수와 인구수
6)2-6-18 청초호 유역내 가축현황
6)2-6-19 청초호 유역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2-6-20 청초호의 일일 오염물질 유입부하량
6)2-6-21 청초호의 수질현황
6)2-6-22 청초호의 플랑크톤 우점종
6)2-7-1 해역별, 침식유형 구분
6)2-7-2 속초시 관내의 해안침식사례
6)2-7-2 동해안의 대포적인 해안침식 발생원인
6)2-7-3 해안침식방지공법의 특성

그림 목차

6)2-1-1 속초항 계획 평면도
6)2-1-2 어군탐지기
6)2-2-1 손꽁치 어구(A)
6)2-2-2 손꽁치 어구(B)
6)2-2-3 잠수기 어구
6)2-2-4 나잠어구
6)2-2-5 틀이류
6)2-2-6 걸이류
6)2-2-7 죔쇠류
6)2-2-8 집게류
6)2-2-9 써래류
6)2-2-10 자라창
6)2-2-11 연어창
6)2-2-12 돔 · 볼락외줄낚시 A
6)2-2-13 돔 · 볼락외줄낚시 B
6)2-2-14 농어 · 능성어외줄낚시
6)2-2-15 볼락 · 임연수어외줄낚시
6)2-2-16 가다랑어 채낚시
6)2-2-17 명태 주낙 A
6)2-2-18 명태 주낙 B
6)2-2-19 문어 외줄낚시 A
6)2-2-20 문어 외줄낚시 B
6)2-2-21 오징어 채낚기
6)2-2-22 오징어 수동롤러
6)2-2-23 오징어 자동 조획기
6)2-2-24 오징어 대낚시
6)2-2-25 문어단지
6)2-2-26 개폐식 문어단지
6)2-2-27 북쪽 분홍새우 통발
6)2-2-28 붉은 대게 통발
6)2-2-29 물레고동통발 A
6)2-2-30 물레고동통발 B
6)2-2-31 문어통발 A
6)2-2-32 문어통발 B
6)2-2-33 문어통발 2B
6)2-2-34 백합형망
6)2-2-35 동해구저층트롤 그믈부
6)2-2-36 동해구저층트롤 어구구성
6)2-2-37 동해구중층트롤그물부

6)2-2-38 동해구중층트롤 어구구성
6)2-2-39 멸치 연안 쌍끌이 선인망
6)2-2-40 외끌이 기선저인망
6)2-2-41 명태 저자망
6)2-2-42 도루묵 저자망
6)2-2-43 임연수어 저자망 A
6)2-2-44 임연수어 저자망 B
6)2-2-45 청어 저자망
6)2-2-46 꽁치유자망 A
6)2-2-47 꽁치유자망 B
6)2-2-48 송어유자망 A
6)2-2-49 송어유자망 B
6)2-2-50 까나리깔자망
6)2-2-51 가오리저자망
6)2-2-52 가자미삼중자망
6)2-2-53 넙치삼중자망
6)2-2-54 대구삼중자망
6)2-6-1 영랑호 표고분석도
6)2-6-2 영랑호 경사분석도
6)2-6-3 영랑호 향분석도
6)2-6-4 영랑호 수문분석도
6)2-6-5 영랑호 유역의 자연환경현황도
6)2-6-6 영랑호 유역의 현황분석도
6)2-6-7 청초호 표고분석도
6)2-6-8 청초호 경사분석도
6)2-6-9 청초호 향분석도
6)2-6-10 청초호 수문분석도
6)2-6-11 청초호 유역의 자연환경현황도
6)2-6-12 청초호 유역의 현황분석도
6)2-6-13 Landsat인공위성사진에서 준설위치
6)2-6-14 청초호 지역도
6)2-7-1 전국 연안침식 현황도
6)2-7-2 연안표사의 저지에 의한 해안침식 및 퇴적
6)2-7-3 방파제에 의한 차폐영역 형성에 따른 침식과 퇴적
6)2-7-4 하천공급 토사량의 감소에 따른 해안침식
6)2-7-5 이안제 건설에 의한 주변 해안의 침식
6)2-7-6 해사채취 또는 항로준설에 의한 해안침식
6)2-7-7 자연사구의 인공화 과정
6)2-7-8 해안제방전면의 식생대와 해안선과의 상관관계 모식도

사진 목차

6)2-1-1 속초항 전경
6)2-1-2 대포항
6)2-1-3 트롤원치
6)2-6-1 Trimble DGPS 콘솔
6)2-6-2 Trimble DGPS 안테나
6)2-6-3 DGPS 운영 및 항해관리 컴퓨터
6)2-6-4 수심측량기 본체
6)2-6-5 수심측량기 설치모습
6)2-6-6 지층탐사장비 센서
6)2-6-7 지층탐사장비 본체
6)2-6-8 SMS260 센서
6)2-6-9 SMS260 영상자료 기록계
6)2-6-10 해상자력계 센서와 케이블
6)2-6-11 노트북을 이용한 지자기 실시간 기록장면
6)2-6-12 육상자력계설치모습
6)2-6-13 육상자력계 콘솔과 노트북

제6-2편 수 산

제1장 속초의 수산업

수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양식,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을 말한다. 이러한 수산업은 경제적 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국민의 식용물로서 또한 수출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어업은 전근대적인 면을 탈피치 못하였고 수산업의 계층구조는 대규모적 자본제어업과 영세어업의 양층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원시적 어업을 면치 못하였으나, 1966년에 이르러 어업근대화 계획에 의하여 원양어업을 위시하여 어선건조와 시설장비를 개선하는데 이르렀고 그리하여 무동력선에서 동력선으로 소형어선에서 대형어선으로 개조되어 갔으며, 품질 개선과 냉동가능 시설을 확대하여 어민소득향상은 물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곳 속초시의 수산업의 중추적 역할은 1962년 4월 27에 지정항으로 되면서부터 동해안에서 중요 어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총 573척(동력선562척, 무동력선11척, 2004년 기준)이 수산물 어획을 하고 있고 중요 수산물로서는 오징어 명태, 꽁치, 멸치, 노가리로서 가장 높은 수산물의 어획고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들 중요 수산업의 대상 어종의 어기에 따라 많은 폭으로 변동이 있으며, 더욱 최근에는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로 수산업에 대한 이직이 늘어가는 현실이다. 속초시의 해안선은 표 6)2-1-1과 같이 총 9.4㎞에 달하며, 면적은 0.026㎢이고 해안선을 가진 행정동으로는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청호동, 조양동, 대포동 등이다. 또한 속초시의 총면적은 105.27㎢에 총34,012세대 88,386명(2004년 12월 기준)으로서 이중 수산업에 종사하는 세대수로는 표 6)2-1-2와 같이 933세대에 3,145명(2004년 기준)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표 6)2-1-1 〉 속초시 해안선 및 도서

연별	해안선(Km)	도서현황					
		도서수(개)			면적(㎢)	세 대	인구(명)
		계	유인도(개)	무인도(개)			
1998	9.4	1	-	1	0.014	-	-
1999	9.4	1	-	1	0.026	-	-
2000	9.4	1	-	1	0.026	-	-
2001	9.4	1	-	1	0.026	-	-
2002	9.4	1	-	1	0.026	-	-
2003	9.4	1	-	1	0.026	-	-
2004	9.4	1	-	1	0.026	-	-

자료: 속초시, 속초시통계연보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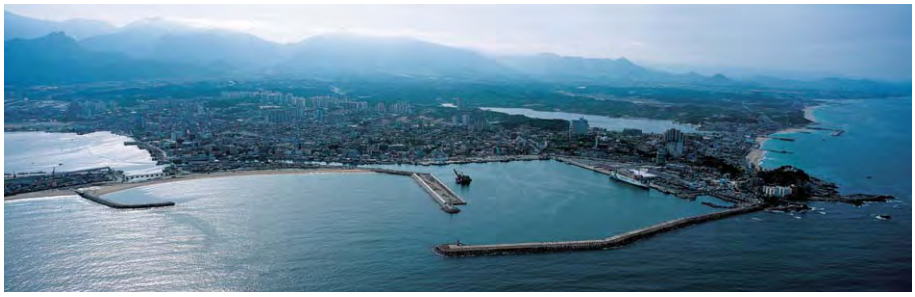
〈 표 6)2-1-2 〉 속초시 어업인구 (단위 : 가구, 명)

연별	어가			어가인구			
	계	전업	겸업	계	호당인구	남	여
1998	2,075	659	1,416	6,168	3.0	3,113	3,055
1999	1,430	345	1,085	4,968	3.5	2,578	2,390
2000	933	614	319	3,145	3.4	1,660	1,485
2001	930	615	315	3,115	3.3	1,650	1,465
2002	933	614	319	3,145	3.4	1,660	1,485
2003	933	614	319	3,145	3.4	1,660	1,485
2004	933	614	319	3,145	3.4	1,660	1,485

자료: 속초시, 속초시통계연보 2005

1. 속초항

속초시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속초항은 동경 128도 35분 48초, 북위 38도 12분 16초에 위치하며 비선장 동단으로부터 정남쪽으로 그은 선내(청초호 포함)를 항계로 하고 있으며 항내수면적 1,362,000㎡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항 이다.



〈 사진 6)2-1-1 〉 속초항 전경

속초시는 고구려 때에 이문현이라 불리웠고 신라시대에는 수역 또는 영현이라고 불렀다. 고려 현종 때에 이르러서 현령을 두었으며 원종6년에는 도호부로 한바 있고 고종8년에는 현령을 방어사로 승격시켰다가 그 후 한때에는 덕령현 감무로 격하 시킨바도 있는데 고종23년에 이르러 군으로 개편되었다. 속초항은 당시 첨사가 있었던 곳으로 양양군의 문호로 되어 있으며, 근해에는 풍부한 수산자원이 부존되고 있으므로 어민들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에는 유수한 어항으로 되어 있다. 본 항은 1905년 연해항로가 처음으로 개설되어 연해선박의 기항지로서 선박의 출입이 성행했으나 한때에는 이곳의 육상교통 시설의 불편으로 인해 화물운송 등의 지장이 있었으므로 속초남방 약 4㎞ 지점에 있는 대포항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 속초시의 변

천과정을 보면 동은 청대산을 중심으로 남은 도문면, 북은 소천면이라고 부르다가 1912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 두면을 폐합해서 도천면이라 개칭한 바 있으며 면사무소를 대포리에 두었다. 그 이후 1937년 속초로 면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속초면이라 했다. 천연의 입지조건이 좋은 항으로 되어있는 속초항의 발전은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하게 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38선이 생겼고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하게 되자 불행하게도 한때에는 적 치하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민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동란과 국군의 북진에 따라 1951년 8월에 속초는 수복이 되어 군정이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다시 속초읍으로 환원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수복한 항만이기도 하다. 또한, 1954년 11월 7일 수복지구 행정이양으로 민정이 실시되었고 1962년 4월 27일 지정항이 되었다. 1964년 개발질서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서 개항장으로 개정되었고 1966년 11월 8일 대통령령 제2391호에 의하여 속초항관할 축항 사무소가 설치된바 있다. 1991년 3월 무역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2월 8일 개항장으로 지정되었고, 2002년 5월 13일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었다.

가. 입지조건

1) 지리적 조건

속초시(항)은 동쪽은 동해에 면하고 북쪽은 고성군, 서쪽은 설악산을 경계로 인제군과 접속되고 있으며 남쪽은 쌍천을 경계로 하여 양양군과 경계한다. 본항은 남서방면은 고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시가지는 청초호를 중심으로 호반에 연해서 길게 발전하고 동서간은 19㎞ 남북간은 9㎞로 총면적은 105.25㎢에 달한다.

2) 교통 및 행정구역

속초의 행정구역은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청호동, 교 동, 노학동, 조양동, 중앙동, 청학동, 도문동, 설악동, 대포동, 장사동 등 13개 동으로 되어있었는데 1998년 10월 17일 '98년 동 통·폐합으로 시조례 제1657호에 의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영랑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노학동과 교동 일부가 노학동으로, 청호동과 조양동 일부가 청호동으로. 대포동과 도문동과 설악동이 대포동으로 조정되어 현재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등 8개동으로 되어 있다. 교통망은 국도 7호선이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울산, 포항, 울진,

삼척, 강릉, 양양을 거쳐 속초까지 포장되어 있으며 동서로는 한계령을 통과하는 2급국도(46호선)가 있고 속초시에서 미시령을 통과하는 도로가 동서로 포장되어 있으며(1989년 완공) 강릉에서는 동해,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있다.

3) 자연조건

가) 기상

속초시는 연평균기온 12.1℃, 연교차 24.8℃로 위도에 비하여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편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42.4㎜, 가을철강수량은 358.5㎜로 늦장마와 폭설이 잦고, 연평균풍속은 3.1m/s, 폭풍일수는 9.3일로 겨울과 봄에 서풍계열의 바람이 매우 강하다. 또한 지속적인 서풍이 불 때 훤현상이 나타나고, 탁월한 북동기류가 유입할 때는 계절에 관계없이 날씨가 급변하여 기상재해의 우려가 높은 편이다. 속초에서 나타난 극한값과 기상개황, 강수량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 표 6)2-1-3 〉 속초시의 극한 값

요 소	관측값	나타난 날
최고기온	36.5℃	2002년 07월 31일
최저기온	-16.2℃	1981년 02월 26일
일최다강수량	315.2㎜	1984년 09월 02일
1시간최다강수량	56.8㎜	1986년 08월 21일
최대풍속	SW 28.7 m/s	1973년 07월 18일

자료 : 강원지방기상청 2004년

〈 표 6)2-1-4 〉 속초시의 기상개황 (단위 : ㎜)

연별 및 월별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평균 해면 기압 (Hpa)	이슬점 온도 (℃)	평균 운량 (%)	일조 시간	최심신적설(㎝)	바람(m/s)		
	평균	평균 최고	극점 최고	평균 최저	극점 최저		평균	최저						평균 풍속	최대 풍속	최대 순간 풍속
1998	13.0	16.7	32.1	9.6	-13.1	1,797.5	69	10	1,014.5	6.6	5.7	1,920.0	6.8	2.9	19.3	…
1999	12.9	16.8	33.3	9.3	-10.8	1,722.0	64	9	1,014.0	5.3	5.0	2,119.3	2.3	3.0	17.7	…
2000	12.0	16.0	33.7	8.1	-10.9	1,345.2	63	7	1,014.7	4.1	5.2	2,145.7	32.8	2.7	16.6	…
2001	12.2	16.4	34.2	8.2	-14.6	1,164.2	59	7	1,015.1	3.4	5.1	2,055.6	22.1	2.4	13.8	…
2002	12.0	16.3	36.6	8.0	-11.0	1,550.3	61	7	1,014.8	3.8	5.0	2,033.4	27.2	2.3	12.7	…
2003	10.5	15.7	33.2	8.0	-14.8	1,897.9	68	11	1,015.9	5.3	5.7	1,771.1	11.0	2.3	14.2	22.3
2004	13.2	17.6	37.1	9.1	-15.6	1,587.3	60	5	1,015.0	4.4	4.6	2,273.7	2.5	2.6	17.3	27.1

연별 및 월별	기온(℃)					강수량 (㎜)	상대습도(%)		평균 해면 기압 (Hpa)	이슬점 온도 (℃)	평균 운량 (%)	일조 시간	최심신적실 (㎝)	바람(m/s)		
	평균	평균 최고	극점 최고	평균 최저	극점 최저		평균	최저						평균 풍속	최대 풍속	최대 순간 풍속
1월	0.5	4.6	9.6	-3.3	-15.6	25.0	39	11	1,020.9	-12.9	2.6	206.8	0.4	3.0	17.3	27.1
2월	3.6	7.9	19.1	-0.5	-7.9	26.7	42	7	1,016.7	-9.7	2.6	197.6	1.5	3.6	12.4	25.9
3월	6.9	11.5	22.9	2.1	-5.7	1.8	42	5	1,017.5	-6.7	3.7	237.6	2.3	3.2	11.7	26.4
4월	12.7	18.8	29.0	7.5	2.4	104.4	53	7	1,011.8	1.5	4.3	228.2	-	3.2	12.4	26.0
5월	16.7	21.9	29.2	12.3	7.7	46.7	66	11	1,008.1	9.5	5.4	204.7	-	2.4	12.3	18.8
6월	20.8	25.2	31.3	17.1	12.7	99.7	74	20	1,009.8	15.4	6.3	191.8	-	2.2	9.7	15.0
7월	23.9	27.3	37.1	21.1	17.0	554.0	83	34	1,006.5	20.4	7.5	128.8	-	2.2	8.5	17.7
8월	23.1	26.6	34.3	20.1	16.1	460.3	81	25	1,009.1	19.6	6.9	151.4	-	2.1	12.9	20.3
9월	20.1	24.0	30.5	16.8	13.4	200.1	77	23	1,015.6	15.8	6.2	161.3	-	2.2	11.7	18.0
10월	14.8	19.5	25.1	10.2	6.6	16.9	60	16	1,020.6	6.7	3.5	201.9	-	2.5	8.6	13.8
11월	10.6	14.9	20.1	6.2	1.5	39.5	54	13	1,020.8	1.0	3.0	184.2	-	2.4	11.4	24.4
12월	4.2	8.7	17.8	0.1	-6.3	12.2	45	12	1,022.7	-7.5	3.3	179.4	2.5	2.5	9.6	17.5

자료:속초시, 속초시통계연보 2005.

〈 표 6)2-1-5 〉 속초시의 강수량 (단위:㎜)

연별 및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1998	1,797.7	47.6	69.0	12.6	101.2	67.2
1999	1,722.0	1.1	4.2	55.8	158.5	167.6
2000	1,345.2	90.2	8.4	8.7	23.4	71.0
2001	1,164.2	37.6	64.4	20.8	14.1	7.2
2002	1,550.3	87.1	0.6	14.1	58.5	78.2
2003	1,897.9	34.2	63.0	56.8	136.1	111.5
2004	1,587.3	25.0	26.7	1.8	104.4	46.7

연별 및 월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8	199.0	550.6	376.5	175.0	81.9	65.6	51.5
1999	78.8	152.1	515.2	431.4	76.6	78.3	2.4
2000	175.7	109.2	440.3	347.2	7.0	58.3	5.8
2001	126.6	233.3	56.9	311.5	234.9	36.7	20.2
2002	66.5	301.4	531.2	225.9	42.8	4.0	140.0
2003	132.1	258.0	349.2	425.4	51.6	278.2	1.8
2004	99.7	554.0	460.3	200.1	16.9	39.5	12.2

자료:속초시, 속초시통계연보 2005.

나. 속초항의 산업과의 관계

속초항은 원래 근해에 풍부한 수산자원이 부재되고 있으므로 어항으로 발전했으나 양양철광이 개발되어 철광석이 선적량이 늘어나면서부터 철광석 적출항으로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1874년부터 철광석, 석탄, 시멘트, 유류, 선어, 양곡, 기타 해상화물량이 격증하여 항세는 물론 속초시 발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속초항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물(어

업포함)은 육해공로를 수송수단으로 폭넓게 유통되고 있다. 속초시의 주산업은 농업과 연안어업이 주가되고 있으며 그 밖에 연산 75만톤 규모의 양양철광석과 부산가공업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의 관광지인 설악산과 절경의 해안선을 끼고 있어 관광 자원권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편 인접항과의 관계는 동해안에 있어서 속초항을 비롯하여 북쪽에는 거진항, 남쪽에는 주문진, 묵호, 삼척, 죽변, 후포 등의 어항이 상호 약 40~60㎞ 간격으로 분포되고 있으며 주 어선에서 어획되는 수산물로서는 명태, 오징어, 꽁치, 노가리의 주 어종으로 되어 있는 어항이기도 하다. 전국 주요항만과의 거리는 표 6)2-1-6과 같다.

〈 표 6)2-1-6 〉 속초항과 주요항과의 거리 (단위:마일)

항 별	거 리	항 별	거 리	비 고
속 초	0	충 무	282	
묵 호	51	삼천포	297	
포 항	146	여 수	316	
구룡포	159	제 주	389	
울 산	191	수 포	447	
수 영	211	군 산	554	
부 산	191	인 천	634	
마 산	209	-	-	

다. 해운

속초항의 접안시설과 선박입출항과 화물입출항한 선박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000년 이후 화물의 입출항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 대상품목은 잡화이다.

〈 표 6)2-1-7 〉 속초항 접안시설

부두명	선석번호	코드	길이(m)	접안능력 (DWT)	하역장비	상재하중 (톤/㎡)
신두부	11	MBC-01	130	5,000(G/T)	카페잡화	3.0
	12	MBC-02	130	5,000	잡화	3.0
	13	MBC-03	121	3,000	잡화	3.0
	14	MBC-07	83	3,000	잡화	3.0
	21	MBC-01	83	1,000	여객선	3.0

부두명	선석번호	코드	길이(m)	접안능력(DWT)	하역장비	상재하중(톤/㎡)
관공선두부	22	MBC-052	83	1,000	관공선	3.0
	23	MBC-03	83	1,000	관공선	3.0
	24	MBC-04	83	-	해경전용	3.0
	25	MBC-05	83	-	해경전용	3.0
관공선두부			270	20,000	여객선	

자료: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05

〈 표 6)2-1-8 〉 선박입출항 (단위:척)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계	80	99	109	170	378	488	496	521
외항	-	4	-	89	122	128	210	369
내항	80	95	109	81	256	360	286	152

자료: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05

〈 표 6)2-1-9 〉 화물입출항 (단위:척)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계	27	32	39	949	2,349	3,108	2,534	162
외항	-	2	-	926	1,463	1,447	1,372	143
내항	27	30	39	23	886	1,661	1,162	19

자료: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05

〈 표 6)2-1-10 〉 화물종류별수송 (단위:톤)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계	27	632	39	949	2,349	3,108	2,534	162
무연탄	7	6	5	-	-	-	-	-
유류	20	18	19	17	21	22	17	17
잡화	-	6	17	18	44	195	153	145

자료: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05

라. 시설현황

속초항을 비롯한 인접한 항들의 시설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동해안 일대의 항들과 비교할 때 규모는 중규모에 해당하며 접안능력이 7척이나 하역능력이 낮아 경제발전에 따른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 표 6)2-1-11 〉 항만시설현황

구분 \ 항별	동해항	삼척항	속초항	묵호항	옥계항	주문진항
개 항 일	79.2.8	91.10.14	97.12.8	41.8.11	79.2.8	68. 1월
하역능력 (천톤/년)	23,035	7,171	1,149	6,388	23,035	515
접안능력 (척, 톤)	15척	7척	7척	6척	5척	1척 (3,000톤급)
야적능력	205,700㎡ (949천톤)	–	40800㎡ (98천톤)	28,300㎡ (68천톤)	15,200㎡ (36천톤)	–
해상운송 (천톤/년)	19,949/'03	7,183/03	19,949/'03	2,459/03	6,117/'03	–
항내수심 (m)	(–)10.0~(–)9.0	(–)5.0~(–)9.0	(–)10.0~(–)9.0	(–)6.5~(–)9.0	(–)9.0~(–)15.9	(–)2.0~(–)6.0
주요취급화물	유연탄, 유류 시멘트 석회석	유류, 모래 시멘트	잡화, 수산물 컨테이너	유류, 냉동어 시멘트 무연탄	유연탄, 유류 철광석 시멘트	수산물

마. 속초항건설현황 및 계획

속초항의 건설사업목적은 북항으로서 철광석 등 원자재 수송을 위한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청초호 등 관광위락기능을 가진 다목적 항만으로서 개발하는데 있다. 항만건설로 인한 사업효과는 접안능력에 있어서 최대 3만톤급 등 3척을 접안할 수 있도록 하며, 하역능력은 12만톤/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속초항의 일반현황과 연차별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6)2-1-12 〉 속초항의 일반현황

위 치	강원도 속초시						수면적 : 1,132천㎡
자연조건	설계파고	설계파향	최고조위	평균해면	해저지질:이토 및 사질토		
	8.00	NE	0.390	0.195			
시설현황	방파제	안벽	물양장	접안능력			
	1,361	1,457	2,007	7선식			
물동량시설 수요(천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6	2001
	하역능력	896	896	896	896	842	884
주요취급화물	유류(48.6%), 모래(2.9%), 목재(2.9%), 자동차(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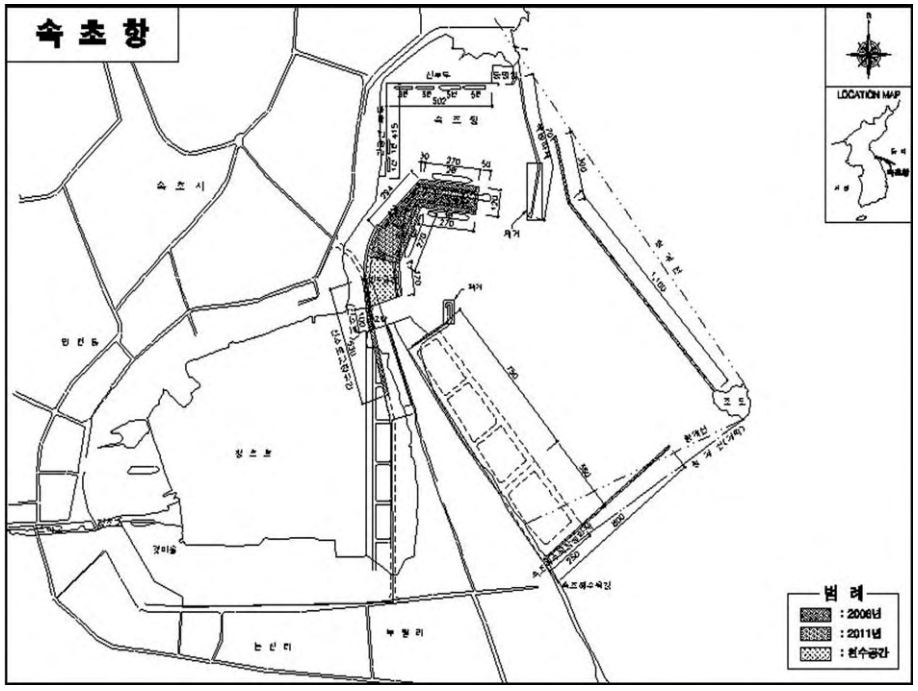
자료: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04

〈 표 6)2-1-13 〉 속초항의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명	전체		기투자(2003년까지)		2004년 시공		2005년 계획		장 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18,430		83,728		1,788		2,445		30,472
1. 속초항건설		117.008		82,903		1,788		2,445		30,472
물양장	861	9,117	861	9,117	–	–	–	–	–	–
호안	182	382	182	382	–	–	–	–	–	–
방파제	330	4,925	310	4,925	–	–	–	–	–	–
신수로개설	100	2,652	100	2,652	–	–	–	–	–	–

사업명	전체		기투자(2003년까지)		2004년 시공		2005년 계획		장 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매립 및 기타	1식	16,339	1식	13,669	–	–	–	–	–	–
관광여객부두	270	14,571	270	14,571	–	–	–	–	–	–
신수로교량	530	27,078	530	27,078	–	–	–	–	–	–
토지매입	1식	3,121	1식	3,121	–	–	–	–	–	–
감리및설계비등	1식	8,806	1식	4,718	1식	1,100	1식	382	1식	2,606
사환경영향조사	1식	17	–	–	1식	88	1식	63	1식	66
2. 유지보수		1,442		822		600		–		–
구수로호안보강	240	1,195	120	595	120	600	–	–	–	–
북항일반두부보수	1식	191	1식	191	–	–	–	–	–	–
신수로 정밀점검	1식	14	1식	14	–	–	–	–	–	–
관관선부두정밀점검	1식	12	1식	12	–	–	–	–	–	–
관공선부두배수로설치	1식	10	1식	10	–	–	–	–	–	–

자료: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04



〈 그림 6)2-1-1 〉 속초항 계획평면도

2. 관내 주요 어항별 시설현황

속초 관내에는 국가어항인 대포항을 비롯하여, 어촌정주 어항인 사진항, 내물치항이 있다. 이들 시설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박의 하역작업에 사용되는 물양장의 확장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 표 6)2-1-14 〉 연도별 어항시설의 현황

연별	어항				위판장		방파제	
	합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천정주어항(포구포함)	개소	면적(㎡)	개소	연장(㎡)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998	4	1	–	3	2	620.69	6	1,010
1999	4	1	–	3	2	620.69	6	1,010
2000	4	1	–	3	2	620.69	6	1,034
2001	4	1	–	3	2	620.69	6	1,056
2002	4	1	–	3	2	620.69	6	1,082
2003	4	1	–	3	2	620.69	6	1,082
2004	4	1	–	3	2	620.69	4	1,118

연별	선착장		물양장		급수시설		급유시설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1일급수능력(t/일)	탱크수	저장능력(D/H)
1998	3	450	3	320	–	–	1	35
1999	3	450	3	320	–	–	1	35
2000	3	450	3	375	–	–	1	35
2001	3	450	3	499	–	–	1	35
2002	3	450	3	509	–	–	1	35
2003	3	450	3	567	–	–	1	35
2004	3	450	3	598	–	–	1	35

자료:속초시, 속초시통계연보 2005.

〈 표 6)2-1-15 〉 대포항의 기본시설 현황 (단위 : m, 백만원)

구 분	총계획		기시설('02까지)		'03 시설		잔 량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38,371		1180		–		37,191
동 방 파 제	500	32,800	–	–	–	–	500	32,800
동방파제호안	350	속초시	–	665	–	–	350	속초시
남 방 파 제	100	1,779	–	–	–	–	110	1,779
남방파제호안	120	속초시	–	120	–	–	120	속초시
물 양 장	740	159	–	159	–	–	740	속초시
호 안	448	속초시	–	–	–	–	448	속초시
선 양 장	30	속초시	–	–	–	–	30	속초시

자료 : 해양수산부, 어항편람 2003.

〈 표 6)2-1-16 〉 사진항, 내물치항의 개발계획

계획 / 항	시설명	총계획		2004년까지 실적		금후계획		계획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사진항	계	964	92,433	964	9,243	–	–	
	방파제	490	6,525	490	6,525	–	–	
	방사제	114	1,145	144	1,145	–	–	
	물양장	330	1,573	330	1,573	–	–	
내물치항	계	363	4,876	292	3,843	71	1,033	
	방파제	211	3,761	192	3,343	19	418	
	방사제	70	815	18	200	52	615	
	물양장	8	300	82	300	–	–	

〈 사진 6)2-1-2 〉 대포항

3. 어선 및 장비 현황

가. 어선

속초시 수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업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어선의 크기에 있어서 10톤 미만의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5톤 규모의 어선이 300척 정도로 주를 이루고 있다.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동력기계의 발달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동력선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현재에는 거의 모든 배가 동력선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으며, 무동력선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 표 6)2-1-17 〉 톤별 어선의 보유현황

연별	1톤미만	1~5톤 미만	5~10톤 미만	10~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50톤 미만	50~100톤 미만	100톤 이상
1998	52	270	118	32	19	16	82	11
1999	45	289	114	36	17	15	77	11
2000	55	292	118	35	19	11	67	10
2001	45	294	125	34	21	12	56	10
2002	41	289	128	32	26	11	51	10
2003	37	292	128	30	27	11	49	8
2004	35	290	127	29	28	11	48	5

자료 : 속초시, 속초시 통계연보, 2005

〈 표 6)2-1-18 〉 연도별 어선세력

연 별	총 계			
	동 력		무 동 력	
	척수(척)	톤수(t)	척수(척)	톤수(t)
1998	571	13,063.46	29	15.75
1999	581	12,783.55	23	14.71
200	587	11,615.39	20	13.69
2001	580	10,880.78	17	12.85

연 별	총 계			
	동 력		무 동 력	
	척수(척)	톤수(t)	척수(척)	톤수(t)
2002	588	10,613.22	15	12.37
2003	568	10,090.35	14	12.10
2004	562	7,603.43	11	6.27

자료 : 속초시, 속초시 통계연보, 2005

〈 표 6)2-1-19 〉 근해어업별 조업현황

어업명칭	합계	동해구기선저인망	근해, 채낚기	근해자망, 연승	잠수기	근해통발
조업척수	153	20	91	10	6	27

자료 : 속초시, 속초시중기개발계획,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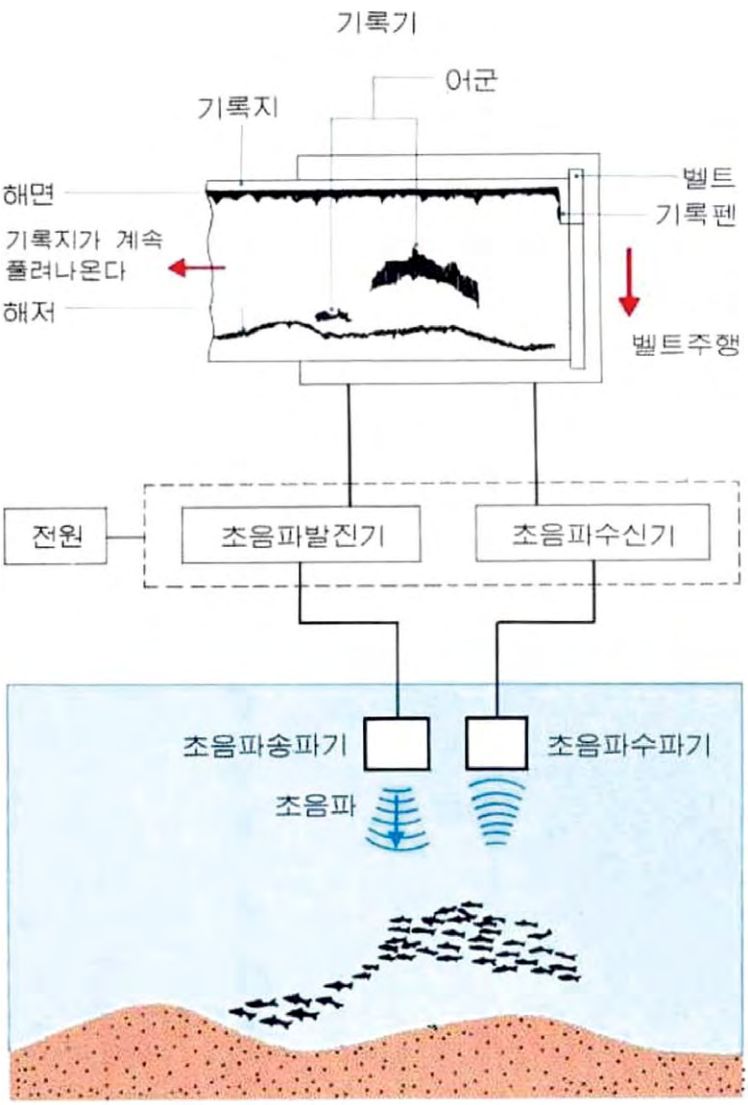
어업의 명 칭	합계	자망	선망	연승	채낚기	외줄낚시	통발	손꽁치	선인망	복합
허 가 건 수	756	266	6	170	63	71	38	1	1	140
주조업 착 수	451	260	2	58	60	70	-	-	-	-

〈 표 6)2-1-20 〉 연안어업별 허가건수 및 조업현황

자료 : 속초시, 속초시중기개발계획, 2001

나. 어선의 장비

어선의 장비라 함은 어선의 어업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대단히 광범한 것이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무제한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적당한 범위가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며, 1)어구를 다루기 위한 종류, 2)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3)그 자신이 어구가 되는 것으로 분류하면 현재 속초항의 어선에 장비로서는, 1)에 속하는 것으로는 라인호오라아(line hauler), 넷트호오라아(Net hauler), 트롤윈치(Trawl winch) 등이며 이것은 어군 조작을 기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며, 1), 2)에 속하는 것으로는 어군탐지기 집어장치(등) 및 수온계 측심기 등이며 이들은 모두 직접적인 효과는 거둘 수 없으며,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군동태를 확실히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어군체가 어로작업을 할만한 크기가 못되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유집하여, 그 밀도를 높이는데 사용한다.



〈 그림 6)2-1-2 〉 어군탐지기

〈 사진 6)2-1-3 〉 트롤윈치

제2장 속초지방의 중요어법 및 어구

1. 맨손 어법(Fishing without gear)

수산 동·식물을 직접 손으로 또는 간단한 도구로 잡거나, 훈련된 동물(개, 수달, 가마우지 등)로써 잡는 것을 말한다. 사용하는 도구는 대체로 그 크기가 작으며 오히려 잡은 어획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주머니나 양동이 등이 사용하는 도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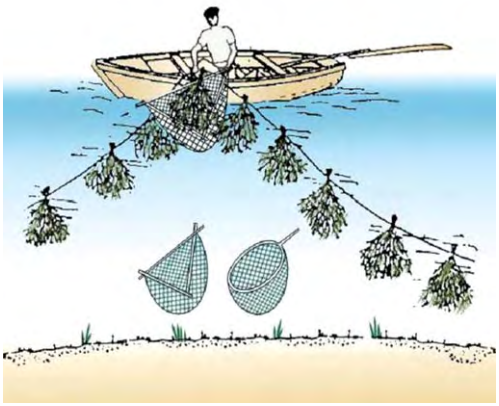
맨손어법을 분류하면 손으로 더듬어 잡는 것(Grasping by hand)과 잠수하여 잡는 것(By diving)이 있는데, 손으로 더듬어 잡는 것으로 속초지방에서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개류 채취어업과 손꽁치 어업 등이 있다. 이들 어구는 과거부터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 등에 큰 변화 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다만 이전에는 어구분류상 잡어구류로 분류되었었다.

꽁치는 산란기가 되면 수면 가까이 있는 물체, 특히 흘러 다니는 바다풀에 모여와서 산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여 바다풀을 꽁치의 산란장에 띄워 놓았다가 꽁치가 산란을 위해 모이면 쪽대그물이나 손을 넣어 꽁치를 어획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구멍이 뚫린 가마니 밑에 바다풀을 달아 사용하거나 긴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바다풀을 묶어서 사용하였으며(A), 요즘은 대나무 4~5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줄로 엮고 그 사이에 바다풀을 달아 사용(이것을 '뜸북' 또는 '몰'이라고 함)하고 있다(B). 이 어업에는 주로 소형어선이 사용되며, 전마선을 사용할 경우, 어장이 연안 가까이 형성될 때는 전마선으로 노를 저어서 출어하나, 어장이 연안 먼 거리에서 형성될 때는 전마선 여러 척(5~8척)이 소형동력선에 의해 예인되어 출어한다.

해가 뜬 직후 어장에 도착하면 바다풀을 달아 놓은 줄이나 뜸북을 조업선으로부터 20~30m 멀리 띄워놓고 꽁치가 모이기를 기다린다. 이때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닻을 놓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해류를 따라 표류한다. 약 2~3시간 대기한 다음, 꽁치가 모이면 (A)의 경우는 줄을 따라 차례로 이동하면서 바다풀 밑으로 쪽대그물 등을 넣어 손으로 꽁치를 털어 내고 (B)의 경우는 뜸북을 천천히 당겨 조업선에 붙인 다음, 손가락을 펴서 뜸북 속으로 손을 넣고 살살 흔들면서 손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꽁치를 집어 올린다. 해가 지기 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조업한 후 귀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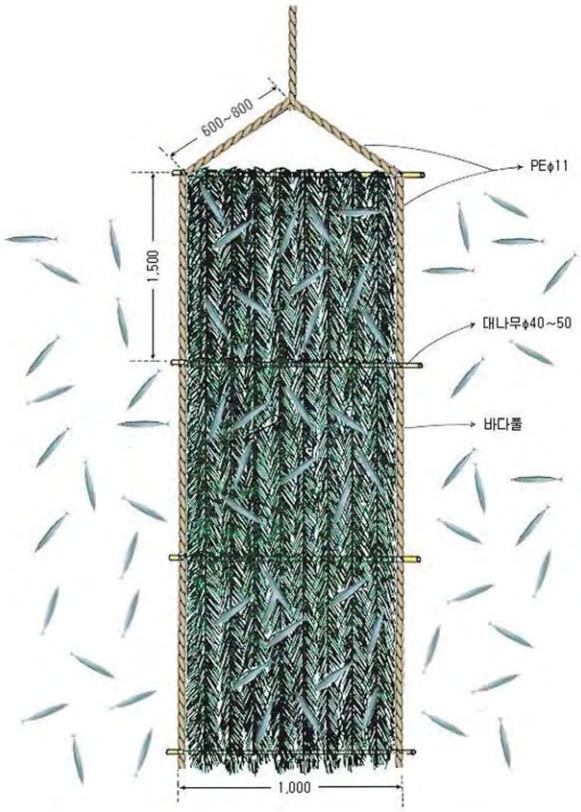
꽁치 산란군이 회유로에 따라 어기가 형성되며, 북상기인 5~6월에 울릉도 연안에 시작이 되어 6월하순~7월까지 속초지방의 연안에서 조업하고 남하

기인 11월 전후에까지 계속된다. 사용하는 어선은 전마선 0.5톤급 내외의 1~2명이 승선조업한다.



〈 그림 6)2-2-1 〉 손꽁치 어구(A)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2 〉 손꽁치 어구(B)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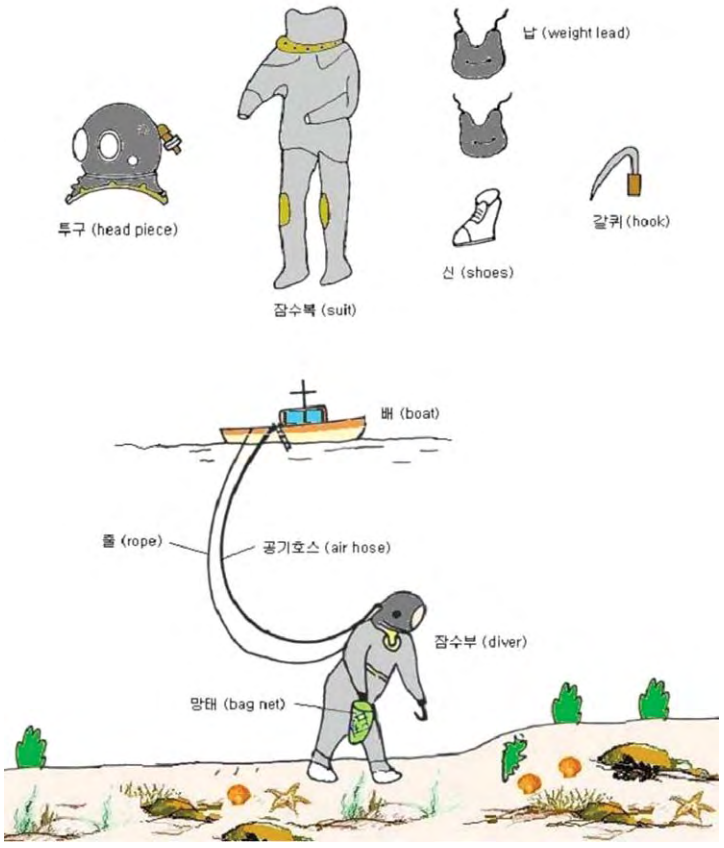
2. 잠수기 어법

사람이 직접 물 속으로 들어가 대상물을 확인한 다음 칼, 갈고리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거나 맨손으로 잡는 것을 말한다. 각종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배로부터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조업하는 잠수기 어업과 공기의 공급을 받지 않고 단순히 잠수복만 착용하여 조업하는 나잠 어업이 있다. 이중 잠수기 어업의 공기 공급방법은 이전에는 수동펌프를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에어 컴프레서(air-compressor)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어업은 이전에는 어구분류상 잡어구류로 분류되었었다.

잠수부가 잠수복을 입고 바다 속에 들어가 조개류, 바다풀 등을 잡거나 채취하는 것이다. 잠수장비로는 잠수복, 투구, 납(weight), 신발, 공기압축기, 공기 공급용 호스, 사다리, 통신기 등이 있으며, 대상물을 잡기 위한 갈퀴, 칼, 작살 등과 어획물을 담는 망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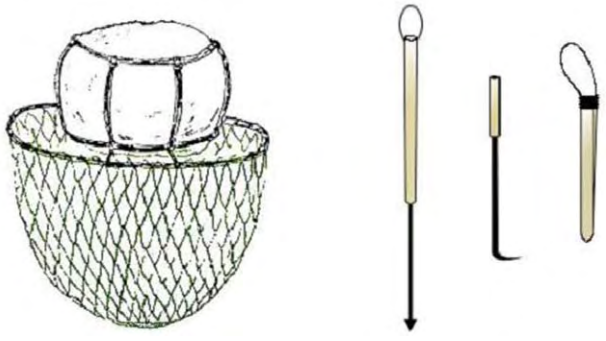
어장에 도착하면 잠수부는 배 위로부터 공기를 공급받으며 선수 현측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물 속으로 들어간다. 곧 작업을 시작하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대상물을 갈퀴나 칼 등으로 잡아 망태에 담는다. 작업이 종료되면 잠수부가 잠수부와 배 위에 있는 선원을 연결한 줄을 당겨서 배 위로 신호를 보내고 배 위에서 줄을 당겨 잠수부를 끌어올린다. 잠수부가 잠수할 수 있는 수심은 40m 이내이며, 잠수시간은 수심에 따라 다르다. 즉, 20m 이내에서는 약 2~3시간, 20m 이상에서는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작업을 한다. 어기는 대상물과 어장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문어, 우렁쉥이 등은 연중, 미역은 4~11월, 성게는 7~4월, 해삼은 11~6월, 전복은 11~7월에 주로 조업하며, 어선은 FRP선 5~8톤급, 150~250마력 내외에 잠수부 1~2명, 보조원 1명, 선원 2~3명이 승선 조업한다.

나잠어업은 잠수복을 착용한 해녀가 수심 10m 이내의 연안 어장에서 물 속에 잠수하여 박과구나 집는 어구를 사용하여 소라, 전복, 성게, 해조류, 홍합 등을 채취한 후, 부상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다. 주 조업시간은 보통 수심이 얕아진 조금 때이며, 보통 15명 정도의 해녀들이 연안의 조업구역에서 무리 지어 조업한다. 잠수시간은 해녀의 폐활량에 따라 다르나 보통 1분 내외이고 물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채취물을 담기 위하여 뒤웅박을 사용한다. 이 어법으로는 수심이 깊은 곳에 서식하는 어종이나 다량의 어획은 불가능하다.



〈 그림 6)2-2- 3 〉 잠수기 어구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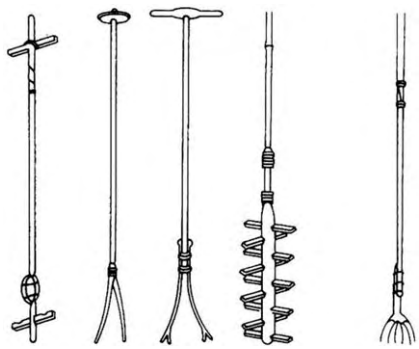
〈 그림 6)2-2-4 〉 나잠어구

3. 살상어구(Grappling and wounding gear)

살상어구는 수산 동 · 식물을 대상으로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직접 손에 잡고 대상물을 잡거나 끝이 날카로운 도구를 던지거나 쏘아서 대상물을 잡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수용기구류(手用器具類, Hand instruments)

와 투사물류(投射物類, Sharp projectiles)가 있다. 수용기구류는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서식하는 극피동물, 조개류, 해조류 등을 대상으로 긴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손에 잡고 대상물을 죄거나 집거나 해저를 긁거나 비틀어 잡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대상물을 직접 또는 물안경을 통하여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 채포 또는 채취한다. 과거에는 연안에서 미역 · 다시마 틀이류, 해삼 · 문어 걸이류, 소라 · 성게 쬠쇠류, 해삼 · 굴 집게류, 조개 써레류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잠수기, 나잠, 형망 등으로 채취, 채포하고 있다. 이전에는 어구분류상 수용기구류는 잡어구류 중 협렬구류로 분류되었었다. 수용기구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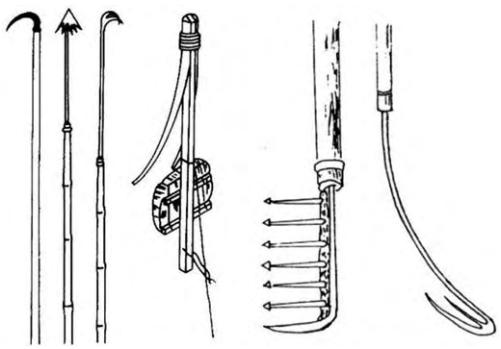
틀이류는 긴 막대기의 아래 끝에 여러 단으로 된 작은 가지가 있고, 위 끝에 비틀기 위한 손잡이가 있는 어구이다. 이것을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가 있는 곳에 내리고 해조류가 어구에 감기도록 비튼 후 당겨서 채취하는 것이다.



〈 그림 6)2-2-5 〉 틀이류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걸이류는 뾰족한 쇠꼬챙이를 L자 모양으로 굽혀서 끝이 안쪽을 보도록 한 것을 긴 막대기의 끝에 매단 어구이다. 이것을 물 속에 넣어 해삼, 문어 등을 걸어 올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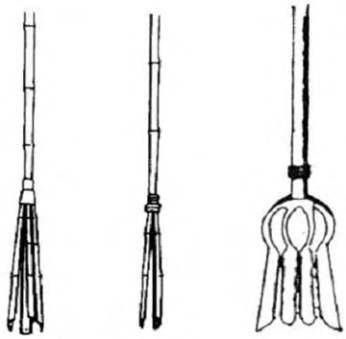


〈 그림 6)2-2-6 〉 걸이류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쬠쇠류는 대나무처럼 탄력이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끝을 여러 갈래로 자른 후, 조금 벌어진 모양으로 고정시킨 것을 긴 막대기에 묶은 어구이다. 이것을 물 속에 넣어 해저 속에 있는 연체동물, 고둥 및 성게 같은 것을 잡아 올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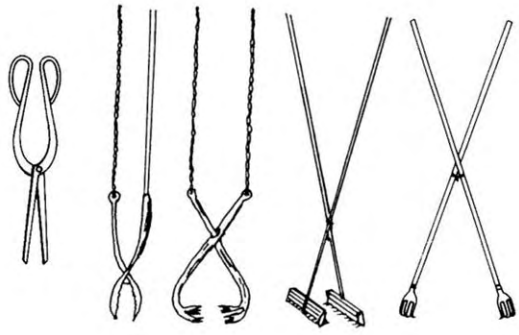
여러 갈래로 갈라진 막대의 끝을 대상물에 대고 누르면 대나무의 갈라진 틈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대상물이 끼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나무의 탄력으로 대상물이 빠지지 않게 된다.



〈 그림 6)2-2-7 〉 쬠쇠류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집게류는 지레의 원리를 이용해 집게 모양으로 만들거나 또는 쇠꼬챙이 등을 둥글게 엮어서 만든 어구이다. 이것을 물 속에 넣고 성게, 게, 해삼 등을 집어 올려 잡는 것이다.



〈 그림 6)2-2-8 〉 집게류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써레류는 끝이 뾰족한 여러 개의 쇠꼬챙이를 이빨 모양으로 엮은 것이나 이것을 철사로 엮은 자루 앞에 매단 것을 장대의 끝에 묶은 어구이다. 이것을 물 속에 넣고 바닥을 파내어 해저에 파묻혀 사는 조개와 같은 대상물을 잡는 것이다.

사람의 손이 직접 미칠 수 있는 곳에서는 주로 호미를 사용하지만 사람의 손이 직접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잡는 어구로 비교적 소규모의 것이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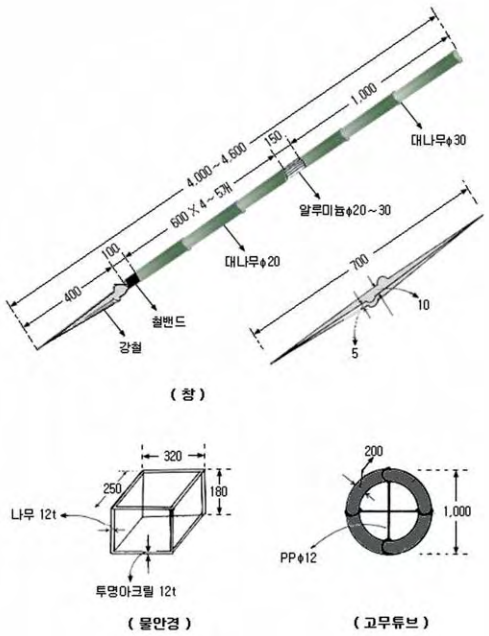
〈 그림 6)2-2-9 〉 써래류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투사물류는 끝이 날카로운 도구를 직접 대상물을 향해 던지거나 쏘아서 잡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수용기구류와 같이 대상물을 확인한 다음 채포한다. 우리나라에서 소규모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하천이나 강에서 자라, 연어 등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창류와 연안에서 개불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걸이류가 있다.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돌고래 마침대, 뱀장어 작살, 해삼 작살 등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어업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포경어업은 국제포경위원회 협약에 의해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어구분류상 투사물류는 잡어구류 중 자돌구류로 분류되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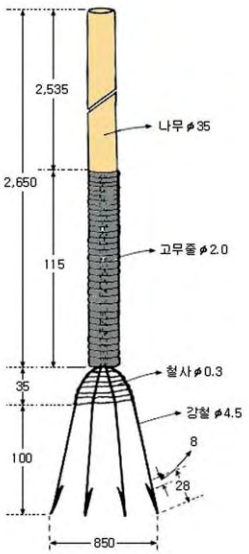
자라창은 끝이 뾰족한 강철을 긴 대나무 끝에 꽂고 철 밴드로 단단히 고정시켜 만든 창과 직경 1m인 고무 튜브, 아크릴로 만든 물안경 등을 준비하여 하천이나 강에서 대상물을 찔러서 잡는 것이다. 수심 약 3m 이내의 어장을 선정하여 십자형으로 로프를 묶은 고무 튜브에 올라 앉아 한쪽 손에 잡은 물안경을 통하여 물 밑을 살피다가 자라가 발견되면 다른 쪽 손에 잡은 창으로 찔러서 잡는다. 자라를 산채로 잡기 위하여 자라의 머리 뒤쪽 물렁뼈를 단번에 정확히 찔러야 하며 한번 실패하면 자라가 목을 갑 속으로 감추기 때문에 잡기 어렵게 된다.

조업 중에 모래나 자갈을 찌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 끝이 무디어 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비용 창살과 숫돌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튜브에 있는 로프 사이로 양다리를 물 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해충에 물릴 염려가 있으므로 긴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 그림 6)2-2-10 〉 자라창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11 〉 연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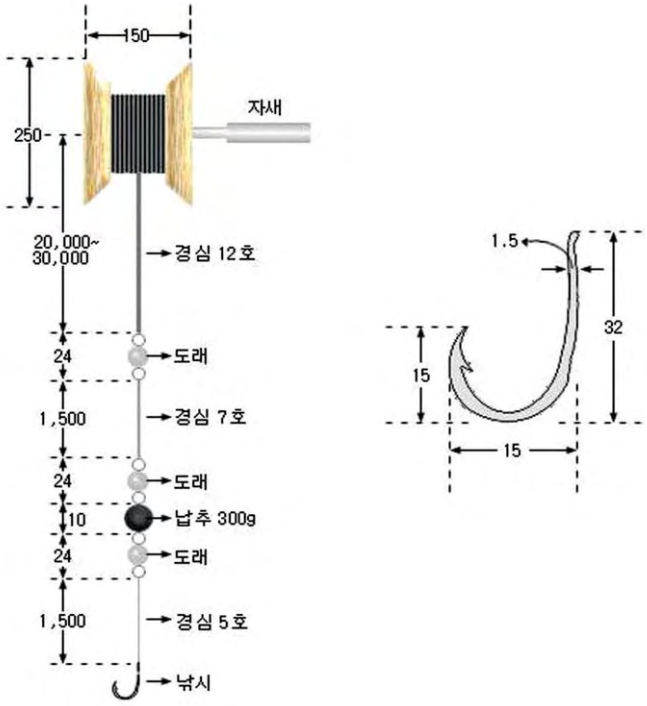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연어창은 미늘이 있고 끝이 날카로운 창살 3~4개를 긴 막대 끝에 단단히 고정한 창을 손에 들고 하천이나 강물에 들어가 가만히 대기하였다가 산란을 위하여 하천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를 찔러서 잡는 것이다. 어기는 하천이나 강의 위치에 따라 연어가 올라오는 시기가 다르며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하천에서는 9월 하순~12월 중순에, 강원도 남부에 위치한 하천에서는 9

월 초순~12월 초순에 주로 어획한다. 경북에 위치한 하천에서는 10월 중순~11월 중순에 주로 어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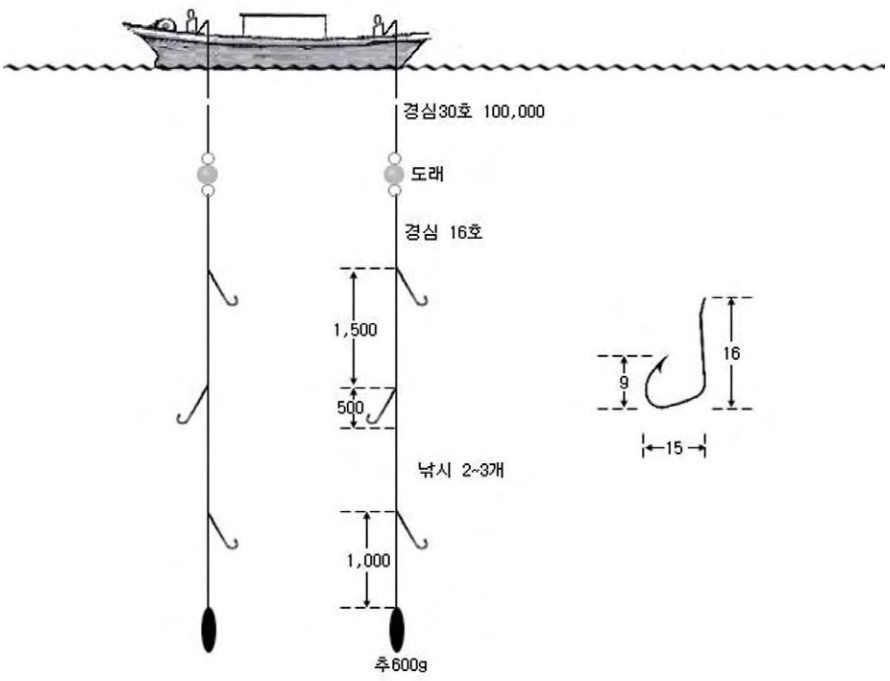
4. 낚기 어구류(조구류, Lines)

낚시가 달리거나 달리지 않은 줄을 이용하여 대상물을 낚아 잡는 것으로,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 등에 따라 크게 낚시 없이 잡는 것, 낚시어구류, 걸낚시류로 나누어 지며, 이들 중 어업으로서 중요한 것은 낚시어구류에 속하는 외줄낚시류, 대낚시류, 주낙류, 끌낚시류 등과 걸낚시류에 속하는 봉낚시류, 오징어 낚시류 등이 있다. 조구류중 속초지방의 어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외줄낚시류(일본조구류, Single lines)로서 이는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시1개 또는 여러 개를 달아 한쪽 끝을 손으로 잡고 대상물을 낚아 잡는다. 대부분 미늘이 있는 낚시를 사용하며 미끼는 자연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닐이나 가죽 등으로 만든 속임낚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것 중 어업으로 중요한 것은 돔, 볼락, 농어, 능성어, 임연수어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외줄낚시가 있으며, 이들 어구는 과거부터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 등에 큰 변화 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다만, 낚싯줄 재료로 과거에는 면사나 경심을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주로 경심만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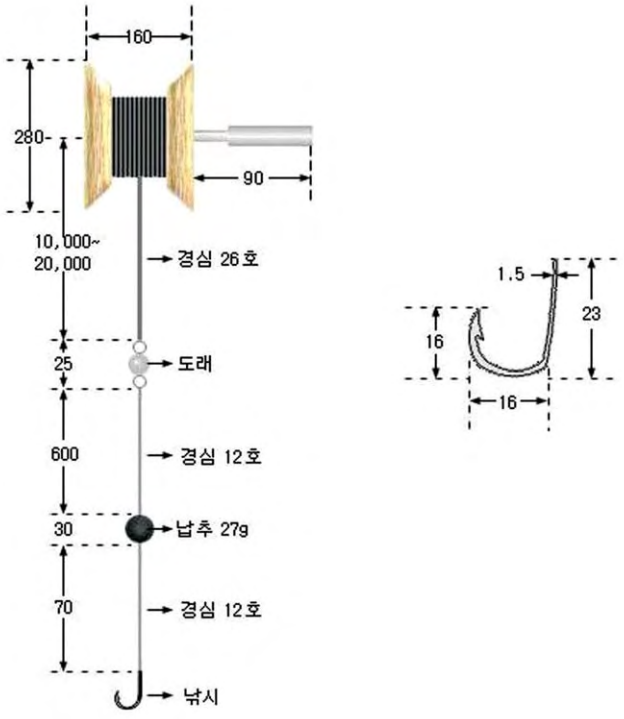
〈 그림 6)-2-12 〉 돔 · 볼락외줄낚시 A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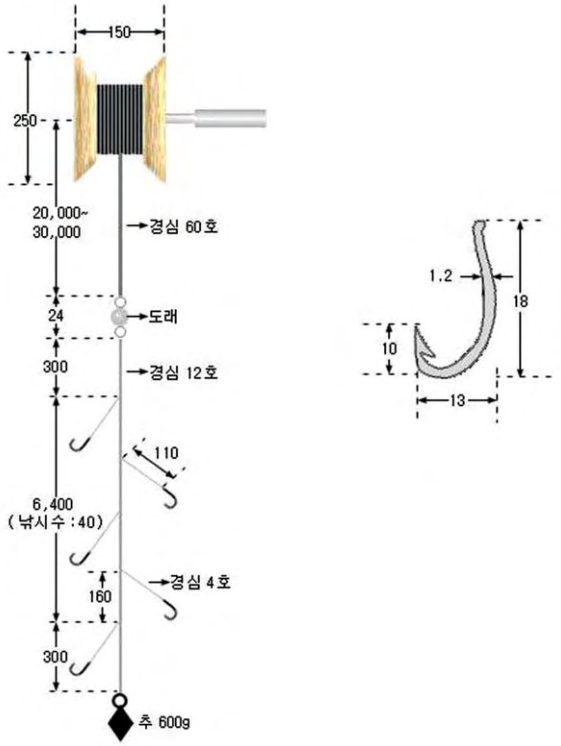
〈 그림 6)2-2-13 〉 돔 · 볼락외줄낚시 B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14 〉 농어 · 능성어외줄낚시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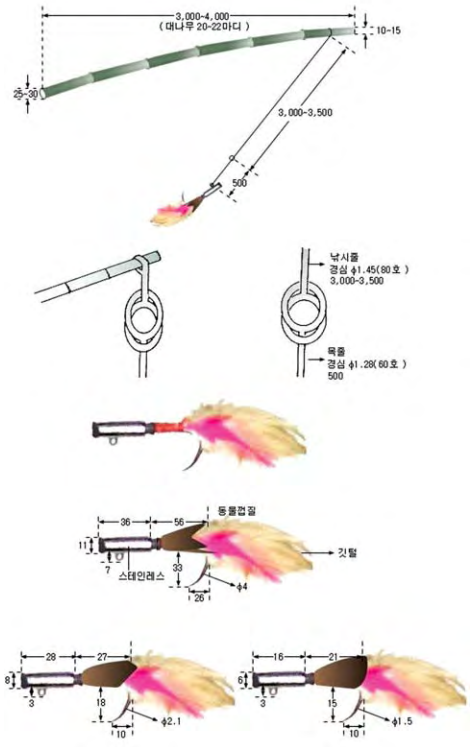


〈 그림 6)2-2-15 〉 볼락 · 임연수어외줄낚시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대낚시류(간조구류, pole lines)는 외줄낚시와 같이 손낚시류의 일종이며 낚싯줄을 직접 손에 잡는 대신 낚싯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낚시를 멀리 보내기 위하여 또는 낚시를 빨리 채어 올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낚싯줄 한 가닥에 1개 또는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사용하며, 대부분 미늘이 있는 낚시에 자연산 미끼를 사용하지만 미늘이 없는 속임낚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조피볼락, 볼락, 감성돔 대낚시 등이 유어용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대낚시류 중 어업으로 중요한 것은 가다랭이 채낚기 어업인데 속초지방에서 과거 이용했던 어업방법이었다. 이것은 가다랭이는 군집성 표층회유성 어종으로 성질이 급하며,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여 어군을 뱃전에 붙인다음 속임 낚시로 채어 잡는다. 낚시는 미늘이 없는 바늘에 동물의 깃털과 어류의 껍질을 부착한 속임낚시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어군이 발견되면 서서히 조심스럽게 어군의 유영방향 앞쪽으로 접근하여 어군이 도피하지 않도록 배에 시설된 살수장치를 이용 물을 뿌려 주는 한편 환멸치를 뿌려준다. 어군이 배의 좌현 또는 우현으로 완전히 붙이면 선원들은 현에 나란히 서서 낚시대로 낚아 올린다. 이때 속임낚시가 살아 있는 먹이처럼 보이도록 물 표면에 8자를 그려야 하며, 대상물이 걸리면 즉시 위

로 채어 갑판에 떨어지도록 한다. 주로 낮에 조업하며 밤에는 표박하여 휴식을 취한다.



〈 그림 6)2-2-16 〉 가다랑어 채낚시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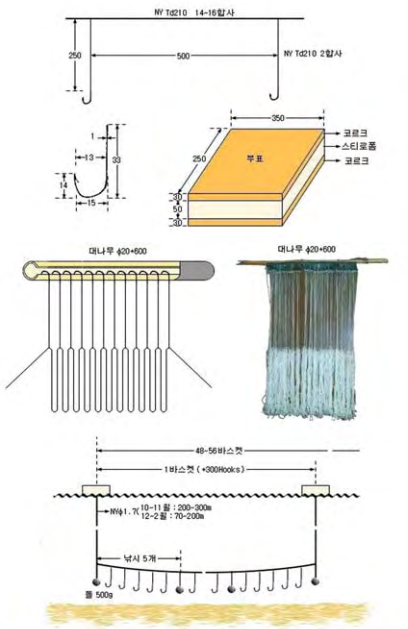
5. 주낙류(延繩類, Longlines)

대상물을 일시에 여러마리 잡기 위하여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 마다 낚시 1개씩 달아 수평으로 부설하여 대상물을 낚아 잡는 어업방법으로 어구 부설방법에 따라 멍이나 닻으로 고정시키는 고정 낚시류와 해·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하는 흘림낚시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어종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고정낚시류를 표·중층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할 때는 흘림낚시류를 많이 사용한다. 이 어업에서의 주요어종은 명태, 넙치, 농어, 복어, 가자미, 장어, 돔, 조피볼락, 볼락 주낙 등이 있으며, 이들 어구는 과거부터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 등에 큰 변화 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다만 낚싯줄 재료로 과거에는 면사에 갈물을 먹여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어구의 종류에 따라 나일론, 쿠라론, PE, 경심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선의 대형화로 어장을 외해로 확대하고 척당 사용

어구수를 증가시켜 조업하고 있다. 대표적 주낙류에서 속초지방의 어법에 이용되고 있는것 중에는 명태 주낙으로서 새벽 3시경 출항하여 해가 뜨기 직전에 투승을 하며, 투승전에 어군탐지기로 어군의 분포 수심을 파악하여 부표줄의 길이를 조정하면서 해 · 조류를 따라 거의 일직선으로 투승한다. 일반적으로 어기별 어군분포수층은 10~11월에는 약 200~300m 층, 12~2월에는 70m~200m 층이며, 바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중층에 분포한다. 투승이 완료되면 처음 투승한 곳으로 되돌아와 부표를 잡고 곧바로 양승을 한다. 따라서 어구를 장시간 놓아두지 않으므로 멍이나 닻으로 고정하지 않고 바스켓마다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만 띄워놓으며, 다만 낚시가 해 · 조류에 날리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약 500g 정도의 돌을 달아 놓는다. 투 · 양승 모두 인력으로 하며, 투승 소요시간은 약 1시간~1시간30분, 양승 소요시간은 약 8~10시간으로 1일 1회 조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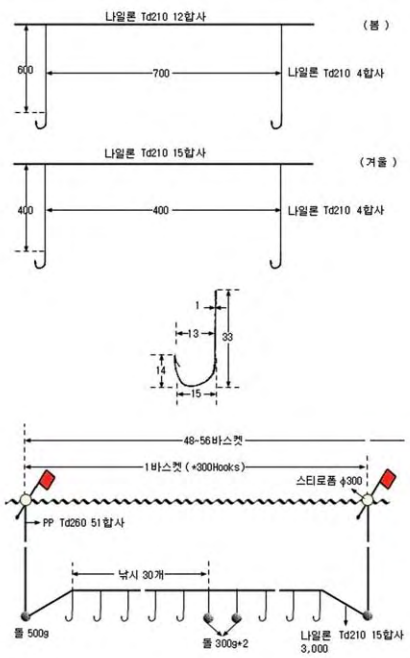
낚시에 이용하는 미끼는 양미라, 전어 등을 잘게 썰어 사용하나, 이중 양미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활어로 출하시키기 위한 어업 중에는 넙치(광어)의 어획을 위한 넙치 주낙도 크게 성업 중에 있으며 이는 모릿줄 PE260Td 42 합사를, 아릿줄은 경심 14호를 주로 사용하며 낚시 간격은 약 5m 이다. 오후 3~4시경 닻, 부표, 낚시줄 순으로 투승을 하며, 낚시가 바닥에 묻히거나 해 · 조류에 낚시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 약 10개마다 모릿줄에 소형 뜸과 발돌을 달고 1~2바스켓 마다 부표를 달아 투승한다. 어선 1척당 총 10~12바스켓을 사용하며, 어장조건에 따라 전체를 거의 일직선으로 투승하거나, 2~3곳에 분산 투승하기도 한다. 양승은 다음날 오전 7~8시경에 인력으로 하며, 양승을 하면서 어획물을 처리한다. 양승이 완료되면 어구를 정리하고 미끼를 갈아 끼워 다시 투승한 다음 귀항한다. 1회 투승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 양승소요시간은 약 5시간이다. 사용 어선은 목선 약 2톤 내외의 2~3명의 선원이 조업한다. 미끼로는 꽃새우 1마리씩 낚시에 꿰어 사용한다. 또, 가자미 주낙 어업으로서는 모릿줄은 KUφ2.2~2.5㎜, 아릿줄은 간격은 NYØ 0.75㎜ 내외에 경심 3호를 연결하거나 3~4호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릿줄 간격은 약 1m50㎝~1m60㎝ 이다. 오전 4~5시경 출하하여 멍, 부표, 낚시줄 순으로 투승하며, 낚시가 바닥에 묻히거나 해 · 조류에 의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 약 40~50개마다 소형 뜸과 발돌을 또는 발돌만을 모릿줄에 단다. 어선 1척이 총 12~13바스켓의 어구를 한 장소에 일직선으로 투승하거나 약 4바스켓을 1조로하여 여러곳에 분산 투승하는 방법도 있다. 투승이 완료되면 약 1시간 정도 대기하였다가 인력으로 양승한 다음 귀항하며 1일 1회 조업이며, 1회 투승소요시간

은 약 1시간, 양승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2시간이며 주로 목선 1톤 내외의 선원 2명 정도가 작업에 임하며 미끼는 겨울철에는 주로 소형 새우를 봄 · 가을철에는 지렁이나 조개 육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그림 6)2-2-17 〉 명태 주낙 A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18 〉 명태 주낙 B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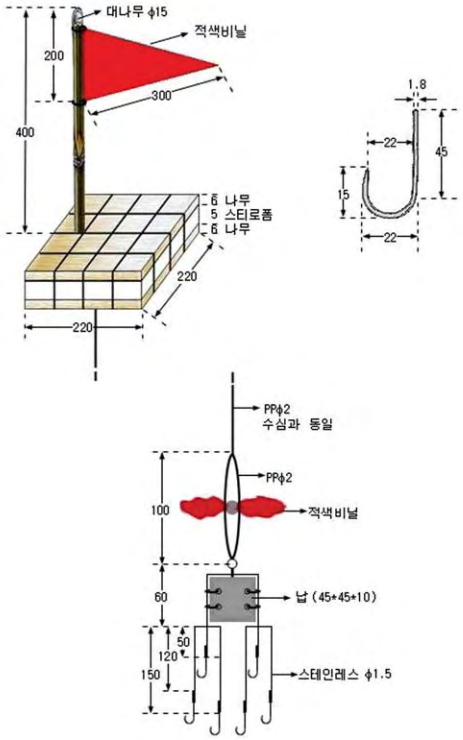
6. 봉낚시류(Jigs)

외줄낚시나 주낙은 대부분 대상생물이 입으로 미끼가 달린 낚시를 물도록 하여 잡는데 반해, 봉낚시는 낚시채에 납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봉을 단 낚시에 대상생물의 몸통이 걸리도록 하거나 대상생물이 달라붙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 낚시 1개에 봉을 다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의 낚시를 한데 묶어 봉을 다는 경우가 많으며 낚시 없이 봉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생물을 낚시 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봉을 대상생물이 좋아하는 미끼 모양으로 만들거나 비닐, 깃털 등을 달기도 하며 진짜미끼를 봉에 묶어 놓기도 한다. 낚시에 걸린 대상생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낚시 끝에 미늘이 있는 것도 있으나, 문어, 낙지 등 연체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미늘이 없는 것을 주로 사용한다. 문어 외줄낚시는 과거에는 한 사람이 낚시 1개씩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여러 개를 분산 투승하여 조업하고 있으며, 낚싯줄 재료도 과거에는 면사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PP사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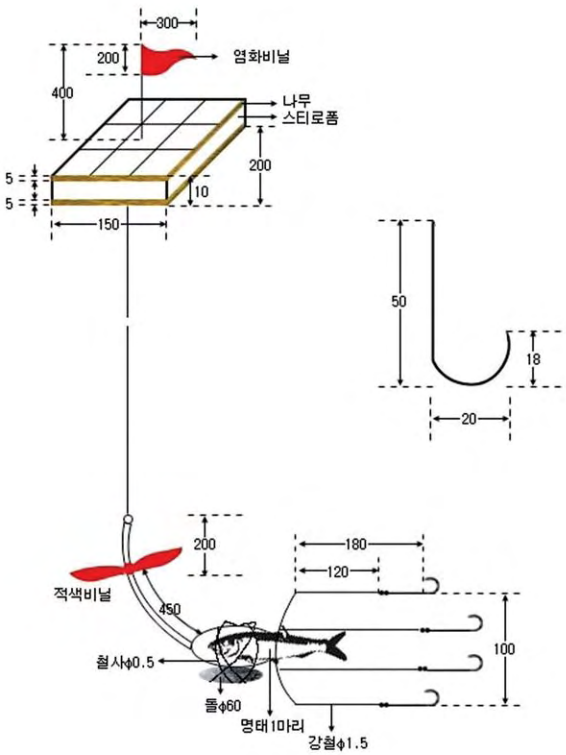
문어 외줄낚시는 납, 돌 등으로 된 봉에 여러 가닥의 철사를 묶고 철사 끝마다 낚시를 묶은 봉낚시에 대상 생물을 유인하기 위하여 비닐이나 깃털을 달며 진짜 미끼도 함께 묶어 사용한다. 낚시 약 30~50개를 해 · 조류 방향에 대해 가로지르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투승해 놓고 낚시가 해 ·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한 다음 육안으로 부표를 감시한다. 해 · 조류를 따라 흘러가지 않고 제자리에 멈추어 있는 낚시를 발견하면 문어가 낚시에 걸린 것으로 판단하여 낚싯줄을 당겨 올려 걸린 문어를 떼어내고 다시 투승한다. 부표를 쉽게 감시하기 위하여 부표에 방울을 달아놓기도 한다.

오전 4~6시경부터 오후 4~5시경까지 반복 조업한다. 어기는 연중 조업이 가능하며, 속초지방 연안에서는 7~9월과 11~2월에 어획이 양호하다. 어장은 속초지방 연안에서는 여름철인 7~9월경에는 수심 100m 내외이며 어선은 FRP선 1~3톤급, 15~70마력 내외에 1~2명이 승선 조업한다. 한편, 미끼는 고등어를 반 토막 내어 머리 부분만 또는 명태 1마리를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돼지비계를 사용하기도 한다.



〈 그림 6)2-2-19 〉 문어 외줄낚시A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20 〉 문어 외줄낚시 B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7. 오징어 낚시류(Squid hooks)

속초지방의 중요 어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업의 방법으로 낚시 바늘이 여러 개로 된 복합낚시를 오징어의 분포 수층에 수직으로 투하한 다음 낚싯줄을 위로 재빨리 채어 오징어가 낚시에 걸리도록 하여 잡는 것이다. 오징어 대낚시, 보채낚시, 수동롤러, 자동조획기가 있으며, 이들 모두 오징어를 채어서 낚으므로 어느 어구를 사용하던 오징어 채낚기 어업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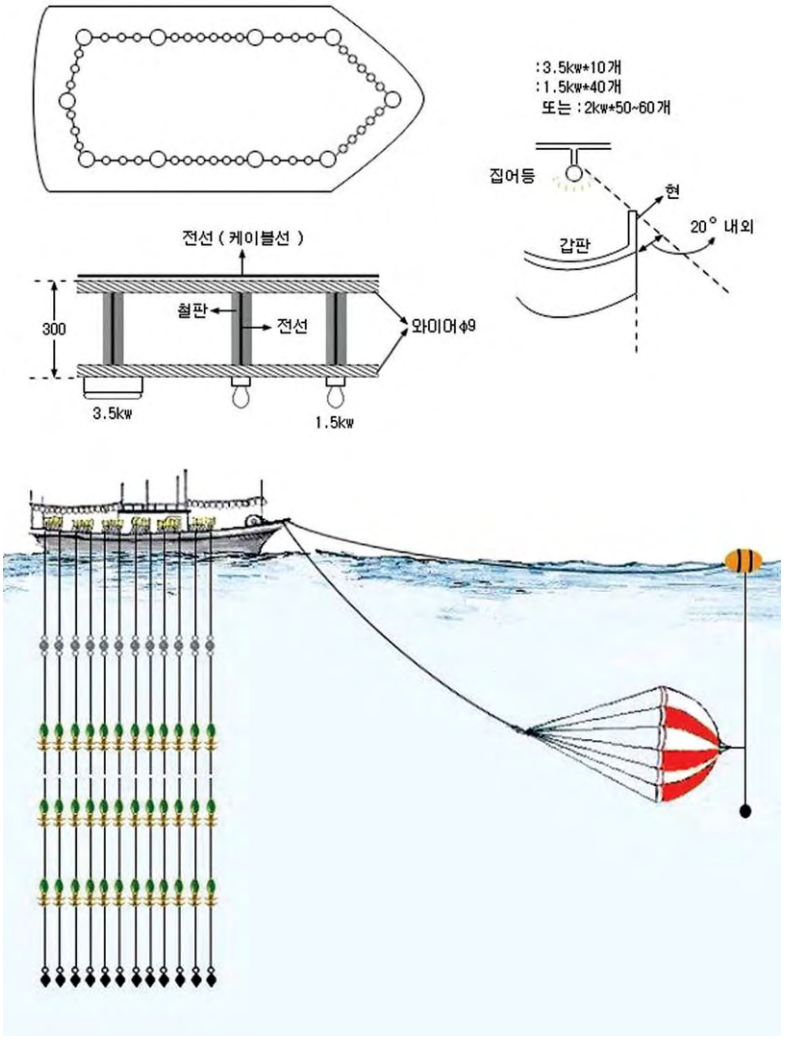
오징어는 1일 수직운동이 심하여 낮에는 수심 깊이 있다가 밤이 되면 수면으로 올라와 소형 어류 등을 잡아먹는데 이때 행동이 공격적이면서 불빛에 잘 모이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여 외줄낚시나 주낙과 달리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낚시채에 플라스틱이나 나무 또는 납 등으로 미끼 모양을 만들어 부착하고, 여기에 색채를 넣거나 · 형광물질을 발라 자연산 미끼처럼 보이도록 함과 동시에 집어등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수면 가까이로 밀집시켜 어획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집어등이 어획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므로 별도의 발전기를 시설하여 집어등 용량을 크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선이 사용하고 있는 집어등은 대부분 1~2kw 백열등을 수십 개씩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탈할라이트등을 사용하여 같은 발전용량으로 높은 광도를 내고 있다. 어선 규모별 집어등 광력기준을 보면, 10톤 미만에서는 100kw 이하, 10톤~20톤 미만에서는 130kw 이하, 20톤~50톤 미만에서는 180kw 이하, 50톤~70톤 미만에서는 200kw 이하, 70톤 이상에서는 210kw 이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집어등의 설치는 현으로부터 안쪽에 설치하되 높이를 조정하여 배의 현과 불빛이 수중으로 투과하는 각이 약 20도 내외가 되도록 함으로써 낚시가 그늘에 있도록 한다. 어구의 구성은 과거에는 오징어의 분포 수심에 따라 즉, 어군이 표층에 완전히 부상하였을 때는 대나무 끝에 낚싯줄을 묶고 낚싯줄 끝에 복합낚시 1~2개를 단 대낚시를, 오징어가 표층으로부터 다소 침하하였을 때는 보채의 양 끝에 복합낚시 4~5개를 단 보채낚시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한 가닥의 낚싯줄에 30개 내외의 복합낚시를 1열로 달고 이것을 수동롤러에 감아 사용하는 수동롤러와 전동모터를 이용한 자동조획기로 조업을 하고 있으며, 수동롤러나 자동조획기로 조업 중 어군의 상태에 따라 잠시 대낚시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뜰 때까지 밤에 조업하며 해가 진 직후부터 22시경까지와 해가 뜨기 직전에 어획이 좋다.

어기는 7월에 들어 동해안의 울릉도~대화퇴에 이르는 해역과 서해안의 덕

적도~소흑산도에 이르는 해역에서 본격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최성어기인 9월까지 계속되며 10월에 들어서는 서해안에서는 어기가 거의 끝나고 동해안에서만 12월까지 계속되며 1월부터는 일부 대형선만이 남해안으로 이동하여 조업하며, 특히 속초항의 어선들이 대회퇴 어장에서 오징어채낚기 어업을 많이 하고 있다. 어선으로는 목선 2~30톤급, 300~400마력 내외에 20~25명이 승선 조업하고, 강선 80~120톤급, 500~600마력 내외에 수동롤러를 사용할 때는 30~35명, 자동조획기를 사용할 때는 15~20명이 승선 조업한다. 그리고. 150~200톤급, 600~900마력 내외의 수동롤러를 사용할 때는 35~40명이, 자동조획기를 사용할 때는 20~25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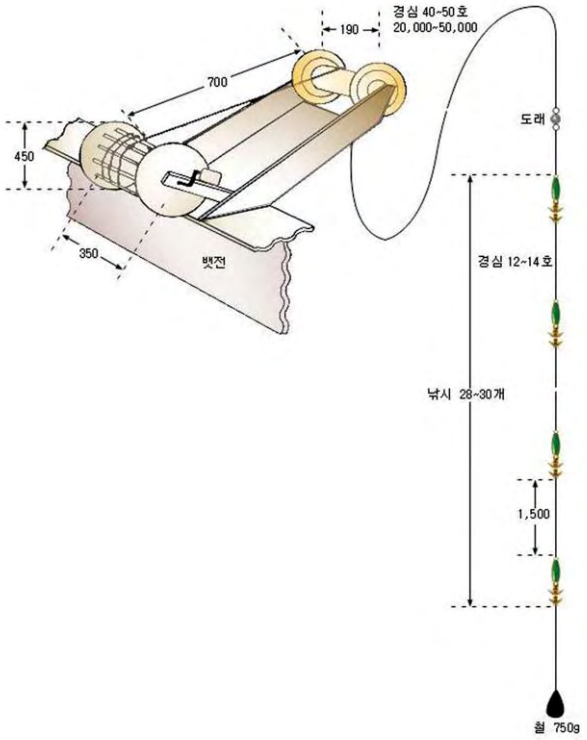
〈 그림 6)2-2-21 〉 오징어 채낚기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오징어 수동 롤러의 원줄은 경심 40~50호를, 낚싯줄은 경심 12~14호를 주로 사용하며, 낚시의 간격은 약 1m50㎝이다. 해가 진 직후부터 어군탐지기로 어군을 탐색하는 한편, 집어등을 켜고 어군을 집어 시켜 본 다음 어장을 결정한다. 어장이 결정되면 선미에 돛을, 선수에 물돛을 설치하여 배를 해 · 조류나 바람방향으로 세운다. 만약 배를 해 · 조류나 바람방향으로 세우지 않으면 해 · 조류에 의해 좌 · 우현에서 투승한 낚시가 서로 엉킬 염려가 있으며, 또 파도나 바람으로 인해 롤링이 생김으로서 낚시에 걸린 오징어가 양승 중 탈락하는 경향이 있다. 물돛의 투하가 완료되면 선원을 선수, 선미, 좌 · 우현에 약 1m70㎝ 간격으로 배치하여 수동롤러 1대씩을 맡아 조업한다. 수동롤러와 낚시는 각자 본인이 준비하며, 예비용 낚시와 낚싯줄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오징어의 분포 수심에 따라 원줄 길이로 낚시의 수층을 조정한 다음 추의 무게로 낚시가 내려가게 한다. 낚시가 완전히 내려갔을 때 자새를 감아 낚시를 끌어올리는 도중에 오징어가 낚시에 걸리며, 걸린 오징어는 안내롤러를 통과하여 롤러대 위에 자동적으로 탈락한다. 맨 끝에 달린 낚시가 수면위로 올라오면 자새의 손잡이를 놓아 추의 무게로 낚시가 다시 내려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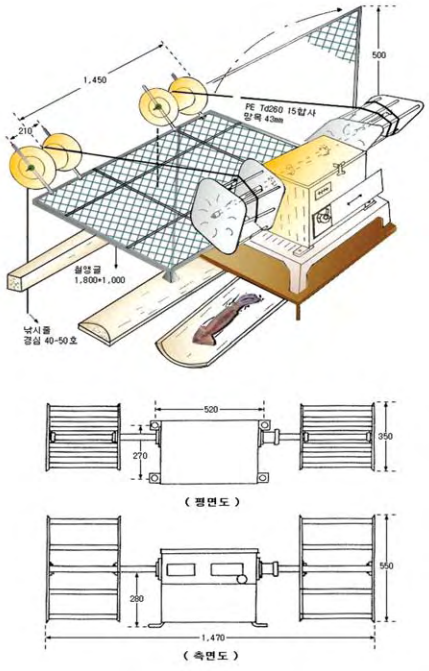
오징어 자동 조획기는 수동롤러 대신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낚시를 올렸다 내렸다 하도록 하여 오징어를 잡는 것으로 자동조획기 1대에 낚시 2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조획기의 설치 간격은 2m 내외로 하며, 한 사람이 조획기 약 5대씩 맡아 낚싯줄이 엉키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할 때를 대비한다. 따라서 수동롤러에 비해 조업인원과 선원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어군이 희박할 때는 어획률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자동조획기의 일반적인 제원을 보면, 전원은 교류3상으로 200~270V이고, 수심조절범위는 0~200m 내외의 무단계식으로 되어 있으며, 조정장치가 있어 조업수심, 투 · 양승속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또, 1대의 총 중량은 약 60~70kg이다. 그 외 사용어구의 구성, 조업방법 등은 수동롤러와 같다.

오징어 대낚시는 길이가 약 2m되는 대나무 끝에 경심16호 내외의 낚싯줄로 낚시 4~5개를 1열로 달고 그 끝에 추를 단다. 대낚시는 수동롤러나 자동조획기로 조업 중 오징어가 표층에 부상되었을 때 잠시 사용하며, 오징어가 표층으로 부상하는 현상은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표층수와 대기와의 온도차로 약한 조경이 형성될 때 일어난다. 이때 낚싯대를 잡고 낚시가 표층에서 8자를 그리도록 흔들어 오징어가 낚시에 걸리면 즉시 머리 위로 채면서 반동을 주어 갑판 위에 떨어지도록 하고 다시 낚시를 바다에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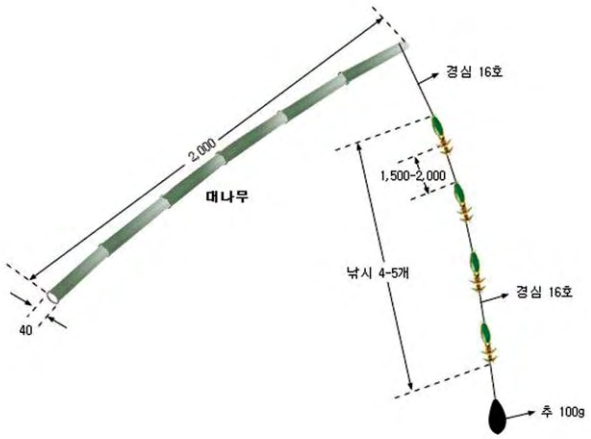
〈 그림 6)2-2-22 〉 오징어 수동롤러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23 〉 오징어 자동 조획기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24 〉 오징어 대낚시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8. 함정어구류(Traps)

수산생물이 많이 회유하여 오는 장소에 깔때기와 같이 일단 들어간 대상생물이 되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한 장치를 가진 어구나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구를 부설하여 대상생물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하여 잡는 것을 말한다. 대상 생물이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방법에 따라 어구구조 및 규모가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어업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는 숨을 곳을 만들어 주어 잡는 은신함정류, 해 · 조류를 따라 연안측으로 들어온 생물을 가두어 잡는 장벽함정류, 깔때기 장치를 가진 바구니함정류, 비탈그물이 장치된 낙망류 등이 있다.

은신함정류는 일정한 장소에 숨어서 살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생물을 대상으로 자연 상태의 서식처와 유사하게 만든 어구를 부설하였다가 그 속에 들어간 대상생물을 잡는 것이다. 속초지방의 대표적인 방법은 문어 단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어업은 과거부터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 등에 큰 변화 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다만 각 종 줄의 재질과 문어단지의 재질이 바뀌었고, 어구분류상 이전에는 잡어구류 중 유도함정류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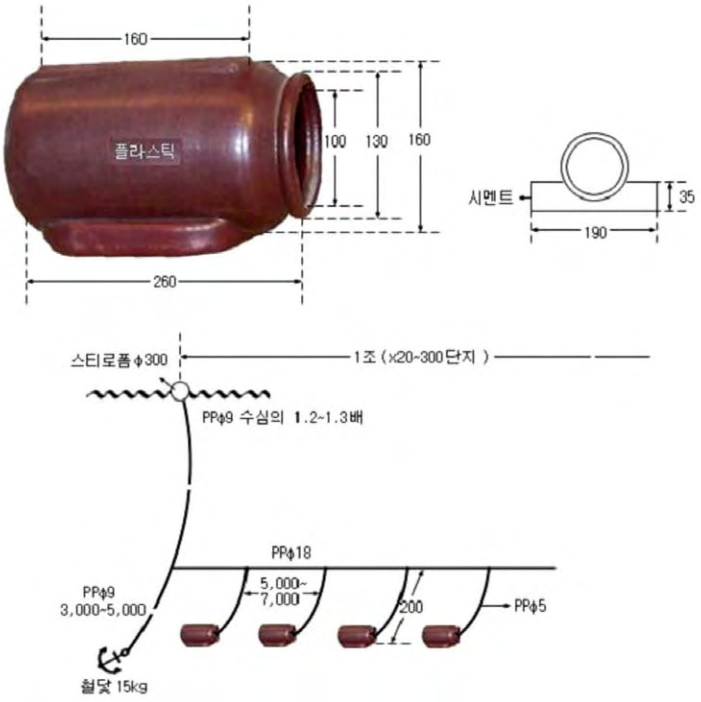
문어는 암초부근의 굴처럼 패인 곳이나 그늘진 곳에 숨어서 사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여 단지를 긴 모릿줄에 여러 개 달고 그 속에 숨어 들어온 문어를 잡는 것이다. 과거에는 토기로 된 단지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된 단지를 사용하며 미끼는 사용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단지를 사용할 경우 해 · 조류에 의해 단지가 움직여 문어에게 위협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 부분에 시멘트를 채워 안정감을 주고 문어 자신의 색깔과 비슷한 암갈색으로 만들며, 문어가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크기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의 입구 부분을 PP Φ5㎜ 내외의 아릿줄로 묶고, 약 5~7m의 간격으로 PP Φ18㎜의 모릿줄에 달아 투하한 다음 양 끝을 닻과 부표로 고정시킨다. 문어는 일반적으로 밤에 활동하므로 오전 5~6시경 출항하여 전날 부설하였던 어구를 사이드 드럼으로 양승하면서 단지 속에 들어 있는 문어를 잡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 투승하거나 어장을 이동하여 투승한 다음 귀항한다. 어선 규모에 따라 사용 단지 수는 다르며, 보통 1톤급 내외 어선에서는 총 1,500~2,000개를, 5톤급 내외 어선에서는 총 2,000~3,000개를 200~300개씩 여러 곳에 분산하여 투승한다. 어기는 연중 조업하며, 6~8월에 어획이 양호한 편이다. 어장은 연안 2마일 이내의 수심 50m 이내 해역, 저질은 자갈, 모래 또는 암초부근의 사니질이 적합하다. 어종은 어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참문어 약 90%, 왜문어, 주꾸미 등 기타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선은 FRP선 1~5톤급, 15~150마력 내외에 2~3명이 승선 조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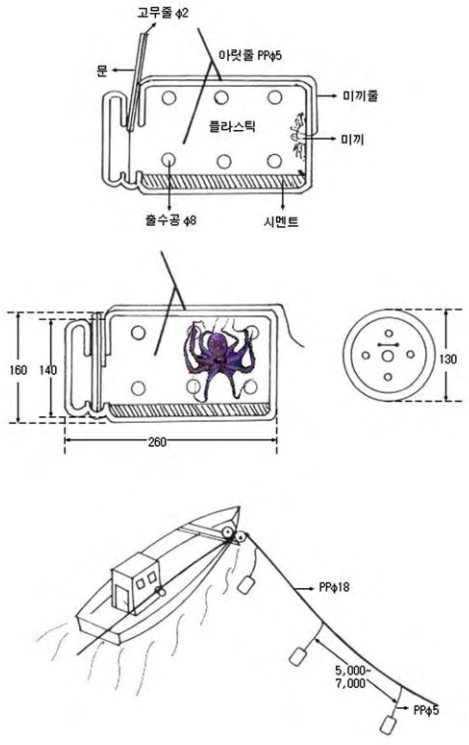
문어를 어획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몇몇 어선에서 사용하는 개폐식 문어단지를 이용하는데 이는 플라스틱으로 된 문어단지 입구에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달아 일단 문어가 단지 속으로 들어가면 문이 닫혀 되돌아 나올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즉, 투하 때에는 문의 중간에 미끼줄을 매고, 이 줄을 단지 밖으로 해서 후면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 단지 안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그 끝에 조개나 소형 게를 묶어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한다. 한편 고무줄로 문과 단지입구를 함께 걸어놓아 문어가 단지 속에 들어가 미끼를 먹으면 미끼줄이 벗겨지면서 입구에 있는 고무줄에 의해 문이 닫히도록 되어 있다. 문어단지보다 어획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끼에 의한 유인효과도 크지만 조업 때마다 미끼를 장치해야 하고 살아 있는 미끼를 구하기 어려워 일시에 많은 단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

조업방법은 문어단지와 동일하며 사용 단지수는 문어단지의 약 3분의 1인 500~1,000개이다.



〈 그림 6)2-2-25 〉 문어단지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26 〉 개폐식 문어단지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9. 통발류(P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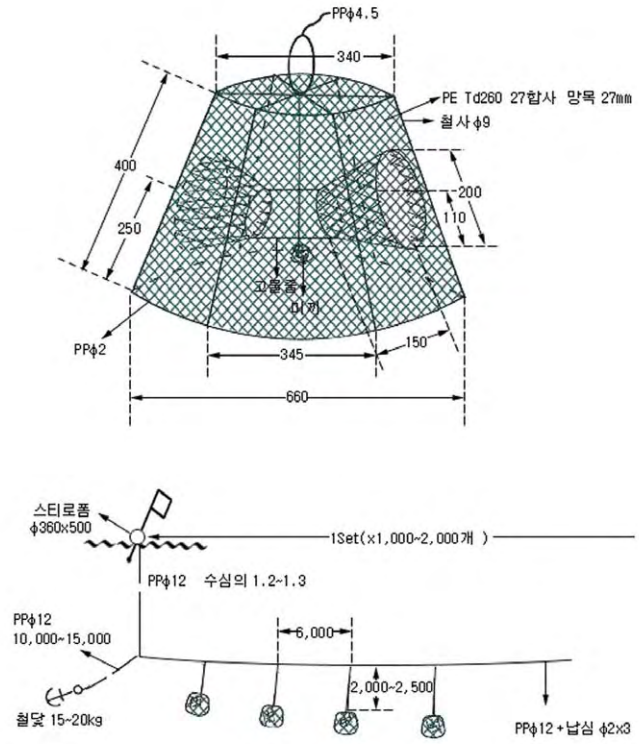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서식하거나 유영력이 크지 않으면서 미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생물을 대상으로 나무, 철사 등으로 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정틀, 또는 고정된 틀 대신에 테를 이용하여 어구의 모양을 유지한 것에 그물감이나 철망 또는 나무넝쿨 등을 씌우고 위면 또는 옆면에 1~4개의 입구를 설치한 어구를 부설하여 대상생물을 잡는다. 통발류에는 대상생물을 미끼로 유인하는 새우 통발, 게 통발, 붕장어 통발, 골뱅이 통발 등과 산란기에 알받이로 유인하는 갑오징어 통발이 있다. 이러한 통발들은 과거에 비해 새로 개발되었거나, 통발구조 및 재질이 개량 발전되어 현재는 어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구분류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잡어구류 중 유도함정구류로 분류하였다.

속초지방의 어법 중에 통발류는 북쪽 분홍새우 통발어업으로 이는 직경 9㎜ 내외인 철사로 된 원통형의 틀에 PE Td 260 27합사 망목 27㎜ 내외인 그물감을 씌우고, 측면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 2개를 만든 통발에 미끼를 넣어 대상 생물을 유인하여 잡는 것으로 오전 4~5시경 출항하여 어장에 도착하면, 배를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사이드드럼으로 전일 투승한 통발을 양승하여 어획 상태를 파악한 다음 등심선을 따라 전속으로 전진하면서 준비한 어구를 투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준비한 어구를 투승한 다음 전일 투승한 어구를 양승하기도 한다.

통발의 간격은 어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m 내외이며, 8톤급 내외의 어선은 척당 약 2,000개를, 20톤급 내외의 어선은 척당 약 3,000~4,000개를 준비하여 매회 1천~2천개씩 교대로 조업한다. 통발 약 1,000개로 조업할 경우 투승 소요시간은 약 30분~1시간, 양승 소요시간은 약 4~5시간이다.

어기는 연중 조업이 가능하지만 속초지방 연안에서는 3~6월에 주로 조업하고, 어장은 수심 200~400m, 저질은 펄 또는 사니질, 특히 해저 계곡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어선은 목선 8~20톤급, 200~400마력 내외에 7~8명이 승선하여 조업하고, 미끼는 정어리나 고등어 2~3미를 가는 철사로 묶어서 사용한다.



〈 그림 6)-2-27 〉 북쪽 분홍새우 통발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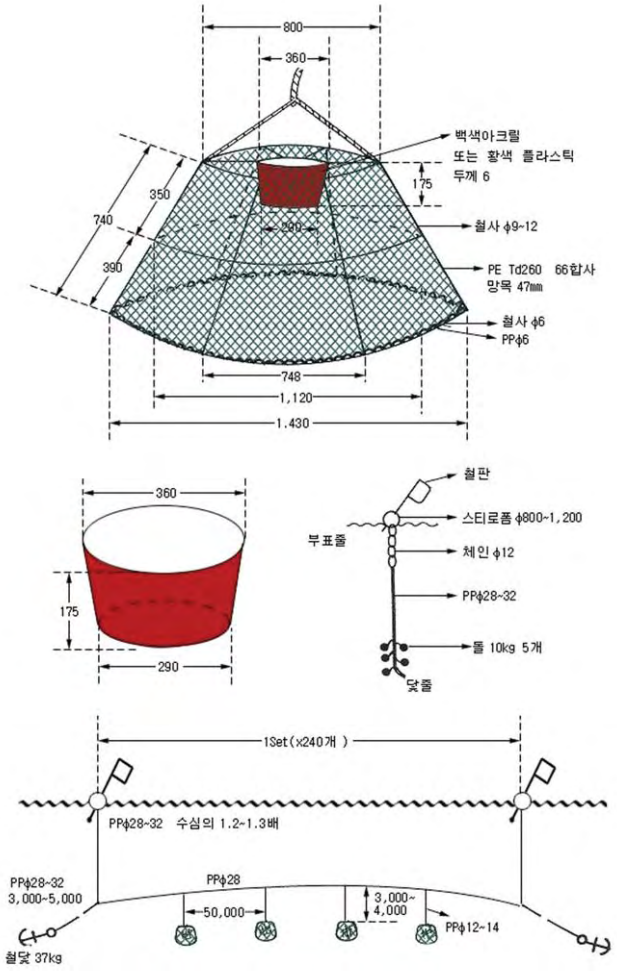
가. 붉은대게 통발

붉은대게 통발은 직경 12~16㎜인 철사로 된 원통형 틀에 PE Td260 66합사 망목 47㎜ 내외인 그물감을 씌워 위쪽에 아크릴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입구 1개를 만든 통발에 미끼를 넣어 대상 생물을 유인하여 잡는 것이다. 어장에 도착하면 배를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지난 항차 때 부설한 통발을 먼저 양승하는데 모릿줄은 선수 우현에 있는 안내 롤러를 통해 좌현에 있는 유압 양승기로 감아올린다. 양승한 통발은 어획물 처리, 미끼 갈아 끼우기, 파손 부분 보수 등을 거쳐 선미로 운반하고 모릿줄은 수송관을 통해 선미로 보내 재 투승하므로 어장 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양승을 마치면 어선 1척당 통발 240~250개를 1조로 구성하여 18~20조, 즉 총 4,500~5,000개의 통발을 해저 계곡을 따라 전속으로 전진하면서 선미에서 투승한다. 투승된 통발이 다음 항차에서 양승될 때까지의 침지기간은 5~6일이 소요된다. 1일중 조업은 24시간 계속되며 양·투승을 반복하므로 선원들은 하루 수면시간 5~6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교대로 작업을 한다. 1일간 양·투승하는 어구수는 약 4조 정도이며, 통발 1조에 대한 투승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양승 소요시간은 약 5~6시간이다. 어획물은 선

내에서 삶아 냉동시키고, 어획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항차에 1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작업일수는 15일 정도이다.

어기는 연중 조업하며 3~5월에 어획이 양호, 음력으로 보름 전후에는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장은 수심 800~2,000m의 해저 계곡, 저질은 펄인 곳이며, 어선은 강선 70톤급, 600마력 내외에 12명이, 강선 200~300톤급, 800~1500마력 내외에 18~22명이 승선하여 조업하고, 미끼는 명태를 주로 사용하며, 통발 1개당 약 2미를 지름 2㎜ 내외의 와이어로프에 끼워 사용하거나 미끼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한다.



〈 그림 6)2-2-28 〉 붉은 대게 통발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나. 물레고둥(골뱅이)통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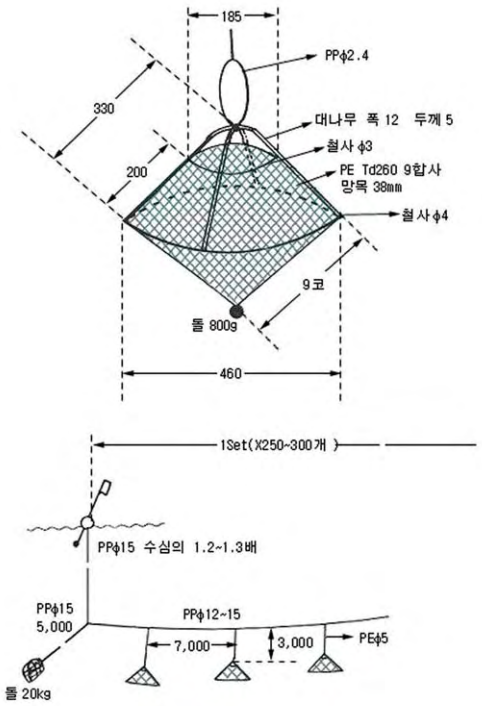
통발의 형태나 크기 등은 어선규모, 조업해역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연안에서 조업하는 4톤급 내외의 어선에서는 대나무로 원뿔형 틀을 만들고 위쪽에 입구 1개를 낸 통발(A)를 주로 사용하며, 통발 약 250~300개를 1조로하여 총 2~3조로 조업한다. 8톤급 내외의 어선에서는 통발(A)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철사로 원통형 틀을 만들어 좌우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 2개를 만든 통발(B)를 사용하기도 하며, 통발 약 800~1,000개를 1조로 하여 총 2조로 조업한다. 이중 통발(B)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뱅이뿐만 아니라 새우류나 기타 어류의 혼획을 위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다소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 조업하는 50톤급 내외의 어선에서는 철사로 원통형을 만들고 위쪽에 1개의 입구를 만든 통발(C)를 사용하며, 통발 약 700개를 1조로하여 총 3~4조로 조업한다.

모릿줄은 통발(B)와 같이 입구가 옆에 있을 때는 납심이 들어 있는 PP 로프를 주로 사용하지만, 통발(A)나 (C)처럼 입구가 위 쪽에 있을 때는 납심이 들어 있는 로프를 사용하면 모릿줄이 통발 입구를 막을 염려가 있으므로 납심이 들어 있지 않는 로프를 주로 사용하며, 그 대신 통발의 안정을 위하여 통발 자체를 무겁게 하거나 발돌을 달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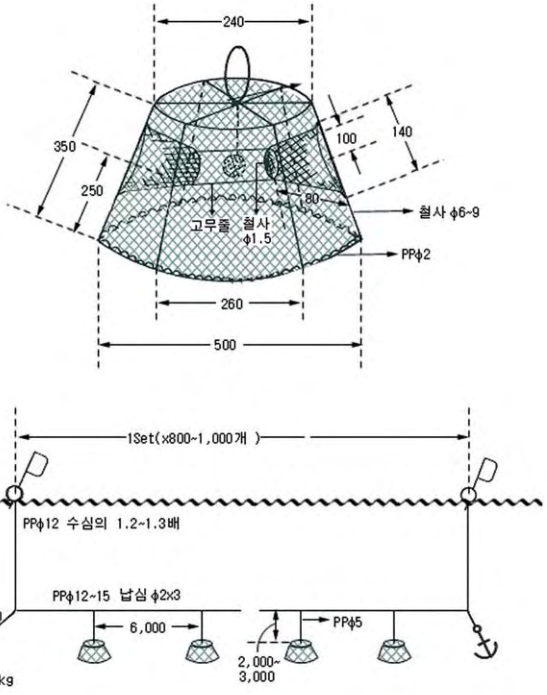
투승은 등심선 특히 해저 계곡을 따라 전속으로 전진하면서 소형선은 선수에서, 대형선은 선미에서 하며 양승은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소형선은 사이드드럼으로, 대형선은 20마력 내외의 전동식 양승기로 한다. 또한 소형선은 오전 4~5시경 출항하여 어장에 도착하면 준비한 어구를 투승하고 전일 투승한 어구를 양승하여 귀항하거나, 반대로 전일 투승한 어구를 양승하여 어획 상황을 파악한 다음 어장을 결정하여 준비한 어구를 투승하고 귀항하지만, 대형선은 준비한 어구를 투승하고 이미 투승된 어구를 양승한 다음 물돛을 투하하여 표박하면서 어획물 처리, 미끼 갈아 끼우기, 어구손질 등을 하여 통발은 인력으로, 모릿줄은 수송관을 통하여 선미로 옮겨 다음 투승 준비를 한다. 따라서 소형선은 1일 조업을 하지만 대형선은 냉동시설 여하에 따라 1항차에 약 5~15일이 소요된다. 통발 1조당 투 · 양승 소요시간은 4톤급 내외 어선의 경우 투승에 약 30분, 양승에 약 2~3시간이고, 8톤급 내외 어선의 경우 투승에 약 1시간, 양승에 약 4~5시간이며, 50톤급 어선의 경우 투승에 약 30~40분, 양승에 약 3~4시간이다.

어기는 연중 조업이 가능하나 3~11월에 주로 조업하고, 어장은 수심 300~400m인 주로 해저 계곡, 저질은 펄인 곳에서 행하며, 어선은 목선 2~50톤급, 20~400마력 내외에 2~8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미끼는 정어리, 고등어 등을 직경 0.9㎜ 내외의 철사로 묶어 사용하거나 미끼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며, 소형 통발은 1마리 정도, 대형 통발은 2~3마리를 사용한다.



〈 그림 6)2-2-29 〉 물레고동통발 A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30 〉 물레고동통발 B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다. 문어통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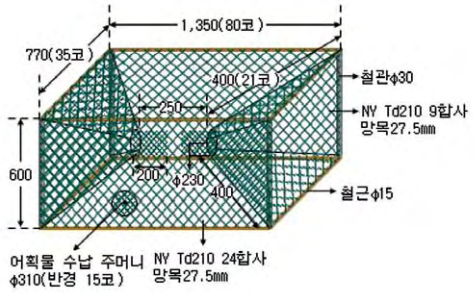
직경 30㎜인 철관과 15㎜인 철근으로 직육면체 틀을 만들고 나일론 Td210 9합사 망목 27㎜ 내외인 그물감을 씌워 양측으로 깔때기 모양의 입구 2개를 만든 통발에 미끼를 넣어 대상 생물을 유인하여 잡는 것이다.
철근으로 만든 위아래의 직사각형 틀에는 길이 50㎜ 정도의 철근 돌출부가 있으며 고무피복을 한 세로 방향의 철관 기둥 4개 속에 이 돌출부가 들어가게 하여 통발의 전체 모양을 유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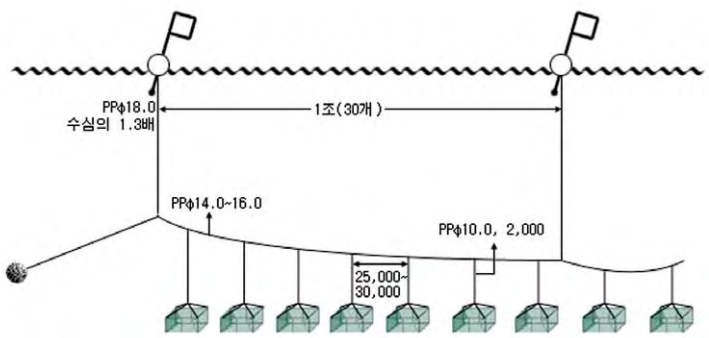
새벽에 조업을 시작하며 통발 약 30개를 1조로 구성하여 20~30여 곳에 분산 투승해 놓은 어구를 1일에 10조씩 양승하고 투승한다. 투 · 양승 작업은 모두 선수에서 이루어지며, 1조씩 어구를 양승하여 어획물을 수납하고 미끼를 넣어 다시 투승한다. 1조의 어구에 대한 투승 소요시간은 약 20분, 양승 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다. 어기는 연중 조업하나, 10~6월에 어획이 양호하다. 어장은 수심 80~150m, 저질은 자갈 또는 암초주변이 좋으며, 어선은 목선 7~8톤급, 380마력 내외에 5~6명이 승선하여 조업하고, 미끼는 정어리, 청어 2마리를 철사에 끼우거나 미끼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한다.

라. 문어통발(2)

나일론 Td210 6합사 망목 24㎜ 내외인 그물감으로 주머니 모양을 만들고 양 입구와 가운데에 지름 4㎜ 내외인 철사로 된 고리테를 부착한 다음 투승 때에 대나무 뻗침대 2개를 양측 고리테에 걸어 통발이 벌어지도록 한 통발(A)와 뻗침대 대신 고리테 자체를 스프링식으로 하고 양측에 걸쇠를 만들어 투승 때에 걸쇠를 풀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 통발이 벌어지고, 선내 적재시는 걸쇠를 걸어 접을 수 있도록 한 통발(B)에 미끼를 넣어 대상생물을 유인하여 잡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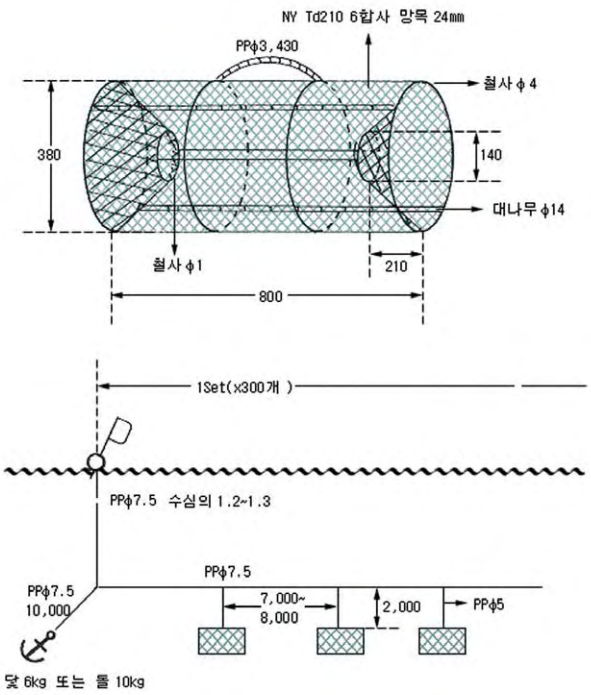
오후 3~4시경 투승하였다가 다음날 오전 5~6시경 사이드드럼으로 양승한다. 통발 약 200~300개를 1조로 하여 총 1~2조를 사용하며, 통발 1조에 대한 투승 소요시간은 약 1시간~1시간30분, 양승 소요시간은 약 2시간30분~3시간이다. 어기는 연중 조업하고 어장은 연안 수심 10~50m, 저질은 자갈 또는 암초주변이 좋다. 어선은 목선 2~3톤급, 20~70마력 내외에 2~3명이 승선하여 조업하고, 미끼는 정어리 2마리를 철사에 끼우거나 미끼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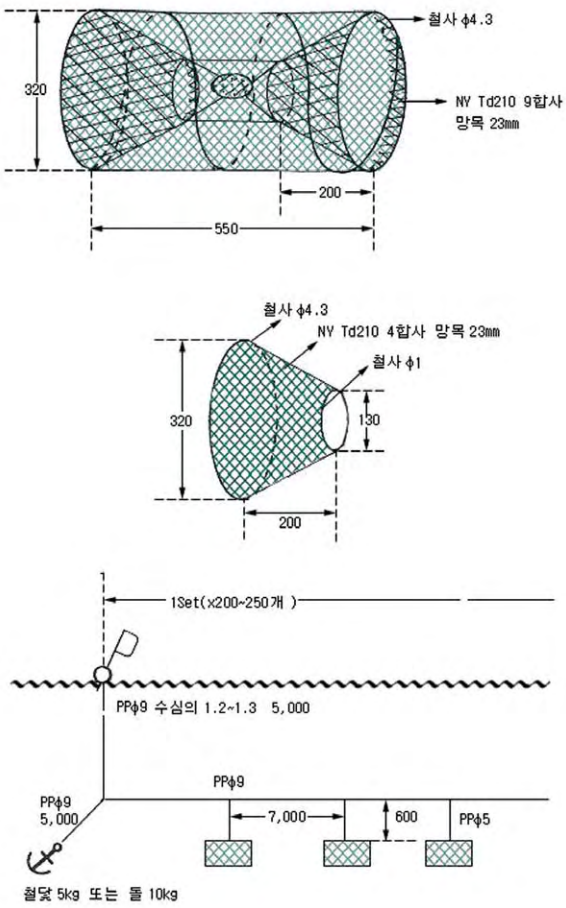
〈 그림 6)2-2-31 〉 문어통발 A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32 〉 문어통발 2A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33 〉 문어통발 2B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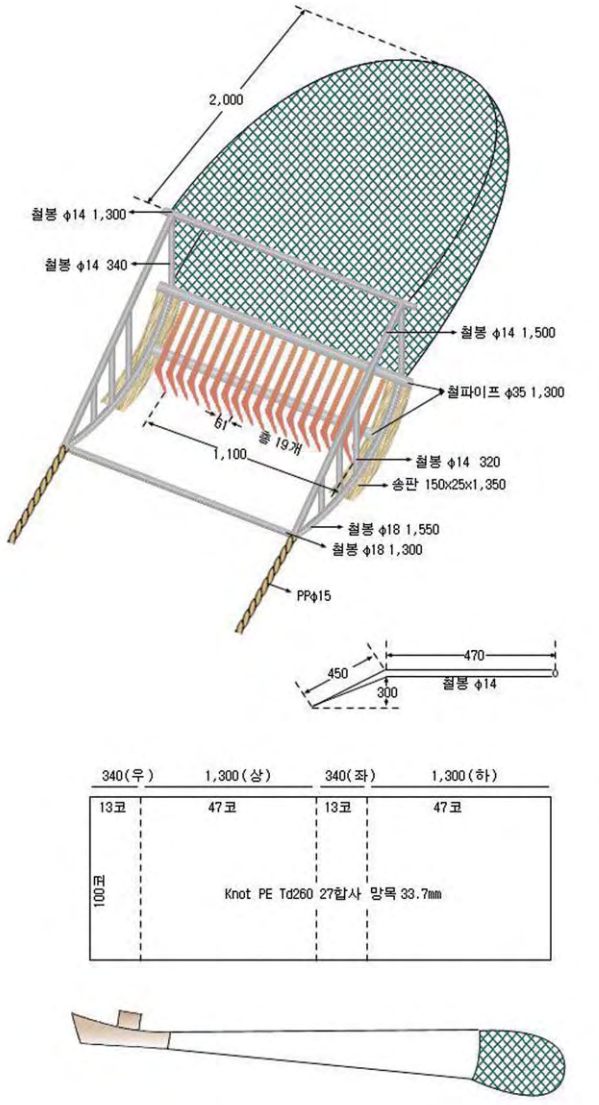
10. 끌어구류

주머니 모양으로 된 어구를 수평방향으로 임의시간동안 끌어 대상생물을 잡는 것을 말한다. 다른 어법에 비하여 적극적인 어법으로 매우 중요한 어업 중 하나이며 어구전개장치, 어로장비, 어군탐색장비 등이 매우 발달된 어업이다.

가. 백합형망

자루그물 입구에 직사각형의 틀을 달고 틀의 밑변에 여러 개의 갈퀴를 단 어구를 배로 끌어서 백합을 채취하는 것으로 갈퀴의 끝 부분은 바닥과 약 40~42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휘어져 있으며, 갈퀴 양측에 나무판으로 된 썰매판을 부착하여 틀 자체가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

다. 예행점은 틀의 양측에 철봉을 대어 틀의 중앙 부근에 오도록 하며, 끌줄은 2줄을 사용한다. 어선 1척이 선미 양 비트에 끌줄 1가닥씩을 연결하여 어구 1통을 사용하며 예인속력은 약 1노트, 1회 예인시간은 약 30분이다. 주로 낮에 조업하며, 1일 약 20회 조업한다. 어기는 연중 조업이 가능하지만, 봄철과 가을철에 주로 조업한다. 어장은 연안 수심 10~30m, 저질은 모래 또는 사니질에서 행하며, 어선은 목선 5톤급, 30마력 내외에 2~3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 그림 6)2-2-34 〉 백합형망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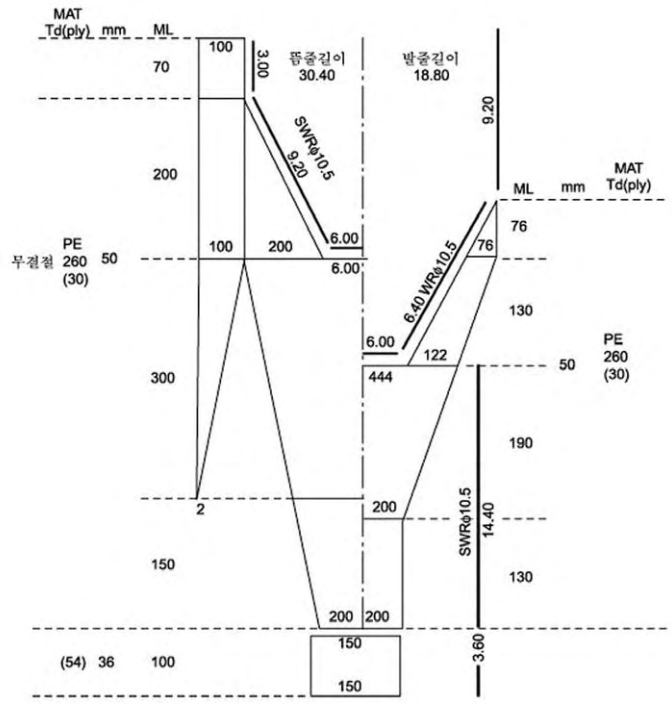
나. 저층오터트롤망류(Bottom otter trawls)

동해안에서 저층트롤망으로 청어, 가자미, 명태, 골뱅이 등을 잡는 것이다. 과거, 70년대 이전에는 북쪽분홍새우를, 90년대 이전에는 명태를 주 대상으로 조업하였으나, 근년에는 북쪽분홍새우와 명태 자원의 감소로 청어, 가자미를 주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의 명칭도 이전의 새우 트롤에서 동해구 트롤로 바뀌었다.

어구의 형태는 등판과 밑판의 폭이 옆판에 비해 매우 큰 4매망을 주로 사용하며, 일부 어선에서는 옆판의 폭이 큰 6매망을 사용하고 있다. 조업방법은 과거에는 현측식으로 조업하였으나, 현재는 선미 양측에 간이 갤로우스를 설치하여 현측식과 선미식의 중간방식으로 조업하고 있다. 즉, 투망 전에 좌현측 후릿줄을 선미에 있는 갤로우스 바깥으로 돌려 우현측 선수갑판에 가져와 날개그물에 연결시켜 놓은 다음 우현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으로 투망을 한다. 투망 중 그물이 추진기에 감기지 않도록 배를 우회전시키면서 예망 예정 방향으로 세운다. 후릿줄이 모두 나가면 배를 정선시키고 전개판을 연결한 다음, 다시 전속으로 전진하면서 끌줄을 풀어주며, 끌줄의 길이는 수심의 약 2~3배를 준다. 바람이나 해 · 조류를 선미에서 받으며 등심선을 따라 예망하며, 예망 완료 전 약 5~10분 동안 전속으로 예망한 다음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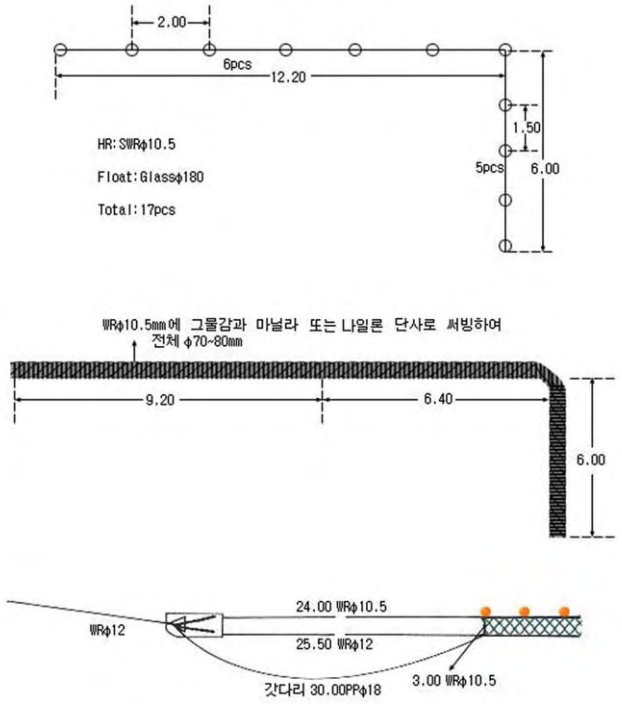
양망은 배를 정선시키고 사이드드럼을 통해 선수에 있는 와이어드럼으로 끌줄을 감은 다음 전개판을 갤로우스에 고정시키고, 배를 우회전시켜 그물이 우현에 붙도록 한 후 데릭 붐으로 끌어올린다. 예망 속도는 약 2노트, 1회 예망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며, 1일 6~7회 조업한다. 특히 명태는 밤낮에 따라 수직운동이 심하며, 여름철에는 낮에, 겨울철에는 밤에 저층으로 침하하는 경향이 있어 이 시간에 주로 조업한다. 1일 조업 후 귀항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황에 따라 2~3일 조업 후 귀항하기도 한다.

어기는 연중 조업하며, 12~4월에 어획이 양호한 편이고, 어장은 연안 수심 100~200m, 저질은 펄 또는 사니질이며, 어선은 목선 50~60톤급, 300~500마력 내외에 약 10~12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 그림 6)2-2-35 〉 동해구저층트롤 그물부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36 〉 동해구저층트롤 어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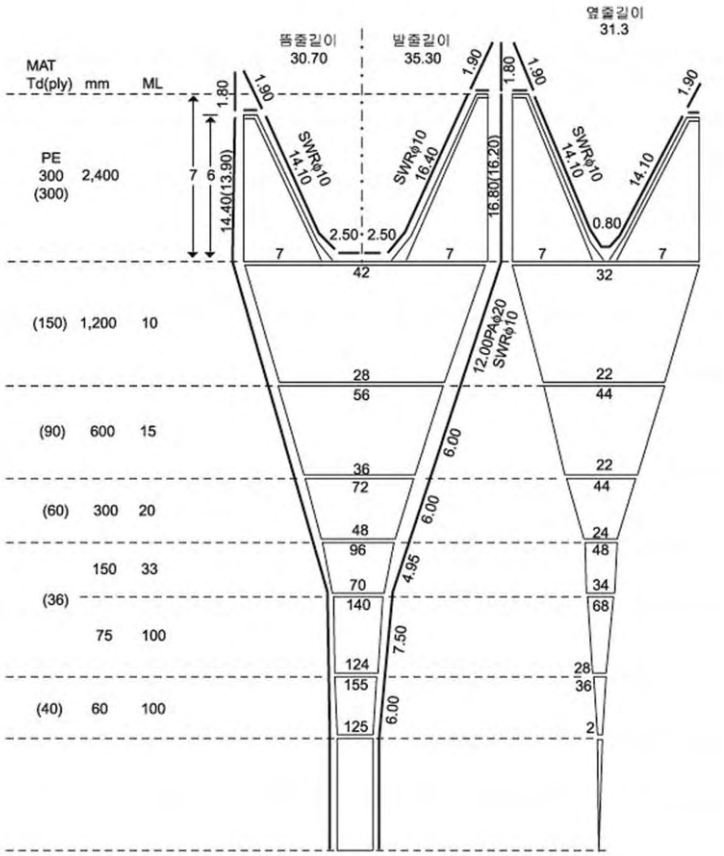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다. 중층오터트롤망류(Midwayrt otter trawls)

중층에 서식하는 어류를 주 대상으로 긴 자루그물의 앞쪽에 전개판을 부착한 어구를 어선 1척이 중층을 끌어 잡는 것이다. 그물 구성은 저층 오터트롤망과 달리 그물입구가 상하, 좌우로 크게 벌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등판, 밑판, 옆판의 폭을 거의 같게 사용하며, 날개그물이 없는 경우와 네 모서리에 삼각형의 날개그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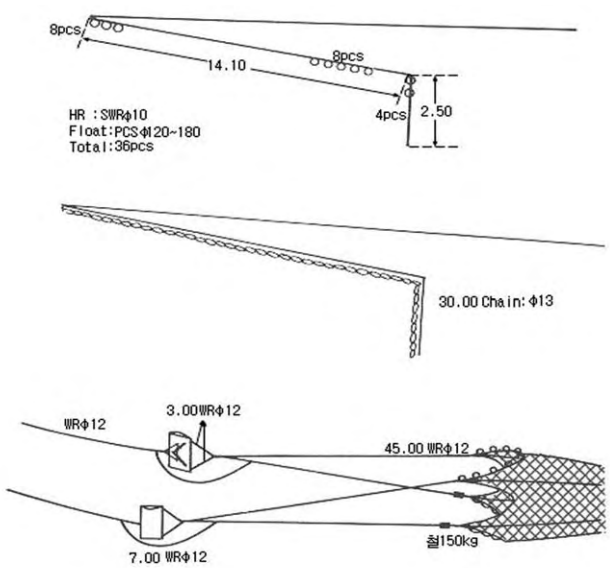
또한 저층 오터트롤망은 등판이 밑판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 어군이 위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중층 오터트롤망은 등판과 밑판이 같거나 오히려 밑판이 앞으로 나와 있어 어군이 밑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층에 서식하는 어류는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보다 민감하여 장애물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끼므로 자루그물 입구에서부터 날개그물까지 코가 큰 그물감을 사용하여도 어군이 그물코를 통과하여 도피하는 경향이 적다. 따라서, 그물코가 매우 큰 것을 사용하거나, 날개그물 대신 로프를 사용하여 예망 중 유체저항을 줄임으로써 동일한 예망력을 가진 배의 경우 저층 오터트롤망보다 어구규모를 크게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그물코가 큰 것을 대형망목트롤망이라고 하고, 로프를 사용한 것을 로프트롤망이라고 한다.

그물 입구가 최대로 전개되도록 하고 어군을 그물로 몰아넣는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후릿줄을 2가닥 사용하며, 날개그물 앞쪽 아래 후릿줄에 대형 추를 달아 그물 입구가 밑으로도 충분히 전개되도록 한다. 대신 발줄은 저층 오터트롤망에 비해 가볍게 하고 부력은 크게 하며, 전개판은 가벼우면서 면적이 큰 것을 사용한다. 조업 시에는 저층 오터트롤에 비해 어군의 분포수층에 어구가 예인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조업 시 항상 어군탐지기로 어군분포 수층을 파악하고, 망고기록계로 어구의 전개상태 즉, 망고와 예인 수층을 파악하여 어군 분포 수층에 따라 끌줄의 길이와 예망속도로 어구의 예인 수층을 조정하여야 한다. 즉, 어군이 부상하면 끌줄의 길이를 짧게 하고 예망 속도를 크게 하며, 어군이 침하하면 반대로 한다. 예망 중 수시로 이러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관에 여력이 있어야 하며, 윈치의 능력도 좋아야 한다. 과거에는 중층 오터트롤망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저층 트롤선에 의해 저층 트롤망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 그림 6)2-2-37 〉 동해구중층트롤그물부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38 〉 동해구중층트롤 어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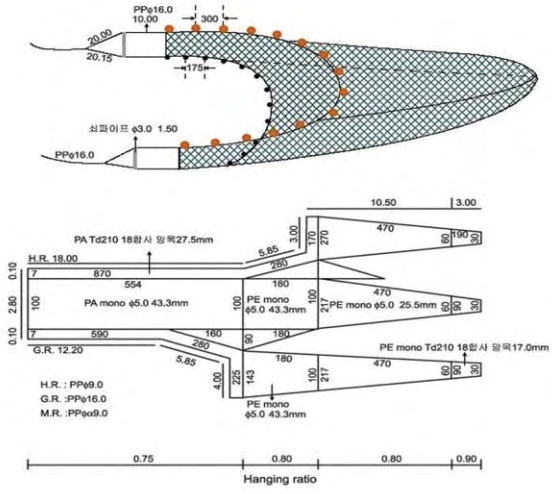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라. 멸치연안쌍끌이 선인망

멸치 연안 쌍끌이 선인망은 날개가 긴 자루그물을 2척의 어선이 중층이나 표층을 끌어서 멸치를 잡는 것이다.

어구구조는 트롤이나 쌍끌이 저인망과 유사하다 할 수 있으며, 그물 입구에서 멸치가 아래쪽으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입구의 아래쪽이 앞으로 나와 있으며, 자루그물의 구성은 등판, 밑판, 옆판, 삼각망지로 되어 있다. 뜸줄에는 부자가, 발줄에는 침자가 달려 있으며, 뜸의 부력이 침자의 침강력보다 크도록 되어 있다. 날개그물의 끝에서 각 2개씩의 목줄을 내어 쇠파이프로 된 갯대에 연결하고 갯대에 끌줄을 연결한다.

조업방법은 주선에 그물을 싣고 종선과 같이 어장에 도착하여 어군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어군탐색은 주로 어군탐지기를 이용하고 육안으로 해면 상태를 관찰하기도 한다. 어군이 발견되면 끝자루부터 투망하기 시작하여 자루그물, 날개그물, 그물목줄, 끌줄 순으로 투망한다. 투망이 완료되면 주선에서 한쪽 끌줄을 종선에 넘겨주고 양선은 약 30m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1노트 내외의 속도로 예망한다. 양망할 시점이 되면 양선의 간격을 서서히 좁히면서 처음 예망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약 5분 정도 더 예망한 후, 종선으로부터 끌줄을 다시 넘겨받아 양망기로 양망한다. 투망 소요시간은 약 5분 내외, 예망 소요시간은 약 40~60분 내외, 양망 소요시간은 약 15분 내외이다. 어기는 10~12월에 주로 조업하고, 어장은 연안 수심 5~20m 내외, 저질은 모래이며, 어선은 FRP선 6~8톤급, 300마력 내외 2척에 총 5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 그림 6)2-2-39 〉 멸치 연안 쌍끌이 선인망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마. 외끌이 기선저인망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을 주 대상으로 어선 1척이 양측에 날개그물이 달린 자루그물을 투망한 다음 후릿줄로 대상 생물을 그물 속에 몰아 넣어 잡는 것이다.

어구의 형태는 쌍끌이 기선저인망이나 저층트롤망과 유사하지만 어획방법이 다르다. 즉, 예망 중 그물 입구가 오므라들지 않도록 배 2척이 한 통의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쌍끌이 기선저인망이나 날개그물 앞 쪽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조업하는 저층트롤은 원하는 거리만큼 그물을 끌고 갈 수 있지만, 외끌이 기선저인망은 투망 시 후릿줄과 끌줄을 삼각형 또는 마름모꼴로 투하한 다음 끌줄을 끌어 끌줄과 후릿줄이 오므라들면서 어군을 그물 속으로 몰아넣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물은 거의 이동하지 않으며, 끌줄과 후릿줄에 의해 포위된 어군만 어획이 가능하다.

따라서 끌줄과 후릿줄이 어획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어군의 포위면적을 크게 하기 위하여 쌍끌이 기선저인망이나 저층트롤보다 훨씬 길게 사용한다. 또한 어군을 효과적으로 그물 속으로 몰아 넣기 위하여 끌줄과 후릿줄이 어군보다 빨리 오므라들지 않도록 후릿줄에 작은 체인을, 후릿줄과 끌줄 사이에 큰 체인을 달아 사용하며, 갑판에 잘 사려지는 굵은 섬유로프나 컴파운드 로프를 주로 사용한다.

투망 전에 그물을 좌현 갑판에 이동시켜 정리하고, 좌현 끌줄과 후릿줄은 끌줄 끝이 위로 오도록 하여 좌현 갑판에, 우현 끌줄과 후릿줄은 그물에 연결된 후릿줄 끝이 위로 오도록 우현 갑판에 각각 정리한다.

투망준비가 완료되면 예망 예정 방향에 대해 좌현 쪽으로 약 150도 정도의 방향으로 배를 전속 전진하면서 좌현 끌줄 끝에 있는 부표부터 투하한다. 좌현 끌줄이 모두 나가고 후릿줄과 연결된 부분에서 큰 체인이 나오면 선수를 우현 쪽으로 약 90도 정도 돌려 후릿줄을 투하한다. 후릿줄이 거의 투하되면 기관을 정지시키고 타력으로 전진하면서 좌현 날개그물, 자루그물, 우현 날개그물의 순으로 투망한 다음 다시 선수를 우현 쪽으로 약 30도 정도 돌려 우현 후릿줄을 투하한다. 우현 쪽 큰 체인이 투하되면 선수를 우현 쪽으로 약 90도 정도 돌려 처음 투하한 부표를 향하여 우현 끌줄을 투하한다. 투망이 모두 끝나면 좌우 끌줄의 끝을 선미 비트에 걸고 그물이 완전히 바닥에 가라 앉을 때까지 잠시 대기하였다가 예망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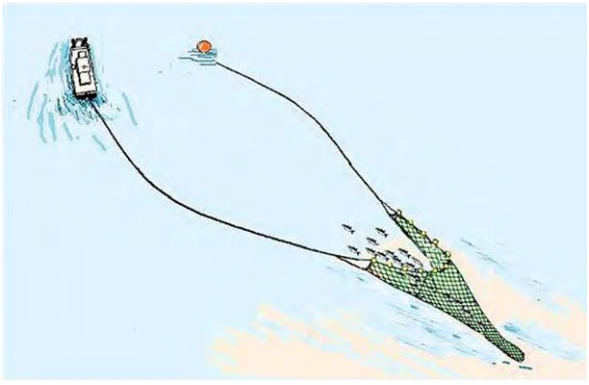
예망 중 좌 우 끌줄이 거의 나란해지면 약 10~15분간 전속으로 예망하여 자루그물 입구측에 있는 어군을 끝자루로 몰아 넣음과 동시에 입구가 거의

오므라들도록 한다.

양망은 선수가 그물 쪽을 향하도록 180도로 배를 돌리면서 끌줄 끝을 선수 양쪽 롤러를 통과시켜 양망 드럼으로 가져 온 다음 끌줄과 후릿줄을 차례로 감아 올린다. 날개그물 앞에 있는 갯대가 선수 롤러에 오면 배를 우현 쪽으로 돌리면서 그물을 좌현 쪽으로 가져와 데릭으로 달아 올린다.

과거에는 끌줄과 후릿줄을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올리면서 사람이 갑판에다 사렸으나 현재에는 유압식 양승기를 이용하여 양승은 물론 갑판에 자동적으로 사려지도록 되어 있다.

예망 속도는 약 1.5~2노트이며, 1회 예망 시간 즉, 끌줄과 후릿줄이 나란해지는 시간은 약 50~60분 이다. 밤낮으로 1일 10여회 조업을 하며, 1항차 소요일수는 어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주일 내외이다. 어기는 연중 조업이 가능하지만 주로 10~5월에 조업하며, 여름철에는 어구보수 및 선박, 장비수리를 한다. 어장은 수심 약 350m 이내 해역에서 행하고, 저질은 펄 또는 사니질이다. 어선은 목선 또는 강선 40~100톤급, 350~650마력 내외에 12~13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 그림6)2- 2-40 〉 외끌이 기선저인망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11. 걸 어구류(刺網類, Gill nets)

방추형의 어류를 주 대상으로 긴 띠 모양의 그물을 고기가 지나가는 곳에 부설하여, 대상 생물이 그물코에 꽂히도록 하여 잡는 것이다. 다른 어구에 비해 그물감의 선택과 성형률 결정이 매우 중요한 어구이다. 그물감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대상 생물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야 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물코의 매듭이 밀리지 않아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가 일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그물실은 가늘면서 질기고, 적당한 탄력이 있고, 매듭짓기

가 쉬운 것을 택하여야 한다. 또한 성형률은 그물코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론상으로는 성형률이 약 71%일 때 그물코가 정 마름모꼴로 가장 이상적인 코를 형성하나, 실제로는 대상 어종의 체형에 따라 또는 조업 중 어구의 파손 등을 고려하여 이보다 작게 하여 사용한다. 어구 부설방법에 따라 고정 걸그물류, 흘림 걸그물류, 두리 걸그물류, 깔 걸그물류로 분류하며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중 매우 중요한 어업이다. 이 중 고정 걸그물류와 흘림 걸그물류는 속초지방에서 매우 중요한 어업이다.

가. 고정걸그물류(固定刺網類, Set gill nets)

주로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를 대상으로 긴 띠 모양의 그물 상부에는 뜸을, 하부에는 발돌을 달아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한 어구를 닻이나 멍 등으로 고정 부설하여 대상 생물을 잡는 것이다. 연안측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간혹 표 · 중층에 서식하는 어류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 · 조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거나 장애물이 많아 어구가 흘러가도록 놓아두기 곤란할 때의 조업방법이다.

저층에 고정 부설하는 것을 바닥 고정걸그물이라 하고, 표 · 중층에 고정 부설하는 것을 뜬 고정걸그물이라 하며, 바닥 고정걸그물은 뜸의 부력보다 발돌의 침강력을 다소 크게, 뜬 고정걸그물은 이와 반대로 한다. 속초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명태 저자망, 도루묵 저자망, 임연수어 저자망, 청어 저자망 등이 있으며,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은 과거와 유사하다. 다만 일부 어업에서는 어구자재가 바뀌었으며, 어선의 대형화로 폭당 어구규모 및 척당 사용 어구수가 증가되었다.

1) 명태 저자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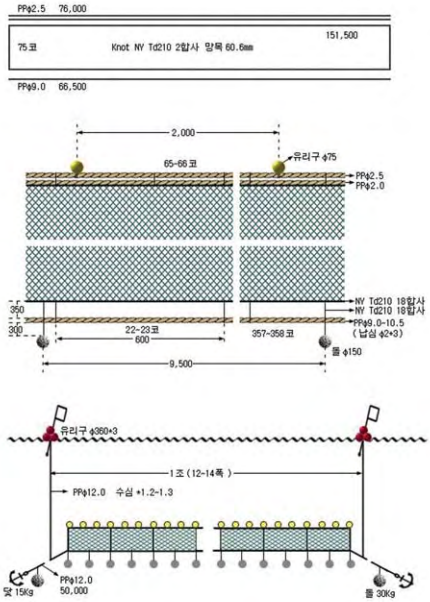
그물감은 NY Td210 2합사 망목 60~70㎜를 주로 사용하며, 뜸줄의 성형률은 약 50~53%, 발줄의 성형률은 약 44% 정도로 뜸줄의 길이가 발줄의 길이보다 약 14% 정도 더 길다. 명태 저자망은 다소 먼 바다의 수심이 깊은 곳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므로 양망 시 어구에 걸리는 장력이 크고, 풍랑 등 외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어구가 파손될 염려가 많다. 따라서 그물살에 이러한 힘이 작게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저자망보다 성형률을 작게 주어 사용한다.

사용 어구수는 배의 규모에 따라 즉, 선원수에 따라 다르며, 선원 1인당 약 10폭씩을 준비하여 조업한다. 일반적으로 8톤급 내외의 배에서는 선원 6~7명이 총 60~70폭을 준비하여 12~14폭을 1조로 여러 곳에 분산하여 투

망하고, 20톤급 내외의 배에서는 선원 9~10명이 총 90~100폭을 준비하여 18~20폭을 1조로 여러 곳에 분산하여 투망하여 놓고 1일 2~3조씩 교대로 투 · 양망한다. 따라서 투망 2일 후 양망을 하며, 강원도 북부의 일부해역에서는 많은 어선이 동일 어장에서 조업하므로 먼저 어장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른 해역보다 약 2배의 어구를 사용하여 투망 약 4일 후에 양망하는 경우도 있다.

오전 4~5시경 출항하여 어장에 도착하면 2일 전에 투망하였던 어구를 양망한 다음 전일 양망하였던 어구를 투망하고 귀항하는 경우와, 이와 반대로 투망부터 하고 양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어기에는 투망 후 양망을, 비 성어기에는 양망 후 어장을 파악한 다음에 투망을 한다. 투망은 등심선을 따라 1노트 내외로 배를 전진시키면서 부표, 닻, 그물 순으로 하며, 양망은 그물 전체 즉, 뜸줄, 그물, 발줄을 한데 뭉쳐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올리는 경우와 발줄만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올리고 뜸줄, 그물은 사람이 당겨 올리는 경우가 있다.

어구 1조당 투망 소요시간은 1시간 내외, 양망 소요시간은 약 2~3시간이며 어기는 명태의 회유시기에 따라 8월 하순~2월 말까지 조업을 하며 11~1월까지 어획이 양호하고, 어장은 연안 약 3~10마일 해역의 수심 약 100~800m에 어장이 형성되나, 중심 어장은 연안 약 7~8마일 수심 약 300~600m로서 저질은 사니질 또는 펄, 모래인 곳이며, 어선은 목선 5~20톤급, 100~350마력 내외에 6~10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 그림 6)2-2-41 〉 명태 저자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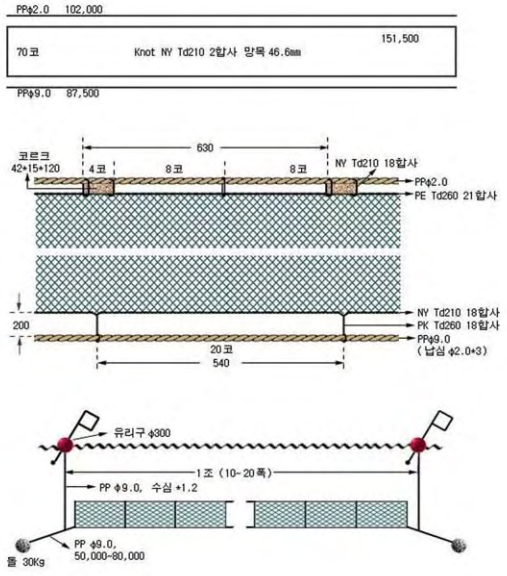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2) 도루묵 저자망

그물감은 NY Td210 2합사 또는 PE mono Φ0.35㎜ 망목 35~48㎜ 내외를 주로 사용하며, 뜸줄의 성형률은 67% 내외, 발줄의 성형률은 58% 내외로 뜸줄의 길이가 발줄의 길이보다 약 17% 더 길다. 사용 어구수는 배의 규모에 따라 즉, 선원수에 따라 다르며, 선원 1인당 약 6~8폭씩을 준비하여 조업한다. 일반적으로 3톤급 이하에서는 3~4명이 총 18~32폭을 준비하여 1일 9~16폭씩 교대로, 3~5톤급에서는 6명이 총 36~48폭을 준비하여 1일 18~24폭씩 교대로, 5~10톤급에서는 8명이 총 48~64폭을 준비하여 1일 24~32폭씩 교대로 사용한다. 폭과 폭을 연결할 때는 뜸줄과 발줄만 서로 연결한다. 오전 5~6시경 출항하여 어장에 도착하면 전일 투망하였던 어구를 양망한 다음 전일 양망하였던 어구를 투망하고 귀항한다.

투망은 등심선을 따라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부표, 멍, 그물 순으로 하며, 양망은 그물 전체를 뭉쳐 가이드롤러를 통하여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올리거나 인력으로 한다.

투망 소요시간은 약 1시간~1시간30분, 양망 소요시간은 약 3~4시간이다. 어획물이 많을 때에는 어획물을 분리하지 않고 양망하였다가 부두에서 어획물 분리 및 어구정리를 하는데, 선원 4명이 작업하여 약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어기는 6~9월에 주로 조업하며, 9월에 어획이 양호하며, 어장은 연안 수심 약 150~300m로 저질은 모래 또는 사니질이며, 어선은 목선 2~8톤급, 20~350마력 내외에 3~8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 그림 6)2-2-42 〉 도루묵 저자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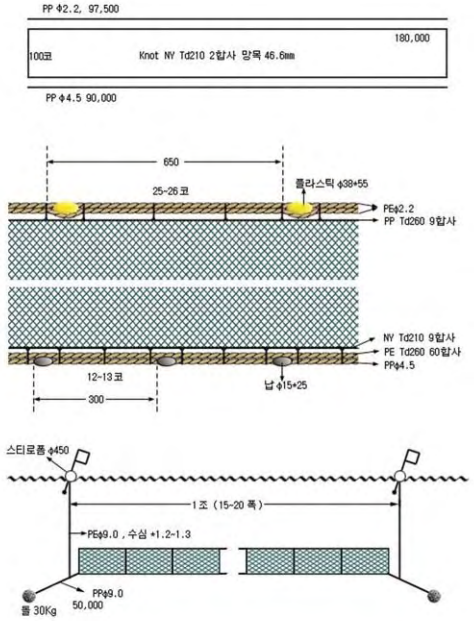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3) 임연수어 저자망

그물감은 NY Td210 2합사 망목 46~75㎜를 주로 사용하며, 뜸줄의 성형률은 54% 내외, 발줄의 성형률은 50% 내외로 뜸줄의 길이가 발줄의 길이보다 약 8% 더 길다. 임연수어가 연안 암초에 붙는 초어기에는 그물코가 작은 어구(A)를 사용하다가 점차 성장하여 수심이 깊고 저질이 모래인 곳으로 이동하는 시기에는 그물코가 큰 어구(B)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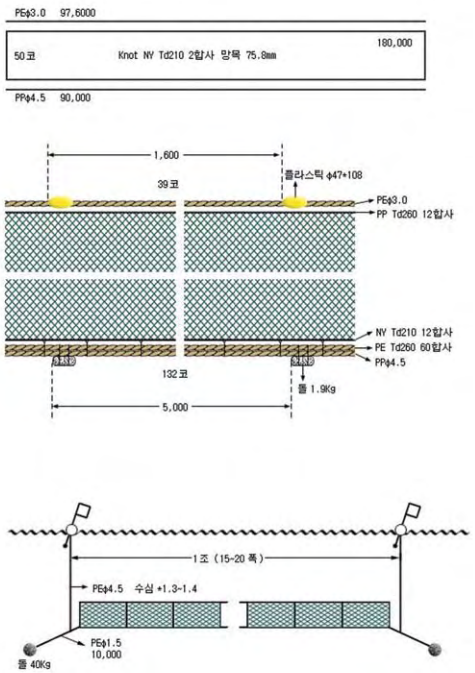
어선 1척당 약 30~60폭의 어구를 준비하여 1일 15~30폭씩 교대로 사용하거나, 총 15~30폭의 어구로 양망 즉시 어획물을 처리하고 다시 투망하기도 한다. 오전 8~9시경 어장에 도착하여 전일 투망하였던 어구를 양망하고 전일 양망하였던 어구를 투망하거나, 당일 양망한 어구를 다시 투망한 다음 귀항한다.

투망은 저질이 암반일 경우에는 해저 지형에 따라, 모래일 경우에는 해·조류를 따라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선미에서 하며, 양망은 그물 전체를 합하여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올린다. 저질이 암반이나 모래인 곳에서 주로 조업하므로 돌을 사용하여 어구를 고정시킨다. 투망 소요시간은 약 30~40분, 양망 소요시간은 약 1시간30분~2시간이다. 어기는 3~6월까지 조업하며 3~4월에 어획이 양호하며, 어장은 연안 수심 30~50m로 저질이 암반인 곳과 수심 150~200m로 저질이 모래인 곳이며, 어선은 목선 5~8톤급, 150~350마력 내외에 3~6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 그림 6)2-2-43 〉 임연수어 저자망 A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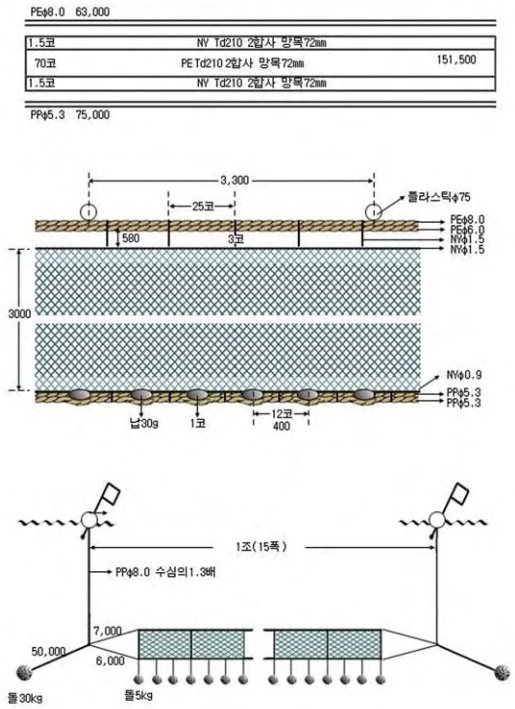
〈 그림 6)2-2-44 〉 임연수어 저자망 B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4) 청어 저자망

PE Td210 2합사 망목 72mm 내외인 그물감을 주로 사용하며 뜸줄의 성형률은 약 42%, 발줄의 성형률은 약 50% 정도로 뜸줄의 길이가 발줄의 길이보다 약 8% 정도 더 짧다. 어구 15폭을 1조로 하여 2~3군데 분산하여 투승해 놓는다.

오전 4시경에 출항하여 어장에 도착하면 전날 투승해 놓은 그물을 먼저 양망하는데 선수 우현에 위치한 양망 드럼을 통해 사이드드럼으로 감아올린다. 오전 6시경 양망이 완료되면 해·조류를 따라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다시 투망한다. 어구 1조당 양망 소요시간은 2시간 내외, 투망 소요시간은 40분 내외이다. 어기는 11~6월에 주로 조업하며, 어장은 연안 10마일 내외의 수심 50~180m, 저질은 펄이고, 어선은 목선 2~5톤급, 300마력 내외에 2~4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 그림 6)2-2-45 〉 청어 저자망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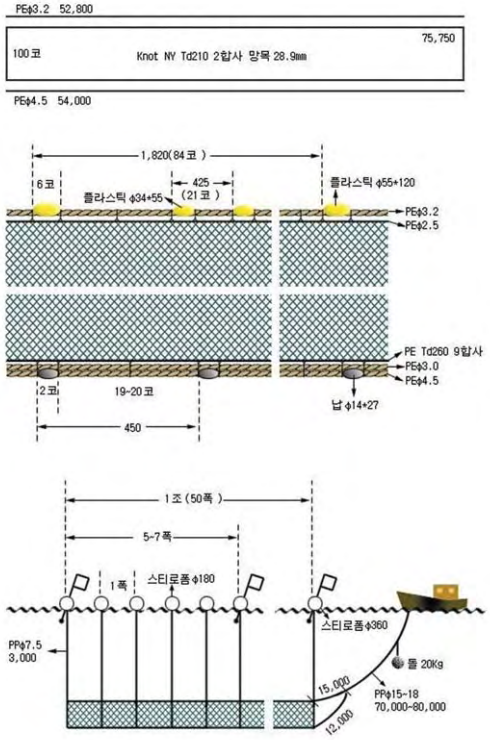
나. 흘림 걸그물류(Drift gill nets)

주로 표 · 중층에 서식하는 어류를 대상으로 긴 띠 모양의 그물 상부에는 뜸을, 하부에는 발돌을 달아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한 어구를 닻이나 멍으로 고정 부설하지 않고 해 ·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하여 대상 생물을 잡는 것이다. 따라서 어구의 위치를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항해하는 배에 의해 어구가 절단되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어구의 중간 중간에 부표, 부표등 또는 라디오부이를 달아 놓거나 배가 어구의 한쪽 끝을 잡고 대기한다. 또한, 투망 시부터 양망 시까지 예상 이동거리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므로 주로 근해나 원양에서 표층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뜬 흘림걸그물을 사용하지만 간혹 연안에서 저층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바닥 흘림걸그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뜬 흘림걸그물은 뜸의 부력이 발돌의 침강력보다 다소 크게 하고 바닥 흘림걸그물은 이와 반대로 한다. 속초지방의 어법에 이용하는 것은 꽁치 유자망, 송어(시마연어) 유자망 등이 있으며,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은 과거와 유사하다. 다만, 일부 어업에서는 어구 자재가 바뀌었으며, 어선의 대형화로 폭당 어구규모 및 척당 사용 어구수가 증가되었다.

1) 꽁치 유자망

그물감은 NY Td210 2~4합사 망목 28~30mm를 주로 사용하며, 뜸줄의 성형률은 약 60~70%, 발줄의 성형률은 약 65~71%로 발줄의 길이가 뜸줄의 길이보다 약 5~10% 더 길다. 연안측에서 적은 양의 어구로 조업할 경우에는 순대말이 현상 즉, 그물 전체가 꼬이는 현상이 비교적 적게 일어나므로 발줄과 그물살을 직접 연결(A)하나 근해측에서 많은 양의 어구로 조업할 경우에는 순대말이 현상이 자주 일어나므로 발줄과 그물감을 발줄연결줄(등노)로 연결(B)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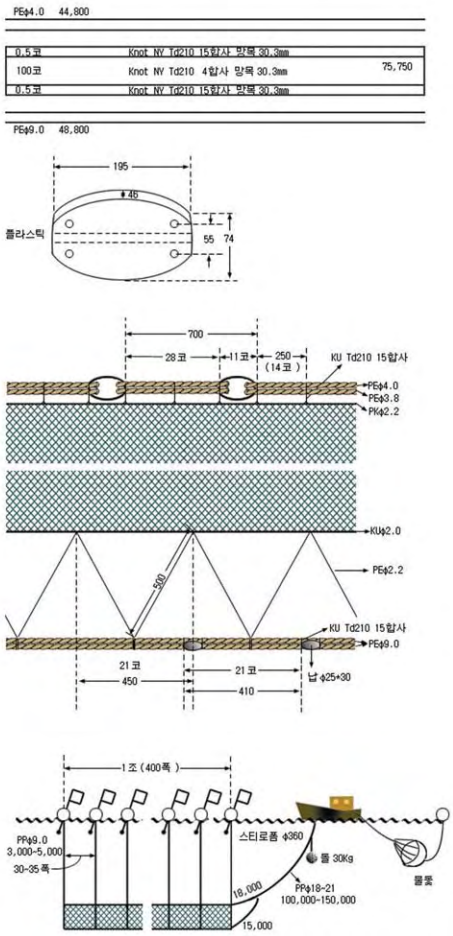
사용 어구수는 어선 규모에 따라 다른데, 10톤급 내외에서는 50폭 내외를, 30~50톤급에서는 약 300~500폭을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오후 5~6시경 어장에 도착하여 해 · 조류 방향에 대해 약 30~40도 방향으로 전속으로 전진하면서 선수 우현에서 투망하며, 투망이 완료되면 어구의 전개상태를 확인한 다음 어구의 한쪽 끝에 배잡이줄을 연결하여 어구와 함께 표류하면서 대기한다. 투망 시 어군의 분포 수층에 따라 어구의 부설 수심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뜸줄이 수면에 오도록 표층에 부설한다.



〈 그림 6)2-2-46 〉 꽁치유자망A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양망은 다음날 오전 3~4시경 선수 우현에 직경 150~200mm, 길이 6~8m인 대나무를 대거나, 캔버스를 대고 인력으로 당겨 올린 다음 귀항하여 어획물을 처리하고 다시 출항한다. 어구 400폭을 사용할 경우 투망 소요시간은 약 1시간30분~2시간, 양망 소요시간은 약 6~ 7시간이다. 봄철 어기인 5~7월과 가을철 어기인 11~1월에 조업하고, 어장은 연안의 10~60마일 해역과 울릉도 연안까지이며, 어선은 목선 8~40톤급, 250~450마력 내외에 7~8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 그림 6)2-2-47 〉 꽁치유자망B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2) 송어(시마연어)유자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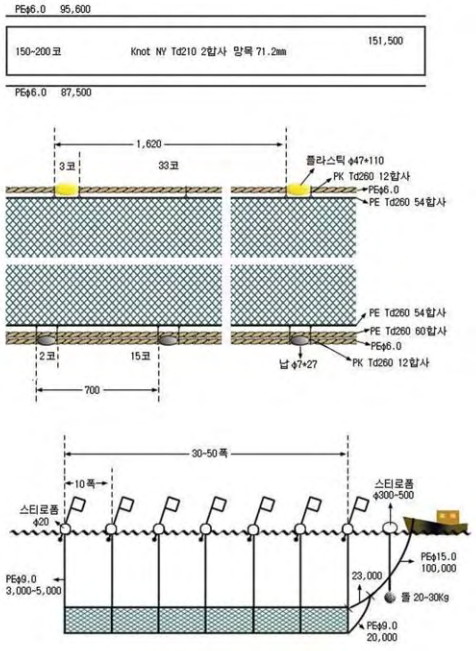
그물감은 NY Td210 2~3합사 망목 70~76㎜를 주로 사용하며, 뜸줄의 성형률은 약 63~66%, 발줄의 성형률은 약 58~59%로 뜸줄의 길이가 발줄의 길이보다 약 10% 더 길다. 어구 규모는 어기에 따라 즉, 어군이 수직으

로 두껍게 분포하는 초어기에는 그물 폭이 큰 어구(A)를, 어군이 수직으로 엷게 분포하는 중어기 이후에는 그물 폭이 작은 어구(B)를 주로 사용한다. 사용 어구수는 5톤급 내외의 어선에서는 약 30폭을, 10톤급 내외의 어선에서는 약 50폭을 사용한다.

오후 3시경 출항하여 5~6시경부터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해 · 조류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선수 우현 또는 좌현에서 투망을 한 다음 그물의 전개상태를 확인하고 배잡이줄을 잡아 어구와 함께 표류한다. 성어기에는 송어가 많이 걸려 어구가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Ø200㎜ 내외를 폭당 2~3개씩 부착 사용하며, 실제 어구 전개 수층은 표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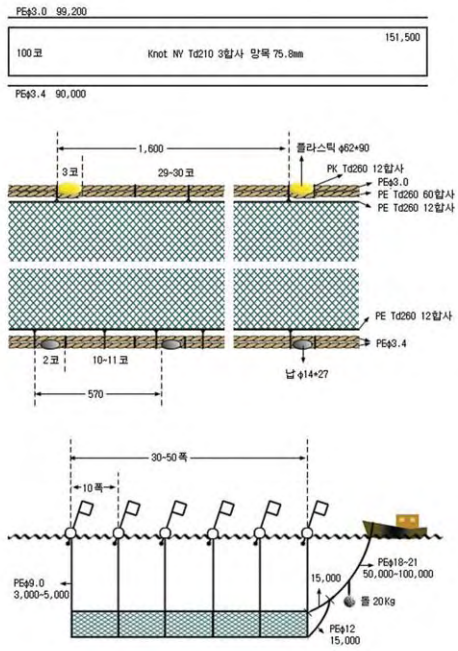
양망은 다음날 오전 4~5시경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선수 우현 또는 좌현에서 인력으로 하며, 투 · 양망 시 모두 뱃전에 직경 150㎜, 길이 3~4m인 대나무나 천막을 설치하여 그물이 뱃전에 걸려 파손되는 것을 방지한다. 양망이 완료되면 귀항하여 어획물 처리와 어구정비를 한 다음 다시 출항하여 조업한다. 어구 30~50폭을 사용시 투망 소요시간은 약 1시간~1시간30분, 양망 소요시간은 약 2시간30분~3시간이다.

어기는 1~4월에 주로 조업하며, 2월 하순~3월 중순에 어획이 양호하여, 어장은 연안으로부터 약 10~20마일 해역이고, 어선은 목선 5~8톤급, 150~300마력 내외에 5~7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 그림 6)2-2-48 〉 송어유자망A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49 〉 송어유자망B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다. 깔 걸그물류(Lay out on bottom gill nets)

해저 바닥에 붙어 서식하거나 바닥에 약간 묻힌 상태로 서식하는 생물을 대상으로 긴 네모꼴의 그물을 바닥에 깔아 대상 생물이 그물코에 꽂히도록 하여 잡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걸그물류처럼 그물감 상부에 뜸을, 하부에 발돌을 달아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물감 상하부 모두 발돌을 달고 폭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뻗침대를 대어 바닥에 수평으로 전개되도록 하거나, 한쪽에만 발돌을 달고 다른 쪽에는 아무 것도 달지 않아 해 · 조류를 받으면 그물이 수평으로 바닥에 눕도록 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까나리(방언: 양미리)를 대상으로 깔 걸그물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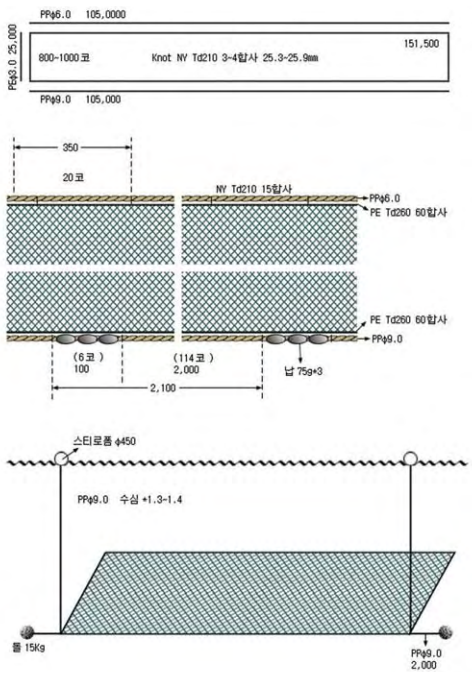
까나리는 산란기 전에는 해저 모래 속에 묻혀 서식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바닥 위로 나오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여 산란기에는 다른 자망과 같이 그물을 바닥 위에 수직으로 부설하는 저자망으로 잡으나, 모래 속에 묻혀 서식할 때는 그물을 바닥에 수평으로 부설하는 깔자망으로 잡는다.

그물감은 NY Td210 3~4합사 망목 25~26㎜를 주로 사용하며, 길이 방향의 한 변은 단순히 로프만 부착하고 다른 변은 발줄과 발돌을 부착하여 투망을 하면 해 · 조류에 의해 그물이 눕도록 한다. 성형률은 모두 70% 내외로

하여 그물코가 최대로 되게 하며, 발줄 양 끝에만 부표와 멍을 달아 어구를 고정한다.

어선 1척이 약 4폭의 어구를 준비하여 1회에 1폭씩 1일 4회 조업을 하며, 오전 5~6시경 어장에 도착하면 일단 잠수부가 들어가 해저의 상태와 어군의 유무를 파악하고 올라 온 다음 해 · 조류 방향에 대해 가로질러 멍, 부표, 그물을 투망한다. 투망이 완료되면 잠수부가 다시 들어가 어구의 전개상태, 특히 해 · 조류에 의해 그물이 바닥에 완전히 깔렸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곳이 있으면 바르게 부설한 다음 배로 올라와 까나리가 충분히 꽂힐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부표줄을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양망한다. 양망이 완료되면 어장을 이동하여 다른 어구로 조업을 하며, 준비한 어구 모두 조업이 끝나면 귀항하여 어획물을 처리한다.

어장은 주로 암초와 암초 사이의 모래밭으로 해 · 조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알맞게 흐르는 곳이 좋으며, 만약 해 · 조류가 너무 강할 때는 발돌을 더 채워 어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1폭당 투망 소요시간은 약 30분, 양망 소요시간은 약 1시간~1시간30분이다. 어기는 10~11월이며, 어장은 연안 수심 약 20~40m, 저질은 모래이고, 어선은 목선 5톤급, 145마력 내외에 잠수부 1명, 선원 3~4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 그림 6)2-2-50 〉 까나리깔자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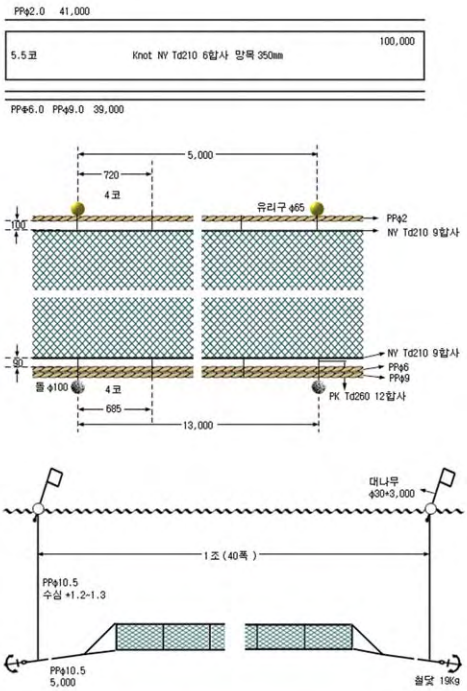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12. 홑얽애그물류(單纏絡網類, Single-walled tangle nets)

체형이 납작하거나 몸에 돌기 부분이 많아 그물코에 꽂히기 어렵도록 생긴 생물을 대상으로 한 장의 그물감에 주름을 많이 주어 대상 생물이 주로 얽히도록 하여 잡는 것이다. 걸어구류와 같이 사각형 그물감 1장에 상부에는 뜸줄과 뜸을, 하부에는 발줄과 발돌을 달아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한 어구를 고기가 지나가는 곳에 부설하여 대상 생물이 그물에 얽히거나 꽂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는 뜸과 발돌 대신 폭 방향으로 여러 개의 뻗침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하여 수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물감에 주름을 많이 주어 해·조류를 받으면 뻗침대와 뻗침대 사이에 오목한 주머니가 생기도록 하여 해·조류를 따라 회유하던 대상 생물이 주머니에 갇히거나 그물에 얽히도록 한 것도 있다. 이것은 입구일정 어구류 중 입구일정 자루그물류와 어획원리가 유사하나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 등이 일반적인 얽애어구류와 유사하고 대상 생물이 그물에 얽히기도 한다는 점에서 얽애어구류로 분류하고 있다. 속초지방에서는 걸어구류와 같은 형태의 그물에 주름을 많이 주어 대상 생물이 얽히거나 꽂히게 하여 잡는 가오리 저자망 등이 있다.

가오리 저자망의 그물감은 NY Td210 6합사 망목 350㎜내외를 주로 사용하며, 뜸줄의 성형률은 약 41%, 발줄의 성형률은 약 39%로 주름을 많이 주어 대상 생물이 잘 얽힐 수 있도록 한다. 주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 닻으로 바닥에 고정시켜 부설 조업하므로 뜸은 수압에 잘 견딜 수 있는 유리 뜸을 사용하며, 그물이 바닥에 닿아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돌을 발줄에 직접 달지 않고 발돌줄을 내어서 단다.

어선 1척당 약 80~120폭의 어구를 준비하여 약 40폭을 1조로 2~3곳에 분산하여 투망해 놓고 1일 1조만 양망한다. 따라서 투망한지 2~3일 후에 양망하며, 오전 9~10시경 어장에 도착하여 전일 또는 전전일에 투망한 어구 1조를 양망하여 어획상황을 파악한 다음 전일 양망한 어구 1조를 투망하고 귀항한다. 어구는 선원 각자가 1인당 8~12폭씩 준비하여 4폭씩 교대로 사용한다. 어구 1조당 투망 소요시간은 약 1시간30분~2시간이며, 양망 소요시간은 약 5~6시간이다. 어기는 2~6월이며, 어장은 연안으로부터 약 20~40마일 해역의 수심 약 400~500m, 저질은 모래 또는 사니질이고 어선은 목선 20톤급, 400마력 내외에 10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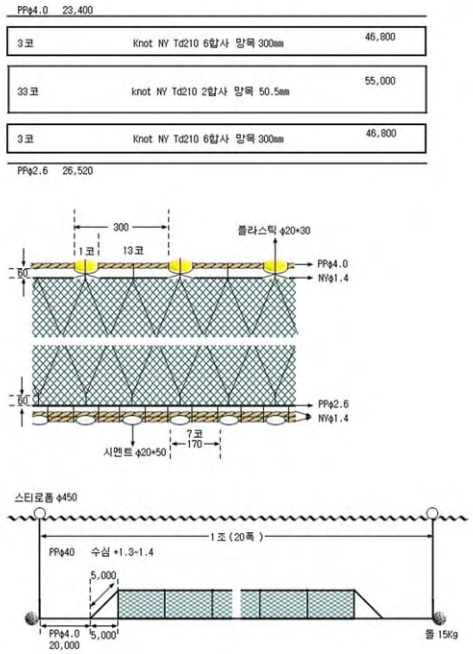


〈 그림 6)2-2-51 〉 가오리저자망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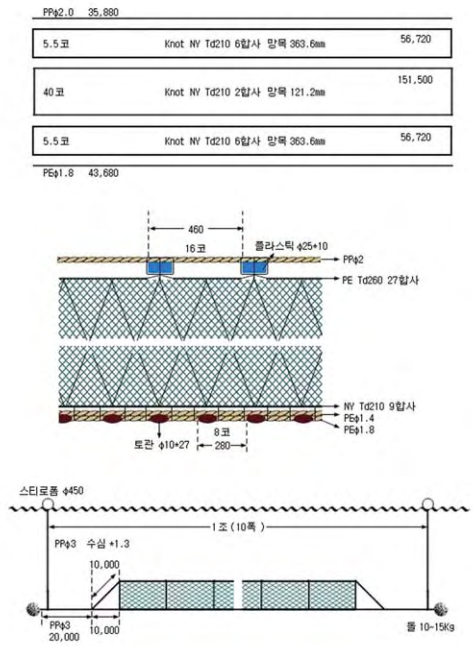
13. 삼중얽애그물류(Trammel nets)

홑 얽애그물류와 같이 그물코에 꽂히기 어렵게 생긴 어류나 갑각류 또는 크기가 다른 어종을 동시에 잡기 위하여 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상부에는 뜸을, 하부에는 발돌을 단 어구를 고기가 지나가는 곳에 설치하여 잡는 것이다. 즉, 그물실이 가늘고 그물코가 작은 그물감 1장을 원살 그물로 하고, 원살 그물 양측에 그물실이 굵고, 그물코가 큰 그물감 2장을 대어 바깥살 그물로 한 다음 원살 그물은 성형률을 작게, 바깥살 그물은 성형률을 크게 하여 대상 생물이 원살 그물을 밀고 가다가 바깥살 그물에 의해 얽히도록 하여 잡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형태 또는 크기의 생물이 어느 방향에서 오든 모두 어획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보호 측면에서 일부해역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어업이다. 현재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가자미 삼중자망, 넙치 삼중자망, 대구 삼중자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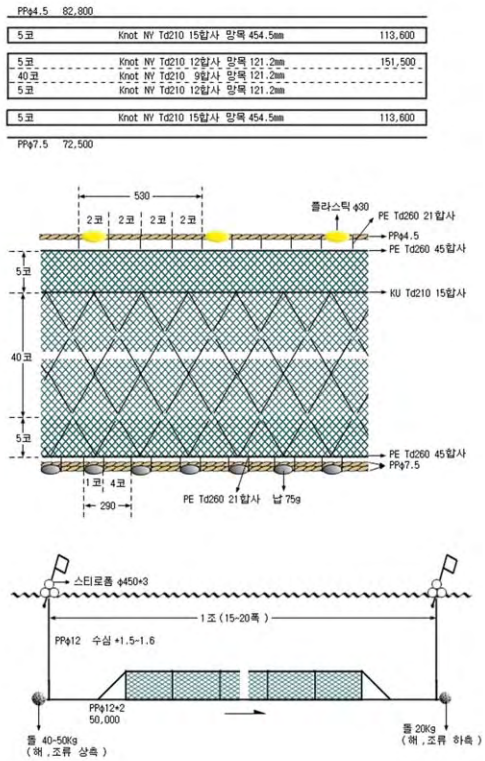
〈 그림 6)2-2-52 〉 가자미삼중자망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53 〉 넙치삼중자망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그림 6)2-2-54 〉 대구삼중자망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제3장 어업권 현황

1. 면허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의 바방 위에서 행하는 어업이며, 어업의 면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어업권[1]이다. 어업의 면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정 행위이므로 행정법학상의 특허에 해당된다.

가. 면허어업의 특징

면허어업은 어장을 특정하고 그 배타적 독점적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어업이다. 특정인에게 면허를 주고 피면허자로 하여금 그 어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배제하여 그 수면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면허어업은 고대부터 관습적으로 이용해 오던 연안어장의 이용관계를 그대로 인정한 법적 추인과 동시에 근대법체계에 있어서 권리 개념의 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어업권은 단순히 수면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특정수면, 수중, 수저에 있는 어업권의 객체를 포획 또는 채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인 것이 특징이다.

어업권자는 일정한 어장에서 특정어업의 독점관리권과 정해진 수면의 배타적 이용권을 가진다. 면허어업은 권리에 기초하여 영위된다는 점에서 허가업이나 신고어업과 다른 점이다.

1)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정한 어업에 관하여 특정한 자에게 면허를 하고, 당해 어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배제하여 그 수면을 독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허어업의 취지이다.

나. 면허어업의 종류

1)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 · 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에 한하여 면허하며, 어장수심의 한계는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로(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 정하고, 어장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마을어업이 면허되지 않는다.

2) 해조류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패류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4) 복합 양식어업

해조류 양식어업 내지 어류 등 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조류 양식어업 내지 어류 등 양식어업의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5) 협동 양식어업

일정한 수심 내의 수면을구획하여 해조류 양식어업 내지 복합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 패류 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 양식어업)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을 말하며 어장 수심의 한계는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5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으로 정한다.(강원도, 제주도,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6) 어류 등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7) 정치망 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모망, 대부망, 낙망, 소태망 등의 어구를 정치하여 채포하는 어업을 말하는데, 연안지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역 10~50m 해저에 어류를 어획할 수 있도록 어망을 고정설치하여 연안으로 회유하는 어류를 유도 함유시켜 어획하는 어법으로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곳일수록 조건이 양호하다.

연도별 속초시 관내 어업권 현황을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2003년을 기준으로 공동어업권은 마을어업의 형태로 6건이며, 정치망어업은 4건이 있다. 또, 양식어업은 협동양식, 복합양식, 패류양식을 합쳐 8건이 허가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공동 · 정치어업 및 양식어업의 어업권이 감소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감소하고 있다.

〈 표 6)2-3-1 〉 연도별 어업권현황 (단위 : 건, ㎡)

연별	합계		면허어업		정치성구획어업		종묘생산어업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001	21	7,636,500	11	6,590,400	10	1,046,100	6	25.50
2002	20	7,276,500	11	6,530,400	9	746,100	5	22.50
2003	18	7,226,500	10	6,480,400	8	746,100	3	15.00
수협	–	–	–	–	–	–	–	–
어촌계	6	5,510,400	6	5,510,400	–	–	–	–
개인	12	1,716	4	970,000	8	746,100	3	15.00

〈 표 6)2-3-2 〉 어업권 현황 (2004년 12월 31일 현재)

어업의 종 류	면 허 번 호	어장의 위 치	어업권자		면허기간	면적(ha)	비고
			주 소	성 명			
합계		18건					
마을 어업	계	6명				722.65	
	강원 92	대포동지선	대포법인어촌계	대표 이창남	'69. 8.25~'06. 8.24	551.04	
	속초 1	내물치지선	대포법인어촌계	대표 이창남	'95. 9.15~'05. 9.14	33.18	
	속초 2	장사동지선	장사어촌계	대표 맹승렬	'95.12.29~'05.12.28	69.60	
	속초 3	동명동지선	중앙동 8/4	4개 어촌계	'96. 5.27~'06. 5.26	220.00	
	속초 4	조양동지선	대포법인어촌계	대표 이창남	'96. 6.27~'06. 6.26	185.30	
	속초 5	외옹치지선	대포법인어촌계	대표 이창남	'98. 6.16~'08. 6.15	17.60	
협동양식 어업	계	1건				5.36	
	속초 1	외옹치지선	대포법인어촌계	대표 이창남	'99.12.18~'09.12.17	18.11	
복합 양식	계	2건				18.11	
	속초2	장사동지선	청호동 444-55번지	이규철	'03.11.25~'13.11.24		
	속초3	대포동지선	대포동 57	2명대표 권희경	'03.11.25~'13.11.24	12.50	
패류양식	계	2건				38.00	
바닥식	소계	장사동지선				20.00	
	속초 2	대포동지선	대포법인어촌계	대표 이창남	'96.12.30~'06.12.29	20.00	
수학식	소계	5건				18.00	
	속초1	장사동지선	교동삼환Ⓐ 101-1002	윤의구	'04. 1.11~'14. 1.10	5.00	
	속초2	장사동지선	대포동 57	2명대표 권희경	'04. 3.31~'14. 3.30	3.00	
	속초3	영랑동지선	대포동 57	2명대표 권희경	'04. 5.10~'14. 5. 9	5.00	

어업의 종 류	면 허 번 호	어장의 위 치	어업권자		면허기간	면적(ha)	비고
			주 소	성 명			
수학식	속초6	장사동지선	대포동 57	2명대표 권희경	'98. 7.29~'08. 7.28	5.00	
정치망 어업	계	4건				97.00	
	속초5호	영랑동지선	교동삼환Ⓐ105-701	추혜령	'03. 4. 8~'13. 4. 7	30.00	
	속초6	영랑동지선	교동삼환Ⓐ 105-701	2명대표 추혜령	'03. 6.30~'13. 6.27	30.00	
	속초7호	대포동지선	대포동 657(5/4)	권희경	'03. 7. 4~'13. 7. 3	12.00	
	속초8호	대포동지선	대포동 657(5/4)	김복환	'03.11.25~'12. 4.18	25.00	

〈 표 6)2-3-3 〉 정치성구획(종묘생산) 어업현황

어업의 종류	허가 번호	어구 명칭	어장의 위치	피허가자		허가번호	면적 (ha)	비고
				주소	성명			
합계			11건				30.00	
정치성 구획어업	소계		8건				15.00	
	2000 -1	호망	대포동 지선	대포동 1통4반	3명대표 전상문	00.3.2 ~ 05.3.1	2.00	
	2000 -2	호망	대포동 지선	대포동 1통 4반	3명대표 천긴길	00.3.2 ~ 05.3.1	2.00	
	2000 -3	호망	장사동 지선	장사동635-5	3명대표 김성룡	00.8.24 ~ 05.5.25	1.00	
	2000 -4	각망	외옹치 지선	대포동 5통4반	3명대표 송창석	00.9.25 ~ 05.9.24	2.00	
	2001 -1	호망	외옹치 지선	대포동 5통4반	2명대표 송창석	01.5.29 ~ 06.5.28	2.00	
	2001 -2	호망	영랑동 지선	중앙동 8통4반	4명대표 배봉운	01.6.27 ~ 06.6.26	2.00	
	2004 -1	호망	대포동 지선	대포통 3통1반	2명대표 김완길	04.12.29 ~ 09.12.28	2.00	용덕호
	2004 -2	호망	대포동 지선	대포동 3통1반	2명대표 최완길	04.12.29 ~ 09.12.28	2.00	용덕호
종묘생산 어업허가	소계		3건				15.00	
	2003 -1	가리비	장사동 지선	교동 삼환 Ⓐ101-1002호	윤의구	03.3.26 ~ 08.3.25	5.00	
	2003 -2	가리비	장사동 지선	청호동 444-55	이규철	03.4.21 ~ 08.4.20	5.00	
	2004 -1	가리비	장사동 지선	영랑동 147-18(9/3)	이우영	04.7.19 ~ 09.7.18	5.00	허가유효 기간연장

제4장 수산업 현황

1. 수산업 현황

가. 인구현황

현재 속초시는 총 9.4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어업의 실태는 주로 연근해 어선어업에 머물러 있다. 2005년 속초시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할때 어선의 총수는 573척으로 이중 562척의 동력선이고, 11척만 무동력선이다. 속초시의 총세대는 34,012세대로서, 인구는 88,386명으로 이중 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933가구에 3,145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표 6)2-4-1 〉 속초시 인구현황

동별	세대	면적	인구			통반	
			합계	남	여	통	반
합계	33,848	105.25	89,458	44,242	45,216	241	1,245
영랑동	2,662	7.58	6,844	3,439	3,406	19	99
동명동	2,082	0.78	5,160	2,625	2,535	17	86
금호동	3,305	1.43	8,232	4,075	4,157	33	170
교동	5,436	0.75	14,500	7,097	7,403	43	218
노학동	8,545	22.30	23,228	11,401	11,827	51	282
조양동	7,856	5.61	21,593	10,600	10,993	42	235
청호동	2,206	0.93	5,356	2,704	2,652	18	92
대포동	1,756	65.87	4,545	2,302	2,243	15	63

〈 표 6)2-4-2 〉 어업가구 및 인구

연별	어가			어가인구						어업종사자			
	계	전업	겸업	합계	호당 인구	남	여	전업	겸업	합계	호당 종사자	남	여
1998	2,075	659	1,416	6,168	3.0	3,113	3,055	2,306	3,862	1,718	0.8	1,318	400
1999	1,430	345	1,085	4,968	3.5	2,578	2,390	1,197	3,771	1,644	1.1	1,430	214
2000	933	614	319	3,145	3.4	1,660	1,485	112	1,233	998	1.1	940	58
2001	930	615	315	3,115	3.3	1,650	1,465	1,893	1,252	976	1.0	920	56
2002	933	614	319	3,145	3.4	1,660	1,485	1,893	1,252	976	1.0	920	56
2003	933	614	319	3,145	3.4	1,660	1,485	1,893	1,252	976	1.0	920	56
2004	933	614	319	3,145	3.4	1,660	1,458	1,893	1,252	976	1.0	920	56

강원도 내 시군별 어선의 세력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속초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내 전체적으로 어선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6)2-4-3 〉 연도별 시군별 어선세력의 변화

연별	합 계			동 력		무동력	
	시군별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998		4,317	33,180.0	3,995	32,995.0	322	185.0
1999		4,324	33,867.3	4,075	33,907.8	249	157.5
2000		4,240	31,046.0	4,020	30,905.0	220	141.0
2001		4,120	29,103.0	3,962	28,994.0	158	109.0
2002		4,095	28,623.0	3,949	28,530.0	146	93.0
2003		4,073	27,715.3	3,923	27,625.2	150	90.1
연안	소계	3,693	27,559.5	3,593	27,479.8	100	79.7
	강릉시	793	5,804.0	775	5,793.5	18	10.5
	동해시	379	42,315.0	376	4,214.1	3	0.9
	속초시	590	10,179.7	576	10,167.7	14	12.0
	삼척시	635	2,447.4	603	2,410.8	32	36.6
	고성군	912	3,755.5	896	3,743.8	16	11.8
	양양군	384	1,157.8	367	1,149.8	17	8.0
내륙	소계	380	155.7	330	145.4	50	10.3
	춘천시	145	59.0	140	57.6	5	1.4
	원주시	15	5.1	13	4.6	2	05
	태백시	-	-	-	-	-	-
	홍천군	26	6.0	21	5.1	5	0.9
	횡성군	-	-	-	-	-	-
	영월근	19	5.1	-	-	19	5.1
	평창군	5	0.4	-	-	5	0.4
	정선군	8	1.7	-	-	8	1.7
	철원군	8	1.2	2	0.7	6	0.5
	화천군	46	24.4	46	24.4	-	-
	양구군	44	21.9	44	21.9	-	-
	인제군	64	31.2	64	31.2	-	-

나. 수산물의 연간 어획량

속초시의 수산물 어획량은 90년대 후반에는 2만7천톤 정도로 어획량을 나타내었으나 최근 들어서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2003년의 어획량은 1만6천 톤으로 1만톤 이상이 감소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어류와 해조류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고,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등은 연도별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류 어획량의 감소는 농가의 소득감소에 직결되어 수산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획량의 감소로 인해 수산가공품의 생산고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양식사업의 생산실적은 2002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연도별 변화

가 크게 나타날 때도 있다. 어류 및 해조류 어획량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식사업의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 표 6)2-4-4 〉 연도별 수산물 어획고 (단위 : M/T, 천원)

연별	합계		어류		갑각류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8	27,559	42,080,836	8,206	10,436,242	4,636	4,643,610
1999	27,100	41,780,609	3,029	4,313,670	9,754	4,226,610
2000	24,152	48,769,228	3,856	5,133,392	7,101	4,322,644
2001	23,053	40,371,309	2,545	4,434,700	7,335	7,210,589
2002	22,295	45,180,985	1,628	3,633,067	5,952	5,951,864
2003	16,516	37,518,736	1,355	3,773,889	6,840	6,839,910
2004	19,227	42,517,600	2,304	4,494,011	7,428	6,437,600

연별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8	10,768	23,045,316	3,949	3,955,668	–	–
1999	11,401	19,705,085	2,828	13,392,844	88	142,400
2000	9,456	18,498,616	3,603	20,610,576	136	204,000
2001	9,399	17,463,236	3,632	11,049,714	142	213,000
2002	11,336	22,320,561	3,363	13,191,285	16	84,208
2003	6,171	16,299,281	2,135	10,526,711	15	78,945
2004	7,059	20,422,838	2,423	11,141,901	13	21,250

〈 표 6)2-4-5 〉 수산물가공품 생산고 (단위 : M/T, 천원)

소건품별	1998		1999		200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987	25,476,364	13,024	39,330,409	1,704	8,291,635
오징어	6,444	18,444,436	10,274	23,971,264	1,447	7,629,014
명태	362	877,182	1,023	2,702,273	232	412,621
기타	1,181	6,154,746	1,727	12,656,872	25	250,000

소건품별	2001		2002		2003		2004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137	33,615,288	3,786	31,428,067	3,343	29,809,000	3,174	27,954,218
오징어	3,659	5,689,137	33	252,952	2,048	14,418,000	2	48,167
명태	270	513,376	632	3,829,208	870	11,520,000	92	3,197,007
기타	6,208	27,412,575	3,121	27,345,907	425	3,871,000	3,080	24,709,044

〈 표 6)2-4-6 〉 연도별 양식 생산실적

어업별	면허자	위치	면적(ha)	생산실적(kg/천원)									
				2000		2001		2002		2003		200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6건	36.5	39,770	225,476	39,370	219,412	54,940	302,200	95,390	528,820	59,000	170,400
복합양식(속초2)	이규철	장사동 지선	6	32,000	178,868	-	-	-	-	-	-	-	-
패류양식(속초3)	권희경	대포동 지선	12.5	2,770	16,608	5,650	33,912	-	-	4,180	27,170	-	-
패류양식(속초1)	윤의구	장사동 지선	5	-	-	32,720	180,000	54,540	300,000	72,730	400,000	34,000	20,400
패류양식(속초2)	조정훈	장사동 지선	3	-	-	-	-	-	-	-	-	-	-
패류양식(속초3)	최종윤	장사동 지선	5	-	-	-	-	-	-	18,180	100,000	25,000	150,000
패류양식(속초6)	이우영	장사동 지선	5	5,000	30,000	1,000	5,500	400	2,200	300	1,650	-	-

2. 수산진흥사업

가. 수산자원조성실적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어족자원 감소로 인한 수산업의 급격한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어족자원의 살포 및 수하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직접 조성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졌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수산업 진흥 및 어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다수의 사업의 계획되어 현재도 실행중이며, 좋은 성과를 얻기도 한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수산실적을 살펴보면 다음에 제시된 표와 같다.

〈 표 6)2-4-7 〉 1991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연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1991	2개 사업	2종		83,074	-	31,250	28,750	-	-	23,074	-	-
	가리비 수하양식	가리비	5조	58,044	-	18,750	16,250	-	-	23,044	장사	
	가리비 살포양식	가리비	340,400패	25,030	-	12,500	12,500	-	-	30	장사	

〈 표 6)2-4-8 〉 1992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연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1991	2개 사업	2종		115,110	-	52,500	52,500	10,000	-	100	-	-
	가리비 수하양식	가리비	11헥타 (558,000패)	50,100	-	20,000	20,000	10,000	-	100	장사	-
	가리비 살포양식	가리비	42헥타 (2,455천패)	65,000	-	32,500	32,500	-	-	-	장사 대포	

〈 표 6)2-4-9 〉 1993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1993	3개사업	3종		222,500	21,000	59,000	54,000	14,000	60,000	14,500		
	가리비 수하양식	가리비	2헥타 (26대)	100,000	21,000	9,000	-	-	60,000	10,000	-	-
	가리비 살포증식	가리비	72헥타 (3,837천패)	110,000	-	50,000	44,000	14,000	-	2,000	-	-
	전복 증식	전복	1헥타 (24,300패)	12,500	-	-	10,000	-	-	2,500	대포	-

〈 표 6)2-4-10 〉 1994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1994	6개사업	6종		310,000	10,500	80,630	130,530	-	30,000	58,340	-	-
	가리비 살포증식	가리비	1헥타 (10대)	50,000	10,500	4,500	-	-	30,000	5,000	-	-
	UR대응 가리비 살포증식	가리비	50헥타 (4,900천패)	150,000	-	55,300	79,700	-	-	15,000	-	-
	가리비 살포증식	가리비	15헥타 (1,512천패)	45,000	-	20,830	20,830	-	-	3,340	-	'93 이월
	치패증 간육성	전복	1헥타 (4대)	40,000	-	-	10,000	-	-	30,000	장사	-
	전복살 포양식	전복	15헥타 (12,500패)	12,500	-	-	10,000	-	-	2,500	-	'93 이월
	전복살 포양식	전복	1헥타 (12,000패)	12,500	-	-	10,000	-	-	2,500	-	-

〈 표 6)2-4-11 〉 1995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1995	4개사업	4종		505,500	87,000	55,000	134,500	33,000	4,000	192,000	-	-
	가리비 살포증식	가리비	120헥타	360,000	84,000	55,000	130,000	30,000	4,000	57,000	-	-
	가리비 살포증식	가리비	2헥타	108,000	-	-	-	-	-	108,000	-	-
	전복 살포증식	전복	2.5헥타	32,500	3,000	-	-	3,000	-	26,500	-	-
	소라 시범양식	소라	1개소	5,000	-	-	4,500	-	-	500	-	-

< 표 6)2-4-12 > 1996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1996	4개사업	4종		484,335	190,000	186,000	60,000	-	-	47,335	-	-
	가리비 살포증식	가리비	33헥타 (2,875천패)	100,146	40,000	-	40,000	-	-	20,146	-	증양식 개발사업
	전복 증식	전복	2헥타 (20,000패)	22,000	-	-	20,000	-	-	2,000	-	
	가리비 살포증식	가리비	100헥타 (10,000천패)	300,284	150,000	130,000	-	-	-	20,284	-	어촌종합 개발사업
	전복 증식	전복	4헥타 (60,000패)	30,905	-	56,000	-	-	-	4,905	-	

< 표 6)2-4-13 > 1997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1997	7개사업	7종		1,026,600	358,000	109,000	25,000	-	358,000	176,000	-	-
	가리비 살포증식	가리비	100헥타	300,000	120,000	-	-	-	120,000	60,000	대포	증양식 및 자원조성
	'96이월 가리비살포	가리비	67헥타	200,600	80,000	-	20,000	-	60,000	40,600	장사	
	가리비 수하양식	가리비	4헥타	200,000	-	-	-	-	160,000	40,000	장사	
	전복 살포양식	전복	3헥타	45,000	18,000	-	-	-	18,000	9,000	장사	
	'96이월 가리비살포	가리비	7.5헥타	21,000	10,000	5,000	5,000	-	-	1,000	대포	어촌종합 개발사업
	가리비 살포양식	가리비	40헥타	120,000	60,000	48,000	-	-	-	12,000	장사	
	전복 살포양식	전복	9.2헥타	140,000	70,000	56,000	-	-	-	14,000	대포	

< 표 6)2-4-14 > 1998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1998	3개사업	3종		62,885	12,000	9,600	22,400	-	12,000	6,855	-	-
	전복 살포양식	전복	2헥타	30,000	12,000	-	-	-	12,000	6,000	대포	-
	가리비 가두리양식	가리비	1대	20,885	-	6,000	14,000	-	-	885	장사	-
	향토 어종방류	산천어	20,000미	12,000	-	3,600	8,400	-	-	-	설악동	-

< 표 6)2-4-15 > 1999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1998	4개사업	5종		214,600	60,000	38,300	67,300	-	28,000	21,000	-	-
	해면 어류방류	넙치 조피볼락	234,090미	49,600	-	18,300	31,300	-	-	-	대포 영동 장사	-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1998	전복 살포양식	전복	156,496패	165,000	60,000	20,000	36,000	-	28,000	21,000	대포 외옹 내물치	-
	쇠미역 양식	쇠미역	10틀	-	-	-	-	-	-	-	대포 외옹 내물치	-
	우렁쉥이 양식	우렁쉥이	40틀	-	-	-	-	-	-	-	장사	-

〈 표 6)2-4-16 〉 2000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2000	6개사업	7종		136,760	18,400	20,600	60,500	-	12,000	25,260	-	-
	전복 살포양식	전복	2헥타 (32,000패)	30,000	12,000	-	-	-	12,000	6,000	장사 동명 중호	-
	종묘 매입방류	전복	8,000미	8,000	6,400	800	800	-	-	-	-	-
	어류치어 방류	볼락, 넙치	228,000미	73,260	-	19,800	46,200	-	-	7,260	장사 영랑 대포	-
	쇠미역 자원조성	쇠미역	130틀 5,000m	5,000	-	-	3,500	-	-	1,500	대포	-
	쇠미역 자원조성	성게	10,000개	10,500	-	-	5,000	-	-	5,500	장사 대포	-
	우렁쉥이 조성	우렁쉥이	25틀 (5,000m)	10,000	-	-	5,000	-	-	5,000	장사	-

〈 표 6)2-4-17 〉 2001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2001	5개사업	6종		182,557	24,000	21,300	112,700	5,005	12,000	7,552		
	전복 살포양식	전복	2헥타 (29,600패)	30,052	12,000	-	-	-	12,000	6,052	장사	
	수산종묘 방류	전복	1헥타 (15,000패)	15,000	12,000	1,500	1,500	-	-	-	장사	
	시자체 사업	2종	118,840	61,000	-	-	60,000	-	-	1,000		
		전복	49,540패	49,000	-	-	49,000	-	-	-	청호동	
		성게	69,300개	12,000	-	-	11,000	-	-	1,000	청호 장사 대포	
	해면어류 방류	넙치 조피볼락	371,700미	71,005	-	19,800	46,200	5,005	-	-	장사 대포	
	쇠미역 양식	쇠미역	200틀 (30,000m)	5,500	-	-	5,000	-	-	500	대포 외옹치	1틀 150m

〈 표 6)2-4-18 〉 2002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2002	4개사업	9종		128,000	35,000	25,500	54,500	8,000	-	5,000	-	-
	수산종묘 방류	2종	63,510	50,000	35,000	7,500	7,500	-	-	-	내물치	
		전복	2헥타 (31,450패)	25,000	17,500	3,750	3,750	-	-	-	내물치	
		조파볼락	32,060미	25,000	17,500	3,750	3,750	-	-	-	장사	
	수산종묘 방류	2종	10,000개	60,000	-	18,000	42,000	-	-	-		
		넙치	120,000미	36,000	-	10,800	25,200	-	-	-	외옹치	
		조피볼락	120,000미	24,000	-	7,200	16,800	-	-	-	동명	
	민간자원 조성자원	넙치	60,000미	18,000	-	-	5,000	8,000	-	5,000	장사 ~ 청호	
	무상 분양	4종	-	-	-	-	-	-	-	-		
		우렁쉥이	110틀 (7,150m)	-	-	-	-	-	-	-	장사 외옹치	
		전복	50,000패 (1~3㎝급)	-	-	-	-	-	-	-	내물치	
		넙치	70,000미 (5~7㎝급)	-	-	-	-	-	-	-	조도 부근	
		성게	50,000패 (1~3㎝급)	-	-	-	-	-	-	-	외옹치	

〈 표 6)2-4-19 〉 2003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2003	6개사업	-	1,511,530미 150틀	476,700	218,550	73,245	140,885	-	12,000	32,000	-	-
	수산종묘 방류	3종	187,196	95,000	66,500	14,250	14,250	-	-	-	장사	-
		전복	3.5헥타 (35,956패)	32,000	22,400	4,800	4,800	-	-	-	동명	-
		조피볼락	73,740미	32,000	22,400	4,800	4,800	-	-	-	외옹치~ 동명동	-
		넙치	77,500미	31,000	21,700	4,650	4,650	-	-	-	영랑~ 동명동	-
	해면어류 방류	2종	290,000개	56,600	-	16,980	39,620	-	-	-	-	-
		성게	140,000개	26,600	-	7,980	18,620	-	-	-	청호동 (조도)	-
		북방대합	150,000개	30,000	-	9,000	21,000	-	-	-	외옹치	-
	전복 살포양식	전복	33,334패	30,000	12,000	-	-	-	12,000	6,000	외옹치 대포 내물치	대포수협 2002 이월
	시자체 사업	2종	11,000패 150틀	15,000	-	-	5,000	-	-	10,000	-	사업수익 환원일환
		전복	11,000패 (3㎝급)	10,000	-	-	-	-	-	10,000	청호동	
		다시마	200틀내오 (20,000m)	5,000	-	-	5,000	-	-	-	장사,대포, 외옹치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2003	자율관리 지원	2종	567,000마리	280,100	140,050	42,015	82,015	-	-	16,020		
		전복	90,000미 (3~4㎝)	80,100	40,050	12,015	12,015	-	-	16,020	장사동	
		넙치	477,000미	200,000	100,000	30,000	70,000	-	-	-	속초시	
	무상 분양	6종	423,000미 239.M	-	-	-	-	-	-	-		
		성게	60,000 (1~3㎝급)	-	-	-	-	-	-	-	외옹치 내물치 청호동	
		우렁쉥이	239M	-	-	-	-	-	-	-	청호 외옹치	
		전복	50,000 (1~3㎝급)	-	-	-	-	-	-	-	외옹치 대포동 내물치	
		조피볼락	120,000미 (8~10㎝급)	-	-	-	-	-	-	-	장사동	
		넙치	120,000미 (8~10㎝급)	-	-	-	-	-	-	-	동명~ 청호동	
		넙치	40,000미 (10㎝내외)	-	-	-	-	-	-	-	장사동	
		북방대합	33,000미 (1~1.5㎝급)	-	-	-	-	-	-	-	외옹치	

〈 표 6)2-4-20 〉 2004년 사업별, 품종별 수산자원 조성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2004	5개사업	-	1,728,160	588,977	300,469	109,308	179,200	-	-	-	-	-
	종묘매입 방류사업 ('03년 이월)	3종	452,740	199,811	139,867	29,972	29,972	-	-	-	7개소	-
		소계	153,800	59,982	41,986	8,998	8,998	-	-	-	2개소	-
		넙치	76,900	29,991	20,993	4,499	4,499	-	-	-	장사 어촌계	-
			76,800	29,991	20,993	4,499	4,499	-	-	-	장사 어촌계	-
		소계	228,540	79,989	55,993	11,998	11,998	-	-	-	3개소	-
		조피볼락	85,700	29,995	20,997	4,499	4,499	-	-	-	외옹치 어촌계	-
			85,700	29,995	20,997	4,499	4,499	-	-	-	대포 어촌계	-
			57,140	19,999	13,999	3,000	3,000	-	-	-	내물치 어촌계	-
		소계	70,400	59,840	41,888	8,976	8,976	-	-	-	2개소	-
		전복	35,200	29920	20,944	4,488	4,488	-	-	-	장사 어촌계	-
			35,200	29920	20,944	4,488	4,488	-	-	-	동명 어촌계	-
	종묘매입 방류사업	소계	269,920	229,432	160,602	34,415	34,415	-	-	-	8개소	-
		전복	35,200	29,920	20,944	4,488	4,488	-	-	-	동명 어촌계	-
			23,520	19,992	13,944	2,999	2,999	-	-	-	금호 어촌계	-
			35,200	29,920	20,944	4,488	4,488	-	-	-	교동 어촌계	-
			35,200	29,920	20,944	4,488	4,488	-	-	-	청호 어촌계	-

년도별	사업명	품종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사업지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수협비	융자	자담		
	종묘매입 방류사업	전복	35,200	29,920	20,944	4,488	4,488	-	-	-	장사 어촌계	-
			35,200	29,920	20,944	4,488	4,488	-	-	-	대포치 어촌계	-
			35,200	29,920	20,944	4,488	4,488	-	-	-	내물치 어촌계	-
			35,200	29,920	20,944	4,488	4,488	-	-	-	외옹치 어촌계	-
2004	해면어류 치어방류	소계	485,500	149,734	-	44,921	104,813	-	-	-		-
		전복	37,000	29,970	-	8,991	20,979	-	-	-	청호 어촌계	-
		성게	157,000	29,830	-	8,949	20,881	-	-	-	청호 어촌계	-
		넙치	78,900	29,982	-	8,995	20,987	-	-	-	동명 어촌계	-
		소계	200,000	60,000	-	18,000	42,000	-	-	-		-
		해삼	106,300	29,976	-	8,993	20,983	-	-	-	장사 어촌계	-
			106,300	29,976	-	8,993	20,983	-	-	-	외옹치 어촌계	-
	어업인 후계자 어류자원 조성	소계	50,000	10,000	-	-	10,000	-	-	-	-	-
		넙치	50,000	10,000	-	-	10,000	-	-	-	동명 장사 연안	-
	무상방류	6종	470,000	-	-	-	-	-	-	-		-
		성게	40,000	-	-	-	-	-	-	-	외옹치 어촌계	-
		전복	40,000	-	-	-	-	-	-	-	내물치 어촌계	-
		넙치	60,000	-	-	-	-	-	-	-	장사~ 청호동	-
		참돔	70,000	-	-	-	-	-	-	-	장사~ 청호동	-
		성게	30,000	-	-	-	-	-	-	-	외옹치 어촌계	-
		조피볼락	150,000	-	-	-	-	-	-	-	외옹치 어촌계	-
		북방대합	80,000	-	-	-	-	-	-	-	외옹치 어촌계	-

나. 어항별 선박등록현황

수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장이 필수적이다. 속초시에는 1개의 무역항과 4개의 어항의 있다. 이중 국가어항인 대포항과 어촌정주어항인 사진항, 내물치항은 속소시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어항시설의 선박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6)2-4-21 〉 어항별 선박등록 현황

항포구별	합 계		동력선									무동력선		
			계	1톤 미만	1~5톤	5~10톤	10~20톤	20~30톤	30~50톤	50~100톤	100톤 이상	계	1톤 미만	1톤 이상
합계	척	573	562	25	289	127	29	28	11	48	5	11	10	1
	톤	7,609.70	7,603.43	18.04	792.43	1,010.44	433.00	748.05	454.28	3,596.22	550.97	6.27	3.34	2.93
속초항	척	411	409	16	191	101	15	27	9	45	5	2	2	
	톤	6,588.43	6,587.52	11.87	513.93	814.20	228.00	719.05	377.28	3,372.22	550.97	0.91	0.91	
대포항	척	45	43	3	25	8	6	0		1		2	1	1
	톤	302.50	298.96	1.74	65.93	63.29	89.00			79.00		3.54	0.61	2.93
사진항	척	27	23	1	14	6			2			4	4	
	톤	168.34	167.40	0.75	48.24	41.41			77.00			0.94	0.94	
내물치항	척	58	57	1	43	6	4	1		2		1	1	
	톤	404.83	404.53	0.71	130.56	45.26	54.00	29.00		145.00		0.30	0.30	
외옹치항	척	32	30	4	16	6	4					2	2	
	톤	145.60	145.02	2.97	33.77	46.28	62.00					0.58	0.58	

다. 어업관련 허가상황

2005년 상반기 현재 어업관련 허가상황을 살펴보면 나잠어업 32건, 투망어업 15건으로 총 45개의 신고어업이 허가되어 있으며, 맨손어업 및 외줄어업의 신고는 없다.

연안어업의 허가상황을 살펴보면 총 730건에 선박 357척이 허가되었으며, 이중 95%에 해당되는 것이 연안자망어업과 연안복합어업에 관련된 것이다.

구획어업은 총 25건에 12척의 선박이 허가되었으며, 정치성구획어업이 8건, 이동성구획업이 17건으로 되어있다. 정치성구획어업은 호망어업이 7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동성구획어업은 전부다 형망어업에 관련된 것이다.

〈 표 6)2-4-22 〉 신고어업 처분상황(양식 및 종묘생산어업 제외)

어업의 종류	전반기말 유효건수	기간중 신고수리건수	기간중 소멸건수	당해 반기말 유효건수
합 계	47	4	7	44
맨손어업	0	0	0	0
나잠어업	32	1	1	32
투망어업	15	3	6	12
외줄어업	0	0	0	0

〈 표 6)2-4-23 〉 연안어업 허가처분 상황보고(2005년 상반기말)

어업의 명칭	전반기말유효허가			기간중 처분상황		기간중 소멸상황		당해반기말 유효허가			반기별 유예현황	
	건수	척수	승선원	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승선원	건수	척수
합계	730	357	1,598	118	91	132	96	716	352	1,575	6	3
연안자망어업	312	162	648	51	39	55	40	308	161	644	2	1
연안개량 안강망어업				0		0						
연안낭장망어업				0		0						
연안안강망어업				0		0						
양조망어업	5	6	24	1	1	3	2	3	5	20	1	
석조망어업				0		0						
연안선망어업 (무동력)				0		0						
연안통발어업	31	11	36	7	5	8	5	30	11	36		
연안들망어업				0		0						
분기초망어업				0		0						
새우방어업				0		0						
연안쌍끌이 선인망어업	1	0	0	0	0	0	0	1	0	0		
연안형망어업 (무동력)				0		0						
해초채취어업				0		0						
연안복합어업	381	178	890	59	46	66	49	374	175	875		
-연안복합어업	381	178	890	59	46	66	49	374	175	875	3	2
-연승어업	0	0	0	0	0	0	0	0	0	0	3	2
-채낚기어업	0	0	0	0	0	0	0	0	0	0		
-문어단지어업						0						
-외줄낚시어업	0	0	0	0	0	0	0	0	0	0		
-손꽁치어업				0		0						
-패류껍질어업				0		0						

〈 표 6)2-4-24 〉 구획어업 허가처분 상황보고(2005년 상반기말)

어업의 명칭	전반기말 유효허가			기간중 처분상황		기간중 소멸상황		당해반기말 유효허가			반기별 유예현황	
	건수	척수	승선원	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승선원	건수	척수
합 계	25	12	24	3	0	3	0	25	12	24	1	1
정치성구획어업	8	0	0	2	0	2	0	8	0	0	0	0
지인망어업	0	0						0	0			
선인망어업	0	0						0	0			
호망어업	7	0	0	2	0	2	0	7	0			
건망어업	0	0						0	0			
건간망어업	0	0						0	0			
주목망어업	0	0						0	0			

어업의 명칭	전반기말 유효허가			기간중 처분상황		기간중 소멸상황		당해반기말 유효허가			반기별 유예현황	
	건수	척수	승선원	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승선원	건수	척수
승망어업	0	0						0	0			
각망어업	1	0	0	0	0	0	0	1	0			
부망어업	0	0						0	0			
장망어업	0	0						0	0			
낭방망어업	0	0						0	0			
해선망어업	0	0						0	0			
안강망어업	0	0						0	0			
삼각망어업	0	0						0	0			
이동성구획어업	17	12	24	1	0	1	0	17	12	24	1	1
수조망어업	0	0						0	0			
문어단지어업	0	0						0	0			
형망어업	17	12	24	1	0	1	0	17	12	24	1	1
새우조망어업	0	0						0	0			
실뱀장어체포어업	0	0						0	0			

라. 수산관련 업체현황

속초시 관내 수산관련 업체는 냉동냉장업체가 11개업체 등록되어 있으며,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 가공업체는 41개 신고되어 있다. 냉동냉장업체는 원형동결업체가 5개, 처리동결업체가 3개, 원형동결과 처리동결을 겸하는 업체가 3개로 조사되었다. 수산물 가공업체는 절임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27개 업체, 건포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8개업체, 어육제품 및 기타식품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각각 3개 업체로 조사되었다.

〈 표 6)2-4-25 〉 냉동냉장업체 현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능력 (T/D)	생산능력				제품종류	등록신고일	비고 (종사자수)
				냉동 (T/D)	냉장 (M/D)	제빙 (T/D)	저빙 (M/D)			
합계	11개소	11명	10,643.5	93.5	9,920	60	650			
강원 제52호	속초수협	속초수협장	1,197.5	12.5	910	25	250	원형동결	79.10.8	전기3 임시5
강원 제71호	㈜동보상사	임창기	610	10	600	–	–	처리동결	84.8.1	폐업중
강원 제84호	속초제빙	강근보	465	5	185	25	250	원형동결	86.4.22	상시1 알바2
강원 제107호	흥업냉동	김연순	1,010	10	1,000	–	–	원형동결	89.1.25	현장11 사무실3
강원 제122호	삼우산업	김재욱	1,930	10	1,920	–	–	원형동결	90.10.23	현장6 사무실2
강원 제123호	유신냉동	박혜철	171	6	85	10	150	원형동결	90.12.17	현장1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능력(T/D)	생산능력				제품종류	등록신고일	비고(종사자수)
				냉동(T/D)	냉장(M/D)	제빙(T/D)	저빙(M/D)			
강원 제150호	창우물산	신동준	1,005	5	1,000	-	-	처리동결	94.3.17	현장4 사무실3
강원 제96-2호	해성식품	김삼노	1,010	10	1,000	-	-	처리, 원형돌결	96.5.10	현장30 사무실2
강원 제3호	동원냉동	박래식	2,015	15	2,000	-	-	처리, 원형돌결	98.12.24	현장5 사무실2
강원 제02-1호	경화	김남헌	1,005	5	1,000	-	-	처리동결	02.1.31	현장14 사무실6
강원 제05-1호	성진상사㈜	최순화	225	5	220	-	-	원형동결 처리동결	05.6.13	현장70 사무실2

〈 표 6)2-4-26 〉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업체

일련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제품종류	비고(종업원)
1	고바우식품	박영진	노학 408-1	절임류	4
2	흥업식품	김연순	대포 933	절임류	중복
3	영동식품	김순녀	영랑 148-45	절임류	9
4	풍미식품	정진순	조양 1115-1	절임류	6
5	동광식품	조명국	조양 619-1	절임류	17
6	한일식품	김명규	영랑 148-50	절임류	
7	흥업식품제2공장	김연순	교 664-111	절임류	
8	이쁜이주식회사	김연순	대포 933	절임류	
9	청학식품	허임순	청학 482-309	절임류	
10	한국씨푸드	이종휘	영랑 148-93	절임류	
11	해성식품	김삼노	영랑 148-91	절임류	
12	세교산업(주)	김용덕	동명 1-3	절임류	
13	대양수산	한정율	도문 1672	절임류	
14	진미씨푸드	최 구	장사 634-7	절임류	2
15	아야진영랑식품	서지인	영랑 166-8	절임류	
16	대포수산	서은영	대포 1247-1	절임류	
17	동화물산	이지연	영랑 148-3	절임류	
18	속초식품	정세원	장사 577-28	절임류	3
19	풀묶음식품	홍옥선	동명 67	절임류	2
20	참식품	최순애	대포 930	절임류	5
21	미보식품	이성찬	도문 1569-20	절임류	
22	청초원식품	김정자	동명 53-21	절임류	2
23	미락식품	장창동	도문 1569-20	절임류	
24	왕부식품	유명숙	노학 1000-7	절임류	5
25	신화식품	황영기	장사 646-1	절임류	10
26	바다식품	한철현	장사 595-1	절임류	2
27	진일식품	방영빈	조양 1480-60	절임류	5
28	영풍수산	최상봉	대포 932-4	건포류	27
29	삼해식품	이영갑	영랑 148-35	건포류	
30	삼우산업제1공장	김재욱	영랑 148-16	건포류	
31	(주)한진상사	이규철	청호 444-3	건포류	
32	덕우상사	최우진	노학 산252-48	건포류	
33	(주)씨푸드프로닥스코멕스	이정애	대포 932-1	건포류	
34	성진상사(주)	최순화	청호 444-3	건포류	
35	영대식품	조영대	청호1129-2	건포류	150
36	한진상사	이규철	청호 444-8	기타식품	게맛살
37	창우물산	이슬기	대포 932	기타식품	게맛살
38	하나수산	박종필	영랑 148-27	시타식품	게맛살(50명)
39	주원식품	연규훈	청호 1345-6	어육제품	어묵제조(3명)
40	코리아유통	이계삼	장사 632-1	어육제품	어묵제조
41	동진상사	이계만	대포 932-5		명태코다리

마. 수산업협동조합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연혁은 1920년 3월26일에 도천면 어업조합으로 발족하여 1953년 6월 7일에 속초 어업조합으로 개칭하여 1962년 4월 1일 속초어업 협동조합으로 발족하여 1965년 4월 10일에 신용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74년 7월15일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하여, 1997년 4월 1일에 현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여 현재에는 57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포 수산업협동조합은 2001년 대포동, 내물치, 외옹치 3개 부락의 어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조합장으로 이창남씨가 선출되었으며, 2005년에 2대 조합장으로 오광현씨가 선출되었다. 현재는 23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6)2-4-27 〉 수산업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별 및 조합별	조합수	조합원수	직원수			주요협동사업실적				
			계	남	여	판매	구매	생활물자	가공	창고
2001	2	795	81	65	16	37,974	6,722	–	270	–
2002	2	807	79	60	19	36,485	6,261	–	298	–
2003	2	808	76	61	15	28,467	5,630	–	57	–
2004	2	783	74	61	13	33,635	7,700	–	76	–
속초수협	1	576	58	49	9	22,884	5,604	–	57	–
대포수협	1	232	18	12	6	5,583	26	–	–	–

연별 및 조합별	주요협동사업실적			연중융자실적			연말현재예금잔고		
	운 송	공제	이용기타	계	금융자금	재정자금	계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2001	–	2,957	86	30,479	15,817	14,662	47,053	42,516	4,537
2002	–	2,656	69	46,307	32,445	13,862	35,383	35,383	5,374
2003	–	34,107	–	40,967	27,119	13,848	37,137	37,137	5,283
속초수협	–	4,407	–	28,187	15,755	12,432	26,472	26,472	3,642
대포수협	–	29,700	–	12,780	11,364	1,416	10,665	10,665	1,641

〈 표 6)2-4-28 〉 속초 수산업협동조합 역대 조합장 현황

역 대	성 명	재직기간
1	문 진 선	1962. 4. 1 ~ 1965. 3. 31
2	박 춘 복	1965. 4. 1 ~ 1968. 3. 1
3	유 성 국	1968. 4. 1 ~ 1971. 5. 6
4	유 덕 훈	1971. 5. 7 ~ 1973. 4. 24
5	손 동 욱	1973. 4. 25 ~ 1976. 2. 24
6	안 국 준	1979. 4. 26 ~ 1979. 6. 17
7	남 규 철	1979. 6. 18 ~ 1981. 5. 6
8	신 영 철	1981. 5. 7 ~ 1984. 5. 6

역 대	성 명	재직기간
9	신 영 철	1984. 5. 7 ~ 1987. 5. 6
10	김 영 준	1987. 8. 25 ~ 1990. 3. 14
11	한 기 종	1990. 3. 15 ~ 1994. 3. 14
12	김 영 준	1994. 3. 15 ~ 1998. 3. 14
13	김 용 화	1998. 3. 15 ~ 2002. 3. 14
14	김 용 화	2002. 3. 15 ~ 2006. 3. 14

〈 표 6)2-4-29 〉 대포 수산업협동조합 역대 조합장 현황

역 대	성 명	재 직 기 간
1	이 창 남	2001.4 ~ 2005.3
2	오 광 현	2005. 4. ~ 현재

바. 수질환경

속초시 연안의 수질환경과 청초호, 영랑호, 쌍천, 청초천 등의 수질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속초연안은 Ⅰ~Ⅱ등급의 비교적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의 수질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청초호의 수질은 Ⅲ등급, 영랑호의 수질은 Ⅴ등급으로 조사되었다. 수산자원의 가치는 수질환경의 청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고부가가치의 수산자원의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해서는 청초호와 영랑호의 수질을 개선해야 겠다.

〈 표 6)2-4-30 〉 속초지역 주요 호수 · 하천 및 연안 오염도 현황

연별	용존산소(DO)	화학적산소 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비고
속초연안	9.9	0.60	0.05	0.02	해역Ⅰ-Ⅱ등급
청초호	12.3	4.07	1.68	0.14	해역Ⅲ등급
영랑호	9.9	8.80	2.26	0.16	호소Ⅴ등급
쌍천	12.8	BOD 0.9	0.6	0.009	하천Ⅰ등급
청초천	10.8	BOD 3.8	2.50	0.23	해역Ⅲ등급

제5장 수산물

어떤 지방에 있어서의 해역의 지형, 지질, 해황 및 이들에 의하여 지배되어 있는 해양 생물의 분포 상태는 그 지방의 수산적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속초지방에 있어서는 동해안에서의 한·난류의 교차로 인한 많은 수산생물이 분포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생물 중 속초지방에서 중요한 어업대상종에 대하여 생태 및 습성, 어장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어류

가. 명태

어종명 : 명태(북어, 동태, 선태, 소형어 :노가리)
학명 : Theragra chalcogramma(Pallas)
영명 : Alaska pollack, Walleye pollack
일명 : Suketodara スケトウダラ(スケソ)

대구目 대구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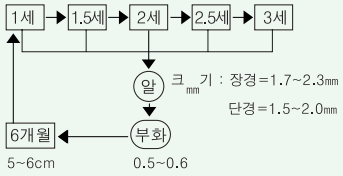
명태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동해, 북태평양, 베링해, 오호츠크해
산 란	산란기	12~3월(성기 : 1~2월)
	산란장	동해안의수심 30~60m 특히 마양도 근해, 함북, 강원수원단 및 옹진부근 해역
	산산론수	1~3℃
	성숙체장	34cm (尾叉體長)
습 성	서식수온	2~10℃ (적수온 : 3~5℃)
	서식수층	200~350m
	식 성	유우파우시아류, 단각류, 두족류, 소형어류,새우류 등
생활사	체장(cm) 15.9 25.8 33.7 40.0 45.1 49.2 체중(g) 22 94 208 346 404 640 1세→2세→3세→4세→5세→6세→7세→10세 6개월 4~7cm 알 크기 1.2~1.7㎜ 포란수 : 7.2만~46.2만 粒 2개월 4.0cm ← 1개월 6.4㎜ ← 부화 3.5~4.3㎜	
어획량변동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어획량(톤) 1,329 977 72 212 238	
어기어장	어기 (주어기)	10~4월 (12~1월)
	어 장	한국해만, 신포-성진, 거진-묵호에 이르는 냉수역
어장과환경	서식수온 (적수온)	1~10℃ (2~5℃)
	호 어 장	• 한류세력이 발달하여 연안측을 강하게 압박할 때 • 상층과 저층간에 수온약측이 뚜렷이 형성된 그 하층의 냉수역
주어구어법		• 대중형어 : 저연승, 저자망 • 소중형어 : 기선저인망, 트롤

나. 꽁치

어종명 : 꽁치(추광어, 공멸, 청갈치) 학명 : Cololabis saira(Brevoort) 영명 : Saury 일명 : Sanma サンマ	 동갈치目 동갈치亞目 꽁치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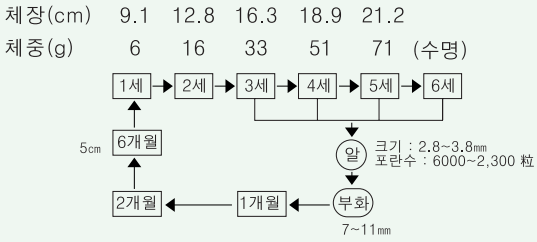
꽁치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동해안 일원, 25° ~ 50°N, 165°E 이서의 태평양 및 오호츠크해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4~7월, 10~12월 : 동해안 일대(한국 근해군)
	수란수온	10~20℃ (최적수온 : 14~18℃)
	수란수온	22cm (尾叉體長)
습 성	서식수온	7~24℃ (최적수온 : 12~18℃)
	서식수층	0~30m 표층성, 군유회유성, 추광성, 수평이동 및 야간활동 활발
	식 성	동물성 부유생물(주로 소형 갑각류) 부유성 갑각류, 치어, 어란
생활사		체장(cm) 20~23 26~27 29~30 31~32 체중(g) 45~48 78~79 110~113 140~150(수명) 
어획량변동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어획량(톤) 4,405 8,042 1,022 1,177 261
어기어장	어 기	춘계(4~6월), 추계(11~1월)
	어 장	한국해협~독도~울릉도~강원도연안
어장과현경	서식수온 (어획적수온)	10~22℃ (14~18℃)
	염분(표층)	춘계 34.2~34.4% 추계 33.4~34.4%
	호 어 장	동한난류 세력이 비교적 강하여 수온이 평년비 다소 높을때 한난류간의 극전선이 연안에 접근 형성될 때
주어구어법		한국 : 유자망 일본 : 봉수망

다. 도루묵

어종명 : 도루묵 학명 : Arctoscopus Japonicus(Steindachner) 영명 : Sandfish 일명 : Hatahata	 농어目 노루묵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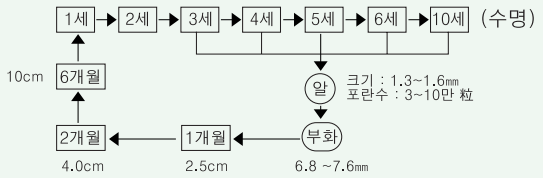
도루묵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동해연안 및 일본해연안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11~12월 (성기 : 12월) 속초연안~울산연안, 남여반도 주변해역
	산란수온	10~13℃
	성숙체장	16.8cm(尾叉體長)
습 성	서식수온	2~13℃
	서식수층	100~250m 층(색이기), 1~5m(산란기)
	식 성	요각류 단각류, 오징어류, 앨퉁이 등의 소형어류
생활사		

라. 청어

어종명 : 청오(동어) 학 명 : Clupea pallasi Cuvier et Valenciennes 영 명 : Herring 일 명 : Nishin コツソ	 청어目 청어科

청어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한국동해북부, 황해도~전남근해, 북해도~오호츠크해연안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12월~ 익년 4월 동해안(영일만), 서해안(충남안흥 및 황해도 영흥만) 3월하순~5월중순 5월상순~5월상순 북해도 서안 오호츠크연안
	산란수온	4 ~ 5℃
	성숙체장	
습 성	서식수온	2 ~ 10℃ (4 ~ 7℃)
	서식수층	동해:200m 以淺 서해50~100m 중저층
	식 성	소형갑각류, 어란, 치어
생활사		
어획량변동		년도 2002 2003 어획량(톤) 1,083 766
어기 및 어장		동해 : 동~춘계 황해 하계 : 백령도~어청도~위도~흑산도간 이서 동계 : 제주도 서북방 전역
어장과환경	서식수온(적수온)	2~10℃ (4~7℃)
	서식층	• 동해 : 200m 이천층 • 황해 : 50 ~ 100m 중저층
	이동 수평	• 일 평균 4~7마일
	이동 연직	• 주간 저층 • 야간수심 10~30m 층으로 부상
	호어장	상층난수와 10℃이하 하층냉수간 수온약층의 냉수역
주어구어법		기선저인망, 선망

마. 정어리

어종명 : 정어리
학 명 : Sardinops melanosticta (Temmink et Schlegei)
영 명 : Sardine
일 명 : Maiwashi マイクッ

청어目 청어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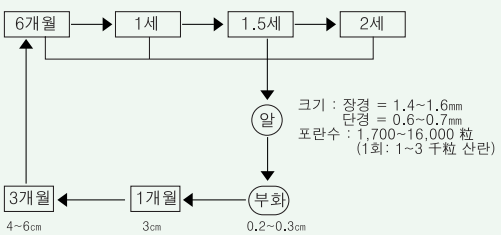
정어리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남해 및 동해, 일본 전연안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12~6월(2~3월) 한국 남해 및 일본 큐슈
	산란수온	12~19℃(최적수온 : 14~17℃)
	성숙체장	16~17cm (尾叉體長)
습 성	서식수온	8~27℃(최적수온 : 13~18℃)
	서식수층	표층~110m(20~70m 층에 최다)
	식 성	소형(체장 10cm 이하) : 동물성부유생물(특히 소형갑각류)주체 중형이상(체장 10cm 이상) : 동물성부유생물(특히 규조류) 주체
생활사		체중(cm) 16 19 20 21 22 체중(g) 46 74 93 105 114 (수명)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7세 10cm 6개월 / 7~8 3개월 알 (크기 : 1.5~1.86㎜, 포란수 : 3~10만 粒, 2~3일(1회 2~3만 粒 산란)) 부화 3~4 → 1개월 3~4cm → 2개월 5~6cm
어획량변동		
어기어장	어기	춘계(3~6월) 추계(10~11월)
	어장	한국 : 남해중동부 및 동해연안(대마도 동북방 중심어장) 일본 : 일본 남부연안
어장과환경	서식수온 (어획적수온)	8~27℃ (13~18℃)
	서식종	주야 20~50m 층
	호어장	대만 난류 세력이 평년비 우세하여 표층수온이 다소 높을 때 저층에 냉수가 받친 약층이 20~30m에서 형성될 때
주어구어법		선망, 저망, 정치망

바. 멸치

어종명 : 멸치 학 명 : Engraulis japonica Houttuyn 영 명 : Anchovy 일 명 : Katakuchiiwashi カタクチイワシ	 청어目 여울멸亞目 멸치科

멸치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한국전연안, 일본, 중국연안 및 남부사할린 연안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주년(4~8월) : 한국 전연안(특히 남해안)
	산란수온	15~24℃(최적수온:17~22℃)
	성숙체장	8cm(피린체장)
습 성	서식수온	8~30℃(최적수온 : 13~23℃)
	서식수층	0~60m(0~25m 층에 최다) (아침-5m 내외, 낮-10m 내외, 저녁-0m)
	식 성	동물성 부유식물(주로 코페포다)
생활사		체장(cm) 8.0 10.5 13.5 (수명) 
어획량변동		년도 2002 2003 어획량(톤) 11 5
어기어장	어 기	3~12월 자망4~6, 10~11월 기선권현망 7~9월
	어 장	전연안(남해안 일대)
어장과환경	서식수온 (어회적수온)	8~30℃ (16~20℃)
	호어장	• 난류세력이 우세하여 평년비 수온이 다소 높을 때 • 강우량이 많아 연안에 먹이가 되는 부유생물이 많을 때 • 외양수가 연안수보다 강하여 연안측으로 압박될 때
주어구어법		기선권현망, 자망, 들망, 정치망, 분기초망

사. 대구

어종명 : 대구 학 명 : Gadus maceoce phalus Tilesius 영 명 : Cod, Pacific cos 일 명 : Madara タラ, マダラ	 대구目 대구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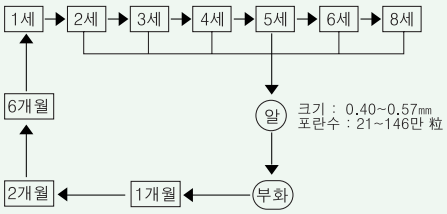
대구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한국 남해동부이북의 동해 및 서해중부 이남해역, 북태평양, 베링해, 오호츠크 해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 진해만 : 12월하순~1월하순(성기:1월상순~하순) • 영일만 : 1월~2월 • 서남 외해, 소청도 : 1~3월
	산란수온	5~9℃
	성숙체장	• 동해산:60㎝(전장) • 서해안:38㎝(전장)
습 성	산란수온	5~12℃
	서식수층	45~450m (150m 층)
	식 성	• 유기어기 : 유우파우시아류, 단각류, 소형어류 • 성 어 기 : 어류, 두족류, 갑각류(새우류)
생활사		체장(㎝) 21.0 28.9 54.5 68.2 80.1 90.6 99.7 107.7 (수명)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7세 → 8세 → 14세 6개월 8~11cm 알 크기 : 1.2~1.6㎜ 포란수 : 150만~250만 粒 (1회 2~5만 粒 산란) 1개월 ← 1개월 ← 부화 15~25㎜ 10~13㎜ 3.7~40㎜
어획량변동		
어기어장	서해안	서해중북 : 10~3월 하순(11월초~1월하순)
	동해안	진해만 : 11~4월(12월~2월) 영일만 : 1~5월(1~3월) 경상, 강원도 : 10~5월(12~2월) 함경도 : 주년
주어구어법		기선저인망, 자망

아. 말쥐치

어종명 : 말쥐치 학 명 : Navodon modestus(Günther) 영 명 : Filefish 일 명 : Umazurahagi ウマズラハギ	 복어目 쥐치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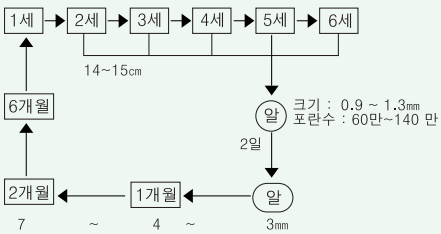
말쥐치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한국 전연안, 특히 남해를 포함한 동지나해, 일본 북해도이남의 전연안 특히 남부해역
산란	산란기 및 산란장	남해 : 4~6월, 동해 및 서해 : 5~6월
	산란수온	20~25℃
	성숙체장	21cm (全長)
습성	서식수온	10~28℃
	서식수층	5~200m
	식성	요각류, 단각류, 개형류, 등각류, 십각류, 유우파우시아 등
생활사		체장(cm) 15.9 19.3 22.2 24.6 26.6 28.3 체중(g) 49 88 133 181 229 277 (수명) 
어획량변동		
해역(어정)별 어기		• 동해 : 4~9월 • 남해 : 9~ 익년 1월 • 서해 및 동지나해 : 4~12월
어구별어기		• 기선저인망 : 10~익년 1월 • 선망:4~12월 • 안강망 : 5~10월 • 정치망:6~8월, 10~11월

자. 고등어

어종명 : 고등어 학 명 : Scomber japonicus Houttuyn 영 명 : Chub mackerel, Mackerel 일 명 : Masada マサバ	 농어目 고등어亞目 고등어科

고등어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한국 전연안(특히 남해안) 및 동지나해, 일본 전연안, 중국, 오끼나와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 1월~3월(2~3월) • 3월~5월 : 큐슈서안 • 5~7월 : 제주도 근해 • 6~7월 : 미시마 근해
	산란수온	15~23℃(최적수온 : 17~18℃)
	성숙체장	27cm(尾叉體長)
습 성	서식수온	7~25℃ (최적수온 : 15~19℃)
	서식수층	200m 以淺(10~100m 층에 최다) 주간 : 70~150m 야간 20~50m
	식 성	• 동물성 부유생물(소형갑각류) : 40% • 식물성 부유생물(규조류):30%→특히 겨울~봄 사이에 규조류 섭취 많다. • 어류(치어) : 10% • 기타 : 20%
생활사		체장(cm) 20 27 31 34 36 체중(g) 89 232 384 527 631 (수명) 
어획량변동		
어기어장 어기 (최성어기)		8~12월(9~10월)
어기어장 어장		남해안 일대와 서해남부 및 동해남부 해역
어장과환경 서식수온 (어획적수온)		7~25℃(15~19℃)
어장과환경 서식층		주간 : 50 ~ 100m 야간:25~50m
어장과환경 호어장		난류와 냉수간의 전선 및 약층연변의 그 난류해역
주어구어법		선망, 유자망

차. 전갱이

어종명 : 전갱이(전광어, 매가리, 가라지) 학 명 : Trachurus Japonica (Temminck et Schlegel) 영 명 : Jack mackerel 일 명 : Maaji マアヅ	 농어目 전갱이亞目 전갱이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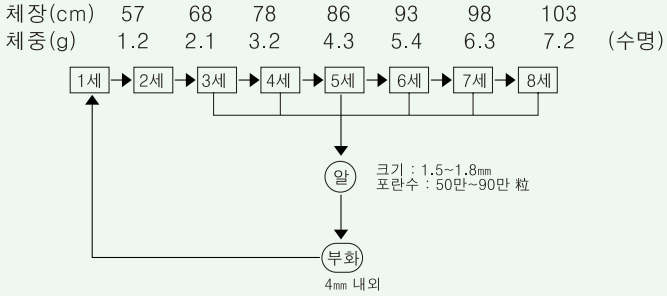
전갱이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남해 및 동해남부, 황해 · 동지나해, 일본중부이남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 3~6월 :제주도-미시마간의 해역, 일본큐슈서안 • 1~3월 : 동지나해 중부 • 11~1월 : 동지나해 남부
	산란수온	16~20℃
	성숙체장	24cm (尾叉體長)
습 성	서식수온	10~25℃ (최적수온 15~18℃)
	서식수층	0~120m ※ 성장함에 따라 점차 깊은 층으로 이동
	식 성	• 동물성 부유생물(코페포다, 유파우시아, 암피포다 등) • 어류(멸치, 눈퉁멸등의 치어)
생활사		체중(cm) 15 21 26 30 33 35 체중(g) 43 126 226 349 452 546 (수명)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7세 6개월 10~11cm 알 크기 : 0.8~0.9mm 포란수 : 2~18만 粒 2일 2개월 5~6cm ← 1개월 3~4cm ← 부화 2.5mm
어획량변동		
어기어장	어기	• 춘계(5~6월) • 추계(11~12월)
	어장	• 한국 : 제주도 주변 • 일본 : 대마도 – 미시마근해, 구주서해안
어장과환경	서식수온 (어획적수온)	10~25℃ (15~18℃)
	서식층	• 시기별 : 여름 얕은층, 가을 · 겨울 깊은층 • 일 별 : 주간 저층, 야근 중층 이천층
	호어장	• 저온저염의 연안수와 고온고염의 난류간 전선연변 • 난수괴와 냉수괴간 약층연변 • 와류나 대륙작용이 일어나는 도서연안
주어구어법		선망, 자망, 정치망

카. 삼치

어종명 : 삼치(전광어, 매가리, 가라지) 학 명 : Scomberomorus Niphonius (Cuvier et Valenciennes) 영 명 : Spanish mackerel 일 명 : Sawara	 농어目 고등어亞目 고등어科 삼치亞科

삼치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남해 및 서해(특히 남해서부), 일본 중부이남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4~6월 남해서부연안 및 서해중부연안(외연도~내연도)
	산란수온	12~18℃(최적수온:16 ~ 18℃)
	성숙체장	78cm(만3세)
습 성	서식수온	10~30℃ (최적수온 : 13~17℃)
	서식수층	• 표층~80m(15~30m 층에 최다) 여름 : 수심 얕은 연안측으로 접안 겨울 : 수심 깊은 외해측으로 이동
	식 성	• 치어기 : 동물성 부유생물 • 성어기 : 멸치, 까나리, 정어리 등의 소형어류
생활사		

타. 가자미

어종명 : 물가자미(감중어)
학 명 : Eopsetta grigoriewi(Herzenstein)
영 명 : Roundnos Flounder, shothole halibut
일 명 : Mushigarei ムツガレイ

가자미目 붕넙치科

물가자미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 포항이남의 한국전연안 • 대마서방해역(춘~하), 오도열도~남녀군도~제주도(추~동)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1~3월(성기 : 2~3월) 대마이동 95해구주변해역, 대마이서 106~102해구를 중심으로 한 해역
	산란수온	
	성숙체장	26.5cm (全長)
습 성	서식수온	10~20℃(다획수온 : 12~18℃)
	서식수층	200m 以淺
	식 성	소형갑각류, 소형오징어류, 소형어류
생 활 사		체장(cm) ♂ 9.3 15.5 20.6 24.9 28.4 31.4 34.0 36.1 ♀ 8.6 15.4 20.9 25.7 29.6 32.9 35.8 38.0 체중(g) ♂ 9 42 100 177 265 358 450 537 ♀ 7 41 105 193 297 406 515 621 (수명)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7세 → 8세 → 9세 알 크기 : 1.1~1.3㎜ 포란수 : 21만~93만 粒 부화
어획량변동 (가자미류)		년도 2002 2003 어획량(톤) 1,649 1,936
어기어장	어기 (최성어기)	12~5월(12~1월)
	어장	남서해와 동지나해 중부수역
어구어법		기선저인망, 안강망, 자망

파. 병어

어종명 : 병어 학 명 : Pampus argenteus(Euphrasen) 영 명 : Pomfret 일 명 : Managatsuo	 농어目 병어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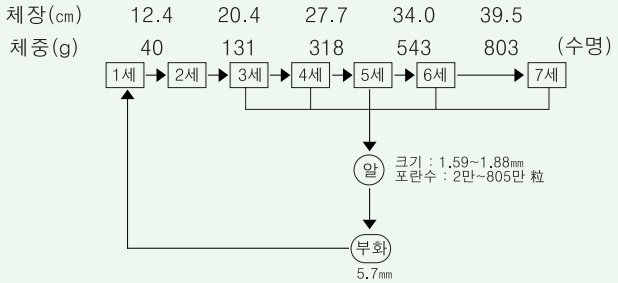
병어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한국서남해, 일본 남부, 동지나해	
산 란	산란기	6월
	산란장	서해 및 중국대륙연안
	산란수온	
	성숙체장	
습 성	서식수온	9~25℃(적수온 : 12~18℃)
	서식수층	40~130m
	식 성	해파리류, 유우파우시아류, 코페포다, 사지타, 살피다, 부유성플랑크톤
생활사		

하. 갈치

어종명 : 갈치 학 명 : Trichiurus lepturus Linne 영 명 : Hairtail, Ribbon fish 일 명 : Tachiuo	 농어目 갈치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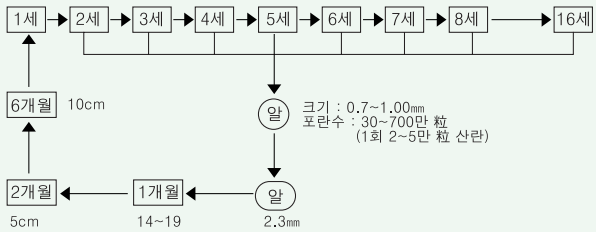
갈치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황해 및 동지나해(남해포함)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5~8월(성기 : 7월) 한국 남서해안, 바렌~온주만의 대륙연안
	산란수온	18~20℃
	성숙체장	25.7cm (頭胴長)
습 성	서식수온	7~25℃
	서식수층	5~140cm
	식 성	멸치, 갈치, 참조기, 보구치, 오징어류, 전갱이류, 단각류
생활사		

거. 참돔

어종명 : 참돔 학 명 : Chrysophrys major (Temmink et Schlegel) 영 명 : Red sea bream 일 명 : Madai	 농어目 도미(감성돔)科

참돔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동지나해(남해포함), 황해 및 발해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5~7월(6월) 해주만, 래주만연안, 구주서안, 북서안, 산구현외해역
	산란수온	15~17℃
	성숙체장	26cm
습 성	서식수온	10~25℃
	서식수층	100~150m 以淺
	식 성	게류, 새우류, 오징어류, 패류, 소형어류
생활사		체중(cm) 8.1 18.6 26.6 33.2 38.5 43.0 46.8 49.8 체중(g) 11 143 418 812 1,270 1,767 2,278 2,743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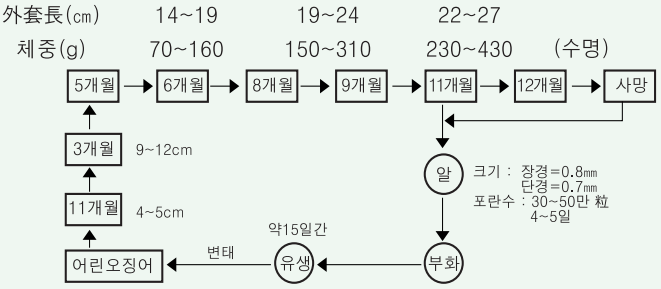
2. 연체동물

가. 두족류

1)오징어

어종명 : 오징어(피둥어 꼴뚜기) 학 명 : Todarodes pacificus Steenstrup 영 명 : Common squid 일 명 : Surumeika スルメイカ	 開眼亞目 빨강오징어科 오징어亞科

오징어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동지나해 황해 및 동해전역
산 란	산란기및 산란장	겨울 1~3월, 여름 : 6~8월, 가을 : 9~11월 동지나해 중북부~동해
	산란수온	10~21℃
	성숙체장	20cm(外套長)
습 성	서식수온	4~24℃ (최적수온 : 12~18℃)
	서식수층	• 표층 ~ 200m 전후 • 주간 : 100~200m 야간 : 20~50m
	식 성	• 어린오징어 : 동물성부유생물 • 큰 오징어 : 동물성부유생물, 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치어
생활사		
어획량변동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어획량(톤) 27,951 28,445 27,619 20,500 16,996
어기어장	어 기 (최성어기)	7~11월(9~10월)
	어 장	동해전역, 대화퇴주변, 서해중부일부
어장과환경	서식수온 (수 온)	5~27℃(12~18℃)
	이동 수평연직	• 춘-하계 색이이동 • 추-동계 산란장 남하이동 • 주간 : 60~100m 수층 • 야간 : 20~50m 수층
	호 어 장	• 한난류전선이 연안 가까이 남북으로 형성될 때 • 조회수심 300m 이천층에 15~20℃ 수온범위의 약층이 형성될 때
주어구어법		일본조, 정치망

2) 갑오징어

어종명 : 갑오징어 학 명 : Sepia esculenta(Hoyel) 영 명 : Cuttlefish 일 명 : Koika	 갑오징目 갑오징어科

갑오징어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황해 및 동지나해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남해안 : 4월중순~5월초순, 서해안 : 5월중순~6월초순 남서해연안 수심 10m 전후의 시니질
	산란수온	10~21℃
	성숙체장	
습 성	서식수온	
	서식수층	
	식 성	새우류, 게류, 소형어류, 오징어류, 문어류
생태적 특성	알의크기 : 16~21㎜ 포란수 : 1,000립 내외 성체의 크기 : 약 20cm 수명 : 1년	

이상의 수어종외, 방어, 우럭, 감성돔, 넙치(광어, 양미리, 까나리)등도 해산어의 어획에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담수어에 있어서는 속초시에는 본 시내에 쌍천과 청초호로 흘러가는 소하천이 있고 여기서 어획되는 중요 담수어류로서는 송어, 연어, 은어, 황어, 숭어, 버들개 등이 중요한 담수어종이다.

나. 갑각류

1)북쪽 분홍새우

어종명 : 북쪽 분홍새우 학 명 : Pandalus borealis(Kröyer) 영 명 : Pink shrimp 일 명 : Hokkokuakaebi	 십각目 철모새우科

북쪽 분홍새우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한국 동해안 및 일본해 전역
산 란	산란기 및 산란장	2~5월(성기:3~4월)
	산란수온	1.68~11.3℃
	성숙체장	25 mm전후(만 4령)
습 성	서식수온	1.68~11.3℃
	서식수층	200~550m
	식 성	갑각류, 패류, 다모류 등
생태적 특 성		개체 당 연간 산란회수 : 1회 난의 크기 : 1.16 x 0.82mm 수명 : 약 5년 포란수 : 평균 2,200립 성장(두흉갑창)

成長 \ 命期		1	2	3	4	5	6	7	8	9
수컷	갑장(㎜)	10	15	20						
	체중(g)	0.6	2.0	5.1						
암컷	갑장(㎜)				25					
	체중(g)				10.9					

2) 꽃게

어종명 : 꽃게 학 명 : Portunus trituberculatus(Miers) 영 명 : Blue crab 일 명 : Gazami	 십각目 꽃게科

꽃게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한국남서해 및 동지나해
산 란	산란기및 산 란 장	5 ~ 9월 (성기 : 6~7월) 수심 5 ~ 30m
	산란수온	15℃ 이상
	성숙체장	11㎝(甲幅)
습 성	서식수온	4~30℃ (10℃이하에서는 동면)
	서식수층	20 ~ 40m(어린게는 25m 以淺)
	식 성	二枚具, 갑각류, 다모류, 어류 등

생태적 특 성

- 알의 크기 : 0.32 ~ 0.34㎜(초기), 0.4㎜(후기)
- 포란수 : 200만 ~ 300만립
- 수명 : 2년
- 1개체 당 연간 산란회수 : 3 ~ 4회
- 성장식 : $L_t = 28.3\{1-e^{-0.239(t-1.680)}\}$ (단, t:월, L:갑폭, ㎝)

體長體重 \ 命期		1	2	3	4	5	6	12	16	18	max
수컷	전갑폭(㎜)										22
	체중(g)										
암컷	전갑폭(㎜)		2	6~7	12~14	14~17	冬	眠	17~19	19~22	26
	체중(g)			20	100~200	200~300			300~400	400~600	

3)대 게(영덕게)

어종명 : 대게(영덕게) 학 명 : Chionoecetes opilio(Fabriclus) 영 명 : Tanner crab 일 명 : Zuwaigani	 십각目 게亞目 물맞이게科

대게의 생태와 생활사

분 포	한국동해안, 베링해 및 알라스카연안	
산 란	산란기 및 산 란 장	경산군 : 1~4월(성기:2~3월), 초산군 : 8~9월(성기:9월) 한국동해안 및 일본해 일대의 수심 240~300m 부근해역
	산란수온	0.5~1.0℃이상
	성숙체장	137~138㎜(16命期의 甲幅)
습 성	서식수온	0.5~1.0℃
	서식수층	180~900m(해저)
	식 성	• 부유기:불명 • 저서생활중 갑각류, 쌍각류, 사미류, 어류, 두족류, 다모류 등 비교적 잡식성
생태적 특 성	• 포란수 : 평균 60,000립 • 난의 크기 : 0.9 ~ 1.1㎜(부화직전) • 성체의 탈피 : 2년에 1회 • 수명 : 약 18~20년 • 16명기의 갑폭 : 137 ~138㎜ • 성장식 수컷 : 미성체 : Ln+1=1.317Ln+0.770 성 체 : Ln+1=10.848Ln+27.428 암컷 : 미성체 : Ln+1=1.346Ln+0.479 성 체 : Ln+1=0.800Ln+23.100	

갑폭(㎜) \ 命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수컷	모우드 2.9~3.0	4.3~4.4	6~7	9~10	13~14	19~20	27~28	37~38	49~50	63~64	81~82	97~98	111~112	121~122	131~132
암컷	모우드 2.9~3.0	4.3~4.4	6~7	9~10	13~14	19~20	27~28	37~38	49~50	65~66	75~76	83~86			

이외의 무척추 동물로서는 전복, 성게, 해삼 등으로 중요한 나잠어업어획물이며, 속초지방의 해조류로서는 미역, 다시마, 감퇴, 파래 등이 있다.

제6장 속초시의 석호

1. 영랑호 유역의 자연현황

가. 유역의 개요

영랑호는 북쪽으로 국사봉(해발 83.8m), 서쪽으로 학사평 일부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산능선을 따라 개발된 486번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다. 영랑호로 유입되는 소하천은 상류의 한화프라자 부근에서 발원하여 중간의 농경지를 관류하면서 호수로 흘러 들어간다. 본 유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으로는 금호동, 장사동 전체와 영랑동, 동명동 일부이다. 호수에 인접한 금호동과 영랑동에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다. 영랑호는 저수량4,000천톤, 면적 1,024,000㎡, 둘레 7.7km, 평균수심 4.0m인 자연호로 호수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레저타운형 유원지가 개발되어 있어 연중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호소의 하구에 수문을 만들고 수위를 높임으로써 해수의 유입이 감소하고 담수화가 되어 있었으나, 2001년 말 호소 하구를 개방하여 현재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 다른 호소에 비해 수변지역이 비교적 잘 정비되었다.

영랑호는 2002년까지 준설을 실시하여 수질이 차츰 개선되고 있으며, 퇴적오니에 의한 악취발생이나 녹조현상이 줄어들었다. 또한 영랑호 주변 약 8km 정도는 하수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어 오염물질 유입이나 오염부하량이 적은 편이다.

〈 표 6)2-6-1 〉 영랑호 개요

행정구역	유역면적	호수면적	평균수심	용 도	비 고
속초시의 금호동, 장사동 전체, 영랑동, 동명동 일부	9.48㎢	1.045㎢	4.0m	관 광	호소저질 준설

나. 표고 분석

영랑호의 유입권은 대부분 50m 이하의 낮은 구릉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이 농경지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석호와는 달리 대부분 도시지역과 레저중심의 관광지로 구성되어있다.

〈 표 6)2-6-2 〉 영랑호 표고분석

표 고	면적(㎢)	비율(%)	비 고
0~10m	1.808	22.1	
10~20m	2.519	30.8	

표 고	면적(㎢)	비율(%)	비 고
20~30m	1.292	15.8	
30~40m	0.956	11.7	
40~50m	0.638	7.8	
50m이상	0.967	11.9	
합 계	8.18	100.0	

〈 그림 6)2-6-1 〉 영랑호 표고분석도

다. 경사분석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형이 많지 않고 대부분 이용 가능한 경사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 표 6)2-6-3 〉 영랑호 경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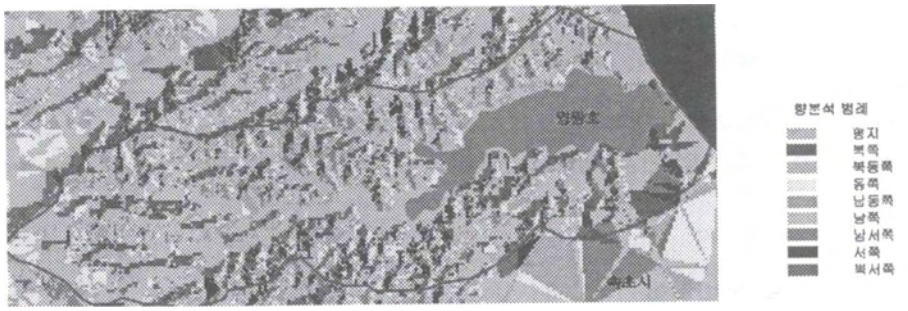
경 사	면적(㎢)	비율(%)	비 고
0~5%	2.585	31.6	
5~10%	0.933	11.4	
10~15%	0.793	9.7	
15~30%	2.323	28.4	
30~45%	1.202	14.7	
45~100%	0.344	4.2	
합 계	8.180	100.0	

〈 그림 6)2-6-2 〉 영랑호 경사분석도

라. 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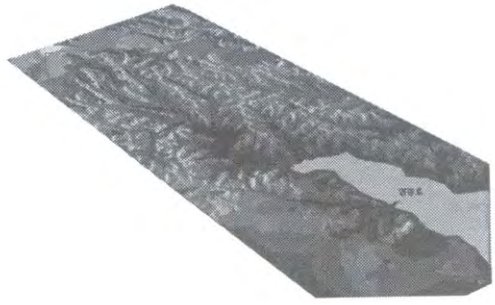
〈 표 6)2-6-4 〉 영랑호 향분석

향	면적(㎢)	비율(%)	향	면적(㎢)	비율(%)
북	1.055	12.9	북서	0.859	10.5
남	1.170	14.3	남동	1.153	14.1
동	1.047	12.8	남서	0.965	11.9
서	0.851	10.4	평지	0.017	0.2
북동	1.063	13.0	합계	8.1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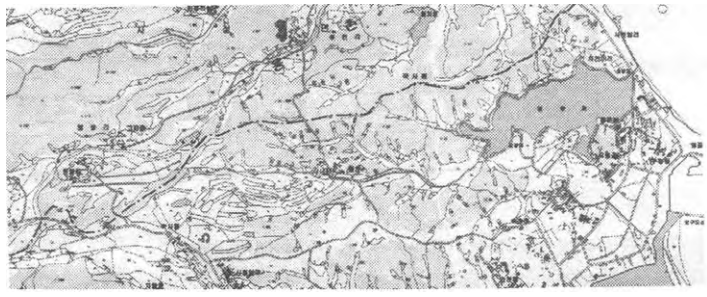
〈 그림 6)2-6-3 〉 영랑호 향분석도

마. 수문 분석



〈 그림 6)2-6-4 〉 영랑호 수문분석도

바. 자연환경현황도



〈 그림 6)2-6-5 〉 영랑호 유역의 자연환경현황도

자료 : 국토환경지도, 환경부, 2002. 10월 발행

2. 영랑호의 관리 및 개발현황

영랑호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이 규제되고 있다. 호소주변에는 골프장이 개발되고 있으며, 호소유역을 기업에 매각하기도 하는 등 개발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호소주변을 따라 리조트유원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유입하천인 장천유원은 농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 표 6)2-6-5 〉 영랑호의 정책현황

관련법규	토지이용규제	정책지향
도시계획법	지연녹지지역	개발지향

자료 : 원주지방환경관리청, 동해안 석호의 수질 개선방안, 2002.

3. 영랑호 유역의 현황

가. 유역내 세대수와 인구

2004년 현재 영랑호 유역내에 상주하는 세대수와 인구는 각각 8,027세대, 19,789명이다.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영랑동은 906.9인/㎢이며, 동명동과 금호동은 각각 6,361.5인/㎢, 5,508.7인/㎢으로 아파트단지인 금호동과 동명동에 밀집되어 있으며, 표 6)2-6-6은 유역내의 상주인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 표 6)2-6-6 〉 영랑호 유역내 세대수와 인구

행정동	세대수	인구(명)	인구밀도(㎢당)
영랑동	2,727	6,878	906.9
동명동	2,043	4,962	6,361.5
금호동	3,257	7,949	5,508.7
계	8,027	19,789	12,777.1

자료 : 속초시, 속초시통계연보, 2005.

나. 유역내 가축현황

영랑호 유역 중 영랑동에서 가축이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그 가축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6)2-6-7 〉 영랑호 유역내 가축현황 (단위 : 두, 마리)

행정동	한육우		꿀벌		개		산양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군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영랑동	24	208	1	200	10	130	1	19
동명동			1	50				
금호동	1	13	1	250				
계	25	221	3	500	10	130	1	19

자료 : 속초시, 속초시통계연보, 2005.

다. 유역내 토지이용현황

영랑호에 인접한 3개의 행정동의 총면적은 2,398,212㎡이다. 지목별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농경지와 임야 면적은 각각 156,799㎡(6.5%), 458,211㎡(19.1%)로 비중이 낮으며, 대지는 922,423㎡(38.5%)로 비중이 높아 도시적 토지 이용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 표 6)2-6-8 〉 영랑호 유역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행정동	농경지	임야	도로	대지	유원지	잡종지	총면적
영랑동	44,583	23,016	82,453	278,889	3,348	17,848	493,379
동명동	29,787	127,544	105,247	357,121	5,457	127,367	779,179
금호동	82,429	307,651	45,934	286,413	214,995	15,078	1,125,654
합계	156,799 (6.5%)	458,211 (19.1%)	233,634 (9.7%)	922,423 (38.5%)	223,800 (9.3%)	160,293 (6.7%)	2,398,212

주 : 농경지는 전,답을 포함. 자료 : 속초시, 속초시통계연보, 2005.

4. 영랑호 유역의 오염부하량과 수질현황

가. 오염물질 유입부하량

영랑호의 오염원은 위락시설을 포함한 생활하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이다. 이중에서 영랑호 남쪽지역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수의 양이 많아 수질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골프장 등 위락시설로부터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오염부하량도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일일 유입되는 오염물질 부하량은 평균 45.51 ㎏ BOD/day이다.

〈 표 6)2-6-9 〉 영랑호의 일일 오염물질 유입부하량

연도	BOD (㎏/day)	SS (㎏/day)	TN (㎏/day)	TP (㎏/day)
1998	39.18	80.56	20.27	0.94
1999	46.36	180.23	39.86	1.54

연도	BOD (kg/day)	SS (kg/day)	TN (kg/day)	TP (kg/day)
2000	50.99	191.29	48094	1.39
평균	45051	150.69	36.35	1.29

자료 : 원주지방환경관리청, 동해안 석호의 수질 개선방안, 2002.

나. 수질현황

영랑호의 오염정도는 심한 편이며, 우역면적과 수면적이 큰 편이므로 오염원의 분포도 매우 넓다.

1) 수온 (Temperature)

영랑호의 수온은 17.2~21.5℃의 범위로 평균수온은 18.6℃로 이다.

2) 수소이온농도 (pH)

영랑호의 수소이온농도는 8.35~9.51의 범위로 평균 8.82로 높은 편이다.

3) 용존산소량 (DO : Dissolved Oxygen)

영랑호의 용존산소량은 10.3~12.4㎎O2./ℓ의 범위로 평균 11.5㎎O2./ℓ이다.

4) 전기전도도 및 염분농도

영랑호의 전기전도도는 2.6~10.4m S/cm의 범의로 평균 7.2m S/cm이다. 염분농도는 평균4.1‰이며, 점차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5)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COD 농도는 평균 5.4㎎/ℓ로 Ⅲ등급의 수질상태로 보이고 있다. 98년 연평균 COD 농도는8.5㎎/ℓ로 매우 높았으나, 호소내 저질토 준설로 인해 99년에는 3.8㎎/ℓ로 수질이 개선되었다.

6) 투명도

영랑호의 투명도는 98년도에는 0.4m로 매우 혼탁하였으나, 99년 준설로 인해 투명도는 0.8m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후로 점차 개선되지 않았으며 평균 0.6m로 수질이 혼탁하다.

7) 부유물질농도 (SS)

영랑호의 평균 SS 농도는 13.2㎎/ℓ로 호소수질기준 Ⅲ등급 수준이며, 2000년에 26.2㎎/ℓ까지 SS 농도가 높아졌다가 감소하였다.

〈 표 6)2-6-10 〉 영랑호의 수질현황

연도	온도 (℃)	DO (mgO_2/ℓ)	SD (m)	COD (mgO_2/ℓ)	Sal.(‰)	Cond (mS/㎝)	pH	SS (㎎/ℓ)
1998	21.5	12.1	0.4	8.5	1.5	2.6	9.51	7.5
1999	17.4	10.3	0.8	3.8	3.6	6.5	8.87	9.4
2000	17.2	11.1	0.7	5.6	5.2	9.2	8.55	26.2
2001	18.4	12.4	0.5	3.8	5.9	10.4	8.35	9.6
평균	18.6	11.5	0.6	5.4	4.1	7.2	8.82	13.2

자료 : 원지방환경관리청, 삼척대학교, 석호 수질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2002

다. 동 · 식물플랑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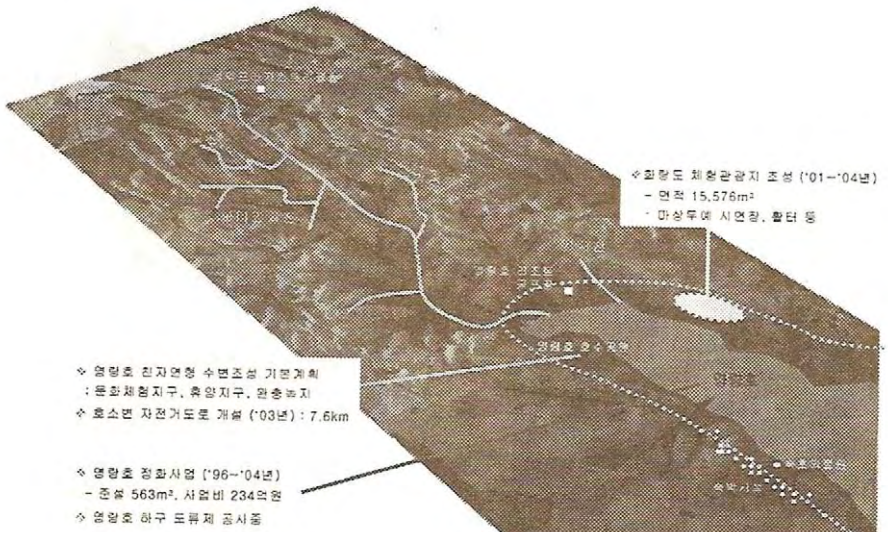
영랑호의 식물플랑크톤 우점종은 3월에는 *Cosmocladium sp*와 규조류인 *Melosira sp.*이며, 5월에는 *Cryptomonas sp.*과 *Chroococcus sp.*이다. 7월부터 11월까지는 남조류인 *Oscillatoria sp.*가 우점하고 있다. 동물플랑크톤의 경우에는 3월부터 9월까지 윤충류인 *Keratella cochlearis*가 주로 나타난다. 11월에는 원생물인 *Difflugia globulosa*와 윤충류인 *Monostyla closterocerca*가 우점하고 있다.

〈 표 6)2-6-11 〉 영랑호의 플랑크톤 우점종

월 별	식물프랑크톤	동물프랑크톤
3월	*Cosmocladium sp.* *Melosira sp*	*Conochilus unicomis* *Keratella cochlearis*
5월	*Cryptomonas sp.* *Chroococcus.*	*Difflugia sp.* *Keratella cochlearis*
7월	*Oscillatoria sp.* *Microcystis sp.*	*Filinia iongiseta* *Keratella cochiearis*
9월	*Anabdena sp.* *Oscillatoria sp.*	*Monostyla closterocerca* *Koratella cochlearis*
11월	*Oscillatoria sp.*	*Difflugia globulosa* *Monostyla closterocerca*

자료 : 원지방환경관리청, 삼척대학교, 석호 수질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2002.

5. 영랑호 유역의 현황분석도



〈 그림 6)2-6-6 〉 영랑호 유역의 현황분석도

6. 영랑호 유역의 문제점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부영양화 및 저서 퇴적오니의 혐기화에 의한 악취발생이 심각하며, 식물플랑크톤의 대량번식에 의한 녹조현상이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에 발생하고 있다 (남조류 독성에 의한 피해우려 및 수질악화 기여). 일주도로 건설로 호소주변 수초대가 소실되어 습지가 발달한 기수호의 특성을 많이 잃은 상태이며, 적은 유입수량과 굴곡이 심한 호소형태, 하구 막힘 현상에 의한 호소수의 순환불량, 자정능력 저하 및 오염물질 퇴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영랑호 주변개발(매립, 도로개설 등)로 인해 습지 식생대가 파괴되었으며, 저서생물군(조개류, 곤충류 등) 및 수중수초의 대부분이 사멸되었고 호소주변 갈대 등 수초류의 감소로 자정능력이 감소하고, 자연호소로서의 모습이 훼손되었다. 호소주변에 지속적으로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어 호소의 오염부하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상류지역의 수해복구 사업시 유입하천에 대한 안정성 위주시공(콘크리트사면)으로 자연정화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인근지역의 골프장 및 레져시설에 대한 농약살포 금지 및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되며, 생태골프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7. 청초호 유역의 자연환경

가. 유역의 개요

본 유역은 서측으로 달마봉(해발 635m), 북측으로는 학사평(해발 101.1m)을 끼고, 남측으로는 주봉산(해발 337.8), 청대산(230.8m)들의 연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동측으로는 속초시 청초호와 연결되어 있다. 청초호는 청초천과 10여개의 소규모 지천이 호소로 유입되고 있다. 이 중 유량이 가장 큰 유입 하천은 유역면적이 21.355㎢인 청초천이다. 청초천은 설악산 달마봉에서 기원하여 청초호로 동류하는 준용하천으로 청초천은 호수내 유입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지천의 유량은 극히 적은 편이며, 청초호 좌우로 소야평야가 펼쳐져 있다. 학사평에서 중하류의 척산교에 이르는 구간은 1/50의 하상경사를 보이며 그 이하 하류는 1/100의 완만한 경사를 가진다.

청초호면적은 879,863㎡, 호수둘레 4.276㎞, 유역면적은 30.53㎢ 이다. 속초시에 위치한 기수호로서 서측 및 남측의 수심은 0~3m, 북측은 4~5m, 중앙부는 5m 정도이며, 인접한 동해안의 조석은 최대조차 30㎝ 내외로 청초호의 수심변동은 매우 적은 편이다. 청초호는 어항, 상업항 등 복합 기능을 가진 호수로 동해안의 중심 어항의 역할을 하며 양양 철광산에서 채굴된 철광석이 청초호를 통하여 포항 제철소로 반출 또는 수출되는 등 해상교통으로서 중요하다. 속초시의 하주종말처리장은 2001년에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청초호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수산폐수 등의 대부분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다.

〈 표 6)2-6-12 〉 청초호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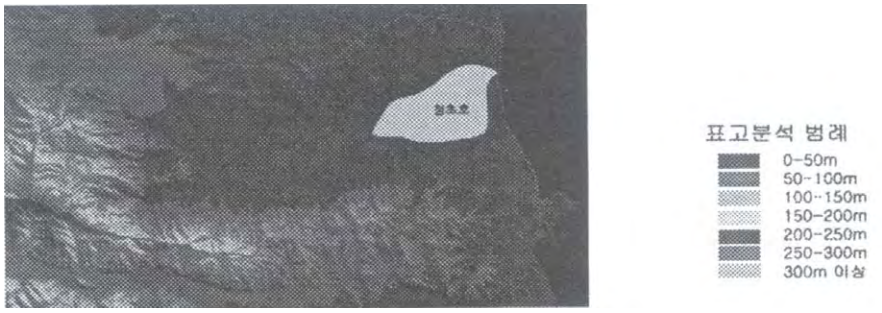
행정구역	유역면적	호수면적	평균수심	용도	비고
속초시 교동, 금호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30.53㎢	0.84㎢	4.0m	어업항, 상업항, 해상교통, 관광	호소저질 준설

나. 표고분석

〈 표 6)2-6-13 〉 청초호 표고분석

표고	면적(㎢)	비율(%)	비고
0~50m	14.472	54.09	
50~100	5.613	19.34	
100~150m	1.980	7.44	

표고	면적(㎢)	비율(%)	비고
150~200m	1.364	5.07	
200~250m	1.204	4.46	
250~300m	0.936	3.44	
300m이상	1.631	3.26	
합 계	26.750	100.00	



〈 그림 6)2-6-7 〉 청초호 표고분석도

다. 경사분석

〈 표 6)2-6-14 〉 청초호의 경사분석

경사	면적(㎢)	비율(%)	비고
0~5%	9.684	36.2	
5~10%	2.595	9.7	
10~15%	1.578	5.9	
15~30%	4.120	15.4	
30~45%	3.932	14.7	
45~100%	4.841	1801	
합 계	26.750	100.0	

〈 그림 6)2-6-8 〉 청초호 경사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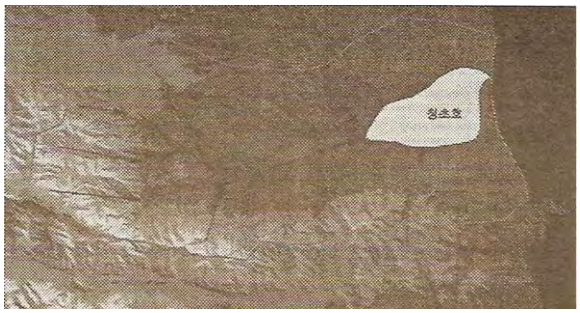
라. 향분석

〈 표 6)2-6-15 〉 청초호 향분석

향	면적(㎢)	비율(%)	향	면적(㎢)	비율(%)
북	4.173	45.6	북서	3.076	11.5
남	2.996	11.2	남동	3.852	14.4
동	3.504	13.1	남서	1.632	6.1
서	1.632	6.1	평지	1.525	5.7
북동	4.360	16.3	합계	26.750	100.0

〈 그림 6)2-6-9 〉 청초호 향분석도

마. 수문분석



〈 그림 6)2-6-10 〉 청초호 수문분석도

바. 자연환경현황도

청초호는 동해안 석호 중에서 가장 바다와 근접하여 위치한 호수로 주변지역은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유역권도 도시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림 및 농지가 적어 자연정화에 의한 수질개선이 어려운 지역이다.

〈 그림 6)2-6-11 〉 청초호 유역의 자연환경현황도
자료:국토환경지도, 환경부,2002.10

8. 청초호의 관리 및 개발현황

청초호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호소매립을 통해 위락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상업항을 개항하는 등 개발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초호 유원지개발계획(관광엑스포)에 의해 총면적 411,015㎥(육지 174,015㎥, 호소 237,000㎥)를 매립하였고, 남측과 서측의 수초대는 매립공사에 의해 거의 대부분 소멸되었다. 또한 호소주변에는 수산업과 관련된 조선, 수리, 기계제작소, 제빙, 냉동, 식품가공업 등의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청초천 유역은 농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 표 6)2-6-16 〉 청초호의 정책현황

관련법규	토지이용규제	정책지향
도시계획법	지연녹지지역	개발지향

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하구 · 석호 육해전이수역 통합환경관리방안연구, 2001.

9. 청초호 유역의 현황

가. 유역내 세대수와 인구

청초호 유역 내에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교동의 인구밀도는 19,333인/㎢로 청초호에 인접해 있는 행정동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며, 청호동, 금호동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2004년 현재 유역내의 총 세대수와 인구는 각각 27,427세대, 71,971명으로 표 6)2-6-17과 같다.

〈 표 6)2-6-17 〉 청초호 유역내의 세대수와 인구수

행정동	세대수	인구(명)	인구밀도(㎢당)
노학동	8,768	23,155	1,038.3
조양동	7,830	21,442	3,822.1
교동	5,387	14,213	18,950.6
금호동	3,257	7,949	5,508.7
청호동	2,185	5,212	5,604.3
합계	27,427	71,971	34,924

자료 : 속초시, 속초시통계연보, 2005.

나. 유역내 가축현황

유역내의 가축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표 6)2-6-18과 같이 노학동에서 가축이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주로 닭이 사육되고 있다. 이 외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개가 많이 사육되고 있고, 총 가축수는 닭이 904마리, 개가 627마리, 오리가 220마리 순이다.

〈 표 6)2-6-18 〉 청초호 유역내 가축현황 (단위 : 두, 마리)

지역	한육우		오리		닭		사슴		개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노학동	20	144	8	220	34	892	4	64	130	477
조양동	1	4			3	12	1	8	42	150
교 동										
금호동	1	13								
청호동										
계	22	161	8	220	37	904	5	72	172	627

자료 : 속초시, 속초시통계연보, 2005.

다. 유역내 토지이용현황

청초호 유역내 토지면적은 37,455,372㎡이다. 지목별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도시적 토지이용 형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랑호와는 달리 대부분 임야와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다. 임야와 농경지의 비율은 각각 57.9%, 14.4%로 높으며, 이 외에 대지가 9.9%, 도로가 4.2%를 차지하고 있다.

〈 표 6)2-6-19 〉 청초호 유역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지역	농경지	임야	도로	대지	유원지	잡종지	총면적
노학동	2,959,764	14,920,415	453,565	707,542	-	182,002	2,0271,665
조양동	1,195,637	2,551,634	508,906	910,242	-	145,201	6,002,293

지역	농경지	임야	도로	대지	유원지	잡종지	총면적
교 동	189,588	473,523	385,446	1,084,051	-	142,610	2,470,722
금호동	83,241	307,651	45,934	286,413	-	15,078	1,125,654
청호동	-	25,194	53,455	216,055	-	182,604	519,747
장사동	962,394	3,401,992	142,608	466,108	174,998	75,039	7,065,291
총면적	5,390,624 (14.4%)	21,680,409 (57.9%)	1,589,914 (4.2%)	3,670,411 (9.9%)	174,998 (0.5%)	742,534 (2%)	37,455,372

주 : 농경지는 전, 답을 포함, 자료 : 속초시, 속초시통계연보, 2004.

10. 청초호 유역의 오염부하량과 수질현황

가. 오염물질 유입부하량

청초호의 오염원은 호소 주변에 발달된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장폐수, 수산폐수, 생활하수 등이다. 또한 도로, 하천부지, 대지 등이 17%로 이들 토지이용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오염유출량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청초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은 154.57㎏ BOD/day 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6)2-6-20 〉 청초호의 일일 오염물질 유입부하량

연도	BOD (㎏/day)	SS (㎏/day)	TN (㎏/day)	TP (㎏/day)
1998	106.65	426.64	108.99	7.10
1999	205.22	376.92	104.47	3.55
2000	151.83	217.70	86.34	2.15
평균	154.57	340.42	99.94	4.27

자료 : 원주지방환경관리청, 동해안 석호의 수질 개선방안, 2002.

나. 수질현황

1) 수 온 (Temperature)

청초호의 수온은 16.6~21.5℃의 범위로 평균수온은 18.4℃이다.

2) 수소이온농도 (pH)

청초호의 수소이온농도는 7.91~8.50의 범위로 평균 8.11이며, 이는 해역 수질 환경기준 Ⅱ등급에 해당한다.

3) 용존산소량 (DO : Dissolved Oxygen)

청초호의 용존산소량은 10.1~14.0㎎O2/ℓ의 범위로 평균 11.2㎎O2/ℓ이다.

4) 전기전도도 및 염분농도

청초호의 전기전도도는 33.8~37.2m S/cm의 범위로 평균 36.0m S/cm로 높다. 또한 염분농도의 경우에도 평균 22.8‰로 해수호에 가까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항만과 호소하구가 연결되어 있어 해수의 유출입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5)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COD 농도는 평균 3.1㎎/ℓ으로 해역수질 환경기준 Ⅲ등급을 초과하고 있다.

6) 투명도

청초호의 투명도는 평균 0.9m로 낮다.

7) 부유물질농도 (SS)

청초호의 평균 SS 농도는 26.2㎎/ℓ로 호소수질기준 V등급 수준이며, 2000년에는 43.1㎎/ℓ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

〈 표 6)2-6-21 〉 청초호의 수질현황

연도	온도 (℃)	DO (㎎O₂/ℓ)	SD (m)	COD (㎎O₂/ℓ)	Sal (‰)	Cond (mS/㎝)	pH	SS (㎎/ℓ)
1998	21.5	14.0	0.7	3.4	23.9	36.5	8.50	21.8
1999	16.6	10.1	0.8	3.0	23.4	3702	8.10	20.4
2000	18.7	10.3	1.1	3.1	22.3	36.5	7.93	43.1
2001	16.9	10.4	1.0	3.0	21.6	33.8	7.91	19.4
평균	18.4	11.2	0.9	3.1	22.8	36.0	8.11	26.2

자료 :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삼척대학교, 석호 수질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2002.

다. 동 · 식물플랑크톤

청초호의 식물플랑크톤의 우점종을 살펴보면 3월에는 남조류인 *Coelastrun sp.*가 우점하고 있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녹조류인 *Microspora sp.*가 우점하고 있다. 동물 플랑크톤의 경우에는 후생동물의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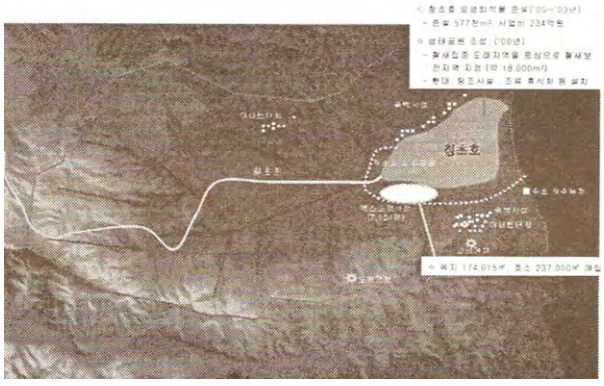
충류인 *Conochilus unicornis*가 3월과 5월에, *Brachionus sp.*는 7월에 각각 우점하고 있으며, 9월과 11월에는 *Monostyla opias*, *Monostyla cldsterocerca* 등이 주로 나타난다.

〈 표 6)2-6-22 〉 청초호의 플랑크톤 우점종

월 별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3월	*Coelastrum sp.*	*Conochilus unicornis*
5월	*Microspora sp.* *Melosira sp.*	*Conochilus unicornis* *Difflugia sp.*
7월	*Microspora sp.* *Euglena sp.*	*Brachionus sp.*
9월	*Microspora sp.* *Cyclotella sp.*	*Monostyla opias* *Monostyla cldsterocerca*
11월	*Microspora sp.* *Peridinium sp.*	*Nauplius* *Monostyla cldsterocerca*

자료 :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삼척대학교, 석호 수질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2002

11. 청초호 유역의 현황분석도



〈 그림 6)2-6-12 〉 청초호 유역의 현황분석도

12. 청초호의 준설사업

가. 준설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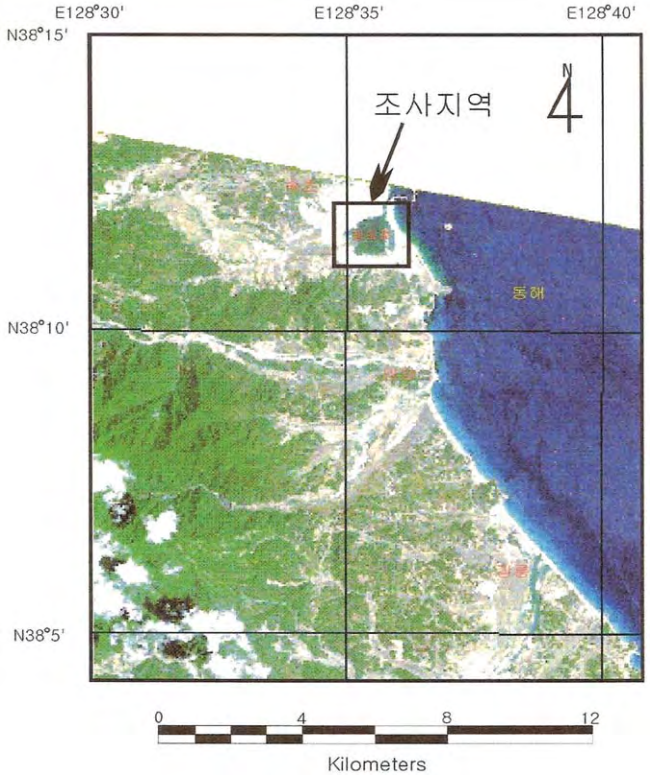
청초호 오니 준설사업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청초호 저상 혹은 그 하부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폐기물 및 위험물을 파악하기 위하여 호저지형, 지층조사, 호저면상태조사, 지자기조사 등 종합적인 호저조사를 실시한다.

준설조사지역은 그림 6)2-6-13과 그림 6)2-6-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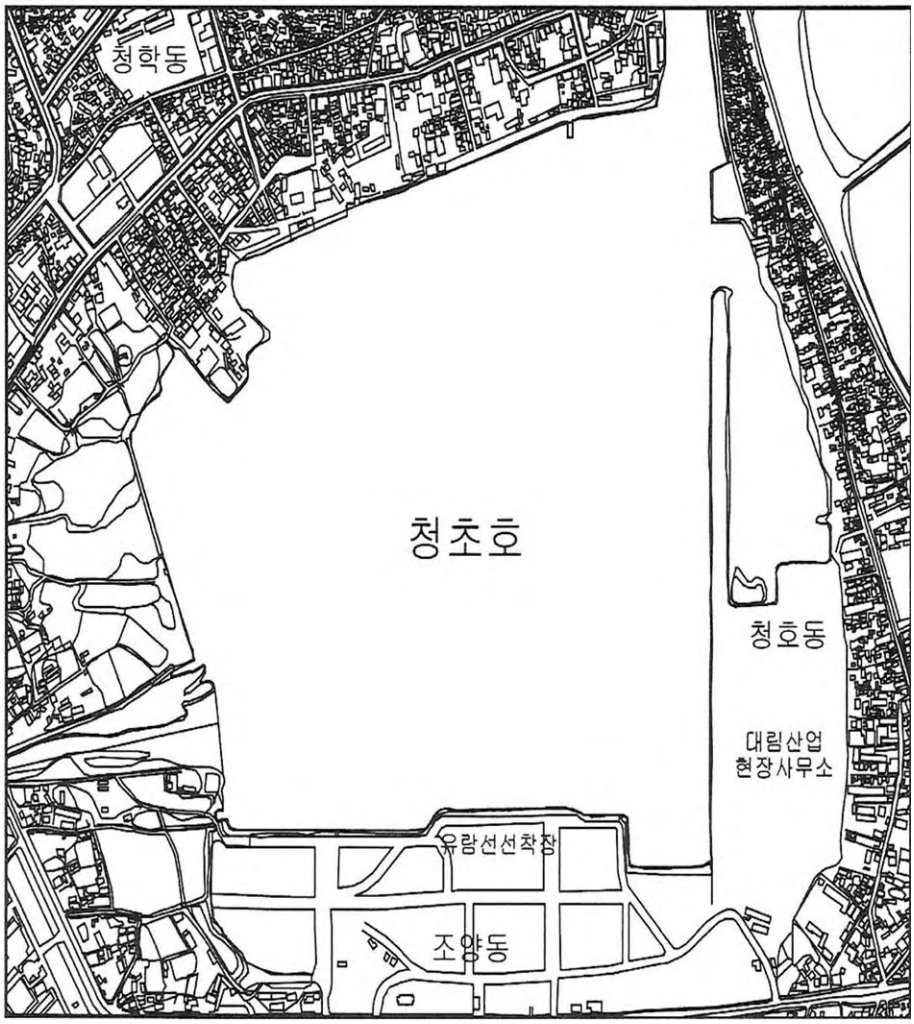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과 청호동에 속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로 연해있고, 서쪽으로는 설악산 등 남북으로 발달된 산맥에 접하고 있다. 준설조사지역은 청초호의 내부로 약 800m×800m 크기의 해면사구 호내이다. 지자기, 측심 및 호저지층조사는 약 10m간격으로 조사하며, 호저면 영상조사는 기기의 측정범위를 고려하여 50m간격으로 조사한다. 측선조사시 선박 또는 기타 구조물에 의하여 항해가 어려운 지역은 우회조사 하고, 일반적으로 선박의 접근곤란으로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상황에 따라 임시측선을 설정하여 조사한다.

청초호 준설을 위한 조사는 호저면상 혹은 오니나 퇴적층내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이나 포탄 등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심측량, 호저지층탐사, 호저면영상조사, 지자기 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방법이 적용되었다.

조사자료의 정확한 탐사위치 확보를 위하여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운영하여 조사선의 위치를 매 초단위로 관측하였으며, 그 좌표를 개인용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수록하였다. 호저퇴적물은 중력낙하 코아채취기를 이용하여 채취,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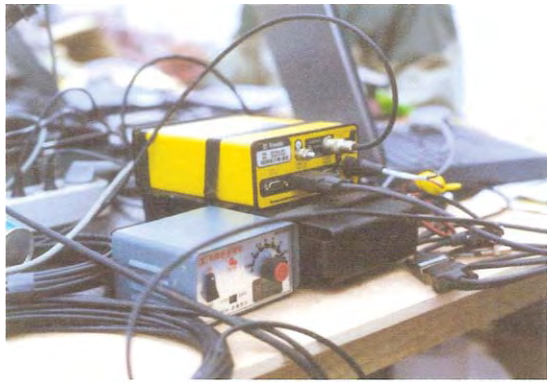
〈 그림 6)2-6-13 〉 Landsat인공위성사진에서 준설위치



〈 그림 6)2-6-14 〉 청초호 지역도

나. 조사방법

일반적으로 해상에서의 위치는 인공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획득되지만 위치좌표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해양조사에서는 DGPS(Differential GPS)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측량된 육상지점에서 별도의 원거리고정국을 운영하여 조사선의 해상위치를 보정하게 된다. 준설사업에 필요산 조사에서는 사진 6)2-6-1와 사진 6)2-6-2과 같이 Trimble DGPS를 사용하였으며, 보정된 정밀위치 자료는 일 초 단위 기간간격으로 수신되어 DGPS운영컴퓨터에 입력되면서 모니터상에는 현재의 조사선 위치가 사진 6)2-6-3과 같이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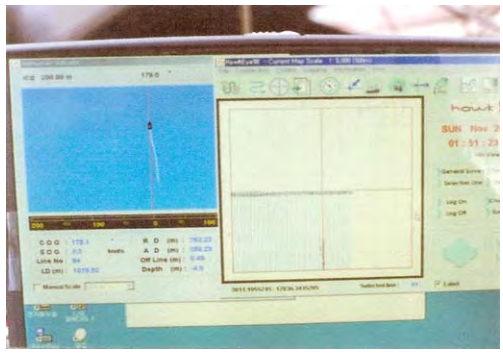


〈 사진 6)2-6-1 〉 Trimble DGPS 콘솔

자료 : 대림산업㈜

〈 사진 6)2-6-2 〉 Trimble DGPS 안테나

자료 : 대림산업㈜



〈 사진 6)2-6-3 〉 DGPS 운영 및 항해관리 컴퓨터

자료 : 대림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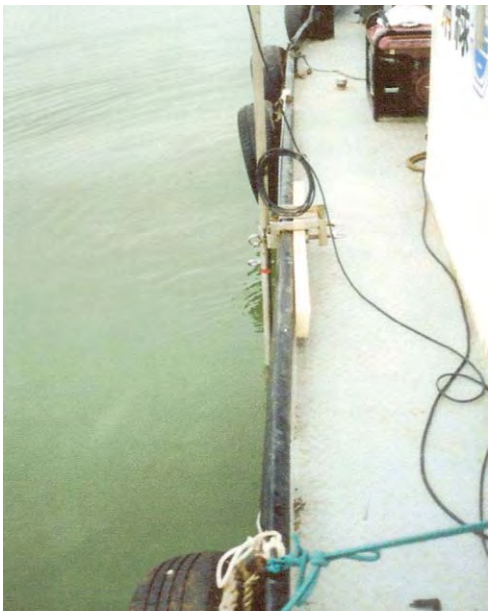
다. 수심측량

수심측량은 사진 6)2-6-4와 같이 Echo-Sounder(Precision Survey Fathometer)모델 DE719D Mk2형을 사용하였으며, 중심주파수 208㎑ 송·수파기와 열감응기록 방식의 레코더로 구성된다. 최대측심 가능심도는 200m까지이며, 천해용 정밀음향측심기로 분류된다.

〈 사진 6)2-6-4 〉 수심측량기 본체

자료 : 대림산업㈜

수심측량은 사진 6)2-6-5와 같이 음파발·수신기를 조사선박 측면에 고정하여 호저에 중심주파수의 음파를 발신하도록 하였고, 선상에서 고해상 정밀음향측심기로 매초마다 호저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수신토록하여 수치자료와 그래픽자료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 사진 6)2-6-5 〉 수심측량기 설치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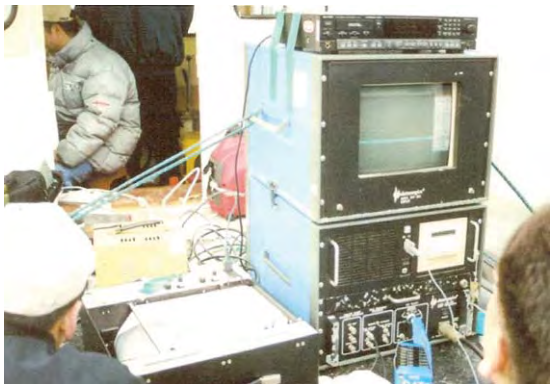
자료 : 대림산업㈜

라. 지층탐사

지층탐사에 사용된 장비는 사진 6)2-6-6과 같이 Chirp Sonar 시스템으로서 음파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수중예인체와 조사선의 실험실에서 설치 운영되는 신호 제어부로 구분된다. 수중예인체는 조사선 측면 또는 후미에서 예인되며 내부에는 음파를 발신하는 변환기와 반사를 수신하는 음향수진지가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다. 지층탐사는 수심측량과 동시에 수행하며, 음파발신 간격은 초당 4회씩으로 고정하여 탐사자료가 획득되고 음원인 수중예인체는 조사선 현측에서 수면하 약 1m깊이로 예인되었다. 신호제어부는 사진 6)2-6-7과 같이 음파에너지를 지층탐사 신호를 계수화처리하여 출력하는 전용컴퓨터로 구성된다.

〈 사진 6)2-6-6 〉 지층탐사장비 센서

자료 : 대림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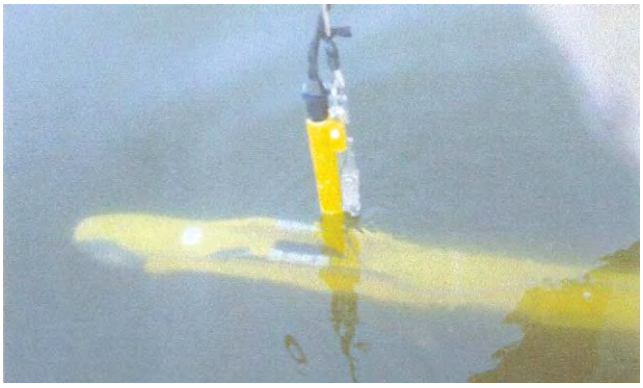
〈 사진 6)2-6-7 〉 지층탐사장비 본체

자료 : 대림산업㈜

마. 호저면영상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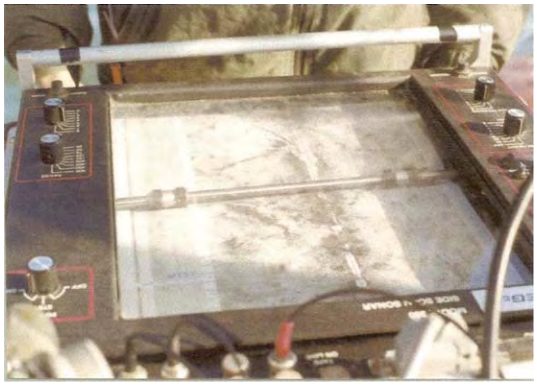
SSS(Side Scan Sonar)를 이용하는 호저면 탐사방법은 수심이나 호저지

층탐사와 같이 수직단면을 탐사하여 호저지형이나 호저면 하부의 지층구조를 조사하는 방법과는 달리 호저면을 평면적으로 탐사하여 마치 항공사진을 촬영하듯이 호저면의 형태를 표현하게 된다. 사용된 장비는 사진 6)2-6-8과 사진 6)2-6-9과 같이 SMS260모델의 선상제어부 및 영상자료 기록계와 272TD모델의 수중예인체(two-fish)로 구성되어 있다.



〈 사진 6)2-6-8 〉 SMS260 센서

자료 : 대림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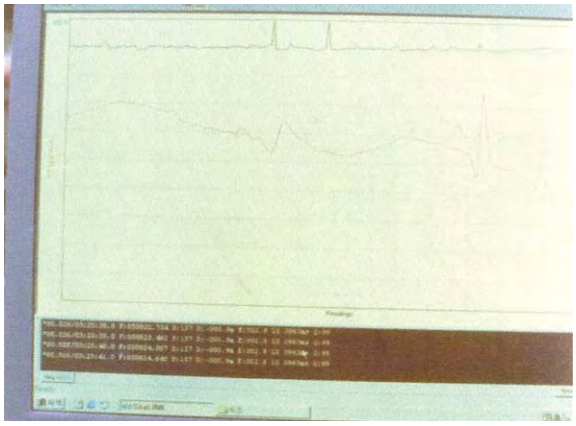
〈 사진 6)2-6-9 〉 SMS260 영상자료 기록계

자료 : 대림산업㈜

바. 지자기 탐사

해상자력계는 사진 6)2-6-10과 사진 6)2-6-11과 같이 오버하우져형의 총성분측정 자력계로서 Marine Magnetics사의 SeaSpy이다. 300m신호케이블과 센서, 컴퓨터 인터페이스 및 신호제어용 컴퓨터, logging S/W 등과 같이 기존의 자력계에 비해서 훨씬 단편화되고 향상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육상자력계는 미국 Geometrics사에서 제작한 G866디지털프로톤 자력계이며, 센서와 50m케이블 콘솔 및 신호제어용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 사진 6)2-6-10 〉 해상자력계 센서와 케이블
자료 : 대림산업㈜



〈 사진 6)2-6-11 〉 노트북을 이용한 지자기 실시간 기록장면
자료 : 대림산업㈜

호상지자기자료는 소형어선과 해상자력계를 이용하여 청초호내에서 약 10m간격의 측선을 따라서 지자기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육상고정관측자료에 있어서 지자기는 일반적으로 하루 단위의 뚜렷한 주기를 갖는 시간적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때때로 주기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매우 큰폭의 불규칙한 변화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지자기의 시간적 변화는 호저에 존재하는 자성체에 의한 자기이상효과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하여 소거해야 한다. 지자기고정관측소는 사진 6)2-6-12와 같이 호상지자기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청초호 인근 지역에 인공적인 잡음이 적은 곳에 설치운영하였으며, 센서는 옥외로 약 50m밖에 설치하고, 컴퓨터와 기록계는 실내에 설치하였다.(사진 6)2-6-13 참조)

〈 사진 6)2-6-12 〉 육상자력계설치모습

자료 : 대림산업㈜

〈 사진 6)2-6-13 〉 육상자력계 콘솔과 노트북

자료 : 대림산업㈜

13. 청초호 유역의 문제점

청초호는 도심지의 자동차 매연가스 등에 의해 호소수질이 오염되는 등 도시 및 농촌형의 환경오염원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소 바닥의 퇴적오니에 의한 오염물질 용출 및 부상으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나, 퇴적오니준설로 인하여 많이 향상되었다.

청초호 유원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새 등의 서식공간 축소 및 파괴가 심화되고 있으며, 항만(제1종 무역항)의 기능수행으로 선박에 의한 유류 유출 등 오염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제7장 해안침식(海岸侵蝕)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 및 여가 선용을 위해 관광지를 찾고 있다. 특히, 동해안은 대부분이 국민들이 가보고 싶은 곳 1위에 꼽히는 전통적인 관광명소 이다. 동해안이 이와 같은 명소로 인정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청정한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백사장 때문이다. 백사장이 없는 동해안은 아마 황량한 바닷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해안은 태풍과 폭풍해일로부터 육지를 보호하는 완충 작용을 하며, 해수욕장 및 아름다운 해안의 자연경관을 포함한 자연적, 심미적 가치 등의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안을 보존하는 것은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방재적인 측면과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연이 내린 소중한 선물인 해안의 백사장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해안침식이란 무엇이며, 발생원인 및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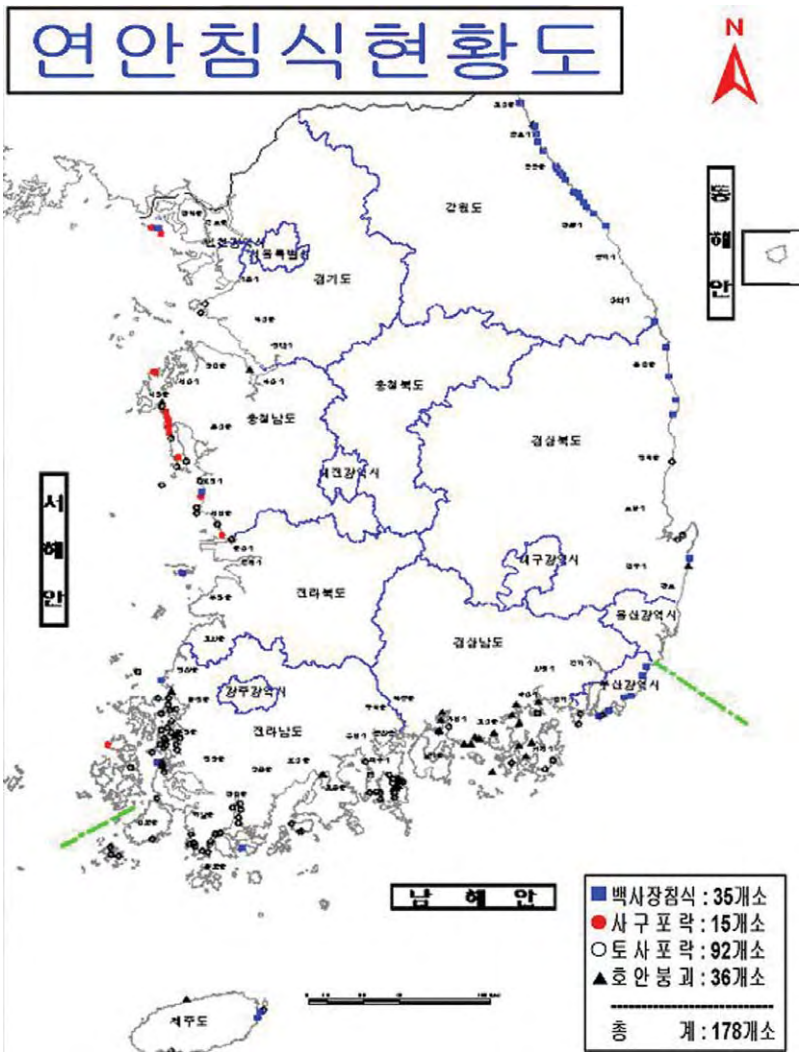
1. 해안침식이란?

해안으로부터 토사가 반출되어 정선이 후퇴하는 현상을 해안 침식이라 하며, 침식은 육지의 형태가 깎여 없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안선의 길이는 약 11,524km로 육지면적에 비해 해안선이 길이가 매우 길며, 과거에는 군사상의 목적으로 출입 및 개발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비교적 보전이 잘 된 상태를 유지해왔다. 1980년대 이후 이념대립의 벽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해안의 개발을 어느 정도 허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국민 생활여건 향상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국적으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다.

2. 해안침식현황

그림 6)2-7-1은 해양수산부의 제1차 연안정비계획에 의해 침식방지대상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안의 지형특성과 침식발생 현상을 고려한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침식대상지역을 백사장 침식, 사구포락, 토사포락, 호안붕괴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 그림 6)2-7-1 〉 전국 연안침식 현황도

침식지역 분류결과, 229개 대상지역 중 백사장 침식지역은 50개소이며, 침식지역 중 토사포락, 호안붕괴 지역이 128개소이고, 친수공간조성 등 침식과 관련 없는 사업은 51개소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백사장 침식지역도 상당히 많다. 동해안은 백사장 침식이 20개소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항만 및 도류제 등 해안구조물에 의해 발생하였고, 남해안의 경우는 토사의 공급이 줄어든 상황하에서 태풍 등의 내습에 의한 침식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안의 백사장 침식지역은 5개소로 해안도로, 직립호안 등의 설치 및 폭풍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5개소에 이르는 사구침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6)2-7-1은 침식형태 분류결과를 동, 서, 남해안 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 표 6)2-7-1 〉 해역별, 침식유형 구분

해역	구분	개소	주요 침식 원인	대표지역
동해안	백사장 침식	20	• 항만 및 어항건설에 따른 표사 이동체계 변화	사진항, 속초항, 기사문항, 호산항, 구산항, 오산항, 죽변항, 후포항 인근 백사장 등
			사구 포락	양양군 남애~지경 해안, 울진군 동신동, 봉신리 해안 등
			소계	강릉시 강문해수욕장, 울주군 진하 해수욕장,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등
			백사장침식	강릉시 강문항, 삼척시 호산해수욕장, 울진군 봉신2리 등
	사구 포락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소계	20		
남해안	백사장 침식	10	• 하계 태풍 및 폭풍해일 내습 • 인공구조물(어항, 호안(도로) 등) 건설 후, 모래유실 심화	부산시 해운대, 광안리, 송도, 남해상주, 제주 이호해수욕장 등 남해안 주요 백사장
	사구 포락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소계	10		
서해안	백사장 침식	5	• 태풍 및 폭풍해일에 의한 침식 • 배후지 개발 및 호안설치에 의한 모래이동성 차단으로 모래유실 심화	강화군 주문도리, 군산시 선유도, 영광군 두우리, 보령시 무창포, 목포시 외달도
	사구 포락	15	• 18.6년 조석주기에 따른 해면 변동으로 침, 퇴적 반복 • 장기적인 해면상승으로 피해 범위가 내륙으로 확대 • 해사채취에 의한 모래총량 감소	서해안 백사장 및 사구지역
			• 과거 해안으로 무리하게 확장 하여 수행한 조림사업	보령시 독산리, 서천군 송림리 등
			• 호안 및 구조물 건설에 따른 해안 사구의 파괴, 모래이동성 차단	태안군 신온리, 장곡리, 보령시 독산리 등
	소계	20		

가. 속초시의 해안 침식발생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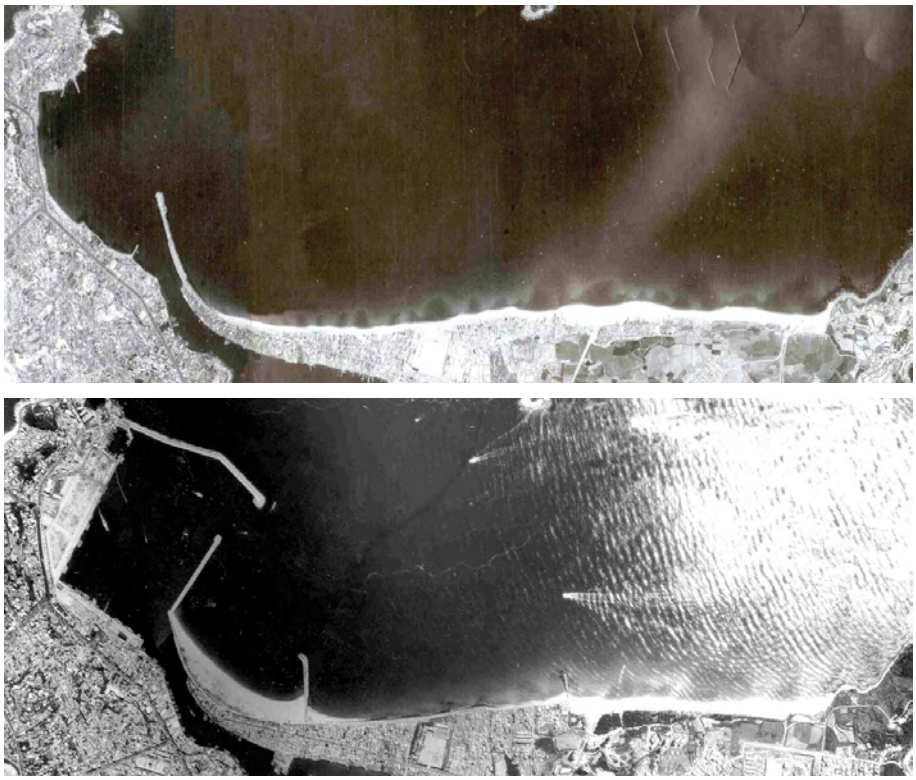
속초시 관내의 해안침식발생 사례로는 조양동과 영랑동 해안침식사례를 들 수 있다. 1972년 속초항 건설 전에는 속초시 조양동 전면해안에 백사장이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속초항 개발 및 방사제가 축조가 완료된 1997년에는 속초항 인근 방사제 내측에는 다소 퇴적되었으나, 조양동 전면해안에는 침식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1년에는 배후지와 방파호안을 보호하기 위해 호안전면에 TTP를 설치하였으나, 지속적인 침식으로 2003년에는 호안 전면의 세굴이 심화되고 있다. 속초시 조양동 해안은 속초항 건설 후 침·퇴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호안 및 소파공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침식이 발생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랑동해안은 북측의 사진항 건설 이후, 유입되는 토사의 감소와, 내습하는 파랑에 의해 해안침식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는 해안침식을 방

지하기 위해서 해드랜드와 잠제의 설치하여 영랑호 및 영금정과 연계한 해양공간을 조성해 수상레포츠 및 해수욕장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사진 6)2-7-1(a)는 속초시 조양동 해안의 침식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사진 6)2-7-1(b)는 영랑동해안의 1970년대의 영랑동해안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또, 속초시 영랑동 해안가와 고성군 봉호, 천진, 대진항, 양양군 남애항과 두창시변리 등 곳곳에서 육안으로 관측될 정도의 침식이 진행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a) 속초시 조양동 해안의 침식사례

(b)영랑동해안의 해안침식사례

〈 사진 6)2-7-1 〉 속초시 관내의 해안침식사례

나. 인근 지역의 해안침식 발생사례

해안침식은 속초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강릉 강문해수욕장은 경포해수욕장 남단에 위치하며 경포호 입구를 사이에 두고 있다. 계속되는 입구부 폐쇄가 발생하여 그 대안으로 1996년에 경포호 입구부에 도류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도류제 설치이후 강문해수욕장의 급격한 침식이 발생하자, 2003년에 침식방지를 위하여 도류제를 해수욕장 쪽으로 굴곡 연장하였고, 이후 도류제 부근은 조금 퇴적되었으나 전반적인 해빈폭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 주문진의 해안도로는 2004년 가을 약 150m가 유실되었는데 도로에 인접한 해안가의 침식이 원인이었다. 해안에 방파제와 돌제가 바다를 향해 돌출돼 있어 백사장 모래가 여름에는 북쪽으로, 겨울에는 남쪽으로 옮겨가는 자연적인 모래이동을 막았기 때문이다.

강릉 남항진 일대에서는 횟집 앞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나고 옹벽이 유실되면서 복지회관까지 붕괴될 위기에 처했었으며, 안목항은 방파제가 건설된 이후 항구에 모래가 쌓여 어선의 입출항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삼척 호산해수욕장은 1994년 하구에서의 대규모 모래채취와 1997년에 호산항 방파제 및 방사제가 건설 및 규사 채취에 의해 해빈폭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모래의 유실로 인해 해빈의 자갈화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에서 평해읍 월송리에 이르는 해안과, 울진군 봉평리 해안에서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3. 해안침식의 발생원인

해안침식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되는 현상이지만, 주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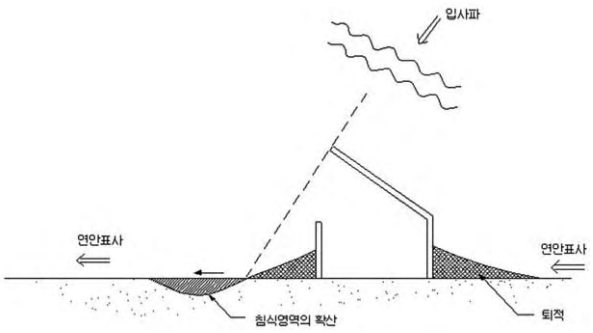
하천상류에 댐 건설, 하천에서의 토사 채취, 하천개수로 인한 유출토사량 감소 등에 의한 해안에 공급되는 토사량이 감소와 항만 · 어항의 건설 및 방파제, 도류제 등 해안구조물 설치에 따른 연안표사 저지를 그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해안과 같이 연안표사가 탁월한 해안에서는 국부적으로 항만 · 어항 등과 같은 해안구조물이 건설됨으로서 해안을 따라 평행하게 움직이는 연안표사가 저지되고, 이로 인해 구조물 주변의 백사장 침식이 발생되고 항내에는 항내매몰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현상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동해안 대부분의 경우가 이와 같은 상황의 해안침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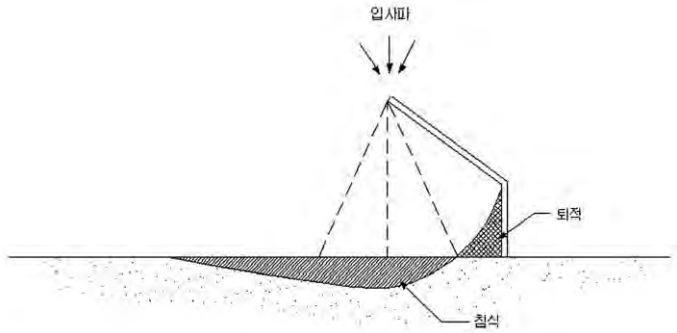
가. 해안침식의 발생형태

섬나라인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해안침식의 피해를 경험하고 현재 활발한 연구와 대책공법 개발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宇多(2004)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해안침식의 대표적인 7가지 형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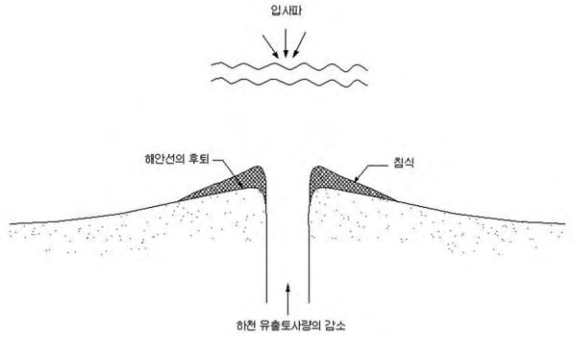
①탁월 연안표사의 저지에 의한 해안침식 (그림 6)2-7-2)
②파의 차폐영역 형서에 따라 주변해안에서 생기는 해안침식 (그림 6)2-7-3)
③하천 공급토사량의 감소에 따른 해안침식 (그림 6)2-7-4)
④침식대책을 위한 이안제 건설에 기인하는 주변해안의 침식 (그림 6)2-7-5)
⑤해사채취 또는 항로준설에 따른 해안침식 (그림 6)2-7-6)
⑥보안림의 과도안 전진에 따른 해빈의 상실 (그림 6)2-7-7)
⑦호안의 과도한 돌출에 기인하는 모래사장의 상실 (그림 6)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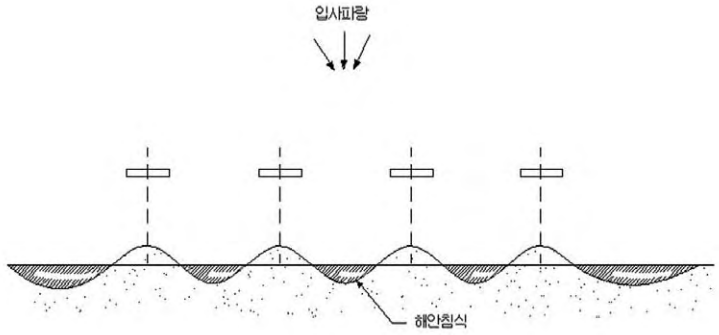
〈 그림 6)2-7-2 〉 연안표사의 저지에 의한 해안침식 및 퇴적



〈 그림 6)2-7-3 〉 방파제에 의한 차폐영역 형성에 따른 침식과 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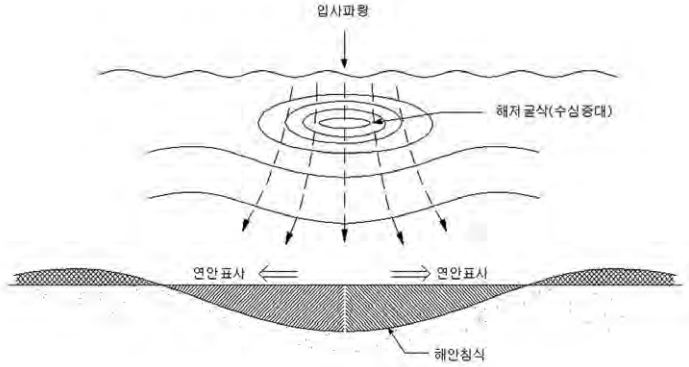


〈 그림 6)2-7-4 〉 하천공급 토사량의 감소에 따른 해안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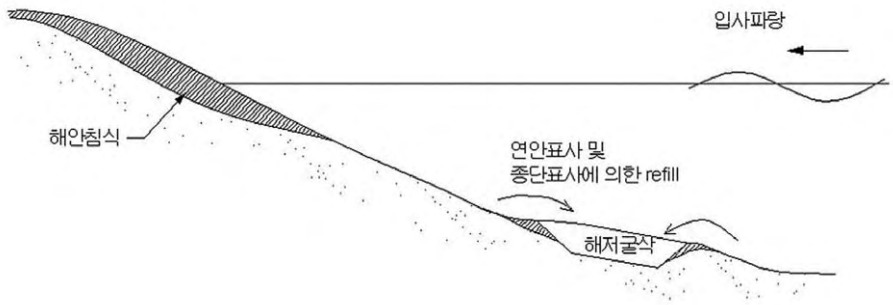


〈 그림. 6)2-7-5 〉 이안제 건설에 의한 주변 해안의 침식

(1) 평면도



(2) 단면도



〈 그림 6)2-7-6 〉 해사채취 또는 항로준설에 의한 해안침식

(1) 자연상태의 천연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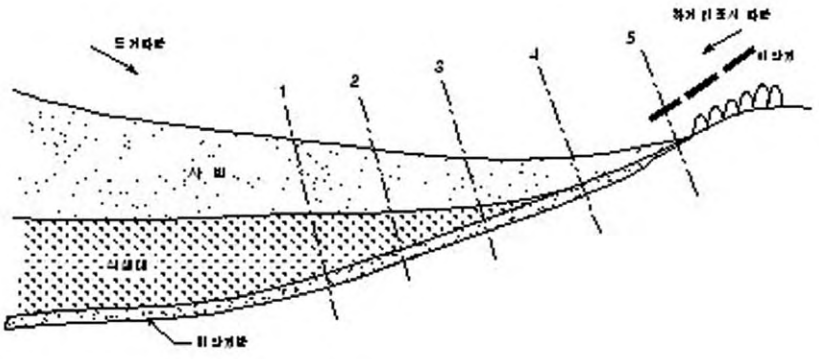
(2) 보안림의 전진

(3) 토제의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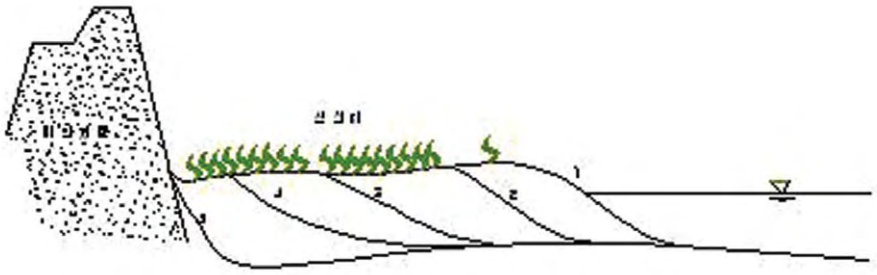
(4) 직립호안의 건설

(5) 소파제의 건설

〈 그림 6)2-7-7 〉 자연사구의 인공화 과정



(1) 평면도



(2)단면도

〈 그림 6)2-7-8 〉 해안제방전면의 식생대와 해안선과의 상관관계 모식도

이와 같은 형태를 기준으로 동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안침식의 형태를 분석하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항만 · 어항건설, 도류제 건설, 방파제 건설 등에 의한 연안표사의 저지와 방파제에 의한 차폐영역 형성에 의한 침식 발생, 둘째, 호안축조, 해안도로 건설 등에 의한 시설물의 해안으로의 과도한 돌출에 의한 침식, 셋째, 수로 준설, 해사채취, 하천규사채취에 의한 공급원 감소에 의한 침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6)2-7-2는 앞에서 제시된 형태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안침식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 표 6)2-7-2 〉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안침식 발생원인

해 안	해 안 침 식 원 인	해안침식 형태분류
동해안	소규모 어항건설, 도류제 건설, 방파제 건설	①,②
	호안축조, 해안도로 건설	⑦
	수로준설, 해사채취, 하천규사채취	④

4. 해안침식 방지대책

해안침식을 제어한다는 것은 연안표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해안침식제어의 방법론은 확립되지 않았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침식대책공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해안호안

해안의 육지쪽 비탈면을 덮어서 배후지의 토사의 파랑이나 흐름에 의한 결괴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적으로 고조대책의 목적도 겸해서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나. 돌제군

돌제는 해안의 표사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에 직강방향으로 시설하는 구조물이다. 침식대책으로서 돌제는 단일제로 건설되는 것은 거의 없고 어떤 간격을 두고 몇 개씩 설치되어 일반적으로 돌제군으로 건설된다. 돌제군은 연안류를 해빈에서 멀리하고 연안표사의 일부를 포착해서 정선의 전진을 재촉하며, 또는 정선의 방향을 파향에 대한 직각이 되도록 바꾸어서 침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돌제는 연안표사의 제어효과는 탁월하지만 다른 한쪽에 침식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구조물이다.

다. 이안제

이안제는 정선에서 외해쪽에 떨어져서 해안선과 평행으로 설치되는 방파제 형식의 것이며, 그 배후의 해빈에 작용하는 파력을 감소시켜서 해안의 침식을 방지 또는 톰볼로 등을 형성시켜서 정선을 전진시킬 목적으로 쓰인다. 해안에서의 외해로 향한 시야를 저해시킴에 따라 현재는 사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라. 해드랜드(head land)

해드랜드는 천연 곶지형으로 둘러싸인 해안이 장기적으로 안정한 백사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안선 주변의 표사이동은 자연 지형에 따른 순환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해안에 구조물을 설치

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인해 외력의 평형상태가 붕괴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표사의 단순 순환과정에 왜곡을 가져온다.

따라서, 외해까지 곧게 뻗은 인공 해드랜드를 설치하여 그 사이에서 표사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공 포켓비치(pocket beach)를 형성시키면, 해안침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공법이다.

속초시는 현재 290여억원을 들여 영랑동 해안에 '해드랜드(head land)'라는 시설을 설치 중이다.

마. 양빈공

자연해빈은 파랑이나 흐름에너지를 흡수 또는 감쇠해서 배후지를 방호하고 있다. 양빈공(養濱工)은 이 기능에 착안하여 해빈에 토사를 보급해서 인공해빈을 형성하거나, 또는 침식중인 해안에 토사를 보급하여 정선의 후퇴를 방지하는 것이다.

만이나 하구의 도류제, 사빈만의 방파제 등에 의해서 표사가 차단되었을 때, 표사를 다른 쪽으로 인공적으로 샌드바이패스(sand bypass)하는 것도 이 양빈공의 일종이다.

바. 백사장내 투수층 설치 공법

백사장 내의 지하수위 변화에 따라 파랑에 의한 백사장의 침식현상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발견되어, 백사장내의 지하수위를 상시 저하시켜 해안침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 공법의 주 목적이다.

본 공법은 지하수위를 저하시키기 위해 투수층을 설치하고 투수층 내에 먼 외해로 지하수위를 자연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 인공리프공법

리프(reef)란 원래 산호초를 의미하는 말로서, 자연산호초의 파고저감효과 및 외해로의 표사유출방지기능에 힌트를 얻어 인공적인 산호초를 만들어 해안침식을 방지하자는 것이 인공리프의 목적이다.

위에 기술한 공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침식이 침한 해안에서는 몇 가지 공법을 유효하게 조합해서 사용해야한다.

표 6)2-7-3은 해안침식방지공법의 장·단점, 공비 등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 표 6)2-7-3 〉 해안침식방지공법의 특성

공법	주된 제어대상	장점	단점	공비
돌제	파랑, 연안류	구조가 간단	군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수측의 침식	보통
이안제	파랑, 연안류	파랑의 제어 효과가 크다	연안표사가 탁월한 연안에서는 침식 제어가 곤란	높다
샌드 바이패스공법	표사	표사의 연속성확보	경비가 필요	약간 높다
양빈	파랑	자연해변의 아름다운 소파기능 발휘	단독시공은 문제가 많다.	높다
인공리프공법	파랑, 해빈류	소파기능이 높고, 어초겸용가능, 경관파괴 없음	연안표사에 대한 효고가 의문시	대단히 높다
해드랜드공법	파랑, 연안류	임의의 큰 해변을 조성, 경관이 좋다.	이상 파랑에서 해변의 평면형상이 커 변형 가능성이 크다.	헤드랜드의 위치 규모에 의존
완경사 호안	파랑	저반사율	강도부족의 가능성, 연안표사의 침식에 대한 효과가 의문	보통

5. 해안침식 방지대책 수립시 주의사항

위에서 제시된 방법들을 사용하여 해안침식 방지대책을 계획 혹은 시공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침식의 원인구명

침식의 발생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하는 해안 및 인접해안 전반에 걸쳐서 해안의 지형학적 특성, 바람, 파랑, 흐름 등의 외력 특성 외에 저질의 성질과 그 이동, 해빈지형과 그 변화 등의 조사를 하여야 된다. 이에 관한 기왕자료로서 원인을 규명하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현지관측을 행해야 한다. 외력은 계절적으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침식현상도 이와 관계하여 이들의 변화를 포함한 경년적인 침식원인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분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는 대책을 세워도 실패했던 예도 많다. 몇 개의 원인이 복합되어 명확치 않은 경우도 있으나, 적어도 주 원인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나. 침식기구의 구명

표사현상 그 자제가 복잡하여 불분명한 점이 많으므로 조사에 의해서 침식기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나, 이 기구를 명확히 하면 할수록 적절한 대책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해안공학 전반의 지식과 현지관측이 필요하고 수리모형실험도 유효할 것이다.

다. 실례의 충분한 조사(현지조사)

침식현상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며 수치해석이나 모형실험이 곤란한 요소가 많다. 따라서 실례를 충분히 참조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라. 인접구역에 대한 영향조사

해안호안이나 돌제 등 침식 대책으로서의 인공적 구조물이 부근의 해안침식이나 매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인접해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인접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고려해 두어야 한다.

마. 경제적 평가와 민생안정

경제적 평가, 즉 공비와 그에 의해서 얻어지는 보전효과의 경제적 균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나, 동시에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기여도 평가해서 대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바. 대상실시범위와 그 순서

단지 현재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만을 취하지 않고, 인접지역과 표사연관을 충분히 조사해서 대책실시범위를 정해야 한다. 침식되어 있는 구역에 직접 대책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인접구역에 대책공사를 실시하여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해서 결정된 대책실시구역이 광범위에 미칠 때는 어느 쪽 지역부터 대책공사를 실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책공법이나 공비가 달라진다. 단순히 가장 침식이 심한 부분에서 대책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적당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 비교적 침식이 적은 표사의 하측에서 시작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어느 것이라도 해빈이 외력에 대해서 보다 안정한 방향

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자연현상의 특성을 충분히 이용해서 되도록 그것에 역행하지 않도록 대책의 범위나 그 순서를 결정하야야 한다.

사. 대책공사의 효과와 영향조사

전술한 바와 같이 침식현상은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 따라서 대책공사 실시 중에 과연 희망하는 방향으로 해빈상항이 변화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관측함과 함께 기대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다든지, 예측하지 않았던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예측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해안 환경 관리를 위하여 1불을 투자하면 8불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만큼 그동안 잘 관리된 연안이 플로리다 주에 주는 경제적 이점은 대단하다. 꾸준한 관리로 인해 해안일대의 가치가 상승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관광객으로 인한 소득, 고용 증대,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또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생태, 환경적인 이점도 뒤따른다.

속초 또한 미국의 플로리다처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해안도시이다. 따라서 침식된 해안을 잘 복원하고, 관리하면 고부가 가치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윤영호(강원도립대 건설시스템과 교수)
감수위원 : 김수산(속초시 문화공보과장)

- 참 고 문 헌 -

1) 국립수산과학원 (2002) : 한국어구도감
2)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3) 문교부 (1985) : 어업1, 대한교과서
4) 문교부 (1985) : 어업2, 대한교과서
5) 박구병, 고관서, 류성규, 이응천 (1984) : 수산사전, 형설출판사
6)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 연안어장기본조사보고서 강원도편
7) 속초시 수산업 협동조합 : '9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8) 속초시 어촌지도소 : '90년 주요업무보고
9) 속초시청 수산과 : '90년 주요업무보고
10) 양재목, 신필현 : 수산학 총론
11) 정문기 (1986) : 한국어도보
12) 해운항만청 : 항만건설사
13) 김규한, 해안침식에 대한 종합 방재계획의 수립, 방재연구, 제6권 제3호, 방재연구소, pp.11~24, 2004.
14) 관동대학교 해안항만 연구실 홈페이지
http://www. kwandong. ac. kr /%7 Ehydrolab
15) 남수용, 최금인, 황준, 김해성, 연안침식 현황과 향후 대책방안, 연안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집, 동해연안보전협회, p.135~168, 2004.
16) 민병형, 옥치율, 민일규, 항만공학, 형설출판사, 2000.
17) 송원오, 박우선, 연안개발, 한국해양연구원, 2001.
18) 이종섭, 해안침식원인 조사 및 수치모델링 현황, 연안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집, 동해연안보전협회, p.169~216, 2004.
19) 최영박, 윤태훈, 지홍기, 해안과 항만공학, 문운당, 2000.
20) 해양수산부, 연안침식 모니터링 체계구축(Ⅰ), 2004.
21) 宇多高明, 海岸侵蝕の實態と解決策, 山海堂, 2004.
22) 畇木 亨, 漂砂と海岸侵蝕, 森北出版, 1982.
23) 2004해양수산시책 : 강원도환동해출장소, 2004
24) 강원도 자연석호의 보전 및 활용방안 : 강원발전연구원, 2003
25) 속초시 중기개발계획 : 속초시, 2001
26) 연안실채에 관한 기초조사 : 해양수산부, 2004

27) 속초시 통계연보 : 속초시, 2003
28) 동해안 석호 수질개선방안 : 원주지방환경관리청, 2002
29)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실시설계보고서 : 속초시, 1995
30) 연안편람 : 해양수산부, 2004
31) 청초호 오니준설사업중 지자기탐사실시용역보고서 : 대림산업(주), 2001

束草市史(上)

2006년 8월 31일 인 쇄
2006년 9월 15일 발 행

발행처 : 속초시 · 속초문화원
발행인 : 속초시사편찬위원회
편　집 : 열 린 마 당 ☎(033)636-3636
인　쇄 : 강원일보사 ☎(033)252-5886

홈페이지 : www.sokcho-history.com

※ 이 책은 속초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속초시사편찬위원회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전재와 복재를 금합니다.

下 束草市史

下 束草市史

束草市史
編纂委員會

표지 : 1960년대 영랑동 전경

束草市史 編纂委員會

束草市史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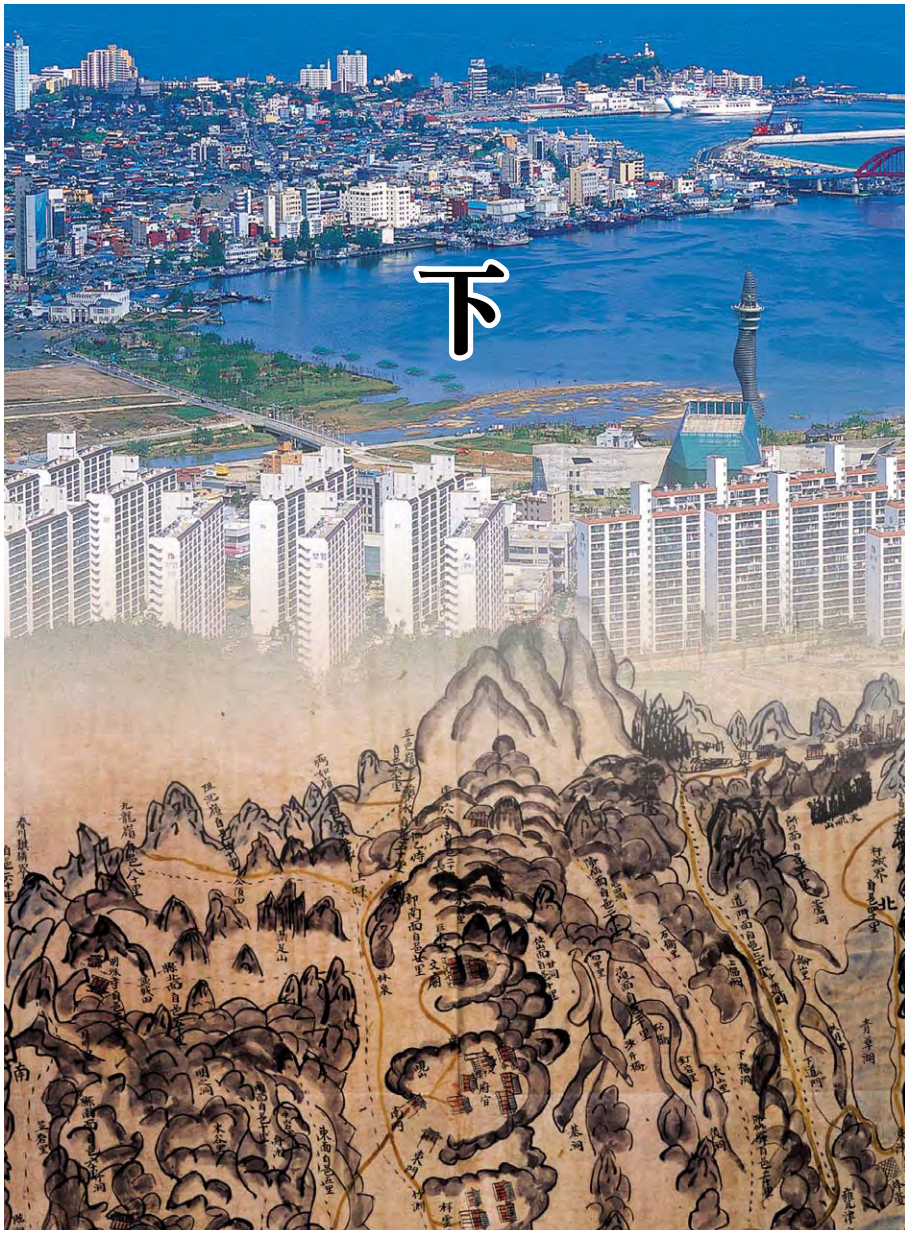
束草市史
編纂委員會

표지 : 1960년대 영랑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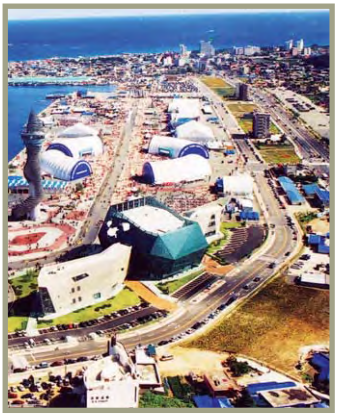
束草市史 編纂委員會

下 束草市史

東草市史



축제 · 문화 · 체육
그리고 희망



57. 8. 15
제12주년 광복절 경축대회
전경(현 시청광장)

54. 8. 15
8 · 15광복기념 읍면종합체육대회 입장식
(당시 스탠드는 명태 덕목으로 급조된
함경도식 스탠드)

63. 1. 7 속초시제실시 경축 기념대회 속초읍사무소 광장

63. 1. 7 속초시제실시
경축 기념대회 시가행렬

63. 5. 19~21
제3회 도내시군 대항 체육대회
(시승격 기념)

66. 10. 1
제1회 설악제

69. 10. 3~5 제4회 설악제
(산악행사 위주로 축소실시)

등산대 시가행진, 설악산 정고평에서
무명용사 및 산악조난자 위령제 거행

71. 10. 8 제6회 설악제

72. 11. 19
제1회 설악문화상 시상식 후
기념촬영
- 기 자 상 : 안형순
- 공무원상 : 고명국
- 교직원상 : 송두호
- 경찰관상 : 서원국

75. 3. 9 제1회 시민연날리기대회

(속초문화원 주최)

75. 10. 17 제10회 설악제(개회식)

75. 10. 20
강원일보사 제정 제1회 속초시문화상 시상
- 체육부문 최종록
- 문화예술부문 윤홍렬
- 교육부문 김형기
- 봉사부문 정창도(속초경찰서)
- 근로부문 김부율(부두노조)

76. 10. 9
제11회 설악제 풍어대회

전마선 경주

76. 11. 19
강원일보사 제정
제2회 속초시문화상 시상
– 사회공익부문 이창섭(의용소방대장)
– 교육부문 박인환(중앙국교장)
– 체육부분 김봉만(시 체육이사)
– 사회봉사부문 이육(속초지구 해경대장)
– 문화예술부문 정영자(속초국교교사)

78. 6. 10
8회 속초시 학도체전 개막

79. 3. 1
3 · 1절 경축 제2회 역전마라톤 대회

79. 6. 15
제14회 도민체전 성화

79. 11. 19
제3회 설악예술제

80. 10. 3
제15회 설악제

81. 10. 10
제16회 설악제

6.25 30년만에 이북5도민을
위한 망향제 첫 거행

각 학교별 가장행렬
81. 10. 10 제16회 설악제

82. 4. 30
제1회 시군대항 도내일주
학생역전 마라톤대회

82. 10. 8~10
제17회 설악제(전야제 등불행진)

83. 5. 19~22
제6회 전국요트경기 및 국가대표
선발대회(속초해수욕장)

83. 11. 17~19
제1회 속초시민의 날
동대항 체육대회

85. 6. 13
제3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종합우수상 속초 산대놀이)

85. 10. 1~3
제20회 설악제(15개행사)

86. 6. 18
제2회 교육장배쟁탈
학교새마을어머니배구대회

86. 9. 16
아시안게임 성화를 설악산 소공원에 안치
86. 9. 17 성화봉송

87. 4. 26
제1회 도협회장기 쟁탈 골프대회

88. 7. 10
올림픽 붐 조성 동대항
새마을지도자 달리기 대회

88. 9. 11
서울올림픽 성화봉송

89. 10. 11
제24회 설악제
(제1회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90. 3. 28
도회장기쟁탈
남녀 종별탁구대회 (학생체육관)

90. 8. 8
90 한국잼버리대회 개막

90. 10. 11~13
제25회 설악제

속초시립합창단
창단발표회

91. 4. 8~14
제8회 강원연극제

91. 6. 27
제9회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수상
(속초 『파 · 람 · 불』 극단)

91. 7. 5
제2회 강원도노인게이트볼대회
(공설운동장)

91. 7. 5
제9회 전국합창경연대회 도 예선대회

91. 8. 8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영
(세계 129개국 2만여명 참가,
7박8일동안 37개 과정 활동과
축제행사 개최)

91. 8. 11~20 세계잼버리대회기념
강원도미술협회전(속초문화회관)

91. 8. 11 세계잼버리대회기념
제45회 전국씨름대회

91. 12. 14
속초시립합창단 제1회 연주회

91. 8. 27 제2회 청소년미술실기대회 시상식

92. 7. 11
속초예총 · 성남예총 자매결연

92. 10. 2
설악제기념 주부가요열창

93. 3. 13 갯마당 사물놀이패 창단식

93. 7. 1 문화학교 제1기 수강생 입교식

93. 8. 1 시승격30주년 기념
해변가족노래잔치

93. 10. 6
국립국악원 초청 국악의 향연

93. 12. 21 갈뫼 23집 발간 및 문학축제

93. 12. 22 속초예술인의 밤

94. 6. 16
제92회 강원도민체전

94. 8. 1~ 4 속초해수욕장
94 해변국악교실

94. 10. 7~9 제29회 설악제

94. 11. 14~18
제2회 설악아동연극제(속초시문화회관)

94. 11. 24 제17회 서울연극제 최우수작 초청공연
남사당의 하늘(속초시문화회관)

94. 11. 26~27
국립극장 초청공연 '맹진사댁경사'

94.12.30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제2기생 수료식

95. 6. 1~3 제1회 국제아동미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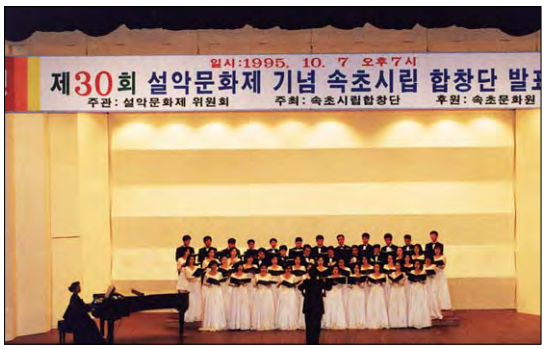
95. 6. 13 중국 요령성 경극단 초청공연
속초시문화회관

95. 8. 30~9. 1
세종국악관현악 초청공연

95. 9. 13 제13회 강원민속예술대회
경축 주부휘호대회

95. 10. 7 설악문화제연구소 발족식

제30회 설악제 개막식 및 시가행진



95. 10. 7 제30회 설악제 기념
속초시립합창단 발표회

95. 12. 29 속초농악대 창단식 및
향토문화학교 수료식

96. 1. 30~2. 3
제1회 설악눈꽃축제 통일기원 망향제

96. 7. 20 박라나 하프독주 초청공연

96. 10. 6~10 강원미술협회 초대전

96. 8. 29 제1회 청소년풍물겨루기한마당

96. 9. 15 제2회 속초시민바둑대회

96. 9. 8 '96 국제설악산마라톤 및 하이킹대회

96. 7. 10 제1회 속초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

96. 10. 9 제77회 전국체전의 밤

97. 1. 30 제2회 설악눈꽃축제 통일기원망향제

97. 1. 30 제2회 설악눈꽃축제 축하공연

97. 6. 21
제2회 속초문화예술인 친선 체육대회

97. 7. 9 미국 그레샴시장 내방(속초예총)

97. 9 제7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97. 9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경기장면

97. 10. 3
제32회 설악문화제 설악가요 대축제

97. 10. 9 제32회 설악문화제 기념
주부백일장

98. 4. 13
속초시 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 현판식

98. 4. 29 속초향토사료전시관 개관식

98. 4. 29 속초향토사료전시관 기념 강연회

98. 6. 5~11
제7회 강원도청소년연극제

98. 8. 15
8 · 15경축전국실업싸이클대회

98. 9. 18~19
예총 속초연극협회 중국 훈춘시 영극원 공연

98. 8. 15 속초시장배쟁탈노인게이트볼대회

98. 10. 1~3
제33회 설악문화제 시가행진

98. 10. 3 설악문화제기념 청소년가요제
동명항 특설무대

98. 10. 3 설악문화제기념 청소년가요제
동명항 특설무대

제33회 설악문화제 속초시민가요제

제33회 설악문화제
98 설악재즈페스티벌

제33회 설악문화제
설악인의 추모제

98. 10. 30
제2회 실버문화대축제

98. 12. 12 입시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99. 4. 23 미스강원 선발대회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제10회 학생미술실기대회 및 백일장
엑스포대회장

99. 5. 29 청소년건전가요제
엑스포대회장

99. 7. 28 Expo성공개최 기원
전국노래자랑(속초해수욕장)

99. 7. 30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성공기원을 위한
제4회 시민큰잔치

99. 8. 8 제3회 여름풍물학교 입학식

99. 8. 26 Expo기념 'KBS특집 열린음악회'

99. 9. 17 강원엑스포기념
제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99. 9. 9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주제관, 엑스포타워 개관식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금강산, 설악산 계곡수 합수식

99. 9. 30 엑스포 대회장
속초시민의 날 총체극

99. 10. 2 제4회 강원도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99. 10. 23 제3회 전국서예백일장
속초예총 속초미술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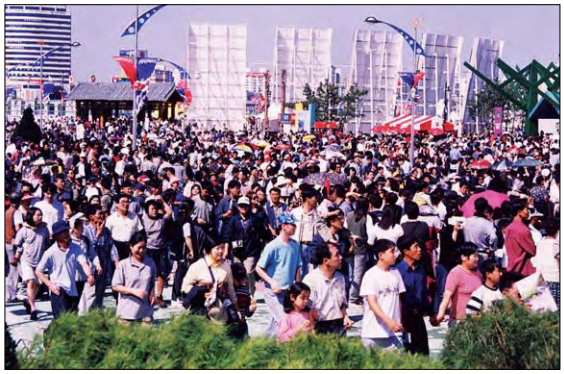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황금찬 시인 축시 낭독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축하공연(태평무 · 김말애무용단)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장 야경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거리퍼레이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일본돗토리현 한일친선협회 특별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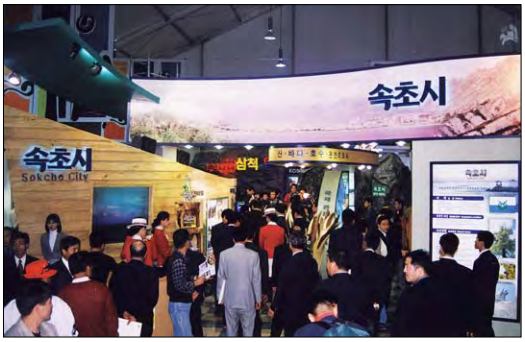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일일 최대 관광객입장(약10만명)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장 전경

99강원국제관광expo
시민자원봉사자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150만명 입장식 사은잔치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속초시 홍보관

강원도관

횡성군의 날
회다지 놀이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폐막식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폐막식 도우미공연

99. 10. 1~3 제34회 설악문화제 축하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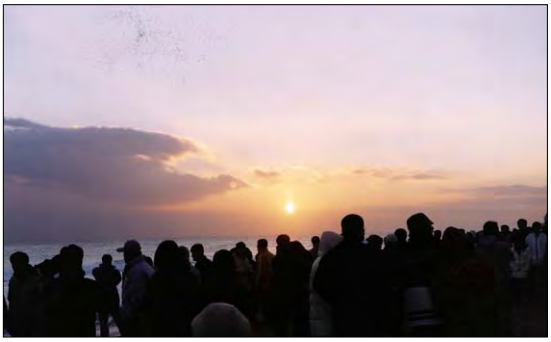
99. 10. 1~3 제34회 설악문화제
노인교양대학 발표회

99. 10. 1~3 제34회 설악문화제
전마선대회

99. 10. 1~3 제34회 설악문화제
오징어 할복대회

99. 10. 1~3 제34회 설악문화제
줄다리기

99. 10. 1~3 제34회 설악문화제
한마당놀이



2000. 1. 1 속초밀레니엄 평화축제

2000. 1. 27
제5회 설악눈꽃축제

2000. 1. 1
2000 속초해맞이축제 해오름

2000 속초해맞이축제 해오름한마당

2000 속초해맞이축제 북춤

2000 속초해맞이축제
출어어선 퍼포먼스

2000 속초해맞이축제
희망날리기

2000. 5. 14
제1회 강원도협회장기 사무랑대회

2000. 6. 9 국립창극단 초청공연

2000. 6. 10~11 중국 훈춘시 가무단 초청공연

2000. 6. 9
제35회 도민체전 개회식

2000. 7. 16
설악국제트라이에슬론대회

2000. 8. 13~14
한미교류합창연주회

2000. 8. 14
미국 그레샴시 학생합창단 공연

2000. 9. 23~24
관광엑스포 성공기념 축하공연

2000 관광엑스포 성공개최 기념
국립합창단 초청공연

2000. 10. 1 제35회 설악문화제
가을콘서트 합창과 솔로의 밤

2000. 10. 5
창작 관현악곡 「청산」 발표공연

2000. 11. 24
영북민속문화연구회(갯마당)

2001. 1. 18~21
2001 설악눈꽃축제
드라마 '가을동화' 출연진 명예시민증 수여

2001 설악눈꽃축제 축하공연

2001 설악눈꽃축제
'사랑의 장기기증캠페인'

2001 설악눈꽃축제
황태 황덕불구이 시식회

2001. 3. 8~29
제37회 춘계한국 남 · 녀 중 · 고 축구연맹전

2001. 3. 16~18
제24회 강원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2001. 3. 23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

2001. 4. 3~8
제1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탁구대회

2001. 6. 30~7. 1
제2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족구대회

2001. 5. 19 제12회 학생백일장
속초예총 속초문인협회

2001. 7. 23~26
2001 속초해양페스티벌

2001. 7. 27 제6회 시민큰잔치

2001 속초해양페스티벌
전국노래자랑

2001 속초해양페스티벌
스포츠댄싱 시범 및 경연대회

2001 속초해양페스티벌
조개파기, 오징어 맨손잡기

2001. 8. 25~26
2001 강원연극인대회

2001. 10. 12~15
제36회 설악문화제 분재전시

2001. 10. 12~15
제36회 설악문화제 투호

2001. 10. 12~15
제36회 설악문화제 갯배끌기

2001. 7. 8
제6회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제6회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제6회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2001. 9. 6~8
제28회 추계전국남녀중 · 고 유도대회

2001. 11. 14 네번째 댄싱, 가요
사물놀이 경연대회

2001. 7. 11~18 '국경을 넘나드는 철새'
이동사진전시회

2001. 11. 24~28
제27회 대통령기 전국시 · 도대항레슬링대회

2001. 11. 30 임수철 창작가곡집 출반기념회

2001. 12. 29 극단 굴렁쇠 무대공연
'어떤 노배우의 마지막 연기'

2001. 12. 29 설악엔젤스합창단 정기연주회

2002. 1. 1 속초해맞이축제

2002. 3. 16
제20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

2002. 4. 21
제29회 한국중 · 고등학교 태권도연맹회장기대회

2002. 4. 25 장애인의 날 기념
속초시농아인친선체육대회

2002. 5. 4 이성선 시인 추모문학제

2002. 5. 6 한 · 일 친선 예술공연

2002. 6. 26 한 · 일월드컵 4강전 응원(엑스포장)

2002. 9. 11 강원예술인 자원봉사
태풍 루사 피해복구지원(도문동 일원)

2002. 11. 2 수해극복 시민위안 향연
"2002 속초사랑 상생천년"

2002. 11. 2 태풍 '루사' 희생자 합동 위령제

2002. 11. 19
'2002 졸업생을 위한 특강 및 공연'

2002. 12. 20 노학동 자활센터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예총 속초연예협회

2003. 7. 29~8. 20
2003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축제

2003. 10. 2~4 제6회 거리시화전

2003. 10. 3~4 중국 훈춘시
백두산 소년예술단 초청공연

2003. 12. 20~21
극단 굴렁쇠 정기공연 '날보러와요'

2003. 5. 22 제5회 설악주부미술한마당
엑스포주제관 세미나실 속초미술협회 주관

2003. 5. 23 속초예총 국악협회 정기공연

2003. 5. 30 제15회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속초연예협회 주관

2003. 6. 2~6 제9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

2003. 2. 13 제23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2003. 5. 20 제8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2003. 6. 16~17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종합최우수상 수상 도문메나리농요 출연진

2003. 7. 22~25
'2003 속초해양페스티벌'

2003. 8. 30
속초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세미나

2003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

2003 청소년 한아름 교육

2004. 8. 3 설악엔젤스유스콰이어
중국 연길방송국 연변 TV출연

2004. 10. 16~17
중국 훈춘시 꽃봉우리소년예술단 초청공연

2004. 11. 4~7 루마니아 국제아마추어연극제 참가
루마니아 르고시에서 한씨연대기 공연

2005. 1. 19~23 눈꽃축제기념 속초사진협회전
설악산 국립공원 내

2005. 2. 23 제25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한마당

2005. 2. 23 제25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한마당

2005 북청사자놀음 전수교육

2005 '국악이랑 놀자' 프로그램 운영

2005. 5. 5 우리들의 작은음악회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

2005 속초예총 예술인 간담회

2005. 5. 20 제16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

2005. 5. 21 제11회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제7회 설악주부미술한마당

2005. 5. 21 가훈 · 고사성어 무료휘호
속초서우회

2005. 6. 11 제2회 속초국악협회 정기연주회

2005. 7. 5 제6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중국 훈춘시 구락부

2005. 7. 30 강원도 청소년 여름풍물학교
'국악이랑 놀자' 수료식

2005. 7. 16 도민의 날 기념행사

2005. 7. 21~8. 14
2005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2005. 8. 1~12 속초문화원
2005 어린이 방학 문화프로그램

2005. 8. 12~13 복권기금지원사업
우리문화를 찾아 떠나는 문화여행

2005 도문메나리농요 보존회현판식 및 발표회

2005. 7. 21~8. 15 설악미니콘서트

2005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2005. 9. 6~7 일본 신주꾸 양산박 초청공연
엑스포광장 특설무대

2005. 10. 9
2005 시민과 함께하는 속초합창대축제

2005. 11. 30 강원예술인평가회의 개최

2005. 10. 14~16
2005 설악아동화거리전

2005. 10. 14~16
제8회 속초문인협회 거리시화전

2005. 11. 22~23
제10회 속초서우회원전

2005. 12. 2 속초문화원부설 한국문화학교
제13기생 수료식 및 발표회

2005. 12. 2 속초문화원부설 한국문화학교
제13기생 수료식 및 발표회

2005. 12. 12 졸업생을 위한 특강 및 공연
친구랑 함께하는 우리문화 "한마당"

2005. 12. 17
갈뫼 35집 발간 및 문학축제

2005. 12. 29
제15회 음협속초지부 정기연주회

《 일러두기 》

본 서는 자료 조사와 고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속초시의 변천상과 사회상을 올바르게 기록하여 향토 발전의 길잡이로 삼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본서는 집필 개시년인 2005년 5월 현재까지의 행정구역상 강원도 속초시 지역을 서술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부 통계자료는 최근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 속초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일반 국가사나 전국적인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최소한의 언급에 그치도록 하였습니다.

□□ 문장화된 설명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서술하며, 표나 통계 자료 등을 단순히 나열, 제시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료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필자 자신이 새롭게 밝힌 내용이나 해석이 적절히 드러나도록 기술하였습니다.

□□ 각 분야마다 내용 전개가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내용이 충실히 채워질 수 없는 분야는 장과 절을 통폐합하였습니다.

□□ 연대 표기는 서기(西紀)를 사용하되 묘호(廟號)를 쓰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서기를 부기하였습니다.

□□ 참고 · 인용 문헌은 책자의 경우 『 』, 신문 · 잡지 · 논문 · 법령은 「 」, 인용문은 “ ”, 강조나 재인용은 ‘ ’로 표시하였습니다.

CONTENTS (下권)

화보
축제 · 문화 · 체육 그리고 희망 · 1173~1226
목차 · 1227~1233

제7편 문화예술 · 1235

제1장 속초 문화의 특성 · 1241
제1절 다양한 성격의 문화 공존 · 1241
제2절 문화 단절 현상 · 1242
제3절 이질적 문화의 혼합 현상 · 1242
제4절 피난민 문화 창출 · 1243
제2장 한문학 속의 속초 / 양언석 · 1245~1269
제3장 구비문학 / 양언석 · 1270~1364
제4장 속초의 지명 / 손병섭 · 1365
제1절 지명의 유래 · 1365
1. 속초 땅이름 어원의 유래 · 1365
2. 연혁 · 1366
제2절 행정동 지명 · 1367
1. 영랑동 · 1367
2. 동명동 · 1371
3. 금호동 · 1373
4. 청호동 · 1375
5. 교동 · 1376
6. 노학동 · 1377
7. 조양동 · 1383
8. 대포동 · 1386
제5장 문화재와 명승고적 / 손병섭 · 1398
제1절 문화재의 분류 · 1398
1. 문화재의 개념 · 1398
2. 문화재의 분류 · 1398
3. 속초시 문화재 현황 · 1400
제2절 국가 및 시 · 도지정 문화재 · 1401
1. 국가지정 문화재 · 1401
2. 시 · 도지정 문화재 · 1403
제3절 미지정 문화재 · 1412
1. 불교문화 · 1412
2. 호수 및 정자 · 1413
3. 금석문 및 비석 · 기념탑 · 1417
4. 관방 유적 · 1433
제4절 천연기념물과 사적지 · 1435
1. 천연기념물 · 1435
2. 조양동 선사유적지 · 1438
제5절 명승 및 속초팔경 · 1440
1. 명승 · 1440
2. 속초팔경 · 1442
제6장 예술활동 / 박명선 · 1446
제1절 예술활동 · 1446
제2절 문학활동 · 1468
1. 개황 · 1468
2. 문학단체 · 1479
제3절 미술활동 · 1496
1. 개황 · 1496
2. 미술단체 · 1509
3. 서예 활동 · 1513
제4절 연극 활동 · 1518
1. 개황 · 1518
2. 연극단체 · 1524
제5절 음악 활동 · 1530
1. 개황 · 1530
2. 음악단체 · 1539
제6절 연예 활동 · 1542
1. 개황 · 1542
2. 연예단체 · 1547
제7절 국악 활동 · 1549
1. 개황 · 1549
2. 국악단체 · 1550
제8절 사진 활동 · 1551
1. 개황 · 1551
2. 사진단체 · 1554
제9절 문화예술 활동 단체 · 1556
1. 속초문화원 · 1556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속초지부 · 1561
3.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속초지부 · 1563

제10절 문화시설 · 1566
1. 속초문화회관 · 1566
제11절 속초시 문화상 · 1568
제12절 속초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 · 1570
제7장 문화행사 / 박명선 · 1571
제1절 문화 축제 · 1571
1. 설악문화제 · 1571
2. 설악눈꽃축제 · 1578
3. 대한민국음악축제 · 1581
4. 화랑영랑축제 · 1583
5. 해맞이 축제 · 1583
6. 해양페스티벌 · 1584
7. 한 여름밤의 문화축제 · 1584
8.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 1585
9. 학사평순두부축제 · 1585
10. 설악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 1586
11. 설악하프마라톤대회 · 1587

제8편 생활관습 1589

제1장 식생활 / 송주은 · 1593
제1절 강원도의 식생활 · 1593
제2절 속초의 식생활 · 1596
1. 옛 문헌 속의 속초의 산물 · 1596
2. 속초 원주민의 음식 · 1597
3. 속초 실향민의 식문화 · 1653
4. 속초 실향민의 식생활 · 1667
제2장 의생활 / 최혜정 · 1689
제1절 옛 문헌속의 속초 · 1689
1. 옛 문헌에 나타난 의생활 · 1689
2. 의복재료 · 1690
3. 토착적인 의복형태 · 1690
4. 의복 관리 · 1692
5. 통과의례복 · 1693
6. 피난민 의복 · 1696
7. 전통 민속복 · 1698
제3장 속초의 민속 / 장정룡 · 1703
제1절 구전민요 · 1703
1. 농업노동요 · 1703
2. 수산노용요 · 1710
3. 유희요 · 1714
4. 도문 메나리민요의 유래와 구성 · 1716
제2절 속초의 세시풍속 · 1724
1. 정월달 새배와 뱃고사 · 1724
2. 정월 첫째 뱀날풍속 · 1725
3. 까치보름과 달점치기 · 1725
4. 연날리기와 횃불싸움 · 1725
5. 엄나무와 체바퀴달기 · 1726
6. 봉수이밥 싸기와 탈놀이 · 1726
7. 귀신날 · 1726
8. 바람님날 · 1727
9. 좀생이보기 · 1727
10. 무먹기 · 1728
11. 한식날 · 1728
12. 삼짇날 · 1728
13. 곡우물먹기 · 1728
14. 초파일날 · 1729
15. 갈꺽기 · 1729
16. 질어울리기 · 1729
17. 단오맞이와 약쑥캐기 · 1729
18. 유두날과 쓰레씻이 · 1730
19. 복날 · 1730
20. 질먹기 · 1730
21. 한가윗날과 백로 · 1730
22. 배나무골 풍년놀이와 만천광대놀이 · 1731
23. 성주단지갈기와 문바르기 · 1731
24. 중양절 단풍놀이 · 1731
25. 상달 고사 · 1732
26. 설악문화제 · 1732
27. 송개틀기 · 1732
28. 김장하기 · 1732
29. 동짓날과 팥죽 · 1733
30. 용갈이 · 1733
31. 윤달 · 1733
제3절 속초의 민간신앙 · 1749
1. 집안신앙 · 1749
2. 마을신앙 · 1752
3. 무속신앙 · 1754
제4절 속초의 통과의례 · 1757

1. 임신과 출산 · 1757
2. 백일, 첫돌 · 1762
3. 회갑 · 1763
4. 상장례 · 1763
제5절 속초의 민속유희 · 1765
1. 민속극 · 1765
2. 민속놀이 · 1768
제4장 속초의 방언 / 김무림 · 1773
제1절 속초 방언의 위상 · 1773
제2절 속초의 방언 어휘와 언어적 특성 · 1775
1. 속초의 방언 어휘 · 1775
2. 속초 방언의 언어적 특징 · 1780
제3절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 특징 · 1785
1. 음운적 특징 · 1785
2. 문법적 특징 · 1787
3. 청호동의 방언 어휘 · 1787
제4절 맺음말 · 1797
제5장 속초의 주거 생활 / 김학철 · 1799
제1절 속초의 고 건축 · 1799
1. 주거의 변천 과정 · 1799
2. 조양동 선사유적의 움집 · 1800
3. 신흥사 극락보전 · 1801
4. 보제루 · 1802
5. 학무정 · 1803
6. 김종우 가옥 · 1803
7. 김근수 가옥 · 1805
8. 김석주 가옥 · 1806
9. 최원규 가옥 · 1807
10. 김종순 가옥 · 1809
11. 오수현 가옥 · 1810
12. 박의균 가옥 · 1811
13. 김근우 가옥 · 1812
14. 영랑동 시장 · 1813
15. 김동석 가옥 · 1814
16. 영랑상회 · 1815
17. 강덕준 주택 · 1816
18. 동명동 성당 · 1817
제2절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주거 환경
/ 속초문화원 · 1818
1. 인문환경 · 1819
2. 자연적 조건 · 1821
3. 피난민 가옥의 구조 · 1823

부록 1833

1. 인명 · 1835~1853
2. 연표 · 1855~2018
3. 옛 문헌자료 · 2019~2141

찾아보기 · 2143~

CONTENTS (上권)

발간사 / 노광복 3
축간사 / 동문성 4
축간사 / 김정한 5
축간사 / 정문헌 6

시정목표 · 8
시의상징 · 10
시민헌장 · 12
속초시가 · 13
행정구역 · 14
옛 문헌속의 속초지역 · 19
자연이 선사한 속초 · 37
사진으로 보는 속초 발자취 · 43
속초의 변천 · 67
일러두기 · 130
목차 · 131~137

제1편 자연환경 / 홍문표 · 139
제1장 지리환경 · 141
제1절 속초의 위치 · 141
제2절 지형과 지질 · 142
1. 설악산의 지형 · 142
2. 설악산의 지질 · 148
3. 속초의 해안지형 · 158
제3절 속초지방의 기후 · 160
1. 속초지방 기후의 특성 · 160
2. 기온 · 161
3. 강수량 · 163
4. 습도 · 165
5. 바람 · 166
6. 계절관측 · 167
제2장 속초의 식물 · 169
1. 설악산의 식물 · 169
2. 속초의 해안식물 · 234
3. 속초의 습원식물 · 237
제3장 속초의 동물 · 240
1. 담수어류 · 240
2. 양서류 · 244
3. 파충류 · 245
4. 조류 · 247
5. 포유류 · 258

제2편 역사 / 김정환, 한정규 · 265
제1장 속초지역의 이해 · 267
제1절 지형적 여건 · 267
제2절 사회 · 경제적 여건 · 268
제3절 촌락의 형성과정 · 269
1. 전통안정축 · 269
2. 전통불안정축 · 270
3. 농업발전축 · 270
4. 항구발전축 · 271
제2장 선사시대 · 272
제1절 석기시대 · 272
제2절 청동기시대 · 273
제3절 동예 · 275
제3장 삼국시대 · 276
제1절 연혁 · 276
제2절 고대의 사상과 문화 · 277
1. 화랑도의 순례 · 277
2. 불교문화 · 278
3. 산천제사 · 279
제4장 고려시대 · 280
제1절 연혁 · 280
제2절 이민족의 침입 · 281
1. 거란의 침입과 항전 · 281
2. 여진과 몽고의 침입 · 282
3. 왜구의 침입 · 283
제5장 조선시대 · 284
제1절 정치 · 284
1. 연혁 · 284
2. 통치체제의 정비 · 285
3. 개화기의 정세 · 287
4. 민족운동의 전개 · 288
제2절 경제 · 289
1. 농업 · 289
2. 수산업 · 290
3. 특산물 · 291
제3절 인구 및 사회 · 292
제4절 문화 · 294
1. 불교사상 · 294
2. 유학 · 교육 · 294
3. 민요와 민속 · 295
4. 문학 · 296
제6장 일제강점기 · 298
제1절 정치 · 298
1. 행정구역의 변화 · 298
2. 일제의 식민통치 · 300
3. 3 · 1운동 · 300
4.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사회운동 · 304
제2절 경제 · 307
1. 일제시대의 경제적 상황 · 307
2. 산업 · 311
제3절 사회 · 317
1. 인구의 변동 · 317
2. 우편소의 설치 · 319
3. 교통 · 320
4. 종교 및 사회단체 · 320
제4절 문화 · 321

1. 학교의 설립 · 321
2. 민속 · 322
3. 문학 · 323
제7장 현대 · 324
제1절 공산치하 · 324
1. 8 · 15광복과 분단 · 324
2. 북한정권의 수립 · 324
3. 반공투쟁 · 326
제2절 한국전쟁과 속초의 수복 · 330
1. 한국전쟁의 발발 · 330
2. 행정권 이양과 수복 · 336
제3절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 339
1. 자유당정권과 4 · 19혁명 · 339
2. 시의 승격과 민주주의의 시련 · 341
3. 이념의 대립 · 348
제4절 민주회복과 통일정책 · 353
1. 제6공화국 · 353
2. 민주주의의 확산 · 354
3. 남북관계의 진전 · 355
제5절 경제구조의 변화 · 357
1. 전쟁이후 속초의 성격 · 357
2. 피난민의 이주 · 358
3. 산업구조와 경제활동 · 359
제6절 현대의 사회 · 368
1. 한국전쟁과 사회변동 · 368
2. 북한 주민의 월남 · 369
3. 도시로의 전환 · 375
4. 인구의 변동 · 376
5. 사건사고 · 377
6. 교육 · 379
제7절 문화의 다양화와 발전 · 381
1. 속초 문화의 양상 · 381
2. 언론활동 · 382
3. 문학을 통한 현대사 조명 · 382

제3편 정치행정 / 사득환 · 385
제1장 행정구역 변천 및 지명 · 389
제1절 고조선 및 통일신라시대 · 389
제2절 고려시대 · 389
제3절 조선시대 · 390
제4절 일제시대 · 392
제5절 대한민국시대 · 394
제2장 정치 · 397
제1절 지방자치의 시행과 속초의 상황 · 397
1. 지방자치법 제정시기의 상황 · 397
2. 1950년대의 상황 · 397
3. 1960년대의 상황 · 398
4. 70~80년대의 상황 399
5. 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 401
제2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402
1. 지방의회 의원 선거 · 402
2. 민선 단체장 선거 · 411
제3절 국회의원 선거 · 417
1. 제헌, 2대, 3대 국회의원 선거 · 417
2.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418
3.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419
4.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420
5.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421
6.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422
7.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424
8.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 425
9.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 427
10.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 429
11.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430
12.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431
13.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433
14.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435
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437
제3장 행정 · 439
제1절 속초시 행정기구 · 439
1. 속초시 구역 · 440
2. 행정기구 · 443
3. 동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 446
제2절 공무원 · 447
제3절 역대시장 및 부시장 · 448
1. 역대시장 · 448
2. 역대부시장 · 449
제4절 시정목표 및 방침 · 450
제5절 2005년도 시정 주요시책 · 451
1. 주요 시정시책 · 451
2. 우수시책 추진실적 · 459
제6절 예산 및 재정규모 · 460
1. 예산운영 · 460
2. 재정 및 회계 관리 · 463
3. 재산관리 · 467
제4장 사법 · 469
제1절 개관 · 469
제2절 법원 · 476
1. 연혁 및 기구 · 476
2. 관할구역 및 임무 · 476
3. 사건취급현황 · 477
제3절 검찰 · 477
1. 연혁 및 기구편제 · 477
2. 관할구역 및 업무 · 478
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의 역대 지청장 · 478
4. 검사의 직무권한 · 479
제5장 치안 · 480
제1절 개관 · 480
제2절 속초경찰서의 연혁 · 482
제3절 속초경찰서의 기구 · 483
제4절 각종 범죄 발생현황 · 485
1. 유형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 485
2.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발생 및 검거현황 · 488
3.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발생유형 · 490
4. 기소중지자 발생 및 검거 · 92
제6장 소방 · 493

제1절 개관 · 493
제2절 속초소방서 연혁 · 494
제3절 속초소방서의 기구 및 인원 · 495
제4절 일반현황 · 496
1. 관할구역 및 의용소방대 · 496
2. 소방 용수시설 및 차량 · 497
제5절 화재발생 현황 · 498
1. 일반적 현황 · 498
2. 화재발생 원인 및 장소 · 499
제6절 소방서 역대 서장 · 501
제7장 교통 · 502
제1절 도로 · 502
제2절 교통 · 503
1. 도시교통계획 수립 · 504
2. 지능형 교통체계의 도입 · 504
3. 교통시설 · 504
제8장 정보통신 · 509
제1절 행정자산화 추진 · 509
1. 행정 전산망 구축 · 509
2. One-stop 민원서비스 실시 · 509
제2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509
제3절 시민 PC방 운영 · 510
제4절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 · 510

제4편 교육사회 / 조진관 · 511
제1장 인구와 가족제도 · 517
제1절 인구추이 · 517
1. 시승격 이전의 인구추이 · 517
2. 시승격 이후의 인구추이 · 522
제2절 인구동태 · 527
제3절 인구이동 · 528
제4절 주요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 · 529
제2장 교육 · 531
제1절 일반현황 · 531
1. 속초교육의 연혁 · 531
2. 교육기본통계 · 534
3. 속초교육청 · 540
4. 속초평생교육정보관 · 547
5. 속초도서관 · 553
제2절 각급 학교현황 · 556
1. 초등학교별 현황 · 556
2. 중학교별 현황 · 579
3. 고등학교별 현황 · 586
4. 고등교육기관 · 591
제3장 사회복지 · 596
제1절 연혁 · 596
1. 사회복지의 개념 · 596
2.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 597
제2절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 605
1.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 605
2. 의료보험 · 609
3. 노인복지 · 612
4. 아동복지 · 621
5. 여성복지 · 626
6. 장애인복지 · 635
7. 국가 보훈자를 위한 복지 · 637
제4장 여가생활 · 641
제1절 여가의 개념과 여가활동 · 641
1. 여가의 개념 · 641
2. 여가의 활동 · 641
제2절 여가활동의 실태 · 642
1. 주요계층별 생활시간 활용상태 · 643
2. 가구유형별 여가생활시간 실태 · 649
3. 휴무실태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 · 650
4. 주요 활동별 여가시간 실태 · 651
제3절 속초시의 여가시설 현황 · 658
1. 문화공간 · 658
2. 공공도서관 · 659
3. 체육시설 · 659
4. 청소년수련관 · 660
5. 공원 · 661
제5장 보건 · 662
제1절 보건관련업무 개요 · 662
1. 위생관리 · 662
2. 속초시 보건소 운영 · 664
3. 건강생활여건 조성사업 · 666
4.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 668
5.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 670
제2절 지방공사 강원도 속초의료원 · 674
1. 연혁 · 674
2. 일반현황 · 675
3. 주요사업 및 의업실적 · 679
제6장 종교 · 681
제1절 종교전래과정 · 681
1. 개요 · 681
2. 종교별전래과정 · 681
제2절 종교단체 · 688
1. 일반현황 · 688
2. 종교단체별 교세현황 · 689
3. 종교별 상세현황 · 690
제7장 언론 · 695
제1절 지역 언론의 현황 · 695
1. 일반현황 · 695
2. 언론기관별 현황 · 697
제2절 시정홍보 · 703
1. 시정홍보 현황 · 703
2. 역대 시청 출입기자 명단 · 703
제8장 체육 · 707
제1절 연혁 · 707
1. 우리나라의 체육 · 707
2. 속초의 체육 · 709
3. 역대 도민체전 성과 · 712
제2절 체육진흥시책 · 713
1. 개요 · 713
2. 체육시설의 확충 · 714
3. 시청 실업팀 창단 및 해체 · 718

제3절 체육단체 현황 · 718
1. 속초시체육회 · 718
2.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 · 719

제5편 산업경제 / 조성진 · 721
제1장 속초시의 경제개관 · 725
제1절 속초시 도약기의 농업 · 728
1. 1960년대 · 736
2. 1970년대 · 736
3. 1980년대 · 737
4. 1990년대 · 737
5. 2000년대 · 737
제2절 향토 지적재산 육성 시책사업 추진 · 741
1. 장천골 옛날 장 명품화 서업 · 742
2. 현미재배 상황버섯 명품화 사업 · 742
제3절 속초시 성장기의 산업경제 · 743
1. 1982~1985년 · 743
2. 1986~1990년 · 749
3. 1991~1995년 · 751
4. 1996~2000년 · 752
5. 2001년 이후 · 753
제2장 소비생활의 변화와 대형할인점 등장 · 755
제1절 시작하며 · 755
제2절 대형할인점의 개관 · 756
1. 대형할인점의 정의 · 757
제3절 속초시 제현황 변화 및 대형할인점 등장에 따른 경쟁구조 변화 · 758
1. 속초시 인구 및 세대수의 변화 · 758
2. 속초시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759
3. 속초시 거주 주택현황 · 760
4. 수산물 어획고 현황 · 760
5. 대형할인점 등장에 따른 경쟁구조의 변화 · 761
제4절 조사 설계와 분석 · 765
1. 조사 설계 · 765
2. 자료 분석 · 766
제5절 결론 · 782
제3장 속초지역 주민의 TV홈쇼핑 이용실태 · 786
제1절 서론 · 786
제2절 TV홈쇼핑 개념 및 특징 · 787
1. TV홈쇼핑 · 787
2. 우리나라 TV홈쇼핑의 현황 · 790
제3절 조사 설계와 분석 · 796
1. 모집단 및 자료의 수집 · 796
2. 설문지 구성과 특징 · 796
3. 자료의 분석 방법 · 796
4. 자료 분석 · 797
제4절 결론 · 811
제4장 설악동 종합개발사업 · 814
제1절 설악동 종합개발의 추진경위 · 814
1. 사업추진 배경 및 추진경위 · 814
2. 사업총괄 · 817
3.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의 성과 · 822
제5장 금융 · 828
제1절 금융기관의 소개 · 829
1. 금융기관의 연혁 및 소개 · 829
제6장 공영개발 사업과 경제관련단체 · 839
제1절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 839
1.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 839
2.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 840
3.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 841
제2절 속초시 경제관련 단체 · 842
1. 속초시번영회 · 842
2. 속초향토기업 주식회사 · 845
3. 속초경실련 · 847
4. (사)한국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속초지회 · 855

제6-1편 관광 / 이재선 · 859
제1장 속초시 관광의 개관 · 861
제2장 속초시 관광현황 · 863
제1절 관광객 현황 · 863
제2절 관광개발 계획 · 864
1. 지역특성 · 864
2. 추진경위 · 864
3. 관광지개발 전망 · 864
제3절 설악산국립공원 현황 · 865
1. 공원구역 · 865
2. 국립공원 연혁 · 865
3. 국립공원 관리 · 866
4. 설악관광특구지정 · 866
제3장 속초시의 관광자원 · 868
제1절 자연관광자원 · 868
1. 설악산지구 · 868
2. 영랑호지구 · 893
3. 대포 · 물치지구 · 897
4. 청초호, 기타지구 · 899
5. 연중행사, 민속, 신앙 · 906
제4장 속초시의 관광시설 현황 · 922
제1절 숙박시설 · 922
1. 관광호텔 · 922
2. 휴양콘도미니엄 · 924
3. 가족호텔 · 928
제2절 종합휴양업 · 928
제3절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 929
제4절 관광식당업 · 929
제5절 유원시설업 · 930
제6절 삭 · 궤도업 · 930
제7절 카지노업 · 931
제8절 체육시설업 · 931

제9절 여행업체 · 932
제5장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 935
제1절 엑스포의 정의와 기원 · 935
1. 엑스포의 정의 · 935
2. 엑스포의 기원 · 935
3. 엑스포의 사회 · 경제적 기능 · 936
제2절 엑스포 개최 배경 · 937
1. 취지와 배경 · 937
2. 추진경위 · 937
3. 개요 · 939
제3절 엑스포 운영결산 · 940
1. 운영개관 · 940
2. 엑스포운영 예산 · 결산 · 941
3. 속초시의 관련 예산 확보운용 · 943
제4절 개최지의 행정지원 · 944
1. EXPO지원체계 구축운영 · 944
2. 완벽한 엑스포장 기반조성 · 947
3. 근접도로망의 확충 · 951
4. 원활한 교통 소통대책 추진 · 955
5. 범시민적 엑스포 참여 붐 조성 · 959
6. 공격적 홍보활동 전개 · 965
7. 관광유원지의 정비 확충 · 970
8. 체류 체험형 관광여건 조성 · 972
9. 국제관광지다운 도시경관 개선 · 978
10. 성숙된 손님맞이 운동 전개 · 984
11. 엑스포의 체계적 운영지원 · 984
제5절 종합평가 · 989
1. 총평 · 989
2. 주요성과와 반성 · 990
3. 앞으로의 과제 · 994
제6장 백두산 항로 개설 · 997
제1절 개요 · 997
제2절 추진 및 제반사항 · 997
1. 백두산 항로 추진과정 · 997
2. 백두산항로 거리와 운항항로 그리고 비용 문제 · 999
3. 운항사업자 및 선박제원 · 999
제3절 항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 · 1000
1. 북방항로 관련업체 초청 · 1000
2. 소무역인 육성을 위한 직원연수 · 1000
3. 소규모 무역상 육성 · 1000
제4절 효과 및 과제 · 1001
1. 한국 · 중국 · 러시아 등 동북아 3개국에 미치는 향후 경제와 관광효과 · 1001
2. 강원도와 속초시가 해야 할 과제 · 1001
제5절 백두산 항로 이용현황 · 1002
제7장 금강산 관광선 취항 · 1007
제1절 개요 · 1007
1. 선박제원 · 1007
2. 금강산 관광 여객전용 터미널 현황 · 1007
제2절 추진개요 · 1008
1. 현대상선의 금강산 관광선 취항 발단 · 1008
2. 우리시의 금강산 관광선 취항 유치노력 · 1010
3. 금강산 관광선 속초항 취항 일시 · 1011
제3절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이용 현황 · 1016

제6-2편 수산 / 윤영호 · 1019
제1장 속초의 수산업 · 1023
1. 속초항 · 1024
2. 관내 주요어항별 시설현황 · 1031
3. 어선 및 장비현황 · 1033
제2장 속초지방의 중요어법 및 어구 · 1036
1. 맨손어법 · 1036
2. 잠수기 어법 · 1038
3. 살상어구 · 1039
4. 낚기 어구류 · 1044
5. 주낙류 · 1047
6. 봉낚시류 · 1050
7. 오징어 낚시류 · 1052
8. 함정어구류 · 1056
9. 통발류 · 1059
10. 끌어구류 · 1066
11. 걸어구류 · 1074
12. 홑얽애그물류 · 1086
13. 삼중얽애그물류 · 1087
제3장 어업권 현황 · 1090
1. 면허어법 · 1090
제4장 수산업 현황 · 1094
1. 수산업 현황 · 1094
2. 수산진흥사업 · 1097
제5장 수산물 · 1110
1. 어류 · 1110
2. 연체동물 · 1125
제6장 속초시의 석호 · 1130
1. 영랑호 유역의 자연현황 · 1130
2. 영랑호의 관리 및 개발현황 · 1133
3. 영랑호 유역의 현황 · 1133
4. 영랑호 유역의 오염 부하량과 수질현황 · 1134
5. 영랑호 유역의 현황 분석도 · 1137
6. 영랑호 유역의 문제점 · 1137
7. 청초호 유역의 자연환경 · 1138
8. 청초호의 관리 및 개발현황 · 1141
9. 청초호 유역의 현황 · 1141
10. 청초호 유역의 오염 부하량과 수질현황 · 1143
11. 청초호 유역의 현황 분석도 · 1145
12. 청초호의 준설사업 · 1145
13. 청초호 유역의 문제점 · 1153
제7장 해안침식 · 1154
1. 해안침식이란? · 1154
2. 해안침식 현황 · 1154
3. 해안침식의 발생원인 · 1159
4. 해안침식 방지대책 · 1163
5. 해안침식 방지대책 수립시 주의사항 · 1165

下

第七編 문화예술

표 목차

7-5-1 문화재 현황
7-5-2 향성사지 3층석탑의 실측치
7-6-1 『갈뫼』발간 현황
7-6-2 학생백일장 개최 현황
7-6-3 주부백일장 개최현황
7-6-4 시마당 시낭송회 현황
7-6-5 물소리 시낭송회 행사연혁
7-6-6 미술협회 정기 회원전 현황
7-6-7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현황
7-6-8 설악주부미술한마당 개최 현황
7-6-9 국제아동미술교류전
7-6-10 미협재직임원 현황
7-6-11 강원연극제 수상경력
7-6-12 전국연극제 수상경력
7-6-13 주요 외국공연 연보
7-6-14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시상내역
7-6-15 극단 청봉 연극공연 연보
7-6-16 극단 파람불 연극공연 연보
7-6-17 극단 굴렁쇠 연극공연 연보
7-6-18 음악협회 정기 연주회 현황
7-6-19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개최현황
7-6-20 속초시립(설악)합창단 연혁
7-6-21 설악문화제 경축 노래자랑 개최현황
7-6-22 설악청소년가요제 개최현황
7-6-23 속초사진협회 정기 회원전 현황
7-6-24 역대원장 현황
7-6-25 속초문화원 임직원 현황
7-6-26 속초문화원 구성
7-6-27 협회별 인준 기관 및 인준일자
7-6-28 속초예총 임원 현황
7-6-29 속초시문화상 수상자 현황

사진 목차

7-4-1 해방전 갯배나루 전경
7-5-1 향성사지 3층석탑
7-5-2 신흥사 극락보전
7-5-3 신흥사 경판
7-5-4 보제루
7-5-5 목조아미타삼존불상
7-5-6 김종우 가옥
7-5-7 신흥사 전경
7-5-8 김근수 가옥
7-5-9 신흥사 부도군
7-5-10 노학동 3층석탑
7-5-11 내원암 현판
7-5-12 계조암
7-5-13 청초호의 철새들
7-5-14 영랑호 전경
7-5-15 영금정 일대
7-5-16 학무정
7-5-17 비선대 각자
7-5-18 계조굴 각자
7-5-19 수복탑 모자상 전경
7-5-20 설악산지구전적비
7-5-21 해경충혼탑
7-5-22 통천군순국동지충혼비
7-5-23 제1군단전적비
7-5-24 설악산 전경
7-5-25 설악동 소나무
7-5-26 울산바위
7-5-27 금강굴
7-5-28 토왕성폭포 전경
7-5-29 속초 등대
7-5-30 범바위 전경
7-5-31 조양동에서 본 청대산

7-5-32 철새 도래지
7-5-33 조도의 일출 모습
7-5-34 외옹치에서 본 대포항
7-5-35 해맞이공원 전경
7-5-36 학무정
7-6-1 갈뫼 창간호
7-6-2 갈뫼 34호
7-6-3 제1회 강원도 청소년연극제
7-6-4 제1회 속초시립합창단 창단연주회
7-6-5 제1회 설악 아동 연극제
7-6-6 제1회 속초예술인의 밤
7-6-7 제1회 전국 서예백일장
7-6-8 제1회 청소년 음악제
7-6-9 한일친선교류
7-6-10 중국 요령성 경극단 초청공연
7-6-11 자매시 국제아동 미술교류전
7-6-12 그레샴 시장 내방
7-6-13 연극협회 훈춘공연
7-6-14 학생백일장
7-6-15 주부백일장
7-6-16 제24회 미술협회지부전
7-6-17 학생실기대회
7-6-18 제1회 국제아동 미술전
7-6-19 제1회 전국서예백일장
7-6-20 음악협회 창립공연
7-6-21 제2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7-6-22 제1회 설악청소년음악회
7-6-23 제3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7-6-24 제3회 설악아동연극제
7-6-25 제12회 사진협회전
7-6-26 속초시민 위안 노래자랑
7-6-27 제1회 청소년 가요제
7-6-28 제8회 속초종합예술제 전야제 및 축하의 밤
7-6-29 제1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7-6-30 2004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7-6-31 제1회 설악청소년 사진촬영대회
7-6-32 훈춘시 국제가요제
7-6-33 훈춘 국제가무단 초청공연
7-6-34 꽃봉우리 소년 예술단 초청공연
7-6-35 이성선 시인 추모 문학제
7-6-36 제1회 바다문학기행
7-6-37 제25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7-6-38 우리꽃 그리기 사생대회
7-6-39 제22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
7-6-40 제12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7-6-41 제7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공연
7-6-42 임수철 창작가곡집 출판기념회
7-6-43 한국 남성합창단 초청공연
7-6-44 한민족 통일음악축전 음악발표회
7-6-45 연극협회 정기공연
7-6-46 극단 오름 공연
7-6-47 이상국 문단데뷔 기념
7-6-48 최명길 시집발간 기념
7-6-49 김종영 동시집 출판기념
7-6-50 1985년 문학의 밤
7-6-51 독자와 함께하는 문학의 밤
7-6-52 제6회 거리시화전
7-6-53 설악학생백일장
7-6-54 설악주부백일장
7-6-55 거리시화전
7-6-56 갈뫼지 발간 및 문학축제
7-6-57 제2회 학생미술실기대회
7-6-58 제17회 세계잼버리 기념 강원도 미협전
7-6-59 김광수작품 초대전
7-6-60 제3회 학생미술실기대회
7-6-61 제16회 미협 속초지부전

7-6-62 제4회 학생미술실기대회
7-6-63 미술의 해 기념 신춘미술협회전
7-6-64 자매시 미술교류전
7-6-65 강원미술협회 초대전
7-6-66 제2회 향토미술 작가전
7-6-67 강원도 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7-6-68 우리꽃 그리기 사생대회
7-6-69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7-6-70 설악주부 미술실기 대회
7-6-71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7-6-72 국제아동미술 교류전
7-6-73 설악서예백일장
7-6-74 미술유적지 탐방
7-6-75 송년미술전
7-6-76 서우회원전
7-6-77 제2회 전국서예백일장
7-6-78 제20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
7-6-79 제6회 속초서우회전
7-6-80 제22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
7-6-81 제6회 설악서예백일장
7-6-82 제13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7-6-83 강원도청소년연극제
7-6-84 전국연극제
7-6-85 무대지원사업공연
7-6-86 정기공연
7-6-88 세종국악 관현악단 초청공연
7-6-89 봄맞이 가곡의 밤
7-6-90 푸른 오월을 위한 콘서트
7-6-91 입시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7-6-92 99 신년음악회
7-6-93 그레샴합창공연
7-6-94 음악협회 산하 3개단체 연합대공연
7-6-95 캐나다 프리마 뉴즈 합창단 초청공연
7-6-96 설악엔젤스 블라디보스톡 어린이 합창제 공연
7-6-97 설악청소년콩쿠르
7-6-98 설악청소년음악회
7-6-99 음악협회정기연주회
7-6-100 주부가요열창
7-6-101 제8회 청소년건전가요제
7-6-102 시승격 30주년 시민위안 노래자랑
7-6-103 무의탁 노인돕기 사랑의 라이브 공연
7-6-104 청소년가요제
7-6-105 속초시 직장인 노래자랑
7-6-106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7-6-107 청소년 건전가요제
7-6-108 설악문화제 가요제
7-6-109 훈춘시 국제가요제
7-6-110 춤, 소리로의 초대 공연
7-6-111 제8회 설악눈꽃축제기념 속초사진협회 사진전
7-6-112 속초작가협의회 창립전
7-6-113 종합예술제 기념사진전
7-6-114 눈꽃축제 기념 사진전
7-6-115 설악문화제 기념사진전
7-6-116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7-6-117 속초문화원 발간자료
7-6-118 예총속초지부 현판식
7-6-119 일복문화관
7-6-120 속초문화회관 전경
7-6-121 중앙극장
7-6-122 동보극장
7-6-123 대원극장
7-7-1 통일대제
7-7-2 용왕제
7-7-3 제등행렬

7-7-4 제례굿
7-7-5 갯배끌기
7-7-6 범선경기
7-7-7 풍물겨루기
7-7-8 길거리 시화전
7-7-9 분재전시회
7-7-10 마상무예
7-7-11 그네뛰기
7-7-12 시민강좌발표
7-7-13 투호대회
7-7-14 제1회 설악눈꽃축제
7-7-15 얼음놀이
7-7-16 얼음조각전
7-7-17 하얀산길 걷기
7-7-18 빙벽등반
7-7-19 사진전시회
7-7-20 대한민국음악축제
7-7-21 해맞이축제
7-7-22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7-7-23 정월대보름 액짚태우기 행사
7-7-24 학사평 순두부축제
7-7-25 설악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제7편 문화예술

제1장 속초 문화의 특성

문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 양식의 총체로 언어・풍습・도덕・종교・학문・예술 및 제도 등을 말한다. 따라서 속초문화라 하면 그동안 속초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총체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속초 문화가 다른 지역 문화와 특히 구분되는 성격을 속초 문화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의 접근 방식도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민속학적 접근 방식이 이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 될 수 있다. 사실 문화적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난날부터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채택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가장 분명한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속초문화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1절 다양한 성격의 문화 공존

속초는 행정구역상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태백산맥의 주요한 산인 설악산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흐르는 세 하천에 의해 3분된다.

제일 북쪽의 장천천은 영랑호로, 중앙의 청초천은 청초호로, 남쪽의 쌍천은 동해로 유입되어 작은 분지를 이루게 되고 동서로 발달한 하천을 따라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져 농업이 발달하였고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어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하천의 근원지인 설악산은 웅장한 산세와 기암괴석, 깊은 계곡 등으로 관광지로 개발되었고 그 이전에는 산촌생활의 근거지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은 지역의 중요한 문화형성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문화는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속초문화를 규정짓는데 이러한 특이한 지형적 여건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은 속초의 문화를 농경문화, 어촌문화, 산촌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로 만들었다.

제2절 문화 단절 현상

현대 속초 문화의 가장 큰 특성은 전통적 삶의 양식과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현대 속초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난달부터 이곳에 대대로 터 잡고 살아오면서 문화 양태를 전수받은 이들이 아니고, 당대의 격심한 사회 변동으로 갑자기 유입된 새로운 세력들로 재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속초는 고유 전통 문화의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기형적인 문화 양상을 보여왔다.

1945년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국토는 분단되어, 우리 속초는 이른바 '인민공화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때 이 지역의 엘리트 계층 즉, '문화 주도 세력'들은 '해방된 조국의 역군'으로 인민 공화국 정부에 적극 협조하게 됨이 당연시 되었다. 따라서 1950년 전쟁이 나고 수복이 되자, 이들은 자진 월북할 수밖에 없었고 또는 납북 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속초 지역은 문화 주도 세력이 소멸되기에 이른다.

실제로, 1919년에 개교한 대포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들의 해방을 추적해 보았더니, 60여명의 졸업생 중 20여명이 북한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보통학교는 이 고장 유일의 현대 교육기관이었고, 그 졸업생은 이 지역의 엘리트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문화 주도 세력들의 상당수가 월북 또는 납북의 형태로 '在北'의 상태에 있었음은 전통 문화 소멸의 원인을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제3절 이질적 문화의 혼합 현상

이 실향민 인사들은 함경남북도 전역과 평안남북도, 황해도 출신들이 고루 섞여 있었으므로, 유년시절의 문화적 체험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공통의 문화적 색깔을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속초는 상당히 오랫동안 문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도 북한 통치하에서는 견딜 수 없는 세력, 즉 브루조아 계층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각기 자기 지역의 문화 주도 세력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속초에는 북한 전역의 문화가 유입되어 기존의 문화와 혼합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는 북청사자놀음의 경우, 속초에 거주하던 피난민들에 의해 재현된 것이 남한에서의 최초 공연이다. 이

들은 1 · 4후퇴 이후 이곳에 정착하면서 함경도 북청 지방 특유의 공건물인 도청을 짓고 1957년부터 자신들의 민속을 재현했는데, 이것이 그 10년 후 서울을 전승지로 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받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생활양식에도 변화를 주어 어민들의 경우 조업 방식이나 선박 건조 방식 등도 북한 지방의 것이 도입되었고 어로요도 북한 지방의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북한 문화는 언어생활에도 침투해 북한 방언이 오히려 속초 고유의 방언을 밀어내고 있기까지 했다.

이렇듯 실향민의 유입으로 속초 문화는 획기적 변화를 겪게 되며, 고유의 민속문화는 소수세력으로 남는 기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사실 실향민의 유입은 속초뿐 아니라 인근 고성 · 양양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실향민들 대부분이 어업이나 상업에 종사했고, 농사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므로 일부 해안 지역과 도심지만이 이들 실향민들에게 노출되었을 뿐이고, 농경 문화권은 여전히 보호될 수 있었다. 따라서 속초는 도문동, 노학동 등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실향민들에 의해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이해된다.

결국 유년 시절의 문화적 체험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속초 문화는 이질적이고 혼합적인 문화 양식을 보이며 문화 공동화 현상이 한동안 유지된다.

제4절 피난민 문화 창출

속초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은 피난민 문화가 차지한다. 피난민은 해방기에 3,561명, 동란기에 48,722명이 유입되었으며, 이 가운데 함경남도가 92.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북청 · 영흥 · 단천 · 홍원 · 이원군 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함경남도 해안출신으로 1 · 4후퇴 때 가장 많이 월남했으며, 1 · 4후퇴 후 휴전시, 6 · 25전쟁 발발시 등이다. 이렇게 모여든 피난민들은 난민이라는 집단 개성을 유지하여, 경제활동과 사회문화활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로작업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갖게 됨으로써 난민사회는 안정감과 결속력을 다져 나갔다.

속초 피난민의 민속은 피난민의 정착과 삶이라는 남북분단사 내지 난민사와 일정한 연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해방이후 북한 공산치하를 탈출한 피난민과 6 · 25전쟁 때 월남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월남

하였고, 난민취락을 형성하면서 집단으로 생활하였다.

초기에 속초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이질적인 언어관습과 행동양식, 생활풍습, 문화방식 등으로 토착주민들과 융합되기가 힘들었으나 전쟁 중이거나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복구기간에 피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살아야 한다는 명제 하에 대집단을 형성함으로 심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은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은 공지나 해변가에 임시로 집을 짓고 살면서 직접적인 마찰을 피했으며, 곧 통일이 되어 공산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일념으로 일시적인 거주 방식을 취했다.

경제활동의 경우 대부분 이들이 생업으로 종사했던 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동명동과 청호동 일대에 한 두 가구가 모여들기 시작함에 특색이 강한 독자적인 '난민의 섬' (Refugee island)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속초에 거주한 북한 피난민들은 나름대로 전통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 토착민과 일정한 민속 문화적 교섭을 가졌다. 그러한 예로 북청도청(北靑道廳)을 만들어 사자놀음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정서적 갈등을 해결했으며, 이를 통해 결집하면서 강인한 생활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며 주변 이웃과 공유하면서 원만한 적응을 이루었다. 또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에 매진하여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면서 지역에 공헌하였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속초 피난민과 그들의 민속은 지금까지 피난 1세대가 아직까지 생존해 있으므로 시대적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는 복합적 민속문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

제2장 한문학 속의 속초

1. 世謂安常爲俊永郎徒 不之審也 永郎之徒 唯眞才 繁完等知名 皆亦不測人也(詳見別傳)

『三國遺事』, 栢栗寺

세상에서 안상은 영랑의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영랑의 무리에는 오직 진재, 번완 등이 이름이 알려졌으며 모두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자세한 것은 별전을 보라)

2. 山水之勝 當以江原嶺東爲第一... 次則杆城花潭 如月墮淸泉 永郎湖 如珠藏大澤 襄陽靑草湖 如鏡開畵 此三湖奇勝 亞於上三湖 我國入道 俱無永湖 惟嶺東六湖 殆非人間所有三一浦 則湖中心 有四仙亭 則新羅永郎 述郎南石行 安祥(詳)所遊處 四人結爲友不仕 遊山水間 世傳得道仙去 湖之南石壁有丹書 卽四仙題名 丹痕漬壁 風雨不 千有餘年 亦可 訝也

『擇里志』四, 山水勝地

산수의 경치가 좋은 곳은 마땅히 강원도 영동지방이 제일이다... 다음 간성의 화담은 달이 맑은 샘에 떨어지는 것 같고 영랑호는 큰 못에 구슬을 감춘 것과 같고 양양의 청초호는 그림경대의 거울을 연 것 같다. 이 세 호수의 기이한 경치는 위의 세호수에 다음 간다. 우리나라 팔도에 모두 호수가 없으나 오직 영동의 여섯호수는 인간이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삼일포의 호수 가운데 사선정이 있다. 곧 영랑, 술랑, 남석행, 안상의 화랑이 놀던 곳이다. 네 사람이 벗이 되어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산수간에 노닐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도를 얻어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호수의 남쪽 돌벽에 붉은 글씨가 있다. 즉, 네 선인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붉은 흔적이 벽에 물들어서 천여 년이 지났으나 바람과 비에 씻겨 나가지 않았으니 또한 이상하다.

3. 初八日泛舟永郎湖 日晩不得窮源

『臥遊錄』

초팔일 영랑호에서 뱃놀이를 하다.

4. 四仙峰有小亭

『臥遊錄』

사선봉에 작은 정자가 있다.

5. 越泰定丙寅 今知秋部學士朴公淑 自關東杖節而還謂余曰 臨瀛鏡浦臺 羅代永郎仙人所遊也

『謹齋全集』

세월이 지나 태정 병인년(1326)에 지금 전법사의 학사로 이는 박숙이 관동의 안무사로 있다가 돌아와 나에게 말하기를 강릉의 경포대는 신라 때 영랑이라는 신선이 놀았던 곳이라고 하였다.

6. 昔永郎之遊是臺也 必有所樂焉 今朴公所樂者 其得永郎之心歟 朴公命邑人 構是亭 邑人咸曰 永郎遊是臺而未聞有亭宇

『謹齋全集』鏡浦新亭記, 근재사상연구회, 1994

옛날에 영랑이 이 언덕에서 놀았는데 반드시 즐기었다. 이제 박공이 즐기기는 바로 영랑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박공이 고을 사람들에게 정자를 짓도록 명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랑이 이 언덕에서 놀았으나 정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7. 永郎浦泛舟　　영랑호에서 뱃놀이

平湖鏡面澄　　평평한 호수는 거울처럼 맑고
滄波凝不流　　푸른 물결은 엉기어 흐르지 않네
蘭舟縱所如　　아름다운 배는 마음대로 흘러가고
泛泛隨輕鴻　　물위에 뜬 기러기 빨리도 따라 오네
浩然發淸興　　맑은 물결 크게 일어나니
沂洄入深幽　　물을 거슬러 깊은 곳으로 들었네
丹崖抱蒼石　　붉은 절벽에 푸른 바위 서 있고
玉洞臟瓊洲　　아름다운 골에는 고운 모래톱 펼쳐 있네
循山泊松下　　산을 돌아 푸른 솔 밑에 머무르고
空翠凉生秋　　울창한 푸른 기운 서늘한 가을을 주네
荷葉淨如洗　　연꽃잎은 씻은 듯 아름답고
蓴絲滑且柔　　순채나물은 미끄럽고 부드럽네
向晩欲廻棹　　해 저물어 뱃머리 돌리려 하네
風烟千古愁　　좋은 경치 천고의 수심을 내네.
古仙若可作　　옛날 영랑의 선도 다시 올 수 있다면
於此從之遊　　여기서 그를 따라 놀겠노라

『謹齋全集』

8. 八月始四日 北行 泛永郎湖 8월 4일 영랑호에서 뱃놀이

暮雲半卷山如畵　　저녁구름반 걷혀 산은 한 폭의 그림 같고
秋雨新晴水自波　　가을비 개니 물결이 저절로 일어나네
此地重來難可必　　이 곳에서 반드시 다시 오기 어려우니
更聞船上一聲歌　　다시 배 띄워 노래한 곡조 듣노라

『謹齋全集』

9. 留贈巫山張玉娘　　무산 장옥랑과 작별하녀 주어주다.
天吼山前草正芳　　천후산 앞에는 풀이 정히 꽃다운데
永郎湖畔落花香　　영랑호 호숫가 지는 꽃이 향기롭네
畵舡載得春歸去　　놀잇배에 봄을 가득 싣고 돌아가니
吹徹鸞簫向帝鄕　　옥퉁소 드높아 하늘나라로 향하는 구나

許筠,『惺所覆瓿藁』

10. 雙成湖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航今廢

『關東邑誌』

관문으로부터 북쪽 사십리에 있으며 주위가 이십 리이다. 호수의 경치는 영랑호보다 뛰어나다 옛날에 만호영을 설치하여 두고 병선을 정박했지만 지금은 없다.

11. 永郎湖

在郡南五十里周三十餘里汀回曲巖石奇怪湖東小峰半入湖心有古亭基是永郎仙徒遊賞之地 於此平湖鏡面澄 滄波凝不流 蘭舟縱所如 泛泛隨輕鴻浩然發淸興 沂洄入深幽 丹崖抱蒼石 玉洞臟瓊洲 循山泊松下 空翠凉生秋荷葉淨如洗 蓴絲滑且柔 向晩欲廻棹 風烟千古愁 古仙若可作 於此從從之遊 暮雲半卷山如畵 秋雨新晴水自波 此地重來難可必 更聞船上一聲歌 李穀詩安相情懷黃鶴月李生止白鷗波重來此地誠難必空聽關東一曲歌

『新增東國輿地勝覽』

군 남쪽 오십 리에 있다. 주위가 삼십여 리인데 물가가 구비쳐서 돌아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옛 정자터가 있으니 이곳은 영랑 신선무리들이 놀며 구경하던 곳이다.

12. 永郎湖

在郡南五十五里周回二十里浸入山谷不見端倪汀回渚曲 石錯峙水中亦孤石如點星東麓一丘近湖中松林周 日光不漏可列坐百餘人古有亭今廢世傳永郎遊賞之地故以爲名焉

『關東邑誌』,『關東誌』,『江原道杆城郡邑誌』

군 남쪽 오십 리에 있고 주위는 이십 리이다. 산골짜기로 들어가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데 물가에 구비쳐서 돌아오고 굽은 바위는 높은 언덕에 아름답게 놓여 있다. 물속에도 돌이 외롭게 별처럼 널려 있다. 동쪽 산기슭 한 언덕이 호수 속으로 들어오는데 주위가 소나무 숲은 우거져서 햇볕도 새어나가지 못한다. 이 곳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시를 지으며 놀았다. 옛날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세상에 전하기를 영랑이 놀면서 감상하였던 곳이기에 영랑호라고 이름하였다.

13. 羽衣初綰白雲邊　흰 구름 가에 신선의 옷을 엮고
匹馬東來意渺然　동쪽 땅에 홀로오니 뜻은 묘연하구나
日落沙明湖水闊　해진 뒤 밝은 모랫벌의 호수는 넓고
不知何處問神仙　어디서 신선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구려

李尙質－成均館 敎理,『太白의 詩文』, 江原日報社

14. 行盡長松沙岸東　모래사장 동쪽 솔밭을 지나면
澄淸瀟泗竟無風　깨끗하고 맑은 곳에 바람도 없네
明湖一曲眞如畵　호수는 맑아서 한 폭의 그림 같고
雪嶽千峰倒鏡中　설악의 천봉이 거울 속에 잠겼네
歷遍金剛萬二岫　금강산의 만이천봉을 두루 돌아서
海棠千里踏鳴沙　명사 천리 해당화 길 밝고서 왔네
永郎湖畔初開眼　영랑 호반에 서니 시계가 열려
手拍瓊壺浩浩歌　술동이 장단 치며 호호가를 부른다.

李世龜－李恒福의 曾孫이며 洪洲牧師,『太白의 詩文』, 江原日報社

15. 屛張萬岫海開門　험한 봉이 에워싸도 바다 길은 열렸고
沙阜成臺衆妙存　모래언덕 대에는 묘한 이치가 있네
漢將廻時三日哭　한장이 돌아갈 때 사흘을 울었다고
至今猶記契玄言　지금도 전하는 기록이 남아있네

金昌翕,『太白의 詩文』, 江原日報社

16. 平湖淨色明如鏡　　맑은 호수 평활하여 거울 같고
雪岳晴峰擁作屛　　설악의 맑은 봉은 병풍처럼 둘렀네
笙鶴千年消息斷　　신선이 간지 천년이지만 소식이 없고
空留片日照滄濤　　허공의 조각달만 푸른 파도비치네

李夢奎,『太白의 詩文』, 江原日報社

17. 安相淸懷黃鶴月　　안축은 황학의 달 보고 맑은 회포 풀었는데
李生行止白鷗波　　나는 흰 물새 떠 있는 물결보고 가던 길 멈추었네
重來此地誠難必　　이곳 다시 오기 참 어려워
空聽關東一曲歌　　허전한 마음 안고 한 곡조 관동노래 듣는다.

李曲의 詩,『江原道誌』

18. 학무정
鶴舞亭
在郡北三里 雪嶽山下 道川上有九曲 第二曲 石塊成岑兩水間 故鶴舞臺 泉石佳麗 松竹環衛 西望達摩如將軍戴胄 東望滄海如仙人開帳 吳儆菴辰光逍遙放此 後孫潤煥追慕起亭

『江原道誌』

군 북쪽 3리에 있다. 설악산 아래 길을 따라 흐르는 시냇가에 구곡이 있는데 두 번째 구비에 있다. 바위 무더기가 두 물줄기 사이에 봉우리를 이루어 학무대라고 이름하였다. 샘과 바위가 아름답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주위를 둘렀다. 서쪽으로 달마봉을 바라보면 마치 장군이 투구를 쓴 듯하고 동쪽으로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마치 신선이 휘장을 열어젖힌 듯하다. 경암 오진광이 이곳에서 소요하였는데 후손 윤환이 추모하여 정자를 지었다.

※ 아래의 작품들은『매곡유고』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19. 학무정(鶴舞亭)
둥근 돌멩이에 절로 정자 서 있는데　　團團石塊自我亭
학이 옆으로 날아와 한 물가에 앉네　　有鶴橫來水一汀
벽은 추풍에 서 있으니 성긴 그림자 붉고　　壁立秋風疎影赤
밭은 밤 달 맞으니 옛 흔적 푸르네　　田影夜月舊痕靑
나는 신선 소식은 결국 기억하기 어렵고　　飛仙消息終難記
옥 같은 학의 맑은 소리 어렴풋이 들리는 듯 하네　　戛玉淸音怳似聽
내가 티끌 묻은 옷깃 헤치고 소나무 아래 앉으니　　披我塵衿松下坐
이 마음 갑자기 깨우쳐 남은 술기운 확 깨네　　此心頓覺醉餘醒

20. 신흥사에서 놀다

1)

천 년의 범우 난간에 붉게 칠했으니 千年梵宇畵欄紅
가벼운 신발로 쌍쌍이 동으로부터 오네 輕屐雙雙儘自東
관리와 백성 같이 즐김 오늘날 알겠고 官民同樂知今日
유교와 불교 통하여 행하니 또한 고풍이라네 儒佛通行亦古風
바위에 꽃 도리어 웃으니 봄 믿음이 없고 巖花還笑春無信
언덕에 풀 한갓 기대고 있으니 비의 공이 있다네 岸草徒憑雨有功
태현경의 참된 뜻 알려고 하니 欲識玄經眞個意
능소를 보니 이치가 온전히 비어있네 折看能所理全空

2)

달 서쪽 봉우리에 떠 그림자 작은데 月在西峯影隱微
술 잔 대하지만 봄 옷 전당잡힐 필요 없다네 對樽不必典春衣
용은 옛 바리때에 숨으니 구름이 젖었고 龍藏古鉢曇雲濕
학은 어느 산으로 갔기에 석장[1]이 날으는가 鶴去何山錫杖飛
천성을 좇아 시를 말하니 세속의 태도 아니고 率性言詩非俗態
마음 고요히 하여 사물 관찰하니 모두 참된 기미있네 靜心觀物摠眞機
태수가 소요함은 오늘 저녁 인데 逍遙五馬維今夕
사랑스런 명승지로 보기 드문 곳이라네 爲愛名區見所稀

1) 석장(錫杖) : 중 또는 도사가 짚은 지팡이. 위에 여러 개의 쇠고리를 달아 소리가 나게 되었음.

21. 계조암(繼祖菴)

한가한 스님한테 듣고 이 땅에 머물렀으니 聞道閑僧此地捿
다니다 찾은 한 지름길, 그 지름길 가지런하지 않구나 行尋一逕逕難齊
고을 깊으니 남은 꽃받침 봄 지났는데도 있고 洞深餘萼經春在
산 고요하니 기이한 새 하루 종일 울어대네 山靜奇禽終日啼
늙은 회나무 맑은 그늘지니 사람들 마주앉아 술 들고 老檜淸陰人對酌
높은 대는 두어 길이라 돌사다리 이루었네 高臺數仞石成梯
궁벽한 곳에 아름다운 경치 없다 말하지 말라 莫言僻處無佳景
이로부터 관동이 관서만 못하지 않다네 自是關東不下西

22. 비선대(飛仙臺)

신선이 눕고 신선이 나는 대 있으니 仙臥仙飛只有臺
고을 하늘 고요하고 일 만 구름 떠 있구나 洞天寥廓萬雲開
절벽에 우는 샘 걸렸으니 흰 눈 뿜어내고 壁掛鳴泉噴白雪
지름길엔 묵은 비 인연되니 푸른 이끼 미끄럽네 蹊緣宿雨滑蒼苔
바둑 두었으니 쇠잔한 바둑판 남아있고 落來棊橘餘殘局
바다와 뽕나무 다 꺾었으니 몇 겁회[2]나 되었는가 閱盡滄桑幾劫灰
풍류 끝나지 않았으니 어느 때 또 할까 風流未了何時又
강성 5월 매화 핀 때 기다려 모이려네 留待江城五月梅

23. 상복동 화회(花會)

시 짓고 노는 데 곳곳마다 있으나 나는 지금 처음인데 詩遊在在我今初
이 즐거움의 인연은 학업이 남음이 있다네 此樂徒緣業有餘
천리의 큰 길이라 마음은 천리마에 나가고 千里垣程心赴驥
십년의 공부 바다에 빠지니 꼬리가 고기처럼 도네 十年學海尾回魚
아름다운 자리 단란하니 새로 돋은 풀 빽빽하고 嘉席團欒新草密
맑은 그늘 천천히 춤추니 옛 솔 성기네 淸陰宛轉古松疎
가령 밝은 경치를 묘사하려 한다면 如令模得昭然景
늙은 돌 납작한 머리에다 특히 크게 써야 한다네 老石扁頭特大書

2) 겁회(劫灰) :
〈佛敎〉 劫火의 재.
세계가 파멸 될 때에 일어난다는 큰 불의 재.

24. 신흥도중(神興途中) 4월12일 여러 손님과 함께 동행하다

짐짓 등나무 넝쿨 뚫고 고을로 들어가니 故穿藤蘿入洞天
구불구불한 길이라 소매 서로 맞닿네 逶迤行處袂相連
바람 부는 절벽엔 가벼이 안개나고 引風絶壁輕生霧
눈 뿜어내는 벼랑엔 멀리 개천이 걸려있네 噴雪層崖遠掛川
영계가 사람을 허여하니 눈 앞이 확 트이고 靈界許人開眼矚
세속의 행장에 나는 부끄러우니 티끌먼지 가져옴이네 俗裝愧我浥塵烟
종루엔 천고토록 단청이 있으니 鍾樓千古丹靑在
현판액자에 이름 쓴 이 누가 제일 먼저인가 懸額題名孰最先

25. 신흥사(神興寺)에 도착하여

극락의 강은 깊고 보전은 열렸는데 極樂江深寶殿開
남풍부는 4월에 객과 같이 온다네 南風四月客同來

맑은 경쇠 한 소리는 조굴에 들리고　　淸磬一聲通祖窟
흰 구름은 천년 동안 선대를 호위한다네　　白雲千載護仙臺
마음이 맑은 경계 따르니 능히 도를 이루고　　心從淨界能成道
시는 이름난 구역에 이르니 각각 재주 다 발휘하네　　詩到名區各盡才
낮에 차 한잔 먹고 행장을 꾸리니　　午茶纔罷因裝屐
꽃다운 나무 짙은 그늘엔 길은 더욱 돌아났네　　芳樹濃陰路轉回

26. 계조암(繼祖庵)에 올라서

굴에다 운사께서 작은 암자 지었으니　　有竇雲師結小庵
돌 문 한 면에 바로 열린 곳이 남쪽이라네　　石門一面正開南
홀처럼 기형으로 섰으니 산은 몇 십 개나 되는가　　笏立奇形山幾十
상전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옮겼으나 바다는 세 번 응했네　桑移往劫海應三
스님이 염주 돌림은 가끔 염불하는 것이고　　道釋環珠時念佛
나루의 아낙네 장막 치고서 아들 낳기 비네　　津娥施幛願生思
참된 인연은 여기에 이르면 참으로 볼만 한데　　眞緣到此多眞觀
종이에 새 시 적으니 푸른 쪽 물감으로 갈겨쓰네　　翰出新詩剪碧藍

27. 하신사(下神寺)에서 밤에 읊조리다

옛 절엔 천년동안 신성함 일어나니　　古寺千年神以興
봄 끝에 지팡이에 나막신 신고 억지로 올라보았네　　春餘笻屧强臨登
산은 속객 혐의하니 바람소리 괴롭히고　　山嫌俗客風聲惱
하늘은 노는 사람 보내니 달 빛 맑구나　　天送遊人月色澄
연 잎 향기 속에 한가롭게 앉아있는 이는 부처이고　　蓮葉香中閑坐佛
솔 꽃 깊은 곳엔 혼자 돌아오는 스님이라네　　松花深處獨歸僧
가슴에 쌓인 부생의 번뇌 다 씻어 버리니　　胸襟滌盡浮生累
누가 알까 이 공간에서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誰識斯間理所能

28. 비선대(飛仙臺)에 올라 4월 13일

신선이 날고 신선이 눕기를 옛날 언제부터 했는가　　仙飛仙臥昔何年
날면 비선이고 누우면 와선이라네　　飛是飛仙臥臥仙
외로운 학은 두 날개로 적벽강 지나가고　　孤鶴雙翎過赤壁
신령스런 지초 아홉 잎 단정에 빼어났네　　靈芝九葉秀丹田
붉은 이끼에 글자 무치니 사람들 느낌이 많고　　頹苔字沒人多感
은 폭포 소리 차니 손님은 잠 못 이루네　　銀瀑聲寒客未眠

새로 시 한수 지으려 길가다 앉았는데　欲寫新詩行處坐
대 위에 흰 구름 떠가니 흥취 유연하구나　白雲臺上興悠然

29. 선대(仙臺)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선대의 거리 십리이나 숭조[3] 동안의 거리도 못 되는데　仙臺十里不崇朝
많이 팔아 주었더니 돌아올 때도 부름 당하네　饒賞歸時返見招
술 좋아하여 잠시 산 아래 주점에서 기울이고　好酒俄傾山下店
기이한 암석을 다시 절 앞 다리에서 가리키네　奇巖更指寺前橋
숲 꾀꼬리 손님 보내는 소리 도리어 껄끄럽고　林鶯送客聲還澁
보리밭의 제비는 사람만나 이야기함이 교만하구나　麥鷰逢人語欲驕
그윽하게 생각하니 정자와 이별은 다른 날 일인데　暗想離亭他日事
한번 채찍드니 버들 주며 멀리멀리 가는구나　一鞭贈柳去遙遙

3) 숭조(崇朝) : 새벽부터 조반을 먹을 때까지의 동안. 아침.

30. 7월 1일, 가을 학무대(鶴舞臺)에 올라

누대는 물에 가깝고 가을되어 시원하데　近水樓臺爽欲秋
더욱이 계절의 기운은 화성이 흐르네　矧玆氣序火星流
문장 지어 읊조리니 매미 나무에서 울고　文章吟賦蟬鳴樹
처사가 호수에서 노니 학 배에 알려주네　處士遊湖鶴報舟
바위에 꽃 붉은 잎 떨어뜨리는 것이 웃음 머금은 듯하고　巖花紅拂猶含笑
강가 풀 푸르니 어찌 수심 일으키랴　江草靑生豈喚愁
머뭇거리며 지난 일 생각해 보니　緬憶徜徉前日事
풍광이 완연히 옥담 가에 있구나　風光完在玉潭頭

31. 8월 28일, 백담사에서 놀며

산봉우리 높이 나솟고 못 깊은데　高明峰出百淵深
하루종일 가고 또 가 별경을 찾았네　盡日行行別境尋
여만사 앞엔 흐르는 물 맑고　如滿社前流水淨
혜후루 위엔 푸른 놀 떠 있구나　惠休樓上碧霞陰
티끌은 큰 겁 지났으니 쇠잔한 꿈 기대고　塵經浩劫憑殘夢
말은 청진에 이르니 본심 깨닫네　語到淸眞覺本心
떨기 잣나무 찬 꽃 감상 제공해 주는데　叢栢寒花堪供賞
이 마음 어찌 깊게 읊조림 아끼겠는가　此懷那惜費長唫

32. 8월 19일, 오세암(五歲庵)을 방문하여

흰 구름 깊은 곳에 신선 암자 있으니 白雲深處有仙庵
산악의 형세 험하나 멀리 남쪽이 트였네 岳勢層峻遠坼南
권역안에 진형이 걸렸으니 그 오세암이고 圈掛眞形其歲五
경쇠에 유적이 달렸으니 이는 삼연이라네 磬懸遺蹟是淵三
가을 빛 어여쁘니 서리 나무에 침노했고 堪憐秋色霜侵樹
하늘 빛 얻으니 물은 못에 가득하네 許得天光水滿澤
고상한 선승의 정성스런 뜻 많음 감사 하는데 爲謝高禪多款意
나에게 구술 열매주니 맛이 담박하고 달구나 饋吾珠實味淸甘

33. 8월 그믐날, 봉정암(鳳頂庵)에 올라서

하늘이 명승지 보호하려고 우리나라에 주었으니 天護名區擅我東
나무 잡고 돌 밟으며 같이 왔다네 攀枝躋石偶來同
산봉우리는 세 철의 비에도 끊이지 않았고 峰頭不斷三時雨
처마에는 만리의 바람이 길게 불어오네 簷角長噓萬里風
옛날의 자선은 바다에 떠 멀리갔고 昔日慈船浮海遠
어느 사람이 지팡이 짚고 구름 뚫고 오는가 何人飛錫穿雲立
한가한 스님 앉아서 청산의 역사 설명하는데 閑僧坐說靑山史
탑 세운지 천년이라 불공 힘입었다네 建塔千年賴佛功

34. 9월 1일, 봉정암에 머물다

산정기 영특하고 눈 빛 맑은데 岳精英特雪光晴
비로소 신령스런 구역 깨달으니 첫째가는 이름이네 始覺靈區第一名
상서로운 봉황 천년동안 붉은 이마 세우고 瑞鳳千年丹頂立
상서로운 기린 백리에 푸른 발굽으로 가네 祥麟百里碧蹄行
여기에서 가장 기쁜 건 신선 인연 중함이요 此間最喜仙緣重
속세 밖이라 무관함은 들의 횡설수설이라네 世外無關野說橫
칠푼 정도도 모양 그리기 어려운데 惟有七分難狀畵
숲에 가득한 가을빛은 비단무늬 이구나 滿林秋色錦紋明

35. 마등(馬嶝)의 적설(積雪)

쌓인 눈 빛 하늘과 가지런하여 감히 오를 수 없으니 雪色齊天不敢登
가로지른 바위 골짜기 막았으니 몇 천 층이나 되는가 架巖堙谷幾千層

옥가루 뿜어대니 돌개바람 지나가고　噴飛玉屑回風過
은 병풍 둘렀으니 묵은 안개 엉켰네　繞作銀屛宿霧凝
짧은 노 저어 누가 일어서는 손님 태우는가　短棹有誰乘興客
높은 누각에 그대 의지해 봉우리의 스님 대하네　高樓倚彼對峰僧
만일 손으로 만저 진경을 모사하려 한다면　如令摩詰模眞景
그림 그리는 정신은 능한 바에 맡긴다네　繪素精神任所能

36. 권금성(權金城)의 단풍(丹楓)

산악이 단풍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단풍나무인데　岳是非楓樹是楓
사면으로 둘러 애워싸니 석성이 붉게 물들었네　周圍四面石城紅
수레 멈추는 이 가끔 있으니 숲속 뚫는 손님이요　停車時有穿林客
시구지어 누가 부르는가 단풍잎 따는 아이라네　題句誰呼採葉童
본 빛깔 옮겨옴은 연나라 물 위이고　本色移來燕水上
맑은 화장 나눠 얻음은 한나라 계단 동쪽이라네　淡粧分得漢階東
우뚝 솟아 변치 않음은 서리를 능멸이 여길 태도인데　亭亭不變凌霜態
복숭아와 오얏의 봄 빛이 어찌 같이할 수 있으랴　桃李春光豈與同

37. 토왕성(土旺城)의 폭포

멀리 폭포 바라보니 푸른 성에 걸렸는데　遙看瀑流掛碧城
고을 하늘은 고요하고 붉은 연기나네　洞天寥落紫烟生
망치질 않는데 옥 부서지니 일천 가루 생기고　非椎玉碎千分屑
비 오지 않는데 우레 소리 백리에 소리나네　不雨雷鳴百里聲
바위 곁에 산비둘기 깃드니 마음에 번뇌 생기고　巖邊棲鶻心應惱
못 속에 용 잠겨 있으니 꿈도 놀래네　潭裏潛龍夢亦驚
밤낮으로 길게 달려 바다에 이르니　晝夜長奔能至海
유연한 튀어 흩어지는 물방울 정이 든다네　悠然濺沫匪無情

38. 학정풍(鶴亭)의 송풍(松風)

사랑스러운 건 솔 단의 5월 바람인데　可愛松壇五月風
아양의 거문고 곡조 마음에 들어 통하네　峨洋琴操入心通
같이 소리에 반드시 응하니 봉황이 춤추며 오고　同聲必應來儀鳳
날개 들고 장차 기약함은 기러기 쫓음 만남이라네　擧翼將期遇順鴻
소쇄한 정신은 시화 속에 더하고　蕭灑精添詩畵裏
청허한 기운은 물과 산 가운데 있다네　淸虛氣在水山中

북쪽 창에 취해 누으니 복희 늙은인데　北窓醉臥羲皇老
어찌 나의 즐거움이 다함이 없는 것과 같은가　何似吾人樂不窮

39. 달마(達摩)의 기암(奇巖)

기묘하고 우뚝 솟은 바위 있으니　奇奇矗矗有斯巖
한 맥의 산 뿌리 이어지길 다하지 않다네　一脈山根續不咸
형체는 장군의 머리에 투구와 철갑옷 입고 있고　形是將軍頭鐵冑
모양은 노불의 입에 쇠를 물고 있는 것 같다네　樣同老佛口金緘
만일 화공이 모사함에 채색 먹으로 그리게 한다면　若使畵模揮彩墨
누가 밭갈고 우물 팜에 예리하고 긴 모습으로 할 수 있겠는가　誰能耕鑿利長鑱
명사가 이곳을 지나다 일찍이 말을 남기는데　名師過此曾遺語
처음으로 신령스런 구역을 봄에 세속과 다르네　初見靈區異俗凡

4) 역력(歷歷) : 뚜렷한 모양을 말함.

5) 초초(招招) : 손을 들어 부르는 모양을 말함.

40. 벽옥담(碧玉潭)의 물

벽옥담이 옥 갈고 물은 평평히 흐르는데　碧潭磨玉水平流
쌍 폭포인 구룡이 머리 위에 있다네　雙瀑九龍在上頭
물결 형세에 놀라지 않은 채 낚시 드리우고　波勢不驚任降釣
돌 뿌리는 장애가 안 되니 배를 용납할만 하네　石根無礙可容舟
산 늙은이는 풀 깔고 시 읊조리며 앉았고　山翁藉草吟風坐
들 객은 꽃 술 들며 한가한 날 노네　野客斟花暇日遊
즐거움 마음에 얻어 마음 절로 붙어지니　樂得於心心自寓
하찮은 몸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微軀此外更何求

41. 대포(大浦)의 기적(汽笛)

기운은 만 리를 배로 갈 수 있는데　汽氣能行萬里船
호랑이 짖고 용이 우는 소리 서로 이어지네　虎嗥龍吼響相連
천균 무개의 닻 쇠는 깊이 바닥에 드리우고　千勻碇鐵深垂地
하나의 드리운 연기는 멀리 하늘에 뻗쳤네　一朶煤煙遠亘天
역력[4]한 산하는 마음에 기억하고　歷歷山河心上記
초초[5]한 인사는 곡조 가운데 전한다네　招招人士曲中傳
들으니 혹 기회를 이용함이 늦을까 두려운데　聞來或恐乘時晩
지팡이 짚고 창황이 앞으로 다투어 나가네　笻屐蒼黃競赴前

42. 신흥사에서 놀다. 4월 15일

문득 봄 다간 뒤 산에 들어갔단 말 들으니 忽聞春盡入山來
꽃다운 풀 우거진 곳에 한 지름길 열려있다 하네 芳草深深一逕開
십리의 저문 종소리 조굴에 드리고 十里暮鐘聲祖窟
천추의 밝은 달 선대에 비치네 千秋明月影仙臺
고기 보는 나는 귀찮은 세상일 잊고 앉아있으려 라고 觀魚我欲忘機坐
나비를 쫓는 사람은 응당 손뼉치며 돌아오네 隨蝶人應拍手回
참된 인연 얻어 뽕나무 아래 집에서 자는데 剩得眞緣桑下宿
남은 정이 더욱 친절하여 다시 술 마시네 餘情娓娓復含盃

43. 비선대(飛仙臺)에서 놀다. 5월 4일

스스로 명산 사랑하고 또 봄 사랑하는데 自愛名山復愛春
봄 빛은 나에게 두 눈동자를 허락했다네 春光許我兩眸新
붓 꽃은 향기 풍겨 시객을 맞이하고 筆花香動迎詩客
병 새는 소리 전해 취한 사람 권하네 壺鳥聲傳勸醉人
두 계단의 은색 폭포는 다투어 눈 뿜어내고 雙堦銀瀑爭噴雪
한번 엿보니 금강산은 티끌 받아들이지 않았네 一窺金剛不受塵
축하해 주는 스님 정성스런 뜻 많으니 爲賀居僧多款意
돌아오는 길에 지팡이 짚고 푸른 시냇가에 우뚝섰네 歸笻竚立碧溪濱

44. 학무정의 봄 흥취. 3월 21일

거울 같은 맑은 봄 빛 마음으로 들어오니 鏡裏春光入意城
고요히 사물의 이치 봄에 절로 나고 나는구나 靜觀物理自生生
복숭아 꽃 흐르는 물 따뜻하니 고기 뛰어놀고 桃花水暖游魚躍
꽃다운 풀에 연기 자욱하니 송아지 우는구나 芳草烟深乳犢鳴
고아한 거문고 뜯을 때 사랑스런 곡조 많고 琴古彈時多愛調
애써 마련한 술자리에서 술 사양치 말아라 酒艱酌處莫辭觥
돌아가는 길에서 어찌 붉은 촛불 잡고 가겠는가 歸程何必持紅燭
밝은 달 뜬 것이 더 다정하다네 明月將來儘有情

45. 영랑호에서 놀며 3월 일

영랑이 있고 호수도 있으니 有是永郎有是湖
훌륭한 경치 지도에 실림 마땅하구나! 宜將勝槩載輿圖

푸른파도의 마음 고요하니 능형(菱形)의 거울 열려고　綠波心靜開菱鏡
흰 달 빛나니 구슬 병에 비취네　皓月光生暎玉壺
나그네 시 지어 화답할 수 있고　能令遊子詩相和
언제나 좋은 시절에 찾아와 술 마시며 즐기네　每到良辰酒以娛
바위 아래 차 끓이는 연기에 맑음이 다하려 하는데　巖下茶煙淸欲歇
유연히 앉아서 뱃노래 소리 듣는다네　悠然坐聽櫂歌呼

46. 신흥사(神興寺)에서 놀다 4월 17일

절 이름은 신흥사로, 흥이 나서 노는데　寺以神興興以遊
오늘날 옛날을 생각해 봄에 몇 명의 명류가 다녀 갔는가　以今視昔幾名流
신선 대(臺)의 달 예스러운데 학은 날으고　仙臺月古飛笙鶴
인자한 바다에 구름 아득한데 배는 떠있구나　慈海雲茫泛石舟
누가 이런 즐거움이 인간에게 있는 걸 알까　誰知此樂人間在
이 마음 인간 세상 밖에 떠 있게 하지 말라　莫使斯心世外浮
남은 술에 차 향기는 굶주림 달랠 수 있으니　殘酳香茶飢可療
뽕나무 아래서 하루 밤 묵는 게 해롭지 않구나　不妨桑下一宵留

47. 우(又) 4월 18일

설악산 속의 옛 절 깊은데　雪岳山中古寺深
노는 사람 지팡이 짚고 나막신 신고 서로 찾아오네　遊人笻屐賴相尋
술 한정 없으니 옥 병 기울려 마시고　酒無量飮壺傾玉
시 읊는 소리 있으니 땅에 금을 던졌네　詩有聲來地擲金
두 골짜기에 여울물 흐르니 바람이 소리 보내고　兩谷灘流風送響
한 계단에 꽃 고요하니 달은 그늘에 머물렀네　一堦花靜月留陰
그대에게 청하노니 힘껏 기어오름을 아끼지 말라　請君莫惜躋攀力
맑은 흥취는 유연하니 짐짓 금하지 못하겠네　淸興悠然故不禁

48. 정자에 올라 읊조리다 4월 19일

나막신 신고 신흥사 돌아가는 걸음 등등[6]한데　神興歸屐步登登
대(臺) 두 어 층에다 고각도 두 어 층 이네　臺數層高閣數層
들 밖 맑은 구름 떠 있고 푸른 건 나무인데　野外淡雲靑者樹
돌 사이에서 흐르는 물 얼음보다 차네　石間生手冷於氷
천추에 비파를 누가 진정으로 사모하는가　千秋點瑟誰眞慕

6) 등등(登登) : 힘을 쓸 때 내는 소리. 어영차.

한 곡조 거문고 타는 솜씨 그대 또한 능하다네　一曲牙琴子亦能
밤마다 서쪽 봉우리엔 외로운 달 떠 있는데　夜夜西峰孤月在
나머지 회포엔 초당의 스님 생각나네　餘懷可憶草堂僧

49. 의상대(義相臺)에서 놀다　6월 28일

의상대가 오봉의 머리에 우뚝 섰는데　一臺屹立吾峰頭
신선 발자취 밟으며 이르니 십주에 가깝네　躡到仙踪近十洲
시상은 수중에서 밝은 달 떠 오름이고　詩思水中明月出
세정은 하늘 밖 흰 구름 이 떠 있음이네　世情天外白雲浮
서방 금은 불을 두려워 하니 때는 역년을 맞이했고　庚金畏火時迎曆
낮에 차 끓이는 연기 나니 손님이 누각에서 내려오네　午茗和煙客下樓
청한한 우리들의 흥취 알려고 한다면　欲識淸閑吾輩趣
모래톱에서 기(機)를 잊은 갈매기한테 물어보라　問諸沙上忘機鷗

7) 니우(泥牛) : 진흙으로 만든 소. 옛날에 이것을 만들어 입춘 전날에 제사지냈음.

50. 밤에 낙산사에서 읊조리다. 같은 날

바다 안개에 산 남기 일어 밤 아직 맑지 않은데　海霧山嵐夜未淸
뽕나무 밑에서 자며 나의 인생 깨우쳤네　宿來桑下覺吾生
니우[7]는 달 물고 어느 곳에 머물렀는가　泥牛含月留何處
불조는 숲에서 우니 정이 있는 듯 하구나　佛鳥啼林似有情
만흥한 시편은 두자미와 같고　謾興詩篇同子美
스스로 거문고와 술 즐기니 도연명 이라네　自娛琴酒是淵明
천옹은 나의 배회하는 뜻 혐의 하는데　天翁嫌我徜徉意
때문에 처마 끝으로 보내니 새벽에 비 소리 들리네　故送詹端曉雨聲

51. 영랑호에서 노는 운에 차운하다. 같은 해 8월 일

좋은 경치 구경함에 어찌 꼭 높은 누각에 오르겠는가　探勝何必上高樓
바닷가에서 놀며 구경해도 흥취 다 걷우지 못한다네　近海游觀興不收
산 빛은 붉은 색으로 물든 데다 연기 저물녘에 피어오르고　山光凝紫烟其暮
여덟 경치 응당 더함은 동국여지도의 아름다움 이고　八景應添輿誌美
네 명의 신선 이미 나타나니 도가의 그 사람이라네　四仙已著道家類
취한 뒤라 선방에선 시 짓기 마쳤는데　醉後禪房詩寫訖
다시 한가로이 나막신 신고 방주로 향하네　更拕閒屐向芳洲

52. 영랑호(永郎湖) 보광암(普光庵)의 유도회(儒道會) 운에 차운하다.

을유년 4월 일

환연한 유교의 도 긴 봄 돌아오니	煥然斯道復長春
잠겼던 광채 드러나 날로 더욱 새롭네	闡發潛光日益新
장한 뜻으로 누가 천하를 돌아다니며 백성 취할까	壯志誰環天下轍
궁한 음은 과일 속의 씨는 없애지 못한다네	窮陰不剝果中仁
깊은 골짜기서 부름은 꾀꼬리 벗 찾음이고	幽谷喚來鶯是友
평평한 모래톱에 우뚝 선 갈매기 사람 같구나	平沙抑立鷺如人
단란한 이 모임 진실로 우연이 아니니	團欒此會誠非偶
들 늙은이 이웃 찾는 것 보다 낫다네	猶勝追尋野老隣

53. 학정(鶴亭) 상량문(上梁文)

원래 가문에 재물이 모였는데 다시 부지런히 그것을 헤아리고 길이 사모하여 가문의 명성을 이어받았으며 학은 정자에서 날아 춤추는데 저 허공으로 올라가 아름다운 이름을 처마의 편액에다 남겼다. 모든 사람의 의논한 바를 따라 그 성공을 아뢴다.

그윽하게 본 정자를 생각해 보건대 사려함이 깊어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는 까닭이다. 하루가 못되어 정자가 완성되었으니 동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그림자를 측량하기 위해 표준이 되는 나무를 세웠으니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아무 때에 하였다. 훨훨 나는 정자의 모습은 새가 나는 것과 같은데 다시 선조의 기업 계승함이 성대함 보겠고 이에 느릅나무 대신 소나무 심었으니 더욱 선비들이 많이 모임을 기뻐한다. 집과 방 때맞추어 지었으니 이에 잘못되지 않았으며 규성은 하늘에 나타났으니 그것이 서서히 올바르게 되었다. 이롭고 곧음으로써 건넜으니 실은 동인(同人) 괘(卦) 해당되고 저 집을 세웠으니 아마도 대장(大莊) 괘(卦)를 취한 것이다. 누가 귀신의 역사를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는 하늘이 아끼고 땅이 비밀로서 숨겨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입으로 노래하는 절창은 영중의 높은 가락을 본 것이며 눈을 씻고 봄은 오하의 구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풀이 스스로 향기로워 사향노루 찾아오고 꽃은 말하지 않았으나 나비가 날아왔다. 이어서 정자 수리함은 다 후손들이 잘 계승하는 것이고 시 읊고 술 드는 이 훌륭한 선비들이다. 두 어 칸의 거문고와 책

있는데 푸른 들에 있는 집은 깨끗하고 아홉 구비 흐르는 샘물에서 한가롭게 주옹이 노는 모습 보고 있다.

만약에 설악산은 서쪽에서 높이 솟았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과 더불어 융성하고 창해는 동쪽에서 넓은데 복된 전토와 같이 창대하다면 비로소 세계 속의 신령스런 지경을 보게 되어 초연히 물외의 신선이 사는 곳이 되는 것이다. 봄에 뜰에 풀이 가득하니 주렴계의 의사를 늘 보는 것이고. 달이 오동나무 난간에 비치니 요부의 기상을 다시 보는 것이다. 세상에서 어쩌다가 다시 관찰함은 정풍과 변풍의 차별이고, 서경의 대부분의 연혁은 고문과 금문의 유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뜻이 있어 창시의 공 이루었고 도모하지 않았지만 새로 도모하는 계책에 동참하였다. 자리를 펼쳐놓고 성대한 모임 열었으니 모두 규칙을 지켜 아름다운 처마에 걸려져 있다. 산천은 이 때문에 빛을 발하고 바람과 달도 이에 흥취를 도와준다. 난정에서 3월 3일 날 짝지어 읊조림은 어찌 우군의 즐거움뿐이겠는가. 등왕각의 9월 9일의 잔치는 염공의 놀이뿐만이 아니다. 경치를 끌어다 보며 멀리서도 흠모하여 춤추며 칭송한다. 비 때맞추어 내리고 바람도 때맞추어 부니 임금님의 힘이 뭐 필요하겠는가. 관청에 일 없고 마을에도 일 없으니 백성의 마음은 절로 편안하다.

사방 들에서 농악소리 울려 퍼지니 앉아서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란 소리 듣고 한 지역의 문화는 바다 오른쪽의 앞길에서 본다네. 칭송함은 주나라 시와 같고 축원함은 기주를 말하는 것과 같다. 날 길하고 때도 좋아 상량식하기에 아주 좋은 날 이고, 아버지 인자하고 자식 효도하니 세업의 아름다운 규칙 전한다. 7위의 말 열거하여 모든 사람의 칭송 돕는다. 아랑위 대들보 동쪽에 포치하니 낙산사의 산이 푸른 하늘의 지주가 된다. 춤추는 학은 어느 해에 날개를 아래로 드리웠는가. 익연한 정자 위로 붉은 해 솟아난다. 아랑위 대들보 남쪽에 포치하니 현산은 멀리 있는데 맑은 아지랑이 띠고 있다. 전조의 왕적을 묻지 말라 이미 선천에 소속되어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아랑위 대들보 서쪽에 포치하니 비선대의 빛이 발친 밑으로 들어온다. 한 마을 영정에서 문학을 높임은 당년의 직하재에게 사양하지 않는다. 아랑위 대들보 북쪽에 포치하니 오직 청대의 운애의 빛 있을 뿐이다. 정자를 빙 둘러 있는 터는 앞이 대부분 확 트였는데 무릇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아랑위 대들보 위에 포치하니 밤에 빛난 별빛 드는데 붉은 휘장 드리웠다. 자손 대대로 교육할 때에 앞으로 기대됨은 응당 한량이 없다. 아랑위 대들보 아래에다 포치하니 세업을 닦아 순일한 복 많이 받는 것이다. 깊고 깊은 학문의 바다로서 공 이룸 아뢰는데 문과 질이 빈빈하여 화사함과 질박함으로 나뉜다.

엎드려 원하건대 대들보를 올린 뒤에는 동량이 견고하여 별과 산처럼 편안해지소서. 일천 문과 일만 길로 다투어 오는 가운데 이며 한 조상에 일백 자손들이 계승해 온 때이다. 홀로 이지러지지 않고 문맥을 숭상하고 길이 교체됨이 없이 무인의 발자취 접한다.

인가 조병승은 짓다.
강릉군 주문진읍 교항리에 살다.

54. 학무정의 서문

천하 고금의 물성의 청초하고 고결한 것을 헤아려 보건대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열거 한다면 반드시 생각해 보지 않고 매화와 학 이라고 다 같이 말한다. 이 매화는 심는 것이고 학은 나는 동물로서 같은 동류가 될 수 없는데 서로 같은 류가 되는 것은 기운이 가깝기 때문이다. 시경과 서경에서 영탄하고 찬미한 것을 보면 나무에 달려있는 매실, 으슥한 못에서 우는 소리, 국에 쓰임과 음지에서 운다고 했으니 어찌 다른 새들이 용납될 수 있으며 경훼부(經卉部)의 비익조(比翼鳥)와 비방(媲芳)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그러나 매실은 솥의 국에서 맛을 취할 뿐만 아니라 찬 꽃의 맑은 향기는 속세의 티끌을 초월하는 표본이 된다. 학은 진실로 그 먼 하늘가에서 울어 일깨어 줌을 사랑하는데 또한 감동된 데다 화락하고 깃털로 훨훨 날으며 춤추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옛날 사람의 경우에 징험해 보건대 임화정의 소영암향(踈影暗香)의 시구의 모든 매화나무 가지를 눈으로 바라보고 푸른 언덕의 눈이 가득하고 달 빛 밝음을 읊조리며 매화가 핀 정신과 양숙자(羊叔子)의 몽동(甕氈)을 익히는 것과 소지원(蕭知遠)의 무학(舞鶴)의 편은 개략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모두 매학(梅鶴)의 성능을 다하지는 못 하였다.

나의 벗 매곡 선생이 정자를 도산(道山)의 남쪽에다 지었는데 기이한 경관이 뛰어났다. 매곡의 사람됨은 행실이 깨끗한 데다 덕화를 입어 시속의 더러운 때가 묻지 않았고 찬 얼음과 단단한 옥처럼 맑아 한 점의 티끌도 없었으니, 시원스러운 것이 주렴계의 광풍(光風) 제월(霽月)의 마음과 같았다. 시가 청초함은 동야(東野)의 골격이 나솟은 것이요 문장이 깔끔함은 태사(太史)의 기운이 기특한 것이다. 이는 마땅히 매화와 같이 맑은데 맑은 것은 매화 뒤에 있고 학과 같이 깨끗한데 깨끗한 것은 학의 앞에 있다. 청진과 고결의 뛰어난 것으로써 절정에 이른 것은 사람과 매화와 학이 셋으로 나뉘어 우뚝 솟았으니 즉 매화와 학을 아울러서 합쳐져 하나가 된 것이다.

매곡이 일찍이 나를 맞이하여 정자에서 술 들었는데 난간에 기대어 가리키

는 곳 돌아보니 맑은 물줄기 서쪽에서 흘러내리고 숲 속의 산기슭은 보일락 말락 한다. 아홉 굽이 물은 꺾어 돌아 흐르고 높이선 바둑판을 둘러쌌으며 앞에는 넓은 들이 펼쳐 있고 소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렸으며 나무꾼이 부르는 노랫소리 남기 속으로 울려 퍼지고 농사꾼의 노래는 들판에 가득하며 석양의 그림자 쳐지고 돌아오는 구름은 서로 잇는다. 해 떨어지자 노을 일어나고 달빛 비취며 물이 올라온다. 멀리로는 외로운 집오리에 더디 날아가는 기러기가 하늘가에 아득히 떠 있고 가까이로는 국화 그늘에 매화 그림자가 창에 가득히 너풀거리며 춤춘다. 고목에다 흐르는 샘물이 있고 둥지에 학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려고 소나무 끝에서 날아든다. 이에 벗인 매곡은 분향하고 주역을 집어 들고 한 편을 두루 보는데 마음이 맑음에 뜻이 이해되어 신체가 묵묵히 깨쳐지니 스스로 그가 춤추고 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그제서야 매화나무가 고와서 발 틈으로 엿보는데 학이 날개를 펼쳐 훨훨 날아 내려와서 평상 앞에 섰으니 기미(氣味)가 있는 듯 하여 운치가 서로 느껴졌으므로 만났을 뿐이다. 따라서 그 일을 차례대로 하여 정자 동쪽 벽에다 쓴다.

정축년 7월 16일에 형산(馨山) 박장희(朴長喜)는 서문을 짓다.

55. 학무정기(鶴舞亭記)

도천(道川)의 위에 구곡(九曲)이 있는데 제 2곡이 가장 우뚝 솟아 돌무더기가 산을 이루어 완연히 두 물 사이에 있다. 형체는 하나의 작은 배와 같지만 바람을 만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름하여 학무대(鶴舞臺)라 한다. 조금 평평한 곳으로 올라가면 흙이 약간 덮여 있는데 소나무와 잣나무가 빙 둘러 나있어 매우 푸르러 완상할 만 하다. 만약에 그 좋은 경관으로서 말한다면 멀리로는 설악산의 시원한 기운을 머금었고 평면적으로는 창해의 넓은 파도를 뜰 수 있으며 그 밖의 나머지로서 자질구레한 것은 다 형용할 수 없다. 대(臺)의 남쪽에 예전부터 맑은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사이가 절로 막혀 있었다. 지난여름에 다시 물길을 터놓아 물이 드나드니 어찌 하늘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겠는가.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고왕고(高王考)인 경암공(儆庵公)께서 산수에 숨어 지내셨는데 한가할 때에는 지팡이 짚고 여기에서 머뭇거리며 소요하였으니 술을 들어도 어지러워지는 데까지는 마시지 않았고 즐거워도 황홀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 편안한 마음은 맑은 데다 고상하고 정은 깊고도 원대하여 남한테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늘날과 백 년 뒤에도 풍운(風韻)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에 훌륭한 여러 자손들이 날마다 정자에 올라

갔으므로 더욱이 근원을 찾는 정성을 보태고 마침내 정자를 짓는 계획을 세웠으니, 다만 힘써 일하느라 경황이 없었지만 스스로 그리고 옮겨가게 된 지는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봄에 화수회(花樹會)를 열어 여럿이 함께 도모하고 또한 마을의 도움을 힘입어 연장으로 깎아서 이에 정자를 지어 그 공을 이에 이루었다. 그 선조를 이어받고 후손을 넉넉하게 해준 도리가 아울러 실행되어 어긋나지 않았으니 선조를 생각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아! 뒷날 사람들은 잘 인도해 나가서 바꾸지 말고 이어서 지붕을 잘 씌워 이 정자가 썩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구곡(九曲)도 또한 그 명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56.

학이 춤추는 산 형세는 하늘로부터 만들어졌는데	鶴舞山形作自天
정자가 만들어진 오늘날 뜻은 선조를 받드네	亭成今日志承先
아름다운 계획이 이미 정해지니 세상에 알려지고	嘉猷已定中孚世
상서로운 운이 돌아오니 시절은 장대하구나	瑞運丁回大壯年
구곡의 못은 깊어 먼 꿈이 편안하고	九曲潭深遼夢穩
쌍천의 물은 넓어 바다소리 전하네	雙川水闊海聲傳
흰 구름과 밝은 달이 한가로이 오가는데	白雲明月閑來往
옥 같은 깨끗한 모습은 새가 날개를 펼친 듯 하네	憂玉淸儀有翼然

성사(星史)　이두재(李斗在)

57.

정자에 학이 훨훨 춤추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亭鶴翩翩舞下天
주인과 천석(泉石)이 먼저 차지하였네	主人泉石得其先
고기는 잔잔한 물결을 불어 술잔이 흐르고	魚吹細浪流觴日
제비는 새로운 발에 하례하며 낙성식 한 해 알리네	燕賀新簾告落年
구곡에 바람과 안개는 시의 경치를 살리고	九曲風煙詩景活
쌍천의 물과 달은 도의 마음 전하네	雙川水月道心傳
무이의 경계와 지금 비교하면 어떤한가	武夷境界今何似
한번 뽕나무와 삼 바라보니 눈앞이 밝아지네	一望桑麻眼豁然

남강초수(南岡樵叟)　최영택(崔永宅)

58.

새로운 정자 마을에 우뚝 솟은 모습 사랑스러운데　愛爾新亭出洞天
몇 사람이나 학무정에 올라 놀았는가　幾人昇鶴遨遊先
옥 퉁소 불며 난간에 기대어 달 밤에 머뭇거리고　玉簫依檻徘徊月
붓으로 들보에 쓴 것은 정자를 건축한 해이네　花筆題楣建築年
안자가 도를 즐김은 천추에 무슨 일 때문인가　顔樂千秋何事在
주자의 무이 구곡이 여기에 전하네　武夷九曲此中傳
한가로이 주역 읽으며 향 사르고 앉았으니　閑來執易燒香坐
매곡 늙은이는 가슴이 시원함 깨닫겠네　梅老胸襟覺爽然

죽서(竹棲)　이교행(李敎行)

59.

바다 가까운 신령스런 곳에 따로이 하늘 열렸으니　近海靈源別有天
어진 자손들이 집 짓고 살며 선조를 추모하네　肖孫結搆爲追先
시내와 산의 빼어난 채색은 오늘날 더 새롭고　溪山秀綵增今日
매축의 거문 발자취는 옛날을 기억함이네　邁軸玄蹤記昔年
바위 언덕엔 나무 매고 구름가로 내려오네　巖塢樵擔雲際下
노주의 어부의 노랫소리 달밤에 전하네　蘆洲漁唱月中傳
속세 티끌의 기운은 한 점도 없으니　頓無一點塵埃氣
한가한 날 이 정자에 오르면 마음이 시원해진다네　暇日登臨意爽然

전승지(前承旨) 동강(東江)　김녕한(金寧漢)
경성 고양군 숭인면 번리에 살다

60.

학 한 마리가 청계에서 날아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隻鶴淸溪上下天
정자의 기쁜 뜻은 선조를 추모하는 느낌이라네　亭惟志喜感追先
위나라 들에 높은 표시는 구름 한 조각이고　魏野高標雲一片
요양에 신선 꿈은 달이 천년동안 비춰줌이네　遼陽仙夢月千年
솔과 거문고 뜯는 망서에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松琴輞墅開新業
꽃과 돌 있는 평천은 옛날 전하는 것을 이었네　花石平泉繼舊傳
구곡에 찬 물은 잔잔히 흐르는데　寒流九曲潺湲裏
가끔 쇠 부딪치는 듯한 소리 알연히 들리네　鋿遂時聞更戛然

전승지(前承旨) 문천(汶川)　윤두병(尹斗炳)
고양군 독도면 화양리에 살다

61.

새로 지은 정자에 춤추는 학의 울음 먼 하늘가에 들리는데　新亭舞鶴迥聞天
도리어 선비가 선조께 효도하는 마음 부럽네　却羨斯文孝感先
구곡의 냇물이 저장됨은 정자를 지은 날이고　九曲川藏經始日
육릉의 공 아룀은 올해부터라네　六陵功告自今年
손님들이 놀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非謂賓客遊觀好
자손들에게 영구히 전하게 하네　繼使兒孫永久傳
옛날 살던 화표로 돌아가기를 잊으니　舊居華表忘歸去
붉은 난간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니 귀에 알연히 들리네　兀坐紅欄聾戞然

위파(渭坡)　최한익(崔漢翼)

62.

臺는 오래되고 정자 새로움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니　臺古亭新屬後天
일 많은 그대가 먼저 이 정자에 올랐네　多君事業誕登先
양쪽으로 흐르는 물은 평지 애워쌌고　兩又流水圍平址
육각 층층 난간은 이 해에 점쳤네　六角層軒卜此年
깃이 되어 일찍 울며 언덕 아래로 지나가고　羽化曾鳴皐下過
고기 날아 어디로 가나. 꿈속에 전하네　肉飛那到夢中傳
학무라는 이름 때문에 자취 남겼으니　因鳴鶴舞留陳跡
조상을 계승하는 마음 어찌 우연이겠는가.　繼祖伊懷豈偶然

동은(東隱)　이종영(李鍾英)

63.

길가의 정자 찬란히 하늘에 이어졌는데　道門亭閣爛連天
이 날 정자에 올라 누가 먼저 앉을까　此日登臨孰座先
단청으로 꾸미지 않았으나 육각으로 도모했고　莫狀丹靑圖六角
풍경을 보려하니 천년동안 즐겁네　欲觀風景樂千年
널리 들은 덕행은 사람들 모두 우러르고　博聞德行人皆仰
길이 사모하는 명성은 세상에 또 전하네　永慕名聲世又傳
현자들이 이곳에 많이 들리니　賢者過從多此地
산과 냇물이 아름다우니 당연하다네　山精川彩是當然

각재(覺齋) 추병희(秋秉禧)
평창군 대화면 봉평리에 살다

64.

학무정의 맑은 기운 하늘에 이르니 鶴亭淑氣達于天
높은 가문 하례하니 선조를 생각하네 爲賀高門克念先
시와 예의 남긴 소리는 옛날을 의지했고 詩禮遺聲依舊日
운림의 아름다운 흥취 편안한 해이네 雲林佳趣送康年
맑은 못에 물고여 고기 배불리 먹고 淸潭水積魚腸活
깊은 골짜기에 바람 불어와 새 소리 전하네 幽壑風來鳥語傳
평생의 깨끗한 모임 이제 만들었으니 雅契平生今始結
시문을 강론하니 뜻이 유연하구나 講論餘緖意悠然

야곡(冶谷) 차홍식(車泓植)
충남 대전군 구즉면 관평리에 살다

65.

육각 정자가 하늘 복판에 솟았으니 六稜亭出一中天
이 땅 얻은 이 사람 길이 선조 추모하네 得地斯人永慕先
바다에 인접하니 바람 연기 만 리 통하고 接海風煙通萬里
난간에 둘러있는 소나무와 돌은 천년동안 호위하네 潘欄松石護千年
환한 창에서 글 읽는 것은 기뻐할만한 것이고 晴窓可喜遺經讀
아름다운 모범이 영구히 전해짐을 어찌 걱정하랴 懿範奚憂永世傳
나는 비단 주머니 다 수습하려 하는데 將我錦囊收拾盡
어찌 그대는 나중에 와서 쓸쓸하게 서 있는가 奈渠後到立蕭然

전진사(前進士) 상춘(桑春) 김철규(金澈圭)
인제군 내면 미산리에 살다.

66.

한 정자가 높이 섰으니 학이 하늘에서 우는데 一亭屹立鶴鳴天
새로 정자를 지어 우리 선조의뜻 이어 받았네 肯搆新功繼我先
산 모양은 흙무더기 이루니 삼태기로 날로 흙을 보태고 山樣堆成加賁日
꽃 심어 싹이 남은 심은 뿌리에서 이네 花心孕得種根年
이곳에 변화가 적다고 말하지 말라 休言此地繁華少

다만 이 규칙이 영원히 전해지길 바랄 뿐이라네　只冀斯謨永遠傳
대 밑에 맑은 못을 이제 다시 보니　臺下澄潭今復見
순환하는 기축은 누구 그럴 수 있는가　循環機軸孰能然

종숙(從叔)　운암(雲巖)

67.

한 누각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데　一閣如浮海上天
근원에 뜻을 두어 먼저 터를 잡았네　溯源志業得基先
숲 골짜기 바라보니 서남쪽이 아름답고　望之林壑西南美
거문고와 책 즐김은 사십 년이라네　樂只琴書四十年
비 멎은 못엔 고기 꿈이 고요하고　雨宿平潭魚夢靜
바람 부는 나무엔 새 소리 들리네　風鳴遠樹鳥聲傳
원컨대 후배들은 게을리 하지 마시게　願言後輩能無墮
이 도는 천추에 다시 빛난다네　斯道千秋復煥然

정와(正窩)　윤규원(尹奎源)

68.

높은 정자가 먼 하늘에 솟았다는 말 들었는데　聞說高亭迥出天
남보다 앞서 이곳에 뜻을 둔 것을 누가 알랴　誰知志業做人先
물은 졸졸 흐르고 돌은 쌓여 터를 이루었고　涓流積石能成址
붉은 기둥과 높은 난간은 해마다 기다리네　朱棟層軒已待年
비록 원숭이와 함께 숲 속에서 지키고　縱與猢猴林下守
응당 기린과 봉황새 나와 세상에 전해지네　應生麟鳳世間傳
대 앞에 춤추는 학 지금 어디에 있는가　臺前舞鶴今安在
구곡에 달 밝은 밤에 우는 소리 들리네　九曲月明聲戛然

복암(復庵)　심상황(沈相璜)
고성군 고성면 강정리에 살다

69.

정자 아래엔 연못; 정자위엔 하늘이 있는데　亭下有淵亭上天
이 가운데서 새 날고 고기 뛴다네　鳥飛魚躍此中先
올라가 보니 늘 손님의 마음 끌겠고　登臨每引靑襟客

보고 느끼어 백발이 된 것도 잊었네　觀感渾忘白髮年
높은 산은 천근처럼 중후하니 구름 그림자 쳐졌고　喬嶽千重雲影掩
긴 바람이 만 리에 부니 바다 소리 들리네　長風萬里海聲傳
그대에게 묻노니 춤추는 학이 어디에 있는가　問君舞鶴留何處
아마도 높은 소나무 숲 울창한 곳에 있겠지　宛在高松翠鬱然

의헌(毅軒)　김성기(金聖基)

70.

구곡의 맑은 시내 흐르는 곳에 학이 하늘에서 춤을 추는데　九曲淸溪鶴舞天
새로 정자를 지어 선조를 추모하네　新亭結搆仰追先
붓으로 액자를 씀은 오늘날 이고　彤毫題額惟今日
단풍이 수레를 머물게 함은 이미 옛날이네　丹葉停車已昔年
도심과 갠 달은 천년 동안 있고　道心霽月千秋在
고절과 맑은 바람은 백 년 동안 전하네　苦節淸風百世傳
즐거워 오랫동안 바라보게 되는데　只使徵悰瞻望久
뜬 구름은 무슨 일로 검은 구름인가　浮雲何事正曚然

인혜(麟兮)　임국선(林國善)
인제군 인제면 귀둔리에 살다

양언석(강원도립대학 교양국어 교수)
감수위원 : 최용문(전, 속초문화원장)

제3장 구비문학

1. 도문의 벼락바위

설악산에서 동해로 흐르는 강을 쌍천이라고 부른다. 도문고을 앞 쌍천에는 큰 바위가 있다. 그 바위는 중간이 갈라져 있고 우리의 삶을 지켜온 영험한 바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이 바위를 벼락바위라고 부른다. 도문은 원래 부유한 고을로 설악산의 정기를 받았고 풍경이 아름답고 고요하여 문장을 즐기기에 적합하여 이름난 학자들도 많았다.

이 고을은 원래 설악의 영향으로 불교가 비교적 성한 곳이었다. 그럼으로 이 지역에는 불교와 관계된 담화가 많다. 도문 고을은 원래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풍수에도 최고의 장소이다. 이 고을의 산기슭에 牟거사라는 거사가 살았다. 이 거사는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불교의 도를 터득하고 살아가면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그래서는 그는 자칭 모거사라고 하였다. 항상 승려와 같이 절제된 생활을 하였다. 채식을 하고 살생을 금하고 수도자의 길을 가면서 살았는데 그에게는 열대여섯 살 된 딸을 하나를 데리고 살았다.

그 거사는 매일 쌍천의 바위에서 낚시를 하며 소일을 하였다. 낚시에 고기가 잡히면 다시 물로 던져주고 이런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의 딸은 강에서 낚시하는 아버지 옆에서 시중을 들기도 하고 심심함을 풀어드렸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낚시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딸이 보니까 낚시를 고기가 물자 낚싯대가 움직였다. 그래서 아버지를 깨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기색도 없이 다시 물에 놓아주었다.

이 때 낚시터에 한 승려가 나타났다. 이 승려는 파계승으로 이곳을 지나다가 모거사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장난삼아 모거사를 만나 농을 시작하였다.

"소승 날이 저물어 하루 쉴 곳이 없으니 죄송스럽지만 거사님 댁에서 하루 묵었으면 합니다."

정중하게 청했지만 거사는 들은 척도 안하고 계속 낚시만 열중하였다. 파계승은 서서히 오기가 생기고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도를 터득한 거사라도 남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못된 사람이구만 거만하기 짝이 없구나."

생각을 하며 그 거사의 행동을 보니 말 한마디 없이 낚시에만 열중하고 자

신에게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파계승은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거사 옆에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다 거사를 무조건 따라갔다. 방으로 들어가기에 파계승도 따라 들어가 거사와 마주했지만 거사는 이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왜 따라왔는지도, 어디에서 왔는지도, 어떻게 하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 때, 딸이 저녁상을 차려왔다. 저녁상을 보니 산나물에 감자를 넣고 죽을 만들어 죽 두 그릇을 가지고 들어왔다. 거사는 밥상이 들어오자 객에게는 신경도 안 쓰고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혼자 두 그릇을 다 먹어버렸다. 파계승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는 괘씸한 생각에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거사는 객에게는 관심도 없이 식곤증인지 피곤하지 벽에 기대여 눈을 감고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 파계승은 분하고 무시하는 거사를 보며 복수를 하여 골려주고 싶었다. 이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중이 거사를 깨웠다.

"거사님", "거사님"

거사는 귀찮다는 듯이 눈을 겨우 뜨면서

"왜 그러는가"

"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떠도는 중이지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목적에 왔는지 들어 봅시다."

그랬더니 파계승이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자

"그 귀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내가 귀한 부처님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거사는 파계승의 귀한 부처님 씨라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부처님의 씨라...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파계승은

"부처님의 씨를 갖고 있는데 저에게 밭을 하나 시주하시지요."

모거사가 생각해 보니 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나는 밭이라고 해 봤자 감자를 붙여 먹는 조그만 밭 한 뙈기가 전부인데 줄 밭이 없는데..."

"에이, 거사님, 훌륭한 밭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무슨 소리 인고, 나에게 좋은 밭이 있더니... 나는 정말 좋은 밭이 없다네."

"거사님, 아름다운 딸이 있지 않소."

그때서야 거사는 파계승이 말하는 숨을 뜻을 이해하고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럼 당신은 파계하겠다는 말이오."

"파계라니 당치 않은 소리요."

그러자 파계승은 보따리를 슬금슬금 풀더니 상자하나를 거사 앞에 내어 놓으며

"이 상자 속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오."

정말 펼쳐보니 값진 보석이 가득하였다.

"이 보물들은 제가 부처의 씨를 그 밭에 심어서 얻은 종자로 하여금 절을 크게 짓고 그 절을 통하여 법연을 펼친 계획으로 쓸 재물이오. 그러니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자의 요구가 엉뚱하여 거사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요. 당신에게 절대로 딸을 줄 수 없소."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럼 좋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하지요. 제가 여기서 밭을 얻지 못하면 이 많은 보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하시지요. 제가 이집을 중심으로 100장 이내에 이 금은보화의 상자를 숨겨 놓을 테니 제가 숨겨놓고 가서 100일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거사님께서 도를 닦으신 분이니까 이 보화를 찾게 되면 저는 서사님의 도에 눌리고 진 사람으로 보화는 거사님 것이고, 만약에 거사님이 보화상자를 찾지 못하면 거사님 딸을 제에게 시주하십시오."

거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을 중심으로 100장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거사는 중과 내기를 하면 무엇이든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거사는

"좋다."하고. 자신 있게 약속을 하였다.

그날 밤 그 파계승은 보물상자를 어딘가에 숨겨놓고 사라져 버렸다.

그 다음날부터 그 거사는 파계승과의 약속을 딸에게 말하고 보물상자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 나섰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좋아하던 낚시도 그만두고 보화상자를 찾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거사는 보물상자를 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런 딸을 파계승에 빼앗긴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 모습을 딸이 지켜보며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무척 아팠다. 보화를 찾다가 99일이 지나갔다. 거사는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한탄을 하며 자포자기 하였다.

그러면서 딸에게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내가 도를 닦으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딸 하

나도 구할 수 없다니 나의 도가 지극히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너를 저 중놈에게 빼앗겨야 하다니, 미안하다."

"내가 조그만 도를 배워 자만한 결과다. 내 도가 너무 보잘 것이 없구나.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설악산으로 들어가 도를 더 닦아야겠다."

고 말하고는 설악산으로 입산하였다.

딸은 아버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말릴 수도 없고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 딸은 그 자리에서 잡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였다. 정성스럽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두워지나 아버지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천둥번개가 치고 동천개벽 하는 쾅소리가 아버지가 매일 낚시하던 바위에 벼락 치는 것이었다. 처녀가 그 바위에 가보니까, 벼락을 치자 그 큰 바위가 깜짝 놀라서 쩍하고 반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그 안에는 파계승이 숨겨놓았던 보상자가 나타났다.

그 바위를 사람들은 벼락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복은 딸의 효심에 감복하여 하늘이 내려준 고귀한 보답이라고 칭송하였다. 지금도 그 바위는 이러한 담화를 간직한 채 설악산을 굽어보며 동해로 흐르는 물을 장엄하게 지켜보고 있다.

2. 울산바위 전설

울산바위는 설악산을 대표하는 바위로 그 웅장함은 대단하다. 그런데 왜 설악바위라 하지 않고 울산바위라고 하냐면 그 유래는 이렇다.

조물주가 천하제일의 명산을 금강산에 만들기로 하고 전국에 있는 웅장하고 풍유스러운 산봉우리를 뽑아서 1만 2천봉의 천하 명산을 만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위들에게 금강산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울산에 있는 바위는 항상 자신의 모습에 자만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습이 장엄하고 웅장하여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조물주의 이야기를 듣고 금강산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울산의 바위가 떠나면서 주위의 바위들에게

"나는 본시 장엄한 바위로 이곳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명성이나 빛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멋진 바위들과 웅장함을 겨를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금강산으로 떠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울산을 떠났다. 이 바위는 너무 큰 바위라 빨리 달

릴 수도 빨리 걸을 수도 없었다. 다른 바위들은 달려가지만 울산의 바위는 그럴 수 없었다. 말이 바위지 이 바위는 바위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이었다. 이 거대한 바위는 걷는 것에 지쳐가고 있었다. 울산의 바위는 산맥을 따라 걸으면서 후회하기도 하였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다. 온 힘을 다해 금강산으로 길을 재촉하였지만 힘이 들어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기진맥진하였다. 울산의 바위가 기를 쓰고 온 곳이 바로 설악산이었다. 빨리 가서 좋은 자리를 잡고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싶었다. 긴 여정으로 울산의 바위는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었다. 그래서 바위는 조금 쉬어가기로 했다. 이왕 쉴려면 풍광 좋은 곳에서 쉬기로 하였다. 그곳은 웅장한 설악산과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풍유스러운 곳이었다. 지금의 울산바위 자리에서 쉬게 되었다.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조물주가 1만 2천봉을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만 2천봉이 들지 못한 바위들은 모두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울산의 바위 실망이 말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에 자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조물주가 자신을 보면 높이 평가하여 중요한 자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물주를 찾아갔다.

조물주에게 예를 갖추고 나서

"조물주님 저는 웅장하여 빨리 걸을 수 없어 다소 늦었습니다. 저를 보시고 금강산에 좋은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조물주는 울산의 바위를 살펴보더니

"형상은 금강산을 빛내고도 남음이 있으나 이미 금강산을 모두 이룬 후라 나도 어쩔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조물주는

"설악산은 너의 형상이 너무 커서 자리 할 곳이 없다 그러나 다른 좋은 산으로 가서 멋스러움을 자랑 하거라"

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울산의 바위는 화도 나고 자존심이 상하여

"저도 자존심이 있소.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하지만 울산의 바위는 고향의 바위들에게 허풍도 떨어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에 금강산에 물러 나오며 설악산을 생각하게 되었다. 웅장한 산과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굽어 볼 수 있는 설악산에서 자신의 형상을 뽐내고 싶었다.

그래서 울산바위는 설악산으로 돌아와 울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설악산에서 그 장엄함을 뽐내고 있다.

3. 울산바위와 동자승

설악산의 울산바위는 그 장엄함을 뽐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풍류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았다. 그런데 울산의 원님이 풍유차 설악산에 왔다가 울산바위의 유래를 듣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울산바위를 둘러보니 정말 장엄하고 멋스러웠다. 이에 울산 원님은 마음이 아팠다. 울산에 이런 웅장한 바위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그 모습이 이곳에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에 배가 아팠다. 그래서 설악산에 대한 시기심도 있고 해서 스님들을 골려주고 싶었다.

다음날 원님은 많은 생각을 한 후에 설악산 중들을 괴롭힐 생각에 신흥사로 찾아가 주지승을 찾았다. 조선조는 배불숭유정책으로 불교가 유교보다 비교적 천시 받던 시기였다. 주지승은 원님의 행차에 예를 갖추었다. 원님 다짜고짜

"나는 울산의 원님인데 왜 울산의 장엄한 바위를 설악산에다 갔다 놓아 풍경이 더욱 아름답고 이로 인해 설악산과 사찰을 찾는 사람도 많은데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냐! 못된 놈들이구먼."

그때는 스님들이 힘이 없을 때라 꼼짝 없이 당하고 있었다.

원님은 다시

"내 너희들이 몇 해가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 내가 오늘은 직접 세를 받으러 왔으니 당장 준비하도록 하여라."

호통을 쳤다.

스님들은 당시 사회가 불교를 배척하는 시기라 원님에게 기도 펴지 못하고 아무 변명이나 말도 못하고 세를 바치기로 하였다. 그 다음해부터 울산에서 세를 받아가기 시작했다. 절의 살림살이는 세금으로 어려워졌고 농사를 지어도 다 뜯어가니까 주지는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

"울산에서 또 세를 받으러 올 텐데..."

하고 땅이 꺼져라 근심을 하니까 이것을 다 지켜본 동자승이

"스님, 무엇 때문에 요즈음 그렇게 근심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너가 알면 걱정만 될 것이다. 그러니 알려고 하지 마라."

"스님, 그러시지 말고 제게 말을 해 주십시오. 혹 제가 문제를 해결할 지 누가 알겠습니까?"

동자승이 자꾸 애원을 하니까 주지스님이 동자승이 생각했던 대로 울산바

위의 세금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스님,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그 문제를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세를 받으러 오면 저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주지승은 기특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오는 날 주지승과 스님들은 절을 피하고 동자승만 남겨 놓았다.

고을 원님이 보낸 사람들이 세를 받으러 절로 들이 닥쳤다. 주지승을 찾자 동자승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맞이하였다.

"울산 원님이 시켜 울산바위 세를 받으러 왔으니 빨리 주지승을 불러 오너라."

"바위 세를 받으러 오셨다구요."

"우리는 바위 세를 낼 수 없습니다."

"뭐야 당장 주지를 불러 오지 않으면 혼을 내야겠다."

"말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사찰에서는 그 동안 억울하게 세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고 올해부터는 세를 낼 수 없다고 원님께 전해주십시오."

어린 동자승은 지혜롭게 이야기를 풀어 갔다. 그러자 원님의 사자들은

"설악산에서 울산바위가 풍광을 아름답게 하였으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무슨 말인가?"

"사실, 저 바위가 있어 우리 사찰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자바위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거대한 바위가 사찰에 자리하고 있어 풀 한 포기 나무 한그루 자라지도 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부터는 그 바위를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저희가 세를 받아야 겠습니다. 울산바위를 가지고 가시든지, 세금을 내시든지 하십시오."

원님의 사자들은 큰일이 났다. 세금은 고사하고 도리어 세를 주어야 할 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다시 와서 이야기 하자며 돌아갔다. 다음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너 말대로 울산바위를 가지고 갈 테니 옮겨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어야겠다. 네가 만약 가져가도록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울산바위를 우리에게 넘길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그대로 받아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동자승이 그들이 그렇게 나올 것을 알고 당당하게 망설임없이 이야기하였다.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너희들이 울산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재로 새끼를 꼬아서 울산바위를 묶어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가겠다."

동자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로 새끼를 꼬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체류하는 곳을 일러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울산에서 온 원님의 사자들은 숙소로 돌아가면서 아무리 도를 터득한 자라도 재로 새끼를 꼴 수 없다면 비아냥거렸다.

주지승이 절로 돌아와 몹시 궁금하여 동자승에게 물어 보았다. 주지는 동자승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지혜는 뛰어나지만 어떻게 재로 새끼를 만들어 울산바위를 맬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동자승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자승은 스님들과 고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새끼를 꼬기 시작하였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새끼를 꼬아서 동자승이 시키는 대로 울산바위로 옮기게 되었다. 동자승이 시키는 대로 울산바위를 새끼로 묶고 그 새끼에 불을 붙이니 울산바위는 재로 꼬아 만들 새끼로 묶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울산에서 온 자들에게 연락하였다. 울산바위에 와 보니 재로 만든 새끼로 울산바위가 묶어져 있었다.

동자승이 그들을 보고

"이제 재로 꼬은 새끼로 울산바위를 묶어 놨으니 가지고 가시지요."

이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뒷걸음쳐 산을 내려가 울산으로 도망하였다.

동자승의 지혜로 울산에서 사찰로 세금을 받으러 오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도 울산바위에 가면 바위를 묶었던 흔적이 있다고 한다.

4. 파명당과 학사평

우리 민족은 예부터 명당자리를 중시하였다. 명당자리와 관계된 이야기가 노학동에 전해오고 있다. 이곳에 이름난 유명한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은 대대로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하는 인사도 많았고 이름난 학자도 많은 명문거족이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언제부턴가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도 없고 집안에 사람이 죽고 불길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가문 사람들이 모여 집안의 일을 의논하면서 집안이 잘 안 되는 것은 묘

자리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시만 해도 풍수설을 상당히 믿고 있었다. 그래서 집안이 잘 안되면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집안사람들이 지관을 모시고 집안의 조상의 묘를 다시 정하기로 하였다. 지관을 모시고 조상의 묘를 보니까 음지여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묘를 옮기려고 파니까 봉분을 다 파고 관이 드러나자 학 두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학 두 마리가 날아올라서 한 마리는 북쪽을 향해 날아가고, 한 마리는 남쪽을 향해 날아갔는데 북쪽으로 향해 날아가 학사평(鶴沙坪) 고을에 앉았다. 그때 학사평은 모래밭이었다. 그래서 학사평이라고 하였다.

남쪽으로 날아간 학은 손양면 학포리(鶴浦里)로 날아갔다. 학포리로 날아가 그곳에 앉았다고 하여 학포리가 되었다.

이러한 파명당 이야기는 많은 지역에 전해오고 있다.

5. 권금성의 유래

설악산의 절경 중에 권금성은 일품이다. 이러한 권금성은 재미있는 전설을 갖고 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에 권씨 성의 장사와 김씨 성의 장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쳐들어오자 산세가 험한 곳으로 피난하였다. 그곳의 지금의 권금성 자리이다. 적이 오자 방어할 길이 없어 서로 의논하였다. 그래서 두 장사가 그곳에 성을 쌓기로 하였다.

"적병이 오기 전에 성을 쌓아야 할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에 성을 만들어야 화를 면할 것이오."

하지만 성을 쌓는 다는 것이 결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의논 끝에 돌을 날라다가 이곳이 쌓기로 하였다. 하지만 먼 거리에서 돌을 날라다가 성을 쌓는 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았다.

두 장사가 궁리 끝에

"이렇게 합시다. 돌을 날라서는 성을 쌓을 수 없으니 내가 강에 내려가 돌을 던질 테니 당신은 여기서 받아서 성을 쌓으시오, 그래야만 하루 밤에 성을 다 쌓을 수 있을 것이요."

"좋습니다."

그래서 권장사가 강으로 내려가 돌을 주어서 던졌다. 그러면 김장사는 그 위에서 돌을 받아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힘들면 서로 교대로 김장사가 강으로 내려가 돌을 던지고 권장사는 위에서 돌을 받아 성을 쌓았다.

이렇게 권장사와 김장사가 만든 성이라 權金城 이라고 부른다.

6. 계조암의 매미

계조암은 예부터 스님들이 도를 터득하기에 좋은 도량으로 많은 수도자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계조암 부근에는 매미가 많기로 유명하다. 특히, 계조암에서 듣는 매미들의 소리는 계곡에 울려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계조암과 매미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 스님이 도를 닦기 위해 계조암에서 수도를 시작하였다. 스님의 일은 하루 종일 도만 닦고 그 외에는 잠자는 것이 전부였다. 스님은 도를 닦다가도 한 낮에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났다. 그래서인지 밤에는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여름만 되면 한 밤에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였다. 그 이유는 숲과 냇가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에 잠 못 들고 심한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스님은 아직 도를 터득하지 못해서인지 개구리 소리에 초연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개구리를 모두 찾아다니며 쫓을 수도 없고, 다 잡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형편에 고민하게 되었다. 결국은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도를 터득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도를 터득하지 못하여 여러 방법과 노력을 해 보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방법과 연구와 비책을 통해서 마침내 개구리 울음을 그치게 하는 도술을 터득하였다.

그 여름부터 개구리가 울어대기 시작하자 부적을 만들어 던지자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였다. 그때부터 스님은 편안하게 밤잠을 푹 잘 수 있었다. 자신의 노력과 궁리를 통해 자신을 괴롭히던 자연물을 없애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 밤잠을 설치게 하던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해결했지만 낮잠을 방해하는 매미소리는 또 하나의 방해물이었다. 스님은 개구리에게 사용했던 방법을 매미에게도 똑같이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스님은 매미들을 벙어리로 만들려고 부적을 만들어 하늘에 날리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매미들은 이미 개구리를 벙어리로 만든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갔지만 눈치를 채지 못한 매미들은 스님의 도술에 걸려 모두 벙어리매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날 울고 있는 매미는 눈치 빨리 도망간 매미이고 울지 못하는 매미는 좀 둔한 매미이다.

그런데 매미들 중에 스님의 도술을 피해 도망친 매미들이 서로 의논하게 되었다. 어디로 가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산수와 풍경이 아름다운 강원도로 가기로 하고 강원도 중에서 설악산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매미들은 설악산이 원래 자신들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반갑고 정다운 마음으로 설악산 계조암에 자리를 잡고 살기로 하였다.

그래서인지 계조암에는 여름이면 다른 곳보다 매미소리가 자연과 어울려 소리의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계조암에서 벙어리가 된 매미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극렬하게 운다고 한다.

7. 영금정과 징바위

영금정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은 절경이다. 영금정하면 정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영금정의 영자는 신령 영(靈), 거문고 금(琴), 정자 정(亭) 자를 쓴다. 신령스러운 거문고 소리가 나는 정자모양으로 생긴 석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영금정은 큰 바위로 이루어진 절경의 산이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바위를 부셔 방파제를 만들어 속초의 명소가 없어진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하강하여 영금정에서 목욕을 하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다시 돌아갔다고 하여 영금정 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영금정에는 장군이 말을 타고 다녔다는 너럭바위 위에 말발굽 모양이 있다. 영금정에 징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치면 징소리가 난다고 하여 징바위라고 한다.

8. 수음바위

계조암 앞에 수음바위가 있다. 이 바위의 모양은 여자가 앉아서 일보는 모습이라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다. 그 바위 사이로 샘물이 흘러 나왔는데 그것을 먹으면 장사가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바위의 샘물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힘이 센 장사가 되었다.

가뭄이 들어 샘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으면 수음바위 건너편의 흔들바위를 수음바위 쪽으로 밀면 샘물이 나왔다고 한다. 옛날에는 흔들바위가 두 개여서 마치 남자의 낭심과 비슷했다고 한다.

조선조에 강원도 관찰사가 이곳을 순행하다가 수음바위의 물을 먹으면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 반역하는 자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바위 하나를 아래로 떨어뜨렸다고 한다. 그 후 바위 틈에서 샘물이 나오지 않고 설악산 근처에서 장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관찰사는 순행하면서 절에 개금불사가 있으면 솔가지 불로 그것을 검게

칠하는 등 불교를 억압하였다. 순행을 하며 울진 쪽으로 내려가다가 풍경 좋은 곳에서 시를 읊으면서 시를 지으려고 붓을 입에 물고 흥얼거리다가 칡줄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붓대가 목을 찔러 죽었다고 한다.

8. 속초의 전설

여기 이젠 범바우 저 여기 영랑호 말이여. 거기 범바우있잖아. 범바우 여기 또 영금정 저 새슴 또 외웅치 그 외웅치가 들도 또 이제 청대 저 여기 청두산이 뭔가하면 화도가 꽃이 피면 뭐냐하면 이 그림 병풍처럼 이젠 저 청대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해서 뭐하고 또 이제 올라가서 저기 육모정있잖아. 그 상도문 육모정 물치가 대략 내물치 거기 이젠 예전에 그러고 그리고 뭐 유해를 갔다고 요즘팔경은 요즘 지었지. 시에서 아마 요즘 지어서나오더만.

예전에 여긴 사람이 안살았어. 여긴 굴가여. 그러하고 이젠 제일 뭔가하면 여기 속초는 창설자가 아마 저 이후가 제일 많이 됐을거여. 이후가 동명동 동명동이 그 짝으로 일정 때도 그 짝으로 발전이 그 짝이 더 됐다고 동명동 지금 동명항구 있잖아. 항구있는 그쪽이 인제 어 항구가 되고 그래.

이제 학사평은 저 왜서 학사평이라 했냐하면 거기 올라가면 달매봉밑에 그 밑에 파명당이라는 데가 있어 평당이 파여 가서 말이여 이젠 파이니까 학이 날아가고 이제 노학동 거기 이젠 저 사진 뭐 어디저.

저쪽에 낙산사 어디 세 군데 뭐 학이 세 군데 떨어졌다 해서 여기저 노학동 그 전설이 파명당에서 뭐하고 그 신흥사은 뭔가 하면 내가 조금와서 들으니깐 이 신흥사가 지금 새 신(新)자로 고쳤잖아.

원치는 이 귀신 신(神)자라고 왜 귀신 신자냐 하면 그 내원암에 처음에 절이 있었데 절이 있었는데 3년 주기로 불이 자꾸 타 5~6년 마다 불이 타고 그러는데 한 그 어느 중대사가 있는데 이 달매봉신이 대사라는 이가 가재장삼을 입고서 꿈에 현몽을 했는데 여기다 절을 지으고 집을 지으면 3년 주기로 화재를 입을 수 있으니깐 요 아래 내려가 지금 신흥사 터여. 그 아래 내려가면 참나무 기둥에 그 저 극락전 대법전을 짓고 뭐하면 그 천년 만년 가도 화재를 입는 일이 없다고 그 이 6 · 25사변 통에도 끄떡없었어. 그저 대법전에 가서 그저 기둥이 이렇게 빙빙 꼬였는데 보면 그게 싸리기둥 싸리.

여기 저 대법전엔 신흥사 같은 게 없어. 나도 더러 절에 댕겨봤지만 이 신흥사 저 대법전에 가서 천천히 보면 그 참 용이 뒤틀려 넘어가고 그 배깥으로 저 이렇게 처마 끝으로 해서 넘겨보면 참 조각을 잘했네.

〈김종태, 남. 83, 교동, 1999.11.25〉

9. 속초지명유래

우리 속초를 흔히 묶을 속(束)자 풀 초(草)자라 그래서 속초다. 왜 그렇게 속초가 됐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한가지 설은 영금정과 연관 돼서 속초가 됐다는 그러한 설이 있고, 하나는 딴 설이 있어요.

그러믄 영금정과 연관이 돼 가지고 속초라 하게 됐다 하는 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석산이 있을 때 그 옆에 지금 현재 그 성황당이 말이죠. 에, 지금 저 정자 앉아 있는 자리, 서낭당 자리 옛날 서낭당 자리가 말이죠. 서낭당 자린데, 서낭당이 정자가 앉기 위하여 그 옆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때 그 쪽에 숲이 말이죠, 그때 소나무가 울창했어요. 울창한 소나무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쪽에 그 영금정 옆에 솔산이 있을 때 저 바다에서 이 포구를 이러 들여서 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하구 벽에다 풀을 묶아 세워논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속초라고 이름 지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일설(一說)은 이 속초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되어 있다.

소가 누워 있는 형태다. 그래 소가 누워 있는 데는 풀을 맘대로 활동해 뜯어먹지를 못합니다. 묶어 논 풀밖에 못 뜯어먹습니다.

그러면 속초는 와우형이니까 묶어 논 풀을 갖다 주지 않으면 그 소가 먹지를 못해 죽을 기 아니냐, 그래서 와우형의 지형을 따라서 그 속초를 항시 그 성행시키기,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께 속초라는 명칭을 묶은 풀다불을 소한테 갖다 주어야 소가 먹고 살 끼 아니냐.

이래서 속초라는 그 지명을 지었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설이 정설인지 이것까지도 아직 증명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장헌영, 남 · 54, 중앙동, 1981. 4. 27〉

10. 속초지형과 영금정

속초를 왜 속초라 하느냐. 속초라 하는 것은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가 아. 속초는 산이 소가 누워있는 와우(臥牛)형국이고, 또 하나는 속새풀이 많이 났다 해서 속초라 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울산바위에 이 풀을 가지고 울산바위를 묶었다 해서 속초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속초라는 것은 뭔고 하니까, 와우형인데 그 앞에 풀단이 놓여있다.

풀단이 속초거든. 묶여 있는 풀단. 그 풀을 소가 먹으면 힘을 내서 일어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이, 속초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름이야.

속초가 어데가 풀단이고, 어데가 소냐 하면은, 저 영랑 등대, 그 등대 있는 곳이 소 머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갯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소 앞발에 해당한다. 엑스포 들어오는데 청호동 있는 데가 소 뒷발이다. 저 대포 뒤에 산이 있죠? 대포 설악산 입구에서 쫌만 들어오면 동네가 있잖아. 거기가 대포동이지. 그 산이 속초 꼬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속초는 소가 누워있는 형국인데다가 그 앞에 풀단이 놓여있으니 속초라 한다 그 말이 옛날부터 전해왔거든. 근데 속새풀이 많다 함을 속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저는 모르면서지. 마음대로 어데도 그런 이름이 있고 또 어데도 그런 이름이 있다고 지 마음 대로 써놨거든.

여기에 문화원장도 하고 나이가 팔십 가까운 신문기자도 한 그 똑똑한 양반이거든 이 고장 출신이거든. 이 영랑호 주변에서 살았거든. 그 양반얘기는, 자기가 어릴 때 속초가 소가 누워있는 와우형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럼 그 말이 사실인데, 어떤 사람이 지리, 대한민국 지명 책을 쓴다해서 돌아 댕기며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객지에서 온 사람이 속초는 속새풀이 많아서 속초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 허허. 그건 잘못됐는데.
이 속초란 이름에 대해서 10년 전, 20년 전에는 중앙신문기자나 방송국기자들이 나를 많이 찾아 왔어요. 그 때는 속초란 것을 왜 속초라 하느냐 하는 세 가지 설을 서로 주장하니까 어느 게 옳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랬는데 문화원장 하던 양반이 그 고장에 오래 살고 그래서 그 양반이, 그건 와우형이 맞다. 그래서 속초가 와우형이다.

그런데 신문기자들 하고 방송기자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 그 양반들도 더러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하고 물으니 모두가 다 와우형 그것을 택한다. 그래서 그 방송초기에 속초가 한창 발전할 때 해마다 속초가 왜 속초냐? 전국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때마다 내가 나가서 방송을 했어요. 생방송 말이야.

그런데 수 십 번 그 속초에 대한 방송을 했건만 그 속새풀이 있어서 속초라 한다는 것은 무미건조하다는 것이야.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듣기에 기분 좋게 들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전에 “속초지명의 재조명”이라 하는 타이틀 밑에서 신문에 써냈어요.

나도 주장하기를 속초는 산 증인에 의해서 와우형이기 때문에 속초라 한

다. 그 앞에 풀단이 놓여있는데 풀단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등대 앞에 봉이 두 개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 있는데 규성이라고 해서 구불구불 용같이 있다고해서 그걸 규성이라고 하거든. 지금 거기엔 경비초소가 있어요. 방파제가 크게 나와있어요.

그 경비초소 있는데 그 속에 그런 솔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온지 38년 한 40년 됐는데, 그런데 그걸로, 그 솔이 있는 곳을 비선대라고 했어요. 무슨 비자냐. 비밀이란 비(秘) 자. 신선 선(仙)자. 왜 그런가 하면, 남 몰래 신선이 비밀히 와서 놀던 곳이다. 그만큼 경치가 좋은 곳이다 이 말인지.

동국여지승람에도 비선대가 나온다. 지금 저기 설악산 비선대(飛仙臺)는 그 때 나오지도 않았어. 요즘에야 와서 비선대란 말이 나왔지. 원래는 이게 진짜 비선대란 말이야. 글씨는 달라, 저건 날라간다는 날 비(飛) 자고, 요기는 비밀이라는 비(秘) 자야.

그런데 지금부터 외정 때 대정 14년 말로서 대정 15년에 출판해낸『면세일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 일이야. 그러니까 74년 전이지. 내가 10살 때니까. 내가 84세 이니까, 요전에도 장교수란 양반이 와서 그걸 또 인쇄해갔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고 하니까 그 부근이 소해금강, 적은 해금강, 왜 해금강이냐 하니까, 그때는 그 봉우리가 비선대란 봉우리가 있고, 송도란 게 있었어요. 그라고 그때는 그게 섬이래요. 지금은 육지예요. 38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그 물이 있어 가지고 못건너 갔어요. 난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를 가자면 파도가 안 치는 날에 걷고 건너 갔어요. 그런데 차차차차 바다가 메워져 가지고 육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초소를 짓느라고 그 솔을 베어 버렸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솔을 놨두고 초소를 지었을텐데 경치도 좋고 그랬는데, 이런 무식한 양반들이 저기 뭐야 간첩온다고, 해안초소 짓는다고 그걸 모두 베버렸어요. 그 다음 그 앞에 송도란 섬이 있는데, 자취도 없다 이거야. 왜 없느냐 이거야. 일본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이제 속초항을 축항할 때야.

지금은 축항을 할려면 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돌을 마구 깨가지고, 축항에 쓴 모양인데, 그 신기하게 여기 등대 밑에 서낭당이 있어요.

그 서낭당부근에 어릴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노인이 한 분 있어요. 팔십 먹은 노인인데, 윤익현 이라고, 아이들 모아놓고 한문 선생도 했어요. 또 동사무소에 서기도 했고 아주 유식하지요. 그 양반이 얘기하는데, 그 양반이 산에 댕기길 좋아하고 나도 산 좋아하고 그래 같이, 산에 댕기고 그

랬는데, 영금정 부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자기하고 김 모씨 라는 사람하고 그 두 사람밖에 없데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영금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어요. 그기에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나고 했으니까 다 알죠. 그 섬 그 부근에 사람들이 모여 야단이 났더래. 뭘 하는가 하고 가보니까 지금 활어장이라는 고기 양어장이 있어요. 물이 둘어갔다 나갔다 하는, 바위가 여기하나 있는데 이만치 만한 바위가 이쪽 바위위에 올라가 있더래.

하룻밤 사이에, 그래 인제 신기하다고, 신기하다고 사방팔방 모여가, 일본사람도 있었는데, 그때가 일본치하니까. 일본사람들이 우리보다 미신을 더 좋아 하거든. 그래 굿하고 이런 것을 말 할 것도 없이. 그래 일본 사람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송도라는 섬과 그 앞에 있는 지금 바위가 이렇게 아주 큰 바위가 있는데 을매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송도라는 섬이 있고 비선대란 곳이 있고, 또 바위가 그런게 있고 하니까.

여기 영금정이란 데에 장구같은 바위가 있어요. 우리가 동굴 같은데 들어가면 종유석이란 것을 두드리면 땡 뗑 소리나잖아요. 그래 장구같이 생긴 바위를 두드리면 장구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생기기도 장구같이 생기고, 소리도 장구같이 나기 때문에 그걸 장구바위라 하잖아.

그 앞에 또 참 북같이 생긴 바위가 있는데 또 그걸 때리면 북소리가 나는데 또 그걸 북바위라고 해. 근데 영금정이란 것은 신령 영(靈) 자에 거문고 금(琴)자에 아주 신령스러운 음악이 깃들인 곳이야.

그 때는 을매나 기암절벽이 많은지 여기서 영금정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못넘어 갔어. 험해가지고. 그래서 돌아 가지고, 자기들도 돌아댕겼다 그래. 그 내려가다 보면 그래 그 돌을 다 깨 가지고 지금은 다니기 쉽다. 근데 일본 왜정이 돌도 많고 그러니까, 그 돌도 깨내고 그 좋은 바위도 때내고, 그 부근에 있는 것을 다 깨내야 될 모양인데, 그걸 깨라니, 바위가 보통 바위가 아니다 이거지. 만약 깨내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굿을 시작했어.

신에게. 우리가 바위를 깨더라도 탈이 없게 해 달라고, 이 주일인가 했다 그래. 저 먼 곳에서 바위가 올라앉은 것을 구경하려고 왔다 그래. 그걸 네 굿을 한 뒤에 깨냈다. 그래서 지금은 경치가 나빠졌다.

그때 걸 놔둬서 그렇게 돼 있을 때 『면세일반』이라는 책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와 놀고 시를 짓고, 이렇게 해서 소해금강. 금강산에도 있는 소해금강. 그리고 신흥사에 있는 부근에 소금강. 이게 강원도에 있는 소금강이제. 신흥사도 그 부근에 경치가 좋다해서 소금강이라 불렀대요. 그게 『면세일반』이라는 책에 써 있어요.

그런데 송도라는 섬도 없어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은 영금정이라는 데로 다리를 놔서 정자를 지어서 놨어요. 옛날에는 초소 있던 데에 정자가 있었더래요. 지금은 흔적도 없고 내가 왔을 때 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젠 속초라 하고, 또 한가지는 이 설악산 전체가 와우형이다 이거죠.

속초 부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다. 지금 여기 대승폭포 있는 부근에서 대청봉으로 오르는 길이 있어요. 가다 중간에 귀떼기청봉이라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귀에 해당한다는 거요. 백담사 골짜기에도 귀떼기청봉이라는게 있어요. 그 골짜기를 우족동이라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알지.

여기 이박사라고 산을 좋아해서 병원도 문닫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87세예요. 그가 설악산 개척의 공로자로 설악산 없이 살 수 없는 분인데 그가 안다닌 데가 없어요.

소의 뒷발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도 설악산 전체도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다. 이곳 속초도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다. 아주 모든 것이 일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든간에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고 앞에 풀단이 놓여있다해서 그 소가 풀을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명이다 이거죠.

〈박익훈, 남 · 84, 교동, 1999.12.1〉

11. 영랑호 용이야기

옛날에 용이 하나 있었어. 그 용은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용이었어. 그 용은 여의주를 달밤에 아가리에서 빼내 가지고 달빛을 비추어야 했지.
그런데 그곳에는 여의주를 노리는 이무기가 한 마리 있었거든. 어느 날 용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이무기가 여의주를 눈 깜짝할 새에 삼켜 버렸지. 그래 가지고 용이 된 이무기는 승천을 하고 남은 용은 자신의 여의주를 빼앗아 간 이무기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지. 그때 흘린 눈물이 고여 생긴 것이 영랑호였어.

〈이상기, 남 · 41, 금호동, 1999. 12. 17〉

12. 영랑호 전설

영랑이라는 화랑이 와서 수도를 하고 놀다 갔다해서 영랑호라 하지요. 사실은 이 영랑이라든가 술랑이라든가 남랑이라든가, 이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또는 화랑도 한 팀의 이름이다.

근데 숙종 때 김삼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 때 높은 관직에 계셨는데 율곡 선생하고 같은 시대야.

양반의 자손으로써 지켜왔기 때문에 백담사에서 조금 가다보면 그게 왜 영시암이라 했냐하면 화살을 한번 쏴 노면 영원히 못 돌아온다 해. 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 안돌아 간다 그래서 영시암이라 한다.

그 양반이 영랑호에 와서 글을 썼는데 경치가 좋아 놀다 가려니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사흘을 통곡하고 갔다는 글이 있지.

그렇게 영랑호의 경치가 좋아서 나도 맨 처음엔 깜짝 놀랬어. 또 요즘도 처음와서 영랑호를 처음보는 사람은 탄복않는 사람이 없소. 내가 예전에 영랑호를 자주 댕겼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 한 명이 가며 한다는 말이

"아저씨 이 호가 뭐래요? 이야 이렇게 좋은 호수에 왜 사람이 없소?"

"외진 곳이라 사람이 안와서 그렇지."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은 탄복을 하지.

근데 여기 청초호는 쌍성호라 했어. 『동국여지승람』에 쌍둥이로 이루었다, 왜 그러냐 하며 내가 생각해 볼 때 영랑호는 화랑이 왔다갔다해서 영랑호라는 이름을 받았거든. 근데 저게 이름을 못 받았다 이거야.

근데 호수가 쌍둥이처럼 생겼거든. 쌍성호라고 붙였겠느냐. 근데 청초호도 『동국여지승람』에 뭐라 써있냐 하면 경치가 얼매나 아름다운지 영랑호보다 났다 그래서 『택리지』를 쓴 이중환이가 관동팔경에 낙산사를 안 넣고 청초호를 넣어서 유명해 졌다고.

청초호에는 옛날에 용암이라는 속초 교동 앞에 가면 바위가 큰 게 있었어요. 그 바위가 이름이 난 것은 한말에 남궁억 선생이 양양군수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직전에 그때 와 있었어요. 애국자니까 이 양반이 사월 초파일에 화전놀이를 해서 더욱 이름이났다 이거여.

그때 이 대포동이 아주 이 부근에서 중심지였는데 왜냐 하면 그 항구가 이 부근에서 제일 수심이 깊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두에 하까다라는 배가 우편물을 싣고 사람도 태우는 그런 배가 있는데 거기를 떠나 대포를 들러서 원산까지 댕겼지.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서 대포가 중심지였어요.

대포를 중심으로 해서 미시령으로 넘어가는 육로가 있고 배가 수로를 그렇게 댕기고 육로는 거기서 인제 회암산을 타고 원산으로 통하고, 그렇게 인제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랑호는 영랑이란 화랑도가 지나갔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영랑도이

니까 영랑도가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해석되고, 결국 화랑이 수도했다는 역사에 의해 영랑호라고 지었다고 볼 수 있지.

〈박익훈, 남 · 84, 교동, 1999. 12. 1〉

13. 영랑호와 달마대사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신라시대 화랑인 영랑(永郞), 술랑, 삼조, 남석 등이 금강산으로부터 고성 삼일포에 와서 3일동안 수련을 하고 각각 분산했습니다. 영랑만이 이 호수에 와서, 뱃놀이를 하며 선유하던 곳이라 해서 이 호수의 이름이 영랑호라 불리어 왔습니다.

영랑호 남쪽 기슭에 송림이 울창한 복판에 자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서기 637년전에 정혁담이라는 승려가 사지를 건립하고 53불의 보광부처를 보완하였다고 해서 보광사(普光寺)라고 이름이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영랑호는 아주 물결이 맑고 잔잔해서 언제나 어족이 풍부하며 낚시를 즐기는 태공(太公)들과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속초 시민의 휴식처가 바로 영랑호입니다.

그럼 영랑호를 떠나서 유래를 마치고 그전에부터 불교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번성했나 하면 인도에서부터 번성했는데, 인도에서부터 번성하면, 당나라 동남사, 지상사, 원나라 윤재사, 개국사를 거쳐서 금강산으로부터 금강산 신개사, 유점사 장안사 3개 사찰을 거쳐 가지고, 이 영동지구 관동8경을 쭈욱 내려 오는 그 승려가, 원래는 승려가 말을 탔다고 하면 위법적이지만, 그러나 거리가 워낙 멀고 보니 어딘가는 그 아주 말먹이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 꼭 말 먹이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에서 내려서 풀을 비어서 말을 먹일라고 풀을 비어서 등에다 싣고 말을 타고 올라와 보니 점심 때가 되었어요.

시장끼가 있어 하는 것 같아서 그 풀단을 풀어 가지고 말을 먹이고 그래 '먹이재'라 하는 데가 오늘날에 와서 그 풀단을 풀어서 먹였다고 해서 먹이재입니다.

그래 먹이재를 거쳐서 이 봉우리 꼭대기를 올라와 보니 인도에서부텀 포도전법이 부족한 지라 여기서 수 년간 수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바위 틈에서 수도를 수 년간하고 그래서 거기서 도(道)가 통했어요. 그 포도 전법을 통달을 해서 그분이 그제서 도가 통했다고 해서 이를 '달마봉'이라 불렀고, 달마대사가 바로 이 분입니다.

〈유만석, 남 · 50, 설악동, 1981. 4. 17〉

14. 청초호 용경(龍耕)

청초호에 대해서는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경이 나오는가 하면은 청초호가 또 한가지는 옛날에는 그 겨울에는 호가 업니다. 어는데 얼음을 보고서 그 다음해의 농사를 풍흉을 그 점쳤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얼음이 어는 것이 꼭 논을 갈아 논 것같이 그런 얼음이 업니다.

그걸 갖다고 용경(龍耕), 용갈이, 용이 논을 갈아 놓았다는 듯이 용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인제 그 용경이 누워 있는 방향을 보고,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겠다 못 되겠다 하는 것을 아마 점쳤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청초호이면서 이 청초호는 앞으로에 우리 속초로 봐서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쪽에 남을 향해서 갈아 났을 때 풍년이 들고, 북으로 향해서 엇갈이로 갈아 놓았을 때는 흉년이 든다. 그래서 남북을 나눠서 길흉을 점쳤어요.

〈장헌영, 남 · 54, 중앙동, 1981. 4. 27〉

15. 청초호와 민속

청초호를 쌍성호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쌍성호라 했냐하면 영랑호하고 청초호하고 호수가 둘이기 때문에 쌍둥이 이기 때문에 쌍성호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청초호 호수 가운데 청룡이 살았다 해서 청초호라 하고 영랑호는 황룡이 살았다 해서 황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랑호라면 기록에 엄연히 영랑(永郞)이란 게 남아있고 또 이쪽은 쌍성호라고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같은 호수인데 영랑호는 이미 이름을 얻었고, 청초호는 이름을 못 얻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청초호에서는 무슨 놀이가 있었나 하면 논뫼호의 불꽃놀이, 논산을 우리말을 하면 논뫼가 됩니다. 뫼 산(山)자니까 지방사람들이 그 당시에 청초호를 논뫼호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런데 옛날 봉건시대에는 높은 사또가 부임하면 지방사람들이 그 사또에게 잘 보일려고 환영식을 하는데 여기서 해 왔다는 것입니다.

해왔는데, 남궁억 선생 때까지도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남궁억 선생(1863~1939) 그 다음에 최모 씨던가 그 양반때 일본에 우리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래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냐하면 그런 불꽃놀이

하다가 빠져 죽은 익사사고가 생겼다. 그래 없어졌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일본사람들이 우리의 풍속을 없애려던 차에 호기가 됐고 한가지는 여기 용암이란 바위가 있었답니다.

그 길이가 구척이나 된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남궁억 선생이 4월 초파일에 이 지역사회분들과 거기서 술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다. 일본사람들이 쓴 글이니까 주연을 베풀었다. 그래서 청초호가 한층 더 이름이 높이 났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바위를 항구를 만드느랴고 그 바위를 깼습니다. 박상희란 분이 청초호를 개항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다 게가 얼마든지 많았는지 사람들이 가을철만 되면 밤에 횃불을 켜들고 쭉 와서 게를 잡느랴고 불야성을 이뤘는데 요즘에는 오징어 배가 불야성(不夜城)을 이루듯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다리역할을 했다 해서 주교(舟橋)라고 저쪽 부월리를 주교리라 불렀답니다. 그런데 소야팔경 중에 주교야화(舟橋夜火)란 말도 그때 그 불이 아주 꽃같이 밤에 피니까 주교밤꽃이라고 소야팔경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참 뭡니까? 옛날보다 기후가 좀 뜨셔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30년전만 해도 청초호가 많이 얼었습니다. 얼때 바람이 심하지 않습니까? 양강지풍(襄江之風:양양 · 강릉은 바람이 심함)이라해서 바람이 심하니까 그 얼때 마치 파도 물결이 치듯 바람이 부니까 논밭을 갈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용경(龍耕), 용갈이라고 불러왔답니다.

〈박익훈, 남 · 77, 교동, 1992. 4. 21〉

16. 청호동 갯배

갯배가 여기 피난민들이 많이 정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처럼 생겼고 이 뒤로 육지로 돌아 갈라카면은 한 10리, 15리 거리가 되니까, 그리 거기서 보면은 불과 한 100m 거리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갯배를 마련해 가지고 줄을 땡겨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은 시내에 아주 쉽게 갈 수가 있거든.

그거가 여기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부터 생긴건데 언제쯤 될까? 53년, 그러니까네 여기에 피난민들이 집결되서 살고 하니까네 한 60년대 뭐 그 쯤되어서 아마 갯배가 마련됐을 거야

〈황화수, 남 · 75, 청호동, 1999. 12. 4〉

17. 청호동 성황제

성황당은 요가면 있는데 조 앞에 가면 바닷가 쪽에 조 높은 산 위에다 있잖아 놨는데, 성황당이란 거는 옛날 고래 풍습이지. 신을 믿고 그 성황당이라는 거는 이 육지에 사는 사람들도 성황당 신을 많이 믿어.

"그저 고기라도 많이 잡아주쇼"

하고 1년에 한 두 번씩 거기에 가서 제사를 모셔.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게 성황당이여. 1년에 한 번씩 거기에서 제사를 모시고 그러지.

옛날에 도감도 맡아보았는데, 옛 풍습에 의하면 성황제라 하면 주로가 전체 동민들이 모여가 하는 기 원칙이지마는 여기에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들이 돈을 내고, 제물을 갖추고 굿도 하고 소도 잡고, 옛날에는 두 마리씩 잡고 했는데, 그기 동 전체의 부담은 아니었어요. 그런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들이 주로 돈을 모아서 지냈지요.

〈황화수, 남 · 75, 청호동, 1999. 12. 4〉

18. 청호동 유래

왜 청호동이라고 하는냐 청호동이 말이지 앞에 이 청초호가 있잖아 청초호를 이렇게 움싸고 있으니까 맑은 호수를, 푸른 호수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청호동이라고 아마 이름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여기에 전부가 반도처럼 생긴 일종의 속초지역을 봐서는 반도 형태지마는 일종의 섬과 같이 좀 거리가 시내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 저 갯배가 댕기고 그 동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여기가 백사지 땅이고 국유지인데 피난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빨리 갈까 해가지고 38선 가차이에 혹 빨리 수복이 되면은 찾아갈까 해서 또 이북에서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고 순간이래도 살라면은 아는 직업을 택해야 되고 바닷가에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여기 와서 바닷가에서 뭔가 종사를 해야 생계유지가 되니까 고기잡이가 주축이니까 여기 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 여기에 정착을 한 거지. 그래서 여 청호동이라는 곳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집결되어 가지고 살다보니까네 여기 주로 함경도 분들이 많고, 이래서 한때는 '아바이 마을'이라고 했어요.

이 '아바이'라는 것은 함경도에 가면은 영감님이라든가 나이 먹은 사람을

'아바이'라 이러카거든. 그래 '아바이 마을'이라고 호칭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거야.

〈황화수, 남 · 76, 청호동, 1999. 12. 4〉

19. 도문동 유래

조선시대에는 도문면이라고 하여, 그 관할 하에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문은 동리 이름이자, 동시에 면 이름이었지요.

그러던 것이 일제 시대에 들어와서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져서, 오늘날 속초시의 전신인 도천면이 되었고, 동시에 상도문리와 하도문리 중간에 행정상 중도문리가 신설되었어요. 그 후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었고, 1966년 동제를 실시할 때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가 합쳐져서 도문동이 되었지요.

도문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있어요. 신라 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 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아뢰는 듯하여,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으므로, 이때부터 이곳을 도통의 문이 열린 곳이라고 하여 도문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 내려온 신선이 이곳에서 설악산으로 가는 길을 물어, 와선대에서 누워 놀다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고 설명하면서, 이곳에서 길을 물었으므로 이곳은 道問이라고 하던 것이 도문(道門)으로 변하였다는 것이예요. 또 다른 하나는 수도객들이 도를 닦기 위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 하여 도문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해요.

〈김근수, 남. 78, 하도문, 1999. 11. 23〉

20. 도문동 유래

도문동지역 거기엔, 문중이 많이 형성돼있어요. 도문 이씬가, 강씬가, 내가 정씨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그게 있어요, 집성촌 비슷하게 있었다가 집성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굳이 뿌리는 그쪽으로 볼 수 있는데 속초같은 경우는 도문동이 양양하고 연계해갔고, 원래는 양양지역이니깐 큰 근간이 될만

한 것은 도문동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도시의 핵이 이쪽부터 시작됐으니까 사장이 되버린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척산마을하고 그 다음에 노리마을 그쪽이 군사적인 어떤 그 군사도시로서 그래도 발달할 수 있는 것이 시대 역사적으로 본다면 조선시대 후기고 일제시대로 가서는 일제강점 하에 있을 때 군사적인 군사항으로서의 필요성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대포항이 그러다 보니깐 이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커져 버린거죠.

그래서 조선후기에서부터 대포항과 연계가 된거죠. 결국은 그래서 도시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간거죠. 풀이 많다는 점에서 갈대 노(蘆) 자를 쓰는데 접때 누가 왔을 때도 그런 얘길 했는데, 속초 옛 이름을 속세라고 하는게 뭐냐면 묵을 속(束)자에다 갈대를 묶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억쇄라든가 갈대의 종류 대쇄를 묶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제 속초의 이름은 풀초(草) 자를 묶을 속자(束)에다 풀초(草)자를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 속초지역이 풀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옛날 영랑호에 대한 전설을 보게 되면 그 영랑호에서 화랑 영랑이 여기서 이제 쉬었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옛날 신라시대때 부터는 말이 먹이는 곳으로 아마 발전이 되어왔지 않은가 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 개략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김철환, 남 · 37, 노학동, 1999. 11. 20〉 1. 23〉

21. 도문동과 비선대 유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낙산에서 이 설악산으로 수도차 밟을 때 거기 오니까 뭐, 도대체 산은 울창하고 도저히 어떻게 건너가면 어디로 가야 될는지 그 위치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불연 어데서 말이지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설악산 쪽으로 손짓을 하고 사라졌다, 이기야. 그러니까 인제 하나의 강선, 신선이 내려 왔다. 신선이 내려왔다 해 가주고 그 동 이름을 강선리(降仙里)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다리 이름을 강선교라고 이래요.

그래서 인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그 사람 손짓을 하는 데로 보고서 뚝을 따라 올라가는데 이 공중에서 말이죠, 어떤 그 당황한 그 말이죠. 음향이 들려서 법장을 멈추고 섰었는데 무아경을 이루었다.

에, 그래서 인제 수도에 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설이 있는데, 그래 인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설악산을 찾아 올라가는데 그때는 이 지역은 뭐, 전부 뭐, 산이고 솔밭이고 이래 도저히 무인지경입니다.

도저히 인제 길을 몰라서 그래서 지금의 도문동 쪽에 조그마한 부락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게서 설악산으로 갈라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길을 물었다, 도를 닦으러 가는 도인이 길을 물었다. 그래서 도문이라 이래는데 그때는 물을 문자(問)를 썼는데 요즈음은 변화돼서 문문(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닦으로 가는 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도를 닦으러 가는 길을 물었다.

그래서 인제 이거 도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도문동이라는 전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쪼끔 올라가면은 지끔은 잘 흔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설악동 관광촌이 이쪽이 인제 오부뎅이 신단지로 구성돼서 내려오면서 거 보면 지금 현재 거게 파크호텔 거가 있죠. 에, 설악파크 있는 고게 능선이 하나 있습니다. 고 능선을 노루목곡(谷)이라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그 안이 장항(獐項)입니다. 장항 인제 그러면 왜 노루목 고개라고 했느냐?

그래 인제 도문동에서 길을 물어가 거기 갔는데 거가 뭐, 워낙 앞이 캄캄하고 숲이 깊어서 갈 바를 몰라서 거 머뭇머뭇 하는데 백록(白鹿) 그러니까 흰 노루죠, 흰노루가 흰 노루는 신성시 한답니다.

백록이 와 가지고서는 고개와 몸짓으로서 말이죠, 도인들을 그 길을 안내했다 해서 그 노루목곡, 그래니까 노루목고개라고 했고, 그래 그 구릉(丘陵)이 말이 이래 생긴 것이 꼭 노루목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개 올라가 가지고 이 길을 찾아 올라와서 어데로 갔느냐. 그래서 저 와선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비선대로서 이 하늘로 올라 간 신선이 있었다. 이래 가지고 고와 같은 설화가 생겼다 이런 설이 있죠.

〈장헌영, 남 · 54, 중앙동, 1981. 4. 26〉

22. 도문과 신흥사

도문 옹기마을은 도문이란 데가 유래는 자장율사가 낙산사 의상대에서 쉬구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설악산 쪽으로 들어오는데 길을 물었데요. 그래 가지구 하도문(下道門)입구에서 맨 먼저 길을 물었다 이거구, 이 사람이

올라오다가 중도문, 상도문 이렇게 세 개로 되었지요.

그담에 요밑에 장항리가 노루 장(獐)자하고 목항(項)자, 그건 그때 노루 속세의 말로 하면 노루의 목을 베고 거기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정확치는 않고 그래서 노루목이라고, 이렇게 됐구, 자장율사가 쉬어 가지구 이제 여기 들어왔다. 들어와 가지구 여기다가 맨처음에 향성사라구 짓고, 그걸 지었는데 화재가 자꾸 발생해 가지구 어느 날 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이 꼭대기를 더 올라가면 서북방 쪽으로 더 가면 싸리나무가 큰 게 있으니 그 싸리나무가 있는데 절을 지으면 이제 좋다."

그래서 꿈대로 절을 지었드니, 아주 절이 번성하고 잘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신이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신이 꿈에 가르쳐 주어서 이제 지었다 해서 신흥사(神興寺)라구 했다 그래요.

〈정형민, 남 · 60, 설악동, 1992. 4. 5〉

23. 하도문의 지명유래

하도문동 마을 내에서 마을 곳곳마다 불리는 이름이 있어요. '건너말'은 하도문 입구에 있는 마을이며 양짓말에서 보면 마을 중간에 있는 작은 개울로 건너편 (남쪽)마을이고, '고양터'는 마을 서북쪽 골짜기로 과거에 고(高)씨와 양(梁)씨가 살았는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해요.

'방축골'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가두어 두었던 곳이라 이렇게 불려온 것 같은데 지금은 저수지가 다 메워져 있고, '선녀골'이란 선녀가 내려왔던 곳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마을 뒷간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은 환한 느낌이 들어요. '골논'은 마을 뒤 고양터 동편 골짜기, '괴골'은 마을 뒤 골논 동편 골짜기지요. '신문턱'은 하도문과 중도문 사이에 있는 작은 둔덕인데 우리나라를 다시 찾은 기념으로 세운 '수복탑'이 여기에 있어요.

'양짓말'은 산기슭 밑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데 이 집이 옛날 이 마을에서 세력을 휘둘렀던 함평 이씨의 집이라서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곳에 집이 위치해 있었던 것이지요.

'송정리'는 솔밭 마을이란 뜻인데 예전에 하도문을 부르던 이름으로 큰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이예요. 지금은 소나무가 많지 않은 것은 일제시대때 모두 베어가서 그래요.

〈김근수, 남 · 78, 하도문, 1999. 11. 23〉

24. 상도문의 전설

역사적으로 보면 한 400년전에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최초로 마을이 형성된 후에 여기에 오게 된 순서는 인동 장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먼저 와서 여기 살게 됐지. 그 다음에는 밀양 박씨가 와 살았고 그 다음에는 강릉 박씨가 와 살았고 그 다음에 강릉 김씨가 들어와 거주하게 됐지.

나는 강릉 박씨예요. 옛날에는 여기가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에는 처음에 인동 장씨하고 밀양 박씨가 살았는데 그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왼쪽으로 옮기고 사는 것이 밀양박씨가 내려와 살게되었다는 얘기야. 그 후에 거기에 강릉 박씨가 정착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을에 재미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하면 밀양 박씨하고 강릉 박씨라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

전해오는 말이 박씨를 지랄 박씨라고 그랬대요. 왜 지랄 박씨라 했냐... 원래가 지랄 박씨가 아니고 길 밑에 있다고 해서 지랄 박씨라 했다 하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지. 이 동네 성별로 정착된 이야긴 그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을의 생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배처럼 생겼어요. 지금 배처럼 생겼다는 것이 문헌에도 나와 있지마는 배처럼 생겼지 때문에 배에는 반드시 그물이 있어야 되고, 또 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앵커 영어로는 앵커라고 하나? 닻, 그게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보통 여기서 말하는 그망골이라고 하지 그것을 원래가 그망골이 아니고 거망골이야. 거망골인데 그 거망골이라 하는 것은 그물을 말하니까 망이라 하는 것은 거망골.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추진하고 있는 딸이라고 하는 것, 고것이 여기에서 한 500미터 내려가면 그곳이 있어요.

거기 지금 내가 상도문 돌탑정 복원에 대한 신문에다도 내고, 그 다음에 시에도 몇 번 가서 절충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돼있지 않아 이것을 내가 지금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딸이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 굵은 돌 옛날 사람들은 힘이 셌으니깐 굵은 돌로 산처럼 쌓았어요. 반원으로 이렇게 쌓는데 그것이 수해때 유실됐어요. 유실됐는데 그 장소가 좀 협소하지. 지금 거길 기점으로 해서 설악산 야영장까지의 제방 둑을 가로막아 놨는데 제방 둑 바로 맨 끝에 지금 소나무가 한 십여대 있고, 거기가 지금 내가 몇 번 탐사해서 이것을 복원해 볼까 하고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협조가 잘 안 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상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모양이다 거망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또는 말하자면 딸(앵커), 그것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곳에다가 우물을 못 팠어요. 배에다 우물을 파게 되면 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물을 파지 못하게 했는데 세월을 발전되다 보니깐 차츰 우물을 한두 집씩 파 가지고 펌프로 해먹다가 물을 마시다가 그 후에 상수도가 들어와가지고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것이 부락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도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생겼냐는 문제거든. 이 전설상으로 봐서는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도승이 설악산으로 가는 길에 도를 여기서 깨우쳤다. 깨우쳤다 해서 도문이라 얘기하고 간단히 말하면.

또 한가지는 신선이 양양쪽으로 나가다보면 강현면이라는 데가 있어, 강현면 강선리, 그 강선리가 내릴 강, 신선 선 자를 써서 신선이 내려왔다는 얘기거든 신선이 거기 내려와서 설악산에 가는 길에 도문에 와서 길을 물었다고 해서 도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두 가지 물어서 도승이 이제 길을 따라서 설악산으로 갔지.

설악산으로 가면 왼쪽으로 와선대라는 데가 있어요. 와선대가 있는데 와선대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고 쉬었다가 쭉 올라가면 비선대라고 있죠. 날 비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도문이라고 지었다는데 두 가지 전설이 내려와있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육모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 앞에 가면 학모정이라고도 하고 육모정이라고도 하지. 거기는 전설이 어떻게 내려와 있냐 하면 거기 보면은 비석에 올라가자 첫째 비석. 낡은 비석이 하나 있지.

그 비석이 강릉 박씨의 비석인데 그 비석이 '지' 자 '의' 자하는 할아버지인데 박지의라는 할아버진데 그 사람의 그 할아버지의 효자비야. 효자비. 효자비인데 왜서 그 할아버지를 효자라고 했냐 하면은 먼저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꺼야.

그 비 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전 이름이 '지' 자 '의' 자가 국왕, 나라의 왕이 사망을 한 그러니까 사망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양반이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북쪽을 향해서 삼 년간 상을 입었다고 해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거기가 망곡터지. 그래서 망곡터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지.

근데 지금 보면은 돌을 이렇게 쌓고 비석이 하나 서있는데 그 비석은 후 자손들이 만들어 놨지만 그 자체 터는 그 터는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그 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그 다음에 그 양반이 또 효자라고 하는 그

러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효심도 지극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내가 뭐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아버님이 병환에 누워있어가지고 아마 그 중병이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중병을 자식으로써 보기 안타까워서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흘려서 아버지를. 그래서 났았는지 안 났았는지 그거는 뭐 기록이 되어었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효자로서 남아있고 지금 효자각을 거기다 지금 세워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효자각 뒤에 보면은 비가 하나가 있어요. 비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비문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나만 글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비문을 베껴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무어라고 썼냐 하면은 명선담은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명선담은.

그니까 이게 고종때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만치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문구를 쓰지 않나. 단 네자로써만 쓰여있고. 그 기록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보지. 네자 풀이가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문제를 상당히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는 그런 뜻일 꺼예요.

내가 지금 봤을 때는 그게 글자가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내가 이제 보는 견지가 그렇게 나와있고 이것을 시장이 이 글 이 비문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고 그거 지금 그냥 그렇게 내려오고 있지.

그 다음에는 효자각은 여기서 약 한 1킬로 돌아가야 해. 산으로 싸리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리 쭉 들어가면 효자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볼 의사가 있으면 쭉 내려가 도랑 길이 있어요. 거기가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학무정이라고도 하고 육모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육각으로 되었다고 해서 육모정이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에는 또 뭐 그런 관계가 있고 그걸 자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강릉 박씨의 유래는 그렇고..... 벼락바위, 이리로 쭉 내려가면 벼락바위라고 하는데 벼락을 쳐서 둘이 갈라졌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지금 지방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좋지 않게 그 바위를 전부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단지 그 바위는 벼락에 맞아서 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로서는... 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조잡한 얘기가 많이 있거든.

또 후세의 자손들에게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앞으로도 학문적 가치가 있어 전설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후 자손들에게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내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하겠고 그것이 또 문헌에도 안나왔을 것 같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설악산은 다 그거고 또 없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는 그게 망곡터였었는데, 망곡터였었는데 후에 여기 오씨네 집안에서 학자가 한 분 있었지. 글을 많이 아시는 그런 한 분이 있어 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여기에 서당을 차려 놓으면서 여름철에 거기서 글 하는 사람들을 학문을 가르치는 집을 지었지. 그래서 '육모정' 이렇게 말하지.

그니까 여기 배처럼 생겼고 그 다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어떻게 쌓았냐 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쌓은 거지. 근데 그런 얘기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쌓으라고 그래서 쌓았지. 쌓은 게 이제 9 · 13 수해때 아주 완전히 소실이 된 거지. 그런 영향이 있지 않냐.

원래는 그 터는 망곡터였었지. 망곡터였었는데 그 후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학자가 있어 가지고, 매곡선생이라고 있어요, 매곡선생. 그래가지고 서당을 이제 부락에서 자기 집에서 하다가 정자를 짓고 여름철이면 거기서 학문을 가르쳤지.

학무정. 배움의 날개를 펴니까. 그래 학무정이라고 하지. 현판은 대부분 내가 생각컨데 또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판은 인제 거기 인제 육모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근에 드물거든 그니까 그 양반도 학자니까 자기 친구들이 여름철에 놀러와서 친구들이 아마 현판 같은 것을 써줬을꺼야. 그래가지고 부착했고.

그리고 여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전설적인 얘기가 드물어요. 근데 여기가 지형이 지역으로 보면 옛날 38이북이거든 여기가 38이북이 되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라든가 또는 그 후라든가 그 이전에 보면 여기 예맥지대거든 예맥. 예맥이라는데.

여기 예맥지방에 대해서 고구려하고 신라 백제의 경계 지방이란 말이야 그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특수한 일이 없어요. 내가 본 문헌을 찾아봐도. 특수한 뭐 무덤이라든가 또는 특수한 고적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 그 경계선이니까 이게 다 아무래도 발전상으로 봤을 때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니까 같지. 그렇다고 난 보지.

이것을 그 유실되는 곳을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은 몰라요. 내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알게 됐지.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장님한테도 호소문까지 내고 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인제 이렇게 날인까지 받아 가지고 할려

고 한 게 협조가 좀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 누가 하던지 내가 발설을 해 놔서 누가 하던지. 지금 시에도 한 통 가있고, 설악산 국립공원에도 한 통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통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언제가 되던지 복원이 될꺼 같애. 또 돼야 되지. 속초시는 문화유적이 드물거든. 아까 말한 거같이 그런 관계일 것 같애. 누가 하던지 할꺼야.

〈박용훈, 남 · 72, 상도문, 1999. 11. 30〉

25. 설악산과 마의태자

설악산은 어떻게 되어서 설악산이냐, 눈이 많이 와서 설악이냐 아니여. 설악이란 건 왜 설악이냐 하면 춘하추동 사시절 봉우리 끝을 보면 눈이 온 것 같애. 늘 하얘. 늘 하얗고 울산바우만 불겋지. 자색이 나지.

설악산은 해를 지고 산 앞을 보면 첫 눈이 온 것 같이 "초설경(初雪景)이 설악(雪岳)이다" 첫 번 약간 내린 눈 온 것과 같다. 설화령(雪化嶺)이 설악이다. 눈으로 화한, 눈 온 것 같은 것이 설악이다. 그렇게 됐어요.

설악산 유래가 근데 설악산 전체를 그렇게 놓구는 자장율사가 천 년 그맘 때 들어와서 향성사를 먼저 지으셨거든. 향성사를 자장율사가 짓구 그때에 권금성에 마의태자란 이가 떠나니까 군대가 쫓아온 모양이야. 아래서 힘 센 사람이 돌을 던지니까 위에서 받았다는 그때 이야긴데 권금성에 올라가면 돌 쌓은 게 뵈키구 권금성 안짝에도 돌을 일 곱자 쌓았어요.

첫 번 들어와 정고평에 가면 초소막이 있어요. 사방 열 자쯤 되는 초소막이 있어요. 석자 넉자 되게 거기서부터 쌓았어요.

권금성까지 마의태자 패가 집을 거기다 짓는데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오행으로 짓는데 동대문은 동방 살팔목오왕성문이라, 동대문이라 안하구, 서대문은 서방일치화화엄산문이라. 남방일율수왕성문이라, 중앙목이오십토문이라, 중앙을 말하니까 네 군데 문을 내구 위는 복판을 집을 지으니 중앙목이 오십토왕문이라.

"우리집 택호는 토왕성집이다."

이래서 인제 토왕성폭포가 생겼지. 옛날에는 신광폭포여. 신광폭포때 이네들 마의태자가 참 토왕성을 지어 놓구는 그담에는 폭포를 토왕성폭포라 지었어.

그래서 지금 토왕성이 내려오지.

〈박일호, 남 · 78, 노학동 2/5, 1992. 4. 5〉

26. 설악산과 금강산

설악산은 처음엔 설산(雪山), 설봉산, 설악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반도 중부 평령을 가등한 영점에 높이 멋지게 솟아 오른 설악산은 해발 1,708m로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태백산맥을 동·서 양쪽으로 나눠 서쪽을 내설악, 강원도 인제군이라 하면 동쪽을 외설악, 강원도 속초시라고 부릅니다.

금강산은 고구(古久)로 서림의 상합이라고 불렀지만 설악산은 살매 설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해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설(雪)은 살의 음역이요, 살은 인간의 활동상을 뿜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다고 생명, 숨을 쉬니 호흡, 인간, 쌀미(米), 샘천 등을 포함하는 한 어군(語群)이 되고 있으며, 불교에서도 불타의 몸에서 나온 염주와 연골을 가리켜 사리라고 합니다.

청정한 생명의 신비적인 표시물을 연골이라고 하였으니 '설악'이라는 '설'은 결국 신성을 의미하는 살의 음역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대(對)설악산, 설악산 대 금강산, 금강산과 설악산은 아형아제라.

금강산을 형이라 하고 설악산을 동생이라고 할 수 없고, 설악산을 성이라 하고 금강산을 동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금강산과 설악산은 아형아제(阿兄阿弟)다."

금강산은 그 어여쁜 아가씨가 화장을 하고 노상에 앉아 노정을 하고 있는 형색이라고 하면, 거머뭉특한 남자가 떡 골방지침을 도사리고 앉아 있는 형색입니다. 금강산보다 설악산이 더 높고 과연 멋있는 게 설악산이지요.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7〉

27. 신흥사 유래

지금으로부터 1320년 전에 신라의 왕족 소판 3품 벼슬을 가지고 있는 그 물인공의 아들이 인생의 속세를 떠나서 당나라 풍남사, 지상사, 온나라 윤재사, 개국사에 들어 가서, 20년간 도(道)를 통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오대산 갈래사를 창건하고, 부사리 150장을 보완해서 절 앞에는 9층 석탑을 세워서 보완하고 설악산에 들어 왔습니다.

설악산에 들어 와서 사찰을 창건하고 절 앞에는 부사리 33장을 보완해서 8층 석탑을 보완하고 수도를 했는데, 그 창건한 지 223년만에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그래 화재 당시에 6층이 파손되고, 현재 3층만 남아 이 사찰의 추억

을 외로이 말없이 그리며 현재 역시 견고합니다, 3층 석탑이. 그 자리는 어딘가 하면, 지금 설악호텔 밑에 국민학교 분교 그 자리가 그 옛부터 자리입니다. 향성사.

그래 인제 화재로 소실되었고, 사찰이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 의상대사가, 태백산 부석사를 창건하고 영동으로 쭈욱 올라오면서 보니, 그곳은 꼭 사찰이 있을 만한 곳이라 생각하고, 사찰을 창건했습니다.

사찰을 창건하고, 그 사찰이 전에는 사찰이라고 하지 않았고, 기원도장(祈願道場)이니 호국도장이니, 기원종신으로, 적군이 들어오면 적군을 물리친다는 승려들의 정신을 길이 길러서 보존하기 때문에 호국 기원도장이라고 창건한 것이 지금 현재 낙산사(落山寺)지요.

낙산사가 그 전에 낙하사라고 불리었고, 그 낙하산 떨어진 거와 똑같애요. 그래 그 후에 낙산사라고 불렀지요. 그래 설악산에 들어와 보니 성인이 창건한 사찰도 223년만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곳은 가장 사찰이 하나 있을 만한 곳이라 단정하고 쭈욱 올라 와서 사찰을 창건했습니다. 그래 사찰을 창건하고 사명(寺名)을, 선정사(禪定寺)라고 사명을 붙였습니다.

그 선정사를 창건하고, 봉안할 불상이 없어서 밤낮 7일간 수도를 하고보니 한 날 밤 꿈에는 어느 도승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저쪽에 가면 산 불상이 있으니, 산 불상을 갖다가 봉안하고 수도해라."

깨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래 하도 신기해서 그 이튿날 가서, 꿈과 마찬가지로 가 보니, 산 불상이 있어서, 그 산 불상을 갖다가 절에다 봉안하고 수도하고 있었는데, 의상대사가 선정사를 창건하고, 수도한 지도 150여 년만에 역시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화재로 소실되어서 그 옛터를 비워 두기가 너무 애석하다 해서 암자를 창건했는데, 능인암(能仁菴)이라는 암자를 창건해서 수도를 했는데, 금강산에도 수도하던 비구니 김수영 씨가 자기 선조들이 수도하던 정지인 줄 알고 와 보니, 사찰은 화재로 소실되고, 암자에서 승려들이 수도를 하고 있는데 공양을 잇기가 곤란해서 자기 토지 50 뜨락을 헌납하고, 공양을 이어 가면서 거기서 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지금 어디냐 하믄 계조암 밑에 내원암(內院庵)입니다. 내원암이라 불리어 오고 있지만, 그 능인암에서 수도하던 한 날 밤 꿈에는 어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저 밑에 내려가서 사찰을 창건하고 수도해라. 그러면 너 삼재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3재라는 것은 뭐냐, 사찰의 3재라는 것은 요 근년에 와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지만 예전으로 말하자면 아주 적당하고 꼭 3재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3재라는 것은 첫째 화재, 둘째 호랭이가 수도하면 와서 물어 가요. 그래 호환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는 빈대가 많아서 쫓겨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개 3재지요.

그래 하루는 승려가 꿈에서 깨어나서 하도 신기하다고 해서 세 승려가 앉아서 꿈 얘기를 하고 보니, 세 승려가 역시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신기해서 그 이튿날 내려가서 보니 넓고 좋은 공지(空地)가 있어 게다가 사찰을 창건하고 사명을 신의 게시로 이루어진 사찰이라 해서 귀신 신(神)자, 일 흥(興)자, 신흥사라고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신흥사에 들어가면 지금 그 원통 보존의 3불상이 있는데 3불상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의상대사가 선정사에서 그 3불상을 봉안하고 있던 불상이에요. 그게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그 3불상만은 남아가지고 그 3불상은 현재 신흥사 원통보존에다 봉안하고 수도합니다.

복판에 있는 것. 크고 양 가생이가 적지요. 복판에 있는 것은 아미타불, 우리 측이 있는 것은 세존보살, 좌측에 있는 것은 관음보살이예요. 그래 3불상입니다.

낙산사는 원통보존이고 그건 관음보살상입니다. 원통보살상(圓通菩薩像)이지요. 그래 원통보전(圓通寶殿)이라는 것은 관음보살이다, 관음보살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고, 극락보존의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라, 그렇게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 유만석, 남 · 50, 설악동, 1981. 4. 18〉

28. 신흥사 유래

신흥사는 처음에는 향성사입니다. 신라 선덕왕 때지요. 자장율사가 저 양양 상운이란 데가 있습니다. 상운이라는 데는 역 중에서 우두머리인 찰방이 주재하던 곳입니다. 그러니 상운리에서 이 부근 고성, 양양을 관장했지요. 자장율사가 그 상운리에 와 보니까 지금 신흥사 있는 쪽에서 서운(瑞雲)이 서기(瑞氣)가 비치더랍니다. 그래서

"야, 저기가 부처님이 계실만한 곳이구나."

그래서 모든 둘레가 향기로 싸여 있다고 해서 뭔가 반드시 서기가 어렸으니 부처님이 계실 만한 곳이구나. 그래서 모든 둘레가 향기로 싸여 있다고 하여 중향사(衆香寺)라 하지요. 뭔가 계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지금 뉴설악 호텔 앞 그 자리에 절을 짓고 향성사라 했지요. 바로 거기에 3층

탑이 남아 있지요.

그거가 향성사 처음 지었을 때 탑입니다. 탑인데 처음에는 그것이 5층이라 했는데 임진왜란때 없어지고 지금 3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향성사라 이름 지었는데 화재를 만나 가지고 나중에 다시 짓게 되었는데 지금 내원암에 의상대사가 옮겨지었답니다.

그래 이름을 선정사(禪定寺), 선을 아주 중심해서 이루어진 절이라 해서 그래지었는데 거기서 다시 화재가 나니 터가 나빠서 이렇다 해 가지구 정보 원년 인조 22년(1644)에 영서 연옥 두 선사 꿈에 신선에 나타나서 지금 있는 신흥사 그 쪽에 절을 지으면 번창하고 잘될 것이다 해서, 그래서 지어서 신이 나타나서 절을 이룩했다 해서 신흥사라 이름을 지었답니다.

〈박익훈, 남 · 77, 교동, 1992. 4. 21〉

29. 울산바위와 송강 정철

정철이 관직에 있을 때 일화가 있죠, 송강 정철이 봉정(鳳頂)이라고 하는 저, 지금 현재 대청봉 산봉을 갖다가 봉정이라고 그러죠. 그래 그 당시에 그 정철이가 관에서 들을 때 이 설악산에서 역적이 난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봉정에 와서 혈을 찔러서 역적이 나지 못하도록 혈을 찔르러 왔단 말이지요. 그 송강 정철이가 그런데 설악산 입구에 떡 와가지고서는 아, 이 봉정에 혈을 찌르려고 산을 올라가는 판이예요.

올라가는데 웬걸 산 입구에 탁 다다르니까 말이지 그, 마 여름철이었던 모양이죠.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뇌성 벽력이 들이 내려치는데 울산 저 우는 산에, 울려 가지고 말이죠. 찌릉찌릉하는데 인제 막 아주 몸이 오싹오싹할 정도로 대단한 소리가 나드라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 험한 길을 그 올라가느라고 무한한 애를 썼어요. 애를 써 갖고 그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니 아주 산이 말이여. 성역하고 신선하고 말이지.

"이런 풍치 속에서 역적이 날 리가 없다. 이 명산인데 이 명산에서 어떻게 역적이 나느냐?"

그래 가지고 정철이가 그 당시에 그 올라가면서 아주 고생을 해서 답답한 마음으로서 내뱉은 말이

"에, 설악이 아니라 베락(벼락)이구, 구경(求景)이 아니라 고경(苦境)이고, 봉정(鳳頂)이 아니라 난정(難頂)이라"

어렵다 그렇게 일화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쉰 다음에 이러

한 성역이고 명산에서 역적이 날 리가 없다.

그리고 정철이가 돌아가면서 그 에, 세 번째 들어와서 고생을 해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서 내 뱉은 말이 바로 그건데, 그래서 이제 천후산 그 천후산이 그 뇌성이 치고 하면 다른 산보다 많이 울리고 우는 것이 이 설악산 그래서 우는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앞으로 이 천후산은 그 원 고명(古名)을 그대로 인제 앞으로 밝혀 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헌영, 남 · 54, 중앙동, 1981. 4. 27〉

30. 울산바위와 의덕장사

울산바위는 일명 천후산(天吼山)이라고도 합니다. 하늘 천(天)자, 사자 울음 후(吼)자, 하늘에서 사자 울음소리가 난다고 천후산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울산 바위는 사방이 절벽으로 나는 새도 면하기 어려운, 6개의 봉으로 이루어진 영동에서 으뜸가는 돌산입니다.

울산바위 중허리에 구름이 덮혔을 때는, 밑에서 이렇게 쳐다 보면 일견, 연못에 연이 막 피어오르는 듯하다 하여 연화반개산(蓮花半開山)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큰 대숲을 뒤엎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산 바위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유래고, 전설로는 경상남도 울산군에 있던 바우지, 여기 있던 바우가 아닙니다. 여기 바우가 없었을 적에는 평야 비슷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불교가 세계적으로 처음에 번성하기는 저 인도에서부터 번성해서 서양으로도 나가고, 중동으로도 나가고 동양으로도 오면서 당나라 동남산, 지상사, 윤재사, 개국사를 거쳐서 금강산 산계사, 유점사, 장안사를 거쳐 금강산에도 들어 왔을때 금강산에는 승려들과 도승들이 많기로 유명했고, 금강산에는 우리나라도 유명해서 금강산에는 천하장사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금강산 천하장사인 의덕장사라고 하는 장사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금강산 신령인데 너 금강산이 몇 봉우리인지 아니?"

"금강산은 11,999봉이로다. 우리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강산이 한 봉이 없어 12,000봉이 되지 못했대는 것은 분하기 한이 없으니 너는 이유를 막론하고, 어디서 한 봉우리를 갖다가도 채워 놓도록 해라. 만약 너가 안 채워 놓으면 너의 신상에 해로울 것이다."

깨보니 꿈입니다. 그래 의덕장사가 가만히 앉아 꿈을 생각해 보니 이 꿈을

보통 꿈이 아니예요. 앉아서, 누워서 세월을 보내다가, 산신령께 벌을 받아 죽어도 죽을 꺼고, 그저 힘이 천하장사니 어디 가서 한 봉우리를 짊어지고 가다가 힘에 지쳐서 죽어도 죽을 꺼고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에라, 어디가서 한 봉우리를 짊어지고 가다가 힘에 지쳐 죽는 것이 우리 남아일 것이다."

그러믄 남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북쪽에는 산악지대가 많이 있으니 북으로 가면 마땅한 봉우리가 있겠지. 그래 북으로 가면서 샅샅이 더듬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듬으며 찾아 봐도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마땅한 봉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북에 없으니 어짜피 남으로 더듬어 보자. 남으로 내려오면서 약 한 보름 동안 더듬어도 마땅한 데가 없어요, 마땅한 봉우리가. 그러니 마지막으로 경남 울산에 가 보겠다고 울산을 가니 저렇게 커다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 바우를 보니 바우는 명 바우예요.

그래 의덕장사가 울산에서 바우를 짊어지고 금강산에 한 봉을 채우러 짊어지고 가는데, 가다가 무거워서 쉬어 갈라고 생각해 보니 만약에 내려 놓았다가, 짊어지지 못할 우려성이 많으니깐 내려 놓지를 못하죠. 먹을 것은 없죠, 자지도 못하고 땀은 비오듯 흘러, 오줌 똥도 마려워도 오줌 똥도 걸어가면서 바지에다 싸야되고 땀에 젖어, 오줌 똥에 젖어 냄새는 나지만 냄새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금강산에 져다 놓겠다는 결심을 한 사나이다. 그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15일 동안 거쳐서 짊어지고 오는데 양양 고을이라는 데를 지나오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금강산이 얼마 멀지 않으니 없는 힘을 더 내서 지고 가야겠다고 결심을 먹고 지나가는데, 나그네가 어디서 헐레벌떡하고 뛰어 오더니만 하는 말이,

"장사님, 그 큰 바우를 어디로 뭐 할라고 짊어지고 가십니까?"

"이 바우는 금강산에 한 봉을 채우러 짊어지고 간다."

"금강산은 만 이천봉이 다 확보되었으니 그 바우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 놔 두십시오."

"아 그래, 그럼 여기다 놔 둬야겠구나."

15일 동안 무거워서 쉬지도 못하던 바우는 갑자기 내려 놓는다는 것도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짊어지고 서성서성하다 그냥 내팽개치고 장수는 자기 갈 데로 갔죠.

그래 이 바우가 가만히 생각하니 아주 괘씸하고 분해 죽겠어요. 왜 분하고 괘씸하냐, 그래 인제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패댕겨쳤으니 어찌 분한지 통곡을 하고 앉아 울다 지쳤다, 울다 지쳤다.

나중에 울음이 안 나오니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 아주 괘씸해 죽겠거든요. 차라리 경상남도 울산군에 그냥 놔뒀더라면 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주민들이 가끔 올라와 하는 말이,

"그 참, 놀기 좋다, 명승지다,"

그 누차에 걸쳐 그런 소릴 많이 들어 대 환영을 받았지요. 그러나 금강산의 봉우리로 간다기에 더 좋던 바위가 금강산에 가지도 못하고 첩첩산중 두메산골 사람도 살지 않는 두메산골에다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패댕겨 쳤으니 어찌 분한 지, 울상 바위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바람이 불어 올때면 심산에 사자가 우는 듯하게도 울려오고 있습니다.

〈유만석, 남 · 50, 설악동, 1981. 4. 17〉

31. 장천 유래

장천리(獐川里)는 500년 전쯤부터 있었다고 해요. '노루 장(獐)'은 마을 서쪽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예요.

마을 앞 냇가가 노루목 고개에서 시작되어 흐름으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장천(獐川)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후에 지금부터 70~80년 전에 엄씨 가문에 진사가 나자 마을 이름에 '노루 장(獐)'자가 있는 것이 노루가 있으면 재수 없다고 해서 '노루 장(獐)'을 '글 장(章)'으로 바꿨다고 전해와요.

〈어재동, 남 · 58, 장천마을, 1999. 12. 1〉

32. 장재터 이야기

옛날 이 지역에 장재라는 아주 유명한 부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그 부자의 집에 스님이 찾아 왔는데, 그 스님을 그냥 돌려 보냈데요. 그 스님이 화가 나서 돌아간 후 비가 아주 많이 내려서 그 부자의 가족과 집, 그리고 가축들이 모두 떠내려 갔다고 하데요. 이 마을 뒷산에 아직도 장재라는 부자가 살았다는 집터가 남아 있는데 몇 년전에는 거기서 장재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도 나왔다고 해요. 그로 인해 그 마을이 지명이 장재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갑수, 남 · 61, 설악동, 1999. 12. 6〉

33. 장천마을의 음양수

이 마을 뒷산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와요.

물에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해요. 여자물은 맑고 남자물은 뿌옇다고요.

한 우물은 맑아서 여자샘이라 불리며 또 하나는 남자의 샘이라 해요. 우리나라 전통 사상에는 모든 사물이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물에도 이와 같은 이치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재동, 남. 58, 장천, 1999.12.1〉

34. 장천마을의 인심

장천마을에 아홉해 동안 흉년이 들던 시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거지나 다름없이 유리 걸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소작농들에겐 어렵디 어려운 한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9년간이나 이어졌다고 해요.

마을에 큰 부자집이 있었지요. 아무리 흉년이라해도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데 떡은 해가야 하므로 두 세 가마나 들여 떡을 만들고 있었데요. 그것도 가을이 아닌 봄(보릿고래)이었다고 해요.

그때 산에서 아기를 낳고 허기가 져 아기가 강아지로 보이고 요강이 가마로 보여 아기를 삶아먹었다고 하는 미친 거지가 그 부자집을 지나다가 떡을 치는 것을 보고 그 떡에 달려가 넙쭉 엎드려버렸다고 해요.

그 거지 몸에는 이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 떡을 사돈집에 보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또다시 두 세 가마를 들여 떡을 만든 후 사돈집에 보내고 더러워져 버린 떡은 모두 그 거지에게 주었다고 해요. 때려죽여도 마땅한 그 거지에게 말이지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자기보다는 사람을 중히 여겼다는 이 마을의 구수한 민담이 마을에 전해내려 온다고 합니다.

〈어재동, 남 · 58, 장천, 1999. 12. 1〉

35. 청대리소나무

옛날에 청대리에 큰 소나무가 있었어. 웅장하고 굵기도 크고 가지가 많은 소나무여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제사도 드리고 가축을 죽여 재물로 바쳤지.

헌데 한 사람이 그날 기분 나쁜 일을 당해 술을 먹고 만취해 그 소나무가

서 있는 길을 가다가 뭔가 앞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도끼로 그 나무를 한번 내려치니 그 나무는 천둥번개와 함께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쓰려졌어.

그 소리에 놀란 그 사람은 도끼를 던져 버리고는 황급히 집으로 달아났는데 그 다음날 그 나무를 벤 사람은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어버리고 한동안 청대리에는 불행이 찾아 왔다고 전해.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불행이 멈추었다고 전하지.

〈 장명석, 남 · 56, 조양동, 1999. 12. 7〉

36. 청대리의 전설

청대리는 속초에서 조양동에 속해 있으며 청대산(해발 230m)을 끼고 있는 마을이예요. 이 마을은 다른 마을들과는 달리 남향이 아닌 북향을 하고 있어 아주 특이한 곳이라 할 수 있지요.

원래 청대리라는 이름은 6 · 25사변 당시에 불렸던 이름이고 지금은 조양동이라고 불려져요. 청대리라는 말은 최근 들어 잘 사용하지 않아요. 청대리에는 보기 드물게 아직도 상례를 치르는데 마을이 그리 크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서로 알고 지내기 때문에다 같이 슬퍼하고 상을 당한 가족도 위로해 주는 인심 좋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전설로 살인재는 나중에 싸리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 살인재는 고개 이름인데 이곳에서 산적들이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행인을 습격해 물품을 빼앗고 살인을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요. 나중에는 전쟁시 왜군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곳에서 많은 살인이 있었고 그 때문인지 원한을 가진 귀신들도 나왔다는 소리도 있어서 그곳을 사람들은 잘 왕래하지 않았고 산적들도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은 싸리재라고 불리우고 싸리재 중간에 약수터가 있어 사람의 왕래가 많아요.

송장골은 싸리재에서 죽은 사람들을 묻어둔 곳이라고 전해요. 예전에는 무덤과 시체들이 많아 가끔가다 곳곳이 무덤이 있고 사람을 한꺼번에 묻은 흔적만 있다고 해요. 지금은 그곳은 등산로로도 쓰여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데 옛날에 이곳 역시 귀신이 나와 사람을 해 하기도 했다고 전해와요. 싸리재에서 아무 이유없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 때문에 이름도 송장골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랫고개는 옛날부터 무서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곳이예요. 어디서 유래되

어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곳으로 상여가 지나가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친다고 하여 그 고개로 가지 않고 빙 돌아서 나갈 정도로 무서운 길이었어요. 그 이유로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한동안 그랬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도 상례는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전해요.

〈 장명석, 남 · 56, 조양동, 1999. 12. 7〉

37. 미시령 전설

미시령은 월래는 옛날에는 미시타령이래요, 아득할 미, 화살 시(矢) 자가 아니라 때 시(時)자래요. 그건 뭔고 하니 아득한 시간이 걸려야 그 재를 넘어 갈 수 있다. 그 말이래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그 내력을 모르니까, 요즘에 와서 미시 이게 활에 관한거다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래요. 미시령은 때 시자다. 미시령은 본래는 대관령도 그렇고 무신 재든 간에, 재 밑에는 역이 있어요, 역마을.

지금 우체국 같은 거. 통신 역할, 물건을 운반하고. 그러면은 역에는 사람이 타는 말이 있고, 짐싣는 말이 있거든. 역이 크면 클수록 말이 많지요. 근데 미시령 밑에는 원암역이 있었어요.

원암역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원암역은 고려에는 장천리에다 역을 만들려니까, 장천리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거예요. 역사람이란 상놈이다 이거요.

옛날엔 양반이 사는 동네에 어떻게 역을 만드냐 안된다 이거야. 김진사란 진사가 장천에 났대. 진사 같으면 생원인데 양반이지. 진사난 마을에 양반마을에 우예 짓냐말이지. 그래 할 수 없이 원암이란 데로 옮겼어. 원암 이 미시령 밑에. 그 원암역에 가면 서낭봉이란게 있어요.

동네한 복판에 큰 능같이 되있어요. 근데 그걸 서낭당이 있다고 해서 그 봉을 가보면 마을 한 복판에 어디서 왔는지 묘겉이 생겨서. 그것이 서낭봉이다 이거지. 그 서낭봉은 미시령을 넘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서낭당에 와서 제사를 올리고 넘어가야 무사하다 이거야.

왜 그런고 하니 옛날 도적이란게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있다가 사람이 짐싣고 지나가면 장사꾼같이 물건 뺏기고 죽이고 그러지. 그다 제사를 지내고 가야 무사하다. 하. 그래서 서낭봉.

그리고 미시령 꼭대기 다 갈 무렵에 얼마 안 남겨 놓고 왼쪽으로 촛대겉은 바위가 아주 묘하게 생긴 게 있었어요. 그바위를 우리말로 잘 바위라 하고

한문은 숙암이라고 해요. 왜 그런고 하니 옛날에 재가 험하고 기니까 사람들이 거서 자고 갔대.

거기에 주막이 있었지. 그 넘에 넘어가면 도적소란 게 있어요. 지금은 산비탈로 길이 났지만 옛날에는 골짜기로 댕겼다 이거야. 고 밑에 도적소에 가보면 그 밑에 길이 조그마난 게 있는데, 그 밑에 물이 흘러가는 조그마난 폭포가 그 밑에 있다. 도적놈들이 고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건 뺏고 돈 뺏고 그 소에 집어넣어 죽였다. 그래서 도적소라.

그런가 하면 미시령에 대해서 맨 꼭대기에 가면 미시령이라는 이승만 대통령 휘호가 있어요. 거기엔 미시령이라고 역시 화살 시(矢)자로 되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화살 시자로 써놨는데 왜 때 시(時)자라고 하느냐 하는데 어찌 대통령이 대한민국 팔도강산을 다 아는고? 여기 사람이 그렇게 써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 대통령이 알아서 쓴게 아니거든.

그 잘못 써 있지. 이박사 호가 우남이거든. 그 앞에 써 있지. 근데 그게 또 재미있는 얘기가 택당 이선생이 쓴 것에 여기에 가면 영랑호 저쪽으로 간성군 토성면이 있는데, 토성면에 애남이란 백정이, 여기에 영월 넘어 가가지고 너무 험해가지고 못 다니니깐. 미시령, 그때는 오색령, 지금 그러니까 한계령으로 넘어 다녔거든.

그 한계령을 양양사람은 오색령이라 하고 인제 사람은 한계령이라 하고. 왜 그런고 하니 양양사람은 오색이라 하냐면 한 나무에 오색꽃이 핀다고 하는데 그건 틀렸고. 거기에는 돌에 오색이 많다고. 그래서 충청도 보령에 가면 비가 있어요. 그 비문에 뭐라 써있냐 하면, 오색 골짜기에는 돌이 오색이다. 그걸 비문을 못 본 사람은 나무에 오색꽃이 핀다고 잘못된 얘기를 한다니까.

오색령에서 인제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한계천이라 하거든 한계리에 있다해서 한계령이다. 그래 길을 닦을 때 군인 둘이 저쪽에서 와서 닦으니 한계리만 알았지. 이짝에서 오색이란 것은 몰래. 근데 거기에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한계령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색으로 왔거든. 그사람들이 잘데가 어디가 자냐. 그래서 역이란 공무원 뭐 이런데 대해서 필요한 게지. 그래 말도 암행어사 마패가 있는데. 그건 신분증이래. 토성면 사람이 백정 되는 사람이 장사하러 갔다 말이지. 여기서 해산물 사가지고 그 미시령을 넘어서 저쪽 가가지고, 영서지방에다가 팔고 판 돈으로 곡식을 사가지고 넘어왔지.

물물교환, 그러고 오는데 곡식을 말띠에다가 싣고 오는데 눈이 많이 왔어 통고지설(通高之雪), 통천과 고성사이에는 눈이 많이 온다. 양간지풍(襄杆之風)은 양양과 간성사이에는 바람이 세다.

그도 택당이 써 놓은데 보면 그 바람이 천후산에서 나온다. 그래서 바람이 세다 이거야.근데 백정이 넘어 오는데 눈이 와 놓으니까 오기 힘들꺼 아냐. 오다가 눈사태를 만나 가지고 아들이 말과 함께 구불었네. 아버지 혼자 아들을 구할 재주 없지. 그 할 수 없이 집에 혼자 돌아왔다. 그래 집에서 죽은 혼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송장을 찾으러 인제 눈이 좀 녹아서 아흐레 지나서 갔단 말이지. 가 보니까. 눈이 좀 녹아서. 아들이 구불어 간 자리 이래 가 보니까 이만한 구멍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구멍을 보니까 뭔가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더래요.

그래서 애남아… 애남아… 하고 부르니깐.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야 애남이 죽은 귀신이 저기 있다. 이 아무도 구멍에 대고 얘기 할라 하지도 않고, 들어 갈라 하지도 않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니 애남이 맞나? 맞다이기야. 그럼 애리 내 보이더래요. 아 맞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니까 살았더래요. 그 어째 살았느냐 하니 이 놈이 말하고 같이 구불었는데 말은 간 곳 없고 어디간 데 없고 안장하고 같이 구불었다. 바위가 이마한 게 있는데 그게 바위 위에 탁 걸렸네. 공간이 생겨가. 눈이 와도 그 속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죽지않고.

"그래 안춥드나?"

하니 눈속이라 안춥드래요.

"뭘 먹거 살았느냐?"

하니 말 안장 가죽을 뜯어먹고, 물은 눈을 먹고 살고 그걸 사실 그대로 써 놓은 게 있어요.

〈박익훈, 남 · 84세, 교동, 1999. 12. 1〉

38. 만천동 유래

교동 쪽은 옛날에 만천동이라고 했어요. 그 동의 이름은 이쪽에 만석군이 살고 있다 그래서 만천동이라 한다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에 샘이 하나있었으므로, 그래서 샘천(泉) 자를 쓰기도 하고, 일 만(萬) 자에 일 천(千) 자를 써서 만천동이라고 하고, 유래 또 한가지는 집이 한 만천호가 된다 해서 동을 명칭을 한 게 아닐까 해요. 아마 추정을 한 것이 이쪽 동리에서는 요충이 될만한 지역이 아닌가 해서 만천동이라 하기도 하고, 만석군이 살고 있었다 해서 만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일설에 의하면 샘천(泉) 자를 써서 늘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었다 그런 뜻에서 동네 명칭을 만천동이라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동제실시 이후 동 명칭을 교동이라 명명한 게 이쪽의 지역의 특성상 학교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강릉 같은 경우 흔히들 교동이라 부를 경우 그쪽 지역에 향교가 있을 때 그 동네들 교동이라 명칭을 하죠. 우리 속초에서 아직 향교라든지, 유림이라든지 하는 뿌리깊은 것은 없어요. 다만 학교가 밀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적 특성 때문에 교동을 학교 교(校)자를 써서 교동이라 명명을 붙인 건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각 동 동 · 폐합 관계로 노학동 전체지역과 교동 일부지역을 합쳐서 노학동이라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 명칭에 대한 유대관계는 오히려 지금단계에서는 이 지역에서 어떤 역사성을 찾는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김철환, 남 · 37, 노학동, 1999. 11. 20〉

39. 비룡폭포와 처녀제사

인제 비룡폭포 쪽으로 보면은 아주 폭포가 320m가 되는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 폭포 뒤에는 칠성봉이라는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칠성봉 그 칠성봉에는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커다란 폭포가 그 전에는 신방폭포라고도 불려 왔는데 요 근년에 와서는 토왕성폭포(土旺城瀑布)라고도 하지요.

토왕성폭포는 지난 날에 이태백이가 중국 연산폭포를 연상케 하고 개성 박연폭포를 거쳐 금강산의 구룡폭포를 거쳐 가지고 이 토왕성폭포로 왔습니다. 토왕성폭포를 와 보니

"과연 거대한 폭포다. 이 폭포에 시를 하나 지어 놔야 되겠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떨어지는 물은 삼 천 자요.

'의시은하낙구천'(疑是銀河落九天)

또한 떨어지는 물은 은하수에 비치어 구천에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폭포의 장관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하늘에서 흰 비단을 걸쳐놓은 것 같고 가까이 서 볼 때는 꽃 구슬을 석벽(石壁)에 박아 놓은 듯한, 사철 변함없이 쏟아져서 오고 가는 나그네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데가 바로 토왕성폭포입니다.

토왕성폭포에서 약 2km를 내려 오면 하폭으로서 비룡폭포(飛龍瀑布)라고 하는 관광코스가 지금 되어 있는데, 폭포가 하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룡폭포의 전설을 보면 그전에는 비룡폭포라고 그 이름도 붙어 있지 않고 무명폭포로 이름도 없는데 행정 구역상 도천면이라는 데가 양양군 도천면, 속초가 도천면이예요.

양양군 도천면 향성리(香城里) 또 때로는 도문이라고도 했지만 향성리라고 해요. 향성리로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향성리에는 농사가 잘 되고 부촌들이 기와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기와집들을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살았는데 천불동 계곡물은 다 말라도 이 토왕성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마르지 않아 가지고 이 물루다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이 물루다 이용해서 농사를 풍년으로 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한 해는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서 밭에 곡식이 타 죽어, 논에 벼 심어 놓은 것이 말라죽어.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아우성이지요. 일거리가 없습니다. 가물면 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 모여 앉아서 웅성웅성 맨날 모여 앉아 아우성인데, 그래 부락 사람이,

"어디 그러면 우리 한 번, 그 계곡에 한 번 올라가 보자. 그 계곡이 어떻게 됐기에 거기 물이 안 내려 오느냐. 그 큰 개울물이 말라도 거기 물은 언제든지 끊어지지 않고 물이 흘러 내려 왔는데, 거기 물이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뭔지 어디 한 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 쭉 올라가니 물이라곤 구경할 수 없는데 지금 비룡폭포 꼭대기 그 선녀탕 그 사람이 많이 연연히 빠져 죽는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막아놔서 들어가지 않는데 그전엔 막기 전엔 많이 죽었어요. 사진도 찍다가 죽고……. 거기 그 웅뎅이 밑은 물이 고여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물 떨어지는데 벽에 떨어지는 게 고 웅뎅이 마르지 않을 만큼만 물이 떨어지는데 고 올라가면 뒤에서 내려 흐르는 물이 없고요. 하두 이상해서,

"그래, 그 웅뎅이에 괴물(怪物)이 있구나."

그래 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조금 올라가 보니 개울물은 말라 있는데, 쭈욱 올라가니 그 지금 폭포, 비룡폭포라고 하는 그 웅뎅이만은 물이 고여 있어요. 딴 데는 물 구경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 그 꼭대기에서도 올라가 보니 그 꼭대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도 없고 한데 이상하게도 그 웅뎅이 마르지 않을 만큼 거기서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 그 웅뎅이가 고여 있는데, 그래 그 꼭대기로 계속 폭포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 물이라고 구경을 할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런 줄 알고 인제 그 사람이 내려와서 부락 사람한테 와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 계곡에 올라가니 물이라고 구경을 할 수가 없는데 웅뎅이 두 개가 있고, 위에 있고 밑에 있더라."

그 웅뎅이 안에는 물이 마르지 않고 있더라. 이상하지요. 참, 물이 마르지 않게 떨어지거든 흘러 내려오는 물은 없고, 그런데 떨어지는 건 있고 거기

그러니 괴물이 있다고 해서,

"괴물의 조화로다가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이 부락에 돼지가 있으니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다가 꼭대기 웅뎅이에다가 고사를 지내서 비가 많이 오게 해 줍소사 할 수밖에 없다."

그래 부락 사람들이 앉아서 들어 보니 그럴 듯 하거든요. 고사 지내가지고서라도

"아, 풍년을 만나야지. 가물어 가지구서 타 죽고 흉년을 만나 굶어 죽게 되면은 굶어 죽는 것 보담은 나으니까 그렇게라두 하자."

해 가지구서 부락 사람들이 전부 찬성을 해 가지고 큰 돼질, 300근 짜리를 거기 올라가서 잡아 가지고 거기서 그 상을 놓구서 거기서 삶아 가지고 상위에다 올려놓고 고사를 부락 사람 전체 올라가서 고사를 지내구 거기다 고대로 놔 두고 그냥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고사를 지낸 지가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사흘 열흘이 지나 결과적으로 비는 계속 안 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고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괴물이 고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 아우성이예요.

부락 사람들이 그러니 그 부락 사람 중에 가물어서 농사도 안 되고 하니

"에라, 나들이나 간다."

지금은 차가 많아서 금방 빨리 갈 수가 있지만, 그전엔 나들이 간다면 개나리 봇짐을 먹을 것 싸 짊어지고 며칠 걸려 가지고 가다가 걸어가다 어느 심심산중에서 그저 물 있는데서 자고 가고 그저 며칠 걸려서 나들이 가는데, 그래 나들이 가서 그 부락 마을 사람들이 노는데 가서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놀다 보니, 그래 이 향성리라는 데는 가물어 가지고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연장자되는 80대 영감님이 하시는 말씀

"자네 향성리서 왔나?"

"네, 향성리에서 왔습니다."

"향성리 어떻다구?"

"향성리에는 가뭄이 와 가지고 우리가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래 향성리라는 덴 지금부터 35년전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살았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다가 그 꼭대기 토왕성폭포라고 하는 꼭대기에 가믄 거 웅뎅이에 괴물이 있어 거기다 처녀 고사를 지내야 해. 처녀 고사를 지내야지 괴물이 받지. 딴 고사 지내선 괴물이 안 받아 그러니까 처녀 고사를 자네 가서 지내 보게."

그래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네 영감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자고서 이튿날 집으로 돌아 와서 향성리에 와서 마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이 사람아, 처녀가 어디있어 처녀 고사를 지내. 거 쓸데 없는 소리를 하지도 마라."

아, 그러니 책임을 맡고 가만히 생각하니 그 부락 사람들이 생각하니 만약에 처녀 고사를 지내 가지구서 비가 온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든지 처녀 고사 지내야지, 그래 처녀 고사를 안 지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럼 왜 처녀 고살 안 지내긴 왜 처녀가 없으믄 한 집이 돈 얼마씩 내놔. 내가 가서 처녀를 사 올 테니."

그래 가지고 합의되어 가지고 돈을 한 집에서 얼마씩 내 놓으니 그걸 전부 모아 놓으니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어디 만침 두메 산골에 가니 처녀 5형제만 있는 집을 찾아 갔는데 거기 가서

"처녀를 하나 파십시오."

지금은 서루 눈에 맞으면은 서루 결혼도 하고 청혼도 하고 그러지마는 그 전에는 돈을 가지고 사다가 장개(장가)들었습니다.

그래 처녀를 팔라고 하니까 지가 장개들라고 팔라고 하는 줄 알고 '자기 맏딸을 팔겠다'고 했거든요. 맏딸은 얼굴도 곱지 않은 곰보딱지인데 그 곰보딱지를 돈을 많이 주고 사다가, 지금은 화장품도 많지만 화장품이 어디 있나요.

그 화장품이 없으니 얼굴에다 밀가루를 발라 가지구서 허옇게 맨들어 가지고 목욕을 시켜가지고 그리고서 처녀 고사를 지내니, 처녀 고사를 지내고 내려오니까 어찌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지 그 농사를 그 물로 다 지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연히 그때가 되면은 비가 안 와요, 그래 고 때만 되면 처녀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 처녀 고사를 지낼려니 부락에 처녀가 있는 거 쪼그만 아들을 인제 꼬마들을 갖다가 처녀 고사를 다 지냈지. 그래 다 지내고 보니 국민학교 다니는 처녀란 인제 씨가 말랐어요.

고만에 그러니 처녀 고사를 지낼 수가 없지. 그러니 또 가물고 그러니 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에라, 이걸 어떻게 해야 좋으냐. 그래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한 집이 보따리를 싸는 겁니다.

"아니, 자네 어디로 가나?"

"에이, 나 딴 데 가서 살겠네."

"왜?"

"아, 이거 뭐 처녀래는 거 다 갖다가 제사를 지내고 국민학교 댕기는 꼬마 꺼정 여자래는 건 전부 거기다 갖다 고사를 지내고 그 여자가 있어야 살지. 세상에 여자 없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나. 여자가 있어야 나도 장가들고 아들도 장가 보내고 할 텐데 여자가 없어서 장가도 못 들고 이까짓 농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버리고 가서 딴 데 가 살지요."

"이 사람이 자네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나도 너도, 나도 다 같이 누구나 이 부락 사람들 다 그런데 자네만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부락 사람들 전부 다 가세."

전부 그 부락이 죄다 딴 데로 살러 가고 그 부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락이 전체 비어 가지고 있으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한 번 거기를 지내다가 날이 저물어서 자고 갈라고 쥔을 찾아도 대답도 없고 이 집 찾아도 대답이 없고 저 집 찾아도 대답이 없고,

"에라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람이 없으니 에이, '개똥참외도 먼저 맡는 게 임자'다. 이거 아주 욕심내서 내, 좋은 기와집, 옥답 전부 내 거로 만들어서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래 농사를 지어 보니까 농사가 잘 지어져요. 그래 농사가 잘 지어져 가지고 농사를 지니, 딴 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너두 나두 들어와 가지고 부락이 유지 되었어요. 그래 농사를 잘 짓는데 한 해는 또 가물이 와요. 가물이 와 가지고 이제 큰일났다고 말이야 굶어 죽겠다고 이러고 있는 찰나인데,

"에라. 거 뭐 그전에 처녀 고사를 지내면 여기 뭐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에구 그 딸 갖다가 처녀 고사를 지내."

그래 그 딸을 갖다가 처녀 고사를 달하고 합의되어 가지고 아주 어여쁜 딸을 갖다가 목욕을 시켜 갖고 처녀 고사를 지냈더니, 처녀 고사를 지내고서 이 괴물이 나와서 이 웅뎅이에서 나와서 처녀를 데리고 들어가나 처녀가 걸어 들어가나 어디 망이나 본다고 앉아서 망을 보니까 순식간에 그 안에 캄캄해지고 안개 모냥 자욱해지고 그만 그 옆에 있는 처녀도 보이지 않고 별안간 그냥 소나기가 쏟아내려 가지고 그냥 개울물이 부듯하게 내려 가거든.

"에라, 보이지 않는 처녀 볼려고 애쓸 필요 없이 빨리 논에 내려가서 논에 물 들어오는 거 막구 말 파놓고 속히 방지해야지. 여기서 괜히 보이지도 않는 처녀 볼려고 할 게 아니다. 빨리 내려 가자."

하고 내려 가다 보니 그 밑에 웅뎅이에서 올라 오면서 이상한 거, 괴물이 올라 오거든, 그래 너두 나두 뭐 달리 봤지만 하두 바쁘니깐 수해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내려 가서 논에 물 많은 것 따 놓고 물 들어오는 것 막고 수해

방지하자고 그날 저녁에 모여 앉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얘기하니 그 방안에서는 제일 연장자인 영감님이,

"자네 오늘 본 거, 어디 본 거 한 번 그려 보게, 뭘 봤나?"

"아주 이상한 거 봤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전엔 먹 아니면 없을 게 아니예요. 지금은 연필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없고 해 가지고 숯거멍을 가지고 신문지에, 신문지도 아니야 문창호지에 다 이렇게 그리니까. 뭐 대가리 같은 것도 그리고 몽통 꼬리 같은 것도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 영감님이 화가였던지, 그려 가지고 완전히 다 그린 것을 죄다 그려 가지고 맞춰 보니까 틀림 없는 용입니다.

이때 선녀탕에서 그 처녀를 여덟은 잡아먹고 요 마지막으로 아홉을 잡아 먹으면 용이 돼 올라 가는데, 그 틀림없이 용인데 용이 이제 올라 가면서 웅뎅이 그 꼭대기 웅뎅이 올라 가서 술 또아리를 틀었다. 다시 용을 쓰면서 그 폭포의 물줄기를 타고 하늘로 비천했다고 해서 날 비자, 용 용자, 비룡폭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 유만석, 남 · 50, 설악동, 1981. 4. 17〉

40. 노학동 유래

예전에 노학동이라는 게 노리 갈무리라는게 전문대학 있는 데가 노리거든. 노린데 노리가 4개부락이여. 4개부락은 도리원, 이목, 노리, 척산 그래서 일정 때도 이 4개부락이 2개 부락씩 도리원, 이목리 한 부락이 되어 가지고서는 부장이 나와 가지고서는 이제 이 부락 일을 보고 척산, 노리 가지고 한 부락이 되어서 보고 이러다가, 아 그게 일정때, 대동아 전쟁나기 그 무렵은 아주 통합이 됐어.

노리가 그 4개 부락이 그래 가지고선 부장이 하나 나가지고서는 4개 부락을 총지휘하고 그랬지. 근데 이제 노리는 왜 노리라 했냐면 거기 이 갈노(蘆)자, 갈대가 말짱 정착했으니깐. 제일 누가 정착을 빨리 했나면 그 쓸라면은 서씨네. 저 지금 차씨네가 그 다음 이씨네가 정착을 했어. 제일 최초에 이제 차씨네가 하고.

그래 이제 도리원은 왜 도리원이라 했냐 하면 복상나무 꽃이 피서. 거기 이제 양지천이거든 그래서 도리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부락이름을. 또 이목리는 왜 이목리라 했냐면은 배꽃 이(梨)자 배나무꽃이 이젠 봄이면 하얗게 피고 예전인 제 개척 시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말이여.

부락이름을 척산을 왜 척산이라고 짓냐하면 이 척산 쭉 올라가면 왼짝으로 올라가면 딴봉이라는 데가 있어. 딴봉이 왜 딴봉이냐 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양짓 마을이고 온천장 너메 양지마을이고, 요건 중간마을은 큰 솔대가 있으니 큰솔대가 있어. 거기를 중간마을이라고 해서 딴봉은 이제 이 지금 온천장인가 이짝으로 너메로서 여관이 하나있지. 개바닥에 여관 뒤로 올라가면 외딴봉 있는 게 자척(尺)자 같애. 그래서 거 자 척 자 같다. 그래 가지고서 그 자 척자를 써서 척산이라 한다. 지명을 그렇게 짓고 쭉 내려와요.

〈김종태, 남 · 83, 교동, 1999. 11. 25〉

41. 노학동 유래

노학에서 노자는 갈대 노(蘆)자를 쓰고, 학은 학(鶴) 자를 쓰는데 예전에는 노학동은 갈골마을이라 얘기를 하고 갈대 숲과 학이 있는 곳을 말하지요. 옛날에는 이쪽에 온정리, 논산리 지역 저쪽에 노리지역, 노리지역 합해서 노리마을이라고 얘기한 게 노동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쪽지역에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노리지역과 척산마을을 옛날에 향촌이 형성이 되는 그 역사성은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 척산마을에 관련해서는 옛날에 대포항에 수군 병영지가 있었어요.

〈김철환, 남 · 37, 노학동, 1999. 11. 20〉

42. 노학동 유래

옛날 이곳 노학동에는 다음과 같이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곳에 이씨 성을 가진 대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이씨 집안에는 대대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많고 학문의 경지에 오른 대 학자도 많이 난 명문 대가입니다.

그렇게 명성과 학문을 날리던 그 이씨집안은 어느 때 부터인지 점점 가문이 기울기 시작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일도 거의 없고 대 학자도 나타나지 않고 가문의 명예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불순한 일도 가끔 발생하곤 하였다고 해요.

이렇게 되자 이씨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서 대가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논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만 하여도 풍수지리설을 매우 신봉하던 터이라 지관을 모셔다가 선조의 묘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묘소 앞편에 산사태로 산이 많이 유실되어 나간 곳을 알게 되었데요. 그 지관은 유실된 그 곳을 유심히 이러저리 살펴보기 시작하고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 유실된 이 자리가 설악산 중에서 최고의 명당터일줄이야. 그리하여 그 지관은 그 같이 갔던 이씨 문중의 어른들에게 여기가 설악산 최고의 명당인데 이렇게 유실되었으니 이씨 집안의 운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일러 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중 한 사람이

"그럼 지관 어른, 이렇게 명당이 유실된 파명당이 되어 우리 가문이 쇠하게 되었는데 뭐 좀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러자 그 중 또 한 사람이

"지관 어른, 속는 셈치고 그 방법을 일러주면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으니 그 방도를 일러주시지요?"

그 지관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일러줄 터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명당을 복원하여 후손이 흉하고 보긍받은 일이 가끔 있기는 하였는데 하여튼 이 파명당을 다시 복원하여 보시지요."

그래서 그들은 일꾼을 얻어서 파명당 자리를 다시 흙으로 메우고 다지고 하여 한창 공사를 진행할 즈음에 이 이씨 문중에 가장 나이든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문중에서는 이 어른을 모셔야 될 산소자리에 관하여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편에서는 지금 복원하고 있는 파명당 자리에 모셔야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직 다 복원도 안되고 또한 설령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이 명당의 기운을 발할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르는 처지에 그곳에다 모실 수 없지 않느냐는 신중론이 대립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갑론을 박하여 몇 차례 다시 만나 숙위를 하기 시작했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문의 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지라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가문의 제일 연로하신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복원하는 파명당 자리에 모시기로 의논을 모았어요. 이 사실을 지관과 의논하였더니 그 지관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묘자리를 너무 깊게 파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인부들을 시켜서 묘자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정해진 깊이 만큼 파내려 갔는데 한 인부가 잘못

하여 그 깊이 이하로 삽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땅이 움직이더니 하얀 학 두 마리가 광채를 발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황홀하여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학 두 마리는 하늘을 몇 번 선회하다가 한 마리는 지금의 학사평 쪽으로 또 한 마리는 양양 쪽으로 날아갔다고 해요.

원래 학사평은 옛날에 시인 묵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많은 선비들이 이곳을 출입하여 왔다고 하여 학사평을 배울 학(學), 선비 사(士), 평야 평(坪) 하여 학사평(學士坪)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이 내려앉고 부터는 또한 모래도 많고 하여 학 학(鶴), 모래사(沙), 들 평(坪)하여 학사평(鶴沙坪)이라 하였어요.

이학은 여기 학사평에 잠깐 내려앉았다가 지금의 노학동으로 날아 가버렸어요.

노학동은 원래 노동, 즉 갈대가 많은 고을이라 하여 갈 노(蘆), 고을 동(洞)하여 노동(蘆洞)이었는데 학이 왔다하여 노학동(蘆鶴洞)으로 불리게 되었고 한편 양양 쪽으로 날아간 학은 양양에 학포리(鶴浦里)란 지명을 얻게 하였다고 합니다.

〈척산리 이장, 1999. 12. 3〉

43. 대청봉 유래

소청봉으로 올라가자면 소청봉 보통 시간은 보통 걸음걸이로 가지고서 두 시간 삼 십분 이렇게 기어오르게 되는데, 아주 올라가다 보면 힘이 어떻게나 들고 숨이 가빠가지고 아주 숨이 하늘에 닿은 거와 같이하고, 뭐 이전에 제비도 날라 가다 나는 제비도 올라 와서 하품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했지요.

그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이라고 하면, 소청봉은 해발 1,638m, 중청봉 1,660m, 대청봉은 1,708m 그래 제일 높은 산이고 소청, 중청, 대청봉 그게 3형제 봉우리인데 그 전설이 있어요.

이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을 귀때기 청봉이라는 것하고, 작은 귀때기청봉, 귀때기 청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디선가는 이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 3형제가 인제 거기 와서 인제 대청봉이 어른이고, 고 담에 중청봉, 고 담에 소청봉이 막내고 이렇게 인제 하구선 다정하게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별안간 두 놈이 나타나서 냅따 공갈을 형인테다 대청봉 있는 데다 공갈을 막 때려 가지고.

"뭐, 이까짓 게 뭐 성(형)이야, 내가 성이지."

하고 냅다 후려 패네. 그래 둘이 대청봉을 후레 패니까 대청봉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 가만 보니 소청봉하고 중청봉하고 보니,

"안된다. 우리가 성이 이렇게 맞았을 적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저 단결을 해 가지고 그걸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 소청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보다 즉은(적은)새끼가 와서 노릇을 하겠다고 하니 같잖으니까,

"이 안 되겠다. 우리 스이(셋이) 다 합심해 가지고 저걸 물리치자 후려 때리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중청봉이 그냥 용기를 내서 냅다 그냥 귀때기를 쳐 가지고 귀때기를 치니까. 귀때기가 한 쪽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거 가서 청봉이 하나 생겼는데, 큰귀때기청봉, 작은귀때기청봉, 그래 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보면 큰귀때기청봉은 올라가면 아주 좁아요.

〈유만석, 남 · 50, 설악동, 1981. 4. 18〉

44. 도리원 유래

도리원은 복숭아나무라든가 배나무골, 이목리같은 경우 옛날 배나무골이라고 해서 마을명이 그렇게 명명이 돼서 이목리, 도리원리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신흥촌이라든가 자활촌 같은 경우 아주 최근에 60년대 어떤 게 있었나 하면은 박정희 정권때 깡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소탕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사람들 정화차원에서 그 재건활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자활촌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집단이주정책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쪽에는 허허벌판였거든요, 황무진데 주로 충남쪽의 논산 사람들이나 연산사람 등 그 사람들이 이제 강제 이주가 됐어요. 지금의 자활촌과 신흥리 마을쪽에 그사람들은 이주시켜 가지고 재건촌을 형성하게 됐어요. 재건촌 그게 이제 의미가 승계되면서 자활촌이라고 명명이 되면서 60년대 이후 향촌이 생겨진 그 경우라서 역사성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흥리 마을이라든가 자활촌마을이 흑사평은 펄판이에요. 원래이름이 흑사평이에요. 척산마을은 그렇게 설명이 되고 노리마을은 역사성을 갖고 그 다음에 도리원리와 이목리 같은 경우 배나무골이라든가 복숭아 주로 과수원이 많이 형성되었던 지역이예요.

지금도 가보게 되면 도리원이라든가 이곡리쪽은 좀 덜한데 인곡쪽에는 과

수원이 많아요. 그쪽에 과수원마을들이 많아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노학동의 명칭에 대한 연혁은 그렇게 되요.

〈김철환, 남 · 37, 노학동, 1999. 11. 20〉

45. 귀면암과 마고선

귀면암(鬼面岩)이라 하면, 귀신 귀, 낯 면, 바위 암자, 그 천불동 중 허리에 자리잡고 있는 데가 귀면암이죠.

귀면암이라 하면, 천불동(千佛洞)중허리인데, 이 밑에서 보통 따지자면 와선대(臥仙臺)라고 하는 데는 예전에 그 송림(松林)이 울창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데인데, 예전에 마고선(摩姑仙)이라는 선인이 많은 선인들과 같이 그곳에 와서 바둑과 거문고를 타며 산수의 경치와 아름다움을 누워서 감상하던 데라고 해서 그대로 누울 와, 신선 선, 집 대자, 와선대라고 불렀습니다. 와선대로부터 한 300m 올라가면 마고선인이 하늘로 동천했다고 해서 날 비, 신선 선, 집 대자, 비선대(飛仙臺)라고 불리어 왔죠. 비선대는 예전에 시인의 발걸음이 끊어질 사이가 없어 시인이 들어 와서, 시도 짓고 이름도 새기고 나갔습니다.

예전에 어느 시인 한 분은 그곳에 와서 맑고 구슬같이 흐르는 물에다 발을 담그고, 반석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하늘을 찌를 듯한 장군봉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바우와 바우 사이에는 자기 뼈마디 같이 살아나는 듯하여, 날개라도 있으면 하늘로 날아갈 기분이라고 했으니 비선대 장관이야 뭐라고 나무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유만석, 남 · 50, 설악동, 1981. 4. 17〉

46. 금강굴 도승의 욕심

비선대에 올라가니까 옛날에 금강굴이라 해서 올라갔더니 거기서 스님이 역사라 해서 얘기해 주는 걸 들었어요. 어느 스님이 도를 닦느라고 그 굴속에 들어가 앉자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간 건 없구 먹을 건 없구 이래서리 그러니 앉아서 기도만 드리고 앉았더라니까.

하루 세 끼다 쌀하고 물이 똑똑 조금씩 떨어지는 걸 가지구 그 쌀을 씻어가지구 밥을 해먹구 밥만 먹구 거기서 기도 드렸노라고 역사를 얘기해 주는데, 그 스님이가 도중에 이랬답니다.

"야,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삼 시 세끼 기도 드릴라 밥해 먹고 삼 시 세끼 기도 들일라니 힘이 드니 쌀을 좀 한꺼번에 주지."

왜 한번 기도 드리고 아침 새벽기도 드리고 일어나면 딱 한 사람 먹을 쌀만 나오고 굴속에서 그랬는데, 또 한번 기도 드릴라니 청수하고 먹는 쌀만 나오고 이래니 공양 지어먹다 보니까 기도 드리는 기 영향이 있을까봐.

"한꺼번에 나오지 왜 세 번에 꺽어 나옵니까?"

이랬더니 쌀이 그 이튿날부터 하나도 안나와서 벌을 입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그 전설을 그 스님이가 얘기해 줍디다.

〈박삼손, 여 · 63, 설악동 2/3, 1992. 3. 26〉

47. 권금성과 토왕성

권금성은 하나의 완전한 그 연대라든가 축조에 대한 기록이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문헌에도 보면 전설에 의해 가지고 작성된 것이라고 봐지고 있구요. 확실한 거 언제 어느 연대에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축성이 됐다 하는 것은 명확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듣고 있는 바로서는 전설적인 얘긴데 우리가 문헌에서 보면은 성종 21년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대충 보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그 중국병이 이쪽을 침입했을 때, 그때 이쪽 지역의 사람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축성했다 이렇게 대략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데 거기 따르는 구비전설로서 내려오는 전설을 보면은 권장사와 김장사가 성을 축조했기 때문에 권금성이다, 이렇게 명명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권장사와 김장사가 한 동네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병들이 몰려오니까 가족을 데리고 피한다는 것이 사세는 급하고 그때만 해도 어데 피한다는 것이 깊은 산,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가지구 피난하는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권금성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아, 적병은 뒤에 뒤미쳐 따라오구 이 성이 없으면 도저히 방어할 길이 없다. 그래 둘이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는데, 그래 둘이서 의논한 끝에,

"자, 이거 성을 쌓자."

그런데 성을 쌓을라니 산에 성을 쌀만한 돌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래 대림천에 내려가 가지고 거, 대림천 돌을 주워서 올려 가지고 성을 쌓아야 되는데 한 10리길 되는데 그럼 등짐으로 져 나른다는 거는 며칠을 쌓아도 성 하나 쌓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서 이제 권장사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 김 장사를 보고하는 얘기가,

"이렇게 합시다. 이거 도저히 말이지 뭐, 돌을 져날라 가지고 성을 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만한 기간적 여유도 없다. 그러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개울에 내려가서 말이지 돌을 주워서 던질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받아서 성을 쌓으시오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하룻밤 사이에 성이 다 쌓으겠소"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권장사가 먼저 내려갔어요. 개울에 돌을 주워서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김장사가 거 위에서 돌을 받아 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인제 한밤중까지 권장사가 하고, 그 다음에 인제 교대로 해서 김장사가 내려가고 권장사가 위에서 돌을 받아 쌓고 이래서 에, 그 성을 쌓았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의 높이를 우리가 본다면 높이가 약 4척입니다. 둘레가 천 백 열두자 이렇게 그 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 옆에 보면은 토왕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왕성하고 권금성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어느 문헌에서 보면은 이 억압지세에 순치지형이라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를 탁 다무는 것에서 탁 미치는 것 그러한 형국이다.

그러니까, 인제 토왕성과 권금성하고 연관을 해서 말하는 것이 고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억압지세에 순치지형이라 하는 말은 고, 저 권금성하고 토왕성하고 이것을 연관된 어떤 거 말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의 이 어떤 지형적 말을 내포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완전히 저희들이 보는 바로서는 완전한 성 하나의 방어용으로서 축성이 됐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이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이 고증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대개 고로한 방향에서 말이 나옵니다.

〈장헌영, 남 · 54, 중앙동, 1981. 4. 27〉

48. 권금성과 달맞이꽃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삼국시대 때 고구려, 고구려 보장왕을 왕으로 올려 놓고 연개소문이 정권을 손아귀에 놓고 정권을 해 가는 무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권씨, 김씨 양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서 역적으로 몰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럼 그분들이 고구려 역적으로 몰았으니 붙잡히면 죽을 꺼고

그러믄 신라로 도피를 해 가지고 신라에 와서 저 권금성이라고 하는 저 산 꼭대기 해발 860m 정상에 올라 가서 거기서 인제 그 권, 김 양 장군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난세를 피하기 위하여 성을 축소하고 난을 피하고, 난세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하들을 시켜 가지고 저 정구평을 지나면 촛대바위라고 있습니다. 촛대바위라고 하는데 거기는 봉화대, 그 봉화대를 일러서,

"이 골을 수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봉화불을 올려라."

그게 전화보담 빠르지요. 그래서 거기 봉화대로 한 때는 불려 오고 그 군량장이라고 하는 데는 군량미를 갖다 저장하고 군량미를 저장해 가지고 그게 인제 권금성으로 쭈욱 올라가고 금강굴에도 그 금강굴이 결과적으로 마적굴이라고 마적굴이야. 마적단이 있는 굴.

그 양양고을 원 이도은씨가 그 원을 할 때 양양 고을을 털어다가 군량미를 갖다 저장해서 권금성을 올리고 금강굴로 옮기고 그러면서 난세를 피하고 그 난을 우리나라에 들어와, 권금성에서 난을 피했다고들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내려오는 전설이지만 그 권장군이라는 그 장군은 그 부근에 그 막사 부근에 어느 여인이 나타나서 낮에는 나타나지 않고 밤에만 나타나서 이렇게 뱅뱅 돌고 돌아댕겨. 권금성으로 돌아댕기면서 그 사랑을, 마음의 사랑을 하면서 돌아 댕기는데. 그 낮에는 어디 풀 속에 숨었다가 밤에는 저녁마다 그렇게 아주 쉴새 없이 매일 빠짐없이 비가 오나 그저 언제든지 이래 돌아 댕기다가 결과적으로 지쳐 가지고 그래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부하들이 와서 대장한테 문안드릴려고 와 보니 웬 여인이 하나 죽었거든. 그 여인은, 대장이 하는 말이,

"그 여인은 저 풀속에다 갖다 묻어라."

그 여인을 풀 속에다 갖다 묻었는데 그 묻은 자리에서부텀 그 웬 풀씨가 나와 가지고 거름이 되어 가지고 잘 커 올라오더니 그래 인제 꽃이 밤에 피었다가 낮에는 지고 노랗고 좋은 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달맞이꽃이라고 해서 달맞이 꽃은 낮에는 피지 않고 밤에 피어가지고 밤새도록 반기다가 낮에는 시들어지는 게 달맞이 꽃이, 그래서 달맞이 꽃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만석, 남 · 50, 설악동, 1981. 4. 17〉

49. 금강굴 유래

전에 보니가 원효대사가 금강굴에서 수도했는데 금강경을 만들었다. 금강경 원문 속에 금강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굴을 금강굴이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계조암에도 와 계셨고 선정사에도 와 있었고 신흥사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금강굴에 와 계셨다면 그걸 빼놓을 리가 없습니다. 금강굴이란 것은 금강(金剛)이란 불교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해 놓았는가 하니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짜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제석천(帝釋天)이란 부처님이 짚고 댕기는 지팡이를 금강이라 한다. 지팡이다. 제석천은 누구냐? 관음보살이 변신한 것입니다. 관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기 응신술, 저쪽에서는 동자로 나타나고 저쪽 가서는 대장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이 서른 세 가지가 있답니다.

나는 불교를 잘 모르지만 서른 세 가지란 것은 엄연히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다. 결국은 관음보살이다. 그럼 왜 지팡이를 가지고 있나? 그 지팡이를 가지면 모든 사악들이 범접을 못한다. 그런 무기다.

지금 금강굴 옆에 봉정암 쪽으로 가는데는 금강문이라고 있습니다. 또 금강산에도 금강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도 원효대사가 지나갔다고 해서 금강문이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왜 금강굴이라 하면 그와 같은 제석천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잡귀가 못 덤벼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굴은 높고 험하고 아주 깍아진 곳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올 수 없다. 그겁니다.

진수 중에 진수다. 누가 범접할 수 없다. 그래 금강 거기서 공부를 하면 도통이 잘된다. 득도가 쉽다, 그래서 이름을 금강이라 부쳤다. 그래서 금강굴이라 합니다.

원효대사가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원효대사가 금강경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금강소란 것을 지었습니다.

〈박익훈, 남 · 77, 교동 1992. 4. 21〉

50. 소야팔경(所野八景)

소야팔경은 뭡니까. 처음에는 기록을 찾아내지 못해서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속초귀범'(束草歸帆)을 '조도귀범'(鳥島歸帆)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틀린 얘깁니다.

내가 박한영이란 사람에게 들은 얘긴데 그 분은 '척산야침'(尺山夜砧)이라는 말도 한다고 했습니다. 척산의 밤에 들리는 다듬이 소리가 하나 더 있

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조도귀범이 아니고 '속초귀범'이라 이런 얘길 합니다.

내가 무슨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 속초시장하던 김명환씨 형님인 김종환씨라고 저와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분 아버지가 도천면 시절에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했기에 『면세일반(面勢一班)』이란 게 그 집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소야팔경이 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창흡(金昌翕)이란 이가 지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어떤 분은 김시습이 매월당 그 양반이 부월리에 와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시습은 일정한 장소 없이 사방에 돌아다닌 분이었고 김 삼연(三淵)선생은 주로 영시암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영시암은 인제군의 백담사 위에 골짜기에 들어가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영세 불출세(永歲不出世)"라 하여 여기 들어와서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나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범이 자기 식모를 잡아먹어 가지고 다시 춘천방면으로 갔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김삼연이 거기 와서 놀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전에 청초호 옆에 청초정이란게 있었답니다. 김 삼연 시절은 지금 보담 숙종때니까 한 3백년 가까이 안됩니까? 3백년전에도 그런말이 있었는지 모르나 여기 와서는 놀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되지요.

그래서 김 삼연이 그것을 지었다는 것은 그것도 믿을 수 없고, 김시습이 그것을 지었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이 지방 시인들이 모여서 놀다 보니까 그런 팔경을 만들어 냈지 않나 합니다. 이 소야팔경은 소야를 중심으로 했는데 주로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글입니다. 왜냐하면 8경을 보면 청초호가 6경인가 있고 저쪽엔 2경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노동명월(蘆洞明月), 갈대꽃이 많이 피었는데 그 위에 달이 환하게 비치니 그게 참으로 보기 좋거든요. 노동(蘆洞)이란 동네가 노학동이지요.
그 다음에 이동백설(梨洞白雪)이 있어요. 여기에 이동(梨洞)이란 동네 뱃골이란 곳이 있는데 배나무 오얏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일이 있었지요. 왜정때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서 그 경치가 없어졌다고 그 부락에 가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대화병(靑垈畵屛), 청대리라는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그게 청대산인데 청대산을 여기서 바라보면 병풍그림같이 아름답거든요. 그런 것을 누가 베었다 하여 역부로 찾아 올라갔더니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습니다. 화병은 그림 화(畵)자, 병풍 병(屛)자, 청대산의 모습이 그림을 그려놓은 병풍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청초호에서 본 것이지요.

다음에 주교야화(舟橋夜火)인데 주교리에서 밤의 게잡는 불꽃이 보기 좋았던 모양이예요. 지금 오징어잡이 배가 저기 나가 있는 걸 보면 서울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속초가 굉장히 크다. 여기도 전기불 있네, 저기도 전기불 있네"

그러지요. 주교(舟橋)는 옛날의 부월리(扶月里)를 주교리라 불렀지요. 배다리 동네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논산조양(論山朝陽), 논산이 속초에서는 그래도 제일 높은 곳이지요. 높아서 해가 뜨면 어디보다도 거기에 먼저 비쳤다 해서 논산에 아침해가 비치는 광경이 아주 아름답다.

그 다음에는 속초귀범(束草歸帆), 속초에서 고기 잡는 배가 원포귀범(遠浦歸帆)이라고 소상팔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초에서 보면 배가 돌아오는 것이 참 해는 저물고 석양빛을 받아서 돛대를 달고 돌아오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소상팔경 하나인 원포귀범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다음에 청호마경(靑湖磨鏡), 청초호수는 얼음이 얼면 마치 유리거울 같이 맑갛게 그렇게 보였다 해서 거울을 갈아놓은 것과 같다. 갈 마(磨)자, 다음에 온정조하(溫井朝霞)라 이러는 데 온정의 아침 노을, 그건 뭔고 하니까 지금도 온정에 거기서 더운 물이 나온답니다.

옛날도 물이 뜨시기 때문에 겨울아침이 되면 거기서 인제 수증기가 올라가서 거기서 발산하여서 속초 이짝에까지 전부 설악산에 구름 끼듯이 수증기 안개 같은 게 그렇게 아름답게 끼었답니다. 그래서 온정조화라 부른답니다.

〈박익훈, 남 · 77, 교동, 1992. 4. 21〉

51. 소야팔경(所野八景)

속초에 고을 소자, 들 야자 소야팔경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가면은 논산과 노학동 사이에 쏙 들어 가면은 골이 소야평야입니다. 소야평야가 되고 지금 청초호로 들어오는 내가 있는데요, 그기 저 달마봉에서 발원됩니다.

달마봉에서 발원되가 그 골짜기 물을 합쳐 갖고 내려 와서 이 청초호에 들어오는 건데, 이거를 소야천이라고 합니다. 소야천에 소야팔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가 있나 하면은 논산조양(論山朝陽), 그래서 지금 현재 조양동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그기 하나의 소야팔경에서 따온 하나의 조양입니다. 그럼 왜 그 논산조양

이라고 했느냐. 논산이 아주 지대(地帶)가 낮습니다. 낮는데 아침 해가 뜨면은 제일 먼저 햇빛이 비치는 곳이 조양동입니다.

그래서 논산조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온정(溫井)조하 그래니까 이쪽에 저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온천지대가 있는데 이 온정(溫井)에 김이 납니다. 아침에 인제 안개 구름같이 쫙 깔려 있는 그것이 하나의 경이 됩니다. 산은 우에 솟아 있고 산 중허리를 쫙 구름이 감겨가 있는 것같이 그렇게 해서 온정조하(溫井朝霞).

그 다음에 하나는 노동명월(蘆洞明月), 노동이라 하면은 갈골, 노학동 갈골에서 이걸 보면 저녁에 달밤에 갈밭에서 보면 경이 또 하나의 좋은 경이 됩니다.

그 다음 저 위에 올라 가면은 지금에 배목리라 그러지요. 배목리 그러니까 이동백설(梨洞白雪). 거는 배나무밭이 많아서 말이죠. 봄에 꽃이 확피어 가지고 꽃이 떨어질 때 꼭 눈이 와서 말이죠 설경같은 이러한 경이 있었다. 이래서 이동백설.

그 다음이 청대화병(靑垈畵屛)이라 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옛날에는 주교(舟橋) 지금도 청호동을 건너 가는데 배가 있었죠. 저걸 배다리, 그걸 갖다가 주교, 주교야화(舟橋夜火), 그러니까 저녁으로 불을 밝혀가지고 배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기 주교야화다.

그 다음에 여기 청초호도 그 때 물이 맑으니까 청초마경(靑草磨鏡).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에 노도귀범(鷺島歸帆). 노도귀범이란 저 앞에 보이는 섬입니다. 저걸 갖다가 우리가 새섬이라고 하는데 갈매기 노(鷺)자를 씁니다. 우리가 청구도 지도에서 보면 명칭 나오는 것이 갈매기 노잡니다. 노돕니다. 갈매기도 새는 새니까 새섬이라 이렇게 합니다.

노도귀범, 그러니까 지금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조양동 해수욕장에서 말이죠, 이렇게 저 노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저 영금정(靈琴亭)하고 그 사이에서 배가 지나갈 때 보면은 하나의 경을 이룹니다. 완전한 경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노도귀범은 항구를 들어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장헌영, 남 · 54, 중앙동, 1981. 4. 27〉

52. 양폭과 음폭

설악에는 양폭이 있고 음폭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분들 대부분 양폭이라고, 두 개가 떨어져서 똑같이 떨어져서 양폭인 줄 알고 하는데, 그게 그래. 인제 대청봉이라는데 인제 양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양폭이라는 데는 폭이 한 25m 밖에 안 돼요, 길이가.

이 폭이야 뭐 얼마 안되고 한 2m정도 되고 길이가 25m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텀 계곡이 두 갈래가 생기는데, 그래 인제 우측 계곡에 양폭이 있고, 좌측 계곡에 음폭이 있어요.

그래 인제 우측 계곡에는 양폭에서 한 50m 올라 가면 천당폭포, 그 천불동 계곡에 인제 마지막 상간 폭포라 해서 하늘 천(天)자, 무리 당(黨)자 해서 천당폭포래는 폭포가 하나 있고, 천당폭포 위로 조그만 무명폭이 하나 있는데 좋지도 못한 폭포가 뭐 하나 있고, 그래서 인제 양폭에 인제 계곡으로 올라 가면 양쪽으로 쭈욱 올라 가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와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었지 그전에는 그 백미폭, 건폭. 그 비가 와서 물이 흘러야 폭포가 흐르고, 말라 있다. 그래 마를 건(乾)자, 백미터 폭포. 백미터나 길이가 되는 폭포다. 그것이 비가 오면 물이 많아서, 폭포가 좋으나 물이 없고 가물었을 때는 말라 있다. 그래 건폭(乾瀑)이라고 불리고 백미폭이라고도 불리었어요.

그리고 음폭이라고 하는 데는 양폭에 그 두 갈래로 계곡이 있는데, 그 좌측 계곡으로 올라 가면 그게 음폭인데, 음폭이라고 하는 것은 양폭에서 한 200m 올라 가면 그게 음폭인데. 그게 좀 올라 가기가 바우절벽이래서 올라가기가 좀 험상 궂은데 거기는 그 여자의 음모냥 아주 흡사 그 여자의 음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 음폭이라고 이름을 칭호를 붙이고, 그래 음폭, 음폭이 있으니 또 양폭이 있어야지, 남자가 있어야지,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음양이라는 뜻에 한해서 양폭이니 음폭이라고 불리어 오고 있습니다.

〈유만석, 남 · 50, 설악동, 1981. 4. 18〉

53. 계조암과 송강 정철

계조암 얘기가 인제 그기 유명한 얘긴데, 계조암은 누가 창건했냐 하믄, 시기가 자장율사의 제자, 잘하는 사람은 도제를 놔요, 길도(道), 아우제(弟), 도사란 이말이요. 자장율사의 제자라 안하구 도제라 하지요.

자장율사가 가구 나서 두운조사가 계조암을 창건했지요. 창건핸 지가 1,200여년이 됐어요. 자장율사는 그 위에 분이니까. 들어와 처음 들어와서 향성사만 짓구.

두운조사가 계조암을 창건하는데 계조암 특징이 뭐냐하니까 계조암에는 사람이 죽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절안에서 사람이 앓아서 죽을 무렵이 되면

자연히 그 사람이 저절로 나가게 되는게 그게 특징이구.

계조암은 남자바우 여자바우가 있어요. 계조암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바우여. 이렇게 이 바위 뒤로 문으로 들어가는 남쪽에 이렇게 쫙 벌리고 있지 그기 수문바우여. 근데 남자바우가 어디 있냐믄 옛날엔 흔들바우가 둘이라고, 둘인데 흔들바우 우짝에 전나무가 하나가 있지. 고 밑에 뾰족하게 나온 게 그기 남자바우가 그 위에 있었는데 송강 정철이가 그걸 말짱 계조암을 파산을 맨들어야 해겠어서, 그 왜 파산을 맨들을라 했냐면 이 명산을 그냥 두면 인물영웅이 나서 인제 그러니까 여느 사람들은 일본사람들이 와서 그랬다구, 아무것 두 모르는 사람이 그러지 용바우 묻었다구.

그렇지만 나라에서 아마 이태조가 들어선 이후에 명승지를 찾아다 그래 인제 정철이가 아주 지리박사거든. 지리박사니까 좋은 데 돌아다녀도 계조암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

계조암은 앞의 흔들바우가 소가 동쪽으로 누웠는데 입이 다 있구 눈이 다 있어. 그게 흔들바위가 그 소뿔인데, 계조암으로 들어가서 저짝으로 나가면 변소깐 쪽으로 가서 터 새로 딱은, 거기서 그 바우를 보면 쇠꼬장지가 뚝 끊어졌어. 그거 쇠꽁지가 뚝 끊어 자빠졌어. 소꽁지를 끊었어. 소 응덩이에다 두 자나 되게 징으로 많이 팠어요.

핑 둘레 징으로 쪼쿠는 하여간 정철이란 사람이 영웅이여. 어딜 쪼았는지 엿장사 엿깨듯이 단번에 쫙 깨서 나가 떨어졌어. 그건 누구 거기 다 보면 그냥봐서는 아무 것도 모르지,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아직 징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쇠꽁지를 끊구, 쇠뿔을 빼구 그랬어요.

계조암 전체 바우는 목탁바우라 부르지. 목탁바운데, 인제 중이 이상 더 부지런한 사람이 없거든, 중이 새벽에 잠을 자면 목탁바우가 운다는 거지, "딱딱"하고 중을 깨운다는 거지.

〈박일호, 남 · 78, 노학동 2/5, 1992. 4. 5〉

54. 영랑호에서 다시 만난 친구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아득한 옛날 일이라 합니다. 한 동리에 그 다정한 두 친구가 서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우연히 이별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다정히 지내던 그 친구와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된 것이 서러워서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의복을 적셨지요. 적시면서 이별하고 통 그 소식을 모르고 한 10년이 지나도록 서로 종무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 하루는 이별하던 그때 그곳에 당시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

이 그때에는 청운에 돌아갈 것이며 나는 청유산을 바라보고 돌아간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중의 한 사람의 이름은 만수 만취 오옥령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서로 헤어진 지 1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오옥령은 관동당력이 되어 해상을 순회할 제에 10년 전에 이별했던 친구를 영랑호에서 작은 배를 타고서 즐기고 있는 것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그때 그 오공이 말하기를,

"군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하고 물은즉 나는 미시령 아래 화엄사 동굴에서,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고 또는 그 회령군에도 있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 하루는 그곳을 한 번 찾아서 친구가 말하던 굴에 들어가 본 즉은 일월이 명랑하고 주택이 화려하며 또 춤추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공은 참으로 가여히 여겨서 다시 그 친구를 보고,

"군은 어떻게 하여 이곳을 알고 찾아왔는가?"

하고 물어본즉,

"이런 곳이 수 십여 처가 있다고 말하므로 그 후 재차 찾아갔으나 알 길이 없었다."

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알 길이 없고 심천봉이 돈봉 학산 잡록에 상세히 찾아보아도 그곳이 어디인지 전연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설에 의하면 그곳은 잠시 본 무릉도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장헌영, 남 · 54, 중앙동, 1981. 4. 27〉

55. 고려장과 부모마음

우리가 옛날부터 고려장, 고려장 하지 않습니까? '인간 칠십 고래희'라고 해서 고려장 했는데 옛날부터 고려장 할 때는 부모님이 칠십만 되면 병이 없어도 산에 갖다가 생매장했다는 뜻인데.

에,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선 짚은 산 중에다 갖다 파묻을 라고 지고 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토끼 길만한 그런 질인데 그래 첩첩산중에 고려장 할라고 지게다 어머이를 지구선 갖는데, 어머이가 가면서 지게 꼭대기서 낭구까치를 대구꺽구선 가더란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 참 이상하다 하구선 그 담에 묻을 장소에 가서 어머이를 낼쿠 놓구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나,

"나는 이왕 죽는데 니가 지금 걸어온 길을 니가 집에 찾아 갈라면 못 찾아 갈끼다. 그러니 내가 낭구까치 꺽은 고것만 찾아가면 집에 갈터이니까, 그래서 니가 집에 못 찾아갈까봐 질을 찾으라고 낭구까치를 꺽구서 왔다."

그거 한가지로 부모는 당장 땅속에 자식이 묻을 라구 가는데도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애처러워서 집에 잘 돌아가라고 일일이 낭구까치를 꺽어서 방향을 제시해 줬다는 얘깁니다.

〈김용구, 남 · 68, 동명동14/2, 1992. 3. 27〉

56. 구렁이가 된 총각

옛날에 총각, 처녀가 살고 있었지. 총각은 처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지. 그러나 처녀는 청년이 싫었어. 그래 청년이 처녀에게 고백했지만, 처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병이나 그 길로 눕게 되었어. 백방으로 약속을 써 봐도 완쾌되지 않는 거야.

결국 청년은 며칠 못 가서 죽고 말았어. 그런데도 처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 청년은 죽어서 구렁이가 되어서 처녀에게 복수를 했지.

어떻게 했냐고? 그건 바로 처녀의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 처녀가 낙산사 의상대에 있는 그네에서 그네를 뛰었어. 구렁이를 몸에서 뛰어 낼려고 그런데도 떼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 결국 처녀는 그네를 뛰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지.

〈김영임, 여. 70, 교동, 1999. 12. 17〉

57. 날개달린 강장군 설화

강장군 이야기가 여기 있지. 강장군은 7대여. 내가 11대구. 내 자랑 같아서, 그게 강장군이 어떻게 된고 허니, 두 오누이가 살았다 이기여. 뉘두 힘 좋고 강장군은 총각이지. 여기 나루에 갔다가 그때 배가 크겠수? 고기 잡아오면

"야 강장군이다. 아이구 어떡하누."

그래 강장군이 고기를 빼앗아 안 주거든.

"에이 강장군은 재수 없다."

그래 그때는 밀주야.

"강장군, 참 내일부터 고기 드릴게. 잡수시우."

하룻밤 그리구 내일 배가 나가드래. 그때 한 밤중이 되니까, 저 산중에 오리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그래 가니까 강장군이 다니드라 이기야. 아치멩 떡 보니까 배가 거기 있드라 이기야.

강장군이 언제 한 줄 모른다 이기야. 그래 가만히 있더니 이거 질래 놔뒀다가 나와서 행짜 부릴까봐 '이거 안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하고 술을 잔뜩 먹여놓고 보니까 이짝에 뭐가 이 만큼 나왔드라 이기야. 날개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놈이 행짜 부릴까봐 술을 잔뜩 먹여 놓고는 숯불에다가 송곳을 달궈 꾹 찔러 죽였다 이기야. 양쪽 날개에다.

그래 사람들이 묻는데, '난 죽지 않았는데, 난 죽지 않았는데' 하고 들썩들썩 하드라 이기야. 그래 사흘 있다가 용마가 서쪽으로 날아갔어. 그게 전설이지.

〈강양수, 남 · 70, 장사동, 1994. 11. 2〉

58. 설악산 다부골 청년

젊은 사람이 하나가 매일 어려서부터 죽만 먹고 그러니까 밥 먹은 거하고 죽 먹은 거하고 기운이 들날기 아닙니까. 배만 부르고 이래 인제 금방 또 소화가 잘 되고 이러니까 금방 또 배가 꺼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다부골에 사는 청년이,

"야, 이렇게 죽만 먹고살면 뭐 하느냐 남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에이, 아주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어낭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 떨어져서 투신자살해서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낭이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말입니다. 올라가서 죽을라고 인제 그 어낭을 향해서 내려 쏟아질라고. 그러니까 뭐이 뒤에서 큰 힘으로 잡아 낙꾸는 기 있더라 이기래요. 그래서 뒤 돌아 보니까 아주 희안한 장부가 목덜미를 턱 잡고,

"젊은 사람이 왜 여기 낭떠러지서 떨어져 죽을라고 그러느냐?"

그래,

"내 죽 먹기 싫어서 죽을 라고 그런다."

"니 타고난 팔자에 죽 삼만 그릇만 먹으면 그 다음에 아주 잘 사는데 고대를 못 참아서 순간적으로 죽을 라고 그러느냐? 죽 삼만 그릇을 먹는 고때에 만내자."

그래고 고만 헤졌어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기분에 약간 돌리기만 하면은 되루 사니까 그래 이제 와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제 죽을 삼만 그릇을 먹으면은,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고 다음에 인제 마침 죽을라고 그러던 때 목덜미 잡아 주던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니가 부자가 될라고 그러면은 산신령 있는데 가서 치성을 백일 동안 빌라."

매일 한 번식 근데 이제 그 밑천이라는 것이 죽 먹으면서 한 숟가락씩 저축해 둔기 있었는데 그걸 봐 가지고 팔아 보니까 삼십 냥이 되드라 이기래요. 그래서 인제 시장에 가서 소대가리하고 이제 제수 뭐 산신제 지내는데, 제물 준비 하느라고 삼십 냥을 가주 가서 준비를 해 가지고, 가주 와서 산신령 있는데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퇴물을 먹지 않고 그냥 가주 와 가지고 시장에 가서 되팔아 가지고 또 쪼금 더 보태 가주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또 산신제 지내고, 구십 구 그러니까 아흔 아홉 번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인제 백 번째 가서 소를 바꾸려고 하니까 소대가리 파는데 가기만 하면은 아주 외뿔이 달랜 귀신 두 뿔이 달랜 귀신, 아주 뭐 이런 귀신들이 지키고 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드라 이기예요. 그러니까 고깃간에 가서 고기는 사지 못하겠고 요번 한 번만 가면 다 하겠는데 그런 귀신들이 자꾸 지키면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에라, 할 수 없다. 그냥 산신님 있는데 가서 돈 삼십 냥 갖다 놓고, 당신이 소를 뭐, 대가리 어떠 구해 가지고 잡숫던지 그러구 나는 돈 삼십 냥 갖다 놓고 기도 디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산신기도 드리느라고 백 번째는 돈 삼십 냥 갖다가 놓고 산신 앞에 갖다 놓고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절을 하고,

"잘 살게 해 달라."

그래 인제 치성을 드렸더니까, 조금 있더니까 치성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 산돼지가 하나가 나타나더라 이기래요 아, 멧돼지가 그래서,

"저 놈의 멧돼지를 잡아 가지구 인제 산신 제사 지내도 되겠다."

그래서 멧돼지를 잡을 라고 쫓아가는데 멧돼지가 아주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고 자기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데 올라갔는데 그 산돼지가 얘기했는데 어데 산신이 얘기 했는지 몰러도,

"니가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 주는 건 좋은데 아흔 아홉 마리 소고기를 자꾸 사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었다. 어, 그러니까 마지막 백 번째 돈 갖다 주고 치성드리는 거는 그 돈 삼십 냥 가주고 너 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있는데 내가 갖다 줬으니까, 그 정성이 갸륵하다. 그러니까 너 어떻든 간에 기도를 지성으로 들이고 백일을 채웠으니까, 이 멧돼지 따라서 나가가면 아

주 잘 사는 동네로 인도해 줄 끼다."

그래서 고 다음에는 멧돼지 죽일 생각도 안하고 멧돼지 가는 대로 따라서 몇 날 몇 일을 따라서 멧돼지 따라서 갔다 이깁니다. 그래더니까 어떤 오막살이집 몇 채 있는 동네루 딱 들어 갔는데 그 멧돼지 따라 다니느라고 잘사는 동네 가르쳐 준다고 그래 배 줄은 창지를 가지구 그 동네 앞에 가서 쓰러졌어요.

그러자 이제 그, 물동이 이고 나오든 처녀가 거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거 보고 그래 집에 어른들 있는데 얘기해 그 집으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래 그 집에 들어가 간호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별루 그렇게 배 곯는 동네두 아니구 잘 사는 동네라 이기래요.

집은 비록 뭐 오막살이 집을 쓰고 있지만 잘 살더라. 그래 그 집에서 이제 그렇잖아도 노동력이 없어 가지구 그 사람보고 또 어데루 갈데도 없구 이래,

"여기가 어데냐?"

이러니까,

"설악산 다부골이다."

이래요. 그래서 설악산 다부골에서 데릴사위 비 그래 가지구 거게서 죽 삼만 그릇을 먹고 그래 고 다음 이밥만 먹게 됐다, 이런 전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데, 그래서 인제 죽 먹으면 말이죠.

"아이 죽 먹기 싫다."

어려서 그러면 말이죠,

"야, 이놈아. 니 이 다음에 커서 다부골에 가 가주고 이쁜 색시 얻고 살지 누가 아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홍덕유, 남 · 54, 중앙동, 1981. 4. 27〉

59. 스님의 일곱 자식

옛날에 산골짜긴데 아주 부자집 마나님이라구. 근데 남편은 아주 멀리 일을 다닌데 남해 쪽으로 일을 나가시고 그러는데. 남편이 나가고 없으면 혼자서 일주일도, 혼자계시고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고.

그래 여자가 그러고 있는데 한 삼 개월씩 있다가 아저씨가 오시고 그러는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오셔 가지구 스님이 꼭 여자같이 이쁜 스님이야. 남자스님인데 그래 가꾸 시주를 좀 해달라고 시주를 들어달라고 그러니깐 뭐 그저그저 뭐 주는 거 있잖아.

그런 것 달라구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그 인제 여자가 얼굴 안색이 아주 안 좋은 안색으로 한숨을 푹 쉬면서 쌀을 떠다 주었데. 이제 스님이 '왜 한숨을 그렇게 길게 쉬냐' 고 그러니까 '아휴, 꼭 죽고만 싶은 심정이다' 고 이렇게 살아도 죽고만 싶은 심정이라고…… '왜 그러냐' 고 그러니까 '아휴 난 이렇게 살아도 아저씨가 한번씩 출장을 가시면 석 달도 있다오고 한 달도 있다오고 그러는데 그냥 난 죽고만 싶다' 고 막 그러는 거라.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그럼 좋은 방법을 해주겠다고. 아저씨하고 오래 떨어지지 않고 애기도 빨리 생길 수 있는 방법을 해 주겠다고 있다고. 그러니 스님이 그래 '그러면 좀 해 달라' 고 새댁이 그래.

그러니까 스님이 거서 묵고 있었어. 며칠하면 좋냐고 그러니 일주일간 하면 좋다고 그랬어. 그러는데 일주일간 했거든. 스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했는데 인자 마지막 날에 비가 막 쏟아져 쏟아지는데 스님하고 새댁하고 같이 한방에서 있는데 여잔 줄만 알았는데 예뻐서 여잔 줄만 알았지.

근데 마지막 날쯤에 오늘 저녁쯤에 오늘 저녁이 마지막 하면은 인제 다 된다고. 인제 그래 그럼 그 마지막 날에 뭐를 다 채려놓고는 다하고 있더라는데 나중에는 둘이서 잠이 든거야. 둘이서 잠이 들었는데 아이고 이 스님이 남자 스님이여. 여자 그 배 위에다 발을 턱 걸치고 이렇게 잠을 자는 거라.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안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혓바닥으로 침을 딱 발라놓고는 창구멍에다 이렇게 발라놓고는 구멍을 푹 뚫어갔고 이렇게 들여다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세상에 스님이 여잔 줄 알았더니 다리가 털이 시커먼게 다리를 자기 며느리 배 위에다가 딱 걸쳐갔고 자거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엉겁결에 문을 딱 여는 것이 그냥 팔딱 떨어져 버렸어. 잠근 문이… 그래 갖고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 뛰어 도망가 버리고. 며느리 보고 이제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 스님이 여잔 줄 알았더니 남자 스님이다' 고하면서 시어머니 보고 막 며느리보고 저질해.

에이 그날 저녁에 스님이 자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약에 아들 나면 애기를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하고 이름을 잊어 버렸는데, 애기를 낳으면 파란 저고리에 빨간 띠를 눌러서 애기를 저고리에 입히라고 그랬어. 그러는데 진짜 그날 저녁에 애기를 뱃어.

애기가 임신이 되어가지고 애기를 인자 낳게 됐어. 낳게 됐는데 인제 하루는 스님이 인제 그 동네를 전혀 못 오는거라. 무서워서 인제 오는데 얼마 지나가서. 근데 그 애기를 낳아가지고는 낳는데 애기를 십 개월 있다가 애기를

낳는데 파란 저고리에 빨간띠를 둘러서 애기를 업어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 똑같은 애기들이 일곱 명 있다는 거라. 그 애기가 일곱 명이… 그 스님이 낳은 애기라 그 애기가 전부다 다 그러고 하고는.

끝을 잘 모르 것는 디 여러분들도 이런 속음이 많이 있을 거라. 이런 스님들에게 속지 말어.

〈진경희, 여 · 62, 교동, 1999. 12. 17〉

60. 집안의 세 가지 소리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에, 옛날부텀 내려오는 얘긴데 집안에는 세 가지 소리가 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우는 소리가 나야 하고, 두 번째는 글 읽는 소리가 나고 세 번째는 베짜는 소리가 나야 한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면 애우는 소리는 집안에 자손들이 흥하게 되서, 에 잘된 다는 얘기고, 그 담에 글 읽는 소리는 자손들이 글읽는 학문을 연구해서 출세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담에 베짜는 소리는 경제를 튼 있습니다.

현대는 한가지 더 첨가해서 비오는 소리가 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문, 농사가 잘 될라면은 비가 마침 잘 와서 그래야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서 현대에 와서는 네 가지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는 뜻입니다.

〈김용구, 남 · 68, 동명동 14/2, 1992. 3. 27〉

61. 장사가 되어 다시 찾은 부인

옛날 기적 깃날, 깃적 귀뚜래미 소실 적에, 아이 적에, 다윗 적에, 떠꺼머리 총각 전에, 그 어느 디 딜방앗간을 지나 가드니까 어여쁜 아가씨가 방앗간 안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깐 얼른 들어가서 그 아가씨는 어떻게 이쁜지 똑 떨어진 제비 같구, 기어가는 꿩 같구, 까치 뱃바닥 같구 구랭이아래 턱냉이 같애요. 아래 턱냉이 같은데, 그래서 들어 가서 손목을 꽉 잡았더니,

"이 새끼야, 너 왜 남의 손목을 잡아? 니가 엊저녁부터 내 손목을 잡고 바들바들 떨더라. 나는 하늘이고 너는 땅이야."

그리고 꼭 손을 붙잡고 그랬는데, 그 부락에는 한 가장이 살았는데 그 가장

이, 그 가장에는 그 옆 응달집이고 이 집은 응달집이고 양지집 응달집 양쪽에 부락들이 살았어요. 그래 양지쪽 사람하고 응달쪽 사람하고 같은 친구고 또 그 친구의 아들들이 똑 같이 결혼을 했구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모여 앉아서,

"자네 아들이 아기를 낳으면 손자 아닌가?"

"손자지."

"손자믄 자네 네가 딸을 낳고 우리가 우리가 아들을 낳고, 우리가 딸을 낳고 자네가 아들을 낳든가 우리 혼인을 하세."

이래 가지구 그 구두(口頭)혼인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 응달집이어서 아들을 낳고 양지집이서는, 아니 바꾸어졌구나. 양지집이서 아들을 낳고 응달집이서 딸을 낳구 그랬는데, 딸은 얼굴이 참 돋아 오는 보름달 모냥으로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아들은 초싱달 모냥으로 반달 모냥으로 얼굴이 됐어요, 얼굴이 반 쪼가리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그러니 저 할아버지가 구두 결혼 언약을 핸 걸 애들은 모르고 서루 무럭무럭 자라가지구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차 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러니 신랑 녀석은 못 생기고 신부는 잘 생겼어.

그래 신부가 어떻게 이쁜지 신랑 녀석이 신부한테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 계속 같이 한문 공부를 하구 이렇게 있는데, 근데 밤에 화장실에를 간다구 그래두 신랑 녀석이 꼭 따라 가구, 신랑이 가도 부인이 따라 가구, 그래서 그렇게 같이 댕겼는데 한 날 저녁에 그 신부가 화장실을 가는데 신랑이 따라가질 못하게 됐어요.

그래 따라가질 안했는데 그래 금방 갔다 올 텐데 30분이 지나도, 한 시간이 지나도 안들어 오거든. 하두 이상해서 신랑이 나가 보니 화장실에도 사람이 없고 어딜 가나 사람이 없어요. 그래 찾아보니, 밤새두록 자기 처가집까지 죄 뛰어 댕기면서 죄 그 부락을 싹 뒤져두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 날이 샜는데 신랑이 인제 어딘가는 낮에 보따리 싸 짊어지구 어딘가는 가 가지구 돌아댕기면서 문탐을 해 봐두 어디 누구든지 모른대요. 어느 부락에가서 해두 모른데구. 그래 딴 부락에 가서 물어 보니 다 모른데는데 어느 쪼그만 귀동자가 하나 나타나더니 '자기가 봤다 그거야'. 자기가 봤는데,

"권해 장사가 우측 옆구리에 끼구선 산을 주름을 잡아 동쪽을 향해 나갔다. 동쪽을 향해 갔으니 동을 향해서 찾아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는데 당신이 가서 만날래면은 밤, 밤, 생률(生栗)제사 때 쓰는 거 같이 깎아 가지고 깎은 밤서 말, 계피떡, 계피떡을 세 개. 깎은 밤 서 말은 그 밤이 떨어질 때까지 하루

한 개씩만 먹으면서 떨어질 때꺼정 가야 한다.

가야 그 집을 당도한다. 그렇게 멀지. 그리고 계피떡 세 개, 명주 세 필, 계피떡은 그 집에 가면 대문이 세 개 있는데 대문 하나에 호박개 한 마리씩 매 있단 말이야. 호박개가 낯선 사람이 오면 물어 죽인데. 호박개라구 아주 큰 게 호박개라구.

그전에 아주 말만한 개가 호박개라구 있어. 그러니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물어 죽이기 때문에 얼른 던져서 그걸 뭘 던졌나 하고 돌아서는 사이에 대문을 통과하라구 해서 세 개, 대문이 세 개니까 호박개도 세 개고 세 개를 가져가라구. 그래서 가져가는 거고.

명주 세 필은 가다가 강이 나타나는데 그다지 깊지도 않구 아니 그 깊은 데는 한 길 넘구, 그래 가지구 그 명주 세 필을 가지구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명주 세 필을 가져가는 거라구, 그래야 당신 부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찾아 가라."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 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 계피떡 그거 해주구 양쪽에서 그냥 밤을 깎아 가지구 서 말을 해서 주구, 명야 세 필 질쌈하는 거니까 명주 세 필해서 전부 해서 싸서 줘서 짊어지구 가는데 하루 가다 밤 한 톨 먹구 하루 가다 한 톨 먹구 저믄 때믄 밤 한 톨씩 먹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래두 얼굴에 살이 붙었던 게 말라 가지고 젖갈짝(젓가락) 모냥(모양) 삑따구(뼈다귀)만 앙상하게 남구 이래니 그저 목숨만 붙어 가지구 가는데 물이라도 가다, 어디가다 물이라도 먹구 그러는데 그래 밤이 한 반 없어지다 보니까 강이 있어서 명주 세 필을 가지구서, 명주 세 필을 던져 가지고 강을 건너갔어.

그래 명주 젖었으니까 거게다가 내 던지고 거 동쪽을 향해 가다 하루 가다 한 개 먹구 하루 가다 한 개 먹구 매일 그렇게 아주 누차에 걸쳐서 몇 달이 걸렸든지 간에 그러는데 어디꺼정 갔는지 밤이 인제 몇 알 안 남았어. 한 서너 톨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거의 다 왔나 보다."

가다, 하루 종일가다 저녁 때 밤 한 톨 먹구, 또 그 이튿날 또 진종일가다 저녁에 밤 한 톨 먹구, 또 그 이튿날 진종일가다 저녁 때 밤 한 톨 먹구 그래 뼉다구만 남아 눈깔만 남아 눈깔만 팅해 가지구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몰라 볼 정도로 그렇게 말라 있는데 그래 인제 밤이 한톨 남았는데 이젠 거진 왔나보다 하구 가다 점심때가 되어서 어느 능선에서 영에서 밤을 먹구. 그러니 어딘가는 지금 저렇게 떠드는 거 모양으로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 같거든.

그래 이거 어떻게 되어서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 같거든. 그래 이거 '어떻게 되어서 떠드는 소린가 이상하다' 하고 넘겨다 보니까 그 안에는 거 참 아주 벌판인데 앞에는 모래 사장이구 헌데 거기 큰 개울이 흐르는데 아, 개울가에는 어느 아낙네들이 그냥 잔뜩 앉아서 빨래 하느라고 히히덕 거리고 앉아 웃고 떠들고 빨래를 하고 앉았거든요.

아하, 그래 인제 바짝 넴게다 보니까 거기는 기와집이 아주 엄청 큰 게 두부로 같이 네모 반듯한 게 그런 구당 같은 기와집이 있어. 아하, 여긴가 보다 하구 찾아 내려갔어.

내려가 가지고 떡 대문에 가니까 호박개라고 하는데 멍멍 하구 하니까 계피떡을 끄내 가지고 획 던지니까, 획 던지니까 물을려구 획 돌아서는 사이에 그 대문을 들어 가구, 또 그 다음 대문도 마찬가지고, 고 다음, 고 다음 이렇게 세 대문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대문을 다 들어갔더니 자기 부인이 섰거든. 자기 부인이 섰는데 자기 남편인지 모르지, 말라서.

그러니까 인제 이 신랑 녀석이 자기 부인을 알아 본 거지. 눈을 가죽이 모잘라 뚫어 놓은게 아니니까. 보래는 거니까. 눈은 정신이 있으면 보는 거니까 암만 몸은 말랐거니와 눈이야 보이지. 그래 참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

"아, 여보!"

그러니까,

"아, 누구냐?"

고, 자기 부인이 하는 소리가.

"아, 나 사실 이만 저만 나라구."

"아, 그러냐?"

"그러면 이리 오라."

그래 뒤에 뒤로 돌아 가더니만 그 전에는 어느 바우에서 어느 장수들만 먹는 장수물이 있어, 장사물이 있어 가지고 그걸 먹으면 장사가 된데. 힘이 세어지구 그래 그 물을 먹을 라구 하는데 보니 그냥 뭐 정말 엄청난 집채만한 돌멩이루다 뚜껑을 막아놨는데 그걸 열어야 먹는데 그걸 어떻게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

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유 빨대모양으로 그냥 빨대를 해 가지구선 이렇게 빨아먹으라고 주니까 그래서 얼마쯤 들이 빨아먹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점점 정신이 나 가지고 아주 정신이 나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얼마를 빨아먹구 며칠 동안 빨아먹었어.

빨아먹구 있으니 정신이 나니 나중에 물 뚜껑을 퍽 여니 번쩍 들리거든. 그래 열구서는 가 가지구 물을 막 들어 올려서 떠 먹고 실컷 먹고 이 사람이 아

주 똥똥하게 천하 장사되었어요. 그러니 이 집 장사는 인제 삼천리 도둑을 나갔는데 도둑을 나가고 집이 비어 있는 찰나인데 이 인제 자기 신랑은 완전히 장사가 되었으니까 저 헷간으로 들어 가라고 들이 몰아서, 헷간이 아주 큰 헷간이 있는데, 밑에는 마루가 방같이 깔려 가지구 아주 두껍게 이다가 깔려서 바깥에 스프링장치가 돼 가지구 이걸 숙 잡아 댕기면 이 안에 있는 물견이 떨어져 이 안으로 이건 아주 깜깜한 난간이야.

이 안은 이 무루 밑에는 그런 장치를 해서 나쁜 사람은 그 안에다 떨어 뜨려 죽이고 이 장사가 그랬는데 그리루 들어 가라구 자기 부인이 그래서 인제 가만히 보니 뚜껑을 갖다가 이 장사두 좀 영리하지 못하지 이 집 장사보다야 기술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기운이 세지.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집 장사는 거기 집 덩어리만한 거기 공 모냥 볼 모냥 이렇게 동그란 돌이 거기 있는데 거기 뒤에 있는데 아주 그 뒤가 넓어 가지구 집채만한 게 있는데 이걸 한 손으로 해 가지구 획 던지면 모래 아침에 떨어진데. 하늘로 던지면 모래 아침에 떨어진데. 하늘루 던지면. 그러니까,

"당신 던져 보라."

그러니까 아주 자기 신랑이 이렇게 이렇게 던졌는데 내일 아침에 떨어져. 이직 멀었다구 물 더 먹으라구, 그래 물을 더 먹어. 얼마 더 먹구 나서부텀,

"이제 던져 보라"

이렇게 해서 들구서 획 던져 보니 글피 아침에 떨어져, 글피 아침에 떨어지니까 이 집 장사는 모래 아침에 떨어지는데 하루 더 있다 떨어지니 더 씨게 더 멀리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해 가지구서 인제 놓구 그 헷간으로 들어 가라구 하니까 물통을 갖다 깔구선 이 장사가 헷간에 들어 가서 앉아 있을 거야.

그러니 얼마쯤 두 내외가 있을 때니까 아주 땅이 찌르르 하더니 땅이 '쿵' 하거든. 그러니 천리 들어왔다 이거야. '쿵' 하는데 천리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조금 있더니 또 찌르르 하더니 쿵하구 그래 이 천리 들어 왔다구. 조금 있으면 인제 마루와 툭 떨어지는 거야.

인제 삼천리까정 오는 거로 그래서 자기 부인이 빨리 나갔어. 나가니까. 나가 가지구 원래 저 먼저 그 여자들을 다 훔쳐다가 빨래하는 여자들인데 이 장사가 다 훔쳐 왔어.

훔쳐 오고 그 집은 뭐 창고에 가보면 고기 그냥 통소가 있고 돼지 고긴 뭐 술이니 진창 아주 도둑놈이 죄 훔쳐다가 여자 두 이쁜 여자들 죄 훔쳐다 한 50명두 죄훔쳐다 놓구 전부다 그런 도둑질 하는 장순데 그래 가지구 여자가

주인을 잡을려고 여자들끼리 서루 짜 가지구,

"요번에 인제 우리 도둑 나갔다 들어오시면 우리 특대우로다 술도 많이 드리고 하자."

이렇게 짜구 하구 있었는데 얼마쯤 있더니 '쿵' 하구선 마루가 뚝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얼른 나가 가지고 있다가,

"아 영감님, 이제 오시냐?"

그래서 맞아 들여 가지고 아, 딱 떨어지더니,

"아, 누가 왔어?"

그러거든.

"아, 누가 오긴?"

"아, 누가 왔어? 왜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이 년이 누구 앞에서 거짓말이야?"

"아, 우리 오라버님이 왔어요."

"아, 우리 오라버니가 왔으믄 왔다고 해야지, 온 걸 아는데 왜 그래, 어딨어, 창고에 있지?"

"창고에 있어요?"

"그놈 새끼 잡아 죽여 놓구서 올라 가야겠다."

바깥에서 스프링을 잡아 댕기면 쭉 밀려 가서 여기 빠져서 죽게 돼 있거든. 그렇게 돼 있는데 잡아 댕기는 거, 벌써 댕기는 걸 알거든. 와서 잡아 댕길 줄 알고 이 사람두 그래서 어디 턱 올라붙으면서 얼른 올라서니까 쓱 잡아당기니까 안 잡아 댕겨지다가 얼른 올라스니까 확 댕겨져서 마당에 와서 얼마쯤 있다 쿵 소리가 나거든.

"응, 인제 저 새끼 죽었구나."

돌맹이 떨어지는 소리지 사람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거든. 그래 가지구 완전히 인제 죽은 지 알고 이 사람은 들어 가니 그 부인들이 아주 서방님 오셨다구 그냥 술, 이 소다리, 소 뒷다리 하나가 안주 한 젓갈이야. 한 젓갈이구 술이 다리로 하나가 한 잔이구 그저 막 막걸리 뭐, 그냥 별 술다 많지. 그전엔 막걸리두 농주 진짜지. 어디 지금 막걸리와 같은가, 독하지. 그래 한 자리에 몇 잔을 한 이십 잔두 더 먹었어. 그래 가지고 인제 골아 떨어졌는데 자기 부인이 언젠가는 나오더니 나오라구 그러니 어디서 칼을 큰 비수를 갖다 줘 가지구서,

"이거 가지구 가서 목을 치라고. 골아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눈을 뚱그렇게 뜨고 있거든. 아, 그래, 골아 떨어졌다는데 눈을 뜨고 장사는 눈을 뜨고 자거든. 아, 저거 자니까 겁이 나서 못르고 있는데.

"아, 지금 자는 거라구, 정신 없이 골아 떨어져 있는데 왜 가만 있느냐구

들어가라구, 내 부엌에 들어가서 재를 싸 가지구 들어 갈 테니까. 빨리 들어가서 목을 치라."

그러다가 들어가서, 에이, 들어 가서 자빠져 있는 것을 목을 냅다 쳤어. 목을 치니까 목은 천장에 떡 올라붙고. 몸뚱이가 들어 누웠든 게 벌떡 일어 나서 웅웅하고 돌아 댕기구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재를 부엌에서 싸 가지구 와서 그냥 몸땡이, 목 떨어진 자리에 피 나오는 데다 딱 재를 끼 얹어 가지구 허니까, 목이 도로 와서 붙을래니까 붙지 못하지. 그러니까 몸땡이는 그냥 슬슬슬 돌아 댕기는데 대가리는 공중에서 천둥치듯, 호령하듯,

"이년, 천하 고약한 년들 같으니라구. 니가 어쩐지 오늘만은 더 이상하더라. 써비스가 이상하더라. 이년들 아니나 다른가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 천하 고약한 년들."

하면서 또 와서 붙을래다 못 붙구 역시 얼마쯤 떠들다가 또 와서 붙을래다 못 붙구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말두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와서 폭 떨어졌어. 이 모가지를 던지구 몸뚱이도 던져 가지구 지금까지도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거구, 결과적으로 인제 보물을 전부 여자들을 전부 모다놓고 이 장사가,

"너 이 집에서 금은 너 가져가고 싶은 보물 얼마든지 싸 가지구 가져 갈래면 가져가고 이 집에서 살 여자는 우측으로 앉고 나갈 여자는 좌측으로 앉아라."

그래 우좌를 가려 가지구 집합 시켜놓구. 그래 나간다는 여자는 저 고향으루 찾아간대는 여자는 저 가져가고 싶은 대루 이 집에 있는 거 뭐든지 가져 '라구 해 놓구선, 있는 대는 여자는 일정하게 이렇게 놓구 칼을 가져 가지고 목을 쳐 가지고 일정하게 죽이고 나간 대는 여자는 다 보내구.

그러구서는 저 두 내외의 나와 가지구 그 집에다 불을 싸 놓고 두 내외 나와 가지구 자기 부인 옆구리에 차구 산을 주름 잡아 자기 집으로 와서 잘 살다 죽더래요.

〈유만석, 남 · 50, 설악동, 1981. 4. 17〉

62. 이 부잣집 구렁이

옛날 영랑동에 이부자가 살았어. 이부자가 어떻게 부자됐냐면 구렁이 때문이야. 그 구렁이가 이부자가 장사 나가면 꼭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거야. 어느 날 이부자가 장사 때문에 배를 타게 됐어.

물론 구렁이도 함께.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부는 거야. 그래 장사는 가야 하는데 바람이 부니 이부자가 고민이 되지. 그래 결심한 끝에 배를 탔

지. 근데 말이야 배를 탔는데 갑자기 배를 묶어둔 줄이 풀어지는 거야. 이부자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줄이 끈어지지 않는 거야. 지켜보던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지. 바람이 잦고 줄을 보니 구렁이가 자기 몸을 칭칭 매 줄을 연결시켜 놓은 거야. 결국 구렁이는 죽었지. 구렁이가 죽으니까 이부장의 재산도 봇물 터진 물처럼 빠져나갔지. 결국 구렁이오 이부자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거야.

〈이성철, 남 · 82, 영랑동, 1999. 12. 17〉

63. 효도한 아들

옛날 어느 추운 겨울날에 늙은 아부지와 젊은 아들이 소먹이를 맨들기 위하야 작두에 곡초를 써는데 아버지는 작두 발비를 밟고 아들은 곡초를 작두날에 들이면 곡초를 드려 밀면 아부지가 작두를 밟아 곡초가 끊어지는데 때마츰 아들의 어린 것이 할아버지와 아빠가 일하는데 치워서 벌벌 떨면서 서 있으니까 애비가 자기가 끼었던 토시를 벗어서 땅에 깔고 아들은 토시짝 위에 올려 세웠지.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무심코 혼자말로 '나도 저렇게 키웠건만' 하고 한마디 하였는데 아부지에게 평소에는 잘못하였던지 감동되어서 그 후에는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였다고 해.

〈권억옥, 남 · 90, 조양동, 1999. 12. 23〉

64. 효불효교 이야기

남편과 사별한 미망인이 아들 삼 형제를 키우면서 사는데 낮이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밤이 깊으면 아들들이 모르게 어데론가 가는데 아들 삼 형제가 하루 밤에는 어머니를 미행하였어.

마을 앞에 강이 있는데 다리는 없는데 치운 겨울밤에 강을 건너서 어떤 불빛이 희미한 집 사랑채로 들어가서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한 삼 형제는 어머니를 위하여 그 강에 다리를 놓아주었지.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불효가 되고 어머니에게는 효도가 되었다는 효불효교(孝不孝橋)로 명명하였다고 하지.

〈권억옥, 남 · 90, 조양동, 1999. 12. 23〉

65. 힘센 장사 5형제

옛날 한 마을에 5형제가 있었어. 그 형제는 모두 힘이 장사였었지. 근데 이 형제들은 자신들의 힘이 정말 센지 증명을 해 보고 싶은 거야. 그래 아버지에게

"저희들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 아버지는

"나가서 너희들의 힘을 시험해 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 형제들은 자신들의 힘을 시험해 보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가니까 괴물이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 형제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5형제가 괴물을 잡아 드릴테니 당신들은 잠시 이곳을 피해있으시오"

하는 거야. 그래 마을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괴물을 꼭 잡으라고 하고 떠났어.

밤이 되니 괴물이 온 거야. 형제들은 각자 흩어져서 괴물을 상대했지. 그러나 괴물 힘이 워낙 세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야. 결국 형제들은 차례대로 죽었지. 그러나 막내는 꾀가 있어서 괴물이 형들을 죽일 때 무방비상태가 되는 것을 보고 냅다 칼을 휘둘러 목을 단번에 쳐 버린거야. 괴물은 목에서 핏물이 콸콸 흘려내렸지.

아 그런데 이 괴물의 머리가 다시 붙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내는 목에 흙을 뿌려 목이 붙지 못했지.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머리와 몸뚱아리를 불살라버렸어.

그래 막내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형들은?"

하고 묻자

"모두 죽었어요"

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막내를 이뻐했지. 나도 하도 들은 지 오래된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다.

〈이상철, 남 · 42, 중앙동, 1999. 12. 17〉

66. '콕' 한 이야기

예전에 그, 저, 나이 육십 먹은 노총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아무튼

장개(장가)들기를, 아주 최고 원하는 게 장개 드는 것이 소원이예요. 그리고 좀 모자래요.

사람이 만날 그냥 떼, 떼, 떼하고 '더풀 더풀 똥더풀'이라고 부락에서 인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제 부락이 그 부락이 어떻게 됐냐 하믄(하면)부락이 이쪽에 하나 있다고 하면 저쪽 저쪽 한 3km밖에 안 되지만 똑바로 보이지 않고 가다가 산이 이렇게 돼 가지고 산모퉁이 이럭해서 착 기역자 모냥 꺾어져서 고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쪽 부락에 한 100여 호 살고, 저쪽 부락에 한 80호 살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부락에도 왔다 저쪽 부락에도 갔다 저 부락에도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똥더풀이라고.

근데 이거 그전에는, 지금은 신발들이 많지만 그전에는 와라지라고 짚세기를 삼아 가지고 신고 댕기는데 이렇게 보니 질(길)이 곧장 이렇게 나 가지고, 카부선에는 서당 나무가 하나 있고 서당 나무 지나 가지고 곧장 이렇게 부락이 들여 보이고 곧장 질이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 먼데서 보니 아주 서낭 낭그 있는데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아주 알름 알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짚세기를 벗어 들고 살살 아주 이러 헥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가기 그 서낭 나무 커브가 이렇게 기역자처럼 꺾어졌으니까 꼭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거기서 어여쁜 아가씨가 오줌을 누고 있었는데 바로 그 카브가 박하고 보니 오줌누는 그 뒤에 바짝 가서 스게 됐어요.

그래 여자가 오줌 누고 있으니까 환장해 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콕'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총각이거든요. 백살 먹었어두 총각은, 열 살 먹은 아가씨가 시집을 갔어두 총각은 무조건 반말을 해고 총각한테 반말을 해야 해요. 그리고 총각은 언제든지 어른한테는 쪼그마한 나이가 적어두 존대를 하고 이렇게 되는 세월인데,

그러니 총각, 아가씨가 돌려다 보니까 총각이거든, 총각이니 만만하거든.

"당신, 왜 나 오줌 누는데 '콕'했소?"

"내가 언제 당신 오줌 누는데 '콕'했소?"

"당신, 내 오줌 누는데 '콕'안 했소?"

"내가 언제 당신 오줌 누는데 '콕'했소?"

이랬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거기서 콕콕, 콕콕하고 서로 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새닥은 시집온 지 삼일 밖에 안 됐는데, 자기 신랑이 금방 갔다 온다고 갔는데 안 오거든요. 한 시간, 두 시간 되어두. 아, 그래 왜 안 오나 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가며 들으니까,

"당신, 내가 오줌 누는데 '콕' 안했소?"
"내가 언제 당신 오줌 누는데 '콕' 했소?"
"당신 내가 오줌 누는데 '콕' 안했소?"
"내가 언제 '콕' 했소?"
그러거든 그러니 신랑이 갔으니까 아, 총각 놈이 만만하거든.
"이거봐, 당신 왜 우리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콕' 했소?"
"내가 언제 당신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콕' 했소?"
"당신이 우리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콕' 했다는데?"
"내가 언제 당신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콕' 했소?"
거기서 또 둘이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만날 싸워 봐야 어디 해결도 안 되는 거고…….
그래 인제 신랑 녀석이,
"이리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지요. 그전엔 포도청이라고 했는데.
"이리와."
그래구선 그 총각은 60먹은 총각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그래 인제 경찰서에 들어 가니까 경찰관들도 많고 인제 숙직도 하고 많이 있었는데 인제 데리고 들어 갔어요.
"당신들 왜 오셨습니까?"
하구 경찰관이 하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 마누라 오줌 싸는데 와서 '콕' 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콕' 했소?"
"당신 우리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콕' 안했소?"
"내가 언제 당신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콕' 했소?"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암만 수사 기관이구 죄인이 들어 와서 그러는 데도 아,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빨리 빨리 나가. 누가 오줌 싸는데 '콕' 했소, 지랄하고 자빠졌어 들, 빨리 빨리 나가라."
그래 내쫓았습니다.
그래 총각은 처녀 오줌 싸는데 콕콕해도 괜찮데요.

〈유만석, 남 · 50, 설악동, 1981. 4. 17〉

67. 선비 강태봉 이야기

옛날에 강태봉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아주 그렇게 못 살았대. 마누라가 발방아 찌어서 먹거 살았는데, 그 강태봉이라는 선비는 밤낮으로 공부만 하더래.

어느날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날에 마누라가 잠깐 어디 갔다온 사이에 베짜놨던게 다 떠내려 갔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나. 문을 열어 보니까 그 강태봉이란 사람은 계속 공부만하고 있더래. 마누라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대. '이렇게는 살수가 없다' 고. 그러고는 떠났대. 나중에 그 선비가 출세를 해서 큰 사람이 됐대. 친정에 있던 마누라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왔더래. 그래서 강태봉 선비가 '그럼 당신 지금 가서 물을 한동이 해오시오' 그랬대. 마누라가 해온 물동이를 냅다 던지면서 그랬데. 이렇게 깨져버린 독에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냐고. 마누라가 울면서 집으로 갔대.

〈최금순, 여 · 78, 청호동, 1999. 12. 2〉

68. 박문수 어사와 초동

옛날 박문수, 박어사가 하루는 그 팔도강산을 순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어딜 가다 산 계곡에서 개가 여우를 쫓아 가는 걸 봤다 이겁니다. 그 개가 여우를 쫓아갔는데 그 여우가 어느 동네에 가서 울안으로 나무 울타리 속으로 해서 울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 집 개가 나와 가지고 그 뭡니까, 그 여우를 잡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쫓아가던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가서 그 주인을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네 집 개가 내가 몰고 오던 여우를 잡았는데 여우를 날 주시오."

이렇게 시비를 걸었단 말이예요.

그런즉 그 집 주인 얘기가,

"여보시오, 몰기는 당신이 10리 밖에는 몰았든, 100리 밖에서 몰았던지 좋은데, 잡기는 우리 개가 잡았으니 우리 여우지 당신네 여우요?"

그래 시비가 붙었단 말입니다. 그래 박문수, 박어사가 가만히 결과를 보고 있노라니까 나중에는 그 지나가는 행객에게,

"당신이 좀 알아 해 주시오."

그랬는데, 그 어떤 초동이 말이죠. 쪼그만 그 서당에 다니는 그 학생이,

"거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판단하기를,

"개가 여우를 잡을 적에는 무엇 때문에 잡았겠습니까? 그 가죽에 탐이 났겠습니까? 개는 분명히 고기에 탐이 났을거란 말입니다. 근데 당신이 여우를 몰고 왔을 때는 무엇이 탐이 났냐?

그건 가죽에 탐이 났습니다. 그럼 간단하잖소. 고기는 개를 주고, 가죽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인제 시비가 마무리 되고 보니까 하도 신기해서 박문수, 박어사가 도대체 가의 거처가 어딘지를 따라가 보았단 말이예요. 따라가 보니까. 그 서당에 떡 들어가는데 그 옛날에 박문수, 박어사가 너무도 참, 그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 민정을 살피고 그 당시에 그 세종대왕인가 하여튼 그 상당히 그 정치를 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사가 출동을 해 가지고 그 어사 놀이를 하더란 얘깁니다. 그 서당엘 가니까 그래서 그 어사가 출동을 해 가지고 그 어사놀이를 하더란 얘깁니다.

아이가 떡하는 얘기도 하고 그 어사 놀이가 하는 게 재미있어 가지고 박문수, 박어사가 떠억 바깥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 그 어사는 늘 그 걸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쪼끄만 아이가,

"바깥에 있는 걸인 붙들어 오라."

하니 그 박문수, 박어사가 그 어린아이들인데 붙들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그 어사가 출두해 가지고 어린 몸이지만 어사가 그 어사 노릇을 하는데 지나가는 걸인이 말이지 감히 뻔히 들여다 볼 수 있느냐 끓어 앉아 보지 않고."

그래면서 인제 그 볼기를 치더란 얘깁니다. 그래 박문수, 박어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맞았다는 얘기야. 그래 맞는 동안에 그 보따리에서 뭐이가 나왔는가 하면 아, 그 마패가 나왔단 말이야. 마패가 쭈르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마패다 마패다' 하니까, '마패고 뭐이고 쳐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맞고 난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떠억 하는 얘기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철부지한 것들이 놀다 보니까 어사님께 그 송구스럽게 되었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 실컷 두들겨 주고 실컷 때려 주고 잘못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야. 그래 너무도 자랑스러워 가지고,

"너 도대체 너의 집이 어디냐?"

하나 하나를 전부가 아주 감탄할 정도다. 거동이 그래서 가의 집을 떡 찾아가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슬하에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도 궁핍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야가 들어가면서,

"어머니 저 서울에서 손님 오셨습니다."

하고 한 마디 하니까 어머니는 그 뜻을 알아먹고,

"방안으로 모셔라."

그래서 그 종자 할라고 놔 두었던 베를 그 옛날에 농촌에 가면은 방아가 있어요. 혼자 찧는 발 방아가 있어요, 그 종자를 가지고 어머니가 방앗간으로 가더란 말이야. 그래 방아를 혼자 찧으면서,

"아가야, 그 빗자루 좀 가져오너라."

한단 말이야. 그 쓸어 넣는 빗자루를 그래 가져오니까 이 아이가 즈 집에 있는 강아지를 부르더니 강아지에다 빗자루로 맸어요. 그래,

"어머니, 나를 부르지 말고 그 강아지를 부르시오."

그래 강아지가 그 방앗간으로 가니까 그 빗자루가 따라갈 수밖에 그래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니까 도대체가 이 뭐 기이한 얘기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 누구냐 그래 그 아이가 장차 그 박문수 박어사가 장차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주에 자기 그 후세, 후세가 아니고 하여간 그 명문대가의 그 사우를 맨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 좌의정인가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옛날에도 그렇게 그 참 아주 그 재주가 비상한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헌영, 남 · 54, 중앙동, 1981. 4. 27〉

69. 또깨불이야기

또깨불은 우리들이 클 때 보았는데 그때에 총각 때에 배를 댕겼거덩. 바다에 나가면 날이 구중중 한 때가 있단 말이여. 그때 가면 바다나가면 불들이 많어. 어떤 때는 큰 배가 불켜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게 또 없어진다 말이여. 그럼 이짝에서 멀리 또 보이고, 또 이짝에서 한 참 있다가 그런 불이 나오고, 그걸 헛불이라고 그러지.

영감들이 그러거든 '헛불보인다.' 그런거지, 헛불. 그게 얘길 들으니까 바다에서 더러 배가 파선될 수 있잖아. 그런게 저렇게 보이게 한다, 전설이라는게 거저 그런 거지.

우리도 몇 번 보긴 봤는데 날이 구중중할 때 이럴 적에, 날이 흐리고 비가 눈개비같이 오고 그럴 때, 이제 바다에 나가서 며칠 작업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럴 적에 비오는 날도 만나고 바람 부는 날도 만나고 이제 이럴 때가 있지. 맨날 나갈 적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에 뭐 불이 밝으니까 헛게 보이는 거지. 60년대에 한 번 본 적이 있어. 밤에 내가 배가 들어오는데 배들

이 빛이 없어. '저쪽 가세'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없어졌어.

시간이 없는데 없어진 배가 어떻게 들어왔나 했지. 그래서 난 옛날에 어르신네들 하는 소리를 들었지. 난 미신을 믿고 있어. 작업이 안될 적에 옛날식으로 고사 지내지. 배를 가진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안돼.

〈이대근, 남 · 60, 동명동, 1997. 11. 25〉

70. 항아리 산삼

옛날 한 늙은이가 다 죽게 되었으니 '산에 가서 몽사를 한 번 깨서 심(산삼)이나 한 번 얻어 봐야겠다'하고 그래 심 구경도 못해 본 늙은이야. 아 그래서 정성을 들여설라무네 뭐라고 정성을 들이느냐 하면, '그저 산신님 빌 줄도 모르지만 이제 달라'고 하니 그저 할 말이 없더래.

"산왕대신이 그저 항아리 심을 내 주십사. 항아리 그러나 독심을 내 주소사."

하고 며칠을 빌었더니,

"너 재물이 뒤에 있으니 올라가 봐라."

그래 올라갔대. 심이 있어. 심이 있어서 캤어. 캐서 심을 너래반석 있는데 내려 보니 속이 궁글(비)었단 말이야.

"이 놈 내줄려거든 바로 내주지."

속이 궁글어서 항아리 심이 썩은 심을 차니 심이 깨졌단 말이야. 바위에 깨졌단 말이야.

"산신님이 늙으막에 항아리 심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썩은 심을 내 주니 이런 도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화가 나서 거기에 휙 집어 내 던진고 집에 왔단 말이야. 와보니 삼 살 사람이 몽사를 해 갖고 얻어 가지고,

"노인이 간 밤에 며칠 전에 항아리 심 하나 얻은 게 있잖느냐?"

"하나 심 캐 본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소."

"왜 심을 캐고도 안 캤다고 하시오."

이렇게 다그치니,

"응 나 심을 캐긴 캤소. 캐긴 캤는데 내가 부화가 나서 돌맹이에 미때렸는데 어떻게 된지 몰라. 가 보자."

그래 심 살 사람하구 거기 떡 가서 심쪼가리를 긁어 모아 따깡을 이어 맞추어서

"여기 구녕을 들여다 보시오."

해서 들여다 보니 동자 아이 스이(셋)가 있더래. 동자 아이 스이더래.

"스이 들어 앉아 있으니 이런 재물을 여기에 미 때리고 이래 있느냐?"
하고 이래 꼭 싸매 가지고 설라무네
"내 아무 때 당신 집에 갈테니 어여 걱정하지 마시오."
하, 그래 놓고 심 값도 안 주고 그냥 달아났지.
도둑놈한테 심 값을 놓쳤나 우쨌나 이리고 있더니 며칠 있으니 당나귀에 돈을 자꾸 실여 보낸단 말이야. 아, 그래 돈을 받아 가지고 가난한테 논 밭때기를 자꾸 사네. 맨 마지막 바리에 그 놈의 돈이 오면서 그 사람이 왔더래.
"이만하면 노인이 잘 먹고 지낼끼요."
그래 한 번 크게 됐단 말이예요. 옛날 이야기지. 큰 항아리 심은 그대로 속이 비었으니 항아리 심은 항아리 심인데 항아리 심은 속이 비었는데, 그 놈은 항아리를 보내달라고 했으니 속이 폭 썩은 놈을 내어주니 돌맹이에다가 미때렸단 말이야. 깨구서 심산다는 사람에게는 몽사가 나가지구
"아무래도 니 물건이 있으니 가서 사가라."
그래 쫓아와서
"심을 캐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니
"아, 산에다가 지다 내 팽겨치고 왔다."
그래서
"좋다. 가보자."
가서 이렇게 보니 돌맹이에 심물이 쏟아져 노란 게 있단 말이야. 그만큼 항아리 심이 빈 항아리에 요길 틀어 막구서 요 안을 들여 보라 말이야. 들여다보니 동자가 들어 앉았다는 거야. 그게 심이야. 약효란 말이야. 그래 그 심 사간 사람도 크게 되고, 심 캔 영감도 크게 됐단 얘기야.

〈전달재, 남 · 72, 설악동, 1981. 4. 17〉

71. 식충이 장사(壯士)

그전에 어느 가정에서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그래 두 내외 사는데 임신을 해 가지고 인제 태아가 하나 들어 가지고 낳았는데 보니 이 아기가 즈 아버지 어머니는 약질(弱質)인데 아주 퉁퉁하게 그냥 눈이 뭐 정말 똥그란게 무슨 큰 저 후랫쉬 모냥 이렇게 생겨 가지고 대갈통이 크다랗게 아주 이렇게 생겨 가지고 몽때이가 아주. 아들이, 다리깽이 뭐 아주 튼튼하게 생겼거든, 두 내외 하는 얘기가
"아하, 저게 아주 우리 집안에 장사가 나는 모양이다."

장사가 나니까 조거를 인제 아주 잘 멕여서 그 참 한 번 성공을 시켜 가지고 기대를 걸어 본다고, 그래 밥을 먹기 시작해 젖도 모자라서 젖 반, 밥 반, 이렇게 먹고 젖도 많이 나오는데 모자라 가지고 그래 야중에 밥을 먹기 시작하네.

밥을 처음에 으른밥 먹더니 점점 커 가며 점점 먹기 시작해서 야중엔 한 되, 두 되로 한 되 해 지가 먹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먹더니 나이가 한 여덟 살 쯔음 되니까 반 말, 반 말을 해 먹고 그래 열 댓 살, 이십 살 가까이 되니까 안되미 꼭 한말을 해야 지가 먹는 단 말야.

안되미 고거 한 말이래면 다라로 하나야. 밥이 그래 그 다라로 하나를 먹어야지. 반찬도 이런 큰 그릇에다 한 개씩 해서 전부 싹싹 돌이 하는 거야. 아주 그냥.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안되미래는 건 고봉 한 말을 갖다 안되미라고 하지. 소복하게 지금은 깎아서 주지만 그전엔 아주 소복하게 담아서 안되미 한 말이라고 아주, 안되미 한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인제 그러니 고봉 안되미 한 말을 먹으니 하루 밥 세 끼 먹으면 하루 스 말 인데 그 내외 것 해서 아마 스 말 닷 되는 먹어야 된단 말이야.

스말 스 되 내지 닷되를 먹어야 되니 그러니 빈곤한 가정에서 자꾸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데 애가 스무 살이 넘어서 되니, 눈깔이 자동차 헷드라이트 모냥 같고, 아주 기골이 장대해 가지고 콧날이 냅다 선 게 심은 하나도 없고. 기운은 하나도 없는 게, 그기 잘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소리 한 번, 입이 크니까 원래 목청이 굵어 가지고 소리 한 번 지르면 골이 아주 쩡쩡 울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는 잘 친다 그거여.

그래 소리 한 가지 밖에 치는 것 그 이상 더 없는데, 그러니 자꾸 그러게 먹으니 즈 아버지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 영감님이 인제 돌아가시고 지가 혼자서 천상 있는 거는 논마지기 있는 것 다 해서 팔아서 쌀 사다 먹고 집까지 팔아 먹고, 나중에 인제 오도 가도 없이 갈 데 없이 홀몸이 되어버렸네. 그래니 인제 부락에서 밥 많이 먹는데 얻어 먹을 수도 없고

"에라, 어디 떠나자."

어딘가는 정처 없이 개나리 봇짐을 싸 짊어지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데로 떠나가는데, 어딘가는 가니 그 구리당같은 기와집 그 기와집들이 한 100여호 되는 아주 그 부자집을, 부자집 동네를 들어 가게 되는데 아주 삼태한 모양으로 동그랗게 둘러싸인 산이 둘러싸이고 오복한 데 요렇게 아담하게 모여 있는 부락인데 삼태라는 건 이렇게 동그란 걸 얘기 하는데, 한 짝이 지울고 한 쪽이 동그란 걸 말하는데.

그래 그 부락에 떠억 들어 가니 그 위에 산으로는 사람이 하얗게 기어 올라

가며 '여' 소리를 지르며 기어 올라 가는 걸 많이 보고 그리구선 그 중에서 꼭대기 제일 큰 집을 찾아 가면 큰 집은 제일 부자고 그 부락에서 대감집이 틀림 없다. 그러니 대감집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 그 집에 가서,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 그 집에서는 그 집의 대감이 이렇게 내다 보니 모습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눈이 헷드라이트 모양 생겼겠다, 아주 깍짓동같이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그러니깐 아주 장사가 온 줄 알고 천하 장사가 온 줄 알고

"네, 지가 대감입니다."

맨발로 마루를 나오면서 얘기하거든. 그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시장기가 있어 그래 찾아 들어 왔습니다."

"아이고 이리 들어오십시오."

그래 방에 모셔 가지고 인제 대감이 들여 모셔 가지고 사람을,

"그래 대관절 산에는 웬 사람이 저렇게 기어 올랐소?"

"네, 그렇잖아도 지금으로부터 몇 백년쯤 묵은 호랭이가 대낮에 와서 이 부락에 사람 하나씩 잡아다가 먹습니다. 그래 인제 매일 한 명씩 잡아다 먹는데 오늘 역시도 그래가지고 그래 각지에서 인제 명포수들을 주문을 하다가 저 몰잇군이 올시다."

"아, 그러시오?"

그런 얘기를 주고 받는데 대감이 있다 하는 말이 '여봐라' 하니까 그 몸종이,

"네."

"그 밥 한 상 와라."

"네."

하고 간단 말이야. 이 식충이가 있다가

"저는 밥을 안되미 고봉 쌀 한 말을 내가 한 끼에 다 먹는 사람이오."

그러니까 대감이 다시,

"여봐라."

하고 부르니,

"네."

하고 몸종이 와요.

"그 쌀 안되미 한 말 퍼다가 밥 한 상 해 와라."

"네."

하고, 그래 가 가지고 안대미. 고봉 한 말을 해다가 밥 한 상하고 큰 다라로 하나지, 안대미 고봉 한 말이면. 거기다 인제 또 바가지가 입에 다 들어가. 이게 숟갈 떠먹는 거와 마찬가지 주걱이 인제 숟갈이고 바가지가 그래 인제 국

한 됭이, 밥 한 다라, 그 안에 딸리는 반찬 많은 것, 이렇게 한꺼번에 청소하듯이 배고파 시장하던 찰나에 다 먹고, 그리구선 인제, 저는 대감이 생각하기에는 장사로 생각했는데, 지가 힘은 하나도 없는데 밥 만 많이 먹는 식충이 새낀데. 그러니 지가 한 번 덩치 값을 할라고 우쭐해 볼려고,

"대감, 여보시오."

"네."

"저, 호랭이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지요, 여봐라!"

하니까, 몸종이,

"이분 저 호랭이 목 좀 가르쳐 드려라."

"네, 저를 따라 오시지요."

"쟤를 따라 가십시오."

대감이 인제 따라 보냈거든, 따라 보내고 인제 얼만침 이 몸종이라는 사람이 산 비탈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헤치면서 그냥 그 높은 봉우리를, 이직 뭐 점심때니 해는 많지, 그냥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를 쓰고 따라 올라가서 그 식충이가 따라 올라가서 보니 큰 산에, 큰 영에 올라가서 보니 하도 무서워서 사람들이 안가서 솔대는 아주 왕성하고 그냥 송림이 울창한데, 딱 요렇게 잘뜨목이라. 이렇게 생겨 양쪽 봉우리가 아주 이렇게 있고 아주 잘뜨목이 있는데,

"여기가, 저게 저 대호(大虎)목입니다."

밑에서는 '우우' 몰려 오느라고 야단인데 그래 인제 고길 가르쳐 주니 고기 풀이 그렇게 왕성하니까 이렇게 섰다가 인제 옆에 이래 보니 대호목이락 질이 아주 반질 반질해 호랭이가, 몇 백년 묵은 대호가 황소만한 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인제 그리고 내려 갔어.

몸종은 그러니 앉았다가 풀섶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 가지고, 풀에 팍 파묻히지, 암만 커도 풀이 이렇게 왕성하니깐, 그 가만 들으니까 가까이 오는지 호랭이 올라오는 소리가 나는데,

"흥 흥 흥."

그러면서 소리가 나거든. 그래 나중에 곁에 와서 '웡웡' 하니까 깜짝 놀랬어. 아주, 깜짝 놀래서 식충이가 까물어 치느라고 드러누울 때 가만히 드러누워 까무러치면 좋은데, 이게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냅다,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까무러쳤단 말이야, 그래 인제 밑에 사람들은 인제 그 대감은,

"저놈의 새끼 인제 저거 뒈지느라고 저 소리 났어. 에이, 저 따위 새끼들

들어오면 귀찮아서 저거 잘 뒈졌어,"

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쯤 이 사람이 까무러쳤다가 나중에 일어나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호랭이가 넘어와서 정신을 잃고 까무러쳤었구나. 그 호랭이가 갔겠는데 어디 넘겨다보자."

가서 넘겨다보니 이게 능선이 칼등같은 좁은 능선인데 그래 거기서 인제 호랭이가 올라 오면서 어흥, 하니까 별안간 그냥 깍짓동 같은 게 어디 풀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게 별안간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니 호랭이도 또 까무러치다시피 놀래 가지고 말야, 그냥 공중으로 칼등같은 능선으로 넘겨 쳐서 내려 떨어뜨린다는 게 바로 가서 떨어지는 게 잘못 떨어져서 이 나무 새간 굵다란 나무 새간에 척 끼어 가지고 이 가는 허리가 끼어서 꼼짝을 못하고 거기 끼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으렁 으렁' 하고 나무에 끼어져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제서 아주 그냥 천지가 지 세상모양으로 천하장사 역할을 하고 지가 우쭐해 가지구서 내려 오는 거야. 대감님 집에 와서, 그전에는,

"대감님 계십니까?"

하고 주인을 찾았지만,

"여봐라, 거 아무도 없느냐?"

거 대감이 보니까 아, 저, 뒈진 줄 알았는데 소리를 꽥꽥 지르고,

"아, 네, 네. 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응, 거, 몇 백년 묵었는지 모르겠다. 아주 여러 백년 묵었드라."

그래 닥 여치니까 아주 어금이 벌어 가지고,

"그래, 죽이긴 뭐 하고, 그래 나무 새간에다 끼워 놨으니 그 포수들하고 몰잇꾼들 10여명 데리고 올라가서 그 잡아 가지고 내려오도록 해라."

아, 대감이 오히려 종노릇을 하고 아주 굴복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 대감이 다시 명을 내려.

"여봐라, 거, 포수 5명하고 몰잇군 한 10명하고 데리고 올라 가서 이 장사님이 거, 붙잡아 가지고 나무 새간에다 끼워 놓고 오셨대. 그러니 잡아 가지고 내려 오도록 해라."

"네."

하고 말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니 이건 뭐, 정말 아니, 이건 정말 천재지변으로 이건 이렇게 되었지, 원 붙잡아서 저렇게 끼워서 저렇게 놨다는 게. 그게 정말 아주 어이가 없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만약에 그랬다면 천해장사라고, 그런 장사 건드렸다간 괄세를 아주 많이 받을 것 같으니, 아주

천하장사라고 그 사람들이 판정을 내렸지.

그 포수들, 그 사람들도. 그래 내려 와 가지고 잡아 와 가지고 내려 왔어. 그러니 대감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분 천해장삽니다. 그분은 뭐 천지조화를 막 그냥, 산을 막 그냥 주름을 누릴 수가 있고 아,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장사니까 절대 여기서 우리 부락에서 괄세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니까 대감이 있다 하는 말이,

"그 가죽을 잘 벳겨 가지고 그 호피하고 고기하고 가져다 팔아서 그 팔은 돈은 얼마가 되던지 간에 가져오너라. 내가 보관하겠다. 어느 땐가는 장사님이 가실 때 여비를 보태 주는 거다. 그러니 일전도 소비하지 말고 가져 와아."

그래 가지고 전부 팔아 가지고 종들이 그 밑에는 전부 대기하자니 전부 종들이야. 대감이 이게 원 대감이고 그 밑에 사람들은 전부 종이야. 그래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어디 가서 팔아 각 돈을 갖다가 그래 500냥 정도, 그때 500냥이면 지금 5,000만원정도 되지. 그런 돈이었어.

해 가지고 인제 갖다 주니까 보관하고 있고 그러니 하루에 안되미 고봉 쌀한 말인데 한끼에 한 말씩 먹으니 하루 세끼 먹으니 스 말이니 그 열흘이면 얼마야? 세 가마지, 그게 석 달인가 먹었으니 90가마 아냐? 그러니 대감네도 식량이 딸리고 하니 대감이 이 종들한테 회의를 해 가지구선.

"이젠 어쩔 수 없다. 우째됐든 한 서 너 달 장사님이 파잡숬는데 우리 식량이 대롱대롱 한다."

우리 먹을 것도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 회의를 열어 가지고 토막돌림, 1번, 2번 해가 지구선 100번까지 번호수를 멕여 가지고 처음에는, 오늘 저녁은 우리가 먹이구서 재운다. 재우면 내일은 1번이 데려다가 조반을 메기고 조반 점심, 저녁 멕이고 재우면 그 이튿날은 2번이 데려다가 조반 멕이고 점심 저녁 멕이고 재우고 그게 '토막돌림'이라는 거야.

그래, 그래 가지구 100집을 먹으면 그것도 석 달 열흘이네, 석 달 열흘이지. 그래서 인제 그렇게 토막돌림으로다가 이렇게 장사를, 식충이를 먹이는 거야. 먹여 가지고 그래 석 달 열흘이 또 다 떨어지네, 다 떨어지니까네 결과적으로 그 대감네 집에 또 찾아오는 거지. 대감네 집에 찾아오니 자기도 염치가 없던지,

"대감 저는 가야 되겠소."

"아휴, 장사님 가실랩니까? 아휴, 왜 가세요?"

속으로는 '어서 갔으면, 이놈의 새끼야' 했지만 겉으로야 어디 내막을 할 수 있습니까?

"아휴, 더 계시지, 묵으시지요. 몇 달 동안."

"아니야, 가야 되겠다."

"그럼, 가시겠습니까?"

"아, 가야지."

"그러면 이거 몇 푼 변변치 못하나마 이 여비나 가져 가십시오."

그 호랭이 판 돈을 인제 여비를 해서 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역시 괴나리 봇짐을 짊어지고 어디 만치 가는데, 가다 보니 또 그런 부락이 또 생기거든. 그 살 때가 되어서 그런 거지.

그래 거기 가서 그런 부락이 생겼으니, 나타나니까 한 100여호 되는 부락에 들어섰는데 그 중에서 제일 꼭대기 높은, 높고 큰 집을 찾아가는 기라.

그 집이 물론 대감집이지. 그래 그 집이, 큰 집을 찾아가서,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 대답이 없거든,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 그 집의 여인이 이렇게 내다보고,

"지나가는 객인데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루 저녁 쉬어 갈라고 찾습니다."

"아휴, 네, 들어오십시오."

하며 어여쁜 여인이 반색하거든. 그래 들어 왔어.

"내가 하루 저녁 쉬어 갈라고 찾아 왔습니다."

근데 쉬어 가는 것은 좋은데 봔 즉 천하장사거든, 천하장사니 맞아들였지. 장사 아니면 맞아들이지도 않지, 그 여인은.

그래 인제 저녁을 해다 준다고 그래 그 안방으로 모셨어. 그 집은 또 여인 혼자 밖에 없고 그래 인제 안방에다 모셔 놓고 나는 밥을 먹는 게, 저녁을 해다 줄라 하니, 밥을 인제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느라고,

"난 안되미 고봉 쌀 한 말을 해야 한 끼 먹는 사람이오."

"아휴, 해다 드리지요."

그래 바깥에 나가서 그냥 쌀을 한 말 퍼다가 큰 솥에다 해야지. 한 말이면 큰 솥에다 하는 거야. 해 가지고 거기다 인제 또 국을 가마솥에 한 가마 끓여 가지고 해서 거, 뭐, 김치도 큰, 큰 그릇에다 이렇게 하나, 장도 하나씩 장도 잔뜩 잔뜩 놔 가지구선 아주 반찬만 큰 두리반이 찌그러져라 하게 이렇게 가져 오고 밥은 밥대로 가져 오고 국은 국대로 그냥 큰 동이에다 한 동이 퍼 오고 이래 갖다 주니까 앉아서 그걸 다 먹거든. 다 먹고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보아한 즉, 천해장사님 같애서 모셔 드렸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생김 생김만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게 생겼지.

"근데 우리 소원을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 소원은 인제 뭔 소원이냐고 얘기를 해 보라."

"꼭 들어 주시겠소?

"아니, 들어 주고 아니 들어 주고는 우선 얘기를 해 보시오. 들어 드릴만 하면 들어드리고 정 불가능하대면 내가 못하는 거지. 우선 소원을 얘기해 보라."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 밑에 100여호 되는 부락 사람들이 전부 우리 종놈들입니다. 그래 우리 대감님댁 식구 수저를 보세요. 수저통이 이렇게 큰데 여기 하나 가뜩 있어요. 이게 식구가 이렇게 많던 식구인데 이 종놈의 새끼들이 종노릇을 하기 싫어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하루 저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큰 아버지, 우리 아버지, 뭐 식구를 하루 저녁에 한 명씩 잡아가서 지금은 다 잡아가고 오늘 저녁에 마져 잡아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그거를 안해 준다고 할 수 없고 제 힘으로는 힘에 벅차지, 못하는 거지, 그게. 그래 제 힘으로는 벅차지마는 그러나 덩치 값을 할라고 한 번 우쭐해 볼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대감 있던 방과 그 시설이 다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언제쯤 와서 잡아가겠느냐."

"밤 열 두 시면 잡아갑니다."

"그럼 내가 피곤해서 가서 잘 테니 하여튼 촛불을 이 처매 밑으로 뺑둘러 케놓고 그리구는 대감 그 화로 쓰는 데다. 화루불을 이글이글하게 담아 놓고 대감 피시던 담배와 대감 장죽, 그것하고 갖다 놓고. 거게다가 저 테이블을 하나 놓은 것 갖다 놓고 거게다 자부동을 하나 깔아 놓고 높이 이렇게 준비를 다 해 놓고, 내가 잘 테니 12시에 오거든 11시경에 깨워라."

그 여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이 식충이는 피곤하고, 밥을 잔뜩 먹고 하니까 둔너서 자는 겝니다.

그래 어느 땐가는 깨우길래 일어나서 안내를 인제 여자가 해 주니까 대감방에 가니 대감방에서 이렇게 내다 보면 쌍바라지 문에다 거게 대청마루가 있고 그 대청 마루 앞에는, 밑에는 큰 100명이 이렇게 집합할 수 있는 연병장 모냥 큰 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는 마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거게다 그 문, 쌍바라지 문을 확 열어 놓고, 그 화릿불에다

가 장죽, 장죽이 한 발이 넘어 저게 있는 화롯불에다 담배 피우고, 그래 인제 책상위 높은 테이블에다 꼭대기가 자부동을 깔아 놓고 이게 워낙 덩치가 큰 게 참 그렇게 높으게 앉았으니까 뭐 천장에 닿을 듯하게 참 거창하게 앉아 있는데.

그러니 그 얼마쯤 있으니까 동 동 동, 소리가 나드니만,

"하, 이놈의 집안 오늘 중으로 마지막 가는 날, 집안이래 그래는지, 야 좋긴 좋다. 화려하다."

그래 인제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나거든, 그래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게.

"이놈의 새끼들아, 천하 고약한 놈의 새끼들!"

여인이 인제 반응을 하느라고 그랬겠지.

"이놈의 새끼들, 우리 오라버니가 오셨는데, 오라버니한테 물어 보구선 잡아 가던 지 해라. 이놈의 새끼들!"

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응, 느이 오라버니가 오셨어?"

"그 느 오라버니 어디 계시냐, 느이 오라버니 잡아가고, 내일 저녁에 너 잡아 가마. 그게 잘 됐다."

그래 와서 마당에 와서,

"어디 계시냐?"

"저 대감방에 계시다."

그래 마당에 와서 대청마루에서 방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깐 아니 뭐가 산더미 같은 게 앉았는데. 저게 사람인가, 참 그럴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거든.

그래 눈깔이 이래 햇트라이트 모냥 껌벅껌벅하는 게, 담배 장죽도 기단 것 갖고 벅벅피우고 그러니 100명이 다 덤벼서 확 덤빈대도 저걸 당할, 당하지 못하겠고,

"저걸 어떻게 때려 잡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한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가,

"아하, 저걸 잡는 수가 있다. 저걸 잡을려면 몇 백년 묵은 산호랭이 한웅큼으로 움켜줘서 잡은 천애장사님이 계시대, 그래니깐 아무 소리 말고 우리 집에 말이 있어, 말이 있으니까, 또 어디 또 말이 있고, 그게 천리말이다 그거야. 그 천리를 하루 간다 그거지, 하루 가는데. 빨리 치면은 순식간에 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탁 가서 하나는 거기 가서 그 장사님을 모셔 오는데 그 말을 태워 가지고 이렇게 말 하나 끌고 가서 그 장사님을 모셔 오도록 해라."

"그래, 하겠다."

인제 그게 결이 나서 밤에, 밤에 그냥 신속하게 가서 그 말을 타고서 하나

비상용으로 끌고서 그 부락을 들이 달려 들어가니 그 뭐 자기가 순식간에 들어가지, 천리말인데, 그래 뭐 예를 들어 40분만에, 불과 한시간만에 들어가든가 그랬지.

거기 들어가 보니, 벌써 열 두 시가 넘어서 조용한데 그 부락에. 그러나 어느 어느 집의 어느 사랑방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나서 가서 거게가 내려가지고 내려서 말을 인제 매 놓고 들어가서,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고 찾으니 그 놀러 온 사람들이 인제 거게 많이 있으니,

"다름이 아니고 여기 저 산호랭이 잡은 천애장사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하니까 그 부락에서 까부는 사람이 있었던지 간에,

"여보시오, 밤에 그 천애장사님은 왜 찾으시오?"

"아, 글세 돈은 얼마든지. 달래는 대로 드릴 테니까, 뭐든지 달래는 대로 드릴 테니까 어디 기시면 좀 아르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까부는 사람이 있던지 뚱뚱한 사람이,

"나요, 나."

하고 나서거든, 그래 나타나니,

"장사님 그럼 이 말을 좀 타시지요. 우리 부락에 무슨 일이 있어 그랬는데, 뭐든지 돈이든지 뭐든지, 달래는 대로 서슴치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인제 그 사람이 말을 탔어. 돈 욕심이 나서 말을 탔어. 말을 탁 도로 여기들이 달려 그 마당에서 대청마루가 그 방을 들이다 보면,

"저기 저 놈이라."

고 하니까, 떡 보니,

"아, 우리부락에서 산 호랭이 잡은 천애장사님이시다."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쳐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100명은 100명의 종이 더군다나 그냥 아주 기절하다, 기절초풍할 정도로 그렇게 떨게 되는 거지.

그래니 그제서부텀. 이놈이 인제 그 소리 이 소리 다 듣고 앉았거든. 그래서 인제 소리를 치는 거야.

"이 천애 고약한 놈들 내가 삼천리 밖에서 느, 행동을 나쁘게 한 대서 느 버릇 좀 고치려고 내가 왔구나, 내가 왔는데 느 이놈의 새끼는, 느 내가 아주 손 하나 까딱 안하고 느 씨를 멸종시킬 수 있어. 고얀 놈들."

하고 소릴 지르니,

"아휴,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그 100여명은 그 마당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그냥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제발 살려 달라."

그냥 전부 앉아서 엎드려서 빌고 비는데,

"내, 느가 그렇게 성의껏 빈다 하면 인정상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 너 요번 한 번은 내 용서를 해 주겠다. 그런데 용서에 약속이 있다. 약속은 여게서 부텀 몇 백리 안에는 침범을 하면 느는 침범하는 가족은 일절 멸살시키겠다. 그러니 그걸 느 명심해서 알고 내 용서를 해 줄 테니까 느이들 돌아가거라."

아주 뭐 죽은 듯이 사라지고 말았어. 그래서 깨끗하게 인제 그 일을 해결봤어.

그리구선 날이 인제 밝아서 인제 또 인제 밥을 해 여인이 밥을 해 줘서 먹고, 그래니 대우가 참 특대우자. 특대우야. 특대우를 받게끔 되었어. 또 이 식충이가. 그러니까 대우를 받고, 있다가 보니 지가 사흘만에 전 가기 싫지마는 어디 한번 그래 볼라고.

"아이, 가겠다."

고 하니까, 아, 여자가. 안 보내 줘, 보내면 인제 죽을 판인데. 그래 안 보내고 있으니 자꾸 대우하니 결과적으로 그 여자는 그 남자하고 같이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것은 매듭을 마치고….

〈유만석, 남 · 50, 설악동, 1981. 4. 18〉

양언석(강원도립대학 교양국어 교수)

감수위원 : 최용문(전, 속초문화원장)

제4장 속초의 지명

제1절 지명의 유래

1. 속초(束草) 땅이름 어원의 유래

지금까지 연구된 속초(束草) 땅이름 유래는 4가지이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는 속새풀 <속새목, 속새과의 상록 양치식물이다.> 이 많으므로 황무지, 원야(原野)의 의미로 속새,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속초(束草)라고 불리었는데 이 두 땅이름이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라는 땅이름만 남게 되었다.

둘째, 영금정과 관련된 전설로 지금의 영금정(靈琴亭)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셋째, 풍수지리학상 속초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기 때문에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었다.

넷째, 울산바위에 관한 전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설악산(雪嶽山)을 구경하러 왔던 울산 고을의 원님이 신흥사(神興寺) 승려에게 울산 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금을 받아 갔는데, 어느 해에 신흥사의 동자승이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울산 고을의 원님이 이 바위를 재로 꼰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동자승이 청초호(靑草湖)와 영랑호(永郞湖) 사이 곧 지금의 속초(束草) 시가지에 자라고 있는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 바위를 동여 맨 후 불에 태워 재로 꼰 새끼처럼 만들었다. 그러자 울산 고을 원님은 더 이상 지세를 내란 말도 바위를 가져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자로 '묶을 속(束) · 풀 초(草)'로 적어 지금의 속초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와 전설 중에서 지금까지의 정설은 첫 번째 것이다. 참고적으로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67)을 보면 "속초를 일명 속새, 속진(束津)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며, 1912년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지자료』에도 속진(속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연혁(沿革)

속초라는 명칭에 대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단종 2년(1454)에 편찬된『세종실록지리지』에 "속초포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라는 기록이다.

또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속초는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한 동리였다. 지금의 속초지역은 양양도호부 소천면과 도문면의 2개의 면지역으로 소천면에 4개리(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 도문면에 6개리(상도문, 하도문, 물치, 대포, 옹진리, 신흥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제하인 1914년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속초, 부월, 논산, 노리, 대포, 외옹치, 내물치,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장항리)로 이루었으며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1937년에는 면사무소를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이전하여 속초면이 되었다. 1942년에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었고 속초리를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누었으며 노리에서 도리원, 이목, 척산리를 분리하여 14개리가 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공산 치하에 있다가 한국 전쟁으로 2차례의 탈환을 거듭하면서 1951년 8월 18일 부터 수복지구로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읍으로 되었다.

195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고 1963년 속초시(束草市)로 승격되어 16개 법정리에 11개 연합리 사무소를 두었다.

1966년 12개동으로 개편되었으며 1973년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편입, 장사동으로 개칭 13개동이 되었다. 1983년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설악동으로 편입되어 법정동 14개동, 행정동 13개동으로 확정되었다가 1990년 사진동과 장천동이 장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13개동이 되었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 영랑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교동 일부와 노학동이 노학동으로, 대포동 · 도문동 · 설악동이 대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은 13개동, 행정동은 8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2절 행정동 지명

1. 영랑동

가. 영랑동(永郎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속초리(束草里) 1구를 영랑호(永郎湖)에 인접하였다고 하여 영랑동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 영랑동으로 통합되었다.

삽짜개 영랑동(永郎洞) 바닷가 마을. 남쪽으로 성황봉(城隍峰) 산등성이를 경계로 동명동(東明洞) 마짜개 마을과 인접해 있다. 바다 사람들의 말로 새쪽은 동쪽, 마쪽은 남쪽을 뜻하는데, 이 고장 방언으로 새쪽을 새짝, 마쪽을 마짝이라고도 하고, 새짝 마을, 마짝 마을의 의미로 삽짜개, 마짜개로 불린다.

영랑호(永郎湖) 속초시 북쪽에 위치한 큰 석호(潟湖)로 모래가 퇴적하여 발달한 것이다.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장사동으로 둘러싸여 있다. 영랑교 밑의 수로를 통해 동해와 연결된다. 호수로 들어오는 물은 장천천이 유일한데 농경지를 지나 흐르면서 호수로 유입된다. 영랑호라는 이름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신라의 화랑인 영랑(永郎)이 이 호수에서 풍류를 즐긴 까닭으로 영랑호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영랑교(永郎橋) 영랑호(永郎湖)의 바다쪽 출구에 놓여 영랑동과 장사동을 연결하는 다리.

영랑시장(永郎市場) 영랑동에 위치한 시장. 현재는 조그마한 시장이나, 속초(束草)의 중심지가 영랑동, 동명동이었을 때는 여기가 제일 크고 먼저 생겼으므로 제일시장이라고도 했었다. 또 속초가 시(市)로 승격되어 동(洞)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영랑동이 속초리 1구였으므로 1구 시장이라고도 했다.

개안골 지금 속초문화원(束草文化院)이 세워진 지점에서 동진리조텔 건물이 선 앞쪽 일대로 주택들이 들어선 둥근 원형의 옛 논밭 자리였던 곳. 개안골은 현 속초지방법원 쪽에서 뻗어 내린 산맥이 서북쪽을 둘러 안고 서쪽으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보광사 뒷산이 감싸고 있어 분지모양을 띤 논밭 자리였다.

개안논 개안골 안에 있던 논. 지대가 영랑 호수보다 낮아 가뭄이 심할 때는 영랑 호수를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고, 반대로 장마가 져서 개안 논물이 호수

보다 높으면 호수 쪽으로 빼내곤 하였다.

포교당자리 일제 시대 때 설악심상소학교(일본인 자녀들 학교)가 있었던 자리.

나. 장사동(章沙洞)

장사동은 과거에 고성군(高城郡) 지역이었다. 조선 시대 말까지는 간성군(杆城郡) 토성면에 속하였다. 일제 시대에 들어와 간성군(杆城郡)이 고성군(高城郡)과 양양군(襄陽郡)에 분속되면서 양양군으로 편입되기도 하였지만 영랑호까지 간성군 영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속초의 발전에 따라 생활 편의상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土城面)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가 속초시로 편입되었고, 두 동리가 합쳐져서 두 동리의 첫 글자를 따서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 영랑동으로 통합되었다.

1) 사진리(沙津里)

장사동의 중심 지역이다. 원래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沙津里)로 되어있던 것이, 1973년 속초시로 편입되면서 장천리(章川里)와 합쳐져서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 후기 읍지에는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 일제 시대부터 줄어서 사진리라고 불리었다. 속칭으로는 지금도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한다.

사진리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고 영랑호도 호수가 아니라 바다였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는 호수로 변하게 되고, 사진리에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모래기라고 불리었고 이것을 한자로 사야지(沙也只)라고 표기한 것이다.

강장군산(姜將軍山) 속초고등학교 뒷편(북쪽) 산. 강장군(姜將軍)이란 장사가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강장군이라는 힘이 무척 센 장사가 용촌리(龍村里) 번개(예전에는 호수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했음)에서 태어났고, 용촌리(龍村里) 용지호(龍池湖, 순개 또는 방축개라고도 한다)에서는 강장군(姜將軍)이 탄 용마(龍馬)가 나왔다고 한다.

고바우 영랑호 동북쪽 가에 있는 바위. 코처럼 생겼다고 하여(고는 코의 古語) 고바우라고 하며, 그 부근 갯가를 고바우에 연유하여 고밧개라고 한다.

다른 말로 신선이 놀던 바위라고 하여 신선바위, 또는 바위 형상이 윤선(輪船)같다고 하여 윤선바위, 두꺼비 같다고 하여 두꺼비바위라고도 한다.

고밧개(고바웃개) 영랑호 동북쪽 고바우 부근의 갯가. 고바위가 있는 갯가라는 뜻으로 고바웃개라고 하던 것이 고밧개로 변하였다.

고추골 마을 서쪽, 영랑호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노적(露積)바위 영랑호 동북쪽 마을 안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노적(露積)가리를 쌓은 것 같았으나, 지금은 깨어 부서져 없어지고 바닥만 남아 있다.

버리개 된고개 밑(동남쪽) 갯가. 벌판에 위치한 갯가라는 뜻의 벌개가 변해서 버리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빨주박(박쥐바위) 영랑호 북쪽 가에 있는 바위. 바위에 박쥐가 서식하므로 박쥐바위라고 하던 것이 빨주박으로 변했다.

뽁쟁이 영랑호 북쪽 엄달개 서편 골짜기.

서낭골 속초고등학교 뒷 골짜기.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서낭산 흰고개 동편, 해경 충혼탑(海警忠魂塔)이 위치한 산.
산의 남쪽에 서낭당이 위치하고 있다.

엄달개 현재 속초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계곡으로 응달진 곳이다.

해경 충혼탑(海警忠魂塔) 우리나라 해안을 지키다 순국한 해양경찰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탑. 흰고개 동편 서낭산에 위치하고 있다.

형제바위(兄弟岩) 마을 앞 바닷가에 위치한 두 개의 바위. 두 개의 바위가 형제처럼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황새골 영랑호 북쪽,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전에 황새가 많았다.

흰고개 마을 북쪽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 연결되는 큰 고개. 백토가 산출되므로 흰고개라고 하였다.

2) 장천리(章川里, 노루내)

장천리(章川里)는 본래 '노루 장(獐)'자 장천리(獐川里)였던 것이, 일제시대부터 '글 장(章)'자 장천리(章川里)로 바뀌었다. 장천(章川)의 '노루 장(獐)'은 마을 서쪽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을 앞 냇가가 노루목고개에서 시작되어 흐르므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장천(獐川)이라고 한 것이다. 후에 장천(章川)으로 변하였다.

국사봉(國師峰 국수봉, 국시봉, 된봉)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의 경계에 위치한 산봉우리

노루목 고개 장천리(章川里)에서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고개. 전국적으로 무수히 분포하는 다른 노루목 고개와 마찬가지로 고개가 길게 늘어졌으므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갯버덩 마을 동쪽 영랑호에 인접한 버덩.

건넝골 마을 동남쪽 골짜기.

고추골 마을 북동쪽 국사봉 바로 서편 골짜기.

골논골 마을 북동쪽 큰바위골과 방축골 사이의 골짜기.

던바우 마을 동쪽 던바우골에 있는 바위.

던바우골 마을 동쪽 샘치골 다음(동쪽)에 있는 골짜기.

독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독바우 독골에 있는 바위.

됫골 마물 뒷(북)쪽에 있는 골짜기.

망태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는 마을 진입로가 망태골로 뚫려 있었다.

물안골 마을 서쪽 큰령골에서 오른편(북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물레방아가 있어서 물방아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우배기 큰령골에서 왼편(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현재 한화리조트 바로 뒤편으로 큰 바위가 산등성이에 박혀 있다.

방축(防築)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 예전에 방축(防築)이 있었다고 한다.

불매앞 치시골 입구를 가리키는 말. 예전에 이곳에 대장간이 있어서 풀매(풀무의 사투리)를 사용하여 불을 일으켜 쇠를 녹였으므로, 풀매를 사용하는 대장간 앞이라는 의미로 풀매앞이라고 하던 것이 불매앞으로 변화되었다.

샘치골 마을 남동쪽 건넝골과 던바우골 사이의 골짜기.

서낭봉 마을 앞 큰령골 입구와 독골 입구 사이의 산봉우리. 서낭당이 있다.

싱싱골 마을 서쪽 큰령골에서 오른쪽(북쪽)으로 갈라지는 골짜기. 물안골 서쪽이다.

안산 마을 앞산. 예전에는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다.

여바우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여우 바우골이 줄어들어서 여바우골이 되었다.

여우바우 여바우골에 있는 바위. 바위에 굴이 있는데 예전에 여우가 굴에서 살았다고 한다.

장재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치시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령골 마을 서쪽으로 뚫린 큰 골짜기. 큰령, 즉 미시령(彌矢嶺) 쪽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큰 바위 큰바위골에 있는 바위.
큰 바위골 마을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타앞 마을 남쪽 불매앞과 망태골 사이를 가리키는 말.

2. 동명동(東明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2구를 동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온다는 의미로 동명동(東明洞)이라고 하였다.

관음암(觀音岩) 속초의료원 뒷쪽(남서쪽) 산봉우리에 동쪽을 향해 서있는 큰 바위. 바위에 '관음(觀音)'이란 큰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예로부터 이곳에 관음보살(觀音菩薩)이 출현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런 연유로 1952년 군정이 실시되고 있을 때 글자를 새겼다.

보광사(普光寺) 영랑호 동남쪽 골짜기에 위치한 절. 1937년에 정화담(鄭華潭) 스님이 세웠다. 절 이름을 보광사라고 한 것은 부처의 제자 53불(佛) 중 수제자인 보광불존(普光佛尊)을 이 절에 모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 중수하였으며, 절 입구 암벽에 '정화담(鄭華潭) 대법사(大法師) 보광사 창건(普光寺創建)'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선대(秘仙臺) 지금의 영금정(靈琴亭)이다. 속초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솔산이라는 석산이 있었다. 지금은 방파제 쪽에 일부만 남고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곳 일대를 통칭하여 비선대라고 불렀다. 비선대라고 불리게 된 것은 솔산 위에 비선대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 시대 말기 속초항 개발 때, 이 곳에서 돌을 채취하여 축항을 쌓아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다.

속진(束津) 수복탑 에서부터 지금의 영금정 솔산 일대로 이어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항구가 만들어졌고 이와 함께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 곳을 이르는 말이다.

솔산 속초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삼 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닿은 석산이 있었다.

영금정(靈琴亭) 속초 등대 아래를 말한다. 영금정에 관련된 전설에 의하면 영금정은 누대나 정자가 있어서 영금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석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이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읊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오리바위 영금정 앞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 오리가 자주 와서 앉는다고 한다.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 일명 수복탑(收復塔)이다. 이 탑은 1954년 3월 당시 읍장이었던 김근식(金根植), 피난민 연락소장 박상선(朴相善), 후방반공 계몽인 박성주(朴成柱) 등이 피난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수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1군단의 도움으로 1954년 5월 10일 건립하였다. 그러나 1983년 4월 27일 새벽 강풍으로 탑 위의 모자상(母子像)이 부서져 버렸다. 그러자 수복탑(收復塔)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하여 1983년 수복기념탑 복원 건립위원회(收復紀念塔 復元 建立委員會)가 발족하여 시민 성금 4천여 만원과 시비 1천여 만원으로 원래 이 모자상(母子像)을 조각했던 박칠성(朴七星)에게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과 모자상(母子像) 등 전체를 복원하게 하여 그 해(1983) 11월 17일 제막식을 가졌다.

복원된 이 탑은 좌대폭 4m, 탑신 높이 7m, 모자동상 높이 2.55m, 총탑 높이 9.55m로 원형보다 2m가량 높다.

통천군민 순국동지 충혼탑(通川郡民殉國同志忠魂塔)은 영랑호 동남쪽 가에 있다. 이 탑은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공산군과 싸운 반공전사자 및 한국전쟁 전몰용사 중 통천군(通川郡) 출신 114명의 불멸의 충혼을 탑에 새겨 반공을 다짐하고 통일을 맹세하고자 전국 통천군민(通川郡民)의 희사금으로 1960년 10월 15일 건립하였다.

낚시바위 통천군민 충혼탑 바로 뒤(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 태공들이 많이 몰려들어 낚시를 했으므로 낚시바위란 이름이 붙여졌으나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마짜개 마짝, 마쪽이라고도 함. 등대가 있는 성황봉(城隍峰) 산등성이 남쪽 마을.

불당골 보광사 옆(동쪽)골짜기. 현재는 활터가 들어서 있으나, 예전에는 절이 있었다. 한자로 불당곡(佛堂谷)이라고도 한다.

성황봉(城隍峰) 현재 등대가 있는 산봉우리. 지금은 약간 서쪽으로 옮겨졌으나 예전에는 등대 자리에 성황당(城隍堂)이 있었고, 그것에 연유하여 성황봉(城隍峰)이라고 부른다.

아랫말 수복탑 쪽이 윗말인데 대해 등대 쪽 마을을 아랫말이라고 불렀다.

우렁골(우용골)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골짜기의 옛 이름.

웃말 등대 쪽이 아랫말인데 대해 수복탑 쪽 마을을 일컫던 말.

응고개 우렁골에서 용숫골로 가는 고개의 옛 이름.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공설운동장, 중앙 시장 입구로 가는 고개.

장골(장안골) 법원 · 검찰청과 감리교회, 천주교회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 이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둘레에 성터 흔적이 있었다. 일제 시대에 발행된『조선 보물 · 고적 조사 자료』에 수록된 '속초리 성지(束草里城地)'는 바로 이곳을 말한다. 일명 장안골이라고 했다.

중간말 아랫말과 윗말의 중간에 위치했던 마을의 옛 이름.

촌말 우렁골과 용숫골 사이의 마을을 부르던 옛 이름. 옛 경찰서 뒤편 마을이다.

3. 금호동

가. 금호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4구를 금호동(琴湖洞)이라고 명명하였다. 금호동은 신라 화랑인 영랑(永郞)이 선유하였다는 영랑호(永郞湖)와 청초호(靑草湖)의 두 호수와 연하고 있다. 또한 옛날부터 시인들이 이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시문을 남긴 것처럼 호수의 주변이 아름다워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가 들릴 듯하다 하여 이런 낭만적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옛날 고려말엽 동문수학했다는 안축(安軸)과 이곡(李穀) 두 시인이 이 호수에서 선유하면서 음자를 놓고 서로 시를 읊은 것을 보면 가히 금호동의 동명이 돋보인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호동명(琴湖洞名)은 거문고 소리와 호수의 아름다운 정경이 서로 어울리는 깊은 뜻이 담긴 땅이름이라 할 것이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중앙동과 금호동이 합쳐 금호동으로 통합되었다.

금장대(金將臺) 영랑호 남쪽 범바위 바로 옆(동쪽)에 있다. 6 · 25 때 이 지방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11사단장 김병휘(金炳徽)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풍우에 퇴락되어 정자는 간 곳 없고, 시멘트로 축조한 6각으로 된 기단부만 남아 있던 것을 2005년도 복원계획에 의해 새로운 정자가 들어섰고, 시민공모에 의해 '영랑정(永郞亭)'이란 명칭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범바위 영랑호 남서쪽 가에 있는 큰 바위. 그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바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민간 신앙 쪽에서는 성스러운 바위로 여기고 있

어 무속인들의 발길이 잦다.

40계단 금호동 철둑길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가다가 언덕 위로 오르기 위해 만들어진 계단인데 수가 40개이다.

연풍사(蓮豊寺) 미시령(彌矢嶺) 도로가에 있는 신흥사에 딸린 조그만 절.

응고개 지금의 속초시 우회도로라고 불리는 교동에서 영랑동 영랑교까지의 통로. 속초여자중학교 앞길에서 교동 쪽으로 속초초등학교 뒷길까지 내리막으로 쭉 뻗은 언덕길은 옛적에는 소나무가 울창했던 곳으로 속초에서 노학동(갈골, 배나무골, 노리)을 통하던 유일한 도로였다. 이 길은 우차가 다닐 수 있었던 큰 언덕진 고갯길이었다. 교동 천주교회 앞 만천동 입구에는 큰 소나무 밭이었는데, 이곳에서 중앙동 공설운동장 옆 옛 짱터까지 40도 각도의 긴 산길이 바로 응고개길이다. 응고개란 명칭은 농촌 사람들이 땔감나무 지게를 지고 이 고개를 힘겹게 넘으면 지개 멜빵 양쪽 어깨가 응어리진다고 하여 응고개라 불러왔다.

나. 중앙동(中央洞)

수복 이후 매년 인구 증가 추세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7번 국도변은 금융업, 청초호 연안은 어항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1963년 속초시 승격 후 속초리(束草里) 3구로,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까닭으로 중앙동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금호동과 통합되어 금호동이 되었다.

중앙시장 속초에서 제일 큰 시장. 속초리 3구에 위치했으므로 3구 시장이라고 부르던 것이, 동(洞)제 실시 때 3구가 중앙동으로 이름 지어져 이에 따라 중앙시장으로 불린다.

야채시장 중앙시장 위(서쪽)에 야채를 취급하던 시장이었는데 그 후 중앙시장이 넓어져서 지금은 중앙시장에 포함되어 버렸다. 그러나 야채시장이란 말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용숫골(용소골) 현재 중앙시장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의 옛 이름. 지금은 매립되어 없어졌지만, 골 입구에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소(沼)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용소골이라 부르던 것이 용숫골로 변화되었다.

짱터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중앙시장, 시외버스 정류장, 미시령 도로로 갈라지는 교차로의 옛 이름. 예전에 이곳에서 짱치기 놀이를 했으므로 짱터라고 불렀다.

4. 청호동(靑湖洞)

본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이었으나, 수복 이후 피난민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리 5구가 되었다. 1966년 12개동으로 개편될 때 청호동(靑湖洞)으로 바뀌었다. 한국전쟁 때 청호동에는 정어리공장이 두세 군데가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이후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움막 형태의 집들이 들어서 신포마을, 앵고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홍원마을, 단천마을, 영흥마을, 이원마을 등의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청호(靑湖)라는 이름은 청초호(靑草湖)에서 온 것이다. 청호동에는 함경도(咸鏡道)에서 내려 온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함경도(咸鏡道)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 마을'이라고도 한다.

〈 사진 7-4-1 〉 해방전 갯배나루 전경

갯배나루 중앙동과 청호동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 곳. 이전에는 5구 도선장이라고도 했다.

조도(鳥島, 새섬) 청호동 앞 바다에 있는 섬. 우리말로는 새섬이고, 한자(漢字)로는 조도이다. 강원도지사 이용(李龍)이 이 섬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 '용(龍)'자와 '풀 초(草)'자를 따서 용초정(龍草亭)이라고 이름 붙인 일로 인하여 용초도(龍草島)란 이름도 있다. 현재 정자는 헐리고 조그만 등대만 서 있다.

주교(舟橋, 배다리) 반부득 옆에 있는 마을. 오늘날의 청호동이다. 동쪽은 동해 바다요 서쪽은 청초 호수, 그 복판으로 다리 모양 육지가 뻗어서 도선장(갯배)에 이어졌기에 부두와 같다하여 청호동을 배가 닿은 부두, 반부득 또는 배다리라고 했다. 한자로 주교(舟橋)라고도 한다. 해방 전까지 배로 건너다니던 사진이 있다.

5. 교동(校洞)

가. 교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6구가 청학동(靑鶴洞)과 교동(校洞)으로 분리되었다. 보통 향교(鄕校)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이라고 하나 속초는 옛 고을 중심지가 아니어서 향교가 없었다. 따라서 향교와는 관련이 없고 속초중학교(束草中學校)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교동으로 명명했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통합되었다.

만천동(萬千洞, 萬泉洞) 교동 천주교회 부근을 일컫던 옛 땅이름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땅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萬千戶)가 된다는 뜻으로 지었다는 설명과, 또는 만석꾼이 살았다거나 만천(萬泉)이란 아주 좋은 샘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명이 있다.

청초교(靑草橋) 청초천(靑草川)하류에 놓여 교동과 조양동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두 개의 다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쌍다리라고도 부른다.

청초호(靑草湖) 속초시 중앙에 위치한 석호로 논뫼호,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라고도 한다. 이 호수는 선박들이 외해(外海)의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조선 시대에는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두고 병선을 정박시킨 일도 있다. 일제 시대 말기에 청초호를 큰 항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좁은 입구를 파내고 옆에 축대를 쌓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다.

샘치골 현 속초중학교자리에서 속초교육청 건물 뒤로 미시령으로 뚫린 국도가 있다. 그곳 언덕길을 오르면 고개 언덕 바른편에 국민은행연수원이 나오고 그 북쪽 산골짝을 샘치골이라고 하는데, 논농사를 경작할 때 천수답들이라 맨 위쪽 논이 샘물로 논물을 받고 난 다음 차례로 논물을 대고 그런 순서로 샘물을 나누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심할 때는 논물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언쟁이 발생하여 밤을 새우며 논물을 가두던 골짜기였다. 샘물을 꼭대기부터 차례로 대던 곳이라서 샘치골이라 불렀다.

나. 청학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6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을 청학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청학동이란 이름은 청초호가 너무 맑아 지나가던 학들이 갈대밭에서 쉬고 갔다하여 붙여진 동명이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통합되었다.

청학시장(육구시장) 속초리 6구에 위치한 시장이므로 6구시장이라고 하다가, 6구가 청학동으로 바뀜에 따라 청학시장(靑鶴市場)이라고 불린다.

6. 노학동(蘆鶴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 신흥리(新興里)를 합쳐서 노학동(蘆鶴洞)이라고 명명하였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蘆里)의 '노(蘆)'자와 척산리(尺山里) 학사평(鶴沙坪)의 '학(鶴)'자를 딴 것이다.

조선 후기 읍지(邑誌)에는 현재의 노학동(蘆鶴洞) 지역에는 행정상 동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행정상 논산리(論山里)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사람들의 거주가 늘어 일제 시대부터 행정상 노리(蘆里)가 신설되었다. 습지대의 개발로 인구가 늘어 1942년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될 때, 노리(蘆里)가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의 4동리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1962년 타도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뒷버덩으로 집단 이주해 와서 신흥리(新興里)가 신설되었으나, 1963년 속초시(束草市)로 승격되고 1966년 동(洞)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래의 노리(蘆里) 지역이 모두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으로 명명되었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노학동과 교동 일부가 노학동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 노리(蘆里)

노학동의 중심 마을이며, 갈골,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라고도 했다. 현재 논으로 조성되어 있는 앞버덩 일대가 이전에는 습지대여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 노리(蘆里)라고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뒷버덩 노리, 척산리, 신흥리에 결쳐 있는 넓은 버덩. 신흥리는 뒷버덩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노학동의 중심 마을이었던 노리에서 볼 때, 마을 뒤(북서쪽)에 위치한 버덩이므로 뒷버덩이라 했다. 한자로 표기하여 후평(後

坪)이라고도 한다.

앞버덩 노리, 도리원리 마을 앞(남쪽)에 있는 넓은 들. 모두 논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습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넓이 390여 정보, 한 해에 3,600석이 생산된다고 한다.

청초천(靑草川, 노동천, 갈골내) 설악산(雪嶽山) 달마봉(達磨峰)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흘러 여러 골짜기 물을 척산(尺山)에서 합류하고 노학동을 거쳐 청초호로 유입되는 하천을 말한다. 예전에는 갈골내라고 하였고, 이를 한자로 노동천(蘆洞川)이라고 하였다.

나. 응골

노리에서 청초천 건너편 산기슭 마을이며, 전통적으로 노리(蘆里)에 속했다. 응골을 한자로 표기하여 응곡(應谷), 응동(應洞)이라고도 한다. 마을이 청대산(靑垈山), 두루봉 등 앞(남쪽)산에 가려서 응달 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고 하였다.

맷돌바위 맷돌바위골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맷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

맷돌바위골 마을 뒤(남쪽)에 있는 골짜기. 맷돌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부엉이 바위 부엉이 바위골에 있는 바위. 바위 틈새에 부엉이 집이 있다.

부엉이 바위골 마을 뒤(남쪽), 맷돌바위골 서편에 있는 골짜기. 부엉이 바위가 있으므로 이름이 유래되었다.

사당골 제사를 지내던 사당(祀堂)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 도리원리(桃李源里)

노학동(蘆鶴洞) 지역 동북쪽 언덕 지대에 위치한 마을. 한자로는 도리원(桃李源)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고 부른다. 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도리원(桃李源)이라고 하였다 한다. 실제로 마을에는 과거에 복숭아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복숭아 도(桃)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오얏 리(李)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의 설명은 도리원(桃李源)이라는 한자 표기에 의거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설명인 것 같다. 그것보다는 도리원(桃李源)이 인구가 적어 노리(蘆里)에 속할 때, 노리(蘆里)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안둔덕, 뒤안덕, 뒤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턱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로 유래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도리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가운데 쇠골 마을 북쪽 골짜기.
됫꼬댕이 마을 뒤(북쪽) 높은 지대.
사지난골 마을 뒤(북서쪽) 골짜기.
아래 쇠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여우바위 사지난골에 있는 바위. 바위 틈새 굴에 여우가 살았다고 한다.
윗 쇠골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라. 이목리(梨木里)

노리 북쪽 골짜기 마을. 돌배나무골이란 골짜기가 지금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이목동(梨木洞), 이동(梨洞), 이목리(梨木里)라고 표기한 것이다.

도장생이 마을 제일 끝(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돌배나무골 마을 입구에서 왼편(서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동우(東宇)대학 뒷편에 해당된다. 이전에는 돌배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무박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
밭버덩 마을 입구 왼쪽의 버덩. 바깥버덩이 줄어서 밭버덩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샘골천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내. 1972년 제방 축조 공사 때, 당시 강원도지사(江原道知事) 박경원이 샘에서 나오는 물이므로 깨끗하다고 하여 샘골천이라고 명명하였다.
서낭골 마을 북쪽 골짜기.
서낭봉 서낭골에 있는 봉우리. 서낭당이 있다.
아랫 골짝 마을 아래(남쪽)에 있는 골짜기.
장자골(장재골) 마을 북쪽 골짜기. 토지가 비옥하여 벼농사가 잘 되므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장자골이란 이름이 붙었다. 일명 장재골이라고도 부른다.
큰말사니 마을 뒤(북쪽) 큰 골짜기.
화전(花煎)바위 큰말사니에 있었던 바위. 근래에 마을 앞 샘골천 제방 축조 공사 때 화전바위를 깨어서 제방 석축에 썼으므로 지금은 바닥만 남아 있다. 원래 바위가 넓고 평평해서 예전에 이 바위에서 화전(花煎) 놀이를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마. 척산리(尺山里)

마을 뒷(남쪽)산이 마치 곡척(曲尺)이라는 둥근 자와 같이 생겼으므로 그 산을 척산(尺山)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나 정확하지 않다.

가마소(沼) 마을 서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입구에 있는 소(沼). 소의 모양이 가마솥처럼 생겼다하여 현지 발음으로 가매소라고 불리었다.

가마소 개울 마을 서쪽 학사평(鶴沙坪)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마을 입구에서 목우(牧牛)재 개울과 합쳐 청초천(靑草川)을 형성한다.

노적(露積)바위 암지동 입구에 있는 바위. 모양이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것 같다.

딴봉 척산리(尺山里) 마을 중의 하나로 남동쪽 마을이다.

마치장(馬馳場) 마을 동쪽 산기슭 벌판. 이전에 말을 기르던 곳으로 추정된다.

만호첨사유허(萬戶僉使遺墟) 딴봉 마을에 있는 터. 예전에 수군만호첨사(水軍萬戶僉使)가 거느린 부대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망태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명가산 주봉산(朱鳳山)과 목우(牧牛)재 사이에 있는 산. 개인의 것이 아니고, 면(面)의 가산(家産), 즉 면의 재산이라는 뜻의 면가산(面家産)이 변해서 명가산이 되었다고 한다.

명당골 마을 서쪽 가매소 개울 상류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상 명당자리가 있다고 한다.

목우재 설악동과 척산리를 연결하는 고개.

목우재 개울 마을 남쪽 목우재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마을 입구에서 가매소 개울과 합쳐져 청초천을 형성한다.

물안골 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주봉산(朱鳳山)으로 이어진다.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에너레 암지동 끝 달마봉(達磨峰) 북쪽 기슭에 있는 큰 암반. 너레는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하며, 범이 미끄러졌다고 하여 범에너레라 부른다.

병풍(屛風)바위 마을 서쪽 망태골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병풍을 쳐 놓은 것 같다고 한다.

사당골 마을 동쪽 응골 마을과의 경계에 위치한 골짜기.

서산태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서쪽에 있는 산사태가 난 골짜기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암지동(암지골) 마을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옛날에 암자가 있었으므로 암자골이라고 하던 것이 암지골, 암지동으로 변하였다.

양짓말 척산(尺山)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가매소(가마소) 개울 남쪽 마을.

응달말 척산(尺山)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양짓말 건너편에 있는 마을.

작은 너레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큰 너레골에서 왼편(북쪽)으로 갈라진다. 너레는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한다.

작은 늑동골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큰 늑동골 바로 남쪽이며, 현재 종합경기장이 자리 잡았다.

주봉산(朱鳳山, 朱峰山, 주왕재) 마을 서북쪽 척산리(尺山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 해발 338m

증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척산교(尺山橋) 청초천 상류 척산 마을 입구에 놓인 다리.

척산리(尺山里) 본래 노리(蘆里)의 지역으로서 척산(尺山) 밑이 되므로 척산이라 하였는데, 1942년 속초읍제 실시에 따라 학사평(鶴沙坪)을 병합하여 척산리(尺山里)라 하여 노리에서 갈라져 독립하였다.

큰 늑동골 마을에서 서북쪽 학사평 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바로 남쪽이 작은 늑동골이다.

척산 온천(尺山溫泉) 척산에 있는 온천.

파명당 목우재와 달마봉(達磨峰) 사이에 있는 터. 현재 송신탑이 세워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명당자리가 탐이 나서 파보니 그곳에서 학이 세 마리가 나와 한 마리는 양양군(襄陽郡) 강현면 강선리 쪽으로, 다른 한 마리는 보광사(普光寺) 쪽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학사평(鶴沙坪) 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탑상골 마을 서쪽 암지동에서 갈라진 골짜기 노학동 3층 석탑(塔)이 있는 곳이다.

바. 신흥리(新興里)

5 · 16 군사정변 후 군사 정부의 개간 정책에 따라, 1962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되어 뒷버덩에 정착시킨 마을이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1963년 동(洞)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변의 다른 동리와 함께 노학동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흥리라는 땅이름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상에동네(상에, 신흥상) 학사평 끝(서쪽) 마을. 새로 집단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건설한 마을이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사평(鶴沙坪)에 소속되지 않고 신흥리에 소속 되었으며, 신흥리 위쪽(서쪽)에 위치하였으므로 신흥상(新興上), 또는 상에라 불린다.

신흥교(新興橋) 청초천에 놓여 신흥 2리(新興二里)와 척산리(尺山里)를 연결하는 다리.

신흥 2리(新興二里, 신흥하) 노리와 척산 사이의 뒷버덩에 위치한 마을. 신흥 1리(新興一里) 밑(남동쪽)에 해당하므로 신흥하(新興下)라고도 부른다.

신흥 1리(新興一里) 설악(雪嶽) 한화리조트 바로 앞(남동쪽)마을. 뒷버덩에 건설된 신흥리(新興里)의 중심 마을이다.

사. 학사평(鶴沙坪) . 자활촌(自活村)

학사평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려와 앉는 벌판이라고 하여 '딱'자 대신 '학(鶴)'자를 써서 학사평(鶴沙坪)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안되는 딱한 벌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발음상 딱사발이라고 한다.

자활촌(自活村) 학사평 벌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마을이 없었으나 1961년 군사 혁명 정부에 의한 집단 이주로 새로 건설된 마을이다. 자활촌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살아간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구복암(求福菴) 심방골에 있는 암자.

명당골 학사평(鶴沙坪) 남서쪽 골짜기.

미시령(彌矢嶺) 속초와 인제를 연결하는 고개.

심방골 마을 남서쪽, 명당골 서쪽 골짜기. 달마봉(達磨峰)으로 이어진다.

웅장골 마을 남서쪽, 심방골 서쪽 골짜기. 계조암(繼組菴) 밑으로 이어진다.

원암교(元岩橋) 용촌천(龍村川) 상류에 놓여 학사평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를 연결하는 다리.

코끼리바위 명당골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코끼리처럼 생겼다.

큰령 미시령(彌矢嶺).

호랑바위 명당골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

7. 조양동(朝陽洞)

1760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조선시대부터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었는데, 지금의 속초지역은 양양도호부 소천면에 4개리(논산, 부월, 속초, 속진리)가 있었다.

일제하인 1914년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를 두었는데 부월, 논산리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부월리(扶月里), 온정리(溫井里), 논산리(論山里), 청대리(靑垈里)를 합쳐서 조양동(朝陽洞)이라고 명명하였다. 조양(朝陽)이란 땅이름은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는 뜻이다.

가. 부월리(扶月里)

조양동(朝陽洞)의 중심 마을이다. 현재는 '도울 부(扶)'자를 써서 부월(扶月)로 되어 있으나 그것으로는 이름 유래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전에는 '뜰 부(浮)'자를 쓴 것이 그 후 '도울 부(扶)'자로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부월(浮月)은 물 위에 뜬 달이 된다.

청초호에 달이 비쳐 마치 물 위에 뜬 것 같다고 하여 부월(浮月)로 명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지도서』에는 부월포리(扶月浦里)로, 그 후 읍지(邑誌)에서부터는 부월리(扶月里)로 기록하고 있다.

반부득(반부평, 半扶坪) 부월리(扶月里) 앞에 있는 뜰. 청초호를 끼고 있어 반은 호수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반부들이라고 하던 것이 반부득으로 변하였다. 반월형이라고도 하며 주위에 반부득 주막(半扶坪酒幕)이 있었다.

새마을 부월리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

연깨 부월리 안쪽, 현재 조양초등학교 쪽에 있는 마을. 이전에 큰 연못이 있어 연못개라고 하던 것이 연깨로 변화되었다.

나. 온정리(溫井里)

행정상 부월리에 속하고 있던 마을인데, 수복 후 인구 증가로 부월리에서 분리되어 온정리(溫井里)가 되었다. 마을 중간에 더운 우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므로 이 마을을 더운 우물, 또는 한자로 온정(溫井)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부월리에 속해 있을 때 부월리는 바깥이고 온정리(溫

井里)는 안 쪽이므로 안말이라고도 했다.

가래터 마을 서쪽 골짜기
떡밭 마을 남쪽 골짜기
산지랑골 마을 남서쪽 골짜기. 산신령께 산신제를 지내던 산제당(산제당)이 있어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을 거쳐 산지랑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숫개 마을 입구의 논. 습기가 많은 논 지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중밭 마을 남동쪽 골짜기

다. 논산리(論山里)

논산이란 마을 이름은 이곳의 지형이 논 가운데 산이므로 우리말로 논뫼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논산(論山)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 논뫼를 현지에서는 논미로 발음한다.

갯가(갯마을) 논산리 북서쪽 청초호 갯가에 새로 조성된 마을.
떡밭재(떡고개) 논산리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로 넘어가는 고개.
떡장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범바위 범박골에 있는 바위.
범박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부무골 마을 남쪽 떡밭재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소야평(所野坪) 논산리 앞쪽에 있는 평야지대.
신재나무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아랫둥지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부무골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아랫샘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웃둥지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아랫 둥지골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윗샘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 함지고개 마을 안 서편에 있는 조그마한 고개. 이전에 함정이 파여 있었다고 한다.
장자목깨 작은 함지고개에서 바로 북쪽으로 이어진 작은 구릉.
재핏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호랑이가 잡힌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조선독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왼쪽으로 갈라진 고개.

큰 떡밭재(큰 떡고개) 논산리에서 중도문리 1구로 넘어 가는 고개.

큰 함지고개 마을 서쪽에 있는 고개. 이전에 짐승을 잡기 위하여 큰 함정을 파놓은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라. 청대리(靑垈里)

논산리(論山里)에 속하다가 195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될 때 인구 증가로 행정상 논산리에서 분리 독립되어 청대리(靑垈里)로 불렸다. 마을 뒤(남쪽)에 청대산(靑垈山)이 있어서 청대산(靑垈山) 밑이 되므로 청대리라고 하였다. 원래는 '청대(靑岱)'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청대(靑垈)'라고 쓰기 시작하여 지금은 모두 청대(靑垈)라고만 쓴다.

가시나무골 마을 뒤(남쪽) 할미골과 황새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 가시나무가 많다.

덤박골 마을 뒤(남쪽) 큰골과 할미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현재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두루봉 청대산 서쪽 봉우리. 산봉우리가 둥그스럼하게 생겨서 두루봉이라고 부른다.

매자 마을 한가운데를 일컫는 말. 마을과 큰골 사이에 약 300년 정도 된 단양(丹陽) 장씨(張氏) 조상묘인 큰 봉분이 있는데, 풍수지리상 반복치형(半伏雉形)이라고 한다. 매가 꿩(雉)을 잡는 새임을 고려하면 매자라는 땅이름이 관련이 있는 듯하다.

범바위 산지당골에 있는 바위. 예전에 바위 밑 굴에서 범이 새끼를 쳤다고 한다.

산지당골 현재 속초상고(束草商高)가 들어선 골짜기. 이전에 산제사를 지내던 산신당, 산제당이 있어서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로 변화되었다.

연화동 마을 서쪽 할미골 입구를 말하는데, 풍수지리상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연화동(蓮花洞)이라고 한다.

작은골 큰골에서 왼쪽으로 갈라진 작은 골짜기.

장사바위 큰골에 위치한 바위.

청대산(靑垈山) 마을 남쪽 중도문리와의 경계에 있는 산.

큰골 마을 뒤(남쪽) 청대산(靑垈山)으로 향한 큰 골짜기. 동편은 산지당골이고 서편은 덤박골이다.

할미골 마을 뒤(남쪽) 덤박골과 가시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황새동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8. 대포동(大浦洞)

일제하인 1914년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속초, 부월, 논산, 노리, 대포, 외옹치, 내물치,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장항리)를 두었으며, 이중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1966년 동제 실시 때 대포리에 외옹치리, 내물치리를 합하여 대포동이라 하였고,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는 합쳐져 도문동으로, 그리고 장항리(獐項里)는 설악동으로 행정 구역을 개편하였다. 1998년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을 합쳐 대포동으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 대포리(大浦里)

나무고개 대포리에서 중도문리로 넘어가는 고개.
대포꼬댕이 대포 고개 끝에 있는 마을.
대포장 대포에서 서는 장. 1, 6일에 서는데 해산물이 거래된다.
독재 밭뚝재
밭뚝재 대포 고갯길 7번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포에서 속초로 갈 때 고갯길을 통해 현재의 외옹치(外甕峙)로 가게 된다. 이 고갯길 옆에 밭뚝이 다닥다닥 층계 모양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밭뚝재라 하였다. 그러던 것이 발음상의 변화로 독재라 부르게 되었다.
마산째 대포 북쪽에 있는 솟아 있는 산. 산 위에 옛 성터가 있고 말을 키우고 관리하던 곳이 있기 때문에 마성대(馬城臺)라 한다.
방축(防築) 대포(大浦) 서쪽에 있는 저수지.
병풍바위 예전 대포 재건학교 뒤(북서쪽)에 있는 큰 바위. 다른 말로 화랑탑이라고도 한다.
산두꾸미 대포에서 남쪽 물치(勿淄) 쪽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마을. 도깨비가 출현했다고 하여 산도깨비라고 하던 것이 산두꾸미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발뒤꿈치에서 사용되는 '뒤꿈'이 산과 결합하여 산뒤꿈이라고 하던 것이 산두꾸미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쇠팽이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쇠평골 또는 철평(鐵坪)이라고 함. 요즘 이것을 잘못 말해 회평골이라고도 한다.

숫돌바위 대포 동쪽 축항 너머에 있는 바위. 숫돌처럼 생겼다.
아랫말 대포 나룻가에 있는 마을.
웃말 대포초등학교 쪽에 있는 마을
잔다리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제집골 대포고개 밑에 있는 마을. 기와집이 있어 사투리로 지와집골이라고 하던 것이 제집골로 변함.
진등 청룡(靑龍) 서북쪽에 있는 긴 산등성이.
청룡(靑龍) 대포의 청룡이 되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
큰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요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큰말기 대포 서쪽 철길 너머에 있는 들.

나. 외옹치리(外甕峙里, 옹진리)

조선 시대부터 면리제가 실시되었는데, 그때 외옹치(外甕峙)의 행정지역 이름은 독 나루터라는 뜻의 한자 표기 방식으로 옹진(甕津)이었다. 이후 편찬된 지리서에서도 편호나 인구수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행정 땅이름은 변함없이 옹진리(甕津里)라고 기록하고 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로 지방제도의 개혁에 따라 도천면(道川面)으로 통합되었고 여전히 행정구역으로 옹진리(甕津里)로 기록되어 있으며, 1918년 발간된『최신조선지리』에서는 내옹진, 외옹진리로 기록되어 있다. 내옹진은 오늘날 대포리, 외옹진은 외옹치(外甕峙)이다. 외옹치리는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대포동에 통합되었다.

굴바위 마짝말 동쪽 해변에 있는 바위인데, 굴이 있어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투전을 하기도 했으므로 투전굴이라고도 한다.
기른네미 외옹치(外甕峙) 새마을 쪽에서 대포 고개로 빠지는 길목 일대를 가리키는 말.
다리슴 마짝말 동쪽 해변에 섬처럼 외따로 솟아 있는 큰 바위. 나무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섬이란 뜻으로 다리섬이라고 하던 것이 다리슴으로 변화하였다.
덕대바우(德大岩) 외옹치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큰 바위. 바위에 빌면 덕이 생긴다(복을 받는 바위)고 하였다. 한자로 덕대암(德大岩)이라고도 한다.
덕산(德山) 봉수터 봉화가 있던 터. 설악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達磨峰), 주봉산(朱鳳山), 청대산을 거쳐 이 곳에서 끝난다. 옹진의

끝에 있는 산으로 봉수가 있었기 때문에 덕산 봉수(德山烽燧)라고도 한다.

마당바우(場岩) 봉끝 밑(동쪽) 해변 가에 있는 바위로 마당처럼 평평하다. 한자로 장암(場岩)이라고도 한다.

마짝말 새짝말과 산등성이를 경계로 하여 남쪽을 향한 마을. 마짝은 마쪽이 변한 것인데, 마쪽은 뱃사람들의 말로 남쪽을 뜻한다. 현재는 풍랑으로 마을이 없어지고 북쪽 새마을로 집단 이주했다.

봉수터(봉화터) 조선 시대 덕산 봉수(德山烽燧)가 있었던 터.

새마을 마짝말이 풍랑으로 폐허가 되자 주민들이 새쪽말 북쪽에 집단 이주하여 새로 건설된 마을.

새짝말 마짝말과 산등성이를 경계로 하여 동쪽을 향해 조성된 마을. 새짝은 새쪽이 변한 것인데, 새쪽은 뱃사람들의 말로 동쪽을 뜻한다.

약수터 외옹치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 길 중간에 있음. 바위틈에서 샘물이 솟아 나온다.

오리바위 외옹치에서 대포 쪽으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바위. 오리가 자주 와서 앉는다고 한다.

일곱매끼 조양동 새마을 쪽으로 향하는 마을 입구의 논이 있는 일대를 일컫는 말.

장승거리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는 일대.

지네바위 다리슴과 굴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지네처럼 생겼다.

해구(海狗)바우 마당바위 북쪽 해변가에 있는 바위. 해구(물개)들이 자주 와서 앉았다.

다. 내물치리(內勿淄里)

현재 속초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雙川)을 중심으로 양양 쪽에는 강선면 물치진리(汐淄津里)가, 속초 쪽으로는 도문면(道門面) 물치리(勿淄里)가 각각 행정지역으로 되어 있다. 강선면의 경우『관동지』,『강원도읍지』,『양양부읍지』등에도 물치진리(汐淄津里)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기록부터는 물치리(汐緇里)로 되어 있다.

반면에 도문면의 물치리는『관동지』,『강원도읍지』,『양양부읍지』등의 기록은 편호와 인구수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든 흔적은 볼 수 있으나 행정지역 개편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후인 1914년 3월 1일부터 행정지역 개편으로 인해 강선면에는 물치리, 도문면(道門面)은 도천면(道川面)으로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에는 내물치리라 기록하고 있다. 1966년 동(洞)제 실

시 때 내물치리는 대포동에 통합되었다.

가래고지바우 둥글바위와 섬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바다에 사는 오리 종류인 가마우지가 잘 와서 앉는다고 함. 지역사람들의 사투리로 가래고지라 한다.

게바위 마당바위와 둥글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바위 밑에 게가 많다.

군개 마을 남쪽으로 쌍천(雙川) 못미처 있는 작은 시내. 쓸데없는 군더더기 개(시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귀신바위 마을 북쪽 대포와의 경계 지대에 있는 바위. 예전에 귀신이 나왔었다고 한다.

둥글바위 개바위와 가래고지바위 사이에 있는 둥글고 큰 바위.

마당바위 귀신바위와 개바위 사이에 있는 마당처럼 넓고 평평한 바위. 해구(海狗)가 와서 잠을 잤다고 한다.

선바위 가래고지바위 남쪽에 선돌처럼 우뚝 솟은 바위. 사람이 서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이름하였다.

쌍천(雙川)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도문동을 거쳐 물치에서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 조선시대에는 도문천이라 했다.

쌍천교(雙川橋) 쌍천 하류에 놓여 내물치리와 양양 강현면 물치리(沕淄里)를 연결하는 다리. 일명 큰다리라고도 한다.

안가산 마을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

옹구점마을 옹기(甕器)를 팔던 점이 있었던 마을로 현재 관광안내소 옆 군부대 자리에 있었다.

유물재비(兪勿齋碑) 조선 후기에 이 고장에 거주한 유명한 학자 물재(勿齋) 유회일(兪晦一)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

조짐이 둥글바위 앞(동쪽)에 있는 바위.

흙다리 쌍천교에서 약간 서쪽에 놓여졌던 다리. 지금은 없어졌다. 나무로 만들어 위에 흙을 덮었으므로 흙다리라고 했다.

라. 설악동(雪嶽洞)

1914년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으로 되었고, 도문면(道門面)이 있던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외에 설악산 부근에 장항리(獐項里)가 행정 지역으로 신설되었다.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장항리를 설악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편되었고 1998년에 대포동과 설악동을 합쳐 대포동으로 통합하였다.

1) 관광지 일대

구단지 신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현재의 소공원 자리에 있었던 관광단지.

군량암(軍糧岩) 군량장(軍糧場)에 있는 큰 바위.

군량장(軍糧場) 정고평(丁庫坪)과 소공원 사이에 있는 벌판. 비석 형태의 자연석에 군량장(軍糧場)이라고 새겨져 있음. 예전에 군인들이 양식을 저장하던 곳이다.

권금성(權金城)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해발 860m의 험준한 돌산에 있는 옛 성터.

노루목 노루목 고개 일대(동쪽) 즉, 현재의 B지구 일대를 가리키던 땅이름. 노루목이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장항(獐項)이라고도 불렀다. 옛날에는 이곳에 민가가 있어서, 설악동(雪嶽洞)의 옛이름인 장항리(獐項里)의 중심마을을 이루었다.

노루목 고개 신단지 B지구에서 구단지로 넘어가는, 현재 파크호텔 앞에 위치한 낮은 고개.

도문교(道門橋) 쌍천(雙川)에 놓여 설악동 주택 단지와 도문동을 연결하는 다리.

망바위 정고평(丁庫坪), 무명 용사의 비(無名勇士의 碑) 뒷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 옛날에 도적들이 이 바위에서 망을 보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장사꾼이나 행인들의 물건을 털었다고 한다.

목우(牧牛)재(모기재) 설악동과 노학동 척산리를 연결하는 높고 긴 고개.

식당동(食堂洞) 비선대(飛仙臺) 윗 골짜기. 식당골이라고도 한다. 층을 이룬 반반한 바위들이 많이 있다.

식당바우 식당천(食堂川)에 있는 바위

쌍동암(雙童巖) 흔들바위를 말한다. 계조암(繼祖庵) 밑에 있으며 두 아이가 길 양쪽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계조암(繼祖庵)의 문지기가 된다 함. 예전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가 남아있다.

와우암(臥牛巖) 흔들바위 밑에 있는 널따란 바위. 와우형(臥牛形)으로 되었다하는데, 백여 명의 승려가 모여 앉아 공양하던 곳이라 한다.

안락암(安樂庵) 권금성(權金城)에 있는 암자.

청룡 장항리(獐項里)의 청룡 쪽에 있는 마을

2) 능선 . 고개 . 길

공룡 능선(恐龍稜線) 마등령(馬登嶺)에서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

못 미처 바로 북쪽 신선암(神仙岩)까지의 바위 능선. 바위가 뾰족하여 마치 공룡(恐龍)의 등같이 생겼다. 나한봉(羅漢峰, 1275m), 노인봉(老人峰, 1184m)이 위치하고 있다.

마등령(馬登嶺) 내·외설악(內·外雪嶽)을 연결하는 고개 중의 하나.

무너미 고개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과 가야동 계곡(伽倻洞溪谷)의 경계에 위치하여 내·외설악을 구분 지으며, 고개 바로 북쪽에 희운각 대피소가 있다. 무너미의 무는 물에서, 너미는 넘는다(건넌다)에서 왔다. 물을 넘는다(건넌다)란 뜻의 무너미를 한자로 수유(水踰), 수월(水越)이라고도 표기하는데, 이 땅이름도 전국에 많이 분포한다.

범봉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 범봉으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북주 능선(北主綾線) 대청봉(大靑峰)에서 북쪽으로 마등령(馬登嶺), 저항령(低項嶺), 황철봉(黃鐵峰), 미시령(彌矢嶺), 신선봉(神仙峰)까지 이어지는 설악산의 북쪽 주능선(主綾線).

석주(石柱)길 설악골에서 천화대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동쪽으로 염라(閻羅)길, 흑범길이 있다.

염라(閻羅)길 설악골에서 천화대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동쪽에는 흑범길, 서쪽에는 석주(石柱)길이 있다.

저항령(低項嶺) 북주 능선(北主綾線)에 있는 고개 중의 하나. 동쪽으로는 정고평(丁庫坪)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길골(路洞)을 거쳐 백담사(百潭寺)에 이른다. 다른 말로 늘목령이라고도 하는데, 저항령(低項嶺), 늘목령 모두 노루목 고개, 목우(牧牛)재와 마찬가지로 길게 늘어진 고개라는 의미의 늘으목, 늘목에서 유래하였다. 즉 늘목령은 늘목에 다시 고개 령(嶺)자가 합쳐져서 늘목령이 된 것이고, 저항령(低項嶺)은 늘목이 노루목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로 장항(獐項)이라고 표기하여, 거기에 다시 고개 령(嶺)자가 합쳐져서 장항령(獐項嶺)이라고 하던 것이, 발음상 저항령(低項嶺)으로 변하고, 이것을 의미와는 관계없이 한자로 저항령(低項嶺)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으로 볼 때 저항령(低項嶺)도 마등령(馬登嶺)처럼 옛날부터 이용된 길인 것을 알 수 있다.

함지덕 화채 능선(華彩綾線) 칠성봉(七星峰) 동쪽에 함지처럼 푹 파인 분지. 예전에는 화전민들이 살고 있었다.

화채 능선(華彩綾線) 대청봉(大靑峰)에서 시작하여 화채봉(華彩峰), 칠성봉(七星峰), 집선봉(集仙峰), 권금성(權金城)까지 이어진 능선. 일명 동북능선(東北稜線)이라고도 한다.

화채 동능선(華彩東綾線) 화채봉(華彩峰)에서 동쪽으로 송암산(松岩山)

까지 뻗어나간 능선.

흑범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서편으로 염라(閻羅)길, 석주(石柱)길이 있다.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과 가야동 계곡(伽倻洞溪谷)의 경계인 무너미 고개 바로 북쪽에 위치한 대피소. 1971년 한국산악회 최태묵이 건립했다. 지금은 그 일대를 가리키는 땅이름이 됨. 동쪽으로는 천불동 계곡, 서쪽으로는 가야동 계곡, 남쪽으로는 대청봉, 북쪽으로는 공룡 능선으로 갈라지는 교통의 요지이다.

3) 봉(峰)

나한봉(羅漢峰) 공룡 능선(恐龍稜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마등령(馬登嶺)과 1,275m봉 사이에 있음. 불교의 수호신인 나한(羅漢)에서 그 이름이 유래됨.

노인봉(老人峰) 공룡 능선(恐龍稜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해발 1,120m. 1,275m봉에서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 방향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봉우리. 여기서부터 북동쪽으로 뻗은 20개의 암봉을 천화대(天花臺)라고 한다.

노적봉(露積峰) 권금성(權金城) 바로 동쪽 봉우리. 토왕골과 소토왕골 중간에 있다. 모양이 곡식을 쌓아둔 형태임.

달마봉(達磨峰) 소공원 북쪽에 우뚝 솟은 높은 봉우리.

대청봉(大靑峰) 청봉(靑峰)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는 "멀리서 보면 아득하게 푸른 옥색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으로 그 봉우리를 가리켜서 이름을 청봉(靑峰)이라고 하였다.(遠見只縹而靑故指其絶頂而名日靑峰)."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른 말로 상청봉(上靑峰), 또는 청봉(靑峰)이라고도 하는 설악산(雪嶽山)의 주봉으로 해발 1,708m이다. 바로 밑(북서쪽)에 중청봉(中靑峰)이 있고, 그 밑(북쪽)에 소청봉(小靑峰)이 있다.

문수봉(文殊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옆에 문수 보살(文殊菩薩)과 보현 보살(普賢菩薩)이 위치하고 있다는 불교의 설명처럼, 석가봉(釋迦峯) 옆에 문수봉(文殊峯)과 보현봉(普賢峯)이 위치하고 있다. 일명 문주봉(文珠峯)이라고도 한다.

문필봉(文筆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모양이 붓처럼 생긴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미륵봉(彌勒峰) 비선대(飛仙臺) 바로 북쪽에 높이 우뚝 솟은 큰 돌산이다.

마치 미륵불(彌勒佛)처럼 우뚝 솟아 있어 이름 하였고, 장군의 형상이라고 하여 일명 장군봉(將軍峰)이라고도 한다. 중턱에 금강굴(金剛窟)이 있다.

범봉 천화대(天花臺)의 20여 개의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보현봉(普賢峰) 토왕성 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석가모니불 양 옆에 문수 보살과 보현 보살이 위치하고 있다는 불교의 설명처럼, 석가봉(釋迦峰) 양쪽에 문수봉(文殊峰)과 보현봉(普賢峰)이 위치하고 있다.

석가봉(釋迦峰) 토왕성 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불교의 설명대로 양 옆에 문수봉(文殊峰)과 보현봉(普賢峰)이 있다.

세존봉(世尊峰) 마등령(馬登領) 밑(동쪽) 금강문(金剛門) 바로 위(북동쪽)에 있는 봉우리.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존칭인 석가세존(釋迦世尊)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소청봉(小靑峰) 대청봉(大靑峰) 바로 북서쪽에 있는 작은 청봉(靑峰).

왕관봉(王冠峰) 천화대(天花臺)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육형제봉(六兄弟峰) 양폭(陽瀑) 산장 뒤로 보이는 여섯 봉우리.

중청봉(中靑峰) 대청봉(大靑峰)과 소청봉 사이에 있는 청봉(靑峰).

진대봉 마등령(馬登嶺) 바로 북쪽에 있는 봉우리. 해발 1,327 m, 최근에 등산객들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이전부터 주민들에 의하여 불린 땅이름인 것 같으나 요즘은 거의 부르지 않는다.

집선봉(集仙峰) 권금성(權金城) 바로 뒷쪽(남쪽)에 연이어 있는 암봉. 암봉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마치 신선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취적봉(翠滴峰) 토왕성 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칠성봉(七星峰) 화채 능선(華彩綾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로 해발 1,077m이다. 남쪽 화채봉(華彩峰)과 북쪽 집선봉(集仙峰) 중간에 있다.

칠형제봉(七兄弟峰) 공룡 능선 신선암(神仙岩) 북쪽에서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을 향하여 용소골과 작은 바위골 사이로 뻗은 여러 개의 봉우리.

화채봉(華彩峰) 화채 능선(華彩綾線)의 대표적 봉우리.

황철봉(黃鐵峰) 북주 능선(北珠綾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남쪽으로는 저항령(低項嶺), 마등령(馬登嶺), 공룡 능선(恐龍稜線)으로, 북쪽으로는 미시령(彌矢嶺), 신선봉(神仙峰)으로 이어진다.

귀면암(鬼面岩)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우뚝 솟아 있는 큰 바위. 비선대(飛仙臺)와 양폭(陽瀑) 사이에 있다. 생김새가 무시무시한 귀신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귀면암(鬼面岩)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귀면암(鬼面岩)이라는 이름은 근래에 붙여진 것이고, 옛날에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의 입구에 버티고 서서 마치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겉문다지 또는 겉문당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금강굴(金剛窟) 비선대(飛仙臺) 뒤 미륵봉(彌勒峰) 중턱에 뚫려 있는 길이 18m의 자연 석굴. 일찍이 원효 대사(元曉大師)가 이곳에서 수도했었다고 전해 온다. 이전에도 불을 땠던 구들의 흔적과 불상 등의 유물이 있었고, 요즘에는 신흥사의 부속 암자로 되어서 새 불상을 모셔 놓았다.

금강문(金剛門) 마등령(馬登嶺)에서 비선대(飛仙臺) 쪽으로 20분 정도 걸어 내려오면 있는데, 바위가 길 양쪽에 문기둥처럼 서 있다.

만경대(萬景臺) 화채봉(花彩峰)에서 양폭(陽瀑)으로 내려오는 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좁고 높은 지대. 주위 전망이 좋아 많은 경관을 볼 수 있으므로 만경대(萬景臺)라고 하며, 또는 많은 경관을 바라 볼 수 있다고 하여 망경대(望景臺)라고도 한다.

망군대(望軍臺) 권금성(權金城) 북쪽의 높은 암봉. 옛날에 성을 지키던 군인들이 망을 보던 곳이라고 하여 망군대(望軍臺)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는 봉화를 올려 신호를 하던 곳이라고 하여 봉화대(烽火臺)라고도 한다.

목탁 바위 계조암(繼祖庵)이 위치한 자연 석굴을 형성한 바위. 달마봉(達磨峰)에서 내려다보면 계조암(繼祖庵) 석굴이 목탁처럼 보인다고 한다. 계조암(繼祖庵)은 조사(祖師)들이 계속하여 배출된 암자라는 뜻인데, 목탁 속에서 수도하기 때문에 쉽게 득도하게 된다고 한다.

비선대(飛仙臺) 소공원에서 남서쪽으로 2.3km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암반.

4) 골짜기

가는골 정고평(丁庫坪)에서 비선대(飛仙臺) 쪽으로 약간 가다가 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권금성(權金城) 뒤 집선봉(集仙峰)까지 이어진다.

내원(內院)골 신흥사(新興寺)에서 내원암(內院庵) 쪽(서북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문(門) 바위골 저항령 계곡(低項嶺溪谷) 중간에서 황철봉(黃鐵峰) 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설악(雪嶽)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선대(飛仙臺)를 지나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토막골 다음에 나타나는 골짜기. 공룡 능선(恐龍稜線)까지 이어진다.

소토왕(小土王)골 소공원에서 비룡교(飛龍橋)를 건너서 바로 남쪽으로 나타나는 골짜기. 토왕골의 바로 서편 골짜기로서 그 사이에 노적봉(露積峰)이 있다. 일명 은당골, 무당골이라고도 한다.

식은골 정고평(丁庫坪)에서 남동쪽으로 권금성(權金城)까지 뻗은 골짜기.

염주(念珠)골 음 폭포(陰瀑布)에서 남쪽으로 염주 폭포(念珠瀑布)를 거쳐 화채 능선(華彩綾線)까지 뻗은 골짜기. 서편으로 죽음의 계곡이 있다. 골짜기 중간에 염주 폭포(念珠瀑布)가 있으므로 염주골이라고 하며, 또 입구에 음 폭포(陰瀑布)가 있으므로 음폭골이라고도 한다.

용소(龍沼)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귀면암(鬼面岩)을 지나 오련 폭포(五連瀑布) 못미처서 오른편(서쪽)으로 들어간 골짜기. 신선암(神仙岩) 부근까지 뻗었다.

잦은 바위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선대(飛仙臺)를 지나서 귀면암(鬼面岩)을 향해 가다 오른편(서쪽)으로 토막골, 설악골 다음에 나오는 골짜기.

죽음의 계곡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맨 끝 골짜기. 대청봉에서 희운각 대피소으로 직접 내려오는 능선길 바로 동편 골짜기. 1969년 한국산악회원 10 동지가 해외 원정을 위한 훈련을 하다가 조난당한 곳이다. 1956년 8월 한국산악회원 전감(田堪)이 처음 등반하였으며, 아직 뚜렷한 등반로는 없다.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비선대에서 대청봉에 이르는 설악산의 가장 대표적인 골짜기. 협곡을 이룬 계곡 양쪽의 기암 괴봉들이 마치 천불(千佛)이 꽉 들어차 있는 듯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설악을 대표하는 절경들이 거의 이 골짜기에 밀집되어 있다. 비선대에서 대청봉으로 올라가면서 오른편(서쪽)으로 토막골, 설악골, 잦은 바위골, 용소(龍沼)골, 왼편(동쪽)으로 칠선골, 염주(念珠)골, 죽음의 계곡이 갈라진다.

칠선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귀면암(鬼面岩)에서 양폭(陽瀑)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오련 폭포(五連瀑布) 못미처 왼편(동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구만물상(舊萬物相)골 이라고도 한다.

토막골 천불동 계곡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선대를 지나서 오른편으로 갈라진 골짜기.

토왕(土王)골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육담 폭포, 비룡 폭포, 토왕성 폭포가 위치하고 있다.

핏골 신단지 C지구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5) 폭포(瀑布), 담(潭)

건 폭포(乾瀑布) 죽음의 계곡에 있는 폭포.

문수담(文殊潭) 비선대와 귀면암 사이에 있다. 문수 보살이 목욕을 한 곳이라고 하며, 일명 문주담(文珠潭)이라고도 한다.

비룡 폭포(飛龍瀑布) 토왕골에 있는 폭포. 육담 폭포와 토왕성 폭포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폭포수의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낱아 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양 폭포(陽瀑布) 천불동 계곡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밑의 오련 폭포(五連瀑布)와 바로 위의 천당 폭포(天堂瀑布) 중간에 있다. 음 폭포(陰瀑布)와 이웃하여 있는데, 양 폭포(陽瀑布)는 겉에 있으므로 양 폭포(陽瀑布)이고, 음 폭포(陰瀑布)는 음폭(陰瀑)골에 들어가서 속에 있으므로 음 폭포(陰瀑布)이다. 현재는 양 폭포(陽瀑布)라는 말보다 양 폭포(陽瀑布)를 줄여서 부르는 양폭(陽瀑)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고, 또 양폭(陽瀑)이라는 말은 폭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었다.

염주 폭포(念珠瀑布) 염주(念珠)골에 있는 폭포. 음 폭포에서 골짜기로 더 들어가서 위치하고 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염주같다고 하여 염주 폭포, 염주폭이라고 한다.

오련 폭포(五連瀑布)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귀면암(鬼面岩)과 양 폭포(陽瀑布) 사이에 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협곡 사이에 5개의 폭포가 연이어 떨어지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전에는 폭포 일대의 암벽을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앞문의 수문장 같다고 하여 앞문다지라고 하였다.

육담 폭포(六潭瀑布) 토왕골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소공원에서 비룡 폭포로 가는 길 중간에 있다. 암벽으로 된 협곡에 6개의 폭포와 담소(潭沼)가 연달아 있어서 절경을 이룬다. 폭포 위에 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음 폭포(陰瀑布)(음폭, 陰瀑) 음폭(陰瀑)골 입구에 있는 폭포. 양 폭포(陽瀑布)와 이웃하여 있는데, 양 폭포(陽瀑布)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겉에 있으므로 양 폭포(陽瀑布)이고, 음 폭포(陰瀑布)는 음폭골 속에 있으므로 음 폭포(陰瀑布)라고 명명되었다.

이호담(二壺潭) 문수담(文殊潭)과 귀면암(鬼面岩) 사이에 있는 담(潭). 배가 불룩한 병 모양의 아담한 담(潭)이 2개가 있어 이호담(二壺潭)이라고 한다.

천당 폭포(天堂瀑布)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양 폭포(陽瀑布) 바로 위에 있는 폭포. 위태롭게 석벽에 설치한 철 계단을 오르면서 천당 폭포(天堂瀑布)를 바라보면 천당(天堂)에라도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칠선 폭포(七仙瀑布) 칠선골에 있는 폭포.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 토왕골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외설악을 대표하는 폭포로 겨울철에는 빙벽훈련장으로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토왕성

(土王城)이란 이름은 오행설에서 유래된 것 같다. 그 의미는 토기(土氣)가 왕성하므로 기암괴봉이 발달하여, 마치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다.

마. 장재터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 건너편이므로, 본래 양양군 강현면 상복 2리에 속해 있었으나, 198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단지 C지구인 핏골과 함께 속초시 설악동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 서쪽에 장자, 즉 부자가 살던 터가 있는 까닭으로 장재터라 불린다.

군개도랑 마을 바로 앞(북쪽)에 있는 작은 냇가. 군더더기, 쓸데없는 갯가라는 의미의 군개에 도랑이 합쳐진 것이다.

마무골 마을 서남쪽 골짜기. 말을 묶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맷돌바위 물안골 입구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맷돌처럼 생겼다.

물안골 마무골 서쪽 골짜기,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복교(上福橋) 장재터와 상도문리 2구를 연결하는 쌍천에 놓인 다리.

아랫고개 장재터에서 상복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장재터와 상복리의 경계가 된다. 여기서 상복리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윗고개가 있다.

장재평 장재터 벌판을 부르는 이름.

손병섭(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향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감수위원 : 최용문(전,속초문화원장)

제5장 문화재와 명승고적

제1절 문화재의 분류

1. 문화재의 개념

문화재(文化財)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물(事物), 즉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말한다. 따라서 한 민족이 생활하면서 생성, 발전시켜 온 모든 유형(有形), 무형(無形)의 산물(産物)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자원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천연자원과 생산적 자원에 국한하고 그 밖의 유형, 무형의 중요한 자원은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원은 천연자원(天然資源), 문화자원(文化資源), 사회자원(社會資源)으로 구분되며, 이 중 문화자원은 특히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문화재로 일컬어지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문화재의 범주가 아주 좁았으나, 전후에는 그 대상을 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 건조물(建造物), 사적(史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민속자료(民俗資料),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4년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와 같이 문화재를 법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위 개정법 제2조에 의해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 ·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와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념물(記念物), 민속자료(民俗資料)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문화재의 분류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가치가 있는 사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 학술상 · 예술상 길이 보존해야 할 민족 전체의 재산인 동시에 인류 공영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8) 문화재보호법 (文化財保護法)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전문 7장 9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82년 전면 개정되었으며, 98년 12월 9차 부분 개정되었다.
총칙, 국가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시 · 도지정문화재, 보칙, 벌칙 등으로 되어 있다.

가. 문화재 분류

유형문화재 (有形文化財)	건조물 · 서적 · 고문서 · 화서 · 조각 ·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하며, 국가 건조물 · 서적 · 고문서 · 화서 · 조각 ·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 · 보물과 시 · 도에서 지정하는 시 · 도 유형문화재가 있다.
무형문화재 (無形文化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 민속놀이 등 전통생활 속에서 전래되어온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기능과 예능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 무형문화재와 시 · 도에서 지정하는 시 · 도 무형 문화재가 있다.
기념물 (記念物)	패총 · 고분 · 성지 · 궁지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 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상 · 관상상 가치가 큰 것, 동물(서식지 · 번식지 · 도래지 포함) · 식물(자생지 포함) · 광물 ·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적 · 명승 · 사적 및 명승 · 천연기념물과 시 · 도에서 지정하는 시 · 도기념물이 있다.
민속자료 (民俗資料)	의식주 · 생업 ·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 기구 ·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민속자료와 시 · 도에서 지정하는 시 · 도 민속자료로 구분한다.

나.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지정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현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말한다.
비지정 문화재	비지정문화재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나 문화재보호법 및 시 · 도 문화재보존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① 일반동산문화재 – 서적, 판목,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 예술상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정되지 아니한 동산문화재를 말하며, 이들은 제작된지 50년 이상이고 생존인의 작품이 아니어야 한다. ② 매 장 문 화 재 –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중에 포장되어 노축되지 않는 문화재를 말한다.

다. 지정권자에 따른 분류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 제작기술, 시대서, 형태, 품질, 용도, 제작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치가 높은 문화재
	보물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문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것
	서적	기념물 중 중요한것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사적 및 명승	기념물 중 사적지,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포함) 지질, 광물로서 중요한 것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중요 민속자료	의식주, 생산, 생업, 교통, 운수, 통신, 교역, 사회생활, 신앙, 민속, 예능, 오락, 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시 · 도 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문화재 자료	시 ·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 · 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3. 속초시 문화재 현황

가. 속초시 문화재 현황

속초시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 제443호 향성사지 3층 석탑,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제351호 설악동 소나무, 사적 제376호 조양동 선사 유적지 등이 있다.

또한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신흥사의 경판, 극락보전, 보제루, 아미타여래좌상 등을 비롯하여 도문동 김종우 가옥, 강원도 문화재 자료인 신흥사, 도문동 김근수 가옥, 노학동 3층 석탑 등이 등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매장 문화재로 강원도 향토박물관에 있는 장사동 출토 간돌검, 돌화살(6점), 교동 출토 청자 상감우점문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교동 고분 출토 청동숟가락 및 향성사지 출토 기와 등이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전시 보호되고 있다.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13점으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7-5-1 〉 문화재 현황

구 분	종 별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지정 일자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443호	향성사지 3층 석탑	1966. 8.25
	천연 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 구역	1965.11. 5
		제351호	설악동 소나무	1988. 4.30
	사적지	제376호	조양동 선사 유적지	1992.10. 6
시·도지정 문화재	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14호	신흥사 극락보전	1971.12.16
		제15호	신흥사 경판	1971.12.16
		제85호	도문동 김종우 가옥	1985. 1.17
		제104호	신흥사 보제루	1985. 9.13
		제143호	신흥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 유물	2003. 4.25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7호	신흥사	1984. 6. 2
		제64호	도문동 김근수 가옥	1985. 1.17
		제115호	신흥사 부도군	1991. 2.25
		제127호	노학동 3층 석탑	2000. 1.22

제2절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

1. 국가 지정 문화재

가. 보물

1) 향성사지 3층 석탑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443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설악산 매표소 가기 전 켄싱턴호텔 맞은편 길가에 천년의 역사를 말해주듯이 고색창연한 석탑 1기가 서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향성사지 3층 석탑이다.

〈 사진 7-5-1 〉 향성사지 3층석탑

이 석탑의 제작 시기는, 옛 문헌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왕명을 받고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 하였으며, 앞뜰에 9층 석탑을 세워 석가세존의 사리를 봉안하였다."라

고 기록되어 있으나[9] 현재 있는 석탑은 양식상으로, 또는 외곽적인 균형으로 볼 때 이 때 만들어진(9층 석탑) 것이 아니라 조금 연도가 내려가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의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향성사지 3층 석탑은 2층 기단에 3층석탑으로 전형적인 통일신라 하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기단부는 8매의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4매의 장대석으로 기대를 마련하고, 1층 기단을 받치고 있다. 1층 기단은 크고, 작은 8개의 사각형의 면석으로, 각 면 위에는 우주(양기둥)와 탱주(버팀기둥)를 양각(돋을새김)으로 표시하였다.

1층 기단 위에 있는 1층 갑석은 5장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석의 경사는 급하게 되어 있고, 면석 위에는 2층 기단부를 받치기 위해 사각 2단의 괴임대를 마련하였다. 2층 기단면은 8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우주와 2개의 탱주가 양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대갑석은 4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부연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갑석 윗면은 평평하고 아무런 장식 없이 1층 탑신(塔身)을 받치고 있다.

탑신부(몸돌)는 1매의 돌로 구성되어 있고 면마다 양쪽에 우주를 양각으로 나타내고, 1층 탑신과 2층 탑신 높이의 비가 3:1의 체감으로 전체적인 모습이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옥개석(지붕돌)의 층급 받침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과 마찬가지로 5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끝의 전각은 반전되어 있으나 각이 경미하여 둔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노반석을 비롯하여 상륜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1966년 12월 23일 해체 작업을 하였다. 당시 공사 감독관 김주태(金周泰) 문화재 전문위원의 보고 기록에 의하면 제3층 옥개석(지붕돌) 중앙에 사리공으로 추정되는 네모 구멍(7㎝×5.5㎝×9㎝깊이)이 뚫려있고 그 위에 동판 1매(12㎝×9㎝)가 덮여 있는 상태였으나 내용물은 없었다고 한다.[10]

지반침하로 인하여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석탑정밀 실측해체 및 보호를 실시하였다.

2002년의 정확한 실측결과 석탑의 높이는 5.276m이고 본래의 상륜부까지 높이를 추산하면 7m에 가까운 대형 탑으로 추정된다. 기단의 각 부재나 옥신(몸돌), 옥개(지붕돌)의 조성 수법은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이지만 기단부의 약화, 둔중한 지붕돌(옥개석)의 형태와 치석으로 볼 때 전성기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8세기 말에서 9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9) 『神興寺記』에 의하면
新羅 眞德女王 六年(壬子) 때 慈藏律師가 雪岳山의 東에 香城寺를 創하다. 慈藏이 九層石塔을 造하야 佛舍利를 奉安하다.
신라 진덕여왕 6년(임자)때 자장율사가 설악산 동쪽에 향성사를 창건하였다. 자장율사가 9층 석탑을 조성하고, 불사리를 봉안하였다.

10) 『속초시지』,
속초시,
1991,
p.1,201

〈 표 7-5-2 〉 향성사지 3층석탑의 실측치[11] 단위 m

기단부	지대석	높이 150	크기 3,290 x 3,300
	하층기단	높이 760	하대저석 크기 2,960 x 2,960 하다중석 크기 2,860 x 2,860 하대갑석 크기 2,950 x 2,935
	상층기단	높이 1,185	상대갑석 크기 2,361 x 2,328 상대중석 크기 2,120 x 2,130
탑신부(몸돌)	1층 탑신	높이 1,150	폭 평균 1,023
	2층 탑신	높이 340	폭 평균 867
	3층 탑신	높이 310	폭 평균 749
옥개석(기붕돌)	1층옥개석	두께 520	크기 1,830 x 1,843
	2층옥개석	두께 450	크기 1,685 x 1,620
	3층옥개석	두께 410	크기 1,410 x 1,395

2. 시 · 도 지정 문화재

가. 시 · 도 지정 유형문화재

1) 신흥사 극락보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11) 『속초 향성사지 3층석탑 실측 조사보고서』, 속초시, 2002, p.72

〈 사진 7-5-2 〉 신흥사 극락보전

이 건물은 신흥사의 중심 전각으로 조선 인조 25년(1647)에 지었다. 극락보전은 극락세계의 주인공인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봉안하는 보배로운 전각이라는 뜻을 지닌다.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머무르면서 영원토록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이다.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는 중생은 무릇 누구나 지극한 행복을 원한다. 이 지극한 행복을 극락(極樂) 또는 안양(安養)이라 하는데, 누구나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처가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리고 이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을 극락보전, 무량수전 또는 미타전이라고 한다.

신흥사 극락보전은 창건 후 조선 영조 26년(1750)과 순조 21년(1821)에 각각 중수되어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전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다포 양식으로 비교적 원형 보존이 잘되어져 있다.

극락보전 안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관세음보살과 우측에 대세지보살을 함께 봉안하여 극락세계의 광경을 나타냈다.[12]

2) 신흥사 경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사진 7-5-3 〉 신흥사 경판

경판이란 나무 또는 금속에 불경을 새긴 대장경을 말한다. 대장경이란 부처님이 설법한 가르침을 담은 경(經), 부처님이 제정하고 제자들이 확정한 계율을 말하는 율(律), 이름난 고승들이 경전의 내용을 연구하여 집필한 연구서인 논(論)을 말하는 삼장(三藏), 그리고 기타 다양한 원천에서 나온 서적들로 된 총서를 일컫는다.

신흥사의 경판은, 대형(大型)은 18.5×40㎝, 소형(小型)은 18.5×30㎝ 크기로, 모두 280장이다. 목판 1장마다 양면에 양각으로 새기고 글자는 한글, 한자 및 범어를 사용하였다.

조선 효종 2년(1651)에 고승 호엽(昊葉)이 해장전(海藏殿)을 창건하고 묘법연화경, 중례문(中禮文), 예수문(預修文), 결수문(結手文), 제청문(諸請文) 등의 판본을 장치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신흥사사적』에는 조선 현종 2년(1661)이라고 기록되어 있고,[13] 또 경판을 만든 고승 호엽은 조선 정조 21년(1797)에 처기(處琦), 시택(始澤), 의유(毅有) 등과 함께 해장전(海藏殿)을 단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이 경판은 명부전에 보관되어 있으며 부모은중경 언해본(父母恩重經 諺解本),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다라니경 등이 남아 있는데 참고적으로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중요 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또한 다라니(多羅尼)는 한량없는 뜻을 지니고 있어 모든 악한 법(法)을 버리고 한없이 좋은 법을 지니게 한다는 뜻으로, 총지(總持)·능지(能持)·능차(能遮)라고도 한다. 따라서 다라니경은 온 마음으로 읽고 지니면 재액(災厄)을 피할 수 있다는 신앙에 의하여 널리 유통되었다.

12) 이렇게 안치하는 것을 아미타삼존불이라고 한다.

13) 『신흥사 사적』에 의하면 朝鮮 顯宗 二年(辛丑) 海藏殿을 創하고 法華經, 中禮文, 結手文, 請文等의 板本을 藏하다.
조선 현종 2년(신축)에 해장전을 창건하고, 법화경, 중례문, 결수문, 청문 등의 판본을 넣었다.

3) 신흥사 보제루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신흥사 사천왕문을 지나 극락보전에 이르기 전에 서 있는 장방형의 누각이 바로 보제루이다.

〈 사진 7-5-4 〉 보제루

보제루는 장대석으로 쌓은 2단의 축대 위에 정면 7칸(22.4m), 측면 2칸(8.5m)의 누마루식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1861년에 이계황이 지은 보제루 중수기(普濟樓 重修記)에 의하면, 이 건물은 1644년에 건립되었고, 조선 영조 46년(1770)에 중수하였다. 또한 1813년 벽파, 창오, 부총, 성기스님 등이 중수하였다.
그리고 원래는 사방이 모두 개방 되어 있었으나 1971년 성준스님이 중수하면서 분합문을 달았다.

보제루는 누각식으로 되어 위층에는 다락공간으로, 하층 중앙칸은 극락보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장이 상당히 낮아 웬만한 성인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이는 누각 밑을 통과하면 곧바로 전개될 극락보전을 들어섬에 있어 고개를 세우고 교만스러운 자세로 들어가기보다는 상체를 약간 숙인 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조선시대에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시대 유생들의 횡포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특히 유생들이 신흥사에 몰려들어 유흥을 즐기기도 했는데, 이때 갓을 쓰고 들어가거나 말이나 가마를 탄 채 들어가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 그러나 이 보제루와 같은 높이의 누각을 만들면서부터 말이나 가마에서 내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극락보전을 향해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되었다.

보제루는 한국 사찰공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공간의 위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낮은 입구를 만들었다. 아울러 2층 누각의 지붕선은 설악산의 산형을 고려해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가 잘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찰 건물의 건축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래 사찰의 본전 앞에 세워지는 누각은 각종 법회를 거행하던 곳이었으며 사방이 개방되어 있었다. 현재는 그 기능이 사라졌으며 가는 문살의 분합문을 달았다.

건물 안에는 직경 6척 비자나무 통에 황우 6마리 분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법고(法鼓)와 목어가 보존되어 있고 특히 네 벽에 시판(詩板)과 추사(秋史)의 친필이 있어 유명하다.

그리고 신흥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판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해악루(海嶽樓)', '외설악루(外雪嶽樓)', '백설루(白雪樓)'등 한때 보제루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현판들이 보관되어 있다.

보제루는 1985년 9월 13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되었다.

4)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 유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3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사진 7-5-5 〉 목조아미타삼존불

신흥사 본전각인 극락보전 안에는 앙련으로 된 목조팔각대좌에 결가부좌한 삼존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세음보살상,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상을 협시불로 안치하여 극락세계의 광경을 나타낸 것이다.

중앙의 본존불인 아미타불의 가사(袈裟)는 양어깨를 다 덮는 통견의(通肩衣)이고, 인상(印相)은[14] 아미타여래의 수인(手印)인 미타정인을 하고 있다.

좌협시불인 관음보살상 또한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을 들어 올린 미타정인을 하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 가운데에는 화불(化佛)이 안치되어 있다. 우협시불은 대세지보살상으로 좌협시불과 반대되는 인상을 취한 미타정인으로, 머리 중앙에 보주가 장식된 보관을 쓰고 있다.

삼존불상은 근간에 새로이 개금 하였으나[15] 전반적으로 잘 보존되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불상의 복장물은 소실되어 조성 연대는 알 수 없고 불상의 밑바닥에 쓰여있는 가로, 세로의 묵서명과 좌협시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에서 삼존불의 조성에 관한 축원문과 기문이 남아 있어 소개한다.

14) 인상 : 인상은 부처나 보살의 손이나 손가락의 특정한 모습을 말한다. 손가락을 꼬부리는 것을 수인(手印), 물건으로 인을 표시하는 것을 계인(契印)이라고 한다.

15) 개금이란 불상에 다시 금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로 묵서명

香	山	普	賢	寺				
造	佛	次	雪	岳	山			
神	興	寺	佛	相	(像)	造	成	也

세로 묵서명

順治 八年 辛卯 八月一化主( ) 畵員無染謹封

축원문

順治八年辛卯八月十九日腹臟安莊嚴祝願

기문

康熙五十九年庚子五月十日佛像腹臟安嚴記文...

위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아미타삼존불좌상은 '묘향산 보현사' 불상을 조성한 다음 순치 8년(1651) 화원, 무염 스님이 만들어 그 해 8월 19일 복장물을 안치했으며 69년이 지난 1720년 5월 10일(강희 59년) 또 다시 복장물을 안장했음을 알 수 있다.

좌협시불상에서도 祝願文(1651)과 記文(1720)을 비롯하여 각종 씨앗, 후령통, 嘉靖三十六年(1557) 金剛山 表訓寺開板銘 목활자본 불서(佛書) 등이 발견되었다.[16)]

16) 『문화유적 분포도 -속초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p.94.

5) 김종우 가옥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5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186번지

김종우 가옥은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가옥의 규모는 68.30㎡ (20.66평)이다. 조선 영조 26년(1750)경, 전주 이씨가 건립 후 4대를 계승해 오던 중 같은 집안 이주환이 매수 후 2대를 계승해 오다가 현 소유자 김종우(金宗友)의 선친 김시중이 매입하여 2대째 내려오고 있다.

〈 사진 7-5-6 〉 김종우 가옥

평면은 안채와 행랑채로 구분되며 그 밖에 창고 등의 부속건물이 딸려 있다. 집의 본채인 안채는 중앙의 마루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부엌이 있고 마루 뒤에 방 3칸을 두었으며 부엌 앞에는 외양간을 둔 산간지방의 전형적인 겹집양식으로 되어 있다.

안채는 전면 5칸, 좌측면 2칸, 우측면 5칸의 ㄱ자형 집으로 벽돌기단과 주초석(柱礎石)에 각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납도리, 홑처마의 팔작(八作)지붕

형식이다. 안채는 5량(樑), 외양간은 2층 구조로 2층은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집 옆으로 방 2칸의 행랑채가 있었으나 현재는 행랑채를 헐고 현대식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이 가옥의 특징 중 눈에 띄는 것은 기둥 길이가 2m40cm 정도로 짧다는 것이며 폭은 24.5cm 의 사각형으로 굵다는 것이다. 바람의 영향 때문인지 창문은 쌍여닫이, 외여닫이로 되어 있고 겹문의 높이는 1m16cm, 너비는 94cm로 작고, 처마도 1m20cm밖에 되지 않는다.

나. 시 · 도 문화재 자료

1) 신흥사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사진 7-5-7 〉 신흥사 전경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의 동쪽 기슭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는 신흥사(新興寺)는 원래 건봉사의 말사였으나[17] 1971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된 사찰이다.

이 절의 사적기(寺蹟記)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왕명을 받고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 하였으며 앞뜰에 구층석탑을 세워 석가세존의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향성사는 신라 효소왕 10년(701)에 화재를 입어 소실되었다.

그 후 의상대사(義湘大師)가 향성사의 부속암자인 능인암(能仁庵)터에 다시 절을 지어 선정사(禪定寺)라 하였는데, 1,000년 동안 번창했던 선정사 역시 조선 인조(仁祖)22년(1644)에 소실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영서(靈瑞), 연옥(連玉), 혜원(慧元) 세 승려가 꿈에 신인(神人)으로부터 똑같은 계시를 받고 선정사를 원터의 10리 아래에 중건하였는데 이것이 오늘의 신흥사(원래는 '神'興寺였으나 현재 '新'興寺로 개명)이다.[18]

조선 현종 2년(1661)에는 해장전을 창건하여 법화경, 중례문, 결수문, 예수문, 제청문등의 판본을 넣었으며, 조선 영조 13년(1737)에는 명부전을, 조선 순조 13년(1813)에는 주운, 철수, 윤찬 등이 불이문을 세웠다. 대한 강희 6년에 건봉사 말사가 되었으나, 신흥사는 1971년에 건봉사 대신에 대

17) 『신흥사 사적』에 의하면 大韓 降熙六年(壬子) 乾鳳寺의 末寺가 되다.
대한 강희 6년(임자) 건봉사의 말사가 되었다.

18) 신흥사(新興寺), 예전에는 신흥사(神興寺)라 부르다가 1993년부터 신(神)자를 신(新)으로 하여 신흥사(新興寺)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한 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되어 현재 20여개의 사찰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는 극락보전, 보제루, 종각, 요사채 등이 남아 있으며 극락보전은 신흥사 본전 건축물로서 전면 3칸의 겹처마 팔작기와 지붕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제루는 누각으로서 전면 7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형태이다. 하부는 본전을 향한 진입을 위한 공간이고, 상부는 집회, 강연을 위한 건축물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정면 3칸의 삼성각은 극락보전 우측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범종각은 좌측에 각각 위치해 있고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명부전이 삼성각 우측에 있다. 그 외 식사와 손님 접대를 위한 운하당, 정면 7칸, 측면 3칸의 요사채, 적묵당, 종각 등이 있다. 암자로는 안양암, 내원암, 계조암 등이 있다.

사적기에 의하며 신흥사는 극락보전 20칸, 명부전 12칸, 대향각 12칸, 삼성각 6칸, 영산전 8칸, 소향각 10칸, 선당 68칸, 승당 62칸, 보제루 32칸, 천왕문 6칸, 양로방 6칸, 고방 3칸, 소각 2칸, 편소 6칸 등 모두 253칸의 건물을 지녔던 대사찰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양암, 내원암, 계조암과 더불어 소림암, 반야암, 동토굴, 서토굴, 안심암, 세진암, 선일암, 극락암, 지무암, 향로암, 상원암, 동암, 백화암 등의 부속 암자들도 거느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도문동 김근수 가옥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4호
소재지 : 속초시 도문동 하도문리 1504번지

이 가옥은 1985년 1월 17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으며, 가옥의 규격은 69.80㎡(19.9평)으로 확실한 건립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약 20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사진 7-5-8 〉 김근수 가옥

그 동안 함평 이씨가 살다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현재 소유자 김근수가 매입하여 살고 있다. 소유자에 의하면 현재 지붕 위의 기와에 '도광 5년(道光五年)'이라고 새겨놓은 흔적이 남아 있 다고 한다. 도광 5년은 서기 1825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이 가옥은 적어도 180년 전에 기와를 얹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륭(乾隆) 27년(1762)이라고 새겨진 수키와

가 나왔는데(현재 공보실에서 가져갔다고 한다) 이것은 이 가옥이 243년 전에 신축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 가옥은 겹집양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본채인 안채 중앙에 마루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부엌이 있다. 마루 뒤에는 방 3칸을 두었으며 부엌 앞에는 외양간을 두었다. 이는 대표적인 산간지방의 중앙 구들형 6칸 겹집양식 ㄱ 자형 집이다.

주초석 위에 각기둥을 사용했으며 납도리 홑처마의 팔작지붕 형식이다. 안채는 5량으로 모두 16량이며 외양간은 2층 구조로 2층은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다. 집 옆으로 방 2칸의 행랑채가 있었으나 현재는 행랑채를 헐고 현대식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이 가옥의 특징은 사찰공법으로 처마 끝이 올라가게 지었다는 것이며, 전체 집 높이가 낮고 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점이다. 특히 좌측 사랑방 출입문 높이가 27cm밖에 되지 않아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부엌문과 대청의 경우 나무를 도끼로 다듬어서 만들었으며 대문에는 '용호(龍虎)' 글자를 붙여 놓아 액을 막고자 했다. 사랑방 옆에는 대리석 경치돌로 장식을 하였고 담은 흙담으로 상단에 기와를 얹었다.

3) 신흥사 부도군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5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사진 7-5-9 > 신흥사 부도군

신흥사 부도군은 원래 일주문을 지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96년 여름 현 위치인 소공원 매표소 오른쪽 부지(130 여평 규모)로 옮겨지게 되었다.

부도란 명칭은 불타(佛陀)에서 파생된 것으로 불도(佛圖), 부두(浮頭), 포도(浦圖)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된다. 스투파(탑파)의 전음(轉音)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어원상으로 불타가 곧 부처이므로 불상과 불탑도 부도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도라고 하면 승려의 사리탑인 승탑(僧塔)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것은 수행이 높은 승려에게 불타와 같은 예우를 해주게 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도는 불가에서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신앙의 중심은 될 수 없으므로 사찰의 경내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건립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며 그 형식도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부도를 세우기 시작한 때는 삼국시대말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팔각원당형과 석종형으로 분류된다. 현재 신흥사 부도군에는 석종형이 10기, 원당형이 9기 총 19기, 비석 6기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벽파선사, 용암선사, 대원선사, 월암선사 등과 같이 이름을 알 수 있는 부도가 13기, 무명 선사의 부도 6기, 부도비는 6기이다. 6기의 부도비는 벽파당 대선사비, 용암당 대선사비, 대원당 대선사비, 신흥사 사적기, 김수영 공적기념비, 해암당 대선사비이다.

4) 노학동 3층 석탑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27호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 사진 7-5-10 〉 노학동 3층석탑

낮은 구릉에 둘러싸인, 속칭 무당골이라 불리는 200평 정도의 골짜기에 위치한 절터에는 현재 석탑 1기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기와들이 산재해 있다.

이 석탑은 안상(眼狀)이 새겨진 기단부에 1층 탑신, 1층 옥개석, 2층 옥개석과 3층 탑신, 3층 옥개석, 노반석이 각각 1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탑신 4면에는 양 우주 및 사방불(四方佛)이 조각되어 있고, 연화좌 아래 상단 기단석 아래 면에도 앙련(仰蓮)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영동지방의 석탑 중 1층 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된 탑은 노학동 3층 석탑과 함께 진전사지 삼층석탑, 강릉시립박물관 석탑재 뿐이며 그 희귀성으로 인해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 탑은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3절 미지정 문화재

1. 불교 문화

가. 내원암

〈 사진 7-5-11 〉 내원암 현판

신흥사 북서쪽 1.5km 지점에 위치한 암자이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 자장율사가 향성사를 창건할 때 동시에 현재의 내원암 자리에 능인암을 세웠으나, 신라 효소왕 7년(698)에 향성사와 같이 불타 버렸다. 그 후 3년 후인 신라 효소왕 10년(701)에 의상조사가 능인암 터에 절을 중건하여 선정사라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 인조 20년(1642) 선정사가 불타 버리자 2년 후인 조선 인조 22년(1644)에 현재의 신흥사 터에 절이 중건되어 절 이름이 신흥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선정사 자리에는 같은 해 용암대사가 내원암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이 내원암은 조선 철종 11년(1860)에 불타고 말았으며 혜봉스님의 중건 하였으나 조선 고종22년(1895)에 또 다시 불타고 말았다.

오늘날의 내원암은 1914년에 금강산 신계사 비구니 김수영에 의해 다시 재중건된 것으로 조선 고종 28년(1901)에 조성된 후불탱과 함께 오늘에 이르고 있다.[19)]

정문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내원암'(內院庵)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19) 『신흥사 사적』
朝鮮 高宗 二十八年(辛卯) 內院庵의 後佛幀七星幀神將幀을 造成하다.
조선 고종 28년(신묘)에 내원암에 후불탱, 칠성탱, 신장탱을 조성하였다.

나. 계조암

〈 사진 7-5-12 〉 계조암

신흥사 북서쪽 2.3km 지점에 위치한 자연 석굴로 되어 있는 암자를 말하며 후면(북쪽)에는 울산바위가 위치하고 있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가 향성사를 창건할 때 동시에 건립했다고 한다. 일찍이 동산(洞山), 각지(覺智), 봉정(鳳頂) 세 조사가 항주하

면서 정진 수도하였고 또 원효, 의상 두 조사가 서로 이어서 수도하던 도량이라고 하여 계조암이라 명명하였다.

창건 이후의 역사는 소상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흥사사적기』에는 조선 고종27년(1890) 응화스님이 삼성각(三聖閣)을 지었으며, 1908년 동암 스님이 단청하고 동고스님이 후불탱화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법당인 석굴과 삼성각, 요사채 등이 있으며 석굴 안에 봉안된 아미타불과 삼성각에 모신 나반존자상이 있다.

2. 호수 및 정자

가. 호수

1) 청초호(靑草湖)

속초시 중앙에 위치한 석호(潟湖)로 옛 이름은 쌍성호(영랑호와 청초호가 쌍둥이처럼 나란히 있다는 뜻) 또는 진성호라 하였다.

〈 사진 7-5-13 〉 청초호의 철새들

호수의 면적은 879,863㎡, 둘레는 4.276km로 북쪽 입구가 좁고 긴 모양을 하고 있다. 이 호수는 선박들이 외해(外海)의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조선시대에는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두고 병선(兵船)을 정박시킨 일도 있었다.

청초호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읍지(邑誌)』에는 용경(龍耕)에 관한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청초호가 한겨울에는 얼음이 얼어 마치 논두렁 같이 되는데, 이것을 호수 밑에 사는 용이 갈아 놓은 것이라고 하여 용경 또는 용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용경이 남쪽을 향해 갈아 놓았을 때는 풍년이 들고, 북쪽을 향해 엇갈이로 갈아 놓았을 때는 흉년이 든다고 하여, 이것으로 다음 해 농사의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또한 이 고장에는 영랑호(永郞湖)에는 암룡이, 청초호에는 숫용이 산다는 얘기가 예로부터 함께 전해져 오고 있다.

청초호는 전 세계적으로 지질적으로도 희귀한 가치를 지니는 자연석호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제시대 말기에 청초호를 큰 항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좁은 입구를 파내고 옆에 축대를 쌓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으며 그 때부터 속초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금은 속초항의 개발로 호수 주변

이 어항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수의 1/3이 매립되어 유원지로 개발되었다.

현재 청초호 상류는 철새도래지로, 호수 남쪽으로는 속초 시민 식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2) 영랑호(永郎湖)

〈 사진 7-5-14 〉 영랑호 전경

영랑호는 속초시 서북쪽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에 둘러쌓인 자연석호로 그 주위가 7.7km, 면적이 약 1,024,000㎡ 이며 경관이 빼어나 아름다운 호수로 예로부터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명칭은 신라시대 영랑이라는 화랑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긴 까닭으로 영랑호라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20]

이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신라시대 화랑이었던 영랑(永郎)이 동료인 술랑(述郎), 안상(安祥), 남석행(南石行) 등과 금강산에서 수련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성 삼일포에서 3일 동안 놀고 난 후 각자 헤어져 금성(현재 경주)을 향해 가던 중 영랑은 이 호수를 만나게 되었다. 명경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빨간 저녁노을로 한결 웅대하게 부각된 설악산 울산바위, 그리고 웅크리고 앉은 범바위가 그대로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아름다움에 매료당한 영랑은 금성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

그때부터 이 호수를 영랑호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산기슭에서 바라보는 영랑호의 풍경은 더 없이 평화롭기만 하다. 또한 호수주위를 돌아 감싸는 도로는 도보여행이나 드라이브, 자전거 하이킹에도 더없이 좋다. 이곳에서 설악산을 바라보는 맛도 일색이다.

특히 해가 저물 무렵 하구 쪽에서 영랑호를 바라보면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선경을 만날 수 있다.

나. 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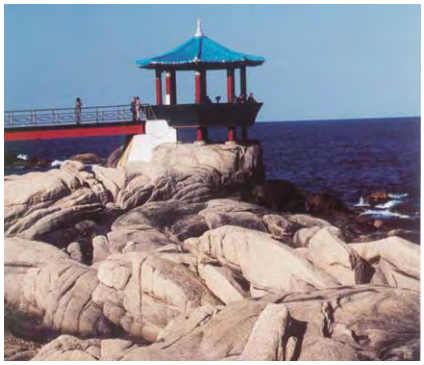
1) 영금정(靈琴亭)

속초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삼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2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간성 산천조에 의하면 在郡南五十里周三十餘里汀回渚曲巖石奇怪湖東小峯半入湖心有古亭基是永郎仙徒遊賞之地
고을 남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30여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터가 있다. 여기가 영랑(永郎)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

잇닿은 석산(石山)이 있는데, 이 석산이 솔산이다. 지금은 방파제 쪽에 일부만 남아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곳 일대를 통칭하여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불린다.

일제시대 말기 속초항 개발 때, 이 석산을 파괴하여 여기서 돌을 채취하여 방파제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석산은 없고 대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다.[21]



〈 사진 7-5-15 〉
영금정 일대 및 해돋이 정자

일제 강점기인 1926년에 발행한『면세일반』에 최초로 기록된 영금정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영금정(靈琴亭)은 누대(樓臺)나 정자가 있어서 영금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석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音曲)이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도 하고,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읊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영금정을 옛날에는 비선대라고 하였는데 이는 솔산 위에 정자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선대가 솔산의 석봉 위에 있었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이 석산의 모습을 이야기한 자료는 없다. 다만 석산의 모습을 짧게나마 기억하고 기록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솔산이란 곳을 말하자면 속초라는 지명을 만들게끔한 아름다웠던 바다 위에 떠 있던 작은 섬! 마치 농군이 풀을 베어 단을 졸라맨 모양의 작은 바위섬! 바위 위에는 두 세 사람이 팔을 벌려 안아야 할 만큼 큰 노송이 우산 모양의 나뭇가지를 둥굴게 하여 하늘 높이 사방으로 뻗어 서 있다.(중략)

섬이라고는 하지만 섬과 해안선 사이가 넓고, 넓은 돌반석이 물밑에 깔렸고 바닷물이 불어나면 섬이 되고 바닷물이 마르면 발목정도 적시면 육지에서 이 섬까지 건너갈 수 있었다. 그러던 솔섬이 오늘에 이르러 육지가 돼 버렸다.(중략)

송림 사이로는 울퉁불퉁 묘한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며 솟아 있었고, 공작새가 날개를 편 모양이 천년 노송들이 땅바닥을 굽어보며 묘한 몸매로 쭉! 쭉! 나뭇가지를 늘어뜨렸었다."[22]

21)『관동읍지』양양 누대조에 의하면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瞻拔可觀舊有亭今廢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데 가히 볼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22) 김정우,『내 고향(故鄕)』, 강원일보사, 1997, p.55

속초 앞 바다에서 바라보는 솔산의 모습은 가히 아름답고 환상적이었을 것이다. 이 산으로 인해 속초(束草)의 땅이름이 생겨났을 것이라는 설까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토록 아름다운 곳에 정자가 있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대동여지도』, 『관동읍지』, 『관동지』,『양양군읍지』등에는 모두 이 비선대(秘仙臺)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2) 학무정

〈 사진 7-5-16 〉 학무정

학무정(鶴舞亭)은 속초시 상도문동 송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말 성리학자 오윤환(吳潤煥)이 1934년에 현 위치에 건립한 정자이다.

정자 모양이 6각(六角)이므로 옛날에는 육모정이라 불렀으나, 정자 4면에 이름을 적은 현판이 남아 있다. 남쪽 학무정, 북쪽 영모재(永慕齋), 북동쪽 인지당(仁智堂), 남서쪽 경의재(敬義齋)가 그것이다. 정자 안쪽으로 11개의 시판(詩板)과 1개의 학무정기(鶴舞亭記)가 있으며 정자 육면에 분합문(分閤門)을 단 흔적이 남아 있다.

학무정을 건립한 오윤환(1872~1946)의 본관(本貫)은 해주(海州), 호는 매곡(梅谷)으로 속초 도문동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성리학을 깊이 궁리(窮理)하였고,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향리(鄕里)에서 제자 교육에만 힘썼으며, 효성도 지극하였다.

3 · 1 독립만세운동에 제자들과 참여하였다가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곤혹을 치뤘으며, 단발령과 창씨개명을 철저히 반대하였다. 그 후 학무정을 건립하여 선비들과 글을 짓고 시를 읊으며 제자들과 강론하는 교육의 도장으로 삼았다.

정자 옆으로는 1971년에 세운 학무정 기념비와 1955년에 세운 충효강릉박공휘지의지비(忠孝江陵朴公諱志誼之碑)가 위치하고 있다.

3) 영랑정

영랑호 남쪽 범바위 바로 옆(동쪽)에 있다. 6 · 25 때 이 지방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11사단장 김병휘(金炳徽)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金將臺)가 있었으나 풍우에 퇴락되어 정자는 간 곳 없고 시멘트로 축조된 6각으로 된 기단부(基壇部)만 남아 있던 것을 2005년도 복원계획에 의

해 새로운 정자가 들어섰고, 시민공모에 의해 '영랑정(永郎亭)'이란 명칭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진 7-5-17〉 영랑정

3. 금석문 및 비석 · 기념탑

가. 금석문

금석문이란 글자 그대로 쇠붙이나 돌붙이에 새겨진 글자나 그림을 통틀어서 말한다. 문헌으로 전하는 것은 애매하거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금석문은 그 당시 그 사람의 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구체적인 생의 기록이므로 가장 정확하고 진실한 역사적 자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석문은 중국과는 달리 쇠붙이 보다는 돌에 새긴 것이 많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비석 종류이다.

금석문은 활자와 종이로 새겨진 역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많은 기록이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고 남아있는 또 다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1) 비선대 각자

비선대(飛仙臺)는 설악동 소공원에서 남서쪽으로 약 2.3㎞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암반이다. 예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 풍류를 즐겼으므로 암반에는 수 많은 글자가(주로 직책과 이름) 새겨져 있는데, 그 중 '飛仙臺'라고 새긴 큰 글자가 대표적이다.

〈 사진 7-5-18 〉
비선대 각자

현재 각자(刻字)에는 특별한 표시도 없고 그동안 관광객들에 의해 짓밟히고, 오랜 세월의 풍화에 의해 글자가 희미해졌으나 지금도 飛仙臺라는 큰 글자는 초서(草書)로 새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는 글자 하나의 지름이 1m 정도이고 윤순(尹淳)이 쓴 것이라고 양양읍지(襄陽邑誌)인 『현산지(峴山誌)』에 기록되어 있다. 윤순은 조선 영조 때에 서예가로 판서를 지낸 인물이다.

2) 계조굴 각자

계조암(繼祖庵)은 신흥사 북서쪽 2.3㎞ 지점에 위치한 자연 석굴로 된 암자이다. 이곳은 유명한 조사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되었다고 하여 '계조(繼祖)'라는 이름이 붙여진 불교의 유명한 수도처이다.

그리고 그 옆의 바위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음각되어 있는데 그중 '繼祖窟'이라는 큰 글자가 가장 대표적이다. '繼祖窟' 각자(刻字) 옆에는 '尹師國書'라고 새겨진 글자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 각자가 조선 정조 때의 서예가이자 판서 벼슬을 지낸 윤사국(尹師國)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윤사국(尹師國)은 조선 정조(正祖) 14년(1790)에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인물이다.

3) 관음 각자

속초시 영랑호 동남쪽 속초의료원 뒷편 산봉우리에 관음암(觀音岩)이라는 큰 바위가 있고 바위에 '觀音'이라는 큰 글자가 종서(縱書)로 새겨져 있다.

글자의 크기는 지름이 약 80㎝ 정도이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1줄에 4자씩 2줄, 종서로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으나 지금은 잘 알아 볼 수 없다. 그 왼편에도 역시 작은 글자가 종서로 '西歷 一九五二年 六月 日/ 李亨根 題/崔泓熙書'라고 3줄 새겨져 있어 수복 직후 이 고장에 군정이 실시되고 있을 때 제1군단장 이형근(李亨根) 장군과 명필 최홍희(崔泓熙) 장군에 의해서 각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랑호에 인접한 이곳은 옛부터 관음보살(觀音普薩)이 출현하는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23) 용암대사비와 대원대사비는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서 해석을 실었다. 기존의 참고자료가 없고, 현재 쓰지 않는 한자가 많아 해석에 어려움이 많았다. 부분적으로 모르는 글자가 몇 자 있긴 하나 지역불교사를 연구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나. 비석

1) 신흥사사적비

· 소재지 : 신흥사 입구 부도군(浮屠群)
· 연　대 : 조선 영조 40년(1764)
· 규　모 : 총높이 287cm, 비신 높이 204cm, 두께 31cm, 폭 79cm

2) 양양 신흥사 용암대사비명(襄陽神興寺龍巖大師碑銘)[23]

有明朝鮮國龍巖堂大禪師碑銘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傅李福源撰
資憲大夫原任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姜世晃書
夫抱幽憂疾久謝筆硯 有浮屠弘愍者爲師乞銘 守東郭經歲不去祈叩益堅 余始

而疑卒而歎曰彼雖異吾道 而能竭其道之忠於身去之後如此 殆有不蘄然而然者存焉 是足以銘矣 按其狀 師法名體照號龍巖 本鄭姓長城士族 幼失兩親與其兄北遊 兄歸而獨寓南漢隨釋稔長老 入雪山祝髮受戒於白蓮堂智欽大師 後遇日庵法師益肆力於內外典轉參南北諸宗 而歸日庵以所居內院屬師錫以法號 自此卓錫豎拂施敎日廣 蓋於淸虛爲七世孫云晩年謝遣門徒 一日弟子洪波往省之師疾病 索筆書偈 曰與我有親 親 何時更 有親親親返前昔在今 又無因我 今又得在前聖是吾親 今朝大笑去 楓嶽萬峰濱乃浴身更衣 越三日示寂 卽己亥十二月二十一日壬戌也 壽六十七法臘五十一 門徒等建浮圖於內院之東寶藏舍利 師喜施予 有心計自童歲解屬辭有詩文若干篇傳於其徒 余於少時游雪嶽 意有高禪逸士棲寄於巖洞松桂之間而未之見也 今聞師住此山四十年竟以樂終其得於耳謨目營而融於心者必有神解妙詮之可以嚄惺人性靈喜師之遇眞境而恨余之無夙因也 銘曰 我不識師 銘奚以爲 見師之偈 如眞見師 東有雪山 桑海其隣 銘師於是 是亦夙因 崇禎紀元後三己酉五月 日立

유명 조선국 용암당대선사비명
(有明 朝鮮國 龍巖堂大禪師碑銘)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경연사감춘추관사이며 세자의 스승인 이복원이 짓고 자헌대부로 전에 한성부판윤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지냈던 강세황은 쓴다.

노부가 우울병이 오래되어 글을 안 쓴지 오래되었는데 홍민이라는 중이 선사를 위하여 명을 지어주기를 청하여 동곽(東郭)을 지키며, 해가 지나도 가지 않고 기원하는 것이 더욱 견고하였다. 내가 처음에는 마칠 것을 의심했으나 탄식하면서 말했다. 저쪽이 비록 내 도(道)와는 다르나 능히 그 도(道)가 몸에 충만하기를 다할 수 있으니 선사가 떠난 후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명을 지을만하다 그 행장을 살펴보면 선사의 법명(法名)은 체조(體照)이고 호(號)는 용암(龍巖)이다. 본래 정씨(鄭氏)성으로 장성(長城)의 사족(士族)이었다. 어려서 양친(兩親)을 잃고 그 형과 함께 북쪽으로 유람(遊覽)왔다가 형은 돌아갔으나 홀로 남은 석임장로에게 일년간 의탁하였다. 설악산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백련당 지흠대사(白蓮堂 智欽大師)에게 계(戒)를 받았다. 후에 일암법사(日庵法師)를 만나 더욱 불경(佛經) 및 기타 전적(典籍)을 공부하였으며, 남북제종(南北諸宗)의 전적(典籍)들도 공부하였다. 일암(日庵)으로 돌아와 내원(內院)에 거할 때 스승이 법호(法號)를 주

었다. 이로부터 석장(錫杖)을 세우고 닦음을 완성해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날로 넓어졌다.

대개 청허(淸虛)가 칠세손(七世孫)이 된다고 이른다. 만년(晩年)에 문도들을 사절하여 보냈다. 하루는 제자 홍파왕(洪波往)이 선사를 보살폈는데 선사가 병이 위중할 때 붓을 찾아 게(偈)를 짓기를 나와 친함이 있는데 친함은 어느 때 바뀔가? 친했던 것은 예전에 것이 돌아온 것이니 지금(只今)은 또한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얻어진 것이니 성(聖) 이것이야말로 나의 친함이다. 오늘 아침 크게 웃으며 가리라.

만봉(萬峰)에 단풍이 들려 할 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지 삼일만에 입적하였으니 곧 개해 십이월 이십일일 임술(壬戌)이었다. 세수가 육십 칠세이고 출가한지 오십 일년 이었다. 문도(門徒)들이 내원(內院)의 동쪽에 부도를 세우고 사리(舍利)를 보장하였다.

선사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또한 심계가 어렸을 적부터 뛰어났다. 문사와 시문(詩文) 약간편이 그 문도(門徒)에게 전해진다.

나는 젊은 시절에 설악산에 노닐면서 고선일사(高禪逸士)들이 석굴 송계(石窟 松桂)지간에 머물러 사는 것에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 지금 선사가 이산에 사십 년을 머무르다가 마침내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을 들었다. 선사는 귀에 들은 것을 눈으로 실천할 것을 도모했으며, 마음에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불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서이니 인성의 존엄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선사가 참된 경지를 만난 것을 기뻐하고 나에게 오래된 인연이 없음을 안타까이 생각한다.

그 명(銘)에 이르기를
나는 선사를 모르는데 명을 어떻게 지으리오.
선사의 게를 보니 선사를 뵙는 것과 같아
동쪽에는 설악산이 있고,
상전벽해는 그 이웃에 있네.
이에 선사의 명을 지으니
이 또한 오래된 인연이리라.
崇禎紀元後三 己酉년五月에 세우다

3) 양양신흥사대원대사비명(襄陽神興寺大圓大師碑銘)

有明朝鮮國大圓堂大禪師碑銘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原任奎章閣直提學兪彦鎬撰幷篆嘉善大夫工

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曺允亨書雪嶽名于域中古淸寒子暨三淵翁遺躅尙在而淵翁所嘗與爲淨社之游如曉道人雄大師其人皆靈淑所鍾超上津茂其道珠而其致一後之尙賢者奚方內外之間焉余嘗居白城之墅有比丘道圓者自雪嶽走千里爲師乞銘問其師乃賢道人高足大圓大師也嘻卽其淵源之所自可而知師矣師法名無外號大圓堂本文姓高麗江城君益漸之後父壽遠母金氏夢月而娠旣生肌膚淨潔不藉洗浴爲兒嬉戱皆作佛事見者異之甫成童當戊申國難奔赴南漢守堞有勞難己賞射獲多當第遂力辭而歸忽自念人之寂於物者以有靈明也其可緣形役性喪吾神珠乎旣而父母擇對將諏日送之乃中夜脫身走入雪嶽問道日庵大師大師卽賢道人也賢與語奇之傳其心印繇其上有雪巖月渚楓潭鞭羊以接乎淸虛於師六世也師夙有慧識於內外典深獨得以開衆覺中年苦眼眚於是面壁心灰回光內照行益苦道益尊蔚然爲一代業林之宗今上辛亥七月乙酉寂于雪嶽之極樂庵壽七十八臘六十臨化謂衆曰我將行矣其勿以彌文累我旣焚化有光燭天移日不去門僧慧遠得靈珠一顆爲浮圖以藏之云余仍誥之曰圓甭道以無爲爲宗顯揚褒大何有於師哉圓曰以爲無也則三千大界便作空華以爲有也則眞妄皆境隨所在而致力亦人之道也圓頊古而氣淸徧習竺典專心所事殆古所謂不見其山願見其木者歟遂爲之銘曰

赴難逃賞淸虛之風兮
因性早覺月渚之通兮
五祖傳印臨濟之宗兮
由戎八宅水止鑑空兮
雪山嵯峨寶珠玲瓏兮
於千萬年皎皎靡終兮
崇禎紀元後三壬子十一月 日立

유명 조선국 대원당대선사비명
(有明 朝鮮國 大圓堂大禪師碑銘)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 崇祿大夫)로 전에 행판중추부사 (行判中樞府事)를 지냈고, 규장각 직제학(奎章閣 直提學)인 유언호(兪彦鎬)가 짓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공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工曺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 副摠冠)인 조윤형(曺允亨)이 쓰다.

설악산은 나라에서 유명하다. 옛날 청한자(淸寒子)와 삼연옹(三淵翁)이 남긴 자취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리고 연옹이 함께 했던 정사(淨社)의 교유(交遊)로서 색도인(賾道人)과 웅대사(雄大師) 같은 사람은 신령하고 맑은 기운이 모여 상무(上茂)를 초월

한 분들이니 그 도(道)는 달랐으나 그 귀취점은 하나였다. 후세에 훌륭한 사람을 숭상하는 사람이면 무엇 때문에 방내(方內)니 방외(方外)니 하는 차별을 하겠는가? 내가 일찍이 백성(白城)의 별장에 거(居)할 때 비구인 도원(道圓)이라는 자가 설악으로부터 천 리를 달려와 선사의 명(銘)을 짓기를 청하였다. 그 선사가 누구인가 물으니 곧 현도인(賢道人)의 제자 대원대사(大圓大師)였다. 아! 그 연원(淵源)이 그러하니 선사를 알만하다.

선사의 법명(法名)은 무외(無外)이고 호(號)는 대원당(大圓堂)이다. 본래(本來) 문씨(文氏) 성(姓)으로 고려(高麗) 강성군(江城君) 익점(益漸)의 후예(後裔)이다. 아버지는 수원(壽遠)이고 어머니는 김씨(金氏)이며, 태몽(胎夢)에 달을 보고 임신(姙娠)한 후 아이를 낳았는데 피부가 정결하여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아이 때 놀이를 하는데 모두가 불사(佛事)와 관계된 것이어서 보는 이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소년 때인 무신년(戊申年)에 국난을 당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하여 성(城)을 지켰는데 공이 있어 벼슬을 주려고 했으나 사양하고 돌아와 홀연히 사람이 사물에 적(寂)할 수 있는 것은 영명(靈明)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음이 육체적 생활(肉體的 生活)의 노예(奴隸)가 되어 사역(使役) 당하는 일은 자신의 신주(神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설악산(雪嶽山)에 들어가 일암대사(日庵大師)를 물어 찾았는데 대사(大師)가 곧 현도인(賢道人)이었다. 현인이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그에게 심인(心印)을 전해주었다.

그 위에는 설암(雪巖), 월저(月渚), 풍담(楓潭), 편양(鞭羊)이 있고 청허(淸虛)에 이르기까지 육세(六世)가 된다. 선사는 일찍이 불경(佛經) 및 기타 서적(書籍)에 깊은 지식이 있었으며, 깊이 있게 홀로 대중을 깨우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년(中年)에는 안질(眼疾)로 고생하였으며, 이에 면벽(面壁)수련에 들어가 마음이 다하도록 수련한 결과 회광 내조(回光 內照)에 이르러 수행은 더욱 고통스러웠으나 도가 더욱 드높아져서 울연(蔚然)히 일대(一代)의 업(業)을 이루었다. 신해(辛亥)년 칠월(七月) 을유(乙酉)에 설악(雪嶽)의 극락암(極樂庵)에서 입적(入寂)하셨다. 세수(世壽)가 78(七十八)이요, 출가(出家)한지 60년(六十年)이었다. 입적(入寂) 하기 전에 대중에게 이르기를 나는 장차 입적(入寂)할 것이다. 글을 지어 나를 얽매이지 말라, 이미 다비식을 치룰 때 환희 비추는 빛이 하늘로 이어져 날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문승(門僧) 혜원(慧遠)이 영주일과(靈珠一顆)를 얻어 부도를 세우고 그것을 보장하고 이르기를 내가 거듭 밝히지만 선사의 도(道)는 무위(無爲)로써 기본을 삼는 것이니 선사에게 세상에 명예가 드러난다든가 칭

찬 받는 것이 어찌 큰 것이 되겠는가? 선사가 말하기를 삼천 세계(三千世界)라는 것은 편히 지어낸 공상으로 없는 것이고, 진실과 허망한 것 모든 경우는 있는 곳에 따를 뿐이니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道)이다. 선사의 모습은 고풍스럽고 기는 맑으며 두루 학습하고 경전을 독실히 공부하였다.

하는 일마다 마음을 다하셨고 예전에 그 산을 보지 못하며, 그 나무를 보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를 위하여 명(銘)을 짓노라.

어려움에 이르고 상을 피한 것은 청허(淸虛)의 풍이여,
인성(因性)을 일찍 깨달은 것은 월저(月渚)와 통한다.
오조(五祖)에 심인(心印)을 전한 것은 성취함의 으뜸이여,
마음으로 심복 시킴은 명경지수 같은 거울이다.
설산(雪山)은 우뚝 솟고 보주(寶珠)의 영롱(玲瓏)함이여,
천만년 후에도 고결함이 잊혀지지 않으리라.
崇禎紀元後三 壬子년 十一月에 세우다.

《유명 조선국 대원당대선사비명》

4) 유물재비

속초시 대포동 해맞이공원 반대편 서쪽에 설악 파출소가 있고 파출소 뒷편 잔디밭에 유물재비가 있다. 원 이름은 '물재 유선생 유허비(勿齋 兪先生 遺墟碑)'이다.

물재(勿齋) 유회일 선생(창원 출생)은 조선 후기 학자로 당쟁을 피해 이곳 대포동(물치리)에 오랫동안 머문 학자이다. 그의 학덕과 부친에 대한 효성을 마을 사람들이 흠모하여 그의 사후 이 고장의 유림들이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현 속초시 대포동 내물치리 마을 한가운데에 향현사라는 사당을 건립하여 해마다 제사를 지내왔다. 그 후 사당 건물이 퇴락하자 그 자리에 지금의 유허비를 세웠고, 유허비 부근 일대에 새마을이 조성되게 되자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비문은 예조판서 조관빈(趙觀彬)이 짓고, 글씨는 강원도 관찰사 홍봉조(洪鳳祚)가 썼다.

비를 건립한 연대는 1748년으로 되어 있고, 비의 총 높이는 194.5cm, 비신(碑身)높이 138.5cm, 폭 60cm, 두께 20cm의 규모로 되어 있다.

5) 박지의 효자비각과 충효 강릉 박공휘지의 지비

효자비각은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리 숙개골에 위치하고 있다. 박지의는 강

릉 박씨로 조선후기에 이 고장이 배출한 대표적인 효자이다. 그는 조선 정조 23년(1799)에 태어났다. 26세 되던 조선 순조 24년(1824)에 부친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주었고(단지수혈), 같은 해 7월 17일 부친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정성껏 시묘살이를 했다. 51세가 되던 조선 헌종 15년(1849) 6월 6일에는 임금님이 승하하시자 마을 앞 쌍천 갯가의 조용하고 깨끗한 곳(현재 학무정이 있는 곳)을 골라 제단을 쌓고 부모상 때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망곡을 하였다. 그 후 박지의는 1860년 62세로 세상을 마쳤다.

그의 뛰어난 충성심과 효성은 이 지방의 유림들에 의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조정에 알려져 마침내 그가 타계한지 33년이 지난 조선 고종 30년(1893)에 12월에 정려(旌閭)의 명이 내려 효자비각을 망곡하였던 터 옆에 세웠다.

더불어 나라에서는 그에게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라는 관직을 하사했다. 그 후 홍수로 비각이 유실되자 1937년 다시 비각을 그의 무덤이 가까운 현재 위치로 옮겨 세웠고, 1984년 봄에는 속초시장이 비각의 단청을 다시 하고 주변을 정화했다.

그 전에 효자비각이 있었던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1리 쌍천가 학무정 옆에는 1955년에 후손들이 세운 충효강릉박공휘지의지비(忠孝江陵朴公諱志誼之碑)가 있다.

6) 박상희 읍장 송덕비(朴祥喜 邑長 頌德碑)

초대 속초읍장을 지낸 박상희의 송덕비이다. 1958년 9월에 '송덕비건립위원회'의 이름으로 건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시청 앞 광장에 세워졌으나 동명동 방호위로 옮겼다가, 수복탑 옆으로 옮겨졌고, 현재 속초시 내물치리 비석공원에 구비(舊碑)와 함께 1992년 8월에 건립된 신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박상희 읍장은 1890년 현 속초시 장사동 장천리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한학을 공부하였다. 청년기에는 도문동 중도문리로 이사하여 이석범이 세운 쌍천서숙에서 신학문을 공부하였고 3 · 1운동에도 참가하였다.

그 후 강원도 평의원과 도천면장을 역임하였다. 면장 재직시 속초항 개발을 추진하여 오늘날의 속초를 있게 한 장본인이다. 즉 천연의 조건을 갖춘 청초호를 항구로 개발함으로써 청초호에 인접한 속초리가 커져 1937년 7월 1일에는 도천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졌고 면의 이름도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1942년 10월 1일 부령 제104호로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그 공으로 속초읍의 초대 읍장으로 추대되어 속초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48년 향년 59세로 세상을 마쳤다.

다. 기념탑

1) 수복기념탑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수복기념탑은 실향민 도시 속초를 상징하는 탑이다. 이 탑은 전쟁 기념비라기보다는 통일을 염원하는 탑이라고 할 수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 끝나고 속초 지역은 수복되었으나 남쪽으로 피난하였다가 북쪽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실향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실향민들의 한을 달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이 탑을 만들었다.

〈 사진 7-5-19 〉
수복탑 모자상 전경

당시 읍장이었던 김근식, 피난민 연락소장 박상선, 후방 반공 계몽인 박성주 등이 수복을 기념하고 피난민의 향수를 달래기 위하여, 제1군단 민사처 보좌관 전형윤 소령을 통해 건의를 하고 제1군단장 이형근 장군의 승낙을 얻어(한국전쟁으로 수복은 되었으나 아직 군정이 실시되고 있었다.) 피난민의 회사금, 속초읍 부담 육백만환, 군부대의 차량 지원으로 1954년 5월10일 건립하였다.

탑의 재원은 좌대 폭4m, 좌대 높이 7m 모자상동상 높이 2.55m 등 총 9.55m 의 화강암 재질로 되어 있으며 전쟁 유적비 탑의 상례인 “군경조각동상이 아닌 민간인 “모자조각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탑의 특징이다.

이 탑의 맨 위에는 보따리를 끼고 있는 어머니와 북녘하늘을 가리키는 어린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고향땅을 바라보는 애절한 모자조각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더 이상 고향땅으로 올라 갈 수 없는 실향민의 한과 통일의 염원을 대변한다.

이 모자 조각상은 당시 1군단소속 군인인 박칠성씨가 제작했으며, 애절한 사연을 담은 모자상부(母子像賦)는 당시 1군단 소속인 장호강 시인(한국참전시인협회장)이 지었다.

그러나 1983년 4월 27일 새벽, 동해안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모자상은 철저히 파손됐다. 실향민들의 슬픔이 더욱 커졌다, 어부들도 귀항길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수복기념탑의 파손에 대한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졌다.

이에 범시민적으로 수복기념탑복원건립위원회(위원장 김종록)가 구성돼 시민성금 모금에 들어갔으며(시민성금 4천여만원과 시비 1천여만원) 결국 눈물어린 시민의 정성으로 인해 그해 11월 17일 수복기념탑은 다시 제막식을 갖게 됐다. 통일을 염원하는 속초시민 모두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철책 너머 고향을 두고온 실향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며, 통일의 그날에 대한 희망을 품은 「수복기념탑」도 이제 인간의 나이로 치면 어느덧 오십살이 넘어 육십줄을 바라본다.

「첩첩 높이 솟은 산봉우리 앞을 가리고 구비구비 험한 길 아득히 멀어도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손도손 망향의 이야기 나누며 북녘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치고 어느 짓궂은 길손이 그 앞길 가로막는다 한들 두 생명 다하도록 낮도 밤도 없이가야만 하느니...」

(수복기념탑의 모자상부 첫귀절)

지금은 설악문화제, 설악눈꽃제 등의 축제에서도 빠짐없이 통일염원의 행사가 이곳에서 치뤄지며, 98년 5월 3일 영북지역 최초로 범시민적인 통일시민대회가 이곳 광장에서 열리기도 했다. 요즘 부쩍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수복기념탑은 10만 속초시민의 통일 염원을 하나로 묶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2) 이름모를 자유용사(自由勇士)의 비(碑)

속초시 설악동 소공원에서 비선대 방향으로 약 2.4㎞ 지점인 정고평(丁庫坪)에 위치하고 있다. 흔히 '무명용사(無名勇士)의 비(碑)'로 불리워진다.

한국전쟁 때 설악산 산악전에서 중공군을 맞아 용감히 싸운 수도사단, 제11사단, 제5사단 순국장병과 군번 없이 참전했다가 산화한 학도결사대, 호림부대(虎林部隊)의 젊은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공훈을 추모하기 위하여 1965. 10. 30 한국일보사에서 제1군사령부와 강원도의 후원을 받아 <반공 애국 유적 부활 사업> 의 일환으로 건립하였다.

당시 한국일보사 강원지사장 이구형(李銶瀅) 이 비 건립을 발의하였고 제1군사령부 출입기자단장 지일권(池一權) 기자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시공은 국제토건회사(國際土建會社, 사장:朴贊奎)가 맡아서 하였다. 공사비는 강원도 내 각 기관과 독지가에게서 모금한 성금 2백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쌍용시멘트회사에서는 시멘트 300포를 희사하였고 제1군사령부에서는 장비를 지원하였다. 공사 감독은 제1군사령부와 한국일보사 속초주재 마일연(馬一淵) 기자가 담당하였다.

'이름모를 自由勇士의 碑'라는 휘호는 당시 육군참모총장 김용배(金容培) 장군이 썼고, 비문은 시인이자 당시 제38사단장 장호강(張虎崗) 장군이 지었다. 기단높이 1.3m, 비석 높이 13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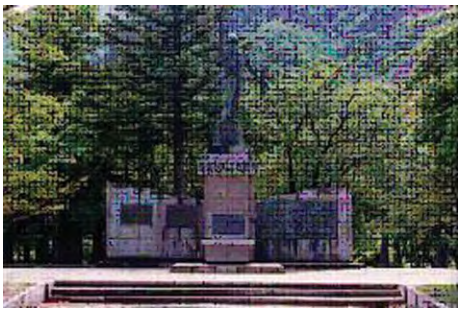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碑文

지금은 자유의 땅 여기 님들이 고이 쉬는 설악에 영광의 탑은 높이 섰나니 아아 붉은 원수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던 날 조국의 이름으로 최후까지 싸우다가 꽃잎처럼 흩어진 수많은 영들 호국의 신이여 님들의 이름도 계급도 군번도 누구 하나 아는 이 없어도 그 불멸의 충혼은 겨레의 가슴깊이 새겨져 길이 빛나리라 천추에 부를 님들의 만세여 언제나 푸른 동해물처럼 영영 무궁할 지어다.

一九六五년 十월三十일

3) 설악산 지구 전적비(雪嶽山 地區 戰跡碑)


〈 사진7-5-20 〉 설악산지구전적비

설악산 소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6·25동란 때 설악산지구 전투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전적비를 세우게 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76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교통부 연두순시 때 6·25 전적지(戰跡地) 개발을 촉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부에서는 1976년 2월 10일 전적지 개발 계획을 작성하였고, 1976년 7월 21일에는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국장급 및 관계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설악산 지구 전적지 개발 사업은 1978년에 추진되었다. 1978년 1~6월까지 개발 대상지 답사, 측량, 전사(戰史)자료 수집, 사업 계획 승인 등을 거쳐 본 사업을 위한 설계를 7월 8일 완료하였다.

전적비 건립은 조각가 최기원(崔起源)이 9월 8일에 착공하여 11월 l0일에 완공하였으며, 동년(1978년) 12월 11일에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전적비 규모는 비 기단 높이 70rn, 비 높이 3m, 동상 기단 높이 75cm, 동상 높이 335m이다.

동상(銅像)은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자유·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진으

로 돌진하는 국군의 용감한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전적비위에 세워져 있다.

전적비에는 <설악산 지구 전사문> 과 <비문> 및 <건립 개요> 가 새겨져 있다.

〈설악산 지구 전사문〉

여기 관동의 영산, 풍광 그윽한 곳에서 혈전이 있었던 것은 1951년 5월이다. 그해 2월에 삼척 부근에서 태백의 준령을 따라 북진한 국군 수도사단(맹호부대)이 4월에 관모봉 한계령선에 이르러 백담사와 대승폭포 부근에 도사린 북괴 제6, 제12사단과 대결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맹호들이 청봉을 단숨에 뛰어넘고 노호를 터뜨리며 적구를 향해 공격해 갔으니, 그날이 5월 7일. 적의 저항도 완강하였지만 더우기 높은 봉, 깊은 골이 첩첩하여 식량과 탄약이 미처 뒤따르지 못하매 악전 고투가 계속되었다. 이에 공군 수송기의 공중 보급을 받아 가며 난관을 극복하고, 공격 개시 5일만인 12일에 목표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인제에서 하진부리로 침습한 중공군이 대관령을 위협하므로, 수도 사단은 그곳으로 달려가 그 적을 막아낸 다음, 반격을 재개하여 5월말에 일사천리로 이곳을 다시 지나 6월 초에 향로봉을 점령하고, 이어 건봉산을 장악함으로써 오늘의 휴전선인 남강 기슭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 때, 이 산천에 선혈을 뿌린 맹호의 이름은 일일이 밝혀 적지 못하거니와, 나라와 겨레를 위해 한몸 바친 젊은이의 넋이 여기 서려 있으니, 이제 청봉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먼저 이 돌 앞에 고개 숙일 일이다.

〈비문〉

여기, 청봉 높은 봉우리
돌 하나 옮겨 세우니,
이는 천만 년을 이어 갈
역사의 표말이다.

바람, 꽃
아름다운 저 능선을
적구가 짓밟을 때
맹호의 노호로
이 봉우리 지켰으니,
설악이 여기에 없었더라면
어찌 향로와 건봉이 저기에 있으리오.

오월 초목
단심으로 물들인 충혼,
이 돌과 더부러
길이 남으리라.

〈건립 개요〉
주관 : 교통부
집행 : 국제관광공사
후원 : 국방부
제작 : 최기원
준공 : 1978년 11월 10일

4) 충혼탑(忠魂塔)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2리와 하도문리
경계인 신문덕에 위치하고 있다. 속초시 출신 전몰군경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탑이다. 충혼탑은 본래 1964년 5월 동명동 등대 서편 산등성이에 건립하였던 것을 1969년 5월에 9만원의 시비(市費)를 들여 영랑호 남동쪽 현재 체육공원 자리로 옮겨 동년(1969) 현충일 날 제막식을 가졌으나, 다시 1987년 12월 15일 이곳에다 새로 건립하였다. 탑의 앞면 좌우에는 국군의 활약상을 조각한 청동상(靑銅像)이 부착되어 있고 뒷면에는 비문과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문〉
돌에 새긴다
한줌 구름을 고향 하늘에 띄워두고
여기 깊이 잠들었는가
길손이 묻거든 대답하라
우리는 조국의 명령에 따라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꽃봉오린 채 이곳에 안식한다고
영원한 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대들이 누리고 있음이여
식지 않는 땅 열렬한 지평 위에
찬란한 역사와 함께 살아 있노라

젊은 목숨들이 받친 보석 바구니
겨레의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나네
이 빛나는 자유 조국의 하늘 아래
호국의 영들이여 길이 광명하라

황금찬
西紀 一九八七年 十二月 十五日
束草市長 尹泰景

〈구 충혼탑 비문〉

아아 任務(임무)와 目標(목표) 앞에 救國(구국)의 至誠(지성)은 신을 울리고 그 忠魂 天地(충혼 천지)와 함께 길이 빛났어라.

〈구 충혼탑 규모〉

기단(基壇) 높이 165㎝, 둘레 890㎝,탑신(塔身)높이 355㎝, 둘레 360㎝

5) 해경충혼탑(海警忠魂塔)

〈 사진 7-5-21 〉 해경충혼탑

속초시 장사동 사진리(沙津里) 흰고개 동편 서낭산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 · 서 · 남해에서 해상치안 질서 유지와 어로 보호 및 대간첩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꽃다운 젊음을 나라 위해 바친 해양경찰 대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대에서 건립하였다. 기단부는 해경 함정 형태로 조각되었고, 그 위에 높은 탑이 세워졌다. 충혼탑 뒤 벽에는 비문과 순직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문〉

이 나라의 東西南海(동서남해)에서
조국과 겨레의 방파제가 되어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호국영령들이
여기 太白山 북쪽 기슭에 고이 잠드시도다
꽃다운 젊음을 바다 지키시다가
숭고한 희생으로 永遠(영원)하시니
세월이 흘러가도 海警人(해경인)의 가슴마다
빛나는 별들이 되어 계시리도다.

저마다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다하시고
民族靑史(민족청사)에 충혼들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 분들을 잊을 길 없어
뜻과 정성을 모아
여기 해양경찰대 충혼탑을 세워
이들 忠靈(충령) 한자리에 모시여
호국 불멸의 꽃으로 영원히 기억하며
해경 역사에 龜鑑(귀감)을 삼고자 하노라.

서기 一九八六年 十二月 三十日
해양경찰대장
치안정감 권복경

6)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通川郡 殉國同志 忠魂碑)

영랑호 동남쪽 가에 있다. 통천군 출신 인사 중, 공산 치하에서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북한 공산도당과 생명을 걸고 싸우다 피 흘린 반공 전사자 및 6·25 전몰용사 140명의 충혼을 기리기 위하여 영북지구 통천군민회 (嶺北地區 通川郡民會) 신세묵(辛世默) 회장 외 5명이 발기하여 박용학(朴龍學), 정주영(鄭周永), 강서룡 등 전국의 통천군민 150명이 낸 희사금 120만원으로 1969년 10월 15일 건립하였다. 그 후 1990년 5월 30일 보수하였다.

<사진 7-5-22>통천군순국동지충혼비

충혼비 규모는 기단 높이 110㎝, 둘레 17m, 비신(碑身) 높이 625㎝, 둘레 5m이다.

충혼비 앞면에 <비문> 과 <순국자 명단> 이 새겨져 있다.

<비문>

동방의 금수강산 아름다운 내조국·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 아래 일신을 초개같이 던져 북한 공산도당과 싸우다 아깝게 순국한 동지들의 불멸의 충혼을 이 비에 새겨 고향 바다 흐르는 여기에 모시고 반공과 통일을 다짐하오니 충혼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통천군민일동

7) 유정충 선장 동상(劉禎忠 船長 銅像)

속초시 금호동 근로복지회관 뒷 편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 3월 1일 제주도 남방 370마일 동지나해(東支那海)에서 선원 21명을 구하고 하나호와 같이 운명한 유정충(劉禎忠) 선장의 동상으로 1991년 1월 9일 제막되었다. '하나號(호) 船長 劉禎忠 像(선장 유정충 상)'이라고 새겨진 사각형 좌대(座臺) 위에 유선장이 반쯤 침몰된 하나호에 혼자 남아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구리로 조각되어 있다. 뒷면과 오른쪽 옆면에는 각각 <동상 건립문> 과 <추진위원명단> 이 새겨져 있다.

8) 제1군단 전적비(第一軍團 戰跡碑)

<사진7-5-23>
제1군단전적비

속초시 조양동 속초 해수욕장 입구, 당시 사령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제1군단은 6·25동란 때 속초에 주둔하면서 설악산, 향로봉(香爐峰)등지에서 적과 싸워 이 지역을 사수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당시 참전했던 용사들의 무훈을 기리고 산화한 장병들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제8675부대에서 속초시의 지원을 받아 전적비를 건립하여 현충일에 맞추어 그 하루 전날인 1991년 6월 5일 제막식을 가졌다. 전적비의 높이는 7m이고 그 위에는 두 눈을 부릅뜬 채 북쪽을 향해 돌진하는 2.5m 높이의 청동제 용사상이 세워져 있다. 비의 양쪽 옆면에는 <비문> <6·25전쟁 당시 제1군단장> <건립 개요>가 새겨져 있다.

<비 문>

6·25전쟁 중 한·만 국경까지 진격했던 제1군단은 1950년 6월 시흥에서 창설, 1951. 6. 6~1952. 12. 22 속초에 주둔하면서 설악산, 향로봉, 884고지, 월비산 전투에서 양양, 속초, 간성 을 필승의 투혼으로 사수하였다. 육군 전 장병과 지역 주민들은 이 전투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값진 희생과 무용을 후세에 영원히 기리고자 이 전적비를 세운다.

1991. 5. 30

육군참모총장 대장 이진삼

〈6 · 25전쟁 당시 제1군단장〉

초대 소장 김홍일 '50. 7. 5 ~ '50. 9. 1
2대 소장 김백일 '50. 9. 1 ~ '51. 3. 29
3대 소장 백선엽 '51. 4. 7 ~ '51. 12. 2
4대 중장 이형근 '52. 2. 2 ~ '54. 2. 2

〈건립개요〉

건 립 : 육군 제8675부대
　　부대장 중장 김태섭
후 원 : 속초시, 시장 홍순호
조 각 : 관동대교수 오세원
글 씨 : 양양군수 정명시

4. 관방 유적

가. 권금성

신흥사 입구에서 남으로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해발 860m의 하늘높이 우뚝 솟은 웅장한 봉이 있다. 그리고 봉 정상 가까운 곳에 주위 337m의 성이 있었던 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성을 권금성이라고 한다. 현재는 터만 남아 있으나 옛 서적에는 높이가 4척이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신라때 권씨와 김씨의 두 장군이 난을 피하고자 쌓은 성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일설에는 권금성이 지어진 것은 고려 고종 40년(1253)으로,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곳이라고 한다.

지금은 소공원에서 케이블카로 올라간다.

처음에는 설악산성이라 불렀으나 고려말 전주, 충주, 춘천 등이 공략당하자 나라에서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 산성으로 백성을 피난케 하라 하여 급히 쌓은 것으로 권씨, 김씨 두 장수가 하룻밤에 쌓았다 하여 권금성이라 전해진다.[24)]

이 권금성을 둘러싼 기이한 봉으로 실요극, 방령대 등이 있는데 이 산자락에 오르면 시원히 트인 동해안과 신흥사, 울산암, 금강굴 일대를 일목요원하게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소공원에서 케이블카로 10분 정도면 해발 670m의 권금산성에 도착한다.

권금성은 외설악에 들어서서 권금성에 오르지 않고서는 설악을 제대로 구경할 수 없다할 정도로 전망이 좋아 연중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이곳을 설악의 선경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24) 在雪岳頂石築周衛一千一百十二尺高四尺今半頹落俗傳昔有權金二家避亂干此故名洛山寺記所云天兵闌入我彊是州於雪岳山築城守禦疑卽此
　설악산 정상의 석성으로 둘레가 1,112척이고, 높이는 4척이다. 지금은 반쯤 남았을 뿐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권씨, 김씨 두 집이 이곳으로 피난한 까닭으로 권금성이라 이름하였다. 낙산사 기록에 몽고 침입으로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고적조

나. 토왕성

설악산(雪嶽山) 토왕성(土旺城)폭포 부근에 있었던 성.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 『관동읍지(關東邑志) 』,『대동지지(大東地志)』등에 기록되어 있다. 설악산 동쪽에 있고,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해지길 옛날에 토성(土姓)을 가진 어느 임금님이 이 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석벽 사이로 폭포가 까마득하게 날 듯이 떨어졌다는 내용이 전해진다.[25)]

그 후 조선(朝鮮) 후기에 편찬한 거의 모든 『읍지(邑誌)』에도 『여지도서』와 마찬가지로 성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성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25)在府北五十里雪岳山東石築遺跡尙存俗傳 古有土姓王築此云 有瀑布數千丈飛下石間壁
부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석성으로 쌓은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토씨 성을 가진 왕이 이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폭포가 있는데 수천 길이나 돌벽 사이로 날아 떨어진다.
『관동읍지』
양양
고적조

다 .덕산봉수(德山烽燧)

속초시(束草市) 대포동(大浦洞) 외옹치리(外甕峙里) 봉끝에 위치했던 봉수대(烽燧臺).

현지 사람들은 봉수터보다는 보통 봉화터라고 부른다. 설악산(雪嶽山)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達魔峰), 주봉산(朱鳳山), 청대산(靑垈山)을 거쳐 이곳에서 끝나는데 이 산 이름이 덕산(德山)이므로 덕산 봉수(德山烽燧)라 했다.

현재 봉수대(烽燧臺) 자리에는 군부대가 자리잡고 있으나 곧 군부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그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지금은 봉수대의 흔적이 거의 없어졌으나 일제시대(日帝時代)에 발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를 보게되면 당시엔 봉수대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봉수제도는 고려 중엽부터 국가의 중요한 통신기관으로서 변방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또는 변경의 기지에 알리는 동시에 해당지방의 주민에게 알려서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봉수대는 신호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사태를 조정에 알렸는데 밤에는 횃불로 알렸고, 낮에는 연기로 알렸다.

평시에는 1거, 적의 모습을 나타내면 2거, 적이 접근해 오면 3거, 적이 경계를 넘어오면 4거, 적과 싸움이 시작되면 5거로 반복하여 알리도록 되어 있었으며, 만일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봉화의 거(擧)가 불가능할 때는 봉수군의 도보나 기마에 의해 연락하도록 되어 있었다.

봉수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봉수로가 있어서 변경 어디에서나 중앙(서울의

목멱산<현재의 南山>)으로 시급히 연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봉수대(烽燧臺)의 정확한 건립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여지도서』,『양양읍지(襄陽邑誌)』등 조선시대(朝鮮時代)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덕산봉수(德山烽燧)는 남쪽으로 양양(襄陽)의 수산봉수(水山烽燧), 북쪽으로는 고성군(高城郡)의 죽도봉수(竹島烽燧)로 연결되었다.

제4절 천연기념물과 사적지

1. 천연기념물

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국가 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1호

〈 사진 7-5-24 〉 설악산 전경

국립공원 설악산은 지리적으로 북위 38° 5′ 25″ ~38° 12′ 36″, 동경128° 18′ 16″ ~128° 30′ 43″ 지역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한반도 중추인 백두대간의 태백산맥의 중부에 위치하여 북으로 금강산을 거쳐 북한의 고원지대로 통하고 남으로는 오대산, 태백산을 거쳐 차령, 소백산맥으로 통한다.

설악산은 남한에 있어서 한라산 및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으로, 그 웅장한 절경은 남한 제 1의 명산이라 할 수 있다.

설악산은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163.4㎢)로 지정됨으로써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고 1969년 1월 21일 관광지(16.2㎢)로 추가지정 되었다.

그리고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을 확장하여 174㎢로 넓어졌다.

국립공원화된 이후 이곳 설악의 산악, 기암, 폭포, 식물의 수려한 경관을 보호하고 전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울산 바위, 저항령, 마등령, 화채봉, 대승령, 대청봉, 한계령, 가리봉, 점봉산 등의 고산지대를 자연보존지

역으로 설정하여 일체의 인공미를 가하지 않고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외의 산지는 자연환경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설악동 입구, 도문동, 척산 온천 일대와 한계리 옥녀탕 하류, 용대리 백담사 계곡 일대는 국립공원의 관문으로 공원의 보호와 주위 환경의 보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보호 구역으로 설정, 그 토지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1971년 9월 18일에는 설악산 국립 공원 관리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1972년 10월에 344㎢의 전지역을 국립공원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설악산이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설악산 이름의 유래는 주봉인 대청봉(1,708m)에 연중 5~6개월간 눈에 덮여 있어서 설악(雪嶽)이라 하였던 것에서 기인했다.

또한『동국여지승람』에는 한가위(中秋)부터 쌓이기 시작한 눈이 하지(夏至)에 이르러 비로소 녹기 때문에 설악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그리고『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이곳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이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고 하여 설악이라 이름 지었다고 씌어 있다.

설악산의 신비경으로 알려진 대청봉을 중심으로 북쪽은 마등령, 미시령을 이루고 서쪽은 한계령을 거쳐 남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이룬다. 이 능선을 중심으로 그 서부 일대를 내(內)설악이라 부르고 동부 일원을 외(外)설악이라 통칭한다.

내설악에는 88m의 대승폭포를 비롯하여 12선녀탕, 귀떼기청봉, 마등령, 한계령, 가리산, 주걱봉 등 대표적인 명승지가 있으며, 백담, 수렴동, 가야동, 백운동, 구곡담 계곡 등 크고 작은 계곡이 있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무수한 희귀종 동 · 식물이 서식하여 학술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외설악에도 신흥사를 비롯하여 금강굴, 내원암, 비선대, 오련폭포, 양폭, 울산바위, 토왕성 폭포, 천화대, 와선대 등의 명승지와 천불동계곡, 설악동 남쪽의 권금성 등 크고 작은 20여개의 계곡과 동해안의 수많은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다.

설악산에는 극지고산식물, 고산식물, 북방계식물, 온대성 상록침엽수와 낙엽활엽수, 그리고 난온대성 식물까지 다양한 식물종이 분포하고 있다. 설악산의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은 고산과 아고산대의 식물이 자라는데, 눈잣나무, 설악눈주목, 눈향나무, 털개불알꽃, 홍월귤, 월귤, 들쭉나무 등 남한에서는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 많이 분포하며, 눈측백, 흰장구채, 바람꽃, 만주송이풀, 등대시호, 바람꽃, 흰인가목, 붉은인가목, 기생꽃, 솔나리, 난쟁이붓꽃 등의 북방계 식물이 산 정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설악산 고지대에 북방계식물이 많이 자라는 것은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과거 지질시대에 한온(寒溫)의 기후변천에 따라 식물이 남쪽 또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기후가 한랭해지면 식물의 분포지역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반면 기후가 온난해지면 그 분포지역이 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일부 식물은 기온이 낮은 고지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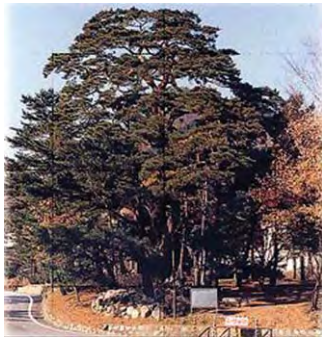
지금까지 조사된 우리나라 식물은 4,000여종으로 그중 설악산에 분포하는 식물은 모두 112과 486속 1,300분류군(1,043종, 214변종, 34품종, 1아종, 8교잡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설악산에 한국 고유식물이 많이 분포하는 이유는 설악산의 중심 축인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뻗어 있어 과거 여러 차례 반복된 빙하기와 간빙기에 산맥을 따라 북방계 식물의 남하와 남방계 식물의 북상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여 북방계 요소와 남방계 요소의 식물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고,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의 상승으로 고산으로 이동한 북방계 식물의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감소추세에 있고 개체수가 아주 희소하여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높은 희귀 및 멸종위기의 식물로서 환경부에서 자연보전법 시행령으로 2005년 2월 10일에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Ⅰ급 8종과 Ⅱ급 56종 중 Ⅰ급 식물은 분포하지 않으며, Ⅱ급 식물 9종이 설악산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림청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에서 1997년 12월에 선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217종과 후보종 42종 중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69종과 후보종 3종으로 72종류가 설악산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악산에 분포하는 귀화식물은 48종류가 확인되었으며, 과거 식물상 조사에서 나타난 귀화식물의 종 수와 비교해보면, 최근에 귀화식물의 종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설악산이 관광지로서 본격 개발된 것이 1970년대 말부터이며, 그 후 관광객의 증가와 각종 시설물 공사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자재 도입 등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는 본 조사에서 발견된 귀화식물의 대부분이 설악산 소공원, 야영장, 도로변, 상가, 주택단지, 사찰 주변 등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과 훼손지역 복원공사지 주변, 사찰 복원 및 증축 공사 지역과 위험 등산로 계단 공사지 등으로 각종 건축 자재 반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발견되며, 탐방로 이외의 등산로에서는 드물게 발견되고 숲 속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 외에 자세한 동식물 자료는 제1편 자연환경에 소개 되어있다.

나. 설악동 소나무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51호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20의 1번지


〈 사진 7-5-25 〉설악동 소나무

설악동의 이 소나무는 속초 설악동 C단지에서 노루목고개 로타리 사이의 도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의 수령은 500년이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 16m, 줄기 둘레 4m이며, 줄기 윗부분의 많은 가지와 잎이 달려 있는 부분(수관樹冠)은 동서가 21.4m, 남북이 19.4m에 달한다. 줄기는 지상 2.5m에서 세 개의 가지로 갈라져 있었으나 남쪽과 북쪽의 두 가지는 죽고 현재 중앙의 가지만 남아 있으며 그 밑둘레는 3.5m이다. 1987년 10월에 속초시에서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썩은 부분을 깨끗이 제거하였다. 이 소나무는 예전에는 서낭나무로 보호되어 왔고, 이곳을 지나면서 나무 밑에 돌을 쌓으면 장수한다는 설이 있어 지나는 사람들이 쌓은 돌이 무더기를 이루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2. 조양동 선사유적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지 제376호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산 142-8번지

이곳에서는 기원전 9~8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시대 집자리 7기와 빗살무늬 토기편 등 160 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언덕 위에서도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 2기가 발견되었다.

이것의 집자리 평면은 모두 직사각형이고 가장 큰 집자리는 동서 길이 12.8m, 남북 폭6m, 면적76.8m2 (약23평)이다.

집자리들은 풍화된 암반을 파서 만든 움집 형식으로 집자리 벽은 물론이고 바닥, 기둥구멍, 저장구덩이, 화덕자리들이 대부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잘 드러난 경우는 중부 동해안 지방에서는 이 유적이 처음이다.

이들 집자리에서는 빗살 무늬 토기편, 민무늬 토기편, 돌칼, 반달돌칼, 돌도끼, 돌화살촉, 돌가락바퀴, 돌 그물추 등 모두 169점이 출토되었는데 민무늬 토기에는 구연부에 구멍무늬을 장식하고 그 밑에 문살무늬를 새긴 토기, 아

가리를 밖으로 겹싼 이중 구연토기, 이중구연의 접합부분에 단사선(短斜線)을 새긴 토기 등 여러 지역의 다양한 토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토기는 한반도 동북 지방과 서북 지방 및 중부 동해안 지역의 문화 교류는 물론 신석기시대 말부터 청동기시대 초기로 이어지는 전환기의 문화접촉 양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굽손잡이 그릇(3호 집자리에서 출토)의 경우, 동부지방의 신석기 말기 유적인 함북 무산 호곡동 1기층에서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출토된 토기와 유사한데 이는 남한지방에서는 처음 출토된 것이다.

이것은 신석기시대 말기와 청동기시대 초기에 동북지방과 강원영동지역간의 문화교류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또한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의 민무늬 토기 문화가 신석기시대 말기 문화를 계승한 것임을 확인 시켜주었다.

이 집자리들은 주변 지역 유적들의 탄소측정 연대와 출토유물의 형식 비교 방식에 의하여 기원전 9~8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었던 제1호 고인돌은 길이194cm, 폭130cm, 두께 19cm의 덮개돌 밑에 남북 길이 172cm, 동서 폭60cm, 깊이 32cm의 활석으로 만든 하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청동제 부채꼴 주머니 도끼 1점과 돌화살촉 9점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청동제 부채꼴 주머니 도끼는 해방 후 만주 요령성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만주식 동검 문화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다. 한반도에서는 실물로서, 북한 지방의 의주 미송리 출토품과 함경남도 북청군 토성리 출토품이 알려져 있다. 거푸집으로는 함남 영흥 출토품이 알려져 있으며 남한에서는 부여 송국리에서 돌로 만든 거푸집이 출토되었으나 그 실물이 발견된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의 전파와 확산 경로를 연구하는데 있어 획기적 자료로 평가된다. 이처럼 이 조양동 집자리와 고인돌이 갖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명승 및 속초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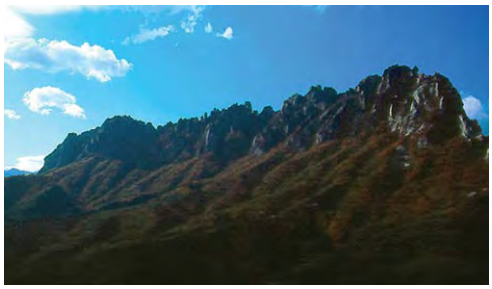
1. 명승

가. 비선대

와선대에서 계류를 따라 약 300m 정도 올라가면 비선대에 이른다. 이곳은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비가 많이 내리면 비선대 반석 위로 몇 번이나 꺾이는 폭포를 만드는데 그 광경이 흡사 천의 자락이 펄럭이는 것 같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마고선녀가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였다하며 이 설에 의해 비선대라 불린다. 봄이 오면 봄꽃의 냄새가 골짜기를 메우고, 여름이면 녹음의 신선미를 느낄 수 있으며, 가을이 되면 오색 단풍에 물들고, 겨울이면 눈꽃이 골짜기를 장식하니 과히 절경이다. 이곳의 절경은 금강산의 만폭동을 무색하게 하는 설악산의 가장 대표적 명승지로서 설악의 8경 중 하나에 속한다.

나. 울산바위

설악산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울산바위(875m)는 둘레가 4km에 이르는 화강암 봉우리로서 30 여개의 봉우리가 만드는 울산바위의 그 거대한 웅장함과 기상은 찾아오는 관광객의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정상의 전망대까지 관광객을 위해 계단을 설치하여 오르기 쉽도록 하였는데, 울산바위 정상에 서면 대청, 중청봉과 천불동계곡, 화채능선, 북주릉을 볼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속초 시가지뿐만 아니라 동해바다와 달마봉, 학사평 저수지 일대, 청초호, 영랑호를 볼 수도 있다.



〈사진 7-5-26〉 울산바위

이 산에 대한 명칭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전해온다.

첫째, 우는 산, 울고 있는 산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 이 산에 바위 구멍이 많아 산중에서 바람이 스스로 불어 나와 산이 울리는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천후산(天吼山)이라고 한다.

둘째, 거대한 바위가 마치 울타리처럼 우뚝 솟아 있으므로 한자어로 '울타리 리(籬)' 자를 써서 이산(籬山)이라고 한다.

셋째, 조물주가 금강산(金剛山) 1만 2천봉을 빚으려고 온나라 잘 생긴 바위를 모두 금강산에 모이도록 하였는데, 울산 땅에 있던 이 바위도 금강산을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러나 워낙 덩치가 크고 몸이 무거워서 겨우 설악산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금강산 1만 2천봉이 다 빚어지고만 후였다. 그래서 이 바위는 설악산 기슭에 눌러 앉고 말았는데 이 이후부터 울산에서 온 바위라 하여 전설적인 이름인 울산(蔚山)바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산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되는 16세기 중반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18세기 중반에 쓰여진 『여지도서』 양양편에는 이산(鬣山)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 간성(杆城)편에는 천후산(天吼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속에서는 울암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세속에서 전승되어 온 전설과 함께 울산바위로 고정되었다.

다. 천불동 계곡

천불동 계곡은 외설악쪽의 비선대에서부터 대청봉에 이르는 8km의 중심계곡으로 설악산을 대표하는 곳이다. 이곳은 설악의 모든 절경이 이 천불동 안에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가지고 있다. 천불동 계곡은 설악동에서 와선대, 비선대, 문주담, 이호담, 귀면암, 오련폭, 천당폭, 양폭산장을 거쳐서 죽음의 계곡 직전에까지 이르는데, 계곡 주위로 하늘을 떠받드는 듯한 봉우리, 골짜기마다 걸린 수많은 폭포, 거울보다도 맑은 연못 등이 함께 어우러져 멋진 절경을 이룬다. 또한 봄의 야생화, 여름의 푸른 숲과 구름바다, 가을 단풍, 겨울의 눈 속에 핀 꽃 등이 계곡과 함께 사철 관광객의 흥취를 돋군다.

라. 와선대

와선대는 천불동 계곡을 찾아드는 입구, 신흥사 서쪽 4km 지점에 있으며 소나무가 울창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천연의 암반대석으로 옛날 신선이 놀던 곳이라 한다. 와선대의 반석은 높이가 약 3척, 폭이 약 10여간이 되므로 여기서 70~80명의 사람들이 앉아 놀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이 바위 위에 손톱이 긴 늙은 선녀인 마고선이 신선들과 함께 석대 위에서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서 동천의 아름다움을 즐겼다고 하는데 신선들이 누워서 경치를 감상했다하여 와선대라 한다.

마. 금강굴

〈사진 7-5-27〉 금강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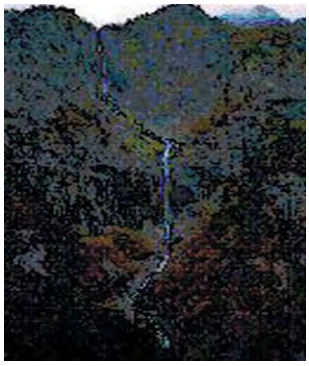
비선대 앞에 높이 우뚝 솟아 있는 3각 모양의 돌 봉우리를 미륵봉(장군봉)이라 한다. 그리고 미륵봉 중간 허리에 있는 길이 18m 정도의 작은 자연 석굴을 금강굴이라 한다.

굴 안의 넓이는 약 7평이나 되고 그 안에는 자비스러운 관세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어 믿음이 돈독한 불자들에게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기도 도장이 된다.

석굴 입구에서 동해를 바라보면 빛나는 광경이 전개되는데 멀리 동해의 창파가 보이고, 겹겹이 쌓인 석벽처럼 보이는 천불동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

그 옛날 신라 때부터 원효, 의상 등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바. 토왕성 폭포



〈사진 7-5-28〉토왕성폭포 전경

토왕골에 있는 폭포로서 가장 아래에는 육담폭포, 중간에 비룡폭포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토왕성 폭포는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외설악을 대표하는 폭포로 겨울철에는 빙벽훈련장으로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토왕성(土王城)이란 이름은 과거에 산성이 폭포 부근에 있었던 관계로 유래된 것 같다.

2. 속초팔경

속초 8경은 속초시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적 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곳을 선정,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다. 따라서 속초시민은 물론 속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러 속초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 영금정 속초등대전망대

〈 사진 7-5-29 〉 속초 등대

영금정은 돌로 된 산으로 파도가 쳐서 부딪히면서 신묘(神妙)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곡이 『거문고』소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이 일대는 비선대(秘仙臺)라는 곳인데 일제시대 속초항(束草港) 개발을 위해 이곳 돌산을 깨서 축항(築港)을 조성함으로써 지금의 넓은 암반(岩盤)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주변 영금정 해맞이 정자에서 보는 일출과 등대에서 보는 시가지 경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금강산(金剛山) 자락을 조망 할 수 있어 자연의 조화로움을 더해 준다.

나. 영랑호 범바위

〈 사진 7-5-3 0 〉 범바위 전경

영랑호는 둘레 7.7km 넓이 36만평의 거대한 자연호수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신라(新羅)화랑인 영랑(永郎)이 동료 술랑(述浪), 안상(安祥),남석행(南石行)등과 금강산(金剛山) 수련 후 귀향길에 명경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붉게 물든 저녁노을 그리고 호수에 웅장하게 부각된 설악산 울산바위, 웅크리고 앉은 범의 형상을 한 범바위가 물속에 잠겨있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 한다. 그 후부터 이 호수의 명칭을 영랑호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 청대리 청대산

〈 사진 7-5-31〉 조양동에서 본 청대산

청대산은 해발(海拔) 230m로 주변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 푸르름으로 인해 청대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소야 8경(所野八景)에는 우뚝 솟은 산이 마치 그림을 그려 병풍을 둘러친 것과 같

다하여『청대화병(靑垈畵屛)』이라 하였다 또한 청대산은 속초 시가지와 동해 일출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대청봉(大靑峰), 달마봉(達磨峰), 울산바위 등 설악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천연(天然) 전망대이다.

라. 청초호

〈 사진 7-5-32 〉 철새 도래지

과거에는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라 하였던 청초호는 둘레가 5km 술단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소야 8경(所野八景)에 호수가 깨끗하고 맑아 마치 갈고 닦은 거울처럼 빛난다고 하여 청호마경(靑湖磨鏡)이라 불렀다.

99강원도 국제관광 박람회를 상징하는 73.4m전망대에서 본 청초호변 야경(夜景)과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동해일출은 한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마. 속초해수욕장 조도

〈 사진 7-5-33 〉 조도의 일출 모습

새들이 많이 찾는 섬이라 하여 붙여진 조도는 아름다운 백사장(白沙場)이 어우러져 주변 경관과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소야8경(所野八景)에『논산조양(論山朝陽』이라 하여 이 일대 일출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뛰어난 경관과 연계하여 이곳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행사 뿐만 아니라 해돋이 전망, 바다 낚시, 백사장 산책로가 각광(脚光) 받고 있다.

바. 대포 외옹치

〈 사진 7-5-34 〉 외옹치에서 본 대포항

설악산 기슭의 청정 바닷가에 자리잡은 대포(大浦)는 6 · 25사변을 전후(前後)로 발행된 지도에 동해안(東海岸) 표기로는 부산, 포항, 묵호, 대포, 장전, 원산항 순서로 표시될 정도로 큰 포구

(浦口)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광어, 넙치, 방어등 고급생선의 집산지로 유명하다. 특히 외옹치는 장독처럼 생긴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밧독재라 불리우며 정상에서 본 시가지와 등대 및 조도(鳥島) 그리고 백사장에 밀려드는 파도의 경관(景觀)이 아름답다.

사. 내물치 설악해맞이 공원

〈 사진 7-5-35 〉 해맞이공원

조선시대(朝鮮時代)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선생이 함경도(咸鏡道) 덕원에서 거제도로 유배되어 동해안을 따라 이곳을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때마침 폭우로 물이 불어 며칠 더 체류하다 떠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라 하여 물치(勿淄)라 불렀다고 한다 주변에 탁트인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와 조각공원 그리고 소나무 사이로 비춰지는 일출의 조화로움은 이곳만이 연출할수 있는 비경(秘境)이다.

아. 상도문 학무정

〈 사진 7-5-36 〉 학무정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發源)되어 흐르는 쌍천변(雙川邊) 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로 조선 고종(高宗) 9년(1872)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학문 연구와 인재 육성에만 전념하신 매곡처사(梅谷處士), 오윤환(吳潤煥) 선생이 1934년에 건립하였다. 정자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흔히 육모정이라 부르며 남쪽에는 학무정(鶴舞亭) 북쪽에는 영모재(永慕齋) 북동쪽에는 인지당(仁智堂) 남서쪽에는 경의재(敬義齋)라고 쓰여 있다 울창한 송림 속의 고즈넉함과 주변 전통 한옥(韓屋)마을이 풍취(風趣)를 더해준다.

손병섭(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향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현식(향토사연구소장, 강원도문화재 전문위원)

제6장 예술활동

제1절 예술활동 개황

속초시의 예술활동은 1963년 시로 승격하기 전에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대부분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예술 활동은 문화적 인식도가 높은 몇몇 아마추어 동호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속초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된다. 초창기의 지역 예술활동은 대체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교사가 전문교육을 받은 집단이고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동아리 조직이나 서클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속초에서도 대체로 60년대 예술 활동은 주로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문학, 미술, 음악 등이 그러한데 이 시기엔 아마추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열의는 대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1963년 '예총속초지부'가 구성되었다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당시 사진 작가였던 최구현을 대표로 한 이 단체는 60년대 속초 예술계를 이끌어간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 단체는 1989년 정식 예총속초지부가 탄생할 때까지 여섯명의 대표가 연이어 맡아 가며 속초 예술계의 모체로 활약했다. 이들은 문학, 미술, 사진 등의 분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음악분과는 매달 음악 감상회를 개최하고 가끔 합창 대회 등의 행사를 가졌으며 미술분과는 연 1회 회원전과 어린이날 기념 사생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분과도 촬영대회 전시행사 등을 꾸준히 개최하였다. 당시는 회원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이런 행사의 참여자가 곧 회원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엔 이런 행사가 주로 다방 등에서 개최되었는데 가야 다방이 많이 이용되었다.

1963년 5월 속초예술제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시청 광장에서 5 · 16혁명 2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속초에서 거행되는 제3회 시 · 군 대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환영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음악, 무용, 연극 등의 행사가 열렸다. 1965년 3월에는 속초문화원이 설립되었고 최구현, 이순, 김용갑 등을 중심으로 사진협회 속초지부가 결성되고 영랑호에서 42명이 참가하여 사진촬영 대회를 개최하였다. 60년대에 열린 문화 예술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은 설악제이다. 1966년에 열린 제1회 설악제는 등산경기 대회에 268명이 참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진 공모전에 29명, 동시 백일장에 56명, 취주악 경연대회에 2팀, 사진 촬영대회에 40명, 초중고 미술 실기대회에 200

명 등 모두 600여명이 참가하여 처음으로 종합문화제 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설악제는 매년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2005년에 제40회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1970년 '설악문우회'에 의해 『갈뫼』라는 동인지가 탄생하게 되고 최재혁이 가야다방에서 시화전을 열었으며 제3회 송헌(宋憲) 유화전이 역시 가야다방에서 열렸다. 아울러 1969년 12월 최구현이 설악제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제11회 강원도 문화상(예술부문)을 수상했다.

〈 사진 7-6-1 〉
갈뫼 창간호(1970년)

〈 사진 7-6-2 〉
갈뫼 34호(2004년)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속초의 문화 예술 활동은 좀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0년대 말 창립된 '설악문우회'에 의해 문학 활동이 본격화되고, 미술 연극 분야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엔 '청년문화연구회'라는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하는 청소년 단체가 구성되어 창작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단체는 1976년 봄에 이상필(李相弼)을 대표로 하여 문학,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특히 연극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훗날 연극협회 구성의 모체가 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약 5년간 존속되는데 전성기엔 1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편지 형식인 『터』라는 소책자를 발간했으며 미술전, 연극공연, 종합예술제, 무용 및 민속공연, 시민대동제 등을 개최해 이 시기 예술을 주도하였다. 이에 고무된 기존 예술가들의 활동이 조직화되어 미술협회가 창립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문학가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성선, 최명길, 박명자, 고형렬 등이 『현대문학』과 『시문학』을 통하여 등단하며 첫시집을 발간하기도 한다. 김종영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심상』지를 통해 시인으로, 최재도가 KBS라디오드라마 현상공모에 당선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70년대에 주목할 만한 것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가 1974년 11월 4일에 인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개인적 혹은 작은 동아리 형태로 활동하던 문학가들이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작품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들은 '설악문우회'를 중심으로 『갈뫼』를 정기적으로 간행하며 시낭송회, 초청 강연회,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상호 작품을 교류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갈뫼』는 1970년 4월 제1집이 발간되어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인준 당시 이미 6집이 나온 상태였다.

70년대 문학 부문의 활동을 살펴보면 1970년 4월 『갈뫼』 1집 발간을 시작으로 1979년까지 9집을 꾸준히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1971년 3월 한국문인협회 전국순회 문학강연이 이태극, 최인욱, 홍윤숙이 강사로 초빙되어 개최되었고 같은 해 문인협회 속초지부에서 기관지로 타블로이드판 8페이지의 『속초문예』를 발간하였다.

또한 1971년 4월 최성안, 정려성의 2인 시화전이 가야다방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1978년에는 강원일보사 주최 제6회 모자 사생대회가 보광사에서 실시되어 6,500명이 참가하였고 그 중 135점이 입상하였으며 단체 우승은 속초초등학교가 차지하였다.

미술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1970년 김광희 자선미전, 1971년 속초미술협회 개인전이 개최되었다. 또한 1974년 함영익 유화전, 서예초대전, 최재혁 묵화전이 개최되었으며 1975년 속초 미협회원전, 1976년 소재훈 서예전, 1977년 속초 미협 4인전(최재혁, 최호규, 윤성빈, 김영복), 1978년 제5회 속초미협 회원전 등 다양한 작품활동과 전시를 통해 한층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1977년 미술협회 창립전을 시작으로 1979년 3회 전시를 가야다방에서 개최하며 80년대를 맞이한다.

음악부문은 1973년 김성근 플루트독주회가 속초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고, 1976년 음악협회 속초지부 회원 발표회가 열렸으며 1976년 음악협회 속초지부 회원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연극부문은 1979년 속초청년문화연구회 주최로 박용숙 작, 신원하 연출 '음악공화국'이 제일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설악제는 1972년 각종 문화예술 행사 예산을 지원하던 강원도가 도내 문화제 행사에 대한 일대 정비에 나서 전통문화 행사로서의 가치가 없고 행사기금 조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를 폐지하였다. 다만 설악제 행사의 일부인 등산대회는 매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1975년에는 제1회 속초시 문화상이 제정되어 시상식이 있었다. 강원일보사 창간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정한 시상식에서 사회공익 체

육부문 최종록, 문화예술부문 윤홍렬, 교육부문 김형기, 봉사부문 정창도, 근로부문 김부율이 수상하였다.

종합예술제 부문은 예총 속초시 지부가 주최하는 문화의 달 기념 종합예술제가 1973년 10월 20일 동보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예술제에는 시낭송, 성악 및 기악, 무용, 등의 공연이 있었다.

80년대는 문학활동이 성숙기로 접어들어 향토문학인들이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며 시집 등 작품집을 대거 발간했고, 문학 대중화를 위해 시낭송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미술과 연극, 연예협회가 잇달아 지부로서의 정식 인가를 받게 되면서 예술활동의 본격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 미술협회와 연극협회는 주기적으로 전시회와 연극 공연을 열면서 속초지역의 창작 분위기 형성에 힘썼으며 정규교육을 받은 전문 예술인들이 대거 정착함으로써 예술활동이 두드러진다. 음악 부문도 함응범이 이끄는 '흰 봄'이라는 합창단이 자생적으로 구성되어 강원도 합창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1990년도에 시립합창단을 구성하는 모체가 되었다. 한편 외부의 예술가들이 속초에 들어와 각종 예술행사를 활발하게 개최하였는데 해변시인학교을 비롯한 희곡작가 세미나, 사진 워크샵 등이 동해안과 설악산에서 열렸고, 예음사가 설악산에서 정기적인 음악공연을 펼쳤으며 김근희 무용단이 산상 무용을 펼치는 등 외지 고급 예술이 속초에서 펼쳐지게 되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속초지부(약칭:속초예총)가 1989년 4월 7일 중앙 인준으로 설립되면서 속초의 예술문화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설립 당시 회원협회는 문인, 미술, 연극, 연예 4개 협회로 구성되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속초지부는 1980년 9월 16일 한국미술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아 학생 미술실기 대회, 주부 미술실기 대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국제아동미술 교류전, 서예백일장, 미술유적지 탐방 등을 펼치고 있으며, 기타 비정기 사업으로 각종 전시관련사업 미술세미나, 우수전람회초대전, 개인전후원, 공모작 출품 후원사업, 지역 및 국제 미술인사교류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예총은 이후 90년대의 다양한 예술 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음악, 국악, 사진 협회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그 규모를 넓혀갔다.

80년대의 문학활동은 70년대에 이어 『갈뫼』가 19집까지 발간되고 1981년 9월 30일 제1회 물소리 시낭송회가 다락 다실에서 개최되기 시작하여 1989년 12월 30일 62회까지 활발한 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1986년 3월

21일 설악문우회가 주최하는 제1회 시마당 시낭송회가 사랑방 카페에서 시작하여 1989년 11월 12일 제19회까지 꾸준히 이어지며 9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술분야도 70년대에 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는데 1980년 김아영의 동양화 개인전 개최를 시작으로 1980년 최천규 서예전, 1984년 김광수 개인전, 1988년 속초고 동문 미술전인 파람전 등이 열렸다. 또한 속초미술협회전이 1980년대에도 꾸준히 이어져 1989년 13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음악부문은 1980년 속초신협 주최 제1회 영북지구 음악 경연대회를 필두로 1980년 4월 제6회 전국 순회 가곡의 밤, 1984년 어린이 회관 소속 어린이 합창단 순회공연 등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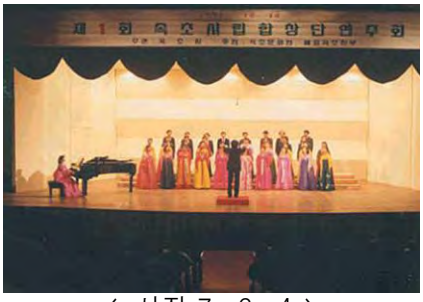
80년대에 들어서 눈에 띄게 활발한 활동을 벌인 분야는 연극분야이다. 여러 극단이 창립되면서 활동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쾌거도 이룩하였다. 먼저 1981년 '청봉' 극회에서 '귀향' 을 공연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극단 '혼성' 이 '아리랑 정선' 을 순회 공연하였다. 또한 1983년 1월 연극협회 속초지부가 창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속초 지역 연극발전에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어 1983년 연극협회 속초지부 창립 기념으로 '그 여자 사람잡네' 가 공연되어 인기를 끌었고 동년 12월 연극협회 속초지부에서 '품바' 를 공연하였다. 연극협회 속초지부는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연을 펼치는데 1985년 '열 한 개의 출산', 1986년 후가드 작 '아일랜드' 를 공연했다. 1986년에는 극단 '굴레' 에서는 윤대성 작 '방황하는 별들' 을 공연하기도 하였다.

한편 괄목할 만한 것은 각종 대회 입상 기록이다. 먼저 1986년과 1988년 제5회 강원도 연극제에서 연극협회 속초지부가 출연한 '그날 그날에' 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5월 대전에서 열린 전국연극제에 도대표로 출전하여 장려상에 이어 김영감 역을 맡은 장규호가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면 더욱 활발하고 왕성한 예술활동이 전개되었다. 각종 동아리나 단체가 결성되어 정기적인 발표를 하는가 하면 기존에 결성되어 움직이던 단체들로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여 회원을 늘리면서 결과물을 축적해 갔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 눈에 띄는 것은 많은 대회나 공연이 처음으로 계획되어 제1회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990년에 속초종합예술제, 학생사생대회, 학생백일장이 개최되었고, 1991년에는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속초시립합창단 창립 연주회가 있었다.

〈 사진 7-6-3 〉
제1회 강원도 청소년연극제



〈 사진 7-6-4 〉
제1회 속초시립합창단 창단연주회

1993년에는 아동연극제, 속초예술인의 밤, 설악청소년 콩크르가 시작되었고, 1995년에 들어서 주부백일장, 국제아동 미술전, 향토미술 작가전 등이 처음 개최되었다.

〈 사진 7-6-5 〉
제1회 설악 아동 연극제

〈 사진 7-6-6 〉
제1회 속초예술인의 밤

이후 1997년에는 설악 청소년 음악회, 전국서예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져 속초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행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횟수를 더해가며 내실을 더해가고 있다.

〈 사진 7-6-7 〉
제1회 청소년 음악제

〈 사진 7-6-8 〉
제1회 전국 서예백일장

아울러 90년대는 80년대보다 초청 공연이나 해외교류 활동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국제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되며 속초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2

년 11월 한일친선예술교류 사업으로 일본 야마구찌현 호우시를 속초예총 박종성 사무국장이 다녀왔으며, 1995년 중국 요령성 경극단 초청공연을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가져 한·중 민간예술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향후 양국의 문화예술 이해도 증진 및 친선도모에도 이바지하였다.

〈 사진 7-6-9 〉
한일친선교류

〈 사진 7-6-10 〉
중국 요령성 경극단 초청공연

또한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폰타넬리 내한공연이 있었으며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로 연극공연이 있었다. 이러한 교류활동은 9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활발하게 되는데 1996년에는 기타리스트 케스틴 아이젠바흐트 내한공연이 있었고, 중국 요령선 예술인사가 내방하여 국제 문예 교류에 대한 다각적인 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속초시와 자매시인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 홀리델리 초등학교 학생작품과 일본 요나고시 초등학생 작품 등이 전시되었다.

1997년에는 미술협회(지부장: 김광희) 주관으로 제2회 자매시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 사진 7-6-11 〉
자매시 국제아동 미술교류전

〈 사진 7-6-12 〉
그레샴 시장 내방

1998년으로 오면 이태리 출신의 플루티스트 안토니오 라모나 초청 연주회가 8.15광복 기념 문예행사의 일환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음악협회 도레미 예술기획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98환동해권 4개국 10개 시장회의를 기념하여 속초연극협회에서 축하 공연을 중국 길림성 훈춘시 연극원에

서 9월 18일~19일 이틀간 공연을 가졌다.

〈 사진 7-6-13 〉연극협회 훈춘공연

1999년에는 기타리스트 마르코 데 산티 연주회가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고 5월에 중국 길림성 훈춘시 문화체육 부국장(이채순) 초청강연회가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및 일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변 조선족 문화예술인의 활동' 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아울러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관심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일미술작품 교류전'이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톳도리현과 강원도 고령자, 장애인들이 공예, 서예, 도예, 유화 등 다양한 작품을 출품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 두 개의 협회가 인준을 받는데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는 1991년 11월 21일 한국음악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았고, 속초사진 협회는 1996년 1월 26일 예총 속초지부 제7차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아직 중앙의 인준은 받지 못했지만 정기적인 회원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90년대의 문학분야는『갈뫼』가 꾸준히 발간되어 1999년 29집을 발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물소리 시낭송회가 1999년 149회까지 이어져 갔다. 물소리 시낭송회는 1991년 9월 시낭송회 10주년 기념 강원도 시의 대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편 90년대에 들어서 문인협회 주관으로 학생백일장과 주부백일장이 개최되기 시작했다. 학생백일장은 1990년 제1회를 시작으로 1999년 10회를 맞이했다. 이 행사는 매년 5월이나 6월에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관내 초중고 학생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한 성대한 대회로 시, 산문, 동시 부문에서 치루어졌다. 그 목적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글솜씨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문학에 대한 사랑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심성을 고취하여 지역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두었다. 이 학생백일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동 최고의 대회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 문학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부백일장을 1995년 제1회를 개최하여 1999년 제5회를 맞이하였다. 속초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평소 글쓰기를 즐기고 연마해온 지역의 가정주부들이 시, 산문 부문으로 나누어 참여했다. 개최 목적은 주부들을 문학 창작의 장에 직접 참여시켜 문학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해 지역 문학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학 발전을 꾀하는데 있었다. 또한 제2회부터는 학생백일장과 연계하여 자모백일장으로 개최하였으며, 제5회 주부백일장은 '99강원국제관광 엑스포 D-100일에 맞춰 학생백일장,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청소년 건전가요제와 병행하여 엑스포장 대회장에서 개최하여 엑스포 성공기원을 위한 붐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사진 7-6-14 〉
학생백일장

〈 사진 7-6-15 〉
주부백일장

미술부문은 1977년부터 시작한 미술협회전이 1999년 24회를 맞이하면서 정기적으로 활동을 계속하였고, 1990년 10월 제1회 사생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1991년 제2회부터 학생미술대회로 명칭을 바꿔 1999년 제10회를 맞이하였다. 학생미술실기대회는 미술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마음과 순수성을 길러주고 창의성 계발로 보다 밝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미술과 예술을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매년 개최한다.

〈 사진 7-6-16 〉
제24회 미술협회지부전

〈 사진 7-6-17 〉
학생실기대회

1995년에는 속초시 청소년들에게 세계 청소년들의 미술작품과 우리 청소년들의 작품을 비교해 보는 장을 마련하여 미술 작품 감상의 폭을 넓히고자

제1회 국제아동 미술전을 개최하였다.

<사진7-6-18>제1회 국제아동 미술전

1997년에는 제1회 전국서예백일장이 속초미술협회의 주관으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의 취지는 전통서예 연구생들을 현장 휘호의 장에 직접 참여시켜 평소 연마한 서예 실기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서예인구를 늘리고 강원도 서예 발전에 기여하는데 두었고 1999년 3회를 맞이하였다.

<사진7-6-19>제1회 전국서예백일장

한편 속초시 서예교육 연구원이 회원전 등의 행사를 통하여 꾸준히 활동을 펼쳤으며 속초서우회도 회원전을 통해 서예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그 외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 등 대외적인 행사도 개최하여 속초 서예의 위상을 높혔다.

음악부문을 살펴보면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가 1991년 11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아 속초예총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이로써 속초예총은 문인, 미술, 연극, 연예, 음악협회의 5개 회원 협회로 구성되게 되었으며 속초시 음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음악협회는 같은 해 12월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창립공연을 개최하였다. 그 후 매년 정기적인 연주회를 발표하여 1999년 제9회를 맞이했다.

〈사진7-6-20〉음악협회 창립공연

1991년 12월에는 제1회 속초시립합창단 창단연주회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예총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1993년부터는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가 개최되어 1999년 7회를 맞이하였다. 이 행사는 음악협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피아노, 성악, 관현악 등에서 경연을 펼쳤으며 지역 음악 발전과 역량있는 음악인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사진 7-6-21 〉 제2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1997년 7월에는 제1회 설악청소년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도 음악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제5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수상자를 선별해 발표회를 갖는 성격을 띄었으며 1999년 6월 제3회 공연을 개최하였다.

〈 사진 7-6-22 〉 제1회 설악청소년음악회

1998년부터는 속초 리코더 앙상블 공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 새여름 실내악단 초청연주회, 봄맞이 가곡의 밤, 가을 콘서트, 입시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전국합창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음악활동을 펼쳤다.

연극부문은 1991년 8월 제1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를 시작으로 1999년까지 제8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표현하며 장래 강원연극인 육성과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펼쳐졌으며 초창기에는 속초지역의 고등학교가 참여했으나, 대회가 거듭될수록 강원도 전지역의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 사진 7-6-23 〉 제3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또한 연극협회는 정기적인 공연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렸는데 1990년 10월 '아버지 바다', 1993년 5월 '한만선', 1994년 6월 '오지의 사람들', 1996년 10월 '서툰 사람들', 1997년 5월 '불 좀 꺼 주세요', 1999년 5월 '작은할머니' 등을 공연했다. 또한 비정기적인 공연도 펼치는데 1994년 1월 '약장수', 동년 9월 아남쇼핑타운 '품바' 공연, 1996년 7월 하계 공연으로 '품바', 1998년 2월 눈꽃축제 기념 '품바'공연, 동년 11월 '99 강원관광 EXPO D-300일 기념 '호적등본' 공연, 1999년 9월 '99강원국제 관광엑스포 속초시의 날 기념 총체극 '약속된 초원 속초'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공연을 통하여 연극협회는 80년대에 이어 90년대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극단 '굴렁쇠'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데 1991년 5월 '달려라 꼬꼬고', 12월 '하나님 비상예요', 1992년 5월 '별주부전' 12월 '새장과 화장실', 1993년 8월 '위기의 여자', 1995년 6월 '돼지와 오토바이', 1996년 5월 '그대여 또다시 바다로 가거든', 1996년 12월 '허탕-네팔로 가는 사람들', 1998년 6월 '피고지고 피고지고' 등의 공연으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속초 연극 발전에 기여했다.

극단 '파람불'은 1990년 4월 강원연극제 최우수상수상 기념 공연으로 '한씨연대기'를 무대에 올렸으며 동년 8월 제15회 서울연극제 개막공연에 초대

되기도 하였고 1992년 12월 '콜렉터'를 다섯 번째 공연으로 연기하였다.

1993년에는 연극협회와 속초교육청이 연계하여 제1회 설악아동 연극제를 열어 지역 아동연극의 활성화에 기여했고, 1994년 2회, 1996년 3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 사진 7-6-24 〉 제3회 설악아동연극제

또한 대외적인 교류도 활성화되어 1995년 10월 자매결연 10주년기념 연극을 미국 오레곤 그레샴시를 방문하여 공연했으며, 1998년 9월에는 중국 훈춘시 공연에 '이대감 망할 대감'을 올렸다.

아울러 90년대에 들어서 주목할 것은 사진협회가 결성된 것이다. 사진협회는 1995년 7월 속초사진 발전과 지역 사진작가들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여기서 최이권이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그 해 제1회 협회전을 열었다. 그 후 매년 3회씩 협회전을 개최하여 1999년 13회를 맞이한다.

〈 사진 7-6-25 〉 제12회 사진협회전(99년 5월)

한편 1987년 12월 인준을 받은 연예협회는 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1990년 10월 제1회 청소년 건전가요제를 개최하여 1999년 10회 행사를 맞이하였다. 청소년 건전가요제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 고취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상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실제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

수록 참여도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외 주부가요열창, 시민위안 노래자랑, 군부대 자선 위문 공연, 무의탁 노인돕기 사랑의 라이브 공연, 연예인 초청공연, 속초생선회 축제 기념 가요제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2000년대로 이어진다.

〈 사진 7-6-26 〉
제1회 청소년 가요제

〈 사진 7-6-27 〉
속초시민위안 노래자랑

1990년부터 속초시 문화회관 개관기념 제25회 설악제 경축 제1회 속초종합예술제가 예총속초지부 4개 협회가 연합하여 속초시 문화회관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1999년 10회 행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재는 속초예총 7개 협회가 연계하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행사 내용도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국악 등 다양하여 종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사진 7-6-28 〉 제8회 속초종합예술제 전야제 및 축하의 밤

2000년대는 속초의 문화예술 모든 분야가 도약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0~80년대나 90년대에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각종 대회, 공연, 전시 등의 문화 예술활동이 더욱 내실 있고 성대하게 이루어지며 회원들의 활동도 유기적이고 왕성하게 전개된다. 각종 단체의 회원수도 늘어 조직의 양적 성장을 보았으며 많은 행사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경험이 축적되어 치밀하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져 많은 관람과 참여 및 호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0년대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두지 못했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인식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시도가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연극협회에서 주관한 2004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성지복지재단 정다운 마을에서 개최한 공연으로 사회소외 계층에게 직접 문예사업을 공연함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하나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연예협회가 주관한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는 2002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속초시 노학동에 소재한 자활센타에서 연말 소외되고 외로운 지체장애인들에게 함께 어울린 한마당과 노래로서 희망을 주고자 개최하였다.

〈 사진 7-6-29 〉 제1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또한 2001년부터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통해 피서철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베풀어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시민에게는 시원한 한여름밤의 청양제로,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속초알리기 및 문화관광 도시로서 이미지를 재고하였다.

〈 사진 7-6-30 〉 2004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또한 속초시에서 2004년부터 대한민국 음악축제를 개최하여 속초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음악축제는 축제를 통한

세계적 관광휴양지로 발전을 도모하고 축제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소득 증대 기여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속초시와 MBC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이다. 공연장소는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특설무대, 종합경기장, 영랑호 잔디광장, 설악산 C지구 등이다.

한편 2002년에는 국악협회가 창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악협회는 2002년 12월 20일 인준을 받았으며 이후 청소년여름 풍물학교, 대금 국악캠프, 국악초청공연, 전국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90년대에 이어 2000년대에도 제1회 대회가 개최되는데 2000년 5월 제1회 주부미술 한마당과 2001년 5월 제1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대회가 그것이다. 주부미술 한마당은 미술협회가 주관한 것으로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향토미술 발전에 일조하여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데 힘입어 성인 미술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학생대회와 같이 추진되었다. 수채화, 사군자 부문에 영북지역 자모, 주부 등이 참여하였다. 설악청소년 사진 촬영대회는 사진협회 주관으로 청소년들에게 사진예술 창작에 직접 참여시켜 사진예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을 널리 알려 관광속초의 홍보는 물론 자연보호의 필요성 등을 일깨우고자 개최되었다.

〈 사진 7-6-31 〉 제1회 설악청소년 사진촬영대회

한편 속초 예총에서는 2000년 12월『속초예술』창간호를 출간하였다.『속초예술』은 A4형으로 예총 산하 각 협회의 활동작품을 수록하여 1년 활동을 집대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문협의 지상시전, 미술, 사진협회의 지상갤러리, 연극대본 그리고 연예, 음악협회 등 협회별로 다양한 원고로 채워졌다.

2000년대에 주목할 것은 2000년 4월 28일 동춘항운이 속초-러시아 자루비노-백두산 항로를 취항하면서 중국 훈춘과의 문화 예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 성과로 2000년 제1회 훈춘 국제가요제를 열어 2004년 제5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 사진 7-6-32 〉 훈춘시 국제가요제

중국 훈춘시와 속초예총과는 속초연극협회의 훈춘시공연, 아동미술교류, 훈춘시 문예인사 교류 등 꾸준히 국제 문예교류 사업을 전개해 오던 중 제35회 강원도민체전 경축 문예행사로 가무단을 초청공연하기에 이르렀다.

〈 사진 7-6-33 〉 훈춘 국제가무단 초청공연

또한 2003년에는 연극협회가 한국문예진흥기금 해외교류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8월 29일 연변조선족위안 연극공연을 중국 훈춘시 영극원에서 개최하여 이근삼 작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를 무대에 올렸다.

또한 한기학 속초예총 회장은 9월 1~7일까지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 51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훈춘시 9 · 3절 운동회 농촌문예경연에 훈춘시 인민정부의 공식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제38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중국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백두산소년예술단 공연이 예총 주관으로 10월 3~4일 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에는 제39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중국 훈춘시 조선족 서광 기숙제학교 공연이 예총 주관으로 10월 16~17일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사진 7-6-34 〉 꽃봉우리 소년 예술단 초청공연

이러한 결과는 속초시가 북방교역의 전초기지로서 명실상부하게 부상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2000년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예술 분야도 이에 부흥하여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부문을 살펴보면 2005년까지 『갈뫼』가 꾸준히 발간되어 35집이 나왔으며 발간 기념 문학 축제를 매년 연말에 열고 있다. 그 외 정기적으로 열어오던 행사를 계속 진행하여 2005년 11회 설악주부 백일장, 16회 설악학생 백일장, 8회 거리시낭송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2년 5월에는 이성선 시인 추모 문학제를 개최하였다. 이 추모문학제는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추모문학제 위원회(위원장 : 최명길) 주관으로 향토 문학단체 6개 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비디오와 테입으로 시인 생전의 모습과 육성 등을 통하여 시인의 지난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시인을 추모하는 시낭송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1주년에 즈음하여 시인 생가에 중앙 및 향토문학 단체들이 후원하여 추모 시비를 건립하였다.

〈 사진 7-6-35 〉 이성선 시인 추모 문학제

아울러 2003년 4월 제1회 바다문학 기행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황동규 시인 등 40여 명의 '문학과 문화를 사랑하는 모임'이 주관한 행사로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속초 문인협회 회원 20여 명이 문학기행

후원단체 자격으로 참가하여 문학토론과 시낭송을 병행하였다.

〈 사진 7-6-36 〉 제1회 바다문학기행

미술부문을 보면 미술협회전을 2004년 29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이미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각종 대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2004년 제16회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제9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 제8회 설악서예백일장, 제5회 설악주부미술한마당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 사진 7-6-37 〉 제25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2000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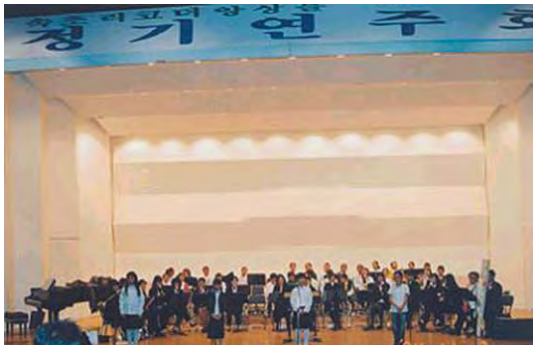
그 외 2002년 9월 엑스포개최 1주년기념 사생대회, 10월 제28회 강원미술대전수상작 전시회, 2001년 10월 우리꽃 그리기 사생대회, 12월 제22회 강원도서예가협회전, 2003년 10월 강원미술대전 순회초대전, 미술문화유적지탐방 청주공예비엔날레 참가, 송년자선미술전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사진 7-6-38 〉 우리꽃 그리기 사생대회(2001년 10월)

〈 사진 7-6-39 〉 제22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2001년 12월)

음악부문의 2000년대 활동을 간추리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음악도 그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행사를 계속 진행한다. 2004년까지 14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 개최를 비롯하여 제12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쿨, 제8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 제7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연주회 등을 마쳤다.

〈 사진 7-6-40 〉 제12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2004년 5월)



〈 사진 7-6-41 〉 제7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공연(2004년 11월)

또한 임수철은 그간 작곡한 곡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 사진 7-6-42 〉 임수철 창작가곡집 출판기념회(2001년 11월)

2002년에는 5월 캐나다 프리마 뉴즈 합창단 초청공연, 10월 바리톤 민종홍 독창회 등이 있었으며 2003년에 들어서면 10월 한국 남성합창단 초청공연, 12월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등의 행사가 있었다.

〈 사진 7-6-43 〉 한국 남성합창단 초청공연(2003년 10월)

2004년 주목할 것은 11월에 개최된 한민족 통일음악축전 음악발표회이다. 이 행사는 속초예총이 후원하고 속초음악아카데미 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 사진 7-6-44 〉 한민족 통일음악축전 음악발표회(2004년 11월)

2000년대의 연극부문도 역시 정기적인 공연을 꾸준히 이어갔다. 특히 극

단 '굴렁쇠'는 매년 정기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한편 강원도 연극제에 꾸준히 참가하였다. 또한 2000년도에도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를 계속 개최하여 2004년 제13회를 맞아 청소년들에게 연극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강원도 연극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사진 7-6-45 〉 연극협회 정기공연(2004년 5월)

한편 2000년 9월에는 극단 '청봉'의 부활 공연이 있었고, 2004년에는 극단 '오름'의 네 번째 공연이 있었다. 아울러 200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도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 사진 7-6-46 〉 극단 오름 공연(2004년 11월)

그 외 매년 무대 지원사업을 통해 속초 연극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으며 각설이 마당극이나 훈춘시 방문 등을 통해 공연의 다양성을 시도하고 해외와의 활발한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제2절 문학활동

1. 개황

지방에서의 예술활동은 역시 문학분야가 견인차 노릇을 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문학이 훨씬 대중적이라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속초지방에서도 문학 운동이 다른 예술 운동보다 한발 앞서 시작되었다. '설악문우회'는 단순한 문학 동호인 단체에서 벗어나 본격 문학 창작서클임을 표방하고 나선 문학 단체이다. 이 단체를 모체로 하여 훗날 문인협회 속초지부가 구성된다. 여기에서 이탈한 몇몇 시인들이 별도의 시낭송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문인 단체와는 별도로, 몇몇 문인들은 독자적인 작품활동을 해 나갔다.

속초의 문학활동을 속초예총 문인협회가 밝힌 연혁을 통해 살펴본다.

속초에서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정기적이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설악문우회'의 발족이라고 할 수 있다. '설악문우회'는 1969년 10월 윤홍렬 외 21명이 속초교육청 회의실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회의 명칭을 '설악문우회'로 하고 동인지 제호를『갈뫼』로 결정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단체이다.『갈뫼』는 1969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4년 제34집을 발간하였다.

1970년에 오면 '설악문우회'가『갈뫼』창간호와 2집을 발표하게 되는데 창간호는 4월 25일에 출간했고 '갈뫼'라는 제자(題字)는 김상옥이 썼다.

1971년 10월『갈뫼』3집이 발간되었고 1972년에는 이성선이『시문학』지 4월호에 '합장'으로 추천 완료되었다.

1973년 박명자가『현대문학』10월호에 '칠석날 까마귀여'로 추천 완료되었고 김종영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에 '아침'이 당선되었다.

1974년 이성선이 첫 시집『시인의 병』을 발간하였고 동년 11월 9일 문협 속초지부가 창립되어 자축문학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1975년 최명길이『현대문학』10월호에 '해역'으로 추천 완료되어 11월 15일 출판기념 문학의 밤을 서울예식장에서 가졌다.

1976년 10월 이상국이『심상』지 10월호에 '겨울 추상화'로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갈뫼』의 발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중단되었다.

1977년 강호삼이『현대문학』5월호에 '영역'으로 추천 완료되었고 11월 10일 이성선이 시집『하늘 문을 두드리며』를 발간하였다.

〈 사진 7-6-47 〉 이상국 문단데뷔 기념(1976년 10월)

1978년 12월 2일 최명길이 시집『화접사』를 발간하였고, 전년도에 발간한『갈뫼』출판기념 문학의 밤을 이원섭과 이원수를 초청하여 가졌다.

〈 사진 7-6-48 〉 최명길 시집발간 기념(1978년 12월)

1979년은 속초문학에 많은 성과가 있은 해이다. 박명자가 첫 시집『아흔아홉 손을 가진 四月』출간을 비롯하여 박용렬이 제2회 동시 동화 문학상을 수상(동시집『고요』)하였다. 아울러 고형렬과 이충희가『현대문학』10월호를 통해 시부문에서 초회 추천를 받았으며 김춘만은 방통문학상 시부문에 당선되는 쾌거를 올렸고 이성선은 세 번째 시집『몸은 지상에 묶여도』를 출판하였다.

1980년 김종영이 동시집『하늘을 날아다니는 아이들』을 발간하여 그 동안의 작품을 집대성하였다.

1981년 4월 김종영 동시집 출판기념회를 대한예식장에서 갖고 초청연사로 박경종을 초대했으며 고형렬은『현대문학』에 '대청봉 수박밭'으로 추천 완료되었다. 또한 물소리 시낭송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어 4회까지 개최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1982년 이충희가『현대문학』12월호에 '동해 9곡'으로 추천 완료되었고, 송병숙은 같은 호에 '철쭉꽃'으로 초회 추천을 받았다. 물소리 시낭송회는

13회까지 개최되었다.

〈 사진 7-6-49 〉 김종영 동시집출판기념(1980년 6월)

1983년 4월 김종영이 동화집『소낙비가 심고 간 하늘』발간에 이어 5월 최재도가 계몽사 아동문학상을 받았다. 또한 김종영과 한정동 아동문학상 수상기념 문학강연회를 귀빈예식장에서 갖고 박경종, 박화목를 연사로 초청했으며 물소리 시낭송회는 22회를 맞이하였다.

1984년 2월 박용렬 동시집『고요』의 발간이 있었고 12월 이희갑 첫 창작집『새벽의 노래』, 이구재 첫 시집『주문진항』이 출판되었다. 이어 8월에는 이희갑이『월간문학』에 동화 '바람이 된 만봉이'로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물소리 시낭송회는 27회까지 치렀다.

1985년 1월 최재도가 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부문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고 8월 박명자의 제2시집『빛의 시내』발간에 이어 9월 이상국 첫 시집『동해별곡』의 출판을 맞이한다.

〈 사진 7-6-50 〉 1985년 문학의 밤

1986년 3월 21일 제1회 시마당 행사가 카페 '사랑방'에서 '현대시의 이해'라는 주제로 열리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동년에 4회까지 행사를 치르고 물소리는 43회 시낭송을 12월에 마쳤다. 또한 12월 박명자가 제5회 강원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

1987년에는 시마당 행사가 9회까지, 물소리는 49회까지 시낭송을 마쳤

다. 6월에는 청소년 문학강좌를 속초시노인회관에서 개최하였다.

1988년에 들어 시마당 행사가 14회까지 진행되고 4월 김춘만이 『월간문학』 시부문 신인상을 '葬地에서'로 수상하였고, 6월 고형렬 제3시집 『해가 떠 올라 풀이슬을 두드리고』와 8월 박명자 제3시집 『바람의 생명율』, 이어 12월 이희갑이 동화집 『엄마의 얼굴』을 발간하였다. 물소리는 53회까지 시낭송을 진행했다.

1989년 시마당 행사가 19회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4월 사상철 첫 시집 『그대 영혼을 위하여』에 이어 10월 이상국 제2시집 『내일로 가는 소』가 발간되었다. 12월 이충희 첫 시집 『가을 회신』 발간과 김성숙이 『월간문학』 신인상 소설부문에서 '번제'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물소리 시낭송은 62회를 맞이하였다.

1990년 5월 김영준 첫 시집 『봄을 기다리며』가 출간되었고 8월 박명자의 제4시집 『나무의 은유법』이 나왔으며 11월 이화숙이 현대시 신인 추천 시부문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사상철이 『우리문학』, 『시대문학』으로 등단하였다. 물소리는 74회, 시마당은 23회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1991년 8월 박명자가 시집 『자유의 날개짓』를 출판하고 사상철은 시집 『저 하늘에 흰 구름은』, 이구재는 시집 『나무들의 웃음』을 발간했다. 11월 장승진이 『심상』 11월호에서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이구재가 제10회 강원문학상을 수상했다.

1992년 2월 장승진이 『시문학』 2월호 시부문에서 신인상 수상을 시작으로 11월 이화국의 첫 시집 『꽃나라 잠언』이 발간되었다. 이어 박명자가 제34회 강원문화상을 수상하고 채재순은 통일원주최 통일문예상을 수상했다.

1993년 10월 박명자가 제6시집 『매일 다시 일어서는 나무』를 발간하고 12월 서귀옥이 향장 여성 문예작품 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이 있었다. 12월 21일 『갈뫼』 23집 발간과 박명자 제6시집 출판기념 문학행사를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문덕수를 초대하여 베풀었다.

1994년은 다른 해에 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3월 채재순이 『시문학』에 '장노인'외 6편으로 신인상 수상을 시작으로 11월 지영희가 『월간문학』에 '새들은 꿈꾸고' 외 2편으로 역시 신인상을 수상했다. 또한 8월 이화국의 제2시집 『등대』, 12월 권정남의 첫 시집 『속초바람』이 발간되었다. 6월에는 회원 시 · 서 · 화 · 도예전이 신용조합 2층에서 개최되었다.

1995년 5월 사상철 제3시집 『슬픈 풍경』과 11월 김춘만 첫 시집 『어린 생명에게도 그늘을 던져야 한다』가 발간되고 12월 장선옥이 1995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에 당선되는 영광이 있었다.

1996년에는 1월 최월순이 『문예사조』에 '달맞이 꽃' 외 2편으로 등단하고 10월 제1회 거리 시화전를 수복탑에서 개최하였으며 11월 박명자의 제7시집『시간의 강하』가 발간되었다.

1997년 4월 이구재가 허난설헌 문학상, 10월 이충희가 강원문학상을 수상하며 10월 제2회 거리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장승진이 첫 시집『한계령 정상까지 난 바다를 끌고 갈 수 없다』를 발간하기도 했다.

1998년 5월 이화국은 제3시집 『엄마야 내 귀가 이상해』를 발간한 후 9월 제4시집 『참지 않을꺼야』를 발간해 왕성한 창작활동을 보였다. 10월 제3회 거리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1999년에는 3명이 시집을 발간하는데 3월 박명자 제8시집 『혼자 산에 오는 이유』, 채재순 첫 시집 『그 끝에서 시작되는 길』, 10월 이구재 제3시집 『바다 동네 눈 내리는 날』이다. 이구재는 12월 제4시집 『슬픈 보석』을 연이어 발간하여 주목받았다.

2000년에는 박응남과 김향숙이 신입회원으로 입회하고 12월 16일 『갈뫼』 30집이 특집으로 발간되었다.

2001년 1월 이화국이 경기문학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월 이충희의 제3시집 『겨울 강릉행』이 출판되었다. 4월에는 박응남이 제1시집 『꽃바구니에 담긴 사랑』을 출판하며 6월 김종헌이 계간 『문학마을』에 '풍경1' 외 2편으로 등단했다. 또한 9월에는 권정남의 제2시집 『서랍 속의 사진 한 장』이 출판되고 10월 지영희의 제1시집 『사람이 두렵습니다』가 발간된다.

또한 1월 김경자(시), 3월 최숙자(시)가 신입 회원으로 입단하고 4월 최재도가 재가입한다. 한편 3월 1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문협정관을 개정하고 임원를 재구성하여 지부장에 박화, 부지부장에 김춘만, 사무국장에 지영희, 감사에 권정남, 김종헌을 선임하였다.

2002년 8월 김경자가 『문학세계』로 등단하였고, 10월 권정남의 '겨울 비선대' 외 3편이 가곡으로 발표되었다. 같은 달 김유정 문학관 문학기행을 하였으며 11월 박명자 9시집 『시간의 흔적을 지우며』가 출간되었다. 11월 28일에는 제1회 『갈뫼』 독자 초청 시낭송회가 한국소설가협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소설가협회와 설악문우회(회장: 강호삼)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행사는 한국문예진흥원에서 후원하는 2002 중소도시 순회 문학강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행사였다. 이 날 행사는 김종헌씨의 사회로 이기윤(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 김석록(소설가)의 문학 강연에 이어 독자마당 시낭송회와 지역 문인들의 시낭송회 및 노래마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사진 7-6-51 〉 독자와 함께하는 문학의 밤(2002년 11월)

한편 8월 신입회원 조인화(시)의 입단에 이어 11월 김석록(소설), 한춘녀(소설)가 입회한다.

2003년 1월 서미숙(수필)이 새로 가입하고 그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던 설악학생백일장을 제14회까지, 설악주부백일장를 제9회까지 개최하였으며 10월 제6회 거리시화전을 마무리하였다. 이 전시회는 협회소속 작가의 작품 40점을 전시하였으며 이전까지 전신주에 베너 형태로 작품을 전시하던 것을 표구 및 액자로 제작하여 깔끔하고 산뜻하게 전시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전시 전날 시낭송회를 개최하여 전시회 홍보와 자축행사를 사전에 가졌다.

〈 사진 7-6-52 〉 제6회 거리시화전

한편 10월 최재도가 속초시민문화상을 수상(문화예술 부문)하였고 제2회 『갈뫼』 독자초청 시낭송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화국이 제7시집 『모래는 바다가 좋다』를 비롯하여 소설집 『꿈꾸는 수레』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12월 12일에 박명자가 대한민국 공무원 문학상을 수상(저서부문)하는 영광을 안았다.

2004년에 들어 회원들의 등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1월 서미숙이 계간『시현실』겨울호를 통해, 7월 최숙자가 계간『문학마을』을 통해 등단한다. 또한 7월 이은자는『수필문학』으로 추천 완료되고, 9월 최명선이『문학세계』을 통하여 등단하였다. 신입회원의 가입도 이루어져 7월 장은선, 9월 최명선, 11월 이선자 등 3명이 새로 입단하였다.

한편 1월 박명자가 설악문우회장으로 당선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으며 9월 부회장 김춘만이 제2시집『산천어 눈빛 닮은 당신』을 발간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백일장을 치르고 길거리 시화전을 전개하면서 포항 호미곶과 진동계곡에서 문학 기행도 실시하였다.

속초예총과 별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속초출신의 문인 중 황금찬은 1953년『문예』지와『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그간 시집『현장』,『5월의 나무』,『오후의 한강』,『구름과 바위』,『나비제』,『보석의 노래』,『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잊지 못하는 것은』,『물새의 꿈과 젊은 잉크를 쓴 편지』,『겨울꽃』,『구름은 비에 젖지 않는다』,『오르페우스의 편지』,『별을 찾아서』,『행복을 파는 가게』 외 다수를 출간하였고 수필집『행복과 불행사이』 외 15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월탄문학상, 한국기독교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서울시 문화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시문학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다.

이반은 1968년『새벗』을 통해 문단에 데뷔하여 그날 그날에(1979), 환상무대(1982), 바람타는 섬(1984), 아버지 바다(1989), 아침과 초코파이(1993), 피터팬(1996) 등을 발표하였고 대한민국 연극제 희곡상(1979), 동아연극상(1984), 크리스챤문학상(1989) 등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크리스찬 문인협회 희곡분과위원회 위원장, ITI 희곡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영남은 1992년『분노의 왕국』으로 제1회 MBC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여 KBS 폴리스(1995), KBS 바람은 불어도(1996), KBS 정때문에(1997), MBC 일일드라마 결혼의 법칙(2001), KBS 주말연속극 애정의 조건(2004), KBS 수목드라마 장미빛 인생(2005) 등을 집필하였고 제32회 백상예술대상 극본상(1996), 제23회 한국방송대상 TV작가상 대상(1996), 한국프로듀서 작가부문 특별상(1996), KBS 연기대상 작가상(1997, 2004) 등을 수상하며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간된『갈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7-6-1 〉 『갈뫼』발간 현황

호수	일시	출품작가 상황
1	1969. 4. 25	*시 박명자/김철홍/최명길/이성선/박진서/김종영/ 김영규/김현문/최춘지 *소설 강호삼/정영자/장태진/윤홍렬 *평론 송병승
2	1970. 12. 12	*시 최명길/박명자/김종영/이한숙/김현문/윤혜숙/설심 *소설 강호삼/신순철/정영자/장태근/고진자/윤홍렬
3	1971. 10. 1	*시 이성선/박명자/정려성/김종영/최남순/최명길/김종영/김현문 *소설 장태근/고진자/김성숙/강호삼/윤홍렬 *초대작품 문덕수/조연현
4	1972. 7. 24	*시 박명자/정려성/김종영/최남순/이상국/권오견/최명길/이성선 *소설 윤홍렬/장태근/김성숙/강호삼
5	1973. 10. 28	*시 박명자/최명길/이상국/이성선/정려성/최남순 *동시 김종영 *소설 강호삼/이승규 *오페라대본 윤홍렬
6	1974. 10. 31	*시 이성선/최명길/이상국/박명자/최재열 *동시 김종영 *소설 이승규/이은자/강호삼/윤홍렬
7	1975. 11. 8	*시 최명길/이성선/박명자/이상국/고형렬 *동시 김종영 *소설 윤홍렬/이은자/강호삼/유연선/이승규
8	1977. 7. 31	*초대시 황금찬/이성교/민영 *시 박명자/엄장섭/이상국/이성선/이충희/고형렬/김춘만/최명길 *동시 박용렬/김종영 *동화 이희갑 *소설 유연선/강호삼/김성숙/윤홍렬/이은자
9	1979. 10. 30	*시 박명자/김춘만/송병숙/이상국/이성선/이충희/최명길 *동시 박용렬/김종영 *동화 이희갑 *소설 윤홍렬/김성숙/강호삼/이병욱/이은자/함택균
10	1980. 10. 20	*시 고형렬/김춘만/박명자/송병숙/이구재/이상국/이충희/최명길/이성선 *동시 박용렬/김종영 *동화 이희갑 *소설 윤홍렬/강호삼/김성숙/이병욱/함택균
11	1981. 12. 15	*시 고형렬/김춘만/박명자/송병숙/이구재/이상국/이충희 *동시 박용렬/김종영 *동화 이희갑 *소설 김성숙/함택균/윤홍렬/강호삼
12	1982. 12. 15	*시 고형렬/김춘만/박명자/송병숙/이구재/이상국/이충희 *동시 박용렬/김종영 *동화 이희갑 *소설 김성숙/함택균/강호삼/윤홍렬

호수	일시	출품작가 상황
13	1983. 12. 31	＊시 박명자/이상국/고형렬/이구재/이충희/송병숙/김춘만/이창호 ＊동시 김종영 ＊동화 이희갑 ＊소설 강호삼/김성숙 ＊희곡 최재도
14	1984. 12. 15	＊시 고형렬/김춘만/박명자/이창호/이구재/이상국/이충희 ＊동시 김종영 ＊동화 이희갑 ＊소설 강호삼/함택균/윤홍렬
15	1985. 12. 20	＊시 김춘만/박명자/송병숙/이구재/이상국/장승진/채재순/고형렬 이창호/이충희 ＊동시 김종영 ＊동화 이희갑 ＊소설 김성숙/이은자/윤홍렬 ＊희곡 최재도
16	1986. 9. 30	＊시 채재순/장승진/이상국/이구재/송병숙/박명자/김춘만/김영준 고형렬/지영희/이윤정/김창환/김은희 ＊소설 함택균/김성숙/윤홍렬 ＊동시 윤월희/김종영 ＊동화 이희갑
17	1987. 11. 10	＊시 길현관/김영준/김은희/김춘만/박명자/이구재/이상국/이윤정 이충희/장승진/지영희/채재순/최영숙 ＊동시 김종영 ＊동화 이희갑 ＊소설 김성숙/이인석/윤홍렬/함택균 ＊초청연사 윤재근/구인환/황명
18	1988. 12. 26	＊시 김송희/김영준/김춘만/박명자/송병숙/이구재/이상국/이화국 장승진/지영희/채재순/최영숙/고형렬 ＊소설 김성숙/윤홍렬 ＊동화 이희갑
19	1989. 11. 30	＊시 김송희/김영준/김춘만/박명자/사상철/이구재/이상국/이충희 이화국/장승진/채재순/최영숙 ＊동화 이희갑 ＊소설 김성숙/윤홍렬
20	1990. 11. 30	＊초대시 황금찬/박경종 ＊시 김송희/김춘만/박명자/사상철/이구재/이상국/이화국/장승진 채재순/최영숙/지영희/김영섭 ＊소설 김성숙/윤홍렬
21	1991. 11. 30	＊시 최영숙/채재순/지영희/장승진/이화국/이충희/이구재/사상철 박명자/김춘만/김영섭/김송희/권정남 ＊동화 이희갑 ＊소설 윤홍렬
22	1992. 11. 30	＊시 채재순/최영숙/장승진/지영희/김춘만/김영미/김영섭/권정남 이충희/이화국/이구재/박명자/서귀옥 ＊동화 이희갑 ＊소설 윤홍렬

호수	일시	출품작가 상황
23	1993. 12. 25	＊시 김영미/김영섭/김춘만/권정남/박명자/서귀옥/이구재/이충희 장승진/지영희/채재순 ＊꽁트 이화국 ＊수필 사상철 ＊소설 윤홍렬/김성숙 ＊동화 이희갑
24	1994. 12. 27	＊시 권정남/김경미/김영미/김영섭/김춘만/박명자/서귀옥/이구재 이충희/장승진/장은선/지영희/채재순 ＊소설 윤홍렬 ＊동화 이희갑 ＊희곡 이화국
25	1995. 12. 27	＊시 권정남/김영미/김영섭/김춘만/박명자/서귀옥/이구재/이충희 장승진/장은선/지영희/채재순 ＊소설 윤홍렬 ＊희곡 이화국 ＊동화 장선옥 ＊초청연사 황명
26	1996. 12. 15	＊시 권정남/김영미/김영섭/김종헌/김춘만/박명자/사상철/서귀옥 이구재/이화국/이충희/장승진/지영희/채재순/최월순 ＊소설 윤홍렬/김성숙
27	1997. 12. 6	＊시 최월순/채재순/지영희/장승진/이충희/이구재/서귀옥/사상철 박명자/김춘만/김종헌/김영섭/김영미/권정남 ＊수필 이화국/이은자/강호삼 ＊동화 장선옥 ＊소설 윤홍렬/김성숙
28	1998. 12. 5	＊시 권정남/김영미/김영섭/김종헌/김춘만/박명자/사상철/이구재 이충희/이화국/장승진/지영희/채재순/최월순 ＊수필 강호삼/이은자 ＊동화 이희갑 ＊소설 김성숙/윤홍렬
29	1999. 12. 1	＊시 권정남/김영미/김영섭/김종헌/김춘만/박명자/서귀옥/이구재 이충희/이화국/장승진/지영희/채재순/최월순 ＊수필 강호삼/이은자 ＊동화 이희갑/장선옥 ＊소설 김성숙/윤홍렬
30	2000. 12. 16	＊초대작가 김경미/김종영/김영준/박화목/엄창섭/최재도/황금찬 ＊시 권정남/김영섭/김종헌/김춘만/김향숙/박명자/박응남/이화국 이충희/장승진/지영희/채재순/최월순 ＊수필 강호삼/이구재/이은자 ＊소설 윤홍렬 ＊동화 이희갑/장선옥
31	2001. 12. 15	＊시 권정남/김경자/김종헌/김경미/김영섭/김춘만/박명자/박응남 이화국/장승진/지영희/최숙자/이충희/이구재/최월순/채재순 ＊수필 강호삼/최재도 ＊동화 이희갑
32	2002. 12. 21	＊시 박명자/김춘만/이충희/이구재/이화국/장승진/채재순 지영희/권정남/김종헌/최월순/박응남/김향숙/최숙자 김경자/조인화 ＊수필 윤홍렬/강호삼 ＊수필 이은자 ＊희곡 최재도 ＊꽁트 김석록 ＊동화 이희갑/장선옥
33	2003. 12. 13	＊시 박명자/김춘만/이충희/이화국/장승진/채재순/지영희 김영섭/권정남/김종헌/최월순/박응남/김향숙/최숙자/조인화 ＊소설 윤홍렬/강호삼/김성숙/김석록/최재도 ＊수필 이은자/이구재/서미숙 ＊동화 이희갑
34	2004. 12. 18	＊시 박명자/김춘만/이충희/이화국/이구재/장승진/채재순/지영희 김영섭/권정남/김종헌/최월순/박응남/김향숙/최숙자/조인화 최명선/장은선 ＊소설 윤홍렬/강호삼/김석록/한춘녀 ＊수필 이은자/서미숙 ＊희곡 최재도

또한 1990년부터 시작된 학생백일장 개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7-6-2 〉 학생백일장 개최 현황

회	일시	수상자수	주제	장소
1	1990. 9. 27	58	자유	
2	1991. 4. 15	37	자유	예총사무실(공모형식)
3	1992. 5. 12	45	자유	수복탑놀이공원
4	1993. 5. 14	87	자유	수복탑놀이광장
5	1994. 10. 15	96	대청소, 신호등, 편지, 운동회 산, 친구, 약속, 우리농산물	수복탑놀이광장
6	1995. 5. 25	119	얼굴, 내짝, 우리집, 만남 작은 것, 길, 속초	속초시 공설운동장
7	1996. 5. 16	118	선물, 건널목, 소식 나의 하루, 여행	속초시 공설운동장
8	1997. 5. 27	127	바다, 청소기, 모래성, 생일잔치 소원, 가장 아름다운 것	수복탑놀이마당
9	1998. 5. 11	143	유리창, 파도, 출항, 수복탑 나의 미래, 유월	수복탑놀이마당
10	1999. 5. 29	150	바다, 선물, 산, 신발, 엑스포 손님맞이, 속초의 미래	엑스포 대회장
11	2000. 5. 25	215	·	수복탑 광장
12	2001. 5. 19	239	·	엑스포 광장
13	2002. 5. 18	157	내짝, 들꽃, 인터넷, 체육시간	엑스포 광장
14	2003. 5. 24	182	자전거, 얼굴, 강아지, 약속 소중한 것, 거울, 의자	엑스포 광장
15	2004. 5. 22	171	일기장, 엄마, 우산, 꽃씨 교복, 그림자, 별, 웃음	엑스포 광장

아울러 1995년부터 시작한 주부백일장의 개최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7-6-3 〉 주부백일장 개최현황

회	일시	수상자수	주제	장소
1	1995. 5. 25	19	·	속초시 공설운동장
2	1996. 5. 16	22	·	속초시 공설운동장
3	1997. 5. 27	37	친구, 지는 꽃을 바라보며, 꿈, 만남	수복탑 놀이마당
4	1998. 5. 11	30	속초청호동, 외출, 이사, IMF시대	수복탑 놀이마당
5	1999. 5. 29	30	아침, 자화상, 친정아버지, 저금통장	엑스포 대회장
6	2000. 5. 20	17	·	수복탑 광장
7	2001. 5. 19	15	·	엑스포 광장
8	2002. 5. 18	·	막대, 장바구니	엑스포 광장
9	2003. 5. 24	·	비오는 날, 화장	엑스포 광장
10	2004. 5. 22	15	된장찌개, 열쇠	엑스포 광장

2. 문학단체

1)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한국문인협회속초지부는 1974년 11월 4일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현재 활동 중인 문협회원들의 장르로는 시, 소설, 희곡, 아동문학이 있다.

문협의 역사는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면 본격적인 문학창작서클임을 표방하고 활동 중이었던 '설악문우회'를 이어 받아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문협의 중앙 인준 주축 회원은 윤홍렬, 박명자, 이성선, 최명길, 강호삼, 김종영 등이었다.

1974년 속초문협 태동 이전의 활동은 곧 '설악문우회' 활동이었고, 인준 이후 설악문우회 활동은 곧 문협활동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가 회원 중에 타지로 나가는 회원이 생기는 등 부득이 문협의 소속과 달리하는 회원이 생겼고, 일부회원이 속초지역에 생겨난 다른 문학단체에 입회하여 활동하면서 회원소속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문학에 관련된 사업이면 전체적으로 연계 합심하여 사업을 전개하곤 했다.

속초지역의 문학활동 단체로는 1969년 결성된 '설악문우회'와 1981년 발족한 '물소리 시낭송회' 그리고 1992년 4월에 결성된 '영북문학회' (현재의 시마을 동인), 민예총 소속의 문학분과 등 여러 단체가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인협회의 초대회장은 협회 인준 때부터 윤홍렬 지부장이 계속하여 이끌다가 2001년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대 지부장에 박화에 이어 2004년 1월 정기총회에서 3대지부장 김춘만을 선임하여 활동 중이다.

또한 문인협회가 표방하고 있는 주요 임무 및 기능은 지역 문학인구의 저변 확대, 회원의 문학적 역량 배양과 수준 제고, 지역문화연구와 초청 강연회 및 강좌 개최, 청소년 대상 문화활동 전개 및 문학지 발간 등이다.

문협이 실시하는 주요활동에는 우선 설악학생백일장이 있다.

〈 사진 7-6-53 〉 설악학생백일장

이 행사는 2005년 현재 16회를 개최하였으며 영북지역 최고의 청소년 글짓기대회로 정착한 문협의 대표적인 청소년 사업이다.

다음은 설악주부백일장으로 2005년 현재까지 11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나날이 향토주부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가는 사업이다. 해마다 청소년 백일장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 사진 7-6-54 〉 설악주부백일장

또한 거리시화전을 들 수 있다. 거리시화전은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설악문화제 행사장 부근에서 개최되어온 사업으로 설악을 찾은 단풍관광객과 지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는 사업이다.

〈 사진 7-6-55 〉 거리시화전

아울러 『갈뫼』지 발간 및 문학축제가 있는데 해마다 송년을 맞이하여 『갈뫼』지를 발간한 기념으로 송년 문학행사를 개최한다.

〈 사진 7-6-56 〉 갈뫼지 발간 및 문학축제

그 외 기타 비정기 사업으로는 각종 문학관련 사업의 후원, 문학유적지탐방, 합평회 토론회 개최 및 협찬 등 지역 문학발전에 관련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설악 문우회

'설악문우회'는 1969년 10월 윤홍렬을 비롯 강호삼, 박명자 등에 의해서 결성되었다. 당시 20~30대였던 문학지망생들이 다방 등지에서 문학토론을 벌이던 중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습작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로 문학단체를 결성하게 된다. 당시 회장으로는 윤홍렬로 회원 22명이 동인지 발간을 결의하며 제호는『갈뫼』로 칭하였다. 명칭은 박명자 회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 뜻은 '칡의 산'이란 뜻을 가진다고 한다.『갈뫼』지는 1970년 4월에 제1집을 시작으로 1976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간되어 2004년 12월 현재 34집이 발간되었으며, 발간기념회 및 문학축제도 이행하고 정통성을 고수하며 활동 중이다.

근래에 이르기까지 '설악문우회'는 곧 '문협'으로 이해될 정도로 이 지역 초창기 문학발전의 한 장을 장식한 단체로써 '물소리 시낭송회' 와 '영북문학회' 회원들의 대다수가 '설악문우회' 출신들이었다.

'설악문우회' 활동 중 등단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1970년에 이성선이『문학비평』으로 등단한 것을 시작으로『현대문학』으로 박명자, 최명길, 강호삼, 이충희, 고형렬,『심상』으로 이상국, 김영준, 장승진,『월간문학』으로 이희갑, 김춘만, 김성숙, 지영희,『시문학』으로 장승진, 채재순,『현대시』로 이화국,『문학동네』로 김종헌이 등단했다. 그 외에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에 김종영이, 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부문에 최재도가 당선되어 등단하였으며, 등단 후 '설악문우회'에 입회하여 활동하는 사람들로 이구재, 권정남, 최월순, 장선옥, 박응남 등이 있다.

한편 '설악문우회'는 1986년부터 시 분야 회원들로 별도의 시 낭송회를 개최하고 있다. '설악문우회'는 이보다 훨씬 전인 1981년에 물소리 시 낭송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여기에 참여한 시인들 일부가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며 '설악문우회'를 이탈함으로써, 5년 후에 또 다른 시 낭송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소속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행사명은 '詩마당 詩낭송회'이다. 이 낭송회의 첫 행사는 1986년 3월 21일 시내 카페 '사랑방'에서 개최되었다. 김영준, 김춘만, 이구재, 이상국, 장승진 등이 참여하였고, 기획은 최재도가, 진행은 최길남, 배음은 이화춘이 각각 담당하였다 '시마당 시낭송회'의 행사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7-6-4 〉 시마당 시낭송회 현황

횟수	일자	장소	출연시인	토론주제	비고
1	86. 3. 21	사랑방	김영준, 김춘만, 이구재 이상국, 장승진	현대시의 이해 (박명자)	기획 : 최재도 진행 : 최길도 음악 : 이화춘
2	86. 5. 21	사랑방	김영준, 김춘만, 박명자 이상국, 장승진, 채재순	이구재의 시론	기획 : 최재도 진행 : 지영희 음악 : 이화춘
3	86. 9. 26	다래	박명자, 이윤정, 김영준 이상국, 김춘만, 장승진	문학의 삶 양식 (윤홍렬)	사회 : 지영희 음악 : 이화춘
4	86. 11. 21	다래	박명자, 이상국, 지영희 김창환, 채재순, 김은희	80년대 문학의 흐름	사회 : 장승진 음악 : 이화춘
5	87. 2. 13	다사랑	채재순, 길현관, 장승진 김영준, 이상국, 박명자	박명자의 시세계	사회 : 이영희 음악 : 이화춘
6	87. 4. 21	베니스	이상국, 지영희, 채재순 김춘만, 김영준, 김은희	봄날에 대하여	사회 : 장승진 음악 : 이화춘
7	87. 6. 29	베니스	박명자, 장승진, 최영숙 이상국, 김영준	지방연극의 활성화 (신원하)	·
8	87. 9. 4	알프스	이상국, 박명자, 길현관 김춘만, 김은희, 장승진	삶과 미술의 세계 (김영복)	음악 : 이화춘
9	87. 11. 5	아쉬람	채재순, 최영숙, 박명자 이상국, 김영준, 지영희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전(최종덕)	사회 : 장승진 음악 : 이화춘
10	88. 2. 28	공간사랑	장승진, 김춘만, 지영희 채재순, 이상국, 김영준	지방문화의 발전적모색 (임덕수)	음악 : 이화춘
11	88. 4. 15	공간사랑	김영준, 최영숙, 이구재 장승진, 박명자, 김송희	새로운 시인의 탄생 (이상국) 다시 끝없는 길 떠나며 (김춘만)	·
12	88. 6. 30	다랑	박명자, 김춘만, 김영준 장승진, 채재순, 김송희	접시꽃 당신을 중심으로(장승진)	사회 : 이화춘 음악 : 이화춘
13	88. 9. 14	다랑	장승진, 채재순, 김춘만 김영준, 이상국	청호동의 의미 (이상국)	음악 : 이화춘
14	88. 10. 26	다랑	김영준, 이구재, 이상국	시적체험의 형상화 (박화)	사회 : 장승진 음악 : 이화춘
15	89. 2. 16	시나브로	김춘만, 박명자, 이상국 장승진, 지영희, 채재순	삶과 교육의 자주성에 대하여(황시백)	·
16	89. 4. 20	시나브로	김영준, 최영숙, 김송희 이구재, 김춘만, 박명자	시를 쓰는 음악(박용열)	·
17	89. 6. 27	아쉬람	박명자, 장승진, 김송희 최영숙, 채재순, 이상국	나의 인생과 문학 (사상철)	사회 : 박미향 음악 : 이화춘
18	89. 9. 07	아쉬람	독자 시낭송	친일문학에 대하여 (이상국)	사회 : 장승진
19	89. 11. 12	아쉬람	이구재, 김춘만, 김영준 최영숙, 채재순, 장승진	속초연혁고 (주상훈)	사회 : 김송희 음악 : 이화춘
20	90. 3. 27	아쉬람	독자 시낭송	클래식 기타연주 (원영배)	사회 : 최영숙 음악 : 이화춘
21	90. 5. 29	아쉬람	김춘만, 최영숙, 김영준 채재순, 장승진, 이구재 박명자, 이상국	초대 독자시 낭송	사회 : 김송희 음악 : 이화춘
22	90. 7. 27	아쉬람	김춘만, 박명자, 사상철 이구재, 이상국, 장승진 채재순, 최영숙	·	사회 : 김송희 음악 : 이화춘
23	90. 9. 27	아쉬람	김송희, 김영준, 장승진 지영희	지역신문의 위상에 대하여(박종헌)	사회 : 최난정 음악 : 이화춘

3) 물소리 시낭송회

'물소리 시낭송회'는 1981년 결성되었다. '설악문우회' 회원이었던 이성선, 최명길, 이상국, 고형렬 등이 매월 시낭송회를 열기로 하고 9월 30일 다락다실에서 첫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후 내부 진통으로 이상국과 고형렬은

'설악문우회'로의 잔류를 선언함에 물소리 시낭송회는 독자행보를 걷게 된다. 이 단체는 속초에만 고집하지 않고 인근 여타 지역으로 사업을 전개, 독자초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와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구상, 박희진, 성찬경 씨가 발족한 서울 '공간시낭송회'의 영향을 받아 발족 후 80년대 중후반에는 구상, 황금찬, 성찬경, 박희진, 정진규, 민영, 이근배 씨와 소설가 전상국, 비평가 박동균, 윤재근, 최동호 씨 등을 초대해 문학강연을 시도하고 임수철 국악해설을 곁들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

58회 때에는 산상 시낭송회를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제59회부터는 청소년 시 축제를 개최 청소년 문학회인 '바람소리 문학회'를 탄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김승기가 총무를 맡으면서 학교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 주부독서회, 한국부인회, 속초시여성단체장연합회, 양양군여성단체장연합회 등 주부시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때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의 활약상이 널리 알려져 1990년부터는 한국문예진흥원으로부터 연 80만원의 진흥원 지원금을 교부받아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임시인 이성선, 최명길을 비롯, 김승기, 김영남, 노금희, 김명기, 이선국, 김진아, 이용구, 국악해설의 임수철 등이 주된 맴버들이었다. 또한 물소리 시낭송회 10주년기념 강원도 시의 대축제를 1991년 9월 28일 속초시 장산호텔 6층 연회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제83회 물소리 시낭송회를 겸한 본 행사 시문학 강연에 구상(시와 언어의 표상), 황금찬(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 중광스님(시낭송 : 가갸거겨 외)이 참여하였다. 이어 강릉(정태모, 이언빈, 이구재, 조영수, 이충희, 신승근, 이홍섭, 김좌기), 삼척(최홍걸, 정연휘, 박종화), 속초(박화, 사상철, 최명길, 박종헌, 이성선), 춘천(이무상, 이은무, 고경희, 이영춘, 박유석, 진호섭, 허문영, 김홍주, 성덕제) 등 강원도 시인들의 시 낭송회가 있었다.

1993년 5월 29일에는 속초신협 4층 대회의실에서 물소리 시낭송회 100회 기념 행사가 개최하였으며 이날 김동규, 고은, 민영, 정진규, 염무웅, 신흥사 회주 조오현 스님 등이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다.

그 후 물소리 시낭송회는 145회까지 개최하고 1998년 6월 9일 물소리 시동인이 해체되어 146회부터는 대중과 함께하는 시낭송회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 표 7-6-5 〉 물소리 시낭송회 행사연혁

회	일자	장소	출연시인	초대시인	토론주제	비고
1	81. 9.30	다락다실	이성선, 최명길 이상국, 고형렬			
2	81. 8.10	다락다실	고형렬			
3	81.11.28	다락다실	이성선, 최명길 이상국, 고형렬			
4	81.12.26	다락다실	최명길, 이성선 이상국	송병숙 노혜자 (소프라노) 강은희 (소프라노)	송년시 낭송	지경림(사회)
5	82. 1.30	다락다실	최명길, 이성선 이상국	박희진	시낭송 운동의 의의	이춘실(사회)
6	82. 2.27	다락다실	최명길, 이성선	조영수	•	강문(사회)
7	•	•	•	•	•	•
8	•	•	•	•	•	•
9	82. 8. 1	거상다실	최명길, 이성선		열린시와 닫힌 시	이문숙(사회)
10	82. 8. 1	대한예식장	최명길, 이성선	구상, 황금찬 성찬경	장규호(낭송)	이문숙(사회)
11	82. 8.28	다락다실	이성선, 최명길		시와 우주적 세계관	조예정(사회)
12	82. 9.25	다락다실	이성선, 최명길	이진철(연사) 김미향, 노혜자 (메조소프라노)		박미향(사회)
13	82.11.27	다락다실	이성선, 최명길	민영	고향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문숙(사회)
14	82.12.30	다락다실	이성선, 최명길		시와 현상세계	이문숙(사회)
15	83. 1.29	다락다실	이성선, 최명길	황금찬		박미향(사회) 이화춘(음악)
16	82. 2.26	다락다실	이성선, 최명길			
17	83. 3.26	데아뜨르		이근배, 전상국		
18				황금배, 박동규 박오영		
19	83. 7.10	데아뜨르	이성선, 최명길	강우식, 신승근 안경원, 이언빈 박기동	시낭송(1부) 문학강연(2부)	김정신(사회) 이화춘(음악)
20	83. 9.24	다랑	이성선, 최명길	강만식, 조영수 구영주, 안경원 이언빈, 박수찬 박기동	시낭송(1부) 문학강연(2부)	박미향(사회) 이화춘(음악)
21	83.10 24	카페(양양) 그리그리	이성선, 최명길			이은주(사회) 이화춘(음악)
22	83.12.27	다락다실	이성선, 최명길	이언빈		최옥주(사회) 이화춘(음악)
23	84. 2. 4	카페 정 (주문진)	이성선, 최명길	강우식, 조영수		강석태(사회) 이화춘(음악)
24	84. 2.11	다락	이성선, 최명길	안경원, 박호영		강석태(사회) 이화춘(음악)
25	84. 4.28	다락	이성선	정진규, 김영준		서은정 (소프라노)

회	일자	장소	출연시인	초대시인	토론주제	비고
26	84. 7. 7	다락	이성선, 최명길	이명수		이은주(사회) 임영선(음악) 김학희(음악)
27	84.11.29	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김영준		이은주(사회) 이화춘(음악)
28	85. 1.26	목마	이성선, 최명길		시가 꿈꾸는 세계	
29	85. 2.23	목마	이성선, 최명길		시와 신비의 세계	
30	•	•	•	•	•	•
31	85. 4.27	테라스	이성선, 최명길	최종협 (초대강연)	자아완성의 시	최길남(사회) 이화춘(음악)
32	85. 5.25	테라스	이성선, 최명길	최일묵 (초대강연)	진실과 시	최길남(사회) 이화춘(음악)
33	•	•	•	•	•	•
34	85.12.14	아쉬람	이성선, 이은주 이순희, 김송희	박호영 (초대강연)	현대시의 새로운 모색	강석태(사회) 이화춘(음악)
35	86. 1.27	경양식 문 (간성)	이성선, 최명길	김송희 이광예		강석태(사회) 이화춘(음악)
36	86. 7.30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민영, 이반	시와 현실	강석태(사회) 이화춘(음악)
37	86. 3.27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김완성	나뭇잎, 그 시의 생명력	강석태(사회) 이화춘(음악)
38	86. 4.26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김미향(음악)	결핍이 만드는 풍요와 꽃들	강석태(사회) 이광예(음악)
39	86. 5.31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유윤희(음악)	생명의 가위 바위 보	강석태(사회) 이광예(음악)
40	86. 9.26	그리그리 (양양)	이성선, 최명길	김미향(음악)	씨뿌리고 가는 인생	강석태(사회) 이광예(음악)
41	86.10.18	그리그리 (양양)	이성선, 최명길	김미향(음악)	씨뿌리고 가는 인생	강석태(사회) 이광예(음악)
42	•	•	•	•	•	•
43	86.12.27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유윤희(음악)		강석태(사회) 김송희(음악)
44	87. 2. 6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강석태(사회) 이화춘(음악)
45	87. 3.27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신승근		김송희(사회) 이화춘(음악)
46	87. 4.30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유윤희(음악)		김송희(사회) 이화춘(음악)
47	87.10.30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박호영		강석태(음악)
48	•	•	•	•	•	•
49	87.12.30	다랑	이성선, 최명길	조영수, 장승진 박호영		
50	88. 7. 8	다랑	이성선, 최명길	엄상빈(사진작가) 장규호(연극연출가)	지역문화와 지역민의 역할	
51	88.10.28	다랑	이성선, 최명길	황금찬, 박호영	황금찬의 시세계	
52	88. 8.26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박 화, 조영수 신승근, 박호영		
53	88.12.27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한성숙	장진규		

회	일자	장소	출연시인	초대시인	토론주제	비고
54	89. 1.28	속초도서관 (본관)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한성숙		시상이란 무엇인가 (시 창작 강좌)	한 성(사회)
55	89. 2.25	속초도서관 (본관)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한현주		시의 형식과 내용	한현주(사회)
56	89. 3.25	속초도서관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한성숙		시와 운율	한현주(사회)
57	89. 4.29	속초도서관 (본관)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한현주			한현주(사회)
58	89. 5. 5	설악산 권금성산장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한현주			
59	89. 5.27	속초도서관 (본관)	이성선, 최명길			박미경
60	89. 6.24	속초도서관 (본관)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한현주		시와 화제	한현주(사회)
61	89.10.28	속초도서관 (본관)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황시백	시와 소재	강석태(사회)
62	89.12.30	일출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신승근, 김동식		강석태(사회)
63	90. 1.31	일출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김동식		강석태(사회)
64	•	•	•	•	•	•
65	90. 2.24	일출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임수철			강석태(사회)
66	90. 3.31	일출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임수철			
67	90. 4.27	일출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강석태(사회)
68	90. 5.25	일출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임수철			김지숙(사회)
69	90. 6.29	일출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임수철			김지숙(사회)
70	90. 7.27	일출	이성선, 최명길	지일권 (문화원장)	지방문화의 위상	김지숙(사회)
71	90. 8.31	일출	박종헌, 박상철 최명길, 이성선			김지숙(사회)
72	90. 9.28	일출	이성선, 최명길 김동식, 박종헌			김지숙(사회)
73	90.10.26	일출	이성선, 최명길 김동식	사상철, 김현문		김지숙(사회)
74	90.11.30	일출	김동식, 김현문 박종헌, 사상철 이성선, 최명길	박화	국악감상 (국악성가)	김지숙(사회)
75	90.12.29	임페리얼 하우스	김동식, 김현문 박종헌, 사상철 이성선, 최명길		국악감상(황병기 가야금 독주)	김지숙(사회)
76	91. 1.26	임페리얼 하우스	이성선, 김동식 최명길, 박종헌 김현문, 사상철		국악감상(대금과 거문고 음악)	김지숙(사회)
77	91. 3.30	임페리얼 하우스	이성선, 김동식 최명길, 박종헌 김현문, 사상철		국악감상 (피리 음악)	김지숙(사회)
78	91. 4.27	임페리얼 하우스	이성선, 김동식 최명길, 박종헌 김현문, 사상철		국악감상 (해령)	김지숙(사회)

회	일자	장소	출연시인	초대시인	토론주제	비고
79	91. 5.25	임페리얼 하우스	이성선, 김동식 최명길, 박종헌 김현문, 사상철 이선국		국악감상 (전폐회문)	김지숙(사회)
80	91. 6.29	임페리얼 하우스	이성선, 김동식 최명길, 박종헌 김현문, 사상철 이선국		국악감상 (관악영산회상)	노금희(사회)
81	91. 7.30	아쉬람	이성선, 김동식 최명길, 박종헌 김현문, 이선국	김명기	국악감상 (산운)	노금희(사회)
82	91. 8.31	장산호텔 스카이라운지	이성선, 최명길 김명기, 이선국 박종헌, 김현문 김동식		국악감상 (보허자)	이미숙(사회)
83	91.10.26	장산호텔 연회장	(강릉)정태모, 이언빈 이구재, 조영수, 이충희 신승근, 이홍섭, 김좌기 (삼척)최홍걸, 정연휘 박종화 (속초)박 화 사상철, 최명길, 박종헌 이성선 (춘천)이무상 이은무, 고경희, 이영춘 박유석, 진호섭, 허문영 김홍주, 성덕제	중광	구상 (시와 언어의 표상) 황금찬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	강석태(사회)
84	91.10.26	장산호텔 스카이라운지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사상철 김동식, 이선국		국악감상 (보허자)	노금희(사회)
85	91.11.30	임페리얼 하우스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김동식 이선국		국악감상 (천년만세)	한봉철(사회)
86	91.12.28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김동식 이선국	조영수	국악감상 (함영지곡)	김승기(사회)
87	91. 1.25	아쉬람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김동식 이선국, 김승기	민영	음악감상 (기타독주)	김진아(사회)
88	92. 3.28	힐탑호텔 커피숍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김동식 이선국, 김승기 노금희		90년대 시문학의 전망 국악감상(세영산)	김진아(사회)
89	92. 4.25	힐탑호텔 커피숍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박상철 이선국, 김승기 노금희, 김동식 김진아		사랑과 인생 국악감상(낙양춘)	노금희(사회)
90	92. 5.30	힐탑호텔 커피숍	이성선, 최명길 박종헌, 박상철 이선국, 김승기 노금희, 김동식 김진아	박화	국악감상 (전폐회문)	김휘연(사회)
91	92. 6.27	설악 문예센터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박종헌, 노금희		시와 종교적 생활 (강연-장석근) 설악산의 식물상에 대하여(강연-홍문표)	김진아(사회)
92	92. 7.25	설악 문예센터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국악감상(상영산)	노금희(사회) 김명기(음악)

회	일자	장소	출연시인	초대시인	토론주제	비고
93	92. 8. 29	설악 문예센터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낯설게 만들기 (강연-심재상) 국악감상(백구사)	노금희(사회) 김명기(음악)
94	92. 9. 26	예솔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국악감상(소무)	노금희(사회) 김명기(음악)
95	92. 10. 31	설악 문예센터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국악감상(경풍년)	김영남(사회) 김명기(음악)
96	92. 11. 28	속초도서관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시와 언어공해 (문학강좌-엄창섭) 국악감상(이수대엽)	김영남(사회) 김명기(음악)
97	92. 12. 28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국악감상(상영산)	김영남(사회) 김명기(음악)
98	93. 3. 27	속초신협 교육실	이성선, 최명길 사상철,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국악감상(대금독주)	김영남(사회) 김명기(음악)
99	93. 5. 1	속초신협 교육실	사상철, 최명길 이성선,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김명기		국악감상 (거문고 산조)	김영남(사회) 김명기(음악)
100	93. 5.29	속초신협 대회의실	(속초)박 화, 박종헌 사상철, 권정남, 이선국 김승기, 노금희, 이용구 (강릉)엄창섭, 조영수 (춘천)이영춘, 고경희 박영희, 이홍섭, 박인숙 (삼척)정연휘, 최홍걸 박은숙, 홍성화 (태백)정연수 (서울)장석남, 권대웅 (풀밭동인)이대의 황영경, 김형호, 윤문택	김규동, 고은 민영, 고형렬 이재무, 이승철 서홍관, 나희덕 장대승, 이규배 이원규, 강형철 최자웅	(문학강연) 시와 삶의 향기(정진규) 역사의 부름과 내면의 진실(염무웅) 불교정신과 시문학 (조오현)	김영남(사회) 김명기(음악)
101	93. 7. 24	속초신협 교육실	최명길, 이성선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국악감상 (가야금 산조)	김영남(사회) 김명기(음악)
102	93. 8. 28	속초신협 교육실	최명길, 이성선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박응남 허정원		국악감상 (단소 독주)	김영남(사회) 김명기(음악)
103	93. 9. 25	속초신협 회의실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박응남 허정원		국악감상 (새타령)	김영남(사회) 김명기(음악)
104	93. 1. 30	속초신협 회의실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박응남 허정원, 김진아	민영	국악감상 (여민락)	김영남(사회) 김명기(음악)
105	93. 11. 27	봄눈겨울비 (양양)	최명길, 이성선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허정원 박응남, 김진아		국악감상 (우수이수대곡)	김영남(사회) 김명기(음악)

회	일자	장소	출연시인	초대시인	토론주제	비고
106	93. 12. 28	속초신협 교육실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성현정, 박응남 박갑수, 백봉현 송영선, 김경미		국악감상 (여민락령)	김영남(사회)
107	94. 2. 5	속초신협 교육실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박갑수 이상호, 최명선 송현정, 박응남 송영선, 김경미 백봉현	조영수	국악감상 (피리산조)	김영남(사회)
108	94. 3. 26	속초신협 교육실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박갑수 이상호, 최명선 송현정, 박응남 송영선, 백봉현 김경미		국악감상 (정선아리랑과 강원도아리랑)	노금희(사회)
109	94. 4. 30	속초신협 교육실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박갑수 이상호, 최명선 송현정, 박응남 송영선, 백봉현 김경미		국악감상 (여민락)	김영남(사회)
110	94. 5. 28	설악 문예센터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영선, 김경미 이상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송현정		국악감상 (염불타령)	송현정(사회)
111	94. 6. 25	설악 문예센터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이상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김동선 최숙자, 이순자	윤종영, 정연수	국악감상 (범패 중 홑소리)	노금희(사회)
112	94. 7. 30	설악 문예센터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김동선, 최숙자 이순자, 이상호		국악감상 (산운)	노금희(사회)
113	94. 8. 27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이순자		국악감상 (세영산)	노금희(사회)

회	일자	장소	출연시인	초대시인	토론주제	비고
114	94. 9. 24	문화사랑방	최명길, 이성선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이순자 정희섭	엄창섭, 송준영 김찬윤, 홍숙희 (강릉)	국악감상 (문묘제례악)	노금희(사회)
115	94. 10. 29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이순자 정희섭		국악감상 (죽지사)	노금희(사회)
116	94. 12. 26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이순자 정희섭, 김영숙 박희정	박희진, 성찬경	국악감상 (국화옆에서)	노금희(사회)
117	95. 1. 25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이순자 정희섭, 김영숙 박희정		국악감상 (국화옆에서)	노금희(사회)
118	95. 03. 25	양양문화원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이순자 정희섭, 김영숙		국악감상 (정읍)	노금희(사회)
119	95. 4. 23	아남프라자 원앙실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이순자 정희섭, 김영숙 박희정		국악감상 (춘면곡)	노금희(사회)

회	일자	장소	출연시인	초대시인	토론주제	비고
120	95. 5. 27	문화사랑방	최명길, 이성선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정희섭 김영숙		국악감상 (정선아리랑)	노금희(사회)
121	95. 6. 24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방순미 정희섭		국악감상 (단소산조)	김승기(사회)
122	95. 7. 29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방순미 정희섭		국악감상 (헌천수)	김승기(사회)
123	95. 9. 30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방순미 정희섭		국악감상 (육자배기)	김승기(사회)
124	95.10.28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방순미 정희섭	서지월	국악감상 (홍타령)	김승기(사회)
125	95.12.12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방순미 정희섭		국악감상 (여민락4장)	김승기(사회)
126	96. 1. 27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김경미, 박응남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방순미 정희섭		국악감상 (여민락5장)	김승기(사회)

회	일자	장소	출연시인	초대시인	토론주제	비고
127	96. 3. 23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이선국, 김승기 이용구, 최명선 송현정, 송영선 박응남, 김경미 백봉현, 박갑수 이상호, 김동선 최숙자, 정희섭 방순미		국악감상 (낙양춘)	노금희(사회)
128	96. 4. 27	문화사랑방	이성선, 최명길 김승기, 이선국 박갑수, 이용구 박응남, 정희섭 방순미, 최숙자 송현정		국악감상 (보호자)	노금희(사회)
129	96. 5. 25	영금정파도 바위	이성선, 최명길 김승기, 이선국 박갑수, 이용구 박응남, 정희섭 방순미, 최숙자 송현정		국악감상 (동동)	노금희(사회)
130	96. 6. 29	아남프라자 5층	이성선, 최명길 김승기, 김경미 박응남, 송현정 이선국, 정희섭 최숙자		삶속의 문학예술 (문학강연-이성선)	노금희(사회)
131	96. 8. 2	아남프라자 5층	이성선, 최명길 김승기, 박갑수 박응남, 송현정 이선국, 정희섭 최숙자	권정남, 원담	작은 것 속의 큰 세계 (문학강연-최명길)	김승기(사회)
132	96. 9. 30	아남프라자 5층	이성선, 최명길 김승기, 박갑수 박응남, 방순미 송현정, 이선국 이용구, 정희섭 최숙자, 임정숙		국악감상 (문묘제례악)	노금희(사회)
133	96. 10. 26	아남프라자 5층	이성선, 최명길 김경미, 김승기 박갑수, 박응남 방순미, 송현정 이선국, 최숙자		국악감상 (문묘제례악)	노금희(사회)
134	96. 11. 27	아남프라자 5층	이성선, 최명길 김승기, 박갑수 박응남, 방순미 송현정, 정희섭 최숙자, 허정원 전성호		국악감상 (종묘제례악)	노금희(사회)
135	97. 2. 22	아남프라자 5층	김경미, 김승기 김동선, 박갑수 노금희, 박응남 방순미, 백봉현 송영선, 송현정 정희섭, 최명선 이선국, 이용구 최숙자, 허정원			이은진(사회)

회	일자	장소	출연시인	초대시인	토론주제	비고
136	97. 3.29	아남프라자 5층	이성선, 최명길 허정원, 전성호 최숙자, 최명선 이용구, 이선국 정희섭, 송현정 송영선, 백봉현 방순미, 박응남 노금희, 박갑수 김동선, 김승기 김경미		국악감상 (전통가곡)	노금희(사회)
137	97. 4.26	아남프라자 5층	이성선, 최명길 허정원, 전성호 최숙자, 최명선 이용구, 이선국 정희섭, 송현정 송영선, 백봉현 방순미, 박응남 노금희, 박갑수 김동선, 김승기 김경미		설악을 빛낸 사람들 (대담) 물소리의 어제와 오늘 (좌담과 시낭송)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좌담과 연주) 사회봉사와 지역문화 (좌담과 시낭송)	
138	97. 5.31	아남프라자 5층	이성선, 최명길 허정원, 최숙자 이용구, 이선국 정희섭, 송현정 송영선, 방순미 박응남, 노금희 박갑수, 김동선 김승기, 김경미	원담	국악감상 (시조)	방순미(사회)
139	97. 6.28	아남프라자 5층	이성선, 최명길 김승기, 김경미 김동선, 박갑수 노금희, 박응남 방순미, 송영선 송현정, 정희섭 이선국, 이용구 최숙자, 허정원		국악감상 (관악영상회상)	방순미(사회)
140	97. 7.17	속초해수욕장 야외공연장	이성선, 최명길 김승기, 김경미 김동선, 박갑수 노금희, 박응남 방순미, 송영선 송현정, 정희섭 이선국, 이용구 최숙자, 허정원			방순미(사회)
141	97.10.31	양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성선, 최명길 김승기, 김경미 김동선, 김미희 박갑수, 노금희 박응남, 방순미 송현정, 장일선 정희섭, 이선국 이용구, 최숙자 권정자, 허정원		국악감상 (청성곡)	노금희(사회)

회	일자	장소	출연시인	초대시인	토론주제	비고
142	97. 12. 20	양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성선, 최명길 허정원, 이용구 권정자, 김승기 장일선, 김신향 이선국, 김경미 최숙자, 김미희 노금희, 박갑수 방순미, 이태수 정희섭, 송현정 최명선, 박응남		국악감상 (남창가곡)	노금희(사회)
143	98. 3. 27	동양생명 연수실	이성선, 최명길 허정원, 이용구 권정자, 김승기 장일선, 김신향 이선국, 최숙자 김미희, 노금희 박갑수, 방순미 이태수, 정희섭 송현정, 최명선 박응남		국악감상	노금희(사회)
144	98. 4. 24	동양생명 연수실	이성선, 최명길 허정원, 이용구 권정자, 김승기 장일선, 김신향 이선국, 최숙자 김미희, 노금희 박갑수, 방순미 이태수, 정희섭 송현정, 최명선 박응남		국악감상(시조)	노금희(사회)
145	98. 5. 30	설악로타리 클럽	이성선, 최명길 허정원, 이용구 권정자, 김승기 박응남, 김동선 장일선, 이선국 최숙자, 김미희 송현정, 정희섭 방순미, 이태수 최명선, 박갑수		국악감상(가사)	노금희(사회)

4) 영북문학회(시마을)

지역문학회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문학활동을 위해 시연구 창작모임으로 출발한 '영북문학회'는 1992년 4월 27일 결성되었다. 이상국, 박종헌, 김춘만, 김영준, 장승진, 김명기 6명의 시인이 탈 지역성을 선포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영북문학회'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시 합평회를 열고 그 내용을 담은 회보 『시마을』을 발간하여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도 전개하였다. 아울러 지역 문화 이해를 통한 문학 활동을 표방하여 문학기행을 기획, 강원도 전역의 문학기행을 펼치기도 하는 등 특정한 단체에 소속됨이 없이 지역문화 및 문학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후 최광호, 김창균 회원이 활동을 함께 하였고, 모임의 명칭도 '시마을'로 정하였다가 1997년 명칭을 '시마을 사람들'로 변경하였다. 주요활동 중 청소년문학교실은 1993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02년 제10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동을 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마을 사람들'은 2004년 12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활동을 마감했는데 당시 회원은 김영준, 임영옥, 김개영, 박대성, 김명기, 장승진, 신민걸, 김향숙이었다.

시마을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 4월 발기인 모임. 詩 연구 창작 모임의 필요성 공감(15일)
1992년 5월 동인회 창립. 매월 정기모임 개최하기로 함. 동인 6명(김명기, 김영준, 김춘만, 박종헌, 이상국, 장승진). 모임 명칭 '영북문학회'로 정함(1일)
제1회 시합평회 개최(2일). 이상국 동인 세 번째 시집『우리는 읍으로 간다』(창작과비평) 발간
1992년 10월『詩마을』회지 창간호 발간(1일)
1992년 11월 김창균 시인 동인 가입
1993년 7월 제1회 청소년 문학교실 개최
(7. 30~8. 1, 고성군 광산초등학교 흘리분교)
1994년 1월 최광호 시인 동인 가입
1994년 8월 제2회 청소년 문학교실 개최(8. 5~8. 7, 고성군 초계초등학교)
1995년 7월 제3회 청소년 문학교실 개최(7. 28~7. 30, 양양군 한남초등학교)
1995년 11월 김춘만 동인 첫 시집『어린 생명에게도 그늘을 던져야 한다』발간
1996년 1월 지영희 시인 동인 가입
1996년 7월 제4회 청소년 문학교실 개최(7. 26~7. 28, 양양군 상평초등학교)
1997년 7월 제5회 청소년 문학교실 개최(7. 25~7. 27, 고성군 인흥초등학교)
1997년 12월 모임 명칭을 '시마을 사람들'로 바꿈. 장승진 동인 첫 시집『한계령 정상까지 난 바다를 끌고갈 수 없다』발간
1998년 2월 임영옥 시인 동인 가입
1998년 4월 김개영 시인 동인 가입
1998년 7월 제6회 청소년 문학교실 개최
(7. 25~7. 26, 양양군 어성전 임간수련원)
1999년 7월 제7회 청소년 문학교실 개최(7. 31~8. 1, 양구군 해안중학교)
2000년 6월 김향숙 시인 동인 가입

2000년 7월 제8회 청소년 문학교실 개최(7. 22~23, 양양군 면옥치 학생수련장)
2001년 4월『詩마을』100호 발간 기념 시화전 및 시낭송회 개최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및 속초문화원 사랑방)
2001년 5월 박대성 시인 동인 가입
2001년 7월 제9회 청소년 문학교실 개최(7. 28~29, 양양군 면옥치 학생수련장)
2001년 10월 지영희 동인 첫 시집『사람이 두렵습니다』발간
2001년 11월 채재순 시인 동인 가입
2002년 1월 김개영 동인『강원일보』신춘문예 동화 당선
2002년 7월 제10회 청소년 문학교실 개최(7. 27~28, 속초시 설악초등학교)
2002년 11월 창립 10주년 기념 동인지『누군가 알몸으로 누워 있다』발간
및 축하 시낭송회 개최
2003년 4월 김영준 동인 두 번째 시집『나무 비린내』발간
2003년 11월 김개영 동인『강원작가』에 평론 당선
2003년 12월 김향숙 동인 계간『시현실』을 통해 등단
2004년 2월 신민걸 시인 동인 가입
2004년 12월『詩마을』132호 발간.

제3절 미술활동

1. 개황

초창기 속초에서의 미술은 미술교사들과 몇몇 개인적인 화가들의 활동으로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으나 미술협회 속초지부가 정식으로 인준을 받는 1980년 전후부터 비교적 활발한 활동이 전개된다. 이는 전업 창작자들이 대거 정착하고 이들에 의해 미술협회가 구성되며 개인 화실을 가지고 있거나 미술 학원을 운영하면서 창작활동에 전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속초미술의 현황을 미협이 밝힌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속초미협은 1980년 9월 19일에 정식으로 인준을 받는데 이를 위해 1977년 9월 이미 임의 단체 형태로 모임을 구성하고 있었다. 당시 최홍원 회장을 중심으로 장세환, 최재혁, 정난시, 최호규, 김영복, 이동명, 김경숙, 김남수, 신창교, 윤성빈, 이영구, 이춘섭, 정월, 홍정임, 김희자, 임을빈 등이 발기 모임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후 꾸준히 회원전을 개최하는 등 지부 결성을 위한 활동을 벌여 3년 후에 미술협회로부터 정식 지부로 인준을 받기에 이른다.

속초미협은 인준 후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어 속초미술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데 미술협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1977년부터 '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전'이 개최되었다.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인 1979년까지는 다방에서 개최하였고, 1980년 이후에는 상공회의소나 농협 전시실, 속초도서관 전시실 등을 이용하여 미술협회 속초지부전을 개최하곤 하였다. 2005년 현재 30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표 7-6-6 〉 미술협회 정기 회원전 현황

회	일 시	장 소
1	1977. 9. 20 ~ 27	강원다방
2	1978. 11. 15 ~ 22	강원다방
3	1979. 10. 1 ~ 7	가야다방
4	1980. 10. 2 ~ 8	가야다방
5	1980. 11. 10 ~ 16	상공회의소
6	1982. 10. 10 ~ 16	농협전시실
7	1983. 11. 12 ~ 19	농협전시실
8	1984. 5. 8 ~ 14	속초도서관 전시실
9	1985. 9. 20 ~ 26	속초도서관 전시실
10	1986. 10. 14 ~ 31	속초도서관 전시실
11	1987. 10. 26 ~ 31	속초도서관 전시실
12	1988. 11. 15 ~ 30	속초도서관 전시실
13	1989. 10. 11 ~ 16	속초도서관 전시실
14	1990. 10. 9 ~ 14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15	1991. 5. 4 ~ 10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16	1992. 10. 28 ~ 11. 1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17	1993. 5. 26 ~ 31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18	1994. 6. 16 ~ 20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19	1995. 2. 18 ~ 25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20	1995. 5. 27 ~ 31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21	1996. 6. 1 ~ 6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22	1997. 5. 12 ~ 17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23	1998. 6. 15 ~ 21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24	1999. 6. 21 ~ 27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25	2000. 6. 12 ~ 16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26	2001. 5. 28 ~ 6. 3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27	2002. 5. 27 ~ 6. 2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28	2003. 5. 31 ~ 6. 6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29	2004. 5. 21 ~ 6. 26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30	2005. 5. 20 ~ 25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한편 속초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루어진 '파람전'이란 전시회도 매년 개최되었다. 파람전은 198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엔 속초고등학교 동문전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다가 5회 때부터 '파람전'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속초 출신의 대학생들이 개최하는 '이음전'이라는 미술전시회가 1989년에 시작되었다.

1980년 9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미협 속초지부가 인준을 받은 후 정기적인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이미 1977년부터 시작하여 1980년에 4회를 맞이하였다. 그후 1988년 제12회 전시회를 발표하고 1989년으로 이어진다.

1989년 11월 강원도 미술협회전이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속초 출신의 대학생들이 개최하는 '이음전'이라는 미술전시회가 시작되었다.

1989년에 열린 제13회 회원전은 제24회 설악문화제 기념행사로 개최되었다. 출품자는 민흥기, 백종석, 최종국, 김광수, 옥명준, 윤재복, 김기태, 김영복, 박흥기, 박창식, 서문일초, 신양순, 이동명, 이선미, 이춘섭, 정광섭, 정봉재, 최범진, 박영근, 신동진, 이현자, 장국보, 장승복, 김광희, 김동하, 차운집, 함귀호 등이다.

1990년 10월 제1회 학생사생대회가 수복탑 광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행사는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가부문은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부문이였다. 대상은 속초시장상, 금상은 설악문화제위원장상, 은상은 예총지부장상, 동상 및 장려상은 미협지부장상이 수여되었다. 10월 14회 지부전에 (한국화) 김태규, 박현숙, 옥명준, 윤재복, 최종국, 민흥기 (서양화) 김광수, 김기태, 김영복, 박지영, 박창식, 박흥기, 서문일초, 신양순, 이동명, 이춘섭, 이선미, 장국철, 정광섭, 정봉재, 최낙민, 최범진 (조각) 강익희, 박영근, 신동진, 이현자, 장승진 (공예) 고주리 (서예) 김광희, 김동하, 윤지천, 차운집, 함귀호, 이영구 등이 출품하였다.

1991년 7월 제2회 학생미술실기대회가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어 총 641명이 참가하였다.

〈 사진 7-6-57 〉 제2회 학생미술실기대회

8월에는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기념미술전이 고성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는 전시회장이 부족한 관계로 강원도 미협전은 속초시 문화회

관에서, 한국화전은 하일라비치 콘도미니엄에서, 조각전은 대명 콘도미니엄에서 각기 개최되었다. 또한 제2회 학생미술 실기대회 입상작 전시회가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이루어졌다.

〈 사진 7-6-58 〉 제17회 세계잼버리 기념 강원도 미협전

제26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김광수 화백 작품 초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1979년 제작한 남한산성(6호F)부터 1990년 태풍대피(6호F) 등 20점이 전시되었다.

〈 사진 7-6-59 〉 김광수작품 초대전

제15회 미술협회속초지부전은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1992년 5월 제3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수복탑 광장에서 실시되었다. 문인협회 백일장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총 371명이 대회에 참가하여 114명이 입상하였다. 아울러 제3회 학생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시상식 및 입상작 전시회가 5월 23~26일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관내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 사진 7-6-60 〉 제3회 학생미술실기대회

또한 제16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술을 애호하는 지역민들의 호응 속에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5일간 전시회를 가졌다. 한국화 4점, 공예 2점, 양화 7점, 서예 9점, 조각 3점 등 총 35점이 출품 전시되었으며, 정경연 홍익대 교수의 찬조 출품작도 전시되었다.

〈 사진 7-6-61 〉 제16회 미협 속초지부전

1993년 5월 제4회 학생미술실기대회가 속초시 수복탑 놀이광장에서 거행되어 영북지구 초 · 중 · 고교생 1,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크레파스, 수채화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총 수상자는 131명이 선정되었다. 이어서 학생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전시회가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실시되었다.

〈 사진 7-6-62 〉 제4회 학생미술실기대회

또한 제17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5개분과(한국화, 양화, 조각, 서예, 공예) 22명의 회원이 43점을 출품하여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같은 달 개최되었다.

한편 93년 송년 미협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12월 개최되어 영동북부지역 작가 23명이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4개 장르(한국화, 양화, 조각, 서예)의 개성있는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였다.

1994년 6월 제5회 학생미술실기대회가 1,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채화, 한국화, 그레파스화 부분으로 나누어 개최되었으며 수상자 130명을 선정하였다. 이어 입상작품 전시회가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있었다.

1995년 2월 95미술의 해 기념 신춘미술협회전을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는 통산 19회를 맞는 지부전으로서 영북지역 미술작가 24명이 한국화, 양화, 조각, 공예, 서예 등 5개 장르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아울러 이 전시회는 95미술의 해의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토미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 사진 7-6-63 〉 95 미술의해 기념 신춘미술협회전

5월 제6회 학생미술실기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어 지역 청소년들이 평소 연마한 그리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 행사는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했으며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등에 2,300여명이 참가하여 262명이 입상자로 선발되었다.

6월에는 제1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이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세계 청소년들의 미술작품과 우리 청소년들의 작품을 상호 비교해 보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술작품 감상의 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독일, 미국, 불가리아, 싱가포르, 일본, 인도, 이란, 러시아,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중국, 태국 등 13개국에서 총 141점의 작품을 유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김광수 화백 개인전이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아남쇼핑 19층 전시실에서 있었다.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은 작가가 평소 설악과 동해의 비

경을 사실적으로 화폭에 담아온 작품이 주로 소개되었다.

또한 속초미술협회 소속 박영근 회원의 개인전이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총 출품작품수는 21점으로 속초지역에서 처음 개최된 조각 개인전이었다.

1996년 5월 제7회 학생미술실기대회가 속초 미술협회(지부장: 김광희) 주관으로 공설운동장에서 문협 백일장과 함께 개최되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술창작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미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목적으로 열린 이 대회는 지역 초 · 중 · 고등학생 총 2,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주) 신한화구에서 행사비 일부를 후원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6월 제1회 자매시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이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있었다. 자매시 아동 미술전은 우리지역 청소년 작품과 외국 청소년 작품을 비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학생작품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예총과 미협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속초시 자매시인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 홀리델리 초등학교 학생작품 22점, 일본 요나고시 초등학생 작품 100점 및 제7회 미술실기 입상작 300점, 백일장 입상작 300여점 등이 전시되었다. 전시 후 미국과 일본에서 교환 전시를 통하여 외국에서도 우리지역 청소년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사진7-6-64〉 자매시 미술교류전

10월 제77회 전국체전개최기념 도미협초대전이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강원도내 중견작가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춘천, 원주, 강릉, 홍천, 속초 등에서 출품하였다. 한국화, 양화, 서예, 공예, 디자인, 조각,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여 강원미술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부여하였다.

〈 사진 7-6-65 〉 강원미술협회 초대전

박동국 수채화 개인전이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고성문화원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8월 춘천미술관에서의 성공적인 개인전에 힘입어 개최된 것으로 동양적 여백을 미학으로 승화한 작가 특유의 수채기법으로 창작된 작품이 전시되었다.

12월 96송년향토작가초대전이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송년미술제를 겸한 전시회에 미협회원 28명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 사진 7-6-66 〉 제2회 향토미술 작가전

또한 고주리 개인전이 12월 4~8일까지 5일간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속초 미술협회에서 활동하는 지역 여류작가 중에서 최초로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로 기록되며, 속초예총 탄생 이래 김광수, 박영근, 박동국, 이후의 개인전 개최 작가로 기록된다. 총 출품작은 32점으로 섬유예술 작품으로 한지의 부드러움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작가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았다.

1997년 5월 제8회 학생미술실기대회가 설악한화리조트 프라자랜드 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 대회는 속초시에서 주관한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에 맞추어 설악의 우리 꽃 그리기 대회와 함께 개최되어 미술대회 310명, 우리 꽃 그리기에서 159명이 입상하였다. 더욱이 이 대회는 대상 3

명에게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을 수여하여 시상의 격을 높였으며 수상자 전원에게 시상품인 미술용품과 장학금 100여만원을 별도로 책정하여 시상하였으며 지도교사상(3명)도 추가로 신설하였다.

이어서 제2회 자매시 국제아동미술 교류전이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속초시 자매시인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와 97년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중구, 전북 정읍시, 일본 요나고시 외 일본 사카이미나도시 초등학생 작품 350점이 전시되었다.

6월 제8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입상작전시회가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있었고, 10월 일본국 자매시 아동미술전이 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열려 일본 요나고시와 사까이미나도시 작품 총 80점이 전시되었다.

1998년 5월 설악한화 리조트 프라자랜드 잔디광장에서 속초미술협회(지부장: 김광희)주관으로 제9회 학생미술실기대회가 개최되었다. 97년에 이어 이 대회도 속초시에서 주관한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와 함께 개최되었다.

6월에는 제9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전시회가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이어졌고, 제3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이 역시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어 강원 속초 96점, 서울 중구 20점, 일본 사까이미나도시 67점이 출품되었다.

10월 강원도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속초문화회관전시실에서 열려 강원미전에서 수상한 강원도내 젊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100호 이상의 대작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총 전시작품은 60여점이었다.

〈 사진 7-6-67 〉 강원도 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제2회 박영근 조각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조각가 박영근은 평소 작품 주제로 삼아온 가시리 시리즈를 테마로 한 작품 20점을 전시하였다.

1999년 5월 제10회 전국학생미술 실기대회가 엑스포장에서 성대히 개최

되었다. 지역 청소년 2,500여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진행되었고 최고상에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상장 및 부상이 5명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수상자 전원에게 시상품인 미술용품과 지도교사상은 표창장과 격려금도 별도 지급하였으며, 경남창원 예총이 주최하는 대회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커다란 미술대회로 발전한 실기대회였다.

6월에는 제4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이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고, 9월 고령자 장애인 미술작품 한일교류 작품이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 이날은 일본 돗도리현에서 128명, 강원도에서는 126명이 각기 공예, 서예, 도예, 유화 등 다양한 작품을 출품하였다.

제24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6월 21~27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미술협회 회원 26명이 한국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의 다양한 장르 작품 40여점을 출품하였다.

12월 9~12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두 번째 박동국 수채화 개인전이 개최되었다.

2000년에 들어 속초미협 회원 정광섭이 자신의 두 번째 개인전인 제2회 정광섭 개인전을 2월 23~29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개최하였다.

5월 설악한화콘도에서 제11회 전국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개최되어 900여명이 입상하였다. 또한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향토미술 발전에 일조하여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 데 힘입어, 성인 미술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제1회 주부미술 한마당 사업이 학생대회와 같이 추진되었다. 수채화, 사군자 부문에 영북지역 자모, 주부 등 100여명이 참가하여 17명이 입상하였다.

한편 제5회 국제아동미술 교류전이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려 제11회 전국학생 미술실기대회 우수작 40점, 일본 요나고시 48점, 일본 사까이미나도시 70점, 미국 그레샴시 9점, 중국 훈춘시 36점이 전시되었다

6월 제25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미술협회 회원 30명이 한국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의 다양한 장르 작품 40여 점을 출품하였다.

9월에는 EXPO 1주년 기념 미술사생 대회가 미협 주관으로 EXPO 대회장에서 개최되어 지역학생 총 1,5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10월에는 지역간 균형 있는 미술문화 발전도모 및 속초시 미술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10월 20~26일까지 제28회 강원미술대전 수상작 및 제10회 강원도 서예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미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강원예총의 종합예술제 사업의 일환인 이 전시회는 지역 순회전으로 원주, 속초, 삼척으로 전시회가 이어지며 속초전시에는 미술평면

19점, 서예족자 47점, 미술입체 확대사진 12점 등이 전시되었다.

2001년 5월 제12회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와 제2회 설악주부미술한마당 한화프라자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학생미술실기 대회는 약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주부미술한마당은 50여명이 참여하여 9명이 입상하였다.

제26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5월 28일~6월 3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미술협회 회원 29명이 한국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의 다양한 장르 작품 40여점을 출품하였다.

6월 제6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이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려 제12회 설악학생 미술실기대회 우수작 40점, 일본 요나고시 44점, 일본 사까이미나도시 100점, 미국 그레샴시 29점, 중국 훈춘시 34점 등이 전시되었다.

10월 우리 꽃 그리기 사생대회가 시청관광과와 미술협회가 연계하여 EXPO 대회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역 학생 총 1,5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 사진 7-6-68 〉 우리꽃 그리기 사생대회

2002년에 들어와 백종숙 개인전이 4월 24~30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1994년에 이어 두 번째 개인전이며 총 31점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5월 제3회 설악주부미술한마당과 제13회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가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주부미술한마당은 수채화, 사군자 부문에 영북지역 자모, 주부 등 100여명이 참가하여 17명이 입상하였다.

6월 제7회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어 제13회 설악 학생 미술실기대회 우수작 102점, 일본 요나고시 10점, 일본 사까이미나도시 29점, 중국 훈춘시 38점 등 총 179점이 전시되었다.

태풍 루사 수해민 돕기 2002 송년자선 미술제가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의 5개 장르에 미협 회원작품 53점을 전시하여 판매액 일부는 태풍 루사 수

해민돕기 자선금으로 기부하였다.

2003년 향토 아동미술 발전과 현장예술 실기능력을 배양코자 마련한 제14회 설악학생미술 실기대회가 5월 24일 엑스포 상징탑 광장에서 개최되어 지역 청소년 1,800여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향토미술 저변확대와 미술발전을 도모코자 마련한 제4회 설악 주부미술 한마당 대회에 수채화, 사군자부문 등에 영북지역 자모, 주부 등 100여명이 참가하여 서양화부 16명, 서예부 26명이 입상하였다.

아울러 미술전람회로서 영북지역 최고 연륜의 상징인 제28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속초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미술협회 회원 36명이 한국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의 다양한 장르에 작품 45점을 출품하였다.

제8회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6월 7일부터 14까지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제14회 설악학생미술 실기대회 시상을 마친 직후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으며 설악학생미술 실기대회 우수수상작 110점, 일본 요나고시 30점, 일본 사까이미나도시 35점, 중국 훈춘시 37점 등 총 212점이 전시되었다.

10월 제31회 강원미술대전 수상작품 지역순회전이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속초미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2003 강원종합예술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 순회전은 춘천, 삼척, 강릉, 속초에서 이루어졌다.

태풍 매미 수재민 돕기 및 2003 송년자선 미술제가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2003 송년 6일간의 미술여행'이라는 부재로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등 장르의 미협 회원작품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작품 중 판매액 일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였다.

2004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2회 이지숙 개인전이 열렸다.

제29회 미협 속초지부전은 제15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추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5회 설악학생미술 실기대회는 5월 22일 엑스포 상징탑 광장에서 개최되었고 같은 날 엑스포광장 상징탑 및 주재관 지하 세미나실에서 제5회 설악주부미술 한마당 사업이 미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어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6월에 있은 제9회 국제아동 미술 교류전에는 설악학생미술 실기대회 우수수상작 110점, 일본 요나고시 30점, 일본 사까이미나도시 35점, 중국 훈춘

시 30점, 대만 대동현 30점, 미국그레샴시 20점 등 총 250점이 전시되었다.

정광섭 개인전이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전시관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2004 송년미술전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등의 장르가 전시되었다. 출품자는 (한국화)백종숙, 윤재복, 옥명준, 이지숙, 이혜경, (서양화)공재숙, 김영복, 김종학, 박동국, 박종칠, 박흥기, 서문일초, 안치홍,이동수, 이선미, 이준열, 정광섭, 최금란, 최낙민, 허인순, 조정남 (조소)김문석, 도창록, 박영근, 신동진, 장국보, 장승복, 정봉재 (공예)고주리, 오희원, 정경연 (서예)김광희, 김동하, 김송금, 김은숙, 조성익, 최홍영, 함연호, 윤춘복, 이덕우 (문인화)김길자 등이다.

지금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된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주부미술한마당,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7-6-7 〉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현황

회	일 시	장 소
1	1990.10.13	수복탑 광장
2	1991. 7.19	문화회관 전시실
3	1992. 5.12	수복탑 광장
4	1993. 5.14	수복탑 광장
5	1994. 6.10	수복탑 광장
6	1995. 5.25	공설운동장
7	1996. 5.16	공설운동장
8	1997. 5.23	설악한화콘도
9	1998. 5.23	설악한화콘도
10	1999. 5.29	엑스포 광장
11	2000. 5.23	설악한화콘도
12	2001. 5.19	설악한화콘도
13	2002. 5.18	엑스포 광장
14	2003. 5.24	엑스포 광장
15	2004. 5.22	엑스포 광장
16	2005. 5. 21	엑스포 광장

〈 표 7-6-8 〉 설악주부미술한마당 개최 현황

회	일 시	장 소
1	2000. 5. 23	설악한화콘도
2	2001. 5. 19	설악한화콘도
3	2002. 5. 18	엑스포 광장
4	2003. 5. 24	엑스포 광장
5	2004. 5. 22	엑스포 광장
6	2005. 5. 21	엑스포 광장

〈 표 7-6-9 〉 국제아동미술교류전

회	일 시	장 소
1	1996. 6. 7 ~ 11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2	1997. 5. 26 ~ 30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3	1998. 6. 29 ~ 7. 5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4	1999. 6. 14 ~ 20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5	2000. 5. 29 ~ 6. 4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6	2001. 6. 4 ~ 12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7	2002. 6. 3 ~ 9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8	2003. 6. 7 ~ 14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9	2004. 6. 2~ 7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10	2005. 5. 26 ~ 31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2. 미술단체

1)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한국미술협회속초지부(이하 : 미협)는 1980년 9월 19일 한국미술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인가전인 1977년에 임의단체 형태로 모임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최홍원 회장을 중심으로 장세환, 최재혁, 정난시, 최호규, 김영복, 이동명, 김경숙, 김광희, 김남수, 신창교, 윤성빈, 이영구, 이춘섭, 정월, 홍정임, 김희자, 임을빈 등이 발기모임에 참여하였다. 그 후 3년 만인 1980년 중앙인준을 받고 초대 최호규 지부장, 총무 김영복으로 출발하였다. 1977년 미술협회속초지부전을 모태로 미협이 출발하여 1980년 지부인준을 계기로 활성화의 분기점을 맞이한다. 초창기는 전문전시 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14회까지의 주요 전시장은 다방, 상공회의소, 농협, 속초도서관 등을 전전하다가 15회부터 문화회관이 개관되어 비로소 전문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다. 16회부터는 도록의 칼러화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전시회의 틀이 발전하여 현재에 이른다.

지부장은 최호규, 김영복, 김광수, 이동명, 김광희로 이어지며 현 지부장은 정봉재가 협회를 이끌고 있다. 미술협회는 속초, 고성, 양양 지역 초중고 교사를 중심으로 사설학원장 및 전업작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 분과 40여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협회의 핵심사업은 지난 1977년부터 30여년 간 지속해온 미협전이 대표적이며 예총 결성후 청소년 사업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이 대외적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쳐 대한민국미술대전, 동아미전, 중앙미전, 강원미전, 서울현대미술전, 강원현대작가전, 강원서예대전, 무릉서예대전 등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한다.

현재 미술협회는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서예의 5개의 장르의 작가들이 활동 중이며 회원 저마다 강한 창작 의욕으로 설악권 향토미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주요임무 및 기능은 창작활동에 전념하면서 출판 및 계몽 사업을 펼치고 지역미술 발전과 미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을 펼침과 동시에 기타 미술문화교류에 관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재직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표 7-6-10 〉 미협재직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비 고
명예회장	김광희	서예분과
명예회장	김영복	
명예회원	김종학	
회장	정봉재	조소분과
부회장	정광섭	서양화분과
사무국장	이준열	서양화분과
감사	김길자	문인화분과
서양화분과위원장	박홍기	서양화분과
한국화분과위원장	백종숙	한국화분과
조소분과위원장	신동진	조소분과
문인화분과위원장	김길자	문인화분과
공예분과위원장	고주리	공예분과
서예분과위원장	이행섭	서예분과

미협의 주요활동으로 우선 설악학생 미술실기 대회를 들 수 있다. 이는 2005년 현재 16회를 개최하였으며 영북지역 최고의 청소년 미술실기 대회로 정착한 미협의 대표적인 청소년 사업이다.

〈 사진 7-6-69 〉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다음은 설악주부 미술실기 대회로 2005년 현재까지 6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나날이 향토 주부들로부터 인기와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이다. 해마다 문인협회의 백일장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 사진 7-6-70 〉 설악주부 미술실기 대회

또한 미술협회 속초지부전은 미술협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30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협회 회원들의 연중 가장 커다란 창작 작품 발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매년 5월 속초종합예술제 일환으로 개최된다.

〈 사진 7-6-71 〉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한편 국제아동미술 교류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미협의 국제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2005년 현재 10회를 개최하였다. 일본 요나고시, 사까이미나도시, 중국 훈춘시, 대만의 대동현, 미국 그레샴시 등이 본 행사에 작품을 출품한다.

〈 사진 7-6-72 〉 국제아동미술 교류전

그 외 설악서예백일장으로 이는 설악문화제 기간에 개최되는 서예휘호대회이다. 속초에서는 가장 대표되는 서예휘호 대회로 2005년 현재 9회가 개최되었으며 매년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어 왔다.

〈 사진 7-6-73 〉 설악서예백일장

미술유적지 탐방은 미술협회 속초지부가 연말 회원의 결속과 선진 미술견학을 겸한 여행을 떠나는 사업으로 김광희 지부장 취임 후 지속해온 사업이다.

〈 사진 7-6-74 〉 미술유적지 탐방

송년미술전은 한해를 마감하며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자선미술전으로 한해 가장 우수하게 창작에 매진했던 회원에게 시상식도 겸한다.

〈 사진 7-6-75 〉 송년미술전

기타 비정기 사업으로는 각종 전시관련사업 미술세미나, 우수전람회초대전, 개인전 후원, 공모작 출품후원사업, 지역 및 국제 미술인사교류사업 등 지역 미술발전에 관련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3. 서예 활동

일반적으로 서예 활동은 서예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서클을 구성하여 전시회 등 여러 활동을 펼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속초에서는 설악서예학원과 속초서예학원을 중심으로 서예인구가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설악서예학원은 1977년에 지응준이 개설했는데, 처음 상공회의소 자리에서 개원하여 오랫동안 많은 서예인을 배출하였다. 설악서예학원은 개원 이래 줄곧 수강생들의 작품전을 해마다 개최하였는데 '설악서예전'이라 이름한 이 전시회는 처음 1978년 6월에 상공회의소 2층에서 개최되었다. 이천, 최중길 선생과 전부터 이곳에서 활동을 해오던 소재순 선생 등이 찬조 출품을 하고, 회원 30여명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 행사는 훗날 설악제 문예행사와 연계되어 개최되기도 하였다. 원장인 지응준은 동강 조수호 선생에게 사사했으며, 행서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서예학원은 김동하가 1987년에 개설하였다. 여러 차례 장소를 이전하다 현재는 조양동에 위치해 있다. 김동하는 현천 조달순 선생에게 사사했으며 국제 서화협회 회원으로 한중 교류전 등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였다. 속초서예학원도 회원전 형태의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영동서예학원도 1985년도에 개원되어 서예인 저변 양성에 힘써오고 있다.

정원철이 개원했으며 몇 차례의 서화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원로 서예인들을 규합해 서클활동을 펼쳤다.

그 외에도 70년대 초기부터 한림서예학원 등 여러 개의 서예학원이 이곳에서 명멸했으며 현재는 속초서예한문학원, 김광희 서예한자학원, 글샘서예한문학원, 원각사서예교실, 해정서예실 등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서예인들로 구성된 서예 단체로는 지응준이 중심이 된 서예협회 속초지부와 김광희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서예교육 연구회, 그 외 설악서우회 등의 단체가 있다. 그밖에 서화작가협회 속초지부 등 여러 아마추어 단체 등이 있다.

서예교육연구회는 속초교육청 산하의 교사들 중 서예에 조예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회원 작품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회장인 혜풍 김광희는 고어체의 한글 서예에 능하다.

설악서우회는 설악서예학원 출신의 서예인들이 구성한 단체로, 회원전 등의 활동을 펼쳐 2004년 9회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속초미협이 밝힌 자료를 바탕으로 서예활동을 정리하면 1990년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설악서우회원전이 개최되었다. 당시 설악서우회 회장은 김주진이 맡았고 출품인원은 16명이었다.

〈 사진 7-6-76 〉 서우회원전

1993년 10월 2~6일까지 제28회 설악기념 기념 제9회 속초시 서예교육연구회(회장 최홍영) 회원전이 개최되었다. 28명이 참가하여 38점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예총속초지부에서 후원하였다.

1997년 10월 4일 속초미술협회(지부장 김광희)에서는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제1회 전국서예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한글부 서제는 (초등부)천리길도 한걸음에, 푸른하늘 흰구름떼 (중등부)남해는 번쩍이는 승리의 바다 충무공 맹서하던 울도 한산도 (대학일반부)두류산 양단수를 예듯고 이제 보니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옌가

하노라였다. 한문부 서제는 (초등)恩高如天 德厚似地, 孝當竭力 忠則盡命, (중고등부)容止若思 言辭安定 篤初誠美 愼終宜令 (대학일반부)十里無人響 山空春鳥啼 逢僧問前路 僧去路還迷였으며, 사군자는 (중고등부)菊花 (일반부)菊이였다.

심사위원은 시백 안종중이 맡았으며 전체 대회참가자 126명 중 대상 3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30명, 기타 입선 등으로 시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주어지는 등 강원서예 백일장에서 시상규모가 가장 큰 행사였으며 제1회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등 외지에서도 다수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아울러 속초 예총이 후원하여 개최되는 제13회 속초시 서예교육연구회 회원전이 서예교육연구회(회장 이준일) 주최로 12월 16~20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1998년 10월 학생체육관에서 제2회 전국서예백일장이 개최되었다. 미협 중점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참가인원은 총 256명이었으며 서제는 (초등2부 한문부)德業相勤 過失相規 (중 · 고등부 한글부)덕과 선을 중히 여기면 생활이 윤택해 집니다 (사군자)菊 등이 주어졌다

〈 사진 7-6-77 〉 제2회 전국서예백일장

1999년 제3회 설악전국 서예백일장이 10월 23일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어 총 156명이 참가하였다. 제20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은 11월 20~24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 전시회는 서예가협회 발족 20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로 회원 76명이 한국서예, 한문서예, 사군자, 전각, 현대서예 등의 분야에서 각 1점씩 출품하여 전시되었으며, 출품작가는 강원서예대전, 교원미전 등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강원도를 대표하는 서예가들이다. 또한 창립 20주년 전시회를 기념하여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인 인재 손인식 선생 초청 학술강연회가 '서예美의 원천 탐

색'이란 주제로 있었으며, 그간 강원서예 발전에 애쓴 역대회장에게 공로패 전달식과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및 99강원도서예상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 사진 7-6-78 〉 제20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

2000년 10월 1일 제4회 전국서예 백일장이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총 12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학생부 및 일반부 한문, 한글, 사군자 부분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1년 10월 14일 제36회 설악문화제 기념 제5회 설악 서예 백일장이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총 12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학생부 및 일반부 한문, 한글, 사군자 부분으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서제는 (초등부) 文化遺産 繼承發展 (고등부) 가람시조 첨마산협 (일반부) 윤선도의 오우가 등이 주어졌다.

11월 3~4일까지는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6회 속초서우회원전이 속초예총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28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원작품 및 초대 찬조 출품작 50여점이 전시되었다.

〈 사진 7-6-79 〉 제6회 속초서우회전

12월 15~20일까지 제22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65명의 작가가 작품을 출품하였고 제9회 강원서예상 시상식도 병행되었다. 수상자로는 한국전각협회 이사로

활동 중인 시백 안종중이 받았다. 또한 서예전을 기념하여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는 15일 나석 손병철 박사를 초청하여 '21세기 강원도 서예술의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사진 7-6-80 〉 제22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

2002년 제6회 설악서예백일장이 11월 2일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학생부 참가자 80여명이 한문, 한글, 부분으로 나뉘어 행사를 치렀으며, (초등 한문부) 二人同心 其利斷金(중고등 한글부)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방안에도 푸른 하늘이 있다가 주어졌다.

〈 사진 7-6-81 〉 제6회 설악서예백일장

11월 16~17일 양일간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7회 속초서우회원전이 속초예총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30명의 회원작품을 포함하여 초대와 찬조 출품작 50여점이 전시되었다.

2003년 10월 4일 제38회 설악문화제 기념 제7회 설악 서예 백일장이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부 및 일반부 한문, 한글, 사군자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제8회 속초서우회전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총 후원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어 22명의 회원 작품이 출품 전시되었다.

2004년 10월 16일 제39회 설악문화제 기념 제8회 설악 서예 백일장이 속

초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150여명이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학생부 및 일반부 한문, 한글, 사군자 부분으로 추진되었다. 서제는 (초등 한글부) 푸른하늘 흰구름떼 (중등부)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건전한 정신과 성실한 생활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성취할 자격을 갖는다 (사군자) 매란국죽이 주어졌다.

11월 23~24일까지 제9회 속초서우회전이 예총후원 사업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어 22명의 회원 작품이 전시되었다.

제4절 연극 활동

1. 개황

원로들의 기억에 의하면, 속초에서 최초의 연극 공연이 있었던 것은 30년대부터라고 한다. 당시 유랑극단에 서커스단의 순회 공연을 통해서 최초로 신연극과 접촉했던 것이다. 이들의 영향으로 1935년경에는 아마추어 극단이 출현하기에 이른다. 문구남이 주축이 되어 대포학교 출신 청년들을 모아 '김진사댁 마당쇠'라는 연극이 속초 사람들에 의해 공연된 최초의 연극이다. 박칠봉, 방만봉, 김정기, 신동화, 김구순, 김태훈, 오연홍 등이 당시에 활동했던 연극인들이다. 이들은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기해 공연을 했었으며 소요경비는 사비를 털어 충당하기도 했다. 공연 장소는 속초경찰서 옆(수복여관 자리)이 주로 이용되었다. 이 자리는 소방서가 위치해 있었는데(후에 '경방단'이라고 개칭되었다 함) 극장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연극 연습을 대성여관(동명동사무소 옆)에서 주인 김흥집의 배려에 의해 무상 임대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때에는 여배우가 없어 방만봉이라는 남자 배우가 여장으로 출연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소위 대동아 전쟁 이후 징병, 징용 등으로 끌려가게 되어 일시적으로 속초 연극은 잠시 동안의 휴면기에 들어간다. 이후에는 외지 연극단의 공연으로만 연극을 접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각종 콩쿨대회에서 입상한 속초 가수들이 막간에 출연하곤 했었다 한다. 장전에서 개최된 OK레코드사 공모에 입선 경력을 가진 가수 윤형소가 바로 그런 사람이며, 그 외 정인섭, 김종만, 이동영, 김경률, 박진길 등의 가수 지망생과 악사로는 아코디언 김의혁, 기타 정인섭, 트럼펫 오철, 드럼 김종만 등이 막간 공연의 단골 출연자들이었다 한다.

해방되던 해에는 김정우가 중앙무대에 활약하다 귀향하여 자작극 '피줄기' 일명 '희망'이라는 연극을 공연하였다. 당시 영랑동 시장 장터에서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막을 올렸다. 이 연극은 당시 조선 공산당 속초읍당에서 주민 계몽용으로 순회공연하기로 하였으나, 김정우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요시찰 인물로 꼽히게 된다. 김정우는 그 후 김근진, 김종호, 김동만, 이영석, 이건석, 김종율, 김원희 등 일단의 반공 청년들이 김사랑 작, '호엽'을 경방단 자리에서 공연하였다. 이때 속초 출신 최초의 여배우인 최금순이 출연하기도 했었다. 그 후 양양에 '북조선 예술동맹 양양지부'가 구성되었고, 김정우는 이 단체의 예술 부장직을 강제로 떠맡게 된다. 이때 공연된 작품이 '들꽃', '심청전' 등이라고 한다. 김정우는 그후 월남하였고, 김동만, 이영석, 이영실, 이도영, 김태혁, 김종율, 정인섭 등과 여배우 황금련 등이 연극 활동을 이어 온다. 그러나 이들마저 대부분 월남함으로써 속초 연극의 맥은 일시적이나마 끊어지게 이른다. 이때 월남한 김정우는 유치진이 창단한 극단 '현대극장'에 입단하여 '오룡강', '대추나무', '일진희', '춘향전', '에멜레종', '남풍', '써멘호' 등의 공연에 참여했다. 휴전 후에는 극단 '전선'에 입단하여, 이해랑, 김동원 등과 '아랑', '호엽', '검찰관' 등의 작품에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수복직후인 50년대에는 당시의 사회적 수요에 발맞춰 연극 예술 활동이 펼쳐졌었다 한다. 극단이나 악극단 활동이 그것으로, 속초 지역에도 무수한 군소극단이 명멸했었다. 그중에서 비교적 오래 연명한 악극단은 두 개였으며, 이들은 중앙 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 높은 공연활동을 하였었다고 수복연감(강원문화연구소발행, 1954年)에 전한다. 이 소책자에 의하면 이 두개의 악극단은 '수도악극단' 과 '20세기악극단'으로, 이들은 각기 자기 극단 소속의 극작가와 배우를 확보하고 1년에 5~6편의 창작극을 공연하였다. 수도악극단은 김용학이 단장으로 백전교라는 극작가를 포함 백광, 오정심, 이정려, 현방애, 백영, 한영옥, 강수일, 이영신 등의 배우들로 1953년에 한해 동안 '나는 반역자가 아니다', '폭풍전야', '얄궂은 운명'. '여성갑천', '그 여자의 일생' 등의 작품을 공연하였고, '아리랑 보이스'라는 쇼도 공연하였다. 또, '20세기악극단'은 김해광을 단장으로 이현, 윤성란, 남현, 권일정, 최일, 오음전, 전영자, 김옥 등이 배우로 활약했으며, 역시 같은 해에 '추억의 눈물', '배나무집 딸', '은혜냐 사랑이냐', '마음의 격랑', '머리없는 신랑' 등의 작품을 공연했으며, '웃지않는 여왕', '부귀부귀 쇼' 등의 쇼도 공연했다. 이들 극단의 구성원은 피난민이거나 떠돌이 배우들인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활동하다가는 중앙 무대의 진출을 시도하곤 했었다. 극

단 '고려'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여자 단장 강승천이 '마의 태자', '단종애사' 등의 작품을 가지고 서울로 진출하기도 했었다 한다.

그러나 이 악극단 활동은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소멸되고, 그 후 속초 연극은 한동안 침체기에 있게 된다. 간혹 학교의 예술제에서 학생 연극을 관람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임의단체 형태의 '예총 속초지부'가 구성되자, 여기에 황창건, 김영복 등이 연극 공연을 시도했었으며, 이후 서라벌 예술대학 출신의 신원하가 이곳에 교사로 부임해오며 적극적인 학생 연극이 추진되었다. 신원하는 1971년 10월에 신병순 작 '전하', 1973년 11월에 이광래 작 '한낮 등불 아래 나비들', 1975년 7월에 작품 '세 바위 착각', 1975년 11월에 김자림 작 '나는 방관자가 아니다', 1976년 10월에 국지관 작 '아버지 돌아오다', 1979년 1월에 박용숙 작 '음악공화국' 등을 차례로 연출하여 무대에 올렸다. 그러다 본격적인 아마추어 성인 연극은 '청년문화연구회'라는 단체가 1976년에 결성되면서 본격화된다. 당시 '청년문화연구회'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의 다섯 개 분야에 주로 20대 초반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상필이 초대회장이었다. '청년문화연구회'의 연극 분과 소속회원들은 '청봉극회'라는 명칭으로 공연을 해왔는데 그 첫 공연은 신원하가 직접 쓰고 연출한 자작극 '세바위의 착각'이었다. 신원하는 당시 이 '청년문화연구회'의 고문이었으며, 이 작품은 1975년에 학생들에 의해 초연되었던 작품인데, 1977년 7월 '청봉극회' 창단 공연작으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이후 연극협회 속초지부가 구성된 1983년까지 15편의 연극을 이 '청봉극회'에서 무대에 올렸다. '청봉극회'는 결국 연극협회 속초지부 창립의 모체가 된 셈이다. '청년문화연구회'는 1981년도에 사실상 해체되어 '청봉극회'의 활동도 정지되었으나, 이들 세력은 그대로 1983년도에 연극협회 속초지부 구성을 주도하여 속초 연극의 새로운 전기를 연다.

연극협회 속초지부의 창립은 속초 연극의 시발점인 셈이며 이 시기의 연극운동은 장규호가 주도한다. 극협 속초지부 창설 이래 의욕적으로 활동을 펼쳐 1983년 10월 자신의 창작극인 '겨울만 사는 사람들'을 제1회 강원연극제에 출품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1985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회의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극협 속초지부는 강원연극제에 해마다 작품을 출품하고 있는데 1991년까지 모두 최우수상 3회, 연출상 2회, 연기상 등의 다양한 수상 실적을 쌓기도 했다. 최우수상은 1986, 1988, 1991년도에 각기 수상했는데, 이 작품들은 모두 강원도를 대표해 전국 연극제에 출품되었다. 1986년도에는 윤조병 작

이수곤 연출의 '모닥불 아침 이슬'이 제4회 전국연극제 본선에 출품되었고, 1988년도에는 이반 작, 신원하 연출의 '그날 그날에'가 제5회 전국연극제 본선에 출품되어 단체 장려상, 남자연기상(장규호)을 수상했으며, 1991년도에는 제9회 전국연극제에 황석영 작, 홍현 연출 '한씨연대기'가 출품되어 대통령상(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이때 연출자인 홍현은 연출상을, 연기자 김귀선은 연기상을 각기 수상하기도 했다. 또 강원연극제에서의 연출상은 신원하(1987년)와 이수곤(1986년)이 수상했고, 남우주연상은 1985년도와 1987년도에 장규호가, 1991년에 김귀선이 각각 수상했으며, 1990년에는 박영미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속초연극은 획기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 이는 김귀선의 공로가 크다. 김귀선은 서울예술전문대학 졸업 후 현대극단 등에서 본격 배우수업을 쌓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1990년 인형극단 '굴렁쇠'를 창단하며 속초연극에 합류한다. 1991년 제9회 전국연극제에서 연극협회 속초지부 소속의 극단 '파람불'이 출품한 '한씨연대기'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데, 그 결정적 기여자가 김귀선이다. 그는 이 때 연기상을 수상한다. 이후 속초연극은 일취월장해 강원연극제와 전국연극제에서 매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그 후 많은 연극인들이 배출되며 속초 연극의 전성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김귀선의 '굴렁쇠'를 비롯, 유택민이 대표로 있는 극단 '오름', 다시 재건된 '청봉극회' 등이 속초연극계를 이끌고 있다.

속초연극인들은 한결같이 속초를 '연극의 메카'로 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반은 양양 둔전리에 대규모 연극학교 설립을, 장규호는 고성 도원리에 대형 연극타운 조성을 기획하고 있다. 김정우도 한때 아동연극제 등을 준비하며 60년 전의 정열을 되살리려 애썼다. 속초가 세계적인 연극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가고 있다.

신원하 교장이 교직 은퇴 기념으로 연극 공연을 했으며, 극단 굴렁쇠는 2004년 제7회 루마니아 국제연극제에서 '한씨연대기'로 First Class 1(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금까지 공연된 연보는 다음과 같으며 연극협회 산하 극단의 공연은 별도로 세분화했으나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 표 7-6-11 〉 강원연극제 수상경력

사업명	수상일자	장소	수상 단체	작 품 명	수 상 내 역
제1회	1984년 3월	춘천시	속초연극협회	그날 그날에	– 단체 우수상(문화방송사장) – 연기상(장규호)
제3회	1986년 3월	춘천시	속초연극협회	모닥불 아침이슬	– 단체 대상(강원도지사) – 무대미술상(황재형)
제4회	1987년 4월	춘천시	속초연극협회	그날 그날에	– 우수상(문화방송사장) – 연기상(장규호)
제5회	1988년 4월	춘천시	속초연극협회	그날 그날에	– 단체 대상(강원도지사) – 연출상(장규호)
제6회	1989년 4월	춘천시	속초연극협회	이대감 망할대감	– 무대미술상(정경숙)
제7회	1990년 4월	춘천시	속초연극협회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 연기상(박영미)
제8회	1991년 4월	속초시	극단 파람불	한씨 연대기	– 단체 대상(강원도지사) – 연기상(김귀선)
제10회	1993년 5월	강릉시	속초연극협회	한만선	– 단체 우수상(강릉시장)
제11회	1994년 4월	춘천시	속초연극협회	오지에 사람들	– 단체 우수상(춘천문화방송사장) – 연출상(장규호) – 연기상(김귀선) – 무대미술상 (박동국)
제12회	1995년 4월	삼척시	극단 굴렁쇠	돼지와 오토바이	– 단체 대상(강원도지사) – 연출상(장규호)
제13회	1996년 4월	춘천시	극단 굴렁쇠	그대여 또다시 바다로 가거든	– 단체 대상(강원도지사) – 연출상(장규호)
제14회	1997년 2월	속초시	극단 굴렁쇠	허탕–네팔가는 사람들	– 단체 장려상(속초시장)
제15회	1998년 7월	원주시	극단 굴렁쇠	피고지고 피고지고	– 단체 대상(강원도지사) – 연출상(장규호)
제16회	1999년 4월	속초시	극단 굴렁쇠	작은 할머니	– 단체 우수상(강원연극협회장) – 연출상(김귀선)
제17회	2000년 4월	춘천시	극단 굴렁쇠	돼지 비계	– 단체우수상(강원연극협회장) – 연출상(김귀선)
제18회	2001년 4월	원주시	극단 굴렁쇠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여	– 단체 최우수상(원주시장) – 연기상(김태영)
제19회	2002년 8월	속초시	극단 굴렁쇠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	– 단체대상(강원도지사) – 무대미술상(김인환)
제20회	2003년 4월	속초시	극단 굴렁쇠 극단 오름	택시 드리벌	– 단체 대상(강원도지사) – 연출상(김태영)
제21회	2004년 4월	원주시	극단 굴렁쇠	날 보러와요	– 단체 대상(강원도지사) – 연출상(김귀선) – 연기상(석경환)

〈 표 7-6-12 〉 전국 연극제 수상경력

사업명	수상일자	장 소	수상 단체	작 품 명	수 상 내 역
제6회	1988년 6월	대구시	속초연극협회	그날 그날에	– 단체 장려상(대구시장상) – 남자연기상(장규호)
제9회	1991년 6월	진주시	극단 파람불	한씨연대기	– 단체 대상(대통령상) – 연출상(홍현) – 연기상(김귀선)

사업명	수상일자	장 소	수상 단체	작 품 명	수 상 내 역
제14회	1996년 6월	광주시	극단 굴렁쇠	그대여 또다시 바다로 가거든	– 단체우수상(문화체육부장관상)
제18회	2000년 6월	울산시	극단 굴렁쇠	돼지비계	– 최우수연기상(김귀선):해외시찰
제20회	2002년 6월	전주시	극단 굴렁쇠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	– 단체 은상(전라북도도지사상) – 연기상(김귀선)
제21회	2003년 6월	공주시	극단 굴렁쇠 극단 오름	택시 드리벌	– 단체금상(문화관광부장관상) – 최우수연기상(황헌중):해외사찰
제22회	2004년 6월	대구시	극단 굴렁쇠	날 보러 와요	– 단체금상(행정자치부장관상) – 연출상(김귀선):해외시찰 – 연기상(남호섭)

〈 표 7-6-13 〉 주요 외국공연 연보

공연일자	장 소	참여 단체	작 품 명
1955년 10월	미국그레샴시 (오레건주)	속초연극협회	이대감 망할대감
1998년 9월	중국 훈춘시 (길림성)	속초연극협회	이대감 망할대감
2003년 9월	중국 훈춘시 (길림성)	속초연극협회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
2004년 1월	제7회 루마니아 국제 연극제	극단 굴렁쇠	한씨연대기 (first class Ⅰ(최우상)수상)

또한 연극협회는 1991년부터 제1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를 시작하여 2005년 현재 14회 대회를 마친 상태이다. 제1회 대회의 추진 배경은 1991년 6월에 속초극단이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힘입어 각계 각층의 연극에 대한 지원과 관심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연극제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직접 무대에서 표현하며 청소년들이 극예술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극예술 이해도를 증진하여 미래 향토 연극 예술인 육성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성고취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초창기에는 속초, 양양, 고성 등 영북에 위치한 학교에서 주로 참여했으나 대회가 거듭되면서 기타 강원도 전역의 학교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강원도 연극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7-6-82 〉 제13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 표 7-6-14 〉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개최 현황

	최우수상	지도교사상	우수상	장려상
제1회 (1991. 8. 13~17)	속초고	신 원 하 (속초고)	속여고	거진공고, 속초상고 고성고
제2회 (1992. 5. 22~26)	거진여상	김 정 환 (거진여상)	춘천성수여상	거진공고, 속초상고 고성고
제3회 (1003. 6. 14~18)	양양여고	조 수 현 (양양여고)	춘천기계고	속초고
제4회 (1994. 6. 20~24)	춘천성수여상	강 한 원 (성수여상)	속초상고	양양여고
제5회 (1996. 5. 27~31)	춘천성수여상	강 한 원 (성수여상)	황지여상	강릉문성고
제6회 (제1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1997. 6. 9~15)	황지여상 (제1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우수연기상 수상)	김 정 숙 (황지여상)	성수여상	강릉문성고
제7회 (제2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1998. 6. 5~11)	속초여고 (제2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대상, 지도교사상,최우수, 우수연기상수상)	김 선 경 (속초여고)	강릉성문고	황지여상
제8회 (제3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1999. 6. 1~7)	속초여고 (제3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우수연기상 수상)	김 선 경 (속초여고)	속초상고	춘천성수 정보산업고
제9회 (제4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2000. 5. 24~30)	북평여고 (제4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우수연기상, 의상상 수상)	박 정 옥 (북평여고)	속초여고	유봉여고
제10회 (제5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2001. 5. 29~6.2)	북평여고 (제5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최우수상, 우수연기상 수상)	강 대 업 (북평여고)	속초상고	속초고
제11회 (제6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2002. 5. 29~6. 2)	동해광희고 (제6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우수연기상, 의상상 수상)	전 성 호 (동해광희고)	속초여고	강일여고 춘천기계공고
제12회 (제7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2003. 6. 9~13)	북평여고 (제7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최우수상,우수연기상 수상)	원 병 재 (북평여고)	속초여고	속초상고 유봉여고
제13회 (제8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2004. 5. 31~6. 6)	북평여고 (제8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우수연기상 수상)	원 병 재 (북평여고)	속초여고	북원여고 유봉여고
제14회 (제9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2005. 5. 30~6. 4)	속초여고 (제9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우수상,우수연기상 수상)	유 택 민 (속초여고)	속초여고	

2. 연극단체

1)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는 1984년 11월 30일 한국연극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속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으로는 서울예전 출신의 김귀선이 대표로 있는 극단 '굴렁쇠'와 황헌중이 대표로 있는 극단 '오름', 그리고 김태영 대표의 극단 '청봉'이 있는데 이 극단들을 바탕으로 연극협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극협회의 정회원은 정규대학에서 극전공을 한 사람 중에서 졸업출신은 2년 활동 경과 후, 전문대는 3년 후, 고졸은 5년, 기타는 10년 이상 연극 활동을 한 후 협회가 인정하는 자로서 정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극협은 예총 결성 후 의욕적으로 청소년 사업을 전개하여 도 단위 행사인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를 2005년 현재 14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서울연극제 최우수수상작 등 우수극단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예욕구 해소 및 연극의 이해도 증진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1995년 10월에 미국 그레샴시 공연과 1998년, 2003년에 중국 훈춘시 공연을 전개하는 등 외국에서도 연극공연을 통한 대한민국 선양 및 속초 알리기에도 일조하고 있다.

극협은 강원연극제에 해마다 작품을 출품하거나 산하극단을 내보내 1986, 1988, 1990, 1991, 1996, 2000, 2002, 2003년에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하고 강원도를 대표로 전국연극제에 출전하여 1986년 1988단체 장려상, 1991년 단체최우수 대통령상, 1996년 단체 금상, 2002년 단체 은상, 2003년 단체 금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역대 지부장은 1대 장규호(1984. 11. 30-1990. 1. 30), 2대 고준규(1990. 2. 1-1991. 3. 1), 3대 장규호(1991. 3. 2-1999. 1. 22), 4대 박영미(1999. 1. 23- 2003. 10. 30), 5대 김인환(2003. 11. 1-2005. 03. 15)를 거쳐 현재 6대 신오일이 2005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다.

연극협회의 주요임무 및 기능은 우선 지역연극 예술을 향상 보급 육성하고, 연극인과 연극단체를 지도 육성하는 한편 연극의 지역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극에 관한 출판 및 공연 사업에 매진하는 것이다.

연극협회가 펼치는 대표적인 사업은 강원도청소년연극제로 강원도내 고교학생들이 해마다 10여 개 팀이 참여하는 청소년연극축제이다. 속초종합예술제 기간에 행사가 개최되고 2005년 14회를 개최하였으며 극협의 대표적인 청소년사업이다.

〈 사진 7-6-83 〉 강원도청소년연극제

다음으로 강원연극제 및 전국연극제 참가이다. 초창기에는 연극협회 명의로 직접 대회에 참가하였지만 1995년 이후는 산하극단을 출전시키고 있다. 속초연극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다.

〈 사진 7-6-84 〉 전국연극제

무대지원사업공연은 2000년부터 해온 신설사업으로 주로 속초, 고성, 양양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며 협회뿐만 아니라 산하극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 사진 7-6-85 〉 무대지원사업공연

정기공연은 대체로 송년 공연을 정기공연으로 삼아서 12월 중에 속초시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개최한다.

〈 사진 7-6-86 〉 정기공연

그 외 기타 부정기 사업으로는 연극학술토론회, 연극인 평가회 참가, 우수 극단 초청공연사업, 극단활동 독려사업, 연극인 권익옹호사업, 중진 연극인과의 교류사업, 해외공연사업 등 지역 연극발전에 관련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재직 임원은 지부장 신오일, 수석부지부장 김태영, 부지부장 김귀선, 사무국장 석경환이며 회원은 고문 신원하, 장규호를 비롯하여 박영미, 김인환, 김귀선, 정경숙, 노경민, 김영식, 김영주, 윤영은, 김흥래, 황헌중, 김승현, 김강석, 문선정, 김영주, 윤국원, 박효정, 남호섭, 추예인, 추경희, 함윤희, 이지혜, 김일태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청봉극회

'청봉극회'는 '청년문화연구회'의 연극 분과가 구성한 극회이다. 1970년대 속초연극의 첫발을 디딘 연극협회의 모체 역할을 담당했던 뿌리깊은 극단이다. 청봉은 서라벌 예전 출신의 신원하가 속초에 교사로 부임하면서 학생연극을 시작하여 1971년 10월 신병순 작, '전하'를 시작으로 1976년까지 수차례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1977년에는 '청봉회'의 명칭으로 신원하 작 '세 바위 얼굴'을 무대에 올린다. 이후 극협 탄생인 1983년까지 15편을 무대에 올리며 극단 '청봉'은 자연스럽게 연극협회로 이름을 바뀌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연극협회 구성 이후에는 거기에 흡수되어 활동이 정지되었다가 2002년 신원하가 '불효자는 웁니다'를 무대에 올리면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회원은 노경민, 신오일, 김태영, 정연태, 유정희 등이며, 그 공연연보는 아래와 같다.

〈 표 7-6-15 〉 극단 '청봉'연극 공연연보

회	일 자	제 목	작	연 출	공연장소
1	1977. 7.16	세 바위 얼굴	신원하	신원하	일복문화관
2	1977.10.16	나는 방관자가 아니다	김숙현	신원하	일복문화관
3	1978.12.20	아버지 돌아오다	국지관	신원하	대원극장
4	1978. 1.25	음악공화국	박영숙	신원하	제일극장
5	1980. 5.10	광녀	미사마 유쿄	신원하	노벨예식장
6	1981. 6.27	위자료	차범석	김주덕	일복문화관
7	1981. 9.11	귀향	하지찬	신원하	제일극장
8	1982. 2. 9	결혼	이강백	신원하	다락다실
9	1982. 3. 5	겨울만 사는 사람들	장규호	신원하	제일극장
10	1982.11.13	아가야 청산 가자	전옥주	신원하	노벨예식장
11	1982.12.18	수염이 난 여인들	전옥주	노경민	노벨예식장

회	일 자	제 목	작	연 출	공연장소
12	1983. 4	광녀	미사마 유쿄	장규호	노벨예식장
13	1983. 7.12	아내의 외출	최명희	최원철	까페 떼앙뜨르
14	1983.10.29	겨울만 사는 사람들	장규호	장규호	제일극장
15	1983.12.29	그믐밤을 둘이서	김숙현	노경민	F학점 다실
16	2000. 9.25	불효자는 웁니다	신원하	신원하	속초신협

3) 파람불

극단명인 '파람불'은 파도, 바람, 불의 약자라고 한다. 조수현이 대표로 1989년에 결성되어 1991년에는 전극연극제에 참가하여 황석영 작 '한씨연대기'로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2000년도 극단 대표인 조수현이 외지로 떠나면서 활동을 접었다. 회원은 조수현, 김일태, 원영식, 허현미, 지은미 등이었으며 공연연보는 다음과 같다.

〈 표 7-6-16 〉 극단 '파람불'연극 공연연보

회	일 자	제 목	작	연 출	공연장소
1	1989.12	칠수와 민수	오종우	조 수 현	노인회관
2	1990.11	돈내지 맙시다	다리오 • 포	김 귀 선	문화회관
3	1990.12	아일랜드	아돌후가드	조 수 현	문화회관
4	1991. 4	한씨연대기	황석영	홍 현	문화회관
5	1992.12.19~24	콜렉터	존 파울러	김 흥 현	힐탑호텔 2층

4) 굴렁쇠

'굴렁쇠'는 1990년에 결성되어 초창기에는 아동극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으로 출발하였다가 강원연극제와 전국연극제에 참가하면서 지금은 성인극만을 제작하고 있다. 극단명으로만 강원연극제에 출전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1995년부터 '굴렁쇠'는 단독으로 속초를 대표하여 꾸준하게 작품을 출품하여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연극협회가 곧 '굴렁쇠'로 이해될 정도로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다. '굴렁쇠'를 얘기하지 않고는 현재 속초 연극 내지는 강원연극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장을 대표하는 명문극단이다. 대표는 김귀선, 부대표로는 정경숙, 단원은 윤영은, 김영주, 문선정, 김강석, 박성균, 김승현, 남호섭, 박효정, 이슬비, 추예인, 김만혁, 심재훈, 윤국원, 함윤희, 추경희, 김영식 등 이며 공연연보는 다음과 같다.

〈 표 7-6-17 〉 극단 '굴렁쇠' 연극공연 연보

년 월	연 혁
1990. 7	꼭두극단으로 창단
1990 ~ 1991.6	햇님달님 외 6편공연(아동극)
1992. 11	성인극단으로 전환
	하나님 비상이예요 '박재선 작 / 김귀선 연출'
1993. 5	새장과 화장실 '최재도 작 / 김귀선 연출'
1993. 9	위기의 여자 '보봐르 작 / 김귀선 연출'
1994. 2	약장사 '오태석 작 / 장규호 연출'
1995. 4	돼지와 오토바이 '이만희 작 / 김인환 연출'
1995. 10	극단 굴렁쇠 제 1기 workshop 실시
1996. 4	그대여 또 다시 바다로 가거든 '최재도 작 / 장규호 연출'
	〈제14회 전국연극제 금상 수상〉
1996. 10	서툰 사람들 '장진 작 / 장규호 연출'
1996. 12	허탕 '장진 작 / 장규호 연출'
1997. 5	불 좀 꺼 주세요 '이만희 작 / 장규호 연출'
1997. 11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만희 작 / 장규호 연출'
1998. 5	피고 지고 피고 지고
1998. 7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제 15회 강원연극제 참가(원주시)
1998. 11	호적등본
1998. 12	극단 굴렁쇠 제2기 workshop 실시
1999. 4	작은 할머니 '엄인희 작 / 김귀선 연출'
1999. 12	도덕적 도둑 '디리오 포 작 / 박영미 연출'
2000. 2	극단 굴렁쇠 제3기 workshop 실시
2000. 6	돼지비계 '오태영 작 / 김귀선 연출'
	〈제18회 전국연극제 최우수연기상 수상〉
2001. 4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이만희 작/ 김귀선 연출'
2002. 6	아카시아 흰 꽃은 바람에 날리고 '이근삼 작 / 장규호 연출'
	〈제20회 전국연극제은상, 연기상 수상〉
2002. 12	돈 내지 맙시다 '다리오 포 작 / 김귀선 연출'
2003. 6	극단 오름 합동공연 – 택시 드리벌 '장진 작 / 장규호 연출'
	〈제21회 전국연극제 금상, 최우수연기상 수상〉
2003. 10	날보러 와요 '김광림 작 / 김귀선 연출'
2004. 5	날보러 와요 '김광림 작 / 김귀선 연출'
	〈제22회 전국연극제 금상, 연출상, 연기상 수상〉
2004. 8	한씨연대기 ' 황석영 작 / 장규호 연출'
2004. 11	제 7회 루마니아 국제연극제 – 한씨연대기 '황석영 작 / 장규호 연출'
2005. 4	늙은 도둑이야기 ' 이상우 작 / 김귀선 연출'(강릉시)

5) 오름

'오름'은 2002년 12월에 결성된 신생극단으로 창단 공연 강석현 작 '새', 2003년 4월에 2번째 작 '택시 드리벌', 2003년 10월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을 무대에 올렸고 2004년에는 김지하 작 '밥'을 무대에 올렸다. 대표는 황헌중이 맡고 있으며 단원으로는 유택민, 임상호, 이지혜, 석경환 등이 있다.

6) 기타극단

그 외에도 극단 '태', 극단 '추', 극단 '시나브로' 등의 연극 단체가 있었으나, 대부분 창단 공연 후 곧 소멸되었다. 극단 '시나브로'는 이수곤이 이끌었으며, 극단 '태'는 박장건이 창단했었다. 이들은 80년대 후반에 잠시 활동을 했었다.

제5절 음악활동

1. 개황

초창기 속초에서의 음악활동은 주로 음악교사들의 개인적인 활동과 교회 성가대의 선교목적의 음악활동, 그리고 피아노 교습소 등에서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발표회가 주류를 이루었다. 1960년대의 활동은 속초고 음악교사 고병준, 속초여중 이재균 등이 주도하여 음협 태두를 열게 된다. 1972년은 경희대 음대 출신의 주학락이 합류하여 기존세력과 함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1970년대 중반 임의 형태의 음협 회장직을 주학락이 맡고 이성근, 노학원, 배명옥, 조경숙 등이 후진양성에 진력했던 시기였다. 한편 한응범은 1970년대 말 자생단체인 새마을어머니회 합창단을 설립한다. 이 단체는 40~50명의 회원을 확보하면서 단장 한응범이 직접 테너역을 맡아 남녀혼성팀으로 발전시켜 80년대 초반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속초시립합창단의 모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1990년의 경우 작곡자 임수철의 작곡발표회를 비롯하여 1989년 설립된 속초시립합창단의 창단공연, KBS교향악단 초청공연, MBC가곡의 밤, 주식회사 예음의 설악산 야외공연, 클래식 기타의 밤, 선교음악회, 각종 발표회 등이 이루어졌다. 1989년의 시립합창단 탄생과 1991년 음협의 태동은 속초의 음악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음협 탄생은 주학락, 심연흠, 김영일, 임수철, 원영백 등이 주도적 역할로

이루어졌다. 인준 당시 음협 회원수는 39명으로 출발하였으며 학원강사 및 교사로 구성원이 구성되었다. 음협은 결성직후 왕성한 사업을 전개하여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설악 청소년 음악회' '음협정기연주회'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1991년 음악협회가 탄생하면서 정기적인 연주를 시작하여 2005년 제15회 연주회를 마쳤다. 이 정기연주회는 음협의 연중 가장 비중 있는 사업 중 하나로서 매년 송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어 왔으며 다양한 장르와 음악가들이 참여하여 속초의 음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 표 7-6-18 〉 음악협회 정기 연주회 현황

회	일 시	공연내용	장 소
1	1991.12.21	혼성4중창, 설증호 플룻독주, 허미란, 김미옥, 허혜란 피아노 3중주, 원영백 기타독주, 임수철 창작곡, 강은희 소프라노독주, 안애숙 피아노독주, 속초시립합창단 합창	속초문화회관
2	1992.11.21	기타합주(도레미 기타학원장 : 원영백 외5인) 소프라노독창, 피아노2중주, 트럼펫 독주, 피아노독주, 여성3중창, 시립합창단 합창	속초문화회관
3	1993.12.4	임수철 기타 2중주 창작곡 발표, 이인순 소프라노 독창, 오수정 피아노 독주, 강은희, 김금녀 여성2중창 지용호 트럼본 독주	속초문화회관
4	1994.12.10	이진우 독창, 김희숙 피아노독주, 김미주 바이올린 독주, 강은희, 유윤희, 박영민, 문상철 혼성4중창, 임수철의 창장곡인 기타 소나타 C장조	속초문화회관
5	1995.12.16	피아노독주, 소프라노, 가야금, 첼로독주	속초문화회관
6	1996.12.8	소프라노 홍은영, 피아노 정영철, 양은영, 고영주, 송현주, 시조창 김진석, 플롯 전삼옥, 소프라노 이인순, 안혜정	속초문화회관
7	1997.12.6	피아노 이성은, 가야금 박미란, 소프라노 김춘옥, 터너 황영승, 제5회 음악콩쿠르 대상 수상자인 최예지, 양은영 피아노반주로 출연, 속초 리코더 앙상블의 이병구 외 9명 찬조 출연, 모차르트 아이에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등 연주	속초문화회관
8	1998.12.15	임수철 창작곡 발표, 피아노독주 손지녹, 플롯 전삼옥, 기타 원영백, 소프라노 강은희, 피아노트리오 심영은 외 2인	속초문화회관
9	1999.12.11	속초시립합창단 합창, 바이올린 김미주, 피아노 양은영 소프라노 김춘옥, 피아노 김지은, 속초리코더 앙상블, 제7회 설악콩쿠르 대상 수상자 장혜진	속초문화회관
10	2000.12.16	성악중창, 피아노, 독주, 중창 엘젤스 합창단 35명 기타합주 14명, 리코더 합주단 15명, 설악콩쿨 대상 수상자 출연	속초문화회관

회	일 시	공연내용	장 소
11	2001.12.12	배현욱, 바이올린 남영임, 첼로 김지영, 피아노 정영철, 소프라노 김혜선, 피아노 심영은, 플룻 전하나, 설악엔젤스콰이어	속초문화회관
12	2002.12.20	플룻 독주 이은희, 바리톤 독창 민종홍, 첼로독주 김지영, 바이올린 2중주 권은희, 심영내, 피아노 독주 백윤미, 설악엔젤스합창단	속초문화회관
13	2003.12.13	색소폰 이승환, 권예나 플룻독주, 첼로독주 구자령 피아노 3중주 김은영, 구자령, 김지은, 피아노독주 안애숙, 바리톤 박태호, 설악엔젤스 합창단	속초문화회관
14	2004.12.17	피아노 유지은, 이재현, 허윤석(제13회 설악 음악 콩쿠르 대상수상자), 혼 솔로 최준용, 색소폰 솔로 한기학, 소프라노 솔로 이인순, 설악엔젤스 유스 콰이어	속초문화회관

또한 1989년에 창단 된 속초시립합창단은 1991년 12월 제1회 합창단 공연을 갖는데 심연흠 지휘, 양은영 반주, 소프라노 이진우, 피아노 김희숙 등이 출연하였으며 보리밭, 매화 등 한국 가곡과 성가곡, 바위섬, 에델바이스 등을 선보였다. 속초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는 2005년 10회까지 공연되었다.

1993년부터 속초음협이 제1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2005년 13회 행사를 치렀다. 이 행사는 관내 초·중등 학생들의 음악적 소양을 기르고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마련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사업확대와 전문화의 필요성에 의해 예심을 치른 후 본심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연 분야는 피아노, 성악, 관현악 등 다양하며 지정곡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곡을 연주하는 때도 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향토음악 발표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 표 7-6-19 〉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개최현황

회	일 시	분 야	장 소
1	1993. 5. 22	피아노, 성악	속초문화회관
2	1994. 6. 18	피아노, 성악	속초문화회관
3	1995. 6. 3	피아노, 성악, 관현악	속초문화회관
4	1996. 6. 1	피아노, 성악	속초문화회관
5	1997. 5. 24	피아노, 성악, 관현악	속초문화회관
6	1998. 5. 16	피아노, 성악, 관현악	속초문화회관

회	일 시	분 야	장 소
7	1999. 5. 15	피아노, 성악, 관현악	속초문화회관
8	2000. 5. 13	피아노, 성악, 관현악	속초문화회관
9	2001. 5. 26	피아노, 성악, 관현악	속초문화회관
10	2002. 5. 18	피아노, 성악, 관현악	속초문화회관
11	2003. 5. 17	피아노, 성악, 관현악	속초문화회관
12	2004. 5. 29	피아노, 성악, 관현악	속초문화회관
13	2005. 5. 28	피아노, 성악, 관현악	속초문화회관

또한 새여름 실내악단 초청 연주회가 7월에 개최되어 전통음악, 사물놀이, 창작음악 발표가 있었고 9월 김혜경 초청 기타 독주회에 이어 12월 93년 음협송년 정기발표회(3회)가 개최되었다.

1994년 5월 허병훈 초청 기타 독주회가 음협속초지부 및 한국 기타협회속초지부, 도레미 기타학원 주관으로 개최되어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1995년은 정기적인 행사 외에 각종 초청 공연이 풍성하게 개최된 해이다. 우선 6월 음악협회 소속 도레미 예술기획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노 독주자를 초청하여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속초 음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캐나다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폴스트와트 초청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하였다. 7월에는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폰타넬리 내한공연에 이어 박라나 하프 독주회가 개최되었다. 8월에는 세종 국악 관현악단 초청공연이 열려 국악이야기(해설)에 이에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접목된 다양한 연주를 통해 우리 가락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 사진 7-6-88 〉 세종국악 관현악단 초청공연

9월 명창 이임례 여사 초청 판소리 한마당이 공연되었고 바이올리니스트 안동호, 첼리스트 송희송의 듀오 연주회가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1월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및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파토리를 주제로 안승범 클레식 기타 초청 연주가 있었으며 12월 제5회 정기연주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1996년도 다양한 초청 연주회가 이루어지고 가을 콘서트가 시작되어 꾸준히 개최된다. 3월 테너 이상조, 소프라노 윤순옥, 소프라노 이진우, 바리톤 이용찬 등을 초청하여 봄맞이 가곡의 밤을 개최하였고 4월 독일의 기타리스트 케스틴 아이젠바흐트를 초청하여 내한공연을 실시하였다.

〈 사진 7-6-89 〉 봄맞이 가곡의 밤

이어 5월 계명선 초청 피아노 독주회, 6월 소프라노 김우순 초청 독창회, 7월 박라나 앙코르 하프 독주회를 개최하는 한편 10월 강원대학교 백령오페라단 초청 가을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이 날 공연은 오페라 라보엠 하이라이트를 1부로, 2부에서는 주옥같은 우리가곡을 불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소프라노 황화숙, 박영식, 이연화, 테너 이상조, 바리톤 이숙형, 피아노 김지희 등이 출연하였다.

1997년도 예년에 못지 않게 활발한 콘서트가 이어지는데 3월 새봄을 맞이하여 전년에 이어 봄맞이 가곡의 밤이 개최되어 테너 황영승, 소프라노 김춘옥, 윤순옥, 피아노 양은영, 바리톤 최석길 등이 출연하였으며, 공연 후 양양, 고성 등에서 순회 공연을 가졌다. 4월 김대진, 조성은 조인트 콘서트에 이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역량 있는 음악인을 초청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처음으로 푸른 오월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박라나 하프, 성필관 오보에, 문선옥 소프라노, 테너 황영승 등이 출연하였다.

7월 제5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수상자를 선별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제1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를 공연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음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음악콩쿠르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출연자들에게는 많은 연습 기회를 부여했으며 감상 학생들에게는 음악감상 촉진 효과를 유도하여 지역청소년 음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어 영북지역 음악발전과

클래식 기타 감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4인 기타 콘서트를 개최하여 기타리스트 안승범, 김영술, 배장흠, 박종대가 출연하였다. 그 외 9월 바리톤 이무웅 초청 독창회, 10월 플루티스트 김동수 초청 가을콘서트, 11월 조진희 초청 리코더 독주회를 개최하였다.

1998년은 그 동안 개최해오던 행사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확대시킨 해이다. 우선 3월 '98봄맞이 가곡의 밤 행사를 시작으로 5월 두 번째 푸른 오월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 연주회는 금호 현악 4중주단 초청공연으로 바이올린 김의명, 이순익, 비올라 정찬우, 첼로 양성원이 출연하였다.

〈 사진 7-6-90 〉 푸른 오월을 위한 콘서트

6월 에코 타악기 앙상블 초청 콘서트, 7월 플루티스트 김동수 초청연주회가 개최되었고 이태리 출신의 플루티스트 안토니오 라모나 초청 연주회가 8월 15일 8.15광복 기념 문예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0월에는 류석원 교수가 지휘하는 관동대학교 콘서트 55인조 밴드와 바리톤 이대우, 소프라노 김우순, 테너 황연승, 에코타악기 앙상블의 마림바 솔로 박미라를 비롯 대중가수 안치환, 6인조 남성그룹 신화 등 초호화 출연진으로 구성된 공연에 이어 서울 기타 트리오를 초청하여 가을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12월에는 입시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여 강원 청소년 교향악단 초청 공연을 통해 입시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을 만들었다.

〈 사진 7-6-91 〉 입시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1999년 1월 신년음악회가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경축 일환으로 마련되어 속초시립합창단, 첼로 임현숙, 가야금 박미란, 소프라노 홍은정, 플루트 김동수, 바이올린 최인철, 피아노반주 양은영, 심영은, 석정여고 국악부 학생 등이 출연하여 새해의 서두를 장식했다.

〈 사진 7-6-92 〉 '99 신년음악회

4월 기타리스트 마르코 데 산티 연주회를 거쳐 7월 제2회 속초리코더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개최되어 박순미, 이재운, 정선주, 이수미, 탁선희, 정준교, 최수영, 최미영, 최종길, 신민걸, 이병구, 김기석 등과 학생연주자 18명이 출연하였다. 9월 한국남성 합창단이 초청되어 한국가곡 및 민요, 오페라 등을 선보였다. 10월 제17회 전국합창 경연대회가 열려 심연흠 속초음협지부장이 지휘한 속초시 설악합창단은 동상을 수상하였다. 같은 달 강원음악회가 개최되어 김남희, 안용헌, 김일남, 홍은정, 한가람 앙상블 등이 출연하였다. 11월은 합창과 솔로의 밤이 개최되어 이무웅, 김복순, 김영림, 성기득, 이상조, 장근정, 최윤성, 허진영, 김수현, 손정일과 관동대예술대 성악합창단 등이 출연하여 협연을 펼쳤다.

2000년에 들어오면 새로운 음악단체가 창단되어 활동을 시작하고 해외 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4월 김은경 플롯 독주회를 비롯하여 6월 설악 엔젤스 콰이어 합창단 및 설악 청소년 기타합주단 창단연주회가 열렸다. 엔젤스 합창단은 초등 중등 학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타합주단은 초, 중학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창단연주회는 학부모와 지역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관심 속에 공연을 하였으며, 창단 된 2개 청소년 음악단체는 꾸준한 활동을 펼치며 성장하고 있다. 같은 달 제3회 속초리코더 앙상블 공연되어 합주, 독주, 4중주 등 다양한 레파토리를 선보였다. 7월에는 한 여름밤의 콘서트가 열려 관동대 예술대 교수인 바이올린 최인철과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첼로 김경석이 출연하였다. 8월 한미 음악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그레샴 어린이 합창단과 설악 엔젤스

콰이어 합창단이 함께 공연하여 상호 우의를 다졌다.

〈 사진 7-6-93 〉 그레샴합창공연

10월에는 가을콘서트 합창과 솔로의 밤이 열려 관동대 합창단과 테너 성기득, 장근정, 최윤성, 이상조, 우영훈, 소프라노 김복순, 김우순 바리톤 이숙형 등이 출연하여 성대한 무대를 꾸몄다.

2001년은 창작곡 발표와 기존의 정기공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연합공연이 이루어진 해이다. 5월 바리톤 이용찬이 부르는 임수철 창작 예술가곡 발표회가 개최되어 명상곡 念, 대포동 연가 등의 곡들이 연주되었다. 6월 속초교사 리코더 앙상블, 설악청소년 기타 앙상블, 설악 엔젤스 콰이어 합창단이 연합 공연을 벌여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다.

〈 사진 7-6-94 〉 음악협회 산하 3개단체 연합대공연

8월 서울 클래식 기타 콰르텟 초청 콘서트가 개최되어 김인주, 김재학, 한형일, 이준호로 구성된 서울 기타 콰르텟이 공연을 펼쳤다. 11월 고순영 정영철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비롯하여 임수철 창작가곡집 출판기념회가 개최되기도 하였고 12월 설악 엔젤스 콰이어 정기공연으로 마무리하였다.

2002년은 각종 음악단체의 정기적인 공연 외에 5월 캐나다 프리마 합창단과 뉴즈 합창단 초청공연이 제13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 행사로 개최되었다.

〈 사진 7-6-95 〉 캐나다 프리마 뉴즈 합창단 초청공연

10월에는 바리톤 민종홍 독창회가 개최되었으며 11월 5회 리코더앙상블 공연, 12월 제12회 음악협회 정기공연으로 한 해를 마감했다.

2003년은 정기적인 공연에 치중한 해로 볼 수 있으며 10월 속초시 승격 40주년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남성합창단 초청연주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당시 한국남성 합창단의 박태호 단장의 고향이 속초라서 재경속초시민회, 속초중, 속초고 동문회의 협찬과 많은 관심 속에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12월에는 가을 콘서트가 '2003 시민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이라는 부재로 영랑초등학교 관현합주단과 설악엔젤스 콰이어 합창단이 출연하여 공연하였다.

2004년은 속초의 음악을 국제적으로 더욱 확고하게 인식시킨 해라고 할 수 있다. 5월 설악엔젤스 콰이어 합창단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제3회 국제어린이 합창제에 참가하여 환호를 받았고 해군클럽에서의 공연도 앵콜을 외치는 관람객과 기립박수가 끝없이 이어지는 감동의 무대를 연출하였다. 설악엔젤스 콰이어 합창단은 이 합창제 참가를 통해 국제어린이 합창제의 영예호칭을 인정하는 증서를 수여 받았으며, 강원도 속초를 블라디보스톡 시민에게 각인시킨 완벽에 가까운 공연을 통해 민간외교에 큰 공헌을 하였다.

〈 사진 7-6-96 〉 설악엔젤스 블라디보스톡 어린이 합창제 공연

2. 음악단체

1)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한국음악협회속초지부는 1991년 11월 21일 한국음악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음협은 결성직후 왕성한 사업을 전개하여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설악 청소년 음악회', '음협정기연주회'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는 영북지역 최고의 콩쿠르로 권위를 자랑하며 협회 청소년 사업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발전시켰다. 또한 음협은 '설악 엔젤스 합창단'과 '설악 기타합주단' 그리고 '속초 리코더 앙상블'의 3개 단체를 두고 있다.

음협 발족 이후의 사업은 전임사무국장인 원영백이 도레미예술기획을 열면서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수많은 클레식 공연물을 유치, 지역민들에게 음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한 음악저변확대에 다대한 기여를 하였다.

음협의 주요임무 및 기능은 음악가의 지위향상 및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과 지역음악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있으며 현임원은 지부장 임수철, 부지부장 강은희, 사무국장 이인순이다. 역대 지부장은 1대 심연흠(작곡, 1991. 11. 21-2002. 1. 31), 2대 김영일(현악, 2002. 2. 1-2004.1. 30), 3대 임수철(작곡, 2004. 2. 1-현재)이다.

음협의 주요활동 중 청소년 음악콩쿠르는 피아노, 성악, 관현악부문으로 구분되어 예선과 본선을 매년 5월 종합예술제 기간에 개최하며 1993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05년 제13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 사진 7-6-97 〉 설악청소년콩쿠르

설악 청소년 음악회는 음악콩쿠르 상위 입상자들에게 발표의 장을 마련해 주는 연주회로 종합예술제 기간 내 개최되며 1997년 제1회를 개최하여 2005년 제9회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 사진 7-6-98 〉 설악청소년음악회

음악협회 정기연주회는 음협 연중 가장 커다란 사업으로 매년 송년음악회를 겸하여 12월 중에 개최되며 1991년 제1회를 필두로 2005년 제20회를 맞이하였다.

〈 사진 7-6-99 〉 음악협회정기연주회

기타 사업으로는 각종 음악관련 사업으로 설악 엔젤스 콰이어 합창단공연, 리코더 앙상블 공연사업, 음악연주회 후원사업, 가을콘서트사업, 봄맞이 콘서트, 국제음악교류사업 등의 비정기적인 사업으로 지역 음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속초시립(설악)합창단

속초시립합창단은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여건조성과 음악인구의 저변확대 및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1989년 12월 8일 창단되어 매년 정기적인 연주회와 더불어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에 찬조 출연하여 행사를 빛내고 강원도와 전국의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입상경력을 갖는 등 속초시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들로 구성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자랑하는 속초시립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

으며 단장 김복천, 지휘자 강은규, 반주자 정영철, 단무장 권종식이다.

〈 표 7-6-20 〉 속초시립(설악) 합창단 연혁

일 자	연 혁	비 고
1989. 12. 8	속초시립(설악) 합창단 창단	
1990. 7. 19	제8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1991. 7. 5	제9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우수상 수상
1991. 10. 22	제17회 세계잼버리 기념음악회	
1991. 10. 26	제9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장려상 수상
1991. 12. 4	제1회 설악합창단 연주회	
1992. 6. 26	제10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장려상 수상
1992. 10. 16	제10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장려상 수상
1992. 12. 4	제2회 설악합창단연주회	
1993. 7. 2	제11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장려상 수상
1993. 10. 15	제11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우수상 수상
1993. 12. 4	제3회 설악합창단 연주회	
1994. 6. 16	제35회 도민체전 개막식 공연	
1994. 6. 24	제12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우수상 수상
1994. 12. 14	제12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최우수상 수상
1995. 6. 24	제13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1995. 10. 7	제31회 설악문화제 기념공연	
1995. 12. 27	제4회 설악합창단 정기연주회	
1996. 5. 4	어린이날 기념공연	
1996. 6. 26	제14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1996. 10. 10	제77회 전국체전 축하공연	
1996. 12. 19	제5회 정기연주회	
1997. 6. 27	제15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은상수상
1997. 10. 17	제15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1998. 6. 27	제16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동상수상
1998. 10. 17	제16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1999. 7. 9	제17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금상수상
1999. 10. 25	제17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동상수상
2000. 9. 30	제18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2001. 1. 19	제6회 속초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일산청소년 오케스트라 협연

일 자	연 혁	비 고
2001. 6. 21	제19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금상수상
2001. 10. 26	제19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동상수상
2002. 10. 8	제20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동상수상
2003. 6. 5	제8회 속초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설악엘젤스 콰이어 협연
2003. 8. 30	제21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2004. 8.	제1회 대한민국 음악축제 "가곡의 밤 출연"	
2004. 12. 7	제9회 정기 연주회	

3) 설악 엔젤스 유스콰이어

설악 엔젤스 유스콰이어는 2000년 6월에 창단한 어린이 음악 단체로 지휘자는 설악중 교사 강은희이며 반주자는 김수경이다. 창단 이후 지금까지 한미 교류 합동연주회, 인제군 순회 연주회, 강원교육가족 대잔치 특별 연주, 강릉청소년합창단과의 합동연주회, 강원스카우트 캠버리 초청연주회, 캐나다 빅토리아 합창단 특별연주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합창제 참가, 중국 연길 방송국 초청 연주회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자체연주회를 9회까지 발표하면서 기량을 신장시키고 있다.

제6절 연예활동

1. 개황

속초의 연예활동은 80년대 중반까지 약 8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야간에 연주 및 공연 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협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1985년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속초분소를 설치해 1986년 9월 인준을 받았다가 1987년 12월 1일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로 승격하여 정식 인준을 받게 이른다. 그 후 연예협회 속초지부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본격적인 연예활동에 들어가 다양한 행사를 펼쳐나간다. 즉 연협은 노인위안잔치, 군인위안잔치, 시민위안잔치 등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다. 1990년 제1회 청소년 가요제를 시작으로 2005년 16회 행사를 마무리하여 전통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해외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이

루어져 속초의 연예부문이 한층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2002년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사업의 폭을 점점 확대해 나간다.

1987년부터 연예협회의 활동을 정리하면 2월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속초분회 현판식을 시작으로 3월 속초시 노인위문잔치, 6월 속초방송국 내고장 자랑프로그램 밴드지원, 7월 육군 제22사단 해안초소 위문공연, 8월 속초경찰서 전투경찰요원 위문공연, 10월 제22회 설악제 경축 시민노래자랑 등의 행사를 펼쳐 협회 인준 원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설악제 경축 시민노래자랑은 매년 설악제 행사기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연예협회의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다.

〈 사진 7-6-100 〉 주부가요열창

이 행사는 속초 시민들이 노래 자랑에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벌여 화합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설악문화제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주부들의 노래 실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표 7-6-21 〉 설악문화제 경축 노래자랑 개최 현황

일 자	대 회 명 칭	장 소
1997. 10. 7	제22회 설악제 경축 시민노래자랑	설악제 무대
1988. 10. 3	제23회 설악제 경축 시민노래자랑	설악제 무대
1989. 10. 8	제24회 설악제 경축 시민노래자랑	설악제 무대
1991. 10. 3	제26회 설악제 경축 주부가요열창	설악제 무대
1992. 10. 2	제27회 설악제 경축 주부가요열창	속초시 문화회관
1993. 10. 1	제28회 설악제기념 영북지구 주부가요 열창	속초시 문화회관
1994. 10. 7	제29회 설악제 경축 동대항 노래자랑	속초시 문화회관
1996. 10. 6	제31회 설악문화제 기념 속초시민위안 노래자랑	설악문화제무대
1997. 10. 3	제32회 설악문화제 기념 97속초가요제	설악문화제무대
1998. 10. 2	제33회 설악문화제 기념 98속초시민가요제	설악문화제무대
1999. 10. 3	제34회 설악문화제 기념 99설악가요제	설악문화제무대
2000. 10. 2	제35회 설악문화제 기념 제8회 강원도 주부가요제	설악문화제무대
2003. 10. 4	2003 설악가요제	속초시 문회회관
2004. 10. 16	2004 설악가요제	설악문화제무대
2005. 10. 15	제40회 설악문화제 기념 설악가요제 왕중왕전	설악문화제무대

1990년 10월 제1회 청소년 건전가요제가 시작되어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 이 대회는 속초시에서 거주하는 만 20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예심을 거쳐 진행되었다.

〈 사진 7-6-101 〉제8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이 행사는 해가 거듭할수록 지역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어 예선 대회를 별도로 치러 본선 대회를 개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장르도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 표 7-6-22 〉 청소년 건전가요제 개최현황

횟 수	일 자	일 자
1	1990. 10. 3	설악제 무대
2	1991. 5. 12	속초시 문화회관
3	1992. 5. 10	속초시 문화회관
4	1993. 5. 16	속초시 문화회관
5	1994. 6. 19	속초시 문화회관
6	1995. 6. 4	속초시 문화회관
7	1996. 6. 12	속초시 문화회관
8	1997. 6. 1	속초시 문화회관
9	1998. 6. 14	속초시 문화회관
10	1999. 5. 29	속초시 문화회관
11	2000. 5. 27	속초시 문화회관
12	2001. 5. 27	속초시 문화회관
13	2002. 5. 12	속초시 문화회관
14	2003. 6. 7	속초시 문화회관
15	2004. 5. 30	속초시 문화회관
16	2005. 5. 29	속초시 문화회관

1991년 5월 속초적십자 봉사단과 함께 22사단 위문공연으로 1512부대를 방문하여 공연하였다. 이 자리에서 연예협회는 감사 뜻으로 부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1993년 5월 속초시 승격 30주년 시민위안 노래자랑이 열려 18명이 경연하여 7명이 입상하였고 10월 제11회 강원종합 예술제 주부가요제에서 속초시 대표 김용원이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하였으며, 밴드연주는 속초연예협회가 맡았다. 11월은 고성군 55연대 자선위문 공연을 속초시 주부가요열창 동우회와 연계하여 가졌다.

〈 사진 7-6-102 〉 시승격 30주년 시민위안 노래자랑

1994년은 연예협회 속초지부 주부가요동우회의 활동이 두드러진 해이다. 우선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속초시와 공동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가져 속초시내 노인 1,100여명을 초청해 위로하였으며 11월 무의탁 노인돕기 사랑의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주부가요동우회 회원이 주출연진으로 구성되었고 음악은 연예협회 회원들이 맡았으며 이익금 전액은 속초시 무의탁 노인 돕기에 쓰여졌다.

〈 사진 7-6-103 〉 무의탁 노인돕기 사랑의 라이브 공연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기존의 정기적인 행사를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되어오다가 1998년 10월 동명항 특설무대에서 98청소년 가요제가 개최되어 시내 중학교에서 각 1팀, 고등학교에서 각 2팀씩 학교장의 추천으로 총 9개 팀이 출전하여 경연을 벌였으며 인기가수 진시몬, 녹색지대, 강산에 등

이 특별 출연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 사진 7-6-104 〉 청소년가요제

1999년 3월 엑스포 D-200일 기념 정월 대보름맞이 속초시민 노래자랑이 엑스포 대회장내에서 개최되어 다양한 민속놀이와 시민노래 자랑이 있었다. 가요제에서는 각 동 대표 2팀 총 16개 팀이 출전하여 경연을 펼쳤다. 8월에는 99강원국제 관광엑스포 D-30일 기념 연예인 초청공연이 종합운동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되었다. 가수, 코메디언, 무용단, 등 중진 연예인이 대거 출연하여 성대한 무대가 됐으며 많은 시민이 관람하여 강원국제관광 엑스포 붐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10월에는 가을 관광시즌을 맞이하여 관광경기 활성화를 꾀하고자 동명항 특설무대에서 속초생선회축제 가요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2000년에 들어 괄목할 만한 것은 중국 훈춘시와의 교류가 시작되어 속초 연예의 위상을 해외에까지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4월 당시 장규호 속초예총 회장과 김동만 연예협회 지부장이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중국 훈춘시 가요제 예심을 거쳐 6월 본선 대회를 훈춘시 영극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는 속초와 훈춘간 직항로 개설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행사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외 행사로 1월 제5회 설악눈꽃 축제를 기념하여 속초시민 위안의 밤 행사와 속초시민 노래자랑을 공설운동장 눈꽃축제 특설무대에서 개최하였고 6월 도민체전 기념 속초시 직장인 노래자랑이 엑스포 대회장에서 개최되어 성료되었다.

〈 사진 7-6-105 〉 속초시 직장인 노래자랑

2001년은 1월 제6회 눈꽃축제 기념 속초시민 노래자랑에 이어 제12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제2회 훈춘시 국제가요제를 치렀고 10월 제36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인기가수 강산에를 초청하여 공연하였다.

2002년에는 정기적인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는 한편 12월 제1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를 열어 연말 소외되고 외로운 지체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2003년은 장애인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위로의 장을 만들어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 사진 7-6-106 〉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2004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더욱 성대하게 기획하여 개최하는데 4월 제2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는 하나다. 장애인과 함께 사랑을!'이란 부재로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속초시 장애인 후원봉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2. 연예단체

1) 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

한국연예협회속초지부는 1987년 12월 1일 한국연예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연예협회의 정회원 자격은 연예활동 중인 자로 회원 신청을 하여 '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자'로 되어 있다. 연협은 1985년 사단법인한국연예협회 속초분소를 설치하여 1986년 9월에 정식인준을 받고 1987년 2월에 한국연예협회 강원도지부 속초시분실 분소현판식을 거친 후 1987년 12월에 속초지부로 승격한다.

연협은 구성 후 바로 사무실을 개설해 노인위안잔치, 군인위안잔치, 시민위안잔치 등 여러 가지 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1989년 4월

예총인준 및 그해 10월 예총이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현판식을 가지면서 연협은 독자적인 사무실을 접고 예총사무실에 합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협은 설치 이래 꾸준히 전개해 왔던 청소년 건전가요제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설악문화제 때 시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유명가수초청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2002년부터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업으로는 2000년부터 한민족 동질성 회복의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 고양의 목적 하에 조선족 동포를 위안 훈춘시 국제 가요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현재 임원은 지부장 강종철, 부지부장 임상철, 사무국장 김승경이며 역대 지부장은 1대 한기학(연주분과, 1987. 12. 1~1996. 4. 22), 2대 김동만(연주분과, 1996. 4. 23~2004. 1. 30), 3대 강종철(연주분과, 2004. 2. 1~현재)이다. 주요임무 및 기능은 지역 연예예술의 보급에 관한 사업과 지역 연예인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업으로 요약되며 연협의 주요활동 중 청소년 건전가요제는 청소년 핵심사업으로 예총 종합예술제 기간에 행사가 개최되며 2005년 16번째의 사업을 개최하였다.

〈 사진 7-6-107 〉 청소년 건전가요제

설악문화제 기념 설악가요제는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전개되는 시민노래자랑이다. 매년 10월초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며 동대항노래자랑, 시민노래자랑, 주부가요열창 등의 타이틀로 전개되어 왔다.

〈 사진 7-6-108 〉 설악문화제 가요제

훈춘시 국제가요제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영극원에서 2000년부터 개최하였던 사업으로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게 자긍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연협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업으로 연협의 핵심적인 국제사업이다.

〈 사진 7-6-109 〉 훈춘시 국제가요제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이다. 2002년부터 개최한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재활의 의지를 길러주는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기타 비정기 사업으로는 각종 연예연주사업후원, 대중문화보급사업, 각종 위문공연사업 등 지역 음악발전에 관련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제7절 국악 활동

1. 개황

속초의 국악 활동은 2002년 12월 20일 국악협회가 인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본격화된다. 그 전까지는 개인적이나 동 단위 또는 마을 단위로 조직된 동아리를 통해서 마을 행사나 기타 행사시에 공연되는 수준이었다. 국악협회는 인준 후 청소년여름 풍물학교, 국악캠프, 국악 초청 공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입지를 굳혀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는 상태이다.

2003년 7월 청소년여름 풍물학교와 제1회 대금국악캠프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2003 조양강변축제 국악초청공연과 2003 늘푸른바다축제 국악초청공연을 가졌다. 이어 10월 2003 전국 청소년 풍물겨루기한마당과 국악인초청공연(슬기둥)을 마쳤으며 같은 달 동해무릉제 국악초청공연도 성황리에 마쳤다.

2. 국악단체

1)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국악협회 속초시지부는 2002년 12월 20일 (사)한국국악협회로부터 중앙인준을 받았다.

지역에 연고를 두고 왕성한 활동을 해왔던 여러 분야의 국악예술인들이 각 분야의 역량을 한곳에 집중시켜 체계적인 국악의 발전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하게 되었으며 농악분과, 무용분과, 기악분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국악협회가 표방하는 주요임무 및 기능은 전통문화 예술 보급과 발전, 민속문화 발굴 및 계승을 그 목적으로 하며, 재직임원은 지부장 권종식, 부지부장 정연석, 사무국장 김동연이며 1대 지부장은 권종식(2002. 12 20~현재)이다.

주요활동은 종합예술제 기간에 국악협회 정기연주회 및 민속예술경연대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다방면으로 그 폭을 넓히고 있다.

〈 사진 7-6-110 〉 춤, 소리로의 초대 공연

2)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은 1992년 3월 전통민속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보급을 목적으로 창단하였다. 초 · 중 · 고등학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국악강습과 국내 · 외 전통 타악공연, 청소년 풍물겨루기대회, 청소년 문화학교, 청소년 전통문화캠프 등을 통한 향토 민속문화의 창작 · 발굴사업과 민속문화의 다양한 제자리 찾기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1년에는 문화관광부의 '전문예술법인 · 단체'로 지정되어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전통문화 상설공연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해'를 거치며 고양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전통문화의 재

조명을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대중 속의 생활음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창작 발표와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간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은 제1회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 대상(1998), 제9회 KBS서울국악경연 은상(1998), 제16회 전국국악대제전 장려상(1998), 제10회 KBS서울국악경연 차상(1999), 제1회 전국농악명인전(쇠놀음-우수상), 장구놀음-우수상, 북놀음-장려상(1999), 제3회 전국농악경연대회 대상(1999), 제24회 전주대사습 농악부문 차하(1999), 제2회 구미 전국국악경연 사물놀이 최우수상(2002),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도문메나리농요 종합최우수상(2003), 제44회 한국 민속예술축제 도문메나리농요 문화관광부장관수상(2003)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단원으로 주동진, 박치영, 전성호, 김태희, 김동연, 임희영, 신우근, 김태훈, 정호열, 대표에 지태수, 사무국장에 최택수가 활동하고 있다.

제8절 사진 활동

1. 개황

속초에서의 사진 활동은 아마추어 사진예술가들이 몇 개의 사진동우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시작되었다. 먼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사진동우회는 속초사진동우회와 청봉사진동우회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정기적인 회원전과 개인전, 순회전시회 등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면서 속초 사진 예술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 속초청봉사진동우회는 1984년에 창립되어 회원전과 개인전 등을 꾸준히 펼치며 활동하였고 각종 대회에 출품하여 입선하기도 하였으며 영동 연합 사진전을 개최하여 다른 지역과 교류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설악산 산악 사진 전문가인 성동규는 1987년 '설악산의 사계'라는 작품으로 대한민국 영화제에서 문화영화부문 금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 외 엄상빈, 장상기, 김정일, 이래현, 전태극 등이 여러 공모전에서 입상하거나 개인전을 열기도 하였다. 원로 사진작가인 최구현, 최이권 등도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최구현씨는 설악산 사진 작가로 유명하며 제1회 설악제를 기획하여 주관하였다.

특히 동우대학에 사진영상학과가 개설되면서 속초의 사진 분야가 전문적인 학업을 마친 젊은 학도들에 의해 급속한 발전을 꾀하고 있는 단계이다.

속초의 사진 협회는 아직 중앙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1995년 7월 17일 속초사진협회가 결성되면서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는 1995년 제1회 회원전을 시작하여 2005년 제22회를 맞이하였다.

〈 표 7-6-23 〉 속초사진협회 정기 회원전 현황

회	일 시	장 소
1	1995. 10. 8 ~ 9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2	1996. 3. 20 ~ 24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3	1996. 5. 25 ~ 30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4	1996. 10. 11 ~ 15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5	1997. 2. 8 ~ 11	종합운동장 전시실
6	1997. 5. 19 ~ 25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7	1997. 10. 4 ~ 10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8	1998. 2. 5 ~ 8	종합운동장 전시실
9	1998. 10. 8 ~ 15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10	1998. 11. 1 ~ 3	수복탑야외 전시실
11	1999. 2. 4 ~ 7	종합운동장 전시실
12	1999. 5. 31 ~ 6. 6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13	1999. 9. 13 ~ 10. 30	동명항 생선회 축제 행사장
14	2000. 1. 27 ~ 30	종합운동장 전시실
15	2000. 6. 8 ~ 12	종합운동장 전시실
16	2001. 1. 18 ~ 21	종합운동장 전시실
17	2001. 6. 35 ~ 10	설악 해맞이 공원 전시장
18	2001. 10. 12 ~ 14	엑스포 전시장
19	2002. 5. 14 ~ 18	문화회관 전시실
20	2003. 5. 21 ~ 25	문화회관 전시실
21	2004. 5. 27 ~ 6. 1	문화회관 전시실
22	2005. 6. 1 ~ 7	문화회관 전시실

기타 사진 협회의 활동을 정리하면 2000년까지는 정기적인 전시 위주로 활동이 진행되다가 2001년 5월 제1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대회를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이 사진촬영 대회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사진예술 창작에 직접 참여시켜 사진예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키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널리 알려 관광속초를 홍보함과 동시에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우고자 사진협회가 심혈을 기울려 준비한 첫번째 대회였다. 이 대회는 매년 개최되어 2005년 제5회를 맞이했다.

소재의 배경은 설악산, 상징탑, 청초호수, 새 모델은 부모님, 선생님, 동생, 친구(표정이나 모습, 행동 등 주위의 모든 사물) 등으로 주어졌다. 6월 최홍영 사진 개인전이 속초시 해맞이 공원에서 '시간'이란 부재로 개최되었다. 작가 본인이 지난 기간 사진업을 하면서 작업한 풍경작품 40여 점을 엄선하여 전시하였다. 이어 10월에는 제5회 설악의 우리꽃 촬영대회가 시청관광과와 속초사진협회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시민들에게 우리꽃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또한 12월에는 제2회 설악사진 동우 회원전이 열려 사진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2004년 5회 전시회를 마쳤다.

2002년 5월 제2회 우리꽃 촬영대회를 시작으로 6월 제3회 강원사진인 워크샵 및 사진강좌가 있었고 이 행사에 이어 학사평 저수지에서 누드 사진 촬영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3년 1월 제8회 설악눈꽃축제기념 속초사진협회 사진전이 설악동 매표소 입구에서 설악사계의 아름다움을 주재로 열려 김성호, 최홍영, 황병진, 김형관, 이왕선, 최상후, 최낙민, 장공순, 허인순, 최정수, 강영진, 최이권, 최하용, 고장윤, 최용철, 박민효, 채희권, 김태정, 최선호, 김양환, 홍인복, 최종화 등 사협회원 22명이 51점의 작품을 출품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10월에는 제38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기 위한 협회전이 열렸다

〈 사진 7-6-111 〉 제8회 설악눈꽃축제기념 속초사진협회 사진전

2004년은 2월도 전년에 이어 속초시 설악동 매표소 입구에서 제9회 설악눈꽃축제기념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협회회원 17명이 향토색 짙은 창작품을 출품하여 겨울 설악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4월 속초작가협의회 창립전이 엑스포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작가 최낙민이 속초작가협의회 초대 회장이며 회원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 사진 7-6-112 〉 속초작가 협의회 창립전

한편 12월에는 최이권, 이왕선 사진 개인전이 주제관 지하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최이권 삶'이란 부재로 45점을 비롯하여 '이왕선 형상'이란 부재 45점이 각각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2. 사진단체

1)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사진협회 속초지부)

속초사협은 중앙인준을 도모코자 1995년 당시 속초예총 사상철 회장의 제안으로 1995년 7월 14일에 속초사진협회 창립총회를 걸친 후 1996년 1월 26일 열린 한국예총속초지부 제7차 정기총회에서 예총인준을 받아 속초예총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협회는 그 활발한 활동으로 2005년 11월 한국사협 지부 인증을 받았으며. 김성학이 초대 지부장을 맡았다. 속초사진협회 이전의 대표적인 사진동우회는 1984년 창립된 속초청봉사진동우회가 있으며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설악의 천혜 자원을 촬영하여 개인전을 여는가 하면 전국 대회에 출품하여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다.

사진협회는 예총으로부터 인준 이후 사진인들의 구심체를 확보하게 됨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속초종합예술제, 설악문화제,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눈꽃축제 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작품을 출품하면서 속초사진예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진작가협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 전체 회원이 각종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구성요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2001년부터는 청소년 문예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임무 및 기능은 사진가의 지위향상 및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과 지역사진예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임원은 회장 이

왕선, 부회장 박민효, 사무국장 강영진이며, 역대 지부장은 1대 최이권(1995. 7~1999. 1), 2대 최홍영(1999. 2~2001. 2), 3대 최용철(2001. 2~2002. 1), 4대 황병진(2002. 1~2003. 11), 5대 이왕선(2003. 11~현재)이다.

주요활동 중 종합예술제 기념사진전은 속초종합예술제 기간에 전개되는 정기회원사진전으로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진다.

〈 사진 7-6-113 〉 종합예술제 기념사진전

눈꽃축제 기념 사진전은 눈꽃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사진전으로 이젤을 이용한 거리사진전이다.

〈 사진 7-6-114 〉 눈꽃축제 기념 사진전

설악문화제 기념사진전은 10월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설악문화제 행사장내 몽골 텐트를 이용한 전시회이다.

〈 사진 7-6-115 〉 설악문화제 기념사진전

청소년 사진촬영대회는 사진협회의 청소년 핵심 사업으로 종합예술제 기간에 개최된다.

〈 사진 7-6-116 〉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기타사업으로 각종 공모전 지원사업, 개인전 지원사업, 국제교류지원사업 기타 지역 사진예술 발전에 관련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제9절 문화예술 활동 단체

1. 속초문화원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8호)에 의거하여 각 시·군·구 단위에 설립되어 지역의 향토문화 발굴, 보존, 계승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문화원은 해방 직후 미군정 당국이 정책홍보와 지역주민 계도를 목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설치한 미국 공보관의 영향이 역사적 배경을 이룬다.

그 후 1962년 문화단체통합법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발족되고 1965년 지방문화원 조성법과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정부 공인의 문화단체로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 1994년 7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단체로 자리 잡았다.

속초문화원은 1965년 3월 22일 사단법인 속초문화원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다가 1976년 2월 30일 문화원 청사를 준공하였다. 1976년 12월 1일 문화원 청사를 속초시에 기부하여 1986년 5월 1일 현 위치(문화회관)로 이전하였으며 1992년 5월 6일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되었다. 1994년 10월 6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속초문화원 설립인가를 받고 지역 문화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1993년 향토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 중

1998년 9월 19일 문화관광부 한국문화학교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화원이 표방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향토사 발굴 및 민속보전에 주력하며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향토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 전통놀이문화를 보급 확대하는 것에 있다.

속초문화원의 주요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문화학교 운영 : 시민을 대상으로 서예, 노래, 장구, 사물(초.중급), 전통요리,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 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 : 서예 외 5개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회

◈ 대보름민속놀이한마당 : 대보름민속놀이 재현 (매년 정월 대보름 실시)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떡메치기, 투호, 액집태우기, 농악공연

◈ 문화유적지순례 : 연례행사로 회원이 주축이 되어 역사공부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학술조사 및 상호친목도모

◈ 청소년전통문화전수교육 : 관내 초 · 중 · 고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전통문화 체험, 고유민속춤과 민속놀이 배우기

◈ 민속예술축제 참가 :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 든대질놀이, 속초도리원농악, 도문메나리 농요

◈ 청소년특강 :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특강 및 공연

◈ 속초해맞이축제 : 매년 1월 1일 개최되는 해돋이를 위한 축제

◈ 속초해양페스티벌 : 해양문화축제를 통한 국제해양,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광여건 변화에 부응한 특색있는 국제적 수준의 축제 개최

◈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 주5일제 시행으로 설악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속초의 색다른 공연문화 제공

◈『속초문화』간행

◈ 향토사료집 간행

◈ 청소년 한아름 교육 :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실시.
민속놀이, 멀티비젼 시청 :국악관련 국악프로그램, 전통음악 감상 및 배우기, 전통민속춤 감상, 향토사료 전시관 관람 및 해설

◈ 강원도 청소년 여름 풍물학교 운영 : 방학기간 중 5박 6일간 국악관련 여름프로그램 교육

◈ 속초의 민속 계승 : 속초도리원농악, 도문메나리농요, 북청사자놀음

◈ 설악문화제 사무국 운영

또한 그간 속초문화원은 향토의 역사, 민속, 지명 등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다수의 결과물을 발간하였다.

◈ 속초문화 및 향토사료집 발간 현황

- 속초문화 1호 ~ 20호 발간
- 『향토사료집(2집 - 속초의 민속)』 1987. 12. 20
- 『향토사료집(4집 - 속초의 지명)』 1990. 2. 20
- 『속초시지』 1991. 9. 15
- 『속초의 향토민속』 1992. 8. 1
- 『속초의 옛과 오늘』 1997. 9. 10
- 『속초시 어로 민속지』 1997. 12. 30
-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1998. 12. 20
- 『속초문화유산』 1998. 12. 31
-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1999. 12. 15
-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12 30
-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만화로 보는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2000. 12. 30
- 『옛 문헌속의 속초』 2001. 12. 22
-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2001. 12. 30
- 『속초의 옛 땅이름』 2002. 12. 21
- 『속초의 민요』 2003. 10. 15
- 『속초의 근현대사』 2004. 12. 29

특히 『속초문화』는 2005년 현재 제21호가 발간되었다. 이는 속초문화원이 매년 발행하는 향토문화지로 한 해 동안의 향토 문화 예술계의 활동상과 속초 향토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된다. 이 『속초문화』는 속초 향토문화예술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지식을 부여하며 속초시의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향토사 연구와 지역의 뿌리를 찾는데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속초문화』는 그 동안 향토문화의 고유성을 지키며 지역 향토사학자

와 문화 예술인 등 관계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기획 연재하는 등 속초향토문화의 고유성과 창조적 지역문화를 지키고 보급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사진 7-6-117 〉 속초문화원 발간자료

속초문화원의 역대 원장은 다음과 같다.

〈 표 7-6-24 〉 역대원장 현황

일 자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한순영	1965. 3. 22 ~ 1970. 4. 29	
2대	마장건	1970. 4. 30 ~ 1974. 4. 29	
3대	장헌영	1974. 4. 30 ~ 1982. 3. 8	
4대	김종록	1982. 3. 8 ~ 1986. 7. 23	
5대	김용구	1986. 7. 24 ~ 1987. 9. 14	
6대	정종훈	1987. 9. 15 ~ 1989. 3. 22	
7대	지일권	1989. 3. 22 ~ 1993. 1. 16	
8대	최용문	1993. 2. 27 ~ 1997. 2. 27	
9대	최용문	1997. 2. 28 ~ 2001. 2. 27	
10대	최용문	2001. 2. 28 ~ 2005. 2. 27	
11대	노광복	2005. 2. 28 ~ 현 재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는 1984년 개소하여 지역의 향토사 발굴 조사와 함께 200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주요 활동은 향토사료의 발굴, 조사, 수집, 연구, 발표, 보존에 주력하고 향토사료관 운영 및 향토민속제 연구에 힘쓰는 것이다. 또한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향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향토사연구소는 그간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 속초의 역사와 지명을 연구하여 체계를 잡았으며 그 결과를 집대성하여 2000년『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1년『옛 문헌 속의 속초』, 2002년『속초의 옛 땅이름』2004년『속초의 근현대사』를 발간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는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더욱이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교양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시민들의 취미활동 및 정서적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문화학교는 1993년 향토문화학교로 문을 열어 2004년 12기 수료식을 거행함으로써 약 2,7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도단위나 전국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였다.

현재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강좌는 장구교실(초급), 사물놀이교실, 서예교실, 노래교실, 전통요리교실, 청소년 문화학교(풍물, 택견, 농악 및 문학강좌)등이다.

속초향토사료전시관은 고장의 역사와 문화 · 민속에 대한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내 ·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훌륭한 관광 명소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1998년 4월에 개관(총전시면적 330㎡[100평])하여 운영되다가 2005년 속초시립박물관이 개관되면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그간 전시 되어 있던 자료는 속초시 전도, 속초시 표상, 속초의 역사, 대청봉 · 조도 지점의 높낮음, 문화유산답사길, 고라니, 설악산 동식물, 어장과 어구, 6 · 25전쟁과 속초의 수복, 수복기념탑, 대포동제, 동자석, 장승과 솟대, 통나무 김칫독, 도문동 고가옥, 8폭민화병풍, 속초시 소재 지정문화재, 청동기시대 유적지, 조양동 선사 유적지 출토품, 향성사지 3층 석탑, 신흥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설악동 소나무, 극락보전 · 보제루, 신흥사 부도군, 경판, 벽담탑, 무당골사지, 노학동 3층 석탑(무당골사지 3층 석탑), 농기구 전시대, 재래농기구 · 생활용구, 북청사자놀음 디오라마관, 속초의 울지 않는 사자(김수석옹), 민속유물, 설악문화제의 뿌리, 영상 자료실, 탑 세부 명칭도 등이다.

〈 표 7-6-25 〉 속초문화원 임직원 현황

직 위	성 명	비 고
원 장	노광복	
부 원 장	오윤근, 최현식	
이 사	고석철, 고재양, 김길정, 김병학 김상복, 박상열, 박영남, 어재석 엄시용, 오상현, 유문승, 윤광훈 윤숙자, 이병길, 이병선, 임호성 전복식, 허춘권, 박정은	
감 사	박정기, 양재호	
사 무 국	한정규 장은선 김은중 최봉하 최택수	사무국장 사무과장 간 사 사료관기사 설악문화제 간사

〈 표 7-6-26 〉 속초문화원 구성

계	원 장	부원장	이 사	감 사	사무국	기 사	회 원
180	1	2	19	2	3	1	152

(2005년 5월 현재)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속초지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속초지부는 1989년 4월 7일 예총 제89-87호에 의거 중앙 전봉초 회장 명의의 인준으로 속초지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사무실 소재지는 속초시 청학동 483-5번지 4통 5반이었으며 지부장은 윤홍렬, 회원협회는 문인, 미술, 연극, 연예 4개 협회로 구성되었다. 그후 1989년 9월 26일 청학동에서 속초시 문화회관으로 이전하여 예총 사무실에 합류하였다. 이어 동년 10월 20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사진 7-6-118 〉 예총속초지부 현판식

이후 음악, 국악, 사진협회가 합류하여 현재는 (사)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사)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 (사)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사)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등 7개 회원협회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예총은 전국 103개 시·도지회(지부)와 중앙의 10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적인 조직체인데 속초예총은 2005년 현재 예총 10개 분야 중 무용, 건축가, 영화협회가 회원단체로 미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 표 7-6-27 〉 협회별 인준 기관 및 인준일자

협 회	인준일자	인준기관
사단법인 한국예총속초지부	1989. 4. 7	한국예총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속초지부	1974. 11. 4	한국문인협회

협 회	인준일자	인준기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속초지부	1980. 9. 16	한국미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속초지부	1984. 11. 30	한국연극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속초지부	1987. 12. 1	한국연예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속초지부	1991. 11. 21	한국음악협회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속초지부	2002. 12. 27	한국국악협회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2005. 11. 24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요업무는 속초지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사업에 치중하는 것이다. 또한 지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과 지방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는 설악청소년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설악주부 백일장, 설악학생 백일장, 설악주부미술한마당, 설악학생미술 실기대회, 가훈 고사성어 무료휘호대회, 설악청소년 사진촬영대회, 강원연극제 최우수상 수상작 초청공연, 국제아동 미술전,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예·본심,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 설악청소년 음악회, 국악협회 속초지부 정기발표회, 한 여름밤의 문화축제(합창단, 무용단, 가수, 관현악단 공연 등), 설악문화제 문예행사(시화전, 서예백일장, 사진전 등), 국제교류사업, 지역간 문예교류사업, 기타 다양한 예술문화 후원사업 등 연 50~60여건에 이르며 이를 통해 향토예술문화 발전과 민족 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해 오고 있다.

역대 회장은 초대 윤홍렬(문인협회 1989. 4. 7~1990. 4. 21), 2대 김광수(1990. 4. 22~1992. 4. 24 미술협회), 3대 김영복(1992. 4. 25~1995. 1. 31 미술협회), 4대 사상철(1995. 2. 1~1996. 1. 25 문인협회), 5대 김영복(1996. 1. 26~1999. 1. 21 미술협회), 6대 장규호(1999. 1. 22~2003. 2. 21 연극협회), 7대 한기학(2003. 2. 22~현재, 연예협회)이다.

속초예총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7-6-28 〉 속초예총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비 고
예총회장	한기학	연주
예총부회장	박 화	시
예총부회장	신원하	연기

직 위	성 명	비 고
명예회장	윤홍렬	소설
명예회장	김영복	양화
명예회장	장규호	연출
문인협회 지부장	김춘만	시
문인협회 부지부장	권정남	시
문인협회 사무국장	채재순	시
미술협회 지부장	정봉재	조소
미술협회 부지부장	정광섭	양화
미술협회 사무국장	이준열	양화
연극협회 지부장	신오일	연기
연극협회 부지부장	김태영	연기
연극협회 사무국장	김일태	무대
연예협회 지부장	강종철	연주
연예협회 부지부장	임상철	연주
연예협회 사무국장	김승경	연주
음악협회 지부장	임수철	작곡
음악협회 부지부장	강은희	성악
음악협회 사무국장	이인순	성악
국악협회 지부장	권종식	사물
국악협회 부지부장	정연석	사물
국악협회 사무국장	김동연	사물
사진협회 회장	이왕선	사진
사진협회 부회장	박민효	사진
사진협회 사무국장	허인순	사진
감사	박흥기	양화
감사	원영백	연주
예총 사무국장	박종성	-

3.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속초지부

'한국민족예술총연합'은 민족예술을 지향하는 예술인들의 상호연대와 공동실천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통일 그리고 민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민족문화의 발전과 대중화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1988년 12월 23일 9개의 예술단체가 모여 출발하였다.

민예총의 설립 정신에 동의한 지역 예술인들이 1995년 1월24일 엄상빈 사진가를 초대 지부장으로 추대하며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속초지부가 만들어졌고 2달 후인 3월 춘천지부와 더불어 민예총 강원지회가 만들어졌다.

강원도에는 현재 9개(속초, 춘천, 원주, 동해, 강릉, 삼척, 태백, 정선, 영월)의 지부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고, 전국에는 63개의 지회, 지부가 있다.

속초지부는 현재 문학, 미술, 사진, 공예, 영화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보수적인 지역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문화 활동 탓에 초기에는 재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지역문화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을 위해 각 위원회가 고유한 작품 활동과 시민과 공유하는 문화예술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민예총'이라는 이름이 시민들 속에 어느 정도 인식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역대지부장은 1대 엄상빈(1995~1998), 2대 박종헌(1999~2000), 3대 전태극(2001~현재) 이며 2005년 부터는『속초민속예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속초민예총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술제

1년에 두 번(봄, 가을)여는 행사로 속초민예총 소속 단체와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다.

민예총의 예술제는 회원들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향후 작품활동에 대한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삼고, 동시에 작가와 시민들이 만나 함께 고민하고 교류하는 행사다.

봄에는 예술축전, 가을에는 민족예술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20회를 맞고 있다.

◈ 통일문화제

매년 8월 15일에 열리는 속초민예총의 대표되는 행사의 하나로 분단 고통과 통일의 갈망을 노래하는 행사다.

1996년 8월 15일 이상국, 박종헌 시인을 비롯한 민예총 문학위원회가 분단과 실향의 상징지인 청호동 백사장에서 문학과 시국강연, 시낭독 등을 열면서 제1회 통일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2003년 제6회 행사부터는 문학행사를 포함하여 전시 공연 등 내용을 다양화하여 '통일문화제'로 행사명를 바꾸며 2005년 현재 제9회를 맞고 있다.

그동안 시국강연과 문학 강연, 시낭송에 참여한 인사로는 백기완, 고은, 이호철, 신경림, 염무웅, 박용렬과 속초출신의 고형렬 시인 등 많은 문인들이 참여하였다.

2005년 제9회 행사에는 재중국 동포시인 2명을 초청하여 그들의 자작시로 시낭송을 하였으며, 새터민(탈북자) 공연단체의 초청공연, 기획전으로 북한의 조선화, 도자기 등을 53점 전시하는 '북한 미술전'을 개최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과 통일문화제의 의미를 더하였다.

◈ 해외교류사업

북방교역의 전초지로 속초시와 1994년 교류도시로써 관계가 돈독한 길림성 훈춘시를 대상지로 2001년 초상사진증정사업을 시작으로 재중국동포 청소년백일장과 사진세미나, 한류열풍에 힘입어 동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영화상영 등 그 행사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인상사진을 제작하여 1,000여명에게 증정하였고 90여명 이상의 백일장 입상자에게 상금과 상품을 전달하였으며 재중국 동포 학생들에게 민족의 언어와 민족애를 느끼게 하여 기성세대에게는 변질된 조국관과 모국관 정립을 위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 재중국동포문인 시화 초청전 시집 발간 증정 행사

2004년부터 재중국 동포를 초청하여 시화하여 전시하고 시집을 발간 증정하는 행사로써 그동안 연차적으로 『백두산에 가서는』과 『백두대간 겨울바람』 2권을 발간 증정하였다. 이는 오랜 민족간의 단절로 변해진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훈춘촬영가 협회 작품초대전 및 회원초청 행사

속초시의 최대 문화행사인 설악문화제와 때를 같이하여 연변지역의 생활과 풍경이 담긴 촬영가 협회 회원들의 작품과 회원을 초청하여 문화제와 속초문화를 체험하게함으로 귀국 후 자국의 언론 매체나 구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속초을 홍보하게 하고 있으며, 2005년 제3회를 맞고 있다. 특히, 초청자 중 1명은 한족을 포함하여 재중국 동포와 한국을 이해하는 계기의 행사를 하고 있다.

◈ 장애인을 위한 행사

장애인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미술 치료와 소외된 계층에 문화활동을 접하게 하는 행사로 2회에 미술행사와 공예위원회가 누름꽃을 이용하여 공예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영화위원회에서는 영화를 상영하여, 그들과 호흡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시민을 위한 강좌

시민과 함께하는 사진강좌를 2005년 제9회째 지속적으로 행사함으로 시민과 사진애호가에게 교육의 장이 되고 있으며, 질적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하고 사진인의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 참여하는 행사

속초시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영랑화랑축제에서는 문학위원회의 주관으로는 백일장, 미술위원회 주관으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모자사생대회, 사진위원회 주관으로 무료 사진촬영, 공예위원회 주관으로 체험활동을 펼치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를 갖고 있다.

특히 공예위원회에서 설악제기간 중 개최하는 누름꽃을 이용한 압화 행사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제10절 문화시설

1. 속초문화회관

속초의 문화시설 중 대표적인 것은 문화회관으로 1977년 재일교포 황칠복이 7천만 원을 희사하여 현재의 문화회관 위치에 342석 규모의 회관을 건축하여 일복문화관으로 칭하면서 속초문화원에서 운영하였다.

〈 사진 7-6-119 〉 일복문화관

그 후 200평 규모의 도서관을 일복문화관 옆부지에 건립하던 중에 건립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미완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건립대책을 논의 끝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새로운 문화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속초시는 문화원 소유의 일복문화관과 건립 중 방치된 도서관을 기부 받아 1986년 12월 22일 공사를 착공, 총공사비 24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1990년 10월 10일 준공하였다.

〈 사진 7-6-120 〉 속초문화회관 전경

속초시 영랑동 570-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회관은 총 대지면적 2,242평에 회관동 904평, 별관동 426평 등 연건축 면적은 1,330평이다.

이 중 회관동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는 750석의 대공연장과 분장실, 연습실, 조명 및 음향시설 등이 있으며, 별관동은 관리사무실, 소회의실, 전시실, 문화사랑방 등이 있다.

관리사무실에는 속초문화원, 민예총속초지부, 예총속초지부, 한국자유총연맹속초지부 등 5개 단체가 함께 입주해 있으며, 특히 문화사랑방은 1992년 11월 별관동 3층을 증축하여 속초문화원에서 향토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향토전시관, 영화음악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회관은 개관 이후 지역 문화계를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연극, 음악회, 영화상영, 전시회, 기타 행사를 포함하여 연평균 250여일 이상 활용되고 있다.

그 외 기타 문화시설로 1963년 시 승격 당시 대형공연장으로 현대극장과 중앙극장, 제일극장 등 3개소가 운영되어 오다가 1966년 대원극장이 설립되어 4개 극장으로 늘어났으나, 그 후 동보극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던 현대극장과 중앙극장이 폐쇄되었고 1992년 6월 서울예식장 자리에 중앙소극장이 개설되어 운영되었으나 대원극장도 폐쇄되어 현재 중앙소극장만 남게 되었다.

〈 사진 7-6-121 〉 중앙극장

〈 사진 7-6-122 〉 동보극장

〈 사진 7-6-123 〉 대원극장

최근에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등이 호텔, 콘도 등 급증한 대형 건물의 연회장을 활용 이용되고 있어 2005년 현재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문화회관, 한화콘도 야외공연장 등 2개소이다.

제11절 속초시 문화상

속초시문화상은 속초향토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등 5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2005년 17회에 걸쳐 55명이 수상하였다.

수상자는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본적을 둔 자 중에서 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문화예술부문은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지역개발부문은 지역개발에 기여한 공로자, 사회봉사부문은 사회사업, 사회교육, 효자효부, 시민의 복지증진, 언론계도 등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학술부문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 공헌자, 체육부분은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체육대회 출전 등으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에게 시상하고 있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각 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동장 등이 소정양식에

의거 공적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완료되며,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속초시장이 위원을 위촉해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다.

속초시문화상은 속초시민문화상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는 1989년 7월 29일에, 규칙은 1989년 8월 14일에 제정 공포 운영되고 있다.

〈 표 7-6-26 〉 속초시문화상 수상자 현황

회	연도	부문	수상자	직위 또는 직업
1	1989	문화예술	장 규 호	연극협회 속초지부장
		사회봉사	천 병 순	속초시새마을부녀회장
		학 술	임 덕 수	동우대 교수
		체 육	김 기 용	속초시체육회축구협회 회장
2	1990	문화예술	박 명 자	문인협회 속초지부 부지부장
		사회봉사	권 병 락	속초모범운전자회 회장
		학 술	주 상 훈	속초고등학교 교사
		체 육	김 봉 만	속초시씨름협회 회장
3	1991	문화예술	지 일 권	속초문화원 원장
4	1992	지역개발	최 구 현	사진작가
		사회봉사	김 택 승	속초약국 대표
		학 술	장 점 룡	강릉대학교 교수
		체 육	김 정 문	속초시체육회 부회장
5	1993	지역개발	윤 중 국	강원도의회 의원
		학 술	임 수 철	속초고등학교 교사
		체 육	이 상 범	싸이클연맹 전무이사
6	1994	문화예술	한 기 학	언에협회 속초지부 지부장
		사회봉사	이 정 현	숙박업
		체 육	이 춘 복	속초시유도회 전무이사
7	1995	문화예술	이 진 우	동우전문대 부교수
		사회봉사	이 기 섭	의사
		지역개발	한 고 븐	
8	1996	사회봉사	김 상 기	늘사랑회 회장
		체 육	주 난 규	용진콘도 대표
9	1997	문화예술	김 광 희	속초예총/학원장
		지역개발,사회봉사	김 종 묵	일산장학회 이사장
		교육학술	이 호 순	전 속초상고 교장
		효 행	서 정 순	한마음회 회장
		체 육	이 규 철	속초시체육회 부회장
10	1998	체 육	김 두 식	속초시탁구협회 부회장
11	1999	문화예술	김 염 복	한국예총속초지부 고문
		사회봉사	김 태 명	속초시노인회 회장
		교육학술	김 택 인	전 속초고등학교 교장
		체 육	조 경 석	강원도게이트볼연합회 회장
12	2000	문화예술	양 숙 희	속초무용학원 원장
		지역개발,사회봉사	윤 종 구	새마을운동속초시지회 전 지회장
		효 행	김 선 지	
		체 육	장 석 훈	속초시축구협회 회장
13	2001	문화예술	최 용 문	속초문화원 원장
		지역개발,사회봉사	장 헌 영	중앙동노인회 회장
		효 행	김 헌 민	조양동새마을협의회 회장
		체 육	박 성 일	속초시아마추어복싱연맹 부회장
14	2002	문화예술	심 연 홈	한국음악협회속초지부 지부장
		지역개발,사회봉사	박 명 자	속초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교육학술	오 윤 근	속초노인대학 강사
		효 행	조 미 자	금강주간보호소 소장
		체 육	이 건 화	국민생활체육속초시탁구연합회 회장

회	연도	부문	수상자	직위 또는 직업
15	2003	문학예술	최 재 도	방송작가
		지역개발,사회봉사	김 명 자	속초시예총회 회장
		체 육	김 남 표	속초시 축구협회 고문
16	2004	문학예술	신 원 하	전 설악여자중학교 교장
		지역개발,사회봉사	권 득 수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부장
17	2005	문학예술	전 태 극	한국민예총 속초지부장
		지역개발,사회봉사	김 일 룡	전 해송(장사)마을금고 이사장
		체 육	박 상 호	속초시 씨름협회 수석부회장

제12절 속초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

속초의 역사와 어촌, 산촌, 실향민의 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고유의 향토 민속예술과 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또한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사라져 가는 실향민문화의 복원과 더불어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한 향토문화체험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을 조성하게 되었다.

속초시립박물관 건립과 연계한 실향민문화촌 조성을 위해 2001년 10월 기본설계, 2002년 실시설계와 함께 실향민문화촌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9월 30일 박물관과 문화촌의 모든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2005년 11월 4일 개관하였다.

□ 박물관과 문화촌 소개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에 배치된 시설과 전시물 관람순서는 우선 실향민문화촌을 관람하고 박물관을 관람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실향민문화촌은 이북5도가옥, 피난민가옥, 부속시설 등 모두 13채의 재현된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향민문화촌 이북5도가옥은 개성집 · 평양집 · 평안도 쌍채집 · 함경도집 · 황해도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며, 매일 오전 · 오후 속초시립풍물단의 공연 또한 실향민문화촌 놀이마당에서 관람할 수 있다. 피난민가옥은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초기생활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으로 공동주택 2동, 전상수 · 박송월가옥, 은서네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1,257평으로 전시동과 관리동 그리고 전망탑으로 구성된다. 지하층은 수장고, 기계 · 전기실, 주차장으로 구성되며, 1층은 제2전시실, 기증유물실, 기획전시실, 강당과 카페테리아가 있으며, 2층은 제1전시실과 관리사무실, 3층은 학예연구실과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망탑은 5층 높이로 설악산과 함께 동해바다와 속초시를 전망할 수 있다.

제7장 문화행사

제1절 문화 축제

1. 설악문화제

가. 설악문화제의 변천

설악문화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산악제례의식을 변화 발전시킨 향토 축제로, 고대의 제천행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설악산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三山五岳 已下名山川 分爲大中小祀 … 小祀 … 雪岳迚城郡 …

삼산오악(三山五岳)이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그 규모로 나누어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를 지냈는데, 그 중 설악산이 소사를 지냈다.

金富軾의 『三國史記』 卷 32 雜誌 第 1 祭祀條

이 기록은 강원도내에서 문헌상 드러난 가장 오래된 제례행사이며 삼국통일 기원 의지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설악문화제는 1966년 속초예총이 주축이 되어 산신제와 등반행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현재의 문화축제로 되살아난 향토축제이다. 설악제 행사는 처음 예술행사로 기획되었다. 이를 처음 개최한 사람은 예총 속초지부의 최구현 지부장이었다.

최구현은 사진 작가로 설악산 관광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설악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1회 설악제를 개최하게 된다. 강원예술제를 겸한 제1회 설악제는 1966년 10월 1일과 2일 이틀간 설악동에서 개최되었는데 도비 보조 10만원과 찬조금으로 치루어졌다.

당시 행해진 행사 종목은 아래와 같다.

- 전야제(카니벌) : 9월 30일 오후 7시 설악동 광장
- 설악산 사진 공모전 : 10월 1일-4일 설악동 신흥사 보제루, 설악산을 소재로 한 산악관광사진
- 사진촬영대회 : 10월 1일 오전 10시 신흥사 주변,
- 미술실기대회 : 10월 1일 오전 10시 도내 초중고학생 참가. 신흥사 주변
- 미협회원전 : 10월 1일~4일 도내 미협회원전. 신흥사 보제루

- 취주악 경연대회 : 10월 2일 설악동 특설무대.
  중고생들의 취주악 경연 대회
- 음악 및 무용의 밤 : 10월 2일 오후 8시. 설악동 특설무대 음협 및 무협 회원공연
- 동시 백일장 : 10월 1일 오전 10시 설악동 도내 어린이 백일장
- 관광 영화의 밤 : 10월 1일 오후 7시 설악동 특설무대
- 등산대회 : 10월 1일~3일 외가평-청봉-설악산 간 참가인원 1조 4인
- 초청인사 특별관광 : 10월 1일 초청인사들의 신흥사 비선대 금강굴 관광
- 종합시상식 : 10월 2일 오후 5시 설악동 특설무대

한편 이 행사에 참석하여 등반길에 나섰던 한국산악회원(인솔자 이기섭) 262명은 2일밤 설악산 대청봉을 등반한 후 3일 새벽 하산하다 폭우를 만나 대피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이들은 하산 도중 계곡물이 불어 160여명은 내설악 안전지대로 대피했으나, 나머지 102명은 비선대 부근에서 물이 불어 하루를 지샌 뒤 4일 새벽 날이 밝자 하산하기 시작해 오전 10시 신흥사에 전원 무사히 도착했다.

이런 행사의 성격은 3회까지 그대로 이어지다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산악인들에 의해 개최되었고 제17회 설악제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되었다. 이후 24회부터 민간주도로 집행되고 있으며, 1996년도에 설악제에서 설악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순수 문화축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현재에 이른다.

설악문화제의 개최 의의는 향토문화 축제의 성격을 강화하여 순수문화축제로 정착시키고, 축제분위기를 쇄신, 정통성 확보와 주민일체감을 조성하며 고유문화(산악, 해양, 실향민문화)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있다. 또한 민족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 예술과 향토문화의 특성을 부각하여 차별화 및 특성화된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나. 설악문화제 주요행사 내용

설악문화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제례행사, 민속행사, 등산행사, 시민행사, 예술행사, 체육행사, 축하행사, 의전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1) 설악제례

설악제례행사는 통일대제, 산신제, 용왕제, 위패봉송, 삼신합동제, 조전제,

송신제, 제례굿 등으로 이루어진다. 통일대제는 설악산 권금성 봉화대에서 초헌, 아헌, 종헌관(3헌)의 제관들에 의해 추진되며 속초시 노인회가 주관한다. 산신제는 설악산 소공원(산신제단)에서 이루어지며 제례봉송은 제례추진위원회에서 맡는다. 용왕제는 설악해맞이공원에서 초헌, 아헌, 종헌관 (3헌)에 의해 실시되고, 위패봉송은 속초시 노인회 주관으로 설악산신 및 용왕신 위패봉송은 소공원을 출발하여 해맞이공원(용왕제)을 거쳐 행사장(굿당)까지 이루어지고, 성황신(조양동) 위패봉송은 조양동성황당에서 행사장(굿당)까지 봉송된다.

〈 사진 7-7-1 〉 통일대제

〈 사진 7-7-2 〉 용왕제

한편 제등행렬은 수복탑광장에서 행사장까지 여학생 400명의 제등행진과 마상무예단, 고적대, 악대, 풍물패, 농악대, 군악대 행진 및 각종 공연병행 실시된다.

〈 사진 7-7-3 〉 제등행렬

삼신합동제, 조전제, 송신제는 속초시 노인회 주관으로 행사장 제례당에서 이루어지고 제례굿은 행사장 굿당, 설악산 소공원, 해맞이공원에서 무속인회, 경신회 주관으로 산신맞이굿, 동해안별신굿, 통일기원제가 행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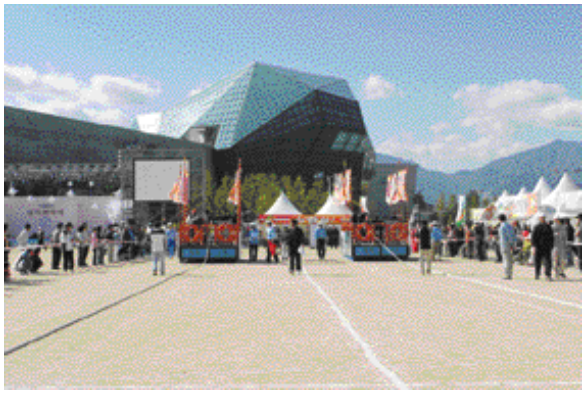
〈 사진 7-7-4 〉 제례굿

2) 통일염원제전

통일염원제전은 통일염원의 밤, 갯배끌기대회, 이북음식 전시 및 시식회, 통일풍선 나눠주기, 페이스페인팅, 캐릭터 운영 등이 실시된다.

통일염원의 밤은 엑스포 행사장에서 이북 도민회와 속초문화원 주관으로 갯마당 판굿, 전통 창작 춤, 대학생치어리더 공연, 라디오 공개방송 등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갯배끌기는 엑스포 행사장에서 경연대회 및 체험행사로 경연 방법은 모형 갯배 2대를 이용, 동대항과 시민관광객 체험을 병행하며 남녀 3인 1조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통일풍선 나눠주기는 행사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풍선을 무료로 지급하여 통일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 사진 7-7-5 〉 갯배끌기

3) 설악산악제전

설악산악제전은 산악인 추모제와 통일염원 전국 등산대회로 구성된다. 산악인 추모제는 소공원 산악인의 문 광장에서 추모분향 및 헌화가 행해지고,

통일염원 전국 등산대회는 설악산악연맹과 설악산악구조대의 협조로 오색-대청봉-희운각산장-천불동계곡-소공원-야영장 코스로 이루어지며 산악회, 직장, 가족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4) 해양문화제전

해양문화제전은 범선경기, 로프던지기, 든대질 놀이, 오징어할복경기, 어선승선 무료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범선경기는 청초호에서 속초수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각 어촌계별로 범선 1척을 준비하고 2명씩 출전하여 출발점에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를 치른다. 로프던지기행사장 내에서 속초수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각 어촌계별로 2명씩 출전하여 반지름 1m의 원안에서 2회 던진 거리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든대질 놀이는 각 어촌계별로 6명씩 출전하여 준비한 범선에 2명의 선수를 태우고 준비된 둔배를 이용하여 30m거리까지 빨리 이동하는 경기이다.

오징어할복경기 행사장 내에서 각 어촌계별로 2명씩 출전하여 냉동오징어를 할복하여, 건조대에 건조 완료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어선승선 무료체험은 청초호에서 어선 1척에 4~5명씩 태우고 청초호를 선회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은 무료 체험할 수 있다.

〈 사진 7-7-6 〉 범선경기

5) 청소년 문화축전

청소년문화축전은 전국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청소년 댄싱경연대회,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이 열린다.

전국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은 상설공연장에서 초 · 중 · 고교생 만1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속초문화원과 갯마당이 주관하여 사물놀이와 농악경연 대회를 개최한다. 강원도 청소년 댄싱경연대회는 상설공연장에서 강원도 내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는 청초호

유원지 농구장에서 속초시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중등부, 고등부 조별 리그전으로 실시된다.

〈 사진 7-7-7 〉 풍물겨루기

6) 설악예술축전

설악예술축전은 각종 전시회, 백일장, 가요제, 초청공연, 체험교실 등으로 구성된다.

거리 시화전은 행사장 일원에서 예총, 문인협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속초사진 협회 사진전은 행사장내 전시장에서 예총 · 민예총 사진위원회 주관으로 전시된다. 훈춘촬영가사진전은 행사장 전시장에서 민예총 사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분재전시회는 분재협회 속초지부, 꽃꽂이 전시회는 조경꽃예술원 주관으로 행사장 전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설악서예백일장은 학생체육관에서 초중고, 대학생, 일반부로 나누어 한글부, 한문부, 사군자부 3개 분야에서 실시되며 주관은 미술협회이다.

설악가요제와 함께해요! 설악즉석노래방은 행사장무대에서 참가자의 희망에 따라 실시되고 국악초청공연, 훈춘 소년예술단 공연 등이 이루어진다.

도자기 체험교실은 석봉도자기 미술관 주관으로 도자기 제작시연 및 체험이 행해진다.

〈 사진 7-7-8 〉 길거리 시화전

〈 사진 7-7-9 〉 분재전시회

7) 향토민속축전

향토민속축전은 각종 놀이 시연, 민속놀이 대회, 전통떡메치기, 시민교양강좌 등으로 진행된다.

놀이 시연은 도문메나리농요보존회에서 도문메나리농요를 시연하고 마상무예협회에서는 마상무예 및 조선세법을 시연한다. 또한 도리원 주민들이 도리원 농악을 시연하여 흥겨운 마당을 연출한다.

민속놀이는 씨름, 그네뛰기, 궁도, 줄다리기, 투호, 자통놀이, 널뛰기 등의 대회를 실시하고 동대항 떡메치기 대회가 진행된다.

시민강좌 발표회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속초문화원이 주관하여 수강생들이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여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사진 7-7-10 〉 마상무예

〈 사진7-7-11 〉그네뛰기

〈 사진 7-7-12 〉 시민강좌발표

〈 사진 7-7-13 〉 투호대회

다. 설악문화제위원회

설악문화제위원회는 축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4개 분과위원회와 7개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분과위원회는 행사의 총괄 기획업무 수행을 비롯, 홍보, 행사비 조성 및 분배 업무, 행사 의전 및 섭외, 장비 및 인

력 지원 업무, 동별 행사 집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각 추진위원회 별로 산악행사, 예술행사, 실향민 및 통일 관련 행사, 해양관련 행사, 민속경연행사, 청소년문화행사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고문 4명, 위원장 1명, 명예위원장 1명, 부위원장 9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사무간사 1명으로 구성되고 분과위원회(기획 · 홍보, 재정, 지원, 동분과)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각 분과별로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설악제례, 설악산악제전, 통일염원제전, 해양문화제전, 설악예술, 향토민속축전, 청소년문화축전)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10명씩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2. 설악눈꽃축제

가. 설악눈꽃축제 개요

설악눈꽃축제는 1996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해마다 1월말 개최하는 겨울 관광축제로 설악산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주요 행사는 빙벽등반대회, 하얀 산길 걷기,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 등반대회 등이며 그밖에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눈조각경연대회, 눈썰매 릴레이경기, 빙상농구대회, 인간 컬링대회, 북청사자놀음, 전통 외줄타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제1회 설악눈꽃축제는 1996년 1월 30부터 2월 3일까지 '고향! 그 정을 딛고'란 주제로 30일 오후 4시 동명동 수복탑에서 통일기원 망향제와 시가행진 등을 시작으로 개막하여 3일 오후까지 5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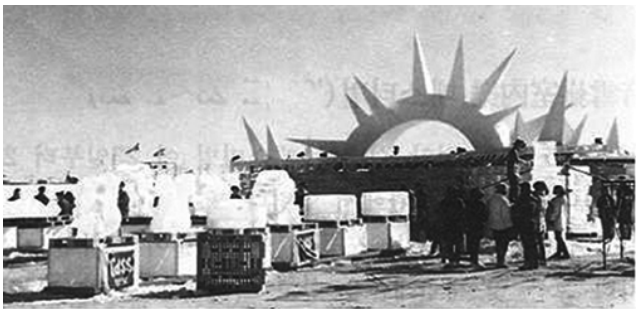
겨울 관광이벤트로 처음 개최된 눈꽃축제는 영화제, 음악회, 거리페스티벌, 얼음 조각전 등 30여종의 다양한 행사를 열어 설악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객유치를 위한 겨울 관광상품개발 계기가 되었다.

또 눈꽃축제의 행사 예산 2억원을 지원한 당시 (주)진로가 매년 이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 눈꽃축제는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에 설악산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관광이벤트가 되었다.

망향제에 이어 동명동 항만부지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주)진로의 눈꽃축제 행사기금 2억원 전달과 오후 5시에는 갯마당 풍물패의 놀이마당을 시작으로 최성수, 이소라, 터보 등의 인기가수가 출연 개막축하공연이 열렸으며 30일 31일 양일간 문화회관에서 속초출신 박광수 영화감독의 시사회가 있었다.

또한 행사장에는 29일 개막 전날 전국에서 올라온 조각가들이 밤을 새워 쌓아 올린 얼음궁전이 밤이면 화려한 조명을 받아 주민과 관광객에게 환상

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행사기간 중 얼음조각전이 펼쳐졌고 판토마임, 거리퀴즈, 눈의 나라만들기, 시민을 위한 행사, 락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의 행사가 행사장 및 시내 일원에서 열렸다.



〈 사진 7-7-14 〉 제1회 설악눈꽃축제

이렇게 시작한 설악눈꽃축제는 2005년에 제10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행사를 요약한다.

나. 설악눈꽃축제 행사 내용

1) 얼음놀이 마당

얼음놀이 마당은 하도문과 학사평 일대에서 빙구타기, 팽이치기, 눈썰매타기 등의 전통놀이를 개최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와 체험의 장을 마련하며 지역 특산물 판매 및 전통먹거리 장터를 열어 즐거움을 제공한다. 주관은 도문지역개발 연구회와 콩꽃마을 순두부 축제위원회가 맡는다.

〈 사진 7-7-15 〉 얼음놀이

2) 얼음, 눈조각전

얼음조각전은 설악산 소공원에서 전문용역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눈조각전은 설악산 B, C지구 도로변에서 설악동 번영회와 전문용역업체에 의해 실시된다.

〈 사진 7-7-16 〉 얼음조각전

3) 햐얀산길 걷기

햐얀산길 걷기는 설악산 일대에서 가족이나 동호인 단위로 소공원-비선대-귀면암-양폭산장-소공원 코스나 소공원-비선대-귀면암-소공원 코스에서 진행된다.

〈 사진 7-7-17 〉 햐얀산길 걷기

4) 빙벽등반 대회

빙벽등반 대회는 토왕성폭포에서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속도경기와 난이도 경기로 나누어 개최된다.

〈 사진 7-7-18 〉 빙벽등반

5) 설악산 최고봉 오르기

설악산 최고봉 오르기는 전문산악인이나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소방서-오색-설악폭포-대청봉-소청봉-희운각-천불동-소공원의 코스에서 이루어진다.

6) 사진 전시회

설악사진 전시회는 소공원에서 설악의 사계와 동해 일출을 촬영한 사진을 전시한다.

〈 사진 7-7-19 〉 사진전시회

3. 대한민국음악축제

대한민국 음악축제는 2004년 MBC 10대 기획행사로, 문화방송과 속초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음악축제이다. 또한 현지 공연과 아울러 공중파 방송을 실시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여름 피서철과 맞물려 많은 관광객이 동참하여 국내 최대의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4년 제1회 행사는 대중음악, 클래식, 국악, 퓨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음악관련 부대행사를 병행하여 침체되어 있는 국내음악을 활성화하고, 설악산 일원에서 대규모 음악축제를 개최하여 서울 중심 문화행사의 한계를 탈피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동해안 일대를 관광 휴양의 명소이자 국제적인 평화음악축제 지대로 만들었으며, 국내 음악 예술인 중심으로 음악축제를 시작하여 내실을 다지고 점차 아시아,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의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사는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에 실시하며 장소는 속초시 일원(청초

호 엑스포광장, 영랑호잔디광장, 설악공원C지구, 종합운동장)등이다. 주최는 속초시와 MBC 문화방송이며 문화관광부와 강원도가 후원한다.

2005년도 제2회 대한민국음악축제의 주요행사는 다음과 같다.

- 발라드축제(설악공원C지구) : 데니(god), 데이, 성시경, 김조한, 김현정, 유미, 모세, 김우주 등
- 남진 2005 님과 함께(청초호엑스포장) : 남진, 쥬얼리, 크라잉넛 등
- 록페스티벌(영랑호잔디구장) : 이성우, K2, 서문탁, 노브레인, 이한철밴드, W, 브런치, 퍼필 등
- 신중현 헌정공연(속초종합운동장) : 배철수, 신대철밴드, 한영애, 인순이, 김종서, 김건모, 윤도현밴드, 김조한, 빅마마, 성시경, 린, 시베리안허스키 등
- 통기타축제(설악공원C지구) : 최은경, 최성수, 김종환, 박정운, 신효범, 나무자전거, 녹색지대, 솔리스트 등
- 이미자 콘서트(청초호엑스포장) : 이미자, 성시경, 장윤정 등
- 힙합페스티(영랑호잔디구장) : 데프콘, 타이거JK, 은지원, 윤미래, 45rpm, 배치기, 스토니스컹크 등
- 빅스타 3색콘서트(속초종합운동장) : 안숙선, 임웅균, 인순이 등
- 국악 · 재즈축제(설악공원C지구) : 김영임, 신영희, 전제덕, 밴드, 말로, 서영은, 임태경, 뿌리패, SOME, 어린이명인 등
- 조수미 동해판타지(청초호엑스포장) : 조수미 외
- 록페스티벌(영랑호잔디구장) : 노홍철, 부활, 김종서, 김경호, 마야 등
- 젊음의 축제(속초종합운동장) : 이효리, 김건모, 보아, 동방신기, 버즈, MC몽, 은지원, 노브레인, SS501, 길건, 임정희 등
- 트로트축제(청초호엑스포장) : 이상벽, 현철, 태진아, 송대관, 김수희, 장윤정 등

〈 사진 7-7-20 〉 대한민국음악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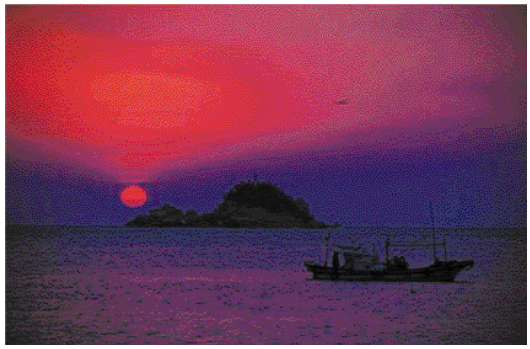
4. 화랑영랑 축제

화랑영랑축제는 2005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장소는 영랑호반(화랑도체험관광지, 범바위잔디광장 등)이며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민예총, 세종예술음악협회, 속초생활체육협의회 등이 주관하였다.

행사내용은 체육행사로 단축마라톤대회(7㎞, 하프), 인라인마라톤대회(7㎞), 화랑기사대회를 실시했으며, 문화행사는 모자(아동)사생대회 및 백일장, 신춘 음악회(합창공연 : 속초시립합창단, 설악엔젤스합창단, 초청공연 : 성악가 및 대중 음악가수-녹색지대, 편승엽, 정수라 등)를 개최하였다. 또한 체험행사로 라디엔티어링(코스 : 화랑도체험장 → 화랑조형물 → 잔디광장 → 야외풀장 → 보광사 → 충혼비 → 영랑교→ 카누경기장 → 삼성현장 → 콘도3초소 → 화랑도 체험장(레크레이션), 화랑도 체험행사(승마, 활쏘기, 격구 및 투석기, 병장기 체험 등), 전통놀이문화체험(굴렁쇠 및 투호, 널뛰기, 격구 등), 참여예술 창작한마당(천연비누만들기, 바람기둥에 그림그리기, 아기장승 만들기, 매듭인형 만들기 등), 인라인타기 강좌, 이벤트행사(페이스 페인팅 및 캐리커쳐 그려주기, 가족사진 찍어주기 등)를 실시하였다.

5. 해맞이 축제

해맞이 축제는 매년 1월 1일 속초의 일출명소인 속초해수욕장과 설악해맞이공원에서 속초시 주최, 속초문화원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행사내용은 여명을 알리는 울림, 전통무용공연, 어선 선상퍼레이드(힘찬 뱃고동과 환희의 집어등), 공감음악회, 테마가 있는 불꽃놀이, 함께하는 세상, 희망 촛불나무 만들기, 해오름과 함께 출발, 촛불기도, 해오름 함성, 지역 특산물 무료시식회 등으로 펼쳐진다.



〈 사진 7-7-21 〉 해맞이축제

6. 해양페스티벌

해양페스티벌은 속초해수욕장에서 펼쳐지며 7~8월 사이 뜨거운 여름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원한 젊음의 축제로 대중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라이브 콘서트, 록 페스티벌과 젊은이들의 분출하는 열기를 더해 줄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주최는 속초시이며 후원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KBS속초방송국, 강릉MBC, GTB강원민방, YBS 영동방송,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설악신문, 시대일보 등 다양하다.

주요행사 내용을 2005년을 참고로 살펴보면 공식행사, 공연행사, 경연행사, 체험 · 참여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행해진다. 공식행사는 개막식(오프닝 행사, 축하공연, 불꽃놀이, 레이브파티, 노을 속의 오케스트라 공연, 빛과 소리의 제전 등), 폐막식(폐막행사, 축하공연)으로 구성되고, 공연행사는 화합 이미테이션, 한여름밤의 음악 대향연, 젊음! Rock Festival, 도전! 해변가요제, 사랑! Jazz Concert 등으로 구성된다.

경연행사는 도전! 속초 ○ ×, 모래축구 등이며, 체험 · 참여행사는 장사항오징어 맨손잡기축제, 황토체험, 서핑, 골프벙커 대탈출!, 배낚시체험, 번지런, 레크레이션 (림보, 속초 ○×, 커플케임, 기고만장, 기왓장 깨기, 고리던지기, 얼음위에서 버티기, 물풍선 던지기, 물 속 보물을 찾아라, 맥주 빨리마시기, 동전쌓기)등이다. 부대행사는 대학생 치어리더 공연, 밤이면 밤마다 레이브 파티, 해변영화제, 그래피티, TATOO Service, 사진공모전, 행사후기 공모전 등 다채롭다.

7. 한 여름밤의 문화축제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는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 예총속초지부, 민예총속초지부, 갯마당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7~8월에 청초호 엑스포 상징탑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 사진 7-7-22 〉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주요행사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전통국악 상설공연,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 퓨전째즈와 함께, 힙합댄스, 군악대와 함께하는 여름밤의 교향곡, 무용인들의 아름다운 몸짓,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한마당, 초대가수 공연, 어린이 관악합주, 한여름밤 어린이 합창의 향연, 영화상영 등이다.

8.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는 우리민족 최대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각종 민속놀이 등을 통해 우리 민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문화 보존 · 전승을 위한 계기를 마련코자 매년 음력 1월 15일 청초호 유원지 일대에서 행사가 이루어진다. 주최는 속초시와 속초문화원, 주관은 농협중앙회 속초지부 외 7개 기관 단체가 하고 있으며 주요행사는 떡메치기경연, 액짚태우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윷놀이, 투호, 지신밟기, 가훈써주기, 한해운수풀이, 부럼깨물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 사진 7-7-23 〉 정월대보름 액짚태우기 행사

9. 학사평순두부축제

학사평순두부 축제는 매년 10월경 학사평 순두부촌일대에서 학사평 순두부축제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펼쳐진다. 주요행사는 공식행사, 공연행사, 체험행사, 문화참여행사, 농특산물 관련행사, 부대행사로 나누어진다.

공식행사는 2005년 기준으로 식전행사, 개막식, 폐막식이고 공연행사는 농악대, 사물놀이, 축하공연, 락공연, 학사평 장기자랑, 매직쇼 등이다. 체험행사는 순두부 · 모두부 무료시식회, 순두부 OX퀴즈, 두부콩 갈기대회, 두부요리 경연대회, 두부버거 요리대회, 두부 빨리먹기, 두유 빨리마시기, 맷돌장사 선발대회, 모두부 높이쌓기, 풋콩 구워먹기, 키질하기, 삶은 콩 절구로 빨

리 찧기, 메주 예쁘게 만들기, 찰떡 절구로 찧어 만들기 등이다. 문화참여행사는 전통 메주 만들기, 된장 · 간장 담그기 재연, 전통 결혼식, 콩타작 놀이마당(도리깨질), 삐에로, PaintBall 사격게임, 순두부체험사진공모, 짚공예(이엉엮기/새끼꼬기/멍석만들기 등)이며 농 · 특산물 관련행사는 농 · 특산물 할인판매, 즉석 두부판매 등이다. 부대행사는 두부 만드는 과정 재연, 국산콩 구별법, 농 · 특산물 경매, 전통 메주 만들기, 된장 · 간장 담그기 재연 등이다.

〈 사진 7-7-24 〉 학사평 순두부 축제

10. 설악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설악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Seolak Triathlon seonsugwondaehoe)는 매년 6월 중순~7월초 청호동 신수로교 및 청초호 유원지 일원에서 속초시와 (사)대한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 주최로 열리고 승인기관은 ITU & ASTC이며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부가 후원한다.

〈 사진 7-7-25 〉 설악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경기종목은 스프린트코스(주니어부)와 올림픽코스(일반부,엘리트부)이다.

스프린트코스(주니어부)는 수영 0.75k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이고 올림픽코스(일반부,엘리트부)는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 코스이다.

11. 설악하프마라톤대회

설악하프마라톤 대회는 매년 5월에 영랑호 범바위 잔디구장에서 열리며 코스는 하프(21㎞)와 건강(7㎞) 달리기이고 주최는 속초시이다.

박명선(대진고등학교 교사, 향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감수위원: 최용문(전, 속초문화원장)

下

第八編 생활관습

표 목차

8-1-1 강원도 지역별 전통식품 및 주요 농 · 임 · 수산물
8-1-2 속초읍내 구역의 농어민 분포(1955년)

그림 목차

8-5-1 김종우 가옥 평면도
8-5-2 김근수 가옥 평면도
8-5-3 김석주 가옥 평면도
8-5-4 최원규 가옥 평면도
8-5-5 김종순 가옥 평면도
8-5-6 오수현 가옥 평면도
8-5-7 박의균 가옥 평면도
8-5-8 김근우 가옥 평면도

사진 목차

8-1-1 중앙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해산물들
8-1-2 속초시 중앙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젓갈들
8-1-3 명란젓
8-1-4 창란젓
8-1-5 오징어젓
8-1-6 명태 아가미 식해
8-1-7 서거리 김치
8-1-8 속초회국수집에서 판매되는 회국수
8-1-9 회국수는 국수에 비벼서 먹는 것이 제 맛
8-1-10 속초시 중앙시장에서 싱싱한 오징어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
8-1-11 빠른 손동작으로 오징어를 다듬는 모습
8-1-12 오징어 물회
8-1-13 노상에서 오징어를 손질하는 여인들
8-1-14 오징어를 말리기 위해 꼬챙이에 꿰어준다
8-1-15 말리기 전에 다시 한번 오징어를 씻어준다.
8-1-16 오징어를 말리기 위해 가지런히 매단다.
8-1-17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건조한다.
8-1-18 도루묵찌개
8-1-19 감자옹심이
8-1-20 감자 시루떡
8-1-21 감자 송편
8-1-22 학사평 콩꽃마을의 전경
8-1-23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순두부축제
8-1-24 콩꽃마을에서 생산되는 두부
8-1-25 두부를 만들고 나서 얻어지는 비지
8-1-26 고춧가루를 넣은 순두부찌개
8-1-27 메밀전병
8-1-28 속초시 중앙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밀을 이용한 음식들
8-1-29 도토리 송편
8-1-30 마른구절판
8-1-31 다양한 종류의 다식판
8-1-32 떡살로 모양을 낸 절편

8-1-33 절구질을 해보는 어린이

8-1-34 맷돌을 체험해 보는 어린이

8-1-35 가마솥

8-1-36 곱돌가마

8-1-37 퉁노구

8-1-38 놋새웅

8-1-39 시루

8-1-40 놋바리

8-1-41 느릅무늬바리

8-1-42 사기탕기

8-1-43 반병두리

8-1-44 보시기

8-1-45 원반

8-1-46 해주반

8-1-47 구족반

8-1-48 5첩 반상

8-1-49 7첩 반상

8-1-50 9첩 반상

8-1-51 정성스럽게 차례사을 준비하는 모습

8-1-52 속초시 일반가정의 추석차례 상차림

8-1-53 약밥

8-1-54 1950년대 어선출어전경

8-1-55 1950년대 오징어를 할복하고 있는 여인

8-1-56 1950년대 건오징어 시장

8-1-57 1950년대 명태를 할복하고 있는 어촌 여인

8-1-58 1950년대 명태 덕장 전경

8-1-59 파도에 밀려온 미역을 채취하는 모습

8-1-60 미역을 건조하는 모습

8-1-61 오징어잡이 도구를 들고 출어하는 어부와 가족

8-1-62 현재의 청호동 모습

8-1-63 아바이마을의 전경

8-1-64 아바이순대

8-1-65 아바이순대국

8-1-66 중앙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태

8-1-67 황태포

8-1-68 황태구이

8-1-69 명태살 김치

8-1-70 황태찜

8-1-71 명태 순대

8-1-72 황태국

8-1-73 명태전

8-1-74 국수 뽑는 기계

8-1-75 평양냉면

8-1-76 함흥냉면

8-1-77 오징어순대

8-1-78 멸치 젓갈

8-1-79 가자미 식해

8-1-80 김송순 할머니가 만든 가자미식해

8-1-81 햇떼기 식해

8-1-82 햇떼기는 소금에 절여 3~4번 씻어 준다.

8-1-83 햇떼기 식해를 담고 있는 김송순 할머니

8-1-84 명태식해, 명태식해를 만들고 있는 할머니

8-1-85 달떡

8-1-86 괴명떡

8-1-87 오그랑떡

8-1-88 용떡

8-2-1 길쌈하는 모습

8-2-2 1950년대 탈곡하는 모습

8-2-3 망중한(1950)

8-2-4 1930년대 동명항 인근의 노동하는 모습

8-2-5 건오징어시장

8-2-6 오징어 활복하는 아낙네

8-2-7 일반적인 상례복

8-2-8 제례의 모습

8-2-9 어구를 이고 가는 아낙네

8-2-10 출어하는 어부와 가족

8-2-11 1950년대 속초도리원농악대 공연모습

8-2-12 현재의 속초도리원농악대 모습

8-2-13 1950년대 북청사자놀음

8-2-14 재현된 북청사자놀음

8-5-1 움집의 모형도

8-5-2 청동기 유적지

8-5-3 신흥사 극락보전

8-5-4 신흥사 보제루

8-5-5 학무정

8-5-6 김종우 가옥 외경

8-5-7 김근수 가옥 외경

8-5-8 김근수 가옥 측면

8-5-9 김석주 가옥 외경

8-5-10 김석주 가옥 측면

8-5-11 김석주 가옥 측면

8-5-12 최원규 가옥 외경

8-5-13 최원규 가옥 정면

8-5-14 최원규 가옥 현재모습

8-5-15 김종순 가옥 외경

8-5-16 오수현 가옥 외경

8-5-17 오수현 가옥 외경

8-5-18 오수현 가옥 외경

8-5-19 박의균 가옥 외경

8-5-20 박의균 가옥 외경

8-5-21 김근우 가옥 외경

8-5-22 영랑동 시장 철거전

8-5-23 영랑동 시장 철거 후 공지모습

8-5-24 김동석 가옥 외경

8-5-25 영랑상회 외경

8-5-26 강덕준 주택 외경

8-5-27 동명동 성당 외경

8-5-28 동명동 성당 내부

8-5-29 동명동 성당 내부

제8편 생활 관습

제1장 식생활

제1절 강원도의 식생활

우리나라는 사냥과 채집을 주로 하던 구석기 시대를 거쳐 기원전 8,000년경부터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초기 신석기인들은 고기잡이나 사냥, 조개 줍기 등을 주로 하였으며 후기로 접어들면서 원시농경생활이 시작되었다.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상고시대부터 농경국가로 발전되어 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식생활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또한 삼면의 바다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물이 생산되었으며, 김치와 장아찌 등 염장식품의 개발과 장류, 젓갈류 등 식품저장기술의 발달로 장기간 보존하는 저장법이 발달하였으며 국을 먹는 식사법이 발달한 것도 풍토환경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특징상 각 고을마다 자연환경이 다르고 이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특히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19세기 후반까지는 각 고을의 특산물로 만드는 향토색 짙은 요리법이 발달하였으며 이렇게 고을마다 토착된 음식을 '향토음식' 또는 '향토요리'라 한다.

향토음식의 형태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그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식료품을 그 지방 사람들만이 전승하고 있는 특별한 조리법으로 요리하는 순수한 향토음식이 있고 둘째, 타지방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을 도입하여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드는 향토음식이 있으며, 셋째 각 지방마다 만드는 음식이지만 그 조리법에 특색이 있어 묘미를 자랑하는 향토음식이 있다. 산업과 교통수단의 발달은 각 지역의 상호교류를 가져왔으며 특히, 1950년에 일어난 6 · 25전쟁은 북쪽으로부터의 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와 북쪽의 다양한 문화와 함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향토음식은 우리나라 8도에서 약 470종 이상이 알려져 있으며 한반도의 기후 및 지형조건에 맞는 여러 작물을 선택하여 경작하게 됨에 따라 죽, 밥, 떡, 술, 엿 등과 같이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들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콩과 채소의 상용화를 위한 저장,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쌀, 보리쌀, 좁쌀에다 콩과 채소를 항상 곁들여 먹는 식생활이 기본형을 이루어 왔다. 이

같은 배경으로 한국의 식생활은 조미용 식품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단백질 공급원인 장류를 개발하게 되었고 비타민의 공급원으로 김치를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곡물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육류음식이 병행하여 발달하여 왔다.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강원도는 한반도의 척추구실을 하는 1,000m의 태백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으며 한류와 난류가 엇갈리는 동해바다에 면하고 있는 곳으로 산촌과 어촌, 그 사이에 농촌이 있어 다양한 식생활을 보여준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크게 영서와 영동(관동)으로 나뉘는데 영서지역은 태백고원의 서쪽 산록 지대를 말하며 영동지역은 태백산맥 동쪽 동해안 지방으로 대관령, 진부령, 한계령 등의 고개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두 지역은 기후와 지세가 서로 다르므로 식생활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영서지역은 산악이나 고원지대로 찰옥수수, 메밀, 감자, 콩, 밀, 보리 등이 많이 생산되며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발달하였다. 산에서는 도토리, 상수리, 칡뿌리, 산채 등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러한 특산물은 주식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구황식품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기호식품으로 사랑 받고 있다. 특히 산간지방이 많아 두릅, 곰취 등 향기로운 산채와 석청(石淸) 등이 많이 생산되며 감자의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므로 감자를 이용한 식생활이 발달되었다. 감자가 다양하게 이용이 되어 녹말을 만드는 방법도 강판에 갈아 녹말을 내는 방법과 여름철 장마 비에 젖은 감자를 썩혀 가며 녹말을 내는 방법 등이 있는 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질긴 맛을 내고 또 감자의 형태가 달라져서 다양한 조리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메밀로 만든 국수, 만두, 떡과 감자, 옥수수, 조, 고구마 등을 섞어 만든 잡곡밥도 많이 해 먹었다.

영동지역에서는 쌀, 콩, 감자가 생산되고 바다와 접하고 있어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오징어, 명태, 꽁치, 고등어, 청어, 미역, 다시마, 지누아리 등이 있다. 이러한 해산물을 이용한 회, 찜, 구이, 탕, 볶음 등이 이 지역의 음식으로 발달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산물로 젓갈류를 잘 담궜으며 김장때는 생선류와 젓갈류를 이용하여 해물김치를 담구기도 한다. 요즈음은 대관령 부근의 횡계에서 목축이 성행하고 있으며, 무, 배추 등의 고랭지 채소와 당근, 샐러리, 씨감자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지역에서 나는 산물이 다르고 산악지방과 해안지방에서 나는 산물이 달라 비교적 다양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표 8-1-1).

〈표 8-1-1〉 강원도 지역별 전통식품 및 주요 농·임·수산물[1)]

구분	전 통 식 품	주요 산물			특산 식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속초시	옥수수불고기, 가자미식해, 도토리묵			오징어	
춘천시	메밀전병, 옥수수·콩·칡·삼색떡, 메밀국수, 칡무침, 닭구이,메밀 감잎 송편, 감자옹심이, 메밀칼국수, 춘천막국수, 산채전병, 칡국수, 칡차, 칡송편, 호박고지, 도토리묵,쏘가리매운탕, 추곡약주, 닭갈비	사과, 딸기, 인삼	토종꿀, 잣, 대추	향어, 송어, 쏘가리	춘천 막국수
원주시	추어탕, 개구리탕, 꿩만두, 굳지 않는 감자떡, 개구리 튀김, 남송유과, 개구리구이, 감자국수,호박청, 횡골엿, 복추어탕, 검정콩두부전골, 감자수제비, 감자옹심이, 늙은 버섯전골, 감자부침 메밀부침, 강냉이엿	옥수수	표고버섯, 송이버섯		
강릉시	두부, 약과, 감자부침, 곶감전복주, 감자시루편떡, 감자동동주, 감자전, 감차, 도토리묵, 감자절편, 떡, 산자, 생선회, 다래, 머루주, 더덕주	감, 마늘	송버섯, 산채	명태, 은어, 오징어, 돌김, 숭어	초당두부, 경포전복죽
삼척시	영동풍신떡, 생선회, 용암신자, 염소전골, 불숲, 갓김치, 가시오가피 토종닭백숙, 가곡호동동주, 곰치국	마늘, 고추	표고버섯 송이버섯 산삼, 고사리	전복,김 은어, 송어, 미역	
태백시	차조인절미, 수수노치, 취콩떡				
동해시	가오리무침, 오징어순대				
고성군	순채떡, 멸치젓, 가자미젓, 명란젓, 창란젓, 명태구이, 숭어회, 명태찜, 명태조림, 명태서거리, 오징어찜, 도다리회, 전어회, 도루치기, 열갱이찜,가자미매운탕, 명태밥식해, 멸치식해, 명란식해,꽁치식해, 꽁치튀김, 약소가시리묵, 명태서거리식해, 오징어젓갈, 바닷물로 담근 김장김치	인삼, 약초	토종꿀	명태, 오징어 돌김	
인제군	메밀국수, 도토리묵, 옥수수엿, 산채나물, 두텁떡	토마토, 무심배	송이버섯, 더덕	송어	
양구군	다래주, 삼지구엽초, 콩탕, 감자전병, 더덕장아찌, 버섯장아찌	약초, 오미자	산삼, 머루 송이버섯, 다래	잉어 어름치, 황쏘가리	
홍천군	옥수수엿, 올챙이국수, 감자청포묵, 도토리전병, 옥수수부꾸미, 호박시루떡, 옥수수찐빵, 솔잎동동주, 늙은호박주, 쑥부각	인삼, 들깨, 옥수수	잣, 고사리 송이버섯, 두릅, 더덕		
영월군	칡국수, 도토리묵, 감자붕생이, 곤드레비빔밥, 장칼국수, 칡국수, 감자부침, 메밀묵, 더덕숭부침, 쑥부각	고추, 마늘	대추, 잣 송이버섯, 산채		
정선군	율무차, 칡차, 콩갱이, 채만두	약초, 오미자	느타리버섯, 고사리, 더덕, 두릅	잉어 붕어, 황쏘가리	
횡성군	약과, 구름떡, 다식, 강정, 더덕김치, 감자새알칼국수, 동동주				
평창군	메밀묵, 올챙이국수, 옥수수엿, 생강엿, 메밀전병, 메밀국수, 감자송편, 옥수수묵, 메밀국수, 메밀국죽	고추, 마늘 감자, 약초 옥수수	표고버섯, 느타리 버섯, 잣	송어	평창생강엿
화천군	율무차, 칡차, 보쌈김치, 콩국, 도토리올챙이국수, 도토리송편, 도토리전병, 고구마묵	율무	느타리버섯, 고사리, 더덕, 두릅	잉어 어름치, 황쏘가리	
양양군	가자미식해, 연어채소볶음, 전복죽, 장어구이, 산채, 비빔밥, 사주, 호박동동주, 초파주, 고르매자반, 심통이회, 은어구이, 인당귀잎떡, 칡송편, 인진쑥토종닭, 감말랭이찰편	배	송이버섯, 표고버섯, 머루,다래 더덕	돌김, 송어, 산천어, 연어	
철원군	산자, 쑥개떡, 찹쌀엿술, 손칼국수, 쑥부각, 쑥칼국수				

1) 함승시, 『강원도 전통식품 개발과 발전방향』, 동아시아식생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2001, 동아시아식생활학회, pp.12~13

또한 강원도 지방의 음식은 서울 음식같이 사치스럽고 화려한 멋은 없으나 소박하며 맛이 구수한 것이 특징이다. 쌀떡보다는 잡곡으로 만드는 떡이 많고 비교적 맛과 모양이 소박한 점이 강원도의 인심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명한 강원도의 감자떡은 손으로 꽉 쥐었다 놓아 손자국 모양을 내서 빚는 등 소박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음식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식류로는 강냉이밥, 감자밥, 차수수밥, 어죽, 메밀막국수, 팥국수, 감자수제비, 강냉

이수제비, 강냉이범벅, 감자범벅이 있으며, 찬품류(饌品類)로는 삼시기국, 토장아욱국, 감자조림, 석이볶음, 대게찜, 쏘가리매운탕, 도치두루치기볶음, 풋고추볶음, 송이장아찌, 마른오징어젓갈무침, 감자부치미, 오징어회, 오징어젓, 명란젓, 창란젓, 감자부치미, 황태구이, 오징어불고기, 오징어순대, 가자미식해, 건어포, 지누아리무침, 파래무침, 쇠미역쌈, 쇠미역튀각, 취나물, 더덕생채, 취쌈, 박나물, 깍두기, 채김치, 들깨송이부각, 메추리튀김, 올챙이묵(옥수수묵), 메밀묵이 대표적이다.

떡은 쌀이나 찹쌀대신 잡곡이나 서류를 이용한 것이 많아 감자시루떡[2], 감자떡, 감자녹말송편, 감자경단[3], 언감자떡, 감자부침, 감자투생이[4], 감자뭉생이, 옥수수설기, 옥수수보리개떡, 옥수수칡잎떡, 찰옥수수시루떡, 메밀전병(총떡), 댑싸리떡, 메싹떡, 도토리송편, 무송편[5], 칡송편, 방울증편, 호박시루떡, 호박단자, 구름떡, 각색차조인절미, 수리취개피떡 등이 있다.

강원도에서는 절편을 '큰떡', 또는 '절떡'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해 보내는 떡으로 큰일이 있을 때에 만드는 떡이라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영동지역에서는 송편을 많이 만드는데 손으로 꾹꾹 눌러서 빚는다고 하여 '꾹꾹이떡', '쥡떡', '오매두(다섯마디)떡'이라 불렀으며, 큰일이 있을 때에는 절편과 인절미를 주로 만들었다. 반면 영서지역은 화전마을이 많아 논과 밭은 적으나 산기슭 화전에 잡곡을 많이 심어 옥수수, 조, 수수, 감자, 메밀로 만드는 떡이 많다. 편의 웃기로 쓰이는 경단, 주악 등은 농촌에서 제례 때 조금씩 만들고, 옥수수가루에 강낭콩을 섞어 만든 잡곡 설기떡도 많이 만들어 먹었다[6].

한과로는 송화다식, 옥수수엿, 약과, 과줄이 있으며 음청류(飮淸類)로는 앵두화채, 책면, 강냉이차, 치커리차, 오미자차, 칡차, 삼지구엽초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옥수수의 산지답게 옥수수엿이 유명하다[7].

제2절 속초의 식생활

1. 옛 문헌 속의 속초의 산물

현재까지 밝혀진 속초의 역사는 청동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옛 기록에 나타난 속초는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 속초리라는 작은 동네였으며 속초라는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8]. 옛 기록에 나타난 이 지역의 토산물(그 지방의 특산품) 중 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또한

2) 감자 앙금과 삶은 팥을 켜켜로 안쳐 찐 맛이 소박한 떡

3) 감자를 무르게 쪄서 설탕, 소금, 계핏가루로 간을 하여 오래 찧은 다음 경단처럼 빚은 뒤 콩가루나 팥고물을 묻혀 먹거나, 감자를 갈아 앉힌 앙금과 건더기를 섞어 반죽하여 경단으로 빚은 뒤 삶아내어 고물을 묻힌 떡

4) 갈은 감자건더기와 녹말가루를 섞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 삶은 강낭콩을 박아 찐 떡

5) 송편소로 채친 무를 고춧가루와 소금으로 양념하므로 맛이 얼큰하여 주객들이 즐김

6) 『강원의 맛 -떡-』, 강원도 농업기술원, 2005, p.12

7) 윤은숙 외 3인, 『한국의 음식』, 효일문화사, 1996, pp.169~170

8) 『속초의 근 현대사』, 속초문화원, 2004, p.10

『강원도지』권3에는 속초시 속초면에 시장이 있으며 삼일, 칠일에 시장을 연다는 기록이 있다[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4

오미자, 지치, 인삼, 지황, 복령, 벌꿀, 백화사(독사의 일종), 김, 미역, 전복, 홍합, 문어, 대구, 송어, 연어, 도루묵, 황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쌍족어, 해삼, 송이버섯

『여지도서』

잣, 인삼, 오미자, 지치, 지황, 복령, 벌꿀, 백화사, 김, 올미역(일찍 따는 미역), 전복, 홍합, 문어, 대구, 송어, 연어, 도루묵, 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쌍족어, 해삼, 송이버섯

『대동지지』 권 16

잣, 오미자, 인삼, 복령, 지치, 벌꿀, 백화사, 김, 전복, 홍합, 문어, 대구, 송어, 연어, 도루묵, 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쌍족어, 해삼, 송이버섯, 돌버섯, 소금

『현산지』 물산조

자해(게), 홍합, 해삼, 생전복, 대구, 방어, 가어, 광어, 문어, 사어, 홍어, 송어, 연어, 황어, 도루묵, 농어, 잉어, 미역, 소금, 차, 닥나무, 대나무, 순채, 배, 밤, 감, 살구, 복숭아, 은행, 호도, 목과, 개암나무, 대추, 연밥, 잣, 오미자, 오가피, 지초, 홍화(잇꽃), 서여, 송이버섯, 만이, 석이

9) 『옛 문헌 속의 속초』, 속초문화원, 2001, pp.93~97

10)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pp.47~48

2. 속초 원주민의 음식[10]

속초는 내륙 쪽의 경우 비교적 농경생활을 해온 역사가 길고 곡류가 많이 생산된 반면, 산간 쪽의 경우에는 감자, 옥수수, 메밀, 도토리 등의 밭작물이 생산된다. 또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긴 동해안에서 다양한 해산물이 생산되고 산간지방은 구황식품이 많이 생산되었으며 도문, 노학 등 평지는 주로 벼농사를 짓고 있어 식생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떡도 다른 지방과 달리 멥쌀이나 찹쌀로 만든 떡보다는 감자를 중심으로 한 밭작물과 산채를 이용하여 만든 떡이 발달되었으며 옥수수의 산지답게 옥수수로 만든 엿도 유명하다. 해안지방에서는 오징어, 명태, 미역 등 해산물로 만든 음식들이 향토음식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속초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먼저 주식은 쌀, 감자를 많이 먹고 잡곡으로는 메밀이 주로 쓰이며 그 외에 옥수수, 도토리 등을 이용한 식생활을 즐

겼다. 산골 쪽에서는 강냉이밥, 감자밥, 차수수밥, 고구마밥 등을 해서 먹는다. 특별주식으로는 메밀국수, 메밀만두, 도토리국수, 감자수제비 등이 있다. 가끔 강냉이 수제비나 강냉이범벅을 먹기도 하며 요즘은 별식으로 해 먹는다.

반찬으로 속초에서는 삼숙이국을 많이 끓여 먹는데, 무를 넣고 된장을 풀어 끓이면 시원하고도 구수한 맛이 나서 제일로 친다. 이 외에도 꾹저구탕, 용곡지탕, 가자미, 명태, 도미, 광어, 열갱이, 우래기, 도루묵 등으로 고추장을 풀어 얼큰하게 끓인 매운탕이 발달한 것도 특징이다. 신선한 생선은 회감으로 많이 이용하였으며 얼간생선(소금에 절인 생선)을 만들어서 양념하여 찌는 조리법도 발달하였다. 명태찜이나 미역국에 가자미를 넣어 끓인 국도 많이 먹으며, 오징어불고기, 동태취쌈, 더덕구이, 창란젓 깍두기, 돌김, 도토리묵도 반찬에 쓰며 바다게장도 많이 담근다. 산간에서는 감자조림이나 부침을 많이 해 먹고 봄에 뜯어 말려놓은 취나물, 두릅나물 등의 각종 산나물을 물에 불려 반찬을 해 먹는다. 설악산에 인접한 동네에서는 산채를 캐서 식생활에 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표고버섯·송이버섯 볶음 뿐 아니라 송구떡, 취떡, 칡떡 등의 떡류나 물범벅, 도토리국수, 메밀국수 등도 만들어 먹는다.

그러나 속초시 관내는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서 주로 어시장에 가서 해물을 사다가 식탁에 많이 올린다. 과거 어촌에서는 명태알이나 도루묵알을 쪄서 입안에다 넣고 터뜨리며 간식 삼아 먹던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젓갈은 명란젓, 서거리젓(명태의 아가미로 만든 젓), 창란젓, 바다게젓이 대표적이며 요즘은 멸치젓, 새우젓도 많이 쓰고 있다.

김치류는 '짠지'라고 하여 겨울 김장김치가 있는데 젓갈로는 멸치젓, 새우젓, 공치젓, 양미리젓 등을 넣고 생태를 넣거나 생오징어, 굴, 갓을 넣어 맛을 낸다. 동해안의 봄철에 나는 생선을 젓으로 담갔다가 겨울철 김장 때 넣는다. 깍두기를 담글 때는 서거리젓과 오징어, 굴 등을 넣는다. 식해는 생선에 밥을 섞어 담근 것으로 저벌기식해, 가자미식해가 있으며 명태포로도 만드는데 고등어와 새치 이외의 생선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 사진 8-1-1 〉 중앙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해산물들

떡은 산간지방에서 비교적 다양한 종류가 발달하였다. 쌀떡보다는 잡곡으로 만든 떡이 많으며 맛과 모양이 소박한 모습을 보인다. 송편과 시루떡을 주로 많이 만들고 큰 일이 있으면 절편과 인절미를 만들며 개피떡도 만들어 먹는다. 이외에도 개떡(보리떡), 취떡, 솔떡, 칡떡, 쑥떡, 수수떡이 있다. 별식으로 만드는 떡으로는 감자시루떡, 감자떡, 옥수수설기, 옥수수보리개떡, 메밀전병(총떡), 무송편 등이 있다.

가. 전통적인 속초의 향토 음식

1) 젓갈

젓갈은 인도, 베트남, 태국 등 비교적 더운 지방에서 발달한 음식이다. 이들 지방에서는 더운 기후 때문에 음식의 저장이 쉽지 않았고 남은 것은 부패되어 그냥 버릴 수 밖에 없었다. 버려진 음식물은 자연 상태에서 발효되면서 또 다른 풍미와 맛을 지닌 음식물이 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인류가 젓갈발효식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11].

우리나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궁중 의례음식으로 '해(古)'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해'란 오늘날의 젓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라 신문왕 3년에 신문왕은 왕비를 맞이하기 위한 폐백음식으로 '해'를 사용했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530~550년 중국의 『제민요술』에 한나라의 무제가 '동이'(동이족)를 쫓아 산동반도에 이르니, 어디선지 좋은 냄새가 나서 찾아본 즉 어부들이 항아리 속에 생선내장으로 만든 어장을 넣고 흙으로 덮어두었다가 향이 생기면 조미료로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는 동이를 쫓아서 얻었기 때문에 '축이(鯫鮧)'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의 액젓과 같은 것으로 사료된다[12]. 아쉽게도 삼국 시대나 통일 신라 시대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젓갈이 우리 식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젓갈은 수산물이 가장 많이 잡힐 때 염장을 하므로 지방마다 담그는 종류와 시기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젓갈 종류는 약 140여 종에 이른다. 소재별로 분류해 보면, 생선으로 담근 것이 80여 종, 생선의 내장이나 생식소로 담근 것이 50여종, 게나 새우 등 갑각류로 담근 것이 20여 종이고, 낙지, 문어, 오징어 등의 두족류로 담근 것이 16종, 그밖에 해삼이나 성게로 담근 젓갈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흔한 젓갈은 새우젓, 조기젓, 황석어젓, 멸치젓 등으로 주로 김치를 담글 때 넣는다. 찌개나 국의 간을 맞출 때에는 주로 새우젓을, 나물을 무칠 때는 멸치젓으로 만든 멸장을 넣는데 간장만으로 간을 한 것과

11) 심상국 외 3인, 『발효식품학』, 진로연구사, 2002, p.289

12) 황혜성 외 3인, 『한국의 전통음식』, 교문사, 1998, p.167

는 달리 독특한 맛이 있다. 서해안에서는 주로 새우젓을 많이 담지만 명태가 많이 잡히는 동해안에서는 명태를 말리는 덕장으로 보내기 전에 알은 모아서 명란젓을 담그고, 창자로는 창난젓을 담근다.

젓갈은 각 지방에 따라 담그는 방법도 다르다.

- 소금에만 절여 삭히는 방법
- 소금과 누룩에 담그는 방법
- 소금과 고춧가루를 섞어 담그는 방법
- 소금에 술, 기름, 향미를 섞어 담그는 방법
- 소금에 찹쌀밥, 엿기름 등을 섞어 담그는 방법

8) 황혜성 외 3인, 『한국의 전통음식』, 1998, 교문사, p.167

〈 사진 8-1-2 〉 속초시 중앙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젓갈들

가) 젓갈의 종류와 젓갈을 이용한 음식

(1) 젓갈류

(가) 명란젓

명태의 알로 담근 젓갈로 동지전인 11월말이 담그기에 제철이다. 알의 여문 정도에 따라 고운 알(미숙알)과 물알(완숙알)로 나눈다. 젓갈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명란젓은 비타민 B_1과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피로회복, 노화방지 등에 도움이 된다.

정상 명태의 채란수율은 보통 어체 중량의 10~16%정도로 채란 시 할복작업 때 명난의 막이 터진다든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이 좋은 명란은 난막이 얇고 광택이 있고 투명하며 형태가 완전한 것이 좋으며 적기에 어획된 명태가 자아 수율도 좋고 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 만드는 법 〉

① 싱싱하고 터지지 않은 명태 알을 고른다.

② 소금물에 담가 살살 헹군 후 채반에 받혀 물기를 뺀다.

③ 준비된 명란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소금 등을 넣어 양념한다.
④ 항아리에 담고 그 위에 소금을 두껍게 뿌려 살짝 눌러 놓았다가 며칠 지난 후 꺼내 먹는다.

〈 사진 8-1-3 〉 명란젓

(나) 명란젓국찌개

〈 만드는 법 〉

① 끓는 물에 쇠고기를 넣고 끓인다.
② 얇게 썬 무를 넣고 익힌다.
③ 명란젓을 넣고 한번 끓인 후 두부와 다진 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새우젓국으로 간한다.

(다) 창란젓

강원도 특히 속초지역이 주요 생산지로 명태의 창자로 만든 젓이다. 창란젓을 담을 때 동태 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생태 창자만으로 담그는 것이 질이 좋은 젓갈이 된다.

창란젓 제조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에서 창란을 채취한 후 창자에 묻어있는 흙이나 내장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보통 3%의 식염수로 창자를 세척하고 내장의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야만 창란의 깔끔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13].

13) 심상국 외 3인, 『발효식품학』, 진로연구사, 2002, p.289

〈 만드는 법 〉

① 명태의 창자는 소금에 절였다가 속을 훑어 깨끗이 씻는다.
② 소금을 뿌려 보름 정도 삭힌다.
③ 고춧가루, 다진 마늘, 물엿 등의 양념을 만들어 고루 버무린 후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는다.

〈 사진 8-1-4 〉 창란젓

(라) 창란젓 깍두기

〈 만드는 법 〉

① 무는 굵게 채 썰어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 빨갛게 물을 들인다.
② 파는 채 썰고, 마늘과 생강은 다지고 미나리는 4㎝로 썬다.
③ 창란젓을 씻어서 다진다.
④ 무에 창란젓을 넣고 양념을 고루 섞어 간을 맞춘다.

(마) 오징어젓

오징어젓은 강원도 동해안지방에서 45%, 남해안지방에서 40%, 서해안지방에서 15%정도가 생산된다. 오징어젓은 오징어가 한창인 6~8월경에 담그는 것이 신선하고 영양성분도 가장 좋다. 이때 절이는 소금의 양은 보통 재료의 20~30% 정도를 넣어주는 것이 좋다[14].

〈 만드는 방법 〉

① 오징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항아리에 담고 소금에 절인 후 삭힌다.
② 소금을 씻어 내고 껍질을 벗긴 후 채를 썬다.
③ 무는 채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오징어, 마늘, 생강, 물엿, 고춧가루 등을 넣고 버무린다.

14) 장상문 외 3인, 『식품재료학』, 광문각, 2005, p.405

〈 사진 8-1-5 〉 오징어젓

(2) 식해류

소금만을 첨가하는 젓갈류와는 달리 곡류를 혼합해 숙성 발효시킨 것을 식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익힌 곡류(밥, 찹쌀, 조밥 등), 맥아, 누룩,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향신료, 무 등 채소류 및 소금 등을 부 원료로 한다. 식해류는 젓갈보다는 낮은 농도의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익힌 곡류가 들어가므로 젖산발효가 일어나 젖산생성에 의해 낮은 pH조건을 보여 풍미와 저장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5].

15) 심상국 외 3인, 『발효식품학』, 진로연구사, 2002, p.289

(가) 오징어식해

〈 만드는 법 〉

① 생 오징어는 굵게 채 썰어 놓는다.
② 무는 나박 썰기 하고 마늘, 파, 생강은 다진다.
③ 오징어채, 무와 준비한 양념을 넣고 버무리다가 찰밥을 넣고 2~3일 정도 삭힌다.

(나) 도루묵식해

〈 만드는 법 〉

① 도루묵은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에 주물러 여러 번 씻는다.
② 무는 채 썰어 소금에 절인 뒤 물기를 짜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소금 등으로 양념한다.
③ 미리 양념하여 둔 도루묵과 함께 섞는다.

(다) 서거리식해

서거리는 명태의 아가미를 가리키는 강원도식 명칭으로 깍두기, 식해, 김치 등을 담글 때 젓갈 대신 사용해 왔다.

명태 아가미 식해는 영동지역 중에서도 속초와 거진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향토 음식이다.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단 맛을 보면 다시 찾게 되는 독특한 음식 중의 하나이다.

소금에 절인 명태 아가미와 고추 물을 들인 무를 함께 버무려 익힌 음식이다.

〈 만드는 법 〉

① 명태 아가미는 소금에 절인 후 물기를 빼 놓는다.
② 무는 4cm로 채 쳐서 소금물에 절였다가 살짝 짜 준다.
③ 좁쌀은 깨끗이 씻어 되직하게 밥을 짓는다.
④ 무와 고추가루를 버무려 붉은 색이 나면 조밥, 파, 마늘, 생강, 소금, 서거리를 넣어 엿기름 물을 붓고 버무린다.
⑤ 항아리에 눌러 담아 3~4일 간 삭힌다.

〈 사진 8-1-6 〉 명태 아가미 식해
자료 : 『강원의 맛 김치』, 강원도 농업기술원, 2004, p.86

(라) 서거리 김치

명태 아가미 김치는 뼈째 삭히는 식품이라 칼슘과 단백질 및 유산균이 풍부하여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줄 수 있는 식품이다.

〈 만드는 법 〉

① 생태의 붉은 아가미를 떼어 깨끗이 씻어 진을 빼고 물에 담가두었다가 아가미를 낱낱이 뜯어 설탕을 넣고 주무른다.
② 무는 굵게 썰어 고춧물을 들인다.

③ 서거리에 고추 물을 들인다.
④ 서거리와 무를 함께 김치 담그듯이 양념으로 버무려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는다.
⑤ 20일간 삭힌 후 먹는다.

〈 사진 8-1-7 〉 서거리 김치
자료 : 『강원의 맛 김치』, 강원도 농업기술원, 2004, p.80

2) 회국수

예전에 항포구에서 오징어나 가자미를 회로 만들어 고추장에 버무려 국수와 함께 먹던 회국수가 이제 속초의 별미로 자리 잡고 있다. 1980년대 초에 우연히 가자미회를 국수와 함께 버무려 팔기 시작했던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16].

회국수의 주재료는 싱싱한 생선으로 철에 따라 많은 생선이 나지만 무엇보다도 가자미와 오징어가 가장 좋다고 한다. 특히 가자미는 사철 즐길 수 있는 횟감으로 뼈와 함께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회국수에는 싱싱한 횟감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는 데 생선과 궁합이 잘 맞는 깻잎이나 상추, 쑥갓 등의 향긋한 맛이 생선의 비린내를 덜어주고 회국수의 신선함을 더한다. 특히 바다 밑에서 해녀들이 직접 뜯어온 생미역을 넣은 회국수는 그 중에서도 별미로 친다. 회국수를 먹기 전에 나오는 진한 멸치국물은 회국수의 매운 맛을 순화시켜주고 속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 만드는 법 〉

① 국수는 끓는 물에 삶아 놓는다.
② 가자미는 뼈째 썰어서 양념장에 무친다.
③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깨소금, 참기름, 식초, 다진 마늘, 다진 파 등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16) 최정자, 60세, 속초회국수 운영

④ 깻잎과 상추, 배는 채 썰어 둔다.
⑤ 멸치, 다시마, 간장, 된장 등을 넣어 육수를 만든다.
⑥ 그릇에 삶은 국수, 양념한 가자미, 채소와 배를 넣고 비빈다.
⑦ 육수를 곁들인다.

〈 사진 8-1-8 〉 속초회국수집에서 판매되는 회국수

〈 사진 8-1-9 〉 회국수는 국수에 비벼서 먹는 것이 제 맛

3) 물곰탕(곰치국)

곰치라고도 하는 물곰은 사실 예전에는 어부들이 잡아 올려도 살 사람이 없어서 바다에 다시 버리던 생선이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시원한 국물 맛 때문에 해장국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부가 흐물흐물하여 징그럽기 짝이 없지만 거칠거칠한 겉껍질을 벗겨내고 내장을 제거한 후 머리와 몸통을 큼직하게 듬성듬성 잘라 탕을 끓이면 시원한 맛을 낸다. 『자산어보』에는 "고기 살이 매우 연하고 뼈도 무르다. 맛은 싱겁고 곧잘 술병을 고친다"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숙취 해소에 좋은 효과를 본다.

〈 만드는 법 〉

① 곰치는 겉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한 후 토막을 낸다.
② 끓는 물에 익은 김치를 썰어 넣고 한번 끓인 후 곰치를 넣는다.
③ 어슷어슷 썬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을 넣어 양념을 하고 한번 더 끓인다.
④ 내장과 알집은 잘 손질하여 같이 끓이면 더욱 진한 맛을 낼 수 있다.

4) 오징어

오징어는『규합총서』에 의하면 "물위에 떴다가 까마귀를 보면 죽으므로 오징어(烏賊魚)라 한다. 배 모양 같은 뼈가 누혈(漏血)과 금창(金瘡)에 피 그치게 하는 데 그만이요 그 배의 검은 먹물로 글씨를 쓰나 해가 바뀐 즉 빛이 없어져 빈 종이가 된다 하므로 헛맹세를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살을 얇게 저며 골패모양과 같이 썰어 닭 속에 깻국을 걸러 여름에 쓰면 소담하고 영계찜에 넣어도 좋다"고 하였다.

오징어에는 콜레스테롤이 100g당 180㎎정도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과 관련된 식품으로 외면받기도 했으나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껍질부분을 날것일 경우 소금을 조금 묻혀서 벗겨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줄일 수 있다[17].

17) 장상문 외 3인,『식품재료학』, 광문각, 2005, p.233

〈 사진 8-1-10 〉 속초시 중앙시장에서 싱싱한 오징어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

오징어를 이용한 동해안지방의 명물 요리로 오징어를 잘게 썰어 만든 오징어 물회 국수가 있고 또 오징어로 순대를 만들기도 하고 오징어 젓갈을 담그기도 한다. 오징어젓의 원료는 배에서 잡자마자 냉동상태로 보관된 선동 오징어가 주로 쓰인다.

〈 사진 8-1-11 〉 빠른 손동작으로 오징어를 다듬는 모습

최근에는 음식으로 뿐만이 아니라 속초의 대표적인 산물중 하나인 오징어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매년 피서의 절정기인 7월 중순~8월 초에 속초해양페스티발과 함께 여름축제의 대명사로 장사동 장사항 해변에서 오징어 맨손잡기를 개최하고 있다. 속초의 명물, 살아 꿈틀거리는 오징어의 싱싱함을 맨손으로 잡는 체험과 함께 살아있는 오징어를 직접 잡아 싱싱한 회로 맛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가) 오징어를 이용한 음식

(1) 오징어물회

속초의 먹을거리는 아무래도 바다에서 나오는 싱싱한 해산물을 꼽을 수 있는 데 오징어 물회는 어부들이 바다에서 2개월 정도의 장기조업을 할 때 건강식으로 먹는다고도 한다.

오징어는 그냥 회로 먹기보다도 채소와 초고추장, 참기름, 양념으로 버무린 오징어회에 시원한 물을 부어서 만든 물회로 먹으면 그냥 회와는 또 다른 특색 있는 입맛을 느낄 수 있다.

〈 만드는 법 〉

① 오징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 다음 깨끗이 씻어 둔다.
② 오징어는 가늘게 채 썰고 깻잎, 오이, 양파 등의 채소도 채 썰어 둔다.
③ 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송송 썰어 두고 파도 잘게 썬다.
④ 얼음물에 고추장 양념을 풀어 준비해 둔 재료를 모두 넣는다.
⑤ 삶은 국수나 밥과 함께 먹는다.

〈 사진 8-1-12 〉 오징어물회

(2) 오징어젓(젓갈부분 참조)

(3) 오징어불고기

〈 만드는 법 〉

① 오징어는 내장을 빼고 배를 가른 후 그대로 또는 여덟 조각으로 자른 후 1cm 간격으로 어슷하게 칼집을 넣는다.

②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 생강즙, 간장 등으로 양념장을 만든다.

③ 오징어에 양념장을 골고루 바른 후 석쇠에 굽는다.
(이때 고추장 양념은 타기 쉽기 때문에 주의한다)

(4) 말린 오징어

말린 오징어의 껍질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이 성분은 피로회복에 좋으며 콜레스테롤계의 담석을 용해시키고, 간장의 해독기능을 강화시켜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 사진 8-1-13 〉 노상에서 오징어를 손질하는 여인들 (좌)
〈 사진 8-1-14 〉 오징어를 말리기 위해 꼬챙이에 꿰어 준다. (우)

〈 사진 8-1-15 〉 말리기 전에 다시 한번 오징어를 씻어 준다. (좌)
〈 사진 8-1-16 〉 오징어를 말리기 위해 가지런히 매단다. (우)

〈 사진 8-1-17 〉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건조한다.

5) 도루묵

'도루묵'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널리 알려진 대로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피난하던 도중 먹었던 생선이름에서 온 말이다. 도루묵은 '은어'를 가리키는 말로 원래 '묵'이라고 부르던 생선을 피난 중이던 선조 임금이 맛있게 드시고 그 이름을 은어로 고쳤으나 피난 후 다시 환궁하여 먹으니 그 맛이 나지 않아 '도로 묵'이라고 부르라고 한데서 유래하였다. 그 후 '도로 묵'이 '도루묵'으로 발음이 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연에 유래하여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를 속되게 일러 '도루묵'이라고 한다.

도루묵은 요즘에는 귀한 생선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값싼 생선이었다. 해마다 산란기인 11~12월 사이가 되면 알이 가득 든 도루묵을 먹기 위해 속초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포항과 동명항에는 새벽에 도룩묵을 싸게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한다. 도루묵은 산란하는 알의 수가 1,000~1,500개로 많지 않지만 알이 큰 편이라 알이 꽉 차고 실하여 찌개뿐만 아니라 구이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예전에 속초수산시장에서는 도루묵알을 덜 쪄서 팔았는데 덜 쪄진 도루묵 알을 입안에 넣고 터뜨려 먹으면

고소한 맛과 톡톡 나는 소리에 재미가 더해졌다.

도루묵은 단백질 양은 다소 적지만 지질이 풍부하고 생선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랫동안 찜을 하거나 기름으로 튀기면 구수하고 뼈째 먹을 수 있어 발육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된다.

가) 도루묵을 이용한 음식

(1) 도루묵찌개

〈 만드는 법 〉

① 도루묵은 내장이나 알 등은 그대로 둔 채 깨끗이 씻는다.
② 무는 납작하게 썰어서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끓인다.
③ 손질된 도루묵을 넣고 고춧가루, 파, 마늘 등의 갖은 양념을 한 후 끓인다.

〈 사진 8-1-18 〉 도루묵찌개

(2) 도루묵 구이

〈 만드는 법 〉

① 도루묵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석쇠 등에 굽는다.

(3) 도루묵(명태)칼국수

〈 만드는 법 〉

① 냄비에 물을 붓고 적당량의 고추장과 된장을 풀고 호박, 감자를 넣고 끓이다가 생선을 넣어 끓인다.
② 생선이 다 익으면 생선 가시를 발라낸다.
③ 칼국수를 넣고 끓이면서 다진 파, 다진 마늘, 후추, 깨소금을 넣고 간을 한다.

6) 삼숙이탕(삼세기탕)

삼숙이는 속초에서 많이 나는 생선으로 '삼세기'라고도 불리며 입이 큰 못생긴 생선으로 된장을 풀고 끓이면 시원하고 구수한 맛이 난다.

〈 만드는 법 〉

① 삼숙이의 껍질을 벗기고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한다.
②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토막 낸 삼숙이를 넣고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을 넣고 얼큰하게 끓인다.

7) 미역

우리의 식생활에서 미역은 매우 친숙한 식품 중 하나이다. 주로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번성하는 일년생을 채취하여 햇볕이나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한다.

가) 미역을 이용한 음식

(1) 미역나물

〈 만드는 법 〉

① 생미역을 데친다.
② 쇠고기는 양념하여 볶아 놓는다.
③ 그릇에 볶은 쇠고기, 생미역,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 깨소금, 소금, 참기름, 식초를 넣어 무친다.

(2) 가자미미역국

〈 만드는 법 〉

① 미역은 불러 적당히 썰어 냄비에 볶는다.
② ①에 물을 부어 끓인다.
③ 손질한 가자미는 포를 떠서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게 썰어 밑간을 해서 재운다.
④ 국물이 끓으면 가자미를 넣어 끓인다.
⑤ 찹쌀가루로 새알심을 빚어 넣고 한소끔 끓인다.

(3) 쇠미역쌈

〈 만드는 법 〉

① 쇠미역의 뿌리 부분을 다듬어 내고 씻은 후 끓는 물에 데친다.
② 식으면 10㎝길이로 잘라, 쌈을 싸기 좋은 모양으로 손질하여 양념 초고추장과 함께 낸다.

(4) 쇠미역튀각

마른 쇠미역을 튀겨 까맣고 연하게 만드는 것으로 연하고 맛이 있다.

〈 만드는 법 〉

① 마른 쇠미역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130~140℃정도의 기름에 튀겨낸다.
② 튀겨 낸 뒤 설탕을 뿌리기도 한다.

8) 감자

감자는 조선중기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쌀, 보리를 재배하기 힘든 지역에서 식량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강원도는 '감자바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감자가 유명하고 많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관령을 낀 고랭지에서의 생산량이 특히 많다. 영동지역은 7~8월이면 감자 수확을 하는데 이 고장에서는 감자부침, 감자옹심이, 감자국수, 감자떡 등이 그 대표적인 음식이다.

감자는 땅속뿌리의 마디에 전분이 축적하여 끝이 비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형태와 표면의 색은 품종에 따라 다르다. 감자는 전분과 단백질 함량차이에 따라 분질감자와 점질감자로 나뉘는 데 분질감자는 감자의 살색이 희고 전분질이 많아 잘 부서지는 반면 점질감자는 살색이 노랗고 단백질 함량이 많으며 강한 점성을 가지며 기름에 볶는 요리에 적합하다.[18)]

감자에는 단백질이 1.4~2.5% 함유되어 있으며 아미노산 조성이 매우 우수하며 무기질 중 칼륨과 인도 풍부하다. 또한 펙틴(pectin)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가) 감자를 이용한 음식

(1) 감자부침

감자를 강판에 갈아 윗물은 버리고 앙금에 부추, 다홍고추를 얹어 만든 부침개의 일종이다.

18) 송주은 외 2인, 『조리원리』, 백산출판사, 2001, p.120

〈 만드는 법 〉

① 감자를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간다.
② 간 감자의 윗물은 버리고 앙금에 소금 간을 한 다음 한 국자 정도 덜어 지진다.
③ 부추와 다홍고추를 얹거나 양념장과 함께 곁들인다.

(2) 감자옹심이

옹심이라는 말은 수제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자옹심이는 원래 강판에 갈아서 만드는 데 옛날에 강판이 귀했을 때는 깡통에 대못으로 구멍을 여러 개 뚫어 그 거친 면을 강판 대신 사용하기도 하였다.

〈 만드는 법 〉

①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 베보자기로 물기를 짜 낸 후 앙금을 가라앉힌다. 물기를 너무 많이 짜 내면 옹심이가 딱딱해 진다.
② 앙금과 감자 건더기를 섞어 소금으로 간을 하여 새알 크기로 빚어 서늘한 곳에서 물기를 빼 둔다.
③ 멸치와 다시마는 1시간 이상 끓여 육수를 만든다.
④ 호박은 채 썰어 팬에 볶는다.
⑤ 육수가 끓으면 옹심이를 넣고 다시 끓인다.
⑥ 깐 감자는 반달썰기 하여 육수에 넣고 끓인다.
⑦ 옹심이를 넣어 끓인 다음 호박 채를 올리고 양념장과 함께 낸다.

〈 사진 8-1-19 〉 감자옹심이

(3) 감자 시루떡

감자를 갈아 건더기와 앙금을 익반죽하여 팥고물을 얹어가며 시루에 안쳐

찌는 떡이다.

〈 사진 8-1-20 〉 감자 시루떡

〈 만드는 법 〉

①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 강판에 간다.
② 건더기는 따로 분리해 놓고 나머지를 1시간가량 두어 녹말을 가라앉힌다.
③ 건더기를 베보자기에 넣고 물기를 짠 다음 녹말 가라앉힌 것과 함께 섞는다.
④ 삶아 놓은 팥에 설탕을 넣어 조미한 후 준비한 재료를 한 켜씩 넣고 쪄내어 뜨거울 때 먹는다.

(4) 감자송편

여름철 감자가 많이 날 때 상처가 나서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감자로 녹말을 내어 만드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별미음식이다[19].

생전분이 아닌 감자를 썩혀 만든 감자 녹말가루로 떡을 만들면 특유의 냄새가 있으나 구수한 맛은 일품이다. 쌀이 부족한 강원도에서 주식대용으로 고추장, 김치와 곁들여 먹기도 하였다.

〈 만드는 법 〉

① 감자녹말가루에 끓는 물과 소금을 넣어 익반죽한다.
② 강낭콩은 삶아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맞춘다.
③ 거피팥은 소금, 설탕, 물엿을 넣어 뭉쳐 직경 1.5㎝ 크기로 소를 빚어둔다.
④ 송편 만들 듯이 강낭콩소나 거피팥소를 넣고 손가락자국이 나게 빚어 시루에 찐다.
⑤ 뜨거울 때 먹어야 쫄깃한 제 맛이 난다.

19) 곽계생(여) 1931년생, 대구 출신, 속초 44년거주

〈 사진 8-1-21〉 감자 송편

9) 순두부

학사평 마을은 과거부터 바람이 심하고 진흙이 많으며 오랜 시간 비와 바람으로 인한 화강암층 모래가 산으로부터 유입되어 곡식이 척박하게 자랐다. 이러한 척박한 토양에서 적응해 자랄 수 있는 곡식의 종류는 극히 제한되었다. 하지만 어떠한 토양환경에서도 결실을 맺은 곡류는 콩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콩의 제배면적이 늘어났고, 콩음식이 발달할 수 있었다.

특히 가공식품으로서 순두부, 모두부가 발달했으며, 30여 년 전에는 각 가정마다 두부 틀이 갖추어져 있을 정도로 두부음식이 발달했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학사평저수지 공사가 4년여에 걸쳐 이루어졌고, 공사기간 중 술안주로서 술상에 올려져 나누어 먹던 모두부와 순두부, 콩국수 등 콩요리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상업적인 제품으로 발달하였다.

그 이후 마을 할머니들이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인근 마을까지 판매하게 되었고, 1970년대 학사평 일대에 동원예비군 훈련장이 생기면서 순두부와 모두부 요리가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후 1979년부터 명성콘도(설악한화프라자)가 생기면서 지역 할머니들이 순두부 전문 음식점을 차리면서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처음 순두부 요리가 선보일 당시에는 순두부 1그릇이 300원, 모두부 1접시가 500원 이었으며 막걸리 한 되가 300~400원이었다.

학사평에서는 예로부터 콩물을 끓인 후 응고 과정에서 일반 간수가 아닌 동해의 바닷물을 이용해 부드럽고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내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었다. 바닷물에는 60여종의 무기염류와 영양염류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소금물로 간수를 했을 때보다도 순두부의 영양과 맛이 살아 있다. 간수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서 다양한 두부 맛이 나오기 때문에 유명한 두부

음식점들은 간수 맞추는 법을 비법으로 여기고 있다. 학사평순두부는 설악권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지금은 80여개의 식당들이 모여 순두부촌을 이루고 있다.

〈 사진 8-1-22 〉 학사평 콩꽃마을의 전경

또한 2003년부터 학사평 순두부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속초시가 후원하여 학사평 콩꽃마을 순두부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여기서는 팜스테이 문화행사로 순두부 제조과정 시연, 콩꽃마을 가을바람 어린이 사생대회와 어린이 백일장, 콩꽃마을 논길 야생화, 곤충채집이 열리며, 축하공연, 통기타 공연, 마술공연, 태권무 시범, 마술공연, 어린이 동요 경연대회, 청소년 장기자랑, 학사평 노래자랑 등의 공연무대와 순두부 무료 시식회, 두부 콩 갈기 대회, 두부요리 경연대회, 순두부 O · X퀴즈, 콩 절구 찧기 대회, 멧돌 장사 선발대회, 두유 빨리 마시기 대회, 두부 먹고 풍선 불기, 전통주(막걸리) 빨리 마시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져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발전하였다.

〈 사진 8-1-23 〉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순두부축제

가) 순두부를 이용한 음식

(1) 순두부

순두부는 '수두부(水豆腐)'라고도 하는 데 눌러서 굳히지 않아 수분이 많이 포함된 두부라는 말이다. 이런 순두부에서 수분을 빼면 모두부가 된다. 순두부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부드럽고 모두부보다 콩 특유의 향기가 그대로 살아 있어 건강식, 해장국, 다이어트음식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만드는 법 〉

① 콩 고르기 : 질 좋은 국산 콩을 선별하여 잘 손질한다.
② 콩 불리기 : 선별한 콩을 계절에 따라 6~12시간 정도 불린다.
③ 콩 갈기 : 불린 콩은 맷돌을 이용하여 갈아 주는 데 이때 콩 불린 물을 함께 넣어 갈아야 제 맛이 난다.
④ 콩물 걸러내기 : 갈은 콩을 촘촘한 천에 거른다. 여기서 남은 찌꺼기가 바로 비지인데 이것으로는 비지찌개를 만든다.
⑤ 끓이기 : 콩물은 약 30분 정도 끓인다.
⑥ 간수하기 : 끓인 콩물은 김을 뺀 다음에 바닷물(간수)을 서서히 넣어 가면서 잘 저어 준다. 간수는 2~3번으로 나누어 부어야 부드럽게 된다. 한꺼번에 간수를 주면 두부가 딱딱해 질 수 있다.
⑦ 순두부 만들기 : 이때 콩물이 서서히 응고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컹한 것이 바로 순두부이다.
⑧ 모두부 만들기 : 작은 구멍이 뚫린 네모난 틀 안에 천을 깔고 갓 만들어진 순두부를 넣은 다음 천으로 싸서 뚜껑을 덮은 후 무거운 돌을 얹어 수분을 빼면 모두부가 완성된다.

〈 사진 8-1-24 〉 콩꽃마을에서 생산되는 두부

〈 사진 8-1-25 〉 두부를 만들고 나서 얻어지는 비지

(2) 순두부찌개

〈 사진 8-1-26 〉 고춧가루를 넣은 순두부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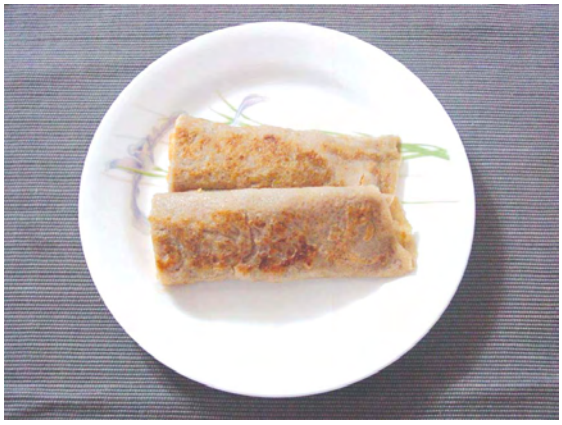
10) 메밀전병(총떡)

반죽한 메밀가루를 번철에 부쳐 소를 박아 만든 부침개의 일종이다. 삼별초와 격전을 벌였던 여·몽 연합군의 일원인 몽고인들에 의해 전해졌다고 한다. 원래 이 메밀이 전래된 데는 몽고인들의 속셈이 있었다. 몽고인들은 메밀에 독성이 있다고 여겨 삼별초를 도왔던 제주사람들을 골탕 먹일 속셈으로 메밀씨앗을 전해 준 것인데 실제로 이 곡물은 타 곡물에 비해 무기질(회분)함량이 높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곡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소화효소가 풍부한 무를 함께 섭취함으로서 몽고 사람들을 오히려 놀라게 했는데 메밀과 무의 찰떡궁합이 낳은 대표작이 바로 빙떡이고 이후 제주 사람들의 빈약한 먹거리를 보완해주는 효자 음식이 되어 제주의 관혼상제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특별식이 되었다. 그 후 강원도에 전해지면서

총처럼 생겼다 해서 '메밀총떡' 또는 '메밀전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강원도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다. 예전에는 소의 재료로 능쟁이 나물이나 말린 고추잎 등을 물에 데쳐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맛을 내기 위해 양념을 해 볶은 돼지고기와 채를 썰어 무친 김치를 섞어 넣는다. 또한 강원도 원주에서는 콩나물을 넣어 만들기도 하며 영월, 제천등지에서는 김치로만 속을 넣는 등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 만드는 법 〉

① 메밀가루에 소금을 섞고 물을 조금씩 넣어 묽게 반죽한다.
② 돼지고기는 채 썰어 양념하여 볶는다.
③ 김치는 채 썰어 볶아 놓은 돼지고기와 함께 무친다.
④ 팬에 기름을 두르고 메밀반죽 한 국자를 떠서 얇게 핀 후 김치와 돼지고기를 길게 얹은 후 돌돌 말아 지져낸다.
⑤ 한 김 나가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초간장을 곁들인다.



〈 사진 8-1-27 〉 메밀전병

〈 사진 8-1-28 〉 속초시 중앙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밀을 이용한 음식들

11) 도토리

도토리는 참나무과의 도토리나무(*Quercus acutissima Carr.*)의 열매로 우리나라 전국의 산에 널리 자생하고 있다. 모양은 구형 · 난형 · 타원형 등이 있으며 크기도 다양하다. 겉에는 단단하고 매끄러운 껍질이 있고 그 속에 1개의 커다란 씨가 들어 있다. 아래쪽 또는 중간 정도까지 깍정이[穀斗]로 싸여 있는데, 이것은 밤의 가시껍질처럼 표피가 변화한 것이다.

도토리에는 탄수화물과 지방함량이 많아 옛날부터 식용으로 이용되었으며 1974년 서울 암사동에서 B.C 5000년 것으로 보이는 신석기시대 주거지에서 탄화된 도토리알 20톨이 발견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식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옛말에 "도토리나무는 들판을 내다보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참나무에서 열린 많은 도토리를 곡식 대신 먹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흉년을 대비한 구황식물로 첫 번째는 도토리를, 그 다음으로 소나무를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벼가 도입되면서 도토리보다는 벼나 보리를 주식으로 쓰게 되었고 가뭄이 들었을 때 곡식 대신으로 먹거나 도토리묵 또는 도토리빈대떡을 만들어 먹었다.

요즈음에도 도토리묵은 널리 애용되고 있으며 도토리수제비나 도토리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그러나 도토리에는 탄닌 성분이 많아 날것은 너무 떫어 먹을 수가 없다.

가) 도토리를 이용한 음식

(1) 도토리묵 무침

〈 만드는 방법 〉

① 도토리묵은 사방 2×3×1㎝크기로 썬다.
② 오이는 반으로 잘라 얇게 썰고 풋고추, 홍고추는 갈라서 씨를 빼고 어슷하게 채 썬다.
③ 채소와 묵을 한데 담아 양념간장을 넣고 살짝 버무리거나 접시에 담고 위에 양념간장을 뿌린다.

(2) 도토리송편

도토리송편 속에 들어가는 소는 검은콩 외에 팥이나 청대콩, 강낭콩, 동부 등을 넣기도 한다. 떡에 사용되는 도토리가루는 도토리를 맷돌에 갈아서 물

에 오랫동안 담가 떫은 맛을 없앤 다음 웃물을 버리고 가라앉은 녹말을 햇볕에 말려서 만든 것을 사용한다.

〈 만드는 법 〉

① 멥쌀은 3~4회 깨끗이 씻은 후 8~12시간 물에 담갔다가 소쿠리에 건져서 분량의 소금을 넣고 가루로 빻아 체에 내린다.
② 멥쌀가루에 도토리가루를 넣어 고루 섞은 후 끓는 물로 익반죽한다.
③ 검은콩은 물에 3~4시간 불린 후 건져서 물기를 뺀 다음 분량의 소금과 설탕을 넣고 속을 만들어 놓는다.
④ 준비한 송편반죽을 조금씩 떼어 동그랗게 빚어 소를 넣고 예쁘게 송편을 빚는다.
⑤ 찜통에 솔잎을 깔고 송편을 얹어 김이 오르면 15~20분 정도 쪄낸 다음 찬물에 헹구어 솔잎을 떼어낸 후 참기름을 바른다.

〈 사진 8-1-29 〉 도토리 송편
자료 : 『강원의 맛 -떡-』, 강원도 농업기술원, 2005, pp.94~95

12) 호박범벅

〈 만드는 법 〉

①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속을 긁어 다듬은 후 도톰하게 썰어 놓는다.
② 냄비에 물을 붓고 호박과 설탕을 넣고 푹 삶아지면 건더기를 건진다.
③ 삶은 팥, 고구마, 밤을 호박 삶은 물에 넣고 무르게 삶는다.
④ 어느 정도 익으면 찹쌀가루 푼 물을 조금씩 따라 부으면서 주걱으로 눌지 않게 저어 준 후 호박 건더기를 넣고 약한 불에서 끓여 낸다.
⑤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을 한다.

13) 지누아리 장아찌

해초류인 지누아리를 약간 말려 고추장에 박아 만든 장아찌이다[20].

〈 만드는 법 〉

① 마른 지누아리를 물에 불린 후 간장에 담갔다가 간장을 따라낸다.
② 여기에 고추장과 양념을 넣어 잘 섞어 간장을 자작하게 다시 부어둔다.
③ 먹을 때에는 장아찌에 다진 파, 마늘, 조청, 참기름, 깨소금 등으로 양념을 하여 먹는다.

나. 전통적인 속초의 식문화[21]

1) 부엌의 세간과 조리도구

가) 부엌 공간

우리나라 재래의 주택구조에서 조리를 하는 공간을 궁가에서는 반비간(飯婢間)이라 하여 별동(別棟)에 있지만 중류의 가정에서는 부엌을 정지, 정지간이라 부르며 대개 부엌과 부엌에 붙은 찬간(饌間)이 있다. 대청과 부엌, 장독대와 광, 우물을 오가야 하는 작업 동선이 길고 복잡하다. 부엌은 조리뿐만 아니라 난방을 위해 아궁이에 장작이나 짚으로 불을 지펴야 하므로 바닥은 흙바닥이며 한 단계로 꺼져 있고 아궁이 위에 큰 솥가마와 작은 솥을 항상 걸어 놓는다. 부엌 출입구의 위나 벽에는 상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매어 일상에 쓰이는 소반을 엎어 놓았다.

물은 밖의 우물에서 물동이에 떠와 큰 독에 담아 쓰며 개수대가 없어 쓰고 난 물을 밖에 내다 버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리의 연료는 아궁이에 붙은 큰 솥은 물솥이고 중솥과 작은 솥에 밥을 짓고 국을 끓인다. 찬이나 찌개는 아궁이의 불을 조금 내어 삼발이를 얹어 이용하거나 화로나 풍로에 불을 피워 하였다.

나) 세간과 조리도구

(1) 나무로 만든 세간과 도구

(가) 찬장

음식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 등을 넣어 두는 나무로 만든 장이다.

20) 김옥순(여) 1926년생, 고성출신, 속초 70년 거주

21) 황혜성 외 2인, 『한국의 전통음식』, 교문사, 1998, pp.72~84

(나) 탁자장

층층이 선반으로 되어 있는 찬장이다.

(다) 뒤주

나무로 궤짝을 만들어 모서리에 기둥을 네 개 세우고 발을 단 다음 윗 뚜껑을 반만 열 수 있게 하여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이다. 쌀뒤주는 크기가 크고 다른 잡곡들을 담는 뒤주는 작다.

(라) 목판

음식을 담아 나르는 장방형의 좌판으로 얇은 널판에 좁은 전을 사방으로 대었으며 크기가 여러 가지이다.

(마) 함지

통나무의 속을 파 낸 다음 둥글게 만든 것으로 좁은 전이 있거나 옆에 손잡이를 만든 귀함지가 있다. 가루나 떡을 담을 때 쓴다.

(바) 김칫독

오지나 질그릇의 운반이 어려운 강원도 산간지대에서는 굵은 피나무의 속을 파내어 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굵은 피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자른 뒤에 양쪽에서 속을 파내어 5㎝ 두께의 원통을 만든다. 아래에는 소나무로 된 함지모양의 받침을 끼우고 그 굽에는 괭이풀을 이겨 발라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주로 겨울철의 김치를 갈무리하여 이를 김칫독이라고 부른다. 곡물이 담긴 항아리나 독은 두트레방석으로 덮는다. 이것은 짚으로 둥글고 두툼하게 짠 것으로, 한쪽에 고리를 달아 손잡이에 대신한다. 김칫독의 수명은 2~3년이며, 무게는 1.5㎏ 안팎이다.

(사) 찬합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나무나 칠기, 사기로 동그랗거나 네모로 만들었다. 한 층 또는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아) 구절판

팔각 모판 가장자리의 여덟 칸과 가운데 큰 칸의 아홉 칸으로 나뉜 목기이다. 밀전병을 가운데 담고 가장자리에 찬을 담아 싸서 먹는 구절판을 담는다. 지금은 그릇명이 음식명으로 되었다.

〈 사진 8-1-30 〉 마른구절판

(자) 되, 말, 홉

곡물의 양을 재는 계량기로 나무로 만들었다.

(차) 이남박

둥근 목기에 홈을 파서 곡물을 씻을 때 돌, 흙을 고르는 도구이다.

(카) 체

가루를 빻아서 곱게 칠 때 쓰는 도구로 나무쪽을 휘어서 바퀴로 삼고 말총으로 쳇불을 짜서 메운 것이다. 체는 구멍의 크기에 따라 어레미, 도드미, 중거리, 가루체, 고운체 등이 있다. 고운체는 삼 또는 명주 등으로 되어 있어 미세한 가루나 술, 간장 등을 거를 때 사용한다.

(타) 쳇다리

체를 걸쳐 놓아 가루가 잘 빠질 수 있게 한 것으로 나무가 양 갈래로 벌어져 있다.

(파) 밀판

넓은 나무판으로 가루반죽을 넓게 미는 데 쓰인다.

(하) 다식판

깨, 콩가루 등을 꿀로 반죽한 것을 넣고 다식을 박아 내는 나무로 된 틀이다. 나무에 여러 가지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 사진 8-1-31 〉 다양한 종류의 다식판

(갸) 떡살

'떡본' 또는 '떡손'이라고도 하며 쌀로 만든 절편에 문양을 찍는 도구이다. 형태로는 원형, 막대형 등 크기와 형태가 여러 가지이고 떡을 하나씩 찍을 수 있는 것과 연결하며 찍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떡살의 문양은 부귀수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주로 길상무늬, 태극무늬, 빗살무늬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가문에 따라 정해지며 집안의 상징적인 무늬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재질로는 참나무, 감나무, 박달나무, 사기, 백자, 오지 같은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다. 도자기로 만든 것도 있지만 나무로 만든 것이 더 일반적이다.

〈 사진 8-1-32 〉 떡살로 모양을 낸 절편

(2) 돌로 만든 도구

(가) 디딜방아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찧거나 빻아 가루를 내는 데 사용되는 디딜방아의 원

형은 석기시대의 연석(軟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연석은 돌확과 절구의 두 형태로 발전했는데 절구에서 디딜방아, 물방아, 물레방아 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벽화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사회에서도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디딜방아는 방아와 확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땅을 움푹 파서 홈파진 절구확을 묻어 놓은 것을 확이라 하며, 방아는 나무로 만들어져 두 다리 또는 외다리로 되어 있다. 보통 2명이 딛는데 1명이 방아에 올라서서 힘을 주면 다른 1명은 계속 확에 알곡을 집어넣는다. 3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늘어뜨린 방아 줄을 붙잡고 방아를 찧는다. 협동이 잘되어야 효율성도 높고 힘이 적게 들며, 일할 때는 방아타령을 불러 신명을 돋우기도 한다.

(나) 연자방아

현재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연자방아는 연자매라고도 하며 알곡 및 가루를 내는 도구이다. 방아는 디딜방아 · 연자방아 · 물레방아의 순서로 발달해왔다. 간단한 곡식은 맷돌이나 절구, 매통을 이용하지만 대규모로 찧는 데는 방아가 필요하다. 디딜방아는 소출이 작지만 소나 물이 없어도 쉽게 설치할 수가 있어서 가장 많이 보급되었다. 반면 물레방아는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물이 귀한 농촌에서는 설치가 어려웠다. 연자매도 윗돌과 밑돌에 쓰이는 커다란 돌을 구해야 하고 축력에 의존하는 부담이 있어 소가 귀한 농촌에서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개인이나 마을공동 소유로 이용했다.

그 원리는 윗돌의 중심에 구멍을 뚫고 나무막대를 가로질러서 소의 멍에에 고정시키면 소가 돌면서 돌을 돌리게 된다. 돌은 요철(凹凸)로 만들어져서 집어넣은 곡식이 돌아가는 돌의 압력에 눌려 으깨지면서 껍질이 벗겨지거나 가루가 나게끔 되어 있다. 보통 소를 모는 사람과 곡식을 넣는 사람 2명 정도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 오래 사용하면 돌의 요철이 마모되어 작업능률이 떨어지므로 주기적으로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정으로 돌을 쪼아서 요철을 보강해주어야 한다. 정미소가 발전하고 전기에 의한 정미법이 보급되면서 차츰 사라져 이제는 거의 쓰지 않는다.

(다) 절구와 절구공이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낼 때, 그리고 고수레떡을 만들어 칠 때 쓰인다. 속이 우묵하게 판 확속에 재료를 넣고 공이로 찧는다. 만드는 재질에 따라 나무절구, 쇠절구, 돌절구로 부르며 절구공이와 절구의 재질은 보통 같

은 것으로 한다.

〈 사진 8-1-33 〉 절구질을 해보는 어린이

(라) 맷돌과 맷방석

곡식을 타거나 팥, 콩, 메밀, 녹두 등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데 쓰는 제분용(製粉用) 도구이다. 납작한 원통 모양의 돌 2개를 위아래로 맞추어놓은 형태로, 위짝의 것은 암쇠라 하여 구멍이 뚫려 있고, 아래짝은 수쇠라 하여 가운데가 뾰족해 위짝과 맞추도록 되어 있다. 보통은 위와 아래의 짝을 연결하는 중쇠가 있으며 위짝에 손잡이인 맷손이 달려 있다. 중쇠와 손잡이만 갈아끼우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양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크게 나누어 중부와 남부 지방의 것으로 구분된다. 중부지방의 맷돌은 암쇠와 수쇠의 크기가 같고, 매함지(굵은 통나무를 둥글고 편평하게 짠 것으로 갈아진 곡물가루를 담는 함지)나 매판(매함지가 귀한 곳에서 사용하며 Y자형으로 갈라진 넓고 두툼한 나무에 3개의 발을 달고 맷돌을 올려놓는 판)을 깔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남부지방의 맷돌은 수쇠가 암쇠보다 넓고 크며 한 옆에 주둥이까지 길게 달려 있어 매함지나 매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균형이 잡히고 섬세하다.

〈 사진 8-1-34 〉 맷돌을 체험해 보는 어린이

(마) 조리도구

① 칼

음식을 만들 때 썰고 다지는 데 사용한다. 쇠를 달구어 날을 세우고 나무로 자루를 박는다. 우리나라 식도는 특이한 곡선을 이룬 모양으로 크기는 여러 가지이다. 작은 칼은 창칼이라 하고 떡을 써는 전용 떡칼도 있다.

② 도마

칼질을 할 때 받치는 긴 네모의 두꺼운 나무토막이나 널빤지이다. 굵은 나무를 옆으로 토막 내어 둥근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③ 국자

국이나 국물을 뜨는 자루가 긴 도구이다.

④ 복자

한 쪽에 부리가 달려 있어 기름이나 국물을 따를 때 쓴다.

⑤ 강판

넓적한 쇠붙이의 한쪽 바닥이 몹시 거칠거나 잔 톱날이 나와 있어 감자, 생강, 무, 과일 등을 갈 때 쓰인다. 깡통에 큰 대못으로 구멍을 내어 거친 면을 강판대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⑥ 바가지

박을 갈라서 속을 파내고 말려서 물을 푸거나 곡물을 풀 때, 곡류를 씻어 돌을 골라 낼 때 쓴다.

(3) 대나 싸리로 만든 도구

(가) 조리

싸리나 대오리로 엮어 조그마한 삼태기 모양으로 만들어 쌀을 일어 돌이나 뉘를 고르는 데 쓰인다.

(나) 채반

싸리나무로 넓게 만들어서 곡물이나 음식을 널어 말리거나 전이나 부침을 지져 놓는데 쓴다.

(다) 소쿠리

대, 싸리 버들을 엮어서 만든 반구형이다. 물건을 담거나 채소를 씻어서 건질 때 쓴다.

(라) 광우리(광주리)

대, 싸리, 버들 등으로 엮은 커다란 그릇이다.

(마) 바구니

대, 버들, 싸리, 칡넝쿨 등으로 정방형으로 짜고 점차 위로 올라가 높이는 폭과 비슷하고 둥글게 마무리한 그릇으로 음식 뿐 아니라 마른 곡물들도 담아 두는 데 쓰인다.

(바) 다래끼

작은 바구니를 말하며 보통 계란을 넣는 데 사용한다.

(사) 고리

갯버들 가지를 장방향으로 엮고 같은 모양의 뚜껑을 만들어 덮는 그릇이다. 큰 것은 의류나 식기를 담아 보관하고 작은 것은 엿이나 떡을 만들어 선물을 담을 때 쓴다.

(아) 용수

대나무나 싸리로 길이가 길고 폭이 좁게 만든 것으로 예전에는 술이 고이면 박아서 가운데 모이는 맑은 술을 떠냈다. 작은 것은 수저를 꽂아 두고 쓴다.

(자) 키

곡식을 까불어서 쭉쟁이, 티끌, 검부러기 등을 골라내는 그릇으로 고리버들이나 대쪽을 납작하게 쪼개어 앞은 넓고 평평하게, 뒤는 좁고 봉긋하게 만든다.

(4) 불에 쓰는 도구

(가) 가마솥

무쇠로 만든 것으로 크기에 따라 가마솥, 중솥, 작은 솥이 있는 데 밥을 짓거나 국, 물을 끓일 때 쓰이며 여러 가지 음식물을 만들기 위한 음식 조리의 기본 도구이다. 새 살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가마와 솥을 준비하는 풍습이 있고 이사를 할 때도 가마와 솥을 먼저 걸고 그날 밤을 그 집에서 자면 이사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마를 사용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사람들이 날것을 그대로 먹다가 불의 발견으로 익혀 먹게 되면서부터 화식도구들이 만들어 졌는데 신석기 시대의 질그릇 중에서 밑창이 두껍고 불 맞은 흔적이 있는 그릇들은 원시 질가마라고 볼 수 있다. 가마는 재료에 따라 질가마, 오지가마, 청

동가마, 돌가마, 쇠가마 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쇠가마가 기본이다. 쇠가마는 부뚜막에 걸어 놓고 쓰였는데 규모가 컸으며 그 외의 가마는 작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가마는 더 발전하여 그 용도와 형태, 재료가 다양해졌는데 큰 가마(직경 80cm), 중가마(50cm), 작은 가마(30cm) 등 3개씩을 부뚜막에 걸어 놓고 물, 밥, 국이나 찬류로 각각 이용되었다.

돌가마 중에서는 곱돌가마가 가장 좋은 것인데 곱돌가마에 밥을 지으면 곱돌이 은근히 달면서 밥이 잘 되기 때문이다. 곱돌가마는 한 두 사람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크기인데 귀가 달린 것, 손잡이 양쪽에 고리가 붙은 것, 뚜껑에 손잡이가 있는 것 등이 있다.

고려시기까지 솥은 모두 세 개의 발이 붙은 것으로 고대 이래 형태상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솥은 가마에 비해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솥을 대신할 수 있는 삼발이 나오면서 삼발이 위에 새옹이나 그 밖의 그릇을 올려놓고 음식을 끓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사진 8-1-35 〉 가마솥

〈 사진 8-1-36 〉 곱돌가마

(나) 두멍솥

채소를 데쳐 내거나 맑은 국을 끓일 때 쓰인다. 뚜껑은 나무로 만들어 두

짝을 맞추어 덮는다.

(다) 쟁개비

냄비의 본래 이름으로 무쇠나 구리로 만든다.

(라) 퉁노구

작은 가마의 일종으로 노구솥이라고도 하며 놋쇠로 만든 작은 것을 퉁노구라 한다. 한 두 사람의 밥이나 죽을 끓이는 것으로 퉁은 물질이 낮은 놋을, 노구는 몸체와 뚜껑으로 되어 있는 데 모양은 놋새웅과 비슷하지만 새웅보다 좀 크고 몸체의 좌우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이 다르다.

〈 사진 8-1-37 〉 퉁노구

(마) 새웅

밥을 짓거나 죽을 쑤는 데 쓰는 작은 가마의 일종이다. 주로 놋이나 백동으로 만들었다. 모양은 놋대야처럼 쓰였으나 규모가 작고 뚜껑이 있는 것이 다르다. 기록상으로 새웅은 노구보다 늦게 나타났다. 놋새웅은 손님이 오셨을 때 급히 밥을 지어야 할 때 쓰였는데 이렇게 지은 밥을 '새웅밥'이라 한다. 새웅도 밥 짓는 것, 풀 쓸 때 쓰는 것, 밀랍 끓이는 것 등 용도가 다르다.

〈 사진 8-1-38 〉 놋새웅

(바) 번철

화전이나 주악 등 기름에 지지는 떡을 만들 때 사용하며 주로 무쇠로 만들었다. 모양이 솥뚜껑을 젖혀 놓은 모습으로 둥글넓적하게 생겨 예전에는 가마솥 뚜껑을 번철 대신 쓰기도 하였다.

(사) 석쇠

구이를 할 때 쓰고 쇠망이나 철사로 얽어서 만든다.

(아) 풍로

화로의 한 가지로 아래로 바람이 통하도록 되어 있고 흙이나 쇠붙이로 만든다.

(자) 삼발이

둥근 쇠에 다리 세 개가 달린 기구로 화로의 재 속에 박아서 주전자나 냄비를 불에 올릴 때 쓴다.

(차) 다리쇠

화로 위에 냄비나 주전자 등을 올려놓을 때 걸치는 기구로 쇠붙이로 두 귀가 나오게 고리를 만들며 '걸쇠'이라고도 한다.

(카) 시루

떡이나 쌀 등을 찔 때 쓰는 것으로 밑에 구멍이 있고 위는 벌어져 있다. 시루를 만드는 재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중 질그릇으로 구운 질시루가 가장 많고 옹기시루, 놋시루, 구리시루가 있는 데 요즈음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양은시루도 나왔다. 또한 용도에 따라 떡시루, 콩나물시루, 약시루, 봉치시루, 치성시루 등이 있다. 시루의 크기에 맞는 솥 위에 얹어서 사용하며 시루와 솥이 닿는 부분은 수증기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밀가루 반죽한 것으로 막아주는데 이를 '시루번'이라 한다. 또한 시루를 이용하여 떡이나 기타 음식을 찔 때 시루 위에 얹는 짚방석을 '시루방석'이라 하며 시루 바닥에 깔아서 식품의 내용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짚이나 끌영풀, 한지 등으로 새끼를 꼬거나 감껍질, 칡덩쿨 껍질을 엮어 만든 것을 '시루밑'이라 한다.

〈 사진 8-1-39 〉 시루

(타) 소주고리

소주를 증류할 때 쓰는 도구로 오지나 쇠, 구리로 만들어 졌다.

(파) 전골틀

전골냄비는 전립(氈笠)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겨 '벙거지꼴' 이라고도 부른다. 전골냄비의 가운데는 둥그스름하게 패어서 깊숙하여 국물을 담아 장국을 끓이게 되어 있으며, 가장자리는 번철(燔鐵)로 여러 재료를 얹어 볶아서 먹게 되어 있다.

전골은 주재료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데 각색(各色)전골, 콩팥전골, 생치(生雉)전골, 송이전골, 두부전골, 고기전골, 굴전골, 대합전골, 노루전골, 곱창전골, 어육전골 등 다양하다.

(하) 신선로

상위에서 직접 열구자탕을 끓일 수 있도록 냄비에 화통이 붙어 있는 모습의 기구이름인데 역시 음식명으로 되었다.

신선로는 여러 가지 어육(魚肉)과 채소를 넣어 끓인 음식으로 궁중에서는 맛 좋은 탕이라는 뜻에서 '열구자탕(悅口資湯)' 이라 하였고, 『규합총서(閨閤叢書)』, 『시의전서(是議全書)』, 『해동죽지(海東竹枝)』 등에서는 그릇 이름 그대로 신선로라고 하였다.

신선로는 재료가 호화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어서 교자상이나 주안상에 올리면 가장 좋은 대접으로 여겼다.

(5) 토기, 옹기류

(가) 독

주로 음식을 담아두는, 운두가 높고 배가 부르며 전이 달린 오지그릇이나 질그릇으로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대형인 것은 높이가 1m 혹은 2m에 이르기도 한다. 무늬는 대개가 소박하고 간단하며 물결 또는 화초의 무늬가 들어가기도 하고 서너 줄의 띠도 두르며 물방울모양으로 요철(凹凸)시키기도 한다. 독에는 주로 곡물, 간장이나 된장을 비롯한 조미료, 술 등을 담아둔다. 곡물이 담긴 독은 헛간이나 곳간에 두나, 조미료가 담긴 독은 집안에서도 햇볕이 잘 쪼이는 양지바른 곳에 돌로 낮은 단을 쌓아 장독대를 만들고, 그 곳에 모아둔다.

장독대는 예로부터 주부들이 청결과 갈무리에 정성을 쏟았고, 집을 지키는 토지신을 모시는 정한 곳이 되기도 했다.

(나) 항아리

아래, 위가 좁고 배가 불쑥 나온 질그릇으로 고추장, 김치, 술, 초, 젓갈, 장아찌 등을 담아 두고 쓴다. 항아리 중에 위쪽에 작은 주둥이가 잘려서 간장, 초 등의 액체를 따라 쓰기에 편리한 것도 있다.

(다) 동이

항아리처럼 생긴 것으로 물을 길을 때 쓰며 양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려 있고 키가 작은 편이다.

(라) 방구리

모양은 동이와 같으나 크기가 작다.

(마) 소래기

운두가 조금 높고 접시모양으로 생긴 그릇으로 독 뚜껑이나 그릇으로 쓴다.

(바) 자배기

운두가 약간 높고 입이 벌어진 그릇이다.

(사) 푼주

입이 넓고 밑이 좁은 사기그릇이다.

(아) 뚝배기(투가리)

상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토기로 오지로 구운 것이며 불에서 끓이다가 상에 올려도 한 동안 식지 않아 찌개를 담는 데 애용되어 왔다. 설렁탕, 장국밥 등도 담는다. 아가리가 넓고 속이 조금 깊고 보통 다흑색의 잿물 칠을 하였으며 제 뚜껑이 없고 겉모양이 조금 투박하다. 크기가 작은 것은 알뚝배기라 한다.

(자) 질밥통

시루와 비슷한 모양이나 구멍이 없고 뚜껑이 있다. 녹말을 가라앉힐 때 쓰고 밥을 담아 두면 잘 쉬지 않는다.

(6) 식기(食器)와 기명(器皿)

(가) 주발(周鉢)

남자용 밥그릇으로 아래는 좁고 위는 차츰 넓어져 입이 넓고 평평한 뚜껑에 꼭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밥그릇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데 그 형태가 둥글면서 윗부분이 불룩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밥을 담는 풍습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밥을 수북하게 담을 때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밥 그릇 뚜껑에 쌀을 수북이 담아 밥을 지으면 한 그릇의 밥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뚜껑은 밥 한 끼 분의 쌀을 떠내는 되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나) 바리(鉢伊)

밥을 담는 여자용 그릇을 바리라 하는 데 황해도, 함경도 등에서 사용했던 바리를 보면 우리 식생활에 밥그릇을 써 온 것이 오래 된다고 볼 수 있다. 놋바리는 성별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른 데 이름도 주발, 바리, 오구바리, 종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주발보다 입이 좁고 배가 부르며 뚜껑에 꼭지가 달려 있다.

〈 사진 8-1-40 〉 놋바리

〈 사진 8-1-41 〉 느릅무늬바리

(다) 탕기(湯器)

탕기는 국, 찌개 등을 담는 그릇이다. 밥그릇과 마찬가지로 탕기도 오래 전부터 사용하여 왔다. 탕기는 밥그릇과 구분이 어려운 점도 있으나 탕기는 뚜껑이 없다. 여름에는 사기로 된 탕기를, 겨울에는 놋으로 된 탕기를 사용하였다.

〈 사진 8-1-42 〉 사기탕기

(라) 반병두리(飯餠器/ 뱅뱅두리)

국이나 국수를 담는 그릇으로 놋으로 만들었다. 양푼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크기가 훨씬 작다. 놋제품이 많이 나온 조선후기부터 만들어진 그릇이다.

〈 사진 8-1-43 〉 반병두리

(마) 대접(大楪)

위가 넓고 운두가 낮은 그릇으로 숭늉이나 면, 국수를 담는 그릇이다.

(바) 조치보(鳥致甫)

찌개를 담는 그릇으로 주발과 같은 모양이며 탕기보다 한 치수 작은 크기이다.

(사) 보시기(甫兒器)

반찬을 담는 그릇으로 젖은 음식과 마른 음식을 그 특성에 맞게 썼다.

〈 사진 8-1-44 〉 보시기

(아) 접시(楪匙)

납작한 그릇으로 반찬이나 과일을 담는 데 사용하였으며 굽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 옛날에는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었는데 뚜껑이 있는 것은 반상기 접시에 쓰인 것으로 나물 무침과 같은 진반찬, 김, 어란 등과 같은 마른 반찬을 담을 때 뚜껑을 썼으나 과일, 정과, 떡, 다식, 과줄 등을 담을 때는 뚜껑을 쓰지 않았다.

(자) 쟁첩(錚楪)

전, 구이, 나물, 장아찌 등 대부분의 찬을 담는 작고 납작하며 뚜껑이 있는 그릇이다. 반상기의 그릇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반상의 첩수에 따라 한상에 올리는 숫자가 정해지는 데 예를 들어 5첩 반상이면 쟁첩에 담은 찬을 다섯 가지 놓고 9첩이면 아홉 가지를 놓는다.

(차) 종자(種子)

간장, 초장, 초고추장 등의 장류와 꿀을 담는 그릇으로 주발의 모양과 같고 기명 중에 크기가 제일 작다.

(카) 합(盒)

밑이 넓고 평평하며 위로 갈수록 직선으로 차츰 좁아지고 뚜껑의 위가 평평한 모양으로 유기나 은기가 많다. 작은 합은 밥그릇으로도 쓰이고 큰 합은 떡, 약식, 면, 찜 등을 담는 데 쓴다.

(타) 옴파리

사기로 만든 입이 작고 오목한 바리이다.

(파) 밥소라

떡, 밥, 국수 등을 담는 큰 유기그릇으로 위가 벌어지고 굽이 있고 둘레에

전이 달려 있다.

(하) 놋양푼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 쓰는 놋그릇으로 운두가 낮고 아가리가 넓어 반병두리와 같은 모양이나 크기가 크다.

(7) 수저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식사를 할 때의 도구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다. 수저는 식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중히 여겨 첫돌에 마련해 주고 혼례 때도 새로 장만한다. 또한 개인마다 정해진 수저를 쓰며 손님용은 따로 갖춘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같은 재질의 금속으로 되어 있다.

(8) 상(床)

상은 모양과 생산자, 크기, 다리의 생김새, 칠의 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가) 원반(圓盤)

둥근 모양의 상으로 작은 소반부터 여럿이 둘러앉을 수 있는 큰 두레반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다리의 모양은 전체가 하나의 둥근 원통형인 것, 병풍처럼 나무판 12족을 이어 만든 것, 다리가 네 개로 양쪽의 다리만을 둘 씩 가로 질러 놓은 것 등이 있다.

〈 사진 8-1-45 〉 원반

(나) 책상반(冊床盤)

책상반은 장방형 소반으로 일상의 반상에 가장 많이 쓰인다. 통영반, 해주

반, 나주반 중에도 책상반이 가장 많다.

(다) 팔모반

팔모반은 윗면이 8각형으로 다리는 병풍처럼 팔면의 목판으로 짜여져 있으며 다과상으로 많이 쓰인다. 크고 붉은 칠 한 것은 돌상 차림을 할 때 쓰기도 한다.

(라) 공고반(公故盤)

번상이라고도 하는 작은 팔각반으로 다리가 병풍처럼 둘러 있는 데 앞뒤가 크게 뚫려 있어 머리에 이면 앞이 다 보이게 만들었다.

(마) 귀상

윗면이 반달처럼 반원형으로 된 상으로 곁반으로 쓰인다.

(바) 해주반(海州盤)

황해도 해주에서 만든 상으로 장식이 아주 간결한 책상반 모양이다.

〈 사진 8-1-46 〉 해주반

(사) 구족반(拘足盤)

개다리소반이라고도 하며 다리의 굽이 안쪽으로 향해 있다.

〈 사진 8-1-47 〉 구족반

(아) 교자상(交子床)

여러 사람이 한상에서 대접할 때 쓰이는 장방형의 큰 상으로 옻칠이나 자개로 장식되어 있다.

(자) 가자틀(架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산정이나 정자에서 여럿이 회식할 때 가마처럼 생긴 가자틀에 음식을 모아 얹어서 인부들이 들어 날랐다. 이를 방안에 옮겨 놓고 둘러앉아서 먹게 된 것이 교자상의 유래로 여겨지고 있다.

2) 일상 상차림[22)]

상차림이란 상에 차려지는 주식을 중심으로 반찬을 배선하는 방법을 일컫는데 일상식인 '반상'(飯床)은 삼국시대 후기부터 쌀의 증산과 함께 밥을 지을 수 있는 솥의 개발로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밥과 국, 김치를 기본음식으로 하고 여기에 차려지는 반찬의 수에 따라 3첩, 5첩, 7첩 등으로 구분된다.

22) 문화관광부, 『한국전통음식』, 창조문화, 2000, pp.11~20

〈 사진 8-1-48 〉 5첩 반상

〈 사진 8-1-49 〉 7첩 반상

〈 사진 8-1-50 〉 9첩 반상

일상식에서 주식이 밥이 아닌 경우에는 죽, 미음, 응이의 상차림이 있고 점심 주식으로 국수를 대접하는 장국상 또는 면상이 있다. 명절이나 잔치, 회식 때 차리는 교자상차림, 술을 대접하기 위한 주안상차림, 식사시간 외에 차리는 다과상차림이 있어 음식을 대접하는 시기와 경우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선하였다.

반상에는 3첩, 5첩, 7첩, 9첩 반상이 있어 가장 간단한 3첩 반상은 국, 김치 외에 나물류와 생채, 조림이나 구이를 차린다. 간단한 3첩 반상에서도 밥, 국, 김치, 장 외에 채소, 육류, 어류 등이 골고루 배합된다. 5첩 반상에는 밥, 국, 김치, 장 외에 반찬 다섯 가지, 찌개 한 가지가 오른다. 9첩 반상에는 반찬 아홉 가지, 찌개 한 가지, 찜 한 가지가 오른다. 이렇듯 반상차림에는 밥, 국, 김치, 간장, 고추장, 구이, 나물, 생채, 장아찌, 젓갈, 건포, 전과(前果), 회, 쌈, 찜 등이 오른다.

주안상은 술을 대접하기 위해서 차리는 상으로 안주는 술의 종류, 손님의 기호를 고려해서 장만한다. 육포, 어포, 건어, 어란, 부각, 자반 등의 마른안주와 전, 편육, 찜, 신선로, 전골, 찌개 같은 얼큰한 안주 한 두 가지, 회(갑회, 어선, 어만두, 어채, 어회), 구절판, 나물, 수란, 젓갈, 그리고 생채류와 김치, 과일 등이 오른다.

면상에는 국수, 김치, 간장, 지짐, 과실, 떡, 화채 등이 나오며, 다과상에는 각종 차, 화채, 식혜, 수정과 외에 유밀과(약과, 매작과, 만두과), 각색 다식, 각색 유과(강정, 산자, 빙사과), 각색전과, 숙실과(대추초, 밤초, 조란, 율란, 생란), 생실과 등을 함께 곁들인다.

교자상은 호화로운 상차림으로 대개 고급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데 신선로, 약식, 약과, 다식, 생과, 찜, 건포 등이 오른다.

3) 통과의례 상차림[23]

통과의례란 모든 사람이 출생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생동안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례로 임신, 출산, 백일, 돌, 관례, 혼례, 회갑, 회혼례, 상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확대하여 지내는 제례 등이 있다. 그 중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네 가지를 관혼상제 즉, 사례(四禮)라 하여 그 예법을 특히 중히 여겼다.

가) 출산의례

출산의례란 산전의례, 해산의례, 세이레의례와 같은 산후의례로 나눌 수 있다.

(1) 산전의례

산전의례는 아기를 낳기 직전까지의 의례로서 임신, 즉 자식을 얻기 위한 기자(祈子)의례를 포함한다. 산모가 산고를 시작하면 윗목이나 삼신상을 차려 산모의 순산을 기원하였다. 삼신상은 아기를 점지해 주는 세 신령을 모신 상으로 소반에 쌀을 수북이 놓고 그 위에 장곽(長藿)을 걸치고 정화수를 올린다.

23) 신승미 외 10인, 『우리고유의 상차림』, 교문사, 2005, pp.19~58

(2) 해산의례

아기의 탄생을 알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대문에 금줄을 달았다. 탄생과 순산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삼신상에 올렸던 쌀과 미역으로 흰쌀밥 세 그릇, 미역국 세 그릇을 정화수와 함께 차리는데, 이때 쌀은 아홉 번 씻고, 미역국에는 고기를 넣지 않은 미역국을 사용하였다. 먼저 삼신에게 올리고 난 뒤 그 상을 산모에게 대접하였다. 삼신상을 차리는 것은 아기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며 자르지 않는 미역, 즉 장곽을 사용하는 풍속과 해산 후 미역국을 먹는 풍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 세이레의례

출산 후 21일인 세이레가 되면 삼칠일이라고 하여 대문에 달아놓았던 금줄을 떼고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하였다. 삼칠일까지는 몸조리를 하면서 딱딱한 음식, 제사음식, 상가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찬 음식은 되도록 금하였다. 삼칠일에는 마지막으로 삼신상을 차린 뒤 산모에게 쌀밥과 고기가 들어간 미역국을 주고 신성의 의미를 지닌 백설기를 준비하였다. 이때는 집밖으로 돌리지 않고 집안에 모인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으며 축하하였다.

나) 혼례음식

(1) 초례상

혼례를 치르는 것을 '초례를 치른다'고도 하며 혼례를 치르는 장소를 '초례청' 또는 '전안청'이라고 부르며 대개 신부집 안마당이나 대청마루에 마련한다. 이때 초례상에 차리는 음식은 지방마다 다르나 중앙에는 정수(淨水)를 한 대접 올리고 흰쌀, 밤, 대추, 용떡, 달떡, 콩, 팥을 두 그릇씩 준비해 놓고 보자기에 싼 닭 자웅 한 쌍을 남북으로 나누어 놓는다. 이때 수탉 입에는 밤을 물리고 암탉 입에는 대추를 물리며, 북어나 숭어 한 쌍도 밤, 대추를 물려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청 · 홍색 초를 꽂은 촛대 한 쌍과, 소나무 가지에는 홍실을 걸치고 대나무 가지에는 청실을 걸친 꽃병 한 쌍을 놓으며, 곁상에는 표주박을 두 개로 나누어 만든 잔을 동서로 각각 놓고 술을 준비한다. 이처럼 초례상에 오르는 대나무와 기러기는 절개, 쌀과 닭 그리고 대추와 밤은 다산, 용떡은 부귀, 청 · 홍실은 일심동체를 의미한다.

(2) 큰상차림

초례를 올린 신랑, 신부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높이 고여서 차린 큰상으로 축하의 뜻을 표한다. 큰상이 높이 고이므로 '고배상(高排床)' 또는 바라만 본다고 하여 '망상(望床)'이라고도 한다. 신랑신부는 초례를 행한 다음 신부집에서 신랑을 위해 차려 주는 큰상(신랑상)과 현구고례를 행한 다음 신랑집에서 신부를 위해 차려 주는 큰상(신부상)을 받게 된다. 큰상에 고였던 음식은 헐어서 신랑댁이나 신부댁으로 보내는데 이를 상수(床需)라고 하고 남은 음식을 동네에 돌리는 것을 봉송(奉送)이라고 한다. 큰상과 함께 국수장국으로 면상이 차려지는데 이를 '입맷상'이라고 한다. 큰상 양옆으로 절편에 물감을 입혀 빚은 꽃떡과 조화로 된 상화(床花) 또는 생수화(生樹花)로 장식하기도 한다.

(3) 폐백음식

신부가 시부모님과 시댁의 여러 친족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예를 현구고례(見舅姑禮)라고 하며, 이때 신부 쪽에서 준비해 시댁 어른들께 드리는 음식을 폐백(幣帛)음식이라고 한다.

폐백음식은 기본적으로 육포나 편포, 대추, 밤, 술을 준비하는데 속초에서는 육포대신 닭을 많이 사용하며 엿, 밤, 대추, 과줄을 함께 쓰기도 한다.

다) 상례음식

상례란 사람이 운명하여 땅에 묻힌 다음, 대상을 지내고, 담제, 길제를 지내는 것으로서 탈상하게 되는 3년 동안의 모든 의식을 말한다.

(1) 사자밥

밥상에 밥 세 그릇, 술 석잔, 백지 한권, 북어 세 마리, 짚신 세 켤레, 동전 몇 닢을 얹어 놓고 촛불을 켜서 뜰아래나 대문 밖에 차려 놓는다. 임종한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하는 저승의 사자를 대접함으로써 편하게 모셔가 달라는 뜻에서 사자밥을 차린다.

(2) 조석상식

돌아가신 조상을 섬기되 살아계신 조상을 섬기듯 한다는 의미에서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음식을 말한다. 아침에 해가 뜨면 조전을 올리고, 해가 진 뒤에는 석전을 올린다. 조전이나 석전이 끝나면 음식을 치우고 술과 과일만 남겨둔다. 상례 중에는 물론 장례를 치른 뒤 탈상까지 조석상식을 차린다. 차림은 밥과 국, 김치, 나물, 구이, 조림 등의 찬으로 차린다.

(3) 조문객 상차림

장례가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므로 이들 조문객을 위한 음식도 장만한다. 이때 차림은 주로 밥, 육개장 또는 장국밥을 차린다. 여기에 나물, 생선조림, 편육, 떡, 과일, 술, 술안주 등을 곁들인다.

라) 제례음식

제례음식으로 정초에는 '떡국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고 '메제사'(흰밥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는데 탕·나물·주·과·포를 차린다. 기제사시에도 제물로는 메·탕·나물·어물·주·과·포·편을 쓰는데 어물은 끝에 '치'자가 붙은 것은 쓰지 않는다.

제례 음식은 귀신에게만 올리는 특별한 식품으로서 제수의 제의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육류, 곡물 등을 조리하지 않은 채 날것으로 올리는 전통이 있다. 보편적인 음식물로 산 사람들이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으나 고춧가루, 파, 마늘은 사용하지 않는다.

밥, 국, 면, 탕(육탕, 소탕, 어탕), 전(육전, 어전, 소전), 적(육적, 어적, 계적), 포(육포, 어포), 나물, 김치, 술, 떡류, 과정류, 과일(대추, 밤, 감, 배 등)

등을 제수로 올린다. 이외에도 정화수, 젓갈, 식혜, 식초, 간장 등을 올리기도 한다.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햇과일들이나 떡국, 송편 같은 것을 올리기도 한다.

지금은 행하지 않으나 단오 차례, 유두 차례, 동지 때는 팥죽을 올리는 팥죽 차례를 지냈다.

〈 사진 8-1-51 〉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하는 모습

〈 사진 8-1-52 〉 속초시 일반가정의 추석차례 상차림

마) 고사음식

고사음식은 터 고사를 지낼 때 주로 팥시루떡을 하여 집안의 터주 신에게 비는데 나물이나 술을 함께 놓는다. 영등 할머니 제사 때는 '무왁찌기'라 하여 시루떡에 무채를 썰어 넣어 찌는 떡을 만들어 그 곳의 식구수대로 수저를 꽂아 놓고 빈다. 성주제는 집안에서 정초에 지낼 때 팥시루떡을 하며 날고기를 쓴다. 뱃고사에는 메·술·나물 등 간단한 제물을 쓰고 진수식 때는 국수를 쓰기도 한다. 마을 서낭제시는 소를 잡는데 소를 '말'이라 하고 말머리를 통째로 바친다.

4) 세시풍속[24)25)]

가) 설날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 하여 차례를 지내느라 만드는 음식과 세배 손님들에게 내는 음식들을 세찬(歲饌)이라 한다. 멥쌀가루를 쪄서 안반에 놓고 쳐서 끈기 나게 하여 길게 가래떡을 빚는다. 이 흰떡으로 떡국을 끓인다. 속초지방에서는 절식(節食)을 특별히 해서 먹지는 않으나 정초에는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떡국차례'를 지낸다.

나) 입춘

24절기의 첫째인 입춘은 음력 12월 말이나 정월 초에 있으며 봄이 시작되는 좋은 명절날이다. 집집마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는 봄맞이의 글귀를 대문 · 난간 · 기둥에 써 붙인다. 아침밥을 먹을 때에 취나물을 싸서 먹는데 이는 풍년을 바라는 뜻이다.

다) 대보름

(1) 약밥과 오곡밥

음력 정월 14일 저녁에 달을 보면 일년의 운이 좋다고 하여 달맞이를 하고 '약밥(藥食)'을 먹는다. 약밥은 찹쌀을 찐 후 밤, 대추, 참기름, 꿀, 진장 등을 섞어서 하루 전날 찐다.

약밥을 하게 된 유래를 살펴보면 신라 소지왕이 정월 보름날 천천정(天泉亭)으로 거동을 하셨는데 난데없이 까마귀가 경고문을 전하고 날아가므로 즉시 환궁하여 역모하는 무리를 제거하고 이를 기려 이 날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고 까마귀에게 제를 지내게 하고 특별히 약밥을 대접한 것에서 유래한다. 보름차례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약밥을 쓰기도 한다.

〈 사진 8-1-53 〉 약밥

24)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pp.11~28

25) 황혜성 외 2인, 『한국의 전통음식』, 교문사, 1989, pp.96~113

(2) 오곡밥

서민들이 사치스러운 약밥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아 대신 오곡밥을 지어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3) 부럼 깨물기

보름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껍질이 딱딱한 생밤, 호두, 피잣, 은행, 땅콩, 엿 등을 깨물어 부스럼을 막는 풍습이 있다. 속초에서는 개금을 많이 깨문다.

(4) 귀밝이술 마시기

차례가 끝난 후 새벽에 아이들에게 귀가 밝아지고 한 해 동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라는 의미로 데우지 않은 청주를 조금 먹이는데 이 술을 '귀밝이술' (유롱주)이라 한다.

(5) 김치나 찬물 먹지 않기

보름날 김치를 먹으면 산에 올라갔을 때 쐬기에 쏘인다고 하여 먹지 않았으며 찬물을 먹으면 여름에 벼락비를 맞는다고 먹지 않았다. 이 이유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보름날에는 다른 날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날 찬물을 먹으면 배탈을 나기 쉬우므로 이를 막기 위한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6) 복쌈

복쌈이란 김이나 참취 등을 쌈을 싸 먹는 것으로 밥을 싸는 것을 복을 싸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라) 중화절

이월 초하룻날을 중화절이라 하여 농사일을 시작하는 날로 삼았다. 그리고 노비들에게 나이 수대로 송편을 나누어 먹이고 하루 일을 쉬게 한다고 하여 '노비일' 또는 '머슴날'이라고도 하였다

(1) 노비송편

이 날은 농가에서 그 해의 풍년을 비는 뜻에서 정월 보름날 세워두었던 벼가릿대에서 벼이삭을 내려 떡가루를 만들어 송편을 만드는데 큰 것은 손바

닥 만하며 소로 팥, 꿀, 대추 등을 넣는다.

(2) 시래기떡

김장철에 말렸던 시래기를 삶아서 양념하여 송편소로 넣어 시래기떡을 쪄 먹으면 일 년 동안 고약한 병과 액운을 면하게 해 준다.

마) 삼짇날

3월 3일은 설날(1월 1일), 단오(5월 5일), 칠석(7월 7일), 중구(9월 9일)와 더불어 다섯 중절(重節)의 하나로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다.

삼짇날에는 청주, 삼색견과, 육포, 어포, 절편, 녹말편, 조기면, 진달래화전, 화면, 진달래화채 등을 먹는다.

(1) 화전

진달래꽃과 참꽃을 따서 꽃술을 빼고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꽃을 붙여서 지져 먹는 것이다.

(2) 화면

오미자 화채에 건지로 진달래꽃을 띄우는 풍류가 넘치는 음료로 오미자 우려낸 물에 꿀을 타서 달게 한다. 여기에 진달래꽃을 녹두 녹말을 묻혀서 끓는 물에 넣어 살짝 익혀 건져서 오미자국에 넣고 잣 몇 알을 띄우면 붉은 색의 아름다운 오미자 화면이 된다.

바) 한식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인 한식을 '찬밥 먹는 날'이라고 부른다. 보통 한식은 2월이나 3월에 드는데 이 날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간다. 한식날 찬밥을 먹는 전통은 중국 춘추시대에 진나라의 충신이었던 개자추가 산에서 불에 타 죽은 날을 기려 금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속초지역에는 2월에 바람이 심하여 영등제를 지내듯이 불조심을 하라는 뜻도 담겨 있다.

사) 초파일 연등절

석가모니 탄생일이라 하여 저녁에 연등하여 경축한다. 이 날은 손님을 청하여 찐떡, 삶은 콩, 미나리강회, 느티잎시루떡 등의 소찬으로 차린다.

아) 5월 단오날

5월 5일 단오날(수릿날, 천중절)은 기수(奇數)인 홀수가 겹쳐 있어 좋은 날로 알고 있으나 기수는 음양으로 보면 양수(陽數)에 속한다. 이 날은 민간 속설로 수리취떡을 해 먹는데 이 이름은 떡 모양이 수레바퀴와 같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수리는 고어로 상(上), 신(神), 고(高)의 뜻이 있어 '신의 날'이라는 뜻도 있다. 수리취를 데쳐서 쌀가루 찐것에 섞어 잘 찧어서 찰지게 하여 차바퀴 모양의 떡살로 문양을 낸 절편으로 쑥을 데쳐서 넣은 것은 '애엽고'라 한다.

단오차례를 지낼 때에는 쑥떡을 해 먹으며 속초에서는 취떡으로도 차례를 지냈으나 요즈음은 많이 하지 않는다.

단오날 아침에는 말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약쑥을 입으로 뜯으면 약효가 있다는 속설이 있어 밭둑의 약쑥을 캐러 다닌다. 또한 이슬이 맺혀 있어야 약효가 있다하여 농촌주부들이 일찍부터 캐러 다닌다. 약쑥은 여름철 배탈이 났을 때 다려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자) 유두날

6월 15일 유두날에는 창포뿌리에 파, 약쑥을 함께 삶아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지고 부스럼이 머리에 나지 않는다고 한다. 유두날 전후하여 강우량이 많아지면 '유두물 지운다'고 한다. 유두국수나 부침이에 고추장을 푼 장떡을 해 먹으면 더위를 피한다고도 한다.

유두날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끝난 시기이므로 '쓰레씻이'를 하는데 이는 일꾼들이 큰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일꾼들에게 옷을 해주고 집집이 막걸리를 내 놓고 좋은 안주를 차려 좌상, 대방, 부대방, 셋째대방의 순서로 대접한다.

차) 복날

복날은 하지 후 셋째 경일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 하여 삼복으로 친다. 복날에는 '복다림'을 한다고 하여 닭을 삶아서 보신을 하거나 보신탕을 먹는다. '복날 개 패듯'이라는 속담도 이 날 보신탕을 먹는 풍습에서 유래된 말이다.

카) 칠월 칠석

7월 7일의 밤은 견우, 직녀별이 만나는 날로 칠석으로 지켜진다. 칠석의 절

식으로는 밀전병, 증병, 육개장, 잉어구이, 잉어회, 복숭아화채, 오이소박이, 오이깍두기 등을 해 먹는다.

타) 백중(百中)

7월 15일 중원 때에 여염집에서는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을 차려 놓고 어버이의 혼을 부른다. 또한 주연을 베풀며 즐기고 씨름, 팔씨름 등으로 내기를 하며 즐기기도 한다.

파) 추석

음력 8월 15일은 추석(秋夕, 한가윗날)이다. 이 날은 설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명절로 속초지방에서는 제1설, 제2추석, 제3단오라 하여 단오보다 큰 명절로 생각하였다. 이 날은 새로 나온 햅쌀로 송편을 빚어 조상에게 차례상을 올린다. 이때 차례상에는 이름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올리지 않는데 도치는 '싱어', 새치는 '이면수'라 하여 제물로 쓴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것으로 닭요리, 송편, 무와 호박을 섞은 시루떡, 송이국, 토란국, 고기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추석 때 새로 처음 거둔 햇곡을 성주단지에 채워 넣는데 이를 '성주 단지 갈기'라 한다. 성주단지를 갈 때는 주부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치성을 드린 후 아침밥을 먹었으며 성주단지 안에 넣었던 쌀은 2월 초하룻날 떡을 하여 나누어 먹는다.

(1) 송편

햅쌀을 빻아 더운 물로 반죽하여 햇녹두, 청대콩, 깨 등을 소로 넣고 송편을 빚는다.

(2) 토란

토란이 많이 나는 철이므로 토란을 넣고 곰국을 끓이고, 삶아서 고물을 묻혀 토란단자를 만든다.

(3) 느름적

도라지, 햇버섯, 고기 등을 꼬치에 꿰어 화양적을 만들거나 옷을 입혀서 지짐누름적을 만든다.

(4) 닭찜

이때가 닭이 가장 살이 올라 맛있는 시기이므로 닭으로 찬을 많이 하고 특히 닭찜을 한다.

하) 중구일

9월 9일은 9자가 겹쳤다고 하여 중구일(重九日), 중양절(重陽節)이라고 한다. 이날은 삼짇날 강남에서 왔던 제비가 다시 돌아가고 기러기가 찾아온다는 날이다.

이 날은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좋다고 하여 부녀자들은 산과 들로 나가 국화꽃잎을 따서 찹쌀가루로 전을 지져 먹고 국화주를 담그고 음식을 장만하여 단풍놀이를 많이 가는데 주로 설악산으로 간다.

중구일에 차사를 지내는 집에서는 감떡으로 차사를 하고 정성을 드린다.

갸) 상달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고사를 올리는데 이는 추수 후에 1년 동안의 수확을 감사하는 뜻이 담겨 있다. 뒤뜰에는 백설기, 붉은 시루떡을 차리고 안방도 붉은 팥시루떡을 쓰며 부엌에는 매 한 그릇을 쓴다.

냐) 동짓날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도 하는데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고 하며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이 날은 집집마다 팥죽을 쑤는 데 이 팥죽으로 차례를 지내는 집도 있다. 팥죽은 색깔이 붉어 팥죽제사를 지내고 나면 문지방과 대문, 담에다 뿌리고 집안의 잡귀를 쫓는다고 한다. 팥죽의 유래는 중국의 공공씨가 재수 없는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이 동짓날 죽어 역질 귀신이 되었으며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동짓날 팥죽을 쑤어 이 귀신을 물리쳤다고 한다.

팥죽에는 '옹심이'라 하는 새알심을 만들어 넣는데 '옹생이'라고도 한다. 이 옹심이는 찹쌀가루로 익반죽을 하여 새알모양으로 떡을 만든 것으로 나이 수대로 팥죽에 넣기도 한다. 이 옹심이로 점을 치기도 하는 데 임산부가 있는 집에서 팥죽을 끓이기 전에 생옹심이를 화로불에 구워서 옹심이가 앞으로 삐져나오면 아들을 낳고, 그냥 갈라지면 딸을 낳는다고 믿었다.

속초에 전하는 말로 "동짓날 팥죽 아홉 그릇 먹고 검불 아홉 짐 지고 와야 좋다"고 하는데 이는 근면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청호동에서는 함경도 사람

이 많은 관계로 동지팥죽을 '오구랑팥죽'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속초도 다른 지방과 시절음식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몇 가지 독창적인 식생활풍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속초 실향민의 식문화(청호동 주민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속초는 한국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속초는 동해안의 작은 포구였다. 속초의 환경변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한국전쟁에 의한 북한 주민의 월남으로 피난민들은 한 발자국이라고 고향에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에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이곳 속초에 모여들었다. 즉 이들은 1·4후퇴 때 피난민으로 월남하였다가 휴전선이 고착화되면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속초에 모여들어 차차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속초의 일원으로 새로운 피난민 문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실향민들이 집중적으로 정착한 곳이 청호동으로 이들의 생활문화가 반세기동안 속초지역에 정착하면서 기존의 속초문화에 흡수되었고 음식문화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고유한 것도 잔존하지만 대부분 기존의 속초지역 음식과 유사한 것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26) 속초읍, 『읍세일람』, 1955, p.14

가. 생활기반의 변화

한국전쟁으로 급속히 유입된 실향민의 증가는 산업구조 면에서 농업 중심에서 어업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인구 면에서 보면 강원도 출신보다 함경도 및 이북 출신이 많은 곳으로 바뀐다. 이러한 사실은 인구통계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표 8-1-2). 이 표를 보면 속초 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가 4,901명(20.7%), 어업인구는 5,666명(23.9%)로 일제시대보다 어업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으며 특히 현재의 청호동에 해당하는 5구는 농업인구는 전혀 없는 어업중심지역이다. 즉 월남인들은 대개 속초에 들어온 후 어업에 종사한 반면 원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과 직업 분포상의 경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표 8-1-2 〉 속초읍내 구역의 농어민 분포(1955년)[26]

구 분	속초 1구 (영랑동)	속초 2구 (동명동)	속초 3구 (중앙동)	속초 4구 (금호동)	속초 5구 (청호동)	기타지역	속초전체
인구수	3,730	1,579	4,743	5,486	1,976	6,176	23,699
농업인수	97	91	186	101	·	4,426	4,901
어민수	126	292	653	644	529	519	2,763
어민가구원	288	530	1,480	845	1,005	1,518	5,666

속초의 실향민들은 전쟁으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월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상당히 어려웠다. 연고도 없고 땅도 없고 자본도 없었으므로 청호동에 모여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생계수단이었다. 1950년대에 풍력으로 운항하던 어선이 동력으로 대체되면서 울릉도 근해까지 어업의 권역이 확대되었고 야간 오징어 조업이 가능해지면서 명태나 오징어의 어획량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징어나 명태의 덕장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활어의 배따기, 매달기 등의 고용창출효과와 명란 가공산업 등의 노동집약산업이 활성화되어 남성보다 취업의 기회가 적었던 부녀자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아직 가내수공업의 수준을 면지 못하였다. 1960년대를 통하여 피난민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업이 해산물 관련 사업으로 다수의 명란가공공장이 가동되었으며 오징어나 명태를 건조하는 사업장이 성행하였다. 그 시대에는 집집마다 지붕이나 마당에 그리고 바다 백사장에 미역을 말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속초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는 속초 앞바다의 미역바위를 입찰하여 미역을 채취하는 사업도 활성화되었으나 투기성이 강한 사업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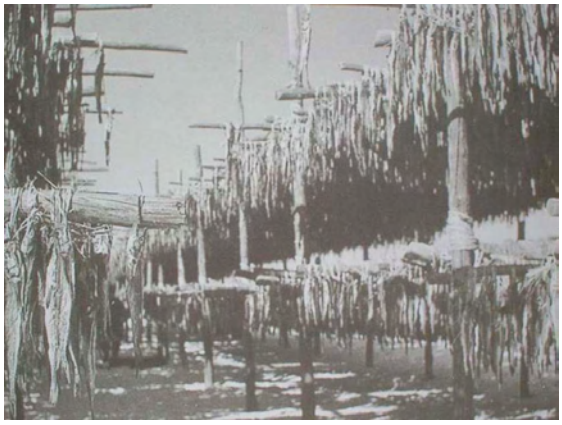
또한 겨울에는 명태 덕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청호동 일대와 한계령의 한랭지역에서 대규모의 덕장이 생겨났다. 여기서 생산된 황태(노랑태)는 독특한 맛과 색깔로 유명하다.

〈 사진 8-1-54 〉 1950년대 어선출어전경
자료 :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 · 속초문화원, 2001

〈 사진 8-1-55 〉 1950년대 오징어를 할복하고 있는 여인
자료 :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 · 속초문화원, 2001

〈 사진 8-1-56 〉 1950년대 건오징어 시장
자료 :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 · 속초문화원, 2001

〈 사진 8-1-57 〉 1950년대 명태를 할복하고 있는 어촌 여인
자료 :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 · 속초문화원, 2001



〈 사진 8-1-58 〉 1950년대 명태 덕장 전경
자료 :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 · 속초문화원, 2001

〈 사진 8-1-59 〉 파도에 밀려온 미역을 채취하는 모습
자료 :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 · 속초문화원, 2001

〈 사진 8-1-60 〉 미역을 건조하는 모습
자료 :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 · 속초문화원, 2001

〈 사진 8-1-61 〉 오징어잡이 도구를 들고 출어하는 어부와 가족
자료 :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 · 속초문화원, 2001

나. 함경도 실향민이 중심이 된 청호동

또 하나의 특징은 월남 이주민 중 함경도 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이후 속초읍에 유입된 월남민은 48,722명으로 실제 청호동 거주민의 92.9%가 함경남도 출신으로 이중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주민이 가장 많다. 청호동 일대가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향민 집단거주 지역으로 흔히 '아바이 마을'로 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986년 속초시의 조사에서 동별 월남인 통계를 보면 월남 이주민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동으로 교동(60.0%), 금호동(59.98%), 동명동(60.0%), 영랑동(59.97%), 조양동(54.97%), 중앙동(59.96%), 청학동(59.99%), 청호동(95.307%)로 속초는 이주민의 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속초에는 함경도 이주민 이외에 북강원도(휴전선 이북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등의 월남이주민도 존재하고 있다. 1996년 속초시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1996년 11월에 청호동에 살고 있는 함경도 출신이 68%를 차지하였으며, 북강원도 출신이 15~16%정도, 그 외 황해도, 평안도 이주민도 소수 있어 속초는 원주민보다 월남이주민의 인구구성비율이 더 높은 이주민의 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북청사자놀음과 같은 함경도 문화가 새로이 등장하였고 언어에 있어서도 월남이주민의 언어가 섞이게 되었으며 음식에 있어서도 피난민의 음식이 강원도 원주민이나 비정착촌 사람들의 음식과 섞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 사진 8-1-62 〉 현재의 청호동 모습

〈 사진 8-1-63 〉 아바이마을의 전경

다. 실향민의 향토음식

1) 전통적인 이북음식

가) 함경도 음식

함경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백두산과 개마고원이 있는 험악한 산간지역이 많다. 기후가 가장 추운 지방으로 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많이 하며 잡곡의 질도 우수하고 생산량이 많으며 특히 콩의 품질이 우수하다. 주식으로 기장밥과 조밥을 많이 해 먹고, 귀리, 기장, 조, 수수, 메밀, 감자, 옥수수 등이 산출된다. 감자, 고구마의 품질도 우수하여 녹말을 만들어 반죽하여 국수틀에 넣어 눌러서 쓰는데 비빔국수와 냉면을 만들어 먹는다. 동해안은 리만 한류와 동해 난류가 교류하는 세계 3대 어장의 하나로 명태, 대구, 삼치, 정어리, 청어, 연어, 넙치 등의 생선이 많이 잡힌다.

음식의 간은 짜지 않고 슴슴하고 담백하다. 평안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접해 있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음식의 간이 세지 않고 맵지도 않으며 담백한 맛을 즐기며 음식의 모양도 먹음직스럽고 큼직하여 대륙적이고 대담하며, 장식이나 기교를 부리거나 사치스럽지 않다[27].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날씨가 더 추우므로 음식의 간은 싱겁고 담백하다. 그러나 고추와 마늘 등 양념을 강하게 써서 양성적인 맛을 즐기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회냉면인 함흥냉면이다. 함흥냉면은 녹말가루로 국수를 빼고 생선회를 맵게 비벼 함께 먹는 독특한 음식으로 '다대기'라는 말도 이 지방에서 나온 말로 고춧가루 양념의 별칭이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주식으로 닭비빔밥, 잡곡밥, 찐조밥, 강냉이밥, 옥수수죽, 얼린콩죽, 감자국수, 감자 막가리만두, 회냉면, 물냉면, 찬류로 가릿국, 다시마냉국, 세천어국(천엽국), 동태매운탕, 비웃구이, 영계찜, 닭섭산적, 가자미식해, 도루묵식해, 고등어회, 콩나물김치, 원산해물잡채, 채칼김치, 함경도 대구 깍두기, 봄김치, 동태순대, 태석[28], 섭죽[29], 되비지찌개, 순대[30]등이 있으며 병과류로는 오그랑떡, 함경도인절미, 달떡, 찹쌀구비, 괴명떡, 꼬장떡, 언감자떡, 조과로는 산자, 강정, 과줄, 만두과, 약과, 들깨엿강정, 콩엿강정, 가랍떡[31]이 있고 음료로는 단감주를 들 수 있다[32].

함경도는 추운 고장으로 옛날에 개가죽 바지, 개가죽 저고리 등을 입은 풍속이 있었으므로 개고기를 식용에 많이 썼음을 알 수 있으며, 함흥 일대는 개장국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장국을 끓일 때는 먼저 개고기를 통째로 푹 고아서 살을 손으로 찢어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고 간장, 고춧가루, 후춧가루로 조미한다. 조미한 고기를 그릇에 담고 그 위로 끓여 놓았던 맑은 국물을 붓는다. 개장국은 여름 한 때의 보신용 음식으로 쓰인다.

27) 황혜성 외 2인, 『한국의 전통음식』, 교문사, 1989, pp.136~137

28) 옥수수로 만든 된 조청을 좁쌀가루 고물에 묻힌 엿으로 친정에 다녀오면서 만들어 와 동네에 한 접시씩 돌려 나눠먹던 반가음식

29) 섭조개와 닭을 넣고 끓인 쌀죽

30) 돼지창자 속에 삶은 우거지, 양념한 숙주, 돼지피로 물들인 찹쌀 등으로 넣어 만든 음식

31) 빻은 수수를 옥수수잎이나 가랍잎으로 싸서 찐 떡

32)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pp.206

나) 황해도 음식

황해도는 우리나라의 중서부에 위치하며 곡창 지대로 유명하다. 특히 연백평야와 재령평야에서 쌀의 생산량이 많으며 품질도 우수하여 왕실의 진상미로 쓰일 정도였으며 잡곡의 질도 좋고 풍부하다. 특히 조는 구수하고 알이 좋아서 남쪽사람들이 보리밥을 즐기듯이 잡곡밥을 많이 해먹는다.

또한 곡식은 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이 생산되어 가축들의 사료로 이용되는데 질 좋은 사료를 먹는 가축의 고기 맛은 특별하다고 한다. 가정에서는 닭을 많이 기르는데, 닭은 살찌고 맛이 좋아 여러 음식에 다양하게 쓰고 있다. 특히 만두나 밀국수에 닭고기를 많이 이용하였는데 만두의 소로도 쓴다.

서쪽과 남쪽이 바다와 접해 있고 연해의 수심이 얕으며 난류와 한류가 교

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수산자원도 풍부하다.

음식은 구수하고 소박하며 기교를 부리지 않고 음식의 양이 풍부하고 큼직큼직하게 만든다. 간은 싱겁거나 짜지 않고 충청도 음식과 비슷하며 김치를 담글 때에는 고수와 분디라고 하는 향신채소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이 긴 고장이라 김치가 더디 익기 때문에 맵지 않고 싱겁게 담으며 양념과 부재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국물 맛이 담백하다. 동치미는 무를 넉넉히 넣고 배와 삭힌 고추, 청각 등을 넣어 익혀서 만드는데 시원한 동치미의 국물을 충분히 만들어서 메밀국수를 말아먹기도 한다.

주식류로는 잡곡밥, 김치밥, 비지밥, 김치말이, 냉콩국, 수수죽, 밀범벅, 밀다갈버무리, 호박만두가 있으며 찬류로는 김치국, 김치순두부찌개, 조기매운탕, 돼비지탕, 애호박찌개, 돼지족조림, 붕어조림, 행적, 대합전, 잡곡전, 개구리구이, 호박지, 순대, 묵장떼묵, 김치적, 청포묵, 호박김치, 동치미가 대표적이다. 병과류에는 꿀물경단, 증편, 오쟁이떡, 수리치인절미, 잔치메시루떡, 무설기, 좁쌀떡, 혼인인절미, 혼인절편, 큰송편, 닥알떡, 닥알범벅을 들 수 있으며 조과로는 무정과, 음료로는 연한 식혜를 즐겨 해 먹는다.

33) 이춘자 외 2인, 『김치』, 대원사 1998, p.86

다) 평안도 음식

평안도는 우리나라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기후가 춥고 산세가 험하다. 서쪽은 서해안과 접하고 있어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동쪽은 산이 높고 험하지만 들판도 넓어 산채와 밭곡식이 풍부하다. 특히, 신의주평야나 안주평야 등에서 비교적 쌀이 많이 생산되고, 잡곡 중에서 보리보다는 조를 많이 생산한다. 옛 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많아 이 지역 사람의 성품은 진취적이고 대륙적이며 음식도 큼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푸짐하며 모양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곡물로 만든 음식 중에는 메밀로 만든 냉면과 만두 등 가루로 만든 음식이 많으며 국수도 즐겨 먹는 편이다. 또한 콩과 녹두 음식이 많은 것도 큰 특징이다.

추운 지방이라 기름진 육류음식을 즐겨 먹으며, 음식의 간은 맵거나 짜지 않고 싱거우며 음식은 예쁘게 하기보다는 먹음직스럽고 크게 많이 만드는 것을 즐긴다. 특히 평양의 음식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데 대표적인 것이 평양냉면, 순대, 어복쟁반, 온반, 닭죽 등이 유명하다. 또한 양지머리를 고아서 기름을 말끔히 걷어낸 육수로 동치미를 담가 그 국물에 냉면을 말아 먹으며 냉면김장김치, 가지김치, 동치미 등이 있다[33].

주식류로는 평양냉면, 온면, 강량국수, 평안 만두국, 온반, 김치말이, 닭죽, 어복쟁반, 생치냉면, 굴린만두, 어죽 등이 있으며 찬류로는 돼지순대, 녹두지

짐, 콩비지, 꽃게찜, 고사리국, 내포중탕, 오이토장국, 돼지고기구이, 무공더덕전, 도라지장아찌, 냉채, 가지김치, 영변김장김치가 있다. 병과류로는 노티, 조개송편, 송기떡, 무지개떡, 골미떡, 꼬장떡, 뽕떡, 찰부꾸미, 과줄, 견과류, 엿, 태식, 돌배 등이 있다.

2) 속초 실향민의 음식

청호동 주민의 음식은 함경도의 풍습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해바다를 끼고 있으므로 해산물로 만든 음식이 풍부한 편인데, 음식의 간은 짜지 않고 담백하지만 마늘, 고추 등 양념을 강하게 쓴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김치류나 떡, 장류에 있어서 검소하고 소박한 음식문화를 보여준다. 청호동에서는 해물요리를 많이 해 먹었는데 대부분 지지는 조리법을 쓰고 있고, 물 좋은 생선으로 얼간생선을 만들어 양념하여 찌는 조리법이 보편적이다. 물론 신선한 어물이 많아 회를 즐기는 경우가 많고 매운탕도 다른 해안처럼 많이 만들어 먹는다.

함경도는 기후적으로 강원도보다 훨씬 춥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김치를 담을 때에도 싱겁고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백김치에 가깝게 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김장김치를 담글 때에는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명태식해나 가자미 등의 생선을 김치와 함께 저장한다. 그러나 피난민들이 월남 후 날씨가 함경도보다 더 따뜻한 환경에 적응하여 김치는 점차 짜지고 고춧가루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김장에 명태 등을 넣는 비율이나 양도 줄어들었다.

청호동을 속칭 '아바이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순대가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어교순대[34], 병천순대[35], 경기도순대[36], 제주순대[37], 백암순대[38], 평안도순대[39], 함경도순대[40], 개성순대[41], 명태순대[42], 찹쌀순대[43], 오징어순대[44] 등이 있다. 이 중 속초 실향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아바이순대, 오징어 순대, 명태 순대를 들 수 있다.

'아바이'라는 말은 함경도 말로 아버지라는 뜻으로 순대를 만들 때 돼지의 대창을 이용해 만드는 데 돼지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소창은 많이 나오지만 대창은 기껏해야 1m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대창을 이용해 만들었기에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뜻으로 '아바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바이순대는 함경남도 북청지방의 고유 음식으로 돼지를 잡은 후 돼지머리살과 무청은 삶아서 다져 넣고, 돼지 창자와 창자에 붙은 기름, 파, 마늘,

34) 채소와 고기를 다져 두부와 함께 민어속에 넣고 찐 음식

35) 많은 재료가 들어가 푸짐하지만 맛이 기름진 것이 특징

36) 많은 육류와 채소가 사용되는 것

37) 보리, 메밀, 부추를 넣어 만든 것

38) 순대 소를 갈아 맛이 부드러워 소세지를 먹는 듯한 맛이 남

39) 당면이 많이 들어가고 맛이 담백

40) 주로 대창에 소를 채우므로 큼지막한 순대

41) 찹쌀대신 돼지고기를 갈아넣은 순대

42) 생태의 내장을 빼고 말려서 그 안에 소를 넣어 만든 순대

43) 찹쌀과 당면을 위주로 넣은 순대

44) 오징어 몸통에 소를 집어넣은 순대

생강, 소금 등의 양념을 넣고 대나무 꼬챙이로 순대를 찔러서 삶을 때 터지지 않게 한 후 끓는 물에 삶아낸다. 보통 찹쌀을 넣기도 하지만 구더기 같은 느낌이 들어 잘 넣지 않는다고 한다[45].

속초시 청호동은 함경도 사람들이 1·4후퇴 당시 남하하는 국군을 따라 내려왔다가 고향에 가지 못하고 정착하여 만든 동네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함경도 외의 사람들도 마을에 터를 잡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의 60%가 함경도 출신이다. 이 아바이 마을에서 1999년도에 '함경도 향토음식축제'를 열었는데 그때 이 아바이순대가 출품되어 처음 이름을 얻었다.

45) 김연옥(여) 1932년생, 청호동 거주, 함경도 출신

〈 사진 8-1-64〉 아바이순대

〈 사진 8-1-65〉 아바이순대국

아바이 순대와 더불어 또 하나의 별미음식이 있으니 명태순대이다. 명태순대는 창자가 아니고 명태 배속을 주머니로 삼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함경도지역에서는 명태가 가장 많이 잡혀 명태로 순대를 만드는 데 일명 '통심이'라고도 부른다. 명태를 절인 뒤에 입 쪽에서부터 내장을 빼내어 깨끗이 씻어 물기를 거둔다. 여기에 명태내장, 두부, 삶은 배추와 숙주, 다진 마늘,

다진 파, 후춧가루, 소금, 된장 등을 모두 섞어 소를 만들어 명태 입 쪽에서부터 뱃속까지 꼭꼭 채워 넣고 입을 아무린다. 김장철에 많이 만들어 꾸덕꾸덕하게 말려 겨울 동안에 찌거나 구워서 썰어 먹는다. 몹시 추울 때면 몇 마리든지 꿰어 얼려 가지고 수시로 사용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 얼리면 갑자기 손님이 왔을 때 긴요하게 쓸 수 있으며 손쉬운 선물도 될 수 있다.

옛날에는 함경도에서 좋은 고구마가 많이 나서 고구마녹말을 썼으나 남쪽으로 이주한 함경도 주민들은 감자녹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겨울에는 녹말만으로 국수사리를 빼고 여름에는 밀가루를 1할 정도 섞어서 만든다. 녹말을 익반죽하여 국수틀에 넣고 눌러 끓는 물에 삶아진 것을 건져 찬물에 씻는다. 이렇게 만든 사리는 국수양념을 하여 큰 대접에 담는다. 손바닥만한 참가자미는 맛이 좋아 회냉면에 주로 썼고 가자미식해도 유명한 음식인데, 가자미가 귀해지자 가오리나 명태를 냉면에 넣기도 한다. 운단절임은 특별반찬인데 날로 양념하여 무치고, 얼간고등어는 청호동의 명물로 싱싱한 얼간 고등어를 양념하여 밥에 쪄서 먹거나 간장에 조려먹는 조리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겨울철에 수확량이 많은 알을 밴 양미리는 구워서 먹는다. 김치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젓갈을 많이 넣는데 젓갈의 종류는 명란젓, 서거리젓, 창란젓, 바다게젓 등을 많이 하며, 요즘에는 멸치젓과 새우젓도 많이 쓰고 있다. 청호동의 함경도 사람들은 해우고기를 넣은 김치를 먹는데 봄에 먹으면 다섯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이 좋다고 한다. 국은 미역으로 된 장국을 먹고, 밥은 잡곡밥을 주로 먹는다. 음식의 모양은 큼직하게 대륙풍으로 만들고 시원스럽고 장식도 단순하여 기교를 부리거나 사치스럽지 않다. 성품이 활달한 것처럼 야성적인 음식을 즐기는 식성이 청호동의 음식문화라고 볼 수 있다.

함경도에서는 한해(10월~다음해 1월)동안 명태를 100발을 잡으면 기념으로 떡을 해서 선원들과 그 가족, 동네사람들에게 두루 나눠 먹였는데 그 떡을 '백바리떡'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1발은 100두름을 의미하므로 100발이란 10,000두름을 잡은 것을 의미하므로 농사로 치면 대풍년이 든 것을 자축하는 의미로 '백바리떡'을 해 먹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풍습이다. 또한 수산업을 하는 가정에서는 아침에 외부에서 여자들이 먼저 집안으로 들어오면 부정을 탄다고 하여 반드시 남자가 먼저 들어오게 하였다.

또한 상차림에 있어 어물의 산출이 많으므로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제물로 어물로 만든 적을 쓰고 생선보다 말린 포를 이용하여 양념하여 찌는 조리법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때 주로 명태, 가자미, 새치(이면수)등을 많이 이용하

였으며 산 문어는 가격이 비싸도 반드시 올리고 전은 주로 녹두전을 많이 올렸다[46].

떡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소박하고 큼직하게 만들어 구수한 편이다. 찰떡, 인절미, 달떡, 오그랑떡, 찹쌀구비, 괴명떡, 꼬장떡, 언감자떡을 만들어 먹는다.

3) 속초실향민의 통과의례음식

가) 산육풍속

피난민들의 기자풍속(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습속)으로 개, 닭, 돼지 같은 것을 살생하지 않으며 상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한 임신하면 매운 것을 먹지 않으며 출산 후 첫 칠일까지는 미역국과 밥만 먹는다.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는 왼새끼로 꼰 금줄을 매는데 솔가지를 대문간에 건다.

아기가 백일이 되면 밥과 국을 해서 동네사람과 나누어 먹으며 수수떡과 백설기를 한다. 백설기는 백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좋다고 하며 수수떡은 바람을 물리치라는 의미이다.

46) 김선옥(여) 1940년생, 교동거주, 함경도 출신

나) 폐백음식

폐백음식은 대추에 술을 뿌려 홍실에 길게 꿰어 고이고, 쇠고기 산적, 닭산적 등을 쓰기도 한다. 절편이나 인절미를 크게 만들어 함지에 가득 담고, 돼지머리를 삶아 가지고 가거나 시루떡을 함지에 가득 담아가지고 가는데, 격식보다는 대체로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한다.

큰상에는 귀주떡, 절편, 인절미 등을 크게 만들어 수북하게 고인다. 돼지고기 삶은 것, 쇠고기 삶은 것, 생선을 반쯤 말려 굽거나 찐 것도 쓴다. 과일이나 과줄 등을 높게 고여 담아 큰상을 꾸민다. 신랑과 신부 앞에는 장국상을 차려 놓는다.

다) 제사음식

제례는 차례(茶禮), 차사(茶祀), 절사(節祀)라고도 하며 설과 정월대보름날, 한식, 추석, 동지 등에 차례를 올리는데 피난민들은 설과 한식, 추석을 중요하게 여긴다. 대부분 이북식으로 제사를 지내므로 초저녁 제사는 없고 주로 새벽 자시(子時)경에 지낸다.

제사음식은 일반적으로 '치'자가 들어간 생선은 쓰지 않으나 도치는 '싱어', 새치는 '임연수'라 하여 제수로 사용한다.

제사음식의 그릇 수는 반드시 홀수로 장만하며 날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김치는 씻어서, 닭은 대꼬치에 꿰어 구어서 사용하며 무숙채는 빼 놓지 않고 올린다.

떡은 편틀에 고여 담는데 제편, 약계, 중계, 인절미, 절편, 솔편의 순서로 고인다. 떡은 차좁쌀로 만든 조찰떡, 시루편, 찰떡을 쳐서 밀대로 밀은 후 썰어 기름칠 한 번철에서 구워 물엿을 바른 자바귀떡을 놓는다.

그 외에 제사에 쓰는 과줄은 하얗게 만들어 찹쌀을 붙여 큼직하게 만들어 높게 고인다.

4) 속초실향민의 세시풍속

북한 피난민들은 특수한 처지와 현실에서 난민촌을 형성하였기에 북한의 세시풍속을 전승함으로써 결속력을 다지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의 세시풍속이 속초의 세시풍속과 결합되어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속초지역 피난민들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리적 특징, 피난민이라는 상황적 특징으로 인하여 생업인 어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함경남도 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피난민들은 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등을 명절로 치고 추석은 남쪽의 명절로 인식하고 있다.

가) 정월초하루

함경도 사람이 많이 사는 청호동에서는 세배객이 오면 북한식의 커다란 찰떡, 가래떡, 인절미를 대접하며, 후배나 친구들이 오면 명란젓, 명태국을 내놓는다. 별식으로 명태순대를 반주상으로 내 놓기도 한다.

북청사람들은 명절 때 명태순대를 해서 먹기도 하며 차례상에는 직접 잡은 명태와 가자미를 쪄서 머리 째 반드시 올리며 어물로 만든 적과 말린 포를 제물로 쓴다.

나) 정월 대보름날

피난민들은 정월 대보름에 부럼을 깨물어 몸의 부스럼을 예방하고 약밥을 한다. 약밥을 찔 때 지누아리와 같은 식용 해초를 넣기도 하고 동치미 국물과 명태젓갈을 반찬으로 먹는다. 또한 집안의 액막이로 약밥을 한지에 싸서 바다에 내던지면서 한 해동안 평안하기를 기원하였다.

다) 바람님날

음력 2월 초하루를 '영동날' 또는 '바람님날', '영동할머니날'이라 하여 바람님을 모신다. 이는 어로 작업이 주업인 이들에게는 비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 해난사고가 없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대체로 1970년대까지는 성의껏 잘 모셨다고 한다. 명태에 소금을 넣어 맑게 끓이고 메를 지어 식구수대로 수저를 꽂고 치성을 올리는데 음력 2월 15일 날 하늘로 올라가고 20일이 되면 수부신까지 모두 올라가는데 이 기간에는 색깔있는 옷을 입지 않고 상가집에도 가지 않는다고 한다.

라) 동짓날

동짓날에 피난민들은 오구랑을 낳은 팥죽을 해 먹는데 오구랑이란 새알처럼 생긴 옹심이의 함경남도 방언이다. 오구랑팥죽의 오구랑은 수수로 작게 만들어 수 십개를 넣어서 먹는다.

5) 민속신앙

가) 성황제

성황제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한국의 마을신앙으로 '동신제'라고도 한다. 청호동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성황제를 지내는데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믿어 제물로 삼색실과와 어물, 소머리를 반드시 올린다고 한다.

성황제 이외에도 정초에 첫 출어 할 때와 어로 작업이 부진할 때에도 성황당에 와서 빈다.

나) 용왕제

피난민 중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바다신을 의지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신이 용왕신이다. 이에 동해바다의 해신인 동해 용왕신에게 3년 또는 5년 마다 '배신굿'이라 하여 제사를 지낸다. 이는 풍어제의 일종으로 첫째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풍어제의 성격이며 둘째는 바다에 나가 사고 없이 조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재의 성격을 갖는다.

다) 배성주제

일명 '뱃고사'라고도 하며 배에 모신 성주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주로 선주가 개인적으로 치성을 올리는 것인데 이때는 제물로 어물을 쓰기도 하고 육류를 쓰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쓰지는 않는다.

선주들이 처음에 배성주를 봉안하면 매년 정초에 그 해 처음 잡은 생선과 메, 떡, 술 등을 차려놓고 축원을 한다. 다음에 배성주신을 상징하는 한지를 거는데 이미 달아놓았던 한지는 불에 태운다.

4. 속초 실향민의 식생활

가. 명태

명태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장식 등으로 즐겨 먹어온 식품이다. 명태라는 이름은 함경도 명천(明川)에 사는 태(太)모씨가 연승어법을 처음 사용하여 잡은 고기라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흔히들 황태하면 인제나 대관령을 떠 올리지만 주산지는 속초와 거진으로 1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가 주 어획기이다. 명태만큼 많은 이름을 가진 고기도 드문데 잡히는 시기에 따라 일태, 이태, 삼태, 오태, 섣달바지, 춘태라고 하며 크기에 따라 대태, 중태, 소태, 왜태(함경도 연안에서 잡히는 작은 명태), 애기태 등으로 부른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이름은 다음과 같다.

① 강태 : 강원도 연안에서 잡히는 명태
② 금태 : 잘 잡히지 않아 값이 비싸게 된 명태
③ 노가리, 애기태, 앵치 : 명태새끼의 이름
④ 은어바지 : 도루묵(함경도에서는 은어라고 함)떼가 회유해 온 뒤 반드시 명태떼가 따라 오는 습성을 따서 명명한 이름
⑤ 꺾태 : 산란을 마친 명태가 살이 별로 없어 뼈만 남다시피 된 명태
⑥ 지방태 : 우리나라 동해 연안에서 잡히는 토종 명태
⑦ 원양태 : 북태평양 등 원양에서 잡은 것
⑧ 망태(網太) : 그물로 잡은 것
⑨ 조태(釣太) : 낚시로 잡은 것

또, 명태의 상태에 따라

① 생태 : 겨울철에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북태평양에서 한류를 따라 강원도와 경북지방까지 내려온 선어 상태인 것
② 동태 : 얼린 것
③ 북어 : 약 60일 정도 건조한 것
④ 황태 : 40일간 얼렸다 말렸다를 스무번 이상 거듭한 것으로 3월경이 되면

노란색을 띠는 것

⑤ 더덕북어 : 얼리는 과정에서 명태살 사이에 있던 얼음이 빠지고 그 틈에 공간이 생겨 북어살이 보슬해진 것

⑥ 코다리 : 15일 정도 반쯤 말린 것으로 네마리씩 코를 꿰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사진 8-1-66 〉 중앙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태

황태의 이름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① 백태 : 건조시킬 때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색깔이 하얗게 된 것

② 찐태(먹태) : 백태와 반대로 날씨가 따뜻해서 색깔이 검게 된 것

③ 파태 : 머리나 몸통에 흠집이 생기거나 일부가 잘려 나간 것

④ 무두태 : 머리를 잘라내고 몸통만이 걸어 건조시킨 황태

⑤ 통태 : 작업 중에 실수로 내장이 제거되지 않고 건조된 것

⑥ 낙태 : 건조 중 바람에 의해 덕대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

〈 사진 8-1-67 〉 황태포

명태는 생선살 뿐 만 아니라 알은 명란젓, 창자는 창란젓, 아가미는 아가미젓, 곤은 곤지국, 간은 간유의 원료로 이용 되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생선이다.

황태의 유래는 정확한 연도는 기록되지 않고 있으나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은 북한 지역인 함경도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6 · 25 사변 이후 함경도 피난민들은 휴전선 부근인 속초 등지에서 실향민들과 함께 터전을 닦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함경도 지방과 날씨가 흡사한 진부령 일대와 대관령일대에서 함경도 사람들로부터 황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진부령에서 황태를 건조하기 시작한 것은 약 40년 전부터로, 대관령의 덕장보다 10여년 빨리 시작되었다.

덕장에 걸린 황태는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으면서 겨우내 서서히 건조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맛 좋은 황태가 되는데, 마른 후에도 외형은 물에 불린 것처럼 통통하고 노랗거나 붉은 색이 나며, 속살은 희고 포슬포슬하여 향긋하고 구수한 맛을 낸다.

황태는 일반 생선에 비해 저지방(2%)이며 칼슘과 단백질(56%)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황태를 숙취해소용으로 알고 있듯이 한의학에서도 간장해독, 혈압조절, 체내 노폐물제거와 해독약으로 최상의 식품으로 꼽는다. 또한 연탄가스 중독은 물론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중에서 마른 명태를 푹 달여 먹고 후유증 없이 효과를 보았다고도 한다.

1) 황태를 이용한 향토 음식

가) 황태 구이

〈 만드는 법 〉

① 황태는 미리 물에 불려 놓는다.
② 쇠고기 간 것에 소금, 후추가루, 마늘, 참기름을 넣고 볶다가 녹말가루를 넣고 더 볶는다.
③ 고추장, 간장, 고추기름, 설탕, 마늘, 청주, 생강즙 등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다.
④ 불린 황태에 유장을 발라 20분 정도 재운다.
⑤ 애벌구이한 황태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그 위에 양념장을 바른다.
⑥ 볶은 쇠고기를 나머지 양념장과 섞어서 황태 위에 바른다.
⑦ 황태를 구운 후 통깨와 실파를 올린다.

〈 사진 8-1-68 〉 황태구이

나) 황태칼국수

황태머리 또는 황태채, 바지락, 멸치, 다시마 등과 채소를 넣고 내린 육수에 손으로 직접 만든 면을 넣어 끓인 것으로 국물 맛이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다) 명태살 김치

명태살 김치는 멸치젓보다는 새우젓으로 간을 해야 시원한 맛이 더해진다.

〈 만드는 법 〉

① 명태는 꾸덕꾸덕하게 반 건조된 것을 준비하여 뼈를 발라내고 잔 칼질을 하여 길이 3~4㎝로 자른다.
② 고춧가루에 물을 조금 넣고, 새우젓, 굴젓을 넣는다.
③ 파는 잘 씻어서 3㎝정도의 길이로 썰고, 마늘, 생강은 다진다.
④ 모든 재료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아 4~5일 후에 먹는다.

〈 사진 8-1-69 〉 명태살 김치
자료 : 『강원의 맛 김치』, 강원도 농업기술원, 2004, p.82

라) 황태찜

〈 만드는 법 〉

① 콩나물은 머리를 떼고 데쳐 놓는다.
② 황태포는 물에 잠시 담가 적신 후 쟁반에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가 10~20분 정도 지난 후 행주로 물기를 제거한다.
③ 찹쌀가루와 전분가루는 2:1의 비율로 섞어 찬물에 잘 풀어 놓는다.
④ 황태포의 머리를 잘라 내고 5cm 정도로 토막 내어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는다.
⑤ 볶아진 황태포를 냄비에 넣고 황태 육수를 적당히 부은 후 양념장을 넣고 풋고추, 미나리, 홍고추와 데쳐 놓은 콩나물을 넣고 끓인다.
⑥ 끓으면 미더덕, 찹쌀가루와 전분가루 푼 것을 위에 뿌리고 걸쭉해 지면 참기름과 통깨를 뿌린다.

〈 사진 8-1-70 〉 황태찜

마) 명태순대

함경도지방은 명태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이므로 명태로 만든 순대 또한 유명하다. 명태순대는 겨울에 함경도 지방의 추운 날씨를 이용하여 만들어 먹던 음식인데 요즘 속초에서는 거의 만들어 먹지 않고 있다.

명태를 절인 후 배를 가르지 않고 속을 채워 바깥에 걸어 두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꾸들꾸들하게 마르면서 얼게 되는 데 김장철에 많이 만들어 겨울 동안 혹은 구정같은 명절이나 잔치 때 쪄서 먹거나 구워먹던 음식이다. 창란을 많이 넣고 만들어야 제맛이 있다.

〈 만드는 법 〉

① 대구만큼 큰 명태를 골라 배를 가르지 않고 입 쪽으로 아가미와 내장을

빼 낸다.

② 두부, 삶은 배추(김치), 돼지고기(뒷다리살), 숙주나물, 창란 등에 다진 마늘, 다진 파, 후춧가루, 된장 등으로 양념한다.

③ 양념한 소를 입을 통하여 뱃속까지 꼭꼭 채워 넣고 입을 아무린다.

④ 추운 곳에 약 보름쯤 걸어 놓아 꾸들꾸들하게 말리면서 얼린다.

⑤ 찌거나 구워 썰어 먹는다.

〈 사진 8-1-71 〉 명태 순대

바) 황태해장국

〈 만드는 법 〉

① 황태는 두들겨 살을 발라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찢는다.

② 김치는 양념을 털어 내고 송송 썰고 콩나물도 다듬어 둔다.

③ 냄비를 달군 후 황태를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인다.

④ 김치와 콩나물을 넣고 간장, 마늘, 소금, 후춧가루 등으로 양념한 후 다시 한 번 끓인다.

⑤ 달걀을 풀어 넣는다(줄알을 친다).

〈 사진 8-1-72 〉 황태국

사) 황태 조림

〈 만드는 법 〉

① 꾸들꾸들하게 말린 명태는 5㎝ 크기로 토막을 낸다.
② 냄비에 무를 깔고 황태를 올린다.
③ 간장, 마늘, 파, 설탕,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 등으로 만든 양념장을 준비한다.
④ 양념간장을 끼얹어가며 조린다.

아) 명태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명태전과는 달리 생 명태 또는 반 건조된 명태를 찜통에 쪄서 뼈를 발라내고 살을 으깬 후 지지는 전이다.

〈 만드는 법 〉

① 생 명태나 반 건조된 명태를 찜통에 찐다.
② 뼈를 발라내고 살은 으깬다.
③ 명태 살에 달걀과 잘게 썬 쪽파를 넣은 후 소금과 밀가루를 넣어 반죽한다.
④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국자씩 떠 넣어 둥글납작하게 지진다.

〈 사진 8-1-73 〉 명태전

자) 북어전

〈 만드는 법 〉

① 북어는 물에 불린 후 방망이로 두드려 뼈를 발라낸다.
② 5㎝ 길이로 토막 낸 북어는 껍질에 칼집을 넣은 후 양념간장에 재운다.
③ 양념장에 재운 북어에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 물을 입혀 기름에 노릇하게 지진다.

차) 코다리김치

〈 만드는 법 〉

① 코다리는 깨끗이 씻어 3~4㎝ 크기로 잘라 둔다.
② 김장김치용 배추에 속을 넣을 때 코다리를 한 토막씩 같이 넣어 담근다.

카) 생태맑은국

〈 만드는 법 〉

① 생태는 내장을 빼고 깨끗이 씻어 둔다.
② 냄비에 무를 넣고 끓이다가 무가 어느 정도 익으면 적당한 크기로 썰어 둔 생태를 넣어 끓인다.
③ 파, 마늘, 고추 등을 넣고 소금과 국간장으로 간을 한다.

타) 북어 강정

〈 만드는 법 〉

① 북어포는 뼈를 발라내고 한 입 크기로 썰어 둔다.
② 북어에 녹말가루를 묻히고 바삭하게 튀긴다.
③ 고추장, 간장, 참기름,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후춧가루, 물엿, 설탕 등을 넣고 고추장 양념을 끓인다.
④ 튀긴 북어를 고추장 양념에 버무린다.

나. 냉면

몇 년 전 발표된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음식으로 겨울에는 불고기가, 여름에는 냉면이 으뜸으로 꼽혔다. 오늘날에는 냉면을 무더운 여름철에 주로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한겨울 땅에 묻어놓은 독에서 살얼음을 깨가며 동치미를 떠와 온돌방에서 이를 덜덜거리며 국수를 말아먹었다고 한다. 따끈한 온돌방 화로 옆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먹는 얼음 동동 뜬 냉면은 북쪽 지방의 겨울철 별미였다.

함경도 지방의 '함흥 비빔냉면'과 평안도 지방의 '평양 물냉면', 강원도의 '메밀막국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면식문화(麵食文化)이다.

우리 냉면의 맛은 여러 곳에 그 맛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조선후기에 나온『동국세시기』에는 '메밀국수를 무김치와 배추김치에 말고 돼지고기 섞은 것을 냉면이라고 하고 잡채와 배, 밥, 쇠고기, 돼지고기 썬 것과 기름, 간장을 메밀국수에 섞은 것을 골동면이라 한다. 관서지방의 냉면, 그 중

평양냉면의 맛이 가히 일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평양냉면은 대동강, 기생과 함께 평양의 빼어난 세 가지 풍물에도 끼일 정도로 예로부터 명성이 자자했다. 또한 평소 맵거나 짠 음식을 싫어했던 고종도 동치미 국물에 열십자로 얹은 편육, 배와 잣을 얹은 냉면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1) 냉면의 종류

가) 평양냉면

평양지방의 향토음식으로 메밀국수에 찬 냉면국물을 부어 말아 먹는 물냉면을 말한다. 함흥냉면이 감자나 고구마 전분이 많은 냉면인데 비해 평양식 냉면은 주로 메밀로 면을 뽑는데 함흥냉면에 비해 거칠고 쉽게 끊기며 굵은 면발이 특징이다. 냉면육수로는 꿩 삶은 국물을 으뜸으로 삼지만 대개 사골우린 물이나 동치미 국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평양냉면은 추운 겨울 한 끼 식사, 또는 술을 먹고 난 후 해장국 대신으로 즐겨 먹었으며 냉면의 긴 면발은 앞니를 이용하여 끊어 먹어야 제 맛을 즐길 수 있다.

국수는 메밀가루와 녹말가루를 2 : 1 비율로 섞고 반죽하여 국수틀에 넣어 국수를 뺀 다음 삶아 찬물에 헹군 뒤 사리를 지어 놓는다. 냉면국물은 쇠고기를 삶은 육수와 동치미국물을 반반 섞고 소금, 식초, 간장으로 간을 맞춘 뒤 차게 해 놓는다. 육수를 만들 때 삶았던 쇠고기는 얇게 썰어 편육을 만들고 얇게 썬 동치미무, 채썬 오이와 배, 삶은 달걀 반쪽을 준비한다. 재료 준비가 끝나면 큰 대접에 사리와 위에 준비한 재료를 담고 냉면국물을 한쪽에서 가만히 듬뿍 붓는다. 먹을 때 식성에 따라 겨자즙, 식초, 설탕을 넣으며 차갑게 해서 먹는다.

〈 사진 8-1-74 〉 국수 뽑는 기계

〈 사진 8-1-75 〉 평양냉면

나) 함흥냉면

함흥냉면은 함경도의 향토요리로 회냉면이라고도 한다. 속초 함흥냉면의 맛은 강원도 속초가 38선 이북지역인 관계로 실향민 1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이북고향의 맛을 못 잊어 만들어 먹다가 자연스럽게 속초의 함흥냉면 전문점들이 생겨나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다.

속초 함흥냉면은 고구마 가루를 98℃ 정도의 뜨거운 물에 일정량을 섞어 반죽하고, 명태포를 맵고 톡 쏘게 무쳐서 꾸미로 얹은 냉면으로 취향에 따라 찬 육수를 넣어 비벼먹는 요리로 타 지역의 냉면맛과 다른 독특한 쫄깃함과 새콤달콤, 매콤한 양념 맛이 일품이다. 또한 속초 함흥냉면의 가장 큰 특징은 냉면과 곁들이는 육수의 깊은 맛과 후식으로 먹는 장국의 맛에 있는 데 이것은 냉면의 얼얼함을 달래주는 데 최고이다.

손의 온기에도 사리의 맛이 변한다는 냉면은 차게 나온 직후 빨리 먹을수록 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냉면 위에 얹혀 나오는 홍어회는 양념장과 사리를 잘 비빈 후 하나씩 쌈을 먹는 기분으로 얹어 먹어야 제대로 된 회 냉면 맛을 즐길 수 있다. 기호에 따라 식초, 설탕, 겨자를 첨가해서 먹으면 그 개운한 맛을 한층 더 즐길 수 있다.

〈 사진 8-1-76 〉 함흥냉면

다) 오징어순대

순대란 가축의 창자 속에 두부, 숙주나물, 파, 표고버섯, 고기 등을 이겨서 양념하여 넣고 양쪽 끝을 동여매고 익힌 것을 말한다. 『음식디미방』에는 개의 창자를 이용한 순대, 『주방문』에는 쇠창자에다 선지를 넣어서 삶은 선지순대, 『증보산림경제』, 『역주방문』, 『규합총서』에는 쇠창자에다 고기를 두드려 온갖 양념과 기름장을 간 맞추어 섞어 가득히 넣고 쪄낸 순대 등이 설명되어 있다[47].

북한은 쪄서 먹는 음식이 많은데 보릿고개를 겪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뜸북이 같은 해조류를 밥 위에 놓고 쪄서 먹기도 했고 산나물을 캐다가 막장에 비벼서 오징어 뱃속에 넣어 쪄서 먹으면 든든함을 느끼곤 했다. 또 오징어잡이(속칭 남바리)를 하러 나간 어부들이 배 위에서 먹을거리가 마땅치 않고 생선만으로는 요기가 되지 않자 함경도 지방에서 먹던 명태 순대를 생각하며 싱싱한 오징어에 주식과 부식을 섞어 넣어 익혀 먹던 것이 오징어순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주로 청호동에서 많이 해 먹던 음식이다.

또한, 6 · 25전쟁 때는 순대를 만들 돼지 창자를 구하지 못해 속초에서 흔한 오징어를 이용해서 순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이렇게 오징어순대는 속초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상품화한 음식으로 이제는 속초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오징어순대는 선도를 잘 유지해야지만 색을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산 오징어를 급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징어순대의 속으로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데 색을 예쁘게 하기 위하여 시금치나 열무를 잘게 썰어 넣기도 한다. 찹쌀밥은 찹쌀과 맵쌀을 1 : 1의 비율로 고슬고슬하게 지어 놓고 모든 속 재료를 섞은 후에는 몇 시간에 걸쳐 흘러 나오는 국물을 뺀 다음 속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7) 이성우, 『한국요리문화사』, 교문사, 1995, pp.122~123

〈 만드는 방법 〉

① 오징어는 깨끗이 손질하여 껍질을 벗겨 내고 다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잘게 썰어 놓는다.
② 숙주는 소금물에 데친다.
③ 두부와 숙주는 베보자기에 싸서 물기를 짠 다음 곱게 다진다.
④ 당면은 삶아서 다져 놓는다.
⑤ 찹쌀은 불린 후 고슬하게 밥을 지어 놓는다.
⑥ 표고버섯과 깻잎은 잘게 다지고 붉은 고추와 풋고추는 반으로 갈라 씨를 빼고 잘게 다진다.

⑦ 양파와 쇠고기도 잘게 다진다.
⑧ 그릇에 다져 놓은 오징어다리, 찰밥, 깻잎, 당면, 두부, 숙주나물, 표고버섯, 붉은 고추, 풋고추, 양파, 쇠고기 등을 넣고 갖은 양념을 한다.
⑨ 오징어 몸통 속에 밀가루를 살짝 뿌린 후 털어 내고 양념한 소를 꼭꼭 눌러 2/3 정도 채운 다음 벌어진 부분을 꼬치로 막는다. (오징어 몸통에 소를 넣을 때는 많이 넣으면 소가 빠져 나오므로 적당히 넣고 끝을 꼬치로 찔러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⑩ 찜통에 김이 오르면 오징어를 넣고 10분 정도 쪄 낸다.
⑪ 한 김 나간 오징어는 둥글게 썰어 접시에 담아내고 간장, 마늘, 깨, 참기름 등으로 만든 양념장을 위에 부어 먹는다.

〈 사진 8-1-77 〉 오징어순대

라. 젓갈류

1) 젓갈의 종류

가) 멸치 젓갈

멸치젓는 새우젓과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젓갈의 하나로 양력 4월에 담는 것이 가장 맛이 좋다. 이른 초봄의 멸치(초물)는 아직 살이 오르지 않아 진한 맛이 적고, 담아서 오래 두면 살이 풀어지기 쉽다. 반대로 늦은 봄의 멸치(파물)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 끈적거리고, 멸치 비린내가 가시지 않으므로 중물을 취하는 것이 좋다.

〈 만드는 법 〉

① 멸치는 배를 따서 내장과 머리를 제거한다.
② 소금을 많이 넣고 절였다가 3~4번 물에 씻어 낸다.

③ 건져서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다진 파, 생강즙 등 양념을 넣고 버무려 항아리에 눌러 담고 10일 정도 두었다가 먹는다.

〈 사진 8-1-78 〉 멸치 젓갈

나) 운단절임

운단이란 성게알을 말하며 운단절임이란 성게알에 식용 알콜과 소금을 약간 넣고 절인 것을 말한다. 말똥성게나 북말똥성게를 주로 이용하는 데 일제시대때 일본사람들이 주로 애용한 고급 음식이다.

옛 문헌에는 성게를 해구(海毬), 해위(海蝟),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보라성게를 율구합(栗毬蛤)이라 하였고 우리말로는 밤송이조개라고 한다[48].

성게는 특히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야맹증 예방과 시력향상에 좋고 비타민 B_1, B_2가 풍부하여 신경세포의 기능향상에 좋으며 철분이 풍부하여 조혈작용에도 좋다.

성게젓 제품에는 염장하여 그대로 익힌 날성게젓과 성게를 짓이겨서 반죽모양으로 한 이긴 성게젓이 있다. 이긴 성게젓은 원료를 염장 후 1주일 후에 꺼내서 방부제, 알콜이나 소주 등을 적당량 첨가하여 이긴 다음 용기에 담으면 된다[49].

〈 만드는 법 〉

① 성게는 반으로 갈라 중간부분을 가시가 들어가지 않도록 수저로 조심스럽게 꺼낸다.
② 바구니에 담아 3% 정도의 소금물에 담그어 협잡물을 제거하면서 씻는다.
③ 건져서 그늘진 곳에서 충분히 물기를 뺀다. 이때 충분히 물이 빠지도록 소금을 뿌려 삼투작용으로 빼기도 하고 묽은 알콜 용액으로 씻어도 된다.
④ 보통 10~14시간 정도 물 빼기를 한 후 용기에 담아 익힌다.

48) 현영희 외 3인, 『식품재료학』, 형설출판사, 2000, pp.317~318

49) 심상국 외 3인, 『발효식품학』, 진로연구사, 2002, p.289

2) 식해의 종류

가) 가자미 식해

식해란 육질이 단단한 가자미, 도루묵, 명태, 해떼기, 열갱이 등의 생선을 좁쌀과 함께 버무려 발효시킨 함경도 음식인데 함경도 정착민들에 의해 속초에서 맛볼 수 있는 토속음식이 되었다. 가자미식해는 삭히는 과정에서 점차 익으면서 물이 생기고 새큼한 맛이 나는 데 생선이 익으면서 내는 독특한 맛이 별미이다.

〈 사진 8-1-79 〉 가자미식해

〈 만드는 법 〉

① 참가자미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내장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15~20시간 정도 소금에 절인다.
② 무는 굵게 채 썰어 절이고 좁쌀로 밥을 짓는다.
③ 가자미가 꾸덕꾸덕해지면 2㎝ 정도로 썬다.
④ 가자미에 조밥, 다진 마늘, 다진 파, 생강즙, 고춧가루, 엿기름가루를 섞어 버무린다.
⑤ 2~3일이 지나면 가자미가 삭으면서 국물이 생기는 데 이 때 소금 간 한 무와 가자미를 섞어 버무린다.
⑥ 항아리에 눌러 담고 10~15℃에서 약 20일 정도 삭힌다.

〈 사진 8-1-80 〉 김송순 할머니가 만든 가자미식해

나) 햇떼기식해

햇떼기 식해는 9~12월에 담구는 것이 좋으며 조밥을 지어 같이 넣어 담그는 것이 제 맛이다. 속초에서는 1주일 정도 익히지만 이북에서는 보름정도 익혀야 제 맛이 난다[50].

나) 만드는 법

① 햇떼기는 내장을 제거하고 2~3일 정도 소금에 절인다.
② 물에 3~4번 정도 씻는다.
③ 좁쌀로 밥을 하여 절여 놓은 햇떼기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 깨소금 등을 넣어 버무린다.
④ 따뜻한 곳에 담요를 덮어 10일 정도 삭힌다.

50) 김송순(여) 1929년생, 청호동 거주, 함경도 북청군출신

〈 사진 8-1-81 〉 햇떼기 식해

〈 사진 8-1-82 〉 햇떼기는 소금에 절여 3~4번 씻어 준다.(좌)
〈 사진 8-1-83 〉 햇떼기 식해를 담고 있는 김송순 할머니 (우)

다) 명태식해

탄수화물이 발효할 때 생기는 단맛으로 명태의 맛을 돋구어 주는 음식으로 밥상이나 술상에 두루 쓰인다.

〈 만드는 법 〉

① 반쯤 마른 작은 명태의 배를 가르고 반으로 잘라, 길이 2㎝로 썬다.
② 무는 사방 2㎝ 정사각형으로 나박썰기하여 고운 고춧가루로 빨갛게 물을 들인다.
③ 좁쌀밥은 따뜻할 때 엿기름가루를 뿌리고, 양념을 넣어 버무린다.
④ 모든 재료를 버무려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고 그 위를 무청으로 봉하여 따뜻한 곳에 10일 정도 익힌다.

51) 김소미 외 3인, 『우리생선이야기』, 효일출판사, 2002, p.170

〈 사진 8-1-84 〉 명태식해, 명태식해를 만들고 있는 할머니

마. 얼간고등어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450여년 전부터 고등어를 먹어왔고 어획량도 많아 지금도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옛 문헌에는 '벽문어'(壁紋魚), '고등어'(皐登魚), '고도어'(古道魚, 古都魚, 高刀魚)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그 형태와 생태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고등어는 2종류로 복부에 반점이 없는 것과 반점이 촘촘히 있는 것이 있으며, 『자산어보』에는 반점이 없는 것을 '벽문어', 반점이 있는 것을 '배학어'라 하였으며 벽문어는 한국 동남서 연안 등에서, 배학어는 우리나라 남부 이남에서만 잡힌다[51].

고등어는 가을에서 겨울에 이르기까지가 가장 맛있으며 단백질과 지질이 풍부하고 고도의 불포화지방산인 EPA가 어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어

동맥경화, 혈전증, 고혈압, 심장질환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혈압강하,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도 있다. 또한 철분이 많아 빈혈에도 좋으며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 비타민 E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고등어의 껍질 특히 꼬리 부분의 껍질과 살에는 비타민 B_2가 많아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고등어는 꽁치나 정어리 같은 회유어로 바다의 위층에서 강한 수압을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사는 생선보다 육질이 연하고 부패하기 쉽다. 선도가 저하되면 특유의 비린내가 나고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스티딘(histidine)이 산소에 의해 히스타민(histamine)으로 변하면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일어나 두드러기,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고등어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위에서 바로 급냉하거나 소금절임을 하게 된다.

고등어는 향토요리로 특히 많이 이용되는데 자반, 조림, 얼간, 튀김 등으로 이용되며, 옛 문헌에는 고등어의 창자로 젓갈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다[52].

52) 현영희 외 3인, 『식품재료학』, 형설출판사, 2000, p.271

청호동의 명물인 얼간 고등어도 싱싱한 생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 간 한 것을 말하는 데 이것은 생 고등어에 비해 맛이 독특하여 바다사람들도 즐기게 되었다. 얼간고등어는 살에 뼈가 단단히 붙어 있는 것, 누른 기름이 겉돌지 않으며 배를 눌러 보아 즙이 나거나 내장이 밀리지 않는 것이 좋다.

〈 만드는 법 〉

① 싱싱한 고등어의 배를 가른다.
② 소금을 뿌려 절여 둔다.
③ 절인 고등어는 양념하여 밥 위에 쪄서 먹거나 간장에 졸여 먹는다.

바. 미역장국

미역은 한자로 곽(藿)이라 하며 일찍 생산되는 것을 조곽(早藿) 또는 해채(海菜)라 한다. 바닷가에서 많이 나는 미역을 이용한 음식으로 멸치, 쇠고기, 조개류 등을 이용하여 국물을 내는 다른 지방과 달리 된장을 풀어 맛을 낸다는 것이 특이하다. 멸치와 막장을 넣어 끓인 미역장국은 주로 농사철 모심을 때 많이 먹었다고 한다.

미역은 예로부터 산후의 산모용 음식으로 빠지지 않았는데 미역은 요오드,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한 강알카리성 식품으로 산후의 자궁수축과 지혈작용, 피를 맑게 하는 작용,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을 예방하기도 한다. 미역표면의 끈적한 성분은 알긴산(alginic acid)으로 변비해소, 비만예방, 콜레스테롤 감소,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 심장병 예방

의 효과가 있으며 금속흡수 능력이 강하여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여 유해금속 제거에 효과적이며 암세포 증식을 약화시킨다.

미역은 국을 끓일 때 대충 한 두 번 만 씻어서 국을 끓이거나 무치면 비릿한 냄새도 나고 떫은맛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여러 번 주물러 씻어야 한다.

〈 만드는 법 〉

① 미역은 물에 불려 둔다.
② 멸치는 내장을 빼고 국물을 낸다.
③ 된장을 풀어 끓인다.
④ 불린 미역을 넣고 다시 한번 끓인다.

사. 떡류

1) 꼬장떡

53) 최경란(여) 1925년생, 함경도 출신, 교동거주

멥쌀가루나 좁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그랗게 빚은 뒤 끓는 물에 삶아 건져서 고물(콩고물이나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쌀가루에 노란 콩을 넣고 손으로 대강 눌러 만들어 먹는 것으로 주로 겨울에 먹던 떡이다. 겨울에 콩을 얼린 후 만들어 먹으면 더 달고 맛있다고 한다.

〈 만드는 법 〉

① 노란 콩을 불린 후 대강 찧는다.
② 쌀가루와 함께 섞어 반죽한다.
③ 손가락을 이용하여 대강 눌러 모양을 만든다.
④ 찜통에 찐다.

2) 달떡

손바닥 크기만큼 크게 빚은 송편으로 달처럼 크고 달이 밝은 추석에 먹는다 하여 달떡이라 한다[53].

둥그런 흰떡에 나무판으로 가로와 세로로 줄을 찍어 참기름을 바른 떡이다. 이 떡은 혼례상에 올리기 위하여 만드는데, 상에 고일 때에는 놋동이에 여러 켜를 담은 다음 위에 꽃을 꽂는다.

〈 사진 8-1-85 〉 달떡
자료 : 『강원의 맛 -떡-』, 강원도 농업기술원, 2005, pp.54~55

〈 만드는 법 〉

① 멥쌀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6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소쿠리에 건져 소금을 넣고 가루로 빻아 체에 내린다.
② ①에 설탕 시럽을 섞어 다시 한번 체에 내린다.
③ 멥쌀가루를 뭉쳐지지 않을 정도로 물을 훌훌 뿌려 버물버물하여 젖은 베보자기를 깔은 찜통에 20분간 쪄낸다.
④ 김이 오르면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절구에 쏟아 붓고 절구공이에 소금물을 묻혀가며 멍울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 질 때까지 친다.
⑤ 떡 덩어리를 조금 떼어 달 모양으로 빚는다.

54) 김연옥(여) 1932년생, 함경도 출신, 청호동거주

3) 언감자떡

감자를 썩혀 얻은 녹말로 만든 떡으로 겨우내 언감자를 봄에 개울에서 밟아가며 여러 번 물을 바꿔주면서 우려내어 앙금(녹말)만 남으면 햇빛에 말린 후 방아에 찧어 두고 겨우내 해 먹었던 떡이다[54].

4) 괴명떡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동그랗게 빚어 석쇠나 아궁이, 잿더미, 무쇠가마 등에 묻어 익혀 두었다가 오래 두고 먹던 독특한 떡이다. 소금물에 담갔다가 건조하여 참기름을 바르면 오래두고 먹을 수 있었다.

〈 만드는 법 〉

① 찹쌀을 8시간 정도 물에 불렸다가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다.
② ①에 소금을 넣고 가루로 빻아 체에 내린다.
③ 찹쌀가루를 동글납작하게 빚어 석쇠에 놓고 굽는다.

④ 구워진 반대기를 식힌 후 소금물에 담갔다가 건져 물기를 뺀다.
⑤ 물기가 다 빠지면 참기름에 발라 먹거나 다시 구워 먹는다.

〈 사진 8-1-86 〉 괴명떡
자료 : 『강원의 맛 -떡-』, 강원도 농업기술원, 2005, pp.48~49

5) 오그랑떡

팥죽과 비슷한 형태의 떡으로 팥을 삶다가 거의 익으면 멥쌀가루를 익반죽하여 경단처럼 빚어 넣어 팥과 함께 삶아 버무린 것이다. 경단이 익으면 설탕과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고 주걱으로 버무려 팥물이 고루 돌도록 한다.

〈 만드는 법 〉

① 찹쌀과 멥쌀은 3~4회 깨끗이 씻은 후 물에 8~12시간 담갔다가 소쿠리에 건져서 물기를 뺀다.
② ①에 소금을 넣고 가루로 빻아 체에 내린다.
③ 체에 내린 쌀가루를 끓는 물에 익반죽하여 직경 2.5㎝의 경단모양으로 빚는다.
④ 팥은 깨끗이 씻어 물을 조금 잡아 한번 끓으면 물을 버리고 다시 새 물을 넣고 푹 삶아 팥물이 자작해지면 설탕과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춘다.
⑤ ④에 경단을 넣고 약한 불에서 팥물이 경단에 배도록 은근히 끓인다.
⑥ 경단이 익으면 주걱으로 고루 저어 팥물이 고루 잘 스며들도록 한다.

〈 사진 8-1-87 〉 오그랑떡
자료 : 『강원의 맛 -떡-』, 강원도 농업기술원, 2005, pp.46~47

6) 용떡

용 모양의 떡이라고 해서 용떡이라는 이름이 붙었는 데 속초지방에서는 남녀 성황신에 대한 굿풀이를 한판 걸친 후 용왕굿을 벌이며 용떡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주민들이 집에서 용떡을 만들어 커다란 제사상에 올려 만선기와 오방기를 꽂고 굿판을 벌이기도 하였다.

〈 만드는 법 〉

① 멥쌀은 물에 불려 두었다가 건진 후 소금을 넣고 빻아 체에 내린다.
② 멥쌀가루에 물을 훌훌 부린 후 버물버물하여 젓은 베보자기를 깐 찜통에 20분 정도 찐다.
③ 김이 오르면 바로 절구에 쏟아 절구공이로 소금물을 뭍혀 가며 표면이 매끈해 질 때까지 친다.
④ 굵은 가래떡 모양으로 만들어 용 모양으로 만들고 입에 대추와 밤을 물린다.

〈 사진 8-1-88 〉 용떡
자료 : 『강원의 맛 -떡-』, 강원도 농업기술원, 2005, pp.58~59

아. 통김치

명태를 사용한 김치에 남쪽지방에서는 코다리를 주로 넣지만 북쪽에서는 생태를 그대로 사용한다. 남쪽지방의 김치에 비해 고춧가루의 양이 적고 싱거우며 국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통김치 외에 채칼김치, 물김치, 대구깍뚜기 등이 있다.

〈 만드는 법 〉

① 배추를 소금에 충분히 절인다.
② 무,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에 생태, 도루묵, 돼지고기 등을 넣고 양념을 만든다.

③ 생선은 비교적 작은 것을 선택하여 칼집을 넣어 통째로 사용하기도 한다.
④ 김치국물은 바닷물을 이용하여 시원한 맛을 내기도 한다.

송 주 은 <동우대학 호텔조리과 교수>
감수위원 : 최 용 문 <前 속초문화원장>

제2장 의생활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복원을 통한 발전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통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민속 문화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이 묻어 있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속초는 어느 도시 못지 않은 다양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즉 농촌문화, 어촌문화, 산촌문화, 피난민문화 등이 어우러져 어느 곳보다 독특하고 복합적인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양상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식이다. 복식은 인간 생활의 근간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 시대 생활상의 보고(寶庫)이다.

그러나 복합적인 문화를 지닌 속초의 민속복식은 역사의 굴곡으로 특히 6 · 25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많은 자료가 손실되어 그 원형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더구나 현대화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보이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듯 일상복이 간소화되면서 서구식복장으로 급속히 바뀌게 되고 다만 민속의상은 의례복으로써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 속초의 경우도 유사하다.

제1절 옛 문헌속의 속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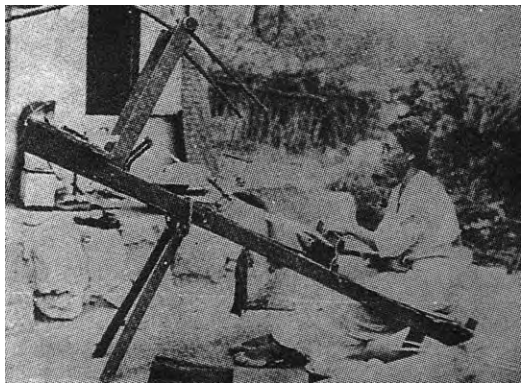
1. 옛 문헌에 나타난 의생활

『여지도서』 양양부 풍속조에 의하면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으며(務農桑), 장례를 불쌍히 여겨 도왔고(恤喪葬), 잔치를 열어 놀기를 즐겨했으며(喜遊宴), 학문을 숭상하고(尙文學), 예의를 귀히 여겼다(貴禮義)."는 기록이 전해진다. 위와 같은 기록은 『강원도 양양군읍지』 권2 풍속조, 『관동지』 권13 양양부 풍속조, 『현산지』 풍속조에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는바 농업과 양잠으로 직물을 만들어 입었으며, 장례를 도왔다는 것은 일정한 장례의식과 형식 그리고 규범을 지켜 행했을 것이라 추측되며, 예의를 귀히 여겼다고 한 바 관혼상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격식을 갖춘 의생활이 전래되었다고 생각된다.

2. 의복재료

의복재료로는 봄 · 가을에는 숙수 · 자미사 · 숙고사 · 관사 · 옥양목을 쓰며 여름옷감은 모시 · 베 · 목아사 · 안동포를 썼고 겨울옷감으로는 옥양목 · 광목 · 나단 · 명주에 솜을 두어 사용했다.

옛 문헌에도 언급되었듯이 속초의 지역적인 환경이 마(麻)가 재배되기 쉬운 곳이라 길쌈이 성행하여 조선시대 기록에서 보더라도 마포(麻布)는 각도에서 생산되었고 생산지의 명칭에 따라 불리워졌다. 강포(江布)는 영동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산기술이 뛰어났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지역특산물로 모시를 상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길쌈이 성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옛 문헌에 양잠을 행했다는 기록에 의하면 견직물도 생산되었으나 원사(原絲)자체가 거칠고 제사(製絲)기술이 그리 발달하지 않아 양질의 견직물은 생산되기 어려웠을 것이라 추측된다.



〈 사진 8-2-1 〉 길쌈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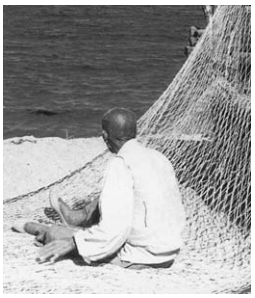
속초지방은 주로 영서 산간지방에서 생산되는 삼베와 명주를 사서 옷을 만들고 목화는 대체로 영남지방에서 구입하여 돌개, 물레, 베틀 등을 사용하여 자급자족했으나 전쟁 이후 인조섬유의 등장으로 쇠퇴하였다.

3. 토착적인 의복형태

속초가 위치한 영북은 동해와 설악산을 끼고 있어 해양과 산악의 지형적 영향을 크게 받아 어촌의 복식과 산악의 복식은 차이를 보인다.

노동복은 특별하게 만든 옷은 없으나 농사일을 할 때는 여름에는 베잠뱅이 등거리적삼을 입고 바지는 홑으로 된 중의를 입는다. 중의는 한복바지와 서양식바지의 중간형태로 노동복으로 많이 입었다. 부인들은 평상복에 광목행주치마를 두른다.

〈 사진 8-2-2 〉 1950년대 탈곡하는 모습



〈 사진 8-2-3 〉 망중한 (1950)

어촌에서는 고기잡이를 할 때 입는 옷이 특이하다. 상의는 광목에 솜을 넣은 반 오바식의 솜옷을 겉에 입는다. 속저고리는 요대저고리라 하고 겉저고리를 큰저고리라 하여 7부로 만들어 입는다. 바지는 조각을 모아 만들고 속에 솜을 넣은 투텁바지를 입는다.

〈 사진 8-2-4 〉 1930년대 동명항 인근의 노동하는 모습

여자들의 평상복은 노동을 하기 위해 한복저고리에 월남치마나 몸빼 등을 입고 있는 여성들이 많고 격식을 차릴 때에는 한복을 입는다. 한복으로 부인들의 평상복은 여름에는 치마 · 적삼 · 깨끼적삼 · 단속곳 · 속바지를 입고 겨울에는 치마 · 저고리 · 단속곳 · 바지 · 마고자 · 덧저고리 · 두루마기를 입는다. 두루마기는 외출시에만 착용하고 덧저고리는 방한을 위해 입는데 마고자보다 길고 두루마기보다 짧으며 안에는 털을 대서 만들기도 한다.

신발은 초북신이라고 하는데 짚신모양으로 쇠가죽을 덮고 발목부위에는 개가죽을 덮는다.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당기기 위해서는 앞가래치마를 두르는데 물이 배지 않도록 들기름을 2~3말 메긴다고 한다.

손목에는 토시를 끼고 집에서 만든 통장갑을 버대라 하여 끼는데 손가락 끝은 구멍을 내어 나오게 하여 작업시 편하도록 하였다. 머리에는 외포수건

을 써서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도록 한다. 요즘의 어로작업복은 갑바를 입고 장화를 신는다.

〈 사진 8-2-5 〉 건오징어시장(1950)

〈 사진 8-2-6 〉 오징어 할복하는 아낙네

4. 의복 관리

우리나라 전통적 염색방법은 침염으로 남색을 내기 위한 쪽물염색으로 추어리는 옥색을 들인다. 이외에도 이시풀로 보라색이 도는 붉은꽃염색, 고해나무꽃, 치자열매 등으로도 들였다.

염색옷은 빨때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쪽빛은 녹두물이나 순두부물에 빨아야 변색을 하지 않고 다홍은 오미자나 매실물에 빨아야 빛깔이 유지되며 꽃자주는 오줌에 빨아야 변색이 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세탁방법도 비누와 세제가 나오기 전이므로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썼다. 대체로 세제는 짚 · 콩깍지 · 메밀짚 · 뽕나무 · 잡초 · 종이 등을 태운 재를 걸러서 얻은 잿물을 사용하였고 세수나 세발에는 녹두가루 · 콩가루 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명주 빨래에는 쌀뜨물이나 두부물, 팥가루를 이용하였다.

빨래시에는 금기를 지키기를 강조했는데 다른 지방과 유사한 것이 많았다. 즉 이른 아침이나 해가 넘어갈 때 빨래를 두드리면 안 된다고 한다. 이유는 아침 식전빨래는 두드리면 소년 죽음이 나고 저녁때 두드리면 청년 죽음이 난다는 것이다. 밤에 빨래를 널면 남편이 바람 난다고해서 금기시하고 묵은 빨래는 해를 넘기지 않는다고 하고 이웃에 초상이 났을 때는 흰 빨래를 널지 않고 덜 마른 옷을 입으면 남에게 구설수를 듣는다고 하여 금기시 한다.

이외에도 빨래의 풀을 먹이는 쌀풀이나 밀가루풀 같은 것을 먹으면 재수가 없다하고, 다듬이 돌을 베고 자거나 올라 앉으면 입이 돌아가고 여자는 시집가서 소박을 맞는다고 하여 금하였다. 이러한 금기는 실제로 과학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선조들의 생활지혜에서 산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 통과의례복

사람들은 일생을 통하여 사회적인 지위와 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단계들이 있고 이때에는 반드시 특별한 의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회의식의 발전에 따라 의례가 성립되고 변천되어 왔다. 이를 관혼상제라 하고 이는 누구나 한번은 거쳐 가야할 의례인 것이다.

관례(冠禮 성년식),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중 관례는 과거 양반중심으로 행하여졌으나 혼례와 상례는 일반인이라도 반드시 치러야할 의례로 이어져 왔다.

민속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북쪽지방은 상례에 밝고 남쪽지방은 혼례에 밝다고 하는데 북한 피난민들이 사는 속초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대체로 함경도의 통과의례와 다름이 없다.

가. 상례복(喪禮服)

상 · 제례(喪祭禮) 풍속은 혼례와 달리 전통성이 강하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정착한 피난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격식을 중시하는 상 · 제례를 통해 정신적으로 결속하기도 한다. 함경도 피난민의 경우 상례는 재산이 없는 사람은 3일장을 지내고 그렇지 않은 집은 5일장이나 7일장을 지내기도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요즘에는 보통 3일 만에 내간다고 한다.

상례복은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와 상주(喪主)가 입는 상복이 있다.

상례는 크게 초종(初終), 염습(殮襲), 성복(成服), 문상(問喪), 치장(治裝)으로 나뉘는데 초종 즉 임종 때는 고복(皐復)을 하는데 '혼 부른다'고 한다. 남자의 경우 '아무개 생 아무개 복복복' 이렇게 외치고, 여자의 경우는 아무개 부인이라고 말한다. 고복이 끝나면 '수세걷음'을 한다. 망자의 손을 펴서 배 위에 올려놓고 발을 똑바로 세운 다음 송판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는다. 다음에 한지를 세 번 두르거나 베로 손목과 발목, 허리를 묶는다.

이것이 끝나면 역복(易服)을 하는데 상주는 직령으로 갈아입고 남좌여우(男左女右) 라하여 망자가 남자일 경우는 왼쪽 팔, 여자인 경우는 오른쪽 팔을 끼지 않고 통건을 쓴다. 호상(護喪)은 상주의 친구 중에서 상례에 밝은 사람으로 지정하여 일처리를 한다.

염습은 습과 소렴으로 구분되며 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을 말한다. 소렴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서 묶는 것이고 대렴은 아주 묶어 입관하는 것이다. 수의는 '습의'라고도 하는데 생시에 마련해 둔 속옷, 주의, 바지, 속적삼, 적삼, 저고리, 덧저고리, 두루마기를 입힌다. 이것이 끝

나면 '반함'이라 하여 쌀을 불려 망자의 입에 떠 넣는다. 이것은 저승에 갈 때 사용하는 식량이라고 하는데, 세 번 하면서 '천석이오, 만석이오' 라고 외치면서 동전을 넣어 저승 노자로 쓰라고 하고 '백냥이오, 만냥이오'라고 외쳤다.

다음은 교포를 쓰는데 시신을 묶은 다음 입관하고 천금을 덮는다. 그 다음 결관을 하고 관 위에는 명정을 써서 덮는다. 이렇게 염습이 끝나면 성복을 한다. 성복이 끝나면 혼백을 접고 궤연을 설치하여 성보제를 지낸다. 성복한 후 조문객들의 문상을 받는데, 이과정이 끝나는 3일장 후에 치장을 한다. 장지가 결정되면 출상 당일 발인제를 지내는데, 속초 피난민들은 거의가 각 지역 도민회에서 마련한 장지로 향한다.

상례복은 상을 당했을 때 가족 친지가 입는 의례복이다. 원래 상복에는 오복(五服)이 있어 죽은 자의 자손관계와 신분으로 삼베의 질은 달리하여 착용하였는데 근세에는 간소화 되는 경향이 있으나 집안의 가풍에 따라 현재에도 굵고 거친 삼베로 남자는 최의, 최상, 중단, 관(굴건), 수질, 교대, 요질, 상장, 행전 등을 한다. 여자의 상복은 최복, 상, 족두리, 수질, 요대, 교대 등인데 친소근원에 따라 옷감과 바느질법을 달리했다. 종가의 며느리나 기혼자는 흰 족두리를 쓰고 미혼자는 수질을 쓴다.

수의(壽衣)는 사람이 죽어 염습할 때 시신에게 입히는 것으로 가문과 신분 그리고 빈부의 차이에 따라 형태의 차이가 있었다. 수의의 형태는 생전 예복과 같은 길복으로 치수를 생전의 옷보다 크고 넉넉하게 만든다. 이는 시신에게 쉽게 입히기 위해서이다. 보통 삼베나 모시를 많이 사용하는데 수의(壽衣)는 혼인 때 지어가지고 간 베도포를 사용하기도 한다. 영동지역에는 시집올 때 입고 가져왔던 원삼을 수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풍습이 남아있다.

〈 사진 8-2-7 〉 일반적인 상례복

남자수의는 바지 · 저고리 · 두루마기 · 도포까지 하고 여자수의는 바지 · 속곳 · 치마 · 저고리 · 원삼까지 한다. 수의는 윤달에 만드는데 날을 받아서 바느질한다. 바느질은 실의 매듭을 짓지 않고 꿰맨 다음 실을 길게 늘여 뜨린다.

나. 제례복(祭禮服)

제례(祭禮)는 신명(神明)을 받들어 복(福)을 비는 의례이다. 이를 차례(茶禮) 또는 차사(茶祀), 절사(節祀)라고도 한다. 설과 정월 대보름날, 한식, 추석, 동지 등에는 차례를 올렸으니 피난민들은 설과 한식, 추석을 주요한 명절로 꼽는다. 대부분 이북식으로 제사를 지내므로 초저녁 제사는 없고 주로 새벽 자시경에 지낸다.

〈 사진 8-2-8 〉 제례의 모습

조상제례는 시제(時祭),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이 있는데 북한 피난민들 가운데 청호동에 거주하는 함경도민 가옥은 대부분 백사장에 임시로 지어진 것이므로 특별히 옛날식 사당이 설치된 가옥을 볼 수 없고 집안에 위패를 모시는 정도다.

조선시대에는 남자의 제복은 복건을 쓰고 심의를 입었는데 그 후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도포로 바뀜에 따라 흑립이나 유건을 주로 착용했는데 현재에는 도포에 유건을 쓴다. 기제사 때는 주의(두루마기)를 입기도 한다.

다. 혼례복(婚禮服)

혼례복은 사람이 출생하고 나서 입는 가장 경사스러운 의식의 예복으로 신랑은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단 남색 단령(團領)을 입고 사모(紗帽)를 쓰고 작품을 표시하는 각대(角帶)를 하고 목화(木靴)를 신었다. 신부는 홍치마에 노란 또는 연두저고리에 원삼(圓衫)을 입고 대대(大帶), 용잠(龍簪), 칠보

족두리, 화관(花冠), 도투락댕기, 앞댕기를 하였다. 위와 같은 복색은 1930년대 신식결혼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

예복으로 혼례시 납채 보낼 때는 함에다 청색 · 홍색의 치마 2개, 노랑 · 연두색의 호장 저고리를 바느질을 하여 넣는다. 이때 치마는 겹치마로 한다. 바느질 한 옷은 다홍보자기에 싸고 함 밑에는 예장지를 넣고 아들을 낳으라는 뜻으로 호두와 고추를 넣고 자손의 번창을 위해 조를 넣으며 장수하라는 뜻으로 실을 넣는다. 함의 거죽은 진분홍색 보자기로 싼다.

라. 출생복(出生服)

태어나서 처음 입는 옷을 배내저고리라 한다. 배내저고리는 시험을 치러 갈 때나 군에 갈 때 넣어주면 액을 면한다고 하여 길이 보관한다. 배내저고리의 고름은 실을 꼬아서 만드는데 장수하라는 뜻이다.

태어난지 만 1년이 되는 날을 돌이라 하여 잔치를 열어주는데 돌복은 남아의 경우 바지 · 저고리 · 조끼 · 색동마고자를 입히고 여자의 경우는 다홍치마 노란색동저고리에 염낭을 단다. 염낭에는 은으로 장식된 노리개를 달아준다. 색동은 위험을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 음양오행설의 오방색(동쪽은 靑, 중앙은 黃, 남쪽은 赤, 서쪽은 白, 북쪽은 黑)을 입혔다. 요즘의 돌복은 대부분 시장에서 기성복을 사다가 입힌다.

타래버선은 남 · 여아 모두에게 신켰는데 버선코에 술을 달고 버선등에는 수를 놓는다.

6. 피난민 의복(1950년대)

속초시는 1945년 이후 남북한 분단 이후 현재까지 많은 실향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 비중은 1999년 말 속초시 총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속초에 유입된 피난민들은 함경남도 해안지역 민속 문화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은 컸고 피난민의 출신지와 속초는 동해안에 위치하여 있고 이들의 생계는 어업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문화요소의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속초피난민의 문화는 함경남도 이주문화, 속초해안의 정착문화가 섞여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사진 8-2-9 〉 어구를 이고 가는 아낙네

1950년대 피난민 여성들은 한복은 행사나 명절에 입는 예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복은 비기능적이어서 활동에 부적합하므로 개량한복이라는 것을 많이 입었는데 저고리는 대체로 품이 넉넉하고 깃, 섶, 옆선의 길이가 넓고 길었으며 앞처짐이 많았다. 고름은 생략하고 간단한 형태의 고나 작은 브로치로 여미어 옷고름을 달지 않은 형태가 유행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의로는 짧은 통치마나 일제시대부터 입어온 몸빼 바지를 입어 노동복으로서 활용되었다.

또한 1953년부터 한국에서 최초로 나일론이 수입되어 겉옷부터 속옷까지 나일론 일색으로 손질이 많이 필요했던 전통 옷감들은 사라지고 질기고 빨아서 바로 입을 수 있는 나일론이 급격히 보급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물자의 부족은 전쟁당시에 보급 받았던 군복을 그대로 입거나 검은 물감으로 염색하고 개량하여 주로 남자들이 착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구호품 의복과 미주둔군들에게서 나온 옷들이 유행하였고 평상복과 노동복의 기능을 다하였다.

〈 사진 8-2-10 〉 출어하는 어부와 가족 (1950)

1950년대 말부터 남성들에게 양복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반 서민들은 갖추기 힘든 일이었다.

7. 전통 민속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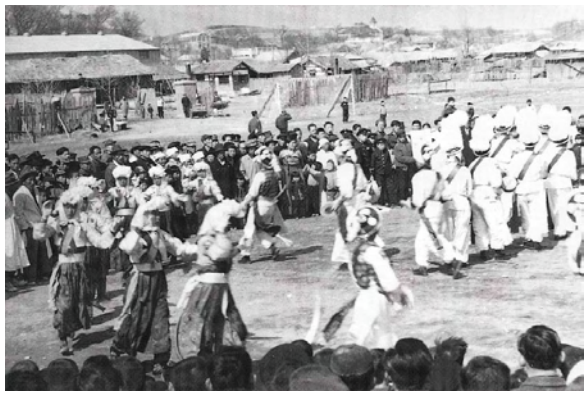
가. 속초 도리원 농악

1) 도리원농악의 유래

도리원은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의 작은 마을로서 주업이 농업이어서 예로부터 농악이 발달되었고 농사가 끝난 후 마을 행사로 농악놀이를 전승하고 있다.

도리원이란 명칭은 마을에 복숭아나무가 많은데서 유래하였다. 1926년 『면세일반』에 소야팔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원홍우(桃源紅雨, 도리원리 복숭아나무 꽃이 떨어지는 것이 붉은 비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와 척산야침(尺山夜砧, 척산마을에서 다듬이질 하는 밤의 경관)등을 볼 때 도리원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추측할 수 있다.

속초 도리원 농악은 1900년대 이전부터 마을에 농악대가 구성되어 정착되었으며, 1910년대 경기도 출신 이설기가 도리원에 정착하게 되면서 속초 도리원 농악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초기 농악은 대체로 영동지역 농악과 비슷하였으나 이설기가 도리원 농악에 가담하게 되면서 경기 웃다리 농악이 가미된 "속초 도리원 연희 농악"으로 변하게 되었다.



〈 사진 8-2-11 〉 1950년대 속초 도리원 농악대 공연모습

도리원 농악은 1930년대와 1940년대 말까지 대포동 별신제 등에서 성대하게 공연되었으나 1950년대에는 전쟁과 경제 환경에 의하여 잠시 중단 되다가 5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새로운 속초 도리원 농악이 빛을 발하

기 시작하여 남부, 서부지역까지 연희를 하고 초청공연까지 다녔다. 그러나 이후 이농 현상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도리원 농악의 전승과 발전이 점점 어려워 졌고 그에 따라 전수가 되지 않아 도리원 농악이라는 이름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1990년 속초문화원에서 도리원 농악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미 많은 분들이 작고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1992년 농악의 부흥을 위하여 설악문화제에서 농악대 경연을 시작하면서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였고 1995년 12월 속초 도리원 농악대의 옛 구성원이었던 엄상원, 양형석, 최철수 등을 중심으로 재창단하게 되었다.

속초 도리원 농악대는 1996년 제77회 전국체전 시연과 제39회 설악문화제 개막식후 공연을 하게 되었으며 제15회와 제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여 공로상을 수상하였고 그 후 지역의 몇몇 연희자들에 의해 공연된 1950년대 이전의 기록들을 재정리하고 고증하여 전승함으로서 전통 민속문화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며 계승하고 있다.

2) 속초 도리원 농악의 복색

〈 사진 8-2-12 〉 현재의 속초 도리원 농악대 모습

◈ 상모 : 짚으로 또아리를 틀어 만든 다음 진자를 맞추어 얹고 꿩을 매달아 만들었다. 굵은 무명실에 적자(구슬)를 여러개 끼워 달고 길이는 2척에 끝부분에 4척의 얇은 한지를 매단다. 상모를 쓸 때는 머리에 머리수건을 동여매고 짚상모의 끈을 얽어 머리에 맨다. 50년대 말부터 한지를 이용해서 상모를 만들기 시작했다.

◈ 고깔 : 흰색의 천과 종이에 상, 좌, 우측에 큰 종이꽃을 장식한다.

◈ 상쇠 : 흰바지저고리에 청색 덧저고리를 입고 짚상모를 쓴다. 삼색띠를 어깨와 허리에 맨다.(상벅구, 상소고 – 청색 덧저고리)

◈ 농기수, 단기수 : 흰바지저고리에 삼색띠, 고깔을 쓴다.

◈ 징, 장구 : 흰바지저고리에 삼색띠, 꿩이 달린 짚상모를 쓴다.

◈ 무동 : 흰바지에 붉은 치마, 노란저고리를 입고 남색쾌자를 걸친다.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

◈ 삼색띠 : 청색과 적색의 띠를 한번에 겹쳐 청색이 위로해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허리로 옮아 묶고 노란색띠를 허리에 두른다. 무동은 어깨에 엑스자로 하고 적색을 허리에 감아 묶는다.

나. 북청사자놀음

함경남도 북청군일대에서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며칠동안 연희된 사자놀이이다. 놀이의 목적은 벽사진경(壁邪進境)에 있는데 벽사할 능력을 가진 백수의 왕 사자로 잡귀를 몰아내어 마을의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1) 놀이의 기원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이사부가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을 칠 때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최치원이 지은『鄕樂雜詠』5수(首)중에서 산예(狻)는 사자춤을 가리킨 말이다. 북청사자놀음은 1945년 8·15광복 이후 함북에서 월남한 연희자들의 공연을 통해서 알려졌다.

2) 속초의 북청사자놀음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자들이 1950년대 초반에 월남하여 속초에 정착하면서 속초사자놀이가 되었다. 함경도 사람들이 점차 집단화되자 1958년 청호동에 거주하던 김수석이 처음 사자탈을 만들었으며, 1959년 5월 2일 속초에서 북청동향 친목계를 만들면서 북청사자놀음 공연단 결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사진 8-2-13 〉 1950년대 북청사자 놀음

북청도청 기금마련을 위해 1957년 정월대보름날 김수석이 속초에 정착한 다음해 북청사자놀음이 모습을 드러내고 사자탈과 퉁소, 복식 등을 새로 만들어 사자춤을 추며 가가호호를 방문하였다.

그 후 1966년 10월 24일 덕수궁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속초의 김수석이 개인상을 받아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1970년 4월에 북청민속예술보존회가 인가되고 김수석이 인간문화재 제84호로 인정받게 되었다.

전승자들에 의해 알려진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회시기 : 정월 대보름 전후 2~3일간
◈ 연회장소 : 도청마당(각 가가호호 방문후)
◈ 등장인물 : 악사, 양반, 꼭쇠, 애원성춤2, 거사춤2, 사당춤2, 칼춤2, 무동춤4, 꿉새춤2
◈ 가면 : 양반, 꼭쇠, 사자탈(모두 종이탈)
◈ 악기 : 퉁소 3~4개, 꽹과리, 장고, 북, 징
◈ 소요시간: 40~50 분(전체) 사자춤은 5~10분 정도
◈ 연희내용 : 벽사진경
◈ 연희마당 : 아홉굿거리 열 두 마당

〈 사진 8-2-14 〉 재현된 북청사자놀음

(2) 북청사자놀음의 복식

전래되고 재현된 것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전승자들의 기록과 재현당시의 모습 등을 참고 하였다.

◈ 양반 : 바지저고리에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정자관을 쓰고 손에는 부채와 담뱃대를 들은 모습이다.
◈ 꼭쇠 : 바지저고리에 검정색 전복을 입고 행전에 고깔을 썼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립 모양의 벙거지를 착용한 모습이다.

◈ 스님 : 가사 장삼을 입는다.

최혜정(강릉 영동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감수위원 : 최용문(전 속초문화원장)

제3장 속초의 민속

제1절 구전민요

'앞뜰에는 동해안, 뒤뜰에는 설악산'이라고 부르는 속초팔경가와 같이 속초지역은 바다와 산악을 끼고 있다. 홍길동전의 저자 교산 허균 선생은 「교산억기시」에서 "천후산 앞에는 풀이 정히 꽃다운데, 영랑호 호숫가에 지는 꽃이 향기롭네"(天吼山前草正芳 永朗湖畔落花香)라고 읊었다. 이렇듯이 속초의 자연환경은 사람들의 순후한 인심과 어울려 많은 구전설화를 잉태하였고,[1] 그 풍부한 이야기만큼 전래소리도 줄곧 불려졌다. 청정한 동해바닷가 마을을 중심으로 어부들의 뱃소리가 불려졌으며, 도문뜰, 조양뜰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에서도 사철농사와 관련된 농업노동요가 전승되어 왔다.

특히 도문동에서 전승된 메나리농요는 삼척이나 춘천권의 메나리와 달리 신흥사의 불교문화권 영향을 입어 염불이나 범패소리를 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의 닮은 형태가 양양메나리와 흡사한 것은 도문동과 양양군 강현면이 인접한 농토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행정구역상 양양군에 속초지역이 속했던 것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속초는 또한 남북분단의 1번지로서 함경도 이주실향민의 고장이다. 이들 이주민의 생업이 어업이었던 관계로 기존의 속초수산업과 이주민 수산업이 합쳐진 수산도시로 수산노동요도 해안권의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청호동 지역에 함경도 피난민의 뱃소리가 남아 있는 것은 함경방언과 마찬가지로 소리권의 독자적인 섬으로 남아 있는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2] 민속문화도 이주민속과 토착민속의 습합현상을 보인다.[3]

도문메나리 농요는 2003년 6월 16일 양구에서 개최된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았으며, 2003년 10월 15일 동해에서 개최된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속초지역에서 수집한 구전민요의 분류와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4]

1) 장정룡 · 양언석,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2) 장정룡, 「속초시민요의 분포와 양상」 『속초의 민요』, 속초문화원, 2003, p.42

3) 장정룡 · 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p.9

4) 장정룡, 「속초시 민요」 『강원의 민요 II』 강원도, 2002, pp.467~578

1. 농업노동요

속초지방은 바다를 끼고 있어 뱃소리가 발달하였지만 설악산 산자락을 중심으로 한 도문평야와 조양평야에는 일찍부터 농사가 발달하였다. 봄을 맞이하여 산과 들이 화려하게 피어날 때 농촌에서는 집집마다 농기구를 손질

하면서 농사일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꾼들을 배불리 먹이며 질을 짜서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못자리를 심고 논을 가는데, 흔히 소 두 마리로 가는 경우 '한스레'라 하여 큰 스레를 소에 걸어 사용하고, 소 한 마리로 갈 때는 '쪽스레'라 하여 작은 스레를 사용한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논삶는소리다.

다음 예문 ①이 그 예이다. 논을 다 삶으면 본격적으로 모를 심는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한춤소리다. '얼른 하더니 또 한춤, 니가 하니 나도 한다 한춤' 하는 소리로, 노동의 속도를 배가하며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소리다. 예문 ②는 모심는소리다.

① 이러- 올라서라 바로 가란 애기다 이소야
어디 둘고 쉬어 야 이러 우후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해는 멀지않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갈자
이러이러 빨리가자
날은 일모하고 이거 큰일 났다
어허 어디여 이러 빨리빨리 갈고 집으로 가자
어허 우후

② 얼른 하더라니 한 춤
아으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너만 한춤이야 나도 또 나간다) 얼른 하더니 또 한춤
(나도 또 한춤 나간다.)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춤

모내기가 끝나면 김을 맨다. 아이짐(초벌 김)을 맬 때는 모가 약해서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조심스레 김을 맨다. 그러나 두벌김부터는 소리를 하면서 흥겹게 김을 맨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메나리다. 도문동에는 메나리라 불리는 소리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예문 ③이 그것이다.

③ 매여나주게 매여나주게 요논배미 매여나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나 떴다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나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여나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도문메나리는 강원도 농산노동요로서 김매기 소리로 전승되는데 춘천, 삼척, 양양, 속초일대에 전승된다. 속초 도문동에 전승되는 도문메나리는 양양메나리조와 유사하고 삼척메나리와는 다르다. 농민들이 3~4명 짝을 지어 '질'을 짜서 김매기를 하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농요로서 고유한 가락과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메나리 민요에 관한 관심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 민요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반적인 전승상황이나 구연방식, 음악적 특성 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몇몇 민요 연구자나 국악관련 연구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선 아라리나 강릉 오독떼기에 비하여 많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메나리에 관한 선구적인 의견들이 일찍이 나왔는데 홍사용은 「朝鮮은 메나리 나라」라는 글을 『별건곤(別乾坤)』(1928. 5)에 발표하였는데, 메나리는 민요를 지칭한다고 했으며 한국의 보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메나리는 글이 아니다. 말도 아니다. 또 시도 아니다. 이 백성이 생기고 이 나라가 이룩될 때에 메나리도 저절로 딸아 생긴 것이니 그저 백성이 저절로 그럭저럭 속 깊이 간직해 가진 거룩한 넋일 뿐"이라고 말하여 이른 관심을 표현하였다.

이재욱은 메나리에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을 『新興(신흥)』(1931. 12)에 발표하였다. 그는 백제 말엽에 불렸던 '산유화'가 신라 군인들에 의해 영남지방에 전래했다고 추정하였고, 상주와 선산지방에서 불려지는 '미나리'와 '산유화'를 관련지어 '山有'는 '山遊'로 바뀌면서 이를 훈독하여 '뫼노리' '뫼나리'로 통칭되었다고 보았다. 이재욱의 견해는 이후에도 메나리를 언급하는데 지침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별다른 검토 없이 이후 연구자들이 잉용(仍用)하였다.

한정동은 『朝光(조광)』(1939. 10)「내 故鄕의 民謠 情調, 平安道篇」에서 메나리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三千里(삼천리)』(1936. 8)라는 잡지에 「메나리야 메나리야」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앞의 이러한 관심은 우리나라 민요가 지닌 정신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서 고정옥은 「조선민요의 분류」에서 '미나리'의 일종으로 부여지방에서 불린 산유화가가 메나리로 된 예를 인용하였다.[5] 임동권 역시 같은 견해를 견지하여 부여지방에 전하는 산유화와 영남지방에서 불리는 '미나리꽃'과 유관한 것으로 보았다.[6]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김연갑은 메나리의 정착과정을 추적하여 아리랑과의 연관성을 살피면서 다양한 전거를 동원하여 관심을 다시 일

5)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p.183

6) 任東權, 『韓國民謠史』, 집문당, 1964, p.32

으켰다.[7] 이후 강등학은 삼척 메나리의 가창방식 · 가창구조 · 기능양상 · 오독떼기의 비교 등을 논했고[8] 김영운은 삼척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연구에 이어서 오독떼기와 메나리의 비교연구로도 성과를 거두었다.[9]

이소라는「민아리와 어산영(산유해), 이른바 산유화가의 비교」라는 글에서 민요권 · 용도 · 가창방법 · 이재욱의 가정에 대한 종래의 견해를 수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10] 필자도 삼척지방의 민간신앙과 지명유래를 조사하면서 채록한 자료들을 대상으로「삼척지역 마을신앙과 메나리」(『들소리』 제4호, 농민요보존회, 1993. 2),「삼척 메나리」(『강원일보 사라지는 강원풍물』, 1994. 4)라는 단편적인 글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속초시 도문동 도천 메나리를 발굴하였고 악보와 가사를 수록하였다.[11]

'메나리'라는 용어의 유사범주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미나리'가 있으며 이밖에 여러 명칭으로 '뫼노리', '메노리', '민아리', '미누리', '먼아리', '네나리', '니나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또한 현재 '메나리조'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는 형편이다. 우선, 메나리의 어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나리는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지방에 전승되는 민요의 하나. 일명 〈미나리〉라고도 한다. 농부들이 김매며 부르는 노동요의 하나이다. 풍각쟁이들도 불렀으며 퉁소나 젓대 혹은 풀피리로 불 때는 〈메나리 가락〉이나 〈니나리 가락〉으로 불리기도 한다. 곡명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山有花〉를 풀어서 '뫼놀이'라 한 것이 메나리로 되었다는 설과 옛 민요 미나리꽃은 한 철이라하는 데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12]

뫼놀이와 미나리꽃의 어원 설은 앞서 언급한 이재욱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이재욱은 이능화의 견해를 인용하여 "慶尙道 善美那里歌 按美那里 疑是山遊歌之轉 盖我認山曰美 遊曰奴里故也"[13]라고 한 것에서 유추하였는데 "山有에서 山遊로, 山遊에서 뫼노리로, 뫼노리에서 미나리로 訛傳하지는 아니하엿슬가"라고 의심하였다.[14] 이 견해를 수용한 고정옥은 산유화가와 메나리를 같은 노래로 보았다.

메나리꽃아/메나리꽃아/저꽃이 피어/ 농사일 시작하여
저꽃이 저서/ 농사일 필역하세/얼럴럴상사뒤여/어뒤여상사뒤(중략)

이 노래는 扶餘古蹟保存會發行 〈百濟事蹟〉 〈夫餘名勝舊跡〉에 실린 山有花曲과 같되, 初句가 〈山有花兮 山有花兮〉 代身 여기에는 〈메나리꽃아 메나리꽃아〉로 되어 있다. 이는 산유화가와 미나리의 교섭에 착목한 이재욱

7) 김연갑,
「아리랑 先行 연구 검토와 메아리 원형 가능성 고찰」,
『民學會報』 15,
1987,
pp.16~30

8) 姜騰鶴,
「삼척지역의 메나리에 관한 연구」,
『泮橋語文硏究』,
반교어문연구회,
1990

9) 金英云,
「嶺東地方 메나리의 音樂的 硏究」,
『국악원논문집』제4집,
국립국악원,
1992,
「嶺東農謠 메나리와 오독떼기의 比較硏究」,
『韓國音樂硏究』제20집,
한국국악학회,
1992

10) 李素羅,
『韓國의 農謠』제4집,
현암사,
1990

11) 장정룡,
『속초지방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p.89

12)『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7권
메나리,
1991,
p.790

13) 李能和,
『朝鮮女俗考』참조.

14) 李在郁,
「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
『新興』,
1931.12

최철 설성경 엮음,
『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
p.126~132 재수록

씨의 탁견의 한 유력한 증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즉 氏는 山有-山遊-뫼놀이-미나리로 推斷하였는데 이 노래는 現行 山有花歌가 바로 메나리로 되어 있는 例다.[15]

이처럼 메나리에 관한 이론은 이재욱 이후 산유화가에서 파생된 견해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음악적인 측면에서 재론되고 있으며 필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메나리와 미나리, 산유화가(山有花歌)가 같은 민요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이소라는 산유화가를 백제가곡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고 산유해 (어산영)과 산유화곡이 유관하리라는 가능성은 실제 음악을 들어보면 다른 것이 자명하다고 하였다. 또한 선산(善山)지방 부녀자들 간에 성창되는 미나리는 현재 나물을 심거나 밸 때 부르고 있으므로 미나리를 가사내용으로 담은 교창식 모노래가 아닐까 의심하였다.

미나리요는 조선시대 구전민요의 하나로 숙종의 계비 민비가 자녀를 낳지 못하던 중 장희빈이 원자를 낳아서 왕비가 된 것을 풍자한 것으로, 장희빈은 장다리처럼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는 미나리가 사철 푸르듯이 민비에 있다는 것을 예언한 참요(讖謠)라고 한다. 가사는 "미나리는 사철이고 장다리는 한 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16] 보아도 민요 메나리와는 무관하다.

실제로 함남 북청군에서 전승되는 미나리 노래는 가사에서 "미나리야하 미나리야하 너홀로 피라"라는 것을 보아도 실증된다.[17] 아울러 미나리는 메나리라고도 불렀는데 참메나리요를 보면 "이아이들아 저아이들아 참메나리 캐러가자"[18] 라는 가사에서 메나리는 미나리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나리와 메나리는 같은 나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민요를 구분하는 명칭으로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민요집성』에도 메나리와 미나리를 구분하여 싣고 있음에서도 손쉽게 알 수 있다.[19]

메나리는 뫼노리(산놀이)나 미나리 나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힐 수 있는 것은 밭이나 논김매는 소리인 '메나리'가 산을 뜻하는 '뫼'와 '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어원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여 메나리가 산간지방의 소리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설로 메나리는 뫼노리 즉 산놀이로서 산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요라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메'는 산을 뜻하기도 하지만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밥'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밥을 만드는 일 즉 농사일과 관련된 노래라는 생각도 일면 가질 수도

15) 高晶玉, 前揭書, p.183

16) 『민속예술 사전』 한국문예진흥원, 1979, p.123 참조

17) 李素羅, 『韓國의 農謠』4집, 현암사, 1990, p.742

18) 林和 編, 李在郁 解題, 『朝鮮民謠選』, 學藝社, 1929, p.175

19) 김태갑 · 조성일 편저,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pp.22~25

있다. 밭이나 논은 산에도 있지만 오히려 평지가 많고 '나리'가 '놀이'를 뜻했다고 일방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평안도의 '기나리'라는 민요 역시 나리가 놀이나 나리꽃을 지칭하지 않고 있음에서 비견된다. 이 노래는 '긴아리'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平安南道 龍岡 江西지방의 남녀가 西海바다 갯가에 조개를 잡으러 다니다가 얻은 그런 노래라고 일러 온다"는 해설에서도[20] 간취 된다. 한정동은 평안도 민요를 소개한 「내 故鄕의 民謠 情調」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 지방의 민요는 打鈴, 기나리, 메나리(外 略함) 三種이 일반 農謠인 同時에 그 主가 되어 있다. 타령과 기나리는 대략 歌詞도 같고 曲調는 퍽 다르나 다같이 盛行하는 것으로 어린 牧童들까지라도 잘 노래하고 있으며 메나리는 農謠이면서도 歌詞가 길고 曲調가 힘든 까닭인지 모르거니와 지금에 와서는 間或 불리어지나 衰退하는 감이 없지 않다.[21]

20) 成慶麟 · 張師勛 共編, 『朝鮮의 民謠』, 國際音樂文化社, 1949, p.151 참조

21) 韓晶東, 「내 故鄕의 民謠 情調」, 『朝光』, 1939.10.

최철 · 설성경, 『민요연구』 정음사, 1984, pp.213~214 재수록

22) 김연갑, 상게논문 p.30

이러한 견해들을 보면 '메나리'는 '민아리' 또는 '미나리'의 연계된 용어로 의심케 된다. 즉 '민'과 '아리'의 합성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민아리'의 '민'은 봉산탈춤 춤사위에서 '민사위'라는 춤사위가 소무나 노장이 뛰지 않고 채지 않으면 곱게 넘어가는 사위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접두사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고찰은 어원적, 음악적으로도 보다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김연갑이 "메나리조 노래 중 메나리, 山有花, 山遊花는 사실상 같은 음의 전사, 훈독에 불과하다는 것, 한자적 영향으로 또 다른 문자 형태로 파생, 정착된 것일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아리랑의 아리를 메아리 원형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이와 연관된 메나리는 그 의미가 노래, 산노래, 산악인의 노래이며 독특한 가락의 특징과 '아리' 인자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였다.[22] 이소라 역시 '민아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필자의 관견으로 '민아리'의 '아리'는 '아리랑'의 '아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용어로 파악된다. 이러한 판단은 정선 아라리나 강릉 오독떼기 명칭이 음악적 용어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음에 힘입어 '메나리'는 '민아리'를 뜻하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되고, 민아리는 곧 메나리로서 산유가가 아니라 아라리, 아리랑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민아리는 '민아라리'의 축약형으로 고구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강릉 오독떼기도 메나리조라고 하지만 오독떼기와 메나리, 아라리가 같은 소리면서도 다르다는 변별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주로 곡조에 의해 창자나

청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메나리는 '맨아리' 또는 '민아리', '민아라리'라는 음악적 용어로서 아라리의 한 분파가 아닐까 하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속초 메나리는 삼척이나 양양 메나리와 같은 계통이면서 전파적 영향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간 불교문화적 영향 하에서 신라불교의 본산지인 신흥사와 인접한 지역으로 염불이나 범패소리를 닮고 있음도 흥미로운 일이다.

농사의 진행상 가을 추수를 할 때에도 다른 농촌처럼 소리가 있다. 벼베는 소리다. 벼를 베어 놓은 후 볏단을 가지런히 세운다. 이때도 역시 소리를 하는데 아래 예문 ④, ⑤가 그 예이다.

④ 흠청흠청 하더니 하-안 단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하안단
얼른 흠처흠처 하더니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넉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 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넉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 아홉단에 스무단
한 타래 세웠습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 넉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 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넉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타래 세웠습니다.

농촌의 즐거움은 타작을 하여 낱알을 곳간에 저장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아래 ⑥은 도리깨를 갖고 타작을 하면서 불렀던 소리다. 타작을 하면 벼 검불로 몸이 따끔거리는데 이를 털기 위해서 벼 검불을 터는 소리를 한다. 황덕불을 피워놓고 옷자락을 흔들며 옷에 걸린 벼 검불을 태워버린다.

⑥ 자 때려라/저-호-저-호-
저 넘어간다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아흐- 어-허-요-호

넘어간다 자 아래도리깨 있으면 잘 쳐요
벼 나갑니다 벼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⑦ 넘어간다 넘어간다 벳가리가 넘어간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벳가리가 넘어가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쌈 나요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위의 예문 ①~⑦은 도문동의 김남형이 부른 소리다.

2. 수산노동요

속초지역은 일찍이 어로문화가 전승된 곳이다.[23] 신석기 시대유적인 혈암제 결합 낚시가 동해안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고, 속초시 조양동 2호 집자리에서 나온 어망추나 동해안에서 출토되는 뼈낚시, 묶음식낚시, 창끝 등으로 미루어보면 이 일대의 어로활동을 유추할 수 있다.[24] 이처럼 고고학적 자료에서 입증되듯이 생계경제와 노동형태, 의례와 식생활, 놀이문화, 주거양식 등 속초지역만의 독특한 어촌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어업요도 다양하게 전승되는 편이다.[25]

어업과 어로는 구별되는 용어로서 어로민속은 생업민속이며, 어로는 물속에 사는 생물 즉 어류, 패류 및 조류(藻類) 등을 채포하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어업이라 한다.[26]

민요의 특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수산노동요인 뱃소리다. 속초의 어로민요는 노젓는 소리인 '지어소리', 그물을 당기는 소리인 '다리어소리', 고기를 퍼올리는 소리인 '가래소리'와 '산대소리', 고기를 그물에서 벗기는 소리인 '베끼소리', 배를 바다에 내리는 '든대소리', 해녀의 '물질소리' 등이 있다.

대부분 어업요는 돛배(풍선배)라는 무동력선으로 조업을 할 때까지 소리의 전승이 가능했는데 작업과정에 힘든 노동이 많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뱃소리가 불려졌다. 속초에서 채록된 뱃소리는 놀배기소리 (노젓는소리)로는 '으샤으샤' (대포동 김병국), '어야디여' (동명동 최재윤, 영랑동 김갑용), '에라소 가래라소' (장사동 김현배) 등이 있다. 1945년 이전에 일본 배들은 '어여차 디야' (김갑용 증언)라 하였다. 산대소리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었으니 산대로 고기를 푸라는 소리다. '가래라소' 혹은 '에라소 가래로다' 등으로 부른다.

23) 장정룡, 『속초시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24) 장정룡, 「동해해역의 생활사 문화자원배경」, 『한국의 해양문화』 4, 동해해역, 해양수산부, 2002, p.29

25) 장정룡, 『속초지역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p.26

26) 박구병 외, 『수산사전』, 형설출판사, 1994, p.151

길게 할 적에는 사설을 집어넣어 가사를 만든다. '그물당기는소리'는 요즘은 '어샤어샤'를 많이 쓰나 과거엔 '당겨보자 에야디여'를 즐겨 썼다고 한다. 또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리면 '푸름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많다'라는 말이나 '또' 등의 말들은 쓰지 않는다. '다리어내자'는 함경도에서 그물을 당기는 소리라고도 하나 속초지방에서도 많이 쓰였다고 한다.

장사동에서는 고기그물 당길 때 '에이산자'라는 후렴도 사용을 한다. 든대질소리는 '자- 자-'하고 소리한다. 단순한 가사이지만 힘을 써야 할 때를 잘 알려준다. '자-'라고 소리할 때마다 힘을 불끈불끈 주어 배를 나아가게 한다.[27] 든대질은 '설망' 즉 진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를 옮기는 과정에 부르는 소리다. 이 과정에 아래 예문 ⑥처럼 다양한 사설이 들어간다.

속초 지방의 뱃소리를 보면, 다양한 사설을 가진 여러 소리가 있는데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그물당기는소리, 산대소리, 베끼소리 등이 채록되었다. 지어소리는 배가 항해할 때 노젓는 소리로 2/2박자의 경쾌하면서도 애조를 띠는데 허리도리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어부들이 후렴을 부른다. 다리어소리는 그물 당기는 소리로 4/4박자의 전형적인 뱃소리로 매우 빠른 가락이고 역시 선후창으로 부른다.

27) 장정룡, 「강원의 소리, 소리꾼」, 강원일보사, 제3회 속초뱃소리, 김봉준, 1997. 3. 31

대포동 그물당기는 소리는 정치망 그물 당길 때 멀리서부터 차츰 그물을 돋우고 죄여 가면 그물 속에 들어와 있던 고기들이 떠오르는데 이를 배에 퍼 담아 올 때 부르는 소리다. 대포동 산대소리는 고기를 퍼 올리면서 처음에는 '어이어이'하면서 서로 숨을 맞춰 가지고 '야이야이'로 들어간다. 노래는 제창으로 주요 구성음 라/솔/미/도이고 레는 미에서 도로 가는 도중의 경과음으로 쓰고 있는데 시는 장식음이다. 리듬은 규칙적인 4박자라고 한다.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베낄 때 부르는 소리는 가장 경쾌하고 사설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고, 어부들도 가장 신명이 나는 소리다. 교창 형식은 뒷소리가 끝나기 전에 앞소리가 들어가는 형식이다. 든대질소리는 속초의 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은 없고 사설이 여러 가지 삽입되고 있다.

속초지방에서는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를 말한다. 든대는 '드는대'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질'은 행위를 뜻하는 '짓'과 같은 말이라고 하겠다. 든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게'라 하는데 이는 '고인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가사는 뱃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문도 있고, 또 뱃사람이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지문도 있는데 예문 ①~⑦은 뱃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예문들이다.

'다리어', '에라솔 가래라솔', '베끼어라 보자' 등의 후렴도 농촌지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특히 ⑥의 예문은 이 지역 뱃사람들의 행동반경을 알 수 있는데, 남쪽 삼척 앞 바다에서부터 강릉, 양양, 간성, 장전 앞 바다를 거쳐 위로는 함경도 원산 앞 바다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여러 바다 일과 관련된 정보와 소리들이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소리는 든대소리 뿐만 아니라 산대소리에도 응용되고 있음을 봐서는 가창자 능력에 따라 응용되었을 것이다.

예문 ⑦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원산내기 바람이 뱃사람이 두려워하는 바람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동명동 최재윤 씨도 샛바람이라고 부르는 원산내기 바람이 가장 무섭고, 다음이 '내바람' 즉 '하늬바람'이라도 하면서 맞바람 즉 마파람은 상대적으로 대응하기가 용이한 바람이라고 한다.

예문 ⑤에서는 뱃사람이 고기를 잡은 후 어떤 순서로 고기를 나눠 갖는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대포동(외옹치) 김병국 씨에 의하면 명태바리는 선장, 기관장, 낚시사공, 선원이 있어서 잡은 고기를 선장 집반, 기관장 집반, 낙수사공이 삼부, 선원들은 일부를 나눈다고 한다.

① 니가내가 어찌하든 다리어
힘을쓰고 용을써라 다리어 < 다리어소리 >

② 앞발은 버티고 어야 뒤로 자빠져 어야
눕지말고 어야 부쩍부쩍 어야
당겨주게 어야
어야어야 어야어야 < 다리어소리>

③ 우리먹고 살라고 에라솔 가래라솔
고기디리 밀어줬다 에라솔 가래라솔 < 가래소리 >

④ 저손질이 저리구 에라 벗기고 보자
소년고생을 안하겠나 에라 벗기고 보자 < 베끼소리 >

⑤ 이번산대는 용왕님 산대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망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다음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 산대소리 >

⑥ 강릉앞바다를 떠나고보니 양양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바다를 떠나가보니
간성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보니 장전앞바다가 나서는구나 < 든대소리 >

⑦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베끼어라 보자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취한 술이 절로 깬다 베끼어라 보자
설악산 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손발 시려서 못살겠네 베끼어라 보자 < 베끼소리 >

이처럼 뱃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예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촌, 산촌 등 일반적으로 널리 불려졌던 가사도 뱃소리에 녹아들었다. 아래의 예문 ⑧~⑫는 아라리, 미나리, 노랫가락, 지경다지기 등에서도 불려지는 가사로 이런 보편적인 가사에 뱃소리 특유의 후렴을 붙여 뱃소리로 부른다.

⑧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아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 지어소리 >

⑨ 삼수갑산 딱다구리는 에라소 가래로다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 에라소 가래로다
우리 저 멍텅구리는 에라소 가래로다
뚫린 지 구멍도 못 뚫는다 에라소 가래로다 < 산대소리 >

⑩ 명사십리 해당화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꽃이진다 설워마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잎이 피고 꽃이 핀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 지어소리 >

⑪ 간다간다 나는간다 다리어라 내자
임을두고 나는가네 다리어라 내자
내가가면 아주가나 다리어라 내자
아주간다고 잊을쏘냐 다리어라 내자 < 다리어소리 >

⑫ 아들을나면 효자나고 베끼어라 보자
딸이나면 열녀나고 베끼어라 보자
소가나면 특소나고 베끼어라 보자

닭이나면 봉황나고 베끼어라 보자
개가나면 삽살개고 베끼어라 보자
말이나면 용마로다 베끼어라 보자 < 베끼소리 >

이외에도 고기숫자를 세는 소리도 있다. 속초에서는 주로 명태를 잡는데, 명태를 잡아 풀어놓고 고기 숫자를 셋 때 '하나이요 둘이요 서이요' 하면서 흥겨운 리듬 속에 고기를 세어 묶어내어 놓는다. 이 소리는 노동의 힘듦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 노래이다. 단순한 가사에도 불구하고 단순 반복되는 리듬은 노동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게 한다.

동해안 뱃소리는 크게 강원도식과 함경도식으로 분류된다. 강원도식 뱃소리는 사설이 풍부하고 강직한 것이 특징이다. 속초지방은 강원도지역이면서도 함경도 풍속들이 교차되는 특성을 지니는데, 뱃소리와 아라리, 미나리, 노랫가락, 지경다지기 등에서도 불려지는 가사가 습합되어 어부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다.

3. 유희요

강원도에 널리 퍼진 아라리는 속초에서도 도처에서 불린다. 속초에서는 아라리와 가사는 같아도 곡조는 어랑타령의 곡조로 불리고, 뱃노래, 청춘가의 곡조로도 불리는데 다음은 그 예이다.

① 산천초목이 불붙은건 소방서나 끄지요/요내가슴 불붙은건 어느 대장부가 끄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니가 내사령아
– 최월선(영랑동)

② 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조끄만 여자 속이야 뭐그리 깊을소냐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순녀(도문동)

③ 울너머 담너머 꼴베는 총각아/눈치가 있거랑은 외 받아 먹어라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순녀(도문동)

④ 산이 높아야 골골이 짚지요/죄꼬만(조그만) 여자속이 얼매나 깊느냐
– 차종용(노학동)

①은 어랑타령 ②, ③은 뱃노래 ④는 청춘가다. 그러나 그 가사는 아라리

곡조로 불려진다. 속초에서는 강원도 산골과는 달리 아라리의 절절함이 감소되어 있다. 그것은 그만큼 노래의 곡조가 어랑타령, 뱃노래처럼 흥겨운 곡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흥겨운 곡조는 필연적으로 놀이를 동반하고 또 유희적 상황에서 불려졌다. 가창자 대부분이 장구를 즐겨 치는 분들로 삼월 삼짇날 화전놀이를 가거나, 농사일을 끝내고 호미씻이를 하거나 여러 행사 때 많이 불려져서 농촌에서 불려지는 아라리와 차이가 생겼으며. 가사는 슬픈데 종국은 흥겨움으로 끝난다. 다음은 그런 몇 가지 예이다.

⑤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었던지/정거정 대합실에 한강수 되었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나 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영애(동명동)

⑥ 물거(물각)는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요내몸은 엇지하여 임자가 없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둥둥 대한에 독립이 왔구나
– 박계랑(도문동)

흥겨움은 아라리, 어랑타령, 뿐만 아니라 여러 동작유희요에서도 보인다. 대표적인 유희요로 가장 많이 채록된 것이 다리뽑기로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이다.

⑦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 천두 만두 두만두 / 짝 발레 회양주
– 전기춘(도문동)

⑧ 한알개 두알개 / 삼사 너구리 / 똥개 망개 / 참낭그 지게통 / 고불통 내아들 – 남복우(장사동)

⑨ 재짱 개짱 / 쇠스레 넉장 / 콩죽 팥죽 / 얻어 먹었니 / 못얻어 먹었니 / 사마 / 지 꽁 – 김정수(도문동)

⑩ 이똥 저똥 행기똥 / 지 할미 곱새 똥
– 김옥진(영랑동) 김영애(동명동) 김윤문(영랑동)

⑪ 이원 지원 / 가매 꼬지 – 박계랑(도문동)

⑫ 이거리 저거리 갓고리 / 심지 망근 도망근 / 짝 바리 호양강 / 도루메 장치 장두깨 / 모개 밭에 작서리 / 동 지 섣 달 / 대서리
– 이응숙(대포동)

⑬ 윙그리 땡그리 / 죄가 재축 / 오리 고이기 / 먹으나 못먹으나 / 죄가 때끔 – 차종용(노학동)

⑭ 윙그리 땡그리 / 삼사 똥개 망개 / 참나물 등거리 / 고등어 짠지 / 죄가 때끔 – 차종용(노학동)

다리를 뻗어놓고 여럿이 다리를 서로 집어넣은 후 이 소리를 하면서 다리를 하나씩 친다. 한쪽 다리를 칠 때마다 한 소리씩 하면서 치다보면 필경 마지막 소리에 걸리는 다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리를 구부려놓고 다시 남은 다리를 대상으로 하여 또 이 소리를 한다. 이 소리들은 여성 가창자에게 채록이 되었으나 ⑩의 예는 남성 가창자에게서도 채록이 되었다.

이 소리를 다리를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 있을 경우 방귀냄새가 나면 이 소리를 하면서 한 사람씩 지명하여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방귀뀐 놈이라 하며 웃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희요로서 춘향이 놀이를 또 들 수 있다. 여럿이 모여 한사람을 지목하여 손바닥을 마주치게 한 후 춘향이 소리를 하면 차츰 마주 대었던 손바닥이 차츰차츰 벌어지면, 그 후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신들린 듯 춤을 추게 된다고 한다. 다음은 도문동에서 채록한 춘향이 소리다.

⑮ (손바닥을 모으고)
양골양골 춘향이 아가씨/이도령님 만났을 때
종글종글 내리시오/생일은 사월 초파일날이요
슬슬 내리시오 슬슬 내리시오/양골양골 춘향이 아가씨
– 박선춘(도문동)

4. 도문 메나리민요의 유래와 구성

도문메나리는 도천메나리라고도 한다. 이 메나리 농요는 속초의 전래 농업노동요로서 그 명칭은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진 명칭에서 나왔다. 오늘날 속초라는 지명은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여지도서(輿地圖書)』에 처음 나오는데 당시는 86호가 살았으며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었다. 조선시대 속초는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였고 1759년 행정구역이 정해지면서 도문면과 소천면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지명이 유지되다가 일제 무렵 속초의 청초호가 개발됨에 따라 속초리가 커졌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도천면(道川面)이 되었다. 1937년 도천면 사무소는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졌고 면이름도 도천면에서 속

초면으로 바뀌어, 속초는 작은 동리이름에서 면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어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모두 14개리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도천메나리'라는 명칭에 사용된 '도천'(道川)은 도천면에서 따온 것으로 도천면은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진 명칭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도천메나리'의 주요 전승지인 상도문리는 조선조 말 매곡 오윤환(1872~1946) 선생이 지은 학무정이 있는 유서깊은 마을로서 일제 초기 도문면에 속했으며, 당시 20여 호가 살았으며 남녀 합하여 66명이 거주하였다.[28]

강원도 민요 가운데 농업노동요로서 김매기소리인 메나리는 춘천 · 삼척 · 양양 · 속초일대에 전승되는데, 속초 도문동에 전승되는 메나리는 양양메나리조와 유사하고 삼척메나리와는 다르다. 도문메나리는 농민들이 3~4명씩 짝은 지어 '질'을 짜서 김매기를 하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농요로서 고유한 가락과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29]

아울러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있는 범패소리의 유형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문메나리 놀이마당은 다음과 같다.[30]

첫째마당: 서낭굿

정초가 되면 한 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서 도문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이때 풍물패가 성황당에 모여서 서낭굿을 친다. 신목과 서낭대를 농악대원들이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며 감싼 후 주민들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상쇠가 쇠를 치면서 고사반을 한다.

모십시다 모십시다 서낭님을 모십시다
서낭서낭 서낭님 강원도라 속초시에
설악산의 정기 받은 도문동에 모십시다
서낭님 모셔놓고 금년농사 잘되라고 비옵니다
물 없는 논에 물을 주시고 오곡 가득 점지해주시고
마을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서낭님께 비옵니다

둘째마당 : 논삶는 소리

논삶는소리는 '소모는소리'로 도문동에서는 주로 한스레 즉 겨리소로 농사를 짓는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스레로서 보통은 일 잘하는 소를 바른쪽에 세운다. 소 뒤에는 번지를 매달고 논을 가는데 소를 모는 성군은

28) 장정룡, 『매곡 오윤환 선생 선양사업기본계획』, 속초시, 2003

29) 장정룡, 「강원의 소리, 소리꾼」, 강원일보사, 제4회 속초농요미나리, 김남형, 1997. 4. 7

30) 장정룡,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 자료집,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동해시), 2003. 10. 15

소 한 마리 즉 호리소 안쪽 스레로 논을 갈기도 한다. 논을 갈 때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을 표출하는 이 소리는 소를 다 몰고 끝이 날 때는 통칭 '와~'로 끝마무리를 한다. 논삶는소리는 가창자나 소를 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러이러 어디야 이~ 이~
이 큰 암소야 어정거리지말고야~ 이이
제곬으로만 찾어들어라 이러이러 헤이 이~
어둬 어디야~ 이 오르내리지말구야
어디 얼릉 얼릉가자 이러이러 이이
설악산 화채봉에
해는야 올라섰는데 한눈팔지말고 가자
이러이러 이이~ 어둬 어디야 이이~
점심참이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릉하고 말세
이러이러 이이~ 어둬
쇠머리에 모춤 올라앉겠구나
얼릉얼릉 잽싸게 가자
이러이러 어~ 어둬
해는 일락서산에 지는데
언제갈고 집에 갈라느냐
이러이러 이~ 어둬 와와

셋째마당 : 모찌고 심는 소리

논을 갈고 한편에서는 모를 찐다. 모를 찔 때도 또한 소리를 하는데 흔히 '한춤소리'라 부른다. '한춤'이라는 것은 모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얼른하더니 한춤'이라고 소리를 하면서 모를 집어 던지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소리를 하면서 모를 한춤 집어 던진다. 이때 흥겹고 신나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모찌는소리'다. 마을에는 좌상이 있어서 농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감독했다. 질레를 짜면서 농사가 시작되면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분량을 남겨놓기도 한다. 농기를 든 패들은 남들보다 항상 먼저 나가 농토에다가 꽂아놓고 모를 찌며 들어올 때도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들어온다. 논을 다 삶으면 곧바로 모를 심는다. 이때 '심어주게~'로 시작되는 '모심는소리'를 흥겨운 가락에 맞춰 부르는데 이 소리 외에도 아리랑, 어랑타령 등 다양한 소리가 모심을 때 불린다.

대체로 모심는소리는 강릉, 양양, 평창 등지에서 불려지는 소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락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이 날 때는 빠르게도 부르다가 또 오후 들어 힘이 들 때는 천천히 부르기도 한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바다같은 요논배미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오종종 줄모를야 심어를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점심참이 늦기전에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초생달이 뜨기전에 심어를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동자같은 어린모를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우리집 도련님 노빵나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얼씨구 부지런히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우리네 논꾼들 잘도심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넷째마당 : 김매는소리

도문동 농요의 대표적인 소리인 메나리는 '김매기소리'이다. 보통 두 번 김을 맬때부터 날씨가 더워지면 일이 힘에 부치게 되므로 메나리가 불려지는데, 소리를 잘하는 농부가 앞 소절을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부들이 뒷 소절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농부가 소리를 못하면 일꾼이 아니라 꼴꾼이라는 말처럼 메나리소리는 참일꾼만이 부른다고 한다. 이 메나리는 삼

척권과 달리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소리로서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농촌에서는 세벌 김을 매고 나면 주민들이 하루 날짜를 정하여 잔치를 연다. 이것을 이 마을에서는 '질을 먹는다'고 한다.

매여나주게 매여나주게 요논배미 매여나주오
산들산들 부는 바람 모시 적삼입고 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 하세

동해동창 솟은 해가 반공중에 높이 아어떴다
아침해가 높이떠서 점심때가 되었다네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지여 간다 말만 말고 요 논배미 매어아어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심심하고 얌양한데 질꼬내기 불러보세
남쪽남산 봄이드니 불안잠떼 새솔잎나네

녹수청강 흐르는물에 배추씻는 저처녀야
속에속잎 젖혀두고 속에속잎 나를주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꽃이지면 아주나 지나 명년삼월 다시 피지

다섯째마당 : 벼베기와 한단소리

곡식이 익어 황금들녘을 이루면 참새들이 와서 볍씨 나락을 파먹는다. 이럴 때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고, 동네 청년들은 파대를 만들어 치면서 소리로 새를 쫓는다. 또한 농민들은 참새들이 볍씨를 파먹으므로 '워이워이'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도문동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들녘으로 나가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새를 쫓는 풍속이 전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을철에 조류의 피해를 감할 수 있다고 한다. 파대는 새끼줄을 2m 정도로 꼬아서 만든 새쫓는 도구로서 이것을 휘감아서 논바닥을 때리면 '딱'하는 큰 소리를 내게 되므로 새들이 소리에 놀라 날아간다. 농부들이 논에 나가 벼를 베고 나서 '한단소리'를 부른다. 이것은 벼를 베어 넘기며 '~한단'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실제로 낫으로 벼를 벨 때는 위험하다고 소리를

하지 않고 베 놓은 볏단을 묶을 때 한단소리를 한다.

얼른 하더니 한단 나간다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한단 나간다
그 소리 끝나기전에 나도 또한단 나간다
얼른 흠청흠청하더니 또한단 나간다
초승달 뜨기전에 너도 한단이야 나도 또 한단 나간다
한단 한단 하지말고 부지런히 하게나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단 나간다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나도 또 한단 나간다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단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단

여섯째마당 : 마댕이와 볏가리지우는소리

볏단을 세우면 농촌은 한 해 마무리를 시작한다. 벼를 털어 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뎅이'라고 한다. 탯돌(태상)에 쳐서 떨어진 벼 낟알을 다시 도리깨로 치면서 탈곡을 하는데 탯돌이란 널쩍한 돌맹이를 구해놓고 사용을 했다. 도리깨는 보통 기능에 따라 상도리깨와 하도리깨로 구분하는데, 이때 상도리깨는 세로로 서서 먼저 치는 도리깨이고, 상도리깨가 치면 가로로 서있는 여러 명의 하도리깨가 뒤를 받아친다. 상도리깨 소리는 다음과 같다.

에호 에호 타작 한번 해보소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여기쳐라 저기쳐라 상도리깨가 나간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사람들이 많다만은 도리깨소리는 적구나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넘어간다 넘어간다 벳가리가 넘어간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벳가리가 넘어가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쌈나요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천석이오 만석이오 금년농사가 대풍이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그럭저럭 하다보니 금년타작이 다끝났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탈곡을 하여 볏가리가 모이면 한 편에 짚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며 하면서 볏가리를 지운다. 이때도 '볏가리 지우는소리'를 하는데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다. 볏가리를 지운다는 것은 먼지를 날린다는 뜻이다. 온 종일 탈곡을 하여 모아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까불면서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들고 퍼 올리며 키를 가지고 털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털어 낸 벼 낟알을 삼태기로 퍼서 곳간으로 보내는데, 여럿이 모여 작업을 할 때는 일렬로 서서 삼태기를 건네주면서 운반하기도 한다. 온종일 탈곡을 하고 나면 벼 꺼풀이 여기저기 달라붙는다. 이를 '꺼끄랭이'라고 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황덕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옷을 벗어 흔든다.

도통의 길로 들어선다는 도문동의 메나리 농요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문메나리 농요는 마을의 역사를 살필 때 생성시기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고찰인 신흥사의 권역에 속한 이 마을주민들은 일찍이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사찰소유의 부지에 형성된 농촌마을이다. 배경을 살펴보면 자연적으로 염불이나 범패소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466년 윤 3월 14일 조선시대 세조 임금이 오대산 상원사로 가는 도중 강릉 연곡리에 머물면서 농민으로서 농가를 잘 부르는 사람을 모아서 장막 안에서 노래하게 했는데 양양의 관노인 동구리가 최고상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과거 양양도호부에 속했던 도문동 지역의 소리가 그 전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도문메나리 농요는 두레농경을 하면서 불려졌는데, 속초 도문동에는 과거에 '질레'가 네 개나 있었다고 한다. 서로 '공론한다'며 모심기 차례를 정하면 15~20여명의 질레꾼들이 돌아가면서 모를 심고 김을 매준다. 이 마을에서 '질팔아먹는다'고 하면 모심기에 못나가게 될 경우 품앗이를 대신 주는 것이고, "질걸어 먹는다"는 말은 각자가 술이나 고기, 쌀, 돈 등을 낸 것으로 잔치를 벌리며 쓰레술도 먹는 것을 말한다.

메나리농요는 아이짐 즉 초벌 김매기에는 벼 포기가 약하므로 손상을 입힐까 두려워 소리를 하지 않고, 두벌 세벌 맬 때 주로 불린다. 김을 맬 때 부르

는 소리로서 다소 정적이며 유장하고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다. 시조창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농요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셋째, 도문메나리 사설은 김매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특징을 지닌다. 처음 소리는 김매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이후 점심때가 되니 점심참을 먹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외 삶의 여러 모습도 그 가사 속에 담는다. 김매기소리는 메나리와 동강소리로 구성된다. 나른한 오후에는 좀더 호흡이 짧은 동강소리를 한다. 점심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므로 김을 세게 매주기 위해 메나리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 동강소리를 부른다. 창법과 가사는 메나리와 비슷하지만 소리를 끝맺을 때는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맺는다. 이때 '우겨라 우려'라 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자는 뜻이다.

넷째, 도문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을 지키고 있으며 후렴은 없으나 '아어'라는 여름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양양메나리는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삼척메나리는 '이후후'라는 후렴소리가 있는데, 속초 도문메나리는 삼척메나리와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다소 다르다. 삼척과 양양지방은 4음보를 고수하는 것이나 후렴구를 붙이는 것은 비슷하지만 소리의 톤을 보면 유장함에서는 도문메나리와 통하는 점이 있다.

김을 맬 때 강릉에서는 오독떼기를 부르고, 속초와 양양, 삼척에서는 메나리를 부르는데 가창방법, 음역, 리듬, 형식, 선율형, 음조직, 종지형, 가사 등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가사를 비교해보면 '동해동창 솟는 해'라든지 '명사십리 해당화'라든지, 동일한 가사도 엿보이고 또한 농촌관련 가사들이 많이 있다. 가창방법은 속초나 양양이나 비슷한 편이다. 앞 소절은 선창자가 부르고, 나머지 3개의 소절은 모두 함께 부른다.

다섯째, 도문메나리 농요는 농촌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노동의 힘겨움,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으로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또 일이 지루하면 경쾌하게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밝게 전환한다. 메나리소리는 대체로 오전에는 느리면서 차분하게 소리를 하나 오후에는 빠르고 쾌활하게 소리를 한다. 점심참을 먹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면 기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밥에는 반찬이 날개요, 일에는 소리가 날개'라고 하듯이 소리꾼의 역할이 강조되는바 도문메나리의 전통은 소중한 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다.

제2절 속초의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한 해와 네 계절의 풍속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제때에 철을 인식하는 철갈이 민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철이 오면 그 철에 맞도록 계절의 바뀜에 따라 주기적으로 때맞추어 살아가려는 삶의 다양한 적응이다. 때에 어둡지 않고 철에 맞추어 살아가려면 우주의 변화인 천상(天象)과 기후의 변화인 기상(氣象), 계절적 변화를 지시하는 물상(物象)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세시의 기본이며 철을 아는 삶이다. 이에 반해 무시(無時)는 때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철없는 삶이고 철모르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전해오는 선인들의 지혜는 오늘의 천체력, 생업력, 의례력 역법은 단순히 때를 가르쳐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들 삶에서 천체와 계절변화를 받아들이는 생활상의 주기적 대응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시풍속은 특정한 때에 주기적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풍속인데 여기에는 자연신앙이나 조상숭배, 종교 주술적인 행위, 놀이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31] 전통적인 세시풍속이 외래적인 세시풍속과 습합되기도 하고,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미풍양속이 날로 쇠퇴해 가고 있다. 1990년대에 조사한 자료와[32] 2005년에 새롭게 조사한 세시풍속을 비교해보면 명절풍속을 지키는 가정이 현저하게 줄고 간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초지역의 세시풍속은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도 있고,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 있는데[33] 어촌, 산촌, 농어촌 복합지역으로 나누어 청호동, 도문동, 대포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31)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1988, p.19

32)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p.11

33) 장정룡, 『강원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p.609

1. 정월달 새배와 뱃고사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1월 1일을 설날이라 한다. 그냥 '설'이라고도 하는데 떡국차례를 올리고 나서 세배를 한다. '설빔'을 입고 정초 둘째 날부터 일가친척이나 동네어른들에게 세배를 다닌다.

정초에 어촌의 선주들은 뱃고사를 지낸다. 무엇보다 정성을 기울이는 뱃고사는 배안에 모신 성주신에게 한 해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다. 대체로 무당에게 부탁하여 날을 받거나 택일을 하는데, 정월보름 전에 고사를 지내는 집안이 많다. 고사를 지낼 때는 주과포는 물론이고, 그 해 들어 처음 잡은 생선을 말렸다가 쓰거나 가장 큰 생선만을 골라서 제물로 쓴다. 이것은 풍어를 기원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 어부들은 "잘되면 북치고, 안되면 가슴

친다"고 할 정도로 만선에 대한 기대감을 뱃고사 때 기원한다. 배에 성주를 모신 선주들은 마을 성황당에 가서 먼저 제사를 지낸 다음에 자신의 배에 가서 고사를 올린다. 선주들은 복조리를 설날이 지나고 첫 번째 개시되는 장터에 가서 사면 좋다고 하여 사다가 선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2. 정월 첫째 뱀날풍속

정월 들어 첫 번째 드는 뱀날을 상사일(上巳日)이라하는데, 이 날에는 출어를 하지 않는다. 이 날을 특별히 꺼리는 이유는 배가 출어하면 뱀처럼 미끄러져 전복된다고 하는데 뱀의 표피가 미끄러운 것을 연상한 풍속이다. 요즘에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적다. '유모일(有毛日)'이라 하여 12띠 중에서 털이 있는 짐승의 날에 출어를 하면 풍어가 된다고도 한다.

3. 까치보름과 달점치기

속초에서는 정월 14일을 '까치보름날'이라 한다. 이날 아침에 오곡밥을 해서 먹기도 하고 보름날에 오곡밥으로 보름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다. 예전에는 수수깡으로 조나 보리, 콩, 벼 등을 만들어서 두엄 위에 꽂았다가 다음날 "우여 우여"하며 새 쫓는 타작흉내를 내면 피해를 줄이고 풍년든다고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 날을 '여름날'이라하며 분주히 보내고, 13일은 봄날, 16일은 귀신날이라 하여 쉰다. 보름행사는 대체로 14일 저녁부터 이루어진다.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아침에 부럼을 깨물어 몸의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기원하고 약밥을 한다. 약밥을 찔 때 해초를 넣기도 하고 동치미 국물과 명태젓갈 등을 반찬으로 먹는다. 저녁이 되면 성황당이 있는 봉우리에 올라가 누구보다 먼저 달을 보면 좋다고 하는데, 달빛을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달이 뜨면 아이들은 바닷가로 나가 광솔불을 피워 쇠통에 넣고 빙빙 망우리를 돌린다. 이렇게 망우리로 달맞이를 하면 아이들은 한 해 동안 건강하다고 전한다.

4. 연날리기와 횃불싸움

정월 대보름날까지 연을 날리는데 바다 쪽을 향해서 띄운다. 참나무 껍질로 손바닥만하게 배를 만들어 띄우고 거기에 연줄을 묶는다. 이렇게 참연(방패연)이나 가오리연을 만들어 바다에 띄우다가 연 밑에 쑥을 묶어서 불을 붙이면 줄이 끊겨 연이 하늘로 난다. 이것은 자신의 액을 멀리 보내는 것이라 하

고, 보름이 지나서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라고 놀린다.

횃불싸움은 영랑동과 조양동의 청년들이 고함을 지르며 횃불을 빼앗으며 놀았고 내물치와 하도문에서도 깡통으로 만든 망우리를 돌리면서 달보기를 하다가 횃불싸움을 하고 놀았는데 이십년 전에 사라지고 지금은 행하지 않는다. 속초에서는 동해에 뜨는 달을 처음 보면 그 집에 경사가 든다고 하여 횃불로 달맞이를 하거나 망우리를 돌리면서 아이들도 달맞이를 한다. 횃불과 달빛의 상승작용으로 풍요를 기원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5. 엄나무와 체바퀴달기

보름날에 가시가 있는 엄나무와 구멍이 많이 난 체바퀴를 처마 밑에 매달아 잡귀를 막는다. 전하는 말로 야광이란 귀신이 밤에 내려와 신발을 신어보고 발에 맞으면 신고 가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그 해가 불길하므로 체를 처마에 걸어놓는데 야광이가 체구멍을 세느라고 훔칠 생각을 잊는다고 한다. 이날은 신발을 엎어놓고 자기도 한다.

6. 봉숭이밥 싸기와 탈놀이

정월 보름날에 자기의 나이 수대로 약밥을 싸서 '봉숭이밥 싼다'고하여 바다에 버린다. 이것은 액막이의 일종으로 한자로는 어부시(魚鳧施) 또는 어부식(魚付食)이라 쓴다. 속초에서는 한지에 자기의 나이 수만큼 찰밥이나 약밥을 싸는데 도문동에서는 쌍천에다 버린다.

이렇게 하거나 자신의 밥그릇에 밥 세 뭉치를 떠서 한지에 사고 생년월일을 적어 냇가에 띄우기도 하는데 최영년의『해동죽지』에는 정월대보름날 조밥을 우물샘에 살포하여 고기더러 먹으라는 뜻을 붙여 살어식(撒魚食)이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액을 막는 방법으로 대체로 보름날 저녁에 달이 뜨면 시작한다.

물치마을에서는 젊은이 여러 명이 대보름달이 뜨면 종이로 탈을 만들어 쓰고 집집을 방문한다. 이때는 노인과 여자 등으로 꾸미는데 "이 집에 손님이 왔소. 술 내놓으시오."하면 주인은 술과 안주를 내놓고 잡색꾼들은 풍년가를 부르면 흥겹게 논다.

7. 귀신날

음력으로 정월 16일을 귀신날이라 하는데, 이 날을 귀신에게 홀린다고 배

를 띄우지 않는다. 따라서 어부들은 출어를 하지 않고 그물을 손질하거나 집에서 쉰다. 머리카락이나 고추씨를 태워 잡귀를 막기도 한다.

8. 바람님날

2월 초하룻날을 주부들은 '바람님날' 또는 '영등할머니날'이라하여 '영등신' 또는 '바람님'을 잘 모신다. 어민들은 비바람에 따라 출어가 정해지므로, 바람에 특히 신경을 쓴다. 따라서 70년대 초까지도 영등날에 바람님을 잘 모셨는데, 근래 들어 이 신을 모시는 가정이 드물다고 한다.

영등신은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모시는데, 이 날 장독대에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린내 나지 않는 생선, 비늘없는 생선인 명태로 무를 넣어 무왁찌기와 잡곡밥, 나물, 떡, 술 등을 놓고 가정의 안녕과 어업의 무사, 풍어 등을 빈다. 이때는 식구 수대로 무왁찌기에 수저를 꽂아놓고 가족의 안녕을 빌고, 떡시루에 꽂기도 한다.

영등신을 잘 모시는 가정에서는 음력 2월 15일 영등신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기간동안 여신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고, 상가집을 가지도 않고, 흉한 일을 꺼릴 정도로 근신을 한다. 2월 1일 영등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 하고 바람불면 '바람영등'이라 하는데 물영등이 되면 풍어가 된다고 한다.

영등신의 노여움을 받으면 무서운 바람인 '서마나울'이나 '원산내기'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해난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호동 선주들은 이 날이 되면 아침에 해뜨기 전에 나와서 배에다 제물을 차려놓고 빈다. 선주들은 그 해 운이 나쁘다 싶으면 별도로 배성주에게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몇 달에 한 번씩 제물을 차려 빈다.

9. 좀생이보기

속초에서는 2월 6일을 '좀생이날' '좀성날'이라 하는데 이 별자리는 28성수 중 묘성으로 작은 별들이 모여 있다. 이날 달과 좀생이의 거리와 모양에 따라 풍흉을 점친다. 달과 좀생이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 풍년이고, 가깝게 가거나 바삐 가는 것처럼 보이면 흉년이 된다고 한다. 그것은 모심기 할 때 부인들이 이고 가는 밥광주리가 달이고, 좀생이는 아이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그 해 아이들이 배가 고플 것으로 짐작한다. "좀생이보고 그 해 일할 짚신을 삼았다"고 할 정도이며 조선시대『열양세시기』에도 제

법 맞는 풍속이라고 하였다. 좀생이 색깔이 붉으면 가물고 투명하면 곡식이 잘된다고도 믿는다.

10. 무먹기

무를 청근이라고도 하는데 2월 7일 날 아침이 되면 무채를 썰어놓고 이것을 짠 물을 동쪽바다 쪽을 향해 마시면 한 해 동안 건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2월 1일 영등날에는 무를 먹지 않고 제물로 사용하는 찌게에 넣는다.

11. 한식날

한식(寒食)은 글자 뜻 그대로 찬밥 먹는 날로 알려져 있다. 동지 후 105일 만에 이 날이 드는데 대부분 가정에서는 조상의 산소에 찾아가서 성묘를 한다. 흔히 2월에 들면 "철이 빠르다"고 하고 3월에 들면 "철이 늦다고 한다. 한식날은 귀신도 꼼짝하지 않는다 하여 무덤을 손질하여도 탈이 없다고 한다.

찬밥 먹는 풍속은 중국 진나라 때 충신 개자추가 불에 타 죽은 날이라 하여 불을 금지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때는 양간지풍(襄杆之風)이라 하여 양양과 간성사이에 바람이 심하게 분다. 따라서 불을 잘 못 사용하면 대형산불이 나므로 금화하던 관행이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봄철 산불은 성묘객들이 향촉을 사용하고 성냥불을 끄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한식날의 근본 취지가 산불방지임을 잘 알아야 한다.

12. 삼짇날

음력 3월 3일을 삼짇날 또는 삼질날이라고 한다. 이때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처음 본 나비를 보고 집안에 상고가 날 것을 예측한다. 흰 나비를 먼저 보면 상복을 입게 된다고 한다. 부녀자들은 들판으로 나가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솥뚜껑을 뒤 짚어 놓고 찹쌀가루로 반죽하여 꽃지짐이를 해먹었다.

13. 곡우물먹기

24절기 가운데 여섯째인 곡우날에는 설악산 산중이나 인근 앞산에 가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다. 나무에 흠을 내고 깡통을 매달아 놓으면 수액이 흘

러내려와 차는데 이것을 곡우물이라 한다. 이때 농가에서는 피나무껍질을 벗겨 밧줄도 만들었고 봄에 쓸 나무를 잘라오기도 한다. 여름철에 더위 먹지 말라는 뜻으로 이 날 오색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먹기도 하는데 지금은 잘 하지 않는다.

14. 초파일날

4월에는 석가모니 탄일인 초파일이 들어 있다. 이때는 불교신자들이 신흥사와 인근 사찰을 찾아가서 예불을 올린다. 불교신자들은 누구보다 일찍 절에 가면 좋고, 누가 물어봐도 부정을 탈까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날 하루 동안 세 군데 절을 찾아 예불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고 한다.

15. 갈꺾기

갈꺾기는 지금은 사라져가는 풍속이다. 속초의 농가에서는 소만이 들어있는 4월중에 논의 퇴비로 쓰기 위해 갈을 꺾으러 갔다. 그런데 동네 어른의 명령이 있어야 갈을 꺾는데, 퇴비권장을 위해서 공평하게 소만 전에는 입산을 금하고 소만날 '영갈'이라 하여 갈꺾기를 했다.

16. 질어울리기

음력 3월에서 4월 사이가 되면 도문동 논에서 서로 남의 모를 매어 주는 것을 "질어울린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질레짠다"고 한다. 질은 '두레'와 같은 것으로 두 세 개씩 만들어 모심기를 하는데 요즘은 기계영농을 하면서 이러한 풍습도 사라져 간다.

17. 단오맞이와 약쑥캐기

속초에서는 음력 5월5일 단오날 쑥떡을 해먹는 집이 많고 예전에 단오제사를 지낼 때는 취떡으로도 차사를 올렸다고 한다. 일부 마을에서는 그네를 뛰고 씨름도 하고 논다. 단오날 아침에 말을 하지 않고 약쑥을 입으로 뜯어야 약효가 좋다고 한다. 또한 이슬이 맺혀야 좋다고 하는데 여름철 배탈이 날 때 다려 먹으면 효과를 본다고 농촌에서는 주부들이 뜯으러 다닌다.

18. 유두날과 쓰레씻이

음력 6월 15일을 유두(流頭)날이라 하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이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양기를 내포하므로 여기에 머리를 감으면 한 여름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속초에서는 약수터에 가서 속옷을 입고 물을 적시거나 울산바위 밑의 냉정터에 가서 물을 몸으로 받는다. 이렇게 물맞이를 하면 건강하다고 하며 유두를 전후하여 강우량이 많으면 "우두물 지운다"고 하고 유두국수나 부침이를 먹고 고추장을 푼 장떡도 지져먹으면 더위를 피한다고 한다.

유두날 농촌에서는 쓰레씻이를 하는데 이것은 일꾼들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다. 집집이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일꾼들에 잘 해주는데 모내기를 끝내고 하는 행사이므로 봄철에 하거나 이때쯤 한다. 쓰레씻이 같은 성격인 '승백내기' '싱갯상차리기'를 하는데 일꾼들에게 큰 상차림을 차려주는 것을 말한다. 농기구인 쓰레를 씻으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로 '호미씻이'와 유사한 행사다.

19. 복날

복날은 하지 후 셋째 경일을 초복, 둘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 하여 흔히 삼복(三伏)이라 부른다. 이날 '복다림'을 한다고 닭이나 개를 삶아 먹는다. 농가에서는 이때 천둥이 치면 머루다래가 풍작이라고 믿는다. 흔히 복날이 낀 6월을 '썩은달', '액달'이라 하여 이사를 피하고 혼사도 미룬다. 앉은 방석도 옮기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때 더위와 장마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20. 질먹기

질먹기는 호미씻이와 같은 뜻으로 농사에 고생한 사람을 모아서 위로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흔히 "깐깐 5월, 미끈 6월, 어정 7월, 동동 8월"이라고 하는데 7월은 질먹기를 하며 어정거리면서 보낸다는 뜻이다. 질먹는 때는 논김을 다 매고 밭김은 두 벌 매고, 김장무를 심는 때이다.

21. 한가윗날과 백로

음력 8월15일은 추석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한가위라 부른다. 속초는 제

1설, 제2추석, 제3단오라고 명절의 순서를 정한다. 이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햅쌀로 메를 짓고 송편을 만들어 조상의 차례상에 올리고 절하며, 낮에는 산으로 성묘를 나간다. 차례상에는 '치'자 들어간 생선을 올리지 않는데 도치는 싱어, 새치는 이면수라 하여 쓴다. "더도 덜고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도 하고 "오월농부 팔월신선"이라 하듯이 외지에 나갔던 식구들이 모여 단란한 가족애를 느낀다.

도문동에서는 이때 체육대회도 하고 친선놀이를 하면서 마을의 단합을 도모한다. 추석명절 음식으로는 닭요리, 송편, 무와 호박을 섞은 시루떡, 송이국, 토란국, 고지국을 끓여 먹는다. 백로때 서리가 일찍 내리면 흉년이 된다고 믿는다.

22. 배나무골 풍년놀이와 만천광대놀이

추석 무렵 배나무골인 도리원마을에서는 풍년한마당 놀이를 놀았다. 탯줄에 볏단을 묶어 태를 치고 도리깨질, 치질, 풍구질로 타작하는 과정 등을 농악놀이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농사의 풍작을 맞아 농악대와 함께 벼타작을 하면서 풍년가를 부르고 흥겹게 주민들이 하루를 보낸다. 만천마을에서도 농악대 걸립패가 변복을 하고 탈을 쓰고 노는 풍년광대놀이를 했는데 달맞이를 하고나서 놀았다.

23. 성주단지갈기와 문바르기

추석 때 새로 수확한 수댓쌀을 성주단지에 채워 넣는데 찹쌀을 넣는다. 성주단지에 있던 쌀은 2월 초하룻날 떡을 해서 나누어 먹는다. 성주단지를 갈 때는 주부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치성을 올린 다음 아침밥을 먹는다. 옛날식 한옥에서는 창호지 구멍 난 것을 바를 때 7월에 바르면 도둑이 들고 이날 바르면 들지 않는다고도 한다.

24. 중양절 단풍놀이

음력 9월 9일을 중구일 또는 중양절이라 한다. 이 날은 강남에서 왔던 제비가 돌아가고 기러기가 찾아온다. 부녀자들은 산과 들로 나가 국화꽃잎을 따서 찹쌀가루로 전을 지져 먹는데 국화주를 담가 설악산으로 단풍놀이 많이 간다. 이 날에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좋다고 집안 가족이나 계모임에서 산에 소풍을 간다. 청학동에서는 이때 서낭제사를 지내고 '9월맞이'라 하여

액이 든 사람은 무당에게 찾아가 이름을 걸고 정성껏 빌어줄 것을 청한다. 이날 차사를 올리는 집도 있었는데 감떡을 올렸다고 한다.

25. 상달 고사

10월을 '상달'이라하는데 가정에서는 고사를 올린다. 이것을 '안택고사'라 하는데 성주신은 안방, 조왕신은 부엌, 토지신은 뒤뜰장독대에서 지낸다. 제물은 뒤뜰에 백설기, 붉은 시루떡을 차리고 안방은 팥시루떡, 부엌에는 메만 한 그릇 올린다. 고성군에서 시집온 여성의 집안 가운데 군웅신을 모시는 집안에서는 마굿간에 제물을 차려놓고 가축의 무병을 빈다. 외옹치 서낭당에서는 10월 초에 택일하여 제사를 지내고 3년마다 굿을 한다. 10월 1일 날씨가 따뜻하면 겨울이 대체로 따뜻하다고 일기를 점친다.

26. 설악문화제

신라시대 이래 오랜 산악제의 유풍을 지녀온 설악제는 현재 설악문화제로 불리면서 종합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1966년 설악제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등반대회를 했으며 1976년 10월 7일 제9회 설악제부터 산신제를 독립시켜 제사를 지냈다. 요즘은 10월 단풍절정기로 정하여 전야제 제등행렬을 비롯하여 각종제례와 갯배 끌기 등 다양한 행사를 치루고 있다.

27. 송개틀기

가을철 벼베기를 마치고 10월에 택일하여 '송개틀기'를 했다. 이것을 '속갱이하는 날'이라고도 하는데 '송개튼다'며 소나무 솔잎 검불을 긁으러 간다. "나무가 묵어서 썩는 집은 쌀도 남아 썩는다"고 할 정도로 송개를 많이 하면 겨울연료걱정을 덜었다. "검불 밑이 썩으면 좋다"고 하여 새로 해 온 '송개'를 위에다 쌓는데 송개를 솔갈비, 소갈비라고도 부른다.

28. 김장하기

김장을 반양식이라 한다. 하장동저(夏醬冬菹)라 하여 우리민족은 여름에는 장을 담그고 겨울에는 김치를 담그는 것이 음식세시풍속이다. "김장은 땅에 묻어야 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속초는 명태나 오징어 등의 해산물을 넣어 시원하게 만든 것이 별미다. 한국의 김치가 우리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성

을 갖는 것처럼 속초의 김치도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있다고 하겠다.

29. 동짓날과 팥죽

동지를 '작은설'이라 한다. 동지는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데 집집마다 팥죽을 쑤어서 먹는다. 팥죽에는 '옹생이', '옹심이'라 하여 새알심을 넣는데 나이 수대로 넣기도 한다. 동지가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 하여 팥죽을 쑤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나쁘고 그 해 농사가 잘 안된다고 한다. 중동지나 노동지인 보름이후에 들면 팥죽을 쑨다. 속초에 전하는 말로 "동짓날 팥죽 아홉 그릇 먹고 검불 아홉 짐 지고 와야 좋다"고 한다. 동짓날 팥죽이 일찍 쉬면 다음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속초에서는 함경도 출신이 많아 '오구랑 팥죽'이라고도 말한다.

30. 용갈이

용갈이는 한자로 용경(龍耕)이라 한다. 청초호가 얼게 되면 그것을 보고 새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이다. 청초호는 바다와 연결되어 호수 밑에 사는 용이 논두렁처럼 얼음을 갈아 놓은 것을 보고 물의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용이 얼음을 남쪽으로 갈아 놓거나 복판만 갈면 이듬해는 풍년, 북으로 엇갈거나 옆을 갈면 흉년, 좌우로 마구 갈면 평년작이라고 점친다.

용경을 청호동 주민들이 점을 치는데, 영랑호와 청초호에는 암룡과 숫룡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러한 용경풍속은 조선시대 읍지나 『동국세시기』 등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청호동 주민들은 용이 밭을 가는 동지 무렵이면 소들이 진땀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증언한다.

31. 윤달

윤달은 '남은달' 또는 '남의달', '공달'이라 부른다. 윤달은 4년마다 드는데 농가에서는 5~6월에 들면 좋다고 하고 하지나 섣달, 정월달에 드는 것은 싫어한다. 흔히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하여 재액이 없는 달, 손 없는 달로 친다. 수의를 만들고 화장실을 수리하고 산소를 옮기는 이장을 하거나 비석도 세우고 묘소도 손을 본다.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지난 윤달에 만든 수의를 윤달이 다시 오면 꺼내서 살펴본 후 다시 넣어 보관한다.

[조사사례 1]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 조사일자 : 2001년 7월 14일

◈ 조사자 : 장정룡 (강릉대 교수)

◈ 제보자 : 백회손(여.70), 김복순(여.82), 추진녀(여.86) 이갑년(여.78), 이월계(여.81), 박인학(남.75)

◈ 마을개관 : 청초호를 끼고 있어 반은 호수에 떠있는 것 같다 하여 반부들이라고 하던 것이 반부득으로 변하고 한자로 써서 반부평이라고 하였다. 수복 이후 1954년 11월 법률350호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피난민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리 5구가 되었다가, 1966년 동제 실시로 청초호를 끼고 있어 청호동으로 바뀌었다. 청호동에는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이 많아 함경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아바이마을이라고도 한다. 청호동은 현재 6,000여명 2,000여 세대가 있다. 청호동 주민들의 삶은 청초호와 관련성이 높다. 청초호는 영랑호와 마찬가지로 석호로서 바다와 격리되어 있는데, 우기에는 석호의 수위가 높아지고, 좁은 수로를 통해 물이 바다로 유출된다. 파랑이 세지면 모래가 대량 운반되어 석호의 수로가 막히고 바닷물이 유입된다. 따라서 염분농도가 담수호에 비해 높고 해수보다는 낮다. 1998년 마을을 가로지르는 청초호 신수로 개발과 국제관광엑스포가 개최되면서 행정구역이 인근 조양동과 합쳐졌다. 따라서 함경도 주민들로 구성된 난민취락의 모습도 부득이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앙동과 청호동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 곳을 갯배 나루라 하고, 청호동 앞 바다에 있는 섬은 조도(鳥島)라고 한다. 새섬이라는 뜻이다. 한때 용초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헐리고 조그마한 등대만 있다. 가장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다.

[1월]

1. 정초

차례 설날 아침 차례를 올리고, 자손들이 와 세배를 하고 음식을 먹고 종일 즐기며 논다. 떡은 이북식으로 큼지막하다. 송편은 빚으나 찰떡은 하지 않는다. 모른다. 만두국, 떡국떡을 집어넣은 만두국, 밥 등 집안마다 제 각각으로 초하룻날 차례상을 차린다. 만두 속은 대부분 소고기로 만든다. 차례상에 올리는 제물 중 어물은 문어, 명태, 가재미, 놀래미, 열갱이, 이면수 등을 쓴다. 꽁치, 도치 등 치자로 끝나는 고기는 쓰지 못하나 새치는 이면수라

고 불리기도 하기에 쓸 수 있다. 그러나 속초 원주민은 도치(싱어)를 꼭 차례나 제사상에 쓴다.

복조리 이북에서는 그런 풍속을 모른다. 속초에는 있다. 예전에 '복조리 사려' 하고 그믐에 복조리를 팔러 오면 사서 불같이 활활 일어나라고 해서 성냥도 넣고 명을 길게 하라는 뜻으로 실도 넣어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문에 걸어놓는다.

안택 보통 택일하여 정월 보름 밑에 한다. 팥시루, 백설기도 하고. 어물, 주과포를 장만하여 비는 이를 데려다가 지낸다. 3~5일전부터 새끼줄에 솔가지도 달아매 금줄도 치고, 진흙으로 대문 곳곳에 소복히 담아놓아 부정한 외인의 출입을 금한다. 3년에 한번씩 돼지도 잡을 만큼 성대히 치루었다고 한다.

상사일(上巳日) 정월 들어 첫 번째 드는 뱀날을 상사일이라고 하는데, 이날에는 출어를 하지 않는다. 이날을 특별히 꺼리는 이유는 배가 출어 하면 뱀처럼 미끄러져 전복된다고 하는데, 뱀의 표피가 미끄러운 것을 연상한 풍속이다.

연날리기 정초부터 대보름날까지 바다 쪽을 향해 연을 날린다. 참나무 껍질로 손바닥 만하게 배를 만들어 띄우고 거기에 연줄을 묶는다. 이렇게 참연이나 가오리연을 만들어 바다에 띄우다가 연밑에 쑥을 묶어서 불을 붙이면 연줄이 끊겨 하늘로 난다. 이것은 자신의 액을 멀리 보내는 것이라 하여 보름이 지나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라고 놀린다.

허재비 일년 신수를 보아 무엇이 나쁘다고 하면 허재비를 만든다. 보통 비는 이(무당, 점장이)들이 다 만들어 온다. 사람 형상으로 크기는 30㎝이고 속에 한지에 이름을 써넣고 액을 떼어 달라고 뭐라 방법을 한 후에 삼거리에 가 불 태운다. 원래 속초풍속으로는 삼거리에 버린다.

2. 대보름

더위팔기(14일) 여름날 아침에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 후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라'고 한다. 그러면 한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한다.

등심한다(14일) 북한 풍속으로 14일날 등심한다고 명태를 쪄 가지고 명태를 뜯어먹는다. 등심이란 머슴이 등에 힘을 받아야 일을 잘한다는 뜻이다.

김치 안먹기(14일) 여름날 김치를 먹으면 몸에 쐐기가 쏜다고 김치를 안 먹는다.

귀밝이술(14일, 15일) 북한 출신들과 속초주민들 가운데 14일 먹는 집도

있고, 15일 먹는 집도 있다.

오곡밥 14일 저녁에 오곡밥을 만든다. 조, 콩, 수수, 기장, 찹쌀 등을 집어넣고 만든다.

부럼 대보름날 아침 호도, 땅콩, 밤 등으로 부럼 깨문다고 서너 번 외친다. 그러면 일 년 열두 달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매운 것 안먹기(15일) 대보름날 매운 것, 짠 것을 먹지 않는다.

대보름 제사(15일) 속초 주민은 예전에 오곡밥을 해서 대보름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봉숭이밥싸기 대보름날 저녁에 용왕제를 지낸다. 밥과 나물을 장만하여 간소하게 지낸다. 자기의 나이 수대로 약밥을 한지에 싸 '봉숭이밥 싼다'고 하여 바다에 버린다. 어부시(魚鳧施)의 일종이다. 그 외 개인이 치성 드리는 것과는 달리 어촌계가 주관해 3년마다 용왕굿을 한다.

귀신날(16일) 이날은 귀신에게 홀린다고 출어를 하지 않는다.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거나 쉰다. 머리카락, 고추씨 등 냄새나는 물건을 태워 잡귀를 막는다고 한다. 신발을 엎어놓아 귀신이 발을 맞추어 보지 못하게도 한다.

[2월]

영등행사 2월 초하루를 '영동날'이라고도 한다. 영동할머니가 내려온다고 한다. 바람이 불면 바람영동으로 딸을 데리고 오고, 비가 오면 물영등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한다. 물영동이면 해사가 걸고 풍년이나, 바람영동이면 출어 하지 않는다. 팥시루떡. 무왁찌기, 무나물 등을 장만하여 부엌(조왕)에서 모신다. 15일날 영동 할머니가 올라간다고 하고 20일이 되어야 완전히 올라간다고 한다. 15일날 올라가는 날도 간단히 제를 올린다. 2일에서 14일까지 매일 물을 떠놓고 빌고 금줄을 치지는 않는다. 정초에 고기든 미역이든 쌀이든 일단 집에 들어오면 부엌에 하나씩 걸어 넣고 영등할머니 올라가는 날 그 것들을 가지고 고기는 찌고, 쌀은 밥을 해서 제를 올린다. 이북에는 없는 풍속이다.

[3월]

한식날 북한 출신들은 이날 차례를 올린다. 밥, 탕, 육고기, 어물을 갖추어 산에 간다.

[5월]

단오 이북에서는 쑥떡이나 취떡도 해먹고, 창포뿌리를 삶아 머리도 감고, 며칠 그네도 뛰면서 엄청 크게 쇤다. 단오제사도 산소에 가서 지낸다. 속초에서는 없는 풍속이다. 창포뿌리를 삶아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지고 비듬도 안 낀다고 한다.

약쑥 단옷날 아침 일찍 이슬 맞은 것을 뜯어 말려 놓았다가 속이 아프면 삶아 그물을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6월]

유두 속초 주민들은 이날 적(부치개)을 부치는데, 적에 맨드라미도 박고, 꽃 같은 것들, 즉 백일홍도 집어넣어 부쳐 먹는다. 일꾼을 두었을 경우 유두상 잘 차려서 산에 넓은데 가서 텐트 쳐 놓고 먹고 논다.

봉숭아물 손톱들이기 봉숭아를 찌어 가지고 백반에 섞어 손톱에다 대어놓고 하루 자고 나면 손톱이 빨게 진다. 지금 봉숭아로 물들이면 저승길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 생겨나 물들이지는 않는다. 이북 분들 사이에는 물들이면 수술도 못한다고 해서 겁나서 물을 못 들인다는 말도 한다.

[8월]

추석 이 날 송편을 빚는데 월남한 북한출신 주민들은 만두처럼 반달모양으로 빚는다. 속초주민들은 그냥 동그랗게 손자국 내면서 빚는다. 송편 속에는 팥, 밤, 깨, 강낭콩, 대추 등 농사지은 것은 모두 사용한다. 송편을 빚어 차례 상에 올린다.

[9 · 10월]

시제 북한 출신들은 시제를 올리고 싶어도 조상이 북에 있기 때문에 못 올린다. 속초토착주민들은 9~10월에 떡과 제물을 장만하여 산소에 가서 제를 올린다.

[11월]

동지 이날 팥을 삶아서 팥죽을 쑨다. 이북에서는 팥죽제사를 올린다. 특히

이북에서는 옹샘이를 오그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올리는 제사를 오그랑 팥죽제사라 한다. 오그랑은 새알 크기로 찹쌀을 빻아 가지고 만든다.

팥죽뿌리기 팥죽을 쑤어 처음 것을 떠가지고 액을 물리치고 잡귀도 물리친다며 바깥에 뿌린 후에 팥죽을 먹는다.

[12월]

만둣국제사 이북에서는 만두국 그믐제사를 지냈지만 이남으로 내려와서 안 올린다.

[윤달]

윤달 모든 일에 잡귀가 없다. 그래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친다. 대문 등도 손본다. 수의장만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연중]

성황제 봄, 가을 택일을 하여 두 번을 한다. 어촌계에서 주관한다. 일종의 풍어제다. 할아버지 성황, 할머니 성황, 두 분을 다 모신다. 전에는 소를 잡았다. 지금은 소머리와 사족을 가지고 소의 형상을 은유해 지낸다. 제관은 생기 복덕이 맞는 분들로 선정하여 도관, 부도관 등 총 세 명이 지낸다. 예전에 성황굿은 3년에 한 번씩 했으나 지금은 3~5년 만에 한 번씩 한다.

뱃고사 예전에는 매월 음력 보름에 뱃고사를 올렸으나 요즘은 몇 달에 한 번씩 올린다. 일반제사처럼. 문어, 명태, 돼지고기, 포, 실과, 밥, 떡 등을 장만하여 배에서 직접 선주, 선장, 선원들이 같이 올린다. 배성주 모신 곳 아래에서 제를 올린다. 초지를 올리고 실타래 놓고 명태는 실타래해서 놓고, 배 뒷머리에서도 올리고, 물론 촛불도 밝힌다. 소지도 올리고, 짚을 고해서 짚단에 불 붙여서 바다에 던져 액을 물에 띄워 보낸다. 밥을 몇 숟가락씩 떠서 바가지에 담아 물에 뿌리고, 저녁에 시간에 맞추어 지낸다. 바쁠 때는 배가 입항해서 고기를 다 뿌리고 나서 고사를 지낸 후 식사를 한다. 출항할 때는 안 지낸다. 배성주는 수지에 싸 가지고 선장실, 즉 조타실에 모신다.

[조사사례 2]속초시 대포동 외옹치 마을

◈ 조사일자 : 2001년 7월 21일
◈ 조사자 : 장정룡 (강릉대 교수)
◈ 제보자 : 최춘집(여.71), 김상옥(여.71), 김병국(남.67), 김옥순(여.64), 서원순(여.94)

◈ 마을개관 : 새마을과 대포 사이에 있는 바닷가쪽 마을로 밧독재라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옹진리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옹치리로 바뀌었고, 1966년 동제 실시 때 대포동에 포함되었다. 외옹치항은 대포항에서 북쪽으로 1.5㎞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으며, 1980년대 개발된 소규모의 항구로 활어판매장이 있고 가리비 생산항이다. 속초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관광휴양지로, 해맞이 장소로, 해양박물관 건립 등 관광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항구다. 외옹치 새마을 쪽에서 대포고개로 빠지는 길목 일대는 기른네비라 하며, 외옹치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큰 바위는 덕이 있게 생겼다고 해서 덕대바위, 또는 덕대암이라고 한다. 현재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 곳은 조선시대 덕산봉수가 있었던 터라하여 봉수터, 봉화터라 불린다. 또는 설악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 주봉산, 청대산을 거쳐 이곳에서 끝난다고 하여 봉끝이라고도 한다. 마을입구에 장승이 서 있는데 원래는 외옹치 구도로 바닷가에 있었다. 84년 수해 나며 신도로 가에 세워놓았다가 96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신도로 입구에 장승을 세웠다. 그전 장승은 소나무 베어 만들었는데 썩어서 태워버리고 최근에 다시 만들었다. 마을주민은 90세대로 250명 정도로 15년 전에는 바닷가 쪽에 집이 있었으나 84년 수해에 도로 안쪽으로 이주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명절은 추석, 대보름, 설이다.

[1월]

1. 정초

설날 차례 설날 아침에는 밥으로 차례를 올린다. 떡국은 안올린다. 차례 후 세배를 하고 성묘를 갔다 온 후 윷놀이도 하고 논다.

복조리 정초에 대나무로 복조리를 만드는데, 지금은 만들지 않고 속초 장에 가 사온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문 위에 걸어놓는다. 실과 성냥은 집어넣지 않는다.

2. 대보름

더위팔기(14일) 여름날(14일) 아침에 아무개야 하고 부른 후 대답하면 '내 더위 사라'고 한다. 그러면 일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눈썹 희게칠하기 여름날(14일)에서 보름날 사이의 밤에 잠을 자면 눈썹 희게 센다고 한다. 잠을 자면 괜히 밀가루를 바르고 장난을 치는데, 이는 대보름 제사를 보게 하려고 잠을 안 재우던 풍속에서 기인한다.

오곡밥, 오곡밥제사 오곡밥은 14일에 오곡 이상을 넣어 만들어 대보름날 아침에 그 밥으로 제사 지낸 후 그 밥으로 식사를 한다.

김치 안 먹기(15일) 대보름날 김치 안 먹는다. 농사짓는 이들은 쐐기가 쏘지 말라고 안 먹는다.

나물먹기(15일) 대보름날 콩나물, 무나물, 고사리, 괴비(고비) 등을 볶아 먹는다. 이날 나물을 많이 먹어야 좋다고 한다.

지신밟기 대보름 때 장구도 치면서 마을을 돌면서 지신도 밟아주고 걸립도 했다. 걸립 한 것은 한 군데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다. 지금은 없어진 풍속이다.

액맥이 정초에 신수를 보아 삼재 들거나 수액이 안 좋은 이들은 액맥이를 한다. '대보름날 저 바다에서 달이 올라올 때 달맞이(맥이)를 한 후, 동서남북으로 절 세 번씩 하면 속적삼을 갖다가 태우고, 잡곡, 잡밥을 했던 것을 가지고 장승한테 가서 '차를 몰고 다니니 사고 없이 다니게 해주세요'하고 빈다.

귀신날(16일) 신발을 엎어놓아 귀신이 발을 맞추어 보지 못하게도 한다. 성황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고, 장승에다가 비는 사람도 있다.

[2월]

영등행사 음력 2월 초하루에 영등할머니가 내려온다고 한다.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물영등이 좋다. 마을에서 거의 이날 제를 올리지는 않으나, 지금도 80살 넘으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영등제를 올린다. 팥밥을 해놓고 된장에 무를 넣어 왁찌기처럼 끓여 가지고 술 한 잔 부어 뒤안 바깥에 내어놓고 절을 한다. 15일날 영등할머니가 올라간다는 날에도 똑같이 팥밥을 하고, 왁찌기를 해서 제를 올린다. 2일에서 14일 사이에도 정화수를 바친다.

[5월]

그네뛰기, 창포로 머리감기 단오에 별다른 행사는 없었으나 동네 어귀에 그네를 매어 뛰기는 했다. 그러나 창포뿌리로 머리를 감거나 궁갱이를 머리에 붙들어 맨 후 거리를 다니곤 했다.

약쑥 단옷날 새벽에 일찍 나가 이슬 먹은 약쑥을 뜯어 말려 놓았다가 속이 아프거나 팔다리가 저릴 때 쑥을 쪄 그 물을 마시거나 뜸을 뜨거나 한다.

[6월]

삼복 복 때림 옛날 복날에 닭을 사 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삼복 모두 닭 국 끓여먹는다.

[8월]

추석 아침에 차례를 올리고 햇곡으로 밥과 떡과 송편을 한다. 송편 속에는 콩, 팥 등을 넣는다.

[9월]

성황굿 성황제와 달리 4년 만에 동네 대동굿을 하는데 최근엔 2000년 9월 9일에 굿했다. 이날 성황굿 하는 날엔 부정굿을 한 후 성황문을 열어놓고 한 식 굿을 한 후 무당이 옷을 입고 골멕이(장승) 성황 모시러 가 모셔온 후 한 당을 만들어 화해동참을 시켜 놓고 합동굿을 한 후, 굿이 끝나면 폐상할 것을 한 함지 만들어, 용왕제 지내러 내려 갈 적에는 축항까지 끼고 내려간다. 용왕제 지낼 사람들은 이미 축항에다 개인 것을 쭉 차려놓는다. 용왕굿 한 식씩 하고 난 후 무당들이 굿하고 난 다음 나쁜 사람들은 공수를 집어주고 상 모두 차려놓은 것은 상마다 앉아서 빌고 소지를 올리고 빌어 주고 난 후 함지에 담아간 것은 뒷풀이를 하여 바다에 버린다.

[11월]

동지 팥죽제사 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는데 찹쌀로 옹심이를 만들어 가지고 조상에 한 그릇 떠서 올린 후 먹는다.

팥죽 뿌리기 동지날 팥 삶은 물을 화장실과 네 기둥에 뿌리면 좋다고 한

다. 또 동지가 아니어도 새로 나무를 들여와 기둥을 세워도 팥죽을 만들어 뿌린다

[12월]

만두제사 그믐날에 만두를 빚어 저녁에 만두제사를 올리는 집도 있으나 대부분 하지 않는다. 만두 속에는 두부, 김치, 소고기 등을 집어넣는다.

[윤달]

집 수선 윤달에는 만사가 무해하다며 무엇을 해도 괜찮다. 집도 고치고 이장도 하고 여러 것을 한다.

[연중]

성황제 성황제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치성을 드린다. 옛날에는 택일해서 제관들 생기도 맞추어 지냈는데 예전 어른들이 날짜를 고정시키고 돌아가셨다. 제관은 4명 내외이다. 제관들만 제사에 참석한다. 지금은 간소하게 한다. 외옹치산에 올라 성황제를 자정쯤에 시작해 장승까지 제를 올리면 2시쯤 되어야 끝난다. 떡시루는 세 개를 찌는데, 백설기는 칠성시루이고, 성황시루와 성주시루는 붉은 시루다. 밥, 어물, 삼실과, 나물, 소머리 등을 장만하고, 제주는 막걸리를 쓴다. 실지로는 성황은 말이다. 그래서 소를 바치더라도 말머리 바친다고 말한다. 그전에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올렸는데, 지금은 머리와 사족, 꼬리만 올린다. 장승제는 주과포만 가지고 간단하게 올린다. 이때 창호지를 실로 장승에 맨다. 장승은 길대장군이라 한다. 천하장군, 지하장군 두 분 장승이 있다. 차 몰고 다니는 분들 아무 탈이 없으라는 의미에서 제를 올린다. 제가 끝난 후 제관이 그 자리에서 조금 먹은 후에 차린 제물은 동네 분들이 먹으라고 따로 차려 놓는다.

안택고사 택일해서 3월이나 10월에 붉은 시루떡을 하고 명태나 가자미, 문어, 열기, 대구 등 적당히 몇 개를 찌고 나물을 장만하여 제를 올린다. 며칠 전부터 금줄을 친다. 송침(솔잎)을 금줄 사이에 집어넣는다. 지금 진흙은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진흙도 대문 앞에 뿌려놓았다.

텃고사 텃고사는 가을에 택일하여 성주를 모신다. 성주는 종이를 실로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거나 벽에 붙여놓는다. 텃고사 순서는 성황 전에 먼저 올리고, 다음 성황 문 열고 집에 와 차고사(장승) 올리고, 용왕님께 빌고 방

에 들어가 성주에게 빌었는데, 지금은 성황, 차고사(장승) 성주, 용왕 순으로 올린다. 배가 있는 집은 두 번째로 차 대신에 배로 간다.

군웅장군 예전에 군웅장군 모신 집도 있었다. 소귀신도 있는 집이 있었다. 군웅이 탈이 나면 소가 병이 든다. 그러면 구융에다 밥을 지어놓고 군웅을 달랜다.

[조사사례 3]속초시 도문동 상도문마을

◈ 조사일자 : 2001년 7월 28일

◈ 조사자 : 장정룡 (강릉대 교수)

◈ 제보자 : 김정수(여.74), 오대환(남.72), 유순덕(여.76), 이상녀(여.64), 최영철(남.74)

◈ 마을개관 : 조선시대에는 도문면(道門面)으로 그 관할 하에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문은 마을이름이자 면 이름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6년 동제를 실시한 후 상, 중, 하도문리가 합해져 도문동이 되었다. 도문이란 이름의 유래는 신라 때 원효와 의상대사가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숲속에서 맑은 소리가 들린 후 홀연히 무상무아의 불법을 깨달았다. 도통의 문이 열린 공이라고해서 도문리라 이름하였다. 그 외 여러 전설이 전한다. 상도문리는 풍수지리적으로 행주형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마을 뒤편에 있는 골짜기는 배의 돛대에 해당하는 형국이므로 돛대골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소태골이 되었다고 한다. 또 그물을 드는 형국이어서 그망골, 거망동이라고도 불린다. 마을 서북쪽 척산리와의 경계에 해발 388m의 봉황의 형국이 주봉산이다. 마을 남쪽 앞 소나무 숲에 육각으로 된 정자가 있다. 원래 학무정이나 육각으로 되었다고 하여 육모정이라 부른다. 속초8경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또 마을은 돌담으로 집들의 경계를 한 것이 특색인데,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가옥들이 많다. 상두계, 상포계, 혼인계 등이 아직도 있다. 상여를 보관한 곳집도 있다. 도천메나리와 같은 소리도 있어 지금도 부르는 분이 있다. 주생업은 농사이나 계절적으로 민박과 상업도 같이 한다. 마을은 7번 국도에서 물치에서 설악산으로 들어가면 설악산 입장료 받는 입구 못미처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1월]

1. 정초

차례 설날 아침에 차례를 올린다. 만두떡국이나, 떡국이나, 밥으로 차례를 올린다. 만두 속에는 잡채, 돼지고기 등이 들어간다. 절떡, 찰떡, 기정떡도 져 제사를 올린 후 먹는다. 차례 상에 올릴 때 절떡 위에 찰떡, 찰떡 위에 기정떡 순서로 올린다. 생선은 명태 위에 가재미, 그 위에 문어를 올린다. 송편도 빚어 올리는데 송편 속에는 콩, 설탕에 깨를 섞어서 만든다.

기정떡 만들기 쌀 갈아다가 막걸리 넣고 식기에다가 밥 좀 넣어서 막걸리 좀 넣어서 밥솥에다가 놓으면 보글보글 끓는다. 그러면 쌀가리에다가 그걸 넣어 풀어 가지고 동이에 담아서 덮어놓으면 수북하게 올라온다. 돌버섯(석이버섯)도 가늘게 썰어 그릇 모양으로 넣고, 빨간 맨드래미도 찢어서 집어넣어 모양을 낸 후에, 그 위에다가 참깨를 뿌리면 기정떡이 만들어진다. 떡 중에는 최고로 간주하여 떡을 여러 겹 쌓을 때는 맨 위에 올라간다.

과줄 만들기 찹쌀을 빻아와 아주 오래도록 담궈 놓고 물에서 뿌걱뿌걱 거품이 나와 쉬도록 한 후, 씻어서 갈아다가 반죽을 해서 쪄서 담텡이다 대고 찧어 가지고 여기다가 (칼국수 밀어먹는)상을 펼쳐놓고 거기 위에다가 감자가루 쭉 펼쳐놓고 그것을 펴서 바싹 말려서 고걸 싹 갈퀴로 싹 쓸어 가지고, 막걸리나 소주를 부어 요롱요롱 한 후, 솔잎을 따서 솔잎 한 적지에 그것 하나씩 놓으면 촐촐하게 땡땡해진다. 기름에 튀길 때는 솔잎을 하나하나 뜯어내면 솔잎이 일어난다. 강밥 튀기는 데서 통쌀을 깨어 달라고 하면 깨어준다. 으깨어진 통쌀을 가지고 와 거기에 무치면 과줄이 된다.

복조리달기 정초가 되면 복조리를 만들어 거는데 두 개를 만들어 하나로 묶어 건다. 집이 활활 일어나라고 성냥을 넣고, 또 오래도록 살라고 실을 복조리에 넣는다.

윷놀이 정초에 싸리나무를 쪼개어 윷을 만들었다. 주로 밤윷을 만들어 대보름 무렵까지 마을주민들이 잘 논다.

지신밟기 20년 전 까지 마을농악 있어서 지신도 더러 밟았다. 마루에다가 쌀 한 말 담고 실도 한 태 놓고 술한 상 봐 놓으면 농악패들이 마당에서 지신을 밟은 후 술 한 잔 먹은 후에 가지고 간다.

연날리기 정초에 아이들은 가오리연. 참연 등을 만들어 연을 날렸다.

2. 대보름

소밥주기(14일) 14일날 소에게 밥과 나물 등을 주고, 소가 나물을 먼저 먹으면 풍년 든다고 한다. 나물은 산마루이나 고비를 준다.

더위팔기(14일) 여름날(14일) 아침에 아무개야 하고 부른 후 대답하면 '내 더위 사라'고 한다. 그러면 일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오곡밥(14일) 14일에 팥, 찹쌀, 멥쌀, 차좁쌀 등을 넣어 오곡밥을 한다.

눈썹 희게칠하기 여름날(14일)에서 보름날 사이의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신다'고 한다. 잠을 자면 괜히 밀가루를 바르고 장난을 치는데, 이는 대보름 제사를 보게 하려고 잠을 안 재우던 풍속에서 기인한다.

부럼 깨물기 대보름날에 아침에 아침밥 먹기 전에 부스럼 나지 말라고 볶은 콩이나 땅콩이나 호도, 투자 등으로 '부럼을 깨문다'하고 말하고 소리가 나게 깨문다.

대보름제사 대보름 아침에 오곡밥이 아닌 찰밥을 쪄서 차례를 올린다.

복쌈 대보름날 곰취를 삶아서 잡곡밥에다 쌈 싸먹으면 농사지을 때 몸에 쐐기가 안 쏘고 좋다고 한다. 김치를 먹으면 쐐기가 쏜다고 한다.

찬물 안 먹기 대보름날 찬 물을 먹으면 열 넌 열두 달 중에 소낙비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이날 찬 물을 먹지 않는다.

귀밝이술 정초에 귀밝이술로 막걸리를 담가서 청주를 떠놓았다가 대보름날 그것을 귀밝이술이라고 먹는다.

오곡밥 얻어먹기 대보름날 오곡밥을 얻어먹으면 좋다고 해서 남의 집으로 오곡밥을 얻어먹으러 돌아다니다. 보통 아이들이 단체로 몰려다니며 얻어와 한곳에서 섞어 먹는다.

팔랑개비 만들기 대보름날 종이와 수꾸뎅이(수수깡)를 가지고 팔랑개비를 만들어 돌리고 담 벽(돌담) 사이에 꼽아 놓기도 했다. 수수껍질로 조 형상을 만들어 집 앞에 걸기도 했다.

새 쫓기 대보름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를 쫓으며 '훠이훠위 내 논에 앉지 말고 저 강릉 이통천네집으로 다 가거라.'고 한다. 일년 열두달 중 혹 감기에 걸려도 '훠이훠이 저 강릉 이통천네집으로 다 가거라.'고 한다.

불쏘시개점 대보름날 밥 찔 적에는 부뚜막에다가 싸리깨 나무를 떼어야 하는데, 부뚜막에 열두 달을 상징하는 불쏘시개를 쪽 집어 내놓는데 뽀얗게 사그러지는 달은 가문다고 하고, 꺼멓게 사그러지는 달은 장마진다고 한다.

아홉번 행동하기 대보름날까지 여자들은 사뭇 열나흘 날은 밥을 아홉 그릇 먹고 삼을 아홉 광주리 삼으라고 하고, 남자들은 밥을 아홉 그릇 먹고 나

무를 아홉 짐 하라고 한다.

달맞이, 망우리 돌리기 처음 뜨는 대보름달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고 해서 달맞이를 했다. 또 망우리를 돌린다고 짚을 엮어 돌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깡통에다가 한다.

어부식 보름날 아침에 식구대로 나이 수대로 밥을 뜬다. 예를 들어, 13살이면 큰 거 하나 뜨면서 열이라고 한 후 다음 것은 열하나, 이런 식으로 13살을 뜬다, 하얀 백지에다가 약봉지처럼 싸 가지고 아무 살짜리 아무개 어부식이라고 써서, 보름달 올라오는 쪽으로 향해서 물에다가 던지면서 입으로 '어부식 한다, 어부식 한다'고 외치면서 던진다.

귀신날(16일) 이날 귀신날이라고 해서 여자들은 안 나가 다녔다. 엄나무 찍어다가 처마 밑에 달아매고, 마당에 쑥 같은 걸 태우거나 귀신불을 해놓았다.

[2월]

영등행사 초하룻날은 어디에서 음식이 들어와도 뒤란에다가 내어놓고 난 후 먹는다. 이날은 밥, 명태찌개, 꿀단지, 수저도 식구 수대로 꽂아놓고 뒤란에서 빈다. 물영등이 바람영등보다 좋다. 2월 보름에 영등할머니가 올라간다고 한다. 내려올 때처럼 밥 해 놓고 식구 수대로 수저를 꽂아놓고 빈다. 시루떡은 아니하나 팥 삶아 팥쥐어미 떡을 해먹는다. 팥을 꼭꼭 지어서 만든 떡이다.

장담그기 2월 1일이나 3월 3일날 담근다. 지금은 정월도 막 담근다. 장 단지에다가 왼새끼 꼬아서 금줄을 친다. 숯댕이를 간장물에 담그고 한 달 지나가면 간장 때릴 때 금줄도 풀고 숯검댕이도 건져낸다. 말날(午日) 담그면 좋다고 하고, 신일(辛日)에 담그면 장이 시어진다고 이날을 피한다.

[3월]

산치성 3월 3일, 9월 9일날 두 번 산치성을 피골 안에 함지박골로 간다. 나무아래 바위에다가 제물 차려놓고, 산신님이 좀 잘되게 해달라고 빈다. 매년 같은 바위 찾아간다. 4월 초파일날 가는 분들도 더러 있다.

한식 예전에 한식날에는 송편을 단단하게 빚어 제사를 지냈다. 이북사람은 지금도 제사를 지낸다.

[5월]

단오 마을에서 그네를 만들어 그네도 뛰고, 또 취나물을 뜯어서 취떡도 만들고, 제사도 지냈다. 지금은 없어진 풍속이다.

약쑥 아침 일찍 이슬을 머금은 약쑥을 베어 막걸리를 푸우하고 부은 후 응달에서 잘 말려놓으면 약이 된다. 배가 아플 때 효험이 있다.

창포 머리감기 창포뿌리를 베어 삶아 머리를 감는다. 옛날엔 머리를 기르니 머리끝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미드미 먹는다'고 한다. 창포뿌리를 파다가 머리 감으면 미드미가 안 먹는다고 한다.

[6월]

유두상 유두날 냇물에 머리를 감았다. 집에서 일꾼 두고 농사지을 때 이들에게 유두상을 잘 차려주었으며 적도 지져 먹었다.

노래기 없애기 삼복날 세 번에 걸쳐 한다. 부엌의 재를 가지고 삼복(초복, 중복, 말복)에 세 번을 '노내각시 분 받아라, 노내각시 분 받아라' 하고 말하면서 뿌리고 다니면 없어진다고 한다.

질 짜기 모 심을 때 질을 짠다. 보통 12집 정도다. 질이 끝나면 한 집에다가 크게 차린 후 잘 먹고 논다. 전도 지지고 막걸리도 먹고 잘 논다.

복날 김 한창 맬 때 논두렁에다가(중복 무렵에) 감자적을 논두렁에서 지져 먹는다. 기름내를 풍기어 병충해 피해를 없이 해달라는 뜻이다. 주로 초복, 중복 등 복날에 한다. 또 복날엔 복때림이라 하여 개도 잡아먹고 닭도 먹는다. 일꾼들 잘 대접하는 날이다.

[8월]

송편 추석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햇곡식으로 차례를 지낸다. 송편은 솔잎을 깔고 찐다. 콩, 팥, 밤, 깨를 넣고 찐다. 솔잎 한 번 깔고 또 그 위에 깔고 하는 식이다.

[9월]

김장하기 예전에 상강 지나가면 김장을 했는데 지금은 입동 지나간 후에도 한다. 김장하는 날은 택일 안한다. 젓갈로는 오징어젓갈을 넣는다. 지금은 멸치젓도 쓴다.

중양절 제사 중양절에는 감 썰어 넣고 만든 뭉생이 시루떡해서 제사 지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10월]

안택고사 가을수확이 되면 성주고사를 올린다. 보통 10월이나 11월에 올린다. 성주는 단지는 없고 실에다가 초지를 달아매 놓고, 팥시루 찌고 밥 해 놓고 축원한다.

[11월]

안택고사 동지달 초순에 택일해 지낸다. 봄에는 안 지낸다. 집안 네 기둥에 성주를 모시고 소지를 올리는 집도 있고, 터주 단지를 모시고 축을 읽는 집도 있다. 축 읽은 집을 보면, 집 뒤에 기와장을 놓고 거기에 쌀 한줌 집어넣은 것이 터주다. 택일 후 제사 준비할 때, 뒤 안 단지를 소제한 후 찹쌀과 멥쌀을 조금 넣은 후 덮어놓고 축을 읽는다. 쌀을 단지에 가득 안 채운다. 다시 명년 그때가 되면 썩어버린 곡식을 꺼내 버린다. 뒤 안에서 텃제사를 올리고 난 후 마루에서 성주제사를 올리고, 그 후 부엌에서 조왕신을 모실 때는 함지 채로 놓고 지낸다. 지금 부엌은 하지 않는다.

성황제 11월 달에 택일해 지낸다. 새벽 해뜨기 전에 지낸다. 돼지 머리, 백설기, 삼실과 등을 장만한다.

동지 팥죽을 쑤어 먹는다. 옹심이도 찹쌀로 만들어 집어넣는다. 초사흘에 동지가 들면 아동지(애동지)라 한다. 애동지에 안 쒀 먹는 집도 있으나 제사를 올리는 집은 애동지라도 쒀 먹는다.

팥죽점 날씨가 더워서 팥죽이 일찍 쉬면 그 해 농사가 잘된다고 한다.

옹심이점 동지 옹심이 빚으면 팥죽 쑤는 부엌에 가서 임신했을 때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그것을 구우면 어떤 때는 그것이 쪼개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길쭉해지기도 한다. 쪼개지면 딸, 툭 불거진 게 아들이라고 점친다.

팥죽뿌리기 제사 지내는 팥죽은 쑤어서 함지에 따로 담아 펴놓고, 그 다음에 팥죽 쑤던 가마에 물 부어 씻어서 그 물을 가지고 바가지에 담아 작은 바가지 하나 띄워 가지고 나가, 굴뚝 있는 곳부터 '굴뚝장군이요, 터주신이요' 하고 부르면서 팥죽물을 뿌렸다. 잡귀를 다 몰아낸다는 뜻으로 집안 전체에 다 뿌렸다.

[연중]

머리카락 태우기 대보름이 아니고 일 년 열두 달 중에서 천둥이 칠 때 머리카락을 태운다. 연기가 나면 잡귀를 물리친다고 믿는다.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자루나 바가지 등이 있다. 여기에 뭘 넣어 모신다. 이런 신체가 없이도 삼신할머니를 찾기도 한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 머리맡에서 빈다.

군웅신 군웅이라는 신에게는 밖에서 뭘 가져오면 먼저 외양간에 가 소머리 맡에 놓는다.

허재비 액맥이하기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을 때 비는 사람을 데려다가 빌고 나 후 허재비를 만들어 삼거리에 나가서 태우거나 혹은 개울에 가 태워 버린다.

기우제 삼색 실과, 돼지머리, 강아지를 갖고 앞산 복골로 간다. 강아지를 칼로 베어 부정을 치면 비가 온다고 한다.

제3절 속초의 민간신앙

민간신앙은 신앙전승행위로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집안에서 신봉하는 것,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것, 무속인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으로 나뉜다. 속초지역은 마을단위의 성황제와 무속제의인 용왕제 및 풍어굿, 수살굿 등이 있고, 선주들이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배성주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지역은 신앙전승은 주로 어로신앙이 중심을 이루는데, 어민들이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위하여 전승시켜온 민속이다. 민간신앙은 집안신앙, 마을신앙, 무속신앙 등으로 나누어 속초지역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집안신앙

속초지역에서 신봉하는 집안신은 가택신이라고도 하는데 성조신, 조왕신, 삼신, 토지신, 군웅신, 영등신, 용왕신, 측신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신을 위하는 상황이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정초 안택고사는 성조, 토지, 조왕신을 함께 제사지낸다. 대체로 정월달에 행하고 음력 10월 중에 좋은 날을 받아 일주일 동안 금기한 다음 팥시루떡과 제물 등을 마련하여 집에서 빈다. 음력 2월, 6월과 12월은 피하는데 가족의 생기와 일진을 맞추어 날 받는 사

람에게 길일을 받는다. 제사를 지낼 때는 남자주인이 주로 하고, 빌 줄 아는 무당을 청하여 오기도 한다. 안택제를 지낼 때는 대문 쪽에 황토를 양쪽으로 뿌리고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치고 잡인의 출입을 막는다.

배를 가진 선주들은 안택제를 지내고 나서 배성주를 위한다. 배성주는 오징어, 과일 등 간단한 제물과 실과 한지를 가지고 가서 선장실에 빌고 난 다음 한지는 한쪽에 매단다. 그 해에 처음 잡은 생선도 함께 매단다.

배성주제는 '배서낭제'라고도 부르고 흔히 '뱃고사'라고도 한다. 이것은 선주가 개인적으로 치성을 올리는 것인데, 집안의 성주시과 같이 배를 집으로 여겨 성주신을 봉안한 것이다. 배성주에게 치성을 올리는 경우, 배로 새로 만들었을 경우나, 마을에서 성황제를 지낼 때, 첫 출어시, 첫 수획시, 흉어나 풍어시, 매년 정초 무렵에 안전과 만선을 기원할 때 등으로 다양하다.

제의 형식은 개인 고사형태로 진행되는데, 보편적으로 무당을 청해서 고축을 하며, 절차도 비교적 단순하다. 특별하고 엄격한 금기를 요구하지도 않는 편이다. 배성주의 신체를 한지와 실을 묶어서 걸어 두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길지형(吉紙形)이라 부른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길지형 이외에도 무신체형, 지방형, 뱃기형, 서낭단지형, 서낭함형 등이 있으나, 청호동은 길지형이 많고 뱃기형도 더러 있다.

선주들이 처음에 배성주를 봉안하면 매년 정초에 그 해 처음 잡은 생선과 메, 떡, 술 등을 간단하게 차려놓고 절을 하고 축원을 한다. 다음에 배성주의 신체로 한지를 걸게 되는데 이미 달아놓은 배성주 신체를 불에 태운다.

제물로 쓰는 메는 남자나 여자 성주를 한 분씩 모시고 있으므로 한 그릇을 놓고, 조상신을 모시고 있으며, 거기에도 한 그릇을 놓는다. 배에는 배성주기와 만선기를 싣고 다니는데, 배성주기는 상단에 청색, 하단에 흰색으로 만든다.

배성주의 신체는 남녀로 구분되는데 성별의 구분은 선주의 생기를 맞추어 무녀가 정한다고 하며, 무녀들의 경우 배에서 굿을 하면 신의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게 되므로 그때 정한다고 한다. 또한 선주의 꿈에 성주가 나타나면 알게 되는데, 남자 성주는 한지만 매달고, 여자 성주는 삼색 천을 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여자 성주가 많다고 한다.

속초지역은 배에는 여자 성주가 많은데 배를 만들어 배내릴 때 성주를 모셔놓고 술 한 잔씩 올린다. 술잔은 성주 앞에 올리고 바닥에도 뿌리고, 첫 설망할 적에 처음에 올라오는 고기를 성주님한테 바친다. 성주는 일번에 한 번씩 정총 가는데 다시 모실 때는 과거에 명태를 올렸는데, 지금은 오징어를 올린다. 성주는 실하고 한지를 매달아 성주신임을 보여준다. 바다에 나가서

일기가 나쁘면 성주가 운다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배성주 성별을 나누는 방법으로 무당에 의한 결정, 현몽, 마을 성황신의 성별에 따르는 경우, 배만드는 목수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배성주제는 배를 만들어 처음 바다에 띄울 때인 설망 시에 소나 돼지를 잡아서 지낸다. 배성주에게는 초하루나 보름에 고사를 지내는데, 고기와 메를 바치고 향과 초를 피우고 빈다. 배성주에게는 첫 날 첫 낚시하여 잡은 생선을 반드시 바치고 화장(배에서 밥하는 사람)이 밥 한 숫갈을 떠서 "용왕님 잡수십시오"라고 빌면서 바다에 던진다.

성조신은 성주님, 성주대감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집안의 안녕을 유지해주는 최고신이다. 성조신의 형태는 종이와 단지를 모시는데 도문동 지역에서는 성주단지라고 하여 뚜껑이 있는 막단지에 맨 처음 방아 찧은 수댓쌀을 넣는다. 농사가 잘되고 무병과 평안이 목적인데 성주단지는 반드시 안방 위 공간에 올려놓거나 상량대 밑 다락공간에 성주한지와 함께 모신다.

한지를 매다는 성주는 부엌으로 통하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상량대 밑의 동자기둥 상단에 매단다. 성주단지에 넣은 쌀은 꺼내서 떡을 해먹거나 이웃과 나눈다. 이사 갈 경우 단지는 산에 묻고 종이성주는 마을 앞산의 나무에 매달아놓고 간다. 성주단지 속에는 햇벼를 그냥 넣기도 하는데 이때는 창호지 한 장을 접어 명주실 한타래를 동여매어 단지 손잡이나 상량대에 다시 매단다. 성주는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온 사람도 택일하여 모시는데 지금은 차츰 사라지고 있다.

조왕신은 부엌에 모시는 신으로 주부가 모신다. 조왕신은 신체는 따로 없고 '부뚜막신'이라 하여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기도 하고 안택제때 솥뚜껑을 뒤짚어놓고 그 위에 간단히 제물을 진설하고 위한다. 조왕신은 집안에서 위급할 때나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찾는데 조왕신을 잘 위하면 먹는 복을 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쇠구영신'은 군웅신이라고도 한다. 소의 건강을 기원하는데 '소삼신'이라고도 한다. 군웅신은 육축을 관장하는 신인데 농가에서는 소를 위해 믿는다. 한지를 외양간 입구에 매달기도 하고 베를 짤 때 말코 옆을 끊어서 매달기도 하고 구멍난 돌을 매달아 소의 순산을 빌기도 한다. 안택제를 지낼 때 팥떡을 제물로 놓고 빈다.

'삼신'은 잘 알려져 있듯이 자식을 점지해 주는 태신이다. 보통 '삼신할머니'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인식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자식에게 병이 있을 때 찾는다. 신체는 보통 안방 시렁 위나 천정 구석에 모시는데 그릇에 쌀을 담기도 하고 베를 만든 주머니에 쌀을 넣어 시렁 위에 걸어놓는다.

아이를 낳은 집에서는 동쪽 방구석에 정화수 한 대접, 메 한 그릇, 미역국을 차려놓고 위하고 아기가 혹시 아프면 또한 이렇게 차리고 빈다.

'영등'을 속초지역에서 잘 모시는 풍신이다. '영동할머니'라고도 하는데 음력 2월 초하룻날 내려왔다가 15일날 하늘로 올라가고 20일날 수부신도 마저 올라간다고 한다. 보통 장독대에 비늘 없고 비린내 안 나는 명태에 무를 넣고 왁찌기를 끓어놓고 빈다. 팥밥을 함께 차리고 하는데 나물과 주과포를 차리며 주부가 빈다. 이날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 하여 풍년이 들고 바람불면 바람영등이라고 그 해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측한다. 영등할머니는 매우 까다로운 신이라고 한다.

'지신제'는 속초지역에서 '터주제'라고도 하는데 땅을 신을 위하는 것으로 정초에 농악대가 와서 지신밟기를 해준다.

2. 마을신앙

마을신앙의 대표적인 형태는 서낭제이다. 이를 성황제라고도 하는데 속초역시 동네마다 서낭당이 있다. 주로 바다가 보이는 쪽에 위치하고 있거나 마을이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다. 동네의 무사태평과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마다 제사일이 다르다. 장사동은 8월 한가위를 전후하여 택일하고 도문동은 동지달 초순, 영랑동은 단오와 동지에 두 번지내고 3년에 한번 굿을 한다. 대포동은 10월 초순 길일을 택하고, 외옹치는 3월 3일과 9월 9일 , 물치는 음력 3월 3일과 10월 초순길일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년에 두 차례 지내는 마을이 한 번으로 줄여서 지내기도 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제관의 고령화로 몇몇 사람들의 마을제사로 축소된 형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

대포동은 외옹치 마을인 밧독재에서 서낭제와 용왕제를 지내고 목장승제를 지낸다. 노학동 학사평에서도 1930년대 까지 장승과 수살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외옹치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대포동은 3년마다 풍어굿을 하는데 근래는 5년마다 굿을 하기도 한다. 외옹치 서낭당에는 정면에 화상이 그려져 있고 '성황대신지위'라고 위패를 써서 모셔놓았다. 영랑동과 중앙동, 장사동에도 화상이 걸려 있다.

어촌서낭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청호동 서낭제를 중심으로 마을제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호동은 동쪽으로 바다, 서쪽 청초호 사이에 형성된 마을로 본래는 백사장이었다. 그러다가 실향민들이 이곳에 모여 들면서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수복 이후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거주하여 속초리 5구가 되었다. 이후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청호동이 되었는데, 1통은 심포마을, 3통을 영흥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처음 이곳에 정착한 주민들은 사람 허리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파고 창문과 출입구만 지상으로 내놓은 토굴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해일만 일면 마을이 휩쓸려 갈 정도였는데, 이러한 피난민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분적인 개축이 허용되고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항지구이므로 도로가 협소하고 불량 노후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아직까지 피난민촌의 인상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년 전 해일피해로 방파제가 무너지고 마을이 위험에 처하자 시에서 부월리에 연립주택 400여 호를 지어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키고 있다. 청호동은 함경도 어민들이 주로 월남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이들이 계속된 어로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항만에 접한 작은 반도이므로 주민의 60%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이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자유를 찾아 남하한 실향민의 70%가 집단 정착하고 있으므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계획상 규제가 많아 계획도시로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조양동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중앙동에서 무동력 운반선인 갯배를 이용하였다. 청호동의 상징물인 이른바 '5구도선장'은 실향민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실어 날랐다고 할 수 있는데, 함경남도 해안가 주민들이 배를 타고 월남하여 지금도 '북청상회'등의 상호명을 볼 수 있다. 북청군민들은 수복후 1958년 북청도청을 만들어 사자놀음으로 실향의 한을 달래며 통일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속초문화원 이사였던 김철섭의 부친 김윤삼도 북청사자놀음에 대해 자세히 고증하였는데, 1959년 5월 2일 북청동향 친목계가 속초에 결성되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사자놀음을 전승했다고 한다. 1944년 통계를 보면 당시 북청군민이 총 28만 4천여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4만 명 정도가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속초에는 300내지 400가구가 모여 살았다.

서낭제는 매년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지낸다. 어촌계에서 주관하므로 해서낭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 서낭당은 조양동으로 진입하는 길목 야산에 있어 동해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대략 40년 전에 선주들이 풍어와 안전을 위하여 고사를 지내던 곳이다. 주민들은 청호동민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곳에 성황당을 세웠다.

제당은 외벽에 '城隍堂'이라고 고딕체한자로 써서 걸었으며, 건물은 시멘트로 가로와 세로 3m 정도의 넓이로 한 칸 건물을 지었다. 지붕은 시멘트 기와를 얹었으며, 시멘트로 담장을 쳤다. 제당 내부에는 중앙에 남녀신 화상이

걸려 있으며,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남서낭신은 수염이 긴 노인의 모습이며, 여서낭신은 족두리를 쓴 여인모습이다. 제단위에는 촛대와 연꽃 지화가 양쪽에 있고, 벽에는 오색 예단을 걸어놓았다. 또한 우측에는 가로, 세로 30㎝ 정도의 오방위기를 보관하고 있고 벽에는 청호동 수산협동조합원 명단을 붙여 놓았다.

청호동 서낭제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데, 제물은 삼색실과, 어물 등을 장만하여, 이외에도 소머리를 반드시 쓴다고 한다. 마을 제사때 제관은 고령자 중에서 부정함이 없는 사람을 선출하며, 제사를 진행한다. 선주들은 서낭제때 이외에도 정초에 첫출어를 할 때나, 어로작업이 부진할 때 성황당에서 와서 기원을 하고, 객지에서 이쪽으로 고기 잡으러 온 어부들도 풍어와 안녕을 빌고 있다.

주로 선주들이 가고, 선원들 중에서도 배를 새로 사면 가서 제사지내고, 또 객지 사람들이 남바리 와서, 장기간 한 달 이상 배를 대고 조업을 하면, 제일 먼저 성황당을 찾아간다. 서낭당위치가 바다가 보이는 명당이다. 옛날에는 소를 두 마리씩 잡고 했는데,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들이 주로 돈을 모아서 지낸다. 이밖에도 3년이나 5년마다 풍어제와 용왕위령굿을 어촌계 주관으로 거행하는데 풍어제는 만선을 기원하는 것이고, 용왕 위령굿은 수살굿 계통으로 바다에서 어로 작업 중 희생된 어부들을 위한 영혼위령굿이다.

마을신앙의 한 형태로 산신제가 있다. 설악산신제는 유서 깊은 제의로 신라 때부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다. 설악산신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김부식이 지은『삼국사기』잡지 제사조에 소사(小祀)로서 국가적 치제를 행했다. 신라 때는 삼산오악 이하 명산대천을 대중소사로 나누어 제사를 지냈는데 그 당시 설악산신제를 지냈으며 오늘날까지 설악문화제의 중심적인 산신제로 계승되고 있다.

이외에도 산신제로 산삼을 캐는 심메마니의 제의가 있다. 설악산에서 산삼을 캐는 심메꾼들은 산삼을 캐러 가서 금기를 하고 목욕재계를 한 다음에 산신제를 지낸다. 이때 산신령에게 새옹메를 바치고 산삼을 점지해 달라고 빈다.

3. 무속신앙

무속신앙은 무당들에 의해 치러지는 굿이 대표적인 제의다. 개인가정굿과 마을 공동굿, 축원굿과 오구굿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또한 공동굿으로는 별신굿과 풍어굿이 전승된다. 이 굿은 속초경신연합회 소속 무녀들이나 동

해안별신굿 계보의 무녀들이 참가하여 굿을 한다. 속초의 무당은 만신 또는 대신,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통 12석을 한다고 한다. 대체로 부정굿, 서낭굿, 조상굿, 성주굿, 망자굿, 세존굿, 오구굿, 별상굿, 대감굿, 말명굿, 칠성산신굿, 꽃노래, 뒷풀이 등이 있다. 12거리가 아닌 일반굿은 병굿, 혼신굿, 수살굿, 재수굿, 화도굿, 신굿, 망령굿, 살풀이, 고사 등이 있다고 하는데 재수굿이 가장 많다고 한다. 혼신굿은 결혼혼신굿이라고도 하는데 사혼(死婚) 또는 허혼(虛婚)을 말한다. 즉 처녀 총각이 죽었을 때 산 사람과 똑 같이 사주단자를 주고받은 다음 초례도 치르고 영혼을 잘 천도하며, 화도굿은 미치는 병이 있을 행하는 낳기 위해 하는 치병굿이다. 신굿은 강신을 하기 위해 받는 굿이고 수살굿은 오구굿이라고도 한다. 속초의 수살굿은 바다에서 익사했거나 비명횡사를 했을 때 한다. 무속인은 만신, 무당, 복술, 명신동자, 절래 등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개인에 따라 무속인 분류도 다르고 굿의 명칭도 다르다.

가. 용왕굿

청호동에서는 선주들이 각자 용왕제를 지내기도 하고, 어촌계의 주관으로 3년마다 용왕제를 공동으로 지내는데 이것을 '배신굿'이라고도 말한다. 청호동 바다의 용왕신을 달래서 어민들의 안과태평을 바라는 것이다.

용왕제는 풍어굿을 겸하는데, 첫째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풍어제의 성격이고, 둘째는 바다에 나가서 사고 없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제의 성격이 있다. 용왕제때 행해지는 굿은 풍어굿과 수살굿으로 나눌 수 있는데, 풍어굿은 만선을 기리는 축원굿 계통이고 수살굿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오구굿 계통이라고 하겠다.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빠져 죽으면 혼을 불러서 고사를 할 때 용왕님한데 "아무개 김뭐이, 최뭐이 이름 써서 산닭 집어넣고 그 사람 혼이 나와 달라"고 그것을 사해용왕님에게 육지로 환생해 달라고 빈다. 혼을 불러올 때는 닭을 넣어야 하는데 닭을 안 넣으면 그 혼이 안나온다고 한다. 밥그릇에다가 밥을 떠가지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매어서 끄나풀을 길게 하고 닭도 발을 묶어 가지고 바다에 던진다. 그리고 무당이 "용왕님, 사해용왕님요. 내 명에 죽었는지, 남의 명에 죽었는지, 용왕님 앞에 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불쌍한 중생 혼을 좀 육로로 환생시켜 주옵소서"하고 그 닭이 물에서 휘 댕기다가 물먹고 죽으면, 혼을 건진 것이라고 한다. 닭이 숨지면, 그것을 불러내다가 땅을 파고 그 해 손없는 방위에다가 땅을 파고 닭을 묻는다. 그러면 그 사람 혼이 나온다고 믿는다.

청호동 무속굿은 풍어굿, 성황굿, 수살굿이 주류다. 무속굿에는 개인가정굿과 마을공동굿이 있는데, 공동굿에는 별신굿과 풍어굿이 있다. 굿절차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부정굿, 서낭굿, 조상굿, 성주굿, 망자굿, 세존굿, 오구굿, 별상굿, 대감굿, 말명굿, 칠성굿, 산신굿 등이 있다.

나. 수살굿

수살굿은 어촌굿으로 지역성이 강조된 예로 청호동에 거주했던 빈순애 무녀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청호동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조업중 해난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가정이 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 닿아 몸이 아프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살아 있느 사람을 괴롭히는 혼백을 떨쳐 버리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굿이다.

수살굿의 절차는 먼저 '혼부름'이다. 무녀 2명, 화랭이 2명, 사공 1명이 상주를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육지와 어느 정도 떨어지면 가지고 간 산 닭 다리에 끈을 묶어 바다에 던진다. 이때 그릇에 밥을 담아 끈으로 묶어서 같이 던진 다음, 남자 무당인 화랭이가 혼을 끌어 올리는 대나무인 '인혼'에 죽은 사람의 마른 속옷과 한지를 매달아 빙글빙글 돌리면서 '금일 영가 아무개 영가'라고 망자를 세 번 부른다. 이러면 배에 있는 상주가 대답을 한다. 화랭이는 '젖은 옷을 벗어 놓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육지환생하옵소서'라고 고축을 한다. 이 과정은 상례의 초혼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혼대를 몇 차례 더 휘두른 다음에 인혼대를 내려놓고 마른 옷을 바다에 던진 닭과 밥그릇을 끌어 올린다. 올라온 닭이 죽지 않았을 때는 혼백을 끌어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화랭이는 끈을 당기면서, 대다라니경을 외운다. 바다에서 건져낸 혼백을 담은 돗자리와 위패는 굿당으로 모신다.

다음은 '수살잡귀구축'인데 죽은 닭은 곧 망자의 육신을 상징하며 여기에 혼백이 실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은 망자의 혼백이 미망인에게 덮혀 소나무 신목을 잡고 강신이 되면 굿당에서 혼실을 건져 싸고, 가지고 온 돗자리를 보고 쓰러지면 무녀가 미망인을 돗자리를 덮어준다.

무녀는 복숭아나무를 가지고 돗자리를 때리면서 "온다. 귀신아 물에 수살귀신, 귀신들 일척, 월척, 감척, 수구사자 귀신들, 한 많고 원 많은 귀신들아. 잡귀잡신들 물러가라"하며 수살잡귀를 내쫓는다. 이렇게 해야 미망인이 제정신이 들고 아픈 몸이 낫는다고 한다.

다음 절차는 '길가름'으로 미망인이 혼백을 길가름하는데, 이는 혼백의 극

락왕생을 위한 것이다. 상주와 친척들이 상복을 입고 광목천 옆에 길게 서면 무녀는 돗자리와 혼백상자를 안고 춤을 추면서 광목천을 가른다. 무녀가 천을 가르면 길가름을 하면서 혼백상자를 이끌고 나갈 때 상주들은 천위에 노자돈을 놓는다. 천을 갈라 두 갈래가 되면 이를 잡고 극락춤을 춘다. 마지막은 '극락춤'인데 무녀가 선소리에 맞추어 출상소리를 하면 상주들이 뒷소리를 부른다. 이 모습은 발인과정으로 무녀와 함께 극락에 도달한 혼백을 위해 빠른 장단으로 극락춤을 추고, 가정의 태평과 안일을 기원한다. 이 극락춤은 상주뿐 아니라 평소에 망자와 친했던 주민들이 수살 고혼이 된 망자의 혼백을 건져서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오구굿 의식이다.

제4절 속초의 통과의례

통과의례(通過儀禮)는 관혼상제라고도 하는데 한 개인이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고비를 맞을 때 사회에서 인정하는 의례형식이다. 인생의 긴 과정에서 출발과 종착점은 출산과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혼상제 뿐 아니라 임신, 출산과 관련된 것, 백일, 첫돌, 회갑 등 기념일과 관련된 것이 있다. 지금은 통과의례도 간소화되어 그 의미가 상실하였거나 축소된 것이 많은데 관례는 성인식으로 바뀌었고, 혼례는 서양식으로 변했으며, 상례는 현대화 하였고, 제례도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상례는 비교적 전통적 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서구화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겠다. 통과의례의 속초지역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의례는 가문과 개인에 따른 차이가 심한 편인데 크게 보면 기자속(祈子俗), 산전속(産前俗), 산후속(産後俗)으로 나뉜다. 기자속은 아들 낳기를 바라는 풍속으로 아직도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서 아들을 원하는 집에서 강한 집착을 보인다. 기자행위에는 치성형기자와 특정사물이나 음식에 의지하는 주술형기자로 나눌 수 있다. 치성형기자는 설악산이나 절에 가서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대부분 설악산에 많이 가는데 몸을 깨끗이 하고 근신한 후에 바위나 고목이 있는 곳에 가서 쌀, 과일, 향, 초, 소지종이를 차려놓고 메를 지어 올리고 축원한다. 축원 후에는 소지 종이를 태우는데 곧장 위로 잘 올라가면 좋다고 한다.

『태교신기』(1877)에 의하면 '스승 십년이 어미 열 달만 못하다'고 하였다. 그만큼 태교가 중하다는 말이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이나 가문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아기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습속을 산속(産俗)이라고 하는데, 통과의례의 시작으로 가장 중요한 출생의례이다. 오늘날은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하므로, 고유한 산속은 차츰 사라져 가고 있다. 산속은 자식낳기를 바라는 기자속, 출산을 전후한 산전속과 산후속 그리고 육아속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5책(산속편, 하권, 1994)을 참조하고 현지조사를 보태었다. 청호동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자속(祈子俗)

◈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에게, 어떻게 기원하는가?
- 산에 가서 빈다. 삼신께 빈다. 바위에 가서 빈다. 칠성께 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용왕님께 빈다. 서낭님께 빈다.

◈ 산월에 임부는 어떠한 음식을 가리며, 또 먹으면 어떻다는 것인가?
- 토끼고기, 오리고기(발가락이 붙는다), 닭고기(닭살이 된다), 상어고기(피부가 거칠다), 개고기(아이가 사람을 문다), 문어고기(머리에 부스럼 생긴다), 오징어(뼈없는 아기를 낳는다)를 먹지 않는다. 상가(喪家) 음식은 먹지 않는다.

◈ 잉태 후는 물론 산월이 가까워지면 산모가 금기하는 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고, 범하면 어떻다는 것인가?
- 아궁이 수리를 않는다. 문구멍을 바르지 않고 굴뚝을 고치지 않는다(코가 막힌다, 손가락 없는 아기를 낳는다), 소고삐를 넘지 않는다(열 한 달만에 아기를 낳는다), 귀퉁이나 마루에 걸터앉지 않는다. 산소에 가지 않는다. 살생을 하지 않는다. 불을 보지 않는다.(불부정은 큰 부정이다)

◈ 신생아를 위해서 가족들이 먹지 않고 가리는 음식은 없는가, 또 범하면 어떻다는 것인가?
- 개고기, 상가음식을 먹지 않는다.(부정 탄다)

◈ 신생아를 위해서 가족들이 금기하는 일은 없는가. 만일 범하면 어떻다는 것인가?
- 개, 닭, 돼지 같은 것을 살생하지 않는다. 상가에 가지 않는다.

◈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할 때에 어떻게 해서 미리 아

는가?

– 아기가 올려 붙으면 딸, 내려붙으면 아들이다. 뒤에서 불렀을 때 왼쪽으로 돌아보면 아들, 오른쪽으로 뒤돌아보면 딸이다. 먼저 난 아이가 안길 때 궁둥이를 들이밀고 안기면 아들이고, 앞으로 안기면 딸이다. 산모 배꼽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들, 오른쪽에 아기가 있으면 딸, 왼쪽이면 아들이다. 신랑과 신부가 나이를 합해 짝수면 딸, 홀수면 아들이다. 두 사람의 나이를 합해 문살을 세었을 때 문살에 맞으면 아들, 창호지에 맞으면 딸이다. 산모의 궁둥이 모양을 보아서 뒤로 빠지면 딸이다. 먼저 낳은 아이가 홍두깨를 집으면 아들, 주걱을 집으면 딸이다.

◈ 아기를 낳을 날짜를 미리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 경도를 보아서 알 수 있다.

◈ 난산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순산할 수 있는가. 또 안산(安産)을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 미역국과 쌀로 죽을 쑤어 마당이나 뜰에 뿌린다. 순산한 여자의 치마를 입거나 허리띠를 두른다. 피마자기름을 먹는다. 은가락지를 삶은 물을 먹는다. 한약을 먹는다. 굴뚝 밑에 밥을 해놓고, 바가지를 엎어 놓고서 빈다. 아기가 잘 나오지 않으면 치마로 허리를 묶는다. 남편이 허리를 타넘는다. 삼신께 백일치성 드린다. 돌 바위에서 정성을 드린다. 농문, 대문, 솥뚜껑 등 모든 문은 다 열어 놓는다.

◈ 아기가 유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다. 심한 일을 하지 않는다.

◈ 태몽에 아들과 딸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태몽은 적중하는가, 믿지 못할 것인가?

– 흰 구렁이, 붉은 고추, 고구마, 호랑이, 밤, 배, 용은 아들, 파란고추, 또와리, 호박, 꽃, 가위, 실은 딸이다.

나. 산후속(産後俗)

◈ 아기를 출산한 후 삼가는 음식은 무엇인가?

– 김치, 과일, 호박, 무, 매운 것을 먹지 않는다(치아가 상한다), 상가제사음식은 먹지 않는다. (부정 탄다)

◈ 출산 후 산모가 회복될 때까지 첫날부터 3 · 7일까지 식사는?

– 첫 칠일까지 미역국과 밥을 먹는다. 세 칠일까지 먹기도 한다.

◈ 아기를 낳은 직후 금기하는 일과 이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다. 아기를 업지 않는다. 상제를 보고 인사하지 않는다. 맷돌이나 절구질을 하지 않는다. 제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맷돌에 앉지 않는다(밑이 빠진다), 물동이를 들지 않는다(밑이 빠진다), 못을 박지 않는다(눈에 삼이 선다), 상가에 출입하지 않는다, 살생을 하지 않는다, 불난 곳에 가지 않는다, 삼칠일까지 이러한 것을 지킨다.

◈ 신생아를 위해 가족들이 가리는 일은 없는가. 만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 상가에 가지 않는다. 개나 닭을 잡지 않는다. 산모가 금하는 것과 일치한다. 빨래를 하지 않는다. 기름에 튀기지 않는다(몸이 홍역한 것처럼 된다)

◈ 아기의 태는 누가 무엇으로 가르는가?

–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산파할머니, 본인, 남편이 가위, 수숫대, 이빨 등으로 가른다.

◈ 아기의 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돌을 달아 바다에 띄운다. 태워서 뒷간에 버린다. 산에 묻는다. 아궁이에서 장작불에 태운다. 말렸다가 태열이나 경기를 할 때 아기에게 달여 먹인다.

◈ 아기를 낳는 방은 어디로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따뜻한 안방,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 산후통이 온다.

◈ 같은 해나 같은 달에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동시출산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또 가축과 같이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 한 해, 한 집에서 두 명이 출산할 때 한 사람은 다른 집에 가서 낳는다. 외가에서 낳았을 때는 손 없는 날에 집으로 온다.

◈ 아기를 낳았을 때에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 왼새끼로 꼰 금줄을 대문에 맨다. 소아피(솔가지)를 섭찌질(대문간)에 건다. 아들은 숯, 고추, 솔가지를 달고 딸은 숯과 솔가지를 단다. 삼칠일이 되면 대문 한 쪽으로 밀어 놓는다.

◈ 삼신을 모시는 곳과 표식 등은 어떻게 하는가?

– 아기 머리맡에 모신다. 세 분을 모신다. 3 · 7일동안 모신다. 시어머니가 모신다. 미역국과 메 한 그릇, 수저 3개를 상위에 차린다. 바가지에 쌀을 넣어 벽의 구석에 모시고 한지도 매단다. 삼신할머니, 삼신할아버지, 아기 등 국과 메를 모두 3개씩 차린다. 아기 낳고 3일 만에

모신다. 첫 칠일, 두 칠일, 세 칠일, 백일, 돌에 모신다. 주머니에 쌀과 실, 고추를 넣어 벽에 건다. 밥과 국, 물 한 그릇, 실 한 타래를 상위에 놓고 촛불을 켜놓고 시어머니나 무당할머니가 빈다.

◈ 아기의 옷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드는가?

– 주로 할머니나 어머니가 흰색으로 만드는데, '배내저고리' '첫저고리' '배안옷'이라 부른다. 첫아기의 것을 두었다가 입히는데 융으로 만든다. 실이나 끈으로 옷을 묶어준다. 포대기도 미리 만드는데, 아기를 낳은 후에는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 산파는 누가 맡는가?

–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남편, 복 많고 자손 많은 이웃할머니, 순산한 여자, 본인이 한다.

◈ 산파에게 사례로 무엇을 주는가?

– 옷 한 벌, 버선, 신발 등을 해준다.

◈ 아기의 장수와 다복을 위하거나, 딸일 경우 그만 낳으라고, 천한 이름을 지어 부르는 예가 있는가?

– 개똥이, 오쟁이, 마당쇠, 바위, 부엌쇠, 정낭쇠, 서낭쇠(서낭에 팔았다는 뜻), 칠성바위, 돌바위, 정성이, 뒷간쇠, 딱막이, 광줄이, 부엌띠기라고 짓는다.

◈ 배내머리는 언제, 누가 깎아주는가?

– 세 달 후에 자른다. 그냥 놔두면 죽을 고비를 세 번 넘긴다고 그냥 놔두었다가 아주 길면 자른다. 날을 받아서 어머니가 머리 꼭대기를 남기고 자른다.

◈ 아기의 손톱과 발톱은 언제 누가 무엇으로 자르는가?

– 아무 때 잘라준다. 치아나 가위로 어머니가 자른다. 백 일전에 자른다.

◈ 아기의 목욕은 언제, 어떻게 하는가?

– 배총이 떨어지면 매일 씻긴다. 하루걸러 씻긴다. 머리부터 씻긴다. 하루는 치 씻기고, 하루는 내리 씻는다.(살이 골고루 붙고 잘 자라라는 뜻이다)

◈ 아기의 돌잔치는 어떻게 하는가?

– 백일에는 밥과 국을 해서 동네사람과 먹는다. 수수떡과 백설기, 수수팥떡을 하는데 백설기는 백 사람이 나눠먹으면 좋다고 한다. 수끼떡(수수떡)은 바람을 물리치라고 만든다. 돌상에는 책 · 연필 · 돈 · 쌀 · 방망이, 실, 붓 등을 올려놓고 아기가 무엇을 집는지 보아 미래를

점친다. 이것을 '돌 잡힌다'고 한다. 아기를 낳은 자리에 짚을 깔고 국밥을 올려놓고 삼신께 빈다.

◈ 아기의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는가?

– 배꼽을 두었다가 태열이 있거나 경기를 할 때 태워서 기름에 개어 아기에게 발라준다. 바람막이로 아기 머리에 영사를 바른다.

◈ 젖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가?

– 돼지족을 삶아 먹는다. 까치고기를 먹는다. 가물치고기를 우물가에서 먹는다.

◈ 아기가 첫나들이하는 때와 외가 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 첫나들이 할 때 아기가 울면 자리도돔을 하는 것이므로 빨리 집으로 돌아온다. 외가에 갈 때는 저고리 안섶에 바늘을 꽂고, 깃고대에도 바늘을 꽂고 변소에 들렀다가 들어간다. 아무렇게 하고 외가에 가면 아기가 아프다.

◈ 그밖에 출산에 관한 관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아기를 출산한 방은 짚을 깔고 난 후에 3일이 지나 거둬서 태운다. 산모가 목욕재계하고 나면 방을 청소한다. 산모는 쑥을 삶은 물로 쑥찜을 한다. 아기를 낳고 난 후에 산모의 젖이 많으면 짜서 반드시 굴뚝에 버린다. 아무데나 버리면 나쁘다.

2. 백일, 첫돌

아이가 태어난 이후 삼칠일까지는 산모의 건강을 위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백일이 되면 아기를 위한 경축일이 된다. 백일잔치는 잘 차려서 이웃잔치식으로 하는데 아기의 무사함을 축하한다. 백설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백 사람이 먹으면 좋다고 속초에서는 여러 집에 돌리고 '바람 물리치라'고 수끼떡(수수떡)을 만들어 먹는다. 백설기와 수수떡은 악살을 막아준다고 반드시 백일 상에 올린다.

첫돌은 아기가 태어난 지 1주년이 돌아오는 날이므로 '돌잔치'를 잘 차린다. 아기가 원하는 것을 잡도록 돌 상위에 돈, 책, 실, 연필, 쌀 등을 올려놓고 '돌잡이'를 한다. 요즘은 식당을 빌려서 손님을 초대하는데 과거에는 집으로 이웃을 불러 국수를 삶아서 잔치를 하고 떡을 해서 나누어 주었다. 아기가 돈이나 쌀을 잡으면 부자가 되겠다고 하고, 책이나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고, 실을 잡으면 수명이 길 것이라고 점치며 즐거워한다. 여자아기의 경우 가위를 올려놓는데 이것을 잡으면 손재주가 좋겠다고 한다. 이

렇게 '돌 잡힌다'하며 돌날 아침에 미역국을 떠서 삼신할머니를 위한 집도 있다.

3. 회갑

회갑(回甲)은 화갑(華甲)이라고도 하는데 육십갑자로 자기가 낳은 해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甲'은 갑자를 뜻하고 '華'자는 풀어서 61이 된다고 한다. 대체로 고려 초기부터 회갑연을 열었던 것으로 상고할 수 있는데 회갑은 당사자 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상을 받는다. 이를 수연상(壽宴床)이라 하며 자손들이 번창함을 이웃친지에게 보여주고 부모가 오래 산 것을 축하드리는 자리이다. 지금은 회갑연도 예식장을 빌리거나 호텔연회장에서 손님을 초대하기도 한다.

4. 상장례

상제례(喪祭禮)는 혼례와 달리 전통성이 강한 면모를 보인다. 청호동의 경우 혼례문화는 현대화되었으나 상례와 제례는 아직도 북한 지방의 풍속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정착한 청호동 실향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격식을 중시하는 상제례를 통하여 자신끼리 정신적으로 결속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함경도의 상례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3일장을 지내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오일장이나 칠일장, 십일장 또는 십오장도 지낸다고 한다. 청호동에서는 보통 삼일만에 내 간다고 한다. 상례는 크게 나누어 초종, 염습, 성복, 문상, 치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임종 즉 초종을 맞게 되면 자손들이 지켜보는데 숨을 거두는 것을 행복한 임종이라고 한다. 이때 초혼 즉 고복을 하는데, '혼 부른다'고 말한다.

남자의 경우 '아무개생 아무개 복복복'이렇게 외치고, 여자의 경우는 아무개 부인이라고 한다. 고복이 끝나면 '수세걷음'을 하는데 손을 펴서 배위에 올려놓고, 발을 똑바로 세운 다음, 송판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는다. 다음에 한지를 세 번 두르거나 베로 손목, 발목, 허리를 묶는다.

이것이 끝나면 역복을 하는데 상주들은 직령으로 갈아입고 남좌여우라하여 남자가 돌아갔을 경우 왼쪽 팔, 여자의 경우 오른팔을 끼지 않고 통건을 쓴다.

호상은 상주의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상례에 밝은 사람으로 지정하여 모든

일을 처리한다. 염습은 습과 소렴으로 구분되나 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다. 소렴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서 묶는 것이고, 대렴은 아주 묶어 입관하는 것이다.

수의는 '습의'라고도 하는데 생시에 마련해 둔 속옷, 중의, 바지, 속적삼, 적삼, 저고리, 덧저고리, 두루마기를 입히는 것이다. 이것이 끝나면 반함이라하여 쌀을 불려 시신의 입에 떠넣는 것이다. 저승갈 때 식량이라고 한다. 반함은 세번하는데, '천석이오, 만석이오'라고도 하고 동전을 같이 넣으면서 저승가는 노자로 쓰라고 '백냥이오, 만냥이오'라고도 한다.

다음에는 교포를 쓰는데, 시신을 묶은 다음 입관하고 천금을 덮는다. 그리고 관뚜껑을 닫고 결관을 한다. 관위에는 명정을 써서 덮는다. 이 과정인 염습이 끝나면 성복을 한다. 성복이 끝나면 혼백을 접고 궤연을 설치하여 성복제를 지낸다.

성복을 한 후 조문객들의 문상을 받는데 이 과정이 끝나는 3일장이나 7일장 후에 치장을 한다. 장지가 결정되면 출상 당일 발인제를 지낸다. 청호동의 경우는 함경도 각지역 도민회에서 마련한 장지가 있으므로 그곳으로 향한다. 이후 치장을 하는 과정은 줄인다.

제례는 차례 또는 차사, 절사라고 하는데, 전에는 설, 대보름, 한식, 추석, 동지 등에 지냈으나 요즘에는 설과 한식, 추석차례를 지내고 있다. 초저녁 제사는 없고, 주로 새벽 서너시에 지내고 있다. 조상제례는 시제, 기제, 묘제 등이 있는데, 사당제는 거의 없어졌다.

기제는 삼 년 이상 지난 망자의 죽기 전날 저녁에 지내는 제사이다. 대개 고조까지 지내고 그 위는 시제나 절사만을 지낸다. 절사는 명절에 묘지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지낸다. 제의 대상은 직계조상이다. 제사를 지낼 때는 '치'자 들어간 생선은 쓰지 않는다. 그러나 도치를 싱어, 새치를 임연수라하여 제물로 쓴다.

제사 음식의 그릇 수는 반드시 홀수로 장만하며, 날회는 쓰지 않으며, 김치는 씻어서 담는다. 닭은 대꼬치에 꽂아서 굽고, 무숙채는 반드시 만들어 올린다. 떡은 편틀에 고여 담는데, 제편, 약계, 중계, 인절미, 절편, 솔편, 웃지지 순서로 고인다. 떡에는 차좁쌀로 만든 조찰떡을 비롯하여 시루편, 자바위 등이 있는데 자바귀는 찰떡을 쳐서 밀대로 밀어 얇게 하여 썰어서 기름을 치고 번철에서 구워내서 물엿을 바른 떡이다. 제사에 쓰는 과질은 찹쌀로 큼직하게 만든다. 대체로 크게 만들어 높이 고이며 젯상에는 붉은 빛은 안 쓰고 하얗게 만든 것만 쓴다.

제5절 속초의 민속유희

1. 민속극

북청사자놀이는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자들이 1950년대 초반에 월남하여 속초에 정착하면서 속초사자놀이가 되었다. 함경도 사람들이 점차 집단화되자 1958년 청호동에 거주하던 김수석이 처음 사자탈을 만들었으며, 1959년 5월 2일 속초에서 북청동향 친목계를 만들면서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 공연단 결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북청도청 계칙 및 계원명단의 계요는 다음과 같다. 계칙은 전체 8장 23조로 되었는데, 제1장 총칙에서는 '북청도청을 만들어 사무실로 쓰고, 계원간의 우의와 친애협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장 조직에서는 계원자격으로 당시 속초읍내에 거주하는 북청군민으로 하고 계원수는 36명으로 정했다.

3장은 권리와 의무로서 매월 20일에 월례회의를 갖는다고 하였고, 4장의 역원에서 계장1, 부계장1, 총무1, 재무1, 서기1, 간사1, 의식부2, 연예부2, 장의부2, 고문 약간명인데 중요한 것은 연예부에서 북청사자놀음에 관한 공연계획을 주무로 한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3월 20일, 월례회는 매월 20일로 정해 고령자 순위로 자택에서 소집했다. 6장은 부조사업, 7장은 자금 및 운영, 8장은 상벌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다.

당시 계원명단의 나이 주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李貞基(63.북청읍 외서리), 吳景昌(59.내리), 金南龍(54.남리), 金壽石(52.죽평리), 李昌熙(52.거산면 평리), 李浩永(51.북청읍 외서리), 全三默(49), 方鶴福(48.북청읍 서리), 朴鎭漢(48.신북청면 신상리), 李在燮(47.신포면 육구), 崔舜在(47.하차서면 상신리), 李泌泳(48.북청읍 상동리), 李完燮(46.남리), 朴成哲(46.서리), 方錫洪(45.서리), 梁桂乾(45.덕성면 동압내리), 金河侖(45.신북청면 양가리), 魯允武(45.덕성면 동압내리), 朴庾亨(43.상차서면 방촌리), 劉弘烈(43.덕성면 주의동리), 李鍾旭(43.상차서면 엄동리), 方錫在(43.북청읍 서리), 李鍾俊(42.상동리), 魚重龍(42.날미), 馬房燮(41.가회면 봉의리), 金洪川(40.가회면 봉의리), 李鍾浩(40.북청읍 서리), 閔丙國(39.거산면 하입석리), 崔乘潤(39.건자포), 金孝煥(38.신포면 신포리), 金先川(38.북청읍 상동리), 李奧燮(38.서리), 吳東述(36.죽평리), 申謙(36.죽평리), 馬裕得(34.가회면 봉중리), 林龍泉(33.북청읍 북삼리) 등

이다. 참고로 1943년도 통계에 의하면 북청군은 총 호수 38,916호에 총인구는 224,027명이었고, 8 · 15 당시에는 약 28만명의 인구로 늘었다. 당시 북청군은 3읍 11면 123리였다. 참고로 상세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함경남도지, 1988, 증보판, 901쪽 참조)

① 북청읍 : 내리, 남리, 동리, 죽평리, 동흥리, 남흥리, 중평리, 당포리, 북상리, 불리, 장항리(12개리)
② 신북청면 : 신북청리, 동중리, 동상리, 신상리, 무우대리, 하호리, 양천리, 초리, 보천리(9개리)
③ 신창읍 : 신창리, 만춘리, 경안대리, 승평리, 토성리, 덕음리, 신풍리, 보청리, 장호리, 예원리(10개리)
④ 가회면 : 중리, 나흥리, 마산리, 봉의리, 초리(5개리)
⑤ 하차서면 : 상신흥리, 월산리, 덕우대리, 하신흥리, 월근대리, 임자동리(6개리)
⑥ 상차서면 : 상돌리, 신태리, 중돌리, 하돌리, 수서리, 엄동리(6개리)
⑦ 거산면 : 평리, 상입석리, 상세동리, 포항리, 하입석리, 하세동리(6개리)
⑧ 후창면 : 통이리, 오평리, 당우리, 일리, 이리, 동평리, 부동리(7개리)
⑨ 성대면 : 창성일, 수서리, 조양리, 양평리, 보성리, 칠동리, 평리(7개리)
⑩ 이곡면 : 초리, 제초리, 제중리, 제상리, 중리, 인동리, 상리(7개리)
⑪ 신포읍 : 신포리, 문암리, 중흥리, 석정리, 연호리, 도서리, 토성리, 육대동리, 육대서리, 중보주리, 상보주리, 신호리, 노평리(13개리)
⑫ 덕성면 : 수동리, 서장내리, 동장내리, 만항리, 수서리, 니망지리, 서흥리, 어은리, 주의동리, 죽전리(10개리)
⑬ 속후면 : 서호리, 창성리, 오매리, 간평리, 남호리, 서원리, 현금리, 강상리, 의호리, 서도리, 상창리, 하천리, 나호리, 연주리, 광천리, 용전리(16개리)
⑭ 양화면 : 유호리, 모가대리, 창상리, 후호리, 호만포리, 부창리, 양화리, 남안대리, 동리(9개리)

위에서 북청동향친목계에서 나타났듯이 함경도 피난민들에 의해 북청사자놀음이 재현되었는데, 196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이미 13세 때부터 사자춤을 추었고, 19세에 애원성을 잘 불렀던 죽평리 출신 김수석이 속초에 살고 있었으므로 북청군민회에서는 이 분을 중심으로 출연단을 구성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북청사자놀음이 남한에서 공연되었고, 속초에서는 구체적인 전승을 위해 북청도청을 만들었고 당

시의 친목계 36명이 참여하였다.

북청도청 기금마련을 위해 1957년 정월대보름날 김수석이 속초에 정착한 다음해 북청사자놀음이 속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자탈과 퉁소, 복식 등을 새로 만들어 사자춤을 추며, 가가호호를 방문하였다. 당시 친목계원 중에는 김수석, 오동술, 김하륜, 이재섭 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계원 중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을 골라 다시 연습에 들어갔다.

약 10일 동안의 걸립에는 북청군민지역 독지가로부터 거둔 기금으로 1958년 속초읍장 전성우로부터 금호동 소재 읍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도청을 건립하였다. 이와 같이 속초에서 북청도청을 중심으로 사자놀음이 재현되자 이북5도청에서도 1960년 서울에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발족, 1964년부터 전수에 들어갔다.

1966년 10월 24일 덕수궁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속초의 김수석, 오동술, 이재섭 등이 참가하여 김수석이 개인상을 받았고,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70년 4월에 북청민속예술보존회가 인가되고, 김수석이 인간문화재 제84호로 인정받게 되었다.

『신북청면지』(1986.156쪽)에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기술하였다.

사자놀음이 8 · 15해방과 1 · 4후퇴 후에 남한에서 북청의 민속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196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받게 된 때부터였다. 당시 본면 東中里 출신 趙瑞喜가 북청군민회장과 초대 북청명예군수를 겸임하면서 북청사자놀음을 무형문화재로 문공부에 등록시킬 것을 결심하고 함경남도지사 徐南龍과 의논한 바 서지사의 찬동을 얻었다.

연후에 개최된 함남 명예시장 군수회의에서 북청사자놀음을 함남무형문화재 민속예술로 지정하여 문공부에 등록시키는 모든 업무를 조서희 군수에게 일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군수는 제반 경비를 부담하고 기능보유자의 인선문제와 경비지출 문제는 북청군민회 총무부장인 본면 출신 조하립에게 일임시켰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에서 邊永鎬 · 全仲植 · 金三龍 · 董誠英 · 董泰善 · 李根花善 · 田光石, 경기도에서 尹迎春 · 馬厚燮, 강원도에서 金壽石 · 吳東述, 부산직할시에서 馬羲秀를 기능보유자로 선정하여 약 일개월간 피나는 연습으로 마침내 1967년 2월 25일 시민회관에서 발표공연을 하여 심사에 합격되어 북청사자놀음이 함남무형문화재로서 제22호로 지정, 문공부에 등록되었다. 총 12명의 기능보유자중 신북청면 출신이 수명이나 되는 사실만으로도 사자놀음이 얼마나 성행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속초에서 연희된 1957년 초창기의 북청사자놀음 연희자는 다음과 같다.

사자 : 김수석(앞채, 애원성), 오동술(뒷채), 양반 : 이종욱, 꼭쇠 : 양계건, 사당춤 : 박씨, 위원 : 장남우, 승무 : 김봉수, 총각 : 김원사, 곱추 : 마유득, 도깨비 : 김효환, 중국인 : 이종호, 악사 : 변무성(퉁소), 박진환(퉁소), 이재섭(퉁소), 김하륜(퉁소), 마방섭(북), 이종준(징), 신겸(장구), 이외에도 길잡이 놀이패 여러 명이 참가함.

필자가 김수석, 김하륜 옹으로부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희시기 : 정월대보름 전후 2~3일간
② 연희장소 : 도청마당, 가가호호 방문
③ 등장인물 : 악사, 양반, 꼭쇠, 애원성 춤 2명, 거사춤 2명, 사당춤 2명, 칼춤 2명, 무동춤 4명, 꼽새춤 2명
④ 가면 : 양반, 꼭쇠, 사자탈(종이탈)
⑤ 악기 : 퉁소 3~4개, 꽹과리, 장고, 북, 징
⑥ 연희소요시간 : 40~50분, 사자춤 5~10분
⑦ 연희내용 : 벽사진경
⑧ 연희마당 : 아홉굿거리 열 두마당
· 아홉굿거리-입장곡, 애원성곡, 에구 내딸 봉섬이, 연풍대, 칼춤, 사자춤 초장, 중장, 말장, 자유곡
· 열 두마당-양반 꼭쇠의 해학마당정리, 애원성노래, 사당춤, 무동춤, 꼽새춤, 칼춤, 사자춤 초장, 중장, 말장, 승무, 풍자, 군무
⑨ 사자탈 : 1958년 제작된 사자탈은 사자전면 가로 70㎝, 세로 62㎝이다. 이마에서 눈썹까지 15㎝, 눈썹의 길이 20㎝, 한쪽 눈의 크기 14㎝, 코길이 22㎝, 입의 길이 21㎝, 입 높이 3㎝이다. 원래는 피나무로 깎고 색을 칠했으나 종이로 만들고, 털은 그물에 색칠을 함. 이상과 같이 탈을 만들고 연희가 진행된다.

2.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민간에서 오래전부터 즐기던 놀이로 어린이나 어른, 남녀를 불문하고 향유한 전통적이고 향토색이 담긴 것이다. 민속놀이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것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가. 논뫼호 불꽃놀이

청초호를 옛 문헌에는 쌍성호(雙成湖)라 하였는데 이곳을 조선시대 학자인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관동팔경의 하나로 꼽았다. 청초호는 지역에서 '논뫼호'라 불렀는데, 논뫼는 논산리를 뜻하므로 논산리 앞의 호수라는 뜻이다. 이곳 청초호에서는 낙화유(落火遊)라 부르는 불꽃놀이가 행해졌다.

전하는 말로는 조선 숙종 때부터 이 고을로 오는 수령을 위해 주민들이 경축행사로 논뫼호에 꽃배를 띄우고 놀았다고 한다. 이때 관기들이 풍악을 울리며 3일동안 밤을 새우며 축하연을 베풀었는데, 널빤지에 숯불을 피워서 호수에 띄웠고, 주민들은 호수 주위에 초롱불을 밝혀 수령을 즐겁게 했다고 한다.

불꽃놀이를 할 때 구경나온 주민들도 함께 흥겨워하고 뚝에서 주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불꽃놀이는 지방민들이 새로 부임한 수령에게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이다. 청초호는 호수 둘레가 수십리로 경치가 영랑호보다 좋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곳에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시켰다고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기록하고 있다. 이곳 청초호 불꽃놀이가 중단된 것은 조선조 말엽으로 불꽃놀이 중에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나. 나룻배싸움놀이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청초호에는 숫룡이 살고 있었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았다고 한다. 서로 땅속으로 통한 물길을 따라 오가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한 어부의 실로 큰 불이 나서 청초호 주변의 솔밭이 불에 탔다고 한다.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청초호의 숫룡이 죽고 말았는데, 그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를 내렸다고 한다.

이후로 어민들은 정월대보름날을 기하여 무당에게 청하고 정성껏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숫룡의 죽음을 위로했다고 한다. 또한 이때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를 거행했다고 한다. 이 나룻배싸움놀이에서 진 마을에서는 이긴 마을에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이긴 마을은 풍어를 거둔다고 믿으며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놀았다고 한다.

지금의 청호동 갯배나루는 90m나 되지만 옛날의 만천동 나루는 북으로 영랑호, 남으로 청대리 싸릿재를 이어 도문동으로 연결되었으며, 동쪽으로는 대포동에 이르렀다. 나룻배싸움놀이가 시작되는 음력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용신제를 올릴 길일을 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주와

제관은 목욕재계를 하고 부정을 금하는데, 동네 청년들이 용신제를 올리게 된다.

이들은 풍년과 풍어, 마을 안녕을 기원한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편 마을로 찾아가 동네 어른을 찾아서 인사를 한 다음 음복을 한다. 서로간의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타고 각자 마을로 돌아와 나룻배에 신주와 제물을 차려 호수로 나간다. 호수에서는 음식을 뿌리며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음식과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운 다음에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양편의 나룻배를 타고 호수 한 가운데로 나가, 배끼리 부딪쳐 상대편 마을로 밀고 나가면 이기게 된다. 상대의 힘에 밀려 나룻배가 되돌아오면 승패에서 패자가 되므로 힘껏 줄을 당기고 노를 젓고, 막대기로 밀게 된다. 이처럼 힘을 겨루어서 이기게 되면 풍어를 약속받는다고 한다. 나룻배싸움놀이로 승패를 정하면, 승자나 패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 마을 청년들이 어울려 놀이마당을 펼친다.

나룻배싸움에서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도선료를 받지 않으며, 푸짐하게 대우를 해주게 되므로 배싸움에 몰두하게 된다.

나룻배싸움은 결혼하여 가마를 타고 오다가 나룻배에서 만나게 되어도 이와 같이 했는데, '혼례나룻배싸움'에서 이기면 신부가 첫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또한 나룻배싸움 때에는 아들을 많이 낳은 집안의 장정들을 뽑아서 참여시키는 것도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룻배싸움은 결국 암수의 용이 결국 하나로 화합하는 절차로 두 마을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것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나룻배싸움놀이는 일종의 용선희(龍船戱)로서 해양민속놀이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 든대질놀이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하므로 몇 개의 개안(항구가 있는 곳)과 날바리땅(항구가 없는 모래땅)을 주축으로 어로 작업을 한다. 속초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오산, 수산, 인구, 북쪽으로는 봉포, 공현진, 문암, 가진 등은 날바리땅으로 이루어진 어촌이다.

옛날부터 든대질로 배를 진수하고 끌어올리는데, 1950년대 초기의 청호동, 장사동에서는 날바리 땅이었다. 날바리땅에서는 폭풍이 친다든지, 해일이 일어나면 시간을 다투어 배를 끌어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친 파도에 휩쓸려 파손되기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든대질을 해야 한다. 그러나 평상시

에는 여유 있게 허리도리라는 선소리꾼의 유창한 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뒷소리를 하면서 든대질을 한다.

든대질 소리는 속초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적인 내용은 없고,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사설이 여러 가지 삽입되고 있다. 배를 처음 만들어 물에 띄우는 진수 시에 사람들은 '배내린다'고 하고 무사고를 비는 기원제를 올린다. 기원제는 솔가지를 끝에 꽂은 대나무에 오색 만선기를 달고 뱃머리 즉 이물에 제물을 차리고 빈다. 제물은 술, 과일, 포, 돼지머리 등이다.

첫 출어를 하게 되면 선주가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고사를 지낸다. 동해안에서는 이것을 '설망'이라고 한다. 설망을 하는 날은 택일하여 좋은 날을 고르는데, 고사를 지낸 후에 배성주신을 모실 돈은 선주한테 받는다.

배성주는 배를 지키는 신령으로 그 표상은 한지를 한쪽 변이 10㎝쯤 되도록 모나게 여러 겹으로 접어서 돈과 청홍실을 넣어 어부들이 잠자는 '방장'이나 '큰대멍'(고기를 잡아서 담아두는 곳)에 모신다. 배성주신을 모실 때는 제물로 어물을 쓰기도 하고, 육류를 쓰기도 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쓰지는 않는다.

선주가 제사의 주인이 되면 도사공은 제관이 된다. 성주기를 꽂고 드리는 고사가 끝나면 모든 선원들은 도사공의 선소리에 맞추어 든대질로 배가 물에 닿게 되면 선원이 노를 저어 떠나게 되고 '따리'를 잡은 도사공이 방향을 잡는다.

노를 저어 항포구를 떠나 바람을 만나면 돛을 올려 노젓기를 중단하고, 짚단에 불을 붙여 뱃전을 돌고, 뒷고물을 휘두른 뒤에 바다에 버린다. 이것은 액막이를 하는 것인데, 삼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어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이다. 든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게'라 하는데, 이것은 '고인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든대질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성주기(만선기)－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주거나, 직접 만드는데, 깃대에는 소나무 가지를 묶고, 짚으로 만든 삼재막이를 달고 배성주를 모신다.

② 고사－제관은 선주가 되며, 도사공과 선소리꾼인 허리도리도 같이 고사

를 드린다. 이유는 배가 오래가고, 무사고를 비는 뜻이다. 제물은 술, 초, 향, 시루떡, 포 등으로 간단히 차린다.

③ 액막이-이것은 짚으로 만든 포막대에 불을 붙여 배의 앞뒤를 다니면서 소금을 뿌리고 부정을 씻는 주술적인 행위를 말한다.

④ 비나리-고사가 끝나면 무녀가 소복을 입고 징을 치면서 기도를 드린다. 이때 쾌자는 입지 않는다.

⑤ 든대질-기원과 액막이가 끝나면 허리도리는 젊은이들과 괴꾼, 든대꾼이 선소리와 뒷소릴 부르면서 배를 물에 내린다.

⑥ 설망-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면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나가면서 돗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마을 사람들과 어부들은 선주가 장만한 음식을 먹으면서 풍어를 빈다.

⑦ 풍물-주민들이 꽹과리, 징 등을 울리고, 걸립시 무녀가 함께 풍악을 울리며 배의 만선과 무사조업을 빈다.

장정룡 (강릉대학교 국문과 교수)
감수위원 : 최용문(전 속초문화원장)

제4장 속초의 방언

제1절 속초 방언의 위상

속초(束草)는 조선 시대의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작은 마을로부터 시작된 도시이다. 그러다가 청초호(靑草湖)가 개발되면서 1937년에 속초면, 1942년에 속초읍, 1963년에 속초시로 계속 발전하였다. 속초시는 인접한 양양군과 고성군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제는 영동 북부 지역의 대표 도시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관광의 기점으로서 그 역할이 부각되어 앞으로의 발전이 전망되고 있다.

강원도에 속해 있는 속초의 언어는 흔히 중부 방언으로 모호하게 분류되었으나, 이익섭(1981)에 이르러 강원도 방언을 대관령을 기준으로 서쪽의 영서(嶺西)와 동쪽의 영동(嶺東)으로 이분하는 방언권 설정에 따라 영동 방언으로 분류되었고, 영동 지역에서도 남부 방언과 구분되는 북부 방언권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김영황(1982), 황대화(1986) 등의 연구에 힘입어 강원도 영동 방언은 '경상-강원-함경'으로 연결되는 동해안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방언의 성격이 규정되기도 한다. 특히 동해안 방언권이라는 점에 있어서 강원도 영동 방언은 동남 방언인 경북 방언과 동북 방언인 함경 방언을 잇는 전이지대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숭녕(1967)이나 김병제(1988)에서 구분한 국어에 대한 일반적인 방언 구획은 다음과 같다.

○ 국어의 대방언 구획
가. 동북 방언 지역: 함경도 지역
나. 서북 방언 지역: 평안도 및 황해도 지역
다. 중부 방언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
라. 동남 방언 지역: 경상도 지역
마. 서남 방언 지역: 전라도 지역
바. 제주 방언: 제주도 지역

이러한 대방언권에 의하면 강원도에 속하는 속초는 중부 방언권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동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북 및 동남 방언권과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음이 최근의 연구 성과에서 드러난 그 특징이다. 그러

므로 속초 방언의 위상은 중부 방언의 성격과 동해안 방언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 전이 지역(複合轉移地域)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영동 방언권인 속초의 언어는 함경 방언과 같은 북부 방언과 경상 방언인 동남 방언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면서, 영서로 연결되는 중부 방언의 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방언의 삼각 지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동 방언의 특성은 영동 방언만의 독특한 체계로서 기술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속성 자체가 주변의 다른 방언과 항상 공통성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이적 성격으로 인하여 영동권인 속초 방언의 위상이 폄하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방언 연구의 충분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영동의 북부 방언권에 속하는 속초 방언은 같은 방언권이라 할 수 있는 강릉 지역이나 삼척 지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민현식 1991).

○ 속초 방언의 특징: 강릉 및 삼척 방언과 비교하여
가. 'ㅂ, ㅅ' 보존형이 우세하다.
나. 단어나 문장의 고저 억양이 심하다.
다. '-나?' 보다 '-니?' 가 우세하다.
라. '-니다. -니까?' 가 '-네다, -네까?' 에 가깝게 발음된다.
마. 일부 단어의 형태가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속초의 북부 지역인 함경도 방언의 영향과 함께 한계령 및 진부령을 통한 영서 방언의 영향을 함께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의 방언은 그동안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에서 실시한 전국의 방언 조사에 있어서도, 속초 지역의 방언 조사 지점은 속초를 지목한 것이 아니고, 양양군과 고성군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속초의 방언은 영동 방언과 동북 방언의 전이 지대로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청호동이라는 방언섬이 집단 주거 형태로 존속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지역이다. 본고는 속초 방언과 청호동 방언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이다. 청호동 방언은 함경남도(주로 북청 지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으로서, 동북 방언의 생생한 증언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속초의 방언은 넓은 의미에서 청호동 방언을 포괄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청호동의 언어와 부단한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제2절 속초의 방언 어휘와 언어적 특성

속초의 방언은 남쪽으로 인접한 양양과 북쪽으로 인접한 고성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부적으로는 양양의 방언과 고성의 방언 사이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강원도 방언에 대한 것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방언조사질문지』에 의거하여 강원도 전역을 조사한 것이 가장 체계적이다. 그런데 속초 방언은 속초를 직접 조사 지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근의 양양군과 고성군을 조사 지점으로 하였으므로, 『한국방언자료집』(강원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에만 의거한다면 속초 방언은 양양군의 것과 고성군의 양쪽을 참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본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자는 『한국방언자료집』(강원도편)에 조사된 어휘를 속초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 일시와 제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조사 일시와 제보자 명단
가. 조사 일시: 2005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 제보자 명단
용정춘(여) 1935년생 속초시 장사동
박영화(여) 1936년생 속초시 장사동
김연옥(여) 1936년생 속초시 동명동
최선희(여) 1937년생 속초시 조양동
다. 보조 조사요원: 안홍주(여, 강릉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

1. 속초의 방언 어휘

속초의 방언 어휘는 『한국방언자료집』(강원도편)의 분류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다만 한정된 지면이라는 제약으로 인하여 표준어와 차이가 나거나, 또는 기존에 조사된 어휘와 차이가 나는 경우를 중심으로 방언 어휘를 제시하였다.

1) 농사 어휘(표준어-속초방언)

○볍씨-베씨 ○못자리-모자리 ○애벌맨다-아이짐맨다 ○곁두리-젠노리 ○호미씻이-유듀놀이 ○쟁기-옌장 ○보습-버섶 ○쇠-쇠꼽 ○ 극젱이-가데기 ○자루-잘기 ○삽-삽/삽장 ○벼훑이-저페 ○새끼-새끼/

새꼬래기/새꼬락지 ○노끈-내끈 ○방석-맷방석 ○광주리-광지리 ○바구니-소쿠리 ○디딜방아-발방아 ○맷돌-망 ○겨-제 ○왕겨-셋제 ○등겨-등게 ○어레미-얼게미 ○조-조이 ○옥수수-옥씨기/옥세기 ○무우말랭이-무쏭스레기 ○호박고지-호박송씨래기 ○시래기-건추 ○쓰레기-씨레기/씰게비 ○채소-푸성구 ○황소-화소 ○쟁기꾼-성군 ○고무래-고물개 ○메밀-메물 ○수수/수수깡-쉬끼/쉬낏대 ○논곡식/밭곡식-논곡/밭곡 ○논두렁-논두럼 ○씨아-쎄 ○번데기-번더지 ○거름-걸금/거름 ○꼴-고질 ○물거름통-액비통 ○오물바가지-귀때동우

2) 음식 어휘

○김치-짠지 ○상추-불기 ○오이-물외 ○오이소박이-외짠지 ○부추-분추 ○이남박-쌀람박 ○주걱-박죽 ○누룽지-소쩽이 ○흰떡/가래떡-절떡 ○기계국수-틀국시 ○고명-꾀미 ○새알심-옹시미 ○수제비-뜨더국/뚜더기국 ○튀밥-깡밥 ○엿기름-질금 ○장독뚜껑-장뚝꺼리 ○주발뚜껑-복찌께 ○아궁이-보강지/아궁지 ○화로-화리 ○부젓가락-부절까지/부절 ○석쇠-모태 ○시루-실기 ○젓가락-절/절까지/절가락 ○메밀묵-소적(素炙)/소제기 ○김치광-짠지헛간 ○부손-불가래 ○과줄-과질 ○김장-짐장 ○광주리(를 엮다)-광지리(를 짠다) ○버무리(떡)-뭉셍이

3) 가옥 어휘

○살강/선반-실경 ○(열쇠를) 열었다-베꼈다 ○베개-비개 ○욧잇/요의-욧니끼 ○마루-마루/마룽 ○미닫이-미닫이/밀짱지 ○바람벽-배람짝 ○기와집-기와집/재집 ○용마루-용말기 ○용마름-곱새 ○낙숫물-지시랑물 ○장독대-장뚝꺼리 ○변소-정낭/정냥/벤소 ○우물-우물/웅굴 ○또아리-또바리/따바리 ○수렁-수렁/수럭 ○고드름-고드레미/고등내기 ○토방-뜨럭/뜰/뜰팡 ○뒷곁-된/두란 ○광-고방 ○뒤주-두지 ○부엌-정지 ○여물광-고지까리/고질간 ○외양간-마구 ○(등잔의)그을음-끄시름/끄름 ○(솥의)그을음-솥꺼망/게망 ○뒤주-두지 ○부등가리-불비땡이 ○내/연기-냉고리/연기

4) 의복 어휘

○허리띠-허리띠/허리바 ○염낭-주머이/염낭 ○고쟁이-고재이 ○누더기-투데기 ○누덕누덕-투덕투덕 ○대님-대임 ○집신-집쎄기 ○끊다-뜨다 ○혼수감-혼초 ○헝겊-흥겊 ○깁는다-짓는다/찍어맨다 ○재봉틀-재봉 ○골무-골미 ○가위-가새 ○반짇고리-반지그릇

5) 인체 어휘

○가르마-가름배 ○수염-쉠/쒜미 ○눈두덩-눈텡이 ○눈곱-눈꿰비 ○입술-입술/입술기 ○혀-세/헤 ○벙어리-버버리 ○귓불-귓부랄 ○귀에지-귀젖 ○가루비누-가루비누/갈기비누 ○거울-세껑(←色鏡) ○얼레빗-얼개 ○마디-손매디 ○가부좌-올방지 ○넓적다리-넙쩍다리/신다리 ○무릎-무릎/꼬뱅이 ○정강이-장갱이/앞장갱이 ○부스럼-부시르미/뾰들가지 ○땀띠-땀떼 ○여드름-여드름/이드름/여드레미 ○멍-싱당구/심당구 ○언청이-헤챙이/째보 ○곰보-곰보/얽음배기/얼금뱅이 ○학질-고금 ○홍역-호녁 ○감기-고뿔 ○딸꾹질-깔떼기 ○사레-사리 ○졸음-자오름 ○구린내-쿤내 ○겨드랑-저드랑 ○엉덩이-응셍이/응뎅이 ○복사뼈-복상시 ○가마-가매 ○헌데-헌텡이 ○눈두덩-눈텡이 ○구두쇠-구두생이 ○기침-지침 ○말더듬이-떠드바리

6) 육아 어휘

○여자아이-지집아 ○남자아이-머슴아 ○마렵다-매릅다 ○포대기-퍼대기 ○섬마섬마-둥기둥기 ○아장아장-자작자작 ○썰매-썰매/빙구/빙거(氷車) ○얼레-연자새 ○소꿉질-소꿉질/동구파리 ○고누-꼰지리 ○그네줄-다줄 ○부럼-부시럼

7) 인륜 어휘

○아버지-아버이 ○할머니-할머니/할머이 ○언니-성 ○아우보다-아시보다 ○사위-싸우 ○올캐-올개 ○시동생-시아제비 ○삼촌-아재 ○조카-조캐 ○초상집 밤새기-방광이 ○함진애비-함애비 ○동생-동상 ○내외하다-내우하다

8) 경제 어휘

○마을간다-말도리간다 ○우수리-우사리 ○풀무-풍구 ○바퀴-바꾸 ○뭇(생선)-무데기 ○셋-스이 ○넷-느이 ○하루-할리/하루 ○올해-올개

9) 동물 어휘

○고기-고기/고이기 ○생선-바닷고기 지느러미-날개미/날개 ○아가미-아가미/아금지/써거리 ○올챙이-올체이 ○갈치-칼치 ○게-기 ○다슬기-골뱅이 ○우렁이-논골뱅이 ○서캐-써개 ○벼룩-베루기/베룩 ○모기-모기/모갱이 ○지렁이-지렝이/지레이 ○회충-거시/거쉬 ○거머리-그마리 ○벌레-벌거지 ○바구미-바그미 ○노래기-노네기 ○진딧물-띠미 ○거미-거미/거무 ○방아깨비-방아메뚜기 ○버마재비-사마구 ○소금쟁이-엿장사/엿장수 ○방개-방기 ○반딧불-개똥벌레 ○땅벌-땡삐 ○진드기-으네이 ○소입막이-멍 ○외양간-마구 ○발채(지게)-소고리 ○구유-귕 ○여물광-고질까리 ○염소-양이 ○고양이- 고넹이 /고네이 ○수탉-수딱 ○암탉-암딱 ○벼슬-베실 ○모이-메이/멩이 ○노란자위-노란자우 ○거위-거우 ○노루-놀기 ○올가미-옹노 ○삵괭이-살갱이 ○솔개-솔개미 ○뜸부기-뜸부기/물닭 ○달걀-달겡이 ○창자-창지/밸/열 ○불가사리-쪽발이 ○성게-성거 ○우렁쉥이/멍게-행우/멍게 ○해초-말/나물 ○홍합-홍화 ○도미-되미 ○비늘-비눌 ○꼬리-꽁지 ○정어리-눈치 ○새치-이면수 ○조개-조가지/조개

10) 식물 어휘

○해바라기-해자우리/해바라기 ○꽈리-꿰리 ○진달래-참꽃 ○철쭉-함박꽃 ○도깨비바늘-개바늘 ○덩굴-덤불 ○냉이-나새이/나생이 ○질경이-삡짱우/빼짱구 ○달래-달래/달룩 ○삘기-뽐 ○뱀딸기-개미딸구 ○개암-개금 ○고욤-굄 ○복숭아-복상 ○홍시-홍시/홍실 ○자두-괘/꽤 ○호두-당추지 떡갈나무-구람나무 ○도토리/상수리-굴밤 ○뿌리-뿌레기 ○줄기-원등거지 ○삭정이-삭다리 ○솔가리-검불 ○도끼-도꾸 ○오디-오디/호디 ○달래-달루/달룩 ○질경이-빼짱우/빼짱구 ○모과-모개 ○보늬-밤고물 ○삭정이-싹젱이/싹뎅이 ○알밤-밤알락 ○개암-개금 ○머루-멀구 ○씀바귀/고들빼기-씀바구/고들빼기 ○꽈리-꽤리 ○

맨드라미-만드라미 ○창포-창푸 ○당귀-당구 ○오얏-꽤/꽤리/자두 ○솔잎바늘-송치미 ○소나무 썩은 뿌리-소깽이/소깡이 ○갈퀴-깍젱이

11) 자연 어휘

○기슭-산밑 ○묏자리-멧자리/산자리 ○비탈-고댕이 ○메아리-산울림 ○바위-바우 ○저녁-지냑 ○글피-글페 ○요즈음-요새 ○이슬비-이슬비/가랑비/능개비 ○소나기-소낙비 ○우박-누리 ○가을에-갈게 ○가을하다-갈걷이한다 ○진눈깨비-진갈비/눈개비 ○회오리바람-돌개바람 ○먼지-문지/문데기 ○모퉁이-모텡이 ○모래-몰개/모래 ○동풍-들바람(약한 것)/서마바람(강한 것) ○서풍-하누바람 ○남풍-마파람 ○북풍-샛바람/급새(급한 샛바람) ○남서풍-갈바람 ○서북풍-뒷새바람 ○파도-멀기/멀개 ○큰 파도-나울 ○매우 크고 무서운 파도-서마나울 ○깊은 바다-갈매 ○북에서 남으로의 조류-설물 ○남에서 북으로의 조류-만물 ○동에서 서로의 조류-들물 ○동북에서 남서로의 조류-마안들물 ○남서에서 둥북으로의 조류-새안들물

12) 어촌 어휘

○돛-도꾸 ○키-치(큰 배에 쓰임)/딸(작은 배에 쓰임) ○닻-땃/따래 ○노-놀 ○배 가운데-한창 ○미끼-메끼/메깟 ○나침판-패철 ○잠수 작업인-머거리 ○이물-이물/앞물 ○어부-뱃동무

13) 상태 및 동작 어휘

○기울다-지울다 ○가깝다-가찹다 ○짜다-짜굽다 ○싱겁다-싱굽다 ○창피하다-남새스럽다 ○알리다-알구다/알기다 ○따스하다-뜨시다 ○나누다-농구다 ○맛있다-마숩다 ○견디다-전디다 ○어울리다-어불리다

14) 부사, 관형사, 감탄사

○겨우-제우 ○모두-마카 ○전부-전수/전부 ○매우-매우/되우 ○벌써-벌써/하마 ○일부러-우정/일부러 ○왜-왜서 ○무슨-무신/뭔 ○아직/아직도-상개/상거

2. 속초 방언의 언어적 특징

가. 음운적 특징

속초 방언의 음운 체계는 19 자음 체계와 10 단모음 체계를 갖는 표준어의 음운 체계와 다르지 않다. 다만 '애'와 '에'의 중화 현상의 진행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속초 방언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외, 위'의 발음이 단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방언 조사의 대상이 노년층임을 감안하면 '애~에'의 중화나, '외, 위'의 이중 모음화는 젊은층의 방언에서 더 확산되어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 속초 방언의 운소 체계는 장단(長短)에 더하여 고저(高低)가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동해안 방언의 특성상 성조로서의 고저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어휘 분화에 작용하는 뚜렷한 변별적 요소로서의 기능을 찾기는 어렵고, 다만 일정한 억양에서 고저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저의 음운적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정밀한 고찰이 더 필요할 것이다.

국어의 역사에서 어중의 'ㄱ, ㅂ, ㅅ'이 약화되어 탈락된 현상이 있다. 이러한 음운의 약화 현상은 중앙어에서는 중세 국어 시기에 이미 일어났다. 그러나 중부 방언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ㄱ, ㅂ, ㅅ'의 음운이 남아 있는 많은 어휘가 발견되는데, 속초 방언도 예외가 아니다.

○ 'ㄱ' 보존형: 몰개(모래), 실경(시렁), 낭구(나무), 잘기(자루), 얼게미(어레미), 씰게비(쓰레기), 웅굴(우물), 갈기(가루), 벌거지(벌레), 놀기(노루)
○ 'ㅂ' 보존형: 또바리(또아리), 버버리(벙어리), 고방(광), 달비(다리/鞮)
○ 'ㅅ' 보존형: 가새(가위), 아시보다(아우보다), 나새이/나생이(냉이)

속초 방언에서 'ㄱ, ㅂ, ㅅ'의 보존 양상은 'ㅂ, ㅅ'에 비하여 'ㄱ'의 보존이 더 뚜렷한 양상이다. 다만 'ㄱ' 보존 형태에서 '잘기, 갈기, 놀기' 등의 형태는 형태소 내부라기보다는 어원적으로 격조사 연결 형태인 점에서 달리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음운 현상에 두드러진 것은 'ㄱ, ㅎ' 구개음화 현상이다. 'ㄱ, ㅎ' 구개음화 현상은 속초 방언만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남부 방언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음운 현상이다. 속초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잘 나타난 것은 'ㄱ, ㅎ' 구개음화의 적용이 진즉에 확산되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 'ㄱ' 구개음화: 지집아(계집아), 저드랑이(겨드랑이), 찌울다(기울다), 재집(기와집)

○ 'ㅎ' 구개음화: 성(형), 숭년(흉년), 세(혀), 시다(희다)

모음의 발음에서 특이한 것은 비모음화 현상이다. 비모음화 현상은 '양양 → 예양, 강원도 → 가원도' 등에서 비음 'ㅇ'의 탈락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고 뒤에 오는 모음을 비음화시키는 현상이다. 이러한 음운 현상은 영동 및 동북 방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비모음화(鼻母音化) 현상: 고넹이/고네이~(고양이), 올체이~(올챙이), 고재이~(고쟁이), 호넉~(홍역), 할머이~(할머니), 삼추이~(삼촌이), 마이~(많이)

비모음화 현상은 비음 'ㅇ, ㄴ'의 완전한 탈락인가, 아니면 뒤에 오는 모음을 비음화시키는가 하는 점이 명확지 않다. 그러나 완전한 탈락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비모음화라는 관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비모음화 현상은 비음 'ㅇ, ㄴ'의 탈락에 이르는 과도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타의 모음에 관련된 음운 현상으로는 움라우트, 전설모음화 등과 같은 여타 방언에 흔히 나타나는 음운 현상 외에도, '이' 모음화와 같은 좀더 특징적인 것도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모음의 변이는 일정한 방향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용례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모음의 변이: 치매(치마), 조캐(조카), 모개(모과), 동새(동서), 화리(화로), 지사(제사), 바우(바위), 비눌(비늘), 저구리(저고리), 동상(동생), 새복(새벽)

나. 문법적 특징

속초 방언의 문법적 특징은 영동 방언의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어 방언의 문법적 특징은 조사와 어미의 특수한 형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익섭(1981)과 민현식(1991)을 참조하여 조사의 종류와 함께 상대존대의 등급에 따른 종결 어미의 실현 양상만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조사의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장 용례는 방언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만을 들었다.

○ 주격 조사: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이/-가'가 쓰이지만, 모음으로 끝난 명사되에서 '-이'가 쓰이기도 하며, 간혹 '-거'가 쓰이기도 한다. 그리

고 '-이가/-이거'가 하나의 주격 조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앞 요소의 '-이'를 접사로 처리할 수도 있다.

용례: 배이 잘 익어가문
벳바리거 한동에 쉰무지래요.

○ 목적격 조사: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을/-를'이 쓰이지만, 간혹 말음 'ㄹ'이 탈락된 '-으/-르'가 쓰이기도 한다. '-으/-르' 형은 강릉에서 많이 쓰인다.

용례: 쇠르 모다가

○ 관형격 조사: 표준어 형태인 관형격 조사 '-의'는 방언 및 연결 어휘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된다. 속초 방언에서는 주로 '-어' 형태로 나타난다.

용례: 이웃 으런어 지비는

○ 부사격(처소): 표준어 형태인 '-에'가 기본적으로 쓰이며, 여기에 첨가 형태인 '-에다, -에다가' 등이 함께 쓰인다. '-에다, -에다가' 형태는 여러 방언에서 흔히 나타나므로 속초 방언만의 특징은 아니다.

용례: 논에다가 모 숭굴 때는

○ 부사격(지향): 표준어 형태인 '-로'의 음운적 변이형 '-루'가 쓰인다.

용례: 약수터루 놀러가지요.

○ 부사격(공동): 표준어 형태인 '-과/-와, -이랑' 등이 그대로 쓰이고, '-하고'의 변이형인 '-하구'도 쓰인다.

용례: 칙떡하구 송기떡하굴랑은 춘궁기 때 먹지요.

○ 보조 조사: 주제화 보조사 '-은/-는'은 그대로 나타나지만, 가끔 '-은/-는'의 중복 형태인 '-으는'이 나타난다.

용례: 부인들으는 신흥사를 가지요

조사에 있어서는 이 밖에도 '-도 → -두, -까지 → -꺼정, -끼리 → -찌리, -부터 → -버텀' 등의 변이형이 발견된다.

상대존대의 등급에 따른 종결 어미의 실현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장 용례는 방언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만을 들었다.

○ 해라체: <평서: -아/-어, -지, -데, -이라니, -다야> <의문: -니?/-나?, -ㄴ?, -지왜?> <명령: -아라/-어라> <청유: -자>

용례: 기땐 기런기 아직 없었아.
기런 말으는 안 시데.
느 할머이 나간?
선달 그뭄에 잠을 자문 눈썹이 시어진다지왜?
낯을 씨라.

○ 하게체: <평서: -네> <의문: -너?, -는가?> <명령: -개/-게> <청유: -새/-세>
용례: 내 댕겨 오갰네.
갸를 봤너?

○ 하오체: <평서: -오/-우, -소, -아요/-어요, -이래요> <명령: -(시)오/-(시)우> <청유: -ㅂ시다>
용례: 어 드시우.
거는 뭐라 씨였우?
질 무서운 바람이 서마나울이래요.

○ 합쇼체: <평서: -ㅂ네다/-습네다, -이올시다, -습죠> <의문: -ㅂ네까/-습네까> <명령: -십시오, -시어요> <청유: -십시다>
용례: 보룸날밤 쇠가 울문 농사가 잘된답네다.
기 뭐이 돈주는 일입네까?
지냑에 만나십시다.

다. 어휘적 특징

중앙에서 먼 지역 방언에서 고어 형태가 발견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어중(語中)에서 'ㄱ, ㅂ, ㅅ'이 보존된 경우는 이들이 중앙 방언에서 소실되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에 방언 형태에 보존되어 나타나는 'ㄱ, ㅂ, ㅅ'은 고어의 보존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몰개(모래), 개금(개암), 실경(시렁), 멀구(머루)' 등의 어휘에 'ㄱ'이 보존되어 있고, '또바리(또아리), 고방(광), 새비(새우)' 등의 어휘에 'ㅂ'이 보존되어 있으며, '나셍이(냉이), 가새(가위), 귀숭(구유)' 등의 어휘에 'ㅅ'이 보존되어 있다. 'ㄱ, ㅂ, ㅅ'의 보존은 어휘의 형태 변화와 관련되지만, 표준어에서 이미 잘 쓰이지 않는 어휘로는 '고금(학잘), 거시/거쉬(회충), 누리(우박), 우틔(수의)' 등을 들 수 있다.

어휘의 의미적 용법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의미 용법의 세분화에 따른 어

휘 선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어휘 선택 용법은 비단 속초 방언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어휘 실현에 있어서는 다른 방언과 구분이 되기도 한다. 몇몇 어휘를 예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멍석을) 매다
(가마니를) 치다
(광주리를) 저다
(돗자리를) 짜다
(이영을) 배지다/엮다
○ 그을음: 부엌 천정의 것 → 끄시름, 느스레미, 거무(치다)
손밑의 것 → 솥거망, 게망
방고래의 것 → 구제
○ 잠자리: 소금쟁이, 소금쟁이: 엿장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속초 방언은 가깝게는 양양 지역과 고성 지역의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 지역 방언과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영동 지역의 큰 틀에서 보면 영동 방언은 영동 북부인 속초, 영동 중부인 강릉, 영동 남부인 삼척의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세 지역의 어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세 방언에서 차이가 나는 몇몇 어휘를 비교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민현식 1991).

	속초	강릉	삼척
○쟁기(논 가는 것)	연장	보구래	왜보구래
○극젱이(밭 가는 것)	가데기	흑젱이	보구래
○누룽지	소쩽이	소꼴기	소띠기
○(물이) 괴다	개비다	개다	개비다
○수수	쉬끼	쉬시	대끼지
○목말	목말/무동	동고리	목말
○새총	새총/고무총	느르배기	새총
○청미래덩굴	퉁갈나무	땀바구	깜바구
○곤지곤지	곤지곤지/송고송고	장개장개	곤지곤지
○까끄라기	꺼끄랭이	까오치	까부치
○회충(/거위)	거시	거우	꺼꾸
○솔가리	차지검불/검불	소갈비	갈비
○졸음/졸립다	졸음/졸립다	자우름/자우릅다	자부름/자부릅다

○밥주걱	박죽	주벅	박죽
○썰매	빙거/빙구	안질뱅이	스게또
○아재	아재(남자지칭)	아재(여자지칭)	아재(남녀지칭)
○-니?	-니?	-나?	-나?

제3절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 특징

속초시 청호동 주민은 함경도 주민이 주류를 이루고 약간의 평안도 주민이 혼재해 있으며, 함경도 가운데서도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주민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청호동의 언어는 속초 방언과 함께 평안도 함경도 방언이 섞여 있는 착잡성(錯雜性)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북청군 주민이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호동의 언어는 함경도 북청 출신의 실향민 언어가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북청군 출신의 월남민을 주 제보자로 한 방언 조사를 토대로 하여 청호동의 언어적 특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청호동 방언의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 청호동 방언 제보자

<성명>	<성별>	<나이>	<원적 및 현주소>
김성길	남	73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의호리 / 속초시 청호동
여석창	남	72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문암리 / 속초시 청호동
최옥순	여	68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창성리 / 속초시 청호동
이주선	남	76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문암리 / 속초시 청호동

<보조조사 요원: 최승기(강릉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1. 음운적 특징

청호동 언어의 음운 현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음운 현상의 하나는 속초 방언보다 활발히 나타나는 비모음화(鼻母音化)이다. 비모음화는 비음인 'ㄴ[n], ㅇ[ŋ]'이 주로 '이' 모음 앞에서 앞 모음을 비모음화시키고 탈락하는 현상이다.

○ 비모음화의 용례

=> 한버~:이지(한번이지), 마~:이(많이), 가마~:이(가만이),
큰 가~:이(큰 강이), 신북처~:이(신북청이), 바~:(방아)

치경음(齒莖音)이나 경구개음(硬口蓋音) 아래에서 후설모음(後舌母音)이 전설모음화하는 하는 것은 동북 방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음운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호동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휘에서 전설모음화라 할 수 있는 용례가 발견된다.

○ 전설모음화의 용례
=> 부시기가지고(부수어가지고), 시뚜리(숫돌), 국시(국수)

전설고모음화는 용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로 '에, 어'가 '이' 모음화하는 현상으로서, 이것은 동남 방언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전설고모음화의 용례
=> 어울린 디(어울린 데), 이바비란 기(이바비란 게), 치에(처녀),
상티(상투)

청호동 언어에서 구개음화는 속초방언과 마찬가지로 'ㄱ' 구개음화가 많이 발견된다. 구개음화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개음화는 남부 및 동부 방언의 특징으로서 특히 서북 방언과 구별되고 있다.

○ 구개음화의 용례
=> 가차우니(가까우니), 치(키), 질게(길게),
지르매(길마, 고어: 기르마/기ᄅᆞ마), 저드랑(겨드랑)

청호동 언어에서 음운 및 음절의 탈락은 다양한 종류가 발견된다. 종류별로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음운 및 음절 탈락의 용례
가. 조사의 말음 탈락: 북청군수를 → 북청군수르
옷을 자를 적에 → 오스짜르쩌기
농한기에는 → 농한기에느
나. 형태소 내부: 울타리 → 우타리
만약에 → 마야게
강냉이 → 강녜, 강네
겨울이 → 겨리
다. 합성어에서: 돌쩌귀 → 도쪼기
오늘나조 → 오나조

라. 기타: 어떻게 → 어테
이렇게하면 → 이케하면
있지 않은가 → 있짱가

2. 문법적 특징

조사의 연결에서 청호동의 언어는 음운의 탈락, 전설고모음화, 개음절화, 그리고 접미사 '-이' 등의 특징적인 방언 현상에 의하여 다음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사의 형태적 특징이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 조사 연결에 나타나는 각종 형태
가. 주격 조사: 북청읍이 → 북청으비가
하나가 → 하내
나. 목적격 조사: 북청군수를 → 북청군수르
참대를 → 참데르
다. 부사격 조사: 여러가지로 → 여러가질루
가을에 가서 → 가으리 가서
중국에 → 중구기

주격 조사의 연결에서 '집이가'와 같은 것은 '-이'를 접미사로 처리하게 되지만, '하네(하내)'와 같은 경우는 '하나+이(주격)'로 분석된다. 목적격 조사는 'ㄹ'이 탈락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 부사격 조사는 음운의 첨가와 전설고모음화에 의한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청호동의 언어에서 받침으로 끝나는 말에 접미사 '-이'를 연결시킨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특히 동북 방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접미사 '-이'를 연결한 형태는 해당 어휘가 개음절화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핀 개음절화와 일정한 맥락의 일치를 엿볼 수 있다.

○ 접미사 '-이'에 의한 형태: 이바비(이밥), 멍서기(멍석), 노브리(노블/노을), 내구리(내굴), 반디뿌리(반딧불), 바치(밭), 바라미(바람)

3. 청호동의 방언 어휘

청호동 방언 어휘의 특징은 함경남도 북청 언어의 어휘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는 어휘를 대상으로 어휘 용례를 조사하였다. 청호동의 방언 어휘는 옛고향의 언어를 잘 유지한

까닭으로 고어(古語)의 형태나 특수한 형태의 어휘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가달(다리), 고굼(학질), 아시나조(초저녁), 열(쓸개), 우티(옷)' 등의 고어형이나, '댕거지(고추), 노쟁이(여자), 노존(자리), 멀기(파도), 배재(울타리), 통골(소경), 훌기(그네)' 등의 어원을 알 수 없는 어휘들이 많이 있다. 아울러 '누비(누에, 누이), 노블(노을)' 등은 이들 어휘의 어원적 형태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들이다.

어휘 의미에 있어서는 '그립다'가 '부족하여 아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나, 부엌 공간이 방과 함께 위치하는 북부 지역의 주거 특성상 '정지'가 '안방'의 의미로, '봉당'이 '부엌'의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 색다른 것이었다. 한편, 바람(風)을 뜻하는 고유 어휘인 '샛바람'이 '동풍(東風)'이 아닌 '북풍(北風)'을 뜻하고, '갈바람'이 '서풍(西風)'이 아닌 '남풍(南風)'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청호동의 방언 어휘〉

여기에 소개하는 청호동 방언 어휘는 방언 채록물과 거주민들에게서 얻은 것으로서, 흥미 있는 어휘들이 많이 발견된다. 다음의 용례는 방언 어휘를 먼저 보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어나 간략한 뜻풀이를 하였으며, 청호동의 어휘적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을 골라 실었다.

◯가달, 가다리: (사람의) 다리 ☞ '다리(足), 분파(分派)'를 뜻하는 고어 '가ᄅᆞᆯ'과 관련이 있다.
◯가마치: 누룽지
◯가매: 가마
◯가매목, 가매모기: 부엌에서 가마솥을 거는 부근, 부뚜막
◯가세/가새: 가위 ☞ 고어는 'ᄀᆞᅀᅵ'
◯가스미, 가스이미, 가스어머이: 장모 ☞ 고어 '갓'은 '여자, 아내'를 뜻하는 말이다.
◯가스애비: 장인
◯가오뽀: 가오리
◯간: 반찬 ☞ 고어는 'ᄀᆞᆫ'으로 소금 성분이 있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간나, 갈라: 계집 아이 ☞ 어원적으로 '갓(女)+아이(兒)'에서 생긴 말이다.
◯갈바람, 갈바라미: 남쪽에서 오는 바람 ☞ '갈바람'은 원래 서풍(西風)이다.
◯감주: 막걸리
◯강네, 강네: 강냉이
◯개게: 가게 ☞ '가게'의 어원은 한자어 '가가(假家)'이다.

◯개자리: 가장자리

◯개지: 강아지 ☞ 축소 접미사 '-아지'에서 비음(鼻音) 'ㅇ'이 탈락한 형태이다.

◯개파리: 개구쟁이

◯개패쟁이(개패재~이): 장난꾸러기

◯거두메: 벼 타작, 추수

◯거름벵이(거름배~이): 거지

◯검데기: 굴뚝 검댕이

◯게시케: 게젓 ☞ '게(蟹)+식해(食醢)'이다. 생선젓을 뜻하는 '식해(食醢)'는 쌀밥에 엿기름을 넣어 만든 '식혜(食醯)'와 구분된다.

◯게우닥질/게우각질: 구토(嘔吐)

◯고굼, 고구미: 학질, 말라리아 ☞ 고어로는 '고봄, 고곰'이 함께 쓰였다. '고봄'과 '고곰'은 같은 말이다. 음운 변화에서 'ㅂ'과 'ㄱ'은 흔히 넘나든다. '거붑(龜)'이 '거북'이 되고, '솝(裏)'이 '속'이 되었다.

◯고방: 광 ☞ 표준어 '광'은 '고방(庫房)'에서 음운 탈락과 축약에 의해 생긴 말이다.

◯고토밤, 고토바미: 도토리 ☞ '꼬투리'의 고어인 '고토리'와 관련이 있는 형태로 생각된다.

◯곤물: (떡)고물

◯곰배: 아궁이에서 재를 퍼내는 기구, 고무래

◯곽찌: 괭이

◯구먹떠리: 굴뚝 부근

◯구묵, 구무기: 굴뚝, 구멍 ☞ '구멍'의 고어로는 '구무, 굶'의 쌍형이 있었다.

◯구세/구새: 굴뚝

◯구시: 외양간에 걸어 놓고 사용하는 소의 여물통, 구유 ☞ 표준어 '구유'의 고어로는 '구슈, 구ᅀᅵ'이다.

◯구엥, 구영: 구멍

◯국뚜기, 국띠기: 아궁이의 재를 긁어내는 기구, 고무래, 부삽

◯굳, 구디: 곳 ☞ 표준어 '곳(處)'의 고어는 받침이 'ㄷ'인 '곧'이었다.

◯그: 그곳, 거기

◯그립다: 아쉽다(예: 소금이 그리우니까, 물이 그립거든) ☞ 청호동 언어에서는 '그립다'가 거의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아쉬워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길굼/질금, 질그미: 콩나물이나 녹두나물

○까마치: 누룽지

○까세다: 씻다, 가시다

○꺼꺼버리: 말더듬이

○꼬장바지: 속바지

○내굴, 내구리: 연기 ☞ '내굴, 내구리'는 '닉(煙氣)'에 접사가 붙은 말일 것이다.

○노블, 노브리: 노을 ☞ 표준어 '노을'의 고어는 '노을, 노ᄋᆞᆯ, 노올' 등이지만, 아마도 '노블'이 근원적인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쟁이(노재~이): 여자

○노존(노조느): 깔고 생활하는 자리의 일종

○놀가지: 노루

○누깔: 눈알

○누꺼리: 싸구려

○누비/뉘비: 누이 ☞ '누이'의 고어는 '누위'이므로 방언형 '누비/뉘비'는 어원적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누비고치: 누에고치 ☞ '누에'의 어원은 '눕-(臥)+에'이다. 그러므로 '누비'는 '누베'에서 전설고모음화를 거친 형태임을 알 수 있고, '뉘비'는 다시 '누비'에서 움라우트를 경험한 형태라 하겠다.

○누이: 누에 ☞ 청호동 언어에서는 '누비'와 '누이'가 함께 쓰인다.

○눔, 누마: 사내 남자를 이르는 말 ☞ 중세어에서 '놈(者)'은 비칭(卑稱)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평칭(平稱)이었다.

○니비띠: 허리띠

○단감주: 식혜

○닭수리: 독수리

○담배 꽁데기: 담배 꽁초

○대창: 조그만 창문, 환기창

○대통: 담뱃대(주로 긴 것)

○댕거지: 고추 ☞ '고추'의 방언인 '당가지, 댕거지, 댕가지'는 대체로 북부 방언권에서 사용되는 어휘이다. 기본적인 형태는 '당가지'로서, 어원적으로는 '당(唐)+가지'로 분석된다. '고추'는 가짓과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생긴 것이라 생각된다. '가지'의 어원은 한자어 '가자(茄子)'에 있고, '고추'의 어원 역시 한자어 '고초(苦草 또는 苦椒)'에 있다.

◯덤바치: 퇴비장 ☞ '덤'은 '두엄'의 준말일 것이며, '바치'는 '밭'일 것이다.

◯도쪼기: 돌쩌귀, 문지도리

◯도투: 돼지

◯두가달방: 두다리 방아

◯두렁상: 둥그렇게 생긴 밥상

◯둥기, 두멍, 두무: 담는 큰 그릇

◯뒤비/디비: 두부 ☞ '두부'에서 음운 변화한 말이다.

◯뒷고방: 뒷광

◯디우란/뒤울안: 뒷마당

◯따꼽쟁이(따꼽재~이): 자기것을 매우 아끼는 사람

◯따발이: 또아리

◯떡구시: 떡판

◯멀기: 파도, 물결, 멀미 ☞ '멀기'는 강원도와 함경도 방언으로 알려져 있는 어휘이다. '멀기'는 '물결'이란 의미 외에 '멀미'의 뜻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멀미'와는 같은 어원이라 생각된다.

◯메떼기: 메뚜기

◯메지: 메주

◯모새: 모래

◯몽디, 몽치: 몽둥이 ☞ '몽디'는 '몽둥이 → 몽두이 → 몽뒤 → 몽디'로 변한 말이다.

◯무끼, 무꾸: 무 ☞ '무'의 고어는 '무?'이다.

◯무릅고도리: 허벅지나 무릎 부위의 뼈

◯무스그: 무슨

◯무쪼리: 담뱃대(주로 짧은 것), 담배 파이프

◯물뚱기, 물두무: 물을 길어 담는 통

◯미꿍, 미꿍이, 미꿍기: 엉덩이

◯바다첸처리, 바다천처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사나운 바람

◯바당: 부엌

◯바당문: 부엌문

◯바지가달: 바짓가랑이

◯반칫상: 서당의 훈장에게 바치는 진지, 또는 잘 차린 상

◯발찌질: 발길질

◯방(바~): 방아

◯방칫돌: 다듬잇돌

◯배재: 울타리 ☞ 지역에 따라서는 '바자/바지(경북), 바재(중부 및 북부), 바주(평안, 황해)' 등의 관련 형태가 있다. 이러한 방언 어휘는 기본적으로 '바자'라는 형태가 기본적인 것이며, 다시 '바자'는 한자어 '파자(惸子)'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배차/배채: 배추 ☞ '배추'의 어원은 한자어 '백채(白菜)'이다.

◯밴세: (떡)만두

◯밸, 배리: 창자 ☞ '밸'은 표준어 '배알'의 준말이다. '배알'의 고어는 'ᄇᆡᄉᆞᆯᄒᆞ'이다. 어원적으로는 'ᄇᆡ(腹)+ᄉᆞᆯᄒᆞ(肉)'으로 이해되고 있다.

◯뱃꾸비: 배꼽

◯버버리: 벙어리

◯버치: 넙적한 질그릇

◯베랑떼: 경사진 벼랑

◯봉당: 주방 ☞ '봉당(封堂)'의 원래 뜻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를 흙바닥 그대로 둔 곳'이다. 청호동 언어에서는 '정지'가 '안방'의 뜻으로 쓰이고, '봉당'이나 '벅'이 '부엌'의 뜻으로 쓰인다.

◯부시기: 거짓말

◯비치각질, 삐치각질: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말참견

◯빼다지, 빼베: 서랍

◯빼지: 다래끼

◯사막때기: 사마귀

◯사치: 새끼(줄) ☞ '새끼(草索)'의 고어는 'ᄉᆞᆺ'이므로, 고어 형태를 원형에 가깝게 보여주는 방언형이다.

◯상티: 상투 ☞ '상투'의 어원은 한자어 '상두(上頭)'이다.

◯새뜨개: 사팔뜨기

◯새복: 새벽 ☞ '새벽'의 고어는 '새박, 새배'이고, 어원은 '새(新,東)+붉(明)'으로 추정된다.

◯새비: 새우 ☞ '새우(鰕)'의 고어는 '사ᄇᆡ'이다.

◯새옹: 총각, 시동생 ☞ 중세어에서 '샤옹'은 '남편(夫)'을 뜻했다.

◯샛바람, 셋바라미: 북쪽에서 오는 바람 ☞ '샛바람'은 원래 동풍(東風)이다.

◯생지: 행주 ☞ '행주'의 고어는 'ᄒᆡᆼᄌᆞ'이다. '생지'는 '행주'에서 'ㅎ → ㅅ' 구개음화와 전설음화를 거쳐서 된 말이다.

◯서나: 결혼한 남자 ☞ '선스나'가 줄어서 된 말로 생각되며, '서나'의

어원은 중세어 'ᄉᆞᆫ(壯丁)'으로 추정된다.

○서답: 빨랫감 ☞ '서답'의 어원은 '세답(洗踏)'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실치 않다.

○선스나: 남자, 사내 ☞ '선스나'는 동북 및 서북 방언에 분포하므로 한국의 북부 방언이라 할 수 있다. '선'은 'ᄉᆞᆫ(壯丁)'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스나'는 '사나이'의 고어인 'ᄉᆞᄂᆡ(男子)'로부터의 변화한 형태로 생각된다.

○성: 형

○섶, 서피: 껍질 ☞ '섶'은 '섶나무(薪)'를 뜻하는 '섶'에서 온 말이다.

○세치: 작은 이면수

○소금재: 잠자리(곤충)

○소래: 세숫대야 ☞ 중세어 '소라(盆)'는 둥글넙적하게 생긴 큰 그릇을 뜻하는 말이다.

○소케: 목화, 솜, 속, 고갱이

○소케기, 소퀘기: 하얀 배추속

○솔검부리: 마른 솔잎

○쇠구시: (소)구유

○쇠추네: 작은 미꾸라지, 작은 개울에 사는 고기, 아마도 세천어(細川魚) 또는 소천어(小川魚)에서 온 말로 생각됨.

○순대구영: 하수도

○숫가매(수까매): 숫구멍, 정수리

○쉐미: 수염

○시애끼: 시누이나 시동생

○시이, 시이때, 시이땡기: 수수, 수숫대

○신다리: 허벅지, 넓적다리 ☞ '신다리'는 북부 방언이다.

○써개: 서캐, 이의 알

○씰: 혓바늘 ☞ '씰 쓸다(혓바늘이 돋다)'와 같은 관용구 형식으로 쓰인다.

○아궁지: 아궁이

○아마이: 할머니(혈육간에는 사용하지 않음)

○아바이: 할아버지

○아시나조: 초저녁 ☞ '아시나조'는 '아시(初)+나조(夕)'에 의한 합성어이다. '아시'는 '애시당초'의 '애시'와 같은 말이며, '나조'는 '저녁(夕)'을 뜻하는 말로서 중세어에서 빈번히 사용된 말이다.

○아재비, 아지비: 숙부

○아지미: 숙모

◯아지미: 형수, 숙모

◯안고방: 안광 ☞ '고방' 참조

◯안까이: 아내, 마누라

◯어기머케다/어기막히다, 어기차다: 어이없다, 기가 차다

◯얼기: 큰 빗

◯얼라: 어린애

◯얼레기: 얼룩

◯에미네: 여자, 부인들

◯여수뗑이: 사탕수수

◯역사질하다: 노력하다

◯연무기: 서까래

◯열, 여리: 쓸개 ☞ '쓸개'를 뜻하는 '열, 여리'는 전라도를 제외한 나머지 방언 지역에서 두루 쓰이는 방언이다. '열'은 중세어에서 이미 사용되었으며, '웅담(熊膽)'을 '고ᄆᆡ열'이라 하였다.

◯열레: 서까래

◯염지: 부추

◯염치개, 엽치개: 주머니

◯엽차개: 주머니

◯옇다: 넣다 ☞ '넣다'의 고어는 '녛다'이다. 그러므로 '녛다'에서 초성의 'ㄴ'이 탈락하면 '옇다'가 되고, 초성의 '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모음 '이[j]'를 탈락시키면 '넣다'가 된다. 이것은 두음법칙(頭音法則)에서 초성의 'ㄴ'이 '이' 모음 앞에 오기 어려운 음운적 상황을 방언에 따라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조정한 결과이다.

◯예장간/얘장간, 예장간이/얘장간이: 대장간 ☞ '예장간/얘장간'은 함경도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방언이다.

◯오나조: 오늘 저녁, 오늘 밤 ☞ '오늘'의 고어는 '오ᄂᆞᆯ'로서, 어원적 분석은 '온(今)+ ᄂᆞᆯ(日)'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오나조'는 '온(今)+나조(夕)'에서 동음 생략에 의해 'ㄴ'이 탈락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지: 오얏 열매

◯외가달방: 외다리 방아

◯외기호미: 호미의 일종

◯우뗑, 우떼니: 뒷마당

◯우티: 옷 ☞ '우티'의 고어형은 '우틔'이다. 원래 '우틔'는 '치마'나

'아랫도리옷'을 뜻하는 말이었다. 청호동 방언에서는 일반적인 '옷'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웅디: 웅덩이 ☞ '웅덩이'에서 둘째 음절의 비음 'ㅇ'이 탈락한 형태인 '웅더이'에서 '웅디'로 변화한 말이다.

○유거리: 거지

○이민수: 이면수

○이밥/이바비, 이팝/이파비: 쌀밥 ☞ '이밥, 이팝'의 '이'는 고어에서 '니'로서, '니' 또는 '니ᄲᆞᆯ, 니ᄲᆞᆯ'은 '멥쌀'을 뜻하는 말이다.

○이차: 이내, 곧

○자랑, 자랑이(자라~이): 어른 ☞ 함경도에서만 사용된다. 이 밖에도 '자란이, 자랑기, 자란사람' 등의 형태도 함경도 지역에서 사용되므로, 이 말의 어원은 '자라-(成長)+ㄴ(어미)+이(접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새, 연짜새: 물레질할 때, 실 감는 기구

○자시다: 씻다, 가시다

○자신물: 그릇 씻은 물

○자신통: 그릇 씻는 통

○작디: 작두

○작시: 지게 바치는 것

○장물: 국

○점바치: 점쟁이

○정약깐: 변소

○정지: 안방

○조가지: 조개

○조앙깐: 찬장

○조팝: 조밥

○종가리: 종아리

○주디: 주둥이 ☞ '주둥이 → 주두이 → 주디'의 변화 과정을 거친 말이다.

○지렁(지러~): 간장 ☞ 전라도를 제외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형태이다. 관련된 형태로는 '지랑(경북, 충남), 지레(함북)' 등이 있다.

○지렁보시기: 간장 종지

○지자마기: 참빗

○지제기: 기저귀

○질구벵이: 절름발이

○짐치: 김치 ☞ '김치'의 가장 오래된 고어형은 '딤ᄎᆡ'이며, 그 이후의

어형으로는 '짐칙, 팀칙' 등이 있다. 그러므로 '짐치'는 '딤칙'에서 'ㄷ' 구개음화를 거친 어형으로서, 결코 '김치'로부터 'ㄱ' 구개음화에 의해 변화한 말이 아니다. '김치'는 '짐치'로부터 부정회귀(不正回歸)에 의해 생긴 어형이다. '김치'의 어원은 한자어 '침채(沈菜)'에 있다.

◯집나이: 출가외인, 시집간 딸

◯철떡, 철떠그: 찰떡, 인절미

◯첩시꾸비: 접시의 일종, 접시의 굽(바닥)

◯초리: 꼬리 ☞ '꼬리'의 고어는 '꼬리'로서 같은 의미로 쓰인 '초리'와는 별개의 말이다. '초리'는 표준어에도 '회초리, 눈초리'와 같은 말에 남아 있다.

◯초매, 치매: 치마

◯초매띵이: 부인, 시집간 여자

◯치매띠: 여자(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치에: 처녀

◯칠시깐: 변소

◯크애비: 큰아버지

◯큰애비: 큰아버지

◯큰이미, 큰어머이: 큰어머니

◯턱써기: 멍석의 일종

◯토새: 지신을 모시는 것

◯통골, 통고리: 소경, 장님 ☞ '쇠경'이란 말과 함께 쓰인다.

◯하니바람, 하니바라미: 하늬바람. 서쪽에서 오는 바람

◯하리: 항아리 ☞ '항아리'에서 비음 'ㅇ'이 탈락한 형태이다.

◯할개: 기지개

◯해자바리: 해바라기

◯헌거트: 헝겊 ☞ '헝겊'의 고어는 '헌것'이었으므로 제2 음절의 받침은 오히려 청호동 방언이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헤챙이(헤체~이): 언챙이

◯호부래비: 홀아비

◯호부리미: 과부

◯홀기: 그네 ☞ 함북 지역에서는 '굴기'라는 형태로 쓰이므로 '홀기'는 '굴기'와 관련 있는 형태이며, '굴기'는 고어 '글위'와 관련되므로, '홀기'의 '홀'은 '굴'에서 마찰음화한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전라도에는 '군지'라는 형태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굴기, 군지'는 우선 관형형 어미라

할 수 있는 '-ㄴ'의 연결 여부에 의해 분화하고, 구개음화의 여부를 거쳐 각각 형성된 어휘인 것을 알 수 있다.

제4절 맺음말

속초의 방언은 크게는 영동 방언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동 방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강릉 방언에서 좀더 동북 방언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동북 방언에 바로 인접한 속초 지역의 특징이 그대로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동 방언의 주요 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속초(북부), 강릉(중부), 삼척(남부)의 세 지역을 비교하더라도 다른 두 지역과 구분되는 속초 방언만의 특성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속초 방언의 위상은 속초 방언의 보존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속초의 방언은 인접한 양양군과 고성군의 사이에 위치하지만, 속초에는 청호동이라는 특수한 방언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방언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는 함경남도 방언(특히 북청 언어)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이다. 이것은 속초시 청호동 지역에서 함경남도 피난민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이곳의 문화나 언어에 크게 동화되지 않고 고향의 민속과 언어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초시 주민이나 청호동 주민의 언어 사용을 관찰하면 각각의 고유한 언어 특성을 보이면서도 두 지역의 교섭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속초에 근거를 마련한 청호동 주민에게 더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영동 방언과 동북 방언의 전이 지대로서 속초 방언의 위상은 다른 방언권에 비해 충분히 주목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면밀한 조사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김무림(1995), “영동방언의 ‘ㄱ’음 개재고 –국어음운사의 측면에서–” 『한남어문학』 20.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김병제(1980), 『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병제(1988), 『조선언어지리학시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김영황(1982), 『조선어방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태균(1986), 『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출판국.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민현식(1991), “제3장 속초의 방언” 『속초시지』 속초시.
박성종(2004), 『영동지역 방언의 이해』 관동대 출판부.
사회과학출판사(1992), 『조선말대사전』
이기동(1987), “함경남도 북청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대학원.
이숭녕(1967), “한국방언사” 『한국문화사대계 5』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이익섭(1981), 『영동 영서의 언어 분화』 성울대출판부.
장정룡,김무림(1998,공저),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 문화원.
전학석(1993), 『함경도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태학사.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최명옥(1998),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최학근(1990) 『증보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황대화(1986), 『동해안 방언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S. R. Ramsey(1974), “함경 · 경상 양방언의 액센트 연구” 『국어학』 2, 국어학회.

김무림(강릉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감수위원 : 최용문(전 속초문화원장)

제5장 속초의 주거 생활

제1절 속초의 고 건축

1. 주거의 변천 과정

〈 사진 8-5-1-1 〉 움집의 모형도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자연이나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거처는 인간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또는 종교적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발전되어 각 나라나 지역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주택의 형성은 자연과 사회문화, 사회구성원들의 이념과 가치, 생활과 제도 등 모든 영역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즉 주택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 사회에 소속된 집단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을 반영하는 동시에 생활문화의 총체적인 산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 이지만 당시에는 건축적인 구조로 볼 수 있는 주거는 없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자연의 지형, 지물을 이용한 동굴이나 바위틈 또는 큰 바위 그늘을 이용한 것이 많았고, 때로는 강가에 막집을 짓고 바람을 가릴 수 있는 낮은 담을 만들어 살았었다.

주거의 역사는 신석기시대의 움집주거(수혈주거)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석기시대는 주로 낮은 구릉의 경사면에 작은 취락을 형성하고 살았다. 움집은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땅을 파서 만들었다. 바닥에는 엷게 진흙을 깔고 다지거나 불을 때서 단단하게 굳혔다. 어로와 수렵이 주요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내부시설로는 화덕과 주변에 저장구덩이, 출입구가 있었다.

주로 집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취사와 관련된 작업이 행해졌고, 출입구 가까운 부분은 남자들의 거처였다.

청동기와 초기철기시대의 주거는 하천이나 해안에 형성되었으며, 이전보다는 좀 더 큰 취락을 이루었다. 움집의 깊이가 낮아서 실제로는 거의 지상주거의 형태를 띠었다. 이 시기는 농경이 보급되어 큰항아리를 바닥에 거꾸로 박은 저장구덩이는 사라지고 규모가 큰 저장시설이 등장하여 주거부분과

독립되었다.

삼국시대는 불교의 도입과 함께 건축술이 발달하였다. 사찰 건축 기술의 도입으로 종래의 초석이 없는 소규모의 초옥건물에서 초석과 주, 양, 방 및 도리를 갖춘 기와집이 만들어졌다. 또한 대규모의 궁전이나 주택 등이 건축되었고, 온돌과 유사한 시설이 고구려에서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의 주거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주거문화가 그대로 전승되었다. 특히 일반 백성들에게 온돌이 보편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온돌은 난돌, 화돌, 빙돌 등으로 불렸다. 주로 흙침대를 만들어 땅을 파서 화갱을 만들고 여기서 잠을 잤다. 당시 귀족들의 입식생활이 좌식생활로 바뀌어지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주거는 기능적인 분화와 건축 구조적인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 시대의 주거는 한옥이 바탕이 되었다. 사회적 특성과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계층에 따른 규제가 엄격했다. 주택의 공간구성은 '방'이라는 건물 내부의 공간과 '마당'이라는 건물 외부의 공간으로 나누어졌다. 마당은 중류 이상의 주택에서는 행랑채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으며, 서민주택에서는 외부담장과 연결된 바깥쪽의 공간이었다.

속초 지역의 건축도 전통적인 문화, 지역적 환경 및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 지역인 속초는 농업 환경이 건축에도 반영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건축의 재료는 흙과 나무, 짚 등이 이용되었다. 또한 바람이 심한 지역이므로 낮은 구릉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지형을 선택하여 집을 지었으며 기온과 관련하여 북방식 형태의 집들이 지어졌다. 특이한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시대적 상황과 관련을 갖고 주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청호동을 배경으로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2. 조양동 선사유적의 움집

국가 지정 사적지 제376호
속초시 조양동 산142-8번지

동해안의 청초호수(靑草湖水)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유적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가운데도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8세기경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터이다.

1992년 10월 6일 사적 제376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4,295㎡ 이다.

이 유적지에서는 기원전 9~8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시대 집자리 7

기와 빗살무늬 토기편 등 160여점의 유물이 출토(1992. 5. 12~7. 6)되었다.

〈 사진 8-5-1-2 〉 청동기 유적지

모두 7기의 집터는 원래 지반인 풍화암반층을 40~60m 길이로 파내고 바닥에는 고운 진흙을 얇게 깔아 처리했는데 평면은 동서방향이 약간 긴 네모꼴로 23㎡~76㎡ 규모, 집자리의 벽, 바닥, 기둥구멍, 저장구덩이, 화덕자리 등이 집자리에서 확인되었다. 집자리의 형태나 구조 및 내부시설들은 청동기시대 집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에 속하는 것이지만 저장용 구덩이가 많이 사용된 점이라던가 구덩이 속에 저장용 토기 등을 묻어 두는 것 등은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집자리의 특성에 속하는 것이며, 제습용 홈과 같은 내부시설은 지역적 특성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잘 남아있는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중부 동해안 지방에서 발견된 것은 이 유적이 처음이라 조양동 집자리가 갖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

또한 만주 요령성을 중심한 지역에서 형성된 것으로 밝혀진 우리나라 순수 청동기문화 민무늬토기 문화는 지금까지 주로 압록강을 넘어 서북지방에서 중부이남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왔으나 이 조양동 유적에 의해 오히려 동해안 경로를 통해 한강 유역과 남한 전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3. 신흥사 극락보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
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이 건물은 신흥사의 중심 전각으로 조선시대인 인조25년(1647)에 지었다.

극락보전은 극락세계의 주인공인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봉안하는 보배로운 전각이라는 뜻을 지닌다.

신흥사 극락보전은 창건 후 영조26년(1750)과 순조21년(1821)에 각각 중수되어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건물의 크기는 190㎡ 로서 목조기와집이며 원형보존이 잘되어져 있다.

〈 사진 8-5-1-3 〉 신흥사 극락보전

절의 대표적 전각인 극락보전은 창건 당시 소실되었으나 승려 각중이 영조25년(1750)에 중건하였다. 그 이후 순조 21년(1821)에 거관 등이 중수하고 단청을 새롭게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극락보전에 오르는 석조계단은 하나의 돌로 구성된 층계이며 하단 양쪽에 용머리를 조각하고 측면에는 귀면상을 조각하였다. 정면, 측면 각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다포 단층 전각으로 조선시대의 다포집에서 볼 수 있는 공포형식을 갖추고 있다. 공포(拱包)는 3출목이며 쇠서는 끝이 위로 올라가 있고, 소로와 첨차의 아랫부분이 직면으로 사절(斜切)되어 조선시대 후기의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각 안에는 불상 위의 닫집, 천장의 금빛문양, 문에 새겨진 꽃문살 등이 단아하면서 균형 잡힌 전각은 공포의 아름다움과 단청의 화려함을 뽐내고 있다.

4. 보제루(普濟樓)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사진 8-5-4 〉 신흥사 보제루

보제루는 조선 후기인 영조 46년(1770)에 창건한 2층의 누각 건물이다. 1층은 경내의 중심에 이르는 통로이고, 2층은 강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제루는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을 지닌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찰에는 이러한 누각이 있어 각종 법회나 경전을 강독하는 수행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지녔다. 건물의 크기는 122.3㎡로서 목조기와이며, 극락보전 앞에 있는 직사각형의 큰 누각이다. 장대석으로 쌓은 2단의 축대 위에 정면 7칸(22.4m), 측면 2칸(8.5m)의 누마루식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원형보존이 잘되어 있다.

5. 학무정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 사진 8-5-1-5 〉 학무정

설악산 대청봉에서 시작되어 흐르는 쌍천변 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로, 매곡처사(梅谷處士) 오윤환(吳潤煥) 선생이 1934년에 건립하였다.

오윤환은 상도문리 쌍천가 푸른 소나무 숲 속에 친척들과 제자들의 협조를 얻어 학무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다른 여러 선비들과 함께 시를 읊고 글을 지었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도장으로 삼기도 했다.

정자는 단층 목조기와 육모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정자 지붕 모양이 6각(六角)이므로 흔히 육모정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4면에 정자 이름을 적은 현판이 있는데, 남쪽 학무정(鶴舞亭), 북쪽 영모재(永慕齋), 북동 쪽 인지당(仁智堂), 남서 쪽 경의재(敬義齋) 라고 되어있다. 정자 안쪽으로 11개의 시판(詩板)과 1개의 학무정기가 있으며 육면에 분합문(分閤門)을 단 흔적이 남아 있다.

또 정자 내부 천장 중앙에는 용(龍)자가 있다.

학무정 주변의 소나무 숲 수령은 200년 내외이고. 나무 높이 14~15m, 지름 30~50㎝로 잔병치레 없이 잘 가꿔지고 보전돼왔다. 그런 만큼 외형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나무로만 이루어진 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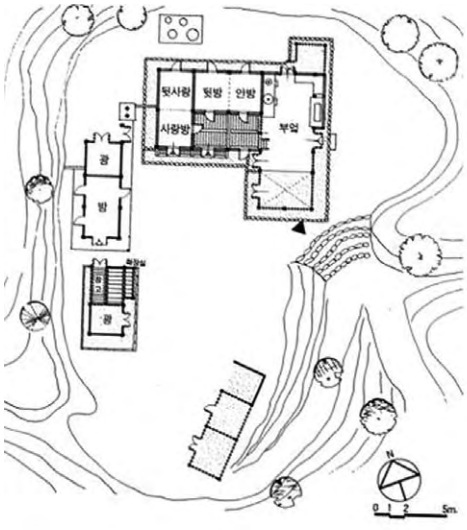
6. 김종우 가옥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5호
강원도 속초시 도문 1리 2통 4반

자연석 쌓기 세겹대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두고 24cm 각기둥을 세운 방형의 도리에 홑처마 팔작기와 지붕 형식의 가옥이다. 평면은 ㄱ자의 함경도형 겹집에 마루가 도입된 형식이며 뜬마루의 대청 앞에는 툇마루가 있다. 오량가 본채와 같은 높이로 마구간채가 연결되어 상부는 다락으로, 하부는 외양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락과 외양간에는 두짝 여닫이 판문이 있고 상부벽체는 흙벽위 회벽마감, 하부는 판벽으로 되어 있다. 자세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18세기 중엽에 건축되었다고 전해지면 현 소유자의 부친때 이곳으로 이사하여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평면은 마루+마루+사랑방으로 된 전열과 안방+뒷방+뒷사랑의 후열로 구성된다. 본채에 딸린 부속사는 외기와의 우진각지붕에 흙벽위 시멘트 몰탈 마감의 헛간채가 광+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의 바닥은 시멘트몰탈, 천정은 고미반자 마감이다. 또 장마루의 창고+흙바닥의 광으로 된 광채가 나란해 배열되어 있으며 그 외 맞배 함석지붕, 외벽 판벽의 근래에 만든 부속사가 있다.

〈 사진 8-5-1-6 〉 김종우 가옥 외경



〈 그림 8-5-1-1 〉 김종우 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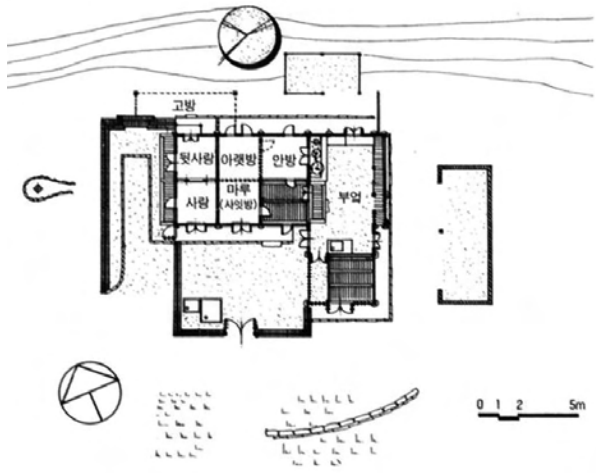
7. 김근수 가옥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4호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반 1504번지

전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 함경도형 온돌중심 겹집에 마루가 수용된 형태이다. 자세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기와에 도광 5년(1825)이라는 명문이 있으며 건륭 27년(1762)이라는 수키와가 몇 년 전에 발견되어 연대를 추정할 수 있으나 기와는 다른 가옥의 것을 재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확실한 연대는 미상이다. 사괴석 초벌쌓기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두고 그랭이질한 기둥을 세웠다. 방형의 도리에 평고주 오량가의 지붕틀을 결구하고 홑처마 팔작기와 지붕 형태의 가옥을 완성하였다. 대대로 함평 이씨가 살았으며 삼십여 년 전 현 소유자가 매입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회령댁, 방앗간댁으로 마을에서 불리고 있다. 평면의 구성은 전열에 우물마루+우물마루+사랑방, 후열에 안방+아랫방+뒷사랑이었으나 중간의 우물마루를 사잇방으로 변환하였고, 안방과 아랫방 사잇방 벽을 없애고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물마루의 부엌 쪽으로 쪽마루가 나와 있으며 사랑방 측면에는 툇마루를 가지고 있다. 마루의 천정은 연등천정이며 상부는 시렁을 두어 내부 수납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있으며 덧집구조로 되어 있다. 외양간이 있었던 자리에 마루를 놓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엌 뒤쪽에는 바닥에 마루널을 깐 찬장이 있다. 마루의 전면에는 코굴이 있으며 뒷사랑방에는 가묘를 모시는 벽장이 있다. 사랑방 전면 창호는 숫대살 두짝 미닫이+세살 여닫이문이며 창호의 크기는 87x106cm이고 사잇방도 동일한 형태의 창호로써 97x137cm로 다른 가옥의 창호보다 크기가 작다. 원래는 집의 전면에 행랑채, 좌 · 우에 고간채와 사랑채가 있는 대가옥이었으나 해방 전후 집의 규모가 축소되어 현재는 안채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다. 집 주위에는 돌+진흙 담장 위에 기와를 얹은 안쪽 담이 있고 다시 사랑방 쪽에 바깥 담장을 일부 두르고 있다.

〈 사진 8-5-1-7 〉 김근수 가옥 외

〈 사진 8-5-1-8 〉 김근수 가옥 측



〈 그림 8-5-1-2 〉 김근수 가옥 평면도

8. 김석주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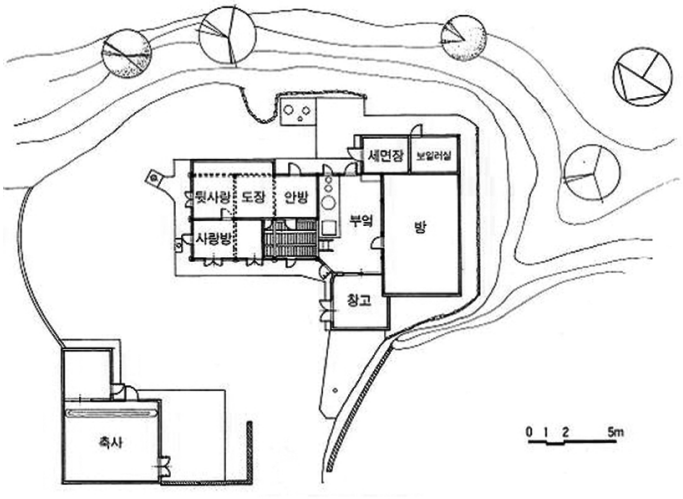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면 5통 2반 238번지

함경도형 온돌 중심 겹집에 마루가 수용된 전면 4칸, 측면 2칸의 기와를 얹은 팔작 지붕가옥이다. 흙기단에 시멘트 몰탈마감을 하였고 자연석 초석 위에 그랭이질한 각기둥을 세우고 있다. 건립된 지 75년 된 가옥으로 방형의 굴도리를 겹으로 결구하였고, 마을에서 서당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전면에 띠방을 두고 세살창호를 달았으며 하인방의 높이가 사랑채에서부터 마루방향으로 인방 높이만큼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현재는 사랑방, 안방의 방들이 확장하여 공간을 크게 활용하고 있으나, 마루방, 사잇방, 사랑방의 전열에 안방, 도방, 뒤사랑의 후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외양간 부분은 판벽을 현대식의 벽돌+시멘트로 몰탈마감위 수성페인트 구조체로 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따로 축사를 크게 확장하여 별동으로 집앞에 건축하였다. 부엌 측면에는 방, 세면장, 보일러실을 증축하여 공간의 확장과 가족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뜬마루의 우물마루를 중심으로 방들이 연결되어 마루의 활용도가 높아 사잇방 쪽으로 마루를 조금 확장하고 있다.

<사진 8-5-1-9>김석주 가옥 외경

<사진 8-5-1-10>김석주 가옥 측면

〈 사진 8-5-1-11 〉 김석주 가옥 측면



〈 그림 8-5-1-3 〉 김석주 가옥 평면도

9. 최원규 가옥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면 5통 1반 8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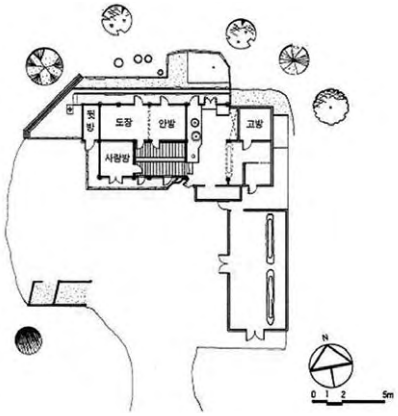
전면 3칸, 측면 2칸의 함경도형 온돌중심 겹집에 마루가 도입된 가옥으로써 다른 가옥과 유사하게 ㄱ자로 꺽어져 마구간이 구성되지 않고 일자형으로 평면이 짜여졌다. 자연석 허튼층 쌓기 기단위에 시멘트 몰탈마감을 하였으며 자연석 초석 위에 각기둥을 세우고 있다. 사랑방 쪽으로 확장된 마루에는 기둥을 세워 본체기둥과 함께 기둥이 두 개 나란히 집 중앙을 받치고 있어 견실한 구조를 보이며 그 사이에 대나무살로 창살을 엮은 외짝 세살문이 있어 단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외부벽체는 흙벽위 시멘트 몰탈+흰색 수성페인트 마감을 하였고 내부 벽체는 벽지 마감, 천정은 고미반자위 천정지 마감을 하였다. 뒷열의 안방+도장방은 방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

잇벽을 없애고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엌의 고방 옆은 원래 마구간이었으나 지금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마구간과 부엌 출입문 사이에는 측벽으로 돌출되게 뒤주가 있었으나 지금은 철거하고 수납공간으로 개조하였다. 또 도장 옆의 뒷방은 후대에 증축하였다. 원래 초가 지붕있으나 지금은 스레트 지붕으로 개량하였으며 장천마을에서 가장 오래된(150~200년 추정) 가옥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는 노후된 집을 철거후 신축하여 예전의 전통가옥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예전의 전통가옥의 형태나 배치 등은 기존의 자료에서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 사진 8-5-1-12 〉 최원규 가옥 외경

〈 사진 8-5-1-13 〉 최원규 가옥 정면

〈 사진 8-5-1-14 〉최원규 가옥 현재모습



〈 그림 8-5-1-4 〉 최원규 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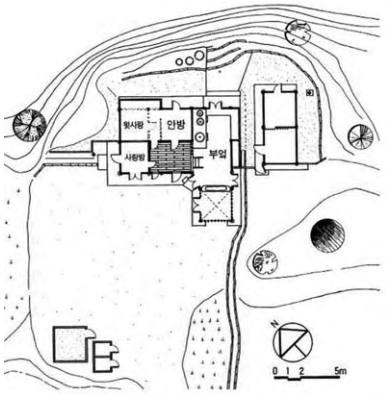
10. 김종순 가옥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면

전면 2칸, 측면 2칸의 함경도형 온돌중심 겹집에 마루가 수용된 팔작함석지붕 형태의 가옥으로써 장천마을에서 오래된 가옥들에서 나타나는 평면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단은 흙벽위 시멘트 몰탈 마감이고 자연석 초석에 각기둥을 세웠다. 겹도리(납도리)의 오량가 지붕구조로써 지붕 합각부는 층량위에 주두를 놓듯이 받침을 두고서 그 위에 첨차를 층량과 +자 되게 두고 첨차의 양끝에 소로를 층량과 평행되게 보내어 오량가의 중도리를 받고 있고 중도리 위에 서까래를 걸쳐서 합각부를 구성하고 있다. 마구간은 처마 밑에서 ㄱ자로 달아내어 아래로 경사지지 않고 수평으로 돌출하여 지붕을 구성하여 마구간의 상부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벽체의 중인방 하부는 판재로 짜여 있고, 상부는 흙벽위 페인트 마감으로 되어 있다. 평면의 구성은 안방과 윗사랑방 사이에 벽체만 있는 작은방이 있어 마루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안방과 사랑방의 완충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자세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현 거주자의 6대조가 건립한 것으로 전해 오며 장혀대공, 겹도리로써 재목의 쓰임이 견실하다.

〈 사진 8-5-1-15 〉 김종순 가옥 외경

김종순 가옥



〈 그림 8-5-1-5 〉 김종순 가옥 평면도

11. 오수현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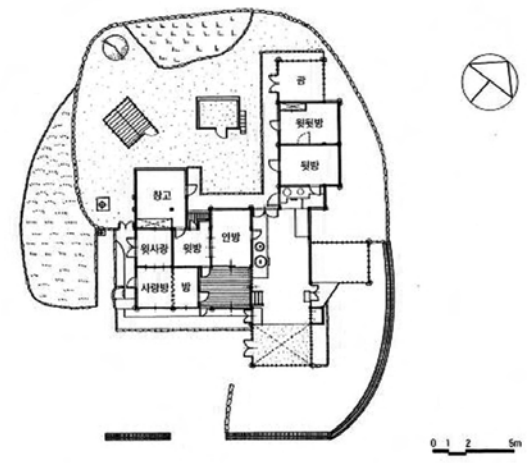
강원도 속초시 상도문동 5통 3반 195번지

전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 함경도형 온돌중심 겹집에 마루가 도입된 평면의 부엌 뒤쪽으로 일자형의 방들이 연결되어 T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다. 본채 전면은 머름대와 함께 현대식 미닫이 창호가 사랑방에서 마루까지 달려있고 마당에는 새로 건축한 가옥이 2동있다. 뒷마당에는 증축한 곳간과 창고가 있으며 창고의 상부는 장독대로 사용하고 있다. 마구간 벽체는 판벽으로 짜여 있고 본채 지붕에 이어서 내림지붕으로 낮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안방에는 할머니가, 윗방에는 시어머니가 거주하였고 위방에는 툇마루가 뒷후원 쪽으로 나와 있어 잘 꾸며진 정원을 거닐게 하였다. 사랑방에는 조부가, 윗사랑에는 손자가 생활하였고 뒷방에는 며느리가 윗 뒷방에는 딸들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집 주위는 돌담이 둘러 있으며 장대석 기단에 20cm 각기둥을 세운 팔작기와 지붕 형태의 150~180여년 사용한 가옥이다.

〈 사진 8-5-1-16 〉 오수현 가옥 외경

<사진 8-5-1-17>오수현 가옥 외경

<사진 8-5-1-18>오수현 가옥 외경



〈 그림 8-5-1-6 〉 오수현 가옥 평면도

12. 박의균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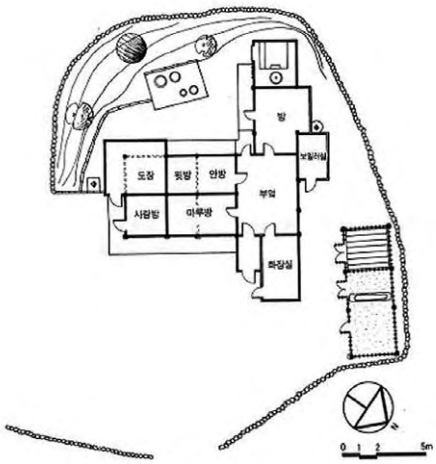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5통 5반 363번지

전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형 겹집 팔작기와 지붕 구조로써 자연석 초석 위에 20cm 각기둥을 세우고 방형의 장혀 굴도리를 결구한 것으로 집의 건립 시기, 규모는 알 수 있으나 4년전 전면적인 보수를 하여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홑처마였으나 부연을 달아 겹처마로 개조하였으며 전열 두 칸의 마루방을 방으로 개조하였고 윗방과 안방 사이의 벽을 없애고 방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마루방에는 지청이 있었고 윗방에는 안방과의 간벽에 뒷마당을 향하여 코굴이 있었다. 건립연대는 180년 정도 되었으며 헛간채는 37년 전에 신축하였다. 헛간채의 벽은 판자, 바닥은 시멘트 몰탈과 마루바닥, 지붕은 우

〈 사진 8-5-1-19 〉박의균 가옥 외경

〈 사진 8-5-1-20 〉박의균 가옥 외경

진각 함석지붕 구조로 되어 있고 마구간과 고방으로 이용하고 있다.



〈 그림 8-5-1-7 〉 박의균 가옥 평면도

13. 김근우 가옥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2통 1반 1176번지

김종우씨의 큰집으로 사괴석 두겁대 기단 위에 장대석 초석의 팔작기와 지붕 ㄷ자 배치 가옥이다. 굴도리에 띠방을 둘러 벽체 외관을 장식하며 ㄷ자의 특이한 평면구성이다. 즉 ㄱ자의 본채에 마구간이 한칸 덧붙어 ㄷ자 배치를 이루며 뒤쪽에는 고방채를 가지고 있다. 고방채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써 현재의 가옥은 헌집을 헐어 내고 70년 전에 신축하였다. 공간의 이용은 시조모(시어머니), 안사랑은 시조부(시아버지), 윗방은 삼촌, 바깥사랑은 일군들이 거처하였으며 부엌의 뒤로 부엌뒷방이 있어 신혼방으로 사용하였다. 안사랑에서 제사를 모셨으며 행랑사랑 측면 바깥쪽에는 작은 툇마루가 있어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쌍여닫이 출입문 하인방에는 머름이 있다. 안방과 윗방, 안사랑과 바깥사랑, 행랑사랑과 행랑 아랫사랑 사이에는 네짝 장지문이 윗방과 도장 사이에는 외짝 여닫이문이 있었다.

사진 8-5-1-21 〉 김근우 가옥 외경

〈 그림 8-5-1-8 〉 김근우 가옥 평면도

14. 영랑동 시장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31-188번지

1953년 영랑동이 생기고 들어선 첫 장터이자 지붕만 가설된 상가형 시장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동네사람들에 의해 간간이 거래가 있었으나 지금은 전혀 거래가 없어 시장의 기능을 잃고 동네사람들의 그늘막이 되어 쉬어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의 대부분은 주거지로 변했고, 현재 약 70평의 상가건물이 남아 있다. 목조트러스구조로 지붕만 가설한 3mx2.5m 스판의 대공간 구조물로 4방을 개방한 구조이다. 시장으로 사용된 이 건물은 붕괴위험이 있어 철제보강재를 기둥에 덧대어 지붕을 보강하고 있다. 수리기록이라고는 목재의 훼손으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제 보강재를 받쳐놓은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상권의 재편이 급속화되면서 그나마 상가의 기능을 상실하여 지금은 상부구조물은 완전히 철거되었고 공지는 돌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상태이다.

〈 사진 8-5-1-22 〉 영랑동 시장 철거전

〈 사진 8-5-23 〉 영랑동 시장 철거 후 공지모습

15. 김동석 가옥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31-96번지

1955년에 지어진 건물로 처음의 용도는 점포로 이용되었으며 주변 시장이나 바닷가에서 나오는 건어물의 운반을 맡던 인력사무소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로 추정되고, 그 후 80년대 2층을 밍키오락실로 사용하였고, 그 후 학원 건물로 사용되었다. 현재 2층은 구조상의 문제로 비워두고 10여 년간 1층만을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목조와 조적조의 혼용한 2층 건축물이며 외벽은 거친 시멘트 마감으로 2층 3개방에 각각 1개의 창호가 파사의 통일감을 부여한다. 슬레이트 모임지붕은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전면 1층 상부에 홑처마가 가설되어 있고 측면에는 창호가 없다. 외관의 형태상 더 이상의 증축과 보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상업적인 용도로 쓰였던 곳임을 짐작케 해준다. 특별한 수리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오락실로 사용한 시기에 2층의 바닥과 벽을 시멘트로 덧바르고 보수를 한 결과 하중의 초과로 1층의 지지 기반이 약해져 지금의 보조 철제기둥을 받쳐둔 상태이다. 벽지의 보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사진 8-5-1-24 〉 김동석 가옥 외경

16. 영랑상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31-20번지 7통 1반

시멘트 슬레이트 박공지붕의 2층 목조 및 조적조 건축물이다. 정면과 배면에만 창호가 가설되어 있으며 측면은 창호가 없고 조적조 벽면은 시멘트 마감 위에 적색도료로 덧칠했다. 一자형 건물로 주방과 홀을 거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로 내부구성이 단순하다. 지붕은 원래 아연의 함석판으로 만든 지붕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며 전면에 가설된 처마는 개보수하면서 가설한 것으로 원래는 없었던 구조물이다. 영랑동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건축물로 한국전쟁 후 속초가 수복된 해인 1954년보다 1년 빨리 지어진 건축물로 당시 속초시의 최대 번화가였던 1구의 중심지로 사합촌이라는 중화요리집이었다. 1970년 현재의 소유주인 장봉익씨가 인수하여 영랑상회라는 간판으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주거의 편리를 위해 개보수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였다. 내부는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된 상태이나 1층 바닥은 보일러 시설 설치로 인해 보수가 이루어져 있고, 2층은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1970년 전면에 1m 정도 내밀기한 처마를 새로이 가설하였으며 한쪽 측면을 목조벽체로 간만이 시설을 하였다. 1994년 지붕을 보수 아영판재로 덧씌우고 벽면을 시멘트로 마감한 뒤 적색으로 도장했다. 정면 우측부분에 거주의 편의성을 위해 새로이 공간을 증축하였고, 그 외 내부는 보강재를 덧댄 흔적 없이 원형 그대로 벽지만 시기에 따라 교체하였다.

〈 사진 8-5-1-25 〉 영랑상회 외경

17. 강덕준 주택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31-31번지

계림관은 1955년 경 건립된 건물로 수복 이후 속초의 최고 번화가였던 1구 자리에 있던 유흥주점으로써 당시 앞에 위치한 사합촌과 더불어 1950~196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건축물이다. 당시 군부대 밀집지역이던 이곳에 장성급들과 속초를 시찰하던 고위급 공무원들의 접대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한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속초시의 경제권이 중앙시장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1978년 현소유자인 강덕준이 인수하여 주택으로 개조, 증축하면서 예전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조적조와 목조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일식풍의 2층 건축물로 원래의 기능인 주점을 가정집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음의 형태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층은 각각 1개의 창호를 지닌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측 개구부는 1층과 계단으로 연결된다. 창호의 형태가 변화되어 원형을 알 수 없다. 측면은 창호의 제거 외에는 큰 개조가 없어 낮은 박공지붕과 벽면은 당시의 구법을 유추할 수 있다. 전면에 목재로 된 퇴보를 덧대고 기둥을 받쳐 박공형태 슬레이트지붕의 처마선을 더 내밀 수 있게 하였다. 1978년 전면 보수 및 증축작업에 들어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는데 다행해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 전면부만 덧붙이기한 형태로 증축이 이루어졌다. 예전의 계림관의 형태는 아직까지 잘 보존되고 있으나 내부는 이미 가정집의 용도에 맞게 변형되었고, 1층과 2층의 개구부와 방의 개수와 출구는 옛날과 같다.

〈 사진 8-5-1-26 〉 강덕준 주택 외경

18. 동명동 성당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33-3번지

단층 석조 건물로 장방형 평면에 정면과 배면의 우주부분은 안쏠림이 강하게 표현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상부는 경사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입구 상부 중앙에 안쏠림이 강한 첨탑을 올려 십자가를 받치고 있다. 진입부분의 캐노피는 후대에 가설한 것이고 파사드의 창호는 상부가 긴 반원형으로 된 장방형으로 첨탑이 있는 중앙부가 좌우측보다 높으며 첨탑에도 동일한 창호를 구성하여 입면을 처리하였다. 회칠을 한 벽면은 강안 러스티케이션으로 유럽풍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첨탑의 상부는 건립당시와는 달리 모임지붕의 높이를 더 올린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뀌어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수직성이 강조된 외간을 구성하고 있다. 내부는 내진주가 없는 통간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3분된 천장의 의장을 통해 네이브와 아일부분의 구분이 가능하다. 제단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성가대석 및 유아실 및 제의실이 배치되어 있다.

〈 사진 8-5-1-27 〉 동명동 성당 외경

〈 사진 8-5-1-28 〉 동명동 성당 내부

〈 사진 8-5-1-29 〉 동명동 성당 내부

김학철(경동대학교 건축설계학과 교수)
감수위원 : 최용문(전 속초문화원장)

제2절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주거 환경

건축은 인간의 행위를 담는 그릇이며, 주거 건축은 일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족이라는 단위공간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곳이다. 즉 각자의 요구되어지는(Demand) 공간을 기능에 맞게 구성(Organigation)하여 필요한 행위들(Need)을 가장 합리적으로 행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은 정주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살고 싶은 대지 한 곳을 정하여 터를 잡고서, 이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조상은 집터를 정함에 있어 길흉화복을 고려한 좋은 터를 선정하기 위하여 풍수지리설을 일찍부터 도입하여 왔으며,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의 주거환경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건축은 일종의 경제적 행위로써 자본이 있어야 한다.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주택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적절한 재료들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외부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체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동력과 기술과 함께 경제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공간이 완성되면 실내의 활동을 위한 각종 집기들이 있어야 하며, 이곳들은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각종의 필요한 것들이 놓여 있어야 한다. 즉 공간의 활용을 위한 도구들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거환경의 구성은 각종의 인문 · 자연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특징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속초의 피난민은 보편 타당한 주거환경과는 다른 급격한 환경에 대한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날과 같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생활하고 있다.

다음은 속초 피난민의 인문 · 자연 환경이 주거환경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1. 인문환경

가. 인구의 증가

전쟁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는 전쟁 전의 속초 인구와 비교하여 2배정도 증가시키고 있으며, 원주민은 18%정도 감소하는 대신 철수민에 의해 증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표 8-5-2-1 〉 1954년 군정시기 속초주민 통계표 (단위:세대, 명)

원 주 민				철 수 민				외국인	계	
세대수	남	여	계	세대수	남	여	계		세대수	인구
1,922	4,293	5,044	9,377	2,919	5,953	5,303	11,256	6	4,841	20,599

자료 : 양양군청, 1954,『수복년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호동으로 이동한 이유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각각 동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50년대 속초는 고향이 가까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과 군 후생 사업차 38선 이북으로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어 속초 정착촌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과 함께 속초에 주둔한 군 계통에서 일하는 동향인과 함께 일하게 되어 이주하였으며, 속초에 이미 정착한 월남인 연결망과 같이 살기 위해 이동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1960년대는 속초가 어항으로 발전하여 일자리가 많았다는 것과 속초 청호동에 오면 적은 비용으로 정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주하였다는 이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빠른 인구의 유입은 주거의 부족을 발생하게 하여 주거환경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하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실향민에게는 임시거처 형태에서 주생활을 영위하게 하였다.

나. 정착촌 정책

전쟁 중의 피난민에게는 임시생활이 가능한 거주 공간이 필요하였으며, 그들은 혈연, 동향, 지연 등에 의해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였다. 행정부에서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들을 정착촌에 모여 살게 하였다.

하지만 38이북 지방은 1954년 11월 행정권이 이양되기까지 그의 관할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월남인 등 전쟁 재해민의 구호는 전적으로 군정 당국의 소관이었으며, 군정 당국은 원주민과 월남인을 '난민'으로 동일시하였다. 즉 속초에 들어온 월남인과 원주민을 구별하여 구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군정은 청호동 등 지역에서 월남인 정착을 위한 정착촌 형성을 위한 주택 건설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수복된 후에도 청호동은 1군단 부대와 비행 활주로로 이용되어 현 청호동의 6통에서 10통 사이에는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한편 군정은 청호동 북단인 1통에서 3통 정도의 지역에는 월남인이 정착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1군단이 1954년 11월 경기도 가평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청호동 월남인들은 주로 1~3통에 자리잡았다. 1군단 이동 후에는 현재의 10통 방면으로 1~2집을 옮겨가며, 오늘날의 10통 경계까지 정착촌의 범위를 확장하였다.[1)]

1)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이러한 정착촌의 무분별한 계획은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형태로 고착되어, 좁은 통로의 가로와 담장이 없이 지붕이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주거환경에 있어 공동의 공간과 편리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며, 좁은 가로를 따라 각 방이 일렬로 배치되는 주거 형태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정착촌 초기를 지나서 건축된 10통 경계까지의 건축은 처음보다 조금씩 여유공간을 갖추게 되어 방의 규모, 건축자재 등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 교통여건의 편리

청호동은 1951년 8월, 1군단이 청호동 9~10통 자리에 들어서기 전 오래전부터 양양에서 속초 시내나 고성 쪽으로 가는 육지 지름길로 이용되었다. 청호동 북단에서 현재 중앙동까지의 폭은 100m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얕아 거의 육로였다. 그런데 일제가 1930년 무렵 배가 입항할 수 있도록 청초호 개발을 한 후, 바다에 맞닿은 호단이 깊어져 갯배를 띄울 수 있게 되었다. 일제 시대 때의 갯배는 현 갯배보다 커서 우마차나 소형 버스를 실을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7번 국도의 전신인 청초호 우회도로는 1939년에

착공하여 1940년에 준공되었다. 속초 주민들은 교통이 최근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속초시내와 조양동이나 양양 방면을 왕래할 경우에는 갯배를 이용하고 청호동을 걸어다니는 일이 다반사였다.[2)]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은 속초와의 왕래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되어, 갯배를 이용하여 쉽게 시내에 진출하여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즉 편리한 교통여건은 계속적으로 정착인이 고착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속초의 발전에 따라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정착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청호동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하였다.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은 청호동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주거환경은 규모와 자재의 종류, 화려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우수성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할 때 거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교통의 편리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가로정비, 생활환경개선, 부분개조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촌락으로 발전할 수 있다.

2) 박익훈, 1966. 김정우, 1977

2. 자연적 조건

가. 어항

속초는 1930년부터 어업이 활성화되었으며, 1955년 월남인 중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농업보다 어업인구가 많아지게 되었다. 즉 농토는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토지의 확보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며, 이에 따라 조업이 가능한 어항이 있는 고향 가까운 곳으로 월남인이 많이 모여 오는 것은 당연하다. <표2 >의 속초 농어민 분포에서와 같이 청호동은 백사장으로써 속초 1, 2, 3, 4구와 다르게 농업종사 인구가 없는 어촌이었다.

< 표 8-5-2 > 속초읍내 구역의 농어민 분포(1955년 현재) (단위:호, 명)

농/어업별 \ 속초 행정구역		속초1구 (영랑동)	속초2구 (동명동)	속초3구 (중앙동)	속초4구 (금호동)	속초5구 (청호동)	기타 지역	속초 전체
호수 및 인구	호수	911	357	1,103	1,316	454	1,209	5,350
	남자	1,840	794	2,380	2,783	1,046	3,059	11,920
	여자	1,890	789	2,363	2,703	930	3,117	11,792
	계	3,730	1,579	4,743	5,486	1,976	6,176	23,699

농/어업별 \ 속초 행정구역		속초1구 (영랑동)	속초2구 (동명동)	속초3구 (중앙동)	속초4구 (금호동)	속초5구 (청호동)	기타 지역	속초 전체
어업	어가 호수	72	106	296	169	201	302	1,141
	어민수	126	292	653	644	529	519	2,763
	어민 가구원	288	530	1,480	845	1,005	1,518	5,666
	발동선	2	5	50	68	30	1	156
	범선	10	27	42	34	33	120	266
	종선	16	29	52	68	106	85	356

자료 : 속초읍(1955), 『읍세일람』

이러한 여건으로 월남인 중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과 원래 어업에 종사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청호동으로 모여오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하여 쉽게 어획물을 팔 수 있었던 경제적 장점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촌에 종사하는 많은 인구들은 특별한 가재도구나 어구들이 필요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 요구되었다. 또한 조업의 특성상 그들은 육지에서도 함께 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므로 단체 생활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것은 각 방에서 개인적 공간을 찾기보다는 기숙사와 같이 큰 방, 혹은 연속된 몇 개의 방들이 있는 곳에서 같은 조업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할 수 있는 일렬로 연속된 방, 혹은 큰 규모의 방이 있는 가옥구조를 만들게 하는 한 요소로 작용한다.

나. 집터자리

청호동은 편리한 교통로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가 없었고, 백사장만 있고, 농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부터 거의 버려진 국유지로 되어 있었다.

살 수가 없는 국유지가 정착민의 거주지로 제공되면서 땅에 대한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들만은 생활거주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이것은 정착촌 정책과 함께 좁은 가로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담장이 없고, 공동의 서비스 공간(화장실 등)을 가지며, 소유권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며, 큰 가옥을 갖기보다는 공동의 땅으로써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독특한 청호동 거리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주거환경의 개선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나 현재 많은 사람들은 청호동

을 떠나고, 1세대들이 옛 터를 지키고 있어 거주공간의 크기에 대한 제약은 크게 많이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역설적으로 옛 향기가 있는 주거환경의 상품화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야기될 수도 있다.

즉 주민전체의 소득사업으로써, 속초시의 관광정책과 함께 독특한 역사성이 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도 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퍽 흥미있는 주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래의 살았던 고장에서의 급격한 인문자연환경 변화는 전통적으로 지역성이 함께 하는 주거환경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피난민 가옥의 구조

우리 나라의 민가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쪽지방의 온돌중심형으로 이루어진 겹집 형태의 가옥과 남쪽지방의 마루중심형으로 만들어진 홑집은 외형상 크게 구분할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기능에 따라서 각각 발생한 독특한 공간은 함경도 지방의 정주간(구들),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방의 봉당 등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집합되어 함경도 · 평안도 · 서울 중부지방 · 남부지방 · 제주도 지방으로 각각 나누어서 좁은 국토 안에서 독특한 민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가옥은 거주자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을 때 건축되어지는 형식은 처음에는 옛날 양식을 따라서 건설되어져 점차 그 지역에 동화되어 지역적 특색을 받아 들여 변형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본 조사지역의 실향민 가옥은 대부분 정상적인 삶의 이동에 따른 온전한 형태의 이전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헤쳐 나온 삶의 형태이므로 대단히 독특한 형식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경제적 · 사회적 여건의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 일실 주거에서 출발하여 점차 집단의 성격에 맞는 형태로 완성되어 갔다.

가. 원추형 가옥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착민의 거주공간보다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임시 생활공간으로써 군용폐기물, 비닐 등을 이용하여 수혈공간과 유사한 원추형 가옥을 만들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생활을 위한 공간은 필요하므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막대기를 땅 위에 기둥처럼 세우고, 삼각형으로 서로 지지되게 골격을 갖춘 후 요즘의 등산용 텐트와 같은 형태로 단일공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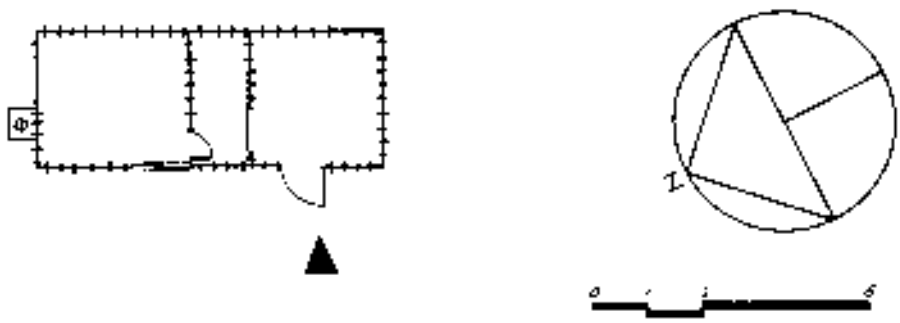
식 · 침과 가족의 생활을 단일공간에서 공동으로 하였으며, 남 · 녀 공간의 구분, 기능에 따른 각각의 허용공간 소유 등을 위한 각 실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여 점차 다른 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원추형 가옥의 내부에서 높낮이의 조절, 간이벽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실내를 구분하였다. 평면의 내부 공간이 크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절대 필요한 넓이 만큼만을 확보하여 천막 안에서 생활을 하였다.

나. 방+부엌

거주공간과 부엌공간을 분리한 형태의 2실 구조의 평면이 있었으나 부엌공간은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듯이 방보다 전체 면적이 넓은 것이 아니고, 한정된 식사의 준비와 물품 저장을 위한 크기였다.

청호동에서는 '하꼬방' 집으로 불러지고 있으며, 외부의 재료가 판자, 깡통 넓힌 것, 혹은 일부 벽체는 종이박스 등을 이용하여 건축되었다.

현재 청호동에서 몇 가구가 남아 있어 생활은 하지 않고 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의 < 그림 8-5-2-1 >, < 사진 8-5-2-1 >, < 사진 8-5-2-2 >, < 사진 8-5-2-3 >, < 사진 8-5-2-4 >는 이러한 형태의 가옥을 보여주고 있다. 출입은 부엌 측면에 있는 외짝여닫이 문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오며, 부엌의 왼쪽 측면에 있는 미닫이문을 열고, 현재 창고로 이용되는 공간을 지나서, 다시 작은 쪽문형태의 외짝여닫이문을 열고 방에 들어간다. 방에는 미닫이 창호가 좌측과 전면에 있으며, 현재 마감은 벽지로 도배되어 있으나, 처음에는 기름종이, 신문지 등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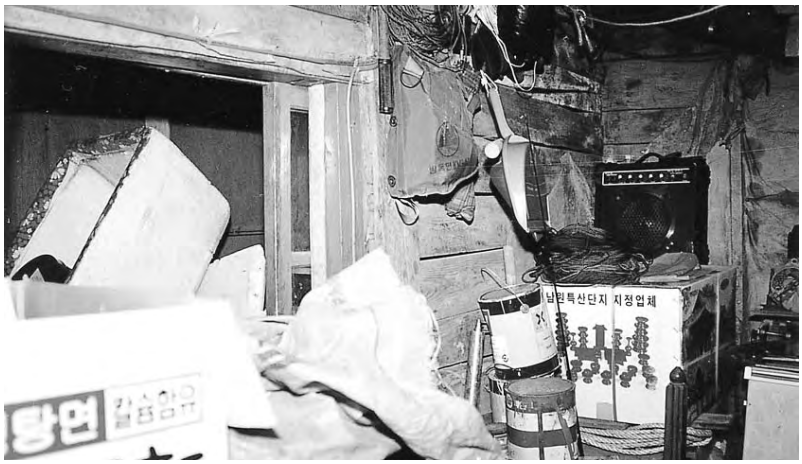


< 그림 8-5-2-1 >

〈 사진 8-5-2-1 〉 전상수 가옥

〈 사진 8-5-2-2 〉 구조

〈 사진 8-5-2-3 〉 측면



〈 사진 8-5-2-4 〉 내부

평면의 형식은 방과 부엌사이에는 완충공간의 역할을 하는 벽체로 분리된 전이 공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함경도지방 민가의 특징은 부엌과 안방 사이에는 부뚜막을 연결한 넓은 '정주간'이 있어 겨울철 추운 날씨가 연속되므로 여기에서 작업, 단란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게 평면이 구성되는 것이다.

고향을 떠나서 혹독한 겨울철 추위와 기나긴 겨울날을 갖지 않는 자연적 조건이 다른 속초 지역에 정착하였으나, 처음의 형태는 함경도 정주간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작은 정주간을 방과 부엌 사이에 만들고 있다. 즉 정착지 이전의 생활양식이 그대로 전승되어 전통적 관습을 이어오고 있다. 가옥주에 의하면 벽체의 칸막이는 처음에는 가마니 등으로 시야를 가리는 정도였으나 점차 벽체로 만들어졌다하며, 이것은 함경도지방 정주간의 초기 형태와 유사한 것이다.

방+부엌 형태의 이 지방의 일반적 평면은 방의 측면에 부뚜막이 있고, 곧바로 부엌이 연결되는 형식이다. 이 때 출입은 방의 전면에 댓돌을 놓고 외짝여닫이문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부엌 출입문을 따로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방과 부엌은 부뚜막에 의해 직접 연결되며, 만약 공간이 필요하면 부엌의 뒤쪽 좌측면으로 확장하고 있으나, 전상수 가옥에서는 정주간과 유사한 공간을 갖고 있으며, 또한 출입에 있어서도 폐쇄적이고 내한적인 부엌 출입구 하나만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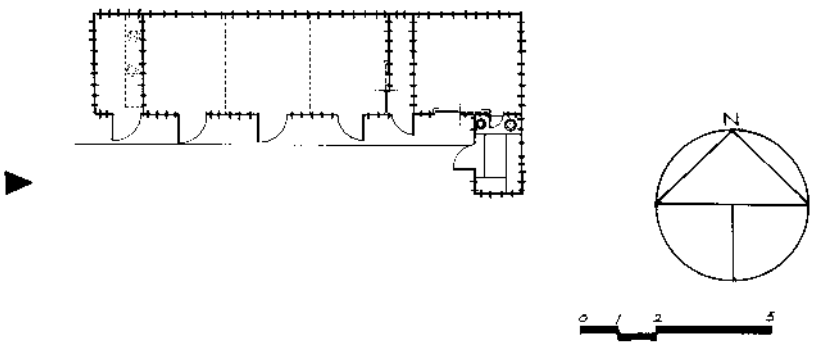
다. 연결형

전쟁이 곧 끝나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간이구조로 간단히 평면을 구성하였으나, 점차 세월이 흘러 오랜 기간 정착하면서 주거건축은 또 다른 형태를 만들게 하였다. 청호동 거주민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활공간은 더욱 많이 필요하였으나 제한된 면적과 경제적 사정에 의해 모두가 주거건축물을 소유할 수는 없었다.

또한 가족을 두고 혼자서 생활하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취업생활을 영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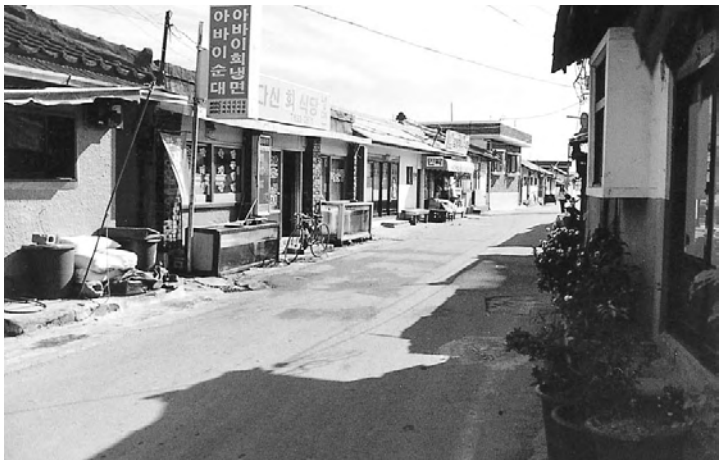
이러한 조건에서 주거건축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방과 극히 필요한 면적의 부엌만이 전부였다. 즉 낮에는 외부생활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으며, 함께 공동작업이 요구되는 어민에게는 단체생활을 위하여 더욱 필요하였다.

다음 < 그림 8-5-2-2 >, < 사진 8-5-2-5 >. < 사진 8-5-2-6 >은 50년 전 건축된 청호동의 박송월 가옥으로써 길게 연결된 각 방과 작은 부엌은 그때의 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다.



〈 그림 8-5-2-2 〉

〈 사진 8-5-2-5 〉 박송월 가옥



〈 사진 8-5-2-6 〉 전면 도로

이 가옥은 원래 중간의 폭 60cm, 길이 270cm의 부엌과 좌측의 방 3개로 이루어졌다. 방의 크기는 270cm×270cm 정도이며 12~15명의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즉 방 하나에 4~5명이 함께 생활하였다. 이러한 크기는 그 인원이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최소한의 넓이이며, 간이의 손에 잡을 수 있는 간단한 부피의 물건 몇 개를 더 놓을 수 있는 정도이다. 주로 함께 어로작업을 하는 어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였으며, 그나마 이러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한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면서 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측면과 끝에 각각 부엌을 증축하여 지금과 같은 평면이 완성되었다. 주생활에 필요한 화장실, 세면실 등은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개인 가정에서는 극히 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부엌을 방의 중간 혹은 측면에 두면서 각각의 방이 증가하는 것은 청호동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평면형식이며, 토지공간의 여유와 수요가 있을 때는 3칸, 4칸, 5칸으로 계속 일렬로 증축하였다.

사용하는 재료는 미군들이 버린 판자를 주워서 벽체를 만들었으며, 밀가루 포장지로 내부를 도배하였다. 지붕은 판자, 종이박스, 비닐 포장지, 루핑으로 만들었고, 현재의 스레트는 30년 전 인근 공장에서 사용한 것을 다시 재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정착 초기의 일반적인 것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를 증언하고 있다.[3)]

일렬로 방들이 배치되고, 이러한 집들이 인근에 붙어있고, 토지소유에 대한 구분과 각 집에 대한 영역성이 표시가 필요 없으므로 자연히 출입구는 각 방의 문을 통하여 외부로 연결되며, 마당의 개념이 필요치 않았다. 즉 사회

3) 장정룡 · 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p99.

적인 공간은 실내 · 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생활에 필요한 출입 통로 공간만 있었다.

라. 근대 주거건축

정착생활이 점차 안정화되어 6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의 움막형태, 판자집, 일자연결형 등은 거의 사라지고, 흙과 블럭을 이용한 가옥이 점차 증가하였다. 건축자재가 임시 거처용이 아닌 내구재를 사용하여 구조적 강도를 갖추게 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점차 확보 가능하고 조금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가족과 개인을 위한 공간에도 갖추게 되었다.

< 그림 8-5-2-3 >, < 사진 8-5-2-7 >, < 사진 8-5-2-8 >, < 사진 8-5-2-9 >, < 사진 8-5-2-10 >의 김춘자 가옥은 맞배스레트 지붕구조로써 기둥은 9cm의 각재를 사용하고, 높이는 240cm이며 도리는 6cm의 각재로 구조체를 결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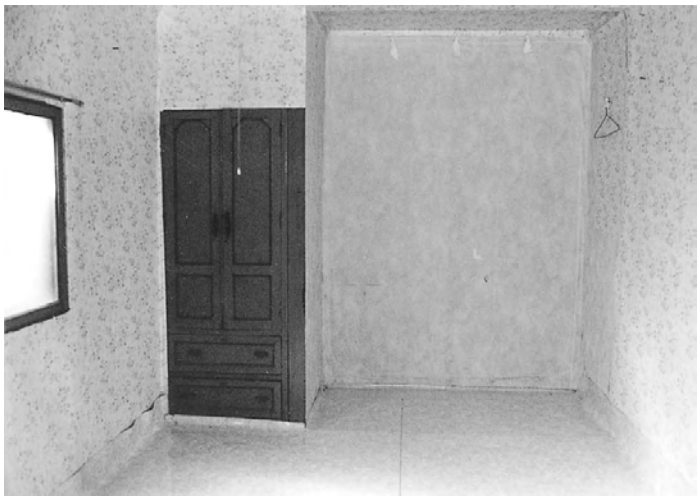
기둥 구조는 자연석 주초석 위에 곧바로 놓이지 않고 하인방을 주초석 위에 두고 그 위에 세우고 있다. 즉 충분한 건축자재와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이 완성되었으며, 아직도 완전히 정착 단계는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면에서는 부엌을 측면에 두고 방 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으며, 부엌에서 돌출 되게 샤워실이 있다, 방의 크기는 250cm, 260cm×360cm이고, 부엌은 270cm×360cm, 샤워실은 140cm×230cm로써 넓이에 있어서도 부엌+방과 연결형 양식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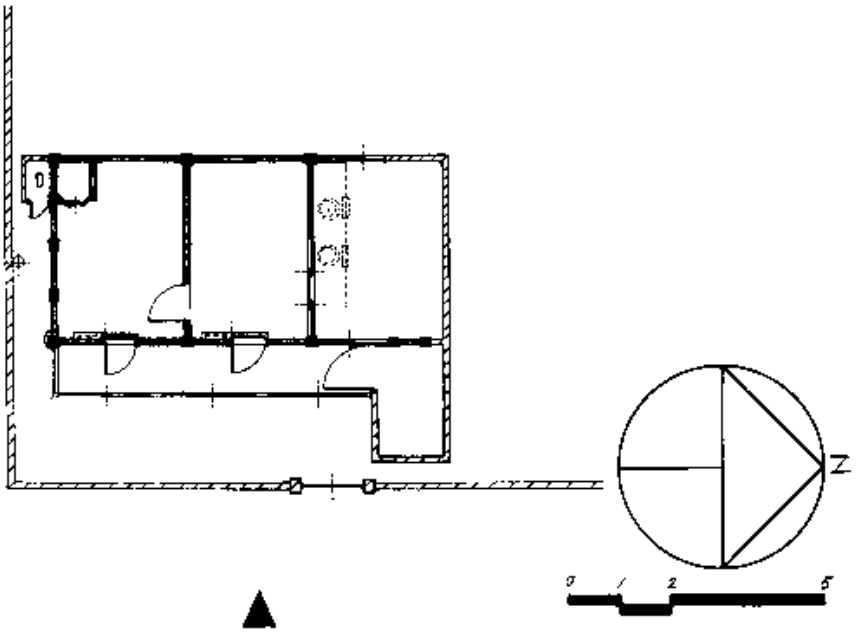
< 사진 8-5-2-7 > 김춘자 가옥

〈 사진 8-5-2-8 〉 초석

〈 사진 8-5-2-9 〉 측면



〈 사진 8-5-2-10 〉 내부



〈 그림 8-5-2-3 〉

특히 부엌은 취사와 난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으며, 방안에 벽장이 있고 방의 측면 끝에는 화장실이 붙어있다. 평면의 형식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각 실을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여 용도에 맞는 활동이 가능하게 하였다.

바닷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하여 방의 창호는 외짝여닫이(폭 70cm)와 미닫이의 이중창호로 하였으며,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처마 끝에서 알루미늄 창호를 집의 전면에 부착하였다. 방과 부엌의 일부 벽체는 흙벽에 시멘트 몰탈 마감을 하였으며, 후에 증축한 부엌과 샤워실은 블록으로 벽체를 쌓았다. 즉 구조체는 보호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바람, 혹한, 혹서에 견딜 수 있게 건축되어지며, 외부에 대하여서도 영역성에 관한 개념이 분명하여 블록 담장과 대문을 두고 있다. 즉 초창기의 담장이 없이 좁은 가로를 형성하였던 시기를 지나서 사회적 구분을 갖는 가옥을 건축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피난민의 주거촌은 급격한 인구증가, 경제적 능력의 취약함, 교통의 편리함, 정착지 토지와 계획의 불분명과 같은 인문적 환경과 백사장과 어항이 있는 자연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독특한 주거환경을 이루면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수혈주거 형태의 간이가옥에서 식침을 동시에 행하며 간단한 천막의 구조체에서 높낮이와 생활도구의 두는 위치에 따라서 주거공간의 활용

에 변화를 주었다. 한편 조금의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집단의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자, 종이박스, 루핑 등으로 지은 '하꼬방'이라는 방과 부엌이 있는 주거에서 생활을 하였다. 부엌은 필요한 행위가 가능한 정도의 크기이며, 방과 부엌 사이에는 함경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정주간을 닮은 작은 공간을 두고 있다. 이것은 피난민이 전에 생활하였던 전통적 습관을 현지에서 처음에는 만들고 있으나, 점차 주변환경에 적응하여 그 전 가옥에서 필요없는 것은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창조하는 전이단계이다.

한편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더욱 많은 거주공간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엌에 방이 연결된 일자 형태의 가옥이 만들어지고 몇 개의 큰방이 다시 부엌에 이어 붙는 연결된 형태가 나타났다. 거주를 위한 공간 이외에는 공동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함께 숙박을 할 수 있는 크기만 허용되었다.

천막 형태와 방과 부엌, 그리고 방이 연결된 구조는 토지소유의 불분명, 이주정책 초기의 정책 모호성 등에 따른 당시 형태의 고착에 의해 좁은 가로를 형성하고, 골목길이 있으며 지붕이 맞대어 있는 담장이 없는 가로경관을 만들게 하였다.

점차 경제적 능력이 확보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사용하는 건축재료도 내구적인 흙, 벽돌, 알루미늄을 사용하면서 완전한 근대주택을 건축하게 되어 담장이 있고,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방과 부엌의 크기에 있어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넓이를 확보하였으며, 샤워실, 화장실 등의 3차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마감과 의장에 있어서도 자연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면 알루미늄 샷시, 도장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독특한 마을의 형태는 교통의 편리성, 속초 중심에 가까운 입지성, 갯배의 교통수단,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마을의 가로경관, 뛰어난 해변의 아름다움 등과 함께 마을의 상품화가 가능하며, 이것은 청호동의 현대화되어 가는 모습과 함께 발전적 주거환경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속초시사 제8편 생활관습, 제5장 속초의 주거생활, 제2절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주거환경은 2000년 12월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제5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주거환경을 참조하여 자료적 측면에서 속초문화원에서 게재합니다.

下

附錄

附錄 一

人　名

※ 속초시 향토인물 편성은 가, 나, 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1. 김덕기(金悳基 : 1890~1950)

속초시 조양동 부월리 출신, 한말 중추원의관을 지낸 문관 사권(思權)의 子이며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총명하여 수재라는 칭호를 받으며 자랐다. 일찍이 한학을 전공하여 학문에 뛰어 났지만 성장 과정이 한일합병의 시기라 개방의 물결을 타고 신학문에 뜻을 두어 독학으로 외국어를 전공했으며, 그의 탁월한 재질과 명석한 판단력에 감복한 일인수급에 의해 특별히 발탁되어 관계(官契)에 투신하게 되었다.

한일합병 초기 흥분된 국민의 민족감정을 완화하려는 일본의 정략으로 공을 치안직에 전보하여 평안북도, 전라북도 상공부장, 경상남도 참여관을 역임하면서 8 · 15해방을 맞아 퇴임했다. 성품이 강직하고 소신이 뚜렷한 공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직분을 철저히 수행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조선인이라는 긍지하에 민족정신이 투철하여 끝내 창씨에 불응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일시 반민특위에 회부되었을 때에도 여사한 고증과 함께 많은 민족 포용 행적이 입증되어 동정을 받은바 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로 경기도 양천군 마석에서 영농을 하다가 6 · 25전쟁 피난도중 61세로 병사하였다.

2. 김명한(金明漢 : 1926 ~ ?)

속초시 조양동 출신, 강원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아메리칸 종합대학원 경제과를 수료하고 철원군수, 영월군수, 속초시장, 강릉시장을 역임했다.

3. 김복남(金福男 : 1933 ~ 1995)

속초시 장사동 출신,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에 AFKO를 설립하여 가나국에서 제일가는 수산업을 경영한 사업가였다.

가나국 올림픽 위원, 교민회 회장, 유럽지구 교민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 국익에 크게 이바지했다.

뿐만 아니라, 모교인 영랑초등학교에 약 15년간에 걸쳐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기부하였고, 속초시를 통해서도 불우한 후학들의 양성을 위해 거금을 출연하기도 하였다.

4. 김수석(金壽石 : 1907~1997)

함경남도 북청읍 주평리 출신, 북청대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열세살부터 사자춤을 추기 시작하여 열아홉 살 때에는 남들 앞에서 '애원성(哀怨聲)' 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쌓았다. 1951년 1 · 4후퇴 때 월남하여 이발사, 어부 등 생업에 전전하면서도 사자놀음을 멈추지 않고 온몸으로 지켰던 사람이다.

북청사자놀음(北靑獅子)은 함남 북청일대에서 정월보름에 사자로 가장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춤을 추어 잡귀를 쫓는 민속놀이로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면서 김수석이 인간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속초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 지역여건상 전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 부득이 이북5도민 본부가 있는 서울로 이전하게 되면서 전수회관이 지어져 북청사자놀음 보존회가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김수석은 끝까지 지역에 남아 어려운 생활에서 연금으로 지탱하면서도 북청사자놀음을 오늘날까지 지켜 왔던 산 증인이요 오직 한길을 걸어온 기능보유자로 1997년 10월에 별세하였다.

5. 김용식(金龍式 : 1896~1963)

속초시 도문동(중도문리) 출신,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수학하였다. 1929년 32세 나이에 순 독학으로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의지를 지닌 학구파로, 변호사업을 개설하여 민족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8 · 15광복 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장(1951), 부산지방법원장(1952), 대구고등법원장(1954), 대구고등검찰청장(1960. 9~1961. 6) 등을 역임하고, 4 · 19후 3 · 15부정을 다루는 특검부장에 임명되어 크게 활약하였다.

공은 평소 공명정대하여 청렴강직한 법조인의 표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퇴임 후는 다시 변호사 개업을 했으나 평생을 오직 참된 법조인의 신성한 긍지로 功名에 초연하고 겸허한 자세로 세정에 물들지 않았으며 청빈한 생활로 셋방을 전전하다 여생을 마친 고매한 인격자였다.

6. 김우규(金雨圭 : 1877~1947)

속초시 조양동 출신, 자는 시약(時若), 호는 감호(鑑湖), 공은 한학자로 한일합병 후 의분이 있던 교우들과 함께 시론으로 달래며 인근주민에게 동학

을 장려하는 지역지도자였다.

소천면장으로 관직에 투신하였으나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천면장 이석범의 간청으로 수석호기(지금의 부면장)로 근무하면서 리간구획과 지적정리 등 이 지역의 새로운 행정의 기반구축에 봉사한 행정가이기도 했다.

1919년 이석범 면장의 사퇴로 인해 도천면장이 되면서 영세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업진흥에 진력하였다. 과수원, 양잠, 특용작물을 농가에 권장하면서 자연부락을 순회지도 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하여 민족적 비운을 경제와 인지개발로 회복하고자 하였다.

공은 1919년 대포공립보통학교의 설립당시 건의와 추진, 그리고 기성회(후원회) 조직 등 많은 활약을 하였다. 면장 퇴임 후에도(1919~1928) 지역개발을 위해 속초축항공사 추진에 계속적인 노력을 했다.

7. 김정진(金廷鎭 : 1899~1984)

속초시 조양동 출신, 일제강점기 때 평소 교우가 두터웠던 춘천의 이종순(李鐘淳 · 制憲議員)으로부터 속초지구 독립만세운동책을 책임지고 맡으라는 밀명을 받고 10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조합 골방에서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기미년 3월 4일 현 조양동(부월리) 마을회관 광장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도천면 대포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어 양양경찰서를 양양군내 동지들과 같이 점거할 목적으로 대포고개를 넘다 급히 출동한 일경과 격돌 끝에 후퇴 피신은 하였으나 이내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 그 후에도 공은 부자유와 요시찰 감시 대상으로 본가에서 농사일을 돌보며 지역 주민들에게 반일사상을 고취시키면서 광복을 맞이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곳이 38이북으로 편입되자 공산주의 사상에 못이겨 그의 아들들을 월남시켰다. 공은 독립운동으로 입은 상처와 지병으로 1984년 일제만행의 원한을 안은 채 별세하였지만 반일 · 반공 사상 고취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이다.

8. 김주혁(金周赫 : 1904~1975)

속초시 조양동 출신, 유년기에는 한학을 공부하다가 차차 성장함에 영리하고 총명하다는 칭송을 받았다. 시대에 민감한 공은 신학에 뜻을 두어 춘천공립농업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관계로 진출하였다. 원래 성품이 치밀하고 성실하며 탐욕을 배척하여 청백리로 공인 받아 일제시 인제군수로 발탁됨을

시발로 횡성군수를 역임하였다.

공은 횡성군수 재직시 일본이 전쟁수행을 위해 너무나 많은 식량공출을 배정함에 "나는 횡성군민을 굶어 죽일 수 없다"하여 사표를 낸 의기인이다.

이후 고성군 食糧營團 소장에 있다가 1943년 속초읍장 재직 중 8 · 15 해방을 맞아 이 지역이 공산치하가 되자 월남하게 되었고, 이후 원주읍장의 소임을 받아 6 · 25전후 민족적 수난기에 중임을 완수하고, 수복지구 행정이양 후 고향으로 돌아와 양양군수에 임용되어 수복행정초기 행정질서 확립과 민생안정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노령으로 은퇴하고 조양동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도시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또한 춘농봉의회 영북지방회장으로 후배지도에도 진력하다 1975년 5월 향년 72세로 별세하였다.

9. 김철규(金哲奎 : 1877~1953)

공은 농사에 전념한 독농가로 일생 근면하여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1932년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속초해수욕장 부근에서 염전을 경영한 속초지역산업의 시조 중 한분이다.

속초개발에 유지였으며 특히 속초항 축항 때는 주민 자체부담금을 고재동, 정주벽과 함께 거금을 희사하였을 뿐 아니라 춘궁기에는 인근 빈가를 구휼하기도 하였다.

일제 전쟁말기 이 고장에 생필품 유입이 어려워지자 1945년 8월초 전읍장이였던 박상희와 읍의원이였던 이상봉이 함께 공에게 찾아가 염전 재투자권유를 하여 그 계획을 착수 중에 해방을 맞았다. 해방직후는 가족을 월남시켰다하여 반동분자로서 또한 지주라하여 전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어 인근 공가옥을 전전하다 국군 진주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고 수복후는 반공으로 지역에 기여한 바가 크다.

10. 김해수(金海洙 : 1893~1980)

속초시 동명동 출신, 공은 독농가이며 성품이 활달하여 부근 주민의 시비를 현장에서 즉각 화해시키는 지도력을 가진 인물로, 1937년 속초를 1~4구로 분할하는 구제 실시까지 속초이장으로 20여 년간 면정에 참여하였다.

한일합병 후 삼림의 도벌과 산주의 임의 채벌을 막기 위해 부락민 자의에 의한 송계를 조직하여 임상을 철저히 보호한 사실은 오늘날의 산림보호의 선각자이다.

1955년 김영배(金榮培)의 전쟁고아를 위한 영랑보육원의 설립시 田 1,700여 평을 희사한 독지가이기도 하다.

11. 김환기(金奐基 : 1889~1955)

함흥 한의원 강습소를 수료하고 주로 속초시 조양동, 영랑동 지역에서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3·1만세운동에 참여,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룬 후에 반일 의지는 더욱 굳어졌고, 광복 후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공산당 무리가 날뛰자 항일 의지를 반공으로 방향 전환하여 1946년 3월의 이른바 속초 90인 사건의 주역이었다.

공은 당시 반공인사 강래승 등과 동지 90인을 규합하여 북한 주요기관을 점거하여 치안행정권을 탈취, 이 지역만이라도 우익세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거를 계획하고 행동을 개시하려던 중 사전 발각 검거되어 소련 콘트라지데크 철원 본부에 구속되었다. 그 후 무수한 고문을 받고 풀려났으나 같은 해 9월 반동 음모를 하였다 하여 양양보안서에 연행 구금되어 3개월간 심한 고문과 형벌로 박해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이 지역이 좌익기반이 굳어지자 할 수 없이 가족을 이끌고 1947년 12월 월남하였다. 6·25동란시 월남피난 동향인들과 함께 반공의 선두에 서서 서북청년회 영동지구 본부 고문으로 활약하다가 수복과 동시에 속초로 돌아와 속초읍 자치회 고문으로 전후 수습과 지역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다 1955년 향년 66세로 별세하였다.

12. 박 관(朴 貫 : 1705~1783)

밀양 박씨 원파로 자는 치의(致義)이며 창후(昌厚)의 자이다. 숙종31년(1705) 4월 29일에 나서 정조7년(1783)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 영조49년(1773)에 가선대부의 교지를 받았으며 묘는 속초시 대포동 대포리 뒤 거동(擧洞)에 있다.

13. 박기필(朴基弼 : 1812~1903)

밀양 박씨 원파로 자는 현여(賢汝)이다. 순조12년(1812) 1월 29일에 나서 광무7년(1903) 8월 1일에 사망하였다. 광무5년(1901) 2월 8일 정3품 통정대부 돈영부도정(通政大夫 敦寧府都正) 겸 종2품 가선대부 예조참판의 가자(대우) 칙명을 받았다. 궁내부 주사 및 중추원의관을 역임하였다. 묘는

속초시 노학동 척산리 밀밭골에 있다.

14. 박상희(朴祥喜 : 1890~1948)

속초시 장사동(장천리) 출신, 호는 초은(樵隱). 공은 한학에 조예가 깊을 뿐 아니라 신문학에도 해박하였으며, 성품 또한 온후인자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1925년 일본관리는 공을 회유하기 위하여 도 평의원을 위촉하였으나 참여치 않고 지역주민 복지 행정 시행에 힘써 달라는 구실을 붙여 1928년 도천면장으로 천거하였다.

공은 협소한 대포리가 당시로서는 지역발전에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속초의 지형지세를 면밀히 관찰하고 어업을 중심으로한 항구 도시의 설계를 성안하여 당시 총독부로 하여금 1930년 속초축항공사를 착수케 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공사가 발주되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고용이 증대되니 이 지역에 신문물 유입이 가속되었다.

또한 속초를 내륙과 가깝게 연결하기 위해 1933년 미시령 차도개설을 주민 부담만으로 시행하고 대관령사업을 연이어 발주하였다. 1937년 면사무소를 속초로 이전 단행 하는 등 지역대개발 사업을 전개하였고 이어 주재소, 우체국, 금융조합, 어업조합과 심지어 일본인 심상소학교마저 속초로 이전하게 하였다.

공은 당시 인구가 불과 1만여 명임에도 불구하고 10~15만 인구수용의 도시계획을 성안하여 추진하였고 1942년 면을 읍으로 승격시켰다.

8 · 15해방이 되어 속초가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을 때에도 이곳 우익진영의 상징으로 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다른 인사는 구속 문초하였으나 유독 공만은 소환도 못하고 미행전담 내무서원으로 하여금 동정만을 살피게 하였으니 혹독한 공산당도 당시로서는 공의 인품과 행적에 위압을 느꼈다 하겠다.

공은 인공치하에서 이와 같이 사실상 모든 활동을 억제와 감시당한 채 1948년 향년 59세로 별세하였다.

공의 사후 1958년에 당시 읍장이던 전성우가 동명동 로타리에 송덕비를 건립하였고 이후 1992년 8월에 대포파출소 옆 비석공원에 구비(舊碑)와 함께 신비(新碑)가 세워져 있다.

15. 박지의(朴志誼 : 1799~1859)

자는 윤지(允之), 호는 이재(彝齋).

정조23년(1799) 8월에 현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리에서 출생하여 철종11년 경신 7월 향년 62세에 돌아가셨다.

어려서 모친을 잃은 후 26세 때 부친의 병환이 위독하자 자신의 손에 피를 흘려 부친의 병환을 구하였으며 동년 7월 부친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정성껏 시묘살이를 하였다. 또한 충효를 겸비하여 헌종15년(1849) 6월 임금이 승하함에 마을 앞 쌍천 갯가의 조용하고 깨끗한 곳을 골라(현 학무정 옆) 제단을 마련하고 삼시곡배(三時哭拜)하여 사람마다 충신 박지의지단(朴志誼之壇)이라 칭송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효성과 충성심은 이 지방 유림들의 추천으로 관찰사를 통해 조정에 알려졌으며 고종30년(1893) 12월에 국가로부터 정려(旌閭)의 명을 받아 망곡하던 터 옆에 효자각이 건립되었다. 아울러 그는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에 증직되었다. 그 후 홍수로 비각이 유실되자 1937년에 그의 무덤 가까운 곳으로 비각을 옮겨 세웠으며, 1984년에 관에서 주관하여 비각의 단청과 그 주변을 정화하였다.

학무정 옆에는 박지의 효자비가 세워져 있는데 1955년 강릉 박씨 후손들에 의해 건립된 비를 현재 효자각이 있던 위치에서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고 한다.

16. 박창후(朴昌厚 : 1679~1727)

밀양 박씨 원파로 자는 자수(子壽)이며 의 자이다. 숙종5년(1679)에 나서 영조3년(1727)에 돌아가셨다. 숙종43년(1717)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 익년에 봉열대부 행호조좌랑(奉列大夫 行戶曹佐郞)의 교지를 받았다. 벼슬은 고령현감 청주목사를 역임하였다.

17. 박태귀(朴泰貴 : 1909~1980)

공은 원산 보광학교를 졸업하고 고원읍사무소, 고원군청에 근무하는 동안 청백한 행정가라는 신망을 얻었다. 고원읍의원을 역임하였으며, 8 · 15해방 후는 반동분자로 지목받아 행동에 제한을 받고 가옥도 창원군 인민위원회에 몰수당하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다. 6 · 25전쟁시 국군진격으로 고원부군수에 봉임하며 공정과 관용으로 지역주민을 선무하였다. 1 · 4후퇴 때는 한사

람이라도 더 후퇴하기 위해 가솔도 인솔하지 못한 채 단신 월남하고, 제1군단 민사처 문관으로 근무시는 피난민 보호와 행정승계 현역장병에겐 주민선무를 타이르며, 민정이양 후 속초부읍장에 취임하여 부하 직원에게 봉사와 공정을 항상 강조하였다. 적법하고 타당한 인허가도 친척에게는 불허하는 성격도 있었으나 권한남용과 정실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양양군 전체주민에 직접 이해관계 있는 지방세 계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노령으로 퇴직하여 고원군 명예군수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며 가세는 자력으로 면학한 장남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을 이수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변변한 집한채도 마련치 못한 멸사봉공의 공무원상이었다.

18. 서창하(徐昌河 : 1904~1976)

함경남도 고원군 출신, 공은 함흥 도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8·15해방 전까지 함남지방에서 초등학교 교편을 잡았다. 일제말기 청년들을 강제 징병으로 끌어갈 때 그의 장남과 같이 함흥고보의 동기동창생이였던 박동명(전 농수산부장관, 성균관대 총장)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임시교사로 채용 징병을 면하게도 하였다. 1·4 후퇴시 월남하였으며, 동해안 수복지구인 이곳에도 중등교육 기관의 존립이 대두됨에 따라 6·25전쟁 와중인 1952년 3월 고성군 동광중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이 학교 개교시 교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이 학교는 수복지구에서 최초의 중학교이면서 최북단의 학교였으며 대한민국에서 공식인가에 의한 중학교가 된 것이다. 공은 교육을 향한 정열과 노력으로 같은 해 5월 25일 제1군단장으로부터 속초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6월 2일 개교의 타종을 이곳에 울림으로서 수복지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처음으로 설립한 창설자가 되었다. 속초고등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첫째는 전란으로 황폐화된 이땅에 새로운 학교를 세우고 교육환경을 조성한 일이고, 둘째는 개교초기부터 면학풍토를 조성하여 많은 제자들을 명문대학에 합격시킨 일이며, 셋째는 개교초부터 배구부를 창설하여 재임기간 고교배구에서 수년간 전국 준우승을 석권케하여 배구명문고교로서 자리를 굳힌 일이라 할 것이다.
그 후 신철원의 갈말중학교, 신철원농업고등학교 교장을 거쳐 말년에는 다시 속초여자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19. 엄춘경(嚴春卿)

속초시 장사동(장천리) 출신, 철종 경술년(1850)에 출생하여 을축 8월 9일 76세에 돌아가셨다.

유년시절 주경야독으로 면학한 끝에 과거에 응시하여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당시 가세가 너무도 빈곤하여 축하잔치조차 치룰 여유가 없었다 한다.

逸話 : 주경야독으로 강독하다보니 시간의 여유를 얻지 못하여 학문이 깊은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 지성이 감천이라 어느 날 길몽을 얻어 마침 과거의 기회가 되어 장질 엄모와 수학동문 장공인과 함께 3인이 합작 같은 글을 올렸는데 춘경공의 명주장은 중간에 귀인이 개입하여 시관에게 정통으로 전달되어 진사에 급제되었고 여타 2인의 시서는 시관의 무릎 밑에도 이르지 못한 채 낙방되었다 하니 관운도 관운이려니와 당시의 관기(官紀)를 가지(可知)할 수 있다.

20. 오윤환(吳潤煥 : 1872~1946)

자는 성빈(聖彬), 호는 매곡(梅谷).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1리 출신, 조선 고종9년(1872)에 태어났다. 공은 한학을 전공하였으며 율곡 선생을 가장 숭배하였다. 성리학을 깊이 궁리하여 학문이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나 벼슬하기를 꺼려하고 향리에 묻혀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만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학문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여 날마다 아침이면 문안을 드리고 저녁이면 잠자리를 보살펴 드렸다. 첫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침상에서 일어나 목욕을 한 뒤 의관을 단정히 하고 조상님들의 위패 앞에 나아가 인사를 드린 후 하루 종일 공부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한평생을 두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다.

3 · 1운동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옥고를 치루었고 일제의 삭발령과 창씨개명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반대하였다.

상도문리 쌍천가 푸른 송림 속에 친척들과 제자들의 협조를 얻어 학무정이라는 정자를 1934년에 짓고 많은 선비들과 함께 시를 읊고 글을 지었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도장으로 삼기도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공을 '매곡처사' 또는 '오학자'라 부르기도 한다.

21. 유정충(劉楨忠 : 1946~1990)

함남 북청군 신포읍 출신, 6 · 25전쟁시 월남하여 부산을 거쳐 속초에서 선원과 선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90년 3월 1일 어선 '하나호'를 타고 제주 남방 동지나해 370마일 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던 중 풍랑으로 어선이 침몰하자, 동료 선원 21명을 구하려 끝까지 구명정 승선을 포기한 채 어선에 남아 구조 신호를 타전하다가 배와 함께 운명을 함께 했다.

이 감동적인 사건은 당시 각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켰으며, 거룩한 희생정신의 표본으로 어민들은 물론 전국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 주었고 어민으로서는 최초로 수협중앙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다. 이의 희생을 애도하는 이들에 의해 1991년 1월 9일 그의 동상이 근로자 복지회관 앞에 세워져 있다.

22. 유회일(兪晦一)

호는 물재(勿齋). 창원 출생. 조선 후기 학자로 당쟁을 피해 이 곳 대포동(물치리)에 오랫동안 머문 학자이다. 그의 학덕과 부친에 대한 효성을 마을 사람들이 흠모하여 향현사 사당을 세워 추모하였으나, 그 후 사당이 오래되자 그 자리에 영조24년(1748) 양양유림에서 물재 유회일의 학덕을 위해 유허비(遺墟碑)를 건립하였다.

비문은 예조판서 조관빈(趙觀彬)이 짓고, 글씨는 강원도 관찰사 홍봉조(洪鳳祚)가 썼다. 원래 이 비석은 새로 조성된 마을에 있던 것인데, 일출봉 회집 뒤 철길 옆으로 이전하였다가 현재는 대포파출소 옆 비석공원에 이전하여 보전하고 있다.

23. 이국범(李國範 : 1869~1931)

속초시 도문동 출신, 공은 일찍이 한학에 전념하여 유림으로 정평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신념이 강하고 민족사상이 투철함과 동시에 영웅적인 심리가 있었다.

한말당시 국운이 기울어 민권이 상실되고 한일합방이 되자 이에 분을 품고 민족운동에 뜻을 두었으며, 1919년 고종황제의 인산(因山)당시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이 터지고 전국 곳곳에서 이와 같은 만세사건이 전개되자 고향으로 내려온 공은 양양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당시 공은 양양에서 민족사상이 강한 청년으로 이상온(李相瑥), 이원도, 최인식 등 8명을 규합 이곳 장날을 기하여 태극기를 만들어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일경과의 접전을 벌였다.

만세의 선봉에 섰던 8명의 청년들은 2명씩 조를 짜서 양양읍내를 맡아 일경의 총칼을 석전(石戰)으로 대항하였다.

그 후 8명의 주동인물들은 일경들에 체포되어 많은 고문과 옥고를 치루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당시 독립만세사건은 전국에서도 유명했으며 공은 애국지사로 2005년 3월 1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24. 이규한(李圭漢 : 1887~1943)

속초시 노학동 출신, 공의 가세는 대농으로 한학을 이수하였으며, 신문물에 밝은 지역지도자로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과수원을 경영한 독농가이다.

역대면장과 당시 김양규 면장의 권유와 함께 면서기로 출발하여 농촌진흥에 진력하였으나 3 · 1만세운동에 참가하고 퇴직한 반일 운동자였다. 그러나 공은 박상희 면장의 반일의중과 지역개발이상이 같아 면협의원이나 내실 면장의 고문격인 지역지도자였다.

이러한 역량으로 대포금융조합의 평의원에 선임되었다. 대포공립보통학교 교주 주동역할과 불우미취학청소년을 위해 1930년 공의 가택부근에 있던 노리 간이학교 교주와 그 운영을 후원하였다.(1940년에 폐쇄)

1930년 속초축항의 학론을 조성하여 그 착공을 추진하였으며 1933년 미시령 국도개설시는 실무자들의 위로격려와 주민에게는 부역설득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일본이 중일전쟁에 이어 제2차대전을 획책할 무렵 말기 행정에 과분한 공출과 부역을 참지 못하여 연로함을 구실로 면협의원을 사양, 은둔하여 시간을 관망하다 1943년에 별세하였다.

25. 이달영(李達永 : 1921~1981)

고성군 토성면 신평 출신, 공의 성품은 호협하고 화술에 능하여 교우가 많았고 참여의식이 강하였다. 1944년 주식회사 평창잠사회사 지배인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남하여 대한청년단 평창군단 부단장과 육군호국군사관학교와 경찰전문학교를 거친 반공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수복 귀향 후에는 대한반공청년단 양양군 단장을 역임한 반공투사이다.

1955년 비판신문 동해지사장겸 기자로 근무하여 이 지역 언론창달에 선구자이기도 하였다. 귀향 후 설악산관광개발의 첫 주역으로 활약하였으며 속초가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어 질서가 잡히자 지역발전을 위해 속초번영회, 체육관장, 각종단체의 간부를 역임하였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설악산관광개발, 한전유치 그리고 시로서 갖추어야할 각급기관 유치에 주 활약을 하였으며, 각기관에 자문위원 역할과 함께 별세할 때까지 많은 지역공공사업에 관여했다. 속초시에서는 1981년 공의 별세 때 속초시개발촉진위원회장을 거행하여 공을 추념 애도하였다.

26. 이상봉(李商鳳 : 1898~ ?)

속초시 노학동 출신, 조선조 제7대왕 세조대왕의 제3왕자 덕원군 일서 종정경 제3자 영천도정금의 현손이며 공의 12대조인 언하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내고 낙향한 분의 후예이다. 성품은 온후인자하여 측근에 교우가 많았다.

3 · 1만세운동때에는 대연배인 당시 이지역의 지도중진인 박상희, 이규한과 의기상통 하여 시론하게 되었다. 25세에 면협의원으로 발탁되었으며 박상희 면장 때는 이규한과 더불어 내실적인 면정 고문이었다.

박상희 면장이 성안하였던 일본인 도지사 高尾가 현지상황을 시찰 왔을 때 주민대표로 계획과 전망을 탐탐히 설명하여 지사로 하여금 공사착수 결의를 갖게 하였다.

1930년 축항공사 착수에 내륙지방과 가까운 공로연결을 위해 미시령 국도개설에 중추역할과 면 이전을 위해 남부지역 주민(대포 도문) 무마책을 맡기도 하였다. 대포공립보통학교, 노리간이학교(비정규로 불우아취학 청소년) 그리고 영랑공립심상소학교 설립에 기성, 후원회 구성을 하였고 또한 대포금융조합 감사도 역임하였다.

1950년 10월 3일 이 지역이 수복되자 군당국의 요청으로 면장으로서 주민선무와 행정 수습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도천면 시대에서 수복 그리고 민정이양과 시승격 초기까지 면협의원, 조합의원과 번영회 그리고 노년엔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생을 지역개발과 발전에 헌신한 지역지도자이다.

27. 이석범(李錫範 : 1859~1932)

자는 사일(士一), 호는 설초(雪樵), 공은 조선조 인종 때 필선양양부사를

지낸 이춘령의 10대손으로 1859년 양양군 임천리에서 태어났다.

일찍 부모를 따라 현재 속초시 설악동으로 개편된 당시 도천면 중도문리로 이주하여 어린시절을 보냈다. 전통적인 유림가문에서 태어난 이석범은 학문에 정진, 1884년 고종 갑신년 스물다섯 나이로 초시에 급제했다.

전통적인 유학자로 동학란 때에는 반동학군을 조직하여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이후 장년에 이르러 한학의 대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1899년에는 중추원의관을 거쳐 1905년 군부주사겸 군기창기수에 임명, 국정의 심의에 참여하여 토비(土匪) 평정을 하고 신흥사를 파산에서 복구했다.

1910년 일제의 잔악무도한 합병통치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인자중하여 오던중 뜻하는 바 있어 초대 도문면장을 잠정적으로 역임하게 된다.

도문면장에 오른 공은 개화에 눈을 돌려 대포항을 크게 개항하고 물물교역의 경제항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했다. 또한 당시 양양군수로 재직하며 대중 계몽과 교육에 헌신하고 있던 남궁억과 양양 현산학교, 도문 쌍천서숙을 설립하고 후진 양성 및 항일 애국정신의 확산에 노력했다. 1919년 3월 1일 망국의 쓰라림 속에서 고종 황제의 국장에 참여한 뒤 손병희 등 33인이 주도한 기미독립만세운동을 목격한 공은 버선속에 독립선언서를 숨겨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향에 돌아온 후 동생 이국범, 장남 재훈, 차남 재형 그리고 족손이 되는 이교완, 이교정을 중심으로 중도문 출신으로 김영경, 이종국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양양면 임천리 이교완의 집을 거점으로 최인식 등 50여명을 각 면의 동원 책임자로 정하고 양양 장날인 4월 4일을 기해 양양만세운동의 불길이 오르게 됐다. 양양읍은 물론 대포, 물치, 기사문 등 양양지역 6개면 82개 동리의 남녀노소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까지 6일 밤낮동안 계속되며 13명의 사망자와 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구금 또는 수형자만도 172명에 이르며 우리나라 만세운동 중 그 규모와 치열함에서 손꼽히는 양양만세운동의 중심에 이석범이 있었다. 공은 동생 국범과 두 아들 등과 함께 투옥되어 혹심한 고초를 겪어야 했다. 당시 일제가 만든 자료는 이석범에 대해 배일사상을 품고 양양 만세사건 주모자로 관계했다며 인물평에 대해서는 음험함이라 적고 있다.

그러나 이석범은 옥고와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1926년 6월 10일 순종 국장에 참례하고 1927년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 등과 민족주의 통합체인 신간회를 조직하여 강원도 지부장으로 취임, 활약하는 등 조국의 독립에 여생을 바쳤다. 1932년 9월 1일 74세를 일기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숨졌다. 이석범의 장남 재훈과 동생 국범에게는 지난 1990년과 2005년에 각각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28. 이재훈(李載勳 ; 1888~1951)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출신, 함평이씨 가문인 중추원 의관을 지낸 이석범의 장자로 출생하여 유년시절은 임천리에서 성장하였으며 소년기는 부모를 따라 중도문리에 옮겨 살면서 쌍천서숙에서 한학을 배우고 현산학교를 거쳐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이수한 수재로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시운이 뒤 따르지 못했다.

志土의 아버지 이석범은 유림의 대가로서 도천면 중도문리에서 은거하고 있을때 고종 국장에 참례하고 때마침 장안에서 봉기한 독립만세 시위를 직접 목격하고 독립선언문을 자신의 버선목에 몰래 감추어 가지고 하양하여 거사의 주동이 되었다. 양양읍 임천리 이교완 집을 3 · 1만세운동의 본거지로 삼고 도천면은 이재훈이 주동이 되어 중도문리 이종국 집에서 김영경, 이국범, 이재형, 박사집 등 다수 각리의 유지와 은밀히 모의하면서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준비하고 4월 4일밤 각리 책임자에게 다음날 물치시장에서 있을 독립만세운동에 동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4월 5일 물치시장에는 수백명의 군중이 몰려들었고 이재훈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태극기를 높이 들고 앞장서 독립만세를 외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군중과 합세하여 대포주재소 앞에 이르러 만세를 부르자 왜인들은 당황하여 배를 타고 바다로 피신하였다.

4월 6일 오후 1시경 각면에서 동원된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양양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왜경과 대치하여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폭악무도한 왜적의 총검 앞에 무참히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과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씌워 1년8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 후 옥고를 마치고 중도문리에 돌아왔으나 일제의 모든 의혹을 뿌리치고 청빈한 생활을 일관하다가 1945년 8 · 15광복을 맞이하여 뜻한바 있어 서울에 이거하였고 6 · 25동란으로 피난도중 1951년 4월 여주에서 향년 64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

1982년 8월 15일 정부에서 그의 공적을 찬양하여 대통령표창에 추서 되었고 1990년 12월 지사의 공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했다.

29. 장공팔(張公八)

속초시 조양동 청대리 출신, 장사동(장천리) 엄진사 춘경공과 같은 시대

인물로 학식이 출중하여 엄춘경과 같이 과거에 응하였으나 낙방되자 부패한 관가를 한탄하며 이를 등지고 후인들의 훈육에 뜻을 돌려 청대 장천 등지를 순유하며 사숙을 열어 많은 문인들을 교육하며 학행을 널리 펴는 것으로 일생을 마쳤다.

30. 장인원(張仁源 : 1886~1950)

속초시 조양동 청대리 출신, 춘천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관리가 되어 일제에 협력하기를 기피한 공은 본인이 수학한 기능을 이 고장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결심하고 당시 미개발분야이면서 농촌소득 전망이 밝은 잠업에 눈길을 돌려 출생지인 청대리에 별동 잠실을 건립하고 직접 양잠을 하여 잠업보급, 농촌소득증대와 경영합리화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실업가인 동시에 3 · 1운동에도 앞장서 3년간의 옥고를 겪은 의사이다.

31. 전성우(全星宇 : 1909~1979)

함경북도 경성군 출신, 1925년 경성공립보통학교, 1930년 경성중학 3년을 졸업하고 경성 남하소학교에서 훈도로 근무하다 만주로 옮긴 그는 8 · 15 해방까지 간도성에서 살았다. 1945년 9월 10일 서울시 원남동장을 거쳐 47년 국립경찰전문학교를 졸업 49년 6월 경감에 임명, 강원도경 수사계장으로 근무하였다. 6 · 25동란시는 강원도경 제36대장 전투경찰 제8대대 제1중대장을 거쳐 50년 10월 전시 금화경찰서장에 임명되었고 50년 12월 보안계장, 51년 2월 부산지구포로 심사위원을 거쳐 동년 11월 장성경찰서장, 53년 강원도 기동대장, 54년 10월 주문진경찰서장, 56년 10월 화천경찰서장을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퇴임하여 1956년 12월 속초읍장에 임명되었다.

공직에서 물러난 공은 속초시번영회장, 속초시행정자문위원회위원장, 경찰서자문위원장, 재향경우회장도 역임했고 1976년 6월 1일에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과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유치공로로 대법원장의 감사패를 받았다. 70년 12월 1일에는 같은 공로로 춘천지방법원장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감사패를 받은바 있다.

경찰재직시 공로로 경찰상훈표창, 공비토벌표창, 6 · 25종군기장, 무성화랑무공훈장, 공비토벌유공표창, 방위포장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속초시 노학동 상수도배수지 부근 함북도민회 묘지에 묻혀 있다.

32. 정주벽(鄭珠碧 : 1901~1983)

속초시 대포동 출신, 공은 홍낙현과 더불어 속초지역에서 수산기업의 효시이며 사업에 대한 계획은 치밀하고 성품은 호탕하여 대포보통학교 후원과 대포소방대 창립시 장비를 구입하여 희사하는 등 애향심이 강하였다. 대포리 소재 도천면사무소를 속초에 이전하는 추진위원으로 앞장서서 대포주민의 반발을 미리 예방하여 면정협조를 비롯, 지역사회 임의단체의 장을 두루 역임하였다. 만년엔 수복직후 주민에 전등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구에도 불구하고 서울 철주를 유치하여 동해전기회사를 설립하고 부사장 전무를 역임한 맹렬사업가로 1964년 현 한국전력을 유치하는 동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어협전신인 대포어업조합 조합장, 수복 후는 속초수산관리소장으로 각종 어구 장비를 대담하게 도입하여 어민들에 배정하는 등 수산행정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여 현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기초를 마련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33. 지일권(池一權 : 1927~1993)

함남 이원군 군선면 출신, 함흥고등중학교와 원산 교육대학을 수료한 후 월남하여 한국일보 원주, 춘천, 양구, 속초주재기자를 지낸 언론인으로, 속초문화원장을 역임하였다. 문화원장 재직시 속초시지 편찬위원장을 맡아 시지를 편찬하는 등 속초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92년 속초문화회관 별관 3층에 건평 56평 규모의 문화사랑방과 사무실을 신축, 영상음악시설과 책걸상을 완비 도내 최우수 시설을 갖춘 문화사랑방을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1991년 속초시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설악문화제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문화사업발전에 눈부신 활동을 벌였다.

34. 진대범(陳大範)

본관 려양(驪陽)이고 자는 대석(大錫)으로 1794년(갑인)에 태어나서 증가선대부 호조참판동지의금부사를 지냈다.

35. 진범화(陳凡華 : 1845~1891)

본관 려양이고 자는 윤현(允鉉)으로 1845년(을사)에 태어나서 1891년

(신묘)에 행통정대부 돈영부도정 겸 용려위부호군을 지냈다.

36. 진용기(陳庸起 : 1820~1895)

본관 려양이고 자는 기용(起龍)으로 1820년 경진년(호패에는 1824년 갑신)에 태어나서 1895년 12월 28일에 돌아가셨다. 1891년(신묘)에 행가선대부(行哥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창덕궁위장(昌德宮衛將)이 되고 1892년(임진)에 용진만호(龍津萬戶)를 지냈다.

37. 홍경호(洪炅昊 : 1854～1945)

법명 흥운당(興雲堂). 평양 출신,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청년기에는 반일 사상이 투철하여 일본 관헌에 항거하다 산사에 피신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불문에 출가하였다. 이 후 신흥사에서 다년간 수도 끝에 주지가 되었고, 약 20여 년간에 걸쳐 사찰 관리와 포교에 진력하는 한편, 불도들에게 배일 조국 독립 사상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附錄 二

年　表

◆ 1914년

3. 1

• 부령 제111호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 도천면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로 구성하여 대포리에 면사무소 두었음.

◆ 1919년

4. 4-9

• 3. 1만세운동, 4월 5일 도천면의 군중 8백명이 대포리 경찰 주재소에서 시위

4. 1

• 1면 1교정책에 의해 대포공립학교 설립

◆ 1936년

4. 1

• 조선총독부 소학교 교육령에 의해 대포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 1937년

7. 1

• 도천면을 속초면으로 개칭하고 면사무소를 속초리로 이동

◆ 1941년

4. 1

• 대포공립심상소학교가 대포국민학교로 개칭

◆ 1942년

10. 1

• 속초읍으로 승격

◆ 1945년

8. 15

• 8 · 15해방. 남북한 38선으로 분단. 8월말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38선 형성. 속초면으로 북한에 편입

◆ 1946년

2. 19

• 속초애국동지회 사건. 10명 체포

7. 29

• 38이남 양양지역 반공청년 친목회 조직

◆ 1948년

8월

• 소련군, 38이북 양양군지역 주둔

◆ 1949년

6. 29

• 월남 반공청년들로 구성된 육군정보국 소속 호림유격대 제5대대, 제6대대 120명 설악산 등 38이북지역서 유격전 개시

◆ 1950년

6. 25

• 한국전쟁 발발. 북한군 5사단, 함북 나남을 기차로 출발하여 원산, 속초, 양양으로 이동, 동해안 국군전선 돌파. 속초는 개전초기 북한군 제 5사단 진격코스로 후방보급루트 역할. 북한군 육전대(해병대)인 제549부대, 속초에 대기하고 있다가 유격부대인 제766부대와 명주군 정동진과 삼척군 임원진 상륙

9. 30

• 국방군 제1군단장, "제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선 이북진출을 용이하게 하라"는 작전명령 제109호 발동. 수도사단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대령) 38선 남쪽 2㎞지점 양양 서림리 진출

10. 1

• 국방군 제1군단(제3사단과 수도사단으로 구성) 양양지역 수복. 제3사단, 제23연대(연대장 김종순대령)를 선봉으로 제1군단 양양 38선 이북 진격

10. 3

• 제3사단 제26연대(연대장 이치업 대령) 간성 탈환

12월

• 중공군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 후퇴. 흥남 철수. 미군 L · S · T로 많은 피난민들 부산에 상륙

◆ 1951년

1월초

• 국군과 유엔군 38선 이남으로 철수 시작

4. 4

• 38이남지역 재탈환

4월

• 영흥군민회 창립. 속초읍 속초리 3구 조명상회에서 군민 60여명 참석, 군민총회 개최. 초대회장 김치룡씨 선출. 51년 당시 군민수 400여세대

5월

• 제1군단 수도사단, 북한군 유격대와 설악산지구 전투.

6월

• 양양군지역 재수복

8. 18

• 군정 실시. 수복지구인 양양군, 유엔군사령부 관할하에 통치. 국군 제1군단 사령관이 군정 집행. 각 읍면에 민정관(읍 · 면장) 선임. 군정사령부 속초에 설치. 속초면에서 속초읍으로 승격.

10. 8

• 속초초등학교 개교

10. 16

• 속초중학교, 논산리 빈집 이용 3학급 남녀공학으로 설립. 초대교장 이철우, 교감 이형조

◆ 1952년

4. 1

• 속초리 5구와 3구를 잇는 나룻배 1척 건조 진수. 승선인원 50명.

4. 15

• 동해일보사 창립. 사장 김진익, 총무국장 박천복 등

4. 17

• 동해일보 창간호 500부 발행. 등사판

4. 20

• 민간인 전용 승용차 운행시작

4. 23~24

• 군 · 관 · 민 친선체육대회 개최

5. 28

• 정평(定平)향우회 발족. 고성군 청간정에서 한성익, 이계선, 박정일씨 주도. 군민 50여명 참석

5. 18

• 양양고아원 개원식. 속초읍 상도문리에 전쟁고아 64명 수용

6. 1

• 38선 이남지역과 일반 우체물교환취급업무 개시

6. 2

• 속초고등학교 개교. 62명 첫 입학. 초대교장 서창하, 교감 김치운

7. 15
• 제1군 제2주년 기념식. 이승만 대통령과 미8군사령관 밴프리트대장 등 참석
8. 8
• 군중대회(대포비행장에서 3만여명)
9. 1
• 교육 수복 1주년 기념행사. 미국공보원에서 교재 6상자 기증
9. 21
• 서울 소재 미국 공보원에서 라디오 기증
10. 22
• 북한 출신 청년 5용사 영랑호 부근서 공비들과 교전 중 전사. 5용사 : 김덕범(함경북도 출신), 지창하(함경북도출신), 이기구(함경남도출신), 김병선(평안북도출신), 김화수(평안남도출신)

◆ 1953년
4. 1
• 속초지구 단천군민회 창립
5. 29
• 이원군민회 창립. 보광사 송림에서 군민 2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초대회장에 박성주 선출
6. 28
• 반공포로 9명 귀향
7. 1
• 온정초등학교 개교(당시 설악국민학교). 초대교장 장태갑. 65년 11월 15일 온정국민학교로 교명 개명
7. 27
• 휴전협정 체결. 이날 밤 10시를 기해 155마일 휴전선에서 포성이 멎음.
8. 16
• 수복지구 기자단 결성
8. 18
• 속초읍 청사 준공식
8. 26
• 국회 본회의, 38선 이북 미수복지구 행정권 이양문제를 정부 및 UN당국과 교섭코저 12명으로된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채택
8. 30
• 속초 카톨릭 성당 준공식
9. 6
• 밀림극장에서 제1차 권투시합
9. 17
• 속초구호병원 신축 기공식
9. 18
• 속초어업조합 신축
9. 25
• 속초유치원 개원식
(원장 서원필 목사)
10. 21
• 읍장선출. 민주선거 실시.
10. 28
• 속초체육회 결성. 초대회장 김상근
11. 3
• 양양군수 김주혁 임명(이때부터 민정관을 군수, 읍장, 면장으로 개칭)
11. 5
• 속초중앙시장 준공식. 총공사비 8백여만원. 점포 263개
11. 8
• 2만여명의 양양주민들, 대포리 비행장에서 수복지구 행정권 정부이양 촉구 민중대회 개최. 이승만 대통령, 손원일 국방장관, 백선엽 육군참모총장 참석. 이승만대통령 “조속한 시일내 수복지구 행정을 정부가 이양받는데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연설. 이형근 국군 제1군단장, 최규각 강원도지사 등도 참석

11. 10
• 우체국 설치
12. 4
• 동해상사 강릉-속초간 민간인 버스 하루 2회씩 운행
12. 17
• 수복이후 최대 화재 발생. 속초읍 3구와 4구 전소. 피해액 약 560여만원.
• 김법린 문교부장관 등 문교관계자 수복지구 교육, 문화시찰차 래방

◆ 1954년
2. 1
• 주봉초등학교 승격(대포초등학교 부설)
3. 15
• 속초, 인제 등 수복지구 피난농민 복귀 시작
3월
• 영북지역 함경도민회 결성. 초대회장 함남출신 김치룡 선출. "54년까지 영북지역에 정착한 함경도민수는 함남 2,700여세대, 함북 300여세대 등 총 3000여세대에 2만여명"『함경북도 도지』
4월
• 원산시민회 결성 준비. 김창길 자택에서 김윤성, 김영근, 최성호, 윤영익, 심상원, 김창길 등 10여명 첫 모임
5. 10
• 수복기념탑 건립. 피난민들의 망향의 한을 달래고자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아 건립. 이형찬 설계, 박칠성 제작. 김근식 당시 속초읍장과 이형근 제1군단장의 지원과 속초에 정착한 피난민들 성금 모아 건립.
5. 15
• 고원군민회 창립. 초대회장 서창하, 부회장 박태귀
8. 12
• 유엔군 사령부, "38이북 수복지구의 행정권을 한국정부에 정식 이양할 용의 있다"고 발표.
8. 18
• 수복지구 행정권 한미협정 초안작성 착수.
8. 28
• 정부,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에 대비, 수복지구 행정인수위원단 조직키로.
9. 4
•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문제 관련, 한미교섭 제2차 회담을 미8군사령부에서 개최. 행정권 이양에 관한 행정적인 세목에 완전 합의
9. 13
• 대홍수
9. 18
• 정부,'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제정. 국무회의를 걸쳐 국회에 정식 회부
9. 29
• 국회 51차 본회의,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안을 상정하고 전문11조의 정부원안을 전문9조로 수정 통과
10. 3
• 정부 · 유엔군사령부, 수복지구 행정권 인수협정에 서명
10. 21
• 정부,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안 공포 시행
11. 14
• 수복지구 행정권 인수식 거행

11. 17
• 유엔군 사령부, 한국정부에 양양군 행정권 이양. 양양군수에 김주혁씨 임명.
11. 27
• 속초의용소방대 발족

◆ 1955년
3월
• 동해일보, 공보처 발행허가 받지 못해 폐간
4. 28
• 원산시민회 결성 결의. 인명록 발간 결의. 보광사 송림에서 야유회 개최. 250명 참석
5. 24
• 최초의 여성전문교육기관 속초여자중학교 개교. 초대교장 유장렬
7. 17
• 속초지구 문천군민회 창립
11. 6
• 속초지구 정평군민회 창립
12. 1
• 영랑초등학교 개교. 초대교장 고연재
• 속초 우체국 개국. 초대우체국장 김동엽
12. 2
• 묵호지방 해무청 속초출장소 개소

◆ 1956년
1. 25
• 대설
3. 1
• 대설
5월
• 속초지구 공성군민회 창립
5. 15
수복지구 최초 선거.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 선거. 양양군 지역 개표결과 이승만 33,876표, 조봉암 358표, 이승만 99%득표율 기록. 부통령선거 이기붕 29,935표, 장면 2,899표
6. 21
• 일본공산당원 19명 체포
7. 23
• KBS속초방송국 시험전파 발사. 출력 0.3kw, 주파수1,000kc
8. 1
• KBS속초이동방송국 개국
10월
• 통천군민회 영동지회 창립
12. 31
• 강원도립 속초병원 설립

◆ 1957년
2. 14
• 함남북청 출신들 정월대보름 맞아 북청사자놀음 속초서 첫 재연. 앞채 사자 김수석, 퉁소 김하륜씨.
6. 8
• 속초등대건립, 첫 점등.

◆ 1958년
• 북청도청 건립. 전성우 속초읍장으로부터 금호동 소재 읍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북청 동향친목계원 36명이 손수 건립
• 길주, 명천 친목회 결성. 강형범, 박주익, 김흥경 등 발의. 회원수 120여세대 600여명. 해마다 음력 대보름에 영북지역 함북 시·군대항 척사대회 주관
1. 19
• 폭풍우로 속초항에서 선박 38척 파손

4. 13
• 청호초등학교 13학급으로 개교. 초대교장 김진익
5. 2
•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수복지구 속초 첫 국회의원 선거. 양양군, 자유당 이동근 당선(선거인수 38,153명 10,366표 득표율29.7% 경쟁률 9:1)
7. 5
• 영국 황실 아시아학회 관광단 방문 계기로 속초-신흥사길 도로 착공
7. 15
• 속초해상과 고성지구에서 무장간첩 8명 생포
10. 9
• 전국체육대회 속초중학교 배구 패권 장악
11. 14
• 박상희 읍장 송덕비 제막식
12. 30
• 폭풍우로 명태잡이 어선 40여척 조난

◆ 1959년
4. 10
• 영북지구 함경남도 도민회 창립
5. 2
• 북청동향친목계가 구성되어 북청사자놀음 공연
5. 20
• 속초지구 황해도민회 창립
5. 31
• 함남 원산시민회 창립
6월
• 영북지역 함북도민회 결성
7. 3
• 영북지역 최초 극장, 현대극장 개관
11. 13
• 속초항 소속 명태잡이 어선 용진호와 신영호 동해휴전선 부근서 피랍
11. 14
• 흥신호 선원 6명이 북괴 무장선에 의해 강제 피랍
12. 22
• 해군에서 어로저지선을 북위 33° 33분으로 변경

◆ 1960년
1. 1
• 설악산관광호텔 개관
1. 17
• 대설, 미시령 교통두절
2. 20
• 눈으로 선박 21척 침몰 또는 파손
3. 15
•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선거, 자유당 이승만, 이기붕 당선
5. 5
• 속초여자중학교 동맹휴학
7. 29
• 제5대 민의원 및 제1대 참의원 선거. 민의원에 함종빈, 참의원에 정순응, 김대식, 김병로, 김진구 당선
8. 5
• 정낙현 북한군 공군소위 MIG15 제트기 몰고 속초 비행장(육군 제5비행장. 당시 대포비행장)에 착륙 귀순
8. 27
• 속초어업조합 임시 통상의원 회의
9. 9
• 연탄까스 사망사건 발생

◆ 1961년

2. 15
• 속초지서 형사대에서 간첩 1명 체포
4. 7
• 대진리 앞 해상에서 어선 6척 선원 43명 납북
8. 15
• 영랑호 순국5용사 추모비 건립(8. 26 묘비 제막식)
8. 24
• 이주민 학사평 도착
11. 8
• 강풍으로 가옥 4동 도괴, 11동 반파
11. 29
• 속초항 소속 제7만창호(선원15명) 피랍. 12월 12일 귀환
12. 31
• KBS속초이동방송국이 KBS속초방송국으로 승격

◆ 1962년

• 신흥군민회 창립
1. 2
• 풍랑에 속초 선적 어선 5척 침몰. 선원 24명 사망.
1. 4
• 이주일 부의장 속초방문, 시 승격 건의
1. 17
• 어부합동위령제
2. 10
• 강풍으로 선박 9척 침몰, 주택전파 57동
2. 19
• 풍랑사고로 어부 4명, 어선 43척 침몰 또는 파손
3. 2
• 강원일보 속초지사 설립
4. 1
• 속초어업협동조합 발족
4. 27
• 속초항이 지정항
6. 15
• 속초지구 평안도민회 창립
7. 24
• 속초시제 실시 추진위원회 구성
8. 16
• 속초시제 실시 추진위원회,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의장에게 시승격 청원
10. 11
• 속초시승격 차관회의서 통과
11. 21
• 정부, '시 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제1176호' 공포
12. 17
• 국민투표 실시

◆ 1963년

1. 1
• 법률 제1176호로 속초시 승격, 속초시청 개청(시장서리 김치룡)
1. 6
• 동해안에 해일엄습, 3일간 선박, 가옥, 도로 등 피해
1. 7
• 속초시제실시 경축 기념대회 개최
1. 15
• 속초소방대 63년도 시동식거행
2. 1
• 국민은행 속초지점 개점
• 대한통운 속초지점 개점
2. 12
• 속초어판장에서 화재 발생으로 어판장시설, 수산물검사소, 제빙공장,

간공유장, 주유선 등 소실

2. 22

• 속초여자고등학교 증설 허가

3. 4

• 초대 이동진 속초시장 취임식 거행

3. 16

• 대통령포상 전달식(모범근로자상에 속초부두 노동조합 시상)

3. 20

• 속초여자고등학교 개교

4. 1

• 중앙국민학교 개교, 초대교장 김택용

4. 19

• 재건국민학교 속초시지부에서 "속초의 노래"를 현상모집 하여 심사한 결과 마장건 작사, 황규렴 작곡의 작품을 선정

4. 20

• 속초시기 제정공포식 거행

5. 19

• 제3회 강원도 종합체육대회가 속초공설운동장 준공과 동시 도내 19개 시군선수단 참가하에 3일간 개최

• 속초시와 국민운동 속초시지부, 속초방송국 공동주최로 "속초종합예술제" 공연

5. 22

• 5 · 16혁명 두 돌과 시승격 경축 가요콩클대회를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

6. 16

• 거리의 직업소년 32명과 독지가와의 의형제 맺기결연식을 양양경찰서 주선으로 속초 현대극장에서 거행

6. 25

• 척산리에서 軍트럭 굴러 23명의 사상자 발생

7. 9

• 민주경찰의 민원처리 홍보를 위한 1일 지서장 위촉 집무

7. 11

• 5월 동지회 속초시지부 창단총회를 북청도청에서 개최하여 회장에 김치룡씨 선출

7. 20

• 삼척지구 수해민 돕기 자선 무용음악회를 현대극장에서 개최

7. 22

• 삼척지구 수재민 구호모금을 위해 중고생을 동원 가두모금운동 전개

8. 9

• 제9회 태풍 "베스"호 동해안 강타

8. 15

• 8.15경축 직장대항 가요콩쿨을 시청광장에서 개최

8. 17

• 제18회 광복절 경축 시민체육대회를 속초시 체육대회 주관 실시

9. 7

• 대포리와 신흥사간 12m 관광도로 포장공사 준공 개통식 거행

9. 16

• 설악산 비선교 준공 개통식 거행

10. 12

• 속초시 7개국민학교 종합체육대회를 속초시 주관으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10. 14

• 속초노동회관 낙성식 거행(건평 94평, 공사비170만원)

10. 23

• 각령 제1063호로 양양경찰서를 속초시로 이전하고 속초경찰서로 개칭

11. 1

• 속초경찰서 청사 낙성식 거행

11. 2
• 김동석 속초시장 부임 취임식 거행
11. 8
• 어선 "일광호" 침몰 선원 5명 실종
11. 12
• 설악산 중턱(양양군 서면 오가리 북방 10km지점)에서 산불 발생, 5일만인 16일 진화
• 양양군 토지개량조합에서 속초토지개량조합으로 분리
11. 23
• 속초어업협동조합 어판장 낙성식 거행(규모672평, 2,190천원)
11. 26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공화당 김종호 당선
12. 17
• 제5대 박정희대통령 취임 경축식 거행
12. 27
• 11.12월중 북괴경비정에 피납된 어선 3척의 어부 19명 귀환

◆ 1964년
1. 1
• 신년 명함교례회를 시장실에서 개최
1. 7
• 시제실시 1주년 기념식 거행
1. 14
• 박경원도지사 초도순시
1. 24
• 명신고등공민학교 증축 기성회 조직(속초시장실)
2. 17
• 영북지구 한국전력유치를 위한 전력대책위원회 개최, 지방부담금 징수 결정
2. 28
• 속초시 이동시청을 대포리 장날을 이용 처음으로 운영 실시
3. 3
• 속초시 교육과가 속초시교육청 발족으로 이관
3. 23
• 식량증산대회를 시청 앞광장에서 개최
3. 27
• 속초시 관광협회 창립
4. 20
• 학사평저수지 개수식을 현지에서 거행
4. 30
• 상도문리 쌍천제방 289m 착공
5. 2
• 설악문미회 시화전 개최
5. 3
• 제5회 전국어린이 예술대회를 소년한국일보 주관으로 개최
5. 11
• 가족계획대회를 방송국공보관에서 개최
5. 15
• 속초중앙시장내 부식시장 준공식을 현지에서 거행
5. 16
• 5 · 16혁명 기념 국민학교 대항 축구대회를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
5. 23
• 충혼탑 건립추진위원회 조직
5. 26
• 상수도 확장공사 완공(신설 1,097m, 대체 1,000m, 사업비 2,648천원)
5. 30
• 시가도로포장 기공식(수복탑~속

초6구 구간)

6. 1

• 속초시 보건소 신축공사 기공식

6. 3

• 꽁치잡이 어선 평진호(11톤) 풍랑으로 전복 어부 9명 익사

6. 6

• 충혼탑건립 제막식 및 제9주년 현충일 기념행사를 속초시 1구 등대 뒷산에서 거행

6. 16

• 속초시 행정협의회를 시장실에서 개최

6. 25

• 제14주년 6.25행사를 시청광장에서 개최

7. 11

• 수산물검사소 신축 낙성식 거행

7. 16

• 한전유치를 위한 전기가설 계약체결

7. 18

• 속초지구 신문기자단 창립 결성식 거행

7. 20

• 퇴비증산 및 건초증산대회를 주봉국민학교에서 개최

7. 21

• 속초시청사 신축 기공식 거행

7. 25

• 한국전력 강릉지점 속초출장소 개소식 거행

8. 11

• 제11회 강원도약사회 정기총회를 신흥사에서 개최

8. 15

• 제1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와 더불어 8 · 15경축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2일간 실시

8. 21

• 속초시 5구 동사무소 낙성식 거행

8. 22

• 전기복구기공식을 속초중학교 운동장에서 거행

• 속초시보건소 청사신축 낙성식거행

8. 25

• 김동석 속초시장 이임식(국방대학원 입교)

8. 27

• 박건주 속초시장 취임식

8. 31

• 강원도 이동도청을 속초시에 개설운영

9. 18

• 소비생활 연구발표회를 도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속초국민학교에서 개최

9. 30

• 시정협의회 개최

10. 5

• 공화당 7지구당 연차대회를 현대극장에서 거행

11. 3

• 국민운동 속초시지부가 민간기구로 발족 현대극장에서 발회식 거행

11. 29

• 제7만창호(선원15명)강제납북

12. 8

• 속초경찰서 만천파출소 준공식

• 속초시 행정자문위원회 첫회합을 시장실에서 열고 임원선출

12. 23

• 영북지구 전력복구 준공식 거행

◆ 1965년

1. 1

• 신년명함교례회를 속초 시장실에서 개최

1. 13
• 속초항 개발 관계자 회의
2. 9
• 속초고등학교 낡은교실 사용 중지령이 도 교육청으로부터 시달
3. 1
• 예총속초지부 창립총회를 금잔디다방에서 개최
3. 17
• 이장 행정교양교육실시
3. 19
• 청소년선도 학생웅변대회를 속초고등학교 주최로 실시
3. 22
• 반공연맹 중앙위원 유상철씨의 핵계몽 강연회를 중앙극장에서 개최
3. 23
• 중공 핵실험규탄 속초지구 궐기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거행
4. 2
• 속초시 자문위원회에서 동제 실시 건의
4. 7
• 영북지구 철도유치 추진위원회 발족
4. 13
• 우량접객업소에 대한 상패 수여식을 속초시 4구 북청도청에서 거행
5. 4
• 속초시교육청주최 국민학교 학생종합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2일간 개최
5. 5
• 제43회 어린이날 기념식과 우량아 선발 및 모범어머니 시상식을 속초방송국 공보관에서 거행
5. 10
• 척산리 화전민 정착 개간사업 기공식
5. 17
• 설악산일대 폭발물 발굴 작업을 속초경찰서 주관 5일간 실시
5. 27
• 속초시 대포리, 청대리 경작지 개간 자조근로사업장 준공식 거행
5. 28
• 속초시 노리 귀농정착 3주년 기념식 거행
6. 6
• 속초미술협회 주관 제1회 초중고학생 미술실기대회를 중앙국교에서 개최
6. 9
• 속초시내 가로등 전주75주 150등을 가설(속초1구~6구 구간)
6. 12
• 영북 음악가협회 주관으로 학생음악경연대회를 속초여중 강당에서 개최
6. 13
• 제1회 영동지구 군관민 무장행군대회를 대한일보 속초지사 주관으로 개최
6. 26
• 설악산 육담목포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낙성식 거행
6. 27
• 실종된 제5신진호 납북 18일만에 귀항
7. 29
• 강원도 시 · 군 상공계장 회의가 속초여중 강당에서 개최
8. 18
• 도립속초병원 신축기공식을 공사현장에서 거행
8. 27
• 속초교육청 주관으로 교육교재전

시회를 속초 국교에서 개최

8. 31

• 도문동 사무소 청사신축 낙성식 거행

9. 2

• 속초고등학교 14개 교실 신축기공식이 속초시 6구 신축부지에서 거행

9. 6

• 강원도 농업개량 강습회가 속초여중 강당에서 3일간 개최

10. 30

•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제막식이 설악산 현지에서 거행

• 무명용사 추모 육해공군 무장경기대회를 재향군인회 속초연합분회 주관 개최

11. 5

• 설악산 일원이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문공부 고시 228호)

11. 6

• 속초교육청이 도내 처음으로 국화전시회를 가야다방에서 개최

11. 8

• 철광석 운반선인 남아프리카「리베리아」소속 화물선 「베에기패추리」호(7천톤급)가 대포항 남방에 좌초

11. 14

• 전국학생 산악회원 132명 설악산에서 7일간 등반훈련

11. 18

• 한국전력 속초출장소 청사 준공식 거행

11. 20

• 속초우체국 설악분국 낙성식 거행

11. 23

• 강원도 수산진흥 어민대회가 원용석 무임소장관 주재로 제일극장에서 개최

12. 4

• 속초여중고 제1회 문화제 개최

12. 10

• 교통개발 국제은행 조사단 속초항 답사

◆ 1966년

1. 1

• 신년명함교례회를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유지 참석하에 시장실에서 거행

1. 7

• 시제실시 3주년 기념식을 시청광장에서 거행

1. 10

• 묵호해무청 속초출장소 주최 선원강습회를 중앙국민학교에서 10일간 개최

• 어로지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일협정에 따른 준수사항 계몽강습회를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어협회의실에서 개최

1. 11

• 동명청과구역에관한조례 공포식을 시청 광장에서 개최

1. 19

• 조양동 공동묘지 이장 결정

1. 25

• 속초시 지역사회단합대회가 제일극장에서 열려 시정유공자 표창

1. 26

• 속초고등학교 신축교사 준공식 거행

2. 12

• 김승순 어린이 피아노 독주회가 예총속초시지부 주최로 가야다방에서 개최

2. 28

• 박경원도지사 연초순시차 내시

3. 1
• 척산온천 개발을 위해 시비 1백만원을 투입 시추작업 착수
3. 12
• 돌풍으로 어선 4척 파손 선원 5명 실종
3. 16
• 속초시 증상권 확대촉진대회를 중앙극장에서 거행
3. 17
• 속초상공회의소 창립총회를 속초방송국 공보관에서 개최
3. 21
• 대한스키협회에서 설악산에 스키장 개발을 위한 현지답사
3. 29
• 속초지구 방첩대 주최로 간첩소지품 노획물 전시회를 속초방송국 공보관에서 개최
4. 7
• 제15회 세계보건일 행사를 시청광장에서 개최
• 속초시 화전민 정착 가옥 입주식(5세대) 노학동 노리에서 거행
4. 10
• 동명동에 버스종합주차장 유치결정
5. 1
• 제7회 소년한국일보 주최 미술대회가 영랑호반에서 개최
5. 15
• 설악산 신흥사 범종 타종 및 종각 낙성식 거행
• 제2회 도내 국민학교 체육대회가 3일간 속초에서 개최
5. 23
• 영랑동 가로확장 120m 및 도로포장 620m공사 착수
5. 30
• 각급기관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6. 5
• 설악산 비선대~금강굴간 유료도로 개통식 및 명명식을 거행
6. 8
• 속초시내 초 · 중 · 고교 사교육강좌가 속초국민학교에서 강원도 교육연구소 주관 개최
6. 15
• 강원도내 어협장회의를 방송국 공보관에서 개최
6. 25
• 속초라이온스클럽 창립
6. 28
• 속초시와 속초방송국 공동 주최로 제2회 노래자랑과 토론대회 중앙극장에서 개최
6. 29
• 전국부두노조 제10차 중앙위원회의가 금호동 신흥예식장에서 개최
6. 30
• 대포동사무소 신축 낙성
7. 1
• 국민운동속초시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양재건학교 개교식을 조양동 현지에서 거행
7. 14
• 속초항 수로확장을 위한 암초제거공사 착수
7. 18
• 강원도내 시장, 군수, 교육장 회의를 속초에서 개최
8. 10
• 전국 초등교육회 교장 연수회가 신흥사 보제루에서 2일간 개최
8. 17
• 동해북부선 연장부설 추진위원회

를 시장실에서 개최

8. 25

• 향성사지 3층석탑이 보물 제443호로 지정

9. 2

• 속초상공회의소 설립인가에 따라 임원선출 실시

9. 7

• 속초, 대진, 서울 등을 거점으로 간첩활동을 해 오던 고정간첩 16명 체포

9. 15

• 설악산 비선대에 민간자본 유치 산장1동 건립

9. 18

• 학사평 저수지에 '무지개송어' 12,000미를 방류

9. 26

• 상업은행 속초지점 개점

9. 28

• 속초시청 구청사에서 신축청사로 이전

10. 1

• 최규연 속초시장 부임

• 제1회 설악제를 2일간 카니발, 사진공모전,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로 거행

11. 5

• 강릉측후소 속초출장소발족

11. 8

•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전국 군농협 담당자에 대한영농계획 연찬회를 속초방송국 공보관에서 개최

11. 17

• 제1차 속초항 수로확장 기공식을 청호동 현지에서 거행

12. 7

• 제2회 교내 실용공작 전시회를 중앙국민학교에서 개최

12. 14

• 설악중학교 설립인가

12. 23

• 보물 443호 향성사지 3층석탑 보수공사 착공

12. 27

• 속초전신전화분국 자석식전화를 자동식으로 교체

◆ 1967년

1. 1

• 신년 명함교례회를 시장실에서 거행

1. 19

• 해군함정 56함 어로보호중 북괴의 지상포격으로 침몰

1. 21

• 북괴만행 규탄 궐기대회를 속초공설운동장에서 거행

1. 26

• 재향군인회 속초연합분회에서 급수선(5톤급)을 신조 운영

2. 1

• 오물수거 대행업무가 시직영으로 전환

2. 7

• 56함 전몰장병 충혼탑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2. 16

• 속초시민헌장 제정 및 시화 선정

2. 25

• 동명동 가로확장 및 호 안공사, 청초호 제방공사, 쌍천 제방공사 착수

• 속초시 항만종합개발계획수립 및 태백건설국 속초축항사무소를 유치 본격 착수

3. 18

• 접적지구 종합개발 관계관 회의를 내무부 주관으로 시청회의실에서 개최

3. 19
• 대포동 소류지보수공사 완공
3. 24
• 시청구내 교환대 설치
4. 1
• 청초천 제방공사 및 호안공사 기공식을 노학동 사무소에서 거행
4. 6
• 김종필 공화당의장 속초중학교에서 대통령선거 유세
• 영랑동 시장 개축공사 착수
4. 10
• 신민당 대통령후보 윤보선씨 속초 유세
4. 13
• 판문점 탈출 이덕근 환영대회
4. 14
•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건조된 유자망어선 19척 진수식 거행
4. 17
• 영랑교 기공식을 현지에서 거행
4. 23
• 강원도 동해출장소 발족, 영동지구 6개 시·군 행정 관할
5. 13
• 서울~설악산간을 국제관광코스 제2루트로 항공로 개설 계획을 교통부에서 수립
5. 14
• 속초항, 종합개발계획이 건설부에 의해 최정 확정
5. 20
• 미스강원선발대회를 대원극장에서 거행
6. 1
• 서울~속초간 관광항로 취항 개시
6. 3
• 납북된 어선 제3용진호 귀환
6. 5
• 설악중학교 개교
6. 13
• 신민당원들 부정선거 규탄 궐기대회 전개
6. 17
• 춘천지방 법원 속초지원 및 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개청식 거행
6. 21
• 속초해수욕장 조성공사 착공
7. 1
• 대통령 취임경축 직장 배구대회를 시청광장에서 개최
7. 21
• 설악산 위험등산로 철제시설 착수
8. 5
• 속초해수욕장 첫 개장
8. 16
• 택지조성을 위한 청초호매립안 발표
8. 30
• 설악산 비룡폭포와 권금성 등반로인 비룡교를 완공
9. 6
• 열풍식 간이오징어건조장 시설 8동 가동시작
9. 25
• 설악산 와선대에 송어양식장 시설
10. 8
• 제2회 설악제를 4일간 다채로운 행사로 거행
10. 23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보존협의회에서 구역내 각종시설물 철거결정
10. 30
• 대형 인공어초 125개를 한국최초로 외옹치 앞바다에 투하
11. 1
• 동해어로 지도본부 발족

11. 3
• 명태잡이어선 13척 2일간에 걸쳐 북괴에 피납
11. 4
• 제1회 설악축구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11. 7
• 6.8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를 시청회의실에 마련된 임시법정에서 실시
12. 1
• 이건웅 속초시장 취임
12. 21
• 강원도 치어남획방지위원회가 속초어협회의실에서 발족
12. 26
• 속초항 수산센터 건립공사가 국내 최대규모의 현대식 시설로 착공
• 강제 납북되었던 어선 중 11척과 선원 65명 귀환

◆ 1968년
1. 6
• 명태잡이어선 6척 또 북괴에 피납
1. 11
• 어선 3척 강제납북
1. 23
• 봉제공장 유치 준비위원회를 동해어로 지도본부회의실에서 개최
1. 28
• 박경원지사 연초순시
1. 31
• 동해 어로지도본부 해소식 거행
2. 3
• 프에블로호 납북 북괴만행 규탄 시민궐기대회 거행
• 제5회 영북지구 빙상경기대회를 2일간 영랑호특설링크에서 개최
2. 10
• 가마니짜기 및 잠구제조경진대회 개최
2. 13
• 강원도 대간첩작전 협의회 개최
2. 22
• 묵호세관 속초감시소 청사 낙성식 개최
3. 4
• 향토예비군 편성 조직작업 착수
3. 21
• 방첩 및 승공사상 계몽대회를 대원극장에서 개최하고 시내 가장행렬 실시
3. 22
• 납북어선 9척, 선원 51명귀환
3. 30
• 조선일보 주재기자 동문성씨 괴한 2명에게 테러
4. 5
• 제22회 식목일 행사를 대포동에서 거행
4. 13
• 속초시 교육청 청사신축낙성식 거행
4. 15
• 지역사회 단합대회 개최
4. 20
• 상수도 深井 굴착을 통한 지하수 개발을 노학동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
4. 22
• 재향군인회 부회장인 최덕신장군의 시국강연회를 중앙극장에서 개최
• 설악산 신흥사~와선대간 도로공사 착공
4. 25
• 속초경찰서 청원경찰대 발대
4. 30
• 척산온천장개발 개업

5. 1
• 대한항공속초지사 설치
5. 6
• 가정주간 기념식을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
5. 7
• 대공태세 지도활동 계몽 강연회 및 간첩 노획물 전시회를 현대극장에서 개최
5. 21
• 설악산 보호구역내에 있는 명동호텔, 토산품센타 등 시설물 10동 철거령 시달
5. 22
• 설악산지구관광단지 개발위원회 발족(속초, 고성, 양양, 인제)
5. 31
•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을 속초우체국에서 거행
6. 3
• 유솜 지하수개발 조사 결과 청초천 일대에 1일 6천톤의 상수원 공급 가능성 발표
6. 8
• 도문동 설악출장소 설치
6. 18
• 속초봉직공장 기공식을 영랑동 현지에서 거행
7. 3
• 속초시 도시계획이 건설부 고시 330호에 의해 일부 변경 확정
7. 10
• 속초해수욕장을 국민 관광 휴양지로 지정
7. 18
• 천초증식장 기공식을 외옹치 앞바다에서 거행
7. 24
• PTP속초지부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7. 26
• 설악산지구내 미철거 건물에 대한 강제철거 단행
8. 2
• 도립속초병원 신축 낙성식을 영랑동 현지에서 거행
8. 14
• 대포앞바다 등 문어단지 500개 투하
8. 26
• 협업 양잠 연찬회가 농협 도지부 주관으로 속초 여중고 강당에서 2일간 개최
9. 13
• 속초세무서 개서식 거행
9. 30
• 영랑동 가로확장 정비공사 500m 완공
10. 3
• 제4300주년 개천절 기념행사를 시청회의실에서 거행
• 대한항공 속초~서울간 1일3회 취항
10. 8
• 제3회 설악제 개막 3일간 등반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
• 설악산 내외 횡단도로 개통축하 등반대(박경원지사 외 135명)가 백담사~신흥사 구간 등반
10. 18
• 동해북부해상에서 폭풍우로 어선 18척 침몰, 어부 2명 사망, 10명실종, 1천여만원의 피해 발생
10. 24
• 영북지구 해안일대에 사상최대의 해일피해 발생, 인명피해 63명, 이재민 35,957명, 선박피해 2,366척, 가옥피해 4,242동으로 최종 집계

10. 25
• 설악산 등반중이던 카톨릭의대생 조난 4명 사망, 3명 실종
10. 31
• 7월 납북어선 덕수호 등 4척 귀환
11. 1
• 영동재해복구 현지본부를 시청회의실에 개설하고 철야근무
• 영동지구 시장, 군수회의 개최
11. 2
• 유진오 신민당 총재 재해 현장 방문
11. 6
• 침몰어선 115척 인양
11. 7
• 영동지구 시장 · 군수회의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
11. 10
• 해일피해 어선복구 건조단 본부를 조양동 청초호변에 설치
11. 19
• 북괴만행 규탄대회를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 월선조업 어선 15척 선원 구속
11. 20
• 재해어선복구 동력선 208척 건조 기공식을 조양동 현지에서 거행
12. 1
• 어로저지선 환원 복구를 위한 어민 투쟁 결의
12. 11
• 정희섭 보사부장관 간호학교 신설과 도립속초병원 병동증축 약속
12. 22
• 속초방송국 신 청사로 이전 방송시작

◆ 1969년
1. 8
• 김재식 수산청장 조양동 어선피해 복구 건조단 시찰
1. 11
• 어로저지선 북방에 설치된 명태어망을 해경이 격침 물의
1. 15
• 월선조업어선 11척 어부 56명 입건
1. 28
• 폭설로 교통마비, 가옥 8동 도괴, 정박 어선 10척 파손
2. 17
• 영동지방 연 5일째 폭설로 각급학교 휴교령
• 설악산에서 동계훈련중이던 한국산악회원 10명 죽음의 계곡 입구에서 조난
2. 19
• 설악산 조난 구조작업 실패
2. 21
• 동해안 강설 1,074mm 기록
3. 1
• 설악산 조난 수색대가 눈속 8m 지점에서 시신 처음 발굴
3. 3
• 죽음의 계곡 조난자 사체 7구 발굴
3. 5
• 설악산 조난자 10명 노루목에 안장 합동장례식
3. 20
• 납북귀환어부 94명 실형 구형
3. 28
• 엄병길 지사 초도순시
3. 30
• 신민당 7지구당 대의원대회
4. 2
• 속초어협과 속초등대 자매결연
4. 4
• 속초실업고등학교 설립 추진 위원회를 속초중학교에서 개최

4. 12
• 속초시 승공단합대회를 중앙극장에서 반공연맹 도지부 주관으로 개최
4. 15
• 속초수산센터 개장식 거행
• 속초어협 신용업무시작
• 속초우체국 주관으로 집집마다 문패달기운동 전개
5. 6
• 영국화물선 낸시디호가 풍랑으로 포류하다 대포 앞바다 정치망 훼손
5. 19
• KBS속초방송국 신축청사 준공식과 개국 14주년 기념식으로 거행
5. 20
• 영동지구 재해복구 동력어선 208척 진수식을 어선 건조단 현장에서 거행
5. 25
• 설악산 동계훈련중 죽음의 계곡에서 숨진 10명의 대원 추도 등반대회 개최
6. 6
• 충혼탑을 동명동 산 62-1번지로 이전 건립하고 제14회 현충일 기념행사 거행
6. 23
• 납북귀환어부 1백명 구속
7. 1
• 고성 마차진 주민 집단 이주주택을 사진리에 건립기공(현재 속초시 장사동)
7. 5
• 속초수산센터의 냉동시설 가동
8. 3
• 2월 폭설로 끊겨진 설악산 비룡조교 보수 개통
8. 5
• 속초, 고성, 양양 관내 국민학교교사 강습회를 속초국교에서 20일간 개최
8. 7
• 해양경찰대 기지대를 속초에 설치 결정
8. 15
• 제24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고 속초시민헌장을 선포
8. 31
•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시국강연회가 속초국교 운동장에서 개최
9. 10
• 관광실무자 회의를 설악관광호텔에서 개최
• 설악산내 잡상인 정리하고 세운 11채의 관광센터 준공식을 거행
9. 17
• 정일권 국무총리 속초시찰
9.19
• 속초시 관내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경진대회와 수도집단재배 평가회를 노학동 신흥촌에서 개최
9. 28
• 지하수개발에 의한 노학동 상수도 통수식을 노학동 양수장에서 거행
10. 1
• 교동국민학교 개교식 거행
• 속초농업협동조합 설립
10. 3
• 제4회 설악제를 등반대회 등 산악행사 위주로 축소하여 3일간 실시
• 문학인 22명이 발기 '설악문우회'로 정하고 동인지 제호를 '갈뫼'로 결정
10. 9
• 강릉측후소 속초출장소 청사 준공

10. 12
• 이건웅 속초시장 공무수행 중 과로로 순직
10. 14
• 고 이건웅 시장 영결식을 속초시민장으로 시청광장에서 엄수
10. 25
• 국민학교 모자사생대회를 신아일보 속초지사 주관으로 보광사 유원지에서 개최
10. 29
• 국민교육헌장 이념지도 연구발표회를 속초교육청에서 개최
11. 1
• 해양경찰대 속초기지대 발대식을 시청광장에서 갖고 동해어로보호본부를 설치
11. 15
• 청호시장 개장
11. 22
• 속초실업고등학교 설립
12. 5
• 대포동 어촌계 제승공장 가동
12. 6
• 속초경찰서 주관으로 민경친선 사격대회를 금호동 범바위 사격장에서 개최
12. 11
• 강릉발 서울행 KAL기 납북사건 주범이 조창희(속초시 영랑동)로 용의자 발표
12. 13
• KAL여객기 납북규탄 시민궐기대회를 시청 광장에서 거행
12. 26
• 마차진 이주어민 어선50척 진수식 거행

◆ 1970년
1. 5
• 강풍으로 청초호에 어선 7척 좌초
1. 7
• 노학동 292세대 전기 가설완공
1. 25
• 제6회 영동지구 초·중·고생 빙상대회를 속초 공설운동장 특설링크에서 2일간 개최
1. 29
• 속초경찰서 주관 반공계몽교육을 동보극장에서 실시
1. 31
• 동해어로보호본부 종무식을 시청광장에서 거행
2. 3
• 교동에 태권도지도관 속초도장 준공
2. 5
• 속초경찰서에서 도시방범 기동순찰대 조직 활동 전개
2. 13
• 지역사회 단합대회를 제일극장에서 거행
2. 26
• 3일간의 폭설로 교통두절(설악산 적설량 600㎜)
• 서창하 속초여중고 교장 정년퇴임식
3. 1
• 3.1절 기념행사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
3. 3
• 김경산 속초시장 취임식 거행
• 속초시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통학구간 변경
3. 5
• 시민의 시정참여 민성함 11개소 설치

3. 15
• 국민보건체육의 날을 맞아 속초시청 전직원 걷기대회 개최
3. 16
• 속초실업고등학교 개교
3. 24
• 설악산이 건설부고시 28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
3. 27
• 속초 어머니합창단 발족 30명의 단원 조직
4. 1
• 속초사방사업구가 사방관리소로 승격 영동 6개 시 · 군 전담
4. 8
• 속초시민전진대회를 대원극장에서 거행
4. 15
• 미역 공동채취 실시
4. 25
• 설악문우회 동인지 갈뫼 1집 발간
5. 5
• 3 · 6동지회 총회를 열고 오룡만씨를 회장으로 선출
• 속초비행장 활주로공사 완공후 KAL기 취항식 거행
5. 6
• 대포동 어판장 복개시설 어민대기소 설치
5. 7
• 우량아 선발대회 개최
5. 16
• 기념 축구 속초시 선발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 8
• 속초시 방범대 발대식을 속초경찰서에서 거행
5. 9
• 제5회 국민학교 종합체육대회를 3일간 거행
5. 23
• 속초시민 행정강좌회를 중앙극장에서 개최
5. 29
• 관내 각 기관장들의 모임인 설악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김경산 시장을 선출
6. 1
• 속초고등학교 학생 교련 시범대회 및 육군 제7993부대와 속초고, 속초실고 자매결연식 거행
6. 20
• 예총속초문협주최 제1회영동지구 학생 백일장을 보광사에서 개최
6. 23
• 도교육위원회 주관 학생육상기록대회를 속초에서 2일간 개최
• 속초중학교 학생 반공포스터전을 열고 2일간 전시
6. 25
• 월선조업어선 8척 어부 72명 입건
7. 1
• 도문동 설악출장소가 설악동으로 승격 개소식 거행
7. 6
• 3일간 집중호우(230㎜)와 해일로 가옥 40여채 파손되고 상가, 주택침수로 5백여가구 대피, 산사태로 1명 사망
7. 8
• 법원지원과 검찰지청 신축청사 기공식을 동명동 현지에서 거행
7. 13
• 가내 수공업 공예품을 상공장려관에서 전시회

7. 15
• 농사개량 상담소를 조양동에 설치 30일까지 한
7. 18
• 강릉측후소 속초출장소가 속초측후소로 승격
7. 23
• 김태동 보사부장관 수해현장 시찰
8. 4
• 설악문우회 주관으로 음악 문학 연극의 밤 개최
8. 5
• 문어단지 1천개 제작 대포동 외옹치 앞바다에 투하
8. 10
• 동별 풀베기대회 개최
8. 14
• 노학동 청초호안 공사 착수
8. 15
• 콜레라 오염지구로 선포 방역활동 전개
8. 17
• 교동~설악산 입구간 도로포장, 시내하수구, 공동변소 신축등 공사 착공
8. 27
• 신축공사 부진한 봉직공장을 시에서 인수
9. 17
• 집중호우(152㎜)로 도로교량유실, 가옥 침수 등 피해발생
9. 18
• 유축농가를 대상으로 한 엔시레이지 진층시범 연시회 개최
10. 2
• 제5회 설악제를 3일간 다채롭게 거행
10. 5
• 시 어로지도선 설악호(20t) 진수식을 청초호에서 거행
10. 8
• 설악산에 동계등반학교와 대피소 설치계획 마련
10. 9
• 권금성이 몽고군 침입방어를 위해 축성한 것으로 발표
10. 11
• 농번기 농촌탁아소 10개소 설치 운영
10. 13
• 강원일보사 창간기념 제6회 도내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3일간 속초공설운동장에서 개최
10. 15
• 청초천 직강공사 2,789m 착공
10. 17
• 강원지구 걸스카우트 전진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10. 20
• 영랑동 교동에 공영주택65동 건립 입주
10. 22
• 전국교원을 대상으로 한시청각 연구발표대회를 영랑국교에서 개최
• 속초여중에서 국방기금모금바자회를 열고 모금액 기탁
11. 10
• 교동~설악산 입구간 도로포장 완공
11. 15
• 풍어와 무사고 기원 풍어제를 속초어협 위판장에서 거행
11. 24
• 시인 설창수씨 시화전 개최
12. 1
• 법원 검찰의 지원지청 청사 준공식 거행
• 조양국민학교 설립

12. 28
• 교사에 대한 학부모 폭행항의, 청호국교 교사 35명 집단사표 제출

◆ 1971년

1. 1
• 신년명함교례회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

1. 8
• 국내 최초로 동계등반학교를 설악산에 설립

1. 10
• 월선조업 어선 10척 압류 및 선장 10명구속

1. 13
• 대포재건학교 교실 증축을 위해 재건국민운동 속초지부 주관으로 벽돌 10만장 모으기운동 전개

1. 16
• 설악여자중학교 설립

1. 20
• 설악산 폭설 3m기록 교통통신 두절

1. 23
• 속초발 KAL F27기 납북 미수사건 발생, 승객과 승무원 65명이 탑승한 여객기로 괴한에 의해 납북도중 고성 초도리 해변에 불시착

1. 24
• KAL기 납북 미수사건 관련 속초경찰서장 직위 해제

1. 28
• 속초시 행정자문위원회 개최

2. 6
• 국고금 145만원이든 우체국 우편낭 도난사고 발생

2. 14
• 69년 조난당한 등반대원 제3회 위령제를 노루목고개 묘소에서 엄수

2. 17
• 동해안 일대 강풍으로 선박, 가옥 등 피해를 입고 각 학교에 휴교령 시달

2. 19
• 우편낭 도난사건 범인 검거

2. 28
• 탈영군인이 동명동에서 식당을 점거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

2. 30
• 엄병길 도지사 연초순시

3. 2
• 조양초등학교 개교

3. 18
• 반공시민대회를 속초중 교정에서 열고 김일성화형식과 가장행렬실시

3. 21
• 납북어선 금강산호 피랍 9개월만에 귀환

3. 25
• 쥐잡기운동 실시, 구서 실적 89,496마리

4. 10
• 절양어민 구호양곡 2천가마 방출

4. 12
• 김종필 공화당 부총재 속속초유세

4. 16
• 보건소 신축공사 등 6개사업 일제 착공

4. 25
• 속초농협 창고준공식 및 연쇄점 기공식 거행

5. 1
• 제2회 영동지구 국민학교 대항 역전 마라톤대회를 설악산 입구에서 개최
• 영북지구 국민학교대항 배구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 4
• 이상기온으로 설악산에 120㎜의

적설량 기록

5. 15

• 강원일보사장기쟁탈 도내 국민학교 축구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3일간 개최

5. 20

• 제1회 전국사이클 경기대회를 속초~설악산간 도로포장 준공기념으로 개최

5. 21

• 속초미술협회 회원전 개최

5. 25

• 제8대 국회의원선거 민주공화당 한병기씨 당선

5. 31

• 강제납북어선 동해호 선원 6명과 함께 귀환

6. 1

• 설악산 권금성과 화채봉, 중청봉 산장 건립 착공

6. 2

• 속초고등학교 청사준공과 개교 19주년 기념식 및 육군 7993부대와의 자매결연 1주년 기념잔치 거행

6. 16

• 시내 하수도공사 2.7㎞ 완공

6. 26

• 귀순용사 김신조씨 초청 강연회 개최

7. 1

• 설악산 케이블카 개통

• 월선 오징어잡이 어선13척의 어부 224명 입건

7. 11

• 속초축항사무소와 시 기자 구락부 친선낚시대회 개최

7. 16

• 속초경찰서 영랑동파출소준공식 거행

7. 21

• 엄대현 속초시장 부임

7. 25

• 설악산케이블카 운행 시작

8. 5

• 청호동 방파제 165m 준공

• 태풍 올리브호 동해안 강타, 선박 침몰과 가옥, 인명 피해

8. 10

• 국내 최초로 단백질사료공장을 교동에 건립 준공

8. 20

• 정상천 도지사 초도순시

9. 19

• 속초시내 각기관 친선 배구대회 개최

9. 25

• 폭풍우로 선박침몰 등 피해

10. 2

• 5백여 선주 친목회 결성

10. 8

• 제6회 설악제가 산신제를 시작으로 3일간 다양한 행사로 개최

10. 9

• 조선일보 속초총국주최 제2회 영동지구 국민학교 대항 축구대회 개최

10. 20

• 악취공해 문제를 일으킨화학사료공장 시설개수 명령

10. 22

• 대한산악연맹 주최로 설악산 단풍제 개최

10. 25

• 오징어잡이 어선 제3명성호 강제납북

12. 16

• 신흥사 극락보전과 경판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14, 15호로 지정
• 속초우체국 과제 실시국으로 승격
12. 17
• 속초시 관내 12개 동장세미나 개최
• 한계령도로 개통

◆ 1972년

1. 6
• 최종완 지사 연초순시
1. 8
• 제1회 토요살롱 문학의 밤이 예총 속초지부 주최로 개최
1. 15
• 제1차 민방공훈련을 관공서 대상으로 실시
1. 17
• 속초여고를 종합고등학교로 인가
1. 26
• 영동지역 폭설로 설악산 적설량 250㎝ 설악동 73㎝기록
2. 1
• 어업용 유류면세 실시
2. 6
• 도립속초병원 야간병원제도 신설
2. 7
• 폭설로 각 학교 휴교령 설악동 적설량 184㎝ 대청봉 6m기록
2. 10
• 중학교 무시험제도 실시로 속초국교에서 추첨시행
2. 14
• 12개 동대항 고공품 경진대회를 조양국교에서 거행
• 동해안 6개시 · 군 어민에게 긴급 구호양곡 방출
2. 20
• 초가집일소를 위한 지붕 개량 범시민운동 전개
2. 29
• 해일로 청호동 방파제 50m붕괴와 가옥 5체 파손 등 피해
3. 2
• 조양국민학교 개교
3. 7
• 새마을가꾸기 첫 사업으로 대포동 외옹치 도로 확장공사 착수
• 초등학교 애향단 조직 새마을가꾸기운동 참여
3. 14
• 속초시 로타리클럽과 일본 북해도 하꼬다데 로타리클럽과의 자매결연식 거행
3. 15
• 지방문화제 정비안 확정으로 설악제 폐지
• 동명동 농악대 조직, 새마을가꾸기 사업 소요자금 가두모금운동 전개
• 속초항 선박통제소 기공식 거행
3. 20
• 택지조성사업 착공 영랑동 2,525평, 교동 3,293평
3. 25
• 설악산 천연자원보호협회발족

4. 20
• 최종완 도지사 시국강연회 개최
4. 21
•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개최
4. 25
• 대포동 외옹치 해변도로 개설 등 새마을 사업 완공
4. 27
• 김종필 국무총리 來시 대포 외옹치 새마을사업장 시찰
5. 2
• 속초조기축구회 서울 성북구 정릉

동 조기축구회와의 친선경기 개최

5. 6

• 해양경찰속초지구대가 속초지구 해양경찰대로 승격(대통령령 제6162호)

5. 10

• 납북어선 협동호 등 2척 귀환

5. 13

• 제2회 영동지구 국민학교 배구대회 개최

5. 14

• 속초경찰서 주최 청소년의 달 백일장 개최

5. 17

• 속초시 관광안내원 36명채용 교육실시

5. 23

• 해일복구주택 상환금 체납 825가구 재산 압류처분

5. 30

• 시가지 새마을사업 착수 주민 노력동원

6. 10

• 속초시 도시새마을촉진대회 개최
• 설악케이블카 케이블이 얽힌 사고 관련 영업정지처분

6. 16

• 농지개량조합 통합설립위원회 개최

6. 19

• 속초시민종합체육대회 성료
• 가뭄극복 비상근무령 시달
• 속초항 선박통제소 준공공식

6. 20

• 묵호지방해운국 속초출장소 주관 항만새마을사업 착수

6. 25

• 제6차 민방공의 날 시범훈련 실시

6. 25

• 재향군인회 도지부 주관 사격대회 실시

7. 1

• 속초시 정구협회에서 시내에 처음 코트를 신설하고 기념 정구대회 개최

7. 11

• 청호동 방파제 120m축조 등 항만공사 착수

7. 13

• 극심한 한해로 피해가 심한 노학동일대에 대대적인 급수작전 전개

7. 26

• 1일 1,500톤 급수용량의저수탱크와 300㎜ 배수관 대체공사 발주
• 속초~양양간 국도 7㎞ 포장착공

8. 12

• 한국청년회의소 전국 이사회를 속초여고 강당에서 개최

8. 18

• 설악산을 비행하던 헬기가 케이블카 선에 걸려 추락 4명 사망

8. 25

• 동명동 도로포장 등 7개 건설사업 완공

8. 29

• 월선조업 사전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해경주관 개최

9. 4

• 노학동 94가구 전기점화식 거행

9. 5

• 준법어로 어민계몽대회 개최

9. 7

• 납북어선 명성 3호 등 7척 159명의 어부 귀환

9. 15

• 납북어선 삼창호 등 4척,어부 93명 귀환

9. 18
• 해일로 청호동 동명동 일대 가옥 19채 파손 등 피해
9. 28
• 도주관 제1회 건전가요 합창대회에서 속초새마을 합창단이 장려상 수상
10. 5
• 도내 국민학교 학술연구발표회를 중앙국교 강당에서 개최
10. 7
• 지방문화제 행사 정비계획에 따라 제7회 설악제를 등산대회로 3일간 개최
10. 17
• 72년도 전국학생실기 대회 도예선대회 및 제1회 초중고새마을미술전을 속초국교에서 개최
10. 18
•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이건설부 공고 77호에 의거 344㎢로 확장
10. 25
• 교동~척산간 도로 3.5㎞완공
11. 8
• 10월 유신 촉진 속초시민협의회 발족
11. 18
• 제1회 설악문화상 시상식 거행
11. 28
• 설악케이블카 시설개수50인승으로 대형화 공사 착수
• 속초지역방위협의회 월동대책협의
11. 30
• 대포동일대를 속초시내전화구역으로 편입
12. 12
• 신흥사 경내를 보제루 추녀에서 반경 1㎞이내로도 결정
12. 15
•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 실시, 김정진, 박세각, 최준규, 이관희 당선
12. 24
• 설악산 관공로 11.6㎞ 경 관조성사업 완공
• 설악동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 착수
12. 28
• 설악산일대 동식물조사 결과 1,317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학술연구단 발표

◆ 1973년
1. 8
• 상수도확장공사 준공, 1,500톤 집수정 1개소 및 300㎜관 교체
1. 15
• 시청차고를 보도브럭공장으로 개조 도시정비용 보도브럭 제작착수
1. 16
•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확정
1. 30
• 속초시 생활개선 구락부 연시총회 개최

2. 2
• 여자 부반장제 신설 실시
2. 12
• 농어촌 불우가정에 국기 보내기운동 전개
2. 20
• KBS속초방송국 새싹회 수료식 거행
2. 27
• 제9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정일권, 김인기 당선
2. 28
• 신민당 함종찬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국회의원으로 당선

3. 1

• 한국방송공사 속초방송국으로 개편발족

3. 5

• 속초어협 총대 20명 선출

3. 7

• 각동대항 고공품기술 경진대회 개최

3. 11

• 전당포에 살인강도사건 발생

3. 12

• 조림대책 각 기관장 협의회 개최

3. 13

• 속초경찰서 주관 사회부 조리 일소 가두사위 실시

3. 15

• 시 새마을과, 녹지과 신설하고 감사실 폐쇄

• 동해고속도로 개설을 위한 용지보상 착수

• 속초교육청 관내 각 학교별 식수목표시달, 총 160만그루 목표

3. 18

• 정석모지사 초도순시

3. 22

• 속초시 식생활개선 여부 반장 대회를 개최, 부엌 혁명 다짐

4. 5

• 속초시청 공무원 복지조림 사업으로 밤나무 15, 000주를 대포 시유림에 식재

4. 15

• 동창실업 공장에 화재발생

4. 23

• 속초시 학생복지회관(체육관) 건립공사 착공

4. 27

• 강릉~속초간 고속도로 건설 보류에 자극 속초 개발위원회 창립

5. 1

• 노학동 응골부락 새마을회관 준공

5. 7

• 동해고속도로 건설촉진 진정단 상경

5. 11

• 속초경찰서 주관 벽지학교 어린이 초청 시내 각 기관 견학실시

5. 17

• 속초경찰서 설악파출소장 고봉혁 경사 숙직실에서 순직

5. 25

• 속초시 여교사 협의회 첫 회합

6. 1

• 속초항 어민예비군 발대

• 상도문리 하천정비사업 착공

• 속초조기축구회 주최 전국 조기축구대회를 2일간 속초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 9

• 도체전 예선대회를 겸한 시민체육대회 개최

6. 17

• 법원지원 및 검찰지청 정구장 개장기념 영동지구 정구대회 개최

• 향토예비군 중대대항 배구대회 개최

6. 19

• 어로보호순회강연회를 농수산부 주관으로 동보극장에서 개최

6. 30

• 내무부에서 광역행정 도시권 설정 발표, 속초권에 속초, 양양, 고성

7. 1

• 대통령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구역인 장천리와 사진리가 속초시로 편입, 장사동 신설

7. 12

• 상품포장디자인 세미나를 농협회

의실에서 개최
• 월선조업방지 및 하기 방역대책협의회 개최

7. 15
• 시가지 도로확장 및 가드레일 설치 착수

7. 20
• 정석모지사 도문동 상도문리 도토리묵 가공 공장 건립공사장 순시

7. 25
• 전국불교신도 하계수련법회를 설악산 비선대에서 개최

7. 31
• 속초시 풀베기대회를 노학동 척산벌에서 개최
• 73학년도 속초시 교육 연구대회를 속초국교에서 개최
• 납북어선 8척, 어부 80명 속초항 귀항

8. 4
• 반공연맹강원도지부 주최 하계수련대회를 청호국교에서 거행

8. 14
• 도문동 도토리묵가공 새마을공장 준공

8. 22
• 동명동에서 청부살해사건 발생
• 월선조업어부 11명 구속

9. 24
• 제1회 관광안내 경연대회를 속초교육청 주관 개최

9. 26
• 설악케이블카 복원 준공식 거행

10. 6
• 제8회 설악제가 시청광장에서의 축제행사를 시작으로 4일간 각종 행사 개최

10. 15
• 속초시립 직업안내소를시청 민원실 개설
• 속초전매서 신축청사로이전

10. 20
• 설악제 기념 제1회 전국남녀 궁도대회를 3일간 설악정에서 개최
• 속초시 기자구락부 주최 제3회 직장 대항축구대회 개최
• 예총속초지부주최 속초종합예술제를 동보극장에서 개최

10. 27
• 설악제 기념 제1회 전국연식정구대회를 2일간 춘천지검속초지청 코트에서 개최

10. 30
• 설악산 진입로 정비사업10.5㎞ 석축 및 조경공사 완공

11. 7
• 한미관계 전국 문화원장회의를 설악동에서 개최

11. 12
• 속초교육청 주최 새마을합창경연대회 개최

11. 22
• 석유파동에 따른 대책으로 속초택시 6부제 운행

11. 27
• 재건국민운동 속초지부가 주최한 마을금고 평가 및 촉진대회 개최
• 노학동 척산리 66가구 123등 전기 점화식

12. 14
• 설악산 국립공원개발 기본계획 확정, 건설부 공공

12. 22
• 속초경찰서 중앙파출소준공

◆ 1974년

1. 7
• 강원도 12개중점사업 실적심사결과 속초시가 최우수시로 선정
• 속초교육청 관내 각 지역별 겨울새마을학교 개강

1. 12
• 속초교육청 학무과장 고 장영복 장학관 영결식을 교육청에서 엄수

1. 16
• 박종성 도지사 초도순시

1. 19
• 영북지구 국회의원, 대의원 협의회의를 시청에서 개최

2. 1
• 농업통계사무소 속초출장소 발족

2. 5
• 문화원재정비 추진위원회 구성

2. 8
• 영동지방에 폭설, 설악동145㎝기록

2. 10
• 쌀소비절약 계몽운동 전개

2. 17
• 북괴만행규탄 속초 양양시민궐기대회가 속초어협 위판장에서 열려 서해 어선납북만행 규탄

2. 23
• 속초 시내버스 운행인가로 첫 운행

3. 1
• 국민회의 대의원사무소를 중앙동에 개소

3. 3
• 기관장 친선 정구대회를 검찰지청 테니스코트에서 개최

3. 8
• 속초여자종합고등학교가 도내 중고사격대회에서 우승

3. 16
• 새마을운동 속초시 전진대회를 제일극장에서 개최

3. 19
• 영국 A형 독감 극성

3. 26
• 전국 처음으로 연탄계조직, 비수기 저탄

4. 1
•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나무은행을 시 새마을과에 설치

4. 6
• 우수마을특별지원사으로 노학동 하천정비 500m완공, 장천리 도정공장 신축

4. 30
• 수복탑주변 브럭공장 철거하고 소공원 조성

5. 1
• 시내 우량아 선발대회 개최

5. 14
• 속초시 교육청 주관 중고학생웅변 및 글짓기대회 개최

5. 15
• 정일권국회의장 속초시에 자전차 30대 기증

5. 17
• 속초항 호안 축조공사 연장 620m 착공

5. 20
• 고향심기 운동을 속초시 특색사업 전개시작
•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시작

5. 31
• 국립공원 개발 집단시설 지역 토지 수매를 위한 기준지가를 건설부에서 고시

6. 10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관사에 복면강도사건 발생
• 외설악국민학교 설악분 교가 설악국민학교로 승격 개교식 거행
6. 26
• 월선 및 부정어업 선주 22명 어협 조합원 자격박탈
6. 28
• 동해안 어로보호중이던 해경 경비정 863호 북괴에 피격 침몰
6. 29
• 북괴해적행위 규탄 영북 지구 총시민궐기대회를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거행
7. 4
• 침몰된 해경 863호 승무원중 사체 인양된 6구에 대한 영결식을 도립 속초병원에서 엄수
• 시내 중심부를 꿰뚫는 중앙가로 620m(폭 15m) 축조공사 착공
7. 7
• 속초교육청관내 학교별 체육육성 종목 지정
7. 15
• 도시환경정화를 위한 시내 돈사 일제 철거
7. 24
•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도예선대회에서 속초시가 종합 1위 차지
7. 25
• 무허가 건물 1,500여채 양성화 조치
7. 30
• 퇴비증산을 위한 동대항 풀베기대회 개최
8. 3
• 동방원양(주)에서 영랑호개발 착수
8. 12
• 속초시 주부시민대학을 속초여고 강당에 개설 5일간 개강
8. 16
• 고 육영수 여사 추모를 위한 모든 사찰 기도회 돌입
8. 23
• 속초항 수로확장공사 완공
8. 27
• 제4회 전국민예품 경진대회에서 속초 박계숙씨 작품인 관솔 목각제품이 대통령상 수상
8. 28
•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관련 영북 지구 총시민 궐기대회를 속초국교 교정에서 거행
8. 29
• 공설운동장 석축 및 하수도 공사 준공
9. 3
• 김명한 속초시장 부임
9. 6
•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 도예선대회에서 속초시 새마을합창단이 우수상 수상
9. 10
• 강원은행 속초지점 개점

9. 16
• 속초시 보건소에서 불량식품전시회 개최
9. 17
• 칡잎, 아카시아잎 등 녹사료를 시에서 무제한 구매결정
• 박종성 지사 주요사업 확인차 래시
9. 18
• 영세어민 구호양곡 5천㎏ 방출
• 한국부인회 속초지회 주관 일본의

용공시책 규탄 궐기대회 개최

9. 19

• 금호동 수해 이주주택 30동 입주식

9. 20

• 속초농협 청학동 예금취급소 개소

• 속초시 새마을학교를 새마을 상황실에 개설 개강

10. 3

• 제9회 설악제 개막, 3일간 등반대회, 예술제 등 행사개최

10. 10

• 도문동에 도내처음 새마을 토산품 판매센터 개설

10. 10

• 국민회의 대의원 간담회개최

10. 11

• 국제 관광공사 주최 관광순회교육을 설악동에서 실시

• 박종성 도지사 등 설악산 횡단등반대 등반실시

10. 19

• 제1회 향군회장기 쟁탈 무장경기대회를 설악동~수복탑구간 실시

10. 25

• 제2회 전국궁도대회를 영랑호 설악정에서 개최

10. 26

• 제4회 직장대항축구대회를 속초기자구락구 주관개최

11. 2

• 제12회 속초시 4H경진대회를 2일간 거행

11. 8

• 항만개발조사를 위한 국제개발은행 조사단 래시

11. 11

• 속초시가 추곡수매 목표량 127% 달성, 전국 1위 기록

11. 28

• 시내 초중교 교장 학교새마을 추진간담회 개최

12. 10

• 제26회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를 동보극장에서 거행

12. 14

• 청호마을금고 설립

• 고향심기운동의 일환으로 전 시가지 공원화를 위한 헌수운동 전개

12. 28

• 정일권 국회의장 래시, 시정현황 청취 및 건의 수렴

◆ 1975년

1. 9

• 속초~울릉도간 무선전화 개통, 속초우체국에서 통화식 거행

1. 22

• 박종성 지사 연초순시

1. 29

• 영랑동 만나식품 속초시 새마을공장으로 지정

2. 1

• 시가지 가로수 식재를 위해 범시민운동으로 헌수금 모금

2. 4

• 전국에 지진진동, 속초중앙동 일대 3,4분간의 진동은 진열상품이 흔들릴 정도

2. 7

• 신흥사가 지방문화재 자료 제7호로 지정

2. 10

• 속초라이온스클럽과 자매결연한 일본 이고누마 라이온스회원 일행 시방문

2. 16
• 새마을운동 전진대회를 대원극장에서 거행
2. 24
• 국민은행 속초지점 신축 점포 낙성식 거행
• 속초실고학생 설악산 왕복 40㎞ 무장행군대회 실시
2. 28
•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혼분식 계몽실시
3. 9
• 제1회 속초시민연날리기대회를 속초문화원 주최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3. 28
• 속초, 양양, 고성, 인제 4개 시·군으로 구성된 속초권 행정협의회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
4. 9
• 방역기동훈련을 3일간 실시
4. 10
• 해안도로확장공사 청호동 210m 대포동 80m를 새마을노임 취로사업으로 착수
4. 11
• 동명동 할아버지 청소단 발족, 매일 조기청소실시
4. 12
• 장발없애기 가두 캠페인 전개
4. 13
• 춘계 전국 중고배구대회에서 속초시 배구팀 우승
4. 15
•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4. 17
• 전국대회 우승한 속초중 배구선수단 환영식 거행
4. 26
• 박종성 지사 속초순시 고향심기운동은 전국에 자랑할 만한 것으로 언급
• 속초시 조기축구회 주최하는 제3회 전국 조기 축구대회 개최
4. 27
• 제12회 대통령 상패 쟁탈 반공웅변 속초시 예선대회 개최
5. 10
• 영랑교 확장공사 착공
5. 12
• 모범접객업소 상패 수여
5. 14
• 골목포장, 보도블럭 부설, 하수도시설 등 39건의 사업 일제히 착공
5. 19
• 조양동 새마을회관을 논산리에 건립 준공
5. 20
• 제1회 도 산하공무원 서예대회에서 속초시청이 단체 1위 차지
5. 30
• 제4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6. 4
• 속초해경에서 월선조업어선 8척 선장 8명 구속
6. 5
• 시내 전신전화 지하 케이블 매설 1차공사 착공

6. 6
• 영랑호반에 있는 충혼탑을 보광사 옆산으로 이전 결정
6. 22
• 정일권 국회의장 귀향 간담회 개최
6. 26
• 해안도로 확장공사 완공
6. 30
• 영랑교 확장공사 및 시내 하수도 사업 완공

• 은행나무 가로수 500주를 범시민 헌수운동으로 추진 가로변 식재 완료

7. 7

• 속초시 행정자문위원회에서 고향심기운동 상반기 실적을 심사결과 100% 달성평가

7. 10

• 도문동 새마을회관 준공

7. 11

• 안보정세보고회 개최

7. 19

• 통장 제도시행, 속초시 123개통, 600개반으로 편성

7. 24

• 병해충방제 3개 용역단과 26개 새마을 용역단 발단

7. 29

• 제5회 전국 관광민예품경진 도예선대회에서 속초 박계숙씨 작품 '탈'이 최우수상 수상

7. 30

• SSB무전기 미설치 어선54척 어업허가 취소처분

8. 1

• 제18회 전국 직업사진사 연수대회를 설악산에서 5일간 개최

• 속초시 풀베기대회를 척산리에서 개최

8. 17

• 시내 중앙가로 신설공사편입건물 59동 철거 시작

8. 18

• 설악산 조류보호를 위한 새집 400개 달기 작업 실시

8. 27

• 도문동 상도문1리 토산품 센터 준공

8. 28

• 대포동 수원지시설공사를 3년차 사업으로 착공

8. 30

• 속초시 민방위과 신설

9. 5

• 일복문화관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9. 10

• 속초항 준설작업장에서 蘇製기뢰 3개발견, 작업 중단

9. 18

• 함남 북청군 신포읍민회 향원비 제막식

9. 22

•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12. 20까지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첫 지급 2명

9. 23

• 설악문화재단(이사장 한병기 유엔대사) 장학금 전달식

9. 25

• 설악산 암벽 낙서지우기 운동 전개

9. 29

• 속초시 지역민방위대 발대식 거행

9. 30

• 속초시 초·중학생 종합실기대회 개최 설악산 종합개발관련 속초시 건축허가제한지역 공고

10. 1

• 노학동에 화장장 신설 기공

10. 5

• 청초천 제방성토, 조양동 택지조성, 나지 사방사업 등 3개 취로사업 완료

10. 6

• 설악동에서 2인조 강도 사건 발생

10. 8

• 속초권 행정협의회를 4개 시장·군수와 3개 경찰서장 참석하에 시장실에서 개최

10. 14
• 주한외교사절단 37명 설악산 방문
10. 17
• 속초시 일복문화관 기공식
• 제10회 설악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풍어대회, 새마을 위안잔치, 국도대회,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3일간 행사개최
10. 20
• 강원일보사 제정 제1회속초시문화상 시상식을 시청회의실에서 거행, 5개부문 5명 수상
11. 3
•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신기자 26명 속초시 새마을사업장 방문
11. 11
• 황산덕 법무장관 초도순 시차 검찰지청 내방
11. 12
• 중앙새마을금고 설립
11. 15
• 이산가족 신정성묘촉구속초시민궐기대회 개최
11. 16
• 동해안을 강타한 격랑으로 연안에 부설한 정치망 5천여만원 피해
11. 17
• 속초경찰서 직업소년학원 제1회 수료식 거행
11. 21
• 재향군인회 제2회 예비군 무장경기대회 개최
12. 1
• 속초시 새마을협의회에서해변 백사장 7㎞ 정화계획수립 추진
12. 4
• 설악산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계획 확정
12. 11
• 우수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노학동 창고 등 4개사업 착공
12. 17
• 영랑국교 뒤에서 문화원과 종합주차장을 연결하는 도로 500m 개설 착공

◆ 1976년
1. 4
• 정일권 국회의장 귀향, 사회부조리 척결을 위한 서정쇄신작업 강력 추진 언급
1. 19
• 교통부에서 설악산 노루목에 현대식 국민숙사 건립계획 수립
1. 22
• 새마을 가꾸기사업 33건 일제히 착공
1. 29
• 박종성 지사 연초 순시
2. 1
• 설악산을 방문한 김영삼 신민당총재 설악산개발계획 조기 집행을 위해 당정책사업으로 추진 언급
2. 12
• 속초시 개발 촉진위원회 창립 총회
2. 16
• 에베레스트 등반훈련대 설악산에서 눈사태로 3명 사망
2. 18
• 시에서 가마니 수매 개시
2. 19
• 새마을 농림증산 촉진대회를 대원극장에서 거행
2. 26
•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협의회 개최, 추진계획 수립

2. 28
• 대한적십자사 주관 설악산 조난구조대 발대식 거행
3. 1
• 속초시 개발 촉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기금 1백만원을 즉석 마련
3. 4
• 설악산 조난 산악인 3명 합동위령제를 서울 신문회관에서 개최
3. 7
• 제2회 시민연날리기대회를 속초문화원 주최로 영랑공원에서 개최
3. 11
• 설악산 관광협회주관 관광지 새마을촉진 궐기대회 개최
3. 14
• 제2회 시민탁구대회 개최
3. 26
• 도문동 3통3반 주민자력상수도 시설 통수식 거행
4. 1
• 새마을 지원금고사업으로 하수도 시설 등 78건 공사 착수
• 목우재 개통예정지 주변에 범시민 식수운동전개, 9만5천주 식수
4. 14
• 안보시국강연회를 대원극장에서 개최
4. 15
• 척산 온천장~설악동 관광촌간 목우재 도로공사 8㎞를 3년차 사업으로 착공
4. 17
• 설악산 관광객 대상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
4. 19
• 건설부에서 속초시 도시계획 구역을 절반으로 축소(39㎢제외) 통보
4. 20
• 76 새마을 장학생 4명 장학금 지급
4. 23
• 제3회 강원도 학생 실용자전거 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4. 26
• 속초어협 지도선 청초호(25ha) 진수식
4. 30
• 속초시청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 1쌍 결혼식 거행
5. 4
• 제6회 도내고교 교련 실기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 8
• 어버이날 경노잔치를 노인회관에서 거행
• 속초서해구락부 창립
• 정일권 국회의장 래시, 시민 관광요원화 당부
5. 10
• 새마을 민간단체협의회 주관 속초시민대학을 6일간 개강
5. 15
• 주택개량사업 262동 일제히 착공
5. 17
• 향토예비군 중대대항 배구대회 개최

5. 22
• 꽁치 10년만에 대풍어
5. 25
• 제28회 권농일을 맞아 시산하 전 직원 모내기 지원
5. 27
• 서울대학교 학생체육수련장 기공식을 노학동 현지에서 거행
6. 1
• 설악케이블카 31인승으로 대형화

후 운행시작

6. 5

• 속초시에서 이질경보령 3호 발표

6. 11

• 제5회 속초시민체육대회를 2일간 개최

6. 26

• 설악산국립공원 개발을 위해 노루목고개와 피골일대 7월10일자로 토지 수용령 발동 발표

6. 29

• 속초시 개발촉진위원회에서 서울~강릉간 고속버스를 속초까지 연장 운행건의

7. 2

• 오징어잡이 어선 함남호가 일본 화물선에 충돌 침몰, 어부 4명 사망

7. 6

• 중동부 전선에서 무장 공비 소탕 유공을 세운 김종명일병 시민환영대회 개최

7. 17

• 제3승해호 일본어선에 받쳐 침몰

7. 20

• 박종성 지사 해수욕장 시설 점검차 래시

7. 25

• 속초해수욕장 진입로 250m개설

7. 30

• 영랑동 노인회관 준공

8. 7

• 설악산 울산바위에 암벽등반하던 대학생 등 2명 낙반사고로 압사

8. 8

• 영랑교 쌍교가설공사 완공

8. 15

• 대산고출신 어로지도원 오징어잡이 선단에 승선지도 첫 시도

8. 23

• 교동 마을금고 창립총회

8. 30

• 오징어잡이어선 제3신진호 공해상에서 납북

• 속초화장장 및 납골당 완공

8. 31

• 속초시청사 3층 증축공사 완공

9. 10

• 속초 학생체육관 준공 개관

9. 11

• 제2회 속초시민 건전가요경연대회를 학생체육관에서 개최

9. 12

• 설악권 시군대항 정구대회를 시청 정구장에서 개최

9. 14

• 태풍 프랜호의 해일로 속초항 주변 가옥 파손, 침수 등 피해

9. 15

• 제6회 속초시 학도 체육대회 개최

9. 17

• 고성능 쾌속경비함 화랑 2호 취항식

9. 21

• 영랑호, 조양동해안, 척산 온천지구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원지시설지구로 고시

9. 22

• 민방위대 창설 1주년 기념식

9. 25

• 반상회 참석촉진대회 개최

10. 1

• 설악동 집단시설로 신단지 조성 1차공사(기반조조성) 착공

10. 3

• 제7회 도내언론인 체육대회개최

10. 7

• 문공부 순회 안보강연실시

10. 9
• 제11회 설악제, 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1일까지 각종 행사개최
10. 14
• 납북어선 제3신진호 어부 23명과 함께 귀환
10. 19
• 제3신진호 귀환어부 기자회견을 시청회의실에서 진행
10. 22
• 서울대학교 학생수련장 준공
10. 24
• 설악단위 농협주관 제1회 새농민대회 개최
10. 25
• 속초시 농어촌 1조원 저축 경진대회 개최
10. 26
• 설악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
10. 28
• 폭풍우로 동해안 어선단 국내최대의 해난사고 발생, 속초항소속 금성호 등 7척침몰 65명익사, 10척 260명 실종
11. 5
• 제2차 안보정세 보고회
11. 9
• 해난구조대책위원회에 각계에서 성금품 답지
11. 10
• 실종어선 2척 선체발견
11. 19
• 제2회 속초시문화상 시상식
• 내무부 주관 지방행정 연수대회 연구논문세미나에서 반상회운영 강화방안으로 속초시가 최우수상 수상
11. 20
• 태풍 프랜호 피해복구 어선 진수식
11. 25
• 10 · 28 해난사고 조난어부 합동위령제를 신흥사에서 엄수
12. 15
• 10 · 28조난어선 복구사업 착공
12. 19
• 예총 속초지부 주관 일선 장병위문을 위한 송년 대가곡의 밤 개최
12. 20
• 대포동 전복양식장, 노학동 도리원 두부공장, 장사동 사진리공동창고 등 새마을사업 착공
• 동해안 조난어민가족 연립주택 42동 착공
12. 22
• 명신고등공민학교 폐교승인 ('79.2.28일자)
12. 25
• 설악동에서 화재로 가옥1동, 점포 2채 소실, 6가구 20명 이재민 발생
12. 28
• 속초시 체육진흥 추진위원회 결성

◆ 1977년

1. 1
• 신년 명함교례회를 속초문화원 주관으로 농협 속초지소에서 개최
1. 4
• 노학동 학사평지구 104가구 전기가설 준공
1. 11
• 10 · 28해난사고 가족 생계비 전달식
• 속초 청년회의소 시정 세미나 개최
1. 15
• 새마을담당공무원 결의대회
1. 17
• 제5회 속초시민 빙상 경기대회를

영랑호 특설 링크에서 개최

1. 23

• 제9회 영북지구 빙상 경기대회 개최

1. 26

• 77년도 새마을 전진대회를 대원극장에서 개최

1. 28

• 박종성지사 연초순시

2. 3

• 미역 10년만에 대풍

2. 7

• 명태 18년만에 풍어

• 국민회의 대의원 대상 시책보고회 개최

2. 8

• 영랑호 민자유치 종합 레저센터로 개발계획 확정

2. 15

• 포플러 대식수운동전개 하천부지 등 90ha에 5만 6천그루

• 부녀회 제식훈련 경연대회 개최

2. 19

• 목우재 도로개설 2차년도 공사착공

2. 22

•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협의회 개최

3. 3

• 폭설에 따른 재설작업을 위해 민방위대 동원령

3. 15

• 설악동신단지 용도지구별 분양 공고

3. 17

• 민방위대 동원 보리밭 밟기 실시

3. 20

• 설악동 신집단시설지구 상가 및 숙박지 공개입찰 분양

3. 30

• 태풍 프랜호 피해어선 복구 2척 진수식

4. 1

• 속초 어업협동조합이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4. 3

• 일복문화관 준공 개관

• 공설운동장 스텐드 공사 착공

4. 10

• 속초 초중고교 새마을연합애향단 결단식 거행

4. 12

• 설악산 울산바위에서 나체여인상 자연석 발견

4. 15

• 설악산 권금성에서 자연석에 파여진 돌절구 발견

• 영랑~교동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착수

4. 21

• 손수익 산림청장 사방조림지 순시차 래시

4. 22

• 문화재보호협회 도지부 주관 연찬회 및 강연회 개최

4. 28

• 제15회 체육주간 직장배구대회 개최

4. 29

• 속초시 도시계획 일부변경 확정고시

• 절전운동 학생웅변대회 개최

5. 2

• 정일권 국회의장배 제1회 설악지구테니스대회 개최

5. 3

• 제32회 전국 중 · 고 배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속초중 배구팀 개선 시민환영대회 거행

5. 20

• 영랑호, 청초호를 철새보호구역으

로 지정

5. 28

• 민간단체 새마을협의회 주관 실적 비교평가회 개최

5. 31

• 10 · 28 해난피해 보상 어선 9척 진수식

6. 7

• 전영호 속초시장 부임 취임식

6. 16

• 설악동에서 이동시청운영

6. 17

• 속초지구 스카우트 전진대회개최

6. 24

• 속초중앙시장 대지소유권 분쟁 6년만에 속초시 승소 판결(고등법원)

6. 28

• 74년 피침된 해경 863호전사자 추모식 거행

• 기관장 반공간담회개최

• 한국화학사료공장 악취로 학생, 시민피해 물의

7. 5

• 도에서 설악산 와선대 계곡에 무지개 송어 1만마리 방류

7. 15

• 중앙가로 포장공사 착공

7. 17

• 속초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개최

7. 18

• 고속버스터미날부지 조양동으로 확정

• 관광철 성수기동안 택시부제운행 전면 해제

7. 20

• 정일권 국회의장 귀향보고차 래시, 실업전문학교 설립추진 다짐

7. 24

• 오징어잡이 어선 오성호 일본어선과 충돌 침몰

8. 1

• 서울~속초간 고속버스 개통식

8. 7

• 설악산 금강굴 아래에서 등반객 2명 급류에 말려 익사

8. 9

• 풀베기대회 개최

• 설악문우회 주최 문학의 밤 개최

8. 17

• 최규하 국무총리 설악산 신단지 답사

8. 19

• 설악산 신단지에 시범 유료캠프촌 개장

8. 20

• 제2회 속초시 중 · 고교 학년대항 축구대회 개최

8. 25

• 속초시 17개 여성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8. 26

• 속초지구 예비군종합훈련장 준공

8. 27

• 속초청년문화연구회 청봉극회 창립기념 회원 작품전시회개최

8. 30

• 관광유원지 질서 및 환경정화 범시민궐기대회와 시가행진 실시

9. 6

• 청초호 오염방지 대책회의

9. 9

• 추계관광수용대책 관계관회의

• 어린이 소방대 발대

9. 20

• 대포동 어촌계 도내처음 법인체로

인가, 창립총회 개최

9. 23

• 박종성 지사 설악산 정화사업과 신단지건설 현황답사

9. 25

• 설악산 정화 범시민 대회 전개

9. 28

• 설악산에 자연보호 합동지휘소 설치

10. 1

• 제12회 설악제 개막 3일간 행사 개최

10. 4

• 박종성 지사 등 재춘 기관장 일행 설악산 정화운동 전개

10. 5

• 박 대통령 설악동에 관광호텔 신축과 진입도로로 2차선 확장, 주차장 시설 등 지시

10. 7

• 설악산 위험등산로 철제교량, 계단 시설 착수

10. 8

• 속초시 자연보호협의회 구성

10. 12

• 설악제 행사의 하나로 풍어제를 속초수협위판장에서 개최

• 이동 호적상담실을 동별순회 운영

10. 14

• 속초시 1조원저축 경진대회 개최

10. 23

• 제6회 강원도 학도체전에서 속초시 선수단 사상처음 종합우승

10. 26

• 학도체전 우승 선수단 환영식

10. 29

• 속초시 직장대항 축구대회 개최

11. 4

• 77년도 새마을가꾸기 사업 1,345건 완료

11. 5

• 자연보호 속초시민 궐기대회 거행

11. 6

• 속초시 낚시 동호인 클럽주최 제1회 낚시대회 개최

11. 7

• 설악산 신단지 D지구 150세대 연립주택 75채 착공

11. 8

• 지역마을금고 운영교육

11. 15

• 새마을부녀회 창립

11. 20

• 설악동 신단지 취수장, 정수장, 송수배수관 완공

11. 23

• 영랑마을금고 창립총회및 현판식

11. 24

• 척산온천 시추성공, 300m 지하에서 40°C의 수맥 발굴

• 안보정세 보고회 개최

11. 25

• 중앙시장내 속초약국 등 5개점포 화재 발생

11. 27

• 에베레스트 원정대원 추모등반대회 개최

• 제4회 속초시 친선 바다낚시대회 개최

11. 29

• 제1회 노인강좌 수료식

12. 1

• 제11강원호 침몰, 어부 26명 실종, 5명 구조

12. 5

• 조난어부가족 구호대책본부 설치

12. 15
• 안보시국 강연회 개최
12. 17
• 설악동 관광촌 철거보상금 확정고시
12. 18
• 설악문우회 새작품 발표회 개최
12. 27
• 설악산 집입로 확장공사착공
12. 28
• 속초소방서 신설 개서식 거행

◆ 1978년
1. 1
• 시장 등 간부공무원 충혼탑 참배
• 시장, 경찰서장 고령 노인댁 방문 세배
• 속초문화원 주관 신년 명함교례회 개최
1. 2
• 설악산 등반학생 2명 동사, 1명 구조
• 폭설, 설악산 양폭산장 적설량 140㎝, 설악산관광촌 1m, 속초해안지대 90㎝ 기록
1. 7
• 설악산 권금성 부근에서 실종대학생 등 4명 동사체 발견
1. 12
• 속초청년회의소 주관 시정세미나 개최
• 시청회의실을 새마을 연수관으로 활용, 매주 월요일 새마을정신 함양교육
1. 16
• 소방 시범훈련을 중앙시장에서 실시
1. 19
• 박종성 지사 연초순시
1. 20
• 설악산에 관광호텔(뉴설악호텔) 신축 기공식
2. 3
• 시정보고회 개최
2. 7
• 전국무대 10대절도단 8명 구속
2. 10
• 영세민 생활안전카드 비치 생활상담제를 국내 최초로 시도
2. 14
• 범시민 3대질서운동 전진대회 개최
2. 15
• 중앙시장부지 1,604평 소유권 분쟁 7년만에 속초시 승소판결(대법원)
2. 17
• 폭풍설 기습 어부 29명 사망 및 실종, 어선 7척 침몰, 4척 실종
2. 20
• 설악산 소공원 조성 및 전적비 시설 道계획 확정
2. 25
• 전국 최우수 반상회 운영다짐 반장 촉진대회 개최
3. 1
• 3 · 1절 경축 및 통일기원 제1회 속초시 역전마라톤대회 개최
3. 6
• 김무연 도지사 초도순시, 설악동 신단지 조성지구시찰
3. 10
• 폭우로 축대 무너져 국교생 1명 사망
3. 11
• 신흥사 등 19개 단체에서 고기형 휴지통 28개 제작 시에 전달
3. 17
• 설악동에 설악호텔(현설악파크호텔) 기공식 거행
3. 18
• 대대적인 자연보호캠페인 및 설악

산헌장 제정 현판식 거행
• 해난 무사고 촉진 어민단합대회 개최
3. 25
• 구국여성봉사단 속초지부주최 새마음갖기 결의실천대회 개최
• 설악국민학교 이전건립공사 착공
3. 27
• 설악동 신집단시설지구 재산세 과세면제조례 공포
3. 30
• 설악동 신단지 국민주택 분양 추첨
4. 1
• 속초시 개발촉진 세미나 개최
4. 2
• 취락구조개선마을 일손돕기 노력봉사 실시
4. 5
• 강풍으로 정박어선 2척 침몰, 건물피해 등 발생
4. 7
• 관광문화도시가꾸기 속초시민대회 및 시가캠페인 전개
4. 10
• 농촌주택개량 지도공무원 책임담당제 실시
• 구 속초역사 철거
4. 11
• 수협 무의촌 진료선인 새어민호 취항 진료실시
4. 22
• 충혼탑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영랑호변 충혼탑을 조양동 뒷산으로 이전 결정
4. 30
• 도문동 경지정리사업 44㏊완공
5. 6
• 목우재 도로확장 개통
5. 9
• 공장새마을운동 전진대회 거행
5. 16
• 제14회 TBC배 전국 중고배구대회에서 우승한 속초중 배구팀 환영대회 개최
• 강원일보사 주최 제6회 모자사생대회개최
• 속초시행정자문위원장 전성우(전 속초읍장) 별세
5. 18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실시 유성국, 이광춘, 서동석, 박성희 당선
5. 23
• 대한적십자 강원지사 주최 산악안전훈련 실시
5. 27
• 무의탁노인 52명 합동회갑잔치 거행
6. 1
• 구 설악동 관광촌 주택, 상가, 부속사 등 984채 건물 철거 착수
6. 6
• 조양동 새마을 뒷산으로 충혼탑 이전건립 착수
6. 7
• 장사동사무소 청사 준공식 거행
6. 12
• 설악산 신단지 우체국 준공 업무개시
6. 16
• 제8회 속초시 학도체전 개막
6. 17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
• 영금정 축양장 개장식
6. 25
• 호국용사 간담회 개최

6. 29
• 정일권 국회의장 귀향 보고차 래시
7. 1
• 제13회 도민체전에서 우승한 속초 축구팀 환영식
7. 4
• 설악동 신단지 이전주민을 대상으로 현안문제 현지좌담회 개최
7. 18
• 제3회 영북지구 학생 태권도대회 개최
7. 19
• 김인기 의원 국회의원 사퇴서 수리
7. 20
• 묵호세관 속초감시소 폐지 결정
• 주택공사에서 교동에 13평아파트 200세대, 5층 건물 5동 건립 착공
7. 21
• 시개발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개최
7. 24
• 설악국교 이전건립 완공
7. 29
• 제2회 영북지구 노인 한시백일장 개최
8. 1
• 상수도 확장공사 기공식을 조양동 배수지에서 거행
8. 9
• 속초상공회의소 총회에서 새회장 김덕희 선출
8. 14
• 속초상업고등학교에 새마을학교 개설 운영
8. 16
• 설악산 비선대에서 등산객 2명 급류에 휘말려 실종
• 한국화학사료공장 이전 조치 결정
8. 28
• 최규하 국무총리 설악산 방문, 신단지 건설 현지답사
9. 12
• 공직자 가족 자연보호실천 결의대회 개최
9. 14
• 서연화 내무부차관 설악산 신단지 건설현장 답사, 폐수종말처리 시설 지시
9. 24
• 제1회 강릉시 야구협회주관 도내 초중등교 야구대회에서 설악중과 영랑국교가 각각 우승
9. 26
• 속초여중과 양양 현성국교 자매결연
10. 2
• 설악산 비선대, 와선대 일대에 스쿠버동원 수중오물 수거실시
10. 7
• 건전사회풍토조성 촉진대회 거행
10. 11
• 고속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평가회를 설악산 신단지에서 개최
10. 14
• 제13회 설악제 개막, 산신제를 시작으로 등산대회, 풍어제, 낚시대회, 시민위안잔치 등 행사를 3일간 개최
10. 19
• 김치열 내무부장관 주택개량사업 확인차 래시, 중도문리에서 현황 청취
10. 23
• KBS속초방송국 주최 제2회 설악예술제 개최
• 영칠마을금고(영랑동 자산 1천만원 돌파기념 저축촉진대회 개최
10. 28
• 설악산 관광단지(신단지)조성 완공

11. 11
• 북괴남침땅굴규탄 속초시민궐기대회 개최
11. 13
• 박정희대통령 설악산 방문, 목우재 도로포장과 신단지 오수처리관 매설, 공무원 아파트 건립 등 약속
11. 18
• 관광수용태세 확립 강연회
• 주택개량사업 완공 자축연 거행
11. 20
• 민병권 교통부장관 래시,관광 민박단지 조성 등 관광수용대책 언급
11. 23
• 속초에 진도2의 미진 발생
11. 29
• 동해안에 대해일로 선박424척 피해
12. 2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를 속초중 교정에서 거행
12. 7
• 새강원장학회 주유소 개소식 거행
12. 9
• 속초시 상수도 확장공사 완공, 조양동 저수장에서 통수식 거행
• 이화백옹 송덕비를 노학동에 건립 제막
12. 11
• 설악산지구 전적비 제막식을 소공원 현지에서 거행
12. 12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정일권, 함종찬 당선
12. 20
• 폭설, 설악산 120㎝, 속초 83㎝기록
12. 23
• 한국화학사료 속초공장환경보호법 적용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

◆ 1979년
1. 1
• 시산하 간부공무원 충혼탑 참배
• 신년명함교례회를 문화원 주관 농협속초지소에서 개최
•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관내고령자 6명 방문 세배
1. 8
• 김성배 도지사 연초순시
1. 16
•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최석현 동장 속초시청장으로 엄수
1. 20
• 설악동 신단지 지구별 명칭 제정
1. 23
• 시정보고회 개최
• 설악산관리사무소 3개계 신설 등 기구확장
1. 24
• 속초시 인구감소 예방대책회의 개최
1. 26
• 김성배 지사 설악산개발,현황답사
1. 31
• 연 5일째 폭설, 설악산 210㎝이 적설량 기록

2. 2
• 폭설에 이은 강풍과 해일로 속초항에 선박 35척 파손 등 피해
2. 9
• 설악산 토왕산 폭포에서 빙벽훈련 중이던 대학생 2명 추락사
2. 10
• 강풍으로 동해안어선 13척 파손, 어부 3명 실종
2. 15
• '79주택개량사업 및 새마을운동 전진대회를 대원극장에서 개최

2. 20
• 목우재 및 시내도로포장, 대포동 내물치리 이전, 설악산 노인정 등 대통령 지시사업 6건 공사착수
2. 21
• 해경대 신축청사 준공식
2. 24
• 모범 반장간담회 개최
• 중앙시장 개축 촉진협의회 개최
2. 25
• 금호새마을금고 설립
3. 1
• 3.1절 경축 역전마라톤대회 개최
• 남북대화 촉진 1,000만 서명운동 개시
3. 3
• 안버리기 시민궐기대회
3. 5
• 푸른 청초호가꾸기 헌수운동 전개
3. 15
•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 5개동 229동 착수
• 내물치 마을철거 및 신단지 조성사업 착수(가옥 82동, 상가 14동 철거)
3. 18
• 3.1절 경축 탁구대회 개최
3. 19
• 김영호 속초시장 일행 3명 선진국 관광수산 시설 시찰차 출국
3. 19
• 도문동 중도문1리 간이상수도 통수식
3. 20
• 뉴설악호텔 완공
3. 22
• 때늦은 폭설, 설악산에 20㎝로 입산 통제령
3. 26
• 관광지 특별정화계획구역 확정, 특별보호회 지정
4. 3
• 78년 해일피해어선 복구 9척 진수식
4. 9
• 뉴설악호텔 개관식
• 설악산 저항령 계곡에서 대학생 6명 조난, 1명 동사, 5명 구조
• 장사동 해송마을금고 설립
4. 10
• 설악동 C지구 공무원아파트 50동 착공
• 설악산 진입로변 벚꽃단지 조성사업 500본 식재 완료
4. 12
• 장일훈 산림청장 설악산일원 사방지 예찰차 래시
4. 14
• 자연보호특별정화대 발대식 및 자연보호 헌장비 제막식을 설악산 소공원에서 개최
5. 10
• 일본인 구보다(구보전풍)가 일복문화관 도서 구입비 1백만원 기탁
5. 13
• 지역인사초청 바다 릴 낚시대회 개최
5. 21
• 공화당 강원3,4지구 개편대회를 일복문화관에서 개최
• 정일권 국회의장 속초에 전문대학 설립 추진계획 언급
• 제6회 속초시민체육대회를 2일간 개최
5. 25
• 실업전문대학 유치 간담회 개최
5. 29

• 사상최대의 이색적인 자연보호운동으로 설악산 쓰레기 하산작전 실시

5. 30

• 김치열 법무부장관 순시

6. 5

• 방경원 병무청장 순시차 래시

• 미국 관광토산품 전시회를 설악동에서 개최

6. 12

• 속초시 선주협회 주최 풍어제 거행

6. 14

• 제9회 속초시 학도체육대회개최

6. 15

• 제14회 도민체전 성화채화식을 설악산 비선대에서 거행

6. 20

• 대포동 산두꿈로선 선형변경사업 완공

• 동명새마을금고 설립

6. 23

• 국내 기술진으로 건조된 해경 신예 고성능쾌속정 화랑호 관함식 거행

6. 30

• 목우재 정상 절개지 정비 공사 6ha 완공

7. 5

• 설악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

7. 13

• 속초시새마을부녀회 주관 소비절약실천 결의 및 가두캠페인 전개

7. 22

• 대포동고개 구배완화 공사 완공

7. 28

• 박정희대통령 설악동 개발 현지 순시

• 속초중 동문회초청 실업여자배구 친선경기 거행

8. 1

• 조성운 속초시장 부임

8. 2

• 제3회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8. 12

• 시가지 간선도로포장 9.3㎞완공

8. 20

• 상도문 한옥개량 14동 완공

8. 21

• 대포동 해안도로 204m(폭 5m) 포장완공

8. 23

• 속초~대포간 도로 포장공사 39.4㎞ 착공

8. 27

• 청학마을금고 설립

8. 31

• 외설악국교 폐교

9. 2

• 제10차 JC강원지구 대회를 속초학생체육관에서 개최

9. 13

• 속초지역 관광협회 제1회 친선체육대회 개최

9. 14

• 대포동 내물치리 주택개량사업 완공으로 해변마을 이전

9. 16

• 목우재 도로포장 개통식 을 겸한 소년체전 기금 조성 범시민 걷기대회 개최

9. 21

• 대포동 내물치리 집단주택 개량 67동 입주식 거행

9. 28

• 설악산 격전지 무명용사 유해찾기 운동 발기

10. 3
• 에너지 절약 및 소비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제14회 설악제를 무기연기 조치
10. 4
• 교동 만천동마을 주택 개량사업 47동 완료 입주식 거행
10. 7
• 속초 낚시회 주최 제6회 전국 바다 낚시대회 개최
10. 10
• 자연보호헌장선포 1주년기념식 거행
10. 13
• 룩셈부르크 앙리황태자일행 8명 설악산 방문
10. 19
• 가족계획 촉진대회 개최
10. 27
• 고 박정희대통령 국장 속초지구 분향소를 시청 회의실에 설치
11. 10
• 제1회 속초시체육회장기쟁탈 직장 대항 축구대회 개최
11. 13
• 설악산 마등령 동쪽에 산불발생 0.5ha를 태우고 발화 5시간여만에 진화
11. 17
• 중앙새마을금고 1억돌파 및 3억달성 다짐대회
11. 19
• 설악 산신제를 정고평에서 거행
• KBS속초방송국 주체 제3회 설악예술제 개최
11. 20
• 한국화학사료공장 폐쇄
11. 21
• 목우재 도로변 나지 사방사업 완공
11. 26
• 설악산 진입로입구 마을이전자리 소공원 1만㎡조성 완공
11. 27
• 설악산 노인정 준공
12. 4
• 돼지고기 먹기운동 전개
12. 13
• 돼지고기 요리품평회 개최
• 주공 1차아파트 임대 입주자 모집
12. 20
• 속초시 종합개발세미나를 홍익대학교 교수진과 지역 유지참석 개최

◆ 1980년
1. 1
• 시 간부공무원 충혼탑 참배
• 신문배달원 위안잔치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
• 신년명함교례회를 상공회의소 주관 개최
1. 12
• 속초항내 부두노조 대기실 낙성
1. 19
• 속초해안 간만의 차 50㎝로 평소의 2배인 이변이 20여일 계속

1. 29
• 속초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침몰 합동위령제 거행(72정)
• 김성배 도지사 연초순시
2. 1
•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운동 전개
2. 5
• 조성운 속초시장 13개동 연초순시
2. 7
• 속초시 새마을 전진대회 개최

2. 8
• 속초내항 청초호 31년만에 결빙
• 속초세무서 주관으로 간이 기장제도에 대한 순회 세무간담회 실시
2. 19
• 속초시지 편찬위원회 구성
2. 25
• 동명동에 시직영 새마을 자재공장 시설 결정
2. 28
• 해양경찰대 신예 고속함 주왕산호(250 t) 취역식
• 유기천 부지사 벼 신품종 침종확인차 래시
3. 3
• 제4회 연날리기대회를 속초등대 뒷산에서 개최
3. 8
• 쓰레기 안버리기 범시민결의대회를 개최
3. 15
• 속초신협주최 제1회 영북지구 음악경연대회 개최
3. 22
• 산화경방 명예위원 234명 위촉
3. 26
• 노학동에서 이동시청 운영
3. 27
• 호텔 설악파크 준공
4. 1
•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으로 골목포장 등 59건 착수
4. 4
• 속초항 선원 흉어기 타개 대책회의 개최
4. 5
• 학사평 방풍림 조성사업 1ha 해송 등 1만본 식재
4. 10
• 재일교포 모국방문단 53명 래시
4. 15
• 신민당 강원 제4지구당 개편대회를 김영삼 총재 참석하에 거행, 위원장에 박경원 선출
4. 16
• 새마을지도자 및 연수원 수료자 초청 간담회
4. 17
• 김보성 부지사 초도순시
4. 19
• 호텔 설악파크 개관식 거행
4. 21
• 초속 42m의 강풍으로 23명의 사상자와 건물, 선박 피해 극심
4. 23
• 북괴간첩남파 규탄 범시민대회 개최
4. 28
• 속초시 수산물 건조인협회 결성
5. 1
• 제17회 법의날 기념식을 검찰지청 주관 거행
5. 3
• 속초시 할머니회 창립
• 속초시 체육회 임원선출
5. 5
• 대포동 소류지에 잉어, 붕어의 치어 5천마리 방류
5. 20
• 설악동 공무원 아파트 준공
5. 28
• 속초시 선주협회 주최 풍어제 거행
6. 6
• 영북지방에 가뭄극심 학생 등 동원 양수작업 전개
6. 12
• 대한교육공제회에서 도문동에 유

스호스텔 건립 기공식 거행

6. 14

• 제1회 코오롱스포츠기쟁탈 전국조기축구대회 개최

6. 15

• 설악동에서 한국 콘도미니엄 기공식 거행

• 정종택 농수산부장관 한해지역 시찰

6. 19

• 미스유니버스 80 서울대회 참가한 각국대표 중 2개조 13명 설악산 방문

6. 28

• 제3회 설악중학교장기쟁탈 국민학교 야구대회 개최

7. 1

• 속초교육청 주최 제2회 건전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개최

7. 4

• 시민안보단합 및 승공 강연회

• 제4회 영북지구 학생 태권도대회

7. 13

•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피해

7. 15

• 설악산 대청봉일대 쉬파리 박멸작전 전개

7. 19

• 간첩선신고 유공자 환영 및 시민반공 단합대회 개최

7. 20

• 속초 낚시회 주최 시민단합 낚시대회 개최

7. 23

• 국제 최고경영자 세미나가 설악파크호텔에서 열려 한 · 미 · 일관계자 50명참석

7. 24

• 재일교포 모국 방문단 40여명 래시

7. 25

• 청초호 항만 정화작업 전개

7. 29

• 속초시 퇴비증산대회 실시

8. 1

• 80상반기 자연보호유공 시상식 거행

• 최규하 대통령 설악산 시찰

8. 7

• 홍종욱 도교육감 교육청 순시

8. 10

• 김영진 부지사 초도순시 차 래시

8. 11

• 시정자문위원 및 정화위원 연석간담회에서 동방원양개발 윤원기사장이 전문대 설립의사 발표

8. 14

• 속초시청 직장사회정화운동 추진결의대회 개최

8. 19

• 지역사회정화 시민 결의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 20

• 오징어 대풍, 10년만에 덕장 부활

8. 21

• 검찰속초지청 직장 정화결의대회 개최

8. 26

• 속초시 학교정화운동 추진결의대회

9. 5

• 속초시 새마을운동전진대회 개최

9. 8

• 오징어잡이 어선 제2남진호 어부 18명과 함께 강제납북

9. 10

• 속초시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 시안 보고회

9. 11

• 향군 안보강연회

• 지역정화추진위원회에서 순화교육이수자 10명 취업, 4명 직업훈련원 입교 조치

9. 18

• 도시계획 상담실을 시청도시과에 설치 운영

9. 20

•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범시민대회
• 연안어족 증식사업으로 폐타이어 어초 50조 장사동 앞바다에 투하

9. 21

• 속초시 새마을 청소년회활동 촉진대회

9. 29

• 세계 관광의날 기념식을 설악동 C지구에서 개최

9. 30

• 조양파출소 신축청사 낙성식

10. 3

• 설악제 개막, 설악산 노인정에서의 산신제를 시작으로 등반대회 한시백일장 등 행사개최
• 산악인 정화결의대회를 시청광장에서 개최후 시가행진

10. 10

• 시내 청학동~교동간 유색보도브럭 교체

10. 14

• 새마을사업 88건 착공

10. 15

• 중앙시장연결 수협 진입로 확장공사 착공

10. 17

• 일복도서관을 영랑동 580번지에 건립 기공식 거행
• 성남, 북청실향민 장사동망향의 동산에서 위령제 거행
• 속초노인회원 97명 병영생활 1일입소

11. 10

• 도문동 하도문리 경지 정리사업 10.7㏊착공

11. 11

• 속초 경상전문대학 신축교사 기공식

11. 15

• 전두환대통령 속초어판장 등 시찰

11. 16

• 설악산 권금성을 문화재로 지정을 건의

11. 20

• 속초항 개항 45년 이래최고의 어획고를 기록하는 대풍어

11. 25

• 속초소방서 교동 신축청사로 이전

11. 30

• 고어선 16척 매입 1차로5척 어초로 투하

12. 5

• 속초고등학교 종합예술제를 5일간 농협속초지소와 중앙극장에서 개최

12. 10

• 80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대포동 전경강이 새마을 훈장 협동장 수상

12. 12

• 조양동사무소에 이동시청 개설운영

12. 13

• 장사동 객토사업장에서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석검 외 10여점 유물발굴

12. 15

• 흡인식분뇨차 처음 도입

12. 26

• 속초수협이 80년도 저축목표 13억 초과달성 대통령상 수상
• 속초수협 사상최고의 위판고인 130억원으로 전국 제1의 흑자기록

12. 30
• 장천리 제방공사 490m 노임취로 사업으로 완공

◆ 1981년
1. 6
• 교통부 주관 영동지방 관광업체 종사원 교육 실시
1. 7
• 속초시 요식업조합 마을금고 구판장 개장식 거행
1. 8
• 민한당 강원 4지구당 창당대회에서 허경구를 위원장으로 선출
1. 10
• 청초교 로타리 확장공사기공식 거행
1. 12
• 민사당 4지구당 창당 대회에서 김응삼을 위원장으로 선출
1. 17
• 수협진입로 개설공장 준공
1. 18
•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천연기념물 217호 산양이 설악산에서 발견
1. 21
• 유근창 한국토지개발 공사 사장 래시, 속초에 6만평 택지조성 분양 약속
1. 25
• 중앙극장을 철거하고 상가아파트 건립기공
1. 26
• 김성배 도지사 연초순시, 시민간담회 개최
• 장천천 제방 연장공사 540m 착공
1. 30
• 하수도 준설기 2대 처음 도입
2. 3
• 자연보호유공 표창수여
2. 4
• 공명선거 계도강연회 개최
2. 5
• KBS속초방송국이 제1방송을 제3방송으로 변경
2. 11
• 새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선거 실시, 1선거구 윤종구, 이광춘, 서동석, 2선거구 차진환, 최준규, 이영하, 김태영 당선
2. 13
• 국제반공연맹 속초시 지부 개설, 청학동에서 개관식 거행
2. 17
• 한국자원보존협회에서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 반대결의
2. 21
• 80년도 내무행정 역점 시책사업 시 · 군종합평가 결과 속초시가 최우수시로 내무부장관상 수상
2. 24
• 속초항 소속 제5삼강호(43톤)가 제주도 근해에서 화재발생 침몰, 1명 사망
2. 27
• 고 이달영 장례식을 속초시개발위원회장으로 엄수
3. 4
• 미시령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
3. 5
• 교동 천주교회에 교동 새마을 협동유아원 설립 첫 개원식 거행
• 조양동 유아원 건립 기공식
3. 9
• 장사동 시계 공원 조성 0.3ha 착공
3. 11

• 속초시 정책자문위원회 발족, 첫회의 개최

3. 14

• 김용걸 총무처장관 설악 관광단지 시찰차 래시

• 5선거구 국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를 속초중 교정에서 개최

3. 16

• 속초시 직장 새마을운동협의회 주최 새마을 전진대회 개최

3. 20

• 봄맞이 항포구 정화운동전개

3. 21

• 교동마을금고 2억돌파 기념행사 개최

3. 22

• 시내 가로 유색보도브럭부설 2차 공사(중앙동~청학동) 착수

3. 23

• 문명린 해운항만청장 래시, 속초항내 항만부지 시에 이관 약속

3. 24

• 설악산 입구에 시계탑 시설

3. 25

•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정재철, 허경구 당선

3. 28

• 속초경상전문대 개교

3. 31

• 도 사이클경기연맹 임원회의 개최, 윤기원을 회장으로 선출

4. 5

• 식목일행사로 각급기관단체별 지정 장소에서 식수작업

• 보광사 부근에 위치한 반공청년순직 5용사묘를 반공연맹속초시지부주관으로 화장후 보광사에 봉안

4. 12

• 제1회 자랑스런 속초시민대상 시상식을 속초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설악파크 호텔에서 개최

4. 15

• 박종문 도지사 초도순시 차 래시

4. 17

• 청탁풍조배격 시민결의대회 거행

4. 20

• 방효선 중부지방국세청장 속초세무서 순시

4. 28

• 학사평 자활정착민에게 분양한 농지, 새 지주출현 승소판결

5. 2

• 소풍후 귀가중인 속초여고생들을 태운 미니트럭 전복사고 1명사망, 13명 중경상

• 제4회 직장대항 친선축구대회 개최

• 미스강원선발대회에서 속초 장기옥양 선으로 선발

5. 7

•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 8

• 도내 국민학교장 연수회를 속초에서 개최

5. 13

• 강원일보사 주최 모자사생대회를 영랑호반에서 개최

5. 18

• 12년만에 5월폭설 설악산에 60㎝ 기록

5. 19

• 납북어선 제2남진호와 선원 19명 255일만에 속초항으로 귀한

5. 21

• 안보정세보고회를 시청회의실에

서 개최

5. 23

• 명성그룹 설악종합레저타운 기공식 거행

6. 3

• 윤자중 교통부장관 래시 항만, 도로, 속초공항, 명성레저타운 등 답사

6. 4

• 정무시 주한자유중국대사 속초경상전문대학에서 특강후 매년 우수학생 5명 자유중국 초청교류 약속

6. 5

• 제1기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출범

6. 10

• 방경원 중앙병무청장 이동징병서 순시차 래시

6. 14

• 전국 37개 도시를 대상으로 환경지표를 활용할 실태조사결과 속초시를 전국 3위의 살기좋은 도시로 서울대 양병이교수 발표

6. 15

• 속초고등학교 총동문회를 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하고 회장에 동문성 선출

6. 22

• 시내~장천리간 시내버스 운행시작

6. 28

• 약산약수회 속초분회 창립총회

7. 1

• 정준시 속초시장 부임 취임식

7. 3

• 속초 경상전문대학 제2본관 기공식

7. 9

• 상수도 송수관 2,167m 대체공사 완공

7. 11

• 청호동 파제벽공사 기공식 거행

• 박종문 지사 새마을운동추진확인 독려

7. 20

• 설악산에 성당건립축성 식 거행

7. 22

• 강원도주관 지방행정 연수대회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

7. 24

• 청초호 맑은물 보존운동으로 항만과 청초천 청소작업 전개

7. 28

• 한국능률협회주관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설악파크호텔에서 개최

• 23일 실종된 어선 영기호가 소련에 피납확인

8. 1

• 해녀와 잠수부, 전마선등을 동원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전개

8. 6

• 피납어선 영기호 소련 억류 12일만에 귀한

8. 15

• 해맞이 대청소운동으로 범시민 조기청소실시

8. 17

• 박종문 도지사 도문동 새마을사업장 방문 도토리묵 공장 설립 제안

8. 18

• 납북어부 송환 촉구 및 안전조업을 위한 북괴만행 규탄궐기대회를 수협위판장에서 거행

8. 19

• 남덕우 국무총리 한계령도로포장 준공식 참석후 래시

8. 28

• 속초시 화장장 고용인 김종필이 청와대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9. 3
• 동해안에 폭우 동반한 해일
• VTR시스템을 갖춘 새마을 교육관을 일복문화관에 시설 개관식 거행
9. 4
• 도내국민학교 축구대회를 3일간 개최
9. 5
•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속초시 협의회 발족 현판식 거행
9. 7
• KBS 속초방송국이 제3라디오에서 제2라디오로 방송 변경
9. 8
• 도내 국교축구대회 선수단 민박·가정주부 초청 오찬회 개최
9. 10
• 속초관내 기관단체장이 농어민 자녀장학회 발기, 첫 장학금 수여식 거행
9. 11
• 가을맞이 속초시 새마을 대예술제를 제일극장에서 개최
9. 28
• 제8회 세계관광의 날 기념식을 설악산 관광호텔에서 거행
• 속초전문대학 개교 1주년 기념 노학축전을 3일간 개최
• 강원도지사기 쟁탈 제1회 통일역전 마라톤대회를 속초-강릉구간 실시
9. 29
• 속초경찰서 교동파출소 준공식 거행
10. 2
• 조양 새마을 협동유아원 개원식 거행
10. 5
• 설악산 산사나이 유창서 자연보호 유공 국민훈장 수상
10. 7
• 새마을운동 활력추진시책으로 「貯·節·勞」 잘살기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 시작
10. 10
• 제16회 설악제를 2일간으로 기간 축소하면서 사상최대 규모로 13개종목의 다양한 행사 운영
• 설악제 행사의 하나로 합동 망향제를 6.25이후 30년만에 첫 거행
10. 12
• 신흥사 사천대왕상 봉안점안식을 국내 처음 거행
10. 16
• 외국무관단 42명 시청방문
10. 23
• 속초, 양양, 인제 3개 시군합동 설악산 자연보호작업을 박종문 지사 현장지휘로 대대적으로 전개
10. 27
• 수산자원 증식사업으로제7안동호 등 낡은 어선 8척을 인공어초로 투하
11. 4
• 속초해경 강원8호 경비정 취역식 거행
11. 6
• 속초교육청 산하 국민학교 민속경기대회 개최
11. 9
• 국회 국방분과위원, 농수산 분과위원 래시
11. 10
• 속초전문대학에서 주한화란대사 반덴버그씨 초청 학술 강연실시
11. 16
• 도문동 상도문1리와 설악동 C지구 연결하는 출렁다리 착공

11. 23
• 속초소방서 주최 불조심국교 웅변대회 개최
12. 2
• 수협진입로 연장공사 160m 준공
12. 4
• 속초경상전문대학 명칭을 속초전문대학으로 개칭 문교부 승인
12. 7
• 프랑스에서 날려보낸 비둘기 속초에서 발견
12. 17
• 장사동 어촌계에서 3.5t 관리선 건조 진수식 거행
12. 22
• 동명동 앞 해상에서 철광 화물선 제1동성호가 암초에 좌초 침몰
12. 29
• 명성그룹 국내최대규모의 콘도미니엄 200실 완공 준공식 거행
12. 30
• 금호동 연립주택 50동 완공

◆ 1982년
1. 1
• 정준시 속초시장을 비롯한 15개 기관단체장 군부대위문
• 전기통신공사 속초사업소가 속초우체국에서 분리 독립
1. 4
• 신년인사회를 속초시청회의실에서 개최
1. 5
• 정부의 통금해제 조치에 설악동 관광촌 반쪽혜택, 속초시 구역인 B지구는 통금해제되고 양양군 구역인 C지구는 미해제
1. 6
• 마을안길 포장 등 13개 새마을사업 착공
1. 7
• 설악산일대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 살포작업 실시
1. 12
• 아프리카 가나공화국 교민대표 김봉남이 모교인 영랑국교에 장학금 전달
1. 19
• 민정당 5지구당 창당기념식을 일복문화관에서 개최
1. 25
• 노후상수도시설 재원확보를 위한 속초시 상수도 공채 발행
1. 26
• 명성그룹에서 속초앞바다 조도에 해상호텔 건립계획으로 시유지 임대계약 신청
1. 27
• 권복경 도경국장 속초경찰서 순시
1. 28
• 전국 새마을관계관 연찬회를 시청회의실에서 3일간 실시
1. 30
• 속초시번영회 발기총회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 회장에 최재길씨 선출
2. 4
• 국립수산진흥원 속초어촌 지도소 설립 개소식 거행
2. 7
• 서울-속초간 DDD개통
• 속초시 저절로 잘살기 운동을 내무부에서 도시새마을수범사례로 채택 전국확산 결정
2. 10
• 설악산에 모노레일 설치를 속초시

번영회에서 건의

2. 11

• 반공연맹 속초지부 총회에서 지부장으로 박정일 선출

• 유네스코 본부에서 설악산을 6월부터 국제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 결정 통보

• 강달수 춘천지검 검사장 속초지청 순시

2월

• 도립속초병원부설 노인건강 상담실 개설운영

2. 17

• 김종수 수산청장 속초수협 순시 안전조업 상황실 설치 지시

2. 22

• 설악파크호텔이 특급으로 승격 인가 현판식 거행

2. 23

• 속초소방서 방화순찰 기동대 발대식

2. 25

• 속초전문대 학생 하숙방 알선창구를 각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반상회 홍보

2. 27

• 박종문지사 순시, 자연보호 수범지역 육성 등 지시

3. 3

• 중앙시장 개축 추진위원회 구성, 자금조성과 부지 매입 착수

3. 4

• 예총산하 속초시 사진작가협회결성, 초대 회장에 최이건 선출

3. 6

• 해운항만청에서 속초-포항-부산을 잇는 무지 개항로 부활 검토

• 설악산 대청봉 등산대 학생 3명 조난, 1명 동사, 2명 구조

• 봄철 자연보호활력화 다짐대회를 영랑호반에서 개최

3. 10

• 속초경찰서 주관으로 화투 및 불량만화 화형식 거행

3. 11

• 속초문화원 정기총회에서 김종록을 원장으로 선출

3. 12

• 장사동 우렁쉥이 시험양식 수중조사결과 적지로 확인

3. 16

• 속초권행정협의회를 명성 종합휴양지 회의실에서 개최, 관광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 등 협의

3. 19

• 대한교원공제회 설악 유스호스텔 개관식 거행

• 설악산 관광촌 상복2리지역을 통금 추가해제

3. 21

• 속초시내 전화 국번신설

3. 22

• 속초시 정화추진협의회 주관 3대 부정심리추방 다짐대회 개최

3. 24

• 속초시 도시새마을 촉진대회 개최

• 미 웨슬리언 대학장을 속초 전문대에서 초청 특별 강연회 개최

3. 25

• 속초시와 수협 공동주관으로 항포구 정화운동전개

4. 8

• 속초시가 지방세 징수, 공유재산관리, 새마을운동 추진 등 3개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 5천만원의 특별사업비 수상

4. 9
• 도 농아복지회 창립대회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조양동에 사무실 마련 현판식 거행
4. 10
• 설악동 한국콘도미니엄 객실 49개 개관
4. 11
• 속초수협 창립 20주년기념 어민체육대회 개최
4. 14
• 시관내 영세민 92세대 초청 간담회 개최
4. 17
• 속초와 인천에 수협 종합어로상황실 설치
4. 18
• 설악산관광단지 숙박업소 및 상가 자율방범대 조직
4. 22
• 안보정세보고회를 도지사 주재하에 설악유스호스텔에서 개최
5. 5
• 시관내 영세가정어린이 초청 다과회 개최
5. 8
• 재향군인회 속초시연합분회주관 의식개혁추진 향군결의대회 개최
5. 10
• 관내 65세 이상 노인과 시 직원간 자매결연
5. 14
• 속초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개최
5. 22
• 속초전문대학과 노인회 주관으로 속초국교 강당에서 노인대학 개설 개교식 거행
5. 26
• 속초 전문대학 부설 주부시민대학 개설
5. 27
• 춘천지검 속초지청 주관 청소년 위안잔치를 시청구내식당에서 개최
• 직장새마을운동 협의회에서 노학동에 양묘장 설치운영
6. 3
• 어린이 질서계도반 발대식 거행
6. 7
• 해난사고예방 어민교육을 수협위판장에서 실시
6. 11
• 동해어로보호본부에서 7개수협 관계자 안전조업대책협의회 개최
6. 13
• 속초시 정화추진협의회주관으로 7쌍의 합동결혼식 거행
• 양식 치구에 피해주는 불가사리 구제작업 착수
6. 19
• 속초문화원 주최 제5회 한시백일장을 속초국교 강당에서 개최
6. 20
• 연풍사 목조관음불상 점안식 거행
6. 22
• 한국 마칼루 학술원정대 대원 11명이 노루목고개 10인동지묘소를 참배 歸告式 거행
6. 24
• 전국상설새마을학교 지도교원 연찬회를 설악유스호스텔에서 3일간 실시
6. 25
• 반공연맹 속초시지부 주최 반공재무장 실천대회 개최

6. 26
• 속초시에서 영세민자녀기능훈련으로 취업알선 장기대책 마련
6. 28
• 관광종사원 104명에 대한 서비스 개선 교육을 22일간 실시
7. 1
• 6.25일 실종된 제7협동호 선박은 화재로 침몰되고, 선원 27명은 구명벌에 승선 142시간 표류 끝에 구조
7. 7
• 속초전문대학 학도 호국단 주최 제1회 영북종합예술제 거행
7. 8
• 청학동 착한유아원과 동우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도립속초병원 자매결연 체결
7. 13
• 어선 제5마산호 선원 35명과 함께 북괴 초계함에 의해 납북
• 동해조업어선 귀항령
7. 19
• 북괴만행규탄 강원 도민궐기대회를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거행
• 속초항에서 어민궐기대회 개최후 어선단 선박시위 실시
7. 20
• 동방원양개발(주) 영랑호레저타운의 방갈로60채 건립 기공식 거행
• 한국 반공연맹주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대학생 반공서클 하계수련대회를 유스호스텔에서 3일간 개최(120명)
• 속초시 주관 반공강연회를 속초해수욕장에서 거행
7. 23
• 강원일보사 주관 설악권개발연구협의회 개최
7. 24
• 속초항 소속 105척 출어선 안전조업다짐 무선결의대회 실시
7. 25
• 속초시 여반장단 탄광촌막장 견학 실시
7. 30
• 김종수 수산청장 속초수협에서 어민 간담회 개최
8. 7
• 유암문화재단 설립 동명동 재단사무실 현판식 거행
• 강원도 외국인 홍보마을인 상도문리앞 쌍천에 조교 준공
8. 11
• 주민출자로 설립된 속초여객 출범
8. 12
• 직장새마을운동 협의회에서 각계의 지원으로 휴지통 200개 설치
•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회 간부 수련대회를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하고 일본 교과서 왜곡사건 규탄궐기대회 거행
8. 13
• 안전조업의식 고취 선주특별교육 실시
8. 20
• 척산 종합온천센타 건립기공식 거행
8. 22
• 명성그룹 종합휴양지 진입로 완공, 시에 기부채납
8. 24
• 신흥사 앞 세심천 계곡에서 청동불상좌상 발견
8. 25
• 오징어잡이 어선 행덕호대흑산도 앞 해상에서 침몰, 선원 전원구조
8. 27
• 13호 태풍 '엘리스' 호 북상으로 목

우재도로, 교량유실, 시가지 침수 등 피해

8. 30

• 설악산 수학여행온 여학생 40명 집단 식중독

• 노태우내무부장관, 김동호 건설부장관 수해지역 시찰

9. 1

• 한국산업은행 주최로 제19기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설악파크호텔에서 개최

9. 2

• 대화퇴 출어 어선 선장교육을 수협회의실에서 실시

9. 7

• 도내 여성지도자 연찬회를 유스호스텔에서 3일간 개최

9. 9

• 영랑호 잉어 원인모를 떼죽음 발생

• 속초전문대학 부설 제2기 주부시민대학 개강

9. 13

• 영북지역 수렵강습회를 일복문화관에서 실시

9. 16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주최 종교인 통일문제 간담회를 3일간 설악파크호텔에서 개최

9. 18

• 설악권 4개시군 자연보호회에서 대청봉 쓰레기하산작업 실시

• 강원도내 약업인 연수교육을 뉴설악 호텔에서 개최

9. 19

• 외국인 홍보마을 상도문리 복지회관 및 유아원 개원식 거행

9. 20

• 태풍 엘리스호로 유실된 목우재도로 복구 개통

9. 21

• 속초선주협회 중심으로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수입 저지운동 전개

9. 25

• 김성배 지사 등 도단위 기관장 일행 대청봉에서 자연보호운동 전개

9. 27

• 납북어선 제5마산호 억류 78일만에 선원 35명과 함께 귀환

10. 5

• 자연보호헌장 선포 4주년 기념식

• 속초전문대학 제2회 노학축전 개막

10. 8

• 제17회 설악제 개막, 3일간 18개 종목의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개최

10. 13

• 한국부인회 시도지부장연수회를 설악유스호스텔에서 2일간 개최

10. 17

• 유암문화재단 창립 첫 장학금 수여식

10. 22

• 속초교육청 주최 제3회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10. 25

• 북괴의 무장도발규탄 강원도 어민대회가 7개시 · 군 어민참가하에 속초공설운동장에서 개최

10. 26

• 연안 인공어초 500개 투하

10. 29

• 속초지구 해양경찰대 경비함 태백호 · 설악호 취역식

11. 4

• 교동에서 도사견 새끼21마리 낳아 다산기록 화제

11. 6
• 영서지방 솔잎혹파리 발생, 설악산 확산위협으로도 방제계획 마련
• 도체육회에서 시 · 군 육성종목 지정, 속초시는 배구종목 안배
11. 10
• 동해안에 격량으로 동명동 방파제 유실 등 피해
11. 11
• 속초항 기선저인망어선선원들 뒷방고기 없애기 결의
11. 13
• 체육진흥기금 모금을 위한 제1회 속초시민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수복탑~온정국교구간 실시
11. 17
• 김형배 지사 순시 수해복구사업 치하
11. 25
• 중앙마을금고 회관 준공식 거행
11. 27
• 바다의 무법자인 무허가저인망어선 40척 어업 전환으로 부정어로 근절
11. 30
•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12. 1
• 난류대 북상으로 42년만에 정어리, 방어 풍어

◆ 1983년
1. 1
• 한국전기통신공사 속초사업소가 속초전신전화국으로 승격
1. 4
• 신년인사회를 속초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설악유스호스텔에서 개최
• 시에서 해안빈지 133필지 지목과 지번 설정하고 개인점유지 임대료부과
1. 12
• 속초시새마을지도자 대회를 대원극장에서 개최
1. 13
• 설악권행정협의회에서 산불공동진화, 순환관광 코스 등 협의
1. 14
• 정재철의원 귀향보고회를 제일극장에서 개최
1. 17
• 양양군 번영회에서 경찰서와 교육청 독립신설 청원
1. 18
• 속초선주협회 총회에서 신여수를 회장으로 선출
1. 21
• 예비군 대간첩대책유공부대로 속초시 교동대가 대통령표창 수상
1. 22
• 민정당 5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정재철 국회예결 위원장을 지구당 위원장으로 재선출
1. 24
• 명성그룹 제2콘도 750구좌분 건설발주
1. 28
• 도내처음 선원의료보험조합 발족
• 설악산 울산암 서북쪽에 산불발생 2ha를 태우고 3시간만에 진화
1월
• 연극협회 속초지부 창립
2. 5
• 충정장학회 장학금 전달
2. 7
• 사회정화 속초시협의회 총회개최, 분과위원회와 이사선임
2. 10
• 속초시 수협 도내 첫 어민봉사실

개설 운영

2. 15

• 양양군 상복2리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속초시 편입

• 속초시 주관 접객업소 서비스개선 새마을합숙 교육 개시

2. 17

• 속초상업고등학교 도내최우수 새마을교육 시범학교로 선정 수상

2. 18

• 속초지역 경제개발 연찬회를 강원일보사 주관으로 개최

• 속초항 방파제 91m 축조사업 착공

2. 21

• 직장새마을협의회 총회개최, 윤종구회장 유임과 지정벽보판 50개소, 양묘장 운영 등 계획 확정

2. 26

• 속초시청 등 16개 단체항포구 정화작업 실시

2. 28

• 마을금고 연합회 산하 3개 금고 장학금 전달

3. 5

• 김형배 지사 연초순시, 우회도로개설 2년내 완료 지시

3. 8

• 청학동 금강아파트 준공

3. 17

• 귀순용사 김태욱 안보강연회 개최

3. 20

• 명성 종합휴양지 위락놀이시설 18종 착공

3. 24

• 강원지역 헌혈자 대상B형 간염조사 결과 속초지방 8.9%로 발표

• 설악산 솔잎혹파리 박멸대책회의 개최

3. 25

• 영북지구 함남 도민회 장학금 전달

3. 26

• 속초수협 총대회의 개최 이사 5명 선출

4. 6

•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계획 워크숍을 설악산에서 3일간 실시

4. 7

• 세계 생물권 보존지역 설정 기념비 제막식을 설악산 소공원에서 개최

4. 12

• 신임 김광용 시장과 전임 정준시 시장 이취임식거행

4. 18

• 명성그룹에서 도내 첫 수영실업팀 창단

4. 19

• 마을금고 속초시지부에서 중앙마을금고 2층에 독서실 개관

4. 22

• 설악관광 케이블카 태권도팀 창단

4. 25

• 영랑~교동간 우회도로 2구간(동명버스주차장~공설운동장로터리)포장 공사 700m착공

4. 27

• 동명동 수복탑이 강풍으로 파손

4. 29

• 속초수협주관 풍어제 거행

• 한국문인협회 제14회 심포지엄을 설악파크호텔에서 개최

• 83미스강원선발대회에서 속초출신 이우숙양이 미로 선발

5. 4

•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 7
• 강원일보사 주최 모자사생대회 개최
5. 11
• 육군 5861부대장병 설악산 쓰레기 수거작업 실시
5. 12
• 피납 중공여객기 인수중공기술진 12명 설악산관광
5. 17
• 설악동 C지구 관광버스만원, 하루 200여대
5. 19
• 국가대표선수선발 전국요트대회를 속초해수욕장에서 4일간 거행
5. 21
• 천연기념물 329호인 설악산 반달곰 밀엽사건 발생
5. 26
• 일본에서 발생한 강자영향으로 동해안일대 지진성 해일이 발생 가옥, 선박등 피해
• 제7회 공원관리세미나를 뉴설악호텔에서 개최
5. 30
• 김종수 수산청장 속초수협방문, 7월부터 대화퇴어장 출어허용 약속
• 상업은행 속초지점 행원 은행공금 횡령 도주
6. 4
• 설악산 반달곰 밀엽사건 범인 자수
6. 5
• 이희성 교통부장관 속초항, 비행장, 설악산 등 답사후 국제공항건설 약속
6. 6
• 설악산 봉정암부근 산불발생, 7ha의 피해를 입히고 28시간만에 진화
6. 10
• 사회정화추진협의회 총회 개최
6. 10
• 설악산 반달곰 웅담을 서울 창경원에서 공개 입찰 4,600만원에 매각 처분
6. 16
• 대입학력고사고사장을 속초에 추가 설치 결정
6. 17
• 속초경찰서 주관 불우소년과 지역유지 각 7명 부자 결연식 거행
6. 18
• 도립속초병원 전문의 5명 확보, 병원발족이후 처음 5개과목의 종합병원기능 확충
7. 5
• 명성그룹에 대한 국세청세무조사 착수
7. 6
• 신흥사 조현영 주지 해임을 반대하는 신도 및 말사주지 협의회 구성
7. 11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김혜법 규정국장을 신흥사 주지로 임명
7. 12
• 前 속초읍장 정주벽 옹 별세
7. 13
• 남북이산가족찾기 신고접수창구 설치운영
7. 26
•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청호국교에서 3일간 개최
8. 6
• 신흥사 신 · 구주지분쟁가처분사건 공판에서 신임주지 권한 인정
8. 8
• 신임 신흥사 주지 부임길에 사찰

입구에서 승려간 패싸움으로 승려 1명 사망, 6명 중경상

8. 17

•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 구속

8. 29

• 명성사건 관련 공무원 구속발표

9. 2

• 수복탑복원 기공식 거행

9. 7

• 소련만행규탄 속초시민 궐기대회 개최

9. 14

• 신중철귀순용사 환영대회 및 안보강연회를 대원극장에서 개최

• 속초시 사회정화협의회 주관 가을맞이 친절봉사 결의대회 거행

• 명성 설악레저타운 체불노임 해결

9. 16

• 속초전문대학 교명을 동우전문대학으로 변경

• ASTA총회 대비 설악산입구에 교통신호등 첫등장

9. 23

• 제53차 미주여행업 협회(ASTA) 총회에 참석차 내한한 회원 일행 설악산 방문

9. 30

• 제18회 설악제 행사를 3일간 거행

10. 14

• 아웅산 암살폭파 만행 속초시민 규탄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거행

10. 20

• 언론중재위원회주최 전국 언론인 세미나를 설악파크호텔에서 개최

• 학사평 정수장 확장공사 착공

10. 22

• 단풍철 자연보호운동을설악산에서 전개

10. 26

• 설악산 경찰산악구조대발대식 거행

10. 31

• 설악산 솔잎혹파리 비상긴급방제 실시

• 청학동사무소 신축 준공

11. 1

• 해양경찰대 주관 해상질서저해사범 합동단속개시

11. 13

• 속초앞 해상에서 어선 제11형성호 암초에 부딪쳐 침몰, 어부 1명 사망 1명 실종

11. 15

• 한국농아복지회 속초지부 폐품수집부와 근로부등 자활대조직 발대식 거행

11. 16

• 속초시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제일극장에서 개최

11. 17

• 제1회 속초시민의 날 행사로 동별 대항체육대회 등 3일간 개최

• 속초 수복기념탑 복원 준공 제막식 거행

11. 20

• 속초시 분뇨종말처리장기공식을 대포동 현지에서 거행

11. 23

• 속초소방서 주관 불조심주관행사로 웅변, 글짓기, 표어, 포스터대회와 불조심 장학금 전달

11. 29

• 속초국교 여자 농구부 도대표팀 결단식

12. 12

• 농토배양사업 연시회를상도문2리에서 개최

• 외국인 홍보마을인 상도문1리 한국개량 17동 준공식

12. 21

• 영해 침범한 일본 게잡이 어선 1척을 해경에서 나포 예인

12. 23

• 13년만의 장기 흉어로 시관내 7개 중고교 등록금 납부연장을 위한 방학 연학 연기조치

12. 27

• 양종석 시장 부임

12. 29

• 속초경찰서가 올해의 우수경찰서로 선정되어 이해구치안본부장 표창 수상

• 허웅도경국장 속초경찰서 순시

12. 30

• 2일간 영동지방 폭설, 설악산 140㎝적설

◆ 1984년

1. 1

• 시내일원 제설작업 실시

1. 10

• 평통속초시협의회 주관시민화합과 통일기반구축 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 조양동 동부고속터미널 준공

1. 11

• 적설기 야생조수 보호운동으로 먹이살포 실시

1. 15

• 손수익교통부장관 명성설악레저타운 답사, 건설공사 재개계획 언급

1. 16

• 시민출자로 출범한 속초여객이 운영난으로 매각처분

1. 19

• 김상준도교육감 속초교육청 순시, 학생체육관 보수 등 약속

1. 23

• 속초, 고성, 양양 3개시군 합동으로 민간인새마을 합숙교육을 설악뉴스호스텔에서 1개월간 실시

1. 25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연합회를 신흥사에서 개최하고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신흥사운영권을 인계 건의 결정

1. 28

• 충정장학회 2차장학금 전달식

2. 8

• 김형배 지사 속초순시

2. 18

• 새론어린이교육협회 주관 유아교육세미나 개최

2. 23

• 겨울철새 흑고니 악천후로 탈진 속출

2. 25

• 속초시 이달의 우수공무원과 우수반 시상제 실시

2. 28

• 이은수 수협중앙회장 속초수협 순시

• 대한간호협회 대의원 총회를 설악유스호스텔에서 개최

• 시관내 사회단체장 안보간담회에서 범시민 방위성금모금 결의

3. 5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속초시지회 주최 새마을운동추진 및 안버리기 결의대회를 제일극장에서 개최

• 속초해수욕장 등 영동 7개시·군 시범 해수욕장 직영 결정

3. 15
• 동해어로보호본부 주관 안전조업 대책회의 개최
3. 17
•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속초시민 결의대회 개최
3. 20
• 명성설악레저타운 건설공사 재개
• 교동 택지조성사업 13,000평을 시비투자 착공
3. 23
• 설악산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조경수 반입금지조치
3. 26
• 한국청소년연맹 속초지구 협의회 결단식
• 사회정화협의회 주관 질서 자율실천 결의대회 개최
•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2,300m착공
3. 27
• 새마을운동 속초시지회 개청
4. 10
• 속초시 지역대책협의회주관 관광지 정화협의회 구성 운영
• 설악산 육담폭포 출렁다리 붕괴
4. 17
• 김형배지사 국립공원 및 우회도로 공사 등 순시
4. 23
• 속초여자고등학교 교동 신축교사(33개교실) 기공식 거행
4. 25
• 속초수협 오징어 건조 정품만들기 운동 전개
5. 3
• 속초시 축산업협동조합창립총회 개최
5. 5
• 법정관리중인 명성 설악레저타운의 어린이 놀이시설인 스타월드 개장
5. 11
• 속초시 새마을 방범봉사대 발대식을 일복문화관에서 개최
5. 22
• 속초소방서 마련 불조심장학금 수여식 거행
5. 31
•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비 3개마을 45가구에 4,500만원 지원
• 대포항 앞 정치망에서 9m짜리 대형 물치가 잡혀 화제
6. 9
• 조양동에서 농약중독 왜가리 1마리 발견 보호
6. 13
• 청호동 파제벽 142m 공사 기공식 거행
6. 15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주관 제6회 자연보호세미나를 뉴설악호텔에서 2일간 개최
6. 20
• 제19회 도민체전을 영동 6개시·군에서 분산 개최
7. 1
• 청소차량 청소부 빨래줄에 걸려 추락 사망
7. 3
• 선진관광 질서정착을 위한 속초, 고성, 인제 3개 경찰서 지파출소장 결의대회 개최
7. 6
• 동우전문대학과 강원일보지사 공동주최로 경로대잔치를 제일극장에서 거행

• 향토발전을 위한 전국 지방신문편집국장 토론회 개최

7. 10

• 속초해수욕장 시직영 개장유원지 질서확립 결의대회 개최

7. 21

• 제7회 도태권도대회에서 속초시 종합우승

7. 25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주최 최고경영자 심포지엄을 설악동에서 개최

7. 27

• 명성설악컨트리클럽 (골프장) 개장
• 유치송 민한당 총재 속초방문, 명성시설의 국가관리 의견 표명
• 제6회 해변시인학교를 영랑국교에서 개교, 4일간 운영

7. 30

• 손수익 교통부장관 래시,명성을 국민 휴양지로 개발 언급

8. 5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제11회 조국순례대행진을 온정국교에서 발대식 후 출발

8. 7

• 속초 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8. 20

• 설악산 자연자원 생태조사를 한국자연보존협회에서 착수, 세계적인 희귀식물 분홍산 구절초, 금강초롱 군락지 등 발견

8. 21

• 집중호우로 불어난 쌍천계곡에 야영객 등 87명고립, 긴급구조작전을 전개하여 전원 구조

8. 23

• 10호태풍 홀리호의 영향으로 해안방파제 등 유실

9. 2

• 속초지방에 1일동안 폭우 511㎜ 내려 우리나라근대 기상관측 제도이래 사상최고 기록

9. 2

• 대포동 일대 26차례의 산사태로 사망 7명, 중경상 7명, 가옥전파 21채, 반파 65채 등 재난

9. 4

• 대포동 산사태로 숨진 7명의 합동장례식을 마을회관에서 거행

9. 5

• 민한당 수해조사단 일행방문 수해복구 격려

9. 13

• 도 수해피해주택 보구계획 마련, 대포동 48가구 집단이주 결정

9. 14

• 김성배 건설부장관 수해피해현장 시찰

9. 15

• 속초향군회관 준공식 거행

9. 17

• 제6회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 강원도 예선대회 개최

9. 25

• 군과 공무원, 기관단체합동 설악산 오물수거작업 전개
• 속초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시장을 7일간 개설 운영

10. 1

• 제19회 설악제를 제2회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민속가장행렬 등 시민축제 행사로 승화시켜 3일간 개최

10. 7

• 세계 보이스카웃연맹 라슬로나기 사무총장 세계잼버리대회 후보지로

물망에 오른 신평리 답사

10. 17

• 시 건축계장 등 2명 뇌물 수수관련 입건

10. 19

• 김주호 신임도지사 래시,수해복구 주택 월동전에 입주추진 지시

11. 5

• 강원도 주관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비상탈출훈련 실시

11. 11

• 제2회 강원도 초·중학생 주산경기대회를 속초상공회의소 주관 실시

11. 22

• 어선 표지판 일제 정비조치

12. 6

• 다대포 무장간첩 노획장비와 북한주민 생필품 등 전시회를 수복탑광장에서 개최

12. 10

• 도지사기 쟁탈 중고 축구대회에서 속초중 우승

12. 12

• 속초시청 철쭉회 주관시 봉사원 85명 위안잔치를 유스호스텔에서 거행

12. 21

• 설악동과 도문동을 잇는 도문교 기공

12. 27

• 주영복 내무부장관 래시,미시령도로 확·포장 사업을 86세계은행 차관 사업으로 추진 약속

12. 28

• 분뇨위생처리장 준공

• 청학가로, 번영로(우회도로), 수해복구 외옹치 집단이주사업 완공

12. 31

• 한국방송공사 속초방송국에서 지역봉사상제정 시상식 거행

◆ 1985년

1. 4

• 속초상공회의소 주최 신년인사회를 설악유스호스텔에서 개최

1. 7

• 강추위 계속으로 속초내항 청초호 결빙, 수협과 해경에서 선박출입을 위한 쇄빙작업 전개

1. 11

• 신한민주당 5지구당 창당대회에서 최정식을 위원장으로 선출

1. 17

• 도내 학교경영사례 발표회를 23일까지 유스호스텔에서 개최

• 김상준 교육감 속초에 고교전용 체육관 건설 등 언급

• 도문동 김근수, 김종우 가옥이 강원도 문화재 자료 및 유형문화재로 지정

1. 22

• 오징어잡이 어선 제15흥양호 일본 영해 침범 일본에 억류

1. 28

• 통장단 시정보고회 개최

• 도내 사회정화협의회장 간담회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

1. 30

• 이은수 수협중앙회장 속초수협 순시

2. 2

• 정연세 해운항만청장 래시, 속초항 근대화계획 언급

• 교동 택지 진입로 450m개설공사 기공식

2. 5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건 기공식

• 장사국도 확포장공사 착공

2. 9
• 국가안전기획부와 대간첩 대책본부에서 북괴선박 신고 유공으로 제33태창호 선장 및 선원 포상
2. 10
• 폭설, 설악산 대청봉 적설량 120㎝ 기록
2. 12
• 1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정재철, 허경구 후보당선
2. 21
• 설악산 토왕성 폭포밑 캠프에서 눈사태로 빙벽 훈련 산악인 3명 참변
2. 25
• 동우전문대 한상갑 학장 퇴임식
2. 27
• 속초항 북방파제 연장73m, 남방파제 2m 축조공사 착공
3. 6
• 시민질서 자율실천결의대회를 속초여고 교정에서 개최하고 개인택시를 선두로 시가행진 실시
3. 18
•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설악산 비룡조교 교체공사 착수
3. 21
• 김영진 지사 초도순시
3. 29
• IBRD 및 IMF총회 대비 강원도 관광개발 실무자 교육 실시
3. 30
• 설악산과 금강산 공동개발 용의를 이세기 통일원장관이 발표
• 전국토 공원화운동 시민촉진대회 개최
4. 1
• 속초 – 서울간 여객기를 75인승 F-28 제트기로 운항 개시
4. 3
• 속초 – 부산간 항공로선개설 및 축하 사진전시회 개최
4. 11
• 법원과 검찰지청간 친선체육대회 개최
4. 14
• 통일염원 제2회 전국 새마을 사이클 대행진을 공설운동장에서 설악산 구간 실시
4. 15
• 속초지역 소년선도위원회를 검찰 속초지청 회의실에서 개최
4. 22
• 박쥐 85훈련을 4일간 실시
4. 24
• 전국 부설새마을학교 지도자 연찬회를 3일간 유스호스텔에서 개최
4. 25
• 속초여고 신축교사 준공식 거행
5. 4
• 직업청소년 야간학교를 청학동사무소에 개설 운영
5. 18
• 체육진흥기금 모금을 위한 속초시민 걷기대회 개최
5. 31
• 속초시 지역발전 간담회를 강원일보 속초지사 주관 개최
6. 1
• 시 상부상조은행 설치운영 개시
6. 3
• 전국체전 도대표선발 럭비풋볼대회를 공설 운동장에서 개최
6. 13
• 제3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21개시·군 출연하에 2일간 개최 속초산대놀이가 종합우수상 수상

6. 15
• 어린이회관 합창단 순회발표회 개최
6. 23
• 속초시와 미국 그레샴시 자매결연 조인식을 양대표단 참석하에 시청회의실에서 거행
7. 7
• 속초지역 방위협의회, 평통위원, 금요회회원 등 60여명 독도경비대 위문
7. 10
• 여름철 대학생 봉사대 발대식을 경찰서에서 거행하고 운영 시작
7. 12
• 전국 시도 사회정화추진협의회장 간담회를 뉴설악호텔에서 개최
7. 19
• 스카웃 세계총회에서 91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를 신평리로 결정
7. 29
• 속초시 노인회관 건립 기공
8. 4
• 영북지방 피서객 30만명 몰려 사상 최대인파 기록
8. 8
• 강원지역 노사협조 전진대회를 조철권 노동부 장관주재로 설악산 야영장에서 개최
8. 10
• 피서지 일제 대청소운동 전개
8. 12
• 개인택시 부제에 집단 항의 농성
8. 15
• 동방원양 회장 아들집에 살인 강도사건 발생
8. 27
• 청초호 물고기 떼죽음 발생
9. 7
• 법정관리중인 정아그룹(구, 명성)을 한국화약 그룹에 인수합의 발표
9. 9
• 정재철 정무장관 귀향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 영랑동 파제벽 시설공사 기공
9. 13
• 신흥사 보제루가 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
9. 18
• 제5회 도지사기쟁탈 통일역전마라톤대회를 속초-강릉 구간 실시
10. 1
• 제20회 설악제 개막, 전야제를 비롯 15개 행사를 3일간 거행
10. 5
• 신흥사 주지 취임을 둘러싼 분규가 양측의 화해 성명 발표로 종식
10. 11
•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지도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
10. 13
• 지방공사 속초의료원 신축청사 기공식 거행(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공사비 16억9천만원)
• 유암문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장학금 전달
10. 23
• 오징어잡이 어선 진영호가 일본선박과 충돌사고로 선장 중태
10. 25
• 대한항공이 속초~일본나고야간 부정기 항로개설, 첫 여객기 속초비행장 도착
• 제2회 영동 연합사진전 개최
• 관광지 택시운전사 명예관광안내원제 실시

11. 1
• 속초지역 85불조심대회를 속초소방서에서 개최
11. 7
• 제11차 안보정세보고회 개최
11. 8
• 도내 중고생 예능실기대회를 도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속초중학교에서 거행
11. 11
• 교통부 속초비행장 확장준공식 거행, 청사 관제탑 및 활주로 연장공사 등 39억원 투입 완공, 손수익 교통부 장관이 국제공항으로 개발계획 언급
11. 16
• 속초시 새마을금고 창립10주년기념식 및 자산 10억돌파 자축회 개최
11. 21
• 제2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을 동방호산 영랑정에서 개최
11. 24
• 노학동장 최동환이 추곡수매 후 귀가도중 교통사고로 순직
12. 4
• 속초개인택시 협의회 운전사 1백여명 택시부제조정요구를 위한 파업 8시간만에 정상복귀
12. 11
• 속초 노인회관 준공
12. 12
• 강인석 목각공예와 이홍규 한국화 공동전시회 개최
12. 14
• 조양동 1통해안 주택 6동 파도에 의해 전파, 15가구 67명 대피, 속초항 북방파제 연장 축조 영향으로 분석
12. 16
• 속초시 방위협의회 개최
12. 19
• 지방행정동우회 정기총회
12. 21
• 직업청소년 위안잔치를시청회의실에서 개최
12. 22
• 도문동과 설악동 연결하는 도문교 준공식
• 조양동 해안지대 파제벽 370m 기공식
12. 24
• 시 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위문
• 소년가장 20명 각계 성금품 전달
12. 27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운영평가회
• 속초시 상조은행 창구 접수 성금품을 불우가족 노인에게 전달
12. 28
• 시정자문위원회 개최

◆ 1986년

1. 4
• 속초시 신년인사회를 상공회의소 주최로 영랑정에서 개최
• 영북지방 영하 15 °C 안팎의 한파 계속
1. 10
•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속초항 남방파제 축조 194m 등 86 항만개발 계획 확정
1. 13
• 김상준 도교육감 속초교육청 순시
1. 16
• 시내 N내과에서 감기환자 주사 맞은뒤 갑자기 절명한 사고발생
• 새속초로타리클럽 창립

1. 17
• 도내 중고교 경영우수사례 발표회를 설악유스호스텔에서 2일간 개최
1. 19
• 동명항에서 길이 15m, 무게 5t의 거대한 물치가 잡혀 화재
• 국립공원구역내인 달마봉과 구복암 중간에 산불 발생, 1시간만에 진화
1. 21
• 9년만에 大폭설, 영북지방 적설량 75㎝
1. 22
• 30여년만에 청어 大풍어
1. 28
• 김영진 지사 연초순시, 아시아경기대회대비 관광객맞이 준비 당부
1. 31
• 설악산에 객석 400석의 소극장 운영계획을 서울 선영비디오상사에서 시에 제출
• 폭설로 속초 40㎝ 적설
2. 1
• 법인택시 6부제운영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4부제 운영으로 전환
• 속초경찰서 주최 동계 대학생 봉사대 간담회
2. 1
• KBS 춘천취재팀 설악산에서 산양 추적 2주만에 촬영성공
2. 10
• 대한지적공사 속초출장소 청사준공
2. 12
• 김상조해경대장 속초지구해경대 순시
2. 20
• 대한적십자사 설악산악구조대 발대 10주년 기념식 거행
2. 23
• 속초문화원 주최 영북지구 연날리기대회를 영랑동 서낭당 뒷산에서 거행
2. 28
• 동명방파제에서 정치망끌어올리던 어부 4명 파도에 휩쓸려 사상
3월
• 척산 온천지구와 체육공원지구로 구분 종합개발계획 확정
• 설악산에 민자포함 224억원 투자하는 강원도 관광개발계획 확정
• 전국토공원화운동 2년째 꽃길조성 6개노선 23㎞ 1백만송이 식재계획 수립
• 향토수림대조성사업 헌수창구에 각계 성원답지
• 손님맞이 새마을운동 추진 계획 수립 시행
3. 25
• 윷놀이 반상회 시범운영132개반
3. 28
• 교통부에서 강릉-속초간고속도로 89년착공 93년 완공계획 마련
• 속초 학무정일대를 자연보호를 위한 행락통제지구로 도 지정
3. 29
• 설악문화재단 장학금 전달
4. 6
• 제3회 강원 연극제에서 연극협회 속초지부가 최우수상 수상
4. 12
• 속초청년회의소 창립 17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장천마을과 속초경찰서 전경대와 자매결연
4. 14
• 40년만의 강한 냉수대로 동해안 불황

4. 29
• 신민당 5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새 위원장에 허경구의원 선출
4. 30
• 동거부부 13쌍 합동 결혼식을 뉴 설악호텔에서 거행
5. 6
• 설악제위원회에서 제21회설악제를 아시안 게임 성화봉송맞이 축전으로 9.14부터 4일간 개최결정
• 속초시내 운전사, 안내양의 교통안전결의대회를 시청회의실에서 거행
5. 8
• 순간 최대풍속 33.4m의 강풍 엄습, 각급학교 임시휴교
5. 10
• 이상기온으로 설악산 영하 6 ˚C, 대청봉에 6.2㎝ 강설량 기록
5. 14
• 속초 · 양양지방도정보고회를 일복문화관에서 거행
5. 15
• 속초시 하수도사용료 적용 개시
5. 15
• 명성사건으로 물품대금미수된 영세납품업체 15명 한국화약측에 변제 촉구
• 동우전문대학 제1회 치위생과 가관식 거행
5. 16
• 정재철 정무장관 귀향 보고회를 영랑정에서 개최
5. 17
• 속초 공공도서관 개관식
5. 18
• 미시령도로 확 · 포장공사착공(총 25㎞중 용대리~정상간 8㎞년내 완공)
5. 21
• 속초수협 풍어제 거행
• 김일권 속초경찰서장 동우전문대학생간부와의 간담회 개최
5. 23
• 제23회 대통령상패쟁탈 반공웅변 예선대회 개최
5. 27
• 도문동 외국인 홍보마을인 상도문 1리 마을공동 농기계 시동식 거행
5. 30
• 제2회 교육장배 쟁탈 역전 경주대회를 장사동 고개~정아레저타운 구간 실시
6. 9
• 대포 정치망에 돌고래 7마리 잡혀 화재
6. 10
• 다방 티켓제 등 변태영업 시와 경찰 합동단속 실시
6. 12
• 주부교실 속초지회 주관 알뜰 백화점 운영
6. 13
• 시 사회정화위원 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 13
• 전국 대학 학생처장 회의를 호텔 설악파크에서 3일간 개최
6. 17
• 귀순용사 박명화 안보강연회 개최
• 13개동별 농악대 구성키로 결정
6. 18
• 학교 새마을어머니 배구대회를 학생체육관에서 개최
6. 19
• 대한교육보험 명경지부 지부장이 보험금 횡령 도주

6. 22
• 불교문화원이 일복문화관 옆에 개원
6. 26
• 제16회 속초시교육청 관내 학도체육대회를 2일간 실시
7. 2
• 속초시청 직장서화전 개최
7. 8
• 시정자문위원회 개최
7. 15
• 미국 그레샴시와의 자매결연 운영위원회에서 친선단 파견계획 결정
• 장사동 국도 확·포장사업 완공
7. 23
• 불교 성직자 세미나를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신흥사에서 개최
7. 25
• 강원일보사 주최 86사진워크숍을 유스호스텔에서 개최
7. 26
• 예음클럽주관 설악산 실내악연주회 개최
8. 1
• 시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 세부기준 마련 시행
8. 4
• 정부에서 강릉·속초권을東海道로 분할 신설 검토
8. 5
• 구 명성그룹 속초지구 채권단 19명 자재대금 해결 항의
• 귀향 대학생과 관내 기관장과의 간담회 개최
8. 9
• 속초수협위판장 물량장70m 붕괴
8. 12
•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속초 중앙시장 부지 확정
8. 16
• 척산온천장 온천수 공급 합의
8. 21
• 설악산 1일 최대 강우량450㎜ 기록, 설악동 도로 하천제방 유실, 건물 피해 발생
8. 22
• 김영진 지사 폭우피해 복구현장 답사
• 교동 럭키아파트 준공
8. 27
• 속초방송국 주최 하계시민대학을 시청회의실에 개설 운영
8. 28
• 폭우를 동반한 태풍 비러호 영향으로 설악산 청봉교와 설악교 날개벽 유실 등 피해
9. 2
• 해운항만청 행정지도선 강원 906호(28 t 급)를 속초항에 배치
9. 3
• 속초시 수해 긴급복구단 발대식을 설악동 C지구 주차장에서 개최하고 아시안게임 성화봉성전 복구를 위한 철야 작업 돌입
9. 12
• 설악산 성화봉송구간 긴급복구 완료
9. 15
• 제21회 설악제를 아시안게임 성화봉송맞이로 20여일 앞당겨 거행
9. 16
• 아시안게임 성화 설악산소공원에 안치
9. 17
• 설악산 소공원출발 시내일주하는 성화봉송 실시(봉송주자, 부주자, 호위자 등 442명)
• 대한항공 설악산 매표소 개설

9. 22
• 정아레저타운(구 명성)이 한국화약그룹에 정식 인수
9. 28
• 자매시인 미 그레샴시 방문사절단 일행 래시, 양시 태권도협회간 자매결연 조인식 거행
9. 29
• 국회 농수산분과위 태풍피해조사반 일행 현장 답사
10. 2
•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청소년 교류확대에 따라 일본청소년 20명 속초여중과 중앙국교 방문견학
10. 7
• 평통 춘천시협의회원 설악산 소공원에서 설악산, 금강산 상호 개방 촉구대회 개최
10. 11
• 자연보호헌장 선포 8주년 기념식을 김영진 지사 주재로 속초 일복문화관에서 개최
10. 15
• 제15회 도 학도체전에서설악중 럭비풋볼팀 첫 패권차지, 속초선수단 성취상 수상
10. 19
• 설악제 전국등산대회 개최
• 유암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10. 22
• 해경 순직대원 위령탑 기공식을 장사동 현지에서 거행
10. 28
•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에 전화가설 착공
11. 1
• 시에 위민실 설치 운영
11. 5
• 대한적십자사 설악산악구조대와 도경 산악구조대 합동 구조시범훈련을 설악산 군량장에서 실시
11. 11
• 북한 금강산댐 규탄대회개최
11. 20
• 노학동 공설화장장을 무연무취식으로 개보수 착수
11. 23
• 대한불교조계종 속초포교당 기공식
11. 24
• 속초중앙시장내 화재 발생, 속초약국 등 4개 점포 태우고 진화
11. 25
• 권복경 해경대장 속초지구대 순시
• 오징어잡이 어선 천양호(82 t)가 파도에 휩쓸려 침몰, 선원 26명중 1명만 구조되고, 25명 사망 또는 실종
11. 26
• 금강산댐 구축 흉계규탄속초시민궐기대회 거행
• 설악산 4季 영화가 대한민국 문화영화제서 금관상, 우수작품상 수상
11. 27
• 속초시청에 설치된 천양호 해난사고 대책본부에 박희재 수협 중앙회장 방문, 생계보조비 전달
11. 30
• 도지사배 쟁탈 제1회 골프선수권대회를 설악 컨트리클럽에서 거행
12. 1
• 속초전신전화국 FAX업무 취급개시
12. 2
• 전국토 공원화운동 시상식에서 도문동 상도문 1리가 전원마을부문 장려상 차지
12. 9
• 속초상공회의소 건물을 무상양여

와 임대료 감면요구 탄원

12. 14

• 제1회 속초검찰지청장배쟁탈 영북지방 친선테니스대회 실시

12. 16

• 제1회 속초시 단축마라톤대회 개최

12. 17

• 강원일보사장이 속초 전신전화국 일일국장으로 취임 업무처리

• 시인 박명자 제5회 강원문학상 수상

• 로얄 1차아파트 준공

12. 18

• 속초시 제3단계 안보정세 보고회 개최

• 속초 양양지역 청소년선도 관계관 회의

12. 19

• 영동 산간지방에 폭설, 설악산 대청봉에 134㎝ 적설량 기록

12. 20

• 속초시 상부상조은행 결산 보고회

12. 22

• 속초시 문화회관 및 종합운동장 건설 착수

12. 26

• 속초교육청 주관 초등학생 대상 취미오락교실을 설악유스호스텔에 개설, 1개월간 운영

12. 29

•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 추진위원회 속초시지회 창립

◆ 1987년

1. 1

• 양종석 속초시장 부이사 관승진 시장 · 군수반 입교

1. 3

•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눈사태로 산악인 9명 매몰, 6명구조 3명 사망

1. 6

• 속초시와 노인회 합동으로 중 · 고생 대상 전통예법강좌를 노인회관에 개설 운영

1. 7

• 서울 삼육재활원 지체부자유아 4명, 설악산 대청봉 정복

1. 8

• 김상준 교육감 교육청 순시

1. 10

• 속초극단「태」창단기념 공연

• 설악산에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과 야생조수 먹이주기 실시

1. 13

• 속초시 공공도서관에서 87겨울 독서교실 개설

1. 16

• 윤태경 속초시장 취임식

1. 21

• 뉴설악호텔 나이트클럽에서 20대 7명 집단 난동

1. 22

• 신민당 5지구당 사무실에 고 박종철군 분향소 설치 추모제 거행

• 속초공공도서관 후원으로 속초지역 모자독서회 발족

1. 30

• 김정웅 도경국장 속초경찰서 순시, 올림픽성공 개최를 위한 경비강화 지시

2. 1

• 조양동 고속터미날 앞 시외버스 정류장 개설

2. 3

• 69년이후 최대 폭설, 설악산 대청봉 290cm기록, 영동지방 교통두절

• 대피중이던 어선 장영호와 제2한

일호, 선원 17명 실종

2. 9

• 북한탈출 김만철 환영회를 이북 5도민회 주관 개최

2. 13

• 속초시장조합 총회개최 현대식 종합상가 신축 결의

2. 14

• 설악산 등반조난 2건, 1명 동사, 5명 구조

2. 17

• 주병덕해경대장 속초지구대 순시, 잦은 인사교류지양 언급

2. 28

• 대학입시 낙방한 부산여학생 2명 동명동 여관에서 동반자살

• 이규효 건설부장관 속초~강릉간 4차선 도로를 91잼버리 이전 완공 언급

3. 4

• 도내에서 처음으로 속초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의료보험카드 발급

3. 5

•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료와 신흥사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매표 실시

• 정일권 국정자문위원 관내 기관장과 간담

3. 7

• 속초시 노동대책회의 개최, 붉은대게 상차작업권을 속초항운노조에 일임

3. 11

• 설악산 쓰레기 유상매입제 실시

3. 16

• 설악산 관광안내소 개소 및 한국산악회 설악산 산악구조대 발대식

3. 23

• 속초측우소에서 자동기상 예보제 실시

3. 26

• 속초시 충혼탑 건립 추진위원회 개최, 도문동 건립부지 결정

3. 27

• 정부에서 서울~설악산간고속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결정 방침 발표

3. 30

• 속초시 도시새마을활력화 촉진대회를 제일극장에서 개최

4. 6

• 속초에서 인신매매단 5명 검거

4. 9

• 속초시 통반장 생일기념품 전달 제도화 시행

4. 10

• 한영협회주관 국제 세미나를 설악파크호텔에서 개최

4. 23

• 통일민주당 5지구당 창당대회에 청년 20여명 당사 침입점거로 허경구의원 장소이동 대회 거행

4. 24

• 평통위원 초청 도정보고회를 김영진지사 주재로 설악프라자 리조텔에서 개최

4. 25

• 도지사 주재, 민방위정신교육강사 간담회 개최

• 중화민국 민중일보 방한단 일행 래시

4. 26

• 제1회 도협회장기 쟁탈 및 도대표 선발 골프대회 개최

4. 30
• 속초시 종합운동장 기공식
• 속초시립문화회관 기공식
5. 1
• 속초시 홍보위원 위촉장 수여식
5. 6
• 영랑동 파제벽 2차공사 착공
5. 11
• 속초 전신전화국에서 속초-고성간 26.5km 광케이블 매설공사 착수
5. 15
• 민정당 5지구당 정기대회 개최
5. 19
• 신문배달원 보안등 소등제 시행
5. 26
• 해양경찰대 충혼탑 제막식을 장사동 현지에서 거행
6. 1
• 속초문화원 주최 문화 강좌를 5일간 개설운영
• 속초시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소년소녀가장 19명과 대부 · 대모 결연식 거행
6. 2
• 잠수기조합 속초지소 청사 준공식을 동명동 현지에서 개최
• 시공무원 상수도 자가검침제 실시
6. 11
• 도문동 충혼탑 건립 기공
6. 18
• 학교 새마을어머니회 제2회 배구대회 개최
6. 24
• 속초기독교연합회 주관 구국기도회를 중앙교회에서 개최(문동환목사 참석)
7. 7
•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원 고갈, 소방차 동원비상 급수개시
• J교회 목사와 여신도 간통 구속
7. 14
• 도에서 지방자치제대비 시군정 자문위원회 폐지 등 위원회 정비안 마련
7. 16
• 제5호 태풍 셀마 강타
• 어선 원풍호(200 t)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 선원 23명 실종
• 노학동 쌍천제방 붕괴 교동일대 침수
• 울산바위 부근 산사태로 대학생 3명 사망 실종
7. 20
• 속초상공회의소 총회에서 9대회장에 김형동 선출
• 전국 국립대총장회의를 3일간 설악산에서 개최
7. 22
• 신민당 5지구당 창당대회 개최
7. 29
• 양양군 번영회에서 양양군 선거구를 속초권에 편입 건의
8. 1
• 속초의료원 준공식 거행(16억원 투입, 건평 1,542평 건립)
• 청학동 구철도 도로 확포장 공사 기공식
• 자연보호 중앙협의회 선정 한국의 名水 100선에 설악산내 천불동 계곡 등 4개 계곡수 선정
8. 5
• 국립공원관리업무가 신설된 관리공단으로 이관
8. 10
• 동우전문대 주관 전국 유아교육담당교사 연수회 개최

8. 11
• 시내 2개 주유소 정부합동 단속반에 의해 유사 휘발유 판매로 판명
8. 14
• 강릉문화방송 주최 여성교양강좌를 대원극장에서 개최
8. 15
• 관내 7개 택시회사 운전사 사납금 인하등 요구농성, 파업 돌입
8. 20
• 제16회 학도체전 선수단결단식
• 설악제 위원회 개최, 22회 설악제를 민간주도 형식으로 운영 결의하고 임원 개편
8. 24
• 7개회사 택시기사 파업 10일만에 3개사 노사합의
• 동해상사 시내버스 기사 및 안내양 처우개선요구 파업
• 합동연탄 근로자 파업
• 미 그레샴시와의 자매결연 기념공원을 도문동에 조성
8. 25
• 폭력 등 과격시위 택시기사 4명 구속
8. 26
• 노사분규 7개 택시회사 정상운행 시작
8. 28
• 도 학도체전에서 속초중 축구 우승으로 피날레장식, 속초선수단 1부 종합 3위 차지
8. 29
• 파업중이던 합동연탄근로자 50여명 정상조업 시작
9. 2
• 속초항내 저인망어선 선원 300여명 보합제 개선요구 출어거부
9. 3
• 세계 스카우트지원재단 총재인 칼. 구스타프 스웨덴국왕 신평리 잼버리 대회장 시찰, 방문기념비제막
9. 7
• 장기근속 통장 산업시찰 실시
9. 9
• 해상오염 방제훈련을 해경대 주관 실시
9. 10
• 동우전문대 본관(우암관)기공식 거행
9. 11
• 차규헌교통부장관 래시, 설악산과 영랑호 등 답사
9. 14
• 노학동에 속초레미콘공장 준공
9. 20
• 88서울올림픽 성화봉송로 달리기 대회가 영랑국교~설악여중 구간 실시
9. 22
• 세계 최대규모인 청동좌불상 건립 기공식을 신흥사에서 거행
9. 24
• 서울-설악산간 고속전철유치 범시민기구 구성 결의하고, 준비위원장에 김종록 선출
• 정부에서 오징어 가공업에 대기업 참여 금지조치 시행
• 대포항 물량장 확장공사 기공식 거행
9. 26
•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 기공식
• 정재철의원 동서고속전철 종착지가 속초로 될것으로 확신 언급
10. 1
• 제22회 설악제 각종 행사를 3일간 개최

10. 3
• 황동연 교동장 설악제 행사후 귀가도중 교통사고로 사망
10. 5
• 설악산 쓰레기 하산작전으로 헬기 동원 등 대대적인 수거작업 전개
10. 14
• 속초항 오징어채낚기어선 어부 1백여명이 분배비율조정 등 요구 농성
• 어민 가두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 최루탄에 어민 1명 눈부상
10. 20
• 속초항 어부 분규합의 조업재개
10. 23
• 속초문화원 주최 서화 전시회 개최
10. 30
• 지역안보정세 보고회를춘천지검 유길선 검사장 주재로 개최
11. 1
• 제2회 속초시사이클 연맹주최 도내 사이클대회 개최
11. 4
• 강영식 수산청장 영북지방 순시, 어민 간담회 실시
11. 5
• 동서고속전철 유치 범속초시민추진위원회 결성대회 거행
• 유망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가 설악파크호텔에서 개막
11. 6
• 노태우 민정당총재 속초 유세
11. 7
• 자유수호구국연합회 속초지역 결성대회 개최
• 동해상사 시내버스 34대 동료사직에 항의농성
11. 9
•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 참석하에 5지구당 창당대회 개최, 위원장에 한병기 선출
11. 12
• 연극협회 속초지부 창립
11. 13
• 어선 문창호(53.6 t)가명주군 사천진앞 해상에서 좌초 침몰, 선원 1명 사망, 6명 실종
11. 16
• 지역발전유공자 초청 시정설명회 개최
• 이물질 섞인 휘발유 판매 2개 주유소 허가취소
11. 21
• 금호동 구철도 확 · 포장공사 기공식
11. 30
• 전국토 공원화운동 평가회에서 속초시 종합대상 수상
12. 1
• 대포 외옹치 마을회관 준공
12. 2
• 평민당 김대중 후보 속초 유세
• 이북 5도민 반공강연 및 결의대회
12. 4
• 구 속초여고 교사를 증개축하여 속초도서관 개관식 거행, 기존 속초공공도서관은 속초도서관 교동분관으로 개편
• 속초상고 운동장 확장 기공
12. 11
• 민주당 김영삼후보 속초유세, 속초출신 탤런트 박규채 찬조연설
12. 14
• 속초시 보건소 준공
12. 15
• 속초시 충혼탑 건립 제막식을 도문동 현지에서 거행

12. 21
• 교동 로얄2차아파트 준공
12. 22
• 도시새마을운동 평가결과 13개시 도별 1개시군 선정하는 우수상을 속초시가 수상
• 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운영 유공으로 속초시가 대통령표창 수상결정
12. 29
• 선거철 불법건축 44명 무더기 입건

◆ 1988년
1. 3
• 신정연휴 설악권 관광인파 10만명 집중
1. 9
• 김영진 지사 연초순시
1. 13
• 속초시 재향군인회 총회에서 회장에 동문성 선출
1. 18
• 속초시번영회 이사회 개최 동서고속전철 직선화 및 4년제 대학유치 등 건의 결정
• 도 교육위원회에서 속초중, 속초고 이전계획안 의결
1. 19
• 대포동 설악산입구 소공원에 설악산 관광홍보관 신축 착수
1. 21
• 속초시새마을부녀회 총회에서 새 회장에 정병옥 선출
• 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 시상식에서 윤태경 속초시장이 대통령기 친수
1. 22
• KAL기 폭파규탄 속초시민대회를 학생체육관에서 개최
1. 23
• 속초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총회에서 새회장에 민구치 선출
1. 25
• 시정설명회를 제일극장에서 개최
• 조리사협회 속초분회 현판식
2. 2
• 교동 공영조선소에 화재발생 건물 2채 전소
2. 9
• 심재경 교육감 교육청 순시, 민주화시대 스승상 확립 당부
• 야권통합을 위해 민주당 총재직 사퇴한 김영삼 전 총재 설악산 체류
2. 11
• 속초경찰서에서 경관의 장한 내조부인 8명 선정 시상
2. 11
• 영랑동 송하아파트 준공
• 증권투자 설명회를 설악동 코리아모텔에서 개최
2. 26
• 동남증권 속초지점 개설
3. 2
• 국토미화봉사대 발대식
• 설악제위원회에서 제22회 설악제 백서 발간
3. 4
• 가나공화국 한인회장 김복남이 속초시에 80cc오토바이 13대, 속초경찰서에 124cc 13대 기증
3. 5
• 국내 최초인 山上 무용발표회로 김근희무용단이 설악산 권금성과 소공원에서 개최
3. 11
• 설악산 쌍천하상정비를 연차사업으로 47억투입계획 확정

3. 12
• 교통부에서 양양 손양면 학포리를 국제공항 건설후보지로 발표
3. 16
•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68개 관광권역별 매력 설문조사 결과 설악권을 1위로 발표
• 속초 적십자청년봉사회 결성식
3. 18
• 속초권 4개시군주민 고속전철유치위원회 결성
3. 28
• 국립공원협회 설악산지부창립총회 개최
• 속초,고성,양양 주민 동서고속전철 설악권유치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 채택
3. 30
• 중앙시장 신축공사(지상2층, 지하2층)기공식 거행
4. 6
• 관광철 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환경가꾸기 사업 전개
4. 10
• 영랑호변 산책로 구 충혼탑 부지에 운동기구 설치 등 체육공원 조성
• 국내 사찰중 처음으로 신흥사에서 장학재단 설립, 중 · 고 · 대학생 109명에게 장학금 지급
4. 12
• 대포 쌍천하구해안 등에 왕우럭조개 대량서식 확인
4. 17
• 국회의원선거 1차합동연설회를 속초중 교정에서 개최
4. 18
• 시에서 신혼부부 설악산유치 홍보전단을 전국예식장, 관광알선업체에 배포
4. 21
• 올림픽 성화 봉송로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630만본의 꽃묘생산 착수
4. 25
• 도문동 상도문 1리가 올림픽 선진마을로 선정
4. 26
• 민정, 민주 양당 당원 패싸움으로 민주당청년 1명 사망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최정식후보 당선으로 헌정사상 처음 야권승리
4. 27
• 민정 · 민주당원 폭력사건관련 25명 입건
4. 30
• 설악동 B지구 노송이 천연기념물 제351호로 지정
5. 2
• 최정식 국회의원 당선자 당선사례 만찬간담회 개최
5. 17
• 설악산 칠성봉 부근에 산불 발생, 1천여평을 태우고 4시간만에 진화
5. 19
• 육군 5861부대에서 시위민실에 법률상담 창구 개설 운영
5. 25
• 속초시 동거부부 11쌍 합동결혼식을 영랑정에서 거행
5. 26
• 설악동 3개 숙박업소내 불법매점 설치 상행위단속 및 행정대집행 단행
5. 28
• 관내 기관장 모임인 금요회에서 첫 장학금 지급

5. 31
• 이상룡 도지사 취임후 첫시장 · 군수회의를 속초시청회의실에서 개최
6. 2
• 최정식 의원 세비전액을 장학금으로 교육청에 전달
• 제6회 전국 연극제에서 연극협회 속초지부가 장려상, 장규호가 개인연기상 수상
6. 3
• 노학동 불법건축 72명 무더기 고발
6. 9
• 속초우체국 체신협력 위원 업무보고회 개최
6. 11
• 배계섭 속초시장 부임
6. 15
• 설악산소공원에 설치된 반달곰상 실물과 차이 지적 철거
6. 17
• 속초항 어민 풍어제를 수협위판장 옥상에서 거행
6. 24
• 장사동에 올림픽 헌수공원 조성
6. 27
• 시에서 관리하던 신흥사 사찰 재산관리를 이관 사찰 자율화 조치
• 이북 5도민 영북지구 연합회 주최 범시민 시국안정 다짐대회 개최
6. 28
• 설악제 상임위원회에서 제23회 설악제일정을 올림픽 성화봉송에 맞추기로 결정
7. 1
• 서울올림픽 성공지원 새마을가족 실천다짐대회 개최
7. 5
• 설악산 주목 상습벌채 밀반출 일당 7명 입건
7. 8
• 속초 물소리 시 낭송회 50회 기념행사 개최
7. 14
• 지역인사 초청 을지연습 상황 보고회 개최
7. 20
• 어민후계자 친선체육대회실시
7. 22
• 범민족 올림픽추진 속초시협의회 주관 성공지원다짐대회 개최
• 강릉문화방송 속초사무소 개소
7. 22
• 속초경찰서 설악동 자율방범대 발대식 거행
• 속초시 사회정화협의회 해수욕장 상설계도반 설치 운영
7. 26
• 설악 프라자리조텔 신관개관(766실)
• 속초상공회의소 창립 22주년 기념식을 파크호텔에서 개최
7. 27
• 이상룡지사 성화봉송로 답사
7. 28
•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 대학을 뉴설악호텔에서 개최
8. 1
• 김근희 무용단 제1회 청소년 무용교실을 노인회관에서 개최
• 육군ㅇㅇ부대 소속 M16소총 무장탈영병이 대포동 야산에서 군경과 대치교전중 사살
8. 10
• 시에서 설악산 입장료를 속초시민에 대해 면제요청
8. 12
• 조양동에 해경대아파트 준공

8. 14
• 항만청의 청호동 해변모래 채취허가에 주민 반발
8. 16
• 영랑호에서 서핑을 하던 대학생 등 2명 익사
8. 18
• 전 명성그룹임직원으로 구성된 명성재심대책 협의회에서 사건재조사 등 호소
8. 19
• 윤길중 민정당 대표최고위원 속초-강릉간 4차선 89년 착공 언급
8. 24
• 김영삼 민주당총재 지역인사와의 만찬간담회를 뉴설악호텔에서 개최
9. 3
• 영동전역을 토지거래신고대상 지역으로 고시, 8일부터 적용개시
9. 5
• 최동섭 건설부장관 설악산 시찰
9. 9
• 내무부주관 제3회 전국토공원화운동 심사에서 속초시가 관광유원지부문 장려상 수상
9. 10
• 제23회 설악제 개막 올림픽 성화맞이 행사와 각종문화축전, 풍물난장 등 개설운영
• 도내 국교축구대회를 속초에서 거행
• 미국 자매시인 그레샴시 래리디요시장 등 방한단 일행 12명 래시
9. 11
• 올림픽 성화 봉송(대포동양양군경계~장사동 고성군 경계), 그레샴시 일행중 스카트 로씨가 특별주자로 교육청~대원극장간 봉송
9. 12
• 그레샴시 일행 도문동 자매시기념공원에 기념식수
9. 18
• 신흥사 속초포교당 준공 및 올림픽 성공기원법회를 영랑동 원각사에서 거행
9. 20
• 배계섭 시장, 통장과의 순회간담회 실시
9. 30
• 동별 올림픽 및 풍년맞이 한마당 큰잔치 개최
• 영랑국교 옆 도로 242m 확장 개설공사 준공
10. 1
• 설악제 전국등산대회 개최
10. 3
• 설악산 3일 연휴 관광객 8만여명 집중, 차량 등 포화상태
10. 8
• 자연보호헌장선포 10주년 기념식을 설악산 소공원 에서 개최
10. 10
• 설악산과, 설악프라자 패밀리 타운, 영랑호 유원지에 행락질서신고소 설치 운영
10. 15
• 영동지구 시 · 군 교육청직원친선체육대회 개최
10. 26
• 민 · 관 · 군 친선다짐 낚시 대회 개최
10. 31
• 시에서 청초호 정화대책을 중앙에 건의
11. 3
• 국방부에서 동해안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11. 5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관련 토지 거래허가제 확대 실시

11. 8

• 속초 라이온스클럽에서 설악산 소공원에 반달곰상 건립 제막

11. 10

• '91 세계잼버리대회 대비도 및 속초시, 고성군에 잼버리 지원담당관제 신설 결정

11. 13

• 오징어잡이 어선 제2동광호(8t급)가 유조선에 충돌 침몰, 선원7명 실종

11. 14

• 민생안정을 위한 법질서확립 실천결의대회 개최

• 속초고 장사동 신축교사로 이전

11. 17

• 배계섭 시장, 속초상고 학생대표와의 간담

• 양양군민 생활권인 속초지역 시내통화 구역으로 조정 호소

11. 18

• 이상용 지사 올림픽 시연회 참석차 來市, 시민 간담회

• 오징어잡이 어선 제35삼영호 선원 19명과 함께 실종

11. 21

• 삼영호 사고 대책본부를 시 수산과에 설치

• 금호동에서 윤락녀살해사건 발생

11. 29

• 범민족 올림픽추진 속초시협의회 해단식 거행

12. 1

• 속초의료원 노조쟁의 발생신고를 도에 제출

12. 3

• 실종 삼영호 선원 합동분향소를 수협어민 교육장에 설치

12. 8

• 노학동사무소~한전연수원 구간 보도 블럭시설 290m준공

• 도 농공단지후보지 심사결과 대포지구 6만평 선정

12. 10

• 속초 평교사협의회에서 비민주적 교육악법 개정 요구 유인물 배포, 시민서명운동 전개

12. 12

• 속초전신전화국에서 31국 시내전화 2,048회선 개통

12. 16

• 고성군 경계 국사봉 부근에서 산불발생 12㏊의 임야를 태우고 14시간 만에 진화

12. 17

• 최정식의원 주관 풍어기원제를 수협 어판장에서 개최

12. 19

• 88 속초시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12. 20

•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 준공식(지상 3층 연건평 220평, 198백만원 투입)

12. 20

• 속초고 교사이전 기념예술제 개최

12. 27

• 게잡이 어선 818동진호(43t) 침몰, 선원전원 구조

• 속초측후소 청사를 고성군 봉포리로 이전

◆ 1989년

1. 1

• 박환주 속초시장 부임

1. 2

• 속초의료원 입원환자 투신자살

1. 5

• 겨울가뭄 극심, 금호동과 청학동 고지대 소방차 동원 급수

1. 10

• 이상용 지사 연초순시, 91잼버리 대비 도시정비 지시

1. 11

• 영동지방 폭설, 설악산 최고 135cm 적설량 기록

1. 12

• 시와 육군ㅇㅇ부대 공동으로 해난사고시 헬기 지원대책 마련

1. 17

• 영동설악권 호텔 · 콘도 시설 붐

1. 19

• 91잼버리대비 교동 쌍다리~고성 봉포리를 잇는 4차선 우회국도 개설계획 확정

1. 23

• 설악 · 금강산 연계 개발 동서 고속전철 계획을 교통부에서 청와대 업무보고

• 외지 원정 땅투기꾼 속초 · 고성에 급증

1. 28

• 민정당 속초 · 고성지구당사 준공식겸 현판식 거행

• 이종찬 민정당 사무국장 고속전철 종점을 설악산으로 확정방침 언약

1. 29

• 속초중앙시장 화재발생, 점포 16채와 가옥 1동 소실등 1억6천여만원의 재산 피해

• 한국잠수협회 주최 안전과 활성화 기원 개해제를 영금정에서 개최

1. 31

• 조양동 대명맨션 준공

2. 4

• 속초소방서 영랑호소방관파출소 개소

2. 7

• 김영삼 민주당 총재 신흥사 방문 북방정책 등 환담

2. 15

• 단국대생 20여명 동료학생 사인규명 요구, 시내 某정형외과 앞에서 시위

2. 17

• 시에서 영랑호 점용 사용료로 4억 5천만원을 동방호산개발(주)에 부과

2. 18

• 속초소방서에서 신형소화장비 6종 개발

2. 22

• 동우전문대 전임 이상직 학장과 신임 전재욱 학장 이취임식 거행

2. 27

•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도에서 내무부에 건의

2. 28

• 동방개발(주)이 한일그룹에 인수

3. 3

• 한국레저 설악리조트 콘도 기공식을 노학동 현지에서 거행

3. 7

• 속초시내 국민주택 912동, 개량주택 103가구 년내 공급 확정

3. 8

• 시에서 건립한 공무원 연금 매점을 용도변경, 보훈회관 등으로 활용

3. 9

• 광역 소방응원합동훈련을 3개시군

참석 실시

3. 11

• 한국JC강원지구 특우회 총회 개최

3. 18

• 김창근 교통부장관 동서 고속전철 91년착공 계획발표

3. 20

• 속초문화원 총회에서 새원장에 지일권 선출

3. 27

• 속초, 고성, 양양지역 유지 50여명 4년제 대학 속초유치 추진위원회 결성

3. 30

• 美協 속초지부 총회에서 새지부장에 김영복 선출

4. 1

• 자유총연맹 속초지부 결성

4. 7

• 세계잼버리대회 속초시후원회 창립총회

4. 12

• 동우전문대생 3백여명 학원복지문제등 재단 각성촉구 철야농성 시위 시작

4. 13

• 무게 2 t 짜리 대형물치가 잡혀 대포항에서 입항

4. 21

• 적십자 전국부녀봉사 특별 자문위원 총회가 뉴설악 호텔에서 김상협 총재 주재로 개최

• 속초출신 노지연양이 89미스강원진으로 선발

4. 24

• 동우전문대 교수 60명 학내사태에 관한 성명 발표

4. 25

• 시에서 쌍천상류에 산천어 2만5천마리 방류

• 미스강원진 시민환영 대회 거행

4. 28

• 자유민주체제수호 속초시민궐기대회 거행

5. 2

• 새마을운동 속초시지회주관 남의일 내일같이 운동 다짐대회 개최

5. 3

• 신흥사 계조암의 삼성각 상량식

5. 7

• 게통발어선 제11전양호(86 t)가 기관고장으로 침몰, 선원 전원구조

5. 9

• 속초시 의료보험조합 개소식

5. 11

•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5. 19

• 폭력배격규탄 시민대회 거행

5. 20

• 동화은행 주식청약 마감결과 속초시 신청자 1만여명으로 집계

5. 25

• 국립공원 협회 주관 자연공원 학술세미나를 3일간 개최

5. 26

• 최정식의원 청초호매립신항건설 방안 발표

5. 27

•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설립총회 개최

5. 31

• 세금논쟁 중이던 신흥사고유 임대토지 및 위탁농경지에 대한 재산세 및 농지세 납부로 종결

6. 1

• 도문동 쌍천제방 축조 및 하상정비 사업 착수

• 도내 첫 오피스텔로 태양레저산업이 교동에 지상 15층 규모인 설악태양리조텔 착공

6. 2

• 조순 부총리 주재 경제운용정책 간담회를 설악파크호텔에서 실시

6. 9

• 이극종 속초경찰서장이 동우전문대 학생간부 초청 대화의 광장 실시

6. 14

• 속초지역개발문제 시민대토론회를 번영회 주최로 거행

6. 15

• 4년제 대학유치 가두 서명운동 전개

6. 17

• 미시령도로 확포장공사 총연장 23.8km 준공 개통

• 장사동 장천마을 새마을정미소 준공

6. 20

• 미시령도로 개통 4일만에 첫 교통사고로 2.5 t트럭 추락 2명사망

7. 5

• 속초수협 풍어제 개최

• 지방자치제 대비 의회사무실 등 시청사 증축 공사 착공

7. 6

• 최정식의원 래시, 국회잼버리委의 지역방문대비 지역개발예산확보를 위한 준비요청

7. 7

• 전교조 속초시지회장 등 소속교사 19명 집단탈퇴

7. 8

• 가원주택이 동명동에 설악타워맨션 준공(84동)

7. 12

• 시장과 경찰서장 초청여성단체 간부 간담회 개최

7. 13

• 노학동에서 도로공사 연수원 개원식

7. 18

• 속초 · 양양지역에 연수원 건립붐, 재벌그룹 등 30개기관 희망

7. 20

• 전국토공원화 사업장인 소공원, 가로화단 등 관리단체협의회 구성운영

7. 29

• 춘천지방변호사회 총회에서 회장에 속초 박창서 선출

8. 2

•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사무국장 회의를 동우전문대에서 개최

• 한국음반협회 속초지부주관 불법 비디오 추방결의대회

8. 3

• 영동지방 집중호우, 속초 112.1 mm기록

• 설악산 계곡 피서객 고립, 1명실종, 183명 구조

8. 4

• 총리실주관 수질보전대책회의에서 속초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90년착공) 결정

8. 5

• 새강원장학회의 설악동주유소 및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 운영 결정

•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를 구 속초중 부지에서 경연

• 속초에 오피스텔 6개 건축허가, 2개 허가신청 등 오피스텔 건설붐

8. 8

• 건전가정 노래부르기대회 개최

8. 12

• 91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 각종 시설공사 착공

• 배오징어 건조관련 선주 및 선원

마찰

8. 17

• 속초시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 설악동해콘도미니엄과 동양오피스텔이 대포동과 교동에서 각각 기공

8. 23

• 국제승공연합회 주최 한일 안전보장 세미나 개최, 김만철 귀순 증언 등 실시

8. 24

• 속초시 장기개발계획 마련 번영회 임원초청 설명회 개최

8. 25

• 박준규 민정당 대표위원지구당 정기대회에 참석 동서고속전철계획 등 언급

8. 31

• 관내 기관장 모임 금요회가 없어진 지 1년만에 설악회 명칭으로 재발족

9. 8

• 제1회 강원도 주부웅변대회에 속초 김유자 최우수상 차지

9. 19

• 시에서 청초천 복개 6차선 도로개설안 구상

9. 20

• 박환주시장 동별순회 주민간담회 실시

9. 21

• 대포동 공업개발촉진예정지구 입주신청 업체 34개 쇄도

9. 29

• 국토개발원 주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정책 간담회를 설악파크호텔에서 개최

10. 1

• 설악산 계곡 3개소에서 등반객 3명 급류에 실종

• 동명동 수복탑 옆 31개의 포장마차 철거민에게 전업융자금 등 지원

10. 11

• 제24회 설악제 개막, 제1회 시민문화상 시상, 제1회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동별 가장행렬 등 실시

10. 14

• 노학동 설악현대훼미리타운(객실 495) 기공식

10. 20

• 잼버리지원 각부처 담당관회의를 체육부주관으로 현지에서 개최

• 대명기업 택시기사 8명 합동결혼식

10. 27

• 미장원 여주인이 주위에서 10억여원 사취 잠적, 피해자 1백여명 발생

10. 28

• 빌리브란트 서독수상 설악산 방문

10. 30

• 김택성 시민과장 퇴임과 함께 의료보험조합장으로 부임

11. 4

• 오징어채낚시 어선 803일성호가 조업 중 화재로 침몰, 선원 6명 구조, 10명 사망 또는 실종

11. 10

• 3일간 심한 激浪으로 영랑동 해안도로 160m유실 등 피해

11. 18

• 설악비치리조텔(지상14층)이 영랑동에 신축 기공

• 교동 동양아펙스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8 t철근이 인가에 떨어져 가옥반파

11. 21

• 속초시 번영회에서 노학동 척산지구 등을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요구 시민서명운동 전개

12. 4
• 속초우체국청사를 시청 옆에 신축 준공
12. 8
• 강원도 설악수련원 신축공사를 노학동에서 착공
• 속초교육청 관내 초등교사 20명이 설악산 야생화 300여종 사진전 개최
12. 12
• 대포동 외옹치 2만여평의 시유지 공매입찰에서 200억원으로 롯데건설에 낙찰
12. 15
• 동방호산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사용료부과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서 기각 판결
12. 19
• 오징어잡이 어선 805대동호의 에어탱크 폭발 선원4명 사상
12. 20
• 속초고 校舍 준공(지상4층에 교실 40실, 부속체육관 1동 등)
12. 26
• 국민은행 속초지점에서 순찰의경 카빈소총 오발사고로 동료 1명 사망
12. 27
• 홍순호 속초시장 부임
12. 30
• 속초경찰서 유치장 수감자 유흥업소 출입관련 수경파면에 이어 문책인사 단행

◆ 1990년
1. 4
• 신년인사회를 상공회의소 주관 설악유스호스텔에서 개최
1. 8
• 도지사와 지역인사와의 간담회 실시
1. 9
• 시정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시발전 가능성 89%로 집계
1. 10
• 번영회에서 4년제 수산대학 신설 건의
1. 15
• 속초전신전화국이 속초전화국으로 변경
1. 18
• 한일은행 속초지점 개점식
1. 23
• 잼버리후원회 운영위원 회의
• 시정자문위원 간담회
1. 24
• 속초시 지역개발간담회를 시장실에서 개최
2. 1
• 67년만의 대설, 연4일간 폭설로 설악산 대청봉 260cm, 설악동 161cm 기록
2. 6
• 생필품 및 난방유류파동으로 비상수송작전 전개
2. 13
• 의료보험조합 강원지역대표이사회의 개최
2. 15
• 유료직업안내소장 및 상담원 교육
2. 16
• 시정자문위원회 개최
• 지방건축위원회 개최
2. 17
• 제12차 연날리기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 개최
2. 19
• 지방자치제 실시 준비단 회의개최

2. 20
• 관내 노조위원장 초청 간담회
2. 22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자녀 통일 연수교육 실시
2. 26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영북지역 특별보고회 개최
2. 27
• 시관내 사회단체장 초청 시정설명회 실시
3. 2
• 오징어잡이 어선 하나호(1백 t)가 동지나해상에서 침몰, 선원21명 구조하고 선장 실종
3. 3
• 박희재 수협 중앙회장 하나호 선장 유정충씨 가족 방문 위로
3. 5
• 의용소방대 교관 위원 교육
• 최정식의원 귀향, 세비전액 장학금 전달
3. 9
• 고 유정충 하나호선장 영결식을 국내 처음 전국漁民葬으로 엄수, 국민훈장 목련장 추서
3. 10
•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보고회를 성제방 부지사 주재로 시청회의실에서 개최
3. 12
• 속초농협조합장 선거실시 4인의 후보경합 김길정 당선
3. 14
• 속초 · 고성지구 구민정 당원 민정동우회 창립 총회 개최
3. 15
• 농어촌잘살기운동 마을 추진단 결성 및 동별 다짐대회 개최
• 대포동 청사신축 기공식
3. 18
• 설악산 권금성 산장지기 유창서씨가 방문객이 남긴 낙서를 모아 시집 발간
3. 20
• 속초수협이 설립후 89년에 최고 흑자 기록, 배당지급
3. 21
• 설악산 울산암 중턱에 4개월째 방치된 등산객 사체를 등반구조대 동원 수습
3. 24
• 속초지역개발문제연구소발족, 초대 이사장에 윤중국 선출
3. 27
• 이상룡 지사 주재 도내시장 · 군수회의를 시청회의실에서 실시
3. 28
• 도회장기쟁탈 남녀 탁구대회를 학생체육관에서 개최
•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 轢死
3. 30
• 건국대학재단에서 속초에 4년제대학 설립인가 신청
3. 31
• 상공회의소에서 잼버리 대비 속초공항 확장 건의
• 안공혁 항만청장 속초출장소 순시
4. 2
• 동우전문대 학생회 학장 퇴진요구 농성
4. 4
• 민자당 박태준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 · 고성지구당 개편대회 개최

4. 12
• 퇴폐, 변태영업 안하기 실천 결의대회 개최
• 자유총연맹 속초지부주관 북한개방촉구 1천만서명 운동 전개
4. 13
• 김대영 건설부차관 잼버리 대회장 시찰
• 고 유정충 선장 동상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4. 16
• 대만, 죽북청년회의소 회장 래시
4. 17
• 민생치안확립 운영지원 대책회의
4. 19
• 속초축협 본소 개점식
4. 22
• 도회장기 쟁탈 태권도 대회에서 속초시팀 종합 우승
4. 23
• 새마을운동 20주년 기념행사를 영랑정에서 개최
• 속초 선원노조에서 선원법 개정요구 서명운동 전개
4. 25
• 자율방범대 발대식 및 범죄추방 결의대회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
4. 26
• 91세계잼버리 손님맞이 범도민 3대 생활운동 실천결의대회 개최
4. 28
• 대만 민중일보 방한단 래시
4. 30
• 수복로 확포장공사 보상대상자 간담회
5. 3
• 5.16민족상 사회부문에 고 유정충 선장을 수상자로 결정
5. 9
• 김영식 교통부장관 잼버리대회장 및 속초공항 답사
5. 10
• 속초문화원 향토사료인 '속초의 지명' 출간
5. 11
• 제2회 건전가정 노래부르기대회 개최
5. 12
•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 척산광천지가 평당 8천여만원으로 도내 최고가격
5. 13
• 소년 · 소녀가장 위안회 개최
• 남북 문학교류와 통일을 주제로한 문학심포지엄이 뉴설악호텔에서 3일간 개최
• 귀순용사와의 간담회
5. 17
• 기존번영회 조직에 반발한 새로운 번영회가 민정동우회 회원중심으로 구성
• 홍순호시장 관내학교장과의 대화 실시
5. 19
• 올림픽 성화봉송주자 모임 결성식
• 속초 양양지구 스카우트 전진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 20
• 속초시 표준지가 공시
• 조양동에 국내 최초의 가구달린 아파트 설악하이라이프 착공
5. 25
• 자유수호웅변 속초시 예선대회
• 속초-양양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 편입부지보상협의 불응으로 난항

5. 26
• 외국산 담배 불매운동 캠페인 전개
5. 28
• 속초신문 창간호 발행
5. 29
• 속초공항 이륙한 육군헬기 추락, 탑승자 4명 사망
5. 30
• 청소년선도 및 퇴폐변태환경추방 캠페인 전개
5. 31
• 속초경찰서 주관 시설경비 협의회 구성
6. 2
• 국민생활보호 대책협의회 개최
• 어린이 대잔치를 학생체육관에서 거행
6. 5
• 건전사회조성 범시민결의대회를 학생체육관에서 실시
6. 11
• 첫 민선회장인 홍종문 수협중앙회장이 속초수협 초도 순시
• 공직자 새정신운동 연찬회를 속초도서관에서 실시
• 청초지구 택지개발 예정지 토지소유주 간담회
6. 15
• 오징어잡이 선원 단체임금 교섭 난항으로 출어 중단
• 중앙종합시장 505개 점포 입주
6. 16
• 6.25 40주년 친선사격대회 개최
• 잼버리 범도민후원회 대회장 시찰
6. 18
• 영금정 앞에서 248cm의 초대형 가오리 잡혀 화제
6. 19
• 중앙가로 노점상 294명 일제정비 진통
• 지상협동훈련 실시
6. 20
• 주민신고 모의훈련실시
6. 21
• 문선명 총재 소련방문 귀국보고대회를 대원극장에서 개최
6. 25
• 대포농공단지 11개업체 입주대상 확정
• 자유수호와 민족화합을 위한 시민대회 거행
6. 27
• 교동, 조양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주민 계획철회 요구 집단 농성
• 교육청 산하 공직자 가족 경제교육실시
6. 29
• 허가면적초과 불법건축감리건축사 등 영업정지
6. 30
• 정동성 체육부장관 잼버리대회장 시찰
7. 4
• 영랑동 오염방지 관계관 회의
7. 5
• 장천마을공동창고 준공식
7. 8
• 평민당 설악산 자연파괴현장 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7. 9
• 각 언론사에서 설악산이 잼버리대회장, 콘도시설 등으로 자연파괴 집중보도
7. 10
• 설악권 4개 번영회장이 언론사의

설악산 자연파괴 보도에 반박성명 발표
• 이상룡 지사 도민과의 대화를 시청회의실에서 거행
• 도로교통량 조사 실시

7. 11
• 잼버리 범도민후원회에서도 설악산 파괴 왜곡보도 규탄 성명 발표
• 영랑국교 급식학교 지정

7. 14
• 설악산악연맹 발대식
• 아마츄어 무선사 수복탑광장에서 공개운영

7. 15
• 설악산 천화대 암벽훈련 중 산악인 3명 추락사

7. 19
• 모형자동차 경진대회를 설악프라자에서 개최

7. 21
• 속초상공회의소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 이규철 선출

7. 24
• 장애자를 위한 한가장 하계수련대회를 청호국교에서 실시
• 설악산 공룡능선에서 자연 석불상 발견
• 조경식 환경처장관 잼버리대회장 및 설악산 외곽지 자연훼손여부 점검, 무분별한 자연훼손은 분명 아니고 척박한 땅에 개발을 위해 노고 많음을 피력

7. 26
• 휴양콘도사업주 11명 회의 소집, 자연훼손 최소화 및 조경복구지시

7. 29
•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생태계 보호를 위한 자연휴식년제 도입 결정

7. 31
• 설악동해콘도 준공

8. 2
• 세계잼버리후원회 임시총회 개최, 한국잼버리대회 지원사항 협의
• 제1회 라이온스클럽 강원지구 임원회의를 파크호텔에서 개최

8. 4
• 실향민 방북신청 접수개시
• 이상룡지사 90한국잼버리대회 준비상황 점검

8. 6
• 한국 잼버리 부녀봉사대 발대식
• 상수원 보호를 위한 쌍천 정화작업 실시

8. 8
• 90한국잼버리대회 개막, 세계잼버리대회의 리허설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8박9일간 거행, 강영훈 국무총리, 정동성 체육부장관, 김석원 연맹총재 등 1만5천여명 참석

8. 9
• 노태우 대통령 한국잼버리 대회장 시찰

8. 11
• 격투기 한국타이틀매치를 학생체육관에서 개최

8. 12
• 연예인과 지역 스킨스쿠버, 스카우트 대원 등이 대포항 수중정화작업 전개

8. 13
• 속초국교운동장 부지를 법적 소유주인 개인에게 인도하라는 집달리 공시 팻말 설치

8. 15
• 이상룡 지사 주관 한국잼버리대회 성공개최 리셉션

8. 18
•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공설운동장에서 실시
8. 24
•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설악유스호스텔에서 거행
8. 28
•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 결성회의 개최
• 市발행 속초소식 창간
8. 30
• 모든 민간소유토지 공시지가 공포
• 동명동 새마을금고 신축준공식
9. 1
• 중앙동에 속초관광호텔 신축 개관식
9. 2
• 교동에서 춤바람난 30대주부가 남편 毒殺
9. 3
• 수복로개설에 따른 철거민을 교동주공아파트 특별 입주조치에 주택청약가입자 항의 농성
9. 6
• 속초여고 뒤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공고
9. 8
• 설악산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9. 10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영랑정에서 거행
9. 16
• 미국 그레샴시 방문단 일행 래시
9. 18
• 전국 항운노조 대의원대회를 설악파크호텔에서 개최
9. 20
• 국민생활체육회 회장단회의
9. 22
• 서울올림픽 2주년 성화봉송로 달리기대회 개최
• 휠체어 장애자 전국일주단 래시
9. 25
• 영랑호 오염방지대책협의회
9. 26
• 설악산 대청봉에 새 전화 선로가설 개통
• 속초 YMCA 아나바다장터 개설운영
9. 27
• 지역개발문제 연구소 설문조사 결과보고회 개최
9. 28
• 수산물 공동할복 세척장설치를 위한 간담회
• 주부백일장을 영랑호 범바위 옆에서 개최
9. 30
• 제2회 전국 자연암벽등반 대회를 설악산 비선대 장군봉 등에서 개최
10. 1
• 쓰레기분리수거를 시범 3개동부터 시행
10. 5
• 조양동사무소 신축청사 준공식
10. 10
• 도내 최대규모인 속초시문화회관 준공 개관식 거행(연건평 1,274평, 사업비 24억여원)
10. 11
• 제25회 설악제 개막, 시민문화상 시상과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전국등반대회, 향토음식 자랑, 풍어굿풀이, 백일장 등 공개행사 개최
10. 15
• 새질서 · 새생활실천 범시민 교통

질서캠페인 전개

10. 16

• 국내처음 설악산에 가을경찰서 개시

10. 17

• 범죄 및 무질서 추방결의대회 및 자연보호운동을 설악산 소공원에서 거행

10. 19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0. 23

• 새질서 · 새생활실천 속초시민결의대회 개최

10. 30

• 한국잼버리대회 결과 보고회 개최

10. 31

• 1社1山운동 관계자 회의

11. 1

• 전시대비 종합훈련개시

• 속초국교 대지분쟁이 부지교환과 일부 매입으로 30년만에 해결

11. 8

• 제2회 일동시니어 프로골프선수권대회를 설악프라자 컨트리클럽에서 개최

• 새질서 · 새생활 실천 사랑방 좌담회 실시

11. 12

• 제7회 도회장기 쟁탈양궁대회를 설악중 교정에서 개최

11. 14

• 속초시 도시계획변경을위한 시민공청회 실시

• 해상치안 자율지도위원설치, 결의대회 개최

11. 15

• 자율방범대 발대식

11. 16

• 90새농민대회를 학생체육관에서 실시

• 先代 古書畵 215점 전시회를 문화회관에서 개장

• 어획물 뒷방거래의 해경단속에 반발 기선저인망어부 198명 집단 출어거부

11. 17

• 전사, 순직 경찰관 위령제를 경찰서회의실에서 거행

11. 20

• 속초지역개발 연구논문발표회를 속초장산호텔에서 개최

11. 24

• 대포동 농공단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

• 박세직 前올림픽조직위원장 동우전문대 방문

11. 27

• KBS교향악단 순회연주회 개최

11. 28

•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회의

11. 29

• 속초시정자문위원회에서 새위원장에 김종록 선출

12. 1

• 초속 34m의 강풍과 한파로 단전, 단수 소동

12. 6

• 민족통일 속초, 고성, 양양지역 통일연수회를 장산호텔에서 거행

12. 8

• 내고향 맑은물 보존클럽창단식을 도문동에서 개최

12. 10

• 속초시 새마을운동다짐대회 개최

• 새질서 · 새생활 실천 추진평가회 개최

12. 12
• 소년소녀가장 위안회를검찰지청 회의실에서 실시
12. 18
• 속초유흥가 폭력조직 2개파 11명 검거
12. 21
• 홍순호시장 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 실시
12. 24
• 속초시 번영회에서 새회장에 백영일 선출
12. 26
•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개공식
12. 27
• 금호개발 설악콘도 예정부지인 노학동 현지에서 33℃의 온천수 분출
• 소년소녀가장 위안회
• 지적불부합지 정리 간담회

◆ 1991년
1. 1
• 신년 충혼탑 참배
• 중앙시장에서 화재발생, 7개 점포 전소
1. 3
• 신년인사회를 속초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설악유스호스텔에서 개최
1. 4
• 노학동 콘도신축부지에서 금호개발이 새 온천수 발견
1. 7
• 안전기획부 현직 간부에게 교동시유지 불법매각 사건화
1. 9
• 한석용 지사 초도순시
• 故 유정충 하나호선장 동상 제막식 거행
1. 12
• 토지개발공사에서 청초지구와 조양지구 택지개발계획 결정
1. 15
• 청초지구 택지개발예정지 보상심의 위원회 개회
1. 16
• 속초시번영회 임원개편
1. 17
• 속초시청 사이클 실업팀 창단
1. 18
• 홍순호 속초시장 洞순회 간담회 개시
1. 25
• 걸프전 영향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실천 결의대회 개최
1. 26
• 금설 라이온스클럽 발족
• 지역단위 마을금고별 이사장선거 개시
1. 27
• 연안유자망 어선 승진호(2.6톤) 좌초 침몰, 선원 1명 실종
1. 29
• 제1회 지방고용직,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2. 2
• 영북지구 해병전우회 창립
2. 6
• 상수원인 쌍천 청봉교 아래에서 물고기 떼죽음 발생
2. 12
• 대포동 농공단지 조성공사 기공식
2. 13
• 어부 부인들이 주로 구성된 상습 주부도박단 29명 검거
2. 16
• 설악산 중청봉 밑에서 등산객등

조난 2명 사망 1명 구조

2. 2

•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 보고회

2. 26

• 학교법인 동우학원에서 4년제 공과대학 신설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

2. 28

• 지방자치제 공명선거 실시 시민결의대회

• 91공시지가 공고

3. 4

• 설악신문이 속초신문으로 재창간

3. 6

• 속초, 고성지역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안내 설명회

3. 9

• 공명선거추진 속초시민 민간단체협의회 조직

3. 15

• 기초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를 도내 처음으로 교동선거구에서 실시

• 에또르산도레 헝가리대사 래시

3. 16

• 산쓰레기 감시단 발대식

3. 20

• 동우전문대 학생 시위도중 학생 1명 분신사건 발생

3. 23

• 동명동 천주교회에서 양로원 건립 축성식

3. 25

• 영랑호 오염사유로 잼버리 수상활동 장소를 송지호로 변경

• 농협장학생 장학금 전달식

3. 26

•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13개동 선거구별로 실시

3. 28

• 지방의회의원 당선통지서 전달식

• 동우전문대 학생 농성 6일째 재단측과 합의, 농성 해제

4. 4

• 해군 군함 속초함과 속초시 자매결연

4. 8

• 제8회 강원연극제를 속초문화회관에서 개막

4. 12

• 시정자문위원회 해단식

4. 15

• 속초시의회 개원식, 제1회 임시회에서 초대의장으로 朴容權의원 선출

• 제8회 강원연극제 시상식

4. 16

• 바다수달이 매일밤 해경선박신고소를 찾아와 화제

• 박철언체육청소년부장관 잼버리대회장 시찰

4. 18

• 91미스강원 선발대회에서 속초 장미영양이 善으로 선발

4. 27

• 세계 잼버리 100일맞이 성공다짐대회 및 봄맞이자연보호운동 전개

5. 3

• 제2회 강원도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 9

• 금설라이온스클럽 주관 동거부부 6쌍 합동결혼식

5. 10

• 세계잼버리 손님맞이 강원도 새마을부녀회 봉사단 발대식을 문화회관에서 개최

5. 11
• 91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속초 장미영양이 미스국제훼리로 선발
5. 12
• 세계잼버리 경축 시민걷기대회 개최
5. 13
• 중앙새마을금고 자산 1백억 돌파 기념 및 2백억 달성 촉진대회 개최
5. 20
• 도내 일주역전마라톤대회개막, 잼버리대회장에서 출발
• 풍수해대비 속초시 인명구조대 발대식
5. 22
• 조양동 16통에서 가정집 화재 발생 일가족 4명 사망
5. 23
• 범도민 3대 생활운동 실천 다짐대회 개최
5. 29
• 도의원 입후보 안내 설명회
• 설악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안 설명회
5. 30
• 범도민 3대생활운동 실천 다짐 및 민족통일 촉진대회 개최
6. 5
• 351고지탈환 1군단전적비를 조양동 해수욕장 입구에 건립 제막식 거행
6. 10
• 민자당 김영삼대표 최고위원 지구당 단합대회에 참석, 서울-속초간 고속도로 건설 등 언급
• 연립주택 등 별장용도로 소유한 외지인 110명에게 중과세 예고조치
6. 13
• 도의원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2선거구를 시작으로 개시
6. 19
• 광역의회의원선거 실시 3개선거구에서 이관희, 윤중국, 전상기 당선
6. 22
• 도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
6. 25
•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속초시민대회 개최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확대 발대식
6. 26
• 제4기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해단식
6. 27
• 강원도 설악수련원 개원식
• 제9회 전국 연극제에서 속초「파 · 람 · 불」극단이 최우수상인 대통령상 수상
• 시의원과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6. 29
• '속초, 양양지역' 스카우트 전진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7. 1
•「파 · 람 · 불」극단 환영만찬회
7. 2
• 제1회 작은봉사의 날 캠페인
7. 5
• 제9회 전국합창경연 도예선대회를 문화회관에서 거행
7. 10
• 속초지역개발문제 연구소주관 설악권개발모델 연구단 일행 일본파견
• 설악 삼성콘도미니엄 개관
7. 12
• 설악문화연구소 제2회 문화강좌 개최
7. 15
• 속초국교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철회요구를 학부모 200여명 연명

으로 청원

7. 16

• 장천마을 노인정 기공식

7. 20

• 잼버리대비 위생관리 대책회의

7. 23

• 잼버리대비 운수종사자교육

7. 25

• 정원식 국무총리 속초, 고성, 양양 지역「국민과의 대화」를 설악파크호텔에서 거행

7. 26

• 상공회의소회관 준공

8. 1

• 속초해양경찰서 개서식

• 잼버리대회 경축 문화예술행사가 강원도 미술전시회, 한국화 초대전을 시작으로 개막

8. 8

•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영식, 세계 129개국 2만여명 참가, 7박8일간 37개 과정 활동과 축제행사 개최

• 제5기 평통자문회의 출범

8. 11

• 제45회 전국씨름대회를 학생체육관에서 개최

•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 13

• 시립합창단 연주회 개최

• 영북지역 청소년 연극 경연대회 개최

8. 16

• 속초고교 동문과 어머니회에서 학교인근 시립근로자 아파트 건설 백지화 요구 농성

8. 19

• 한석용 지사 잼버리성 공개최 감사간담회 개최

8. 20

• 교동 만천지구 택지분양공고

8. 24

• 미국 그레샴시와의 자매시 위원장으로 윤종구 선출

8. 26

• 속초시 사이클연맹 창립,초대회장에 이규철 추대

8. 28

•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8. 31

•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 자축행사

9. 10

• 자매시위원 일행 미국 그레샴시 방문 출국

• 오징어 어선끼리 충돌 대성호(5.5t) 침몰, 선원 2명 실종

9. 14

• 속초중고 9회동창생들이 3억원의 장학금마련 청구문화재단 설립

9. 15

• 88올림픽 3주년기념 시민달리기대회 개최

9. 17

• 향토예비군 청호동대 발대식

9. 18

• 한민족체전 참가 해외동포 고향방문 환영행사를 상도문 마을운동장에서 개최

9. 20

• 속초시 노래보급 가사심의 협의회

10. 1

• 제26회 설악제 개막, 3일간 행사 거행

10. 7

• 속초시지 출간

10. 9
• 개발부담금 심의위원회
10. 15
• KBS속초방송국 신축청사 기공식, 연건평 1,316평으로 총예산 49억원
10. 16
• 경찰 설악산악구조대 구조시범훈련을 설악산 군량장에서 실시
10. 20
• 교동 근로자아파트 50세대분 준공
10. 22
• 씀씀이 10%절약 새마을가족 결의대회 개최
• 속초농협 신축청사 기공
10. 25
• 대포동에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시설계획 마련
• 시관내 5개택시회사 통합노조 발대식
• 김종록 설립 일산장학재단 첫 장학금 지급
10. 29
• 한석용 지사 주재 강원지역 통일정세보고회를 문화회관에서 개최
10. 30
• 대포 대단위 위생매립장설치사업 주민설명회
10. 31
• 속초권행정협의회 개최
11. 3
• 유엔가입경축 민족통일촉진
• 범시민 걷기대회
11. 2
• 적십자 청년봉사회 전국협의회를 뉴설악 호텔에서 개최
11. 6
• 속초시지 발간 기념회
11. 11
• 중앙가로주차장 유료화
11. 12
• 산림청주관 산림병해충방제 연찬세미나 개최
11. 13
• 속초시의회에서 외옹치군사시설 이전 건의안 채택
11. 16
• 새질서 새생활실천 및 실종어린이 찾기 캠패인 전개
11. 18
• 노학동 삼성콘도 부지에서 온천수 발견
11. 19
• 초대 속초읍장 朴祥喜공덕비 건립 발기인회 개최
11. 20
• 영북 3개시군 지방의회의원 세미나 개최
11. 21
• 청호동 청소년 야간공부방 현판식
• 속초경찰서 무궁화 장학회 창립
11. 29
• 새질서새생활실천 및 30분 일더하기 다짐하는 '91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문화회관에서 개최
11. 31
• 설악동 노인회관 준공식
12. 2
• 김승래 속초시장 취임식
12. 4
• 장사동 근로자아파트부지 부정 매입사건 관련자 구속
12. 7
• 노학동사무소 청사준공
12. 9
• 조양동과 중앙동에서 연탄가스 중

독사고로 2가구 5명 사망

12. 14

• 속초시립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개최

12. 19

• 가칭 속초향토기업(주)발기인대회 개최

• 제17회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결과보고회

12. 20

• 장사동 사진항개발사업기공식

• 90속초년감을 시정 사상 처음 발간

12. 25

• 동명동 주차장 예정지 부정 매입 관련자 등 추가 구속

12. 26

• 소년소녀가장 위안회 거행

12. 30

• 속초시가 폐품수집운동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1992년

1. 1

• 신년 충혼탑 참배

• 농협속초지점 지부로 승격

1. 3

• 양양 남대천 취수문제관련 공방 유인물 배포

1. 4

• 신년인사회를 파크호텔에서 개최

1. 6

• 조양동에서 최무일 염분 온천수 발견

1. 7

• 김승래 시장 동초도순시 개시

1. 13

• 영동지방 폭설, 설악산 대청봉에 110cm적설

• 황돈태 부시장 취임

1. 15

• 설악산에 8개 산장 대피소 운영체제를 관리사무소 직영화 결정

1. 16

• 속초향토기업 발기인대회

1. 20

• 노학동일대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외요청

1. 21

• 자매시인 미국 그레샴시 방문 중고생 5명 출국

1. 28

• 한석용 지사 연초순시 및지역 인사와의 간담

1. 29

• 공명선거추진 민간단체협의회 간담회

•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회의

2. 5

• 통일국민당 창당위원장 정주영 비방 유인물 발견

2. 7

• 오징어잡이 어선 제7성 남호(76.5t)가 부산 앞 해상에서 침몰, 선원 11명 구조

2. 12

• 도시계획재정비 설명회

2. 15

•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험 가동

• 충정장학회 설립 10주년 기념 및 장학금 전달식 거행

2. 16

• 속초시의회에서 노학동과 도문동 일부지역의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내무부에 건의

• 한국산악회 주관 히말라야 등반대원 조난 10동지 추모제 및 추모등반

대회 거행

2. 18

•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지구당 정기대회에 참석, 동서고속전철 조기착공 언급, 지구당위원장에 정재철 선출

2. 20

• 속초시생활체육협의회 창립총회

2. 21

• 오피스텔 숙박영업에 대해 숙박업계에서 반발

• 쓰레기매립장 조성 주민 합의

2. 24

• 새마을금고 장학금 합동 전달식

• 설악산 산장, 대피소 직영에 기존 임대자들 반발

2. 28

• 속초권행정협의회 개최

3. 2

• 설악동 B지구에서 온천수 분출, 발견신고

3. 3

• 속초의 노래가사 공모에 김정우 작품 선정 시상

3. 5

• 위생매립장 설계용역 보고회

3. 6

• 강원도 산악기동대 발대식

3. 10

•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

• 국내 휴양콘도협의회 소속 17개 콘도대표 모임에서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숙박 유치 자제 결정

3. 11

• 교동 로얄아파트 분양면적 시비로 입주자 진정서 제출

• 조양 택지개발지구에서 고인돌, 돌화살촉 등 청동기시대 유물 출토

3. 12

• 속초향토기업(주) 창립총회 개최

3. 16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영랑국교에서 거행

3. 17

• 속초 축산업협동조합 장학금 전달

• 속초시의회의원, 호텔 · 콘도 대표와의 간담

3. 21

• 국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를 속초여중에서 개최

•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전달

3. 24

•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정재철 민자당 후보 당선

3. 26

• 콘도의 단체관광객유치 개선명령 시달

3. 27

• 금호동 새마을금고 청사 준공식

• 속초농협 시청출장소 개점

3. 30

• 상수원개발을 위한 지하수 탐사 착수

3. 31

• 중소제조업체 노동인력수급을 위한 고용대책 협의회 구성

• 속초경찰서 무궁화장학재단 첫 장학금 전달

4. 4

• 속초여고 인근 택지조성사업 육성회등 집단 반발

• 설악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4. 6

• 설악신협 개점식

4. 11

• 환경오염 주민감시원 37명 위촉

4. 15
• 속초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4. 16
• 자유중국 대만성 대동현과 시 자매결연 조인식
• 남북한장애인걷기 대행진이 수복탑~학생체육관 구간에서 실시
4. 18
• 영동지방 7개시 · 군 농어민 후계자 친선체육대회 거행
4. 24
• 제3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 대회에서 속초시팀 남자부 우승
4. 27
• 한국예총속초지부 임시회의에서 3대회장에 김영복 선출
4. 30
• 동거부부 8쌍 합동 결혼식
• 속초 · 양양지역 자율방범대 전진대회
5. 1
• 전염병예방 방역기동대 발대식
5. 2
• 새마을지도자 단합대회를 한일레저에서 거행
5. 4
• 장애인차량 교통캠페인 실시
5. 7
• 택시기사 관광안내원 발대식
5. 11
• 설악산 소공원 불법노점상 강제철거
5. 12
• 예총속초지부 주최 청소년 백일장을 수복탑놀이마당에서 개최
5. 13
• 실업연맹회장기 쟁탈 전국 사이클대회를 시청 앞에서 출발
5. 15
• 설악동사무소와 육군 1695부대 136공병대대와 자매결연
• 속초교육청 김기윤 학무과장 도내 유일 교육가족상 수상
5. 16
• 대통령배 자유수호 웅변예선대회 개최
5. 18
• 함남 영북지구 도민회장학금 전달식
• 시내 폭력조직 4개파 11명 검거
5. 22
• 제2회 도청소년 연극경연대회를 문화회관에서 개막
5. 23
• 토개공의 조양택지 개발지구 편법분양 말썽
• 보광사 소유권분쟁 법정비화
5. 25
• 불우 무의탁노인 효도관광 실시
5. 26
• 시 새마을부녀회 주관 알뜰마당 개설
5. 29
• 시 최대 현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착수(400억원 규모)
• 속초 무공수훈자회 주관 인공기 게양규탄 궐기대회
• 강원일보사 주최 제20회 속초 · 양양지역 모자사생대회 개최
5. 30
• 억대 주부도박단 11명 검거
• 산지 정화캠페인 전개
5. 31
• 자유중국 대동현 방문단 출국
6. 1
• 속초적십자봉사회 주관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접수 개시

6. 2
• 속초문화원 주관 국립 국악단 초청 국악의 밤 개최
6. 3
• 택시기사협의회원 개인택시 무배정 항의농성
6. 5
•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포 국민관광휴양지 조성계획, 속초해수욕장 개발계획 확정
6. 8
• 속초의료원 도의회 감사수감
6. 9
• 도민체전 등위부상 선수단 시민환영대회
6. 10
• 동명항, 대포항내 어판장대책 유관기관단체 협의회
6. 13
• 신흥사 주지 임명 법정투쟁 돌입
• 영북지역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대 발대식
6. 17
• 설악프라자 골프장에서 온천맥 발견
6. 19
• 농어촌 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시상식
• 해난구조 유공으로 속초해양경찰서가 도지사 기관표창 수상
6. 22
• 냉동오징어 소비촉진운동 전개
6. 24
• 6.25 42돌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초청 통일 전망대 관광실시
• 새강원장학회 장학증서 전달식
6. 25
• 속초시 약사회에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 조양동 유적발굴단 국내최초 청동제 부채꼴도끼 등 발굴
6. 27
• 설악산 야생화 사진전 개최
6. 29
• 속초시발전 5개년계획 확정 발표
7. 1
• 한석용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실시
7. 3
• 설악산 대청봉 주변복구사업실시
7. 4
• 92재해구조 종합훈련 실시
7. 6
• 새질서 · 새생활실천 평가보고회
7. 7
• 교통사고줄이기 추진실적 평가회
7. 8
• 설악산국립공원 관리협의회 개최
7. 9
• 청소년의 달 기념 국민대토론회
• 속초에 4년제 대학으로 동우공전 설립확정
7. 10
• 속초해수욕장 개장식
• 한국통신 속초전화국 신축청사 완공 입주
7. 11
• 맑은 물 가꾸기 범시민실천결의대회
• 타기관 현장체험 사례발표회
7. 12
• 제1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어머니배구대회 개최, 속초시팀 우승
7. 16
• 동우공과대학 설립인가 자축연
• 조완규 교육부장관 교사와의 대화 실시
7. 21
• 각계대표 명의로 신흥사 관리비 사용진상 촉구 공개서한 발송

• 청학동 노인회관 신축 기공식

7. 22

• 시정발전연구회 발족, 사전협의회 개최

• 설악산 비선대에서 암벽훈련 중 자일 엉켜 1명 추락 사망, 4명 구조

7. 23

• 대포동 횟집과 어판장의 좌판상간 생존권 다툼 대치

• 미국자매시 교류학생 1명 방한

7. 27

• 도내 택시노조간부 세미나 개최

7. 28

• 폐품수집 경진대회

• 조계종 원로회에서 신흥사 주지 경질 결의

7. 29

• 유광석 속초경찰서장 부임

7. 30

• 92풍어제를 수협 위판장옥상에서 거행

7. 31

• 뉴설악호텔 노조파업

8. 4

• 설악산에서 모노레일 설치계획을 도에서 잠정 확정, 내무부 건의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 전시회

• 작은봉사 작은친절 운동 캠페인 전개

8. 5

• 4-H회원 야영교육

8. 8

• 준공 검사전 숙박영업한 현대훼밀리타운 고발 조치

• 강릉MBC속초사무소가 속초지사로 승격 현판식

• 시대시인회 주최 시축제 개최

8. 10

• 속초축협 전국 회원조합운영 평가에서 1위 차지

8. 11

• 신흥사 새 주지로 송지홍스님 취임

• 속초문화원에서 「속초의 향토민속」출간

• 주택은행 속초출장소 개점

8. 12

• 92「춤의 해」여름야외이벤트 공연

8. 14

• 강원 연묵회우전 전시

8. 15

• 고 박상희 초대속초읍장 송덕비 제막식을 대포동 설악산 입구에서 거행

8. 19

• 한석용지사 속초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문

8. 23

• 오징어잡이 어선 진영호(114 t) 화재로 침몰, 선원 전원 구조

8. 27

• 속초 지역개발문제연구소 주관 설악산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발표

8. 29

• 노학동 노인회와 서울 노원구 요식조합 상계1동지회와 자매결연

9. 1

• 농협장학금 전달식

9. 4

• 쉽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범도민 촉진대회

• 신고계도요원 체육대회

9. 5

• 강원도 시 · 군의회 의장단 회의

• 전국 연안정화캠페인 전개

9. 6
• 황영조 마라톤제패기념 속초시민 달리기대회
9. 18
• 인공어초 1천개 연안 해역에 투하
• 강원도 10개년 종합개발계획 시안 발표, 속초시가 4핵구조 모델의 관광 중심도시로 설정
9. 22
• 무궁화 순회사진 전시회
9. 23
• 한국관광공사에서 '94한국방문의 해에 설악제 등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
9. 25
• 청초호 해양오염 방제 훈련
• 환경오염과 과학교육을 주제로 도내 과학교사 심포지엄 개최
• 향토발전 공헌시민을 표상으로 기리는 공로 시민록 제작계획 마련
• 영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9. 28
• 설악동 번영회에서 C지구 및 장재터일대 국립공원구역 해제 건의
9. 30
• 민관식 통일고문회의 의장주최 지역인사 간담회
10. 1
• 제27회 설악제 개막, 제4회 시민문화상 시상, 권금성에서 성화채화 봉송,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 개최
10. 5
• 자연보호헌장선포 14주년 기념행사
10. 6
•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을 예식장으로 개방
• 시정발전연구회 제안 설명회
• 조양동 선사유적지가 사적지 제376호로 지정
10. 7
• 제2회 영북지역 미술교사 작품전시회
10. 8
• 건국 44주년 民軍단합행사 개최
10. 10
• 설악권 도의원회 조직 현판식
10. 12
• 속초농협 신축청사 및 농산물 직판장 준공식
• 구 속초중 부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공고
10. 16
• 제10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속초시립합창단이 장려상 수상
10. 20
• 여성회관 건립추진위원회
• 속초시의료보험조합장 이임식, 직무대리에 박성룡이사 선임
• 청소년을 위한 가곡과 영상음상의 만남 공연
10. 23
• 서울-속초간 우등고속버스 운행 개시
10. 27
• 속초시 주력산업 선정 주민 간담회를 한국 국토개발원 주최로 개최
• 제29회 저축의 날 도 기념행사에서 속초시가 저축 최우수시로 수상
10. 28
• 한민족 공동체 실현 및 새질서 · 새생활실천 범도민 촉진대회
• 속초전화국 정보통신 전시관 개관
10. 31
• 4-H경진대회
• 민원해소 특별대책반 구성회의

11. 1
• 한국전쟁 설악산지구 무명용사 추념식 거행
• 제3회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및 합동결혼식
11. 2
• 비상태세 대비 해상종합훈련을 3일간 실시
• 대민행정 10대시책 추진평가회
11. 3
• 새한국당 지구당창당대회에서 조영두를 지구당위원장으로 추대
11. 4
• 속초에 운전면허 출장 시험장 개설
11. 7
• 속초YMCA 창립 1주년기념 영북지역 청소년광장 운영
11. 9
• 속초시의회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운영관리를 지방청이관 건의서 채택
11. 12
• 대형건물 화재진압 종합훈련 실시
11. 13
• 관광인을 위한 근로자의 밤 행사 개최
•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세미나
11. 20
• 설악-금강산연계개발 학술세미나를 속초지역 개발문제연구소 주관 개최
11. 21
• 음악협회주관 제3회 송년음악회 개최
11. 25
• 민주당 김대중후보 연설회를 동명동 항만매립지에서 거행
• 속초 어업무선국 대포 송신소 시설이전 착수
12. 1
•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속초시립극단 설치조례 제정
12. 3
• 아프리카 가나공화국 교민 김복남 래시
12. 4
• 제2회 속초시립합창단 연주회 개최
12. 5
•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식
12. 9
• 설악권 연간 관광객 집계 5백만명 돌파
12. 11
• 주택은행 출장소가 속초지점으로 승격
• 속초시가 전국 최우수 민원행정 수범기관으로 선정 대통령표창 수상
12. 15
• 속초문화원 부설 문화사랑방 개설
12. 17
• 길이 185cm 70kg의 초대형 가자미가 잡혀 화제
12. 22
• 청학동 노인회관 준공식
• 해수욕장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실시
12. 23
• 영북농지개량조합 신축청사를 대포동에 건립 준공식 거행
12. 25
• 대포동 내물치 새마을지도자 공원에 국내 첫 새마을건립 완공
12. 30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전달식
• 속초시가 도정 최우수 시로 선정, 한석용지사로부터 상사업비와 상금 수상

◆ 1993년

1. 4
• 93 시무식
1. 8
• 장사동 노인회관 개관식
1. 15
• 도지사 연초순시
1. 17
• 양폭산장 인근 등반대원 사망사고
1. 19
• 김광용 제19대 속초시장 취임식
2. 3
• 장애자 복지회관건립 추진위원회
2. 4
• 시지역 통합 보건사업 세미나
2. 13
• 제23회 산악10동지 추모제
2. 15
• 중국 길림성 훈춘시장일행 방문
2. 16
• 시민헌장탑 건립 추진위원회
2. 23
• 향토기업 주주총회
3. 3
• '93 산림대책 및 종묘 교육
3. 8
• 속초수협 대의원 선거
3. 10
• 근로자의 날 행사
3. 11
• 쌍천오수관시설 설명회
3. 12
• 도지사 초도 순방
3. 13
• 도문동 개발위원 및 지역개방 연구위원 간담회
3. 15
• 속초신협 청사 준공식
3. 16
• 청초호유원지개발 사전설명회
3. 20
• 엑스포홍보 기념품 판매장 개장식
3. 24
• 춘천지방 법원장 초도 순방
4. 1
• 예비군 장사동대 창설식
4. 3
• 예비군의 날 행사
4. 9
• 남북교류협력 설명회
4. 10
• 장사동 사진항 개발사업 기공식
4. 14
• 쌍천오수관 교체공사 지선설계 용역설명회
4. 15
• 시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
4. 19
• 동아싸이클 구간경기
4. 23
• 미국 레브라스카 로타리연구교환단원 방문
4. 24
• 늘사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속초 JC 창립24주년 기념식
4. 27
• 신농운동 추진 점화식
4. 28
• 시민헌장탑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위원장 김섭홍)
5. 12
• 여성회관 개강 특별강연회
5. 20
• 주한 캐나다대사 부부래시
5. 22
• 제4회 장애인체육대회

5. 26
• 주한나이지리아 대사 방문
6. 3
•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6. 5
• 시승격 30주년 기념 시민생활체육대회
6. 8
• 장애인돕기 기금마련 국악 및 가요 대공연
6. 9
• 참봉사를 위한 난상토론회
6. 11
• 일본 돗토리현 친선방문단 래방
6. 15
• 제28회 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
6. 28
• 청호동 공부방 학생체육대회
6. 24
• 단오절 풍어제
6. 26
• 늘사랑 무료장터
6. 27
• '93 강원 예술인 심포지움
6. 29
• 지역개발연구 세미나
6. 30
• 한 · 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일본대표단 방문
7. 3
• 전국 일제 자연보호운동결의대회
7. 8
• 대포동 주차장 유료화 관련 간담회
7. 15
• 상수도확장공사 준공식
7. 21
•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민운동단체 특별교육
7. 22
• 지방의회 개원 2주년기념 의원 하계 세미나
7. 24
• 영랑동 노인회관 착공식
7. 26
• 상공회의소 창립27주년 기념식
7. 31
• 장애인복지회관 기공식
8. 4
• 제20회 유네스코 국토순례단 출발
8. 5
•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렵의회
• 속초상공인 중국 산업시찰
8. 13
• 불우청소년 문화권 탐방 활동
• 자매시 학생방문단 래관
8. 21
• 제4회 전국 암벽등반대회
8. 24
• 주한 이스라엘대사 부부래방
8. 27
• 금융실명제 실시지원단 대책회의
9. 2
• 필리핀 국회의원, 주요인사 래시

9. 6
• 민자당 도문동 당직자 단합 행사
9. 7
• 속초권 행정협의회 실무회의
9. 12
• 속초시민 건강달리기대회
9. 14
• 범국민 친절운동본부 현판식 및 발대식
9. 21
• 도덕윤리회복운동 교육
• 강원도 푸대접규탄 차량캠페인

9. 23
• 두만강유역 개발교류단 방문
• 농촌지도소 등 3개청사 준공식
10. 2
• 제28회 설악제
• 시민헌장탑 기공식
10. 4
• 건국 45주년 민군친선 행사
• 제14차 한일 불교문화교류 대회
10. 6
•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 태국 신협연수단 선진마을 금고 견학
10. 10
• 김수환 추기경 래관
10. 19
• 일본 돗토리현 방문단 래방
10. 28
• 전국도서관대회
• '93통일촉진연수대회
10. 29
• 민자당소속 도의원 세미나
10. 31
• 제14회 기자협회체육대회
11. 5
• 동명동 노인회관 증축 준공식
11. 9
• 원주지방환경청장 순시
• 소방의날 행사
11. 10
• 영랑동 노인회관 준공식
11. 11
• 자연정화활동 및 인명구조대 발대식
11. 13
• 산악인의 문 제막식
11. 18
• 춘천지검 검사장 초도순시
11. 20
• 늘사랑회 둥지 입주식
11. 29
• 농협 청결미 가공공장 준공식
12. 6
• 속초교육청 신축청사 기공식
12. 7
• 설악로타리클럽 창립2주년 기공식
12. 8
• 속초 복싱체육관 개관식
• 해외 참전용사 가족위안의 밤 행사
12. 17
• 설악동 노인회관 준공식
12. 18
• 대한 파월유공전우회 자매결연 및 위안잔치
• 장애인 복지회관 준공식
12. 29
• 조양동 청소년수련방 준공식
• 청학동 새마을금고 준공식
12. 31
• '93년 종무식

◆ 1994년
1. 3
• '94 시무식 및 19대 시장 이임식
1. 4
• 제20대 한상철시장 취임식
1. 7
• 장사동 노인회관 개관 1주년 기념 잔치
1. 9
• 동명동 영금정식당 화재
1. 13
• 남북한 우표 및 세계화폐 전시회
1. 14
•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대책 관련 회의

1. 21
• 국민은행 연수원 준공 및개원식
• 이상용 도지사 초도순방
1. 24
•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주민 간담회
1. 31
•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2. 1
• 어촌지도소 청사 준공식
2. 3
• 롤러스케이트 대표선수 선발대회
2. 7
• 속초농협장 선거
2. 15
• 속초수협장 선거
2. 18
• 시민헌장탑 건립추진 실무
2. 22
•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3. 2
• 속초지원 · 지청 합의부 승격 개원식
3. 14
• 조양택지 개발사업지구 현장설명회
3. 15
• 속초수협장 이 · 취임식
3. 18
• "설악연구" 책자 발간 기념식
3. 25
• 시군통합 관련 설명회
3. 29
• 강원도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3. 30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속초시지회 창립대회
• 북한 "서울 불바다 망언"규탄대회
4. 2
• 제26주년 예비군의 날
4. 4
• '94 강원소년체전 참가선수 발대식
4. 11
• 러시아 우크라이나시장 초청 강연회
4. 15
• 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4. 16
• JC창립 25주년 기념행사
4. 19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련주민설명회
4. 21
• 속초시 · 양양군 통합추진 설회
4. 22
•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4. 26
• 제27회 동아사이클대회
5. 1
•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 12
• 일본 돗토리현 관계관 회의
5. 16
• 지방해운항만청장 방문
5. 18
• 석가탄신 봉축 법요식
5. 21
• 최형우 내무부장관 래시
5. 27
• 설악신문 창간 4주년 기념행사
• 중국 총영사 죽이강 래시
6. 6
• 현충일 추념행사
6. 7
• 속초 · 고성간 도로개설사업 사업편입부지 관련주민 설명회
6. 10
• 대청라이온스 창립2주년 기념행사

6. 11
• 해양소년단발대식
6. 13
• 시민헌장탑 제막식
6. 16
• 제29회 도민체전
6. 24
• 마운틴 설악라이온스클럽 창립 6주년 기념행사
7. 2
• 속초~울릉간 여객선 취항식
7. 14
• 일본 돗토리현 의회대표단 방문
7. 15
•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지역 대책협의회
7. 26
• 환경감시단 발대식
8. 5
• 국무총리 래관
8. 9
• 청호동사무소 · 함남새마을 협의회 자매결연
8. 22
• 속초해상관광개발 창설 기념식
8. 31
• 김성기 속초교육장 정년 퇴임식
9. 2
• 최염규 신임교육장 취임식
• 설악권관광특구지정 영북 주민 환영대회
9. 12
• 속초시 노인회관 준공식
• 아남프라자 쇼핑센터 개장식
9. 22
•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9. 29
• 청초호살리기 위한 시민모임 창립행사
10. 5
•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10. 6
• 강풍에 의한 과수피해
10. 14
• 보훈회관 건립기공식
10. 18
• 청초호 신수로개설 관련주민설명회
10. 24
• 보육시설 확충 관련 주민설명회
10. 25
• 종합 중앙시장 자율선도위원회 구성
11. 8
• 환동해권 4개국 지방정부지사 성장회의
11. 14
• 자랑스런 신한국인 패 전달식
• 청학동 청사 기공식
12. 2
• 시민자원경찰 발대식
12. 7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관련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
12. 9
• 속초시 야구협회 발기인대회
12. 16
• 속초축협 준공식 및 조합원 전이용대회
12. 20
• 사랑의 구좌 모금활동
12. 23
•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시민토론회
12. 24
• 북한산 모래 전달식
12. 27
• 교육청 신축청사 준공식
12. 28
• 시장 명예퇴임식

◆ 1995년

1. 3
• 제21대 속초시장 취임식

1. 4
• 신년인사회
• 민자당 속초 · 고성지구당 단배식

1. 14
•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 “늘사랑 졸업잔치”

1. 25
• 농공단지사료공장 유치 관련 주민설명회
• 속초경찰서장 이 · 취임식

2. 10
• 모노레일사업 주민설명회

2. 15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사업 지방순회 설명회

2. 27
• 4계절 릴레이 이벤트행사 창안발표회

3. 2
• 자연환경보전 명예감시관 위촉장 수여

3. 9
• 시립합창단 발단식

3. 10
• 시군통합관련 각급단체장 회의

3. 11
• 환동해권 4개국 지방정부 실무대표자 합동만찬

3. 13
• 설악중학교 야구부 창단식

3. 14
• 속초시야구협회 창립총회

3. 21
• 시군통합 주민의견 조사서 집계

3. 28
• 세계프로레슬링 GWF 세계 헤비급챔피온 리그전

4. 1
• 설악문화재단 장학금 전달

4. 4
• 독일 레데스코 기타듀오 내한연주회

4. 8
• KBS국악관현악단 초청 연주회

4. 12
• 설악권개발현황 설명회

4. 17
• 카누 시조식

4. 18
• ‘95 공해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교육

4. 19
• 노 · 사 · 정 간담회

4. 28
• 벼 직파재배 연시대회

5. 12
• 조양동 부월리경로당 개관식

5. 22
• 공명선거 실천시민운동협의회 발대식

5. 23
• 설악관광특구 발전종합계획관련 주민설명회

5. 31
• 제1회 파랑새 창작발표회

6. 2
• 설악산 관리평가회

6. 3
•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속초지부 발대식
• 제1회 속초시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6. 7
• 속초시 보훈회관 개관식
6. 17
• 속초시장후보 정책토론회
6. 22
• 조양동 어린이집 증축공사 준공식
6. 30
• 제21대 속초시장 이임식
7. 1
• 제22대 속초시장 취임식
7. 6
• 제2대 의회 개원식
7. 7
• 「정도 600주년」기념 식수
7. 14
• 우리밀 살리기운동본부 영북지구 창립대회
7. 20
• 시장, 시의원 초청 정책토론회
7. 28
• 속초상공회의소 창립 29주년 기념행사
7. 29
• 부시장 이임식
8. 1
• 속초지역특화산업 추진위원회
8. 16
• 95 설악국제 비엔날레
8. 17
• 청소년수련관 착공식
8. 30
• 청초호 퇴적물준설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9. 1
• 속초환경운동연합 발기인대회
9. 2
• '95설악국제 마라톤대회
9. 14
• 제13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9. 19
• 설악산에 새집 달아주기행사
9. 27
• 중청산장 준공식
10. 10
• 설악문화제
10. 19
• 속초시 요트협회 창립 발대식
10. 28
• 동해안 관광수산문제 공동 세미나
11. 2
•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실무대책회의
11. 10
• 지방상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 속초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발기인대회
11. 14
• 어선상가대 시설사업 준공식
11. 15
• 중앙새마을금고 창립 20주년 기념식
11. 20
• 동화은행 개점식
11. 23
• 평강의집 개관식
11. 24
• 통일정책 평가 워크샵
11. 29
• 통일맞이 한마음대회
11. 30
• 설악권 관광특구 종합발전 계획 주민공청회
12. 2
• 청호동 신수로 이주대상자 회의
12. 13
• 청소년 격려 · 선도 결의대회

12. 15
• 소년소녀가장 위안잔치
12. 21
• 속초지역정보센터 설립취지 설명 간담회
12. 23
• 외국어 자원봉사대 사무실 개소식
12. 28
• 송년 시민열린음악회

◆ 1996년
1. 10
• 시살림살이 설명회
1. 25
• 전라북도 정읍시 교류협의 관계자 방문
1. 30
• 외옹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따른 공청회
1. 31
• '96설악눈꽃축제
2. 3
•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실시 용역 최종보고회
2. 6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련 설명회
2. 13
• 일본 토야마현 뉴젠정 대표단 방문
• 설악산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회
3. 6
• 쌍천취수원 개발에 따른 양양군 주민설명회
3. 7
• 해양박물관건립 중간보고회
3. 12
• 송전선로사업관련 환경단체 설명회
3. 27
• 속초시 국제화추진협의회 발족식
4. 2
• 쌀생산을 위한 휴경지 생산화대책 협의회
4. 16
• 해양박물관건립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
4. 19
• 속초시장기 축구대회
4. 25
• 제4회 부녀지도자협의회 공동세미나
4. 29
• 러시아 연해주지역 투자 전략설명회
5. 1
• 96 춘계 정기답사 관광개발 설명회
5. 6
• 중앙가로 도로확장계획 주민 설명회
5. 23
• 중국 길림성대표단 방문
5. 29
• 국제화초청 북한정세와 통일방안 강연회
• 속초시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
6. 12
• 관광사업자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
6. 13
• 속초시 · 정읍시 교류협약 조인식
6. 21
• 청학동 신청사 입주식
6. 25
• 서울 중구청 자매결연 실무협의단 방문
7. 9
• 설악산국립공원 지역대책협의회
7. 10
• 속초해수욕장 개장식 및 제1회 속

초시장기 전국 윈드서핑경기대회 개회식
7. 19
• 산좋고 물맑은 속초지키기 추진협의회의
7. 27
• 설악관광정보센터 개소식
8. 13
• 청초호 신수로개설공사 설명회
8. 16
• 하도문 농민건강센터 개관식
9. 2
• 국내교류도시 교류증진을 위한 실무회의
9. 13
•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 일본대표단 방문
9. 16
• 주한 파키스탄대사 방문
9. 18
• 서울시 중구청과의 교류 협약식
10. 3
• 일본 토마야현 뉴젠정 교류협약식
10. 10
• 컨벤션 유치촉진설명회
10. 11
• 자매시 3개도시 초청공연
10. 14
• 북경중앙민족대학 교수 래방
10. 16
• 자매결연 1주년기념 일본 요나고시 대표단 방문
10. 24
• 중국 훈춘시 농업기술고찰단 방문
11. 2
• 제4회 속초시장기 직장탁구대회
11. 8
• 원주지방환경청장 방문
11. 15
• 쌍천취수원 개발공사 차수벽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11. 22
• 중국 길림성대표 래시
11. 28
•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현장답사
11. 29
• 중앙가로 시내버스 개통식
•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
12. 11
• 연말연시 물가안정대책 관계자회의
12. 23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회의

◆ 1997년

1. 7
• 신년인사회

1. 10
• 민선 1년반 성과와 97 시 살림살이 보고회
1. 16
• 속초시 뿌리회 정기총회
1. 21
•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영동북지구협의회
1. 25
• 청호동 수산물 공동할복장 옥개시설 준공식
• 도문동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합동연설회
1. 30
• 도문동 시의원 보궐선거투표
• 설악눈꽃축제

2. 1
• 속초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창립총회 및 시민대회
2. 18
• 정무부지사 및 강원도국제 관광엑스포 준비지원팀 현장답사
2. 22
• 동해안호수살리기 시민단체협의회 창립총회
3. 3
•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취임식
3. 14
• 새마을지회장 이 · 취임식
3. 20
• 속초시립합창단 발대식
3. 22
• 제2차 속초시장기쟁탈 축구대회
3. 23
• 제3회 강원도지사기 검도
3. 24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 간담회
• 중앙동 5거리 지하횡단보도 착공식
4. 11
• 속초해양경찰서 준공식
4. 12
• 통일염원 및 대만 핵쓰레기 북한 반입저지 시민대회
4. 15
• 일본국 자치상 차관일행 방문
4. 16
•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선포식
4. 22
• 제17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및 단합대회
4. 28
•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장 이 · 취임식
5. 13
•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추진상황 보고회
5. 25
• 제2회 새마을금고의날 기념 및 저축증대 결의대회
5. 26
• 영랑교가설 무재해 기원제
5. 31
• 바다의날 기념 제2회 파란 해양환경 문예대회
6. 6
• 농업기술교류실태 파악을 위한 중국 훈춘시 대표단 방문
6. 8
• 제2회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
6. 11
• 제32회 도민체전
6. 18
• 역대시장과의 간담회
7. 3
• 전국실업축구선수권대회
7. 4
• 관광시민 친절서비스 특별교육
7. 9
• 민선자치 2년 시정보고회
7. 12
• 불법주정차단속 자원봉사자 결의대회
7. 14
• "장수축하의 배" 방일단 래방
7. 15
• "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
• '97범죄예방자원봉사 한마음 운동결의대회 및 가두 캠페인
7. 16
• 속초시 레슬링협회 창단식

8. 5
• 노인건강관리센터 기공식
8. 12
• 제1회 속초시민가요제
8. 13
• 국회예결위원 관광엑스포 현장답사
8. 27
• 제15회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카누경기대회
9. 4
• 제7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9. 7
• '97 국제설악산 마라톤 및 하이킹대회
9. 25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세미나
9. 27
• 대포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 및 매립장관사 기공식
9. 30
• 환동해권거점도시 관련 회의
10. 3
• 제32회 설악문화제
10. 4
• 영동지구 속초시테니스협회장배 친선테니스대회
10. 6
• 제4회 전국자원봉사대 축제
10. 18
• 제7회 속초시축구협회장배쟁탈 영북지구 친선축구대회
10. 24
• 제7회 속초시태권도협회장배 학생태권도대회
10. 25
• 설악산 신흥사 통일대불점안 대법회
10. 26
• 제1회 생활체육 속초시배드민턴동호회 체육대회
11. 7
• 통일준비를 위한 범시민촉진대회
11. 11
•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자원봉사자 발대식
11. 18
• 속초 공명선거실천협의회 발대식
11. 26
• 새정치국민회의 선대위 발대식
11. 28
• 장사동사무소 신축이전
12. 11
• 제15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12. 18
• 제15대 대통령선거
12. 29
• 강원감자 홍보를 위한 공개강좌 및 시연회

◆ 1998년
1. 3
• 시무식
1. 5
•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 전개
1. 6
• 고철모으기 추진을 위한 관계관회의
1. 9
• '98 시정 살림살이 보고회
1. 22
• 재경출향인사와의 간담회
1. 31
• 금호공동체 "어울림" 창립 총회
2. 5
• 제3회 설악눈꽃축제
2. 7
• 재경 속초시민의날 행사

2. 16
• 고철모으기행사
2. 18
• 일본 요나고시 직원교류단 실무회의
2. 26
• 속초항 선적 여객선 북한 운항
3. 7
• 봄철 산불조심 캠페인
3. 12
• 남북농업교류사업 설명회
3. 13
• 관광 엑스포 종합수용대책 시달회의
3. 18
• 대포항 어항시설 정비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3. 26
• 제3회 시장기쟁탈 클럽대항 축구대회
3. 27
• 황소개구리 포획작업
4. 3
• 창설 30주년 예비군의날 행사
4. 7
• 제9회 강원도 어업인후 계자대회 및 체육대회
4. 9
• 어니 아담슨 라스베가스 시장대리 래시
4. 10
• 제9회 강원도지사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4. 11
• 대포동 경로당 준공식
4. 13
• 속초시 국제관광엑스포지 원단 현판식
4. 21
• 해양수산부차관 대포항 순시
4. 23
• 제1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 24
• 국제라이온스 강원지구 제16차 연차대회
4. 25
• 제17회 생활체육 강원도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 중국 연변주정부 경제 · 무역 대표단 래시
4. 29
• 속초향토사료관 개관식
• 동해안 어업인 단합결의대회
5. 8
• 주한 방글라대사 래시
5. 10
• '98 필립모터스컵 프로축구 대회
5. 13
•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종합준비상황 보고회
5. 15
• 대포동 어민복지회관 건어물직매장 개점식
5. 16
• 속초지구 청소년적십자단원 선서식
5. 19
• 속초시장후보 초청토론회 (5.19~5.22)
5. 22
• 김동길 교수 시민교양강좌
5. 25
• 조양~교동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설명회
5. 26
• 북한경수로관련 제2차 남북직항로 운항
5. 28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투표

6. 4
•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6. 8
• 영동 4개시군 당선단체장 공개토론회
6. 11
• 소년소녀가장 결연식
6. 24
• '99 국제관광엑스포 기공식
6. 29
• 속초학생체육관 준공식
7. 1
• 제23대 속초시장 취임식
7. 3
• 제4회 강원도민의 날, 민선 2기 출범기념식 시민한마당 큰잔치
7. 6
• 금강산유람선 속초항 유치 가두서명운동
7. 9
• 금강산유람선 속초항 유치 범시민 다짐대회
7. 12
• 제3회 설악트라이애슬론경기대회
7. 15
• 속초-통일의 길목 세미나
7. 18
• 제32회 전국남녀고교배구대회
7. 22
• 자활촌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기공식
8. 5
• 청소년 불법고용방지 및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캠페인
8. 6
• 금강산유람선 속초항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총회
8. 10
• 속초시 장애인재활센터 신축공사 설명회
8. 11
• 정부수립 50주년기념 전국 순회 이어달리기
8. 13
• 도지사 초도 순방
8. 15
• 제3회 속초시장배 윈드서핑대회
8. 27
• 어업인을 위한 안보정세 설명회
9. 4
• 국제관광엑스포장 지역공동관 건립을 위한 4개시군 실무회의
9. 5
• 설악산 국제챌린지대회
9. 15
• 통합 동 명칭 및 청사 선정 심의위원회
9. 17
•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장 기반조성 관계관회의

9. 22
•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10. 1
• 제33회 설악문화제
10. 9
• 노인건강관리센터 개관식
10. 10
• 자연보호헌장 선포 20주년 기념행사
10. 15
• 제4회 강원도지사기 쟁탈 택시가족 체육대회
10. 22
• 주한 외국무관단 래청
10. 25
• '99 강원엑스포 D-1년기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 '99강원엑스포 상징탑 기공식
10. 28
• 조양동사무소 청사 준공식
10. 30
• 제2회 실버문화축제
11. 7
• 제6회 속초시장기 탁구대회
11. 10
• 일본 돗토리현 방문단 엑스포현장 방문
11. 11
• 한일 지역활성화 세미나 및 국제교류 현안사항 토론회
11. 14
• '99강원엑스포 개최 관련 속초시민후원회 창립총회
• '99강원엑스포 D-300일 기념행사
11. 21
• 제8회 속초시협회장기 학생태권도대회
11. 2
• 조양동 청대마을회관 준공식
11. 29
• 주한 외신기자단 엑스포 개최 관련 초청설명회
• 한일 프로축구 친선경기
12. 3
• 장천마을 경로당 준공
12. 4
• 21세기 설악권 문화관광상품 개발방안 심포지움
12. 19
• 속초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12. 28
• 실직가정 결식학생돕기 사랑의 쌀 전달
12. 29
• '99국제관광엑스포 종합 보고회
12. 31
• '98 종무식

◆ 1999년

1. 8
• '99년도 市살림살이보고회 개최
1. 12
• 결식학생 지원성금 전달
1. 19
• 속초시제2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1. 22
• 속초 조양1단지 경로당 개원식
1. 2
• 시장 동 초도순시
1. 27
•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
2. 4
• 설악눈꽃축제 개최
2. 12
• 강릉보훈지청장 영동지역 보훈회관 초도순시
• '99 속초시립합창단 발대식
2. 13
• EXPO 속초시민후원회 회장단 회의
2. 25
• 영랑호 정화사업관련 주민 공청회
2. 26
• 미시로 확 · 포장공사 기공식
2. 27
• 제80주년 3.1절 애국지사 유족 위문
3. 2
• '99 국제관광박람회 D-200일 기념 정월대보름맞이축제행사
3. 3
• '99 제8회 전국무용제 관계자 회의 개최

3. 6
•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초도 순시
3. 8
•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개강식
3. 10
• 돗도리현 교류업무 실무 협의단 래시
3. 11
• 행정부서별 추진실적 및 계획 관련 '99 국제관광 EXPO 추진상황보고회
3. 12
• 제30회 강원도협회장기 남 · 여종별탁구대회
3. 15
• 제1기 노인교양대학 개강식
3. 16
• 노학동 39통 배수로시설공사 착공
• 설악권 관광협의회 발기총회 등 설악권 관광 실무협의회 개최
3. 17
•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관련 회의
3. 19
• 강원도게이트볼협회 임원 게이트볼대회 개최
3. 20
• 설악권 자치단체 협조 조인 실무위원회의개최
3. 21
• 「수행평가에 따른 학교교육의 방향과 창의력 개발」관련 학부모세미나
3. 22
• '99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3. 24
• 제4회 속초시장기 쟁탈 직장 및 동호인 축구대회
• 해양첨단과학단지 조인식 관련 프랑스 대표단 래시
3. 26
• 설악권 공동발전협의회 실무회의
3. 28
• EXPO 속초시민후원회 임원회의
3. 30
• 새농어촌건설운동 다짐대회
4. 3
• 제31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식
4. 6
• '99강원도소년체육대회 개최
4. 8
• 제16회 강원연극제 개최
4. 9
• 설악권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 의회 교류방안 협의 및 비교시찰 관련 청주시 의회의원 시의회 방문
4. 10
• 국제자매교류도시 그레샴시 방문단 래시
• 제2회 속초시장배 친선 테니스대회
4. 13
• 중앙동 지하차도건설 관련 주민간담회
•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
4. 17
•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D-150일 기념 강원도민 바둑 큰잔치
4. 19
• 속초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회의
• 강원국제관광박람회 홍보설명회
4. 23
•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 '99 미스강원 선발대회
4. 28
• 제6회 영동지구 7개시군 친선게이트볼 대회

4. 29
• 프랑스「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5. 1
• 밀레니엄 장애인 등반대회
• 근로자의 날 기념식
5. 7
• 제5회 설악권 4개시군의회 친선체육대회
5. 8
•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
5. 11
• 제80회 시의회 임시회
5. 17
• '99 강원엑스포 추진상황 보고회
5. 29
• '99 강원엑스포 D-100일 기념행사
6. 3
• '99 강원엑스포 D-100일 기념 속초시 엑스포지원단 성공다짐 결의대회
6. 6
• 제44회 현충일 추념식
6. 7
• 제34회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결단식
6. 13
• 재경시민과의 엑스포설명회
6. 14
• 속초~포시에트~훈춘 항로 개설관련 행정지원 관계관 회의
6. 19
• 속초시 세무 · 건축행정 서비스현장 선포
6. 21
• 백두산 항로개설 행정지원단 현판식
6. 23
• 엑스포기념 '99바이코리아컵 K리그 프로축구경기
6. 27
• 제1회 설악단편 영화제
7. 3
• 주한 외신기자단 엑스포현장 방문
7. 6
• 강원엑스포준비 마무리 대책 종합보고회
7. 10
• 장사동 어업인 복지회관 입주식
• 영랑호 안축시비 제막식
• 제8회 아시아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7. 16
• 요나고시 니이야마야구단 친선경기
7. 19
• 99 중앙 및 지방 여성정책담당자 연찬회
7. 24
• 속초등대 산책로 개설공사 준공식
7. 30
• 강원엑스포 성공기원을 위한 제4회 시민큰잔치
8. 12
• 엑스포 시민자율질서봉사단 발대식
• 엑스포 성공다짐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 및 결의대회
8. 26
• 엑스포성공다지기 KBS열린음악회
9. 8
• 엑스포전시관 개관
9. 9
• 설악해맞이공원 조성공사 준공식
9. 10
• 엑스포 전야제 축하행사
9. 11
•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막
9. 22
• 민방위대 창설 제24주년 기념 행사

9. 28
• 제26회 관광진흥 촉진대회
9. 30
• 엑스포 속초시의 날 행사
10. 7
• 자매시기념공원기념비 제막식 및 식수
10. 9
• 제6회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 성장회의
10. 14
• 제8회 전국무용제
10. 22
• 제4회 강원도지사기태권도대회
10. 25
• 제17회 전국합창경연대회
10. 28
•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10. 30
• 주한 불란서대사 예방
•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폐막식
11. 3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만 청장 래시
11. 13
• 제6회 대한축구협회장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11. 25
• 밀레니엄 타임캡슐 매설식
12. 1
• 영랑초등학교 준공식
12. 31
• '99년도 종무식
•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창립
• '2000속초밀레니엄평화축제

◆ 2000년
1. 7
• 2000년도 시정보고회
1. 14
• 재경 출향인사와의 간담회
1. 21
• 2002월드컵대회 조직위 조사단 방문
1. 25
• 스티븐브라운 주한영국대사 초청 강연회
1. 27
• 제5회 설악눈꽃축제
1. 31
•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2. 15
•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속초시민의 날 행사
2. 22
• 제35회 도민체전준비 추진상황 보고회
3. 9
• 백두산항로개설 추진상황 보고회
3. 24
• 속초~자루비노~훈춘간백두산 항로개설관련 세미나
4. 8
• 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 창립 대의원 대회
4. 1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매결연(미 샌프란시스코콜로라도주지회) 협정식
4. 14
• '2000년 강원소년체육대회 결단식
4. 15
•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돕기 성금모금

• 시민식수공원 준공식

4. 21

• 제20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 22

• 설악권~경희대 자매결연 1주년 기념행사

4. 28

• 송훈석 국회의원 설악권 4개 시장 · 군수 좌담회

• 백두산항로 취항식

4. 29

• 이웃돕기 범도민 걷기대회

5. 1

• 백두산항로 개설기념 중국 길림성 친선 방문단 래시

5. 13

• 제8회 속초시장배 직장 탁구대회

5. 20

• 제35회 도민체전 붐조성 시민건강 달리기대회

5. 31

• 도민체전 손님맞이「질서 · 친절 · 청결」범시민 다짐 대회

6. 8

• 제35회 도민체전 성화 안치식

6. 9

• 제35회 도민체전 개회식

6. 17

• 러시아 항만청관계자 래시

6. 30

• 2000년 통일정세보고회

7. 3

•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

7. 10

• 제6회 도민의 날 경축행사 및 속초해수욕장 개장식

7. 11

• 속초시의회 제3대 개원 2주년 기념행사

7. 14

• 범국민 준법운동실천 한마음 결의대회

7. 15

• '2000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7. 18

• 국립공원계획변경(안) 설명회

7. 26

• 일본 돗토리현 의원교류단 방문

7. 27

• 설악 · 금강권 관광개발계획 설명회

8. 5

• 제1회 속초오징어맨손잡기 축제

8. 10

• 서울예술공연전문학교 청호동 아바이마을 위문 공연

8. 30

• 제5회 속초시장기 축구대회

9. 5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9. 23

• 엑스포기념관 개관식

9. 29

• 속초~장천항 금강산 쾌속선 운항 설명회

9. 30

• 제9회 속초시협회장기 학생 태권도대회

• 제35회 설악문화제

10. 12

• 중앙시장 활성화 설명회

10. 24

• 설악 · 금강산개발 특별용수 저수지건설 토론회

10. 30

• 제38회 전국중 · 고학생종합탁구

대회
11. 4
• 속초청소년보호순찰대 발대식
11. 6
• 미 오레곤주 임용근상원의원 초청 강연회
11. 8
• 7번국도~외옹치간 도로 개설 착공식
11. 9
• 관내 동거부부 3쌍 합동 결혼식
11. 10
•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순회설명회
11. 15
• 청초호 오니준설공사 기공식
11. 17
• 속초권 관·학협력 조인식
12. 20
• 속초시 인구 9만 돌파 기념행사
12. 21
• 청초호유원지 준공에 따른 주민설명회
12. 26
•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협력 체결
12. 27
• 주민자치센터 개관식(동명, 금호, 교동)
12. 28
• 주민자치센터 개관식(노학, 대포동)

◆ 2001년
1. 2
• 시무식
1. 4
• 신년인사회
1. 5
• 속초지역 중학생 교복 공동구매 학부모 설명회
1. 6
•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 속초 취항식
1. 11
• 청초호유원지 문제해결을 위한 속초시민대책위원회 창립식
1. 12
• '2001년 시살림살이 보고회
1. 18
• 제6회 설악눈꽃축제 개막
• 채용생 부시장 이임식
1. 19
• 김진국 부시장 취임식
1. 27
• 설악동번영회 창립총회, 초대회장 하상석
2. 2
• 속초출신 정철희, 권투 밴텀급 국가대표 발탁
2. 5
• 도지사와 아바이마을 주민과의 간담회
2. 6
• 재경 출향인사와의 간담회 및 정월대보름 맞이 농특산물 판매「재경시민의 날」행사
2. 7
• 속초시 대표단, 연변조선족자치주 방문, 백두산항로 활성화 방안 협의
2. 13
• 속초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식
2. 15
• 설악문화제위원회 정기총회, 조동룡위원장 연임
3. 5
• 일본 극단 '아, 제암리여' 속초 공연
3. 8
• 제37회 춘계 한국 남녀중고축구대

회 개막
• 속초시 관 · 학협의회 3개 분과위원회 구성
3. 16
• 제24회 강원도회장기 태권도대회
3. 20
• 속초극동방송(본부장 권영범) 운영위원회 창립총회
3. 22
• 2001 세계 물의날 행사
3. 23
• 속초시 제2건국 제2기 출범식 및 제4차 정례회의
3. 30
• 이브게니 아파나시에프 주한 러시아대사 래시
3. 31
•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 기공식. 총연장 15.67km, 미시령터널 3.69km,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회사 컨소시엄 구성
4. 3
• 제1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탁구대회
4. 6
• 시합평 모임 '시마을 사람들' 소식지 '詩마을' 지령 100호 기념행사
4. 7
• 속초시 국제 자매도시 요나고시위원회와 일본 돗도리현 서부지구 한일친선협회 자매결연조인식
4. 8
• 속초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향숙) 창립총회
4. 10
• 설악, 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사업 주민간담회
•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개발 용역 주민간담회
4. 11
• 2001년 강원도소년체전 속초서 개막
• 속초시 재냉동선 선장 및 기관장 협회 현판식
4. 18
• 속초시 · 사카이미나토시간 수산행정연수생 파견을 위한 조인식
4. 12
• 속초YMCA 창립 10주년 기념식
4. 24
• 제21회 장애인의 날 행사
4. 26
• 일본상품 불매운동 및 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캠페인
5. 2
• 제3회 전국 어업인후계자대회, 속초엑스포장서 개최
5. 3
• 동우대 제16대 총학생회(회장 서명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집회
5. 3
• 강원도 시장 · 군수협의회 개최
5. 4
• 미시령관통도로 시공설명회
• 제1회 우리꽃 전시회
5. 7
• 제49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
5. 8
• 속초 앞바다에 관광잠수정 '트리토네' 취항식
5. 11
• 속초시족구연합회(회장 이종식), 중국 훈춘 방문 족구 친선경기.
• 자유민주연합 속초 · 고성 · 양양 지구당 현판식

5. 13
• 속초지역 65년도 초등학교 졸업 동문 체육대회
5. 14
• 미시령서 관광버스 추락
5. 16
• 제6회 속초시장기 축구대회
5. 18
• 일본 돗토리현 청년회의소 속초 방문
5. 28
• 속초수협 풍어제
5. 30
• 토야마현 뉴젠정 한일친선협회 부회장 래시
6. 2
• 속초기상대 고층기상관측 행사
6. 5
• 속초시 봄가뭄 장기화로 아파트 관리소장, 목욕업주 대표와 간담회
6. 6
• 제46회 현충일 추념행사
6. 7
• 6.10항쟁 기념 속초지역 시민노동단체 토론회
6. 8
• 속초문화원 사물놀이패, 제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대상
6. 11
• 한국관광공사 속초서 전국관광안내원 실무교육
6. 13
• 속초시 가뭄장기화, 아파트 등 대형건물 1만9천세대 대상 격일제 급수, 서울 중구청 등 각계에서 생수지원
6. 15
• 설악문화제 캐릭터 '설악동이' 선정
6. 19
• 속초시 제한급수 해제
• 남북관계 상황진단 및 상황타개를 위한 통일문제 워크샵
6. 20
• 대포수협(조합장 이창남) 금융업무 개시
6. 23
• 제1회 설악신문사장기 족구대회
• 제1회 아시아주니어 태권도 한국대표선수 최종선발전
6. 25
• 제51주년 6.25의 날 자유와 평화수호를 위한 범시민 안보결의대회
• 백혈병 어린이돕기 걷기대회 속초시청 광장서 발대식
6. 27
• 속초경실련 · 동우대 지역정책연구소,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6. 28
• 해양수산부, 동해북방어장 신설발표. 동해어로한계선 38도 33분서 38도 35분으로 2마일 북상, 매월 10월~3월까지 한시조업
6. 30
• 주한 러시아연방대사관 총영사 래시
• 속초시 인구 90,355명
7. 2
• 법무부 춘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소장 송상은) 업무 개시
7. 4
• 갯배 구 제일극장 옆으로 이전. 해저 준설공사로
7. 6
•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 시설면적 69,282㎡, 차집관로 길이 23km, 1일 46,000톤 처리. 사업비 1,107억원

7. 8
• 2001 설악국제트라애슬론 대회. 7개국 5백여명 참가
7. 10
• 속초시 대표단, 일본 토마야현 뉴젠정 방문 '후쇼사의 왜곡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서한문 전달.
• 속초해수욕장 개장식
7. 11
• 제3대 속초시의회 3주년 기념행사
• 속초시의회(의장 신철), 일본 요나고시 시의회에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서한문 발송
7. 16
• 돗토리현 서부지구 한일친선협회 개시
7. 18
• 속초시의회, 설악~금강 연계 관광개발 촉구 건의문 청와대 등에 발송
7. 19
• 설악 · 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학사평저수지 시설보강 속초시에 물 공급)건설 원암리 주민설명회 무산
7. 20
• 속초JC,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운동
7. 23
• 2001 속초 해양페스티발 개막
• 제1회 중앙시장 상가 축제.
• 제2회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
7. 24
• 제1회 속초시장배 전국 용카누대회 청초호에서 개최
7. 25
• 제1회 속초이북사투리 경연대회
7. 27
• 내고장 향토문화 탐방교실 운영.
• 속초지역 청소년, 자매시인 미국 그레샴시 방문
8. 1
• 속초-훈춘시간 경제교류 관계자 래시
8. 2
• 시민단체, 주민감사 청구인수 완화 조례제정 청원
8. 8
• 6.15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속초추진본부 발족
8. 10
• 제59차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
8. 13
• 제3회 설악 아시아 단편영화제 개막
8. 15
• 강원민예총 제6회 통일문학제
8. 16
• 속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준공식
8. 18
• 올바른 청초호 조류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전국 환경단체 토론회
8. 20
• 강원도 환동해권 전략계획 워크샵
8. 23
• 제7회 환동해권 거점 도시회의 일본 개최. 동문성 시장 주제발표
8. 25
• 희영호, 캄보디아 신어장 개척 출항식
8. 27
• 영동 극동방송 개국식. 주파수 90.1MHZ
8. 28
•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사업 용역 중간보고회

8. 30
• 영랑동 주민자치센터 개관식
8. 31
• 청호동 주민자치센터 개관식
• 북방항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9. 4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민생살리기 10만Km 대장정 속초 도착 강연회.
9. 6
• 제29회 추계 전국 남·여 중고 유도연맹전
9. 12
•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관광활성화 방안 중간 용역보고회
• 일본 돗토리현 건설행정조사단 래시
9. 13
• 설악중 야구부, 제13회 대통령기 전국중학 야구대회 준우승
9. 15
• 속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김현석) 출범
9. 19
• 제2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심포지움
9. 23
• 제2회 속초시장배 학생골프대회
9. 24
• 속초시 변호사회(회장 조동룡), 단독 항소심 강릉지원서 재판(법률 개정) 건의.
9. 26
• 동우대 총학생회, 시민과 동우인이 함께 펼치는 통일염원축제.
•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시민토론회.
• 속초경실련·동우대 지역정책연구소, 지방자치 대학 개강식
9. 27
• 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인제지구당 후원회.
9. 28
• 속초시민연합 발기인대회.
• 속초축협·양양축협 통합 조인식
• 속초시 노인공동작업장 준공식
10. 7
• 속초선적 근해통발 광덕호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혐의 러시아에 나포.
• 속초시 등 전세계 19개 산악도시 자치단체장 일본 나가오현 마츠모토서 2001 산악도시회의 개최
10. 8
• 양미리 첫 조업 풍어, 1천톤 이상 어획
10. 9
• 오징어 채낚기 2000영선호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혐의 일본에 나포
10. 12
• 제36회 설악문화제
10. 13
• 속초시 궁도장 준공식
10. 15
• 최상규 속초시 부시장 부임
10. 17
• 백두산 항로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10. 18
• 해병대 전우회 속초시지부, 일본교과서 왜곡 및 외산 담배 추방 결의대회
10. 23
• 제5회 노인의 날 행사
10. 25
• 속초중 개교 50주년 기념 제3회 밤골축제.
• 홍게통발 고성 자망 어민 북방어장 조업 마찰 관련 긴급 간담회

11. 2
• 병무행정 발전 세미나
11. 3
• 제2회 국민생활체육 속초시족구협회장배 족구대회
• 학생의 날 기념 영랑호 단축마라톤대회
11. 6
• 2001년 국민홍보위원 토론회
11. 7
• 일본 요나고시 모리타 타가토모시장 등 속초시 방문
11. 10
• 제10회 속초시협회장배태권도대회
11. 12
• 속초시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 돌입
11. 13
• 속초지역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진철) 구성
11. 17
• 속초상고동문회, 속초야구 후원의 밤 개최
• 제3회 속초시장배 수영대회
11. 19
•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상무대표단 방문
11. 21
• 한국신체장애인협회 강원지부 속초시지회 창립 기념식
11. 23
• 대북정책설명회
11. 24
•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시 · 도 대항 레슬링대회 개막.
• 속초축협 · 양양축협 통합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71% 찬성
11. 29
• 2010년 동계올림픽 공동 선정 반대 및 개최지 재선정 촉구 속초시민결의대회
12. 1
• 제9회 시장기 탁구대회
12. 5
• 늘사랑회 초청 러시아 고려인 16명 속초 방문
12. 8
• 제23회 대통령기 전국일반 검도선수권대회
12. 10
• 속초시 대표단, 백두산항로 활성화 방안 모색 위해 중국연변 조선족자치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
12. 15
• 제5회 강원민족예술인대회
12. 18
• 강원오페라 초청공연
12. 22
• 속초경찰서 설악파출소 청사 준공식
• 제2회 속초시민사진공모전 시상 및 전시회
12. 28
• 한국토지공사 영동사업단 고객지원센터 개소식
12. 31
• 2001 종무식

◆ 2002년

1. 3
• 백두산항로 소무역상들 세관 규정 완화 요구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서 연좌 침묵 농성
1. 4
• 신년인사회
• 동해세관 속초출장소 개청. 소장 최만근

1. 10
• 비젼 2002 대토론회
1. 11
• 속초소기업 · 소상공 연합회 창립총회, 초대 지회장 윤광훈
1. 17
• 대포동 주민들,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반대 집회
1. 27
• 제7회 설악눈꽃축제
1. 30
• 속초시 지방의제21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2. 1
• 금강산 수학여행비 지원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하상석 설악동번영회장) 집회
2. 4
• 김용화 제14대 속초수협장 무투표 당선
2. 6
• 속초시 CI개발 및 캐릭터 개발보고회
2. 7
• 월드컵 · 아시안게임 대비 꽃씨 구입 동전모으기운동 발대식
2. 8
•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수가인상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1인 시위.
• 새천년 민주당 속초 · 고성 · 양양 · 인제지구당 정기 대의원대회
2. 15
• 동우대 제20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2. 16
•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철회 촉구 속초시민 궐기대회
2. 20
• 제5회 금강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2. 22
• 한나라당 속초 · 고성 · 양양 · 인제 지구당 정기 대의원대회
2. 23
• 재경 속초시민의 날
2. 25
• 속초신협 30차 정기총회, 김경식 제13대 이사장 선출
2. 26
• 2002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 노학동 자활촌 주민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대책 주진위원회 출정식.
2. 28
• 속초경찰서 '매춘 여성 인권 지킴이 실행위원회' 구성.
3. 1
• 3.1절 시민건강달리기대회
3. 4
• 백두산항로 동춘호 주 3회로 증편 운항.
3. 5
• 속초세무서 신청사 기공식
3. 8
•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 정기이사회
3. 10
• 속초경실련, 제10회 세계 물의 날 기념 심포지엄.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체레드니첸코 항만청장 속초 방문
3. 11
• 양양국제공항 개항준비 대책회의
3. 16
• 제20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 및 제1회 회장기 전국 여자레슬링대회 개막.
3. 19
• 설악권 4개 시군 관광협의회

3. 21
• 대포항 개발 사업소 개소식
3. 22
• 제12회 회장기 전국 중학교 레슬링대회 개막.
• 석봉도자기 미술관(관장 조무호) 개관.
3. 23
• 전국 최초 통합 축협 '속초 · 양양 축협(조합장 이석전)' 출범.
3. 26
• 속초시번영회 2002년 이사회 총회, 최돈일 번영회장 선임
3. 27
• 하도문마을 강원도 친환경 우수마을 선정 지원 물품 전달식
3. 29
• 속초 · 고성 · 양양 환경운동연합 환경감시고발센터 개소식.
• 백두산 항로 동춘호 속초항 입항 중 좌초.
• 영랑초교 야구부 강원도 소년체전 우승
4. 2
• 양양국제공항 개항식. 이한동 국무총리,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 참석. 김포노선 왕복 5회, 김해노선 왕복 2회. 활주로 길이 2.5km, 폭 45m
4. 3
• 설악산 · 금강산 연계 관광 심포지엄
• 김포발 대한항공 KE1701편 보잉 737-900 오전10시 승객 131명 태우고 양양 첫 출발. 오전 11시 중국 상해발 중국 동방항공 MD90기 오후 1시 양양국제공항 도착.
4. 6
• 속초YMCA 제4회 초록동요제
4. 11
• 속초 · 고성 · 양양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 지지 의견 속초시에 전달
4. 12
• 속초항 관세법상 개항지정 관련 협의회
4. 13
• 제44회 춘계 전국대학 검도 연맹전 개막
• 2002년전국춘계대학 축구 연맹전
4. 14
• 제1회 벚꽃길 일주 전국하프마라톤대회
4. 16
• 100대 시책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4. 18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속초시지회 장애인의 날 행사
• 제41차 전국여성봉사 특별 자문위원 총회
4. 19
• 호주 6.25 참전용사 래시
4. 20
•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 장애인의 날 행사
4. 21
• 제29회 한국 중 · 고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기대회
4. 23
• 바른일꾼뽑기 속초지역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4. 24
• 속초 반야자활후견기관 개관.
• 러시아 연해주 핫산군 대표단 속초 방문
4. 26
• 설악권 시군 · 경희대학교 자매결연 3주년 기념식

4. 28
• 이산가족 상봉단, 금강산 상봉 위해 설봉호로 속초항 첫 출발
5. 1
• 근로자의 날 기념식
5. 3
• 고 이성선 시인 시비 제막식.
5. 6
• 캐나다 합창단 속초공연
5. 7
• 속초 · 고성 · 양양환경운동연합 ·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 간담회
5. 8
• 속초항 개항 지정
5. 14
• 설악중,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야구 우승
5. 15
• 새천년민주당, 6.13지방선거 속초시장 · 도의원후보 선출대회
5. 16
• 양양국제공항 개항 기념 일본 돗토리현 국민문화제 홍보금연팀 속초공연.
• 어업인들 속초항 개항 지정에 따른 대체 어항 조성요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과 간담회
5. 17
• 속초감리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예배
5. 19
• 설악산 산사랑인 체육대회
5. 22
• 전국소년체전 우승 설악중 야구부 환영식 및 카퍼레이드.
• 속초지역 연안 오징어채낚기어선 30여척 해군 소속 선박이전 요구 해상시위
5. 23
• 바른일꾼뽑기 속초지역 유권자 운동본부 40대 개혁과제 발표.
자민련 속초시장후보 선출대회
5. 25
• 속초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속초고등학교 50년사', '지역경제의 길라잡이 속고인' 발간
5. 27
• 개인택시 속초지부 밴형화물차 영업행위 제한요구 집회
5. 30
• 시민단체 속초지역 유통업체 장바구니 다시 들기운동 협약식
6. 3
• 속초시 콜밴연합회 발대식(초대회장 김용호)
6. 6
•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재자 투표
6. 13
•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문성 민선 3대 속초시장 당선. 도의원 김길정 · 이병선, 시의원 최준집 · 박명수 · 김성근 · 김진국 · 고학재 · 김정한 · 홍우길 당선
6. 24
•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금강산 망향제 발대식
6. 25
• 6.25전쟁 52주년 기념식
6. 26
•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 마나토시 건설 공무원 속초시 방문
6. 28
• 제3회 지방선거 당선자 정책간담회
6. 29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속초시 학습

관 개관식
• 2002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7. 2
• 동문성 민선 3대 속초시장 취임식
• 청호동 신수로 아치형교량 거치식.
7. 5
• 제4대 속초시의회 개원식
7. 10
• 강원도 재향군인회, 북서해 도발 규탄 및 금강산관광 중단 촉구대회 속초항서 개최
7. 11
• 제4대 강원도교육위원에 안종원씨 당선
7. 12
• 속초여중 유도부 창단식.
• 속초소방서 의무소방대 숙소 준공식
7. 13
• 제21차 전국 불교청년대회
7. 22
• 2002년 속초해양페스티벌
7. 26
• 재한 연변대학학우회 속초시 및 휴전선 견학
7. 29
• 속초 김현섭(속초상고) 전국 중·고육상대회 경보 1만m 1위, 임현순(설악여중) 경보 5천m 1위
7. 31
• 국회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통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단독사건 항소심재판 관할구역에 속초·고성·양양 포함
8. 5
• 속초상공회의소, 춘천~속초간 철도 조기 착공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
8. 8
• 속초시 상징물에 심볼마크, 캐릭터 해오미 등 추가. 속초시 상징물 관련 조례 공포
8. 14
•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서 남북 동해선 연결협의
8. 15
• 2002 제10차 통일염원 국토 도보 행진 및 망향제
8. 19
• 한·일 친선 문화·체육교류행사
8. 21
• 주한 미국대사 방문
8. 22
• 동우대, 학교부지서 온천 발견 속초시에 신고서 접수
8. 25
• 2002 아이언맨코리아 트라이애슬론대회
8. 28
• 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 참여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단장 이경상) 발족
8. 29
• 속초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식
8. 31~9. 1
• 태풍 루사 강타 426mm 집중호우, 속초시 사망·실종 9명, 이재민 1,019세대 2,477명, 총재산피해 1,838억원. 영북지역 전체 44명 사망 실종, 재산피해 8천억원
9. 1
• 소야초등학교 개교, 16학급 490명
9. 4
• 유행성 눈병(아폴로 결막염) 확산

9. 13
•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속초 김기화(64세) · 지인수(80세) · 전제영(76세)
9. 18
• 남북 동해선 철도 · 도로공사 착공식
9. 27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입지,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 입구 최종 선정
9. 29
• 블라디보스톡 해운항만청장 래시
10. 2
• 태풍 루사 피해 속초시 복구비 1,438억원 확정
10. 4
• 소야초등학교(교장 송원섭) 개교기념 한마당
10. 10
• 제8회 환동해권 거점 도시회의 속초개최, 4개국 10개 지방정부 참가.
• 부영아파트 31 · 47 · 58평형 분양 전환 입주민 반발
10. 13
• 주공1차 재건축 시공업체 수산건설 선정
10. 15
• 설악권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10. 16
• 제2회 통일대기 전국여자 축구대회
10. 17
• 주한 외국무관단 래시
10. 18
•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속초권 순회보고회
10. 22
• 대형할인점 E마트 착공
10. 24
• 주공4차 아파트 입주민 임대연장 궐기대회.
• 속초성폭력상담소 개소 2주년 기념 성매매방지 토론회
10. 25
• KBS속초방송국 제정 제1회 설악사랑대상에 박그림 설악녹색연합대표 수상
10. 30
• 사단법인 한국 국악협회 속초지부(지부장 권종식) 창립총회
10. 31
•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2002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장려상 수상
11. 1
•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 구 설악동 사무소에 개관
11. 2
• 수재민 위로 '속초사랑 상생천년' 문화행사 개최
11. 7
•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 수산고교 실습선 속초항 입항
11. 8
• 해중생태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학술 심포지움
11. 16
• 풍물패 갯마당(단장 주동진) 창단 10주년 정기공연
11. 21
• 지방의제21 시민대토론회
11. 22
•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구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
12. 2
• 설악산 케이블카 시설보강 위해 운행 중단

12. 7
• 첫눈 3일간 폭설. 미시령 124Cm
12. 9
• 속초시 · 해양수산부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12. 12
•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
12. 19
• 제16대 대통령선거
12. 21
• 제3회 속초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12. 21
• 극단 오름(대표 황헌중) 창작극 '새' 창단 공연
12. 23
•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1차 조성공사 준공
12. 26
• 속초여자중학교 태권도부 창단
12. 31
• 2002년 종무식

◆ 2003년
1. 1
• 속초시 승격 40주년
1. 3
• 신년인사회
1. 6
• 바다목장화사업 속초지역 실사
1. 10
• 시승격 40주년 기념 살림살이 설명회
1. 15
• 속초 · 돗토리현 행정실무 교류
• 속초해수욕장 연결도로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1. 16
•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주민 공모 접수 시작
• 지역문화 행정가 토론회
1. 20
• 금강산관광 재개
1. 29
• 2003년 업무보고회
2. 1
• 관광안내소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2. 4
• 새주소사업 도로 이름 공모 마감
•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
2. 5
• 금강산 1박2일 육로관광 사전 답사
2. 6
• 설악동 번영회, 설악산 개발 특별법 제정 건의
2. 11
• 목우재터널 공사 현장 설명회
2. 14
• 남북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 및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
2. 21
•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 대구지하철 참사 유족돕기 성금 기탁
3. 1
• 3.1절기념 건강달리기대회
3. 4
• 전북 정읍시의회 속초 방문
3. 12
•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기공식
3. 18
•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중간보고회
3. 19
• 청호동 주민, 이마트 신축 주민보

상 요구 시위

3. 20

•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자 쌍용건설 선정

3. 25

• 수해복구사업 견실시공 다짐대회

3. 26

• 불혹의 시민운동 민간단체 회의.

• 사스여파 금강산 해상관광 중단

4. 1

• 미시령 관통도로 조기 개통 촉구

4. 3

• 청초호 준설 퇴적물 해양투기 논란 일단락

• 설악동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주민간담회

• 금호지구 재건축사업 지방건축위원회 통과

4. 9

• 제20회 강원연극제

• 지방분권 추진 대책팀 구성

4. 10

• 속초관광진흥협의회 개최

•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 기본설계안 설명회

4. 11

• 동해검역소 속초지소 사스관련 대책회의

4. 15

• 일본 돗토리현 관계자 속초방문

4. 16

• 100대 시책보고회

4. 20

• 생활체육협회장기 동호인 야구대회

4. 25

•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시민공청회

4. 26

• 설악산 야생동물 학교 개강

4. 27

• 동춘호 이용 첫 중국 훈춘시 관광객 입국

4. 29

• 강원 장애인복지관 속초 분관 개관식

5. 1

• 오윤환선생 선양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 매곡 선생 유품 속초 기증

5. 8

• 북청사자놀음 공연

5. 9

• 외옹치마을 경관형성 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5. 13

• 속초세무서 교동 신청사 준공식

5. 15

• 속초시 여성정책 종합평가 최우수시 선정 시상식

5. 17

• 불우이웃돕기와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걷기대회

5. 19

• 속초종합민원실 신청사서 업무 시작

5. 20

• 속초시 종합민원실 신청사 준공식

5. 21

• 한국관광공사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개발방안 마련 위한 현지조사

5. 24

• 속초시 노학동 주민자치위원회 · 반야요양원 후원 결연식

5. 27

• 강원관광인체육대회

5. 30

• 속초지역 외국인어업근로자 돕기

모임 발기인대회

6. 13

• 속초시 동해안 바다목장화 사업 유치위원회 결성

6. 17

• 속초 도문메나리 농요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종합최우수상 수상

6. 27

• 제4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6. 28

• 2003 설악국제 트라이애슬론대회

6. 30

• 극단굴렁쇠 · 오름, 제21회 전국연극제 금상 수상. 황헌중 최우수 연기상

7. 4

• 제8회 여성주간 기념식 개최

7. 9

•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연찬회

7. 11

• 제4대 속초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7. 16

• 속초YWCA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햇살의 집' 개소

• 갯배, 속초수협 어판장 인근으로 재이전

7. 22

• 제16회 소방기술 경연 강원도대회 속초소방서 종합우승

7. 28

• 설악 한여름밤 등축제

7. 29

• 영북지역 장애아 특수학교 유치를 위한 발기인대회

• 속초민예총 '2003 하야몽' 개막

7. 31

• 중국훈춘 백두산 소년예술단 속초공연

• HID국가유공자 동지회 강원도지부 창립 기념대회

8. 3

• 해오미 캐릭터 판매점 개소

• 범죄예방 속초시협의회 한마음 대회 개최

8. 7

• 강원사랑 시민연대 발대식

8. 13

• 정재철 전국회의원(4선) 정계은퇴 선언

8. 14

• 함남중앙청년회 통일염원 국토도보행진단 청호동서 망향제

8. 15

• 민예총 속초지부 제7회 통일문학제

8. 19

• 2003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개막

8. 27

• 설악산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모집 설명회

• 속초항 신수로 임시가교 철거

• 속초산악인들 광복 58주년 및 속초시승격 40주년 기념 백두산 등정

•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주민 간담회

8. 31

• 아이언맨코리아 트라이애슬론대회

9. 1

•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9. 3

• 속초시의회 민원상담실 개소

9. 5

• 영랑초교,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 은상 수상

9. 12

• 태풍매미 강타 피해액 66억여원.

9. 13
• 금강산 해로관광 재개
9. 17
• 중국 연변작가협회 속초방문
9. 19
• 제39회 추계 한국 중 · 고축구연맹전 개막
9. 20
• 설악여중 학교도서관 개관
9. 26
• 속초시복싱회관, 교동으로 확장이전 개관식
9. 28
• 속초시 승격 40주년 기념 영랑호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 제7회 속초시민 골프대회
10. 2
• 속초시승격 40주년 기념 제38회 설악문화제
10. 4
• 제1회 속초사진촬영대회 정민교씨 작품 '널뛰기' 최우수상 수상
10. 5
• 한나라당 속초 · 고성 · 양양 · 인제 지구당 위원장에 정문헌 선출
10. 9
• 제7회 속초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막
10. 10
• 설악산 케이블카 50인승으로 교체운항 재개
10. 15
• 속초YMCA, 설악실버문화축제
• 속초선관위 공명선거 달리기대회
10. 16
• 환동해권 거점도시로서 속초항의 역할과 전망 학술심포지엄
10. 17
• 제1회 학사평 순두부 축제
• 도문메나리 농요,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금상 수상
10. 18
• 속초시승격 40주년 기념 한국 남성합창단 공연
10. 23
• 속초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사업 공청회
10. 24
• 제3회 축산인 체육대회
10. 25
• 영랑호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기념 자전거 대행진
• 제1회 속초시장기 족구대회 개막
10. 28
• 속초상의, 속초세관 승격 건의
10. 29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속초 · 고성 · 양양지부 창립
11. 4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워크숍
11. 5
• 속초항 신수로 교량 준공, 교량길이 530m
11. 6
• 북방항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장 시범운항.
속초시 대표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인적 · 물적교류 방안 협의
11. 11
• 제7회 농업인의 날 축제
11. 13
• 강원도 정신지체인 애호협회 속초시지부 사무실 개소식.
• 동해북부고속도로 속초시 구간 대책위(위원장 정희섭) 결성.

• 북방항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장 운항.

11. 17

• 한민족 통일 여성 속초지회 결성식

• 속초시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련 주민 간담회

11. 20

• E마트 속초점 개점

11. 23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단 속초시 첫 공식 방문. 양도시 관광활성화 방안 협의.

11. 24

• 속초시 장애후원봉사회 발대식

11. 28

•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창립대회. 초대회장 심연흠

11. 30

• 교동초교 배구부, 도대표 선발전 우승

12. 2

• 설악산 캔싱턴 호텔서 남북철도 · 도로 실무회담

12. 4

• 외국인 주부 김치담그기 체험행사

12. 6

• 설악중 다목적 체육관(설빛관) 준공식

12. 9

• 속초시 사진작가협의회 창립총회. 회장 최낙민.

12. 10

• 속초시 여성교육 문화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작품 전시 · 발표회.

• 속초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발족

• 속초시 목우재터널 기공식

12. 11

• 해오미 속초의제21 확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12. 15

• 시 동인지 '미시령문학회' 창립. 회장 김창균

12. 16

• 금강산 관광 관련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12. 18

• 속초시 통장협의회(초대회장 최영구) 창립

12. 20

• 제4회 속초관광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12. 22

• 속초해수욕장 활어난전 철거

• 속초관광발전 위한 공무원 워크숍

12. 24

• 백두산 항로 운영협의회 회의

12. 27

• 열린우리당 속초 · 고성 · 양양지구당 창당대회

12. 30

• 대포초등학교 증 · 개축 준공식.

◆ 2004년

1. 1

• 2004 해맞이축제

1. 4

• 희망중학교 우선 배정제 실시

1. 5

• 신년인사회

• 대만 대동현 대표단 속초방문

1. 6

• 양양군의회, 속초시의회 방문 양양공항 활성화 방안 간담회

1. 8

• 전국교육장협의회 연찬회 속초 개최

1. 10
• 속초-금강산 해로관광 막 내려. 설봉호 마지막 출항.
1. 12
• 속초시 살림살이 보고회
1. 13
• 동명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개점 후 첫 실시
1. 15
• 속초관내 중학교 희망 배정 추첨
1. 17
• 제1회 강원작가상 및 신인상 시상식
• 속초시 노인게이트볼장 준공식
1. 19
• 고교평준화 실현과 고입 선발고사 폐기를 위한 속초 · 고성 · 양양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 25
• 설악동 번영회 산신제
1. 29
• 장애아동 특수학교 설립 계획 및 예정부지(안) 설명회
1. 30
• 러시아 연해주 까레이스키 아리랑 예술단 초청 공연
1. 31
• 현대아산, 속초-금강산 해로관광 폐업신고
• 속초지역 전라 · 경상 · 충청도청년회 합동 시무식
2. 1
• 2004 재경 속초시민의 날 행사
2. 2
• 금호재건축사업 아파트 착공
• 속초시 시정평가 용역결과 발표
2. 5
•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
2. 6
•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 기공식.
• 속초시생활체육협의회 홍우길 신임회장 선출
2. 7
• 제9회 설악눈꽃축제 개막
2. 13
•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터널 관통 기념식
•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보고회
2. 24
• 속초시의회, 주공 강원지사 방문 주공4차 2단지 분양가 조정요구
2. 25
• 청호동 주민 · 삼성중공업, 신수로 교량 공사 피해 보상 합의
2. 27
• 동우대학 입학식
2. 28
• 주공4차아파트 2단지 입주민 임대연장 및 분양가 인하 요구 집회
3. 4
• 제1회 학사평 마을의 날 선포식
3. 5
• 2004 총선 바른일꾼 뽑기 유권자 운동본부 발족식
3. 9
• 영북 장애아 특수학교 부지 영랑동 국사봉 일원 결정
3. 10
• 속초 청대산 산불. 오후 1시22분 싸리재 변전소 인근 야산서 발화. 최대풍속 23m, 11일 오전 11시30분 진화. 산림피해 120ha, 건물피해 90동, 이재민 39가구 103명
• 농협 속초시지부, 농촌사랑 · 이웃

사랑 선포식

3. 16

• 속초재래시장 특화사업 기본계획 최종 용역보고회

3. 17

• 청대산 산불피해 이재민 산불원인 규명 요구 천막농성 돌입

• 주공4차아파트 2단지 입주민 안전진단 요구 항의 집회

• 속초시의회 산불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3. 20

• 강원사랑 시민연대 벽화그리기 착수

3. 25

• 속초 · 고성 · 양양 참여학부모회 창립대회

• 일본 극단 3 · 1회 초청 '그날, 그날에.....' 공연

3. 26

• 영랑호 실내 야구연습장 영랑야구관 개관

• 서울튜터 앙상블 속초공연

3. 30

• 반야전문노인요양원 완공

3. 31

• 1박2일 금강산 육로관광 첫선

• 속초시 새마을지회 고철모으기운동 시작

• 강원 4-H환경사랑 릴레이운동 발대식

4. 1

• 속초시-경기도 광명시 고속버스 운행 시작

4. 8

• 백두산항로 소무역상 세관검사 완화 요구 항의 시위

4. 10

• 극단 굴렁쇠, '날 보러와요' 제21회 강원연극제 대상 수상

• 속초 바른일꾼뽑기 유권자 운동본부 공명선거 캠페인

4. 15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정문헌 후보 당선.

4. 17

• 속초상고 인문계 신설 추진위 구성

• 대포동 상복교 건설공사 안전기원제

4. 20

• 양양국제공항 개항 후 일본 수학여행단(요도예정 정강중) 첫 입국

4. 21

• 속초시 동해북부선 속초연장 청와대에 건의

• 속초 외국인 산업 연수생 합숙소 착공식

4. 23

• 청대산 산불 이재민 피해보상 요구 집회

4. 24

• 민예총 속초지부 제18회 민족예술제 개막

4. 25

• 속초지역 69년 졸업 동기생 체육대회

4. 26

• 속초시 의정동우회 창립총회(회장 장헌영)

4. 28

• 속초사진작가협의회 창립(회장 최낙민)

4. 29

• 방문 보건 자원봉사단 발족식

4. 30

• 속초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 첫 회의. 주공4차 분양 관련.

• 속초시 시정 40년사 발간.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북지구협의회, 북한 룡천 열차 폭발사고 피해동포돕기 모금
• 속초 명예경찰소년단 발대식

5. 1
• 제11회 강원도 탁구협회장기 대회

5. 2
• 함남북청 민속예술보존회, 북청사자놀음 · 돈돌날이 공연

5. 6
• 속초해경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발대식

5. 7
• 속초시, 고성 · 양양 · 인제군, 경동대,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식

5. 9
• 제3회 설악하프마라톤대회 영랑호 개최

5. 14
• 속초시 '평화관광도시' 선포식.

5. 15
• 해오미 나눔장터 개장

5. 18
• 속초시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자매결연

5. 21
• 속초예총, 제15회 종합예술제 개막
• 속초수협, 풍어제

5. 25
• 속초상고인문계 신설 동문대책위, 서명서 학교 전달

5. 28
• 쌍천유역협의회 창립

5. 31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발표.
• 속초지역 시만단체들 'KBS 속초방송국 폐쇄 반대 공동 대책위원회' 발족

6. 1
• 강원경제살리기 순회 간담회

6. 3
•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 속초 설악산 캔싱턴호텔서 개최
• 청대산 생태복원 송배전선로 지중화 토론회

6. 4
• KBS 속초방송국 기능조정 설명회
• 속초시 조양동 주공4차 2단지 입주민 삭발식

6. 5
• 상인 · 대학생 · 시민단체, 속초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
• 속초시자원봉사센터 개소식

6. 10
• 속초 · 고성 · 양양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연대회의 발족
• 백두산 항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6. 15
• 금강산 당일 관광 시범 실시

6. 17
• 청대산 산불피해 이재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주호) 한전 속초지점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 속초시 · 문화관광부,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 협약체결
• 함경남도 청년회 속초지구, 실향민 경로잔치

6. 18
• 청초호 오염해역 준설사업 준공식. 2백10억원 투입, 퇴적물 59만여㎥ 준설.
• 북방항로 관련 3개국(한국, 중국, 러시아) 지방 정부 실무회의

6. 19
• 제1회 어머니 축구대회 개막

6. 20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오케스트라 속초공연
6. 22
• 속초고 배구부 제59회 전국남녀종별 배구선수권 대회 우승
•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 설명회
• 제5회 훈춘국제가요제
6. 26
• 2004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 개막
6. 28
• 속초시 민 · 관 북방시장 조사단, 중국 · 러시아 방문 위해 출국
6. 30
• 속초항 신수로 교량(청호대교) 조명 점등식.
•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개장식. 1만6천㎡ 규모. 마사동, 시연장, 기초승마장 등 갖춰
• 방송드라마 작가 초청 관광설명회
• 속초 통일정세 보고회
7. 1
• 속초시 불법주정차 무인 카메라 단속 실시
• 영랑호 붉은귀 거북 포획 시작
7. 2
• 제4대 속초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정한 시의원 선출
7. 3
• 금강산 당일 관광 시작
• KBS속초방송국 폐지 반대 서명운동
7. 7
• 첫 주민 발의로 속초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청구.
• 속초시 100대 시책사업 보고회
7. 9
• 새마을운동 속초지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단 출범식
7. 11
• 통일염원 자전거 달리기대회
7. 12
• 양양국제공항 서울노선 운항 중단
• 속초항만 정보관리센터 현판식
7. 14
• 민주노동당 속초 · 고성 · 양양 지구당 준비위원회(위원장 오모현) 결성.
• 태풍 루사로 유실된 쌍천 도천교(구 상복교) 준공
7. 17
• 함경남도 청년회 속초지구, 고성 저도해상서 함상 합동위령제 거행
7. 21
• 속초지역 택시노조, 법인택시 증차 철회 요구
7. 27
• 2004 속초해양페스티벌 개막식
• 외국인 선원복지센터 준공식
• 제5회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대회
7. 29
• 미국 그레샴시 교사 · 학생들 속초 방문
7. 31
• 먹거리촌 번영회, 향토특산물 장터 개설
7. 31
• 제1회 대한민국 음악축제 개막
8. 5
• 속초상고 인문계 신설 추진 도교육감과 간담회
8. 15
• 제8회 통일문화제 개최
8. 29
• 백두산 항로 동춘호 선상서 제1회

한 · 러 예술 사진전 개막

9. 13

• 제10회 환동해권 거점 도시회의 중국 도문시서 개최

9. 19

• 남북 동해선 임시도로 착공식

10. 2

• 강원도교육청, 2005학년도부터 속초상고 3개학급 인문계 전환 결정 통보

10. 15

• 제39회 설악문화제

10. 20

• 속초시 공무원노조 중식집회

10. 25

• 노리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

11. 1

• KBS 속초방송국, 강릉방송국에 통폐합. KBS 속초방송문화센터로 변경

11. 6

• KBS 속초방송국 로컬방송 중단

11. 4

• 극단 굴렁쇠 제7회 루마니아 세계연극제서 '한씨연대기'로 최우수상 수상

11. 10

• 동해세관 속초출장소 기공식

11. 21

• 속초시 금호동민 제1회 한마음 다짐 걷기대회

11. 24

• 속초정수장 준공. 3백66억 투입, 정수용량 1일 4만톤.

11. 25

• 동우대 학과 이전 및 온천사업 관련 주민간담회

11. 28

• 동우대 이전 및 학교 부지 제척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김용담) 발족

11. 26

•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박두진 설악동 번영회장) 결성

12. 5

• 서문순기 부주장, 김상진 훈춘시장 등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대표단 속초방문

12. 11

• 시합평 동인 '시마을 사람들' 활동 중단.

12. 18

• 설악문우회 '갈뫼 34집' 발간 기념회
• 속초시청 공무원 주관 '나눔 장터'
• 금강산관광 지원에 따른 설악권 관광 피해대책 토론회

12. 20

•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반대 집회.

12. 21

• 영북지구 이북 5도민 주관 '한마음 음악회'

12. 22

• 속리산 관광협의회, 설악동 방문
• 설악켄싱턴호텔 '팁빙박스' 개봉식.

12. 27

• 속초시, 연안정비사업 추진 점검 및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 선정

12. 28

• 속초아바이마을 갯배 운영관리실 준공

12. 29

• 동우대 원주 문막 이전 및 학교부지 용도 변경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 속초농협 조양지점 청사 준공식

◆ 2005년

1. 1

• 속초해수욕장 해맞이 축제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속초시 음식물 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가동시작.

1. 3

• 김복천 제20대 속초부시장 취임

1. 4

• 신년인사회

1. 5

• 속초경찰서 청초지구대 청사 준공식

1. 7

• 춘천지검 속초지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설

1. 8

• 양양~오사카 간 전세기 첫 운항

1. 10

• 설악동번영회 정기총회. 조경식 신임회장 선출

1. 11

• 대포항 주변 유입파 저감방안 설명회

1. 13

• 강원도 ·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설악동에 차세대 신기술 교통망(스카이택시)개발 협약체결

• 설악산 상인들 충북 속리산서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반대 집회

•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계획 워크숍

• 조양동 주공4차 아파트 2단지 통 · 반장 주민투표로 선출

1. 14

•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속초분관 비즈공예 상설매장 개장

1. 18

• 2005 속초시 살림살이 보고회

1. 20

• 전태극 민예총 속초지부장 재선

1. 21

• 강원도의회 의정대표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합동회의 속초 개최

1. 22

• 제10회 설악눈꽃축제

1. 25

• 속초문화원 제11대 문화원장에 노광복 선출

• 속초시 대표단 중국 훈춘시 방문, 속초시 · 훈춘시 농업기술 이전 합의

1. 28

•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당원협의회 창립대회

• 설악산 신흥사, 불우이웃과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주민돕기 모금

2. 1

• 러시아대사관 영사 일행 속초 방문. 추락사한 나탈리아 쿠리가노바씨 유해 인수

2. 2

• 속초시 관광정보화 구축사업 용역 보고회

2. 3

•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 동우대학교 용지변경안 의결

•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자 한국노총 속초지부 선정

• 조양 주공4차 아파트 2단지 정밀안전진단 · 임대기간 연장 국회 청원

2. 4

• 늘사랑회 소년소녀가장 졸업잔치

2. 14

• 청대산 산불피해 보상조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

2. 15
• 속초여자고등학교 제40회 졸업식
• 속초시 산불대책본부 설치
2. 17
• 속초시 체육회 사무국장 공개모집 마감
2. 22
• 장애인 후원봉사회(회장 김상복) 속초연탄은행 개원식
• 설악동 주민, 콘도 수학여행단 유치 규제 진정
2. 23
• 제25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2. 24
• 속초시 체육회 사무국장 첫 공개 채용
2. 25
• 속초문화원 제10대 최용문원장 이임식 및 제11대 노광복원장 취임식
• 동명항 북방파 제연장공사 어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활어위판장 대체부지 조성요구
• 고품질쌀 전진대회
• 영동대 토목건설자산업체 위탁교육장 개소
2. 28
• 봄철 산불감시단 발대식 및 특별교육
3. 4
• 제8대 속초 · 양양축협 조합장 이종율 선출
3. 11
• 속초상공회의소 주문진~고성구간 동해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
3. 13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속초시 소각장 양양군 협의지연 불합리 결정
3. 15
• 하도문 농촌체험종합타운 착공
3. 16
• 신오일 속초연극협회 지부장 선출.
• 동우대 발전위원회 발족 및 협약 체결
3. 17
•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간담회
3. 18
• 속초 그린빌리지 마을(중도문 2리) 준공식.
3. 2
• 설악동 번영회 · 정문헌 국회의원,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철회 간담회
3. 21
• 청호동 아바이마을 위 스타트(We Start)마을 운영위원회 발족
3. 22
•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3. 23
• 설악동 상인 대표 · 통일부,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관련 간담회
3. 25
•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식.
• 한국노총 속초지부 위탁 운영
3. 28
• 일본 독도침탈 야욕 규탄대회
3. 29
• 동아 수영대회 김태양(교동초5년) 배영 100m 금메달
3. 30
• 재래시장 활성화 합동 연수회
3. 31
• '속초시 바로 알고 알리기 운동' 희망자 모집
• 강원새농민회 속초시회 정기총회
• 일본 독도영유권 망언 속초시의회 규탄 성명

4. 1
• 제9회 속초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 속초소방서 '화재 피해주민 지원센터' 현판식
4. 4
•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기공식. 8천4백여㎡ 규모.
• 양양산불 발생. 낙산사 소실 등 산림피해 9백73ha
4. 7
• 도문메나리농요 보존회 구성. 회장에 오순석
4. 11
• 속초경찰서 전 · 의경 어머니회 정기회
4. 12
• 속초종합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개통식
4. 13
• 속초 어선 선장 만취상태서 우발적 월북
• 속초해경 경비함정 여경 첫 승선
4. 14
• 러 · 중 문화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4. 15
• 새농어촌건설운동 7개마을에 다래나무 분양
• 속초 JC 창립 36주년 기념식
• 월북어민 속초경비함 통해 귀환
• 전국 시 · 도 교육청에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유치 서한문 발송
4. 16
• 제1회 화랑 · 영랑축제 개막.
•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4. 18
• 속초시 젓갈반찬협의회(초대회장 박흥식 고바우 식품 대표) 창립식
4. 22
• 속초의정지기단,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 발표
4. 23
• 속초시 유소년 축구단 창단식.
• 속초민예총 창립 10주년 기념 2005 거리축전 개막.
• 극단 굴렁쇠 '늙은 도둑이야기' 강원연극제 최우수상 수상
4. 27
• 속초 · 양양 녹색어머니연합회 발족. 초대회장 강순희
• 속초 금호동 · 용인시 역삼동 주민 재래시장 살리기 결연
4. 28
• 농협 속초시지부, 금융사고 예방결의대회
5. 4
•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발대식
5. 10
• 속초시 실업팀으로 여자 카누부 결정
• 해난 어업인 위령제
5. 12
• 속초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중간 보고회
5. 13
• 속초시 음식물쓰레기 오수합병처리시설 준공식
• 속초해경 해상 대테러 훈련
5. 18
• 동해~러시아 자루비노 신규 북방항로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 긴급간담회
5. 19
• 속초 반야노인요양원 지열이용 냉 · 난방시설 준공식

• 속초도시기본계획 공청회

5. 20

• 민방위교육 연극 첫 공연
• 제16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
• 농협 속초시지부 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5. 21

• 제2회 속초시 어머니축구대회. 설악초교 우승

5. 25

• 개인택시 · 택시노조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
• 이용사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

5. 26

• 청호동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식

5. 23

• 제7차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 3NTOS(정부관광기구)회의 속초개최

5. 27

• 설악신문 창간 15주년 기념식
• 베트남 국세청장 속초세무서 방문
• 중국 길림성 기상국 속초기상대 방문 세미나

5. 31

• 속초시 3개마을 1사1촌 자매결연
• 제17회 강원도지사기 관광인 한마음 체육대회

5. 30

• 속초시 · CIQ 기관 관계자 중국 훈춘 방문

6. 3

• 청대산 산불피해 배상협의회 구성

6. 4

• 청대리마을 주민, 강원도개발공사 임대아파트 주민불편 피해보상 요구 건의
• 제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

6. 7

• 설악한화리조트, 4개마을 자매결연

6. 8

• 속초시 보디빌딩연합회 사무실 현판식
• 금강산 관광 1백만명 돌파 기념식
• 속초YWCA 다솜아동센터 개소식

6. 6

• 민예총 속초지부 중국 훈춘방문 문화교류

6. 12

• 속초지역 충청 · 경상전라도 3도청년회 체육대회

6. 24

• 속초중학교 태권도부 창단

6. 25

• 속초문화원, 6 · 25 영가 및 백두대간 산불방지, 국운융성을 위한 천도제

6. 25

• 2005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6. 28

• 설악문화제위원회 제1차 임시총회. 40주년 맞아 사무국 민간단체 이양 결정

6. 30

• 민주노동당 속초 · 양양 위원회 창립
• 속초시 · BC카드 제휴마케팅 조인식
•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7. 5

• 제6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 도문 메나리농요 현판식

附 錄 三

옛 文獻資料

高麗史

『高麗史』는 김종서 · 정인지 등이 1449년(세종 31)에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하기 시작하여 2년뒤인 1451년(문종 원년) 8월에 완성하고, 1451년(단종) 10월 정인지의 명의로 印刊된 기전체 사서로 139권 100책으로 되었다.

地理志는『三國史記』地理志에 잇대어 고려시대의 변화된 사항을 추가기록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한 지역의 연혁을 살피는데 필요한 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翼嶺縣本高勾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景德王改今名爲守城郡領縣顯宗九年置縣令高宗八年以能禦丹兵陞襄州防禦使四十一年降爲縣令四十四年以降賊又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陞知襄州事別號襄山有東溟神祠屬縣一

洞山縣本高勾麗穴山縣新羅景德王

世宗裝憲大王實錄

『世宗實錄』地理志가 수록되어 있는 세종장헌대왕실록은 1454년(단종 2)에 163권 67책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 중에서 지리지는 제148권에서 제155권에 이르기까지 8권 8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지리지는 팔도의 지리역사의 연혁과 변천을 알 수 있도록 편찬된 전국지리지이며, 동시에 토지의 면적, 조세, 인구 등의 경제, 군사, 행정적인 면이 강조된 인문지리의 선구를 개척한 지리서이다.

村一在羽溪縣南瑪瑙寺洞皆下邑土城八周回七百六十四步把巖山石城在府西十八步內有小渠五其三旱則竭其二不竭羽溪邑土城周回一百九十七步鏡浦在府東北十里旁有峯峯上有亭寒松亭古在府東十二里今遺址尚存驛十三大昌安仁岳山沐界高端橫溪珍富大和芳林雲交冬德在谷連樂豊臨溪皆在羽溪要害大嶺在府西三十五里烽火五處於乙達在任內羽溪縣南南津北淮三涉地廣吾斤北淮府地海令所伊洞在府東北隅南淮海令北淮沙火沙火連谷注乙文北淮襄陽任內洞山陽也所領都護府一襄陽郡二旌善平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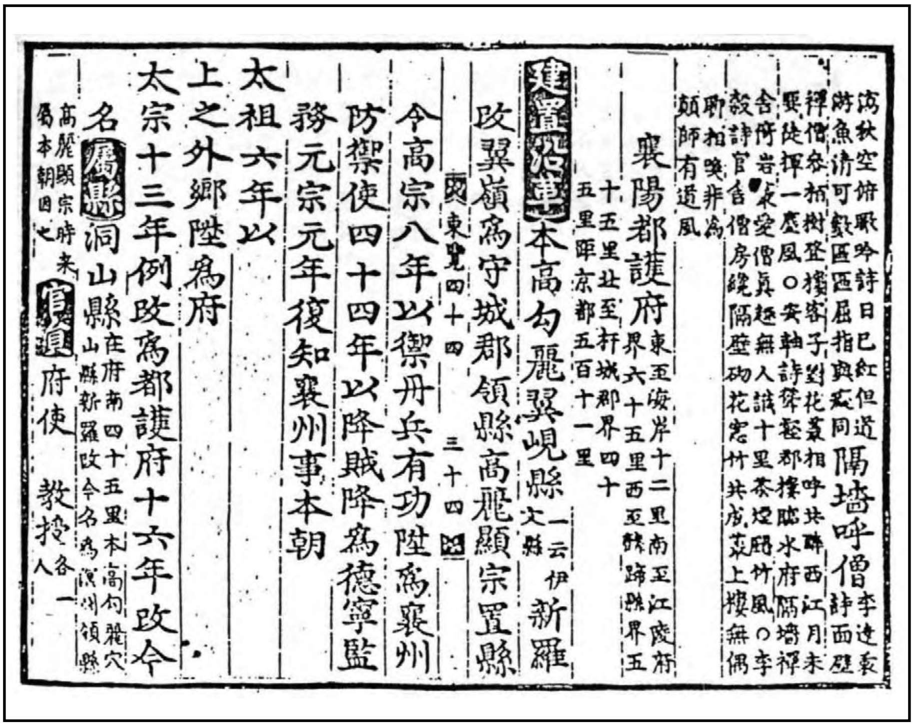
襄陽都護府使一人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改名翼嶺為守城郡領縣高麗高宗八年辛巳以能禦丹兵陞改襄州防禦使南宋寧宗嘉定十四年四十四年丁巳以降賊降為德寧監務南宋理宗寶祐六年元宗元年庚申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丁丑以外鄉陞為府太宗十三年癸巳例改都護府十六年丙申改襄陽別號襄山屬縣一洞山縣本高句麗穴山縣新羅改今名為溟州領縣高麗顯宗戊午移屬翼嶺縣任內本朝因之名山雪嶽在府西新羅時為小祀東海神祠堂在府東春秋降香祝致祭中祀四境東距海口七里南距江陵任內連谷五十里西距麟蹄三十六里北距杆城三十三里戶八百五十七口一千二百七十七洞山縣戶一百二十五口二百十八軍丁侍衛軍七十三舡軍一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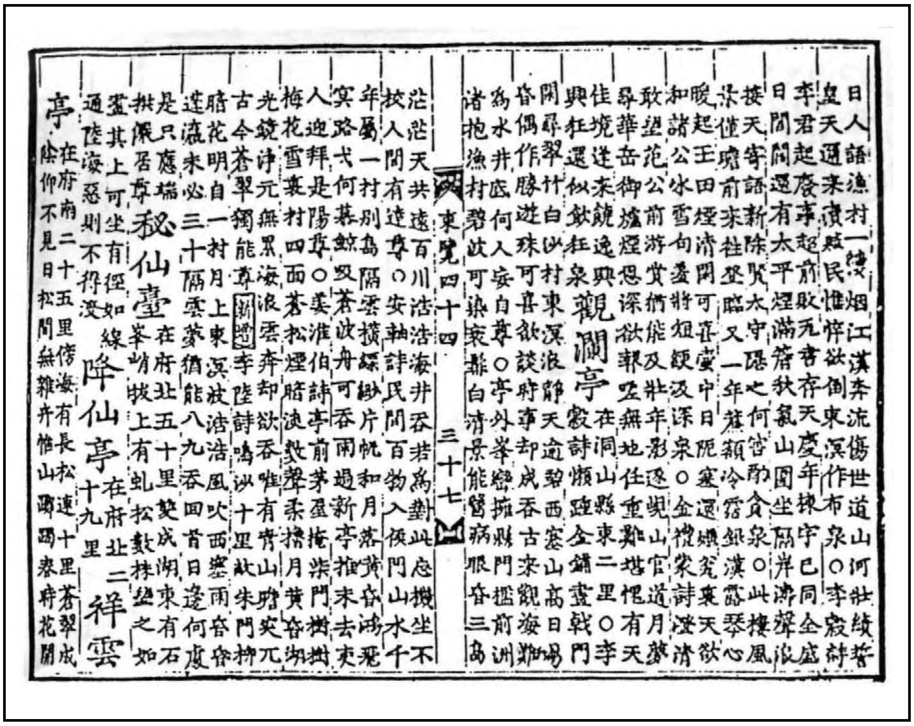
九十五土姓二金李亡姓四孫朴河鄭續姓三張林尹洞山縣姓四朴金崔陳來姓一林亡姓一李厥土多堉俗業海錯崇習武藝墾田一千八百三十三結水田五分之二強土宜五穀桑麻莞柿梨栗楮漆土貢蜂蜜黃蠟松子胡桃五倍子芝草石茸狐皮狸皮獐皮大口魚文魚沙魚年魚全鮑紅蛤水魚常藿席正鐵藥材人參五味子當歸茯苓安息香秦芃芎藭白花蛇熊膽防風白膠香白芨牧丹皮土產篠石鐵產府西十里鐵掘山鹽盆二十二洞山縣鹽盆十八邑土城周回一千八十八步擁金山石城在府北周回一千九百八十步雨則岩石間水湧流為泉驛四連倉祥雲降仙麟丘在洞山縣要害自本府西去麟蹄境所等羅領三十六里烽火四處水山在府東南准任內洞山汀北准府德山廣德山北准杆城竹島陽也山在洞山縣南南准連谷注乙文北准廣汀廣汀在縣北南准陽也山北准德山旌善郡知郡事一人本高勾麗仍買縣新羅改今名為溟州領縣高麗顯宗戊午仍為任內後陞為郡本朝因之別號三鳳朱陳桃源鎮山飛鳳在郡北高險大川大陰江在郡南有渡舡四境東距三陟五十三里西南距平昌西二十二里南三十一里北距羽溪三十二里戶二百三口四百五十九軍丁侍衛軍十九舡軍二十四土姓三李全高賜姓一文諺傳續姓一安興寧來鄉吏厥土堉風氣多寒墾田一千五結水田只一結土宜黍稷粟豆麥桑麻梨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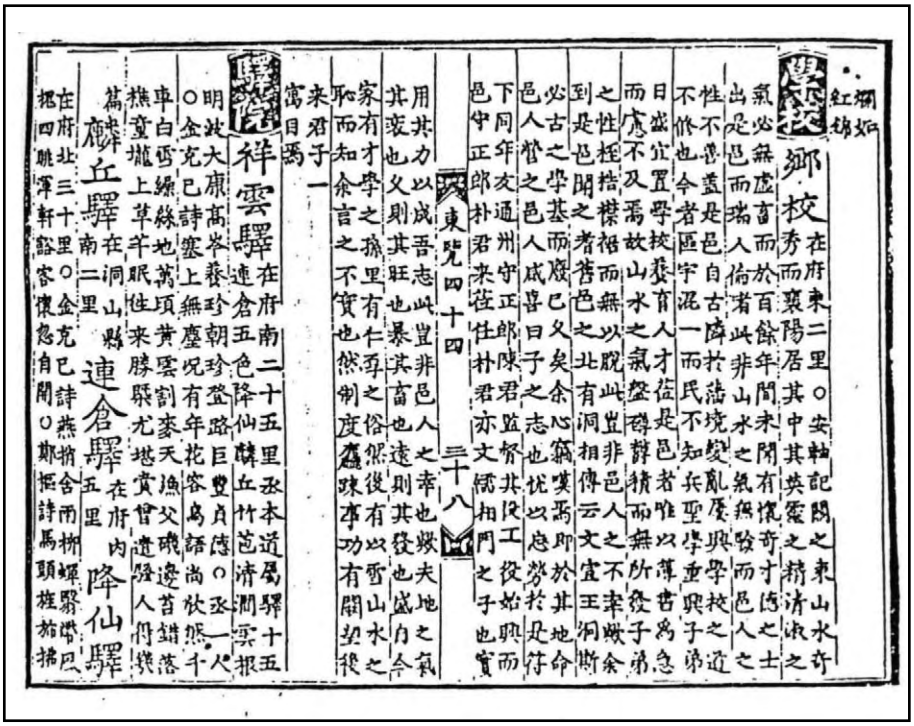
新增 東國輿地勝覽

성종대에 盧思愼, 姜希孟, 梁誠之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우리나라 지리서다. 1481년(성종 12)에 50권으로 편찬되었고, 다시 1487년(성종 17)에 55권으로 재편집되었다.

이후 1499년(연산군 5)에 成俔, 任士洪 등에 의해 한차례 교정이 가해지고 다시 1530년(중종 25)에 增修되는데, 현재 영인본으로 많이 이용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531년에 완성된 것을 내용으로 삼아서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다.


瀉秋空俯瞰吟詩日已紅但道
游魚可數匹匹屈指與爾同 隔墻呼僧 李達衷
詩西壁
禪僧杂栢樹登樓客子對花叢相呼共醉西江月未
要徒揮一麈風○安軸詩笙歌郡樓聽水府隔墻禪
舍府岩衰變僧員廷無人識十里茶煙颺竹風○李
穀詩官舍僧房繞隔壁砌花宮竹共房菜上樓無偶
聊相喚非爲
頗師有遺風
襄陽都護府 東至海岸十二里南至江陵府
界六十五里西至麟蹄縣界五
十五里北至杆城郡界四十
五里距京都五百十一里
建置沿革 本高句麗翼峴縣 一云伊文縣 新羅
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
東覽四十四 三十四
令高宗八年以禦丹兵有功陞爲襄州
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降爲德寧監
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
太祖六年以
上之外鄉陞爲府
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
名 屬縣 洞山縣 在府南四十五里本高句麗穴
山縣新羅改今名爲溟州領縣
高麗顯宗時來
屬本朝因之 官員 府使 教授 各一人


日人語漁村一樣烟江漢奔流傷世道山河壯績替
皇天遲來責賊民惟悴欲倒東溟作布泉○李穀詩
李君起廢李起前敗元書存天慶年棟宇已同金屋
日間閒還有太平煙滿席秋氣山圍坐隔岸濤聲浪
接天寄語新除賢太守恐之何管郡貪泉○此樓風
沐傳瓊前來桂登臨又一年旌額冷霜銀漢露琴心
暖起王田煙清閑可喜愛中日既塞還娛究裹天欲
和諸公氷雪句漫將短綆汲深泉○金攬家詩凌天清
敢望范公前游賞猶能及壯年影逐嵬山官道月
尋華岳御爐煙恩深欲報堅無地任重難堪愧有天夢
佳境逆來饒逸興
興狂還似飲狂泉 觀瀾亭 在洞山縣東二里○李
穀詩懶踏金鋪盡戟門
閑尋翠竹白沙村東溟浪靜天涵碧西塞山高日欲
昏偶作勝遊珠可喜欲談前事却成昏古來觀海難
爲水井底何人安自尊○亭外峯巒擁縣門檻前洲
渚抱漁村碧波可染衰斑白清景能醫病眼昏三島
東覽四十四 三十七
茫茫天共遠百川浩浩海并吞若爲對此忘機坐不
挍人間有達尊○安軸詩民間百物入候門山水千
年屬一村別島隔雲横縹緲片帆和月落黃昏鴻飛
寞路弋何慕鯨吸蒼波舟可吞雨過新亭摧末去夾
人迎拜是陽尊○姜淮伯詩亭前茅屋掩柴門樹樹
梅花雪裏村四面蒼松煙暗淡數聲柔櫓月黃昏湖
光鏡淨元無累海浪雲奔却欲吞唯有青山爲突兀
古今蒼翠獨能尊 新增 李陸詩鳴沙十里紋朱門柳
腊花明自一村月上東溟波浩浩風吹西塞雨昏昏
蓮滴未必三十隔雲夢猶能八九吞回首日邊何處
是只應端
拱僊居尊 秘仙臺 在府北五十里築成湖東有石
峯峭拔上有虬松數株望之如
畫其上可坐有徑如線
通陸海惡則不得渡 降仙亭 在府北二
十九里 祥雲
亭 在府南二十五里傍海有長松連十里蒼翠成
陰仰不見日松間無雜卉惟山躑躅四時花開



烟如紅錦

學校

鄉校 在府東二里○安軸記聞之東山水許秀而襄陽居其中其英靈之精淸淑之氣必無虛畜而於百餘年間未聞有懷奇才德之士出是邑而瑞人倫者此非山水之氣無驗而邑人之性不甚善是邑自古僻於海境變亂屢興學校之道不修也今者匡宇泯一而民不知兵聖學重興子弟日盛宜置學校養育人才莅是邑者唯以簿書爲急而慮不及焉故山水之氣盤礴鬱積而無所發子弟之性桎梏襟裾而無以脫此豈非邑人之不幸歟余到是邑聞之耆舊邑之北有洞相傳云文宣王洞斯必古之學基而廢已久矣余心竊嘆焉卽於其地命邑人營之邑人咸喜曰子之志也悅以忘勞於是符下同年友通州守正郞陳君監督其役工役始興而邑守正郞朴君來莅任朴君亦文儒相門之子也實用其力以成吾志此豈非邑人之幸也歟夫地之氣其衰也久則其旺也暴其畜也遠則其發也盛今家有才學之孫里有仁孝之俗然後有以雪山水之恥而知余言之不負也然制度爲踈事功有闕望後來君子一寓目焉

東覽 四十四 二十八

驛院

祥雲驛 在府南二十五里丞本道屬驛十五連倉五色降仙麟丘竹苞淸澗雲根明波大康高岑養珍朝珍登路巨豐貞德○丞一人○金克己詩塞上無塵況有年花容鳥語尙欣然車白雪綠絲地萬頃黃雲割麥天漁父磯邊苔錯落樵童壠上草芊眠性來勝槩尤堪賞曾遣騷人得幾篇

麟丘驛 在洞山縣南二里

連倉驛 在府內五里

降仙驛 在府北三十里○金克己詩燕掠含雨柳蟬噪帶風把四眺渾軒豁客懷忽自開○鄭樞詩馬頭旌旆拂

郡名 翼峴 伊文 翼嶺 德寧 襄州 襄山

姓氏 本府 金李孫朴河鄭 張林尹 續 洞山 朴金崔李陳 林 續

山川 雪岳 在府西北五十里鎭山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重巒疊嶂地勢險阻舊有路通京師今廢 城隍山 在府北二十五里 五峯山 在府東北十五里或稱洛山 水山 在府東十里 德山 在府北三十六里 草津山 在府南二十九里 鏞山 在府北六十三里雙成湖西卽大嶺東支也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

東覽 四十四 三十五

陽野山 在洞山縣南十里 鼎足山 在府西南四十里三峯峭起形如鼎足故云 海 在府東十三里祀典載中祀祭東海神于此 雙成湖 在府北四十里扞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郞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南大川 在府南二里出江陵府五臺山與所冬羅水合流經府南入海 竹島 在府南四十五里觀瀾亭前滿島皆蒼竹島下海涯有石凹如槽府磯巧刻凹中有小圓石旋轉其中磨而成凹磨盡則世傳圓石旋轉其中磨而成凹磨盡則世敗矣

土産 鐵 出西揮寺東峯下 竹箭 出竹島 海松子 五味子 紫草 人參 地黃 茯苓 蜂

蜜 白花蛇 海衣 藿 鰒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鰱魚 銀口魚
黃魚 魴魚 古刀魚 廣魚 鱸魚
秀魚 雙足魚 海參 松蕈

城郭 邑城 石築周四百三尺高五尺土築周二千八百二十五尺內有二井今半頹落

關防 大浦營 在府東十二里成宗二十一年自江陵安仁浦移泊于此○水軍萬戶一人 新增 正德庚辰築石城周一千四百六十九尺高十二尺

烽燧 水山烽燧 北應德山南應草津山 德山烽燧 北應杆城

竹島南應水山 草津山烽燧 南應陽野山北應水山 陽野山烽燧 南應江陵連谷縣注文山北應草津山

新增 宮室 東軒 姜渾詩襄陽來憶故人賢殘雪晴峯暎畫軒孟浩空吟驢背句山公猶欠習池筵正逢明月樓臺靜不用青娥意態妍莫道此行情興薄會須他日更尋仙

樓亭 太平樓 在客館南○鄭招詩消暑樓成延拈前命名人到甲辰年排層老樹孫翰月傍岸垂楊半綫煙柱笏高吟迎爽氣舉觴白眼望青天朱絃不用纖纖弄過雨林間鬥澗泉○安軸詩名途信步不因前來往斯樓已二年覆檻竹叢分爽氣蔽門榕樹擁蒼煙虛觀民業憂吾國虛負君恩愧彼天計拙未能興利路若為溪壑湯金泉○道設詩古郡經營自因前大平風月半千年烏遲官樹三竿

觀壺中地 鄭樞詩云傍水間閭霞裏煙 玉笙遙聽舊頭月 蔡廷詩云云羽駕地起鵠背天 大野東頭看海日 裴希孟詩云云長林一面見江天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煙霞水店山村紅白花偏愛鄉亭好風景千株松下浪淘沙

佛宇

洛山寺 在五峯山○新羅僧義相所建殿上安[illegible][illegible]觀音一軀歷代崇奉頗有靈異○我世祖幸此寺以致舍臨陋命新之極宏壯○高麗僧益莊記襄州東北降仙驛之南里有洛山寺寺之東數里許巨海邊有窟其高可百尺其大可容萬斛之舟其下海潮常出入為不測之壑世稱觀音大士所住處也窟前距五十許步海中有石上可鋪一席出沒水面昔新羅義相法師欲親覩聖容乃於石上展坐拜稽精勤至二七日尚未獲覩便投身海中東海龍扶出石上大聖即於窟中伸臂手授水精念珠曰我身未可可覩但從窟上行至雙竹湧出處是吾頂上於此可營一殿安排像設也龍亦獻如意珠及玉師受珠而來有雙竹湧立乃於其地創殿以龍所獻玉造像安之即茲寺也我太祖立國春秋

東覽四十四　三十九

遣使設齋三日以致敬焉厥後書於甲令以為恒規水精念珠及如意珠藏於是寺傳寶之癸丑歲天兵闌入我疆是州於雪嶽山築城守禦城陷寺奴取水精念珠及如意珠埋於地而亡走上告于朝兵退遣人取之藏於內殿世傳有人到窟前至誠拜稽則青鳥出現明宗丁巳庚資諒為兵馬使至十月到窟前焚燕排衙有青鳥含花飛鳴落花於幞頭上世以為稀有云云○高麗庚資諒詩海崖高絕處中有洛迦峯大聖住無住普門封不封明珠非我欲青鳥是人逢但願洪波上親瞻滿月容○安軸詩大聖圓通境曾聞海上峯思同甘露潤香有紫泥封隨類身常現隨迷眼不逢英論真與假但自禮慈容○金富儀詩一疑自發臨海岸高迴頭無復舊塵勞欲知大聖圓通理聽取山根激怒濤○金克己詩幸尋妙境住禪寂滌慮實個萬想空浪底月誰分上下峯中不端雲自占西東依府似依金堂裏已見果身石窟中不待相師齋

七日它心應願定先通

觀音窟 在五峯山○我翼祖與貞淑王后禱此祈嗣夜夢有一衲衣僧來告曰必生貴子其名善來未幾度祖生遂以善來名之

靈穴寺

四擁寺 俱在雪岳山

道寂寺 在雪足山

祠廟

社稷壇 在府西

文廟 在鄉校

城隍祠 在城內

東海神祠 在府東春秋降香祝致祭

厲壇 在府北

古跡

權金城 在雪岳頂石築周一千一百十二尺高四尺今半頹落俗傳昔有權金二家避亂于此故名洛山寺記所云天兵闌入我疆是州於雪岳山築城守禦疑即此

冷泉 在五峯山下世傳觀音化作女刈稻元曉因取飲冷泉與之戲談○鄭樞詩海岸山從赫世前幾番興廢迄今年秋涵一野紅稻日照五峯生紫烟穫女故居莎覆砌曉公遺跡樹連天登樓擬結相思夢夢裏還應酌冷泉

東覽四十四　四十

五色驛 在府西四十五里今廢

名宦

高麗

崔宰 為知州府有降香使凌辱存撫使宰曰辭及我矣乘官而去

金晅 忤權貴畸貶為襄州副使

本朝

李師元 為府使

題詠

鵬路淼茫連北浸 金克己詩曾停客轡暫巡邏馬重尋景更新云云蛟堀迢遙接東濱波間髣髴窺泉客水底依稀見海人我欲張帆超巨壑天吳鼓怒若為神

山城却月楓枏上 前人詩閔塞輪蹄想延風煙萬狀逐詩新云云水榭垂雲藻府濱忽下縱無巫峽女洞中應有武陵人貪程未得尋仙境步步迴頭一悵神

倚山樓

井通嶽派湧泉溫但盤似春鬼神呵衛無埃氛閑訖一勺沈痾療輸以所脫骨亦仙我今詩酒成膏肓欲住快霽仍痛消【新增】成俔詩玉寶陰火如龍焚九龍呵護閑送源濛濛煙霧深巖曲一派齋佛茶山根融厭喫氣如醉酒不勞蓊鬱燎新禱深身浴俗有奇功不須湯盤脫塵垢

杆城郡 東至海岸七里南至襄陽府界五十六里西至麟蹄縣界八十里北至高城郡界六十七里距京都五百二十七里

【建置沿革】本高句麗迂城郡 一云加羅忽 新羅改守城郡高麗改今名降爲縣置令後陞爲郡兼任高城恭讓王元年還析爲二本朝因之

內 東覽四十五 七內

【官員】郡守 訓導 各一人

【郡名】迂城 加羅忽 守城 水城

【姓氏】本郡 宋 柳 李 張 文 金 李 並平昌 咸 楊根 尹 永春 南 英陽 金 陰竹 全 旌善 張 丹陽 安 堤川 孫 平海 朴 盈德 鄭 來 烈山 崔 麻 皇甫 金 全 並旌善 孫 平海 朴 蔚城 林 珍府

【形勝】西連鐵嶺 蔡禮詩 西連鐵嶺南至烈城

【山川】麻耆羅山 在郡西三十里鎮山 南山 在郡南五里 金剛山 在郡西二十里詳淮陽府 天吼山 在郡南七十里 五音山 在郡南十五里山頂有池禱雨有驗 古城山 在烈山縣北一里卽縣之鎮山距郡三十五里 於丘山 在烈山縣西四里一名身的只山 所坡嶺 在郡西五十九里一名石破嶺○金克己詩權奇少似石破嶺空畔嵬岩橫紫翠穹窿容路絕紆直一帶蛇奔三百里層香樹杪掛猿狖遁誰林間識虎兕何須更說蜀道險校量未省誰難易 彌時坡嶺 在郡西南八十里許有路舊廢不行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復開此路 海 在郡東七里 仙遊潭 郡南十一里許山麓周遭成谷谷中有潭曰仙遊有小峯斗起半入湖心上有長松數株舊有亭今廢春則躑躅挾巖亂發夏則蓴菜滿潭○安軸詩潭上風煙盡淡濃欣然似與故人逢也應嗔我忽忽過

內 東覽四十五 入內

卻恐重來不見容 永郞湖 在郡南五十五里周三十餘里汀回渚曲巖石奇怪湖東小峯半入湖心有古亭基是永郞仙徒遊賞之地○安軸詩平湖鏡面澄蒼波凝不流蘭舟縱所如泛泛隨輕鷗浩然發清興泝洄入深幽丹崖抱蒼石玉洞藏瓊洲循山泊松下空翠涼生秋荷葉淨如洗蓴絲滑且柔向晚欲回棹風煙千古愁古仙若可作於此從之遊○暮雲半捲山如畫秋雨新晴水自波此地重來難可必更聞船上一聲歌○李穀詩安相情懷黃鶴月李生行止白鷗波重來此地誠難必空聽關東一曲歌 廣湖 在郡南四十五里永郞湖北十里許有大湖陰映亂松間曰廣湖俗號汝隱浦 烈山湖 在烈山縣東二里有大湖周數十里包跨陵谷比諸湖最大諺傳昔大水包烈山之谷漸縣移據山麓而舊縣沉在水底天晴波靜則墻壘依然可見 竹島 在郡南二十里周二里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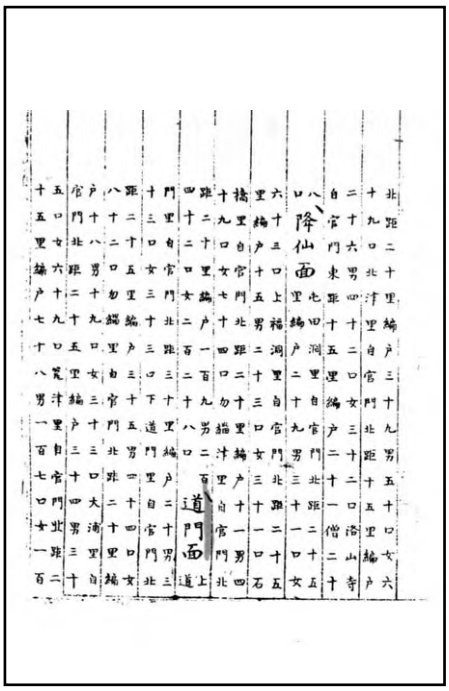
輿地圖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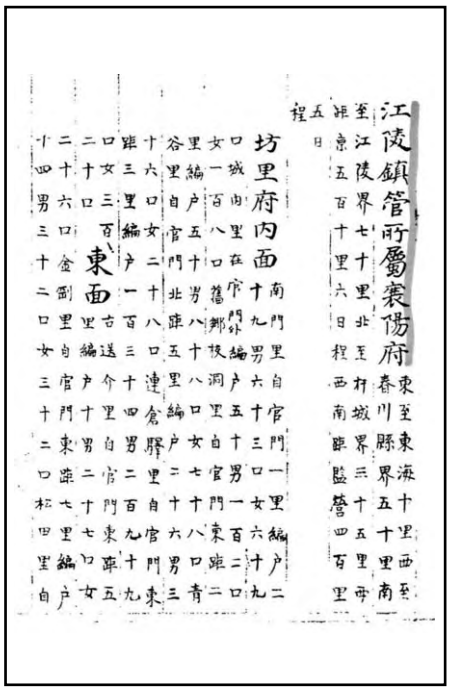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까지 펴낸 것을 합한 것으로 29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 1개의 진지(鎭誌)가 포함되어 있다.

책은 55책으로 되어 있으며, 제14책부터 제17책까지가 강원도 편이다.

내용은 강역(疆域), 방리(坊里), 도로,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형승(形勝), 성지(城池), 관직, 산천, 성씨, 풍속, 능침(陵寢), 단묘(壇廟), 제언(堤堰), 창고, 목장, 봉수(烽燧),물산(物産) 교량, 역원(驛院), 누정(樓亭), 사찰, 고적, 인물, 한전(旱田),수전(水田), 진공(進貢), 전세(田稅), 대동(大同), 군병(軍兵)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간행된 지 270여 년이나 된『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다시 고치고 그동안 달라진 내용을 싣기 위해서 편찬되었으며, 1757년 홍양한(洪良漢)의 건의로 왕명에 따라 홍문관에서 각 읍의 읍지를 수집하여 간행하였다.『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하여 조세 수취와 연관된 진공 · 전세 · 대동 등이 독립적인 조항으로 정해졌으며, 방리 · 제언 · 도로 · 전결(田結) · 부세(賦稅) · 군병 등의 항목이 더해져 사회 · 경제적인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각 읍지의 첫머리에 채색지도가 실려 있고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한 대축척지도가 덧붙여져 18세기 중엽 지방사회의 실제 모습을 아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江陵鎮管所屬襄陽府

東至東海十里西至春川縣界五十里南至江陵界七十里北至杆城界三十五里每距京五百十里六日程西南距監營四百里五日程

坊里府內面

南門里自官門一里編戶二十九男六十三口女六十九口城內里在官門外編戶五十男一百二口女一百八口舊鄉枝洞里自官門東距二里編戶五十男八十八口女七十八口青谷里自官門北距五里編戶二十六男三十六口女二十八口連倉驛里自官門東距三里編戶一百三十四男二百九十九口女三百二十口

東面

古送介里自官門東距五里編戶十男二十七口女二十六口金剛里自官門東距七里編戶十四男三十二口女三十二口松田里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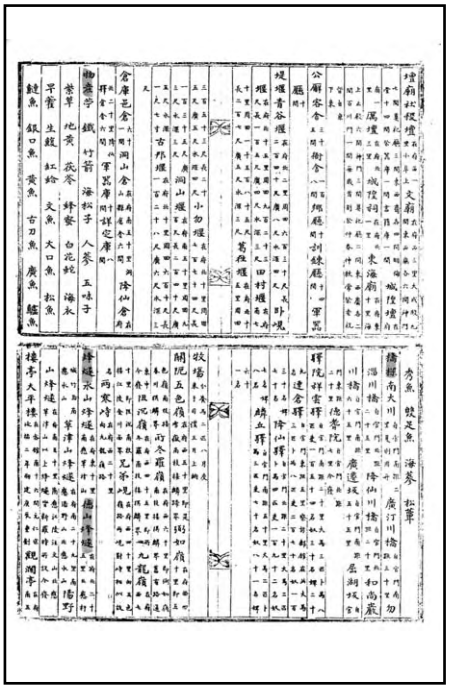
北距二十里編戶三十九男五十口女六十九口北津里自官門北距十五里編戶二十六男四十二口女三十二口洛山寺自官門東距十五里編戶二十一僧二十八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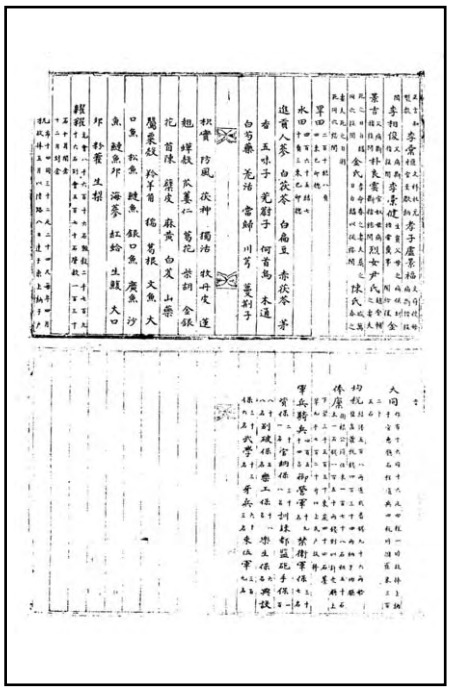
降仙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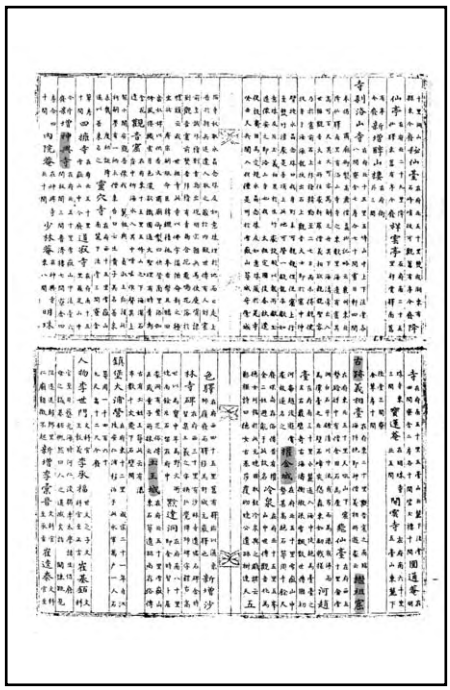
屯田洞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九男三十一口女六十三口上福洞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十五男二十三口女三十一口石橋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十一男四十九口女七十四口勿緇汁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一百九男二百四十二口女二百二十八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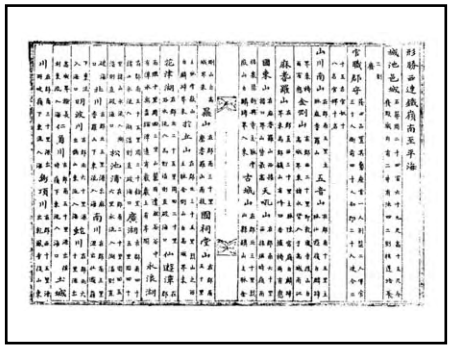
道門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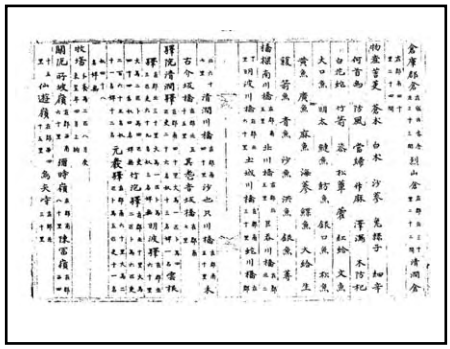
上道門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男三十三口女三十三口下道門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五男二十四口女八十二口勿緇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十八男十九口女三十三口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四男三十五口女六十九口荒汁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七十八男一百七口女一百











東國輿地志

洋海校生崔鎮孚皆以篤孝聞

烈女崔氏女 本朝人居松蘿里來斧當壬辰倭亂匿山谷中賊搜得欲汙之以死守之爲賊所殺死松蘿路上有旌門後府使許穆作文祭之曰伊昔變亂猖獗蕩擾我疆理驅掠我士女爲大夫之配而女子之故ㆍ殺身不辱成烈女行嗚呼百代之表又有習讀金漢卿妻鄭氏校生崔松壽妻高氏南應文妻閔氏皆以節行著

襄陽都護府 東至海岸十二里南至江陵府界六十五里西至麟蹄縣界五十五里北至杆城郡界四十五里距京都五百十一里

旱田

水田

建置沿革本高句麗翼峴縣 一云伊文縣 新羅景德王時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時復析置翼嶺縣高宗八年陞爲襄州 以禦丹兵有功也 後降爲德寧縣 高宗四十四年以降賊降 元宗初復爲襄州本朝太祖六年陞爲府 以上之外鄕也 太宗十三年改爲襄陽都護府掌面 官員府使 教授 各一人

郡名翼峴 翼嶺 襄州 德寧

形勝

風俗習俗同撰州 地志

山川雪岳山 在府西北五十里鎭山極高峻仲秋有雪至夏乃消故名峯巒列石色皆白俗謂小金剛南孝溫遊山錄金剛山一枝南走二百餘里山形殊峭畧如金剛本岳者曰雪岳本朝全州習多住此山〇本朝許穆詩雪岳之山高萬丈懸空積翠連蓬瀛千峯映雪海日晴縹緲峯帝集王京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重峯疊嶂地勢險阻舊有路通京都今廢 城隍山 在府北二十五里 五峯山 在府東北十五里小山特峙海濱故名洛山 水山 在府東十里 德山 在府北三十六里 草津山 在府南二十九里 籬山 在府北六十三里雙成湖西即大嶺東支也有奇峯巉橫如設藩籬故名俗云對山 陽野山 洞在山縣南十里 鵲足山 在府西南四十里喙起形如鵲足故云 三峯 海 在府東十三里祀典祭東海神于此載中祀 雙成湖 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南大川 在府南二十里出江陵府五臺山與所冬羅水合流經府南入海 竹島 在府南四十五里觀瀾亭前蒭島皆蒼竹島下海湛有石凹如槽磨磯巧刻凹中有小員石 冷泉 在五峯山下

土產芓 鐵 出西禪寺東峯下 竹箭 出竹島 鷹 海松子 松蕈 五味子 紫草 人參 茯苓 山芥 蜂蜜 黃蠟 白花蛇 鹽 海衣 藿 鰒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鰱魚 銀口魚 黃魚 魴魚 古刀魚 廣魚 鱸魚 秀魚 雙足魚 海參

城郭府城 石築周四百三尺 土築周二千八百二十五尺內有二井今平頹落

公署祥雲道察訪司 在府南二十五里領祥雲連倉降仙驎丘竹苞元巖清澗雲根明波太康高本養珍朝珍登路巨豐貞德十六驛〇察訪一人舊爲丞今置本下察訪

學校鄉校 在府東二里

宮室客館 太平樓在客館南 觀瀾亭在府南四十三里洞山縣東秘
仙臺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峯峭拔上有丸松數株望之如畫其上可坐有徑如線通
陸海恐則不得渡 降仙亭在府北二十九里 祥雲亭在府南二十五里傍海有
長松遶十里蒼翠成陰仰不見日松間無雜卉惟山躑躅春時花開爛如紅錦
烽燧 水山烽燧北應德山南應草津山 德山烽燧北應打城竹島南應水山
草津山烽燧南應陽野山北應水山 陽野山烽燧南應江陵注文山北
應草津山
郵驛 祥雲驛在府南二十五里察訪司本驛 麟丘驛在府南四十七里 連倉
驛在府內五里 降仙驛在府北三十里
祠廟 社稷壇在府西 文廟在鄉校 城隍祠在城內 東海神祠
在府東春秋降香祝致祭 厲壇在府北
寺刹 洛山寺在五峯山新羅僧義相所建殿上安稱
檀觀音一軀本朝惠莊王幸此寺令
改構宏壯俯臨東溟日月之出於此見之最稱絕境即關東八景之一○本朝鄭士龍詩寺界窮
沒地接虛上方臺殿壓鰲山亂碎馮夷宮貝闕中浩海若盧靈威陰回開淨域人天鍾異讚僧
居軒窓一覽通暘谷紫氣輪囷洛日初○本朝林億齡觀日月出詩暮投洛寺樓迥與金山敵大洋
衛其下頓覺天地寬長風挾東南澄澄上下碧高枕夜向晨天鷄鼓兩翮火山橫大壑氣射半天赤
暘谷烘為空如熒沸釜萬騰湯上黃通照灼臨下恭家擾桔梧蒼蒼日之夕皎皎白蓮花浮出龍王
宅坐令滅頹瑾化為水晶域短娥喚欲摩挂花手堪摘擲來臥梨亭落花盈襟懷 觀音窟
在五峯山我翼祖貞淑王后禱此祈嗣夜夢有一衲衣僧來告曰必生貴子其名善來未幾度
祖生遂以善來名之 靈穴寺 四擁寺俱在雪岳山 適寂寺在彌足山

郡名 斤乙於 別號翼城
形勝 東南據海西北負山 本朝柳義孫風月樓記 東濱海西南
北多峻嶺無平原曠野之豁 本朝李山海風土記云云 絲海枕沙石無
平原曠野之豁水田土田雜於丘壠岡巒之間土瘠不宜穀不粟則難食
風俗 不喜蠶績麻為衣 李山海風土記 俗尚鬼 同上俗尚鬼家祇小
屋子掛紙錢麻布出入必禱女人之稍富者皆巫
山川 釜谷山在郡西一里鎮山 金莊山在郡西三十二里 白巖山在郡
西二十九里 厚里山在郡南十一里 衣山在郡北十八里 汰銅山在郡北三
十九里 辛來峯在郡西六里 仇叱里峴在郡西十一里 大峴在郡西四
西十八里 三聖山在郡於巖東西南 本朝李山海記山之界隶高而在其城者為珠
巖巖之一枝東來三十餘里為三聖山山之又東走迤迤而四抱者為郡 鷹巖在郡李
山海記郡南山之外有斷峯斗起濱海而蹲其形如飛鳥吊首斂翼而立是曰鷹巖之高不知其幾
千丈也巖之上地勢平坦茨草如茵可坐數百人余嘗登巖而望為滄波浩渺與天為一無涯涘無
津涯但見日月星漢出沒於蒼茫森然之中真壯觀也 海在郡東七里 南大川在郡
南二里源出白巖山南鷲經郡東南入于海 仙洞在郡西三十五里天旱禱雨 仇㳚
浦在郡北十三里 正明浦在郡北十四里 厚里浦在郡南十五里○已上三
浦有斤候 溫川在郡西二十六里白巖山下所台谷 石門在郡北二十八里對珍縣界云
云
土產 竹箭出郡東南山 人參 茯苓 紫草 松蕈 石
蕈 蜂蜜 黃蠟 膃肭臍 藿 魴魚 廣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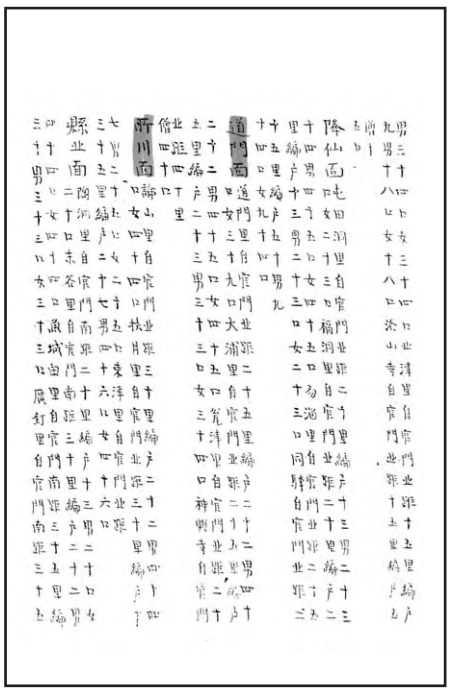
文魚 大口魚 海衣 松魚 赤魚 古刀魚
鰱魚 黃魚 銀口魚 麻魚 鰒 紅蛤 紫
蟹 海參 海獺
城郭郡城 石築周二千三百二十五尺有門城內有六井
公署越松浦萬戶鎮 在郡東七里○水軍萬戶一人
學校鄉校 在郡南二里
宮室客館 風月樓 在客館北有柳義孫記 鳳栖樓 在客館東 越松
亭 在郡東七里蒼松萬株白沙如雪松間躑躅不行禽鳥不栖諺傳新羅仙人述郎等遊憩于此古無亭外治中觀察使朴元宗始建○本朝孫居正詩平沙十里布白氈長松攬天玉槊細仰看明月黃金餅碧空如水浩無際客來一搯吹洞簫鳳流盡是神仙曾我欲從之宴滿池飛來青鳥合碧扶○本朝李山海詩鱗甲參差紫翠堆萬龍齊舞戲風雷莫教俗子留塵迹應有仙人跨鶴來 望
槎亭 在郡南○高麗安軸詩金碧浮空映水陵登臨一望洒塵襟雨晴綠抑黃鸝語風軟滄波白鳥心八月仙槎通上漢百年魚店隔前林表洋萬古人無眼秘蓄天慳直待今 望洋亭
在郡北四十里東臨大海○本朝蔡壽記亭之小北環構八間名迎暉院緣崖而下又有一石尖起上可坐七八人下臨無地名臨溟臺北望百步外有險攲欹容人行如平天名鳥道棧凡行旅遊觀扭矣每風恬波靜雲消雨止擧目一望則其東無際其南無南際樓隱見鰲嶼出沒或洪濤怒號鯨鯢噴薄則隱隱轟轟如天摧地裂如豪車奔風銀山碎崖近而視之鳥沙鋪白海棠凝紅群魚族戲於波間香稻蔓生於石隙披襟一登悠悠乎與灝氣游而莫得其涯洋洋乎與造物者俱而不知其所窮然後始信亭之奇而天地之大且廣也嗟夫我國號蓬瀛山水之窟而關東為最關東之樓臺以百數而此亭為冠○本朝鄭澈詩鷲濤擊石怒雷騰餘沫吹入胥我衣劉郎玉山飛尾尾折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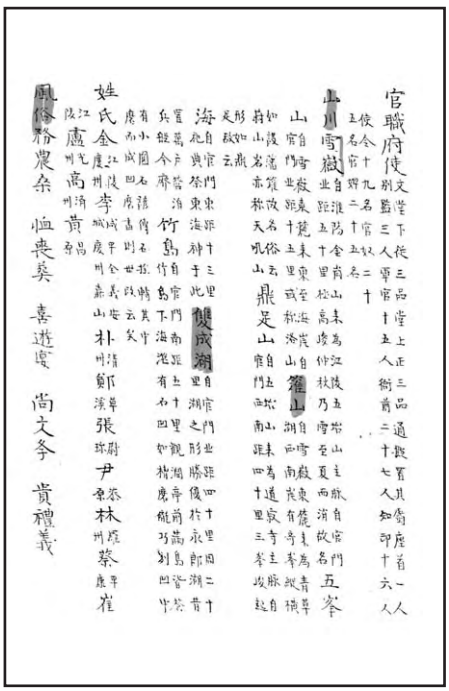
銀柱落層層雁傳海雨魚龍鬪光射扶桑日月升行盡關東一千里望洋亭上獨來登
郵驛達孝驛 在郡東五里 平等院 在郡南十三里 多施院 在郡西四十五
里 望洋院 在郡北四十二里
寺刹白巖寺 在白巖山李山海記寺在山之麓不知何代所建佛殿後又有佛堂左右有簷前有櫻高敞可坐而望海也 禪菴寺 在白巖山 修真寺 在動八里山 深水
寺 在多川山
祠廟社稷壇 在郡西 文廟 在鄉校 城隍祠 在城內東 厲壇 在郡北
古蹟白巖山古城 石築周二千五百六十尺高三尺內有三井
名官高麗金乙權 為平海郡守郡因倭寇人物散亡乙權安集餘民築土城以備寇邑
人賴以復業至今稱賢
人物高麗黃瑞 忠烈王時從王入元翼戴四還以功累官至僉議評理 本朝黃
鉉 經明行修為世所儒官成均大司成 孫舜孝 少有至性見聘母病臥思杏乃走杏樹下向天拜杏無風自落祖父見之名以舜孝登文科被遇 成宗嘗揚臺閣觀察兩道皆著風節官至議政府右贊成爲人倜儻無華自號七休居士知熱山不克負荷書侍 上手攀御榻密白上曰此座可惜臺諫請罪其密語且欲聞所啓何事 上曰戒予好色耳竟不言 成宗堯舜孝矣泣如喪父書諭子弟曰吾家起草萊無傳家田物惟以清白傳之足矣謚文貞又見忠州
杆城郡 東至海岸七里南至襄陽府界五十六里西至麟蹄縣界八十里北至高城郡界六十七里距京都五百二十七里
旱田
水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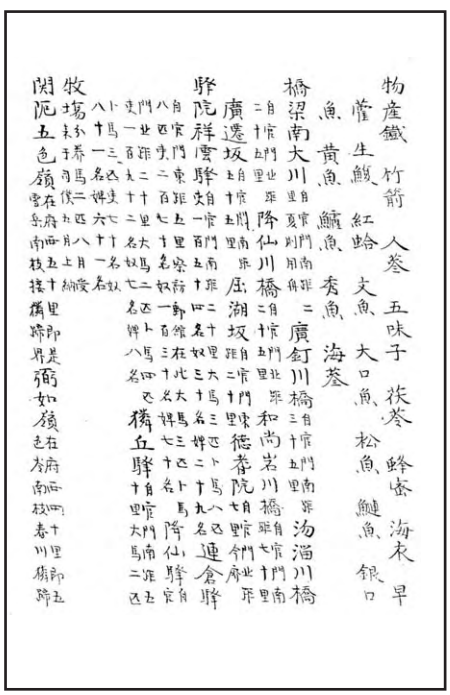
襄陽府邑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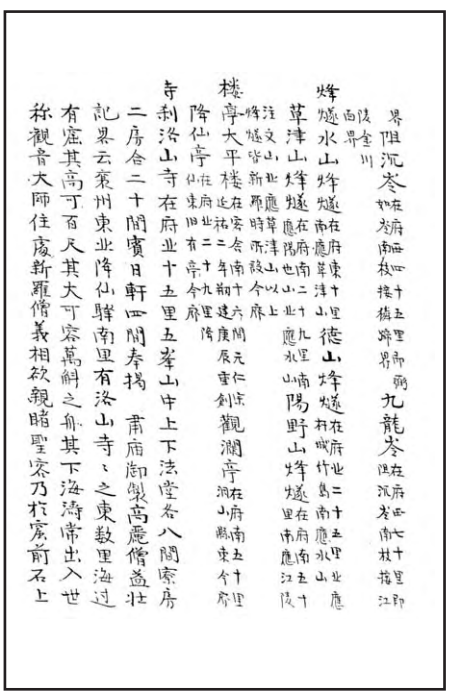
『여지도서』의 양양읍지와 편목과 내용이 동일하다. 전결수도 『여지도서』 와 마찬가지로 기묘년(영조 35년, 1759)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호구는 1759년을 기준으로 한 『여지도서』의 수치와 각 면리 별로 근소한 차이가 있고, 군병 역시 군종은 같으나 군액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여지도서』 이후에 작성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편찬 시기를 추정할 만한 다른 근거가 없다. 다만 위에서와 같은 미세한 차이로 미루어 볼 때 양양군에서 기묘년 기준의 『여지도서』 가 편찬된 시점으로 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제작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양양부읍지』는 19세기에 『관동지』의 양양읍지가 편찬되는데 활용되지 못했던 것 같다. 『관동지』의 양양읍지에는 기준년도 없는 새로운 호구수, 갑오년(영조 50년) 기준의 전결수, 『여지도서』와 일치하는 군종 · 군액수가 적혀 있다. 樓亭 항목의 내용을 보면 『관동지』의 양양읍지가 『양양부읍지』 보다는 도리어 『여지도서』의 양양읍지에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峯風捲纖雲月色濃欲識圓通大聖理有時青鳥含花蓮

觀音窟在府東十五里五峯山之下海濱石崖中拆海水入其中噌吰作聲其上架小閣安觀音像我 翼祖與貞淑王后偕詣此祈嗣夢有一衲衣僧來告曰必生貴子其名善來未幾 度祖誕降遂以善來名之

靈穴寺 [illegible]

神興寺 [illegible]

內院菴 [illegible]

明珠寺 [illegible]

圓通菴 [illegible]

開雲寺 [illegible]

古跡

義相坮 [illegible]

繼祖窟 [illegible]

飛仙坮 [illegible]

河趙坮 [illegible]

權金城

冷泉

五色驛

沙林寺碑

黔達洞

土王城

鎭

僊大浦營 成宗二十一年自江陵安仁浦移泊于此水軍萬戶一人石築周一千四百六十九尺高十二尺今廢

人物

李世門

李承福

崔基鉐

李彙晉

李彙恒

崔達恭

李相俊

孝子

盧景福

烈女

尹氏

金氏

景吉陳氏

旱田

水田

進貢

人蔘 白茯苓 白扁豆 赤茯苓 茅香 五味子

茺蔚子 何首烏 木通 白芍藥 羌活 當歸 川芎

蔓荊子 枳實 防風 茯神 獨活 牧丹皮 連翹

蟬殼 葳蕤仁 葛花 柴胡 金銀花 茵陳 麻黃

白芨 山藥 鸎巢殼 羚羊角 葛根 文魚 大口魚

松魚 連魚 銀口魚 廣魚 沙魚 連魚卵 海蔘

紅蛤 生鰒 粉藿 大口卵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騎兵

禁衛保

御營軍

監砲手保

別破保

樂工保

典設保

訓鍊都

武

大東地志

『大東地志』는 조선조 후기에 金正浩가 편찬한 32권 15책 筆寫本 地理書이다. 1865년(고종 원년)에 編撰된 것으로 추정되는 본서는 大東輿地圖와 자매편을 이루고 있으며, 地志的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記錄를 고증적으로 인용하면서 철저한 현재적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襄陽

〔沿革〕本伊文峴後改翼峴新羅景德王十六年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九年置縣令 隷東界○屬縣洞山 高宗八年陞襄州防禦使 以禦丹兵有功 四十一年降縣令 四十四年降德寧監務 以降賊 元宗元年陞知襄州事 本朝 太祖六年以 上之外鄕陞爲府 太宗十三年改都護府十六年改襄陽 正宗七年降縣十六年復陞 〔鎭管〕襄山 〔官員〕都護府使一員 〔古邑〕洞山 南四十五里本穴山縣景德王十六年改洞山爲溟州都督府領縣高麗顯宗九年來屬

〔山水〕峴山 北三里 城隍山 北二十五里 水山 東十里 德山 北三十五里 草津山 南二十九里 雪岳山 西北四十里麟蹄界雄留高大石暫連天峯巒聳列洞府幽深○神興寺靈穴寺繼祖窟皆在山之東○普門庵南對雪岳東臨大海下有萬丈蘓滙前有香蠟臺奇岩疊積坐其上指點群峯普門之下十里有食堂岩廣可布百人食床泉石清洒洞府宏闊夾以丹崖翠嶺 天吼山 西北四十五里杆城界 五臺山 西南大十里江陵界東支有明珠寺 五峯山 北十五里小山東濱海下有冷泉○洛山寺義相所建世祖十一年與中官及王世子留駐是寺○觀音窟在海光海瀞常出入苟不測之堅搆屋塞上鏡視危懷○義相瑩在窟傍東望滄海 蔚山 北三十五里在青草湖之西奇峯挺擅如設蒲蘿 陽野山 洞山南十里 島足山 西南四十里三峯峻坡○道散寺 草峯 南二十五里海邊 〔嶺驛〕連水坡嶺 西北七十五里 五色嶺 彌奴嶺 朴達嶺 俱西五十里麟蹄界 所冬羅

嶺 西六十里峻險舊有通京大路麟蹄界 九龍嶺 西南大十五里江陵界 兩寒峙 南二十五里 所良峙 西三十里 ○海 東十里 南江 一出五臺山北流一出所冬羅嶺東流合于邑南入海 青草湖 北四十里杆城界周數十里○秋仙臺在湖之東北石峯峭坡其上可坐 雙湖 南十里 麻湖 南大十里 〔樓亭〕竹島 南四十五里觀瀾亭前滿島皆竹島下海湲有石凹如檣磐龜巧刹凹中有小圓石櫞特其中 〔坊里〕府南面 終八里 府內 終二十 位山 西終十三 西面 西南初五終七十 東面 終十五 南面 初十終二十 沙峴 北初十終十五 降仙 北初十五終二十五 道門 西初二十終三十 所川 西初二十五終三十五 縣北 南初二十五終五十 縣南 南初四十終七十右二面洞山地 〔城池〕邑城 周三千二百二十八尺井二 雪岳山古城 丘山項稱權金城一云土土城周二千一百十二尺 五峯山古城 土築有虹霓石門洛山寺在其中 高麗穆宗十年城翼嶺二百四十八間門四 〔鎭堡〕〔革廢〕大浦鎭 東十二里成宗二十一年移江陵安仁浦萬戶于此中宗十五年築城周一千四百六十九尺後革 青草湖 高麗置萬戶營泊兵舟其革罷未詳 〔倉庫〕東倉 邑東海 北倉 北十里 洞山倉 在洞山古縣 〔驛站〕祥雲道 南二十五里察訪舊本連倉驛 連倉驛 古名襄廢東三里 麟邱驛 古云麟駒南五十里 降仙驛 北三十里右三驛屬祥雲道 〔革廢〕五色驛 西四十五里五色驛廢移于杆城爲元岩驛 〔津渡〕南江津 南二里 〔土產〕麻鐵箭竹海松子五味子人蔘茯苓紫草蜂蜜

大東地志 襄陽

白花蛇海衣藿鰒紅蛤文魚大口魚松魚鰱魚銀口
魚黃魚魴魚古刀魚廣魚鱸魚秀魚蝮足魚海蔘松
蕈石蕈鹽○黃腸封山(二處) 高麗文宗十七年三司
奏翼嶺縣產黃金請附貢籍
〔樓亭〕太平樓(內邑) 醉山樓
〔壇壝〕東海神壇(縣東十三里高麗以東海載中祀 本朝因之)
〔典故〕高麗顯宗二十年東女眞四百餘人寇洞山
高麗四十年蒙兵陷襄州 恭愍王二十三年倭寇
襄州我軍與戰斬百餘級 禑九年倭寇安邊歙谷
四出虜掠如蹈無人之境以趙浚李乙珍等擊倭于
洞山斬二十餘級獲馬七十二匹(餘見高城典故) 十一年
倭寇襄州

平海

〔沿革〕本亇乙於新羅景德王十六年改平海爲(有鄰郡領)
(縣邑) 高 顯宗九年屬禮州(寧海) 明宗二年置監務忠烈王
時陞知郡事(以縣人僉議評理從王入元有翊戴功)黃瑞 本朝 世祖
十二年改郡守〔郡名〕箕城〔官員〕郡守一員
〔山水〕釜谷山(西一里) 金藏山(西三十里) 白岩山(西四十里蔚珍界○白岩)
寺 厚里山(南十里) 表山(北十八里) 沙銅山(北三十四里) 懸鍾山(北四十里○)
青鶴山(西二十里○廣興寺) 花山(西五十里) 動八里山(北十里○修眞寺)

江原道誌

外鄕陞爲府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爲府光海十年
改爲縣仁祖元年改爲府高宗三十一年改爲郡[illegible]合後因之
屬縣 洞山縣 在郡南五里本高句麗穴山縣新羅改洞山爲溟州領縣高句麗顯宗時來屬李朝因之今廢南面
舊郡名 翼峴 伊文 翼嶺 德得 襄州 襄山 [illegible]
江陵 本濊國 一云鐵國一云蘂國 漢書本記武帝元朔二年濊君南閭叛遣將
討平之以其地爲滄海郡元封二年討右渠定四郡時爲臨屯
高句麗稱河西良 一云何瑟羅 新羅善德王時小京置仕臣武烈王
五年以地連靺鞨改京爲州置都督以鎭之景德王十六年改
爲溟州高麗太祖十九年改爲東原京立臨瀛館成宗二年稱
河西府五年改溟州都督府十一年改爲牧十四年改爲團練
使又改爲防禦使元宗九年以功臣金洪就之鄕陞爲慶興都
護府忠烈王二十四年改爲江陵府恭讓王元年陞爲大都護

建置沿革 江原道誌卷之一 九

城

襄陽 本高句麗翼峴 一云伊文縣 新羅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
宗置縣令高宗朝以禦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復以降敵
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李朝太宗六年以上之

[illegible]改浩蕩花津王萬[illegible] [illegible]鶴夢雨雨鶯乘故近人 北川 在郡北源出麻羅山東流入海者 黃浦 在郡南二
里 南川 在郡南 仁角川 在郡南 巨呑川 在郡北 明波川 在郡北二十里 [illegible]山縣
襄陽 雪嶽山 在郡北二里一名小金剛高峻雪嶽最高每仲冬始雪至夏乃消故名[illegible]
峰普門庵神興寺繼祖庵西有[illegible]臺[illegible]二瀑水飛流[illegible] 景臺梨花洞食堂窟五歲庵永矢庵○隱溪古有神興僧林疏
入山方飯之際有搖樓一老嫗來前乞飯僧輒與之頃之小 [illegible]積冬僧怒而杖之嫗避去因忽不見僧下山望日嘔血即死
人以爲山靈所譎云○見麟蹄 所冬羅嶺 在郡西六里險阻舊有路通京師今廢[illegible] 峴山 在郡
西有僞漢水郡人云使君登此遊覽因未久罷官 曷足山 在郡西南四里形如曷足故名中有道寂寺 青黛
山 在郡西南十里孔龍淵之西山下有瀑潭籌嶺甚是偉觀但山高峽邃人跡罕到 九峰山 在郡東
山 在郡南羅立黛髻研官家業山列峰妙人摘名焉 天吼山 在郡北五里雪嶽之東北石峯高聳撑半空中多
竅穴大風將起山自先鳴故名尹判書象鎬刻山名于山下岩 五峰山 在郡東二里中有洛山寺 城隍山 在郡
北三里 草津山 在郡三里 蘿山 在郡北六里雙成湖西仰大嶺東支有奇峰縱横如設藩籬故名俗云
府山 陽野山 在洞山縣南三里 五色嶺 在郡西七里[illegible]路狹五里嶺舊有驛[illegible]館墟[illegible]

山川 江原道誌卷之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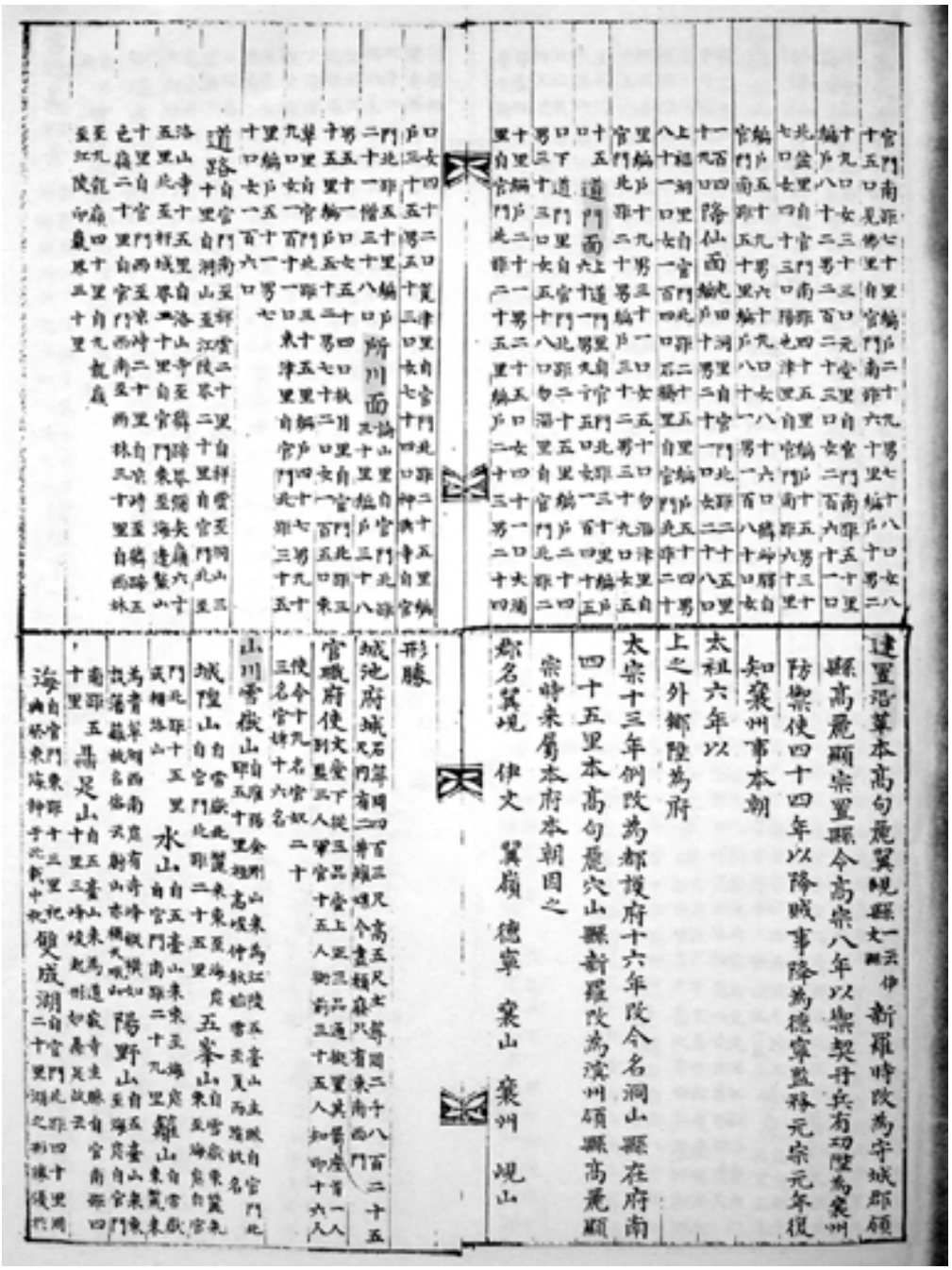
襄陽 在本道中央東端東接日本海南隣江陵西連麟蹄北界高
城東西狹而南北長磨天嶺自麟蹄雪嶽山蜿蜒南走與金剛
山麓相連接于大關嶺大小支脉臨海而盡處處河川縱出東
流沿海多耕地味肥沃
江陵 在本道東南部東接日本海南隣三陟西連平昌及旌善北
界襄陽東西短南北長金剛山分峙嶺來脉起伏盤蟠天然作
高勢臨海而爲急傾斜羣仙江源出潭頂山南大川流自大關
嶺皆入于海概前面積三分一爲平地土質甚肥沃
三陟 在本道東端東接日本海南隣蔚珍及慶尚北道奉化西連
旌善北界江陵東西短南北長白伏山自五臺山南馳爲大德
山連峯走麓迫海而成險五十川源出頭陀山受左右溪澗水
至汀羅津入于海耕地僅少亦甚磽薄

關東邑誌

춘천, 울진 등 읍지의 제목 부분에 同治10年(고종 8년, 1871)에 성책하였음이 명기되어 있다.

『관동읍지』는 이 해에 전국에 내려진 "邑誌謄上之令"에 따라 다른 도의 統誌들과 함께 편찬된 것이다.

1871년은 서원이 철폐되고, 신미양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해였다. 이러한 중에 각종 개혁 조치의 시행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이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재정, 군사면에서 지방의 실정 파악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邑誌謄上之令"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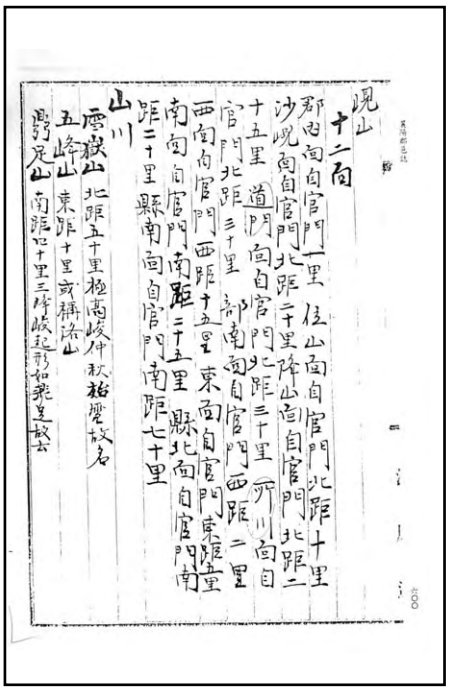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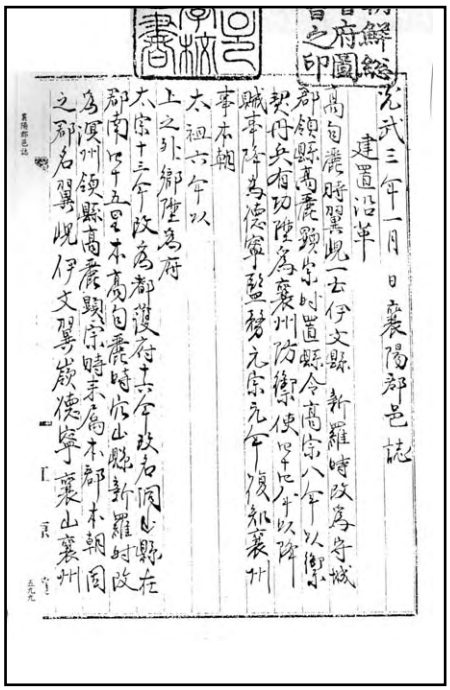
江原道襄陽郡邑誌「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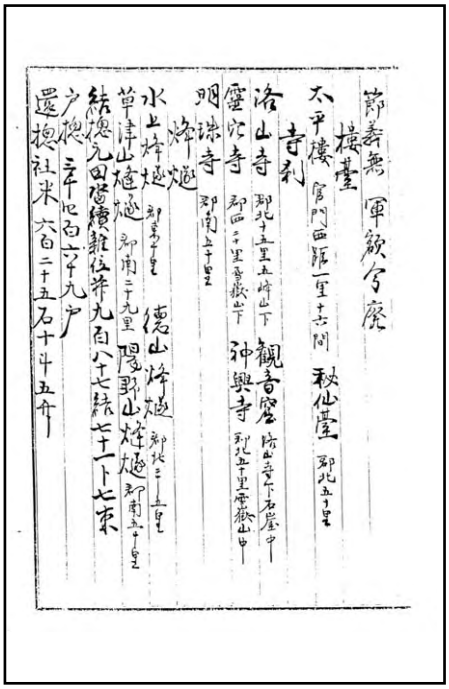
[光武三年一月日 襄陽郡邑誌]라는 內題는 이 읍지가 1899년 전국적인 읍지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임을 말해준다. 1책의 전반부에는 일반적인 읍지의 기재사항과 함께 결총·호총·환총·봉급의 수치가 파악되어 있으며, 후반부에는 선생안이 적혀 있다. 선생안에는 1895년에 金靖眞이 부임한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고, 1책의 말미에는 이 읍지의 편찬자가 趙觀顯임을 말해주는 표시가 있다.

2책도 일반적인 읍지 기재사항이 기재된 전반부와, 선생안이 기록된 후반부로 구분된다. 1책에서 파악되지 않은 호구수가 기준연도없이 적혀 있고, 기타 산천·누정·사찰 등에 대한 설명이 1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 2책의 선생안에는 1책과 달리 趙觀顯까지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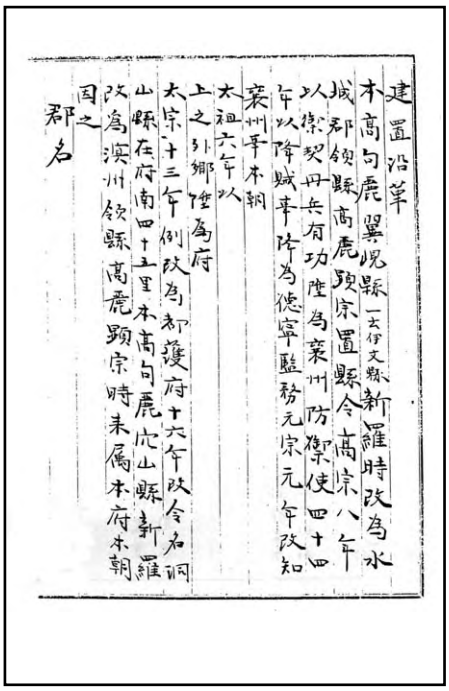
이것으로 볼 때 1책과 2책은 전체읍지의 상·하편이라기 보다는 별개의 읍지에 가깝다. 읍지편찬명을 받은 조관현이 군현 내에 통용되던 2종류의 읍지가운데 하나를 택해 결총·호총·환총·봉급의 수치를 반영한 후, 선생안을 추가한 異本과 함께 올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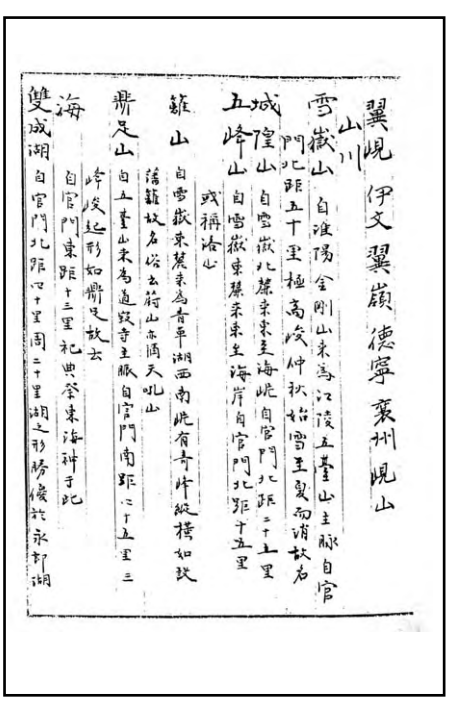


江原道襄陽郡邑誌「一」



沙峴面 沙介橋北距二十里北洞北距二十里勿甲里北距二十里魯洞里北距十五里長山里北距二十里砧橋里北距二十里北津北距十五里合人戶二百八戶
洛山寺在其東海邊
降仙面 屯田洞北距二十五里上福洞北距二十五里石橋里北距二十五里汾淄市北距二十里同驛里北距二十里中下福洞北距二十五里同龍洞北距二十里
合人戶二百九十六戶
道門面 上道門里北距三十里下道門里北距二十五里大浦里北距三十里瓮津北距三十里合人戶一百五十八戶 神興寺在其西
所川面 論山里北距三十五里扶月里北距三十五里東華里北距三十五里東津北距三十五里合人戶二百四戶

建置沿革
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為水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為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率降為德寧監務元宗元年改知襄州率本朝
太祖六年以
上之外鄉陞為府
太宗十三年例改為都護府十六年改令名洞山縣在府南四十五里本高句麗穴山縣新羅改為濱州領縣高麗顯宗時來屬本府本朝因之
郡名



翼峴 伊文 翼嶺 德寧 襄州 峴山
山川
雪嶽山 自淮陽金剛山來為江陵五臺山主脈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城隍山 自雪嶽北麓來來至海峴自官門北距二十五里
五峰山 自雪嶽東麓來來至海岸自官門北距十五里
或稱洛山
籬山 自雪嶽東麓來為青草湖西南峴有奇峰縱橫如玫瑰籬故名俗云符山亦稱天吼山
鼎足山 自五臺山來為道致寺主脈自官門南距二十五里三峰峻起形如鼎足故云
海 自官門東距十三里祀典祭東海神于此
雙成湖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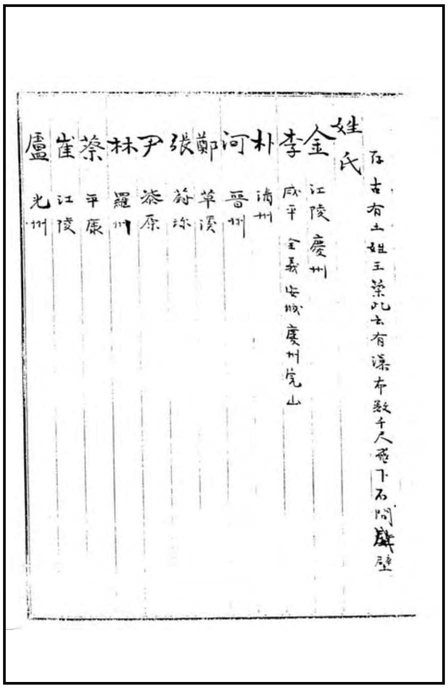
橋梁
南大川 自官門南距二里夏則用舟
廣汀川橋 自官門南距三十里
汾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降仙川橋 自官門北距二十里
屈湖坂 自官門東距二十五里
驛院
祥雲駅 自官門南距二十里
連倉駅 自官門東距五里察訪郵館在此
降仙駅 自官門北距二十里
獐邱駅 自官門南距五十里
燧燧
水山烽燧 在府東十里南應華津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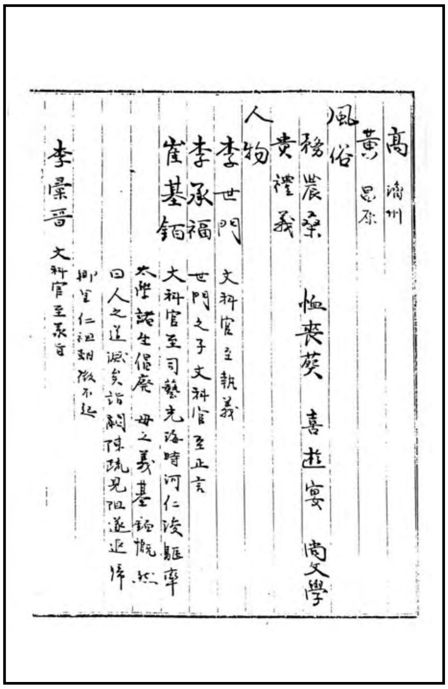
觀音窟 在府東十五里五峰山之下海濱石崖中
折海水入其中僧吠作聲其上架小閣安觀
音像我翼祖與貞淑王后詣此祈嗣夢有一衲衣
僧來告曰必生貴子其諱善來果然度祖誕降
遂以善來諱
靈穴寺 在府西十五里雪嶽山南麓下法堂三間
寮舍單房十間
神興寺 在府北五十里雪嶽山中法堂六間校閣
三間普濟樓七間寮舍四房四十間
內院菴 在神興寺北十間
明珠寺 在府南五十里五臺山北麓下法堂四間
寮舍二房各十間碧玉樓十間
圓通菴 在明珠寺東三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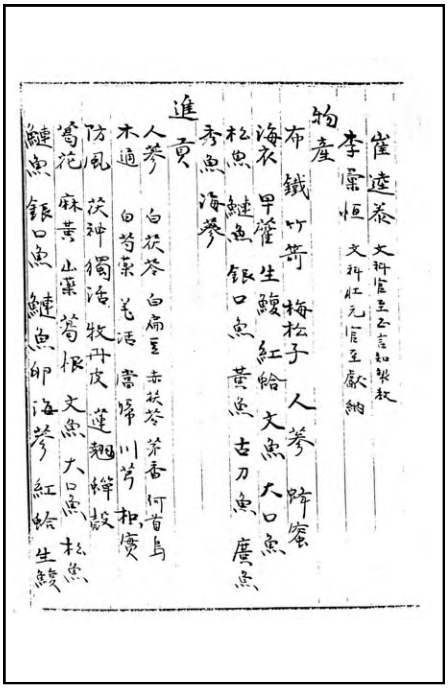
德山烽燧 在府北二十五里北應杆城竹島南
應水山
草津山烽燧 在府南二十九里南應陽野山北
應水山
陽野山烽燧 在府南五十里南應江陵注文山北
應草津山以上烽燧皆新羅所設今廢
樓亭
太平樓 在客館南十六間元仁宗延祐二年
創建庚寅重創
醉山樓 在府衙外三間
觀髮亭 在府南五十里洞山縣東今廢
秋仙台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峭拔
可觀舊有亭今廢

寶蓮菴 在明珠寺北五間
古跡
義相臺 在府東二十里觀音窟之南臨海斗絶
即神僧義相所遊處云
繼祖窟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窟勢谽谺中有
僧舍因石為屋
飛仙台 在府西五十里食堂洞白石平鋪清川中流
或布而為渠或停而為潭台之北壁石峰突舉
炎束如釰戟椽
河趙台 在府南三十里小麓迤入海中陡絶為台台
之左右巖壁奇古海濤衝激浪雪翻散世傳
國初河崙趙浚遊賞處故遂名之
權金城 在府北五十里雪嶽山中勢甚高絶石

築周千餘丈廢堞尚在俗傳昔有權金兩姓避亂于
此故名
冷泉 在府北十五里五峰山中世傳觀音化為德女刈稻
於此元曉因取飲冷泉鄉之獻諸云鄭樞詩曰
德女古基沙乘砌曉公遺跡樹連天
五色驛 在府西四十五里舊有驛路以通京師嶺廢而驛移
爲杆城元巖驛是也
沙林寺碑 在府西三十里有沙林寺遺墟石碑金時習
集王羲之字撰弘覺禪寺所安體古高世以爲寶中
今爲野火所燒尚餘片石留在府中
黔達洞 在府南八十里即金時習卜居處洞有紫芝俗傳上
歲童子所採云
土王城 在府北五十里雪嶽山東石築為城餘址尚


姓氏 在古有土姓王棨九去有藻布數千人亦下不問麟壁
金 江陵 慶州
李 咸平 全義 安城 慶州 完山
朴 淸州
河 晉州
鄭 草溪
張 蔚珍
尹 漆原
林 羅州
蔡 平康
崔 江陵
盧 光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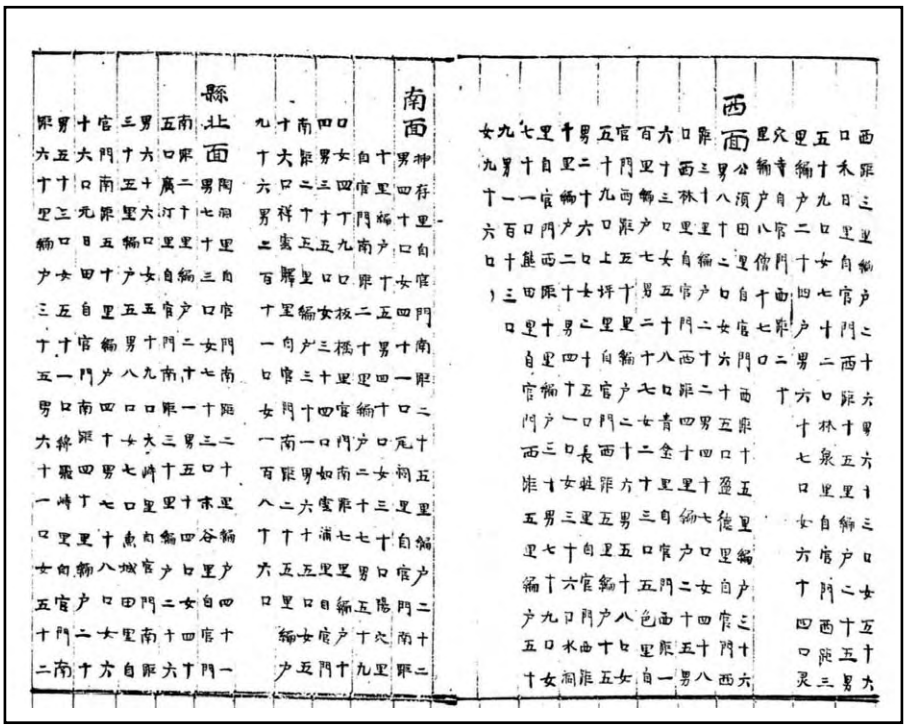

高 淸州
黃 昌原
風俗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尙文學
貴禮義
人物
李世門 文科官至執義
李承福 世門之子 文科官至正言
崔基銘 文科官至司藝 光海時河仁浚雎率太學諸生倡廢母之義 基銘慨然曰人之道滅矣 詣闕陳疏見阻遂退歸 仁祖朝徵不起
李彙晉 文科官至承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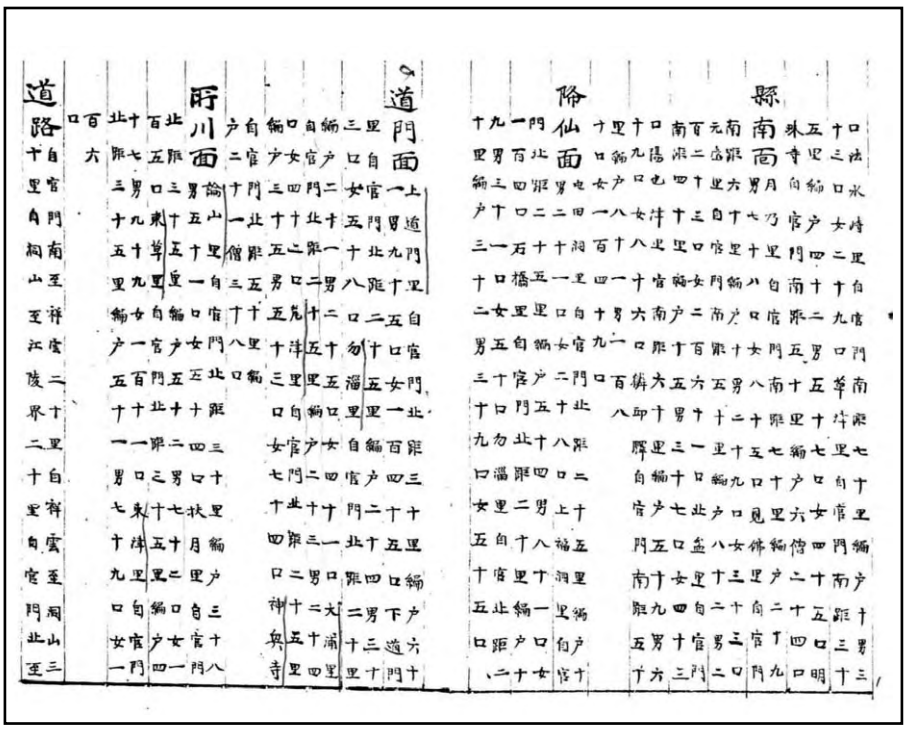

崔逵 文科官至正言知縣敎
李彙恒 文科壯元官至獻納
物産
布 鐵 竹箭 梅 松子 人蔘 蜂蜜
海衣 甘藿 生鰒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鰱魚 銀口魚 黃魚 古刀魚 廣魚
秀魚 海蔘
進貢
人蔘 白茯苓 白扁豆 赤茯苓 茴香 何首烏
木通 白芍藥 羌活 當歸 川芎 柏實
防風 茯神 獨活 牧丹皮 蓮翹 蟬殼
葛花 麻黃 山藥 葛根 文魚 大口魚 松魚
鰱魚 銀口魚 鰱魚卵 海蔘 紅蛤 生鰒

關東誌「十三」

관동지의 편찬 시기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동읍지』(1871년)의 「선생안」에 군수의 도이임(倒離任) 년월이 기록된 읍지가 14개나 있다. 이를 토대로 『관동지』의 「선생안」과 비교해 보면 각 읍지를 종합하여 成冊한 것은 1829년에서 1831년 사이로 추정된다.

관동지는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3권에 양양과 간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風俗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尚文學 貴禮義

陵寢 無

壇廟 社稷壇 (在府西一里小阜上) 文廟 (在府西三里大成殿九間東西廡各六間神門七間典祀廳三間東西齋各四間明倫堂十四間祭器庫一間書籍庫一間) 城隍壇 (在府南一里今別移于厲壇所) 厲壇 (在府北三里) 城隍祠 (在府北一里) 東海廟 (在府東二十里海上正殿六間神門三間典祀廳二間東西齋各二間百川門一間) (每歲皆別祭仲春仲秋間常祭者祝皆自京下來)

公廨 客舍 (三十五間) 衙舍 (一百八間) 鄕廳 (十間) 訓鍊廳 (十四間) 軍官廳 (十間)

堤堰 青谷堰 (在府北二里周回六百三十尺長二百四十尺廣八尺水深三四尺) 臥峴堰 (在府北十五里周回九百二十三尺長一百五尺廣四尺水深三尺) 田村堰 (在府南七十里周回一千五百八十五尺長二百七尺廣五尺水深三尺) 葛往堰 (在府北十五里周回三百五十四尺長二十五尺廣五尺水深三尺) 小勿堰 (在府北十里周回七百七十四尺長一百三十五尺廣三尺水深三尺) 洞山堰 (在府南五十里周四九百尺長二百四十尺廣五尺水深一尺七寸) 古邪堰 (在府北十里周回六百十尺長一百二十八尺廣六尺水深三尺)

倉庫 邑倉 (六十一間) 洞山倉 (在府南五十里洞山縣倉舍六間) 降仙倉 (在府北二十里降仙驛倉舍六間) 軍器庫 (十間) 詳定庫 (八間)

物産 苧 鐵 竹箭 海松子 人蔘 五味子 紫草 地黃 茯苓 蜂蜜 白花蛇 海衣 旱藿 生鰒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鰱魚 銀口魚 黃魚 古刀魚 廣魚 秀魚 雙足魚 海蔘 松蕈

橋梁 南大川 (自官門南距二里夏則用舟) 廣汀川橋 (自官門南距三十里) 勿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降仙川橋 (自官門北距二十里) 和尚巖川橋 (自官門南距六十五里) 廣川坂 (自官門南距五十五里) 屈湖坂 (自官門東距二十五里) 德香院 (自官門北距七里今廢)

俸廩 (衙祿公須位米一百七十八石租五十石太一石錢一百五十內錢料以詳定廳上下米三十二百六束皮三十石葉草七十三百六十八可)

均稅 (納錢五百八兩選貢番錢九十六兩船鹽盆藿稅錢三百四十一兩納于均廳)

大同 (布十六同七疋田稅同時收捧上納于宣惠驛石程道興田稅同倘賢米三百三十四石)

田稅 (布十六同三十五疋每年四月收捧五月以陸路八月運于京上納于戶曹)

糶糴 (九倉一千四百九十五石營穀一千九百七十一石十月開倉十二月封庫)

進貢 人蔘 白茯苓 白扁豆 赤茯苓 五味子 茅香 茺蔚子 何首烏 木通 白芍藥 羌活 當歸 川芎 蔓荊子 枳實 防風 茯神 獨活 牧丹皮 蓮翹 蟬殼 葛花 瓜蔞仁 柴胡 金銀花 茵陳 蘗皮 白芨 麻黃 山藥 鷺巢殼 羚羊角

洛山寺十五里自洛山寺至麟蹄界猪矢嶺六十五里北至杆城界二十里自官門東至海邊
盤山十五里自官門西至凉峙二十里自凉峙至麟蹄五色嶺二十里自官門西南至西林里
三十里自西林里九龍嶺至四十里自九龍嶺至江陵印岩界三十里

建置沿革 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守城郡領縣 高麗顯宗置縣令 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 四十四年以降賊事爲德寧縣務 元宗元年復知襄州事 本朝
太祖六年以
上之外鄕陞爲府
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 十六年改今名 洞山縣 在府南四十五里 本高句麗穴山縣 新羅改爲溟州領縣 高麗顯宗時來屬本府 本朝因之

郡名 翼峴 伊文 翼嶺 德寧 襄山 襄州

峴山

形勝

城池 府城（石築周四百三尺 土城周回二十八百二十五尺 内有二井 雉堞今盡）（顧府只有東南西門）

官職 府使（文虞下淺三品壹上王三品通擬置其爲 座首一人別監三人軍官十五人衙前三十五人知印十六人使令十九名 官奴二十名官婢十六名）

山川 雪嶽山（自淮陽金剛山來爲江陵五臺山主脈 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始雪 至夏西消故名也）

城隍山（自雪嶽山北麓來東至海岸 自官門北距二十五里）

五峰山（自雪嶽山東麓來至海岸 自官門北距十五里或補洛山）

水山（自五臺山來爲東至海岸 自官門南距二十九里）

籬山（自雪嶽東麓來爲青草湖西南岸有奇峯 縱橫如設藩籬故名 俗云獅山 亦云天吼山）

陽野山（自五臺山來爲東至海岸 自官門南距五十里也）

飛足山（自五臺山來爲道巖寺主脈 自官南距四十里 三峰收起形如鼎足故云）

海（自官門東距十三里祀典 猴來海神于此載中祀）

雙成湖（自官門北距四十里 周二十里 湖之形勝優於永郎湖 昔置萬戶營治兵舡療）

南大川（自官門南東二里 出五臺山與所冬羅水合 涎府南入海 俗稱漢水云也）

竹島（自官門南距四十五里 觀瀾亭前滿島皆蒼竹 島下海邊有石凹如精磨瓏巧刻 凹中有小圓石 諺傳石搖轉其中 磨石成凹 磨盡則世艮矣）

姓氏 金（江陵 慶州）李（咸平 全義 安城 慶州 嘉山）朴（清州）河 鄭（草溪）張（蔚珎）尹（漆原）林（羅州）新增 蔡（平康）崔（江陵）盧（光州）高（濟州）黃（昌原）

觀音窟 在府東十五里五峯山之下海蔵石崖中郁海水入其中噴吹作拜其上架小閣安觀音像我翼祖興貞淑王后禱此祈嗣夢一衲來僧家告曰必生貴子其名善來未幾度祖誕降以善來名

靈穴寺 在府西十五里雪岳山下洪度三間寮舍單房十間

四擁寺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今廢

道寂寺 在府南十五里飛足山中今廢

新增神興寺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法虔六閣板閣三間普濟樓七間寮舍四十間四房

內院菴 在神興寺北十間

少林菴 在神興寺東八間

明珠寺 在府南五十里五臺山北麓下法崖四間寮舍二十房各十間碧玉樓十間

圓通菴 在明珠寺東三間

寶蓮菴 在明珠寺北五間

開雲寺 在府南六十里五臺山東麓下法處三間寮舍單房十間

樓亭

大平樓 在客館南十六間元仁宗延祐二年甲寅建庚寅重物

觀瀾亭 在府南五十里洞山縣東今則廢

秘仙臺 在府北五十里成湖東有石峰崎坂可現旧有亭今則廢

降仙亭 在府北二十九里許降仙驛舍東旧有亭今則廢

祥雲亭 在府南二十五里杆城驛旧有亭今則廢

新增醉山樓 在府衙外三間

烽燧

水山烽燧 在府東十里南應草津山

德山烽燧 在府北二十五里北應杆城竹島山南應水山

草津山烽燧 在府南二十九里陽野山北應水山

陽野山烽燧 在府南五十里南應江陵注文山北應草津山以上烽燧皆新顯所設今廢

關阨

五色嶺 在府西五十里即是雪岳山南枝接麟蹄界

弼如嶺 在府西四十里即五色嶺南枝接麟蹄界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即如嶺南枝接麟蹄界

阻枕嶺 在府西四十五里即雪岳南枝接麟蹄界田有路通京中今則廢

九龍嶺 在府西七十里即阻枕岑南枝接江陵府全川面界至也

兄弟峴 在府西四十里向五色岑路兩峴對峙相似故名

兩寒峙 在府西二十里向九龍岑路

牧場 無 分養馬二匹八月來于司僕五月上納

驛院

祥雲驛 自官門南二十里大馬三匹卜馬九匹吏一百六十二名奴六十三名婢八十名

連倉驛 自官門北十三里大馬一匹卜馬五匹吏二百名奴十名婢二十九口

降仙驛 自官門北二十里大馬一匹卜馬三匹吏一百九十二名奴七十八口婢三十口

軍保

騎兵 一百四十名 御營軍 十九名 禁衛軍保 三十七名 資保 一百九十名 訓鍊都監砲手保 一百八十八名 別破陣 五名

樂工保 十八名 樂生保 六名 典設保 三十六名 武學 十三名

牙兵 六十三名 束伍軍 三百九名

冊板 無

鰢 蔦根 文魚 大口魚 松魚 鰱魚

廣魚 沙魚 鰱魚卵 海參 紅蛤 生鰒

大口卵 粉藿

旱田 一百八十五結四十九卜七束甲午摠

水畓 三百八十七結二十七卜一束甲午摠

人物

李世門 文科官至執義

李承福 世門之子文科官至正言

崔基銆 文科官至司諫光海時河仁浚驅率太學諸生倡廢母之議基銆慨然曰人之道滅矣詣闕陳疏見阻逆退故鄉里仁祖朝徵不起

李彙晉 文科官至承旨

崔達泰 文科官至正言知製教

李彙恒 文科壯元官至献納

鎭堡

大浦營 在府東十二里成宗二十一年自江陵安仁浦移設於此水軍萬户一人石築周一千四百六十九尺高十二尺今廢

古跡

義相臺 在府東二十里觀音窟之南臨海汗絶即神僧義相所遊處云

繼祖窟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窟勢鎗窟中有傳寺因石為室此乃窟也

飛仙臺 在府西五十里食遠洞白石平鋪清川中流或布而爲湜或濤而爲潭臺之北登石峰突聳衷東如劒聳採

河趙臺 在府南三十里山麓邊入海中陡絶蔦臺、之左右岩壁奇古海濤衝齧痕雪

飄散世俗傳國初河淼趙後遊齋廢故逆名之

權金城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勢甚高絶石築周千餘尺称堞尚存俗傳云昔有權

金二姓避乱于此故名

冷泉 在府北十五里五峯山中世傳觀音化蔦德女刈稍於此元曉曰取飲冷泉與之戲

報云鄭樞詩曰德女古迷哉長劍晚今遺跡樹連天

五色驛 在府西四十五里舊有驛站以通京即峯鄉而驛移為打城元岩驛是也

沙林寺碑 在府西三十里有沙林寺遺墟石碑金時習彙王義之字撰弘覺禪師碑

亭体古高世以萬曆中年為野火所燒尚餘尺石留在於府中也

黔達洞 在府南八十里卽金時習卜居處洞有紫迷俗傳五歲童子所誅云也

土王城 在府北五十里雪岳山東石築遺跡尚存俗傳古有土姓王等此云有瀑布數

千尺瀑下石間壑

新增

藥泉 在府西五十里五色山下其水味酸清滯疾冷疾飲則有效故名

寺刹

洛山寺 在府北十五里五峯山中上下法堂各八間寮舍七房合七十間廣日軒四間

奉揭 雷扁御製高麗僧益莊記畧云襄州東北降仚驛南里有洛山寺寺之東殿里海过有

窟其高可百尺其大可容萬斛之舟其下海濤虎出入世稱觀音大師所住處新羅僧義相欲

親觀聖容乃於窟前石上拜禱精勤至二七日尚未得觀便投身于海海龍扶出石上觀音大

師卽於窟中伸臂授水晶念珠曰我身則未可親覩但從窟上行至雙竹湧地是我頂上此地

可落一服龍弁献如意珠及元王義相果於生付处設殿以龍所献玉造像安之卽洛山寺也

我太祖定国後春秋進使設齋因嵩之定規水晶念珠如意珠廣於是寺癸丑天兵蘭入是

州於寄苗山彞城寺衛旅偕寺奴取水晶念味及如意珠妣於妣而以走上告於朝弄退遣人

取之蔵於內殿世修有人到窟前至誠拜禱則青馬出現明宗朝兵马使虔旨諒到贶音窟

前焚香升禱有青鳥舍花飛鳴花落於憐頭云我世祖幸此寺以佛序臨臨命新之拙窟社

磨京嗣敞命臣韓舐楼柢本焚香幣且賜田畨奴婢以供香火肖京御架日快登南里洛伽

峯风花織雲月色濃欲詩圓通大聖理有時青鳥含花造

五里 外坪里 自官北距二十里 山北里 自官北距三十里 蓬湖里 自官
北距十里 月安里 自官北距二十七里
縣內面 烈山里 自官北距三十五里 馬直里 自官北距四十里 榆長
洞里 自官北距六十里 蛇川里 自官北距六十七里 明波里 自官北距六十
里 道發里 自官北距四十五里 雲根里 自官北距三十里 草阜里 自官
北距六十里 加老里 自官北距四十里 水達里 自官北距三十五里 草[illegible]
里 自官北距三十五里
旺谷面 芸谷里 自官南距十五里 副津里 自官南距七里 加乙道
里 自官南距七里 香木里 自官南距七里
竹島面 麻佐里 自官南距三十里 西坡里 自官南距二十里 甫豆

乙里 自官南距二十五里 黃浦里 自官南距二十五里 花井里 自官南距二十
里 甘民堂里 自官南距二十里
土城面 土城里 自官南距三十里 鶴也洞里 自官南距三十五里 院
基里 自官南距四十五里 東老洞里 自官南距四十里 仁角里 自官南距
四十里 元巖里 自官南距五十里 獐川里 自官南距六十五里 沙也只
津里 自官南距五十五里 沙也只里 自官南距五十里 廣浦里 自官南距
四十五里 清澗里 自官南距四十里 栢村里 自官南距三十里
海津 郡地諸坊背以海為界漢戶所居取魚可泊處謂之津大聚大嶺群麓往往通入海諸為風濤
劃削玉斯石出雉立森竪倚木而平者為臺擲水而出者為嶼亞以松林雜以花寺無非可觀而淡
波萬景二臺以在官道傍故獨以形勝擅名 乾津 郡南四十六里即清澗驛前 掛津

山川 郡界之山皆嶺也而有諸山之別者以其推嶺背而別起峰巒也郡水自山以下則為瀑川入
谷則為淡澗往往可賞及至注野而為平川則決而入海岸岸平直無沿洄可視之勢其或流入洞
壑渟蓄積流則東北風吹簸海浪推擁沙石橫障其口湖為湖潭灌瀯湖淵沙礫暝帶兩岸峭嵓塞
曲成奇勢上嶺下海觀望四達在嶺東此最為奇勝而杆城境內湖水最多於南北
按湖水非山谷之水流入渟蓄而成者乃海水自
地中相連穿出而山谷之水特添而益之耳是故
湖水必在海邊至近之地味又鹹不可以灌漑其
理易驗
南山 在郡南五里 五音山 在郡南十里積雨有應 金剛山 在郡西北二十
里即乾鳳寺後山也此山以北諸水皆八于高城郡南江餘詳滙陽府 按金剛山在

高涯之境距郡百四五十里本非在郡境者然郡中諸山皆發祖於金剛而金剛乃名山故強引而
冒稱焉 麻耆羅山 在郡直西三十里為郡鎮山有峰曰香爐巖旱禱兩有應 國東
山 在麻耆羅西西報揭口界山磐最高 天吼山 在郡南七十里山多石穴
風日中出謂之天吼世傳襄杆之間多大風以此云山有聖人遠有石狀似佛際故名其側大石如
囷廩俗呼禾巖世傳昔有防戍於此而敘以藁苦果此石示敵以有時粮仍以却敵故名之云耳
古城 即烈山縣鎮山 島山 在郡南三十里麻耆羅之南支為排山為島山一峯圓秀特出
吾和海有湖沙方湖濼時此山佳似霞爲八居其上故名云 國祠堂山 在郡南五十里
一峯特秀工有古松立人祠以依神故名焉其下有龍巖波可三里 於丘山 在烈山西四里
一名昊的只山云 花津湖 一名烈山湖在烈山東二里周回數十里縈帶山谷此諸湖衆
大俗傳烈山縣本在湖池後為洪水所陷為湖焉至今天晴波靜隱隱可俯見墻屋云然湖水深黑

峴山誌

말미에 붙어 있는 선생안을 미루어 볼 때 1879년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

본문 가운데에는 간지 앞에 《今上》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이들은 대부분 정조(正祖)를 지칭한다. 정조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 하한선은 1800년(정조 24)이다. 이는 현산지의 원본이 이미 정조 말에 편찬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순조대를 《今上》으로 표현한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조 말에 편찬된 현산지가 순조대를 거치면서 계속 증보되어 갔음을 말해준다.

이 읍지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읍지 가운데 가장 자세한 것으로서, 조선후기 관찬지리지 편찬 사업과는 무관하게 편찬되었다. 18세기에 편찬된 읍지 가운데 관찬지리지의 항목과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그만큼 편찬자 자신의 지역 인식과 의도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었다.

峴山誌

建置沿革

本高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為水城郡領縣高麗顯宗時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為襄陽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為德寧監務元宗元年改知襄州事本朝　太宗六年以穆祖外鄉陞為府　太宗十三年例改為都護府十六年改襄陽府光海戊午以逆乱降號為縣　仁祖元年癸亥陞府戊辰以逆亂降號為縣丁丑陞府

屬縣

九名

水源

青草湖在府北三十里周回數十里每冬氷合有千頃犂破之狀是夜湖上民牛皆喘汗郡人謂之龍耕以此占歲豊凶一名霎成湖

盖馬湖在府南四十里周四五里

霎湖在府東五里蓴菜甚佳

漢水在府南數頻即所謂南大川冬用橋夏用船

道門川源出内院洞與食堂川合流爲沕淄川有橋

大峴川源出望景嶺與烏峴川合流爲廣汀川有橋

道門面在府北三十里

元戶一百八十五戶 男二百三十七口 女三百四十七口

所川面在府北三十五里

元戶一百八十二戶 男二百六十五口 女三百七十四口

西面在府西一百十里

元戶二百三十二戶 男四百四十二口 女三百二十五口

東面在府東十里

元戶一百十四戶 男二百〇〇五口 女二百二十九口

南面在府南十五里

元戶九十二戶 男二百三十六口 女二百五十一口

進貢

人參三等所封四十四兩 春等十九兩京貢 秋等十四兩五戔 臘等七兩二戔一分 合四十兩七戔一分

銀口魚　生連魚　松魚　已上川出

生乾大口魚　文魚

海參　紅蛤　生塩鰒　粉藿　早藿　大口魚卵

已上海出

糴糶

軍資倉租四十七石　米三十二石

風俗
喜遊宴 業農桑 恤喪葬 信巫鬼 出勝覽
姓氏
金 江陵 金海 慶州
崔 江陵 慶州
鄭 延日
張 蔚珍
吳 海州
李 咸平 全義 嘉山 慶州
趙 漢陽 豊壤
尹 坡平
朴 清州 密陽
盧 光州
孫 密陽
高 濟州
林 羅州
黃 長水

津浦
陽野津在府南六十里
洞山津在府南五十里
草津在府南四十里
烏山津在府東十五里
水山津在府東十里
東津在府東十三里
浴山津在府東北十五里
洩津在府北十五里
洶湍津在府北二十里

德山津在府北二十五里
束草津在府北三十里

里站
南程王道峴十里 峴即長柱
長孫峴十五里
祥雲峴二十里
龍蹄峴二十五里
廣汀峴三十里
新津峴三十五里
奇士門峴四十里

栗阜峴三十里
束津地境峴三十五里

烏嶼
竹島在府南五十里洞山縣東産竹古有觀瀾亭今
麻上有駐蹕巖中有鍊砂臺訪仙巖弄鶴巖石刻鄉
人鄭衡重所命
無路島在府北三十里束草津東産竹

物産
虎皮 熊皮 獐皮 黃毛 猪毛
狸皮 猫皮 海獺 水獺 海膜 海豚

北盆堠四十五里
觀瀾亭堠五十里
城峴堠五十五里
斗尾堠六十里
和尚蔽堠六十五里
江陵地境堠七十里
北程月浦堠十里
北津堠十五里
沕淄堠二十里
漶山堠二十五里

紫蟹 紅蛤 海蒼 生鰒 大口魚 魴魚
加魚 廣魚 文魚 沙魚 洪魚 松魚
連魚 黃魚 銀口魚 鱸魚 鯉魚
藿 塩 茶 楮 竹 蓴 梨
栗 柿 杏 桃 銀杏 樓桃
胡桃 木果 榛子 楸子 蓮子 栢子
五味子 五加皮 芝草 紅花 薯蕷 松蕈
晩耳 石耳
牧場
分養馬二匹八月受未五月上納馬料荒租七石一

在五峯山即新羅僧義相所遊處因以名之 按益
壯記義相祖師唐高祖武漶八年乙酉生新羅二十
六真平王四十七年也龍朔元年辛酉入唐就學於
智岩禪師咸亨二年辛未還新羅三十文武王十一
年也武后長安二年壬寅示寂年七十八
緇祖窟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窟勢谽谺如屋子樣世傳
緇祖禪師修道處窟之南盈石上有石一人動之有
微動萬人動之動不加焉名以動石窟號三字大刻
尹判書淳筆

亭臺漂渺仙蹤秘天水蒼茫物失留落日半啣青草
屹微風乍起白蘋洲今廢
秘仙臺
在府北五十里海上巖石平寬可坐數十人
觀音窟
在府東十五里五峯山海澨石岸中圻海水入其中
噌吰作聲其上作小閣安觀音像我 翼祖與貞淑
王后崔氏詣此祈嗣夜夢有一衲僧來告曰必生貴
子其名善來未幾 度祖誕生遂以善來名
義相臺

權金城

在雪岳之東神興寺南突兀縹緲不待秋衛登臨睡望氣像宏豁山腰有石等城俗傳權金二家避乱于

土王城

在府北四十里雪岳之東瀑布掛流數百丈氣勢甚壯有石等世傳土姓王所造云

卧仙臺

在雪岳之東食堂洞中白石平鋪清川中流或布而為瀑或停而為潭

飛仙臺

在卧仙臺之上川石視卧仙尤勝而北崖石嶂之突慫炎東令人驚吁亦蓬來之所無三淵金公昌翕所謂東方川石中上乘者臺號三字大刻尹判書淳筆

浸山亭

在府北四十里青草湖之東岩陶庵李尚書縡嘗遊山到此數日嘯詠見峴叟李叅議彙晋約以臨湖起亭以作晚年逍遥之所而頹作名曰浸山以雪岳峯巒顛倒湖心而然也今廢

此故名　按益壯記癸丑丹兵闌入我疆是州於雪岳山等城守禦疑指此

宜春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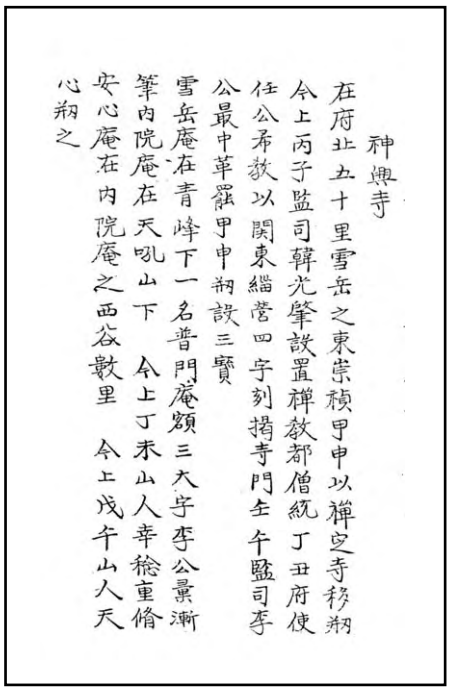
在府西十五里盃石極佳鳴岩李公海朝命以宜春岩號三字大刻鳴岩筆

雲門巖

在府南六十里明珠寺之西洞水石極佳峴叟李公彙晋命以雲門岩々號三字大刻李衡翼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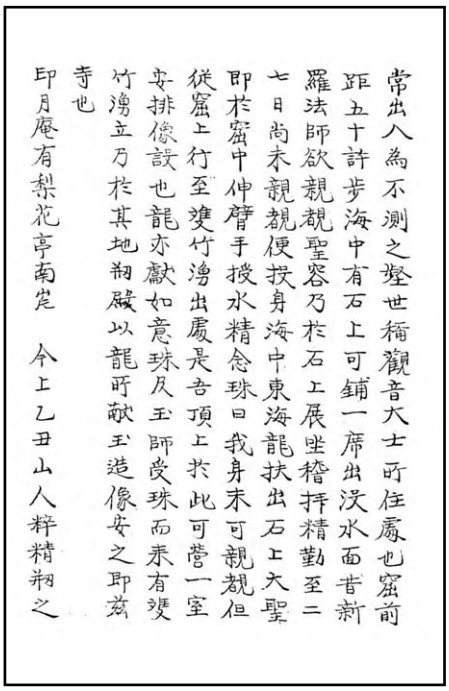
碧玉潭

在西西五里鹿門山下水滙而澄北崖岩石叅差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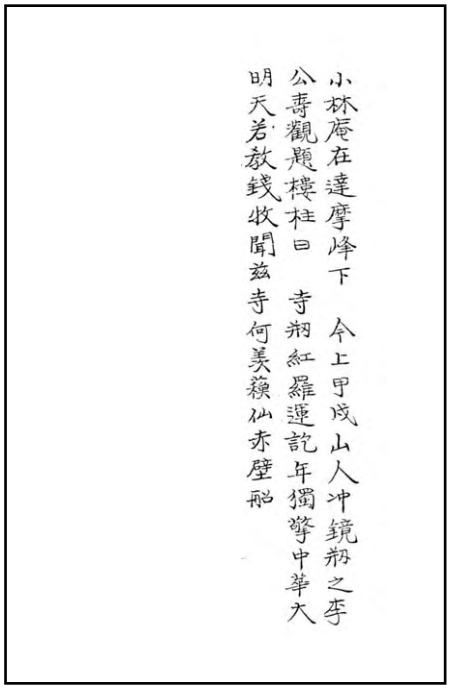


神興寺

在府北五十里雪岳之東崇禎甲申以禪定寺移剏
今上丙子監司韓光肇設置禪教都僧統丁丑府使
任公希教以関東緇營四字刻揭寺門壬午監司李
公最中革罷甲申剏設三寶
雪岳庵在青峰下一名普門庵額三大字李公彙漸
筆内院庵在天吼山下　今上丁未山人幸稔重脩
安心庵在内院庵之西谷數里　今上戊午山人天
心剏之



常出人為不測之壑世稱觀音大士所住處也窟前
距五十許步海中有石上可鋪一席出没水面昔新
羅法師欲親覩聖容乃於石上展坐稽拜精勤至二
七日尚未親覩便投身海中東海龍扶出石上大聖
即於窟中伸臂手授水精念珠曰我身未可親覩但
從窟上行至雙竹湧出處是吾頂上於此可營一室
安排像設也龍亦獻如意珠及玉師受珠而來有雙
竹湧立乃於其地剏殿以龍所献玉造像安之即茲
寺也
印月庵有梨花亭南岸　今上乙丑山人粹精剏之



小林庵在達摩峰下　今上甲戌山人冲鏡剏之李
公壽觀題樓柱曰　寺剏紅羅運訖年獨擎中華大
明天若教錢牧聞茲寺何羨蘓仙赤壁船

增補文獻備考

兄山 火城郡○不載濟道在於慶州兄山新縣時稱北兄山○原本作今淸州道恐誤 淸海鎭 助汁島○今莞島淸海浦津等地

小祀霜嶽 高城郡今高城○ 雪嶽 迄城郡○不載杆城縣於翼嶺○原本作今杆城恐誤 華嶽 斤平郡○今加平

紺嶽 七重城○今積城 負兒嶽 北漢山州○今京都 月奈嶽 月奈郡○今靈巖 武珍嶽 武珍州○今光州

西多山 伯海郡難知可縣與地考作難珍阿縣今鎭安 月兄山 奈吐郡沙熱伊縣○今淸風 道西城 萬弩郡○今鎭

川 冬老嶽 進禮郡丹川縣○今茂朱 竹旨 及伐山郡○今順興 熊只 屈自郡熊只縣○今熊川 嶽髮 于珍也郡○今

蔚珍○一作髮嶽 于火 生西良郡于火縣○今蔚山○輿覽作弓弗山之說傳恐是 三岐 火城郡○今淸道 卉黃 牟梁

○今慶州 高墟 沙梁○今尙州 嘉阿嶽 三年山郡○今報恩 波兵谷原嶽 阿支縣○輿地考無阿文縣區按淸河縣

本號爲阿兮或者兮縣爲支欵 非藥嶽 退火郡今興海 ○ 加林城 加林縣○今林川○一本有靈巖山廣風山面無加林城

加良嶽 菁州○今晉州 ○ 西述 牟梁○慶州仙桃山新羅時稱西述

高勾麗以三月三日會獵獲猪鹿祭山川

增補文獻備考 卷六十一 禮考 十八

神輿寺誌

神興寺誌

一、神興寺의 案內

神興寺는 그 創立의 由緖가 甚古한 關東의 有數한
名勝地이다 襄陽郡으로 부터 約五里半 距離에
在하고 又는 元山釜山間 航路汽船이 碇泊되는 襄
陽中心인 大浦港으로 부터 距離 參里의 途에 在한
者인데 그 交通으로는 襄陽、元山線 二等路 沕淄
橋에 至하야 西를 雪岳山을 契하고 自働車가
通行하는 三等道路가 有하야 神興寺에 至하고
大浦港에서 上陸하여 自働車로 沕淄橋에 至하여
西으로 右折하여 神興寺에 足한다 만일 襄陽郡
으로 부터 徒步로 來하려면 沕淄市場에 足하여 西으
로 雪岳山을 向하고 昔日 義湘法師가 仙人을 逢하
던 降仙里를 經由하여 驛峙를 넘어 昔日 富家
家의 居住하던 古蹟이 頗多한 長財里를 經由하
여 義湘法師 開道 開悟하던 道門里를 北으로 憩見
하며 待臨川에 至하여 迎仙橋를 渡하여 昔日 白蜂이
出現하여 義湘法師의 道를 引導하던 蜂峴里로
經由하며 神興寺 地域 定界인 蜂峴峙를 넘어 南으
로 扇子峰 釋迦峰 文殊峰 普賢峰 諸峰의 間에
長流萬丈하는 神光瀑布를 바라보며 香城寺 古址
에 至하면 五層의 石塔이 儼然 特立하여 來客을
歡迎하는듯 古代 美術을 자랑하는듯 그 石面의

古態는 人으로 하여금 感古의 想을 起치 아니치 못
하게 한다 上下의 境內를 觀時하니 山容의 妙秀와 澗
流의 淸麗는 人間의 奇絶이오 天下의 壯觀이다
此地에서 分路하여 神光瀑布에 入하는 道路가 有하다
元途로 行하여 浮屠場에 至하면 羅麗 高僧의 舍利
奉安한 石浮屠와 行解를 記錄한 石塔 等이 列立
重々하여 人의 眼目을 驚動케 한다 洗心橋를
渡하여는 道路가 西北 二線이 有하니 一線은 神興寺
로 入하며 上 安養庵 內院庵 繼祖庵 天吼山 蔚山巖 峙
達 林峰 等 名所로 가는 道路이고 西一線은 昔日
權金兩將의 馳馬鍊武하던 馳馬場을 經過하여
失弓谷 權金城 燈臺岩 臥仙臺 飛仙臺 峽築臺
彌勒峰 金剛窟 白雲洞 千佛洞 麻登嶺 金剛門
五歲庵 鳳頂庵 青峰 水廉洞 大乘瀑布 永矢
庵 脫頂嶺 百潭寺 等 名所로 가는 道路이다 以上
의 名所와 古蹟의 詳細한 것은 以下에 紹介하노라

一、神興寺의 位置

神興寺는 朝鮮 襄陽郡 道川面 雪岳里 壹百七拾
番地에 在한 名刹인바 그 位置를 包容한 者는 金剛
山의 南麓이오 五臺山의 北麓으로 其勢가 雄
偉하고 景致가 絶勝한 雪岳山이니 其高는 海拔
三千尺(一七〇八米)이오 其圍는 四方 數百里로다
山의 自體는 皎々[illegible]이 絶塵無雜하니 從古로

靜慮默禪者가此山에多住하였다山中의名所
와古蹟이多有하니探古探勝者가其踵을
連하였도다

一、神興寺의沿革

香城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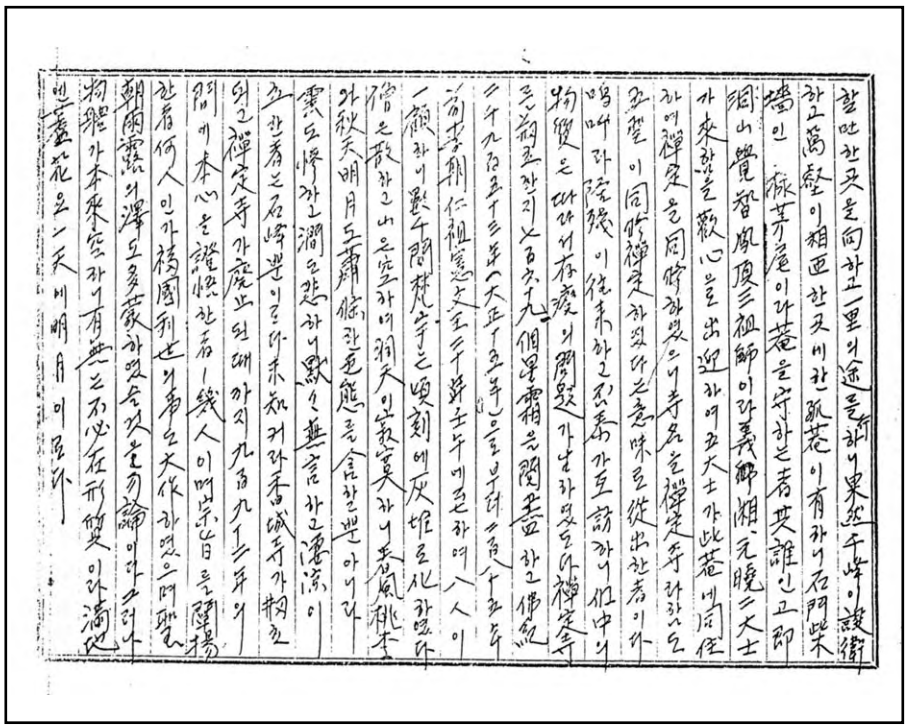
佛紀二千九百五拾參年丙寅으로부터約一千二百
七十五年前新羅眞德女王大和六年壬子에律
師慈藏이五臺山으로부터雪岳山에入하여梵
刹을創建하여額을香城寺라하고寺의前庭에
九層石塔을建造하여世尊舍利를奉安하니
此는卽慈藏이唐으로부터本國에還하여創寺
建塔十餘個所의其一이라
按古記하니大德慈藏이新羅善德女主仁平
三年丙申에勅을奉하고唐에入하여法을求할새
緣이淸凉山에應하여文殊像前에서誠心으로精
進한結果摩頂授記를得하고佛頂骨佛牙、
佛着하시던緋羅金點袈裟一領佛舍利百枚
를得하여持하고仁平十三年癸卯에本國에還하
여皇龍寺를初創하고九層石塔을建造하여
佛舍利三十三枚로奉安하고其後眞德女主大和
三年己酉에通度寺를初創하여佛袈裟外
佛舍利를奉安하고大和五年에五臺山地爐峯
下中臺에寂滅宮을建하여佛頂骨佛牙를
奉安하고月精寺에十三層大和塔을建造하여佛舍利
三十三枚를奉安하고太白山葛來寺와雪岳山香城
寺와鳳頂菴과及其他各處에佛舍利를分安하였
다云云
律師慈藏이五臺山으로雪岳山에來하여此神
興寺로부터六里外靑雲村에至하여此山을望하니
五色祥雲이山上에凝繞하고奇異香聲이自然一
撲鼻라하야徐々로現場에到着하여局內를詳察
하니萬疊洞天은靈氣로藏하였고連帶峰巒山은
世擾를却하는도다可以鍊心修性할者의居할神
域이오能히世尊의舍利로奉安할寶許로다
衆香城佛國土라此地가分明하다하야大伽藍을
創建하고香城寺라命名하나大抵盛衰의
相替는難防難測이라이香城寺의運命은二百
二十三歲가定限이던지世와兵燹이梵剎은來
侵하매數千間梵宮이一朝에祝融의災로化하고
九層石塔도四層은破損을當하고五層만殘餘
케되었다白水靑山과松栢煙雲이其主를失
하였으니實로龍天이共愁하고人神이同悲
할者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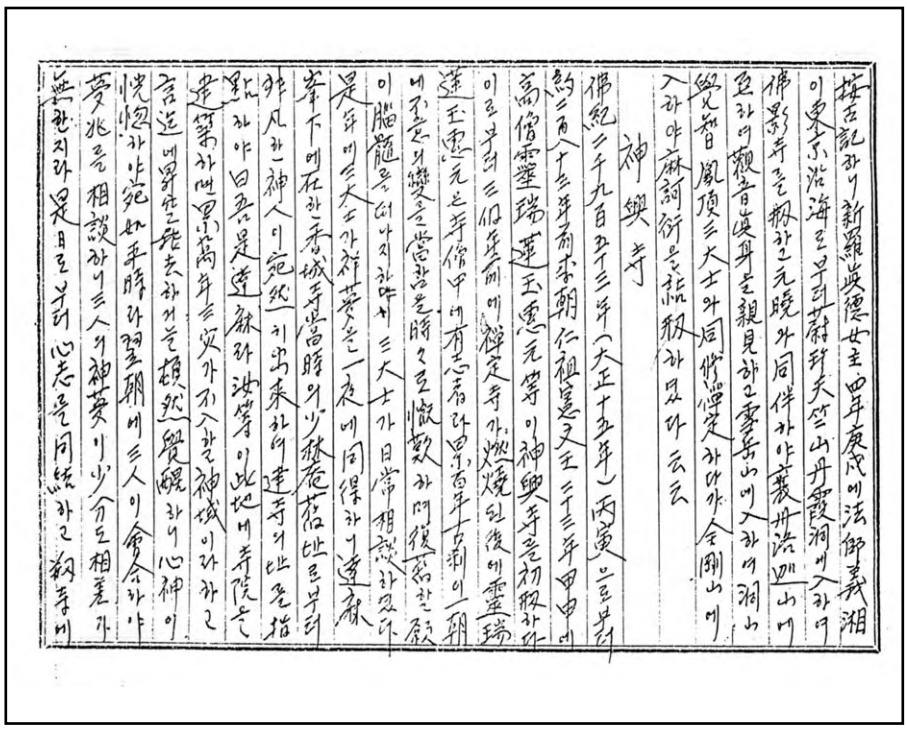
禪定寺

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約一千五
十三年前新羅文武王十三年癸巳에法師

義湘이 蔚珍郡 天竺山으로부터 雪岳山에 至하여 大
刹을 叙立하고 額曰 禪定寺라 하다
按古記하니 高僧 義湘이 新羅 武烈王 元年 庚戌
에 唐에 入하여 法을 求할새 終南山 至相寺 智儼
大德所에 詣하야 華嚴教觀을 學達하고 新羅 文
武王 十年 庚午에 本國에 還하야 奉勅刱寺할새
小白山 浮石寺를 初刱하고 連하여 伽倻山 海印寺
原州 毘摩羅寺 毘瑟斯山 玉泉寺 金井山 梵魚寺
南岳山 華嚴寺 等 義州 雪岳山 禪定寺 等 十刹을 叙
建하였다 云云
法師 義湘이 天竺山 佛影寺를 叙建하고 大聖 元曉
와 同伴하야 五臺山 地藏峰下 中臺에 至하여 佛頂骨
을 奉安한 寂滅寶宮에 禮敬하고 轉報圍繞하며
一步一拜로 洛伽山 寶陀窟에 至하여 海岸懸崖
絶頂에서 七日을 翹足하고 至誠禮敬하야 觀音眞身
이 海中에 出現하심을 親見하고 窟內에 隨入하였다가
東海龍王으로부터 奉呈한 龍宮寶物인 水晶念珠
를 持還하여 石塔에 藏한 後 雪岳山을 向하고 來하야
行하여 一里에 途에 至하며 左右의 山岳은 擎天列立한
中에 一谷이 通하였으나 林木이 甚稠하고 水聲이
測測하며 毛骨이 悚慄한데 極運에 告勝은 人跡이
希微하야 方向을 未辨이다 少分間 躊躇할 際에
路傍 丹岳에 한 神人이 有하며 卓然獨立하였는데

鬚長이 尺餘에 衣服이 甚異한지라 困하여 그 居所
를 問하니 다만 微笑를 含하며 默默히 此山을 指點하
고 登空飛去하거늘 仙人의 下降인 줄로 認知하고
仙人 指點處를 向하고 漸次前進하였다(現今 降仙
里란 洞名이 此로 因하여 稱한다) 法杖으로 芒艸를
披하며 一里의 途를 行하니 忽然이 絲竹管絃의 聲
과 相似한 淸雅一曲이 有하야 苦, 空, 無常, 無我의
法을 演說하는 듯한지라 法杖을 暫停하고 歇脚
할새 默然 大悟한지라 義湘 元曉가 身輕心快하야
步步拜拜로 目的地가 된 雪岳山을 向하였다(現今
道問里란 洞名이 有하니 道門은 即 道開이니 開
道開悟의 意味이라) 山谷은 深邃하고 層崖之
重複한데 相錯한 樹林이 日光을 遮한 곳에 小峴
이 有하니 非高非平이라 登臨하니 背後 三里 外에는
蒼海가 連天하며 一望無際이고 眼前 數武地에는
峯巒이 嶄出하여 別世界가 되었도다 仙翁의 棲息
處가 아니면 道人의 遯跡地라 生覺하고 躊躇를
得코저 하였으나 千山에 鳥飛絶이고 萬逕에 人蹤
滅이라 前道가 渺茫하야 心處가 沸騰할 時에
突然히 何方으로서 一匹의 白獐이 現出하야 雖無
言語나 儼若指導라 隨하야 洞口에 入하니 香煙
荒凉甚이고 層石塔이 無聊히 立하였거늘 禮敬을
終了하고 다시 靈逕을 尋訪코저 하여 寺院이 有





着手하였다是年에現今空墟만存한東上室西上室
三寶室 白花菴 祖殿이無하므로遺憾이不少하다
歲丁亥에法堂、建築의役을始作하야現今極樂
寶殿 萬歲樓 大香閣 四天王門 不二門 斷俗門等을
建築하니歲가三佰星霜을經過하여乙丑年秋에役
을停止하였다當時建築한法殿中에는不二門斷俗
門만이墟가空하였고其餘는尙今存在하였다佛紀
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約二百七十五年前李
祖孝宗宣文王二年辛卯에高僧吳葉이海藏
殿을板하고妙法蓮華經、中禮文、預修文、結手文
諸經文等版本을藏置하였다律希한지라
高僧과傑術가世를繼하여輩出하니琳宮이라
寶殿도廢墜更新의運이出沒하는도다

重修의役

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二百三十三年前李朝
肅宗王四年戊午에大德暢憺가冥府殿을重修하다
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一百八十三年前李朝
英宗王十九年癸亥에大德雷默이寂照堂을重修
하다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一百七十六年
前李朝英宗王二十六年庚午에大德般室이極樂
寶殿을重修하다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
一百三十八年前李朝正宗王十二年戊申에大德戒心이
海藏殿을重修하고今十三年己酉에海藏殿內에

在한板本을移安하고十六羅漢을奉安하야額을應
眞殿을變更하였다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
부터一百二十六年前李朝正宗王二十四年庚申에化主道贇
이龍船殿을重創하여列聖朝位牌를奉安하고春秋
로祭典을奉行하였다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
부터一百五十五年前李朝純祖王二十一年辛巳에化主近昊
가極樂寶殿을重修하고一新丹雘하니簷宇가
翠耀하야洞壑이煥然하였다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
丙寅으로부터五十五年前李朝高宗大皇帝卽位八年
辛未에化主尙心이寂默堂을重修하였다佛紀二千
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十七年前隆熙四年庚
戌에應眞殿一棟이鬱攸의變을當하야數年의
間을其墟가空虛하야一般의遺憾이不少하였다
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七年前大正八年
己未에時住持淡興雲이指殺을大發하여東馳
西走하여善信男女의寄附金을募集하야應眞
殿을前과如히再搆하였다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
寅으로부터三年前大正十三年甲子에時住持李東衍이
說禪堂後閣建物이頹陋함을感歎하고其舊家屋
을全部毁撤하고寺有山林松木間伐許可를得하
며該物賣却代金四千圓으로一新重創하니라
大抵物質은其人을得한然後에維新하고人功之物質
은逢하以上에表現한다고하여도過言이아닐것이다

一. 神興寺의 古物

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 約一千二百七十五年前新羅眞德女主時香城寺當時에 鑄成한 大鐘이 有한바 香城寺燒燬時에 破壞되었다가 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 約一百七十九年前李朝英宗王二十五年戊辰에 化主圓覺이 改鑄하였다가 充分치 못하여 同英宗王三十五年戊寅에 化主弘眼이 再鑄하였다 重量은 一千斤이며 其聲이 雄偉하다 現今梵鐘樓에 懸하고 時時로 叩鳴하는 者이다 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 約一百三十八年前李朝正宗王十二年戊申에 化主海鵬이 八十斤되는 中鐘과 四十斤되는 金鼓가 鑄成하였다 以外의 古物이 될만한 것은 無하고 古代美術로 參考할만한 石物은 더러 있다 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 約一百七十五年前李朝英宗王二十七年辛未에 化主處玉이 寶殿의 石砌를 築成하니 石面에는 蓮花와 獅子와 猛虎等을 彫刻하야 甚히 巧妙한 手工을 자랑할만하다 그 外에는 香城寺古址에 在한 五層石塔이 有하니 그 年代가 甚古한 것은 香城寺와 同一한 者이다 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 一百七十三年前에 神興寺重建緣起를 記錄한 事蹟碑 有하고 當時에 同立한 奇妙한 石碑가 有하니 此는 禪定寺의 高僧으로 名聲이 四海에 布한 龍巖大圓兩先師의 行狀碑

이다 그 碑의 座臺인 石獅子와 石龜는 볼사록 美妙하다 아마도 現代사람의 手工으로는 不及할 手術이라 한다 其次에도 多數가 有하나 略한다

一. 神興寺佛像

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으로부터 約一千二百七十三年前禪定寺當時에 奉安하였던 義湘法師의 親手로 造成한 三佛이 在하야 現今神興寺極樂寶殿에 奉安하였다 그 佛像의 造成緣起는 이와 같다 初에 義湘이 禪定寺를 創立하고 奉安할 佛像이 闕如하야 夙夜로 造成키를 經營하나 材料가 無하야 憂慮로 經過하다가 佛前에 七日을 精進하고 遂히 樹木을 得하니 其圍는 十餘尺이고 高直徑이 五尺餘라 歡喜無雙하야 工으로 命하야 所伐에 着手하야 後三個月만에 儼然한 佛像三位를 敬造하였다 三位의 佛像은 即阿彌陀佛, 觀音, 勢至라 禪定寺가 歸灰할 時에 天의 助와 人의 力으로 三佛像을 救護하야 尙今까지 奉安하고 衆生의 信誠을 發케 하는 福田이 되어 있다.

一. 神興寺의 名所

達摩峰과 小林菴古址

神興寺로부터 東을 向하야 三寶川을 건너 一里의 地에 雲霄中에 特秀하야 屹然이 特立한 石峯이 有하니 其像이 達摩의 遊容과 相似한지라 從來로 達摩峰이라 稱謂한다 峰의 前에는 東海를 臨하야 茫茫한 水光이 天에 連하였으니 眼界가 豁然하고 峰의 右에는 永郞湖가 有하야 洋洋한 綠波가 達摩의 遊容을 暎寫한다 此湖는 昔日永郞仙이 朝雲에 此峯에서 遊하고 暮霞에 湖畔에 歸하던 仙跡이다 湖畔에는 永郞臺가

在하다 其峰이 西에는 彌勒峰이 儼然히 立하였으니 恰然
達磨大師가 彌勒佛前에 葬身聽法하는 形勢이라
也하다 此峰으로부터 西下이야 古庵의 遺墟가 在하니
昔日 香城寺當時의 少林庵의 古墟라 한다 達磨
峯下에 少林庵이 存한 것은 意味가 이러하다
昔日 達磨大師가 印度로부터 梁에 入하며 武帝를 親
見할 때 大勢를 詳察하고 布道傳法의 緣이 未熟한
지라 嵩山下 少林窟中에 退居하야 九歲의 間을 默坐하
던 模倣한 것이라 春花가 明媚할 秋葉이 爛漫할 時가
最好한 此峰의 風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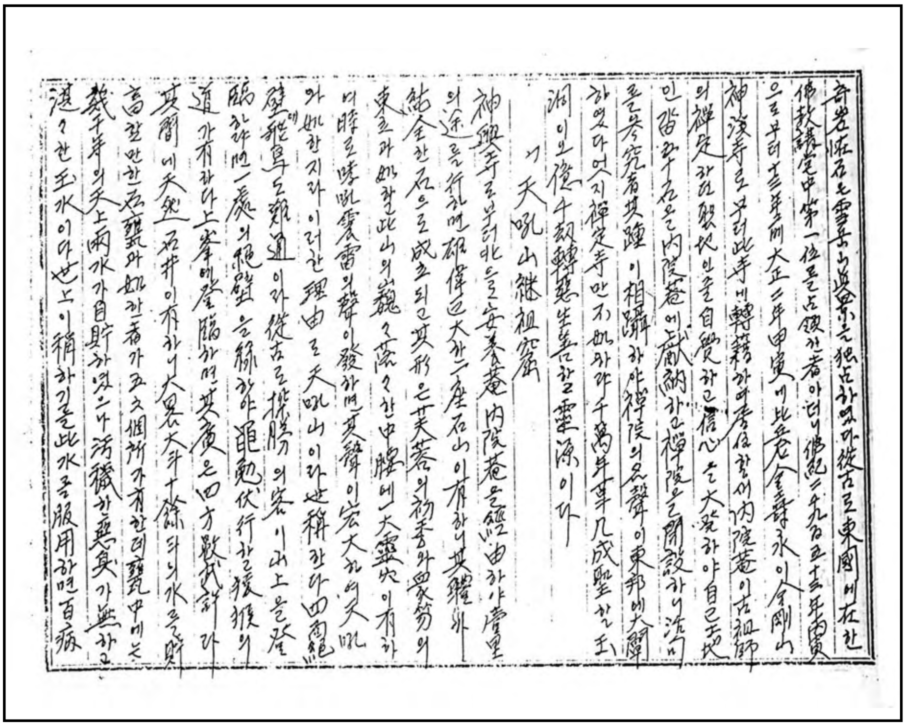
歡喜峙와 安養庵

神興寺로부터 北으로 向하여 半里의 地에 歡喜峙라 하는
峻嶺이 有하니 天吼山의 餘脈이 老龍脫殼의 勢를
作하야 一嶺이 聳出하였다 嶺의 昇降은 不險不順
하니 萬年松逕에 落葉이 深覆하다 嶺의 名稱을 歡
喜라 함은 理由가 있다 高城地方으로부터 此寺를 訪
하는 者는 元岩이란 洞里에 宿하야 宿度洞天을 經由할새
洞壑이 深邃하야 猿聲이 噴噴하고 谷谷의 泉響
은 衆巒을 吼하니 其聲이 如雷하야 人心을 慄慄케
하며 茂茂한 樹林이 日光을 遮하야 咫尺을 難分
타가 嶺上에 一登하면 眼前이 豁開하는 處에 洗畵
屛을 圍한 者는 雪岳山의 奧高이라 別界乾坤이 足下에 現
出할 際에 清風이 徐來하면 庵寺의 鐘磬이 耳根을 驚動하니 從此로 積

境이 不遠함을 認得하고 歡喜心이 湧出하야 世念을 俱忘한다 由是로 古
人이 歡喜峙라 稱하였다 嶺上으로부터 南으로 五町의 道를 行하면 一樣의 庵
이 있다 庵名은 安養이니 此庵은 即 香城寺와 同創한 海雲庵의 古址인데 從
今으로 百餘年前에 白雲洞에 在한 白雲庵을 寺僧 俊鏡이 此墟에 移建하고 慧
遠法師의 白蓮結社를 효勤하야 安養國에 發生하는 者로 此庵에 往刱
한 安養庵이다 命名하니 雪岳山名勝地의 一數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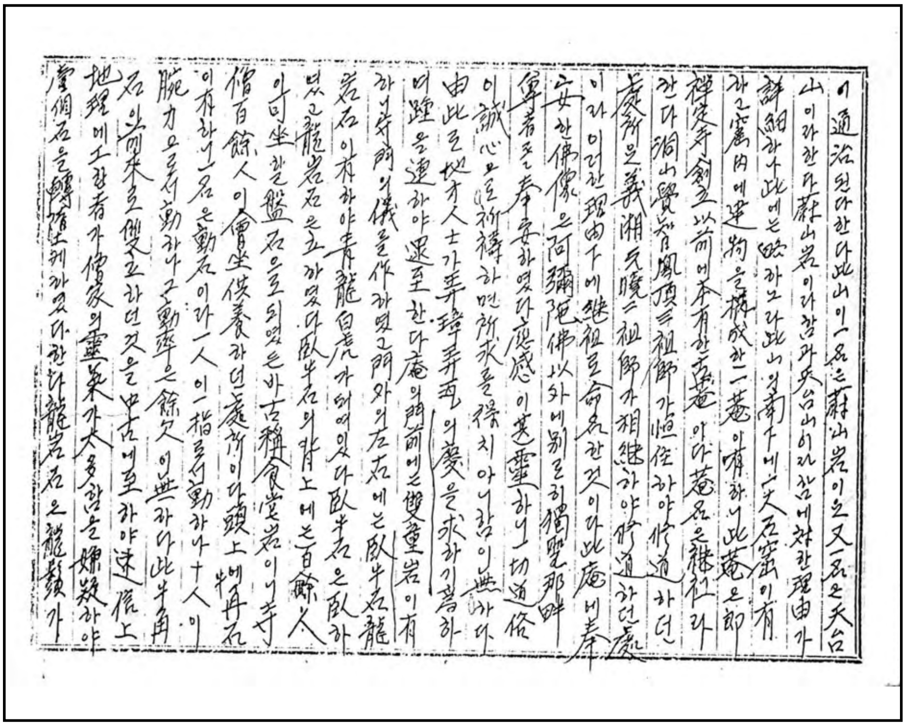
內院庵

神興寺로부터 北一里의 域에 內院庵이 有하니 此庵의 初創은
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 丙寅으로부터 約二百八十年前 李朝
仁祖王 二十五年 丙戌에 禪定寺가 失火燒燬되야 越二年
에 神興寺를 創建하고 禪定寺의 古基를 空虛케 함은
넘어나 遺感이라 하야 此庵을 創建한 者이라 此庵을 가는
길은 神興寺에서 出發하야 安養庵을 發見하며 蓮池橋
를 渡하야 知無庵의 古址가 有한 知無谷을 바라보며 嘗小
霞橋를 건너 極樂庵址를 經由한다 此 極樂庵은 即
昔日 第二 阿難이라는 稱譽가 殊高하던 藏律居士
의 棲息하던 處所인데 哲人 一去後에 古今勝이 總石砌
만 言하게 蓮田에 雜草가 油油할 따름이다 此로부터 漸入
하야 青霞橋를 渡하야 浮屠場에 至하야 五五한 石浮屠를
一一히 求景하게 되다 이 浮屠만 보와도 今僧古釋의 道德
差別은 自然 距離가 生케 되다 迎聖橋를 渡하야 內院庵
에 往拜하니 柴扉에 雲霞가 둘러있고 簷光이 연이 連한
一座의 孤庵이 有하야 禪定寺를 代表한 此庵下에 五五한


奇岩怪石은 雪岳山 道宗은 獨占하였다 從古로 東國에 在한
佛教講堂中 第一位를 占領한 者이더니 佛紀二九百五十三年丙寅
으로부터 十三年前 大正二年 甲寅에 此를 金鋒永이 金剛山
神溪寺로부터 此寺에 轉籍하여 居住함에 內院庵이 古祖師
의 禪定하던 聖地인 줄 自覺하고 信心을 大發하야 自己土地
인 沓 五斗落을 內院庵에 獻納하고 禪院을 開設하니 法侶
로 參究者 其踵이 相躡하야 禪院의 名聲이 東邦에 大闡
하였다 어찌 禪定寺만 不如하랴 千萬年 幾凡成聖할 王
洞이오 億千劫 轉惡生善할 靈源이다

7) 天吼山 繼祖窟

神興寺로부터 北으로 安養庵 內院庵을 經由하야 壹里
의 途를 行하면 雄偉正大한 一座石山이 有하니 其體非
純全한 石으로 成立되고 其形은 芙蓉의 初秀와 如筍의
東立과 如할 此山의 巍巍落落한 中腹에 大靈穴이 有하
며 時로 哮吼霹雷의 聲이 發하며 其聲이 宏大하야 天吼
와 如한지라 이러한 理由로 天吼山이라 世稱한다 四面絶
壁에 飛鳥도 難道이라 從古로 探勝의 客이 山上을 登
臨하려면 一處의 絶壁을 緣하야 匍匐伏行하는 猿猴의
道가 有하다 上峰에 登臨하면 其廣은 四方 數武 許라
其嶺에 天然石井이 有하니 大器 大斗 十餘되의 水를 貯
富할만한 石甕과 如한 者가 五六個所가 有한데 甕中에는
幾千年의 天上雨水가 自貯하였으나 污穢한 惡臭가 無하고
湛湛한 玉水이다 世上이 稱하기를 此水를 服用하면 百病


이 通治된다 한다 此山이 一名은 蘇山岩이오 又一名은 天台
山이라 한다 蘇山岩이라 함과 天台山이라 함에 對한 理由가
詳細하나 此에는 略하고 다 此山의 南下에 一大石窟이 有
하고 窟內에 建物을 構成한 一庵이 有하니 此庵은 即
禪定寺 創立 以前에 本有한 古庵이다 庵名은 繼祖라
한다 洞山覺岩風頂 三祖師가 恒住하야 修道하던
處所요 義湘元曉 二祖師가 相繼하야 修道하던 處
이라 이러한 理由下에 繼祖로 命名한 것이다 此庵에 奉
安한 佛像은 阿彌陀佛 以外에 別로히 獨聖那畔
尊者도 奉安하였다 應感이 甚靈하니 一切道俗
이 誠心으로 祈禱하면 所求를 得치 아니함이 無하다
由此로 地方人士가 弄璋弄瓦의 慶을 求하기 爲하
여 踵을 連하야 還至한다 庵의 門前에는 雙童岩이 有
하니 守門의 儀를 作하였고 門外의 左右에는 臥牛石 龍
岩石이 有하야 青龍白虎가 되어 있다 臥牛石은 臥하
였고 龍岩石은 立하였다 臥牛石의 背上에는 百餘人
이 可坐할 盤石으로 되었는 바 古稱 食堂岩이니 寺
僧百餘人이 會坐供養하던 處所이다 頭上에 牛角石
이 有하니 一名은 動石이라 一人이 一指로 行動하나 十人이
腕力으로 行動하나 그 動率은 餘欠이 無하다 此牛角
石은 以前來로 傳하던 것을 中古에 至하야 迷信上
地理에 工한 者가 僧家의 靈氣가 太多함을 嫌疑하야
牛個石을 轉落지게 하였다 한다 龍岩石은 龍頭가

宛然하고 岩下에 如意珠石이 有하며 岩下에 靈泉이
湧泉이 湧出하야 其味가 甚甘할뿐더러 甘露瓊泉
이라 世稱하나 世人이 一服하면 心身이 爽快하야 清
凉散을 服한 以上의 精神을 呈한다. 世界의 珍域이오
天下의 絶勝處라. 由來로 名宰相이 多遊此地한 表
跡은 岩面을 보아서 可證하겟다. 岩面에 空處가 無
히 彫刻한 氏名 等은 萬古의 不朽를 자랑한다

神光瀑布 (一名 土旺瀑布)

神興寺로부터 東南을 바라보자 호호한 奇峯은 各
種文이나 蔚出한 石巒인바 峰마다 名稱이 昭然하니 釋迦峰
文殊峰 普賢峰 翠璃峰 扇子峰 露積峰 文筆峰
等 諸峰이다. 朝雲暮霞는 塵埃를 拒絶하고 松籟
澗音은 是非를 聾케 한다. 此間에 瀑布가 有하야 疑是
銀河落九天을 眼前에 露出하니 廬山이 이곳인가
印象된다. 朝鮮에 有名한 朴淵瀑布가 開城에 有
하야 遠近이 떠들지만은 우리 雪岳山에는 朴淵瀑布
만 못하지 아니한 瀑布가 二個所나 有하다. 一은 大勝
瀑布이다. 廬山瀑布보다 勝하다 하야 大勝이라 稱
하엿고 一은 이 神光瀑布이니 以上의 者와 伯仲을 難分
일듯하다. 이 瀑布의 眞像을 一論하자면 遠觀하면 一幅
白練을 高岑에 掛한듯하며 近見하면 萬斛玉珠를
石壁에 散布하는듯하다. 千載에 龍鳴虎嘯와 如한
聲이 不絶하엿고 四序에 炎熱鬱蒸의 氣가 無하고다

瀑布의 下流에는 連布한 白石이 銀世界인듯하며 層層
懸崖에 細流殘瀑은 水簾을 垂하얏고 狂奔大川에 曲曲
池沼는 銀波가 翻白이라. 其中에 一大池沼가 有하니 其
形이 釜鼎과 如하고 其深은 不可量인데 澄淸한
其水는 藍琉璃를 布한듯하야 水光이 異常하다
人跡이 池畔에 侵할 時는 陰風이 冷起하니 老龍
潛處라 世稱하며 稱 釜沼라 한다

臥仙臺

神興寺로부터 西으로 一里의 外에 山岳은 奇異하고
樹林은 蓊鬱한 中에 天然 石榻이 一臺를 自成하
여 平平한 其廣은 一町을 連數하엿으니 昔時에
麻姑仙이 群仙으로 더부러 此臺에 會集하야 圍碁
彈琴하며 山水의 眞景과 洞天의 美麗함을 玩賞
하던 石臺라 한다. 奇鳥異禽이 飛上飛下하고 佳
木芳草는 相密相離로다. 潺潺은 淸流이고 濛濛은
煙霞로다. 누가 金剛山 萬瀑洞을 좃다 할가. 雪岳
山 臥仙臺가 猶勝하다

飛仙臺

臥仙臺로부터 石溪盤石을 攀緣하야 五町의 距離
를 歩上하면 飛仙臺가 有하다. 此臺는 昔時 麻姑仙이
臥仙臺로부터 此臺에 至하여 飛去한 有名한 勝地이다
白水가 白石上에 轉流하야 映落旋璣함은 此臺의
水石이오 芳草는 臺下에 吐香하고 百花는 岩畔에

爭發하니此臺의花草이오猿은峯巒에서嗁하고
鶴은松亭에唳하니此臺의禽獸이오春風은和暢
하고秋霜은嚴凜하니此臺의節亭이다武陵桃源
이完然하다此臺를一說하야衣冠을層落松枝에
高掛하고淸溪水에濯足하고盤石上에偃臥하면
凡骨이換骨되야羽化登仙할듯하다岩間에老松
은幽僻處를姿勢하고四圍의峰巒은佛境이
分明하다從古至今으로賢人達士의氏名書字가
石面에桩하였다仙人遊處我遊歸가이를두
고말이로다

金剛窟

雪嶽山의主峰인靑峰의一脈이西北으로長走하는
中間에萬仞이나되는石像이聳立하였으니此는
彌勒峰이오峰下萬丈懸崖의中腹에一大孔穴
이天然自開하였으니世稱金剛窟이라石壁細路
를緣하야匍匐登臨하며釣閣棧橋를一過할
뿐다尤難하도다昔日에避世高僧이此窟에
棲息하야奉佛禮敬하며安心修道하던痕跡이
有하다現今까지窟內에石佛像1位와古器古道具
建物殘材等이殘有하였다窟의容量은四方이
4餘尺이다窟의入口에서四方을顧視하면東은
長谷이東海에通하며萬里滄波이眼中에入하는
듯하며西南一帶는白雲千佛洞으로通하야萬疊山

爭發하니此臺의花草이오猿은峯巒에서嗁하고
鶴은松亭에唳하니此臺의禽獸이오春風은和暢
하고秋霜은嚴凜하니此臺의節亭이다武陵桃源
이完然하다此臺를一說하야衣冠을層落松枝에
高掛하고淸溪水에濯足하고盤石上에偃臥하면
凡骨이換骨되야羽化登仙할듯하다岩間에老松
은幽僻處를姿勢하고四圍의峰巒은佛境이
分明하다從古至今으로賢人達士의氏名書字가
石面에桩하였다仙人遊處我遊歸가이를두
고말이로다

金剛窟

雪嶽山의主峰인靑峰의一脈이西北으로長走하는
中間에萬仞이나되는石像이聳立하였으니此는
彌勒峰이오峰下萬丈懸崖의中腹에一大孔穴
이天然自開하였으니世稱金剛窟이라石壁細路
를緣하야匍匐登臨하며釣閣棧橋를一過할
뿐다尤難하도다昔日에避世高僧이此窟에
棲息하야奉佛禮敬하며安心修道하던痕跡이
有하다現今까지窟內에石佛像1位와古器古道具
建物殘材等이殘有하였다窟의容量은四方이
4餘尺이다窟의入口에서四方을顧視하면東은
長谷이東海에通하며萬里滄波이眼中에入하는
듯하며西南一帶는白雲千佛洞으로通하야萬疊山

峰이重々無盡하니此가金剛崖의壯觀이다

一, 神興寺의古蹟

權金城

神興寺普濟樓에登臨하야西南으로바라보면空中에聳出한山岳이有하니이山을權金城이라稱한다山上에長廣八十餘間의廣場이有한대이廣場은中心으로하고山의中腹을周圍하야有餘間의石城을建築하였다此는昔日權金兩將이其內에隱居하야亂世를避하던古城이다此城의近方에는矢弓谷放鈎臺馳馬坪等所가古蹟이다

一, 結論

神興寺는以上의陳述한歷史와美術과名所와古蹟을가진者로傑人達士가繼々承々하야禪欽이相望하였고講鐘이爭鳴하였으니可謂一國에자랑할만한材料를가진寺刹이로다現在의寺格으로는諸宗中에要樞인禪教兩宗이오守護하는建物은寺庵을幷하야八百餘間이오保存의山林은三千九百十八町三畝九畝오所有土地는田畓幷五十町二反四畝三十六步이고土地田畓에對한地價는八千四百六十圓이다大略은이와같거니와其餘詳細는後日哲眼君子의耳聵를俟하노라

削成雪岳碧芙蓉秀
飛過神仙洞府開
莫道五臺楓岳好
此山亦氣盡東來

1926年
大正十五年六月二十八日 印刷 (佛教第二十五號附錄)
大正十五年七月 一日 發行

神興寺誌 一冊 「非賣品」

江原道襄陽郡道川面神興寺
編輯者 崔 觀 洙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印刷人 魯 基 禎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江原道襄陽郡道川面神興寺
發行者 住持 李 昌 林
江原道襄陽郡道川面獐項里
發行所 神興寺

襄陽神興寺龍巖大師碑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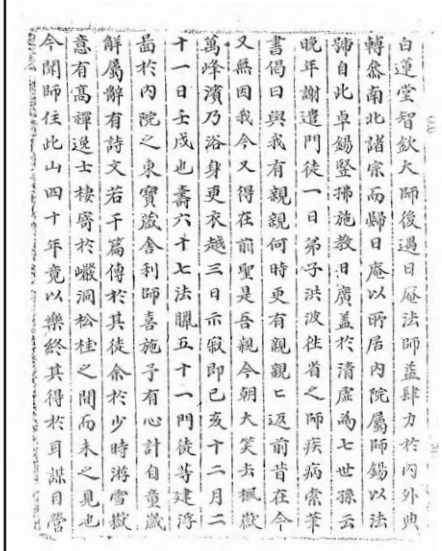
襄陽神興寺龍巖大師碑銘

有明朝鮮國龍巖堂大禪師碑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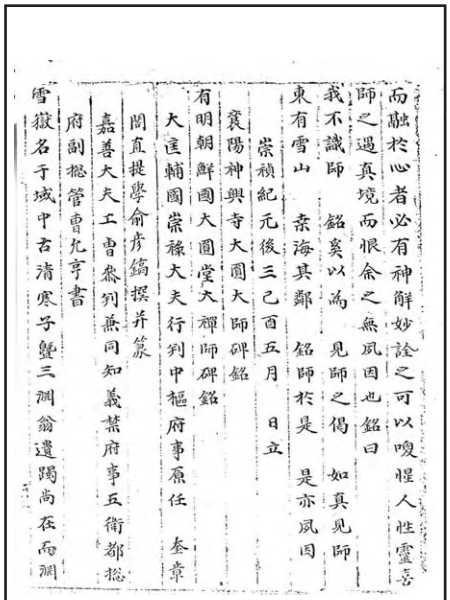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李福源撰

貞憲大夫原任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姜世晃書

老夫抱幽憂疾久謝筆硯有浮屠弘慤者為師乞銘守東郭經歲不去祈叩益堅余始而疑卒而歎曰彼雖異吾道而能竭其道之忠於身去之後如此殆有不斷然而然者存焉是足以銘矣按其狀師法名體照號龍巖本鄭姓長城士族幼失兩親與其兄北遊兄歸而獨寓南漢隨釋稔長老入雪山祝髮受戒於



白蓮堂智欽大師後遇日庵法師益肆力於內外典轉參南北諸宗而歸日庵以所居內院屬師錫以法號自此卓錫竪拂施教日廣蓋於清虛為七世孫云晚年謝遣門徒一日弟子洪波往省之師疾病索筆書偈曰與我有親親何時更有親親〻返前昔在今又無因我今又得在前聖是吾親今朝大笑去楓嶽萬峰濱乃浴身更衣越三日示寂即己亥十二月二十一日壬戌也壽六十七法臘五十一門徒等建浮圖於內院之東寶藏舍利師喜施予有心計自童歲解屬辭有詩文若干篇傳於其徒余於少時游雪嶽意有高禪逸士棲寄於巖洞松桂之間而未之見也今聞師住此山四十年竟以樂終其得於耳謀目營



而融於心者必有神解妙詮之可以嗄惺人性靈喜師之遇真境而恨余之無夙因也銘曰

我不識師　銘奚以為　見師之偈　如真見師

東有雪山　柰海其鄰　銘師於是　是亦夙因

崇禎紀元後三己酉五月　日立

襄陽神興寺大圓大師碑銘

有明朝鮮國大圓堂大禪師碑銘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原任　奎章閣直提學俞彥鎬撰并篆

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曹允亨書

雪嶽名于域中古清寒子暨三淵翁遺躅尚在而淵翁所嘗與為淨社之游如嘖道人雄大師其人皆靈淑所鍾超上津筏其道珠而其致一後之尚賢者奚方內外之間焉余嘗居白城之墅有比丘道圓者自雪嶽走千里為師乞銘問其師乃賢道人高足大圓大師也嘻即其淵源之所自可而知師矣師法名無外號大圓堂本文姓高麗江城君益漸之後父壽遠母金氏夢月而娠既生肌膚淨潔不藉洗浴為兒嬉戲皆作佛事見者異之甫成童當戊申國難奔赴南漢守堞有勞難已賞射獲多當茅遂力辭而歸忽自念人之寂於物者以有靈明也其可緣形役性喪吾神珠乎既而父母擇對將諏日送之乃中夜脫身走入雪嶽問道日庵大師大師即賢道人也賢與語奇

之傳其心印繇其上有雪嶽月渚楓潭鞭羊以接乎
清虛於師六世也師夙有慧識於內外典深獨得以
閱衆覺中年苦眼眚於是面壁心灰回光內照行益
苦道益尊蔚然為一代業林之宗今 上辛亥七月
乙酉寂于雪嶽之極樂庵壽七十八臘六十臨化謂
衆曰我將行矣其勿以弥文累我既焚化有光燭天
移日不去門僧慧遠得靈珠一顆為浮圖以藏之云
余仍誥之曰圓甫道以無為為宗顯揚褒大何有於
師哉圓曰以為無也則三千大界便作空華以為有
也則真妄皆境隨所在而致力亦人之道也圓頷古
而氣清徧習笠典專心所事殆古所謂不見其山願
見其木者歟遂為之銘曰

赴難逃賞清虛之風方 因性早覺月渚之道方
五祖傳印臨濟之宗方 由戒入定水止鑑空方
雪山嵯峨寶珠玲瓏方 於千萬年皎皎靡終方

崇禎紀元後三壬子十一月 日立

襄陽洛山寺海水觀音碑銘

有明朝鮮國江原道洛山寺海水觀音空中舍利碑
銘

嘉善大夫江原道防禦使兼春川都護府使李玄
錫撰

我東以山水勝名天下而嶺東為一國之最嶺東稱
八景而洛山寺尤著聞諱者或以冠之前輩之叙述
備矣寺之靈跡甚夥而 觀音窟極說義相元曉輩

朝鮮道府郡面町洞里改正區域表

朝鮮道府郡面町洞里改正區域表

名稱	位置	管轄區域
京畿道	京城	京城府 仁川府 高陽郡 富川郡 始興郡 水原郡 振威郡 利川郡 金浦郡 江華郡 坡州郡 廣州郡 抱川郡 漣川郡 楊州郡 加平郡 驪州郡 長湍郡 [illegible]
京城府	京城	京城府東部、南部、北部、中部、西部(…)面ノ內青坡一契、青坡三契、東門外、兄弟井、萬里倉、下馬碑[illegible]倉、灘項、桃花外洞、桃花內洞、麻浦、沙村里、新村里、青坡一契、青坡四契ノ一部、崇信面ノ內宋洞、上土橋、下土橋、上栢洞、新垈洞、下栢洞、雙溪洞、梨花洞、額眉洞、米廛洞、鹽橋、紫芝洞、亭子洞、城底洞、新村、堂峴洞、仁壽洞、伏車橋、紅樹洞、大井洞、新設契ノ一部、仁昌面ノ內塢巨里、鹽橋、東廟洞、[illegible]魚井洞、伏車橋、漢芝面ノ內興柱洞、葛月里、新草里、元興洞ノ一部、梨泰院ノ一部、豆毛面ノ內新堂里ノ一部
仁川府	仁川	仁川府各國居留地、日本居留地、支那居留地一圓 府內面 多所面ノ內花島洞、水踰洞、新村里、松林洞、松峴洞、長川里ノ一部、獨脚里ノ一部
高陽郡	京城	高陽郡一圓○京城府西江面、恩平面、延禧面及西部 龍山面 崇信面 仁昌面 漢芝面 豆毛面中京城府ニ屬セサル地域○楊州郡古楊州面
富川郡	官廳里	富平郡一圓○仁川府邑面 西面 南村面 鳥洞面 新峴面 田反面 黃等川面 朱安面 永宗面 龍游面 德積面 多所面ノ內仁川府ニ屬セサル地域○江華郡信島 矢島 茅島 長峯島○南陽郡靈興面 大阜面

朝鮮道府郡位置管轄區域表 一

所達面		新基里、西下里、古武陵里(大耳里、大基里、發翅里、次口里、山基里、安衣里、大坪里、馬次里、武山里、古士里、汗乃里、店里、晌口里、馬橋里、道溪里、與田里、田頭里、上德里、黃鳥里、新里、九士里、深浦里)(二五)
蘆谷面		閭三里、上川基里、下班川里、上班川里、金鷄里、古自里、字發里、下月山里、上月山里、開山里、下軍川里、上軍川里、屯達里、舟旨里、下麻邑里、中麻邑里、上麻邑里(一七)
末老面		內末老里、士池里、武士里、下巨老里、上巨老里、下鼎里、上鼎里、川基里(活耆里)、下士田里、上士田里、東山里、古川里、三巨里(一四)
北三面		平陵里、泉谷里、龍井里、孝街里、羅鳳里、北坪里、松亭里、九美里、九湖里、浦岩里、大口里、內里、泥峴里、丹鳳里、池柯里、梨島里、歸雲里、瀧雲里、桐淮里、智興里、泥老里、三和里、耳基里、達芳里、新興里、飛川里(二六)
襄陽郡		七面 一百三十二里 郡廳所在地ト郡內面軍餉里
郡內面		南門里、校里、城內里、軍餉里、連昌里、青谷里、造山里、仕川里、浦月里、基里、丁巽里、甘谷里、西門里、柰谷里、林泉里、車馬里、禾日里、松岩里、月里(一九)
道川面		猿項里、上道門里、下道門里、中道門里、大浦里、內洌溜里、蘆里、論山里、扶月里、東草里、外瓮峙里(二一)
降峴面		上福里、中福里、下福里、降仙里、沕溜里、間谷里、屯田里、金風里、沙橋里、勿甲里、積銀里、防築里、石橋里、沓里、砧橋里、廣石里、釘岩里、龍湖里、長山里、回龍里、前津里、酒踰里(二三)
西面		早開里、葛川里、水里、論化里、龍沼里、內峴里、龍泉里、北坪里、凡阜里、上坪里、長承里、西仙里、加羅皮里、五色里、松魚里、公須田里、盈德里、西林里、米川里、北峙里、松川里(三二)

神輿寺「江原道襄陽郡道川面獐項里」史蹟

神興寺(江原道襄陽郡道川面獐項里)史蹟

一千六百七十九年(新羅眞德女王六年壬子) 慈藏律師ㅣ 雪嶽山의東에 香城寺를創하다
慈藏이 繼祖庵과能仁庵을創하다
慈藏이 九層石塔을造하야 佛舍利를奉安하다
一千六百八十九年(新羅文武王二年壬戌) 寺僧沖鏡이少林庵을創하다
一千七百二十五年(新羅孝昭王七年戊戌) 香城寺의能仁庵이災하다
一千七百二十八年(新羅孝昭王十年辛丑) 義湘祖師ㅣ香城寺를 能仁庵址에 重建하고 禪定寺라改稱하다
義湘이 彌陁像觀音像大勢至像을 造成하다
二千六百十九年(朝鮮宣祖二十五年壬辰) 兵燹으로因하야 九層塔이破壞되다
二千六百六十九年(朝鮮仁祖二十年壬午) 禪定寺ㅣ災하다
二千六百七十一年(朝鮮仁祖二十二年甲申) 寺僧靈璿、蓮玉、惠元等이 禪定寺를 古址의下十里地에 重建하고 神興寺라改名하고 寺蹟碑를立하다
龍岩大師ㅣ 能仁庵을 古址에重建하고 內院庵이라改稱하다

二千六百七十四年(朝鮮仁祖二十五年丁亥) 寺僧靈璿、蓮玉、惠元이 大雄殿을創建하다
二千六百七十七年(朝鮮孝宗元年庚寅) 大內에서 香燈一坐를 賜送하다
二千六百八十八年(朝鮮顯宗二年辛丑) 海藏殿을創하고 法華經、中觀文、結手文、請文等의板本을藏하다
二千七百四十二年(朝鮮肅宗四十一年乙未) 說禪堂이災하다
二千七百四十四年(朝鮮肅宗四十三年丁酉) 寺僧就眞、益成等이 說禪堂을重建하다
二千七百五十二年(朝鮮英宗元年乙巳) 海藏殿을重修하다
二千七百六十四年(朝鮮英宗十三年丁巳) 冥府殿을創建하고 地藏菩薩像을塑成하다
二千七百六十七年(朝鮮英宗十六年庚申) 寺僧雷運、雷應、雷倘等이 寺를飜瓦하다
二千七百七十五年(朝鮮英宗二十四年戊辰) 圓覺居士ㅣ 大鍾中鍾金鼓各一坐를 鑄成하다
二千七百七十六年(朝鮮英宗二十五年己巳) 寺僧學重等이 大雄殿을重修하다

二千七百八十八年(朝鮮英宗三十七年辛巳) 寺僧弘徹、弘運等이 大雄殿의石階를築하다
二千七百九十七年(朝鮮英宗四十六年庚寅) 大雄殿과普濟樓를重修하다
二千八百一年(朝鮮英宗五十年甲午) 俊龍大師ㅣ 佛菩薩의像을改金하다
二千八百十二年(朝鮮正宗九年乙巳) 寺僧俊鏡이 安養庵을創하다
二千八百十五年(朝鮮正宗十二年戊申) 化主弘漢이 大鍾과金鼓를改鑄하다
寺僧騏谷이 海藏殿을重修하다
二千八百二十四年(朝鮮正宗二十一年丁巳) 寺僧暢悟巨寬이 冥府殿을重修하다
寺僧昊葉、處琦、始澤、毅有等이 海藏殿을丹雘하다
二千八百二十五年(朝鮮正宗二十二年戊午) 十王像을改彩하고 地藏幀을造成하다
二千八百二十八年(朝鮮純祖元年辛酉) 寺僧碧波暢悟等이 龍船殿을創建하고 列聖朝의位牌를 奉安하다
二千八百四十年(朝鮮純祖十三年癸酉) 寺僧周雲、喆修、潤楚等이 不二門과斷俗門을建하다
寺僧碧波、暢悟、芙聰、勝琦等이 普濟樓를重修하다

二千八百四十八年(朝鮮純祖二十一年辛巳) 寺僧巨寬、近旻、芙聰、勝琦、暢悟等이 極樂寶殿을重修하다
二千八百五十四年(朝鮮純祖二十七年丁亥) 極樂寶殿을 丹雘하다
二千八百五十六年(朝鮮純祖二十九年己丑) 化主法閒이 中鍾一坐를鑄成하다
二千八百八十五年(朝鮮哲宗九年戊午) 碧河、明成等이 十六羅漢像을 九月山貝葉寺로부터 海藏殿에移安하고 海藏殿의經板을 大雄殿에移安하고 海藏殿을 應眞殿이라改額하고 小香閣을建하다
二千八百八十七年(朝鮮哲宗十一年庚申) 內院庵이災하니 慧峰이重建하다
二千八百九十三年(朝鮮高宗三年丙寅) 寺僧萬愚ㅣ 安養庵을飜瓦하다
二千八百九十八年(朝鮮高宗八年辛未) 化主尙念이 寂默堂을重修하다
寺僧雪月이 寂默堂後閣을建하다
二千九百二年(朝鮮高宗十二年乙亥) 寺僧普琳이 安養庵佛像을改金하다
二千九百九年(朝鮮高宗十九年壬午) 勤峯이 內院庵의獨聖殿을建하고 山神幀을造成하다
二千九百十二年(朝鮮高宗二十二年乙酉) 內院庵이災하다

二千九百十七年(朝鮮高宗二十七年庚寅) 眞影閣이頹敗하야 眞影을 雲嚴
堂에 移安하다
應化大師ㅣ 影祖庵의 三聖閣을 創하다
二千九百十八年(朝鮮高宗二十八年辛卯) 內院庵의 後佛幀七星幀神將幀을
造成하다
二千九百十九年(朝鮮高宗二十九年壬辰) 眞影閣이 頹壞하니 寺僧仙岳이 眞
影閣의 遺材로 三聖閣을 建하다
二千九百二十年(朝鮮高宗三十年癸巳) 東杲、蓮月兩師ㅣ 募緣하야 十王
像을 改彩하고 寮舍를 修繕하다
二千九百二十九年(大韓光武六年壬寅) 寺僧敬隱이 大雄殿과 寮舍를 鰲瓦
하다
二千九百三十二年(大韓光武九年乙巳) 寺僧滿月이 佛像을 改金하고 幀畵
을 重彩하다
二千九百三十五年(大韓隆熙二年戊申) 東庵이 影祖庵을 丹雘하고 東杲ㅣ
後佛幀을 造成하다
二千九百三十六年(大韓隆熙三年己酉) 龍船殿이 毁하다
二千九百三十七年(大韓隆熙四年庚戌) 應眞殿이 災하다

二千九百三十九年(壬子) 乾鳳寺의 末寺가되다
一月에 洪興雲이 住持에 被任하다
二千九百四十六年(己未) 應眞殿을 重建하다
二千九百四十八年(辛酉) 法殿과 寮舍를 修繕하다
十二月에 李東衍이 住持에 就任하다
二千九百五十一年(甲子) 說禪堂後閣三十二間을 重建하다
十月에 李春城이 住持에 就任하다
山火로 因하야 山林의 大部分을 燒하얏는데 火木을 資하야 畓十四斗落을 買
入하다

神興寺層庵一覽

影祖庵	二千六百七十九年(新羅眞德女王六年壬子) 慈藏이 創하고 二千九百十七年(庚寅) 應化ㅣ 三聖閣을 創하다				
內院庵	一千六百七十九年(新羅眞德女王六年壬子) 慈藏이 創하니 初名能仁庵이라 一千七百二十五年(戊戌)에 災하니 二千六百七十一年(甲申)에 龍岩이 重建하고 內院庵이라 改稱하고 二千八百八十七年(庚申)에 災하니 當年에 慧峰이 重建하고 二千九百十二年(乙酉)에 災하니 勁峰이 重建하다				
安養庵	二千八百十二年(朝鮮正宗九年乙巳)에 俊鏡이 創하다				
少林庵(廢庵)	一千六百八十九年(新羅文武王二年壬戌)에 創하니 廢社年代는 未詳하니라				
般若庵	東土窟 西土窟 安心庵 洗塵庵 先日庵 以上은 香城寺時의 屬庵이니 創廢가 未詳하니라				
極樂庵	智無庵 香爐庵 上院庵 以上은 禪定寺時의 屬庵이니 創廢年代는 未詳하니라				
東庵	白花庵 以上은 神興寺時의 屬庵이니 創廢年代는 未詳하니라				

神興寺의 建物

極樂寶殿	二十間	冥府殿	十二間	大香閣	十二間
三聖閣	六間	靈山殿	八間	小香閣	十間
禪堂	六十八間	僧堂	六十二間	普濟樓	三十二間
天王門	六間	養老房	六間	庫房	三間
水閣	二間	便所	六間		
共計	二百五十三間				
神興寺屬庵의建物					
內院庵	五十八間	影祖庵	六間	安養庵	六十二間
共計	一百二十六間				

神興寺의 土地

土地		地價
社寺地	三、三四〇坪	
畓	一一、〇八四坪	七、八一〇圓一五
田	四六、八三九坪	三九五四〇三
垈	三、五七〇坪	一七四五五

共計 一六四 八三三坪 九二七九四七三

神興寺의 林野

森林 三七二三町二二

神興寺의 寶物

彌陀像 觀音像 勢至像 各一位
以上三位는 義湘의 製品
香爐一坐
朝鮮孝宗의 賜送品
大鍾一坐
二千八百十五年(戊申)에 化主弘漢의 鑄成品

神興寺의 塔

月岩堂塔 碧潭堂塔 大圓堂塔 桂松堂塔 笑蓮堂塔 ○○堂塔 向西堂塔
○○堂塔 隱海堂塔 ○○堂塔 龍岩堂塔 東坡塔 貫虛堂塔 聖谷堂塔
海岩居士塔 獨峰堂塔 ○○堂塔 不空塔 白玉堂塔 勁峰堂塔 ○坡堂塔
遙圓堂塔 曇花塔 ○○堂塔 ○○堂塔 ○○堂塔

神興寺의 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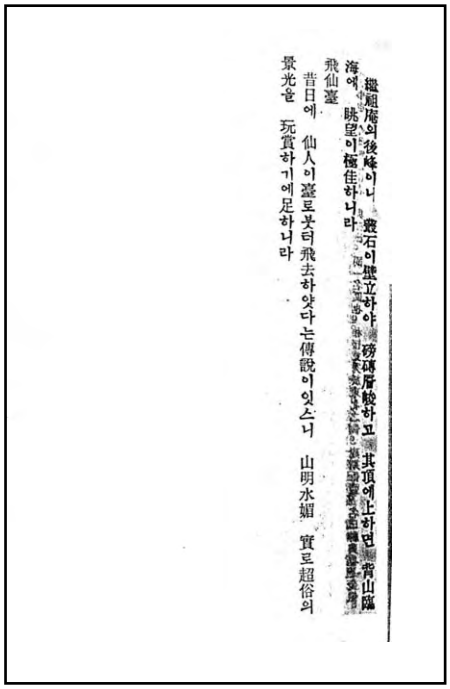
寺蹟碑 龍岩堂碑 大圓堂碑 碧波堂碑

神興寺의 眞影

達摩祖師 太古普愚 淸虛休靜 鞭羊彦機 楓潭義諶 泗溟惟政
碧松智嚴 芙蓉靈觀 貫雲靈瑞 印虛海眼 雪谷冲華 觀性尙淳 碧溪淨心
仙谷松默 雪潭秦淵 龍岩體照 溟洲法察 雪岩秋鵬 月岩智厚 花月坦洪
貫虛富聰 碧波巨覺 海溟 慧峰勝定 碧峰雨沾 圓性順覺 花峰道圓
靑岩可雲 勒庵政奎 圓峯尙機 麒峯定順 東河應潤 雲虛義寅 春峰得靑
香坡覺星 幻學等學 蓮谷石泉 明星義鼎 萬愚處欣 蓮庵和悅 三明翰義
松月再熏 了星昭玩 錦城泰厚 秋潭大眞 東坡弘敏 鏡峰性悅 性月昌玩
仙岳淨雄 仙鶴景宜 幻峯 靜虛弘漢 聖谷戩憲 湜虛明圓 春坡可成
春潭 龍船侑幸

神興寺의 名所

天台山



最新 朝鮮地理
(江原道 襄陽)

大正七年 四月 十三日 印刷

京城日報社代理部

ハ東原京、河西、江陵ト稱セリ、別名ヲ東原、溟源、臨瀛、臨屯トナス。
附近一帶平地ヲ爲シ地味肥沃ニシテ農耕ニ適シ、古來人煙稠密商業盛ナルコト嶺東ニ冠タリ、襄陽ヘ十三里十二町、元山ヘ百二十浬、釜山ヘ二百八浬、春川ヘ三十九里、三陟ヘ十五里二十五町、平昌ヘ二十里、注文津ヘ四里半、産物ハ米・麥・棉・麻・鹽魚類ニシテ、市場ハ陰暦二七日ニ開市ス。

	內地人		朝鮮人		支那人	
戸數	內地人	一七九	朝鮮人	六一四	支那人	五
人口	同	五〇〇	同	三、一三五	同	二一

【官公衙】郡廳、警察署、郵便局、測候所、慈恵醫院、學校組合、公立尋常高等小學校、公立普通學校、公立簡易實業學校、郵便局。

【町名】大和町、大正町、本町、龍岡町、林町、錦町、旭町、玉川町、洪濟里、校洞里、松亭里、見召津里、江門津里、浦南里、草堂里。

鏡浦臺　邑ノ北方一里高丘ノ上ニ在リ、高麗時代ノ建物ニシテ日本海ニ面ス、登臨スレハ日本海上ノ白帆ヲ望ミ鏡湖上ノ鷗鷺ヲ瞰スヘク眞ニ嶺東八景ノ一タルニ値ス。
普賢寺　邑ヲ距ル北方四里ノ山腹ニ在リ、今ヲ距ル二千年前高句麗朝唐ノ僧借聞郎ノ建設ニ係ルト云フ、石碑在リテ文ヲ刻シ寺縁ヲ詔ル。
燈明寺　邑東ニアリ。
月精寺　五台山ニアリ附近ニ水精寺・獅子庵アリ。

文殊寺　邑東海岸ニアリ、東ニ四仙碑アリ。
寒松亭　邑東一里半ニアリ。
聚遠臺　邑東ニアリ。
梅松亭　鏡浦ノ南ニアリ、風景ニ富メリ。
許李臺　邑南二里半ニアリ。
上院寺　五台山ニアリ、千二百七年前ノ創建ナリト云フ。
領議政碑　學湖洞ノ南八町ニアリ。
所隱栢伊山　邑西六里半ニアリ。
五台山　邑ノ西北十五里ニアリ、滿月、麒麟、鳥嶺、象王、智爐ノ五峰環列スルヨリ此名アリト云フ、西麓下ニ于洞水湧出ス。
大關嶺　邑西四里半ニアリ、鎭山ナリ。
金剛淵　五台山月精寺傍ニアリ。
八景　綠筠樓　寒松亭　鏡浦臺　鳳山鐘　安神溪　佛華樓
　文珠堂　賢造島。

襄　陽

襄陽(양양)ハ江原道襄陽郡郡內面ニ屬ス、高勾麗ハ翼峴伊文新羅ハ守城高麗ハ襄州李朝ハ襄陽ト稱セリ、江陵ヘ十三里十二町、洪川ヘ二十八里、瓮津ヘ三里、元山ヘ九十

四浬、杆城ヘ十里二十三町、麟蹄ヘ十五里、東津ヘ四里船付場、釜山ヘ二百十浬、浦項ヘ百二十浬、市場ハ陰暦四七日開市シ、生牛、漁業、雜貨集散ス、産物ハ米・麥・麻布ナリ。

戸數	內地人	四四	朝鮮人	三一三	支那人	一
人口	同	一五五	同	一、八一六	同	二

【官公衙】郡廳、警察署、面事務所、郵便局、學校組合、公立小學校、公立普通學校地方金融組合。

【町名】軍倫里、城內里、南門里、月里、舊校里。

洛山寺　山ヲ負ヒ海ニ臨ミ風光絶佳ニシテ、嶺東八景ノ一タリ、三韓時代ノ創建ニ係リ規模宏大ナリシモ今ハ門鐘ヲ殘スノミナリ。

內　瓮　津

內瓮津(내옹진)ハ江原道襄陽郡道川面ニ屬ス、外瓮津ト南北表裏シテ一部ヲナス、灣ハ瓮津端ノ北方ニ巾著狀ヲナセルヲ以テ安全ナル碇泊場ヲナセリ、戸數五十鰮・鯖・鰤ノ漁業盛ンナリ。
附近ニ內物溜너물류、降峴面ニ漁溜물류(陰暦五十日ニ開市ス)釘巖里명암리後津후신前津전진郡內面ニ造山里조산리、巽陽碑ニ柯坪里가평리鰲山津오산진水山津수산진學浦학포屈浦굴포薪雲里상운如雲浦오운포、縣北面ニ下光丁하광뎡其土門津기사문진

戸數三十、縣南面ニ洞山津동산ニ(陰暦二七日ニ開市ス)戸數四十餘廣津광진南涯津남히진戸數四十アリ何レモ漁業ヲ事トス。

東　津

東津(속진)ハ江原道襄陽郡道川面ニ屬ス、南北ニ小突出アリテ灣形ヲナシ灣澳ノ西ヨリ北方ナル突角即飛仙場ニ亙リテ稍高キ丘陵環リテ水深ク船舶ノ碇泊ニ適ス、郡內唯一ノ汽船ノ寄航地ナリ、杆城郡砂津ヲ距ル南十町襄陽ヘ四里ニシテ交通便ナリ、鰮・鰤鯖・鰤等ヲ産ス。

戸數	內地人		朝鮮人	七八
人口	同		同	三六〇

附近ニ扶月里(부월리)外瓮津(외옹진)アリ魚鹽ヲ産ス。

注　文　津

注文津(주문진)ハ江原道襄陽郡新里面ニ屬ス、南面シテ稍北方ニ彎入ス、其南東角ハ注文津ニシテ丘陵西北ヲ環リ延ヒテ岬端ニ隆起ス、本郡第一ノ良津ニシテ汽船ノ寄港地ナリ、戸數朝鮮人八十三、內地人五戸、元山ヘ百二十五浬、釜山ヘ二百十八浬、産物ハ米・棉・粟、海産物ニ鱈・鰤・鯖・鯛・鰈・大蝦・和布等アリ、市場ハ陰暦一六日ニ開市ス。

戸數	內地人	二三	朝鮮人	二三六
人口	同	一〇二	同	九八八

【官公署】巡査駐在所、郵便所アリ。

附近ニ牛巖浦(우암진)戸數二十四、梧里津(오리진)沙川面ニ領津(영진)戸數四十、沙川津(사전진)戸數八十餘アリ、河坪里(하평리)、丁洞面ニ揮羅屯(기라돈)箭浦里(전포리)、郡內面ニ江口洞(강구동)、八松亭(팔송전)、見召津(견소진)、德方面ニ南項津(남항진)、資可谷面ニ安仁津(안인진)戸數五十內地人一戸、燈明津(등명진)、古城里(고성리)、正東津(정동진)內地人二戸、深谷(심곡)戸數六十餘南津(전남)、玉溪面ニ金津(금진)戸數五十、廣亭(광정)陰曆一六日ニ開市ス。

助山(조산)新基(진기)(汽船寄港ス)道直(도직)、沙峰洞(사봉동)、漢津(한신)戸數二十、望面ニ於達(오달)、墨湖(묵호)、(汽船碇泊シ得)

通川

通川(통장)ハ江原道通川郡郡內面ニ屬ス、附近平地ヲ爲ス、歙谷里ヘ六里、二十四里長箭ヘ九里、溫井里ヘ十一里、元山ヘ十八里二十四町(夏季元山溫井里間ニ自働車ヲ通ス)概シテ平夷ニシテ自働車ヲ通ス淮陽道路ハ稍急峻ナリ、產物ハ穀類海產物ナリ市場ハ五十日ニ開市ス。

戸數	內地人	三二	朝鮮人	三八四
人口	同	九二	同	一、八八二

【官公衙】郡廳、警察署、郵便局、地方金融組合、公立普通學校、學校組合、公立尋常小學校。

【町名】中里、西里、東里、正里、発里、芳浦里。

金剛窟 邑南郊ニアリ、窮ル大海ニ臨ミ澳ノ廣七八尺壁ニ紋アリ浮圖ノ如シ、觀音常住所ト云フ。

瓮遷 郡南七里ニアリ、石山浦ニ枕ム狹路ヲ云フ文祿ノ古戰場タリ。

長箭

長箭(장전)ハ江原道通川郡臨面ニ屬ス、一名軍艦港ト稱ス、灣口東ニ面シ西ニ折レテ灣奧深ク且水深クシテ大船ノ碇泊ニ適ス、背後ニ金剛、外山、長安山蛇立シ、其脈鼓レテ灣ノ三方ヲ圍繞ス、漁船碇繫場ハ灣ノ北隅長箭洞ノ前面ナリ、(元山ヘ五十一浬、釜山ヘ二百十三浬ナリ)近海ハ鯨・鰮・鰤・鰆・等ヲ產ス、內地漁民ノ根據地ニシテ東洋捕鯨會社事業根據地ナリ。

戸數	內地人	一五八	朝鮮人	二四七	支那人	五
人口	同	三七二	同	一、〇一三	同	一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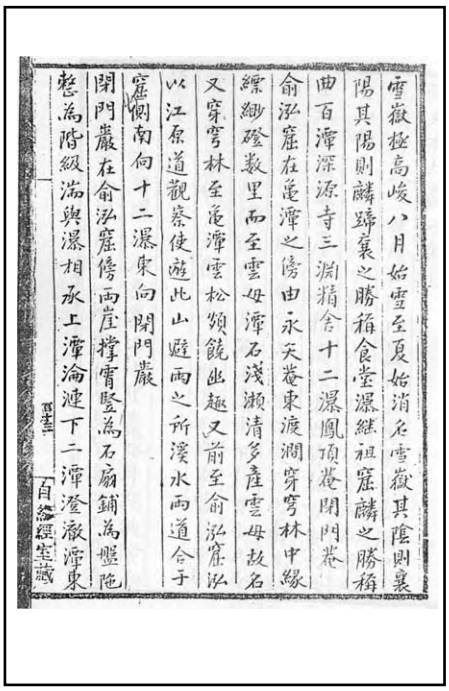
溫井里

【官公署】巡査駐在所、學校組合、郵便所、面事務所、公立尋常高等小學校。

溫井里(온정리)ハ江原道杆城郡新北面ニ屬ス、外金剛山ノ入口ニ位置ス、溫泉川東山

東 國 名 山 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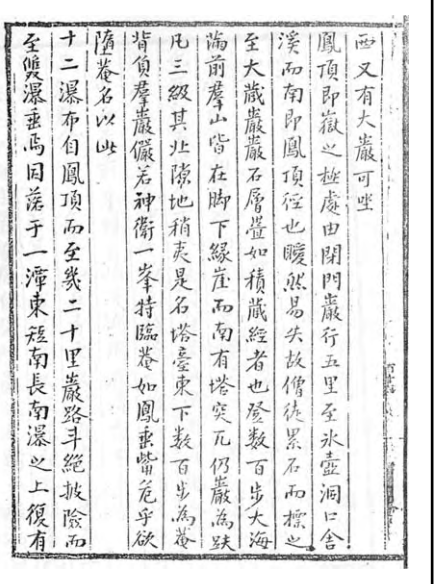
惺海應(1760~1839)이 전국의 명승지에
대하여 설명한 책이다.
편년은 미상이며, 전국 각지의 유명한
山 · 水 · 溪谷 · 臺 · 潭 · 亭 등의
위치, 형세, 형승, 고사, 명인의 所居 사실등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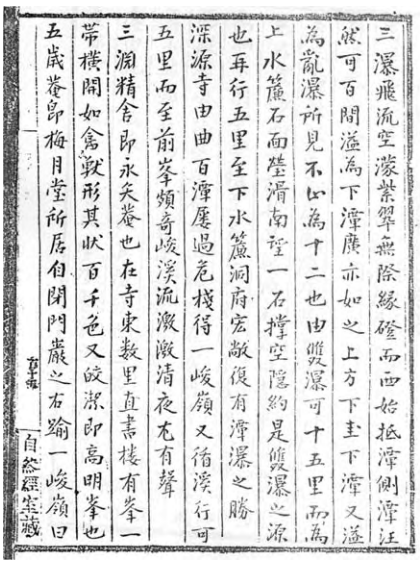
曲澗在寒溪雪嶽之間自藍橋驛涉寒溪下流抵一
寺北漸險絕攀崖緣壁下臨危壑復至一岡望見瀑
布自北來甚壯過大乘菴復行二十里得松林大溪
乃曲百澗洞府也澗深可二丈廣袤數百步清澈見
底色如綠玉又過熊井洞緣崖數百步得一奧區可
耕其東數十里可至五歲菴過吉洞黃腸瀨山脚遮
水口曰千春嶺谷雲翁所命名行可一里有俗稱負
轉巖抱轉巖過此歷虛空橋而出洞口潭上有四五
峯即三澗所名五老峯

雪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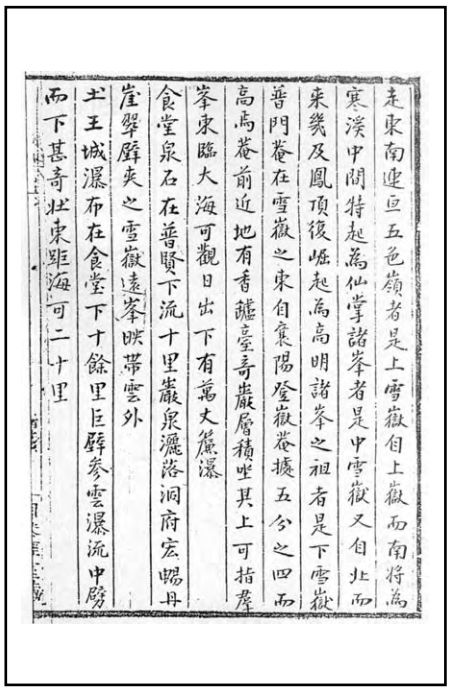
雪嶽極高峻八月始雪至夏始消名雪嶽其陰則襄
陽其陽則麟蹄襄之勝稱食堂瀑繼祖窟麟之勝稱
曲百潭深源寺三澗精舍十二瀑鳳頂菴閉門菴
俞泓窟在龜潭之傍由永矢菴東渡澗穿穹林中緣
縹緲磴數里而至雲母潭石淺瀨清多產雲母故名
又穿穹林至龜潭雲松頻饒幽趣又前至俞泓窟泓
以江原道觀察使遊此山避雨之所溪水兩道合于
窟側南向十二瀑東向閉門巖
閉門巖在俞泓窟傍兩崖撐霄豎為石扇鋪為盤陁
整為階級湍與瀑相承上潭淪漣下二潭澄澈潭東



西又有大巖可坐
鳳頂即嶽之極處由閉門巖行五里至氷壺洞口舍
溪而南即鳳頂徑也曖然易失故僧徒累石而標之
至大藏巖巖石層疊如積藏經者也登數百步大海
湍前羣山皆在脚下緣崖而南有塔突兀仍巖為趺
凡三級其北隙地稍夷是名塔臺東下數百步為菴
背負羣巖儼若神衛一峯特臨菴如鳳垂嘴危乎欲
墮菴名以此
十二瀑布自鳳頂而至幾二十里巖路斗絕披險而
至雙瀑垂焉因落于一潭東短南長南瀑之上復有



三瀑飛流空濛紫翠無際緣磴而西始抵潭側潭汪
然可百間溢為下潭廣亦如之上方下圭下潭又溢
為亂瀑所見不止為十二也由雙瀑可十五里而為
上水簾石面瑩滑南望一石撐空隱約是雙瀑之源
也再行五里至下水簾洞府宏敞復有潭瀑之勝
深源寺由曲百潭屢過危棧得一峻嶺又循溪行可
五里而至前峯頻奇峻溪流激激清夜尤有聲
三澗精舍即永矢菴也在寺東數里直書樓有峯一
帶橫開如禽獸形其狀百千色又皎潔即高明峯也
五歲菴即梅月堂所居自閉門巖之右踰一峻嶺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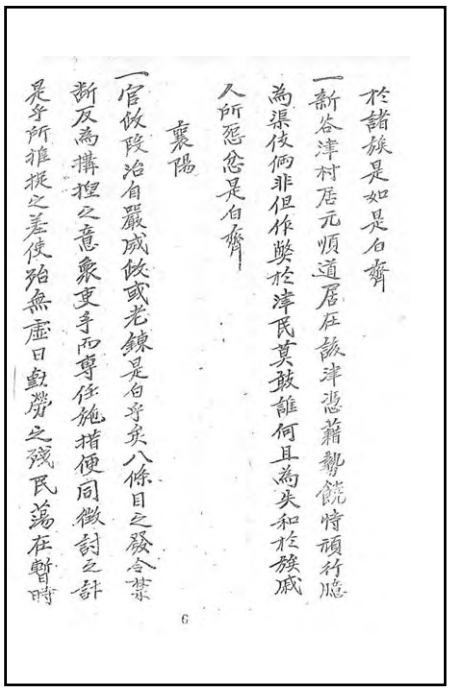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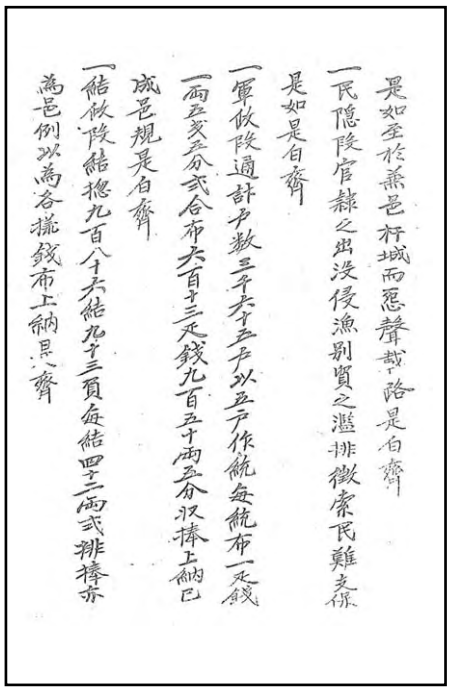
萬景臺由此而至峯巒尤秀異
萬景臺一石峯也最前石崖斗斷下臨無地上更峻
削僅容一人坐
青峯即嶽之最高處鳳頂乃遜之以其高摩穹蒼遠
見只縹緲而青故指其絕頂而名曰青峯圓而不峭
高而不削亭亭植立若巨人然過水簾洞登獅子項
歷般若臺琵琶臺自此山頭阡石城列其最高處飛
鳥不能過石面準平有丹書迹相傳永郎諸仙題石
處由此可抵峯上然以其險絕也三淵僅一二陟陶
菴亦一上云山皎潔如雪乃雪嶽之所稱也自青峯

走東南連亘五色嶺者是上雪嶽自上嶽而南將為
寒溪中間特起為仙掌諸峯者是中雪嶽又自北而
來幾及鳳頂復崛起為高明諸峯之祖者是下雪嶽
普門菴在雪嶽之東自襄陽登嶽菴據五分之四而
高焉菴前近地有香鑪臺奇巖層積坐其上可指羣
峯東臨大海可觀日出下有萬丈簾瀑
食堂泉石在普賢下流十里巖泉灑落洞府宏暢丹
崖翠壁夾之雪嶽遠峯映帶雲外
土王城瀑布在食堂下十餘里巨壁參雲瀑流中劈
而下甚奇壯東距海可二十里

江原各郡一般情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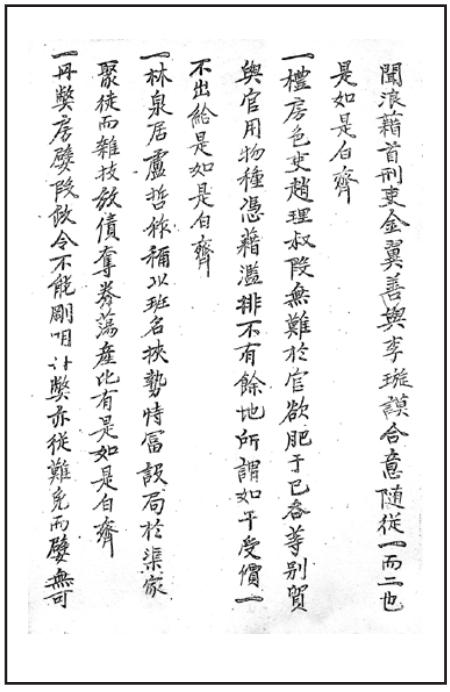
1892년(고종 29)에 강원도 각 군의 官政 三政 등을
조사하여 엮은 책이다.
모두 4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1책에 강릉, 양양, 간성,
고성이 수록되어 있다.
표지에 “임진년 11월”이라는 기록과 책의 내용을 통해
편찬연대를 알 수 있으며 내용에 戶布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호포가 시행된 것이 1870년(고종 7)이기 때문에
임진년인 1892년에 이 책이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於諸族是如是白齊
一新谷津村居元順道居在該津憑藉勢饒恃頑行臆
為渠伎倆非但作弊於津民莫敢誰何且為失和於族戚
人所惡忿是白齊
襄陽
一官攸段治自嚴威攸或老鍊是白乎矣八條目之發令禁
斷反為搆捏之意衆吏手而專任施措便同徵討之計
是乎所推捉之差使殆無虛日勤勞之殘民蕩在暫時
是如至於兼邑杆城而惡聲載路是白齊
一民隱段官隸之出沒侵漁別貿之濫排徵索民難支保
是如是白齊
一軍攸段通計戶數三千六十五戶以五戶作統每統布一疋錢
一兩五戈五分式合布六百十三疋錢九百五十兩五分收捧上納已
成邑規是白齊
一結攸段結總九百八十六結九十三負每結四十二兩式排捧亦
為邑例以為各樣錢布上納是白齊

一邊攸段秋邊各穀七百五十一石冬內五百三石作錢上納二
百四十八石本色捧納而果無為弊是白齊
一奸鄉段時掌議崔仲武以其無憚之類符同邑吏李
奉相退校造山居金弁敬庸東海廟禁護松楸無難
斫伐作板潛賣分歸私橐是如多有人言是白齊
一猾吏段戶長李璇謨初名秉謨兒名方賢以一邑
權吏信任于官家擅行威力恣意做事搆虛罪名勒
討殘民而分半歸私請債饒戶而置產不報是如聽
聞浪藉首刑吏金翼善與李璇謨合意隨從一而二也
是如是白齊
一禮房色吏趙理叔段無難於官欲肥于己各等別貿
與官用物種憑藉濫排不有餘地所謂如干受價一
不出給是如是白齊
一林泉居盧哲祚稱以班名挾勢恃富設局於渠家
聚徒而雜技放債奪券蕩產比有是如是白齊
一丹弊房嬖段攸令不能剛明丹弊亦從難免而嬖無可



論是白齊

祥雲察訪

一官弊段前等遞已日久新官姑未 下批是白齊

一驛弊段本驛道掌十六各站延以察訪之數遞收斂分排斂多不能支保中竹浦即稍實之驛而復結及位畓本驛吏金錫九渠自都結獨專其利驛民渙散公用排錢移徵於隣站是如怨言不絶是白齊

杆城

一官弊段喪遞已過數朔弊令從無一評是白齊

一民隱段不恒之收斂滋甚校卒之討索無前難以支保是如是白齊

一軍弊段八面民户二千二百六十二户春每户七戔二分秋每户八戔六分合錢三千五百七十三兩九戔六分分春秋收捧上納是白齊

一結弊段實結五百二十七結二負五束每結米一石七斗太一斗租十四斗四升錢六兩三戔四分式收捧以爲工納與公用是白齊

一還弊段秋還各穀六百九十四石[illegible]斗一升一合內四百九十石作錢上納二百四石九斗一升一合本色捧納以爲支放及應下是白齊

一奸鄕猾吏段栢洞居尹聖守以前日鄕任行事多爲不謹而厭後弊移去于忠州地其子與田庄在本洞今尚出沒橐陽喉嚼兼官渠之年久債錢雖零鎖錢兩遷上加利成數幾百兩列錄幾十名發差推捉絡繹不絶一境騷擾衆口皆怨而吏無稱猾是白齊

一冊弊房廢段無人可言是白齊

一驛弊段或都結而專利或頹賣而逃躲以此各驛亦空乏是白齊

一本郡如津居延學俊趙德彦兩漢以揮羅船主今年與役軍三十名揮羅渴財多至五六千金而宜與役軍均分無一分所給渠自沒吞役軍輩㤼於勢力敢怒而不敢言是如呼冤狼藉是白齊

一海上面林川居林乃用段即七鄕中人也本郡有八面書員而自來書員任於將校矣近年土城郡內兩面付之吏其餘則付

戶口總數一

『戶口總數』는 18세기 후반 전국의 인구 자료를 정리해 놓은 인구 통계집이다.
총 9책으로 구성된 필사본 도서로서 편찬자, 편찬시기, 편찬경위, 서문 등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영조 10년 갑인년(1734) 11월 초2일 本府 草記에 壬辰年 兵火 이전의 帳冊이 하나도 보존되어 있지 않고, 萬曆 병오년(1606년, 선조39)이후에 남아 있는 책도 완질이 아닌 것이 많으며 崇德(崇禎?) 기묘년(1639년, 인조17)이후 비로소 갖추어 남아 있으므로 숭덕 기묘년 이후 각 식년의 호구총수를 두루 살펴 올린다고 하였다.
『호구총수』의 체제는 제1책은 1395년(태조4)부터 1789년(정조13)까지의 전국의 호구와 1789년의 한성부 호구를 기록하였다.

戶口總數 第三冊 原春道

初北面 樓門上里 初中里 初下里 津坪里 松浦里 木谷里 田灘里 吾節里 東沙東里 道納里 板橫里 松山里 毛赤里 其呑里 鐵嶺里 迷肥里 金洞里 仙巖里 台日里 銀溪里

元戶八百五十八口三千五十九 男一千七百五十二 女一千三百七

嵐谷面 楷洞里 楡邑里 縣里 直浦里 東沙里 松舘里 貴路里 梧桐里 楸田里 鳳邑里 泥浦里 小古介里

元戶六百五十三口二千四百九十八 男一千一百七十三 女一千三百二十五

二東面 曲尾洞里 松峙里 高才里 新安里 蘆洞里 梧桐里 支石里 二東里 扶老只里 朋友里 和川里 方目里 安味里 楸洞里 細洞里 豊義里 板幕里 長峙洞里

元戶五百六十三口二千三百三十九 男一千一百六十五 女一千一百七十四

泗東面 新邑里 泥橋里 燕方里 山月乃里 寺洞里 駕淵里 九萬里 來莎洞里 泗東里 丙水菴里 陵洞里 萬道里 支石里 楮輪里

元戶四百八十四口一千八百九十五 男九百四十八 女九百四十七

長楊面 溫井洞里 公刚院里 赤輝里 上新院里 下新院里 上縣里 下縣里 檜月里 楸洞里 小坤里 東沙洞里 順甲里 北站里 竝伊武地里 三億洞里 長淵里

元戶八百七十六口三千三百三十四 男一千五百九十九 女一千七百三十五

水入面 大井里 卬佩里 占方里 烏川里 松巨里 文登里 所古介里 青山里

元戶五百六十口二千二百八十二 男一千一百四十四 女一千一百三十八

襄陽 面十六里 六十七

元戶一千七百四十一口六千一 男三千二百二十四 女二千七百七十七

府內面 南門外里 城內里 青谷 東門外里 舊校洞

元戶一百十二口四百六十八 男二百五十九 女二百九

位山面 三浦月里 女川里 得雲里

元戶七十二口二百二十四 男一百十三 女一百十一

沙峴面 沙介橋里 後洞里 魯洞里 長山里 站橋里 北津里 釘巖里 廣石里

元戶一百五口三百三十五 男一百七十七 女一百五十八

東面 古松峴里 金剛里 水谿里 屈浦津里 四赤城里

元戶八十口二百四十九 男一百三十七 女一百十二

郡南面 西門里 文宣王里 木日里 居末里 鹿門里

元戶九十五口三百九十八 男二百十二 女一百八十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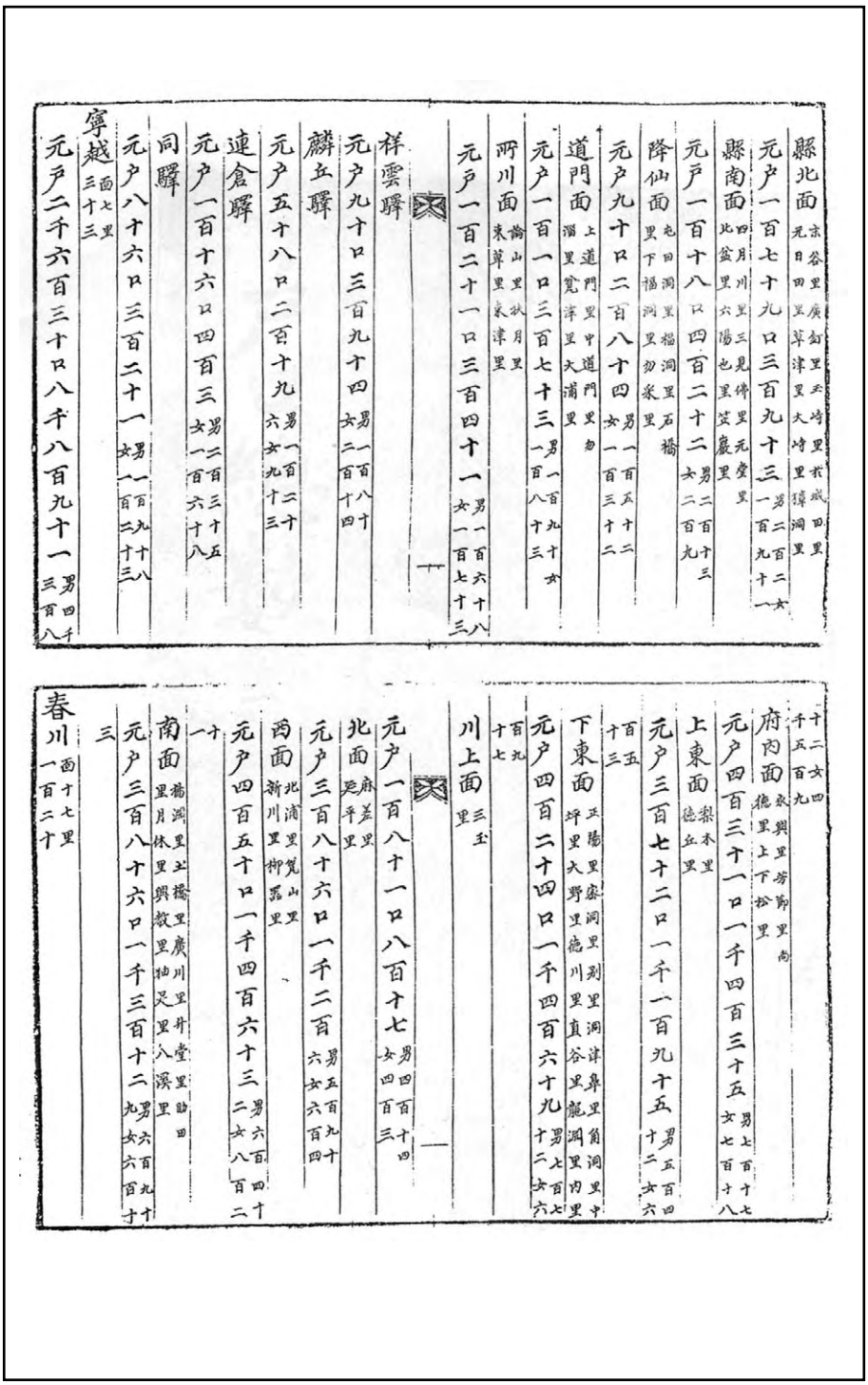
西面 盈德里 西林里 葛川里 青松里 五色里 上坪里 長柱里 水洞里 熊田里 公須田里

元戶二百三十五口八百二十七 男三百九十七 女四百三十

南面 坤存里 陽穴里 板橋里

元戶八十三口三百五十一 男一百九十三 女一百五十八

五四



縣北面 京谷里廣釘里玉峙里於戒田里元日田里草津里大峙里獐洞里
元戶一百七十九口三百九十三 男二百二女一百九十一
縣南面 四月川里三見佛里元堂里北盆里六陽也里笠巖里
元戶一百十八口四百二十二 男二百十三女二百九
降仙面 屯田洞里福洞里石橋里下福洞里勿采里
元戶九十口二百八十四 男一百五十二女一百三十二
道門面 上道門里中道門里勿淄里覓津里大浦里
元戶一百一口三百七十三 男一百九十女一百八十三
所川面 論山里狄月里東草里東津里
元戶一百二十一口三百四十一 男一百六十八女一百七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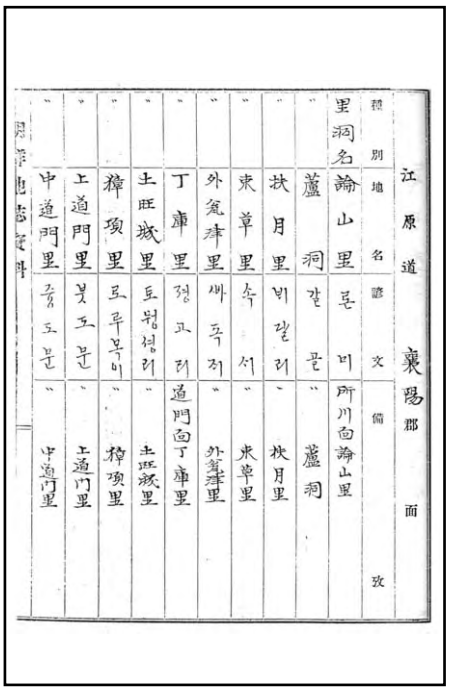
祥雲驛
元戶九十口三百九十四 男一百八十女二百十四
麟丘驛
元戶五十八口二百十九 男一百二十六女九十三
連倉驛
元戶一百十六口四百三 男二百三十五女一百六十八
同驛
元戶八十六口三百二十一 男一百九十八女一百二十三
寧越 面七里三十三
元戶二千六百三十口八千八百九十一 男四千三百八十二女四千五百九

府內面 永興里芳節里尚德里上下松里
元戶四百三十一口一千四百三十五 男七百十七女七百十八
上東面 梨木里德丘里
元戶三百七十二口一千一百九十五 男五百四十二女六百五十三
下東面 正陽里密洞里別里洞津皐里角洞里中坪里大野里德川里直谷里龍淵里內里
元戶四百二十四口一千四百六十九 男七百七十二女六百九十七
川上面 三玉里
元戶一百八十一口八百十七 男四百十四女四百三
北面 麻差里延平里
元戶三百八十六口一千二百 男五百九十六女六百四
西面 北浦里覓山里新川里柳器里
元戶四百五十口一千四百六十三 男六百四十二女八百二十一
南面 楊淵里土橋里廣川里井堂里助田里月林里興教里抽足里八溪里
元戶三百八十六口一千三百十二 男六百九十九女六百十三
春川 面十七里一百二十

朝鮮地誌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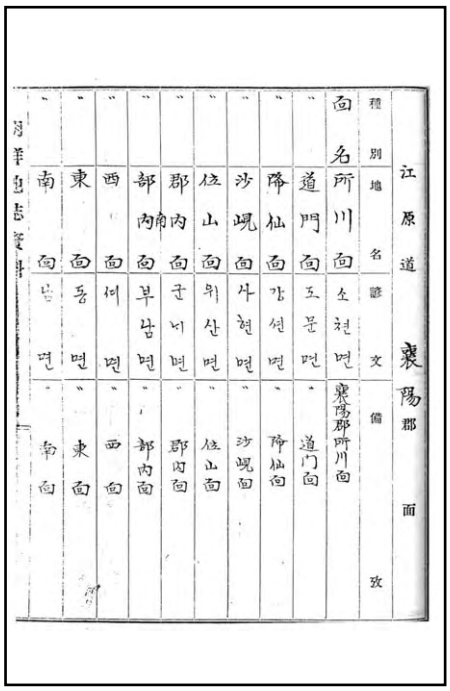
江原道 四

朝鮮總督府



江原道 襄陽郡 面

種別	地名	諺文	備攷
面名	所川面	소쳔면	襄陽郡所川面
〃	道門面	도문면	〃 道門面
〃	降仙面	강션면	〃 降仙面
〃	沙峴面	사현면	〃 沙峴面
〃	位山面	위산면	〃 位山面
〃	郡內面	군니면	〃 郡內面
〃	部內面	부남면	〃 部內面
〃	西面	셔면	〃 西面
〃	東面	동면	〃 東面
〃	南面	남면	〃 南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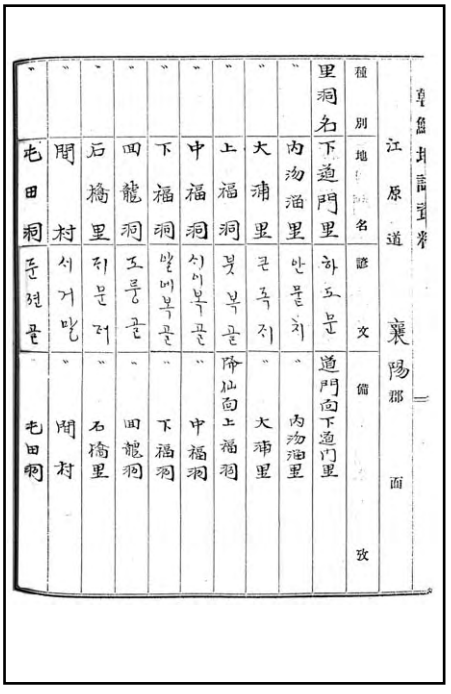


江原道 襄陽郡 面

種別	地名	諺文	備攷
里洞名	論山里	론미	所川面論山里
〃	蘆洞	갈골	〃 蘆洞
〃	扶月里	비달리	〃 扶月里
〃	束草里	속시	〃 束草里
〃	外瓮津里	쌔독지	〃 外瓮津里
〃	丁庫里	정고리	道門面丁庫里
〃	土旺城里	토뒹셩리	〃 土旺城里
〃	獐項里	로루목이	〃 獐項里
〃	上道門里	붓도문	〃 上道門里
〃	中道門里	중도문	〃 中道門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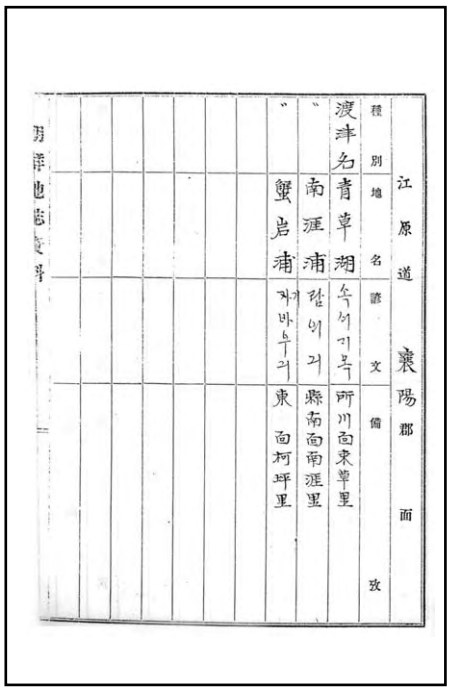
江原道 襄陽郡 面

種別	地名	諺文	備攷
山谷名	青蛍山	청지산	所川面青蛍里
〃	天吼山	호우지	道門面土旺城里
〃	達摩山	달마산	〃 〃
〃	中旺山	중왕산	〃 上道門里
〃	青蛍山	청지산	〃 中道門里
〃	松岩山	송암산	降仙面回龍洞
〃	冠山	빈보러	〃 〃
〃	支谷	짓골	〃 上福洞
〃	屯田谷	둔젼골	〃 屯田洞
〃	五峰山	오봉산	沙峴面前津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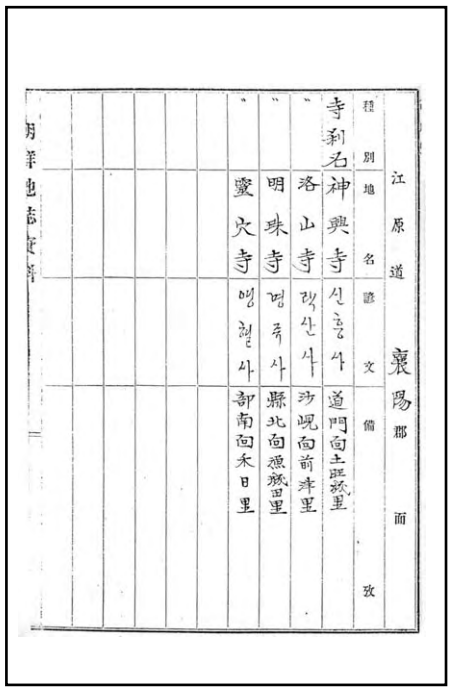
江原道 襄陽郡 面

種別	地名	諺文	備攷
里洞名	下道門里	하도문	道門面下道門里
〃	內沙淄里	안물치	〃 內沙淄里
〃	大浦里	큰독지	〃 大浦里
〃	上福洞	붓복골	降仙面上福洞
〃	中福洞	시이복골	〃 中福洞
〃	下福洞	알에복골	〃 下福洞
〃	回龍洞	도룡골	〃 回龍洞
〃	石橋里	지문러	〃 石橋里
〃	間村	시거말	〃 間村
〃	屯田洞	둔젼골	〃 屯田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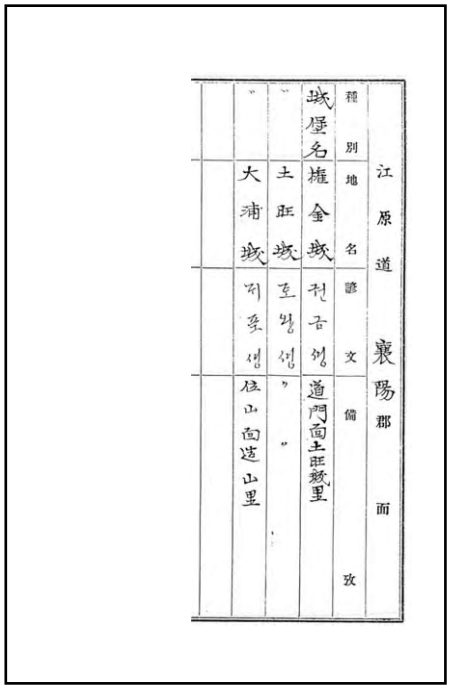
江原道 襄陽郡 面

種別	地名	諺文	備攷
渡津名	青草湖	속어기목	所川面東草里
〃	南涯浦	람이기	縣南面南涯里
〃	蟹岩浦	자바우기	東面柯坪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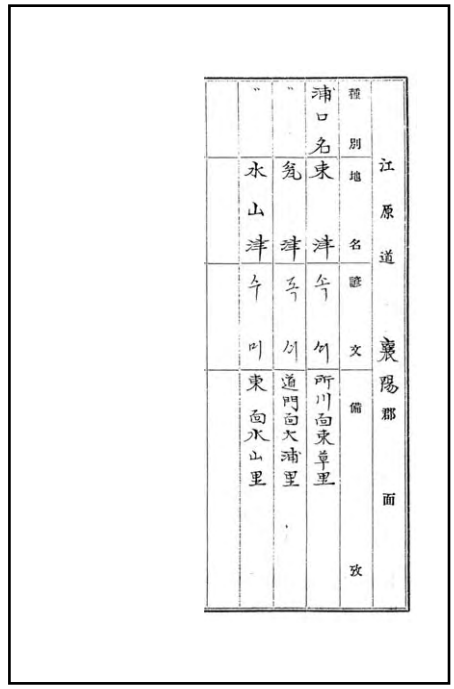
江原道 襄陽郡 面

種別	地名	諺文	備攷
寺刹名	神興寺	신흥사	道門面土旺城里
〃	洛山寺	랙산사	沙峴面前津里
〃	明珠寺	명쥬사	縣北面漁城里
〃	靈穴寺	영혈사	部南面禾日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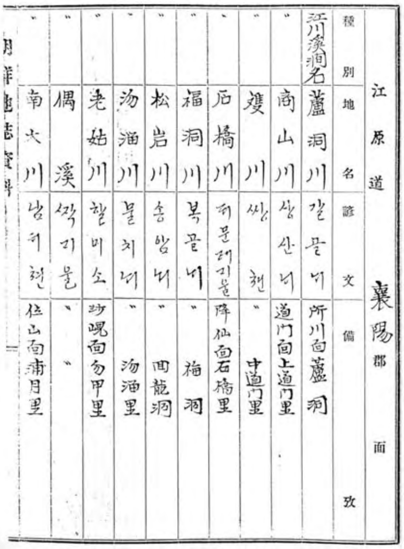
江原道 襄陽郡 面

種別	地名	諺文	備攷
城堡名	權金城	권금성	道門面土旺城里
〃	土旺城	토왕성	〃 〃
〃	大浦城	저포성	位山面造山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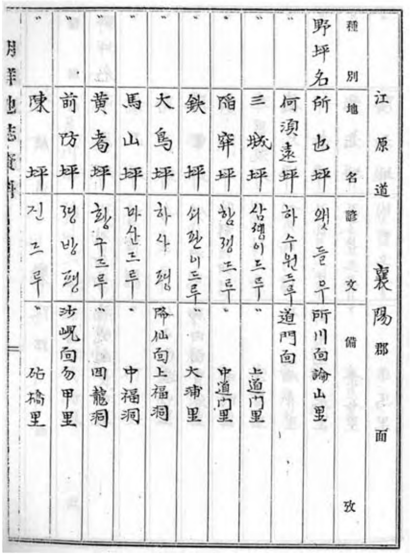
江原道 襄陽郡 面

種別	地名	諺文	備攷
浦口名	東津	속어	所川面東草里
〃	瓮津	폭시	道門面大浦里
〃	水山津	수미	東面水山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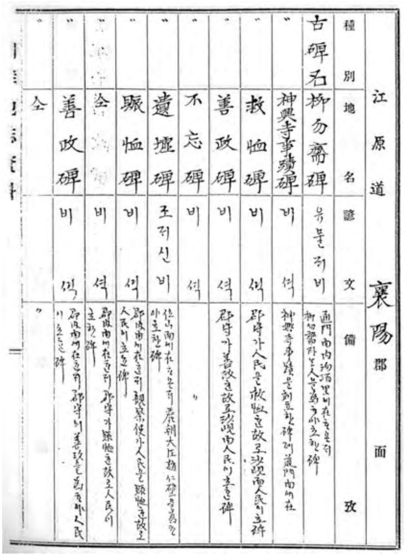
江原道 襄陽郡 面 攷

種別	地名	諺文	備考
江川溪洞名	蘆洞川	갈골내	所川面蘆洞
〃	商山川	상산내	道門面上道門里
〃	㨾川	쌍천	〃 中道門里
〃	石橋川	뒤문끼기물	降仙面石橋里
〃	福洞川	복골내	〃 福洞
〃	松岩川	송암내	〃 回龍洞
〃	沕淄川	물치내	〃 沕淄里
〃	老姑川	할미소	沙峴面勿甲里
〃	偶溪	쌕기물	〃 〃
〃	南大川	남대천	位山面浦月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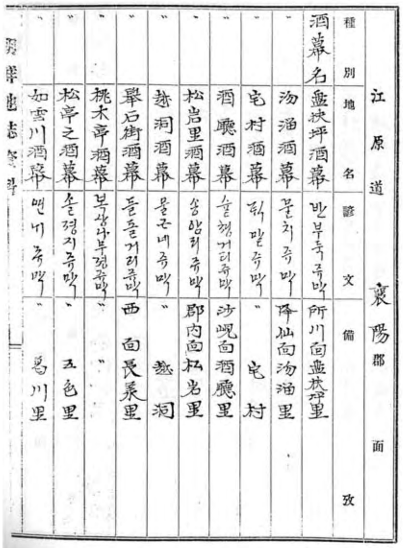
江原道 襄陽郡 面 攷

種別	地名	諺文	備考
野坪名	所也坪	왯들우	所川面論山里
〃	何湏遠坪	하수원드루	道門面
〃	三峨坪	삼생이드루	〃 上道門里
〃	陷穽坪	함정드루	〃 中道門里
〃	鉄坪	쇠판니드루	〃 大浦里
〃	大鳥坪	하사평	降仙面上福洞
〃	馬山坪	마산드루	〃 中福洞
〃	黃耆坪	황구드루	〃 回龍洞
〃	前防坪	전방평	沙峴面勿甲里
〃	陳坪	진드루	〃 砧橋里



江原道 襄陽郡 面 攷

種別	地名	諺文	備考
古碑名	柳勿齋碑	유물재비	道門面內沺里에在흔온데 柳勿齋라는人을爲하야立흔碑
〃	神興寺事蹟碑	비석	神興寺事蹟을刻立흔碑니道門面에在
〃	救恤碑	비석	郡守가人民을救恤흔故로沙峴面人民이立흔碑
〃	善政碑	비석	郡守가善政흔故로沙峴面人民이立흔碑
〃	不忘碑	비석	〃
〃	遺墟碑	조적신비	位山面에在흔온데 㞐朝大臣趙仁璧을爲하야立흔碑
〃	賑恤碑	비석	郡內面에在흔데 觀察使가人民을賑恤흔故로人民이立흔碑
〃	仝	비석	郡內面에在흔데 郡守가賑恤흔故로人民이立흔碑
〃	善政碑	비석	郡內面에在흔데 郡守의善政을爲흔야人民이立흔碑
〃	仝		〃



江原道 襄陽郡 面 攷

種別	地名	諺文	備考
酒幕名	盃抉坪酒幕	반부둑주막	所川面盃抉坪里
〃	沕淄酒幕	물치주막	降仙面沕淄里
〃	宅村酒幕	텍말주막	〃 宅村
〃	酒廳酒幕	술청거리주막	沙峴面酒廳里
〃	松岩里酒幕	송암리주막	郡內面松岩里
〃	沕洞酒幕	물곤내주막	〃 沕洞
〃	擧石街酒幕	들돌거리주막	西面長承里
〃	桃木亭酒幕	복상나무정주막	〃 〃
〃	松亭之酒幕	솔정지주막	〃 五色里
〃	如雲川酒幕	여니주막	〃 葛川里

찾아보기

가

가래과 · 211
가래나무과 · 178
가래나무군락 · 233
가래터 · 1384
가마소 · 1380
가마솥 · 1630
가옥 어휘 · 1776
가자미식해 · 1680
가지과 · 203
각섬석화강암 · 150
갈매나무과 · 195
갈뫼 · 1447, 1475
갈치 · 1123
감나무과 · 200
감자 · 1613
감자 송편 · 1615
감자 시루떡 · 1614
감자옹심이 · 1614
갑오징어 · 1126
강덕준 주택 · 1816
강수량 · 163
강원국제관광박람회 · 935
강원도의회 의원 · 405
개구리밥과 · 215
개량서숙 · 531
개안골 · 1367
개안논 · 1367
갯배 · 901
갯배나루 · 1375
갯버덩 · 1370
거북목 · 246
거제수나무군락 · 223
건폭포 · 1395
걸어구류 · 1074
검찰 · 469, 477
겨우살이과 · 180
경의재 · 1416
경제 어휘 · 1778
경지면적 · 361
경판 · 886
계조굴 각자 · 1418
계조암 · 1412
계조암 · 887
계조암의 매미 · 1279
고등어 · 1118
고란초과 · 176
고려시대 · 280
고밧개 · 1369
고사리삼과 · 174
고사음식 · 1646
고인돌 · 273
고정걸그물류 · 1075
고추나무과 · 194
골풀과 · 216
공공도서관 · 659
공룡능선 · 1390
공룡능선 · 142
공무원현황 · 447
공산치하 · 324
공원 · 661
공유재산 · 467
관광 · 861
관광객 현황 · 863
관광식당업 · 929
관광자원 · 868
관광호텔 · 922
관모봉 · 143
관속식물 · 174
관음암 · 1371
관음암 · 894
괭이밥과 · 192
괴명떡 · 1685
교동 · 1376
교동초등학교 · 569
교육 · 379
교육급여 · 607
교육기본통계 · 534
교자상 · 1641
교통 · 502
교통사고 · 490
구비문학 · 1270
구전민요 · 1703
구절판 · 1624
구족반 · 1640
국민건강보험공단 · 60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605
국민은행 속초지점 · 830
국사봉 · 1369
국악활동 · 1549
국화과 · 207
국회의원 선거 · 417
군개도랑 · 1397
굴참나무군락 · 226
궁도장 · 714
권금성 · 1433
권금성 · 889
권금성의 유래 · 1278
귀면암 · 1393
귀면암 · 875
귀밝이술 · 1648
귀손이풀과 · 192
극단 굴렁쇠 · 1528
극락보전 · 884
극락보전 석조계단 · 886
금강굴 · 1394
금강굴 · 1442
금강굴 · 875
금강문 · 1394
금강봄맞이 · 173
금강산 관광선 · 1007
금강제비꽃 · 173
금강초롱꽃 · 173
금융 · 828
금장대 · 1373
금호동 · 1373
기념물 · 1399
기념비 · 890
기독교 · 681
기러기목 · 248
기른네미 · 1387
기암 · 894
기암. 굴 · 872
기온 · 161
기타종교 · 687
기타학교 현황 · 539
김근수 가옥 · 1409
김근수 가옥 · 1805
김근우 가옥 · 1812
김덕기 · 1837
김동석 가옥 · 1814
김매는 소리 · 1719
김명한 · 1837
김복남 · 1837
김석주 가옥 · 1806
김수석 · 1838
김용식 · 1838
김우규 · 1838
김정진 · 1839
김종순 가옥 · 1809
김종우 가옥 · 1407
김종우 가옥 · 1803
김주혁 · 1839
김철규 · 1840
김칫독 · 1624
김해수 · 1840
김환기 · 1841
까치보름 · 1725
깔 걸그물류 · 1084
꼬리고사리과 · 176
꼬장떡 · 1684
꼭두선이과 · 204
꽁치 · 1111
꽁치 유자망 · 1081
꽃게 · 1128
꿀풀과 · 202
끌어구류 · 1066

나

나룻배 싸움놀이 · 1769
나한봉 · 1392
낚기어구류 · 1044
낚시바위 · 1372
난과 · 218

남궁억 · 531
남석행 · 277
남설악 · 142
내물치리 · 1388
내설악 · 144
내원골 · 1394
내원암 · 1412
내원암 · 888
냉면 · 1674
넉줄고사리과 · 175
노동요 · 295
노동천 · 1378
노동천 · 289
노루목 · 1390
노루목고개 · 892
노루발과 · 199
노리 · 1377
노리 · 298
노린재나무과 · 200
노박덩굴과 · 194
노인건강관리센터 · 614
노인게이트볼장 · 716
노인복지 · 612
노인봉 · 1392
노적바위 · 1369
노적봉 · 1392
노학동 · 1377
노학동 3층석탑 · 1411
녹나무과 · 185
논뫼호 불꽃놀이 · 1769
논병아리목 · 247
논산리 · 1384
논삶는 소리 · 1717
농가수 · 361
농민조합운동 · 305
농악복색 · 1699
농업 · 728
농업노동요 · 1703
눈 · 167
눈오는 시기 · 167
눈잣나무 · 172
눈잣나무군락 · 221
눈측백군락 · 222
느릅나무과 · 179

다

다래끼 · 1630
다래나무과 · 196
다리어소리 · 1711
다식판 · 1625
다케나가 통조림 공장 · 316
단오날 · 1650
단천마을 · 374
단풍나무과 · 194
단향과 · 180
달떡 · 1684
달라진 땅이름 · 394
달마봉 · 870
닭목 · 249
닭의장풀과 · 216
담수어류 · 240
대게 · 1129
대구 · 1116
대극과 · 193
대승령 · 143
대청봉 · 142
대청봉 · 870
대포 성황제 · 920
대포 외옹치 · 882
대포. 물치지구 · 897
대포공립학교 · 321
대포국립학교 · 321
대포동 · 1386
대포성지와 봉수대 · 899
대포장 · 1386
대포초등학교 · 556
대포항 · 897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 841
대학현황 · 538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 620
대한민국음악축제 · 1581
대한민국음악축제 · 913
대형할인점 · 755
덕산 · 1387
덕산봉수 · 1434
덕산봉수 · 287
도로 · 502
도루묵 · 1112
도루묵 · 1610
도루묵식해 · 1603
도루묵저자망 · 1077
도루묵찌개 · 1611
도리원농악 · 1698
도리원농악 · 295
도리원리 · 1378
도마뱀아목 · 246
도문교 · 1390
도문메나리 · 295
도문메나리 유래 · 1716
도문면 · 284, 285, 292
도문의 벼락바위 · 1270
도문천 · 289
도요목 · 250
도장생이 · 1379
도천면 · 298
도천면 저축 현황 · 311
도천면 직업별 인구현황 · 308
도토리묵 · 1621
돌나무과 · 187
돌배나무골 · 1379
동명동 · 1371
동명동 성당 · 1817
동명동새마을금고 · 835
동물 어휘 · 1778
동산현 · 277
동예 · 275
동우대학 · 380
동우대학 · 591
동작 어휘 · 1779
동짓달 · 1652
동학농민운동 · 288
동해안 · 158
동해일보 · 382
두견이목 · 252
두루미목 · 250
두릅나무과 · 197
뒤주 · 1624
뒷버덩 · 1377
듣대질놀이 · 1770
디딜방아 · 1626
딱따구리목 · 253
딴봉 · 1380
때죽나무과 · 200
떡밭재 · 1384
떡살 · 1626

마

마과 · 218
마댕이와 볏가리지우는 소리 · 1721
마등령 · 1391
마등령 · 142
마등령 · 870
마디풀과 · 180
마산암 · 152
마산째 · 1386
마을신앙 · 1752
마타리과 · 206
마편초과 · 201
만경대 · 1394
만리화 · 173
만주송이풀 · 173
만천동 · 1376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 839
만호첨사유허 · 1380
말쥐치 · 1117
망군대 · 1394
망태골 · 1370
매곡 · 1803
매목 · 249
매자 · 1385
매자나무과 · 185

맷돌과 맷방석 · 1628
맷돌바위 · 1378
메꽃과 · 201
메나리 · 1705
메밀전병 · 1619
면마과 · 175
면세통계개람표(1925년) · 312
면허어업 · 1090
멸치 · 1115
멸치연안쌍끌이 선인망 · 1072
멸치젓갈 · 1678
명란젓 · 1600
명부전 · 885
명주아과 · 181
명태 · 1110
명태 · 1667
명태순대 · 1671
명태식해 · 1682
명태저자망 · 1075
모찌고 심는 소리 · 1718
목련과 · 185
목우재 · 1380
목우재 · 891
목조아미타삼존불상좌상 및 복장유물 · 885
목탁바위 · 1394
목판 · 1624
무너미고개 · 1391
무라다 공장 · 316
무속신앙 · 1754
무속신앙 · 686
무형문화재 · 1399
문법적 특징 · 1781
문수담 · 1395
문수봉 · 1392
문어통발 · 1064
문주담 · 878
문필봉 · 1392
문학 · 296
문학활동 · 1468
문화공간 · 658
문화예술 · 1241
문화예술 활동 단체 · 1556
문화재 · 1398
물가자미 · 1121
물곰탕(곰치국) · 1606
물레고둥통발 · 1061
물레나물과 · 196
물소리 시낭송회 · 1482
물안골 · 1370
물안골 · 1380
물옥잠과 · 216
물푸레나무과 · 200
물푸레나무군락 · 228
미나리아재비과 · 183
미륵봉 · 1392
미술활동 · 1496
미역 · 1612
미역장국 · 1683
민간신앙 · 1749
민선도지사 선거 · 415
민선시장 선거 · 411
민속극 · 1765
민속놀이 · 1768
민속복 · 1698
민속자료 · 1399
민정 · 337
밀판 · 1625

바

바늘꽃과 · 197
바람 · 166
바리 · 1636
박 관 · 1841
박과 · 197
박기필 · 1841
박달나무군락 · 233
박상희 · 1842
박상희 읍장 송덕비 · 1424
박의균 가옥 · 1811
박주과리과 · 201
박쥐나무과 · 197
박쥐목 · 260
박지의 · 1843
박지의 효자비각과 충효 강릉박공휘 지의 지비 · 1423
박창후 · 1843
박태귀 · 1843
반공투쟁 · 326
반부득 · 1383
반상변정편마암 · 148
반암 · 153
반야전문노인요양원 · 615
방기과 · 185
방언 어휘 · 1787
방축 · 1386
방축골 · 1370
밭뚝재 · 1386
백두산항로 · 997
백중 · 1651
백합과 · 216
백합형망 · 1066
뱀아목 · 246
버드나무과 · 177
버리개 · 1369
버스터미널 · 504
범바위 · 1373
범바위 · 894
범봉길 · 1391
범에너레 · 1380
범의귀과 · 187
범종 · 886
법원 · 469, 476
베끼소리 · 1711
벼과 · 211
벼락바위 · 898
벼베기와 한단소리 · 1720
벽오동과 · 195
병어 · 1122
병풍바위 · 1380
병풍바위 · 1386
보건 · 662
보광사 · 1371
보광사 · 895
보리수나무과 · 197
보물 · 1401
보시기 · 1637
보육시설 현황 · 622
보제루 · 1802
보제루 · 885
보현봉 · 1393
복지제도 개황 · 604
봉낚시류 · 1050
봉선화과 · 195
봉수 · 286
봉수대 · 1434
부들과 · 211
부럼 깨물기 · 1648
부월리 · 1383
부채꼴 주머니도끼 · 1439
부처꽃과 · 197
부처손과 · 174
북주능선 · 1391
북청사자놀음 · 919
북한주민의 월남 · 369
분비나무 · 172
분비나무군락 · 224
분홍새우 · 1127
불교 · 683
불교문화 · 278
불교사상 · 294
불당골 · 1372
붉은대게 통발 · 1060
붓꽃과 · 218
비둘기목 · 252
비룡폭포 · 1396
비룡폭포 · 877
비름과 · 181
비선대 · 874
비선대 · 각자 1417
비선대(秘仙臺) · 1371
뽕나무과 · 179

사

사다새목 · 247
사빈 · 158
사설학원 현황 · 539
사스래나무군락 · 223
사십40계단 · 1374
사진리 · 1368
사진항 · 1032
사진활동 · 1551
사찰. 암자 · 884
사초과 · 213
사회보장제도 · 603
사회복지 · 596
산대소리 · 1711
산두꾸미 · 1386
산업경제 · 725
산지당골 · 1385
산천제사 소사 · 279
산토끼꽃과 · 206
산형과 · 198
삼과 · 179
삼국시대 · 276
삼숙이탕 · 1612
삼일3.1운동 · 300
삼중얽애그물류 · 1087
삼치 · 1120
삽짜개 · 1367
상달 · 1652
상도문 · 학무정 · 883
상례음식 · 1645
상에동네 · 1382
상황버섯 · 742
새마을금고 · 831
새웅 · 1632
샘골천 · 1379
샘치골 · 1376
생계급여 · 606
생활관습 · 1593
생활시간 조사 · 645
서거리 김치 · 1604
서거리식해 · 1604
서낭골 · 1369
서낭굿 · 1717
서당 · 322
서당 훈장 · 531
서리 · 167
서리 내리는 시기 · 167
서어나무군락 · 227
서예 활동 · 1513
서창하 · 1844
석가봉 · 1393
석기시대 · 272
석류풀과 · 182
석송과 · 174
석영반암 · 153
석주길 · 1391
석죽과 · 182
선박등록현황 · 1103
선사시대 · 272
선정사 · 887
설날 · 1647
설악 8기 8경 · 878
설악눈꽃축제 · 1578
설악눈꽃축제 · 908
설악눈주목 · 172
설악대극 · 172
설악동 · 1389
설악동 소나무 · 1438
설악동 종합개발사업 · 814
설악문우회 · 1481
설악문화제 · 1571
설악문화제 · 916
설악산 · 868
설악산 국립공원 · 865
설악산 지구 전적비 · 1427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1435
설악산 핏골 전투 · 327
설악산의 식생 · 219
설악산의 아고산대 · 220
설악산의 지질시대와 암석층 · 153
설악산의 지형 · 142
설악산의 파충류 목록 · 246
설악산의 포유류 목록 · 259
설악산지구 · 868
설악산지구 전적비 · 890
설악산지구 전투 · 332
설악산층 · 149
설악산화강암 · 150
설악신문사 · 702
설악엔젤스 유스콰이어 · 1542
설악여자중학교 · 584
설악의 미니콘서트 · 919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 919
설악조팝나무 · 172
설악중학교 · 581
설악초등학교 · 573
설악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 1586
설악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 912
설악하프마라톤대회 · 1587
설악하프마라톤대회 · 910
설악해맞이공원 · 882
설치목 · 260
섬록암 · 152
세간과 조리도구 · 1623
세시풍속 · 1647
세존봉 · 1393
소금 · 291
소나무과 · 176
소나무군락 · 229
소목 · 261
소방 · 493
소사 · 1571
소야초등학교 · 577
소야평 · 1384
소천면 · 284, 285, 292
소청봉 · 139
소쿠리 · 1629
소태나무과 · 193
소토왕골 · 1394
속새과 · 174
속진 · 1371
속진 · 291
속초 8경 · 880
속초 음식 · 1597
속초 지방의 월별 기온 · 161
속초 지방의 월별 습도 · 165
속초.양양.고성 연혁표 · 277
속초경실련 · 847
속초경찰서 · 482
속초고등학교 · 380
속초고등학교 · 586
속초교육 연혁 · 531
속초교육청 · 380, 540
속초국민학교 · 379
속초남부새마을금고 · 836
속초도서관 · 553
속초문화원 · 1556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 1559
속초문화회관 · 1566
속초산대놀이 · 920
속초상업고등학교 · 589
속초새마을금고 · 836
속초시 문화상 · 1568
속초시 문화재현황 · 1401
속초시 보건소 · 664
속초시 의회 · 402
속초시 인구 · 442
속초시 테니스장 · 715
속초시 행정기구 · 439
속초시립박물관 · 1570
속초시립합창단 · 1540
속초시번영회 · 842
속초시생활체육협의회 · 719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 630
속초시의 석호 · 1130
속초시의 습원식물 · 237
속초시체육회 718
속초신용협동조합 · 832
속초실향민 세시풍속 · 1665
속초실향민 통과의례음식 · 1664
속초애국동지회 · 326
속초여자고등학교 · 380
속초여자고등학교 · 588
속초여자중학교 · 380

속초여자중학교 · 582
속초예술 활동 · 1446
속초의 동물 · 240
속초의 방언 · 1773
속초의 세시풍속 · 1724
속초의 식물 · 169
속초의 위치 · 141
속초의 지리적 위치 · 439
속초의 지명 · 1365
속초의 체육 · 709
속초의 통과의례 · 1757
속초의 해안식물 · 234
속초의료원 · 674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608
속초종합운동장 · 714
속초중학교 · 380
속초중학교 · 579
속초지방 어법 및 어구 · 1036
속초초등학교 · 561
속초팔경 · 1442
속초평생교육정보관 · 547
속초포 · 285
속초항 · 1024
속초해수욕장 · 904
속초해수욕장의 조도 · 882
속초해양페스티벌 · 914
속초향토기업주식회사 · 845
손꽃치어구 · 1037
솔산 · 1371
송시열 · 1445
송어 유자망 · 1082
쇠미역튀각 · 1613
쇠비름과 · 182
쇠팽이골 · 1386
수복 · 336
수복기념탑 · 1425
수복기념탑 · 900
수산 · 1023
수산노동요 · 1710
수산물 · 1110
수산물 · 290
수산업 · 1023
수산업 변천 · 363
수산업 현황 · 1094
수살굿 · 1756
수성군 · 277
수음바위 · 1280
순두부 · 1616
순두부찌개 · 1619
술랑 · 277
숫잔대과 · 207
습도 · 165
승산현 · 277
시 승격 · 341
시루 · 1633
시정 시책 · 451
시정홍보 · 703
식당동 · 1390
식량생산현황 · 362
식물 어휘 · 1778
식생활 · 1593
식육목 · 261
식해 · 1603
신간회 · 305
신갈나무군락 · 225
신년 해맞이축제 · 906
신창마을 · 374
신포마을 · 374
신한은행 속초지점 · 829
신흥리 · 1381
신흥사 · 1408
신흥사 · 884
신흥사 경판 · 1404
신흥사 극락보전 · 1403
신흥사 극락보전 · 1801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유물 · 1406
신흥사 보제루 · 1405
신흥사 부도군 · 1410
신흥사사적비 1418
실업계고등학교 현황 · 538
실향민문화촌 · 1570
실향민 식문화 · 1653
십자화과 · 186
쌍동암 · 1390
쌍성호 · 1769
쌍천 · 1389
쏙독새목 · 252
쐐기풀과 · 179

아

아동복지 · 621
아랫말 · 1372
아바이마을 · 374
아바이순대 · 1662
아비목 · 247
아시나조 · 1793
안락암 · 1390
안상 · 277
안양암 · 888
안축 · 296
암맥 · 153
앞버덩 · 1378
앵고치마을 · 374
앵초과 · 199
야화 · 891
약밥과 오곡밥 · 1647
양귀비과 · 185
양서류 · 244
양서류 목록 · 245
양식어업 · 1092
양양 신흥사 용암대사비명 · 1418
양양도호부 · 284
양양신흥사대원대사비명 · 1420
양치식물 · 174
양폭.음폭 · 877
양폭포 · 1396
어류 목록 · 240
어민운동 · 306
어선 · 1033
어선10척 피납사건 · 351
어업권 현황 · 1090
어업요 · 295
어촌 어휘 · 1779
어휘적 특징 · 1783
언론 · 695
얼름 · 167
얼음 어는 시기 · 168
엄춘경 · 1845
여가생활 · 641
여객선 수송 · 505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 629
여행업체 · 932
역대 부시장 현황 · 449
역대 시장 현황 · 448
연극 활동 · 1518
연깨 · 1383
연복초과 · 206
연예활동 · 1542
연자방아 · 1627
연표 · 1867
연화동 · 1385
열, 여리 · 1794
염라길 · 1391
염생식물 · 235
염주길 · 1395
염주나무군락 · 234
염주폭포 · 1396
영금정 · 1371
영금정 · 902
영금정 등대전망대 · 881
영금정(정자) · 1414
영금정과 징바위 · 1280
영동극동FM방송국 · 700
영랑 · 277, 278
영랑공립심상소학교 · 321
영랑교 · 1367
영랑국민학교 · 379
영랑동 · 1367
영랑동 시장 · 1813
영랑동새마을금고 · 834
영랑상회 · 1815
영랑시장 · 1367

영랑정(정자) · 1416
영랑초등학교 · 559
영랑호 · 159, 1130
영랑호 · 893
영랑호 범바위 · 880
영랑호 용이야기 · 1286
영랑호 전설 · 1286
영랑호와 달마대사 · 1288
영모재 · 1416
영북문학회(시마을) · 1494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 1550
영흥마을 · 374
예산 및 재정규모 · 460
오(5)용사의 활약 · 333
오(5)첩 반상 · 1641
오곡밥 · 1648
오련폭포 · 1396
오름 · 1530
오리바위 · 1372
오수현 가옥 · 1744
오윤환 · 1845
오윤환 · 883
오징어 · 1125
오징어 · 1607
오징어 물회 · 1608
오징어 불고기 · 1609
오징어낚시류 · 1052
오징어맨손잡기 · 916
오징어순대 · 1677
오징어식해 · 1603
오징어젓 · 1602
온정리 · 1383
온정초등학교 · 567
올빼미목 · 252
옹진리 · 1387
옻나무과 · 193
와선대 · 1441
와선대 · 874
와우암 · 1390
외국인 등록 · 529
외끌이 기선저인망 · 1073
외옹치리 · 1387
용경 · 296
용담과 · 200
용떡 · 1687
용소골 · 1395
용숫골 · 1374
용왕굿 · 1755
우렁골 · 1372
우렁골(우용골) · 1372
우리은행 속초지점 · 830
우백질편마암 · 149
우편소 · 319
운단절임 · 1679
운향과 · 193
울산 · 1440
울산바위 · 1440
울산바위 · 872
울산바위 전설 · 1273
울산바위와 동자승 · 1275
울산화강암 · 152
움집 · 273
원암교 · 1382
원지과 · 193
월별 강수량 · 163
유두날 · 1650
유명조선국 용암당대선사비명 · 1419
유물재비 · 1389
유물재비 · 1423
유물재비 · 294
유정충 · 1846
유정충 선장 동상 · 1432
유치원 현황 · 535
유학 · 294
유형문화재 · 1399
유회일 · 1846
유희요 · 1714
육담폭포 · 1396
육담폭포 · 876
육아 어휘 · 1777
육형제봉 · 1393
윤사국 · 1418
윤순 · 1351
으름과 · 185
음식 어휘 · 1776
음악활동 · 1530
음운적 특징 · 1780
음폭포 · 1396
응고개 · 1373
응골 · 1378
의료급여 · 608
의병항전 · 289
의복 어휘 · 1777
의복관리 · 1692
의복재료 · 1690
의복형태 · 1690
의생활 · 1689
이국범 · 1846
이국범 · 300
이규한 · 1847
이능렬 · 300
이달영 · 1847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 1426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 891
이목리 · 1379
이문현 · 276
이민족 침입 · 281
이산 · 1440
이상봉 · 1848
이석범 · 1848
이석범 · 287
이석범 · 300
이원마을 · 374
이재훈 · 1850
이주민 마을 형성 · 373
이형근장군 덕정비 · 896
이호담 · 1396
익령 · 276
익령현 · 277, 281
익현 · 276
익현현 · 276
인구동태 · 527
인구변화 · 372
인구변화추세 · 372
인구이동 · 528
인동과 · 205
인륜 어휘 · 1777
인지당 · 1416
인체 어휘 · 1777
일반계고등학교 현황 · 537
일사1.4후퇴 · 331
일제강점기 · 298
일제시대 · 519
임연수어 저자망 · 1078
입춘 · 1647

자

자동차등록현황 · 506
자라풀과 · 211
자루비노 · 356
자리공과 · 181
자연 어휘 · 1779
자유당 · 339
자작나무과 · 178
자활촌 · 1382
잠수기 어법 · 1038
잣나무군락 · 231
장골(장안골) · 1373
장공팔 · 1850
장미과 · 188
장사동 · 1368
장애인복지 · 635
장인원 · 1851
장자골(장재골) · 1379
장자목깨 · 1384
장재골 · 1370
장재터 · 1397
장천골 옛날장 · 742
장천리 · 1369
잦은바위골 · 1395
쟁개비 · 1632
쟁첩 · 1638
저층오터트롤망류 · 1068

저항령 · 1391
적설 · 164, 168
전갱이 · 1119
전나무군락 · 231
전성우 · 1851
절구와 절구공이 · 1627
점봉상화강암 · 151
접시 · 1638
젓갈 · 1599
정어리 · 1114
정월대보름행사 · 1585
정월대보름행사 · 907
정주벽 · 1852
정평마을 · 374
제1군단 전적비 · 1432
제6공화국 · 353
제례복 · 1695
제례음식 · 1645
제비꽃과 · 196
조류 · 247
조류 목록 · 247
조선시대 · 284
조선시대 속초 인구 · 391
조선시대 특산물 · 291
조선후기 인구변화 · 293
조양동 · 1383
조양동 선사유적 · 1800
조양동 선사유적지 · 1438
조양동 유적 · 273
조양초등학교 571
졸참나무군락 · 226
종교 · 681
종교단체현황 · 688
종합휴양업 · 928
주거생활 · 1799
주교 · 1375
주낙류 · 1047
주목과 · 176
주목군락 · 224
주민자치센터 · 446
주봉산 · 1381
주어종 · 364
주차장 · 506
죽음의 계곡 · 1395
중앙동 · 1374
중앙시장 · 1374
중앙초등학교 · 565
중청봉 · 1393
중층오터트롤망류 · 1070
중학교 현황 · 537
중화절 · 1648
쥐방울덩굴과 · 180
증권회사 · 831
지명유래 · 1365
지방세 · 463
지방자치 · 397
지어소리 · 1711
지일권 · 1852
지치과 · 201
진달래과 · 199
진대범 · 1852
진대봉 · 1393
진범화 · 1852
진용기 · 1853
질경이과 · 204
집선봉 · 1393
집선봉 · 875
집자리 · 273
짜꼬치마을 · 374
짱터 · 1374

차

찬장 · 1623
찬합 · 1624
참나무과 · 178
참돔 · 1124
참새목 · 253
창란젓 · 1601
채반 · 1629
책상반 · 1639
처녀이끼과 · 174
척산리 · 1380
척산온천 · 903
천남성과 · 215
천당폭포 · 1396
천당폭포 · 877
천불동 계곡 · 1441
천불동계곡 · 1395
천불동계곡 · 871
천주교 · 685
천화대 · 875
철기 문화 · 276
청대리 · 1385
청대리 청대산 · 881
청대서숙 · 322
청대초등학교 · 575
청동기시대 · 273
청동기유적 · 1800
청동시루 · 887
청봉극회 · 1527
청소년수련시설 · 660
청어 · 1113
청어저자망 · 1079
청초천 · 1378
청초천 · 145
청초호 · 160, 1138
청초호 · 881
청초호 · 899
청초호 용경 · 1289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 840
청학동 · 1376
청학시장 · 1377
청호동 · 1375
청호동 언어 특징 · 1785
청호새마을금고 · 837
청호서숙 · 322
청호초등학교 · 563
체 · 1625
체육 · 707
체육시설 · 659
초등학교 현황 · 536
초롱꽃과 · 206
촌말 · 1373
최원규 가옥 · 1807
추석 · 1651
출산의례 · 1643
출생복 · 1696
충혼탑 · 1429
충혼탑 · 898
측백나무과 · 177
층층나무과 · 199
치안 · 480
칠선폭포 · 1396
칠성봉 · 1393
칠성봉 · 143
칠월칠석 · 1650

카

카누경기장 · 715
칼새목 · 252
콩과 · 191
키 · 1630

타

탁자장 · 1624
탑. 산성 · 889
택사과 · 211
털진달래군락 · 222
토기 · 274
토왕성 · 1434
토왕성폭포 · 1396
토왕성폭포 · 1442
토왕성폭포 · 876
통과의례복 · 1693
통발류 · 1059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 1431
통천군민의 순국동지 충혼탑 · 895
퉁노구 · 1632
특산물 · 291

파

파람불 · 1528
파랑새목 · 253
파리풀과 · 204
파명당 · 1381
파명당과 학사평 · 1277
파충류 · 245
팔일오(8.15)광복 · 324
평안도 음식 · 1660
평양냉면 · 1675
포도과 · 195
포유류 · 258
폭포. 소 · 876
피나무과 · 195
피나무군락 · 228
피난민 가옥 구조 · 1823
피난민 의복 · 1696
피난민 이주 · 358
핏골 · 871

하

하마다 공장 · 316
학교 총개황 · 535
학교의 설립 · 321
학무정 · 1803
학무정(정자) · 1416
학무정기 · 1263
학무정의 서문 · 1262
학사평 · 1382
학사평순두부축제 · 1585
학사평순두부축제 · 918
한 여름밤의 문화축제 · 1584
한계령풀 · 172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 1550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 1479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 1509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속초지부 · 1563
한국사진작가협회 · 속초지부
한국산악회 · 377
한국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속초지회 · 855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 1524
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 · 1547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속초지부 · 1561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 1539
한국전쟁 · 330
한문학 속의 속초 · 1245
한식 · 1650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 915
할미골 · 1386
함경도 음식 · 1658
함박꽃나무군락 · 227
함정어구류 · 1056
함지 · 1624
함지덕 · 1391
함흥냉면 · 1676
항공수송 · 505
해경충혼탑 · 1430
해맞이 축제 · 1583
해안선 및 도서 · 1023
해안식물 목록 · 236
해안침식 · 1154
해양경찰충혼탑 · 896
해양페스티벌 · 1584
해주반 · 1640
햇떼기식해 · 1681
행정구역 개편 · 440
행정구역 변천 · 389
행정구역 통폐합 · 440
행정권 이양 · 337
행정전산화 · 509
향성사지3층석탑 · 1401
향성사지3층석탑 · 279
향성사지3층석탑 · 889
현대 · 324
현산학교 · 287
현삼과 · 203
현호색과 · 185
혈산현 · 277
형제바위 · 1369
호림유격대 · 327
호박범벅 · 1622
호수 · 893
혼례복 · 1695
혼례음식 · 1644
홀아비꽃대과 · 177
홍경호 · 1853
홍색화강암 · 151
홍원마을 · 374
홍월귤 · 173
홑얽애그물류 · 1086
화강암 · 146
화강편마암 · 148
화랑도 · 277
화랑도체험관 · 716
화랑영랑축제 · 1583
화랑영랑축제 · 911
화재발생 · 498
화전바위 · 1379
화채능선 · 1391
화채봉 · 1393
화채봉 · 143
황새목 · 247
황철나무군락 · 232
황철봉 · 1393
황태구이 · 1669
황태해장국 · 1672
황해도 음식 · 1659
회국수 · 1605
휴양콘도미니엄 · 924
흑운모화강암 · 150
흔들바위 · 872
흘림 걸그물류 · 1080
희운각대피소 · 1392
KAL기 납북미수사건 · 352
KBS속초방송문화센터 · 697
TV홈쇼핑 이용실태 · 786

편집후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의 발전 방향을 세워 꾸준히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의 전통이 깃들고 발전상이 반영된 향토사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자료로 보존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이러한 향토사에 대한 연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지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고 절실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노력 끝에 빛을 보게 된 속초시사는 속초의 과거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의 발전상을 통찰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발간된 속초시사는 1991년도에 집필된 속초시지를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자료로서 그 활용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속초시사에 대한 작업은 2005년 우리 고장의 역사 연구를 활성화 시킨 향토사연구소 연구원과 지역 역사에 밝은 대학교수와 연구자를 중심으로 집필위원을 선정, 연구에 착수하여 1여년의 조사와 연구에 의해 완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속초시가 과거 양양읍에 속해 있다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필진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되도록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충실한 자료 수집과 확인 작업을 거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초창기의 역사보다는 근현대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집필된 감이 없지 않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해 차후 보완될 것이다.

한편 시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집필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자료수집

과 조사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어야 했으나 넉넉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집필이 완료된 원고를 감수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술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많은 손질이 가해지면서 일부 분야는 내용이 간결해 지기도 하였다. 특히 편집 작업을 하는 중에 자료정리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출판사에 이를 넘겨 수차례 교정을 거쳐 집필위원의 검토를 받는 데에도 예상외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애초의 계획보다 다소 늦게 출간하게 되었다.

그 동안 편찬위원과 집필위원들이 동분서주한 결과를 막상 내놓고 보니 미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훗날 속초시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여 기록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 때 본서의 잘못된 부분이 개정되고 새로운 내용이 보완되어 보다 충실한 시사가 편찬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하나마 속초시사의 편찬을 마무리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동안 편찬위원회에 참석하여 시사 편찬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과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시사가 편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동문성 속초시장님과 김정한 속초시의회의장님, 그리고 김복천 부시장님을 비롯한 김수산 문화공보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시사가 나오기까지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종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아 주신 노광복 문화원장님과 속초시청 문화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속초시사편찬위원회

간사 한 정 규(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속초시사 편찬 · 집필위원 소개

○ 편찬위원회

위 원 장　노광복 속초문화원장
부위원장　김복천 속초시 부시장
　　최용문 속초문화원 고문
위　　원　박명수 속초시의회 부의장
　　최준집 속초시의회 의원
　　김수산 속초시 문화공보과장
　　함영세 강원도 속초 · 양양교육청 교육과장
　　장정룡 강릉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양국어 교수
　　오윤근 속초문화원 부원장
　　어재석 속초문화원 이사
간　　사　한정규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 집필위원회

(상권)
자연환경　홍문표 이학박사 · 식물생태학, 동광농공고 교사
역　　사　김정환 향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한정규 향토사연구소 간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정치행정　사득환 동우대학 복지행정학부 교수
교육사회　조진관 경동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산업경제　조성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속초과정 주임교수
관　　광　이재선 송호대학 호텔서비스학과 교수
수　　산　윤영호 강원도립대 건설시스템과 교수

(하권)

- 문화예술 -

한문학 속의 속초 · 구비문학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양국어 교수
속초의 지명 · 문화재와 명승고적	손병섭 향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최현식 향토사연구소장, 강원도문화재 전문위원
예술활동	박명선 향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대진고등학교 교사

- 생활관습 -

식 생 활	송주은 동우대학 호텔조리과 교수
의 생 활	최혜정 강릉영동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속초의 민속	장정룡 강릉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속초의 방언	김무림 강릉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속초의 주거 생활	김학철 경동대학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연 표	장재환 설악신문사 편집국장
연구보조원	장은선, 김은중, 최택수, 김경중, 이은경, 박정옥

표지 제자(題字) '束草市史', '束草市史編纂委員會' **霽山 지응준 書**

束草市史(下)

2006년 8월 31일 인 쇄
2006년 9월 15일 발 행

발행처 : 속초시 · 속초문화원
발행인 : 속초시사편찬위원회
편 집 : 열 린 마 당 ☎(033)636-3636
인 쇄 : 강원일보사 ☎(033)252-5886

홈페이지 : www.sokcho-history.com

※ 이 책은 속초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속초시사 편찬위원회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전재와 복재를 금합니다.